



(USGNY[CM]-KOR-000-1996-5 (Revised: Jan 2021))

The text of this Korean translation of *The Urantia Book* (UF-KOR-000-1996-5 CM (Revised: Jan 2021)) is copyright © and published by: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USGNY)

PO Box 175
Fort Lee, NJ 07024-0175

website: www.urantia.nyc
email @: Support@urantia.nyc

NOTE¹: As of 2003 the copyright © for *The Urantia Book* (English version) is in the public domain.

NOTE²: The format of this eBook is copyright © Urantia Society of Greater New York. Permission to post or re-distribute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us here: Support@urantia.nyc.

유란시아 서

도서의 일부

I. 부

중앙우주와 초우주들

오르본톤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유버르사의 초우주 성격자 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II. 부

지역우주

구원자 별의 가브리엘에서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네바돈 지역 우주 성격자 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구원자 별의 가브리엘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지역 우주 성격자 군단이 이 논문집을 후원하였다

IV. 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이 논문집은 멜기세덱 계시 지휘자의 감독 밑에서 행동하는 유란시아의 열두 중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후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한때 사도 안드레를 초인간적으로 보호하는 데 배치된 한 2차 중도자가 제공하였다.

유랜시아 책

머 리 말

0:0.1 (1.1) 너희의 세계를 가리키는 이름인--유란시아{또는 우란티아}에 사는 필사자{必死者}들의 정신은, 하나님, 신성{神性}, 신격{神格} 등과 같은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인간은, 다수의 이 호칭이 가리키는 신성한 인격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더 많이 혼동하고 있다. 그토록 심한 관념적 혼동과 관련된 이런 개념상 빈곤 때문에,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영어라는 언어로 전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오르본톤의 진리 계시자 단체가 여러 문서에서 앞으로 사용할, 특정한 단어 상징에 첨부돼야 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 머리말을 쓰라고 나는 지시 받았다.

0:0.2 (1.2) 우리는 그 영역의 제한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공우주{時空宇宙}에 관한 의식을 확장시키고 영적 인식을 고양시키려고 애쓸 때, 확대된 개념과 진보된 진리를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은, 영어라는 언어의 단어 상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는 의미가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러한 새로운 개념 전달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영어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도록 지시 받았다.

0:0.3 (1.3) 이 글을 정독하게 될 모든 필사자 편에서 납득을 용이하게 하고 혼동을 방지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격, 그리고 우주에 실재하는 사물,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어떤 관련된 개념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많은 영어 단어에 첨부될 뜻의 윤곽을, 이 머리말에서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0:0.4 (1.4) 그러나 단어의 정의 및 한계를 서술하는 이 서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제시될 이 용어들의 용법{用法}을 미리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서문은, 그 자체로 완결된 글이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 유란시아에 파송된 오르본톤 위원회가 서술한, 신격 및 온갖 우주를 다루는 글을 읽게 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쓴 제한된 지침서{指針書}일 뿐이다.

0:0.5 (1.5) 너희 세계 유란시아는, 네바돈이라는 지방우주{地方宇宙}를 구성하는 유사한 많은

인간거주{人間居住} 행성 가운데 하나다. 이 네바돈 우주는, 다른 비슷한 창조물들과 함께, *오르본톤*이라는 연방우주{聯邦宇宙}를 구성하는데, 그 수도인 우버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왔다. 오르본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성한 완전성의 창조물을--곧 *하보나*라는 중앙우주{中央宇宙}를-- 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다. 중앙에 있는 이 영원한 우주의 심장부에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움직이지 않는 낙원 섬이 자리 잡고 있다.

0:0.6 (1.6) 중앙에 있는 신성한 우주와 관련해서,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를 우리는 보통 *광우주*{廣宇宙}라고 부르는데;이것들은 현재 조직되고 있는,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이다. 연방우주들은 모두, 조성되는 중이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외부 공간의 우주들을 포괄하는, *총괄우주*{總括宇宙}의 일부다.

1. 신격과 신성

0:1.1 (2.1) 온갖 우주는,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실체, 정신의 의미, 및 영적 가치의 다양한 수준에서 신격이

활동하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이 모든 사역{使役}은 --개인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성하게 조화된다.

0:1.2 (2.2) **신격**은 하나님으로서 인격화될 수 있는데,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격이전{人格以前}이고 인격을 초월한다. 신격의 특징은, 실체의 모든 초물질적 수준에서 --실제적으로든지 잠재적으로든지-- 통일된 속성을 가졌으며;피조물은, 통합하는 이 속성이 신성{神性}이라고 가장 쉽게 납득한다.

0:1.3 (2.3) 신격은, 인격있는 수준, 인격이전 수준, 그리고 인격을 초월한 수준에서 활동한다. 총체적 신격은 다음과 같은 일곱 수준에서 활동한다:

0:1.4 (2.4) 1. **정적**{靜的} --독립적이고 스스로_실존하는 신격.

0:1.5 (2.5) 2. **잠재적**{潛在的} --스스로_뜻을_세우고 스스로_의도하는 신격.

0:1.6 (2.6) 3. **연합적**{聯合的} --스스로_인격화되고 신성하게 우애 깊은 신격.

0:1.7 (2.7) 4. **창조적**{創造的} --자신을_분배하고 신성하게 계시된 신격.

0:1.8 (2.8) 5. 진화적{進化的} --스스로_확장하고
피조물과_일치되는 신격.

0:1.9 (2.9) 6. 지존적{至尊的} --스스로_체험하고
피조물과_창조주를_통합하는 신격. 광우주의
시{時}_공간{空間} 전면통제관으로서
피조물과_일체화되는 첫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격인데,
신격 지존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0:1.10 (2.10) 7. 궁극적{窮極的} --자신을_입안{立案}하고
시_공간을_초월하는 신격. 전능하고, 전지{全知}하며,
편재하는 신격. 총괄우주를 효율적으로 전면통제하고
유한절대적으로 지원하는 자로서 신성의 표현을
통합하는, 둘째 수준에서 활동하는 신격. 광우주에 대한
신격들의 사역과 비교할 때, 총괄우주에서 이 유한절대
활동은 우주의 전면통제 및 초월적 지원에 해당하는데,
때로는 궁극 신격이라고 불린다.

0:1.11 (2.11) 실체의 유한 수준의 특징은, 피조 생명과 시_공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유한 실체들은 끝이 없을 수 있으나,
시작은 반드시 있다--그들은 창조된다. 지존이라는 신격
수준은, 유한한 실존들과 관련되는 기능이라고 봐도 좋다.

0:1.12 (2.12) 실체의 *유한절대* 수준의 특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물과 존재들이 있다는 것과, 시간 및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유한절대자들은 창조되지 않으며; 생겨난다--그들은 그저 존재한다. 궁극이라는 신격 수준은, 유한절대 실체들과 관련된 활동을 내포한다. 총괄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마다, 그러한 유한절대 현상은 궁극 신격의 행동이다.

0:1.13 (2.13) *절대* 수준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다. 예를 들면: 낙원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낙원의 시_공간 상태는 절대적이다. 이 수준은, 실존적으로, 낙원 신격들이 달성한 삼위일체이지만, 신격 표현을 통합하는 이 셋째 수준은 체험적으로 완전히 통합돼 있지 않다. 신격의 절대 수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든지, 낙원의_절대 가치와 의미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0:1.14 (3.1) 신격은 영원한 아들의 경우처럼 실존적일 수 있으며; 지존하신 분의 경우처럼 체험적일 수 있으며; 칠중

하나님의 경우처럼 연합적일 수 있으며;낙원 삼위일체의 경우처럼 나뉘지 않을 수 있다.

0:1.15 (3.2) 신격은 신성한 모든 것의 근원이다. 신격은 신{神}다운 특색이 있고 변함없이 신성하지만,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반드시 신격은 아니며, 그렇더라도, 신성한 것은 신격과 조화돼 있고 신격과 통일되는 --영적, 정신적, 또는 인격적인-- 어떤 국면을 지향할 것이다.

0:1.16 (3.3) 신성{神性}은 신격의 특색을 이루는, 통합하고 조정하는 성질이다.

0:1.17 (3.4) 신성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으로서 피조물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인격체 속에서는, 사랑, 자비, 및 보살핌과 서로 관련되며;인격아닌 수준에서는, 공의, 권능, 및 주권으로 나타난다.

0:1.18 (3.5) 신성은, 낙원 완전성의 실존적 수준과 창조자 수준에서처럼, 완전할--즉 완벽할-- 수 있으며;시_공간 진화의 체험 및 피조 수준에서처럼, 불완전할 수 있으며;또는 실존적_체험적 관계들을 갖는 어떤 하보나

수준에서처럼, 상대적{相對的}일 수 있는데,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을 수 있다.

0:1.19 (3.6) 우리가 상대성{相對性}의 모든 국면과 형태에서 완전성을 인식하려고 할 때, 일곱 가지의 인식 가능한 유형을 접하게 된다:

0:1.20 (3.7) 1. 모든 양상에서 절대로 완전함.

0:1.21 (3.8) 2. 몇몇 국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모든 다른 양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함.

0:1.22 (3.9) 3. 다양한 연합체 속에서,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며 불완전한 양상들.

0:1.23 (3.10) 4. 어떤 측면에서 절대로 완전하고, 기타 모든 측면에서는 불완전함.

0:1.24 (3.11) 5. 어떤 방향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형태화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함.

0:1.25 (3.12) 6. 어떤 국면에서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다른 면에서는 불완전함.

0:1.26 (3.13) 7. 어떤 속성도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불완전함.

2. 하나님

0:2.1 (3.14) 진화하는 필사{必死}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개념을 상징화하려는, 어쩔 수 없는 충동을 체험한다. 사람의 도덕적 의무 의식{意識}과 영적 관념론은, 어떤 가치 수준을--곧 체험적 실체를--대표하는데, 이것은 상징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0:2.2 (3.15) 시공우주를 의식한다는 것은, 제1 근원, 즉 원인이 없는 유일무이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유{萬有}의 아버지, 즉 하나님은, 무한 이하의 가치와 상대적 신성을 표현하는 세 가지 신격_인격체 수준에서 활동한다:

0:2.3 (3.16) 1. *인격이전* 수준 --사고 조율사{調律使}처럼, 아버지의 단편{斷片}이 사역하는 경우.

0:2.4 (3.17) 2. *인격있는* 수준 --창조된 존재와 생성된 존재가 겪는 진화적 체험의 경우.

0:2.5 (3.18) 3. *인격을 초월한 수준*--어떤 유한절대 존재 및 그에 관련된 존재들이 결말에 이른 실존의 경우.

0:2.6 (3.19)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격의 인격화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 상징이다. 이 용어는, 신격이 활동하는 각각의 인격있는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 내려져야 하고, 이런 각 수준에서도 더 자세히 다시 규명돼야만 하는데;예를 들어, 낙원 창조주 아들들에서--곧 지방우주의 아버지들에서-- 보다시피, 신격의 다양한 동급 및 종속된 인격화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0:2.7 (4.1)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

0:2.8 (4.2) *호칭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0:2.9 (4.3) *정황에 따라* --어떤 하나의 신격 수준 또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그 단어를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0:2.10 (4.4)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인격체'를 가리킨다.
신격이라는 용어는, 신성 인격체들을 가리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0:2.11 (4.5) 본 문서들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0:2.12 (4.6) 1. *아버지하나님* --창조주, 통제관, 및 유지자.
만유의 아버지, 신격의 제1 인격자.

0:2.13 (4.7) 2. *아들하나님* --동격 창조주, 영 통제관, 및 영적
경영자. 영원한 아들, 신격의 제2 인격자.

0:2.14 (4.8) 3. *영하나님* --공동 행위자, 우주적 통합자, 및 정신
증여자. 무한한 영, 신격의 제3 인격자.

0:2.15 (4.9) 4. *지존자{至尊者} 하나님* --실제화 하거나
진화하는,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피조물과_창조주가
일치됨을 시_공간에서 체험으로 성취하는, 인격있는 신격.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진화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서, 신격의 통일을
성취하는 체험을 몸소 겪고 있다.

0:2.16 (4.10)

5. *철중 하나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디서든지 실제로 활동하는 신격 인격체. 중앙우주의 테두리 안과 바깥에서 활동하며, 시간과 공간에서 통합하는 신격을 드러내는 첫째 피조물 수준에서,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으로_인격화하는, 인격있는 낙원 신격들 및 그들의 창조 동역자들. 이 수준, 즉 광우주는, 진화하는 피조물이 시_공간에서 상승{上昇}하는 것과 반대 관계로, 낙원 인격체들이 시_공간에서 하강{下降}하는 영역이다.

0:2.17 (4.11)

6. *궁극자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결말에 이르는 하나님. 신격 현시{顯示}를 통합하는, 둘째 체험적 수준. 궁극자 하나님은, 유한절대이고_인격을_초월하는 가치, 시_공간을_초월하는 가치, 결말에_이른_체험적 가치의 통합을 실현하고, 이것이 신격 실체의 최종적인 창조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 것을 암시한다.

0:2.18 (4.12)

7. *절대자 하나님* --인격을 초월한 탁월한 가치와 신성의 의미를 체험으로 만드는 하나님인데, 지금은 *신격 절대자*로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통합하는 신격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셋째 수준이다. 창조를_초월하는 이

수준에서, 신격은 인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의 고갈을 체험하고, 완성된 신성에 부딪치며, 연속되어 진보하는, 달리_인격화하는 수준까지 스스로를_계시할 수 있는 능력의 고갈을 체험한다. 이제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 절대자를 만나고, 그와 부딪치고, 그와 일치됨을 체험한다.

3. 제1 근원 및 중심

0:3.1 (4.13) 총 실체, 즉 무한한 실체는, 일곱 국면에서, 그리고 대등한 일곱 절대자로서 존재한다.

0:3.2 (5.1) 1. 제1 근원 및 중심.

0:3.3 (5.2) 2. 제2 근원 및 중심.

0:3.4 (5.3) 3. 제3 근원 및 중심.

0:3.5 (5.4) 4. 낙원 섬.

0:3.6 (5.5) 5. 신격 절대자.

0:3.7 (5.6) 6. 우주 절대자.

0:3.8 (5.7) 7. 무조건 절대자.

0:3.9 (5.8) 하나님은 제1 근원 및 중심으로서, 총 실체와 갖는 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며, 따라서 오직 의지작용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여된다.

0:3.10 (5.9) 하나님은--곧 만유의 아버지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이며, 그런 자격으로, 동등하거나 종속적인 모든 근원 및 중심을 무한히 통제하는 인격적 관계들을 유지한다. 그러한 통제력은 몸소 지닌 것이요, 그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렇더라도, 동등하거나 종속적인 근원 및 중심들과 인격체들이 완벽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통제력이 결코 실제로 작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0:3.11 (5.10) 따라서 제1 근원 및 중심은, 신격화됐거나 안 됐거나, 인격있거나 인격아니거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이거나,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모든 영역에서 근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의 우위성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고, 또한 그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어떤 상대성이나 완결성도 존재하지 못한다.

0:3.12 (5.11) 제1 근원 및 중심은 우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련된다:

0:3.13 (5.12) 1. 물질 우주의 인력{引力}의 힘은 하부 낙원의
인력 중심에 집중된다. 그것이 바로, 왜 그의 인격자의
지리적 위치와, 낙원의 하부, 즉 물질 평면의 힘_에너지
중심, 이 둘의 절대적 관계가 영원히 고정돼 있는가 하는
이유다. 그러나 신격의 절대 인격체는, 낙원의 윗면, 즉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0:3.14 (5.13) 2. 정신 세력들은 무한한 영 안에;차별적이고
발산적{發散的}인 시공우주 정신은 일곱 으뜸 영
안에;지존자의 실제화 하는 정신은 시_공간 체험으로서
위엄자{威嚴者} 안에 집중된다.

0:3.15 (5.14) 3. 우주의 영{靈} 세력들은 영원한 아들 안에
집중된다.

0:3.16 (5.15) 4. 신격의 행위를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신격 절대자에게 귀속한다.

0:3.17 (5.16) 5. 무한한 반응을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능력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 있다.

0:3.18 (5.17)

6. 두 절대자는--곧 조건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다.

0:3.19 (5.18)

7.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 또는 다른 어떤 도덕적 존재라도, 그 잠재적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안에 중심을 둔다.

0:3.20 (5.19)

실체는, 유한한 존재들이 납득하듯이,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그림자와 같다. 유한한 진화 피조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격 실체는, 지존하신 분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이에 선행{先行}하는 영원한 실체들, 유한을_초월하는 실체들도 있으며, 이들은 시_공간에서 진화된 피조물의 이 지존하신 신격의 조상이 된다. 보편적 실체의 기원과 본성을 묘사하려고 시도하면서, 유한한 정신 수준까지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시_공간의 추론 기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시에 생긴 영원의 사건들을, 우리는 연속된 진행사항들로서 묘사할 수밖에 없다.

0:3.21 (6.1)

시_공간의 피조물이 실체의 기원과 분화{分化}를 고찰하건대, 영원하고 무한한 자존자{自存者}는

선천적이고 영원한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 무조건적 무한성의 족쇄를 벗어나서 신격의 해방을 획득했으며, 무조건적 무한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것은, 처음으로 *절대 신성의_긴장*을 일으켰다. 우주 절대자가 이러한 무한성의 차별화로 생긴 긴장을 풀었고, 우주 절대자는 총체 신격의 역동적 무한성과 무조건 절대자의 정적{靜的} 무한성을 통합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해서 작용한다.

0:3.22 (6.2) 이러한 원래의 진행사항에서, 이론상 자존자{自存者}는 원본{原本}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됨으로써 인격체 실현을 성취했고, 그와 동시에 낙원 섬의 영원한 근원이 됐다. 낙원의 현존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차별화될 때부터 공존{共存}하는, 무한한 영의 인격자와 하보나 중앙우주{中央宇宙}가 나타났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라는 공존하는 인격있는 신격이 출현함과 함께, 아버지는, 한 인격체로서, 총체 신격의 잠재력 전반에 걸쳐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분산을 피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신격 잠재력을 채우는 일은 오직 동등한 두 신격과 삼위일체 연합에서만

가능하며, 한편 체험적 신격은, 지존, 궁극, 및 절대 신성{神性} 수준에서 점점 더 실제화 되고 있다.

0:3.23 (6.3) *자존자 개념은, 시간에_뮅이고 공간에_매인 사람의 유한한 정신에게, 그리고 영원성의 현존들을--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실체들 및 관계들을-- 피조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시_공간 피조물에게, **원인 없는 한 분**--곧 원초적 원인들의 원인-- 외에, 만물은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철학적 가치_수준을 자존자로 개념화시키는 동시에,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자존자와 영원히 공존함을;다시 말해서, 자존자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들과 함께 영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결코 없었음을,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친다.*

0:3.24 (6.4) *무한자*라는 말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탁월성이 의미하는 총만함을--곧 완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론적인* 자존자는 “의지의 무한함”이 피조물의_철학으로 확장된 것이지만, 무한자는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구속받지 않는 자유 의지의 참된 무한성에 영원성이_강화{強化}됨을 나타내는, *실제*

가치_수준이다. 이 개념을 때때로 아버지_무한자라고 부른다.

0:3.25 (6.5) 높거나 낮은 모든 계층의 존재들이 아버지_무한자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생기는 혼동 대부분은, 그들의 납득 한계에 내재돼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 탁월성은 무한 이하의 수준에서는 명백하지 않으며;따라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아버지가 무한하심을 정말로 알 것이며;그런 개념은, 다른 모든 인격체들에게 신앙의 과제에 해당한다.

4. 우주 실체

0:4.1 (6.6) 실체는 다양한 우주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실체화 되며;실체는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그의 무한한 의지작용에 따라서 생겨나며, 우주가 실체화되는 여러 다른 수준에서 세 가지 주요 국면으로 실현될 수 있다:

0:4.2 (6.7) 1. *신격화되지 않은 실체*는, 인격없는 세계의 에너지 영역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실존하는, 인격화될_수_없는 가치를 지닌 실체 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까지 이른다.

0:4.3 (7.1)

2. **신격화 된 실체**는, 인격체의 영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유한자로부터 가장 높은 무한자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무한한 신격 잠재력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래서 인격화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以上}의 모든 것의 영역을--심지어 신격 절대자의 현존에 이르기까지--포함한다.

0:4.4 (7.2)

3. **상호연합된 실체**. 필경, 우주 실체는 신격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거나, 둘 가운데 하나이지만, 신격화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잠재적이고 실제화 하는,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호연합된 실체의 광대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 대등한 실체 대부분은 우주 절대자의 영역에 포함된다.

0:4.5 (7.3)

이것이 근원적 실체의 주요 개념인데:아버지가 실체를 시작하고 유지한다. 실체의 주요 **차별화**는, 신격화된 존재와 신격화되지 않은 존재다--신격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다. 근본적인 **관계**는, 이 둘 사이의 긴장상태다. 아버지가_시작한 신성의_긴장상태는, 우주 절대자가 완전하게 해결하고, 우주 절대자로서 영존화 한다.

0:4.6 (7.4)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실체는 다음과 같이 세분될 수 있다:

0:4.7 (7.5) 1.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완전한 표현 속에 있는 실체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성장 수용력을 갖는 실체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실체이며; 필사적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영적 잠재성이다.

0:4.8 (7.6) 2. *절대적인 것과 준{準}절대적인 것*. 절대 실체들은 영원성 실존이다. 준절대 실체들은 두 수준에서 입안{立案}돼 있다: 유한절대자--시간과 영원성 둘 다에 대해 상대적인 실체. 유한자--공간에서 입안돼 있고 시간세계에서 실제화되는 실체.

0:4.9 (7.7) 3.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 낙원 신격은 실존적이지만, 떠오르는 지존자와 궁극자는 체험적이다.

0:4.10 (7.8) 4. *인격있는 것과 인격아닌 것*. 신격의 확장, 인격체의 표현, 및 우주의 진화는, 아버지의 자유의지 행동에 따라서 영구히 조절되는데, 아버지의 자유의지 행동은, 영원한 아들에 중심을 두는 실체성 및 잠재성의

정신_영_인격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영원한 낙원 섬에 중심을 두고 내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영원히 분리했다.

0:4.11 (7.9) **낙원**이라는 말은, 우주 실체의 모든 국면에서 인격있는 초점과 인격없는 초점이 되는 절대자들을 포함하는 용어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낙원은, 실체, 신격, 신성, 인격체, 그리고 --영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체 형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가치, 의미, 및 사실적 현존에 관계되는, 기원, 활동, 및 운명의 장소로서 모두가 낙원을 공유한다.

0:4.12 (7.10) **낙원 섬**은--곧 달리 제한되지 않는 낙원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물질_인력을 통제하는 절대물이다. 낙원은 움직이지 않는데, 온갖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지돼 있다. 낙원 섬은 우주 위치를 갖지만, 공간에서는 자리가 없다. 영원한 이 섬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물리적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핵을 이루는 빛의 섬은 신격으로부터 파생됐지만, 신격이 전혀 아니며;물질 창조계들도 신격의 일부분이 아니며;그것들은 하나의 결과다.

0:4.13 (7.11) 낙원은 창조자가 아니며;여러 우주 활동을 독특하게 통제하는데, 반응장치라기보다는 통제장치에 훨씬 가깝다. 물질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낙원은 힘과 에너지 그리고 동력과 상관있는 모든 존재의 반응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낙원 자체는 우주들 가운데서 독특하고 배타적이며 격리돼 있다. 낙원은 아무 것도 대표하지 않고, 아무 것도 낙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도 아니고 현존도 아니며;그저 낙원일 뿐이다.

5. 인격체 실체들

0:5.1 (8.1) 인격체는 신격화 된 실체의 한 수준이고, 필사자 및 중도자{中道者}의 경배와 지혜를 촉진하는 상류 정신 수준에서부터, 모론시아 및 영적 수준을 거쳐서, 인격체 신분의 완결을 달성하기까지 분포한다. 이것은 필사_피조물 및 동종의_피조물 인격체가 진화로 상승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이 있다.

0:5.2 (8.2) 실체는 우주의 확장에 종속되고, 인격체는 무한한 분화{分化}에 종속되며, 이 두 가지에 거의 무제한적인 신격의 조정과 영원한 안정이 가능하다. 인격없는 실체가

변화하는 범위는 뚜렷이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가 알건대, 인격체 실체의 점진적 진화에는 어떤 제한조건도 없다.

0:5.3 (8.3) 달성된 체험 수준에서, 모든 인격체 계층이나 가치는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심지어 공동_창조적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의 현재 신분--곧 사람의 아들 및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주 절묘하게 증거 된 바와 같이,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도 통합된 인격체 안에서 함께_존재할 수 있다.

0:5.4 (8.4) 준무한{準無限} 인격체의 모든 계층과 단계는, 연합해서 달성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공동_창조적이다. 인격이전 존재, 인격있는 존재, 및 인격을_초월한 존재는, 상호적 잠재력, 즉 대등하게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성취하고,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모두 함께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인격아닌 존재는, 인격있는 존재로 직접 변형될 수가 결코 없다. 인격체는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으며;낙원 아버지의 선물이다. 인격체는 에너지 위에 덧붙여지고, 오직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와만 연합되며;정체성은 살아있지 않은 에너지 원형{原型}과 결합될 수 있다.

0:5.5 (8.5)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체의 실체, 인격체의 증여, 그리고 인격체의 운명의 비밀이다.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 인격체, 즉 영적 에너지, 모론시아 영{靈}들, 및 완전하게 된 영들의 비밀이다. 공동 행위자는, 영_정신 인격체, 즉 지성, 이성, 및 우주적 정신의 근원이다. 그러나 낙원 섬은, 인격없고 영적 범위를 벗어나며, 낙원 섬은 우주적 본체의 핵심이요, 물리적 물체의 근원 및 중심이요, 우주의 물질 실체의 절대적인 으뜸 원형{原型}이다.

0:5.6 (8.6) 우주 실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유란시아의 인간 체험 속에 나타난다:

0:5.7 (8.7) 1. 육신. 사람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유기체. 동물 본성과 기원을 갖는, 살아있는 전기_화학적 장치.

0:5.8 (8.8) 2. 정신. 인간 유기체의, 생각하고 감지하고 느끼는 장치. 의식하는 체험과 무의식 체험 전체. 경배와 지혜를 통하여 위로 영 수준에 이르는, 감정적 생명과 연합된 지성.

0:5.9 (8.9) 3. 영. 사람의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성한 영--사고 조율사. 불멸하는 이 영은 인격이전{人格以前}이다--

생존하는 필사적 피조물의 인격체의 일부분이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음에도, 인격체가 아니다.

0:5.10 (8.10) 4. **훈**. 사람의 훈은 체험으로 획득된다. 필사적 피조물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듯이, 내주하는 영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의 아버지가 된다. 필사자의 물질 정신은, 바로 이 떠오르는 실체의 어머니다. 이 새로운 실체의 본질은,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다--**모론시아적**이다. 이것은 출현하는 불멸{不滅}하는 훈인데, 필사자가 죽은 뒤에 살아남아서 낙원 상승을 시작하는 운명을 지녔다.

0:5.11 (9.1) **인격체**. 필사적 사람의 인격체는, 몸이나 정신이나 영이 아니며, 훈도 아니다. 인격체는 다른 면에서 계속_변하는 피조물 체험 속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실체이며;개체성의 다른 모든 관련된 요소를 통합시킨다. 인격체는, 물질과 정신과 영의 살아있고 연합된 에너지 위에 만유의 아버지가 부여한 독특한 증여물이며, 모론시아 훈이 생존할 때 함께 생존한다.

0:5.12 (9.2) **모론시아**라는 말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끼어 있는 방대한 수준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것은 인격있는

실체 또는 인격아닌 실체, 살아있거나 살아 있지 않은 에너지를 가리킬 수 있다. 모론시아의 날줄은 영적이며;그 씨줄은 물리적이다.

6. 에너지와 원형

0:6.1 (9.3)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인격있다고 말한다. 아들의 영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영이라고 부른다.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한한 영의 한 속성인 정신이다--그 모든 국면의 정신이다. 하부 낙원에 중심을 두는 물질_인력 회로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물질이라고--곧 온갖 변형 상태에 있는 에너지_물질이라고-- 부른다.

0:6.2 (9.4) 우리는 **에너지**라는 단어를, 영적, 정신적, 및 물질적 영역에 적용되는, 전체를_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힘{세력}* 역시 그렇게 널리 사용된다. *동력{능력}*은 대개 광우주에 있는 물질적 또는_직선적_인력_반응 물질의 전자 수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능력은 주권을 의미할 때도 사용된다. 우리는 너희가 두루

사용하는 힘, 에너지, 및 동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언어 부족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들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0:6.3 (9.5)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국면이나 형태든지, 현상의 움직임과 행위 그리고 잠재력을 지칭하는 용어다.

0:6.4 (9.6) 물리적_에너지가 현시{顯示}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공우주의 힘, 출현하는 에너지, 그리고 우주 동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0:6.5 (9.7) 1. *시공우주의 힘*은, 무조건 절대자로부터 파생되지만 아직 낙원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포함한다.

0:6.6 (9.8) 2. *출현하는 에너지*는, 낙원 인력에 반응하지만 아직 국지적 또는 직선적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자{電子}가 생기기 전 수준의 에너지_물질이다.

0:6.7 (9.9) 3. *우주 동력*은, 낙원 인력에 여전히 반응하는 한편 직선적 인력에 직접 반응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전자 수준의 에너지_물질과, 그 후에 그것에서 생기는 모든 진화를 포함한다.

0:6.8 (9.10)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 체계에 덧붙여서, *살아있는 사역*이 현존하고_작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이며;모든 지성 수준에 적용된다. 인격체 안에서, 정신은 영과 물질 사이에 늘 개입하며;따라서 우주는:물질적 빛, 지적 통찰력, 영 발광{發光}, 이 세 종류의 빛으로 조명된다.

0:6.9 (10.1) *빛은*--곧 영 발광은, 다양한 계층의 영 존재의 특질을 지닌 인격체가 형태화된 것을 가리키는 단어 상징, 즉 비유적 표현이다. 이 빛의 방출은, 지적 통찰력이나 물리적_빛이 나타내는 것과는 어떤 면에서도 관계없다.

0:6.10 (10.2) **원형**{原型}은, 물질적, 영적, 정신적 에너지, 또는 이 여러 에너지의 어떤 조합으로든지 기획될 수 있다. 원형은, 인격체, 정체성, 실재, 또는 살아있지 않은 물질에 스며들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은 원형이고 원형으로 남아 있으며;오직 *복사본들*만 늘어난다.

0:6.11 (10.3) 원형은 에너지를 배열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인력이 에너지와_물질을 유일하게

통제한다. 공간뿐 아니라 원형도 인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공간과 원형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공간은 원형이 아니고 잠재적 원형도 아니다. 원형은 모든 인력에 신세지지 않는 실체의 윤곽이며;어떤 원형이든지 그 실체는 그것의 여러 에너지, 즉 그것의 정신, 영, 또는 물질 성분으로 이뤄진다.

0:6.12 (10.4) 전체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원형은 에너지 및 인격체의 개별 모습을 드러낸다. 인격체 또는 정체성 형태는 (물리적,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원형이지만, 이런 에너지에 내재적이지는 않다. 원형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에너지 또는 인격체의 그 속성은, 낙원 힘을 부여하는 하나님--곧 신격-- 탓이라고, 인격체와 동력의 공동_현존 탓이라고 해도 좋다.

0:6.13 (10.5) 원형{原型}은 복사본들이 만들어지는 근본 설계도{設計圖}다. 영원한 낙원은 원형들의 절대치{絕對值}이며;영원한 아들은 원형 인격체이며;만유의 아버지는 그 둘 다의 직접 조상이요_근원이다. 그러나 낙원은 원형을 증여하지 않으며, 아들은 인격체를 증여할 수 없다.

7. 지존하신 분

0:7.1 (10.6) 총괄우주에서 신격 체제는 영원성 관계들을 고려할 때 이중적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은 영원하며--곧 실존적 존재들이며, 한편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은, 총괄우주가 진화로 확장하는, 시_공간의 구체{球體}와 시_공간을_초월하는 구체들에서, 하보나_이후 시기에 실제화하는 신격 인격체들이다. 영원한 낙원 신격들이 연합해서_창조하여 잠재성을 체험적으로 실제화하는 기법으로, 성장하는 우주들에서 이 실제화 하는 신격 인격체들은, 자신이 권능으로_인격화 할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미래 영원자{永遠者}가 된다.

0:7.2 (10.7) 그러므로 신격은 현존에서 이중적이다:

0:7.3 (10.8) 1. 실존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현존하는 존재들.

0:7.4 (10.9) 2. 체험적 --하보나_이후에 현재 속에서 실제화 하지만, 모든 미래 영원성 내내 끝없이 현존하는 존재들.

0:7.5 (10.10)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실존적이다--실제로 실존적이다(하지만 모든 잠재성은 체험을 거친다고 생각된다). 지존자와 궁극자는 전적으로 체험적이다. 신격 절대자는, 실제화할 때는 체험적이지만, 잠재성에서는 실존적이다. 신격의 본질은 영원하지만, 신격의 세 원본 인격자만 무조건 영원하다. 모든 다른 신격 인격체는 어떤 기원을 갖지만, 그 운명은 영원하다.

0:7.6 (10.11) 아버지는, 실존적 신격으로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아들과 영 안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인격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신격 수준들에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체험적 표현을 성취하고 계시지만;이 체험적 신격들이 지금은 온전히 현존하지는 않으며;실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0:7.7 (11.1) 하보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은, 삼중체적 낙원 신격의 인격있는 영 그림자다. 이 연합하는 신격 관계는, 이제 칠중 하나님 안에서 바깥으로 창조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광우주에서 전능한 지존자의 체험적 권능으로 합성하고 있다. 세 인격자로서 실존적인 낙원 신격은,

지존성의 두 단계에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 이중적 단계는 하나의 주{主}, 즉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과_인격체를 통합하고 있다.

0:7.8 (11.2) 만유의 아버지는, 삼자일체되는 기법, 즉 삼중적 신격으로 인격화함으로 무한성의 속박과 영원성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로 해방을 성취하신다.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시_공간 지역들에서, 신격의 칠중 현시를 준영원{準永遠} 인격체로 통합한 분으로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0:7.9 (11.3) 위엄자의 아버지인 것을 제외하면, *지존하신 분*은 직접 창조자가 아니지만, 피조물과_창조주의 모든 우주 활동을 종합하는 조정자다. 지존하신 분은, 이제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실제화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최상급 창조주들과 체험적 관계를 가지면서, 삼중체적 낙원 신격의 시_공간 신성을 상호관련시키고 합성하는 신격이다. 마침내 실제화 되면, 이 진화하는 신격은 유한계와 무한계의 영원한 융합이--곧 체험적 동력과 영 인격체의 영원하고 분해될 수 없는 합일{合一}이-- 될 것이다.

0:7.10 (11.4)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지도적 자극을 받으면서, 모든 시_공간 유한 실체는, 유한한 실체의 모든 단계와 가치를 계속_더 동원{動員}하고, 이를 완전히 통일하는 일에(권능과_인격체를 합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원 실체의 다양한 국면과 관련해서, 피조물을 초월하여 달성하는 유한절대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시도를 나중에 개시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위한 것이다.

8. 칠중 하나님

0:8.1 (11.5) 신분의 유한성{有限性}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념의 피조계 제한조건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만유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화하는 피조물이 신격에 이르는 칠중{七重} 접근법을 마련하셨다:

0:8.2 (11.6) 1. 낙원 창조주 아들들.

0:8.3 (11.7) 2. 태고 항존자{恒存者}들.

0:8.4 (11.8) 3. 일곱 으뜸 영.

0:8.5 (11.9) 4. 지존하신 분.

0:8.6 (11.10) 5. 영 하나님.

0:8.7 (11.11) 6. 아들 하나님.

0:8.8 (11.12) 7. 아버지 하나님.

0:8.9 (11.13)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신격이 이렇게 일곱 겹으로 인격화한 것은,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영{靈}이신 하나님의 현존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지존하신 분 안에서 언젠가
권능으로_인격화하는 유한한 시_공간 피조물에게, 이
칠중 신격은,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를 사는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에게 기능적 신격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체험적으로 발견하는_생애는,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시작하고,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인격자를 경유해서,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인격체를 발견하고 인식하기까지 상승한다.

0:8.10 (12.1) 광우주는, 지존 삼위일체, 칠중 하나님, 및
지존하신 분의 삼중적 신격 영역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 잠재하고, 자신의 인격체와 영
속성들을 삼위일체로부터 도출하지만;이제 창조주
아들들, 태고 항존자들, 및 으뜸 영들 안에서 실제화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연방우주들에 대하여 전능자로서 자신의 권능을 그들로부터 얻어낸다. 진화하는 피조물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현시{顯示}는, 실제로 피조물과 함께 시_공간에서 진화한다. 인격없는 활동의 가치_수준에서 진화하는 전능한 지존자 및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는 *하나의 실체*다--지존하신 분이다.

0:8.11 (12.2) 칠중 하나님의 신격 연합체 안에서 창조주 아들들은, 필사적 사람이 불멸하게 하고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준다. 권능과_인격체를 동원하는, 이 *모든* 다양한 진행사항들을 신성하게 합성하는 기법을, 지존하신 분이 마련해주는데, 그리하여 지존하신 분은, 유한자로 하여금 유한절대에 도달하게 하고, 미래의 다른 가능한 실체화들을 통해서 궁극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창조주 아들들 및 관련된 신성한 사역자들이 이 최상의 준비작업에 참여하지만, 태고 항존자들과 일곱 으뜸 영은 아마 광우주에서 영구적 관리자들로써 영원히 고정돼 있을 것이다.

0:8.12 (12.3) 칠중 하나님의 기능은, 일곱 연방우주가 조직될 때부터 비롯됐으며, 아마 외부 공간의 창조계들이 미래에 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확장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제1, 제2, 제3, 및 제4 공간 층{層}에서 이 미래 우주들이 조직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신격에 이르는 초월적 유한절대 접근법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9. 궁극자 하나님

0:9.1 (12.4) 지존하신 분은, 둘러싼 광우주의 에너지 및 인격체 잠재성의 선행{先行}하는 신성{神性} 재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며, 마찬가지로 궁극자 하나님은, 총괄우주의 시_공간 초월 영역에 거하는 신성의 잠재성으로부터 결말에 이른다. 궁극자 신격이 실제화하는 것은,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유한절대적으로 통합됐음을 가리키며, 둘째 수준의 창조적 자아_실현에서 통합하는 신격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월된 시_공간 가치가 결말에 이르는 수준에서, 낙원의 유한절대 실체들이 우주에서 체험적_신격으로 실제화하는 것과 인격체_권능 면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체험적 전개가 완성되는 것은, 지존하신 분이 실현을 완성함으로, 그리고 칠중 하나님의 사역으로

유한절대 수준에 도달하는, 시_공간의 모든 피조물에게
궁극적 봉사_운명을 제공하도록 고안돼 있다.

0:9.2 (12.5) 궁극자 하나님은 유한절대자의 신성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을_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분야들에서 활동하는 인격있는 신격을 가리킨다.
궁극자는 최상을_초월해서 결말에 이르는 신격이다.
지존자는 유한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
통합이며;궁극자는 유한절대 존재들이 이해하는 낙원
삼위일체의 통합이다.

0:9.3 (13.1) 만유의 아버지는, 진화하는 신격의 체제를 통해서,
각자의 우주 의미_수준에서, 유한자, 유한절대자,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의 신성한 실체 가치의, 인격체 집중과 동력
동원이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행동에 실제로 참여한다.

0:9.4 (13.2) 영원한_과거를 가진 처음 세 낙원 신격은--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진화하는 동료 신격들이--곧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아마 절대자 하나님이-- 체험으로
실제화함으로써, 인격체_보완을 이루게 될 것이다.

0:9.5 (13.3)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은, 지금 체험적 우주에서 진화하고 있는데, 실존적이 아니다--과거 영원자들이 아니라, 오직 미래 영원자들, 시_공간에_맞춰지고 초월성에_맞춰진 영원자들이다. 그들은 최상의 재능, 궁극적 재능, 그리고 아마 최상의_궁극적 재능을 가진 신격이지만, 우주에서 역사적 기원을 겪었다. 이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겠지만, 인격체의 시작이 있었다. 이들은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신격 잠재성이 실제화한 분들이지만, 그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

10. 절대자 하나님

0:10.1 (13.4) *신격 절대자*의 영원한 실체에는, 시_공간의 유한한 지성인에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특색이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이 실제화하는 것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즉 절대 삼위일체가 통합되는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절대 신성의 체험적 실현, 즉 절대 수준에서 절대적 의미를 가진 것들의 통합이겠지만;우리는 결코, 한정된 절대자가 무한자와 동등하다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절대 가치의 범위에 관해 확신하지 못한다. 궁극을 초월하는 운명은 절대 의미와 무한한 영성{靈性}에 관련되며, 아직

달성되지 않은 이 두 실체 없이는, 우리가 절대 가치를 확립할 수 없다.

0:10.2 (13.5) 절대자 하나님은 유한절대를 초월하는 모든 존재가 실현하고_달성할 목표이지만, 신격 절대자의 권능과 인격체 잠재성은 우리의 개념을 초월하며, 우리는 체험으로 실제화하는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체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

11. 세 절대자

0:11.1 (13.6)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통합된 사고{思考}가 행동의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면서 신성한 중앙 우주를 창조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하보나 현존을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구별시킴으로써, 자신의 사고가 표현되는 대로 아들의 말씀과 공동 행정관의 행위를 따라가셨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이 무한한 잠재성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 감춰질 수 있고, 신격 절대자 안에 신성하게 가려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이 둘은 우주 절대자가 활동할 때 하나가 되며, 이 우주 절대자는 낙원 아버지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이_통합된 분이다.

0:11.2 (13.7) 체험적 성장으로, 그리고 우주 절대자가 체험적인 것과 실존적인 것을 상호_연결지음으로, 총 실체가 풍성하게 되는 동안에, 시공우주의 힘의 효력과 영 힘의 효력은 모두 점진적으로 계시되고_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균형을 이루는 우주 절대자의 현존 덕분으로, 제1 근원 및 중심은 체험적 권능의 확장을 실현하고, 자신의 진화하는 피조물과 하나 됨을 누리며, 지존, 궁극, 및 절대라는 수준에서 체험적 신격의 확장을 달성한다.

0:11.3 (14.1) 신격 절대자를 무조건 절대자로부터 완전하게 구별할 수 없을 때, 이들의 혼합된 기능 또는 조화된 현존으로 추측되는 것은 우주 절대자의 행위라고 부른다.

0:11.4 (14.2) 1. **신격 절대자**는 전능한 활성화자{活性者}인 것처럼 보이며, 한편 무조건 절대자는 최상으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온갖 우주, 심지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허다한 우주들까지, 전적으로_유능하게 기계화시키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0:11.5 (14.3) 신격 절대자는, 어떤 우주 상황에 대해서든지, 준절대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 절대자의 모든 반응은, 언제나 그 현재 실존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영원의 무한한 가능성에 비춰서, 전체 창조의 사물 및 존재들의 복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0:11.6 (14.4) 신격 절대자는, 만유의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무한 실체 전부로부터 분리된 그 잠재성이며, 그 안에서 신{神}의 모든 --실존적 및 체험적-- 활동이 일어난다. 이 잠재성은 무조건절대자와 대비되는 조건 절대자이지만; 모든 절대적 잠재성을 포함하는 우주 절대자는 이 둘을 더한 것보다 크다.

0:11.7 (14.5) 2. 무조건 절대자는 인격없고, 신성을 벗어나고, 신격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조건 절대자에게는, 인격체, 신성, 및 모든 창조자 특권이 결여돼 있다. 사실이나 진실, 체험이나 계시, 철학이나 유한절대성 가운데 어느 것도, 우주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이 절대자의 본성과 성품을 간파할 수 없다.

0:11.8 (14.6) 무조건 절대자는 광우주에 널리 퍼지는 **확실한 실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자, 그리고 이 실체는 일곱 연방우주 너머에 압도적으로 뻗어나가는 공간

지역들에서, 공간에 한결같이 현존하면서
물질_이전{以前}의 진화가 생기는 쪽으로 확장하는
듯하다. 무조건 절대자는, 조건 없는 것들과 제한받지 않는
것들이 보편적이고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형이상학적
궤변에 근거한 철학적 개념을 단순히 부정한 생각이
아니다. 무조건 절대자는 무한하고 확실한 우주
전면통제력이며;이러한 전면통제는 공간_힘에 제한이
없지만, 생명, 정신, 영, 및 인격체의 현존에 따라서
분명하게 조절되고, 낙원 삼위일체의 의지_반응과
의도하는 명령에 따라서 더욱 조절된다.

0:11.9 (14.7) 무조건 절대자는, 형이상학의 범신론적 개념들,
또는 한때 있었던 과학의 에테르 가설에 비교될만한,
획일적이고 전체에_퍼지는 영향력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무조건 절대자는 무제한적이고 신격의 조절을
받는 세력이지만, 우리는 이 절대자와 우주의 영 실체들의
관계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다.

0:11.10 (14.8) 3. 우주 절대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바로는, 우주 실체들을 신격화된 가치와 비 신격화된
가치로--곧 인격화될 수 있는 것과 인격화 될 수 없는

것으로-- 구별시키는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 자유의지{自由意志} 행위에 필연적이었다. 우주 절대자는 우주 실체를 이처럼 구별시키는 자유의지 행위로 창조된 긴장상태가 해결됨을 암시하는, 신격의 현상이며, 이 절대자는 이 실존적 잠재성들의 전체 총합을 연합적으로 조정하는 자로서 활동한다.

0:11.11 (15.1) 우주 절대자가 긴장상태에_현존하심은, 신격 실체와 비신격화 실체 사이의 차이가 조정됨을 의미하는데, 이런 차이는 자유의지를 지닌 동태적{動態的} 신성을 무조건적인 정태적{靜態的} 무한성으로부터 분리할 때 내재적이다.

0:11.12 (15.2) 항상 기억하라:잠재적 무한성은 절대적이고 영원성에서 분리될 수 없다. 시간 속에서 실제 무한성은 결단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절대적이지 않으며;뿐만 아니라 무조건적 신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재하는 무한한 인격체도 절대적일 수 없다.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성의 차이가 바로 우주 절대자를 영존화 시키며, 그리하여 물질 우주들을 공간에 두는 것을 시공우주에서

가능하게 하고, 또한 시간세계에 유한한 인격체들을 두는 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0:11.13 (15.3) 유한자가 무한자와 함께 시공우주에서 공존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시간과 영원, 유한과 무한, 실체의 잠재성과 실체의 실제성, 낙원과 공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을, 우주 절대자의 연합하는 현존이 아주 완전하게 평형 시키기 때문이다. 연합하는 방법으로, 우주 절대자는 시_공간 우주에서, 그리고 시_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에서, 무한_이하로 신격이 나타나는 우주들에 존재하는, 진보하는 진화적 실체의 지대가 있다는 표시를 성립시킨다.

0:11.14 (15.4) 우주 절대자는, 정적이고_역동적인 신격의 잠재성인데, 이 잠재성은 시간 수준에서 유한하고 영원 수준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기능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불가해한 신격은, 정적이고 잠재적이며 연합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총괄우주에서 활동하는 지성 인격체들이 관여하다시피, 체험으로 창조하거나 진화하지 않는다.

0:11.15 (15.5) **절대자**. 두 절대자는--곧 조건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는-- 정신을 지닌 피조물이 관측하는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그 기능이 아주 다르지만, 우주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완전하게 그리고 신성하게 통합돼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끝까지 이해했을 때, 셋 모두 하나의 절대자다. 그들의 기능은 무한 이하의 수준에서는 구별되지만, 무한 속에서는 **하나**다.

0:11.16 (15.6) 우리는, 무언가의 반대로서 또는 어떤 것이든지 부정하는 것으로서 절대자라는 말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 절대자를 자체_결정력이_있는, 일종의 범신론적이고 비인격적인 신격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우주 인격체에 관한 모든 면에서, 절대자를 삼위일체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격이 지배한다.

12. 삼위일체들

0:12.1 (15.7) 본래의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는 실존적이고 필연적이었다. 시작이_없는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속박 받지 않는 의지로 인격있는 것과 인격없는 것의 차별화라는 그 사실에 내재적이었고, 그가 친히

뜻하심으로 이 두 가지 실체를 정신으로 조화시킬 때
실제화 됐다. 하보나_이후에 생긴 삼위일체들은
체험적이다--총괄우주에서 권능과_인격체가 나타나는
준절대 수준과 진화 수준의 창조계에 내재적이다.

0:12.2 (15.8) *낙원 삼위일체*는--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원한 신격 합동은-- 실제로
존재론적이지만, 모든 잠재성은 체험적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무한성{無限性}을 포함하는 유일한 신격
실체가 되며,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이 실제화하는 우주 현상이 발생한다.

0:12.3 (15.9) 첫째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즉 하보나_이후에
생긴 삼위일체들은 *파생된 신격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는데, 그 신격들은 실존적 낙원 삼위일체가
창조하거나 결말에 이른 실체들이 체험으로
실제화함으로써 진화된다. 피조물의 체험이 유한하고
창조주의 체험이 유한절대이기 때문에, 무한한 신성은
커지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강화되고 있다.

0:12.4 (16.1) 삼위일체들은 관계의 실상이요, 신격이 대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다. 삼위일체의 기능은 신격 실체들을

포함하며, 신격 실체들은 언제나 인격화함으로 실현과 형태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도, 신으로서 불가피한 존재들이다. 이 세 체험적 신격은, 실존적 삼위일체, 즉 낙원 삼위일체 안에 잠재했지만, 이들이 권능을 지닌 인격체로서 우주에 출현한 것은, 권능과 인격체가 있는 우주에서 바로 그들이 체험으로 활동하는데 일부 의존하고, 하보나_이후의 창조주들 및 삼위일체들의 체험적 성취에도 일부 의존한다.

0:12.5 (16.2) 하보나_이후의 두 삼위일체, 즉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와 체험적 절대 삼위일체는, 지금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우주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이 신격 연합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0:12.6 (16.3) 1.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 진화하고 있으며, 결국 지존하신 분,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 그리고 유한절대 총괄우주 건축가들로 구성될 것인데, 이 건축가들은 창조자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독특한 우주 입안자{立案者}들이다. 궁극자 하나님은, 거의 끝없는 총괄우주의 확장하는 경기장에서, 이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가 통합되는, 신격이 통합되는 결과로서, 결국
필연적으로 권능을 얻고 인격화할 것이다.

0:12.7 (16.4) 2. *절대 삼위일체*는--곧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지금 실제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성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인격있는 수준과 인격을 초월한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 인격없는 존재들의
경계선에서도 활동하며, 삼위일체의 보편적 통합은
체험으로 절대 신격을 형성할 것이다.

0:12.8 (16.5) 궁극 삼위일체는 완성되는 동안 체험적으로
통합하고 있지만, 절대 삼위일체가 그렇게 온전히 통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달리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신격의 삼자일체화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늘_즉시
생각나게 하며;따라서 우리는, *지존자와_궁극자*가 언젠가
출현하고, 절대자 하나님이 아마도
삼자일체됨으로_실제화할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

0:12.9 (16.6) 우주들에 있는 철학자들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즉 실존적이고_체험적인 삼위일체 무한자를

가정해 보지만, 이것이 인격화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아마도 이것은 자존자 개념의 수준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와 대등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기 때문에, 근원적 낙원 삼위일체의 잠재성은 무한하다.

0:12.10 (16.7) **인정서**

0:12.11 (16.8) 완전한 중앙우주와 그 주위를 회전하는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만유의 아버지의 성품과 그의 낙원 동역자들의 본성을 묘사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어지는 소개서들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안내 받을 것인데, 이 명령은 진리 및 이와 동등한 기본 지식을 계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시되는 주제에 적합한, 인간의 가장 높은 기존 개념에 우리가 우선권{優先權}을 줘야 한다고 지시한다. 우리는 제시되는 개념을 인간 정신이 적절하게 표현한 선례가 없을 때에만, 순수한 계시{啓示}에 의존할 것이다.

0:12.12 (17.1) 신성한 진리를 연속해서 행성에 주는 계시들은, 행성의 지식을 새롭고 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의

일부분으로, 영적 가치를 갖는 가장 높은 현존 개념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우주 동역자들에 관한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 여러 문서의 기초로서, 영적 가치와 우주 의미들을 갖는, 가장 높고 가장 진보된 행성 지식을 대변하는, 1,000개 이상의 인간 개념을 선택했다. 하나님을_아는 과거와 현재의 필사자들로부터 수집한 이 인간 개념들이,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지시한 그 진리를 묘사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부적당하지만, 낙원 신격들의 실체와 신성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초월적인 우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우세한 지식으로 끌어당기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개념들을 첨가할 것이다.

0:12.13 (17.2) 우리에게 배정된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신성과 영원성의 개념을 담은 말을, 필사자 정신의 상징들 속으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단편{斷片}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의 영이 인간의 혼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며;더욱이 우리는, 이런 영 세력들이, 물질적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가치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주 의미들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_의식하는-- 개인 종교 체험의 계속_진보하는 실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모든 진리를 영적으로 사용하도록, 신성한 현존의 이 영들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안다.

0:12.14 (17.3) [오르본톤의 한 신성한 조연자가 기록했으며, 그는 낙원 신격들과 온갖 우주에 관한 진리를 유랜시아에 묘사하도록 배정된, 연방우주 인격체들 단체의 우두머리다.]

유랜시아 책

I 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

제1편 만유의 아버지

1:0.1 (21.1) 만유{萬有}의 아버지는 창조물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물과 존재의 제1 근원 및 중심이시다. 먼저 하나님을 창조자로, 다음에는 통제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유지자{維持者}로

생각하라.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만유의 아버지께 관한 진리가 인류에게 밝혀지기 시작했다:“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당신과 나란히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온갖 하늘을 그곳의 모든 무리와 함께 창조하셨으며;그들을 보존하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주들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는 빛으로 옷을 삼아 자신을 두르고, 휘장처럼 하늘들을 밖으로 펼치십니다.” 오직 만유의 아버지라는 개념만이--곧 여러 신{神} 대신 한 분 하나님만이--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신성한 창조자와 무한한 통제관으로 납득할 수 있게 했다.

1:0.2 (21.2) 무수히 많은 행성 체계는 모두, 다른 여러 유형의 지성 피조물, 즉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며, 역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결국 거주하도록 만들어졌다. 온갖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의 다양한 피조물의 거주지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땅을 조성하셨으며;우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셨다.”

1:0.3 (21.3) 문명화한 세계들은 모두, 창조물 전체의 영원한 조물주이며 무한한 유지자인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경배 드린다. 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수많은 우주에서 낙원으로 가는 길고 긴 여행,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영원한 모험인 매혹적인 분투를 시작했다. 시간 세계의 자녀들이 갖는 초월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본성을 납득하고,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을_아는 피조물은 오직 한 가지 최상의 열망, 하나의 절실한 욕구를 가졌는데, 즉 하나님의 인격체가 낙원에서, 그리고 최상으로 올바른 그의 우주 구체{球體}에서 완전한 것처럼, 그들이 사는 구체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영원에 거하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선포해 오신 최고 명령은,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이다. 낙원의 사자{使者}들은, 이 간곡한 신{神}의 권유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주들을 거쳐서 바깥쪽으로, 심지어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 같은, 그런 동물에서_기원{起源}된 저급한 피조물에게까지 사랑과 자비로 전해 왔다.

1:0.4 (22.1) 신{神}의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라는 이
장엄하고 우주적인 명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분투하는 피조물의 첫째 의무이자 최고의
열망{熱望}이어야만 할 것이다. 이 신의 완전함을 달성할
가능성이,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모든 사람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숙명{宿命}이다.

1:0.5 (21.2)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무한한 의미에서
완전해지기를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인간들에게는, 이
행성에서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출발해서, 무한한
하나님이 필사적 사람을 위해 마련한 고귀하고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며;또한 그들이 이
운명을 성취할 때, 자아_실현 및 정신 달성에 관련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한 영역에
충만하듯이, 그들은 신성한 완전성에 속하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완전함은, 물질
의미에서는 보편적이 아닐 수 있고, 지적인 파악에서
제한적이거나 영적 체험에서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의지의 신성함, 인격체 동기유발의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을_자각하는 모든 유한한 측면에서는 최종적이고
완벽하다.

1:0.6 (22.3) 이것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신성한 명령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가치와 진정한 우주 의미에 도달하려는 길고 매혹적인 분투를 하는 동안, 앞으로 나가도록 필사적 사람을 계속 독려하고 안쪽으로 이끈다. 우주의 하나님을 찾는 이 숭고한 탐색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거주하는 자들의 최상의 모험이다.

1. 아버지의 이름

1:1.1 (22.4) 우주들에 널리 알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름 중에서, 그를 제1 근원 및 우주 중심이라고 칭하는 경우를 가장 자주 접한다. 최초의 아버지는, 다른 우주들에서, 그리고 같은 우주라도 다른 구역들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부여한 이름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개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 제1 근원 및 우주 중심은, 이름이 아니라 본성{本性}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셨다. 우리가 자신을 이 창조주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를 결국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이름이며, 제1 근원 및 중심과 우리의 인격있는 관계를 인식함에서 생겨난다.

1:1.2 (22.5)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들에서 의지를 가진 지성적인 피조물에게, 독단적 승인, 형식적 경배, 또는 노예근성의 봉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강요한 적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거주자들은, 스스로--곧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그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경배 드려야 한다. 창조주는 물질 피조물의 영적 자유의지에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압하기를 거부한다. 인간의 의지로 아버지 뜻을 따르고자 애정 어린 헌신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극상의 선물이며;사실, 피조물의 그런 헌신은, 사람이 낙원 아버지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선물에 해당한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 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의지를 가진 지성적 피조물이 우주들에서 내린 그런 결정은, 사랑으로 가득한 창조주 아버지의 본성에게 매우 만족스런, 진정한 경배의 실체를 이룬다.

1:1.3 (22.6) 너희가 위엄 있는 창조주를 실제로 발견하고, 내주하는 신성한 통제관의 현존을 체험하기 시작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을_자각하게 되면, 너희의 교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과 방식에 따라서, 너희는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너희의 개념을 적합하게 표현하게 될,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세계들에서, 그리고 다양한 우주들에서, 창조주는 무수한 명칭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영적 관계성으로 보면 모든 이름이 같은 의미이지만, 단어와 상징으로 보면, 각각의 이름은 주어진 어떤 영역이든지 피조물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에 대한 경애심의 정도와 깊이를 나타낸다.

1:1.4 (23.1) 온갖 우주의 중심 가까이에서는, 만유의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제1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만한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만유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용어는 우주 중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멀리 떨어진 별처럼 빛나는 창조계에서는, 너희 지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처럼, 그가 제1 창조 근원 및 신성한 중심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이 있는 한 성좌{星座}에서는 하나님을 우주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유지자로, 그리고 동쪽에서는 신성한 통제관이라고

부른다. 그는 또한, 빛들의 아버지, 생명의 선물, 전능하신 분으로도 명명돼 왔다.

1:1.5 (23.2) 낙원 아들이 증여의 삶을 살았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인격있는 관계, 부드러운 애정, 아버지다운 헌신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의 성좌 본부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로서 언급되며,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너희의 지역 체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서는, 아버지들의 아버지, 낙원 아버지, 하보나 아버지, 그리고 영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낙원 아들들의 증여에 관한 계시{啓示}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피조물_창조주 연합체의 감동적 관계를 나타내는 감상적인 호소에 결국 승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1:1.6 (23.3) 지성 존재들의 마음 속에 어버이다운 감정 충동이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세계인, 남녀 피조물이 사는 행성에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영원한 하나님을 매우 잘 표현해 주는 아주 적합한 이름이다. 너희 행성 유란시아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된다. 그에게 주어진 이

이름은 별로 중요치 않으며;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를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열망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희의 옛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그를 “영존하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2. 하나님의 실체

1:2.1 (23.4) 하나님은 영 세계에서 근본 실체시며;하나님은 정신 영역들에서 진리의 근원이시며;하나님은 물질 영역들 전체를 관장하신다. 창조된 모든 지성체에게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온갖 우주에게는 영원한 실체의 제1 근원 및 중심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도 기계 같지도 않으시다. 최초의 아버지는, 우주적인 영, 영원한 진리, 무한한 실체, 그리고 아버지 인격체시다.

1:2.2 (23.5) 영원한 하나님은, 이상화된 실체 또는 인격화된 우주를 무한히 능가하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최상의 열망, 즉 필사자가 추구할 대상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의 잠재된_권능이라는, 어떤 개념에 불과한 분도 아니다. 만유의 아버지는 자연계의 동의어가 아님은 물론,

의인화{擬人化}된 자연 법칙도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 실체시며, 단순히 최상의 가치에 대한 사람의 전통적 개념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 의미에 대한 심리적 주안점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가장 고상한 작품"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개념들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以上}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적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인격체 생존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자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1:2.3 (24.1) 하나님 실존의 실제성은 영 관찰자가 내주함으로써 인간의 체험 속에서 증명되는데, 이 관찰자는 사람의 필사 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낙원으로부터 보냄 받은, 그리고 영원히 생존하는 불멸의 혼을 진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신성한 현존이다.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이 신성한 조율사{調律使}의 임재는, 세 가지 체험 현상으로 드러난다:

1:2.4 (24.2) 1.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적{知的} 수용력 -- 곧 하나님을_자각함.

1:2.5 (24.3)

2. 하나님을 찾으려는 영적 충동 --곧
하나님을_추구함.

1:2.6 (24.4)

3. 하나님처럼 되고자 갈망하는 인격체 --곧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는 욕구.

1:2.7 (24.5)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은, 과학 실험으로 또는
논리적 추론의 순전한 이성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인간의 체험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그럼에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논리에 적합하고, 철학적으로 타당하며, 종교에
본질적이고, 인격체 생존에 대한 어떤 소망에든지 반드시
필요하다.

1:2.8 (24.6)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가 현존한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으며;하나님을_아는 그런 필사자는,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에
대한 유일한 긍정적 증거를 개인 체험 속에 지닌다. 인간
정신의 하나님_자각과, 사고 조율사라는 하나님_현존
사이의 접촉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어떤 설명도
전혀 불가능한데, 이 조율사는 만유의 아버지의 값없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증여되고 필사자 지능에 내주한다.

1:2.9 (24.7) 이론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해도 좋고, 하나님은 낙원과 완전한 중앙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모두, 창조주 아들들의 낙원 단체가 창조하고 조직한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네바돈 지방우주의 직접 창조자가 아니며;너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의 아들 미가엘의 창조물이다. 비록 진화하는 우주들을 직접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는 그 우주들의 여러 보편적 관계를 통제하고, 물질 에너지, 정신 에너지, 및 영적 에너지의 어떤 표현을 통제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낙원 우주의 직접 창조자시며, 영원한 아들과 공동으로, 다른 모든 인격있는 우주 창조주들의 창조자시다.

1:2.10 (24.8) 온갖 물질 우주에 있는 물리 통제관처럼,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한 낙원 섬의 원형{原型}들 안에서 작용하며, 영원한 하나님은 이 절대 인력{引力} 중심을 통하여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물리 수준의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전면통제를 온갖 우주 도처에서 똑같이 행사하신다. 정신으로서, 하나님은 무한한 영의 신격 안에서 활동하며;영으로서,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자녀들의 인격자 안에 현시{顯示}하신다. 낙원의 동격 인격자들 및 절대자들과 제1 근원 및 중심의 이런 상호관계는, 모든 창조 내내, 그리고 모든 수준의 창조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직접 행위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창조주 아버지는, 자신의 단편화{斷片化}된 영 현존을 통해서, 피조물 자녀들과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들과 즉각적으로 계속 접촉하신다.

3. 하나님은 우주적 영이시다

1:3.1 (25.1)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우주적인 영적 현존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무한한 영적 실체시며; “주권적인, 영원한, 불멸적인, 볼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의 형상에 따라서”--그가 영원히 현존하는 중앙 거주지로부터 보냄 받은 신비 관찰자로 내주하도록-- 너희를 창조하리라 선언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형태와 모습에서도 너희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 존재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재한다.

1:3.2 (25.2) 옛 선각자는, “보라, 그가 내 옆에서 걸어가도 나는 그를 보지 못하며;또한 그가 지나가도 나는 그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의 장엄한 행위에 대한 물질 증거를 상당히 인식할 수 있겠지만, 그의 신성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하며, 심지어 인간에 내주하는, 그의 파견된 영 현존도 감지하지 못한다.

1:3.3 (25.3) 만유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심은, 유물론적 장애물과 제한된 영적 재능을 가진 저급한 피조물로부터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이렇다:“너희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인데, 어떤 필사자도 나를 보고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물질적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필사자 실존을 유지할 수 없다. 낮은 영 존재 집단 또는 어떤 수준의 물질 인격체든지, 신성한 인격체 현존의 영광과 영적 광채에 접근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의 영적 광채는, “어떤 필사적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는;어떤 물질 피조물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빛이다.” 그러나 영화{靈化}된 정신의 신앙_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 그를 봐야 할 필요는 없다.

1:3.4 (25.4) 만유의 아버지의 영 본성은, 그의 공존하는 자신, 즉 낙원의 영원한 아들과 충분히 공유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영을 완전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동 인격체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공유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며;아들 안에서 무조건적이고, 영 안에서는 보편적이며, 그들 모두 안에서 그리고 그들 모두로 인해서 무한하다.

1:3.5 (25.5)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며;하나님은 보편적 인격자시다. 유한 창조계의 인격있는 최상의 실체는 영이며;인격있는 우주의 궁극 실체는 유한절대 영이다. 오직 무한 수준만 절대적이며, 그런 수준에서만 최종으로, 물질, 정신, 및 영 사이에 하나 됨이 있다.

1:3.6 (25.6)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들에서, 잠재적으로, 물질과 정신과 영에 대한 전면통제관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방대하게 창조한, 의지를 가진 피조물 인격체들과, 오직 자신의 광범위한 인격체 회로를 통해서만 직접 관계를 맺지만, (낙원 밖에서는) 우주들에 널리 퍼진 하나님 뜻인,

오직 자신의 단편화 된 실재들 안에서만 접촉이 가능하다.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의 정신에 내주하고, 생존하는 피조물의 불멸하는 혼이 진화하도록 촉진시키는 이 낙원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 및 신성이다. 그러나 진화하는 그런 피조물 정신은, 지방우주들에서 기원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실행하기로 피조물이 선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초래된 영적 달성이라는, 그런 체험적 변화를 이룩함으로 신성한 완전성을 얻어야만 한다.

1:3.7 (26.1) 사람이 내적으로 체험할 때, 정신이 물질에 결합된다.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정신은, 필사자의 죽음 이후에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를 조절함에, 그리고 필사 정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지능이 점차 영의 가르침을 받고 결국에는 영의 인도를 받게 됨에, 생존 기법이 내포돼 있다. 물질 연합체로부터 영 합동을 향한 인간 정신의 이 진화는, 필사 정신의 잠재적 영 단계를 불멸하는 혼이라는 모론시아 실체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질에 굴종하는 필사 정신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결국 인격체 소멸을 겪게 되며; 영에 순응하는 정신은 점점 더 영적이 되고, 궁극적으로 생존시키고 안내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 됨을

이룩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체 실존의 생존과 영원성을 달성하게 돼 있다.

1:3.8 (26.2) 나는 영원세계에서 왔고, 만유의 아버지가 현존하시는 곳으로 반복해서 돌아갔었다. 나는 제1 근원 및 중심인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의 실제성과 인격체에 대해서 안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한 동시에 선하고 신성하며 또한 자비로우심을 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이 진리임을 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두 속성은 영원한 아들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주에 드러난다.

4. 하나님의 신비

1:4.1 (26.3) 무한하게 완전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히 신비롭게 만든다. 또한 하나님의 불가해{不可解}한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신{神}이 필사 정신에 내주{內住}하는 현상이다. 만유의 아버지가 시간 세계의 피조물에게 머무는 그 방식은, 모든 우주 신비 가운데 가장 심오한 것이며; 사람의 정신 속에 신이 현존한다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다.

1:4.2 (26.4)

필사자의 물질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聖殿}”이다. 주권자 창조주 아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의 피조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끌어당김”에도 불구하고;그가 의식의 “문에 서서” “두드리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모든 이에게 들어가기로 기뻐할지라도;창조주 아들과 그의 필사 피조물 사이에 인격있는 긴밀한 친교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필사적 사람은, 자기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갖고 있으며;이로 인해 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1:4.3 (26.5)

너희가 여기 아래에서 인생이 끝나고, 너희 행로를 이 세상의 일시적 형태 속에서 다 마쳤을 때, 너희 육신에서 시련의 여행이 끝날 때, 필사자 장막을 이루던 티끌이 “원래 유래됐던 땅으로 돌아 갈” 때;그때, 내주하던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신성의 한 조각이고 한 부분인 하나님의 단편{斷片}이, 행성의 각 필사 존재 안에 머문다. 소유권으로 보면 아직 네 것이 아니지만, 네가 필사 실존 이후에 생존한다면, 너와 하나 되도록 계획적으로 의도돼 있다.

1:4,4 (26.6)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비를 끊임없이
대면하며;그의 무한한 선{善}, 끝없는 자비, 탁월한 지혜,
뛰어난 성품이라는 진리의 끝없는 장관{壯觀}이 점점 더
펼쳐지고 있음에 당혹하고 있다.

1:4,5 (26.7)

신성한 신비는,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 잠시와 영원
사이, 시_공간 피조물과 우주의 창조주 사이, 물질계와
영계 사이, 사람의 미완성과 낙원 신격의 완성 사이에
존재하는 선천적 차이에 있다. 보편적 사랑의 하나님은,
신성한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특성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의 수용력이 다 채워질 때까지, 각 피조물
모두에게 어김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1:4,6 (27.1)

만유의 아버지는, 온갖 우주에 속한 어느 구체나
어느 세계든지 거기 있는 모든 영 존재와 필사 피조물에게,
그런 영 존재들이, 그리고 그런 필사 피조물이 식별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비롭고 신성한 자아 전체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인격자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우주의 어떤 자녀가 어느
주어진 시기든지 누리는 신{神}의 현존은, 초물질 세계의

영 실정{實情}을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능력에 따라서만 제한된다.

1:4.7 (27.2) 인간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실체로서의 하나님은 신비가 아니다. 그러나 물질 계층에 속하는 물리적 정신에게 영 세계의 실체를 쉽게 설명하고자 시도할 때 신비가 나타나는데:이 신비는 너무 미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_아는 필사자의 신앙_체득만이, 유한자가 무한자를 알아봄, 즉 시간과 공간의 물질 세계에 속한 진화하는 필사자가 영원한 하나님을 식별하는, 철학적 기적을 성취할 수 있다.

5.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1:5.1 (27.3) 하나님의 방대하심, 즉 무한성 때문에 그의 인격체를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못 본척하지 않도록 하라. “귀를 계획하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실까? 눈을 조성하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실까?” 만유의 아버지는 신성한 인격체의 극치이며;모든 창조계 전반에 걸쳐 인격체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동시에 인격있으며;무한한 인격체시다. 아버지는, 비록 자신의 인격자의 무한성으로 인해 모든 물질적이고 유한한

존재의 충분한 납득 범주를 영원히 넘어섬에도, 진정한
인격체시다.

1:5.2 (27.4) 하나님은 인간 정신이 이해하는 바와 같은 어떤
인격체보다 그 이상이며; 초월_인격체에 대한 가능한 어떤
개념보다 훨씬 크시다. 그러나 신성한 인격체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을, 물질 피조물 지성인들과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익한데, 이는 존재의 실체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기껏해야 인격체 관념 및
이상{理想}에 머물기 때문이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해
물질 피조물이 도출해 낼 수 있는 최고 개념이, 신성한
인격체에 대한 고양{高揚}된 관념의 영적 이상{理想}에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체에 대한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어야만 함을 너희가 잘
알더라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체 이하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

1:5.3 (27.5)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숨지 않으신다. 많은
계층의 존재가 그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가
“물질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신성한 인격체의 광대함과 장엄함은, 진화하는 필사자의 불완전한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으로 물의 깊이를 재고, 손뼉으로 우주를 가늠하신다. 지구 궤도를 품으신 이, 하늘로 손을 뻗어 장막을 두르고 그것들을 펼쳐 우주를 만들어서 거기 거하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번호에 맞춰 세계들이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름으로 부르는 그분을,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 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음 받은 것들에게 부분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 사실이다. 오늘날, 그리고 너희의 있는 그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 조물주를 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창조를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들 및 그들의 수많은 부하의 계시와 사역을 통해서도 식별해야만 한다.

1:5.4 (28.1) 비록 물질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인격자를 볼 수 없더라도, 그가 한 인격자이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해야만 할 것인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께서 세상의 미숙한 거주자들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묘사하며; 그가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하신다”고 묘사하는 그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애정 어린 무한한 창조주 인격체를 구성하는 그런 초인적이고 신성한 속성들 가운데,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

1:5.5 (28.2) (연방우주들의 요원{要員}을 제외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의 아버지이자 지방우주들의 주권자인 낙원 창조주 아들들을 통한 경우 이외에, 하나님은 지방 창조계에서 친히 또는 거주함으로 드러나신 적이 없다. 피조물의 신앙이 온전하다면, 그가 창조주 아들을 봤을 때 만유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며; 아버지를 추구할 때, 그는 아들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완성된 영 변형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리고 실제로 낙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1:5.6 (28.3)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이,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 본성을 갖는 보편적 절대성의 무조건적 잠재력 전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들 속에, 모든 면에서 *신성하게* 현존해 계신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다. 미가엘 계층의 이 낙원

아들들은 완전한 인격체인데, 빛나는 새벽별의 인격체로부터, 아래로는 진보하는 동물 진화에 속하는 가장 낮은 인간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우주 인격체의 원형{原型}이기도 하다.

1:5.7 (28.4)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의 위대하고 중심 되는 인격자가 없다면, 이 방대한 온갖 우주 전역에는 어떤 인격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다.*

1:5.8 (28.5)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 장엄한 현존, 초월적 이상{理想}, 그리고 영광스런 영{靈}이심에도, 그가 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더라도, 그럼에도 그는 정말로 그리고 영원하게 어떤 완전한 창조주의 인격체, 즉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인격자시고, 우리와 친구가 돼주는 분이시며;한편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알려져 왔듯이, 너희도 그렇게 알려질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영이고 영적 실체시다.

1:5.9 (28.6) 우리가 우주 전역에 드러난 만유의 아버지를 볼 때;그분의 수많은 피조물에 내주하는 그분을 식별할 때;그분의 주권자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가깝거나 멀거나 여기저기에서 그분의 신성한 현존을 계속 느낄 때, 그분의 인격체의 탁월함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갖지 말자. 이 모든 광범위한 분배에도, 그분은 여전히 참 인격자시며, 온갖 우주 전반에 흩어져 있는 피조물로 이뤄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와 인격있는 관계를 영구히 유지하신다.

1:5.10 (28.7)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체시라는 관념은, 주로 계시를 통해 인류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장되고 더욱 진실된 개념이다. 이성, 지혜, 및 종교 체험 등이 모두 하나님의 인격체를 의미하고 암시하지만, 이를 일괄적으로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심지어 내주하는 사도 조율사도 인격이전{人格以前}이다. 어떤 종교든지 그 진리와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인격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격의 절대 통일성에 대한 파악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인격있는 신격 관념은, 종교가 하나님의 통일성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이후에 종교적 성숙도를 재는 척도다.

1:5.11 (29.1) 원시 종교에는 많은 인격있는 신이 등장했고, 이들은 주로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계시가

하나님의 인격체 개념의 타당성을 단언하는데, 그 개념은 과학이 최초 원인을 설정해야만 가능하고,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철학 관념에서 일시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이다. 어느 인격자 존재든지, 오직 인격체로서 접근함으로써만 하나님의 통일성을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 제1 근원 및 중심이 인격체임을 부인하면, 결국:유물론이나 범신론이나 라는 두 철학적 딜레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1:5.12 (29.2) 신격에 대해 숙고할 때, 인격체 개념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관념을 벗어나야만 한다. 물질 신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인격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그 오류가, 인간 철학의 양극단에 나타난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범신론에서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자가 아니라고 본다. 초인간 유형의 진보하는 인격체는, 정신과 영이 합동하는 가운데 작용한다.

1:5.13 (29.3) 인격체는 단순히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며;오히려 완벽한 표현의 영원성 및 보편성에 나타난,

조화된 무한한 본성 그리고 통합된 신성한 뜻 전체를 대표한다. 인격체란, 최상의 의미에서, 온갖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啓示}다.

1:5.14 (29.4) 하나님은,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지식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증대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이 추측하거나 납득하는 것처럼 체험을 획득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영원한 인격체의 영역에서 그런 계속적인 자아_실현 확장을 누리시는데, 이 확장은 진화하는 세계에 속한 유한한 피조물이 새로운 체험으로 획득하는 것과 유사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획득에 비교될 만하다.

1:5.15 (29.5) 드넓은 우주에서, 신{神}의 도움을 받아, 높은 곳에 있는 영적으로 완벽한 세계들로 올라가려고 모색하는, 불완전한 모든 혼의 인격체 투쟁에 만유의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 때문에, 무조건 절대 완결성이라는 극심한 한계로 인해 고통 받으실 지도 모른다. 온갖 우주 도처에 있는 각 영 존재마다, 그리고 각 필사 피조물마다 갖는 이런 점진적

체험도, 끝없이 신성하게 순환{循環}하는, 중단 없는 자아_실현에 대한 아버지의 계속_팽창하는 신격_의식의 일부분이 된다.

1:5.16 (29.6) “너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너희가 승리하는 모든 경우에, 그도 너희 속에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는 말은 정말로 사실이다. 그의 인격이전{人格以前}의 신성한 영은 너희의 실제 일부분이다. 낙원 섬은 온갖 우주의 모든 물질 변형에 반응하며;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계의 모든 영 자극을 포함하며;공동 행위자는 팽창하는 시공우주에 대한 정신 표현 전체를 함유한다. 만유의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창조계 전체의 모든 실재, 존재, 및 인격체의 팽창하는 정신들과 상승하는 영들의 점진적 분투라는, 개별 체험 전체를 신성하게 의식하면서 만족스럽게 실감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글자 그대로 사실인데,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6. 우주 속의 인격체

1:6.1 (29.7) 인간 인격체는, 신성한 창조주 인격체가 시_공간에 투사한 형상이요_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조사함으로써는 어떤 실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진짜 본체에 맞춰서 그림자를 해석해야만 한다.

1:6.2 (30.1) 하나님은, 과학에서는 원인이고, 철학에서는 관념이며, 종교에서는 한 인격자이고, 더욱이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과학자에게는 원초적 힘이고, 철학자에게는 통일성의 가설{假說}이며, 종교인에게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에 대한 사람의 부적당한 개념은, 우주에서 사람의 영적 발전을 꾀함으로써만 향상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순례자들이, 낙원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에 마침내 도달할 때에야, 진정으로 적절하게 될 것이다.

1:6.3 (30.2) 하나님과 사람이 이해하는 인격체에 대한 관점이 정반대임을 결코 잊지 마라. 사람은 유한에서 무한을 바라보면서 인격체를 판단하고 납득하며;하나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바라보신다. 사람은 가장 낮은 유형의 인격체를 갖고 있으며;하나님은 최고의, 심지어 지존적이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형태의 인격체를

소유하신다. 그러므로 신성한 인격체에 대한 더 나은 개념은, 인간 인격체에 대한 증진된 관념이 출현하기를, 특히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증여 생애를 살았을 때의 인간 인격체 및 신성한 인격체 둘 다에 대한 증진된 계시가 출현하기를, 인내심으로 기다려야 한다.

1:6.4 (30.3) 필사 정신에 내주하는 인격이전의 신성한 영은, 바로 그 현존 속에 영이 실제로 실존한다는 타당한 증거를 내포하고 있지만, 신성한 인격체 개념은, 다만 개인의 진정한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통찰력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모든 인격자는, 인간적이든지 신성하든지, 그 인격자의 외부 반응 또는 물질 현존과는 매우 다르게 알려지고 납득될 수 있다.

1:6.5 (30.4) 두 인격자 사이의 우호관계가 성립되려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유사성과 영적 일치가 필수적이며;사랑하는 인격체는, 사랑 없는 인격자에게 자신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다. 신성한 인격체를 알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람의 인격체 재능 전체가 전적으로 그 노력에 투입돼야만 하며;열성 없는 부분적인 헌신은 헛될 것이다.

1:6.6 (30.5) 사람이 자신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고 동료의 인격체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원본{原本} 인격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질 것이고, 하나님을_아는 그런 인간은, 더 진지하게 원본 인격체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견해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체험은, 모든 인간적 논쟁을 뛰어넘으며, 단순한 지적 논리로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을_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묘사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교화{教化}시키고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다.

1:6.7 (30.6) 우주를 알 수 있다고, 즉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곧 그 우주를 정신이 만들었고 인격체가 관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사람의 정신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인간적이든지 초인적이든지, 그들의 정신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사람의 인격체가 우주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우주 어딘가에 신성한 정신과 실제 인격체가 감춰져 있다고 봐야만 한다.

1:6.8 (30.7) 하나님은 영--곧 영 인격체--이시며;사람 역시 영--곧 잠재적인 영 인격체--이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동안, 이 잠재적 영 인격체의 충분한 실현을 달성했으며;그러므로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장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인간에게 드러낸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가 오직 실제 종교체험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더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 생애에서 실질적으로 인간 체험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격체를 그렇게 실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영감을 받는다.

7. 인격체 개념의 영적 가치

1:7.1 (31.1)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인격있는 신격을--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했다. 신격이 인격체시라는 개념은, 친교를 촉진시키며;지성적 경배를 장려하며;신성한 신뢰를 증진시킨다. 상호작용은 인격없는 사물들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지만, 친교는 그렇지 못하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교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처럼, 양측이 인격자가 아니라면 결코 향유될 수 없다. 비록 인격있는 이 교류가 바로 그 사고 조율사 같은

비인격{非人格} 실재의 현존으로 인해 크게 촉진될 수 있더라도, 오직 인격체들만이 서로 친하게 사귄 수 있다.

1:7.2 (31.2) 한 방울의 물이 대양과 하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합동을 이루지는 못한다. 사람은 점진적인 상호간의 영적 교류로, 인격있는 하나님과 인격체 상호교감으로, 신성한 뜻과 완전하고 지성적인 일치를 통해서, 신성한 본성을 점점 더 획득함으로써 신과의 연합을 달성한다. 이런 탁월한 관계는 오직 인격체들 사이에서만 있을 수 있다.

1:7.3 (31.3) 진리 개념은 인격체와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고, 미{美} 개념은 인격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신{神}이 선하다는 개념은 오직 인격체에 관련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인격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다. 미와 진리가, 인격있는 하나님, 즉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속성이 아니라면, 이것들조차 살아남을 소망이 없을 수 있다.

1:7.4 (31.4)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근원적이고 불변하며 전능하고 완벽하면서, 동시에 계속_변화하고 외견상 자연법칙에_제한되는 우주, 상대적 불완전성에서 계속

진화하는 우주에 둘러 싸여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그런 진리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및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에도, 인격체의 정체성과 의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5 (31.5) 궁극의 우주 실체는, 수학, 논리, 또는 철학이 아니라, 인격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점차 부합하는 각자의 체험으로만 파악된다. 과학 또는 철학뿐 아니라 신학{神學}조차, 하나님의 인격체를 확인시켜줄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신앙 아들이 몸소 체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격체를 실제로 영적으로 깨닫게 만들 수 있다.

1:7.6 (31.6) 우주 인격체의 상위 개념은:정체성, 자아_의식, 자아_의지, 그리고 자기를_드러낼 가능성 등을 내포한다. 그리고 이런 특질은 더 나아가, 낙원 신격들의 여러 인격체 연합에 존재하는 것 같은, 다른 동등한 인격체들과의 친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연합의 절대 통일성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신성{神性}은, 나뉘_수_없음, 즉 하나 됨으로 알려지게 된다. “주{主}

하나님은 *하나*시다.” 인격체가 나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필사적 사람의 마음 속에 살도록 증여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인간 아버지의 인격체가 분화될 수 없음이, 필사자 아들과 딸을 낳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1:7.7 (31.7) 통일성 개념과 관련된 이 불가분성{不可分性} 개념은, 궁극 신격의 시간과 공간 양쪽 다 초월함을 암시하며;따라서 시간이나 공간 중에서 어떤 것도 결코 절대적이거나 무한할 수 없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정신,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영을 무조건 초월하는 그 무한성이다.

1:7.8 (31.8) 낙원 삼위일체라는 실상은, 결코 신{神}의 통일성이라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낙원 신격의 세 인격체는, 모든 우주 실체 반응과 모든 피조물 관계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영원한 이 세 인격자도, 신격의 불가분성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우주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필사 정신에게 분명하게 마음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함을, 나는 충분히 자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실망할 필요 없으며;낙원

존재들로 구성된 내 집단에 속한 높은 인격체들에게조차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명확하지 못하다. 낙원을 향한 오랜
기간에 걸친 필사자 상승 시기들이 이어지는 동안, 너희
정신이 점진적으로 영성화{靈性化} 됨에 따라서, 신격과
관련된 이 심오한 진리가 점점 분명해질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

1:7.9 (32.1) [네바돈 지방우주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직무를
거론해야만 하는, 앞으로 이어질 본 계시의 일부를 감독할
목적으로, 일곱째 연방우주 본부인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배정한 천상의 인격체 집단의 일원{一員}인,
한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 기술하는 이 문서를 후원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어떤 인간거주 세계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
가능한 정보의 최고 근원을 내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서 신성한 조연자로 일해
왔었고, 오랫동안 만유의 중심인 낙원에 거주했었다. 나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 바로 앞에 머무는 최상의
기쁨을 여러 번 누려왔다.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나는 아버지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묘사하며;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제2편 하나님의 본성

2:0.1 (33.1)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 원초적이고 무한한 인격체에 대한 인간의 관념과 이상{理想}에 포함돼 있는 한, 신격의 성품을 구성하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특질을 연구하도록 용인될 것이고, 유익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본성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자신의 다양한 교훈에서, 그리고 육신을 입은 자신의 훌륭한 필사자 생애에서 보여줬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낙원 창조주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경외한다면, 신성한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다.

2:0.2 (33.2) 하나님의 본성은 최상의 관념이 계시된 데서 연구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은 숭고한 이상{理想}을 묘사한 것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신성한 본성에 대한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계몽적이고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성{神性}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기 전과 후에 나사렛 예수가 보여준 종교적 삶을 납득하는 데서 발견될 수 있다. 미가엘의 육신화{肉身化} 된 생애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계시의 근간으로 채택한다면, 우리는 신의 본성에 관한 어떤 관념과 이상{理想}을 인간 언어 상징 속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 관념과 이상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본성과 성품에 관한 인간 개념을 더 확실하게 조명하고 통합하는 데 기여할지도 모른다.

2:0.3 (33.3) 인간의 하나님 개념을 확장시키고 영성화{靈性化}시키려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필사 정신이 갖는 수용력의 한계 때문에 엄청나게 방해 받는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가치를 묘사하고, 유한세계, 즉 사람의 필사 정신에게 영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애쓸 때, 설명하고 비교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제한되고 재료가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임무 이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는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조율사가 필사 정신에 내주하고 창조주 아들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혀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개념의 확장을 도와주기 위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신성한 영{靈}의 현존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의 정신 속에 더

묘사하도록 시도하라는, 내게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기에
기꺼이 임한다.

1. 하나님의 무한성

2:1.1 (33.4) “무한자와 접하지만,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
신성한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의 예지력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다.” 아버지의
현존에서 나오는 빛은, 그의 비천한 피조물에게는 그가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눈멀게
하는 빛이다. 그의 생각과 계획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일을 수없이 많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우리는 그를 납득하지
못하고, 그의 연세가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과연 땅에 거하시겠는가? 보라, 하늘과(우주와) 온갖
하늘도(온갖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의 지나간 행적은 얼마나
찾아내기 어려운지!”

2:1.2 (34.1)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무한한 아버지시고,
또한 신실한 창조주시다.” “신성한 창조주는 또한 우주
감독자, 즉 혼들의 근원인 동시에 운명이다. 그는 최상급

혼이며, 근본 정신이며 모든 창조계의 무제한 영이시다.”
“위대한 통제관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는 엄위함과 영광으로 찬란하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두려움과 미움이 전혀 없다.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신성하며, 풍성하시다.” “만유의 숭고한 조상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심오하고 불가해한 분이신가!”
“무한자는 자신을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나시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며, 선{善}하고 완전한 모든 목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며;영원한 창조주는 원인들의 원인이시다.”

2:1.3 (34.2) 아버지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인격체가 무한히 엄청나게 현시{顯示}함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무한성과 영원성 양쪽을 무조건 스스로 의식하며;마찬가지로 자신의 완전성과 능력을 충분히 아신다. 아버지는, 신성한 협조자들을 제외하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에 대한 완벽하고 적절하며 완성된 평가를 체험하는 존재다.

2:1.4 (34.3) 아버지는, 총괄우주의 다양한 구역에서, 아버지 자신에 대한 다른 요구가 때때로 바뀔에 따라, 그런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실하게 충족시킨다. 위대한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자신의 모든 완전한 근본 속성을 무한히 자아_의식하신다. 하나님은 시공우주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며;우주를 실험하는 이도 아니다. 우주 주권자들은 모험에 가담할 수 있으며;성좌 아버지들은 실험할 수 있으며;체계 우두머리들은 실습할 수 있지만;만유의 아버지는, 시작할 때 그 끝을 내다보시고,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그의 방대한 영토에 속하는 모든 우주에 있는 각 세계, 체계, 및 성좌에 속한 모든 권속의 모든 실험과 모험을 실제로 포용하고 납득하신다.

2:1.5 (34.4)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시공우주 사건도 놀라운 것이 못되며;하나님은 영원성 궤도에 거하신다. 그에게는 시대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가 없으며;모든 시간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든지 현재다. 그는 위대하며 유일한 자존자{自存者}시다.

2:1.6 (34.5)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속성에서 절대로 무한하고 무조건 무한하시며;바로 이 사실이, 그 자체로, 유한한 물질 존재 및 기타 저급하게 창조된 지성체들과

직접 친히 의사소통할 수 없도록, 자신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2:1.7 (34.6)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인격체 속에 규정돼 온, 여러 계층의 피조물과 접촉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는데, 그는 신성에서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행성 인종들의 바로 그 삶과 피의 본성에 종종 참여하여,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되고 너희와 하나 되며;그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미가엘의 증여에서 나타났듯이 사람이 되는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로 바뀌 불릴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급한 기원을 갖는 물질 존재에게 접근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하는, 스랍 무리 및 다른 천상의 다양한 지성체 계층이다. 그리고 셋째로, 유란시아의 인간 같은 그런 존재에 내주하도록 보냄 받은, 예고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보냄 받은 위대한 하나님 자신의 실제 선물인, 비인격 신비 관찰자들, 즉 사고 조율사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_의식{意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거나 그것을 위한 잠재력을 지니는, 그런

필사자의 비천한 정신에 끝없이 풍부하게 은혜를 베풀고
내주하기 위해, 영광스런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2:1.8 (35.1) 낙원 아버지는, 이런 방법 및 기타 여러 방법, 즉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제한된 이해력을 훨씬 넘어서는
방법을 통해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낮추시며,
피조 자녀의 유한한 정신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무한성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시키고
희석시키며 약화시키신다. 그리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점차적으로 점점 덜 절대적인 일련의 인격체 분배를 통해,
광범위한 우주의 많은 영역에 속한 다양한 지성체와
긴밀한 접촉을 누리실 수 있다.

2:1.9 (35.2) 그는,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근원이시라는
사실 및 실체를 조금도 손상시킴 없이, 이 모든 것을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며, 또한 영원토록 계속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납득하기 어렵긴 해도,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또는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런 일은
절대로 진실이다.

2:1.10 (35.3) 최초 아버지의 계획이 무한하고 그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유한한 존재든지, 이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납득하기는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사적 사람은, 우주 진보라는 연속되는 피조물 상승 계획 수준들에서 그 결실과정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목적이 드러날 때, 오직 가끔씩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얼핏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이 무한성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더라도, 무한하신 아버지는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자녀든지, 그 전체 한계성을 가장 분명하고 충분하게 납득하고, 사랑스럽게 감싸신다.

2:1.11 (35.4) 아버지는 신성 및 영원성을 수많은 높은 낙원 존재와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무한성과 그에 따른 우주의 탁월성을, 낙원 삼위일체에 속한 협조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든지 충분하게 공유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 인격체의 무한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전체 인격체의 유한성을 포함하며;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누린다”고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리다--말 그대로 진리다.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순수한 신격의 그 단편{斷片}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즉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무한성의 일부 이다.

2.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2:2.1 (35.5) 너희의 옛 선지자들도,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시작이_없고, 끝도_없는, 순환 본성을 이해했다.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글자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현존하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절대적 위엄과 영원한 위대성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본성적으로 생명을 지니시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대들 내내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다. 신{神}의 완전무결하심 속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主}이며; 변하지 않는다." 온갖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들의 아버지이심 뿐만 아니라, 행성 간 직무에 대한 그의 활동에서 "어떤 변덕스러움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심" 또한 드러낸다. 그는 "시작 지점에서 끝을 선포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아들 안에서 의도했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내 방침이 지속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제1 근원 및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2:2.2 (35.6) 아버지의 명령은 최종적으로 완결되고 완전하게 충만된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할 것이며;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줄일 수 없다."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원래 지혜 및 완전한 목적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계획은 확고하고, 그의 방침은 변경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는 신성하고 오류가 없다. "그의 앞에서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신성의 완전함과 영원성의 장엄함은, 필사적 사람의 제한된 정신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영구히 초월한다.

2:2.3 (36.1) 변함없는 하나님의 반응은, 영원한 목적을 이행하실 때, 피조된 지성체의 변화하는 사고방식과 바뀌는 정신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외견상 그리고 표면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표면 아래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시{顯示} 아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구적인 계획이 여전히 있다.

2:2.4 (36.2) 바깥 우주들에서는, 완전성은 부득이 상대적 용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중앙우주에서, 그리고 특히

낙원에서는, 완전성이 희석되지 않으며;어떤 국면들에서는 절대적이기까지 하다. 삼위일체의 현시는 신성한 완전성을 다양하게 펼쳐 보이지만, 그것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2:2.5 (36.3) 하나님의 근본 완전성은, 그가 의로우시다고 가정함에서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성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완전히 선하심에 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비되고 완전하다. 그의 의로운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간 세계에 살아있는 실재에 대한 전체 기획은, 낙원에서 아버지의 완전성을 함께 체험하는 고귀한 운명에 이르기까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을 상승시키는 신성한 목적에 중심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_중심적이지 않고 자기_충족적이지도 않으며;광대한 온갖 우주의 자아_의식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2:2.6 (36.4)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하게 완전하신데, 몸소 체험함으로써 불완전성을 개인적으로 아실 수는 없지만, 진화 우주에 속한 모든 투쟁하는 피조물의 불완전함을

모든 낙원 창조주 아들들이 겪은, 전체 체험에 대한 의식{意識}을 공유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해방시키는 손길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우주 수준으로 올라간 그 모든 필사 피조물의 본성을 둘러싸고 마음을 감싼다. 만유의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성한 현존의 접촉을 통해, 전 우주의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하는 생애{生涯}에서 미성숙과 불완전성에 대한 체험에 실제로 참여하신다.

2:2.7 (36.5) 인간의 제한조건, 즉 잠재적 악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필사자가 겪는 악에 대한 체험, 그리고 사람과 악의 모든 관계는, 시간세계에서 자녀--곧 낙원에서 나오는 모든 창조주 아들이 창조했거나 진화시킨 도덕적 책임을 지닌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항상_확장하는 자아_실현의 일부분임이 매우 확실하다.

3. 응보와 정의

2:3.1 (36.6) 하나님은 의로우시며;따라서 공정하시다. "주는 자신의 모든 방식에서 의로우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원인 없이 한 것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심판은 참되고 아주 의로우시다." 만유의 아버지의

응보{應報}는 피조물의 행위와 업적에 영향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으신 주께는 어떤 죄악도 없으며,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2:3.2 (36.7) 그런 하나님의 현명한 자연 법칙과 올바른 영적 명령의 시행으로 말미암는 정확한 결말을 우리가 피해보려고, 그의 불변하는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그에게 철없이 간청함은 얼마나 무익한 일인가! “속지 말라;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범죄의 수확물을 거둬들인다는 응보의 경우에도, 이 신성한 응보는 항상 자비로 완화된단다. 무한한 지혜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측정될 응보와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중재자다. 하나님의 정부{政府}에 대항하는 범죄와, 고의적 반역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실제로는 불가피한 결말인데) 그 정부에서 개별 백성으로서의 실존을 잃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죄의 최종 결과는 소멸이다. 결국, 그런 죄와_동일시되는 그런 개인은, 자신이 죄악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비실체{非實體}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렇지만 그런 피조물의

실제 소멸은, 그 우주에서 통용되는 응보의 규정된 관례가 충분히 충족될 때까지 항상 연기된다.

2:3.3 (37.1) 실존의 중지{中止}는, 일반적으로 그 영역 또는 영역들의 섭리시대, 또는 시기의 판결이 있을 때 공표된다.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는, 그것이 행성의 섭리시대 끝에 온다. 실존의 중지는, 행성 협의회로부터 창조주 아들의 법정을 거쳐서 태고 항존자들의 심판 법정에 이르는, 사법권을 갖는 모든 재판소의 협조된 조치에 따라 그런 시기에 공표될 수 있다. 사멸{死滅} 명령은, 범죄자가 거주한 그 구체에서 기원되는 고소에 대해 이의 제기가 전혀 불가능할 만큼 확인한 후에, 연방우주의 상급법원에서 이뤄지며;그 다음에, 소멸 판결이 위에서 다 확인되고 나면, 집행은 연방우주 본부에 거주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재판관들의 직접 행위에 따라서 이뤄진다.

2:3.4 (37.2) 이 판결이 최종 확인되면, 죄와_동일시된 존재는 즉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런 운명은 부활{復活}되지 않으며;그 운명은 영구적이고 영원하다. 살아있는 정체성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변질됨에 따라서, 그것들이 언젠가 출현했던 시공우주

잠재성 속으로 분해된다. 사악한 존재의 인격체의 경우처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했을 수도 있는 그 선택과 최종 결정을 이룩하기에 피조물이 실패함으로써, 영속하는 생명 수여통로{授與通路}를 뺏긴다. 연합된 정신이 계속 죄를 품어 마침내 죄악과 완전히 자아_일치되면, 그 다음에 생명이 중지되고 나서, 시공우주에서 분해됨에 따라, 그런 격리된 인격체는 창조의 대령{大靈}에 흡수되는데,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가 된다. 그것은 결코 다시 어떤 인격체로 나타나지 않으며;그 정체성은 마치 전혀 생겨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조율사가_내주했던 인격체의 경우에는, 영속하는 조율사의 실체 속에서 체험적 영{靈} 가치가 살아남는다.

2:3.5 (37.3) 실체의 실제 수준들 사이에 어떤 우주 논쟁이 생기든지, 높은 수준의 인격체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격체를 궁극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우주 갈등의 이 필연적 결과는, 의지를 가진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의 실체성 또는 실제성의 정도와 고귀한 신성이 같아진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희석되지 않은 악, 완성된 실책, 고의적인 죄, 그리고 완화되지 않은 죄악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자멸한다. 시공우주 비실체성에 해당하는 그런 태도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올바르게 판결하는 우주 재판소의 응보를_결정하고 공평을_찾는 절차가 작동할 때까지, 일시적 자비와_아량을 베풀기 때문이다.

2:3.6 (37.4)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통치는, 창조하고 영성화 시키는 통치다. 점진적으로 필사자가 상승하는 낙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예, 그리고 반역자 및 그릇되게 생각하는 자들을 복귀시키기에 이 아들이 전념하지만, 그런 모든 사랑하는 수고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거부되면, 태고 항존자들의 관할권 아래서 집행하는 자들이 최종 소멸 명령을 집행한다.

4. 신성한 자비

2:4.1 (38.1) 자비는 다만, 유한한 피조물의 타고난 연약성 및 환경의 불이익을 완전하게 알고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지혜로 응보가 완화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연민이 가득하고, 인자하고, 오래_참으며, 자비가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가 넉넉히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자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되는데”;그렇다,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스런_친절과 심판과 정의를 베푸는 주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의 자녀를 고의로 괴롭히지 않고 슬프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자비의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2:4.2 (38.2) 하나님은 본래 친절하고, 당연히 인정 많으며, 영원토록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그의 사랑스런_친절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버지께 어떤 영향이든지 끼쳐야할 필요가 전혀 없다. 피조물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섬세한 자비와 구원하는 은혜의 충분한 흐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자녀에 관해 전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사람이 이웃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2:4.3 (38.3)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든지 동시에 응보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음은, 오직 무한한 지혜의 분별력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주에 있는 자녀를 향한 상반된 입장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하나님은 사고방식의 반목을 결코 겪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이 그의 자유의지를 틀림없이 이끌어서, 그의 영원한 본성에 속하는 모든 신성한 속성과 무한한 자질의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만족시키도록, 우주의 운영을 결정하신다.

2:4.4 (38.4) 자비는 선함과 사랑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랑의 아버지는, 선한 본성 때문에, 우주 자녀들로 구성된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을 향한 현명한 자비 사역을 도저히 억제하실 수 없다. 인간의 체험에서 소위 *공평함*이라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영원한 응보와 신성한 자비가 함께 구성한다.

2:4.5 (38.5) 신성한 자비는, 완전한 우주 수준과 불완전한 우주 수준 사이를 조절하는 공정한 기법을 보여준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상황에 지존성의 응보가 맞춰진 것이요, 시간세계에서 자녀의 최고 이익과 우주 복지를 만족시키도록 수정된 영원한 의로움이다. 자비는, 응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下位} 영적 존재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들에 속한 물질 피조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듯이, 오히려 최상의 응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심 있는 해석이다. 자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계의 다양한 지성체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적용됐던 낙원 삼위일체의 응보인데, 그 응보는 만유의 아버지 및 그의 모든 연합된 창조주들의 신성한 지혜로 조직되고, 전지{全知}의 정신과 주권적 자유의지로 결정된다.

5. 하나님의 사랑

2:5.1 (38.6)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그러므로 우주 업무에 대한 그의 유일한 개인 입장은 항상 신성한 애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증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해가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게 하신다.”

2:5.2 (39.1)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은 것으로, 또는 하위 피조물이 탄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설득당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데,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불가사의한

조율사를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도록 보내심은, 이런 아버지로서의 애정에 반응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는 “진리에 속하는 지식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2:5.3 (39.2) 창조주들은, 신성한 법칙을 미련하게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사람을 구하려고, 가장 먼저 시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으로 아버지다운 애정이며;따라서 그는 때로 “그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벌하신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동안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고통 받고 계심”을 기억하라.

2:5.4 (39.3) 하나님은 죄인에게 신성하게 친절하시다. 반역자들이 의로움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 죄악을 지워버리는 자이며,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

2:5.5 (39.4)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최고의 이유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선물 때문이다--너희 두 존재가 영원히 하나 될 그때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율사 때문이다. 너희가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너희가 내주하는 그 영의 인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우주에서 우주로, 그리고 한 시대 한 시대, 마침내 너희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인격체의 현존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틀림없이 인도될 것이다.

2:5.6 (39.5) 인간 본성의 한계와 물질적으로 창조됨으로 인한 장애물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함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는 횡단할 수 없는 굉장한 거리가(물리적 공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있어야만 되는 엄청난 영적 격차의 간격이 있지만;너희를 하나님의 인격있는 낙원 현존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떼어놓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중대한 사실을 멈춰서 숙고해 보라;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그 간격에 다리를 놓으셨다. 너희가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할 때, 그는 너희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수고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 즉 자기 영을 보내셨다.

2:5.7 (39.6) 나는, 그토록 위대하면서도 하급 피조물을 향상시켜주는 사역에, 그토록 애정을 다해 헌신하시는 분을 경배하는 것이, 쉽고 기쁜 일임을 발견한다. 창조함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제함에서 그토록 능력 있는 분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변함없이 드리우는 사랑하는_친절함에서 그토록 신실하고, 선함에서 그토록 완전하신 분을, 나는 당연히 사랑한다. 그토록 위대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자비로우신 한, 나도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운 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의 본성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다.

2:5.8 (39.7) 공간에서 우주의 진화에 내재된 시간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기려고, 창조주 아들들과 그 하위 경영자들이 그토록 용맹스럽게 분투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비교적

작은 이 우주 통치자들에게 내가 어떤 크고 깊은 애정을 갖게 됨을 발견한다. 결국 나는, 그 영역의 필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만유의 아버지를, 그리고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다른 모든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격체들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받는 체험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존성, 궁극성, 및 절대성이라는 그의 전체 속성을 그에게서 벗겨내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최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2:5.9 (40.1) 아버지의 사랑은, 현재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의 끝없는 궤도 도처에서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성을 숙고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인격자의 이성적이고 자연스런 반응은 한 가지 밖에 없는데:너희는 조물주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이 세상 부모에게 드리는 것과 유사한 애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인데;아버지, 실제 아버지, 참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만유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창조된 아들과 딸들의 복지를 영원히 추구하시기 때문이다.

2:5.10 (40.2)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총명하고 선견지명 있는 부모다운 애정이다. 신성한 사랑은,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에 속하는 신성한 지혜 및 다른 모든 무한한 특질과 통일을 이룬 연합체에서 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필사 존재를 향한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현시{顯示}를, 사고 조율사를 증여하심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가장 크게 계시한 것은, 그의 미가엘 아들이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생애를 살았을 때 그의 증여 생애에서 나타난다. 각각의 인간 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개별화시키는 이는, 바로 내주하는 조율사다.

2:5.11 (40.3) 나는 *사랑*이라는 인간 단어 상징을 채택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주의 자녀들에게 품는 신성한 애정을 묘사할 수밖에 없을 때, 이따금씩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다. 이 용어는, 비록 존경과 헌신이라는 필사자 관계에 대한 사람의 최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너무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단어든지, 우주 피조물을 향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유례없는 애정을 가리키는 데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완전히 저급하고 전혀 맞지 않다!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의

참된 본성과 절묘하게 아름다운 의미를 인간 정신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숭고하고 전용적{專用的}인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없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2:5.12 (40.4) 인격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잊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선한 왕국이 될 뿐이다. 신의 본성이 무한히 통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친히 나누는 모든 교제의 지배적인 특징이다.

6. 하나님의 선하심

2:6.1 (40.5) 우리가 물리적 우주에서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지적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직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종교는, 진정한 본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_신뢰다. 철학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 지성적이고 인격적일 수 있지만, 종교에서 하나님은 역시 도덕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선하셔야만 한다.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은 두려워하겠지만,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은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하나님 인격체의

일부이며, 이 선하심에 대한 충만한 계시는,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겪는 종교 체험에서만 나타난다.

2:6.2 (40.6) 종교는, 영{靈} 본성을 갖는 초월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인 결핍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화 종교는 윤리적이 될 수 있지만, 계시된 종교만이 참되게 영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하나님이 왕에 어울리는 도덕성의 지배를 받는 신격{神格}이라는 옛 개념은, 부모_자녀 관계라는 긴밀한 가족 도덕성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는 수준으로 예수로 인해 향상됐는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2:6.3 (41.1) "하나님의 풍부한 선하심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안내한다." "모든 선한 은사{恩賜}와 모든 완전한 은사는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은 선하시며;사람 혼의 영원한 피난처시다."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는 오래_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하시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는 인자하고 연민이 충만하시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혼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사람의 전능한 은인이시다.”

2:6.4 (41.2) 하나님이 왕이요_재판관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비록 높은 도덕 표준을 조성하고 법을_존중하는 한 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세웠었더라도, 개별 신앙인이 시간세계와 영원세계에서 자기 신분을 확신할 수 없는 슬픈 처지에 놓이게 했다. 후기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되심을 선언했으며;예수는 하나님을 인간 각자의 아버지로 계시했다. 예수의 생애가 필사자의 하나님 개념 전체에 초월적으로 빛을 비쳤다. 사심{私心}없음이 부모의 사랑에 내재돼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 *처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그는 모든 우주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시다.

2:6.5 (41.3) 하나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이심을, 정의{正義}가 암시한다. 진리는 하나님을 계시자로, 선생님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또한 갈망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사려 깊은 친교를 추구한다. 정의는 신성한 사고{思考}이겠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심 없는 사랑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추측이, 신격의 본성에 통일성이 결여됐음을 전제했고, 속죄{贖罪} 교리라는 정교한 작품이 나오도록 직접 인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자유_의지성{意志性}, 둘 다에 대한 철학적 공격이다.

2:6.6 (41.4) 하늘에 계신 애정 어린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자녀에게 내주하는, 자신의 영과 분리된 인격체--곧 응보의 한 존재 및 자비의 한 존재--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또는 용서를 보장하는 데는 중재인이 필요치 않다. 신성한 정의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응보에 지배되지 않으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을 초월한다.

2:6.7 (41.5)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화내지 않으신다. 그의 거부된 자비를 응보가 검사하는 동안, 지혜가 종종 그의 사랑을 억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의를 사랑하심은, 죄를 한결같이 미워하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변덕스런 인격체가 아니며; 신{神}의 통일성은 완전하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님과

동격인_존재들의 영원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절대
통일성이 있다.

2:6.8 (41.6)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그런 말은 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하나님은 초월 인격체시며, 인격자만이 다른 인격자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 죄는 인격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잠재적으로 영원한) 인격체 실체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반면,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어떤 인격있는 입장도 취하지
않으시며;죄는 인격적이지 않으며;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응보만이 죄의 실존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며;하나님의 법이 죄를 괴멸시킨다. 필사 정신이
그에게 내주하는 영 조율사와 온전히 한 편이 될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 죄인이 자신을 죄와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동일시하게 되면, 신성한 본성에
속하는 이 입장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죄와_일치된 그런 필사자는, 사실상 완전히 비{非}영적
상태가 되고(따라서 개인적으로 비실체가 되고), 존재의
최후 소멸을 체험할 것이다. 비실체는, 심지어 완결되지

않은 피조물 본성조차, 점차 실제적이고 점점 더 영적인 우주에서 영구히 존재할 수 없다.

2:6.9 (42.1) 하나님은, 인격체의 세계와 대면할 때 사랑하는 인격자이심이 발견되며;영적 세계와 대면할 때 인격있는 사랑이시며;종교 체험에서는 둘 다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와 일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성한 자유_의지작용에--곧 사랑하고, 자비를 보이고, 인내를 나타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경향에-- 기초를 둔다.

7.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2:7.1 (42.2) 모든 유한한 지식과 피조물 이해력은 상대적이다. 정보와 소식은, 높은 출처에서 얻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완성되고 부분적으로 정확하며 개인적으로 참될 뿐이다.

2:7.2 (42.3) 물리적 사실은 상당히 일정하지만, 진리는 우주 철학에서 살아있고 융통성 있는 어떤 요소다. 진화하는 인격체는 자신의 의사소통에서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오직 개인 체험이 확장되는 한도까지만 확신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외견상

전적으로 참되게 보이는 것이, 다른 창조 구획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수도 있다.

2:7.3 (42.4) 신성한 진리, 최종적인 진리는 불변이고 보편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체험의 기간과 범위에서뿐 아니라 개인 체험의 총만함에서 그리고 지식의 완결에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법칙과 뜻, 생각과 입장은 영원히, 무한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되며;동시에, 각 우주와 체계와 세계와 창조된 지성체를 위한 조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법칙과 뜻, 생각과 입장의 적용은, 창조주 아들들이 각자의 우주에서 활동할 때 무한한 영의, 그리고 다른 모든 연합된 천상{天上}의 인격체의, 국지적{局地的} 계획과 과정에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기법에 일치한다.

2:7.4 (42.5) 유물론이라는 잘못된 과학은, 필사적 사람을 우주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판결할 것이다. 그런 부분적인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하며;선과 악, 둘 다로

구성된 지식이다. 진리는 총만한 동시에 균형 잡혔기 때문에 아름답다. 진리를 탐색할 때, 사람은 신성하게 실제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2:7.5 (42.6) 철학자는 추상개념의 오류 속으로, 즉 실체의 한면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외골수적 견해를 전체적인 진리가 되도록 선언하는 풍습으로 잘못 인도될 때, 가장 심각한 실책을 범한다. 현명한 철학자는 전체 우주 현상 뒤에 숨어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선재{先在}하는, 창조 설계도를 항상 찾으려고 할 것이다. 창조자의 사고{思考}가 창조 행위보다 항상 앞선다.

2:7.6 (42.7) 지성적 자아_의식은, 그 개념의 철학적 일관성뿐 아니라, 항상_현존하는 진리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에 따라서, 진리의 아름다움, 즉 진리의 영적 특질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진리를 알아본 결과로 생기는데, 진리를 *실행에 옮길* 수 있고;진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책에는 실망과 슬픔이 따라오는데, 실책은 실체가 아니므로, 체험 속에서 실체가 될 수 없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로 가장 잘 식별된다.

2:7.7 (42.8) 영원한 추구는 통합, 즉 신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범위한 물리적 우주는 낙원 섬에 붙어있으며;지적 우주는 정신의 하나님, 즉 공동 행위자에게 붙어있으며;영적 우주는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에 붙어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고립된 필사자는, 내주하는 사도 조울사와 만유의 아버지 사이의 직접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다. 사람의 조울사는, 하나님의 단편{斷片}이고, 신과의 통합을 영원히 추구하며;제1 근원 및 중심의 낙원 신격과, 그리고 그 안에, 붙어있다.

2:7.8 (43.1) 최상의 아름다움을 식별함은 실체를 발견하고 종합하는 것이며: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함을 식별함, 그것이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심지어 인간 예술의 매력도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에 있다.

2:7.9 (43.2) 히브리 종교의 큰 실수는, 과학의 사실적 진리와 예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합시키기에 실패한 것이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그리고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동일한 어리석은 행로를 종교가 계속 추구한 후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된 선하심이라는 추상적{抽象的}이고 분열된 개념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진전됐다. 근대 종교의 과도하게 강압되고 고립된 도덕성은, 20_세기의 많은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그 도덕적 명령에 덧붙여서,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이라는 진리를 배려하고, 물리 창조계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성품 성취의 위엄을 똑같이 배려하고자 한다면, 그 도덕성은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2:7,10 (43.3)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선견지명 있고 앞을_내다보는 남녀를 향한 것인데, 그 남녀는 시공우주 진리, 우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신의 선하심에 대한 확장되고 절묘하게 통합된 근대적 개념에서 살아 나오는, 어떤 새롭고 매력적인 철학을 감히 구축할 것이다. 도덕성에 대한 그런 새롭고도 정의로운 선견{先見}은, 인간의 혼 속에서 가장 좋은 것에 도전하고, 사람의 정신 속에서 선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신성한 실체이며, 사람이 영적 삶의

단계를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자의 이런 최상의 특성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조정되고 통일될 것이다.

2:7.11 (43.4) 모든 --물질적, 철학적, 또는 영적-- 진리는 아름답고 선하다. 모든 실제 아름다움은--곧 물질적 기술 또는 영적 균형은-- 참된 동시에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함도 --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공평성, 신성한 사역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 온전한 정신, 그리고 행복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어우러질 때, 그 세 가지가 통합된 것이다. 능률적인 삶의 그런 수준은, 에너지 체계와 관념 체계 그리고 영 체계의 통합을 통해서 발생한다.

2:7.12 (43.5) 진리는 일관적이고, 아름다움은 매력적이며, 선함은 안정적이다. 실재하는 것의 가치가 인격체 체험에서 조정될 때, 그 결과는 지혜로 조절되고 충성으로 자격을 갖춘, 높은 등급의 사랑이다. 모든 우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에서 고립된 자녀가, 자신의 팽창하는 체험이라는 더 큰 실체들과 더 나은 협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수준에서는 유한하고, 더 높고 신성한 수준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2:7.13 (43.5)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제3편 하나님의 속성

3:0.1 (44.1)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만유의 아버지께서
영원성 궤도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는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하여
생명을 증여할 때에도, 지방우주들에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
구역들에서, 그리고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에서 회전하는
행성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인격있는 표현이다.

3:0.2 (44.2) 고도로 인격화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된
지성체 중에서 하위 계층에게 분명히 식별될 수 있으며,
무한자가 보이지 않음과, 그래서 아버지를 더 식별할 수
없음을 그렇게 보상한다.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창조주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계시인데, 영원성 궤도에 내재되고 낙원 신격들의
인격체들에 내재된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3:0.3 (44.3)

창조자직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으며;오히려 하나님을 대행하는 본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창조자직무의 이 보편적 기능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화된 속성들에 제약을 받고 통제되면서 영구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 가운데 어느 한 특질이 다른 것들보다 선재{先在}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하지만, 그 경우가 사실이었다면, 신격의 창조자직무 본성은 다른 모든 본성, 활동, 및 속성보다 선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신격의 창조자직무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보편적 진리를 완결시킨다.

1.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3:1.1 (44.4)

어디든지 그리고 동시에 현존하실 수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역량이, 그의 편재성{遍在性}을 이룬다. 하나님만이, 동시에, 두 곳에, 수많은 곳에 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하늘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땅에" 동시에 나타나시며;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쳤다:"당신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당신의 면전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3:1.2 (44.5) “주께서는, ‘나는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광범위한 창조의 모든 부분에, 그리고 모든 마음 속에, 항상 현존하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에 충만한,” 그리고 “만물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의 충만함”이시며, 더 나아가, 그의 인격체 개념은, “하늘과(우주와) 온갖 하늘도(온갖 우주도) 그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전체 속에 계심은, 말 그대로 진실이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만 결국 드러날 수 있으며;결과를 분석한다고 해서 원인을 충분히 납득할 수는 결코 없으며;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속박되지 않는 자유 의지로 창조적 행동을 한 결과로 탄생된 창조 전체 총계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시다. 하나님은 시공우주를 통해 드러내시지만, 그 시공우주는 결코 하나님의 무한성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3:1.3 (45.1) 아버지의 현존이 총괄우주를 끊임없이 둘러보신다. “그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그의 회로는 그 끝을 향하며;아무 것도 그의 빛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

3:1.4 (45.1)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사신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며;그의 영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낙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선물은, 사람의 분리될 수 없는 동무다." "그는 항상_현존하고 전체에_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영존하는 아버지의 영이 모든 필사 자녀의 정신 속에 감춰져 있다." "사람이 친구를 찾아 나서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참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으며;그는 우리의 일부분이며;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자녀 속에 사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시다."

3:1.5 (45.1) 정말로 인간 종족에 대해 이런 말이 있다:"너희는 하나님께 속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내주하는 선물을 괴롭히는데, 사고 조율사를 가뒤틀는 인간 정신과 함께, 조율사도 악한 생각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1.6 (45.1) 하나님의 편재성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본성의 일부이며;공간은 신격에게 어떤 장애물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리고 제한 없이, 오직 낙원과 중앙우주에서만 식별되도록 현존하신다. 그는 하보나를 도는 창조계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동격 창조자 및 통치자들의 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자신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현존을 제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성한 현존에 대한 개념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그리고 낙원 섬의 현존 회로들을 포함하는, 형태화의 양식과 경로, 양쪽의 넓은 범주를 허용해야만 한다. 또한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과 그의 영원한 협조자 및 대행기관들의 행위를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의 변하지 않는 목적이 무한하게 요구하는 사항 전체를 매우 완전하게 충족시킨다. 그러나 인격체 회로와 조율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하나님이 독특하게,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행동하신다.

3:1.7 (45.1) 우주 통제관은, 그 질량에 따라, 이 현존{現存}을 위한 물리적 수요에 반응해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 안에 붙어 있고 존재하도록 만드는 창조의 선천적 본성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똑같은 정도로,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낙원 섬의 인력 회로에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제1 근원 및 중심은, 무조건 절대자, 즉 영원한 미래에 속하는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의 저장소{貯藏所}에 잠재적으로 현존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물리적 우주들에 잠재적으로 충만하시다. 그는 소위 물질 창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근본 기초다. 비영적{非靈的}인 이 신경 잠재력은, 그의 독점 대행기관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주 작용 단계에 간섭함으로 인해, 물리적 실존 수준 전반에 여기저기서 실재가 된다.

3:1.8 (45.1) 하나님의 정신 현존은, 공동 행위자, 즉 무한한 영의 절대 정신과 관련되지만, 유한한 창조계에서는, 낙원 으뜸 영의 시공우주 정신이 작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더 잘 식별된다. 제1 근원 및 중심이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들에 잠재적으로 현존함과 마찬가지로, 우주 절대자의 균형상태 속에도 잠재적으로 현존한다. 그러나 인간 계층의 정신은, 공동 행위자의 딸들, 즉 진화하는 우주들의 신성한 사역자들의 증여물이다.

3:1.9 (46.1) 만유의 아버지의 어디든지_현존하는 영{靈}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현존, 그리고 신격 절대자의 영존하는 신성한 잠재력의 기능과 조화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낙원 아들들의 영적 활동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의 정신 증여도, 그의 피조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주하는 단편{斷片}인, 사고 조율사의 직접 행위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3:1.10 (46.2) 행성, 체계, 성좌{星座}, 또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관해, 어떤 창조적 단위에서든지 그런 현존의 정도는, 지존하신 분의 현존이 얼마나 진화했는가를 재는 척도인데:체계와 행성 자체를 향해 내려오면서, 광대한 우주 조직의 일부분에서 전반적인 하나님 인식과 그를 향한 충성심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행성들이(또는 심지어 체계들이) 영적 어둠 속으로 멀리 던져졌을 때,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격리돼 있거나, 또는 더 큰 창조 단위들과의 교통에서 부분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때로 하나님의 고귀한 현존의 이 국면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기대감에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동되고 있듯이, 그 세계 가운데 대다수가 완고하고 사악하며 반역적인 소수의 이간시키는 행위들로 인해

고립되는 결과의 고통으로부터, 될수록 멀리 그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영적으로 방어적인 대응이다.

3:1.11 (46.3) 아버지가 어버이로서 자기 아들들--곧 모든 인격체--전체를 회로로 연결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그들이 신격의 제2 및 제3 인격자로부터 얼마나 멀리서 기원됐는가에 따라 제한되며, 그들의 운명 달성이 그런 수준에 접근할 때 증대된다. 피조물 정신 안에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신비 관찰자 같은 아버지 단편이 그들에게 내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의 *유효한* 현존은, 내주하는 이 조율사가 머무는 그 정신이, 조율사와 얼마나 협동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3:1.12 (46.4) 아버지의 현존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무시당함으로 인해 은둔하여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의 애정은, 피조물이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분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혼 안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력이 미치는 수준과 정도를 직접 결정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편애함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증여해 오셨다. 그는, 인격자, 행성, 체계, 또는 우주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 시간 구역{區域}에서 아버지는, 칠중 하나님의 낙원 인격체들, 즉 유한한 우주의 동격 창조자들에게만 서로 다른 명예를 수여한다.

2.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3:2.1 (46.5) 모든 우주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안다. 이 세계 및 다른 세계들의 직무는, 신{神}의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의 군대에서, 그리고 이 땅의 거주자 가운데서 자기 뜻에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다”는 말은 영원히 옳다.

3:2.2 (46.6) 신성한 본성과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민족과 행성 그리고 우주의 길게_이어지는 진화 과정은, 우주 창조자와 경영인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으며,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펼쳐지는데, 조화와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지혜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한다. 오직 한 분의 입법자{立法者}만 있다. 그가 세계를 공간에 떠받치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를 우주가 돌도록 하신다.

3:2.3 (47.1) 모든 신성한 속성 가운데 그의 전능성{全能性}은, 특히 물질 우주에서 진행될 때 가장 잘 이해된다. 비영적{非靈的} 현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에너지다. 물리적 사실에 대한 이 선언은, 제1 근원 및 중심이 모든 공간의 우주적인 물리 현상의 최초 원인이라는, 납득될 수 없는 진리에 기초한다. 이 신성한 활동에서, 모든 물리적 에너지 및 기타 물질 형태화가 시작된다. 빛, 다시 말해서, 열 없는 빛은, 신경들의 또 다른 비영적 형태화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에너지가 있으며;그것은 아직 인식되지 않고 있다.

3:2.4 (47.2)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통제하시며;"번개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셨으며;모든 에너지 회로를 제정해오셨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_물질이 형태화 되는 시간과 방법을 그가 정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존하는 지배 속에--곧 하부 낙원에 중심을 두는 인력 통제 속에-- 영원히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그의 웅장한 회로 주변을 그렇게 영원히 도는데,
그것은 온갖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行列}이다. 창조된 모든 궤도는 모든 물체와
존재의 낙원_인격체 중심을 영원히 돈다.

3:2.5 (47.3) 아버지의 전능성은 절대 수준에 속하는
어디에서든지 지배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며, 그 절대
수준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세 에너지가
그에게--곧 모든 것의 근원에게-- 아주 근접했을 때에는
식별되지 않는다. 피조물 정신은, 낙원 단일세력도 아니고,
낙원 영도 아닌데, 만유의 아버지에 대해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정신에 맞추어--곧 사고
조율사들을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조율하신다.

3:2.6 (47.4) 만유의 아버지는, 순간적인 힘, 변경이 쉬운 동력,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는,
일부 또는 전체 우주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사태가 나타날 때,
아버지는 그것 전체를 이미 보셨으며, 따라서 분리된
방법으로 우주 직무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하신다.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에서 맹목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3:2.7 (47.5) 긴급 통치가 이뤄지고, 자연 법칙이 중지되고, 부적응{不適應}이 인식되고, 어떤 수고가 그 상황을 교정하도록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처럼 보이는 환경들이 나타나지만;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하나님 개념은, 너의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고, 네 납득력이 유한하고, 네가 조사하는 시야가 제한된 데서 생기며;그런 잘못된 하나님 이해는, 그 영역의 비교적 높은 법의 실존, 아버지의 성품의 장엄함, 그의 속성들의 무한성, 그리고 그의 자유_의지성이라는 사실에 관한 뿌리 깊은 무지함에 네가 안주하기 때문이다.

3:2.8 (47.6) 공간에서 우주들 도처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행성 피조물은 숫자와 종류에서 거의 무한에 가깝고, 그들의 지능은 너무나 다양하며, 그들의 정신은 너무 제한돼 있고 때로는 너무 조잡하며, 그들의 상상력은 너무 짧고 국한돼 있어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들을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이

창조된 지성체가 제법 납득할 수 있는, 법칙의 보편화를 고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너희 피조물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행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독단적이고 초연하며 종종 냉혹하고 잔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다짐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행위에는 모두 목적이 있고, 지성적이고,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고의 선을 고려하는데, 한 개별 존재, 개별 인종, 개별 행성, 또는 심지어 어떤 개별 우주에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장 낮은 자들에서 가장 높은 자들에 이르기까지, 고려되는 모든 존재의 복지와 최고 선{善}을 위한 것이다. 한때의 여러 시기에서, 일부 복지가 때로는 전체 복지와 다른 것처럼 나타나는데; 영원성의 궤도에서는 그런 외견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3:2.9 (48.1) 우리는 모두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족 훈련에 참여해야만 한다. 우리를 그토록 교란시키고 당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온전히-지혜로운 결정 및 최종 통치의 결과인데, 무한한 정신의 확실한 뜻에 대한 선택을 이행하도록, 완전한 인격체의 결정을 시행하도록, 공동 행위자에게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완전한 인격체의 관찰, 통찰력, 및 배려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전체 창조의 영원한 최고 복지를 포함한다.

3:2.10 (48.2) 그래서, 너희 존재의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제한조건들, 그리고 너희의 단절되고 부분적이고 유한적이고 조잡하고 매우 물질적인 관점이,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함을 너희가 보거나 납득하거나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성립시키는데, 너희에게는 그런 신성한 행위가 압도적인 잔인성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너희의 동료 피조물의 안락함과 복지에 대해, 즉 행성의 행복과 개인의 번영에 대해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하나님의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목적을 오해하는 것은, 인간적 식견의 한계 때문이요, 너희의 제한된 이해력 및 유한한 납득력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 행위가 아닌 것들이 진화 세계들에서 발생한다.

3:2.11 (48.3) 신성한 전능성은 하나님의 인격체의 다른 속성들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권능은 대개

영적 우주 형태화에서 세 가지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서만
제한 받는다:

3:2.12 (48.4) 1.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따라서.

3:2.13 (48.5) 2.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비로운 사역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 인격체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2.14 (48.6)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낙원
삼위일체의 정의와 응보에 따라서.

3:2.15 (48.6) 하나님의 권능은 무제한이고, 본성은 신성하고,
뜻은 최종적이고, 속성은 무한하고, 지혜는 영원하며,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질은, 신격 안에 통합돼 있고, 낙원 삼위일체 안에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들 안에 보편적으로 표현돼 있다.
그 외에, 낙원 및 하보나 중앙우주의 바깥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을 진화하는 지존자의 현존이 제한하고,
궁극자의 결말에 이른 현존이 조절하며, 세 실존 절대자가--
-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

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그렇게 제한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

3:3.1 (48.8)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神}의 정신은 모든 피조물의 생각을 의식하고 그것을 밝히 안다. 사건에 대한 그의 지식은 보편적이고 완전하다. 그에게서 나아가는 신성한 실재들은 그의 일부분이며;"구름을 저울로 다는 그분은 지식에서도 완전하시다." "주의 눈이 어디든지 있다." 너희의 위대한 선생이 하찮은 참새에 대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내 아버지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며,"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조차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고 말했다. "그는 별의 숫자를 알려주시며;그것들 전부를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3:3.2 (49.1) 만유의 아버지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공간의 별과 행성의 숫자를 실제로 아는 인격체시다. 온갖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식하신다. 그가 또한 말씀하신다:"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슬픔을 안다." "주는

하늘에서 보시며;사람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시는데;자신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자를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각 피조물 자녀마다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다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멀리
떨어진 우리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길에
정통하시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열려 있다." 그리고 "그가 너의
구조{構造}를 아시며;네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든지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예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다.

3:3.3 (49.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무제한의 능력을
소유하시며;그의 의식은 보편적이다. 그의 인격있는
회로는 모든 인격체를 포함하며, 심지어 하급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식은, 하강하는 계열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보충되고, 내주하는 사도 조율사들을

통해서 직접 보충된다. 그리고 더욱이, 무한한 영이 항상 어디든지 현존한다.

3:3.4 (49.3) 우리는 죄에 속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알기로 선택하셨는지 아닌지를 완전하게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의 자유 의지 행위를 미리 아시더라도, 그런 예지{豫知}는 그들의 자유를 조금도 폐기시키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하나님께는 놀라실만한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이다.

3:3.5 (49.4) 전능성은, 행할 수 없는 것, 즉 신{神} 답지 않은 행위를 하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지성{全知性}도, 알 수 없는 것을 앎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문장은 유한한 정신에게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의 범위와 한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 하나님의 무제한성

3:4.1 (49.5) 우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거기에 자신을 연속해서 증여하더라도, 신격의 중앙 인격체 속에 계속 존재하고 머무는 능력의 잠재력 또는 지혜의 저장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아버지는, 낙원 아들들, 그에 종속된

여러 창조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증여하신 결과로, 힘, 지혜, 및 사랑의 잠재력에서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도 줄지 않으며, 그의 영광스런 인격체의 어떤 속성도 빼가지 않으신다.

3:4.2 (49.6) 새 우주가 창조될 때마다 새로운 인력 조절이 요구되지만;비록 창조가 무기한으로, 영원하게, 심지어 무한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물질 창조가 제한조건 없이 존재하게 된다고 해도, 낙원 섬이 통제하고 조정하는 능력은, 그런 무한한 우주에 대한 지배와 통제와 조정에 충분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끝없는 우주에 무제한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증여한 후에, 무한자는 여전히 같은 정도의 힘과 에너지로 넘치게 채워질 것이며;무조건 절대자는 여전히 줄지 않을 것이며;하나님은 마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이 우주 저 우주에 기증품으로 쏟아 부어지기 이전처럼, 동일한 무한한 잠재력을 그대로 소유하실 것이다.

3:4.3 (50.1) 그리고 지혜의 경우도 그렇다:그 영역의 사색하는 이들에게 정신이 그토록 자유롭게 배분된다는 사실이,

신성한 지혜의 중앙 근원을 조금도 허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가 배가{倍加}되고 그 영역의 존재의 숫자가 납득 한계까지 늘어날 때, 이 높거나 낮은 계층의 존재에게 정신이 증여되는 일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된다 해도, 하나님의 중앙 인격체는 똑같이 영원하고, 무한한, 그리고 온전히-지혜로운 정신을 여전히 계속 지니실 것이다.

3:4.4 (50.2) 너희의 세계 및 다른 세계들의 남녀에게 내주하도록 그가 자신으로부터 영{靈} 사자{使者}들을 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전능한 영 인격체로서 작용하는 그의 역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며;그가 보낼 수 있고 또 보내게 될 그런 영 관찰자의 범위와 숫자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피조물에게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일은, 신성하게 재능을 받은 이 필사자들을 위한, 점진적으로 연속해서 실존할, 생각조차 못할 끝없는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역하는 이 영 실재들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분배하는 이 일은, 온전히-지혜로운, 전지{全知}한, 그리고 전능한 아버지의 인격자 안에 머무는 진리와 지식의 지혜 및 완전성을 조금도 경감시키지 않는다.

3:4.5 (50.3) 시간세계의 필사자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다. 내가 신격의 바로 그 거주 장소 근처로부터 나왔더라도, 나는 신성한 속성 가운데 다수의 무한성에 관해 완전히 이해하면서 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무한한 정신만이 실존의 무한성과 행위의 영원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4.6 (50.4) 필사적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무궁하심을 알 길이 없다. 유한한 정신은, 그런 절대 진리 또는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방금 말한 이 유한한 인간도, 그런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풍성하고 경감되지 않은 감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글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의 질{質}이 무제한임에도, 그런 체험의 양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역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관련된 능력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다.

3:4.7 (50.5) 무한한 특성에 대한 유한한 평가가, 피조물의 제한된 논리적 수용력을 훨씬 초월하는데, 그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곧 그의 속에

무한성의 단편이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친밀히 접근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관계 전체는, 시공우주 사회학, 즉 창조주와_피조물의 관계에서--곧 아버지와_자녀 사이의 애정에서-- 실제로 체험된다.

5. 아버지의 최상의 통치

3:5.1 (50.6) 하보나_이후의 창조계와 접촉할 때,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최종 권한을 직접 전달함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들 및 그 하위{下位} 인격체들을 통해 행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자유 의지로 행하신다. 특별한 일이 발생되면, 신{神}의 정신이 선택해야만 한다면, 위임된 권능을 모두 직접 행사하실 수 있지만;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조치는 신성한 신뢰를 충족시키도록 위임된 그 인격체가 실패한 결과로만 발생될 뿐이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그런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보된 신의 권능과 잠재력 한계 내에서, 아버지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선택 명령에

따라 행동하시며;그 선택은 항상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지혜로운 선택이다.

3:5.2 (51.1)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며;우주
조직을 통해 아래쪽으로 행성 왕자에게서 끝나는, 중단
없는 통치자들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방대한 영토에 속하는 진화 세계의 운명을 감독한다. 이런
외침은 단순한 시적{詩的} 표현이 아니다:"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다." "그가 왕을 제거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신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하신다."

3:5.3 (51.2) 사람의 마음 속에 관심사가 생길 때, 만유의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 뜻대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행성의 운행과 운명에서는 신성한 계획이
우세하며;지혜와 사랑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한다.

3:5.4 (51.3)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시며;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너희가 다양한 작업을 훑어보고 하나님의 거의
끝없는 창조계의 압도적 광대함을 구경할 때, 그의
탁월성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의 낙원 중심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계시고, 모든 지성적 존재의 인정 많은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가 계시며, “그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다.”

3:5.5 (51.4) 인생의 불확실성과 실존의 변천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개념과 어떤 면에서도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하는 모든 피조물 생애는, *불가피한* 어떤
것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3:5.6 (51.5) 1. *용기가*--곧 성품의 강인함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난과 맞붙어 싸우고 실망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양육돼야만 한다.

3:5.7 (51.6) 2. *이타심이*--곧 자기 동료에 대한 봉사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직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을
삶의 체험으로 대비해야만 한다.

3:5.8 (51.7)

3. *희망*이--곧 송고한 신뢰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 실존은, 불안정성과 되풀이되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직면해야만 된다.

3:5.9 (51.8)

4. *신앙*이--곧 인간 사고가 최상으로 단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정신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적게 알고 있다는 골치 아픈 곤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해야만 한다.

3:5.10 (51.9)

5.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오류가 현존하고 허위{虛僞}가 항상 가능한 어떤 세상에서 자라야만 한다.

3:5.11 (51.10)

6. *이상주의*가--곧 신성에 접근하는 개념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상대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의 환경, 즉 더 나은 것들에 도달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환경에서 분투해야만 한다.

3:5.12 (51.11)

7. *충성심*이--곧 가장 고귀한 의무에 대한 헌신이--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 한 가운데서 곳곳해야만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의무를 저버릴 위험이 암시된 곳에서 존재한다.

3:5.13 (51.12) 8. 비{非}이기주의가--곧 자아_망각의 영성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적 사람은, 도망칠 수 없는 자아의, 인정받음과 명예를 향한 끊임없는 요구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만 된다. 사람은, 버려야 할 자기_생활이 없었다면, 신성한 삶을 역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조함으로써 선{善}을 고양{高揚}시키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악이 없었다면, 사람은 정의를 붙잡기 위해, 지니고 있는 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3:5.14 (51.13) 9. 기쁨이--곧 행복한 만족감이--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스런 양자택일과 고난의 가능성이 항상_현존하여 체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만 한다.

3:5.15 (52.1) 우주 전반에 걸쳐서, 각 단일체마다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된다. 부분의 생존은, 전체의 계획 및 목적과의 협동, 즉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실책이(어리석은 판단의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성체가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10억 개의 완전한 세계가 있지만, 진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자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롭게 체험이 없는 지성체는, 처음에는 한결같이 현명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가 계획적인 부도덕한 판단을 의식적으로 시인하고 알면서 받아들일 때에만, 잘못된 판단(악)의 가능성이 죄가 된다.

3:5.16 (52.2)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에 대한 온전한 헤아림은, 완성된 신성한 우주에 내재돼 있다. 하보나 세계의 거주민에게는, 선택을 자극하기 위한 상대적 가치 수준의 잠재력이 필요치 않으며;그런 완전한 존재들은, 대조되고 사고{思考}를_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을 때에도 선한 것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한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본성과 영적 신분에서, 그렇게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자신의 선천적 신분의 범위 내에서만 향상을 체험으로 얻는다. 필사적 사람은, 상승하는 후보자로서의 자기 신분조차 자신의 신앙과 희망으로 얻는다. 인간의 정신이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획득하는 신성한 모든 것은 체험으로 달성되며;그것은 인격있는 체험이라는 실체이고, 따라서 하보나의 과오

없는 인격체들의 선천적 선택 및 의로움과는 대조적인 어떤 독특한 소유물이다.

3:5.17 (52.3) 하보나의 피조물은 선천적으로 용감하지만, 인간의 감각에서 볼 때에는 용감성이 없다. 그들은 천부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지만, 인간의 방식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즐거운 미래를 기대하는 자들이지만, 불확실한 진화 구체{球體}를 신뢰하는 필사자의 정교한 방식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없다. 그들은 우주의 안정성을 신뢰하지만,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신분에서 낙원의 입구를 향해 올라가게 하는, 구원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만, 혼을_구원하는 진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지만, 이미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충성되지만, 태만의 유혹에도 전심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의무에 헌신하는 전율을 체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호전적 자아를 훌륭하게 정복하는 그런 체험 수준을 획득한 적이

전혀 없다.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잠재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만족감의 단맛은 납득하지 못한다.

6. 아버지의 탁월성

3:6.1 (52.4)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자기 비움, 즉 완숙한 관대함으로 권세를 포기하고 능력을 위임하지만, 여전히 근본이시며; 그의 손은 우주의 영역들의 환경을 움직이는 전능한 지렛대를 잡고 있으며; 밖으로 뻗친, 소용돌이치는, 그리고 항상_돌고 있는 창조의 복지{福祉}와 운명에 대한 도전 받을 수 없는 권세를 지니고, 자신의 영원한 목적 때문이라면, 전능한 거부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모든 최종 결정을 확보해 왔다.

3:6.2 (52.5) 하나님의 주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창조의 근본 실상이다. 우주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우주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스스로_실존하지도 않는다. 우주는 창조된 작품이며, 따라서 전적으로 창조주 뜻에 종속된다. 하나님 뜻은 신성한 진리, 살아있는 사랑이며; 그러므로 진화 우주를 완성시키는 창조계의 특징은 선함이며--곧 신성{神性}에 가까움이며; 잠재적 악이다--신성으로부터 멀어짐이다.

3:6.3 (53.1) 모든 종교 철학은, 조만간, 통일된 우주 통치, 즉 유일한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것이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의 결과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의 생명과 시공우주 정신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그것들이 형태화 되는 수준보다 높아야만 한다. 인간의 정신은, 하위 실존 계층의 언어로는 일관되게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은, 비교적 높은 사고{思考} 체제 및 의도적 뜻의 실체를 알아봄으로써만 참되게 납득될 수 있다. 만유의 아버지가 실체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3:6.4 (53.2) 기계론적 철학자는, 보편적이고 주권적인 의지, 즉 우주 법칙을 고심하여 만들면서 자신이 그토록 깊이 경외하는 바로 그 주권적 의지 관념을 거부하기로 선언한다. 그런 법칙들이 스스로_움직이고 스스로_해석한다고 기계론자들이 상상할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경외심을, 그 법칙의_창조주에게 얼마나 많이 바치고 있는지!

3:6.5 (53.3)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 개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일은 큰 실수이지만, 심지어

그것도,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관념을 *기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어리석지는 않다.

3:6.6 (53.4) 낙원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나? 나는 모른다. 창조주 아들들은 필사자가 하는 것처럼 가장 분명히 그럴 수 있고 때로는 그렇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한정된 의미에서 볼 때 괴로워하신다. 나는 만유의 아버지도 괴로워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그러신지*는 이해할 수 없으며; 아마 인격체 회로를 통해서, 또는 사고 조율사의 개체성 그리고 그의 영원한 본성인 다른 증여들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는 필사자 인종에 대해, “너희의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말씀해 오셨다. 그는 아버지답고 호의적인 이해심을 분명히 체험하시며; 진실로 괴로워하시겠지만, 나는 그 본질을 납득하지 못한다.

3:6.7 (53.5) 온갖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는, 권능, 구조, 에너지, 과정, 원형{原型}, 원칙, 현존, 및 이상화{理想化}된 실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以上}이며; 인격있으며; 독립된 뜻을 행사하고, 신성{神性}을 자아_의식하고, 창조적 정신의 명령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의 실현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며,

우주에 있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아버지의 더욱 인격있는 이 특징 전체는, 너희의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됐을 때 증여 생애에서 드러났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6.8 (53.6)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들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시며; 영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들이 정한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속_상승하는 모험을 하도록, 자신의 은혜 사역을 통해서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신다.

3:6.9 (53.7) [만유의 아버지의 계시를 제시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연자로서, 나는 신격의 속성들에 대한 본 문서에 관여해 왔다.]

제4편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4:0.1 (54.1) 만유의 아버지는 온갖 우주의 물질적, 지적, 및 영적 현상과 관계되는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항상 집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온전한-지혜에 따라서,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주들을 창조하셨다. 낙원 신격들 및 최고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실제로 매우 잘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을지 의심스럽다. 낙원의 고양{高揚}된 시민조차, 신격들의 영원한 목적의 본성에 관해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갖는다.

4:0.2 (54.2) 하보나라는 완전한 중앙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순전히 신성한 본성의 충족에 있었다는 점은 쉽게 추론된다. 하보나는, 낙원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위한 최종 학교로서, 그리고 다른 모든 우주를 위한 창조 원형{原型}으로서 이바지할 것이며; 아무튼, 그런 숭고한 창조물은, 완전하고 무한한 창조주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근본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4:0.3 (54.3) 진화하는 필사자를 완전케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들이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에 도달한 뒤에는 그 후의 일을 위해 어떤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그 계획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 및 그 여러 하위부서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시간과 공간 속에서 필사자를 영성화{靈性化} 시키고 훈련시키려는 이 상승 개요는, 결코 우주 지성체들의 독점 업무가 아니다. 정말로, 시간을 점령하고 천상{天上}의 무리의 에너지를 편입시키는 매혹적인 다른 일이 많이 있다.

1. 우주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

4:1.1 (54.4) 유란시아 거주민은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 왔다. 너희 세계에서 신성하게 완성하고 있는 섭리가 있지만, 그 섭리는, 많은 필사자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해온, 유치하고 독단적이며 물질적인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영들의 맞물린 활동에 있는데, 그들은 시공우주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우주 자녀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한다.

4:1.2 (54.5)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는 것에 대해 너희가 생각할 때, 우주의 표어가 진보임을 너희가 알아채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겠는가? 인간 종족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긴 세월 동안 분투해 왔다. 수천 년의 이 모든 기간 내내, 섭리가 점진적 진화 계획을 감당해

왔다. 실제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대립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잘못된 개념에서만 그렇다. 신성한 섭리는,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참된 인간 진보의 정 반대 위치에 놓인 적이 결코 없다. 섭리는 최고 입법자{立法者}의 불변하고 완전한 본성과 반드시 일치한다.

4:1.3 (55.1)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모든 계명은 공정합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 하늘들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천국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해당되며;당신이 땅을 지으셨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창조주십니다."

4:1.4 (55.2) 아버지가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고 피조물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력과 인격체에는 제한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영원한 팔이 받치고 있다." "지고자{至高者}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보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줄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善}을 이룸을 우리가 아는데," "주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살피고, 그의 귀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4:1.5 (55.3)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생겨날 때, 그분이 “아들들을 보내시고, 그것들이 창조된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 물체와 모든 영적 존재를 변함없이 유지하신다. 우주들은 영원히 안정돼 있다. 겉으로 보기에 불안정한 그 한가운데에 안정성이 있다.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의 에너지 격변과 물리적 변동 한가운데에, 기초 질서와 안전함이 있다.

4:1.6 (55.4)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를 관리하는 데서 물러나신 적이 없으며; 쉬고 있는 신격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체 창조물의 유지자로서의 현재 역할에서 물러난다면, 우주는 즉시 붕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것이 실체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과거의 먼 시대들 동안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속 유지하신다. 신성한 범위는 영원성의 궤도 주변까지 확장한다. 우주는, 긴 세월 동안 작동하다가 기능을 멈추는

그런 시계태엽처럼 감겨져 있지 않으며;만물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아버지는 에너지와 빛과 생명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은 순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다. "그가 북쪽을 빈 공간으로 늘어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4:1.7 (55.5)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는, 우주 경영의 일상적 직무에서 궁극적 일치를 발견할 수 있고, 멀리_도달하는 심오한 협조를 탐지할 수 있다. 필사 정신에게 흐트러져 있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이, 내가 이해하기로는 질서정연하고 구조적이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매우 많은 것이 우주에서 일어난다. 나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인지된 힘, 에너지, 정신, 모론시아, 영, 그리고 인격체들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다소 정통해 있다. 나는 이 대행기관들과 인격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며, 광우주의 공인된 영 지성체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안다. 우주들의 현상에 대한 내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충분히 가늠할 수 없는 시공우주 반응에 변함없이 직면한다.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힘,

에너지, 지능, 그리고 영들의 상호연합체의, 겉으로 보기에
우연한 결합에 빈번하게 마주친다.

4:1.8 (55.6) 나는,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크게는, 낙원 섬의 기능발휘에서 직접 발생하는
모든 현상의 작용을 추적하고 분석하기에 아주 적격이다.
나의 곤혹스러움은, 그들의 신비로운 협조자, 즉 잠재성의
세 절대자의 실행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마주침으로써 야기된다. 이 절대자들은, 물질을 하찮게
만들고 정신을 초월하며 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 그리고
우주 절대자의 현존 및 업적의 탓이라고 추정하는, 이
복잡한 처리사항을 내가 납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끊임없이 혼돈되고 종종 당황한다.

4:1.9 (56.1) 이 절대자들은 우주에서 널리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현존임에 틀림없는데, 그
우주는, 공간 잠재력 현상에서, 그리고 다른 초월궁극
기능에서, 최상의 조정 및 궁극적 가치를 포함하는 어떤
복잡한 실체 상황에서 만들어진 필요 사항에 대하여,
힘이나 개념 또는 영의 근본존재들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해, 물리학자, 철학자, 또는 종교인조차 확실성을 갖고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4:1.10 (56.2) 시공우주 사건 전체 구조의 근거로 보이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는, 유기체 통일성 역시 존재한다.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살아있는 이 현존, 즉 이 입안{立案}된 미완성의 내재{內在}는, 외견상 관련 없는 우주 사건들이 놀랄 만큼 우연한 협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 때때로 불가해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섭리의--곧 지존하신 분, 그리고 공동 행위자의 영역의-- 기능임에 틀림없다.

4:1.11 (56.3) 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과 형식의 협조와 상호연합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이 통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사람과 천사들의 행복을 위해, 아주 다채롭고 외견상 희망 없이 혼란에 빠진, 잡다한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및 영적 현상이 결국 반드시 해결되도록 한다고 나는 믿고자 한다.

4:1.12 (56.4)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시공우주의 외견상 "돌발 사건들"은, 절대자들을 영원히 조종하는 무한자의

시_공간 모험에서 벌어지는 유한한 연극의 일부분임에 틀림없다.

2. 하나님과 자연계

4:2.1 (56.5) 자연계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물리적 기질이다. 하나님의 행위 또는 행동은, 지방우주, 성좌, 체계, 또는 행성의 실험 계획과 진화 원형{原型}들에 따라서 제한되고 임시로 수정된다. 하나님은, 널리_퍼지는 총괄우주 전반에 걸쳐, 명확하고, 변함없고, 변경 불가능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시지만;진화함으로 전개되는 유한한 기획의 국지적{局地的} 대상과 의도와 계획에 맞춰서, 각 우주, 성좌, 체계, 행성, 및 인격체의 협조적이고 균형잡힌 행위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행동 양식을 수정하신다.

4:2.2 (56.6) 그러므로 필사적 사람이 이해하듯이, 자연계는, 변함없는 신격 및 그의 변경 불가능한 법칙의 바탕이 되는 기초와 근본적 배경을 나타내는데, 그 법칙은, 지방우주, 성좌, 체계, 그리고 행성 세력 및 인격체들이 개시하고 실행해 온, 국지적 계획, 목적, 원형, 및 조건이 작용함에 따라서 변경되며, 그 때문에 오르내리고 그것을 통해 격변을 겪는다. 예를 들면:하나님의 법칙은 네바돈에

적용될 때, 이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확립한 계획에 따라서 수정되며;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법칙의 시행은 너희 행성에 거주하는 그리고 사타니아라는, 너희의 직속 행성 체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들의 실책과 태만 그리고 반란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향을 받아 왔다.

4:2.3 (56.7) 자연계는 두 가지 시공우주 요소의 시_공간 합성운동인데:첫째는, 낙원 신격의 불변성, 완전성, 및 엄정성이며, 둘째는 실험적 계획, 행정적 큰 실책, 반란적인 오류, 개발의 미완성,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낙원_외부 피조물의 지혜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므로 자연계는, 균일하고 변함없고 웅대하고 경탄할만한 완전성의 실마리를 영원성 궤도로부터 가져오지만;각 우주에서, 각 행성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서, 이 자연계는 진화 체계 및 우주에 속한 피조물의 행위와 과오 그리고 불충성으로 인해 변경되고 제한되고 아마 훼손될지도 모르며;따라서 자연계는, 항상 변화하는 분위기에 젖어있고, 게다가 변덕스러우며, 하부에서는 안정돼 있더라도, 지방우주의 운영상 과정에 따라서 변화돼야만 한다.

4:2.4 (57.1) 자연계는, 낙원의 완전성을, 마무리되지 않은 우주들의 불충분함, 악, 및 죄로 나눈 결과값이다. 이 비율은, 완전한 세계와 부분적 세계 양쪽을, 영원한 세계와 일시적 세계 양쪽을 그렇게 나타낸다. 꾸준한 진화는, 낙원 완전성의 내용을 증대시킴으로, 그리고 악과 실책과 상대적 실체의 불일치를 줄임으로 자연계를 수정한다.

4:2.5 (57.2) 하나님은, 자연계에 또는 자연계의 세력 중에서 어떤 것에도 직접 현존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자연계의 현상이, 하나님이 세운 우주 법칙인 낙원 기초{基礎} 위에, 점진적 진화라는 불완전성을 덧붙여 놓고, 때때로 폭동을 일삼는 반역의 결과를 덧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란시아 같은 그런 세계에 나타날 때, 자연계는 온전히-지혜롭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표현, 참된 서술, 충실한 묘사가 결코 될 수 없다.

4:2.6 (57.3) 너희 세계의 경우에 자연계는, 완전한 법칙을 지방우주의 진화 계획이 수정한 것이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연계에 충만하시다는 이유로;자연계가 보편적이고, 그래서 신성한 능력의 어떤 단면이라는 이유로, 자연계를 숭배함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자연계는 또한 시공우주의 진화에서 한 우주 실험의 발달, 성장, 및 진보의 완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4:2.7 (57.4) 자연 세계의 외견상 결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결점도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측된 그런 불완전성은, 무한성을 영화로 보여주려고 필름을 계속_돌려서 상영할 때 피할 수 없는 정지_순간들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한 실체를 스쳐 지나가며 훑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성의_촬영대본에 들어있는 바로 이 결손과_중단들이다. 신성이 물질적으로 현시될 때,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에게는 결손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오직 필사적 사람이 타고난 눈을 통해서, 즉 시간 세계들에서 보충 대용물인 모론시아 모타의 도움 또는 계시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인간 상상력을 통해서, 그 현상을 계속 보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4:2.8 (57.5) 자연계의 일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의 외관을 추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무수한 피조물의 반역, 부정행위,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는 훼손되고,

그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 모습은 시들어 버렸다. 결단코, 자연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3.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4:3.1 (57.6) 너무 오랫동안,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한 어떤 존재로 생각해 왔다.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질투하지 않고, 그런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았으므로, 창조주 아들은 사람이 행성 창조의 걸작품이 되도록, 이 세상 전체의 통치자가 되도록 의도했는데, 사람이 자신의 더 기초적인 열망에 지배되고 있는 모습, 나무와 돌과 금과 이기적 야망의 우상들 앞에 절하는 장면- 이런 지저분한 장면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을 격동시켜서, 사람을 위해 경계하게 만든 것이지, 결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지 않는다.

4:3.2 (57.7) 영원한 하나님은, 인간 감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반응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처럼, 분노하고 화내실 수 없다. 이런 감상은 비열하고 경멸적이며;인간적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고, 신성하다고는 더욱 할 수 없으며;그런

태도는,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한 본성과 자비가 넘치는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4:3.3 (58.1)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역과
캘리개스차 배신의 멀리_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죄로
격리되지 않은 세계의 경우에는, 진화 종족들이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훨씬 더 나은 개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혼돈,
왜곡, 및 개념의 오용을 덜 경험한다.

4:3.4 (58.2) 하나님은, 전에 했던,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계속
하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으시다. 그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지혜로우시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 체험의 시행착오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무한한 우주 통찰력이 조건 없이 완전한 데
있고, 이런 신{神}의 예지가 창조적 자유 의지를
효과적으로 감독한다.

4:3.5 (58.3) 만유의 아버지는, 나중에 슬퍼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 인격체들이 동떨어진 우주에 있기라도
하듯이 궁리하여 만드는 자신의 불행한 선택으로, 때로는

창조주 부모의 인격체에 신성한 슬픔이라는 감정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슬픔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애정을 가진 존재이며, 우주의 영적_달성 계획 및 필사자_상승 방책들이 그토록 아낌없이 제공해 온 도움을 받아 영적 수준의 달성에 도달 할 수 있음에도, 자녀들이 실패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확실히 애통하신다.

4:3.6 (58.4) 아버지의 무한한 선{善}은 시간세계의 유한한 정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며;따라서 적절한 선의 모든 단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죄가 아닌) 상대적 악과 항상 대조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신{神}이 완전히 선하신 것은 필사자의 불완전한 통찰력으로 식별될 수 있는데, 오직 공간이 움직일 때 시간과 물질의 관계에서 상대적 불완전성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4:3.7 (58.5)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게 초인적이며;그러므로 그런 신성{神性}의 본질은, 유한한 사람의 정신이 신앙으로_파악할 수 있기도 전에, 신성한 아들들 안에서처럼, 인격화돼야만 한다.

4.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4:4.1 (58.6) 하나님만이 온갖 우주 전체에서 정지해 있고, 자급_자족하고, 변함없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에게는 바깥이 없고, 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과거나 미래도 없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에너지(창조적 영)이고 절대 의지이며, 이 두 가지는 자존적이고 보편적이다.

4:4.2 (58.7) 하나님은 자존하시므로, 절대로 독립적이다. 하나님의 바로 그 정체성은 변화와 상반된다. "나, 곧 주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너희가 낙원 신분을 성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일치에서 변화로, 정지에서 움직임으로, 무한성에서 유한성으로, 신성한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그리고 통일성에서 이중성 및 삼중성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성에 대한 현시를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데, 신{神}의 불변성이 부동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며;하나님은 뜻을 지니신다--그가 뜻 *이다*.

4:4.3 (58.8)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_결단하는 존재이며;스스로_부과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우주

반응에 제한이 없고, 그의 자유 의지 행위는, 자신의 영원한 본성을 천성적으로 특징짓는, 신성한 특성과 완전한 속성들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종적 선행에 창조적 무한성의 자유 의지를 덧붙인 존재로서 우주에 관계한다.

4:4.4 (58.9) 아버지_절대자는, 완전한 중앙우주의 창조자이고, 다른 모든 창조주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인격체, 선, 그리고 수많은 다른 특질을 사람 및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시지만, 뜻의 무한성은 그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에서 오직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감상으로만,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지혜의 지시로만 제한된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한 것만 직접 선택하시고, 따라서 중앙우주는 숭고하게 완전하며; 창조주 아들들은, 그의 신성, 심지어 그의 절대성의 단면들도 충분히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뜻을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혜로 제한 받는 일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아들신분인 미가엘 계층에서, 창조적 자유 의지는 더욱 활동적이 되며,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신성하고 거의 궁극적이다.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시지만, 그의 자발적인

자아_제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 의지라는 바로 이 개념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4.5 (59.1)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주 실체의 일곱 수평면 전체에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절대 본성 전체는 창조주 자신의 우주 피조물 가족에 대한 관계에 종속된다. 온갖 우주에서는 정확성이 삼위일체 응보의 특징이겠지만, 시간세계의 피조물과 맺는 그의 방대한 가족 관계 전체에서는, 우주들의 하나님이 *신성한 감상*으로 다스린다. 처음부터 끝까지--곧 영원히--무한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름 중에서, 나는 모든 창조물의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묘사하도록 지시받았다.

4:4.6 (59.2)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 실행은 권능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능만으로 인도되지도 않으며; 신성한 인격체는, 영에 속한 것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우주에 나타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제1 근원 및 중심은, 우주들의 피조물 인격체들과 갖는 모든 개인적 관계에서, 항상 시종일관하게 애정이 깊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

단어의 가장 고귀한 의미에서 아버지시다. 그는 신성한 사랑의 완전한 이상주의로 영원토록 동기를 부여받으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그 부드러운 본성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이고, 거기서 강한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

4:4.7 (59.3) 하나님은 과학에서 최초 원인이시며;종교에서는, 우주적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시며;철학에서는, 스스로 실존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실존을 위해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물체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에게, 실존이라는 실체를 자비롭게 수여하신다. 그러나 종교의 하나님, 즉 자비와 선{善}이 가득하고, 땅 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존이 임하도록 보장하는 하나님이심을, 과학의 최초 원인 및 철학의 자존{自存}하는 통일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다.

4:4.8 (59.4) 우리는 무한자 개념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_관념, 즉 신격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인 인격체 및 신성{神性} 요소들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찬미한다.

4:4.9 (59.5) 이 세상 인간 생애에서 승리한다는 의식{意識}은, 실존의 되풀이되는 사건마다 이에 감히 도전하는 피조물 신앙에서 생겨나는데, 인간의 제한조건들로 인한 두려운 장면에 직면할 때, 그 신앙은: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온갖 우주의 아버지_절대자의 일부분인,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실하게 선언한다. 바로 이것이 “세계를 압도하는, 너희의 신앙조차 압도하는 승리”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4:5.1 (59.6) 종교의 전통은,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을_알던 사람들의 체험을 불완전하게 보존한 기록이지만, 그런 기록은 종교적 삶을 위한 안내자로서, 또는 만유의 아버지에 관한 참된 정보의 근원으로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 고대의 믿음들은, 원시인이 신화창작자였다는 사실로 인해 늘 바뀌어 왔다.

4:5.2 (60.1) 유란시아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가장 큰 혼돈의 근원 가운데 하나는,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체들 사이 그리고 낙원 신격과 지방우주 창조자 및 경영인들 사이를, 너희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과거
섭리시대들 동안, 너희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행성 왕자,
체계 주권자, 성좌 아버지, 창조주 아들, 연방우주
통치자들, 지존하신 분,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다. 생명 운반자 및 다양한 천사
계층 같은, 하위 인격체들의 메시지 가운데 다수가, 너희의
기록에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제시됐다.
유란시아의 종교적 사고{思考}가, 신격의 동역
인격체들과 만유의 아버지 자신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호칭에 전부 포함돼 있다.

4:5.3 (60.2) 유란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시 개념의
영향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 폭풍 속에서 계속
돌진하는;분노에 차서 땅을 흔들고 화내면서 사람을
때려눕히는;굶주림과 홍수의 때에 불쾌한 심판을 내리는
신{神}들--이들은 원시 종교의 신들이며;살아 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들이 아니다. 그런 개념은, 그런
허구적{虛構的} 신들의 변덕스런 안내와 지배 아래에
우주가 놓여 있다고 사람들이 가정했던 시기의 유물이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은, 최상급 창조주들과 최상급
통제관들의 경영 정책과 운영을 고려하는 만큼, 자신이

상대적인 법칙과 질서의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4:5.4 (60.3) 성난 하나님을 달래고, 기분상한 주께 비위를 맞추며, 희생제물과 고행{苦行}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피 뿌림으로, 신격의 호의를 사겠다는 야만적 관념은, 전적으로 미숙하고 원시적인 종교, 즉 과학과 진리로 계몽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철학을 상징한다. 그런 믿음은, 우주에서 봉사하고 군림하는 천상의 존재들과 신성한 통치자들에게는 완전히 혐오스럽다.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또는 가상하는 신{神}의 진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고 믿거나 고집부리거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4:5.5 (60.4) 히브리인은 “피 뿌리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모세가,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동물을 예식 희생 제물로 대체하게 했을 때, 순진한 베도원 추종자들의 원시 정신에 뚜렷한 진보를 이루게 만들었음에도, 그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들을 달랠 수 없다는 옛날의 이교적{異教的}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5.6 (60.5) 너희 세계에 낙원 아들이 증여되는 것은, 한 행성 시대를 마감하는 상황에 내재돼 있었으며;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었다. 또한 이 증여는,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체험적 주권을 얻는 긴 모험에서, 마지막으로 친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발생하게 돼 있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을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엄격하게 냉담하고 준엄해서, 자기 피조물의 불운과 슬픔을 보고도, 아버지다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기 않기에, 자신의 결백한 아들이 피를 흘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섬세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가르치다니!

4:5.7 (60.6) 그러나 유란시아 거주민은,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에 관한 이런 고대의 실책과 이교적 미신들로부터 구출될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창조주 아들이 그토록 숭고하게 묘사했던,

아름다운 성품과 사랑스런 속성들에서, 인간 종족은 만유의 아버지를 알아보도록 예정돼 있다.

4:5.8 (61.1)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제5편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5:0.1 (62.1) 만유의 아버지로서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웅대한 하나님이, 개별 인간 피조물과 친하게 사귀기 위해, 무한한 완전성 상태인 자신의 영원한 거주지에서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는지,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납득할 수 없다면, 모든 정상_정신을 지니고 도덕적으로 의식하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지능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실제 단편{斷片}이 거주한다는 참된 사실에 의거해서, 그런 유한한 지능은 신과 교제함을 확신해야만 한다.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는, 낙원 아버지의 영원한 신격의 일부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교류하려 시도하기 위해, 이 영적_실체 현존에 대해 숙고하는 내적 체험보다 더 멀리까지 혼이 나아갈 필요가 없다.

5:0.2 (62.2)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한 여섯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본성의 무한성을 분배해

왔지만, 인격이전{人格以前} 단편들이라는 매개체{媒介體}를 통해서, 창조의 어떤 부분이나 단계나 종류와도 언제든지 직접 친히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또한 온갖 우주의 살아있는 피조물과 신성한 창조주들에게 인격체를 증여하는 특권을 남겨뒀고, 더욱이 인격체 회로를 통해서, 이 인격있는 존재들 전체와 직접, 아버지로서 접촉을 유지하는 특권을 남겨뒀다.

1. 하나님께 접근함

5:1.1 (62.3)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데, 아버지가 냉담하신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의 유한성과 물질적 제한조건 때문이다. 우주 실존 중에서 가장 높은 인격체와 창조된 지성체 중에서 가장 낮은 집단 사이의 영적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하등 지성체 계층이 바로 그 아버지의 현존 앞으로 즉시 옮겨질 수 있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거기 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이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 앞으로 안전하게 안내되기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종일관하게

요청할 수 있기 전에, 그의 앞에는 멀고 먼 길이 있다. 영적으로, 사람은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자신이 볼 수 있을 만큼,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할 어떤 수준을 달성하려면, 그 전에 여러 차례 전환돼야만 한다.

5:1.2 (62.4) 우리 아버지는 숨어 계시지 않으며;독단적으로 은둔해 있지 않으신다. 그는 자신의 우주 관할에 속한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끝_없이 수고하시는 동안, 신성한 지혜 자원을 동원시켜 왔다. 무한한 위엄과 형언할 수 없는 관대함이 그의 장엄한 사랑과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납득하거나 사랑하거나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온갖 창조된 존재와 교제하기를 그리워하시게 되며;따라서, 너희가 필사자 상승 여행의 목표를 성취하고, 모든 물체의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현존 속에 서게 되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선천적으로 있는 제한조건이며, 이 제한조건은 너희의 유한한 인격체 및 물질 실존에서 분리될 수 없다.

5:1.3 (63.1) 아버지의 낙원 현존에 접근하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가장 높은 유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네 안에 있는 혼, 그리고 영성화 하는

너의 자아와 매우 긴밀하게 연합된, 아버지가 증여하신
영과 즉각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_있음을 알아보면서
너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5:1.4 (63.2)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은, 타고난
역량과 지적 재능에서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사회적 발전과
도덕적 진보에 예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누리거나, 또는
문명의 기술에서 예상되는 발전과 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인간적 도움의 부족으로 고생할지도 모르지만;상승하는
생애 동안 영적 진보를 위한 가능성은 모두에게
동일하며;영적 통찰력과 시공우주 의미의 증진하는
수준은, 진화 세계에서 다각적인 물질 환경으로 인한 모든
사회_도덕적 차이와는 아주 무관하게 달성된다.

5:1.5 (63.3)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그의 지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기회와 재능에서 다르더라도,
그들의 영적 재능은 균일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들은 모두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인 신성한
현존을 누리고, 신성한 기원을 갖는 내주하는 이 영과,
긴밀한 인격있는 친교를 추구하는 특권을 똑같이 누리며,

한편 이 신비 관찰자들의 일정한 영적 안내를 받아들이기로, 그들 모두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다.

5:1.6 (63.4) 필사적 사람이 전심을 다해 영적으로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온전히 전념한다면, 그는 내주하는 신성한 조율사를 영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효과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처럼 돼 가는 점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목적을 갖고 생존한다는 숭고한 확신이, 그 개인의 체험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5:1.7 (63.5) 사람에게에는 생존하는 사고 조율사가 영적으로 내주한다. 그런 인간 정신이 진지하게 영적으로 자극 받는다면, 그런 인간 혼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한다면, 즉 진심으로 아버지 뜻 행하기를 원한다면, 낙원 입구까지 확실히 상승하는 동안, 그런 신성하게 자극받은 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 파멸의 부정적 영향이나 어떤 훼방 가능한 긍정적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5:1.8 (63.6) 아버지는 피조물 전체가 자신과 개인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는 그들의 생존하는 신분과 영적 본성이 그런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들 모두를 받아들일 장소를 낙원에 마련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 철학의 틀을 이렇게 잡으라: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고,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고, 길은 열려 있으며;신성한 사랑의 힘과 신성한 경영 방법 및 수단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을 향한 모든 우주의 가치 있는 지성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으로, 모두 연결돼 있다.

5:1.9 (63.7)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한자의 현존과 인격체는 확실하다. 너희의 상승은 일곱 연방우주 회로의 일부이며, 너희가 그 주변을 셀 수 없을 만큼 돌더라도, 너희는 영에서 그리고 신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너희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비교적 외부 회로에서 점점 더 내부 중심 가까스로 변환됨을 신뢰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너희가 신성한 중앙 현존 안에 서게 될 것임을,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해서 얼굴을 대면하듯 그분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치 말라.

그것은 실제적인 그리고 글자 그대로 영적 수준의 달성에 대한 문제이며; 신비 관찰자가 내주했던, 그리고 나중에 그 사고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한 어떤 존재든지, 이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5:1.10 (64.1) 아버지는 영적 은신처에 계시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조물은 그들 자신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안개 속에 스스로 숨어 왔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편협한 정신과 비영적{非靈的} 본성에 속하는 자기_주장에 빠짐으로써,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의 교류에서 스스로를 한동안 차단시켜 왔다.

5:1.11 (64.2) 필사적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선택 능력이 남아 있는 한, 신성한 뜻을 반복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다. 사람이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능력을 잃기 전에는, 사람의 최종 파멸은 결정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필요와 청원에 대해 결코 닫혀있지 않다. 아버지의 이끄는 능력에 대해 그의 자손이 마음을 영원히 닫을 때에만, 그의 신성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곧 그를 알고자 하고 그와 같이 되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들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자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취소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을 했음을 조율사 융합이 우주에 선포할 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확증된다.

5:1.12 (64.3) 위대한 하나님은, 필사적 사람과 직접 접촉하시며, 사람 안에 살고 거주하도록 자신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가해한 자아 가운데 일부를 내주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한 모험을 시작하셨다. 너의 안에서, 그리고 너의 주변에서, 영적 세력들이 안내하는 것을 네가 따른다면, 너는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로부터 상승하는 피조물의 우주 목표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수립하신 높은 운명을 달성하기에 실패할 수 없다.

2. 하나님의 현존

5:2.1 (64.4) 무한자의 물리적 현존은 물질 우주의 실체다. 신격이 정신에 현존하심은, 개별적인 지적 체험의 깊이와 진화하는 인격체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신성{神性}의 영적 현존은, 우주에서 당연히 구별돼야만 한다. 그것은 감수성{感受性}이라는 영적 수용력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피조물 의지의 헌신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5:2.2 (64.5) 하나님은, 영으로_태어나는 아들마다 그 속에 살아
계신다. 낙원 아들들은, 하나님의 현존, 즉 “아버지의 오른
편”을 향해 항상 접근할 수 있으며, 피조 인격체는 누구나,
“아버지의 품”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떻게 접촉되든지, 인격체 회로를 언급하는
것이며, 또는 그렇지 않으면 중앙 거주지에서든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든지, 낙원의 신성시되는 일곱 구면{球面}
가운데 하나에서처럼, 만유의 아버지와 인격있는 접촉 및
교제, 자아_의식하는 접촉 및 교제를 수반한다.

5:2.3 (64.6) 아무튼, 자연계 속 어디서든지 또는 심지어
하나님을_아는 필사자의 삶에서가 아니라,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 즉 낙원 사교 조율사와 교류하려고 너희가 시도할
때, 신{神}의 현존은 아주 충분하고 아주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자신의 정신 속에 살아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저 멀리 계시다고 몽상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가!

5:2.4 (64.7) 이 하나님 단편이 너희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너희가 조율사의 영적 인도에 조화되면서 진보하는 동안,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접촉하지만 너희의 완전한 일부분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 다른 영적 영향들의 현존과 변형하는 능력을 더 충분히 식별하기를 너희가 소망할 수 있다. 내주하는 조율사와 갖는 가깝고 긴밀한 접촉에 대해 너희가 지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고양된 체험을 결코 반박할 수 없다. 신성한 조율사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신자의 생애 체험에서 산출되는 영 열매의 본성과 크기만이 증거할 수 있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5:2.5 (65.1) 필사적 사람의 불충분하게 영성화 된 물질 정신은, 낙원 조율사 같은 그런 신성한 실재의 영{靈} 활동을 뚜렷이 의식하는 체험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정신 및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인 혼이 점점 더 실존하게 될 때 혼 의식의 새로운 국면 역시 진화하는데, 그 혼 의식은 신비 관찰자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고, 신비 관찰자의 영{靈} 인도 및 기타 초물질 활동을 알아볼 수 있다.

5:2.6 (65.2) 조율사와 교류하는 체험 전부가, 도덕적 상태, 정신적 자극, 및 영적 체험을 수반하는 체험이다. 그런 성취의 자아_실현은 주로, 독점적이지는 않더라도, 혼 의식의 영역들로 제한되지만, 그 증거는 내부의_영과 접촉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생애에서 영 열매가 맺힘으로써 곧 풍성하게 나타난다.

3. 참된 경배

5:3.1 (65.3) 우주의 관점에서는 낙원 신격들이 하나더라도,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부류의 존재들과 맺는 영적 관계에서는 역시 분리된 별개의 세 인격자시다. 개인적인 간청, 교류, 그리고 다른 긴밀한 관계에 관해서는, 하나님본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의미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오직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한다.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드러나는 만큼 그를 경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배 받고 찬미 받으실 분은 아버지시다.

5:3.2 (65.4) 모든 종류의 간구는, 영원한 아들 및 그 아들의 영적 조직 영역에 속한다. 기도, 모든 의례적 대화는,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찬미와 경배를 제외하고, 지방우주에

관계되는 문제이며;그것은 대개 창조주 아들의 관할권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경배는,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의 작용으로 인해 확실하게 회로화{回路化}되고, 창조주의 인격자에게 즉시 발송된다. 게다가 우리는, 조율사가_내주하는 피조물의 경의{敬意}가 그렇게 등록되는 것을, 아버지의 영 현존이 촉진시킨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을 입증할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모든 계층의 아버지 단편들은, 그 백성의 진실한 찬미를 만유의 아버지 현존 앞에서 만족스럽게 등록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조율사들은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격이전의 직통 경로를 분명하게 활용하며,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5:3.3 (65.5) 경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기도는 자기_이익 또는 피조물_이익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이것이 경배와 기도 사이의 큰 차이다. 참된 경배에는 개인의 이익에 속하는 자기_요청 또는 다른 요소가 전혀 없으며;우리는 그가 어떨 것이라고 납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릴 뿐이다. 경배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경배자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공경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를 경배하지는 않으며;우리는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인격체를 인식함에 따라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그리고 그의 매력적인 본성과 찬미할만한 속성들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경배에 참여한다.

5:3.4 (65.6) 자기_이익의 요소가 경배를 강요하는 순간, 그런 헌신은 경배에서 기도로 바뀌고, 영원한 아들 또는 창조주 아들 인격자에게 더 적절히 인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종교 체험에서는, 참된 경배의 일부분으로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5:3.5 (66.1) 일상생활의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너는 제3 근원 및 중심에서 기원된 영 인격체들에게 맡겨지며;공동 행위자의 대리인들과 협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너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아들에게 기도하고 그와 교류하며;네가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무한한 영의 지성체들과 관계하면서, 네가 이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생기는 세부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

5:3.6 (66.2) 지방우주의 운명을 관장하는 창조주 또는 주권자 아들이, 낙원의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두 분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우주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경배 드리는 찬미를 받고, 그들 각자의 창조계 전반에 걸쳐서 탄원하는 백성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 지방우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실제 의도와 목적에서 볼 때, 미가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지방우주에서 인격화{人格化}된 분이다. 무한한 영은 우주 영을 통해서 이 영역의 자녀들과 직접 접촉을 유지하는데, 이들은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경영 및 창조 동역자다.

5:3.7 (66.3) 진지한 경배는, 진화하는 혼{魂}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관련된 사고 조율사의 신성한 방향설정에 따라서, 인간 인격체의 모든 능력이 동원됐음을 의미한다. 물질적으로 제한돼있는 정신은, 참된 경배의 실제 의미를 결코 깊이 의식할 수 없다. 경배 드리는 체험의 실체를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진화하면서 불멸하는 그의 혼의 발전적인 상태에 주로 좌우된다. 그 혼의 영적 성장은 지적인 자아_의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

5:3.8 (66.4) 경배 드리는 체험은, 인간의 혼의--곧 하나님을_추구하는 필사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_드러내는

불멸{不滅}하는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망과 형언할 수 없는 염원을, 약혼중인 조율사가 신성한 아버지께 전달하려는 숭고한 시도다. 그러므로 경배는, 관련된 영의 안내를 따라서, 만유의 아버지의 신앙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물질 정신의 영화{靈化}하려는 자아의 시도에 동의하는 행위다. 필사 정신은 경배에 동의하며;불멸하는 혼은 경배를 갈망하고 일으키며;신성한 조율사 현존은 필사 정신 및 진화하면서 불멸하는 혼을 대신하여 그런 경배를 수행한다. 결국, 참된 경배는 네 가지 시공우주 수준, 즉:지적, 모론시아적, 영적, 및 인격적 수준에서--정신, 혼, 및 영의 의식{意識}, 그리고 인격체 안에서 그것들의 통합에서-- 실현된 체험이 된다.

4. 종교와 하나님

5:4.1 (66.5) 하나님을 찾아가는 동안, 진화 종교의 도덕성이, 두려움이라는 원동력으로 사람들을 앞으로 *몰아간다*. 계시 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그들이 그분처럼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그저 "절대 의존"과 "생존 보장"이라는 소극적 느낌이 아니며;인류를 섬기는 데 기초를 두고 신성{神性}에 도달하려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체험이다.

5:4.2 (66.6) 참된 종교의 위대하고 즉각적인 공헌은, 인간의 체험 속에서 지속되는 통일, 즉 영속하는 평화와 깊은 확신이 수립되는 것이다. 원시적 사람에게는, 심지어 다신교{多神敎}조차, 신격에 대한 진화적 개념이 비교적 통합된 것이며;다신교는 발달 중에 있는 일신교{一神敎}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가치의 실체, 의미의 내용, 및 진리의 생명이라고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돼 있다.

5:4.3 (67.1) 하나님은 운명의 결정자일 뿐만 아니라;사람의 영원한 목적지 *이다*. 모든 비종교적 인간 활동은, 자아의 왜곡된 봉사 쪽으로 우주를 악용하려고 하며;참되게 종교적인 개인은, 자아를 우주와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통일된 이 자아 활동을, 인간이든지 초인{超人}이든지, 우주 가족의 동료 존재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치고자 한다.

5:4.4 (67.2) 철학과 예술의 분야가, 인간 자아의 비종교 활동과 종교 활동 사이에 끼어 있다.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물질_정신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의미를 갖는 영적 실체 및 우주 가치를 숙고하도록 유인된다.

5:4.5 (67.3) 모든 종교는, 신격에 대한 경배와, 인간 구원에 대한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 불교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음, 즉 끝없는 평화를 약속하며;유대교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음, 즉 정의에 입각한 번영을 약속하며;그리스 종교는, 아름다움을 실현함으로써, 불일치, 즉 추함으로부터 구원받음을 약속하며;그리스도교는, 죄로부터 구원받음, 즉 거룩함을 약속하며;마호멧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가혹한 도덕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예수의 종교는,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 즉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피조물이 고립되는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다*.

5:4.6 (67.4) 히브리인은 자신의 종교를 선함에 기초했고;그리스인은 아름다움에 기초했으며;두 종교는 모두 진리를 추구했다.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냈고, 사랑은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모두_포함한다.

5:4.7 (67.5) 조로아스터교도는 품행의 종교를;힌두인은 형이상학의 종교를;유교도는 윤리의 종교를 소유했다. 예수는 *봉사*하는 종교를 실천했다. 이 모든 종교는 예수의 종교에 접근하기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종교는, 인간 체험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통합하는 실체가 되게 돼 있다.

5:4.8 (67.6) 그리스인의 종교는, “너 자신을 알라”는 표어를 가졌으며;히브리인은, “너희의 하나님을 알라”는 가르침에 중심 뒀으며;그리스도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목표로 삼는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는 복된 소식을 선포했다. 종교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른 개념들이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개인의 입장을 결정하며, 그의 개인 기도 습관의 본질과 경배의 깊이를 예시한다. 어떤 종교든지, 영적 상태는 그 기도의 본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5:4.9 (67.7) 약간인간적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다신교와 숭고한 일신교 사이의 필연적 과도기다. 고양된 의인화{擬人化} 사상은, 순전한 진화 종교의 최고 달성 수준이다. 그리스도교는 의인화 사상의 개념을, 인간의 이상{理想}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인격자라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개념으로 향상시켜 왔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신을 의인화한 것이다.

5:4.10 (67.8)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개념은 분리된 세 교훈을 혼합하려는 시도다:

5:4.11 (67.9) 1. *히브리 개념*--도덕적 가치의 옹호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5:4.12 (67.10) 2. *그리스 개념* --통합자이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5:4.13 (68.1) 3. *예수의 개념* --살아있는 친구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신성한 현존.

5:4.14 (68.2) 그러므로, 혼합된 그리스도교 신학이 일관성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어려움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가, 다른 세 사람 즉: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다소의 바울의 개인 종교 체험에 일반적으로 기초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

5:4.15 (68.3) 예수의 종교적 생애를 연구할 때,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그의 죄 없음에 대해서보다는 그의 의로움, 즉

그의 사랑스런 봉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라.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대해 히브리 개념에서 제시된 수동적 사랑을, 심지어 잘못을 범한 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더 고상한 능동적이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애정으로 향상시켰다.

5. 하나님을 의식함

5:5.1 (68.4) 도덕체계는 자아를 의식하는 이성{理性}에서 기원됐으며; 동물을 초월하지만 전적으로 진화된 것이다. 인간의 진화는, 그 진화가 전개되는 동안, 조율사가 증여되고 진리의 영이 부어지기 이전에 얻은 모든 재능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체계의 수준에 도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필사자 삶의 실제 투쟁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사람의 물리적 환경은 실존을 위한 투쟁을 수반하며; 사회적 환경은 윤리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도덕적 상황은 이성의 최고 영역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며; (하나님을 이해해 온) 영적 체험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5:5.2 (68.5)

종교는, 과학의 사실, 사회의 책무, 철학의 가정{假定}, 또는 도덕체계의 암시적 의무에 기초하지 않는다. 종교는, 삶의 환경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독립된 영역이며, 도덕이 생긴 뒤에 인간이 발전하는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종교는, 가치를 실현하고 우주와 친교를 누리는, 다음과 같은 네 수준 전체에 스며들 수 있다:자아를_보존하는 물리적 수준, 즉 물질 수준;친교하는 사회{社會} 수준, 즉 감정 수준;이성이 작용하는 도덕 수준, 즉 의무 수준;신께 경배드림으로써 우주 친교를 인식하는 영적 수준.

5:5.3 (68.6)

사실을_추구하는 과학자는 하나님을, 최초 원인, 즉 힘을 지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예술가는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이상{理想}, 즉 미적{美的}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추론하는 철학자는 때로 우주의 통일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심지어 범신론적 신격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신앙을 가진 종교인은, 생존을 촉진시키는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5:5.4 (68.7)

도덕 행위는, 진화된 종교보다 항상 선행되고 심지어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종교 체험 전체보다 선행될 수는 결코 없다. 사회 봉사는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삶의 결과다. 도덕성은, 생물학적 견지에서 더 높은 영적 수준의 종교 체험으로 이끌지 않는다. 추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숭배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5:5.5 (68.8)

진화 종교는, 조울사가 증여되고 진리의 영이 도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시된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을 고양시키는, 과학, 예술, 및 철학의 모체{母體}다. 종교의 특성이, 하나는 진화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다른 하나는 계시적이고 주기적인 것처럼 매우 다름에도, 인간 실존의 진화 양상은 종교와 함께 시작하고 종교와 함께 끝난다. 그리하여, 종교는 사람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선택적이기도 하다. 사람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종교적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5:5.6 (69.1) 종교 체험은, 근본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결코 물질적 정신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따라서 신학의 기능, 즉 종교 심리학이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기본 교리가, 유한한 납득 속에 역설{逆說}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논리로 따지고 유한자가 추리해도, 신이 안에 계신다는 개념, 즉 하나님이 각 개인 안에 있고 또한 그 일부분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초월, 즉 온갖 우주를 신성하게 통치하신다는 관념을, 결코 조화시킬 수 없다. 지성적 경배를 정당화시키고 인격체 생존의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격있는 하나님이라는 초월 개념을 신앙으로_파악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단편이 내주하는 현존임을 깨닫는 가운데, 신격에 대한 이 두 근본 개념이 통합돼야만 한다. 종교의 난제와 역설은, 종교 실체들을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사자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

5:5.7 (69.2) 필사적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종교 체험에서 세 가지 큰 만족감을 획득한다:

5:5.8 (69.3) 1. *지적으로*, 사람은 인간 의식이 더욱 통합됨으로 인한 만족감을 획득한다.

5:5.9 (69.4) 2. *철학적으로*,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이상이 실체화됨을 누린다.

5:5.10 (69.5) 3. *영적으로*, 사람은 신과 교제하는 체험을 맛보는 가운데, 참된 경배로 영적 만족감을 얻으면서 성장한다.

5:5.11 (69.6) 하나님을_의식함은, 그 영역의 진화하는 필사자가 체험하듯이, 가지각색의 세 요소, 즉 서로 다른 세 실체 실현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첫째는 정신 의식이--곧 하나님이라는 *관념*에 대한 납득이-- 있다. 다음에는 혼 의식이--곧 하나님이라는 *이상*에 대한 깨달음이-- 따라온다. 끝으로는, 영 의식이--곧 하나님이라는 *영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불충분하더라도, 신을 깨닫는 이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필사자 인격체는 어떤 의식 수준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깨닫는다.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한 필사자들 안에서, 이 모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존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성*, 즉 낙원 아버지를 유한절대적으로 초월의식하는 어떤 국면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5:5.12 (69.7) 하나님을_의식하는 체험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똑같이 전수되지만, 인간의 지식이 진보하는 각 시기마다,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신학적 정의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하나님을_앎, 즉 종교적 의식{意識}은 우주의 실체이지만, 얼마나 타당한 (실제적인) 체험이든지, 지성의 비평과 이성의 철학적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하며;인간 체험의 전체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되도록 추구해서는 안 된다.

5:5.13 (69.8) 인격체의 영원한 생존은 필사 정신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불멸하는 혼이 생존할 가능성을 그 결정이 좌우한다. 정신이 하나님을 믿고 혼이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양육하는 조율사와 함께 정신과 혼이 모두 하나님을 갈망할 때, 생존이 보증된다. 지능의 제한조건, 교육의 단축, 문화의 상실, 사회적 상태의 메마름, 그리고 심지어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이점의 불행한 결핍에서 발생하는 인간 규범의 열등함조차, 그렇게 불운하고 인간적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믿는 개인 속에 신성한 영이 현존함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신비 관찰자의

내주{內住}가, 불멸하는 혼의 성장 및 생존의 잠재력의 시초를 이루고 그 가능성을 보장한다.

5:5.14 (70.1) 출산할 수 있는 필사자 부모의 역량은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자격에 입각하지 않는다. 자연 조건 아래서 부모의 인자{因子}들의 결합은, 자손을 생기게 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영{靈}이 부여된 그런 개인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진지하게 갈망한다면,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정직하게 선택한다면, 그 필사자 안에서 생존하는 자질을 가진 불멸하는 혼을 비로소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신성한 조율사와 합동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인간 정신뿐이다.

6. 인격체의 하나님

5:6.1 (70.2)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체의 하나님이다. 가장 낮은 필사 물질 인격체 신분의 피조물을 비롯해서, 가장 높은 창조자 존엄성 및 신성한 신분에 해당하는 인격자들까지, 우주 인격체의 영역은 그 중심과 경계선을 만유의 아버지 안에 둔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격체의

증여자인 동시에 보존자시다. 마찬가지로, 낙원 아버지는 신성한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선택한 유한 인격체들 전부의 운명이기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한다.

5:6.2 (70.3) 인격체는 우주들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인격체를 다양한 계층과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는 요소들에 대한 적당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격체 자체의 실제 본성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합쳐진 상태로 인간 인격체를 수여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를 분명히 감지하지만, 그런 유한한 인격체의 본성과 의미심장함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5:6.3 (70.4) 인격체는, 최소한의 자아_의식에서 최대한의 하나님_의식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갖는 정신 재능을 소유하는, 모든 피조물 안에 잠재돼 있다. 그러나 정신 재능 자체만으로는 인격체가 아니며, 영도 아니고 물리적 에너지도 아니다. 인격체는, 물질과 정신과 영의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이 에너지 체계에 아버지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증여하시는, 시공우주 실체의 그

특성 및 가치다. 인격체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다. 인격체는 물질적이거나 영적일 수 있지만, 인격체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둘 중 하나다. 인격적이지_않은 자들은, 낙원 아버지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격있는 존재의 수준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5:6.4 (70.5) 인격체의 증여는 만유의 아버지의 독점 기능, 즉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인격화인데, 상대적인 창조적 의식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자유의지로 통제하는 속성을 만유의 아버지가 그 체계에 부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격체는 없으며, 어떤 인격체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 인격체에 있는 절대적 조율사 핵{核}과 마찬가지로, 인간 개성의 근본 속성들 역시, 만유의 아버지가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시공우주 사역 범위 안에서 행동하면서 베푸신 증여물이다.

5:6.5 (70.6) 인격이전 신분의 조율사들이 수많은 유형의 필사 피조물에 내주하는데, 바로 이 존재들은, 필사자가 죽은 후에 궁극적 영 달성 잠재력과 함께 모론시아 피조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그렇게 보증한다. 왜냐하면, 인격있는 아버지의 인격이전 증여물인 영원한 하나님 영의 단편이, 인격체를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 정신에 내주하면, 유한한 이 인격체가 신성하고 영원한 세계의 잠재력을 소유하고, 궁극자와 유사한 운명을 열망하며, 심지어 절대자를 인식하려고 손을 내밀기 때문이다.

5:6.6 (71.1) 신성한 인격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이전 조율사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으며;인간 인격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시공우주_정신 재능에 잠재돼 있다. 그러나 사람을 해방시키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神性}이 필사 피조물의 물질 생명 수여통로와 관계를 맺은 후에, 자아_의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아_결정적 및 자아_창조적인 인격체로서 체험의 바다로 그렇게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필사적 사람의 체험 인격체는 어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실체로서 목격되지 않는다. 물질 자아는 정말로 그리고 무조건으로 **인격적**이다.

5:6.7 (71.2) 물질 자아는 인격체와 정체성, 일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인격이전 영 조율사 역시, 정체성, 영원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물질 인격체와 이 선{先}인격체 영{靈}은, 생존하는 불멸의 혼의 정체성을 생기게 하도록, 자신의 창조 속성들을 연합할 능력이 있다.

5:6.8 (71.3) 선행{先行}하는 원인에 절대로 의존하던 족쇄에서 사람의 내부 자아를 해방시켜 왔고, 불멸하는 혼의 성장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 계신다. 이제는, 적어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한, 원인에 반응하는 족쇄로부터 사람이 그렇게 해방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멸하는 자아, 즉 혼의 성장을 위해 준비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이 생존하는 영원한 자아의 창조를 바라든지 또는 금지하기만 하면 되며, 이 영원한 자아는 선택하는 대로 자기 것이 된다. 넓은 온갖 우주 전체 중에서, 어떤 다른 존재, 세력, 창조자, 또는 매개체라도, 선택하는 필사자 인격체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 선택 영역에서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작용할 때, 자유의지의 절대 주권에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영원한 생존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물질적 필사자 의지가 주권을 갖는다고 천명해 왔으며, 그 명령은 절대적이다.

5:6.9 (71.4) 피조물 인격체가 증여됨으로써, 선행{先行}하는 원인에 대해 노예처럼 반응하던 것에서 비교적 해방됐으며, 그런 모든 도덕적 존재의 인격체는, 진화적이든지 아니든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속에 중심을 둔다. 영원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보편적인 친족집단과 형제우애연맹을 구성하는 존재의 친밀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계속 이끌린다. 모든 인격체에는 신성이 저절로 생기는 유사성이 있다.

5:6.10 (71.5) 온갖 우주의 인격체 회로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에 중심을 두며, 낙원 아버지는, 모든 수준의 자아_의식하는 실존의 모든 인격체를, 직접 의식하고 직접 접촉한다. 그리고 전체 창조에 대한 이 인격체 의식은, 사조율사의 사명과 별개로 실존한다.

5:6.11 (71.6) 모든 인력이 낙원 섬에 회로화 돼 있듯이, 모든 정신이 공동 행위자에 그리고 모든 영이 영원한 아들에 회로화 돼 있듯이, 모든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에 회로화 돼 있으며, 이 회로는 모든

인격체의 경배를 영원한 원본{原本} 인격체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5:6.12 (71.7) 조율사가 내주하지 않는 인격체들의 경우에는:만유의 아버지께서 선택의_자유 속성 역시 증여하셨고, 그런 인격자들도, 신성한 사랑의 위대한 회로, 즉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인격체가 주권을 갖고 선택하도록 마련하신다. 인격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원한 모험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영원성의 문은, 자유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유의지 아들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데에만 반응해서 열린다.

5:6.13 (72.1) 그리고 이상{以上}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관계를 제시하려는 나의 수고를 나타낸다. 그리고 요컨대, 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우주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너희는 모두 그의 행성 자녀임을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5:6.14 (72.2) [이것은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만유의 아버지에 대하여 발표한, 일련의 이야기 중에서 다섯째이자 마지막이다.]

제6편 영원한 아들

6:0.1 (73.1)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첫” 인격 개념 및 절대 개념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자신을 친히 절대적으로 표현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영원한 아들은 항상 살아있고 신성한 말씀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늘 그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와 연합해서, 그리고 그의 몸소 현존하심을 즉각 감싸면서, 만물의 중심에 거하신다.

6:0.2 (73.2) 인간 지능의 사고{思考} 경로에 접근할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사고를 이야기하고, 영원한 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시간적 기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언어 왜곡은, 시간에_매인 필사 피조물 정신과 접촉하고_절충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다. 순서를 따지는 의미에서, 만유의 아버지께 최초의 사고가 결코 있을 수 없고, 또한 영원한 아들에게 시작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필사자들의 시간에_제한된 정신에게, 영원에 속하는 실체들을 그런 사고 상징들로 묘사하고,

영원에 속하는 관계들을 그런 연속 시간 개념으로 나타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6:0.3 (73.3)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실체, 무조건의 영{靈}, 그리고 절대 인격체라는 낙원 아버지의 보편적이고 무한한 개념이 영적으로 인격화한 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자 정체성{正體性}을 신성하게 계시한다. 아들의 완전한 인격체는, 아버지가 실제로 영적이고, 의지적이며, 의도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근원이심을 드러낸다.

6:0.4 (73.4) 낙원 삼위일체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다소 연속적인 개념을 시간세계의 유한한 지성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애쓰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최초 인격적, 보편적, 및 무한한 개념”을 참고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락된 권한을 활용한다. 신격들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관념이든지 인간 정신에게 전달하는 일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며;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이런 영원한 존재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념 가운데 일부를 유한한 정신에게 제공하게 될,

그런 용어를 이용한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으며;두 분 다 무조건 영원하시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유래됐음에도, 아버지 자신과 대등하게 영원한 아들의 이 신비를, 어떤 시간 피조물이든지 결코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1. 영원한 아들의 정체성

6:1.1 (73.5) 영원한 아들은, 원본{原本}이고 독생{獨生}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아들 하나님이고, 신격의 제2 인격자이며, 만물의 동역 창조자시다. 아버지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이신 것처럼, 영원한 아들은 위대한 제2 근원 및 중심이시다.

6:1.2 (74.1) 영원한 아들은 온갖 우주의 영적 정부{政府}에서 신성한 경영자이며 영적 중심이시다. 만유의 아버지는 첫째로는 창조자시고, 그 다음으로는 통제관이시며;영원한 아들은 첫째로는 공동창조자시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 경영자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들은 그 영이 인격적으로 계시{啓示}된 분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절대 의지시며;제2 근원 및 중심은 절대 인격체시다.

6:1.3 (74.2) 만유의 아버지는, 아들과 협력하거나 아들이 동격으로 행동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창조자로서 활동하시는 일이 결코 없다. 신약성경 기록자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썼을 때, 영원한 아들을 언급한 것이었다면, 그 말이 진리였을 것이다

6:1.4 (74.3)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했을 때, 인간의 모습을 한 이 신성한 존재와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그를 봤고, 우리가 자세히 관찰했으며, 심지어 생명의 말씀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증여 아들은, 원본{原本} 아들이 그랬던 것과 정말로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가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하나에서도 이렇게 암시됐다: “오, 아버지시여,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의 뜻으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1.5 (74.4) 영원한 아들은, 다양한 우주에서 다른 이름들로 알려져 있다. 중앙우주에서는, 동격 근원, 공동창조주, 그리고 동료 절대자로 알려진다. 연방우주 본부인 우버사에서는 그 아들을, 동격 영 중심, 그리고 영원한 영 관리자라고 한다. 너희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서는, 이 아들이 영원한 제2 근원 및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들 중 아들이라고 말한다. 인간거주 구체들로 이뤄진 너희 체계에서는 아니지만, 너희 세계에서는, 이 원본{原本} 아들이, 유란시아 필사자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한 동격 창조주 아들, 즉 네바돈의 미가엘과 혼동돼 왔다.

6:1.6 (74.5) 낙원 아들들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명칭을 항상 습관처럼 예비해 두는데, 이는 제2 근원 및 중심이고, 완전성과 권력의 중심 우주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공동창조자인 동시에, 무한한 신격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다른 신성한 아들들의 공동창조자인, 이 원본 아들을 지칭하기 위해서다.

2. 영원한 아들의 본성

6:2.1 (74.6)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처럼 변함없고 무한히 신뢰할만하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똑같이 영적이고, 정말로 똑같이 무한한 영이시다. 낮게 근원된 너희에게는, 접근성에서 만유의 아버지보다 너희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좀 더 친히 대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6:2.2 (74.7)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시며;사실상, 영원한 아들은 온갖 우주에 몸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은:영원한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동격 창조주 아들에 대해서도 참이었고, 이제도 참되고, 영원토록 참되다.

6:2.3 (74.8) 아들은 본성에서 전적으로 영 아버지와 같으시다.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할 때, 우리는 실제로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한다. 아들 하나님은, 본성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실제적이고 영원하시다.

6:2.4 (75.1)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무한하고 초월적인 정의{正義}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모든 거룩하신 성품까지도 반영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공유하고, 모든 불완전한 피조물이 신{神}의 완전성을 달성하려고 영적으로 노력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책임도 함께 나누신다.

6:2.5 (75.2)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이라는 성품과 영성{靈性}이라는 속성을 모두 지니셨다.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체와 영이 충만한 분 *이시며*; 아들은, 온갖 우주의 영적 정부를 친히 경영할 때, 이 자질을 드러내신다.

6:2.6 (75.3) 참으로, 하나님은 보편적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아버지의 이 영 본성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신격 안에 집중되고 인격화돼 있다. 모든 영적 특질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보편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아들 안에서 분명히 크게 증진됐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영 본성을 아들과 공유하듯이, 그들은, 공동 행위자, 즉 무한한 영과 더불어, 신성한 영을 그렇게 충분히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함께 공유하신다.

6:2.7 (75.4) 보편적 가치를 지닌, 배타적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의 실현에 아들이 더 많이 전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만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다.

6:2.8 (75.5) 신성하게 선한 면에서, 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우주 자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며;영원한 아들은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로서 또한 형제로서 보살피신다.

3.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

6:3.1 (75.6) 아들은 삼위일체의 응보와 정의를 공유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무한히 인격화함으로써, 두 가지 신성 특징이 빛을 잃게 만들며;아들은 신{神}의 사랑이 우주들에게 계시{啓示}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아들은 자비시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방법으로 피조물에게 자비를 보여 줄 수 있는데, 아버지처럼 근본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에, 만유의 아버지의 다른 모든 아들이 겪는 자녀신분 체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6:3.2 (75.7)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물에게 위대한 자비 사역자{使役者}시다. 자비는 아들의 영적 성품의

본질이다. 영원한 아들의 명령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영 회로를 따라 나아갈 때, 자비{慈悲}의 격조에 맞춰진다.

6:3.3 (75.8) 영원한 아들의 사랑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한 근원, 즉 사랑 *이신* 아버지를 너희가 먼저 감지해야만 하며, 그 다음에는, 무한한 영 그리고 그의 거의 무한한 보살피는 인격체 무리가 광범하게 베푸는 섬김에, 이 무한한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봐야만 한다.

6:3.4 (75.9) 영원한 아들의 사역은, 사랑의 하나님을 온갖 우주에 드러내기에 몰두한다. 이 신성한 아들은, 인자하신 아버지에게 낮은 피조물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시간세계의 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설득하는, 천박한 과업에 맞물려 있지 않다. 공간의 물질 세계들에 있는 낮은 피조물을 위해 자비를 보이시도록, 영원한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께 호소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지! 그런 하나님 개념은 유치하고 우스꽝스럽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비 사역은, 보편적인 사랑과 무한한 동정심을 갖는 아버지의 심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자비의 실질적이고 영원한 원천이다.

6:3.5 (75.10)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시다. 자비는 적용된 사랑, 즉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작용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우주의 아들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남녀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사랑이 납득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더 잘 비유되는 한편, 영원한 아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애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정말 유치할 정도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 사이에, 신성한 내용에서가 아니라, 표현의 특성과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인간 정신에게 전하도록 기대하면서 내가 채택했다.

4. 영원한 아들의 속성

6:4.1 (76.1) 영원한 아들은, 영 수준의 시공우주 실체를 자극하며; 아들의 영적 능력은, 모든 우주의 실재들과 갖는 관계에서 절대적이다. 영 인력을 절대로 장악함으로써, 그는 차별화 되지 않은 모든 영 에너지의 상호연합체, 그리고 실제화 된 모든 영 실체를 완전하게 통제한다.

조각나지 않은 모든 순수한 영과 모든 영적 존재 및 가치는, 시초의 낙원 아들의 무한한 흡인력{吸引力}에 반응한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 무제한의 우주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원본{原本} 아들의 영 인력과 영 능력이, 그런 끝없는 창조에 대한 영적 통제와 효율적 경영에 전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6:4.2 (76.2) 아들은 영적 영역에서만 전능하시다. 우주 경영의 영원한 경륜에서는,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기능의 중복을 결코 구경하지 못하며; 신격들이 우주 사역에서 쓸데없이 되풀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6:4.3 (76.3) 원본 아들의 편재성{遍在性}이, 온갖 우주의 영적 통일성을 성립시킨다. 모든 창조의 영적 결속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영의, 어디서나 활약하는 현존에 기초한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 마음 속에 그릴 때, 우리는 이를 영원한 아들의 영적 임재로부터 구분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6:4.4 (76.4) 아버지는 영적으로 편재하셔야만 하지만, 그런 편재성은, 영원한 아들이 도처에서 영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이중적인 영적 본성을 갖는 아버지_아들 현존의 모든 상황에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조화를 이룬다고 우리는 믿는다.

6:4.5 (76.5) 인격체와 접촉할 때, 아버지는 인격체 회로에서 활동하신다. 영적 창조물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탐지할 수 있을 때, 아버지는 신경 총체의 단편들 속에 나타나시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은, 우주들에서 언제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단독으로 독특하고 독점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아들의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분화{分化}된 현존의 영적 기능과 조화를 이룬다.

6:4.6 (76.6) 영원한 아들은 영적으로 편재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은, 가장 확실하게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주위에 계시지만, 신비 관찰자처럼 네 안에 그리고 너의 일부로서 계시지는 않는다. 내주하는 아버지의 단편이 인간 정신을 신{神}의 입장에 점진적으로 순응시키는데, 그리하여 그런 상승하는 정신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전능한 영_인력 회로의 영적 흡인력에 점점 더 반응하게 된다.

6:4.7 (76.7) 원본 아들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아_의식한다. 지혜의 면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온전히 동일하시다. 지식의 영역, 즉 전지성{全知性}에서, 우리는 제1 근원과 제2 근원을 구별 할 수 없으며; 아버지처럼 아들도 모든 것을 아시며; 아들은 어떤 우주 사건에도 결코 놀라시지 않으며;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납득하신다.

6:4.8 (77.1) 아버지와 아들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영{靈}과 영성화된 존재의 숫자와 소재{所在}를 실제로 아신다. 아들은, 자신의 편재하는 영 덕택으로 모든 사물을 아실뿐 아니라, 아버지 및 공동 행위자와 동등하게, 지존하신 분의 방대한 반사성을 지닌 지성을 충분히 인지하시는데, 그 지성은 일곱 연방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자각하신다. 그리고 낙원 아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전지하시다.

6:4.9 (77.2) 자애롭고 자비롭고 돌보는 영적 인격체로서의 영원한 아들은, 전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만유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한편, 낮은 영역에서 상승하는 존재들과 갖는 모든 자비롭고 애정 어린 개인 접촉에서,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 그렇게 자주 자신을 수여하는

지방우주의 낙원 아들들이 그런 것처럼, 영원한 아들도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며, 똑같이 인내하고 오래_참으신다.

6:4.10 (77.3) 영원한 아들의 속성에 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에 기술한 예외들을 제외하고,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연구하기만 하면 된다.

5. 영원한 아들의 한계

6:5.1 (77.4) 영원한 아들은, 물리적 영토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으며, 공동 행위자를 통하지 않고는, 피조 존재들에게 정신 사역 수준에서 활동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자격조건들은, *영적* 전지성{全知性}과 편재성 그리고 전능성이라는 모든 신성한 속성을 영원한 아들이 충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6:5.2 (77.5) 영원한 아들은 신격 절대자의 무한성에 내재된 영 잠재력을 직접 채우지는 않지만, 이 잠재력은, 실재화 될 때 아들의 영_인력 회로의 전능한 지배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6:5.3 (77.6)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영원한 아들은 인격체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지만, 아들은 아버지 없이 인격체를 증여하지 않는다. 아들이 방대한 영 무리를 기원시키지만, 그런 파생된 존재들은 인격체가 아니다. 아들이 인격체를 창조할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 창조주와 함께 창조한다. 영원한 아들이 그런 인격체의 공동_창조자이지만, 어떤 존재에게도 인격체를 증여하지 않으며, 스스로, 즉 혼자서는 결코 인격있는 존재를 창조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런 행위 제한이, 인격적이지_않은 실체의 유형들 일부 또는 전부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아들에게서 빼앗지는 않는다.

6:5.4 (77.7) 영원한 아들은 창조자 특권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버지는, 원본 아들을 영존화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창조적 속성을 소유하는 추가적인 아들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행위에서, 차후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그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이 동격 아들이 다 산출되면, 창조자신분의 특권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영원한 아들은,

오직 첫 인격화, 즉 직접 인격화할 경우에만 창조자신분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조주 아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 연합할 때 두 분의 목적을 달성하지만;가장 높은 지방우주 아들들의 경우에,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속성이 매우 제한된 채 반영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이렇게 실존하게 된 창조주 아들은, 차후에 자신이 창조할 다양한 계층의 아들들에게 창조자신분의 특권을 전달하거나 위임할 수가 결코 없다.

6:5.5 (78.1)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고 오로지 인격있는 존재로서, 무한한 영 및 만유의 아버지가 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본성을 분화시킬 수 없으며, 자기 자아성의 개체화된 부분을 다른 실재나 인격자들에게 배분할 수 없고 증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창조물을 감싸도록 무제한의 영으로서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으며, 모든 영 인격체와 영적 실체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끄신다.

6:5.6 (78.2) 영원한 아들은, 모든 창조물에게 영 아버지를 몸소 묘사하는 분임을 늘 기억하라. 아들은 인격적이고 신격 의미에서 볼 때 다만 인격적일 뿐이며;그런 신성하고

절대적인 인격체는 분해될 수 없고 분화될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있는 분이지만, 그들은 그런 신격 인격체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모든 것이기도 하다.

6:5.7 (78.3) 영원한 아들은 사고 조율사의 증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더라도,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께서 사고 조율사들을 증여하기로 입안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만들자”고 아들에게 제안 하셨을 때, 그 계획에 만족하고 끝없는 협동을 서약하면서, 만유의 아버지와 협의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 단편이 너희 속에 거주하듯이, 아들의 영 현존이 너희를 감싸며, 동시에 이들은 너희의 영적 진보를 위해 영원히 하나로 일하신다.

6. 영 정신

6:6.1 (78.4) 영원한 아들은 영이고, 정신을 소유하시지만, 필사 정신이 납득할 수 있는 정신이나 영은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유한한 수준, 시공우주 수준, 물질적 수준, 그리고 인격적인 수준에서 정신을 감지한다. 또한 사람은, 인격있는 수준 이하에서(동물에서) 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서 정신 현상을 관찰하지만, 초물질 존재와

연합됐을 때, 그리고 독자적 영 인격체의 일부분으로서 연합했을 때, 정신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정신은, 실존의 영 수준에 관련할 때, 그리고 지성{知性}의 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달리 규정돼야만 한다. 영과 직접 연합된 그런 종류의 정신은, 영과 물질을 조화시키는 그 정신에 비교될 수 없고, 오직 물질과만 연합된 그 정신에도 비교될 수 없다.

6:6.2 (78.5) 영은 정체성의 여러 국면을 항상 의식하고 유념하며 점유한다. 어떤 국면에 정신이 없다면, 영 존재들의 공동체에 영적 의식이 있을 수 없다. 정신과 대등한 것, 즉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역량이 신격에 고유하게 있다. 신격은, 인격있는, 인격이전의, 인격을 초월한, 또는 인격아닌 분일 수도 있으나, 신격에 정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시 말하자면, 유사한 실재나, 존재, 또는 인격체들과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수는 결코 없다.

6:6.3 (78.6) 영원한 아들의 정신은 아버지의 정신과 같지만, 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정신과도 같지 않으며, 아버지의

정신과 함께 공동 창조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신들의 조상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신, 즉 제3 근원 및 중심의 절대 정신의 원조{元祖}인 그 지능은, 아마 사고 조율사의 선{先}정신 속에 가장 잘 묘사돼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이 단편들이 완전히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 밖에 있음에도, 그들이 정신_이전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그들은 그들이 알려진 대로 알며;사람의 생각에 상당하는 것을 향유한다.

6:6.4 (78.7) 영원한 아들은 온전히 영적{靈的} 이시며;사람은 거의 전적으로 물질적이며;그러므로 영원한 아들의 영 인격체에 속하고, 낙원을 도는 일곱 영적 구체에 속하고, 낙원 아들이 창조한 인격아닌 것들의 본질에 속하는 많은 것은, 너희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모론시아 상승을 완성한 후에 영 신분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연방우주를 거쳐서 하보나에 이를 때, "영의 정신"--곧 영적 통찰력--을 부여받기 시작하면서, 이 영_숨겨진 신비 가운데 다수가 분명해질 것이다.

7.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

6:7.1 (79.1)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가 조건 없는 인격체 속박으로부터 삼자일체{三者一體}되는 기법으로 탈출한, 바로 그 무한한 인격체이고, 그 덕분으로 그는, 창조주 및 피조물의 항상_팽창하는 우주에 그 후로 계속 끝없이 풍부하게 자신을 증여해 왔다. 아들은 *절대적 인격체*시며;하나님은 *아버지 인격체*시다--인격체의 근원, 인격체의 증여자, 인격체의 원인이시다. 원본 아들이 자신의 인격체를 낙원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획득함과 똑같이, 인격있는 존재마다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인격체를 획득한다.

6:7.2 (79.2) 낙원 아들의 인격체는 절대적이고 순전히 영적이며, 이 절대 인격체는 또한 신성하고 영원한 원형{原型}인데, 우선은, 공동 행위자에게 아버지의 인격체를 증여할 때의 원형이고, 다음으로는, 광범위한 우주 전반에 걸친 그의 수많은 피조물에게 인격체를 증여할 때의 원형이다.

6:7.3 (79.3) 영원한 아들은, 진실로 자비로운 사역자이고, 신성한 영이며, 영적 능력이고, 진정한 인격체시다. 아들은, 우주들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본성이다--인격없는, 신성을_벗어난, 비영적인, 그리고 순전히 잠재적인 모든 것을 제외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총합과 내용이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인격체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인간 정신에게 단어로 묘사함으로써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만유의 아버지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방해하도록, 거의 똑같은 영향력을 갖고 작동한다. 너희는 자신이 낙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그때 비로소, 내가 왜 이 절대 인격체의 성품을 유한한 정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 할 수 없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8. 영원한 아들에 대한 깨달음

6:8.1 (79.4) 인격체의 정체성, 본성, 및 다른 속성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아들은 충분히 동등한, 완전히 보완하는, 그리고 영원한, 만유의 아버지의 동격자{同格者}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심과 같은 느낌으로, 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높든지 낮든지, 그분들의 우주 가족을 구성한다.

6:8.2 (79.5) 아들의 성품을 감상하기 위해, 너희는 아버지의 계시된 신성한 성품을 연구해야 하며;그분들은 영원히 하나시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시다. 낮은 계층의 지성체는, 신성한 인격체로서의 두 분을 실질적으로 분간할 수 없다. 신격들 스스로의 창조 행위로 인해 기원된 자들에게는, 그분들을 분간하여 인식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중앙우주와 낙원에서 출생한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자로 볼 뿐만 아니라, 우주 경영의 한정된 범위에서 작용하는, 분리된 두 인격체로 인식한다.

6:8.3 (79.6) 인격자로서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분리된 개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지만;우주들의 경영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엮이고 상호관련돼 있어서, 그분들 사이를 구별하기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우주들의 직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혼동스런 상호연합체들 속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들의 운영을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항상 유익하지는 않으며;다만 하나님은 창시하는 사고{思考}이시고, 아들은 표현이_풍부한 말씀이시라고 기억하기 바란다. 각 지방우주에서는, 이 분리할 수 없음이

창조주 아들의 신성 안에 인격화돼 있는데, 그는 천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 속한 피조물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함께 나타낸다.

6:8.4 (80.1) 영원한 아들은 무한하시지만, 그의 낙원 아들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그리고 무한한 영의 끈기 있는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낙원 아들들의 증여하는 봉사와 무한한 영의 피조물에 대한 애정 어린 사역 없이는, 물질적으로 기원된 존재들이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할 희망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은 똑같이 참되다:하나님을_인식하는 필사자는, 이 천상의 매개체들의 안내와 도움으로 확실하게 낙원에 도달할 것이며, 언젠가는 이 웅대한 아들들 중 아들의 인격있는 현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6:8.5 (80.2) 영원한 아들이 필사자 인격체 달성의 원형{原型}일지라도, 너희는 아버지와 영, 양쪽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인데, 아버지는 너희의 인간 인격체를 실제로 증여하신 분이고, 무한한 영은 너희의 필사 정신의 절대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낙원의 영적 진보 경로에서 상승할 때,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가 너희에게 점점 더 실제적이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영성화하는 너희의 정신은, 무한하게 영적인 그의 정신의 실체를 더 많이 식별하게 될 것이다.

6:8.6 (80.3) 영원한 아들이라는 개념은, 너의 물질 정신 또는 그 이후의 모론시아 정신 속에서는 결코 환히 빛날 수 없을 것이며; 네가 영성화 되고 영 상승을 시작하기까지,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를 납득하는 것은, 낙원에서 기원된 창조주 아들의 인격체에 대한 너의 개념만큼 생생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창조주 아들은 인격자 속에서 그리고 한 인격자로서, 유란시아에서 한때 육신화 했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다.

6:8.7 (80.4)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인격체를 가진 창조주 아들이, 더 독자적으로 영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인격적인, 낙원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너의 무능력을, 지방우주에서 체험하는 동안 내내 보상해 줘야만 한다. 네가 오르본톤과 하보나를 통해 진보할 때, 너의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에 대한 생생한 모습과 심원한 기억을 뒤로하고 떠날 때, 이 물질 체험과 모론시아 체험의 소실은, 낙원의 영원한 아들에 대한 강화되는

납득과 계속_넓어지는 개념들로 보충될 것인데, 그의 실체와 친밀감은, 너희가 낙원을 향해 진보함에 따라서 언제까지나 증대될 것이다.

6:8.8 (80.5) 영원한 아들은 웅장하고 영광스런 인격체시다. 것처럼 무한한 존재의 인격체의 실제성을 파악하기가, 필사적이고 물질적인 정신의 능력을 벗어남에도, 그는 확실히 인격자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관해 잘 안다. 나는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현존 앞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의 인자한 분부를 실행하기 위해 우주에서 바깥쪽으로 여행했다.

6:8.9 (80.6) [낙원의 영원한 아들을 설명하는 본 글을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언자가 작성했음]

제7편 영원한 아들과 우주의 관계

7:0.1 (81.1) 다양한 생명체 집단과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이, 진화하는 우주의 현상 속에 점진적으로 펼쳐질 때, 원본{原本} 아들은 그 목적의 영적인 면을 집행하는 데 늘 관여한다. 우리는 이 영원한 계획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지만, 낙원 아들은 틀림없이 납득한다.

7:0.2 (81.2) 아들은, 자신의 동격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하위{下位} 아들들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스스로 증여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같다. 그리고 아들은, 두 분의 공동 행정관인 무한한 영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증여하시는 아버지의 자아_분배 본성을 공유하신다.

7:0.3 (81.3) 영 실체들을 유지하는 자로서, 제2 근원 및 중심은, 모든 물질 사물을 매우 훌륭히 유지하는 낙원 섬의 영원한 평형추다. 따라서, 제1 근원 및 중심은 중앙 섬의 절묘한 원형{原型}들의 물질적 아름다움에서,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숭고한 인격체의 영적 가치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7:0.4 (81.4) 영원한 아들은 영{靈} 실체 및 영적 존재들의 방대한 창조계를 실제로 유지하는 분이다. 영 세계는, 아들의 습성, 즉 인격있는 행위이며, 영 본성의 비인격 실체들은 절대자 아들의 완전한 인격체의 뜻과 목적에 항상 반응한다.

7:0.5 (81.5) 그러나, 아들은 모든 영 인격체 행위에 대해 몸소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격있는 피조물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의지를 지닌 그런 존재의 행위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에서 자연계가 낙원과 신격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정확히 드러내지는 못하듯이, 자유의지를 지닌 영 세계도 영원한 아들의 성품을 언제나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나 천사가 자유의지로 하는 행위가 어떤 특징을 갖든지 상관없이, 아들의 영원한 장악은, 모든 영 실체에 대한 우주 인력을 계속해서 절대로 통제한다.

1. 영_인력 회로

7:1.1 (81.6) 하나님의 내재{內在}하심, 즉 그의 무소부재하심과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심에 대해 가르친 모든 것은, 영적 범위에서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창조물의 순수하고 보편적인 영 인력{引力}, 곧 순전히 영적인 이 회로는, 낙원에 있는 제2 근원 및 중심 인격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그는 참된 모든 영 가치에 대한 항상_현존하는, 그리고 틀림없는 바로 그 영적 지배의 통제와 작동을 관장한다.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은 절대적인 영적 주권을 행사한다. 그는 글자 그대로 마치 자기 손바닥 안에 모든 영적 실체와 영적 가치를 쥐고 있다. 우주의 영적 인력에 대한 통제가 우주의 영적 주권 이다.

7:1.2 (82.1)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 인력 통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작동하며;따라서 영 에너지는 전달할 때 줄어들지 않는다. 영 인력은 시간 지연을 결코 겪지 않고, 또한 공간을 지나면서 감소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으며;물질 창조의 질량은 순수한 영{靈} 동력 회로를 지체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영 에너지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아들의 절대성에 내재돼 있으며;제3 근원 및 중심의 반인력{反引力} 세력의 개입 때문이 아니다.

7:1.3 (82.2) 영 실체들은, 그 질적 가치, 즉 자신의 영 본성의 실제 등급에 따라서, 영적 인력 중심이 이끄는 능력에 반응한다. 조직된 물리적 물질(양{量}) 에너지가 물리적 인력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 내용은(질{質})은 영 인력에 반응한다. 영적 가치와 영 세력들은 *실재한다*. 인격체의 관점에서 보면, 영이 창조의 핵심이며;물질은 그림자처럼 눈에 보이는 물체다.

7:1.4 (82.3) 영 인력의 반응과 변동은 늘, 영적 가치의 내용, 즉 한 개인 또는 한 세계의 영적 상태의 질{質}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런 끌어당기는 능력은, 모든 우주

상황 또는 행성 조건의 상호_영 가치 및 내부_영 가치에 즉시 반응한다. 영적 실체가 우주들에서 실제화 할 때마다, 이런 변화는 즉시 순간적으로 영 인력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새로운 영은, 실제로 제2 근원 및 중심의 한 부분이며;필사적 사람은, 자신이 영성화 된 존재가 되는 만큼 확실하게, 영 인력의 중심이자 근원인 영적 아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7:1.5 (82.4) 아들의 끌어당기는 영적 능력은, 아들신분에 속하는 많은 낙원 계층에 약한 정도로 내재돼 있다. 이는 절대 영_인력 회로 내부에, 비교적 작은 창조 단위들에서 작용하는 지역 체계들의 영적 흡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 인력이 그렇게 절대{絶對} 이하에 집중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주 인격체들의 신성{神性}의 일부분이며, 지존하신 분의 생겨나는 체험적 전면통제와 상호 관련된다.

7:1.6 (82.5) 영_인력의 끌어당김과 그에 대한 반응은, 우주 전체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 및 개인이 속한 집단들 사이에서도 작동한다. 세계, 인종, 국가, 또는 개인들로 이뤄진 어느 신앙 집단이든지, 영적 인격체와

영화된 인격체들 가운데는 영적 응집력이 있다. 영적으로 비슷한 기호나 열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 본성의 명백한 매력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7:1.7 (82.6) 낙원의 물질 인력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도 절대적이다. 죄와 반역이 지방우주 회로들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인간거주 세계들이 속한 너희 체계에, 그리고 유란시아에, 루시퍼 반역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결과로 인한 너희 행성의 영적 격리가, 영원한 아들의 편재하는 영 또는 연합된 영_인력 회로의 현존과 기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지 못한다.

7:1.8 (82.7) 광우주의 영_인력 회로의 모든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편재하는 영의 모든 행위와 반응을 알아보며, 이것들이 신뢰할만함을 발견한다. 사람이 유한한 물리적 인력의 작용을 계산하려고 시도하듯이, 잘_알려진 법칙에 따라, 우리도 영적 인력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영 사물과 존재 그리고 인격자들에 대해 아들의 영은 한결같이 반응하며, 이 반응은 그런 모든 영적 가치의 실제성 정도와(실체의 질적인 정도와) 항상 일치한다.

7:1.9 (83.1)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의 바로 이런 신뢰할만하고 예측 가능한 기능뿐 아니라, 그 반응을 그다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접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현상은 아마 떠오르는 영적 잠재력 영역에서 신격 절대자의 협조 행위를 암시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이 웅대하고 무한한 인격체의 영향임을 알지만, 추측되는 신격 절대자의 실행과 연합된 반응을, 인격적인 것으로는 전혀 여기지 않는다.

7:1.10 (83.2) 인격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격자들이 보건대, 영원한 아들과 신격 절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영원한 아들이 실제 영적 가치 영역을 지배하며, 한편 신격 절대자는 잠재적{潛在的} 영 가치라는 방대한 분야에 충만하다. 영 본성의 모든 실제 가치는, 영원한 아들의 인력 지배에서 발판을 마련하지만, 잠재적 가치의 경우에는 신격 절대자의 현존 안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인다.

7:1.11 (83.3) 영은 신격 절대자의 잠재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며;진화하는 영은 지존자와 궁극자의 체험적이고
미완성인 지배 속에서 상호_관련성을 발견하며;영은 결국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의 절대 지배 속에서 최종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체험적 영의 순환인 듯이 보이지만,
실존적 영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무한성에 내재돼 있다.

2. 영원한 아들의 경영

7:2.1 (83.4) 원본 아들의 현존과 친히 행하는 활동은 낙원에서
심오한데, 영적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하보나를 거쳐 일곱 연방우주 영역 속으로
밖을 향해 지나갈수록, 영원한 아들이 친히 행하는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하보나_이후의
우주들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현존이 낙원 아들들 안에서
인격화되는데, 지존자와 궁극자의 체험적 실체들에
따라서 제한되고, 신격 절대자의 무한한 영 잠재력과
조화를 이룬다.

7:2.2 (83.5) 중앙우주에서 원본 아들이 친히 행하는 활동은,
영원한 창조의 절묘한 영적 조화에서 식별될 수 있다.
하보나는 너무나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이 원형{原型}

우주의 영적 지위와 에너지 상태는 완전하고 영구히 균형 잡혀 있다.

7:2.3 (83.6) 연방우주들에서는, 아들이 직접 현존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며;그는 인격을 초월하는 대표단을 이 창조계에 유지시킬 뿐이다. 아들이 이렇게 영으로 현시된 이들은 인격적이지 않으며;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초인격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하며;이들은 유한한 존재이며;유한절대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7:2.4 (83.7) 연방우주들에서 영원한 아들의 경영은, 독점적으로 영적이고 초인격적이므로, 피조 인격체들은 이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태고 항존자들의 영토에 속하는 모든 구역의 활동 국면 마다, 아들의 개인적 영향력인, 전체에 스며드는 영적 충동을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들들의 인격체 속에 직접 현존하심을 목격한다. 이때 무한한 아들은, 웅대한 단체를 이루는 동격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활동한다.

3. 영원한 아들과 개인의 관계

7:3.1 (84.1)

지방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은, 영원한 아들을 직접 대표하는 창조주 아들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이 연방우주 훈련 체제로 비로소 상승하게 되면,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영원한 아들의 영감어린 영의 숭고한 현존을 점점 더 감지하게 되며, 이런 영적 활력의 사역을 접함으로써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보나에서는, 전체에 스며드는 원본 아들의 영의 사랑스런 품을, 상승자들이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전체 필사자 상승 가운데 어떤 단계에서도, 영원한 아들의 영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의 정신이나 혼 안에 거주하지 않으나, 그의 자비는, 시간세계에서 진보하는 자녀들의 복지 및 영적 보호와 항상 관계하고, 늘 그 곁에 있다.

7:3.2 (84.2)

영원한 아들의 영적_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존하는 인간 혼이 낙원으로 상승하는 데 내재된 비결이다. 모든 진정한 영 가치, 그리고 모든 진실한 영성화된 개인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의 어김없는 지배 속에 붙잡혀 있다. 예를 들면, 필사 정신은 물질 체제로서 생애를 시작하며, 점진적으로 물질 인력에 덜 지배되고, 이 전체 체험 동안 영 인력의 안쪽으로 당기는 충동에 더욱 일치해 반응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완벽하게 된 영 실존으로서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영_인력 회로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혼을 낙원 쪽으로 끌어당긴다.

7:3.3 (84.3) 영_인력 회로는, 믿는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수한 기도를, 인간 의식 수준으로부터 신격의 실제 의식 수준으로 전달하는 기본 경로다. 너희의 간구 속에 있는 참된 영적 가치를 나타내는 그것은, 영 인력을 가진 우주 회로에 포착될 것이고, 관계된 모든 신성한 인격체에게 즉시 그리고 동시에 전달될 것이다. 친히 활동하는 분야에 속하는 일에, 각자 전념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의 실질 종교 체험에서, 너희의 간청을 제시할 때, 너희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을 마음에 그리든지, 또는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영원한 아들을 마음에 그리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7:3.4 (84.4) 영_인력 회로의 특이한 작동은, 아마 물질 인간 몸 속에 있는 신경 회로 기능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감각은 신경 경로를 통해 안쪽으로 이동하며;더러는 하부 자율 척추 중심에 붙들리거나 반응을 겪으며;또 더러는 하부 뇌의 덜_자율적이지만 습관적으로_훈련된 중심으로 이동하고, 한편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입력 신호는, 하위

중심을 순간적으로 지나쳐서 곧바로 인간 의식의 최고 수준에 등록된다.

7:3.5 (84.5) 그러나 영적 세계의 뛰어난 기법은 얼마나 더 완전한지! 최상의 영적 가치가 내포된 어떤 것이든지 너희의 의식 속에 생기면, 일단 네가 그것을 표현하면, 모든 창조계의 절대 영 인격체에게 그것이 직접 번개처럼 전해지는 것을 막을 힘이 우주에는 전혀 없다.

7:3.6 (84.6) 반대로, 너희가 간청한 것들이 순전히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자기_중심적이라면, 그런 무가치한 기도가 영원한 아들의 영 회로 안에 자리를 찾게 하는 어떤 계획도 없다. 어떤 간구 내용이든지, “영으로 쓴” 것이 아니면 우주의 영적 회로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순전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요청은 없어질 것이며;참된 영 가치 회로에서 상승하지 못한다. 그런 말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와 같다.

7:3.7 (85.1) 필사자의 간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동기가 되는 생각, 즉 영적 내용물이다.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4. 완비시키는 신성한 계획

7:4.1 (85.2)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진보 계획*, 즉:의지를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고, 진화시키고, 상승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우주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實行}에서 아버지와 영구히 교섭한다. 그리고 신성하게 충실한 가운데,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동등하다.

7:4.2 (85.3) 아버지와 아들은, 시간 세계에서 물질 존재의 진보를 위해 하나 되어, 영원성의 완성을 향한 이 거대한 달성 계획을 조성하고 실행하신다. 공간에서 상승한 혼의 영적 향상을 위한 이 기획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창작품이며, 두 분은 무한한 영의 협동을 받아서, 연합하여 신성한 목적의 실행에 임하신다.

7:4.3 (85.4) 완비{完備}에 도달하게 하는 이 신성한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상호관련돼 있음에도 우주 모험의 독특한 세 가지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7:4.4 (85.5) 1. *점진적 달성 계획*. 이것은 진화 상승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계획인데,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필사 피조물을 만들자”라는 아버지의 제안에 영원한 아들이 공감했을 때, 아들이 제한 없이 받아들인 계획표다. 시간 속에서 피조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준비에는,

아버지께서 사고 조율사를 증여하는 것과, 인격체라는 특권을 물질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7:4.5 (85.6) 2. 증여 계획. 그 다음의 우주 계획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동격 아들들이 아버지를 _드러내는 위대한 사업이다. 이것은 영원한 아들이 제안한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화 창조계에 증여하는 것으로 이뤄지는데, 거기서 인격화하고 사실화하여, 즉 육신화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가 모든 우주 피조물에게 실재하도록 만든다. 증여 계획에 내재된 대로,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 임시 역할로, 낙원 아들들은 잘못 인도된 피조물의 의지가 영적 위험 속에 처해 왔던 것을 복구하는 존재로서 활동한다. 달성 계획의 작동에 지연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만약에 반역이 이 사업을 우연히 망치거나 복잡하게 만든다면, 증여 계획에 대한 비상 대책이 즉시 활성화된다. 낙원 아들들은 반역이 일어난 바로 그 영역 속으로 가서, 거기서 그 구체들의 영적 상태를 복구하는 구출자로서 활동할 것을 서약하고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주권을 획득하는 체험적 증여 생애와 관련하여, 한 동격 창조주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런 영웅적인 봉사를 수행했다.

7:4.6 (85.7) 3. 자비{慈悲}를 베푸는 계획. 달성 계획과 증여 계획이 작성되고 선포되고 나서, 무한한 영은 홀로 그리고 스스로, 자비를 베푸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가동했다. 이것은 달성 이행업무와 증여 이행업무 양쪽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매우 기본적인 봉사이며, 제3 근원 및 중심의 영적 인격체들은 모두 자비를 베푸는 기질을 갖는데, 이 사역은 신격의 제3 인격자의 본성 가운데 일부분과 매우 비슷하다. 창조의 경우뿐 아니라 경영에서도, 무한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행정관{行政官}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용한다.

7:4.7 (86.1) 영원한 아들은, 피조물 상승에 대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개인 수탁인{受託人}, 즉 신성한 관리인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우주의 명령을 공표한 후에, 아버지가 영원한 아들에게 이 거대한 이행업무의 집행을 맡겼으며;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신성한 협조자인 무한한 영과 함께, 이 숭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격들은, 창조, 통제, 진화, 계시, 및 보살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와 재건에도-- 효과적으로 협동한다.

5. 증여되는 영

7:5.1 (86.2) “하보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굉장한 권면을 모든 창조계에 퍼뜨리면서,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조건 합류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초청_명령은, 영원한 아들과 그의 방대한 가족인, 협조하고 연합하는 아들들의 생존 계획과 증여 기획 전체에, 동기{動機}를 부여해 왔다. 바로 이렇게 증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진화 피조물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왔다.

7:5.2 (86.3) 영원한 아들은, 인격이전 사고 조율사라는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인간과 직접 접촉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아들은 자신이 사람의 현존으로, 그리고 한때는 사람 자체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일련{一連}의 단계적 낮아짐으로, 창조된 인격체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7:5.3 (86.4) 영원한 아들의 순전히 인격적인 본성은 단편화{斷片化} 될 수 없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영향력으로서 또는 어떤 인격자로서 보살피며, 결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_조율사가 체험에 참여하는 그 의미에서는 피조물 체험의 일부분이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영원한 아들은 증여라는 기법으로 이 한계를 보충한다. 단편화 된 실재의 체험이 만유의 아버지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낙원 아들들의 육신화 체험이 영원한 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다.

7:5.4 (86.5) 영원한 아들은, 신성한 뜻, 즉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로서 필사적 사람에게 오지 않지만, 영원한 아들은, 자기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신성한 *인격체*가, 나사렛의 예수의 인간 본성 안에 육신화 됐을 때, 유란시아에 있는 필사적 사람으로 왔었다. 창조된 인격체의 체험을 공유{共有}하기 위해,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은 그런 피조물의 바로 그 본성을 취하고, 실제 피조물로서 그들의 신성한 인격체를 육신화해야만 한다. 육신화는 소나링톤의 비밀이며, 인격체 절대성이라는, 만물을_둘러싸는 다른 족쇄로부터 아들이 벗어나는 기법이다.

7:5.5 (86.6) 영원한 아들은 아주 오래 전에,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순례자들을 포함해서 하보나의 모든 거주민과 순례자의 계몽 및 증진을 위해, 중앙 창조 회로들 각각에

자신을 증여했었다. 일곱 번의 이 증여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그는 상승자 또는 하보나 시민으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으로서 존재했다. 그의 체험은 독특했으며;그 체험은 어떤 인간 또는 다른 순례자와 함께 또는 그런 존재로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격자를 초월하는 의미와 관련된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었다.

7:5.6 (86.7) 뿐만 아니라, 그는 내부 하보나 회로와 낙원 가장자리 사이에 개재하는 수면{睡眠} 상태를 거치지도 않았다. 인격체의 의식이 중지되는 것은 절대 존재인 그에게 불가능한데, 모든 계통의 영적 인력이 그의 안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증여 시절 동안에, 영적 광명의 중앙 낙원 거점은 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우주의 영 인력에 대한 아들의 지배는 줄어들지 않았다.

7:5.7 (87.1) 영원한 아들이 하보나에서 했던 증여들은, 인간의 상상 범위를 벗어나며;초월적이었다. 그가 그 당시와 그 이후에 전체 하보나 체험을 늘렸지만, 우리는 그가 그의 실존적 본성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체험 수용력을 늘렸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낙원 아들들의 증여 신비에 속할 것이다. 아무튼 영원한 아들이 이런 여러

증여 사명에서 무엇을 획득했든지, 우리는 그가 그 후로
내내 존속시켜왔다고 믿지만;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7:5.8 (87.2) 신격의 제2 인격자의 증여들을 납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한 아들이
하보나에 증여된 것을 납득하는데, 그는 중앙우주의
회로들을 정확하게 통과하여 지나갔고, 신격 달성을 위한
상승자의 준비를 구성하는 그 체험을 실제로 공유했다. 이
분이 최초_탄생 창조주 아들인 원본 미가엘이었으며, 그는
모든 필사자 중에서 하보나에 처음 도달한 그랜환다의
시대에, 그들과 함께 각 궤도의 단계를 직접 여행하면서,
이 회로에서 저 회로로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생애 체험을
거쳐서 지나갔다.

7:5.9 (87.3) 이 원본 미가엘이 달리 무엇을 드러냈든지, 그는
어머니이신 원본 아들의 초월적 증여를 하보나의
피조물에게 실제화 시켰다. 너무나 진짜라서, 점진적으로
하보나에 도달하는 일곱 회로에서 시_공간 순례자들의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낙원의
권세와 영화로움을 일곱 번이나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보나 회로들을 순회하는 모험에서 수고하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마다, 영구히 기운을 내고 힘을 얻는다.

7:5.10 (87.4) 영원한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역에서 증여 사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에게 모범적인 영감{靈感}을 준다. 동격 창조주 아들들 및 동역하는 집정관 아들들은,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계시되지 않은 다른 계층들과 함께, 피조 생명에 속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그리고 바로 그 피조물로서,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 이 훌륭한 자발적 행위에 모두 참여한다. 따라서, 각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간에 있는 그 세계들에 증여될 때, 이 증여에서, 이 증여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증여함으로써, 영원한 아들이 영으로, 그리고 근원적 사실뿐 아니라 본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주에서 의지를 가진 지성적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해온 것이 진실임이 드러난다.

7:5.11 (87.5) 모든 속성에서는 아닐지라도, 영과 본성에서, 각 낙원 아들은 원본 아들을 신성하게 묘사하는 완전한 초상화다. 누구든지 낙원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이미 본 것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이다.

6.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

7:6.1 (87.6)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임을 모르는 것이, 유란시아에서 일어나는 큰 혼돈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무지함은, 이 신성한 인격체들의 비밀회의에 대한 기록, 즉:“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을 선포했고, 모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말씀을 대면할 때에도 지속된다. 구역 표준시간으로 매 1,000년마다,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주기적 비밀회의를 위해 함께 모인다.

7:6.2 (87.7) 자비와 봉사를 베푸는 흠모할만한 속성의 인격적 근원은 영원한 아들인데, 이 속성은,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계 도처에서 활동함에 따라, 그들 계층 전체의 특징을 풍성하게 나타낸다. 영원한 아들은, 모든 무한한 속성은 아니라도, 모든 신성한 본성을 어김없이 낙원 아들들에게 전달하며, 이들은 온갖 우주에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영원한 섬으로부터 나아간다.

7:6.3 (88.1) 영원한 원본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최초로” 완성되고 무한한 사고를 가진 후손_인격자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새롭고, 원래적이고, 동일하고, 독특하고, 절대적인 인격적 사고를 함께 입안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창조적 관념은 새로운 원본

창조주^{아들}의 존재와 인격체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격화된다. 영 본성, 신성한 지혜, 그리고 동격 창조 능력 면에서, 이 창조주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 및 아들 하나님과 잠재적으로 동등하다.

7:6.4 (88.2)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으로부터 시간세계의 우주들 속으로 들어가고, 제3 근원 및 중심의 통제와 창조적인 대행기관들의 협동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지방우주 조직을 완성한다. 이 아들들은, 물질과 정신과 영을 중앙에서 보편적으로 통제하는 데 배속되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제1 근원 및 중심과 그의 동격 절대자들의 선재{先在}와 우선권 그리고 탁월성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 행위에 제한받는다. 이 아들들은 자신이 실존시키는 것들만 경영할 수 있다. 절대적 경영은 실존의 우선권에 내재하며, 영원한 현존에서 분리될 수 없다. 아버지는 우주들에서 여전히 근본이시다.

7:6.5 (88.3)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주 아들들을 인격화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아들과 영은 *집정관 아들들*을 인격화한다. 이들은 피조물로 육신화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재판관으로서 봉사하는 권한을 얻은 아들들이다.

7:6.6 (88.4)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다재다능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서도 결합하는데, 이 아들들은, 인간적인 그리고 신성한 모든 인격체에 대한 탁월한 선생으로서 광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낙원 아들신분을 지닌 수많은 다른 계층이 있다.

7:6.7 (88.5) 어머니이신 원본 아들과 전체 창조계에 두루 흩어져 있는 낙원 아들들의 이 무리들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대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기능은 영적 유사성의 특성에 내재돼 있고, 이 관계가 거의_절대적인 영적 관계의 굴레로 그들을 묶어둔다. 아들신분 사이의 이 회로는, 영 인력의 우주 회로와는 전혀 다른데, 영 인력 역시 제2 근원 및 중심의 인격자에 중심을 둔다. 낙원 신격들의 인격자 안에서 기원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체는,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과 직접적이고 변함없는 대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즉각적이며;그것은 때로 공간에 제한을 받음에도 시간과는 무관하다.

7:6.8 (88.6) 영원한 아들은, 낙원 아들신분에 속하는 모든 계층의 신분, 사고{思考}, 및 다양한 활동에 관해 완전한 지식을 항상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성에 속하는 1차 중앙 창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 속에 실존하고, 동격 창조주 아들들의 2차 시간 창조계에 존재하는, 영적 가치를 갖는 모든 것에 관해서, 항상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7. 아버지를 최상으로 계시함

7:7.1 (88.7)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과 인격체를,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지식과 그에 관한 정보는, 분명히 영원한 아들 및 그의 낙원 아들들로부터 도래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영적 자격조건 없이 아버지와 하나시다. 두 분은 신성한 인격체에서 대등하시며;영적 본성에서 동등하시며;신성에서 일치하신다.

7:7.2 (89.1) 신성한 아버지가 무한히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본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없지만, 바로 그 성품과 인격체는, 피조 존재들에게 계시되기 위해, 인격없고 비영적{非靈的}인 부분을 벗겨냄으로써 확장된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인격체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아버지 인격체의 영 특성들 전체는, 영원한 아들의 절대 인격체 안에 영적으로 현존한다.

7:7.3 (89.2) 시초의 아들 및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적 및 인격적 본성에 대한 보편적 계시를 전체 창조에 제시하기에 착수한다. 중앙우주, 연방우주들, 지방우주들, 또는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는 낙원 아들이다. 만유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피조물의 길을,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드러낸다. 그리고 높은 기원을 갖는 우리조차, 영원한 아들 안에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아들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 및 인격체에 대한 계시를 연구할 때, 아버지를 훨씬 더 충분하게 이해한다.

7:7.4 (89.3)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서만
인격체로서 너희에게 내려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동일한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도달하며;이
신성한 아들들 집단의 안내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바로 그 인격체를 만유의
아버지께서 직접 증여하셨음에도 여전히 진실이다.

7:7.5 (89.4) 영원한 아들의 광범위한 영적 경영에 속하는
광범위한 이 전체 활동에서, 아버지가 인격자이신 것처럼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인격자이심을 잊지 말라.
정말로, 한때 인간 계층에 속했던 존재에게는, 만유의
아버지보다 영원한 아들이 더 다가가기 쉬울 것이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 회로들을 통해서 진보하는
동안, 너희는 자신이 아버지를 식별할 준비를 갖추기 훨씬
전에, 아들에게 도달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7:7.6 (89.5) 바로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사랑의 봉사 속에서
드러난 이 신성한 속성들을 묵상함으로써, 너희는 영원한
아들의 더 많은 성품과 자비로운 본성을 더욱 납득해야 할
것인데, 이 창조주 아들은 한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너희 지방우주의 고양된 주권자다--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7:7.7 (89.6) [낙원의 영원한 아들을 묘사하는 본 문서를
작성하도록 배정된 신성한 조연자가 작성했음]

제8편 무한한 영

8:0.1 (90.1) 영원히 오래 전에,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첫” 사고{思考}가, 신성하게 표현하기에
완전하고 합당한 말씀을 영원한 아들 안에서
발견하시는데, 그때 사고_하나님과 말씀_하나님 두
분에게는, 서로의 뜻을 표현하고 연합해서 행동할,
보편적이고 무한한 어떤 대행자를 바라는 최고 열망이
일어난다.

8:0.2 (90.2) 영원성이 시작될 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자신들이 서로 의존하고, 영원히 절대로 하나임을 무한히
인지하시게 되며;따라서 두 분은 신성한 동역관계의
무한하고 영구적인 계약을 맺게 된다. 끝_없는 이 협약은,
영원성의 모든 궤도 전역에 걸친 두 분의 결합된 개념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아버지와 아들은, 이 영원성 사건 이후로 계속 이 신성한 합동을 이루시고 있다.

8:0.3 (90.3) 우리는 지금,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의 영원한 기원을 마주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하고 무한한 행위를--곧 절대 사고{思考}_계획의 이행을-- 공동으로 마음에 품는 즉시, 바로 그 순간에, 무한한 영이 완전히_성숙한_모습으로 실존해 생겨난다.

8:0.4 (90.4) 신격들의 기원 순서를 그렇게 상술하면서, 나는 너희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다. 실제로는 세 분 모두가 영원부터 존재하시며;실존적이지 않다. 세 분에게는 시작된 날도 끝나는 날도 없으며;동격이고, 지존적이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시다. 세 분은 지금 계시고, 항상 계시왔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세 분으로 개별화돼 있지만, 영원히 연합된 인격자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이시다.

1. 행동의 하나님

8:1.1 (90.5) 영원한 과거에, 무한한 영이 인격화됨에 따라서, 신{神}의 인격체 집합은 완전하게 되고 완성된다. 행동의 하나님이 실존하며, 공간이라는 방대한 무대는, 창조를 공연하는 거대한 연극--곧 우주의 모험--, 즉 영원한 시대들의 신성한 파노라마를 위한 것이다.

8:1.2 (90.6) 무한한 영의 첫 행위는, 자신의 신성한 부모인, 아버지이신_아버지와 어머니이신_아들을 면밀히 살피고 알아보는 것이다. 그는, 즉 영은 두 분과 조건 없이 동일하다. 그는 두 분의 조합된 본성과 결합된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두 분의 분리된 인격체 및 무한한 속성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한다. 그 다음은, 초월적인 자진성과 영감을 주는 자발성과 함께, 자유의사{自由意思}로, 신격의 제3 인격자가 제1 인격자 및 제2 인격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아들 하나님을 영구히 신뢰하기로 고백한다.

8:1.3 (90.7) 이런 진행사항 본질 속에 내재된, 그리고 각각의 인격체 독립성 및 세 분 전체의 행정적 합동에 대한 상호 인식 속에 내재된, 영원성의 순환{循環}이 확립된다.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한다.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의 하나님⁸이 집행하심으로써, 만유의 아버지의 목적을 창조적으로 전개하는, 다중적이고 끝나지_않는 파노라마를 위해 우주 공간의 무대가 마련되는데, 이 행동의 하나님은, 아버지와_아들 사이의 창조자 동업관계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집행 대리인이다.

8:1.4 (91.1) 행동의 하나님이 활약하고, 잠잠하던 공간 저장소가 요동친다. 10억 개의 완전한 구체가 갑자기 나타나 실존한다. 가상{假想}하는 이 영원성 순간 이전에, 낙원에 내재된 공간_에너지가 실존하고 잠재적으로 작동하지만, 존재로서의 실제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또한 끊임없는 끌어당김에 대한 물질 실체들의 반응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물리적 인력이 측정될 수 없다. 영원히 먼 (가정된) 이 순간에 물질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0억 세계가 물질화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낙원의 영원한 지배 안에 그것들을 붙잡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8:1.5 (91.2) 하나님들의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둘째 에너지 형태가 분출하며, 넘쳐흐르는 이 영{靈}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에 즉시 점유된다. 그래서 두 부분의 인력이_내포된 우주는, 무한성 에너지와 접촉하고 신성{神性}의 영 속에 파묻힌다. 이런 방법으로, 무한한 영의 연합된 정보 회로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정신이 의식하도록 생명을 심을 토양이 준비된다.

8:1.6 (91.3) 이런 잠재적 실존 씨앗이 하나님들의 중앙 창조에 두루 뿌려지면, 아버지가 행동하시고, 피조 인격체가 출현한다. 그 다음에 낙원 신격들의 현존이, 조직된 우주 전체를 채우고, 모든 물체와 존재를 낙원_쪽으로 효과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8:1.7 (91.4) 무한한 영은 하보나 세계들의 탄생과 동시에 영구화되는데, 이 중앙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조합된 개념과 결합된 뜻에 순종하여,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일치되게,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창조된다. 제3 인격자는 공동으로 창조하는 바로 이 행위로 인해 신격화되며, 그리하여 그는 영원히 공동 창조주가 되신다.

8:1.8 (91.5) 이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동역자 및 독점
행정관인 제3 근원 및 중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행위 안에서, 두 분이 창조로 팽창하는 웅장하고 경이로운
시간이다. 이 움트는 시간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강력한 진행사항들을 입증하기에는 빈약한,
무한한 영의 계시들만 갖고 있을 뿐이며, 무한한 영은, 다만
인격체 및 의식{意識} 실존을 달성함과 동시에 중앙우주
및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8:1.9 (91.6) 간단히 말해서, 무한한 영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중앙우주 또한 영원함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온갖
우주 역사의 전통적인 시작점이다. 만유의 중앙에
존재하고 매우 절묘하게 작동하는 방대한 우주를
구체화시킨, 그 창조적 에너지와 경영적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 또는 진행사항들이
있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고 어떤 기록도 실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너머에는 신비스런 영원성의
진행사항들과 무한성의 심연{深淵}이--곧 절대 신비가--
펼쳐져 있다.

8:1.10 (91.7)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_묶이고 공간에_제약받는
필사 피조물 정신에게 겸손히 해석하는 뜻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순차적 기원{起源}을 그렇게 묘사한다. 사람의
정신에게 우주 역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야만 하며, 나는 영원성의 역사 개념에
접근하는 이 기법을 제공하도록 지시 받았다. 물질 정신
안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최초 원인이 요구되며;따라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를 모든 창조의 제1 근원 및 절대
중심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우주 역사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고 창조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 정신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낙원 섬의 실체성과 영원성,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신격 절대자의
실체성과 영원성을 어떤 의미에서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친다.

8:1.11 (92.1) 영원 속에 계신 아버지를 시간세계 자녀들의 물질
정신이 느끼는 데는, 손을 내미는 것으로 족하다. 어떤
자녀든지 처음에는 자녀_부모 입장의 관계를
숙지함으로써,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을 전체로 포용할
정도로 이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자신을 실체에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하는 정신은, 가족 관계 개념에, 공동체와 인종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주, 연방우주, 그리고 심지어 온갖 우주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한한 영의 본성

8:2.1 (92.2) 공동 창조주는 영원부터 존재하며,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과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으로 하나시다. 무한한 영은, 낙원 아버지의 본성뿐 아니라 원본 아들의 본성 역시 완전하게 반영하신다.

8:2.2 (92.3) 제3 근원 및 중심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우주적 영, 최상의 안내자, 공동 창조주, 신성한 행정관, 무한한 정신, 영들의 영, 낙원 어머니 영, 공동 행위자, 최종 협조자, 편재{遍在}하는 영, 절대 지성, 신성한 행위 등이며;유란시아에서는 때로 시공우주 정신과 혼동된다.

8:2.3 (92.4) 신격의 제3 인격자를 무한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 피조물은, 물질을 기본 실체로 보고, 영과 함께 정신을

물질에 근거한 어떤 가정적{假定的}인 것들로 보려는 실책을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그를, 무한한 실체, 우주의 조직가, 또는 인격체 협조자라고 부른다면 제3 근원 및 중심을 더 잘 납득할 것이다.

8:2.4 (92.5) 신성{神性}이 우주에 계시된 존재로서의 무한한 영은 불가사의하며,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철저히 벗어난다. 영의 절대성을 감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묵상하고, 원본 아들의 영원성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2.5 (92.6)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 정말로 신비로움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더욱 그렇다.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의 본성의 모든 면 중에서 무한성을 가장 현저히 드러낸다. 총괄우주가 결국에는 무한에 이르기까지 팽창하더라도, 공동 행위자의 영 현존, 에너지 통제, 및 정신 잠재력은, 그런 무제한 창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발견될 것이다.

8:2.6 (92.7) 무한한 영은, 모든 면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완전성, 응보, 및 사랑을 공유하더라도, 영원한 아들의 자비 속성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광우주에 대한

낙원 신격들의 자비 사역자가 된다. 영은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곧 보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자비를 베푸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성한 아들들이 드러내듯이, 신성한 영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8:2.7 (93.1) 모든 선함이 아버지로부터 기원되기 때문에, 영이 아버지보다 더 선함을 지닐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선함을 영의 행위에서 더 잘 납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들의 불변성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의 애정 어린 사역과 끊임없는 봉사로 인해, 영{靈} 존재들에게, 그리고 구체들에 있는 물질 피조물에게 확실히 실현된다.

8:2.8 (93.2)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고{思考}와 진실한 성품 전체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신성의 이 숭고한 특징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정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에 종속하여, 최상에_가까운 시공우주 정신 수준까지 조정된다.

3.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의 관계

8:3.1 (93.3) 영원한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첫” 사고{思考}가 말씀으로 표현된 분이듯이, 공동 행위자는 완성된 “처음” 창조 개념 또는 완전한

계획이 이행된 분인데, 절대적 사고와_말씀을 통합하는 아버지와_아들, 두 인격체가 동업관계로 결합하여 행동하기 위해서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중앙 창조, 즉 명령에 의한 창조와 동시에 영존하게 되며, 오직 이 중앙 창조계만이 우주들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한다.

8:3.2 (93.4) 제3 근원이 인격화 된 이래, 제1 근원은 더 이상 우주 창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만유의 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영원한 아들에게 위임하며;마찬가지로, 영원한 아들은 가능한 모든 권한과 능력을 공동 행위자에게 증여한다.

8:3.3 (93.5) 영원한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동격 인격체들을 통해서, 실존하게 된 모든 하보나_이후의 우주를 계획하고 생기게 했다. 최초의 중앙 창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지한 것과 똑같은 개인적 관계를, 영은 그 다음의 모든 창조에서 아들에 대해 유지한다.

8:3.4 (93.6) 영원한 아들의 한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한 창조적 영이 너희와 너희의 우주를 창조했으며;그들이 이미 조직한 것을 아버지께서 신실함으로 유지하시는

동안, 그들의 작품을 양육하고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든 피조물을 보살피는 일이,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에게 맡겨진다.

8:3.5 (93.7) 무한한 영은, 모두를_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모두에게_자비로우신 아들의 유능한 대리인인데,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진리를_사랑하는 모든 혼을 자신들에게로 이끄는 공동 기획{企劃}을 실행하는 대리인이다. 우주들의 피조물을 완전케 도달하도록 만드는 아버지의 계획을 영원한 아들이 받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 즉 상승 기획이 아버지와_아들의 계획이 되던 순간에, 무한한 영은 두 분의 일치된 영원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경영자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무한한 영은 신성한 현존에 대한, 그리고 영 인격체들에 대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드렸으며;의지를 지니고 생존하는 피조물,을 낙원처럼 완비되는 신성한 경지로 고양시키는, 엄청난 계획에 *모든 것을* 헌신해 왔다.

8:3.6 (93.8) 무한한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을,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내는

분입니다. 아버지와_아들의 동업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무한한 영은 신성한 사고와_말씀이 통합된 공동 대표자다.

8:3.7 (93.9)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께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존재들은, 오직 영의 끈기 있는 보살핌을 통해서만 아들을 발견할 수 있다.

8:3.8 (94.1)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만유{萬有}의 중심에서 낙원 신격들 가운데 제일 먼저 무한한 영에 도달하게 된다. 제3 인격자가 제2 및 제1 인격자를 감싸고 있으며,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께 소개될 모든 후보자는, 반드시 제3 인격자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8:3.9 (94.2) 그리고 여러 다른 면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대변하고 비슷하게 섬긴다.

4. 신성한 사역의 영

8:4.1 (94.3) 물리적 우주에서는 낙원 인력이 모든 물체를 그 안에 함께 붙들고 있듯이, 영적 우주에서는,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고{思考}를 해석하며, “육신이 됐을” 때, 그

말씀은 관련된 창조주들 전체의 본성인 애정 어린 자비를 나타낸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영적인 이 창조계 전체에, 그리고 이 창조계 도처에 방대한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무한한 영과 그의 영 자손들은, 협동해서 고안{考案}하고 조성한 지성 자녀들에게, 신성한 부모로서 통합된, 자비, 인내심, 및 영구적 애정을 보여준다. 정신에 대한 영구적인 사역이, 영의 신성한 성품의 본질이다. 그리고 공동 행위자의 영 자손 전체가, 사역에 대한 이 열정, 즉 봉사하고자 하는 이 신성한 충동을 함께 갖는다.

8:4.2 (94.4)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아들은 자비시고, 영은 사역이시다--모든 지성 피조계에 신성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다. 영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의인화{擬人化}하는 분이며;두 분은 우주에 봉사하기 위해, 영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신다. 영은 피조물 창조계에 적용되는 사랑, 즉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사랑이다.

8:4.3 (94.5) 유란시아에서는 무한한 영이, 편재하는 영향력, 즉 보편적 현존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보나에서 너희는 무한한 영이 실제로 보살피고 몸소 현존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낙원 영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창조된 존재들을 돌보는 그의 동격 영들, 그리고 하위 인격체들 각자에게, 모범적이고 영감 주는 원형{原型}이다. 무한한 영은, 이 신성한 우주에서 영원한 아들이 초월적으로 일곱 번 출현하신 일에 충분히 참여했으며;마찬가지로 하보나 회로들에 일곱 번 증여되는 과정에서 원본 미가엘 아들과 함께 했는데, 그리하여 완전한 저 높은 곳에서 이 궤도들을 지나가는 각 시간 순례자들에게, 동정적이고 이해심 많은 영 사역자가 되셨다.

8:4.4 (94.6)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제시된 지방우주를 창조자 자격으로 책임지기로 수락할 때, 이 미가엘 아들이 창조적 모험의 사명을 시작할 때,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사역자로서 자신을 바친다. 특히 창조적 딸,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의 인격자 안에서, 점점 더 높은 영적 달성 수준을 향한 물질 피조물의 상승을 촉진하는 과제에 무한한 영이 헌신돼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이 모든 작업은, 이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들의 목적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그 인격체들과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진행된다.

8:4.5 (94.7) 한 우주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인격체를 계시하는 거대한 과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여하듯이, 무한한 영은, 각 우주의 모든 자녀의 개인 정신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사랑을 계시하는, 끝없는 사역에 헌신돼 있다. 영은, 이 지방 창조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일부가 하는 것처럼,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물질 인종들에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무한한 영과 그의 동격 영들은 자신을 낮추는데, 이 세상 실존의 낮은 경로를 통해서 너희 옆에 서 있고 너희를 안내하는 천사들로서 나타나기까지, 놀라운 일련의 신성{神性} 감소 과정을 기쁨으로 견딘다.

8:4.6 (95.1) 무한한 영은, 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감소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리고 한 인격자로서, 동물이_기원되는 구체의 어떤 존재에게든지 매우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영은, 만물의 중앙에서 신격의 제3 인격자로서 자신의 실존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행한다.

8:4.7 (95.2) 공동 창조주는 정말로, 또한 영원토록, 위대한 돌보는 인격체, 즉 보편적 자비 사역자다. 영의 사역을

납득하려면, 그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아들의 영원한 자비가 합쳐진 모습이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영의 사역이 오직 영원한 아들과 만유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일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무한한 영 역시, 자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그 영역의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제3 인격자는 신성한 존엄성에 속하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우주에 자비 사역을 베푸신다.

8:4.8 (95.3) 사람은, 이 무한한 영의 피조물 계통에 속하는 하위 계층들의 사랑스럽고 꾸준한 사역을 더 많이 배울 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이 통합된 행동의 초월 본성{本性}, 그리고 비길 데 없는 성품을 훨씬 더 사모하고 동경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 영은, “언제든지 정의를 바라보는 주의 눈”이며, “저희의 기도{祈禱}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신성한 귀”이다.

5. 하나님의 현존

8:5.1 (95.4) 무한한 영의 뛰어난 속성은 편재성{遍在性}이다. 온갖 우주 전체에는, 완전히_충만한 이 영{靈}이 어디든 현존하는데, 보편적이고 신성한 정신의 현존과 매우

유사하다. 신격의 제2 인격자 및 제3 인격자의 항상_현존하는 영들이, 모든 세계에서 두 분을 대표한다.

8:5.2 (95.5) 아버지는 *무한*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유의사로만 제한된다. 아버지는 조울사를 증여할 때, 그리고 인격체를 회로화할 때 홀로 행동하지만, 지성 존재와 영 세력들을 접촉할 때에는,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들과 인격체들을 활용하신다. 그는 의지로 아들과 또는 공동 행위자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현존하며;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 현존하신다. 아버지는 가장 확실하게 어디든지 현존하시며, 우리는, 관련된 세력, 영향, 및 현존을 제외한 이 다양성 전체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현존을 식별한다.

8:5.3 (95.6) 너희의 신성시되는 문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낙원에 있는 무한한 영과 너희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 둘 다를 호환적{互換的}으로 뜻하도록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거룩한 영은, 낙원 무한한 영의 이 창조적 딸의 영적 회로다. 거룩한 영은, 각 지방우주에 고유한 회로이고, 그 창조계의 영적 영역에 제한돼 있지만;무한한 영은 어디든지 계신다.

8:5.4 (95.7) 많은 영적 영향력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존재한다. 심지어 사고 조울사들의 활동도, 다른 모든 영향력과는 무관하지만, 무한한 영과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조합된 영향력의 영 사역과 일정하게 부합한다. 이 영적 현존들이 유란시아인의 삶에서 작동할 때, 그들을 구별할 수 없다. 다양하게 기원됐음에도, 그들은 너희 정신에서, 그리고 너희 혼에서, 하나의 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결합된 이 영적 보살핌이 체험될 때, 그것은 너희에게 지존자의 영향력이 되는데, 이 지존자는, "너희를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줄 수 있고, 높은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 죄 없다할 수 있는 분이다."

8:5.5 (96.1) 무한한 영이 *공동 행위/자임*을;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작용하시고 있음을; 그가 자신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_아들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인식해서, 그리고 많은 추가적 이유로 인해서, 무한한 영의 영 현존이 종종, "하나님의 영"으로 간주된다.

8:5.6 (95.2) 영적 사역으로 접촉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간주하는 것 또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및 칠중 하나님의 영들이--심지어 지존자 하나님의 영도-- 연합해서 그렇게 접촉하기 때문이다.

6. 무한한 영의 인격체

8:6.1 (96.3) 제3 근원 및 중심이 널리 증여되고 광범하게 분배된다고 해서, 그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다르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라. 무한한 영은, 하나의 우주 현존, 영원한 행위, 시공우주 능력, 거룩한 영향력, 및 보편적 정신이며;이 모든 것인 동시에 무한하게 그 이상{以上}이지만, 또한 참되고 신성한 인격체시다.

8:6.2 (96.4) 무한한 영은, 완성되고 완전한 인격체, 즉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신성한 동등자이고 협조자시다. 공동 창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경우처럼, 우주들의 고등 지성체에게 실체이고 식별되며;정말로 그 이상{以上}인데, 모든 상승자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기 전에 반드시 도달해야 될 분이 영이기 때문이다.

8:6.3 (96.5)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는, 너희가 인격체와 연관 짓는 그 모든 속성을 소유하신다. 영은 절대 정신을 타고난다:“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영은 정신뿐만 아니라 의지도 지니신다. 자신의 은사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돼 있다:“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바로 이 영이 하시고,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

8:6.4 (96.6) “영의 사랑”은 실재하고, 그의 슬픔도 그러하며;그러하니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무한한 영을 낙원 신격으로 보든지 또는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으로 보든지, 우리는 공동 창조주가 제3 근원 및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인격자임을 발견한다. 이 신성한 인격체는 또한 우주에게 한 인격자로서 반응하신다. 영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귀 있는 자는 영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영 자신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신다.” 영은 창조된 존재들에게 직접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8:6.5 (96.7) 우리가, 온갖 우주의 멀리 있는 세계들에 대해 무한한 영이 사역하시는 현상을 보더라도,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기원되는 다중{多重} 존재로 구성된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군대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바로 이 조정하는 신격을 상상하더라도, 영의 편재성을 인식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바로 이 제3 근원 및 중심이 한 인격자, 즉 모든 물체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공동 창조주이심을 확신한다.

8:6.6 (96.8) 우주들의 경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완전하게 영원히 상호연합한다. 각자가 전체 창조에서 어떤 개인 사역에 참여하더라도, 창조하고 통제하는 봉사에 세 분 전체가 신성하게 절대로 연결돼 있고, 이것이 영원토록 세 분을 *하나*로 만든다.

8:6.7 (97.1)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무조건으로 완비{完備}된 상태에서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 공동으로 현존하시는데, 영은 아버지와 같고 아들과 같으며,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영구적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영이 두 분과 같기 때문이다.

8:6.8 (97.2) [무한한 영의 본성과 활동을 설명하도록 태고
항존자가 위임한,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유란시아에
제시했음]

제9편 무한한 영과 우주의 관계

9:0.1 (98.1) 낙원이 현존하는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자신들을 인격화시키기 위해 결합할 때, 어떤
생소한 일이 발생했다. 절대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를 조종하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받은 무제한 영적
권위로서 공동 행위자가 인격화하리라는 것을, 이 영원성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예시하지 않는다. 그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중앙에 집중된 완비{完備}라는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인격체 절대론이라는 족쇄로부터, 아버지의
해방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해방은, 그 후에 진화하는
우주의 물질 피조물까지도 섬기는 영으로서 봉사하도록
잘 적응된 존재들을, 공동 창조주가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에서 드러난다.

9:0.2 (98.2) 아버지의 사랑과 자유의지, 영적 사고와 목적은
무한하며;그는 우주의 유지자시다. 아들의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은 무한하며;그는 우주의 계시자시다.

낙원은, 힘을 부여하는 잠재력, 그리고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며;낙원은 우주의 안정장치다. 공동 행위자는, 합성하는 독특한 특권, 즉 모든 현존 우주 에너지, 모든 실제 우주 영, 그리고 모든 진정한 우주 지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제3 근원 및 중심은,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에서 나타난, 다중{多重} 에너지와 다양한 창조계를 보편적으로 통합하는 분이다.

9:0.3 (98.3) 무한한 영, 즉 공동 창조주는 보편적이고 신성한 사역자시다. 안정되고 변치 않으며 의로운 낙원 삼위일체의 응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영은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돌보신다. 그의 영향력과 인격체들이 항상 너희 가까이 있으며;그들은 실제로 너희를 알고 진정으로 너희를 이해한다.

9:0.4 (98.4) 우주들 도처에서 공동 행위자의 대행기관들이, 모든 공간의 힘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조종한다. 제1 근원 및 중심과 마찬가지로, 제3 근원 및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전부에 반응한다. 공동 행위자는 하나님의

통일성을 드러내는 분인데, 만유가--곧 물체와 의미와 가치;그리고 에너지와 정신과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

9:0.5 (98.5) 무한한 영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영원성 궤도에 내주하시며;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영은 완전하고 변화하지 않는다--절대적이다.

1.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

9:1.1 (98.6) 제3 근원 및 중심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관계를 나타내고 기능을 인식하는 이름이다:영 하나님으로서, 그는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체 협조자이고 신으로서 동등하다. 무한한 영으로서, 그는 편재하는 영적 영향력이다. 우주의 조종자로서, 그는 동력{動力}을 통제하는 피조물의 조상이며, 시공우주 공간 세력들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다. 공동 행위자로서, 그는 아버지_아들의 합동 대표자이고 동업관계의 행정관이다. 절대적 정신으로서, 그는 우주들 전반에 지성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행동의 하나님으로서, 그는 움직임, 변화, 및 관계의 명백한 조상이다.

9:1.2 (99.19)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 가운데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아들로부터 유래되며, 한편 또 다른

것들은 아버지 또는 아들 안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몸소 현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제3 근원 및 중심을 영구화시키는 아버지_아들 동업관계가 낙원의 완전성이라는 영원한 사실과 일치하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서, 시종일관하게 작용한다고 추측하는 것 외에는, 이런 속성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공동 창조주는, 신격의 제1 인격자 및 제2 인격자의 통합되고 무한한 개념들을 넉넉하게 실현한다.

9:1.3 (98.8) 너희는 아버지를 원본 창조자로, 그리고 아들을 영적 경영자로 예견하는 한편, 제3 근원 및 중심을 보편적 조정자로, 무제한 협동 사역자로 생각해야만 한다. 공동 행위자는 실재하는 모든 실체를 상호 관련시키는 분이며; 아버지의 사고{思考}와 아들의 말씀을 간직하는 신격 저장소이고, 행동할 때에는 중앙 섬의 물질 절대성에 끊임없이 주목하신다. 낙원 삼위일체가 진보라는 보편적 질서를 제정했고, 하나님의 섭리는 공동 창조주 및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영역이다. 실제적이거나 실제화하는 어떤 실체든지, 제3 근원 및 중심과 맺은 궁극적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9:1.4 (98.9) 만유의 아버지는 에너지_이전{以前} 부문, 영_이전 부문, 및 인격체 부문을 관장하며;영원한 아들은 영적 활동 분야를 지배하며;낙원 섬 현존은 물리적 에너지 및 물질화 하는 동력 범위를 통합하며;공동 행위자는 아들을 대변하는 무한한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낙원의 힘과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조종자로서 활동하는데, 그리하여 보편적 절대 정신을 실존하게 한다. 공동 행위자는 광우주 전역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인격체로서 활약하는데, 특히 영적 가치, 물리적_에너지 관계, 및 참된 정신 의미를 가진 고등 분야에서 활약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에너지와 영이 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활약하며;정신으로 모든 반응을 지배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며,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3 근원은 항상 제1 근원 및 중심의 본성을 나타낸다.

9:1.5 (98.10) 제3 근원 및 중심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편재성{遍在性}을 완전하게 조건 없이 공유하는데, 때로는 편재하는 영으로 불린다. 독특하면서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정신의 하나님인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의 편재성을 공유하며;영의 지식은 심오하고

완벽하다. 공동 창조주는, 만유의 아버지의 어떤 전능성 국면들을 나타내지만, 정신 영역에서만은 실제로 전능하다. 신격의 제3 인격자는 정신 부문들에 대한 지적{知的} 중심이고 보편적 경영자이며;이 면에서 그는 절대적이다--그의 주권은 무조건적이다.

9:1.6 (98.11)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와_아들의 동업관계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아버지와_낙원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로는, 어떤 기능에서는, 그가 체험 신격들의--곧 지존자 하나님과 궁극자 하나님의-- 불충분한 발전을 보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9:1.7 (100.1) 그리고 무한한 신비가 여기에 있다: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그리고 낙원으로서, 자신의 무한성을 동시에 드러냈으며, 그리고 나서, 신성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고, 아들의 영적 본성을 반영하며, 낙원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한 존재가 솟아나서 실존하는데, 이 존재는 주권에서는 잠정적으로 종속적이지만, *행위*에서는 여러 면으로 가장 다재다능한 듯이 보인다. 그리고 행위에서 그런 명백한 우월성은, 심지어 물리적 인력보다--곧 낙원

섬이 우주에서 형태화되는 것보다-- 더 우세한 제3 근원 및 중심의 속성에서 드러난다.

9:1.8 (100.2) 물리적 에너지와 사물에 대한 이 초월통제 외에도, 무한한 영은, 인내, 자비, 및 사랑의 속성을 훌륭히 부여받았는데, 이런 속성은 그의 영적 사역에서 아주 절묘하게 드러난다. 영은, 사랑을 공급하기에, 그리고 자비로 정의를 완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하다. 영 하나님은 영원한 원본 아들의 숭고한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 전체를 소유한다. 너희가 기원된 우주는, 정의라는 모루와 고난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만들어졌지만;망치를 휘두르는 자들은, 자비의 자녀, 즉 무한한 영의 영 자손이다.

2. 편재하는 영

9:2.1 (100.3) 하나님은 삼중적 의미에서 영이신데:하나님 자신이 영이며;아들 안에서 조건 없는 영으로서 나타나며;공동 행위자 안에서는, 정신과 연합한 영으로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이 영적 실체들 외에, 우리는 체험 영 현상의 수준들을--곧 지존하신 분, 궁극 신격, 및 신격 절대자의 영들을-- 식별한다고 생각한다.

9:2.2 (100.4) 무한한 영은,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보완존재인 것과 똑같이, 영원한 아들의 보완존재다.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가 영화{靈化}됨으로 인격화된 분이며;무한한 영은 영원한 아들과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화됨으로 영화{靈化}된 분이다.

9:2.3 (100.5) 유란시아 사람들을 낙원의 신격들과 직접 연결시키는, 속박되지 않은 영적 힘의 계통 및 초물질 능력의 근원이 많이 있다. 사고 조율사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고, 영원한 아들은 영적_인력의 광범한 영향을 받고, 공동 창조주는 영적으로 현존한다. 아들의 영{靈}과 영의 영 사이에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제3 인격자는 영적으로 보살필 때, 정신과 영의 결합으로서 또는 오직 영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9:2.4 (100.6) 유란시아인은, 이 낙원 현존들 외에,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의 영적 영향과 활동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데, 이 우주들에는, 목적이 참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신성{神性}이라는 이상과 최상의 완비라는 목표를 향해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인도할, 사랑하는 인격체들이 거의 끝없이 배열돼 있다.

9:2.5 (100.7) 우리는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이 현존하심을 *안다*--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무한한 영, 즉 신격의 제3 인격자의 현존을, 심지어 필사적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지방우주에서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거룩한 영으로서 활동하는 이 신성한 영향력의 은혜를, 물질 피조물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또한, 조율사, 즉 만유의 아버지의 비인격 현존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을 고양시키고 영화{靈化}시키는 이 신성한 영들은 모두 완전한 협동 속에서 조화롭게 활동한다. 그들은, 필사자를 상승시키고 완비{完備}에 도달하게 하는 계획을 영적으로 작동시킬 때, 하나처럼 일하신다.

3. 우주의 조종자

9:3.1 (101.1) 낙원 섬은 물리적 인력의 근원 및 본질이며;물리적인 온갖 우주 전체 안에서, 이 인력이 가장 *실제적*이고 영원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임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힘과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력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는데, 이 힘과

에너지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자에게 위탁됐으며, 기능적으로 그와 관련돼 있다.

9:3.2 (101.2) 무한한 영은 독특하고 놀라운 능력을--곧 반인력{反引力}을-- 지니고 있다. 이 능력은 아버지나 아들 안에서는 기능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3 근원에 내재하는, 물질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이 역량은, 우주 관계의 특정한 단계에 대해 공동 행위자가 몸소 반응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독특한 이 속성은, 무한한 영의 어떤 고등 인격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9:3.3 (101.3) 반인력은, 국지적 틀 안에서 인력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동일한 힘 현존을 활동시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반인력은 오직 물질 인력과 관련해 작동하며, 정신의 행위가 아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인력_저항 현상은 반인력 효과를 잘 보여주는 예이지만, 반인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가치가 없다.

9:3.4 (101.4) 공동 행위자는, 세력을 초월하고 에너지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한층 더 나타낸다. 그런 능력은, 물질화 되는 지점까지 에너지를 감속시킴으로써,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법으로 작용한다.

9:3.5 (101.5) 공동 창조주는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의 근원도 아니고, 에너지의 종착점도 아니며;에너지 조종자다. 공동 창조주는 행동이다--움직임, 변화, 변경, 협조, 안정, 및 평형이다. 낙원의 직접 또는 간접 통제를 받는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제3 근원 및 중심과, 그의 다중{多重} 대행기관들의 행동에 반응한다.

9:3.6 (101.6) 온갖 우주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동력을 통제하는 피조물, 즉:물리 통제관,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규제와 안정에 관여해야만 되는 행동의 하나님의 기타 대리인들로 가득 차 있다. 물리적 기능을 갖는 독특한 이 피조물은 모두 반인력 같은 다양한 동력 통제 속성을 갖는데, 광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물리적 평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반인력을 활용한다.

9:3.7 (101.7) 행동의 하나님의 이 모든 물질 활동은 낙원 섬에 자신의 기능을 결부시키는 듯하며, 정말로 능력 대행기관들은 모두 영원한 섬의 절대성을 존중하고, 심지어 거기에 의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공동 행위자는 낙원을 위해 행동하거나 낙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몸소 행동한다. 낙원은 인격자가 아니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없는, 인격아닌, 그리고 기타 몸소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동 행위자 자신의 자발적 행동이며;어느 사물이나 누구에 대한 반영도, 파생물도, 반응도 아니다.

9:3.8 (101.8) 낙원은 무한성의 원형{原型}이며;행동의 하나님은 그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분이다. 낙원은 무한성의 물질적 지레받침이며;제3 근원 및 중심의 대행기관들은 지성을 지닌 지렛대인데, 이 지렛대는 물질 수준에 동기를 부여하고, 물리적으로 창조된 구조 속으로 자발성을 주입시킨다.

4. 절대 정신

9:4.1 (102.1) 제3 근원 및 중심에게는, 물리적 속성과 영적 속성과는 확연히 다른 지적 본성이 있다. 그런 본성을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직접은 아니더라도 지성적으로-- 연상할 수는 있다. 기능의 정신 수준에서, 이 본성은 제3 인격자의 물리적 속성 및 영적 성품과 구분되지만, 인격체가 식별할 만큼 이 본성이 물리적 또는 영적 형태화{形態化}와 별도로 작용하는 일은 전혀 없다.

9:4.2 (102.2)

절대 정신은 제3 인격자의 정신이며;영 하나님의 인격체와 분리할 수 없다. 정신은, 활동하는 존재들 안에서 에너지나 영 또는 둘 다로부터 분리돼 있지 않다. 정신은 에너지 안에 선천적으로 들어있지 않으며;에너지는 정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정신에 대해 반응할 수 있으며;정신은 에너지 위에 첨가될 수 있지만, 순전히 물질적인 수준에는 의식이 고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이 순수한 영에 덧붙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영은 선천적으로 인식하고 식별하기 때문이다. 영은 항상 지성적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한다*. 영은 이런 정신 또는 저런 정신일 수 있고, 선{先}정신 또는 초월정신, 심지어 영 정신일 수 있지만, 생각하고 아는 것에 상당하는 일을 한다. 영의 통찰력은 정신의 의식을 초월하고, 이 의식의 결과로 일어나며, 이론적으로 이 의식보다 앞선다.

9:4.3 (102.3)

공동 창조주는 정신 영역, 즉 우주의 지성 범주에서만 절대적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은 무한하며;온갖 우주의 활동적이고 기능발휘하는 정신 회로들을 완전하게 초월한다. 일곱 연방우주의 정신 자질은, 일곱 으뜸 영, 즉 공동 창조주의 1차 인격체들로부터 파생된다. 이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광우주에 정신을 분배하며, 너희 지방우주는
시공우주 정신 가운데 오르본톤 유형의 네바돈 변종으로
가득 차 있다.

9:4.4 (102.4) 무한한 정신은 시간을 무시하고, 궁극적 정신은
시간을 초월하며, 시공우주 정신은 시간에 좌우된다.
그리고 공간도 그러한데:무한한 정신은 공간과
무관하지만, 무한 세계로부터 정신 보조 수준으로 하강할
때, 지능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계를 점점 더
고려해야만 한다.

9:4.5 (102.5) 시공우주 힘은 심지어 시공우주 정신이 영에
반응하듯이 정신에 반응한다. 영은 신성한 목적이고, 영
정신은 실행하는 신성한 목적이다. 에너지는 사물이고,
정신은 의미이며, 영은 가치다. 정신은, 영원 속에서 상호
유사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에너지와 영 사이의 상대적
연관성을, 심지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수립한다.

9:4.6 (102.6) 정신은, 영의 가치기준을, 지능이 깨닫는 의미로
변형시키며;자유의사는, 물질 분야와 영적 분야 모두에서
정신이 의미하는 것을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낙원 상승은, 영, 정신, 및 에너지의 상대적이고 구별되는

성장을 포함한다. 인격체는 체험에 의거한 개체성의 이
요소들을 통합하는 무엇이다.

5. 정신의 사역

9:5.1 (102.7)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은 무한하다. 우주가
무한으로 성장하더라도, 그의 정신 잠재력은, 지능의
적절한 정신 및 다른 필요 조건을, 무수히 많은 피조물에게
증여하기에 여전히 충분할 것이다.

9:5.2 (102.8) 창조된 정신 범위 안에서, 제3 인격자는 동격 및
하위 동역자들과 함께 최상으로 통치한다. 피조물 정신
범주는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독자적으로
지원되며; 그는 정신을 증여하는 분이다. 무한한 영의 정신
행위와 영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적당하게
준비되기 전에는, 심지어 아버지의 단편{斷片}도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9:5.3 (103.1) 정신의 독특한 특색은, 아주 광범한 생명체에게
증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은, 그의
창조하는 동역자와 피조 동역자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을 돌본다. 그는 지방우주 보조체들을
통해서, 인간 및 준인간{準人間} 지능을 돌보며, 물리

통제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는,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살아있는 물체 가운데 가장 낮은, 체험하지 못하는 실재까지도 돌본다. 그리고 정신이 지도하는 것은, 항상 정신_영 또는 정신_에너지 인격체들의 사역이다.

9:5.4 (103.2)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가 정신의 근원이므로,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이 영원한 아들 또는 만유의 아버지보다 무한한 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을 더 쉽게 형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공동 창조주 실체는, 인간 정신이라는 바로 그 실존 안에서는 불완전하게 드러난다. 공동 창조주는 시공우주 정신의 조상이며, 사람의 정신은 개인화 된 회로인데, 제3 근원 및 중심의 창조적 딸이 지방우주에 증여하는 그 시공우주 정신 중에서 인격아닌 부분이다.

9:5.5 (103.3) 제3 인격자가 정신의 근원이라는 이유로, 정신의 모든 현상이 신성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 지능은 동물에서 기원된 인종들의 물질적 태생에 뿌리를 둔다. 물리적 자연계가 낙원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참 계시가 아닌 것처럼, 우주 지성은 정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 계시가 아니다. 완전성이 자연계에 있지만, 자연은

완전하지 않다. 공동 창조주가 정신의 근원이지만, 정신은 공동 창조주가 아니다.

9:5.6 (103.4) 유란시아의 경우에, 완전한 사고{思考} 본질과, 미성숙한 너희 인간 본성의 진화하는 정신상태 사이를 정신이 절충한다. 너희의 지적 진화를 위한 계획은 정말로 숭고하게 완전한 계획이지만, 너희가 육신의 장막 안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 신성한 목표에 훨씬 못 미친다. 정신은 정말로 신성한 기원을 가지며, 신성한 운명을 갖지만, 너희 필사 정신은 아직 신성한 존엄성에 속하지 않는다.

9:5.7 (103.5) 너무나 종종, 아주 너무나 종종, 너희는 자신의 정신을 위선으로 훼손시키고 불의로 상처를 입히며; 정신을 동물 같은 불안감에 굴복시키고, 무익한 근심으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정신의 근원이 신성하더라도, 상승하는 너희 세계에서 너희가 아는 그런 정신은 큰 감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숭배나 경배의 대상은 더욱 될 수 없다. 미성숙하고 비활동적인 인간 지능의 묵상은, 겸손한 반응 쪽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6. 정신_인력 회로

9:6.1 (103.6) 보편적 지성체인 제3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창조계에서 각 정신, 각 지능을 친히 의식하며, 광범한 우주들에서,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정신을 부여받은 이 모든 피조물과 직접 완전한 접촉을 유지한다. 정신의 이 모든 활동은, 제3 근원 및 중심에 초점을 맞추는 절대 정신_인력 회로에 붙잡혀 있으며, 무한한 영이 친히 의식하는 일부분이 된다.

9:6.2 (103.7) 아버지가 모든 인격체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리고 아들이 모든 영적 실체를 끌어들이듯이, 공동 행위자 역시 끌어당기는 능력을 모든 정신에게 행사하며;우주의 정신 회로를 무조건 지배하고 통제한다. 모든 참되고 진실된 지적 가치, 즉 모든 신성한 사고{思考}와 완전한 개념은 반드시 정신의 이 절대 회로 안으로 이끌린다.

9:6.3 (104.1) 정신 인력은 물질적 및 영적 인력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이 물질적 및 영적 인력이 언제 어디서 부딪치든지, 정신 인력이 항상 작용한다. 셋 전체가 연합될 때, 인격체 인력이 물질 피조물을--곧 물리적 또는 모론시아적 피조물, 유한 또는 유한절대 피조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비인격 존재들 안에서조차, 정신의 부여는 생각할 자격을 주며, 인격체의 완전한 부재{不在}에도 의식을 부여한다.

9:6.4 (104.2) 그러나, 인격체 존엄성을 가진 개성은, 인간적이든지 신성하든지, 불멸하든지 잠재적으로 불멸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영이나 정신 또는 물질에서 기원되지 않으며;만유의 아버지의 증여물이다. 뿐만 아니라 영과 정신 그리고 물질 인력의 상호작용도, 인격체 인력의 출현에 필요조건이 아니다. 아버지의 회로는 영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정신_물질의 존재를 포함할 수 있고, 아니면 물질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정신_영의 존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인격체 인력의 작동은 반드시 만유의 아버지의 자발적 행동이다.

9:6.5 (104.3) 정신은,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들 안에 연합되는 에너지이고, 순전히 영적인 인격체들 안에 연합되는 영인데, 인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격체 계층은, 에너지와 영 둘 다와 연합되는 정신을 소유한다. 피조물 정신의 영적 측면은,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끌어당김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며;물질적 특색은 물질 우주의 인력 총동에
반응한다.

9:6.6 (104.4) 시공우주 정신은, 에너지 또는 영과 연합되지 않을
때에는, 물질 회로나 영적 회로의 인력 요구사항에
종속되지 않는다. 순전한 정신은 오직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인력 지배에 대해서만 종속된다. 순전한 정신은
무한한 정신과 가까운 동료이고, (영 및 에너지 절대현상과
이론적으로 대등한) 무한한 정신은 겉으로 보기에 법칙
자체다.

9:6.7 (104.5) 영_에너지 확산이 클수록,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도 더 커지며;에너지와 영의 변화가 적을수록,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도 적어진다. 명백히, 시공우주 정신의
최대 기능이, 시한{時限}이 있는 공간 우주들에 있다.
여기서 정신이 에너지와 영 사이의 어떤 중간_지대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높은 수준의 정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낙원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근본적으로 하나다.

9:6.8 (104.6) 정신_인력 회로는 신뢰할 만하며;낙원에 있는 신격
중에서 제3 인격자로부터 나오지만, 정신의 관측 가능한

기능 전체가 다 예측될 수는 없다. 알려진 창조 전반에 걸쳐서, 그의 기능이 예측될 수 없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존과 정신의 이 회로가 병행한다. 우리는, 이 예측 불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우주 절대자의 기능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무엇이 그것을 가동시키는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이 기능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해서, 겨우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9:6.9 (104.7) 유한한 정신의 예측 불가능성의 어떤 국면들은 지존하신 분의 미완성 때문일 것이며,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광대한 활동 지대가 있다. 알려지지 않은 정신에 관한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다:무한한 영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정신의 완전한 표현이며;지존하신 분은 창조주에 대한 모든 피조물 정신의 진화해가는 표현이다.

7. 우주 반사성

9:7.1 (105.1) 공동 행위자는, 정신적, 물질적, 및 영적 세계에 대한 동시 인식{認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주 실제성의 모든 수준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우주 반사성{反射性} 현상, 즉 그들이 어떤 연방우주 전체에

발산될 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리고 어떤 원하는 지점에서 반사성으로 이 정보와 지식 전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독특하고 불가해한 능력이다. 반사성 행위는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들 각각에서 완전하게 입증된다. 그것은 또한 연방우주들 전체 구역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지방우주들의 경계선{境界線} 안에서 작동한다. 반사성은 마지막으로 낙원에 초점을 맞춘다.

9:7.2 (105.2) 반사성 현상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 배치된 반사하는 인격체들의 놀라운 실행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창조에서 발견되는 모든 실존 국면{局面}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호연합을 나타낸다. 영{靈} 계통은 아들에게로, 물리적 에너지는 낙원으로, 정신은 제3 근원에게로 그 유래를 추적할 수 있지만;우주 반사성의 비범한 현상에는 셋 전체의 어떤 독특하고 예외적인 통합이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의 상황을, 그런 상황이 발생됨과 동시에 우주 통치자들로 하여금 즉시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합돼 있다.

9:7.3 (105.3) 우리는 반사성 기법 대부분을 납득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많은 국면이 있다.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정신 회로의 우주 중심이라는 것과, 시공우주 정신의 조상{祖上}이라는 것, 그리고 시공우주 정신이 제3 근원 및 중심의 절대 정신 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활동한다는 것을 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들이, 알려진 모든 실존의 지적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며;이 회로들은 우주 공간 보고서를 수용하고, 확실히 일곱 으뜸 영에 초점을 맞추고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모인다.

9:7.4 (105.4) 유한한 시공우주 정신과 신성한 절대 정신 사이의 관계는, 지존자의 체험 정신 안에서 진화하는 듯하다. 우리는 시간의 여명기에 이 체험 정신을 무한한 영이 지존자에게 증여했다고 배웠으며, 우리는 지존자 정신의 활동을 가정함으로써만 반사성 현상의 어떤 특색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지존자가 반사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공우주의 이 의식{意識}의 복잡한 처리사항과 정확한 운영을 어떻게 밝힐 도리가 없다.

9:7.5 (105.5) 반사성은 체험적 유한자의 제한조건 안에서 전지{全知}한 것처럼 보이며, 지존하신 분의 현존_의식의 출현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그 국면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반사성 활용은 지존자의 의식{意識}과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8. 무한한 영의 인격체

9:8.1 (105.6) 무한한 영은, 자신의 능력과 특권 중에서 많은 부분을 동격 및 하위 인격체와 대행기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소유한다.

9:8.2 (105.7) 무한한 영의 첫 신격_창조 행위는, 삼위일체와는 별개로,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계시되지 않은 어떤 연합에서 작동함으로써,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실존 속에 인격화 됐는데, 이들은 무한한 영을 우주들에 분배하는 자다.

9:8.3 (106.1) 연방우주 본부에는 제3 근원 및 중심을 직접 대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일곱 창조계 각각은, 낙원의 으뜸 영들 가운데 하나에 의존하는데, 그는 연방우주 수도에 위치한 일곱 반사하는 영을 통해 행동한다.

9:8.4 (106.2) 무한한 영이 그 다음에 계속하는 창조 행위는, 때때로 창조적 영들의 산출에서 드러난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들의 부모가 될 때마다, 무한한 영이 지방우주 창조적 영의 조상이 되는데, 창조적 영은 그 후에 겪는 모든 우주 체험에서, 그 창조주 아들의 가까운 동역자가 된다.

9:8.5 (106.3) 영원한 아들과 창조주 아들들 사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영과 창조주 아들들의 지방우주 협조자인 창조적 영들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창조에 대한 무한한 영의 관계는 지방우주에 대한 창조적 영의 관계와 같다.

9:8.6 (106.4)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본성을 갖는 특정 회로 감독관들과 함께, 사역하는 영, 전달자, 선생, 재판관, 도우미, 및 자문가들로 구성된 방대한 무리가, 광우주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을 대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존재들 모두가 인격체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유한_피조물의 인격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9:8.7 (106.5) 1. 주관적 자아_의식.

9:8.8 (106.6) 2.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대한 객관적 반응.

9:8.9 (106.7) 창조자 인격체들과 피조물 인격체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이 두 유형 외에,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들이 있는데, 무한한 영에 대해 인격적이지만 피조 존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격적이지는 않은 존재다. 이 제3 근원 인격체들은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의 일부가 아니다. 제1 근원 인격체 및 제3 근원 인격체는 상호 접촉이 가능하며; 모든 인격체가 접촉가능하다.

9:8.10 (106.8) 아버지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인격체를 증여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또한 우리는 제3 근원이 왜 아버지_이외{以外} 인격체를 증여하는지 모르지만, 무한한 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아들과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또한 무한한 영은 제1 근원 인격체 증여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9:8.11 (106.9) 제3 근원 인격체들에는 수많은 유형이 있다. 무한한 영은 특정한 동력 지휘자들 같은, 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집단에게, 제3 근원 인격체를

증여하신다.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은 수많은 집단의 존재를 인격체로 간주하는데, 아버지의 회로화{回路化}된 피조물에 대한 관계에서 스스로 어떤 계층에 속하는 창조적 영들이 그 예다.

9:8.12 (106.10) 제1 근원 및 제3 근원 인격체들은 모두, 사람이 인격체 개념과 연합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부여받으며;그들은, 기억, 이성, 판단, 창조적 상상력, 관념 조합, 결정, 선택, 그리고 필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지적{知的} 추가 능력을 포함하는 정신을 소유한다.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너희에게 제시된 계층들은 형체와 분명한 개체성을 갖고 있으며;그들은 실재하는 존재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모든 계층의 영 실존의 눈에 보인다.

9:8.13 (107.1) 현재의 물질적 눈의 제한된 시야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것들의 실체에 대한 모론시아 형식의 확장된 감수성을 부여받자마자, 너희도 하위 계층의 영적 동역자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9:8.14 (107.2) 제3 근원 및 중심의 기능적 부류는, 본 문서들에서 제시된 것처럼,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뉜다:

9:8.15 (107.3) 하나{I}. *최상급 영들*. 다른 것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계층을 포함하는 복합 기원을 갖는 집단:

9:8.16 (107.4) 1. 낙원의 일곱 으뜸 영.

9:8.17 (107.5) 2. 연방우주들의 반사하는 영.

9:8.18 (107.6) 3. 지방우주들의 창조적 영.

9:8.19 (107.7) 둘{II}. *동력 지휘자들*. 모든 조직된 공간에서 두루 활동하는, 통제하는 피조물 및 대행체 집단.

9:8.20 (107.8) 셋{III}.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의지를 지닌 피조물로서 독특함에도, 이 명칭은 이 존재들이 반드시 제3 근원 인격체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대개 세 주요 부류로 나뉜다:

9:8.21 (107.9) 1.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

9:8.22 (107.10) 2. 공간의 사자{使者} 무리.

9:8.23 (107.11) 3.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

9:8.24 (107.12) 이 집단들은, 낙원에서, 중앙 또는 거주{居住} 우주에서, 연방우주에서 봉사하며, 심지어 성좌들과 체계

그리고 행성에 이르기까지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는 계층들을 포함한다.

9:8.25 (107.13) 신성하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가족에 속하는 영 인격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모든 지성 피조물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 사역으로 봉사하는 일에 영원히 전념한다. 이 영 존재들은 살아있는 사다리인데, 이것을 통해서 필사적 사람이 혼돈으로부터 영광을 향해 올라간다.

9:8.26 (107.14) [무한한 영의 본성과 업무를 서술하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위임한,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유란시아에 계시했음]

제10편 낙원 삼위일체

10:0.1 (108.1) 영원한 신격들의 낙원 삼위일체는, 아버지가 인격체 절대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개인적 의지{意志}의 제한 없는 표현을, 신격의 절대성과 완전하게 연합시킨다. 영원한 아들, 그리고 신에게서 기원된 다양한 아들들은, 탁월성, 완전성, 무변성, 영원성, 보편성, 절대성, 및

무한성에 달리 내재된 제한조건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해방되시도록, 공동 행위자 및 그의 우주 자녀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준비한다.

10:0.2 (108.2) 신격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충분한 표현과 완전한 계시를, 낙원 삼위일체가 효과적으로 마련한다.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신{神}의 응보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를 제공한다. 삼위일체는 신격의 통일이며, 이 통일은 원래의 대등하고 공존하는 세 인격체,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및 영 하나님이 신으로서 하나 되는 절대 기초에 영원히 의거한다.

10:0.3 (108.3) 영원성 궤도에서, 현재 상황으로부터 끝없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주 직무에서 오직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낙원 삼위일체가 그것이다. 나는 삼위일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시간을 바라볼 때, 나는 온갖 우주 전체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필연적이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되돌아보거나 앞을 내다 볼 때, 삼위일체 없이는 현재의 총괄우주를 생각할 수 없다. 낙원

삼위일체만 계시면, 우리는 만사를 행하는 교차적인 방법 또는 심지어 복합적인 방법도 가정할 수 있지만,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삼위일체 없이는, 신격의 절대적 하나 되심 앞에서, 무한자가 어떻게 삼중성{三重性}인 동시에 동격의 인격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떤 다른 창조 개념도, 삼위일체의 기준, 즉 단일체인 신격에 내재된 절대성이 완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격이 삼중{三重}으로 인격화하는 데 내재된 의지를 충분히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 제1 근원 및 중심의 자기_분배

10:1.1 (108.4) 영원한 과거에,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자기_분배 원칙을 개시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의 사심{私心}없고 사랑하고 사랑스런 본성에는, 그가 증여하거나 위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발견한, 오직 그런 능력과 권위만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도록 유보시키는 무엇이 내재돼 있다.

10:1.2 (108.5) 만유의 아버지는, 다른 어떤 창조주나 피조물에게든지 증여될 수 있었던, 자신의 온갖 부분을 처음부터 벗어던졌다. 아버지는, 위임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신성한 아들들 및 그들과 관련된 지성체들에게 위임해 왔다. 그는, 양도될 수 있는 경영 권세의 모든 특권을, 주권자 아들들에게 그들의 각 우주에서, 실제로 양도해 왔다. 지방우주 직무에서 그는, 영원한 아들이 원본 중앙우주에서 완전하고 유능하며 권세 있음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창조주 아들 각각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 아버지는 인격체를 소유하는 존엄성 및 신성함에 맞춰서, 온갖 방법으로,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어떤 인격자에게나, 그리고 자신이 중앙에 거하는 우주를 제외한 모든 우주에서,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속성들 전체, 즉 벗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분배해 왔고 실제로 증여해 왔다.

10:1.3 (109.1) 신성한 인격체는 자기_중심적이 아니며;인격체를 스스로_분배하고 공유하는 것은 신{神}의 자발적 자아성의 특징이다. 피조물은 인격있는 다른 피조물과의 연합을 갈망하며;창조주들은 자신의 우주 자녀와 신성을 나누고 싶어 하며;무한자의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로서 나타나는데, 두 동격 인격체, 즉 영원한 아들 및 공동 행위자와, 존재의 실체성을 공유하고 자신과 동등함을 공유한다.

10:1.4 (109.2) 아버지의 인격체와 신성한 속성들에 관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아들의 계시에 의존할 것인데, 왜냐하면 공동 창조 행위가 발효됐을 때,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가 인격체 실존으로 솟아나오고 자신의 신성한 부모에 대한 혼합된 개념을 실행했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인격체로서 존재하기를 끝냈기 때문이다. 공동 행위자가 있게 되고 창조의 중앙 핵심이 물질화됨에 따라서, 확실한 변화, 영원한 변화가 발생됐다. 하나님은 절대 인격체로서 자신을 영원한 아들에게 내줬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무한성의 인격체”를 독생자 아들에게 증여한 반면, 두 분은 영원히 합동하는 “공동 인격체”를 무한한 영에게 증여했다.

10:1.5 (109.3) 유한한 정신 개념을 벗어나는 이 이유 및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버지_인격체를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아버지_인격체가 영원한 아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리고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 안에서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예외다.

10:1.6 (109.4)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때로는 심지어 필사자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여가, 신성한 인격체의 본성과 성품 중에서 일부를 필사적 사람이 실제로 알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행성 구면{球面}에 사는 피조물은, 이 낙원 아들들의 증여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한 확실하고 믿을만한 정보로 여겨야만 한다.

2. 신격의 인격화

10:2.1 (109.5) 삼위일체되는 기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조건 없는 영 인격체를 벗어버리시는데, 그 영 인격체가 아들이시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하여 의지를 가진 지성 피조물 가운데, 뒤이어 창조되거나 생겨나거나 또는 다른 인격화된 모든 유형의 신성한 아버지가 되기에 제한 없는 수용력을 지니신다. 아버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인격체*로서 오직 아들처럼, 그리고 아들과 함께 활동하실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진 지성 피조물인,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무리에게 *인격있는 아버지*로서 인격체를 계속 증여하며, 이 방대한 우주 자녀 가족 및 사랑하는 연합체와, 개인적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신다.

10:2.2 (109.6) 아버지가 아들의 인격체에 자신을 충만하게 증여하신 후에, 그리고 자신을 증여하는 이 행위가 완성되고 완전할 때, 아버지_아들 합동에서 그렇게 현존하는 무한한 능력과 본성 중에서, 여전히 자신들과 비슷한 또 다른 존재를 구성하는 그 특성과 속성들을, 영원한 두 동반자가 공동으로 증여하며; 이 공동 인격체, 즉 신격의 실존적 인격화를 무한한 영이 완성한다.

10:2.3 (110.1)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데 필수다. 영은 제2 인격자 및 제3 인격자의 조합에 없어서는 안 된다. 세 인격자가 최소한의 사회 집단이지만,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필연성을 믿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다.

10:2.4 (110.2) 제1 근원 및 중심은, 무한한 *아버지_인격체*, 즉 무제한의 근원 인격체시다. 영원한 아들은, 무조건 *인격체_절대자*, 즉 인격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한 계시로서 모든 시간과 영원성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시다. 무한한 영은, *공동 인격체*, 즉 영원한 아버지와_아들이 합동한 결과로 생긴 독특한 인격체시다.

10:2.5 (110.3)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는 무한한 인격체에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절대 인격체를 뺀 것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는, 해방된 아버지_인격체와 절대 아들_인격체를 더한 것보다 더 큰 결과다.

10:2.6 (110.4)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독특한 인격자들이며; 아무도 중복되지 않으며; 각자 고유하며; 전체가 연합돼 있다.

10:2.7 (110.5) 영원한 아들은 홀로, 신성한 인격체 관계의 충만함을 체험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심과 영의 아버지이심을 의식하고, 조상인_아버지 및 동역자인_영과 신으로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식한다. 아버지는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소유하는 체험을 알지만, 아버지는 어떤 조상 선재자{先在者}도 없음을 아신다. 영원한 아들은 아들신분의 체험, 즉 인격체 선조를 인식하며, 동시에 아들은 무한한 영에게 공동으로 어버이인 것을 의식한다. 무한한 영은 이중적 인격체 선조를 의식하지만, 동격의 어떤 신격 인격체에게도 어버이가 되지 않는다. 영을 포함해서, 신격으로 인격화되는 실존 순환과정이

완성되며;제3 근원 및 중심의 1차 인격체들은 체험적이고
그 수는 일곱이다.

10:2.8 (110.6) 나는 낙원 삼위일체 기원에 속한다. 나는
삼위일체를 통합된 신격으로 알고 있으며;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분명한 인격자의 수용력 안에서 존재하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들이 개인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집단을 이루어
업적을 조화시키고, 그리하여 결국 일곱 개의 다른 단수 및
복수 수용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 그리고
이 일곱 연합체가 그런 신성 조합을 위한 가능성을 다
소진했으므로, 가치, 의미, 및 인격체 면에서 우주
실체들이 일곱 변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3. 신격의 세 인격자

10:3.1 (110.7) 오직 한 분의 신격만 존재함에도, 신격의 세 가지
긍정적이고 신성한 인격화가 존재한다. 신성한 조율사를
사람에게 부여한 것에 관하여, 아버지는:“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했다. 복수{複數}
신격의 행위와 행동에 대한 이 언급이 유란시아의 작품에

두루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세 근원 및 중심이 실존하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아봤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0:3.2 (110.8) 삼위일체 연합에서, 아들과 영이 아버지께 대한 동일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들이 영원성에서 그리고 신격들로서 틀림없이 행동하지만, 때에 맞춰서 그리고 인격체들로서 매우 다양한 본성의 관계를 확실히 드러낸다. 낙원에서 우주들을 바라볼 때, 이 관계들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공간 범위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10:3.3 (111.1) 신성한 아들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의 자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행동”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말씀하고, 무한한 영을 통해서 행동하며, 한편 모든 우주 활동에서는 아들과 영이 절묘하게 우애 있는데, 영광을 받고 신성하게 존경받는 공통된 아버지를 위해, 동등한 두 형제로서 경외심과 사랑으로 일한다.

10:3.4 (111.2) 아버지, 아들, 및 영은 본성에서 분명하게 동일하고, 존재함에서 조화를 이루지만, 우주 활동에서는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홀로 행동할 때에는, 신격의 각
인격자가 절대성에서 제한되는 것 같다.

10:3.5 (111.3) 아들과 영을 구성하는 인격체, 능력, 및 속성들을
만유의 아버지께서 자아_의지로 벗겨내시기 전에, 만유의
아버지는 (철학적으로 고려할 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들이 제외된 그런 이론적 제1 근원 및 중심은, 어떤 말의
의미로든지 *만유의 아버지*로 간주될 수 없으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들신분 없이는 실제적이지 않다. 더욱이,
총체적 의미에서 절대적이어야만 했던 아버지는, 영원히
오래 전 어떤 순간에 홀로 존재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외롭게 실존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아들과 영 두 분 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신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항상 원본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며, 아들과 함께
무한한 영의 영원한 선조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10:3.6 (111.4) 우리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버지이신 것과 절대적
자유의사를 제외하고, 절대성을 직접 형태화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셨음을 목격한다. 자유의사가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속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오직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벗어버리지 *않으셨*음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의지의 무한성은, 제1 근원 및 중심에 영원히 내재돼 왔음이 분명하다.

10:3.7 (111.5) 인격체의 절대성을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만유의 아버지는 인격체 절대성이라는 족쇄에서 탈피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인격체_절대자로서 홀로 행동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단계를 거치신다. 그리고 공존하는 신격의--곧 공동 행위자의-- 최종 인격화와 함께, 절대성 안에서의 신격 역할의 전체성과 관련된, 신성한 세 인격체의 결정적인 삼위일체 상호의존성이 발생한다.

10:3.8 (111.6)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인격체의 아버지_절대자시다. 아버지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에서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이지만, 만들어진,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버지는 전체 신격으로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

10:3.9 (111.7) 제1 근원 및 중심은 하보나 바깥의 경이로운 우주들에서 다음과 같이 작용하신다:

10:3.10 (111.8) 1. 창조자로서, 손자인 창조주 아들들을 통해서.

10:3.11 (111.9) 2. 통제관으로서, 낙원의 인력 중심을 통해서.

10:3.12 (111.10) 3. 영으로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서.

10:3.13 (111.11) 4. 정신으로서, 공동 창조주를 통해서.

10:3.14 (111.12) 5. 아버지로서, 자신의 인격체 회로를 통하여, 부모로서 모든 피조물과 접촉을 유지하신다.

10:3.15 (111.13) 6. 인격자로서, 창조 전반에 걸쳐, 자신의 독점적 단편{斷片}들로--곧 필사적 사람 안에서 사고 조율사로-- 직접 행동하신다.

10:3.16 (111.14) 7. 전체{全體} 신격으로서, 오직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작용하신다.

10:3.17 (112.1) 만유의 아버지가 관할권을 이렇게 모두 양도하고 위임하심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스스로_떠맡은 것이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주 권세의 이런 제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취하신다.

10:3.18 (112.2) 영원한 아들은, 하나님의 단편{斷片}을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인격이전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영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은, 물질 피조물의 지적 활동뿐 아니라, 물질 우주의 에너지 활동과도 긴밀하게 관여하지 않는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들은 인격자로서 영적 우주 범위에서만 활동한다.

10:3.19 (112.3) 무한한 영은, 자신의 모든 운영에서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그는 정신, 물질, 및 영 세계들에서 활약한다. 공동 행위자는 아버지_아들의 연합을 대표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으로서 작용한다. 그는 물리적 인력과, 영적 인력과, 또는 인격체 회로와 직접 관계되지 않지만, 다른 우주 활동 전체에 다소 참여한다. 무한한 영은, 외견상 세 실존 및 절대 인력 통제에 의존하는 듯하며, 한편 세 초월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중 재능은 절대성의 초월궁극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1차 힘과 에너지의 형태화조차 초월하고 겉으로 보기에 무효화시키는 여러 방법에 포함돼 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초월통제권은 시공우주 실체의 원초적 형태화까지도 절대로 초월한다.

4. 신격의 삼위일체 합동

10:4.1 (112.4) 모든 절대 연합체 중에서, 낙원 삼위일체는(첫째 삼중체는) 인격있는 신격의 독자적 연합체로서 독특하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지만, 오직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만, 그리고 우주 전체성에 관해서만 절대 신격으로서 활동하신다.

10:4.2 (112.5) 영원한 신격은 완전히 통합돼 있으며;그럼에도 신격의 완전히 개별화된 세 인격자가 존재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제1 근원 및 중심과 그의 영원한 협조자들이 갖는 성품 특징 및 무한한 능력의 온갖 다양성, 그리고 나뉘지 않은 신격의 우주 기능들의 신성한 통일성을, 모두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한다.

10:4.3 (112.6) 삼위일체는, 인격없는 역할로, 그러나 인격체를 침해함 없이 작용하는, 무한한 인격자들의 연합체다. 미숙한 예증{例證}이지만, 인격없는 법인체{法人體}, 그럼에도 각자의 개인 의지에 지배되는 법인체를,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4.4 (112.7) 낙원 삼위일체는 *실재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격 합동으로 실존하지만; 아버지나 아들이나 영, 또는 세 분 가운데 어느 두 분이든지, 이 동일한 낙원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삼위일체가_아닌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지만, 세 신격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인격자들로서, 세 분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협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10:4.5 (112.8) 무한한 영이 행하는 일은 공동 행위자의 기능임을 항상 기억하라.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영 안에서, 영을 통해서, 그리고 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려고 시도함은 무익할 것인데:이 신비는 한 분으로서 세 분인 동시에 한 분 안에 계시는 세 분인 것, 그리고 두 분으로서 한 분인 동시에 두 분을 대행하는 것이다.

10:4.6 (112.9) 삼위일체는 전체 우주 직무에 대단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고립된 시공우주 사건 또는 인격체 관계든지 그 전체성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삼위일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삼위일체는 시공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작용하고, 필사적 사람은 유한 수준에 제한되어 있으며;따라서 사람은, 유한한 삼위일체 개념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만족해야만 한다.

10:4.7 (113.1) 너희는 육체 속에 있는 한 필사자로서, 너희 각자의 깨우침에 따라서, 그리고 너희의 정신과 혼의 반응과 조화를 이루면서 삼위일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너희는 삼위일체의 절대성을 매우 조금 알 수 있지만, 너희가 낙원을 향해 상승할 때, 절대성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삼위일체 지존성과 궁극성에 대한 계속되는 계시와 예상치 못한 발견 앞에서, 여러 차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5. 삼위일체의 기능

10:5.1 (113.2) 인격있는 신격들은 속성을 갖지만, 삼위일체가 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신성한 존재들의 이 연합체는 응보의 집행, 전체의 입장, 협조 행위, 그리고 시공우주 전면통제 등과 같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함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 기능들은 인격체 가치를 지닌 모든 생생한 실체가 고려되는 한, 능동적으로 최상이고, 궁극적이고, (신격의 한계 내에서) 절대적이다.

10:5.2 (113.3) 낙원 삼위일체의 기능은, 단순히 외견상 아버지가 부여한 신성에, 아들과 영의 인격있는 실존에 독특하게 있는 전문화된 속성을 더한 합계가 아니다. 세 낙원 신격의 삼위일체 연합체는, 보편적 계시와 행위와 경영을 위한, 새로운 의미, 가치, 능력, 및 수용력이 진화하고, 결말에 이르고, 신격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살아있는 연합체, 인간 가족, 사회 집단, 또는 낙원 삼위일체는, 단순한 산술적{算術的} 합산으로 증대되지 않는다. 집단의 잠재력은, 구성원 개인들의 속성의 단순한 합계를 항상 훨씬 뛰어넘는다.

10:5.3 (113.4) 삼위일체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전체 우주에 대해, 삼위일체로서 독특한 입장을 유지한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기능은, 삼위일체가 우주를 대하는 입장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런 입장은 모든 고립된 상황 또는 사건에 관해 동시적이며 복합적일 것이다:

10:5.4 (113.5) 1. *유한자를 향한 입장.* 삼위일체가 최대한 자체를_제한함이 유한세계를 향한 입장이다. 삼위일체는 인격자가 아니며, 또한 지존하신 분은 삼위일체의 유일한

인격화도 아니지만, 유한한 피조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권능_인격체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데는 지존자가 최선의 길이다. 따라서, 유한세계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를, 때로는 지존성 삼위일체라고 일컫는다.

10:5.5 (113.6) 2. *유한절대자를 향한 입장.* 낙원 삼위일체는, 유한보다는 높지만 절대보다는 낮은 실존 수준을 존중하며, 때로는 이 관계를 궁극 삼위일체라고 일컫는다. 궁극자뿐 아니라 지존자도, 낙원 삼위일체를 충분히 대표하지 않지만, 제한된 의미에서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대해서, 체험적_권능이 성장하는 인격이전 시대들 동안, 두 분은 각자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10:5.6 (113.7) 3. 낙원 삼위일체의 *절대적 입장*은 절대 실존들과 관련되며, 전체 신격의 행위에서 극에 달한다.

10:5.7 (113.8) 삼위일체 무한자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모든 삼중성 관계의 협조 행위를--곧 신격화 된 것뿐 아니라 비신격화 된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인격체들이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다. 삼위일체를 무한한 존재로 고려할 때, 일곱 삼중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그렇게 하면

이해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을 피할 수 있고, 어떤 모순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10:5.8 (114.1) 그러나 나는,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온전한 진리 및 영원한 의미, 그리고 무한히 완전한 세 분의 끝_없는 상호연합체의 본성을, 제한된 인간 정신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6. 삼위일체의 상비 아들

10:6.1 (114.2) 모든 법칙은 제1 근원 및 중심에서 기원되며; *그가 곧 법칙이다*. 영적 법칙의 집행은 제2 근원 및 중심에 부여돼 있다. 법칙의 계시, 즉 신성한 법령에 대한 공표와 해석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역할이다. 법칙의 적용, 즉 응보는 낙원 삼위일체의 범위에 해당하며, 삼위일체의 어떤 아들들이 이를 수행한다.

10:6.2 (114.3) *응보*는 낙원 삼위일체의 보편적 주권에 내재하지만, 선{善}, 자비, 및 진리는 신성한 인격체들의 우주 사역인데, 그의 신격 합동이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응보는 아버지나 아들 또는 영의 입장이 아니다. 응보는, 사랑, 자비, 및 섬김에 대한 이 인격체들의 삼위일체 입장이다. 낙원 신격들 가운데 아무도 응보의 집행을

담당하지 않는다. 응보는 결코 개인 입장이 아니며;항상 복수{複數} 기능이다.

10:6.3 (114.4) 증거는, 공평성(자비와 조화된 응보)의 기초인데, 전체 창조계의 지성 존재들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공동으로 대표하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들이 증거를 제공한다.

10:6.4 (114.5) 심판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응보를 최종으로 적용한 것인데, 하나 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영의 삼위일체 본성을 갖는 존재인,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의 작품이다.

10:6.5 (114.6) 삼위일체 아들들의 이 집단은 다음 인격체를 포함한다:

10:6.6 (114.7)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

10:6.7 (114.8) 2. 영원 항존자{恒存者}들.

10:6.8 (114.9) 3. 태고 항존자들.

10:6.9 (114.10) 4. 완성 항존자들.

10:6.10 (114.11) 5. 최근 항존자들.

10:6.11 (114.12) 6. 합동 항존자들.

10:6.12 (114.13) 7. 충실 항존자들.

10:6.13 (114.14) 8. 지혜 완성자들.

10:6.14 (114.15) 9. 신성한 조언자들.

10:6.15 (114.16) 10. 우주 검열관들.

10:6.16 (114.17)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작용하는 세 낙원 신격의 자녀인데, 우주 검열관인 이 집단의 열째 계층에 내가 우연히 속하기 때문이다. 이 계층들은, 보편적 의미에서는 삼위일체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행정적 심판의--곧 응보의-- 범위 안에서만 신격의 이 집단 입장을 대표한다. 그들은 자신이 배정된 명확한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가 특별하게 고안했으며, 자신이 인격화 된 목적에 해당하는 그 기능 안에서만 삼위일체를 대변한다.

10:6.17 (115.1) 태고 항존자들 및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그 동역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최상의 공평성을 갖는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 중앙우주에서는 그런 기능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거기서 공평성은 완전성 안에서

스스로_명백하고, 하보나의 완전성이 모든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한다.

10:6.18 (115.2) 응보는 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견해이며;자비는 의로움을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며;정확성은 법 시행의 특징이며;신성한 심판은 공정성의 핵심인데, 삼위일체의 응보에 항상 순응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항상 충족시킨다. 온전히 인식되고 충분히 감지됐을 때, 삼위일체의 의로운 응보와 만유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성한 응보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람이 보다시피, 사랑과 율법의 사역을 시간세계의 체험적 우주들에 조화시키기 위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인격체들이 조율된다.

7. 지존성의 전면통제

10:7.1 (115.3) 신격의 제1, 제2, 및 제3 인격자는 서로 동일하며, 세 분은 하나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신격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서는, 목적이 완전하고 실행이 일치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공동 행위자는 정말로 그리고 신성하게 하나다. 어떤 진리에는

이것이:“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나 외에 하나님은 없다”고 기록돼 있다

10:7.2 (115.4) 유한 수준에서 사물이 필사자에게 나타날 때, 낙원 삼위일체는 지존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오직 전체에--곧 전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연방우주, 전체 광우주에--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런 전체성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신격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여러 이유 때문이다.

10:7.3 (115.5) 지존하신 분은 유한한 우주들에서 작용하는 삼위일체보다는 낮고, 어딘가 다른 어떤 존재이지만;어떤 제한 속에서, 그리고 능력의_인격화가 완성되지 않은 현 시대 동안, 진화하는 이 신격은 지존성 삼위일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출현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친히 지존하신 분과 함께 활동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삼위일체로서 지존하신 분과 협력한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자에 대해 비슷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지존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진화를 마칠 때, 그와 낙원 신격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종종 추측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10:7.4 (115.6) 우리는, 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존성에 대한 전면통제를 발견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발전적 미완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지존자의 미완성을 가리키고,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유한 반응의 미숙함을 가리키는 표식이다.

10:7.5 (115.7) 필사 정신은 수많은 것을--곧 비극적인 물리적 사건, 무시무시한 사고, 무서운 재난, 고통스런 질병,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을-- 즉시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재앙이, 지존하신 분의 기능발휘라고 예상되는 미지의 책략과 상호 연관되는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며;정말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어렵고 다소 신비스런 상황이 항상 우주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일어남을 목격한다. 실존의 환경과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천은 모두, 지존자의 기능과 삼위일체의 전면통제로 말미암아, 높은 가치의 의미심장한 원형{原型} 속으로 서로 엮어지는 것 같다.

10:7.6 (116.1)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서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입장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낙원 삼위일체의 우주 행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개별 인간의 선{善}에 기여하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 속에서 진보하는 동안에, 삼위일체 행위는 전체적으로 의미 있고 신중하게 드러나겠지만, 그 행위가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항상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8. 유한을 넘어서는 삼위일체

10:8.1 (116.2) 낙원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많은 진리와 사실은, 유한을 초월하는 어떤 기능을 인식함으로써만 부분적으로라도 납득할 수 있다.

10:8.2 (116.3) 궁극 삼위일체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은 권장할만하지 못하겠지만, 초월자들이 납득하는 삼위일체 형태화가 궁극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밝혀둘만하다. 우리는, 총괄우주 통합이 궁극자가 결국 이룩하는 행위이며, 낙원 삼위일체의 유한절대 전면통제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어떤 국면들에 대한 반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지존자는 유한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변하며, 같은 의미에서, 궁극자는 유한절대자들과 맺는 관계에서 삼위일체가 제한적으로 형태화한 분이다.

10:8.3 (116.4)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 신격의 구성 요소 인격체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의 합동과 삼위일체의 절대 기능은, 전체 신격의 기능과 같다. 그리고 신격의 그런 완성은 유한계{有限界}와 유한절대계 양쪽을 초월{超越}한다.

10:8.4 (116.5)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한 인격자든지 실제로 전체 신격 잠재력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세 분 전체가 집단으로 그렇게 한다. 세 분의 무한한 인격자는, 전체 신격의--곧 신격 절대자의-- 인격이전 잠재력과 실존 잠재력에 요구되는 최소 숫자의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10:8.5 (116.6)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인격자*이심을 알지만, 나는 신격 절대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신격 절대자를 존경하고 공경한다.

10:8.6 (116.7) 나는 한때 어떤 우주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우주에서는, 완결성취자들이 영원 속에서 결국 신격 절대자의 자녀가 되게 돼 있다고, 어떤 집단의 존재들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나는 완결성취자들의 미래를 가리고 있는 그 신비에 대한 이런 해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10:8.7 (116.8) 완결성취 단체는, 다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모든 면에 완전성을 달성한,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를 포함한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그리고 피조물 수용력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참되게 안다. 이 완결성취자들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로 그렇게 발견하면, 언젠가 반드시 초월_유한 아버지를 향한 탐구를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탐구는, 낙원 아버지의 궁극 속성들과 성품의 유한절대 본성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그런 달성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영원성이 드러내겠지만, 우리는, 완결성취자들이 신성{神性}의 이 궁극성을 파악하더라도 절대 신격의 초월궁극 수준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0:8.8 (116.9) 완결성취자들이 신격 절대자를 부분적으로 달성하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끝없는 영원에서 여전히 우주 절대자에 대한 문제가, 상승하면서 진보하는 완결성취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돋우고 어리둥절하게 하며 당황하게 하고 도전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물질 우주들 및 그 영적 행정부가 계속 팽창함에 비례해서, 우주 절대자의 시공우주 관계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10:8.9 (117.1) 오직 무한만이 아버지_무한자를 드러낼 수 있다.

10:8.10 (117.2)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권세를 받아 행동하는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제11편 영원한 낙원 섬

11:0.1 (118.1) 낙원은 온갖 우주의 영원한 중심이며,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리고 세 분의 신성한 협조자 및 동역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중앙 섬은, 총괄우주 전체에서 시공우주 실체 가운데 가장 거대한 조직체다. 낙원은 물질적인 천체일 뿐만 아니라 영적

거주지다. 만유의 아버지의 지성 창조물 전체는 물질 거주지에 거주하며;따라서 절대 통제 중심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물질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영 물체와 영적 존재들은 실재한다.

11:0.2 (118.2) 낙원의 물질적 아름다움은 장엄한 물리적 완전성에 있으며;하나님의 섬의 장관{壯觀}은, 거기 거주하는 존재들의 뛰어난 지적 업적과 정신 발달에서 드러나며;중앙 섬의 영광은, 신성한 영 인격체의 무한한 재능에서--곧 생명의 빛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영적{靈的} 아름다움의 깊이와 이 장엄한 전체조화의 경이로움은, 물질 피조물의 유한한 정신의 납득한계를 아주 벗어난다. 신성한 거주지의 영광과 영적 광채는, 필사자에게 납득될 수 없다. 그리고 낙원은 영원부터 존재하며;빛과 생명에 속하는 이 핵심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승도 없다.

1. 신성한 거주지

11:1.1 (118.3) 낙원은, 우주의 부문들을 경영할 때 여러 목적에 이바지하지만, 피조 존재들에게는 1차로 신격이 거하시는 곳으로 존재한다.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있는 현존은, 거의

원형{圓形}이지만 구형{求刑}은 아닌 이곳의 위쪽 표면
정 중앙, 즉 신격들의 거처에 거하신다. 만유의 아버지의
이 낙원 현존은, 영원한 아들이 몸소 현존하심으로 바로
둘러싸였는데, 두 분 다 무한한 영의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뒤덮여 있다.

11:1.2 (118.4)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중앙 거처에 거하고, 거해
왔으며, 또한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항상
그분을 발견해 왔으며, 또한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시공우주에서 초점이고, 영적으로 인격화돼
있으며, 지리적으로 온갖 우주의 이 중심에 거하신다.

11:1.3 (118.5) 우리는 모두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하려고
추구하는 직통 진로를 안다. 너희는 신성한 거주지에
관해서 많이 납득할 수 없는데, 이는 그 거주지가
너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의
광대함 때문이지만, 이 거대한 간격의 의미를 납득할 수
있는 자는, 마치 너희가 유란시아에 명확하게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한 도시인, 뉴욕, 런던, 로마, 또는
싱가포르를 아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치와 거주지를 안다. 너희가, 배, 지도, 그리고 나침반을

가진 지성있는 항해자였다면, 쉽게 이 도시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항해 시간과 수단을 갖췄다면, 영적으로 자격이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안내를 받는다면, 너희는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을 통해 안쪽으로 계속 여행하면서, 마침내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영광이 빛나는 중심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그리고 이 회로에서 저 회로로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여행을 위한 모든 필수품을 가졌다면, 너희 자신의 행성에서 먼 도시를 찾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의 중앙에 친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너희가 이런 장소를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임을 또는 실제로 실존함을 어떤 식으로도 부정하지 못한다. 우주 피조물 가운데 매우 적은 숫자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해서, 만유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의 영적{靈的} 인격자가 실체임을 또는 그분의 실존이 실체임을, 어떤 식으로도 부정하지 못한다.

11:1.4 (119.1) 아버지는 이 중앙 위치에서 항상 발견되게 돼 있다. 아버지가 움직였다면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인데, 창조물의 맨 끝으로부터 우주의 인력 계통들이 이 거주지 중심에서 그분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들을

통해 인격체 회로를 거꾸로 추적하든지, 또는 상승하는 인격체들이 아버지를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그들을 따라가든지;하부 낙원을 향해 물질 인력 계통을 추적하든지, 또는 시공우주 힘의 반동하는 순환을 따라가든지;영원한 아들을 향한 영적 인력 계통을 추적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안쪽을 향한 행렬을 따라가든지;정신 회로를 추적하든지, 아니면 무한한 영으로부터 솟아난 수 조{兆}의 천상의 존재를 따라가든지 --이 여러 관찰 가운데 어느 것 또는 모든 관찰 결과로-- 우리는 아버지의 현존을 향해서, 즉 그분의 중앙 거주지를 향해서 돌아가도록 직접 인도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친히, 분명하게,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존재로부터, 생명, 에너지, 및 인격체가 모든 우주를 향해서 홍수가_휩쓸듯 흘러나간다.

2. 영원한 섬의 본성

11:2.1 (119.2) 너희의 천문학상 위치, 별이 총총한 체계들에 자리 잡은 너희의 공간 위치에서도, 물질 우주의 광대함을 너희가 비로소 어렵פות이 식별할 수 있게 됐으므로, 그토록 거대한 물질 우주가, 적절하고 어울리는 수도{首都}, 즉

물질 영역들과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득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이 모든 창조를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의 위엄과 무궁함에 어울리는, 어떤 본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너희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11:2.2 (119.3) 낙원은 인간거주 천체{天體}들과는 형체가 다르며:구형{球形}이 아니다. 확실히 타원체인데, 남북 지름이 동서 지름보다 6분의 1 더 길다. 중앙 섬은 본질적으로 평평하며, 윗면에서 아랫면까지 거리는 동서 지름의 10분의 1이다.

11:2.3 (119.4) 낙원의 정지 상태와 관련된, 그리고 섬의 북쪽 끝에 작용하는 힘_에너지로 인한 높은 외부_압력과 관련된, 용적{容積}에서의 이 차이들이, 총괄우주에서 절대 방향 설립{設立}을 가능하게 한다.

11:2.4 (119.5) 중앙 섬은 지리적으로 세 활동 범위로 나뉘어 있다:

11:2.5 (119.6) 1. 상부 낙원.

11:2.6 (119.7) 2. 주변 낙원.

11:2.7 (119.8) 3. 하부 낙원.

11:2.8 (119.9) 우리는, 인격체 활동에 사용되는 낙원 표면을 상부 면으로, 그 반대 표면을 하부 면으로 이야기한다. 낙원의 주변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있는 활동이 아닌, 즉 인격없는 활동을 위해 마련돼 있다. 인격있는 평면, 즉 상부 평면을 삼위일체가 지배하고, 하부 평면, 즉 비인격 평면을 무조건 절대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조건 절대자를 한 인격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절대자의 기능적 공간 현존이 하부 낙원에 중심잡는다고 생각한다.

11:2.9 (120.1) 영원한 섬은 획일적인 물질화 구조로--곧 정지된 실체 체계들로-- 구성돼 있다. 낙원의 이 순전한 내용물은, 광대{廣大}한 온갖 우주 전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을 공간 잠재력을 갖는 균일한 조직이다. 그것은 다른 우주들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려 왔고,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절대물질*이라고 불렀다. 이 낙원 근원 물질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며;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원래의 비영적{非靈的} 표현이며;그것이 *낙원*이고, 낙원과 똑같은 것은 없다.

11:2.10 (120.2) 우리에게는, 제1 근원 및 중심이 무한성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신을_해방시키는 기법의 일부분으로서, 즉

시_공간 창조계조차 준{準}무한이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시공우주 실체를 위한 모든 절대 잠재력을 낙원에 응집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갖 우주가 시_공간에 제한 받는 특성을 드러낸다는 이유만으로, 낙원도 그런 특성을 따르지는 않는다. 낙원은 시간 범위 바깥에 존재하고, 공간에 위치가 없다.

11:2.11 (120.3) 대체로:겉으로 보기에 공간은 하부 낙원 바로 아래에서 기원되는 것 같으며;시간은 상부 낙원 바로 위에서 기원되는 것 같다. 너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은 시간은 낙원 실존의 특질이 아니지만, 중앙 섬의 시민은 사건들의 비{非}시간적 연속을 충분히 의식한다. 움직임은 낙원에 내재돼 있지 않으며;의지에 따라서 생겨난다. 그러나 거리 개념은, 심지어 절대 거리도, 낙원에서 상대적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많은 의미를 갖는다. 낙원은 비공간이며;그러므로 그 면적은 절대적이고, 따라서 필사 정신 개념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방식으로 쓸모 있다.

3. 상부 낙원

11:3.1 (120.4) 상부 낙원에는 광대한 세 활동 영역, 즉 *신격 현존*, *최고 거룩 구면{球面}*, 및 *거룩한 지역*이 있다. 신격들의 현존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방대한 지역은, 최고 거룩 구면으로 *별리{別離}*돼 있고, 경배, 삼자일체됨, 그리고 높은 영적 달성 기능을 위해 예비 돼있다. 이 지대에는 물질 구조물이 없고, 지적일 뿐인 창조물도 없으며; 그것들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 낙원의 최고 거룩 구면의 신성한 본성과 아름다운 웅장함을, 내가 인간 정신에게 묘사하려고 시도해봤자 소용없다. 이 영역은 완전히 영적이고, 너희는 거의 완전히 물질적이다.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에게는, 순전히 영적인 실체는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1:3.2 (120.5) 최고 거룩 지역에는 어떤 물리적 물질화도 없는 반면, 거룩한 땅 구역들에서 보내는 너희의 물질 시절에 대한 풍부한 기념품이 있으며, 주변 낙원에 속하는 회상하는 역사적 지역에는 훨씬 많이 있다.

11:3.3 (120.6) 바깥 지대, 즉 거주하는 지대인, 거룩한 지역은 일곱 동심{同心} 지대로 나뉘어 있다. 낙원은 때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그의 영원한 거주지이기

때문이며, 이 일곱 지대는 종종 “아버지의 낙원 맨션”을 가리킨다. 내부, 즉 첫째 지대는, 낙원 시민과 낙원에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하보나 원주민이 차지한다. 그 다음 지대, 즉 둘째 지대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일곱 연방우주 원주민의 주택 지역이다. 이 둘째 지대는 부분적으로 거대한 일곱 구획{區劃}으로 나뉘어 있는데, 진화로 진보하는 우주들에서 오는 영 존재 및 상승한 피조물의 낙원 고향이다. 이 구역들 각각은 단일 연방우주 인격체들의 복지와 발전에 독점적으로 제공돼 있지만, 이 시설들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의 필요조건을 거의 무한하게 초월한다.

11:3.4 (121.1) 낙원의 일곱 구역 각각은 거주 단위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은 10억 개의 영화롭게 된 개별 활동 집단의 거점{據點} 본부가 되기에 알맞다. 이 단위 1,000개가 모여서 한 구획을 이룬다. 10만 개의 구획이 한 회중과 같다. 1,000만 개의 회중이 한 집회를 구성한다. 10억 개의 집회가 하나의 광단위{廣單位}를 만든다. 증가하는 이 계열들은 둘째 광단위, 셋째 광단위, 그리고 계속해서 일곱째 광단위로 이어진다. 그리고 광단위 일곱 개가 모여서 총괄단위를 이루고, 일곱 총괄단위는 하나의

상급{上級}단위를 이루며;그리하여 일곱씩 증가하는 계열이 상급, 초월상급, 천상{天上}, 초월천상을 거쳐서 최고 단위까지 팽창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모든 공간세계를 가능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너희의 개념을 초월하는 숫자인, 낙원에 있는 거주전용의 이 경이적 숫자는, 거룩한 땅의 배정된 지역 중에서 1퍼센트보다 훨씬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지어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낙원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시작하지 못할, 안쪽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풍부한 여유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다.

4. 주변 낙원

11:4.1 (121.2) 중앙 섬은 주변지역에서 갑자기 끝나지만,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각도는 모든 둘러싸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분간될 수 없다. 영적 인격체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 도착하고 출발하는 마당들이, 낙원의 주변지역 표면을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비충만{非充滿}_공간 지대가 주변지역에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모든 인격체 운반수단은 이 지역에서 낙원 땅으로 가게 돼 있다. 운반 최고스랍 또는 다른 유형의

공간 횡단자는, 상부 낙원뿐 아니라 하부 낙원에도 접근할 수 없다.

11:4.2 (121.3) 일곱 으뜸 영은, 아들의 빛나는 천체들과 하보나 내부 회로 세계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낙원을 회전하는, 영의 일곱 구체 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신의 개인 보좌{寶座}를 갖지만, 그들은 낙원 주변지역에 힘_초점 본부를 유지한다. 여기서 서서히 회전하는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현존은, 일곱 연방우주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특정한 낙원 에너지를 위해, 일곱 섬광{閃光} 정류장의 위치를 표시한다.

11:4.3 (121.4) 이 주변 낙원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에 배정된, 창조주 아들들에게 제공된 거대한 역사적 및 선지적{先知的} 전시 지역들이 있다. 현재 설치됐거나 또는 예정된 이 역사적 보류지{保留地}가 거기에 정확하게 7조 개 있지만, 이 전체 배열은 그렇게 제공된 주변지역 가운데 그 부분의 약 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광대한 이 보류지가, 현재 알려진 일곱 인간거주 연방우주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곳에 언젠가 있게 될 창조계에 속한다고, 우리는 추론한다.

11:4.4 (121.5) 현존하는 우주들이 활용하도록 지정돼 온 낙원의 그 부분은, 오직 1내지 4퍼센트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이 활동에 배정된 지역은, 그런 목적을 위해 실제로 요구되는 것보다 적어도 100만 배에 해당한다. 낙원은 거의 무한한 창조 활동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11:4.5 (121.6) 그러나 낙원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더 많이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야만 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승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치고 생존되는 그들을 위해 만유의 아버지가 마련해 오신 것을, 사람의 눈이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필사적 사람의 정신에 떠오른 적도 없기 때문이다.”

5. 하부 낙원

11:5.1 (122.1) 우리는 하부 낙원에 관해서 계시된 것만 알며;인격체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영 지성체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신격 절대자도 거기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물리적_에너지와 시공우주_힘 회로들이 하부 낙원에서 기원됐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고 들었다:

11:5.2 (122.2) 1. 하부 낙원의 중앙 부분 중에서, 삼위일체의 위치 바로 아래는,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의 지대다.

11:5.3 (122.3) 2. 이 지대는 이름 없는 어떤 지역{地域}으로 바로 둘러싸여 있다.

11:5.4 (122.4) 3. 공간 잠재력과 힘_에너지에 주로 관계해야만 하는 어떤 지역이, 하부 표면의 외부 경계선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방대한 타원형 힘 중심의 활동은, 어느 삼중체든지 알려진 그 기능과 일치될 수 없지만, 공간의 원시 힘_충전 중심이 이 지역에 맞춰진 것 같다. 이 중심은 세 동심 타원형 지대로 구성되는데:가장 안쪽은 낙원 자체의 힘_에너지 활동의 중심이며;가장 바깥쪽은 무조건 절대자의 기능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중간_지대의 공간 기능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다.

11:5.5 (122.5) 이 힘 중심의 내부 지대는, 그 박동이 물리적 공간의 가장 바깥 경계선 쪽으로 흐름을 내보내는 거대한 심장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힘_에너지를 지시하고 변경시키지만, 그것을 조종하지는 않는다. 이 원초적 힘의 실체 압력_현존은, 남쪽 지역보다 낙원

중심의 북쪽 끝에서 분명히 더 크며;이것은 균일하게 등록된 차이이다. 공간의 모체{母體} 힘은, 힘_에너지의 이 기초 형태의 확산과 관계되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순환 체계 작동을 통하여 남쪽에서 흘러들어 오고, 북쪽에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동_서 압력 속에는 때때로 두드러진 차이 또한 있다. 이 지대로부터 발산되는 힘은, 관측 가능한 물리적 인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낙원 인력에는 반드시 순응한다.

11:5.6 (122.6) 힘 중심의 중간_지대가 이 지역을 즉시 둘러싼다. 이 중간_지대는, 세 활동 주기를 통해서 팽창하고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의 이 진동이 동_서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북_남 방향으로 일어나며, 한편 가장 큰 파동{波動}은, 모든 방향, 즉 종합된 팽창 및 축소로 일어난다. 이 중간_지역의 기능이 실제로 확인 된 적은 없었지만, 힘 중심의 내부 및 외부 지대 사이의 상호 조율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_지대는, 총괄우주의 연속 공간 수평면들을 분리하는 중간_공간, 즉 고요한 지대들의 통제 장치라고 믿는 자가 많지만, 어떤 증거물 또는 계시도 이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 추론은,

이 중간_지역이 총괄우주의 비충만{非充滿}된_공간의 기능발휘와 어떤 방법으로 관련된다는 지식에서 유래한다.

11:5.7 (122.7) *외부 지대*는, 미확인된 공간 잠재력의 세 동심 타원 띠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이다. 이 지역은 추측되지 않는 활동의 터전인데, 일곱 연방우주의 가장 외곽 경계선을 향해 모든 방향에서, 그리고 모든 외부 공간의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뒤덮을 정도 이상으로 공간을_향해 진행하는, 발산하는 중앙 회로 지점이다. 이 공간 현존은, 삼위일체로서 행동할 때 무한한 신격들의 의지와 명령에 대해 발견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전체적으로 비인격{非人格}이다.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의 중앙 초점집중{焦點集中}, 즉 낙원 중심인 것으로 믿어진다.

11:5.8 (123.1) 힘의 모든 형태와 에너지의 모든 국면은 회로화 되는 것처럼 보이며;우주 전역에서 순환하고, 확실한 경로로 돌아온다. 그러나 무조건 절대자의 활성화된 지대의 방사물들과 함께,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어느 한

쪽으로 나타난다--결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외부 지대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주기로 맥동{脈動}한다. 이 중심의 공간_세력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 년보다 약간 더 오래 밖으로 나가고 있으며;그 다음에는 비슷한 시간 동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의 공간_세력 형태화는 보편적이며;퍼질 수 있는 모든 공간 전반에 확장한다.

11:5.9 (123.2) 모든 물리적 힘, 에너지, 및 물질은 하나다. 모든 힘_에너지는 원래 하부 낙원에서 나왔으며, 공간 회로를 마친 다음에는 결국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온갖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 조직 전부가 현재 현상의 상태 그대로 하부 낙원에서 나오지는 않았으며;공간은 물질과 물질_이전의 여러 형태가 발생하는 요람이다. 낙원 힘 중심의 외부 구역이 공간_에너지의 근원임에도, 공간은 거기서 기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힘이나 에너지 또는 동력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대의 맥동이 공간 호흡 작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지대의 들어오는 단계와 나가는 단계는, 공간의 20억 년 팽창_축소 주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6. 공간 호흡 작용

11:6.1 (123.3) 우리는 공간 호흡 작용의 실제 짜임새를 알지 못하며; 다만 모든 공간이 교대로 축소 팽창함을 관측할 뿐이다. 이 호흡 작용은 충만된 공간의 수평 확장과, 낙원 위쪽 및 아래쪽의 방대한 공간 저장소 속에 존재하는 비충만{非充滿} 공간의 수직 확장, 양쪽에 영향을 준다. 너희는 이 공간 저장소의 부피 윤곽을 상상하려고 할 때, 모래시계를 생각할 수 있다.

11:6.2 (123.4) 충만된 공간의 수평으로 확장하는 우주들이 팽창할 때, 비충만 공간의 수직으로 확장하는 저장소는 축소하며, 역으로도 똑같다. 하부 낙원 바로 아래에, 충만 및 비충만 공간의 합류점이 있다. 두 공간 유형이, 변형시키는 정규 경로를 통해 거기서 순환하는데, 이 경로에는 시공우주가 축소하고 확장하는 주기{週期} 안에서, 충만 가능 공간을 충만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화, 그리고 그 반대로 만드는 변화가 일어난다.

11:6.3 (123.5) “비충만” 공간은:충만하게 된 공간에 실존한다고 알려진 그 힘, 에너지, 동력, 및 현존들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직 (저장소) 공간이 항상 수평 (우주) 공간의 균형 세력으로 작용하게 돼 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며;거기에 비충만 공간과 관계되는 창조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며;공간 저장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 그리고 온갖 우주의 공간_확장_축소 주기를 균형 잡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뿐이다.

11:6.4 (123.6) 공간 호흡 작용의 주기는, 각 단계마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보다 조금 긴 기간 계속된다. 우주들은 한 단계 동안 팽창하며;다음 단계 동안 축소한다. 총만된 공간은 팽창하는 단계의 중간_지점에 지금 접근하고 있고, 한편 비충만 공간은 축소 단계의 중간_지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론적으로 볼 때 두 공간 확장의 최고 외부 한계가 지금 낙원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다고 들었다. 비충만_공간 저장소는 우주의 총만된 공간이 주변지역 낙원으로부터 넷째 외부 공간 수평면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바깥쪽을 향해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정도까지, 지금 상부 낙원 위로 그리고 하부 낙원 아래로 수직으로 확장한다.

11:6.5 (124.1)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억년 동안 공간 저장소가 축소한 반면, 전체 수평 공간의 총괄우주와 힘 활동은

팽창했다. 그리하여 전체 팽창_축소 주기를 완성하는 데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0억년보다 약간 더 소요된다.

7. 낙원의 공간 기능

11:7.1 (124.2) 낙원 표면 어디에도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낙원의 상부 표면으로부터 똑바로 위를 “쳐다본다면”, 나가거나 들어오는 비충만 공간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할 것인데, 바로 지금, 비충만 공간이 들어오고 있다. 공간은 낙원에 접근하지 못하며; 오직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만 중앙 섬과 접촉한다.

11:7.2 (124.3) 낙원은, 충만된 공간과 비충만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비교적 정지된 지대들의, 실제 움직임이 없는 핵이다. 지리적으로, 이 지대들은 낙원이 상대적으로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 안에는 아마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줄어든 공간 움직임의 이 지대들이 충만된 공간과 비충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을 인지한다. 충만된 공간의 수평면들 사이에 비슷한 지대들이 한때 존재했었지만, 이것들은 지금 덜 정지된 상태다.

11:7.3 (124.4) 전체 공간의 수직 횡단 부분은 말타의 십자가를 약간 닮았을 것인데, 수평축은 총만된 (우주) 공간을, 그리고 수직 축은 비총만 (저장소) 공간을 나타낸다. 네 축 사이에 있는 지역들은, 마치 중간_공간 지대들이 총만된 공간과 비총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정지된 이 중간_공간 지대들은 낙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서 점점 크게 자라고 있으며, 결국 전체 공간의 경계선을 에워싸게 되고, 공간 저장소 및 총만된 공간의 전체 수평 확장, 둘 다를 철저히 포함시킬 것이다.

11:7.4 (124.5) 공간은,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준절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절대자 현존도 아니고, 궁극자의 어떤 기능도 아니다. 공간은 낙원이 증여한 것이며, 광우주의 공간세계 및 전체 외부 지역의 공간은, 무조건 절대자의 선조{先祖} 공간 잠재력으로 실제로 총만하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낙원 주변지역을 향한 가까운 접근으로부터, 이 총만된 공간은 넷째 공간 층{層}을 통해서, 그리고 총괄우주의 주변지역을 지나 밖을 향해서 수평으로 확장하지만, 얼마나 멀리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11:7.5 (124.6) 너희가, 유한한 그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주변 낙원에 거의 접하는 꼭지점을 갖고 낙원의 상부 및 하부 표면 둘 다를 향해 직각으로 위치한 V자 모양의 평면을 상상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원을 중심으로 타원 회전을 하는 이 평면을 눈에 그려본다면, 총만된 공간의 부피를 그 회전이 대략 윤곽으로 보여줄 것이다.

11:7.6 (124.7) 우주들에서 어떤 주어진 위치를 기점으로 해도, 수평 공간에는 상부 한계와 하부 한계가 있다. 오르본톤 평면을 향해 직각으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위쪽으로든지 아래쪽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다면, 총만된 공간의 상부 또는 하부 경계를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총괄우주의 알려진 범위 안에서, 이 경계선들은 낙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더 넓게 벌어지며;공간은 두꺼워지는데, 창조계 평면, 즉 우주들이 이루는 것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두꺼워진다.

11:7.7 (125.1) 첫째 외부 공간 층으로부터 일곱 연방우주를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공간 층들 사이에 있는 비교적 고요한 지대들은, 정지된 공간 활동의 거대한 타원형 지역이다. 이 지대는 규칙적으로 진행하면서 낙원 주변을

도는 거대한 성단{星團}을 분리시킨다. 너희는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이 지금 형태를 이뤄 가고 있는 첫째 외부 공간 층을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우주들은, 낙원 주변을 도는 성단의 거대한 어떤 행렬로서, 위에도 아래에도 정지된 중간공간 지대들로 막혀있고, 또한 안쪽과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고요한 공간 구역으로 막혀있다.

11:7.8 (125.2) 이처럼 한 공간 층은,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정지상태에 둘러싸여 있는 타원형 운동 지역으로서 작용한다. 움직임과 정지됨의 그런 관계는, 움직임에 대해 저항이 줄어든 어떤 구부러진 공간 경로를 구성하며, 그런 경로를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시공우주 세력과 떠오르는 에너지가 낙원 섬 주변을 영구히 회전한다.

11:7.9 (125.3) 총괄우주의 이 교대하는 지대설정은, 성단들의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의 교대 흐름과 관련해서, 분열 및 분산 활동 지점의 인력 압력 강화를 막도록 고안된, 물리적 인력의 안정화 속에 있는 어떤 요소다. 그런 배열은 반인력{反引力} 작용을 일으키며, 줄이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의 속도에 대해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8. 낙원 인력

11:8.1 (125.4) 피할 수 없는 인력의 끌어당김이, 전체 공간의 전체 우주 세계들을 전부 효과적으로 붙들고 있다. 인력은, 낙원의 물리적 현존이 행사하는 전능한 지배력이다. 인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물리적 장식품을 구성하는, 빛나는 별, 타오르는 항성, 그리고 회전하는 구체들을 묶는 전능한 끈인데, 하나님은 만물이고, 만물을 채우시며,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존립한다.

11:8.2 (125.5) 절대 물질 인력의 중심 및 초점은 낙원 섬인데, 하보나를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이 이를 보충하고, 상부 및 하부 공간 저장소가 평형을 이루게 한다. 하부 낙원에서 나오는 알려진 모든 방사물{放射物}은 총괄우주의 타원 공간 층들의 끝없는 회로에서 작동하는, 중앙 인력 끌어당김에 일정하고 정확하게 반응한다. 시공우주 실체가운데 알려진 형태마다 오랜 세월의 경향, 회전하는 방향, 거대한 타원 진동이 있다.

11:8.3 (125.6) 공간은, 인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지만, 인력의 평형력으로 작용한다. 공간 완충물이 없다면, 폭발 행위가 주변의 천체들을 비틀어버릴 것이다. 충만된 공간 역시,

물리적 인력, 즉 직선 인력에 반인력{反引力} 영향을 미치며;공간은 그런 인력 행위를 지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중화시킬 수 있다. 절대 인력은 낙원 인력이다.지역 인력 또는 직선 인력은, 에너지 또는 물질의 전기{電氣} 단계에 속해 있으며;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외부 우주들에서, 즉 적당한 물질화가 발생한 곳이면 어디서나 작동한다.

11:8.4 (125.7) 시공우주 힘, 물리적 에너지, 우주 동력, 그리고 다양한 물질화의 수많은 형태는, 완전하게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낙원 인력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세 단계를 나타낸다:

11:8.5 (126.1) 1. *인력_이전{以前} 단계 (힘)*. 이것은 시공우주 힘의 에너지_이전{以前} 형태로 들어가는 공간 잠재력으로 개별화하는 첫 단계다. 이 상태는 때로 *순수 에너지* 또는 *격리세력*이라고 불리는, 공간의 원시적 힘_충전 개념과 비슷하다.

11:8.6 (126.2) 2. *인력 단계 (에너지)*. 낙원 힘 조직가들의 행위가 공간의 힘_충전의 이런 변경을 일으킨다. 이것은 낙원 인력의 끌어당김에 대해 반응하는 에너지 체계의 출현을

알린다. 떠오르는 이 에너지는 원래 중성{中性}이지만, 더 많은 변질의 결과로, 소위 음성{陰性} 및 양성{陽性}의 특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궁극세력*이라고 부른다.

11:8.7 (126.3) 3. *인력_이후 단계 (우주 동력)*.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_물질이 직선 인력 통제에 대한 반응을 드러낸다. 중앙우주에서 이 물리 체계는 *삼중세력*으로 알려진 삼중 조직이다.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에 속하는 창조계의 초월능력 모체{母體} 체계다. 연방우주들의 물리 체계는 우주 동력 지휘자들과 그 동역자들로 인해 활성화된다. 이 물질 조직은 구조 면에서 이중적이며, *인력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하보나를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은 삼중세력이 아니고 인력세력도 아니며, 이것들의 이끄는 능력은 직선 및 절대 물리 인력 두 형태를 다 나타낸다.

11:8.8 (126.4) 공간 잠재력은, 어떤 형태의 인력 상호작용에든지 종속되지 않는다. 낙원의 이 원초적 자질은, 실체의 실제 수준은 아니지만, 모든 상대적인 기능적 비영{非靈} 실체에게--곧 힘_에너지의 모든 형태화 그리고 동력과 물질의 조직에게-- 조상이 된다. 공간 잠재력은 정의를

내리기 힘든 단어다. 그것은 공간의 조상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그 의미는 공간에 실존하는 효력과 잠재력에 대한 관념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낙원으로부터 발산하고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구성하는 그 모든 절대 영향 및 잠재력을 포함한다고 이해해도 좋다.

11:8.9 (126.5) 낙원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_물질의 절대 근원 및 영원한 초점{焦點}이다. 무조건 절대자는 계시자이고 조정자이며, 근원 및 기원을 낙원에 둔 것들의 저장소다. 무조건 절대자의 보편적 현존은, 낙원 현존의 융통성 있는 균형상태인, 인력 확장의 잠재적 무한성 개념에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표현이 미숙하지만, 그럼에도 도움 된다. 이 예는 또한, 덩어리진 것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서 왜 반드시 인력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하는데, 이 현상은 낙원과 이를 둘러싼 창조계의 차등적 규모를 암시한다.

9. 낙원의 독특성

11:9.1 (126.6) 낙원은, 모든 영 인격체에게 원초적으로 기원되는 영역이자 운명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지방우주의 비교적 낮은 영 존재들 모두가 즉시 낙원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낙원은 모든 초물질 인격체가 바라는 목표로 여전히 남아 있다.

11:9.2 (126.7) 낙원은 무한성의 지리적 중심이며;우주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심지어 영원한 하보나 우주의 실제 부분도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앙 섬을 신성한 우주에 속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낙원은 영원하고 독자적인 실존이다.

11:9.3 (127.1) 영원한 과거에,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영{靈} 자아의 무한한 인격체를 영원한 아들의 존재 속에 표현했을 때, 아버지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없는 자아의 무한성 잠재력을 낙원으로 드러냈다. 인격없고 비영적인 낙원은, 원본 아들을 영존시킨 아버지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긴 반응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곧 인격있는 그리고 인격없는, 영적{靈的}인 그리고 비영적인-- 두 실제 국면에 실체성을 투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행동하려는 의지에 직면해서,

그들 사이의 균형상태가 공동 행위자뿐 아니라, 물질 세계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있는 중앙우주를 실존하도록 했다.

11:9.4 (127.2) 실체가 인격있는 존재와 인격없는 존재로 (영원한
아들과 낙원으로) 분리될 때, 어떻게든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인격없는 그것을 "신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신격 행동의 에너지와 물질적 반응을 도저히
신격이라고 부를 수 없다. 신격은 신격이 아닌 것을 많이
기원시킴지도 모르고, 낙원은 신격이 아니며;자각하지도
않는데, 필사적 사람이 이런 표현을 언젠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1:9.5 (127.3) 낙원은, 어떤 존재 또는 어떤 살아있는 실재에
대해서든지 조상이 되지 않으며;창조자가 아니다.
인격체와 정신_영 관계는 전달될 수 있지만, 원형{原型}은
그렇지 않다. 원형은 결코 닮은꼴이 아니며;닮은꼴은
복제품이다--재생산한 것이다. 낙원은 절대
원형이며;하보나는 이 잠재력이 실재{實在}로서 드러난
것이다.

11:9.6 (127.4) 하나님의 주거지는 중앙에 있고 영원한데,
영화롭고 이상적이다. 그의 집은 모든 우주 본부 세계들을

향한 아름다운 원형{原型}이며;그에게 가까이 있는 거주지인 중앙우주는, 그 이상{理想}과 조직 그리고 궁극 운명에서 모든 우주를 위한 원형이다.

11:9.7 (127.5) 낙원은 모든 인격체 활동의 우주 본부이고, 모든 힘_공간과 에너지 형태화의 근원이요_중심이다. 존재해 왔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들의 이 중앙 거주 장소로부터 도래해 왔거나, 지금 도래하고 있거나, 또는 도래하게 될 것이다. 낙원은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모든 인격체가 원초적으로 기원된 곳이다.

11:9.8 (127.6) 결국, 영원한 낙원에 관하여 필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이 완전한 거주지가, 하나님의 필사적이고 물질적인 아들, 즉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세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불멸하는 혼의, 실제적이고 멀리_떨어진 종착역이라는 사실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생애를 지지해 온, 하나님을_아는 필사자마다, 신성{神性}을 추구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낙원으로 가는 길고 긴 여행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공간의 낮은 구체로부터 상승해서, 낙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그런 동물에서_기원된 존재가 서게 될 때, 그런 성취는 지존성의 한계선에 다가가는 영적 변형의 실체를 나타낸다.

11:9.9 (127.7)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12편 온갖 우주

12:0.1 (128.1) 만유의 아버지의 광범한 창조가 얼마나 광활한지, 유한한 상상력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총괄우주의 거대함은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의 개념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사 정신은 우주들의 계획과 준비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며;너희는 그 물리적 조직과 놀라운 경영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시간세계의 일곱 연방우주{聯邦宇宙}와 영원한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집단의 지성 존재들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12:0.2 (128.2)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잠재력에서,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 창조를 무한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전체 물질 창조를

연구하고 관찰할 때, 너희의 유한한 정신에게는 그것이 비교적 제한 없고, 사실상 끝이 없지만,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주어진 어떤 순간에도 물질 창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안다.

12:0.3 (128.3) 물리적 법칙을 연구하고 별처럼 빛나는 영역들을 관찰함으로,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표현하는 시공우주가 아직 완결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즉 무한자의 시공우주 잠재력 대부분이 아직도 억제돼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창조된 존재들에게는, 총괄우주가 거의 무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으며;물질 창조에는 여전히 물리적 한계가 있고, 영원한 목적을 가진 체험적 계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 총괄우주의 공간 층

12:1.1 (128.4) 온갖 우주는, 무한한 평면 또는 끝없는 입방체가 아니고, 무제한의 궤도{軌道}도 아니며;분명히 용적을 갖고 있다. 힘_에너지와 물질_동력의 거대한 집합체 전부가, 궁극적으로 한 공간 단위로서, 즉 조직되고 조화된 전체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물리 조직 및 경영 법칙이

결정적으로 증명한다. 관측 가능한 물질 창조 행태는, 물리적 우주가 분명히 제한돼 있다는 증거다. 모든 형태의 기초 에너지가, 낙원 인력의 끊임없고 절대적인 끌어당김에 이끌려서, 총괄우주의 공간 층들의 곡선 경로로 주변을 계속 돈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 우주가 원형{圓形}이고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한다.

12:1.2 (128.5) 총괄우주의 연속되는 공간 층들이, 충만된 공간의-- 곧 이미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거나, 아직 조직되지 않았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전체 창조의-- 주요 구획{區劃}들을 구성한다. 만약 총괄우주가 상대적으로 정지된 지대들과 교대하면서, 움직임에 대해 점점 덜 저항하는 일련의 타원 공간 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시공우주 에너지 가운데 일부가 무한한 범위 위에 발사됨, 즉 흔적 없는 공간 속으로 직선 경로 위에 발사됨을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우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힘, 에너지, 또는 물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이것들은 거대한 공간 회로{回路} 행로를 따라서, 늘 소용돌이치고 항상 회전하면서 나아간다.

12:1.3 (129.1) 총만된 공간의 수평 확장을 통해 낙원으로부터
밖을 향해 진행하면서, 총괄우주는 여섯 동심{同心} 타원,
즉 중앙 섬을 도는 여러 공간 층 안에서 실존한다:

12:1.4 (129.2) 1. 중앙우주 --하보나.

12:1.5 (129.3) 2. 일곱 연방우주.

12:1.6 (129.4) 3. 첫째 외부 공간 층.

12:1.7 (129.5) 4. 둘째 외부 공간 층.

12:1.8 (129.6) 5. 셋째 외부 공간 층.

12:1.9 (129.7) 6. 넷째이자 최외부의 공간 층.

12:1.10 (129.8) 중앙우주 *하보나*는, 한때 존재하는 창조물이
아니며;영원한 실존이다. 시작도_없고 끝도_없는 이
우주는, 장엄한 완전성을 갖는 10억 구체로 구성되며,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로 둘러싸여 있다. 하보나
중심에는, 정지돼 있고 절대로 안정된 낙원 섬이 있는데,
21개의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우주 가장자리
주변을 둘러싼 흑암 인력 본체들의 거대한 질량 때문에, 이

중앙 창조 내용물 질량은 광우주의 일곱 구역 전체의 알려진 총 질량을 훨씬 뛰어넘는다.

12:1.11 (129.9) 영원한 섬을 돌고 있는 영원한 우주인 *낙원_하보나 체계*는, 총괄우주의 완전하고 영원한 핵을 구성하며;일곱 연방우주 전체와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은, 낙원 위성과 하보나 세계라는 거대한 중앙 집합체 주변에 확립된 궤도에서 회전한다.

12:1.12 (129.10) *일곱 연방우주*는 근본 물리 조직이 아니며;이것들의 경계선은 어디서도 성운 집합체를 나누지 않으며, 또한 이것들은 기본 창조 단위인 지방우주를 가로지르지도 않는다. 각 연방우주는, 조직되고 부분적으로 인간이 거주하는 하보나_이후 창조물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떼를 짓고 있는 지리적 공간에 불과하며, 각 연방우주는 포함된 지방우주 숫자에서, 그리고 포함된 공간에서 거의 똑같다. 너희 지방우주 *네바돈*은, 일곱째 연방우주인 *오르본톤* 에서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것들 가운데 하나다.

12:1.13 (129.11) *광우주*는, 지금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이다. 광우주는 일곱 연방우주로 구성돼 있는데,

중앙 창조계의 영원한 구체들은 물론이고, 인간이 거주하는 약 7조 개 행성의 총 진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잠정적인 이 추정치는, 건축양식 경영 구체들은 제외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주들 밖에 있는 조직되지 않은 집단들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광우주의 불완전한 현 경계선, 즉 불규칙적이고 마무리되지 않은 그 주변지역은, 전체 천문학적 계획의 매우 불안정한 주변상황과 함께, 별을 연구하는 우리에게는 일곱 연방우주까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우리가 안에서, 즉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밖을 향해 움직일 때, 우리는 결국 조직되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의 외부 한계에 도달하며;광우주의 외부 한계선에 도달한다. 그리고 너희의 지방우주가 파란만장하게 실존해 온 곳은, 그런 장엄한 창조계 중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있는 이 외부 경계선 근처다.

12:1.14 (129.12) *외부 공간 층들.* 공간 멀리에, 인간이 거주하는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힘과 물질화 되는 에너지로 이뤄진, 방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로{回路}들을 집합시키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의 에너지 회로들과, 이 거대한 힘 활동 외부 띠

사이에는, 비교적 고요한 공간 지대가 있는데, 폭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평균 약 40만 광년이다. 이 공간 지대들은 별 먼지와--곧 시공우주 안개와-- 상관없다. 이 현상을 연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곱 연방우주를 돌고 있는 비교적 고요한 이 지대 안에 존재하는, 엄밀한 상태의 공간_세력들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우주 주변지역을 약 50만 광년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작용 지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는데, 이 지대의 부피와 밀도는 2천500만 광년이 넘는 거리까지 증가한다. 힘을 솟구치게 하는 이 거대한 회전구름은 첫째 외부 공간 층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이미 알려지고 조직된,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 전체를 돌고 있는, 시공우주 활동이 있는 연속된 지대다.

12:1.15 (130.1) 더 거대한 활동이 이 지역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첫째 외부 공간 층 너머에 있는 현상 가운데 최고외부 범위를 5천만 광년 이상 벗어난 곳에서, 우버사 물리학자들이, 일찍이 힘 형태화의 증거물을 탐지했기 때문이다. 총괄우주 중에서 둘째 외부 공간이라는 물질 창조계가 조직되고 있음을, 이 활동이 틀림없이 예측하게 한다.

12:1.16 (130.2) 중앙우주는 영원성에 속하는 창조물이며;일곱 연방우주는 시간세계에서 창조된 것이며;4개의 외부 공간 층은 창조의 궁극성을 분명히 귀착시키고_진화시키게 돼 있다. 그리고 무한자가 무한성에 미치는 충분한 표현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며;따라서 그들은 넷째 및 최고 외부 공간 층을 넘어서는 부가적이고 계시되지 않은 창조, 즉 언제나_팽창할 가능성이 있는, 결코 끝나지 않는 무한성의 우주를 가정한다. 창조주의 무한성이나 창조의 잠재적 무한성을 어떻게 제한시키는지 우리는 이론상으로 알지 못하지만, 총괄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경영되다시피, 총괄우주가 한계를 가졌고, 분명히 제한돼 있고, 열린 공간이 그 외부 가장자리를 막고 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2.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

12:2.1 (130.3) 점점 더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공간의 신비한 범위를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거기서 거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 우주들이 놀랍게 진화하는 것을 바라볼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불가사의한 계획의 힘찬 결실과정을 응시하고 있음을 실감해야만 한다. 정말로 우리는 이 외부 지역들의

현재 특질인 방대한 에너지 형태화 전반에 걸쳐 여기저기서, 어떤 낙원 인격체 영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물을 갖고 있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일곱 연방우주의 외부 경계선 너머로 확장하는 공간 지역들은 대체로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인식된다.

12:2.2 (130.4) 인간의 육안으로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경계선 밖에 있는 두 세 성운{星雲}밖에 볼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가진 망원경은 형성 과정에 있는 이런 수백만 개의 물리적 우주를 분명히 드러낸다. 너희가 현_시대에 망원경으로 탐색할 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별들이 총총한 영역들 대부분은 오르본톤 안에 있지만, 사진 기법을 이용하는 더 큰 망원경은, 광우주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서 외부 공간 범위들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는 무수한 우주들이 조직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수백만 개의 다른 우주가 있다.

12:2.3 (130.5)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망원경이, 멀리 뻗어나간 외부 공간에 있는, 적어도 3억 7천 5백만 개 이상의 새로운 성단{星團}을,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의

경탄하는 눈앞에 드러낼 것이다. 동시에, 더 강력한 이 망원경은, 외부 공간에 있다고 전에 믿었던 섬 같은 여러 우주가, 실제로는 오르본톤에 속한 성단 체계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일곱 연방우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각 주변지역은 점점 팽창하고 있으며;새로운 성운들이 끊임없이 안정을 찾고 조직되고 있으며;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은하계 바깥에 있다고 간주하는 일부 성운이, 실제로는 오르본톤 외부 경계선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12:2.4 (131.1) 우버사의 별 연구가들은, 광우주가 일련의 별과 행성 다발들의 조상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관찰하는데, 이것들은 수많은 외부 우주의 동심 고리들로서, 현재 인간거주 창조물 둘레를 완벽하게 둘러싼다. 우버사의 물리학자들은, 외부에 있는 이 미지의 지역에 속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포함된 물질 질량 및 에너지 축적량{蓄積量}의 여러 배에 이미 달했다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 외부 공간 층들에 있는 시공우주 세력을 변질시키는 것이, 낙원 힘 조직가들의 역할이라고 들었다. 또한 우리는, 광우주를 지금 활성화시키는 그 물리적 에너지의 선조가 이 세력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무튼 오르본톤 동력 지휘자들은 멀리_떨어진 이 영역과 아무 관계없으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동은,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계의 동력 회로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돼 있지 않다.

12:2.5 (131.2) 우리는 외부 공간의 이 거대한 현상의 의미심장함을 거의 알지 못한다. 미래의 더 큰 창조물이 형성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분간할 수 있으며, 그 웅장한 규모를 느낄 수 있지만, 그밖에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이 영역을 아는 것보다 더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과 거의 비슷한 물질 존재도, 천사 또는 다른 영 피조물도, 성운과 항성과 행성들로 이뤄진 이 외부 고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이 영토에는 연방우주 정부의 관할권과 경영이 미치지 않는다.

12:2.6 (131.3) 새로운 창조 유형, 즉 집결하고 있는 완결성취 단체의 미래 활동의 모습이 되도록 예정된, 그런 우주 체제가 형성과정에서 있다고 오르본톤 전역에서 믿으며;우리의 추측이 맞는다면, 끝없는 과거가 너희의 선조와 선배들을 위해 간직했던 것과 똑같이 매혹적인

광경을, 끝없는 미래가 너희 모두를 위해 간직할지도 모른다.

3. 우주의 인력

12:3.1 (131.4) 모든 형태의 힘과_에너지는, --물질이든지, 정신이든지, 영이든지-- 보편적으로 현존하는 그 지배력에 똑같이 종속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력{引力}이라고 부른다. 인격체 역시 인력에--곧 아버지가 독점하는 회로에-- 민감하지만;비록 아버지만이 이 회로를 활용하더라도, 아버지는 다른 회로들에서 제외되지 않으며;만유의 아버지는 무한하고, 총괄우주에서 네 가지 절대_인력 회로 *여디서나* 활동하신다:

12:3.2 (131.5) 1.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인력.

12:3.3 (131.6) 2.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

12:3.4 (131.7) 3.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

12:3.5 (131.8) 4. 낙원 섬의 시공우주 인력.

12:3.6 (131.9) 이 네 가지 회로는 하부 낙원 힘 중심에 관련돼 있지 않으며;힘도 에너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력 회로도

아니다. 이것들은 절대 *현존* 회로이며,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간 및 공간과 상관없다.

12:3.7 (132.1) 이 점에서, 인력 연구단체들이 최근 수천 년 동안 우버사에서 얻은 어떤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일은 흥미롭다. 노련한 이 일꾼 집단은 총괄우주의 상이한 인력 체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2:3.8 (132.2) 1. *물리적 인력*. 광우주의 물리적_인력 수용력 전체 합계에 대한 추정치를 공식화함으로써, 그들은 현재 작동하는 절대 인력 현존의 추정된 합계와 이 결론을 수고스럽게 비교해 왔다. 이 계산은 광우주에 있는 전체 인력 작용이, 낙원의 추정된 인력 흡인력{吸引力} 가운데 매우 작은 부분임을 나타내는데, 우주 물질의 물리적 기본 단위들의 인력 반응에 기초해서 계산됐다. 이 검사관들은 중앙우주와 이를 둘러싼 일곱 연방우주가, 현재 시간에 낙원 절대_인력 지배의 유효한 기능발휘 중에서 약 5퍼센트만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해서 계산할 때, 현 시점에 낙원 섬의 유효한 시공우주_인력 작용 중에서 약 95퍼센트는, 현재 조직돼 있는 우주들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질 체계들을 통제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계산은 모두 절대 인력을 참조한 것이며;직선 인력은 오직 실제 낙원 인력을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는 상호작용 현상이다.

12:3.9 (132.3) 2. *영적 인력*. 동일한 비교 추정 및 계산 기법으로, 이 연구가들은 영 인력의 현재 반응 수용력을 탐구해 왔고, 단독 사자들 및 다른 영 인격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2 근원 및 중심의 유효한 영 인력을 합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광우주에 실제로 있고 작용하는 영 인력의 현존에 대해서, 유효한 영 인력의 현재 총합이라고 가정한 것과 대략 동일한 값을 그들이 발견함에 주목하는 것은 가장 유익하다. 바꿔 말하면:현 시점에, 이 전체성 이론에 입각해서 계산한, 영원한 아들의 전체 영 인력은 실제로, 광우주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관측할 수 있다. 이 발견 결과가 믿을 만하다면, 우리는 지금 외부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우주들이, 현 시점에 전적으로 비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대한 에너지 형태화가 물리적으로 실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 영을_부여받은 존재들이

어찌하여 이런 에너지 형태화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것이다.

12:3.10 (132.4) 3. *정신 인력*. 비교해서 계산하는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전문가들은 정신_인력 현존과 반응의 문제에 도전해 왔다. 정신_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 단위에 도달하려는 노력에는, 동력 지휘자들과 그 동역자들 안에서 발견된 정신 유형이 방해 요인이라는 것이 판명됐더라도, 세 물질적 유형과 세 영적 유형의 정신력을 평균해서 정신의 추정치 단위를 얻었다. 이 전체성 이론에 따라서, 정신_인력 기능을 위해 제3 근원 및 중심의 현재 수용력에 대한 측정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발견 결과가 비록 물질 및 영 인력 추정치의 경우처럼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매우 유익하며,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 조사관들은, 공동 행위자의 지적 끌어당김에 대한 정신_인력 반응 중에서 약 85퍼센트가 실존하는 광우주에서 기원된다고 추론한다. 이것은 정신 활동이 외부 공간 영역들 전역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물리적 활동과 관련해서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것이다. 이 평가가 정확하다고 하기에는

아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광우주의
현 외부 한계선을 넘어서는 공간 층들에서 지성 힘
조직가들이 지금 우주 진화를 지휘하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일치한다. 이 가정된 지성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그
지성은 영_인력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12:3.11 (133.1) 그러나 이 모든 계산은, 기껏해야 가정된 법칙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다. 우리는 그 계산이 제법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영 존재가 외부 우주에
자리를 잡았더라도, 그들의 집단 현존은 그런 거대한
측정을 수반하는 계산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12:3.12 (133.2) *인격체* 인력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회로를 인식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질적 또는 양적
실체를 측정할 수 없다.

4. 공간과 움직임

12:4.1 (133.3) 모든 시공우주 에너지 단위는, 우주 궤도 주변을
도는 동안, 예비 공전을 하면서 그 임무 이행에 맞물려
있다. 공간의 우주들과 그것들을 구성하는 체계 및
세계들은 모두 공전하는 구체인데, 총괄우주 공간 층의
끝없는 회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인력의 중심인 영원한

낙원 섬, 즉 하보나의 정 중앙 외에는 총괄우주 전체에서 아무 것도 정지돼 있지 않다.

12:4.2 (133.4) 무조건 절대자는 기능적으로 공간에 제한돼 있지만,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이 절대자의 관계에 대해 그리 확신하지는 못한다. 움직임이 원래 거기에 내재하는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움직임이 공간에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심지어 공간의 움직임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임에 대한 무조건 절대자의 관계에 관해 그리 확신하지는 못한다. 현재의 일곱 연방우주 경계선 너머 밖에서 지금 진보하고 있는 힘_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거대한 활동의 진정한 원인이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움직임의 근원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12:4.3 (133.5) 1. 우리는 공동 행위자가 공간 *안에서* 움직임을 개시한다고 생각한다.

12:4.4 (133.6) 2. 공동 행위자가 공간의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12:4.5 (133.7) 3. 우주 절대자가 최초의 움직임에 기원시키지는 않았지만, 움직임으로 기원되는 모든 균형상태를 균등하게 하고 통제한다.

12:4.6 (133.8) 외부 공간에서, 지금 별모양을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우주 회전구름의 생성을, 힘 조직가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작용하는 그들의 역량은,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더러 변경함으로 가능하게 돼 왔음에 틀림없다.

12:4.7 (133.9)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無}이며--공음{陰}이며;오직 양{陽}이고 비공간인 어떤 것과 관련될 때에만 실존한다. 아무튼, 공간은 실재한다. 공간은 움직임을 포함하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은 움직이기도 한다. 공간의 움직임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2:4.8 (133.10) 1. 1차 움직임--공간 호흡 작용, 공간 자체의 움직임.

12:4.9 (133.11) 2. 2차 움직임--연속되는 공간 층들의 방향이 번갈아 바뀌는 회전.

12:4.10 (133.12) 3. 상대적 움직임--낙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1차 및 2차 움직임은 절대적인데, 정지된 낙원과 관계되는 움직임이다.

12:4.11 (133.13) 4. 모든 다른 움직임을 조화시키려고 고안된, 보상하거나 상관하는 운동.

12:4.12 (134.1) 너희의 태양 및 태양과 관련된 행성들의 현재 관계는, 공간에서 많은 상대적 및 절대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한편, 천체 관찰자들에게, 너희가 비교적 공간에 정지돼 있고, 공간 안에서 바깥쪽으로 너희의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의 별 무리와 흐름들이 끊임없이_증가하는 속도로 밖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총만된 전체 공간에 있는 물리 창조계들이 지금 바깥쪽으로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너희가 속해있는 지방우주는(네바돈은) 보편적으로 바깥쪽을 향해 팽창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총괄우주의 외부 지역을 따라서, 20억_년 주기의 공간 호흡작용에 일곱 연방우주 전체가 참여한다.

12:4.13 (134.2) 우주들이 팽창하고 축소할 때, 충만된 공간의 물질 덩어리들은, 낙원 인력의 흡인력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움직인다. 창조로 인한 물질 에너지 덩어리를 움직일 때 행해지는 작용은 공간 작용이고, 동력_에너지 작용이 아니다.

12:4.14 (134.3) 너희가 분광기{分光器}로 얻은 천문학적 속도의 추정치는, 너희 연방우주 및 그 이웃 연방우주들에 속하는, 별이 총총한 영역에 적용될 때에는 제법 신뢰할만하더라도, 외부 공간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산이 전혀 신뢰할만하지 않다. 스펙트럼 광선은 다가오는 별로 말미암아 정상에서 보라색 쪽으로 옮겨지며;마찬가지로 이 광선은 멀어져가는 별로 말미암아 빨간 색 쪽으로 옮겨진다. 많은 영향이 개재함으로써, 거리가 100만 광년 늘어날 때마다, 외부 우주들의 후퇴 속도가 초당 100마일 이상의 비율로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더 강력한 망원경이 완성된 후에, 멀리 있는 이 체계들이 초당 3만 마일 이상의 불가사의한 속도로, 우주의 이 부분으로부터 날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견상의 이 후퇴 속도는 실체가 아니며;관찰하는

각도를 포함한 수많은 오류 요인 및 기타 여러 시_공간 일그러짐 때문에 생긴다.

12:4.15 (134.4) 그러나 그런 모든 일그러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곱 연방우주 영토 다음 영역들에 있는 외부 공간의 방대한 우주들이, 광우주가 공전하는 방향과 반대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이 무수한 성운과 이것들을 따르는 항성 및 구체들은, 지금 중앙 창조물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는, 낙원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일곱 연방우주와 마찬가지로, 성단들 중에서 둘째 외부 우주가 낙원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우버사의 천체 관찰자들은, 시계방향 본성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멀리 있는 공간의 셋째 외부 지대에서 공전 운동 증거물을 포착했다고 생각한다.

12:4.16 (134.5) 공간에서 연달아 우주 행렬들의 방향이 이렇게 교대로 바뀌는 것은, 우주 절대자에게 속하는, 총괄우주 내부의 기법, 즉 세력들을 조정하고 공간의 긴장상태를 균일화시키는 우주 인력 기법과, 아마 무슨 상관이 있는

듯하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움직임도 인력을 보완하거나 균형을 잡는다.

5. 공간과 시간

12:5.1 (134.6) 공간처럼, 시간 역시 낙원이 증여한 것이지만, 같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간접적으로 그렇다. 시간은 움직임으로 인해, 그리고 정신이 연속성을 내재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용적 관점에서는 움직임이 시간에 필수적이지만, 낙원_하보나 표준일이 임의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 외에는, 움직임에 근거하는 보편적 시간 단위는 없다. 전체 공간 호흡작용이 시간 근원으로서 그 표준일의 국지적 가치를 없애버린다.

12:5.2 (135.1) 공간은 낙원으로부터 기원됐음에도 무한하지 않으며;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무조건 절대자가 공간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의 절대 한계를 모르지만, 시간의 절대 현상이 영원이라는 것은 안다.

12:5.3 (135.2) 시간과 공간은, 시_공간 창조계, 즉 일곱 연방우주에서만 분리될 수 없다. 비시간 공간이(시간 없는 공간이)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진정으로 비시간의

장소는 낙원 ~~지역~~뿐이다. 비공간 시간은(공간 없는 시간은) 낙원 수준에서 작용하는 정신 속에 존재한다.

12:5.4 (135.3) 낙원과 맞닿아 있는 총만된 공간과 비총만 공간을 구분시키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중간_공간 지대들은 시간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과도기 지대인데, 그래서 낙원 순례자들은 이런 이동 중에 무의식 상태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 이동은 낙원 시민이 됨으로 완결된다. 시간을_의식하는 방문자들은 그렇게 잠들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세계의 피조물이다.

12:5.5 (135.4) 시간에 대한 관계는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 의식은 존재한다. 움직임이 없는 중이라도 연속성이 시간을 의식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은 공간에_속박됨보다 시간에_속박됨이 덜한데, 정신의 내재적 본성 때문이다. 육신 속에서 이 세상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사람의 정신이 엄밀하게 공간에_속박된 상태에 있음에도,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은 비교적 시간과 무관하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유전적으로 볼 때, 정신의 특성이 아니다.

12:5.6 (135.5) 세 가지 시간 인지 수준이 있다:

12:5.7 (135.6) 1. 정신이_감지하는 시간 --연속됨과 움직임을
의식함, 그리고 지속기간의 감각.

12:5.8 (135.7) 2. 영이_감지하는 시간 --하나님을_향한 움직임을
통찰함, 그리고 점증하는 신성{神性} 수준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자각함.

12:5.9 (135.8) 3. 실체를 보는 통찰력으로부터, 인격체는 독특한
시간 감각, 그리고 현존한다는 의식과 지속기간을
자각하는 의식을 창조한다.

12:5.10 (135.9) 비영적{非靈的} 동물은 오직 과거만 알면서
현재에 산다. 영이_내주된 사람은 선견 능력을(통찰력을)
가지며;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다. 오직 앞을_내다보는
진취적인 태도만이 개인적으로 실재한다. 고정된 윤리와
전통적인 도덕성은, 동물보다 약간 나은 정도일 뿐이다.
금욕주의도 높은 규범의 자아_실현이 전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일 때, 우주 실체와 함께
살아있을 때, 참으로 인간답게 된다.

12:5.11 (135.10) 인간 인격체는 단순히 시간_및_공간 사건의 부수물이 아니며;인간 인격체는 그런 사건의 시공우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6. 우주의 전면통제

12:6.1 (135.11) 우주는 경직돼 있지 않다. 안정성은 관성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균형잡힌 에너지, 협동 정신, 조화된 모론시아, 영 전면통제, 및 인격체 통합의 산물이다. 안정성은 전적으로, 언제나 신성{神性}의 정도에 비례한다.

12:6.2 (135.12)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총괄우주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면서 낙원 섬을 통해 우선권과 지상권{至上權}을 행사하시며;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시공우주를 영적으로 경영함에 절대적이시다. 정신 분야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공동 행위자 안에서 대등하게 활동하신다.

12:6.3 (136.1) 제3 근원 및 중심은, 시공우주 정신을 절대로 지배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물리적_인력 및 영적_인력 보충물{補充物}을 활용함으로써, 혼합된 물리적 에너지 및 영 에너지의

평형을 유지하고 조정하도록 돕는다.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접촉이 이뤄질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그런 정신 현상은 무한한 영의 활동이다. 정신이 단독으로, 물질 수준의 물리적 힘과 에너지를 영적 능력 및 영 수준의 존재들과 상호연합시킬 수 있다.

12:6.4 (135.14) 우주의 현상에 대하여 너희가 심사숙고할 때마다,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에너지의 상호관련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격체가 그것들을 통합하는 데 부수되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위해서, 체험적 신격과 절대자들의 행위 및 반응에서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위해서, 적당한 허용 오차{誤差}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12:6.5 (135.15) 우주는 양적 의미, 즉 인력을_측정하는 의미에서만 고도로 예측될 수 있으며;심지어 시초의 물리적 힘도 직선 인력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 우주 실체들이 지닌 높은 정신 의미와 참된 영 가치가 아니다. 물리적, 정신적, 또는 영적 힘의 새로운 연합을 고려할 때, 우주는 질적으로 그렇게 고도로 예측될 수 없더라도, 비판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에너지나 세력의

그런 조합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질, 정신, 및 영을 피조 인격체가 통합할 때,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 존재가 내린 결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다.

12:6.6 (135.16) 원초적 힘, 미성숙 영, 그 외에 인격없는 근본원리의 모든 국면은,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어떤 미지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는 듯하며, 경계가 정해지고 고립된 상황의 현상으로 마주했을 때, 종종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 범위가 넓고 신축성 있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떠오르는 이 우주 실상이 드러내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유로운 반응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알려지지 않은, 헤아릴 수 없이 예측 불가능 이런 것들은 --힘의 원시적 단위의 행태든지, 불확실한 정신 수준의 반응이든지, 또는 외부 공간 영토들에서 아직 우주가 되기 전의 광대한 현상과 관련이 있든지-- 모든 우주 창조주들의 기능이 아니라, 선행하는 궁극자의 활동과 절대자들의 현존_실행을 아마 드러낼 것이다.

12:6.7 (135.17)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지만, 그런 놀라운 융통성과 그런 심오한 협조가 절대자들의 현존 및 행적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외견상 획일적인 원인에도

아랑곳없이, 그런 다양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상황에 알맞은 원인뿐 아니라, 전체 총괄우주 전반에 걸친 다른 모든 관련된 원인에 대해서도, 절대자들의 반응을 드러낸다고 추측한다.

12:6.8 (135.18) 개인마다 자신의 운명 후견인을 소유하며;행성, 체계, 성좌, 우주, 및 연방우주들은 각각 자기 영역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각각의 통치자를 소유한다. 하보나, 그리고 광우주까지도, 그런 높은 책임이 위탁된 분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나 낙원으로부터 넷째 및 가장 외부 공간 층에 이르기까지, 총괄우주 전체를 양육하고 그 기본적 필요를 보살필 자가 누군가? 실존적으로 그런 책임은 아마 낙원 삼위일체에게 있겠지만, 체험적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_이후 우주들의 상황은 다음에 의존한다:

12:6.9 (135.19) 1. 잠재력은 절대자들에게.

12:6.10 (135.20) 2. 방향은 궁극자에게.

12:6.11 (137.1) 3. 진화의 조정은 지존자에게.

12:6.12 (137.2)

4. 특정한 통치자들이 출현하기까지, 경영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에게.

12:6.13 (137.3)

무조건 절대자가 전체 공간에 충만해 있다. 신격 및 우주 절대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처럼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격 절대자와 무조건 절대자가 작용하는 곳은 어디든지 우주 절대자가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격 절대자가 보편적으로 현존할 수 있지만 공간에 현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궁극자는 넷째 공간 층의 바깥 경계선까지 공간에 현존하고 있거나, 또는 언젠가 현존할 것이다. 궁극자가 총괄우주 가장자리를 넘어서 공간에 항상 현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혹을 품지만, 이 한계 내에서는 세 절대자의 잠재력에 대한 창조적 조직을 궁극자가 점진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7. 부분과 전체

12:7.1 (137.4)

모든 시간과 공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본성에 상관없이, 모든 실체에 작용하는 냉혹한 비인격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섭리의 작용에 상당한다. 자비는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의 특징이며;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 공평함이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 뜻이 부분--곧 어떤 한 인격체의 마음-- 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이 전체, 즉 온갖 우주를 실제로 다스린다.

12:7.2 (137.5) 어떤 존재와 무슨 관계를 갖든지, 하나님의 법칙은 본질적으로 독단적이지는 않음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활동은, 너희의 제한된 통찰력과 유한한 관점에서 보면, 종종 독재적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습성, 즉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 행하시는 방법일 뿐이며;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는데, 그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특별한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며;가장 좋은 방법이 옳은 방법이고, 따라서 그것이 정확하고 완전한 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무한한 지혜가 항상 명령한다. 너희는 또한, 자연이 신격의 독단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며;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현상 속에는 다른 영향도 있다.

12:7.3 (137.6) 어떤 종류의 퇴보든지 견디는 것, 또는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행위든지 열등한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것은, 신{神}의 본성에 모순된다. 아무튼, 만약, 어떤 신성한 상황,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 최상의 지혜로운 방침이 다른 진행을 필요로 한다고 가리키는 어떤 경우든지--완전성에 대한 요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반응 방법, 즉 더 나은 방법을 지시한다면, 온전히-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적당한 방법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활동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낮은 법칙의 파기가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의 표현일 것이다.

12:7.4 (137.7) 하나님은, 자기 임의로 하는 행동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기에 습관적으로_묶여있는 노예가 아니다. 무한자의 법칙 가운데는 모순이 없으며;그 법칙은 모두 전혀 오류 없는 본성의 완성이며;모두 결점 없는 결정을 표현하는 명백한 행위다. 법칙은, 무한하고 완전한 신{神}의 정신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이 명백한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발적이다. 하나님 안에는, "변덕스러움이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께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종속된 지성체 또는 진화 피조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똑같은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다.

12:7.5 (137.8)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므로, 모든 정상 상황에서, 하나님이 같은 일을 바로 그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신다고, 너희는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사물과 존재를 위한 안정성을 보증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며;그러므로 변치 않으신다.

12:7.6 (138.1) 그리고 이런 진행이 확고하고 행위가 한결같은 것은, 모두 개인적이고 의식적{意識的}이며 매우 자발적인데, 이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성과 무한성에 속수무책으로 노예가 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_행동하는 자동적인 힘이 아니며;법칙에_묶인 노예근성의 동력도 아니다. 하나님은 수학 방정식이 아니고 화학 공식도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근본 인격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신데, 인격체로 넘칠 만큼 충전된 존재이고, 우주에서 모든 피조 인격체의 원천이시다.

12:7.7 (138.2) 하나님을 찾는 물질 필사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뜻이 한결같이 우세하지는 않지만, 시간의 틀이 순간을

넘어서, 첫 번째 생애 전체를 포함할 만큼 확대되면, 영에게_인도받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서 열리는 영 열매에서 하나님 뜻을 점점 더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인간 생애가 모론시아 체험을 포함할 정도로 더 확장되면,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와 사람의 인격체의 관계를 체험하는 신성한 기쁨을 비로소 맛보는, 시간세계의 피조물들이 영성화 하는 행위에서, 신의 뜻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12:7.8 (138.3)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은, 인격체 수준에서 부분인 동시에 전체라는 모순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하늘의 가정{家庭}에서 개별 자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각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이, 전체 관계, 즉 만인의 형제관계가 생기게 한다.

12:7.9 (138.4) 아버지의 사랑이 각 인격체를, 만유의 아버지의 독특한 한 자녀, 무한성에서 복제되지 않는 자녀, 전체 영원성에서 갈아치울 수 없는, 의지를 가진 한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개별화시킨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 각자를 영화롭게 하는데, 이 사랑은 천상{天上}의 가족 각 구성원을 비추고, 만유의 아버지의 우애{友愛} 회로 바깥에 있는 비인격 수준과는 반대로, 각각의 인격있는 존재의 독특한 본성을 예리하게 그림자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를 가진 각 피조물의 초월 가치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낙원 신분의 가장 높은 창조자 인격체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인간 종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미개한 부족 사람 가운데 의지 존엄성을 지닌 가장 낮은 인격체에 이르기까지, 자녀 각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만유의 아버지가 부여해 오신 높은 가치를 반드시 드러낸다.

12:7.10 (138.5)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이, 모든 개인의 신성한 가족, 낙원 아버지의 자녀, 자유의지를 지닌 자녀의 보편적 형제관계가 생기게 한다. 그리고 이 형제관계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체의 관계다. 형제관계는, 보편적일 때, *각각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의* 관계를 나타낸다. 형제관계는, 전체가 소속된 하나의 실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분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의 특성을 드러낸다.

12:7.11 (138.6) 형제관계는,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인격체 사이의 연관성이 사실임을 성립시킨다. 어떤 인격자든지, 다른 인격자들에 대한 관계의 결과로 올 수 있는 유익 또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부분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겪는다. 각 사람의 선한 노력은 전체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각 사람의 실책 또는 악은 모든 사람의 시련을 증대시킨다. 부분이 움직이는 만큼 전체도 움직인다. 전체가 나아가는 만큼 부분도 나아간다. 부분과 전체의 상대 속도가, 부분이 전체의 관성 때문에 뒤쳐지는지, 아니면 시공우주 형제관계의 추진력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지를 결정한다.

12:7.12 (139.1) 하나님이, 상당히 개인적이면서 자아를_의식하고 거주 본부를 갖는 존재인 동시에, 그런 방대한 우주에 몸소 현존하면서 그런 거의 무한한 숫자의 존재와 직접 접촉하시는 것은 신비롭다. 그런 현상이 인간의 납득을 넘어서는 신비라고 해서, 너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한성의 방대함, 영원성의 광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길 데 없는 성품의 위대함과 영광이, 너희를 위압하거나 동요시키거나 낙담시키게 하지 말라;아버지는 너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실제로 살며, 틀림없이 우리의 존재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12:7.13 (139.2) 낙원 아버지가 신성한 창조자들과 피조 자녀를 통해서 활동하심에도, 또한 너희와 가장 긴밀한 내적 접촉을 누리시는데, 너무나 고귀하고 고도로 개인적이어서, 심지어 내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다--이 접촉은 아버지의 단편이 인간 혼과, 그리고 실제로 그 단편이 내주하는 필사 정신과 나누는 신비스런 교류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데, 따라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신성한 동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필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긴밀하게 접촉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낙원에 거하시지만, 그의 신성한 현존은 사람의 정신 속에도 거하신다.

12:7.14 (139.3) 아들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더라도, 아들이 한때 인간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더라도, 스라빔이 너희를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안내하더라도, 제2 중심 및 제3 중심의 이 신성한 존재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너희 안에 있기 위해, 너희의 실제적이고 신성한 자아, 심지어 너희의 영원한 자아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처럼, 충분히 너희를 이해하거나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를 희망할 수 있을까?

8. 물질, 정신, 및 영

12:8.1 (139.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나 낙원은 영이 아니다. 물질 우주는 언제나 모든 영적 활동이 일어나는 경기장이며; 영 존재와 영 상승자들은 물질 실체인 물리적 구체에 살면서 일한다.

12:8.2 (139.5) 시공우주 힘은 시공우주 인력{引力}의 분야요, 이 힘을 증여하는 것은 낙원 섬의 기능이다. 모든 원본 힘_에너지가 낙원에서 나오고, 수많은 우주들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 초월인력 현존 형태로 총괄우주 전반에 두루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그 초월인력 현존은 충만된 공간의 힘_전하{電荷}를 구성한다.

12:8.3 (139.6) 바깥에 있는 우주들에서 힘이 어떤 변형을 겪든지, 그것은 낙원에서 나왔기에, 끝이 없는, 항상_현존하는, 틀림없는 영원 섬의 끌어당김에 종속되어 여행하는데, 우주들의 영원한 공간 경로 주변을 충실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영구히 돌고 있다. 물리적 에너지는 우주의 법칙을 참되고 확고부동하게 준수하는 하나의 실체다. 피조물이 결단하는 범주에서만, 신성한 경로와 원래 계획으로부터 이탈한 일이 있었을 뿐이다. 동력과 에너지는 중앙 낙원 섬의 안정성, 불변성, 및 영원성의 보편적 증거다.

12:8.4 (139.7) 영을 증여하고 인격체를 영성화{靈性化}하는 것은 영적 인력의 분야인데, 영원한 아들의 영역이다. 모든 영적 실체를 반드시 자신에게로 잡아당기는 아들의 이 영 인력은, 낙원 섬의 전능한 물질 지배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물질_정신을 가진 사람은, 동등하게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적 본성의 작동보다, 물리적 본성의 물질 형태화에 본래 더 친밀한데, 영적 본성은 혼의 영적 통찰력으로만 분별된다.

12:8.5 (140.1) 우주에 있는 어느 인격체든지, 그의 정신은 더 영적으로--곧 하나님처럼-- 될수록 물질 인력에 덜 반응하게 된다. 물리적_인력 반응으로 측정하는 실체는, 영 내용의 질{質}에 따라서 결정하는 실체와 정반대다. 물리적_인력 작용은, 영{靈}이 아닌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며;영적_인력 행위는 살아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재는 질적 척도다.

12:8.6 (140.2) 낙원이 물리적 창조에 응하는 만큼, 영원한 아들이
영적 우주에 응하는 만큼, 공동 행위자는 정신의 영역에--
곧 물질적, 모론시아적, 그리고 영적 존재 및 인격체들의
지성 우주에-- 응한다.

12:8.7 (140.3) 공동 행위자는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양쪽에
반응하며, 따라서 모든 지성 존재, 즉 창조의 물질 국면과
영적 국면, 양쪽의 합동을 나타낼 존재들에게 보편적
사역자가 된다. 지성을 부여하는 것, 즉 정신 현상에서
물질계와 영계{靈界}를 돌보는 일은 공동 행위자의 독점
분야인데, 그래서 공동 행위자는, 영적 정신의 동역자,
모론시아 정신의 본질, 그리고 시간세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의 물질 정신의 내용이다.

12:8.8 (140.4) 정신은, 피조물 인격체가 영 실체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결국, 심지어 인간 정신까지도
통합할 가능성, 즉 사물과 관념 그리고 가치를 조화시키는
역량은 초물질적이다.

12:8.9 (140.5) 상대적인 시공우주 실체의 일곱 수준을 납득하는 것이 필사 정신에게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인간 지능은 유한 실체의 세 기능발휘 수준의 의미는 많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12:8.10 (140.6) 1. **물질**. 움직임이 변경시키고 정신이 조절하는 경우 이외에, 직선 인력에 종속되는 조직화 된 에너지.

12:8.11 (140.7) 2. **정신**. 전적으로 물질 인력에 종속되지는 않는, 그리고 영이 변경시킬 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조직화 된 의식.

12:8.12 (140.8) 3. **영**. 인격있는 가장 높은 실체. 참된 영은 물리적 인력에 종속되지 않지만, 결국 인격체 존엄성에 속하는 모든 진화하는 에너지 체계에 동기를 부여하는 영향력이 된다.

12:8.13 (140.9) 모든 인격체 실존의 목표는 영이고;물질 형태화는 상대적이며, 시공우주 정신이 우주의 이 양극단 사이에 있다. 정신 증여와 영 사역은 신격의 동역 인격자들, 즉 무한한 영과 영원한 아들이 하는 일이다. 전체 신격 실체는 정신이 아니라, 영_정신이다--인격체가 통합한

정신_영이다. 그럼에도 영과 사물 양쪽의 절대성이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자 안에서 만난다.

12:8.14 (140.10) 낙원에서는 세 에너지, 즉 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가 대등하다.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는, 인격체의 경우에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지휘하려고 애쓰는 것을 제외하고, 에너지_물질이 지배한다. 모든 피조물의 인격체 체험에서 영이 근본 실체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은 변치 않으며, 따라서 모든 인격체 관계에서, 영이 정신과 물질 둘 다를 초월하며, 이 두 가지는 점진적 달성 과정에 체험적 변수다.

12:8.15 (140.11) 시공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물질은 신을 깨닫게 하는 영 발광체 앞에 정신이 던진 철학적 그림자가 되지만, 이것은 물질과_에너지가 실체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신, 물질, 및 영은 똑같이 실재하지만, 신성{神性}을 달성함에서는 인격체에게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성을 의식하는 것은 점진적인 영적 체험이다.

12:8.16 (141.1) 영성화 된 인격체의(우주에 계신 아버지, 즉 개별 피조물 안에 있는 잠재적 영 인격체인 단편의) 빛이 밝을수록, 끼어든 정신의 그림자가 물질 대상물 위에 더

질게 드리워진다. 시간세계에서 사람의 육신은 정신 또는 영과 마찬가지로 실재하지만, 죽음에 이르면 정신과(정체성과) 영은 둘 다 살아남는 반면, 육신은 살아남지 못한다. 시공우주 실체는 인격체의 체험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은 더 실제적인 영 본체의 그림자라고 하는-- 너희 그리스인의 비유적 표현은 철학적으로 의미심장하다.

9. 인격있는 실체

12:9.1 (141.2) 영은 우주들에서 인격있는 기본 실체이며, 인격체는 영적 실체를 겪는 모든 진보하는 체험에 기본적이다. 우주가 진보하는 연속된 어떤 수준에서든지, 인격체를 체험하는 국면마다, 매혹적인 인격있는 실체의 발견에 단서가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참된 운명은, 새로운 목표와 영 목표를 창작하고,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 가치를 갖는 그런 숭고한 목표로 인도하는 시공우주의 매혹에 반응하는 데 있다.

12:9.2 (141.3) 사랑은 인격체들 사이의 관계를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다. 너희가 단 한 번 접촉한 결과로 어떤 사람을 실제로 알 수는 없다. 음악이 수학적인 어떤 형태의

리듬이더라도, 너희는 수학적 추론을 통해서도 음악의 진가를 알 수 없다. 전화 가입자에게 배정된 번호는 그 가입자의 인격체를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하지 못하고, 그의 성품에 관해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다.

12:9.3 (141.4) 물질 과학인 수학{數學}은 우주의 물질 측면에 대한 지성적 토론에 필수이지만, 그런 지식이, 높은 진리의 실현 또는 영적 실체들에 대한 인격적 평가의 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생명의 범주뿐 아니라 물리적 에너지 세계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의 합은, 그런 합동의 예측 가능한 덧셈 결과 *이상{以上}*의 어떤 것이거나, 또는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인 경우가 매우 종종 있다. 수학 전체, 철학의 전체 분야, 최고의 물리학 또는 화학이라도, 두 개의 수소 기체 원자와 한 개의 산소 기체 원자가 합쳐져서, 어떤 새롭고도 질적으로 초월적인 덧셈의 본질이--곧 액체의 물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알 수 없었다. 이 한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에 대한 총명한 지식이, 유물론적 철학과 기계론적 우주론의 발달을 막았어야 했다.

12:9.4 (141.5) 기술적인 분석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없다. 예를 들면:물은 불을 끄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물이 불을 끌 것이라는 사실은 일상에서 체험한 결과지만, 물에 대한 어떤 분석도 그런 특성을 밝히기에 이용될 수 없었다. 분석은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구성돼 있음을 결정하며;이 요소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는, 산소가 연소{燃燒}를 실제로 도와주고, 수소는 스스로 자유롭게 타오르게 될 것임을 밝혀준다.

12:9.5 (141.6) 두려움에 대한 노예에서 그리고 미신{迷信}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종교는 현실적이 되고 있다. 너희의 철학은 교리와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너희의 과학은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한편, 추상 개념의 속박, 수학의 노예, 그리고 기계적 물질주의의 상대적 무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싸운다.

12:9.6 (142.1) 필사적 사람은 일종의 영 핵을 갖고 있다. 정신은 신성한 영 핵 주변에 존재하는, 그리고 물질 환경에서 작용하는, 인격있는_에너지 체계다. 인격있는 정신과 영의 그런 살아있는 관계가, 영원한 인격체의 우주 잠재력을 구성한다. 자아_개념이 중앙의 영 핵심의 지배 능력을 감히 온전하게 갈아치우고, 그리하여 인격체 정체성의

시공우주 짜임새를 붕괴시킨 후에야, 실제적인 어려움, 계속되는 실망, 심각한 패배, 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도래할 수 있다.

12:9.7 (142.2) [태고 항존자들의 권위로 활동하는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13편 낙원의 신성시되는 구체들

13:0.1 (143.1) 하보나 행성 회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와, 중앙의 낙원 섬 사이 공간에는, 특별한 구체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세 회로가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는, 만유의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로 이뤄져 있으며;둘째 집단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세계로 구성돼 있으며;가장 외부는, 무한한 영의 거대한 일곱 구체, 즉 일곱 으뜸 영의 행정_본부 세계로 돼 있다.

13:0.2 (143.2) 각각 일곱_세계로 구성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 세 회로는, 최고의 장엄함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구체들이다. 이것들의 물질적 또는 물리적 구조도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계층에 속한다. 각 회로는 물질적으로 다양하며, 물리적 구조에서 비슷한 아들의

일곱 세계를 제외하고, 각 회로의 각 세계는 서로 다르다. 21개 전체는 거대한 구체이며, 일곱 개로 구성된 각 집단은 서로 다르게 영존화 돼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들은 항상 있어 왔으며;낙원과 마찬가지로 영원하다. 이것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승{傳乘}도 없다.

13:0.3 (143.3) 영원한 섬에 아주 근접된 상태에서 낙원을 돌고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일곱 비밀 구체는, 영원한 신격들의 중앙 발광체의 영적 광명을 대단히 반사하는데, 낙원 도처에, 그리고 심지어 일곱 하보나 회로에도, 이 신성한 영광의 빛이 발산되기 때문이다.

13:0.4 (143.4) 영원한 아들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에서는, 영 발광체의 비인격 에너지들이 기원되는 모습이 보인다. 어떤 인격있는 존재든지, 빛나는 이 일곱 영역 가운데 어느 곳에도 머물 수 없다. 이것들은 영적 영광으로 낙원과 하보나 전체를 밝혀주고, 일곱 연방우주를 향해 순수한 영 발광체의 방향을 잡아준다. 둘째 회로에서 빛나는 이 구체들도, 마찬가지로 낙원을 향해서, 그리고 일곱으로_회로화 된 중앙우주의 수많은 세계를 향해서 자체의 빛을(열 없는 빛을) 내뿜는다.

13:0.5 (143.5) 무한한 영의 일곱 세계는, 일곱 연방우주의 운명을 관장하고,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를 향해서 신격 가운데 제3 인격자의 영적 빛을 내보내는 일곱 으뜸 영이 차지한다. 낙원 섬은 제외하고, 하보나 전체가, 영화{靈化}시키는 이 영향 안에 잠겨 있다.

13:0.6 (143.6) 비록 아버지의 세계들이, 아버지가_부여된 인격체들 전체를 위한 궁극 상태의 구체라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독자적 기능은 아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많은 존재 및 실재가 이 세계들에 머문다. 아버지의 회로와 영의 회로에 있는 각 세계에는 뚜렷한 유형의 영구 시민이 있지만, 아들의 세계들에는 획일적인 유형의 인격적이지_않은 존재들이 거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버지 단편들은 디비닝톤 원주민에 속하며;다른 계층의 영구 시민은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는다.

13:0.7 (143.7) 21개의 낙원 위성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에서, 본 문서들에 밝히지 않은 여러 목적에 이바지한다. 본성에 대해서 또는 기능에 대해서처럼, 그것들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얻기를 바라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이 구체들의 생애에 관해 알지 못하며;너희에게

게시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1개의 이
구체는 총괄우주 기능의 *잠재력*을 포함한다. 본 문서들은
광우주에서--아니 광우주의 일곱 구역 가운데 한
구역에서, 현재 우주 시대에 어울리는, 범위가_정해진
특정한 활동을 얼핏 훑어보게 할 뿐이다.

1.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

13:1.1 (144.1) 신성시되는 생명 구체들이 속해있는 아버지의
회로는, 온갖 우주에서 유일한 고유의 인격체 비밀을
포함한다. 세 회로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낙원
위성들은, 중앙우주에서 인격체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금지된 영토다. 아들의 세계들과 하부 낙원 역시
인격체들에게 차단돼 있지만, 그 영역 가운데 어느 곳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격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13:1.2 (144.2) 아버지의 낙원 세계들은,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
즉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의
지시를 받는다. 이 세계들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그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정보는, 거기서 작용하고 거기서 나가는 존재들과만
관계한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이 세계 중에서 여섯 개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디비닝톤에는 가 본 적이 없으며;그 세계는 내게 전적으로 금지돼 있다.

13:1.3 (144.3) 이 세계들이 비밀에 싸여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성시되는 이 구체들은 각각, 낙원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격들의 특화된 표현 또는 형태화를 누리기 때문이며;인격체가 아니라, 특별한 그 지성체 집단들이 감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특한 신성 현존만이, 특별한 그 구체에 거주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은, 특화되고 인격아닌 이 신성 현존들에 대한 개인적 대리인이다. 그리고 지존성의 비밀들은 고도로 인격있는 존재인데, 뛰어난 재질을 타고났으며, 고양되고 힘든 업무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돼 있다.

13:1.4 (144.4) 1. **디비닝톤.** 이 세계는, 독특한 의미로 볼 때, "아버지의 품", 즉 만유의 아버지가 친히_교류하시는 구체이며, 그의 신성이 여기서 특별하게 형태화 된다. 디비닝톤은 사교 조율사들의 낙원 회합 장소이지만, 또한 수많은 다른 실재, 인격체,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기원되는 다른 존재의 고향이기도 하다. 영원한 아들을

제외한 많은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의 단독 행동으로 인해 직접 기원된다. 오직 아버지 단편{斷片}과,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직접 독점적으로 기원된 그 인격체들 및 다른 존재들만이, 이 거주지에서 교제하고 활동한다.

13:1.5 (144.5) *디비닝톤의 비밀* 중에는 사고 조율사의 증여 및 사명에 관한 비밀이 있다. 그들의 본성, 기원, 그리고 그들이 진화 세계의 초라한 피조물과 접촉하는 기법은, 이 낙원 구체의 비밀이다. 놀라운 이 처리사항은, 우리 같은 존재가 직접 상관할 바는 아니며, 그러므로 신격들은, 이 위대하고 신성한 사역의 특별한 특색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신성한 활동의 이 국면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처리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허락을 받지만, 이 위대한 증여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

13:1.6 (145.1) 이 구체는 또한, 모든 다른 형태의 아버지의 단편, 인력{引力} 전달자, 그리고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다른 존재로 구성된 무리의 본질, 목적, 및 활동에 관한 비밀도 간직한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진리, 디비닝톤에 속하는 그

진리가 계시된다면, 현재의 내 업무에서 다만 나를 혼돈시키고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아마 그것들은 내 계층에 속하는 존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것이다.

13:1.7 (145.2) 2. **소나링톤**. 이 구체는, "아들의 품", 즉 영원한 아들의 개인적인 영접 세계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공인될 때, 그리고 그 후에, 하강하고 상승하는 그들의 낙원 본부다. 이 세계는, 영원한 아들의 모든 아들, 그리고 그와 동격이고 동역하는 아들들의 낙원 고향이다.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수많은 계층이 이 숭고한 거주지에 배속됐는데, 이 거주지가 필사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우주들을 거쳐서 낙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상승 요강 계획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13:1.8 (145.3) **소나링톤의 비밀**은, 신성한 아들의 육신화라는 비밀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때, 글자 그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서 발생했듯이, 그것은 우주의 신비다. 그것은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신성한

아들신분에 속하는 소나링톤의 비밀이다. 조율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다. 신성한 아들의 육신화는 아들 하나님의 신비이며;이것은 소나링톤의 일곱째 구역, 즉 독특한 이 체험을 개인적으로 통과한 그들 외에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고정된 신비다. 너희의 상승 생애와 반드시 관계되는 육신화의 그 국면들만이 너희에게 제시돼 왔다.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 사명을 띤, 계시되지 않은 유형에 속하는 낙원 아들들의 육신화 신비에 해당하는, 많은 다른 국면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소나링톤 신비들이 있다.

13:1.9 (145.4) 3. **스피링톤**. 이 세계는 “영의 품”, 즉 오로지 무한한 영을 대변하는 높은 존재들의 낙원 고향이다. 일곱 으뜸 영, 그리고 전체 우주에서 온 그들의 어떤 자손들이 여기에 모인다. 이 천상의 거주지에서는 또한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의 영 인격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시간세계의 필사 피조물을 영원성의 낙원 수준까지 증진시키는 계획과 관련되지 않은, 우주의 다양한 활동에 배정된 존재다.

13:1.10 (145.5)

스피링톤의 비밀은 반사성을 갖는 불가해한 신비를 포함한다. 반사성이라는 광대하고 보편적인 현상, 특히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해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납득하지만, 기본적인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스럽다. 반사성은 영 하나님의 비밀이다. 너희는 필사자 생존이라는 상승 요강과 관련된 반사성 기능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 왔고,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지만, 반사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국면의 우주 업무가 정상으로 작업하는 데 필수적인 특색이다. 무한한 영의 이 재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외에 다른 경로에서도 활용된다. 그리고 스피링톤의 다른 비밀들이 있다.

13:1.11 (145.6)

4. **바이스저링톤**. 이 행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품”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에서 기원된, 어떤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의 비밀 구체다. 이것은 또한 복합 선조를 갖는, 영화롭게 된 많은 존재, 즉 일곱 연방우주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많은 기법 때문에 그 기원이 복잡하게 된 그들의 낙원 고향이기도 하다. 여러 집단의 존재들이 이 세계에서

모이는데, 그들의 정체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계시된 적이 없다.

13:1.12 (146.1) *바이스저링톤의 비밀*은 삼자일체됨의 비밀을 포함하며, 삼자일체됨은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하나님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권세의 비밀을 구성한다. 삼위일체를 대변하는 권세는, 낙원 삼위일체의 어떤 두 분 또는 세 분이 삼자일체되거나, 창조하거나, 생겨나게 하거나, 영존화 시킨, 계시된 존재와 계시되지 않은 존재에게만 부여된다. 특정한 유형의 영화롭게 된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행동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인격체들은, 그 삼자일체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개념적 잠재성보다 더 많이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런 피조물은, 그들 부류 모두에게 열려있는, 신격이 포용하는 경로로 상승할지도 모른다.

13:1.13 (146.2) 삼자일체되지 않은 존재들은, 어느 둘이나 세 창조주, 또는 어떤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먼 미래에 영화롭게 된 너의 생애에서, 네가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런 현상을 결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삼자일체되지 않으면
바이스저링톤의 이 비밀은 항상 너에게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높은 존재인
나에게는, 바이스저링톤의 모든 구역이 열려 있다. 나는 내
기원과 운명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똑같은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신성하게 이 비밀을 지킨다.

13:1.14 (146.3) 유란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는 또 다른
삼자일체되는 형태 및 국면들이 있으며, 개인적 견지에서,
이 체험들은 바이스저링톤의 비밀 구역에서 적당하게
보호 받고 있다.

13:1.15 (146.4) 5. **솔리타링톤**. 이 세계는 “아버지와 영의 품”이고,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공동 행위에 의거해서
기원되는, 계시되지 않은 장엄한 무리의 존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들은 자신의 영 유산{遺産}에 덧붙여서
아버지의 특징을 지니는 존재다.

13:1.16 (146.5) 이것은 또한 단독 사자들의 고향이고, 최고천사
계층인 다른 인격체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너희는 이
존재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계층이 있다. 그들이 다섯째 세계에

거주한다고 해서, 단독 사자들 또는 그들의 최고천사 동역자들을 창조하는 일에 아버지가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우주 시대에 그들의 역할에는 관여하셔야만 한다. 현 우주 시대 동안, 이것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신분을 유지하는 구체이기도 하다.

13:1.17 (146.6) 수많은 또 다른 영 인격체 계층, 즉 솔리타링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 구체처럼 여기는, 필사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 있다. 신성한 낙원 운명을 향해 상승하도록 필사적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분야에 영 사역자들이 마련된 것처럼, 모든 부서와 수준의 우주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13:1.18 (146.7) *솔리타링톤의 비밀들*. 삼자일체되는 어떤 비밀들 외에도, 이 세계는 무한한 영이 몸소 제3 근원 및 중심의 어떤 높은 후손들과 맺는 관계의 비밀을 간직한다. 솔리타링톤에서는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계층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고 영의 영들과 갖는, 삼위일체의 삼중적 영과 갖는, 그리고 지존자, 궁극자, 및

최상급_궁극자의 영들과 갖는 긴밀한 관계의 신비가 간직돼 있다.

13:1.19 (146.8) 6. **스라빙톤**. 이 구체는 “아들과 영의 품”이고, 아들과 영이 창조한, 계시되지 않은 존재들로 구성된 방대한 무리의 고향 세계다. 이것은 또한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및 스라빔을 포함하여, 천사 무리 가운데 모든 돌보는 계층의 운명 구체이기도 하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돌보는 영들”이 아닌, 많은 계층의 뛰어난 영들이 중앙 및 변방 우주들에서 봉사한다. 우주 활동의 모든 수준과 영역에 있는 이 모든 영 일꾼은, 스라빙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으로 간주한다.

13:1.20 (147.1) *스라빙톤의 비밀*은 삼중 신비를 포함하는데,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신비는--스랍 운반체의 신비다. 다양한 계층의 스라빔 및 연합한 영 존재들이, 자신의 영 형체 내부에 모든 계층의 비물질 인격체를 감싸는 역량, 그리고 긴 행성 간 여행에서 그들을 운반하는 역량은, 스라빙톤의 신성시되는 구역에 갇혀있는 비밀이다. 운반 스라빔은 이 신비를 납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알려줄 수 없는지도 모른다. 스라빙톤의

다른 신비는, 아직 필사자에게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영 봉사자가 몸소 겪는 체험과 관계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된 존재들에 대한 논의를 삼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가까운 실존 계층들을 거의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런 현상에 대한 우리의 부분적 지식이라도 제시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림에 가까울 수도 있다.

13:1.21 (147.2) 7. **어센딩톤**. 독특한 이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품”인데, 공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회합 장소, 즉 그들이 낙원으로 가는 길에 하보나 우주를 거쳐서 지나가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구체다. 어센딩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혼들이 낙원 신분을 획득할 때까지 그들의 실제 낙원 고향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자신의 하보나 “휴가” 대부분을 어센딩톤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회상 지휘자들이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 상승 기간에 했던 동일한 역할을, 네가 하보나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센딩톤이 너에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필사자 상상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상승에서 전에 이론 모든 진보와 마찬가지로, 너의 인간 자아는 여기서 자신의 신성한 자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13:1.22 (147.3) *어센딩톤의 비밀*은, 물질적인 인간 정신 안에서, 영적이고 잠재적으로 불멸하는, 성품과 정체성의 사본{寫本}이,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형성되는 신비를 포함한다. 이 현상은 가장 복잡한 우주 신비 가운데 하나인데--필사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의 정신 안에서, 불멸하는 혼이 진화하는 신비다.

13:1.23 (147.4) 어센딩톤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신비로운 진행사항을 너희는 결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경탄하면서 바라보도록 어센딩톤 전체가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이유다. 어센딩톤의 7분의 1은 내게 금지돼 있다--이 구역은 너희 존재 유형의 독점적 체험과 소유인 (또는 소유가 될) 바로 이 비밀과 관련된다. 이 체험은 너희 인간 실존 계층에 속한다. 내가 속한 인격체 계층은, 그런 진행사항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구역은 내게 금지돼 있고, 결국 너희에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 밝혀진 후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의 비밀로 남는다. 너희는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며, 다른 어떤 계층의 존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에서 기원되는 불멸하는 혼이, 신성한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하는 것에 관해 알지만,

상승한 완결성취자들은 바로 이 체험이 절대 실체임을 안다.

2. 아버지_세계에 대한 관계

13:2.1 (147.5)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영적 존재의 이 고향 세계들은, 거대하면서 엄청난 구체이고,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과 최고의 영광은 낙원과 대등하다. 이 구체들은, 회합장소 세계, 즉 재결합하는 영역인데, 영구적인 시공우주 주소가 되기에 적합하다. 너희는 완결성취자로서 낙원에 살게 되겠지만, 어센딩톤은 언제든지, 심지어 너희가 외부 공간에서 봉사에 참여할 때에도, 너희의 고향 주소가 될 것이다. 전체 영원성 내내, 너희는 어센딩톤을 감상적으로 기억하고 추억에 잠겨 회상하는 고향으로 간주할 것이다. 너희가 일곱째_단계의 영 존재가 될 때, 아마 너희는 자신의 낙원 거주 신분을 포기할 것이다.

13:2.2 (148.1) 외부 우주들이 조성되고 있다면, 시간세계에서 상승할 잠재성이 있는 피조물이 거기에 거주하게 돼 있다면, 미래의 이 자녀들 역시 어센딩톤을 자신의 낙원 고향 세계로 여기게 돼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한다.

13:2.3 (148.2) 어센딩톤은 낙원에 도달한 자로서, 네가 시찰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열리게 될 유일한 신성시되는 구체다. 바이스저링톤은, 내가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완전하게 그리고 제한됨 없이 열리는 유일한 신성시되는 구체다. 비록 그 비밀이 나의 기원과 관련되더라도, 나는 이 우주 시대에 바이스저링톤을 내 고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들과 삼자일체된 존재들은 같지 않다.

13:2.4 (148.3)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는, 아버지의 세계들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으며;낙원 섬의 최고 거룩 구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의 유일한 고향을 갖는다. 그들은 어센딩톤, 즉 "아버지_아들_영의 품"에 종종 나타나는데, 공간의 하위 세계들에서 올라온 형제들과 거기서 친하게 지낸다.

13:2.5 (148.4) 아버지_아들에서 기원된 존재인 창조주 아들들이 바이스저링톤을 자신의 고향으로 간주하게 되리라고, 너희는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칠중 하나님이 활동하는 이 우주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당황하게 만들 많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낙원에 매우 가까이 있는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많은 어려움에 확실히 직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이 의문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며,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의 세계들에 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들에 관해서 *모두* 알기 전에 다만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다. 이 비밀한 세계 어디서든지, 신분은 기원의 본성뿐 아니라 봉사함으로 획득되며, 이어지는 우주 시대들은 이 인격체 집단화 중에서 어떤 것을 재분배할지도 모르고, 또한 그렇게 하기도 한다.

13:2.6 (148.5) 내부 회로 세계들은, 실제로 거하는 구체라기보다는 정말로 우애 있는 세계, 즉 신분 세계다. 필사자는, 아버지의 세계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각 세계에서, 어떤 신분을 달성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너희 필사자는 하보나에 도달할 때 어센딩톤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데, 거기서 최고로 환영을 받겠지만, 신성시되는 다른 여섯 세계에는 방문할 수 없다. 너희가 낙원 체제를 통과한 다음, 그리고 완결성취 단체에 받아들여진 후에, 소나링톤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데, 너희가 상승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너희는 그 이상{以上}이다. 그러나 신성한 아들들의 육신화 비밀 구역인, 소나링톤 중에서 7분의 1은 항상 남아있게 되는데, 그곳은 너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밀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결코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13:2.7 (148.6) 결국 너희는 어센딩톤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며, 디비닝톤을 제외한, 아버지의 다른 구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완결성취자가 된 후에, 다섯 개의 추가적 비밀 구체에 상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때라도, 그런 세계의 모든 구역을 방문하도록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속 분명하게 서 있게 되더라도, 너희는 "아버지의 품"인 디비닝톤의 기슭에 상륙하도록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성 내내, 너희가 사교 조율사 세계에 출현해야 할 어떤 필요성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3:2.8 (149.1) 영 생명의 이 집결지 세계들은, 우리의 체험 영역을 전적으로 벗어나는 이 구체들의 그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협상하지 말도록 요구받을 정도로, 금지된 지역이다.

너희는 만유의 아버지가 신격으로서 완전하신 것처럼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주 인격체들 가운데 다른 모든 계층이 체험하는 비밀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과 어떤 체험적 인격체의 비밀을 가질 때, 창조주는 그 비밀을 영원토록 확실히 지킨다.

13:2.9 (149.2) 이 모든 비밀은,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의 집합체에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이 존재들은 오직 자신의 특별 세계 집단에게만 완전하게 알려질 것이며;다른 계층은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낙원에 도달한 후에, 어센딩톤을 감독하는 열 명의 지존성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열렬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센딩톤의 경우처럼 그렇게 완전하게는 아니라도, 디비닝톤 외에는, 너희가 아버지의 다른 세계에서 지존성의 비밀들에 대한 부분적 이해 또한 성취하게 될 것이다.

13:2.10 (149.3)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지존자와 관련돼 있으며;마찬가지로 궁극자에게, 그리고 미래의 최상급_궁극자에게 관련된다.

이 지존성의 비밀들은 지존자의 비밀인 동시에 궁극자의 비밀이고, 심지어 최상급_궁극자의 비밀이다.

3. 영원한 아들의 신성시되는 세계

13:3.1 (149.4)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일곱 구체는, 순수한_영{靈} 실존의 일곱 국면에 해당하는 세계다. 빛나는 이 천체{天體}들은, 낙원과 하보나의 삼중적 빛의 근원인데, 그 영향은, 전체는 아니지만 대체로 중앙우주에 국한된다.

13:3.2 (149.5) 이 낙원 위성들에는 인격체가 존재하지 않으며;따라서, 이 순수한_영 거주지들에 관해서, 필사의 물질 인격체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세계들은, 영원한 아들의 존재들, 즉 인격있지_않은_다른 생명체로 채워져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우리는 이 실재들이 외부 우주의 입안된 새 우주에서 사역하도록 소집된다고 들었다. 낙원의 철학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억 년에 해당하는 각각의 낙원 주기마다, 영원한 아들의 비밀 세계들에서 이 계층에 해당하는 추가적 예비군이 창조되는 것을 목격한다고 주장한다.

13:3.3 (149.6) 내가 아는 한, 영원한 아들의 이 구체들 가운데 어느 곳에도, 인격체가 존재한 적이 전혀 없다. 나는 낙원 안팎에서 길게 체험 동안 내내, 이 세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방문하도록 배정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영원한 아들이 공동으로_창조한 인격체도, 이 세계들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유형의 비인격 영이 --출신에 상관없이-- 영 고향에 가도록 허용된다고 추측한다. 내가 한 인격자로서 그리고 영 형태를 갖고 그런 세계에 방문하도록 허용됐더라도, 그 세계가 비어있고 황폐한 것처럼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높은 영 인격체들은, 무의미한 호기심을 채우는, 순전히 쓸모없는 모험에 한눈팔지 않는다.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모험이 항상 너무 많아서, 무익하거나 비현실적인 기획에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허용할 수 없다.

4. 무한한 영의 세계들

13:4.1 (149.7) 하보나 내부 회로와,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 사이에서, 무한한 영의 일곱 천체{天體}가 돌고 있는데, 이 천체들에는 무한한 영의 자손, 영화롭게 된 피조 인격체의 삼자일체된 아들들, 다양한 분야의 우주 활동을 하는 많은

사업체의 효과적 경영에 관여하는, 계시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존재들이 거주한다.

13:4.2 (150.1) 일곱 으뜸 영은 무한한 영의 최상의 궁극적 대행자다. 그들은 낙원 주변에 자신의 개인 거점{據點}, 즉 동력 중심지들을 유지하지만, 광우주의 관리와 지휘에 관련된 모든 운영은, 무한한 영의 이 일곱 특별 행정 구체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처리된다. 일곱 으뜸 영은 실제로, 온갖 우주의 정신_영의 평형 원동력, 즉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를 둘러싸는, 그리고 전체를_조화시키는, 중앙에 자리잡은 동력{動力}이다.

13:4.3 (150.2) 이 특별한 일곱 구체로부터, 으뜸 영들은 광우주의 시공우주_정신 회로들을 평형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활동한다. 또한 그들은 광우주 전역에서, 성격들의 특이한 영적 입장 및 현존과 관련된다. 물리적 반작용은 균일하고 변함없으며 항상 즉시 일어나고 자동적이다. 그러나 체험적인 영적 현존은, 그 영역의 개별 정신들에 본래 있는 영적 감수성의 기본 조건 또는 상태와 일치한다.

13:4.4 (150.3) 물리적 권세와 현존과 기능은, 크고 작은 모든 우주에서 동일하다. 영적 현존 또는 반응에서 차이 나는

요소는, 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변동하는 격차다. 절대적이고 실존적인 신격의 영적 현존은, 피조된 존재의 편에서 보이는 충성 또는 불충성 태도로 인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준절대적이고 체험적인 신격의 기능발휘 현존은, 그런 유한한 피조 존재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의지_태도에--곧 개별 존재, 행성, 체계, 성좌, 또는 우주의 충성과 헌신에-- 확실히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神性}의 이 영적 현존은, 변덕스럽지 않고 독단적이지도 않으며;그 체험적 변화는 인격있는 피조물의 자유의지 재능에 내재한다.

13:4.5 (150.4) 영적 현존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너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으며, 바로 너희의 선택 방법에, 너희의 정신의 결정에, 그리고 너희의 의지의 결정에 들어 있다. 이런 다양성은, 인격있는 지성적 존재들의 자유의지 반응에 내재하는데, 만유의 아버지가 예정하신 존재들은 이런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신격들은, 피조물이 선택하는 이 다양한 조건과 요구를 맞추고 만족시킬 때, 그들의 영들을 보내고 물러나게 하는 정도가 언제나 정확하신데, 때로는 신격들의 현존을 간절히

바라는 데 반응해서, 신격들의 현존을 더욱 증여하기도 하고, 신이 증여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피조물이 불리하게 결정하는 대로 다시 물러나기도 하신다. 이처럼 신{神}의 영은 그런 영역에 속한 피조물의 선택에 겸손히 순종한다.

13:4.6 (150.5) 일곱 으뜸 영의 행정 거주지들은 실제로, 일곱 연방우주 및 외부 공간의 관련된 부분들의 낙원 본부다. 각 으뜸 영이 하나의 연방우주를 관장하고, 이 일곱 세계 각각은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에게 독점적으로 배정돼 있다. 일곱 연방우주의 경영, 낙원_이하의 경영에서, 이 행정 세계들이 보살피지 않은 국면은 글자 그대로 하나도 없다. 이 세계들은 아버지의 구체들 또는 아들의 구체들처럼 그렇게 배타적이지는 않으며, 비록 거주 신분이 토착 존재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제한돼 있더라도, 이 일곱 경영 행성은 그것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수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항상 열려 있다.

13:4.7 (151.1) 낙원 바깥쪽에서, 이 행정 세계들이 나에게 가장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아내는 곳이다. 수많은 다양한

수준에서 하는, 즉 동시에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업무들과 관련이 있고 그토록 많은 다른 계층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넓은 우주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임무에서 한동안 물러나
있을 때, 낙원 또는 하보나에 있을 기회가 된다면, 나는
대개 이 일곱 으뜸 영의 바쁜 세계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런 사업, 헌신, 충성, 지혜, 및 효율성이
있는 그런 광경으로 내 정신을 고무시키기 위해서였다.
우주 실체의 일곱 수준 전체에서, 인격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놀라운 상호관계를, 나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관찰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자와, 그토록 속속들이 즐기면서 일하는
자들의 활동에, 나는 항상 자극을 받는다.

13:4.8 (151.2) [우버사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14편 신성한 중앙우주

14:0.1 (152.1) 완전하고 신성한 우주가, 모든 창조물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원한 중심의 주변을,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창조계가 회전한다. 낙원은, 장엄하고 영원한 우주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돼 있는, 절대로 안정된 거대한 핵{核}을 이루는 섬이다. 중앙에 있는 이 행성 집단은 하보나라고 불리며,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보나는 막대한 용적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질량에 해당하는, 10억 구체로 이뤄져 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뛰어나게 화려한 이 방대한 창조물의 진짜 크기는, 인간 정신의 분별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벗어난다.

14:0.2 (152.2) 하보나는 유일하게 안정되고, 완전하고, 확립된 세계들의 집합체다. 하보나는 온전히 창조되고 완전한 우주이며;진화로 발전한 것이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한, 완전한 핵심이며, 굉장한 진화 실험을 구성하는 끝없는 우주들의 행렬이 그 핵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데, 이 실험은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의 대담한 모험이며, 이 아들들은 원형{原型} 우주를 시간세계에서 복제하고 공간 속에서 재생하기를 열망하는데, 이 원형 우주는, 신성한 완벽함, 최상의 완결성, 궁극적 실체, 및 영원한 완전성의 이상{理想}이다.

1. 낙원_하보나 체계

14:1.1 (152.3) 낙원 주변지역에서 일곱 연방우주의 내부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일곱 공간 상황 및
운행이 있다:

14:1.2 (152.4) 1. 낙원에 맞닿은 정지된 중간_공간 지대.

14:1.3 (152.5) 2. 세 낙원 회로 및 일곱 하보나 회로의 시계방향
행렬.

14:1.4 (152.6) 3. 중앙우주의 흑암 인력 본체들로부터 하보나
회로들을 구분시키는 약간고요한 공간 지대.

14:1.5 (152.7) 4. 안쪽의, 흑암 인력 본체들의
반시계방향으로_움직이는 띠.

14:1.6 (152.8) 5. 흑암 인력 본체들의 두 공간 경로를 구분하는,
독특한 둘째 공간 지대.

14:1.7 (152.9) 6. 낙원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도는,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띠.

14:1.8 (152.10) 7. 일곱 연방우주의 가장 안쪽 회로들로부터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띠를 분리시키는 셋째 공간 지대 --
약간고요한 지대.

14:1.9 (152.11) 하보나의 10억 세계는, 세 회로의 낙원 위성들을 바로 감싸는 일곱 동심{同心} 회로에 배열돼 있다. 가장 안쪽의 하보나 회로에는 3천 500만 이상{以上}의 세계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2억 4천 500만 이상 있으며, 그 사이에는 비례하는 숫자가 있다. 각 회로{回路}가 다르지만, 전체는 완전히 균형 잡혀 있고 절묘하게 조직돼 있으며, 각 회로에는 무한한 영의 특화된 대표, 즉 일곱 회로 영 가운데 하나로 총만 돼 있다. 이 비인격 영은, 다른 기능들 외에도, 각 회로 전반에 걸쳐 천상{天上}의 직무의 진행을 조화시킨다.

14:1.10 (153.1) 하보나 행성 회로들은 포개져 있지 않으며;그 여러 회로의 세계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행진하면서 서로를 따라간다. 중앙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평면에서, 정지된 낙원 섬 주변을 도는데, 10개의 안정된 동심{同心} 단위를--곧 세 회로의 낙원 구체들 및 일곱 회로의 하보나 세계들을-- 구성한다. 물리적으로 보면, 하보나와 낙원 회로들은 모두 동일한 체계이며;기능상 및 경영상 분리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할 뿐이다.

14:1.11 (153.2) 낙원에서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으며;이어지는 사건들의 차례는 중앙 섬의 토착민들의 개념에 본래부터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하보나 회로들에게, 그리고 거기 머무는 하늘과 땅에서 기원된 수많은 존재에게 밀접한 상관이 있다. 각 하보나 세계마다 자체의 국지적 시간을 갖고, 그 회로에 따라서 결정된다. 주어진 회로에 있는 모든 세계는 1년의 기간이 같은데, 이 세계들이 낙원 주변을 균일하게 회전하기 때문이며, 이 행성 년수의 길이는 가장 바깥쪽 회로로부터 가장 안쪽 회로까지 점점 줄어든다.

14:1.12 (153.3) 하보나_회로 시간 외에도, 낙원_하보나 표준일{標準日} 및 기타 시간 명칭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은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위성에서 결정되고, 거기로부터 시간이 전달된다. 낙원_하보나 표준일은, 첫째 회로, 즉 안쪽 하보나 회로의 행성 거주지들이 낙원 섬 주변을 한 번 다 돌기까지 걸리는 시간 길이에 기초하며;그 속도가 엄청나더라도, 흑암 인력 본체들과 거대한 낙원 사이에 자리잡은 덕분에, 이 구체들이 회로를 다 돌기까지는 거의 1,000년이 소요된다. "하나님께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한 밤의 순간 같다"는 문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너희는 그 진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것이다.

낙원_하보나 1일은, 오늘날 윤년{閏年}이 있는 유란시아 달력으로 1,000년보다 정확히 7분, 3과 8분의 1초만큼 짧다.

14:1.13 (153.4) 비록 각 연방우주가 자체 내 표준 시간을 갖더라도, 이 낙원_하보나 하루가 일곱 연방우주에게 표준시간 측정기준이다.

14:1.14 (153.5) 이 방대한 중앙우주 변두리에, 즉 하보나 세계의 일곱째 띠 너머 멀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이 돌고 있다. 때를 이루는 이 흑암 덩어리들은, 여러 특색에서 다른 천체들과 매우 다르며;심지어 형태에서도 매우 다르다. 이 흑암 인력 본체들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지도 않으며;물리적_에너지 빛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보나를 너무 완전하게 에워싸면서 뒤덮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시간과 공간 속에 가까이 있는 인간거주 우주들에서 관측하지 못할 정도다.

14:1.15 (153.6) 흑암 인력 본체들의 거대한 띠는, 독특한 공간 점유로 인해 똑같은 두 타원형 회로로 나뉜다. 내부 띠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외부 띠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교대되는 이 운동 방향은, 흑암 본체들의 색다른 질량과 함께, 하보나 인력 계통들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균등하게 해서, 중앙우주를 물리적으로 균형 잡히고 완전하게 안정된 창조물이 되게 한다.

14:1.16 (153.7) 흑암 인력 본체들의 내부 행렬{行列}은, 회전하는 세 집단을 구성하는, 관 모양의 배열을 이룬다. 이 회로의 횡단면은 거의 같은 밀도의 세 동심 궤도로 보일 것이다. 흑암 인력 본체들의 외부 회로는 수직으로 배열되는데, 내부 회로보다 1만 배 높다. 외부 회로의 위_아래 직경은 가로축 직경보다 5만 배에 달한다.

14:1.17 (154.1) 인력 본체들의 이 두 회로 사이에 끼어있는 공간은, 넓은 전체 우주 어느 곳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것이 그 안에 전혀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이 구역은, 오르내리는 본성을 갖는 거대한 파동{波動} 운동이 특징이며,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엄청난 에너지 활동들로 가득 차 있다.

14:1.18 (154.2) 우리 견해로는, 중앙우주의 흑암 인력 본체들만큼 외부 공간 층들의 미래 진화에 특징을 부여할 것이 없을

것이며;우리는 굉장한 인력_평형 본체들의 이 교대 행렬이
총괄우주에서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2. 하보나의 구조

14:2.1 (154.3) 영 존재들은, 모호한 공간에 머물지 않으며;형체가
없는 세계에 거주하지 않으며;물질 본성을 갖는 실제 구체,
즉 필사자가 살고 있는 세계처럼 실재하는 세계들에서
산다. 하보나 세계들은 실제적이고 꾸밈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그 세계들의 실질 내용물은 일곱 연방우주에
속하는 행성들의 물질 조직과는 다르다.

14:2.2 (154.4) 하보나의 물리적 실체는,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널리 보급돼 있는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직 체제를 나타낸다. 하보나 에너지는
삼중적이며;연방우주의 에너지_물질단위는, 한 에너지
형태가 음성 상태와 양성 상태로 존재하지만, 이중{二重}
에너지 전하를 내포한다. 중앙우주 창조계는
삼중(삼위일체)이며;지방우주의 창조물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으로 인해서, (정확히) 이중이다.

14:2.3 (154.5) 하보나 물질은, 정확하게 1,000개의 기초 화학
원소 조직과, 일곱 형태를 갖는 하보나 에너지의 균형 잡힌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 기초 에너지들은 각각 일곱 국면의 자극{磁極}을 나타내는데, 그리하여 하보나 원주민은 49가지 서로 다른 감각 충동에 반응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전히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우주 원주민은 특화된 49가지 감각 형태를 갖는다. 모론시아 감각은 70가지이고, 더 높은 영적 반작용 계층들은 70가지에서 210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다른 유형으로 반응한다.

14:2.4 (154.6) 중앙우주의 어떤 물리적 존재든지, 유란시아인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그 세계들의 어떤 물리적 자극도, 너희의 조잡한 감각 기관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유란시아 필사자가 하보나로 옮겨질 수 있다면, 그는 거기서 귀먹고, 앞을 보지 못하고, 모든 다른 감각 반응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며; 모든 환경 자극과 그에 따른 모든 반응을 빼앗긴, 제한된 자아_의식 존재로서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14:2.5 (154.7) 중앙 창조물에는,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물리적 현상과 영적 반응이 발생한다. 삼중

창조물의 기본 조직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된 우주들의 이중 구조 조직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14:2.6 (154.8) 모든 자연 법칙은, 진화하는 창조계의 이중_에너지 체계들과는 아주 다른 어떤 기초 위에서 조정된다. 중앙우주 전체는, 완전하고 균형 잡히게 통제하는 삼중 체계에 맞춰서 조직돼 있다. 낙원_하보나 체계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공우주 실체와 모든 영적 힘 사이에 완전한 균형이 유지된다. 낙원은, 물질 창조계를 완전무결하게 붙잡은 채, 이 중앙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들을 완전하게 규제하고 유지하며;전체를_에워싸는 영 점유의 일부로서, 영원한 아들은 하보나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의 영적 신분을 가장 완전하게 지탱한다. 낙원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되지 않으며, 낙원_하보나 체계는 완전하게 창조된 독립집단이다.

14:2.7 (155.1)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인 영적 인력은, 중앙우주 전반에 걸쳐서 놀라울 정도로 활동적이다. 모든 영 가치와 영적 인격체는, 하나님들이 거하시는 곳을 향해 안쪽으로 끊임없이 이끌린다. 하나님을 향한 이 충동은 강렬하고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열정이 중앙우주에서 더 강한 이유는, 영 인력이 밖에 있는 우주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보나에 도달한 그 존재들이 더 충분하게 영성화 돼있고, 그리하여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_인력 흡인력을 갖는 항상_현존하는 행위에 더 많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14:2.8 (155.2)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모든 지적 가치를 낙원 쪽으로 끌어당긴다. 중앙우주 전역에서 무한한 영의 정신 인력이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과 관계하면서 작용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신격에 도달하기 위한, 낙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고 아버지를 알기 위한, 상승한 혼들의 혼합된 총동을 이것들이 함께 구성한다.

14:2.9 (155.3) 하보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정된 우주다. 중앙우주의 통제와 균형 잡힌 안정성은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예견될 수 있지만, 정신 현상과 인격체의 자유의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가 일어날 수 없다고 추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하보나에서 태어난, 자유의지를 지닌 원주민 피조물이 신격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결코 지은 적이 없다는 근거에 입각해서다. 영원성
내내, 이 숭고한 존재들은 영원 항존자들에게 일관되게
충성해 왔다. 또한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들어온 어떤
피조물도 죄를 나타낸 적이 없다. 하보나 중앙우주에서
창조된, 또는 거기 들어오도록 허용된 어떤 집단의
인격체든지, 거기에 속하는 어떤 피조물도 과오를 범한
예가 전혀 없었다.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선택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너무 완전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하보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오류도 발생되지 않았으며;어떤
실수도 저질러진 적이 없으며;어떤 상승한 혼도 미숙한
상태로 중앙우주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3. 하보나 세계들

14:3.1 (155.4) 정부에 관한 한, 중앙우주에는 아무 정부도 없다.
하보나는 너무나 정교하게 완전하기 때문에, 정부라는
지적 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 집회도 없으며;하보나는 오직 경영
방침만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참된 자체 정부라는 최고
이상{理想}만 목격될 수 있다.

14:3.2 (155.5) 그렇게 완전한 지성체들과 거의_완전한 지성체들 가운데는 정부가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규제가 필요 없는데, 그들은 선천적으로 완전한 존재이고, 그들과 섞인 진화 피조물은 오래 전부터 연방우주 최고 법정의 정밀한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4:3.3 (155.6) 하보나의 경영은,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완전하고 신성하게 효과적이다. 그 경영은 대개 행성을 단위로 하고, 주재{駐在}하는 영원 항존자에게 귀속{歸屬}돼 있는데, 각 하보나 구체는 이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 가운데 하나의 지시를 받는다. 영원 항존자들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완전한 행정가다. 그들은 최고의 솜씨로 가르치고, 절대성에 가까운 지혜의 완전성으로 행성 자녀들을 감독한다.

14:3.4 (156.1) 중앙우주의 10억 구체는, 낙원과 하보나에 귀속된 높은 인격체들에 대한 훈련 세계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진화하는 시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최종 검증 장소로 쓰인다. 피조물 상승이라는 만유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외부 회로, 즉 일곱째 회로의 영접 세계들에 도착하며,

그들은 증가된 훈련과 확장된 체험을 겪은 후에,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그리고 회로에서 회로로, 마침내 신격들에 도달하여 낙원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안쪽을 향해 점진적으로 승진된다.

14:3.5 (156.2) 지금, 일곱 회로에 속하는 구체들이 그 모든 숭고한 영광 안에 유지되고 있더라도, 전체 행성 수용력 중에서 오직 1퍼센트만이, 필사자 상승이라는 아버지의 우주 계획을 추진하는 일에 활용된다. 이 막대한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의 1퍼센트 가운데 약 10분의 1은 완결성취 단체의 생애와 활동에만 제공돼 있는데, 이들은 하보나 세계에 종종 머물면서 사역하는 빛과 생명에 영원히 정착된 존재다. 고양된 이 존재들은 낙원에 개인 거주지를 갖는다.

14:3.6 (156.3) 하보나 구체들의 행성 구조는,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및 체계들의 구조와는 아주 다르다. 광우주 전체 가운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런 거대한 구체들을 거주 세계로 활용하기에 편리한 곳은 없다. 삼중세력 물리 구조물은, 거대한 흑암 인력 본체들의 평형 효과와 함께, 물리적 세력들을 그토록 완전히 균등하게 하고, 이 거대한

창조계의 다양한 이끌림을 그토록 절묘하게 평형시킬 수 있게 한다. 반인력{反引力}은 물질 기능들의 조직에서, 그리고 이 거대한 세계의 영적 활동에서도 또한 적용된다.

14:3.7 (156.4) 하보나 구체들의 생물학적 및 예술적 장식물과 마찬가지로, 구조물과 빛과 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훨씬 벗어난다. 하보나에 대해 너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해하려면 직접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세계들에는 분명한 강과 호수들이 있다.

14:3.8 (156.5) 영적인 면에서, 이 세계들은 이상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중앙우주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계층의 다양한 존재를 보호하는 목적에 안성맞춤이다.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활동이,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이뤄진다.

4. 중앙우주의 피조물

14:4.1 (156.6) 하보나 세계들에는 기본적인 일곱 가지 형태의 살아있는 물체 및 존재들이 있으며, 이 기본 형태 각각은 세 가지 다른 국면으로 존재한다. 이 세 국면 각각은 70개의 주요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각 주요 구획은 1,000개의 보조

구획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하위구획들로 나뉘고, 이렇게 계속된다. 이 기본 생명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4:4.2 (156.7) 1. 물질 집단.

14:4.3 (156.8) 2. 모론시아 집단.

14:4.4 (156.9) 3. 영적 집단.

14:4.5 (156.10) 4. 유한절대 집단.

14:4.6 (156.11) 5. 궁극 집단.

14:4.7 (156.12) 6. 상호절대 집단.

14:4.8 (156.13) 7. 절대 집단.

14:4.9 (157.1) 하보나 세계들에서는, 쇠퇴와 죽음이 생명 주기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중앙우주에서 비교적 낮은 살아있는 물체들은 물질화의 변화를 겪는다. 그것들은 형태와 모습을 바꾸지만, 쇠퇴와 세포의 죽음이라는 과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14:4.10 (157.2) 하보나 원주민은 모두 낙원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그들에게는 피조물 부모가 없고, 번식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중앙우주의 이 시민, 즉 전혀 창조된 바 없는 존재들의 창조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하보나 창조에 관한 전체 이야기는, 필사적 사람이 납득하는 시간 또는 공간과는 관계없는 영원성이라는 사실을 시_공간에 적용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철학체계에 한 시작점을 용인할 수밖에 없으며;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인격체들도, "시작"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낙원_하보나 체계는 영원하다.

14:4.11 (157.3) 하보나 원주민은, 다른 계층의 영구 시민권자가

각자 태어난 장소에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우주의 10억 구체에 산다. 아들신분을 갖는 물질 계층이, 연방우주에서 10억 지역 체계의, 물질적, 지적, 및 영적 경륜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개념에서 볼 때, 하보나 원주민은 중앙우주의 10억 세계에서 살고 활동한다. "물질" 세계가 신성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를 설명할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아마 이 하보나 주민을 물질 피조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14:4.12 (157.4) 하보나 출생이며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 하보나 주민은, 낙원 하강자{下降者} 및 연방우주 상승자{上昇者}를 여러 방법으로 돌보지만, 또한 중앙우주에서 독특하며, 낙원 또는 연방우주들과는 상당히 다른 상대적 의미를 갖는 삶을 살기도 한다.

14:4.13 (157.5) 진화 세계의 신앙 아들들의 경배가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족시키기에 기여하듯이, 하보나 피조물이 드리는 고귀한 찬미는, 신성한 아름다움과 진리라는 완전한 이상을 충분히 만족시킨다.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분투하듯이, 중앙우주의 이 존재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 그들의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 *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고, 하보나 주민은 신성한 아름다움에 즐거워하며, 한편 너희 모두는 생생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

14:4.14 (157.6) 하보나 주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현재의 운명과,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운명, 둘 다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앙우주에 고유한 토착 피조물의 진보, 즉 낙원으로 상승하지도 않고 연방우주를 통과하지도 않는

어떤 진보가 있다. 하보나에서 더 높은 신분을 향한 이 진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4:4.15 (157.7) 1. 첫째에서 일곱째 회로까지 밖으로 나가는 체험적 진보.

14:4.16 (157.8) 2. 일곱째에서 첫째 회로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진보.

14:4.17 (157.9) 3. 회로_내{內} 진보--주어진 회로의 세계들 안에서의 진보.

14:4.18 (157.10) 하보나 원주민 외에, 중앙우주 거주자는 다양한 우주 집단을 위한--곧 그들 부류에게, 그리고 창조하는 동안 내내 그들 부류에게, 자문가, 지휘자, 및 선생이 되는 자들을 위한--수많은 부류의 원형{原型} 존재를 포함한다. 어떤 우주의 어떤 존재든지, 수많은 하보나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 사는 원형 피조물 중에서 어느 한 계층의 계통을 따라 형성된다. 심지어 시간세계의 필사자들도, 높은 곳에 있는 이 원형{原型} 구체 외부 회로들에 실존하는 피조물에 대한 목표와 이상을 갖고 있다.

14:4.19 (157.11) 그 다음에,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며, 특별 봉사 사명을 띠고 우주들 여기저기에 배정된다. 그리고 하보나 세계마다 도달 후보자들이 발견될 것인데, 이들은 중앙우주에 물리적으로 도달한 존재이지만, 낙원 거주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발전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존재다.

14:4.20 (158.1) 은혜롭고 영광스런 존재인 수많은 인격체가 하보나 세계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데, 이 인격체들은 중앙우주의 복잡한 지적{知的} 및 영적 직무의 세부사항을 경영한다. 신성한 완전성에 속하는 이 세계에서, 그들은 이 방대한 창조물의 정상 운영에 고유한 일을 실행하고, 게다가, 우주의 어두운 세계에서 영광을 향해 올라온, 엄청난 숫자의 상승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돌보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14:4.21 (158.2) 완전성을 달성하도록 피조물을 상승시키는 기획과 어떤 면으로도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낙원_하보나 체계에 본래부터 있는 수많은 집단의 존재가 있으며;그러므로 그들은, 필사자 인종에게 제시된 인격체

분류표{分類表}에서 제외돼 있다. 초인적 존재들 중에서 오직 주요 집단과 너희의 생존 체험에 직접 관련되는 계층만 여기에 제시됐다.

14:4.22 (158.3) 하보나는 모든 국면의 지성 생명체 존재로 충만돼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신성 실현이라는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최상의 의미, 궁극적 가치, 및 절대 실체라는 확장된 판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낮은 회로에서 높은 회로로 진보하려고 애쓴다.

5. 하보나에서 지내는 생애

14:5.1 (158.4)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물질 실존에 해당하는 첫 생애 동안, 짧고 집중적인 시험을 통과한다.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서, 그리고 체계, 성좌{星座}, 및 지방우주를 거쳐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국면들을 거친다. 너희는 연방우주 훈련 세계들에서 참된 영 진보 단계들을 통과하고, 하보나를 향한 마지막 과도기를 위해 준비된다.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너희의 달성은 지적이고 영적이며 체험적이다. 그리고 이런 각 회로에 속한 세계들 각각에서 성취해야 할 분명한 과제가 있다.

14:5.2 (158.5) 신성한 중앙우주 세계들에서 지내는 생애는 너무나 부요하고 충만해서, 너무나 완비되고 충분해서, 피조된 존재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다. 이 영원한 창조물에 속하는 사회 및 경제 활동은, 유란시아 같은 진화 세계에 사는 물질 피조물의 직업과는 아주 다르다. 심지어 하보나 사고{思考} 기법도 유란시아에서 생각하는 과정과 다르다.

14:5.3 (158.6) 중앙우주의 규칙은 적절하게 그리고 선천적으로 자연스러우며; 운영 규정은 독단적이지 않다. 하보나의 요구조건마다 정의의 근거와 응보의 규정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혼합된 이 두 요소는, 유란시아에서 공정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어떤 것과 동일하다. 하보나에 도착할 때, 너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방법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될 것이다.

14:5.4 (158.7) 지성 존재들은 중앙우주에 처음 도달할 때, 일곱째 하보나 회로의 안내{案内}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산다. 새로 도착한 자들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자신의 연방우주 으뜸 영의 정체성을 납득하게 되면, 여섯째 궤도로 옮겨진다. (인간 정신 안에서 진보 궤도들이 명명돼

온 것은, 중앙우주에 있는 이런 배열에서 유래한다.)
상승자들이 지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해 준비되면, 다섯째 회로로
 옮겨지며;무한한 영에게 도달한 후에, 넷째 회로로
 옮겨진다. 영원한 아들에게 도달한 후에, 셋째 회로로
 옮겨지며;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한 후에, 둘째 회로
 세계들에 머물기 위해 가는데, 거기서 낙원 무리와 더욱
 친하게 된다. 첫째 하보나 회로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세계의 후보자들이 낙원 봉사에 받아들여짐을
 의미한다. 무기한으로, 피조물 상승 기간과 본성에 준해서,
 그들은 점진적 영적 달성이 이뤄지는 내부 회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내부 회로에서 낙원
 거주지를 향해 안쪽으로 진행하고, 완결성취 단체에
 받아들여진다.

14:5.5 (159.1) 너는 상승하는 순례자로서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자신에게 할당된 회로의 세계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방문이 허용될 것이다. 또한 너는 전에 지나왔던 회로의
 행성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최고스랍의 보호를 받을 필요 없이, 하보나 궤도에
 머무는 자에게 가능하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성취된”

공간을 지나도록 스스로 채비할 수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공간을 빠져나갈 때에는 규정된 기법에 의존해야만 하며;순례자는 운반 최고스랍의 도움 없이는 하보나를 떠날 수 없고, 자신의 배정된 회로를 벗어나서 전진할 수 없다.

14:5.6 (159.2) 이 방대한 중앙 창조물에는 참신한 독창성이 있다. 물질의 물리적 조직과, 기본 계층의 지성 존재 및 기타 생물체들의 근본 구성을 제외하면, 하보나 세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이 행성들은 각각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독자적인 창조물이며;각 행성은 비길 데 없고 뛰어나며 완전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개체성은, 행성에 실존하는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측면의 모든 특색으로 확장된다. 10억 개의 완전한 이 구체들 각각은,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장식돼 왔다. 바로 이것이, 왜 그것들 가운데 어느 두 구체도 똑같지 않은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다.

14:5.7 (159.3) 네가 하보나 회로들 중에서 마지막을 거치고, 하보나 세계들 중에서 마지막을 방문한 후에야 비로소, 모험이라는 강장제{強壯劑}와 호기심이라는 자극제가

너의 생애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원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충동이, 그 선구자, 즉 시간세계의 모험이라는 매력을 대치할 것이다.

14:5.8 (159.4) 단조로움은 창조적 상상력이 미성숙함을 암시하고, 영적 재능을 겸한 지적 조화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상승한 필사 존재들이 하늘의 이 세계들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는 때까지, 영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는 이미, 감정적, 지적, 사회적 성숙에 도달했다.

14:5.9 (159.5) 너희가 하보나에 있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진보할 때, 꿈도 꾸지 못했던 변화가 너희 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회로에서 한 행성으로부터 다른 행성으로 전진할 때,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탄할 것이다. 10억 개의 이 학습 세계는 각각 놀랄만한 진정한 대학이다. 경탄이 계속되는 동안, 이 회로들을 거치고 이 거대한 구체들을 여행하는 자들의 체험은 끝없는 불가사의가 될 것이다. 하보나 생애에서 단조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14:5.10 (159.6)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호기심, 그리고 단조로움을 싫어하는 것은--진화하는 인간적 본성에

내재돼 있는 특징인데-- 너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너희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려고 있게 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죽음은, 끝없이 모험하는 생애, 즉 영원한 탐험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게 됐다.

14:5.11 (160.1) 호기심은--곧 조사하려는 기질, 탐험하려는 충동, 탐사에 대한 욕구는-- 진화 공간 피조물의 태생적이고 신성한 재능 가운데 한 부분이다. 자연스런 이 충동은, 너희를 좌절시키고 억압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런 야심적인 욕망은 너희가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자주 억압받을 수밖에 없고, 실망감을 자주 체험하겠지만, 앞으로 올 긴 시대들 동안 충분히 실현되고 영광스럽게 채워질 것이다.

6. 중앙우주의 목적

14:6.1 (160.2) 일곱으로_회로화된 하보나의 활동 범위는 엄청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활동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4:6.2 (160.3) 1. 하보나 활동.

14:6.3 (160.4) 2. 낙원 활동.

14:6.4 (160.5) 3. 상승자의_유한한 활동--최상급_궁극자의 진화하는 활동.

14:6.5 (160.6) 유한을 초월하는 많은 활동이 현 우주 시대에 하보나에서 일어나는데, 유한절대에 해당하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성, 그리고 정신 및 영 기능에 속하는 기타 국면들을 포함한다. 피조된 정신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중앙우주가 작동하듯이, 내게 계시되지 않은 많은 목적에 중앙우주가 이바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나는, 완전한 이 창조계가 일곱 계층의 우주 지성체의 수요를 어떻게 공급하고 만족시키기에 기여하는가를 서술하려고 애 쓸 것이다.

14:6.6 (160.7) 1. 만유의 아버지--제1 근원 및 중심. 아버지 하나님은, 중앙 창조가 완성됨으로써, 부모로서 최상의 만족감을 획득하신다. 그는 거의_대등한 수준에서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는 체험을 누리신다. 완전한 창조주는, 완전한 피조물이 드리는 존송{尊崇}을 신성하게 기뻐하신다.

14:6.7 (160.8) 하보나는 아버지께 최상으로 성취한 만족감을 제공한다. 무한히 팽창하려는 영원한 열망이 시_공간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하보나에서 완전성을 실현함이,보상한다.

14:6.8 (160.9) 아버지는 하보나가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보답하는 것을 즐기신다. 절묘하게 조화된 완전한 원형을, 모든 진화하는 우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神}의 정신을 만족시킨다.

14:6.9 (160.10)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기쁨으로 중앙우주를 바라보시는데, 중앙우주가 온갖 우주의 모든 인격체를 향한 영 실체의 훌륭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14:6.10 (160.11) 우주들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차후에 이어지는 모든 우주 팽창을 위한 영원한 동력 핵으로서의 하보나와 낙원에 대해, 호의적 관심을 가지신다.

14:6.11 (160.12) 영원한 아버지는, 시간세계의 상승 후보자들, 즉 창조주_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도달하는, 공간에서 온 필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가치 있고 매혹적인 목표로서, 하보나 창조계를 한없이 만족스럽게 바라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격과 신성한 가족의 영원한 고향으로서
낙원_하보나 우주를 기뻐하신다.

14:6.12 (160.13) 2. *영원한 아들*--제2 근원 및 중심. 신성한 가족의--
-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공동경영이 효과적인 것을,
웅장한 중앙 창조계가 영원한 아들에게 영원히 증명한다.
중앙 창조계는 만유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및 물질적 근거다.

14:6.13 (160.14) 하보나는, 계속_팽창하는 영 권능의 실현을 위한
거의 무제한의 기초를 영원한 아들에게 제공한다. 영원한
아들이 자신의 동역하는 낙원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
증여 사역의 영성과 기법을 안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장을, 중앙우주가 제공했다.

14:6.14 (161.1) 하보나는, 영원한 아들이 온갖 우주를
영_인력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실체의 기초다. 이
우주는 아들에게 영적 재생산이라는 부모로서의 갈망을
만족시켜준다.

14:6.15 (161.2) 하보나 세계와 거기 있는 완전한 거주자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최초이자 영원토록

최종적인 예증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무한한 보완자인
아들의 의식{意識}이 완전하게 채워진다.

14:6.16 (161.3) 그리고 이 우주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사이의 대등한 우애{友愛} 교환이 실현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리하여 각자 무한한 인격체임을 영구히
증명하게 만든다.

14:6.17 (161.4) 3. *무한한 영*--제3 근원 및 중심. 무한한 영이, 공동
행위자, 즉 통합된 아버지_아들의 무한한 대행자가 됨을,
하보나 우주가 증명한다. 무한한 영은, 하보나에서 창조적
활기로서 작용하는 통합된 만족감을 얻는 한편, 신성한 이
성취와 함께 절대 공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14:6.18 (161.5) 무한한 영은, 하보나에서 자신이 잠재적 자비
사역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경기장을 설립했다. 영은, 진화 우주들에서
보살피는 모험을 위해 완전한 이 창조물 안에서
예행연습을 했다.

14:6.19 (161.6) 완전한 이 창조물은, 신성한 두 부모와 함께 우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곧 동료_창조주 자손으로서

우주를 경영하는-- 기회를 무한한 영에게 제공했고,
그리하여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영 동료로서, 지방우주의
공동 경영을 위해 준비했다.

14:6.20 (161.7) 하보나 세계들은, 시공우주 정신 창조자들의,
그리고 실존하는 모든 피조 정신에 대한 사역자들의, 정신
실험실이다. 정신은, 각 하보나 세계마다 다르며, 모든
영적 및 물질적 피조 지능을 위한 원형{原型}으로서
이바지한다.

14:6.21 (161.8) 이 완전한 세계들은, 낙원 사회로 가게 돼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정신 대학원이다. 이 세계들은, 신중하고
충고하는 인격체들에 대한 정신 사역의 기법을 영이
시험할 수 있도록, 풍부한 기회를 제공했다.

14:6.22 (161.9) 하보나는, 무한한 영이 공간의 우주들에서 폭넓고
이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하보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신 사역자에게 완전한
고향이자 휴식처다.

14:6.23 (161.10) 4. *지존하신 분*--체험적 신격이 진화로 통합되신
분. 하보나 창조물은, 지존하신 분이 영적 실체{實體}임을

영원히 완전하게 증명한다. 이 완전한 창조물은, 체험적인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 유한하게 반영된 낙원 신격들의 권능_인격체 합성이 시작되기 이전의, 지존자 하나님의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靈} 본성을 계시{啓示}한 것이다.

14:6.24 (161.11) 하보나에서, 전능자의 동력 잠재력이 지존자의 영적 본성과 통합돼 있다. 이 중앙 창조물은, 지존자가 영원한_미래에 통일되는 것을 나타내는 예증이다.

14:6.25 (161.12) 하보나는 지존자의 잠재적 보편성의 완전한 원형{原型}이다. 이 우주는 지존자의 미래 완전성에 대한 완벽한 묘사{描寫}이며, 궁극자의 잠재력에 대한 암시{暗示}다.

14:6.26 (162.1) 하보나는 최상으로 완전하게 자기를_통제하는,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최종의 영 가치;궁극적으로 영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최종의 정신;무제한 잠재력을 가진 지성의 최종 실체 및 통일 등을 나타낸다.

14:6.27 (162.2) 5. *동격 창조주 아들들*. 하보나는 낙원 미가엘들이 우주 창조물 안에서 연속되는 모험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

훈련장이다. 이 신성하고 완전한 창조물은, 모든 창조주 아들을 위한 원형{原型}이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우주를 완전성의 이 낙원_하보나 수준에 결국 도달하도록 만들려고 애쓴다.

14:6.28 (162.3)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필사 자녀와 영 존재들을 위한 인격체_원형의 발전 가능성으로서, 하보나 피조물을 활용한다. 미가엘 및 다른 낙원 아들들은, 낙원과 하보나를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으로 간주한다.

14:6.29 (162.4) 창조주 아들들은, 중앙 창조물이 자신의 지방우주를 안정시키고 통합하는, 필수적인 우주 전면통제의 실제 근원임을 안다. 지존자와 궁극자의 항상_현존{現存}하는 영향력이 하보나에 직접 존재함을, 그들은 안다.

14:6.30 (162.5) 하보나와 낙원은 미가엘 아들의 창조 능력의 근원이다. 우주 창조에서 그와 협동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거주한다. 우주 어머니 영들, 즉 지방우주 공동창조자들이 낙원에서 온다.

14:6.31 (162.6) 낙원 아들들은 중앙 창조계를 자신의 신성한 부모의 고향으로--곧 그들의 고향으로-- 간주한다. 이곳은 그들이 때때로 돌아가기를 즐기는 곳이다.

14:6.32 (162.7) 6. *보살피는 동격 딸들*. 지방우주 공동_창조자인 우주 어머니 영들은, 회로 영들과 긴밀하게 연합하면서, 하보나 세계들에서 자신의 인격이전{人格以前} 훈련을 확보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지방우주들의 영 딸들이 낙원 아들과 협동하는 방법으로 적당하게 훈련됐는데, 그동안 내내 아버지 뜻에 종속된다.

14:6.33 (162.8) 하보나 세계에서 영과 영의 딸들은, 영적 및 물질적 지성체로 구성된, 자신의 모든 집단을 위한 정신 원형을 발견하며, 이 중앙우주는, 연합된 창조주 아들과 함께 우주 어머니 영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피조물들이 언젠가 가야할 종착점이다.

14:6.34 (162.9) 우주 어머니 창조주는, 낙원과 하보나를 자신이 기원된 장소 및 무한한 어머니 영의 고향, 즉 무한한 정신의 인격체가 현존하는 거주지로 간주한다.

14:6.35 (162.10) 또한 창조자신분의 개인적인 특권이 이 중앙우주로부터 증여됐는데, 신성한 우주 사역자는,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면서, 창조주 아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특권을 사용한다.

14:6.36 (162.11)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한한 어머니 영의 이 딸 영들은, 자신의 낙원 고향에 그렇게 항상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보나에서 지존하신 분과 연합된, 그리고 낙원에서 위엄자{威嚴者} 안에 인격화 된, 우주의 반사성 현상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

14:6.37 (162.12) 7. 상승하는 생애를 사는 진화 필사자들. 하보나는, 시간세계의 창조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필사자 연합체의 모든 초월_인간 인격체의 고향이며, 모든 필사자 유형의 원형 인격체의 고향이다.

14:6.38 (162.13) 이 세계들은, 인식 가능한 가장 높은 실체 수준에서 참된 영 가치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모든 인간적 충동을 자극한다. 하보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_이전{以前}에 도달할 훈련 목표다. 필사자는 낙원_이전의 신격을--곧 지존하신 분을-- 여기서 만난다.

하보나는,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낙원과 하나님께 도달하는 입구로서 존재한다.

14:6.39 (163.1) 낙원은 완결성취자들의 고향이고, 하보나는 그들의 작업장 및 놀이터다. 그리고 하나님을_아는 모든 필사자는 완결성취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14:6.40 (163.1) 중앙우주는 사람의 확립된 숙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성을 탐험하는 체험에서 미지의 우주 모험을 하려고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완결성취자들의 영원한 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14:6.41 (163.1) 유한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공간 순례자들이 목격할 수 있는 미래 우주 시대에도, 하보나는 유한절대 의미를 갖고 틀림없이 계속 작동할 것이다. 하보나는 유한절대 존재를 위한 훈련 우주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가 외부 공간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중간 학교로서 역할하고 있을 때, 하보나는 아마도 마무리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영원한 하보나의 잠재력은 정말로 제한돼 있지 않으며, 창조된 존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유형들을 위한 체험 훈련 학교로서 봉사할 수 있는 영원한
수용력을 중앙우주가 갖고 있다는 견해를, 우리는
지지하고 싶어 한다.

14:6.42 (163.1)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위임한 한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15편 일곱 연방우주

15:0.1 (164.1) 만유의 아버지가--아버지로서-- 관련되는 한,
우주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아버지는 인격체들과
관계하시며;인격체들의 아버지시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창조자의 동반자로서-- 관련되는 한,
우주들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들의 공동 통치
아래서 국지적이고 개별적이다. 낙원 삼위일체가
관련되는 한, 하보나 외부에는 오직 일곱 인간거주 우주,
즉 하보나_이후{以後}의 첫 공간 층{層} 궤도를 관할하는,
일곱 연방우주가 존재한다. 일곱 으뜸 영은 자신의
영향력을 중앙 섬으로부터 방출하며, 그리하여 방대한
창조물을 하나의 거대한 바퀴로, 영원한 낙원 섬을
중심축으로, 일곱 으뜸 영의 방사상{放射狀} 배열을 일곱
바퀴살로, 광우주의 외부 지역들을 테두리로 간주한다.

15:0.2 (164.2) 우주의 창조가 물질화하던 초기에, 연방우주를 조직하고 통치하는 칠중{七重} 기획이 공식화 됐다. 하보나_이후 첫 창조물은 거대한 일곱 부분으로 나뉘었고, 이 연방우주 정부의 본부 세계들이 설계되고 건축됐다. 현재의 경영 기획은 거의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 일곱 연방우주 통치자들을 마땅히 태고 항존자라고 부른다.

15:0.3 (164.3) 연방우주들에 관한 방대한 주요 지식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하지만, 물리적 및 영적 힘들에 대한 지성 통제 기법이 이 영역에서 두루 작동하며, 우주의 인력{引力} 현존들이 웅대한 능력과 완전한 일치 속에서 작용한다. 연방우주 영토의 물리적 구성과 물질 조직에 대한 적절한 관념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의 영적{靈的} 정부를 위해, 그리고 이 일곱 연방우주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무수한 인간거주 행성에 거하는 의지{意志} 피조물의 지적 진보를 위해 제공된 놀라운 조직의 의미를 너희가 파악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1. 연방우주 공간 층

15:1.1 (164.4) 너희의 짧은 년{年} 단위를 기준으로, 100만 년 또는 10억 년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기록하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든 실용적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유란시아 및 유란시아가 소속된 우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긴 미지의 몰입{沒入}에 해당하는 모험을 체험하고 있지만;우버사의 기록에 따르면, 더 오래 관찰한 대로, 우리가 속한 계층의 더 확장된 체험과 계산에 조화되도록, 그리고 이 발견 및 다른 발견들에 기초해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우리는 우주들이,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우주 주변의 장엄한 모습 속에서 회전하면서, 질서 있고 잘_예측되고 완전하게 통제된 행렬 속에 들어 있음을 안다.

15:1.2 (165.1) 대단한 타원, 즉 거대하고 길게 늘어난 궤도를 일곱 연방우주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 전부터 발견했다. 너희의 태양계를 비롯해서, 한때의 다른 세계들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오지{奧地}의 공간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다. 너희 체계가 속한 지방우주는, 중앙우주를 도는 거대한 진폭 주변에서, 분명하고 잘 알려진 반시계방향 진로를 따라가고 있다. 이

시공우주 경로는 잘 계획돼 있고, 너희의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궤도가 유란시아 천문학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우주 별 관찰자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

15:1.3 (165.2) 유란시아는 온전하게 조직되지 않은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에 자리잡고 있으며, 너희의 지방우주는 부분적으로 완성된 수많은 물리 창조계에 바로 근접해 있다. 너희는 최근에 조성된 우주들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미지의 공간 속으로 격렬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지역 속으로 모르는 채 날아가고 있지도 않다. 너희는 연방우주 공간 층에서, 예정되고 질서 있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너희의 행성 체계 또는 그보다 앞선 체계들이 여러 시대 전에 지나갔던 바로 그 공간을, 너희가 지금 통과하고 있으며; 먼 훗날 언젠가 너희 체계 또는 그것을 따라오는 체계들이, 지금 너희가 매우 신속하게 돌진해 지나가는 곳과 동일한 공간을,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15:1.4 (165.3) 이 시대에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1_번 연방우주는, 위대한 근원 및 중심의 낙원

거주지 및 하보나 중앙우주에 대략 반대쪽으로, 동쪽 방향에서, 거의 정북{正北}으로 돌고 있다. 이 지점은, 서쪽에서 그와 대칭되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시간세계의 구체들이 영원한 섬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2_번 연방우주는 북쪽에 있고, 서쪽을 향해 돌 준비를 하며, 한편 3_번은 현재 거대한 공간 경로의 가장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몰입{沒入}하도록 이끄는 만곡{彎曲}으로 이미 돌아서고 있다. 4_번은 비교적 남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데, 앞선 부분은 지금 위대한 중심들 반대편으로 접근하고 있다. 5_번은 최고 중심 반대 지점을 거의 떠나가는 동시에, 동쪽으로 회전하기 직전에 똑바른 남쪽 진로를 따라가고 있으며; 6_번은 남쪽 곡면, 즉 너희 연방우주가 거의 다 지나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1.5 (165.4) 네바돈이라는 너희 지방우주는, 일곱째 연방우주인 오르본톤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1_번과 6_번 연방우주 사이에서 회전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 바로는) 얼마 전에 연방우주 공간 층 남동쪽 곡면을 돌았다. 오늘날, 유란시아가 소속된 태양계는, 남쪽 곡면 주변을 수십억 년 일주해서 지나갔고, 그리하여 너희는

방금 남동쪽 곡면을 지나갔으며, 비교적 똑바르고 긴 북쪽 경로를 통해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긴 시대 동안, 오르본톤은 직선에 가까운 북쪽 방향의 이 진로를 따라갈 것이다.

15:1.6 (165.5) 유란시아는 너희 지방우주 경계지역 쪽으로 상당히 나가있는 체계에 속해 있으며;너희 지방우주는 현재 오르본톤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다. 너희 너머에 다른 것들이 계속 있지만, 너희는 위대한 근원 및 중심에 비교적 근접한 거대한 원 주변을 도는 물리 체계들로부터 공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다.

2. 연방우주의 조직

15:2.1 (165.6) 오직 만유의 아버지만이, 공간에서 인간거주 세계의 위치와 실제 숫자를 아시며;이들 모두를 이름과 번호로 부르신다. 나는 오직 인간거주 행성 또는 거주 가능한 행성의 대략적인 숫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성 생명체에게 합당한 세계를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갖는 지방우주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계획된 모든 지방우주가 다 조직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은, 다만 물질 창조가 얼마나 광대한지 짐작하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15:2.2 (166.1) 광우주에는 일곱 연방우주가 있고,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5:2.3 (166.2) 1. ~~체계~~. 약 1,000개의 인간거주 세계 또는 거주 가능한 세계로 구성되는 연방정부의 기초 단위. 타오르는 항성, 차가운 세계, 뜨거운 항성에 너무 근접된 행성, 그리고 피조물 거주지로 적당치 않은 다른 구체는 이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적합한 1,000개의 이 세계를 체계라고 부르지만, 비교적 젊은 체계의 경우에는, 이 세계들 중에서 비교적 작은 숫자에만 생명체가 거주하고 있을 것이다. 각 인간거주 행성마다 한 명의 행성 왕자가 관장하고, 각 지역 체계마다 한 개의 건축양식 구체를 그 본부로 소유하며, 한 체계 주권자가 통치한다.

15:2.4 (166.3) 2. 성좌{星座}. 100개의 체계가(약 100,000개의 인간거주 가능 행성이) 한 성좌를 구성한다. 각 성좌마다 건축양식 본부 구체가 있고, 세 명의 보론다덱 아들, 즉

지고자들이 관장한다. 또한 각 성좌마다 관찰하는 한 명의 충실{忠實} 항존자, 즉 낙원 삼위일체의 대사가 있다.

15:2.5 (166.4) 3. *지방우주*. 100개의 성좌가(약 10,000,000개의 인간거주 가능 행성이) 한 지방우주를 구성한다. 각 지방우주마다 하나의 장엄한 건축양식 본부 세계가 있고, 미가엘 계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동격 창조주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다스린다. 각 우주마다 한 명의 합동 항존자, 즉 낙원 삼위일체의 대리자가 현존하는 복을 누린다.

15:2.6 (166.5) 4. *소구역*. 100개의 지방우주가(약 1,000,000,000개의 인간거주 행성이) 연방우주 정부의 한 소구역을 구성하며;소구역에는 하나의 놀라운 본부 세계가 있고, 그 통치자, 즉 최근 항존자들이 소구역의 직무를 거기서 집행한다. 각 소구역 본부에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있다.

15:2.7 (166.6) 5. *대구역*. 100개의 소구역이(약 100,000,000,000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하나의 대구역을 이룬다. 각 대구역마다 하나의 훌륭한 본부가 마련돼 있고, 세 명의 완성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관장한다.

15:2.8

(166.7)

6. 연방우주. 10개의 대구역이(약

1,000,000,000,000개의 인간거주 가능 행성이) 하나의 연방우주를 구성한다. 각 연방우주마다 하나의 거대하고 영광스런 본부 세계가 있고,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다스린다.

15:2.9 (166.8)

7. 광우주. 일곱 연방우주가 현재 조직돼있는 광우주를 이루는데, 약 7조 개의 인간거주 가능 세계 이외에, 건축양식 구체들 및 하보나에 속하는 10억 개의 거주된 구체로 구성된다. 낙원으로부터 일곱 으뜸 영이 연방우주들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사작용으로 다스리고 경영한다. 영원 항존자들이 하보나의 10억 세계를 직접 경영하고, 이 완전한 구체 각각을 그런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 한 분이 관장한다.

15:2.10 (167.1)

낙원_하보나 구체들을 제외하고, 우주 조직도표는 다음과 같은 단위로 규정된다:

15:2.11 (167.2)

연방우주 ----- 7.

15:2.12 (167.3)

대구역 ----- 70.

15:2.13 (167.4)

소구역 ----- 7,000.

15:2.14 (167.5) 지방우주 ----- 700,000.

15:2.15 (167.6) 성좌 ----- 70,000,000.

15:2.16 (167.7) 지역 체계 ----- 7,000,000,000.

15:2.17 (167.8) 인간거주가능 행성 --- 7,000,000,000,000.

15:2.18 (167.9) 일곱 연방우주 각각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15:2.19 (167.10) 하나의 체계는 약 ----- 1,000세계,

15:2.20 (167.11) 하나의 성좌는(100체계) ----- 100,000세계,

15:2.21 (167.12) 하나의 우주는(100성좌) -----
10,000,000세계,

15:2.22 (167.13) 하나의 소구역은(100우주) -----
1,000,000,000세계,

15:2.23 (167.14) 하나의 대구역은(100소구역) ----
100,000,000,000세계,

15:2.24 (167.15) 하나의 연방우주는(10대구역) ---
1,000,000,000,000세계를 포함한다.

15:2.25 (167.16) 이런 견적 전체는 최선의 추정치인데, 새로운 체계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한편 다른 조직들은 물질 실존 단계를 잠정적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3. 오르본톤 연방우주

15:3.1 (167.17) 유란시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총총한 영역 전체는, 실제로 광우주의 일곱째 지역, 즉 오르본톤 연방우주에 속한다. 방대한 은하수 별 체계는 오르본톤의 중앙 핵을 나타내는데, 너희 지방우주 경계선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항성, 우주의 흑암 섬, 이중의 별, 구형{球形}의 집단, 별 구름, 나선형 및 기타 성운{星雲}들로 이뤄진 이 거대한 집합체는, 무수한 개별 행성과 함께, 시계를 닮은 길쭉한_원형{圓形}을 형성하는데, 진화하는 인간거주 우주 중에서 약 7분의 1이 묶여있다.

15:3.2 (167.18) 너희가 유란시아의 천문{天文} 위치에서, 거대한 은하수에 가까운 체계들의 단면을 들여다본다면, 너희는 오르본톤의 구체들이 길쭉한 거대한 평면, 즉 폭이 두께보다 훨씬 크고 길이가 폭보다 훨씬 큰 평면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관측한다.

15:3.3 (167.19) 소위 은하수를 관찰하면, 한 방향에서 하늘을 볼 때에는 오르본톤 별 밀도가 비교적 증가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우리 물질 연방우주의 주요 평면에서 멀어질수록, 별들 및 다른 구체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한다. 관찰하는 각도가 맞을 경우에, 최고 밀도를 갖는 이 영역의 주요 본체를 들여다볼 때, 너희는 거주에 적합한 우주 및 만물의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15:3.4 (167.20) 오르본톤의 10개 주요 구획 중에서 여덟 개는, 유란시아인 천문학자가 대략 확인했다. 다른 두 개는 인식될 정도로 구분하기 어려운데, 너희는 이 현상을 안쪽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르본톤 연방우주를 공간 속 멀리_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일곱째 성단{星團}의 10개 대구역을 즉각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5:3.5 (168.1) 너희 소구역의 자전 중심은, 사기타리우스라는 거대하고 조밀한 별 구름 안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희 지방우주 및 그에 관련된 피조물 전체가 그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너희는 방대한 사기타리우스 하위_성단

체계의 반대편으로부터 엄청난 별 소용돌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대한 별 구름 줄기들을 목격할 것이다.

15:3.6 (168.2) 너희의 태양 및 그것과 연합된 행성들이 속하는
물리 체계의 핵심은, 옛 안드로노버 성운의 중앙이다. 전에
나선형이었던 이 성운은, 너희 태양계가 탄생하면서
발생된 사건과 관련된 인력{引力} 분열들로 인해 약간
일그러졌는데, 이웃에 있는 어떤 큰 성운의 가까운 접근
때문에 유발됐다. 근접된 이 충돌이 안드로노버를 약간
구형{球形} 집합체가 되도록 변경했지만, 그 항성들 및
그에 관련된 물리적 집단의 양방향 행진을 전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았다. 너희 태양계는 지금 이 일그러진
소용돌이 축들 가운데 하나 안에서 거의 중앙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별 흐름
가장자리를 향해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15:3.7 (168.3) 사기타리우스 구역과 오르본톤의 다른 모든 구역
및 구획이 우버사 주변을 돌고 있으며, 별을 관측하는
유란시아인이 혼동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은
다중{多重} 회전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과 상대적
왜곡에서 발생한다:

15:3.8 (168.4) 1. 유란시아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함.

15:3.9 (168.5) 2. 예전의 안드로노버 성운 핵심 둘레를 도는 너희 태양계의 회로.

15:3.10 (168.6) 3. 안드로노버 별 집합체 및 연합된 무리가, 네바돈 별 구름의 복합 회전_인력 중심 둘레를 회전함.

15:3.11 (168.7) 4. 네바돈의 국지적 별 구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창조계가, 그 소구역의 사기타리우스 중심 주변에서 회전함.

15:3.12 (168.8) 5. 사기타리우스를 포함하여, 100개 소구역이 그 대구역 둘레를 자전함.

15:3.13 (168.9) 6. 오르본톤의 우버사 본부에 관련한, 성류{星流}운동이라고 불리는, 10개 대구역의 소용돌이.

15:3.14 (168.10) 7. 오르본톤, 그리고 낙원과 하보나 주변의 연합된 여섯 연방우주의 운동, 즉 연방우주 공간 수준의 반{反}시계방향 행렬.

15:3.15 (168.11) 이 다중{多重} 움직임은 여러 종류에 속한다:너희 행성과 너희 태양계의 공간 경로는 유전으로 물려받았고,

기원할 때부터 타고났다. 오르본톤의 절대 반시계방향 움직임 역시 유전됐으며, 총괄우주 건축양식 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간섭하는 움직임은 혼합 기원을 갖는데, 일부는 물질_에너지의 구조적 분열로부터 연방우주들 안으로 파생됐고, 일부는 낙원 힘 조직가들의 총명한 의도적 활동으로 생겨났다.

15:3.16 (168.12) 지방우주는 하보나에 접근함에 따라 더 가까운 근접성을 가지며;회로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증대된 초월_부과물이 층층으로 쌓인다. 그러나 영원한 중앙으로부터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체계, 층, 회로, 및 우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4. 성운--우주들의 조상

15:4.1 (169.1) 창조물과 우주 조직은 언제까지나 무한한 창조주들 및 그 동역자들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 현상 전체는 정해진 기법에 따라 힘과 에너지와 물질의 인력 법칙에 일치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공간에서 우주의 힘_충전과 관련된 신비한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궁극체{窮極體} 단계 이후의 물질 창조계 조직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지만, 궁극체라는 시공우주

선조{先祖}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선조 힘들이 낙원에서 기원됐다고 확신하는데, 낙원의 엄격한 거대한 외곽선 안에서 충만된 공간을 관통하여 영구히 회전하기 때문이다. 낙원 인력에 대해 반응하지 않음에도, 모든 물질화의 조상인 이 공간 힘_충전이 하부 낙원 현존에 대해서 항상 반응하는데, 하부 낙원 중심의 안과 밖에서 뚜렷이 회로를 이루기 때문이다.

15:4.2 (169.2) 낙원 힘 조직가들이 공간 잠재력을 원시 힘으로 변화시키고, 물질 이전의 이 잠재력을 물질 실체에 해당하는 1차 및 2차 에너지 형태화로 진전시킨다. 이 에너지가 인력_반응 수준을 달성하게 되면, 동력 지휘자들 및 그 연방우주 체제 동역자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주들의 다중 동력 회로와 에너지 경로를 설치하도록 고안된, 끝없는 조종을 시작한다. 이렇게 물리적 물질이 공간 안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우주 조직화를 개시하기 위한 무대{舞臺}가 설치된다.

15:4.3 (169.3) 이 에너지 분할은, 네바돈의 물리학자들이 결코 해답을 얻은 적이 없는 현상이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은 낙원 힘 조직가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으며,

살아있는 동력 지휘자들은, 공간_에너지를 취급할 능력은 있더라도, 그토록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다루는 에너지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각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15:4.4 (169.4) 낙원 힘 조직가들이 성운 창설자이며;그들은 자신의 공간 현존 주변에 거대한 힘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시작 되면, 모두_충만시키는 힘이 우주 물질의 궁극체 단위들을 결국 출현시키기 위해 동원될 때까지, 결코 멈추거나 제한될 수 없다. 나선형의 성운 및 다른 성운, 즉 직접_기원되는 항성들과 그 다양한 체계의 모체{母體} 회전구름이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외부 공간에서는 10가지 다른 형태의 성운, 즉 1차 우주 진화의 국면들을 볼 수 있고, 이 방대한 에너지 회전구름은 일곱 연방우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원됐다.

15:4.5 (169.5) 성운은, 크기와 유래하는 숫자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별 자손 및 행성 자손의 총 질량에서 매우 다양하다. 오르본톤 바로 북쪽에 있지만 연방우주 공간 층에서 항성을_형성하고 있는 한 성운은, 이미 약 4만 개의

항성을 탄생시켰고, 모체 바퀴는 여전히 항성을 내던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크기가 너희 것보다 여러 배에 달한다. 외부 공간의 비교적 큰 성운 가운데 일부는, 1억 개에 달하는 항성을 기원시키고 있다.

15:4.6 (169.6) 어떤 지방우주들이 단일 성운의 산물로부터 조직돼 왔음에도, 성운들은 소구역 또는 지방우주 같은 경영 단위 가운데 어떤 것과도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각 지방우주는, 성운 관계와 상관없이, 연방우주의 전체 에너지 축적량 중에서 정확하게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데, 에너지는 성운에 따라 조직되지 않기 때문이다--에너지는 보편적으로 배분된다.

15:4.7 (170.1) 나선형 성운 전체가 항성 만들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더러는 그것에서 떨어져나간 별 후손 가운데 다수를 계속 통제해 오고 있으며, 그것의 나선형 모습은, 항성들이 긴밀한 대형을 이루면서 성운 축에서 멀어졌지만 다양한 경로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 지점에서 관찰하기는 쉽지만, 다른 회귀 경로에서 성운 축으로부터 멀리 밖으로 널리 퍼져 있을 때에는 관찰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인간거주

연방우주 외곽에 있는 안드로메다가 매우 활동적임에도, 지금 오르본톤에서 항성을 형성하는 활발한 성운은 그리 많지 않다. 멀리 있는 이 성운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너희는 그것을 볼 때 눈에 들어온 그 빛이, 멀리 있는 그 항성에서 거의 100만 년 전에 떠났음을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한다.

15:4.8 (170.2) 은하수 성단은 과거의 수많은 나선형 및 다른 성운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것이 아직도 원래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격변과 외부 흡인의 결과로, 다수가 크게 뒤틀리고 다시 배치돼서, 이 거대한 집합체들은, 마젤란 구름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항성들로 이뤄진 거대한 발광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든다. 구형{球形}의 별 무리가 오르본톤 외부 가장자리 근처를 차지하고 있다.

15:4.9 (170.3) 오르본톤의 방대한 별 구름은, 은하수 성단 밖에 있는 공간 구역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도의 성운들과 비교될만한 물질의 개별 집합체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아무튼 소위 우주 별 구름이라 불리는 것 가운데 다수는 기체 물질로만 구성돼 있다. 이런 별 기체 구름의 에너지

잠재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며, 일부는 근처에 있는 항성들에게 흡수되고, 항성 방산물로 공간 속에 다시 발산된다.

5. 천체의 기원

15:5.1 (170.4) 연방우주의 항성과 행성들에 포함되는 물질 대부분은, 성운 회전구름에서 기원되며;열린 공간에서 기원되는 물질의 양은 일정하게 변한다 해도, (건축양식 구체들을 건설하는 경우처럼) 동력 지휘자들의 직접 행위로 조직되는 연방우주 물질은 거의 없다.

15:5.2 (170.5) 기원에 따라, 대부분의 항성, 행성, 및 다른 구체들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집단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15:5.3 (170.6) 1. 수축하는 동심{同心} 고리. 성운이 모두 나선형은 아니다. 다수의 거대 성운은, 이중{二重} 별 체계로 나뉘거나 나선형으로 진화하는 대신, 여러_겹의_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응축 과정을 거친다. 그런 성운은 오랫동안, 하나의 거대한 중앙 항성이, 고리_모양의 물질 형태를 가진 수많은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15:5.4 (170.7)

2. **소용돌이치는 별**은, 고도로 가열된 기체로 구성된 거대한 모체 회전구름에서 방출된 그런 항성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고리 모양으로가 아니라, 오른쪽 및 왼쪽 방향 행렬로 방출된다. 소용돌이치는 별들은 나선형_이외의 성운에서도 기원된다.

15:5.5 (170.8)

3. **인력_폭발 행성**. 나선형 또는 막대기 모양의 성운에서 탄생할 때, 항성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방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항성은 상당히 기체 상태에 있으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식고 응축되면, 거대한 질량의 어떤 물질, 즉 공간의 어떤 거창한 항성 또는 흑암 섬 가까이를 회전할 수도 있다. 그런 접근은 충돌을 가져올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지만, 인력이 더 큰 본체를 끌어당겨서, 비교적 작은 것 안에 조수{潮水} 격변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운데, 그리하여 진동을 일으킨 항성 반대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조수 융기가 일어나게 한다. 이것들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 이 폭발하는 분출은, 분출되는 그 항성의 인력_교정 지대를 넘어서 투사될지도 모르는, 일련의 변화하는_크기의 물질 집합체를 산출하며, 그리하여 이 과정에서 고려된 두 본체 가운데 하나의 주변 궤도 안에서 안정돼 간다. 나중에는 더

큰 물질 집합체들이 결합하고, 작은 본체들을 자기 쪽으로 점점 더 당긴다. 비교적 작은 체계들에서 고체 행성 가운데 다수가 이런 방법으로 생기게 된다. 너희 태양계가 바로 이렇게 기원됐다.

15:5.6 (171.1) 4. *원심력 행성 소산물*. 거대한 항성은, 특정한 발달 단계에 도달할 때, 그리고 그 회전 속도가 크게 증대되면,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모체 항성을 도는 작은 세계들을 형성하도록 모아진다.

15:5.7 (171.2) 5. *인력_결핍 구체*. 각각의 별 크기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항성이 이 한계에 도달할 때,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항성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며;항성분열이 발생하고, 이 종류에 속하는 한 쌍의 새 별이 태어난다. 수많은 작은 행성이, 이 거대한 붕괴의 부산물로 나중에 형성될 수 있다.

15:5.8 (171.3) 6. *붙잡힌 별*. 비교적 작은 체계 안에서, 가장 큰 외부 행성이 때로 그 주변에 있는 세계들을 끌어당기는 반면, 항성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항성 쪽으로 마지막 돌진을 시작한다. 너희 태양계의 경우에, 그런 종말은 네 개의 안쪽 행성이 태양에게 이끌리는 반면, 주요 행성인

목성은 남은 세계들을 사로잡음으로써 크게 증대될 것을 의미한다. 한 항성계의 그런 종말은,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인접한 항성을 생산하며, 이것은 이중{二重} 별이 형성되는 한 유형이다. 그런 격변은, 연방우주 별 집합체들 중에서 바깥쪽 가장자리 이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15:5.9 (171.4) 7. 누적된 구체. 공간에서 떠도는 방대한 양의 물질로부터, 작은 행성들이 서서히 축적될 수 있다. 이것들은 유성{流星}이 불음으로써, 그리고 여러 약한 충돌로 말미암아 커진다. 특정한 공간 구역들에서는, 그런 형태의 행성 탄생에 조건이 유리하다. 많은 인간거주 세계가 그렇게 기원됐다.

15:5.10 (171.5) 밀도가 높은 흑암 섬 가운데 일부는, 공간에서 변화하는 에너지 증가의 직접 결과다. 이 흑암 섬 가운데 다른 집단은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질, 즉 공간 도처에 떠도는 단순한 파편과 운석이 축적됨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물질 집합체는 한 번도 뜨거워진 적이 없고, 밀도를 제외하면 구성 면에서 유란시아와 매우 흡사하다.

15:5.11 (171.6) 8. 식어버린 항성. 공간에 있는 흑암 섬 가운데 일부는 식어버린 고립된 항성인데, 가용{可用}

공간_에너지가 모두 방출된 상태다. 조직된 물질 단위들은, 충분한 응축, 즉 실질적으로 완성된 응축에 가까우며;크게 응축된 물질로 이뤄진 그런 거대한 덩어리가 공간 회로에서 다시 충전되고, 그리하여 어떤 충돌 또는 그와 비슷하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공우주 사건을 겪은 뒤에, 새로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순환을 준비하게 되는 데는 긴 세월이 요구된다.

15:5.12 (171.7) 9. *충돌한 구체*. 촘촘하게 집단을 이루는 지역의 경우에, 충돌이 흔하다. 그런 천문학적 재조정은 거대한 에너지 변화와 물질 변형을 동반한다. 죽은 항성과 충돌하는 것은, 광범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는 데 특히 영향을 미친다. 충돌로 생기는 파편은, 나중에 행성 본체들이 필사자 거주지에 알맞게 형성되도록, 물질 핵을 종종 구성한다.

15:5.13 (172.1) 10. *건축양식 세계*. 너희 지방우주의 본부인 살빙톤, 그리고 우리 연방우주 정부의 소재지인 우버사처럼,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계획과 명세서{明細書}에 따라서 세워진 세계다.

15:5.14 (172.2) 항성을 진화시키고 행성을 분리시키는 수많은 다른 기법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별 체계와 행성 집단이 실존하게 되는 방식을 암시한다. 별이 변질되고 행성이 진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다양한 기법을 적으려고 시도하려면, 거의 100가지 다른 방식으로 항성이 형성되고 행성이 기원되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너희 별 연구자들이 하늘을 살펴보면, 별이 진화하는 이 모든 형식을 알려주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지만, 빛나지 않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의 형성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인데, 이 덩어리들은 광대한 물질 창조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거주 행성으로 이용된다.

6. 공간의 구체

15:6.1 (172.3) 기원에 상관없이, 공간의 다양한 구체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로 구분된다:

15:6.2 (172.4) 1. 항성 --공간의 별들.

15:6.3 (173.1) 2. 공간의 흑암 섬들.

15:6.4 (173.2) 3. 사소한 천체 --혜성, 운석, 및 미행성체{微行星體}들.

15:6.5 (173.3) 4. 인간거주 세계들을 포함하는 행성들.

15:6.6 (173.4) 5. 건축양식 구체 --이상적{理想的}으로 적절한 세계들.

15:6.7 (173.5) 건축양식 구체들을 제외하고, 모든 천체는 진화로 기원돼 왔는데, 신격의 명령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진화적이고, 신격이 창조한 지성체 및 결말에 이른 지성체 가운데 다수의 작동을 통한 시_공간 기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펼쳐져 왔다는 의미에서 진화적이다.

15:6.8 (173.6) **항성.** 이것은 공간에서 모든 다양한 실존 단계에 있는 별이다. 더러는 홀로 진화하는 공간 체계이며;더러는 이중적 별, 즉 수축하거나 없어지는 행성 체계다. 공간의 별은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상태와 단계로 존재한다. 너희는, 열을 동반하며 빛을 내는 항성에 익숙하지만;열없이 빛나는 항성도 있다.

15:6.9 (173.7) 평범한 항성 하나가 열과 빛을 수조{兆} 년 동안 계속 방출한다는 사실이, 각 물질 단위가 포함하는 에너지의 방대한 저장량을 잘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입자 속에 저장된 실제 에너지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타오르는 항성 내부에 널리 퍼지는 엄청난 열 압력 및 연합된 에너지 활동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에너지는 거의 전부 빛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조건 아래에서, 이 항성들은 확립된 공간 회로에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공간 에너지 대부분을 변형시키고 방출해 낼 수 있게 한다. 항성 발전기가, 물질 에너지의 여러 국면과 물질의 모든 형태를 끌어들이고, 그런 후에 나눠준다. 항성은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지방 가속기{加速機}로 활동하는데, 자동 동력_통제소 역할을 한다.

15:6.10 (173.8) 오르본톤 연방우주는, 10조가 넘는 타오르는 항성의 빛을 받고 가열된다. 이 항성들은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 천체 체계에 속하는 별이다. 2조 이상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작아서, 유란시아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총괄우주에는, 너희 세상의 바닷물을 잔에 담을 때 그 잔의 개수만큼 많은 항성이 있다.

15:6.11 (173.9) *공간의 흑암 섬*. 이것은 죽은 항성, 그리고 빛과 열이 없는 물질의 거대한 기타 집합체다. 흑암 섬은 때로

거대한 덩어리이고, 우주 평형과 에너지를 다룰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큰 덩어리들 가운데 일부의 밀도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거대하게 농축된 이 덩어리가 이 흑암 섬들로 하여금 강력한 평형 원동력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웃에 있는 큰 체계들을 효과적인 끈으로 붙잡는다. 이것들은 많은 성좌에서 인력의 힘 균형을 유지하며;이것들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항성들 속으로 빠르게 파괴돼서 들어갈 많은 물리 체계들이, 이 보호 흑암 섬들의 인력 지배 속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다. 이 기능 때문에, 우리는 흑암 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내는 본체의 인력 작용을 측정해 왔으며, 따라서 공간의 흑암 섬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정한 체계를 그 진로 안에 안정되게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15:6.12 (173.10) **보조 천체**. 공간에서 떠돌며 진화하는 물질인 유성 및 다른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와 물질 내용물로 이뤄진 막대한 집합체를 구성한다.

15:6.13 (173.11) 많은 혜성{彗星}은, 항성을 탄생시킨 모체 회전구름이 낳은 정착되지 않은 야생 자손인데, 중앙에서 지배하는 항성 통제 아래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혜성은 또한 수많은 다른 기원을 갖는다. 혜성의 꼬리는, 잡아당기는 본체 또는 항성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데, 크게 팽창된 기체의 전기적 반작용 때문이고, 항성에서 방사되는 빛 그리고 다른 에너지의 실제 압력 때문이다. 이 현상은 빛의 실체 및 그와 관련된 에너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빛이 무게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빛은 실재하는 물질이고, 단순히 가정적{假定的}인 에테르 파동이 아니다.

15:6.14 (173.12) **행성.** 이것은 항성 또는 어떤 다른 천체 주변 궤도를 따라가는 물질 중에서 비교적 큰 집합체이며;행성의 크기는 작은 행성으로부터 거대한 기체나 액체 또는 고체의 구체에까지 이른다. 떠도는 공간 물질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세계들은, 우연히 가까이에 있는 항성과 적당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지성 있는 거주민을 보호하기에 더 이상적인 행성이다. 대체로, 식어버린 항성은 생명체에 적합하지 않으며;활기 있고

빛나는 항성으로부터 대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부피가 너무 크며;중력이 표면에서 엄청나게 크다.

15:6.15 (173.13) 너희 연방우주의 경우에, 40개 중에서 한 개의
차가운 행성에는 너희 계층의 존재가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과도하게 가열된 항성과, 가장자리의
얼어붙은 세계는, 고등 생명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희 태양계에서는, 현재 세 개의 행성만이 생명체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유란시아는 크기와 밀도와 위치 등,
많은 점에서 인간 거주지로 이상적이다.

15:6.16 (173.14) 물리적_에너지 행태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개별 행성 및 지역 체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환경에는 국지적 영향력이 많이 작용한다. 거의 끝없이
다양한 피조 생명체 및 기타 살아있는 물질화 현상이, 셀
수 없이 많은 공간 세계의 특징이다. 아무튼, 주어진 어떤
체계 안에서 한 집단으로 연합된 세계들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으며, 한편 지성 생명체의 우주 원형도 있다.
동일한 물리 회로에 속하는 행성 체계들 사이에는 물리적
관계가 있으며, 우주들의 궤도 둘레를 끝없이 회전하면서
서로 가깝게 따라간다.

7. 건축양식 구체

15:7.1 (174.1) 각 연방우주 정부는, 공간 구획{區劃}에 속하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중심 근처에서 주관하는데, 그 정부는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세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인된 인격체들이 거기에 산다. 이 본부 세계는 건축양식{建築樣式} 구체, 즉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이하게 구축된 천체다. 이 구체들은, 가까이 있는 항성들의 빛을 공유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조명되고 따뜻하게 된다. 각각에는 낙원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열없이 빛을 발하는 하나의 항성이 있고, 동시에 구체 표면 가까이에 있는 어떤 에너지 흐름의 순환으로 열이 공급된다. 이 본부 세계들은, 각 연방우주의 천문적{天文的} 중심 주변에 위치한 더 큰 체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15:7.2 (174.2) 시간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표준화돼 있다. 오르본톤 연방우주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30일에 해당하고, 오르본톤의 1년은 100표준일이다. 이 우버사의 한 해가 일곱째 연방우주에서 표준이 되고,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0일보다 22분 짧은데, 너희의 햇수로 따질 때 약 8과 5분의 1년이 된다.

15:7.3 (174.3) 일곱 연방우주의 본부 세계들은, 완전한 중심 원형{原型}인 낙원의 본성과 웅장함을 따른다. 실제로, 모든 본부 세계는 낙원 같은 곳이다. 본부 세계들은 정말로 하늘의 거주지이고, 예루셈으로부터 중앙 섬에 이르기까지, 물질 크기, 모론시아 아름다움, 그리고 영{靈} 영광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런 본부 세계의 모든 위성 역시 건축양식 구체다.

15:7.4 (174.4) 다양한 본부 세계에는, 각 국면의 물질적 및 영적 창조물이 제공된다. 모든 종류의 물질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존재가 우주들의 이 집결지 세계에서 편히 지낸다. 필사 피조물은, 우주를 상승할 때, 물질 영역으로부터 영적 영역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이 전에 실존했던 수준의 환경에 대한 감상과 즐거움을 잊지 않는다.

15:7.5 (174.5) *예루셈*은, 너희 사타니아 지역 체계의 본부인데, 과도기 문화에 속하는 일곱 세계를 거느리고 있으며, 각각은 일곱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중에는 모론시아 상태로 머무는 일곱 맨션 세계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후의 첫 거주지다. 하늘이라는 말이 유란시아에서 사용돼 왔는데, 때로는 이 일곱 맨션 세계를 의미했으며, 첫 맨션

세계는 첫 하늘이라 불리고, 그런 식으로 일곱째까지 계속된다.

15:7.6 (174.6) *에덴시아*는, 너희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의 본부이고, 교제하는 교양과 훈련을 담당하는 70개 위성을 거느리는데, 상승자들은 인격체를 활성화하고 통합하고 실현하는 예루셈 체제를 완결한 후 여기에 머문다.

15:7.7 (174.7) *살빙톤*은, 너희 네바돈 지방우주의 수도인데, 10개 대학{大學} 무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각 대학 무리마다 49개의 구체로 이뤄져 있다. 사람은 자신의 성좌에서 사교 과정을 마친 후에 여기서부터 영성화 된다.

15:7.8 (174.8) *제3 U_ 소구역*은, 너희 엔사 소구역의 본부인데, 상승한 생명체에 대한 비교적 높은 물리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곱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15:7.9 (174.9) *제5 U_ 대구역*은, 너희 스프랜돈 대구역의 본부인데, 연방우주의 진보하는 지적 훈련에 속하는 70개의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15:7.10 (175.1) *우버사*는, 너희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본부인데, 의지를 가진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진보된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일곱 개의 고등 대학으로 바로 둘러싸여 있다. 놀라운 구체들로 구성된 이 일곱 집단은, 각각 70개의 특화된 세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 세계들은 우주 훈련 및 영 문화에 헌신된, 수천에 이르는 층만한 연구소와 조직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교육받고 다시 검증받는다. 시간세계로부터 도착하는 순례자는, 연합된 이 세계들에서 언제든지 받아들여지지만, 떠나가는 졸업생은 항상 우버사 연안{沿岸}에서 직접 하보나를 향해 파송된다.

15:7.11 (175.2) 우버사는, 대략 1조에 이르는 인간거주 또는 인간거주 가능 세계를 위한 영적 및 경영 본부다. 오르본톤 수도{首都}의 영광과 장려함과 완전성은, 시_공간 창조계 가운데 어떤 경이로움보다 뛰어나다.

15:7.12 (175.3) 계획된 지방우주들 및 그 구성 부분 전체가 확립되면, 일곱 연방우주에는 5천억 개보다 약간 적은 건축양식 세계가 있게 될 것이다.

8. 에너지 통제와 규제

15:8.1 (175.4) 연방우주의 본부 구체는, 그 다양한 구역을 위한 효과적인 동력_에너지 조절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축됐는데, 연방우주를 구성하는 지방우주들을 향해 에너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초점으로서 이바지한다. 본부 구체들은, 조직된 공간을 통해서 순환하는 물리적 에너지를 균형잡고 통제하는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15:8.2 (175.5) 그 이상의 규제 기능은 연방우주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수행하는데, 그들은 이 명백한 목적을 위해서 선정된 활기찬 지성 실재와 약간활기찬 지성 실재다. 이 동력 중심과 통제관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며;낮은 계층은 자발적이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고, 선택할 수 없으며, 기능은 매우 지성적이지만 외견상 자동적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에 내재돼 있다. 연방우주의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은, 인력세력 영역을 구성하는 30개의 에너지 체계를 지휘하고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일을 맡는다. 우버사의 동력 중심들이 경영하는 물리적_에너지 회로는, 연방우주를 한 바퀴 다 돌기까지, 9억 6,800만 년보다 약간 더 걸린다.

15:8.3 (175.6)

진화하는 에너지는 구성요소가 있으며;무게가 있는데, 무게는 회전 속도, 질량, 및 반인력{反引力}에 항상 비례해서 달라진다. 물체의 질량은 에너지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으며;어디든지_나타나는 에너지 속도는:처음에 주어진 속도에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질량으로 인한 감속을 빼고, 연방우주의 살아있는 에너지 통제관들의 규제 기능, 그리고 가까이에 고도로 가열되거나 무거운 전하{電荷}를 띤 본체들의 물리적 영향을 더한 것이다.

15:8.4 (175.7)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주 계획은, 작은 물질 단위{單位}들을 늘 만들고 부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다양한 양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억류하거나, 또는 팽창하고 방출시키는 역량을 갖고 있다.

15:8.5 (175.8)

지연시키는 영향력에 충분한 지속기간이 주어지면,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없을 때, 인력은 결국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것인데: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에너지 통제관들의 반인력{反引力} 영향력 때문이고, 둘째로, 아주 뜨거운 별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아래서, 그리고 응축된 물질로 이뤄지고 큰 에너지를 가진 차가운 물체 근처의 공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조건 아래서, 조직된 물질이 부서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5:8.6 (176.1) 덩어리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되고, 에너지가 균형을 깨뜨리고 물리적 동력 회로들을 고갈시킬 위험이 있을 때, 공간에 있는 거대한 죽은 별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서, 누적된 인력의 집합을 한 순간에 완전히 분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지나치게 물질화 하는 인력 자체의 계속적인 경향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물리 통제관들이 개입한다. 이런 충돌 사건에서 물체의 막대한 중량은,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에너지로 갑자기 변환되며, 우주의 평형을 위한 투쟁이 새롭게 시작된다. 결국에는 큰 물리 체계들이 안정을 이루게 되고, 물리적으로 정착되며, 연방우주들의 균형이 잡히고 확립된 회로들 속으로 회전해 들어간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런 확립된 체계들에서는, 충돌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다른 격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5:8.7 (176.2) 에너지가 증가하는 세월 동안에는, 동력 교란과 열 변동이 전기{電氣} 형태화를 동반한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세월 동안에는, 물질이 집합하고 응축하며, 아주 절묘하게 균형 잡힌 회로들에서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그 결과로,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조정 또는 충돌하는 조정이 따라오며, 이것은 순환하는 에너지와 더 실질적으로 안정된 물질 사이의 균형을 재빨리 회복시킨다. 타오르는 항성들과 우주의 흑암 섬들의 습성이 될 만한 것을 예측하는 것과 그밖에 이해하는 것은, 천상의 별 관찰자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15:8.8 (176.3) 우리는 우주 평형을 다스리는 법칙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고 우주 안정성에 대해 많이 예측할 수 있다. 실용적으로, 우리의 예측은 신뢰할 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에너지 통제와 물질 행태의 법칙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어떤 힘과 항상 대면하게 된다. 우리가 낙원에서 밖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낙원 통치자들이 직접 경영하는 경계선 너머를 지나갈 때, 우리는 확립된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근처에 있는 천문학상 체계들의 물리적 현상을 독자적으로 취급해 온 관측과 관련하여 획득된 체험에 따라서, 계산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 직면한다. 심지어 일곱 연방우주

영역에서도 우리는 힘 작용과 에너지 반응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작용과 반응은 우리 영토 전체에 충만하고, 외부 공간의 모든 지역 전반에 걸쳐서 통합된 평형 상태로 확장돼 있다.

15:8.9 (176.4) 밖으로 멀리 나갈수록, 우리는 절대자들과 체험 신격들의 심오한 현존_실행의 매우 정확한 특질인, 변화하는 현상과 예측할 수 없는 현상에 점점 더 확실하게 부딪힌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보편적 전면통제를 암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15:8.10 (176.5) 오르본톤 연방우주는 지금 외견상 쇠약해지고 있으며;외부 우주들은 전례 없는 미래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중앙 하보나 우주는 영원히 안정돼 있다. 인력과 열의 부재가(차가움이) 물질을 함께 조직하고 붙잡으며;열과 반인력{反引力}은 물질을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활기찬 동력 지휘자들과 힘 조직가들은, 우주를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끝없는 변형을 특별하게 통제하고 지성적으로 지시하는 비밀장치다. 성운들은 흩어지고 항성들은

타버리고 체계들은 사라지고 행성들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주들은 쇠퇴하지 않는다.

9. 연방우주 회로

15:9.1 (176.6) 낙원의 보편적 회로{回路}들이 일곱 연방우주 영역에 실제로 퍼져 있다. 이 현존 회로들은: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인력{引力}, 영원한 아들의 영적 인력,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 그리고 영원한 섬의 물질 인력 등이다.

15:9.2 (177.1) 보편적 낙원 회로들 외에, 그리고 절대자들 및 체험 신격들의 현존_실행 외에, 연방우주 공간 층에서는 오직 두 에너지_회로 분야 또는 동력 분리 즉:연방우주 회로와 지방우주 회로가 작용한다.

15:9.3 (177.2) *연방우주 회로:*

15:9.4 (177.3) 1. 낙원의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통합하는 정보 회로. 그런 시공우주_정신 회로는 단일 연방우주에 제한돼 있다.

15:9.5 (177.4) 2. 각 연방우주에 있는, 일곱 명의 반사하는 영의 반사하는_봉사 회로.

15:9.6 (177.5) 3.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에게, 디비닝톤이 어떤 방법으로 상호연합시키고 발송하는, 신비 관찰자들의 비밀 회로들.

15:9.7 (177.6) 4.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들들과 상호친교하는 회로.

15:9.8 (177.7) 5. 무한한 영의 순간적 현존.

15:9.9 (177.8) 6. 낙원의 발송, 즉 하보나의 공간 보고서.

15:9.10 (177.9) 7. 동력 중심들과 물리 통제관들의 에너지 회로.

15:9.11 (177.10) *지방우주 회로:*

15:9.12 (177.11) 1. 낙원 아들들의 증여의 영, 증여되는 세계들의 위로자. 진리의 영, 유란시아에서는 미가엘의 영.

15:9.13 (177.12) 2. 신성한 사역자들의 회로,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 너희 세계의 거룩한 영.

15:9.14 (177.13) 3. 다양하게 작용하는 보조 정신_영들의 현존을 포함하여, 지방우주의 지성_사역 회로.

15:9.15 (177.14) 지방우주에 그런 영적 조화가 발전해서, 지방우주의 개별 및 혼합 회로들이 연방우주의 회로들로부터 구분될 수 없게 되면, 그런 기능 정체성과 하나 된 보살핌이 실제로 지배하게 되면, 지방우주는 빛과 생명의 정착된 회로들로 즉시 돌입하는데, 연방창조물의 완성된 합동이라는 영적 동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즉시 갖추게 된다. 태고 항존자들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허락되는 조건, 연방우주 동맹 안에서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5:9.16 (177.15) 1. *물리적 안정성*. 지방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평형상태에 있어야만 하며;즉각적인 별 변질기간이 끝나야만 한다. 우주는 분명한 행로를 따라서 진행해야만 하며;그 궤도는 안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착되어야만 한다.

15:9.17 (177.16) 2. *영적 충성심*. 그런 지방우주 직무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자 아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만 한다. 전체 지방우주의 개별 행성, 체계, 및 성좌{星座}들 사이에 조화로운 협동 상태가 이뤄져야만 한다.

15:9.18 (177.17) 너희 지방우주는 연방우주의 정착된 물리 계층에 소속될 정도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영적 집단 회원으로 남기에는 더욱 부족한 상태에 있다. 비록 네바돈이 우버사에 아직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우버사에서 유란시아로 직접 온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우주 정부에 속한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네바돈의 여러 세계에 파송된다. 너희를 지휘하는 자들과 통치하는 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며;너희 우주가 연방우주 집단의 연합된 창조계 안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큼 자격을 갖추기를 고대하고 있다.

10. 연방우주 통치자

15:10.1 (178.1) 연방우주 본부는, 시_공간 영토의 높은 영적 정부가 있는 곳이다. 연방정부의 행정 분야는, 삼위일체 위원회에서 기원되고, 최상으로 감독하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이 직접 지휘하는데, 그들은 낙원 권세를 가진 자리에 앉아서, 무한한 영의 일곱 특별 세계, 즉 낙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위성들에 배치된 일곱 지존 행정가를 통해서 연방우주들을 경영한다.

15:10.2 (178.2) 연방우주 본부는, 반사하는 영과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중간 위치로부터, 이 기이한 존재들이 자신의 엄청난 반사성을 작동시키며, 위로는 중앙우주를, 그리고 아래로는 지방우주들을 그렇게 보살핀다.

15:10.3 (178.3) 연방정부의 공동 최고 행정관인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각 연방우주를 관장한다. 연방우주 정부의 요원은, 그 행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다른 집단을 구성한다:

15:10.4 (178.4) 1. 태고 항존자들.

15:10.5 (178.5) 2. 지혜 완성자들.

15:10.6 (178.6) 3. 신성한 조연자들.

15:10.7 (178.7) 4. 우주 검열관들.

15:10.8 (178.8) 5. 강력한 사자들.

15:10.9 (178.9) 6. 권세 높은 이들.

15:10.10 (178.10) 7.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

15:10.11 (178.11) 세 태고 항존자는 10억 명의 지혜 완성자 단체의 직접 도움을 받는데, 30억 명의 신성한 조연자가 그들과 연합돼 있다. 10억 명의 우주 검열관이 각 연방우주 경영에 배속돼 있다. 이 세 집단은 협조하는 삼위일체 인격체인데, 낙원 삼위일체에서 직접 신성하게 기원된다.

15:10.12 (178.12) 나머지 세 계층, 즉 강력한 사자들과 권세 높은 이들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영화롭게 된 상승한 필사자다. 이 계층 중에서 첫째는 상승 체제를 통해 올라왔고, 그랜환다의 시대에 하보나를 거쳐서 지나갔다. 낙원에 도달하고 나서, 그들은 완결성취 단체에 모집됐고, 낙원 삼위일체가 받아들였으며, 그 후에 태고 항존자들의 숭고한 업무에 배정됐다. 등급{等級}으로 볼 때, 이 세계층은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로 알려지는데, 이중{二重} 기원에 해당되지만 지금은 삼위일체 업무에 속해 있다. 그리하여 연방우주 정부의 행정 분야는, 영화롭게 되고 완전하게 된 진화 세계 자녀를 포함할 정도로 확장됐다.

15:10.13 (178.13) 대등한 연방우주 협의회는, 앞에서 이름이
거론된 일곱 행정 집단과 다음의 구역 통치자 및 다른 지역
감독들로 구성돼 있다:

15:10.14 (179.1) 1. 완전성{完全性} 항존자{恒存者}들 --연방우주
대구역들에 대한 통치자.

15:10.15 (179.2) 2. 최근{最近} 항존자들 --연방우주 소구역들에
대한 지휘자.

15:10.16 (179.3) 3. 합동{合同} 항존자들 --지방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자문가.

15:10.17 (179.4) 4. 충실{忠實} 항존자들 --성좌 정부의 지고자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상담자.

15:10.18 (179.5) 5. 연방우주 정부에서 근무하게 될 기회가 있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15:10.19 (179.6) 6. 연방우주 본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영원{永遠} 항존자들.

15:10.20 (179.7)

7. 일곱 명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일곱 반사하는 영 대변인들, 그리고 이들을 통한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대표자들.

15:10.21 (179.8)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은, 연방우주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현재는 여러 이유로 인해 자신의 개별 수용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되는 존재는: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연방우주 인격체 현현{顯現},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 궁극자의 조건적 대리인들, 위엄자{威嚴者}의 무명의 연락 반사자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인격을_초월한 영 대표자들이다.

15:10.22 (179.9)

창조된 존재로 구성된 모든 집단의 대표자들을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서 거의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연방우주의 일상적인 보살피는 작업은, 전능한 제2스라빔, 그리고 무한한 영의 광대한 집단에 속하는 다른 요원들이 수행한다. 연방우주 경영, 통제, 원조{援助}, 및 행정적 판단을 수행하는 이 놀라운 중심지의 업무에서, 보편적 생명체가 있는 모든 구체의 지성체들이, 효과적인 봉사,

현명한 경영, 사랑스런 보살핌, 그리고 공정한 심판에
관여한다.

15:10.23 (179.10) 연방우주들은 어떤 종류의
대표사절{代表使節}도 유지하지 않으며;그들은 서로
완벽하게 격리돼 있다. 그들은 일곱 으뜸 영이 유지하는
낙원 정보집배소{情報集配所}를 통해서만 서로의 직무를
안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고유한
연방우주 복지를 위해서만 신성한 지혜 협의회에서
일한다. 연방우주들의 이런 격리는, 진화하는 체험적인
지존하신 분의 인격체_주권이 완전히 사실화됨으로
연방우주들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11. 심의회

15:11.1 (179.11) 완전한 전제정치와 진화하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우버사 같은
그런 세계에서다. 연방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분야는
완전한 영역들에서 지원되며;입법{立法}을 담당하는
분야는 진화 우주들이 개화{開花}하면서 싹튼다.

15:11.2 (179.12)

연방우주 심의회{審議會}는 본부 세계로 제한된다. 이 입법 협의회, 즉 자문하는 협의회는 일곱 원{院}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우주 협의회에 받아들여진 모든 지방우주마다, 각 원에 보낼 원주민 대표자 하나를 선출한다. 그런 지방우주의 높은 협의회가, 하보나로 이동하도록 공인{公認}되고 우버사에 머물고 있는, 오르본톤의 상승하는_순례자 졸업생 가운데서 이 대리인들을 선택한다. 평균 봉사 기간은 연방우주 표준시간으로 약 100년이다.

15:11.3 (180.1)

오르본톤 행정관과 우버사 집회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우리 연방우주 역사에서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행정 부서가 수행하기를 망설일만했던 어떤 충고도, 심의 기관이 내보낸 적이 전혀 없었다. 가장 온전한 일치와 실제 동의가 항상 지배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된 최고의 지혜를 진화 존재들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온전한 기원과 신성한 본성을 지닌 인격체들과 사귀도록 한다. 여러 심의회가 연방우주 본부에 현존함이,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아들의 전체적인 방대한 진화

개념에 담긴 지혜를 드러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시한다.

12. 최고 재판소

15:12.1 (180.2) 우리가 우버사 정부의 행정 및 심의{審議} 부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셋째 부서, 즉 사법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는 특정한 형태의 유란시아 시민 정부의 유사점에서 추론할 수 있겠지만;사법부는 별도의 인원을 갖지는 않는다. 우리의 법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사건의 본질과 중대함에 따라서, 한 명의 태고 항존자, 한 명의 지혜 완성자, 또는 한 명의 신성한 조언자가 주관한다. 개인, 행성, 체계, 성좌, 또는 우주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물이 제시되고, 검열관들이 해석한다. 시간세계의 자녀들과 진화 행성들에 대한 변론은 강력한 사자들이 제공하는데, 강력한 사자는 지방우주 및 지역 체계들에 대한 연방우주 정부의 공식 감시자다. 상위{上位} 정부의 입장은 권세 높은 이들이 대변한다. 그리고 대개 판결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 그리고 그 심의회에서 선택된 이해하는 인격체 집단이 동수{同數}로 구성하는, 다양한 크기의 위원회에서 작성된다.

15:12.2 (180.3) 태고 항존자 법정은, 구성하는 우주 전체의 영적 판결을 위한 높은 재심{再審} 재판소다. 지방우주의 주권자 아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높으며;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소멸을 포함하는 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고 항존자들의 조언 또는 판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한에서만 연방정부에 종속된다. 판결하는 명령은 지방우주들에서 시작되지만, 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소멸을 포함하는 선고문{宣告文}은, 반드시 연방우주 본부에서 작성되고 거기서 집행된다. 지방우주 아들들이 필사적 사람의 생존에 대해 판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태고 항존자들만이 행정 심판석에 앉을 수 있다.

15:12.3 (180.4) 심리, 즉 증거물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태고 항존자들 또는 그 동역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이 판결은 항상 만장일치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성에 속하는 협의회들을 다루고 있다. 이 최상의 최고 법정이 내리는 판결에는 불일치가 없고 사소한 의견도 없다.

15:12.4 (180.5) 거의 예외 없이, 연방정부들은 그들 각각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존재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연방우주 당국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항소는 발생되지 않는데, 이는 태고 항존자들, 그리고 관계된 연방우주의 운명을 낙원으로부터 관장하는 으뜸 영의 일치된 의견을, 연방우주 당국이 대표하기 때문이다.

13. 구역 정부

15:13.1 (181.1) *대구역*은 한 연방우주의 약 10분의 1로 이뤄지며, 100개의 소구역, 10,000개의 지방우주, 약 1,000억 개의 인간 거주 가능 세계로 구성된다. 세 명의 완성 항존자, 즉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이 이 대구역을 경영한다.

15:13.2 (181.2) 완성 항존자들의 법정은, 그들이 그 영역에 대한 영적{靈的} 심판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태고 항존자의 법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다. 이 대구역 정부의 업무는, 광범위한 창조물의 지적{知的} 상태에 주로 관여한다. 대구역은, 태고 항존자의 법정에 보고하기 위해서, 영역의 영적 경영 또는 낙원 통치자들의 필사자_상승 계획에 대한 외부작업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상적이고 경영적인 본성을 갖는 연방우주

중요성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보류하고 판결하며 시행하고 기록한다. 대구역 정부 요원은 연방우주의 요원과 다르지 않다.

15:13.3 (181.3) 우버사의 장엄한 위성들이 하보나를 향한 너희의 최종 영적 준비에 관여하는 것처럼, 제5 U_ 대구역의 70개 위성도 너희 연방우주의 지적 훈련과 발달에 기여한다. 전체 오르본톤에서, 영원한 생애를 향하여 더욱 진보하도록 시간세계의 필사자를 준비시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현명한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에 대한 이 훈련 대부분은, 70개 연구{研究} 세계에서 수행된다.

15:13.4 (181.4) 소구역 정부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가 관장한다. 그들의 행정부는, 구성하고 있는 지방우주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統制}, 통합, 안정, 및 경영의 일상적 협조에 주로 관련된다. 각 소구역마다 100개의 지방우주, 1만 개의 성좌, 100만 개의 체계, 또는 약 10억 개에 달하는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한다.

15:13.5 (181.5) 소구역 본부 세계는 총괄 물리 통제관의 거대한 집결지{集結地}다. 이 본부 세계들은, 연방우주로

들어가게 하는 학교인, 7개의 훈육 구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구체들은 온갖 우주에 관한 물리적 및 경영적 지식을 위한 훈련 중심지다.

15:13.6 (181.6) 소구역{小區域} 정부 경영자들은 대구역 통치자들의 직접 관할권 아래에 있다. 최근 항존자들은, 관측된 모든 보고를 받고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 삼위일체 관찰자 및 자문가로서 머물고 있는 합동 항존자로부터, 그리고 성좌 본부에 있는 지고자로 구성된 협의회에 비슷하게 배속된 충실 항존자로부터 연방우주로 올라온 모든 충고를 조화시킨다. 그런 모든 보고서는 대구역에 있는 완성 항존자에게 발송되고, 그 후에는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전달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체제는 지방우주 성좌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지역 체계 본부에는 삼위일체 대리인{代理人}이 없다.

14. 일곱 연방우주의 목적

15:14.1 (181.7) 일곱 연방우주의 진화에는, 일곱 가지 주요 목적이 펼쳐지고 있다. 연방우주 진화에서 각각의 주요 목적은,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에서만 가장 충분하게

표현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각 연방우주는 특별한 기능과 독특한 본성을 갖는다.

15:14.2 (182.1) 너희 지방우주가 소속된, 일곱째 연방우주 오르본톤은, 주로 그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에게 엄청나게 아낌없이 자비로운 보살핌을 베푸는 것 때문에 이름이 알려져 있다. 자비로 부드러워지면서 정의가 지배하고, 인내로 조절되면서 능력이 통치하는 방법 때문에 유명하고, 한편 영원한 안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오르본톤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우주 예증이다.

15:14.3 (182.2) 아무튼, 오르본톤에 계시되는 진화의 목적의 참된 본질에 대한 우리 생각을 설명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연합된 여섯 연방창조물에 명시된 시공우주 진화의 독특한 여섯 가지 목적이, 여기서 하나의 전체적_의미로서 상호연결되고 있음을 이 연방창조물에서 느낀다는 것이며;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진화되고 인격화가 완성된 지존자 하나님이 먼 훗날에, 우버사로부터, 그때 달성된 전능한 주권적 능력의 모든

체험적 주권으로, 완성된 일곱 연방우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때때로 어림짐작 해왔다.

15:14.4 (182.3) 오르본톤이 본질적으로 독특하고 개별 운명을 갖는 것처럼, 오르본톤과 관계된 여섯 개의 각 연방우주 역시 그렇다. 아무튼 오르본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많이 계시되지 않았으며, 오르본톤 생애 중에 계시되지 않은 이 특색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다른 어떤 연방우주에서 가장 완성된 표현을 찾게 된다. 연방우주 진화의 일곱 가지 목적이 전체 연방우주 전반에 걸쳐 유효하지만, 각 연방창조물은 이 목적들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만 가장 충분한 표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연방우주 목적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이 계시될 것이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너희는 거의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 전체는 끝없는 창조를 얼핏 훑어본 것에 불과하며, 너희 세계와 지역 체계는 그 창조의 일부분이다.

15:14.5 (182.4) 너희의 세계는 유란시아라고 불리며, 사타니아 행성 집단, 즉 사타니아 체계에서 606_번이다. 이 체계에는, 현재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있고, 200개

이상의 추가 행성이 어떤 미래 시기에 인간거주 세계가 되도록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다.

15:14.6 (182.5) 사타니아에는 예루셈이라고 불리는 본부 세계가 있고, 체계 번호는 노라티아덱 성좌 안에서 24_번이다. 너희의 노라티아덱 성좌는 100개의 지역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에덴시아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노라티아덱은 네바돈 우주에서 70_번이다. 네바돈 지방우주는 100개의 성좌로 구성되어 있고, 살빙톤이라고 알려진 수도를 갖고 있다. 네바돈 우주는 엔사 소구역 안에서 84_번이다.

15:14.7 (182.6) 엔사 소구역은 100개의 지방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제3 U_ 소구역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수도를 갖고 있다. 이 소구역은 스프랜돈 대구역에서 3_번이다. 스프랜돈은 100개의 소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 U_ 대구역이라고 부르는 본부 세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광우주의 일곱째 부분인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다섯째 대구역이다. 너희는 온갖 우주의 조직과 경영의 짜임새 안에서 너희 행성의 위치를 그렇게 알아볼 수 있다.

15:14.8 (182.7) 너희 세계인 유란시아의 광우주 번호는 5,342,482,337,666_번이다. 이것은 우버사와 낙원에 등록된 번호, 즉 인간거주 세계들에 대한 목록에서 너희의 번호다. 나는 물리적_구체의 등록 번호를 알지만, 그것은 인간 정신에게 실제로 별 의미 없는 그런 특이한 크기에 해당한다.

15:14.9 (183.1) 너희의 행성은 거대한 시공우주의 일원이며;너희는 거의 무한한 세계들의 집단에 속해 있고, 전체 실존 안에서 마치 유일한 인간거주 세계인 것처럼, 정확하게 경영되고 사랑으로 양육되고 있다.

15:14.10 (183.2) [우버사에서 온, 우주 검열관이 제시했음]

제16편 일곱 으뜸 영

16:0.1 (184.1)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은,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체들이다. 무한한 영은, 신격의 세 인격자라는 실제 실존에 수학적으로 내재된 연합 가능성을, 자기_복제{複製}라는 이 칠중 창조 행위에서 다 소모시켰다. 더 많은 숫자의 으뜸 영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창조했겠지만, 정확하게 일곱 가지

연합 가능성만 있고, 세 신격에게는 오직 일곱 가지 가능성만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가 왜 광범한 일곱 구획으로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며, 7이라는 숫자가 왜 그 조직과 경영에 기본적으로 토대를 이루는가를 설명한다.

16:0.2 (184.2) 그래서 일곱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모습에서 기원됐고, 이로부터 개별 특질이 나왔다:

16:0.3 (184.3) 1. 만유의 아버지.

16:0.4 (184.4) 2. 영원한 아들.

16:0.5 (184.5) 3. 무한한 영.

16:0.6 (184.6) 4. 아버지와 아들.

16:0.7 (184.7) 5. 아버지와 영.

16:0.8 (184.8) 6. 아들과 영.

16:0.9 (184.9) 7. 아버지와 아들과 영.

16:0.10 (184.10) 으뜸 영들이 창조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조처를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외견상 그들은 무한한 영이 직접 활동함으로써 실존하게
됐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 그들의 기원에
참여하셨다고 분명하게 배웠다.

16:0.11 (184.11) 영 성품과 본성에서 낙원의 이 일곱 영은
하나처럼 존재하지만, 다른 모든 정체성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며, 연방우주들에서 그들이 활동한 결과는, 각각의
개별 차이가 반드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다. 광우주의 일곱
부분에 대한 이후계획 전체는--그리고 심지어 외부 공간의
서로 연관된 부분들조차, 최상의 궁극적인 감독을 하는, 이
일곱 으뜸 영의 영적이지_않은_다른 다양성에 따라서
조절돼 왔다.

16:0.12 (184.12) 으뜸 영들은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그들의 특유한 분야는, 일곱 연방우주를 중심에서
감독하는 것이다. 각각의 으뜸 영은 거대한 힘_초점
본부를 유지하는데, 이 본부는 낙원 주변지역을 서서히
돌고 있으며, 직접 감독하는 연방우주의 맞은편에, 그리고
특화된 그 동력{動力}을 통제하고 부분 에너지를
분배하는 낙원 초점에, 항상 자리를 유지한다. 어떤 한

연방우주의 방사{放射} 형태 경계선이든지, 감독하는 으뜸 영의 낙원 본부에 실제로 모아진다.

1. 삼자일체 신격에 대한 관계

16:1.1 (185.1) 공동 창조주, 즉 무한한 영은, 분화되지 않은 신격이 삼자일체{三者一體} 인격화를 완성하는 데 필수다. 이 삼중 신격 인격화는 개별로 또는 연합해서 표현할 가능성으로 볼 때, 내재적으로 칠중{七重}이며;따라서, 지성적이고 잠재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들을 창조하려는 차후 계획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당연히 표현하는데, 일곱 으뜸 영의 인격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는 신격의 삼중 인격화를 *절대 필연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됐고, 한편 일곱 으뜸 영의 출현{出現}을 *준절대 필연성*으로 보게 됐다.

16:1.2 (185.2) 일곱 으뜸 영이 삼중 신격을 표현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칠중 신격의 영원한 초상{肖像}, 즉 신격의 언제나_실존하는 세 인격자가 활동하고 연합하는 기능이다. 이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어떤 이중 연합체든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행동할 때, 그들은 7_번 으뜸 영을 통해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시지만, 삼위일체로서는 아니다. 으뜸 영들은, 단독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가능한 신격 역할 전체 혹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 또는 여러 역할을 대표하지만, 집단을, 즉 삼위일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7_번 으뜸 영은 낙원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직접 활동하지 않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지존하신 분을 위해서 친/하/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16:1.3 (185.3) 그러나 일곱 으뜸 영이 그들 개인의 권능과 연방우주 권세를 갖는 각자의 자리를 비우고, 낙원 신격의 삼자일체 현존 안에서 공동 행위자 주변에 모이게 되면, 그들은 그때 거기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우주들에서, 분화되지 않은 신격의--곧 삼위일체의--기능적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집단으로 대행한다. 신격의 원초적인 칠중 표현에 대한 그런 낙원 합동은, 지존성 안에서 그리고 궁극 안에서, 영원한 세 신격의 각 속성 및 입장 전체를 실제로 포함하는데, 글자 그대로 둘러싸고 있다. 일곱 으뜸 영은, 실용적{實用的} 의향과 목적 전부에

대해, 그때 거기서, 총괄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총괄우주 안에서, 최상급_궁극자의 기능적 영토를 둘러싼다.

16:1.4 (185.4) 우리가 식별하는 한, 이 일곱 영은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자의 신성한 활동과 연합돼 있으며;절대자의 영원한 세 국면에서 활동하는 현존들과 직접 연합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연합됐을 때 유한한 실행 영역이라고 개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으뜸 영들은 낙원 신격들을 대변한다. 이 영역은, 궁극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대부분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 무한한 영에 대한 관계

16:2.1 (185.5)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신성한 아들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영원한 원본 아들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무한하고 신성한 영은, 일곱 으뜸 영 그리고 그들의 연합된 영 집단들의 경로를 통해서 드러난다. 가장 중심에서 무한한 영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낙원에 도달한 모든 존재가 그의 인격체 및 구별된 현존을 즉각 식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그러나 중앙우주에 도달한 모든 존재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 즉 새롭게 도착한 공간

순례자의 고향인 그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으뜸 영과 즉각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16:2.2 (186.1) 낙원 아버지는 온갖 우주에게 오직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며, 한편 낙원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행동하신다. 낙원과 하보나 바깥에서, 무한한 영은 오직 일곱 으뜸 영의 소리로만 말씀하신다.

16:2.3 (186.2) 무한한 영은 낙원_하보나 체계의 경계선 내에서 몸소 현존하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다른 곳에서는, 무한한 영이 몸소 영으로 현존하심은 일곱 으뜸 영 중에서는 한 분이 발휘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발휘된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에서든지 또는 어떤 개인의 경우든지, 제3 근원 및 중심의 연방우주 영 현존은, 그 창조 구획을 감독하는 으뜸 영의 독특한 본성에 따라서 좌우된다. 역으로 말해서, 영 힘 및 지성의 혼합된 계통들은, 일곱 으뜸 영을 거쳐서 신격의 제3 인격자를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16:2.4 (186.3) 일곱 으뜸 영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지존적_궁극적 속성들을 집단으로 부여받았다. 이 재능을 각자가 개별로 갖는 반면, 오직 집단으로 그들은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遍在性}이라는 속성들을 나타낸다.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없으며;개체로서, 지존성과 궁극성의 이 권능을 행사할 때, 직접 감독하는 연방우주에 각자 개인적으로 제한돼 있다.

16:2.5 (186.4) 공동 행위자의 신성과 인격체에 관해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일곱 으뜸 영에게도 동일하게 온전히 적용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신성한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독특한 본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광우주의 일곱 부분에 무한한 영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영의 이름들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일곱 분의 공동 집단에 적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모든 준절대 수준에서는, 그들이 집단으로 공동 행위자와 하나다.

3. 으뜸 영의 정체성과 다양성

16:3.1 (186.5) 일곱 으뜸 영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격있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번호를 사용해서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화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비슷하지만, 삼자일체 신격의 일곱 가지 가능한 연합체에

대한 근본적 표현에서는, 본성에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이 본성의 다양성이 연방우주 운영에 관한 그들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 일곱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6:3.2 (186.6) *1_번 으뜸 영.* 특별한 방식으로, 이 영은 낙원 아버지를 직접 대표한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독특하고 유능한 현현{顯現}이다. 그는 디비닝톤에 있는 인격화된 조율사들의 학부를 관장하는 존재인 신비 관찰자들의 우두머리의 긴밀한 동역자이고 숭고한 자문가다. 일곱 으뜸 영의 모든 연합체들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대변{代辯}하는 이는 언제나 1_번 으뜸 영이다.

16:3.3 (186.7) 이 영은 첫째 연방우주를 관장하며, 무한한 영의 근본 인격화의 신성한 본성을 확실히 나타내는 한편, 무엇보다 성품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그는 첫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일곱 반사하는 영과 항상 직접 접촉한다.

16:3.4 (187.1) *2_번 으뜸 영.* 이 영은 전체 창조 중에서 첫_태생인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품을 적절하게 묘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연히

개인으로서 거주{居住} 우주에 있게 되거나, 기쁨이 넘치는 비밀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경우든지, 그들 가운데 모든 계층과 항상 긴밀하게 연합한다. 그는 일곱 으뜸 영의 모든 집회에서 항상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고 대신한다.

16:3.5 (187.2) 이 영은 2_번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휘하며, 영원한 아들이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대한 영토를 다스린다. 그는 둘째 연방우주 수도에 위치한 일곱 명의 반사하는 영과 항상 접촉한다.

16:3.6 (187.3) 3_번 으뜸 영. 이 영 인격체는 특별히 무한한 영을 닮았고, 무한한 영의 고위{高位} 인격체 가운데 다수의 동향과 업무를 지휘한다. 그는 이들의 집회를 주재{主宰}하고, 제3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독자적으로 기원되는 모든 인격체와 긴밀하게 연합한다. 일곱 으뜸 영이 협의회에 참여할 때, 3_번 으뜸 영이 무한한 영을 항상 대변한다.

16:3.7 (187.4) 이 영은 3_번 연방우주를 책임지며,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지역의 직무를 경영한다. 그는 셋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16:3.8 (187.5) 4_번 으뜸 영. 아버지와 아들의 혼합된 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으뜸 영은 일곱 으뜸 영 협의회에서 아버지_아들 정책과 과정에 관해 결정하는 영향력을 미친다. 이 영은 무한한 영에 이미 도달하고, 그리하여 아들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후보자가 된, 상승하는 존재들에 대한 최고 지휘자 및 자문가{諮問家}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기원되는 인격체들로 이뤄진 거대한 집단을 보살핀다. 일곱 으뜸 영의 연합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대변할 필요가 있게 될 때, 발표하는 이는 항상 4_번 으뜸 영이다.

16:3.9 (187.6)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속성들로 이뤄진 독특한 연합에 따라서, 광우주 가운데 넷째 지역을 돌본다. 그는 넷째 연방우주 본부의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직접 접촉한다.

16:3.10 (187.7) 5_번 으뜸 영.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성품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이 신성한 인격체는,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으로 알려진 거대한 집단의 존재들에 대한 자문가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공동 행위자 안에서 기원되는 모든 인격체를 돌본다. 일곱

으뜸 영 협의회에서, 아버지_영의 입장이 의문일 때, 5_번 으뜸 영이 항상 발언한다.

16:3.11 (187.8)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혼합된 행위를 의미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다섯째 연방우주의 복지{福祉}를 감독한다. 그는 다섯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16:3.12 (187.9) 6_번 으뜸 영.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혼합된 성품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들과 영이 중앙우주에서 만남으로써 피조물이 공동으로 창조될 때마다, 이 으뜸 영이 그들의 자문가이며;일곱 으뜸 영 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6_번 으뜸 영이 대답한다.

16:3.13 (188.1) 이 영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연방우주의 직무를 지휘한다. 그는 여섯째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16:3.14 (188.2) 7_번 으뜸 영. 일곱째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을 특이하게 똑같이 묘사한다. 삼자일체에서_지원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문가를 돌보는 일곱째 영은, 하보나의 상승하는 순례자들 전체에 대한 자문가 및 지휘자이기도 한데, 그 하위 존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혼합된 보살핌을 통해 영광의 궁전에 이미 도달한 자다.

16:3.15 (188.3) 일곱째 으뜸 영이 낙원 삼위일체를 유기적으로 대행하지는 않지만;그의 인격적 및 영적 본성은, 공동 행위자가 무한한 세 인격자를 똑같은 비율로 나타낸 초상 이고, 세 분의 신격 합동이 바로 낙원 삼위일체요, 그와 같은 그들의 기능은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적 및 영적 본성의 근원 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일곱째 으뜸 영은 진화하는 지존자의 영 인격자에 대한 개인적 및 유기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는 으뜸 영 협의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통합된 인격적 입장에 대해서 표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존하신 분의 영적 입장을 묘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동하는 이는 7_번 으뜸 영이다. 그는 일곱 으뜸 영으로 이뤄진 낙원 협의회 의장직을 그렇게 선천적으로 감당하게 된다.

16:3.16 (188.4)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아무도 낙원 삼위일체를 유기적으로 대항하지 않지만, 그들이 칠중 신격으로 결합할 때에는, --인격적 의미에서가 아니라--신격의 의미에서, 이 합동은 삼위일체의 기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능 수준과 동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칠중 영"은 낙원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7_번 으뜸 영은, 때로 삼위일체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발언하거나, 또는 오히려 삼중_신격_연합의 의견, 즉 낙원 삼위일체의 의견에 관해 칠중_영_연합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로서 말씀한다.

16:3.17 (188.5) 일곱째 으뜸 영의 다양한 기능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개인적 본성*에 대한 혼합된 묘사{描寫}로부터, 지존자 하나님의 *개인적 의견*에 대한 대변{代辯}뿐 아니라 낙원 삼위일체의 *신격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양하다. 그리고 관장하는 이 영은 어떤 면에서 궁극자의, 그리고 최상급_궁극자의 *의견*을 비슷하게 표현한다.

16:3.18 (188.6) 지존성을 갖는 나뉘지 않은 신격을 압득하려고 시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후보자들이 시도할 때, 다양한

자격으로 그들의 진행을 직접 후원하는 이는 바로 7_번 으뜸 영이다. 그런 납득은 지존 삼위일체의 실존적 주권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은 피조물이 지존성의 통일을 파악할 정도까지, 지존하신 분의 증가하는 체험적 주권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 이 세 요소를 피조물이 깨닫는 것은 삼위일체 실체를 하보나에서 납득한 것과 같으며, 결국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역량, 즉 신격의 세 무한 인격자를 발견하는 역량을,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게 부여한다.

16:3.19 (188.7) 하보나 순례자들이 지존자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치 못하는 무능력을 일곱째 으뜸 영이 보상해 주는데, 그의 삼자일체 본성은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지존자의 영 인격자를 드러낸다. 지존자의 인격자와 접촉할 수 없는 현 우주 시대 동안, 개인적 관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7_번 으뜸 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작용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가 영광의 중심에 도달할 때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영 존재다.

16:3.20 (189.1) 이 으뜸 영은, 바로 우리의 창조 분단{分團}인 일곱째 연방우주의 우버사 본부의 반사하는 영들과 항상

접촉한다. 오르본톤에 대한 그의 경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한 본성들을 대등하게 혼합한, 경이로운 균형미를 나타낸다.

4. 으뜸 영의 속성과 기능

16:4.1 (189.2) 일곱 으뜸 영은, 진화 우주들에게 무한한 영을 온전히 대변한다. 그들은 에너지, 정신, 및 영의 관계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을 대변한다. 그들은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경영 통제를 협조하는 우두머리로서 작용하지만, 낙원 신격들의 창조적 행위에서 기원됐음을 잊지 말라. 이 일곱 영이 인격화 된 물리적 동력이고, 시공우주 정신이며, 삼자일체 신격의 영적 현존, 즉 “모든 우주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16:4.2 (189.3) 으뜸 영들은, 절대성을 빼고는 실체의 모든 우주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연방우주 활동 가운데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영 직무의 모든 국면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감독관이다. 필사 정신을 가진 자들이 으뜸 영들에 관해 아주 많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들의 활동이 모든 것을 포함함에도, 너무나 특화되고 너무나 물질적인 동시에

아주 절묘하게 영적이기 때문이다. 이 다재다능한 시공우주 정신 창조자들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조상이고, 그들 자신은 방대하고 광범위한 영_피조물 창조를 최상으로 지휘하는 자다.

16:4.3 (189.4) 일곱 으뜸 영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창조자인데, 이 동역자들은 광우주의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조직과 통제와 규제에 필수 불가결한 실재다. 그리고 동일한 이 으뜸 영들은 지방우주를 구체화시키고 조직하는 동안, 대단히 물질적으로 창조주 아들들을 돕는다.

16:4.4 (189.5) 우리는, 으뜸 영들의 시공우주_에너지 작업과 무조건 절대자의 힘 기능들 사이에서, 어떤 개인 관계도 추적할 수 없다. 으뜸 영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에너지 형태화들은 모두 낙원 주변으로부터 유도{誘導}되며;이것은 낙원 하부 표면과 공명{共鳴}된 힘 현상과 어떤 직접 방법으로도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6:4.5 (189.6) 우리가 다양한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의 기능상 활동에 접하게 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으뜸 영들의

게시되지 않은 활동 가운데 어떤 것과 대면하게 된다. 물리 통제관 및 영{靈} 사역자의 이 조상들 외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우주 실체 국면에--곧 모론시아 물질과 모론시아 정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혼합하고 연합하는 물질적 및 영적 에너지에 대해 그토록 기여할 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16:4.6 (189.7) 영적 세계의 실체들 대부분은, 모론시아 계층, 즉 유란시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우주 실체의 어떤 국면에 해당한다. 인격체 실존의 목표는 영적이지만, 모론시아 창조계가 항상 개입되는데, 필사자가 기원되는 물질 영역들과, 승진하는 영적 지위의 연방우주 구체들 사이에 있는 격차를 메워준다. 으뜸 영들이 사람의 낙원 상승 계획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다.

16:4.7 (190.1) 일곱 으뜸 영은 광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대행자들을 소유하지만;하위{下位}의 이 존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필사자 진보의 낙원 완전성 경로에서 상승 요강과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게시되지 않았다. 일곱 으뜸 영의 활동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춰져

있는데, 너희가 낙원으로 상승하는 문제에 어떤 방법으로도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16:4.8 (190.2)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오르본톤의 으뜸 영은 다음과 같은 활동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4.9 (190.3) 1. 지방우주 생명 운반자의 생명_개시 과정.

16:4.10 (190.4) 2. 지방우주 창조적 영이 여러 세계에 증여한 보조 정신_영들의 생명 활성화.

16:4.11 (190.5) 3. 직선_인력{引力}에_반응하는 조직된 물질 단위가 표현하는 에너지 형태화의 변동.

16:4.12 (190.6) 4. 무조건 절대자의 지배로부터 충분히 해방될 때 떠오르는 에너지 행태인데, 이것은 직선 인력의 직접 영향력에 대해, 그리고 우주 동력 지휘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조종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16:4.13 (190.7) 5. 지방우주 창조적 영이 증여하는 보살피는 영인데, 유란시아에서는 거룩한 영으로 알려져 있다.

16:4.14 (190.8) 6. 증여 아들이 나중에 증여하는 영인데, 유란시아에서는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16:4.15 (190.9) 7. 지방우주들과 연방우주의 반사성 장치. 색다른 이 현상과 관련된 많은 특색은, 공동 행위자 및 지존하신 분과 연합하는 으뜸 영들의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16:4.16 (190.10) 일곱 으뜸 영의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적절하게 납득하지 못함에도, 우리는 우주 활동의 광대한 범위 안에서 그들이 아무 것도 상관할 수 없는 두 영역: 즉 사고 조율사들의 증여와 사역,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의 불가해{不可解}한 기능이 있다고 믿는다.

5. 피조물에 대한 관계

16:5.1 (190.1) 광우주의 각 분단{分團}, 즉 개별 우주와 세계는, 일곱 으뜸 영 전체의 일치된 조연과 지혜로부터 유익을 누리지만, 직접 접촉과 영향은 한 분에게서만 받는다. 그리고 각 으뜸 영의 개인 본성이 그 연방우주에 완전히 충만하고 독특하게 규정한다.

16:5.2 (190.1) 일곱 으뜸 영의 이 개인적 영향을 통해, 낙원과 하보나 밖에 있는 지성 존재들로 이뤄진 각 계층의 피조물마다, 이 일곱 낙원 영 가운데 어떤 하나의 선천적 본성을 나타내는, 개성을 갖는 독자적 표시를 반드시 갖게 돼 있다. 일곱 연방우주를 고려할 때, 각각의 원주민 피조물, 즉 사람 또는 천사는 출생 신분을 나타내는 이 표지{標識}를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16:5.3 (191.1) 일곱 으뜸 영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개별 피조물의 물질 정신을 직접 침범하지 않는다. 오르본톤 으뜸 영의 정신_영 영향력이 직접 현존함을,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체험하지 못한다. 인간거주 세계의 비교적 초기의 진화 시대에, 이 으뜸 영이 개별 필사 정신과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을 달성한다면, 반드시 그 지방우주 창조적 영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창조적 영은 각 지방 창조물의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의 배우자요 동역자다. 그러나 바로 이 창조적 어머니 영은, 본성과 성품에서 오르본톤 으뜸 영과 매우 비슷하다.

16:5.4 (191.2) 으뜸 영의 물리적 표시는 사람의 물질 기원의 일부분이다. 모론시아 생애 전체는, 동일한 이 으뜸 영의 계속되는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다. 그런 상승하는 필사자가 바로 이 감독하는 영 특유의 표시를 결코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으뜸 영의 흔적은, 필사자가 하보나에_이르기_전에 어떤 상승 단계에서든지 바로 그 실존에 기본이다.

16:5.5 (191.3) 특유의 인격체가 진화 필사자의 생애 체험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각 연방우주마다 특유하고, 지배하는 으뜸 영의 본성에 대한 직접 표현이며, 이 경향은 그런 상승자들이 10억 개의 하보나 교육 구체에서 받을 긴 훈련과, 통합시키는 훈육에 순응하게 된 후에도, 결코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 후의 강렬한 낙원 문화도, 연방우주 기원 표식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영원성 내내, 자신이 탄생된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을 표시하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심지어 완결성취 단체 안에서도, 진화 창조에 대한 완성된 삼위일체 관계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묘사하도록 요구될 때, 각 연방우주에서 한 명씩, 일곱 완결성취자로 이뤄진 어떤 집단이 항상 소집된다.

6. 시공우주 정신

16:6.1 (191.4)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신의 칠중{七重} 근원이요, 광우주의 지적 잠재력이다. 이 시공우주 정신은,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이 준절대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정신에 기능적으로 관련된다.

16:6.2 (191.5)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간 종족들의 업무에 일곱 으뜸 영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너희는 네바돈의 창조적 영의 즉각적 영향력 아래서 산다. 그럼에도, 바로 이 으뜸 영들이 모든 피조물 정신의 근본 반응을 지배하는데, 이는 그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에 거주하는 그런 개인의 생애에서 작용하도록 지방우주에 전문화돼 온, 지적 및 영적 잠재력의 실제 근원이기 때문이다.

16:6.3 (191.6) 시공우주 정신이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유형의 인간 및 초월인간 정신의 유사성{類似性}을 설명한다. 유사한 영들이 서로 이끌릴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정신들 역시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 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정신들은, 때로 놀라운 유사성과 설명할 수 없는 일치된 경로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발견된다.

16:6.4 (191.7) 시공우주 정신의 전체 인격체 연합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존재한다. 과학, 철학, 및 종교의 함축된 선험적{先驗的} 가정{假定}에 무력하게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진 피조물을 구조하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 시공우주 재능이다. 실체에 대한 이 시공우주 정신의 민감성은, 에너지_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면의 실체들에 반응한다. 이 초물질 실체들이 시공우주 정신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16:6.5 (192.1) 시공우주 정신은 우주 실체의 세 수준에서 반드시 반응한다(반응함을 인식한다). 이 반응은 분명하게_추론하는, 그리고 깊이_사색하는 정신에게 스스로_증거 한다. 이 실체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6:6.6 (192.2) 1. 원인 --물리적 의미의 실체 범위, 논리적 획일성의 과학적 영역, 사실성과 비사실성의 구별,

시공우주 반응에 입각한 사려 깊은 결론. 이것은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산술적 형태다.

16:6.7 (192.3) 2. *의무* --철학 영역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범위, 이성의 경기장, 상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이것은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사법 형태다.

16:6.8 (192.4) 3. *경배*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의 영적 범위, 신성한 교제를 개인적으로 깨달음, 영적 가치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존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종 신분으로부터 상승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림. 이것은 시공우주 정신의 가장 높은 통찰력, 즉 시공우주에서 식별하는, 경건하고 존귀한 형태다.

16:6.9 (192.5) 이런 과학적, 도덕적, 및 영적 통찰력, 즉 이런 시공우주 반응은 시공우주 정신에 내재적인데, 시공우주 정신은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된다. 생활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시공우주 직관을 개발하며;이것들은 사려 깊은 사색의 자아_인식에 구조적으로 들어 있다. 그러나 용감하고 독립적인 시공우주 사색의 이런 특성 계발을 즐겨워하는 사람이, 유란시아에는 거의 없다고 기록해야 되니, 안타깝다.

16:6.10 (192.6) 지방우주의 정신이 증여될 때, 시공우주 정신의 이 세 통찰력은 선험적 가정에 해당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적이고 자아_의식적인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무한자가 이렇게 셋으로 형태화한다는 현실을, 자기_계시라는 시공우주 기법으로 알아차린다. 수학적 감각 논리가 물질_에너지를 감지하며;정신_이성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직관적으로 알며;영_신앙은(경배는) 영적 체험이라는 실체를 믿는 종교다. 회고하며 생각하는 중에 이 세 기본 요소가 인격체 성장을 목적으로 통합되고 조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지고 각각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무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통일될 때, 사실에 근거한 과학, 도덕 철학, 그리고 참된 종교 체험을 상호 관련시키는 어떤 강력한 성품을 창출한다. 그리고 사물, 의미, 및 가치를 맛보는 체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사람의 체험에, 객관적인 타당성, 즉 실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 세 시공우주 통찰력이다.

16:6.11 (192.7) 인간 정신의 이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이를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며;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인생 체험의 목적이며;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며;이를 통합시키는 것이 인격체의 목적이다.

7. 도덕, 미덕, 및 인격체

16:7.1 (192.8) 지성만으로는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성과 미덕은 인간 인격체에 고유하다. 도덕적 직관, 의무의 실현은, 인간 정신 재능의 한 요소이며, 인간 본성 중에서 양도할 수 없는 다른 것들, 즉:과학적 호기심 및 영적 통찰력과 연합돼 있다. 사람의 지력{知力}이 동물 친족의 지력을 훨씬 초월하지만, 사람을 동물계로부터 특히 구분시키는 것은 도덕적 및 종교적 본성이다.

16:7.2 (193.1) 동물의 선택적 반응은, 습성이라는 운동 신경 수준에 제한돼 있다. 고등 동물에게 있다고 생각되는 통찰력은 운동 신경 수준에 있는 것이고, 대개 운동 신경이 시행착오를 체험한 후에만 나타난다. 사람은 모든 탐험 또는 실험 이전에, 과학적, 도덕적, 및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16:7.3 (193.2) 행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는 오직 인격체만이 알 수 있으며;오직 인격체들만 체험 이전에

통찰력을 갖는다. 인격체는 자신이 뛰기 전에 조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뛰는 것으로부터는 물론 조사함으로써도 배울 수 있다. 인격없는 동물은 대개 뒹으로써만 배운다.

16:7.4 (193.3) 체험한 결과로, 동물은 목표를 성취하는 다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누적된 체험에 기초해서 하나의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격체는, 목표 자체 역시 살펴볼 수 있으며, 그것이 보람_있는지, 그것이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성체 혼자서는 기껏해야 구별되지 않는 종착점에 도달하는 수단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종착점들 사이뿐 아니라 수단들 사이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가졌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는 미덕{美德}을 택하는 데에도 영리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갈 것인지 안다.

16:7.5 (193.4) 사람이 필사자로서 도달하려고 애쓰는 여러 종착점을 분별하지 못할 때, 동물 실존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인격있는 존재로서, 사람은 시공우주_정신 재능의 불가결한 부분인, 물질적 총명성과

도덕적 분별력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라는 뛰어난 장점을 스스로 발휘하기에 실패해 왔다.

16:7.6 (193.5) 미덕은 정의{正義}다--시공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덕을 규정짓기 위함이 아니지만,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미덕을 앎이다. 미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오히려 상승하는 수준의 시공우주 업적을 달성해서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실체다. 필사적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미덕은 악보다 선을 계속 선택함으로써 실현되며, 도덕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런 선택 역량이 증명한다.

16:7.7 (193.6) 사람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의 예민함뿐만 아니라 무지와 미성숙과 망상 같은 그런 작용에도 영향을 받는다. 균형 감각 역시 미덕의 실천에서 고려되는데, 왜곡이나 기만의 결과로 비교적 나은 것 대신에 비교적 못한 것이 선택될 때 악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평가, 즉 비교해서 측정하는 기술이, 도덕 범주에 속하는 미덕을 실천하게 한다.

16:7.8 (193.7) 측정하는 기술, 즉 의미를 세밀히 조사하는 역량에 포함된 분별력이 없다면, 사람의 도덕적 본성은 아무 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시공우주 통찰력 없이는, 도덕적 선택이 쓸모없을 것이다.
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도덕적 존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인격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16:7.9 (193.8) 도덕성은 결코 법이나 힘으로 증진될 수 없다.
도덕성은 개인적이고 자유의지의 문제이며,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격자들이, 도덕적으로 덜
반응하지만 또한 어느 정도 아버지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접촉해서 감화시킴으로써 전파돼야만
한다.

16:7.10 (193.9) 뛰어난 종착점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이
종착점에 도달하는 도덕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도덕적 행동은, 가장 고상한 지성이 특징인 그런 인간적
실행인데, 선택하는 분별력의 지도를 받는다. 그런 행위는
고결하다. 그렇다면, 최상의 미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전심을 다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8. 유란시아 인격체

16:8.1 (194.1)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성에서 작용하는 수많은
계층의 존재에게, 만유의 아버지께서 인격체를 증여한다.

유란시아의 인간은,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 수준에서 작용하는, 유한한_필사자 유형의 인격체를 부여받는다.

16:8.2 (194.2) 우리가 인격체를 정의하기는 도저히 장담할 수 없더라도,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의 전체조화를 이루게 될, 알려진 요소들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보려 하는데, 그 에너지들의 상호연합체가 기계장치를 구성하며, 그 장치 속에서, 그 위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이 증여한 인격체가 활동하도록 만든다.

16:8.3 (194.3) 인격체는 독창적 본성을 갖는 어떤 독특한 재능인데, 그 본성이 실존하는 것은 사고 조율사 증여와는 무관하고, 그보다 앞선다. 그럼에도 조율사 현존이 인격체의 질적 형태화를 향상시킨다. 사고 조율사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아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인격체는 다양하고 독창적이고 독자적이며;인격체의 형태화는, 인격체를 형태화시키기 위한 생물 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자질과 관련된 에너지의 본성과 특성에 따라서 더욱 제약받고 제한된다.

16:8.4 (194.4) 인격체들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다. 일정한 계열, 유형, 계층, 또는 원형{原型}에 속하는 인격자들은 서로 닮을 수 있고 또한 닮지만,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인격체는 우리가 아는 어떤 개체의 그 특색이며, 그런 존재를 언젠가 미래 시간에, 형태, 정신, 또는 영 상태가 어떤 자질을 갖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됐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인격체는, 어떤 개체든지 그의 인격체가 표현되고 형태화된 몸체의 변경으로 인해 그가 얼마나 바뀌어 왔는가에 상관없이, 그 전에 우리가 알아 왔던 그 사람으로서 그 인격자를 알아보고 분명히 식별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다.

16:8.5 (194.5) 피조물 인격체는, 필사자가 반응하는 습성의 자아_형태화 현상 및 독자적 현상:즉 자아_의식, 그리고 관련된 상대적 자유 의지, 이 두 가지에 따라 구별된다.

16:8.6 (194.6) 자아_의식은, 인격체가 실제임을 지적으로 자각함에 있으며;다른 인격체들이 실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 자아_의식은, 시공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리고 그 실체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체험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우주의 인격체 관계에서 주체성 신분을 달성하는 것에 상당한다. 자아_의식은, 정신 사역이 사실임을 인식하고, 창조적 및 확정적 자유의지가 비교적 자립을 이룩했음을 의미한다.

16:8.7 (194.7) 인간 인격체의 자아_의식의 특징을 이루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에 관련된다:

16:8.8 (194.8)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16:8.9 (194.9) 2. 영적 선택, 진리를 분별함.

16:8.10 (194.10) 3. 이타적 사랑, 형제관계의 봉사.

16:8.11 (194.11) 4. 목적 있는 협동, 집단 충성심.

16:8.12 (194.12) 5. 시공우주 통찰력, 우주 의미들에 대한 파악.

16:8.13 (194.13) 6. 인격체 헌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함.

16:8.14 (195.1) 7. 경배, 신성한 가치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신성한 가치_증여자를 전심으로 사랑함

16:8.15 (195.2) 유란시아 유형의 인간 인격체는, 전기화학적으로 생명을 활성화 시키는 계통에 속하며, 부모가 출산하는 방식으로, 오르본톤 계열 가운데 네바돈 체제의 시공우주 정신을 부여받고, 네바돈 유형의 유기체를 행성에서 변경한, 물리적 장치 속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정신이_부여된 그런 필사 장치에 인격체라는 신성한 선물을 증여함이, 시공우주 시민권의 존엄성을 수여하고, 그런 필사 피조물이 다음과 같은 시공우주의 기본적 세 정신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즉시 반응하도록 만든다:

16:8.16 (195.3) 1. 물리적 인과관계의 획일성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식함.

16:8.17 (195.4) 2. 도덕적으로 처신할 책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함.

16:8.18 (195.5) 3. 신격과 교제하고 경배드림을 신앙이_파악함, 이와 관련해서 인류에게 사랑으로 봉사함.

16:8.19 (195.6) 그런 인격체 자질이 최대한 작용한다는 것은, 신격과 친족관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전{人格以前} 단편이 내주하는 그런

자아는,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다. 그런 피조물은 신성한 현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의 인격체_인력{引力} 회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9. 인간 의식의 실체

16:9.1 (195.7) 시공우주_정신을_타고난, 조율사가_내주하는 인격있는 피조물은, 에너지 실체, 정신 실체, 및 영 실체를 인식하고_깨닫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법칙, 및 사랑을 식별하는 능력을 그렇게 부여받는다. 양도할 수 없는 이 세 인간 의식 외에, 모든 인간 체험은 정말로 주관적인데, 다만 직관으로 타당성을 깨닫는 것은 시공우주 인식의 이 세 우주 실체 반응의 **통합**에 부수된다.

16:9.2 (195.8) 하나님을_식별하는 필사자는, 생존하는 혼이 진화하는 동안 이 세 가지 시공우주 특성의 통합된 가치를 감지할 수 있는데, 육신의 장막 안에서 진화가 사람의 최고 이행업무이며,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도덕 정신은 불멸하는 혼을 이원화{二元化}하기 위해, 내주하는

신성한 영과 협력한다. 혼은 초기 발단부터 실재하며;생존하는 시공우주 특성들을 소유한다.

16:9.3 (195.9) 필사적 사람이 자연사{自然死} 이후에 생존하지 못하면, 그의 인간 체험의 실제 영적 가치는 사고 조율사의 계속되는 체험의 일부분으로 존속한다.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인격체 가치는, 실현되는 지존하신 분의 인격체 안에서 어떤 요소로 존속한다. 존속하는 그런 인격체 특성들은 정체성을 뺏기지만, 육체 안에서 필사자 생애 동안 누적된 체험적 가치는 뺏기지 않는다. 정체성의 생존은, 모론시아 신분인 불멸의 혼과, 증가하는 신성한 가치의 생존에 달렸다. 인격체의 정체성은, 생존하는 혼 속에, 그리고 혼이 생존함으로 살아남는다.

16:9.4 (195.10) 인간의 자아_의식은, 의식하는 자아 외에 자아 실체들에 대한 인식을 암시하고, 더욱이 그런 자각이 상호적임을 암시하며;자아는, 자아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려지는 것을 암시한다. 이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순전히 인간적인 버릇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너는 네 안에 사시는 하나님 현존의 실체에 대해 네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동료 존재의 실체에 대해 그렇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意識}은 하나님_의식과는 달리 양도될 수 있으며;문화적으로 발전된 것이고, 지식과 상징에 달려있으며, 사람의 구조적 재능--곧 과학, 도덕성, 및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사회화 된 이 시공우주 선물이 문명을 이룬다.

16:9.5 (196.1) 문명은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며;인류의 개인들 안에 선천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람의 구조적 요소들--곧 과학, 도덕성, 및 종교--의 혼합된 기여로 양육돼야만 한다. 문명은 왔다가 가지만, 과학, 도덕성, 및 종교는 붕괴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는다.

16:9.6 (196.2) 예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새롭게 드러냈다. 예수의 생애에서, 너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본다. 사람이 그토록 아름답게 실현된 것은,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단하게 모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대한 의식은(인식은) 양도될 수 없고, 모든 사람 속에 설정돼 있다.

16:9.7 (196.3) 부모로서의 본능 이외에, 이타심은 대체로 자연스럽지 않으며;다른 인격자들을 당연하게 사랑하거나

사회적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려면, 이성, 도덕성, 및 종교의 충동, 즉 하나님을_알아감이라는 계몽이 필요하다. 사람 자신의 인격체 자각, 즉 자아_의식은, 타고난 타자{他者}_자각이라는 바로 이 사실, 즉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에 이르는, 다른 인격체의 실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이 천부적 역량에 또한 직접 의존한다.

16:9.8 (196.4) 이타적인 사회의식에는 종교 의식{意識}이 틀림없이 그 밑바닥에 있으며;사회의를 객관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만약 객관적이지 않으면 사회의식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추상이며,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상태다. 오직 하나님을_아는 개인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16:9.9 (196.5) 자아_의식{意識}은 본질적으로: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다. 인간의 자아_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_실체 실현이 잠재돼있고 내재적이다:

16:9.10 (196.6) 1. 지식을 추구함, 과학의 논리.

16:9.11 (196.7) 2.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 의무감.

16:9.12 (196.8) 3. 영적 가치를 추구함, 종교 체험.

16:9.13 (196.9) 4. 인격체 가치를 추구함,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실체이심을 인식하는 역량, 그리고 동료 인격체들과 우리가 형제 관계를 동시에 실현함을 인식하는 역량.

16:9.14 (196.10) 너희는 사람을 피조물 형제로 의식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의식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뤄지면, 우리가 형제관계임을 인식하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이심은 모든 도덕 피조물에게 한 우주 실체가 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존재에게 자신을 인격체로 증여해 왔고, 보편적 인격체 회로의 지배 속에 그들을 감싸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첫째는 그가 존재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끝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16:9.15 (196.11) 시공우주 정신이, 그 자체의 근원, 즉 무한한 영의 무한한 정신에 대해 자아_의식하여 자각하게 되는 동시에,

광범위한 우주들의 물리적 실체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실체를 의식하게 됨은 기묘하지 않은가?

16:9.16 (196.12) [우버사에서 온,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제17편 일곱 최상급 영 집단

17:0.1 (197.1)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일곱으로_분할된 광우주 경영을 보편적으로 조정하는 지휘자다. 모두가 무한한 영의 역할을 하는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은 대개 낙원 삼위일체의 자녀로 분류된다:

17:0.2 (197.2) 1. 일곱 으뜸 영.

17:0.3 (197.3)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17:0.4 (197.4) 3. 반사하는 영.

17:0.5 (197.5) 나머지 네 집단은 무한한 영의 창조 활동으로 인해서, 또는 창조 자격을 갖는, 무한한 영의 동역자들로 인해 존재하게 된다:

17:0.6 (197.6)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17:0.7 (197.7) 5. 회로들에 대한 일곱 영.

17:0.8 (197.8) 6. 지방우주 창조적 영.

17:0.9 (197.9) 7. 보조 정신_영.

17:0.10 (197.10) 이 일곱 계층은 우버사에서 일곱 최상급 영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영원한 섬 주변지역에 일곱 으뜸 영이 몸소 현존하시는 것을 비롯해서, 영의 일곱 낙원 위성, 하보나 회로들, 연방우주 정부{政府}, 그리고 지방우주 경영과 감독을 포함하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진화하는 정신 영역에 증여된 보조체들의 하위 봉사에 이르기까지 확장한다.

17:0.11 (197.11) 일곱 으뜸 영은 광범위한 이 경영 부문을 조정하는 지휘자다. 그들은, 조직된 물리적 동력, 정신 에너지, 그리고 비인격 영 사역{使役}을 경영상 규제하는 어떤 문제들에서 몸소 직접 행동하고, 다른 경우에는 가지각색 동역자를 통해서 작용한다. 행정적 본질--곧 통치, 규칙, 조정, 및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에서, 으뜸 영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인격자 안에서

행동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으뜸 영들이 하보나 회로의 일곱 영을 통해 작용할 수 있으며;일곱 연방우주 본부에서는, 반사하는 영 경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태고 항존자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행동하는데,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한다.

17:0.12 (197.12) 일곱 으뜸 영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보다 하위{下位}에 있는 우주 행정부와 친히 직접 접촉하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으뜸 영이 너희 지방우주를 우리 연방우주의 일부로서 경영하지만, 네바돈에서 출생한 존재들과의 관계에서는, 너희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 거주하는 창조적 어머니 영이, 으뜸 영의 역할을 즉시 이행하고 친히 지휘한다.

1. 일곱 최상급 행정관

17:1.1 (198.1) 으뜸 영들의 행정 본부가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위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원한 아들의 빛나는 구체들과 가장 안쪽 하보나 회로 사이에서, 중앙 섬을 축으로 돌고 있다. 일곱 명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최상급 행정관들이 행정 구체들을 지도하는데, 일곱 으뜸 영의 보편적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존재로서 일곱 으뜸 영의

명세사항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이 집단을
삼자일체되게 했다.

17:1.2 (198.2) 으뜸 영들은, 이 최상급 행정관들을 통해서,
연방우주 정부의 다양한 부서와 접촉을 유지한다. 바로
그들이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구성 성향 대부분을
결정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성하게 완전하지만, 또한
인격체의 다양성도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지배하는
우두머리가 없으며;그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공동
협의회를 주재하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출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일곱 으뜸 영과 회의를 하기 위해
낙원으로 여행한다.

17:1.3 (198.3) 일곱 최상급 행정관은 광우주의 경영 협조자로서
활동하며;하보나_이후의 창조물 관리 지휘자 협회로
명명될 수 있다. 그들은 낙원의 내부 직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곱 회로 영을 통해서 하보나 활동에 속하는 제한된
구체들을 감독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감독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그들은 물리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지도하는 일에 참여하며;일곱 연방우주와
하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안다.

17:1.4 (198.4) 이 최상급 행정관들은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우주 진행과정을 변경시키지도 않으며; 일곱 으뜸 영이 선포한 신성{神性}에 속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관여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고,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주권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협조하는 행정관이며, 그들의 역할은, 광우주에서 정식으로 수립된 모든 통치자의 조합된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17:1.5 (198.5) 각 행정관 및 그가 맡은 구체의 시설은, 단일 연방우주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에 헌신돼 있다. 1_번 최상급 행정관은 1_번 행정 세계에서 활동하는데, 1_번 연방우주 직무에 전적으로 관여하며, 그런 식으로 7_번 최상급 행정관까지 계속되는데, 영의 일곱째 낙원 위성에서 일하고, 일곱째 연방우주 관리에 힘을 쏟는다. 이 일곱째 구체의 이름은 오르본톤인데, 영의 낙원 위성이 그것과 관련된 연방우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갖기 때문이며; 사실, 연방우주의 이름은 그들을 따라 지어졌다.

17:1.6 (198.6) 일곱째 연방우주의 행정 구체에는, 오르본톤의 직무를 똑바로 유지하기에 참여하는 참모진이, 인간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에 이르고, 천상의 지성체 각 계층을 실제로 포함한다. 인격체를 파송하는 모든 연방우주 봉사는, (영감 받은 삼위일체 영들 및 사고 조율사들을 제외하고) 낙원으로 오가는 우주 여행에서 이 일곱 행정 세계 가운데 하나를 거쳐서 지나가며, 연방우주들에서 작용하는, 제3 근원 및 중심이 창조한 모든 인격체를 위해, 중앙 등기소{登記所}가 여기에 유지된다. 영의 이 행정 세계 가운데 하나에 있는, 물질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기록 체계는, 내 계층에 해당하는 존재까지도 놀라게 만든다.

17:1.7 (199.1) 최상급 행정관의 직속 부하들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의 삼자일체된 아들들 대부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상승 기획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친 훈련에서 영화롭게 된 인간 졸업생 중에서 삼자일체된 자손 대부분을 위해 존립한다.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최고 위원회의 우두머리가,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을 최상급 행정관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지정한다.

17:1.8 (199.2) 각 최상급 행정관은 두 개의 자문 기관을 갖는데:각 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무한한 영의 자녀들은, 최상급

행정관의 1차 자문 기관에서 1,000년 동안 봉사하도록, 그들의 반열에서 대표자들을 선정한다.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태에서는 2차 기관이 봉사하는데, 낙원에 도달한 필사자, 그리고 영화롭게 된 필사자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로 구성되며;일곱 연방우주 본부에 일시 거주하는, 숙달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이 이 조직체를 선택한다. 다른 모든 직무의 우두머리는 최상급 행정관들이 지명한다.

17:1.9 (199.3) 때때로, 큰 비밀회의가 영의 이 낙원 위성{衛星}들에서 열린다. 이 세계들에 배정된 삼자일체된 아들들은, 낙원에 도달한 상승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에서 분투하고 승리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영{靈} 인격체들과 회합{會晤}을 갖는다. 그런 형제우애의 모임을 최상급 행정관들이 항상 주관한다.

17:1.10 (199.4) 낙원 시간으로 1,000년마다 한 번씩, 일곱 최상급 행정관이 자신의 권세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낙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지성적 창조물 무리에게 전반적으로

인사하고 행복을 빌려고, 1,000년마다 비밀회의를 갖는다. 중대한 이 행사는, 모든 반사하는 영 집단의 우두머리인, 위엄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다. 그리고 그들은 우주의 반사성{反射性}이라는 독특한 기능발휘를 통해, 광우주에서 자신의 모든 동역자와 그렇게 동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2. 위엄자--반사성의 우두머리

17:2.1 (199.5) 반사하는 영들은 신성한 삼위일체 기원에 해당한다. 독특하고 어느 정도 신비스런 이 존재가 50명 있다. 일곱 명의 이 비범한 인격체가 동시에 창조됐고, 그런 각각의 창조 사건은 낙원 삼위일체의 한 연락원과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으로 인해 초래됐다.

17:2.2 (199.6) 이 중대한 진행사항은, 시간이 시작될 때 발생했는데, 낙원 삼위일체와 함께 창조자로서 작용하기 위해, 으뜸 영들이 대표하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초기 노력을 보여준다. 삼위일체의 창조 잠재력과 최상급 창조주들의 창조 능력의 이 합동이 지존하신 분의 실제성의 바로 그 근원이다. 그러므로, 반사적인 창조 주기{週期}가 그 행로를 다 마치게 되면, 일곱 으뜸 영

각자가 낙원 삼위일체와의 완전한 창조 동시성{同時性}을 이루게 됐을 때, 마흔아홉째 반사하는 영이 인격화를 마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신격 절대자 안에 새롭고 멀리_미치는 반작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지존하신 분에게 새로운 인격체 특권을 부여했고, 마침내 위엄자의 인격화를 초래했으며, 이 위엄자는 온갖 우주 전역에서 반사성 우두머리이고, 49명의 반사하는 영과 그 동역자들이 하는 전체 활동의 낙원 중심이다.

17:2.3 (200.1) 위엄자는 참된 인격자인데, 시간과 공간의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있는, 반사성 현상의 인격적 중심이고 전혀 오류 없는 중심이다. 그는 일곱 으뜸 영의 회합 장소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 근처에 본부를 영구히 유지한다. 그는 광범위한 창조물 안에서 오로지 반사성 봉사에 대한 협조와 유지에만 관여하며;우주 직무 경영에는 달리 관여하지 않는다.

17:2.4 (200.2) 위엄자는 우리의 낙원 인격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데, 신격 절대자와 기능적으로 접촉할 때 지존하신 분이 창조한, 유일하게 실존하는 신성{神性}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격자이지만, 이 한 국면의

우주 경륜에만 독자적으로 그리고 외견상 자동으로
관계되며;현재 우주 인격체 가운데 다른 (반사하지 않는)
계층들과 관계하는 어떤 개인적 자격으로도 활동하지
않는다.

17:2.5 (200.3) 위엄자의 창조는, 지존하신 분이 처음으로 행한
최상의 창조 행위를 돋보이게 했다. 실천하려는 이 의지는
지존하신 분에게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신격
절대자의 엄청난 반응은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보나가
영원에서_출현한 이후로는, 기능적 영 활동의 능력과
협조를 그토록 거대하고 광범위하게 조정하는, 그런
엄청난 실제화를 우주가 목격한 적이 없다. 지존하신 분과
그 동역자들의 창조 의지에 대한 신격 반응은, 그들의
의도적 계획을 많이 뛰어넘었고, 그들의 개념적 예상을
크게 초과했다.

17:2.6 (200.4) 증진된 우주 협조라는 상상치 못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예상치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또 다른
존재들이 신격화되는 영역들에서 미래 시대가 증언을
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 앞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갖고 서
있는데, 그 미래 시대에는 지존자와 궁극자가 새로운

수준의 신성{神性}에 도달하게 되고, 새로운 범위의
인격체 역할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체험적 신격과 실존적
낙원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신격 절대자가 반응하는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3. 반사하는 영

17:3.1 (200.5) 49명의 반사하는 영이 삼위일체 기원에
해당되지만, 그들의 출현에 수반된 일곱 번의 창조 사건
각각은, 공동조상{共同祖上}인 으뜸 영의 특질을 사실상
닮은 유형의 존재가 생기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신성{神性} 특질을
연합하는, 일곱 가지 가능한 조합의 본성과 성품을
다양하게 반영한다. 이런 이유로, 각 연방우주 본부에 이
일곱 반사하는 영이 필연적이다.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듯이, 세 낙원
신격의 가능한 형태화의 모든 국면 각각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작용을 이루기 위해서, 일곱 유형 중에서 각
유형마다 한 분씩 요구된다. 따라서 각 유형 중에서 한 분이
각 연방우주에 봉사하도록 적절하게 배정됐다. 서로 다른
일곱 반사하는 영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연방우주

수도{首都}에서 각 영역의 반사하는 초점{焦點}에 본부를 유지하며, 이것은 영적 양극{兩極} 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17:3.2 (200.6) 반사하는 영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는 이 명칭이 계시되지 않는다. 이 이름은 이 존재들의 본성 및 성품과 관계되고, 낙원의 비밀 구체들에 있는 일곱 우주 신비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다.

17:3.3 (201.1) 반사성이라는 속성, 즉 공동 행위자, 지존하신 분, 및 으뜸 영들의 정신 수준에서 생기는 현상은, 이 광대한 우주 정보 계획의 작용과 관계되는 모든 존재에게 유전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는데:으뜸 영들뿐 아니라 낙원 신격들은, 위엄자의 이 연락 인격체 49명에게 나타난 것과 똑같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으로 이 보편적 협조 반사성 능력을 드러내지는 않으며, 그렇지만 그들은 기묘하게 자질을 부여받은 이 존재들 전체의 창조자다. 신{神}이 물려주는 유전{遺傳}은, 창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피조물 안에 때때로 나타낸다.

17:3.4 (201.2) 위엄자와 반사하는 영들은 제외하고, 반사성 봉사에 참여하는 요원들은 모두, 무한한 영 및 그의 직계{直系} 동역자들과 권속의 피조물이다. 각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은 자신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들을 창조하는데, 이 조력자들은 태고 항존자 법정에서 반사하는 영들을 개인적으로 대변한다.

17:3.5 (201.3) 반사하는 영들은 단순히 전달하는 대리인이 아니며;보존하는 인격체이기도 하다. 그들의 자손인 제2스라빔 역시 간직하는 인격체, 즉 기록하는 인격체다. 참된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중으로 등록되며, 한 부는, 반사하는 영들의 방대한 참모진에 속하는, 수많은 계층의 제2스라빔 인격체 가운데 하나인 어떤 요원의 인격있는 장비{裝備} 속에 보관된다.

17:3.6 (201.4) 우주의 공식 기록은 천사 기록원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 전달되지만, 진정한 영적 기록은 반사성에 의해 모아지고, 무한한 영 계보에 속하는 적당하고 알맞은 인격체의 정신 속에 보존된다. 이것들은 우주의 형식적이고 죽은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기록이고, 무한한 영의 기록하는 인격체들의 살아있는 정신 속에 완전하게 보존된다.

17:3.7 (201.5) 반사성 조직은 또한, 전체 창조물의 소식을_수집하고 명령을_배포하는 장치이다. 다양한 방송 업무가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조직은 끊임없이 운영된다.

17:3.8 (201.6) 지방우주 본부에서 나오는 모든 중요한 것은, 그 연방우주 본부에 내재적으로 반사 된다. 그리고 거꾸로, 지방우주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것은, 그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지방우주 수도를 향해 바깥으로 반사된다. 시간세계의 우주들로부터 연방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반사성 봉사는, 외견상 자동적이거나 스스로_작동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두 매우 개인적이고 지성적이며;그 정확성은 인격체 협동의 완전성 때문에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들의 비인격 현존과_실행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7:3.9 (201.7) 사고 조율사들은 우주의 반사성 체계의 작동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아버지 단편이 이

진행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17:3.10 (201.8) **현** 우주 시대 동안, 낙원_외부 반사성 봉사의 공간
범위는 일곱 연방우주 주변으로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에는, 이 봉사 기능이 시간과 공간에 무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알려진 모든 준절대 우주 회로{回路}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17:3.11 (201.9) 각 연방우주 본부에서, 반사성 조직은 분리된
단위로 행동하지만;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이 1,000년마다 인사를 나눌 때, 그리고 빛과 생명에
전체 지방우주가 정착됨에 따라서 생기는 축제의
경우처럼, 위엄자의 지시에 따라, 일곱 명 전체가
보편적으로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17:4.1 (202.1) 반사하는 영들이 49명의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를
창조했으며, 각 연방우주 본부마다 정확하게 일곱
조력자가 있다. 우버사의 일곱 반사하는 영의 최초 창조
행위는, 그들의 일곱 형상 조력자를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각 반사하는 영마다 자신의 조력자를 창조했다. 형상

조력자는, 확실한 속성과 특질에서, 반사하는 어머니 영의 완전한 복제품{複製品}이며;반사성이라는 속성을 제외한 실질적 복제품이다. 그들은 진정한 형상이며, 반사하는 영과 연방우주 당국 사이의 소통 경로로서 계속 활약한다. 형상 조력자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며;각자 자신의 영 조상의 실제 대변자이며;형상이고, 그 이름에 어울린다.

17:4.2 (202.2) 반사하는 영 자신은 진정한 인격체이지만, 물질 존재에게는 납득될 수 없는 그런 계층에 속한다. 심지어 연방우주 본부 구체에서도,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 및 그들의 동역자들과 갖는 모든 개인적 교통에, 형상 조력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형상 조력자들과 태고 항존자들 사이의 접촉에서, 때로는 한 명의 조력자가 마음에 들도록 작용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전송에 위임된 소통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제시를 위해, 둘, 셋, 넷, 또는 심지어 일곱 명 전체가 요구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통신 내용이 요구하는 대로, 형상 조력자들의 메시지를, 세 태고 항존자 중에서 한 분, 두 분, 또는 세 분 전체가 다양하게 받는다.

17:4.3 (202.3)

형상 조력자는, 자신의 선조 영 옆에서 영구히 봉사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제2스랩 도우미 무리를 둔다. 형상 조력자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훈련 세계들과 관련해서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우주 계획의 정보 부서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지만, 너희는 우버사 학교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과 직접 접하게 되지 않을 것인데, 외견상 인격있는 이 존재들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며;그들은 선택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형상인데, 개별 영 조상 인격체와 정신을 전적으로 반영한다. 한 부류로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반사성과 직접 접하지 않는다. 반사하는 본성을 갖는 어떤 존재가, 봉사의 실제 작동과 너희 사이에 항상 끼어 있을 것이다.

5. 일곱 회로 영

17:5.1 (202.4)

하보나 회로의 일곱 영은,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 대한, 무한한 영과 일곱 으뜸 영의 비인격 공동 대리자다. 그들은 으뜸 영들의 부하인데, 집단으로 으뜸 영들의 자손이다. 으뜸 영들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뚜렷하고 다각적인 경영{經營} 개성을 제공한다. 그들은 획일적인 이 하보나 회로 영들을 통해서, 중앙우주에 대한 통합되고,

획일적이고, 조화된 영적 감독{監督}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7:5.2 (202.5) 일곱 회로 영은 각각 단일 하보나 회로에 충만하도록 제한된다. 그들은, 영원 항존자들, 즉 개별 하보나 세계의 통치자 체제와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접촉하고 있으며, 지존하신 분의 중앙우주 현존과 동시성{同時性}을 갖는다. 그들의 업무는 전적으로 하보나에 국한된다.

17:5.3 (203.1) 이 회로 영들은, 그들 각자의 자손, 즉 3차 최고스라빔을 통해, 하보나에 머물고 있는 자들과 접촉을 이룩한다. 회로 영들이 일곱 으뜸 영과 공존하는 반면, 3차 최고스라빔의 창조에서 그들의 기능은, 시간세계의 첫 순례자들이 그랜환다 시대에 하보나 외부 회로에 도달할 때까지, 주요 탁월함을 달성하지 못했다.

17:5.4 (203.2) 하보나에서 너희가 한 회로에서 다음 회로로 전진함에 따라, 회로 영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들의 영적 영향력을 개인적으로 즐기고 그것의 비인격 현존을 인식함에도, 그들과 친히 교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5.5 (203.3) 회로 영과 하보나 원주민 거주자의 관계는, 진화 우주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필사 피조물과 사고 조율사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사고 조율사와 마찬가지로, 회로 영은 비인격이며, 하보나 존재들의 완전한 정신과 사귀는데, 이는 만유의 아버지의 비인격 영이 필사적 사람의 유한한 정신에 내주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회로 영은 결코 하보나 인격체의 영구적인 일부분이 되지 않는다.

6.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

17:6.1 (203.4)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들의 본성과 기능에 속하는 많은 것이, 지방 창조계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과제에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에 잘 포함되겠지만;이 기묘한 존재들이 지방우주가_생기기_전에 겪은 체험 가운데 많은 특색을, 일곱 최상급 영 집단에 대한 이 이야기의 일부로서 설명할 수도 있다.

17:6.2 (203.5) 우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여섯 국면에 관해 잘 알며, 일곱째 활동 단계의 가능성에 관하여 많이 생각한다. 이 색다른 실존 단계는 다음과 같다:

17:6.3 (203.6)

1. *최초의 낙원 분화{分化}*. 창조주 아들이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행위로 인격화 될 때,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서는 “최상의 보충 반응”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이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는 이 반응의 본질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공동 창조주의 창조 잠재력에 포함된, 인격화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수정됨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격 창조주 아들의 탄생은, 이 낙원 아들의 미래 지방우주 배우자{配偶者}의 잠재력이 무한한 영의 인격자 안에서 탄생할 것을 알리는 신호다. 우리는 실재에 대한 새로운 이 인격이전{人格以前} 신분 증명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창조주 아들의 생애에 관한 낙원 기록에 이 사실이 언급돼 있다는 것은 안다.

17:6.4 (203.7)

2. *창조주신분 예비 훈련*. 우주의 조직과 경영에서 미가엘 아들의 긴 예비{豫備} 훈련 기간에, 그의 미래 배우자는 실재의 발전을 더 겪고 운명을 집단으로 의식하게 된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측하건대, 그런 집단_의식을 가진 실재는 공간을 인지하게 되고, 우주 창조와 경영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미가엘과 협동하는 미래 업무에서 영의 솜씨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그 예비 훈련을 시작한다.

3. *물리적 창조 단계.* 영원한 아들이 창조자신분 책임을 미가엘 아들에게 부과할 때, 이 새로운 창조주 아들이 가도록 돼있는 연방우주를 지휘하는 으뜸 영이, 무한한 영 앞에서 “신원확인 탄원{歎願}”을 표명하며;처음으로, 차후의 창조적 영의 실재가 무한한 영의 인격자로부터 분화{分化}됨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청원하는 으뜸 영 인격자에게 직접 나아가면서, 이 실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 즉시 사라지는데, 이 으뜸 영 인격자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롭게 신분이 확인된 창조적 영은, 공간의 모험을 위해 창조주 아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으뜸 영과 함께 남아 있으며;그 후에 으뜸 영은 새로운 영{靈} 배우자를 창조주 아들의 보호 아래에 위탁{委託}하는데, 그와 동시에 영원히 충실하고 끊임없이 충성할 책임을 영 배우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나서, 낙원에서 일찍이 생긴 가장 심오하게 감동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발생한다.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영원한 합동을 승인하면서, 연방우주 관할권을 갖는 으뜸 영이 어떤 공동 경영권을 증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다.

17:6.6 (204.2) 아버지와_결합된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은,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는 모험을 하기 위해 출발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우주를 물질적으로 조직하는 길고 어려운 기간 내내, 이 연합체 형태로 함께 일한다.

17:6.7 (204.3) 4. 생명_창조 시절. 창조주 아들이 생명을 창조하려는 의도를 선포함에 따라서, 낙원에서는 “인격화 예식{禮式}”이 이뤄지는데, 일곱 으뜸 영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으뜸 영이 몸소 이를 체험한다. 이것은 창조주 아들의 영 배우자의 개체성에 낙원 신격이 기여하는 것이며, 무한한 영 인격자 안에서 생기는 “1차 분출” 현상으로 우주에 나타나게 된다. 낙원에서 이 현상이 생김과 동시에, 지금까지 비인격이었던 창조주 아들의 영 배우자는, 모든 실용적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진정한 한 인격자가 된다. 그 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이 동일한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한 인격자로 간주될 것이며, 이어지는 생명 창조로 생기는 인격체 무리 전체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17:6.8 (204.4) 5. 증여_이후 시대.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일곱째 증여를 완성한 후에, 그리고 완전한 우주 주권을 획득한

후에 우주 본부로 돌아갈 때, 창조적 영의 끝_없는 생애에는 또 다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소집된 우주 경영자들 앞에서, 승리한 창조주 아들은 우주 어머니 영을 공동 주권으로 상승시키고 영 배우자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

17:6.9 (204.5)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수립됨에 따라서, 우주 공동주권자는 창조적 영의 생애에서 여섯째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대한 체험의 본질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네바돈에서 미래의 진화 단계에 속한다.

17:6.10 (204.6) 7. *계시되지 않은 생애*. 우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서 이 여섯 국면을 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생애가 있는가? 우리는, 완결성취자들이 필사자로서 상승하는 중에 마지막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여섯째_단계의 영 생애로 들어간다고 기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완결성취자들이 우주 임무에서 또 하나의 계시되지 않은 생애를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주 어머니 영들이 앞으로 어떤 발견되지 않은

생애를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간주하리라는 점이 유일하게 기대되는데, 그 생애는 우주 봉사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창조주 미가엘 계층과 함께 충성스럽게 협동하는, 일곱째 국면을 구성할 것이다.

7. 보조 정신_영

17:7.1 (205.1) 이 보조{補助} 영들은, 창조주 아들과 그런 창조적 영의 공동 창조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 증여한 칠중{七重} 정신이다. 이 증여는, 그 영이 인격체 특권을 갖는 신분으로 증진되는 그때에 가능하게 된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본성과 기능발휘에 대한 설명은, 너희 네바돈 지방우주에 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당하다.

8. 최상급 영의 역할

17:8.1 (205.2)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무한한 영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공동 행위자로서 제3 근원 및 중심의 기능상 계보의 핵을 구성한다. 최상급 영들의 영토는, 낙원에 있는 삼위일체 현존으로부터, 공간의 행성들에서 진화_필사자 계층 정신의 기능발휘까지 확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강하는 경영 수준들을 통합하고, 그 요원들의

다중{多重} 역할을 조화시킨다. 반사하는 영 집단이 태고
항존자와 접촉하든지, 창조적 영이 미가엘 아들과
제휴해서 활동하든지, 또는 일곱 으뜸 영이 낙원 삼위일체
주변에 회로화 되든지 상관없이,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어디서든지, 최상급 영의 활동과 마주치게 된다.
이들은 "항존자" 계층의 삼위일체 인격체들, 그리고 "아들"
계층의 낙원 인격체들과 똑같이 활동한다.

17:8.2 (205.3) 최상급 영 집단은 무한한 어머니 영과 함께, 제3
근원 및 중심의 방대한 피조물 계통을 직접 창조한
자들이다. 모든 계층의 돌보는 영들이 이 연합체에서
태어난다. 1차 최고스라빔은 무한한 영 안에서
지원되며;이 계층의 2차 존재는 으뜸 영들이 창조하며;3차
최고스라빔은 일곱 회로 영이 창조한다. 반사하는 영들은,
집단으로, 놀라운 계층의 천사 무리, 즉 연방우주 봉사에
해당하는 전능한 제2스라빔의 어머니요_제작자다. 한
창조적 영이 한 지방 창조 천사 계층들의 어머니이며;그런
스랍 사역자들은 중앙우주 원형을 닮았다 하더라도 각
지방우주마다 독창적이다. 중앙에 거하는 무한한 영, 즉
모든 천사 사역자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어머니는, 돌보는
영들을 지은, 이 모든 창조자를 간접적으로 도와줄 뿐이다.

17:8.3 (205.4) 일곱 최상급 영 집단은, 인간거주 창조계를 조정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즉 일곱 으뜸 영의 연합체가, 칠중 하나님의 광범위한 활동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17:8.4 (205.5) 1. 집단으로, 으뜸 영들은 낙원 신격들의 삼위일체 신성{神性} 수준과 거의_동등하다.

17:8.5 (205.6) 2. 개별적으로, 그들은 삼자일체 신격의 1차 연합 가능성을 다 소진시킨다.

17:8.6 (206.1) 3. 공동 행위자의 다양한 대행자로서, 그들은 그가 아직 직접 행사하지 않은 지존하신 분의 그 영_정신_능력 주권의 저장소{貯藏所}다.

17:8.7 (206.2) 4. 반사하는 영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주 반사성의 낙원 중심인 위엄자와,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우주 정부를 동조{同調}시킨다.

17:8.8 (206.3) 5. 지방우주의 신성한 사역자들을 개별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으뜸 영들은 칠중 하나님의 마지막 수준, 즉 지방우주들의 창조주 아들과_창조적 영의 합동에 기여한다.

17:8.9 (206.4) 공동 행위자 안에 본래부터 있는 기능상 통일은, 그의 1차 인격체인 일곱 으뜸 영 안에서, 진화하는 우주에 노출된다. 그러나 미래에 완전하게 될 연방우주들에서는, 이 통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존자의 체험적 주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17:8.10 (206.5)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제18편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

18:0.1 (207.1)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모두 특별한 봉사를 위해 창조됐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성한 삼위일체가 그들을 고안{考案}했으며, 그들은 완전한 기법과 완결된 헌신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췄다.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에는 일곱 계층이 있다:

18:0.2 (207.2)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18:0.3 (207.3) 2. 영원{永遠} 항존자{恒存者}.

18:0.4 (207.4) 3. 태고{太古} 항존자.

18:0.5 (207.5) 4. 완전성{完全性} 항존자.

18:0.6 (207.6) 5. 최근{最近} 항존자.

18:0.7 (207.7) 6. 합동{合同} 항존자.

18:0.8 (207.8) 7. 충실{忠實} 항존자.

18:0.9 (207.9) 경영상으로 완전한 이 존재들의 숫자는 정해졌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창조된 것은 과거의
사건이며;더 이상 인격화되지 않는다.

18:0.10 (207.10) 이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광우주 전역에서
낙원 삼위일체의 경영 정책을 대변하며;응보를 대변하고,
낙원 삼위일체의 행정 판결 *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낙원
구체들에서 지방우주 본부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구성분자인 성좌 수도{首都}들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경영상으로 완전한 상호 관련된 계통을
형성한다.

18:0.11 (207.11)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는 모두, 신성한 전체
속성을 띄고, 낙원 완전성으로 창조된다. 오직 체험
영역에서만, 시공우주에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자질에
시간 흐름이 추가돼 왔다.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들에게는, 태만할 위험성이나 반역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들은 신성 본질을 지녔고, 인격체 운영의 신성하고 완전한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18:1.1 (207.5) 낙원 위성들 중에서 가장 안쪽 회로에는 일곱 세계가 있고, 10명의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로 구성된 단체가, 이 고양된 각각의 세계를 관장한다.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최상의 궁극적인 경영자다. 이 일곱 형제 구체의 직무를 운영하는 것은, 70명의 이 최고 지휘자 단체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 삼위일체의 자녀가, 낙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신성시되는 일곱 구체를 감독하지만, 이 세계들 집단은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회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1.2 (208.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은, 협조 및 공동 지휘자로서 열 명씩 무리지어 각 구체에서 활동하지만, 특별한 책임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 특별한 세계들 각각의 업무는, 일곱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이 협조 통치자 가운데 하나가, 전문화된 활동을 담당하는 그런 각 부서를 관장한다. 나머지 세 명은 다른 일곱 명에 대한 관계에서 삼자일체 신격의 개인 대행자로

행동하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또 하나는 아들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을 대행한다.

18:1.3 (208.2)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들을 특징짓는 분명한 등급 유사성이 있더라도, 그들은 뚜렷한 일곱 가지 특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디비닝톤의 직무를 맡은 열 명의 최고 지휘자가,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적 성품과 본성을 반사하며;이 일곱 구체가 각각 그렇게 하는데:열 명의 각 집단은 자기 관할의 특질을 나타내는 신격 또는 신격 연합체를 닮는다. 어센딩톤을 통치하는 열 명의 지휘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혼합된 본성을 반영한다.

18:1.4 (208.3) 나는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일곱 세계에 있는 이 높은 인격체들의 활동에 대해 거의 드러낼 수 없는데, 그들은 정말로 지존성 *비밀*이기 때문이다.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또는 무한한 영에게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독단적인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격들은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는 자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 같지만, 지존성 비밀들 전체를 완전히 달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창조된 존재의 칠중 집단화와 함께, 신격 연합체의 인격체

비밀을 담고 있는 영역을 언제든지 충분히 통찰할 수 없을 것이다.

18:1.5 (208.4) 이 최고 지휘자들의 업무는, 기본적인 이 일곱 집단의 우주 존재들이 이런 일곱 특별 세계에 거주했을 때, 또는 광우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신격들이 그들과 긴밀하게 몸소 접촉하는 것과 상관이 있으며, 그러므로 이런 아주 개인적인 관계와 특별한 접촉을 신성하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낙원 창조주들은, 하위 피조물의 경우에도, 그 인격체의 사적{私的}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그리고 다양한 독립된 계층의 모든 인격체에게도 해당된다.

18:1.6 (208.5) 높은 우주 달성을 이룩한 존재에 대해서도, 이 비밀 세계들은 충성심에 대한 시험으로 계속 남아 있다. 영원한 하나님들을 완전하게 친히 아는 것, 즉 신성과 완전성으로 이뤄진 그들의 성품을 자유롭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만, 낙원 통치자들이 피조 존재 전체와 맺는 개인적 관계 전체를 충분히 통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2. 영원 항존자

18:2.1 (208.6) 하보나의 10억 세계 각각을,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가 감독한다. 이 통치자들은 영원 항존자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10억 명인데, 각 하보나
구체마다 한 명씩이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후손이지만, 지존성 비밀과 마찬가지로, 기원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 두 집단의 온전히_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낙원_하보나 체계에 있는 정교한 세계들을 영원토록
통치해 왔으며, 교대 또는 재배치됨 없이 활동한다.

18:2.2 (208.7) 영원 항존자들은 자신의 영토에 거주하는,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의 눈에 보인다. 그들은 규칙적인 행성
비밀회의를 주재{主宰}한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교대로, 일곱 연방우주 본부 구체를 방문한다. 그들은,
일곱 연방정부의 운명을 관장하는 태고 항존자들과
혈통적으로 가깝고 신성하게 동일하다. 영원 항존자가
자신의 구체에서 자리를 비울 때, 그의 세계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지시를 받는다.

18:2.3 (209.1) 하보나 원주민, 그리고 중앙우주의 다른
생물{生物} 등과 같은, 확립된 생명체 계층들의 경우
이외에,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들은 완전히 자신의 개인

관념과 이상{理想}에 따라서 그들 각자의 구체를 발전시켜 왔다. 그들은 서로의 행성을 방문하지만, 복사하거나 모방하지는 않으며;그것들은 항상, 전적으로 독창적이다.

18:2.4 (209.2) 건축물, 자연적 장식물, 모론시아 구조물, 그리고 영 창조계는, 각 구체마다 독자적이고 독특하다. 각각의 세계는 영구히 아름다운 처소이고, 중앙우주에 있는 다른 어떤 세계와도 전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너희는,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독특하고 감동적인 각각의 구체들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낙원을 향해 위/쪽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세계에서 자연스럽지만, 신성한 상승 목표를 향해 안쪽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3. 태고 항존자

18:3.1 (209.3)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은, 지방우주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훈련 세계에서 졸업하고 연방우주 교육 구체로 승진할 때, 태고 항존자들을 포함해서, 이 증진된 영역의 높은 영적 통치자 및 지휘자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 수준까지, 영적 발전이 진행됐다.

18:3.2 (209.4)

태고 항존자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하며;삼위일체의 혼합된 성품과 통합된 본성을 드러낸다. 그들은 개체성을 소유하고, 그들의 인격체는 다양하지만, 일곱 으뜸 영의 경우처럼 서로 다르지는 않다. 그밖에 다양한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 그들은 한결같은 지도력을 제공하는데, 이 연방우주들은 각각 뚜렷하고 분리되고 독특한 창조물이다. 일곱 으뜸 영은 본성과 속성에서 서로 다르지만, 연방우주를 친히 통치하는 태고 항존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후손이며, 모두 균일하고 초월적으로 완전하다.

18:3.3 (209.5)

높은 곳에 있는 일곱 으뜸 영이 그들 각자의 연방우주 본성을 결정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은 동일한 이 연방우주의 경영을 지휘한다. 그들은 창조적 다양성에 경영상 획일성을 첨가하고, 일곱 분단으로 집단화된 광우주의 근원에 창조적 차이가 있음에도, 전체의 조화{調和}를 보장한다.

18:3.4 (209.6)

태고 항존자들은 모두 동시에 삼자일체됐다. 그들은 온갖 우주에서 인격체가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태고 항존자다.

너희가 낙원에 도착해서 사물의 시작에 대해 기록된 서류를 찾을 때, 인격체 부분에서 나타나는 첫 기입사항이, 21명의 이 태고 항존자의 삼자일체됨에 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8:3.5 (209.7) 이 높은 존재들은 항상 세 명씩 무리지어 통치한다. 그들이 개인으로 작업하는 많은 활동 국면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두 명이든지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영하는 높은 수준의 구체들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거주 세계를 몸소 떠나는 일이 결코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세계가 광범위한 반사성 체계의 연방우주 초점이기 때문이다.

18:3.6 (209.8) 3인조 태고 항존자 각자의 개인 거주지는 본부 구체에 있는 영적{靈的} 극점{極點}에 위치한다. 그런 구체는 70개의 경영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 태고 항존자들이 때때로 거주하는, 70개의 구획 수도{首都}가 있다.

18:3.7 (210.1) 능력, 권세의 범위, 그리고 관할권 한계로 보면, 시_공간 창조계를 직접 통치하는 자 중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가장 강력하고 전능하다. 광대한 온갖 우주 전체에서 오직 그들만이,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영원한 소멸{消滅}에 관련된 최종 행정 판결을 내리는 높은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세 명의 태고 항존자 전원이, 연방우주 최고 법정의 최종 판결에 반드시 참여한다.

18:3.8 (210.2) 신격들 및 그 낙원 동역자들 이외에, 모든 시_공간 실존 중에서 태고 항존자들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다재다능하고, 가장 신성하게 타고난 통치자다. 외견상 그들이 연방우주의 최고 통치자인 것 같지만;그들은 이 통치 권한을 체험적으로 얻지 못했으며, 따라서 언젠가는, 체험 주권자인 지존하신 분으로 대체될 운명인데, 그들은 틀림없이 지존하신 분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18:3.9 (210.3) 지존하신 분은,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지방우주에 대한 주권{主權}을 체험적으로 얻음과 마찬가지로, 체험적 봉사로 일곱 연방우주에 대한 주권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존자가 진화를 아직 완성하지 않은 현재 시대 동안에는, 태고 항존자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들에 대한 조화되고 완전한 경영상

전면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독창성의 지혜와 개성 있는 주도권이, 태고 항존자들의 모든 명령과 통치의 특징이다.

4. 완성 항존자

18:4.1 (210.4) 정확하게 210명의 완성 항존자가 존재하며, 그들은 각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 정부를 통치한다. 그들은 연방우주 지휘자들을 보좌하는 특별 업무를 위해 삼자일체됐고, 태고 항존자들의 직속 대리인 및 개인적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

18:4.2 (210.5) 세 명의 완성 항존자가 각 대구역 수도에 배정되지만, 태고 항존자들과는 달리, 세 명 모두가 항상 같이해야 될 필요는 없다. 때때로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자기 영역의 복지와 관련해서 태고 항존자와 친히 의논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18:4.3 (210.6) 대구역의 이 삼자일체 통치자들은, 경영 세부사항에 대한 숙달에서 각별하게 완전하고,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완성 항존자다. 이 영적 세계 존재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우리는 너희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 문제에 봉착했으며, 만족할만한 번역을 제공하기가 무척 힘든 경우를 매우 자주 겪는다. 우리는 너희에게 무의미할

그런 명칭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기 싫으며;따라서 적당한 이름, 즉 너희에게 분명한 동시에, 원래의 뜻을 어느 정도 나타내게 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을 종종 발견한다.

18:4.4 (210.7) 완성 항존자들은, 자신의 정부에 배속된, 신성한 조연자, 지혜 완성자, 및 우주 검열관들로 구성된 적당한_수준의 단체를 거느린다. 그들은 더 많은 숫자의, 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을 거느린다. 그러나 대구역 직무 가운데 일상 업무 대부분은 천상의 수호자와 지고 아들 보좌관들이 수행한다. 이 두 집단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 또는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의 삼자일체된 자손 가운데서 모집된다.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존재의 이 두 계층 가운데 어떤 계층은 낙원 신격들에 의해 다시_삼자일체되고, 그런 후에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을 보좌하도록 파견된다.

18:4.5 (211.1) 대부분의 천상의 수호자와 지고{至高} 아들 보좌관이 대구역 및 소구역 봉사에 배정되지만,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스라빔과 중도자들은) 세 부서 전체의 법정에 속한 직원인데, 태고 항존자, 완성 항존자, 그리고 최근 항존자들의 법정에서 활동한다.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아들과_융합되거나 영과_융합된 본성을 가진,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상승한 필사자들은) 한 연방우주 내 어디서든지 마주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구역 봉사에 참여한다.

18:4.6 (211.2) 일곱 연방우주의 정부 짜임새가 완전히 계시되는 때가 오기 전에는, 태고 항존자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 정부의 다양한 부서에 속한 모든 경영자는, 완전한 하보나 우주의 다양한 세계에서 영원 항존자들 밑에서 다양한 지속기간 훈련생으로 봉사한다. 나중에 삼자일체된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태고 항존자, 완성 항존자, 및 최근 항존자들의 봉사에 배속되기 전에, 영원 항존자들 아래서 어떤 기간 훈련 받으면서 지내게 된다. 그들은 모두 숙련되고, 시험을 마치고, 체험을 얻은 경영자다.

18:4.7 (211.3) 소구역 세계들에서 체류를 마친 후에 스프랜돈 본부로 나아갈 때, 너희는 완성 항존자들을 일찍 보게 될 것인데, 이 고귀한 통치자들이, 시간세계의 상승한

피조물을 위해 고등 훈련을 시키는, 70개 대구역 세계와 가깝게 연합돼 있기 때문이다. 완성 항존자들은, 대구역 학교들을 졸업하는 상승자에게 집단 서약{誓約}을 직접 시행한다.

18:4.8 (211.4) 대구역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들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가 하는 일은 주로 지적 본성에 속하는데, 이것은 소구역의 일곱 교육 세계에서 행하는 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특성을 갖는 훈련, 그리고 연방우주 본부의 490개 대학 세계에서 행하는 영적 이행업무와 대조{對照}를 이룬다.

18:4.9 (211.5) 비록 스프랜돈 대구역의 기록부에만 기입되지만, 스프랜돈은 너희가 기원된 지방우주를 포함하며, 너희는 우리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 부서를 모두 거쳐야만 할 것이다. 우버사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는 30명의 오르본톤 완성 항존자를 모두 만날 것이다.

5. 최근 항존자

18:5.1 (211.6) 최근 항존자들은 연방우주의 최고 지휘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존재이며;세 명씩 무리지어 소구역 직무를 관장한다. 그들이 본성적으로는 완성 항존자와

동등하지만, 경영상 권한에서는 하위에 있다. 인격적으로 영화롭고 신성하게 유능한 이 삼위일체 인격체는 정확하게 21,000명 있다. 그들은 동시에 창조됐으며, 영원 항존자들 아래서 하보나 훈련을 함께 통과했다.

18:5.2 (211.7) 최근 항존자들은, 완성 항존자의 경우와 비슷하게, 동역자와 보좌관들 단체를 거느리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천상{天上}의 존재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하위 계층을 배정받았다. 소구역들 경영하면서, 그들은 많은 숫자의 상승하는 거주{居住} 필사자, 다양한 우대{優待} 거류지들의 요원, 그리고 무한한 영 안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집단을 활용한다.

18:5.3 (211.8) 소구역 정부는, 독점적으로 그렇지 않는더라도 대체로, 연방우주의 큰 물리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 소구역 구체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본부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 세계들에서, 셋째 계층의 최고 동력 중심들, 그리고 모두 일곱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하는 활동을 시험{試驗}하는 것과 관련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다.

18:5.4 (212.1) 소구역 체제가 물리적 문제와 무척 광범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최근 항존자 세 명이 수도{首都} 구체에
함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 명은,
대구역을 감독하는 완성 항존자와 논의하기 위해 떠나
있거나, 높은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존재들의 낙원
비밀회의에서 태고 항존자를 대신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다. 그들은 낙원의 최고 협의회에서 태고 항존자를
대변하는 일에 완성 항존자와 교대한다. 그동안, 다른 최근
항존자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방우주 본부 세계를
검사하는 여행으로 떠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통치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소구역 본부에 근무하면서 항상
남아 있다.

18:5.5 (212.2) 너희 모두는 언젠가, 너희의 소구역인 엔사를
담당하는 세 명의 최근 항존자를 알게 될 것인데, 대구역의
훈련 세계들을 향해 안쪽으로 길을 갈 때 그들의 영향권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우버사로 상승할 때, 너희는
오직 한 집단의 소구역 훈련 구체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6. 합동 항존자

18:6.1 (212.3) “항존자” 계층에 해당하는 삼위일체 인격체들은, 연방우주 정부 수준 아래에서 경영자 자격을 갖고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진화하는 지방우주에서 오직 조연자 및 자문가로서만 행동한다. 합동 항존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공인을 받아서 지방우주의 이중 통치자에게 연락하는 인격체 집단이다.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각 지방우주는 이 낙원 조연자 가운데 하나를 배정받는데, 그는 삼위일체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방 창조계에 대해 만유의 아버지의 대행자로서 행동한다.

18:6.2 (212.4) 모두가 위임받지는 못했더라도, 70만 명의 이 존재들이 실존하고 있다. 합동 항존자들의 예비 단체는 우주 조절 최고 위원회로서 낙원에서 활동한다.

18:6.3 (212.5) 이 삼위일체 관찰자들이, 우주 정부의 모든 부서의 경영 활동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조화시키는데, 지방우주의 활동에서 구역 정부들을 거쳐서 연방우주의 활동에 이르기까지이며,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 합동 항존자다. 그들은 감독관들에게 삼중적으로 보고한다: 자기 소구역의 최근 항존자에게, 물리적 및 약간_지적 본성을 가진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자기

대구역의 완성 항존자에게, 지적이고 유사{類似}_영적인 사건을 보고하며;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태고 항존자에게, 영적 문제와 약간낙원같은 문제를 보고한다.

18:6.4 (212.6)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호소통을 위해 낙원 회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간의 접촉을, 그리고 낙원의 최고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다른 모든 인격체와의 접촉을 항상 유지한다.

18:6.5 (212.7) 합동 항존자는, 할당받은 지방우주의 정부와 유기적{有機的}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관찰자로서 그의 임무 이외에, 그는 오직 지방 권세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행동한다. 그는 지방 창조계의 모든 1차 협의회와 모든 중요 비밀회의의 직권상{職權上} 회원이지만, 경영 문제에 대한 기술적 고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8:6.6 (213.1) 지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거기서 영화롭게 된 존재들은 합동 항존자와 자유롭게 연합하는데, 그때 그는 진화로 완전해진 그런 영역에서 확대된 수용력을 갖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1차적으로 삼위일체 대사와 낙원 조연자다.

18:6.7 (213.2) 이중{二重} 신격 기원을 갖는 신성한 한 아들이 지방우주를 직접 통치하지만, 그는 한 낙원 형제, 즉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를 계속 옆에 둔다.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에, 대리 통치자들은 주로 합동 항존자의 조언에 따라서 주요 결정 대부분을 안내 받는다.

7. 충실 항존자

18:7.1 (213.3)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이 고위{高位} 인격체들은, 각 지방우주에 있는 100개 성좌의 통치자들에 대한 낙원 자문가다. 7천만 명의 충실 항존자가 있고, 합동 항존자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봉사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낙원 예비 단체는, 상호우주 윤리와 자체_정부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충실 항존자들은, 자신의 예비 단체의 최고 협의회가 통치하는 바에 따라서 교대로 봉사한다.

18:7.2 (213.4) 합동 항존자와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의 모든 관계는, 충실 항존자와 지방 창조에 속하는 성좌를 통치하는 보론다덱 아들의 관계와 같다. 그들은 배정된 성좌의 복지에 대해 최고로 헌신돼 있고 신성하게 충실하며, 따라서 그 이름이 --충실 항존자다. 그들은 오직

조언자로서만 행동하며;성좌 당국{當局}의 초대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성좌 본부를 둘러싸고 있는 건축양식 훈련 구체들에서, 그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에 대한 교육 사역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이행업무는 보론다텍 아들의 감독을 받는다.

18:7.3 (213.5) 지방우주 성좌에서 활동하는 모든 충실 항존자는 합동 항존자의 관할권 아래에 있고, 그에게 직접 보고한다. 그들은 광범위한 상호소통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지방우주 경계선들 내에서 상호연합하는 것으로 대개 스스로_제한돼 있다. 네바돈에서 근무하는 어떤 충실 항존자든지, 이 지방우주에서 임무 수행중인 같은 계층에 속하는 다른 모든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18:7.4 (213.6) 충실 항존자들은, 우주 본부에 있는 합동 항존자처럼, 그런 영역의 경영 지휘자의 거주지로부터 분리된 성좌{星座} 수도에 자신의 개인 거주지를 유지한다. 그들의 거주지는 성좌의 보론다텍 통치자의 거처와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수수하다.

18:7.5 (213.7) 충실 항존자들은, 만물의 중심 가까이 있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시되는 구체들로부터, 지방우주의 1차 부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경영_자문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다.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체제는 성좌들과 함께 끝나며;그런 낙원 자문가 중에서, 그 구성요소인 체계 또는 인간거주 세계에, 영원히 자리 잡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거주 세계의 이 경영 단위는, 전적으로 지방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

18:7.6 (213.8)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제19편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동격 존재

19:0.1 (214.1)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동격 존재로 명명되는 이 낙원 집단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포함하며, 또한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데, 세 집단의 높은 연방우주 경영자들, 그리고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라는, 어느 정도 비인격적인 범주를 포함한다. 심지어 하보나 원주민도, 낙원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들의 집단과 함께, 이 삼위일체 인격체들 분류에 포함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 논의에서 고려될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는 다음과 같다:

19:0.2 (214.2) 1. 삼위일체 교사{教師} 아들.

19:0.3 (214.3) 2. 지혜 완성자.

19:0.4 (214.4) 3. 신성한 조연자.

19:0.5 (214.5) 4. 우주 검열관.

19:0.6 (214.6) 5. 영감된 삼위일체 영.

19:0.7 (214.7) 6. 하보나 원주민.

19:0.8 (214.8) 7. 낙원 시민.

19:0.9 (214.9)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그리고 아마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도 제외하고, 이 집단들의 구성원 숫자는 명확하며;그들의 창조는 완결됐고, 과거 사건이다.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19:1.1 (214.10) 너희에게 계시된 천상{天上}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모든 높은 계층 중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만이 이중{二重} 수용력을 갖고 행동한다. 그들은 삼위일체 본성에서 기원됐으므로, 기능 면에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봉사에 거의 전적으로 헌신돼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와, 이중으로_기원된 인격체 사이의 우주 간격을 연결하는 연락원이다.

19:1.2 (214.11) 삼위일체 상비 아들이 완성된 숫자에 해당되는 반면, 교사 아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교사 아들의 최종 숫자가 얼마일지 모른다.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버사에 보내온 최근 정기 보고서에서, 봉사중인 이 아들의 숫자를 낙원 기록이 21,001,624,821명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3 (214.12) 이 존재들은, 낙원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에게 계시된 유일한 집단이다. 그들의 범위는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에 이르고, 거대한 단체가 각 지방우주에 배정돼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하듯이, 개별 행성에서도 봉사한다. 광우주의 짜임새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낙원에서 예비군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광우주의 모든 구획, 즉 공간의 외딴 세계들에서,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들에서, 그리고 하보나 세계들에서, 비상{非常} 의무 및 색다른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그들은 낙원에서도

활동하지만, 그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考察}은,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때까지 미뤄두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19:1.4 (215.1)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교사 아들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협조하는 최상 인격체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런 광범위한 온갖 우주에는, 제한된 관점{觀點}이라는 오류에, 즉 실체와 신성에 대한 분할된 생각 속에 내재된 악{惡}에 굴복하는, 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19:1.5 (215.2) 예를 들면:인간 정신은 단순하고 유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무한한 것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기원{起源}으로부터 신성한 운명까지 나아감으로써, 본 계시들 속에 묘사된 시공우주 철학에 접근하기를 대개 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 지/혜/로 이끌지 않는다. 그런 과정은 일종의 유전적 지/식/에 도달하는 가장 쉬운 길이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의 기원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며;사람의 신성한 운명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

19:1.6 (215.3)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현_시대 상황과 사람의 현행 문제들을 오로지 역사적으로 접근함에는 중대한 장애물이 있다. 인간적이거나 신성한, 지상{地上}의 또는 시공우주의 -- 어떤 실체 문제든지, 그것에 대한 참된 전망은 우주 실체에 대한 세 국면, 즉:기원, 역사, 및 운명에 대해 충분히 편견 없이 연구하고 서로 관련시킴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 세 체험적 실체에 대한 타당한 이해가, 현 상황을 현명하게 측정할 기초를 제공한다.

19:1.7 (215.4) 생물학적으로든지 또는 신학적으로든지, 인간 정신이 낮은 데로부터 출발해서 더 높은 데로 접근하는 철학 기법을 따라가기로 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책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19:1.8 (215.5) 1. 개인적 달성이든지 또는 시공우주 운명이든지, 최종적이고 완성된 진화 목표를 깨닫는 데 철저히 실패할 수 있다.

19:1.9 (215.6) 2. 시공우주의 진화적 (체험적) 실체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하여 사실에 대한 왜곡, 진리에 대한

오용{誤用},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함으로써, 최고로 큰 철학적 실책을 범할 수 있다.

19:1.10 (215.7) 3. 원인을 연구하려면 역사를 숙독{熟讀}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어떻게* 있게 됐는지를 아는 지식이, 어떤 존재의 현재 상태와 진정한 성품에 대한 지성적 이해를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는다.

19:1.11 (215.8) 4. 역사 자체만으로는 미래의 발전을--곧 운명을--충분히 나타낼 수 없다. 유한한 기원이 도움 줄 수는 있지만, 오직 신성한 원인만이 최종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영원한 목적을 알 수 없다. 현재는 오직 관련된 과거와 미래에 비취봄으로써만 참되게 해석될 수 있다.

19:1.12 (215.9) 그러므로,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공우주 실존과 모든 인격체 실체의 무한하고 영원하며 신성한 낙원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시_공간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사람과 그의 행성 문제에 접근하는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지혜 완성자

19:2.1 (215.10) 지혜 완성자는 연방우주에서 신{神}의 지혜를 의인화{擬人化}시키도록 고안된, 낙원 삼위일체의 특화된 피조물이다. 실존하는 이 존재의 숫자는 정확하게 70억 명이고,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 10억 명씩 배정돼 있다.

19:2.2 (215.11) 동격_존재들인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과 공통으로, 지혜 완성자들은 낙원과 하보나의 지혜를 거쳤으며, 디비닝톤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낙원 구체들의 지혜를 거쳤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 지혜 완성자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영구히 배정됐다. 그들은 낙원에서 봉사하지 않고, 낙원_하보나 회로들 세계에서조차 봉사하지 않으며;전적으로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에 전념한다.

19:2.3 (216.1) 지혜 완성자들이 활동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나, 그때 거기서 신성한 지혜가 작용한다. 전능하고 위엄 있는 이 인격체들의 활동에는, 지식과 지혜가 실제로 나타나고 완전하게 형태화된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지혜를 *반영*하지 않으며;그들이 바로 그 지혜 *이다*. 그들은 우주 지식을 응용하는 모든 선생을 위한 지혜의 근원이며;모든 우주에서 학문과 통찰력을 가르치는 기관들에게, 분별의 샘이자 식별의 우물이다.

19:2.4 (216.2) 지혜는 이중 기원을 갖는데, 완전한 존재들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신성 통찰력의 완성으로부터, 그리고 진화 피조물이 획득하는 개인 체험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혜 완성자들은, 신격 통찰력이라는, 완전한 낙원의 신성한 지혜 *이다*.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경영 동역자, 즉 강력한 사자,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그리고 권세 높은 이들은, 함께 행동할 때, 체험하는 우주 지혜 *이다*. 신성한 존재는, 신성한 지식이 완비됨을 이룰 수 있다. 진화 필사자는 상승자로서의 지식이 완비됨을 언젠가 달성할 수 있지만, 이 존재 가운데 누구도 모든 가능한 지혜의 잠재력을 홀로 다 발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방우주 운영에서 최고 상태의 경영상 지혜를 획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진화로 진보하는 체험적 고난을 통해서 연방우주 권세의 높은 책임 위치로 올라간 상승자 인격체들과, 신성한 통찰력을 지닌 이 지혜 완성자들이 항상 연합한다.

19:2.5 (216.3) 지혜 완성자들은, 자신의 경영상 총명함을 완성하기 위해, 이 체험적 지혜 보완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언젠가 영 실존의 일곱째 단계로 모집된 *후에*, 그들은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다다르지 못했던 지혜 수준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돼 왔다. 이 추론이 맞는다면, 진화로 상승한 그런 완전해진 존재들은, 모든 창조물 안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우주 경영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그런 것이 완결성취자들의 고귀한 운명이라고 믿는다.

19:2.6 (216.4) 지혜 완성자의 다재다능함이, 상승한 피조물의 모든 천상의 봉사에 그들이 실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지혜 완성자들, 그리고 내 계층의 인격체인 신성한 조연자들은, 우주 검열관들과 함께, 그들의 초기 시기든지 또는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든지, 개별 행성과 체계에 진리를 계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가장 높은 존재 계층을 구성한다. 초기_생명의 행성으로부터, 위로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특히 후자{後者}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 모두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봉사와 접촉한다.

3. 신성한 조연자

19:3.1 (216.5)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이 존재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영역에게 주는 신격의 조연이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신성한 조연을 *반영하지* 않으며;그들이 그

조언 *이다*. 봉사하는 210억 명의 조언자가 있고, 각 연방우주마다 30억 명씩 배정돼 있다.

19:3.2 (217.1) 신성한 조언자들은 우주 검열관과 지혜 완성자들의 동역자요 동등한 자인데, 이 지혜 완성자 인격체 각각에게 한 명 내지 일곱 명의 조언자가 연합돼 있다. 세 계층 모두가, 태고 항존자들의 정부에, 즉 대구역 및 소구역들을 포함해서, 지방우주 및 성좌들에, 그리고 지역 체계 주권자{主權者}들의 협의회에 참여한다.

19:3.3 (217.2) 내가 이 글을 쓰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개체로서 행동하지만, 또한 상황이 요구할 때마다 3인조로 활동하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행정 수용력 내에서 행동할 때, 한 명의 지혜 완성자, 한 명의 우주 검열관, 그리고 한 명에서 일곱 명에 이르는 신성한 조언자가 연합한다.

19:3.4 (217.3) 한 명의 지혜 완성자, 일곱 명의 신성한 조언자, 그리고 한 명의 우주 검열관이, 삼위일체 신성 법정, 즉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가장 높은 이동{移動} 자문 기관을 구성한다. 이런 아홉 명의 집단은, 사실을_발견하거나 진리를_계시하는 법정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법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재판하고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은 마치 태고 항존자가 그 문제를 판결한 것과 동일한데, 연방우주들의 역사 전체에서 그런 평결을 태고 항존자들이 바꾼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19:3.5 (217.4) 태고 항존자 세 명이 작용할 때에는, 낙원 삼위일체가 활약한다. 아홉 명의 법정이 일치된 심의를 거친 후에 어떤 결정에 도달할 때,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보면, 태고 항존자들이 말씀을 완료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낙원 통치자들은 경영 문제와 정부의 규칙을 다룰 때, 개별 세계, 체계, 및 우주와 직접 접촉한다.

19:3.6 (217.5) 신성한 조언자들은, 낙원 삼위일체가 주는, 신{神}의 완전한 조언이다. 우리는 완성된 조언을 대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완성된 조언 *이다*. 우리 동역자들, 즉 진화로 상승하여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고 완전하게 된 존재들의 체험적 조언으로 우리가 보충 받을 때, 우리의 병합된 결론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된다. 우주 검열관이 우리의 일치된 조언을 결합하고, 판결하고, 확인하고, 공표하면, 그 결과는 보편적 전체성의 문턱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평결은, 고려되는

문제와 포함된 상황의 시_공간 한계 내에서, 신격의 절대 입장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19:3.7 (217.6) 삼자일체된 진화 3인조와--곧 한 명의 강력한 사자, 권세가 높은 한 분,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한 분과--접촉을 이루는 일곱 명의 신성한 조연자는, 거의_낙원같은 수준의 영적 의미와 실체 가치에 대한 신성한 입장과, 인간 관점의 합일{合一}에 가장 가까운, 연방우주 접근법에 상당한다. 오직 자신을 증여하는 낙원 아들들만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일치된 시공우주 의견에 긴밀하게 근접하며, 그들은 인격체 체험의 각 국면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4. 우주 검열관

19:4.1 (217.7) 정확하게 80억 명의 우주 검열관이 실존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신격의 판결서{判決書} *이다*. 그들은 단순히 완성된 결정을 반사하지 않으며;그들이 낙원 삼위일체의 판결 *이다*. 심지어 태고 항존자도, 우주 검열관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19:4.2 (217.8) 중앙우주의 10억 세계 각각에 한 명의 검열관이 위임되는데, 거주하는 영원 항존자의 행성 경영에 배속돼 있다. 지혜 완성자들뿐 아니라 신성한 조연자들도 하보나 행정부에 그렇게 영원토록 배속되지는 않으며, 또한 우리 모두는 우주 검열관이 왜 중앙우주에 머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현재 활동은, 그들이 왜 하보나에 배치돼 있는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보나 인구가 부분적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어떤 미래 우주 시대의 요구를 예상하면서 거기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19:4.3 (218.1)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 10억 명의 검열관이 배정돼 있다. 그들은 개별 수용력 내에서, 그리고 지혜 완성자 및 신성한 조연자들과 연합해서, 일곱 연방우주의 모든 구획 전역에서 활동한다. 검열관들은 그렇게 광우주의 모든 수준, 즉 하보나의 완전한 세계들로부터 체계 주권자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행동하며, 진화 세계에 대한 모든 섭리시대 판결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19:4.4 (218.2) 우주 검열관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그 장소마다, 신격의 심판이 그때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검열관이 항상 지혜 완성자 및 신성한 조연자들과 접촉하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낙원 삼위일체의 일치된 지혜와 조언과 판결을 포함한다. 이런 사법적 삼인조{三人組} 안에서 지혜 완성자는 “나는 있었다”가 되고, 신성한 조언자는 “나는 있을 것이다”가 되지만, 우주 검열관은 항상 “나는 있다”이다.

19:4.5 (218.3) 검열관들은 총합{總合}하는 우주 인격체다. 1,000명의--또는 100만 명의-- 증인이 증언했을 때, 지혜의 소리가 말을 완료하고 신성{神性}의 조언이 기록을 완료했을 때, 상승자의 완성된 증언이 추가됐을 때, 검열관이 활약하고, 발산된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하고 신성한 총합이 즉시 계시되며;그런 발표는 신성한 결론, 즉 최종적이고 완전한 어떤 결정의 총합 및 내용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검열관이 말을 완료하면, 아무도 발언하지 않게 되는데, 그 검열관이 전에 지나간 모든 것의 참되고 실수 없는 전체를 이미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할 때, 어떤 항의도 없다.

19:4.6 (218.4) 나는 지혜 완성자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주 검열관의 판결하는 정신 활동을 충분히 납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내게는, 검열관이 우주 직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시된 사실과 진리 그리고 조사 결과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미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 검열관은, 완전한 창조주 통찰력과 완전하게 된 피조물 체험의 조합을 독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낙원 완전성과 우주 체험의 이 연합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분명히 생겨나게 할 것이다.

19:4.7 (218.5)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우주 검열관들의 정신 작용에 관해 마주치는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에서든지, 한 검열관의 기능발휘에 관해 우리가 알거나 짐작하는 모든 것을 참작한 후에도, 우리는 결정을 내다보거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음을 여전히 발견한다. 우리는 창조주의 입장과 피조물의 체험을 관련시킴으로써 가능한 결과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결론이 검열관의 발표를 항상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검열관은 어떤 방법으로 신격 절대자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많은 결정과 통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19:4.8 (218.6)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은, 일곱 계층의 최상급 삼위일체 인격체와 함께, 때때로 삼위일체 상비 아들로 명명되어 온 10개의 집단을 구성한다. 동시에 그들은, 삼위일체의 경영자, 통치자, 행정관, 자문가, 조연자, 및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단체를 이룬다. 그들의 숫자는 370억 명보다 약간 많다. 20억 70명이 중앙우주에, 그리고 50억 명 조금 넘는 숫자가 각 연방우주에 주둔한다.

19:4.9 (219.1)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의 기능상 한계를 묘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들의 행동이 유한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함은 맞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방우주 기록의 처리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_공간 환경이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총괄우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진화에 속하는, 어느 수준의 우주 경영이나 판결에서든지 그들이 행동한다.

5. 영감된 삼위일체 영

19:5.1 (219.2) 나는 영감{靈感}된 삼위일체 영들에 대해 너희에게 거의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들이 극소수이고 전적으로 비밀스런 계층의 존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비밀스런 존재인 것은, 분명히, 창조 근원에 그토록 가깝게 기원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그들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 행위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세 분의 신격들 전체뿐 아니라, 어느 한 분이나, 두 분에게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영들이 완성된 숫자에 속하는지 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숫자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믿고자 한다.

19:5.2 (219.3) 우리는 영감받은 영들의 본성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인격을 초월한 영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알려진 모든 회로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과 공간에 거의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활동의 본성으로부터 그 성품을 추론하는 것 외에, 우리는 그들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활동으로 생기는 결과를, 우주들 내부 여기저기서 분명히 목격한다.

19:5.3 (219.4) 어떤 조건들 아래서, 이 영감받은 영들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존재에게 감지되기에 충분할 만큼,

스스로를 개별화 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봐 왔지만;그들 가운데 하나를 알아보기는, 천상의 존재 중에서 낮은 계층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진화하는 우주들을 운영하는 동안, 삼위일체에서 기원되는 어떤 존재든지, 자신의 임무를 추진하기 위해 때때로 이 영을 직접 사용할지도 모르는 어떤 환경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실존한다는 것과, 특별한 환경 아래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때로는 그들의 현존을 알아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물질 창조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될 때까지, 시_공간 우주 운영이 위임된,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조직의 일부분이 아니다.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의 현재 체제나 경영에서, 그들은 뚜렷이 식별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19:5.4 (219.5)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언젠가 영원한 미래에, 단독 사자들을 대신해서 활약하게 돼 있다고 가르치는데, 삼자일체된 아들의 분명한 유형에 속하는 동역자로서의 임무 때문에, 그들의 직급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19:5.5 (219.6) 영감받은 영들은 온갖 우주에서 홀로 있는 영이다.

영으로서의 그들은, 단독 사자들이 선명한 인격체임을 제외하고는, 단독 사자와 매우 흡사하다. 우리는 영감받은 영에 대한 지식 대부분을 단독 사자로부터 얻는데, 그들은 영감받은 영의 현존에 선천적 민감성을 보이는 덕분에 그들의 근접성을 감지하며, 어떤 나침반이 자극{磁極}을 반드시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단독 사자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 가까이에 있을 때, 그런 신성한 현존의 질적{質的} 징후와, 또한 매우 분명한 양적 등록사항을 의식하는데, 단독 사자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영의 현존이나 현존들에 대한 분류와 숫자를 알 수 있다.

19:5.6 (220.1) 나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는데:유란시아에서 처럼, 사교 조율사가 거주민에게 내주하는 어떤 행성에 단독 사자가 있을 때, 그는 영 현존을 탐지하는_민감성이 질적으로 자극받음을 감지한다. 그런 경우에, 양적 자극은 없고, 오직 질적 동요만 일어난다. 조율사가 도래하지 않는 행성에 있을 때, 원주민과의 접촉은, 그런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사교 조율사가 낙원 삼위일체의 영감받은 영에 어떤 방법으로 관련됐음을, 또는 그들과 연결됐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특정한 국면의 일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한다. 그 두 존재가 만물의 근원 및 중심 근처에서 기원되지만, 같은 계층의 존재는 아니다. 사고 조율사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며;영감받은 영은 낙원 삼위일체의 자손이다.

19:5.7 (220.2) 영감받은 영들은 외견상 개별 행성 또는 우주 진화 개요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럼에도 그들은 거의 어디든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계층의 영 현존을 가리키는, 나와 연합된 단독 사자의 개인적 민감성은, 이 순간에 25피트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영감받은 계층, 그리고 동력 현존의 셋째 부분에 해당하는 존재인 어떤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가리킨다. 셋째 부분의 동력 현존은, 세 명의 영감받은 영이 접촉하면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한다.

19:5.8 (220.3) 현재 나와 연합된 열 두 계층 이상의 존재들 중에서, 단독 사자만이 유일하게, 삼위일체의 이 신비스런 실재의 현존을 자각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신성한 영들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는 반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똑같이 모르고 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지, 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이행업무의 성공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19:5.9 (220.4) 삼위일체 교사 아들이 우주 피조물의 의식 계몽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나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초의식 기법으로 그 영역의 선생으로서 활약하기도 한다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 수 없는, 어떤 방대한 내용의 영적 기본 지식, 즉 높은 영적 성취에 필수 불가결한 진리가 있다고 나는 확신하며; 자아 의식은 확실한 수용을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개념이 옳고, 내 계층 전체가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즉 도덕적 계몽과 영적 증진에 대한 보편적 개요 안에 있는 이 간격에 다리를 놓는 일이, 이 영감받은 영의 사명일지도 모른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이 두 유형의 교사가 활동하면서 어떤 종류의 접촉을 취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19:5.10 (220.5) 연방우주 훈련 세계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보나 회로에서, 나는 완성돼가는 필사자들과--즉 진화하는 영역들로부터의 영성화 되고 상승하는 혼들과-- 관계를 맺어 왔지만, 영감받은 영들이 때때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단독 사자 안에 있는 감지 능력이 가리키는 데도, 이 필사자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 나는 높거나 낮은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과 자유롭게 교제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의 훈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영들의 행위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체험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단독 사자, 그리고 때로는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존재들을 제외하고, 천상의 계통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감받은 영의 근접성을 의식한 적이 전혀 없었다.

19:5.11 (221.1) 나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이 나와 숨바꼭질 하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내가 그들과 연락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내게 나타내기를 어렵게 시도하고 있을 것이며;우리의 어려움과 제한은 상호적이고 내재적임에 틀림없다. 나는 우주에 독단적 비밀이 없음에 대해 만족하며;그러므로 나는 나와 같은

계층의 창조물에 속하는 이 영들이 분리돼 있는 신비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5.12 (221.2)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영원한 여행에 첫 발을 방금 디디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봄”으로써 그리고 “물질적” 확신에 따라 진보하기 전에, 먼 길을 전진해야만 됨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보하기를 희망한다면, 너희는 신앙을 오래도록 활용하고 계시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6. 하보나 원주민

19:6.1 (221.3)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 삼위일체의 직접 창조물이며, 그들의 숫자는 너희의 제한된 정신 개념을 초월한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우주의 이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종족 같은, 그런 신성하게 완전한 피조물의 선천적 재능을 유란시아인이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 너희는 이 영화로운 피조물을 정말로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며;하보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데, 그때 영 동지로서 그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19:6.2 (221.4) 너희는 하보나 문화에 속하는 10억 세계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이 찬란한 존재들과 영원한 친분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간 세계로부터 온 가장
저급한 인격있는 피조물과, 중앙우주의 완전한
구체들에서 태어난 이 높은 인격있는 존재 사이에서
자라나는 그 친분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과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스런
연합을 이루면서, 필사자로서 진보하는 초기 단계의 영적
영양부족을 크게 보상받을 것이다. 동시에,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맺는 접촉을 통해서, 하보나 주민은 신성하게
완전한 생애를 살면서 항상 가졌던 체험적 장애를 적지
않게 극복하는 어떤 체험을 얻는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하보나 원주민 양쪽 다 서로에게 대단히 유익하다.

19:6.3 (221.5) 하보나 원주민은,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다른 모든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완비되도록 기획됐고,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다른 인격체들처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험 재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상비 아들과는 달리, 하보나 주민은 신분에서 진보할
것인데,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영원성_운명을 가질지도
모른다. 조율사가_아닌 아버지 단편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봉사함으로_실제화 하고, 그렇게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가는 신분을 갖추는 바로 그 하보나 주민이

이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중앙우주의 이 원주민에게
열려있는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들이 있다.

19:6.4 (221.6) 하보나 원주민 신분의 진화가, 우버사에서 많은
추측을 일으켜 왔다. 그들이 여러 낙원 완결성 단체에 계속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기 때문에,
하보나에 머무는 원주민 숫자는 분명히 계속 줄어든다. 이
진행사항의 궁극적 결과가 우리에게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보나가 자체 원주민을 완전히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우리는 외부 공간
층의 이어지는 창조 시대 동안, 언젠가 완결성취자 단체에
하보나 주민이 들어가기로 아마 멈추게 될 것이라는
이론을 환영해 왔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이어지는 우주
시대에, 혼합된 집단의 거주 존재로, 즉 원래 하보나 원주민
가운데 일부만 구성하는 어떤 시민 신분으로 중앙우주가
채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환영해 왔다. 어떤 계층 또는
유형의 피조물이 미래의 하보나에서 거주 신분을 그렇게
갖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9:6.5 (222.1) 1. 지방우주 성좌{星座}의 현재 영구 시민인 유니비타시아.

19:6.6 (222.2) 2. 빛과 생명의 시대가 개화{開花}될 때, 연방우주의 인간거주 구체에서 태어날지도 모르는, 필사자의 미래 유형들.

19:6.7 (222.3) 3. 이어지는 외부 우주에서 유입되는 영적 특권계층.

19:6.8 (222.4) 예전 우주 시대의 하보나는 현재 우주 시대의 하보나와 어느 정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중앙우주에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시하는 그런 느린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큼이나, 일리 있다고 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우주는 정지돼 있지 않으며;오직 하나님만 변화가 없다.

7. 낙원 시민

19:7.1 (222.5) 낙원에는 수많은 집단의 훌륭한 존재, 즉 낙원 시민이 거주한다. 그들은 의지를 지닌 상승하는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기획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충분하게 계시되지 않는다. 3천 개가 넘는 이 숭고한 지성체 계층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집단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곱 연방우주의 창조 계획을 선포한 삼위일체의 명령과 동시에 인격화됐다.

19:7.2 (222.6) 낙원 시민과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로서 집단으로 명명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9:7.3 (222.7) 이것으로,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하게 한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19:7.4 (222.8)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들은 통행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스라빔 같은 운송 인격체에 의존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온갖 우주에서 자유롭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단독 사자들처럼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공간 운송 수단 전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연방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유란시아 시간으로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우버사에서 유란시아로 여행하는 데는, 너희 시간으로 109일 걸렸다.

19:7.5 (222.9)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인 상호교신이 가능하다. 우리 창조물 계층 전체는, 오직 영감받은 영들만 제외하고, 낙원 삼위일체 자손의 모든 부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과 접촉할 수 있다.

19:7.6 (222.10) [우버사의 신성한 조언자가 제시했음]

제20편 하나님의 낙원 아들

20:0.1 (223.1)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활동할 때, 세 가지 일반 항목으로 분류된다:

20:0.2 (223.2) 1. 하강{下降}하는 하나님의 아들.

20:0.3 (223.3) 2. 상승{上昇}하는 하나님의 아들.

20:0.4 (223.4) 3.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

20:0.5 (223.5)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은, 신이 직접 창조한 인격체들을 포함한다. 필사 피조물 같은 상승하는 아들들은, 진화라고 알려진 창조 기법에 체험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신분을 획득한다.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은 혼합 기원에 해당하는 집단인데, 삼위일체에서
직접 기원되지 않더라도, 낙원 삼위일체가 받아들인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1.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

20:1.1 (223.3) 하강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높고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와 체계에서
진화함으로 기원된 저급한 피조물이--곧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낙원으로 올라가도록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거기서 하강하는 봉사 사역에
헌신한다. 수많은 하강하는 아들 계층 가운데, 일곱 가지가
이 장에서 서술될 것이다. 빛과 생명의 중앙 섬에 있는
신격들로부터 나오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낙원
아들*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은 세 계층을 포함한다:

20:1.2 (223.4) 1. 창조주 아들 --미가엘.

20:1.3 (223.5) 2. 집정관 아들 --아보날.

20:1.4 (223.6) 3. 삼위일체 교사 아들 --데이날.

20:1.5 (223.7) 하강하는 아들신분 가운데 나머지 네 계층은,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로 알려진다:

20:1.6 (223.8) 4. 멜기세덱 아들.

20:1.7 (223.9) 5. 보론다덱 아들.

20:1.8 (223.10) 6. 라노난덱 아들.

20:1.9 (223.11) 7. 생명 운반자.

20:1.10 (223.12) 멜기세덱은,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 창조적 영, 및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동 후손이다. 모든 보론다덱과 라노난덱은, 창조주 아들과 그의 창조적 영 동역자가 낳는다. 보론다덱은, 지고자, 즉 성좌 아버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라노난덱은 체계 주권자 및 행성 왕자로 알려져 있다. 삼중 계층인 생명 운반자는, 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연방우주 관할권을 갖는 세 태고 항존자 가운데 하나와 연합해서 낳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방우주 아들들의 본성과 활동은, 지방 창조계 직무를 다루는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0:1.11 (224.1)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은 세 가지로 기원된다:1차 아들, 즉 창조주 아들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낳으며;2차 아들, 즉 집정관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자녀이며;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자손이다. 봉사, 경배, 및 간청의 관점에서 보면, 낙원 아들들은 하나 같으며;그들의 영은 하나이고, 그들의 활동은 질{質}과 완비됨에서 동일하다.

20:1.12 (224.2) 낙원 항존자 계층이 신성한 경영자임을 입증했듯이, 낙원 아들 계층은 신성한 사역자로서--곤 창조자, 봉사자, 증여자, 재판관, 선생, 및 진리 계시자로서-- 자신을 계시해 왔다. 그들은 영원한 섬의 기슭에서부터, 인간이 거주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주를 정렬시키는데, 본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복합적인 봉사를, 중앙 및 연방우주들에서 수행한다. 그들은 봉사하는 종류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되지만, 지방우주에서는 집정관 및 교사 아들들 모두, 그 영토를 관장하는 창조주 아들의 지시 아래서 봉사한다.

20:1.13 (224.3) 창조주 아들들은 자신의 인격자 속에 중심 두는 영적 재능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영을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필사자 육신에게 부어줬을 때처럼, 이 재능을 증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각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영적으로 당기는 이 힘을 부여받았으며;자신의 영토에서 봉사하면서 하강하는 각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행동과 감정을 직접 의식한다. 영원한 아들의 절대 영적 흡인력에 대한 신성한 닻은꼴, 즉 지방우주 복제품{複製品}이 여기 있는데, 낙원 아들이 이 온갖 우주에서 어디 있든지, 그들 전체와 접촉하고 유지하기 위한 영원한 아들의 접근을, 그 흡인력이 가능하게 한다.

20:1.14 (224.4) 낙원 창조주 아들은, 하강하면서 봉사하고 증여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아들로써 일할 뿐만 아니라, 증여 생애를 완성한 후에도 일하며, 각자는 자신의 고유 창조물 안에서 우주 아버지로서 활동하는 반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통치를 기꺼이 인정하기까지, 행성을 하나하나 쟁취하도록 고안된, 증여하는 봉사와 영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계속하는데, 낙원 아버지의 뜻에 피조물이 헌신할 때, 그리고 그의 창조주 아들의 우주 주권에 행성이 충성할 때 최고점에 달한다.

20:1.15 (224.5) 칠중 창조주 아들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해심 있고 동정적이며 자비로운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한데 어우러진다. 미가엘, 즉 창조주 아들 계층 전체는 너무 독특하므로, 그들의 본성과 활동에 대한 고려는 이 장과 연결되는 다음 문서에서 설명될 것이며, 한편 본 장에서는 주로 낙원 아들신분의 나머지 두 계층, 즉:집정관 아들 및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2. 집정관 아들

20:2.1 (224.6) 영원한 아들이 수립한 원래의 절대 개념이, 무한한 영이 구상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새롭고 신성한 이상{理想}과 결합할 때마다, 새롭고 독창적인 하나님의 아들, 즉 낙원 집정관 아들이 산출된다. 이 아들들은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 계통과는 대조적으로, 아보날 계통을 구성한다. 그들은 친히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창조자가 아니지만, 그들의 전체 업무에서 미가엘과 긴밀하게 연합돼 있다. 아보날은 행성 사역자 및 재판관, 즉 시_공간 영역에서--곧 모든 인종의, 모든 세계에 대한, 그리고 모든 우주에서-- 집정관{執政官}이다.

20:2.2 (225.1) 우리는 광우주에서 집정관 아들 전체 숫자가 약 10억 명이라고 믿을만한 까닭이 있다. 그들은 자체_통치 계층인데, 낙원에 있는 자체 최고 협의회의 지시를 받으며, 그 위원회는 전체 우주 근무자 중에서 뽑힌, 체험 있는 아보날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방우주에 배정되고 위임될 때, 그 영토의 창조주 아들의 지시 아래서 봉사한다.

20:2.3 (225.2) 아보날들은, 지방우주 개별 행성에게 봉사하고 증여하는 낙원 아들이다. 그리고 각 아보날 아들이 독특한 인격체를 소유하기 때문에, 즉 어느 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자신이 머무는 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독특하며, 거기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종종 육신화하고, 때로는 진화 세계의 세상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20:2.4 (225.3) 아보날들은, 고등 경영 수준에서 봉사하는 외에도,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20:2.5 (225.4) 1. **사법 행위.** 그들은 행성 섭리시대가 마무리될 때마다 행동한다. 시간이 되면, 수십_수백_의 그런 사명이 각 개별 세계에서 수행될 것이며, 그들은 섭리시대 종결자,

즉 잠자는 생존자들의 해방자로서 수없이 여러 번, 같은 세계 또는 다른 세계들로 가게 될 것이다.

20:2.6 (225.5) 2. *집정관의 사명.* 이 유형의 행성 방문은 대개 증여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다. 그런 사명이 있을 경우에, 아보날은 필사자로서 탄생하지 않고, 육신화 기법으로 그 영역의 어른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일상적인 집정관 방문이 처음으로 있는 후에, 아보날은 집정관 자격으로, 증여 아들이 출현하기 전과 후에, 같은 행성에서 계속 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추가적 집정관 사명의 경우에, 아보날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지 그 세계에 무능한 한 아기로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20:2.7 (225.6) 3. *증여 사명.* 아보날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어떤 진화 세계에서 어떤 필사자 인종에게 자신을 증여한다. 심판을 위한 방문이 수없이 많이 있고, 집정관 사명이 여러 번 있지만, 각 행성에는 오직 한 명의 증여 아들만 나타난다. 증여 아보날들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됐던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20:2.8 (225.7)

아보날 아들이 집정관 사명과 증여 사명에 봉사하게 될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개, 그 체험을 일곱 번 거쳤을 때, 그런 봉사를 적게 한 자들을 위해 중지된다. 여러 번 증여 체험을 가진 이 아들들은, 그때 한 창조주 아들의 높은 개인 협의회에 배정되고, 그리하여 우주 직무의 경영에 참여한다.

20:2.9 (225.8)

집정관 아들은, 인간거주 세계를 위해 거기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에서, 지방우주 피조물 가운데 두 계층, 즉 멜기세덱과 천사장의 도움을 받으며, 한편 증여 사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지방 창조계에서 기원된 찬란한 저녁별들과 동행한다. 2차 낙원 아들, 즉 아보날은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경우에, 자신이 봉사하는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인, 1차 낙원 아들의 충분한 능력과 권세로 후원을 받는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인간거주 구체에서 그들의 업무는, 필사자 주거지인 그런 세계에서 창조주 아들이 베푸는 봉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고 만족스럽다.

3. 사법 행위

20:3.1 (226.1) 아보날들은 집정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역의 고등 집정관, 즉 덧없는 세상들의 이어지는 섭리시대에 대한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자는 생존자들을 깨우는 일을 주관하고, 그 영역에서 심판 자리에 앉으며, 응보가 일시 중지됐던 섭리시대를 끝내고, 보호관찰 하는 자비의 시대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행성에서 사역하는 공간 피조물을 새로운 섭리시대의 과제에 재배치하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로 돌아간다.

20:3.2 (226.2) 한 시대의 운명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때, 아보날이 진화 인종의 운명을 정하지만, 인격있는 피조물의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런 판결문을 그들이 집행하지는 않는다. 연방우주 당국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런 성격의 평결을 집행하지 않는다.

20:3.3 (226.3) 한 섭리시대를 종결시키기 위한, 그리고 행성 진보의 새로운 시절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낙원 아보날이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것이, 반드시 집정관 사명 또는 증여 사명일 필요는 없다. 집정관 사명이 때로는, 그리고 증여 사명은 언제나, 육신화에 해당하며;다시 말해서, 아보날은

그런 임무의 경우에 --글자 그대로-- 물질 형태를 입고
행성에서 봉사한다. 그들의 다른 방문은 "인위적"인
경우이며, 이런 수용력에서는 아보날이 행성 봉사를 위해
육신화 하지 않는다. 집정관 아들이 오직 섭리시대
재판관으로서 온다면, 영적 존재로서 행성에 도착할
것인데, 그 영역에서 물질 피조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인위적 방문은, 인간거주 세계의 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3.4 (226.4) 집정관의 체험과 증여 체험 이전에, 아보날 아들은
행성의 재판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사명
가운데 어느 경우든지, 지나가는 행성 시대를 육신화 된
아들이 재판할 것이며;인간 육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증여하는 사명을 띠고 육신화 할 때, 창조주 아들도 그렇게
한다. 낙원 아들이 진화 세계를 방문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때, 그가 계심으로써 한 섭리시대가 종결되고,
그 영역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다.

4. 집정관 사명

20:4.1 (226.5) 증여 아들이 행성에 출현하기 전에, 인간거주
세계에는 대개 집정관 사명을 띤 낙원 아보날이 방문한다.

그것이 첫 번째 집정관 방문이라면, 그 아보날은 항상 물질 존재로 육신화 한다. 그는 배정된 행성에 필사자 인종 가운데 완전히 성장한 남자, 즉 그의 시대와 자손에 해당하는 필사 피조물에게 충분히 보일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물리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집정관이 육신화 돼있는 동안 내내, 그 지방 및 우주의 영적 힘과 아보날 아들의 연결은 완벽하고 중단되지 않는다.

20:4.2 (226.6) 행성은, 증여 아들이 출현하기 전과 후에 집정관의 방문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동일한 아보날 또는 다른 아보날들이 그 행성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섭리시대 재판관으로서 활동하지만, 심판하는 그런 인위적 사명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집정관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아보날들은 그런 경우에 결코 육신화 하지 않는다. 행성이 반복적인 집정관 사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더라도, 아보날들이 필사자 육신화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봉사할 때에는, 항상 그 영역의 어른으로 나타나며;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20:4.3 (227.1) 증여 사명 또는 집행관 사명에 따라 육신화 됐을 때, 낙원 아들은 체험된 조율사를 소유하고, 이 조율사는 각 육신화마다 다르다. 증여된 하나님의 아들의 정신을 점유하는 조율사는, 자신이 내주한 인간적인_신성한 존재와의 융합을 통해서 인격체가 되기를 결코 바랄 수 없지만,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종종 인격화된다. 그런 조율사들은, 인간거주 영역을 향한 신비 관찰자들의 경영, 신원확인, 및 파견을 위해서 지시하는 최고 디비닝톤 협의회를 형성한다. 또한 이 세상에서 거하던 장막{帳幕}이 필사의 분해를 겪고 나서, 이들은 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조율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 재판관의 신실한 조율사는 그들 부류 중에서 높은 우두머리가 된다.

20:4.4 (227.2) 유란시아는, 집행관 사명을 띤 아보날 아들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유란시아가 인간거주 세계에 대한 일반 계획을 따랐더라면, 아담 시대와 그리스도 미가엘 증여 사이에 언젠가, 집행관 사명으로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행성에서 낙원 아들들의 정규 순서는, 1,900년 전에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최종 증여의 임무를 띠고 출현함으로써 완전히 흐트러졌다.

20:4.5 (227.3) 유란시아는 집정관 사명을 띠고 육신화 하도록 위임받은 한 아보날의 방문을 아직도 받을 수 있지만, 낙원 아들들의 장래 출현을 고려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런 방문의 시기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미가엘이_증여된 세계는 으뜸 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런 경우에는 그의 고유한 계획과 통치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리고 너희 세계의 경우에, 이것은 미가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더욱 복잡하게 됐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된 오해와는 상관없이, 한 가지는--곧 너희 세계에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은-- 분명히 믿을만하다. 이런 예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이 유란시아에 방문하는 장래 순서는, 시간이 지나야만 드러날 것이다.

5. 하나님의 낙원 아들 증여

20:5.1 (227.4)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첫” 사고{思考}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다. 이 원본 아들이 몸소 복제하는 일, 즉 신{神}의 확장이 필사자 육신화라는 증여 사명에서 시작할 때, 신성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이뤄졌으며, 그리하여 그 말씀은 동물에서
기원된 하위 존재들 가운데 그렇게 거했다.

20:5.2 (227.5) 아들이 증여되기로 결단한 것이 만유의 아버지의
입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다는 믿음이 유란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아보날과 미가엘 아들의 증여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 아들들을 민족과 행성에 대한
안전하고 동정적{同情的}인 집정관 및 통치자로 만들려고
고안한 체험 과정에 필연적인 부분이다. 일곱 번 증여한
경력은 모든 낙원 창조주 아들의 최고 목표다. 그리고 모든
집정관 아들은, 1차 창조주 아들들 및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특징을 매우 많이 나타내는, 바로 이 봉사 정신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20:5.3 (227.6)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정상 인간 정신에 사고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필사_인간거주 세계에 어떤 계층의 낙원 아들이
증여돼야만 하는데,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조율사가 진실한 인간 전부에게 오지는 않기
때문이며;진리의 영을 보내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에서

필사자 증여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낙원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20:5.4 (228.1) 인간거주 행성의 긴 역사 행로 동안에, 여러 섭리시대 판결이 일어날 것이며, 집정관 사명이 한 번 이상 발생하겠지만, 증여 아들은 대개 그 구체에서 한 번만 봉사할 것이다. 각 인간거주 세계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필사자 생애를 살게 되는, 한 명의 증여 아들을 필요로 할 뿐이다. 조만간,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창조주 아들이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하기로 선택한 행성, 즉 각 지방우주마다 하나씩의 행성을 제외한 모든 필사_인간거주 세계마다, 증여 사명을 띤 집정관 아들을 맞이하게 돼 있다.

20:5.5 (228.2) 증여 아들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네바돈 역사에서 유란시아에 왜 그토록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너희 행성이 지방우주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성이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너희 창조주 아들의 최종적이고 승리에 넘친 증여

경기장, 즉 네바돈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최고 주권을
미가엘이 쟁취한 경기장이었다.

20:5.6 (228.3)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지방우주 본부에서, 특히
자신의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동역자 아들들, 즉
집정관 아들 및 다른 자들의 학부{學部}에서 조연하고
지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집정관 아들들은,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섬세한 자비와 애정 어린
동정심으로 공간 세계들에 자신을 증여한다. 그리고 이
행성 봉사는, 어떤 면에서도 미가엘의 필사자 증여보다
열등하지 않다.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체험하는 최종 모험의 영역으로, 유별나게 불운을 여러 번
겪어왔던 곳을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자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 창조주 아들의 증여를 요구해야
할 만큼, 불행한 조건 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증여
집단에 속한 어떤 아들이 증여되든지 똑같이 충분할
것인데, 집정관 아들은 지방우주에 속한 세계에서 어떤
업무에 임하든지, 마치 그의 낙원 형제인 창조주 아들이
왔더라도 똑같은 만큼, 신성하게 효과적이고 최고로
지혜롭기 때문이다.

20:5.7 (228.4) 증여를 위해 육신화 된 기간에, 재난의 가능성이 이 낙원 아들들을 계속 따라다니더라도, 증여 사명을 띠고 있는 어떤 집정관 아들 또는 창조주 아들도 실패했다거나 태만했다는 기록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둘 다 절대 완전성에 너무나 가깝게 기원됐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지만, 즉 살과 피를 가진 필사 피조물과 정말로 비슷하게 되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에서는 항상 성공했다. 그들은 증여 사명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 전역에서, 그들의 증여 및 행성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 지방우주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매혹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6. 필사자_증여 생애

20:6.1 (228.5) 낙원 아들이 증여 아들이자 필사자 육신화를 위해 준비되는, 증여 행성에서 어머니에게 잉태되는 방법은, 우주의 신비이며;이 소나링톤 기법의 활동을 감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와 필사자 생애에 대한 숭고한 지식이 너희의 혼에 스며들게 하라, 그러나 네바돈의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쓸모없는 사색에 사고력{思考力}을 소모하지는 마라. 우리 모두, 신성한

본성을 가진 존재에게는 그런 업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런 현상을 가져온 신성한 지혜가 채택한 기법에 관해 쓸데없이 짐작하는 일에는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

20:6.2 (229.1) 필사자로서_증여하는 사명에 임하는 낙원 아들은,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항상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의 남자아이로 자란다. 최상의 봉사에 임하는 이 아들들은 모두, 인간이 이루는 것과 똑같이, 유아기에서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돼간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태어난 인종의 필사자를 닮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영역의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간구한다. 물질 관점에서, 이 인간적인_신성한 아들들은 한 가지 예외만 갖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세계에서 자손을 둘 수 없으며;그것은 모든 계층의 낙원 증여 아들들에게 부과된 보편적 금지사항이다.

20:6.3 (229.2) 예수가 너희 세계에서 목수의 아들로 일했던 것처럼, 다른 낙원 아들들도 자신의 증여 행성에서 다양한 수용력을 갖고 노동한다. 너희는, 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행성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낙원 아들이 증여 과정에 가져보지 못한 어떤 직업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20:6.4 (229.3) 증여 아들이 필사자 생애를 사는 체험을 숙달하고 나면, 자신의 내주하는 조율사와 완전한 조화를 성취하고 나면, 그 후 즉시, 육신 속에 있는 형제들의 혼에 영감을 주고 정신을 밝혀주도록 계획된 자신의 행성 사명 역할을 시작한다. 교사로서의 이 아들은, 자신이 머무는 세계에 있는 필사자 인종의 영적 계몽에 전적으로 헌신한다.

20:6.5 (229.4) 미가엘과 아보날들이 자신을 필사자로서 증여하는 생애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비교될 만하나, 다 똑같지는 않은데: 너희의 창조주 아들은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들을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봤다"고 선포했지만, 집정관 아들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봤다"고 선언한다. 집정관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태어난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육신화 하지도

않으며;항상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 낙원
아들로서 자신을 증여한다.

20:6.6 (229.5) 증여 아들, 즉 창조주 또는 집정관은,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제3일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너희는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물렀던 창조주 아들이 당했던 그런 비극적 죽음을 그들이 항상 맞이한다는 관념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가 당했던 색다르고 유별나게 잔인한 체험 때문에, 유란시아는 지방우주에 “십자가의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 그런 비인간적 취급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행성은 더 이해심 많게 그들을 영접해 왔는데, 그들은 폭력적 죽음을 맞이하는 일 없이, 자신의 필사자 생애를 끝내고, 그 시대를 종결시키며, 잠자는 생존자들을 판결하고, 새로운 섭리시대를 시작하게 한다. 증여 아들은 반드시 죽음을 맛봐야 하고, 그 영역의 필사자들의 실제 체험 전체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그 죽음이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이어야 하는 것은, 신성한 계획의 요구조건이 아니다.

20:6.7 (229.6)

증여 아들은, 폭력으로 죽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음의 문턱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엄격한 응보” 또는 “신{神}의 진노”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필사자 실존이 행성에서 그렇게 살듯이, 피조물의 생애를 구성하는 모든 것 속에서 육신화하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이라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다. 증여는 행성과 우주의 필연이며, 물리적 죽음은 증여 사명 가운데 필요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0:6.8 (230.1)

필사자로서 육신화한 일이 끝나면, 봉사했던 아보날은 낙원으로 나아가고, 만유의 아버지께 인정받으며, 배정된 지방우주로 돌아가고, 창조주 아들에게 승인받는다. 증여 아보날과 창조주 아들은 그때, 증여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 인종들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도록, 그들의 공동 진리의 영을 보낸다. 지방우주에서 주권을 갖는 시대 이전에는, 이것은 두 아들의 공동 영인데, 창조적 영이 이를 효력 있게 만든다. 이것은, 미가엘의 일곱 번째 증여에 뒤따르는 지방우주 시대들의 특징을 이루는 진리의 영과는 어느 정도 다르다.

20:6.9 (230.2) 창조주 아들의 최종 증여가 완성되면, 그 지방우주 가운데 아보날이_증여된 세계들 전부에게 전에 보냈던 진리의 영이 본질적으로 변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권자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이_필사자로_증여됐던 행성에서 봉사하도록 진리의 영이 해방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 후에, 집정관의 증여로 인해 영광 받았던 각 세계는, 그 집정관 아들과 공동으로, 칠중 창조주 아들로부터 동일한 영 위로자를 받게 될 것인데, 지방우주 주권자가 증여 아들로써 몸소 육신화 했다면, 그 세계도 같은 위로자를 받았을 것이다.

7. 삼위일체 교사 아들

20:7.1 (230.3) 낙원 삼위일체가,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영적인 이 낙원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하보나에서 데이날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로 기록돼 있는데, 그들의 기원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 살빙톤에서는 그들이 때로 영적인 낙원 아들로 명명되기도 한다.

20:7.2 (230.4) 교사 아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우주 인구조사 방송에 의하면,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에서

활동하는 이 삼위일체 아들의 숫자는 210억 명보다 조금 많으며, 이것은 실존하는 전체 삼위일체 교사 아들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는 낙원 예비군{豫備軍}을 제외한 것이다.

20:7.3 (230.5) 아들신분의 데이날 계층은, 지방우주 또는 연방우주 경영의 유기적 부서가 아니다. 그 구성원들은 창조자 또는 회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판관 또는 통치자도 아니다. 그들은 도덕적 계몽 및 영적 발전과 관계되는 만큼 그렇게 우주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보편적 교육자인데, 모든 영역의 영적 각성과 도덕적 지도에 전념한다. 그들의 사역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의 사역과 긴밀하게 상호관련돼 있고, 피조 존재들의 낙원 상승과 가깝게 관련돼 있다.

20:7.4 (230.6) 이 삼위일체 아들들은, 세 낙원 신격의 혼합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하보나에서는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을 더 반사하는 것 같다. 그들이 연방우주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 반면, 지방 창조계에서는 무한한 영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모든 우주에서 봉사의 구현{具現}이며 지혜로운 판단이다.

20:7.5 (230.7) 그들의 낙원 형제인 미가엘 및 아보날과는 달리,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중앙우주에서 어떤 예비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로 직접 파송되며, 거기서 어떤 지방우주에서 봉사하도록 위임된다. 이 진화 영역에 대한 사역에서, 그들은 창조주 아들 및 연합된 집정관 아들들의 혼합된 영적 영향을 활용하는데, 데이날들은 그들 자체로 영적 흡인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8. 데이날의 지방우주 사역

20:8.1 (231.1) 영적인 낙원 아들들은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독특한 존재이며, 이중_기원{起源}을 갖는 우주들의 운영과 매우 완전하게 관련된, 유일한 삼위일체 피조물이다. 그들은 영적 존재 중에서 낮은 존재들과 필사 피조물에 대한 교육 사역에 애정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체험과 업적에 따라서, 지역 체계들에서 수고를 시작하고, 성좌 봉사를 거쳐서 지방 창조물에 대한 가장 높은 활동에 이르기까지, 안쪽을 향해 나아간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지방우주를 대표하는
영적 대사{大使}가 될 수도 있다.

20:8.2 (231.2) 나는 네바돈에 있는 교사 아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며;수천 명 있다. 멜기세덱 학교에 있는 부서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 계층에 속하는 한편,
규칙적으로 구성되는 살빙톤 대학의 혼합된 참모진에는,
이 아들들을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 있다. 다양한
모론시아_훈련 세계에 많은 숫자가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필사 피조물의 영적 및 지적 증진에 전적으로 몰두하지는
않으며;지방 창조계의 스랍 존재 및 다른 원주민에 대한
훈육에도 똑같이 관여한다. 그들의 보좌관 중에서 다수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존재들의 직급으로부터
소집됐다.

20:8.3 (231.3) 전초기지의 파수꾼 임무에서 별 연구자 임무에
이르기까지, 교사 아들들은 종속된 모든 우주 봉사 국면에
대한 자격조건과 보증을 위해 모든 실험을 집행하고 모든
시험을 수행하는 교수진{教授陣}을 구성한다. 그들은
행성 교육과정들로부터 살빙톤에 위치한 고등 지혜
학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훈련 과정을 지휘한다.

노력하고 달성했음을 나타내는 인정서가, 모두에게, 즉 지혜와 진리 안에서 이 모험을 완성한 상승하는 필사자 또는 열망하는 체루빔에게 수여된다.

20:8.4 (231.4) 전체 우주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충실하고 보편적으로 유능한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신세를 진다. 그들은, 모든 영 인격체를 가르치는 고양된 선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믿음직스럽고 참된 선생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교사 아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끝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거의 가르쳐 줄 수 없다. 데이날_아들신분의 방대한 활동 영역은, 너희가 지성적으로 더 진보할 때, 그리고 너희 행성의 영적 고립이 종료된 후에, 유란시아에 더 잘 알려질 것이다.

9. 데이날의 행성 봉사

20:9.1 (231.5)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진행이, 영적 시대를 시작할 때가 됐음을 나타낼 때,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 봉사에 나선다. 너희는 아들신분의 이 계층에 대해 잘 모를 것인데, 유란시아는 영적 시대, 즉 시공우주 계몽의 1,000년 기간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구체에 머물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교사 아들들은 지금도 너희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짐승 같은 생활의 속박에서, 그리고 물질주의라는 족쇄에서, 유란시아 거주민이 상당한 해방을 획득한 후에야, 그들은 유란시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9.2 (231.6)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섭리시대들의 종결에 대해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판결하지 않으며, 산 자들을 옮기지도 않지만, 각 행성 사명 때마다 이 봉사를 수행할 집정관 아들을 대동한다. 교사 아들들은 진화 행성에서 영적 실체들을 깨닫는 시대가 밝아오면, 영적 시대의 시작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들은 물질 지식 그리고 현세의 지혜라는 영적 사본{寫本}을 실제화 시킨다.

20:9.3 (232.1) 교사 아들은, 자신이 방문한 행성에 대개 행성 시간으로 1,000년 동안 머문다. 한 명의 교사 아들이 행성의 1,000년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의 계층에 속하는 동역자 70명의 도움을 받는다. 데이날은 육신화 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스스로를

물질화시키며;그러므로 방문하는 세계와의 접촉은, 찬란한 저녁별들, 즉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연합된 지방우주 인격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된다.

20:9.4 (232.2) 데이날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여러 번 돌아올 수 있으며, 그들의 사명이 끝난 후에, 그 행성은 빛과 생명의 구체라는 정착된 상태로 안내될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필사_인간거주 세계들 전체의 진화 목표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구체들과 많이 관련되며, 행성에서 하는 그들의 활동은 교사 아들들의 활동과 밀접하다. 정말로 데이날 아들신분의 계층 전체는,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창조계에서 모든 국면의 완결성취자 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20:9.5 (232.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진화로 상승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들을 통한 필사자 진보 체제와 너무나 완전히 일체감을 갖게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우주들의 드러나지 않은 활동 중에 그들이 완결성취자들과 연합할 수도 있다고 종종 추측하게 된다. 연방우주 경영자들이, 더러는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인격체이고, 더러는 삼위일체에_포함된 상승한 진화

피조물임을 우리는 눈여겨본다. 삼위일체 아들과
완결성취자들이 시간과_관계된 체험을 지금 획득하고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데, 그 체험은 어떤 계시되지 않은
미래 운명 속에서 긴밀하게 연합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예비 훈련이 될지도 모른다. 우버사의 경우에
우리가 믿는 것은, 연방우주들이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진화 필사자들의 생애와 그토록 오래 관련돼 온,
그리고 진화 세계들의 문제에 매우 완전하게 정통해 왔던
이 낙원 교사 아들이, 아마 낙원 완결성취 단체와 영원히
연합할 수 있도록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10. 낙원 아들의 연합 사역

20:10.1 (232.4) 하나님의 낙원 아들은 누구나 그 기원과 본성이
신성하다. 각 세계를 대신하는 각 낙원 아들은, 봉사하는
아들이 마치 최초이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활동한다.

20:10.2 (232.5) 낙원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영토들에 대한
신격의 세 인격자의 실무 본성의 신성한 표현이다. 창조주,
집정관, 및 교사 아들은, 상승 잠재력을 갖는 사람들의
자손 및 다른 우주 전체 피조물에게 주는, 영원한 신격들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성의 높은 영적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세계의 피조물을 돕는 역할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신성한 사역자다.

20:10.3 (232.6) 만유의 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영원한 아들의 자비와 혼합돼 있으며, 미가엘들의 창조 능력과 사랑스런 사역 그리고 이해심 많은 주권 속에서 지방우주들에게 드러난다. 집정관 아들들의 경우에, 영원한 아들의 자비가 무한한 영의 사역과 일치되어, 심판하고 봉사하고 증여하는 이 아보날들의 생애 속에서, 진화하는 영토들에 계시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경우에는, 세 낙원 신격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이 가장 높은 시_공간 가치_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있는 진리, 신성한 선함, 및 참된 영적{靈的} 아름다움으로 우주들에 제시된다.

20:10.4 (233.1) 지방우주들에서 아들신분의 이 계층들은, 공간 피조물에게 낙원 신격들에 대한 계시를 완수하도록 협력하는데:지방우주의 아버지로서,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성품을 묘사한다. 자비의 증여 아들로써, 아보날들은, 무한한 동정심을 가진 영원한

아들의 비길 데 없는 본성을 계시한다. 상승하는
인격체들의 참 선생으로서, 삼위일체 데이날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선생 인격체를 계시한다. 신성하게 완전한
협동 속에서, 미가엘, 아보날, 및 데이날들은, 시_공간
우주들에서 그리고 그 우주들에 대한,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체와 주권을 실재화하고 계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낙원 섬으로부터 미지의 공간 심연
속으로,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신성이 끝없이
팽창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낙원 아들이 따를 때,
삼자일체 활동의 조화 속에서, 그들은 신격의 인격체들의
선구자로서 언제든지 활약한다.

20:10.5 (233.2)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21편 낙원 창조주 아들

21:0.1 (234.1)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지방우주들의
창조자 및 통치자다. 이 우주 창조자 및 주권자는 이중
기원을 갖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특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각 창조주 아들은 서로 다르며;각각은
본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체에서 독특하며;각각은

자신의 원천인 완전한 신격 이상{理想}이 “독생{獨生}한 아들”이다.

21:0.2 (234.2)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방대한 업무에서, 이 높은 아들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승인을 항상 누린다. 창조주 아들과 낙원 아버지의 관계는 감동적인 동시에 최상이다. 신{神}의 자손들을 향한 신격 부모의 심오한 애정은, 필사자 부모조차 자녀에게 품는 그런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사랑의 원천이다.

21:0.3 (234.3) 이 1차 낙원 아들이 미가엘로서 인격화 된다. 그들이 자신의 우주를 설립하려고 낙원에서 나아갈 때, 창조주 미가엘로서 알려진다. 최고 권세 속에 정착되면, 그들은 으뜸 미가엘이라고 불린다. 때때로 우리는 너희의 네바돈 우주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계층과 본성에 속하는 첫째 아들을 가리키는 “미가엘 계층”에 어울리도록 통치한다.

21:0.4 (234.4) 원본, 즉 첫_태생 미가엘은, 물질 존재로서의 육신화를 전혀 체험한 적이 없지만, 중앙 창조물의 바깥쪽

구체들로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로 나아가면서, 상승하는 영적 피조물이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하는 체험을 일곱 번에 걸쳐서 다 겪었다. 미가엘 계층은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광우주를 다 알며;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녀가 겪는 어떤 근본 체험도, 미가엘들이 몸소 참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며;그들은 사실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너희의 본성에도 역시 참여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본성을 의미한다.

21:0.5 (234.5) 원본 미가엘은, 1차 낙원 아들이 만물의 중심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주재하는 우두머리다. 영원한 섬에서, 부모의 면전{面前}에 모여서, 온갖 우주의 통합과 안정의 진보에 관해 심의하는 창조주 아들 15만 명의 특별 비밀회의에 대해 우주에 방송하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가 우버사에 기록했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즉 일곱 번 증여한 아들들 중에서 선택된 어떤 집단이었다.

1. 창조주 아들의 기원과 본성

21:1.1 (234.6) 영원한 아들 안에 있는 영적 절대 관념작용이 무르익어서, 만유의 아버지의 총명한 절대 인격체 개념과

마주칠 때, 그런 창조적 합동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달성될 때, 그렇게 절대로 동일한 영과 그렇게 무한히 하나 된 인격체 개념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 거기서, 무한한 신격들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인격체 또는 특권 가운데 어느 것에도 아무 손실됨 없이, 새로운 원본 창조주 아들이 다_성장된 존재로 번개같이 나타는데, 그 아들은 완전한 이상{理想}과 강력한 관념의 독생{獨生} 아들이며, 이런 합동이, 능력과 완전성에 속하는 이 새로운 창조자 인격체를 산출한다.

21:1.2 (235.1) 각 창조주 아들은, 온갖 우주의 항상_실존하는 창조주들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두 정신의 원래 개념이 완전하게 합동함으로 말미암은, 독생 및 독생_가능한 자손이다. 결코 그러한 또 다른 아들이 생길 수 없는데, 이는 이 미가엘 아들이 실존하도록 결합을 이뤘던 그 신성한 창조적 잠재력에서, 전체 영원성 전반에 걸쳐서, 언젠가 발견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그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실체의 전체 가능성을 갖는, 그 모든 특색의 총 국면을 모두, 각 창조주 아들이 무조건적이고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각 창조주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결합된 성격 개념들의 절대치다.

21:1.3 (235.2) 이 창조주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은, 원칙적으로, 두 낙원 부모의 속성들에서 똑같이 도출된다.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아들의 창조적 특권을 충만하게 나누지만, 우주들에서 미가엘의 역할이 실제로 해결해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주 아들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은 것처럼 보이며;다른 이들은 아들 하나님을 더 닮은 것 같다. 예를 들면:네바돈 우주에서 경영의 방향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인 그 아들이,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의 본성과 성품을 더 닮았음을 암시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것처럼 보이는 낙원 미가엘들이, 어떤 우주들을 관장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도 암시적 비평이 아니며;사실을 기록했을 뿐이다.

21:1.4 (235.3) 나는 실존하는 창조주 아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70만 명 이상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현재, 정확하게 70만 명의 합동 항존자가 있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우리가 관찰하기로, 현재 우주 시대의 규정된 계획은, 한 명의 합동 항존자가 삼위일체의 상담하는 대사로서 각 지방우주에 머물게 돼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계속 증가하는 창조주 아들들의 숫자가 합동 항존자의 고정된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70만 명 이외의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

2. 지방우주의 창조주

21:2.1 (235.4) 1차 계열의 낙원 아들들은 각자, 영토의 설계자, 창조자, 건축가, 및 경영자인데, 이 영토는 진화하는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창조 단위인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다. 창조주 아들은 미래에 자신의 시공우주 활동을 펼칠 공간 위치를 선택하도록 허락 받았지만, 그 우주를 물리적으로 조직화하기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활동하려고 입안한 그 연방우주에 자리 잡은 다양한 창조계에서, 자신보다 오래된 형제들의 수고를 연구하기에 몰두하는 긴 관찰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미가엘 아들은 낙원을 관찰하고 하보나 훈련을 받는, 길고 독특한 체험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21:2.2 (235.5) 창조주 아들이 우주를 조성하는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즉 자신이 직접 조직할 지방우주의 지배자가--곧 실질적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낙원에서 출발할 때, 자신이 제3 근원 및 중심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해야 함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무한한 영은, 만물의 중심에 아버지 및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각 창조주 아들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우미로서 작용하게 돼 있다. 그리하여 각 창조주 아들은, 신성한 사역자, 즉 새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기로 예정된 존재인,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을 대동한다.

21:2.3 (236.1) 이 경우에 미가엘 아들이 출발하면, 그의 창조자 특권은 낙원 근원 및 중심들로부터 영구히 해방되는데, 오직 이 근원 및 중심들의 선재{先在} 속에 내재된 특정한 제한조건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다른 선행하는 권능과 현존들에 대해서만 종속된다.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 외에는, 지방우주 아버지로서 전능한 창조자 특권을 갖는다:

21:2.4 (236.2) 1. *에너지_물질*은 무한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크든 작든, 새로운 어떤 형태든지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_물질의 새로운 어떤 변형이든지 시도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은 무한한 영의 승인과 실용적 협동을 획득해야만 한다.

21:2.5 (236.3) 2. *피조물 설계 및 유형*은 영원한 아들의 통제를 받는다. 창조주 아들은 어떤 새로운 존재 유형이든지, 어떤 새로운 피조물 설계든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이신 영원한 원본 아들의 허락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21:2.6 (236.4) 3.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설계하고 증여하신다.

21:2.7 (236.5) *정신* 유형 및 원형은, 생명체가 되기 전의 존재 요소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들이 생명체를 (인격적이든지 아니든지) 조성하기 위해 연합한 후에, 제3 근원 및 중심이 정신을 부여하는데, 그는 낙원 창조주들의 수준보다 낮은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정신 사역의 보편적 근원이다.

21:2.8 (236.6) 영의 설계 및 유형에 대한 통제는, 설계와 유형이 형태화 되는 수준에 의존한다. 결국,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를 받거나, 삼위일체 인격체들--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삼위일체_이전{以前} 영 재능에 따라서 통제된다.

21:2.9 (236.7) 그런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우주의 공간 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면;우주가 물질화 되고 총체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면;무한한 영의 보완적 딸과 합동해서 효과적이고 협동적인 작업을 형성하면--그 다음에,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은, 자신의 지방우주 자녀로 이뤄진 수많은 무리가 기원되도록 고안된 접촉을 시작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낙원의 무한한 영이 집중하는 창조적 영은 본질이 바뀌게 되는데,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인격있는 자질을 띠게 된다.

21:2.10 (236.8) 모든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낙원 부모를 신성하게 닮음에도, 누구든지 서로 똑같이 닮지는 않으며;각자는 본성에서 뿐만 아니라 인격체에서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독자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 대한 생명 계획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자이므로, 바로 이

다양성이, 거기서 창조되거나 나중에 진화될 수 있는, 미가엘로부터_파생된 살아있는 실존의 각 형태와 국면마다, 그들의 영토 역시 다양하게 될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방우주에서 출생한 피조물 계층은 매우 다채롭다. 어떤 두 지역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중_기원의 원주민 존재들이 경영하거나 점유하지 않는다. 어떤 연방우주든지 그 안에서는, 그들의 내재적 속성 가운데 절반이 매우 비슷한데, 획일적인 창조적 영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며;다른 절반은 서로 다른데, 다양한 창조주 아들들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은, 순전히 창조적 영 안에서만 기원되는 피조물이나, 중앙우주 또는 연방우주들에서 출생하고 이입{移入}된 존재들의 특징이 아니다.

21:2.11 (237.1) 미가엘 아들이 자기 우주를 비울 때, 그 정부는 첫_태생의 고유 존재, 즉 지방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빛나는 새벽별의 지시를 받는다. 합동 항존자의 충고와 조언은 그런 때에 매우 귀중하다. 자리를 비운 이 기간에, 창조주 아들은 필사{必死}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자신의 영적 현존의 전면통제권을 연합된 어머니 영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양육하는 배려와 영적 보살핌을, 그런 진화 영토 가운데 가장 먼 부분들까지 확장하면서, 항상 지방우주 본부에 머문다.

21:2.12 (237.2) 확립된 물질 창조물이 부드럽게 운행되는 데에는, 창조주 아들이 자기 지방우주에 친히 현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아들들은 낙원으로 여행할 수 있고, 그들의 우주는 여전히 공간을 통해 회전한다. 그들은 시간세계의 자녀로서 육신화 하기 위해, 자신의 일련의 능력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들의 영역은 각각의 중심 주위를 여전히 회전한다. 어떤 물질 조직이든지, 낙원의 절대_인력 지배 또는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에 내재된 시공우주 전면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지방우주 주권

21:3.1 (237.3) 낙원 삼위일체의 동의를 얻고, 관련된 연방우주를 감독하는 으뜸 영의 확인을 받아서, 창조주 아들은 한 우주 범위를 부여받는다. 그런 조처가, 물리적 소유권, 즉 시공우주 임차권{賃借權}을 조성한다. 그러나 스스로_제한한 이 초기의 통치자신분 단계로부터, 스스로_얻은 체험적 최고 주권의 높이까지 미가엘 아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는 업무에서, 그리고 자신을
증여하는 육신화에서, 몸소 체험한 결과로 이뤄진다. 그는,
증여로_획득하는 주권을 성취하기 전에는,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한다.

21:3.2 (237.4) 창조주 아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직접 창조한 것에
대해 온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피조물로서 증여하는 일들을 마치기 전에,
수고해서 얻지 않은 최고 주권{主權}을 행사하면, 그의
지방우주에 주둔하는 낙원 인격체들이 철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전체 창조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21:3.3 (237.5) 창조자신분이라는 사실이 완전한 주권을
암시하지만, 미가엘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획득하기를,
그리하여 지방우주 경영에 배속된 낙원 인격체들 전체의
충분한 협동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선택한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않은 어떤 미가엘도 알지 못하지만;그들은
모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21:3.4 (237.6) 지방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의 주권은, 여섯 또는 일곱 단계의 체험 형태를 통과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21:3.5 (237.7) 1. 초기의 대리 주권 --연합된 창조적 영이 인격적 특성을 획득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이 행사하는 독자적인 잠정적 권세.

21:3.6 (237.8) 2. 공동 대리 주권 --우주 어머니 영이 인격체를 성취한 후에 낙원 쌍으로서 공동으로 하는 통치.

21:3.7 (238.1) 3. 증가하는 대리 주권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일곱 번 증여하는 기간에 증진하는 그의 권세.

21:3.8 (238.2) 4. 최고 주권 --일곱째 증여를 완성함으로써 얻는 안정된 권세. 네바돈에서는,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가 완성된 날부터 최고 주권이 시작됐다. 이 단계는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보다 조금 넘게 존재해 왔다.

21:3.9 (238.3) 5. 증가하는 최고 주권 --피조 영토들 가운데 대다수가 빛과 생명에 정착됨으로써 증가하는 증진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방우주에서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해당된다.

21:3.10 (238.4)

6. 삼위일체 주권 --지방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 이후에 행사된다.

21:3.11 (238.5)

7. 계시되지 않은 주권 --미래 우주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21:3.12 (238.6)

입안된 지방우주의 초기 대리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창조주 미가엘은 일곱 번의 피조물 증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공인을 받을 때까지, 최고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미가엘 아들이 수고해서 얻지 않은 그런 주권을 임의로 주장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무의미할 것이다.

21:3.13 (238.7)

창조주 아들은, 자신을 증여하기_이전{以前} 시대에도, 자신의 영토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의가 없으면, 거의 최상으로 자신의 영토를 통치한다. 주권이 한 번도 도전 받지 않았다면, 지배권에 대한 제한은 도저히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역 없는 우주에서 창조주 아들이 증여됨으로써 행사되는 주권은, 반역 있는 우주의 경우보다 크지 못하지만;첫째 경우에는 주권 한계가 뚜렷하지 않으며;둘째 경우에는 뚜렷하다.

21:3.14 (238.8) 창조주 아들의 권세 또는 경영이 언제든지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창조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갱생시키기로 영원히 서약한다. 그런 아들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피조물 또는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로 말미암아 교란되고 시달림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들”, 즉 지방우주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원된 자들이 창조주 아들을 교란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추측 가능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덕행은 인격체의 자유의사에 달렸으며; 정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21:3.15 (238.9) 증여 경력이 완성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은 스스로_부과한 어떤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주권으로 통치하지만, 증여 봉사를 마친 후에는 여러 피조물 형태 또는 비슷한 모습으로 실제 체험을 한 덕분에 다스린다. 창조주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 일곱 번 머물렀을 때, 즉 증여 경력이 끝난 후에, 우주 권세 속에 최상으로 정착하며; 으뜸 아들, 즉 주권을 가진 최고 통치자가 된다.

21:3.16 (238.10) 지방우주의 최고 주권을 획득하는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체험 단계가 포함된다:

21:3.17 (238.11) 1. 관련된 수준에서 피조물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육신화 증여 기법을 통해서 일곱 피조물 존재 수준을 체험함으로써 통과함.

21:3.18 (238.12) 2. 낙원 신격의 일곱 가지 뜻이 일곱 으뜸 영으로 의인화{擬人化}된 것 같이, 각 국면을 체험하는 데 전념함.

21:3.19 (239.1) 3. 일곱 피조물 수준에서 각각의 체험을 거치면서, 동시에 낙원 신격의 뜻에 일곱 가지로 헌신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행함.

21:3.20 (239.2) 4. 각 피조물 수준에서, 피조물 생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낙원 신격에게 그리고 전체 우주 지성체에게, 체험을 통해서 보여드림.

21:3.21 (239.3) 5. 각 피조물 수준마다, 신격의 일곱 가지 뜻 가운데 한 국면을, 그 증여 수준과 온 우주에게, 체험함으로써 드러냄.

21:3.22 (239.4) 6. 일곱 가지 피조물 경험과, 신격의 본성 및 의지를 드러내는 데 헌신하는 일곱 가지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통합시킴.

21:3.23 (239.5) 7. 지존하신 분과 새롭고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함. 이 창조주가_피조물로서 겪은 전체 체험이 끼친 영향이, 연방우주에서 지존자 하나님의 실체와 전능한 지존자의 시_공간 주권{主權}을 증대시키고, 낙원 미가엘의 지방우주 최고 주권을 실현한다.

21:3.24 (239.6) 주권에 관한 문제가 지방우주에서 해결되는 동안, 창조주 아들은 통치하기에 자신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낙원 신격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들의 일곱 가지 입장을 묘사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탁월성을 유한자가 이해하게 됨과 피조물이 인정하게 됨은, 창조주 아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체험을 겪을 때 그가 부딪치는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낙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본성과 인정 많으신 권세를 실제로 계시하는 분인데,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및 영과 연합하여, 전체

우주 영역 도처에서 모든 권능과 인격체와 정부의 보편적 지배자시다.

4. 미가엘 증여

21:4.1 (239.7) 증여하는 창조주 아들에는 일곱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영역의 피조물에게 스스로를 증여했던 횟수에 따라 그렇게 분류된다. 그들은 첫 체험부터 다섯 번의 추가적 진보 증여 구체들을 거쳐서, 창조주이자_피조물로서 체험하는 일곱째 및 최종 사건에 도달하기까지를 범위로 한다.

21:4.2 (239.8) 아보날 증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하지만, 창조주 아들의 일곱 증여는 일곱 피조 존재 수준에서 나타남을 포함하고, 신격의 뜻과 본성의 일곱 가지 주요 표현을 드러내는 데 관한 것이다. 모든 창조주 아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한 완결된 최고 관할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이 창조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일곱 번 내어주는 체험을 한다.

21:4.3 (239.9) 이 일곱 번의 증여가 구역과 우주마다 다르더라도, 반드시 필사자로서_증여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증여의 경우에, 창조주 아들은 어떤 인간거주 세계에서

높은 인간 종족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출현하는데, 대개 동물에서_기원된 사람의 물리적 상태를 올려주기 위해 그 전에 이입{移入}됐던 아담 혈통을 가장 많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인종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출현한다. 너희에게 베들레헴 아기에 관한 기록이 있듯이, 낙원 미가엘은 증여 아들로서의 일곱 차례 생애 가운데 오직 한 번,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 번, 진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는다.

21:4.4 (239.10)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증여가 끝날 때마다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증여에 대한 아버지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이고, 다음 우주 봉사를 준비하는 지침을 받기 위해서다. 일곱째이자 마지막의 증여가 있는 후에,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권세와 관할권을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21:4.5 (240.1) 너희 행성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신성한 아들은, 자신의 증여 경력 가운데 여섯 국면을 완성한 낙원 창조주 아들이었으며, 따라서 그가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생명을 붙잡고 있던 의식을 포기했을 때, “완료됐다”고-- 정말로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했다고

기록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죽음이 증여 경력을 완성시켰으며;그것은 낙원 창조주 아들의 신성시되는 맹세를 완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이 체험이 획득됐을 때, 그런 아들은 최고 우주 주권자가 되며;더 이상 아버지 대리인으로서 통치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통치한다. 명시된 어떤 예외를 제외하고, 일곱 번 증여한 이 아들은, 자신의 거주지인 그 우주에서 아무 조건 없이 가장 높다. 그의 지방우주에 관한 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승리하고 왕좌에 앉은 이 으뜸 아들에게 이관됐다.

21:4.6 (240.2)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증여 경력을 완성한 후에, 별도의 계층, 즉 칠중 으뜸 아들로써 분류된다. 으뜸 아들들은 실물에서는 창조주 아들과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간주되는 그런 독특한 증여 체험을 겪었다. 창조주가 자신을 낮춰서 증여를 이행할 때, 실제적이고 영원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정말로, 증여 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창조주이지만, 자신의 본성에 피조물 체험을 추가했는데, 이 체험이 그를 창조주 아들의 신성한 수준으로부터 영원히 옮겨서, 우주를 통치하고 그 우주에 속한 세계들을 경영하는 권한을 충만하게 획득한

존재인 으뜸 아들의 체험적 경지로 올려준다. 그런 존재들은, 신성한 기원으로 보증되고 완전하게 된 피조 체험에서 도출된 모든 것을 구현한다. 바로 그 하나님들도, 자신의 우주 영토를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 있고 적당하다고 간주되기 전에, 합당한 체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마당에, 초라하게 기원됐다고 해서, 그리고 의무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왜 탄식해야 한단 말인가!

5. 으뜸 아들과 우주의 관계

21:5.1 (240.3) 으뜸 미가엘의 권능은, 체험을 통해서 낙원 삼위일체와 연합됨으로써 획득됐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데, 그런 권세에 복종하는, 바로 그런 피조물로 사는 실제 체험에서 획득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칠중 창조주 아들의 주권의 본질은 최상급인데, 그 이유는:

21:5.2 (240.4) 1. 낙원 신격의 칠중 관점을 포함하고,

21:5.3 (240.5) 2. 시_공간 피조물의 칠중 입장을 구체화시키며,

21:5.4 (240.6) 3. 낙원 입장과 피조물 관점을 완전하게 통합하기 때문이다.

21:5.5 (240.7) 그래서 이 체험적 주권은, 지존하신 분 안에서 최고점에 달하는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칠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_완성될 지존하신 분의 미래 주권과 비슷한데, 그것이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시_공간 한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원 삼위일체의 능력과 권세 중에서 가장 충만하게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21:5.6 (240.8) 지방우주의 최고 주권{主權}을 성취하고 나면,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 전혀 새로운 유형의 피조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미가엘 아들에게서 사라진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생기게 할 능력을 으뜸 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이미 확립된, 그리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생명 합성 업무와 어떤 면에서도 충돌되지 않으며;우주 진화의 이 광대한 계획표는 중단되거나 축소됨 없이 계속된다. 으뜸 아들이 최고 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이미 계획되고 창조된 것,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자들이 나중에 산출할 것을, 육성{育成}하고 경영하는 일에 몸소 헌신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다양한 존재가 거의 끝없이 진화될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원형{原型}이나 유형의 지성 피조물도 으뜸 아들로부터 직접 기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방우주든지 안정된 경영의 첫 걸음이요 시작이다.

21:5.7 (241.1) 일곱 번 증여한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갖도록 승진{昇進}되는 것은, 긴 세월의 불확실성과 상대적 혼란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후에, 언젠가 영성화 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분해될 것이며; 언젠가 시공우주 실체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 파괴될 것이다. 비축돼 있던 끊임없는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인내가, 그 영역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충성과 헌신을 얻고자 노력하는 동안 다 소모됐을 때, 응보와 정의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복구시킬 수 없는 그것을, 응보가 결국 멸절{滅絶}시킬 것이다.

21:5.8 (241.2) 으뜸 미가엘들은, 일단 주권 통치자로 세워진 후에는,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가장 높다. 그들의 통치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시공우주보다 선재{先在}한 특정한 세력과 인격체들에 내재된 것들 때문이다. 그 외에, 이 으뜸 아들들은 각자의 우주에서 권세와 책임과 경영

능력에서 가장 높으며;창조주 및 하나님으로서, 실질적으로 만물 중에서 가장 높다. 주어진 우주의 기능발휘에 관해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통찰력은 있을 수 없다.

21:5.9 (241.3) 한 지방우주에서 확정된 주권자신분으로 승진된 뒤에, 낙원 미가엘은 자신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며, 그 영역의 필요에 대한 자신의 개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통치한다. 으뜸 아들은 인간거주 행성들에 대한 영적 판결과 진화 조정 명령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특히 자신이 생명체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을 최종적으로 증여한 영역, 즉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그 행성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21:5.10 (241.4) 으뜸 아들들은 자신을 증여한 세계, 즉 자신이 몸소 머물렀던 세계뿐 아니라 어떤 집정관 아들이 자신을 증여했던 모든 세계와도 완전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 자신의 영적 현존, 즉 진리의 영이 이런

접촉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이 진리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수 있다. 또한 이 으뜸 아들들은 만물의 중심에서, 어머니이신 영원한 아들과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시간 영역에 있는 행성 생명체의 하위 인종들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호의적인 유효범위를 지니고 있다.

6. 으뜸 미가엘의 운명

21:6.1 (241.5) 지방우주의 칠중 으뜸 주권자의 본성이나 운명에 대해 감히 논의할 수 있는 결정적 권세를 아무도 가질 수 없으나;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각 낙원 미가엘이, 자신이 기원된 이중 신격 개념의 *절대치*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실제 국면들을 구체화한다. 미가엘들은 전체 무한성과 관련할 때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기원과 관련된 무한성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 시대에 그들의 업무를 관찰할 때, 유한을 넘는 어떤 행위도 발견하지 못하며; 추측된 초월_유한 수용력이 완비돼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21:6.2 (242.1) 피조물로_증여하는 경력을 완성하고 최고 우주 주권으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_활동 수용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동반해서 유한을_넘어서는 봉사 능력이 출현할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이런 연고로 인해, 우리는 그런 으뜸 아들이 그때부터 새로운 유형의 피조 존재를 산출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이 제한은 초월_유한 잠재성이 해방됨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이 필요하게 된다.

21:6.3 (242.2) 발견되지 않은 이 창조자 능력이, 현재 우주 시대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먼 미래에 언젠가, 현재 집결되고 있는 외부 공간 우주들에서, 칠중 으뜸 아들과 일곱째_단계의 창조적 영 사이의 접촉이 유한절대 수준의 봉사에 도달하고, 궁극적 우주 의미를 갖는 초월 수준들에서 새로운 사물과 의미와 가치들의 출현{出現}이 수반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1:6.4 (242.3) 체험으로 봉사함으로써 지존자라는 신격이 실제화 되고 있음과 똑같이,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심오한 본성 안에 묶여 있는 낙원_신성 잠재성을 몸소 실현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최고 신성으로부터 궁극적 유한절대성을 거쳐서 영원한 신격 완결성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길을, 모든 우주 인격체를 위해 언제나 밝게 비춰주면서, 미가엘들이 글자 그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돼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1:6.5 (242.4)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22편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

22:0.1 (243.1)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세 집단의 존재들이 있다.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과 상승하는 아들신분 계층 외에,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진 셋째 집단이 있다. 아들신분에 속하는 삼자일체된 계층은, 계시되거나 계시되지 않은 여러 유형의 인격체 기원에 따라서, 3가지 1차 계열로 나뉘어 있다. 이 1차 계열은 다음과 같다:

22:0.2 (243.2) 1. 신격에서_삼자일체된 아들.

22:0.3 (243.3) 2.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아들.

22:0.4 (243.4) 3.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

22:0.5 (243.5) 기원에 상관없이, 모든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은, 기원의 일부분으로서 또는 나중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 체험으로서, 삼자일체됨을 공통으로 체험했다. 신격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은 본 문서에서 계시되지 않으며;따라서 이 이야기는 나머지 두 집단, 특히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에 국한해서 제시될 것이다.

1.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아들

22:1.1 (243.6)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모든 아들은 원래 이중 또는 단일 기원{起源}에 해당하지만,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후에는 삼위일체를 위한 봉사와 임무에 영원히 헌신한다. 이 단체는, 계시된 바와 같이, 또한 연방우주 봉사를 위해 조직된 바와 같이, 일곱 계층의 인격체를 포함한다:

22:1.2 (243.7) 1. 강력한 사자.

22:1.3 (243.8) 2. 권세 높은 이.

22:1.4 (243.9) 3.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22:1.5 (243.10) 4.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

22:1.6 (243.11) 5. 삼위일체처럼된 대사.

22:1.7 (243.12) 6. 천상의 수호자.

22:1.8 (243.13) 7. 높은 아들 보좌관.

22:1.9 (243.14) 이 일곱 집단의 인격체는, 기원, 본성, 및 기능에 따라서 더 세분되는데, 3개의 주요 분야: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 그리고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로 분류된다.

22:1.10 (244.1)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들은--*곧 강력한 사자들, 권세 높은 이들,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모두 완결성취 단체와 낙원을 달성한,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다. 그러나 그들은 완결성취자가 아니며;삼위일체 포용을 이룩한 후에는 그들의 이름이 완결성취자 출석부에서 제거된다. 이 계층의 새 아들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영원 항존자들의 지시를 받는 하보나 회로들의 회로 본부 행성들에서,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그들은 그 후에 일곱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배정된다.

22:1.11 (244.2)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은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과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하보나를 통과하고 낙원에 도달한, 어떤 진화 스라빔 및 전환된 중도{中道}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빛과 생명의 섬으로 상승한, 영과_융합된 필사자와,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로부터 모집된다.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 후에, 그리고 하보나에서 짧은 훈련을 받은 후에,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배정{配定}된다.

22:1.12 (244.3)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 천상의 수호자들 및 그들의 협조자, 즉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두_번_삼자일체된 인격체라는 독특한 집단이다. 그들은,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 또는 완결성취 단체에서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완성된 상승 필사자들 중에서,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이다.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이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일곱 으뜸 영의 최상급 행정관들과 봉사한 후에,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아래서 봉사한 후에, 낙원 삼위일체에게 다시_삼자일체(포용)되고, 그 다음에는 천상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높은 아들 보좌관으로서,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위임된다.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더 이상 훈련 없이 연방우주 봉사에 직접 배정된다.

22:1.13 (244.4)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우리 동역자들은--곧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은-- 고정된 숫자이지만,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아들은 변함없이 증가한다.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아들의 일곱 계층 전체는, 일곱 연방우주 정부 가운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위임되고, 각 연방우주에서 봉사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똑같으며;하나도 잃은 적이 없다.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존재들은 타락에 빠진 적이 없으며;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도 연방우주 정부를 경멸했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달성 아들과 선택 아들은 오르본톤 봉사에서 전혀 넘어진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때로 심판에 과오{過誤}를 범하고 그리하여 잠깐 혼돈을 야기한다.

22:1.14 (244.5) 일곱 계층 전체는, 태고 항존자들의 지시 하에 자체_통치 집단으로서 거의 대부분 작용한다. 그들의 봉사 범위는 멀리까지 이르며;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배정된 연방우주를 떠나지 않지만, 그들의 삼자일체된 동역자들은 광우주를 범위로 삼는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영원한 낙원 섬에 이르기까지 여행한다. 그들은 어떤 연방우주에서든지 활동할 수 있지만, 원래 임명된 연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

22:1.15 (244.6)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아들들은, 외견상 일곱 연방우주 봉사에 영구적으로 배정돼 온듯하며;이 배정은 분명히 현재 우주 시대 동안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들은 적이 없다.

2. 강력한 사자

22:2.1 (245.1)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 중에서 상승자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반역을 시험받았거나, 개인적으로 충성한 것이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입증된, 완전하게 된 계층의 필사자이며;우주에 충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그들이 낙원으로 상승하는 동안 어느 때에는, 선배들의 불충성 앞에서도 견고히 버티고 충성했으며, 일부는 그런 불충한 지도자들의 직분을 대신하여 능동적으로 충성스럽게 활동했다.

22:2.2 (245.2) 상승하는 이 필사자들은,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개인 기록을 소지하고, 시간세계의 순례자{巡禮者} 무리와 함께 하보나를 거쳐 지나가고, 낙원에 도달하며, 거기서 졸업하고,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밀스런 포용으로 삼자일체되고, 그 후에 일곱 연방우주 정부의 경영에서 태고 항존자들과 연합하도록 위임된다.

22:2.3 (245.3) 반역에 직면해서 충성스럽게 활동하는, 반란 체험을 겪은 상승 필사자마다, 결국 연방우주에서 봉사하는 강력한 사자가 되게 돼 있다. 실책이나 악 또는 죄의 그런 격변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어떤 상승 피조물이든지 마찬가지로;우주가 위기에 처할 때 반역을 예방하도록, 또는 높은 유형의 충성심을 초래하도록 고안된 행위는, 실제 반역에 직면했을 경우의 충성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2:2.4 (245.4) 선임{先任}인 강력한 사자들은, 비교적 초기에 낙원에 도착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바로 그 필사자 가운데서 선택됐는데, 대부분은 그랜한다 시대에 하보나를 거쳐 지나갔다. 그러나 강력한 사자가 처음으로

삼자일체됨은, 후보자 단체가 일곱 연방우주 각각으로부터 대표자를 다 받아들일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낙원에서 자격을 갖추는 이 계층 중에서 마지막 집단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상승한 순례자를 포함했다.

22:2.5 (245.5) 강력한 사자는 70만 명 단위로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데, 각 연방우주마다 10만 명씩 배정된다. 거의 1조{兆}에 달하는 강력한 사자가 우버사에 위임돼 있으며, 일곱 연방우주 각각에서 봉사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다고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2:2.6 (245.6) 나는 강력한 사자이며, 내 필사 체험의 동무였던 동역자 역시 큰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쪽으로 하보나를 향해 긴 기간 여러 번 오랫동안 분리돼 있었음에도 동일한 70만 명 집단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긴밀하고 사랑스런 연합체 속에서 바이스저링톤을 통해 지나가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유란시아인이 흥미로워할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위임됐고, 오르본톤의 우버사에 함께 배정됐으며, 두

사자{使者}의 봉사를 요구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무리 지어 종종 파송된다.

22:2.7 (245.7)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모든
아들과 공통으로, 연방우주 활동의 모든 국면에 배정된다.
그들은 연방우주 반사성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본부와
계속 접촉한다. 강력한 사자는 연방우주의 모든 구역에서
봉사하며, 지방우주에 대해, 그리고 내가 이 경우에 하는
것처럼, 심지어 개별 세계에 대해서도 자주 사명을
수행한다.

22:2.8 (245.8) 연방우주 법정에서, 판결을 위해 개인이나 행성이
심리될 때, 강력한 사자들이 그 변호인으로서
행동하며;또한 그들은 대구역 직무를 지도하는 일에서
완성 항존자를 보좌한다. 한 집단으로서, 그들의 주요
임무는 연방우주를 관찰하는 임무다. 그들은 다양한 본부
세계에 머물고, 태고 항존자들의 공식 입회자로서 중요한
개별 행성에 머문다. 그렇게 배정됐을 때, 그들은 자신이
머무는 구체에서 직무를 지시하는 당국에 자문가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그 사자들은 필사자의 진보 상승 요강에
속한 모든 국면에 적극 참여한다. 그들은 필사자에서

지원된 동역자들과 함께,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획에 해당하는 상태 및 진보와 긴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연방정부가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2:2.9 (246.1) 강력한 사자들은 자신의 전체 상승 생애를 충분히 의식하며, 이것이 왜 그들이 시간세계의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어떤 공간 세계에서든지 봉사하는, 그런 유익하고 동정심 많은 사역자, 즉 이해심 많은 사자일 수 있는가 하는 이유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구원되자마자, 우리와 자유롭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전체에 있는 모든 인종, 다시 말해서, 사교 조율사가 내주하고 나중에는 그 조율사와 융합한 필사자 인종 출신이기 때문이다.

3. 권세 높은 이

22:3.1 (246.2) 권세 높은 이들, 즉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가운데 둘째 집단은, 모두 필사자에서 지원되고 조율사와 융합된 존재다. 이들은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이고, 자신의 상승하는 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비범하게 행정상 천재성을 보인, 완성된 필사자다. 그들은,

공간세계에서 생존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유래된, 최고의
다스리는 역량을 지녔다.

22:3.2 (246.3) 삼위일체와 접촉할 때마다, 7만 명의 권세 높은
이들이 삼자일체된다. 비록 네바돈 지방우주가 비교적
젊은 창조물이더라도, 이 계층에 속하는, 최근에
삼자일체된 계층 안에 대표자들을 두고 있다. 현재 100억
명 이상의 이 유능한 경영자가 오르본톤에 위임돼 있다.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모든 분리된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버사에 본부를 유지하며,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예비군은, 오르본톤에서 그들 계층의 중앙 지시
기관으로서 행동한다.

22:3.3 (246.4) 권세 높은 이들은 제한조건이 없는 경영자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행정관인데, 어디든지_현존하고
언제든지_능률적이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디서든지, 어느 구체에서든지, 어느 인간 거주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활동 국면에서든지 봉사한다.

22:3.4 (246.5) 이 총명한 존재들은, 뛰어난 경영 지혜와 비범한
행정 솜씨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방우주 법정을 대신해서

응보의 근거를 제시하며;진화 우주들에서 응보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부적응을 교정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의 규정된 시공우주 진보를 이루는 세계들과 구체들을 상승하는 동안에, 심판 받을 실책이 언제든지 언급되더라도, 너희가 부당하게 대우 받는 일은 도무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너희를 고소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미 거쳤고 또 거치고 있는 생애의 모든 단계를 몸소 잘 아는, 한때 상승하던 피조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22:4.1 (246.6)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중에서 셋째이자 마지막 집단을 구성하며;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온, 진화 인종의 전체 아들과 딸들의 기량을 뛰어넘어서 경배 드리는 역량을 발전시킨, 상승한 혼{魂}이다. 그들은 이름과 번호를 가진 진화 피조물의 납득 한계를 비교적 초월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영적 개념을 획득했으며;따라서 그들을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라고 부른다. 더 엄밀하게 번역한다면, 그들의 이름은 “이름과 번호 위에 있는 이들”일 것이다.

22:4.2 (247.1) 이 계층의 아들들은 7천 명씩 무리지어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다. 오르본톤에 위임된 이 아들이 1억 명 이상 있다고 우버사에 기록돼 있다.

22:4.3 (247.2)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은 생존하는 인종 중에서 뛰어난 영적 정신이므로, 심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어떤 영적 관점이 바람직할 때와, 상승 생애에서 체험이 판결 받게 되는 문제에 포함된 의문점에 대한 타당한 납득에 필수적일 때, 의견을 제시하는 자격을 특별히 갖추고 있다. 그들은 오르본톤의 최고 배심원이다. 잘못 경영된 배심원 체계는 어떤 세계들에서 응보를 다소 우습게 만들 수 있지만, 우버사 법정에서 그리고 그 확대 법정에서, 우리는 진보된 영적 정신력을 가진 가장 높은 유형을 배심원_재판관으로 채택한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판결은 가장 높은 기능이며, 평결을 내리도록 위임받은 그들은 가장 체험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유형의 개인들 중에서 선택돼야만 한다.

22:4.4 (247.3) 강력한 사자들, 권세 높은 이들, 및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이 되기 위한 후보자는, 선천적으로 자동으로 선정된다. 낙원의 선택 기법은 어떤 면에서도 독단적이지

않다. 몸소 겪은 체험과 영적 가치가,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들의 구성원을 결정한다. 그런 존재들은 권세에서 동일하고 경영상 신분에서 똑같지만, 모두 개체성과 다양한 성품을 소유하며;표준화 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모두 상승 생애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다.

22:4.5 (247.4) 이 체험 자격조건들 외에, 삼위일체처럼 된 달성 아들들은 낙원 신격들의 신성한 포용으로 삼자일체돼 왔다. 따라서 그들은 삼위일체 상비 아들들의 협조 동역자로서 활약하는데, 삼위일체 포용이, 피조 존재의 실현되지 않은 다수의 잠재성을 미래 시간의 흐름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현재 우주 시대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만 그렇다.

22:4.6 (247.5) 이 아들들 집단은 주로, 그러나 전부는 아니고, 시_공간 필사자의 상승 생애에 대한 봉사와 관계된다. 어떤 필사 피조물의 관점이 언제든지 의심을 받는다면, 그 문제는 강력한 사자와 권세가 높은 한 분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한 분으로 구성된 상승 위원회에 호소함으로써 해결된다.

22:4.7 (247.6)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 필사자들은, 낙원을 향해 상승하고, 삼위일체 포용을 달성하고, 먼 훗날 시대에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배속되고, 내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젠가 어떤 진화하는 인간 거주 행성에 진리의 계시를 확장하기 위해 배정될지도 모른다.

5.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

22:5.1 (247.7)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이다. 생존할 가치를 지닌 너희 인종 및 다른 필사자들은,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에 도달하고, 삼위일체 상비 아들과 함께 연방우주 봉사를 하도록 정해진 자신을 언젠가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충실한 스랍 수호자들 및 동등하게 충실한 중도{中道} 동역자들 역시 똑같이 삼위일체의 승인을 받고, 훌륭한 인격체 운명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22:5.2 (248.1)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들은, 하보나를 거쳐서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한, 상승하는 스랍 및 전환된 중도 피조물이다. 그 후에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됐고,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배정{配定}됐다.

22:5.3 (248.2) 상승하는 스라빔 가운데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될 후보자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았는데,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하고, 그 후에 삼자일체된 어떤 상승한 필사자와 훌륭하게 협동했기 때문이다. 필사자 생애에서 바로 나를 수호했던 스라빔이 나와 함께 승인 받았으며, 나중에 삼자일체됐고, 지금은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으로서 우버사 정부에 배속돼 있다.

22:5.4 (248.3) 그리고 중도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가 전환되고 낙원을 성취하며, 스라빔과 더불어,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고 연방우주들에서 관리인으로 위임된다.

22:5.5 (248.4)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은 7만 명씩 무리지어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며, 각 집단에서 7분의 1이 한 연방우주에 배정된다. 현재 오르본톤 봉사에 임하는,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 관리인 숫자는 천만 명 조금 넘는다. 그들은 우버사에서, 그리고 대구역 및 소구역 본부 구체들에서 봉사한다. 수고하는 동안, 그들은 수십억 명의 제2스랍 및 다른 유능한 연방우주 인격체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22:5.6 (248.5)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들은 관리인으로서 생애를 시작하며, 연방정부 직무에서 그런 역할을 계속한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연방우주 정부의 임원이지만, 천상의 수호자들이 하는 것처럼 개인을 다루지는 않는다. 삼위일체처럼 된 관리인들은 집단 업무를 관리하고 공동 기획을 촉진시킨다. 그들은, 기록, 계획, 및 기관에 대한 관리인이며; 이행업무, 인격체 집단, 상승 기획, 모론시아 계획, 우주 설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업의 신탁인{信託人}으로서 활동한다.

6. 삼위일체처럼 된 대사

22:6.1 (248.6) 삼위일체처럼 된 대사들은, 삼위일체처럼 된 선택 아들 중에서 둘째 계층에 해당하고, 그 동역자인 관리인들처럼 두 가지 유형의 상승 피조물에서 모집된다.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가, 조율사, 즉 아버지와 융합하는 것은 아니며; 더러는 영 융합을 이루고, 더러는 아들 융합을 이룬다. 이런 영과_융합된 필사자와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가운데 일부가 하보나에 도착하고 낙원에 도달한다. 이 낙원 상승자 가운데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될 후보자들이 선택되며, 때로는 7천 명 단위로 삼자일체된다. 그때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로서 연방우주에 위임된다. 거의 5억 명이 우버사에 등록돼 있다.

22:6.2 (248.7)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 하보나 교사들의 충고에 따라서,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기 위해 선택된다. 그들은 각자의 집단 중에서 우세한 정신들을 대변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 세계들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경영함에서 연방우주 통치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최고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들과_융합된 대사들은, 우리가 아들과_융합된 인격체 계층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처리할 때 큰 도움이 된다.

22:6.3 (248.8) 삼위일체처럼된 대사들은, 모든 목적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배정된 연방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 또는 우주에 대한, 태고 항존자들의 밀사{密使}다. 그들은 소구역 본부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봉사를 제공하며, 어떤 연방우주의 수많은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연방정부의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의 응급{應急} 단체, 즉 예비 단체이며, 따라서 그들은 광대한 범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연방우주 직무에서 수많은

이행업무에 참여하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이 활동과 비슷한 것이 유란시아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지성인들에게 묘사할 수 없다.

7. 삼자일체되는 기법

22:7.1 (249.1) 완전한 영적 존재와, 완전하게 된 영적 존재들이 겪는 최상의 창조적 실행을--곧 삼자일체되는 행위를--맛보는 체험을, 나는 물질 정신에게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삼자일체되는 기법은, 바이스저링톤 및 솔리타링톤의 비밀에 속하며, 독특한 이 체험을 겪은 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범한 진행사항의 본성과 의미를 인간 정신에게 성공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떤 존재라도 불가능하다.

22:7.2 (249.2) 신격들은 제외하고, 오직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과 각 완결성취자 단체의 특정 요원들만이 삼자일체됨에 참여한다. 낙원 완전성이라는 특화된 조건 아래서, 이 뛰어난 존재들은 개념_정체성의 독특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존재, 즉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을 낳는 데 여러 번 성공한다.

22:7.3 (249.3)

삼자일체됨이라는 그런 모험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된 피조물은, 오직 한 번 그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낙원 신격들의 경우에는 삼자일체되는 행사를 계속 실행하기에 어떤 제한도 없다. 신격은 오직 한 면에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직 한 명의 무한한 원본 영, 즉 아버지_아들의 일치된 의지로 말미암는 무한한 행정관은 오직 한 명만 있을 수 있다.

22:7.4 (249.4)

낙원 문화의 어떤 수준과 영적 개발을 달성하고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한 필사 완결성취자는, 피조물 존재를 삼자일체되려고 시도할 수 있는 자들에 속한다. 필사_완결성취자 일행은, 낙원에 머물렀을 때, 하보나 시간으로 1,000년마다 휴가를 얻는다. 그런 완결성취자들이 임무에서_면제되는 이 기간을 보내려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일곱 가지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동료 완결성취자 또는 어떤 낙원_하보나 인격체와 연합해서, 피조물의 삼자일체됨을 일으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22:7.5 (249.5)

두 필사 완결성취자가, 총괄우주 건축가들 앞으로 가서, 삼자일체됨을 위해 동등한 개념을 각자 선택해

왔음을 나타낸다면, 그 건축가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서, 영화롭게 된 이 필사 상승자들로 하여금 휴가를 연장하고, 낙원 시민이 삼자일체되는 구역으로 얼마동안 이동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배정된 이 수양 기간이 끝날 때, 만일 그들이 그때까지 삼자일체되지 못한 어떤 선택된 원래 개념을, 영성화 시키고, 이상화 시키고, 실제화 시키려는 천국의 수고를 이루기로, 따로따로 그리고 공동으로 선택했다고 그들이 보고하면, 7_번 으뜸 영이 그런 비범한 이행업무를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다.

22:7.6 (249.6)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기간이 이 모험에 소모되며; 신실하고 단호한 옛 필사자들이--그리고 때로는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이-- 자신의 목표를 마침내 성취하기까지, 즉 보편적 진리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개념을 실제로 존재시키기에 정말로 성공하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헌신된 이 쌍들이 항상 성공리에 만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역할에서 실책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여러 번 실패한다. 그렇게 실패한 삼자일체됨 후보자들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고의 실망감을 견딘 존재라고 명명되는 완결성취자들의

특별 집단에 받아들여진다. 낙원 신격들이 삼자일체되기 위해 결합할 때에는 항상 성공하지만, 동종 피조물 한 쌍, 즉 같은 계층의 존재 가운데 두 구성원이 시도한 합동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22:7.7 (250.1) 새롭고 고유한 한 존재를 하나님들이 삼자일체시킬때, 신성한 부모는 변하지 않은 신격 잠재력 속에 있지만;고양된 피조물 존재들이 그런 창조 행사를 시작할 때에는,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개체 가운데 하나가 어떤 독특한 인격체 변경을 겪게 된다.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의 두 조상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처럼 된다. 충만하고 완성된 인격체의 형태화를, 지존하신 분이 광우주에서 달성하게 될 때까지는, 인격체의 어떤 영적 국면들에서 쌍으로_통합되는 이 상태가 아마 일반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22:7.8 (250.2)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새로운 아들이 출현함과 동시에, 두 조상의 이 기능적인 영적 합동이 발생하며;삼자일체되는 두 부모는 궁극적인 기능 수준에서 하나가 된다.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 존재도, 이런

놀라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그것은 거의_신성한 체험이다. 무한한 영을 영존시키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했을 때,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서 그들은 즉각 하나가 됐고, 그 후로 항상 하나였다. 그리고 두 피조물이 삼자일체되는 합동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완전한 신격 합동이라는 무한한 범위와 비슷하지만, 피조물 삼자일체됨이 주는 영향은 사실상 영원하지 않으며;체험 신격들의 사실화가 완성됨에 따라서 끝날 것이다.

22:7.9 (250.3)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의 이 부모는 자신의 우주 임무에서 하나처럼 되지만, 완결성취 단체와 총괄우주 건축가들이 구성되고 출석점호 될 때에는, 두 인격체로서 계속 알려질 것이다. 현 우주 시대 동안에, 삼자일체됨으로_결합된 모든 부모는 임무와 기능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이가 가고, 하나가 하는 것을 다른 이가 한다. 만일 부모가 쌍으로_통합되는 것이 필사(또는 다른) 완결성취자와 낙원_하보나 인격체를 포함하게 되면, 결합된 부모 존재는, 낙원 원주민이나 하보나 원주민뿐 아니라 완결성취자들과도 함께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혼합된 합동은 비슷한

존재들로 구성된 어떤 특별한 단체 안에서 모인다. 그리고 혼합됐든지 혼합되지 않았든지, 모든 삼자일체되는 합동에서, 부모 존재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어느 쪽도 수행할 수 없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2:7.10 (250.4) 완결성취자들과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의 삼자일체되는 합동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곱 으뜸 영이 갖고 있으며, 그런 혼합된 접촉은 항상 성공적이다.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결과인 훌륭한 아들들은, 낙원의 영원한 피조물 또는 공간에 있는 시간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납득하기에 부적당한 개념을 대표하며;따라서 그들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외견상 미래 우주 시대에 속하고, 따라서 연방우주 또는 중앙우주 경영 어느 쪽에도 즉각적인 실제 가치가 되지 않은, 관념, 이상{理想}, 및 체/험을 삼자일체된 이 운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시간세계의 자녀와 영원성 시민이 탄생시킨 독특한 이 아들들은 모두 바이스저링톤에서 예비군에 속해 있는데, 그곳에서 창조주 아들들 단체의 비밀 학부가 점유하는 구체의 어떤 특별 구역에서, 시간 개념과 영원성 실체를 연구하기에 몰두한다.

22:7.11 (251.1)

지존하신 분은 신격 실체의 세 국면의 통합인데:지존자 하나님, 즉 낙원 삼위일체의 어떤 유한한 측면들의 영적 통합;전능한 지존자, 즉 광우주 창조주들의 능력 통일;그리고 지존자 정신, 즉 제3 근원 및 중심과 지존하신 분의 실체에 대한 그 협조자들의 개별 기여 등이다. 중앙우주와 낙원의 훌륭한 피조물은,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하는 동안,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세 계층의 아들들의 생산을 초래하는, 지존자 신격의 삼중{三重} 탐험에 참여한다:

22:7.12 (251.2)

1. 상승자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완결성취자들은 자신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낙원으로 상승하면서 체험함으로 획득해 온, 전능한 지존자의 어떤 개념 실체들을 삼자일체시키려고 시도한다.

22:7.13 (251.3)

2. 낙원과_하보나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 낙원 시민과 하보나 시민의 창조적 노력은 궁극자와 영원자에 인접한 초월_지존적 배경에서 체험함으로 획득해 온, 지존하신 분의 어떤 높은 영적 양상의 삼자일체됨을 가져온다.

3. *삼위일체처럼된 운명의 아들들*. 그러나 완결성취자와 낙원_하보나 원주민이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삼자일체시킬 때, 이 공동 노력은 최상급_궁극 정신의 어떤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은 창조를 초월하며;그들은 다르게 체험적으로 달성된 적이 없는 최상급_궁극 신격의 실체성을 대변하며,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직분에 해당하는데, 이 건축가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창조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자다. 삼자일체된 운명의 아들들은, 최상급_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총괄우주 기능의 어떤 양상들을 구체화한다. 우리는 시간과 영원성의 이 공동 자녀들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계시하도록 허용된 것보다는 훨씬 많이 안다.

8.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

본 장{章}에서 고려되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 외에도,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계층의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존재가 있다--일곱 완결성취자 단체와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의 다중 접촉으로 인한 다양한 자손이 있다. 그러나 계시됐든지 계시되지

않았든지,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이 존재는 모두, 만유의 아버지에게서 인격체를 부여받는다.

22:8.2 (251.6) 상승자에서_삼자일체된 새로운 아들들, 그리고 낙원과_하보나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이, 어리고 훈련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대개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서 긴 기간 봉사하도록 파송되는데, 그곳에서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감독 아래서 이바지한다. 그들은 그 후에 지방우주들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더 훈련 받도록 채택될 수도 있다.

22:8.3 (251.7) 높고 영화롭게 된 피조물 기원을 갖는, 이렇게 채택된 아들들은, 교사 아들들의 견습생, 즉 학생 도우미이며, 등급을 고려할 때 종종 일시적으로 이 아들들로 계수 된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봉사 영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_부정하면서 여러 고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22:8.4 (251.8) 지방우주에 있는 교사 아들들은,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자신의 피후견인을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이 포용에서 그들은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로 떠올라서, 일곱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두_번_삼자일체된 존재들로 이뤄진 이 독특한
집단의 현재 알려진 운명이다.

22:8.5 (252.1)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모든 아들이 삼위일체
포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많은 숫자는,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의, 그리고 지방 창조계
어머니 영의, 동료 및 대사가 된다. 더러는 영원한 섬에서
특별한 임무에 배정될 수 있다. 더러는 영의 낙원
구체들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세계들에서 특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은 하보나의 내부
회로에서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의 공동 단체로 찾아
들어간다.

22:8.6 (252.2)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 그리고
바이스저링톤에 모이고 있는 그들을 제외하고,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모든 아들의 최상의 운명은, 일곱
개의 낙원 완결성취 단체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인 듯하다.

9. 천상의 수호자

22:9.1 (252.3)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은 7천 명 단위로 낙원 삼위일체에게 포용된다. 완전하게 된 인간들 중에서 그리고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 중에서 삼자일체된 이 자손은 모두 똑같이 신격들에게 포용되지만, 전에 그들의 교관이었던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충고에 따라서 연방우주에 배정된다. 더 흡족하게 봉사한 자들은 높은 아들 보좌관으로 위임되며;덜 뛰어난 성과를 낸 자들은 천상의 수호자로 지명된다.

22:9.2 (252.4) 이 독특한 존재들이 삼위일체에게 포용되고 나면, 연방우주 정부에 유익한 보조원이 된다. 이들은 상승 생애의 직무를 통달하게 되는데, 몸소 상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있는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과 함께 봉사한 결과로 그렇게 된다.

22:9.3 (252.5) 거의 10억에 이르는 천상의 수호자가 오르본톤에 위임돼 있다. 그들은 주로, 대구역 본부에 있는 완성 항존자 경영에 배정돼 있으며, 아들과_융합된 상승 필사자 단체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22:9.4 (252.6) 천상의 수호자들은, 태고 항존자 법정의 관리인데, 법정의 사자{使者}로서, 그리고 연방우주 정부의 다양한

법정의 소환장과 판결문을 전달하는 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체포 대행자이며;연방우주 재판관들 앞에 나와야 할 존재를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우버사에서 나가며;연방우주에 있는 어떤 인격체든지 구류{拘留}시키라는 명령을 집행한다. 또한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자신이 우버사에 출두할 필요가 있을 때, 영과_융합된 지방우주 필사자를 대동한다.

22:9.5 (252.7) 천상의 수호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인 높은 아들 보좌관들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영과 융합하지 않고 아들과 융합하지도 않는다. 아무튼, 낙원 삼위일체의 포용이,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의 비_융합 상태를 보완해준다. 삼위일체 포용은, 포용된 아들을 달리 변화시키지 않은 채,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 안에서 의인화{擬人化}된 관념에 따라서만 작용하지만, 그런 제한조건은 오직 그렇게 계획됐을 때에만 발생한다.

22:9.6 (252.8) 두_번_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은 놀라운 존재이지만, 다재다능한 상태가 아니고, 상승한 동역자들처럼 믿음직스럽지도 않으며;공간의 어두운

영토들로부터 영광을 향해 실제로 승진함으로써 이 집단에 속하는 나머지 아들들이 몸소 겪은, 엄청나고 심오한 체험은 그들에게 없다. 상승 생애를 가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그들의 결핍을 보완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낮은 기원{起源}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 우리에게 항상 고맙게 여긴다. 그들이 우주 상승 중에 체험 가능한 실체들을 자신이 맛보지 못한 것을 기꺼이 알아보고 인정하려는 것은, 초월적으로 아름답고, 때로는 가장 감동적으로 애처롭다.

22:9.7

(253.1)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들은 삼위일체에게_포용된 다른 아들들에 비해 제한적인데, 그들의 체험 수용력이 시_공간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상급 행정관 및 교사 아들들과 함께 긴 훈련을 받았음에도, 체험이_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체험의 포화상태 때문에 미래 우주 시대에 체험을 얻도록 그들을 예비로 남아있지 못하게 할지도 모른다. 모든 우주 실존에서,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은 어떤 미래 우주 시기의 체험 활동을 위해 예비 돼있다.

22:9.8 (253.2) 연방우주의 높은 법정에 속한 이 고귀한 관리들이, 그토록 동경하면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들로부터 최근에 도착한 자들조차 바라보는 것을, 나는 맨션 세계들에서 종종 보았는데, 이렇게 체험하지 않고 삼자일체됨을 이룩한 자들이, 진정한 체험과 실제 삶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주의 경로를 상승하는 형제, 자신보다 운이 덜 좋다고 추측하는 형제들을 정말로 부러워한다고, 누구라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장애와 한계가 있음에도, 연방우주 정부의 복잡한 경영 계획이 이행될 때, 놀라울 정도로 유용하고 항상_기꺼이 일하는 단체의 일꾼이다.

10. 높은 아들 보좌관

22:10.1 (253.3)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필사 완결성취 단체의 영화롭게 된 상승한 존재들, 그리고 그 영원한 동역자인 낙원_하보나 인격체들이 삼자일체된 아들들 중에서 다시 삼자일체된 상급{上級} 집단이다. 그들은 연방우주 봉사에 배정돼 있으며, 태고 항존자 정부에서 높은 아들들의 개인 조력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개인 비서관으로 지명되기에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높은 아들들의 특별 위원회 및 다른 집단 연합체들을 위한

사무관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우주 검열관, 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을 섬긴다.

22:10.2 (253.4) 만일, 천상의 수호자들을 논하면서,
두_번_삼자일체된 이 아들들의 제한조건과 장애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내가 그들의 한 가지 큰 장점, 즉
그들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만드는 속성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이 존재들이 단 하나의 최상의 개념에
대한 의인화{擬人化}라는 사실에,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어떤 신성한 개념, 즉 우주의 어떤
이상{理想}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인격체인데, 전에는
전혀 상상되거나 표현되거나 삼자일체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에 삼위일체에게 포용됐으며;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인격체 실존의 관념_이상{理想}을
고려하듯이, 신성한 삼위일체의 바로 그 지혜를 드러내고
실제로 포함한다. 특유의 그 개념이 우주들에게 계시될 수
있는 한, 이 인격체들은, 어떤 피조물이나 창조주
지성이든지 상상이나 표현 또는 예증{例證}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체를 포함한다. 그들은 의인화 된 그 관념이다.

22:10.3 (253.5) 너희는 한 가지 최상의 우주 실체 개념이 집중된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들이, 연방우주 경영을 맡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22:10.4 (254.1) 내가 오르본톤의 남쪽 부분에 있는 어떤 새로운 우주들 집단에 속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 높은 아들 한명씩-- 배정된 여섯 위원회의 우두머리로 지명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내가 높은 아들 보좌관들의 가치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된 것은, 그런 비서를 내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정하도록, 우버사에 있는 그들 계층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했을 때였다. 우리 개념 중에서 첫째는, 우버사에 있는 높은 아들 보좌관이 대변했는데, 그는 곧 우리 집단에 배속됐다. 우리의 둘째 문제는, 3_번 연방우주에 배정된 높은 아들 보좌관에 내포돼 있었다.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의 조화와 보급을 위해서, 중앙우주 교환소를 통해 이 근원에서 많은 도움을 확보했는데, 최상으로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격_삼자일체된 어떤 개념의 인격체가 실제로 현존함으로써 제공되는 도움에 비교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 우리의 셋째 문제에 관해서, 낙원 기록은 그런

관념이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졌다.

22:10.5 (254.2)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광대한 개념과 엄청난 이상{理想}이 독특하고 고유하게 인격화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때때로 우리가 심사숙고할 때 비할 바 없는 빛을 비춰줄 수 있다. 내가 공간에 있는 우주들 속 멀리에서 어떤 원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내가 착수하고 해결하도록 파송된,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신성한 개념으로 충만한 높은 아들 보좌관을, 운 좋게 내 사명에 배속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라;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체험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 계획에서 유일한 어려움은, 어떤 연방우주도 이런 삼자일체됨 개념의 완성된 개정판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며;우리는 이 존재들 중에서 오직 7분의 1만 획득하며;그래서 그 관념이 삼자일체됐음을 기록이 나타냈을 때에도, 이 존재들과의 개인적 연합을 누리는 경우는 일곱 번 가운데 오직 한 번뿐이다.

22:10.6 (254.3) 우리는 우버사에 있는 훨씬 많은 숫자의 이 존재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연방우주 경영에서

그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간 순례자들에게 그리고 낙원의 거주민에게도, 그들의 그런 창조적 모험 시행에 필수적인 그 체험 실체들을 서로에게 기여한 후에 삼자일체됨을 시도하라고 권한다.

22:10.7 (254.4) 지금 우리는 약 125만 명의 높은 아들 보좌관을 우리 연방우주에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우버사에서 활약하듯이, 대구역 및 소구역 양쪽에서도 봉사한다. 그들은 우리가 먼 우주들에 배정될 때 종종 우리와 동행한다. 높은 아들 보좌관들은, 어떤 아들 또는 어떤 위원회에든지 영구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그들 *자신/인* 그 관념 또는 이상{理想}이 낙원 삼위일체의 영원한 목적을 가장 잘 진행시킬 수 있는 곳에서 봉사하며, 낙원 삼위일체의 아들이 된다.

22:10.8 (254.5) 그들은 감동적으로 사랑스러우며, 놀랄 만큼 충성스럽고, 지극히 지성적이며, --한 가지 관념에 관해-- 최고로 현명하고, 초월적으로 겸손하다. 그들이 자신의 하나의 관념 또는 이상{理想}과 관련되는 우주에 대한 지식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는 반면, 다수의 기타 주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로부터 얻으려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대단히 애처롭다.

22:10.9 (254.6) 그리고 이것은, 삼위일체처럼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떤 자들, 특히 낙원 삼위일체의 신성한 포용을 거쳐서 지나온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방우주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경영자들에게 현명하고 이해심 많게 협동하도록 연방우주의 봉사에 배정된 자들의 기원, 본성, 및 기능발휘에 대한 이야기인데, 머지않은 하보나 목적지와 궁극적인 낙원 목표를 향해 상승하는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이 안쪽을 향해서 진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은 지치지 않고 노력한다.

22:10.10 (255.1) [오르본톤의 계시 단체에 속한 강력한 사자가 진술했음]

제23편 단독 사자

23:0.1 (256.1) 단독 사자{單獨 使者}들은 공동 창조주의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단체이며;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 중에서 첫째이자 선임{先任} 계층이다. 그들은 단독 인격체 영들을 실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홀로

작용한, 무한한 영의 초기 창조 행위를 대표한다. 아버지나 아들 가운데 아무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23:0.2 (256.2) 이 영 사자들은 단 한 번의 창조 사건으로 인격화됐으며, 그들의 수는 고정돼 있다. 현재의 이 사명에서, 이 뛰어난 존재 가운데 한 명이 나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있더라도, 나는 온갖 우주에 그런 인격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연방우주 관할권 안에서 당분간 활동할 때, 몇 명이 등록부에 기록됐는지 하는 것이다. 나는 최근의 우버사 보고서에서, 오르본톤 경계선 안에, 그때 거의 7,690조 명의 단독 사자가 활동하고 있음에 주목했으며;이 숫자는 그들의 전체 숫자 가운데 7분의 1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추측한다.

1. 단독 사자의 본성과 기원

23:1.1 (256.3) 무한한 영은, 일곱 하보나 회로 영을 창조한 직후에, 방대한 단체의 단독 사자를 낳았다. 낙원과 하보나 회로들 외에, 우주의 창조물 가운데 어떤 부분도 단독 사자보다 선재{先在}하지 않았으며;그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광우주에서 두루 활동해 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광범위한 창조계에 대한 자체_게시{啓示}, 그리고 그 창조계의 직접 접촉을 위한, 무한한 영의 신성한 기법에 필수적이다.

23:1.2 (256.4) 그럼에도 이 사자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실존하는데, 자아성{自我性}의 시초를 모두 자각한다. 그들은 시간을 의식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물 중에서 그런 시간 의식을 지니는 첫 존재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인격화 되고 공간 속에서 영성화 되는, 무한한 영의 첫_태생 피조물이다.

23:1.3 (256.5) 이 단독 영들은, 시간이 시작될 때, 충분히_성장하고 완전하게 갖추진 영 존재로서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동일하고, 개인적 차이에 근거한 계층이나 하위부서가 없다. 그들의 분류는, 그들이 때때로 배정되는 업무 유형에 전적으로 기초한다.

23:1.4 (256.6) 필사자들은,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서 거의 물질 존재로서 출발하고, 위대한 중심들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며;이 단독 영들은, 만물의 중앙에서 출발하고, 먼

창조계에, 심지어 가장 밖에 있는 지방우주 및 그 너머 개별{個別} 세계에 배정되기를 몹시 원한다.

23:1.5 (256.7) 그들을 단독 사자라고 부르지만, 고독한 영은 아닌데, 혼자서 일하기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창조물 안에 홀로 실존하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우주 지성체 중에서 그들이 사귄 수 있는 극소수의 계층과 함께 연합하는 것도 똑같이 즐긴다.

23:1.6 (257.1) 단독 사자들은 봉사할 때 고립돼 있지 않으며;자신이 머무는 영역의 모든 방송에 "귀 기울일" 수 있듯이, 모든 창조물의 풍부한 지능과 변함없이 접촉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측근 단체 구성원들, 즉 같은 연방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존재들과 상호소통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무리 중에서 다른 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일곱 으뜸 영 협의회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 받았고, 충성스런 집단이며;불복종하거나 태만하지 않는다. 단독 사자가 어둠 속으로 넘어진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

23:1.7 (257.2) 단독 사자들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법정에게 체포되거나 구류되지 않는, 그 영역들 전반에 두루 활동하는 매우 적은 유형의 존재에 속한다. 그들은 일곱 으뜸 영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소환될 수 없지만, 총괄우주 연대기{年代記}를 통틀어서, 어느 단독 사자의 사례를 판결하도록 이 낙원 협의회가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3:1.8 (257.3)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 사자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유래된 피조 존재들 중에서 믿음직스럽고 자아_의존적이며 다재다능하고 철저히 영적이고 광범하게 인정 많은 집단이며;낙원의 중앙 섬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권세로,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서 인격화돼 작용한다. 그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직접 영향 아래 지방 창조계에서 작용할 때에도, 무한한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직통{直通} 회로에 변함없이 참여한다.

23:1.9 (257.4) 이 단독 사자들이 홀로 여행하고 일해야만 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은 짧은 기간 머물러 있을 때, 집단을 이뤄 협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의 낙원 회로 자양분{滋養分}과 지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떨어져 나가며;전적으로 격리된다. 과도기에 있을 때, 또는 공간 회로와 시간 흐름 속에서 작동할 때, 이 계층에 속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이 아주 근접하게 되면, 순환하는 비교적 높은 힘들과의 접촉에서 둘 다 또는 전체가 제외된다. 설명에 도움이 되는 상징으로 너희가 묘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합선{合線}"이 된다. 그러므로 충돌에 가까워졌음을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확실히 작동하고, 그들의 적당하고 효과적인 기능발휘에 방해되지 않게, 그들을 충분히 분리돼 있도록 틀림없이 유지하는 자동 경보, 즉 경계 신호의 힘이 그들 속에 내재돼 있다. 또한 그들은, 영감된 삼위일체 영과 신성한 사고 조율사 둘 다의 근접을 감지하고 알리는, 내재적이고 자동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23:1.10 (257.5) 이 사자들은 인격체 확장 또는 번식 능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우주 활동은 실제로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무슨 일에든지 본질적이고 유용한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은 우주 직무의 경영에 관련되는 자들을 위해 시간을 크게 절약해 주는 존재이며;가장 높은 존재에서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돕는다.

2. 단독 사자의 임무

23:2.1 (257.6) 단독 사자들은, 천상의 인격체들의 어떤 개인 또는 집단에든지 영구적으로 배속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근무할 때, 항상 임무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그렇게 봉사하는 동안에 자신이 배속된 그 영역을 지휘하는 자의 직접 감독 아래 활동한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도 갖지 않으며; 단독 사자다.

23:2.2 (258.1) 무한한 영이 단독 사자들을 다음과 같은 일곱 봉사 부서에 배정한다:

23:2.3 (258.2) 1. 낙원 삼위일체 사자.

23:2.4 (258.3) 2. 하보나 회로 사자.

23:2.5 (258.4) 3. 연방우주 사자.

23:2.6 (258.5) 4. 지방우주 사자.

23:2.7 (258.6) 5. 지시되지 않은 임무 탐험자.

23:2.8 (258.7) 6. 특별한 임무의 대사와 밀사{密使}.

23:2.9 (258.8) 7. 진리 계시자.

23:2.10 (258.9) 이 영 사자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한 봉사 유형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서로 바뀔 수 있으며;그런 전환이 계속 발생한다. 단독 사자들 중에서 분리된 계층은 없으며;그들은 영적으로 똑같고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그들을 번호로 지명하지만, 무한한 영은 그들 각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머지 우리에게 그들은 자신의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 또는 번호로 알려져 있다.

23:2.11 (258.10) 1. *낙원 삼위일체 사자들.* 나는 삼위일체에게 배정된 사자들 집단의 업무를 많이 계시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은 신격들의 신뢰받는 비밀스런 하인이며, 계시되지 않은 정책 및 하나님들의 미래 운영을 포함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맡았을 때,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 계층에 위탁된 신용을 결코 배반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의 완전성을 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격들이 *완전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23:2.12 (258.11) 유란시아에 혼동과 혼란이 있다고 해서, 직무를 그렇지 않게 관리할 관심 또는 역량이 낙원 통치자들에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창조주는 유란시아를 실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지만, 그런 에덴은 필연성이라는 모루와 고통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하나님들이 너희 세계에 분명히 이루려는, 그런 강력하고 고귀하며 노련한 성품 개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중앙우주의 세계들에서 만물이 절묘하게 완전하고 그들의 최상의 목적에 무한히 적응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걱정과 슬픔, 너희의 시련과 실망은 너희의 구체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23:2.13 (258.12) 2. *하보나 회로 사자들*. 너희는 상승하는 생애 내내 막연하게 그러나 점점 더 단독 사자의 현존을 감지하게 되겠지만,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면하게 될 사자들 가운데 첫째는 하보나 회로의 사자들이 될 것이다.

23:2.14 (258.13) 단독 사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원주민과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 서로 연합할 때 기능적으로 매우 약화{弱化}되는 이 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과 매우 가깝고, 개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런 거의_초월적인 인격체들의 영과, 신성하게

완전한 이 존재들의 정신이 접촉한 결과로 생기는 최고 만족감을 인간 정신에게 옮기기는 매우 불가능하다.

23:2.15 (259.1) 3. *연방우주 사자들*. 일곱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삼위일체 기원에 속하는 그런 인격체들, 즉 신성한 능력과 경영 지혜를 가진 그런 삼총사인 태고 항존자들에게, 단독 사자가 풍부하게 공급돼 있다. 오직 이 계층의 사자{使者}를 통해서만, 한 연방우주의 삼자일체 통치자가 다른 연방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단독 사자들은 한 연방우주 본부에서 다른 연방우주 본부로 직접 파송되기에 --어쩌면,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영 지성체 유형이다. 다른 모든 인격체는 그런 여행을 위해서 으뜸 영의 행정 세계와 하보나를 경유해야만 한다.

23:2.16 (259.2) 인력 사자들이나 반사성{反射性}이나 방송{放送}을 이용해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려면, 지식의 출처에 한 단독 사자를 보내야만 한다. 유란시아에 생명체가 나타나기 오래 전에 지금 나와 연합돼 있는 사자가 우버사로부터 중앙우주로 가는 어떤 사명에

배정됐었다--거의 100만 년 동안 오르본톤의
출석점호에서 빠졌지만, 때가 되자 바람직한 정보를 갖고
돌아왔다.

23:2.17 (259.3) 연방우주에서 단독 사자들의 봉사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며;그들은 높은 법정 집행인으로서, 또는 그
영역의 복지를 위한 지성 수집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연방창조물 가운데 오르본톤에서 봉사하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필요성이 여기서 가장 크고 또한
용맹스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배가{倍加}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더 가난한
영역일수록 더 충만히 작용하는 만족감을 누린다.

23:2.18 (259.4) 4. *지방우주 사자들*. 지방우주에서 봉사할 때, 단독
사자들의 기능발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들이 비록
군림하는 으뜸 아들의 충만한 관할권 아래에 있더라도,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동기{動機}와 의도를 신실하게
드러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
본부로부터 직접 여행을 떠나든지, 아니면 성좌
아버지들이나 체계 주권자들 또는 행성 왕자들과
접촉하면서 일시적으로 행동하고 있든지, 지방우주에서

활약하는 모든 사자{使者}에게 해당된다. 창조주 아들이 자기 우주의 주권을 가진 통치자로 승격되면서 그의 손에 모든 능력이 집중되기 전에는, 지방우주들의 이 사자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총체적 지시에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거주 대표자인 합동 항존자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23:2.19 (259.5) 5. *지시되지 않은 임무 탐험자들*. 단독 사자의 예비 단체가 너무 많이 모집되면,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가운데 하나가 탐험 자원자들을 모집하며;한 번도 자원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세계와 우주의 조직화되는 중심부분을 발견하는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탐험자로서 파송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23:2.20 (259.6) 그들은 그 영역의 공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제공한 단서를 검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낙원 신격들은 발견되지 않은 이런 공간 에너지 체계의 실존을 의심할 여지없이 알지만, 그런 정보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단독 사자들이 새롭게 조직되는 이런 에너지 중심을 탐험하고 도표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그런 현상은 심지어 인접한 영역의 지성체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래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한 계층으로서 단독 사자들은
인력{引力}에 매우 민감하며;따라서 그들은 언젠가 매우
작은 검은 행성, 즉 생명체 실험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
세계의 현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23:2.21 (260.1) 지시받지 않은 임무를 띤 이 사자_탐험가들이
총괄우주를 순찰한다. 그들은 모든 외부 공간에서
기입되지 않은 지역을 항상 원정여행 하고 있다. 외부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진행사항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단독 사자들이 탐구한 덕택으로 얻은
것인데, 그들은 종종 천상의 천문학자들과 함께 활동하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23:2.22 (260.2) 6. 특별한 임무의 대사 및 밀사들. 같은 연방우주
안에 위치한 지방우주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그들의
원주민 계층에서 선택된 대사들을 관례적으로 교환한다.
그러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한 영역을 다른 영역에
제시하고 설명하도록, 단독 사자들은 한 지방
창조계로부터 다른 지방 창조계로 대사로서 가 달라고
종종 요청 받는다. 예를 들면: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어떤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스라빔에 둘러싸인 대사가 멀리_떨어진 이 우주에 당도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스라빔에게 둘러싸인 존재는, 유란시아의 시간과 거리 단위로, 초당 558,840마일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끌어당기는 직선구간뿐 아니라, 거대한 별, 역류, 그리고 우회로{迂廻路}들이, 모두 그런 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먼 여행에서는 평균 속도가 초당 550,000마일이 될 것이다.

23:2.23 (260.3)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우주에 원주민 대사가 도착하기까지 수백 년 소요되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즉시 가서 잠정적 대사로 활동하라고, 단독 사자에게 종종 요청한다. 단독 사자는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인력 사자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무관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다. 또한 그들은 다른 상황에서 특별한 임무의 밀사로 봉사한다.

23:2.24 (260.4) 7. *진리 계시자들*. 단독 사자들은 진리를 계시하는 임무를 그들 계층 중에서 가장 고귀한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연방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역할로 가끔 활동한다. 그들은 세계들과

체계들에 진리의 계시를 확장하도록 파송되는 위원회에 종종 배속된다.

3. 시간과 공간에서 단독 사자의 봉사

23:3.1 (260.5) 단독 사자들은, 방송 서비스 또는 반사성 장치의 활용이 부적합할 경우에,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빨리 전하는 일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완전하고 신용 있는 인격체 가운데 최고 유형이다. 그들은 끝없이 다양한 임무로 봉사하는데, 특히 시간 요소가 포함된 곳에서, 그 영역의 영적 존재와 물질 존재들을 도와준다. 연방우주 영토의 봉사에 배정된 모든 계층 중에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다재다능한 인격화된 존재다.

23:3.2 (260.6) 우주에는 이동할 목적으로 인력{引力}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들로 넉넉히 공급돼 있으며;그들은 언제든지--즉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지만, 인격자가 아니다. 인력 사자 및 초월 기록원 같은, 어떤 다른 인력 횡단자들은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경영에는 쓸모없다. 세계들이 천사와 사람 그리고 인격있는 높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스라빔에 둘러싸이지 않은 대부분의 존재들의 속도{速度} 한계는, 너희 시간과 거리로 볼 때, 초당 186,280마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중도 피조물 및 특별한 다른 존재들은 종종 두 배 속도를--곧 초당 372,560마일을--낼 수 있는 반면, 스라빔과 기타 존재들은 세 배 속도, 즉 초당 약 558,840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아무튼, 단독 사자를 제외하면, 인력 횡단자의 순간 속도와, 스라빔의 비교적 느린 속도 사이에서 작용하는 운반 인격체 또는 사자{使者} 인격체는 전혀 없다.

23:3.3 (261.1) 그러므로 단독 사자들은 대체로, 임무 성취에 인격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와, 어떤 다른 유형으로 즉시 준비된 인격있는 사자를 보냄으로써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시간 손실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파송하고 봉사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들은 광우주의 혼합된 보편적 추세에 동조할 수 있는, 분명히 인격화 된 유일한 존재다. 공간을 지나갈 때 그들의 속도는, 개입되는 영향의 큰 다양성에 따라 변하지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내 동료 사자는, 너희 시간으로 초당 841,621,642,000마일의 속도로 진행한다고 기록돼 있다.

23:3.4 (261.2) 어떤 영이 정말로 인격적인 동시에 그런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물질 유형의 정신에게 설명하는 것은 내 역량을 전적으로 벗어난다. 그러나 바로 이 단독 사자들은, 유란시아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 불가해한 속도로 실제로 왕래하고 있으며;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경영의 전체 질서는 인격적 요소를 크게 잃어버렸을 것이다.

23:3.5 (261.3) 단독 사자들은, 멀리 있는 공간 지역, 즉 광우주의 확립된 회로{回路}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 전반에 걸쳐서 비상 소통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활동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가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식으로, 한 명의 사자{使者}가, 약 100광년{光年} 떨어져있는 동료 사자에게 공간을 통해서 신호{信號}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23:3.6 (261.4) 연방우주 직무를 수행함에서 우리와 협동하는 수많은 존재 가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간 절약을 돕는 면에서, 이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시간이라는 제약조건을 계산해야만 하며;따라서 공간에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는

단독 사자들의 위대한 봉사는, 그들이 친히 소통하는 특권으로 인해, 그리고 엄청난 운반 속도 덕분에, 시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3.7 (261.5) 단독 사자가 형체를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인격체를 소유할 수 있는지, 나는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인격체와 연합할 수 있는 그 형체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그들은 영 존재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유형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영 현존을 소유한다. 단독 사자는 완전히_성장한 인격체의 모든 특권과, 결합된 형체 없는 영의 거의 모든 장점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계층의 존재다. 그들은 참된 인격자이며, 그럼에도 인격아닌 영 형태화의 모든 속성을 거의 다 부여받았다.

23:3.8 (261.6) 일곱 연방우주에서, 대개--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고-- 어떤 피조물이든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애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 비례하여 인격체 특권을 축소시킨다. 단독 사자들은 이 일반 법칙에서 제외된다. 영적 표현, 신성한 봉사, 개인적 사역, 그리고 시공우주 소통의 끝없는 통로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를 활용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활동에 거의 제한 받지 않는다. 너희가, 나의 우주 경영 체험에 비추어 이 훌륭한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이 다재다능하게 협동하지 않으면 연방우주 직무를 얼마나 조정하기 어려운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23:3.9 (262.1) 우주가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단독 사자는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성장하면, 다른 유형의 영 사역자들이, 그리고 주권자 아들들의 피조물 및 지방우주 어머니 영들의 피조물 같은, 이런 새로운 창조계에서 지원되는 그 존재들이, 확장된 경영 업무를 점점 더 많이 수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4. 단독 사자의 특별한 사역

23:4.1 (262.2)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의 영 존재를 위해 인격체를 조정하는 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사역은 광범위한 영적 세계의 모든 인격체를 비슷하게 만들도록 돕는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의 집단 정체성 의식을 발전시키기에 많이 기여한다. 각 유형의 영 존재마다, 특별한 단독 사자 집단의 도움을 받는데, 단독 사자는 그런

존재들이 아무리 서로 달라도, 모든 기타 유형 및 계층을 이해하고 그들과 사귀는 역량을 갖도록 촉진시킨다.

23:4.2 (262.3)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 및 계층의 유한한 인격체를 조화시키는--곧 심지어 총괄우주 전면통제관들의 유한절대 체제와 접촉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량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서 더러는, 무한한 영이 이 사자들을 창조한 것은, 어떤 면에서 공동 행위자가 최상급_궁극 정신을 증여하는 것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23:4.3 (262.4) 완결성취자와 낙원 시민이, "시간과 영원성의 자녀"의 삼자일체됨에--곧 최상급_궁극자의 계시되지 않은 정신 잠재력을 포함하는 어떤 처리사항에-- 협동할 때,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런 인격체가 바이스저링톤으로 파송됐을 때, (추측컨대 그런 성격 정신의 증여에 영향을 받는 인격체인) 단독 사자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그런 아들에게 항상 수호자_동무로 배정된다. 이 사자{使者}는 새로운 운명의 아들이 배정된 세계로 갈 때 따라가며, 더 이상 바이스저링톤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성의 자녀의

운명에 그렇게 배속됐을 때, 단독 사자는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단독 감독 아래로 영원히 옮겨간다. 그런
색다른 연합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특한 인격체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 동업관계가
바이스저링톤에서 계속 이뤄져 왔지만, 어떤 한 쌍도
거기서 떠난 적이 없다.

23:4.4 (262.5) 단독 사자들은 숫자가 고정돼 있지만, 운명의
아들들의 삼자일체됨은 무제한의 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삼자일체된 운명의 아들 각자가 단독 사자를 배정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자들의 공급이 바닥날 것 같다. 광우주에서 누가 그들의
일을 맡을 것인가?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발전결과가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어느 먼
미래에,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들이 광우주를 더
긴밀하게 경영하고, 한편 단일_기원 및 이중_기원
피조물이 외부 공간의 그 영역들 속으로 이동할 것인가?
사자들이 자신의 예전 봉사로 돌아온다면, 이 운명의
아들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단독 사자들의 공급이 이
운명의 아들들의 수호자_동무로 다 흡수되고 나면,
완결성취자들과 낙원_하보나 원주민 사이의

삼자일체됨이 중단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단독 사자들이 모두 바이스저링톤에 모일 것인가? 이 색다른 영 인격체들은, 아직 운명이 계시되지 않은 삼자일체된 이 아들들과 영원히 연합될 것인가? 바이스저링톤에 모이는 이 쌍들이, 전능한 신비 존재인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단독 지시 아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무슨 의미를 덧붙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비롯해서, 유사한 많은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있으며, 수많은 다른 계층의 천상의 존재도 묻고 있지만, 우리는 해답을 모른다.

23:4.5 (263.1) 이 진행사항은, 우주 경영에서 많은 유사 사건과 함께, 광우주의 요원들,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의 요원들조차, 분명하고 확실한 재조직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외부 공간의 영역 도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방대한 에너지 진화와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23:4.6 (263.2) 우리는 영원한 과거가 체험해 온 모든 것을 훨씬 초월하게 될 그런 우주 진화 현상을, 영원한 미래에 목격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되겠지만, 계속 증대되는 기대감과 강렬한 흥미를 갖고
그런 거대한 모험을 기다린다.

23:4.7 (263.3) [우버사에서 온,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제24편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

24:0.1 (264.1) 우버사에서, 우리는 공동 창조주의 모든 인격체 및
실재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무한한 영의 고등{高等}
인격체들, 공간의 사자 무리, 그리고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이며, 그들은 필사자 진보라는 상승 계획을 따르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관여하는 영
존재다.

24:0.2 (264.2) 본 문서들에서 언급돼 있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는, 광우주 전역에서 일곱 분야로 활동한다:

24:0.3 (264.3) 1. 단독 사자.

24:0.4 (264.4) 2. 우주 회로 감독관.

24:0.5 (264.5) 3. 인구조사 지휘자.

24:0.6 (264.6)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24:0.7 (264.7) 5. 부{副} 검열관.

24:0.8 (264.8) 6. 배정된 파수꾼.

24:0.9 (264.9) 7. 졸업생 안내자.

24:0.10 (264.10) 단독 사자, 회로 감독관, 인구조사 지휘자, 및 개인 조력자의 특징은, 반인력{反引力}이라는 엄청난 재능을 소유한 것이다. 단독 사자에게는 알려진 일반 본부가 없으며;온갖 우주를 돌아다닌다. 우주 회로 감독관과 인구조사 지휘자는 연방우주 수도에 본부를 둔다.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는, 중앙에 있는 빛의 섬에 주둔한다. 부{副} 검열관 및 배정된 파수꾼은, 지방우주 수도{首都}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체계 수도들에 각각 주둔한다. 졸업생 안내자는 하보나 우주에 거주하고, 그 20억 세계에서 활동한다. 이 고등 인격체 대부분이 지방우주에 주둔하지만, 진화 영역의 경영에 유기적으로 배속돼 있지는 않다.

24:0.11 (264.11) 이 집단을 구성하는 일곱 계층 중에서, 단독 사자만이, 그리고 아마 개인 조력자도, 온갖 우주를 범위로 삼는다. 낙원에서 바깥쪽으로:하보나 회로들을 거쳐서

연방우주 수도로, 그리고 거기서 구역과 지방우주들 및 그 하위구획들을 지나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인간거주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단독 사자를 만나게 된다. 단독 사자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에 속하지만, 그들의 기원과 본성과 봉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됐다.

1. 우주 회로 감독관

24:1.1 (265.1) 공간에 있는 방대한 동력 흐름과 영 에너지 회로들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아무런 장애도 없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엄청난 에너지 체계 전체가 통제 아래 있으며;영리하게 감독받고 있다. 우주 회로 감독관들은, 순전히 물리적인 에너지, 즉 물질적인 에너지 영역에만--곧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분야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영적인 에너지 회로들에 관여하고, 상당히 발달된 영적 존재들과 모론시아 또는 과도기 유형의 지성 피조물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런 변경된 회로에도 관여한다. 감독관들은 에너지 회로와 신성의 초월본질을 기원시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세계와 영원성의 모든 상급 영 회로, 그리고 광우주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경영에 고려되는 모든 상대적 영 회로와 상관이 있다.

그들은 낙원 섬 밖에 있는 그런 모든 영_에너지 회로를 지휘하고 조종한다.

24:1.2 (265.2) 우주 회로 감독관들은 무한한 영의 독자적 창조물이며, 공동 행위자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활동한다.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네 계층으로 인격화 된다:

24:1.3 (265.3) 1. 최고 회로 감독관.

24:1.4 (265.4) 2. 부{副} 회로 감독관.

24:1.5 (265.5) 3. 2차 회로 감독관.

24:1.6 (265.6) 4. 3차 회로 감독관.

24:1.7 (265.7) 하보나의 최고 감독관과 일곱 연방우주의 부 감독관은 완성된 숫자로 이뤄져 있으며;이 계층들은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다. 최고 감독관은 숫자가 일곱이며, 일곱 하보나 회로를 조종하는 세계에 주둔한다. 일곱 연방우주 회로는, 일곱 부 감독관으로 구성된 훌륭한 집단의 관리를 받는데, 그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 세계인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 본부를 둔다. 여기서 그들은 공간에 있는 연방우주 회로들을 감독하고 지휘한다.

24:1.8 (265.8) 영의 이 낙원 구체들에서 일곱 명의 부 회로 감독관, 그리고 지존 동력 중심들 중에서 첫째 계층이, 최상급 행정관들의 지시 하에 접촉을 이루며, 이것은 일곱 연방우주에게 나눠주는 낙원_이하의 모든 물질적 및 영적 회로가 결국 조화{調和}를 이루게 한다.

24:1.9 (265.9) 각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을 위한 2차 감독관들이 주둔한다. 대구역과 소구역들은 연방정부의 경영 부서이지만, 영{靈}_에너지를 감독하는 이 문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2차 회로 감독관이 광우주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버사에는 이 존재가 84,691명 있다. 2차 감독관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으며;때때로 최상급 행정관 세계들에서 70명씩 무리지어 나타난다. 우리 관할권에 속하는 새롭게 진화하는 우주에, 영 에너지 및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로를 따로 설치하는 일을 주선하는 대로, 우리는 요청해서 그들을 확보한다.

24:1.10 (265.10) 3차 회로 감독관들은 모든 지방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활동한다. 이 계층은, 2차 감독관들처럼, 계속

창조되는데, 700명씩 무리지어 창조된다. 태고 항존자들이
그들을 지방우주에 배정한다.

24:1.11 (266.1) 회로 감독관들은, 자신의 특수한 과제를 위해서
창조되며, 자신이 원래 임명된 집단에서 영원히 봉사한다.
그들은 봉사하는 동안 교대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이
처음 배정된 영역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오랜 세월
연구한다. 예를 들면:3차 회로 감독관 572,842_번은, 너희
지방우주가 초기에 구상{構想}될 때부터 살빙톤에서 계속
활동해 왔고, 네바돈 미가엘의 개인 참모진 가운데
일원이다.

24:1.12 (266.2) 지방우주 또는 그보다 높은 우주들에서
활동하든지 안 하든지, 회로 감독관들은 모든 영 메시지
전달에 적절하고 모든 인격체 통행에 적절한 회로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지휘한다. 회로를 감독하는 그들의
업무에서, 이 유능한 존재들은, 온갖 우주에 있는 모든
매개체, 세력, 및 인격체들을 활용한다. 그들은 계시되지
않은 "회로를 통제하는 높은 영 인격체들"을 활용하며,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수많은 참모진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행성 왕자가 만유의 아버지 및 그의 대리

아들에 대항해서 반역할 경우에는, 바로 그들이 그 진화 세계를 격리시킬 것이다. 그들은 비교적 높은 영적 계층에 속하는 어떤 우주 회로들로부터 어떤 세계든지 몰아낼 수 있지만, 동력 지휘자들의 물질적 흐름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24:1.13 (266.3) 우주 회로 감독관은, 우주 동력 지휘자가 물질 회로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영 회로에 대해서 관계를 갖는다. 이 두 계층은 상호 보완적인데, 피조물이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영과 모든 물질 회로를 함께 감시한다.

24:1.14 (266.4) 물리_에너지와 연합된 정신의--곧 기계적 정신의-- 국면들에 대해 동력 지휘자가 어느 정도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회로 감독관은 영과 연합된 그런 정신 회로를 어느 정도 감시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층의 기능은 다른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확장되지만, 순수한 정신 회로는 그 가운데 어느 쪽 감독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두 계층은 대등하지 않으며;다양하게 수고하는 모든 경우에, 우주 회로 감독관은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및 그 부하들에게 종속된다.

24:1.15 (266.5) 회로 감독관들은 각 계층 안에서 완전히 똑같지만, 모두 뚜렷한 개체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우주의 전체 실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 유형에서도 만날 수 없는, 아버지가 부여하지 않은 어떤 인격체 유형을 지닌다.

24:1.16 (266.6) 너희는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면서 그들을 알아보고 또한 알게 되겠지만, 그들과 어떤 개인적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로 감독관이며, 자신의 직무에 엄격하게 효과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독에 종속하는 회로들과 관련되는 활동을 감시하는, 그런 인격체 및 실재들과만 관계한다.

2. 인구조사 지휘자

24:2.1 (266.7) 우주의 지성에 속하는 시공우주 정신이, *생각하는* 모든 피조물의 현존과 행방을 인지함에도, 온갖 우주에는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을 계속 계수{計數}하는 어떤 독립된 방법이 작동한다.

24:2.2 (266.8)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무한한 영의 특별하고 완성된 창조물이며, 실존하는 그들의 숫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반사성 기법과

완전한 동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조됐으며, 한편 지성적 의지에 개인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다. 이 지휘자들은, 충분히_이해되지_않는 어떤 기법으로, 광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의지 탄생을 즉시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앙 창조물과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든지,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의 숫자, 본성, 및 행방을 우리에게 항상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낙원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낙원에서는 지식이 내재적이며;신격들은 만물을 아신다.

24:2.3 (267.1) 일곱 인구조사 지휘자가 하보나에서 활동하는데, 각 하보나 회로 안내 세계마다 한 명이 주둔한다. 이 일곱 명, 그리고 낙원의 영 세계들에 있는 계층의 예비군을 제외한 모든 인구조사 지휘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관할권 아래서 활동한다.

24:2.4 (267.2) 한 명의 인구조사 지휘자가 각 연방우주 본부의 의장이 되며, 그런 최고 지휘자 아래에, 각 지방우주마다 수도에 한 명씩, 수천 명이 있다. 하보나 안내 세계들과

일곱 연방우주 우두머리들을 제외하고, 이 계층에 속한 모든 인격체는 동일하다.

24:2.5 (267.3) 일곱째 연방우주에는 10만 명의 인구조사 지휘자가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방우주들에게 배정될 수 있는 자들로만 구성되며;전체 오르본톤 지휘자들의 연방우주 우두머리인 우사티아의 개인 참모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사티아는, 다른 연방우주 우두머리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적 의지를 등록하는 데 직접 동조되지는 않는다. 그는 오르본톤 우주들에 주둔하는 자신의 부하에게만 동조하며;그래서 그는 지방 창조계 본부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를 합산하는 놀라운 어떤 인격체로서 행동한다.

24:2.6 (267.4) 우버사의 공식 기록원들은 때때로, 우사티아의 인격체 안에, 그리고 그 인격체에 기록된 것이 가리키는 대로, 연방우주 상태를 그들의 기록에 남긴다. 그런 인구조사 자료는 연방우주들에 고유하며;이 보고는, 하보나는 물론 낙원에도 전달되지 않는다.

24:2.7 (267.5)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의지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정도에서만 인간에 대해 --의지를 가진 다른

피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여한다. 그들은 너희의 생애와 행위에 대한 기록에는 관여하지 않으며;어떤 의미에서도 기록하는 인격체가 아니다. 오르본톤의 81,412_번인, 현재 살빙톤에 주둔하고 있는 네바돈 인구조사 지휘자는, 바로 이 순간에 이곳 유란시아에서 살아가는 너의 현존을 몸소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으며;네가 의지를 가진 피조물로서 활동하기를 멈추는 순간, 너의 죽음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것이다.

24:2.8 (267.6) 인구조사 지휘자들은 의지에 따른 첫 행동이 수행될 때, 의지를 지닌 새로운 피조물의 실존을 등록하며;의지의 마지막 행동이 일어나게 될 때, 의지 피조물의 죽음을 표시한다. 어떤 고등 동물 반응에서 목격되는 부분적 의지의 출현은 인구조사 지휘자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지를 가진 진정한 피조물 외에는 계수하지 않으며, *의지* 작용에만 반응한다. 그들이 의지 작용을 정확히 어떻게 등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24:2.9 (267.7) 이 존재들은 항상 인구조사 지휘자로서 존재해 왔으며, 항상 그럴 것이다. 그들은 우주 임무 가운데 어떤

다른 분야에서든지 비교적 쓸모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능에서 오류가 없으며;결코 태만하지 않고 왜곡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불가해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인격자이며;인식 가능한 영 현존 및 형태를 갖고 있다.

3.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24:3.1 (268.1) 우리는 개인 조력자들이 창조된 시기 또는 방법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많음에 틀림없지만, 우버사에는 그 기록이 없다. 그들의 업무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초한 전통적 추론에 의거해서, 나는 그들의 숫자가 최대 수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한한 영이 숫자에 제한 없이 개인 조력자를 창조할 것이라는 견해를 고집한다.

24:3.2 (268.2)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들은, 오로지 신격의 제3 인격자의 낙원 현존을 보조하기 위해서 실존한다. 무한한 영에게 직접 배속되고 낙원에 위치하더라도, 그들은 창조물 끝부분까지 번쩍이며 이리저리 움직인다. 공동 창조주의 회로가 확장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개인 조력자들이 무한한 영의 명령을 시행할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단독 사자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우주를 횡단하지만, 그 사자들이 인격자라는 의미에서는 인격자가 아니다.

24:3.3 (268.3) 개인 조력자들은 모두 동등하고 똑같으며;어떤 개체성의 차이도 나타내지 않는다. 공동 행위자가 그들을 참된 인격체로 간주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그들을 진짜 인격자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며;그들은 다른 영{靈} 존재들에게 영 현존을 나타내지 않는다. 낙원에서_기원된 존재들은, 이 조력자가 가까이 있음을 항상 자각하지만;우리는 인격체가 현존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현존하는_형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격 중에서 제3 인격자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4:3.4 (268.4)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되는 영 존재 가운데 제시된 전체 계층 중에서, 개인 조력자들은 너희가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될, 거의 유일한 존재다.

4. 부 검열관

24:4.1 (268.5) 무한한 영의 일곱 낙원 구체에 있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은, 일곱 연방우주의 관리를 담당하는 최고 경영

이사회로서, 집단으로 활동한다. 부{副} 검열관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에 대한 최상급 행정관들의 권위를 개인적으로 구현한 자다. 지방 창조계의 직무에 대한 이 높은 관찰자들은, 낙원의 일곱 으뜸 영과 무한한 영의 공동 자손이다.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70만 명이 인격화됐고, 그들의 예비 단체는 낙원에 주둔한다.

24:4.2 (268.6) 부 검열관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직접 감독 아래서 일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에 대해서 그들의 개인적이고 능력 있는 대표자가 된다. 각 지방 창조물의 본부 세계마다 한 명의 검열관이 주둔하며, 거기에 거주하는 합동 항존자의 가까운 동역자다.

24:4.3 (268.7) 부 검열관들은, 오직 그 부하들, 즉 인간거주 세계로 이뤄진 지역 체계 수도에 주둔하는 배정된 파수꾼들로부터만 보고와 추천을 받는 반면, 오직 직속상관, 즉 관련된 연방우주의 최상급 행정관에게만 보고한다.

5. 배정된 파수꾼

24:5.1 (268.8) 배정된 파수꾼들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협조 인격체 및 연락 대표자다. 무한한 영이 그들을 낙원에서

인격화했고, 그들에게 부여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 그들은 숫자가 고정돼 있으며, 정확하게 70억 명이 실존한다.

24:5.2 (269.1) 부 검열관이 어떤 지방우주 전체에 대해 일곱 최상급 행정관을 대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 지방 창조물 가운데 1만 체계마다 배정된 파수꾼이 있는데, 그는 멀리_떨어져서 일곱 연방우주 전체 직무를 초월통제하는 최고 기관의 직접 대표자로서 행동한다. 오르본톤의 지역 체계 정부에서 근무하는 파수꾼들은, 일곱째 연방우주 조정관인 7_번 최상급 행정관의 직접 권세 아래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영 조직에서 한 지방우주에 위임된 모든 파수꾼은, 우주 본부에 주둔하는 부 검열관에게 종속돼 있다.

24:5.3 (269.2) 배정된 파수꾼들은 지방 창조물 내에서 돌아가며 봉사하는데, 체계에서 체계로 옮겨간다. 그들은 대개 지방우주 시간으로 1,000년마다 바뀐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 주둔하는 가장 높은 서열의 인격체에 속하지만, 체계 직무와 관련된 심의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지역 체계에서, 그들은 진화 세계들로부터 나오는 24명의

경영인의 비공식 우두머리로 봉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 파수꾼들은 자신이 배정된 체계의 복지와 형편에 관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우주의 부 검열관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관여돼 있다.

24:5.4 (269.3) 배정된 파수꾼과 부 검열관들은, 연방우주 본부를 통해서 최상급 행정관들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련된 연방우주의 최상급 행정관에게만 의무를 이행하며;그들의 활동은 태고 항존자들의 경영과 뚜렷이 구분된다.

24:5.5 (269.4) 최상급 행정관, 부 검열관, 및 배정된 파수꾼들은, 전{全}스라빔 그리고 계시되지 않은 인격체 무리와 함께, 능률적이고 직속의 중앙집권 체계이지만, 이것은 또한 물체와 존재들로 이뤄진 광우주 전체에게 충고하고 경영상 협조하는 광범위한 체계다.

6. 졸업생 안내자

24:6.1 (269.5) 한 집단으로서 졸업생 안내자는, 기술 교육과 영적 훈련을 제공하는 고등 대학을 후원하고 운영하는데, 그런

교육과 훈련은, 필사자가 오랜 세월 추구하는 목표, 즉:하나님을 만나고, 휴식한 다음에, 완전하게 된 영원한 봉사를 달성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하다. 매우 개인적인 이 존재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진다. 그들은, 완결성취 단체와 낙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준비되도록, 상승하는 순례자들을 도와주는, 하보나 훈육 및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시간세계의 연방우주들로부터 온 필사 졸업생들을 안내하는 과제에 전적으로 헌신돼 있다.

24:6.2 (269.6) 내가 이 졸업생 안내자들의 역할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다양한 활동 개념을 물질 정신에게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음은, 그 역할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이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희의 관찰 범위가 확장되고, 너희가 물질로 비교하는 족쇄에서 해방된 후에야,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인간 정신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개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실체의 의미를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의 통찰력과 영적 납득 범위에서 항상 그렇게 제한 받지 않는다.

24:6.3 (270.1)

졸업생 안내자들은, 일곱 회로의 하보나 세계들을 통해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인도하는 일에 종사한다. 네가 바깥쪽 하보나 회로의 영접 세계에 도착할 때 반겨주는 안내자가, 하늘 회로들에서 너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너와 계속 동행하게 될 것이다. 네가 10억 세계에 머무는 동안, 무수한 다른 인격체와 연합하게 되겠지만, 너의 졸업생 안내자는 네가 하보나 진보를 끝낼 때까지 따라갈 것이고, 네가 시간세계의 마지막 수면상태, 즉 낙원 목표지를 향해 영원성으로 운반되는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거기서 깨어나면 낙원 동무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는 너를 환영하도록 배정되고, 또한 네가 필사 완결성취 단체 구성원으로 가입될 때까지, 너와 함께 남아 있게 될지도 모른다.

24:6.4 (270.2)

졸업생 안내자의 숫자는 인간 정신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계속 출현한다. 그들의 기원은 불가사의한 어떤 것이다. 그들은 영원부터 실존해온 것은 아니며;필요에 따라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전체 세월에 걸쳐서 첫 필사 순례자가 중앙 창조물의 바깥쪽 지대로 나아갔던 까마득한 그날까지, 중앙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 안내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첫 순례자가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 도착하던 순간에, 말보리안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는데, 그는 첫째 졸업생 안내자였고, 지금은 그들의 최고 협의회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광대한 교육 조직의 지도자다.

24:6.5 (270.3) 하보나에 대한 낙원 기록부에는, “졸업생 안내자”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런 첫 기록이 나타난다:

24:6.6 (270.4) “그리고 이 계층 가운데 첫째인 말보리안이, 하보나를 발견한 순례자를 환영하고 가르쳤으며, 처음 체험하는 바깥쪽 회로에서부터 한 발자국씩, 그리고 한 회로씩, 모든 인격체의 근원 및 운명의 바로 그 현존 앞에 설 때까지 그를 안내했으며, 그 후에는 낙원에 이르는 영원성의 문지방을 넘어갔다.”

24:6.7 (270.5) 아득히 먼 그때, 나는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에 배속됐었으며,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이 결국 우리 연방우주로부터 하보나에 도착할 것을 확신하면서 즐거워했다. 우리는, 공간에 있는 진화 피조물이 낙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워 왔으며, 첫 순례자가 실제로 도착했을 때, 전례 없는 감격스러움이 하늘 궁전{宮殿}을 휩쓸었다.

24:6.8 (270.6) 하보나를 찾은 이 순례자의 이름은 *그랜환다*이며, 1_번 연방우주에 있는 1,131_번 지방우주의 62_번 성좌에 있는 84_번 체계의 341_번 행성에서 나왔다. 그의 도착은, 온갖 우주의 방송 업무를 설립하는 신호가 됐다. 그때까지는 연방우주와 지방우주들의 방송만 작동돼 왔지만, 하보나의 입구에 그랜환다가 도착했다는 발표는, “영광스런 공간 보고서들”이 개시됨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은, 상승하는 실존의 목적지에 들어가려는 첫 진화 존재가 하보나에 도착했음을, 첫 우주 방송이 보고했기 때문이다.

24:6.9 (270.7) 졸업생 안내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며;시간과 공간에서 졸업하는 순례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헌신돼 있다. 그리고 네가 생존하고 상승하도록 고안된, 확실하고 전부_완성된 계획을 네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언젠가 이 고귀한 존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7. 졸업생 안내자의 기원

24:7.1 (270.8) 진화는 중앙우주의 규칙이 아니지만, 졸업생 안내자들이, 다른 계층의 중앙우주 피조물, 즉 하보나

하인{下人}들 중에서 완전하게 됐거나 더 체험을 쌓은 일원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그런 너그러운 동정심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졸업생 안내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살피는 하보나 하인으로서 그들이 연방우주 영역들에서 실제로 봉사함으로써 이 문화를 획득해 왔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 관점이 틀리다면, 선배 하인들 또는 더 많은 체험을 가진 하인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24:7.2 (271.1) 어떤 하인은 그전에 가졌던 그런 여러 사명을 수행하면서 연방우주 임무를 위해 하보나에서 오랫동안 떠나있게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낙원 중심 광채와 “개인적 접촉”을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빛나는 인격자들에게 포용될 것이고, 그의 영 동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라지고, 그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4:7.3 (271.2) 연방우주 봉사에서 돌아오면, 하보나 하인은 수많은 신성한 포용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단지 고양된 하인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빛나는 포용을 체험하는 것은,

하인이 반드시 졸업생 안내자로 변환돼야 함을 뜻하지는 않지만, 신성한 포용을 성취한 그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은 그 영역의 봉사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24:7.4 (271.3) 고등{高等} 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연속된 기록이 보인다:

24:7.5 (271.4) "그리고 수드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보나의 842,842,682,846,782_번 하인이 연방우주 봉사에서 돌아왔고, 낙원에서 영접 받았으며, 아버지를 알았고, 신성한 품으로 들어갔고, 존재하지 않는다."

24:7.6 (271.5) 그런 기록이 나타날 때, 그런 하인의 생애가 마감된다. 그러나 (너희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짧은) 꼭 세 순간 내에 새로 태어난 졸업생 안내자가, "자동으로" 하보나 우주 외부 회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이동 중에 있는 그들로 인해 생기는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면, 졸업생 안내자 숫자는 사라진 하인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24:7.7 (271.6) 졸업생 안내자가 하보나 하인으로부터 진화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 안내자들

및 관련된 하인들이 어김없이 그런 비범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다. 별도의 계층으로 생각되는 이 존재들이 서로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방법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상호 헌신을 목격하는 일은 기분 좋게 하고 영감을 준다.

24:7.8 (271.7) 일곱 으뜸 영 및 관련된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는 각각, 지존하신 분이 아직 개인적으로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정신 잠재력과 동력 잠재력의 개인 저장소{貯藏所}다. 그리고 이 낙원 동역자들이 하보나 하인을 창조하려고 협력할 때, 후자{後者}는 내재적으로 지존성의 어떤 국면과 관계한다. 그래서 하보나 하인들은 실제로 시_공간 영역의 어떤 진화 잠재력이 완전한 중앙우주에 반사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한 하인{下人}이 변형과 재_창조를 겪을 때 나타난다. 지존자를 위해 틀림없이 행동하는 무한한 영의 의지에 반응해서 이 변형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는다. 지존하신 분이 졸업생 안내자들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존재들을 실존하게 한 그 진행사항에, 체험적 신격이 어떤 면에서 관련돼 있다고 추측한다.

24:7.9 (271.8)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지금 횡단하고 있는 하보나는, 그랜환다 시대 이전의 중앙우주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보나 회로들에 필사 상승자들이 도착함으로써, 중앙의 신성한 창조 조직 내에 전면적 변경이 개시됐는데, 이런 변경은, 체험하는 자녀들 가운데 첫 자녀가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도착한 것에 반응해서, 지존하신 분이--곧 진화 피조물의 하나님이-- 개시했다. 졸업생 안내자들의 출현은, 3차 최고스라빔의 창조와 함께, 지존자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했음을 암시한다.

24:7.10 (271.1) [우버사의 신성한 조연자가 제시했음]

제25편 공간의 사자 무리

25:0.1 (273.1) 무한한 영 계보에서 중간에 위치한 자는 공간의 사자{使者} 무리다.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은 고등 인격체들 및 돌보는 영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사자 무리는 다음과 같은 천상의 존재 계층들을 포함한다:

25:0.2 (273.2) 1. 하보나 하인.

25:0.3 (273.3) 2. 우주 화해자.

25:0.4 (273.4) 3. 법해석 고문.

25:0.5 (273.5) 4. 낙원에 있는 기록 관리인.

25:0.6 (273.6) 5. 천상의 기록원.

25:0.7 (273.7) 6. 모론시아 동무.

25:0.8 (273.8) 7. 낙원 동무.

25:0.9 (273.9) 열거된 일곱 집단 중에서, 오직 셋만이--곧 하인, 화해자, 및 모론시아 동무만이-- 그렇게 창조됐으며;나머지 넷은 천사 계층의 달성 수준들을 대표한다. 타고난 본성과 달성된 신분에 따라서, 사자 무리는 온갖 우주에서 다양하게 봉사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배정받은 영역을 통치하는 자들의 지휘 아래에 있다.

1. 하보나 하인

25:1.1 (273.10) 하인이라고 부르지만, 중앙우주의 이 “중도 피조물”은, 그 단어가 갖는 비천한 의미의 종들이 아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시시한 업무가 아니며;모든 봉사는 신성시되고 기분 좋은 일이며;뿐만 아니라, 높은

계층의 존재가 낮은 계층의 실존을 우습게 여기지도 않는다.

25:1.2 (273.11) 하보나 하인들은 일곱 으뜸 영 및 그 동역자인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의 공동 창작품이다. 이런 창조적 협동은, 진화 우주에 있는 이중 계층의 긴 재생산 목록을 위한 원형{原型}에 가장 가까운데, 위로는 창조주 아들과_창조적 영의 접촉으로 생기는 빛나는 새벽별의 창조에서, 아래로는 유란시아 같은 세계들에서 성교{性交}로 자식을 낳는 것까지 이른다.

25:1.3 (273.12) 하인의 숫자는 엄청나며, 항상 더 창조되고 있다. 으뜸 영들과 지존 동력 지휘자들의 모임이 있는 후에, 낙원의 가장 북쪽 구역에 있는 그들의 공동 지역에서 셋째 순간에 하인이 1,000명씩 무리지어 나타난다. 넷째 하인마다, 다른 경우들보다 더 물리적 유형이며;다시 말하자면, 각 1,000명마다, 750명은 영 유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250명은 본성적으로 약간물리적이다. 이 넷째 피조물은 어느 정도 물리적 존재 계층에 해당되는데(하보나 의미로는 물질적인데), 으뜸 영보다는 물리적 동력 지휘자를 더 닮는다.

25:1.4 (274.1)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격체 관계에서 영적 존재가 물질 존재보다 우세하며;하보나 하인의 생산에서는 영이 우세한 법칙이 지배하며;한 명의 약간물리적 존재마다 세 영적 존재가 고정된 비율로 생산된다.

25:1.5 (274.2) 새롭게 창조된 하인은, 새롭게 출현하는 졸업생 안내자들과 함께 모두 훈련 과정들을 통과하는데, 그 과정을 일곱 하보나 회로 각각에서 선배{先輩} 안내자들이 계속 지도한다. 하인들은 그때 자신이 가장 적합한 활동에 배정되며, 그 후로 그들은 두 유형이--곧 영적 및 약간물리적이-- 되는데, 이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고등 집단, 즉 영{靈} 집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봉사에, 그리고 일곱 으뜸 영의 활동에, 선택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 본부 구체를 돌고 있는 연구{研究} 세계들에서 봉사하도록, 때때로 큰 무리를 지어 파송되는데, 그 세계들은 하보나 회로들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혼들의 최종 훈련 및 영적 문화에 헌신돼 있다. 영 하인들 및 더 물리적인 그 동료들은, 하보나를 달성하고 낙원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다양한

계층의 상승하는 피조물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졸업생 안내자들의 보좌관 및 동역자로 지명되기도 한다.

25:1.6 (274.3) 하보나 하인과 졸업생 안내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초월적 헌신과 서로에게 감동적 애정을 나타내는데, 그 애정은 영적인 반면, 너희는 인간이 사랑하는 현상과 비교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하인들이 중앙우주 한계 밖으로 사명을 띠고 파송될 때 그렇게 종종 발생하듯이, 안내자들로부터 하인들이 분리될 때 신성한 애절함이 있지만;그들은 슬픔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떠난다. 고귀한 의무에 대한 만족스런 기쁨이 영적 존재들의 감정을 무색하게 만든다. 충실하게 수행되는 신성한 의무를 의식{意識}하는 마당에, 슬픔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상승하는 혼이 최고 재판관 앞에 설 때,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결정은, 물질적 성공 또는 양적 성취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고등 법정을 통해서 올려 퍼지는 평결은:“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너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으니;우주 실체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25:1.7 (274.4) 연방우주 봉사에 임할 때, 하보나 하인들은, 일반 특권 및 특별한 영 특권 면에서 자신이 가장 닮은 으뜸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에 항상 배정된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 수도를 돌고 있는 교육 세계들에서만 봉사하며, 우버사의 최종 보고서는, 490개 위성{衛星}에서 거의 1,380억 명의 하인이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초월_대학들을 포함하는 이 교육 세계의 업무와 연결돼 있는, 끝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너희의 동무가 되며;너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성 영역들을 향해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너희가 결국 졸업하게 되는 그 실체성과 확실성을 너희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다음 생애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피조물을 돌보는 예비 체험을 획득하는데, 하보나 회로들에서 그 체험은 졸업생 안내자들의 동역자로서 또는 졸업생 안내자 자신으로서-- 곧 변형된 하인으로서-- 나중에 하는 일에 매우 유익하다.

2. 우주 화해자

25:2.1 (275.1) 창조된 각각의 하보나 하인을 위해서, 각 연방우주에 한 명씩, 일곱 우주 화해자{和解者}가

존재하게 된다. 이 독창적 규정은, 낙원에서 발생하는 처리사항에 반사{反射}함으로 반응하는 어떤 분명한 연방우주 기법을 필요로 한다.

25:2.2 (275.2) 일곱 연방우주 본부 세계에서는 일곱 으뜸 영의 일곱 반사가 작용한다. 이 반사하는 영들의 본성을 물질 정신에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진정한 인격체이지만;연방우주 집단의 각 요원{要員}은 여전히 일곱 으뜸 영 가운데 단 하나만을 완전하게 반사한다. 그리고 하보나 하인 가운데 어떤 집단을 창조할 목적으로 으뜸 영들이 힘 지휘자들과 스스로 연합할 때마다, 각 연방우주 집단에서 반사하는 영 가운데 하나에 동시 집중이 일어나고, 같은 숫자의 우주 화해자가 연방창조물들의 본부 세계에 다_자란_모습으로 즉시 나타난다. 하인들의 창조에서 만일 7_번 으뜸 영이 주도권{主導權}을 잡아야 한다면, 오직 일곱째 계층의 반사하는 영만이 화해자들을 내포하게 될 것이며;오르본톤을_뒀은 1,000명의 하인이 창조됨과 동시에, 1,000명의 일곱째_계층 화해자가 각 연방우주 수도{首都}에 나타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으뜸 영들의

칠중{七重} 본성을 반사하면서, 각 연방우주에서 봉사하는 창조된 일곱 계층의 화해자가 출현한다.

25:2.3 (275.3) 낙원_이전{以前} 신분을 지닌 화해자는 연방우주들 사이를 오가며 봉사하지는 않는데, 자신이 태어난 창조물 구획에 제한돼 있다. 그러므로 창조된 각 계층 중에서 7분의 1을 포함하는 각 연방우주 단체마다, 으뜸 영들 가운데 다른 분들을 제외할 정도로 한 분의 영향 아래서 매우 긴 기간을 보내는데, 일곱 분 전체가 연방우주 수도{首都}들에서 반사되는 반면, 오직 한 분만이 각 연방창조물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5:2.4 (275.4) 일곱 연방창조물 각각에는, 그 운명을 관장하는 으뜸 영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총만해 있다. 그래서 각 연방우주는, 감독하는 으뜸 영의 본성과 성품을 반사하는 어떤 거대한 거울처럼 되며, 또한 이 모든 것은, 창조적 어머니 영들의 현존과 기능으로 말미암아 각 하위 지방우주에서 더욱 지속된다. 그런 환경이 진화 성장에 너무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우주_이후 생애에서 화해자들은 집단으로 마흔아홉 가지의 체험적 관점 또는 통찰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각각 원활하지 못하고 --

따라서 미완성이지만-- 모두가 서로 보완하며, 또한 함께
지존성 궤도를 둘러싸는 경향이 있다.

25:2.5 (275.5) 우주 화해자들은 각 연방우주에서 자신들이
기묘하게 날 때부터 네 명씩 집단으로 갈라져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봉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각 집단마다,
셋은 영 인격체이고, 하나는 하인 중에서 넷째 피조물처럼
약간물질 존재다. 이 4인조가 한 회유 위원회를 이루고,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5:2.6 (275.6) 1. *재판관_중재인*. 그 집단의 법적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능하다고, 다른 세
화해자가 만장일치로 지명한 자.

25:2.7 (275.7) 2. *영_옹호자*. 회유 위원회가 판결하도록 배정된
어떤 문제든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인격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재판관_중재인에게서
지명 받은 자.

25:2.8 (276.1) 3. *신성한 집행인*. 그 영역의 물질 존재와
접촉하기에, 그리고 그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기에
내재적 본성이 적합한 화해자. 넷째 피조물이므로--곧

유사{類似}_물질 존재이므로, 필사 인종의 짧은 시야로도 신성한 집행인들을 거의 볼 수 있지만, 완전치는 않다.

25:2.9 (276.2) 4. 기록원. 그 위원회의 나머지 요원은, 자동으로 기록원, 즉 법정 서기{書記}가 된다. 그는 지방우주 기록을 위해, 그리고 연방우주 문서를 위해, 모든 자료가 잘 준비되도록 확인한다. 그 위원회가 어떤 진화 세계에서 봉사하고 있다면, 세 번째 보고서가, 집행인의 보조를 받아, 체계 정부 사법부의 물리적 기록을 위해 준비된다.

25:2.10 (276.3) 심리 중에 있는 위원회는 세 명이 집단을 이뤄서 작동하는데, 이것은 옹호자가 재판 중에는 분리돼 있고 청문회의 결론 부분에서만 판결문 작성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때로 3인조 심판관이라고 불린다.

25:2.11 (276.4) 화해자들은 온갖 우주의 순조로운 운영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들은 스랍보다 3배 속도 비율로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여러 세계의 이동 법정, 즉 사소한 어려움을 빨리 판결하도록 헌신된 위원회로서 봉사한다. 기동력 있고 매우 공정한 이 위원회가 없었다면,

구체의 법정은 그 영역의 사소한 오해들로 가득차서
소망을 잃을 것이다.

25:2.12 (276.5) 이 3인조 심판관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으며; 혼, 즉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영원할 가능성은, 그들의 행동으로 위험에 처하는 법이
없다. 화해자들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일시적 실존과
시공우주 복지를 벗어나는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일단
받아들였을 때,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항상
만장일치이며; 재판관_중재인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없다.

3. 화해자의 멀리_도달하는 봉사

25:3.1 (276.6) 화해자들은 그들의 연방우주 수도에 집단 본부를
유지하는데, 그들의 1차 예비 단체가 거기에 주둔한다.
그들의 2차 예비군은 지방우주 수도에 주둔한다. 비교적
젊고 체험을 적게 한 위원들은, 유란시아 같은 낮은
세계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성숙한 체험을 획득한 후에, 더
큰 문제를 판결하도록 파견된다.

25:3.2 (276.7) 화해자 계층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다. 지혜와 판결에 오류가 없더라도,

그들은 명백한 신뢰성을 지니며 어김없이 충실하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기원되고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우주 봉사 수준을 거쳐서 진보한다:

25:3.3 (276.8) 1. *세계들에대한 화해자*. 개별 세계를 감독하는 인격체들이, 기존 환경 하에서 적절한 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난처하게 되고 실제로 벽에 부딪칠 때에는 언제나, 그리고 문제가 그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정 앞으로 가져갈 만큼 중요성이 없을 경우에, 그때 다투는 편마다 하나씩, 두 인격체의 청원을 받아서, 화해시키는 위원회{委員會}가 즉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25:3.4 (277.1) 이런 경영 및 사법 문제가 심리와 판결을 위해 화해자들에게 부여될 때, 그들은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증거를 청취하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증인을 소환하는 그들의 권위에 어떤 제한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위원회가 정해진 어떤 시점에서 기록을 중단하고, 그들의 의견에

결론을 내리며, 그 문제 전체를 그 영역의 더 높은 법정으로 보낼 만큼, 가끔 문제가 너무 진전되기도 한다.

25:3.5 (277.2) 그 위원들의 결정은 행성 기록부에 기록되고, 필요하다면 신성한 집행인이 그 결정을 집행한다. 그의 능력은 매우 크고,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그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다. 신성한 집행인들은, 마땅히 돼야만 할 일에 유익이 되는 것을 노련하게 조종하는 자다. 그들의 업무는 때로 그 영역의 명백한 복지를 위해 수행되지만,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그들의 행동이 설명되기 어렵다. 자연 법칙 또는 그 영역의 정해진 관습에 어긋나지 않게 법령을 집행함에도, 그들은 흔히 체계 경영에 대한 더 높은 법률에 따라서 자신의 비범한 일을 수행하고 화해자들의 명령을 집행한다.

25:3.6 (277.3) 2. *체계 본부에대한 화해자*. 이 4인 위원회는 체계 본부에서 근무하기 위해 진화 세계의 봉사로부터 진급된다. 그들은 여기서 할 일이 많으며, 사람, 천사들, 및 기타 영 존재들의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된다. 3인조 심판관은 개인의 차이보다는 집단의 주장에, 그리고 서로 다른 피조물 계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에 더 관심이

있으며;체계 본부에서는 영적 존재 및 물질적 존재뿐 아니라, 물질 아들 같은 혼합된 유형도 살고 있다.

25:3.7 (277.4) 창조주들이, 선택 능력을 지닌 진화하는 개인들을 실존하게 만드는 순간, 신성한 완전성으로 순조롭게 작업하던 것으로부터 그 순간에 이탈{離脫}하게 되며;오해가 분명히 생기고, 이런 정직한 관점의 차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돼야만 한다. 온전히-지혜롭고 전능{全能}한 창조주들이, 하보나와 똑같이 완전한 지방우주를 만들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어떤 화해 위원회도 작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조주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로, 자신의 모든_지혜를 동원해서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이가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우주들을 만들어 왔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차이를 수습하고 이 모든 외관상 혼란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와 수단을 제공해 왔다.

25:3.8 (277.5) 3. *성좌 화해자*. 화해자들은 체계의 봉사로부터 성좌{星座}의 문제를 판결하는 일로 승진하는데,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100개의 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어려움을 말한다. 성좌 본부에서 형성되는 문제들이 그들의 관할권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예비 서술문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체계에서 체계로 바쁘게 계속 움직인다. 그 주장이 정직하다면, 그 어려움이 진정한 의견 차이와 정직한 관점의 다양성으로부터 생겨난다면, 아무리 소수 인격자가 관련됐더라도, 오해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화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25:3.9 (277.6) 4. *지방우주에대한 화해자*. 한 우주에서 비교적 큰 이런 일을 하면서, 위원들은 멜기세덱과 집정관 아들들에게, 그리고 100개의 성좌에 대한 협조와 경영에 관여하는 성좌 통치자 및 인격체 무리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지방우주 본부 구체에 속한 다른 계층의 스라빔 및 다른 거주민들 역시, 3인조 심판관의 도움과 결정을 이용한다.

25:3.10 (278.1) 어떤 체계, 성좌, 또는 우주의 상세한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의 본질을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려움이 조성되지만,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는 물질적 실존의 하찮은 시련 및 진통과는 매우 다르다.

25:3.11 (278.2) 5. *연방우주 소구역에대한 화해자*. 위원들은 지방우주의 문제로부터, 연방우주의 소구역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연구하도록 진급된다. 그들이 개별 행성으로부터 안쪽을 향해 멀리 상승할수록, 신성한 집행인의 물질적 임무는 점점 줄어들며, 점차 자비와_응보의 해석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유사{類似}_물질이므로-- 그 조사의 물질적 측면에 대해 그 위원회 전체가 동정심 어린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25:3.12 (278.3) 6. *연방우주 대구역에대한 화해자*. 위원들의 업무 성격은,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판결해야 할 오해는 점점 줄어들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할 신비한 현상은 점점 늘어난다. 그들은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차이를 중재하는 자의 위치로부터 *신비 해석가*로 진화한다--재판관들이, 해석하는 선생으로 진화한다. 그들은 한때, 무지로 인해 어려움과 오해가 발생되게 하는 자들을 중재하는 자였지만;이제는 정신의 충돌과 견해의

투쟁을 피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지성적이고 인내심 있는 자들의 교관{敎官}이 되고 있다. 피조물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피조물의 지식, 체험, 및 견해를 더욱 존중한다.

25:3.13 (278.4) 7. *연방우주에대한 화해자*. 여기서 화해자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서로 이해하고 완전하게 활동하는, 네 명의 중재자_교사가 된다. 신성한 집행인은, 인과응보를 집행하는 능력을 제거 당하고, 삼인조 영의 실제 대변자가 된다. 이때가 되면, 상담자요 선생인 그들은 연방우주 직무를 처리하면서 만나는 실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에 노련하게 숙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를 둘러싼 교육 구체 거주지에 있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에게 훌륭한 자문가이자 현명한 선생이 된다.

25:3.14 (278.5) 모든 화해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전반적 감독 아래서, 형상 조력자들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낙원으로 진보할 때까지 봉사한다. 낙원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기원된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으뜸 영에게 보고한다.

25:3.15 (278.6) 연방우주 기록부는, 그들의 관할권 밖에 벗어나 있었던 화해자들은 계수{計數}하지 않으며, 그런 위원회는 광우주 전반에 널리 흩어져 있다. 우버사에서 최종 등록 보고서는, 오르본톤에 작용하는 위원회의 숫자가 거의 18조{兆}에--곧 70조 이상의 개체에--이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오르본톤에서 창조돼 온 무수한 화해자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그 숫자는 훨씬 크고, 졸업생 안내자들로 변환된 것을 고려하면 하보나 하인 전체 숫자와 일치한다.

25:3.16 (278.7) 연방우주 화해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때때로 낙원에서 완전성 협의회로 전환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무한한 영이 온갖 우주를 위해 진화시키는, 하나의 협조하는 단체로서 출현하며, 숫자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훌륭한 집단의 존재다. 그들은 체험으로 상승하고 낙원에서 훈련받음으로써, 지존하신 분이라는 떠오르는 실체를 독특하게 파악해 왔으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갖 우주를 돌아다닌다.

25:3.17 (279.1) 화해시키는 위원회의 구성원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네 명의 집단이, 자신이 원래 연합됐던 대로, 함께

영원히 봉사한다. 심지어 영화롭게 된 봉사를 할 때에도, 그들은 축적된 시공우주 체험과 완전하게 된 체험 지혜에 속하는 4인조로 계속 활동한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최상의 응보를 구현{具現}한 존재로서 영원히 연합돼 있다.

4. 법해석 고문

25:4.1 (279.2) 영 세계의 법적 및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이런 존재가 그렇게 창조됐던 것은 아니다. 초기의 최고스라빔 및 전{全}스라빔 중에서,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정신 가운데 100만 명을, 무한한 영이 이 방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핵심으로서 선택했다. 그리고 까마득히_먼 옛 시절부터, 진화 창조 계획에 완전한 법칙을 적용하면서 얻은 실제 체험이, 법해석 고문이 되기로 열망하는 모두에게 요구돼 왔다.

25:4.2 (279.3) 법해석 고문은 다음과 같은 인격체 계층의 직급에서 모집된다:

25:4.3 (279.4) 1. 최고스라빔.

25:4.4 (279.5) 2. 제2스라빔.

25:4.5 (279.6) 3. 제3스라빔.

25:4.6 (279.7) 4. 전{全}스라빔.

25:4.7 (279.8) 5. 스라빔.

25:4.8 (279.9) 6. 특정 유형의 상승하는 필사자.

25:4.9 (279.10) 7. 특정 유형의 상승하는 중도자.

25:4.10 (279.11) 현재, 일시적으로 배속돼 있는 모든 필사자 및 중도자를 제외하고, 우버사에 등록되고 오르본톤에서 활동하는 법해석 고문의 숫자는 61조를 조금 넘는다.

25:4.11 (279.12) 법해석 고문들은 종종 개인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지만, 봉사를 위해 조직돼 있고, 일곱 명씩 무리지어 배정된 구체에 공동 본부를 유지한다. 각 집단에서 적어도 다섯 명은 영원한 신분을 가져야만 되고, 한편 두 명은 임시로 연합해 있을 수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와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은, 낙원으로 상승하기를 추구하면서 이 자문 위원회들에서 봉사하지만, 법해석 고문을 위한 정규 훈련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층의 영구 회원이 되지도 않는다.

25:4.12 (279.13) 자문가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필사자와 중도자들이 그런 일에 선택되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최상의 응보 개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낙원 목표를 향해 여행하면서 추가된 지식과 증진된 솜씨를 변함없이 획득하게 될 때, 너는 자신이 이미 축적해 온 지혜와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받게 되며;하보나에 이르는 동안 내내 학생_선생 역할을 한다. 이 방대한 체험 대학의 상승하는 수준들을 통해서, 너는 자신의 상승 생애로 인한 새로_발견된 지식을 너보다 바로 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체제에서, 이 지식과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너의 역량과 자진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전에는, 너는 지식과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25:4.13 (280.1) 긴 훈련과 실제 체험을 겪은 후에, 체루빔 신분보다 위에 있는 돌보는 영 가운데 누구든지, 법해석 고문으로서 영구히 임명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모든 후보자가 이 봉사 체제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지만;그런 임무를 일단 시작한 후에는, 그만둘 수 없다. 오직 태고

항존자들만이 이 고문들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5:4.14 (280.2) 지방우주의 멜기세덱 학부에서 시작된 법해석 고문의 훈련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그들은 이 연방우주 훈련을 마친 후에, 하보나 회로들의 안내 세계에 위치한 “일곱 궤도 학교”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들은, 안내 세계들로부터, “법 윤리 및 지존 법해석 학부”로 진학하는데, 여기는 법해석 고문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낙원 훈련 학교다.

25:4.15 (280.3) 이 자문가들은 법률 전문가 이상{以上}이며; 적용된 법칙, 즉 광범위한 창조계의 방대한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의 생명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 법칙을 배우는 학생인 동시에 가르치는 선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살아있는 법률 도서관이 되는데, 영원성의 통치자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의 형태 및 방식들에 관해서 시간세계의 인격체들을 가르침으로써, 끝없는 재난과 쓸모없는 지연을 방지한다. 그들은, 공간의 일꾼들이 낙원의 요구조건에 조화를 이루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 있으며;창조주들의 기법에 관해서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25:4.16 (280.4) 살아있는 응용 법률 도서관인 그런 자들은 창조될 수 없으며;그런 존재는 실제 체험으로 진화돼야만 한다. 무한한 신격들은 실존적이며, 따라서 체험의 부족을 보충하며;모든 것을 체험하기 전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만, 체험하지 않은 이 지식을 하위 피조물에게 나눠주지는 않는다.

25:4.17 (280.5) 법해석 고문들은, 지연을 막고 진보를 촉진시키며 성취에 관해 충고하는 일에 헌신돼 있다. 일할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길이 항상 있으며;완전한 기법, 즉 어떤 신성한 방법이 항상 있고, 이 자문가들은 더 나은 이 길을 찾도록 우리 모두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안다.

25:4.18 (280.6) 대단히 현명하고 실용적인 이 존재들은, 우주 검열관들의 봉사 및 활동과 항상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멜기세덱들에게는 유능한 단체가 제공돼 있다. 체계, 성좌, 우주, 그리고 연방우주 구역의 통치자 전원에게는 영적 세계의 기술적 또는 법률적 참조 정신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어떤 특별한 집단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법률

조언자로서 활동하는데, 확립된 생명체 증식 체제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범위에 관해 충고하고, 그밖에
그들의 특권 및 활동 범위에 관하여 그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모든 영_세계 처리사항의 적당한 용법과 기술에
관해서, 모든 계층의 존재에게 자문하는 자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역의 물질 피조물을 개인적으로 직접
대하지는 않는다.

25:4.19 (280.7) 법해석 고문들은 법률 관례에 관해 조언하는
외에도,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피조 존재들에 관한
모든 법칙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헌신돼 있다. 그들은 우주 화해자들에게 쓸모 있으며, 법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다시 말해서, 확립된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체제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신격 지존성이 어떻게 확실히 반응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에게 쓸모 있다. 그들은
궁극자의 기법까지도 설명해보려고 시도한다.

25:4.20 (281.1) 법해석 고문들은, 선택받고 시험을 거친
존재이며;내가 아는 한,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토록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그토록

웅변적으로 설명하는 그 신성한 법률을 경멸했다고 판결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우버사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의 봉사 영역에는 알려진 제한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낙원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자문가 역할을 계속하며;법률과 체험으로 이뤄지는 전체 우주가 그들에게 열려 있다.

5. 낙원의 기록 관리인

25:5.1 (281.2) 하보나에 있는 3차 최고스라빔 가운데서, 어떤 선임 우두머리 기록원들이, 기록 관리인, 즉 빛의 섬의 공식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자로 선택되며, 이 보관소는 지식 관리인들의 정신 속에 등록된 살아있는 기록과 대조{對照}를 이루는데, 이 기록을 가끔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25:5.2 (281.3) 인간거주 행성의 기록하는 천사들이, 모든 개별 기록의 근원이다. 우주들 전역에서, 다른 기록원들이 공식 기록과 살아있는 기록, 이 둘에 관해서 활동한다. 유란시아에서 낙원까지, 이 두 가지 기록과 마주치는데:지방우주에서는, 씌어진 기록이 더 많고

살아있는 기록은 적으며;낙원에서는, 살아있는 기록이 더 많고 공식 기록은 적으며;우버사에서는 둘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25:5.3 (281.4) 조직돼 있고 인간이 거주하는 창조물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모든 사건이 기록 대상이다. 국지적 중요성에 불과한 사건은 오직 국지적 기록에서만 발견되지만,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들은 그에 따라서 취급된다. 네바돈의 행성, 체계, 및 성좌들로부터, 우주 중요성을 갖는 모든 것이 살빙톤에서 공표 되며;그 사건들은, 그런 우주 수도로부터 구역 및 연방정부 직무에 속하는 더 높은 기록부로 옮겨진다. 낙원 역시 적절한 연방우주 요약 및 하보나 자료를 소유하며;온갖 우주에 대한 역사적이고 누적된 이 진술은, 이런 고양{高揚}된 3차 최고스라빔이 보관한다.

25:5.4 (281.5) 이 존재들 가운데 더러는, 천상의 기록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기록 우두머리로서 봉사하도록 연방우주에 파송돼 왔는데, 어느 하나도 그들 계층의 영구적 출석점호로부터 이적{移籍}되지 않았다.

6. 천상의 기록원

25:6.1 (281.6) 이들은 모든 기록을 복사하는 기록원인데, 원본 영{靈} 기록과 --복사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半}물질 사본을 만든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와 물질적 에너지 양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역량 때문이다. 천상의 기록원들은 창조되지 않으며;지방우주에서 상승한 스라빔이다.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 있는 기록 우두머리들의 협의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그들이 일할 구체에 배정한다. 거기에는 천상의 기록원들을 위한 훈련하는 학교도 있다. 우버사에 있는 학교는 지혜 완성자와 신성한 조연자들이 운영한다.

25:6.2 (281.7) 우주 봉사에서 진보함에 따라, 기록원들은 이중으로 기록하는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리하여 그 기록이 물질 계층에서 높은 빛의 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급의 존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너희가 이 물질 세계로부터 상승함에 따라서 과도기 체험을 하는 동안, 너희의 신분과 관계되는 구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기록을 항상 참고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정통할 수 있다.

25:6.3 (282.1) 기록원들은 검증되고 입증된 단체다. 나는 천상의 기록원들이 변절했다는 말을 결코 들은 적이 없으며, 그들의 기록에 오류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이중{二重} 검열을 받게 돼 있는데, 우버사에서 자신의 고양된 동료들이, 그리고 원본 영 기록의 유사{類似}_물질 사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자들이, 그들의 기록을 세밀히 검사한다.

25:6.4 (282.2) 오르본톤에 있는 하위{下位} 기록 구체에 주둔하는 승진하는 기록원 숫자가 수 조{兆}에 이르지만, 우버사에서 신분을 획득한 자의 숫자는 8백만 명이 안 된다. 이 선배 기록원, 즉 졸업생 기록원들은 연방우주 관리인이며, 시간과 공간에서 보증된 기록을 전달하는 자다. 그들의 영원한 본부는, 우버사에 있는 기록 지역 주변에 있는 원형{圓形} 거주지 안에 있다. 그들은 이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남에게 맡긴 적이 결코 없으며;개인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많은 숫자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25:6.5 (282.3) 기록 관리인이 된 최고스라빔처럼, 천상의 기록원 단체는 영구히 배치된다. 스라빔과 최고스라빔이 일단 이

봉사에 소집되면, 지존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격화되어 새롭고 변경된 경영을 하게 되는 날까지, 기록 관리인 및 천상의 기록원으로서 각각 남아 있을 것이다.

25:6.6 (282.4) 태고 항존자들이 도착한 아득히 먼 시절 이후로, 오르본톤 전체에서 시공우주 중요성을 가진 모든 것의 기록을, 우버사에서 이 선배 천상의 기록원들이 보여줄 수 있으며, 한편 영원한 섬에서는 무한한 영의 의인화{擬人化} 된 시절 이후에 낙원의 처리사항들을 입증하는 그 영역의 기록 보관소를, 기록 관리인들이 지킨다.

7. 모론시아 동무

25:7.1 (282.5)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생애를 사는 모든 자의 친구이자 동역자다. 그들은 피조물 진보에 해당하는 상승자의 실제 업무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뿐만 아니라 낙원 여행에서 필사 동역자를 종종 따라가는 스랍 수호자들의 활동을 어떤 면에서도 대신하지 않는다. 모론시아 동무는 다만, 안쪽을 향한 긴 상승을 막 시작하는 그들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주인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놀이 후원자이고, 회상 지휘자들이 이 업무를 훌륭하게 돕는다.

25:7.2 (282.6) 너희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수행할 중대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제를 받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정기적으로 휴식하고 돌이켜보는 시절이 항상 제공될 것이다. 낙원에 이르는 여행 내내, 휴식과 영 놀이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게 되며; 빛과 생명의 생애에서는, 경배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시간이 항상 있을 것이다.

25:7.3 (282.7) 이 모론시아 동무들은, 너희가 모론시아 체험의 마지막 국면을 최종적으로 떠날 때, 너희가 연방우주 영 모험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불임성 있는 이 피조물이 너희와 동행할 수 없음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게 될 그런 친근한 동역자이지만, 그들은 오직 지방우주에서만 봉사한다. 상승하는 생애의 각 단계마다 접촉 가능한 모든 인격체가 친근하고 불임성이 있겠지만, 너희가 낙원 동무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친구관계와 동무관계에 헌신된 다른 집단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25:7.4 (283.1) 모론시아 동무의 업무는, 너희 지방우주의 직무와 관계되는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묘사된다.

8. 낙원 동무

25:8.1 (283.2) 낙원 동무들은 혼합 집단인데, 스라빔, 제2스라빔, 최고스라빔, 및 전{全}스라빔의 직급에서 뽑아서 소집된 집단이다. 너희가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라고 간주할 만큼 오랫동안 봉사하더라도, 그들은 영구적인 신분을 갖지 않는다. 이 사역이 완성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 자신이 낙원 봉사에 호출됐을 때 수행했던 그 임무로 돌아간다.

25:8.2 (283.3)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 그리고 낙원의 위엄자{威嚴者}가 천사 무리의 구성원들이 봉사에 지명한다. 그들은 중앙 섬으로 소집되고,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이 그들을 낙원 동무로 임명한다. 낙원에서 영구적인 신분을 얻는 것 외에도, 낙원에서 동무관계를 이루는 이 일시적 봉사는 돌보는 영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고귀한 명예다.

25:8.3 (283.4) 선택된 이 천사들은 동무관계의 봉사에 헌신하고, 홀로 낙원에 있을 기회가 있는 모든 계층의 존재에게, 주로

상승한 필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앙 섬에 홀로 있는 모든 다른 존재에게 동역자로서 배정된다. 낙원 동무는 자신이 친하게 사귀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이뤄야 할 일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동무일 뿐이다. 너희 필사자들이 낙원에 머무는 동안 만나게 될, --너희의 동료 순례자들은 제외하고-- 거의 모든 다른 존재는 너희와 함께 또는 너희를 위해 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동무들은 오직 너희와 함께 있고, 인격체 동역자로서 너희와 사귀라고 배정된다. 상냥하고 총명한 낙원 시민이 그들의 사역을 종종 돕는다.

25:8.4 (283.5) 필사자는 매우 사회적인 인종 출신이다. 창조주는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음”을 잘 알며, 따라서 낙원에서도 동무관계에 대한 배려가 적절하게 조성돼있다.

25:8.5 (283.6) 네가 이 세상 생애 중에 사귀 동무 또는 가까운 동역자와 함께 상승한 필사자로서 낙원에 도착하게 되면, 또는 너의 운명의 스랍 수호자가 우연히 너와 함께 도착하거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영원한 동무도 너에게 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홀로

도착한다면, 네가 시간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잠들었다가 빛의 섬에서 깨어날 때, 한 동무가 분명히 너를 환영할 것이다. 상승 연합체 가운데 누군가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알려진다 하더라도, 너를 영원한 기슭으로 환영하도록, 그리고 너와 너의 동역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준비된 예약석{豫約席}으로 너를 안내하도록, 일시적인 동무가 지명돼 있을 것이다. 낙원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성 안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할 때 따뜻하게 환영받을 것임을, 너는 굳게 믿어도 좋다.

25:8.6 (283.7) 영접하는 동무들은 상승자가 하보나의 마지막 회로에 머무는 마지막 날들 동안 배정되며, 그들은 필사의 기원을 비롯해, 공간의 세계들과 하보나 궤도들을 지나온 다사다난했던 상승에 관한 기록을 주의 깊게 검토한다.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을 환영할 때, 그들은 도착하는 이 순례자들의 생애에 이미 잘 통달해 있으며, 동정심 많고 매력적인 동무임을 즉시 입증할 것이다.

25:8.7 (283.8) 네가 낙원에서 완결성취자_이전{以前} 상태로 머무는 동안, 상승 생애에서 --필사자든지 스랍이든지-- 너의 동역자였던 그로부터 어떤 이유로 일시적으로

분리된다면, 조연하고 동무관계를 이루도록 낙원 동무 하나가 즉시 배정될 것이다. 그 동무는, 낙원에 홀로 거주하는 상승한 필사자에게 일단 배정되고 나면, 이 인격자가 자신의 상승 동역자와 재결합하거나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으로 소집될 때까지, 그와 함께 남는다.

25:8.8 (284.1) 상승자의 연방우주 유형과는 다른 본성을 가진 동무에게 상승자가 맡겨지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낙원 동무들은 기다리는 순서대로 배치된다. 어떤 유란시아 필사자가 오늘 낙원에 도착했다면, 오르본톤에서 기원됐거나 아니면 일곱째 으뜸 영의 본성을 가진, 첫 번째로 기다리는 동무가 그에게 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전{全}스라빔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한 피조물과 함께 봉사하지 않는다.

25:8.9 (284.2) 낙원 동무들은 추가적인 여러 봉사를 수행하는데:상승하는 필사자가 홀로 중앙우주에 도착했다면, 그리고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에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어느 국면에서 실패했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를 시간세계의 우주로 돌려보낼 것이고, 즉시 낙원 동무 예비군에게 호출명령을 내릴 것이다. 실패한

순례자가 낙원을 향해 다시 상승을 시작하려고 중앙우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고 그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그와 함께 남아 있도록, 이 계층 가운데 하나가 배치될 것이다.

25:8.10 (284.3) 상승하는 순례자가, 상승하는 스랍, 즉 필사자 생애의 수호천사와 동행해서 하보나를 지나가는 동안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실패했다면, 그 수호천사는 자신의 필사자 동역자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 스라빔은 항상 자원하며, 시간과 공간 속의 봉사로 돌아가는 긴 기간의 필사자 동지{同志}를 따라가도록 허용된다.

25:8.11 (284.4) 그러나 긴밀히 연합된 두 필사 상승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한 편이 하나님을 성취한 반면 다른 편이 일시적으로 실패하면, 성공한 개인은 낙담한 인격체와 함께 진화 창조계로 돌아가기로 늘 선택하지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낙원 동무 예비군을 호출하게 되고, 자원자 가운데 한 명이 실망한 그 순례자와 동행하도록 선택된다. 그때 한 명의 자원하는 낙원 시민이, 성공한 필사자와 연합하게 되는데, 성공한 자는 실패한

동료가 하보나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중앙 섬에 머물며, 그동안 그는 특정한 낙원 학교에서 가르치고, 진화로 상승하던 모험 이야기를 제시한다.

25:8.12 (284.5) [우버사에서 온, 권세를 가진 높은 분이 후원함]

제26편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

26:0.1 (285.1) 최고스라빔은 낙원과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이며;무한한 영의 가장 낮은 자녀 집단--곧 천사 무리--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낙원 섬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돌보는 영들과 마주치게 돼 있다. 조직된 인간거주 창조물 가운데 어느 주요 부분이든지, 그들이 봉사하지 않는 곳이 없다.

1. 돌보는 영

26:1.1 (285.2) 천사는, 모든 공간에서 진화하고 상승하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돌보는_영 동역자이며;또한 그들은 구체의 신성한 인격체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무리에 해당하는 동업자요 일하는 동역자다. 모든 계층의 천사는 분명한 인격체이고 매우 개별화돼 있다. 그들은 모두 회상 지휘자들의 보살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큰 수용력을

갖고 있다. 공간의 사자 무리와 함께, 돌보는 영들은 휴식하고 변화하는 기간을 가지며;매우 사교적인 본성을 지니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교제 능력을 갖고 있다.

26:1.2 (285.3) 광우주의 돌보는 영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6:1.3 (285.4) 1. 최고스라빔.

26:1.4 (285.5) 2. 제2스라빔.

26:1.5 (285.6) 3. 제3스라빔.

26:1.6 (285.7) 4. 전{全}스라빔.

26:1.7 (285.8) 5. 스라빔.

26:1.8 (285.9) 6. 체루빔과 사노빔.

26:1.9 (285.10) 7. 중도{中道} 피조물.

26:1.10 (285.11) 천사 계층의 개별 구성원은, 우주에서 개인 신분이 전적으로 고정돼 있지는 않다. 어떤 계층의 천사는 일정 기간 낙원 동무가 될 수 있으며;더러는 천상의 기록원이 되며;더러는 법해석 고문 직급으로 승진한다. 어떤 체루빔은 스랍 신분 및 운명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반면, 진화 스라빔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수준을 성취할 수 있다.

26:1.11 (285.12) 일곱 계층의 돌보는 영들은, 계시된 바와 같이,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26:1.12 (285.13) 1. *중앙우주의 돌보는 영. 최고스라빔*에 속하는 세 계층은, 낙원_하보나 체계에서 봉사한다. 무한한 영이, 1차 최고스라빔, 즉 낙원 최고스라빔을 창조한다. 하보나에서 봉사하는 2차 및 3차 계층은, 각각 으뜸 영들의 자손이고 회로 영들의 자손이다.

26:1.13 (286.1) 2.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제2스라빔, 제3스라빔, 및 전{全}스라빔. 반사하는 영들의 자녀인 *제2스라빔*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다양하게 봉사한다. 무한한 영 안에서 기원된 *제3스라빔*은, 결국 태고 항존자들과 창조주 아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봉사에 전념한다. *전스라빔*은, 무한한 영과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협동으로 창조되고, 후자의 독점적 하인이다. 이 세 계층에 대한 논의는 본 문서들에서 계속되는 주제{主題}를 형성한다.

26:1.14 (286.2)

3. *지방우주의 돌보는 영은, 스라빔* 그리고 그 보좌관{輔佐官}인 *체루빔*을 포함한다. 필사 상승자는 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손과 처음 접촉을 갖는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탄생되는 *중도 피조물*은, 천사 계층에 속하는 것이 확실히 타당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종종 돌보는 영들과 함께 분류된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스라빔 및 체루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너희 지방우주 직무를 다루는 문서들에 제시돼 있다.

26:1.15 (286.3)

모든 계층의 천사 무리는, 다양한 우주 봉사에 헌신하고, 천상의 존재 가운데 높은 계층들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돌보지만, 시간세계의 자녀를 위한 점진적 완전성이라는 상승 요강{要綱} 촉진에 많은 숫자가 채택되는 자는,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및 스라빔이다. 그들은,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면서, 영원한 아들을 통해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기를 추구하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을 주고 안내하려고 무한한 영이 제공해 온, 단절되지 않은 영 사역자들 계통을 형성한다.

26:1.16 (286.4) 최고스라빔은, 오직 하나의 행위 국면에 관하여 “영 극성{極性}”에 제한을 받는데, 이는 만유의 아버지 때문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독자적 회로를 직접 채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으로 일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접 사역에 따라서 능력을 공급받을 때, 최고스라빔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쌍을 이뤄서 자발적으로 연합해야만 한다. 제2스라빔도 마찬가지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도 영원한 아들 회로에 동조하기 위해서 쌍으로 일해야만 한다. 스라빔은 분리되고 지역화된 인격체로서 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연합된 쌍으로서 극성{極性}을 갖게 됐을 때에만 회로화될 수 있다. 그런 영 존재들이 쌍으로 연합될 때, 한 쪽이 다른 쪽에게 보충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보충 관계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그들의 영원한 본성일 필요는 없다.

26:1.17 (286.5) 이 찬란한 빛의 피조물은, 바로 1차 우주 회로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유지된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식물 작용을 통해서 빛_에너지를 흡수해야 하지만, 천사 무리는 회로화돼 있으며;“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묘한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순회하는 가르침에 참여하며;생명 에너지들을

동화시키는 자체 기법과 매우 흡사하게 지식을 받고 지혜를 흡수한다.

2. 강력한 최고스라빔

26:2.1 (286.6) 최고스라빔은 낙원과 중앙우주에 머무는 모든 유형의 존재를 돌보는 노련한 사역자다. 이 고등 천사들은:1차, 2차, 및 3차의 세 주요 계층으로 창조된다.

26:2.2 (287.1) *1차 최고스라빔*은 공동 창조주의 독자적 자손이다. 그들은, 낙원 시민으로 구성된 특정한 집단과, 계속_증가하는 상승한 순례자 단체에 대해, 동일한 수로 나뉘어 사역한다. 영원한 섬의 이 천사들은 낙원 거주자로 구성된 두 집단에 대한 기본 훈련을 촉진시킬 때 매우 효과적이다. 그들은, --하나는 의지를 지닌 신성하고 완전한 가장 높은 유형의 피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온갖 우주 전체에서 가장 낮은 의지 피조물 가운데 완전하게 진화된 유형의 피조물인-- 독특한 두 계층의 우주 피조물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많은 것을 제공한다.

26:2.3 (287.2) 1차 최고스라빔의 업무는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별도로 고려될 것이다.

26:2.4 (287.3) 2차 최고스라빔은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다. 그들은 중앙 창조물의 세계 회로들에서 긴 기간 머무는, 수많은 계층의 낙원 시민에 대한 교육 훈련에 똑같이 관여해 사역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 봉사 국면을 논의할 수 없다.

26:2.5 (287.4) 이 고등 천사들에는 일곱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마다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에서 기원되며, 따라서 그 본성을 닮는다. 집단적으로 볼 때, 독특한 존재 및 실재들에 속하는 많은 다른 집단을 일곱 으뜸 영이 창조하며, 각 계층의 개별 구성원은 본성에서 비교적 균일하다. 그러나 동일한 이 일곱 영이 개별적으로 창조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계층들은 항상 본성에서 칠중{七重}이며;각 으뜸 영의 자녀는 자기 창조자의 본성을 띠고,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런 것이 2차 최고스라빔의 기원이고, 모든 창조된 일곱 유형의 천사들은, 그들 전체 계층에게 열려있는 모든 활동 경로에서, 주로 중앙 및 신성한 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활동한다.

26:2.6 (287.5) 하보나의 일곱 행성 회로 각각은 일곱 회로 영 가운데 하나의 직접 감독을 받는데, 그들 자체는 일곱 으뜸 영이 집단으로 --따라서 균일하게-- 창조했다. 제3 근원 및 중심의 본질에 참여하더라도, 보조하는 이 일곱 하보나 영은 본래의 원형{原型}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래의 (영원한) 창조가 있는 후에, 그러나 그랜한다 시대보다 훨씬 전에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목적에 대한 으뜸 영들의 창조적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광우주가 조직되고 나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무한한 영과 그의 모든 창조 동역자는, 보편적 조정자로서, 체험적 신격들 안에서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동시에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 적절한 창조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역량을 풍성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보인다.

26:2.7 (287.6) 3차 최고스라빔은 이 일곱 회로 영 안에서 기원된다. 그들 각각은 개별 하보나 회로에서, 중앙우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3차 계층에 해당하는 충분한 숫자의 고등 최고스라빔 사역자들을 창조하도록, 무한한 영에게서 능력을 부여받는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회로 영들이 이 천사 사역자

가운데 비교적 소수를 생산하는 동안, 일곱 으뜸 영은 그랜환다가 도착할 때까지 2차 최고스라빔 창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계층 가운데 연장자{年長者}로서, 3차 최고스라빔이 먼저 고려될 것이다.

3. 3차 최고스라빔

26:3.1 (288.1) 일곱 으뜸 영의 이 봉사자들은 다양한 하보나 회로의 전문가 천사이며, 그들의 사역은,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순례자와, 영원성에 속하는 하강하는 순례자 양쪽에 미친다. 완전한 중앙우주에 속한 10억 연구 세계에서는, 모든 계층에 속한 너희의 최고스라빔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온전히 보일 것이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볼 때, 너희 모두는 거기서 상호 접촉하고 동정심을 갖는 우애 있고 이해심 많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강하는 순례자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 절묘하게 사귀게 될 것인데, 그들은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 회로들을 거쳐 가는 낙원 시민이며, 첫째 회로의 안내 세계를 통해서 하보나에 들어가고, 바깥으로 일곱째까지 진행한다.

26:3.2 (288.2)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는 반대방향으로 하보나를 통과하는데, 일곱째 회로 안내 세계의 길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진행한다. 세계에서 세계로, 그리고 회로에서 회로로 상승하는 피조물의 진행에는 어떤 시간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데, 모론시아 세계들의 거주지에 어떤 고정된 시간제한도 독단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적합하게 발전된 개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방우주 훈련 세계에 머무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어떤 순례자도, 점진적으로 영성화하는 일곱 하보나 회로를 하나라도 피해서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26:3.3 (288.3)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베푸는 봉사에 주로 배정되는 3차 최고스라빔 무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6:3.4 (288.4)

1. *조화 감독관*. 심지어 완전한 하보나에서도, 차후 낙원 성취를 위해 시간세계의 순례자를 준비시키는 모든 업무에서, 체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하는 영향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곧 모든 것이 부드럽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조화 감독관의 실제 사명이다. 그들은 첫째 회로에서

지원되므로, 하보나 전역에서 봉사하고, 그들이 그 회로들에 현존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잘못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계층의--심지어 다양한 수준의--인격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조화시키는 위대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 최고스라빔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시간세계의 순례자와 영원의 순례자가 서로 이해하는 데 막대하게 기여한다.

26:3.5 (288.5) 2. *우두머리 기록원*. 이 천사들은 둘째 회로에서 창조되지만, 중앙우주 어디서든지 활동한다. 그들은 3중으로 기록하는데, 하보나의 엄밀한 서류철을 위해, 자기 계층의 영적 서류철을 위해, 그리고 낙원의 공식 기록을 위해 기록한다. 그 외에도 그들은,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 즉 1차 계층에 속하는 최고스라빔의 지식 관리인들에게, 중요한 참된_지식의 진행사항을 자동으로 전달한다.

26:3.6 (288.6) 3. *방송인*. 제3 회로 영의 자녀들은, 비록 자신의 공식 주둔지가 최외곽 궤도에 있는 70_번 행성에 위치하더라도, 하보나 전역에서 작용한다. 이 으뜸

기술자들은 중앙 창조물의 방송 청취인이자 송출인이고, 낙원에 있는 모든 신격 현상에 대한 공간 보고서를 지도하는 자다. 그들은 공간의 기본 회로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다.

26:3.7 (288.7) 4. 사자(使者)들은 4_번 회로에서 기원된다. 그들은,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된 모든 소식을 지참하는 자로서, 낙원_하보나 체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 즉 천상의 인격체, 낙원 순례자, 그리고 심지어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혼들을 섬긴다.

26:3.8 (289.1) 5. 정보 협조자. 다섯째 회로 영의 자녀인 이 3차 최고스라빔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하강하는 순례자 사이에서 형제다운 교제를 항상 증진시키는, 현명하고 동정심 많은 존재다. 그들은 하보나 거주자 전체에게, 특히 상승자들에게, 온갖 우주 직무에 대해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공헌한다. 하보나의 이 "살아있는 신문"은, 방송인 및 반사자들과 접촉하는 덕분에, 중앙우주의 방대한 소식 회로들을 지나가는 모든 정보에 즉시 정통하게 된다. 그들은 하보나 도표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장 빠른

전신{電信} 기법으로 기록하기에 1,000년 걸릴 만큼 많은 정보를, 유란시아 시간으로 한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26:3.9 (289.2) 6. *운송 인격체*. 6_번 회로에서 기원되는 이 존재들은, 대개 최외곽 회로에 있는 40_번 행성으로부터 운용된다.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일시적으로 실패한 낙담하는 후보자들을 데려가는 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하보나의 봉사에 들어오고 나가야만 하는 모든 존재와, 공간 횡단자가 아닌 자들에게,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

26:3.10 (289.3) 7. *예비 단체*. 상승하는 존재, 낙원 순례자, 그리고 하보나에 머무는 다른 계층의 존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서 일어나는 동요 때문에, 일곱째 궤도의 안내 세계에 이 최고스라빔 예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최고스라빔은 여기서 기원된다. 그들은 특별한 설계 없이 창조되고, 3차 계층의 최고스라빔 동역자들이 하는, 힘이 덜 드는 국면에 속하는 어떤 임무든지 봉사하기에 적합하다.

4.2차 최고스라빔

26:4.1 (289.4) 2차 최고스라빔은 중앙우주 일곱 행성 회로에서 사역하는 자다. 일부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고, 전체 계층 가운데 절반은, 영원성에 속하는 낙원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에 배정된다. 이 낙원 시민은, 하보나 회로들을 통과하는 순례 행렬에서, 필사자 완결성 단체로부터 온 자원자들의 시중도 받는데, 이것은 최초의 완결성취자 집단이 완성된 후로 계속돼 온 제도다.

26:4.2 (289.5) 상승하는 순례자들에 대한 사역에 정기적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제2 최고스라빔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26:4.3 (289.6) 1. 순례자 도우미.

26:4.4 (289.7) 2. 최상 안내자.

26:4.5 (289.8) 3. 삼위일체 안내자.

26:4.6 (289.9) 4. 아들 습득자.

26:4.7 (289.10) 5. 아버지 안내자.

26:4.8 (289.11) 6. 조언자 및 자문가.

26:4.9 (289.12) 7. 휴식 보완자.

26:4.10 (289.13) 이 실무 집단들은 각각, 창조된 일곱 유형 전체의 천사를 포함하며, 공간에 있는 순례자는 항상, 그 순례자가 탄생된 그 연방우주를 지배하는 으뜸 영 안에서 기원된, 제2 최고스라빔에게서 개인교습을 받는다. 너희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달할 때, 창조된 본성이 오르본톤의 으뜸 영으로부터 도출된--곧 너희 자신의 진화된 본성과 비슷한-- 최고스라빔이 너희를 분명히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개인교사들이 너희의 연방우주 으뜸 영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낙원의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해 너희가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너희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을 특별히 갖추고 있다.

26:4.11 (290.1)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서 활동하는, 제2스라빔 가운데 1차 계층의 운반 인격체들이, 하보나의 흑암 인력 본체들을 지나서 외부 행성 회로까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운송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도록 허락 받은, 행성 및 지방우주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스라빔은, 하보나를 향해 긴 비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필사 동역자와 헤어질 것이며, 숭고한 임무를 위해서 오랜 기간의 집중 훈련을 당장 시작하게 되는데,

스라빔으로서 실존의 완성과 봉사의 지존성 성취를 기대한다. 그리고 시간세계의 순례자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고 완결성취 단체에 관한 계시되지 않은 봉사에 배치된, 그런 필사자의 행로를 영원히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26:4.12 (290.2) 순례자는, 하보나의 영접 행성인 일곱째 회로의 안내 세계에, 오직 한 가지 완전한 자질, 즉 완전한 목적을 지니고 도착한다. 만유의 아버지가 명령하셨다:“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은 공간 세계의 유한한 자녀를 향한 몹시 놀라운 초청_명령 방송이다.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그 엄청난 명령을 성취하고 실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협동하며 수고하는 동안, 그 권고의 선포가 전체 창조계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26:4.13 (290.3) 생존에 대한 우주의 기획을 돕는 모든 도우미 무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사역으로, 네가 마침내 하보나 영접 세계에 안착할 때, 너는 오직 한 가지를 완성한--즉 *목적*을 *완성한*--상태로 도착한다. 너의 목적은

철저히 증명됐으며;너의 신앙은 시험이 완료됐다. 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됐다고 발표된다. 만유의 아버지를 식별하기에 실패한 것조차, 하보나의 완전한 구체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두가 거쳐야 하는 체험을 통과한 상승 필사자의 신앙을 흔들거나 신뢰감을 심하게 흔들 수 없다. 네가 하보나에 도착할 때가 되면, 너의 신실성은 숭고한 경지에 도달한다. 목적의 완성과 욕구의 신성함은, 신앙의 견고함과 함께, 정착된 영원한 거주지로 네가 들어가도록 보장하며;시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너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구출했으며;이제 너는 하보나의 문제와 낙원의 엄청난 일 직면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 공간 세계 학교들에서 체험하던 시기에 그토록 오래 훈련 받았다.

26:4.14 (290.4) 상승하는 순례자는 신앙으로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것이 시간세계의 자녀들을 영원성의 문으로 들여보낸다. 이제는 순례자 도우미들이, 낙원이 완전하듯 인격체를 완전하게 하기에 너무나 필수적인, 완비된 이해력과 납득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는 일을 시작해야만 한다.

26:4.15 (290.5)

납득하는 역량이, 낙원에 이르는 필사자 여권{旅券}이다. 기꺼이 믿으려는 태도가, 하보나에 이르는 열쇠다.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주하는 조율사와 협동하는 것이, 진화로 생존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代價}다.

5. 순례자 도우미

26:5.1 (291.1)

일곱 집단의 2차 최고스라빔 중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집단은 순례자 도우미들인데, 길게_여행한 공간 상승자들을 중앙우주의 안정된 세계들과 정착된 조직체에 환영하며 맞이하는, 빠른 이해력과 광범한 연민의 정을 가진 존재다. 이 고등 사역자들은 영원에 속하는 낙원 순례자를 위해서도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 중에서 첫 순례자는,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 그랜환다가 착륙함과 동시에, 안쪽 하보나 회로의 안내 세계에 도착했다. 아득히 먼 과거의 그 시절에, 낙원에서 온 순례자들과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4_번 회로의 영접 세계에서 처음 만났다.

26:5.2 (291.2)

이 순례자 도우미들은, 일곱째 궤도의 하보나 세계들에서 활동하며, 세 주요 부문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첫째는 낙원 삼위일체를 최고로 이해하는 것;둘째는 아버지_아들 동업관계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것;그리고 셋째는 무한한 영에 대해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여러 훈육 국면은 각각 일곱 분야로, 각 분야는 열 두 하위 부서로, 각 하위 부서는 70개의 부속 집단으로 나뉘며;이 70개 훈육 부속 집단 각각은 1,000개로 구분돼 제시된다. 더 자세한 훈육은 그 후의 궤도들에서 제공되지만, 낙원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윤곽은 순례자 도우미들이 가르친다.

26:5.3 (291.3) 그것은, 이때, 공간에 있는 신앙의_시험을 거치고 많이_여행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주요 과정, 즉 기본 과정이다. 그러나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이 자녀들은, 하보나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불확실성을 즐기고, 실망감으로 튼실해지고, 외견상 패배에 관심을 쏟고, 어려움 앞에서 기운을 차리고, 광대함에 직면해 불굴의 용기를 나타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꺾이지 않는 신앙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 왔다. 오랫동안, 이 순례자들의 투쟁 구호는:"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무 것도--전혀 아무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26:5.4 (291.4) 각각의 하보나 궤도에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모든 순례자는 그 특별한 유형의 상승한 피조물을 돕기에 본성적으로 적합한, 최고스라빔의 보호 아래 계속 있지만, 숙달해야만 되는 과정은 중앙우주에 도착한 모든 상승자에게 상당히 균일하다. 이 성취 과정은 양적이고, 질적이며, 체험적이다--지적이고, 영적이며, 최상의 과정이다.

26:5.5 (291.5) 하보나 궤도에서 시간은 전혀 중요치 않다. 그것은 어떤 제한된 방법으로 진보 가능성에 기여하지만, 성취가 마지막이자 최상의 시험이다. 네가 안쪽을 향해서 다음 궤도로 지나갈 자격이 있다고, 너의 최고스랍 동역자가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너를 일곱째 회로 영의 열 두 보조체 앞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여기서, 네가 기원된 연방우주 및 네가 태어난 체계가 결정한 궤도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 궤도에서 신성{神性}의 성취는 안내 세계에서 일어나며, 상승하는 순례자의 연방우주의 으뜸 영을 영적으로 알아보고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

26:5.6 (291.6) 바깥쪽 하보나 궤도의 업무가 끝나고, 제시된 과정이 숙달되면, 순례자 도우미들이 피보호자들을 다음 궤도의 안내 세계로 데리고 가서, 지존성 안내자들의 보호 아래에 맡긴다. 순례자 도우미들은 그 전송을 유쾌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항상 일정 기간 머문다.

6. 최상 안내자

26:6.1 (292.1) 공간의 상승자들은, 일곱째에서 여섯째 궤도로 전환될 때 “영적 졸업생”으로 명명되며, 지존성 안내자들의 직접 감독 아래에 들어간다. 이 안내자들을, 졸업생 안내자들과--곧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과--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그 하인 동역자들과 함께, 상승 순례자와 하강 순례자 양쪽을, 모든 하보나 회로에서 돌보는 일을 한다. 지존성 안내자들은 중앙우주의 여섯째 궤도에서만 활동한다.

26:6.2 (292.2) 상승자들이 최고 신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궤도에서다.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진화하는 우주에서 지낸 긴 생애를 통해서, 시_공간 창조계가 전능하게 전면통제 되는 실체를 점점 더 자각하는 체험을 해왔다. 그들은 이곳 하보나 회로에서, 시_공간을

통일하는 중앙우주 근원과--곧 지존자 하나님의 영적
실체와-- 마주치는 일이 가까워진다.

26:6.3 (292.3) 나는 이 궤도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 지존성의 어떤 인격화된 현존도, 상승자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일곱째 으뜸 영과 갖는
새로운 관계들이, 지존하신 분의 이 비 접촉성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기법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각 피조물은, 지존하신 분의 계시되지
않은 활동을 가정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없는,
변형하는 성장, 즉 새로운 의식 통합, 새로운 목적 영성화,
신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체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신비스런 진행사항을 목격해 온 우리에게는, 지존자
하나님이 그의 체험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그 체험
수용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지적 파악, 영적 통찰력, 및
인격체 영향력을, 애정을 다해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실존적인 낙원 신격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존 삼위일체의 신성 수준을 통찰{通察}하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들에게 무척 필요할 것이다.

26:6.4 (292.4) 지존성 안내자는, 자기 학생들이 진보할 정도로 성숙했다고 판단할 때, 70인 위원회에 그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이 위원회는 6_번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검열관으로서 봉사하는 혼합된 집단이다. 순례자들은, 자신이 지존하신 분과 지존 삼위일체를 충분히 납득하고 있음을 이 위원회에게 확신시킨 후에, 다섯째 회로로 전환하도록 인가를 받는다.

7. 삼위일체 안내자

26:7.1 (292.5)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보하는 순례자들에게 하보나 훈련을 시키는 다섯째 궤도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사역자다. 영적 졸업생들은 여기서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후보자”라고 칭함 받는데,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시 아래 이 궤도에서, 무한한 영의 인격체를 인식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순례자들이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한 증진된 훈육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여전히_더_고생스럽고 훨씬_더_힘든 영적 노력의 본질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연구와 실제적인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는데, 이 궤도의 세계들에서 그들에게 성취하도록 제시된, 높은

목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6:7.2 (292.6)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가장 신실하고 유능하며; 각 순례자는, 이 계층에 속하는 2차 최고스라빔 가운데 하나의 집중된 관심을 받고, 온전한 애정을 누린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본성과 기법에 관해서 상승자들을 교육시키기에 참여하는 이 안내자들 및 기타 영적 존재 무리의 도움과 보조가 없다면, 시간세계의 어떤 순례자도, 낙원 삼위일체 중에서 처음으로 접근 가능한 인격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26:7.3 (293.1) 이 회로에서 훈련 과정이 완성된 후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자기 학생들을 그 회로의 안내 세계로 데려가며,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후보자들의 시험관 및 보증인으로서 작용하는, 여러 삼자일체 위원회 가운데 하나 앞에 그들을 출석시킨다. 이런 위원회는, 완결성취자 중에서 한 명의 동료, 1차 최고스라빔 계층의 활동 지휘자 가운데 한 명, 그리고 공간에 있는 단독 사자 또는 낙원의 삼위일체처럼 된 아들 한 명으로 구성된다.

26:7.4 (293.2) 상승한 혼이 낙원을 향해 실제로 출발할 때, 오직 운반{運搬} 삼총사, 즉:최고스랍 궤도 동역자,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의 항상_현존하는 하인 동역자만 동반한다. 하보나 회로들에서 낙원을 향한 이 짧은 소풍은 시험 여행이며;상승자들은 아직 낙원 신분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를 달성하고, 하보나 회로들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있는, 시간세계의 마지막 휴식을 통과하기 전에는, 낙원에서 거주 신분을 얻지 못한다. 신성한 휴식을 가진 후에야, 그들은 “신성의 본질”과 “지존성의 영”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삼위일체 현존 안에서, 그리고 영원성 궤도에서 실제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26:7.5 (293.3) 상승자의 동무인 운반 삼총사는, 삼위일체의 영적 빛남에 해당하는 지리적 현존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라고 요구받기보다는, 인격체 인식을 충분히 구성할 정도로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납득하는 어려운 과제에서, 순례자에게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라고 요구받는다. 낙원에 있는 어떤 상승한 순례자든지, 삼위일체의 지리적 현존, 즉 소재지{所在地}의 현존을 구분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격들, 특히 제3 인격자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현존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납득하지는 않는다. 만유의 아버지를 영적으로 최소한 납득하는 것조차 훨씬 더 어렵다.

26:7.6 (293.4) 무한한 영에 대한 추구가 달성에 실패하는 일은 드물며, 그들의 상대자들이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의 이 국면에서 성공을 이룩했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그들을 하보나의 넷째 궤도에 있는 아들 습득자{拾得者}들의 사역으로 옮길 준비를 한다.

8. 아들 습득자

26:8.1 (293.5) 넷째 하보나 회로는 때로 “아들들의 회로”라고 불린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영원한 아들과 이해심 있는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 이 회로 세계들로부터 낙원으로 가며, 한편 하강하는 순례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과 사명에 대한 새로운 납득을, 이 회로의 세계들에서 성취한다. 이 회로에는,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양쪽에게 낙원 미가엘들의 예비 단체가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특별 봉사 학교를 유지하는

일곱 세계가 있으며;시간세계의 순례자들과 영원의 순례자들이 서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되게 이해하는 일이, 미가엘 아들들의 이 세계들에서 일어난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회로에서 겪는 체험은 하보나에 머무는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흥미롭다.

26:8.2 (294.1) 아들 습득자들은, 넷째 회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를 돌보는 최고스랍 사역자다. 영원한 아들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깨닫도록 후보자들을 준비시키는 일반적인 일 외에, 이 아들 습득자들은 피교육자가 세 가지에서 온전히 성공하게 되도록 충분히 교육시켜야만 하는데:첫째는, 아들을 영적으로 적절히 납득하는 것;둘째는, 아들의 인격체를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그리고 셋째는, 무한한 영의 인격체와 아들을 적절히 구별하는 것이다.

26:8.3 (294.2) 무한한 영에 도달한 후에는, 아무 시험도 더 시행되지 않는다. 안쪽 궤도들에서 있었던 시험은, 순례 후보자들이 신격들의 뒤덮음 속에 포용됐을 때의 행적이다. 승진은 순전히 개인의 영성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영성을 지녔는지는 오직 하나님들만

판정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도 전혀 제시되지 않으며, 후보자 자신이나 다양한 교사 및 안내자도 전혀 꾸지람 듣거나 비판 받지 않는다. 낙원에서는, 실망감이 패배로 간주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연기됨은 결코 치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시간세계에서 외견상 실패는, 영원성의 의미심장한 지연{遲延}과 결코 혼동되지 않는다.

26:8.4 (294.3)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실패로 보이는 지연을 체험하는 순례자는 많지 않다. 1_번 연방우주에서 온 어떤 순례자가 첫 시도에서 때때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거의 모두가 무한한 영을 달성한다. 영을 달성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드물며;첫 모험에서 실패한 그들 가운데, 거의 모두가 3_번과 5_번 연방우주로부터 나온다. 영과 아들을 발견한 후에, 아버지를 달성하는 첫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6_번 연방우주로부터 나오지만, 2_번과 3_번으로부터 나온 자들 가운데 일부도 마찬가지로 실패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런 명백한 실패들에 대해 어떤 선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암시하는 듯하지만;실제로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지연에 불과하다.

26:8.5 (294.4)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 실패한 후보자들은, 임무 부과{附課} 우두머리들, 즉 1차 최고스라빔 집단의 관할권에 맡겨지고, 약 1,000년 동안 공간 영역에 대한 업무로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두 번째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해 준비하는 재훈련을 받기에 가장 알맞은 연방창조계로 돌아간다. 이런 봉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제안에 따라서,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돌아가는데, 중단됐던 자신의 생애의 궤도로 즉시 호송되며,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위한 준비를 곧 재개한다. 2차 최고스라빔은, 피교육자를 조정해서 성공적으로 두 번째 시도를 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이 두 번째 모험을 하는 동안, 바로 이 최고스라빔 사역자 및 기타 안내자들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따라간다.

9. 아버지 안내자

26:9.1 (294.5) 순례자의 혼이 하보나의 셋째 궤도를 달성할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 즉 최고스라빔 사역자 가운데 나이가 더 많고 매우 노련하며 가장 많이 체험한 자들의 감독 아래로 들어온다. 아버지 안내자들은 이 회로의 세계들에서 지혜 학교와 기술 학부들을 유지하는데,

중앙우주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가 거기서 교사로 봉사한다. 영원에 도달하는 이 초월 모험에서,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유용할만한 어떤 것도 무시되지 않는다.

26:9.2 (294.6)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은, 거쳐야 될 회로들이 남아 있음에도, 영원을 향한 여권{旅券}이다. 따라서 시간세계의 마지막 모험이 곧 시작될 것임을;영원의 문지방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공간에 있는 다른 피조물이 찾고 있음을, 운반 삼총사가 알릴 때, 그것은 3_번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중대한 때다.

26:9.3 (295.1) 시간 세계에서 시험은 거의 끝났으며;영원을 향한 경주는 모두 달려왔다. 불확실성의 날은 끝났으며;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으며;*완전하게* 되라는 명령은 이행됐다. 지성을 지닌 실존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시간세계의 피조물인 물질 인격체가, 공간의 진화 구체들을 거슬러 올라왔으며, 그리하여 상승 계획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한편, 그 세계들에 있는 하위 피조물에게 주신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의 공의{公義}와 정의를 영원히 증명한다.

26:9.4 (295.2)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한 세계 한 세계, 상승 생애를 통달했고, 신격의 목표를 달성했다. 생존이 완전히 완성되고, 완전성이 신성의 지존성 안에 충만된다. 시간은 영원 속에서 사라지며;공간은 만유의 아버지와 경건하게 일치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없어진다. 하보나 방송은 영광스런 공간 보고서를 번개처럼 내보내는데, 이것은 진실로, 동물 본성과 물질 기원을 갖는, 양심 있는 피조물이 진화 상승을 통해서 실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완성된 아들이 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10. 조언자 및 자문가

26:10.1 (295.3) 둘째 궤도에 속하는 최고스랍 조언자 및 자문가들은,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영원성 생애에 관해 가르치는 교관{教官}이다. 낙원을 달성하면 새롭고 더 높은 종류의 책임이 뒤따르고, 둘째 궤도에 머무는 것은 헌신된 이 최고스라빔의 유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기회를 제공한다.

26:10.2 (295.4) 신격을 달성하려는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 연방우주 봉사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궤도에서 바로 둘째 궤도로 나아간다. 그래서 조연자 및 자문가들 역시 이 실망한 순례자에게 조연자 및 위로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방금 부딪혔고, 이 실망은, 사다리를 오르듯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긴 목록의 그런 체험과 --그 광대함을 제외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체험의 잔을 끝까지 마신 자가 바로 그들이며;시간 속에서 일시적 실망감을 겪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사역자로서, 그들이 연방우주 근무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목격해 왔다.

26:10.3 (295.5) 실망한 그 상대자들은 2_번 회로에 오래 머문 후에, 이 궤도의 안내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완전성 협의회의 검사를 받고,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으며;비영적 신분이 고려되는 한, 이것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에서 이미 성공했던 것처럼,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동일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한다. 그런 후보자들의 영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그들의 실패는 접근하는 기법의 어느

국면에, 또는 그들이 체험한 배경의 어느 부분에
내재적이다.

26:10.4 (295.6) 그때 그 궤도의 조연자들이, 낙원에 있는 임무배정
우두머리들 앞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그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한때의 봉사로 귀환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이전{以前}의 날과 시대의 과제로 돌아간다. 그들은
어느 다른 날, 자신이 가장 실망했던 그 궤도로 돌아오고,
신격을 찾아가는 모험을 새롭게 시도한다.

26:10.5 (296.1) 둘째 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들에게는 진화의
불확실성이라는 자극이 이미 끝났지만, 영원한 임무를 띤
모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이 궤도에 머무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매우 유익한 반면, 그 이전
궤도들에서 있었던 기대에 부푼 열정은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때의 세계들로
돌아가서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즐겁지만 서운함으로 긴 투쟁을 되돌아보는 순례자가
많은데,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너희 필사자들이
젊은 날과 초기 시절의 고생을 가끔 돌아보며 너희의
생애를 다시 한 번 살 수 있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26:10.6 (296.2) 그러나 가장 안쪽 궤도 횡단이 바로 앞에 있고, 그 후에 곧 마지막 운반 수면상태가 종료될 것이며,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궤도에 있는 조연자 및 자문가들은 이 위대한 마지막 휴식, 즉 상승 생애의 획기적 단계들 사이에 영원히 끼어 있는 부득이한 수면상태를 위해서, 상대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26:10.7 (296.3) 만유의 아버지를 달성한 상승하는 그 순례자들이 둘째_궤도 체험을 완성하면, 항상_따라다니는 졸업생 안내자들이 그들을 최종 궤도로 받아들인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는 자신의 상대자를 직접 안내해서 내부 궤도로 들어가고, 거기서 휴식 보완자의 보호 아래에 맡기는데, 그 보완자는 하보나의 세계 회로들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사역에 배정된, 마지막 2차 최고스라빔 계층이다.

11. 휴식 보완자

26:11.1 (296.4) 마지막 회로에서 보내는 상승자의 시간 대부분은, 임박한 낙원 거주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방대하고 다양한 무리의 존재는, 대부분 계시되지 않았는데, 이 안쪽 고리에 있는 하보나 세계들의 영구

거주민과 임시 거주민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유형의 혼합은, 상승하는 필사자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풍성한 상황적 환경을 최고스랍 휴식 보완자들에게 제공하는데, 특히 낙원에서 곧 만나게 될 많은 존재 집단에 적응하는 문제에 관한 것을 제공한다.

26:11.2 (296.5) 이 안쪽 회로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는,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들이 있다. 1차 및 2차 최고스라빔은, 이 아들들이 속한 공동 단체의 전반적 관리인인데, 필사 완결성취자들 가운데 삼자일체된 후손 및 낙원 시민 가운데 비슷한 자손을 포함한다. 이 아들들 중에서 일부는 연방정부에 포함되고 임명되며, 일부는 다양하게 배정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부 하보나 회로의 완전한 세계들에 있는 공동 단체에 함께 모여 있다. 여기서, 최고스라빔의 감독 아래, 고등 낙원 시민의 특별하고 이름 없는 단체가, 어떤 미래 업무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이 낙원 시민은 그랜환다 시대 이전에 영원 항존자들의 첫째 행정 보좌관{輔佐官}이었다. 삼자일체된 존재 가운데 이 독특한 두 집단이, 먼 미래에 함께 일하게 되리라고 추측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삼위일체처럼 된 완결성취자들로 구성된 낙원 단체의

예비군이 되는 것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26:11.3 (296.6) 가장 안쪽에 있는 이 회로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하강하는 순례자들 양쪽이 서로, 그리고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상호연합에서 큰 유익을 도출하며, 필사 완결성취자들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과, 낙원 시민 중에서 삼자일체된 아들 단체를 촉진시키고 보장하는 것이 최고스라빔의 특별한 사명이다. 최고스랍 휴식 보완자들은, 자신들의 훈련보다는, 다양한 집단과 분별 있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26:11.4 (297.1) 필사자들은:"너희의 낙원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낙원 명령을 받았다. 감독하는 최고스라빔은, 삼자일체된 이 공동 단체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한다:"낙원 창조주 아들이 너희의 상승하는 형제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이해하라."

26:11.5 (297.2) 필사 피조물은 하나님을 찾아내야만 한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이 사람을--곧 의지를 지닌 가장 낮은 피조물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들 및 그 필사 자녀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어떤 미래의 알려지지 않은 우주 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둘 다 체험적 우주 전체를 거치고, 그리하여 자신의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 우주들 전역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이 독특한 혼합, 즉 피조물과 창조주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 경솔한 필사자들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신성한 자비와 애정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해 왔다. 얼마나 큰 실수인가! 오히려, 인간이 자비와 관용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며; 결국 신성이 피조물을 자극한다는 증거물로 여겨야 할 것이다.

26:11.6 (297.3) 첫째 궤도에서 체류가 끝날 때가 되면,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최고스라빔의 1차 계층인 휴식 선동자들을 처음 만난다. 이들은, 영원의 입구에 서 있는 자들을 환영하고, 마지막 부활과 관련된 변환 수면상태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키 위해서 오는 낙원 천사들이다. 안쪽 궤도를

다 지나가고, 시간세계의 마지막 수면으로부터 영원성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기 전까지, 너희는 실제로 낙원의 자녀가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들은, 하보나의 첫째 궤도에서 이 휴식을 시작하고 잠자게 되지만, 낙원 기슭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상승한 모든 존재 중에서, 그렇게 도착한 자들만이 영원성 자녀이며;나머지는 방문자로서, 즉 거주 신분을 갖지 않은 손님으로서 간다.

26:11.7 (297.4) 그리고 이제, 하보나 생애의 절정에서, 너희 필사자들이 안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잠자게 될 때에는, 너희가 기원된 그 세계들에서 필사자가 눈을 감고 자연스런 죽음의 잠에 빠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하보나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긴 운반 혼수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홀로 휴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달성을 위해서 휴식을 준비할 때, 첫째 궤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너의 동역자가 네 옆으로 오는데, 그는 너의 변환이 완료됐음을, 그리고 네가 완성의 마지막 손길만 기다리고 있음을 보증하는 하보나 보증인으로서, 너와 하나 되어 휴식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위엄 있는 휴식 보완자다.

26:11.8 (297.5) 너희의 첫 변환은 정말로 죽음이었고, 둘째는 이상적인 수면상태였으며, 이제 셋째 변질은 참된 휴식, 즉 오랜만에 갖는 휴양이다.

26:11.9 (297.6)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27편

1차 최고스라빔의 사역

27:0.1 (298.1) 1차 최고스라빔은, 낙원의 영원한 섬에 있는 신격들의 숭고한 일꾼이다. 그들은 빛과 정의의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출석점호는 완성됐으며;영원 전부터 이 장엄한 무리 가운데 어느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었다. 이 높은 최고스라빔은, 완전한 존재, 즉 최고의 완전성을 갖지만, 유한절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본질이 완전하기 때문에, 무한한 영의 이 자녀들은 자신의 다양한 임무의 모든 국면에서 서로 바뀌어서 자유자재로 활동한다. 그들은 중앙우주에서 1,000년마다 모이는 다양한 집회와 집단적 재결합에 참여하더라도, 낙원 밖에서는 광범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신격들의 특별 사자로서 나아가기도 하며, 많은 숫자가 법해석 고문으로 승격된다.

27:0.2 (298.2) 1차 최고스라빔은, 반역으로 인해 고립된 세계에서 사역하는 스랍 무리를 지휘하는 일에 배치되기도 한다. 낙원 아들이 그런 세계에 증여되고, 사명을 완수하고, 만유의 아버지께로 상승하고, 받아들여지고, 고립된 이 세계의 공인된 구원자로서 돌아오면, 새롭게 개선된 구체에서 근무하는 돌보는 영들을 지휘하도록, 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1차 최고스라빔을 항상 지명한다. 이런 특별한 봉사를 하는 최고스라빔은, 주기적으로 교대된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현 "스라빔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증여된 시기 이후로, 이 계층 중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는 자다.

27:0.3 (298.3) 1차 최고스라빔이 영원 전부터 빛의 섬에서 봉사해 왔고, 공간의 세계들을 통솔하는 사명을 수행해 왔지만, 시간세계의 하보나 순례자들이 낙원에 도착한 이후로는, 오직 지금처럼 분류된 대로 활동해 왔다. 이 고등 천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일곱 봉사 계층에서 사역한다:

27:0.4 (298.4) 1. 경배 안내자.

27:0.5 (298.5) 2. 철학의 스승.

27:0.6 (298.6) 3. 지식 관리인.

27:0.7 (298.7) 4. 진행 지휘자.

27:0.8 (298.8) 5. 윤리 해석가.

27:0.9 (298.9) 6. 임무배정 우두머리.

27:0.10 (298.10) 7. 휴식 선동자.

27:0.11 (298.11) 낙원 거주권을 실제로 달성하기까지,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이 최고스라빔의 직접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며, 그 후에는 이름을 붙이는 순서와는 반대로, 이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 체험을 쌓아간다. 다시 말해서, 너는 휴식 선동자들의 감독 아래서 낙원 생애를 시작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계층들과 연속된 기간을 보낸 후에, 경배 인도자들과 함께 이 훈련기간을 마친다. 그 결과로, 너는 완결성취자의 끝없는 생애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1. 휴식 선동자

27:1.1 (299.1) 휴식 선동자들은 낙원의 검열관인데, 중앙 섬에서 하보나 내부 회로로 나아가고, 거기서 자신의 동업자, 즉

2차 계층의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휴식 보완자들과 협력한다. 낙원을 즐기기에 필수적인 한 가지는, 휴식, 즉 신성한 휴식이며;이 휴식 선동자들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영원으로 입문하도록 준비시키는 마지막 교관이다. 그들은 중앙우주의 최종 달성 궤도에서 활동하고, 순례자가 마지막 변환 수면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데, 이 수면상태는 공간에 있는 피조물을 졸업시켜서 영원한 영역으로 보낸다.

27:1.2 (299.2) 휴식은 칠중 본성에 속하는데:낮은 생명체 계층에는 수면 휴식과 놀이 휴식이 있고, 높은 존재에게는 발견이 있으며, 가장 높은 영 인격체 유형에게는 경배가 있다. 또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전형적 휴식, 즉 물리적 또는 영적 에너지로 존재들을 재충전하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는 운반 수면, 즉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때 스라빔으로 둘러싸이는 무의식 수면상태가 있다.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변질되는 깊은 수면, 즉 한 존재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생애에서 다른 생애로, 한 실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되는 휴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태든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진화와는

반대로, 실제 우주 상태로부터 변환할 때 늘 수반되는 수면이다.

27:1.3 (299.3) 그러나 마지막으로 변질되는 수면은, 상승하는 생애 가운데 계속되는 신분 성취를 표시했던, 이전의 여러 변환 수면상태 이상의 어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에서 온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낙원 거주지에서 거주 신분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공간적인 세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경계선을 지나간다. 휴식 선동자들 및 보완자들은, 필사 피조물이 죽음에서 생존할 때 스라빔 및 관련된 존재들이 필수였던 것과 똑같이, 이 초월적 변질에 필수다.

27:1.4 (299.4) 너는 마지막 하보나 회로에서 휴식에 들어가고, 낙원에서 영원히 부활한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영적으로 다시 인격화 될 때, 하보나의 가장 안쪽에 있는 회로에서 최종 수면상태로 들어가게 했던, 바로 그 1차 최고스라빔으로서, 너를 영원한 기슭으로 환영해 인도하는 휴식 선동자를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며; 만유의 아버지의 손에 너의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다시 한 번

위탁할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신앙의 거대한 확장을 상기하게 될 것이다.

27:1.5 (299.5) 시간세계에서 마지막 휴식은 다 즐겼으며;마지막 변환 수면상태는 이미 체험됐으며;이제 너는 영원한 거주지의 기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수면상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과 그의 아들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봉사자가 되며;그의 얼굴을 봐 왔고, 그의 이름이 너희의 영{靈}이다.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그들은 항성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위대한 근원 및 중심이 그들에게 빛을 주기 때문이며;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거기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음도 없으며, 더 이상의 고통도 없을 것인데,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2. 임무배정 우두머리

27:2.1 (300.1) 이들은 이 천사들의 세 계층 --곧 1차, 2차, 및 3차--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원래의 원형{原型} 천사"인 최고스라빔 우두머리가 때때로 지명하는 집단이다. 이 영 인격체 전부를 언제든지 관장하는, 낙원의 첫째 천사인

그들의 공동 우두머리의 역할을 제외하고, 최고스라빔은 한 조직체로서 전적으로 스스로_통치하고 스스로_규제한다.

27:2.2 (300.2) 낙원의 영화롭게 된 필사 거주자들이 완결성취 단체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임무배정 천사들은 그들과 많은 관계를 갖는다. 연구와 훈육만이 낙원 도착자들의 유일한 업무는 아니며;봉사 역시, 낙원의 완결성취자_이전{以前}의 교육 체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임무배정 최고스랍 우두머리들의 예비 단체와 사귀기를 선호한다고 표명하는 것을 나는 목격해 왔다.

27:2.3 (300.3) 너희 필사 상승자들이 낙원에 도달하면, 너희의 사회 관계는, 고양된 신성한 존재들 무리와 저촉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된 동료 필사자들로 구성된 친밀한 대중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포함한다. 너희는 또한, 낙원 시민으로 구성된 3,000이 넘는 다른 계층, 초월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 그리고 유란시아에 계시된 바 없는 수많은 다른 유형의 영구적 및 일시적 낙원 거주자와 반드시 사귀게 된다. 낙원의 이 강력한

지식인들과 일관된 접촉을 가진 후에, 천사 유형의 정신들을 매우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그들은 시간세계의 필사자에게, 그토록 오래 접촉했던, 그리고 상패한 연합체를 이뤘던 스라빔을 생각나게 한다.

3. 윤리 해석가

27:3.1 (300.4) 인생의 계단을 높이 올라갈수록, 너희는 우주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윤리 의식이란, 어떤 개인이든지, 모든 다른 개인 실존에 내재된 그 권리를 인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적 윤리는, 개인 및 집단 관계에 대한 필사자 개념, 그리고 심지어 모론시아 개념까지도 훨씬 초월한다.

27:3.2 (300.5)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은, 낙원의 영광을 향해 오랫동안 상승하면서 윤리를 충분히 교육받았고 적절히 배워 왔다. 공간의 출생 세계로부터 안쪽으로_상승하는 이 생애가 펼쳐짐에 따라서, 상승자들은 우주 동료 모임에 여러 집단을 연달아 추가시킴으로써 계속_넓혀 왔다. 새 동료 집단을 만날 때마다, 인식하고 동의해야 할 또 하나의 윤리 수준이 추가되는데,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에 도착할 때가 되어, 윤리 해석에 관계되는 유익하고 친근한

조언을 제공할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들에게 윤리를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많은 새로운 것과 접촉할 대단한 과제에 부딪힐 때,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며 배운 것을 그들에게 적절히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27:3.3 (300.6) 윤리 해석가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낙원 도착자들을 지원하는데, 거주 신분 획득에서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 모집되기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그 기간에, 수많은 집단의 위엄 있는 존재들에게 적응하도록 그들을 도와준다.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수많은 유형의 낙원 시민 대부분을 이미 일곱 하보나 회로에서 만났다. 영화롭게 된 필사자들은 또한 하보나 안쪽 회로에 있는 공동 단체에 속한,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누려 왔는데, 이 존재들은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회로들에서는,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낙원_하보나 체계의 수많은 계시되지 않은 거주자{居住者}를 만났는데, 그들은 거기서, 아직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임무를 준비하면서 집단 훈련을 받고 있다.

27:3.4 (301.1) 이 모든 천상의 동무관계는 항상 상호적이다.

너희는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연속해서 만나는 이런 우주 동무로부터, 그리고 그런 수많은 계층의 점점 더 신성해지는 동역자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자신의 인격체 및 체험으로 얻은 무언가를 형제 같은 이 존재들 각자에게 나눠주는데, 왜냐하면 그 체험은 언제나 그들 각자를 다르게 만들고 더 낮게 만들며,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와 교제해 왔기 때문이다.

4. 진행 지휘자

27:4.1 (301.2) 낙원 관계의 윤리에 대해--곧 무의미한 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 계급제도의 명령도 아닌, 오히려 내재적인 타당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으므로, 상승한 필사자들은 최고스랍인 진행 지휘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함을 발견하는데, 이 지휘자들은 중앙의 빛과 생명의 섬에 머무는 고등 존재들의 완전한 진행 관례를, 낙원 사회의 새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27:4.2 (301.3) 중앙우주의 기본은 조화{調和}이며, 탐지 가능한

질서가 낙원을 지배한다. 적절한 진행은, 지식을 경유해서,

철학을 통과하고, 자발적으로 경배 드리는 영적 최고봉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데 필수다. 신성{神性}에 접근하는 신성한 기법이 있으며;순례자들은 낙원에 도착할 때에야 이 기법을 획득한다. 그 기법의 참뜻을 하보나 궤도들에서 전해 들었지만,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에 대한 훈련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들이 실제로 빛의 섬에 도달한 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

27:4.3 (301.4) 낙원에서 모든 진행은 전적으로 자발적인데,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다. 그러나 영원한 섬에서 일을 처리하는, 적절하고 완전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며, 진행 지휘자들은, “문 안에 있는 낯선 자들” 옆에 항상 서서 그들을 가르치고 발걸음을 인도함으로써 완전한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순례자가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오직 그런 배려로 말미암아, 끝없는 혼돈을 피할 수 있으며;낙원에서는 혼돈이 결코 발생되지 않는다.

27:4.4 (301.5) 이 진행 지휘자들은 정말로 영화롭게 된 선생이자 안내자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거의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상황과 생소한 관습에 대해 새로운 필사

거주자들을 가르치기에 주로 관여한다. 그 여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게다가 긴 여행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거주 신분을 획득한 그들에게, 낙원은 여전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다.

5. 지식 관리인

27:5.1 (301.6) 지식 관리인들은 최고스랍인데, 낙원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가 알고 읽는, 고등{高等}의 “살아있는 편지”이다. 그들은 신성한 진리의 기록, 즉 살아있는 참된 지식의 책이다. 너희는 “생명의 책” 속에 있는 기록에 관해서 들어왔을 것이다. 지식 관리인들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책, 즉 신성한 생명과 최상의 확실성을 갖는 영원한 서판에 새겨진 완전한 기록이다. 그들은 실체 속에 살아있는 자동 도서관이다. 우주들에 대한 사실은 이 1차 최고스라빔에 내재적인데, 이 천사들 안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으며; 영원한 진리와 시간세계의 정보를 담은, 이 완전하고 충분한 저장소의 정신 속에, 허위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역시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7:5.2 (302.1) 이 관리인들이 영원한 섬 거주자를 위한 비공식
훈육 과정을 운영하지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참조와
확인이다. 낙원에 머무는 어떤 존재든지,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특별한 사실 또는 진리가 담긴 살아있는 저장고를
자기 옆에 마음대로 둘 수 있다. 그 섬의 가장 북쪽에는
살아있는 지식 습득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찾은
정보를 간직한 집단의 지휘자들을 지명할 것이며, 네가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 *인* 찬란한 존재들이 즉시 나타날
것이다. 너는 몰두하고 있는 책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으며; 이제 너는 살아있는
지성체와 직접 대면해 사귄다. 그리하여 너는 지식의 최종
관리인인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획득한다.

27:5.3 (302.2) 네가 확인하려는 그것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최고스라빔의 위치를 확인할 때, 너는 전체 우주에 알려진
유효한 사실 *전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지식
관리인들은, 지방우주 및 연방우주의 스라빔과
제2스라빔부터, 하보나에 있는 3차 최고스라빔에
해당하는 기록원 우두머리들에 이르기까지, 기록하는
천사들의 방대한 연결조직 중에서 최종적이고 살아있는

일람표{一覽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지식 축적은, 낙원의 공식 기록과는 달리, 우주 역사의 누적된 요약이다.

27:5.4 (302.3) 진리의 지혜는 중앙우주의 신성{神性}에서 기원되지만, 지식, 즉 체험적 지식은 주로 시간과 공간에 있는 영토에서 시작된다--따라서, 천상의 기록원들이 후원하는, 기록하는 스라빔 및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방우주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7:5.5 (302.4) 우주 지식을 선천적으로 소유하는 이 1차 최고스라빔은, 그 지식을 조직하고 분류하는 것 역시 책임진다. 자신들을 온갖 우주의 살아있는 참고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그들은 지식을 7개의 주요 계층으로 분류해 왔는데, 각 계층은 약 100만 개의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다. 낙원 거주민이 이 방대한 지식 비축물{備蓄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식 관리인들의 자발적이고도 현명한 노력 덕분이다. 이 관리인들은 또한 중앙우주의 고양된 선생이기도 한데, 하보나 회로 가운데 어디서든지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살아있는 보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며;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서 광대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도서관을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는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 창조계는 접근할 수 없다. 오직 간접적으로 그리고 반사성을 통해서만, 낙원 지식의 혜택이 지방우주들에서 보장된다.

6. 철학의 스승

27:6.1 (302.5) 경배로 얻는 최상의 만족 바로 밑에는 철학{哲學}의 유쾌함이 있다. 너희는, 시도된 해결책으로 철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신비 가운데 천여 가지가 남을 정도까지, 그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결코 없었다.

27:6.2 (302.6) 낙원의 으뜸 철학자들은,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토착 거주민과 상승 거주민의 정신을 인도하기를 기뻐한다. 최고스랍인 이 철학의 스승들은, "하늘의 지혜자들", 즉 알려지지 않은 것을 정복하고자 애쓸 때, 지식이 된 진리와 체험한 사건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존재다. 그들과 함께 하면, 지식은 진리에 도달하고, 체험은 지혜 수준으로 올라간다. 공간에서 상승하는 인격체들은, 낙원에서 존재의 절정을 체험하는데: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며; 진리를

알며;철학적으로 사색할--곧 진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궁극자의 개념을 획득하고자 애쓰고, 심지어 절대자들의 기법을 파악하려고 애쓸 수도 있다.

27:6.3 (303.1) 방대한 낙원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철학의 스승들이 지혜의 70가지 기능 부서에서 공들인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여기서 무한성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강연하고, 자신의 지혜에 접근해 온 모든 존재의 체험을 조화시키고 지식을 다듬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다양한 우주 문제에 관해 몹시 전문화된 입장을 개발해 왔지만, 그들의 최종 결론은 항상 한결같이 일치한다.

27:6.4 (303.2) 이 낙원 철학자들은 가능한 모든 훈육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하보나의 고등 도형{圖形} 기법,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낙원 방법을 포함한다. 지식을 전하고 개념을 알리는 이 모든 고등 기법은, 심지어 최고도로 발달된 인간 정신의 납득 수용력조차 철저히 벗어난다. 낙원에서 한 시간 훈육받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1만 년 동안 단어를_기억하는 방법에 해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런 통신 기법을 파악할 수 없으며, 단지 인간

체험에서 아무 것도 이 기법과 비교될 수 없을 뿐인데, 그것과 비슷한 것도 전혀 없다.

27:6.5 (303.3) 철학의 스승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상승해 온 존재들에게, 온갖 우주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철학의 결론은, 아는 사실과 체험한 진리처럼 확정적일 수는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해결되지 않은 영원성의 문제와 절대자들의 업적에 대한 이 1차 최고스라빔의 강연에 귀 기울일 때, 정복되지 않은 이 질문에 관한 분명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7:6.6 (303.4) 낙원의 이 지적 추구는 방송되지 않으며; 완전한 철학은 몸소 거기 현존하는 그들에게만 가능하다. 둘러싸는 창조계는, 오직 이 체험을 이미 겪은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지혜를 공간에 있는 우주들 쪽으로 갖고 나간 자들로부터만 이 교훈을 배운다.

7. 경배 안내자

27:7.1 (303.5) 경배는 창조된 모든 지성체의 가장 고상한 특권인 동시에 첫째 의무다. 경배는, 창조주들이 피조물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진리와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의식적{意識的}이고 즐거운 행동이다. 경배의 질은 피조물이 인지하는 깊이에 따라 결정되며;하나님들의 무한한 성품을 더 알게 됨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들이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체험적 환희와 가장 절묘한 기쁨의 영광을 결국 달성할 때까지, 경배 행위는 점점 더 전체를_포함하게 된다.

27:7.2 (303.6) 낙원 섬에 특별한 경배 장소가 있지만, 그것은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대한 예배실에 더 가깝다. 경배는 더없이 행복한 기슭에 올라온 모든 존재의 첫째 및 지배적 열정이다--하나님의 현존에 도달하고자 그를 충분히 배워온 존재들에게서 저절로 끓어오르는 감정이다. 궤도에서 궤도로, 하보나를 통해서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경배는 낙원에서 그 표현을 지도하고 달리 통제할 필요가 있게 될 때까지 자라가는 열정이다.

27:7.3 (304.1) 낙원에서 즐기는 최고의 예찬과 영적 찬양의 주기적, 자발적, 집단적, 및 기타 특이한 분출은, 1차 최고스라빔 중에서 특별한 단체의 지휘 아래서 진행된다. 이 경배 안내자들의 지시에 따라, 그런 경의는 피조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목표를 성취하며, 고상한

자기_표현과 개인적 즐거움의 완전한 절정에 도달한다. 모든 1차 최고스라빔은 경배 안내자가 되기를 갈망하며;임무배정 우두머리들이 주기적으로 이 회중을 해산시키지 않았다면, 상승한 존재는 모두 경배 자세로 영원히 남아있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상승하는 어떤 존재도, 경배에서 자신이 충분한 만족감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영원히 봉사하는 임무배정에 임하도록 결코 요구받지 않는다.

27:7.4 (304.2)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어떻게 경배 드릴 것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아를_표현하는 이 만족감을 얻게 하고, 동시에 낙원 체제의 기본 활동에 관심을 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배 안내자들의 과제다. 경배 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성적 이해와 고조되는 감사의 감정을, 낙원에 도착한 평범한 필사자가 충분하고 만족스럽게 표현하기까지, 수백 년 소요될 것이다. 경배 안내자들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표현 기법들을 전개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나고 시간이라는 산통을 겪은 이 놀라운 자녀들이,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경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27:7.5 (304.3) 낙원 신격들에 대한 경배에서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전체 우주의 모든 존재의 온갖 예술이 사용되는데, 그 예술은 자아를_표현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재능을 강화하고 고양시킬 수 있다. *경배는 낙원 실존의 가장 고상한 기쁨이며*;상쾌하게 하는 낙원 오락이다. 이 땅에서 너희 지친 정신에게 오락이 주는 것을, 낙원에서는 완전하게 된 너희 혼에게 경배가 제공할 것이다. 낙원의 경배 방식은 필사자의 납득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 참뜻은 너희가 여기 유란시아에서도 헤아릴 수 있는데, 하나님들의 영이 지금도 너희에게 내주하고, 너희 위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영감을 줘서 참된 경배를 드리게 하기 때문이다.

27:7.6 (304.4) 낙원에서는 경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섬을 향해 체험함으로 상승하는 빛나는 존재들의 지성이 성장하고 신성{神性} 인식이 팽창함으로써 계속_증가하여 넘치는 영적 감정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랜환다 시대 이후로 어느 때든지, 낙원에서 최고스라빔은 경배의 영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언제나 경건함이 초과한다. 그리고 이것은, 낮은 시간과

공간 세계들의 깊은 영적 무지{無知}로부터, 낙원 영광을 향해 위로, 그들의 길을 천천히 수고롭게 올라온 존재들이 나타내는 엄청난 영적{靈的} 감동의 반응을, 선천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들이 결코 온전히 음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세계에서 온 그런 천사와 필사자들이 낙원 권능자들 앞에 도달할 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됐던 감동이 터져 나오는데, 낙원 천사들을 몹시 놀라게 하고, 낙원 신격들 안에 신성한 만족감이 생기게 하는, 최고로 기쁜 광경이다.

27:7.7 (304.5) 때로는 낙원 전체가 경건한 영적 표현이라는 압도적인 물결 속에 휩싸이게 된다. 경배 안내자들은 종종 신격 거주지의 빛이 삼중으로 굽이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그런 현상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낙원 거주자, 즉 영광스런 완전한 시민 및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피조물이 진지하게 경배 드림으로써, 하나님들의 신성한 심정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만족됨을 의미한다. 얼마나 성공적인 기법인가! 피조 자녀의 지성적 사랑이 창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충만한 만족감을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및 목적의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가!

27:7.8 (305.1) 경배의 충만함이라는 최고의 만족감을 달성한 후에, 너희는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상승 생애는 거의 완료됐고, 일곱째 축제가 준비된다. 첫 축제는 생존하는 목적이 확인될 때 사고 조율사와 필사자의 계약을 표시한 것이며;둘째는 모론시아 생애 속에서 깨났을 때이며;셋째는 사고 조율사와 융합한 것이며;넷째는 하보나에서 깨어났을 때이며;다섯째는 만유의 아버지를 찾아냈음을 축하했을 때이며;여섯째 축제는 시간세계의 마지막 운반 수면상태에서 깨어나는 낙원 사건이 있을 때였다. 일곱째 축제는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로 들어간 것과 영원한 봉사가 시작된 것을 표시한다. 완결성취자가 일곱째 단계의 영적{靈的} 깨달음을 달성하는 것은, 아마 영원성의 축제들 중에서 첫 축제를 거행함을 의미할 것이다.

27:7.9 (305.2) 그리하여 낙원 최고스라빔, 즉 사역하는 전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들은 우주의 한 부류로서, 너희가 영원한 삼위일체 서약을 마치고, 필사 완결성취 단체 안으로 소집되면서, 경배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최종 작별을 고할 때까지, 너희가 기원된 세계에서부터 너희와 계속 동행한다.

27:7.10 (305.3)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끝없는 봉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며;이제 완결성취자는 궁극자 하나님을 만나는 목표에 직면{直面}한다.

27:7.11 (305.4) [우버사에서 온, 지혜 완성자가 제시했음]

제28편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

28:0.1 (306.1) 최고스라빔이 중앙우주의 천사 무리이고, 스라빔이 지방우주의 천사 무리인 것처럼,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를 돌보는 영{靈}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에서 그리고 지존성 잠재력에서, 반사하는 영들의 이 자녀는 스라빔보다는 최고스라빔과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연방창조물에서 홀로 봉사하지 않으며, 그들의 계시되지 않은 동역자들이 후원하는 처리사항은 수없이 많은 동시에 흥미를 자아낸다.

28:0.2 (306.2) 본 문서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방우주를 돌보는 영은 다음과 같은 세 계층을 포함한다:

28:0.3 (306.3) 1. 제2스라빔.

28:0.4 (306.4) 2. 제3스라빔.

28:0.5 (306.5) 3. 전{全}스라빔.

28:0.6 (306.6) 마지막 두 계층은 필사자 진보라는 상승 요강과 직접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제2스라빔에 대해서 더 확장된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논의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제3스라빔뿐 아니라 전{全}스라빔도 연방우주들 *에서* 영 사역자로 봉사하지만, 연방우주 *출신의* 돌보는 영은 아니다.

1. 제3스라빔

28:1.1 (306.4) 이 고등 천사들은 연방우주 본부에 기록돼 있고, 지방 창조계에서 봉사함에도, 엄밀히 말하면, 지방우주 원주민이 아닌 까닭에, 이 연방우주 수도의 거주민이다. 제3스라빔은 무한한 영의 자녀이며, 1,000명씩 무리지어 낙원에서 인격화된다. 신성한 독창성과 최상에_가까운 다재다능한 이 숭고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에게 수여된, 무한한 영의 선물이다.

28:1.2 (306.5) 미가엘 아들이 낙원의 어버이 체제로부터 분리되고 공간에서 우주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됐을 때, 무한한 영은 1,000명에 이르는 이 동행{同行}하는 영

집단을 배출한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이 우주를 조직하는 모험을 시작할 때, 이 장엄한 제3스라빔이 따라간다.

28:1.3 (306.6) 우주가 건축되던 초기 시절 내내, 1,000명의 이 제3스라빔이 창조주 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모진이다. 그들은 우주 조립 및 다른 천문학상 조종이 일어나는 이 활발한 시대 동안, 아들의 보좌관{輔佐官}으로서 중대한 체험을 한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첫_태생인 빛나는 새벽별이 인격화 되는 날까지, 창조주 아들 곁에서 봉사한다. 그 후에 즉시, 제3스라빔의 공식 사임{辭任}이 제출되고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원주민 천사 생명체가운데 첫 계층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들은 지방우주의 현행 봉사에서 물러나고, 그 전에 배속됐던 창조주 아들, 그리고 관련된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 사이를 연락하는 사역자가 된다.

2. 전스라빔

28:2.1 (307.1)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접촉함으로써 무한한 영이 전{全}스라빔을 창조하며, 그들은 바로 이 최상급 행정관들의 전속 하인 및 사자{使者}다. 전스라빔은 광우주에서 임무배정을 받으며, 오르본톤에서는 그들의

단체가 우버사 북쪽 부분에 본부를 유지하는데, 특별
우대{優待} 거류민으로서 거기에 거주한다. 그들은
우버사에 등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도
배속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상승 기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28:2.2 (307.2) 전스라빔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관점으로
경영상 협조를 위해서 연방우주들을 감독하는 일에만
온전히 전념한다. 우버사에 있는 전스라빔인 우리
거류민은, 오직 오르본톤의 최상급 행정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그에게만 보고하는데, 그는 낙원 위성 중에서
바깥쪽 고리에 있는 7_번 공동 행정 세계에 위치한다.

3. 제2스라빔

28:3.1 (307.3) 각 연방우주 본부에 배정된 일곱 반사하는 영이
제2스랍 무리를 생산한다. 일곱 명으로 집단을 이루는 이
천사의 창조와 관련해서, 분명히 낙원에_반응하는 기법이
있다. 일곱 명마다, 항상 한 명의 1차, 세 명의 2차, 그리고
세 명의 3차 제2스라빔이 있으며;그들은 항상 정확한
비율로 인격화한다. 그런 일곱 제2스라빔이 창조될 때, 1차
제2스라빔 한 명이 태고 항존자들의 봉사배속된다. 세

명의 2차 천사는, 연방정부에 있는 낙원에서_기원된 세 집단의 행정관, 즉:신성한 조언자, 지혜 완성자, 및 우주 검열관들과 연합한다. 세 명의 3차 천사는, 연방우주 통치자들, 즉:강력한 사자, 권세 높은 이, 그리고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의 삼자일체된 상승한 동역자들에게 배속된다.

28:3.2 (307.4) 연방우주의 이 제2스라빔은 반사하는 영들의 자손이며, 따라서 반사성을 그 본성에 타고난다. 그들은 제3 근원 및 중심과 낙원 창조주 아들들에서 기원되는 모든 피조물의 각 국면 전체에 반사함으로 반응하지만, 인격적이든지 아니든지, 제1 근원 및 중심에서만 단독으로 기원되는 존재 및 실재들을 직접 반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한한 영의 우주 정보 회로들이 실제라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지만, 다른 아무 증거가 우리에게 없더라도, 제2스라빔의 반사하는 실행은, 공동 행위자의 무한한 정신이 보편적으로 현존한다는 실체성을 보여주기에 매우 충분할 것이다.

4.1차 제2스라빔

28:4.1 (307.5) 태고 항존자들에게 배정된 1차 제2스라빔은, 이 삼자일체 통치자들을 위해 봉사할 때, 살아있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울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수천 또는 수십만 광년{光年} 거리에 있는 다른 존재의 어떤 반응들을 이 거울로 들여다보고, 이 거울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연방우주 조직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기록은 우주의 운영에 필수이고, 방송은 쓸모 있으며, 단독 사자 및 기타 사자들의 업무는 매우 유용하지만, 태고 항존자들은 인간거주 세계와 낙원 사이의--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즉시 양쪽을 볼 수 있고, 양쪽을 들을 수 있으며, 양쪽을 *알 수 있다*.

28:4.2 (308.1) 이를테면 모든 것을 듣고 보는--이 역량은, 오직 태고 항존자들이 그들 각자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심지어 거기서도 한계에 부딪치는데, 즉:우버사로부터 그런 소통은, 오르본톤의 세계들 및 우주들로 제한되며, 연방우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동일한 이 반사성 기법은 각 연방우주로 하여금 중앙우주 및 낙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일곱

연방정부는, 개별적으로 격리돼 있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를 그렇게 완전하게 반사하고 아래의 결핍에 대해 완전히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호의적이다.

28:4.3 (308.2) 1차 제2스라빔은, 내재적 본성에 따라 일곱 유형으로 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계층 가운데 첫째 계열이 영의 정신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해석하는 선천적 자질을 받아야만 함이 마땅하다:

28:4.4 (308.3) 1. *공동 행위자의 소리*. 각 연방우주마다, 첫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그 계층에서 나중에 창조된 일곱째 제2스라빔마다, 무한한 영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연방정부에서 태고 항존자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해석해주는, 높은 수준의 융통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큰 가치를 갖는데, 신성한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지방 창조계와는 달리, 무한한 영을 독특하게 인격화한 존재가 연방정부의 보좌{寶座}에 앉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2스라빔 소리들은 그런 본부 구체에 있는 제3 근원 및 중심의 개인 대표자인 것이나 거의 다름없다. 정말로, 일곱 반사하는 영이 거기에 있지만,

제2스랍 무리의 이 어머니들은 일곱 으뜸 영보다 공동 행위자를 덜 충실하게 그리고 덜 자동으로 반사한다.

28:4.5 (308.4) 2. *일곱 으뜸 영의 소리*. 둘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되는 매 일곱째마다, 일곱 으뜸 영의 집단적 본성과 반응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임무가 배정된 일곱 반사하는 영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각 으뜸 영을 어떤 연방우주 수도에서 이미 대변하고 있더라도, 그런 대변은 개별적이며, 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볼 때, 그들은 오직 반사함으로 현존할 뿐이며;따라서 으뜸 영들은 매우 개인적인 이 천사들의 봉사를 환영하는데, 이 1차 제2스라빔 가운데 둘째 계열은 태고 항존자들 앞에서 으뜸 영들을 대변하기에 매우 충분할 만큼 유능하다.

28:4.6 (308.5) 3. *창조주 아들의 소리*. 무한한 영은 미가엘 계층의 낙원 아들들을 창조하거나 훈련시키는 데 무슨 관련이 있었음에 틀림없는데, 셋째 1차 제2스라빔과 그 후에 연속으로 일곱째마다, 이 창조주 아들들의 정신을 반사하는 뛰어난 은사{恩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네바돈의

미가엘의 입장을 알고 싶어 한다면--정말로 알고자 한다면, 공간의 방침에 따라 그를 호출할 필요가 없으며;오직 네바돈 소리들의 우두머리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요청에 따라서, 기록하는 미가엘 제2스라빔을 출석시킬 것이며;바로 그때 거기서 태고 항존자들이 네바돈 으뜸 아들의 소리를 감지할 것이다.

28:4.7 (309.1) 다른 어떤 아들신분 계층도 이렇게 “반사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천사 계층도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바로 창조주 아들들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아주 의심이 든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작동함을 확실히 알고, 반드시 만족스럽게 작동함도 아는데, 우버사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제2스라빔 소리들이 한 번도 잘못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8:4.8 (309.2) 너희는 여기서, 신성이 시간세계의 공간을 둘러싸고 공간에서 시간을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 무언가를 비로소 목격한다. 공간의 어려운 불이익을 정복하는 그들의 과제에서 시간세계의 자녀들을 보좌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영원성 주기의 기법을 너희는

처음으로 얼핏 바라본다. 그리고 이 현상은 반사하는 영들의 확립된 우주 기법 이외의 것이다.

28:4.9 (309.3) 외견상 위로는 으뜸 영들, 그리고 아래로는 창조주 아들들이 몸소 현존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태고 항존자들은 그들의 지휘 하에, 완전하게 반사하고 궁극적으로 정확한 시공우주 장치에 동조된 살아있는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리하여 태고 항존자들은, 몸소 현존하지 못하는 고양된 모든 존재의 반사되는 현존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수단과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타 수단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방우주 본부에 잠재적으로 현존하신다.

28:4.10 (309.4) 태고 항존자들은, 위로부터는 영의 소리_속보{速報},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미가엘의 소리_속보, 이 둘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뜻을 완전하게 추론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방우주의 경영 직무에 관한 아버지 뜻을 추정할 때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들 가운데 두 분의 지식으로부터 다른 한 분의 뜻을 연역하기 위해서는,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함께 행동해야만 하며;두 명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었더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라, 항상 세 명의 태고 항존자가 연방우주를 관장한다.

28:4.11 (309.5) 4. *천사 무리의 소리*. 넷째 1차 제2스라빔, 그리고 연속해서 일곱째마다, 위로는 최고스라빔을 비롯해서 아래로는 스라빔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사 계층의 정서에 각별히 반응하는 것이 판명된다. 그래서 태고 항존자들의 어떤 협의회에서든지, 명령하거나 감독하는 어떤 천사의 입장이라도 즉시 고려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 있는 스라빔 우두머리가, 반사함으로 전송되는 현상,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버사로부터 이끌림 받는 현상을 의식하지 못하는 날이 너희 세계에서 단 하루도 없었지만;단독 사자가 미리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우두머리는 무엇이 추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이 영들은, 태고 항존자들 및 그 동역자들의 배려와 조언을 보증하는 끝없는 문제들에 관해, 이런 종류의 무의식 증언, 따라서, 분명히 편견 없는 증언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28:4.12 (309.6)

5. *방송 수신자*. 오직 이 1차 제2스라빔만 수신할 수 있는 특별한 등급의 방송 메시지들이 있다. 우버사의 정규 방송이 아니지만, 우주 소통의 확립된 회로에 도래하는 어떤 실제 메시지를 태고 항존자들의 사려 깊은 통찰력에 동조시킬 목적으로, 그들은 반사하는 소리 천사들과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방송 수신자들은 연속해서 다섯째로 태어나는 자, 즉 다섯째 1차 제2스라빔과 그 후에 일곱째마다 창조되는 자다.

28:4.13 (310.1)

6. *운송 인격체*. 이들은, 연방우주 본부 세계로부터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시간세계의 순례자를 옮기는 제2스라빔이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운송 단체인데, 안쪽으로 낙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들 각 구역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운행한다. 이 단체는, 여섯째 1차 제2스라빔 및 그 후에 창조된 모든 일곱째 1차 제2스라빔으로 구성된다.

28:4.14 (310.2)

7. *예비 단체*. 매우 큰 집단의 제2스라빔, 1차에서 일곱째마다 태어나는 자는, 그 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임무와 응급 임무배정을 위해 예비군에 편성돼 있다. 고도로 특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동역자의 역할 가운데 어떤 경우든지 제법 잘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런 특화된 업무는 오직 긴급 사태에서만 수행된다. 그들의 평상시 과제는, 특별한 임무가 배정된 천사들 범위에 소속되지 않는, 한 연방우주의 일반화 된 임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5. 2차 제2스라빔

28:5.1 (310.3) 2차 계층의 제2스라빔은 1차 계층의 동료에 못지않게 사려 깊다. 1차, 2차, 및 3차로 분류되는 것은, 제2스라빔의 경우에, 신분 또는 기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으며;그것은 다만 과정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들이 활동할 때 세 집단은 모두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28:5.2 (310.4) 반사하는 일곱 유형을 갖는 2차 제2스라빔은, 협조하는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태고 항존자들의 동역자들의 봉사에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28:5.3 (310.5) 지혜 완성자들에게 --지혜의 소리, 철학의 혼, 및 혼들의 합동.

28:5.4 (310.6)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조연의 마음, 실존의 기쁨, 및 봉사의 만족.

28:5.5 (310.7) 우주 검열관들에게 --영 분별자.

28:5.6 (310.8) 이 집단은 1차 계층처럼 연속적으로 창조되는데; 즉 첫_태생은 지혜의 소리이고, 그 후 일곱째가 비슷하며, 반사하는 이 천사 가운데 다른 여섯 유형도 그런 식으로 생겼다.

28:5.7 (310.9) 1. 지/혜/의/ 소리/. 이 제2스라빔 가운데 더러는, 낙원의 살아있는 도서관, 즉 1차 최고스라빔에 속하는 지식 관리인들과 영구히 접촉한다. 전문화된 반사하는 봉사에서, 지혜의 소리들은, 온갖 우주에서 조화된 지혜가 응집되고 집중된 자인데, 활기차고 현재적이고 총만하고 완벽하게 신뢰할만하다. 연방우주의 주요 회로들을 도는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해, 훌륭한 이 존재들은 지혜의 진수{眞髓}를 분리시키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선배{先輩}인 지혜 완성자들에게 정신 작용의 이런 보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작용함으로써, 지혜 완성자들은 이 지혜를 실제로 원래 표현한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대변했던 바로 그 존재들을, 높은 데서 기원됐든지 낮은 데서 기원됐든지, 반사작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28:5.8 (310.10)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기록돼 있다. 우버사에서는, 연방우주 정부의 복잡한 직무가 난처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할 필요가 있게 되면, 완전한 지혜와 실용적인 지혜 양쪽 다 반드시 필요하게 되면, 지혜 완성자들은 한 무리의 지혜의 소리를 호출하며, 그들 계층의 숙련된 솜씨로 온갖 우주의 정신 속에 들어오고 순환하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이수신자{受信者}들을 대단히 동조시키고 방향 잡게 하기 때문에, 위로는 우주에서 오는 신성{神性}한 지혜의 흐름과, 아래로는 우주의 고등 정신들에서 오는 실용적인 지혜의 홍수가, 이 제2스랍 소리들로부터 즉시 쏟아져 나온다.

28:5.9 (311.1)

이 두 가지 지혜 개정판을 조화시키는 데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상소{上訴}가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올라가는데, 그들은 절차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할 것인지 즉시 판결한다. 만일 반역이 유행하는 영역에서 도래하는 어떤 것의 신빙성에 관해서 어떤 의혹이든지 있을 경우에는, 검열관들에게 상소가 올라가는데, 그들은 자체의 영 식별자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이 그 자문가를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즉시

판결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순간의 지능은, 태고
항존자들의 인정 많은 시선 앞에 열려진 책처럼, 그렇게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

28:5.10 (311.2) 너희는 이 모든 것이 연방우주 정부의 운영을
책임지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만 어렵פות이
납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처리사항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광범한지, 유한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 내가
반복했듯이, 너희가 우버사에서 지혜의 성전의 특별한
영접실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주의 행성 간 소통이 지극히 복잡하고 확실히
작용하는 것에 감동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놀라운
기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하나님들의 신성한 지혜와
선하심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설명해 온 바와 똑같이 실제로 일어난다.

28:5.11 (311.3) 2. 철학의 혼. 이 훌륭한 선생들 역시 지혜
완성자들에게 배속돼 있으며, 다르게 방향 잡지 않을
때에는, 낙원에 있는 철학의 스승들과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를 유지한다. 말하자면, 거대한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너의 유한하고 물질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 신성한 지혜와 낙원의 철학이 비친 것을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완전한 철학을 “육신화{肉身化}”해서, 비교적 낮은 세상의 저급한 사람들이 그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고 동화하도록 그 철학을 희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살아있는 이 거울들을 아래쪽으로 돌려서 다른 세계 또는 우주의 표준과 필요를 비추기만 하면 된다.

28:5.12 (311.4) 지혜 완성자들은 바로 이 기법으로, 고려되는 민족 및 세계들의 실제 필요와 실제 상태에 대한 결정과 권고를 적응시키며, 그들은 항상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과 협조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이 처리사항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충만한지는 내 납득 역량까지도 넘어선다.

28:5.13 (311.5) 3. *혼들의 합동*. 윤리 관계의 이상{理想}과 상태를 비추는 이 반사자들을 지혜 완성자들에게 배속함으로써, 삼자일체 참모진이 완성된다. 우주에서 체험하고 적응하는 원숙한 지혜의 발휘를 요구하는 모든 문제가운데, 어느 것도 지성적 존재들의 관계와 연합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상업과 무역, 친구관계

및 결혼과 같은 인간적 연합의 경우, 또는 천사 무리와 접촉하는 경우에, 화해자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만약에 커지고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주의 순조로운 작용을 망칠 정도로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 작은 마찰, 사소한 오해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 완성자들은, 자기 계층의 현명한 체험을 전체 연방우주를 위한 “화해의 기름”이 될 수 있게 만든다. 이 모든 업무에서, 반사하는 동역자인 혼들의 합동들이 이 연방우주의 현자{賢者}들을 훌륭하게 후원하는데, 혼들의 합동들은 우주의 상태에 관한 현행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난처한 문제에 대해 최고로 조정된 낙원 이상{理想}을 묘사한다. 다른 곳으로 특별히 방향 잡지 않을 때에는, 이 제2스라빔이 낙원에 있는 윤리 해석가들과 반사{反射} 작용으로 접촉을 유지한다.

28:5.14 (312.1) 이들은 오르본톤 전체의 협동작업을 촉진시키고 증진시키는 천사다. 너희 필사자 생애 동안에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협동작업**이다. 다른 존재들과 일하는 이 기술을 정복해 온 자들이, 완전성에 속하는 구체들에 배치돼 있다. 우주에서 외톨 봉사자가 할

임무는 거의 없다. 너희가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 동료들과 갖는 교제가 일시적으로 없게 될 때, 너희는 더욱 고독해질 것이다.

28:5.15 (312.2) 4. *조언의 핵심*. 이들은 신성한 조언자들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이 반사하는 귀재{鬼才}들 가운데 첫째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제2스라빔은 공간의 사실을 보존하는데, 시간세계의 회로들에서 그런 자료를 선택한다. 특히 그들은 최고스랍 첩보 협조자들을 반사하지만, 높은 계층이든지 낮은 계층이든지, 모든 존재의 조언을 선택적으로 반사하기도 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자문 또는 결정을 요청받을 때마다, 그들은 즉시 3인조 조언의 핵심을 소집하며, 이윽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연방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정신들의 조정된 지혜와 조언을 실제로 종합한 것이며, 그것은 모두, 하보나, 그리고 심지어 낙원에 속한 높은 정신들의 조언에 비춰서 검열되고 교정돼 왔다.

28:5.16 (312.3) 5. *실존의 기쁨*. 이 존재들은 본래, 위로는 최고스랍 조화 감독관들에게, 그리고 아래로는 특정한 스라빔에게, 반사함으로 동조돼 있지만, 이 흥미로운

집단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계층의 천사 무리와 의지를 지닌 낮은 피조물 가운데 기쁨의 반응을 증진시키도록 지향된다. 신성한 조연자들이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신성한 조연자들이 특별한 기쁨을 습득하려고 그들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비교적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회상 지휘자들과의 협동에서, 기쁨 교환소{交換所}로 작용하는데,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고, 필사자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초월유머를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한편, 그 영역에서 즐거움에 대한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애쓴다. 그들은 모든 외래 영향과는 관계없이, 자유의지를 갖고 실존함에 내재적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하며;그들이 옳지만, 원시적인 사람의 정신 속에 이 진리를 주입시킬 때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높은 영 인격체 및 천사들일수록 이런 교육적 수고에 더 빨리 반응한다.

28:5.17 (312.4) 6. *봉사의 만족*. 이 천사들은 낙원에서 운행을 지시하는 자들의 입장을 고도로 반사하며, 실존의 기쁨들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작용하면서, 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것에서 유래되는 만족감을

증대시키고자 힘쓴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봉사, 즉 진리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봉사에 내재적인, 앞으로 받을 보상을 조명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28:5.18 (312.5) 이 계층은 신성한 조연자들에게 배속되며, 신성한 조연자들은 영적 봉사에서 얻을 은혜를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반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 제2스라빔은, 진부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기에 가장 좋은 자들의 업적을 활용함으로써, 연방우주에서 헌신된 봉사의 질을 높이기에 막대하게 기여한다. 다른 세계들, 특히 가장 우수한 세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세계에든지 유포시킴으로써, 우호적 경쟁 정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상쾌하고 건전한 경쟁이 스랍 무리 중에서도 권장된다.

28:5.19 (313.1) 7. *영 분별자*. 둘째 하보나 궤도의 조연자 및 자문가들과, 이 반사하는 천사들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접촉이 있다. 그들은 우주 검열관들에게 배속된 유일한 제2스라빔이지만, 아마 전체 동료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전문화돼 있을 것이다. 정보의 근원 또는 경로와는 상관없이, 손에 쥔 증거가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그들의

반사하는 정밀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 분별자들이 참된 동기와 실제 목적 그리고 그것이 기원된 진정한 본질에 관해,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는 이 천사들의 경이로운 기능발휘에 감탄하는데, 그들은 어떤 개인이 초점에 노출되든지, 그의 실제 도덕적 및 영적 성품을 정확하게 반사한다.

28:5.20 (313.2) 이 반사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직관으로, 본래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그 생각을 인간 정신에게 옮겨주려는 노력으로, 내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다면, 영 분별자들은 타고난 “영적 통찰력” 덕분에 이런 복잡한 봉사를 수행한다. 우주 검열관들이 이 발표문을 볼 때, 그들은 반사된 개인의 적나라한 혼과 대면할 것이며; 바로 이 묘사의 확실성과 완전성이, 검열관들이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항상 그토록 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분별자들은 우버사로부터 떠나서 행하는 어떤 사명이든지 검열관들을 항상 따라가며, 우버사 본부에서 그런 것처럼 우주들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다.

28:5.21 (313.3) 영 세계의 이 모든 진행사항이 실제라는 것, 우주 영토의 불변적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확립된 관례에 따라서 이런 진행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장한다. 새롭게 창조된 모든 계층의 존재는, 생명의 호흡을 받자마자, 즉시 높은 곳에 반사되며; 피조물 본성과 잠재성에 대한 살아있는 어떤 묘사가, 연방우주 본부에 섬광처럼 전해진다. 그래서 검열관들은, 식별자들을 수단으로 해서, 공간 세계들에서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영이” 지금까지 태어났는지 충분히 인식한다.

28:5.22 (313.4) 필사적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너희 세계에서 거룩한 영이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살빙톤의 어머니 영이 너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너에 대한 영의 지식에 관해서 제2스랍 분별자들이 영과 함께 반사할 때마다, 신성한 영이 너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각 유효하다. 아무튼, 아버지 단편들의 지식과 계획은 반사될 수 없음이 명시돼야만 할 것이다. 분별자는 조율사가 현존함을 반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그리고 검열관들은 조율사가 신성하다고 선언하지만), 신비

관찰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해독할 수는 없다.

6.3차 제2스라빔

28:6.1 (313.5) 이 천사들은 동료들과 같은 방법으로, 연속으로 그리고 반사하는 일곱 유형으로 창조되지만, 연방우주 경영자들의 분리된 봉사에 이 유형이 개별적으로 배정되지는 않는다.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들에게 3차 제2스라빔 전체가 집단으로 배정되고, 상승한 이 아들들은 3차 제2스라빔을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데;즉, 강력한 사자들은 3차 유형 가운데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며, 그들의 협조자인 권세 높은 이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들도 그렇게 한다. 이 일곱 유형의 3차 제2스라빔은 이렇다:

28:6.2 (314.1) 1. *기원의 중요성.* 연방우주 정부의 상승한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에게는, 어떤 개인이나 인종 또는 세계가 기원{起源}됨으로 생기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책임이 부과돼 있으며;기원의 중요성은, 그 영역의 살아있는 피조물을 시공우주에서 진보시키려는 우리의 전체 계획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다. 윤리의 모든 관계와

적용은, 기원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서 생겨난다. 관계에 대해 하나님들이 반응하는 기준은 기원이다. 공동 행위자는 항상 “그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알아차린다.”

28:6.3 (314.2) 하강하는 고등 존재의 경우에, 기원은 단순히 확인돼야 할 어떤 사실에 불과하지만;천사 가운데 하위 계층을 포함하여, 상승하는 존재의 경우에, 기원의 본질과 환경은 우주 직무가 변화되는 거의 모든 순간마다 똑같이 지극히 중요하지만, 항상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따라서 중앙우주에서 또는 한 연방우주의 전체 영역에 두루, 어떤 존재든지 그 발생에 관해 무엇이 요구되든지 즉시 설명할 수 있는, 일련의 반사하는 제2스라빔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쓸모 있다.

28:6.4 (314.3) 기원의 중요성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거주하는 방대한 무리의 존재가--곧 사람, 천사, 및 기타 존재들이--즉석에서_참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계보다. 그들은 각 연방우주에 속한 어떤 세계든지, 거기 있는 모든 개인의 실제 현재 상태와 조상 요소들에 대한, 최신의, 충분한, 그리고 믿을만한 평가서를 상관에게 제공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며;보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다.

28:6.5 (314.4) 2. *자비의 기억*. 이들은, 기원의 중요성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낸 바와 같이, 그 영역의 상태에 정의의 응보를 적용하는 사명을 띤 무한한 영의 대행기관들이, 섬세한 보살핌으로 개인과 인종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펼쳤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이고 충분하며 충만한, 살아있는 기록이다. 자비의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립한, 구원{救援}하도록 예비된 자들의 자산에 대조항목으로 적어놓게 될, 자비를 받은 자녀의 도덕적 채무를--곧 그들의 영적 부채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선재{先在}하는 자비를 드러낼 때, 누구나 생존하도록 보장할 만큼 넉넉한 신용한도{信用限度}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기원의 중요성들의 조사에 따라서, 자비의 신용한도, 즉 신성한 시민권을 정말로 바라는 각각의 혼의 생존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비 및 충분한 비율의 신용한도가, 각 이성적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 확립된다.

28:6.6 (314.5)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試算表}, 즉 그 영역의 초자연적 무리에 대한 너의 계정의 현재 대차대조표다. 끝나지 않은 생애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가 판결 받게 될 때, 이들은 우버사의 법정의 증언으로 발표되는 자비 사역의 살아있는 기록인데, 그때에는 “보좌들이 세워지고 태고 항존자들이 권좌에 앉는다. 우버사의 방송이 그들 앞에서 반포되고 제시되며; 수천 명이 그들에게 수종들고, 수억 명이 그들 앞에 선다.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런 중대한 행사에서 열려 있는 책들은, 연방우주의 3차 제2스라빔이라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필요하다면, 자비의 기억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이 정리 보관돼 있다.

28:6.7 (314.6)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받음으로 확립된 외상대금을, 제3 근원 및 중심의 끈기 있는 인격체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보살핌으로 완전하고 충실하게 지불했다는 것을, 자비의 기억이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나 자비가 다 소모되면, 자비가 고갈됐음을 자비의 “기억”이 입증하면, 응보가 압도하고 정의가 판결한다. 자비를 비웃는 자들에게는 억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자비는 시간세계에서 끈질기게 반영하는 자들에게 짓밟혀도 괜찮은 그런 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비가 이렇게 귀중하고 비싸게 증여되지만, 네가 진지한 목적과 정직한 마음만 갖는다면, 너 개인의 인출 신용한도는, 너의 역량이 그 한도를 도저히 초과할 수 없을 만큼 항상 크게 허락돼 있다.

28:6.8 (315.1) 베푼 자비를 반영하는 자들은, 3차 동역자들과 함께, 상승하는 피조물의 훈련을 포함해 수많은 연방우주 사역에 참여한다. 많은 다른 것 가운데, 기원의 중요성들은 이 상승자들에게 영 윤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르치고, 그런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정말로 자비롭게 되는지를, 자비의 기억들이 그들에게 가르친다. 자비로 보살피는 영 기법이 너희의 개념을 벗어나지만, 성장시키는 특성이 자비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라도 이해해야만 한다. 처음에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는 공평하고, 그 위에 인내하고, 그 위에 친절하 데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 위에서 너희가 선택하고, 선택한 그것을 너희 마음 속에 간직한다면, 너희는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정말로 자비를 보여줄 수 있지만;자비를 그 자체로 보여줄

수는 없다. 이 단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며;그렇지 않으면
참된 자비가 있을 수 없다. 후원이나 생색{生色} 또는
자선이--심지어 연민의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자비는
아니다. 집단을 이해함, 서로 존중함, 우애로운 교제, 영적
친교, 및 신성한 조화가 있고 나서, 이에 부속되어, 오직
앞에서 언급한 것들의 뛰어난 절정으로서, 참된 자비가 올
수 있다.

28:6.9 (315.2) 3. *시간의 취지*. 시간은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의 보편적 기증품이며;모든 지성
존재에게 위임된 "한 달란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의
생존을 보증할만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방치됨으로써
시간이 파문힐 때에만, 즉 너희 혼의 생존을 보증하도록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에만 치명적으로 낭비된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되지는 않으며;다만 상승하는 여행에서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지체시킬 뿐이다. 생존이
획득된다면, 다른 모든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28:6.10 (315.3) 책임 있는 임무배정을 받을 때, 시간의 취지
위원회는 매우 귀중하다. 시간은 하보나와 낙원의 이쪽

편에 있는 모든 것에서 치명적인 요소다. 태고 항존자들 앞에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 시간은 증거물의 한 요소다. 시간의 취지는, 결정하고 선택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모든 피고인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을 해야만 한다.

28:6.11 (315.4)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기도 하며;어떤 이행업무든지 그것을 완성하기에 필요할 시간 요소를 묘사하며, 살아있는 다른 계층인 후랜달랭크들 및 크로놀덱들이 그러한 것처럼, 지표{指標}로서 믿을만하다. 하나님들은 미리 보고, 따라서 미리 알지만;시간세계 우주들의 상승 당국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의 취지와 상의해야만 한다.

28:6.12 (315.5)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이 존재들과 처음 만나게 될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그것의 적극적 이용인 업무와, 그것의 소극적 활용인 휴식이라는 양쪽 면에서, 너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것의 유익한 활용에 대해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시간의 양쪽 활용이 다 중요하다.

28:6.13 (315.6) 4. *신용의 엄숙함*. 신용은, 의지를 지닌 피조물에 대한 결정적 시험이다. 신뢰도{信賴度}가, 자아_극복,

성품에 대한 참된 측정이다. 이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조직체에서 이중 목적을 성취하는데: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에게, 신용이 책무이고 신성시되며 엄숙하다는
뜻을 묘사한다. 동시에 그들은, 믿을만하거나 신뢰할만한
어떤 후보자든지, 그의 정확한 신뢰도를, 지배하는
권세자들에게 정확하게 반사한다.

28:6.14 (316.1) 유란시아의 경우에, 너희는 성품을 파악하고
특유한 재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스꽝스럽게
시도해보지만, 우버사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을
완전하게 처리한다. 이 제2스라빔은 정확하게 특성을
평가하는 살아있는 치수로 신뢰도를 재며, 그들이 너를 다
검사한 후에, 책임을 이행하고 신임 받고 사명을
완수할만한 너의 역량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너의 신뢰도라는 자산은,
태만하거나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너의 부채 바로
옆에 분명하게 제시된다.

28:6.15 (316.2) 이 추가된 책임을 너의 성품이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는 속도에 맞춰서, 더 많은
책임을 맡도록 너를 승진시키는 것이 네 상관들의

계획이지만,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일은 오직 재난을 초래하고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그리고 사람 또는 천사에게 시기상조로 책임을 감당케 하는 실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인의 신용 수용력을 평가할 때 오류가 없는 이 평가자들의 사역을 활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이 제2스라빔은 권세 높은 이들을 항상 대동하며, 이 행정관들은, 후보자가 제2스랍 저울에 달리고 “모자람이 없다”고 선언될 때까지 임무배정을 결코 하지 않는다.

28:6.16 (316.3) 5. *봉사의 고결함*. 신뢰할만하다고 발표되면,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따라온다. 너 자신의 신뢰도의 부족, 즉 네가 신뢰의 엄숙함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외에는, 네가 더 증진된 봉사를 할 기회를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28:6.17 (316.4) 봉사는--곧 굴종적이 아닌, 의도적인 봉사는--가장 고상한 만족감이 생기게 하고, 가장 신성한 존엄성을 나타낸다. 봉사는--곧 더 많은 봉사, 증가된 봉사, 어려운 봉사, 모험적인 봉사, 그리고 마침내는 신성하고 완전한 봉사는-- 시간의 목표이고 공간의 목적지다. 그러나 한때의 휴식 주기와 진보하는 봉사 주기가 항상 교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때의 봉사를 한 후에는 영원한 초월봉사가 따라온다. 너희가 영원한 봉사를 하는 동안 한때의 휴식을 추억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한때의 휴식을 하는 동안 영원한 활동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28:6.18 (316.5) 우주의 조직체는 받아들임과 내보냄에 기초하며; 영원한 생애 내내, 너희는 활동 없는 단조로움 또는 인격체가 활기를 잃는 일을 결코 겪지 않을 것이다. 타고난 움직임이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발전은 신성한 실행 능력에서 생겨나며, 성취는 상상하는 모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성취 능력에는 윤리를 지키는 책임이 내재하는데, 세계와 우주가 수많은 다른 유형의 존재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는 데 필요하다. *너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장엄한 창조물 전체는, 너희를 위해서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우주는 자기중심적인 우주가 아니다. 하나님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선언해 오셨고, 너희의 으뜸 아들은, “너희 가운데 가장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다.

28:6.19 (316.6) 어떤 봉사든지 그 실제 본성은, 천사가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봉사의 척도인 이 제2스라빔, 즉 봉사의

고결함들 면전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진실에 대한, 그리고 숨겨진 동기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 천사들은 정말로 우주에 속한 정신을 읽는 자, 심정을 탐구하는 자, 그리고 혼을 드러내는 자다. 필사자들은 자신의 사고{思考}를 감추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지만, 이 높은 제2스라빔은 인간의 심정 그리고 천사의 정신 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노출시킨다.

28:6.20 (317.1) 6과 7. 위대함의 비결과 선함의 혼.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시간의 취지를 자각하고 나서, 신뢰의 엄숙함을 깨닫고 봉사의 고결함을 인식하도록 그 길이 준비돼 있다. 이것들이 위대함의 도덕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위대하게 되는 비결도 또한 있다. 위대함을 측정하는 영적 시험이 적용될 때, 도덕적 요소는 무시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이 세상 동료, 특히 빈궁하고 고뇌 속에 있는 귀중한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욕 없이 수고할 때 나타나는 비이기주의 특성, 그것이 행성에서 위대함을 재는 실질적인 척도다. 그리고 유란시아 같은 세계에서는, 자기_통제를 나타내는 것이 곧 위대함의 징후다. 위대한 사람은 "한 도시를 장악하거나" "한 국가를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혀를 굴복시키는" 자다.

28:6.21 (317.2) 위대함은 신성{神性}과 비슷한 말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고 선하시다. *위대함과 선함은 정말로 떼어놓을 수 없다.* 위대함과 선함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가 된다. 위대함의 비결과 선함의 혼이 서로 반사해서 의존하는 것이, 이 진리를 글자 그대로 그리고 현저하게 설명하는데, 어느 한 편도 다른 편 없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의 다른 특성을 반사할 때, 연방우주 제2스라빔은 홀로 활동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위대함과 선함의 반사 측정치는 분리될 수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어떤 세계에서든지, 어떤 우주에서든지, 위대함에 대한 그리고 선함에 대한 이 반사자들은 함께 일해야만 되는데,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각 존재에 대한 이중적 및 상호 의존적 보고서를 항상 제시한다. 위대함은 선함의 내용을 모르고는 측정될 수 없는 한편, 본래부터 갖고 있는 신성한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고는 선함의 정도를 묘사할 수 없다.

28:6.22 (317.3) 위대함에 대한 측정은 구체마다 다르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함의 질{質}은 전적으로 선함의 내용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너의 현재 인간 정황에서도, 네가 은혜를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면, 너는 그렇게 됨으로써 위대하게 돼가고 있다. 네가 신성한 선함의 개념을 확고하게 더 바라볼수록, 그리고 더 끈질기게 추구할수록, 너는 더욱 확실히 위대해지고, 진정한 생존하는 성품이 참으로 고결해질 것이다.

7. 제2스라빔의 사역

28:7.1 (317.4)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수도에서 기원되고 거기에 본부를 두지만, 연락하는 동료들과 함께 낙원 기슭부터 공간 진화 세계들까지 돌아다닌다. 그들은 연방정부 심의회 구성원들에게 귀중한 보좌관으로서 봉사하며, 우버사의 우대 거류민, 즉:별 연구자, 천 년 마다 다니는 여행자, 천상의 관찰자, 그리고 하보나로 운송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승하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기타 존재들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태고 항존자들은, 우버사 주변을 도는 490개 연구 세계에 거주하는 상승하는 피조물을 보좌하기 위해, 어떤 1차 제2스라빔을 배정하기를 기뻐하며, 또한 여기서는 2차 및 3차 계층 가운데 다수가 선생으로 봉사한다. 이 우버사 위성들은 시간세계 우주들에서 마무리하는 학교인데, 하보나의 일곱_회로에 있는 대학을 위한 준비 과정을 제공한다.

28:7.2 (317.5) 세 계층의 제2스라빔 가운데, 상승 당국에 배속된 3차 집단은,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을 가장 광범하게 돌본다. 너희가 오르본톤의 기다리는 세계들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들의 봉사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유란시아에서 떠난 직후에 그들을 이따금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우버사 학교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께 충분히 사귀게 될 때, 그들과 갖는 동무관계를 즐기게 될 것이다.

28:7.3 (318.1) 이 3차 제2스라빔은 시간_절약자, 공간 단축자, 오류 탐지자, 충실한 선생, 그리고 큰 혼란과 영적 불확실성의 순간에 불안에 떠는 순례자들의 발을 거기서 인도하기 위해, 시간의 교차로에 놓인 자비 안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다--신성한 확실성에 대한 살아있는 길잡이다. 너희는 완전성 입구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신성한 도구에 접근하고, 신격 기법과 접촉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처음 맨션 세계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너희가 낙원으로 운반되도록 하보나 수면{睡眠} 예비 상태 속에서 눈을 감게 될 때까지, 너희는 이 놀라운 존재들의 응급 도움을 점점 더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 존재들은 완전성의 문을 향해서 오랫동안 여행하는 도중에 너희를

앞장서 온, 안전하고 의존할만한 순례자들의 분명한 지식과 확실한 지혜에 대해,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반사하는 자들이다.

28:7.4 (318.2) 유란시아에서 이 반사 계층의 천사들을 활용하는 충분한 특권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너희 세계를 자주 방문하는데, 배정된 인격체들을 대동하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 이 구체는 여전히 부분적인 영적 격리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봉사에 필연적인 회로 가운데 일부는 지금 여기에 없다. 너희 세계가 관련된 반사 회로에 한 번 더 복귀할 때, 행성 간 및 우주 간 소통을 이루는 활동 대부분은 크게 단순화되고 촉진될 것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의 일꾼들은, 반사하는 동역자들의 이 기능적 단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존재들, 즉 시간세계의 현존 투사자{投射者}와 공간에 있는 살아있는 거울들의 봉사 가운데 다수를 국지적으로 뺏겼음에도, 손에 쥔 방편들을 갖고 우리 직무를 계속 기쁘게 처리한다.

28:7.5 (318.3) [우버사의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29편 우주 동력 지휘자

29:0.1 (319.1) 행성 간 문제와 우주 간 직무 규제에 관여하는 모든 우주 인격체 가운데, 동력 지휘자 및 그 동역자들이 유란시아에 가장 적게 알려졌다. 너희 인종들이 천사 및 그와 비슷한 천상의 존재 계층들의 실존을 오래 전부터 알았지만, 물리적 범위의 통제관 및 조정자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수받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도, 총괄우주에서 힘 통제와 에너지 규제에 관여해야만 되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마지막 존재에 대해서만 충분히 밝히도록 내게 허용됐다:

29:0.2 (319.2) 1.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29:0.3 (319.3) 2. 초월적인 부{副} 총괄 힘 조직가.

29:0.4 (319.4) 3. 우주 동력 지휘자.

29:0.5 (319.5) 다양한 집단의 우주 동력 지휘자, 중심, 및 통제관들의 개성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활동 범위에 관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기 바란다. 그들은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에 대한 지능적 규제에 관여해야만 하는 독특한

집단의 살아있는 존재다. 그들은 최고 지휘자들까지 합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부서를 포함한다:

29:0.6 (319.6) 1.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

29:0.7 (319.7) 2. 최고 동력 중심.

29:0.8 (319.8) 3. 총괄 물리 통제관.

29:0.9 (319.9) 4.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29:0.10 (319.10) 최고 동력 지휘자 및 중심들은 거의 영원 전부터 실존해 왔고, 우리가 아는 한, 이 계층의 존재는 더 이상 창조되지 않았다. 일곱 으뜸 영이 일곱 최고 지휘자를 인격화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부모와 공동으로 수고하여 100억 명 넘는 동역자를 생산했다. 동력 지휘자 시대 이전에는, 중앙우주 바깥에 있는 공간 에너지 회로들이 낙원 으뜸 세력 조직가들의 지능적 감독 아래 있었다.

29:0.11 (319.11) 물질 피조물에 관한 지식이 있으므로, 너희는 적어도 영적 존재들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동력 지휘자들을 상상하기는 필사 정신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희는 높은 실존 수준을 향한 상승 진보

기획에서 최고 지휘자 또는 동력 중심들 중에서 어느 쪽과도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드문 경우에 물리 통제관들과 관계하게 될 것이며, 맨션 세계에 도달할 때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지방 창조계의 모론시아 체제에서만 독자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우주와 관계되는 장{章}에서 그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1.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

29:1.1 (320.1)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는 광우주의 물리적_에너지를 조절하는 자다. 일곱 으뜸 영이 그들을 창조한 것은, 참된 영 조상에서 약간물질 자손이 도출된 것을 처음으로 기록한 경우다. 일곱 으뜸 영이 개별로 창조할 때, 천사 계층에서 높은 영적 인격체들을 산출하며;집단으로 창조할 때, 때로 높은 유형의 이 약간물질 존재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 유사{類似}_물질 존재조차 유란시아 필사자의 짧은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29:1.2 (320.2) 최고 동력 지휘자는 일곱 명이고, 모습과 기능에서 동일하다. 각자 직접 관련된 으뜸 영에게 완전히 기능적으로 종속되며, 이 으뜸 영 외에는, 아무도 어느 하나와 다른 하나를 구별할 수 없다. 으뜸 영 각자는 자신의 집단 자손 가운데 하나와 그렇게 영원히 합동돼 있다. 같은 지휘자는 같은 영과 항상 연합하며, 그들의 일하는 동업관계는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 약간물리적 존재와 영 인격체의 독특한 연합이 생기게 한다.

29:1.3 (320.3)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는 낙원 주변지역에 주둔하는데, 거기서 서서히 회전하는 그들의 현존이 으뜸 영들의 힘_초점{焦點} 본부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 동력 지휘자들은 연방우주들의 동력_에너지를 규제할 때에는 단독으로 작용하지만, 중앙 창조물을 경영{經營}할 때에는 집단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낙원에서 운용되지만, 광우주 전체 부서들에서는 효과적인 동력 중심으로서 자신을 유지한다.

29:1.4 (320.4) 이 강력한 존재들은, 방대한 무리의 동력 중심, 그리고 이 중심들을 통해서, 일곱 연방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물리 통제관들의 물리적 조상이다.

물리적으로_통제하는 그런 종속된 유기체들은 기본적으로 균일한데, 각 연방우주 단체의 특이한 색조 외에는 똑같다. 연방우주 봉사를 바꾸는 경우에, 그들은 다시 색조를 띄기 위해 낙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물리적 창조는 경영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최고 동력 중심

29:2.1 (320.5)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지만, 집단으로 일곱 으뜸 영과 연합해서, 자신을 닮은 다른 존재들을 재생산할 수 있고--즉 창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광우주의 최고 동력 중심들이 그렇게 기원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29:2.2 (320.6) 1. 최고 중심 감독관.

29:2.3 (320.7) 2. 하보나 중심.

29:2.4 (320.8) 3. 연방우주 중심.

29:2.5 (320.9) 4. 지방우주 중심.

29:2.6 (320.10) 5. 성좌 중심.

29:2.7 (320.11) 6. 체계 중심.

29:2.8 (320.12)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29:2.9 (321.1) 이 동력 중심들은, 최고 동력 지휘자들과 함께, 높은 의지의 자유를 갖고 실행하는 존재다. 그들은 모두 제3_근원 인격체를 부여받았고, 높은 계층의 명백한 자발적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우주 동력 체계를 지휘하는 이 중심들은 절묘한 지성 재능을 지니며;광우주 동력 체계를 다루는 지적{知的} 존재이고, 총괄 물리 통제관 및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광범위한 기능의 광대한 연결망 전체를 정신으로 통제하는 기법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다.

29:2.10 (321.2) 1. *최고 중심 감독관*. 최고 동력 지휘자들의 이 일곱 협조자 및 동역자들은 광우주의 주요 에너지 회로들을 규제한다. 각 중심 감독관은 일곱 최상급 행정관의 특별한 세계 가운데 하나에 본부를 두며, 그들은 광우주 직무를 조정하는 이 존재들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면서 활동한다.

29:2.11 (321.3) 최고 동력 지휘자와 최고 중심 감독관들은, “인력 에너지” 수준 아래 있는 모든 시공우주 현상에 관해,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으로 작용한다. 접촉하면서 행동할 때 14명의 이 존재와 우주 동력의 관계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일반 우주 직무의 관계, 그리고 일곱 으뜸 영과 시공우주 정신의 관계와 같다.

29:2.12 (321.4) 2. *하보나 중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이 창조되기 전에, 동력 중심들이 하보나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아주_먼 이 시간 후로 줄곧, 100만 명이 중앙 창조물에서 작용해 왔는데, 각 중심은 하보나 세계 1,000개를 감독한다. 여기 신성한 우주에는, 에너지 통제가 완전한데, 이 상태는 다른 데서 실존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전체 동력 중심들, 그리고 공간에 있는 물리 통제관들의 궁극 목표다.

29:2.13 (321.5) 3. *연방우주 중심*. 일곱 연방우주의 각 수도 구체에서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3차 계층의 1,000개 동력 중심이다. 분리된 10개의 1차 에너지의 세 흐름이 각각 이 동력 중심들로 들어오지만, 불완전하게 통제되더라도 특화되고 잘_방향 잡힌 일곱 동력 회로는,

결합해서 작동하는 자체 위치로부터 나아간다. 이것은 우주 동력의 전자{電子} 조직체다.

29:2.14 (321.6) 모든 에너지는 낙원 주기에 따라서 순환되지만,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하부 낙원 힘_에너지가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의 공간 기능 속에서 변경된 것을 발견하는 대로 이 에너지를 지휘하는데, 유익하고 건설적으로 적용하는 경로로 바꾸고 지휘한다. 하보나 에너지와 연방우주 에너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연방우주의 동력 축적량은 세 국면의 에너지로 구성돼 있고, 각 국면은 10개의 분리집단으로 이뤄진다. 이 삼중 에너지 전하{電荷}는 광우주 공간에 두루 퍼져 있으며;그것은 일곱 연방창조물 각각을 모두 빨아들이고 적시는, 움직이는 광대한 에너지 대양{大洋}과 같다.

29:2.15 (321.7) 우주 동력의 전자{電子} 조직은 일곱 국면으로 작용하며, 국지 인력, 즉 직선 인력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이 칠중 회로는, 연방우주 동력 중심들로부터 나가서, 각 연방창조물에 널리 퍼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그런 특화된 흐름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시작되고 관리되는, 한정적이고 국지화 된 에너지 운동인데, 대서양

한가운데에 제한된 현상으로서 멕시코 만류가 작용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29:2.16 (321.8) 4. *지방우주 중심*. 각 지방우주 본부에는, 넷째 계층에 해당하는 100명의 동력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연방우주 본부에서 발산하는 일곱 동력 회로를 낮추고 달리 변경시키기 위해 작용하는데, 그리하여 성좌와 체계들의 봉사에 이 회로들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공간의 국지적 천문 이변은, 이 동력 중심들에게는 일시적 관심거리이며; 그들은 부속된 성좌들 및 체계들에게 효과적 에너지를 순서대로 보내는 일에 종사한다. 그들은 우주를 조직하고 에너지를 동원하는 후기 시대 동안, 창조주 아들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 중심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중요한 지점들 사이에, 행성 간 소통을 위해 유용한 증강된 에너지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에너지 *통로* 또는 *계통*은, 때로 에너지 경로라고 불리는데, 한 동력 중심에서 다른 동력 중심으로, 또는 한 물리 통제관으로부터 다른 통제관에게로 가는, 직통 에너지 회로다. 이 회로는 개별화된 동력 흐름이며, 분리되지 않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간 운동과 대조된다.

29:2.17 (322.1)

5. *성좌 중심*. 살아있는 이 동력 중심 열 명이 각 성좌에 주둔하는데, 100개의 종속 지역 체계에 에너지를 투사하는 자로서 작용한다. 통신과 운송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물리적 에너지의 특정한 형태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그 피조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동력선{動力線}들이 이 존재들로부터 나간다. 그러나 동력 중심뿐 아니라 종속된 물리 통제관도, 기능적 조직인 생명체에는 달리 관여하지 않는다.

29:2.18 (322.2)

6. *체계 중심*. 한 명의 최고 동력 중심이 각 지역 체계에 영구적으로 배정돼 있다. 이 체계 중심들은, 시간과 공간의 인간거주 세계들에 동력 회로를 보낸다. 그들은 종속된 물리 통제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체계에서 동력의 만족스런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작용한다. 행성 간 회로의 중계는, 어떤 물질 에너지를 완전하게 조정하고, 물리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달려있다.

29:2.19 (322.3)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이들은 인간거주 행성이 아니라 특별한 국지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중심이다. 개별 세계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들

체계의 동력 중심이 보낸, 회로화 된 동력 계통을 받는다. 가장 색다른 에너지 관계에 속한 구체들만이, 우주 평형 원동력 또는 에너지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일곱째 계층의 동력 중심들을 갖는다. 이 동력 중심들은, 모든 활동 국면마다 높은 통제 단위들에서 작용하는 자들과 완전히 똑같지만, 100만 개 가운데 어느 한 천체도 그런 살아있는 동력 조직을 품고 있지 않다.

3. 동력 중심의 영역

29:3.1 (322.4) 연방우주들 전반에 퍼져 있는 최고 동력 중심의 숫자는, 그 동역자 및 부하들을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다. 그들은 모두, 낙원에 있는 선조, 즉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들과 완전한 동시성 및 완비된 접촉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광우주의 동력 통제는,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를 창조한 일곱 으뜸 영의 보호와 지도에 맡겨져 있다.

29:3.2 (322.5) 최고 동력 지휘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 보좌관, 및 부하들은 모두, 언제까지나, 전체 공간의 모든 법정의 체포 또는 간섭으로부터 영원히 면제돼 있으며;뿐만 아니라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우주 정부, 또는 창조주 아들들의 지방우주 경영에 속한 경영 지시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29:3.3 (323.1) 무한한 영의 자녀들이 이 동력 중심 및 지휘자들을 생기게 한다. 그들은 물리적 우주 조직의 후기 시절 동안 창조주 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력 중심들은, 어떤 면에서, 지존하신 분의 시공우주 전면통제와 긴밀하게 연합돼 있다.

29:3.4 (323.2)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은 훈련받지 않으며;그들은 모두 완전하게 창조됐고,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결코 한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옮기지 않으며;원래 배정된 대로 항상 봉사한다. 그들의 직급에는 진화가 없으며, 이것은 두 계층의 일곱 부서 전체에도 해당된다.

29:3.5 (323.3) 기억 속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상승한 과거가 없으므로,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은 결코 장난치지 않으며;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서 완전히 사무적이다. 그들은 항상 근무하며;우주의 짜임새에는 물리 계통의 에너지 중단에 대비하는 준비가 없으며;이 존재들은,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 회로들에 대한 자신의 직접 감독을, 1초의 몇 분의 1이라도 중단할 수 없다.

29:3.6 (323.4) 동력 지휘자, 동력 중심, 및 동력 통제관들은, 동력, 즉 물질 에너지 또는 약간물리적 에너지 이외에, 모든 창조물에 있는 어느 것에도 관여하지 않으며;그들은 동력을 기원시키지는 않지만, 동력을 변경시키고 조종하고 방향 잡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리적 인력의 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것 외에는, 그 인력과 아무 상관없다. 인력에 대한 그들의 관계는 저항하는 것 밖에 없다.

29:3.7 (323.5) 동력 중심들은, 분리된 다양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살아있는 장치들과 접촉함으로써, 물질 계층의 방대한 장치 및 협조를 활용한다. 각각의 개별 동력 중심은, 정확하게 100만 단위{單位}의 기능 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주요 기관들처럼, 에너지를_변경하는 이 단위들은 고정돼 있지 않으며;동력을 규제하는, 이 "주요 기관들"은 유동적이고 연합 가능성에서 정말로 변화무쌍하다.

29:3.8 (323.6) 살아있는 이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 에너지의 주요 회로들을 조종하고 규제하는지, 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 거대하고 거의 완전하게 능률적인 동력 중심들의 규모와 역할에 관해서 너희에게

더 알려주려고 시도하면, 오직 너희에게 혼돈을 더해주고 더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시에 “인격있는” 존재이지만, 너희는 이들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29:3.9 (323.7) 하보나 바깥에서는, 최고 동력 중심들이 오직 특별하게 건축된 (건축양식의) 구체 또는 달리 적절하게 건축된 천체에서만 작용한다. 건축양식 세계들은, 공간 에너지가 이 구체들 위에 쏟아 부어지는 동안, 살아있는 동력 중심들이 그 에너지를 방향잡고 변경시키고 집중시키는 선택적 개폐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평범한 항성 또는 행성에서는 그렇게 작용할 수 없다. 어떤 집단들은 특별한 이 본부 세계들을 가열시키는 일과 기타 물질적 필요에도 관여한다. 유란시아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나는 열을 내지 않고 빛나는 빛을 골고루 뿌리는 일에, 이 계층의 살아있는 동력 인격체들이 많이 관여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은 이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빛의 보급과 방향설정에 관여한다.

29:3.10 (323.8) 동력 중심들 및 그 부하 통제관들은, 조직된 공간의 물리적 에너지 전체를 작동하는 데 배정된다.

그들은 각각 열 가지 에너지로 이뤄진, 세 개의 기본 흐름을 갖고 일한다. 그것이 조직된 공간의 에너지 축적량이며;조직된 공간은 그것들의 세력범위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현재 경계선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세력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다.

29:3.11 (324.1) 동력 중심 및 통제관들은, 각 기본 우주 흐름에 포함된 열 가지 에너지 형태 가운데 오직 일곱 가지에 대해서만 완전한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그들의 통제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제외된 형태는, 무조건 절대자가 지배하는 에너지 형태화의 예측 불가능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이 절대자의 원초적 세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런 기능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물리 통제관들이 우주 절대자의 어떤 자극에 대해 때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견해를 보장할만한 미약한 증거가 약간 있다.

29:3.12 (324.2) 살아있는 이 동력 장치들은, 무조건 절대자가 총괄우주의 에너지를 전면통제하는 데 의식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체적이고 거의 완전한 동력 지시 기획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이 초월_인력

현존에 종속돼 있다고 추측한다. 어떤 국지적 에너지 상황에서든지, 그 중심과 통제관들은 지배권을 거의 발휘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절대자의 초월에너지의 현존과 인식 불가능한 실행을 항상 의식한다.

4. 총괄 물리 통제관

29:4.1 (324.3) 이 존재들은 최고 동력 중심들의 기동력 있는 부하다. 물리 통제관들은, 괄목할만하게 다양한 자동_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의 개체성 변질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단독 사자의 비행{飛行}에 가까운 속도로 국지적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모든 공간 횡단자와 마찬가지로, 물질 구체에서 떠나갈 때 관성 저항과 인력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들의 도움 및 다른 특정한 존재 유형들의 도움, 양쪽 다 필요로 한다.

29:4.2 (324.4)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광우주에서 두루 봉사한다.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가 낙원으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직접 통치하며;여기서부터, 평형 위원회, 즉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의 요원으로부터 일곱 으뜸 영이 파견하는 고위 동력 위원들이 그들을 지휘하고 배분한다. 이 고위{高位} 위원들은 연방우주 전체의

동력의 압력과 에너지 축적량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기계인, 으뜸 후랜달랭크들의 학식과 등록사항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9:4.3 (324.5) 낙원 신격들의 현존이 광우주를 에워싸고 영원성 궤도 사방을 둘러싸지만, 일곱 으뜸 영 가운데 어느 하나의 영향은 단일 연방우주에 제한된다. 각각의 일곱 연방창조물 사이에는, 뚜렷이 에너지가 격리되고 동력 회로들이 분리되며;따라서 개별화 된 통제 방법이 지배해야만 하고, 지배하고 있다.

29:4.4 (324.6)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최고 동력 중심들의 직계 자손이며, 그들의 총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29:4.5 (324.7) 1. 부{副} 동력 지휘자.

29:4.6 (324.8) 2. 기계적 통제관.

29:4.7 (324.9) 3. 에너지 변형가.

29:4.8 (325.1) 4. 에너지 발송자.

29:4.9 (325.2) 5. 1차 연합자.

29:4.10 (325.3) 6. 2차 분리자.

29:4.11 (325.4) 7. 후랜달랭크 및 크로놀덱.

29:4.12 (325.5) 개별적인 선택 능력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계층들이 모두 인격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특히 마지막 네 존재는, 상관{上官}들의 충동에 대해 반응함에서, 그리고 실존하는 에너지 조건들에 대해 반응함에서 전적으로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반응이 전적으로 기계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는 않으며; 자동장치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각자 특이한 지능 작용을 나타낸다.

29:4.13 (325.6) 인격체가 반드시 정신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하등 동물의 경우처럼, 그리고 특정한 이 하위 물리 통제관의 경우처럼, 모든 선택 능력을 빼앗겼을 때에도 정신은 생각할 수 있다. 더 자동적인 이 물리적 동력 조정자 가운데 다수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인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의지와 독립 결정권을 부여받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과제를 위한, 기계적으로 완전한 설계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는 매우 지성적인 존재다.

29:4.14 (325.7)

물리 통제관들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초 에너지를 조정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알려지지 않은 이 에너지들은, 행성 간 운송 체계에, 그리고 특정한 소통 기법에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가 소리에 상응하는 것을 전달하거나 상상력을 확장하는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 계통을 설립할 때, 살아있는 물리 통제관들 및 그 동역자들이, 발견되지 않은 이 에너지 형식을 활용한다. 또한 가끔 중도 피조물이 일상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바로 이 에너지를 활용한다.

29:4.15 (325.8)

1. 부{副} 동력 지휘자. 영역들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 상태의 계속_바뀌는 필요성에 따라서, 모든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을 배정하고 파견하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유능한 이 존재들에게 맡겨진다. 물리 통제관의 방대한 예비군이 소구역 본부 세계에 유지되고 있으며, 부{副} 동력 지휘자들이 그들을 이 집결 지점으로부터, 우주, 성좌, 및 체계의 본부로, 그리고 개별 행성으로 주기적으로 파견한다. 그렇게 배정될 때, 물리 통제관들은 조정 위원회의 신성한 집행인{執行人}들의 명령에 일시적으로 복종하지만, 그 외에는 그들의 부{副}

지휘자들에게만 그리고 최고 동력 중심들에게만 복종한다.

29:4.16 (325.9) 3백만 명의 부{副} 동력 지휘자가 각각의 오르본톤 소구역에 배정돼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다재다능한 이 존재를 연방우주에 할당받은 숫자는 총 30억에 달한다. 그들 자체의 예비군이 바로 이 여러 소구역 세계에 유지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지성 에너지 통제 및 변형 기법의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존재의 교관으로서 봉사하기도 한다.

29:4.17 (325.10) 이 지휘자들은, 소구역에서 행정 봉사를 하는 기간과, 공간 영역들을 검사하는 근무 기간을, 똑같은 길이로 번갈아 보낸다. 적어도 한 명의 대리 검사자가 각 지역 체계에 항상 현존하는데, 그 수도 구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들은, 방대한 살아있는 에너지 집합체 전체가 조화로운 동시성을 이루도록 유지시킨다.

29:4.18 (325.11) 2. *기계적 통제관*. 이들은 부{副} 동력 지휘자들의 보좌관인데, 대단히 재능이 많고 기동력이 있다. 수 조{兆}에 달하는 그들이 너희 소구역 엔사에 임명돼 있다. 이 존재들을 기계적 통제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완전하게 상관의 지배를 받고, 부{副} 동력 지휘자들의 뜻에 그토록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은 매우 지성적이며, 그들의 업무는 기계적이고, 본성적으로 단조로움에도 숨씨 있게 수행된다.

29:4.19 (326.1) 인간거주 세계들에 배정된 전체 총괄 물리 통제관 중에서, 기계적 통제관들이 가장 월등하게 능력 있다. 활기찬 반{反}_인력 재능을 다른 모든 존재보다 더 소유하기 때문에, 각 통제관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대한 구체들만이 필적할 수 있는 인력 저항을 지닌다. 이 통제관 가운데 열 명이 현재 유란시아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행성 활동 가운데 하나는, 스랍 운반체들이 쉽게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용할 때, 스랍의 출발을 위한 최초 추진력을 1,000명의 에너지 전송자 부대가 제공하는 동안, 열 명의 기계적 통제관 전체가 하나로 행동한다.

29:4.20 (326.2) 기계적 통제관들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고, 특화된 흐름 또는 회로 안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조장하기에 충분하다. 이 강력한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의 분리와 방향설정 및 강화{強化}에, 그리고 행성 간 회로들의 압력을 균등화시키는 일에 많이 작용한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동력 축적량을 구성하는, 공간의 30개 물리적 에너지 중에서 21개를 조종하는 데 전문가다. 그들은 또한, 9가지 물리적 에너지의 더욱 미묘한 형태들 중에서 여섯 가지를 훨씬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 통제관들을,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동력 중심들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적 관계에 배치함으로써, 부{副} 동력 지휘자들은, 동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통제하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9:4.21 (326.3)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종종, 수백, 수천, 그리고 심지어 수백만에 이르는 부대를 이뤄서 활동하고 자신의 위치와 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개별 수용력뿐 아니라 집단으로도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요구조건이 변할 때, 에너지 양과 운동을 증폭시키고 가속시키거나, 또는 에너지 흐름을 억류하고 응축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 그들은 소위 촉매제가 화학 반응을 증대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에너지와 동력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천적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최고 동력 중심들과 협동해서 작용한다.

29:4.22 (326.4) 3. *에너지 변형가*. 연방우주에 있는 이 존재의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타니아에만도 거의 100만 명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할당되는 숫자는 각 인간거주 세계마다 100명이다.

29:4.23 (326.5) 에너지 변형가들은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와 일곱 중앙 감독관의 공동 창조물이다. 그들은 더 뚜렷이 인격있는 물리 통제관 체제 가운데 있으며, 부{副} 동력 지휘자가 인간거주 세계에 현존할 때 외에는 변형가들이 지휘한다. 그들은 떠나가는 스랍 운송체들 전체에 대한 행성 검열관이다. 모든 계층의 천상{天上} 생명체는 부{副} 지휘자 및 에너지 변형가들 중에서 더 뚜렷이 인격있는 계층과 접촉함으로써만, 물리 통제관들의 비교적 덜 인격있는 계층을 활용할 수 있다.

29:4.24 (326.6) 이 변형가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살아있는 개폐기{開閉器}인데, 주어진 동력 배치나 방향설정을 따르도록, 또는 저항하도록 자신을 배분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거대한 행성 및 별들의 이웃 사이를 지나가는 강력한

에너지 흐름에 대해 행성을 절연시키려고 애쓰는 데
숙달돼 있다. 그들의 에너지_변화 속성이 우주의 에너지
균형 또는 동력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에서 그들을
가장 쓸모 있게 만든다. 한때는 그들이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축적하는 것처럼 보였으며;다른 때에는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해방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변형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에너지와 죽은
에너지를 “저장하는_축전기” 잠재력을 증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물리적 및
약간물질적 에너지와 관계하는데, 생명의 범위에서는
직접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형체를 바꾸지도 않는다.

29:4.25 (327.1)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약간물질 피조물
중에서, 에너지 변형가들이 가장 괄목할만하고 신비로운
존재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물질 분화를
이루고, 자신의 접촉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연합된 현존을 통과해 지나가는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리적 영역의 상태는, 그들의 노련한 조종으로
변형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공간 에너지의 물리적
형체를 변형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그들은 동료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방우주 동력 축적량의 30개 물리적 에너지 가운데 27개의 형체 및 잠재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 그들이 이 에너지 중에서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무조건 절대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29:4.26 (327.2) 나머지 네 집단의 총괄 물리 통제관은, 그 단어의 어떤 용납할만한 정의{定義}로도 도저히 인격자라고 할 수 없다. 이 송신자, 연합자, 분리자, 및 후랜달랭크들은, 반응할 때 전적으로 자동적이며;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지성적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실재들에 대한 우리 지식에서 크게 제한돼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듯하지만, 반응할 능력은 전혀 없다.

29:4.27 (327.3) 4. *에너지 발송자*. 이 존재들은,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행성 간 수용력 내에서 작용한다. 그들은, 에너지가 개별 세계에 나타나다시피, 놀라운 에너지 발송자다.

29:4.28 (327.4) 에너지가 새로운 회로로 전환될 때, 발송자들은 바람직한 에너지 경로를 따라서 한 줄로 자신을 배치하며, 에너지_흡인이라는 그들의 독특한 속성 덕분에, 원하는 방향에서 증가된 에너지 흐름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 흐름에 대해 어떤 금속 회로들이 방향 잡는 것과 아주 똑같이 그렇게 하며;30가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리적 에너지 형태에 대해 활기찬 초전도체{超傳導體}다.

29:4.29 (327.5) 발송자들은, 행성에서 행성으로, 그리고 어떤 개별 행성에서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특화된 에너지의 약해지는 흐름을 복구시키기에 효과적인, 노련한 접촉을 형성한다. 그들은 너무 약해서 다른 유형의 살아있는 존재가 인식할 수 없는 흐름도 감지할 수 있으며, 이 에너지를 증대시켜서, 담겨있는 메시지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의 봉사는 방송 수신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29:4.30 (327.6) 에너지 발송자들은, 통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지각을 이용할 수 있으며;멀리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지역 체계에, 그리고 개별 행성에 응급 통신선을 제공한다. 정식으로 설립된 회로들의 바깥쪽과 소통할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피조물이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이용해야만 한다.

29:4.31 (327.7) 이 존재들은, 에너지 변환자들과 함께, 희박한 대기{大氣}를 가진 세계들에서 필사자의 실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숨을 쉬지 않는 행성 생명 기법에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29:4.32 (328.1) 5. 1차 연합자. 흥미롭고 매우 귀중한 이 실재들은 훌륭한 에너지 보존자 및 관리자다. 행성이 항성의 빛을 저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있는 이 유기체들은 양극{陽極}을 나타내는 시기 동안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들은 거대한 규모로 일하는데, 공간 에너지를,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들은 또한 물질 실존의 원시 단위 가운데 어떤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 변형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단순히 참여함으로써 작용한다. 그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이 기능으로 고갈되거나 비워지지 않으며;살아있는 촉매처럼 작용한다.

29:4.33 (328.2) 음극{陰極}을 나타내는 시기 동안, 그들은 축적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너희의 지식은, 그들의 업무의 이 국면에 해당하는 기법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보돼 있지 않다. 그들은 항상 우주 법칙에 순응해서 일하는데, 동일한 알파벳 글자로 방대하게 다른 이야기를 엮도록 만들기 위해 너희가 조절할 수 있는 활자를 처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원자, 전자, 및 궁극체를 다루고 조종한다.

29:4.34 (328.3) 연합자들은, 조직화하는 물리적 구체에 처음 나타나는 생명 집단이며, 너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전혀 실존할 수 없다고 간주할만한 물리적 온도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 범위를 초월하는 생명체 계층을 대표한다. 그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분리자들과 함께, 그들은 모든 지성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창성이 없다.

29:4.35 (328.4) 6. 2차 분리자. 1차 연합자와 비교하면, 거대한 반인력{反引力} 재능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역전시키는 일꾼이다. 지역 세계 또는 지역 체계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특별하거나 변경된 형태들이 다 소모될 어떤 위험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이 조직들이 끝없는 에너지 공급을 이끌어내는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는 에너지 형태를, 그보다 덜 인식된 물질 형태로부터 이끌어내는 일에 주로 관여한다. 그들은 정말로 공간의 연금술사이며, 시간세계의 경이로운 일꾼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이적{異蹟}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시공우주 지존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29:4.36 (328.5) 7. *후랜달랭크*. 이 존재들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세 계층의 존재, 즉: 1차 및 2차 힘 조직가와 동력 지휘자들 전체의 공동 창조물이다. 후랜달랭크들은 전체 총괄 물리 통제관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으며; 사타니아에서 활동하는 숫자만 해도 너희의 숫자 개념을 벗어난다. 그들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에 머물며, 물리 통제관 중에서 높은 계층에 항상 배속돼 있다. 그들은 중앙 및 연방우주에서, 그리고 외부 공간 영토들에서 서로 교환하여 작용할 수 있다.

29:4.37 (328.6) 후랜달랭크들은 기초 우주 세력의 각 형태마다 하나씩 30개 부서로 창조되며, 살아있고 자동적인 현존,

압력, 그리고 속도 계량기로서 독자적으로 작용한다. 살아있는 이 척도{尺度}는, 모든 형태의 힘_에너지 상태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에만 관여한다. 그들은 방대한 반사성 장치가 정신소유 우주에 관계된 것처럼 물리적 우주에 관계된다. 양적 및 질적 에너지 현존을 등록하고 그 위에 시간도 등록한 후랜달랭크를 *크로놀덱*이라고 부른다.

29:4.38 (328.7) 나는 후랜달랭크들이 지성적임을 인식하지만, 그들을 살아있는 기계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 살아있는 이 기계장치들을 너희가 이해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지성체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너희 자신이 만든 기계 장치에 그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존재들을 상상하게 된다면, 정확성을 훨씬 더 섬세하게 갖고, 오히려 극도의 정밀성을 갖고,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는 더 까다로운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지성적이고 *살아있는* 기계장치들을(실체들을) 우리가 실제로 광우주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너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

5. 총괄 힘 조직가

29:5.1 (329.1) 힘 조직가들은 낙원에 거주하지만, 총괄우주 전역에서 작용하는데, 더 특별하게는 조직화되지 않은 공간 영역들에서 작용한다. 이 비범한 존재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며, 두 가지 주요 봉사 부서를 포함한다:

29:5.2 (329.2) 1.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29:5.3 (329.3) 2.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

29:5.4 (329.4) 원시_세력을 조종하는 강력한 이 두 계층은,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감독 아래서 독자적으로 일하며, 현재 광우주 경계선 안에서 광범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29:5.5 (329.5)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은, 무조건 절대자의 원시 공간_세력, 즉 기본 공간_세력을 조종하는 자이며;성운 창조자다. 그들은 공간 에너지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선동가이며, 이 거대한 형태화를 초기에 조직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자다. 이 힘 조직가들은 원시/세력을(낙원의 직접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 미완{未完}_에너지를) 1차 에너지 곧 유력 에너지로

변질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이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자의 독자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낙원 섬의 인력에 지배되도록 변질된다. 그 결과로 부 힘 조직가들이 그들을 대신하는데, 이 조직가들은 1차 단계로부터 2차 곧 인력_에너지 단계를 거쳐서 에너지 변질 과정을 계속한다.

29:5.6 (329.6) 지방우주 창조를 위한 계획이 완성되면, 부 총괄 힘 조직가들은, 창조주 아들이 도착함에 따라 신호를 받고, 천문 사법권을 갖는 연방우주에서 활동하는 동력 지휘자들 계층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도 그들이 외부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부{副} 힘 조직가들이 이 물리 창조계를 무기한 책임진다.

29:5.7 (329.7) 총괄 힘 조직가들은, 오르본톤의 다재다능한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도 참을 수 없는 물리적 환경 아래서, 온도를 견디며 작용한다. 외부 공간의 이런 영역에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계시된 존재는, 단독 사자 및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뿐이다.

29:5.8 (329.8)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권세로 활동하는 우주 검열관이 후원했음]

제30편 광우주의 인격체

30:0.1 (330.1) 낙원에서, 그리고 광우주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인격체 및 인격적이지_않은 실재는, 거의 무한한 숫자의 살아있는 존재를 구성한다. 무수한 하위유형 및 변종은 말할 것도 없이, 주요 계층 및 유형의 숫자만으로도, 인간이 상상하기에 현기증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튼, 두 가지 기본 등급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것을--곧 낙원 분류에 대한 암시와 우버사 인격체 등록부의 개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0.2 (330.2) 광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적으로 일관된 분류표를 작성하기는 불가능한데, 그 집단들이 *모두* 계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집단을 조직적으로 분류하기에 요구되는 더 많은 계시를 다루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추가 문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개념 확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계시된 이 개념들이 주는 자극, 창조적 추측을 일으키는 자극을, 다음 1,000년 동안, 생각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뺏을지도 모른다. 과도한 계시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상상력을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낙원 분류

30:1.1 (330.3) 낙원에서는, 낙원 신격들에 대한 선천적 관계 및 달성된 관계에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분류된다.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들의 고위급 회합이 있는 동안에 출석한 자들은 종종, 기원에 따라서:즉 삼자일체 기원에 속하거나 삼위일체 달성에 속한 자;이중 기원에 속한 자;그리고 단일 기원에 속한 자로 분류된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낙원 분류를 필사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허락 받았다:

30:1.2 (330.4) 하나{I}. **삼자일체에서_기원되는 존재**. 낙원 신격 세 분 모두가, 세 분으로서든지 또는 삼위일체로서든지 창조한 존재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삼위일체처럼된 단체들인데, 이 단체들은, 그 명칭이 게시됐든지 게시되지 않았든지, 삼자일체된 모든 집단의 존재를 가리킨다.

30:1.3 (330.5) A. **최상급 영**.

30:1.4 (330.6) 1. **일곱 으뜸 영**.

30:1.5 (330.7)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30:1.6 (330.8) 3. **일곱 계층의 반사하는 영**.

30:1.7 (330.9) B. 삼위일체 상비 아들.

30:1.8 (330.10)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30:1.9 (330.11) 2. 영원 항존자.

30:1.10 (330.12) 3. 태고 항존자.

30:1.11 (330.13) 4. 완성 항존자.

30:1.12 (331.1) 5. 최근 항존자.

30:1.13 (331.2) 6. 합동 항존자.

30:1.14 (331.3) 7. 충실 항존자.

30:1.15 (331.4) 8. 지혜 완성자.

30:1.16 (331.5) 9. 신성한 조연자.

30:1.17 (331.6) 10. 우주 검열관.

30:1.18 (331.7) C.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와 삼위일체처럼된
존재.

30:1.19 (331.8) 1. 삼위일체 교사 아들.

30:1.20 (331.9) 2. 영감된 삼위일체 영.

30:1.21 (331.10) 3. 하보나 원주민.

30:1.22 (331.11) 4. 낙원 시민.

30:1.23 (331.12) 5.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

30:1.24 (331.13) 6. 신격의_삼위일체처럼된 계시되지 않은 존재.

30:1.25 (331.14) 7. 삼위일체처럼된 달성 아들.

30:1.26 (331.15) 8.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

30:1.27 (331.16) 9. 삼위일체처럼된 완전성 아들.

30:1.28 (331.17) 10. 피조물에서_삼위일체처럼된 아들.

30:1.29 (331.18) 둘{II}. **이중_기원 존재**.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두 분으로부터 기원되거나, 그밖에 낙원 신격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손 중에서 어느 두 존재가 창조한 존재들.

30:1.30 (331.19) A. **하강하는 계층**.

30:1.31 (331.20) 1. 창조주 아들.

30:1.32 (331.21) 2. 집정관 아들.

30:1.33 (331.22) 3. 빛나는 새벽별.

30:1.34 (331.23) 4. 아버지 멜기세덱.

30:1.35 (331.24) 5. 멜기세덱.

30:1.36 (331.25) 6. 보론다덱.

30:1.37 (331.26) 7. 라노난덱.

30:1.38 (331.27) 8. 찬란한 저녁별.

30:1.39 (331.28) 9. 천사장.

30:1.40 (331.29) 10. 생명 운반자.

30:1.41 (331.30) 11. 계시되지 않은 우주 조력자.

30:1.42 (331.31) 12.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30:1.43 (331.32) B. 상비{常備} 계층.

30:1.44 (331.33) 1. 어밴돈터.

30:1.45 (331.34) 2. 수사티아.

30:1.46 (331.35) 3. 유니비타시아.

30:1.47 (331.36) 4. 스피롱가.

30:1.48 (331.37) 5. 계시되지 않은 이중_기원 존재.

30:1.49 (331.38) C. 상승하는 계층.

30:1.50 (331.39) 1.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

30:1.51 (331.40) 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30:1.52 (331.41) 3. 영과_융합된 필사자.

30:1.53 (331.42) 4. 전환된 중도자.

30:1.54 (331.43) 5. 계시되지 않은 상승자.

30:1.55 (332.1) 셋{III}. **단일_기원 존재**. 낙원 신격들 가운데 어느 한 분으로부터 기원된 자들, 그렇지 않으면 낙원 신격들의 직접 또는 간접 자손인 어느 한 존재가 창조한 자들.

30:1.56 (332.2) A. 최상급 영.

30:1.57 (332.3) 1. 인력 사자.

30:1.58 (332.4) 2. 일곱 하보나 회로 영.

30:1.59 (332.5) 3. 12중 하보나 회로 보조체.

30:1.60 (332.6)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30:1.61 (332.7) 5. 우주 어머니 영.

30:1.62 (332.8) 6. 칠중 보조 정신_영.

30:1.63 (332.9) 7. 계시되지 않은 신격_기원 존재.

30:1.64 (332.10) B. 상승하는 계층.

30:1.65 (332.11) 1. 인격화된 조율사.

30:1.66 (332.12) 2. 상승하는 물질 아들.

30:1.67 (332.13) 3. 진화적 스라빔.

30:1.68 (332.14) 4. 진화적 체루빔.

30:1.69 (332.15) 5. 계시되지 않은 상승자.

30:1.70 (332.16) C. 무한한 영의 가족.

30:1.71 (332.17) 1. 단독 사자.

30:1.72 (332.18) 2. 우주 회로 감독관.

30:1.73 (332.19) 3. 인구조사 지휘자.

30:1.74 (332.20)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30:1.75 (332.21) 5. 부{副} 검사자.

30:1.76 (332.22) 6. 배정된 파수꾼.

30:1.77 (332.23) 7. 졸업생 안내자.

30:1.78 (332.24) 8. 하보나 하인.

30:1.79 (332.25) 9. 우주 화해자.

30:1.80 (332.26) 10. 모론시아 동무.

30:1.81 (332.27) 11. 최고스라빔.

30:1.82 (332.28) 12. 제2스라빔.

30:1.83 (332.29) 13. 제3스라빔.

30:1.84 (332.30) 14. 전{全}스라빔.

30:1.85 (332.31) 15. 스라빔.

30:1.86 (332.32) 16. 체루빔 및 사노빔.

30:1.87 (332.33) 17. 계시되지 않은 영_기원 존재.

30:1.88 (332.34) 18.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

30:1.89 (332.35) 19. 최고 동력 중심.

30:1.90 (332.36) 20. 총괄 물리 통제관.

30:1.91 (332.37) 21.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30:1.92 (332.38) 넷{IV}. **결말에 이른 초월 존재**.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까지 대개 그 기원이 밝혀지지 않는, 방대한 무리의 초월 존재가 낙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초월자들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며;신성과 궁극성과 영원성을 가진 **결말에 이른** 자녀다. 이 “결말에 이른 자들”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곧 그들은 **유한절대**이며;유한절대성은 무한성이 아니고 절대성도 아니다.

30:1.93 (333.1) 창조되지 않은 이 비창조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에게 늘 충성하고 궁극자에게 순종한다. 그들은 인격체 활동의 네 궁극 수준에서 실존하고, 일곱 유한절대 수준에서 활동하는데, 유한절대 수준은 12개의 광역 부서로, 광역 부서는 1,000개의 주요 활동 집단으로

이뤄지고, 각각 일곱 분과를 둔다. 결말에 이른 이 존재들은 다음의 계층을 포함한다:

30:1.94 (333.2) 1. 총괄우주 건축가.

30:1.95 (333.3) 2. 초월 기록원.

30:1.96 (333.4) 3. 다른 초월자.

30:1.97 (333.5) 4.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

30:1.98 (333.6) 5.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

30:1.99 (333.7) 하나님은, 초월인격자로서 결말에
이르며;하나님은, 인격자로서 창조하며;하나님은,
선{先}인격자로서 부분화 하며;그의 그런 조율사 단편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어버이다운 행동으로 인해 그런
필사 피조물에게 증여된 인격체의 자유 의지적 선택에
따라, 물질 및 필사 정신 위에서 영혼이 자라게 한다.

30:1.100 (333.8) 다섯{V}. **신격의 부분화된 실재**. 살아있는 실존인
이 계층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유래하는데, 사고
조율사가 가장 잘 예시하며, 그럼에도 이 실재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이전{人格以前} 실체의 유일한

단편은 결코 아니다. 조율사_이외의 단편들의 기능은 다양하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율사 또는 그런 다른 단편과 융합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아버지와_융합된 존재*가 되게 한다.

30:1.101 (333.9) 아버지 단편들에는 전혀 비교될 수 없음에도,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이전{精神以前} 영의 단편들이 여기에 기록돼야 할 것이다. 그런 실재들은 조율사와는 매우 많이 다르며;그들은 스피리팅톤에 그렇게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_인력 회로를 그렇게 횡단하지도 않으며;또한 육신 속에서 사는 생애 동안, 필사 피조물 속에 거주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조율사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인격이전이 아니지만, 정신이전 영의 그런 단편들은 생존하는 특정한 필사자에게 증여되고, 그런 융합은,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와는 달리, 그들을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되게 한다.

30:1.102 (333.10)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것은 창조주 아들의 개별화된 영인데, 이 영과의 합동은 피조물을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가 되게 한다. 신격의 또 다른 단편들이 있다.

30:1.103 (333.11) 여섯{VI}. **인격을 초월한 존재.** 온갖 우주에는, 신성한 기원을 갖는, 그리고 다양하게 봉사하는, 인격적이지_않은 광대한 무리가 있다. 이 존재 가운데 더러는 아들의 낙원 세계들에 거주하며;더러는 영원한 아들의 초월 인격 대표자들처럼, 다른 데서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대체로 본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으며, **인격있는** 피조물에게 그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무익할 것이다.

30:1.104 (333.12) 일곱{VII}. **분류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계층.**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인격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존재를 현재 우주 시대에 관계된 분류표에 집어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며;또한 그런 범주들이 본 문서에 모두 계시되지도 않았으며;따라서 수많은 계층이 이 목록표에서 제외됐다. 다음을 고려해 보라:

30:1.105 (333.13) 우주 운명 성취자.

30:1.106 (333.14) 궁극자의 조건적 대리인.

30:1.107 (334.1)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

30:1.108 (334.2) 태고 항존자들의 계시되지 않은 창조적 대행기관.

30:1.109 (334.3) 낙원의 위엄자{威嚴者}.

30:1.110 (334.4) 위엄자의 이름 없는 반사성형성자 연락원.

30:1.111 (334.5) 지방우주들의 중간유한절대 계층.

30:1.112 (334.6) 여기에 밝혀진 것처럼, 이들 가운데 아무도 낙원 분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이 계층들이 함께 열거된 목록표에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분류되지 않은 소수이며;너희는 계시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서 아직 배운 바 없다.

30:1.113 (334.7) 영들, 즉:영 실재, 영 현존, 인격있는 영, 인격이전 영, 인격을 초월한 영, 영 실존, 영 인격체들이 있다--그러나 필사자의 언어도 필사자의 지능도 적당치 못하다. 아무튼 우리는, "순전한 정신"에서 생겨난 인격체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영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실재도 인격체를 가질 수 없다. 영적 에너지 또는 물리적 에너지와 연합되지 않은 어떤 정신 실재든지,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나 정신을 소유한 인격체들이 있다는 동일한 의미에서 볼 때, 영을 소유한 정신 인격체들이 있다. 위엄자와 그 동역자들은, 정신이 지배하는 존재의 상당히

좋은 예이지만,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인격체 유형에 대한 더 나은 실례{實例}가 있다. 정신 인격체 같은, 전부 계시되지 않은 계층도 있지만, 그들은 항상 영과 연합돼 있다. 계시되지 않은 어떤 다른 피조물은, 정신_에너지 인격체 및 물리_에너지 인격체로 명명될만한 어떤 존재들이다. 이 유형의 존재는 영 인력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참된 인격체다--아버지의 회로 안에 있다.

30:1.114 (334.8) 본 문서들은, 시간세계에 뻗뻗한 우주들과 영원한 중앙우주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며 경배하는, 살아있는 피조물, 창조자들, 결말에 이른 자들, 그리고 또_다른_실존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규명하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할 수 없다. 너희 필사자는 인격자이며;따라서 우리가 인격화 된 존재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유한절대화된 존재를 어떻게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2. 우버사 인격체 등록

30:2.1 (334.9) 신성한 가족의 살아있는 존재들은 크게 일곱 부서로 우버사에 등록돼 있다:

30:2.2 (334.10) 1. 낙원 신격.

30:2.3 (334.11) 2. 최상급 영.

30:2.4 (334.12) 3.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

30:2.5 (334.13) 4. 하나님의 아들.

30:2.6 (334.14) 5. 무한한 영의 인격체.

30:2.7 (334.15) 6. 우주 동력 지휘자.

30:2.8 (334.16) 7. 영원한 시민권의 단체.

30:2.9 (334.17) 의지를 지닌 이 피조물 집단들은, 수많은 계층과 작은 하위부서로 나뉘어 있다. 광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이 분류를 제시하는 것은, 본 문서들에서 게시된 계층의 지성 존재들을 진술하는 일에 주로 관여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이 낙원으로 진보해 올라가면서 상승 체험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목록은, 필사자 승천 기획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대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0:2.10 (335.1) 하나{I}. **낙원 신격.**

30:2.11 (335.2) 1. 만유의 아버지.

30:2.12 (335.3) 2. 영원한 아들.

30:2.13 (335.4) 3. 무한한 영.

30:2.14 (335.5) 둘{II}. **최상급 영.**

30:2.15 (335.6) 1. 일곱 으뜸 영.

30:2.16 (335.7) 2. 일곱 최상급 행정관.

30:2.17 (335.8) 3. 일곱 집단의 반사하는 영들.

30:2.18 (335.9) 4. 반사하는 형상 조력자.

30:2.19 (335.10) 5. 일곱 회로 영.

30:2.20 (335.11) 6. 지방우주 창조적 영.

30:2.21 (335.12) 7. 보조 정신_영.

30:2.22 (335.13) 셋{III}.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존재.**

30:2.23 (335.14) 1. 삼위일체처럼된 지존성 비밀.

30:2.24 (335.15) 2. 영원 항존자.

30:2.25 (335.16) 3. 태고 항존자.

30:2.26 (335.17) 4. 완성 항존자.

30:2.27 (335.18) 5. 최근 항존자.

30:2.28 (335.19) 6. 합동 항존자.

30:2.29 (335.20) 7. 충실 항존자.

30:2.30 (335.21) 8. 삼위일체 교사 아들.

30:2.31 (335.22) 9. 지혜 완성자.

30:2.32 (335.23) 10. 신성한 조연자.

30:2.33 (335.24) 11. 우주 검열관.

30:2.34 (335.25) 12. 영감된 삼위일체 영.

30:2.35 (335.26) 13. 하보나 원주민.

30:2.36 (335.27) 14. 낙원 시민.

30:2.37 (335.28) 넷{IV}. **하나님의 아들.**

30:2.38 (335.29) A. **하강하는 아들.**

30:2.39 (335.30) 1. 창조주 아들--미가엘.

30:2.40 (335.31) 2. 집정관 아들--아보날.

30:2.41 (335.32)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데이날.

30:2.42 (335.33) 4. 멜기세덱 아들.

30:2.43 (335.34) 5. 보론다덱 아들.

30:2.44 (335.35) 6. 라노난덱 아들.

30:2.45 (335.36) 7. 생명 운반자 아들.

30:2.46 (335.37) B. *상승하는 아들.*

30:2.47 (335.38) 1.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30:2.48 (335.39) 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30:2.49 (335.40) 3. 영과_융합된 필사자.

30:2.50 (335.41) 4. 진화적 스라빔.

30:2.51 (335.42) 5. 상승하는 물질 아들.

30:2.52 (335.43) 6. 전환된 중도자.

30:2.53 (335.44) 7. 인격화된 조율사.

30:2.54 (336.1) C.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30:2.55 (336.2) 1. 강력한 사자.

30:2.56 (336.3) 2. 권세 높은 이.

30:2.57 (336.4) 3.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

30:2.58 (336.5) 4. 삼위일체처럼된 관리인.

30:2.59 (336.6) 5. 삼위일체처럼된 대사.

30:2.60 (336.7) 6. 천상의 수호자.

30:2.61 (336.8) 7. 고등 아들 보좌관.

30:2.62 (336.9) 8. 삼위일체처럼된_상승자 아들.

30:2.63 (336.10) 9. 삼위일체처럼된_낙원_하보나 아들.

30:2.64 (336.11) 10. 삼위일체처럼된 운명의 아들.

30:2.65 (336.12) 다섯{V}. **무한한 영의 인격체.**

30:2.66 (336.13) A.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

30:2.67 (336.14) 1. 단독 사자.

30:2.68 (336.15) 2. 우주 회로 감독관.

30:2.69 (336.16) 3. 인구조사 지휘자.

30:2.70 (336.17) 4.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30:2.71 (336.18) 5. 부{副} 검사자.

30:2.72 (336.19) 6. 배정된 파수꾼.

30:2.73 (336.20) 7. 졸업생 안내자.

30:2.74 (336.21) B. *공간의 사자 군대.*

30:2.75 (336.22) 1. 하보나 하인.

30:2.76 (336.23) 2. 우주 화해자.

30:2.77 (336.24) 3. 법해석 고문.

30:2.78 (336.25) 4. 낙원에 있는 기록 관리인.

30:2.79 (336.26) 5. 천상의 기록원.

30:2.80 (336.27) 6. 모론시아 동무.

30:2.81 (336.28) 7. 낙원 동무.

30:2.82 (336.29) C. 돌보는 영.

30:2.83 (336.30) 1. 최고스라빔.

30:2.84 (336.31) 2. 제2스라빔.

30:2.85 (336.32) 3. 제3스라빔.

30:2.86 (336.33) 4. 전{全}스라빔.

30:2.87 (336.34) 5. 스라빔.

30:2.88 (336.35) 6. 체루빔 및 사노빔.

30:2.89 (336.36) 7. 중도자.

30:2.90 (336.37) 여섯{VI}. 우주 동력 지휘자.

30:2.91 (336.38) A. 일곱 지존 동력 지휘자.

30:2.92 (336.39) B. 최고 동력 중심.

30:2.93 (336.40) 1. 최고 중심 간독관.

30:2.94 (336.41) 2. 하보나 중심.

30:2.95 (336.42) 3. 연방우주 중심.

30:2.96 (336.43) 4. 지방우주 중심.

30:2.97 (336.44) 5. 성좌 중심.

30:2.98 (336.45) 6. 체계 중심.

30:2.99 (336.46) 7. 분류되지 않은 중심.

30:2.100 (337.1) C. 총괄 물리 통제관.

30:2.101 (337.2) 1. 부{副} 동력 지휘자.

30:2.102 (337.3) 2. 기계적 통제관.

30:2.103 (337.4) 3. 에너지 변환자.

30:2.104 (337.5) 4. 에너지 전송자.

30:2.105 (337.6) 5. 1차 연합자.

30:2.106 (337.7) 6. 2차 분리자.

30:2.107 (337.8) 7. 후랜달랭크 및 크로놀덱.

30:2.108 (337.9) D.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30:2.109 (337.10) 1. 회로 조절가.

30:2.110 (337.11) 2. 체계 조정자.

30:2.111 (337.12) 3. 행성 관리인.

30:2.112 (337.13) 4. 혼합된 통제관.

30:2.113 (337.14) 5. 접촉 안정가.

30:2.114 (337.15) 6. 선택적 분류자.

30:2.115 (337.16) 7. 부{副} 등록관.

30:2.116 (337.17) 일곱{VII}. *영구 시민권 단체.*

30:2.117 (337.18) 1. 행성 중도자.

30:2.118 (337.19) 2. 체계의 아담 아들.

30:2.119 (337.20) 3. 성좌 유니비타티아.

30:2.120 (337.21) 4. 지방우주 수사티아.

30:2.121 (337.22) 5. 영과_융합된 지방우주 필사자.

30:2.122 (337.23) 6. 연방우주 어밴돈터.

30:2.123 (337.24) 7. 아들과_융합된 연방우주 필사자.

30:2.124 (337.25) 8. 하보나 원주민.

30:2.125 (337.26) 9. 영의 낙원 구체 원주민.

30:2.126 (337.27) 10. 아버지의 낙원 원주민.

30:2.127 (337.28) 11. 낙원의 창조된 시민.

30:2.128 (337.29) 12. 조울사와_융합된 낙원 필사자 시민.

30:2.129 (337.30) 이것이 우버사 본부 세계의 기록에 있는, 여러 우주의 인격체들에 대한 실무 분류다.

30:2.130 (337.31) **혼합 인격체 집단.** 우버사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집단의 지성 존재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 역시 광우주의 조직과 경영에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그런 계층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혼합 인격체 집단이 있다:

30:2.131 (337.32) A. **낙원 완결성취 단체.**

30:2.132 (337.33) 1.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

30:2.133 (337.34) 2. 낙원 완결성취자 단체.

30:2.134 (337.35) 3.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

30:2.135 (337.36) 4.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

30:2.136 (337.37) 5.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

30:2.137 (337.38) 6.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

30:2.138 (337.39)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 단체.

30:2.139 (337.40) 필사 완결성취 단체는, 다음에 이어지는, 1부의
마지막 문서에서 취급된다.

30:2.140 (338.1) B. 우주 조력자.

30:2.141 (338.2) 1. 빛나는 새벽별.

30:2.142 (338.3) 2. 찬란한 저녁별.

30:2.143 (338.4) 3. 천사장.

30:2.144 (338.5) 4. 지고{至高} 보좌관.

30:2.145 (338.6) 5. 고등 위원.

30:2.146 (338.7) 6. 천상의 감독자.

30:2.147 (338.8) 7. 맨션세계 교사.

30:2.148 (338.9)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모든 본부 세계에서는, 지방우주 통치자인 창조주 아들을 위해 특별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 이 존재들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이 우주 조력자들을 우버사에서 맞이하지만, 그들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그런 밀사{密使}들은 창조주 아들들의 권세 아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관찰 업무를 이행한다. 그들의 활동은 너희 지방우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더 충분히 설명된다.

30:2.149 (338.10) C. 일곱 우대 거류민.

30:2.150 (338.11) 1. 별 연구자.

30:2.151 (338.12) 2. 천상의 기능공.

30:2.152 (338.13) 3. 회상 지휘자.

30:2.153 (338.14) 4. 연장_학교 교관.

30:2.154 (338.15) 5. 다양한 예비 단체.

30:2.155 (338.16) 6. 연구원 방문자.

30:2.156 (338.17) 7. 상승하는 순례자.

30:2.157 (338.18) 이 일곱 집단의 존재는, 지역 체계들로부터 연방우주 수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후자{後者}에서, 모든 본부 세계에서 그렇게 조직되고 통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 연방우주 수도는 거의 모든 부류와 계층의 지성 존재가 모이는 장소다. 수많은 집단의 낙원_하보나 주민은 제외하고, 의지를 지닌 실존하는 각 단계의 피조물을 여기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

3. 우대 거류민

30:3.1 (338.19) 일곱 우대 거류민은, 자신의 사명을 추진하고 자신의 특별 임무를 이행하면서, 길거나 짧게 여러 건축양식 구체에 머문다. 그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0:3.2 (338.20) 1. *별 연구자들은*, 천상의 천문학자인데, 우버사 같은 구체에서 활동하기로 선택하며, 특별히 건축된 그런 세계가 그들의 관측과 계산에 현저하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버사는 이 거류민의 활동에 유리한 상태에 있는데,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만 아니라, 살아있거나 죽은 거대한 항성들이 에너지 흐름을 교란시킬 만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자들은 연방우주

직무와 어떤 면에서도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으며;손님일 뿐이다.

30:3.3 (338.21) 우버사의 천문{天文} 거류민은, 근처에 있는 여러 영역으로부터, 즉 중앙우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노라티아덱으로부터 오는 개체들을 포함한다. 어느 우주의 어느 체계의 어느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별 연구자가 될 수 있는데, 천상의 어떤 천문학자 단체에 가담하기를 바랄 수 있다. 유일한 필요조건은:생애를 계속하는 것과,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 대한, 특히 진화와 통제라는 물리 법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다. 별 연구자들은 이 단체에서 영구히 봉사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지만, 이 집단에 가입한 자는 누구든지 우버사 시간으로 1,000년 내에는 그만 둘 수 없다.

30:3.4 (339.1) 우버사의 별_관찰자 거류민은 지금 100만 명 이상이다. 더러는 비교적 긴 기간 머물기는 하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 그들은 수많은 기계 도구와 물리 장치의 도움을 얻어서 일을 수행하며;또한 단독 사자 및 기타 영 탐험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 이 천상의 천문학자들은, 별 연구와 공간

측량을 하는 업무에서, 살아있는 에너지 변환자 및 전송자 뿐만 아니라 반사 인격체들을 계속 활용한다. 그들은 공간 물질과 에너지 형태화의 모든 형체와 국면 전부를 연구하고, 별들의 현상만큼 세력의 작용에도 똑같이 관여하며;전체 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면밀한 조사를 피할 수 없다.

30:3.5 (339.2) 비슷한 천문학자 거류민이, 연방우주 구역 본부뿐 아니라, 지방우주들 및 그 경영 하위부서의 건축양식 수도에서도 발견되게 돼 있다. 낙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은 선천적이지 않으며;물리적 우주에 대한 이해는 주로 관찰과 연구에 의존한다.

30:3.6 (339.3) 2. *천상의 기능공*들은 일곱 연방우주 전역에서 봉사한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생애에서 이 집단들과 처음 접촉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기능공들이 더 충분하게 논의될 것이다.

30:3.7 (339.4) 3. *회상{回想}* 지휘자들은 휴양과 유머를 증진시키는--곧 과거의 기억으로 복귀시키는-- 자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상승 기획이 실용적으로 작동될 때, 특히 모론시아 변환 및 영 체험의 초기 국면

동안, 대단히 공헌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방우주의
필사자 생애에 관한 문서에 속한다.

30:3.8 (339.5) 4. *연장_학교 교관*. 상승하는 생애에서 다음
단계의 높은 거주 세계는, 교사들의 강력한 단체, 즉 그
구체의 진보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일종의 예비학교를
바로 아래 세계에 항상 유지하며;이것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의 한 국면이다. 이
학교들은, 즉 훈육과 시험에 대한 그들의 방법은,
유란시아에서 수행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다.

30:3.9 (339.6) 필사자 진보라는 전체 상승 계획의 특징은, 새로운
진리와 체험을 획득하자마자 다른 존재들에게 나눠주는
실습이다. 너희는, 진보의 척도에서 바로 너희 뒤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생으로서 봉사함으로, 낙원에 도달하는
오랜 학교생활을 일하면서 마칠 것이다.

30:3.10 (339.7) 5. *다양한 예비 단체*. 우리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광대한 존재의 예비군이, 우버사에 예비_단체
거류민으로 동원돼 있다. 우버사에는 이 거류민이 70개의
주요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비범한 인격체들과 어느 기간

함께 보내도록 자유 교육이 허용된다. 비슷한 일반 예비군이 살빙톤 및 기타 우주 수도에 유지되고 있으며;그들은 각자의 집단 지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활동 중인 봉사에 파견된다.

30:3.11 (339.8) 6. *연구원 방문자.* 온 우주로부터, 천상의 방문자들이 다양한 본부 세계들을 통해서 쏟아지듯 계속 들어온다. 개인 및 계층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 존재가, 관찰자, 교환 학생, 및 학생 도우미로서 우리에게 물려온다. 현재 우버사에는, 이 우대 거류지에 10억 명 이상의 인격자가 있다. 이 방문자 가운데 더러는 하루 머물 수 있고, 더러는 1년도 머물 수 있는데, 모두 자기 사명의 본질에 따라서 다르다. 이 거류민은, 창조주 인격체와 모론시아 필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의 우주 존재를 포함한다.

30:3.12 (340.1) 모론시아 필사자는,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 경계선 안에서만 학생 방문자가 된다. 그들은 영 신분을 달성한 후에만, 연방우주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다. 우리 방문자 거류민 가운데 꼭 절반이, "단기 체류자", 즉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오르본톤 수도를 방문하기 위해

머무는 존재로 구성돼 있다. 이 인격체들은 아마 우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어떤 기간의 휴식을--곧 임무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부우주를 여행하고 관찰하는 특권은, 상승하는 전체 존재의 생애 가운데 일부다. 여행하여 새로운 세계와 민족을 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지방우주,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를 통해서 낙원으로 올라가는 길고 다사한 상승 기간에 충분히 채워질 것이다.

30:3.13 (340.2) 7. *상승하는 순례자*.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자신의 낙원 진보와 관련해 다양한 봉사에 배정될 때, 다양한 본부 구체에서 우대 거류민으로 산다. 그런 집단들은 연방우주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동안, 주로 자치적이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진화 필사자와 상승하는 동역자들을 포함하는, 늘_변동하는 거류민이다.

4. 상승하는 필사자

30:4.1 (340.3) 낙원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자격을 얻을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 생존자들을 *상승하는 순례자*라고 부르는 한편, 이 진화 피조물은 본 문서들에 들어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상승하는 우주 생애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곱 단계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30:4.2 (340.4) 1. 행성 필사자.

30:4.3 (340.5) 2. 잠자는 생존자.

30:4.4 (340.6) 3. 맨션 세계 학생.

30:4.5 (340.7) 4. 모론시아 진보자.

30:4.6 (340.8) 5. 연방우주 피보호자.

30:4.7 (340.9) 6. 하보나 순례자.

30:4.8 (340.10) 7. 낙원 도착자.

30:4.9 (340.11) 다음 이야기는 조율사가_내주했던 필사자의 우주 생애를 보여준다. 아들과_융합된, 그리고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도, 이 생애 가운데 여러 부분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들에 속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걱정했는데, 그런 운명이 유란시아 인간 종족 전체에게 예상되기 때문이다.

30:4.10 (340.12)

1. **행성 필사자**. 필사자는 모두 상승 잠재력을 가진, 동물에서_기원된 진화 존재다. 기원과 본성 그리고 운명에서, 다양한 이 집단 및 유형의 인간은, 유란시아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각 세계의 인간 종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보살핌을 똑같이 받고,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들의 현존을 향유한다. 자연사{自然死} 이후에, 모든 유형의 상승자는 맨션 세계들에서 하나의 모론시아 가족으로서 사귄다.

30:4.11 (341.1)

2. **잠자는 생존자**. 개인 운명 수호자가 관리하는, 생존하는 신분을 갖는 모든 필사자는, 자연사의 문을 통과하고, 셋째 기간에 맨션 세계들에서 인격화한다. 승인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 수호자를 가질 만한 수준의 지성 숙련 및 영적 자질에 도달할 수 없었던 존재들은, 그렇게 즉시 직접 맨션 세계로 갈 수 없다. 생존하는 그런 혼들은, 새 시기, 즉 그 영역을 판결하고 그 시대의 출석점호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새 섭리시대의 심판 날까지, 무의식 수면 속에서 쉬어야만 하며, 이것은 전체 네바돈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 관례다. 미가엘 그리스도가 지구에서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고 높은 곳으로 상승했을 때, 그에 관해서, "그는 큰 무리의

사로잡힌 자들을 인도했다”고 언급됐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자들은, 아담 시대 이후 유란시아에서 주님의 부활 때까지, 잠자고 있던 생존자였다.

30:4.12 (341.2) 시간 경과를 잠자는 필사자들에게 아무 의미 없으며;그들은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있고, 자신의 휴식기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한 시대가 끝나면서 인격체가 재조립될 때, 5,000년 동안 잠자던 그들은 5일 쉰 자들과 전혀 차이 없이 다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생존자들은, 길든지 짧든지, 이 시간 자연 외에는, 죽음의 수면상태를 격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상승 체제를 통과해 지나간다.

30:4.13 (341.3) 이 섭리시대 계층의 세상 순례자들은, 지방우주 업무에서 모론시아 집단 활동을 위해 활용된다. 그런 거대한 집단을 동원하는 데는 큰 이점이 있는데;오랫동안 효과적 봉사를 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함께 둔다.

30:4.14 (341.4) 3. *맨션 세계 학생*. 맨션 세계들에서 다시 깨어나는, 생존하는 모든 필사자가 이 계통에 속한다.

30:4.15 (341.5) 필사자 육신이라는 물리적 몸은, 잠자는 생존자를
재조립한 몸의 일부분이 아니며;물리적 몸은 먼지로
돌아갔다. 임무배정 스라빔이 새로운 몸, 즉 모론시아
형체를 후원하는데, 이 몸은 불멸하는 혼을 위한, 그리고
돌아온 조울사가 내주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 운반체다.
조울사는 잠자는 생존자 정신의 영 이력서{履歷書}를
보관하는 존재다. 배정된 스라빔은, 생존하는 정체성을--
곧 불멸하는 혼을-- 그것이 진화를 마칠 때까지 보호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두 존재, 즉 조울사와 스라빔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인격체를 재결합시킬 때, 새로운
개체는 옛 인격체의 부활, 즉 그 혼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정체성이 생존한 것이다. 혼과 조울사의 그런 재결합은,
부활, 즉 인격체 요소들의 재조립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만;이것조차, 생존하는 *인격체*의 재출현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처리
사실을 아마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필사자
생존 계획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는 언젠가 그
진리를 체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30:4.16 (341.6)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일곱 세계에 필사자를
초기에 붙잡아두는 계획은, 오르본톤에서 거의

보편적이다. 약 1,000개의 인간거주 행성으로 구성된 각 지역 체계마다 일곱 맨션 세계가 있는데, 대개 체계 수도의 위성들 또는 하위위성들이다. 이 위성들은 상승하는 필사자 대부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세계다.

30:4.17 (341.7) 때로는 필사자 거주지에 속하는 모든 훈련 세계를 우주 “맨션들”이라고 부르며,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있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런 구체들을 암시했다. 여기서부터 줄곧, 맨션 세계 같은 일정한 집단의 구체들에서, 상승자들은 개별적으로 한 구체에서 다음 구체로, 생애의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진보하겠지만, 한 우주 연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보할 때에는 항상 학급 단위로 한다.

30:4.18 (342.1) 4. *모론시아 진보자*. 맨션 세계들로부터 위쪽으로, 체계, 성좌, 및 지방우주의 구체들을 통과하기까지, 필사자는 모론시아 진보자로 분류되며; 필사자 상승의 변환 구체들을 거쳐서 간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모론시아 세계 가운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진보할 때, 자신의 선생들과 연합하고, 자신보다 더 진보되거나 선배인

형제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정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30:4.19 (342.2) 모론시아 진보는, 지능, 영, 및 인격체 형태의 계속적인 승진과 관계있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3가지_본성을_갖는 존재다. 그들은 전체 모론시아 체험 내내, 지방우주의 피보호자다. 영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연방우주 체제는 작용하지 않는다.

30:4.20 (342.3) 필사자는, 연방우주 소구역에 있는 영접 세계들을 향해서 지방우주 본부를 떠나기 직전에, 참된 영 신분을 획득한다. 마지막 모론시아 단계로부터, 첫째 영 신분, 즉 가장 낮은 영 신분으로 지나가는 것은 보잘것없는 변화에 불과하다. 정신, 인격체, 및 성품은 그런 진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형태만 변경을 겪을 뿐이다. 그러나 영 형태는, 모론시아 본체와 똑같이 실제적이고, 똑같이 식별 가능하다.

30:4.21 (342.4) 그들이 태어난 지방우주로부터, 연방우주 영접 세계를 향해 떠나기 전에, 시간세계의 필사자는 영이 됐다는 확인을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 어머니 영으로부터 받는다. 이때부터 계속, 상승하는 필사자

신분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다. 연방우주 피보호자들은 타락했다고 알려진 적이 전혀 없었다. 상승하는 스라빔 역시, 지방우주로부터 떠날 때 천사 신분에서 승진한다.

30:4.22 (342.5) 5. *연방우주 피보호자*. 연방우주의 여러 훈련 세계에 도착하는 모든 상승자는 태고 항존자들의 피보호자가 되며;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생애를 다 거쳤고, 이제는 공인된 영이다. 그들은 어린 영으로서 연방우주의 훈련 및 문화{文化} 체계에서 상승을 시작하는데, 그 체계는 그들의 소구역 영접 구체로부터, 열 개의 대구역 연구 세계를 거쳐, 연방우주 본부의 비교적 높은 문화 구체까지 연장된다.

30:4.23 (342.6) 영이 진보하면서, 소구역, 대구역, 및 연방우주 본부에 그들이 머무는 것에 따라, 세 가지 계층의 학생 영이 있다. 모론시아 상승자가 지방우주 세계들에서 연구하고 활동했던 것처럼, 영 상승자는 지혜의 체험적 원천들에서 자신이 흡수해 왔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들을 계속 숙지해 간다. 그러나 연방우주 생애에서 영 존재로 학교에 가는 일은,

물질 정신을 가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들에 전에 들어갔던 어떤 경우와도 전혀 다르다.

30:4.24 (342.7) 상승하는 이 영들은, 하보나를 향해서 연방우주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지방우주 감독 하에 모론시아 체험을 하는 동안 받았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연방우주 관리 과정을 밟는다. 영 필사자들이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주요 연구는, 유일한 직업은 아니지만,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경영을 통달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체험을 겪는 이유가 지금은 완전하게 뚜렷하지 않지만, 완결성취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능한 미래 운명을 고려할 때, 그런 훈련은 확실히 현명하고 필요하다.

30:4.25 (342.8) 연방우주 체제가,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똑같지는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일반교육을 받지만, 특수 집단과 학급은 특별 지침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특정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30:4.26 (343.1) 6. *하보나 순례자*. 영의 발육이 완성되면, 심지어 충만하지 않더라도, 생존하는 필사자는 진화하는 영들의 안식처인 하보나를 향한 긴 비행을 위해 준비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살과 피로 된 피조물이었으며;지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모론시아 존재였으며;연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진화하는 영이었으며;하보나 영접
세계에 도착하면, 너희의 영적 교육이 실제로 진지하게
시작되며;낙원에서 결말에 이른 너희의 모습은, 완전하게
된 영이 될 것이다.

30:4.27 (343.2)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하보나 영접 구체로 가는
여행은 항상 홀로 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학급 또는
집단 훈육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세계의 기술 및 경영 훈련을 마쳤다.
이제는 너의 *개인 교육*, 즉 너의 영적 개별 훈련이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하보나 전역에서, 훈육은
개인적이고 본질적으로 삼중적인데:지적, 영적, 및
체험적이다.

30:4.28 (343.3) 너의 하보나 생애에서 첫 활동은, 길고 안전한
여행에 대해 너의 운송 제2스라빔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초기 하보나 활동을
후원하게 될 그 존재들에게 소개된다. 그 다음에 너는
자신의 도착을 등록하고, 자신의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 즉
너의 아들신분 생애를 가능하게 만든 너의 우주 아버지께

보낼 감사하고 찬미하는 메시지를 준비한다. 이것이 하보나 도착 정규 절차를 완결 지을 것이며;너는 그 후로 자유로운 관찰을 위한 긴 기간의 휴양{休養}을 허락 받으며, 이것은 오랜 상승 체험에서 사귀었던, 벗, 동료, 및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너는, 네가 우버사를 떠난 이후로, 동료 순례자들 중에서 누가 하보나를 향해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송{放送}을 참고할 수 있다.

30:4.29 (343.4) 하보나의 영접 세계에 네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너의 지방우주 본부에 정식으로 전달될 것이고, 너의 스랍 수호자가 어쩌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스라빔에게 직접 전해질 것이다.

30:4.30 (343.5) 상승한 필사자는, 공간에 있는 진화 세계 직무에서 훈련을 완전히 마쳤으며;이제 그들은, 완전하게 창조된 구체들과 길고 유익한 접촉을 시작한다. 통합되고 독특하고 뛰어난 이 체험이, 어떤 미래 업무를 위해 얼마나 놀랍게 준비시키는지! 그러나 나는 하보나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며;그 영광을 감상하려면, 그리고 그 웅장함을 이해하려면, 네가 이 세계들을 직접 봐야만 한다.

30:4.31 (343.6)

7. *낙원 도착자*. 거주자 신분으로 낙원에 도착하면, 너는 신성과 유한절대성에서 점진적 과정을 시작한다. 네가 낙원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의미하고,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될 것을 의미한다. 광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버지와 융합을 이룬 자들만이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그런 개인만이 완결성취자 서약을 한다. 낙원 완전성 또는 달성에 속하는 다른 존재들은, 이 완결성 단체에 일시적으로 배속될 수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고 완성된 노련한 존재로 구성된, 이렇게 모여드는 무리의 알려지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사명에 영구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30:4.32 (343.7)

낙원 도착자들에게는 어떤 기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며, 그 후에 그들은 1차 최고스라빔으로 구성된 일곱 집단과 연합하기 시작한다. 경배 인도자들과 갖는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낙원 졸업생이라고 불리며, 그 다음에는 완결성취자로서 관찰하고 협동하는 봉사, 광범위한 창조물의 끝부분까지 배정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들에서 여러 자격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특별하거나 정해진 일자리는 아직 없는 듯하다.

30:4.33 (344.1)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대한 미래의 운명이나
게시되지 않은 운명이 없다면, 상승한 이 존재들의 현재
임무는 전체적으로 충분하고도 영광스럽다. 그들의 현재
운명은, 진화로 상승하는 우주 계획을 전적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구체들이 진화하는 미래
시대는, 의심할 여지없이, 인간 생존과 필사자 상승에 대한
하나님들의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하나님들의
지혜와 사랑스런_자비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더욱
충만하고 신성하게 밝혀줄 것이다.

30:4.34 (344.2) 본 문서는, 너희에게 게시돼 온 것과 함께, 그리고
너희 자신의 세계에 관한 지침과 관련해서 너희가 획득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에 관한 개요를
보여준다. 다른 연방우주들에서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다르지만, 이 설명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광우주
가운데 일곱째 부분, 즉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운영되는
바와 같이, 필사자를 진급시키는 평범한 계획을 대략
훑어본 것이다.

30:4.35 (344.3) [우버사에서 온,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31편 완결성취 단체

31:0.1 (345.1)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단체에 배정된 다른 집단들도 있다. 1차 완결성취자 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31:0.2 (345.2) 1. 하보나 원주민.

31:0.3 (345.3) 2. 인력{引力} 사자.

31:0.4 (345.4)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31:0.5 (345.5) 4. 입양된 스라빔.

31:0.6 (345.6)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31:0.7 (345.7) 6.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31:0.8 (345.8) 영화롭게 된 이 여섯 집단의 존재가, 영원한 운명을 가진 이 독특한 기관{機關}을 구성한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 업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는 낙원에서 동원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들이 공간의 우주들을 대단히 광범하게 돌보고,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들을 경영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그들의 미래 목적지는 외부 공간에 있는, 지금_조직되고 있는 우주들이 될 것이다. 적어도 우버사에서는 그렇게 추측한다.

31:0.9 (345.9) 그 단체는 공간 세계들의 운영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길고 다사한 상승 생애 내내 획득된, 교제하는 체험에 보조를 맞춰서 조직돼 있다. 이 단체에 가입된 상승한 피조물 전체가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고양된 이 평등성은 어떤 면으로도 개체성을 폐기시키거나 개인 정체성을 파괴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완결성취자와 대화할 때, 그가, 상승한 필사자, 하보나 원주민, 입양된 스라빔, 중도 피조물, 또는 물질 아들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다.

31:0.10 (345.10) 현재 우주 시대에 완결성취자들은 시간세계의 우주에서 봉사하기 위해 돌아온다. 그들은 다른 연방우주들에서 연속으로 수고하도록 배정되고, 다른 여섯 연방창조물 전부에서 봉사를 마치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에 결코 배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칠중 개념을 획득할지도 모른다.

31:0.11 (345.11) 필사 완결성취자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원이, 유란시아에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다. 그들이 배정되지 않는 우주 봉사 범위는 없으며;그들은 보편적으로, 배정된 의무 봉사와 자유로운 봉사를 번갈아서, 동일한 기간 활동한다.

31:0.12 (345.12) 우리는 색다른 이 집단의 미래 조직의 본성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완결성취자들은 지금 전적으로 자치 단체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자체의 영구, 정기{定期}, 및 임무배정 지도자와 지휘자를 선택한다. 어떤 외부 영향도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들은 오직 낙원 삼위일체에게만 충성을 맹세한다.

31:0.13 (346.1) 완결성취자들은, 낙원, 연방우주, 지방우주, 및 모든 구획의 수도{首都}에 본부를 둔다. 그들은 진화 창조물에서 분리된 계층이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충성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항상 협동한다. 그들은 정말로, 시간과 공간에서 누적되는 시험을 견디고 참된 혼이며--곧 우주의 진화적 소금이며, 영원히 악에 물들 수 없고, 죄에 빠질 염려가 없다.

1. 하보나 원주민

31:1.1 (346.2) 중앙우주의 순례자_훈련 학교에서 선생으로서 봉사하는 하보나 원주민 가운데 다수가,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크게 애착심을 갖게 되며,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의 미래 활동과 운명에 더욱 흥미를 갖는다. 낙원에서는 그랜환다의 동역자가 관장하는 하보나 지원자에 대한 등록부가 그 단체의 경영 본부에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이 대기{待期} 명단에 있는 무수한 하보나 원주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접 신성하게 창조된 이 완전한 존재들은,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_먼 미래에 더 큰 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고 신성이 충만하게 탄생된 자의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완결성취자들은 체험적 실존의 두 국면을--곧 완전한 국면과 완전하게 된 국면을-- 모두 포함한다.

31:1.2 (346.3) 하보나 원주민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 단편{斷片}을 증여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진화 존재들과 접촉해서, 어떤 체험적 발전을 성취해야만 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는, 오직 제1 근원 및 중심의 영과 융합한 그런 존재, 또는 인력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을 선천적으로 구현하는 자를 영구 회원{會員}으로 삼는다.

31:1.3 (346.4) 중앙우주 거주자는 1,000명당--곧 완결성취자 중대{中隊}마다-- 한 명의 비율로 이 단체에 가입된다. 그 단체는 1,000명의 중대 단위로, 일시적 봉사를 위해 조직되는데, 이 중대에는 한 명의 하보나 원주민, 한 명의 인력 사자, 그리고 997명의 상승한 피조물이 있다. 완결성취자는 그렇게 중대로 동원되지만, 완결성취 서약은 개별적으로 집행된다. 이것은 포괄적인 암시와 영원한 취지를 갖는 서약이다. 하보나 원주민도 똑같은 서약을 하고, 그 단체에 영구히 배속된다.

31:1.4 (346.5) 하보나 신입생은 자신이 배치된 중대를 따라가며;그 집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도 간다. 그리고 너희는 완결성취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봐야만 한다. 완결성취 단체를 성취할 가능성은, 하보나에서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이며;완결성취자가 될 가능성은, 이 완전한 종족이 겪는 최고 모험 가운데 하나다.

31:1.5 (346.6) 하보나 원주민 역시, 바이스저링톤에 있는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에, 그리고 낙원에 있는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에 동일한 비율로 가입한다. 하보나 시민은,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에 가입될 가능성과 더불어, 이 세 가지 운명을 자신의 숭고한 생애에서 최고 목표로 간주한다.

2. 인력 사자

31:2.1 (346.7) 인력{引力} 사자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완결성취자들이 지휘한다. 모든 인력 사자는 그랜환다의 독점 관할권 아래 있고, 오직 1차 완결성취 단체에만 배정된다. 그들은 지금도 완결성취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며, 영원한 미래에 모든 면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성 피조물 가운데 어떤 다른 집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격화된 사자 단체를 소유할 수 없다.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에 배속된, 비슷한 유형의 사자_기록원들은 인격화되지 않았으며;유한절대화 돼 있다.

31:2.2 (347.1) 인력 사자들은 디비닝톤에서 쏟아져 나오며, 변경되고 인격화 된 조율사이지만, 우리 우버사 집단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 사자 가운데 하나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고귀하게 인격있는 존재, 즉 신성하고 지성적이며 감동적으로 이해심 많은 존재임을 알지만, 공간을 횡단하는 시간 초월 기법을 납득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일부 또는 전체 에너지와 회로, 그리고 심지어 인력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필사 단체에 속한 완결성취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영 인격체들과 연합해 왔고, 그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종속시켜 왔다. 우리는 인력 사자를 감히 인격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실제로 초월 영 존재, 즉 제한이 없고 경계선이 없는 인격체다. 단독 사자와 비교할 때, 그들은 아주 다른 계층의 인격체에 속한다.

31:2.3 (347.2) 인력 사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완결성취자 중대에 배속될 수 있지만, 그 동료 중에서 한 명의 우두머리 사자만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된다. 아무튼 이 우두머리는, 999명의 동료 사자로 구성된 영구 참모진을 임명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층의 예비군에게 보좌관을 숫자에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다.

31:2.4 (347.3) 인력 사자들과,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들은, 서로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을 가지며;그들은 공통적인 것이 많은데:하나는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이 직접 인격화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 즉 영{靈}인 사고 조율사와 융합한 인격체, 생존하는 불멸의 혼 속에 실존하는 피조물 인격체다.

3. 영화롭게 된 필사자

31:3.1 (347.4)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한 필사자들이 1차 완결성취 단체 대부분을 구성한다.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스라빔과 함께, 그들은 대개 각 완결성취자 중대마다 990명이다. 필사자가 스라빔보다 훨씬 많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든지 필사자와 천사의 비율은 다르다. 하보나 원주민,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인력 사자, 그리고 알려지지 않고 누락된 요원은, 그 단체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며;1,000명의 완결성취자로 구성된 각 중대에는, 필사자가 아니고 스랍도 아닌 이 인격체를 위해 꼭 열 자리가 마련돼 있다.

31:3.2 (347.5) 우버사에 속한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필사자의 "완결성 운명"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현재

낙원에 거주하고 빛과 생명의 단체에서 봉사하지만, 그런 거대한 상승 훈련 과정과 그런 긴 우주 훈련은, 더 큰 책임을 맡는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더 탁월한 책임감의 봉사를 위해서 그들이 자격을 갖추도록 고안됐음이 분명하다.

31:3.3 (347.6) 상승한 이 필사자들이 이미 낙원에 도달했고,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됐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지방우주들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연방우주 직무에 대한 경영에서--심지어 이 명백한 운명 앞에서--도움 주도록 돌려보냄 받았음에도, 그들이 오직 여섯째_단계 영으로 기록돼 있다는 의미심장한 사실이 남아 있다. 필사 완결성취 단체의 생애에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우리는 그 단계의 본질을 알지 못하지만, 다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인지해 왔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31:3.4 (348.1) 1. 필사자가 소구역에 머무는 동안 첫째 계층에 속한 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대구역으로 전환될 때 둘째 계층으로 진보하고, 연방우주의 중앙 훈련 세계들로 갈 때 셋째 계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으로부터 알고 있다. 필사자는 하보나의 여섯째
계도에 도달한 후에, 넷째 계층의 영, 즉 졸업생 영이 되며,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때 다섯째 계층의 영이 된다. 그
후에 필사 완결성취 단체라는 끝없는 임무배정에 영구히
그들을 소집하기로 선서함에 따라, 영 실존의 여섯째
단계를 달성한다.

31:3.5 (348.2) 우주 봉사의 한 영역에서 우주 봉사의 다른
영역으로, 또는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나아가는 실제
진보에 따라서, 영 분류 또는 명칭이 결정돼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필사 완결성취 단체를 일곱째 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구체들에서 봉사하기 위한 영원한 임무로 그들이
승진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이 지존자 하나님께
도달함과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추측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너희보다 더 알지 못하며;필사자 생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현재 낙원 운명을 넘지 않는다.

31:3.6 (348.3) 2. 필사 완결성취자들은, “너희는 완전하라”는
오랜 세월의 명령에 충분히 순응해 왔으며;필사자의 우주

달성 경로를 상승해 왔으며;하나님을 발견했고, 완결성취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됐다. 그런 존재들은 영 진보의 현재 한계에 도달했지만, 궁극적 영 신분의 완결성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들은 피조물이 완전하게 되는 현재 한계에 이르렀지만, 피조물 봉사의 완결성취는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신격 경배의 충만함을 체험했지만, 체험적 신격 달성의 완결성취는 체험하지 못했다.

31:3.7 (348.4) 3.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영화롭게 된 필사자는, 지성적 존재로서 가능한 가장 충만한 생애를 사는 현실과 철학을, 한걸음 한걸음 체험으로 나아가면서 상승한 존재이며, 게다가 생존하는 이 피조물은 가장 낮은 물질 세계로부터 낙원이라는 영적 고지{高地}를 향해서 상승하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과 공간의 보편적 창조물 전체를, 공정하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끈기 있게 경영하는, 모든 신성한 원칙의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든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훈련받아 왔다.

31:3.8 (348.5)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간은 우리 견해를 공유할 자격이 있으며, 너희는 낙원 완결성취 단체의 신비에 싸인

궁극 운명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추측할 자유가 있다. 완전하게 된 진화 피조물의 현재 임무가, 우주를 이해하고 연방우주를 경영하는, 졸업 이후 과정의 특징을 띠고 있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듯 하며;우리 모두는 "생존하는 필사자에게 우주 관리 기법을 그토록 철저히 훈련시키기에, 하나님들이 왜 그토록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가?"라고 질문한다.

4. 입양된 스라빔

31:4.1 (348.6) 필사자들의 신실한 스랍 수호자 가운데 다수는, 자신이 보호하던 인간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허락 받으며, 이 수호천사 가운데 다수는, 자신의 상대자가 아버지와 융합한 후에 영원한 완결성취자 서약을 할 때 함께하고, 필사 동역자의 운명을 영원히 받아들인다. 필사 존재의 상승하는 체험을 겪는 천사들은, 인간 본성의 운명을 공유할 수 있으며;이 완결성취 단체에 동일하게 영원히 편입될 수도 있다. 입양되고 영화롭게 된 큰 무리의 스라빔이, 필사자가 아닌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에 배속된다.

5. 영화롭게 된 물질 아들

31:5.1 (349.1)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행성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오래 지체될 때, 지역 체계의 아담 후손 시민이 영구_시민권 신분에서 풀려나도록 탄원을 시작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허락 되면, 그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우주 수도에서 합류하며, 그때부터 낙원을 향해서, 그리고 완결성취 단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나아간다.

31:5.2 (349.2) 진보된 진화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 시대에 도달했을 때, 물질 아들들, 즉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인간으로 변하기로 선택하고, 조율사를 받으며,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로 인도하는 우주 상승의 진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물질 아들 가운데 더러는,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물학적 촉진제로서 사명에 부분적으로 실패하거나, 엄밀하게 볼 때 불이행을 범해 왔으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의 자연스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밟게 되는데, 조율사를 받고, 죽음을 통과하고, 신앙으로 상승 체제를 통해서 진보하며, 그 후에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를 달성한다.

31:5.3 (349.3) 이런 물질 아들들이, 많은 완결성취자 중대에서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현존은, 그런 집단이 고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며, 늘 그 지도자로 택함 받는다. 에덴의 쌍이 같은 집단에 배속되면, 그들은 대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함께 활동하도록 허용된다. 그런 상승한 쌍은, 상승한 필사자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삼자일체되는 모험을 한다.

6.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

31:6.1 (349.4) 많은 행성의 경우에 중도{中道} 피조물이 많은 숫자로 산출되지만, 그들이 탄생된 세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 후에는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드물다. 그렇게 되면, 또는 그 후로 곧, 그들이 영구_시민권 신분에서 해방되고,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과 함께, 모론시아 세계들, 연방우주, 및 하보나를 통과한다.

31:6.2 (349.5) 다양한 우주에서 온 중도 피조물은 기원과 본성에서 크게 다르지만, 어떻게든지 모두 낙원 완결성취 단체로 가게 돼 있다. 2차 중도자는 모두 결국 조율사와 융합하고, 필사 단체로 편입된다. 많은 완결성취자 중대가,

영화롭게 된 이 존재 가운데 한 명을 그 집단에 소유하고 있다.

7. 빛의 희소식

31:7.1 (349.6) 현재 각 완결성취자 중대에는, 서약한 신분에 속하는 999명의 인격체가, 영구 회원으로서 포함돼 있다. 빈 자리는, 어떤 단일 사명이든지 부여된, 배속된 빛의 희소식들의 우두머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그 단체 중에서 유일한 임시 회원이다.

31:7.2 (349.7) 어떤 완결성취자 단체의 봉사에 배정된 어떤 천상의 인격체든지 빛의 희소식이라고 부른다. 이 존재들은 완결성취자 서약을 하지 않으며, 그 단체 조직에 종속되지만, 영구히 배속되지는 않는다. 이 집단은,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낙원 시민, 또는 그들의 삼자일체된 자손을 --일시적인 완결성취자 임무를 실행하기에 필요한 어느 존재든지-- 포함할 수 있다. 그 단체가 영원한 사명에 배속된 이 존재들을 소유하게 돼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임시 소속이 종료되면, 이 빛의 희소식들은 자신의 이전{以前} 신분으로 돌아간다.

31:7.3 (350.1) 필사 완결성취 단체가 현재 구성돼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섯 계층의 영구 요원이 있다. 완결성취자는, 짐작하다시피, 미래 동무들의 신분에 대해 많이 추측하지만, 그들 가운데 일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31:7.4 (350.2) 우버사에 속한 우리는, 일곱째 집단의 완결성취자 신분에 관해 종종 추측한다. 우리는 여러 관념을 고려하는데, 낙원과 바이스저링톤 그리고 내부 하보나 회로{回路}에서, 삼자일체된 수많은 집단의 어떤 모여드는 단체가 맡을 가능성이 있는 임무를 포함한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들의 봉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예정된 경우에는, 완결성취 단체가 우주 경영 업무에서, 그들의 보좌관 가운데 다수를 삼자일체시킬 수 있도록 허용될지 모른다고 추측되기까지 한다.

31:7.5 (350.3) 우리 가운데 하나는, 그 단체에 있는 이 빈자리를, 그들이 미래에 봉사할 새 우주에서 기원되는 어떤 유형의 존재가 채울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또 더러는 이 자리를, 아직 창조되거나, 결말에 이르거나, 삼자일체되지 않은 어떤 유형의 낙원 인격체가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기도 전에,

완결성취자들이 영 달성의 일곱째 단계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기다릴 가능성이 가장 많다.

8. 초월자

31:8.1 (350.4) 완결성취자로서, 완전하게 된 필사자가 낙원에서
겪는 체험 가운데 일부는, 1,000개 이상의 집단에 해당하는
낙원의 초월 최고_시민, 즉 유한절대 속성을 가진, 결말에
이른 존재들의 본성과 기능을 납득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 초월인격체들과 연합할 때, 상승한 그
완결성취자들은 수많은 계층의 초월적인 사역자의 유익한
안내로부터 큰 도움을 얻는데, 이 사역자들은 진보된
완결성취자들을 새로운 낙원 형제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에
배정된다. 초월자 계층 전체는, 낙원의 서부{西部}에,
그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산다.

31:8.2 (350.5) 초월자들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인간의 납득
한계뿐만 아니라, 낙원 인격체들에 관한 본 계시{啓示}를
통제하는 명령의 조항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 존재들은,
하보나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와 어느 면에서도
관련되지 않는다. 방대한 무리의 낙원 초월자는, 하보나
또는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직무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데, 총괄우주 직무의 최고경영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31:8.3 (350.6) 너희는 피조물이므로 한 창조주를 상상할 수 있지만,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거대하고 다양한 집합체의 지성 존재들이 있음은 거의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초월자들은 어떤 존재도 창조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창조된 적도 없다.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 새로운 단어를--곧 독단적이고 의미 없는 명칭을--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초월자가 단순히 *결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신격 절대자가 그들의 기원에 관여했을 수 있고 그들의 운명에 관계될 수 있지만, 독특한 이 존재들은 현재 신격 절대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궁극자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들의 현재 낙원 체류는,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31:8.4 (351.1) 낙원을 달성한 모든 필사자는, 낙원 시민과 사귀듯이 초월자들과 자주 사귀지만, 필사자가 초월자와 처음 갖는 중요한 접촉이 어느 중대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때, 초월자들의 우두머리, 즉 지배하는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우두머리가, 영원한 삼위일체 서약을 집행하는 동안, 필사 상승자들은 새로운 완결성취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완결성취자를 받아들이는 동아리에 참여한다.

9. 총괄우주 건축가

31:9.1 (351.2) 총괄우주 건축가들은 낙원 초월자들을 다스리는 단체다. 지배하는 이 단체는, 으뜸 정신, 최고의 영, 그리고 숭고한 유한절대자를 포함하는 28,011명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훌륭한 이 집단을 지배하는 관리{官吏}, 즉 선임 으뜸 건축가는, 신격 수준 이하의 모든 낙원 지성체를 조정하는 우두머리다.

31:9.2 (351.3) 본 문서들을 허락하는 명령에서, 열여섯째 금지조항은 이렇게 말한다: “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총괄우주 건축가들과 그 동역자들의 실존은 밝힐 수 있겠지만, 그들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을 온전히 밝혀서는 안 된다.” 아무튼, 우리는 이 으뜸 건축가들이 일곱 유한절대 수준에서 실존하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일곱 집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1:9.3 (351.4)

1. *낙원 수준*. 오직 선임 건축가, 즉 처음으로_결말에 이른 건축가만이 이런 가장 높은 유한절대 수준에서 활동한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이 궁극적 인격체는, 영원성이 시작될 때 결말에 이르렀고, 지금은 낙원 및 그것과 연합되어 활동하는 21개 세계의 절묘한 조정자로서 작용한다.

31:9.4 (351.5)

2. *하보나 수준*. 둘째 건축가가 결말에 이름으로써, 세 명의 으뜸 계획가와 유한절대 경영자가 산출됐으며, 그들은 중앙우주의 완전한 10억 구체를 조화시키기에 항상 헌신해 왔다. 낙원의 전통은, 이 세 건축가가, 결말에 이르기_전의 선임 건축가의 조언에 따라서, 하보나 계획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31:9.5 (351.6)

3. *연방우주 수준*. 셋째 유한절대 수준은 일곱 연방우주의 일곱 으뜸 건축가를 포함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의 집단으로서, 낙원에 있는 일곱 으뜸 영과 함께, 그리고 무한한 영의 특별한 일곱 세계에 있는 일곱 최상급 행정관과 함께, 거의 똑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광우주의 최고조정자다.

31:9.6 (351.7) 4. 1차 공간 수준. 이 집단은 70명의 건축가로 구성되며, 우리는 그들이 현재 일곱 연방우주 가장자리 너머에서 결집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첫 우주를 위한 궁극적 계획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한다.

31:9.7 (351.8) 5. 2차 공간 수준. 이 다섯째 건축가 단체는 490명이고, 우리는 다시, 분명한 에너지 결집을 우리 물리학자들이 이미 감지한, 외부 공간의 둘째 우주에 그들이 틀림없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31:9.8 (352.1) 6. 3차 공간 수준. 으뜸 건축가 중에서 이 여섯째 집단은 3,430명이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외부 공간의 셋째 우주를 위한 거대한 계획에 참여할지 모른다고 우리는 추론한다.

31:9.9 (352.2) 7. 4차 공간 수준.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이 단체는, 24,010명의 으뜸 건축가로 구성되며, 앞서 했던 우리 추측이 맞는다면, 이 단체는 외부 공간의 계속_커지는 넷째이자 마지막의 우주들과 분명히 관련돼 있을 것이다.

31:9.10 (352.3) 으뜸 건축가의 이 일곱 집단은, 총 28,011명의 우주 계획가다. 낙원에는, 영원히 먼 과거에 28,012번째 으뜸

건축가가 결말에 이르도록 시도됐다는, 그러나 이 존재가 유한절대화 됨에 실패하고, 우주 절대자에게 인격체를 압류당하는 체험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상승하는 계열의 으뜸 건축가들이 28,011번째 건축가 안에서 유한절대성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28,012번째 시도가 절대자 현존의 명확한 수준에 이르고자 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28,012번째 결말에 이른 수준에서, 유한절대성의 품질이 우주적 존재의 수준과 동등하게 됐고, 절대자의 가치에 도달했다.

31:9.11 (352.4) 기능상 조직으로 보면, 감독하는 세 하보나 건축가는, 혼자인 낙원 건축가에게 동역 보좌관으로서 행동한다. 일곱 연방우주 건축가들은 하보나 감독관들의 협조자로서 활동한다. 1차 외부 공간 층의 우주 계획가 70인은, 현재 일곱 연방우주의 일곱 건축가에게 동료 보좌관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31:9.12 (352.5) 총괄우주 건축가들은, 두 개의 방대한 힘 조직가 계층, 즉 1차로 결말에 이른 자들 및 부{副} 초월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집단의 보좌관과 도우미를 마음대로

활용한다. 이 총괄 힘 조직가들을, 광우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력 지휘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1:9.13 (352.6) 완결성취자들 및 낙원 시민이 삼자일체됨으로 산출한 자손들처럼, 시간세계와 영원한 세계 자녀들이 합동함으로 생산된 모든 존재는, 으뜸 건축가들의 피보호자가 된다. 그러나 현재 조직된 우주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진 다른 모든 피조물 또는 실재 중에서, 단독 사자 및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만이, 초월자 및 총괄우주 건축가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든지 유지한다.

31:9.14 (352.7) 으뜸 건축가들은, 지방우주 조직을 위한 자신의 공간 지역들에 대해, 창조주 아들들의 임무배정의 기술적 승인에 기여한다. 으뜸 건축가들과 낙원 창조주 아들들 사이에는 어떤 매우 긴밀한 연합이 있으며, 이 관계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너희는 첫 체험적 삼위일체 관계에서 건축가들 및 광우주 최상급 창조주들의 연합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두 집단은, 진화하고 체험하는 지존하신 분과 함께, 초월 가치와 총괄우주 의미를 지닌 궁극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10. 궁극의 모험

31:10.1 (352.8) 선임 으뜸 건축가는, 일곱 완결성취 단체를 감독하며, 그들은 다음과 같다:

31:10.2 (352.9) 1.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

31:10.3 (352.10) 2. 낙원 완결성취자 단체.

31:10.4 (352.11) 3. 삼위일체처럼된 완결성취자 단체.

31:10.5 (353.1) 4. 삼위일체처럼된 공동 완결성취자 단체.

31:10.6 (353.2) 5. 하보나 완결성취자 단체.

31:10.7 (353.3) 6. 초월 완결성취자 단체.

31:10.8 (353.4) 7.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 단체.

31:10.9 (353.5) 이 운명의 단체들 각각에는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일곱 명이 낙원에서 운명의 최고 위원회를 구성하며;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을 우주에 임무배정하는 이 최고 기관에서 그랜환다가 우두머리다.

31:10.10 (353.6) 이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후보자, 인격체, 정신, 영, 유한절대자, 및 체험적 실재들이

실체로 동원됨을 의미하는데, 지존하신 분의 미래 총괄우주 기능들까지 초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는 아마 궁극 삼위일체가 현재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인데, 궁극 삼위일체는 외부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서 생기는, 상상할 수 없는 발전에 대비하여 유한계{有限界}와 유한절대계의 세력을 소집하는 일에 몰두한다. 영원성에 가까운 시기에, 낙원 삼위일체는 그 당시 실존하던 낙원 및 하보나 인격체들을 비슷하게 동원했고, 입안된 시간과 공간의 일곱 연방우주 경영자 및 통치자로서 그들을 임명했으며, 그 후로는 이렇게 인격체들을 동원한 적이 없었다. 일곱 완결성취자 단체는, 미래의_영원한 활동이 있을 외부 우주들에서, 발달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미래 필요성에 대해, 신성이 광우주에 조치했음을 의미한다.

31:10.11 (353.7) 우리는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로 이뤄진 미래의 더 거대한 외부 우주들을 감히 예측하고자 하는데, 이 외부 우주들은, 새로운 계층의 절묘하고 독특한 존재들로 채워진 새로운 구체들, 그 궁극성에서 탁월한 물질 우주, 오직 하나의 중요한 내용만이--즉 상승한 실존의 우주 생애에서 실제 *유한 체험*의 현존만이-- 결핍된 거대한

창조계다. 그런 우주는 엄청난 체험상 장애, 즉:전능한 지존자의 진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외부 우주들은 모두 지존하신 분의 비길 데 없는 보살핌과 숭고한 전면통제를 누리겠지만, 그가 활기차게 현존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지존하신 신격의 실제화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31:10.12 (353.8) 지존자 하나님의 주권이 불충분하게 실제화되기 때문에, 현재 우주 시대 동안에는 광우주의 진화 인격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모두 그의 진화하는 독특한 체험을 공유한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진화하고, 그는 우리 안에서 진화한다. 영원한 미래에 언젠가, 지존하신 신격의 진화는 우주의 역사에서 완성된 사실이 되고, 이 놀라운 체험에 참여하는 기회는, 시공우주의 행동하는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31:10.13 (353.9) 그러나 우리 중에서 그 우주의 청년기 시절에 이 독특한 체험을 획득해 온 자들은, 미래의 전체 영원성 내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시_공간 진화에 참여하지 않은 체험적 결핍{缺乏}을 보상하려는 노력으로, 비슷하게 모집하는 다른 여섯

단체와 연합해서 이 외부 우주들을 경영하는 것이, 상승하여 완전하게 된 완결성취 단체의 필사자들이 점점 더 누적되는 이 예비군의 사명일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가운데 다수가 추측한다.

31:10.14 (353.10) 이 결핍은 어떤 수준의 우주 실존에서든지 불가피하다.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영적 실존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한 우리는 지금 진화하는 우주들을 경영하기 위해 내려왔고, 상승하는 필사자를 보살피며, 그리하여 비교적 높은 영적 체험이라는 실체의 결핍을 보상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

31:10.15 (354.1) 그러나 이 외부 창조계에 관한 총괄우주 건축가들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

31:10.16 (354.2) 1. 외부 공간 영역들에서 점차 조직되고 있는 거대하고 새로운 체계의 우주들이 실제로 있다. 새로운 계층의 물리 창조계, 인간이 살고 조직화 된 창조계의 현재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먼 곳에서 무리 짓고 있는 수많은 거대한 우주 궤도가, 너희의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관측된다. 현재, 이 외부 창조계는 전적으로

물리적이며;거기에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피조물이 경영하지 않는 듯하다.

31:10.17 (354.3) 2. 여러 시대 동안, 여섯 개의 다른 완결성취자 단체와 연합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전하게 된 상승한 존재들을 낙원에서 동원하는 일이, 설명도 없이 온통 신비스럽게 계속되고 있다.

31:10.18 (354.4) 3. 이런 진행사항과 동시에, 지존하신 신격 인격자는 연방창조물의 전능한 주권자로서 힘을 키우고 있다.

31:10.19 (354.5) 피조물, 우주들, 및 신격을 포함하는, 이 삼자일체의 발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롭고 계시되지 않은 어떤 것이 총괄우주에서 최고점에 도달하고 있음을 예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규모로, 물리적 우주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동원되고 조직되며 지존하신 분의 인격체가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을 신성한 완전성으로 올려주는 이 엄청난 기획과, 그리고 차후에 낙원에서 완결성취 단체에--곧 우주 신비 속에 가려진 명칭과 운명에-- 필사자가 동원되는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모여들고 있는
완결성취 단체가 외부 공간 우주들에서 미래에 어떤
봉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버사 전체가 점점 더 믿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적어도 7만 개의 물질 집합체에
해당하는 무리를 우리는 식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현재
어느 연방우주보다도 크다.

31:10,20 (354,6) 진화하는 필사자는 공간의 행성에서 태어나고,
모론시아 세계들을 통과하고, 영 우주들을 상승하고,
하보나 구체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낙원에
도달하고, 1차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되며, 거기서 우주
봉사의 다음 임무를 기다린다. 모여들고 있는 여섯 개의
다른 완결성취 단체가 있지만, 최초의 필사 상승자인
그랜환다가, 모든 계층의 완결성취자들의 낙원
우두머리로서 관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모두 이렇게 외친다:동물에서_기원된 시간세계의
자녀들, 공간에 있는 물질 아들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런
운명이란 말인가!

31:10.21 (354.7)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도록 권한을 준, 신성한 조언자와 이름과 번호가 없는 이가 공동으로 후원했음]

31:10.22 (354.8) 신격의 본질, 낙원의 실체, 중앙우주와 연방우주의 조직 및 활동, 광우주의 인격체들, 그리고 진화하는 필사자의 고귀한 운명을 묘사하는 31개의 본 문서는, 서기 1934년에, 높은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입안되고 영어로 기록됐는데, 이 위원회는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스물네 명의 오르본톤 경영자로 구성돼 있고, 이 명령은 네바돈 지방우주의 노라티아텍 성좌에 소속된, 사타니아 체계의 606_번 행성인 유란시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란시아 책

II 부. 지방우주

제32편 지방우주의 진화

32:0.1 (357.1) 지방우주는, 낙원의 미가엘 계층인, 한 창조주 아들의 작품이다. 지방우주는 100개의 성좌로 이뤄졌고, 각 성좌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100개의 체계를 포함한다. 각 체계는, 결국 약 1,000개에 달하는 인간거주 구체{球體}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32:0.2 (357.2)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우주들은 모두 진화한다. 낙원 미가엘들의 창조 계획은, 그런 지방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체제의 구체에 거주하는 다양한 피조물의, 육체적, 지적, 및 영적 본성과 수용력이 서서히 진화하고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경로를 따라서 언제나 진행된다.

32:0.3 (357.3) 유란시아는 한 지방우주에 속해 있는데, 네바돈의 하나님_사람, 즉 살빙톤의 미가엘인 나사렛 예수가 그 주권자다. 그리고 이 지방우주에 대한 미가엘의 모든 계획은, 그가 일찍이 공간에서 최상의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낙원 삼위일체로부터 온전한 승인을 받았다.

32:0.4 (357.4)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의 창조 활동 영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원래 총괄우주의 낙원 건축가들이 이 물질 창조계를 입안하고 계획했다.

1. 우주의 물리적 출현

32:1.1 (357.5) 우주가 생기기 전에, 공간_힘과 원초적 에너지를 조종하는 것은 낙원 총괄 힘 조직가들이 할 일이지만;연방우주 영토들에서, 국지적 인력, 즉 직선 인력에, 출현한 에너지가 반응하게 될 때, 그들은 관계된 연방우주의 동력 지휘자들이 일하도록 물러난다.

32:1.2 (357.6) 이 동력 지휘자들은 지방우주 창조의 물질 이전{以前} 및 힘 이후{以後} 국면에서 홀로 작용한다. 출현하는 우주를 위한 물질 기초를--곧 실제 항성들과 물질 구체들을-- 충분히 공급할 만큼, 공간_에너지 활성화를 동력 지휘자들이 이룩하기 전에는, 창조주 아들이 우주 조직을 개시할 기회가 없다.

32:1.3 (357.7) 지방우주들은 때때로, 가시적{可視的}_물질 내용물이 서로 다르고 물리적 차원이 크게 다르더라도, 에너지 잠재력에서는 모두가 거의 같다. 지방우주의 동력 축적량{蓄積量}과 잠재적_물질 기증품은, 창조주 아들의 활동, 그리고 그의 창조 동역자가 갖고 있는 타고난 물리적 통제 재능뿐만 아니라, 동력 지휘자들 및 그들의 선조의 조종에 따라서 결정된다.

32:1.4 (358.1) 지방우주의 에너지 축적량은, 그 연방우주의 힘
기본자산의 약 10만분의 1에 해당한다. 너희 지방우주
네바돈의 경우는, 물질화된 질량이 약간 적다.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네바돈은 오르본톤의 어느 지방
창조계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물리적
기본자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네바돈 우주가 발전해서
팽창할 때, 유일한 물리적 한계는, 통합된 우주 기계작용을
맡은 관련된 동력 및 인격체들의 인력{引力} 통제에
불잡혀있는, 공간_에너지의 양적{量的} 축적량에 있다.

32:1.5 (358.2) 에너지_물질이 대규모로 물질화되는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낙원 창조주 아들이 현장에 출현하는데,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을 대동한다. 창조주 아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건축양식 구체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구체는, 기획된 지방우주 본부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지방
창조가 진행되는 긴 세월 동안, 항성들이 안정을 찾고,
행성들이 형성되어 자체 궤도를 돌게 되는데, 성좌 본부와
체계 수도{首都} 역할을 하는 건축양식 세계들을
창조하는 작업이 그동안 계속된다.

2. 우주 조직

32:2.1 (358.3) 우주를 조직하는 동안에는, 제3 근원 및 중심에서
지원되는 동력 지휘자 및 다른 존재들이 창조주
아들들보다 앞선다. 너희의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전에
조직화된 공간 에너지로부터 그렇게 네바돈 우주의
인간거주 영역들을 건설했고, 그 후로 계속 그 경영에
정성들여 전념해 오고 있다. 이 신성한 아들들은,
선재{先在} 에너지로부터 가시적{可視的} 물질을 형태화
시키고, 살아있는 피조물을 기획하며, 무한한 영의 우주
현존의 협동으로 다양한 영 인격체 수행원을 창조한다.

32:2.2 (358.4) 우주를 조직하는 물리적 예비 업무에서, 창조주
아들보다 훨씬 앞서서 일했던 이 동력 지휘자와 에너지
통제관들은, 나중에 이 우주 아들과 훌륭하게 연락하면서
봉사하는데, 그들이 원래 조직하고 순회시켰던 그
에너지에 대한 연합된 통제에 영원토록 종사한다.
살빙톤에서는, 이 지방우주를 원래 형태화할 때 너희의
창조주 아들과 협동했던, 바로 이 100명의 동력 중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32:2.3 (358.5) 네바돈에서 최초로 완성된 물리적 창조 행위는,
본부 세계의 조직, 즉 그 위성들과 함께 살빙톤의 건축양식

구체에서 이뤄졌다.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처음 이동한 때부터, 살빙톤의 완성된 구체들에 활기찬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현재 너희 행성 시간으로 10억 년 조금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살빙톤이 건설된 직후에, 기획된 성좌들의 100개의 본부 세계, 그리고 행성을 통제하고 경영하는, 기획된 지역 체계들의 10,000개 본부 구체 및 그 건축양식 위성{衛星}들을 창조하는 일이 뒤따랐다. 그런 건축양식 세계는, 물리적 인격체와 영적 인격체뿐 아니라, 그 사이에 개재하는 모론시아 단계, 즉 과도기 단계의 존재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32:2.4 (359.1) 네바돈의 본부인 살빙톤은, 지방우주의 정확한 에너지_질량{質量}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너희 지방우주는, 비록 어떤 큰 체계가 그 물리적 중심에 실존하더라도, 단일 천문{天文} 체계는 아니다.

32:2.5 (359.2) 살빙톤은 네바돈의 미가엘의 개인 본부이지만, 그가 항상 그곳에 있지는 않다. 너희 지방우주가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조주 아들이 수도 구체에 고정적으로 현존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조직되던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상호 물리적 흡인력{吸引力}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궤도와 체계가 서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물질화됨으로써 그 영역의 인력 안정성이 이뤄지기 전에는,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본부 세계를 떠날 수 없다.

32:2.6 (359.3) 마침내, 한 우주의 물리적 계획이 완성됐고, 창조주 아들이 창조적 영과 연합해서 생명체 창조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무한한 영의 이 대표자는 독특한 창조 인격체로서 우주 활동을 시작했다. 이 초기 창조 행위가 공식화 되고 시행됐을 때, 빛나는 새벽별이 나타났는데, 그는 신성의 정체성 및 이상{理想}으로 이뤄진 최초의 이 창조 개념이 의인화{擬人化} 된 존재다. 이 존재는 지방우주의 최고 행정관인데, 창조주 아들의 개인 동역자이며, 신성의 속성에서는 뚜렷이 제한돼 있지만, 모든 성품 측면에서는 그를 닮았다.

32:2.7 (359.4) 그리고 이제 창조주 아들의 믿을만한 도우미와 행정관 우두머리가 준비됐으므로, 거대하고 훌륭한 행렬로, 다양한 피조물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 지방우주의 아들과 딸들이 계속 출현하고, 그 후로 곧 그런 창조물의

정부가 마련되는데, 지방우주의 최고 협의회로부터 성좌 아버지들과 지역 체계 주권자들에 이르기까지 확장됐으며--지역 체계는, 의지를 지닌 피조물로 구성된 다양한 필사자 인종의 고향이 되도록, 그 후에 고안된 세계들의 집합체{集合體}이며;이 세계들을 각각 한 행성 왕자가 관장하게 된다.

32:2.8 (359.5) 그리고 나서, 그런 우주가 그토록 철저히 조직화 되고 충분히 배속되고 나면, 창조주 아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형상대로 필사적 사람을 창조하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비로소 실행한다.

32:2.9 (359.6) 행성 거주지들의 조직은 네바돈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우주는 정말로 오르본톤의 별과 행성이 있는 영역에서 어린 성단{星團}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등록부에 의하면, 네바돈에는 3,840,101개의 인간거주 행성이 있었으며, 너희 세계가 속한 지역 체계인 사타니아는, 다른 체계들을 제법 대표할만하다.

32:2.10 (359.7) 사타니아는 균일한 물리 체계, 즉 단일 천문 단위 또는 조직체가 아니다.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가 5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물리 체계에 위치해 있다. 다섯 개만이

두 개 보다 많은 인간거주 세계를 가졌고, 이 중에 한 개만이 네 개의 인간거주 행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편 두 개의 인간거주 세계를 갖는 것이 46개 있다.

32:2.11 (359.8)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사타니아 체계는, 일곱째 연방우주의 물리적 중심지, 즉 천문 중심지로서 작용하는 거대한 항성 집단과 우버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타니아 본부인 예루셈으로부터, 은하수의 조밀한 직경{直徑} 안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물리적 중앙까지는, 20만 광년이 넘는다. 사타니아는 지방우주의 주변지역에 있고, 네바돈은 현재 오르본톤 가장자리 쪽으로 상당히 바깥에 있다. 인간거주 세계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체계에서 연방우주 중앙까지는 25만 광년보다 약간 가깝다.

32:2.12 (360.1) 네바돈 우주는 지금 오르본톤 연방우주 궤도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회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주는:아발론, 헨셀론, 산셀론, 포르탈론, 울버링, 화노빙, 알보링 등이다.

32:2.13 (360.2) 그러나 한 지방우주의 진화는 긴 이야기에 해당된다. 연방우주를 다루는 문서들이 이 주제를 소개할

것이며, 지역 창조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그것을 계속하고, 앞으로 이어질, 유란시아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문서들이 그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한때 사람의 삶, 즉 인간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너희의 진화 세계에 살았던 그 생애와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숙독함으로써만, 너희는 그런 지방우주 창조에 속하는 필사자의 운명을 적절히 납득할 수 있다.

3. 진화 관념

32:3.1 (360.3) 완벽하게 안정된 유일한 창조물은 중앙우주 하보나인데,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사고{思考}와 영원한 아들의 말씀으로 직접 만들어졌다. 하보나는 실존적이고 완전하며 충만한 우주인데, 만유의 중심인 영원한 신격들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 창조계는 유한하고 진화하며 시종일관 진보한다.

32:3.2 (360.4) 시간과 공간의 물리 체계들은 모두 진화로 기원된다. 이 체계들은, 그 연방우주의 안정된 궤도 속으로 회전해 들어가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전혀 안정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우주 역시, 그 물리적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이 완결되기 전에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의 영적{靈的} 상태가 영구히 정착되고
안정되기 전에는, 빛과 생명에 정착되지 못한다.

32:3.3 (360.5) 중앙우주를 제외하고, 완전성은 점진적으로
달성된다. 우리는 중앙 창조물 안에 완전성의
원형{原型}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영역은, 특유의 그
세계 또는 우주의 진보를 위해 확립된 방법으로 그
완전성을 달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들이
각자의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길들이고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은, 거의 무한하게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32:3.4 (360.6) 아버지의 신격 현존을 제외하고, 어느
지방우주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원형{原型} 창조물인
중앙 창조물의 경영 조직체를 복제한 것이다. 비록 만유의
아버지는, 거주{居住} 우주에 몸소 현존하시더라도, 글자
그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필사자의 혼과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그 우주에서 생겨나는 존재들의 정신에
거주하시지는 않는다. 광범위한 창조의 영적{靈的}
직무에 대한 조절과 규제에는 온전히_지혜로운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우주에서 아버지는 완전한 그

창조물 자녀의 정신에 그렇게 친히 현존{現存}하지만, 거기에 계시지는 않으며; 아버지는 공간의 우주들에서 인격자 속에 계시지 않고, 주권자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변하며, 한편 필사자 자녀의 정신 속에 친밀하게 현존하시는데, 의지를 지닌 이 피조물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비 관찰자라는 인격이전{人格以前} 현존이, 영적으로 아버지를 대표한다.

32:3.5 (360.7) 지방우주 본부에는, 만유의 아버지가 친히 현존하시지 않지만, 완전히_독립된 권세와 경영 자치권{自治權}을 대표하는, 창조자 및 창조 인격체들 전부가 거주한다. 만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중앙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부류의 지성적 존재들 중에서, 모든 존재에 관한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지방우주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비록 만유의 아버지가 지방우주에 몸소 현존하시지 않더라도, 그 창조주 아들이 몸소 아버지를 대변하는데, 그 창조주 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된다.

32:3.6 (361.1) 우리가 생명의 등급에서 멀리 내려갈수록,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신앙의 눈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낮은 피조물은--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고등 인격체들도-- 창조주 아들 안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를 상상하기가 항상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완전히 발달하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영적으로 고양{高揚}되는 시기까지, 그들은 진보에 점점 지치고, 영적 의구심을 품으며, 혼돈에 빠지고, 그리하여 자신의 시대와 우주에서, 점진적인 영적 목표로부터 스스로 벗어난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보는 역량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다.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 오랫동안 투쟁하는 내내, 내재된 조건들이 그런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기 동안, 피조물에게 가장 분명한 안전장치는, 아버지의 현존이 아들들 안에 있다는 진리_사실을 끈기 있게 붙잡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들은 하나다. 창조주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그 말은 사실이다.

32:3.7 (361.2) 주어진 어느 우주의 인격체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신격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만 안정되고

신뢰할만하다. 피조물의 기원이 원래의 신성한 근원들로부터 충분히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하든지 또는 무한한 영에 소속된 사역의 피조물과 관계하든지 상관없이, 부조화와 혼돈 그리고 때로는 반역의 가능성이--즉 죄를 범할 가능성이--증가한다.

32:3.8 (361.3) 신격에서 기원된 완전한 존재들 외에, 연방우주에서 의지를 지닌 모든 피조물은 진화하는 본성을 갖는데, 낮은 지위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실제로는 안쪽으로 늘 올라간다. 심지어 고귀하게 영적인 인격체들도, 생애에서 생애로, 그리고 구체에서 구체로, 점진적인 전환으로 생애 계단을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신비 관찰자를 받아들이는 자의 경우에, 그들이 영적으로 상승하고 우주에서 도달하는 높이에는 정말로 어떤 한계도 없다.

32:3.9 (361.4)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마침내 완비함을 성취했을 때, 그 완비함은 전적으로 획득된 것이고 인격체의 진정한 소유물이다. 은혜의 요소가 아낌없이 혼합되지만, 그럼에도 피조물이 달성한 것은, 개인이 노력하고 실제로

살아서 얻은 결과이며, 기존 환경에 인격체가 반응한 결과다.

32:3.10 (361.5) 동물이 진화로 기원됐다는 사실은 우주의 견지에서 어떤 인격체에게도 오점{汚點}을 남기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유한하고 지성적인, 의지를 지닌 두 가지 기본 유형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완전성과 영원성이 절정에 도달할 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즐겁게 인생의 사다리를 차례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더 큰 명예가 있으며, 영광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각 인생 국면마다 실제 지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적 체험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32:3.11 (361.6) 이 모든 것에서 창조주들의 지혜가 나타난다. 모든 필사자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 즉 자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완전성을 부여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에게 아주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내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모험과 훈련이라는 훌륭한 체험을 그들이 빼앗길 것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실존의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자들만이 이 체험을 얻을 수 있다.

32:3.12 (362.1) 하보나를 도는 우주들에는, 생명의 진화 단계를 올라가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원형{原型} 교사 안내자들이 필요로 하는 숫자를 충족시킬 정도로만, 완전한 피조물이 제공된다. 진화하는 인격체 유형의 체험적 본성은, 낙원_하보나 피조물의 항상_완전한 본성에 자연스런,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보완물이다. 실제로는, 완전한 피조물과 완전하게 된 피조물 둘 다, 유한한 전체성을 고려할 때 미완성이다. 그러나 진화하는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으로 완전하게 된 완결성취자들과, 낙원_하보나 체계의 실존적으로 완전한 피조물이 상호 보완을 위해 연합하는 동안, 두 유형은 선천적 한계로부터 해방되며, 따라서 피조물 상태의 궁극성이라는 숭고한 절정에 도달하기를 공동으로 시도할 수 있다.

32:3.13 (362.2) 피조물의 이런 진행사항들은 칠중 신격 안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우주에 미친 영향인데, 칠중 신격 안에서 낙원 삼위일체의 영원한 신성{神性}은, 동력을_실현하는

지존하신 분이라는 신격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시_공간 우주의 최상급 창조주들의 진화하는 신성과 결합된다.

32:3.14 (362.3) 신성하게 완전한 피조물과, 완전하게 된 진화 피조물은, 신성 잠재력의 정도에서 동일하지만, 그 종류는 다르다. 최상의 봉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상대방에게 의존해야만 한다. 진화하는 연방우주는, 상승하는 시민에게 최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보나에 의존하지만, 완전한 중앙우주는, 하강하는 주민의 완전한 발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돼가는 연방우주들이 그렇게 실존할 필요가 있다.

32:3.15 (362.4) 유한한 실체의 두 가지 주요 형태화, 즉 타고난 완비됨과 진화로 완비됨은, 인격체든지 우주든지, 대등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융화된다. 역할, 봉사, 및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각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4. 하나님과 지방우주의 관계

32:4.1 (362.5) 만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능력을 다른 존재들에게 그토록 많이 위임해 오셨다고 해서, 동역관계의 신격 일원으로서 침묵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격체 분야와 조율사 증여를 제외하면, 그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 달성에서, 신격 협조자들과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피조 지성체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부분을 수행토록 허락하면서, 낙원 신격들로서는 최소한으로 활동하시는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동격 동역자 또는 하위 동역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조하는 세 분 중에서 침묵하는 일원이다.

32:4.2 (362.6) 하나님은 각 지성체 피조물마다 역할과 체험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주의 운명 또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복지를 고려하면서, 특정한 우주 상황 또는 창조적 사건과 자신 사이에 선천적으로 개재하는 피조물 무리와 창조주 인격체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활동을 자제하신다. 그러나 이렇게 물러나 계심에도, 즉 무한한 협조를 이렇게 표현함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진 이 대리자 및 인격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 실제로, 엄밀하게, 몸소 참여하신다. 아버지는 광범위한 모든 창조물의 복지를

위해, 이 모든 경로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일하신다.

32:4.3 (363.1) 지방우주의 방침, 운영, 및 경영을 고려할 때,
만유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의 인격자 안에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호관계에서,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기원된 인격체의 집단 연합체들에서,
또는 인간 같은 기타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사이의
관계에서--그런 연합체들을 상대하면서 만유의 아버지는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의 법, 즉 성좌
아버지들과 체계 주권자들 그리고 행성 왕자들의 통치가--
-곧 지방우주를 위해 정해진 방침과 과정이-- 항상
우선한다. 권세는 분할되지 않으며;신성한 능력 또는
목적이 상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신격들은
완전하고 영원하게 일치하신다.

32:4.4 (363.2) 윤리적 관계들, 즉 어느 피조물 계열과 다른 어느
피조물 계층의 관계, 또는 주어진 어느 집단 내에서 둘
이상의 개체들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서, 창조주
아들이 최상으로 다스리지만;그런 계획이, 전체 창조물
전역에서 아무 개별 피조물에게든지, 그 개체의 현재 상태

또는 미래 예상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무한한 목적에 관련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방법으로 개입하면 안 되고, 신성한 정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2:4.5 (363.3) 의지를 지닌 필사 피조물 안에서 아버지는, 내주하는 조울사, 즉 자신의 인격이전 영 단편{短篇}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며; 아버지는 또한 의지를 지닌 그런 필사 피조물의 인격체의 근원이기도 하다.

32:4.6 (363.4)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한 이 사고 조울사들은 비교적 격리돼 있으며; 인간 정신에 내주하지만, 지방 창조계의 윤리적 직무와는 확실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스랍의 봉사뿐 아니라, 체계, 성좌, 또는 지방우주의 경영과,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 아들의 통치와 직접 조화되지 않는데, 창조주 아들의 뜻이 그의 우주에서 최고의 법이다.

32:4.7 (363.5) 내주하는 조울사는, 사실상 무한한 창조로 말미암는 피조물과 접촉하는, 독립돼 있지만 통합된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다. 필사적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현존을 그렇게 나타내고,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한 계시는 신{神}으로서 가능하지 않다.

32:4.8 (363.6) 관할하는 우주에 관한 상세하고 완성된 지식을 아들들이 어떻게 누리는지, 그 장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하나님이 온갖 우주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그토록 충분하게 정통하고 친히 정통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최소한,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거대한 창조물에 속한 존재들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실 수 있는 수단을 인식할 수는 있다. 아버지는 전체 창조에서 모든 우주의 모든 체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생각과 행동 전체를, 인격체 회로를 통해서 인지하신다-- 친히 아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와 교류하시는 이 기법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主}께서 자기 자녀를 아신다"는 확신과, "그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주목하신다"는 우리 각자의 확신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32:4.9 (363.7) 너희의 우주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 속에, 만유의 아버지가 현존하시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중앙 거주지에 있는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필사 정신 깊은 곳에서 살고 일하며 기다리는 신성한 조율사를 통해서다.

32:4.10 (363.8)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인격체가 아니며; 아버지는 자신을 창조물과 피조물에게 값없이 분배하신다. 그는 신격들 안에서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안에서도 살고 행동하시는데,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다. 만유의 아버지는, 다른 존재가 실행하기에 가능한 모든 역할을 정말로 벗어버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우주 본부에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창조주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사적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우리는 그렇게 만유의 아버지의 이상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열매 맺는 과정을 바라본다.

32:4.11 (364.1)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보편적 증여에서, 그의 신성한 본성의 광대함과 관대함 둘 다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로부터 무언가를

스스로 남겨놓으셨더라도, 그 잔여분 중에서, 그는 아낌없이 관대하게 그 영역의 필사자들에게 사고 조율사를 증여하고 계시며, 이 사고 조율사는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간 후보자들에 아주 끈기 있게 내주하는, 한때의 신비 관찰자다.

32:4.12 (364.2) 이를테면, 만유의 아버지는, 모든 창조가 인격체 소유와 잠재적인 영적 달성에서 풍성하게 되도록, 자신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사랑하는 것들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영광만 자신에게 남겨놓고, 그 외의 모든 것을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벗어버리셨다.

5.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

32:5.1 (364.3) 공간을 지나가는 우주들의 행진에는 위대하고 영광스런 목적이 있다. 너희 모든 필사자의 투쟁은 헛되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광대한 계획, 즉 거대한 계획사업의 일부분이며, 어떤 한 시대든지 그리고 어떤 한 생애 동안이든지, 그 이행업무의 매우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들이 감독하고 열심히 작업하시는 영원한 기획의

한 부분이다. 신기하고 보편적인 전체 장치가,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한 사고{思考}와 영원한 목적의 박자로 이뤄진 음악에 맞춰 공간을 지나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고 있다.

32:5.2 (364.4)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높은 영적 이상{理想}이다. 시간세계의 사건과 물질 실존의 투쟁은, 다른 편, 즉 영적 실체와 숭고한 실존의 약속된 땅에 이르도록 다리를 놓는 일시적 발판에 불과하다. 물론, 너희 필사자는 영원한 목적 관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이라는 것을, 아무리 사고해도 납득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너희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32:5.3 (364.5) 개별 인생, 어떤 영역의 지속기간, 또는 어떤 일련의 연결된 사건이든지 그 연대기{年代記}를 볼 때, 우리는 분리된 연속 시간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일련의 그런 체험, 인생, 시대, 또는 시기들이 연속으로 배열될 때, 하나의 일직선 도로, 즉 영원성의 무한한 표면을 순간적으로 가로지르는 번쩍이는 시간의 독립된 사건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더 포괄적인 조망과 더욱 완성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설명은 부적당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서, 시간세계의 진행사항들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목적과 영원성의 근본적인 반응을 달리 상호 관련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된다.

32:5.4 (364.6) 필사 정신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영원성을 한 주기{週期}로,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끝없는 궤도, 즉 어떤 면에서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시간 주기와 동조된 영원성의 주기로 상상하는 것이, 내게는 더 적당해 보인다. 영원성 주기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간의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덧없는 일시적 존재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이, 그런 현세적인 시기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영 수준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데, 죽음으로 인한 변질은 그들이 시간의 족쇄와 물질 창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정이며, 그리하여 점진적인 영원성 행진에 영적 발걸음을 맞추게 된다. 너희는, 시련 당하는 덧없는 인생과 물질 실존에서 생존함으로써, 영원한

시대의 궤도를 둘러싼 공간 세계들과 함께 끊임없이 회전하는 영원성과 계속 접촉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영원성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32:5.5 (365.1) 시간의 구역들은 인격체가 일시적 형체를 입고 획 지나감 같으며;영원한 궤도 주위를 끝없이 회전하는, 비교적 고상한 인생 속에 오직 새로운 연기자 및 연속된 요소로서 다시 나타나기 위해, 한 시절 나타났다가, 인간의 눈앞에서 사라진다. 만유의 아버지의 중앙 거주지 처소 주위에서 어떤 방대하고 길쭉한 궤도를 따라 제한된 우주가 움직인다고 믿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영원성을 도저히 직선 도로처럼 생각할 수 없다.

32:5.6 (365.2) 솔직히, 영원성은 덧없는 유한한 정신에게 납득될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 뿐이며;납득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상상할 수 없으며, 또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내 개념을 인간 정신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의 관점을 얼마간 묘사하려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느 정도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 나는 무한한 본성과 영원한 취지에 해당하는 이 가치에 관한 너희

생각을 구체화하는 일에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다.

32:5.7 (365.3) 하나님의 정신에는, 그의 방대한 영역 전체에 있는 각 피조물마다 포함하는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은 무한한 기회, 한없는 진보, 끝없는 생명을 주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런 비길 데 없는 무한한 보물이 노력에 따라서 너희의 소유가 된다!

32:5.8 (365.4) 영원성의 결승점이 앞에 있다! 신성을 달성하는 모험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완전성을 향한 경주가 시작됐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내주하는 조율사의 인도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그토록 값없이 쏟아 부어져 온 우주 아들의 선한 영의 안내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으며 신앙과 신뢰의 경주를 달리게 될 모든 인간마다, 그 수고에 확실한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32:5.9 (365.5) [네바돈의 최고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속되고,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이 임무에 배정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제33편 지방우주의 경영

33:0.1 (366.1) 만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광대한 창조계를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데, 지방우주의 경영에서는 창조주 아들의 인격자를 통해서 작용하신다. 아버지는, 지방우주를 경영하는 직무에서는 달리 개인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신다. 이 문제는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녀에게 맡겨져 있다. 이 아들이 지방우주의 계획, 정책, 및 경영 행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영{靈} 동역자와 공동으로 행정 권한을 가브리엘에게 위임하고, 사법 권한은, 성좌 아버지, 체계 주권자, 및 행성 왕자들에게 위임한다.

1. 네바돈의 미가엘

33:1.1 (366.2)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안에서 동시에 기원된, 무한한 정체성에 속하는 611,121번째의 원래 개념이 의인화{擬人化}된 분이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신성 및 무한성의 이 611,121번째 우주 개념을 인격화시키는 "독생{獨生} 아들"이다. 그의 본부는 살빙톤에 있는 빛나는 삼중{三重} 맨션에 있다. 그리고 이 거주지는 매우 질서를 갖췄는데, 미가엘이 지성 피조

실존의 세 국면, 즉:영적 국면, 모론시아 국면, 및 물질 국면을 모두 사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증여와 관련된 이름 때문에, 그는 때로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불린다.

33:1.2 (366.3)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아니며,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실존적 낙원 동역자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낙원 삼위일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으뜸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실제로 살빙톤에 나타나고 네바돈에서 활동했다면 직접 보여줬을, 모든 신성한 속성과 능력을 자신의 범주 안에 지닌다. 미가엘은 추가 능력과 권세도 지니는데, 영원한 아들을 의인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방우주에 그리고 그 안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현존을 충분히 대변하고 실제로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_아들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관계들이, 미숙한 피조 존재들과의 인격체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진화 우주를 직접 경영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신성한 존재 중에서, 창조주 아들을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33:1.3 (366.4)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살빙톤에 직접 현존했다면 자신이 발휘했을 바로 그 영적{靈的} 흡인력, 즉 영 인력을 지방우주 본부에서 행사하고, 그리고 그 이상{以上}이며;이 우주 아들은 또한 네바돈 우주에 대해 만유의 아버지가 의인화된 분이기도 하다.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 아버지_아들의 영적 세력을 위한 인격체 중심이다. 창조주 아들들은 칠중 하나님의 강력한 시_공간 속성들이 최종적으로 초점{焦點}에 집중된 권능의_인격체다.

33:1.4 (367.1) 창조주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권한을 행사하도록 인격화된 분이고, 영원한 아들의 신성 협조자이며, 무한한 영의 창조 동역자다. 주권자 아들은, 우리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에게 모든 실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다. 그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분별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낙원 신격들 전체를 의인화시킨다. 이 아들과 그 영 동역자는 너희의 창조자 부모 이다.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너희에게 최상의 인격체이며;영원한 아들은 너희에게 최고지존이시다--무한한 신격 인격체시다.

33:1.5 (367.2) 우리의 통치자인 신성한 부모가 창조주 아들의
인격자 안에 계시는데, 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살빙톤에 함께 현존하고 네바돈 우주의 직무에
대한 경영에 참여했더라면 그러하셨을 만큼, 강력하고
유능하며 인정 많으시다.

2. 네바돈의 주권자

33:2.1 (367.3) 창조주 아들들을 관찰하면, 더러는 아버지를 더
닮고, 더러는 아들을 더 닮았으며, 한편 더러는 그들의
무한한 부모 둘 다의 조합임을 알게 된다. 우리의 창조주
아들은 영원한 아들을 더 많이 닮은 특징과 속성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

33:2.2 (367.4) 미가엘은 이 지방우주를 조직하기로 선택했고,
거기서 지금 주권을 갖고 군림한다. 그의 개인 권능은,
낙원에 중심을 두는 선재하는 인력 회로에 제한을 받고,
또한 인격자의 소멸에 관해서 모든 최종 집행 판결을
내리는, 연방우주 정부의 태고 항존자들 편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에 제한을 받는다. 인격체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증여하시지만, 창조주 아들들은 영원한 아들의 허락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을 설계하기 시작하며, 영 동역자들의

협동 작업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_물질의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33:2.3 (367.5) 미가엘은, 네바돈 지방우주에 그리고 그 지방우주 안에, 낙원 아버지_아들이 의인화{擬人化}된 분이며;따라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마지막 증여를 마치고 돌아와, 지방우주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 창조적 어머니 영이 그에게 자신을 종속시켰을 때, 으뜸 아들은 이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에 대한 관할권을 얻었다.

33:2.4 (367.6) 신성한 사역자가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에게 이렇게 종속된 것은, 유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神性}을, 이 으뜸 아들이 개인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미가엘이 피조물로서_증여된 체험은, 지존하신 분의 체험적 신성을 묘사할 수 있는 자격을 세 분에게 드린다. 우주들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도, 현재의 유한한 체험의 잠재력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쏟아 붓지 못했으며, 우주들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도, 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33:2.5 (367.7) 미가엘의 본부가 비록 공식적으로 네바돈의 수도{首都}인 살빙톤에 위치하더라도, 그는 자기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성좌와 체계 본부 그리고 심지어 개별 행성 방문에 사용한다. 그는 주기적으로 낙원으로 여행하고, 자주 우버사에 들리는데, 거기서 태고 항존자들과 상의한다. 그가 살빙톤에서 떠났을 때, 그의 자리는 가브리엘이 대신하는데, 그때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섭정{攝政}으로서 활약한다.

3. 우주 아들과 우주 영

33:3.1 (368.1) 무한한 영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체에 두루 퍼지면서,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으로 협동하는 기법으로, 충만한 인격체 특성들을 획득하는 하나의 특화된 집중체{集中體}로서, 각 지방우주 본부로부터 작용한다. 한 지방우주를 고려할 때, 창조주 아들의 경영 권한은 가장 높으며;신성한 사역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완전하게 대등함에도, 전적으로 협동적이다.

33:3.2 (368.2) 살빙톤의 우주 어머니 영, 즉 네바돈을 통제하고 경영하는 미가엘의 동역자는, 최상급 영들 가운데 여섯째 집단에 속하는데, 그 계층에서는 611,121번째다. 그는

미가엘이 낙원 책무에서 해방되는 경우에 자진해서 그와 동행했고, 그 후로 항상 그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면서 활동해 왔다.

33:3.3 (368.3) 으뜸 창조주 아들은 자기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주권자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세부적인 모든 면에서는 우주 영이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지휘한다. 영은 언제든지 아들을 주권자 및 통치자로 인정하며, 한편 아들은 영을 그 영역의 모든 직무에서 대등한 위치 및 동일한 권세자로 간주한다. 온전히_지혜롭고 언제나_충실한 우주 영과 천사 인격체들로 이뤄진, 그의 다양한 수행원은,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창조주 아들이 사랑으로 행하고 생명을 증여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지지하고 숨씨 있게 보조한다. 그런 신성한 사역자는 실제로는 영들과 영 인격체들의 어머니이고, 창조주 아들에게 늘_현존하고 전적으로_지혜로운 충고자이며, 낙원의 무한한 영을 신실하고 참되게 나타낸다.

33:3.4 (368.4) 아들은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아버지로서 활동한다. 필사 피조물이 이해하듯이, 영은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데, 항상 아들을 보좌하고 우주 경영에 영구히

필수적이다. 반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직 아들과 그의 연합된 아들들만 구원자로서 활약할 수 있다. 영은 반역에 대응하거나 권위를 방어할 책임을 결코 맡을 수 없지만, 악으로 더럽혀지거나 죄의 지배를 받는 세계들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정부를 안정시키려고 아들이 노력하는 동안, 그에게 체험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영은 그를 항상 지원한다. 오직 아들만이 그들의 공동 창조 업무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필사적 사람의 복지와 그들의 신성한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신실하게 그리고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영 도우미인 하나님의 딸들로 이뤄진, 그 광대한 회중과 신성한 사역자의 끊임없는 협동 없이는, 어떤 아들도 최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33:3.5 (368.5)} 창조주 아들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의 피조물 증거가 완성됨에 따라, 신성한 사역자가 간헐적{間歇的}으로 격리되던 불확실성이 종결됐으며, 아들의 우주 도우미는 확실성과 통제 속에 영구히 정착하게 됐다. 소집된 무리들 앞에서, 우주 영이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면서 아들에 대한 순종을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처음 선포한 것은, 축제 중의 축제인, 창조주 아들의 으뜸 아들이로서의 즉위식{卽位式}에서였다. 이 사건은,

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마친 후 살빙톤으로 돌아왔을 때, 네바돈에서 발생했다. 중대한 이 행사가 있기 전에는, 우주 영이 우주 아들에게 종속된다고 결코 고백한 적이 없었으며, 영이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의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진실하게 선포될 수 없었다.

33:3.6 (369.1) 창조적 어머니 영이 이렇게 종속 맹세를 한 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 영을 우주 영토에 대한 공동통치자로 임명하면서, 그리고 아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도록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하면서, 자신도 영 동무에게 영원토록 의존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했으며;최종적인 “동등 선언문”을 반포하고 널리 알렸다. 아들은 이 지방우주의 주권자였음에도, 신성한 성품의 인격체와 속성들로 이뤄진 모든 재능에서 자신과 영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공간에 있는 세계들의 하위 피조물에게도, 가정{家庭}을 조직하고 운영하기에 탁월한 원형{原型}이 됐다. 이것은,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가정,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인간 제도의 높은 이상{理想}이다.

33:3.7 (369.2) 아들과 영은 지금,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가족의 아들과 딸을 지키고 보살피듯이, 우주를 주재하고 보살피고 있다. 우주 영을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동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 영역의 피조물을 그들의 아들과 딸로-- 곧 광대하고 영광스런 가족이지만 막대한 책무와 끝없는 보살핌이 있는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33:3.8 (369.3) 특정한 우주 자녀의 창조를 아들이 개시하며, 한편 영은 수많은 계층의 영{靈} 인격체 산출을 홀로 책임지는데, 이 인격체들은 동일한 이 어머니 영의 지시와 안내를 받아서 돌보고 봉사한다. 다른 유형의 우주 인격체들을 창조할 때, 아들과 영은 함께 활동하며, 어떤 창조 행위에서도 두 분 가운데 누구든지 다른 분의 충고와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4. 가브리엘--최고 행정관

33:4.1 (369.4)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에 현현{顯現}한 무한한 영이 산출한, 첫 정체성 개념 및 이상적{理想的} 인격체가 인격화된 존재다. 지방우주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주 아들과 어머니 영이

합동하여 창조 연합체로 결속하기 전에, 다재다능한 아들과 딸들로 구성된 가족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성한 이 두 인격자의 이런 자유로운 초기 연합체의 최초 공동 행위의 결과로, 아들과 영의 최고 영 인격체인 빛나는 새벽별이 창조된다.

33:4.2 (369.5) 지혜롭고 위엄 있는 그런 존재는, 각 지방우주에 오직 하나씩만 생겨난다.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은, 신성{神性}이 그들과 동등한 아들을 무제한 창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창조하지만, 그런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딸들과 합동하여 각 우주에서 오직 하나의 빛나는 새벽별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 새벽별은 그분들과 비슷하며, 그분들의 창조 특권을 제외한 통합된 본성을 자유롭게 띤다. 살빙톤의 가브리엘은 신격 속성에서는 현저히 제한돼 있음에도, 신성의 본성에서는 우주 아들과 비슷하다.

33:4.3 (369.6) 새 우주의 부모가 낳은 이 첫_태생은 독특한 인격체인데, 어느 한 쪽 선조에게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여러 특징을 지니고, 전례 없는 다재다능함과,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특징을 지닌 존재다. 숭고한 이

인격체는, 영의 창조적 상상력과 조합된, 아들의 신성한 뜻을 포함한다. 빛나는 새벽별의 사고{思考}와 행동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 양쪽을 언제든지 충분히 대행할 것이다. 그런 존재는 또한, 영적 스랍 무리와, 물질적이고 의지를 가진 진화하는 피조물, 양쪽을 널리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교감하면서 접촉을 이룰 수 있다.

33:4.4 (370.1) 빛나는 새벽별은, 창조자는 아니지만 놀랄만한 경영자인데, 창조주 아들의 개인적인 경영 대리인이다. 아들과 영은, 창조하고 생명을 수여하는 경우 외에는, 가브리엘의 참여 없이 중요한 우주 절차를 결코 협의하지 않는다.

33:4.5 (370.2) 살빙톤의 가브리엘은 네바돈 우주의 최고 행정관이며, 그 경영에 관한 모든 행정상 요청을 중재하는 자다. 이 우주 행정관은, 자기 업무에 합당한 재능을 충분히 부여받은 채 창조됐지만, 우리 지방 창조물이 성장하고 진화됨에 따라서 체험을 쌓아 왔다.

33:4.6 (370.3) 가브리엘은 지방우주에서 인격없는 직무와 관계되는 연방우주 명령을 집행하는 최고 관리다. 태고 항존자들이 판결하는, 집단 심판과 섭리시대 부활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문제를 집행하는 것 역시,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에게 위임돼 있다. 따라서 가브리엘은, 연방우주 통치자와 지방우주 통치자 모두에게 최고 행정관이다. 그는 자신의 지휘 하에 유능한 단체의 경영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은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창조됐고, 진화 필사자에게는 계시되지 않는다. 이 보좌관들 외에, 가브리엘은 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천상의 존재 계층들 전부를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늘 군대"--곧 천군{天軍}--의 최고 명령자이기도 하다.

33:4.7 (370.4) 가브리엘과 그의 참모는 선생이 아니며;경영자다. 미가엘이 피조물 증여로 육신화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자신의 통상 업무에서 떠난 적이 결코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 차례 증여되는 동안, 가브리엘은 육신화된 아들의 뜻을 항상 따랐으며, 후반부 증여들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합동 항존자의 협조를 받아서 우주 직무를 실제로 지휘하는 자가 됐다.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한 이후로, 가브리엘은 유란시아의 역사와 발전에 항상 밀접하게 관련돼 왔다.

33:4.8 (370.5) 증여 세계들에서, 그리고 일반_부활 및 특별_부활
출석점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브리엘을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창조계의 경영 업무에 소집되기 전에
지방우주를 통과해 상승하는 동안, 필사자는 그를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경영자로서 어떤 계층이나
등급에 속하든지, 가브리엘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5. 삼위일체 대사

33:5.1 (370.6)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인격체들의 경영은
연방우주 정부에서 끝난다. 지방우주의 특징은
이중{二重}으로 감독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_어머니 개념의 시작이다. 지방우주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들이며;우주의 어머니는 신성한 사역자, 즉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이다. 아무튼, 각 지방우주마다
중앙우주와 낙원으로부터 특정한 인격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복을 누린다. 네바돈에서 이 낙원 집단
우두머리는, 낙원 삼위일체의 대사{大使}인--곧 살빙톤의
임마누엘인--, 네바돈 지방우주에 배정된 합동 항존자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고위 삼위일체 아들은 창조주
아들의 법정에 대한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대리인이기도
한데;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33:5.2 (370.7) 지존하신 삼위일체 인격체들의 여섯째 계층 가운데 611,121_번인 살빙톤의 임마누엘은, 탁월한 존엄성을 갖춘 존재이며,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예찬을 거절할 만큼 최고로 겸손한 존재다. 임마누엘은, 전체 네바돈에서 형제 미가엘에게 종속됨을 결코 표명한 적이 없는 유일한 인격체일 정도로, 탁월성을 갖고 있다. 그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주권자 아들에게 자문가로서 활약한다. 그는 창조주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높은 우주 협의회를 주관할 수 있지만,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우주의 행정 직무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33:5.3 (371.1) 네바돈에 온 이 낙원 대사는, 지방우주 정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성좌 본부에서 봉사하면서 그와 접촉하는 형제들, 즉 충실{忠實} 항존자들을 감독하는 경우 외에는, 진화하는 지방우주의 행정 직무에 대해 강권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33:5.4 (371.2) 충실 항존자들은, 합동 항존자와 마찬가지로, 요청받지 않는 한, 성좌 통치자들에게 결코 조언 하거나 도움을 제안하지 않는다. 성좌에 파송된 이 낙원 대사들은, 지방우주에서 자문하는 임무로 활약하는 삼위일체의

상비{常備} 아들들이 직접 현존하는 경우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 성좌는 지역 체계들보다 더 밀접하게
연방우주 경영에 관련돼 있는데, 지방우주에서 출생한
인격체들만이 지역 체계를 경영한다.

6. 일반 경영

33:6.1 (371.3) 가브리엘은 네바돈의 최고 행정관이며 실제
경영자다. 미가엘이 살빙톤을 떠나더라도, 우주 직무의
규칙적인 운영은 어느 면으로도 방해받지 않는다.
낙원에서 최근에 오르본톤 으뜸 아들들의 재회 임무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가엘이 없는 동안 가브리엘이
지방우주의 섭정{攝政}이 된다. 그럴 때 가브리엘은 모든
주요 문제에 관해 항상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충고를
구한다.

33:6.2 (371.4) 아버지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의 수석{首席}
보좌관이다. 빛나는 새벽별이 살빙톤에 없을 때, 이 원본
멜기세덱 아들이 그의 책임을 대행한다.

33:6.3 (371.5) 우주의 다양한 하위경영기관의 경우에, 그들에게
배정된 어떤 특별한 책임 범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
정부는 그에 속한 행성들의 복지를 보살피는 한편,

살아있는 존재들의 육체 상태, 즉 생물학적 문제에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성좌 통치자들은 각각의 행성과 체계들에 보급된 사회 및 정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성좌 정부는 주로 통합과 안정에 집중한다.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 통치자들은 그 영역의 영적 상태에 더 많이 관여한다.

33:6.4 (371.6) 대사{大使}는, 사법 명령에 따라서 지명되고, 우주를 다른 우주들에게 대변한다. 영사{領事}는, 성좌들 상호간에 대리하는 자이고, 지방우주 본부에게 성좌를 대리하는 자이며;입법 명령에 따라서 지명되고, 오직 지방우주 경계 내에서만 활동한다. 입회자는, 다른 체계들에게 그리고 성좌 수도{首都}에서 그 체계를 대표하도록 체계 주권자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임명되며, 그들 역시 그 지방우주의 경계 내에서만 활동한다.

33:6.5 (371.7) 살빙톤으로부터, 성좌 본부, 체계 본부, 그리고 각 행성들에게 방송이 동시에 송출{送出}된다. 비교적 높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는 모두,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과 소식을 나누게 하는 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다. 우주 방송은, 모든 인간거주 세계에, 그들의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도달한다. 행성 간 상호 연락은, 영적으로 격리된 세계에만 금지된다.

33:6.6 (372.1) 성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가 성좌의 방송을 성좌 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출한다.

33:6.7 (372.2) 살빙톤에 있는 특별한 집단의 존재들이 연대기{年代記}를 계산하고 평가하며 수정한다. 네바돈의 표준일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8일 6시간 2분 30초에 해당한다. 네바돈의 1년은 우버사 회로에 관계된 우주 회전의 시간 단위로 구성되며, 표준 우주 시간으로 100일과 같은데, 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년에 해당된다.

33:6.8 (372.3) 살빙톤에서 방송되는 네바돈 시간은, 이 지방우주에 있는 모든 성좌와 체계에게 표준이 된다. 각 성좌는 네바돈 시간에 맞춰서 그 직무를 처리하지만, 체계들은 개별 행성과 마찬가지로 자체 연대기를 유지한다.

33:6.9 (372.4) 사타니아에서 하루는, 예루셈에서 계산된 것처럼,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보다 약간 (1시간, 4분, 15초) 짧다.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살빙톤 시간 또는 우주 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타니아 시간 또는 체계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시간은 우주 시간이다.

7. 네바돈의 법정

33:7.1 (372.5) 으뜸 아들인 미가엘은, 오직 세 가지 일, 즉:창조, 유지, 및 돌봄에만 최고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우주의 사법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창조주들은 피조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결코 앉지 않으며;그것은 고도의 훈련과 실제 피조물 체험을 겪은 피조물의 독점 기능이다.

33:7.2 (372.6) 네바돈의 전체 사법 장치는 가브리엘의 감독 아래 있다. 살빙톤에 위치한 고등법원은, 체계 법정들에서 올라오는 항소 사건과 일반적인 우주 유입 문제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 우주 법정에는 70개 지부가 있으며, 이 지부들은 일곱 부서로 작용하고, 각 부서는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판결하는 모든 문제에 이중{二重} 사법직책이 주재{主宰}하는데, 완비된 선재자{先在者} 가운데 한 명의 판사와, 상승 체험을 겪은 한 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33:7.3 (372.7) 판결에 관해서, 지방우주 법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다:

33:7.4 (372.8)

1. 지방우주 경영은, 창조, 진화, 유지, 및 돌봄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지방우주 법정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소송사건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맞이하는 자연사와는 관계없지만, 계속되는 실존, 즉 영원한 생명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르본톤 법정으로 회부되며, 그 개인에게 불리하게 결정 되면, 사멸{死滅}에 대한 모든 판결문은 연방정부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대행기관들을 통해서 집행된다.

33:7.5 (372.9)

2.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들 가운데 누구든지, 아들들로서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위태롭게 하는 불이행 또는 변절은, 아들의 법정에서는 결코 판결 받지 않으며;그런 오해는 즉시 연방우주 법정으로 이관된다.

33:7.6 (372.10)

3. 지방우주의 --지역 체계 같은-- 어느 구성 부분이든지, 지방 창조계에서 영적으로 격리된 후에 다시 온전한 영적 상태의 교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연방우주의 최고 집회가 동의해야만 한다.

33:7.7 (373.1) 그 외의 모든 문제에서는, 살빙톤 법정이 최종적인 동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들의 결정과 선고에 대해 항소하거나 피할 길은 전혀 없다.

33:7.8 (373.2)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의 다툼이 불공평하게 판결 받는 경우도 때로 있을 수 있겠지만, 우주에서는 공의와 신성한 공정성이 지배한다. 너희는 질서가 잘 잡힌 우주에서 살고 있으며, 곧 공정하게, 실로 자비롭게 취급받으리라는 것을 믿어도 좋다.

8. 입법 기능과 행정 기능

33:8.1 (373.3) 네바돈의 수도 살빙톤에는, 실제 입법기관{立法機關}이 없다. 우주 본부 세계들이 주로 판결에 관계한다. 지방우주의 입법 집회는 100개의 성좌 본부에 위치한다. 체계는 주로 그 지역 창조물의 행정 및 경영 업무에 관계한다. 체계 주권자들과 그 동역자들은 성좌 통치자의 입법 명령을 실행하며, 지방우주의 고등법원의 사법 명령을 집행한다.

33:8.2 (373.4) 우주 본부에서는 진정한 입법 기능이 실행되지 않지만, 살빙톤에서는 다양한 자문회의 및 연구회의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고 수행된다. 더러는 영구적이고;더러는 그 목적이 성취되고 나면 해체된다.

33:8.3 (373.5) 지방우주의 *최고 협의회*는, 각 체계에서 세 명의 위원과, 각 성좌에서 일곱 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격리된 체계는 이 집회에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지만, 이 모든 협회에 참여하고 이를 연구하는 참관인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돼 있다.

33:8.4 (373.6) *최고 구속력을 갖는 100개의 협의회*가 살빙톤에 위치해 있다. 이 협의회 의장들이 가브리엘의 직속 실무 내각을 구성한다.

33:8.5 (373.7) 고등 우주 자문 협의회는 모든 평결{評決}은, 살빙톤 사법 기관 또는 성좌의 입법 집회에 소속돼 있다. 이 고등 협의회는 자신의 권고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충고가 우주의 근본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면, 집행하는 판결을 네바돈의 법정이 내리지만;그들의 충고가 지역 상황 또는 응급 상황에 맞춰져야만 한다면, 신중한 법령 제정을 위해서 성좌의 입법 집회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을 위해서 체계 권세자들에게 그것을 내려 보내야만 한다. 이 고등

협의회는 실제로 우주의 최고 입법기관이지만, 법령을 제정하는 권한 없이, 그리고 집행하는 권력 없이 활동한다.

33:8.6 (373.8) 우리가 "법정"과 "집회"라는 말로 우주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인 이 진행사항들은 상응하는 이름이 내포하는, 유란시아의 매우 원초적이고 물질적인 활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33:8.7 (373.9)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34편 지방우주 어머니 영

34:0.1 (374.1)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들을 인격화하면,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공간 영역으로 이 창조주 아들을 따라갈, 자신의 새롭고 독특한 대변자를 개별화하는데, 이 대변자는 처음에는 새로 기획한 우주를 물리적으로 조직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살피는 동안, 창조주 아들의 동무가 된다.

34:0.2 (374.2) 창조적 영은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양쪽에 작용하며; 창조주 아들도 그러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 경영에 협조하고 연합한다.

34:0.3 (374.3) 이 딸 영들은 무한한 영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보살핌의 업무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물리적 창조에서 우주 아들이 원형{元型}을 제공하고, 한편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의 물질화를 개시한다. 아들은 동력 설계를 다루지만, 영은 이 에너지 창조물을 물리적 실체로 변형시킨다. 무한한 영의 이 초기 우주 현존을 한 인격자로서 묘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창조주 아들에게 영 동역자는 개인적이며 항상 별개의 개체로 작용해 왔다.

1. 창조적 영의 인격화

34:1.1 (374.4) 별들과 행성 다발의 물리적 조직이 완성되고, 연방우주 동력 중심들이 에너지 회로를 설립한 후에, 무한한 영이 지방우주에서 창조력을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 지휘 하에 운용되는 대행기관들이 이 예비 창조 업무를 마친 뒤에, 새롭게 조직된 우주에 그 다음으로 생명체를 설계할 것이라는 미가엘 아들의 선언이 반포된다. 이렇게 공표된 의도를 낙원이 인지함에 따라, 낙원 삼위일체 안에 승인 반응이 나타나며, 그 뒤에, 이 새로운 창조가 준비되고 있는 그 연방우주의 으뜸 영이, 신격들의 영적{靈的} 광채 속으로 사라진다. 그동안 다른 으뜸 영들이 낙원 신격들의

이 중앙 거점{據點} 근처로 접근하며, 그 뒤를 이어, 신격에게_포용된 으뜸 영이 그의 동료들에게 인지되도록 떠오르게 될 때, “원초적 폭발”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섬광{閃光}, 즉 관련된 연방우주 본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현상이며;거의 이해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형태화와 동시에, 관계된 지방우주에 거주하는 무한한 영의 창조적 영{靈} 현존과 능력의 본성에 하나의 괄목할만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 낙원 현상에 반응하여, 그 창조주 아들 바로 앞에서, 무한한 영의 새로운 인격있는 대변자가 즉시 인격화된다. 그가 바로 신성한 사역자다. 그 창조주 아들의 개별화된 창조적 영 도우미는, 그의 개인적 창조 동역자,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됐다.

34:1.2 (375.1) 공동 창조주가 이렇게 새롭게 인격적으로 분리됨으로부터, 그리고 그 분리됨을 통해서, 그 지방우주의 모든 세계와 존재를 보급하도록 정해진 영{靈} 능력과 영적 영향력의 확정된 흐름 그리고 규정된 회로들이 생겨난다. 실제로, 이 새로운 인격있는 현존은, 아들이 물리적 우주를 조직하던 초기 작업을 할 때 덜

인격있고 이전에 존재했던 그의 동역자가 바뀐 것에 불과하다.

34:1.3 (375.2) 엄청난 극적사건을 단 몇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이 중대한 진행사항에 관해 이야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들은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헤아릴 수 없고, 납득될 수 없으며;그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낙원 삼위일체의 품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한 가지는:순전히 물리적인 창조 또는 조직이 이뤄지는 동안, 지방우주에서 영 현존이 낙원의 무한한 영의 영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지 못했으며;반면에, 감독하는 으뜸 영이 하나님들의 신비스런 포용으로부터 다시 나타난 후에, 그리고 영적 에너지의 섬광이 일어난 후에, 무한한 영의 지방우주 형태화가, 무한한 영과의 변화 접촉을 이루고 있었던 그 으뜸 영의 인격있는 유사형태로, 갑자기 완전하게 바뀐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천문{天文} 관할권을 갖는 연방우주의 으뜸 영의 인격있는 본성으로 물든, 인격있는 본성을 그렇게 획득한다.

34:1.4 (375.3) 무한한 영이 이렇게 인격화된 현존인, 지방우주의 창조적 어머니 영은, 사타니아에서 신성한 사역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용적 의미와 영적 목적에서, 신격의 이 형태화는, 신성한 개체, 즉 영 인격자다. 그리고 창조주 아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한다. 우리 지방우주에서 바로 제3 근원 및 중심이 이렇게 집중하고 인격화함을 통해서, 영이 나중에 창조주 아들에게 그토록 완전히 종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에 관해서,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에게 위탁됐다”고 표현했다.

2. 신성한 사역자의 본성

34:2.1 (375.4) 신성한 사역자는, 생명체를 창조하던 시기에 현저한 인격체 변질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한 인격체로서 활동하고, 지방 창조계의 광대한 직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서 창조주 아들에게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협동한다.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되기 이전 시대에는, 심지어 무한한 영의 이 대표단조차 많은 우주 존재 유형에게 전적으로 개인적이지 않은 듯이 보일지도 모르나; 창조주 아들이 으뜸 아들이라는 주권적 권세자로 승진된 후에, 창조적 어머니 영은 인격있는 특성들이

증대되어, 모든 접촉하는 개체{個體}에게 개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

34:2.2 (375.5) 창조주 아들과 아주 초기에 연합할 때부터, 우주 영은 무한한 영의 물리적_통제 속성들 전체를 지니는데, 충만한 반인력{反引力} 재능도 포함한다. 우주 영은 인격있는 신분을 달성함에 따라서, 무한한 영이 직접 현존했을 경우와 같은 정도로, 지방우주에서 정신 인력에 대한 온전하고 완성된 통제력을 행사한다.

34:2.3 (375.6) 신성한 사역자는, 낙원의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에 구현된 것과 같은 무한한 영의 본성 및 선천적 특질에 따라, 각 지방우주에서 작용한다. 모든 우주 영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균일한 동시에, 기능의 다양성도 있는데,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한 분을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기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연방우주에서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다양한 기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들은 모든 본질적인 영적 속성에서 동일한데, 연방우주의 차이에는 상관없이, 똑같이 영적이고 전적으로 신성하다.

34:2.4 (376.1) 창조적 영은, 창조주 아들과 공동책임을 지고 그 세계들의 피조물을 산출하며, 이 창조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생명은 창조적 영의 작용을 통하여 보살핌을 받고 유지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셨고, 그들이 창조됐습니다. 당신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34:2.5 (376.2) 창조적 어머니 영은, 지성 피조물이 있는 우주를 창조할 때, 처음에는 완전한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아들과 협력해 빛나는 새벽별을 산출한다. 그 후에, 위로는 멜기세덱부터 아래로는 그 영역의 필사자와 실제로 접촉하는 물질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들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후손은 행성들에서 창조된 존재 계층에 점차 접근한다. 필사 피조물이 나중에 진화할 경우에 생명 운반자 아들들이 물리적 육체를 제공하는데, 그 영역에서 조직된 기존 물질로부터 만들어내며, 한편 우주 영은 “생명의 호흡”을 기부한다.

34:2.6 (376.3) 광우주 가운데 일곱째 지역이 여러 면에서 볼 때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문제에 생각이

깊은 탐구자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굉장히 잘 균형 잡힌 창조물이 진화되기를 기대한다. 오르본톤이 이렇게 고도로 균형 잡히리라고 우리가 예견하는 것은, 이 연방우주를 관장하는 영이 높은 곳의 으뜸 영들의 우두머리이고, 영원한 세 신격 전부의 특징과 성품이 균형 잡히고 합동해서 완전히 조정된 모습을 구현하는 영 지성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구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리고 뒤떨어졌지만, 영원한 미래 시대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초월적 발전과 전례 없는 성취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 시간과 공간의 아들과 영

34:3.1 (376.4) 영원한 아들뿐 아니라 무한한 영도, 시간과 공간 가운데 어느 것에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 대부분은 영향을 받는다.

34:3.2 (376.5)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널리 퍼지며 영원성 궤도에 갇힌다. 그럼에도, 시간세계의 자녀들과 친히 접촉할 때,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심히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세적인 요소들은 종종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러 정신 사역이 공간을 무시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우주 실체를 조정하는 동안에는 시간 지연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단독 사자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실제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공간과 무관하며;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실재들이 있다.

34:3.3 (376.6) 창조적 영은 인격적 특권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과 무관하지만,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 성좌 또는 체계 본부에서는 그런 우주 영의 특화된 인격있는 현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지방우주 전체에 두루 동일하게 널리 존재하며, 따라서 다른 세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세계에 글자 그대로 몸소 현존한다.

34:3.4 (376.7) 창조적 영은 시간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만, 우주 사역에서 언제나 제한 받는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우주 전반에 걸쳐서 즉시 행동하지만;창조적 영은, 우주 아들의 인격적 특권을 의식적{意識的}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용할 때 외에는, 보편적 정신 사역에서 시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창조적 영은, 우주 반사성이라는 신비한 기능에 협조할 때뿐만 아니라, 순전한_영으로 작용할 때에도, 시간과 상관없이 행동한다.

34:3.5 (377.1)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가 시간과 공간 양쪽에 상관없이 작동하더라도, 창조주 아들의 모든 기능은 공간의 제한조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진화 세계의 진행사항들을 제외하면, 이 미가엘 아들은 비교적 시간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듯하다. 창조주 아들은 시간으로 인해서는 방해받지 않지만, 공간으로 인해서는 제한되며;동시에 두 장소에 몸소 있을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고, 연방우주에서는 반사성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는 시간을 초월해 영원한 아들과 직접 교통한다.

34:3.6 (377.2)

신성한 사역자는 창조주 아들의 이해심 있는 도우미이고, 공간에 관한 그의 선천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하도록 해주는데, 이 두 존재가 경영상 합동하여 작용할 때, 자기 지방 창조물의 경계 내에서 시간 및공간에 실제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우주 전역에서 실제로 관찰된 바와 같이,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은, 대개 시간과 공간 양쪽에 상관없이 활동하는데, 상대방의 시간 해방과 공간 해방을 각각 항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3.7 (377.3) 오직 절대 존재들만이, 절대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 양쪽에 무관하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존재에게 종속된 인격자들 대부분은 시간과 공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다.

34:3.8 (377.4) 창조적 영이 “공간을 의식{意識}하게” 될 때, 그는 경계가 정해진 “공간 범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할 준비를 갖추는데, 이것은 그를 제한시키는 다른 모든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그 안에 공간 제약이 없는 어떤 영역이다. 누구든지 오직 자신이 의식하는 영역 내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4. 지방우주 회로

34:4.1 (377.5) 네바돈 지방우주에는 별개의 세 영{靈} 회로가 있다:

34:4.2 (377.6) 1. 창조주 아들이 증여하는 영, 즉 위로자, 진리의 영.

34:4.3 (377.7) 2. 신성한 사역자의 영 회로, 즉 거룩한 영.

34:4.4 (377.8) 3. 지성체를_섬기는 회로, 다소 통합된 활동이지만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다양한 작용을 포함한다.

34:4.5 (377.9)

창조주 아들들은 우주에 현존하는 영을 부여받는데,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이 가진 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데, 증여된 아들이 한 구체의 영적 소유권을 받은 후에 그런 세계에 쏟아 붓는다. 증여된 이 위로자는, 지방우주에서 진리가 의인화 된 그분을 향하도록 모든 진리 탐구자를 언제든지 이끄는 영적 힘이다. 이 영은 창조주 아들의 내재적 재능인데, 광우주의 주요 회로들이 낙원 신격들의 인격체 현존으로부터 파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나타난다.

34:4.6 (377.10)

창조주 아들은 오고 갈 수 있으며;그의 몸소 현존하심은 지방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그럼에도 진리의 영은 방해받지 않고 활동하는데, 신성한 이 현존은 창조주 아들의 인격체로부터 파생되지만, 신성한 사역자의 인격자 속에 기능적으로 중심 두기 때문이다.

34:4.7 (378.1)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방우주 본부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의 영은 아들이 몸소 현존하심과 상관없이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작용하지만,

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적 영은 그렇지 않다. 신성한 사역자의 거룩한 영은, 그 몸소 현존하심이 살빙톤에서 떠나야만 될 때에는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사역자의 영 현존은, 우주 본부 세계에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런 사실이, 창조주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아들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어머니 영은 자신의 인격적 영향, 즉 거룩한 영뿐 아니라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焦點}과 중심으로서 행동한다.

34:4.8 (378.2) 창조주 아버지_아들과 창조적 어머니 영, 이 두 분은 지방우주 자녀의 정신 자질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창조적 영은 자신이 인격적 특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정신을 증여하지 않는다.

34:4.9 (378.3) 지방우주에서 진화를 초월하는 인격체 계층들은, 연방우주의 정신 원형{原型}에서 나온 지방우주 유형을 부여받는다. 진화하는 생명체 중에서 인간 및 준인간{準人間} 계층들은, 정신을 돌보는 보조 영 유형을 부여받는다.

34:4.10 (378.4) 일곱 보조{補助} 정신_영은, 지방우주의 신성한 사역자의 창조물이다. 이 정신_영들은 성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능력 면에서는 다양하며, 어머니 창조주와 구별된 인격체들로서는 도저히 간주될 수 없지만, 모두가 우주 영의 본성을 똑같이 띤다. 일곱 보조체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 *지혜*의 영, *경배*의 영, *조언*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이해*의 영, 및 --신속하게 감지하는-- *직관*의 영.

34:4.11 (378.5) 이들은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상징으로 봤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정신_영을 둘러싸는 24파수꾼의 자리는 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모습이 혼동됐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체계 수도{首都}에 속한다. 24장로의 자리는, 예루셈, 즉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너희 지역 체계의 본부에 있다.

34:4.12 (378.6)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왔다”는 것은--곧 지역 체계들을 향한 우주 방송은-- 살빙톤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지방우주의 방향지시 통제 피조물, 즉 본부 세계의 살아있는 나침반들을 봤다. 네바돈에 있는 이 방향지시 통제를 살빙톤의 네 통제 피조물이 유지하는데, 그들은

우주 흐름에 대해 작동하고, 첫째로 활약하는 정신_영, 즉 “신속한 이해”의 영인, 직관 보조체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네 피조물에 대한--소위 짐승들에 대한--설명은 유감스럽게 망쳐진 것이었으며;그들은 견줄 데 없는 아름다움과 절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

34:4.13 (378.7) 그 나침반의 네 지점은, 네바돈의 생명체 안에 보편적이고 내재적이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이런 방향지시 흐름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하는 신체 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피조물 창조는, 우주를 통해서 각 행성에 이르기까지 복제되는데, 그 세계들의 자력{磁力}과 관련되어, 이 방향지시 세포들이 북쪽과 남쪽을 언제든지 가리키는, 동물 유기체 속의 극히 미세한 조직체 집단을 그렇게 활성화시킨다. 그리하여 방위 감각은, 우주의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영구히 고정돼 있다. 인류가 의식할 수 있는 소유물로서, 이 감각이 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이 기관들은 본 문서가 기록될 무렵에 처음으로 유란시아에서 관찰됐다.

5. 영의 사역

34:5.1 (379.1) 신성한 사역자는, 생명을 조직하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과제에서, 창조주 아들의 일곱 번째 증여가 있기 전까지 창조주 아들과 협동하며, 그 다음에, 그가 우주의 완전한 주권자로 승진된 후에는, 세상을 보살피고 행성을 진보시키는 그 다음 업무에서,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증여한 영과, 계속 협력한다.

34:5.2 (379.2)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영은 진화로 진보시키는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영역의 생명 없는 물질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식물 생명을 증여하고, 다음에는 동물 유기체를, 그 다음에는 첫 인간 실존 계층을 증여하며;앞에 있었던 각각의 수여는, 최초이자 원시적인 단계로부터,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행성 생명체의 진화 잠재력이 더 드러나도록 기여한다. 영의 이런 수고는, 약속된 영들인 일곱 보조체를 통해서 주로 수행되는데, 이 보조체들은 진화하는 행성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영_정신이며, 늘 연합하여 사람의 인종들을 높은 관념과 영적 이상{理想}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34:5.3 (379.3) 필사적 사람은, 진화 피조물의 순전히 동물적인 정신이 경배 및 지혜 보조체{補助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정신과 관련해서 베푸는 영의 사역을 처음 체험한다. 여섯째 및 일곱째 보조체의 이런 사역은, 정신 진화가 영적 사역의 문지방을 넘어갔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배_기능과 지혜_기능이 있는 그런 정신들은, 신성한 사역자의 영적 회로에 즉각 포함된다.

34:5.4 (379.4) 이렇게 정신이 거룩한 영의 보살핌을 받게 될 때, 그 정신은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현존을--곧 사고 조율사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정신이 사고 조율사를 받을 준비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은, 증여 아들이 행성 사역을 모든 필사자에게 베풀기 위해 진리의 영을 해방시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사역자의 영 현존과 하나가 돼서 일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접촉하는 영은, 그 세계들을 두루 맴돌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정신을 영적으로 밝히기 위해, 상승하는 피조물 인종들의 혼에 영감을 주기 위해, 그리고 신성한 운명이라는 낙원 목표를 언제든지 향하도록 진화 행성에 거주하는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시도한다.

34:5.5 (379.5)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음에도, 증여된 아들의 임무의 개요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들의 이 영의 기능과 능력이 거의 전적으로 제한받는다. 거룩한 영은 인간의 태도에 얼마간 독립적이고, 사람의 의지의 결정과 협동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거룩한 영의 사역은, 신성한 인도하심에 더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 필사자가 내적 삶의 성화{聖化}와 영화{靈化}를 이룰수록,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34:5.6 (379.6) 창조주 아버지_아들 또는 창조적 어머니 영에 속하는 영의 분리된 부분 또는 실재를, 너희가 개인으로서는 직접 소유할 수 없으며; 이 사역은, 신비 관찰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 정신의 사고{思考} 중심과 접촉하지 않고 내주하지도 않는다. 사고 조율사는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이전 실체가 명확하게 개별화된 존재인데, 인간 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바로 그 정신에 실제로 내주하며, 그들은 언제든지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의 통합된 영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일한다.

34:5.7 (380.1)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은 거룩한 영으로 현존하고, 영원한 아들의 우주 아들은 진리의 영으로 현존하며, 진화하는 필사자 안에 있거나 그와 함께 있는 낙원 아버지의 조율사_영의 현존은, 영적 재능과 사역이 균형 잡혔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신앙_사실을, 그런 필사자가 의식적으로 깨닫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6. 사람 속에 있는 영

34:6.1 (380.2) 인간거주 행성의 진화가 진행되고 행성 거주자들이 더 영성화 됨에 따라서, 그런 성숙된 인격체들이 부가적인 영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필사자가 정신 통제와 영 인지{認知}에서 진보할 때, 이런 복합적 영 사역은 기능적으로 점점 더 조화를 이루게 되며;낙원 삼위일체의 온갖사역과 점점 더 혼합되게 된다.

34:6.2 (380.3) 비록 신성이 복수{複數}로 형태화되더라도, 신격은 인간 체험에서 단수{單數}이고 항상 하나다. 또한 인간이 체험하는 영적 사역도 복수가 아니다. 모든 영 영향은, 그 기원이 복수적임에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하나다. 이 영향들은 정말로 하나인데, 광우주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칠중 하나님이 베푸는 영 사역이 있으며;영의 이런 통합하는 사역을 피조물이 점점 더 인정하고 점점 잘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 사역은 그들의 체험 속에서 지존자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

34:6.3 (380.4) 신성한 영이 영원한 영광의 고지{高地}로부터 일련의 긴 단계를 따라서 내려온 것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협력을 받아, 필사자에서 기원된 혼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겸손의 단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이며,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이 사명을 띠고 신성한 영이 원래 돌진해 나왔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 혼이 안전하게 고양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34:6.4 (380.5) 영적인 세력들은 그들 자신의 원래 수준을 반드시 추구하고 성취한다. 그들은 영원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내주하는 조율사의 인도와 가르침을 지지했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 전부를 함께 데려가며, 그들은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이다.

34:6.5 (380.6) 신성한 영이, 사람의 자녀에 대한 계속적인 섬김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능력과 성취는,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대로, 영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룬다. 영적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인 수고는 상대적인 영적 고갈을 가져온다. 모든 상승 체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생기{生氣}를 주는 이는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34:6.6 (380.7) 아무리 최고의 종교 교리라도, 죽어버린 이론은 인간 성품을 변형시키거나 필사자의 습성을 통제할 힘이 없다.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의 옛 선생들이 외쳤던 진리다: “오직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식에 숨을 불어넣고 정의의 공식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론적인 진리의 씨는 죽어있고, 최고의 도덕 개념은 효력이 없다.

34:6.7 (381.1) 내주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식한 자들은 영으로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주하신다.” 이 영이 너에게 부어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마다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34:6.8 (381.2) 필사자의 불만족으로 인한 강렬한 갈증을 예방하고, 영성화 되지 못한 인간 정신의 막연한 배고픔을 예방하는 것은, 신성한 영의 현존, 즉 생명의 물이다. 영의 자극을 받은 존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영적인 이 물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만족시키는 우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하게 물을 공급받는 그런 혼은, 물질 환경과는 거의 상관없이, 삶의 기쁨과 세상 실존의 만족감을 누린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았고 새롭게 됐으며, 도덕적으로 강화됐고 자질을 갖췄다.

34:6.9 (381.3) 각 필사자마다 그 속에는 이중{二重} 본성이 존재하는데:동물적 경향의 유전성과, 영이 부여한 고상한 충동이 그것이다. 별개이고 상반되는 이 두 충동은, 너희가 유란시아에 사는 짧은 생애 동안에는 충분히 조정되기 어려우며;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통합될 수 없지만;혼합된 영은, 너희 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의 인도에 육신이 점점 더 복종하도록, 너희를 돕는 사역을

계속한다. 너희가 물질 생애를 전부 살아야만 됨에도, 육체와 육체의 소욕을 피할 수 없음에도, 목적과 이상에서는 점점 더 동물적 본성을 복종시키고 영의 지배를 받도록 힘을 얻는다. 너희 안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공모하고, 신성한 권능들이 정말로 동맹{同盟}하는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물질의 속박과 유한세계의 장애물로부터 너희를 마침내 구출하는 것이다.

34:6.10 (381.4) 이런 모든 섬김의 목적은, “너희가 영혼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권능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봉사의 완성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려고 첫 발을 내딛었음을 나타낼 뿐이며, 그 체험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34:6.11 (381.5) 영은 결코 *몰아붙이지* 않고, 오직 인도할 뿐이다. 너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영 수준을 성취하고 신성한 고지{高地}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영원한 목표에 당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신성한 영은 아들신분을 얻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을 따라서 너희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사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기꺼이 하는 마음, 즉 지성적이고 유쾌하게 협동하는 걸음이어야만 한다. 영의 지배는 결코 강압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한다고 해서 타협하지도 않는다.

34:6.12 (381.6) 그리고 영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자유롭게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간 정신 안에는 신성한 접촉을 분명하게 의식함이, 그리고 영과 친교한다는 확신이 점차 깊어지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이 너의 영과(조울사와) 함께 조만간 증언한다.” 바로 너의 사고 조울사가, 너와 하나님이 친족관계임을 이미 알려줬고, 그래서 그 기록은, 영이 너의 영 *에게*가 아니라 “너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고 증언한다.

34:6.13 (381.7) 인간 생애를 영{靈}이 지배하고 있음을 의식{意識}하면, 영으로_인도되는 그런 필사자의 생애 반응에서 영의 특질이 곧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_참음, 친절, 선함, 신앙, 온유함, 및 절제이기 때문이다.” 영의_인도함을 받고 신성하게 조명 받는 그런 필사자는,

아직 고생하는 초라한 길을 걷고 세상에서 담당하는 임무를 인간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는 동안, 영원한 생애의 빛이 다른 세계의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희미하게 깜박일 때, 그것을 이미 식별하기 시작했으며;영감을 주고 위로하는 진리, 즉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거룩한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는 진리의 실체를 이미 납득하기 시작했다. 또한 영으로 태어난 혼들은, 시험당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곤고함에 직면하는 동안, 신성한 영이 현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심성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기운을 얻는다.

7. 영과 육신

34:7.1 (382.1) 육신은, 동물에서_기원된 인종들에서 파생된 타고난 본성인데, 신성한 영의 열매를 저절로 맺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본성이 추가됨으로써 필사자 본성이 향상됐을 때, 즉 아담의 증여로 인해 유란시아 인종들이 상당히 증진됐듯이, 영이 성품 속에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 내주하는 조율사와 진리의 영이 협동하도록 그 길이 더 잘 준비된다.

너희가 이 영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위탁임무를 완료하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34:7.2 (382.2) 영적 진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세계에 거주하는 진화하는 필사자는,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의 특징인, 영과 육체 사이의 심각한 모순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행성에서도, 아담_이전{以前} 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경지의 실존으로부터, 더욱 지성적인 의미와 더 높은 영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수준들을 거쳐서 상승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34:7.3 (382.3) 정상적인 세계의 필사자는, 자신의 육체적 본성과 영적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 실존 수준으로부터 영적 삶이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물질적 본성 및 영적 본성을 갖는 이 영역에서 유란시아 필사자가 겪는 격렬한 모순과 비교할 때, 이런 상승은 교육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4:7.4 (382.4) 유란시아 사람들은, 행성의 점진적인 영적 성취에 대한 이 과제에서 도움을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영향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캘리개스차 동란{動亂}은 전_세계적 혼돈을 야기했고, 질서 잡힌 사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도덕적 도움을, 그 다음 모든 세대에게서 박탈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재난은, 영적 열망에 더 많이 조화할 수 있었던 육체적 본성을 갖는 우세한 유형의 인종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아담의 태만이였다.

34:7.5 (382.5) 유란시아 필사자는 영과 육신 사이의 그런 현저한 갈등을 겪어야만 되는데, 자신의 먼 조상이 에덴의 증여로 인해 더 충분하게 아담처럼 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은, 유란시아의 필사자 인종들이 더 자연스럽게 영에 반응하는 육체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였다.

34:7.6 (382.6) 사람의 본성과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런 이중 재난에도, 오늘날 필사자들은 영{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육체와 영 사이의 이런 분명한 투쟁을 덜 체험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개화되고

해방시키는 봉사를 함으로써, 육신이 노예처럼_속박된 상태에서부터 비교적 벗어난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캘리개스차 반역의 무서운 결과를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고,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필사자의 삶을 인류에게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운이, 동물적 삶의 법칙에서, 그리고 악과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것이, 육신, 심지어 너의 신앙조차 극복하는 승리다."

34:7.7 (383.1) 하나님을_알고 영으로 태어난 남녀는, 가장 정상적인 세계, 즉 죄로 물든 적이 없고 반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에 거주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사자 본성과 갈등을 겪지 않는다. 신앙 아들은, 억제되지 않거나 정상이 아닌 육체적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지성적 수준에서 일하고 영적 경지에서 생활한다. 동물 존재의 정상적인 충동과 자연적인 욕망 및 육체적 본성의 자극은, 무식하거나, 잘못 가르침 받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세심한 인격자들의 정신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영적 달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34:7.8 (383.2) 너희는 영원한 인생길을 시작했으며, 과제를 받아들이고 진격 명령을 받아들였으니, 인간의 건망증과 필사자의 번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리라는 의심이나 골치 아픈 혼동으로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상태와 위치에서 넘어지지도 의심하지도 말라, 어두운 매 순간마다, 전진하는 투쟁에서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진리의 영이 항상 “이것이 그 길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34:7.9 (383.3) [유란시아에서 봉사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제35편 하나님의 지방우주 아들

35:0.1 (384.1) 앞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서 기원됐다. 그들은 우주의 영토를 다스리는 신성한 통치자들의 자녀다. 아들신분을 갖는 첫째 낙원 계층인 창조주 아들들 중에서, 우주 아버지이며 주권자인 오직 한 명의 미가엘이 네바돈에 있다. 낙원의 아들신분을 갖는 둘째 계층에는 아보날 또는 집정관 아들이 있는데, 네바돈에는 할당된 숫자대로 -- 1,062명이 --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비교적 부족한 그리스도들”은

창조주인 으뜸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행성에 자신을 증여할 때 효과적이고 전능{全能}하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셋째 계층은 지방우주에 등록하지 않으나, 나는 15,000 내지 20,000명의 삼위일체 교사{教師} 아들이 네바돈에 존재한다고 추정하는데, 이것은 기록에 등재된,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9,642명의 보좌관을 제외한 것이다. 이 낙원 데이날들은 재판관도 경영자도 아니며;최고선생이다.

35:0.2 (384.2) 검토될 아들들의 유형은 지방우주에서 기원된 존재이며;그들은 낙원 창조주 아들의 자녀이고, 서로 보완하는 우주 어머니 영과 다양하게 연합해서 태어난다. 다음의 지방우주 아들신분 계층이 본 문서에서 언급될 것이다:

35:0.3 (384.3) 1. 멜기세덱 아들.

35:0.4 (384.4) 2. 보론다덱 아들.

35:0.5 (384.5) 3. 라노난덱 아들.

35:0.6 (384.6) 4. 생명 운반자 아들.

35:0.7 (384.7) 세 아들신분 계층, 즉:미가엘, 아보날, 및 데이날의 창조를 위해서, 삼자일체 낙원 신격이 작용한다. 지방우주에서 이중{二重} 신격인 아들과 영 역시, 높은 세계층, 즉:멜기세덱, 보론다덱, 및 라노난덱 창조에 작용하며;이런 삼중 형태화를 성취함으로써, 그들은 생명 운반자가 속하는 다재다능한 계층을 산출하는 일에, 그 다음 수준의 칠중 하나님과 협력한다. 이 존재들은 하강{下降}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분류되지만, 독특하고 독창적인 형태의 우주 생명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서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1. 아버지 멜기세덱

35:1.1 (384.4) 주어진 우주의 신성한 목적과 창조 계획에 따라서, 빛나는 새벽별 및 기타 경영 인격체들 같은, 개인적으로 협조하는 존재가 실존하게 된 후에, 창조주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지방우주 딸인 창조적 영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합동이 일어난다. 이 창조적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격체 후손은 원본 멜기세덱--곧 아버지 멜기세덱--인데, 그는 나중에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과 협력해서, 그 이름을 가진 집단 전체를 실존하게 하는 독특한 존재다.

35:1.2 (385.1)

네바돈 우주에서 아버지 멜기세덱은 빛나는 새벽별의 첫 행정 동역자로서 행동한다. 가브리엘은 우주 정책에 더 많이 관여하고, 멜기세덱은 실용적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한다. 가브리엘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네바돈 법정과 협의회를 주재하고, 멜기세덱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응급을 요하는 위원회와 자문 기관을 주재한다.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은 살빙톤에서 동시에 같이 떠나는 경우가 결코 없는데, 가브리엘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 멜기세덱이 네바돈의 우두머리 행정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5:1.3 (385.2)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아버지 멜기세덱과 연합해서, 표준시간으로 1,000년 기간 내에, 우리 우주의 멜기세덱들을 모두 창조했다. 그들 자체의 동료 가운데 하나가 협조 창조자로서 작용한 아들신분 계층이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구성되며, 그런 까닭에 숭고한 유형의 자체_정부 실현에 적합하다. 원본{原本} 멜기세덱이 특정한 선천적 공동부모의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은 표준시간으로 7년에 해당하는 임기로, 그들 자체의 경영 우두머리를 정기적으로 선출하고, 그 외에는 스스로_규제하는 계층으로서

활동한다. 이 아버지 멜기세덱은, 자기 계층 가운데 특정한 개인들을 지명해서, 중간유한절대 세계들에 대해 특별한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지금까지 계시된 적이 없는 인간거주 행성 유형에 속한다.

35:1.4 (385.3) 멜기세덱들은, 연방우주 법정에 계류된 문제 앞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소환된 경우와, 때때로 발생되듯이 같은 연방우주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에게 대변하는 특별한 대사{大使}로 지명된 경우 외에는, 지방우주 밖에서 광범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각 우주의 원본 또는 첫_태생 멜기세덱은, 이웃 우주들로, 또는 그의 계층의 관심사와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띠고 낙원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2. 멜기세덱 아들

35:2.1 (385.4) 멜기세덱들은, 필사자를 향상시키는 사역에서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즉 육신화 될 필요 없이 진화 인종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낮은 피조 생명체에 충분히 접근하는 신성한 아들들 중에서 첫 계층이다. 이 아들들은 하강하는 위대한 인격체 중에서 선천적으로 중간_지점에

있는데, 기원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성{神性}과, 의지를 부여받은 가장 낮은 피조물 생명체 사이에서, 거의 중간에 있다. 따라서 그들은 높고 신성한 수준의 살아있는 실존과, 진화 세계에 있는 심지어 물질적인 낮은 생명체 형태 사이에, 타고난 중간매개체가 된다. 스랍 계층, 즉 천사들은 멜기세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며;사실, 모든 형태의 지성 생명체는, 이 아들들이 이해심 많은 친구, 인정 많은 선생, 그리고 현명한 조언자임을 발견한다.

35:2.2 (385.5) 멜기세덱은 자치{自治}하는 계층이다. 독특한 이 집단에 관해서 우리는, 지방우주 존재 편에서 자체_결정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과 우연히 마주쳤고, 가장 높은 유형의 참된 자체_정부를 목격했다. 이 아들들은 자신의 집단과 고향_행성 경영을 위한 자체 기관뿐 아니라, 6개의 연합된 구체 및 그 종속 세계들을 위한 기관 역시 조직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특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며;오르본톤 연방우주 전역에서,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한 번도 책임을 저버린 적이 없다. 그들은 자체_정부를 열망하는 모든 우주 집단의 희망이며;네바돈의 모든 구체에게, 자체_정부의

원형{原型}이자 선생이다. 지성을 가진 모든 계층의 존재는, 위로는 상관으로부터 아래로는 부하들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의 통치를 전심으로 찬양한다.

35:2.3 (386.1) 아들신분의 멜기세덱 계층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에서 최고 연장자 아들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책임을 감당한다. 그들의 업무 대부분은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반복적이지만, 많은 부분이 자발적이고, 전부 자기가_좋아서 한다. 때때로 살빙톤에 모이는 특별한 집회 대다수는, 멜기세덱들의 동의로 소집된다. 이 아들들은 자신이 출생한 우주를 자발적으로 순찰한다. 그들은 우주 정보에 전념하는 자율 조직체를 유지하는데, 그 영역의 일상적 경영에 관계되는 정규 대행기관들을 통해서 우주 본부로 올라오는 모든 정보에 상관없이, 창조주 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은 참관인이며;모든 계층의 지성 존재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받는다.

35:2.4 (386.2) 멜기세덱들은 그 영역에서 기동성 있고 자문하는 재심법정으로서 작용하며;이 우주 아들들은 자문 위원회로 봉사하기 위해, 조서{調書}를 꾸미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연자로서 행동하기 위해 작은 집단을 이뤄 그 세계들로 내려가며, 그렇게 해서 진화하는 영토의 직무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심각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주요 난관을 조정하는 일을 돕는다.

35:2.5 (386.3) 한 우주에서 이 만 아들들은 빛나는 새벽별의 최고 조력자로서 창조주 아들의 명령을 수행한다. 한 멜기세덱이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먼 세계로 갈 때, 특별한 그 사명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는 자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빛나는 새벽별의 온전한 권세를 지니고, 배정된 행성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특히 비교적 높은 어떤 아들이 그 영역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체의 경우에 적용된다.

35:2.6 (386.4) 창조주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는 생애를 위해서 진화 세계로 들어갈 때 혼자서 가지만; 그의 낙원 형제 가운데 하나인 아보날 아들이 증여될 때에는, 증여 사명의 성공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할, 열두 명의 멜기세덱 후원자와 동행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을 향한 집정관 임무에서 낙원 아보날들을 지원하며, 이런

임무에서 아보날 아들이 필사자의 눈으로 식별{識別}될 수 있다면, 멜기세덱들 역시 그렇게 나타난다.

35:2.7 (386.5) 행성의 영적 필요에서 그들이 사역하지 않는 국면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과 낙원 아버지께 최종으로 완전하게 인정받기까지, 진보된 생활을 하는 모든 세계를 매우 자주 설복시키는 선생이다.

35:2.8 (386.6) 멜기세덱들은 지혜에서 거의 완전하지만, 판단에서 오류가 전혀 없지는 않다. 행성 사명으로 고립되고 홀로 있을 때, 그들은 때로 사소한 문제에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즉 자신의 감독관들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을 특정한 일을 하려고 선택한 적이 있다. 그런 판단 실책은, 그가 살빙톤에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멜기세덱의 자격을 잃게 하며, 동료들과 불일치하도록 만든 부조화를 자신에게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침을 창조주 아들 앞에서 받으며; 그렇게 되면, 교정을 위한 휴식이 있는 다음에, 셋째 날이 지나면서 봉사로 복귀된다. 그러나 멜기세덱 기능에서 이런 사소한 부적응은 네바돈에서 드물게 발생해 왔다.

35:2.9 (387.1) 이 아들들은 숫자가 증가하는 계층이 아니며; 각 지방우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숫자는 고정돼 있다. 네바돈에 있는 그들의 본부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숫자는 1,000만 명 이상이다.

3. 멜기세덱 세계

35:3.1 (387.2) 멜기세덱들은 우주 본부인 살빙톤 근처에 그들 고유의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이 구체는, 70개의 주요 구체로 이뤄진 살빙톤 회로를 조종하는 세계인데, 이 구체들은 각각, 특화된 활동에 배정된 여섯 개의 종속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기묘한 이 구체들은 --곧 70개의 주요 구체와 420개의 종속 구체는-- 흔히 멜기세덱 대학이라고 불린다. 네바돈에 속한 모든 성좌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살빙톤에서 거주 신분을 획득하면서 490개 세계 전체에서 훈련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상승하는 자들의 교육은, 살빙톤 성단의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겨우 한 국면에 해당될 뿐이다.

35:3.2 (387.3) 살빙톤 회로의 490개 구체는 10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각 집단은 7개의 주요 구체와 42개의 종속

구체로 구성된다. 각각의 이 집단은, 우주 생명체의 주요 계층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전반적 감독을 받는다. 둘러싸고 있는 행성 행렬에서 안내 세계와 그 다음 여섯 주요 구체를 포함하는 첫 집단은, 멜기세덱들의 감독을 받는다. 이 멜기세덱 세계는 다음과 같다:

35:3.3 (387.4) 1. 안내{案内} 세계 --멜기세덱 아들들의 고향 세계.

35:3.4 (387.5) 2. 물리적_생명체 학교와 살아있는 에너지 실험실이 있는 세계.

35:3.5 (387.6) 3. 모론시아 생명체의 세계.

35:3.6 (387.7) 4. 초기 영 생명체의 구체.

35:3.7 (387.8) 5. 중간_영 생명체의 세계.

35:3.8 (387.9) 6. 진보하는 영 생명체의 구체.

35:3.9 (387.10) 7. 대등하게 최고로 자아를_실현하는 영토.

35:3.10 (387.11) 이 멜기세덱 구체들 각각의 여섯 종속 세계는, 연합된 주요 구체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에 전념한다.

35:3.11 (387.12) 안내 세계, 즉 *멜기세덱* 구체는,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고 영성화 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존재의 공동 회합 장소다. 상승자에게 이 세계는 아마 전체 네바돈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곳일 것이다. 성좌{星座} 훈련을 마친 모든 진화 필사자는 멜기세덱 구체에 착륙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살빙톤 교육 체계의 훈련과 영 진보 체제에 가입된다. 그리고 낙원 목적지에 도착된 후에도, 너희는 독특한 이 세계에서 사는 첫 날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35:3.12 (387.13)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맡는, 둘러싼 여섯 행성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멜기세덱 세계에 주거지를 유지한다. 그리고 70개의 문화 세계, 즉 살빙톤 회로의 주요 구체들에 그들이 머무는 전체 기간에, 바로 이 방법이 적용된다.

35:3.13 (387.14) 멜기세덱 구체의 여섯 종속 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존재의 시간을, 많은 다양한 활동이 채우겠지만, 상승하는 필사자를 고려한다면, 이 위성들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연구 단계에 전념한다:

35:3.14 (388.1) 1. 1_번 구체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초기 행성 생애를 회고{回顧}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 업무는, 필사자로 태어난 일정한 세계에서 온 자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수행된다. 유란시아에서 온 자들은 그런 체험 회고를 함께 추구한다.

35:3.15 (388.2) 2. 2_번 구체{球體}의 특별한 업무는, 지역 체계 본부의 첫째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맨션 세계들을 거치면서 겪은 체험을 비슷하게 재음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35:3.16 (388.3) 3. 이 구체에서 하는 회고는, 지역 체계 수도{首都}에 머물렀던 것과 관계되며, 체계 본부 무리의 나머지 건축양식 세계에서 있었던 활동을 포함한다.

35:3.17 (388.4) 4. 4번째 구체는, 성좌{星座}의 70개 종속 세계 및 관련된 구체들에서 겪은 체험을 회고하는 일에 몰두한다.

35:3.18 (388.5) 5. 5번째 구체에서는, 상승자가 성좌 본부 세계에 체류했던 것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35:3.19 (388.6) 6. 6_번 구체에서의 시간은, 이 다섯 시기를 상호 연결시키려고 시도하는 일에 사용되며, 그리하여 우주

훈련을 담당하는 멜기세덱 기초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체험의 조정을 마친다.

35:3.20 (388.7) 우주 경영과 영적{靈的}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멜기세덱 고향 세계에 위치하는데, 거기서는 에너지, 물질, 조직, 통신, 기록, 윤리, 그리고 비교 피조물 실존 등과 같은 단일 계통을 연구하는 데 전념하는 학교들도 발견될 것이다.

35:3.21 (388.8) 멜기세덱 영적 재능 학부에서는,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심지어 낙원 계층도-- 멜기세덱 및 스랍 선생들과 협동하여 운명의 복음전도자로서 나아가는 무리를 훈련시키는데, 이들은 영적 해방과 신성한 아들신분을 우주의 먼 세계들에도 선포한다. 멜기세덱 대학의 이 특수학교는 배타적 우주 기관이며;다른 영역에서 오는 학생 방문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5:3.22 (388.9) 멜기세덱들이 우주 경영의 최고 훈련 과정을 자신의 고향 세계에서 가르친다. 원본 아버지 멜기세덱이 이 고등 윤리 학부를 운영한다. 다양한 우주가 보내는 교환 학생들이 이 학교로 온다. 네바돈이라는 젊은 우주는, 영적 성취와 높은 윤리적 발전 면에서 볼 때 우주들의 등급에서

낮은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경영에 애쓰는 덕분에, 다른 영역들로부터 학생 방문자와 참관인들이 멜기세덱 학부에 몰려들 만큼, 근처의 다른 창조계를 위한 방대한 상담소가 되도록 지방우주 전체가 변화돼왔다. 거대한 집단의 현지{現地} 등록자들 이외에, 멜기세덱 학교에 참여하는 외래{外來} 학생은 10만 명을 항상 넘는데,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 계층이 스프랜돈 전체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4. 멜기세덱의 특별 업무

35:4.1 (388.10) 멜기세덱 활동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진보하는 모론시아 생애를 감독하는 것과 관계있다. 인내심 있고 현명한 스랍 사역자들이 이 훈련 대부분을 운영하는데, 우주 달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필사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이런 모든 교육 업무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연합하는 멜기세덱들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는다.

35:4.2 (389.1) 멜기세덱 계층은, 지방우주의 방대한 교육 체계와 체험 훈련 체제에 주로 전념하는 한편, 색다른 환경에서 그리고 독특한 임무에서 활약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약

1,000만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할 진화하는 우주에, 평범하지 않은 많은 것이 발생하게 돼 있으며, 그런 응급 상황에서 멜기세덱들이 행동한다. 너희의 성좌 본부 에덴시아에서, 그들은 비상사태 아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어떤 행성이든지, 어떤 체계든지, 어떤 성좌든지, 또는 우주에서든지, 모든 위급한 --물리적, 지적, 또는 영적--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는 한 명 이상의 멜기세덱 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35:4.3 (389.2) 창조주 아들의 계획 가운데 어떤 점이 실패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멜기세덱이 즉시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죄로 물든 반역에 직면해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소집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35:4.4 (389.3) 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거주하는 모든 세계에서, 어떤 종류의 응급 상황이 일어나든지, 제일 먼저 멜기세덱들이 행동한다. 그들은 때로 불안정한 행성에서 임시 관리인으로서 행동하는데, 직무에 태만한 행성 정부의 관재인{管財人}으로서 활약한다. 행성 위기가

있을 때, 이 멜기세덱 아들들은 독특한 여러 역할로 일한다. 그런 아들은 자신을 필사 존재들에게 보이도록 하기가 쉬우며, 때로는 이 계층 가운데 하나가 필사자 육신을 닮은 모습으로 육신화하기도 했다. 네바돈에서는, 진화하는 세계에서 멜기세덱이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일곱 번이나 활동했으며, 수많은 경우에 이 아들들은 우주 피조물 가운데 다른 계층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들은 모든 계층의 우주 지성체에게, 그리고 어느 세계나, 어느 체계의 세계에든지, 융통성 있고 자발적인 비상조치 사역자임이 사실이다.

35:4.5 (389.4) 아브라함 시대에 유란시아에 살았던 멜기세덱은, 그 부근에서 살렘 왕자로 알려졌었는데, 살렘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거주하는 진리 탐구자들로 이뤄진 작은 집단을 통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했으며, 그 행성의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던 시대 동안, 생명의 빛이 꺼지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리고 그는 당대의 진리를 육성했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그것을 안전하게 전수했다.

5. 보론다텍 아들

35:5.1 (389.5) 창조주 아들과 지방우주 창조적 영은, 개인 조력자들과 첫째 집단의 다재다능한 멜기세덱을 창조한 후에, 우주 아들신분에 속하는 탁월하고 다양한 둘째 계층의 보론다텍들을 계획하고 실존하게 했다. 그들은 성좌 아버지로서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층에 속한 아들이 어느 지방우주든지 각 성좌 정부 대표단에서 한결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35:5.2 (389.6) 보론다텍의 숫자는 각 지방우주마다 다른데, 네바돈에는 정확하게 100만 명이 등록돼 있다. 이 아들들은 그들과 대등한 멜기세덱들과 마찬가지로 번식 능력이 없다. 그들이 자신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알려진 바 없다.

35:5.3 (389.7) 이 아들들은 여러 면에서 자치{自治} 단체를 구성하며;그들은 멜기세덱과 거의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심지어 전체로서, 대개 자체_결정을 하지만, 보론다텍들은 그런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훌륭한 융통성 면에서는 멜기세덱 형제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통치자로서,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관으로서는,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이다. 또한 그들은 경영면에서 그들의 부하인 라노난덱 체계 주권자와 전혀 동등하지 않지만, 목적의 안정성에서, 그리고 심판의 신성{神性}에서는, 우주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모든 계층을 능가한다.

35:5.4 (390.1) 이 계층의 아들들의 결정과 통치는 언제나 신성한 아들신분의 영과 일치하고, 창조주 아들의 정책과 조화되더라도, 그들은 오류{誤謬} 때문에 창조주 아들에게 소환된 적이 있으며, 상세한 기술적 측면에서 그들의 결정은 때로 우주의 상급{上級} 법정에 상소{上訴}돼 반복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실책을 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반역을 일으킨 적은 결코 없으며; 네바돈의 전체 역사에서, 보론다덱이 우주 정부를 업신여기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35:5.5 (390.2) 지방우주에서 보론다덱의 업무는 광범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우주들에게 대사{大使}로서 활동하며, 자신이 태어난 우주 내에서는 성좌를 대변하는 영사{領事}로서 봉사한다. 지방우주 아들신분의 모든

계층 가운데 그들은 위험한 우주 상황에서 실행될 자치 권력의 전권을 매우 자주 위임받는다.

35:5.6 (390.3) 영적인 암흑 속에 격리된 세계들, 즉 반역과 태만함을 통해서 행성 고립을 겪는 구체에는, 정상적인 지위로 회복될 때까지, 대개 한 명의 참관인 보론다덱이 현존한다. 특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이 참관인 지고자{至高者}는, 그 행성에 배정된 모든 천상{天上}의 존재를 다스릴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론다덱이 그런 행성의 지고자 섭정{攝政}으로서 그런 권세를 때때로 행사해 왔다는 사실이, 살빙톤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반역에 물들지 않은 인간거주 세계들에도 적용돼 왔다.

35:5.7 (390.4) 종종 열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보론다덱 아들 단체가, 한 행성이나 체계의 지위와 관련된 특별한 소송사건에 관해, 재심과 상소를 맡은 고등 법정으로서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한다. 그러나 그들의 업무는 성좌 정부에 고유한 입법 기능과 훨씬 더 많이 관계된다. 이 모든 봉사의 결과로, 보론다덱 아들들은 지방우주의

역사가가 됐으며;모든 정치적 갈등과 인간거주 세계의 사회 격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통하다.

6. 성좌 아버지

35:6.1 (390.5) 한 지방우주에 속한 100개의 성좌{星座} 각각을 지배하도록,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덱이 배정된다. 창조주 아들이 이 아들들을 선택하며, 10,000년--곧 표준 시간으로 10,000년,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50,000년-- 동안 성좌의 지고자로 봉사하도록 가브리엘이 임명한다. 통치하는 지고자, 즉 성좌 아버지는, 상급자{上級者}와 하급자{下級者} 두 명의 동역자를 둔다.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상급 동역자가 그 정부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임무를 이어받으며, 그동안 살빙톤 세계들에 거주하는 휴무{休務} 보론다덱들은 하급 동역자의 책임을 떠맡도록 선택될 후보자로서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그리하여 통치하는 지고자는 각자 현행 정책에 따라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15만 년에 해당하는 3만 년 동안 성좌 본부에서 일정기간 봉사한다.

35:6.2 (390.6) 성좌 정부에서 실제로 집권하는 우두머리인 100명의 성좌 아버지가, 창조주 아들에게 조언하는 최고 자문 기관을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며, 그 토의의 규모와 범위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성좌의 복지에, 그리고 전체 지방우주의 경영을 통합하는 데 관련돼 있다.

35:6.3 (391.1) 성좌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하듯이, 우주 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상급 동역자가 성좌 직무의 대리 지휘자로서 활동한다. 상급 동역자의 전형적 기능은 영적 직무를 감독하는 것이며, 한편 하급 동역자는 성좌의 물리적 복지에 직접 관여한다. 아무튼 어떤 주요 정책도, 세 지고자 모두가 그것을 실행하는 세부사항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성좌에서 결코 집행되지 않는다.

35:6.4 (391.2) 영{靈} 지성체와 소통 경로의 전체 체제는 성좌 지고자들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그들은 살빙톤에서, 상급자들과 그리고 직속 부하인 지역 체계 주권자들과 완전한 접촉을 이룬다. 성좌의 상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 그들은 이 체계 주권자들과 자주 회의를 연다.

35:6.5 (391.3) 지고자들은 조연자 단체를 주위에 두고 있는데, 이 단체는 성좌 본부의 다양한 집단의 참석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지역의 필요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때때로 숫자와 인원이 다르다. 그들은 곤경에 처하는 동안 경영 업무를 돕도록, 보론다텍에 속하는 아들들을 추가로 요청하며, 또한 신속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열두 명의 보론다텍 아들이, 너희가 속한 노라티아텍 성좌를 경영하고 있다.

7. 보론다텍 세계

35:7.1 (391.4) 살빙톤을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주요 구체 회로에서, 둘째 집단의 일곱 세계는 보론다텍 행성들로 이뤄져 있다. 이 구체들은 각각,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여섯 위성과 함께, 보론다텍 활동의 특별한 국면에 헌신돼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이 49개 영역에서 우주 법률에 관한 교육의 절정기를 맞이한다.

35:7.2 (391.5)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성좌 본부 세계들에서 활동하는 입법{立法} 집회를 관찰해 왔었지만, 여기 이 보론다텍 세계들에서는, 상급자{上級者} 보론다텍들의 감독 아래 지방우주의 실제 일반 법률 제정에 참여한다.

그런 법령은 100개 성좌에서 자치{自治}하는 입법 집회의 다양한 결정을 조화시키도록 고안돼 있다. 보론다텍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육은 우버사의 경우보다도 탁월하다. 이 훈련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여섯 위성에서 추가적 작업을 포함하여, 첫 구체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섯 주요 구체 및 그것과 연합된 위성 집단들에까지 이른다.

35:7.3 (391.6)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공부와 실제 업무가 이뤄지는 이 세계들에서 수많은 새로운 활동에 입문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밝히지 못하도록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필사 존재의 물질 정신에게 이 이행업무들을 묘사하기를 단념했다. 우리는 이 숭고한 활동의 의미를 전달할 만한 언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49개의 세계에서 연구하는 동안,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가질, 새로운 이 직업들에 대한 예증{例證}으로 활용될만한 비슷한 인간 용무가 없다. 그리고 상승 체제의 일부분이 아닌 다른 많은 활동이, 살빙톤 회로에 속하는 이 보론다텍 세계들에 집중돼 있다.

8. 라노난텍 아들

35:8.1 (392.1) 창조주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은, 보론다덱들을 창조한 후에, 우주 아들신분 중에서 셋째 계층인 라노난덱들을 실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했다. 그들은 체계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지역 체계의 통치자인 체계 주권자로서, 그리고 인간거주 세계들의 경영 우두머리인 행성 왕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35:8.2 (392.2) 후기에 창조된 아들신분이고 --신성 수준을 고려하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그 다음에 있을 봉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멜기세덱 세계들에서 훈련받는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받았다. 그들은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간 첫 학생이었으며, 멜기세덱 선생과 시험관{試驗官}들이 그들의 역량과 인격체와 달성에 따라 분류하고 보증했다.

35:8.3 (392.3) 네바돈 우주가 실존하기 시작할 때, 정확하게 1,200만 명의 라노난덱이 있었고, 그들은 멜기세덱 구체를 거친 후에, 최종 시험에서 세 부류로 나뉘었다:

35:8.4 (392.4) 1. *1차 라노난덱*. 가장 높은 직급에 709,841명이 있었다. 이들은 성좌 최고 협의회에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으로서, 그리고 우주의 고등 경영 업무에
조언자로서 지정됐다.

35:8.5 (392.5) 2. 2차 라노난덱. 멜기세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계층에는 10,234,601명이 있었다. 그들은 행성 왕자로서,
그리고 그 계층의 예비군으로서 배정된다.

35:8.6 (392.6) 3. 3차 라노난덱. 이 집단은 1,055,558명을
포함했다. 이 아들들은, 예하 보좌관, 심부름꾼, 관리인,
감독관, 참관인으로서 활약하며, 어떤 체계 및 그것을
구성하는 세계들의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35:8.7 (392.7) 진화하는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이
아들들에게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멜기세덱 훈련을 받게 될 때, 즉 일단
시험 받고 분류될 때, 배정된 그 지위에서 계속 종사한다.
또한 이 아들들은 번식하는 일에도 관여하지 못하며,
우주에 있는 그들의 숫자는 고정돼 있다.

35:8.8 (392.8) 어림잡아, 라노난덱 계층의 아들들 숫자는
살빙톤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35:8.9 (392.9) 우주 협조자 및 성좌 조언자 ----- 100,000

35:8.10 (392.10) 체계 주권자 및 보좌관 ----- 600,000

35:8.11 (392.11) 행성 왕자 및 예비군 ----- 10,000,000

35:8.12 (392.12) 사자{使者} 단체 ----- 400,000

35:8.13 (392.13) 관리인 및 기록원 ----- 100,000

35:8.14 (392.14) 예비 단체 ----- 800,000

35:8.15 (392.15) 아들신분 계층에서, 라노난덱은 멜기세덱 및 보론다덱보다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우주의 예하 구성단위들에서 훨씬 더 큰 봉사에 임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등 피조물, 즉 지성을 가진 인종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타락할 수 있는 위험, 즉 우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기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더 심각하게 처해 있다. 그러나 이 라노난덱, 특히 1차 계층은, 전체 지방우주 경영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다재다능하다. 행정 역량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존재는, 가브리엘과 그의 계시되지 않은 동역자들밖에 없다.

9. 라노난덱 통치자

35:9.1 (393.1) 라노난덱들은 행성을 지속적으로 통치하는 자이며, 번갈아서 체계 주권자가 된다. 그런 아들 하나가,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너희 지역 체계 본부 예루셈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

35:9.2 (393.2) 체계 주권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각 체계 본부에서, 둘 또는 세 명이 위임 받아 통치한다. 성좌 아버지는, 이 라노난덱들 중에서 한 명을 10,000년마다 우두머리로 임명한다. 때로는 세 명의 우두머리 체계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성좌 통치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체계 정부는 어떤 종류든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원 구성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5:9.3 (393.3) 체계 주권자 또는 보좌관이 해임됐을 때, 그 자리는 성좌 본부에 위치한 최고 협의회가 그 계층의 예비군에서 선택한 자로 대치되는데, 이 집단은 바람직한 평균보다 에덴시아에서 더 크다.

35:9.4 (393.4) 라노난덱 최고 협의회는 서로 다른 성좌 본부에 위치한다. 성좌 아버지의 상급{上級} 동료 지고자가 그런

기관을 통솔하며, 한편 하급 동료는 2차 계층의 예비군을 감독한다.

35:9.5 (393.5) 체계 주권자는 그 이름에 어긋나지 않으며;인간거주 세계의 국지적 직무에서 주권자나 다름없다. 행성 왕자, 물질 아들, 그리고 보살피는 영들을 지휘할 때, 그들은 거의 아버지 같은 위치에 있다. 주권자의 개인적인 지배력은 거의 완벽하다. 이 통치자들은, 중앙우주로부터 온 삼위일체 참관인들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행정 부서이며, 입법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인으로서, 그리고 사법 판결을 적용하는 행정관으로서, 미가엘 아들의 뜻에 대항하는 개인적 불충성이 아주 쉽게, 재빨리 깊이 숨어서 자기 주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체 우주 행정부에서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5:9.6 (393.6) 우리 지방우주는, 700명 이상의 라노난덱 아들이 우주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했고, 그리하여 몇몇 체계와 수많은 행성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불행했다. 실패한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세 명만이 체계

주권자였으며;사실상 이 아들들은 모두 둘째 및 셋째 계층,
즉 행성 왕자와 3차 라노난덱 출신{出身}이었다.

35:9.7 (393.7) 이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본래의 상태로부터
타락한 것이, 창조자숨씨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들은 신성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
피조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다.

35:9.8 (393.8) 오르본톤에 있는 모든 지방우주 중에서, 우리
우주는, 헨셀론을 제외하고, 이 계층의 아들을 가장 많이
잃었다. 우리 라노난덱 아들 계층이 선택과 계획에서 그런
넓은 수준의 개인적 자유를 지니고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네바돈에서 경영상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우버사의 여론이다. 나는 비판하는 각도에서 이런
소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우주의 창조주는 이렇게
할 충분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아들들이 초기 우주 시대에 과도한 재난을 일으키는
반면, 물체들이 완전하게 선별되고 마침내 안주됐을 때,
철저히 시험 받은 이 아들들 편에서, 더 고귀하게 충성하고

더 온전히 자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초기의 혼돈과 시련을 보상하고도 남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높은 통치자들의 주장이다.

35:9.9 (394.1) 어떤 체계 본부에서 반역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개 한 명의 새로운 주권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임명되지만, 개별 행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행성은 물질 창조의 구성단위이며, 피조물의 자유 의지는 그런 모든 문제의 최종 판결에서 한 요인이 된다. 후임 행성 왕자는 격리된 세계, 즉 권세 있는 왕자가 타락해 버린 그 행성을 위해서 지명되지만, 멜기세덱 및 다른 돌보는 인격체들이 채택한 교정 정책에 따라서 반란의 결과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제거되기 전에는, 그런 세계에 대한 능동적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행성 왕자가 반역하면 그의 행성은 즉시 격리되며;국지적인 영적 회로들이 즉각 단절된다. 오직 증여된 아들만이, 영적으로 격리된 그런 세계에서 행성 간 통신선을 복구시킬 수 있다.

35:9.10 (394.2) 고집 세고 어리석은 이 아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고, 자비로운 이 규정의 혜택을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지만;그들은 자신이 태만했던 그 위치에서는

결코 다시 활동하지 못한다. 그들은 복귀된 후에, 관리하는 직책으로 물리적 경영 부서에 배치된다.

10. 라노난텍 세계

35:10.1 (394.3) 70개의 행성으로 이뤄진 살빙톤 회로에서 일곱 세계로 구성된 셋째 집단은, 그들 자체의 42개 위성과 함께, 라노난텍 경영 구체 무리를 구성한다. 이 영역에서 전에 체계 주권자 단체에 소속되는 체험을 했던 라노난텍들은, 상승하는 순례자와 스랍 무리의 경영 선생으로서 직무를 감당한다.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일하는 체계 경영자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은 여기서 10,000개 지역 체계의 경영상 결정을 실제로 조정하는 일에 관여한다.

35:10.2 (394.4) 지방우주의 이 경영 학교들은, 체계 주권자로서, 그리고 성좌 조연자로서, 오랫동안 체험한 라노난텍 아들 단체의 감독을 받는다. 이 행정 학부들보다 우수한 것은 엔사의 경영 학교밖에 없다.

35:10.3 (394.5) 라노난텍 세계들은, 상승하는 필사자를 위한 훈련 구체로서 봉사하는 한편, 우주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상 운영과 관계되는 광범한 이행업무의 중심지다.

낙원으로 향하는 동안 내내, 상승하는 순례자들은, 적용된 지식을--곧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실행하는 실제 훈련을-- 가르치는 실용 학교들에서 연구에 힘을 쏟는다. 멜기세덱들이 후원하는 우주 교육 체계는, 실용적이고 진취적이고 의미심장하며 체험적이다. 그것은 물질적인, 지성적인, 모론시아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관련된 훈련을 포함한다.

35:10.4 (394.6) 이 라노난덱 경영 구체들과 관련하여, 그 계층에서 구제받은 아들들 대부분은, 행성 직무 관리인과 지도자로서 봉사한다. 그리고 이 직무에 태만한 행성 왕자들,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다가 제안된 복권{復權}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그 동역자들은, 이 일상적인 자격으로, 적어도 네바돈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될 때까지, 계속 봉사하게 될 것이다.

35:10.5 (394.7) 어쨌든, 비교적 오래된 체계들에 있는 라노난덱 아들 중에서 다수는, 봉사와 경영과 영적 성취 면에서 훌륭한 기록을 세웠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오류와, 자주적_결정이라는 허구성을 통해서 실책을 범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고결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런 집단이다.

35:10.6 (394.8)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후원했음]

제36편 생명 운반자

36:0.1 (396.1) 생명은 자생적으로 기원되지 않는다. 생명은,
(계시되지 않은) 존재 설계자들이 처방한 계획에 따라서
조성되며, 직접 주입으로 또는 지방우주 생명 운반자들이
작용한 결과로, 거주가능 행성에 출현한다. 이 생명
운반자들은, 우주 아들로 구성된 다양한 계보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융통성이 있다. 그들은 피조 생명을 설계하고
행성 구체{球體}로 옮기는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그런 새로운 세계에 심은 후에는, 생명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그곳에 긴 기간 머문다.

1. 생명 운반자의 기원과 본성

36:1.1 (396.2) 비록 신성한 아들신분 계보에 속하더라도, 생명
운반자들은 독특하고 명확한 유형에 해당되는 우주
아들인데, 연방우주 통치자들은 지방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집단의 지성 생명체를 창조하는 데에만 참여한다. 생명
운반자들은:창조주 아들, 우주 어머니 영, 그리고 관계된

연방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태고 항존자들 가운데 지정된 한 명, 이렇게 선재{先在}하는 세 인격체의 자손이다. 오직 이 태고 항존자들만이, 지성을 지닌 생명체의 소멸{消滅}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생명 운반자들의 창조에 참여하는데, 진화하는 세계에 물리적 생명을 확립하는 일은 생명 운반자들에게 맡겨진다.

36:1.2 (396.3) 우리는 네바돈 우주에서 1억 명의 생명 운반자가 창조됐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생명을 퍼뜨리는 유능한 이 단체는, 진정한 자치{自治} 집단은 아니다. 그들은, 가브리엘,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고 네바돈의 원본 및 첫 태생 생명 운반자인 남비아로 구성된, 생명을 결정하는 3인조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나 부서별로 경영하는 모든 국면에서는 그들이 자치한다.

36:1.3 (396.4) 생명 운반자는 크게 세 부서로 대별된다:첫째 부서는 상급 생명 운반자이고, 둘째는 보좌관이며, 셋째는 관리인이다. 첫 부서는 생명 형태화의 다양한 형식에 따라서 열두 개의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나뉜다. 멜기세덱들이 이 세 부서의 분리를 초래했으며, 그들은 생명 운반자 본부 구체에서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지휘했다. 멜기세덱들은 그 후로 계속 생명 운반자들과
가깝게 연합해 왔으며, 새로운 행성에 생명을 확립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항상 동행한다.

36:1.4 (396.5) 진화하는 행성이 마침내 빛과 생명에 정착하면,
생명 운반자들은 고등 심의{審議} 기구로서 조직되는데,
이 기구는 그 세계 및 거기 있는 영화롭게 된 존재들의 장차
경영과 발달을 돕기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 생명 운반자들은, 진화하는 우주에서 후기의 정착된
시대에, 많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된다.

2. 생명 운반자 세계

36:2.1 (397.1) 멜기세덱들은 살빙톤 회로에 있는 일곱 개의 주요
구체 중에서 넷째 집단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이 생명
운반자 세계들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36:2.2 (397.2) 1. 생명 운반자 본부.

36:2.3 (397.3) 2. 생명_계획 구체{球體}.

36:2.4 (397.4) 3. 생명_보존 구체.

36:2.5 (397.5) 4. 생명 진화 구체.

36:2.6 (397.6) 5. 정신과 연합된 생명의 구체.

36:2.7 (397.7) 6. 살아있는 존재들의 정신 및 영의 구체.

36:2.8 (397.8) 7. 계시되지 않은 생명의 구체.

36:2.9 (397.9) 이 주요 구체들은 각각 여섯 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주에서 모든 생명 운반자 활동의 특별한 국면이 그 위성들에 집중된다.

36:2.10 (397.10) 1_번 세계는 본부 구체이며, 그 여섯 종속 위성과 함께, 보편적 생명, 즉 알려진 모든 형태화 국면의 생명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다. 생명 계획 학부가 여기에 위치하며, 우버사와 하보나에서 그리고 심지어 낙원에서 온 선생과 충고자들이 거기서 활약한다. 그리고 나는, 보조 정신_영들의 일곱 중앙 설치 장소가 생명 운반자들의 이 세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혀도 좋다고 허락 받았다.

36:2.11 (397.11) 10이라는 숫자가 --곧 10진{十進} 체계가-- 물리적 우주에 고유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생명 영역의 특징은 3, 7, 12, 또는 이 기본 숫자들의 배수{倍數}와 조합이다. 세 명의 낙원 근원 및 중심 계층 다음에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세 생명 계획이

있으며,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3대 기본 생명 형태가, 서로 다른 세 유형의 행성들에 분리돼 있다. 원래는 12개의 독특하고 신성한, 전달 가능한 생명 개념이 존재했다. 12라는 이 숫자는, 그 분수{分數} 및 배수와 함께, 모든 일곱 연방우주의 기본 생명 원형{原型} 전반에 두루 적용된다. 또한 일곱 가지 설계 유형의 생명 계획, 즉 살아있는 물체의 번식을 형성하는 근본 배합이 있다. 오르본톤 생명 원형들은 12개의 유전성 운반체로 형성된다. 의지를 가진 서로 다른 계층의 피조물은, 12, 24, 48, 96, 192, 384, 그리고 768개로 배열된다. 유란시아에는 인간을 번식시키는 성{性} 세포 속에 48개의 원형 통제 단위가--즉 특징을 결정하는 인자가-- 있다.

36:2.12 (397.12) *둘째 세계*는 생명_계획 구체이며;여기서 생명체 조직의 모든 새로운 형식이 산출된다. 창조주 아들이 생명 설계 원본을 제공하지만, 이 계획의 실제 결실과정은 생명 운반자들과 그 동역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한 전반적 생명 계획이 일단 조직되고 나면, 본부 구체로 전달되는데, 거기서 일단{一團}의 자문하는 멜기세덱과 협력하는 상급 생명 운반자 최고 협의회가 끊임없이 세밀하게 조사한다. 그 계획이 전에 받아들여졌던

공식들과 다르게 되면, 반드시 창조주 아들에게 전달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가 이런 심의에서 종종 창조주 아들을 대변한다.

36:2.13 (397.13) 그러므로 행성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반면, 각 진화 세계에서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생명은 단일 계보의 세계들 가운데 동형{同形} 생명 계열에서조차, 어떤 두 행성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경우가 없으며;어떤 행성 유형이 항상 있는데, 생명 운반자들이 자신의 보호에 맡겨진 생명 공식을 개선시키려고 애쓰면서 끊임없이 작업하기 때문이다.

36:2.14 (398.1) 생명 형태화에 속하는 어버이 원형{元型}들과 수많은 기능적 기본 변이를 구성하는 근본 공식, 즉 시공우주의 화학 공식은 100만 가지 이상이다. 생명을_계획하는 구체의 1_번 위성{衛星}은, 생명 운반자들을 기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우주 물리학자 및 전기화학자들의 영역인데, 그들은 소위 배아{胚芽} 원형질이라고 불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물질 운반체를 확립하는 데 이용되는 근본 에너지 단위들을 포착하고 조직하며 조종하는 작업을 한다.

36:2.15 (398.2) 행성의 생명을_계획하는 실험실은 이 2_번 세계의 둘째 위성에 위치하고 있다. 생명 운반자들과 그 모든 동역자들은, 이 실험실에서 네바돈의 10진{十進}행성들에 이식시키기 위해 계획된 생명체를 변경시키고 어떻게든지 개선시키고자 애쓰면서, 멜기세덱과 협력한다. 지금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생명체는, 바로 이 세계에서 계획됐고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유란시아가 십진법 행성, 즉 생명을_시도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10개의 세계마다 한 세계에서, 다른 (비실험) 세계들의 경우보다 더 큰 변화가 표준 생명 설계에 허용된다.

36:2.16 (398.3) 3_번 세계는 생명의 보존에 몰두한다. 여기서 생명 운반자 단체의 보좌관과 관리인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다양한 형식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모든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생명 계획은, 일찍 정착하도록 생명_보존 위원회가 항상 마련해 주는데, 이 위원회는 기본 생명 원형{原型}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유란시아에는 그런 관리 위원이 24명 있었는데, 생명 물질의 건축양식 조직의 근원적인 각 원형, 즉 아버지 원형마다 둘씩이다. 너희 행성 같은 그런

행성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생명은, 24개의 원형{原型} 단위를 갖는, 생명_전달 묶음으로 번식된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육체의 생명체로부터,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자라므로, 심령적 유기체의 24가지 기본 계층이 실존하게 된다.)

36:2.17 (398.4) 4_번 구체 및 그 종속 위성들은, 일반적으로 피조 생명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그리고 특히 어떤 한 생명 수준의 진화 선행조건에 전념한다. 진화 세계의 원본 생명 원형질은, 모든 미래의 발전적인 변종을 위한,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진화적 변화 및 변경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생명을 변질시키는 그런 멀리까지 미치는 기획을 위한 준비는, 외견상 쓸모없는 많은 형태의 동물 및 식물 생명체가 출현하는 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행성의 진화에서 생기는 그런 부산물은, 예견된 것이든지 예견되지 않은 것이든지, 오직 사라지는 역할을 위해서 행동의 무대에 등장하지만, 이 긴 과정 전체에서 그리고 그 과정 내내, 행성 생명 계획과 종족 짜임새에 대한 원래 설계자들의 현명하고 지성적인 처방이 계속 적용된다. 하등 형태의 생명체들을 지배하려는 고등 피조물이 위로 올라가는 긴 투쟁에서, 때때로 겉보기에

엄청난 부조화가 널리 퍼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생물학적 진화에서 생기는 다양한 부산물은, 더 높은 지성 생명 형태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데 모두 꼭 필요하며, 이따금 하등 형태의 생명체들 가운데 다수는, 의지를 가진 진화하는 피조물의 평화와 안락함에 매우 해롭다.

36:2.18 (398.5) 5_번 세계는 정신과 관련된 생명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그 위성들은 각각, 피조물의 생활과 상호 관련된, 단일 국면의 피조물 정신을 연구하는 데 몰두한다. 사람이 납득하는 바와 같은 정신은, 학습력이 없는 수준, 즉 기계적인 수준의 정신 위에, 무한한 영이 주선함으로써 일곱 보조 정신_영 재능을 덧붙인 것이다. 생명 원형{原型}들은, 이 보조체들에 대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다른 영 사역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 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피조물의 능력은 오로지, 연합된 정신 재능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다시 바로 이 필사 피조물의 생물학적 진화 과정의 방향을 설정해 왔다.

36:2.19 (399.1) 6_번 세계는, 정신과 영이 살아있는 형태 및 유기체들과 관련되는 그런 정신과 영의 상호 관계에 전념한다. 이 세계와 그 여섯 종속위성은 피조물 조정 학교들을 포함하는데,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로부터 온 선생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피조물이 달성하는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하는 과제에, 여기서네바돈 교관{敎官}들과 협력한다.

36:2.20 (399.2) 생명운반자들의 일곱째 구체는, 지존하신 분의 확장하는 사실화가 시공우주 원리에 관련되는 만큼, 진화하는 피조 생명체의 계시되지 않은 분야에 전념한다.

3. 생명 이식

36:3.1 (399.3) 생명은 우주에서 저절로 출현하지 않으며;척박한 행성에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을 창시해야만 한다. 그들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 출현하는 생명을 운반하는 자, 퍼뜨리는 자, 및 보호자다. 유란시아에 알려진 모든 계층과 형태의 생명체는 이 아들들로 인해 발생됐지만, 모든 형태의 행성 생명이 유란시아에 실존하지는 않는다.

36:3.2 (399.4) 새로운 세계에 생명체를 이식{移植}하도록 위임된 생명 운반자 단체는, 대개 100명의 상급{上級}

운반자와 100명의 보좌관 그리고 1,000명의 관리인으로
구성된다. 생명 운반자들이 실제 생명 원형질을 새로운
세계로 운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생명을 확립시킬 때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그
전에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그들은 배정된 행성에 도착한
후에 생명 원형{原型}을 조직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유란시아에서 행성 생명의 기원{起源}이 그랬다.

36:3.3 (399.5) 허락된 공식에 따라서 물질 원형들이 일단 제공된
다음에는, 생명 없는 이 물질에 생명 운반자들이
촉매작용을 일으키는데, 생명의 영 섬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며;활성화 되지 못했던 원형들은 즉시 살아있는
물질이 된다.

36:3.4 (399.6) 생명의 섬광은--곧 생명의 신비는-- 생명
운반자들이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증여된다. 그들이 정말로 그런 진행사항을 감독하고, 생명
원형질 자체를 처방하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근본
요소를 제공하는 이는 우주 어머니 영이다. 육체에 생기를
주고 정신을 예시하는 에너지 섬광은, 무한한 영의 창조적
딸로부터 온다.

36:3.5 (399.7) 생명을 증여할 때, 생명 운반자들은 그들 개인의 본성을 전혀 전달하지 않으며, 새로운 생명 계층이 기획되는 구체에서도 그렇다. 그런 경우에 그들은 단지 생명의 섬광을 시작하고 전달할 뿐인데, 정해진 계획과 원형{原型}들의 물리, 화학, 및 전기{電氣} 설계도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 격변을 시작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촉매 같은 존재이며, 이들 없이는 생기를 떨 수 없는, 물질 실존 체제의 요소들을 동요시키고 조직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다.

36:3.6 (400.1) 행성 단체에 속한 생명 운반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간이 주어져 있으며, 그 행성 시간으로 약 50만 년에 해당한다. 행성 생명이 특정한 발달 상태를 달성하면 이 기간이 만료됐음을 가리키는데, 이때 그들은 생명이식{移植} 작업을 종료하며, 그 후에는 그 행성의 생명체에게 새롭거나 추가적인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36:3.7 (400.2)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이 설립될 때부터 도덕적 상태의 인간 피조물이 출현할 때까지, 생명 환경을 조종하도록,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순조롭게 방향 잡도록 허락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36:3.8 (400.3) 새로운 세계에서 일하는 생명 운반자들이, 의지, 즉 도덕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선택하는 힘을 지닌, 어떤 존재를 창출하는 데 일단 성공하게 되면, 그때 거기서, 그들의 일이 종료되며--즉 그들의 용무가 끝났으며;그들은 진화 생명체를 더 이상 조종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 이후로는, 살아있는 물체의 진화는 행성 생명 공식 및 원형{原型}에 이미 부여되고 그 속에 설립된, 내재적 본성과 성향의 재능에 따라서 진행돼야만 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의지를 실험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며;도덕적 피조물을 지배하거나 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돼 있다.

36:3.9 (400.4) 그들은 행성 왕자가 도착함에 따라서 떠날 준비를 하지만, 상급 운반자 중 두 명과 열두 관리인은, 일시적 포기 서약을 함으로써, 생명 원형질을 계속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문제에, 충고자로서 그 행성에 무기한 남기로 자원할 수도 있다. 그런 두 아들과 열두 동역자가 지금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4.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

36:4.1 (400.5) 네바돈 전역에서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각 지역 체계마다, 멜기세덱들이 생명 운반자로서 활동해 온 구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거주지들은 체계의 **중간유한절대** 세계로 알려져 있으며, 각 세계에서는 물질적으로 변경된 멜기세덱 아들이, 아들신분의 물질 계층에서 뽑힌 한 딸과 짝을 지었다. 그런 중간유한절대 세계의 어머니 이브는, 그 세계를 관할하는 체계 본부로부터 파견되는데, 체계 주권자가 자신의 구체에 있는 물질 딸들에게 제시한 요청에 응답하는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지정된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가 선택한다.

36:4.2 (400.6)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와 물질 딸의 자녀들은 **중간유한절대자**로 알려져 있다. 숭고한 피조물인 그런 인종에 해당하는 멜기세덱 아버지는, 자신이 독특한 생명 역할을 한 행성을 결국 떠나게 되며, 이 특별한 계층의 우주 존재들의 어머니 이브 역시, 행성에서 낳은 자손 가운데 일곱째 세대가 출현할 때 떠난다. 그런 세계의 지휘는 그때 어머니 이브의 맏아들에게 위임된다.

36:4.3 (400.7)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은, 표준시간으로 1,00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장엄한 세계에서 번식하는 존재로서 살고 활동하며;그때가 되면 스랍 운송{運送}을 이용해서 옮겨진다. 중간유한절대자들은 그 후부터 번식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스랍이 둘러싸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비{非}물질화 기법이, 그들로부터 번식 특권을 영원히 제거시키기 때문이다.

36:4.4 (400.8)

이 존재들의 현재 상태는, 필사적이라고 간주하거나 영구적이라고 간주하기가 심히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으로 또는 신{神}으로 분명히 구분될 수도 없다. 이 피조물에는 조율사가 거주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존재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들을 필사 존재로 볼 수도 없으며;어떤 중간유한절대자도 죽음을 체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바돈에서 태어난 모든 중간유한절대자가 오늘날 살아 있어서, 그들이 태어난 세계들, 즉 중간에 개재{介在}된 어떤 구체에서, 또는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세계 집단에 있는 중간유한절대 구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36:4.5 (401.1)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세계.*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은 물론, 그와 관련된 어머니 이브들도, 체계의
중간유한절대 구체들로부터 살빙톤 회로의 완결성취자
세계들로 가는데, 거기서 그들의 자손 또한 만나게 돼 있다.

36:4.6 (401.2) 이 점에 대해서, 살빙톤 회로에 있는 다섯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가 네바돈의 완결성취자 세계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하겠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과 물질
딸들의 자녀는, 완결성취자들의 일곱째 세계, 즉 살빙톤의
중간유한절대 구체를 본적지로 삼는다.

36:4.7 (401.3) 완결성취자들의 일곱 주요 세계의 위성들은,

네바돈에서 임무를 실행할지도 모르는,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 인격체들의 회합{會合} 장소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멜기세덱 대학을 포함하는 490개 세계 가운데
문화 세계들과 훈련 구체들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반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학교들과 수많은
금지된 지대가 있다. 이런 제한은 완결성취자들의 관할
하에 있는 49개 구체에서 특히 그렇다.

36:4.8 (401.4)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의 목적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인격체들이 우주 진화에서 미래의 어떤 결말을

준비하면서 일곱째 완결성취자 세계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중간유한절대 인종들에 관한 우리 질문은 항상 완결성취자들에게 회부되며, 완결성취자들은 항상 자신의 피보호자들의 운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간유한절대자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오르본톤에 있는 각 지방우주마다 신비스런 이 존재들을 모으는 그런 단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은, 궁극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간유한절대 자녀들에게, 초월적이고 영원한 유한절대 영을 언젠가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5. 일곱 보조 정신_영

36:5.1 (401.5) 원시 세계에서는, 일곱 보조 정신_영{靈}의 현존이 유기체{有機體}의 진화 과정을 좌우하며;진화가 왜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이것이 설명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작용을 통해서, 하위 계층의 지성{知性} 생명체들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영의 정신 사역의 기능을, 이 보조체들이 대표한다. 보조체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며, 우주 어머니 영이 그 영역의 물질 정신들을 직접 돌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정신이 나타나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靈}들이 다양하게 작용한다.

36:5.2 (401.6) 일곱 보조 정신_영은:직관, 이해, 용기, 지식, 조언, 경배, 및 지혜 등의 의미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정신_영들은 특이한 충동으로 모든 인간거주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동료들이 환영받고 활동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범위와는 전혀 별개로, 표현에 대한 감수성 수용능력을 각자 추구한다.

36:5.3 (401.7) 생명 운반자 본부에서 보조 영들의 중앙 거점은, 어떤 세계에서든지, 그리고 지성적 상태의 어떤 일정한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서든지, 보조체들의 정신 기능 범위와 질을 생명 운반자 감독관들에게 표시해 준다. 이런 생명_정신의 주입{注入}은, 처음 다섯 보조체를 위해 정신이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완전한 지표{指標}다. 그러나 여섯째와 일곱째 --곧 경배와 지혜-- 보조체를 고려할 때, 이 중앙 거점은 다만 질적 작용만 기록한다.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의 양적{量的} 활동은, 살빙톤에서 신성한 사역자의 현존 바로 앞에

등록되는데, 우주 어머니 영이 몸소 겪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36:5.4 (402.1) 일곱 보조 정신_영은, 새로운 행성으로 갈 때 항상 생명 운반자들과 동행하지만, 실재{實在}로 간주되서는 안 되며;오히려 회로{回路}에 더 가깝다. 일곱 우주 보조체 영은, 신성한 사역자의 우주 현존과 동떨어진 인격체로서 작용하지 않으며;실제로 신성한 사역자의 한 의식 수준이고, 그들을 창조한 어머니의 행동과 현존에 항상 종속된다.

36:5.5 (402.2) 우리는 이 일곱 보조 정신_영을 적당히 표현할만한 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체험적 정신을 돌보는 존재이며, 진화하여 달성되는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6:5.6 (402.3) 1. *직관의 영* --모든 정신 피조물의, 신속한 지각{知覺} 작용, 원시적인 육체적 및 타고난 반사 본능, 그리고 방향 탐지 재능 및 기타 자아_보존 재능;하등 동물 생명체 계층에서 매우 광범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보조체이고, 학습력이_없는 기계적 정신 수준과 광범하게 기능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보조체.

36:5.7 (402.4) 2. *이해의 영* --조화하려는 충동, 자발적이고
외견상 자동적으로 보이는 관념들을 연합시킴. 이것은
획득된 지식을 조화시키는 재능, 즉 신속하게 추론하고,
재빨리 판단하며, 즉시 결정을 내리는 현상이다.

36:5.8 (402.5) 3. *용기의 영* --곧 충성하는 재능--인격있는 존재
속에서, 성품을 획득하는 기초요, 도덕적 끈기와 영적
용감성의 지적 뿌리. 사실로부터 깨우치고 진리로부터
영감을 받을 때, 이것은 지성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스스로_방향잡는 경로를 통해서 진화해 상승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비결이 된다.

36:5.9 (402.6) 4. *지식의 영* --모험하고 발견하려는
호기심의_모체{母體}, 즉 과학적 기질;용기의 영과 조언의
영의 안내자이며 충실한 동료;유용하고 진취적인 성장
경로로 들어가도록 용기의 자질을 지시하려는 충동.

36:5.10 (402.7) 5. *조언의 영* --사회적 충동, 종{種}끼리 협동하는
재능;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는
역량;하등 피조물끼리 군생{群生}하려는 본능의 근원.

36:5.11 (402.8)

6. *경배의 영* --종교적 자극, 정신을 가진 피조물을 두 가지 기본 필사자 실존 계층으로 분리시키는 특이한 첫 충동. 경배의 영은, 관련된 동물을, 정신 재능은 있지만 혼은 없는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구별시킨다. 경배는 영적으로_상승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격이 있음을 나타낸다.

36:5.12 (402.9)

7. *지혜의 영* --모든 도덕적 피조물이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진보하려는 선천적인 경향. 이것은 보조체 중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모든 보조체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시키는 영이다. 이 영은 정신을 지닌 피조물이 실존에서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계획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타고난 충동의 비결이며;살아있는 것들의 이 재능은, 그들의 살아남기 위한 불가해한 역량, 그리고 살아남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유기체의 정신 속에서 다른 여섯 정신 사역자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하기 위해, 그들의 과거 체험과 현재 기회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설명한다. 지혜는 지적 성취의 절정이다. 지혜는, 순전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실존이 달성할 목표다.

36:5.13 (403.1) 보조 정신_영들은 체험함으로 성장하지만, 결코
인격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진화하며,
동물 계층에 있는 처음 다섯 가지 기능은, 일곱 가지 전체가
인간 지능으로서 작용하는 데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동물과의 이런 관계는, 보조체들로 하여금 인간
정신으로서 더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며;따라서 동물은 사람의 육체적 진화뿐 아니라,
지적{知的} 진화에도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36:5.14 (403.2)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이 우주의 생명 없는
힘과 관련돼 있음과 거의 똑같이,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정신_보조체들은 지성적 신분을 가진 피조물 생명체와
관련된다.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있는 정신 회로에서
매우 귀중한 봉사를 수행하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인데, 이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또한 보조체를 받기 전의 정신 수준인, 학습력_없는 정신,
즉 기계적 정신 수준에서 통제관과 지휘자로서 일한다.

36:5.15 (403.3) 살아있는 정신은,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출현하기 전에는,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돌보는
영역이다. 피조물 정신은, 신성{神性}을 인식하고 신격을

경배하는 역량을 획득하기 전에는, 보조 영들의 독자적 영역이다. 피조물의 지능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창조된 정신은 즉시 초월정신이 되는데,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영 순환 속으로 즉각 회로화 된다.

36:5.16 (403.4) 신성한 사역자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거룩한 영이며, 보조 정신_영들은 그의 몸소 현존하는 영의 다양하고 매우 영적인 기능과 어떤 면에서도 직접 관련이 없지만;그들은 진화하는 사람 안에서 바로 이 영이 출현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앞서며, 그 출현을 위해 준비한다. 보조체들은, 우주 어머니 영으로 하여금 지방우주의 살아있는 물질 피조물과 다양한 접촉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선{先}인격체 수준에서 활동할 때에는 지존하신 분 안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36:5.17 (403.5) 비영적 정신은 영_에너지의 형태화 또는 물리적_에너지의 현상이다. 인간 정신은, 인격있는 정신일지라도, 영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생존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 정신은 신성{神性}이 증여한 것이지만, 영

통찰력 없이 작용할 때, 그리고 경배 드리면서 생존을 갈망하는 역량이 없을 때에는 불멸하지 않는다.

6. 살아있는 세력

36:6.1 (403.6) 생명은 기계적인 동시에 생동적이다--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이다. 유란시아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식물 및 동물 생명체의 원형질 형태를 이해하는 데 늘 진보하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생명체는 모든 에너지 형태화와는 다른 어떤 것이며;육체를 가진 피조물의 물질적 생명조차 물질 속에 내재하지 않는다.

36:6.2 (403.7) 물질인 사물은 독립된 실존을 누릴지 모르지만,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 발생된다. 정신은 오직 선재{先在}하는 정신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영은 오직 영 선조들로부터 기원된다. 피조물이 생명체 형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오직 창조자 인격체 또는 창조적 세력만이, 활성화시키는 살아있는 섬광을 제공할 수 있다.

36:6.3 (404.1)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물질 형태 또는 육체 원형{原型}을 조직할 수 있지만, 영이 생명의 최초 섬광을 제공하고 정신이라는 재능을 증여한다. 심지어

생명 운반자들이 살빙톤 세계에서 조직하는 살아있는 실험용 생명체 형태도, 번식 능력은 항상 결여돼 있다. 생명 공식과 활력 원형들이 정확하게 조립되고 알맞게 조직화됐을 때, 한 생명 운반자의 현존은 생명체를 태동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런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는 필수적인 두 속성이--곧 정신 재능과 번식 능력이-- 결여돼 있다. 동물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선물인데, 일곱 보조 정신_영을 통해서 작용하며, 한편 번식할 수 있는 피조물 역량은, 생명 운반자들이 개시한, 선조 생명 원형질에, 우주 영이 특유하게 직접 나눠준 것이다.

36:6.4 (404.2)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 원형의 설계를 완료했을 때, 즉 에너지 체계를 조직한 후에, 추가적인 어떤 현상이 반드시 발생해야만 하며; “생명의 숨결”이, 생명 없는 이 형체 속으로 주입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체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을 일으키는 섬광을 실제로 제공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입된 생명이 바닥나면, 남아있는 물질 육신은 다시 죽은 물체가 된다. 증여된 생명이 고갈될 때, 육신은 물질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 육신은 에너지_물질에 속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연합체에 생명 운반자들이 전달했던 그 생명

재능을 위해 일시적 운반체로 작동하도록,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 우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36:6.5 (404.3) 생명 운반자들이 식물과 동물에 증여한 생명은, 그 식물이나 동물이 죽었을 때 생명 운반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살아있는 그런 물체에서 떠나가는 생명은 독자성{獨自性}도 없고 인격체도 없으며;그 생명은 죽은 후에 개별적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실존하던 동안, 그리고 물질로 된 본체 속에 머물렀을 때, 생명은 변화를 겪었으며;에너지의 진화를 겪었고, 우주에서 시공우주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만 살아남으며;개별 생명체로는 살아남지 않는다. 필사 피조물의 생존은, 필사 정신 속에 있는 불멸하는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36:6.6 (404.4) 우리가 생명을 "에너지"와 "세력{힘}"으로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아니다. 세력과_에너지는 다양하게 인력에 반응하지만;생명은 그렇지 않다. 원형{原型} 역시 인력에 반응하지 않는데, 인력에_반응해야 할 모든 책무를 이미 충족시킨 에너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명은 어떤

배열된_원형{原型} 또는 그 밖의 분리된 --물질적, 정신적, 또는 영적-- 에너지 체계에 생기{生氣}를 불어넣은 것이다.

36:6.7 (404.5) 여러 진화 행성에는,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생명 합성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다. 생명 운반자들의 전기화학적 공식을 따르는 물리적 유기체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지만, *생명_활성화 섬광*의 본질과 근원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영을 *따라서* 흐른다는 것을 안다. 으뜸 영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쏟아 부어지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칠중{七重}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행성에 생명이 증여되는 초기 사건에, 감독하는 으뜸 영이 어떤 기법으로 참여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태고 항존자 역시, 새로운 세계에서 이 생명 개시{開始}에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 어머니 영이 생명 없는 원형을 실제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그런 원형질에 유기체의 번식 특권을 첨부시킨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최상급 창조주들을 가리키는 칠중 하나님의 수준임을 목격하지만;그밖에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들보다 더 알지 못한다--다만, 개념은 아버지 안에, 표현은 아들 안에, 생명의 실현은 영 안에 고유하다는 것을 알 뿐이다.

36:6.8 (405.1) [유란시아에 참관인으로 머물고, 감독하는 계시 단체의 멜기세덱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 자격으로 행동하는 보론다덱 아들이 작성했음]

제37편 지방우주의 인격체

37:0.1 (406.1) 네바돈에 있는 모든 인격체의 꼭대기에는, 지방우주의 아버지이며 주권자인, 창조주이며 으뜸 아들인 미가엘이 있다. 신성{神性}에서 동등하고, 보완하는 창조 속성을 가진 분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 즉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다. 그리고 이 창조자들은 아주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네바돈의 모든 토착 피조물의 아버지_아들 및 영_어머니다.

37:0.2 (406.2) 앞에 있는 문서들은 창조된 아들신분 계층들을 다뤘으며;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돌보는 영들과 아들신분의 상승하는 계층들에 대해 묘사하게 될 것이다. 본 문서는, 주로 사이에 끼어있는 집단, 즉 우주 조력자들을

다루겠지만, 네바돈에 주둔하는 특정한 고등 영들과, 지방우주에서 영구 시민권을 지닌 어떤 계층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1. 우주 조력자

^{37:1.1 (406.3)} 일반적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독특한 계층 가운데 다수는 계시되지 않지만, 본 문서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주 조력자는 다음의 일곱 계층을 포함한다:

^{37:1.2 (406.4)} 1. 빛나는 새벽별.

^{37:1.3 (406.5)} 2. 찬란한 저녁별.

^{37:1.4 (406.6)} 3. 천사장.

^{37:1.5 (406.7)} 4. 지고 보좌관.

^{37:1.6 (406.8)} 5. 고위 책임자.

^{37:1.7 (406.9)} 6. 천상의 감독자.

^{37:1.8 (406.10)} 7. 맨션세계 선생.

^{37:1.9 (406.11)} 우주 조력자 중에서 첫째 계층에 해당하는 빛나는 새벽별의 경우에, 각 지방우주마다 꼭 한 명밖에 없으며,

그는 한 지방우주에서 모든 토착 피조물 가운데 첫 태생이다. 우리 우주의 빛나는 새벽별은 살빙톤의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온 네바돈에서 최고 행정관인데, 주권자 아들의 개인 대행자로서, 그리고 그의 창조 배우자를 대변하는 자로서 활약한다.

37:1.10 (406.12) 네바돈의 초기 시대 동안, 가브리엘은 오직 미가엘 및 창조적 영과만 일했다. 우주가 성장하고 경영상 문제들이 배가되자, 계시되지 않은 보좌관들로 구성된 개인 참모진이 그에게 제공됐으며, 결국 이 집단은 저녁별이라는 네바돈 단체가 창조됨으로 확장됐다.

2. 찬란한 저녁별

37:2.1 (407.1) 멜기세덱들이 이 찬란한 피조물을 계획했고, 그 다음에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이들을 낳았다. 그들은 여러 자격으로 봉사하지만, 주로 지방우주의 우두머리 행정관 가브리엘의 연락장교로서 봉사한다. 네바돈의 각 성좌와 체계의 수도{首都}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 존재가 그의 대행자로서 활동한다.

37:2.2 (407.2) 네바돈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가브리엘은 살빙톤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비밀회에서 직권상 의장

또는 참관인이며, 1,000개에 달하는 이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가브리엘을 대행하는데;그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최고천사들이 이 제한조건을 보충해 준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 단체를 위해 비슷한 봉사를 수행한다.

37:2.3 (407.3) 경영 임무에 직접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찬란한 저녁별들을 통해서 모든 다른 국면의 우주 생명체 및 직무와 접촉을 유지한다. 그들은 그가 행성 여행을 할 때 항상 그와 함께 하며, 그의 개인 대표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각 행성으로 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 임무에서 그들은 때로 “주{主}의 천사”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과 집회 앞에서 빛나는 새벽별을 대행하기 위해 자주 우버사에 가지만, 오르본톤의 경계선 너머로 여행하는 일은 드물다.

37:2.4 (407.4) 찬란한 저녁별들은 독특한 이중 계층인데, 고위급{高位級}으로 창조된 자들을 더러 포함하고, 나머지는 달성해서 봉사하는 자들이다. 네바돈의 이 최고천사 단체는 지금 13,641명이다. 창조된 고위급은

4,832명이고, 한편 8,809명은 고양된 봉사의 이 목표를 달성한 상승한 영이다. 상승한 이 저녁별 가운데 다수는 우주 생애를 스라빔으로서 시작했으며;그 외에는 계시되지 않은 수준의 피조 생명체로부터 상승했다. 하나의 달성 목표로서, 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되지 않는 한, 이 높은 단체는 상승하는 후보자에게 결코 접근하지 않는다.

37:2.5 (407.5) 두 가지 유형의 찬란한 저녁별은, 모론시아 인격체와 특정한 유형의 초월_필사 물질 존재들에게 쉽게 눈에 띈다. 흥미롭고 다양한 이 계층에 해당하는 피조 존재들은,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는 영 세력을 소유한다.

37:2.6 (407.6) 이 최고천사들의 우두머리는 가바리아인데, 네바돈에 있는 이 계층 중에서 첫_태생이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성공적인 증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가바리아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돌보는 일에 배정됐으며, 유란시아 시간으로 지난 1,900년 동안 그의 동역자 가란티아가 예루셈에 본부를 유지했는데, 그는

거기서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보낸다. 가란티아는 이런 높은 지위를 처음으로 달성한, 상승하는 최고천사다.

37:2.7 (407.7) 습관적으로 여러 임무에 쌍으로 연합하는 것 외에, 찬란한 저녁별들이 집단화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필사자의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임무에 광범하게 배정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임명됐을 때에는 결코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쌍으로 일한다--하나는 창조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한 저녁별이다.

37:2.8 (407.8) 저녁별들의 고귀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증여되는 아보날 아들들이 행성 사명에 임할 때 동행하는 것인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됐을 때 가브리엘이 동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두 최고천사는 그런 사명을 갖는 뛰어난 인격체인데, 이 이행업무에 배정된 천사장 및 다른 존재들의 공동지휘관으로서 봉사한다. 의미심장한 시기와 시대에, 아보날 증여 아들에게, "네 형제의 사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하는 존재는 이 최고천사 가운데 선임 지휘관이다.

37:2.9 (408.1) 비슷한 이 최고천사 쌍들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행성 단체에 배정되는데, 이 아들들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증여 이후 시대를 안정시키거나, 영적 시대를 수립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그런 임무에서 저녁별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사 아들 단체의 연락원으로서 봉사한다.

37:2.10 (408.2) *저녁별의 세계.* 일곱 살빙톤 세계 중에서 여섯째 집단과 그에 종속된 42개의 위성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경영에 배정돼 있다. 이 최고천사 중에서 창조된 계층이 일곱 주요 세계를 관장하며, 한편 상승한 저녁별들은 종속된 위성{衛星}들을 관리한다.

37:2.11 (408.3) 처음 세 세계의 위성들은, 지방우주의 영{靈} 인격체들에게 헌신하는 교사 아들 및 저녁별들의 학교에 전념한다. 그 다음 세 집단에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훈련시키는, 비슷한 합동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일곱째_세계의 위성들은, 교사 아들, 저녁별, 및 완결성취자들의 삼자일체 심의를 위해 예비돼 있다. 최근에 이 최고천사들은 완결성취 단체의 지방우주 업무에 밀접하게 관계해 왔으며, 오랫동안 교사 아들과

연합해 왔다. 완결성취자 작업 집단에 배속된 인력 사자{使者}들과 저녁별들 사이에는, 엄청난 권능과 중요성을 갖는 접촉이 이뤄진다. 일곱째 주요 세계 자체는, 아직 계시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해서 예비돼 있는데, 이 문제들은 지존자 하나님 인격체의 연방우주 현시{顯示}가 완성되어 출현함에 따라, 교사 아들, 완결성취자들, 및 저녁별들 사이에서 생기게 될 미래의 관계와 관련된다.

3. 천사장

37:3.1 (408.4) 천사장은 창조주 아들과 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지방우주에 많은 숫자로 탄생돼 있는 높은 영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이며, 최근에 등록할 당시에 거의 80만 명이 네바돈에 있었다.

37:3.2 (408.5) 천사장은, 평소에는 가브리엘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는 소수의 지방우주 인격체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어떤 방면으로도 우주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데, 피조물을 생존시키는 업무,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를 촉진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대개의 경우에 천사장은 빛나는 새벽별의 지시를 받지 않는 반면, 때로 그의 권세로 활동하기도 한다. 너희 세계에

생명체를 이식한 것에 대한 설명에서 묘사된 어떤 진행사항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들은 또한 저녁별 같은, 다른 우주 조력자들과 협력한다.

37:3.3 (408.6) 네바돈의 천사장 단체는 이 계층에서 처음 태어난 자의 지휘를 받으며, 아주 최근에는 천사장들의 부서{部署} 본부가 유란시아에 유지돼 왔다. 유별난 이 사실 때문에, 네바돈_바깥에서 오는 연구 방문자들의 관심을 곧 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찍이 목격한 우주내부 처리사항 중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많은 상승 활동을 지역 체계 사타니아의 수도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방문자들은 발견한다. 그들은 더 자세히 조사하고 나서, 유란시아라고 불리는 소규모이고 외견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어떤 천사장 활동이 지휘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즉시 그들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의 초라한 구체에, 흥미를 북돋우게 된다.

37:3.4 (409.1) 낙원 상승 기획에 관련된 어떤 천사장 활동을 경영하고 지휘하는, 지방우주의 부서 본부가 된 행성이, 바로 초라하고 혼돈에 빠진 너희의 행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너희가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볼 때, 다른 상승 활동이 미가엘의 증여 세계에
장차 집중되리라는 것이 확실히 예견되며,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에, 중대하고 엄숙한
의미를 더해준다.

37:3.5 (409.2) 일반적으로, 천사장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아보날
계층의 봉사와 사역에 배정되지만, 다양한 돌보는 영이
활동하는 모든 국면에서 광범한 예비 훈련을 거쳐야
그렇게 된다. 인간거주 세계에 증여된 낙원 아들마다
100명의 단체가 동행하는데, 그런 증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에게 배정된다. 집정관 아들이 행성의 임시
통치자가 돼야만 한다면, 이 천사장들이 그 구체에 있는
모든 천상{天上}의 생명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로서
행동할 것이다.

37:3.6 (409.3) 어떤 행성 사명에서도, 사법적 조처나 집정관 사명
또는 증여 육신화를 포함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두 명의
선임 천사장이 낙원 아보날의 개인 조력자로서 배정된다.
이 낙원 아들이 어떤 영역의 심판을 완료했을 때,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름 받을 때(소위 부활할 때), 잠자고 있는

인격체들의 스랍 수호자들이, “천사장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한 섭리시대의 종결에 대한 출석점호를, 수행하는 한 천사장이 공표한다. 그가 부활의 천사장인데, 때로는 “미가엘의 천사장”이라고 언급된다.

37:3.7 (409.4) *천사장의 세계.* 살빙톤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들 중에서 일곱째 집단은, 관련된 그 위성들과 함께 천사장들에게 배정된다. 1_번 구체와 그 여섯 종속 위성은, 인격체 기록 보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거대한 기록원 단체는, 필사자가 태어난 후부터 우주 생애를 거쳐서, 각 개인이 연방우주 체제를 향해 살빙톤을 떠나든지, 아니면 태고 항존자들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된 실존으로부터 지워질” 때까지, 그런 시간세계에서 온 필사자의 기록을 정리하는 일로 분주하게 지낸다.

37:3.8 (409.5) 필사자가 죽은 후부터 다시 인격화되기까지, 즉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인격체 기록과 신분 보증서가 분류되고 정리되며 보관되는 일이, 바로 이 세계들에서 이뤄진다.

4. 지고 보좌관

37:4.1 (409.6) 지고{至高} 보좌관들은 지방우주 바깥에서
기원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존재들의 집단인데, 그들은
그 지방 창조계에 중앙우주와 연방우주를 대표하는
자로서, 또는 지방 창조계 참관인으로서 일시적으로
배정된다. 그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언제나
수백만에 이른다.

37:4.2 (409.7)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우주 검열관, 영감된 삼위일체 영,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제2스라빔, 제3스라빔,
그리고 다른 친절한 사역자들 같은, 낙원에서_기원된
존재들의 사역과 보조로 도움을 받는데, 그들은 네바돈
전체를 오르본톤의 관념 및 낙원의 이상{理想}과 더
충분히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본래 인격체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문다.

37:4.3 (410.1) 이 존재 가운데 누군가 네바돈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할권 밖에 있지만, 배정되어 활동할 때,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 인격체들은 우리 영역에서 그들의 사명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일하고, 더 높은 우주들의

대표자로서 계속 작용함에도, 그들이 머무는 지방우주의 규칙으로부터 완전하게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일반 본부는 살빙톤에서 합동 항존자의 구역에 위치하며,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가 보낸 이 대사{大使}의 전면감독을 받으면서 네바돈에서 일한다. 배속되지 않은 집단에서 봉사할 때, 높은 영역에서 온 이 인격체들은 대개 스스로 결정하지만, 요청에 따라서 봉사할 때에는 배정된 역할의 범주를 감독하는 지휘자들의 전적인 관할권 아래로 자진해서 들어오곤 한다.

37:4.4 (410.2) 지고 보좌관들은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성좌에서 능력껏 봉사하지만, 체계나 행성 정부에는 직접 배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들은 지방우주에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 있으며, 네바돈 활동의 어느 국면에든지--곧 경영, 행정, 교육, 또는 어느 기타 분야든지-- 배정될 수 있다.

37:4.5 (410.3) 이 단체 대부분은 네바돈 낙원 인격체들을--곧 합동 항존자, 창조주 아들, 충실 항존자들, 집정관 아들들, 및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을-- 돕는 일에 편입된다. 지방 창조계의 직무를 처리할 때, 때로는 그 지방우주의 거의 모든 고유 인격체가 알지 못하도록, 어떤 자세한 내용을

임시로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게 된다. 어떤 진보 계획과 복잡한 규정 역시, 지고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 성숙되고 멀리 내다보는 단체가 더 잘 파악하고 더 완전하게 이해하며, 그들은 그런 상황 및 기타 여러 상황에서도 우주 통치자와 경영자들에게 매우 쓸모 있다.

5. 고위 책임자

37:5.1 (410.4) 고위{高位} 책임자들은 영과_융합된 상승한 필사자이며;조율사와 융합되지 않는다. 너희는 조율사와 융합할 필사 후보자가 우주에서_상승하는 생애, 즉 그리스도 미가엘이 증여된 이후로 모든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가능하게 된 고상한 운명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와 비슷한 세계에서, 증여_이전{以前} 시대에 모든 필사자의 유일한 운명이 아니며, 사고 조율사가 거주민에게 결코 영구적으로 내주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세계가 있다. 그런 필사자는 낙원에서 증여한 신비 관찰자와 결코 영구히 합동하지 않으나;그럼에도 조율사가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내주하여, 육체 속에서 생애가 지속되는 동안 안내자와 원형{原型}으로서 봉사한다. 그들은 이런 일시적 체류 기간에, 융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 안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멸하는

혼의 진화를 촉진시키지만, 그 필사자가 달리기를 끝내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연합했던 그 피조물을 영원히 떠난다.

37:5.2 (410.5) 이 계층에서 생존하는 혼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개별화된 영 단편과 영원히 융합됨으로써 불멸성을 달성한다. 적어도 네바돈에서, 그들은 다수의 집단이 아니다. 맨션 세계에 가면, 너희는 영과_융합된 이 필사자들을 만나고 사귀겠지만, 낙원 경로에서 그들은 살빙톤에 이를 때까지 너희와 동행하고, 거기서 멈춘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후에 더 높은 우주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봉사하기 위해 지방우주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며;한 부류로서는 낙원 달성을 이루게 돼 있지 않다.

37:5.3 (411.1) 조율사와 융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완결성취자가 될 수 없지만, 결국 지방우주 완전성의 단체에 소속된다. 그들은 "너희도 완전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했다.

37:5.4 (411.2) 영과_융합된 상승자들은, 네바돈 완전성의 단체를 달성한 후에 우주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열려있는 계속적인 체험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 세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의 관점을, 지방우주에 있는 천상의 권세자들에게 해석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여러 위원회의 후보자가 된다.

37:5.5 (411.3) 고위 책임자들은 인종 책임자로서 행성 봉사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런 수용력으로 다양한 인간 종족의 관점을 해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필사자 인종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며, 다른 민족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들이 자비와 공의 및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언제나 노력한다. 인종 책임자들은 끝없이 연속되는 행성 위기에 활동하며, 투쟁하는 필사자 집단 전체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자로서 봉사한다.

37:5.6 (411.4) 이 인종 책임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오랜 경험을 쌓은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역할로 승진하는데, 결국 지방우주의 고위 책임자 신분을 거기서 달성한다. 최근에 등록된 이런 고위 책임자의 숫자는 15억보다 약간 많다. 이 존재들은 완결성취자는

아니지만, 오랜 경험을 쌓은 상승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출생한 영역에 크게 쓸모가 있다.

37:5.7 (411.5) 모든 사법 재판소에서, 가장 낮은 데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우리는 늘 이 책임자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사법{司法} 절차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 법정에서 친구로서 활동하는데, 판결에 관계된 자들의 전례{前例}와 환경 그리고 타고난 본성에 관하여, 주관하는 사법관들에게 조언한다.

37:5.8 (411.6) 고위 책임자들은 공간에 있는 다양한 사자 무리에게, 그리고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들에게 항상 배속돼 있다. 다양한 우주 집회 과정에서 그들과 마주치게 되며, 필사자에_정통한 바로 이 책임자들은, 공간에 있는 세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에 항상 배속돼 있다.

37:5.9 (411.7) 고려되고 있는 정책이나 과정이, 시간세계에서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공정함과 응보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책임자들이 그들의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가까이

있으며;자신을 위해 발언할 수 없는 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항상 출석하고 있다.

37:5.10 (411.8) *영과_융합된 필사자의 세계.* 살빙톤 회로에서
여덟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와 거기에 종속된 위성들은,
영과_융합된 네바돈 필사자들이 독점으로 소유한다.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영과_융합된
거주민이 초청한 손님으로서 여러 차례 즐겁고 유익한
체류 기간을 즐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계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37:5.11 (411.9) 우버사와 낙원을 달성한 소수를 제외하고, 이
세계들은 영과_융합된 생존자들의 영구 거주지다.
필사자가 상승하는 것에 그렇게 고의로 한계를 부과하는
것은, 진화된 영구 주민을 보유하도록 보증함으로써
지방우주에 순익{純益}을 가져올 것인데, 그 주민의
증대되는 체험이, 지방우주 경영의 미래 안정성과
다양성을 계속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존재들은 낙원을
달성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네바돈 문제들을
정복하면서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며, 이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상승자들이 달성한 어떤 것이든지 철저히 능가한다.

그리고 생존하는 이 혼들은,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독특한 조합체로서 계속 존재하는데, 넓게 갈라진 이 두 수준의 관점을 점점 더 일치시킬 수 있고, 계속_강화되는 지혜로 그런 이중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6. 천상의 감독자

37:6.1 (412.1)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멜기세덱 교육 단체가 네바돈 교육 체계를 공동으로 경영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계획된 업무 대부분은 천상{天上}의 감독자들이 수행한다. 이 존재들은 모집된 단체인데, 상승하는 필사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계획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개인을 포함한다. 네바돈에는 그들이 300만 명 이상 존재하며, 그들은 모두, 전체 영역에 교육 충고자로서 봉사할 만큼, 체험으로 자격을 갖춘 지원자다. 이 감독자들은, 살빙톤의 멜기세덱 세계에 있는 자신들의 본부로부터, 상승하는 피조물의 정신 훈련과 영{靈} 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안된 네바돈 학교 기법을 조사하는 자로서, 지방우주를 돌아다닌다.

37:6.2 (412.2) 이런 정신 훈련과 영 교육은,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로부터 체계 맨션 세계들 및 예루셈과 관련된 다른

진보 구체들을 거쳐, 에덴시아에 배속된 70개의 사회화{社會化}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빙톤을 둘러싸고 있는 490개의 영 진보 구체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우주 본부 자체에는 수많은 멜기세덱 학교, 우주 아들들의 학부, 스랍 대학, 그리고 교사 아들들과 합동 항존자의 학교들이 있다. 승진하는 봉사와 개선되는 기능을 위해 우주의 다양한 인격체가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준비가 마련된다. 전체 우주가 하나의 방대한 학교다.

37:6.3 (412.3) 다수의 상급{上級} 학교에서 채택된 방법은 진리를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인간 개념을 넘어서지만, 전체 교육 체계의 요지는 바로:성품은 깨우친 체험으로 획득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깨우침을 제공하며;우주 정거장과 상승자의 신분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 성품이 강화된다.

37:6.4 (412.4) 근본적으로, 네바돈 교육 체계는 한 과제에 배정되도록 너를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이상적이고 신성한 방법에 관해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제공한다. 수행될 분명한 과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그와 동시에 너에게 부과된 것을 실행할 최상의 방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너에게 제공된다. 신성한 교육 계획은, 작업과 지침이 긴밀하게 연합되도록 마련된다. 우리는, 우리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친다.

37:6.5 (412.5) 이런 모든 훈련과 체험의 목적은, 연방우주의 더 높고 더 영적인 교육 구체들로 받아들여지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영역에서 진보는 개별로 이뤄지지만,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 옮겨지는 것은 대개 학급 단위로 이뤄진다.

37:6.6 (412.6) 영원성에 이르는 진보는 오로지 영적 발전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적 습득 역시 우주 교육의 일부분이다. 정신의 체험은 영적 시야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진다. 정신과 영에게, 훈련과 승진을 위한 비슷한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너는 정신과 영의 이런 모든 뛰어난 훈련을 받는 동안, 필사 육신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돼 있다. 너는 자신의 상반된

영적 본성과 물질적 본성이 대립하는 싸움을 끊임없이
판정하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물질적인 것들
쪽으로 끌리는 원시적 동물 성향들이 제거된 지 오랜 후에,
영화롭게 된 정신의 통합된 충동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마침내 갖추게 된다.

37:6.7 (413.1) 네바돈 우주를 떠나기 전에, 유란시아 필사자
대부분은, 네바돈의 천상의 감독자 단체 구성원으로서,
길거나 짧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7. 맨션 세계 교사

37:7.1 (413.2) 맨션 세계 교사들은 모집되고 영화롭게 된
체루빔이다. 네바돈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교관{敎官}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멜기세덱들이 임명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생애의 교육 체계 대부분에서 활약하며, 그들의
숫자는 필사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

37:7.2 (413.3) 체루빔과 사노빔이 달성하는 수준으로서, 맨션
세계 교사들을 다음 문서에서 더 많이 다룰 것이며, 한편
모론시아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그들에 대해, 그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에서 더
광범하게 논의할 것이다.

8. 배정된 고등 영 계층

37:8.1 (413.4) 동력 중심과 물리 통제관들을 제외하고, 무한한 영의 계보에 해당하는, 높은_기원을 갖는 영 존재들이 지방우주에 영구히 배정돼 있다. 무한한 영의 계보에 해당하는 고등 영 계층 중에서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배정돼 있다:

37:8.2 (413.5) *단독 사자*는, 지방우주 행정부에 기능적으로 배속됐을 때, 시간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에, 헤아릴 수 없는 귀중한 봉사를 제공한다. 그들이 그렇게 배정되지 않았을 때, 지방우주에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독특한 이 존재들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기꺼이 돕고 있다.

37:8.3 (413.6) 안도본티아는 우리 지방우주에 위치한 3차 우주 회로 감독관의 이름이다. 그는 오직 영 회로와 모론시아 회로에만 관계하고, 동력 지휘자들의 관할 아래 있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루시퍼 반역을 시험하는 시절 동안 캘리개스차의 행성 배반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가

유란시아를 격리시켰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는 자신이 감독하는 우주 회로로 너희가 언젠가 복귀될 것을 예상하며 기쁨을 표현한다.

37:8.4 (413.7) 네바돈 *인구조사 자/휘/자*인 살사티아는 살빙톤의 가브리엘 구역 내에 본부를 유지한다. 그는 의지의 탄생과 죽음을 자동적으로 인지하며, 지방우주에서 활동하는 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정확한 숫자를 즉각 등록한다. 그는 천사장들의 기록 세계들에 거주하는 인격체 기록원들과 가깝게 연합해서 일한다.

37:8.5 (413.8) *부{副}* *검사관* 한 명이 살빙톤에 거주한다. 그는 오르본톤의 최상 행정관의 개인 대행자다. 그의 동역자인, 지역 체계들에 있는 *배정된 파수꾼*들 역시, 오르본톤의 최상 행정관의 대행자다.

37:8.6 (414.1) *우주 화해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이동{移動}하는 법정인데, 진화하는 세계로부터 지방우주 각 지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활동한다. 이 심판관들은 우버사에 등록돼 있으며;네바돈에서 활동하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내가 추산하기로는 우리 지방우주에 약 1억 개의 화해 위원회가 있다.

37:8.7 (414.2) **법해석 고문**은 그 영역의 법 정신인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숫자는 약 5억 명이다. 이 존재들은, 모든 공간에 있는, 살아있고 순회하는 체험적 법률 도서관이다.

37:8.8 (414.3) **천상의 기록원**은 상승한 스라빔인데, 우리는 네바돈에 75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선임 기록원 또는 감독하는 기록원이다. 이 계층 중에서 훈련을 받는, 진보하는 학생은 거의 40억 명에 이른다.

37:8.9 (414.4) 700억 명의 **모론시아 동무**가 네바돈에서 베푸는 사역은,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거치는 과도기 행성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설명된다.

37:8.10 (414.5) 각 우주마다 그 자체의 토착 천사 단체를 소유하며;그럼에도 지방 창조계 바깥에서 기원된 고등 영들의 협조가 매우 유익한 경우가 있다. 최고스라빔은 어떤 드물고 독특한 봉사를 수행하며;유란시아 스라빔의 현직 우두머리는, 낙원의 제1 최고스라빔이다. 반사하는 제2스라빔은 연방우주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디서나 발견되며, 매우 많은 제3스라빔이 지고{至高} 보좌관으로서 임시로 봉사한다.

9. 지방우주의 영구 시민

37:9.1 (414.6)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와 마찬가지로, 지방우주 역시 영구{永久} 시민권을 갖는 자체 계층을 소유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창조된 유형을 포함한다:

37:9.2 (414.7) 1. 수사티아.

37:9.3 (414.8) 2. 유니비타시아.

37:9.4 (414.9) 3. 물질 아들.

37:9.5 (414.10) 4. 중도{中道} 피조물.

37:9.6 (414.11) 지방 창조계의 이 원주민은, 영과_융합된 상승자들 및 (다르게 분류되는) 스피롱가와 함께, 비교적 영구적인 시민신분을 구성한다. 이 계층의 존재들은 대체로 상승하지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체험하는 피조물이지만, 그들의 체험은 기원된 수준에서 우주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반면에 이것은 아담의 아들과 중도 피조물에게는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이 계층들에게는 비교적 적용되는 편이다.

37:9.7 (414.12) 수사티아. 기묘한 이 존재들은, 이 지방우주 본부인 살빙톤에서 영구 시민으로서 거주하고 활동한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훌륭한 자손이며, 지방우주의 상승하는 시민, 즉 네바돈의 완전성 단체의 영과_융합된 필사자와 가깝게 연합돼 있다.

37:9.8 (414.13) *유니비타시아*. 건축양식 구체인 100개 성좌 본부의 집단은, 각각 유니비타시아로 알려진, 거주하는 계층의 존재들이 베푸는 보살핌을 계속 받는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이 낳은 이 자녀들은, 성좌 본부 세계의 영구 주민 가운데 일원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물질 아들들의 약간물질 상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영적 수준에 있는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 및 살빙톤의 수사티아 사이에, 대략 중간 생명 수준에서 실존하는, 번식 불가능한 존재이지만;유니비타시아는 모론시아 존재가 아니다. 중앙 창조물을 거쳐서 지나가는 순례자 영들에게 하보나 주민이 기여하는 것을, 상승하는 필사자가 성좌 구체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에 유니비타시아들이 그 필사자에게 해준다.

37:9.9 (415.1) *하나님의 물질 아들*.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인 우주 어머니 영 사이의 창조적 접촉이 그 주기{週期}를 마쳤을 때, 즉 혼합된 본성의 자손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을 때,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마지막 존재 개념을 이중 형태로 인격화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자신이 원래 이중으로 기원됐음을 확증한다. 그 자체로, 그는 우주 아들신분을 갖는 물질 계층의 아름답고 뛰어난 아들과 딸들을 창조한다. 이것이 네바돈에 속한 각 지역 체계의 원본 아담과 이브의 기원이다. 그들은 아들신분을 갖는 번식 가능한 계층인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손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비교적 영구적인 시민으로서 활동하지만, 더러는 행성 아담으로서 임명된다.

^{37:9.10 (415.2)} 행성 사명에 임할 때,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세계의 아담의 인종, 즉 결국 그 구체의 필사 거주자들과 혼합되도록 계획돼 있는 한 인종을 확립하도록 임명된다. 행성 아담들은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는 아들이지만, 우리는 대개 그들을 상승하는 존재로 분류한다.

^{37:9.11 (415.3)} 중도 꺾조물.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초기 시대에, 초인적임에도 물질화된 어떤 존재들이 배정되지만, 그들은 대개 행성 아담들이 도착할 때

물러난다. 진화하는 인종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들의 처리사항과 물질 아들들의 노력은, 분류되기 어렵고 숫자가 제한된 피조물이 출현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온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 아들과 진화 피조물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리하여 그들을 중도{中道}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상대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중도자들은 진화 세계의 영구 시민이다. 행성 왕자가 도착하는 초기 시대부터, 그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먼 훗날 시대까지, 그들은 그 구체에 계속 남아있는 유일한 지성 존재 집단이다. 유란시아에서 중도 사역자들은 정말로 실제 행성 관리인이며;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유란시아 시민이다. 필사자들은 진화 세계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주민인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 모두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며;너희는 너희 본고장 행성에 너무나 짧은 기간 머문다. 너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며, 진화로 진보하는 다른 세계들로 옮겨진다. 행성에서 천상의 사역자로서 봉사하는 초인적 존재들조차 일시적으로 임명받으며;그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일정한 영역에 오래 배속되지 않는다. 아무튼 중도 피조물은, 천상의 보살핌은 항상 변하고 필사자 거주민은 계속

바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성을 계속 경영한다. 끊임없는 이런 변화와 변천 전체를 통해서, 중도 피조물은 자신의 업무를 부단히 수행하면서 그 행성에 남아 있다.

37:9,12 (415,4) 비슷한 방법으로,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모든 경영 조직 분야에는, 다소 영구적인 주민, 즉 시민권 신분의 거주민이 소속돼 있다. 유란시아에 중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너희의 체계 수도인 예루셈에는 물질 아들과 딸들이 있으며;너희의 성좌 본부인 에덴시아에는 유니비타시아가 있고, 한편 살빙톤의 시민은 두 가지인데, 창조된 수사티아 그리고 진화된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이다.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의 경영 세계에는 영구 시민이 없다. 그러나 우버사 본부 구체들은 *어벤돈터*로 알려진 놀라운 존재 집단의 보살핌을 계속 받는데,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의 계시되지 않은 대행자들과 오르본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일곱 반사하는 영이 창조한 존재다. 우버사에 거주하는 이 시민들은 현재,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로 구성된 우버사 단체의 직접 감독 아래서 일상적 직무를 경영하고 있다. 심지어 하보나에도 원주민 존재들이 있으며, 빛과 생명의 중앙 섬은 다양한 집단의 낙원 시민의 고향이다.

10. 다른 지방우주 집단

37:10.1 (416.1) 이어지는 문서들에서 고려될 스랍 및 필사자 계층 외에, 네바돈 우주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완성해 가는 일에 관여하는 수많은 다른 존재가 있는데, 네바돈은 인간거주 세계가 현재 3백만 개 이상 있고, 천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네바돈 생명 유형은 너무 많아서 이 문서에 목록을 게재할 수도 없지만, 647,591개의 지방우주 건축양식 구체에서 광범하게 활동하는 두 가지 진귀한 계층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37:10.2 (416.2) *스피롱가*는 빛나는 새벽별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영 후손이다. 그들은 인격체 소멸에서 제외되지만, 진화하거나 상승하는 존재는 아니다. 또한 그들은 진화 상승 체제에 기능적으로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방우주의 영 도우미인데, 네바돈의 일상적인 영 과제를 실행한다.

37:10.3 (416.3) *스포르나기아*. 지방우주의 건축양식 본부 세계들은 실재하는 세계다--물리적 창조물이다.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스포르나기아라고 불리는 물리적 피조물

집단의 협조를 받는다. 그들은 예루셈으로부터 살빙톤에 이르기까지, 이 본부 세계들의 물질 국면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전념한다. 스포르나기아들은 영이 아니고 인격자도 아니며;실존하는 동물 계층이지만, 너희가 그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완벽한 동물로 보인다고 동의할 것이다.

37:10.4 (416.4) 다양한 *우대{優待}* 거주민이 살빙톤 및 기타 장소에 거주한다. 특별히 우리는 성좌에 있는 천상의 기능공들의 사역에서 덕을 보고, 회고{回顧} 지휘자들의 활동에서 유익을 얻는데, 그들은 주로 지방체계 수도에서 활동한다.

37:10.5 (416.5) 영화롭게 된 중도 피조물을 포함해, 상승하는 필사자 단체가 우주 봉사에 항상 배속돼 있다. 이 상승자들은, 살빙톤에 도착한 후에, 우주 직무 수행에서 거의 끝없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된다. 각 성취 수준에서 승진하는 이 필사자들은,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뒤로 돌이켜 손을 뻗는다. 살빙톤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필사자들은, 도우미, 학생, 참관인, 및 선생으로서, 천상의 인격체들로 구성된 모든 단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배정된다.

37:10.6 (416.6) 지방우주 경영과 관련된 다른 유형의 지성 생명체가 아직 많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창조된 이 계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히지 않도록 계획돼 있다. 생존하는 실존의 실체와 웅대함을 필사 정신이 파악하기에 알맞을 만큼, 이 우주의 생명체들과 경영은 여기에 충분히 설명됐다. 너희의 전진하는 생애들에서 더 많은 체험이, 이 흥미롭고 매력 있는 존재들을 점점 더 드러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훈련 학교로서 이 창조물들을 경영하는, 공간에 있는 우주들에 총만한 가지각색 인격체의 본성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윤곽만 제시할 뿐인데, 그 학교들에서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이, 자신이 기원된 우주의 경계선으로부터 연방우주의 더 높은 교육 체제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보나의 영_훈련 세계들로, 그리고 결국에는 낙원과 완결성취자의 고귀한 운명으로, 사랑을 받으며 파송될 때까지--곧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는 사명에 영원히 배정될 때까지--, 생애에서 생애로, 세계에서 세계로 승진한다.

37:10.7 (417.1) [창조된 단체의 1,146_번인,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구술했음]

제38편 지방우주의 돌보는 영

38:0.1 (418.1)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에는 독특한 세 계층이 있다. 성격 급한 그 사도가 예수에 관해,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오른 편에 있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기록했을 때, 이것을 이해했다. 천사는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이며; 권세는 공간에 있는 사자{使者} 무리이며; 능력은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다.

38:0.2 (418.2) 중앙우주의 최고스라빔과 연방우주의 제2스라빔 같이, 스라빔은, 관련된 체루빔 및 사노빔과 함께, 지방우주의 천사 단체를 구성한다.

38:0.3 (418.3) 스라빔은 모두 아주 균일하게 설계된다. 그들은 우주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곱 연방우주 전체에 두루, 최소한의 변이를 나타내며; 모든 영 유형의 인격있는 존재 중에서 표준에 가장 가깝다. 그들의 다양한 계층이, 지역 창조계의 숙련된 공동 사역자 단체를 구성한다.

1. 스라빔의 기원

38:1.1 (418.4) 우주 어머니 영이 스라빔을 창조했으며, “원형{原型} 천사들”과 특정한 모범 천사들이 네바돈의

초기 시절에 창조된 이래, 계속해서 단위 구성체로--곧 한 번에 41,472명씩-- 기획돼 왔다. 창조주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의 우주{宇宙} 대표단이, 수많은 아들 및 기타 우주 인격체의 창조에 협력한다. 이런 일치된 수고가 완성된 후에, 아들은 남녀로 된 첫 피조물인 물질 아들들의 창조에 참여하고, 한편 우주 어머니 영은 동시에 영을 낳기 위해 처음으로 홀로 수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방우주의 스랍 무리의 창조가 시작된다.

38:1.2 (418.5) 이 천사 계층들은, 의지를 가진 필사 피조물의 진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될 때 기획된다. 나중에 으뜸 아들과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창조주 아들의 초기 창조 도우미로서, 우주 어머니 영이 비교적 인격체를 달성할 때부터 스라빔의 창조가 시작된다. 이 사건 이전에 네바돈에서 근무하던 스라빔은 이웃 우주에서 임시로 빌려왔다.

38:1.3 (418.6) 스라빔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창조되고 있으며;네바돈 우주는 아직도 만들어지는 중이다. 우주 어머니 영은 성장하고 완성돼가고 있는 우주에서 창조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2. 천사의 본성

38:2.1 (419.1) 천사는 물질로 된 몸이 없지만, 명확한 별개의 존재이며; 영 본성이 있고 출처가 있다. 필사자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변형자 또는 전환자의 도움 없이, 너희를 육신 속에 있는 그대로 감지{感知}하며; 필사자 생명 양상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사람의 관능적이 아닌 감정과 감상{感想}을 모두 공유한다. 그들은 너희가 수고하는, 음악, 예술, 및 진실된 유머를 음미하고 매우 즐긴다. 그들은 너희의 도덕적 갈등과 영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한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며, 너희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38:2.2 (419.2) 스라빔이 매우 다정하고 동정심 많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性}_감정이 있는 피조물은 아니다.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그들과 아주 비슷한 존재가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맨션 세계들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은,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녀로 된 피조물을 취급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쪽에 가까운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한편 영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그러므로 남녀 구별이 있는 행성에서 천사들은 대개 여성 대명사로 표현된다.

38:2.3 (419.3) 스라빔은 영적 수준과 사실적 수준 양쪽에서 활약하도록 창조됐다. 그들의 보살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론시아 활동 또는 영 활동 국면은 거의 없다. 천사들은 인격적 신분에서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어떤 기능적 실행에서는 스라빔이 인간을 크게 초월한다. 그들은 인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지닌다. 예를 들면:“너희의 머리털도 정확하게 계수된다”는 말을 너희가 들어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그러하지만, 어떤 스라빔이 그 숫자를 세고, 그것을 계속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쓰지는 않는다. 천사들은 그런 것을 아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너희가 감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며;너희는 정말로 스라빔을 천재 수학자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사자에게 엄청난 과제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임무를, 스라빔은 아주 쉽게 수행할 수도 있다.

38:2.4 (419.4) 천사는 영적 신분에서 너희보다 높지만, 너희의 재판관도 아니고 고소자{告訴者}도 아니다. 너희가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천사들은, 능력과 세력이 더 크지만,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천사들은 인류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며, 또한 개별 필사자도 동료 피조물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38:2.5 (419.5) 너희가 천사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숭배해서는 안 되며;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위대한 스라빔인 로야라티아는, 너희 선각자가 “그 천사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 할 때:“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나는 당신과 당신의 인종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 받은 동료 봉사자입니다”라고 말했다.

38:2.6 (419.6) 스라빔은, 본성과 인격체 재능으로 볼 때, 피조물 실존 등급에서 필사자 인종보다 약간 앞서 있다. 너희가 육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너희는 정말로 그들과 매우 흡사하게 된다. 너희는 맨션 세계에서 스라빔을 식별하기 시작할 것이며, 성좌 구체들에서는 그들과 즐겁게 지내겠고, 한편 살빙톤에서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안식하고 경배 드리는 자리를 공유할 것이다. 모론시아
상승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영으로 상승하는 동안
내내, 너희가 스라빔과 나누는 형제애는 이상적일
것이며;너희의 동무관계는 대단할 것이다.

3. 계시되지 않은 천사

38:3.1 (420.1) 지방우주 영토 전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영 존재
계층이 필사자에게 계시되지 않은 것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진화 계획에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문서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필사자
생존 계획을 운영하는 것과 매우 많이 관련된, 우주 어머니
영의 스랍 후손 및 관련된 후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러
제한돼 있다. 지방우주에는 다른 여섯 계층의 관련된 존재,
즉 계시되지 않은 천사들이 봉사하는데, 진화하는
필사자들의 낙원 상승과 관련된 지방우주 활동에, 그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천사 연합체인
이 여섯 집단을 결코 스라빔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또한
돌보는 영으로 언급하지도 않는다. 이 인격체들은
네바돈의 경영 직무 및 기타 직무에 전적으로 종사하는데,
이 직무는 영적으로 상승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사람의
진보하는 생애에 어떤 면으로도 관련되지 않는다.

4. 스랍 세계

38:4.1 (420.2) 살빙톤 회로에서 아홉째 집단의 일곱 주요 구체는 스라빔의 세계다. 이 세계들은 각각 여섯 개의 종속 위성을 갖는데, 거기서는 특별 학교들이 모든 국면의 스랍 훈련에 전념한다. 스라빔은 살빙톤 구체들 중에서 이 집단을 구성하는 49개의 세계 전체를 출입할 수 있는 한편, 일곱 개로 이뤄진 첫째 무리만 독차지한다. 나머지 여섯 무리는,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여섯 계층의 천사 연합체가 차지하고 있으며;그런 집단은 각각 여섯 주요 세계 가운데 하나에 본부를 유지하고, 여섯 종속 위성에서 특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각 천사 계층은 이런 다양한 일곱 집단의 모든 세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38:4.2 (420.3) 이 본부 세계들은 네바돈의 장엄한 영역에 속해 있으며;스랍 소유지{所有地}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방대함이다. 여기서 각 스라빔은 실제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이라는 말은 두 스라빔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그들은 쌍으로 생활한다.

38:4.3 (420.4) 스라빔은 물질 아들이나 필사자 인종처럼 남성과 여성으로는 아닐지라도,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으로 돼

있다. 대부분의 할당된 임무에서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두 천사가 있어야 한다. 그들이 회로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홀로 활동할 수 있으며;또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은 보완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원래 보완 존재를 유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런 연합체들은 우선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며;그들은 매우 인격적이고 정말로 애정이 깊지만, 성적{性的}으로 감응되는 특징은 없다.

38:4.4 (420.5) 지정된 집 외에, 스라빔은 또한 소대{小隊}, 중대{中隊}, 대대{大隊}, 및 연대{聯隊} 본부를 갖고 있다. 그들은 1,000년마다 재회하기 위해 모이며, 자신이 창조된 시기에 맞춰서 모두 출석한다. 어떤 스라빔이 임무를 떠날 수 없는 책임에 묶여 있다면, 보완 존재와 교체되는데, 다른 출생일을 갖는 스라빔에게 맡기고 떠난다. 그리하여 각 스랩 짝은 적어도 하나 걸러 한 번, 재회에 출석한다.

5. 스랩의 훈련

38:5.1 (420.6) 스라빔은 살빙톤 및 관련된 세계 학교들에서, 임관되지 않은 참관인으로서 첫 1,000년을 보낸다. 두 번째 1,000년은 살빙톤 회로의 스랩 세계들에서 지낸다. 그들의

중앙 훈련 학교를 지금 네바돈의 첫 스라빔 10만 명이 관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이 지방우주의 원본 천사, 즉 첫_태생 천사다. 네바돈 스라빔 중에서 처음 창조된 집단은, 아바론에서 온 1,000명의 스라빔 단체로부터 훈련받았으며;그 다음에 우리 천사들은 자신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왔다. 멜기세덱 역시 모든 지방우주 천사들에 대한--곧 스라빔, 체루빔, 및 사노빔에 대한--교육과 훈련에 큰 역할을 한다.

38:5.2 (421.1) 살빙톤의 스랍 세계들에서 이 훈련 기간이 완료되면, 스라빔은 전형적{典型的}인 천사 조직의 집단과 단위로 동원되며, 성좌 가운데 어느 하나에 배정된다. 그들은 아직 돌보는 영으로 임관되지 않았지만, 천사 훈련에서 임명되기_전{前} 단계로 이미 잘 들어가고 있다.

38:5.3 (421.2) 스라빔은 진화 세계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참관인으로 봉사함으로써, 돌보는 영의 역할을 시작한다. 그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 후에, 상급{上級} 과정을 시작하고, 더 확실하게 어떤 특수한 지역 체계 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정된 성좌 본부의 관련된 세계들로

돌아간다. 이런 일반 교육이 있는 후에, 그들은 지역 체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봉사하도록 승진된다. 어떤 네바돈 체계의 수도와 관련된 건축양식 세계들에서, 우리 스라빔은 훈련을 완결하고, 시간세계를 돌보는 영으로서 임관된다.

38:5.4 (421.3) 스라빔은 일단 임명되고 나면, 네바돈 전체, 심지어 오르본톤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부여받는다. 우주에서 그들의 업무는 한계와 제한이 없으며;그들은 여러 세계의 물질 피조물과 긴밀하게 연합하고, 하위 계층의 영적 인격체들에 대한 봉사에 계속 참여하는데, 영 세계의 이 존재들과 물질 영역의 필사자들 사이에서 연락을 취한다.

6. 스랍의 조직

38:6.1 (421.4) 스라빔은 스랍 본부에서 두 번째 1,000년을 보낸 후에, 우두머리들 밑에 조직되어, 열둘로(12쌍, 24명의 스라빔으로) 소대{小隊}를 이루고, 12개 소대가(144쌍, 288명의 스라빔이) 중대{中隊}를 이루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통솔한다. 12개 중대가(1,728쌍, 즉 3,456명의 스라빔이) 한 명의 지휘관 아래서 한 개의 대대{大隊}를

구성하며, 12개 대대가(20,736쌍, 즉 41,472명의 개체가) 한 명의 지휘자 아래서 한 개의 스랍 사단{師團}을 이루는데, 한 명의 감독관의 명령에 따르는 12개 사단은, 248,832쌍, 즉 497,664명의 개체에 이르는 한 군단{軍團}을 구성한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요청하면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를 즉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런 천사 집단을 암시했다.

38:6.2 (421.5) 열두 군단의 천사는 2,985,984쌍, 즉 5,971,968명의 개체에 이르는 한 무리를 구성하며, 그런 열두 무리가(35,831,808쌍, 즉 71,663,616명의 개체가) 가장 큰 스랍 운영 조직, 즉 하나의 천사 군대를 이룬다. 하나의 스랍 군단을 한 명의 천사장이 통솔하거나, 또는 대등한 신분의 다른 어떤 인격체가 통솔하며, 한편 천사 군대들은 찬란한 저녁별이 지휘하거나 가브리엘의 다른 인접 부관{副官}이 지휘한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늘 군대들의 최고 사령관”, 즉 “만군의 주{主} 하나님”이신 네바돈 주권자의 최고 행정관이다.

38:6.3 (421.6) 스라빔 및 다른 모든 지방우주 계층은, 살빙톤에서
인격화되면서 무한한 영의 직접 감독 아래 봉사할지라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후로는 으뜸 아들의 주권에
귀속됐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연방우주 방송이 네바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직급의
천사는 그의 주권에 종속되며;그들은 “그의 강력한
천사”라고 일컬어 온, 그 집단 가운데 일부다.

7. 체루빔과 사노빔

38:7.1 (422.1) 모든 근본 자질에서,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라빔과
비슷하다. 그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지만, 운명이 항상
같지는 않다. 그들은 놀랄 만큼 지성적이고, 신기할 정도로
유능하며, 감동적일 정도로 애정이 깊고, 거의 인간답다.
그들은 천사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데, 따라서 진화
세계에 있는 인간 가운데 더 진취적인 유형에 가장 가깝다.

38:7.2 (422.2) 체루빔과 사노빔은 내재적으로 관련돼 있고,
기능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자{前者}는 양성 에너지
인격체이고;후자는 음성 에너지 인격체다. 오른쪽 방향의
편향기{偏向器}, 즉 양성으로 축적된 천사가 체루빔이다--

선배, 즉 통제하는 인격체다. 왼쪽 방향의 편향기, 즉 음성으로 충전된 천사가 사노빔이다--보완하는 존재다. 각 천사 유형은 혼자만의 기능이 매우 제한돼 있으며;따라서 그들은 대개 쌍으로 봉사한다. 스랍 지휘자들로부터 독립돼 봉사할 때,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상호 접촉에 의존하며, 항상 함께 활동한다.

38:7.3 (422.3)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랍 사역자의 충실하고 유능한 조력자이며, 일곱 계층의 전체 스라빔에게 이런 종속 보좌관들이 배정돼 있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이런 자격으로 긴 세월 봉사하지만, 지방우주의 경계를 벗어나는 임무에서는 스라빔과 동행하지 않는다.

38:7.4 (422.4) 체루빔과 사노빔은 체계의 개별 세계에서 일하는 일상적인 영 일꾼이다. 그들은 개인적이 아닌 임무와 긴급사태에서, 스랍 쌍을 대신하여 봉사할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해 관여하는 천사로서는 잠시라도 활동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그것은 스랍의 독점적 특권이다.

38:7.5 (422.5) 행성에 배정됐을 때, 체루빔은 행성의 관습과 언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국지적 훈련 과정에 참여한다. 시간세계의 돌보는 영들은 모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데,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의 언어와 자신이 출생한 연방우주 언어가 그것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학교에서 공부함으로써 다른 언어를 추가로 습득한다. 체루빔과 사노빔은, 스라빔 및 다른 모든 계층의 영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기를_향상시키려고 계속 힘쓴다. 동력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하위 존재들만 진보할 능력이 없으며;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격체 의지작용을 소유한 모든 피조물은 새로운 성취를 추구한다.

38:7.6 (422.6) 체루빔과 사노빔은 본질적으로 모론시아 실존 수준에 매우 가까우며, 물리적, 모론시아적, 및 영적 영토의 경계지대 업무에서 가장 유능한 것이 입증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이 자녀들의 특징은, “넷째 피조물”이라는 것인데, 하보나 하인 및 화해시키는 위원회들과 매우 비슷하다. 체루빔 중에서 넷째마다, 그리고 사노빔 중에서 넷째마다 유사{類似}_물질인데, 모론시아 실존 수준과 매우 흡사하다.

38:7.7 (422.7) 이런 넷째 천사 피조물은, 스라빔의 우주 및 행성 활동 가운데 더 엄밀한 국면에서 그들에게 크게 도움 된다. 그런 모론시아 체루빔은 또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에서,

경계선에 있는 필요불가결한 과제를 많이 수행하며, 많은 숫자로 모론시아 동무들의 봉사에 배정된다. 중도 피조물과 진화 행성들의 관계는, 대체로 그들과 모론시아 구체의 관계와 같다. 이 모론시아 체루빔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종종 중도 피조물과 접촉하면서 일한다. 체루빔과 중도 피조물은 명확하게 분리된 계층의 존재이며;그들은 서로 다르게 기원됐지만, 본성과 기능 면에서는 매우 비슷함을 드러낸다.

8. 체루빔과 사노빔의 진화

38:8.1 (423.1) 신분 향상으로 이끄는, 봉사를 촉진하는 수많은 길이, 체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려 있는데, 신성한 사역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현저히 증대될 수 있다. 진화 잠재력을 고려할 때, 크게 세 등급의 체루빔과 사노빔이 있다:

38:8.2 (423.2) 1. **상승 후보자.** 이 존재들은 본성적으로 스랍 신분이 될 수 있는 후보자다. 이 계층의 체루빔과 사노빔은, 타고난 재능에서 스라빔과 대등하지는 않아도 뛰어난 존재이지만;열심과 체험으로, 그들은 충분한 스랍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38:8.3 (423.3)

2. *중간_국면 체루빔*. 모든 체루빔과 사노빔은 상승 잠재력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천사로 창조될 때 본래부터 제한된 존재다. 그들 대부분이 체루빔과 사노빔으로 남더라도, 더 재능 있는 개체들은 제한된 스랍 봉사를 성취할 수도 있다.

38:8.4 (423.4)

3. *모론시아 체루빔*. 천사 계층 중에서 이 “넷째 피조물”은 항상 유사{類似}_물질 특질을 갖는다. 지존하신 분이 완벽하게 사실화할 때까지, 그들은 중간_국면에 있는 그 형제들 대부분과 함께 체루빔과 사노빔으로서 남을 것이다.

38:8.5 (423.5)

둘째와 셋째 집단이 성장 잠재력에서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상승 후보자들은 보편적인 높은 위치의 스랍 봉사를 달성할 것이다. 이 체루빔 중에서 더 많은 체험을 한 존재 가운데 다수는 운명의 스랍 수호자들에게 배속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스랍 선배들이 자리를 비울 때, 맨션 세계 교사의 신분으로 승진되는 직계 계통에 자리 잡게 된다. 운명의 수호자들은, 자신이 보호하는 필사자가 모론시아 생애를 달성할 때, 체루빔과 사노빔을 도우미로 두지 않는다. 그리고 진화하는 다른 유형의 스라빔이

살빙톤과 낙원을 향해서 떠나도록 허락 받을 때, 네바돈 구역 밖으로 나갈 때, 그들은 예전의 부하들을 두고 가야만 한다. 관계가 끊어진 그런 체루빔과 사노빔은 대개 우주 어머니 영의 품으로 들어가며, 그리하여 스랍 신분을 달성할 때 맨션 세계 교사의 수준에 상당하는 어떤 수준을 성취한다.

38:8.6 (423.6) 맨션 세계 교사로서, 한때_포용됐던 체루빔과 사노빔이 모론시아 구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봉사했을 때, 그리고 살빙톤에 있는 그들의 단체가 과도하게 모집됐을 때, 빛나는 새벽별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을 돌보는 이 충성스런 하인들에게 자기 앞으로 출두하라고 호출한다. 인격체 변형 서약이 실시되며;이렇게 승진된 선임 체루빔과 사노빔은, 그때부터 7,000명씩 무리지어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용된다. 이렇게 두 번째 포용된 때부터 그들은 다_자란 스라빔으로서 출현한다. 그때부터 스라빔의 충만하고 완성된 생애가, 그 모든 낙원 가능성과 함께, 그렇게 다시 태어난 체루빔과 사노빔에게 열린다. 그런 천사들은 어떤 필사 존재에게 운명의 수호자로서 배정될 수 있으며, 그 필사 피보호자가 생존을 달성하면,

그들은 스라빙톤까지 그리고 스랍이 달성하는 일곱
퀘도까지, 심지어 낙원과 완결성취 단체까지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9. 중도 피조물

38:9.1 (424.1) 중도 피조물은 삼중으로 분류된다:그들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며;실제로는 영구 시민자격 계층으로 분류되는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시간세계에서 돌보는 영으로
알려지는데, 공간의 개별 세계에서 긴밀하게 효과적으로
천사 무리와 연합해서 필사적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8:9.2 (424.2) 독특한 이 피조물은 인간거주 세계 대부분에
출현하며, 유란시아 같은 10진{十進} 행성, 즉
생명을_실험하는 행성에서는 항상 발견된다. 중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곧 1차 및 2차로-- 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법에 따라 출현한다:

38:9.3 (424.3) 1. 1차 중도자는, 비교적 더 영적인 집단이고 어느
정도 표준화된 계층인데, 한결같이 행성 왕자의 변경된
상승_필사자 참모들로부터 유래된다. 1차 중도 피조물의

숫자는 항상 5만 명이며, 그들의 돌봄을 누리는 어떤 행성도 더 큰 집단을 소유할 수 없다.

38:9.4 (424.4) 2. 2차 중도자는, 이 피조물 가운데 비교적 더 물질적인 집단인데, 평균 5만 명에 이르지만, 세계마다 숫자가 크게 다르다. 그들은 행성의 생물학적 개량자{改良者}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또는 그들의 직계 자손으로부터 다양하게 유래된다.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이 2차 중도 피조물의 생산에는 적어도 스물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법이 관련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이 집단이 기원된 방식은 색다르고 이례적이었다.

38:9.5 (424.5) 이 집단들 가운데 어떤 것도 진화에서 우연히 생기지 않았으며;두 가지 모두 우주 설계자들이 미리 결정한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특색이며, 진화하는 세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은 감독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원본 설계도와 발전적 계획에 따라서 출현한다.

38:9.6 (424.6) 1차 중도자들은, 천사의 기법{技法}에 따라서 지적{知的}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며, 지적 상태에서 균일하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며;오직 여섯째와 일곱째, 즉 경배의 영{靈}과 지혜의 영만이 2차 집단에게 이바지할 수 있다.

38:9.7 (424.7) 2차 중도자들은, 아담의 기법에 따라서 물리적 에너지를 얻고, 스라빔의 기법에 따라서 영적으로 회로화{回路化}되며, 모론시아 변환 유형의 정신을 지적으로 부여받는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 영적으로는 일곱 계층, 그리고 마지막 두 보조 영 및 모론시아 정신의 공동 사역에 대해 지적으로 반응하는 열두 수준으로 나뉜다. 이런 다양성이 그들의 활동의 차이와 행성 임무의 차이를 결정한다.

38:9.8 (424.8) 1차 중도자들은 필사자보다 천사를 더 닮았으며;2차 계층은 훨씬 더 인간과 흡사하다. 그들은 다양한 행성 임무를 이행할 때 서로 다른 계층에게 매우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다. 1차 사역자들은, 모론시아_에너지 및 영_에너지 통제관과 정신 회로자{回路者}들, 이 둘과 협동하여 접촉할 수 있다. 2차 집단은 오직 물리 통제관 및 물질_회로 조종자들과 실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중도자 계층이 다른 계층과 완전히 동시에 접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둘

가운데 어느 집단이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물질 세계의 총체적 물리 동력으로부터, 우주 에너지의 과도기 국면을 거쳐서, 천상의 영역의 비교적 고등 영_실체 세력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 범위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8:9.9 (425.1)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간격에, 필사적 사람, 2차 중도자, 1차 중도자, 모론시아 체루빔, 중간_단계 체루빔, 그리고 스라빔의 순차적인 연합이 완전하게 다리를 놓는다. 어떤 개별 필사자의 개인 체험에서 이 다양한 수준은, 신성한 사고 조율사의 관찰되지 않는 신비로운 작용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어느 정도 통합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된다.

38:9.10 (425.2)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1차 중도자들이 정보 단체로서, 그리고 행성 왕자를 대신하는 천상의 위안자{慰安者}로서 봉사를 계속하며, 한편 2차 사역자들은 점진적인 행성 개화{開化}의 근거를 촉진시키는 아담 체제와 계속 협동한다.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행성 왕자의 변절과 물질 아들의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중도 피조물은 체계 주권자의 피보호자가

되며, 그 행성의 직무 대행 관리인의 지휘와 안내에 따라서 봉사한다. 그러나 사타니아에서는 오직 3개의 다른 세계에서만, 유란시아의 결합된 중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통합된 지도체제 밑에서 이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활동한다.

38:9.11 (425.3) 1차 및 2차 중도자가 행성에서 하는 업무는 우주의 수많은 개별 세계에서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정상적이고 평범한 행성에서 그들의 활동은, 유란시아 같은 고립된 구체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임무와는 매우 다르다.

38:9.12 (425.4) 1차 중도자들은 행성의 역사가이며, 행성 왕자가 도착한 때부터 빛과 생명이 정착되는 시기까지의 야외극을 꾸미고 행성 역사에 대한 묘사를 계획하는데, 행성을 체계 본부 세계들에 보여주기 위해서다.

38:9.13 (425.5) 중도자들은 인간거주 세계에 오랜 기간 머물지만, 자신의 책임에 충실하면, 그들은 결국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창조주 아들의 주권 유지에 오랫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 인정받게 될 것이며;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물질 필사자에게 인내심으로 사역했던 것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인정받은 모든 중도 피조물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반열{班列}로 들어갈 것이며, 자신의 이 세상 형제인, 동물로부터 기원된 바로 그 필사자, 즉 그들이 그토록 선망하면서 보호했던, 그리고 오래 행성에 머물면서 그토록 효과적으로 봉사했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낙원으로 상승하는 긴 모험에 당연히 임하게 될 것이다.

38:9.14 (425.6) [네바돈의 스랍 군대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는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39편 스랍 무리

39:0.1 (426.1) 우리가 인지하는 한, 지방우주 본부에서 인격화된 무한한 영은 획일적으로 완전한 스라빔을 산출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스랍 후손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은 진화하는 체험적 신격의 알려지지 않은 간섭으로 말미암는 결과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스라빔이 교육 시험과 연습 훈련을 받아야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곱 집단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분류되는 것을 목격했다:

39:0.2 (426.2) 1. 최고 스라빔.

39:0.3 (426.3) 2. 고위{高位} 스라빔.

39:0.4 (426.4) 3. 감독관 스라빔.

39:0.5 (426.5) 4. 경영자 스라빔.

39:0.6 (426.6) 5. 행성 도우미.

39:0.7 (426.7) 6. 과도기 사역자.

39:0.8 (426.8) 7. 미래의 스라빔.

39:0.9 (426.9) 어떤 한 스라빔이 다른 집단의 어떤 천사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럼에도 어떤 천사든지 처음에는 원래 선천적으로 분류된 집단에서만 봉사할 수 있다. 이 글을 준비할 당시에, 나의 스랍 동료인 마노티아는 최고 스라빔이고, 한때는 오직 최고 스라빔으로서만 활동했다. 헌신적인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는 일곱 가지 스랍 봉사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했는데, 스라빔에게 개방된 거의 모든 활동 경로에서 작용해 왔으며, 현재는 유란시아에서 스라빔의 부{副} 우두머리라는 위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9:0.10 (426.10) 높은_수준에서 사역하도록 고안된 능력이, 낮은 봉사 수준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사람은 무기력한 아기로서 인생을 시작하며;따라서 필사자가 무엇을 달성하든지 모든 체험적 선행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며;스라빔에게는 그런 어른이 되기 전의 삶이--곧 어린 시절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체험하는 피조물이며, 체험함으로써 그리고 추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스랍 봉사에서 기능적 솜씨를 체험으로 획득하여, 신{神}에게서 받은 자신의 선천적 재능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39:0.11 (426.11) 임관된 후에, 스라빔은 그들 본래 집단의 예비군에 배정된다. 행성에 속하고 경영자 지위에 있는 자는, 원래 분류된 그대로 오랫동안 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천사 사역자들은 내재적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우주 봉사 중에서 더 낮은 계층에 배정되기를 더욱 고집스럽게 추구한다. 그들은 특히 행성 도우미 예비군에 배정되기를 바라며, 성공하게 되면, 어떤 진화 세계에서 행성 왕자 본부에 배속된 천상의 학교에 들어간다. 그들은 여기서 인류의 인종들의 언어, 역사, 및 지역 관습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스라빔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해야만 한다. 그들은 어떤 인격체 속성에서는 너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밑바닥에서, 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의 사역에서 출발하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체험적 운명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

1. 최고 스라빔

^{39:1.1 (427.1)}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 천사들의 계시된 일곱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계층이다. 그들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하는데, 각각 완료 스랍 단체의 천사 사역자들과 밀접하게 연합돼 있다.

^{39:1.2 (427.2)} 1. *아들_영 사역자*. 최고 스라빔 중에서 첫 집단은, 지방우주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높은 아들과 영에서_지원된 존재들의 봉사에 배정돼 있다. 천사 사역자인 이 집단은 또한 우주 아들 및 우주 영을 섬기며,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일치된 뜻을 시행하는, 우주 행정관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정보 단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39:1.3 (427.3) 고위 아들과 영들에게 배정됐기 때문에, 이 스라빔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신성한 자손인 낙원 아보날들의 광범한 봉사에 자연스럽게 연합된다. 낙원 아보날들은, 높고 노련한 계층인 이 스라빔을 통해서 모든 집정관 사명 및 증여 사명에 항상 참여하는데, 그들은 그런 때에 행성의 한 섭리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시{開始}와 관련된 특별한 업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섭리시대의 변경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9:1.4 (427.4) 증여 수행원. 창조주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낙원 아보날이 증여 사명을 수행할 때에는 144명의 증여 수행원을 항상 대동한다. 이 144명의 천사는, 증여 사명과 연합될 모든 다른 아들_영 사역자의 우두머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성에 증여되어 육신화할 때,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 군단{軍團}들이 어찌면 있을 수 있지만, 144명의 증여 수행원이 이 스라빔 전체를 조직하고 지휘할 것이다. 더 높은 계층의 천사들, 즉 최고스라빔과 제2스라빔 역시 참석한 무리 가운데 일부가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임무가 스라빔의 임무와

다를지라도, 증여 수행원들이 이 활동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39:1.5 (427.5) 이 증여 수행원들은 완료 스라빔이며;그들은 모두 스라빙톤 궤도들을 거쳤고 완료 스랍 단체를 달성했다.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세계의 자녀들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증여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은 더 많은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 그런 스라빔은 모두 낙원에 도달했고, 제2 근원 및 중심인 영원한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포용됐다.

39:1.6 (427.6) 스라빔은 육신화 된 아들의 사명에 배정되는 것과, 그 영역의 필사자에게 운명 수호자로서 배속되는 것을 똑같이 열망하며;후자는 낙원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스랍 신분증이고, 한편 증여 수행원은, 낙원에 도달한 완료 스라빔으로서 가장 고상한 봉사를 지방우주에서 성취했다.

39:1.7 (428.1) 2. **법정 고문.** 화해자들로부터 그 영역의 가장 높은 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든 판결 계층에 배속된 스랍 충고자 및 도우미다. 그런 재판소의 목적은, 징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견해 차이를

판정하고, 상승하는 필사자의 영원한 생존을 선포하는 것이다. 법정 충고자들의 임무가 여기 있는데:필사 피조물에 대한 모든 고발이 공정하게 주장되고 자비롭게 판결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할 때, 그들은 고위 책임자, 즉 지방우주에서 봉사하는, 영과_융합된 상승 필사자들과 긴밀히 연합돼 있다.

39:1.8 (428.2) 스랍 법정 고문은, 필사자의 변호인으로서 광범하게 봉사한다. 그 영역의 낮은 피조물에게 어떤 불공정한 처분이든지 내려진 적이 전혀 없었지만, 신성한 완전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태만이 있든지, 그 판결을 응보가 소환하는 반면,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피조물 본성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되기를 자비가 요구한다. 이 천사들은 신성한 응보-- 곧 개인적 동기와 인종적 성향이라는 근원적 사실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 공정성-- 속에 내재된 자비의 요소를 설명하고 예증하는 존재다.

39:1.9 (428.3) 이 계층의 천사들은, 행성 왕자 협의회로부터 지방우주의 가장 높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며, 한편완료 스랍 단체에 속한 그들의 동역자들은,

오르본톤의 더 높은 영역들에서, 심지어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서도 활동한다.

39:1.10 (428.4) 3. 우주 순응 지휘자. 상승하는 피조물이 방대한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그들 앞에 펼쳐질 영 모험에
임하기 직전에, 자신이 기원된 우주에서, 살빙톤에 머무는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숨 돌리고 있을 때, 이 지휘자들은
그들 모두의 참된 친구인 동시에 졸업이후의 조언자다.
그리고 그런 때에 수많은 상승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인간 감정과 비교함으로써만 필사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 뒤에는 성취한 영역, 즉 오랫동안
봉사하고 모론시아를 달성해서 친숙해진 영역들이
있으며;앞에는 더 크고 방대한 우주가 매력을 발산하면서
신비롭게 놓여 있다.

39:1.11 (428.5) 우주 순응 지휘자들의 과제는, 우주 봉사에서
달성된 수준으로부터 달성되지 않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쉽게 통과하도록 돕는 것인데,
첫_단계 영 존재가 서있는 곳이 지방우주 모론시아 상승의
끝이면서 최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상승하는 긴 사다리의

아주 밑바닥이라는, 그 깨달음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터득하면서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이 순례자들을 돕는다.

39:1.12 (428.6) 스라빙톤 졸업자 가운데 다수는, 이 스라빔과
연합돼 있는 완료 스랍 단체의 구성원이며, 다음 우주
시대의 관계들을 위하여 네바돈의 피조물을 준비시키기에
관여하는 어떤 살빙톤 학교에서, 다방면의 가르침에
종사한다.

39:1.13 (428.7) 4. **교육 상담자**. 이 천사들은 지방우주의 영적 교육
단체에게 훌륭한 보좌관이다. 교육 상담자는, 멜기세덱과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로부터, 아래로는 상승 생애의
단계에서 바로 뒤에 있는 동료에게 도우미로 배정된
모론시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선생에게
비서 역할을 한다. 너희는 예루셈을 둘러싼 일곱 맨션 세계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가르치는 이 준{準} 교사 스라빔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39:1.14 (428.8)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의 수많은 교육{教育} 및
훈련 기관에서, 부서 우두머리의 동역자가 되며, 지역
체계의 일곱 훈련 세계, 그리고 성좌에 속한 70개 교육
구체의 교수진에 많은 숫자로 배속돼 있다. 이런 보살핌은

아래로 개별 세계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시간세계의
참되고 성별된 선생들도, 최고 스라빔인 이 상담자들의
도움을 받고 종종 시중을 받는다.

39:1.15 (429.1) 네 번째로 창조주 아들이 피조물로서 증여한 것은,
네바돈의 최고 스라빔 중에서 교육 상담자의 모습이었다.

39:1.16 (429.2) 5. *임무 지휘자*. 피조물이 거주하는 진화 및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 144명의 최고
스라빔 기관을 때때로 선출한다. 이것은 어떤
구체에서든지 가장 높은 천사 협의회이며, 스스로_정한
스랍 봉사 및 임무 국면들을 조화시킨다. 이 천사들은, 공무
집행 또는 경배에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스랍 집회를
주재한다.

39:1.17 (429.3) 6. *기록원*. 이들은 최고 스라빔을 위한 공식
기록원이다. 이 높은 천사들 가운데 다수는 충분히 발달된
은사를 지니고 태어났으며;더러는 비교적 낮거나 책임이
가벼운 계층에 배속돼 있는 동안 부지런히 연구에
전념하고, 비슷한 임무를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신임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

39:1.18 (429.4) 7. *무소속 사역자*. 최고 계층 가운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많은 숫자의 스라빔이, 건축양식 구체들에서, 그리고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스스로_정한 봉사자로서 존재한다. 그런 사역자들은 최고 스라빔의 봉사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며, 그렇게 이 계층의 일반 예비군을 구성한다.

2. 고위 스라빔

39:2.1 (429.5) 고위{高位} 스라빔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질적으로 다른 천사 계층을 능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우주의 상류 활동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 스랍 단체의 첫 두 집단 가운데 매우 많은 숫자는 달성 스라빔인데, 모든 훈련 국면에서 봉사했고 자신이 초기에 활동했던 구체들에서, 동료들에 대한 지휘자로서 어떤 영화롭게 된 임무를 받고 돌아온 천사들이다. 아직 젊은 우주이기 때문에, 네바돈은 이 계층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39:2.2 (429.6) 고위 스라빔은 다음과 같이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39:2.3 (429.7)

1. *정보 단체*. 이 스라빔은 가브리엘, 즉 빛나는 새벽별의 개인 참모진에 소속된다. 그들은 네바돈의 협의회들에서 가브리엘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그 영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지방우주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가브리엘이 으뜸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관장하는 강력한 무리의 정보 단체다. 이 스라빔은 체계 또는 성좌들과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으며,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연속되고 독립된 직통 회로를 따라서 살빙톤에 직접 전달된다.

39:2.4 (429.8)

다양한 지방우주들의 정보 단체들은 서로 연락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오직 주어진 한 연방우주 내부로 제한된다. 다양한 연방정부 사업과 처리사항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 한 연방우주는 대개 낙원 물자집배소의 규정과 설비를 통해서만 다른 연방우주와 연락할 수 있다.

39:2.5 (430.1)

2. *자비의 소리*. 자비는 스랍 봉사와 천사 사역의 중심사항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자비를 표현하는 천사 단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에서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사역자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의 더 높은 자극과 더 거룩한 감정을

촉진하는, 영감 받은 지도자다. 이 여러 군단의 지휘관들은, 지금은 반드시, 필사자의 운명을 수호하는 일 역시 마친 완료 스라빔이며;다시 말하면, 각각의 천사 쌍은 동물에서 기원된, 적어도 한 명의 혼이 육신 속에 사는 동안 안내했고, 그 후에 스라빙톤의 궤도들을 지나갔으며, 완료 스랍 단체에 소집됐다.

39:2.6 (430.2) 3. *영 조정자*. 고위 스라빔 중에서 셋째 집단은 살빙톤에 기반을 두지만, 지방우주에서 그들이 열매 맺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활동한다. 그들의 과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반면, 살빙톤에 있는 상승 체류자들이 지방우주에서 마지막으로--곧 가장 높은 모론시아 수준에서 새로 태어난 영 존재 상태로--변환하는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제를 이 천사들이 맡고 있음을 설명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필사자에게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마 어느 정도 파악할 것이다. 생존하는 피조물로 하여금 모론시아 정신의 잠재력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신 계획가들이 맨션 세계에서 도와주듯이, 이 스라빔들은 살빙톤에서 영이 새로 성취한 정신 능력에 관해 모론시아 졸업생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은 상승한 필사자들을 기타 여러 방법으로 섬긴다.

39:2.7 (430.3) 4. *보조 교사*. 보조{補助} 교사들은 동료 스라빔, 즉 교육 상담자의 도우미이자 동역자다. 또한 그들은 지방우주의 광범한 교육 체제, 특히 지역 체계의 맨션 세계들에서 작동하는, 칠중{七重} 훈련 요강과 개별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계층의 스라빔으로 이뤄진 한 훌륭한 단체가, 진리와 정의라는 대의를 육성하고 촉진시킬 목적으로 유란시아에서 활동한다.

39:2.8 (430.4) 5. *운송자*. 모든 집단의 돌보는 영들은 자신의 운송 부대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스스로 여행할 수 없는 인격체들을 운송하는 사역이 맡겨진 천사 계층이다. 고위 스라빔 중에서 다섯째 집단은 살빙톤에 본부를 두며, 지방우주 본부에서 오가는 공간 횡단자{橫斷者}로서 봉사한다. 고위 스라빔의 다른 하위부서들과 마찬가지로, 더러는 그렇게 창조된 반면, 나머지는 더 낮거나 자질을 적게 부여받은 집단으로부터 올라왔다.

39:2.9 (430.5) 스라빔의 “에너지 범위”는 지방우주뿐 아니라, 심지어 연방우주의 필요조건에도 전적으로 적합하지만, 우버사로부터 하보나까지 가는 것 같은, 오랫동안의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소모적인 그런 여행에는, 운송 재능을 가진 1차 제2스라빔의 특별한 능력이 요구된다. 운송자들은 이동하는 동안 비행에 필요할 에너지를 채우고 가며, 여행이 끝나면 개인의 동력을 다시 채운다.

39:2.10 (430.6)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살빙톤에서도, 몸소 이동하는 형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상승자들은 하보나 내부 궤도에서 마지막으로 잠든 후에, 그리고 낙원에서 영원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갈 때 스랍 운송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 후에는 너희가 우주에서 우주로 갈 때, 운송되기 위해 천사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9:2.11 (430.7) 스라빔에게 둘러싸이는 과정은, 변환 수면{睡眠} 과정에 자동 시간 요소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죽는 체험 또는 잠자는 체험과 다를 바 없다. 스랍의 품속에서 쉬는 동안, 너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다. 그러나 사고

조율사는 전적으로 충분히 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창조적이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네가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이다.

39:2.12 (431.1) 스라빔에 둘러싸였을 때, 너희는 지정된 시간동안 잠자게 되며, 정해진 순간에 깰 것이다. 운송 중에 잠을 잘 때, 여행하는 기간은 무의미하다. 너희는 지나가는 시간을 직접 인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너희가 어느 도시에서 차를 타고 잠든 후에 온 밤을 편안한 잠 속에 쉬고 나서 다른 먼 도시에서 잠을 깬 것과 비슷하다. 너희는 잠자면서 여행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스라빔에 둘러싸여 공간을 통해서 날아가며, 그동안 너희는 쉬게--즉 잠자게-- 된다. 조율사와 스랍 운반자가 협동함으로써, 이동하는 동안의 수면을 유도한다.

39:2.13 (431.2) 천사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타버릴 수 있는 본체를--곧 살과 피를-- 운송할 수 없지만, 가장 낮은 모론시아 형태부터 더 높은 영 형태까지, 모든 다른 것을 운송할 수 있다. 그들은 자연사하는 사건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네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때,

네 육신은 이 행성에 남는다. 너의 사고 조율사는 아버지 품속으로 나아가며, 그 후에 신원을 확인하는 맨션 세계에서 너의 인격체가 다시 조립될 때, 이 천사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너의 몸은 거기서 모론시아 형체를 갖게 되는데, 스라빔에 둘러싸일 수 있는 형체다. 너는 무덤 속에 "필사자 육신을 심고"; 맨션 세계에서 "모론시아 형체를 거둔다".

39:2.14 (431.3) 6. 기록원. 이 인격체들은 살빙톤 및 거기에 관련된 세계들의 기록을 수납하고 서류정리를 하고 다시 발송하는 일에 특히 관여한다. 또한 그들은 거주하는 연방우주 인격체 및 고등 인격체 집단을 위한 특별 기록원으로서, 살빙톤 법정의 서기로서, 그리고 그 통치자들의 비서로서 봉사한다.

39:2.15 (431.4) 방송요원은--곧 수신자{受信者}와 송신자는--스랍 기록원 중에서 특화된 하위기관인데, 기록 발송과 중요한 정보 보급에 관여한다. 그들의 업무는 높은 계층에 해당되며, 144,000개의 통신문이 동일한 에너지 계통을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중{多重} 회로로 돼 있다. 그들은 최고스라빔의 우두머리 기록원들의 고등{高等}

표의문자{表意文字} 기법에 익숙하며, 공통적인 이
상징들을 이용해서, 3차 최고스라빔의 정보 조정자,
그리고 완료 스랍 단체의 영화롭게 된 첩보 조정자들, 이
양자와 상호 접촉을 유지한다.

39:2.16 (431.5) 고위 계층의 스랍 기록원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
자체 계층의 정보 부대 및 모든 하위 기록원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한편 방송체제는 그들로 하여금
연방우주의 고등 기록원들과,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하보나의 기록원들 및 낙원에 있는 지식 관리인들과,
연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고위 기록원 계층 가운데
다수는 지방우주의 낮은 구역에서 비슷한 임무로부터
승진된 스라빔이다.

39:2.17 (431.6) 7. *예비군*. 모든 유형의 고위 스라빔으로 이뤄진
많은 숫자의 예비군이 살빙톤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정{配定}하는 지휘자들의 요청을 받는 대로, 또는 우주
경영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네바돈의 가장 먼 세계들까지
즉시 파송될 수 있다. 고위 스라빔의 예비군은, 찬란한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연락원 조력자들을
또한 제공하는데, 그 우두머리는 모든 개인 통신을

관리하고 발송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지방우주는 상호 통신에 적당한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 연락원들의 파송을 필요로 하는 남아있는 통신문이 항상 있다.

39:2.18 (432.1) 전체 지방우주의 기본 예비군은 살빙톤의 스랍 세계에 주둔한다. 이 단체는 모든 유형의 모든 천사 집단을 포함한다.

3. 감독관 스라빔

39:3.1 (432.2) 융통성 있는 이 계층의 우주 천사들은 성좌에 대한 독자적 봉사에 배정돼 있다. 유능한 이 사역자들은 자신의 본부를 성좌 수도{首都}에 설치하지만, 자신이 배정된 영역의 권익을 위해 네바돈 전역에서 활동한다.

39:3.2 (432.3) 1. *감독하는 보좌관*. 감독하는 스라빔 중에서 첫 계층은 성좌 아버지들의 집단 업무에 배정되며, 지고자{至高者}들에게 항상_효과적인 도우미다. 이 스라빔은 전체 성좌의 통합과 안정에 우선적으로 관여한다.

2. **법 예측자.** 응보의 지적{知的} 기초는 법이며, 지방우주에서 법은 성좌들의 입법{立法} 집회에서 생겨난다. 이 심의 기관들은 네바돈의 기본 법을 성문화{成文化}하고 정식으로 공표하는데, 그 법은 인격있는 피조물의 도덕적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고정된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전체 성좌에서 최고로 가능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고안됐다. 발의된 어떤 법규든지, 그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예측을, 성좌 법 제정가들 앞에 제시하는 것이,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둘째 계층의 의무다. 그들은 지역 체계와 인간거주 세계에서 오랫동안 체험을 쌓은 덕분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스라빔은 어떤 한 집단에 특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지만, 스스로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발언하려고, 천상의 법률 제정가들 앞에 출두한다. 심지어 필사적 사람도 우주 법의 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스라빔이, 반드시 사람의 일시적이고 의식하는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속 사람, 즉 공간 세계들에 있는 물질 필사자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참되게 열망하는 것을, 신실하고 충분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39:3.4 (432.5)

3. *사회 설계자*. 이 스라빔은, 개별 행성으로부터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 전반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모든 사회적 접촉을 향상시키고, 우주에 있는 피조물의 사회적 진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이들은 지성 존재들의 관계에서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한편, 참된 자아_이해와 진정한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상호연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애쓰는 천사다.

39:3.5 (432.6)

사회 설계자들은, 이 땅에서 일하는 효율적이고 적당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개체들을 함께 묶기 위해서, 자신의 범위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때로는 그런 집단이 맨션 세계들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봉사를 계속하도록 자신들이 다시 연관됨을 발견해 왔다. 그러나 이 스라빔이 자신의 목적을 항상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거나 특정한 과제를 달성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자들을 항상 결합시킬 수 있지는 않으며;그들은 이런 조건 아래서 가능한 최고의 물질을 활용해야만 한다.

39:3.6 (432.7) 이 천사들은 맨션 세계에서, 그리고 더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한다. 그들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생기는 진보와 상관있는, 그리고 셋 또는 그 이상의 인격자와 관련하는, 어떤 이행업무든지 관여한다. 두 존재는 짝짓거나, 보완적이거나, 또는 동업관계의 원칙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이 봉사를 위해서 집단을 형성할 때, 그들은 한 사회 문제를 구성하며, 따라서 사회 설계자들의 관할권으로 들어간다. 이 유능한 스라빔은 에덴시아에서 70개의 부서로 조직되며, 이 부서들은 본부 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모론시아 진보 세계에서 사역한다.

39:3.7 (433.1) 4. *윤리적 민감성 향상자*. 인격자들이 맺는 관계의 도덕성을 피조물이 더 잘 인식하도록 육성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이 스라빔들의 사명인데, 그런 일이 인간이나 초인간의 사회 및 정부의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성장의 근원인 동시에 비결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이 스라빔들은, 행성 통치자들에 대한 자발적 조언자로서, 그리고 체계 훈련 세계들에서 교환 교수로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활동한다. 아무튼, 너희가 에덴시아에 있는 형제관계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의 완벽한 안내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노라티아덱 수도{首都}의 70개 위성, 즉 에덴시아의 여러 사회 실험실에서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때에야 실제 체험을 겪음으로써, 너희가 진정으로 탐구하게 될 형제애에 대한 바로 그 진리를, 너희가 빨리 인식하도록 촉진시킬 것이다.

39:3.8 (433.2) 5. 운송자.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다섯째 집단은, 인격체 운송자, 즉 성좌 본부에서 오가는 존재들을 운반한다. 그런 운송 스라빔은,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날아가는 동안, 자신의 속도, 방향, 및 천문학상 위치를 충분히 의식한다. 그들은 생명 없는 발사체처럼 공간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공간을 날아가는 동안 조금도 충돌할 위험 없이 서로 근접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들은 진행 속도를 수정하고 비행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며, 상관들이 지시한다면, 우주 정보 회로의 어떤 공간 교차로에서든지 목적지를 변경 할 수도 있다.

39:3.9 (433.3) 이 운반 인격체들은, 보편적으로 분포된 세 개의 에너지 계통 전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 각 에너지 계통은 초당 186,280마일의 정확한 공간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운송자들은 긴 시간 여행할 때, 너희 시간으로 대략 초당 555,000마일에서 거의 559,000마일에 이르기까지 변하는 평균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동력 속도에 에너지 속도를 이중으로 첨가시킬 수 있다. 그 속도는 근처에 있는 물질의 질량, 근접성,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주 동력의 주요 회로들의 세력과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우주를 지나갈 수 있고, 적당하게 준비된 다른 존재들을 운송할 수도 있는, 스라빔과 비슷한 수많은 유형의 존재가 있다.

39:3.10 (433.4) 6. 기록원. 감독하는 스라빔 중에서 여섯째 계층은, 성좌 직무의 특별 기록원으로서 활동한다. 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단체가, 너희 체계와 행성이 속해 있는 노라티아덱 성좌 본부인 에덴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

39:3.11 (433.5) 7. 예비군. 감독관 스라빔 중에서 일반 예비군이 성좌 본부에 주둔한다. 그런 천사 예비군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놓고 있지 않으며;많은 숫자가 성좌 통치자들에게 연락하는 보조원으로서 봉사하며;더러는 배정되지 않는 보론다덱들의 살빙톤 예비군에 배속돼 있으며;더러는 유란시아의 보론다덱 참관인, 그리고 가끔

유란시아의 지고자 섭정{攝政} 같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론다덱 아들들에게 배속될 수 있다.

4. 경영자 스라빔

39:4.1 (434.1) 스라빔 중에서 넷째 계층은, 지역 체계의 경영 임무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태어나지만, 많은 숫자가 맨션 및 모론시아 구체에, 그리고 인간거주 세계에 주둔한다. 넷째_계층의 스라빔은 비범한 경영 역량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들은 창조주 아들의 우주 정부에 있는 비교적 낮은 부서 지휘자들에게 유능한 보좌관이며, 지역 체계 및 이를 구성하는 세계들의 직무에 주로 관여한다. 그들은 봉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직돼 있다:

39:4.2 (434.2) 1. *경영 보조원*. 이 유능한 스라빔은, 체계 주권자, 즉 1차 라노난덱 아들의 측근 보좌관이다. 그들은 체계 본부의 복잡하게 얽힌 행정 업무 내용을 집행하는 일에 매우 귀중한 조력자다. 또한 그들은 체계 통치자들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봉사하는데, 다양한 변형 세계와 인간거주 행성들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체계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인간거주 세계들의 물리적 및 생물학적 유익을 위해서 많은 위탁임무를 실행한다.

39:4.3 (434.3) 바로 이 스랍 경영자들은, 세계 통치자인 행성 왕자 정부에도 또한 배속돼 있다. 일정한 우주에 있는 행성 대부분은 2차 라노난덱 아들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유란시아 같은 어떤 세계들에서는 신성한 계획이 훼손돼 왔다. 행성 왕자가 변절{變節}하는 경우에, 이 스라빔은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 그리고 행성 권한을 계승하는 자들에게 배속된다.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통치자는 이런 다양한 스라빔 계층에 속하는, 1,000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다.

39:4.4 (434.4) 2. *응보{應報} 안내자*. 이들은 사람과 천사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해서, 그런 문제가 체계 또는 행성의 법정에 판결을 받으러 나아올 때, 그에 관한 요약된 증거물을 제시하는 천사다. 그들은 필사자의 생존에 관계되는 모든 예비 청문회를 위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이 진술서는 그런 소송사례에 관한 기록과 함께,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높은 법정으로 나중에 넘겨진다. 이 스라빔들은, 생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런 모든

소송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준비되는데, 그들은 우주의
응보를 다루는 경영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모든
항목마다 모든 특색을 낱낱이 완전하게 이해한다.

39:4.5 (434.5) 응보를 무효화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이
천사들의 사명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정확한 응보가 아주 자비롭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이 스라빔은 종종 지역
세계들에서 활동하는데, 화해시키는 위원회의--곧 사소한
오해를 다루는 법정의-- 3인조 심판관 앞으로 대개
출두한다. 낮은 영역에서 한때 응보 안내자로서 수고했던
많은 존재가, 높은 구체들에서, 그리고 살빙톤에서 자비의
소리로서 나중에 나타난다.

39:4.6 (434.6)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매우
적은 숫자의 응보 안내자만 잃었지만, 다른 행정관 스라빔,
그리고 낮은 계층의 스랍 사역자 중에서 4분의 1이,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궤변에 잘못 이끌리고 현혹됐다.

39:4.7 (434.7) 3. *시공우주 시민권 해설자*.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맨션 세계 훈련, 즉 우주 생애에서 처음으로 학생
도제{徒弟} 신분을 완수했을 때, 그들은 상대적 성숙이

주는 일시적 만족을--곧 체계 수도의 시민권을-- 누리도록 허락 받는다. 각 상승 목표 달성이 실제로 성취되지만, 더 높은 의미에서, 그런 목표들은 단순히 낙원으로 향하는 긴 상승 경로에 있는 이정표{里程標}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성공이 아무리 상대적일지라도, 진화하는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일시적이긴 하지만 목표 달성의 충분한 만족감을 맛보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 낙원 상승에서 일시적 중단, 즉 짧게 숨을 돌이키는 기간이 때때로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주 시야{視野}가 멈추고, 피조물 신분이 고정되며, 그 인격체는 목적을 성취했다는 달콤함을 맛본다.

39:4.8 (435.1) 필사 상승자의 생애에서 그런 첫 기간은 지역 체계 수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한숨 돌리는 기간에, 너는 예루셈의 한 시민으로서 --유란시아와 일곱 맨션 세계를 포함하는-- 여덟 번의 이전{以前} 생애 체험을 겪는 동안 네가 획득한 것들을, 피조물 생활에서 표현하려고 애쓸 것이다.

39:4.9 (435.2) 시공우주 시민권을 해설하는 스랍들이, 체계 수도의 새로운 시민을 안내하고, 우주 정부의 의무를 빨리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이 스라빔은 또한 체계 행정부에 있는 물질 아들과 가깝게 연합돼 있으며, 한편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에서 물질적 필사자에게 시공우주 시민권의 책임과 도덕성을 설명한다.

39:4.10 (435.3) 4. *도덕성 촉진자*. 너는 맨션 세계들에서, 관련된 모든 유익을 위해 자치{自治}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너의 정신은 협동을 배우는데, 다른 존재 및 더 현명한 존재들과 어떻게 같이 계획을 세우는가를 배운다. 스랍 선생들은, 체계 본부에서 시공우주 도덕성을--곧 자유와 충성의 상호작용을-- 네가 인식하도록 더욱 자극시킬 것이다.

39:4.11 (435.4)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은 우주 형제관계를 영리하게 인식함으로 얻는 열매이며;아무 것도 내주지 않고 많이 획득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인격체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서, 네가 처음에는 충성하기를 배우고, 다음에는 사랑하기를 배우며, 다음에는 자식의 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될 수도 있지만;네가 완결성취자가 되기 전에는, 완전한 충성심을 달성하기까지, 최종의 자유를 스스로_실현할 수 없다.

39:4.12 (435.5)

이 스라빔들은, 인내{忍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침체는 확실히 죽음으로 이끌지만, 과도하게 빠른 성장 역시 자멸한다는 것;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줄곧 흘러가며 연달아 조금씩 내려가서 계속 흐르듯이, 모론시아 및 영 세계들에서는 언제든지 위로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런 점진적 단계들을 거쳐서-- 진보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39:4.13 (435.6)

도덕성 촉진자들은, 필사자 생애를 인간거주 세계들에게 설명할 때, 많은 고리로 이뤄진 하나의 끊어지지 않은 사슬을 예로 든다. 유란시아에, 즉 필사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이 구체에 머무는 너의 인생은 하나의 고리에 불과한데, 그것은 우주들을 가로질러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긴 사슬 가운데 첫 사슬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첫 생애에서 배우는 것보다는;이 생애를 사는 체험이다. 이 세계에서 하는 *업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네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그 *방법*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의로운 삶에 대한 물질 보상은 없지만, 깊은 만족감이--곧 성취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보상도 초월한다.

39:4.14 (435.7) 하늘 나라의 열쇠는:성실함, 더 성실함, 그리고 더욱 성실함이다. 누구나 이 열쇠를 갖고 있다. 사람은 결단하고, 더 많이 결단하고, 또 더 많이 결단함으로써 이 열쇠를 활용한다--영 신분이 향상된다. 가장 도덕적인 선택은, 가능한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며, 항상-- 곧 어느 구체에서나, 모든 구체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면, 비록 예루셈에서 가장 낮은 시민이라도, 심지어 유란시아의 필사자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일지라도, 그는 위대 *하다*.

39:4.15 (436.1) 5. *운송자*. 이들은 지역 체계에서 활동하는 운송 스라빔이다. 너희의 체계인 사타니아에서, 그들은 예루셈에서 오가는 승객을 실어 나르며, 그 외에 행성들 사이의 운송자로서 봉사한다. 사타니아의 한 운송 스라빔이 어떤 학생 방문자나, 영, 또는 약간영 본성의 다른 여행자를 유란시아 경계선에 두기까지, 하루가 지나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이 우주 횡단자들은 언젠가 체계 본부 집단의 다양한 세계를 오가며 너희를 운반할 것이고, 너희가 예루셈 임무를 마치게 되면, 그들이 에덴시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이 기원된 세계 쪽으로 너희를 거꾸로 운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사자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실존하는 섭리시대 동안,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으며, 만일 그 후의 섭리시대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는 우주 본부 집단의 운송 스라빔의 호송을 받을 것이다.

39:4.16 (436.2) 6. *기록원*. 이 스라빔은 지역 체계의 삼중 기록 보관자다. 체계 수도에 있는 기록 성전{聖殿}은, 3분의 1은 물질적인데, 빛나는 금속과 수정체로 지어졌으며; 3분의 1은 모론시아인데, 영적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의 결합으로 꾸며져 있지만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3분의 1은 영적이다. 이 계층의 기록원들은 이런 삼중 기록 체계를 관장하고 유지한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처음에는 물질 기록 보관소를 참고하게 될 것이데, 물질 아들과 비교적 높은 과도기 존재들은 모론시아 회관에 있는 기록 보관소를 참고하는 한편, 그 영역의 스라빔 및 비교적 높은 인격체들은 영 구역의 기록을 숙독한다.

39:4.17 (436.3) 7. *예비군*. 예루셈에서 이 예비군 단체의 경영자 스라빔은, 영 동무로서, 체계의 다양한 세계로부터 새로 도착한 상승하는 필사자들과--곧 맨션 세계들에서 공인된

졸업생과-- 교제하려고, 기다리는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 너희가 예루셈에 머무는 동안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많이_여행하고 많이_체험한, 기다리는 예비 단체의 이 스라빔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일일 것이다.

39:4.18 (436.4)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체계 수도를 그토록 사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다운 관계다. 너희는 물질 아들, 천사, 및 상승하는 순례자들이 처음으로 뒤섞이는 것을 예루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 약간영적인 존재, 그리고 물질 실존에서 방금 떠오른 개인들이 여기서 친하게 사귄다. 필사자 형체가 여기서 매우 변경되고 인간의 광선 반응 범위가 매우 확장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서로 인식하고 호의적으로 인격체를 이해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5. 행성 도우미

39:5.1 (436.5) 이 스라빔은 체계 수도에 본부를 유지하며, 아담 같은 상주{常住}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행성 아담의 봉사, 즉 진화 세계들에 있는 물질 인종을 생물학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봉사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천사의 보살피는 업무는, 그 업무가 인간거주 세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즉 영원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세계의 남녀가 당면하는 실제 문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더 흥미롭게 된다.

39:5.2 (437.1) 유란시아에서는 아담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서 대다수의 행성 도우미가 제거됐으며, 너희 세계에 대한 스랍의 감독권은, 경영자, 과도기 사역자, 및 운명 수호자들에게 더 많이 이양됐다. 그러나 너희의 태만한 물질 아들들을 돕던 이 스랍 조력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서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39:5.3 (437.2) 1. *동산의 소리*. 인간 진화의 행성 과정이 최고도의 생물학적 수준을 성취했을 때, 물질 아들과 딸, 즉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뛰어난 생명 원형질을 실제로 수여함으로써, 인종들의 증진된 진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반드시 출현한다. 그런 아담과 이브의 행성 본부는 대개 에덴 동산이라고 일컬어지며, 그들의 개인 스라빔은 종종 “동산의 소리”로 알려졌다. 이 스라빔은 진화하는 인종들의 육체적 및 지적 증진을 위해 기획하면서, 항상

행성 아담에게 매우 귀중한 봉사를 한다. 아담이 유란시아에서 직무에 태만한 후에, 이 스라빔들 가운데 일부가 행성에 남았고, 아담의 권한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에게 배정됐다.

39:5.4 (437.3) 2. *형제관계의 영*. 아담과 이브가 진화 세계에 도착했을 때, 그 다양한 인종 사이에서 인종 화합과 사회 협동을 성취하는 과제가,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색깔이 다르고 본성이 다양한 이 인종들은, 모든 인간을 형제관계로 만들려는 계획에 좀처럼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다. 원시적인 이 사람들은, 성숙된 인간 체험의 결과로, 그리고 스라빔들 가운데 형제관계의 영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만, 평화롭게 상호연합하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스라빔의 수고가 없다면, 진화하는 세계의 인종을 조화시키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물질 아들들의 노력이 크게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담이 유란시아 진보를 위한 원래의 계획에 충실했다면, 이 형제관계의 영들이, 인간 종족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지금까지 일으켰을 것이다. 아담의 태만을 고려할 때, 너희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의

형제관계를, 이 스랍 계층이 촉진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39:5.5 (437.4) 3. *평화의 혼*. 진화하는 사람들이 향상되고자 애쓰는 초기의 수천 년 기간은 많은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 평화는 물질 영역의 자연스런 상태가 아니다. 세계들은, 평화의 혼 스라빔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친선”을 처음 깨닫는다.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에서 초기에 수고하는 동안 크게 방해 받았지만, 아담 시대에 평화의 혼들의 우두머리였던 베보나가 유란시아에 남았고, 지금은 거주하는 총독의 참모진에 배속돼 있다. 그리고 미가엘이 태어났을 때, 바로 이 베보나가 천사 무리의 지도자로서, “하보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는 친선”을 온 세계에 알렸다.

39:5.6 (437.5) 행성의 진화가 더 증진되는 시기가 되면, 이 스라빔은, 필사자가 생존하는 원리로서, 신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으로 속죄 관념을 갈아치우기에 유용할 것이다.

39:5.7 (437.6)

4. *신뢰의* 영. 의심은 원시인의 내재적 반응이며; 초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투쟁 때문에, 신뢰감은 자연히 생겨나지 못했다. 신뢰는, 아담 체제의 이행성 스라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롭게 습득한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 속으로 신뢰를 주입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하나님들은 매우 신뢰할만 하며, 만유의 아버지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합하라고, 자신을-- 곧 조율사를-- 기꺼이 맡기신다.

39:5.8 (438.1)

이 스라빔 집단 전체가, 아담의 실책 이후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됐으며, 그 후로 유란시아에서 계속 수고해 왔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닌데, 신용과 신뢰라는 그들의 이상{理想}을 상당히 구현하는 문명이 현재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9:5.9 (438.2)

더 진보된 행성 시대가 되면, 이 스라빔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만족스런 연속성을 얻는 비결이라는 진리를, 사람이 더욱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무지{無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때, 피조물이 미래를 알면 어마어마한 실책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필사 철학자들이 깨닫도록, 그들이 도와준다. 그들은

불확실성의 감미로움, 즉 막연하고 진기한 미래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와 매력을 사람이 더 맛볼 수 있게 한다.

39:5.10 (438.3) 5. *운송자*. 행성 운송자들은 개별 세계에서 봉사한다. 이 행성으로 데려온, 스라빔에 둘러싸인 대부분의 존재는 이동 중에 있으며;그들은 단지 잠시 체류할 뿐이며;자신의 특별한 스랍 운반자의 보호 속에 있지만;큰 무리의 그런 스라빔이 유란시아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유란시아에서 예루셈으로 가는 경우처럼, 지역 행성들로부터 작동하는 운송 인격체다.

39:5.11 (438.4) 천사들에 관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통 관념은, 다음과 같이 유래됐다:육신이 죽기 직전의 순간에, 어떤 반사 현상이 인간 정신 속에 때로 일어나기도 하며, 수행하는 천사의 형체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런 어슴푸레한 의식이 시각화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그 개인의 정신 속에 지니고 있었던 천사들에 관한 습관적 개념의 용어로 즉시 바뀐다.

39:5.12 (438.5)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은 전적으로, 공중을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가 있어야만 한다는 옛 생각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은 운반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스라빔을 볼 수 있도록 승인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체험에 대한 전통이, 유란시아의 천사 개념을 대체로 고정시켜 왔다. 행성 사이의 운송을 위해서 승객을 받을 준비가 된 운반 스라빔을 지켜볼 때, 그 천사의 머리부터 발까지 뻗어 있는 두 쌍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날개는 에너지 절연체다--마찰 차단물이다.

39:5.13 (438.6) 천상의 존재들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전송되기 위해 스라빔에 둘러싸이게 될 때, 그들은 그 구체의 본부로 운반되며, 합당한 등록을 마친 후에, 운반을 위한 수면상태로 들어간다. 운송 스라빔은 그동안 그 행성의 우주 에너지 기둥 바로 위에 있는 수평 지점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에너지 차단물이 열려 있는 동안, 책임 맡은 스랍 보좌관이, 운송 천사의 바로 위쪽으로, 잠자는 인격체를 능숙하게 들여놓는다. 그 다음에 위 쪽 쌍과 아래 쪽 쌍의 차단물이 조심스럽게 닫히고 조절된다.

39:5.14 (438.7) 그리고 나서, 변형자와 전달자들의 영향 아래, 스라빔이 우주 회로의 에너지 흐름 속으로 날아갈 준비가 완료됐을 때, 어떤 이상한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볼 때, 스라빔은 양극단을 향해 커지며 호박색 빛깔의 기묘한 빛으로 뒤덮임으로써, 스라빔에 둘러싸인 인격체를 즉시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떠날 준비가 다 갖춰지면, 운송 우주머리가 생명 운반체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고, 천사가 알맞게 회로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해 정해진 시험을 하며, 그 다음에는 그 여행자가 제대로 스라빔에게 둘러싸였다는 것, 에너지가 조절됐다는 것, 그 천사가 절연{絶緣} 됐다는 것, 그리고 출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들 중에서 두 명의 기계장치 통제관이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선다. 이때가 되면 운반 스라빔은 거의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진동하면서 반짝거리는 발광물이 어뢰 모양의 윤곽선을 갖는다. 그때 그 영역의 운반 배차원이, 대개 1,000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에너지 발신자의 지원 중대{中隊}들을 불러내며;그가 운송선의 목적지를 알리게 되면, 스랍 운반체의 왼쪽 스위치 앞으로 나아가 손을 대는데, 그 운송선은 번갯불 같은 속도로 앞을 향해 발사되며, 행성 대기권이 계속될 때까지 천상의 발광체 궤적을 남긴다. 10분도 채 안 돼서, 신기한 그 광경은 스랍의 보강된 시야로부터도 사라질 것이다.

39:5.15 (439.1) 행성의 공간 보고서는, 지정된 영적 본부의 극점{極點}에서 정오에 수신되며, 한편 운송체들은, 동일한 이 장소에서 한밤중에 발송된다. 그것이 가장 알맞은 출발시간이며,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표준 시각이다.

39:5.16 (439.2) 6. 기록원. 행성이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고, 행성이 우주 정부에 관련되고, 또한 언급되다시피, 이들은 행성의 주요 직무의 관리인이다. 그들은 행성 직무를 기록하는 일을 하지만, 개인적인 삶과 실존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39:5.17 (439.3) 7. 예비군. 행성 스라빔의 사타니아 예비 단체는, 물질 아들들의 예비군과 밀접하게 연합하면서 예루셈에 유지된다. 풍부하게 많은 이 예비군은 이 스랍 계층의 복합적인 활동의 각 국면을 준비한다. 이 천사들은 지역 체계의 개인 소식을 전달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들은 변환기의 필사자, 천사, 그리고 물질 아들들뿐 아니라 체계 본부에 거주하는 다른 존재들을 섬긴다. 유란시아가 현재 사타니아와 노라티아텍의 영적 회로들 바깥에 있지만, 너희는 행성 사이의 직무와 다른 면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데, 예루셈에서 온 이 사자들이, 그 체계의 모든 다른
구체에 가는 것 같이, 이 세계에도 자주 오기 때문이다.

6. 과도기 사역자

39:6.1 (439.4) 그들의 이름이 시사하듯이, 과도기 사역 스라빔은
피조물이 물질적 지위에서 영적 지위로 변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봉사한다. 이 천사들은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체계 수도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지만, 현재 사타니아에 있는 그들은, 일곱 맨션
세계에 있는 생존하는 필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일곱 임무
체제에 따라 분화돼 있다:

39:6.2 (439.5) 1. 복음전도 스라빔.

39:6.3 (439.6) 2. 인증 해석자.

39:6.4 (439.7) 3. 정신 계획가.

39:6.5 (439.8) 4. 모론시아 조연자.

39:6.6 (439.9) 5. 기술자.

39:6.7 (439.10) 6. 기록원_교사.

39:6.8 (439.11) 7. 돌보는 예비군.

39:6.9 (439.12) 맨션 세계들과 모론시아 생애를 다루면서 설명할 때, 너희는 과도기의 상승자들을 돌보는 이 스랍 사역자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7. 미래의 스라빔

39:7.1 (440.1) 네바돈에서 비교적 오래된 영역과 더 발전된 행성들 이외에서는, 이 천사들이 광범하게 사역하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는 살빙톤에서 가까운 스랍 세계들에 예비돼 있는데, 거기서 네바돈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밝아올 어떤 때와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스라빔은, 상승하는_필사자의 생애와 관련해서 활동하지만, 상승하는 변경된 계층 가운데 누군가와 헤어진 그 필사자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섬긴다.

39:7.2 (440.2) 이 천사들이 유란시아 또는 유란시아인에 관해서 지금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매혹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8. 스랍의 운명

39:8.1 (440.3) 스라빔은 지방우주에서 기원되며, 더러는 그들이 탄생된 바로 이 영역에서 봉사하는 운명을 성취한다. 어떤 스라빔은 선임{先任} 천사장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찬란한 저녁별의 고양된 임무에 등용될 수 있으며, 한편 더러는 저녁별들과 대등한, 계시되지 않은 존재의 신분과 봉사를 달성한다. 지방우주 운명을 지닌 또 다른 모험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스라빙톤은 모든 천사의 영원한 목표지로 항상 남아있다. 스라빙톤은, 낙원과 신격 달성으로 들어가는 천사의 출입구, 즉 시간세계의 사역으로부터 영원성을 갖는 고양된 봉사로 옮기는 과도기 구체다.

39:8.2 (440.4) 스라빔은 다수의--곧 수백 가지의-- 방법으로 낙원을 달성하겠지만, 본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39:8.3 (440.5) 1. 천상의 기능공, 법해석 고문, 또는 천상의 기록원으로서 특화된 봉사에서 완전성을 성취함으로써, 개인 자격으로, 낙원의 스랍 거주지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음. 낙원 동무가 되고, 그리하여 만물의 중심에

도달하며, 아마 그 후에 스랍 계층 및 다른 존재들에게 영원한 사역자 및 충고자가 됨.

39:8.4 (440.6) 2. 스라빙톤에 호출됨. 스라빔은 어떤 조건하에 높은 곳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다른 상황에서는 때로 필사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낙원에 도달한다. 그러나 어느 스랍 쌍이 얼마나 적합하든지 상관없이, 스라빙톤 또는 다른 곳을 향해서 출발을 개시할 수 없다. 성공한 운명 수호자들 외에는, 진화로 상승하는 진보 경로를 따라서 낙원으로 진행하는 것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모든 다른 스라빔은, 높은 곳으로 출두하라고 명령하는 소환장을 지니고 오는 3차 최고스라빔의 낙원 사자{使者}가 도착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만 한다.

39:8.5 (440.7) 3. 진화하는 필사자의 기법에 따라서 낙원을 달성함. 시간세계의 생애에서 스라빔의 최상의 선택은 수호천사 직책인데, 자신이 궁극적인 생애를 성취하고 스랍으로서 봉사하는 영원한 구체에 배치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시간세계의 자녀를 그렇게 몸소 안내하는 자를 운명의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신성한 운명에 이르는 경로에서 필사 피조물을 수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고귀한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9:8.6 (440.8) 운명의 수호자들은, 이 봉사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더 많이 체험한 천사 인격체 반열에서 모집된다. 조율사와_융합할 운명을 가진 모든 생존하는 필사자에게는 일시적 수호자가 배정되며, 이 동역자들은 생존하는 필사자가 필수적인 지적 및 영적 발달을 달성할 때 영구적으로 배속될 수 있다. 필사 상승자들은, 맨션 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누구나 영구 스랍 동역자를 소유한다. 이 집단의 돌보는 영은 유란시아 이야기와 관련해서 논의될 것이다.

39:8.7 (441.1) 인간 수준의 기원으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불가능한데, 그들은 “너희보다 조금 높게” 창조됐기 때문이며; 필사자가 실존하는 영적 저지대{低地帶}인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피조물에게로 내려가서, 한 걸음씩, 한 세계씩, 하보나 정문을 향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마련돼 있다. 필사 상승자들이 하보나 궤도를 시작하기 위해 우버사를 떠날 때, 육신

속에서 지낸 생애 이후에 배속됐던 이 수호자들은, 자신의 순례 동역자들에게 일시적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 이 수호자들은 광우주에서 천사의 목적지인 스라빙톤으로 여행한다. 여기서 이 수호자들은 스랍 광선의 일곱 궤도를 시도하고 틀림없이 성취할 것이다.

39:8.8 (441.2) 물질 생애 동안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됐던 이 스라빔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하보나 궤도들을 통해서 필사 동역자와 동행하며, 어떤 다른 스라빔은 필사자 상승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중앙우주 궤도들을 지나간다. 그러나 진화하는 모든 스라빔은 상승하는 경로와 상관없이 스라빙톤을 지나가며, 대부분은 하보나 회로들 대신 이 체험을 겪는다.

39:8.9 (441.3) 스라빙톤은 천사에게 운명의 구체{球體}이며, 그들이 이 세계를 달성하는 것은 필사 순례자들이 어센딩톤에서 겪는 체험과 매우 다르다. 천사들은, 자신이 스라빙톤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스라빙톤에 도착한 천사가운데 타락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완성된 스라빔의 심성에서는 죄가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스라빔톤 졸업생은 다양하게

배정되는데:하보나_궤도에서 체험한 운명 수호자들은 대개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에 편입된다. 하보나 격리 시험에서 통과된 다른 수호자들은, 낙원에 있는 자신의 필사 동역자와 다시 결합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더러는 필사 완결성취자의 영구 동역자가 되며, 한편 더러는 필사자가 아닌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에 편입되고, 많은 숫자는 완료 스랍 단체에 소집된다.

9. 완료 스랍 단체

천사들은 영들의 아버지께 도달하고 완료된 스랍 업무에 받아들여진 후에,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에 대한 사역에 언젠가 배정된다. 그들은 우주들에서 삼자일체된 높은 존재들에게, 그리고 낙원 및 하보나의 고귀한 업무에 배속된다. 지방우주의 이 스라빔은, 중앙우주 및 연방우주의 돌보는 영들과 차이날 수밖에 없었던 신성{神性} 잠재력의 부족함을, 체험으로 보충했다. 완료 스랍 단체 천사들은, 연방우주 제2스라빔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최고스라빔의 높은 낙원_하보나 계층들에 대한 보좌관으로서 봉사한다. 그런 천사들에게는 시간세계의 생애가 끝났으며;그들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이고, 신성한 인격체들과 어울리는 자이며, 낙원
완결성취자들과 동등한 자다.

39:9.2 (441.6) 다수의 완료 스라빔이 자신의 출생지 우주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체험으로 완전하게 되는 사역을
함으로써 신성한 재능의 사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비교해서 말하면, 네바돈은 젊은 우주에 속하며, 따라서
이렇게 돌아온 스라빙톤 졸업자를, 더 오래된 어떤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며;그럼에도 우리 지방우주는 충분한 숫자의 완료
스라빔을 공급받고 있는데, 진화하는 영역이 빛과 생명의
상태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의 봉사를 현저하게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완료 스라빔은 지금 최고
스라빔 계층과 함께 더 광범하게 봉사하지만, 더러는
각각의 다른 천사 계층과 함께 봉사한다. 심지어 너희
세계도, 완료 스랍 단체에서 전문화된 열두 집단의 광범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행성을 감독하는 탁월한 이
스라빔은, 새롭게 임명된 각 행성 왕자를 인간거주
세계까지 따라간다.

39:9.3 (442.1) 매혹적인 많은 사역 통로가 완료 스라빔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낙원_이전{以前} 시대에 운명 수호자로서 배정되기를 갈망했던 것과 똑같이, 낙원_이후 체험에서 육신화 된 낙원 아들들의 증여 수행원으로서 봉사하기를 최고로 바란다. 진화하는 세계의 필사 피조물이 신성{神性}과 영원성의 낙원 목표를 향해서 길고 매혹적인 여행을 출발하는 그 우주 계획에, 그들은 여전히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성취하는 필사자의 모험 전체를 통해서, 완료 스랍인 이 영 사역자들은, 시간세계의 신실하게 사역하는 영들과 함께, 언제든지, 영원토록 너희의 진정한 친구이자 틀림없는 도우미다.

39:9.4 (442.2) [네바돈의 스랍 군대 우두머리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하는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40편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

40:0.1 (443.1) 많은 주요 집단의 우주 존재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일곱 부류로 계시돼 왔다:

40:0.2 (443.2) 1.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40:0.3 (443.3) 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40:0.4 (443.4) 3. 영과_융합된 필사자.

40:0.5 (443.5) 4. 진화 스라빔.

40:0.6 (443.6) 5. 상승하는 물질 아들.

40:0.7 (443.7) 6. 전환된 중도자.

40:0.8 (443.8) 7. 인격화된 조율사.

40:0.9 (443.9) 진화 세계에서 초라하게 동물에서_기원된 필사자로부터,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화된 조율사에 이르기까지, 이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는, 낙원 신격들이 광범하게 창조하는 내내, 그리고 온 우주에, 신성한 사랑을 아낌없이 증여하고 인자하게 자세를 낮춘 영광스런 내력을 제시한다.

40:0.10 (443.10) 이런 발표문은, 신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시작했고, 불멸{不滅} 잠재력을 부여받은 삶을 사는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한 집단 한 집단, 우주 규모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훑어 내려왔으며;이제 --한때

공간의 어느 진화 세계에서 기원된 필사자였던-- 나는, 상승하는 아들신분의 계층에 관한, 더 각별하게는 시간과 공간의 필사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상세히 계속 설명하도록, 살빙톤으로부터 파송됐다.

40:0.11 (443.11) 이 이야기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이,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세 기본 계층에 할애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자가 아닌 상승하는 아들신분 계층을--곧 스랍, 아담, 중도자, 및 조율사를-- 먼저 고찰할 것이다.

1. 진화 스라빔

40:1.1 (443.5) 동물에서 기원된 인간 피조물만이, 아들신분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며;천사 무리 역시, 낙원을 달성하는 숭고한 기회를 공유한다. 수호 스라빔 역시, 상승하는 시간세계 필사자들과 함께 체험하고 봉사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신분 지위를 획득한다. 그런 천사들은 스라빙톤을 통해서 낙원에 도달하며, 다수가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에 소집되기도 한다.

40:1.2 (443.6) 하나님의 완결성취자 아들신분이라는 숭고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천사로서 훌륭한 성취이고, 영원한

아들의 계획과 내주하는 조율사의 항상_현존하는 도움을 통한 너희의 영원한 생존 달성을 크게 능가하는 업적이지만;수호 스라빔, 그리고 가끔 다른 존재들이, 그런 상승을 실제로 완수한다.

2. 상승하는 물질 아들

40:2.1 (444.1) 하나님의 물질 아들은, 멜기세덱 및 그 동역자들과 함께 지방우주에서 창조됐고, 모두 하강하는 아들로써 분류된다. 그리고 정말로 행성 아담은--곧 진화 세계의 물질 아들과 딸은--, 자신이 기원된 구체 ,즉 지역 체계의 수도{首都}에서 인간거주 세계로 하강한다.

40:2.2 (444.2) 그런 아담과 이브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행성의 공동 사명에 온전히 성공했을 때, 그들 세계에 있는 거주민과, 같은 운명을 갖는다. 그런 세계가 빛과 생명이라는 진보된 단계에 정착할 때, 신실한 이 물질 아들과 딸은 모든 행성 경영 임무에서 물러나도록 허락되며, 하강하는 모험에서 그렇게 해방된 후에는, 완성된 물질 아들로써 지방우주의 기록에 등록하도록 허락된다. 마찬가지로, 행성 임무가 오래 연기될 때에는, 주둔하는 신분의 물질 아들들은--곧 지역 체계의 시민은--

자신이 처한 구체의 활동에서 물러날 수 있고, 완성된 물질 아들로써 비슷하게 등록한다. 이런 절차가 있는 후에, 그런 해방된 아담과 이브는,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인정받으며, 그 당시의 신분과 영적으로 도달한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하보나와 낙원으로 가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자 및 상승하는 다른 아들과 함께 이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낙원 신격들의 영원한 봉사 속에서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한다.

3. 전환된 중도자

40:3.1 (444.3) 하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성에 증여됨으로써 얻은 즉각적인 유익을 박탈당하더라도, 낙원 상승이 멀리 연기될지라도, 그럼에도 진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중간 시기들을 달성한 직후에(만약 그 전이 아니라면), 두 집단의 중도 피조물 모두가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 빛의 성전{聖殿}이 하강하고, 행성 왕자가 행성 주권자 직위로 승진하는 날, 때로는 그들 대부분이 자신의 인간 사촌들과 함께 변환되기도 한다. 행성 봉사에서 벗어남에 따라, 두 조직은 모두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지방우주에 등록되며, 물질 세계의 필사자

인종의 진보를 위해서 준비된 바로 그 경로를 따라서, 긴 낙원 상승을 즉각 시작한다. 1차 집단은 다양한 완결성취자 단체가 되게 돼 있지만, 2차 또는 아담 후손 중도자는 모두, 필사 완결성취 단체에 등록되도록 길이 정해진다.

4. 인격화된 조율사

40:4.1 (444.4) 시간세계의 필사자가, 만유의 아버지께서 주신 영 선물과 행성에서 연합을 이루면서 자신의 혼의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그런 실패는, 조율사의 편에서 의무, 사역, 봉사, 또는 헌신을 어떤 면으로든지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다. 필사자가 죽을 때, 버림받은 그런 관찰자는 디비닝톤으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 생존하지 못한 자가 판결 받은 후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다시 배정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런 종류의 봉사를 반복한 후, 또는 육신화된 증여 아들의 내주하는 조율사로서 활약하는 것 같은 어떤 비범한 체험을 가진 후에, 만유의 아버지가 이 유능한 조율사를 인격화 시킨다.

40:4.2 (445.1)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독특하면서 불가해한 계층의 존재다. 그들은 원래 실존적 선{先}인격자 신분에

속했고, 물질 세계의 초라한 필사자들의 삶과 생애에 참여함으로써 체험을 쌓아 왔다.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께서 창조된 한 피조물에게 체험을 쌓은 인격체를 증여하시는, 계속해서 몸소 베푸시는 사역에서, 숙련된 이 사교 조율사들에게 증여된 그 인격체가 기원되고 솟아나기 때문에, 이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런 모든 아들신분 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부류로 분류된다.

5.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40:5.1 (445.2)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존재들의 사슬에서 필사자가 마지막 고리를 대표한다. 점점 덜 신성하고 점점 더 인간적인 일련의 인격화를 통해서, 너희와 매우 비슷한 존재, 즉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 영원한 원본 아들의 개인적 접촉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의 신앙이 파악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영적으로 자각하도록 만들어졌다!

40:5.2 (445.3) 마찬가지로 원본의 무한한 영은, 점점 덜 신성하게 되고 점점 더 인간적이 되는 일련의 여러 계층으로, 그

영역의 분투하는 피조물에게 점점 더 접근하는데, -- 너희보다 약간 낮게 창조된-- 천사들에서 그 표현이 한계점에 도달하며, 그들은 시간세계의 필사자 생애에서 평생 여행하는 동안 너희를 친히 보호하고 안내한다.

40:5.3 (445.4)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우주에 두루, 거의 한없는 숫자의 상승하는 피조물과 그토록 가깝게 직접 접촉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는 않으며, 낮추실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위 피조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시며;너는 신성한 현존 없이 지내지 않는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체 형태화로 너와 함께 하지는 않더라도, 신성한 관찰자인 내주하는 사조율사의 정체성으로 너의 안에 있고 너에게 속하신다. 그리하여 인격체로서 그리고 영으로서 너희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아버지는, 필사 아들과 딸의 바로 그 혼과 내적으로 친교하는 영 접촉에서, 그리고 인격체 회로에서, 너희에게 아주 가깝게 접근하신다.

40:5.4 (445.5) 영과 일체가 되는 것이, 인격자가 생존하는 비결이며, 영적 상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융합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영이 사고 조율사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들은, 이런 신성한 선물, 즉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는 다음과 같다:

40:5.5 (445.6) 1. 조율사가 일시적으로, 즉 체험하는 동안 체류하는 필사자.

40:5.6 (445.7) 2. 조율사와_융합되지 않는 유형의 필사자.

40:5.7 (445.8) 3. 조율사와_융합될 잠재력을 가진 필사자.

40:5.8 (445.9) 제1 계열--조율사가 일시적으로, 즉 체험하는 동안 체류하는 필사자. 진화하는 어떤 행성이든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데, 제2 계열에 속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단계에 이 계열의 명칭이 사용된다.

40:5.9 (445.10) 제1 계열의 필사자는, 인류가 진화하는 초기 시대에 공간의 세계들에 거주하며, 가장 원시적인 유형의 인간 정신들을 포함한다. 아담_이전{以前}의 유란시아 같은 많은 세계에서는, 지극히 많은 숫자의 고상하고 더 발달된 유형의 원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조율사와 융합하지는 못한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사람이 상급{上級}의 영적인 의지작용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조율사들은 육신 속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이 투쟁하는 피조물의 정신을 점유하며, 의지를 지닌 그런 피조물에 조율사들이 내주하는 순간, 집단 수호천사들이 역할을 개시한다. 제1 계열의 이 필사자들은 개인 수호자를 갖지 못하지만, 집단 관리인을 갖는다.

40:5.10 (446.1) 체험하는 조율사는, 원시 인간이 육신 속에서 보내는 전체 생애 동안 그와 함께 있다. 조율사는 원시인의 진보에 많이 기여하지만, 그런 필사자와 영원한 합동을 형성할 수는 없다. 조율사들의 일시적 사역은 두 가지를 이룩하는데:첫째로, 그들은 진화하는 지능의 본성과 작용에서 가치 있고 실제적인 체험을 획득하며, 다른 세계들에서 비교적 더 발달된 존재들과 나중에 접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귀중하게 될 어떤 체험이다. 둘째로, 조율사들의 일시적 체류는, 나중에 가능하게 될 영 융합을 위해서, 필사 상대자를 준비시키는 쪽으로 많이 기여한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유형의 모든 혼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영적 포용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성취하며, 그리하여 지방우주 체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된다.

아담_이전{以前}에 많은 인격자가, 그렇게 해서 유란시아로부터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로 올라갔다.

40:5.11 (446.1)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지성의 더 높은 수준으로 필사적 사람이 올라가야만 하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들은, 상승하는 각 단계마다 사람의 상태와 부족함에 주목하시며;진화하는 인종의 초기 시절에 투쟁하는 이 필사자들이 최종 판결을 받을 때, 하나님들은 항상 신성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매력적으로 자비롭기까지 하시다.

40:5.12 (446.2) 제2 계열 --조율사와_융합되지_않는 유형의 필사자. 이들은 내주하는 조율사와 영원한 합동을 이룰 수 없는, 특화된 유형의 인간이다. 한 개, 두 개, 및 세 개의 뇌를 가진 인종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율사 융합의 요인이 아니며;그런 모든 필사자가 비슷하지만, 조율사와_융합되지_않는 이 유형은, 의지를 가진 피조물 중에서 완전히 다르고 현저하게 변경된 계층이다. 비호흡자{非呼吸者} 가운데 다수가 이 집단에 속하고, 대체로 조율사와 융합하지 않는 수많은 다른 집단이 있다.

40:5.13 (446.3) 제1 계열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의 구성원은 각자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하나의 조율사의 보살핌을 받는다. 현세의 생애 동안, 이 조율사는 자신이 일시적으로 내주한 상대자를 위해서, 필사자에게 융합 잠재력이 있는 다른 세계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것을 한다. 이런 제2 계열 필사자 속에 무체험 조율사가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상급 인간 유형은 흔히 능숙하고 경험 있는 관찰자와 연결된다.

40:5.14 (446.4) 동물에서_기원된 피조물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승 계획에서,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 유형의 필사자에게 베푸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헌신된 섬김을 누린다. 융합 잠재력이 있는 세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융합이 없는 행성에서도 조율사와 스랍이 충분히 협동하며;운명의 수호자들은 유란시아의 경우와 똑같이 그런 구체에서 사역하고, 필사자가 생존할 때 비슷하게 작용하며, 그때 생존하는 혼은 영과 융합된다.

40:5.15 (446.5) 너희가 맨션 세계들에서 이런 변경된 필사자 유형과 만나게 될 때, 너희는 그들과 의사소통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똑같은 체계 언어로 말하지만, 변경된 기법을 사용한다. 이 존재들은 영과 인격체가 현현{顯現}할 때 너희 계층의 피조물 생애와 동일한데, 어떤 육신적 특색, 그리고 사고 조율사와 융합할 수 없다는 사실만 다르다.

40:5.16 (447.1) 이런 유형의 피조물이 왜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와 결코 융합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은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더러는, 유별난 행성 환경에서 실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생명 운반자들이 애쓸 때, 의지를 가진 지성 피조물을 만드는 우주 계획에 그런 극단적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기 때문에, 조율사와 영구적 합동을 이루는 것이 내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은:이것이 상승 계획의 의도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부분인가{?}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40:5.17 (447.2) 제3 계열 --조율사와_융합할_잠재력을 가진 필사자. 아버지와_융합되는 모든 필사자는, 유란시아 인종과 똑같이, 동물에서 기원된다. 그들 중에는 조율사와_융합할 잠재력을 갖는 1개_뇌, 2개_뇌, 3개_뇌를

가진 유형들이 포함된다. 유란시아인은 중간 유형, 즉 2개_뇌를 가진 유형인데, 여러 면에서 1개_뇌를 가진 집단보다 우수하지만, 3개_뇌를 가진 계층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제한돼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육체적_뇌 재능은, 조울사의 증여에서, 스랍의 봉사에서, 또는 어떤 다른 국면의 영 사역에도 요인이 아니다. 세 가지 뇌 유형 사이의 지적 및 영적 차이는, 다른 면에서 정신 재능과 영적 잠재력이 매우 비슷한 개인의 특징을 이루는데, 현세의 삶에서 가장 크고, 맨션 세계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체계 본부에서부터 계속,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진보가 같아지고, 그들의 궁극적인 낙원 운명은 동일하다.

40:5.18 (447.3) *계수되지 않은 계열.* 이 이야기는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혹적인 차이점을 포함시킬 수 없다. 열 세계마다 하나는, 10진 행성, 즉 실험 행성임을 너희가 알지만, 진화하는 구체들의 행렬을 잠시 멈추게 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같은 집단의 행성들 사이에서처럼, 살아있는 피조물의 계시된 계층들 사이에서조차 설명하기에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 진술에서는 상승 생애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차이점만

밝힌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에 대한 어떤 고찰에서든지, 상승 생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40:5.19 (447.4) 필사자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점을 영원토록 분명히 해두자:내주하는 조율사와 기꺼이 협동하려는 태도만 보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려는 태도만 보인다면, 이 바램이 비록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밝혀주는 참 빛”이라는 사실을 원시적으로 납득하는, 희미한 첫 불빛에 불과하더라도, 필사자 실존의 어떤 가능한 국면에 있는 어떤 혼이든지 모두 생존할 것이다.

6. 하나님의 신앙 아들

40:6.1 (447.5) 필사자 인종들은, 총명하고 인격있는 창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을 대표한다. 너희 필사자는 신성하게 사랑 받으며, 각자 영광스런 체험을 하는 확실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 신성한 계층에 속하지는 않으며;전적으로 필사 존재다. 너희는 융합이 일어나는 순간에 상승하는 아들로써 간주되겠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필사자의 신분은, 생존하는 인간 혼이 어떤 유형의 영원하고 죽지 않는 영과

최종적으로 융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신앙 아들 신분이다.

40:6.2 (448.1) 유란시아 인간 같은 그런 초라한 물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즉 가장 높으신 분의 신앙 자녀라는 것은 엄숙하고 숭고한 사실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증여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됐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이미 주셨다." 반면에 "너희가 장차 바뀌게 될 그 상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의 신앙 아들"인데;"너희는 다시 두려워할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신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너희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게 됐다." 옛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나는 저희에게도 내 집에서 아들들보다 더 나은 자리와 이름을 줄 것이며;그 이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셨다."

40:6.3 (448.2) 필사자가 거주하는 모든 진화 세계는, 은혜와 자비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신앙 아들들, 즉 신성한 가족에

속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필사 존재들을 품고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40:6.4 (448.3) 1. 너희는 영적인 약속의 아들, 즉 신앙 아들이다. 너희는 자신이 아들신분의 실체임을 믿으며, 그리하여 너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신분은 영원한 현실이 된다.

40:6.5 (448.4) 2.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사실 그는 너희의 맏형이며;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즉 승리를 거둔 미가엘과 영으로 형제 관계를 맺게 되면, 영으로 너희는 또한 너희가 공동으로 모시는 그 아버지의--심지어 만유의 아버지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40:6.6 (448.5) 3. 너희가 아들인 것은, 아들의 영이 너희에게 부여졌고, 모든 유란시아 인종에게 값없이 확실하게 증여됐기 때문이다. 이 영은 너희의 근원인 신성한 아들에게로, 그리고 그 신성한 아들의 근원이신 낙원 아버지께로 너희를 항상 이끈다.

40:6.7 (448.6) 4.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자유로운_바라심에 따라서, 너희에게 피조물 인격체를

주셨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신성한 자발성을 일정량 부여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될 모든 사람과 그 자발성을 공유하신다.

40:6.8 (448.7) 5. 너희 안에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래서 너희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아버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

7.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

40:7.1 (448.8) 조율사들을 보내서 내주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해한 신비 가운데 하나다.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갖는 이 단편들은, 피조물이 불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조율사는 불멸의 영이며, 조율사와 합동하는 것이, 융합된 필사자의 혼에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다.

40:7.2 (448.9) 바로 너희 종족에서 생존하는 필사자는,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이 집단에 속한다. 지금 너희는 행성에 있는 아들, 즉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移植}함으로써 발생되고, 아담 후손의 생명 주입으로 변경된, 아직은 도저히 상승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 진화하는 피조물이지만;--심지어 최고 높은

영광과 신성을 성취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정말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아들이며, 신앙으로써 그리고
내주하는 조울사의 영화{靈化}시키는 활동에 자유의지로
협동함으로써, 상승하는 아들신분이라는 이 영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너와 너의 조울사가 최종으로 영구히
융합할 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미가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실제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40:7.3 (449.1)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진화하는 행성에서
내주하여 사역하는 조울사의 생애를 자세히 전하는 것은,
내 임무에 속하지 않으며;이 위대한 진리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너희의 생애 전체를 다뤄야 한다. 나는
조울사와_융합된 필사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울사 역할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내주하는
이 하나님의 단편은, 육체로 실존하게 되는 초기부터,
네바돈과 오르본톤에서 상승하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하보나를 거쳐서 바로 그 낙원에 이르기까지, 너희
계층의 존재와 함께 있다. 그 후에,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바로 이 조울사는 너와 하나이며 너에게 속한다.

40:7.4 (449.2) 이들은,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필사자다. 아버지는 자신을 너에게 증여하셔서, 자신의 영을 네 안에 두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네가 궁극적으로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신다. 시간세계의 필사자 구체{球體}로부터, 영원성의 신성한 영역까지, 인간이 상승하는 것에 관한 설명은, 내 임무에 포함되지 않은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이겠지만, 숭고한 이 모험은 필사적 사람에 관한 최고의 연구 대상이 되어 할 것이다.

40:7.5 (449.3) 만유의 아버지의 단편과 융합하는 것은, 언젠가 낙원에 도달함을 신이 비준{批准}하는 것에 상당하며, 조율사와_융합된 그런 필사자는, 하보나 회로들을 모두 거쳐서 낙원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유일한 인간 계층이다.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에게는, 우주에서 봉사하는 생애가 활짝 펼쳐져 있다. 얼마나 존엄한 운명과 영광스런 달성이 너희 각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희는 자신에게 이뤄진 것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는가? 너희는 --소위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인생의 초라한 길을 지금 터벅터벅 걷고 있는 너희조차--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영원한 성취의 절정이 얼마나 장엄한지 납득하고 있는가?

8.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

40:8.1 (449.4) 거의 모든 생존하는 필사자가, 맨션 세계 가운데 하나에, 또는 비교적 높은 모론시아 구체에 도착하는 즉시 자신의 조율사와 융합 되는 반면, 융합이 연기되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 더러는 그들이 우주 본부의 최종 교육 세계들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에 대한 이 최종 확실성을 체험하지 못하며; 끝없는 생명을 향한 이 필사 후보자 가운데 더러는, 자신의 충실한 조율사와 정체성을 융합하기에 완전히 실패한다.

40:8.2 (449.5) 판결하는 당국{當局}은 그런 필사자에게 생존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조율사도, 디비닝톤에서 돌아옴으로써 맨션 세계들까지 올라가는 그들의 상승에 협력해 왔다. 그런 존재들은, 체계, 성좌, 및 살빙톤 회로의 교육 세계들을 통해서 상승해 왔으며; “일흔 번씩 일곱 번”이나 융합할 기회를 가졌으나, 조율사와 하나됨을 여전히 성취할 수 없었다.

40:8.3 (449.6)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와 융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될 때, 창조주 아들의 생존 심판관들이 소집된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의 개인 대표자가 인정하는 이 조사 법정, 상승하는 필사자에게서, 융합을 달성하지 못할 어떤 원인도 발견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지방우주 기록부에 그렇게 보증하고, 이 평결문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정식으로 통보한다. 그 결과, 내주하던 조율사는 인격화된 관찰자들의 확인을 받기 위해 디비닝톤으로 즉시 돌아가며, 이렇게 작별함에 따라서 모론시아 필사자는 창조주 아들의 영의 개별화 된 선물과 즉시 융합된다.

40:8.4 (450.1) 네바돈의 모론시아 구체들을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과 공유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아들과_융합된 이 피조물은, 아득히 먼 낙원 섬을 향해 안쪽으로 여행하는, 조율사와_융합된 형제들과, 오르본톤의 봉사를 공유한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형제이며, 너희는 연방우주의 훈련 세계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동안 그들과 연합하기를 몹시 즐기게 될 것이다.

40:8.5 (450.2)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는 숫자가 많은 집단이 아니어서, 오르본톤 연방우주에는 100만 명 미만이 있다. 낙원에 거주하는 운명을 제외하고, 그들은 조울사와_융합된 동역자들과 모든 면에서 똑같다. 그들은 연방우주 임무를 띠고 낙원으로 자주 여행하지만, 거기에 영구히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며, 한 계층으로서는, 자신이 태어난 연방우주로 제한돼 있다.

9. 영과_융합된 필사자

40:9.1 (450.3) 영과_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는, 제3 근원 인격체가 아니며;아버지의 인격체 회로에 포함되지만, 제3 근원 및 중심의 선{先}정신 영의 개별화된 존재와 융합했다. 그런 영 융합은, 자연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필사자가 맨션 세계에서 모론시아 실존으로서 깨어날 때에만 발생한다. 융합하는 체험은 전혀 중복되지 않으며;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영과 융합하든지, 아들과 융합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융합한다. 조울사, 즉 아버지와 융합한 자는, 결코 영과 융합하거나 아들과 융합하지 않는다.

40:9.2 (450.4)

이 유형의 필사 피조물이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조율사가 내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인 생애 동안에 조율사는 그런 존재의 정신 속에서 일하지만, 조율사가 보호하는 그 혼과 영원히 하나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에,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 속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조율사는 필사자 본성을 가진 바로 그 영 상대자를--곧 혼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 필사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조율사의 업무는 너희 종족 안에서 하는 활동과 전적으로 유사하지만, 필사자가 죽으면, 조율사는 영과 융합할 이 후보자를 영원히 떠나며, 모든 신성한 관찰자의 본부인 디비닝톤으로 곧바로 가서, 자신이 속한 계층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거기서 기다린다.

40:9.3 (450.5)

그런 잠자는 생존자들이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 될 때, 떠나간 조율사의 자리를 신성한 사역자의 영의 개별화된 존재가 차지하는데, 그 존재는 관계된 지방우주에서 무한한 영을 대표하는 자다. 이 영이 주입{注入}됨으로써, 생존하는 이 피조물은 영과 융합된 필사자가 된다. 그런 존재들은, 정신과 영 모든 면에서

너희와 동일하며;그들은 정말로 너희의 동기생인데, 너희 계층의 융합 후보자, 그리고 아들과 융합될 자들과 더불어, 맨션 및 모론시아 구체들을 공유한다.

40:9.4 (450.6) 그러나 영과_융합된 필사자는, 상승하는 형제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기원된 물질 세계에서 필사자가 가졌던 인간 체험에 대한 추억이 육신의 죽음 후에도 살아남으며, 이는 인간의 생애 중에 영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의 영 사본{寫本}, 즉 이력서{履歷書}를, 내주하는 조울사가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과_융합된 필사자에게는 인간의 추억이 존속되는 그런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울사의 추억 이력서는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획득물은 떠나간 조울사의 체험적 소유물이고, 그가 전에 내주했던 피조물에게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그들이 네바돈의 모론시아 공간의 부활실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마치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 즉 이전{以前} 실존을 의식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된다.

40:9.5 (451.1) 지방우주의 그런 자녀들은, 연합된 스라빔 및 체루빔으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들음으로써, 그리고

기록하는 천사들이 만든 필사자 생애에 대한 기록을 조회해 봄으로써, 그것을 회상하여 자신의 이전{以前} 인간 추억 대부분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필사 생애 속에서 체험적으로 기원된 생존하는 혼이, 필사자의 사건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과거의 체험 중에서 기억되지 않는 이 사건들에 대한 체험_인식_반응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40:9.6 (451.2)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에** 체험한 사건들에 대해 듣게 될 때, 그런 생존자의 혼 (정체성) 안에 즉각적인 체험적 인식 반응이 있고, 그것은 실체를 느끼는 듯한 감정과 사실을 아는 듯한 특성을, 설명들은 사건에 즉시 부여하며;이 이중{二重} 반응은, 필사자의 체험에서 기억되지 않는 면들을 재구성하고 인식하고 확인하게 한다.

40:9.7 (451.3) **심지어 조율사_융합 후보자에게도, 영적 가치를** 갖는 인간 체험들만, 생존하는 필사자 및 되돌아오는 조율사의 공동 소유물이 되며, 따라서 필사자가 생존한 후에 이를 즉시 회상한다. 영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조울사와_융합한 이 사람조차, 생존하는 혼 속에서 인식_반응이라는 속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한 필사자에게 영적 함축성을 가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성에서 동시대에 상승한 자들의 집단이, 조울사가_회상{回想}한 사건들을 저장해서 한곳에 모으고, 이것을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더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의 생애에서 영적 가치를 가졌던 어떤 체험이라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40:9.8 (451.4)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런 기법을 매우 잘 이해하지만, 어떤 기법으로 인격체를 인식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한다. 한때 서로 연합했던 인격체들은 기억 작용과 매우 상관없이 서로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면서 서로 인격체가 반응하도록 만드는데는, 기억 자체 그리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40:9.9 (451.5) 영과_융합된 생존자도 또한, 자신이 살았던 행성 섭리시대 이후에, 자신이 출생했던 세계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육신 속에 살았던 생애에 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영과 융합한 그런 자녀는, 일반적으로 지방우주 봉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 생애를 살펴보는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들은 너희처럼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가는 높고 고귀한 운명을 공유하지 않으며;오직 조울사와_융합된 필사자 또는 기타 특별하게 포용된 상승한 존재들만이, 신격을 찾아가는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는 자들의 반열로 소집된다. 영과_융합된 필사자는 지방우주의 영구 시민이며;낙원 운명을 열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네바돈에서 그들의 우주 고향은, 살빙톤을 돌고 있는 여덟째 집단의 세계들인데, 유란시아의 행성에 관한 전승{傳承}들이 상상해서 기록한 그것과 매우 흡사한 본성과 위치를 갖는, 운명이자_천국이다.

10. 상승 운명

40:10.1 (452.1)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과_융합된 필사자는 한 지방우주에 제한되며;아들과_융합된 생존자는 한 연방우주에 한정되며;조울사와_융합된 필사자는 온갖 우주에 스며들게 돼 있다. 필사자와 융합하는 이 영들은 항상 기원된 수준으로 상승하며;그런 영 실재들은 원래 근원된 구체{球體}로 반드시 돌아간다.

40:10.2 (452.2)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은 지방우주에 속하며;대개 자신의 출생지 영역 한계를 벗어나서, 즉 그들에게 스며드는 영의 공간 범위 테두리를 벗어나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아들과_융합된 상승자도 마찬가지로 영{靈}을 부여받은 근원으로 올라가는데, 창조주 아들의 진리 영이, 관련된 신성한 사역자 안에 집중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그의 "융합하는 영"은 더 높은 우주의 반사하는 영들 안에서 효력이 생긴다. 지방우주 수준과 칠중 하나님의 연방우주 수준 사이의 그런 영 관계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식별할 수는 있는데, 반사하는 영들의 자녀--곧 창조주 아들의 제2스랍 소리들-- 안에서 틀림없이 드러난다. 낙원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고 조율사는, 필사자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마주 설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40:10.3 (452.3)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와 필사 존재가 영원히 융합하지 않거나 융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변수, 즉 연합 기법에 있는 불가사의한 변수{變數}가, 상승 요강에서 어떤 결점을 나타낼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표면적으로는 아들 융합과 영 융합이 낙원_달성 계획의 어떤 내용에 설명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보상과

비슷하지만;그런 모든 결론은 잘못된 생각이며;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이, 최상 우주 통치자들이 설립한 법칙에 따라서 펼쳐진다고 배웠다.

40:10.4 (452.4)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해 왔으며, 창조주 아들과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이, 더 높은 영역으로 이동 중이던 모든 필사자의 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으므로, 모든 필사자를 궁극적으로 낙원에 도달하게 한다면, 시_공간 우주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라는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정부가,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영구적인 한 집단을 각각 제공받을 것이라는 점;이 행정부의 기능이 영구 신분, 즉 어밴돈터들과 수사티아들의 진화 보상물에 해당하는 영화롭게 된 필사자로 이뤄진 특정한 집단의 수고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현재의 상승 요강이, 시_공간 행정부에게 바로 그런 상승한 피조물 집단을 효과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며;우리는 여러 번 경탄했는데:이 모든 것이, 창조주 아들과 태고 항존자들에게 영구적인 상승한 주민집단을 공급하도록 고안된,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온전히_지혜로운 계획에서 의도된 일부분임을 보여주지

않는가? 다가올 우주 시대들에, 이 영역의 직무를
진척시켜주기에 점점 더 알맞게 될, 진화된 시민신분의
계층과 함께?

40:10.5 (452.5) 그 필사자 운명이 그렇게 다양한 것은, 누군가가
다른 존재보다 반드시 더 크거나 작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다만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자는 정말로, 완결성취자로서 사는
광대하고 영광스런 생애가, 영원한 미래 앞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은 상승하는 형제들보다 그들이
우대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사자를
생존시키는 신성한 계획의 선택적 운영에서 아무런
편애가 없고, 아무 것도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40:10.6 (453.1) 조율사와_융합된 완결성취자는 전체에서 가장
광범하게 봉사할 기회를 명백히 누리는 반면, 이 목표
달성은, 어떤 한 우주 또는 연방우주에서, 비교적 초기의
덜 정착된 시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완전해진 비교적
후기의 안정된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친
투쟁에 참여할 기회로부터 그들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완결성취자는, 광우주의 일곱 구획 전체에서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신기하고 광범한 체험을 획득하지만, 대개 어떤 한 우주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며, 상세한 지식은 지금까지도 네바돈 완료 단체의 영과_융합된 노련한 자들의 특징을 나타낸다. 천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행성 시대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이 개인들은 상승하는 행렬을 여러 시대에 걸쳐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런 지방우주 시민에게 신실하게 봉사함으로써, 집중된 체험으로 발생된 아주 우수한 지혜가--곧 *권위* 있는 지혜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체험에 체험이 더해지며, 이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지방우주든지 안정시키는 데 지극히 중대한 요인이다.

40:10.7 (453.2) 영 융합자들의 경우와 같이, 우버사에서 거주 신분을 획득한,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존재들 가운데 더러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오르본톤 출신이며, 그들은 통찰력을_강화시키는 지혜를 서서히 축적하는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데, 그 지혜는 일곱째 연방우주의 번영과 종국의 안정에 기여하며, 이런 봉사는 항상_증대된다.

40:10.8 (453.3) 지방우주와 연방우주 시민신분을 지닌 이 상비{常備} 계층의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첫 외부 공간 층의 행성 체계들에서 확장하는 신성{神性} 경계선을 개척하고 있을 때, 진화하여 상승하려고 투쟁하는, 아들과_융합된, 그리고 영과_융합된 자들의 형제들은, 완전하게 된 연방우주들의 체험적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기꺼이 공헌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으며, 한편 그들은 파도처럼 낙원으로 밀려들어오는 순례자들을 환영할 준비를 갖추 것인데, 그 순례자들은 먼 훗날, 현재는 등록돼 있지 않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외부 공간의 이 성단{星團}들로부터, 영을_추구하는 거대한 급류처럼, 오르본톤과 오르본톤의 자매 창조계 도처에 쏟아 부어질지도 모른다.

40:10.9 (453.4) 영 융합자 가운데 대부분은 영구히 지방우주 시민으로서 봉사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는 않다. 그들이 우주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국면이 연방우주에서 그들이 직접 나타나기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들을 더 높은 우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의 변형이 이 시민들에게 일어날 것이며;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그런

영과_융합된 필사자들을 출두시키라는 명령서와 함께 천상의 수호자들이 도착하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상승해서 다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연방우주의 피보호자가 되는데, 낙원 및 하보나 봉사에 차례로 소환되는 작은 숫자를 제외하고, 천상의 수호자들에게 보좌관으로서 영구히 봉사한다.

40:10.10 (453.5) 영과_융합된 형제들처럼 어떤 변경시키는 변형을 겪지 않는다면, 아들 융합자들은 하보나를 거치지 않고, 낙원에 도달하지도 않는다. 유익하고 충분한 이유들 때문에, 아들과_융합된 어떤 생존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며, 너희는 중앙우주의 일곱 회로에서 때때로 이 존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와 영과_융합된 필사자가 실제로 낙원으로 상승하는데,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여러 면에서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40:10.11 (453.6) 아버지와_융합된 필사자들은 잠재적 완결성취자이며;그들의 목적지는 만유의 아버지이고 그분께 도달하지만, 현재 우주 시대의 한계 내에서는 그런 완결성취자들은 운명을 달성한 자가 아니다. 그들은

완결되지 않은 피조물로서--곧 여섯째_단계의 영들로서--
남아 있으며, 따라서 빛과 생명 이전 상태의 진화
영역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40:10.12 (454.1) 필사 완결성취자가 삼위일체성을 포함할 때--곧
강력한 사자{使者} 같은, 삼위일체처럼된 아들이 될 때--,
그 완결성취자는 적어도 현재 우주 시대에는 운명을
성취했다. 강력한 사자들과 그 동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곱째_단계 영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다른 것들에
추가하여 삼위일체에게 포용되는 것은, 완결성취자가
일곱째_단계 영으로서 언젠가 성취하게 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수여한다. 영과_융합되거나 아들과_융합된
필사자가 삼자일체된 후에, 그들은 조울사와_융합된
상승자들과 함께 낙원 체험을 거치는데, 그리되면
연방우주 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이 상승자들과
똑같다. 현재 완성되지 않은 피조물인 완결성취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삼위일체처럼된 선택 아들들 또는 달성
아들들은 적어도 현재는 완성된 피조물이다.

40:10.13 (454.2) 그래서 결국, 아들신분을 갖는 상승하는 계층들의
운명과 대조해서 "더 크다" 또는 "더 작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당치 못하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각자는 하나님의 부성애{父性愛}를 공유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며;상승하는 운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듯이, 그런 운명을 달성할 수 있는 피조물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아들 각자를 사랑하시며, 그 애정은--곧 *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그리고 독점적으로 수여된 사랑은--적어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무한하고, 영원하며 독특하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다른 모든 사실을 완전히 능가한다. 아들신분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맺는 최상의 관계다.

40:10.14 (454.3) 필사자로서, 너희는 이제 신성한 아들신분의 가족 안에서 너희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으며, 필사자를 생존시키기 위한 낙원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계획으로, 그토록 아낌없이 제공된 이점{利點}들을 적절히 이용해야 할 책무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계획은, 증여된 아들이 일생에 겪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증진되고 조명돼왔다. 신성한 완전성이라는 낙원 목표를 너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온갖 시설과 모든 능력이 마련돼 왔다.

40:10.15 (454.4)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제41편 지방우주의 물리적 측면

41:0.1 (455.1) 모든 다른 창조계로부터 각 지방 창조계를
구별시키는 특유의 공간 현상은, 창조적 영의 현존이다.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의 공간 현존이 네바돈 전체에
확실히 스며들어 있으며, 바로 그런 현존은 우리
지방우주의 외부 경계선에서 확실히 차단된다. 우리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네바돈 *이며*; 그의 공간 현존 너머로 확장하는 그것이
네바돈 바깥인데,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네바돈_바깥
공간 지역들이다--다른 지방우주들이다.

41:0.2 (455.2) 중앙우주,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 정부가 뚜렷이
구분돼 있음을 광우주의 경영 조직이 드러내며, 이런
구분은 하보나와 일곱 연방우주가 공간에서 분리된 것과
천문적{天文的}으로 일치하지만, 지역 창조계들이 명확한
물리적 경계선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오르본톤의
대구역과 소구역들조차 (우리에게는) 분명히 식별될 수
있지만, 지방우주들의 물리적 경계를 확인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런 지방 창조계가 연방우주의 총 에너지 축적량의 분할을 통제하는 어떤 창조 원칙에 입각해서 경영상으로 조직돼 있는데 반해, 그 물리적 요소, 즉 공간의 구체들--곧 항성들, 흑암 섬들, 행성들, 등--은 1차로 성운{星雲}에서 기원되며, 이 구체들이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어떤 창조_이전 (초월적) 계획에 따라 천문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41:0.3 (455.3) 네바돈이 앤드로노버 및 기타 성운의 별과 행성 산물{產物}로부터 물리적으로 조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런 성운이 단 하나의 지방우주 영토에 포함될 수 있다. 네바돈의 구체들은 다양한 성운 조상에서 생겼지만, 모두 공간 운동의 어떤 최소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간 운동은, 우리의 현재 천체{天體}들의 집합체를 산출할 정도로 동력 지휘자들이 총명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정됐고, 이 천체들은, 연방우주 궤도를 따라 하나의 연속된 단위로서 함께 움직인다.

41:0.4 (455.4) 네바돈의 국지적 별 구름이 그렇게 구성되는데, 지금은 우리 지방 창조물이 속해 있는, 오르본톤의 한

소구역에서, 사기타리우스 중심 주변을 점점 더 안정된 궤도 속에서 회전한다.

1. 네바돈의 동력 중심

41:1.1 (455.5) 나선형 성운{星雲}과 기타 성운들은, 공간에 있는 구체들의 모체{母體} 바퀴들인데, 낙원 힘 조직가들이 이를 창시했으며;인력에 반응하여 성운이 진화되고 나서, 동력{動力}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이 그들의 연방우주 기능을 대신하는데, 그 통제관들은 그 결과로 계속해서 생기는 소산물인 별과 행성이 물리적으로 진화하도록 지휘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네바돈의 전신{前身}_우주에 대한 이 물리적 감독은, 우리의 창조주 아들이 도래함에 따라서, 그의 우주 조직 계획에 즉각 맞춰졌다. 하나님의 이 낙원 아들의 영토 안에서, 최고 동력 중심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네바돈의 다양한 천체를 하나의 통합된 경영 단위가 되도록 견고하게 묶는, 통신 계통, 에너지 회로, 및 동력 통로의 방대한 복합체를 산출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및 다른 존재들과 협력했다.

41:1.2 (456.1)

넷째 계층의 최고 동력 중심 100명이 우리 지방우주에 영구히 배정돼 있다. 이 존재들은 우버사의 셋째_계층 중심들로부터 들어오는 동력 계통을 받으며, 약화되고 변경된 회로들을 우리 성좌 및 체계 동력 중심에 전달한다. 이 동력 중심들은 서로 연합해서, 통제하고 균일화{均一化}시키는 살아있는 체계를 산출하기 위해 활동하며, 이들이 없으면 오르내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계속 균형 잡고 배분하기 위해 이 체계가 작동한다. 아무튼 동력 중심들은, 항성의 흑점 및 체계의 전기 교란 같은, 일시적이고 국지적{局地的}인 에너지 상승에는 관여하지 않으며;빛과 전류는 공간의 기본 에너지가 아니고;2차적으로 그리고 종속적으로 형태화된 것들이다.

41:1.3 (456.2)

100명의 지방우주 중심이 살빙톤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들은 그 구체의 정확한 에너지 중심지에서 작용한다. 살빙톤, 에덴시아, 및 예루셈 같은 건축양식 구체들은, 공간에 있는 항성들로부터 자신을 제법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받고 열을 받으며 에너지를 얻는다.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이 이 구체들을 건설했으며--즉 정돈했으며--, 에너지 분배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고안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그런 초점{焦點}에 활동의 기초를 두면서, 동력 중심들은 자신이 생생하게 현존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에너지의 방향을 잡고 경로를 개설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 회로들은, 모든 물리적_물질 현상, 그리고 모론시아와_영적 현상의 기초다.

41:1.4 (456.3) 다섯째 계층의 최고 동력 중심 10명이, 네바돈의 1차 하위구획들, 즉 100개 성좌 각각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너희의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에서 본부 구체에 배치돼 있지는 않지만, 성좌의 물리적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 체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에덴시아에는, 근처의 동력 중심지들과 완전하고 일정한 접촉을 이루는, 열 명의 연합된 기계적 통제관과 열 명의 후랜달랭크가 존재한다.

41:1.5 (456.4) 여섯째 계층의 최고 동력 중심 한 명이, 각 지역 체계의 정확한 인력 초점에 배치돼 있다. 사타니아 체계에서는, 배정된 동력 중심이, 체계의 천문 중심에 위치한 공간 흑암 섬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흑암 섬 가운데 다수는, 어떤 공간_에너지들을 동원하고 방향 잡는

거대한 발전기{發電機}이며, 사타니아 동력 중심이 이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의 살아있는 집단은 비교적 높은 중심들과의 연락원으로 작용하고, 공간 진화 행성들에서 더 물질화 된 동력의 흐름들로 하여금 총괄 물리 통제관들에게로 향하게 한다.

2. 사타니아의 물리 통제관

41:2.1 (456.5)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동력 중심들과 함께 봉사하지만, 사타니아 같은 지역 체계에서 그들의 기능은 더 납득하기 쉽다. 사타니아는 노라티아텍 성좌의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100개 지역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 샌드마티아, 아순티아, 포로기아, 소르토리아, 란투리아, 및 가란토니아 체계와 인접해 있다. 노라티아텍의 체계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사타니아와 매우 흡사하게 모두 진화하고 진보한다.

41:2.2 (457.1) 사타니아 자체는 7천 개 이상의 천문 집단, 즉 물리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거의 아무것도, 너희 태양계가 기원된 것과 비슷하게 기원되지 않았다. 사타니아 천문 중심은 거대한 공간 흑암 섬인데, 이것은

거기에 부속된 구체들과 함께, 체계 정부의 본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41:2.3 (457.2) 배정된 동력 중심의 현존{現存}을 제외하면, 사타니아의 전체 물리_에너지 체계에 대한 감독은 예루셈에 집중된다. 이 본부 구체에 주둔하는 총괄 물리 통제관은, 체계 동력 중심과 협조해서 일하는데, 예루셈에 본부를 둔 동력 검사관들의 연락 우두머리로서 봉사하고, 지역 체계 전역에서 활동한다.

41:2.4 (457.3) 에너지를 순회시키고 흐르게 하는 일은, 사타니아 전체에 흩어져 있는 50만 명의 활기차고 지성적인 에너지 조종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하는 동력 중심들은, 그런 물리 통제관들의 행동을 통해서, 상당히 가열된 천체들로부터, 그리고 에너지로_채워진 흑암 구체들로부터 나오는 방사물을 포함해서, 공간의 기본 에너지 대부분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제한다. 이 집단의 살아있는 실재들은, 조직화된 공간의 거의 전체 물리적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고, 변화시키고, 조종하고, 전달할 수 있다.

41:2.5 (457.4) 생명은, 우주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기 위한 타고난 능력을 지닌다. 빛이라는 물질 에너지를 식물계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식물 생명체의 작용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식물 에너지가 동물 활동 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지만, 동력 지휘자와 물리 통제관들의 기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공간의 여러 에너지를 동원하고 변형시키며 방향 잡고 집중{集中}시킬 수 있는 역량을 타고났다.

41:2.6 (457.5) 에너지 영역을 다루는 이 존재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의 구성 요소인 에너지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생리학상 화학작용의 범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생명체의 물리적 예비단계, 즉 기본적인 물질 유기체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위한 물리적 운반수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공들여 마무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물질 정신이 영적으로 변하기 전의 활동에 보조 정신_영들이 관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물리 통제관들은 물질 에너지가 활력{活力}을 얻기 이전의 형태화에 관련된다.

41:2.7 (457.6) 동력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지휘하는 이 총명한 피조물은, 각 행성의 물리적 체질과 구조에 따라서, 각 구체에 자신의 기법을 맞춰야만 한다. 그들 각자의 물리학자, 참모진, 및 기타 기술 충고자들이, 심하게 가열된 항성들 그리고 기타 유형의 극도로 대전{帶電}된 별들의 국지적 영향에 관해 계산하고 추론한 것을, 그들은 어김없이 활용한다. 공간에 있는 극도로 차갑고 어두운 거대한 별들, 그리고 떼 지어 모여드는 별 먼지 구름도 계산에 넣어야만 하며;이런 물질적인 것들 전체는, 에너지를 조종하는 실제 문제에 관련돼 있다.

41:2.8 (457.7) 진화하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동력_에너지를 감독하는 일은 총괄 물리 통제관의 책임이지만,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부작용은 이 존재들의 책임이 아니다.그런 교란 현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는 물리적 관리인들의 범위와 통제를 벗어난다. 유란시아는 여러 분야의 엄청난 에너지 속에 있고, 거대한 질량을 가진 회로에 있는 하나의 작은 행성이며, 지방 통제관들은 때때로 여러 분야의 이 에너지를 평형 시키려고 애쓰면서, 그들 계층에 속하는 수많은 존재를 활용한다. 그들은 사타니아의 물리적

회로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하지만, 강력한 노라티아덱 흐름을 차단시키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우리의 이웃 별들

41:3.1 (458.1) 사타니아에서는 2,000개 이상의 찬란한 항성이 빛과 에너지를 내뿜고 있으며, 너희의 태양은 평범한 타오르는 천체{天體}다.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30개 항성 중에서 세 개만이 더 밝다.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각각의 별과 그 별의 각 체계 사이에서 작용하는 특화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킨다. 이 항성 용광로들은, 거대한 공간 흑암 물체들과 함께, 물질 창조계의 에너지 회로를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고 방향 잡기 위한 중간지점으로서,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을 돕는다.

41:3.2 (458.2) 네바돈의 항성들은 다른 우주들의 항성과 다르지 않다. 항성, 흑암 섬, 행성, 및 위성들 전체는 물론 유성들도, 물질 구성이 상당히 동일하다. 이 항성들은 직경이 평균 100만 마일에 달하는데, 너희의 태양 천체는 그것보다 약간 작다.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인 별빛 구름 안타레스는 너희의 태양 지름의 450배에 달하며, 부피는 6천만 배다. 그러나 이 거대한 항성들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 만일 12개의 감굴이 유란시아 내부 전역에서 돌고 있고, 이 행성이 텅 빈 공이라면, 그 감굴들이 갖게 됐을 정도에 상당하는 공간적 여유를, 이 거대한 항성들이 갖고 있다.

41:3.3 (458.3) 너무 큰 항성이 성운 모체 바퀴에서 벗어나면, 곧 부서지거나, 아니면 한 쌍의 별을 형성한다. 비록 나중에 일시적으로 약간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더라도, 모든 항성은 원래 완전한 기체 상태다. 너희의 태양이 초월기체{超越氣體} 압력을 가진 이런 유사{類似}_액체 상태를 달성했을 때, 반으로 갈라지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한 유형의 2중 별이 형성된다.

41:3.4 (458.4) 너희 태양의 10분의 1보다 작아질 때, 불타는 이 구체들은 급속도로 수축되고 압축되며 냉각된다. 그 크기가 30배--오히려 실제 물질 총 내용물의 30배-- 이상이 될 때, 항성은 즉시 두 개의 개별 본체로 나뉘는데, 새로운 체계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의 인력 지배 범위 안에 남아서, 이중{二重} 별의 한 유형으로서, 공통된 중심의 주변을 회전한다.

41:3.5 (458.5) 오르본톤에서 주요 시공우주 폭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은, 보통과는 다른 한 쌍의 별이 탄생되는 폭발이었는데, 그 빛이 서기 1572년에 유란시아에 도달했다. 이 빛은 너무 강렬해서 환한 대낮에도 분명히 관측될 수 있었다.

41:3.6 (458.6) 별들이 전부 고체 상태는 아니지만, 오래된 많은 별이 고체 상태다. 붉은 빛을 띤, 희미하게 깜박이는 어떤 별들은, 그 거대한 덩어리의 중심에서, 만일 유란시아에서 무게를 잰다면 그런 별의 1입방 인치가 6천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표현될만한 밀도에 도달했다. 그 거대한 압력은 결과적으로, 열 손실과 순환하는 에너지로 인해, 이제 전자{電子}가 응축되는 상태에 근접할 때까지, 기본 물질 단위의 궤도들이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이런 냉각 및 응축 과정은, 결정적인 궁극체{窮極體} 응축 임계 폭발 지점까지 계속될 수 있다.

41:3.7 (459.1) 대부분의 거대한 항성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대부분의 작은 별은 오래 된 것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 충돌하는 작은 별들은 아주 젊을 수 있고, 강한 흰 빛을 내면서 이글거릴 수도 있는데, 젊게 빛나는 초기의

붉은 빛 단계는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다. 매우 젊은 항성들과 매우 늙은 항성들은 모두, 대개 붉은 색을 띠면서 빛난다. 노란 색조는 중간 정도로 젊거나 노년기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찬란한 흰 빛은 튼튼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년기 생애에 있음을 의미한다.

41:3.8 (459.2) 청년기 항성들 전체가 정확하게 고동치는 단계를 지나가지는 않는데, 적어도 눈에 띄게 그렇지는 않은 반면, 우주 바깥쪽을 바라볼 때, 너희는 거대한 호흡 용기가 한 주기를 완성하기에 2일에서 7일이 소요되는, 비교적 젊은 이런 별을 많이 관측할 수 있다. 너희의 태양은 젊은 시절에 강력하게 부풀어 오름으로 생긴 후유증을,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기간은 이전에 3.5일마다 맥동하던 것에서, 현재는 11.5년의 태양흑점 주기로 길어졌다.

41:3.9 (459.3) 변광성{變光星}들은 수많은 기원을 갖는다. 어떤 이종의 별에서는 두 본체가 자기 궤도를 돌 때, 거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조류{潮流}가 일어나고, 또한 주기적 광선 파동이 생긴다. 이 인력 변동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불꽃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마치 그

표면에서 에너지_물질의 증가로 운석 흡인이 비교적 갑작스런 섬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섬광은 그 항성의 정상적인 밝기로 급격히 줄어든다. 때때로 항성은 약화된 인력 저항과 일치하는 한 줄기의 운석들을 흡인하며, 가끔 별 모양의 섬광을 만드는 충돌이 일어나게 하지만, 그런 현상 대부분은 전적으로 내부의 변동 때문이다.

41:3.10 (459.4) 하나의 변광성{變光星} 집단에서 빛 파동 기간은, 광도{光度}에 따라 직접 좌우되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그런 항성을 우주 등대{燈臺}로 활용하거나, 멀리 있는 별 집단들에 대한 더 앞서는 탐구를 위한 정확한 측량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으로, 백만 광년이 넘기까지 별들 사이의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공간 측정을 위한 더 나은 방법과 개선된 망원경 기법이, 언젠가는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10개 대구역을 더 자세하게 보여줄 것이며;너희는 이 광대한 구역 중에서 적어도 여덟 개에 대해서는, 거대하고 그런대로 균형 잡힌 별 다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4. 항성 밀도

41:4.1 (459.5) 너희 태양의 질량은, 약 2옥틸리언(2 곱하기 10의 27승)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너희 물리학자들의 측정치보다 약간 크다. 그것은 현재 가장 조밀한 별과 가장 이완된 별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데, 물보다 약 1.5배의 밀도다. 그러나 너희의 태양은 액체가 아니고 고체도 아니며--즉 기체 상태이며--, 기체 상태의 물체가 어떻게 이런 밀도, 심지어 그보다 더 큰 밀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이것은 사실이다.

41:4.2 (459.6) 기체, 액체, 및 고체 상태는 원자와_분자 관계의 문제이지만, 밀도는 공간과 질량의 관계다. 밀도는 공간에서 물체의 양에 정비례로 변하고, 물체 속의 공간 부피에는 반비례로 변하는데, 이 공간은 물체의 중앙 핵심과 이 중심을 도는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며, 그런 물질 입자들 안에 있는 공간이다.

41:4.3 (459.7) 식어가는 별들은 물리적으로 기체상태이고, 크게 농축돼 있을 수 있다. 너희는 항성의 *초월기체*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비롯해 다른 비정상 물질 형태를 보면, 심지어 고체가 아닌 항성들이 쇠와 비슷한--곧 유란시아와 거의 동일한-- 밀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게다가 심하게 가열된 기체 상태에 있으면서도
항성으로서 계속 작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농축된 이
초월기체 속의 원자들은 유난히 작으며;약간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 항성들은 또한 자유로운 궁극체의 에너지
비축량을 크게 상실했다.

41:4.4 (460.1) 너희의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으로 탄생된, 너희
가까이에 있는 항성들 가운데 하나는, 현재 유란시아
크기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수축됐는데, 너희의 태양보다
4만 배에 해당하는 밀도가 돼가고 있다. 뜨거운_기체이자
차가운_고체인 이것의 무게는 1입방 인치당 1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항성은 여전히 희미한 붉은 광채로
빛나는데, 죽어가는 빛의 제왕{帝王}이 발산하는, 노쇠한
가물거리는 빛이다.

41:4.5 (460.2) 그러나, 대부분의 항성은 그렇게 밀도가 크지
않다. 너희에게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의
해수면{海水面} 대기와 아주 똑같은 밀도를 갖고 있다.
너희가 이 항성 내부에 있다면,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온도가 허락한다면, 너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항성 대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의 거실에서 느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41:4.6 (460.3) 오르본톤에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인 베룬티아라는 거대한 항성은, 유란시아 대기 밀도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이 너희의 대기와 비슷하고 심하게 가열된 성질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그 속에 또는 그 위에 있게 될 때 곧 숨 막힐 정도의 그런 진공상태일 것이다.

41:4.7 (460.4) 오르본톤에 있는 다른 거대한 항성들은 현재 3천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다. 그 직경은 3억 마일보다 크다--너희의 태양과 지구의 현재 궤도를 수용할만한 거대한 공간이다. 그렇지만, 너희의 태양보다 4천만 배 넘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질량은 오직 30배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이 항성들의 외변{外邊}은, 한 항성에서 다른 항성에 도달할 정도로 확장한다.

5. 항성 방사선

41:5.1 (460.5) 공간에 있는 항성들이 매우 조밀하지는 않다는 사실은, 탈출하는 빛_에너지가 안정되게 흐르는 것으로 증명된다. 밀도가 과도하게 크다면, 빛_에너지 압력이

폭발점에 이를 때까지, 부전도성{不傳導性}으로 빛을 억압시킬 것이다. 항성 안에는, 대량의 에너지, 빛, 및 열을,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에게 공급하기까지 수백만 마일의 공간을 통과할 만큼, 대량의 에너지를 쏟아내게 하는 엄청난 빛 또는 기체 압력이 있다. 원자핵분열의 결과로 축적되는 에너지의 증가되는 내부 압력이 바깥으로 무시무시하게 폭발해서 인력을 압도할 때까지, 유란시아의 밀도를 가진 15피트 두께의 표면이, 모든 X 광선과 빛_에너지가 항성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다.

41:5.2 (460.6) 빛은, 추진력 있는 기체들이 현존하는 가운데, 높은 온도에서 불투명한 차단 벽에 갇히게 될 때 큰 폭발력을 갖는다. 빛은 실재한다. 너희 세계에서 에너지와 동력에 가치를 부여하듯이, 태양광은 한 파운드당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41:5.3 (460.7) 너희 태양의 내부는 거대한 X _광선 발생기다. 항성들은 이런 강력한 방사물을 끊임없이 퍼부어냄으로써 내부로부터 힘을 얻는다.

41:5.4 (460.8)

평범한 항성의 중심점에서 항성 표면에
이르기까지, X-광선으로 자극된 전자{電子}가 고유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데는 약 50만 년 이상 소요되는데,
거기서부터 그 전자는 우주 모험을 시작해서, 인간거주
행성을 따뜻하게 하거나, 운석에 흡수되거나, 어떤 원자의
탄생에 참여하거나, 공간에 있는 심하게 축적된 흑암 섬에
흡수되거나, 또는 그것이 기원된 것과 비슷한 어떤 항성의
표면 속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우주 비행을 끝낸다.

41:5.5 (461.1)

항성의 내부 X 광선은, 고도로 가열되고 동요된
전자들을 충분한 에너지로 축적하여, 공간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끼어드는 물질의 억류하는
영향력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력 흡수작용에도, 외딴
체계의 먼 구체에 이르기까지 운반한다. 항성 인력 속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를 갖는 엄청난 에너지는,
항성광선이 상당히 큰 물질 덩어리에 부딪히게 될 때까지
줄어들지 않는 속도로 여행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며;그렇게 부딪힌 후에는 다른 에너지를
배출하면서 급속도로 열로 변환된다.

41:5.6 (461.2) 에너지는, 빛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지, 공간을 통과해 날아갈 때 직진해서 움직인다. 물질 실존의 실제 입자들은 연발{連發}하는 형태로 공간을 지나간다. 초월적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낙원 섬의 순환_인력{引力} 현존과 물질 질량 속에 내재하는 직선_인력 흡인력에 계속 반응하는 경우 외에는, 이 입자들은 똑바르고 연속적인 선 또는 행렬을 이루면서 움직인다.

41:5.7 (461.3) 항성 에너지는 마치 파동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공존하는 다양한 영향의 작용 때문이다. 일정한 형태의 조직된 에너지는, 파동이 아니라 직선으로 진행한다. 힘_에너지의 둘째 또는 셋째 형태의 현존은, 관측되는 흐름이 파도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강력한 바람과 함께 동반되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풍우 속에서 빗방울이 어떤 때에는 평면을 이루며 떨어지는 것처럼, 또는 파도치며 내리는 것처럼 보임과 똑같다. 빗방울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하는 직선 형태로 떨어지지만, 바람의 작용이 빗방울로 하여금 평면의 물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41:5.8 (461.4) 너희 지방우주 공간 범위에 현존하는, 특정한 2차 에너지와,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의 작용은, 항성_광선의 발산을 일정한 길이와 무게를 갖는 극미한 부분들로 나눌 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치는 현상을 연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너희는 네바돈 공간 지역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공간_세력 및 항성 에너지의 상호작용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획득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는, 빛의 행태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기를 거의 희망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동은, 이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그 문제가 총괄우주의 인격적 및 비인격적 통제의 상호연합 활동과--곧 공동 행위자 그리고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 실행, 및 협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6. 칼슘--공간의 떠돌이

41:6.1 (461.5) 분광{分光} 현상을 해독할 때,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그리고 공간을 지나가는 그 빛은, 조직된 모든 공간 속에서 순환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다양한 형태로 말미암아, 때로 약간씩 변경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 태양의 분광현상에서 나타나는,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표시하는 계통 가운데 더러는, 분산된 형태로 우주 전반에 걸쳐 떠다니고 있는, 잘 알려진 원소들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이 원소들은 항성 원소 사이의 전투에서 맹렬한 충돌로 희생되는 원자다. 공간은 이런 떠돌아다니는 낙오자들, 특히 나트륨과 칼슘으로 가득 차 있다.

41:6.2 (461.6) 사실, 칼슘은 오르본톤 전역에서 공간을 물질로 채우는 주요 요소다. 우리의 연방우주 전체는, 끊임없이 분쇄되는 석영으로 뿌려져 있다. 석영은, 공간에 있는 행성과 구체들에게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건축 재료다. 거대한 우주 담요인 시공우주 구름은, 칼슘의 변경된 원자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석영 원자는 원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불변적인 것 가운데 하나다. 석영 원자는 항성 이온화를--곧 분리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X 광선들로 인해 분쇄되고, 높은 항성 온도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후에도, 결합하는 본성을 유지한다. 칼슘은 비교적 일반적인 물질 형태 전체를 능가하는, 개체성과 긴 수명을 갖고 있다.

41:6.3 (462.1) 너희 물리학자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항성 칼슘이라는, 불구{不具}가 된 이 잔존물은, 글자 그대로

다양한 간격으로 광선을 타고 가며, 그리하여 칼슘이 공간에 두루 산포되도록 엄청나게 촉진시켰다. 나트륨 원자는 어떤 변경이 있을 때, 역시 빛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칼슘의 공로가 훨씬 더 놀랄만한 이유는, 이 원소가 나트륨보다 거의 두 배의 질량을 갖기 때문이다. 칼슘이 국지적인 공간에 침투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탈출하는 항성광선에 올라탐으로써, 변경된 형태 속에서 항성 광구{光球}로부터 탈출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전체 항성 원소 중에서 칼슘은 -- 20개의 회전하는 전자를 포함하다시피 -- 비교적 부피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항성 내부로부터 공간 영역으로 탈출한다. 이것은, 기체상태의 돌 껍질인 칼슘 층이 항성 위에 6천 마일 두께로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며;비교적 가벼운 19개의 원소 및 비교적 무거운 수많은 원소가 그 밑에 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41:6.4 (462.2) 칼슘은 항성 온도에서 활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원소다. 석영 원자는 두 개의 바깥쪽 전자 궤도에, 회전이 빠르고 느슨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매우 근접해 있다. 원자가 격변하는 초기부터,

석영 원자는 바깥쪽 전자를 잃어버리며;그에 따라, 열아홉 번째 전자가 열아홉 번째와 스무 번째 전자 회전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멋대로의 요술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 전자 자체의 궤도와 잃어버린 동무의 궤도 사이를 매초 25,000번씩 왔다 갔다 하도록, 이 열아홉 번째 전자를 내던짐으로써, 불구가 된 석영 원자는 인력을 부분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떠오르는 빛과 에너지의 흐름, 즉 항성 광선에 성공적으로 올라타면서 자유롭게 모험을 떠나게 된다. 이 칼슘 원자는, 매초 25,000번 항성광선을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교류 진동으로, 앞쪽으로 추진하여 밖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것은, 왜 석영이 공간에 있는 세계들의 주요 요소인지, 설명해 준다. 칼슘은 가장 유능한 항성_감옥 탈옥수다.

41:6.5 (462.3) 재주 부리는 이 칼슘 전자의 민첩성은, 고열_ X _광선의 항성 세력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높은 궤도 원주로 던져질 때, 그 전자가 1초의 약 100만분의 1 동안만 그 궤도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지만;원자 핵의 전기와_인력의 위력이 전자를 그 옛 궤도 속으로 잡아당기기 전에, 그 전자는 원자 중심을 백만 번 회전할 수 있다.

41:6.6 (462.4) 너희의 태양은 많은 양의 칼슘을 내뿜어 왔는데, 태양계의 형성과 관련된 급작스런 폭발이 있는 동안, 엄청난 양을 방출했다. 태양 칼슘의 상당 부분은 지금 태양의 바깥쪽 껍질 속에 있다.

41:6.7 (462.5) 분광{分光} 분석은 오직 항성_표면 구성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태양 분광은 철{鐵} 계통을 많이 나타내지만, 철은 태양에서 주요 원소가 아니다. 이 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태양 표면의 현재 온도 때문인데, 그 온도는 6,000도를 약간 밑돌며, 철 분광이 등록되기에 아주 적합하다.

7. 항성 에너지의 근원

41:7.1 (463.1) 너희의 태양은 물론, 많은 항성의 내부 온도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어떤 항성 내부에는 온전한 원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이 원자들은 모두, 그런 높은 온도에 고유하게 있는 강한 X_광선 충격 때문에 다소 분쇄돼 있다. 항성의 비교적 바깥층들에서 무슨 물질 원소가 나타날 수 있느냐에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원소들은 파괴적인 X_광선의 분열

작용으로 인해 매우 비슷하게 된다. X _광선은 원자의 실존을 평준화시키는 대단한 도구다.

41:7.2 (463.2) 너희 태양의 표면 온도는 거의 6,000도에 이르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중앙 지점에서는 약 3,500만 도에 이르는 믿을 수 없는 고온을 갖는다. (이 모든 온도는 너희의 화씨 단위에 기준한 것이다.)

41:7.3 (463.3) 이런 모든 현상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암시하며, 항성 에너지 근원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1:7.4 (463.4) 1. 원자의 소멸, 그리고 결국에는 전자의 소멸.

41:7.5 (463.5) 2. 이렇게 해방된 방사성 에너지 집단을 포함한, 원소들의 변질.

41:7.6 (463.6) 3. 어떤 우주의 공간_에너지를 축적함과 전달함.

41:7.7 (463.7) 4. 타오르는 항성 속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가는 공간 물질 및 운석.

41:7.8 (463.8) 5. 항성의 수축;공간 물질이 공급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와 열을 산출하는 항성의 냉각과 그에 따른 수축.

41:7.9 (463.9) 6. 순환된 어떤 힘을 방사성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온{高溫}의 인력 작용.

41:7.10 (463.10) 7. 항성 체계 밖에서 기원된 다른 에너지들을 포함해서, 항성을 떠난 후에 다시 그 속으로 이끌리는 회수된 빛과 기타 물질.

41:7.11 (463.11) (때로는 수백만 도에 이르는) 뜨거운 기체로 된 조절 막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항성을 감싸고, 열 손실을 안정시키도록 작용하며, 그밖에 열이 분산되는 위험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한다. 한 항성이 활동하는 동안, 3,500만 도에 이르는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의 점진적 하강에 거의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41:7.12 (463.12) 너희는 3,500만 도의 열을, 어떤 인력의 압력과 관련해서, 전자{電子}가 끓는 온도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런 압력 하에서는, 그리고 그런 온도에서는, 모든 원자가 퇴화하고, 전자를 비롯한 다른 것들의 원조{元祖}인

구성성분으로 분열되며;심지어 전자와 기타 궁극체의 결합이 분열되더라도, 항성은 궁극체로 퇴화할 수 없다.

41:7.13 (463.13) 이 항성 온도가 궁극체와 전자를 크게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후자{後者}와 같은 것들은 이런 조건하에서 그 실존을 계속 유지한다. 너희는 보통의 물 한 방울이 1조{兆}의 10억 배 이상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숙고할 때, 궁극체 활동과 전자 활동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높은 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100마력{馬力}을 2년 동안 계속 사용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현재 매초 뿜어내는 전체 열은, 유란시아 바닷물 전체를 단 1초만에 모두 끓어오르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41:7.14 (464.1) 우주 에너지의 주요 흐름 가운데, 직통 경로 속에서 작용하는 항성들만이 영구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항성 불꽃은 무기한으로 타오르는데, 공간_세력과 순환하는 비슷한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항성의 물질 손실을 보충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재충전하는 이 주요 경로에서 멀리 옮겨진 별들은, --점차 식어지고 결국에는 타버리는-- 에너지 고갈을 겪게 돼 있다.

41:7.15 (464.2) 죽었거나 죽어가는 그런 항성들은, 충돌의 영향으로 다시 젊어지거나, 공간에 있는 빛나지 않는 어떤 에너지 섬으로 인해서, 또는 근처에 있는 작은 항성 또는 체계를 인력{引力}으로 강탈함으로써, 재충전 받을 수 있다. 죽은 항성들 대부분은 이런 기법 또는 다른 진화 기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 중에서 결국 이렇게 재충전되지 못한 것은, 인력으로 인한 응축이, 궁극체가 에너지 압력으로 응축되는 결정적 수준에 도달할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붕괴되게 돼 있다. 사라지는 그런 항성은, 이렇게 해서 아주 희귀한 형태의 에너지가 되는데, 더 순조롭게 자리 잡은 다른 항성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하다.

8. 항성 에너지의 반응

41:8.1 (464.3) 공간_에너지 경로 속에 회로가 형성돼 있는 항성의 경우에, 다양한 복합 연쇄 핵_반응으로 말미암아 항성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수소_탄소_헬륨 반응이다. 이런 변질 작용에서, 탄소가 에너지 촉매로서 작용하는데,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탄소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의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수소가

탄소 원자핵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탄소는 그런 양성자를 네 개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포화 상태가 이뤄졌을 때, 새로운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양성자들을 방출한다. 이런 반응 속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소 입자들이 하나의 헬륨 원자가 되어 나오게 된다.

41:8.2 (464.4) 수소 함유량의 저하{低下}가 항성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타버릴 운명에 있는 항성들 안에서는, 수소가 다 소모되는 순간에 그 밝기가 절정에 도달한다. 이런 지점에 도달한 후에, 인력으로 인한 응축 과정으로 밝기가 유지된다. 그런 별은 결국, 소위 하얀 난쟁이 별이라고 불리는, 매우 응축된 구체가 될 것이다.

41:8.3 (464.5) 큰 항성--곧 작은 원형{圓形} 성운--의 경우에, 수소가 고갈되고 인력으로 인한 응축이 일어날 때, 그런 덩어리가 외부 기체 지역을 지탱할 정도로 내부 압력을 유지시킬 만큼 충분히 불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갑작스런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 인력과_전기{電氣}의 변화로 인해, 전기 잠재력이 없는 엄청난 양의 미세 입자들이 발생되며, 그런 입자들은 항성 내부로부터 즉시 탈출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거대한 항성이 수일 내에

붕괴된다. 50여 년 전에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거대한 신성{新星}이 붕괴된 것은, 이런 “탈출하는 입자들”의 이주{移住} 때문이었다. 이 거대한 별 덩어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40분 만에 붕괴됐다.

41:8.4 (464.6) 일반적으로, 광대하게 분출된 물질은, 식어가는 남은 항성 근처에, 방대한 성운 기체 구름으로서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게자리 성운 같은 여러 유형의 불규칙 성운이 기원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게자리 성운은 약 900년 전에 기원됐으며, 불규칙적인 이 성운 덩어리 중심 근처에 홀로 있는 별로서, 어미 구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9. 항성의 안정성

41:9.1 (465.1) 큰 항성들은, 강력한 X 광선의 도움을 얻어야만 빛이 겨우 탈출할 만큼, 자체의 전자들에 대한 상당한 인력 통제를 유지한다. 이 도우미 광선은 모든 공간을 관통하며, 에너지의 기본 궁극체 결합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항성이 -- 3,500만 도가 넘는 -- 최대 온도에 도달한 다음에, 항성에서 초기 시절에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손실은, 빛의 탈출보다 궁극체의 누출{漏出} 때문이다. 이 궁극체

에너지는, 항성의 청년기 시절 동안 진정한 에너지 돌풍으로서, 전자{電子}로 결합되고 에너지를 물질화하는 모험에 참여하기 위해 우주 속으로 탈출한다.

41:9.2 (465.2) 원자와 전자는 인력{引力}의 지배를 받는다. 궁극체는 국지적 인력, 즉 물질의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절대인력인 낙원 인력, 즉 온갖 우주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궤도의 성향인 회전성향에는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 궁극체의 에너지는,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물질 덩어리의 직선 인력이나 직접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광범위한 창조물의 거대한 타원 회로에는 늘 그대로 맞춰서 돈다.

41:9.3 (465.3) 너희 태양의 중심은, 매년 거의 1,000억 톤에 해당하는 실제 물질을 방출하며, 한편 거대한 항성들은, 그 초기 성장 기간, 즉 처음 10억 년 동안, 경이적인 비율로 물질을 방출한다. 항성의 생명은 내부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안정되며, 원자{原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임계점에서, 큰 항성들이 격렬한 맥동{脈動}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41:9.4 (465.4) 항성의 안정성은 --거대한 압력과 상상할 수 없는 온도가 균형을 이루는-- 대립{對立}하는 인력과_열 사이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항성들의 내부 기체 탄력성이, 다양한 물질로 뒤덮이는 층들을 지탱하며, 인력과 열이 평형을 이룰 때, 외부 물질의 무게가, 밑에 있는 내부 기체의 온도 압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많은 젊은 별의 경우에, 인력으로 인한 계속된 응축이 내부 온도를 계속_증가하게 만들며, 내부의 열이 올라감에 따라서, 초월기체 폭풍의 내부 X_광선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 원심{遠心} 운동과 관련해, 항성은 비로소 그 바깥쪽 층들을 공간 속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며, 그리하여 인력과 열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41:9.5 (465.5) 너희의 태양은, 팽창하고 응축하는 그 주기 사이에 비교적 균형을 이룬지 오래 됐는데, 이런 소동{騷動}은 비교적 다수의 젊은 별에서 거대한 맥동을 일으킨다. 너희 태양의 나이는 현재 60억 년을 지나고 있다. 태양은 지금 가장 경제적인 기간을 지나면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효율로 250억 년 이상 빛을 발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쇠퇴 기간을 겪게 될 것이고, 아마 초기 기간과 안정된 작용을 하는 기간을 합친 만큼 길 것이다.

10. 인간거주 세계의 기원

41:10.1 (465.6) 어떤 변광성은, 최대의 맥동 상태에 있거나 그에 가까울 때, 종속되는 체계들을 기원시키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들 가운데 다수는, 결국 바로 너희의 태양 및 태양을 도는 행성들과 매우 흡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태양은,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가까이 회전하며 들어올 때 크게 진동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며, 태양의 외부 표면이 실제적인 물질 흐름들을 --이어지는 폭포수 같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가장 가까이 병렬 상태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점점 더 맹렬하게 지속됐고, 태양 응집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자, 태양계의 조상인 방대한 물질이 정점{頂點}에 이르기까지 세차게 배출됐다. 비슷한 상황에서, 끌어당기는 그 덩어리가 가깝게 접근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항성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전체 행성들로 빠져 나오기도 한다. 이런 큰 분출 현상은, 구름이_둘러싸는 듯한 어떤 특이한 유형의 세계, 즉 목성과 토성 비슷한 구체들을 형성한다.

41:10.2 (466.1) 아무튼, 항성 체계 대부분은, 너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기원됐으며, 이것은 인력의_조수작용{潮水作用} 기법으로 산출되는 것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세계가 건설되든지, 항성 체계 유형;즉 행성, 위성, 하위위성, 및 운석과 더불어, 중앙에 있는 항성 또는 흑암 섬 등을 항상 인력이 만들어낸다.

41:10.3 (466.2) 개별 세계의 물리적 양상은 대체로, 기원된 방법, 천문 상황, 및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이, 크기, 회전 비율, 우주로 날아가는 속도 역시 결정 요인이다. 기체가_응축함으로써 생성되는 세계는 물론, 고체가_증가됨으로써 생성되는 세계 역시, 산{山}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초기 생애 동안에 너무 작지 않을 때, 물과 공기를 갖는 특징이 있다. 녹아서_갈라진 세계와, 충돌로 생긴 세계들의 경우에는, 광범한 산맥이 없는 때도 있다.

41:10.4 (466.3) 이런 모든 새로운 세계의 초기 시대 동안,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모두가 거대한 물리적 격변을 겪는 특징이 있으며;특히 이것은 기체가_응축돼서 생긴 구체에 적용되는데, 이런 세계는 어떤 개별 항성이 초기에 응축하고 수축한 결과로 남겨진 거대한 성운 고리에서 발생된다. 유란시아처럼 이중 기원을 갖는 행성들은,

격변이 적고 덜 소란스런 청년기 생애를 거친다.
그렇더라도, 너희 세계는 초기 단계에, 화산, 지진, 홍수, 및
엄청난 폭풍우를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격변을 체험했다.

41:10.5 (466.4)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의 외곽에서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너희 태양계는 하나의 예외를 빼고,
예루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한편 사타니아
자체는, 노라티아텍의 최외곽에 있는 체계에 근접해 있고,
이 성좌는 현재 네바돈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통과하고
있다. 미가엘의 증여로 인해서 너희 행성이 명예롭고
우주의 큰 관심을 끄는 지위를 얻기까지, 너희는 정말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찮은 것 가운데 하나였다.
때로는 나중 것이 처음 것이 되는 반면,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기도 한다.

41:10.6 (466.5) [네바돈 동력 중심들의 우두머리와 협력해서, 한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42편

에너지--정신과 물질

42:0.1 (467.1) 에너지가 모든 실존의 토대라는 면에서 볼 때,
우주의 기초는 물질이며,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순수한

에너지를 통제하신다. 힘, 즉 에너지는 우주 절대자의 실존과 현존을 증명하고 입증하면서 영구히 서 있는 유일한 기념비다. 낙원 현존들로부터 나오는 이 광대한 에너지 흐름은 결코 쇠퇴한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무한한 지탱{支撐}은 결코 무너진 적이 없었다.

42:0.2 (467.2) 우주 에너지는, 만유의 아버지 자신의 뜻과 온전히_지혜로운 명령에 언제든지 일치하도록 조종된다. 영원한 아들의 대등한 행동과 결정이, 또한 공동 행위자가 실행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일치된 목적이, 형태화된 동력과 순환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친히 통제하는 것을 수정한다. 이 신성한 존재들은 친히 개별적으로 활동하며;또한 그들은 거의 무한한 숫자의 권속들의 인격자와 권능 속에서 활동하는데, 이들 각자가 온갖 우주에서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신성한 능력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잠정적으로 수정하거나 변질시킨다고 해서,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_에너지를 궁극적으로 통제하신다는 말이 진리임을, 어떤 면으로도 훼손하지 않는다.

1. 낙원 힘과 에너지

42:1.1 (467.3) 우주의 기초는 물질이지만, 생명의 본질은 영이다. 영들의 아버지는 우주들의 조상이기도 하며;원본 아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원래의 원형{原型}, 즉 낙원 섬의 영구_근원이기도 하다.

42:1.2 (467.4) 물질은--곧 에너지는--, 동일한 시공우주 실체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므로, 우주 현상으로서 만유의 아버지 안에 고유하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물질은 선천적 에너지를 드러내고 자급_자족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물리 현상에 관여하는 에너지에 연관된 인력{引力} 계통은, 낙원으로부터 유래하고 낙원에 의존한다. 측정 가능한 첫 에너지 형태인 궁극체는, 낙원을 자체의 핵으로 삼는다.

42:1.3 (467.5) 물질에 내재하고 우주 공간에 현존하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에너지 형태가 있다. 이것이 결국 발견되면,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물질의 신비를 적어도 거의 파헤쳤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창조주에게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될 것이며;신성한 기법을 한 국면 더 정복하겠지만;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낙원의 시공우주 기법과 만유의 아버지께서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과는 다르게 물질을 실존하게 한 것도, 자연 법칙을 작동시킨 것도 아닐 것이다.

42:1.4 (468.1) 훨씬 더 큰 진보와 추가적인 발견이 있는 다음, 유란시아가 현재의 지식 수준과 비교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한 후에, 너희가 물질로 된 전기{電氣} 장치의 에너지 순환을 그 물리적 징후를 변경시키는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런 모든 가능한 진보 이후에도, 과학자들은 물질 원자 한 개를 창조하거나, 한 번 반짝이는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물체에 덧붙이거나 하는 일은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다.

42:1.5 (468.2) 에너지 창조와 생명 증여는 만유의 아버지와 그 동역 창조주 인격체들의 특권이다. 에너지와 생명의 강은 신격들로부터 계속 분출되고 있는데, 공간 전체로 쏟아져 나가는 낙원 힘의 보편적이고 일치된 흐름이다. 이 신성한 에너지가 전체 창조물에 가득 차 있다. 결국 에너지가 되는 공간_힘의 그런 변화를, 힘을 조직하는 존재들이 개시하고, 그런 변경을 시작하며;동력 지휘자들은

에너지를 물질로 변질시키며;그리하여 물질 세계들이 탄생된다. 생명 운반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 즉 죽은 물질 속에서 물질 생명을 개시한다.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과도기 영역에 두루, 마찬가지로 실행한다. 더 높은 영 창조주들이, 신성한 에너지 형태로써 비슷한 과정을 태동시키며, 그 결과로 상류 영 형태의 지성 생명체가 생긴다.

42:1.6 (468.3) 에너지는 낙원으로부터 나아가는데, 신성한 질서에 따라 형성된다. 에너지는--곧 순수 에너지는--, 신성한 조직의 성질을 띠며;세 분 하나님이 온갖 우주의 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이, 한 분 속에 포함된 세 분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든 힘은 낙원에 회로화돼 있는데, 낙원 현존들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돌아가며, 본질적으로 원인 없는 원인의--곧 만유의 아버지의-- 형태화{形態化}이며;아버지 없이는, 존재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42:1.7 (468.4) 스스로_실존하는 신격으로부터 유래된 힘은 본질적으로 늘 존재한다. 힘과_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무한자의 이런 형태화는, 무제한적 변환, 끝없는 변형, 그리고 영원한 변질을 겪을지 모르지만;어떤 의미나 정도로 보더라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무한자의 이런 형태화는 사라질 수 없었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자로부터 나왔더라도, 에너지는 무한하게 형태화 되지는 않으며;현재 표현된 총괄우주에는 외부 한계가 있다.

42:1.8 (468.5) 에너지는, 영원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으며;전부_포함하는 무한성의 지배력에 언제든지 반응한다. 힘과 에너지는 영구히 계속되며;낙원으로부터 나갔으므로, 규정된 순회여행을 마치기까지 끝없이 긴 세월이 소요될지라도,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낙원 신격에서 기원된 것은, 오직 낙원을 목적지로, 즉 신격을 운명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42:1.9 (468.6)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갖 우주가 순환하며 어느 정도 제한돼 있지만 질서정연하고 광범위하다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느 지점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증거가 곧 나타났을 것이다. 모든 법칙, 조직, 경영, 그리고 우주 탐험가들의 증언 등이-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우주는, 실존이 끝없이 순환하는, 비교적 무제한이지만 그럼에도 무한성과 비교할 때에는 유한한 실존이다.

2.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리적 에너지)

42:2.1 (469.1) 다양한 수준의 힘과 에너지를 --곧 물리적, 정신적, 또는 영적 에너지를-- 가리킬만한, 그리고 묘사할만한 적당한 단어를 영어{英語}에서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 이야기들은, 힘, 에너지, 및 동력에 대해서 너희가 내린 통념적 정의를 일괄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본 문서의 경우에, 예를 들면, *에너지*라는 단어는, 현상적 움직임, 행위, 및 잠재적인 모든 국면과 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이며, 한편 *힘*은 인력{引力} 이전{以前} 에너지 단계에, *동력*은 인력_이후 에너지 단계에 적용된다.

42:2.2 (469.2) 아무튼, 나는 시공우주의 힘, 떠오르는 에너지, 및 우주 동력에 대한--곧 물리적 에너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분을 채택하도록 권함으로써, 개념의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42:2.3 (469.3) 1. **공간 잠재력**.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의 명백하게 자유로운 공간 현존이다. 이 개념의 적용범위는, 무조건 절대자의 기능적 전체성에 내재하는 우주 힘_공간 잠재성을 포함하며, 한편 이 개념이 내포하는 것은 전체 시공우주 실체를--곧 우주들을-- 암시하는데, 이 실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낙원 섬으로부터 영원성방향으로 발산됐다.

42:2.4 (469.4) 낙원 아래쪽에서 고유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힘이 현존하고 실행하는 세 지대{地帶}를 아마 포함할 것인데:무조건 절대자의 지레받침 지대, 낙원 섬 자체 지대, 그리고 어떤 확인되지 않은, 평준화 하고 보정하는 매개체 또는 기능을 가진 중간 지대다. 이 세 동심{同心} 지대는 시공우주 실체의 낙원 순환을 일으키는 중심체다.

42:2.5 (469.5) 공간 잠재력은 실체가 되기 이전{以前}이며;무조건 절대자의 영역이고,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 지배에 대해서만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이 현존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42:2.6 (469.6) 우버사에서는 공간 잠재력을 절대세력이라고 부른다.

42:2.7 (469.7) 2. **근본 힘**. 이것은 공간 잠재력에서 처음 생기는 기본적 변화를 나타내며, 무조건 절대자가 하부 낙원에서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는, 하부 낙원에서 나가는 공간 현존이, 들어오는 공간과는 어떤 면에서 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가능한 관계든지 상관없이, 널리 인식된, 공간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낙원 힘 조직가들이 균형상태에서_현존함으로써 1차적으로 차별시키는 기능이다.

42:2.8 (469.8) 결말에 이른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의 공간 현존이 제공하는 저항{抵抗}에 반응해서, 수동적이고 잠재적인 힘은, 능동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된다. 힘은 이제 무조건 절대자의 독자적 영역으로부터 떠올라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이것은 행동의 하나님께서 개시한 어떤 시초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

우주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정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생기는 반응이다. 근본적인 힘은, 절대성에 비례하는 초월 인과관계에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42:2.9 (469.9) 근본 힘은 때로 *순수 에너지*라고 불리는데, 우버사에서는 우리가 격리세력으로 언급한다.

42:2.10 (470.1) 3. *떠오르는 에너지*. 1차 힘 조직가들의 수동적 현존은, 공간 잠재력을 근본적인 힘으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하며, 그런 활성화 된 공간 지역에서, 바로 이 힘 조직가들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근본적인 힘은, 우주 동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가 형태화되는 영역에서 두 가지 뚜렷한 변질 국면을 거치게 돼 있다. 두 수준의 떠오르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42:2.11 (470.2) a. *유력{有力} 에너지*. 이것은 강력한_지향성을 가진, 집단으로_움직이는, 강력하게_긴장된, 그리고 힘차게_반응하는 에너지다-- 1차 힘 조직가들이 활동함으로써 움직이게 된 거대한 에너지 체계들이다. 이 1차 에너지, 즉 유력 에너지는, 처음에는 낙원_인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하부 낙원으로부터 작용하는, 절대 영향력의 집단적 무리에 대해서 총_질량의

반응, 즉 공간에서_방향성있는 반응을 생기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낙원의 순환 및 절대_인력 지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하는 수준으로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 1차 힘 조직가들은 2차 동역자들이 활동하도록 양보한다.

42:2.12

(470.3)

b. *인력(引力) 에너지.* 이제_나타나는 인력에_반응하는 에너지는, 우주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며, 모든 우주 물질의 활기찬 조상이 된다. 이 2차 에너지, 즉 인력 에너지는, 초월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이 일으킨 압력_현존 및 긴장상태_경향으로부터 발생되는 에너지를 다듬은 결과물이다. 이 힘 조종자들의 업무에 반응해서, 공간_에너지는 유력 단계로부터 인력 단계로 재빨리 넘어가며, 그리하여 낙원 (절대적) 인력의 순환 지배력에 직접 반응하게 되며, 한편 에너지와 물질의 전자{電子} 단계 및 전자_이후 단계에서 빨리 나타나는 물질 덩어리 속에 내재하는 직선_인력의 끌어당김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민감성을 드러낸다. 인력 반응이 출현한 뒤에, 만일 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그 활동 분야에 배정될 수 있다면, 부{副} 총괄 힘 조직가들은 공간의 에너지 회오리바람으로부터 물러날 것이다.

42:2.13 (470.4) 우리는 힘이 방출되는 초기 단계의 정확한 원인에 관해서 아주 확신하지는 않지만, 떠오르는_에너지가 형태화되는 두 수준에서 궁극자의 지성 행위를 인식한다. 유력 에너지와 인력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고려할 때, 우버사에서는 궁극세력이라고 부른다.

42:2.14 (470.5) 4. 우주 동력. 공간_힘은 이미 공간_에너지로, 그 다음에는 인력이 통제하는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물리적 에너지가 무르익어서, 동력 경로 속으로 유도될 수 있고, 우주 창조주들의 다채로운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광우주에서--즉 조직된 인간거주 창조계에서-- 물리적 에너지의 다재다능한 지휘자, 중심, 및 통제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 우주 동력 지휘자들은, 일곱 연방우주의 현 에너지 체계를 구성하는 30개 국면 에너지 가운데 21개 국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통제를 구사한다. 이 동력_에너지_물질 분야는, 지존자의 시_공간 전면통제 하에서 작용하는 칠중 하나님의 지성적 활동이 있는 영역이다.

42:2.15 (470.6) 우버사에서는 우주 동력의 영역을 인력세력이라고 부른다.

42:2.16 (470.7)

5. *하보나 에너지*. 변질되는 공간_세력을 따라서, 한 수준 한 수준, 시간과 공간에서 우주들의 에너지_동력이 작용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는 개념적으로 낙원을 향해서 움직여 왔다. 낙원을 향해서 계속 가면, 중앙우주의 특질인 선재{先在}하는 에너지 국면을 그 다음에 만나게 된다. 여기서 진화의 순환은 그 자체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며;에너지와_동력은 이제 힘을 향해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힘은 공간 잠재력 및 근본 힘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본질을 가진 힘이다. 하보나 에너지 체계는 이중적이 아니라;삼중적이다. 이것은 낙원 삼위일체를 대신해서 작용하는, 공동 행위자의 실존적 에너지 범위다.

42:2.17

(471.1)

우버사에서는 이 하보나 에너지를 삼중세력이라고 부른다.

42:2.18 (471.2)

6. *초월 에너지*. 이 에너지 체계는, 낙원의 상부 평면에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작동하며, 유한절대자들과 관련해서만 작동한다. 우버사에서는 그것을 초월세력이라고 부른다.

42:2.19 (471.3)

7. *단일세력*. 에너지는 낙원 에너지일 때 신성{神性}에 가깝다. 단일세력이 낙원의 살아있는 비영적 에너지라고--곧 원본 아들의 살아있는 영 에너지의 영원성 상대물이라고, 따라서 만유의 아버지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라고,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다.

42:2.20 (471.4)

우리는 낙원 영과 낙원 단일세력의 *본성*을 구분할 수 없으며;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 그것들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영적 형태화와 비영적 형태화가 오직 *이름*으로만 겨우 구분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도저히 많이 말해줄 수 없다.

42:2.21 (471.5)

유한한 피조물이 칠중 하나님과 사교 조율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체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떤 준절대적 인격체든지, 심지어 동력 지휘자들이라도,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동력 지휘자들이 공간_세력의 변질 기법에 정통하더라도, 그 비밀을 우리 같은 존재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견해로는, 그들도 힘 조직가들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42:2.22 (471.6) 바로 이 동력 지휘자들은 에너지 촉매이며;다시 말해서, 자신이 현존함으로써 단위 구조를 이뤄서 에너지를 분할하거나, 조직하거나, 또는 조립한다. 이 모든 것은, 이 동력 실재들의 현존 앞에서, 에너지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내재적으로 에너지 속에 틀림없이 있음을 의미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시공우주 힘이 우주 동력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일곱 가지 “신성의 무한성” 가운데 하나로, 오래 전에 명명했다. 지방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 너희는 이 점에서 조금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42:2.23 (471.7) 시공우주 힘의 기원, 본성, 및 변질을 우리가 완전히 납득할 수 없음에도, 낙원 인력의 작용에 대해서 시공우주 힘이 직접 명백하게 반응하던 때부터--곧 연방우주 동력 지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우리는 떠오르는_에너지 행태의 모든 국면에 대해 충분히 정통하고 있다.

3. 물질의 분류

42:3.1 (471.8) 중앙우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은 동일하다. 물질의 물리적 성질은,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는 어떤 힘의 현존뿐 아니라, 그 구성 원소의 회전율, 회전하는 원소의 숫자와 크기, 핵 본체로부터 그것들까지의 거리, 또는 물질의 공간 내용물에도 의존한다.

42:3.2 (471.9) 다양한 항성, 행성, 및 천체에는, 크게 10가지 물질 분야가 있다:

42:3.3 (472.1) 1. 궁극체 물질--물질 실존의 근본 물리 단위{單位}, 즉 전자를 만들게 되는 에너지 입자.

42:3.4 (472.2) 2. 하위전자{下位電子} 물질--항성의 초월기체들이 폭발하고 반발하는 단계.

42:3.5 (472.3) 3. 전자 물질--물질이 분화{分化}되는 전기{電氣} 단계--전자, 양성자, 및 전자 집단을 다양하게 형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위.

42:3.6 (472.4) 4. 하위원자{下位原子} 물질--뜨거운 항성 내부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물질.

42:3.7 (472.5) 5. 분쇄된 원자--식어가는 항성과 공간 전역에서 발견됨.

42:3.8 (472.6) 6. 이온화 된 물질--전기, 열, 또는 X _광선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용매제 때문에, 자체의 외부 전자들이 제거된 (화학적으로 활성 있는) 개별 원자.

42:3.9 (472.7) 7. 원자 물질--원소 조직의 화학적 단계, 즉 분자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구성단위.

42:3.10 (472.8) 8. 분자 단계의 물질--일반 조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물질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란시아에 실존하는 것과 같은 물질.

42:3.11 (472.9) 9. 방사성 물질--적당한 열과 인력 압력이 감소된 조건 아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분열하는 경향과 활동.

42:3.12 (472.10) 10. 붕괴된 물질--식거나 죽은 항성 내부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정지된 물질. 이 물질 형태는 정말로 정지된 것은 아니며;약간의 궁극체, 그리고 심지어 전자 활동도 여전히 있지만, 이 단위들은 매우 근접해 있으며, 그 회전율은 크게 줄어있다.

42:3.13 (472.11) 앞에서 말한 물질의 분류는, 창조된 존재들에게 보이는 형태보다는 그 조직과 관계된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가 태동하기_이전 단계뿐 아니라, 낙원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 생기는 영원한 물질화를 고려하지도 않는다.

4. 에너지와 물질의 변질

42:4.1 (472.12) 빛, 열, 전류, 자기, 화학, 에너지, 및 물질은 --그 근원, 본질, 그리고 운명이--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물질 실체들과 함께, 아주 동일한 물체다.

42:4.2 (472.13)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끝없는 변화를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한다. 한 우주에서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다른 우주에서는 빛과 함께 열로, 또 다른 우주에서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며;백만 년이 무수히 여러 번 지난 후에, 갑자기 드세지는 어떤 형태의 전기 에너지 또는 자력{磁力}으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며;더 나중에, 그 다음 우주에서 일련의 변형을 거치는 어떤 형태의 변화무쌍한 물질로 다시 나타났다가, 그 영역에 어떤 거대한 격변이 있을 때, 외견상 물리적으로 소멸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이 긴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를 거의 끝없이 방랑한 후에, 바로 이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서 여러 차례 그 형태와 잠재력이 바뀔지도 모르며;그리하여 이런 변형은, 이어지는 세월을 통해서 끝없는 영역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 물질은 시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렇게 휩쓸려가지만, 영원성의 궤도를 계속 돌며, 그 근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오래 지연된다 하더라도 항상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물질을 내보낸 무한한 인격체가 제정한 경로를 따라 늘 진행한다.

42:4.3 (473.1) 동력 중심과 그 동역자들은, 궁극체를 전자{電子} 궤도와 회전으로 변형시키는 일에 많이 관여한다. 독특한 이 존재들은, 물질화 된 에너지의 기본 단위인 궁극체를 기술적으로 조종함으로써, 동력을 통제하고 증대시킨다. 그들은, 에너지가 이 원시 상태에서 순환하는 동안, 그 에너지의 주인이다. 그들은, 물리 통제관들과의 접촉에서 소위 전자{電子} 단계인 전기 수준으로 그것이 변형된 후에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전자로 조직된 에너지가 원자 체계의 소용돌이 속으로 진동해 들어갈 때, 엄청나게

축소된다. 그런 물질화가 이뤄지면, 이 에너지는 직선
인력의 끌어당기는 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42:4.4 (473.2)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의 동력 계통과 에너지
경로들에서, 인력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존재들은
인력에 대해서 오직 --반{反} 인력 재능을 발휘하는--
소극적 관계만 갖는다.

42:4.5 (473.3) 모든 공간 전역에서, 냉각을 비롯한 기타
영향들이, 궁극체를 독창적으로 조직해서 전자가 되게
하는 일에 관여한다. 열은 전자 활동에 대한 측정치인 반면,
냉기는 열 없음을--곧 상대적 에너지 정지를-- 의미하는데,
떠오르는 에너지뿐 아니라 조직된 물질도 없고 인력에
반응하지도 않는, 공간의 우주 힘으로_채워진 상태다.

42:4.6 (473.4) 인력이 현존하고 작용하면, 이론적 절대
빙점{氷點}이 출현하지 못하는데, 별과 별 사이 공간이
절대 빙점의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돼 있는 공간
전역에는, 조직되고 있는 전자 에너지뿐 아니라,
인력에_반응하는 에너지 흐름, 동력 회로, 그리고 궁극체
활동이 있다. 사실상,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유란시아의
대기조차, 약 3,000마일에 이를 때까지 점점 얇어지고,

여기서부터 대기는 우주 공간 물질의 평균값에 이르기까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네바돈에서 가장 비어있는 공간으로 알려진 부분은, 1 입방 인치마다 -- 하나의 전자에 해당하는-- 약 100개의 궁극체를 산출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종류의 물질 결핍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간주된다.

42:4.7 (473.5) 에너지와 물질의 진화 영역에서, 온도보다--곧 온기와 냉기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밖에 없다. 궁극체는 온도의 양극단에 겸손히 복종한다. 낮은 온도는 어떤 형태의 전자 구성과 원자 조립을 촉진하는 반면, 높은 온도는 모든 종류의 원자 붕괴{崩壞}와 물질 분해를 용이하게 만든다.

42:4.8 (473.6) 항성의 어떤 내부 상태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가장 원시적인 물질 결합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분해될 것이다. 그리하여 열은 인력 안정성을 크게 압도한다. 그러나 알려진 어떤 항성 열 또는 압력도, 궁극체를 원래의 유력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없다.

42:4.9 (473.7) 타오르는 항성은 물질을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흑암 세계들과 모든 외부 공간은, 이

에너지를 그 영역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지점까지, 전자와 궁극체의 활동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 어떤 전자 결합, 그리고 많은 핵 물질 기본 결합은, 지극히 낮은 온도의 열린 공간에서 형성되는데, 나중에는 물질화하는 에너지를 가진 비교적 큰 부착물과 결합함으로써 증대된다.

42:4.10 (473.8) 우리는, 이 에너지와 물질의 끝나지 않는 변질{變質} 과정 내내, 인력 압력의 영향뿐 아니라 특정한 온도, 속도, 및 회전의 조건 하에서, 궁극체 에너지의 반인력{反引力} 습성에 직면해야만 된다. 온도, 에너지 흐름, 거리, 그리고 살아있는 힘 조직가와 동력 지휘자들의 현존 역시, 에너지와 물질의 모든 변질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42:4.11 (474.1) 물질에서 질량의 증가는, 에너지 증가를 빛의 속도의 제공으로 나눈 것과 같다. 역학적 의미에서 볼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질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낙원으로부터 그 부분들을 함께 가져오는 데 소모된 에너지에서, 이동 중에 극복한 힘의 저항과, 물질의 부분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당기는 힘을 뺀 것과 같다.

42:4.12

(474.2)

납의 두 가지 원자 무게가, 전자{電子}_이전{以前} 형태의 물질이 실존함을 가리킨다. 원래 형성된 납은, 라듐을 방출함으로써 우라늄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이 원자 무게의 차이는 원자 분열에서 생기는 실제 에너지 손실에 상당한다.

42:4.13 (474.3)

물질의 상대적 보전은,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양자{量子}라고 표현한, 정확한 그 양으로써만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물질 영역에서 이렇게 현명하게 대비함으로써 우주들이 계속 잘 유지해나가도록 도움이 된다.

42:4.14 (474.4)

전자 또는 다른 것의 위치가 바뀔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항상 하나의 "양자{量子}" 또는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지만, 그런 에너지 단위의 진동하는 행태 또는 파도치는 행태는, 관계된 물질 구조의 면적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런 파도 같은 에너지 표면장력파는, 궁극체, 전자, 원자, 또는 그렇게 실행하는 다른 단위들의 직경의 860배에 달한다. 양자 행태의 파동 역학을 관찰할 때 끝없이 생기는 혼동은, 에너지 파동들이

겹쳐지기 때문이다:두 물마루가 합쳐져서 두 배 높이의 한 물마루로 될 수 있는 반면, 한 물마루와 한 물계곡이 합쳐져서 서로 상쇄되어 없어질 수도 있다.

5. 파동_에너지의 형태화

42:5.1 (474.5) 오르본톤 연방우주에는 100개의 파동 에너지 옥타브가 있다. 에너지가 형태화 되는 이 100개 집단 중에서 64개가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인지됐다. 항성 광선은 연방우주의 척도로 볼 때 네 옥타브를 차지하는데, 하나의 단일 옥타브를 포함하는 가시광선, 즉 이 계열 중에서 46_번이다. 자외선 집단이 그 다음에 오며, 한편 그 위로 10옥타브는 X 광선인데, 라듐의 감마 광선이 뒤따른다. 항성의 가시광선 위로 32옥타브는 외부_공간 에너지 선인데, 크게 에너지를 얻은 관련된 미세 입자 물질과 매우 자주 혼합된다. 눈에 보이는 항성 빛 밑으로는 적외선이 나타나며, 30옥타브 아래쪽에는 무선통신 송출 구간이 있다.

42:5.2 (474.6) 파도 같은 에너지 형태화는 -- 20세기 유란시아 과학이 깨우친 견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10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42:5.3 (474.7)

1. *궁극체 이하의 광선* --궁극체가 명확한 형태를 갖기 시작할 때 그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회전. 이것은 파도치는 현상이 감지되고 측정될 수 있는, 떠오르는 에너지의 첫 단계다.

42:5.4 (474.8)

2. *궁극체의 광선*. 궁극체의 미세한 구체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집합은,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진동이 공간 용적 안에 생기게 한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언젠가 궁극체를 발견하기 훨씬 전에, 틀림없이 그들은 이 광선이 유란시아에 쏟아 부어지는 현상을 간파할 것이다. 짧고 강력한 이 광선은, 전자로 물질을 조직하는 그 지점까지 궁극체가 속도를 늦추며 내려올 때, 궁극체의 초기 활동을 대표한다. 궁극체들이 뭉쳐서 전자가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저장과 함께 응축이 일어난다.

42:5.5 (475.1)

3. *짧은 공간 광선*. 이것은 모든 순수한 전자 진동 중에서 가장 짧으며, 이 물질 형태의 원자_이전{以前} 단계를 대표한다. 이 광선을 산출하려면, 엄청나게 높거나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이 우주 광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하나는 원자가 형성될 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 붕괴의 징후로 일어난다.

그것들은 연방우주 중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인 은하수로부터 가장 큰 양으로 발산되는데, 외부 우주들 중에서 가장 조밀한 평면 역시 그렇다.

42:5.6 (475.2) 4. *전자{電子} 단계.* 이 단계의 에너지는 일곱 연방우주에서 모든 물질화의 기초다. 전자들이 궤도 회전의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옮겨갈 때, 양자가 항상 방출된다. 전자의 궤도 이동은, 매우 명확하고 균일한, 측정 가능한 빛_에너지 입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한편 개별 전자는 충돌이 일어날 때, 항상 빛_에너지 입자를 배출한다. 파도 같은 에너지 형태화 역시, 전자 단계에서 양성{陽性} 물체 및 기타 구성원의 실행에 뒤따라서 일어난다.

42:5.7 (475.3) 5. *감마 광선* --원자 물질이 자동 분열하는 특징이 있는 방사물. 이 형태의 전자 활동에서 가장 좋은 예는, 라듐 분열과 관련된 현상이다.

42:5.8 (475.4) 6. *X _광선 집단.* 전자{電子}가 감속되는 다음 단계는, 인공적으로 산출된 X 광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항성 X 광선을 산출한다. 전자의 전하{電荷}는 전자장을 만들며;운동은 전류를 일으키며;전류는 자기장을

일으킨다. 전자가 갑자기 멈추면, 그 결과로 생기는 전자기{電磁氣} 동요가 X 광선을 산출하며;X 광선은 바로 그 교란이다. 항성의 X 광선은, 인간 육체의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발생된 X 광선보다 약간 긴 것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X 광선은 동일하다.

42:5.9 (475.5) 7. 자외선, 즉 항성 빛의 화학적 광선 및 다양한 기계적 산출물.

42:5.10 (475.6) 8. 백색광 --항성의 전체 가시광선.

42:5.11 (475.7) 9. 적외선 --감지할 수 있는 열{熱} 단계에 좀 더 가까운 전자 활동의 감속{減速}.

42:5.12 (475.8) 10. 헤르츠 파동 --유란시아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그 에너지들.

42:5.13 (475.9) 파도 같은 이 10가지 에너지 활동 국면 전체 중에서, 인간의 눈은 오직 하나의 높이, 즉 보통 항성 광선의 빛 전체에만 반응할 수 있다.

42:5.14 (475.10) 소위 에테르는, 공간에서 생기는 한 집단의 힘과 에너지 활동을 지칭하는 집합 명칭에 불과하다. 궁극체, 전자, 및 기타 대량 에너지 집합체들은 한결같은 물질

입자이며, 공간을 통해서 이동할 때, 정말로 직선으로 진행한다. 빛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 형태화는, 분명한 에너지 입자들의 연속으로 돼 있는데, 인력 및 개입하는 다른 힘들로 인해 변경될 때를 제외하면, 직선으로 진행한다. 특정한 관측 조건 하에서, 이런 에너지 입자 행렬이 파동 현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든 공간의 획일적인 힘 보호막, 즉 가상적{假想的} 에테르의 저항, 그리고 관련된 물질 집합체의 상호인력 균형상태 때문이다. 물질의 입자간_간격의 공간은, 에너지 줄기의 처음 속도와 함께, 에너지_물질이 여러 형태로 굽이치는 현상을 일으킨다.

42:5.15 (476.1) 배가 물을 가르면서 지나갈 때 다양한 진폭과 간격의 파도를 일으키듯이, 공간이 담고 있는 내용물을 자극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질 입자들이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파도 같은 반응을 발생시킨다.

42:5.16 (476.2) 근본적인_힘의 행태는, 너희가 가상하는 에테르와 여러 면으로 유사한 현상을 일으킨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모든 공간에 있는 구체들은 회전하면서, 광대한 바다처럼 펼쳐진 힘_에너지를 헤치고

돌진하며;또한 어떤 원자 공간 용적도 비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에테르는 없으며, 바로 이 가상하는 에테르의 부재{不在}가, 인간거주 행성이 항성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돌고 있는 전자가 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다.

6. 궁극체, 전자, 및 원자

42:6.1 (476.3) 우주의 힘이 공간에서 갖는 축적량은 균일하고 획일적인 반면, 진전된 에너지를 조직하여 물질이 되게 하려면, 일정한 부피와 확정된 무게를--곧 정확한 인력 반응을-- 갖는, 따로따로 분리된 덩어리들 집단 속으로 에너지를 농축할 필요가 있다.

42:6.2 (476.4) 국지적 인력, 즉 직선 인력은, 물질의 원자 조직이 출현함과 함께 충분히 활동성을 갖게 된다. X 광선 및 기타 비슷한 에너지들로 인해 활성화 될 때, 원자_이전{以前} 물질은 인력에 약하게 반응하지만, 자유롭고 매어있지 않은, 대전{帶電}되지 않은 전자_에너지 입자 또는 결합되지 않은 궁극체들에게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직선_인력 흡인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42:6.3 (476.5) 궁극체들은, 순환성을 가진 낙원_인력 흡인력에 대해서만 반응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직선_인력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보편적으로 공간 떠돌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궁극체들은 어중간한 반인력{反引力} 행태가 생기는 지점까지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힘 조직가 또는 동력 지휘자들의 도움 없이, 개체성소멸의 임계 탈출 속도에 도달하여 유력_에너지 단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사실상 궁극체는, 오직 완전히 식고 죽어가는 항성의 말기 분열에 참여할 경우에만 물리적 실존 상태를 벗어난다.

42:6.4 (476.6) 아직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궁극체는, 전자{電子}로 조직되기 위한 선행 조건인 회전_에너지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국면의 물리적 활동을 거쳐서 속도가 줄어든다. 궁극체는:시공우주 힘에 대한 공통적 저항, 반인력{反引力} 잠재력으로 인한 개별 회전, 그리고 공통으로 상호결합된 100개 궁극체의 내부{內部}전자 위치, 이 세 종류의 움직임을 갖는다.

42:6.5 (476.7) 서로 끌어당김이, 100개의 궁극체를 전자 구조 속에 묶어놓고 있으며;하나의 전형적 전자 안에 정확하게

100개의 궁극체가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궁극체가 사라지면, 전형적인 전자 정체성이 파괴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자의 10가지 변경된 형태 가운데 하나로서 실존하게 된다.

42:6.6 (476.8) 전자 안에서, 궁극체는 궤도를 그리거나 회로{回路} 속에서 회전하지는 않지만,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퍼지거나 밀집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이한 전자 면적을 결정한다. 축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 궁극체 회전 속도는, 또한 여러 유형의 전자 단위의 음성 또는 양성 반응을 결정한다. 전자 물질의 분리와 집단화{集團化}는 모두, 에너지_물질의 음성 및 양성 본체를 전기적{電氣的}으로 차별하는 것과 함께, 구성요소인 궁극체가 상호결합하는 이런 다양한 작용에서 유래한다.

42:6.7 (477.1) 각 원자는 직경이 1인치의 1억 분의 1을 약간 넘는 반면, 전자 1개의 무게는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2,000분의 1보다 약간 무겁다. 원자 핵의 특질인 양성의 양성자는, 한 개의 음성 전자보다 크지 않은 반면, 무게는 거의 2,000배 이상이다.

42:6.8 (477.2) 전자 한 개의 질량이 10분의 1온스에 이르기까지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물질 덩어리의 크기가 확대된다면, 그런 한 개의 전자의 부피는 지구의 부피만큼 될 것이다. 한 개의 양성자가--곧 전자 한 개보다 1,800배 무거운 양성자가-- 못 한 개의 머리 크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못의 머리는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軌道}의 직경과 같아질 것이다.

7. 원자의 물질

42:7.1 (477.3) 모든 물질의 구조는 항성 체계와 거의 비슷하다. 에너지라는 각 미세 우주마다 그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비교적 고정된 물질적 실존의 핵심 부분이 있다. 이 중심 단위는 삼중적으로 형태화 될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에너지 단위들이 이 에너지 중심 주변에서 끊임없이 많이, 그러나 변동하는 회로 속에서 회전하며, 이 단위들은 너희의 태양계와 비슷한 어떤 별 집단의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과 어렵פות이나마 비교될 만하다.

42:7.2 (477.4) 항성 체계의 공간 속에서 행성들이 항성 주변을 돌 때 갖는 것과 대체로 비슷한 상대적 여유공간을 갖고, 전자들이 원자 내부에서 중앙의 양성자 주변을 회전한다.

실제 크기로 비교할 때, 안쪽에 있는 행성인 수성과 너희의 태양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대적 거리가 원자 핵과 안쪽 전자 궤도 사이에 있다.

42:7.3 (477.5) 원자 핵 주변에서, 축을 중심으로 한 전자의 회전과 그 궤도 속도는, 둘 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데, 전자를 구성하는 궁극체의 속도는 두말할 것도 없다. 라듐의 양성{陽性} 입자는 초당 10,000마일의 속도로 공간으로 날아가는 반면, 음성{陰性} 입자는 대략 빛의 속도를 갖는다.

42:7.4 (477.6) 지방우주는 10진법 구조로 돼있다. 이중적 우주에는 정확하게 100가지 식별 가능한 공간_에너지의 원자 물질화가 존재하며;그것은 네바돈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물질 조직이다. 이 100가지 형태의 물질은 규칙적인 계열들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한 개부터 100개에 이르는 전자가 비교적 미세한 중앙 핵 주변을 돈다.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이 다양한 에너지의 규칙적이고 믿을만한 결합이다.

42:7.5 (477.7) 100가지의 식별 가능한 원소가 모든 세계의 표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은 어딘가에

있거나, 있었거나, 아니면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100가지 원자 유형 중에서 얼마나 많이 관측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성의 기원 및 차후의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 무거운 원자들은 많은 세계의 지표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유란시아 경우에도, 알려진 무거운 원소들은, 라듐 행태가 설명하듯이, 산산조각 나는 경향을 보인다.

42:7.6 (477.8) 원자의 안정성은, 중심체에 전기 작용이 없는 중성자{中性子}가 몇 개 있는가에 달려있다. 화학적 행태는, 자유롭게 회전하는 전자들의 활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42:7.7 (478.1) 오르본톤에서는, 하나의 원자 체계 안에서 궤도를 도는 100개 이상의 전자를 자연적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적이 전혀 없었다. 101개가 전자궤도장 속으로 인공적으로 주입됐을 때, 그 결과로 전자 및 해방된 다른 에너지들의 거친 분산과 함께, 중앙의 양성자가 반드시 거의 순간적으로 분열된다.

42:7.8 (478.2) 원자는 한 개부터 100개까지의 궤도를 도는 전자를 함유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큰 원자의 10개 외부

전자만이 별개의 분리된 물체로서 중앙 핵 주위를 회전하는데, 정확하고 일정한 궤도를 변하지 않으면서 조밀하게 회전한다. 중앙에 가장 가까운 30개의 전자는, 따로 조직화된 물체로서 관측되거나 감지되기 어렵다. 핵 근접성과 관련된 전자 행태의 바로 이 상대적 비율은, 포함된 전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모든 원자에서 통용된다. 핵에 근접할수록, 전자의 개체성이 줄어든다. 전자의 파도 같은 에너지 범위는 너무 넓어서 비교적 작은 원자 궤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으며;특히 이것은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들의 경우에 적용된다.

42:7.9 (478.3)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30개의 전자는 개체성을 갖지만, 그 에너지 체계들은 서로 혼합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전자{電子}에서 다른 전자로, 그리고 거의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확장한다. 그 다음 30개의 전자는, 둘째 집단, 즉 에너지 지대를 구성하며, 개체성이 더 뚜렷하고, 그 속에 있는 에너지 체계를 더 철저히 통제하는 물질 덩어리다. 셋째 에너지 시대인, 그 다음 30개 전자는 더 많이 개별화되어 있으며, 더 뚜렷하고 명확한 궤도에서 돈다. 오직 10개의 가장 무거운 원소 속에만 있는, 마지막 10개의 전자는, 당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모체{母體} 핵의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다. 온도와 압력이 최소한으로 변해도, 넷째이자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우라늄 및 동종 원소들의 자연 붕괴에서 드러나듯이, 중앙 핵의 지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42:7.10 (478.4) 궤도를 도는 하나부터 스물일곱까지의 전자를 포함하는, 처음 스물일곱 개의 원자는, 나머지보다 더 납득하기 쉽다. 스물여덟 개부터 그 위로, 우리는 무조건 절대자의 가정된 현존으로부터 생기는 예측 불가능성에 점점 더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자의 예측 불가능성 가운데 일부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 특이한 궁극체 회전 속도와, 궁극체의 설명되지 않는 “때 지어 물리는” 경향 때문이다. 다른 영향들--곧 물리적, 전기적, 자기적, 및 인력의 영향--역시, 다양한 전자 행태를 가져오도록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과 원자는 예측을 불허하는 면에서 비슷하다. 통계 전문가는 많은 숫자의 원자 또는 인격자를 지배하는 법칙을 공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개별 원자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8. 원자의 응집력

42:8.1 (478.5) 인력은 미세한 원자 에너지 체계를 고정시키는 데 관련된 몇몇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한편 기본적인 이 물리 단위들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강력하고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가 또한 있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의 기본 구성과 궁극적 행태의 비결이고, 유란시아에서 앞으로 발견해야 할 어떤 힘이다. 이 보편적 영향력은, 이 조그마한 에너지 조직 안쪽에 포함된 전체 공간에 퍼져 있다.

42:8.2 (478.6) 한 원자 안에서 전자{電子}들 사이의 공간은 비어 있지 않다. 원자 전반에 걸쳐서 이 전자들 사이의 공간은, 전자 속도 및 궁극체의 회전과 완전하게 동조하는, 파동 비슷한 형태화로 인해 활성화된다. 이 힘은, 너희가 인식한 양성 및 음성이 끌어당기는 법칙에 전적으로 지배되지는 않으며;따라서 그 행태는 때로 예측 불가능하다. 이름을 모르는 이 영향력은, 공간_세력에 대한 무조건 절대자의 반응인 듯하다.

42:8.3 (479.1)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전하{電荷}가 있는 양성자들 및 전하가 없는 중성자들은, 전자보다 180배 무거운 입자인 중간자{中間子}의 상호작용 기능으로 인해

함께 묶여 있다. 이 배열이 없으면, 양성자들이 지니는 충전량{充電量}이 원자 핵을 분열시킬 것이다.

42:8.4 (479.2) 원자들이 구성된 바와 같이, 어떤 전기적 힘이나 인력작용 힘도, 핵{核}을 고정시킬 수 없다. 핵의 위상은 중간자의 상호 밀착{密着} 기능 때문에 유지되는데, 이것은 우세한 세력과 질량의 위력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양성자들과 중성자{中性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전하가 있는 입자와 전하가 없는 입자들을 함께 묶을 수 있다. 중간자는 핵 입자의 전하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 1초보다 극미한 기간에, 주어진 하나의 핵 입자가 전하를 띤 양성자가 되고, 다음에는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상태의 이 교대 현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충전량이 하나의 분열시키는 영향력으로서 작용할 기회를 모두 뺏긴다. 그래서 중간자는 원자의 핵 안정성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에너지_운반체” 입자로서 작용한다.

42:8.5 (479.3) 중간자의 현존과 기능이, 다른 원자 수수께끼도 설명한다. 원자들이 방사능을 띠고 작용할 때, 그것들은

기대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다. 이 초과분 방사능은, 중간자인 “에너지 운반체”의 파괴에서 유래되는데, 중간자는 그렇게 해서 단순한 전자{電子}가 된다. 중간자가 분열할 때, 또한 전하가 없는 어떤 작은 입자들의 방출이 동반된다.

42:8.6 (479.4) 중간자는, 원자 핵이 응집하려는 어떤 성질을 밝혀주지만, 양성자끼리 응집하는 것이나 중성자끼리 들러붙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원자를 응집 보전하게 하는,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은, 유란시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형태다.

42:8.7 (479.5) 이 중간자는 너희 행성에 그토록 끊임없이 침범하는 우주 광선 속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9. 자연 철학

42:9.1 (479.6) 종교만 독단적이지는 않으며;자연 철학도 똑같이 독단적으로 단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유명한 종교 교사가, 인간의 머리 속에 일곱 개의 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7이라는 숫자가 자연의 기초가 됐다고 논증했을 때, 그가 화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물리 세계의 어떤 참된 현상에 기초를 둔 그런 믿음을 주창했을 것이다.

에너지의 10진법 구조가 보편적으로 나타남에도,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우주 전체에는, 물질_이전{以前}의 칠중 전자 조직을 갖는 실체가 언제든지_나타남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있다.

42:9.2 (479.7) 7이라는 숫자는, 중앙우주에, 그리고 내재적으로 특성을 유전하는 영적 체계에 기본적인지만, 10진 체계인 10이라는 숫자는, 에너지, 물질, 및 물질 창조에 내재적이다. 그럼에도 원자 세계는 어떤 주기적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특징은 일곱씩 무리지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이것은 바로, 이 물질 세계가 아주_먼 옛날에, 영적으로 기원됐음을 암시하는 탄생반점이다.

42:9.3 (480.1) 창조적 구조에서 일곱씩 되풀이되는 이런 잔존현상은, 기본 원소들이 그 원자 무게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될 때, 분리된 일곱 개의 주기로 비슷한 물리적 및 화학적{化學的} 성질이 반복해서 화학 분야에 나타난다. 유란시아의 화학 원소들이 한 줄로 배열될 때, 어떤 일정한 특성이나 성질이든지, 일곱째에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마다 생기는 이 주기적{週期的} 변화는, 전체 화학 표 전부를 통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반복되는데, 비교적 앞에 있는 가벼운 원자 집단들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측될 수 있다. 어느 한 요소에서 시작하여, 어떤 하나의 성질을 기록한 후에, 그런 특성은 계속되는 여섯 원소 동안 변화될 것이지만, 여덟째에 이르면, 화학적으로 활동적인 여덟째 원소는 첫째와 비슷하고, 아홉째는 둘째와 비슷하며, 그렇게 계속된다. 물리 세계의 그런 사실은, 에너지의 칠중 구조가 선조{先祖}임을 뚜렷이 암시하며, 시_공간에 속하는 창조계가 칠중으로 다양한 것이 기본 실체임을 암시한다. 또한 사람은, 자연 분광{分光}에 일곱 가지 색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42:9.4 (480.2) 그러나 자연 철학의 모든 가정{假定}이 타당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가상으로 만들어낸 에테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도 공간 현상을 조화시켜보려는 영리한 시도를 나타낸다. 우주에 대한 철학은, 소위 과학에서 말하는 관찰에 근거할 수 없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과학자는 그런 변질 가능성을 부인하려 할 것이다.

42:9.5 (480.3) 생물학적 융통성과 관련된 물리적 안정성이 자연 속에 현존하는 것은 오로지, 창조를 설계한 으뜸 설계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무한한 지혜 때문이다. 초월적 지혜보다 못한 어떤 것이든지, 그토록 동시에 안정되고 그토록 효과적으로 융통성 있는 물질 단위를 결코 계획할 수 없다.

10.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 체계 (물질 정신 체계)

42:10.1 (480.4) 낙원 단일세력의 절대성으로부터, 공간 잠재력의 절대성에 이르기까지, 상대적 시공우주 실체의 끝없는 범위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비영적 실체들의 관계에 어떤 진화가 일어남을 암시한다--이 실체들은, 공간 잠재력 속에 숨겨져 있고, 단일세력 속에서 계시되며, 사이에 개재하는 시공우주 수준들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영원한 에너지 순환은, 우주들의 아버지 안에 회로화 돼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이나 가치 면에서 확장될 수 없으며;그럼에도 시초의 아버지는, 시_공간 의미를 가진, 그리고 시_공간을_초월한 의미를 가진, 늘_확장하는 경기장을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스스로_실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변화하는 관계의 경기장이며, 그 경기장에서, 살아있고 인격있는 정신의

체험적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_물질은 살아있는 신성한 영{靈}의 전면통제에 점진적으로 지배 받는다.

42:10.2 (480.5) 우주의 비영적 에너지는, 다양한 수준에서, 창조주가_아닌 정신들의 살아있는 체계들 속에서 다시 결합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더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42:10.3 (480.6) 1. 보조_영_이전{以前}의 정신. 이 정신 수준은 체험하지 않으며, 인간거주 세계에서는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것은 기계적인 정신, 즉 물질 생명 중에서 가장 원시적 형태에 속하는 학습력_없는 지능이지만, 학습력_없는 그 정신은 원시 행성 생명 수준 외에도 여러 수준에서 작용한다.

42:10.4 (481.1) 2. 보조_영 정신.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수준의 물질 정신 속에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을 통해 작용하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사역이다. 이 수준에서 물질 정신은:처음 다섯 보조체 안에서 인간 이하의 (동물) 지성으로서;일곱 보조체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 지성으로서;마지막 두 보조체 안에서 초인적 (중도자) 지성으로서 체험하고 있다.

42:10.5 (481.2)

3. *진화하는 모론시아 정신* --상승하는 지방우주 생애에서 진화하는 인격체의 확장하는 의식{意識}. 이것은 창조주 아들과 관련해 지방우주 어머니 영이 증여한 것이다. 이 정신 수준은 모론시아 유형의 생명 운반체가 조직돼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운반체는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한 것이다. 모론시아 정신은, 570가지 수준의 모론시아 생애에 반응해서 다르게 작용하는데, 달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공우주 정신과 관계하는 능력이 커짐을 드러낸다. 이것은 필사 피조물이 진화하는 과정이지만, 또한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은, 지역 창조에서, 모론시아가 아닌 자녀들에게, 모론시아가 아닌 계열의 정신을 증여한다.

42:10.6 (481.3)

시공우주 정신. 이것은 일곱 가지로 다채롭게 된, 시간과 공간의 정신인데, 일곱 으뜸 영 각자가 한 국면을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하나에서 보살핀다. 시공우주 정신은 모든 유한한_정신 수준을 포함하며, 체험적으로는 지존자 정신의 진화하는_신격 수준과 협조하고, 초월적으로는 절대 정신의--곧 공동 행위자의 직통 회로의-- 실존 수준과 협조한다.

42:10.7 (481.4) 정신은 낙원에서 절대적이며;하보나에서는 유한절대적이며;오르본톤에서는 유한하다. 정신은 다채로운 에너지 체계들 외에 생생한 사역이 현존하면서_활동하고 있음을 항상 암시하며, 이것은 어떤 수준이나 종류의 정신에게든지 적용된다. 그러나 시공우주 정신을 넘어서면, 비영적 에너지에 대한 정신의 관계를 묘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하보나 정신은 준절대적이지만 진화를 초월하는 정신이며;실존적이고_체험적이므로, 너희에게 제시된 어떤 다른 개념보다 유한절대 정신에 더 가깝다. 낙원 정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이며;실존적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정신이다. 그럼에도, 공동 행위자가 우주에 현존하심이--곧 낙원에 계신 정신의 하나님인 정신_인력으로 붙잡고 계심이-- 온갖 수준의 이 정신들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11. 우주 자동작용

42:11.1 (481.5) 정신을 평가하고 인식할 때, 우주가 기계적이지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며;우주는, 정신이 창조한 것이고, 법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자연 법칙은, 두 가지 영역인

것처럼 보이는 물질계 및 영계 속에서 작동하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물질화된 모든 것의 1차 원인인 동시에, 모든 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아버지시다. 낙원 아버지는, 하보나_바깥 우주들에서 오직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으로서만--곧 사고 조율사 및 기타 비슷한 부분화된 존재로서만-- 몸소 나타나신다.

42:11.2 (481.6) 자동작용이 전체 창조물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으며;*전체로서의* 온갖 우주는, 정신이 계획하고, 정신이 만들고, 정신이 경영한다. 그러나 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온갖 우주의 신성한 자동작용이 전체적으로 너무 완전해서, 무한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음을 흔적조차 식별할 수 없다. 창조하고 통제하며 유지하는 이 정신이 물질 정신도 아니고 창조물 정신도 아니기 때문이며;정신은 신성한 실체인 창조자 수준에서, 그리고 그 수준으로부터 활동하는 영_정신이다.

42:11.3 (482.1) 우주의 자동작용에서 정신을 식별하고 발견하는 역량은, 그런 관찰하는 과제에 참여해서 조사하는 정신의 역량, 시야, 및 수용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시간과

공간의 에너지로부터 조직된 시_공간 정신들은, 시간과 공간의 자동작용에 종속된다.

42:11.4 (482.2) 움직임과 우주 인력작용은, 온갖 우주의 비인격적 시_공간 자동작용의 두 얼굴이다. 영, 정신, 및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수준은 시간과 아주 상관없지만, 오직 참된 영 수준의 실체만이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다(비공간적이다). 우주의 상류 정신 수준--곧 영_정신 수준-- 역시 비공간적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 같은 물질 수준의 정신은 우주 인력의 상호작용에 민감한데, 오직 영과 일체가 될수록 비례해서 이 반응을 잃어버린다. 영_실체의 수준은 그 영 내용물로 식별되며, 시간과 공간에서 영성{靈性}은 직선_인력 반응에 반비례로 측정된다.

42:11.5 (482.3) 직선_인력에 대한 반응은, 비영적{非靈的} 에너지의 양{量}을 재는 척도다. 모든 물질은--즉 조직화된 에너지는-- 움직임과 정신이 그 물질에 작용할 때 외에는 이 인력에 종속된다. 원자_내부의 응집하는 힘이 극소_시공우주의 단거리 힘인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직선 인력은 거대_시공우주의 응집하는 단거리 힘이다.

소위 물질로서 조직화 된, 물질화 된 물리적 에너지는, 직선_인력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간을 지나갈 수 없다. 인력에 대한 그런 반응이 질량에 정비례하더라도, 개재하는 공간이 이를 너무 많이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표현될 때, 겨우 대략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수많은 초물질적 힘의 반인력{反引力} 영향이 현존하기 때문에, 공간이 결국 직선{直線} 인력 작용을 극복하는데, 이것은 인력의 영향과 그에 대한 모든 반응을 중화시키도록 작용한다.

42:11.6 (482.4) 극도로 복잡하고 상당히 자동으로_보이는 시공우주 자동작용은, 자동작용 자체의 본성과 능력을 이해하는 우주 수준보다 훨씬 낮은 어떤 지성체도 깨닫지 못하도록,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내주하는 정신의 현존을 항상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등{下等} 피조물에게는 고등{高等} 우주 자동작용이 정신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 결론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예외는, 스스로_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놀라운 현상 속에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일지도 모른다--그러나 그것은 실제 체험의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다.

42:11.7 (482.5) 정신이 우주를 조화시키기 때문에, 불변하는 자동작용은 실존할 수 없다. 시공우주의 자체_유지와 관련된 점진적 진화 현상은 보편적이다. 자발성이 무한한, 우주의 진화 수용력은 고갈되지 않는다. 오직 목적이 있는 지배하는 정신만이, 조화로운 통일을 향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데, 이 통일은 점점_더 복잡해지는 관계에 체험적 통합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룩한다.

42:11.8 (482.6) 어떤 우주 현상이든지, 우주 정신과 더 고도로 연합돼 있을수록, 하등 정신이 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우주 자동작용을 만든 정신은 창조적 영_정신이기 때문에(심지어 무한자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모든 정신 중에서 가장 낮은 인간 정신은 물론, 낮은_수준의 우주 정신에게 결코 발견되거나 식별될 수 없다. 진화하는 동물 정신은, 하나님을_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혼자서 저절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_알지는 못한다.

12. 원형과 형체--정신의 지배

42:12.1 (483.1) 자동작용이 진화한다는 것은, 창조적 정신이 숨어있고 지배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한 가리킨다. 필사자의 지능이 자동적인 기계장치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창작할 수 있는 역량은, 행성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으로서, 우수하고 창의적이며 의도적인 특성의 정신을 사람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은 항상 다음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

42:12.2 (483.2) 1. 물질적 자동작용을 창작함.

42:12.3 (483.3) 2. 감춰진 신비를 발견함.

42:12.4 (483.4) 3. 멀리 있는 상황을 탐구함.

42:12.5 (483.5) 4. 정신 체계를 만들어냄.

42:12.6 (483.6) 5. 지혜의 목표를 달성함.

42:12.7 (483.7) 6. 영 수준을 성취함.

42:12.8 (483.8) 7. 신성한--곧 지존적이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운명을 완성함.

42:12.9 (483.9) 정신은 항상 창의적이다. 개별 동물, 필사자, 모론시아인, 영{靈} 상승자, 또는 완결성 달성자의 정신 재능은, 살아있는 피조물 정체성에 알맞고 쓸모 있는 몸을 산출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그러나 인격체가 현존하는 현상이나 정체성의 원형은, 물리적인,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에너지가 형태화된 것이 아니다. 인격체 형태는 살아있는 존재의 *원형* 양상이며;그것은 에너지들의 *배합*을 의미하고, 이것에 생명 및 움직임을 더한 것이 피조물 실존의 *자동작용*이다.

42:12.10 (483.10) 심지어 영 존재들도 형체를 가지며, 이 영 형체는(원형은) 실재한다. 심지어 가장 높은 유형의 영 인격체도 형체를 갖고 있다--유란시아 필사자 육신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인격체 현존을 갖고 있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존재가 형체를 소유한다. 그러나 이 일반 법칙에 소수의 예외가 있다:사고 조율사는 필사 동역자의 생존하는 혼과 융합할 때까지 형체가 없는 듯하다. 단독 사자, 영감된 삼위일체 영, 무한한 영의 개인 조력자, 인력 사자, 초월 기록원, 그리고 어떤 다른 존재들 역시,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예외적 소수이며;거의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특색이 있고, 식별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진정한 인격체 형태를 소유한다.

42:12.11 (483.11) 시공우주 정신의 접촉과 보조 정신_영들의 사역이, 진화하는 인간을 위해 합당한 육체적

장막{帳幕}을 진화시킨다.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정신도, 모든 필사 생존자를 위해 모론시아 형체를 개별화시킨다. 필사자의 육신이 각 인간마다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것처럼, 모론시아 형체도 그것을 지배하는 창의적 정신에 알맞게 특성을 갖고 매우 특징적일 것이다. 어떤 두 인간 육체든지 서로 다른 것처럼, 어떤 두 모론시아 형체도 같지 않다. 획일적인 모론시아 물질을,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후원하고, 시중드는 스라빔이 제공하며, 이것을 가지고 모론시아 생명체는 비로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론시아 생애가 끝나면, 영 형체도 똑같이 다양하고, 인격있으며, 각자의 영_정신 내주자의 특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42:12.12 (483.12) 물질 세계에서 너희는 육체가 영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영이 육체를 가졌다고 간주한다. 물질적 눈은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혼의 창문이다. 영은 설계자이고, 정신은 건축가이며, 육신은 물질로 된 건물이다.

42:12.13 (484.1) 물리적, 영적, 및 정신적 에너지는, 그 자체로 그 순수한 상태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주의 현실처럼

충분하게 상호작용하지는 않는다. 낙원에서는 이 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하보나에서는 조정되며, 한편 활동이 유한한 우주 수준에서는,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지배의 모든 범위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시간과 공간의 비인격적 상황에서는,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_정신 기능이 신성한 목적과 최상의 행동에 가까이 갈수록, 영 국면이 더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궁극 수준에서는 영_정신의 지배가 거의 완벽하게 될 수도 있다. 절대 수준에서는 영이 확실히 지배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신성한 영 실체가 현존하는 곳은 어디든지, 진짜 영_정신이 작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드시 그 영 실체의 물질 사본{寫本}, 즉 물리적 사본이 반드시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

42:12.14 (484.2) 창조하는 실체는 영이며;그 물리적 사본은 영 실체가 시_공간에 반영된 것, 즉 영_정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물리적 반응이다.

42:12.15 (484.3) 정신은 보편적으로 물질을 지배하며,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정신이 영의 궁극적 전면통제에 민감하다.

그리고 필사적 사람의 경우에, 영의 지시에 자신을 자유롭게 맡기는 정신만이, 지존자, 궁극자, 및 절대자:즉 무한자의, 영원한 영 세계에 불멸하는 자녀로서, 필사자의 시_공간 실존을 거치면서 생존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42:12.16 (484.4) [네바돈에서 근무하는 강력한 사자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제시했음]

제43편 성좌

43:0.1 (485.1) 유란시아는 네바돈의 노라티아덱에서 사타니아의 606_번으로 대개 알려져 있는데, 사타니아 지역 체계에서 606번째로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라는 의미이며, 이 체계는 네바돈 지방우주의 100개 성좌 가운데 하나인, 노라티아덱 성좌{星座}에 자리잡고 있다. 성좌는 지방우주의 1차 구획인데, 그 통치자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 체계를, 살빙톤에 있는 지방우주의 중앙 행정부에, 그리고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들의 연방행정부에, 반사성{反射性}으로 연결시킨다.

43:0.2 (485.2) 너희가 속한 성좌의 정부는, 771개의 건축양식 구체 무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거대한 것이 에덴시아, 즉 노라티아텍의 지고자인 성좌 아버지들의 행정부가 있는 자리다. 에덴시아 자체는 너희 세계보다 약 100배에 이른다. 에덴시아를 감싸는 70개의 주요 구체는 유란시아보다 약 10배의 크기이며, 한편 이 주요 구체들마다 그 주위를 도는 10개 위성은 유란시아의 크기와 거의 같다. 이 771개 건축양식 구체는, 크기에서 다른 성좌들의 건축양식 구체에 필적할만하다.

43:0.3 (485.3) 에덴시아의 시간 계산과 거리 측정은 살빙톤의 것과 같으며, 우주 수도{首都} 구체들과 마찬가지로, 성좌 본부 세계는 모든 계층의 천상의 지성체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인격체들은 우주 경영과 관련해서 설명된 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43:0.4 (485.4) 감독관 스라빔, 즉 지방우주 천사 중에서 셋째 계층이 성좌를 돕는 일에 배정돼 있다. 그들은 수도 구체에 본부를 두며, 둘러싼 모론시아_훈련 세계들을 광범하게 돌본다. 노라티아텍에서, 70개 주요 구체를 비롯하여 700개 부속{附屬} 위성에는, 성좌의 영구 시민인 유니비타시아들이 거주한다. 다양한 집단의 원주민

생명체가 이 모든 건축양식 세계를 온전하게 경영하는데, 그들 가운데 과반수가 계시되지 않지만, 유능한 스피롱가와 아름다운 스포르나기아를 포함한다. 너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성좌의 모론시아 생애는, 모론시아_훈련 체제에서 중간_지점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동시에 이상적이다.

1. 성좌 본부

^{43:1.1 (485.5)} 에덴시아에는, 모론시아 생명을 지니고 영적 영광이 널리 펼쳐진 자연 물질이 광대하게 솟아오른, 매혹적인 고지{高地}가 많이 있지만, 유란시아에서 보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산맥은 없다. 수만개의 빛나는 호수와 수천 개의 상호 연결된 냇물이 거기에 있지만, 큰 바다 또는 급류가 흐르는 강은 없다. 오직 고지에만 지표에서 흐르는 이 냇물이 없다.

^{43:1.2 (486.1)} 에덴시아 및 비슷한 건축양식 구체들에 있는 물은, 진화 행성의 물과 다름없다. 그런 구체의 물 체계는 지상에 흐르는 동시에 지하에도 흐르며, 습기가 계속 순환한다. 이 다양한 수로{水路}를 따라 에덴시아를 일주{一周}할 수 있지만, 주요 운송은 항공로{航空路}를 통해서 이뤄진다.

영 존재들은 구체의 표면 위를 자연스럽게 여행할 수 있으며, 한편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 존재는, 공중을 통과해서 이동하기 위해, 물질적인 수단과 약간물질적인 수단을 이용한다.

43:1.3 (486.2) 에덴시아 및 관련된 세계들에는 진짜 대기가 있는데, 그런 건축양식 피조세계의 특질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세 기체의 혼합물이며, 유란시아 대기의 두 요소를 포함하고, 모론시아 피조물의 호흡에 맞는 모론시아 기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대기가 물질인 동시에 모론시아이지만, 폭풍이나 태풍은 없으며;여름이나 겨울도 없다. 대기의 불안정이나 계절의 변화가 없으므로, 특별하게 창조된 이 세계들에서는 어디든지 야외에도 치장할 수 있다.

43:1.4 (486.3) 에덴시아의 고지는 웅장한 자연의 모습이며, 그 아름다움은, 길이와 폭 전체에 많이 퍼져있는 끝없이 풍성한 생명체로 장식돼 있다. 약간 외떨어진 구조물들을 제외하고, 이 고지에는 피조물의 손으로 만든 것이 없다. 물질 장식물과 모론시아 장식물은 거주하는 지역에

제한돼 있다. 작은 고지들은 특별한 거주민의 집터이며, 생물학적 예술과 모론시아 예술로 아름답게 장식돼 있다.

43:1.5 (486.4) 일곱째 고지대의 정상에는 에덴시아 부활실이 위치하는데, 그 안에서는 변경된 2차 상승 계층의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깨어난다. 피조물 재조립이 일어나는 이 방들은 멜기세덱의 감독을 받는다. 에덴시아에 있는 첫 영접{迎接} 구체에도, (살빙톤에 가까운 멜기세덱 행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부활실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변경된 상승 계층의 필사자들이 재조립된다.

43:1.6 (486.5) 멜기세덱들은 또한 에덴시아에서 두 특별 학부를 유지한다. 하나는 비상대책 학교인데, 사타니아 반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데 몰두한다. 다른 하나는 증여 학교인데, 미가엘의 최종 증여가 노라티아덱 세계 가운데 하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통달하는 일에 전적으로 배정돼 있다. 후자{後者}의 이 학부는 거의 4만 년 전에 세워졌는데, 미가엘이 자신을 최종적으로 증여할 세계로 유란시아가 선택됐음을 발표하자마자 세워졌다.

43:1.7 (486.6) 에덴시아의 영접 지역인 유리바다는 행정부 중심지 근처에 있으며, 본부 원형극장들로 둘러싸여 있다. 70개 분야의 성좌 직무를 위해서, 통치하는 중심지들이 이 지역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에덴시아의 절반은 70개의 삼각형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은 각자 구역의 본부 건물에 집중돼 있다. 이 구체의 나머지는 하나의 방대한 자연 공원, 즉 하나님의 동산이다.

43:1.8 (486.7) 네가 주기적으로 에덴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시찰하도록 전체 행성이 열려있음에도, 너의 시간 대부분을 경영 삼각지{三角地}에서 보내게 될 것인데, 그 삼각지의 번호는 네가 현재 거주하는 세계의 번호와 같다. 너는 입법{立法} 집회에 참관인으로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43:1.9 (486.8) 상승하는 필사 거주자들에게 에덴시아에서 배정된 모론시아 지역은, 35번째 삼각지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36번째 삼각지에 자리 잡은 완결성취자들의 본부 근처다. 유니비타시아의 일반 본부는, 모론시아 시민의 거주 예정지에 바로 인접한, 34번째 삼각지의 중앙_지역에 있는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배열로 볼 때, 천상의 생명체 중에서 적어도 70개 주요
부문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70개 삼각 지역은, 각각 모론시아 훈련을 담당하는 70개
주요 구체 가운데 어느 하나와 서로 연결돼 있다.

43:1.10 (487.9) 에덴시아의 유리바다는, 둘레가 약 100마일에
이르고 깊이가 약 30마일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둥근
수정{水晶}이다. 이 웅장한 수정은, 그 구체의 바깥
지점으로부터 도착하는 모든 운송 스라빔 및 기타
존재들을 받아들이는 광장 역할을 하며;그런 유리바다는
운송 스라빔의 착륙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43:1.11 (487.2) 이런 종류의 수정 광장은, 거의 모든 건축양식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장식하는 가치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소집된 집단들에게 연방우주
반사성을 제시하는 일에, 그리고 공간의 흐름을
변경시키고, 들어오는 다른 물리적_에너지 흐름을
적응시키려고 에너지를_변형시키는 기법에, 한 요소로서
활용된다.

2. 성좌 정부

43:2.1 (487.3) 성좌는 지방우주의 자치 단위인데, 각 성좌는 자체의 입법 행위에 따라서 경영된다. 네바돈의 법정이 우주 직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할 때, 모든 내부 문제는, 대상이 되는 성좌에서 통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판결된다. 지역 체계 경영자들이, 성좌의 입법 조치와 함께, 살빙톤의 이 사법 판결을 실행한다.

43:2.2 (487.4) 성좌는 이런 식으로, 입법, 즉 법률_만드는 단위로서 작용하며, 한편 지역 체계는, 행정, 즉 집행 단위로서 봉사한다. 살빙톤 정부는 사법을 담당하고 조정하는 최고 권세다.

43:2.3 (487.5) 최고 사법 기능이 지방우주의 중앙 행정부에 있는데, 각 성좌 본부에는, 종속적이지만 두 개의 주요 법정, 즉 멜기세덱 협의회 및 지고자 법정이 있다.

43:2.4 (487.6) 모든 사법 문제는 멜기세덱들의 협의회에서 먼저 조사 받는다. 진화하는 행성들과 체계 본부 세계들에서 특정한 필수 체험을 이미 했던, 이 계층 중에서 열두 명이 증거를 검사하고 해명을 검토하며 잠정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는데, 이 판결은 지고자, 즉 통치하는 성좌 아버지의 법정으로 전달된다. 후자{後者} 법정의 이

필사자 부서는 일곱 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모두 상승하는 필사자다. 너희가 우주에서 더 올라갈수록, 더 확실히, 너희는 자신과 같은 종류인 그들에게 판결 받게 될 것이다.

43:2.5 (487.7) 성좌 입법 기관은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성좌의 입법 계획표는, 상승자들로 구성된 하원{下院}에서 시작되는데, 한 명의 완결성취자가 이를 주관하며, 대표하는 1,000명의 필사자로 이뤄져 있다. 각 체계는 이 심의회에 소속될 열 명의 요원을 지명한다. 에덴시아에서는 이 기구가 현재 온전히 구성돼 있지 않다.

43:2.6 (487.8) 입법의원들의 중앙_회의소는, 스랍 무리와 그 동역자들, 즉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다른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집단의 총원은 100명이며, 그런 존재들이 성좌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는 감독 인격체들이 그들을 지명한다.

43:2.7 (488.1) 성좌 입법의원들 중에서, 자문 기관, 즉 최고 기관은 동료들의 의회로--곧 신성한 아들들의 의회로--구성된다. 지고자 아버지들이 이 단체를 선발하며, 총원은 열 명이다. 오직 특별한 체험을 가진 아들들만이 이

상원에서 봉사할 수 있다. 상원은 사실을_확인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집단이며, 입법 집회의 두 하부{下部} 부서 모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43:2.8 (488.2) 입법의원들의 통합된 협의회는, 성좌 심의 집회의 독립된 이 지부{支部}들에서 온 세 명의 요원으로 구성되며, 통치하는 하급{下級} 지고자가 이를 관장한다. 이 집단은 모든 법령의 최종 형식을 인가하고, 방송인들이 그것을 공표하도록 허락한다. 이 최고 위원회의 승인은, 입법된 규정을 그 영역의 법이 되게 하며;그들의 활동은 최종적이다. 에덴시아에서 선포된 법은 노라티아텍 전체의 기본법을 이룬다.

3. 노라티아텍의 지고자

43:3.1 (488.3) 성좌의 통치자는, 지방우주 아들신분 중에서 보론다텍 계층에 속한다. 우주에서 현역 근무로 성좌 통치자 또는 다른 자리에 임명될 때, 이 아들들은 지고자로 알려지는데, 그들이 지방우주에서 모든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선견지명이 있고 영리한 충성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영상 지혜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개인적 성실성과 집단 충성심은 한 번도

의심 받은 적이 없으며;보론다텍 아들들이 불만을 품는 일은 네바돈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43:3.2 (488.4) 가브리엘이, 네바돈의 각 성좌마다 적어도 세 명의 보론다텍 아들을 지고자로 임명한다. 이 세 명 중에서 주관하는 요원이 성좌 아버지로 알려지며, 그의 두 동역자는 상급{上級} 지고자와 하급{下級} 지고자로 알려진다. 성좌 아버지는 표준시간으로 10,000년(유란시아 시간으로는 약 50,0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전에 하급 동역자로서, 그리고 상급 동역자로서, 같은 기간 봉사한 적이 있다.

43:3.3 (488.5) 시편 기자{記者}는, 세 명의 성좌 아버지가 에덴시아를 통치하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거주지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했다:"하나의 강이 흐르고 그 물줄기들은 하나님의 도성, 즉 지고자들의 장막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찬란하게 장식할 것이다."

43:3.4 (488.6)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란시아에는 다양한 우주 통치자에 대해 큰 혼동이 있었다. 후대의 여러 선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희미하고 불분명한 부족{部族} 신격들을 지고자 아버지와 혼동했다. 그 후에, 히브리인은 이 천상의

통치자들을 하나의 혼합된 신격으로 섞어 버렸다. 어떤 선생은 지고자들이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며, 그래서 그는 “지고자의 비밀한 곳에 거하는 그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란시아의 기록에서는, 때때로 “지고자”라는 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지고자가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치하며, 뜻하는 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했다.

43:3.5 (488.7) 성좌 아버지는 인간거주 행성의 개인들에게는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인간거주 세계들의 모든 필사자 종족과 국가 집단⁴에 관해서 매우 깊이 관여하는, 성좌의 입법부 및 입법 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43:3.6 (489.1) 비록 성좌 체제가 너희와 우주 행정부 사이에 위치하더라도, 개인으로서 너희는 평상시에 성좌 정부와 거의 관련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큰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지역 체계, 즉 사타니아에 집중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유란시아는 성좌 통치자들에게 가깝게 관련돼 있는데,

루시퍼 반역으로 구성된 어떤 체계 및 행성의 상황 때문이다.

43:3.7 (489.2) 에덴시아 지고자들은, 루시퍼 탈퇴가 일어났을 때, 반역한 세계들로부터 행성 권한의 어떤 국면들을 압류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계속 행사해 왔으며, 이 불안정한 세계들의 통제권을 말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인가한 지 오래됐다.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이 떠맡은 관할권을 의심할 여지없이 계속 행사할 것이다. 충성스런 체계에서는 대개, 이런 권세 대부분이 체계 주권자에게 주어진다.

43:3.8 (489.3)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유란시아는 지고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 창조주 아들 미가엘이 자신의 최종 증여 사명에 들어갔을 때, 루시퍼의 후임자가 지역 체계에서 완전한 권세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엘 증여와 관련된 모든 유란시아 직무를, 노라티아덱의 지고자들이 직접 감독했다.

4. 산상 집회--충실 항존자

43:4.1 (489.4) 가장 거룩한 집회의 동산은, 에덴시아에서 활동하는 낙원 삼위일체 대행자인,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다.

43:4.2 (489.5) 이 충실 항존자는 낙원의 삼위일체 아들이며, 본부 세계가 창조된 이래, 임마누엘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에덴시아에 현존해 왔다. 충실 항존자는, 성좌 아버지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의 오른편에 항상 있지만, 요청받지 않는 한, 결코 충고를 제시하지 않는다. 낙원의 높은 아들들은, 그런 영역의 활동하는 통치자의 청원이 있을 경우 외에는, 어떤 지방우주 직무 수행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동 항존자와 창조주 아들의 관계는 모두, 충실 항존자와 성좌의 지고자들의 관계와 같다.

43:4.3 (489.6) 에덴시아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는, 우주 바깥의 통신 및 첩보를 맡은 낙원 체계의 성좌 중심지다. 이 삼위일체 아들은, 하보나 및 낙원 인격체들로 구성된 참모진과 함께, 감독하는 합동 항존자와 접촉하면서, 우주들 전체에 두루,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계층과 직접 지속적으로 연락한다.

43:4.4 (489.7) 가장 거룩한 그 산은, 절묘하게 아름답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지고자들의 중앙 거주지, 그리고 보론다덱 아들들의 거주 설비를 포함하는 주변의 70개 구조물과 비교할 때, 낙원 아들의 실제 거주지는 수수하다. 이 설비들은 오직 주거지로만 사용되며;성좌의 직무가 처리되는 광대한 경영 본부 건물들에서 아주 분리돼 있다.

43:4.5 (489.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실 항존자의 거주지는, 지고자들의 이 거주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낙원 집회의 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봉헌된 이 고지대{高地帶}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완전한 10억 하보나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낙원의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향하여 진보하는 필사자의 길고 흥미로운 여행에 대해, 이 낙원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바로 산상 집회의 이 특별한 모임에서, 모론시아 필사자들은 중앙우주에서 기원된 다양한 집단의 인격체들과 더 완전히 친하게 된다.

43:4.6 (490.1) 한때 사타니아의 주권자였던 불충한 루시퍼는, 확대된 관할권을 요구하는 주장을 발표하면서,

지방우주의 정부 계획에서 아들신분의 모든 우세한 계층을 제거하려고 꾀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결심하면서 말했다:“나는 내 보좌를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위로 높일 것이며;북쪽 집회 동산에 앉을 것이며;지고자 처럼 되리라.”

43:4.7 (490.2) 100명의 체계 주권자는, 성좌의 복지에 대해 숙고하는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사타니아 반역이 일어난 후에, 예루셈의 최고반역자들은, 자신이 이전의 경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시아 협의회에 늘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고, 그 후에 네바돈 전역에서 무제한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이 오만한 뻔뻔스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죄를 선동한 이 자들은, 충성스런 체계 주권자들의 에덴시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43:4.8 (490.3) 옛 선생들이 이 일을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것에서 나타난다:“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고자들 앞으로 나아왔고, 사탄 역시 와서 그들 가운데

참여했다.” 이 글이 어찌다가 그 속에 연관되어 나타나게 됐는가에 상관없이, 이 글은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43:4.9 (490.4) 그리스도가 승리한 후에, 노라티아텍 전역에서 죄와 반역자들이 제거되고 있다. 미가엘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타락한 루시퍼의 동료인 사탄은 그런 에덴시아 비밀회의에 참여하려고 꾀했지만, 최고반역자들을 적대시하는 감정이 굳어져서, 자비{慈悲}의 문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닫히게 됐고, 사타니아에 있던 적들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악을 받아들일만한 열린 문이 없게 되자, 죄를 품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전체 에덴시아의 마음 문이 사탄에 반대하여 닫혔으며;그는 소집된 체계 주권자들에게 만장일치로 거부당했고, 사람의 아들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43:4.10 (490.5) 루시퍼의 반역 이후로, 충실 항존자의 주거지 가까운 곳에 새로운 구조물이 마련됐다. 이 임시 건축물은 연락원 지고자의 본부이며, 죄와 반역에 대한 항존자 계층의 정책과 태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성좌 정부에

대한 충고자로서, 낙원 아들과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활동한다.

5. 루시퍼 반역 후 에덴시아 아버지

43:5.1 (490.6) 에덴시아에서 지고자들의 교대는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중지됐다. 그때 근무하던 동일한 통치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한다. 루시퍼 및 그 동역자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이 통치자들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한다.

43:5.2 (490.7) 아무튼, 성좌의 현 정부는 보론다텍 계층의 12명 아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돼 왔다. 이 열두 명은 다음과 같다:

43:5.3 (490.8) 1. 성좌 아버지. 노라티아텍을 지금 통치하는 지고자는 네바돈의 보론다텍 계열 중에서 617,318_번이다. 그는 에덴시아를 책임 맡기 전에 우리 지방우주 전역의 여러 성좌에서 봉사했다.

43:5.4 (490.9) 2. 상급 동료 지고자.

43:5.5 (491.1) 3. 하급 동료 지고자.

43:5.6 (491.2) 4. 충고하는 지고자, 미가엘이 으뜸 아들의 신분을 성취한 후에 미가엘의 개인적 대리인.

43:5.7 (491.3) 5. 행정관 지고자, 루시퍼 반역 이후로 에덴시아에 계속 주둔하는, 가브리엘의 개인적 대리인.

43:5.8 (491.4) 6. 행성 참관인들의 우두머리인 지고자,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에 주둔하는 보론다텍 참관인들의 지휘자.

43:5.9 (491.5) 7. 심판하는 지고자, 성좌에서 반역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어려움을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보론다텍 아들.

43:5.10 (491.6) 8. 비상사태 경영 지고자, 노라티아텍 입법부의 비상사태 법령을, 사타니아의 반역으로_고립된 세계들에 적용시키는 과제를 부여받은 보론다텍 아들.

43:5.11 (491.7) 9. 중재하는 지고자, 성좌의 일상적인 경영과 유란시아에 대한 특별 증여 조정을 조화시키도록 배정된 보론다텍 아들. 유란시아에서 어떤 천사장 활동 및 수많은 다른 불규칙한 보살핌의 출현이, 예루셈에서 찬란한

저녁별들의 특별 활동과 함께, 이 아들의 기능발휘를 필요로 한다.

43:5.12 (491.8) 10. 법무관 지고자, 사타니아 반역에 따른 혼란으로부터 생긴, 노라티아덱의 특별한 문제를 조정하는 데 전념하는 비상사태 법정의 우두머리.

43:5.13 (491.9) 11. 연락관 지고자, 에덴시아 통치자들에게 배속됐지만, 반역과 피조물 불충성에 관계된 문제를 관리하면서 추구할 최고의 과정에 관해서, 충실 항존자와 함께 특별한 충고자로 임명된 보론다덱 아들.

43:5.14 (491.10) 12. 지휘하는 지고자, 에덴시아의 비상사태 협의회 의장. 사타니아 동란으로 인해 노라티아덱에 배정된 모든 인격체는 비상사태 협의회에 소속되며, 그들을 관장하는 관리{官吏}는 비범한 체험을 가진 보론다덱 아들이다.

43:5.15 (491.11)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보론다덱, 네바돈의 사절{使節}, 그리고 에덴시아에 역시 거주하는 다른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3:5.16 (491.12) 루시퍼 반역이 있는 후로 계속, 에덴시아 아버지들은 유란시아를, 그리고 사타니아의 다른 고립된 세계들을 특별히 돌봐 왔다. 오래 전에 그 선지자는, 국가의 직무에 성좌 아버지들의 통제하는 손길이 있음을 감지했다. “지고자가 나라들에게 저희의 유산을 분배하고, 아담의 아들들을 갈라냈을 때, 그가 민족의 경계선을 정했다.”

43:5.17 (491.13) 모든 격리되거나 고립된 세계에는, 참관인으로서 활동하는 한 명의 보론다텍 아들이 있다. 그는 국가들의 직무에 개입하도록 성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을 때 외에는 행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하는” 이는, 실제로 이 참관인 지고자다. 유란시아는 노라티아텍의 고립된 세계 가운데 하나이며, 캘리개스차 반역 이후로 계속, 한 명의 참관인 보론다텍이 이 행성에 항상 주둔해 왔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서 약간물질적인 형태로 사역했을 때, 그는 그때 근무하던 참관인 지고자에게 정중한 경의를 표했는데,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고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지고자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지고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그가 너의 적들을 네 손에 넘겼다”고 했을 때, 멜기세덱은

자신과 이 참관인 지고자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냈다.

6. 하나님의 동산

43:6.1 (492.1) 체계의 수도{首都}는 물질 및 광물 구조물들로 특별하게 장식돼 있으며, 한편 우주 본부는 영적 영광이 더 반영돼 있지만, 성좌 수도는 모론시아 활동과 살아있는 장식물 가운데 절정이다. 성좌 본부 세계에서는 살아있는 장식물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생명체의 이 우월성--곧 식물을 이용한 예술성-- 때문이다.

43:6.2 (492.2) 에덴시아의 약 절반은 지고자들의 절묘한 동산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동산은 지방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모론시아 창작품에 속한다. 이것은 노라티아텍의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유별나게 아름다운 장소가, 왜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해 준다.

43:6.3 (492.3) 이 장엄한 동산 중앙에는 지고자들이 경배 드리는 성소{聖所}가 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았음이 분명한데:"지고자들의 언덕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깨끗한 손과

순수한 심성을 가진 자, 자기 혼을 허영심에 들뜨게 하지 않고 거짓되게 맹세하지도 않은 자가 아니냐”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고자들은 이 성소에서, 10일마다 돌아오는 휴일에, 에덴시아 전체가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묵상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43:6.4 (492.4) 건축양식 세계들은 물질 계층에서 10가지 생명체 형태를 누린다. 유란시아에는 식물과 동물 생명체가 있지만, 에덴시아 같은 그런 세계에는 10가지 분야의 물질 계층 생명체가 있다. 너희가 이 10가지 분야의 에덴시아 생명체를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곧 처음 세 가지를 식물로, 마지막 세 가지를 동물로 분류하겠지만, 그 사이에 있는 네 가지 형태의 풍부하고 매혹적인 생명체의 본성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43:6.5 (492.5) 동물 생명체로 구분될만한 것들조차 진화 세계의 그것과 매우 다른 형태인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의 독특한 성품과 매혹적인 본성을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아주 불가능하다. 너희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수많은 살아있는 피조물이 있다. 동물 세계 전체가, 진화하는 행성들의 전체

동물 종류와는 완전히 다른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 모든 동물 생명체는, 가장 지성적이고 정교하게 실용적이며, 다양한 모든 종{種}은 놀랄 정도로 온유하고 감동적으로 친근하다. 그런 건축양식 세계들에는 육식{肉食} 피조물이 없으며;에덴시아 전체에는 살아있는 존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43:6.6 (492.6) 식물 생명체 역시 유란시아의 것과 매우 다른데, 다양한 물질 식물 및 모론시아 식물로 구성돼 있다. 물질적 성장은, 독특한 녹색 색조를 띄지만, 모론시아에서 식물 생명체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한 빛깔과 반사광을 갖는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이다. 그런 모론시아 식물은 순전한 에너지 성장체이며;먹었을 때 남는 부분이 없다.

43:6.7 (492.7) 이 건축양식 세계들은, 모론시아 종류들은 물론, 10가지 부문의 물리적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경치 그리고 물질 및 모론시아 구조물을, 생물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한다. 천상의 기능공들은, 식물로 장식하고 생물로 꾸미는 이 광범위한 일을 하면서 원주민 스포르나기아들을 지도한다. 너희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기{生氣} 없는 물감과

생명 없는 대리석을 소재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천상의 기능공과 유니비타시아들은 자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상{理想}을 담기 위해서, 생명 있는 물질을 더 자주 활용한다.

43:6.8 (493.1) 네가 유란시아의 꽃, 화초, 나무 등을 좋아한다면, 에덴시아에 있는 숭고한 동산의 아름다운 식물과 장관을 이룬 꽃들로 너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 세계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필사 정신에게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확실히 설명할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정말로, 필사자가_상승하는 모험을 겪는 이 세계들로부터 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광을, 사람의 눈은 본 적이 없다.

7. 유니비타시아

43:7.1 (493.2) 유니비타시아는, 에덴시아와 그에 관련된 세계들, 즉 그들의 감독을 받는 성좌 본부를 감싸는 770개 세계 전체의 영구 시민{市民}이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의 이 자녀들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실존하는 수준으로 입안되지만, 모론시아 피조물은 아니다. 에덴시아의 70개 주요 구체 각각에 있는 원주민은, 눈에 보이는 다른 형상을

갖고 있으며, 모론시아 필사자는 1_번 세계로부터 70_번 세계로 연속으로 옮겨가면서, 한 에덴시아 구체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居住地}를 변경할 때마다, 유니비타시아의 상승하는 등급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모론시아 형상을 맞춘다.

43:7.2 (493.3) 영적인 면에서 유니비타시아들은 똑같지만;지성적으로는 필사자들이 그러하듯이 다양하며;형상으로는 모론시아 실존 상태와 비슷하고, 70개의 다양한 계층의 인격체 역할을 하도록 창조됐다. 이 계층 각각의 유니비타시아의 지성 활동은 10가지 주요 변종을 나타내며, 이 다양한 지적{知的} 유형은, 각각 에덴시아의 각 주요 세계를 도는 10개의 위성 가운데 어떤 하나에서, 점진적인 직업 사회화, 즉 실용적 사교를 가르치는 특별 훈련 및 문화 학교들을 주관한다.

43:7.3 (493.4) 700개의 이 부속 세계는, 지방우주의 전체 활동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구체이며, 모든 부류의 지성 존재에게 개방돼 있다. 특별한 솜씨와 전문 지식을 훈련하는 이 학교들은,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 중에서 모론시아 학생들이 가장 큰

집단을 구성하더라도, 상승하는 필사자만을 위해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사회 문화를 맡는 70개의 주요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너희가 영접 받을 때, 주변을 도는
10개의 위성 각각에 착륙할 수 있는 허가서가 너희에게
즉시 발급된다.

43:7.4 (493.5) 우대하는 다양한 거류지에서, 상승하는 모론시아
필사자가 회고 지휘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유니비타시아는 천상의 기능공으로 구성된 네바돈 단체와
연합된 가장 큰 집단을 대표한다. 오르본톤 전체에서
우버사의 어밴돈터들을 제외한 하보나_바깥쪽의 어떤
존재도, 기능적 솜씨, 사회 적응력, 그리고 협조하는
민첩함에서 유니비타시아를 따라갈 수 없다.

43:7.5 (493.6) 성좌의 이 시민들은, 기능공 단체의 실제 요원은
아니지만, 모든 집단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고, 과도기
문화의 장엄한 예술적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서, 성좌
세계들을 최고의 구체로 만드는 데 많이 기여한다. 그들은
성좌 본부 세계의 범위를 넘어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8. 에덴시아의 훈련 세계

43:8.1 (493.7) 에덴시아 및 그 주변을 도는 구체들의 물리적 자산은 거의 완전하며;살빙톤 구체들의 영적 위엄과 아주 같을 수는 없지만, 예루셈 훈련 세계의 영광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이 에덴시아 구체들은 모두 보편적인 공간 흐름으로 에너지를 직접 얻으며, 성좌 중심들이 이 구체들의 엄청난 물질 동력 체계와 모론시아 동력 체계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분배하는데, 이 중심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로 이뤄진 유능한 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43:8.2 (494.1) 필사자가 상승하면서 에덴시아에서 지내는 시대와 관련된, 과도기 모론시아 문화를 가르치는 70개의 훈련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은, 완결성취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가장 안정된 기간이며;이것은 정말로 전형적인 모론시아 생애다. 한 주요 문화 세계에서 다른 주요 문화 세계로 옮길 때마다 너희는 다시_맞춰지지만, 동일한 모론시아 몸을 유지하며, 인격체가 의식을 잃는 기간은 없다.

43:8.3 (494.2) 에덴시아 및 그에 관련된 구체들에서 머물면서 너는 주로, 집단 윤리, 즉 다양한 우주 및 연방우주 계층의

지성적 인격체들과 유쾌하고 유익한 상호관계를 갖는 비결을 숙달하기에 몰두한다.

43:8.4 (494.3) 맨션 세계들에서 너는 진화하는 필사자 인격체의 통합을 완성하며;체계 수도에서는 예루셈 시민권을 획득하고, 집단 활동 및 조화된 이행업무들을 훈련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지만;이제 성좌 훈련 세계들에서, 너의 진화하는 모론시아 인격체는 참된 교제를 성취하게 돼있다. 숭고한 이 문화적 습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배우는 일로 이뤄진다:

43:8.5 (494.4) 1. 열 명의 다양한 동료 모론시아인과 행복하게 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한편, 그런 열 개의 집단이 100개의 조합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는 1,000개의 단체에서 연합되는 방법.

43:8.6 (494.5) 2. 지성적으로는 모론시아 존재와 비슷하더라도, 기타 모든 면에서는 매우 다른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기쁘게 머물고 진심으로 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너는 이 집단이 다른 열 가족과 협조하는 동안 이 열 명의 집단과 함께 활동해야만 하는데, 이 가족들은 다시 1,000명의 유니비타시아 단체로 연합한다.

43:8.7 (494.6) 3. 동료 모론시아인들 그리고 주인{主人}인 이 유니비타시아 모두에게 동시에 적응하기를 성취하는 방법. 지성 피조물 가운데 약간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긴밀하게 일하는, 너 자신의 계층에 속한 존재들과 함께, 자진해서 효과적으로 협동하는 역량을 획득하는 방법.

43:8.8 (494.7) 4. 바로 너와 비슷한 존재 및 비슷하지 않은 존재들과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양쪽 집단의 동역자들과 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들에게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방법.

43:8.9 (494.8) 5. 지적 수준과 직업 수준에서 만족할만한 교제를 인격체가 달성하는 동안, 계속 성급함을 줄이고 계속 분노를 줄이고, 비슷한 존재 및 약간 다른 존재들과 친숙하게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역량을 더 완전하게 하는 방법. 회고 지휘자들은 그들의 집단_놀이 활동을 통해서 이 후자{後者}를 달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한다.

43:8.10 (494.9) 6. 다양한 이 교제 기법 전부를,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의 점진적 협조 촉진에 맞추는 방법;외견상 무의미한 이 시_공간 활동들에 감춰진 영원한

목표와_의미를 파악하는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주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

43:8.11 (494.10) 7. 그리고 나서, 다중{多重} 사회화의 이 과정들 전체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동시에, 집단의 영적 연합 및 모론시아 조정을 통해서, 모든 국면의 개인 재능을 증진시키기에 관계되는 영적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지성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두 피조물은, 서로 협력하는 기법으로 우주에서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겨우 두 배로 늘이지 않으며;달성하고 완성할 가능성을 거의 네 배에 가깝게 만든다.

43:8.12 (495.1) 우리는, 에덴시아 교제에 대해, 한 모론시아 필사자가, 지성적으로 다른 열 명으로 구성된 유니비타시아 가족 집단과 사귀고, 동시에 동료 모론시아인 열 명과 비슷하게 사귀는 것이라고 묘사해 왔다. 그러나 처음 일곱 주요 세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상승하는 필사자만이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둘째 집단의 일곱 주요 세계에서는 두 명의 필사자가 열 명의 각 원주민 집단과 함께 거주하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집단의 일곱 주요 구체에서는 열 명의 모론시아 존재가 열 명의 유니비타시아와 함께 산다. 너희가 유니비타시아와 어떻게 더 잘 사귀느냐를 배움에 따라서, 너희는 진보하는 모론시아 동료와 갖는 관계에서 그런 증진된 윤리를 실천할 것이다.

43:8.13 (495.2)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너희는 에덴시아의 진보 세계들에 머무는 것을 즐기게 되겠지만, 너희가 체계 본부에서 우주 직무와 처음 접촉하는 특성, 또는 우주 수도의 최종 세계들에서 이 실체들과 작별하면서 접촉했던 특성을 묘사하는 개인적 만족감의 짜릿함은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9. 에덴시아 시민권

43:9.1 (495.3)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70_번 세계에서 졸업한 후에, 에덴시아에서 거주하게 된다. 상승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낙원의 집회"에 참여하고, 충실 항존자가 상승자의 광범위한 생애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충실 항존자는 그들이 만났던, 삼위일체에서_기원된 최상급 인격체들 가운데 첫째다.

43:9.2 (495.4) 에덴시아 시민신분을 완결시키는, 성좌 훈련 세계들에서 머무는 이 전체 기간은, 모론시아 진보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희열을 맛보는 기간이다. 체계의 여러 세계에 머무는 기간 내내, 너는 거의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모론시아 피조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영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물질적이었다. 살빙톤 구체들에서, 너는 모론시아 존재로부터 참된 영 신분으로 진화할 것이며;물질적이기보다는 더 많이 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에덴시아에서, 상승자들은 자신의 이전 상태와 미래 신분 사이의 중간, 즉 진화하는 동물로부터 상승하는 영이 되는 통로에서 중간에 있다. 에덴시아 및 거기에 속한 세계들에 머무는 동안 내내, 너는 “천사와 비슷한” 상태이며;끊임없이 진보하지만,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모론시아 상태를 줄곧 유지한다.

43:9.3 (495.5) 상승하는 필사자의 이 성좌 체류 기간은, 모론시아에서 진보하는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한결같고 안정된 시기다. 이 체험은, 상승자가 영이_되기_전에 거치는 사회화 훈련이다. 그것은 하보나에서 완결성취자가_되기_전에 겪는 영적 체험과 비슷하며, 낙원에서 거치는 유한절대_이전의 훈련과 비슷하다.

43:9.4 (495.6) 에덴시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70개의 진보하는 유니비타시아 세계에서 주어지는 임무에 주로 전념한다. 또한 그들은 에덴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봉사하는데, 집단, 인종, 국가, 및 행성의 복지와 관련된 성좌 계획표와 주로 연결돼 있다. 지고자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개별 승진을 촉진하는 데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으며;각 개인의 마음 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나라에서 통치한다.

43:9.5 (495.7) 그리고 너희가 살빙톤 경력을 위해서 에덴시아를 떠날 준비가 된 그날에, 너희는 잠시 멈춰서, 낙원에 도달하기 전에 너희가 훈련받던 전체 시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쾌했던 한 시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쪽을 행해 상승하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더욱 크게 식별할 수 있는 증대된 능력을 성취함에 따라서, 그 모든 영광이 늘어날 것이다.

43:9.6 (496.1) [말라바티아 멜기세덱이 후원했음]

제44편 천상의 기능공

44:0.1 (497.1) 다양한 분과{分科} 본부 세계와 우주 본부 세계에서 우대받는 거류민{居留民} 가운데, 천상{天上}의 기능공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계층의 혼합된 인격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존재들은 모론시아 영역 및 하급 영 영역의 으뜸 예술가요 기능공이다. 그들은 모론시아 장식과 영적 미화{美化}에 참여하는 영 및 약간영{靈}이다. 그런 기능공들은 광우주에 두루--곧 빛과 생명에 정착한 모든 구체뿐 아니라, 연방우주, 지방우주, 성좌, 및 체계의 본부 세계에-- 퍼져 있지만;그들의 주요 활동 영역은 성좌에 있으며, 특히 각 본부 구체를 둘러싼 770개의 세계에 있다.

44:0.2 (497.2) 물질 정신은, 그들의 업무를 거의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모론시아 세계와 영{靈} 세계들에 자체의 고귀한 기술과 숭고한 문화가 없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

44:0.3 (497.3) 천상의 기능공들은, 그 자체로 창조되지 않으며;중앙우주 출신의 어떤 선생 인격체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및 기타 수많은 천상의 집단으로부터 뽑은 자원하는 제자들로 구성된, 선택되고 모집된

존재들의 단체다. 이 기술자들로 구성된 원래의 훈육 단체를, 무한한 영이 일곱 으뜸 영과 협동해서 언젠가 배정했으며, 일곱 기능공 분야 각각에 1,000명씩, 7,000명의 하보나 교관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 핵심과 함께 시작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영 직무와 모론시아 직무에서 숨쉬 있는 일꾼들의 이 눈부신 단체가 발전돼 왔다.

44:0.4 (497.4) 어떤 모론시아 인격체나 영 실재든지;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신성한 아들신분의 지위보다 밑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천상의 기능공 단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다. 진화하는 구체에서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론시아 세계에 도착한 후에, 기능공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분히 재능을 갖고 있으면, 비교적 길거나 짧은 기간의 그런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1,000년, 즉 연방우주 시간으로 1,000년보다 짧게 천상의 기능공에 가입할 수 없다.

44:0.5 (497.5) 천상의 기능공 전체가 연방우주 본부에 등록돼 있지만, 그들은 지방우주 수도에서 모론시아 감독관들의 지휘를 받는다. 각 지방우주 본부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론시아 감독관들의 중앙 단체가 다음과 같은 주요 일곱 활동 분야에 그들을 임명한다:

44:0.6 (497.6) 1. 천상의 음악가.

44:0.7 (497.7) 2. 하늘의 재생자.

44:0.8 (497.8) 3. 신성한 건축가.

44:0.9 (497.9) 4. 사고{思考} 기록원.

44:0.10 (498.1) 5. 에너지 조종자.

44:0.11 (498.2) 6. 설계자와 장식가.

44:0.12 (498.3) 7. 조화{調和} 일꾼.

44:0.13 (498.4) 이 일곱 집단의 원래 선생들은 모두 하보나의 완전한 세계들로부터 왔으며, 하보나는 모든 국면과 형태의 영적 예술성을 위한 원형{原型}, 즉 원형 학문을 포함하고 있다. 하보나의 이 예술을 우주의 세계들로 옮기려는 시도는 엄청난 과제이지만, 천상의 기능공들은 대대로, 기법과 이행에서 개선을 이룩해 왔다.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다른 단계처럼, 어느 계통에서든지 노력해서 최고의 진보를 이룩한 자들은, 자신의 탁월한 지식과

숨씨를 자신보다 재능이 적은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도록 규정돼 있다.

44:0.14 (498.5)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서, 이식{移植}된 이 하보나 예술을 처음으로 잠깐 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너희의 감상, 너희가 살빙톤의 영 회관에 서서, 영 영역에 속한 숭고한 예술가들의 영감 넘치는 거작{巨作}들을 바라보기 전까지, 강화되고 밝아질 것이다.

44:0.15 (498.6) 모론시아 및 영 세계들의 이 모든 활동은 실재한다. 영 존재에게는 영 세계가 현실이다. 우리에게서 물질 세계가 더 비현실이다. 상류 형태의 영들은, 평범한 물질을 통과해서 지나간다. 높은 영들은, 특정한 기본 에너지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물질 존재에게 영 세계는 다소 비현실적이며;영 존재에게 물질 세계는 거의 완전하게 비현실인데, 영 실체 내용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44:0.16 (498.7) 영 시력만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이야기가 번역돼 기록되고 있는 그 건물을 감지하지 못한다. 우연히 내 옆에 서게 된, 우버사로부터 온 어떤 신성한 조연자는, 순전히

물질적인 이 창조물을 훨씬 적게 감지한다.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변형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정신에게 제시하는 영 상대물을 봄으로써, 이런 물질 구조물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별한다. 영 존재인 내게는, 물질적인 이 건물이 전혀 실재하지 않지만, 물질 필사자에게는 당연히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쓸모 있다.

44:0.17 (498.8) 영 세계와 물질 세계, 양쪽 피조물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유형의 존재들이 있다. 하보나 하인 중에서 소위 넷째 피조물과, 화해자 중에서 넷째 피조물이 이 부류에 해당된다. 육신을 입은 생애에서 구출된 뒤에 상승하는 필사자처럼, 시간과 공간의 천사들은 영과 물질 존재 양쪽 다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다. 상승자들은, 높은 영 수준을 달성한 후에, 물질 실체와 모론시아 실체 그리고 영 실체를 감지할 수 있다.

44:0.18 (498.9) 한때 필사 존재였고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자인, 우버사에서 온 강력한 사자 또한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며, 그는 너희를 현재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동시에, 단독 사자,

최고스라빔, 및 기타 천상의 존재들이 현존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긴 상승 과정에서, 너희가 전에 실존했을 때
동역자였던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생애의 사다리에서 안쪽으로
상승할 때, 예전에 낮은 수준에서 체험하는 동안 만났던
동료 존재들을 알아보고 사귀는 역량을 항상 유지할
것이다. 새로운 전환 또는 부활이 있을 때마다, 그 전
세계들에서 만났던 친구와 동료를 알아보는 역량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영 존재 집단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시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다.

44:0.19 (498.10) 이 모든 것은,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의 조치로,
상승하는 필사자의 체험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 너의
생애에서 겪은 체험 전체를 복사하는 그들의 기억력을
통해서, 너는 한때 정말로 네 것이 됐던 어떤 속성이든지
결코 잃지 않도록 보장받으며;이 조율사는 너의 한
부분으로서, 실제로는 *너 자신*으로서 너와 함께 겪는다.

44:0.20 (499.1) 그러나 나는 천상의 기능공들이 하는 일의 본성을
물질 정신에게 전할 수 없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다. 이
모론시아 진행사항과 영에_가까운 현상의 실체를 필사

정신에게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나는 계속 사고{思考}를 오해하고 언어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너희의 납득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너희의 언어는 약간영적인 이 활동의 의미, 가치, 및 관계를 전달하기에 부적합하다. 나는 이 실체들에 관해서 인간 정신을 일깨우려고 이렇게 계속 애쓰고 있지만, 그런 이행업무에서 나 같은 존재가 크게 성공하기는 심각할 정도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44:0.21 (499.2) 나는 필사자의 물질적 활동과 천상의 기능공들의 여러 기능 사이의 유사성을, 있는 그대로 그려보려고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유란시아 인종들이 예술을 비롯해 다른 문화적 성취들에서 더 진보를 이룩했다면, 물질로 이뤄진 사물로부터 모론시아 사물 쪽으로 인간 정신을 넓혀주려는 노력에서, 나는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모론시아 및 영 세계의 이 진행사항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내가 이루고자 희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1. 천상의 음악가

44:1.1 (499.3) 필사자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으므로, 너희는 모론시아의 곡조를 거의 알아챌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모론시아 화음과 영 화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청력{聽力}으로는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물질적 음역{音域}도 있다. 영 곡조는 물질적 음파가 아니라, 천상의 인격체들의 영이 청취하는 영 진동이다. 구체들의 선율과 어우러지는 웅대한 연주뿐 아니라, 방대한 범위와 표현하는 열정이 있는데,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전적으로 벗어난다. 나는 천상의 회로의 영 에너지 위에서 그 범주의 선율이 흘러가는 동안, 최고의 황홀경에 도취된 수백만의 존재를 봤다. 기묘한 이 선율은 우주 구석구석까지 방송될 수 있다.

44:1.2 (499.4) 천상의 음악가는, 다음과 같은 영 세력들을 조종함으로써, 천상의 화음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44:1.3 (499.5) 1. *영적인 소리* --영 흐름의 끊어짐.

44:1.4 (499.6) 2. *영적인 빛* --모론시아와 영적 범주의 빛을 통제하고 강화함.

44:1.5 (499.7) 3. *에너지 충돌* --모론시아 에너지와 영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다룸으로써 산출되는 곡조.

44:1.6 (499.8) 4. *색 조화* --모론시아 색조{色調}의 선율;이것은 천상의 음악가들의 가장 높은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꼽힌다.

44:1.7 (499.9) 5. *연합된 영들의 조화* --장엄한 곡조를 연주하는, 다른 계층의 모론시아 존재 및 영 존재로 구성된 참된 배열과 연합.

44:1.8 (499.10) 6. *사고{思考}의 곡조* --영적 사고를 사색하는 것은, 하보나의 곡조로 터져 나올 만큼 완전하게 될 수 있다.

44:1.9 (499.11) 7. *공간의 음악* --알맞게 조율함으로써, 다른 범위의 곡조를 우주 방송 회로에서 청취할 수 있다.

44:1.10 (500.1) 소리, 색, 및 에너지를 조종하는 10만 가지가 넘는 다른 형식이 있는데, 인간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기법이다. 너희가 춤출 때 연주하는 합주곡{合奏曲}은, 존재를 배치하고 인격체를 배열함으로 이뤄지는 천상의 조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물질 피조물이 미숙하고

괴상하게 시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다른 5가지 모론시아 곡조 형태는, 물질적 육체의 감지 장치로 포착되지 않는다.

44:1.11 (500.2) 화음, 즉 일곱 음정의 곡조를 조합하는 음악은, 영이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신호법이다. 유란시아 필사자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음악은, 체계 본부인 예루셈 학교에서 가장 고상하게 표현되는데, 거기서 약간물질 존재들이 음의 조화를 배운다. 필사자는 다른 형태의 모론시아 곡조 및 천상의 화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44:1.12 (500.3) 유란시아에서는 음악을 육신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감상하며; 너희 인간 음악가는 옛 선조의 야만적 단조로움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소리 감상으로, 음악적 감각을 무척 향상시켜 왔다. 대부분의 유란시아 필사자는, 음악에 대해 거의 대부분 물질 근육으로 감응하고, 정신과 영으로는 매우 적게 감응하지만; 3만 5천 년 이상 지나오는 동안, 음악 감상은 꾸준히 개선돼 왔다.

44:1.13 (500.4) 선율이 아름다운 당김음은, 원시인의 단조로운 음악으로부터, 후대 음악가들이 풍성하게 표현한 화음과 의미 있는 곡조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초기 유형의 이 박자는, 화음을 감상하는 상류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악을_좋아하는 감각 반응을 자극하며, 따라서 미성숙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한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더 호감을 갖는다.

44:1.14 (500.5) 유란시아에서 최고의 음악은, 너희 음악가를 연상하게 하는 천상{天上}의 음악가들이 듣는 장엄한 선율이 눈 깜짝 할 동안 공명한 것에 불과한데, 그들은 모론시아 세력들이 음 화성학의 음악적 가락으로 기록한 이런 화음의 작은 단편들을 남겨놨을 뿐이다. 영_모론시아 음악은 일곱 형태의 표현과 재생 전체를 종종 사용하는데, 그래서 높은 구체들의 이런 가락을 음악의 단순한 음표로 적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정신은 엄청나게 장애를 겪는다. 그런 노력은 겨우 한 개의 악기로 거창한 오케스트라 선율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44:1.15 (500.6)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가락을 어느 정도 조립해 왔지만, 음악적으로 볼 때, 사타니아에 있는 너희의 여러 이웃 행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아만 있었더라도, 너희는 음악을 정말로

소유했겠지만;그들의 본성을 많이 차지했던 화음이라는 은사는, 음악적 소양이 없는 핏줄로 인해서 너무 희석됐으며, 그렇기 때문에, 필사자로서 1,000번 산다면 겨우 한 번 화성을 깊이 음미할 정도까지 됐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라;언젠가 참된 음악가가 유란시아에 출현할 것이며, 그가 만든 가락의 장엄한 선율에 모든 사람이 매혹될 것이다. 그런 한 인간이 국가 전체, 심지어 개화된 전체 세상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 “가락이 온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음악은, 사람, 천사, 및 영들의 보편적 언어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화음은 하보나의 언어다.

2. 하늘의 재생자

44:2.1 (500.7) 필사적 사람은, 하늘의 재생자{再生者}들의 기능에 대해서 빈약하고 왜곡된 것보다 더 나은 개념을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나는 너희의 물질 언어의 조잡하고 제한된 상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설명하고자 시도할 수밖에 없다. 영_모론시아 세계에는 최상의 가치를 갖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생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좀처럼 “사람의 정신이

겪어본 적" 없는 범주의 활동에 속한 체험이며, 육신을 입은 생애에서 생존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대기시키는 실체들이다.

44:2.2 (501.1) 하늘의 재생자에는 일곱 집단이 있으며, 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설명하려 한다:

44:2.3 (501.2) 1. *가수* --과거의 특정한 화음을 반복하고 현재의 가락을 해석하는 화성학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론시아 수준에서 실행된다.

44:2.4 (501.3) 2. *색칠하는 자* --너희가 사생가 또는 화가라고 부를 지도 모를,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예술가, 즉 장래의 모론시아 즐거움을 위해서, 지나가는 장면과 일시적 사건들을 보존하는 예술가.

44:2.5 (501.4) 3. *빛을 영상화 시키는 자* --매우 유치하지만, 동영상을 예로 들 수 있는, 참된 약간영{靈}_현상을 보존하는 작품을 만드는 자들.

44:2.6 (501.5) 4. *역사물 연출가* --우주 기록과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극적으로 재생시키는 자들.

44:2.7 (501.6) 5. *예언적 예술가* --역사의 의미를 미래 속으로

투영시켜보는 자들.

44:2.8 (501.7) 6. *생애_이야기꾼* --인생 체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존시키는 자들. 현재의 개인 체험을 미래에 달성할
가치로 예측함.

44:2.9 (501.8) 7. *경영 공연자* --통치 원리와 경영 기법의

중요성을 묘사하는 자들, 즉 주권을 표현하는 천상의
극작가들.

44:2.10 (501.9) 하늘의 재생자들은, 기억의 재현을 어떤 형태의

정신 휴식 및 인격체 기분전환과 합치려고, 회고
지휘자들과 매우 종종 효과적으로 협력한다. 모론시아
비밀회의와 영 집회 앞에서, 이 재생자들은 그런 모임의
목적에 대표하는, 엄청나게 극적인 작품 속에 때때로
참여한다. 나는 최근에, 100만 명 이상의 배우가 1,000개의
장면을 연속으로 재현하는 엄청난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44:2.11 (501.10) 지적인 높은 선생과 과도기 사역자들은, 자신의

모론시아 교육 활동 중에 다양한 집단의 재생자들을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전체가 순간적 예증{例證}에 활용되지는 않으며;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영구적인 본성을 가졌고, 모든 미래 시대에 전해주는 유물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기능공들은 재주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기능을 발휘할 때, 한 시대를 다시 공연할 수 있고, 스랍 사역자들과 협동하여, 시간세계의 필사 선지자들에게 영 세계의 영원한 가치를 실제로 묘사할 수 있다.

3. 신성한 건축가

44:3.1 (501.11) “하나님이 건설하고 조성하신” 도시들이 있다. 우리는 너희 필사자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 그리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영 사본{寫本} 속에 갖고 있다. 우리는, 집, 영 위문품, 그리고 모론시아 필수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물질적 만족 대신, 우리의 실존을 부요하게 하고 확대시키는 일을 하는, 수천 가지 영적 실체를 소유하고 있다. 신성한 건축가들은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44:3.2 (502.1) 1. 주택 설계자 및 건축가 --각 개인 및 작업 집단들에게 배정된 거주지를 건설하고 개조하는 자들. 이

모론시아 및 영 거주지들은 실재한다. 그것들은 너희의 근시안적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아름답다. 어느 정도까지, 모든 영 존재는 그들의 모론시아 거주지 또는 영 거주지들을 계획하고 창조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그 건축가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 집은, 거기서 살게 될 모론시아 피조물 또는 영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되고 꾸며진다. 이 모든 건축물에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다양함과 넉넉한 기회가 있다.

44:3.3 (502.2) 2. *직업관련 건축가*--영 영역 및 모론시아 영역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일꾼들의 체류지를 설계하고 조립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이 건축가들은 유란시아에서 작업장 및 기타 산업 공장을 건축하는 그들과 비교될 수 있다. 변환기 세계들에는, 서로 봉사하고 특화된 노동으로 분업하는 필연적 경제제도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온갖 일을 하지는 않으며;모론시아 존재 및 진화하는 영 중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이 직업 건축가들은 개선된 작업장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의 직업 향상에 또한 기여한다.

44:3.4 (502.3) 3. *놀이관련 건축가*. 수많은 건축물이 휴식 기간에 활용되는데, 이 휴식은 필사자들이 오락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놀이라고 부를만한 것이다. 회고 지휘자들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제공되는데, 이들은 모론시아 세계의 익살꾼이며, 그 과도기 구체들에서는, 상승하는 존재들이지만 진화 행성에서 최근에 옮겨진 자들의 훈련이 진행된다. 높은 영들조차,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기간에 특별한 형태로 추억에 잠기는 유머에 이끌린다.

44:3.5 (502.4) 4. *경배관련 건축가* --영 성전과 모론시아 성전의 숙련된 설계사들. 상승하는 필사자가 머무는 모든 세계에는 경배하는 성전이 있으며, 이 성전들은 모론시아 영역 및 영 구체들에서 가장 절묘한 창작품이다.

44:3.6 (502.5) 5. *교육관련 건축가* --모론시아 훈련과 고등 영 학습 본부를 짓는 자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보편적인 문화 지식뿐 아니라, 한 개인의 현재 및 미래에 할 일에 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이 항상 열려있으며, 이런 정보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모론시아 세계와 영

세계에서 더욱 영리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만들도록
고안돼 있다.

44:3.7 (502.6) 6. *모론시아 계획가* --모든 범주의 모든 인격체가
한때 어느 한 구체에서 나타날 때, 그들이 조화롭게
교제하도록 건설하는 자들. 이 계획가들은, 진보하는
모론시아 생애가 더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과 협력한다.

44:3.8 (502.7) 7. *공공{公共} 건축가* --경배 드리는 곳이 아닌
지정된 집회 장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기능공들. 공공
집회가 있는 장소들은 거대하고 웅장하다.

44:3.9 (502.8) 이런 구조물뿐 아니라 그 장식물 역시, 물질
필사자가 감각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적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실제적이다.
너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거기에 간다면 이 회당들을 볼 수
없을 것이며;그럼에도 이 모든 초물질 창작품은 실제로
거기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식별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즐긴다.

4. 사고 기록원

44:4.1 (503.1) 이 기능공들은 여러 범주의 뛰어난 사고{思考}를 보존하고 재생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들은 다음의 일곱 집단으로 활동한다:

44:4.2 (503.2) 1. *사고 보존가*. 이들은 여러 범주의 높은 사고를 보존하는 일에 전념한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보석 같은 지적{知的} 활동을 정말로 소중히 간직한다. 나는 유란시아에 처음 오기 전에, 이 행성에 있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관념작용에 대한 기록을 봤고 방송을 들었다. 사고 기록원들은 그런 고귀한 관념을 우버사 언어로 보존한다.

44:4.3 (503.3) 각 연방우주는, 자체 언어, 즉 거기 있는 인격체들이 말하고 그 구역들 전역에서 통용되는 방언을 갖고 있다. 우리 연방우주에서는 이것이 우버사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각 지방우주 역시 자체 언어를 갖고 있다. 네바돈에 있는 상류 계층 전체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데, 네바돈 언어와 우버사 방언 둘 다 사용한다. 서로 다른 두 우주에서 온 두 개인이 만나게 되면, 우버사 방언으로 대화하며;그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연방우주에서 왔다면, 그들은 통역관에게 의뢰해야만 한다. 중앙우주에서는

언어가 거의 필요 없으며;거기서는 완전하고 거의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며;오직 하나님들만이 충분하게 납득되지 않을 뿐이다. 낙원에서 우연한 만남이, 필사자의 언어로 약 1,000년에 걸쳐서 대화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나타낸다고 우리는 배웠다. 심지어 살빙톤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안다”.

44:4.4 (503.4) 모론시아 구체와 영 구체들에서 사고{思考}를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필사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고를 영구적인 기록으로 압축시키는 속도를, 노련한 기록원들이 크게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개 이상의 단어, 즉 사고 상징들을 유란시아 시간으로 1분 만에 기록할 수 있다. 이 우주 언어는 진화하는 세계의 말보다 훨씬 완비돼 있다. 기본 알파벳이 겨우 70개 상징으로 돼 있지만, 우버사의 개념 상징은 10억 개 이상의 글자를 포함한다. 네바돈 언어는 그다지 정교하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상징 또는 알파벳 숫자가 48개이기 때문이다.

44:4.5 (503.5) 2. *개념 기록원*. 기록원 중에서 이 둘째 집단은, 개념의 심상{心象}, 즉 관념 원형을 보존하는 데 관여한다.

이것은 물질 영역에 알려지지 않은, 영구 기록 형태이며, 나는 너희가 보통 언어로 기록된 것을 100년 동안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 방법에 따라 너희 시간으로 한 시간 만에 얻을 수 있다.

44:4.6 (503.6) 3. *표의문자{表意文字} 기록원*. 우리는, 너희가 사용하는 글로 표현하는 단어와 말로 표현하는 단어, 양쪽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사고{思考}를 보존할 때에는, 대개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이나 표의문자 기법을 사용한다. 표의문자를 보존하는 자는 개념 기록원의 작업을 1,000배나 향상시킬 수 있다.

44:4.7 (503.7) 4. *웅변 촉진자*. 이 집단의 기록원은 웅변으로 재생되도록 사고를 보존하는 과제에 배정돼 있다. 그러나 네바돈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한 유란시아 필사자가 평생 걸릴 문제를, 우리는 30분 연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처리사항을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시 멈춰서 너희의 혼란되고 왜곡된 꿈꾸는 인생 기법을--곧 너희가 밤에 이 환상 속에서 수 초 동안 여러 해를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44:4.8 (503.8) 영 세계의 연설은, 오직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인 유란시아의 연설을 들어 온 너희를 위해 마련된, 진기한 위로잔치 가운데 하나다. 살빙톤과 에덴시아의 연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감을 주는, 음악과 기분 좋은 소리의 조화가 있다. 강렬한 이 개념들은, 영광스런 왕관에 박힌 아름다운 보석 같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다른 세계에 있는 이 실체들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인간 정신 속에 전달할 수 없다!

44:4.9 (504.1) 5. *방송 지휘자*. 낙원, 연방우주, 및 지방우주의 방송{放送}은, 이 사고 보존가 집단의 일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은 방송 재료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검열하고 편집하는 자로서 봉사하는데, 낙원 방송 전체가 연방우주에 적응되도록 하며, 태고 항존자의 방송을 지방우주의 개별 방언으로 각색하고 번역한다.

44:4.10 (504.2) 지방우주 방송은, 체계와 개별 행성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만 한다. 이 우주 보고서의 전송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주어진 회로 안에 있는 각 세계마다 모든 보고서를 적절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항상 거꾸로 기록된다. 이 방송 지휘자들은, 모든 목적의

정보 통신을 위해 공간의 흐름을 활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숙련돼 있다.

44:4.11 (504.3) 6. *리듬 기록원*. 유란시아인은 이 기능공들을
틀림없이 시인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들의 업무는 너희가
시{詩}로 쓴 작품과는 매우 다르고, 그것을 거의 무한히
초월한다. 리듬은 모론시아 존재와 영 존재, 양쪽에 피곤을
덜어줄 것이며, 그래서 리듬 형태로 수많은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기쁨을 증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에덴시아 집회의 시적{詩的}인 방송을 어느 정도
듣고, 성좌 재주꾼들의 풍부한 색조와 곡조를 즐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인데, 그들은 이 절묘한
형태로 자아를_표현하고 사회를 조화시키기에 숙련돼
있다.

44:4.12 (504.4) 7. *모론시아 기록원*. 나는 다양하게 분류된
모론시아 직무 및 영 처리사항들을 총합한 그림을
보존하는 일에 배정된, 중요한 이 사고{思考} 기록원
집단의 역할을 물질 정신에게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으며;어설뿐 묘사이겠지만, 그들은 과도기

세계들의 사진작가 집단이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진보하는 시기들의 생생한 장면과 연상{聯想}들을 보존하는데, 모론시아 기록 보관소에 그것들을 보존한다.

5. 에너지 조종자

44:5.1 (504.5) 흥미롭고 효과적인 이 기능공들은, 모든 종류의 에너지, 즉: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와 관련된다.

44:5.2 (504.6) 1. *물리적 에너지 조종자.* 물리적 에너지 조종자들은, 동력 지휘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봉사해 왔고, 물리적 에너지의 여러 국면에 대한 조종과 통제에 전문가다. 그들은 연방우주들의 세 가지 기본 흐름과, 30가지 보조 에너지를 분리하는 데 정통해 있다.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의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준다. 그들은 낙원의 시공우주 설계를 끊임없이 연구한다.

44:5.3 (504.7) 2. *정신_에너지 조종자.* 이들은 모론시아 존재 및 기타 유형의 지성 존재 사이의 상호의사소통에 전문가다. 필사자들 사이의 이 통화 형식은, 유란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승하는 모론시아 존재들의 상호 통화 역량을 높여주는 전문가이며, 그들의

활동은 지성적 접촉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독특한 모험을 포함하는데, 이 활동은 물질 정신에게 묘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기능공들은 무한한 영의 정신 회로를 예리하게 연구하는 자다.

44:5.4 (505.1) 3. *영적_에너지 조종자*. 영적 에너지 조종자는 흥미로운 집단이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하는 것과 똑같이, 확립된 법칙에 따라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영 세력은 이를 연구했을 때 신뢰할만한 결론을 가져오며,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정밀하게 취급될 수 있다. 영 세계에는 물질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은 확실하고 믿을만한 법칙이 있다. 영 에너지를 다스리는 영원한 아들의 근본 법칙을 연구하는 이 연구자들은, 최근 수백만 년 동안,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는 많은 개선된 기법을 실행해 왔는데, 그 법칙은 우주들 전역에서 모론시아 계층과 기타 계층에 속하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적용된다.

44:5.5 (505.2) 4. *복합 조종자*. 이들은 잘 훈련된 모험심 있는 존재들의 집단인데, 물리적,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로서 우주들 전역에서 형태화 된, 신성한 에너지의 세 가지 원래

국면을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이들은 실제로, 지존자 하나님의 우주 현존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예민한 인격체인데, 이 신격 인격체 안에서 모든 광우주 신성이 체험으로 통합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 기능공들이 최근에 다소 성공을 이뤘다.

44:5.6 (505.3) 5. *운송 충고자*. 운송 스라빔에게 충고하는 이 기술 충고자 단체는, 별 연구자들과 함께, 여정을 정하는 일, 그리고 그 외에 공간 세계들에서 운반 담당 우두머리들을 돕는 일에 가장 능숙하다. 그들은 구체들의 통행을 감독하는 자이며, 모든 인간거주 행성에 현존한다. 유란시아에서는 70명의 운송 충고자 단체가 봉사하고 있다.

44:5.7 (505.4) 6. *통신 전문가*.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는 행성들 사이와 우주들 사이의 통신을 맡는 열두 명의 기술자가 봉사하고 있다. 오랜 체험을 가진 이 존재들은, 여러 범주의 통신에 적용되는 송신 및 간섭 법칙에 관한 지식에 권위자다. 이 단체는 인력 및 단독 사자들의 메시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우주 메시지에 관여한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이 하는 일 대부분은 천사장 회로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44:5.8 (505.5) 7. *휴식을 가르치는 선생.* 신성한 휴식은 영_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법과 관련된다. 모론시아 에너지와 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처럼 분명하게 다시 채워지지만, 똑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다. 부득이 나는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 시도하면서 미숙한 설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영 세계 출신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 활동을 정기적으로 멈추고 적당한 약속 장소로 직접 가야만 하며, 거기서 우리는 신성한 휴식에 들어가서 우리의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한다.

44:5.9 (505.6) 너희가 모론시아 존재가 되어, 영 직무의 기법을 체험하기 시작한 다음, 맨션 세계에 도달했을 때, 너희는 이 문제에 관한 첫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보나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에 대해 알며, 공간 순례자들이 이전의 궤도들을 거치고 난 후에, 길지만 활기를 되찾게 하는 낙원의 휴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받아야 함을 안다. 이것은 시간세계의 생애로부터 영원성의 봉사로 옮겨가는 데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상승 체험의 마지막 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채우기 위해 요구되는, 그리고 다음 단계의 끝없는 생애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분의 능력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휴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44:5.10 (506.1) 이 에너지 조종자들은 또한 열거하기에 너무 많은 수백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흡수 방식에 대해서, 능동적인 체루빔과 수동적인 사노빔 사이에 퍼져 있는 힘들의 가장 유용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관해서, 스라빔, 체루빔, 및 사노빔과 상담한다.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 전문가들은 신성한 휴식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모론시아 피조물과 영 피조물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 휴식은 공간의 기초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6. 설계자와 장식가

44:6.1 (506.2) 독특한 이 기능공들의 절묘한 작업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로서는, 영으로 장식하는 업무를 설명하려고 아무리 시도해 봤자, 너희의 정신 및 물질 세계에서 너희가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처량하기는 해도 가치 있는 수고가 될 것임을 물질 정신들에게 상기시켜줄 뿐이다.

44:6.2 (506.3) 이 단체에는 1,000개 이상의 하위 활동부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곱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44:6.3 (506.4) 1. *색조 수공업자*. 이들은 영을 반사하는 10,000가지 색조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전하는 절묘한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는 자다. 색조를 인식하는 것 외에, 인간 체험 속에서 이 활동과 비교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44:6.4 (506.5) 2. *소리 설계자*. 이들은 너희가 소리라고 부르는 것을 설계하는 자인데, 다양한 정체성과 모론시아 감상을 나타내는 영 파동을 묘사한다. 이 충격파는 실제로, 천상의 무리들의 적나라하고 영화로운 영과_혼을 훌륭하게 반영한 것이다.

44:6.5 (506.6) 3. *감정 설계자*. 느낌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이 존재들은, 시간세계 자녀들의 연구와 교화{敎化}를 위해서, 그리고 모론시아 진보자 및 발전하는 영들의 영감과 미화{美化}를 위해서, 모론시아의 정서와 신성의 감정을 보존하는 자다.

44:6.6 (506.7)

4. **냄새의 예술가**. 송고한 영 활동을, 육체로 화학적 냄새를 인식하는 것에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해도 유란시아 필사자는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기능공들은, 진보하는 빛의 자녀들의 교화{敎化}와 기쁨을 위해서 다양한 조화를 창조한다. 너희는 이 유형의 영적 장엄함에 조금이라도 비교될만한 것을 이 땅에 전혀 갖고 있지 않다.

44:6.7 (506.8)

5. **풍채 장식가**. 이 기능공은 자신을 장식하는 예술, 또는 피조물을 미화하는 기술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이 존재들이 혼합되어 나타내는 전체효과에서, 다른 모론시아 계층과 영 계층에게 배정된 위치상의 가치를 통하여 관계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개개의 모론시아 피조물과 영 피조물 안에 광대하고 기쁨에 넘치는 반응을 일으키는 데 전념한다. 생생한 음악 선율, 냄새, 풍경을 너희가 마련하듯이, 이 예술가들은 초물질적 존재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들을 섞어서 영광스런 송가{頌歌}처럼 되게 한다.

44:6.8 (506.9)

6. **취향 설계자**. 너희에게 이 기능공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은 모론시아 취향을 개선하는

자이고, 또한 진화하는 영 감각을 예리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라고, 어렴풋이나마 제시할 수 있겠다.

44:6.9 (507.1) 7. *모론시아 합성가*. 이들은 뛰어난 기능공인데, 남들이 모두 각자 공헌한 뒤에, 모론시아 전체효과 완결시키고 마무리하는 가필{加筆}을 하며, 이처럼 신성하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자에게 영감을 주도록 묘사하는 일, 즉 영 존재들과 그 모론시아 동역자들에게 영속적인 영감이 되는 일을 한다. 그러나 너희는, 모론시아 세계와 영 세계의 예술적 영광과 심미적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먼저 동물적인 육체에서 해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7. 조화 일꾼

44:7.1 (507.2) 혹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할지 모르지만, 이 예술가들은, 음악, 미술, 또는 기타 비슷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들은 영 세계에 현존하지만 필사자가 인식할 수 없는 특화된 세력과 에너지를 조종하거나 조직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비교될만한 최소한의 근거라도 내가 가졌더라면, 영을 성취하는 이 독특한 분야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겠지만, 나는 절망스럽다--이 분야의 천상의 예술성을 필사 정신에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암시할 수 있겠다:

44:7.2 (507.3) 아름다움, 리듬, 및 조화{調和}는 지성적으로 관련돼 있고 영적으로 비슷하다. 진실, 사실, 및 관계는 지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개념과 관련돼 있다. 선함, 의로움, 및 공의는 철학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생생한 진리 및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함께 묶여 있다.

44:7.3 (507.4) 참된 철학의 시공우주 개념들, 천상의 예술성에 대한 묘사, 또는 신성한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묘사하려는 필사자의 시도는, 그런 피조물이 진보하려는 시도가 통합되지 않는 한, 결코 참되게 만족될 수 없다. 진화하는 피조물 범위 안에서 이런 신성한 충동의 표현은, 지적으로 참되고, 감정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선할지 모르지만;이런 진리의 실체성, 아름다움의 의미, 그리고 선함의 가치들이, 예술가, 과학자, 또는 철학자의 인생

체험에서 통합되지 않는 한, 표현하는 참된 혼은 결여돼 있다.

44:7.4 (507.5) 이 신성한 특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는 천사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끝없이 성취하는 기법으로-- 곧 진화 체험에서 영원한 진리, 보편적 아름다움, 및 신성한 선함을 체험으로 혼합하여-- 통합된 자아를_실현하는 영원히_진보하는 수준에서, 무제한으로 자아를_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8. 필사자의 열망과 모론시아 성취

44:8.1 (507.6) 천상의 기능공들은, 유란시아 같은 물질 행성에서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필사자 인종 중에서 천부적으로 은사{恩賜}를 받은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체계 본부로부터 때때로 온다. 이 기능공들은 그렇게 배정되면, 진보를 담당하는 행성 천사들의 감독 아래서 일시적으로 활동한다. 선천적 재능을 소유하고, 특별한 이전{以前} 체험을 가진 조율사 역시 소유하고 있는 이 필사 예술가들을 도우려고 애쓰면서, 스랍 무리는 이 기능공들과 협동한다.

44:8.2 (507.7) 특별한 인간 역량에는 세 가지 가능한 근원이 있다: 밑바닥에는 *언제나* 천부적 소질, 즉 타고난 소질이 있다. 특별한 역량은 하나님들의 독단적 선물인 경우가 결코 없으며; 모든 빼어난 재주는 항상 선조에 근거한다. 이 천부적 역량에 덧붙여서, 또는 거기에 보충해서, 사조율사의 이끄심이 제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인에게 내주하는 조율사는 다른 세계들에서, 또는 다른 필사 피조물 안에서 실제적이고 진실된 그런 비슷한 체험을 이미 가졌을지도 모른다. 인간 정신과 내주하는 조율사, 이들이 색다르게 솜씨 있는 그런 경우에, 이 재주를 조화시키는 존재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그 영역의 교화를 위해 그들의 증진된 설명을 시도하고 항상_완전하게 하는 이상{理想}을 추구하도록 이 필사자들을 도와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서, 영 기능공들이 파견될 수 있다.

44:8.3 (508.1) 영 기능공들의 지위에는 신분계층이 없다. 네가 아무리 저급하게 기원했더라도, 네가 표현하는 역량과 은사를 소유했다면, 위를 향해 상승할 때 모론시아 체험과 영적 달성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정당한 진가를 인정받을 것이다. 모론시아 생애가 충분히

보상하고 전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만큼, 인간이 유전적 장애를 겪거나 필사자의 환경이 결핍될 수 없다. 예술적 성취, 그리고 풍부한 표현의 자아_실현으로 얻는 그런 만족감은 모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네가 몸소 노력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마침내, 진화적으로 진부한 자의 포부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들이 재주와 역량을 독단적으로 증여하지 않지만, 인간의 고상한 열망 전체의 만족이 달성되도록, 그리고 숭고한 자아를_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든 갈망이 만족되도록 마련해 주신다.

44:8.4 (508.2) 그러나 모든 인간마다 기억해야만 한다:육신 속에 있는 필사자를 애타게 만들 정도 이상{以上}의 열망은, 모론시아 생애와 영 생애 동안 바로 이 필사자에게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승하는 모론시아인은, 개인적으로 가졌던 순전히 자기본위적인 열망과 이기적 열정을 사회적으로 승화시키기를 배운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갈망했던, 그리고 환경이 너희를 그토록 계속 거부했던 그것들을, 모론시아 생애에서 참된 모타 통찰력을 획득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오랫동안 품었던 열망을 완전히 만족시킬 모든 기회를 아주 분명히 부여받을 것이다.

44:8.5 (508.3) 상승하는 필사자는, 자신의 영 생애를 개시하기 위해서 지방우주를 떠나기 전에, 모든 지적, 예술적, 및 사회적 갈망, 또는 자신의 필사자 실존이나 모론시아 실존 수준의 영원한 특징인 참된 야망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아를_표현하고 자아를_실현하는 만족감을 평등하게 성취한 것이지, 체험적으로 똑같은 지위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숨씨, 기법, 및 표현에서 독자적 개체성이 완벽하게 소멸된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보나 생애의 최종 궤도를 마치기 전에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영적 차이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낙원 거주자는 개인 체험의 유한절대적 차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차이는 오직 궁극적인 피조물 신분을--곧 필사 완결성취자들의 일곱째 영 운명 단계를-- 집단으로 달성함으로써만 평준화 될 수 있다.

44:8.6 (508.4) 이것이 천상의 기능공들, 즉 낙원 창조주들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묘사하여, 건축양식

구체들을 그토록 영화롭게 만드는, 절묘한 일꾼들의
시공우주 단체에 관한 이야기다.

44:8.7 (508.5)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작성했음]

제45편 지역 체계 경영

45:0.1 (509.1) 사타니아의 행정부 중심은 57개의 건축양식 구체
집단--곧 예루셈 자체, 일곱 주요 위성, 및 마흔아홉
하위{下位}위성--으로 이뤄져 있다. 체계 수도인 예루셈은
유란시아보다 거의 100배 크기에 해당하지만, 그 중력은
약간 작다. 예루셈의 주요 위성은 일곱 과도기 세계인데,
각각 유란시아보다 약 열 배 크기에 달하며, 한편 이 과도기
구체의 일곱 하위위성은 유란시아와 크기가 비슷하다.

45:0.2 (509.2) 일곱 맨션 세계는 1_번 과도기 세계의 일곱
하위위성이다.

45:0.3 (509.3) 57개 건축양식 세계로 이뤄진 이 체계 전체는,
특별하게 창조된 이 구체들을 물리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확립된 기법에 따라서, 사타니아 동력 중심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조정함으로, 독립적으로 빛을 받고
가열되며, 물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이 구체들은

물리적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그밖에 원주민 스포르나기아가 이 구체들을 유지한다.

1. 과도기 문화 세계

45:1.1 (509.4) 예루셈 주위를 돌고 있는 일곱 주요 세계는, 일반적으로 과도기 문화 구체{球體}로 알려져 있다. 그 통치자들은 때때로 예루셈 최고 행정 협의회에서 임명된다. 이 구체들은 다음과 같이 번호가 매겨지고 이름이 주어진다:

45:1.2 (509.5) *1_번. 완결성취자 세계.* 이것은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단체의 본부이며, 영접{迎接} 세계들, 즉 필사자를 상승시키는 기획에 완전히 전념하는 일곱 맨션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 일곱 맨션 세계의 거주자는 누구든지 완결성취자 세계를 방문할 수 있다. 운송 스라빔이 이 순례 여행에서 상승하는 인격체들을 왕복 운반하는데, 이 여행은 과도기 필사자가 궁극의 운명에 관한 신앙을 키우도록 설계돼 있다. 완결성취자들 및 그들의 구조물은 대개 모론시아 시력으로 감지될 수 없지만, 때때로, 이 높은 영 인격체들을 너희가 잠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에너지 변형자 및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만들어 줄 때, 너희는 오싹할 만큼 감동하게 될 것인데, 이
인격체들은 낙원 상승을 실제로 완성했고, 너희가 거대한
이행업무를 완성할 수 있고 완성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보증하려고, 너희가 이 긴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세계들로 돌아왔다. 맨션 세계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완결성취자가 가시화{可視化}되는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완결성취자 구체로 간다.

45:1.3 (510.1) *2_번. 모론시아 세계.* 이 행성은 모론시아 생애를
감독하는 자들의 본부이며, 모론시아 우두머리들이
자신의 동역자와 도우미들, 즉 모론시아 존재 및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다 훈련하는 일곱 구체로 둘러싸여 있다.

45:1.4 (510.2) 일곱 맨션 세계를 통과해 지나가면서, 너희는 또한
모론시아 접촉을 점점 더 하게 되는 이 문화 및 사회
구체들을 통해서 진보할 것이다.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
둘째 세계로 진보할 때, 2_번 과도기 본부, 즉 모론시아
세계에 방문자로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도 그렇게 계속된다. 그리고 이 여섯 문화 구체
가운데 어느 하나에든지 현존하게 될 때, 연합된 집단

활동을 하는 둘러싼 일곱 세계 중에서 어느 곳이든지,
너희는 초청 받아서 방문자 또는 참관인이 될 수 있다.

45:1.5 (510.3) *3_번. 천사의 세계.* 이것은 체계 활동에 참여하는
스랍 무리 전체의 본부이며, 천사의 훈련과 훈육을 맡은
일곱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세계들은 스랍이 사교하는
구체다.

45:1.6 (510.4) *4_번. 최고천사 세계.* 이 구체는 찬란한
저녁별들의 사타니아 고향이고, 대등한 존재와
거의_대등한 존재들이 모이는 방대한 중앙광장이다. 이
세계의 일곱 위성은, 지명되지 않은 이 천상의 존재들의
일곱 주요 집단에게 배정돼 있다.

45:1.7 (510.5) *5_번. 아들들의 세계.* 이 행성은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을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신성한 아들의 본부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세계는,
신성하게 관계된 이 아들들이 개별적으로 무리 짓는 어떤
일에 전념한다.

45:1.8 (510.6) *6_번. 영의 세계.* 이 구체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 체계에서 회합하는 장소로 쓰인다.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은, 이 다양한 계층의 개별 집단에 배정돼 있다. 그러나 과도기 세계 6_번에는 영의 대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계 수도들에서 관측될 그런 현존도 없으며;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는 네바돈에 *어디든지* 있다.

45:1.9 (510.7) *7_번. 아버지의 세계.* 이것은 그 체계에서 고요한 구체다. 어떤 집단의 존재도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빛나는 위대한 성전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안에서 식별될 수 없다. 어느 체계의 세계에서 온 어떤 존재든지, 경배자로서 환영받는다.

45:1.10 (510.8) 아버지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일곱 위성은 특이한 체제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사타니아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루시퍼 반역으로 구금된 집단들을 위한 유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좌 수도인 에덴시아에는 이와 비슷한 감옥 세계가 하나도 없으며;사타니아 반역에서 그 반역자들에게 동조했던 소수의 스라빔과 체루빔이 예루셈의 이 격리된 세계에 오래 전부터 구금돼 있다.

45:1.11 (510.9)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무는 자로서, 너는 만유의 아버지의 구체인 일곱째 과도기 세계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사타니아 감옥 세계들도 방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루시퍼를 비롯해서,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서 루시퍼를 따랐던 인격체 대부분이 지금 감금돼 있다. 그리고 이 슬픈 장면을 최근의 이 시절에 관람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우주 아버지인 미가엘이 제시한 구원을 거부했던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동역자들의 죄를 태고 항존자들이 판결할 때까지, 네바돈 전체에게 하나의 엄중한 경고로서 계속 이바지할 것이다.

2. 체계 주권자

45:2.1 (511.1)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지역 체계의 최고 행정관은, 1차 라노난덱 아들인 체계 주권자다. 우리 지방우주에서는 이 주권자들이, 큰 행정 책임, 즉 유별난 개인적 특권을 갖고 있다. 심지어 오르본톤에서도, 체계 직무를 지휘하는 동안 그런 유별나게 광범한 개인적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체계 주권자들에게 승인할 만큼, 그렇게 모든 우주가 조직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바돈 전체 역사에서, 속박 받지 않은 이 행정관들은 오직 세 번

불충성을 범했다. 사타니아 체계에서 생긴 루시퍼 반역이
마지막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널리 퍼졌다.

45:2.2 (511.2) 사타니아에서는, 불운한 이 격변이 있는 후에도,
체계를 경영하는 기법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현재 체계
주권자는, 태고 항존자들이 루시퍼의 후계자인
라나휘지에게 아직 완전하게 회복시켜주지 않고 지금
성좌 아버지들의 감독 하에 있는 어떤 문제 외에는, 그의
비열한 전임자에게 부여됐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45:2.3 (511.3) 사타니아의 현재 우두머리는 한 명의 품위 있고
명철한 통치자이며, 반역가능성을 시험받은 주권자다.
보조 체계 주권자로서 봉사할 때, 라나휘지는 네바돈
우주에서 초기 격변 중에 미가엘에게 충성했다. 이
강력하고 명철한 사타니아의 주{主}는 믿을만하고 시험
받은 경영자다. 네바돈에서 두 번째 체계 반역이 있을 때,
즉 체계 주권자가 실수로 어둠에 빠지게 됐을 때, 죄를
범하는 우두머리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라나휘지가 정부의
지휘권을 압류했으며, 그리하여 불운한 그 체계 본부
세계들 또는 인간거주 행성들에서, 비교적 적은 인격체가

손실되도록 체계의 직무를 관장했다. 라나휘지는, 미가엘에게 봉사하면서, 그리고 뛰어난 권세와 선임{先任} 지위를 가진 형제가 태만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활동했던, 네바돈 전체에서 유일한 1차 라노난덱 아들이 되는 영예를 간직하고 있다. 예전의 어리석은 행동 결과를 극복하고 반역의 산물이 사타니아에서 제거될 때까지, 라나휘지는 아마 예루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45:2.4 (511.4) 라나휘지는, 사타니아의 고립된 세계들의 직무가 자신의 관할권으로 모두 돌아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 세계들의 복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란시아에 종종 방문하고 있다. 이 주권자는 다른 정상 체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 통치자들, 즉 행성 왕자 및 격리된 세계의 거주하는 총독들의 체계 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행성 의회는 때때로 체계 본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올 때"-- 소집된다.

45:2.5 (511.5) 매주 한 번, 예루셈에서는 10일마다, 주권자는 본부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격체 계층으로 구성된 어떤 한 집단과 비밀회의를 갖는다. 이것은 예루셈의 매우

흥미롭게 비공식적인 시간이며, 결코_잊혀지지_않을 행사다. 예루셈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들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이 집단과 체계 주권자 사이에 최고의 우애가 있다.

^{45:2.6 (511.6)} 독특한 이 회합은, 체계 수도의 거대한 회집 장소인 유리바다에서 이뤄진다. 그것은 순전히 사회적이고 영적인 행사이며;행성 경영에 속하거나, 심지어 상승 계획에 속하는 것도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셈 동료 거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때 모이게 된다. 이런 주간{週刊} 휴양에서 주권자에게 초대 받지 않는 그런 집단들은 그들 자체의 본부에 모인다.

3. 체계 정부

^{45:3.1 (512.1)} 한 지역 체계의 최고 행정관, 즉 체계 주권자는 첫째 및 둘째 보좌관 역할을 하는, 둘 또는 세 명의 라노난덱 아들의 후원을 항상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일곱 라노난덱으로 구성된 한 참모진이 사타니아 체계를 경영한다:

45:3.2 (512.2) 1. *체계 주권자* --라나휘지, 1차 계층 중에서 2,709_번이고, 배신자 루시퍼의 자리를 계승한 자.

45:3.3 (512.3) 2. *제1 보조 주권자* --만수로티아, 제3 라노난덱 가운데 17,841_번. 그는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에 파견됐다.

45:3.4 (512.4) 3. *제2 보조 주권자* --사디브, 제3 계층 가운데 271,402_번. 사디브 역시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에 왔다.

45:3.5 (512.5) 4. *체계 관리자* --홀단트, 제3 단체 가운데 19_번, 필사자 실존 계층보다 위에 있는 모든 억류된 영의 주인이자 통제관. 홀단트도 똑같이 라나휘지와 함께 사타니아로 왔다.

45:3.6 (512.6) 5. *체계 기록원* --빌톤, 사타니아에서 라노난덱 사역의 비서, 3번째 계층 중에서 374번. 빌톤은 원본 라나휘지 집단의 구성원이었다.

45:3.7 (512.7) 6. *증여 지휘자* --휘르탄트, 2차 라노난덱으로 구성된 예비군 중에서 319,847_번이며,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이후로 예루셈에 옮겨진, 모든 우주

활동의 임시 지휘자. 휘르탄트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00년간 라나휘지의 침모진에 배속돼 왔다.

45:3.8 (512.8) 7. *고위{高位} 조연자*--하나바르드, 우주 조연자 및 조정자들이 속하는 고위 단체의 구성원이며, 1차 라노난텍 아들 중에서 67_번. 그는 사타니아의 행정 협의회 **의장**{議長} 역할을 한다. 하나바르드는 루시퍼 반역 이후에 이 계층 중에서 열두 번째로 예루셈에서 봉사하는 자다.

45:3.9 (512.9) 일곱 라노난텍으로 구성된 이 행정 집단은, 루시퍼 반역의 긴급성 때문에 필요하게 된, 확대된 응급 경영을 성립시킨다. 예루셈에는 부속 법정들만 있는데, 이것은 체계가 경영 단위이고 판결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지만, 라노난텍 경영은, 예루셈 행정 협의회, 즉 사타니아의 최고 자문기관의 후원을 받는다. 이 위원회는 열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5:3.10 (512.10) 1. 하나바르드, 라노난텍 의장.

45:3.11 (512.11) 2. 라나휘지, 체계 주권자.

45:3.12 (512.12) 3. 만수로티아, 제1 보좌관 주권자.

45:3.13 (512.13) 4. 사타니아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

45:3.14 (512.14) 5. 사타니아 생명 운반자들의 대리 지휘관.

45:3.15 (512.15) 6. 사타니아 완결성취자들의 우두머리.

45:3.16 (512.16) 7. 사타니아의 원본 아담, 물질 아들들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45:3.17 (512.17) 8. 사타니아 스랍 무리의 지휘관.

45:3.18 (512.18) 9. 사타니아 물리 통제관들의 우두머리.

45:3.19 (512.19) 10.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지휘관.

45:3.20 (513.1) 11. 체계 중도 피조물의 대리 지휘관.

45:3.21 (513.2) 12. 상승하는 필사자 단체의 대리 우두머리.

45:3.22 (513.3) 이 협의회는, 우주 본부에 있는 최고 협의회에 참석해서 지역 체계를 대표할, 세 명의 요원을 주기적으로 선택하지만, 이 대표권은 반역 때문에 중지됐다. 사타니아는 지금 지방우주 본부에 한 명의 참관인을 두지만, 미가엘 증여 이후부터 이 체계는 에덴시아 입법부에 보낼 열 명의 요원을 다시 선출해 왔다.

4. 24명의 조연자

45:4.1 (513.4) 예루셈에서 천사들이 거주하는 일곱 궤도 중앙에는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 즉 24명의 조연자 본부가 자리잡고 있다. 계시자 요한은 그들을 24장로라고 불렀다: "그리고 보좌{寶座} 주위에 24개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24장로가 앉은 것을 내가 봤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집단 중앙에 있는 보좌는, 주재{主宰}하는 천사장의 재판석, 즉 사타니아 전체를 향한 자비와 응보의 부활 출석점호를 하는 보좌다. 이 재판석은 예루셈에 항상 있었지만,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자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네바돈의 온전한 주권자로서 고양된 직후인, 1,900년 전에야 자리 잡게 됐다. 이 24조연자는 예루셈에 있는 그의 개인 대리인이며, 사타니아 출석점호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그 체계 가운데 고립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상승 개요의 다른 많은 국면에서, 으뜸 아들을 대변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들은 가브리엘의 특별한 요청과 미가엘의 색다른 명령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대리인이다.

45:4.2 (513.5) 이 24조연자는 유란시아의 여덟 인종에서 모집됐으며, 이 집단 가운데 마지막은 1,900년 전에

미가엘의 부활 출석점호 때 소집됐다. 이 유란시아 자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요원들로 구성돼 있다:

45:4.3 (513.6) 1. *오나가*, "호흡 수여자"에 대한 경배에서 동료들을 지휘했던, 행성 왕자 이전 시대의 지도자.

45:4.4 (513.7) 2. *맨산트*, "위대한 빛"을 공경하도록 동료들을 자극했던, 유란시아에서 행성 왕자_이후 시대의 위대한 선생.

45:4.5 (513.8) 3. *오나모나론톤*, 홍인종의 먼 옛날 지도자요, 여러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위대한 영"을 공경하도록 자기 인종을 지도했던 자.

45:4.6 (513.9) 4. *올란도프*, 청색인 가운데 한 왕자였으며, "최고 우두머리"의 신성을 깨닫도록 한, 그들의 지도자.

45:4.7 (513.10) 5. *포르쉴타*, 멸절된 주황인종의 예언자였고, "위대한 선생"을 숭배하도록 이끈 이 민족의 지도자.

45:4.8 (513.11) 6. *싱글랑톤*, 많은 것 대신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도록 자기 민족을 가르치고 인도한 황색인 가운데 첫째. 황색인은 유일한 하나님을 수천 년 전에 알았다.

45:4.9 (513.12) 7. *환타드*, 녹색인을 어둠에서 구해낸 사람이며,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숭배하도록 그들을 이끈 지도자.

45:4.10 (513.13) 8. *오르보논*, 남색인종을 개화시킨 사람이며, 한때 “하나님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끈, 그들의 지도자.

45:4.11 (514.1) 9. *아담*, 필사자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격하됐지만 생존했고, 나중에는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위치로 상승된, 하나님의 물질 아들인, 불신임 받았지만 다시 복귀된, 유란시아의 행성 아버지.

45:4.12 (514.2) 10. *이브*,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인데, 자기 배우자와 함께 태만에 대한 벌을 받았고 그와 함께 다시 회복되어, 이 집단의 생존하는 필사자들과 함께 봉사하도록 배정됐다.

45:4.13 (514.3) 11. *예녹*, 육신 속에서 필사자 생애를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사고 조율사와 융합된, 유란시아의 필사자.

45:4.14 (514.4) 12. *모세*, 사라진 보라색 인종 중에서 남은 자를 해방시킨 자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숭배를 회복시키려고 선동했던 자.

45:4.15 (514.5) 13. *엘리야*, 물질 아들_이후 시대에, 빛나는 영적 업적을 이루다가 옮겨진 혼.

45:4.16 (514.6) 14. *마키벤타 멜기세덱*, 이 계층 중에서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한 유일한 아들. 그는 아직 멜기세덱으로 계수되는 한편, “영구히 지고자들의 사역자”가 됐는데, 필사 상승자로서 봉사하는 임무를 영원히 맡았으며,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에서 필사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머물렀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셈에 본부를 두고, 미가엘 대신 활동하는 권세를 가진,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로 근래에 선포됐는데, 미가엘은 실제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체험했던, 그 세계의 행성 왕자다. 이럼에도, 잇따라 주둔하는 총독들, 즉 24총고자 구성원들이 유란시아를 여전히 감독하고 있다.

45:4.17 (514.7) 15. *세레 요한*,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사명의 선구자이고,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의 먼 친척이었다.

45:4.18 (514.8) 16. *1_2_3 첫째*, 캘리개스차 배반이 있던 당시에 가브리엘의 봉사에 동참한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의

지도자인데, 미가엘이 무조건적 주권을 갖게 된 후에, 미가엘이 그를 곧 이 위치로 상승시켰다.

^{45:4.19 (514.9)} 선택받은 이 인격체들은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 한동안 상승 체제에서 제외됐으며, 이 수용력을 갖고 얼마나 더 봉사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45:4.20 (514.10)} 17, 18, 19, 20_번 자리는 영구 회원으로 차지되지 않는다. 그 자리들은 영구 회원 16명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유란시아에서 현재 증여 아들 이후 시대로부터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나중에 배정하도록 열려 있다.

^{45:4.21 (514.11)} 21, 22, 23, 24_번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채워지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시대를 뒤따를 다른 후세의 위대한 선생들을 위해 남겨져 있다. 신성한 아들이 갑자기 방문할 수 있고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집정관 아들과 교사 아들들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유란시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물질 아들

45:5.1 (514.12) 다양한 계층의 아들, 고위{高位}의 영, 최고천사, 천사, 및 중도 피조물을 포함해서, 천상의 생명체 중에서 큰 부서들은 예루셈에 그들의 본부와 거대한 보호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훌륭한 이 구역의 중앙에 있는 거주지는 물질 아들들의 주요 성전이다.

45:5.2 (515.1) 아담들의 영토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모든 이에게 매력적인 중심지다. 그것은 1,000개의 중심지로 구성되는 거대한 지역이지만, 물질 아들과 딸들의 각 가족은, 우주의 진화 세계에서 봉사하기 위해 가족의 구성원이 출발할 때까지, 또는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가족의 소유지에서 산다.

45:5.3 (515.2) 이 물질 아들들은, 진화하는 우주의 훈련 구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교{性交}로_번식하는 존재들 중에서 최고 유형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물질적이며;심지어 행성 아담과 이브도 인간거주 세계의 필사자 인종에게 분명히 보인다. 이 물질 아들들은, 위로는 신성과 완전성으로부터 아래로는 인간성 및 물질 실존에 이르기까지, 인격체들의 사슬에서 마지막이자 육체적인 고리다. 이 아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 왕자와 그

영역의 물질 피조물 사이에 상호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인간거주 세계에 제공한다.

45:5.4 (515.3) 살빙톤에서 1,000년만의 등록이 최근에 있었을 때,
네바돈에는 시민 신분을 가진 물질 아들과 딸이 지역 체계
수도들에 161,432,840명 있다고 기록됐다. 물질 아들의
숫자는 체계마다 다르며, 그 숫자는 자연스런 번식으로
계속 증가한다. 자식을 낳는 기능을 발휘할 때, 그들은
접촉하는 인격체들의 개인 욕구만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으며, 또한 비교적 높은 통치 기관 및 자문 협의회들의
지도를 따르기도 한다.

45:5.5 (515.4) 이 물질 아들과 딸들은 예루셈 및 관련된 여러
세계에서 영구 주민이다. 그들은 예루셈에서 광대한 땅을
차지하고, 수도{首都} 구체의 지역을 관리하는 일에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중도자 및 상승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일상 직무를 실제로 경영한다.

45:5.6 (515.5) 자식을 낳는 이 아들들은, 멜기세덱의 방법을 따라
예루셈에서 자체_정부라는 이상{理想}을 실험하도록
허락 받았으며, 매우 높은 유형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아들신분의 상류 계층들은 그 영역의 거부권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예루셈 아담 족속은 보통 선거권과 대의{代議} 정부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통치한다. 언젠가는 그들이 실제로 완성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45:5.7 (515.6) 물질 아들들이 베푸는 봉사의 특성은 주로 그들의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들이 살빙톤의 멜기세덱 대학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곧 대개 특정한 행성에 제한돼 있고 물질적이지만--, 그럼에도 멜기세덱들은 비교적 어린 세대의 물질 아들들을 훈육하기 위해, 각 체계 본부에서 선생들로 구성된 강력한 교수진을 유지한다. 이 어린 물질 아들과 딸들의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및 영적 훈련 체계는, 범위, 기법, 및 실용성에서 최고의 완전성에 해당한다.

6. 아담의 상승자 훈련

45:6.1 (515.7) 물질 아들과 딸들은, 그 자녀와 함께,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광경을 보여준다. 그들은 남녀 구별이 있는 바로 너희 물질 인종과 무척 흡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에

잠기게 하고 우애 있는 접촉에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는 여러 공통된 흥밋거리를 발견한다.

45:6.2 (515.8) 필사 생존자들은 체계 수도에서, 이 우세한 약간육체적이고 남녀로 구성되는 피조물의 생활 습관과 행위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자유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내는데, 이는 필사 생존자들이 본부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을 때부터 에덴시아를 향해 떠날 때까지, 이 예루셈 시민이 그들의 직접 후원자요 스승이기 때문이다.

45:6.3 (516.1)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자신이 기원된 세상에서 고난당했던 어떤 체험상 결핍을 겪었더라도, 유전성이든지, 환경이든지, 또는 육체 속의 생애 중에 불행하게 조기{早期}에 사망했든지 상관없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일곱 맨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다. 이것은, 필사자의 성 생활과 그에 따른 조정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사실 그대로다. 수많은 필사자는, 자신이 출생된 구체{球體}에서 가졌던 그런대로 평범한 성 관계에서 유래되는 훈육으로부터 각별한 유익을 얻지 못한 상태로 맨션 세계에 도착한다. 맨션 세계에서 겪는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회를

거의 제공할 수 없다.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남녀 체험은 이
상승자들에게 끝났지만, 물질 아들 및 딸들과의 긴밀한
연합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적으로_불완전한 이 필사자들은, 결핍된
사회적, 지성적, 감정적, 및 영적 국면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환경 또는 나쁜 재앙 때문에 진화 세계에서
유익한 남녀관계의 혜택을 박탈당한 그 인간들은 모두,
체계 수도에 있는 영구 거주자인, 숭고한 아담이라는 성
피조물과 긴밀하고 사랑스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기본적인 필사자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체계 수도에서 제공받는다.

45:6.4 (516.2) 어떤 생존하는 필사자, 중도자, 또는
스라빔이든지, 세상에서 진화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관계를 성취하는 고귀한 체험, 또는 그와
비슷하고 동등한 다른 체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낙원으로 상승할 수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며,
완결성취 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우주 자녀에 관한 핵심 개념에
근본이다. 따라서, 그런 체험은 어떤 상승자의 체험적
훈련에도 빼놓을 수 없게 된다.

45:6.5 (516.3)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 및 진화하는 스라빔은, 체계 본부의 물질 아들 및 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모로서의 이 체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은 그런 상승자는, 예루셈의 아담과 이브들이 자손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부모로서의 체험을 획득한다.

45:6.6 (516.4) 진화하는 세계에서 부모관계를 체험하지 않은 모든 필사 생존자는, 예루셈의 물질 아들들의 집에 머무는 동안, 뛰어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동역자로서 필수적인 이 훈련 역시 획득해야만 한다. 예루셈의 첫째 과도기_문화 세계에 있는 체계 육아원{育兒院}에서 그런 필사자가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참말이다.

45:6.7 (516.5) 완결성취자들의 세계에 있는 어떤 모론시아 인격체들이, 사타니아의 이 보호관찰 육아원을 유지하며, 그 행성의 절반은 자녀를 기르는 이 일에 전념한다. 개인으로서 영적 신분을 획득하기 전에 진화 세상에서 죽은 자손들처럼, 생존하는 필사자의 어떤 자녀들이 여기에 받아들여지고 재조립된다. 친 부모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상승하면, 그 영역의 그런 필사자 자녀는, 체계 완결성취자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 되도록 보장받고, 거기서 나중에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필사자로서 상승하는 부모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남녀 구별이 없는 것 외에는, 여기서 자녀들은 태어난 세계에서 가졌던 모습과 똑같이 출현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생활하는 체험을 겪은 후에는, 필사자 종족처럼 자식을 낳는 일은 전혀 없다.

45:6.8 (517.1) 완결성취자들의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육아원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필수적인 부모로서의 체험이 부족한 맨션 세계 학생들은, 여러 맨션 세계에서 상승 임무로부터 완결성취자 세계로 잠시 이동하도록 멜기세덱에게 허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신의 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보조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부여된다. 부모로서 보살피는 이 봉사는, 그런 상승자들이 물질 아들과 딸들의 가족 안에서 겪도록 요구되는 훈련의 절반을 마친 것으로, 예루셈에서 나중에 인정받게 될 것이다.

45:6.9 (517.2) 보호관찰 육아원 자체는 1,000쌍의 물질 아들과 딸의 감독을 받는데, 이들은 자기 계층의 예루셈 거류지에서 온 자원자다. 대체로 동일한 숫자의 부모로서 자원하는 중간유한절대자 집단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며, 이 부모들은 사타니아의 중간유한절대 세계로부터, 살빙톤의 완결성취자 구체들 사이에 있는 그들의 여러 특별 보호 세계들에서 지내는, 계시되지 않은 운명에 이르는 도중에,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멈춘다.

7. 멜기세덱 학교

45:7.1 (517.3) 멜기세덱들은 그 큰 교관{敎官}들 단체의--곧 부분적으로 영성화 된, 의지를 지닌 피조물 및 기타 존재들의-- 지휘관인데, 이 교관들은 예루셈 및 거기 관련된 세계들에서, 그러나 특히 일곱 맨션 세계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동한다. 이 세계들은 일시적으로 붙들어두는 행성인데,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내주하는 조율사와 융합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달성을 위한 수고, 즉 죽음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끝난 바로 그 수고를 계속하는 연장된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일시적 형태로 복구되는 곳이다. 또는 유전적 장애나 불리한 환경이나 환경의 상황 때문에

이 혼의 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유야 어떻든 목적이 참되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자는 누구나, 자신으로서, 연속으로 여러 행성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들은 거기서 영원한 생애의 기본을 통달하기, 즉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획득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던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배워야만 한다.

45:7.2 (517.4) 찬란한 저녁별들(그리고 지명되지 않은 협조자들)은 멜기세덱들이 후원하는 사업을 포함해, 우주의 다양한 교육 사업에서 자주 선생으로서 봉사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또한 그렇게 협력하며, 진보하는 훈련을 받는 이 학교들에서, 낙원 완전성에 속하는 숨씨를 나눠준다. 그러나 이 활동 전체가, 오로지 상승하는 필사자의 향상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는 네바돈의 토착 영 인격체들의 점진적 훈련에도 똑같이 몰두한다.

45:7.3 (517.5) 멜기세덱 아들들은, 예루셈에 있는 서로 다른 30개 이상의 교육 중심지를 인도한다. 이 훈련 학교들은 자기를_평가하는 학부로부터 시작하고, 예루셈 시민 학교로 끝나는데, 거기서 물질 아들과 딸들은 필사

생존자들에게 대의 정부의 고귀한 의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최대한 애쓰면서, 멜기세덱 및 다른 존재들과 연합한다. 전체 우주는 *전형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직되고 경영된다. 대의 정부는, 완전치 않은 존재들 가운데서 신성하게 이상적인 자체_정부다.

45:7.4 (517.6) 각 체계는 우주 시간으로 100년마다 성좌 입법부에 참여할 열 명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들은 1,000명으로 구성된 예루셈 협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이 의회는 이양되거나 지정된 그런 모든 문제에서 체계 집단을 대표하는 임무가 주어진, 선출되는 기관이다. 모든 대표자 또는 기타 대의원은, 1,000명의 선거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선출되는데, 1,000명의 이 선거인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자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경영 학부라는 가장 높은 학교를 졸업해야만 한다. 이 학교는 멜기세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최근에는 완결성취자들이 돕고 있다.

45:7.5 (518.1) 예루셈에는 선출되는 기관이 많이 있으며, 이 여러 기관에게 권한을 주려고 때때로 시민권을 가진 세 계층이-
-곤 물질 아들과 딸, 중도 피조물을 포함하여 스라빔과 그

동역자,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투표한다. 대표하는 영예를 얻은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 후보자는 멜기세덱 경영 학교들로부터 필수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하다.

45:7.6 (518.2) 예루셈에서는 이 세 집단의 시민 가운데 보통 선거권이 있지만, 인정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모타를--곤 모론시아 지혜를-- 몸소 소유하는 데 따라, 다르게 투표한다. 어떤 한 인격체가 예루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숫자는, 하나부터 1,000개에 이른다. 예루셈 시민은 모타 성취도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45:7.7 (518.3) 때때로 예루셈 시민은 심사하는 멜기세덱들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모론시아 지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 멜기세덱들이 증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란한 저녁별들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험하는 단체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은 영 통찰력을 얻은 정도를 확인해 준다. 그 다음에 그들은 24조언자 및 그 동역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시민들이 체험으로 사회화를 달성한 상태에 대해 승인해 준다. 그 다음에 이 세 요소는 대의 정부의 시민권

등록담당관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모타 상태를 재빨리 계산하고 그에 따라 투표권 숫자를 인가한다.

45:7.8 (518.4)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 상승하는 필사자, 특히 새로운 모론시아 수준에서 인격체 통합을 더디게 이룩한 자는, 물질 아들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런 부족함을 시정하도록 고안된 집중 훈련을 받는다. 모타 인격체를 성취했음을 이 물질 아들이 보증해주기 전에는, 어떤 상승하는 필사자도, 체계 본부를 떠나 성좌로 가서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교제하는 생애를 시작하지 못한다-- 이 모타 인격체는, 체험적으로 교제하면서 싹트기 시작하는 모론시아 생애와, 완성된 필사자 실존을 결합하는 개체성이며, 이 두 가지는 사고 조율사의 영적 전면통제에 따라서 알맞게 섞인다.

45:7.9 (518.5) [유란시아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46편 지역 체계 본부

46:0.1 (519.1) 사타니아의 수도 예루셈은 한 지역 체계의 평범한 수도이며, 루시퍼의 반역, 그리고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됨으로써 야기된 수많은 불규칙성을 제외하면, 유사한 구체들 가운데 전형적 상태다. 너희의 지역 체계는 어느 정도 험난한 체험을 거쳐 왔지만, 지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불협화음의 결과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뿌리가 뽑히고 있다. 질서와 선의{善意}가 회복되고 있으며, 예루셈의 환경은 너희의 전승{傳承}에 나오는 천상의 상태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데, 정말로 20세기 종교 신자 대부분이 상상하는 그 하늘나라가 체계 본부이기 때문이다.

1.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

46:1.1 (519.2)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緯度} 구역과 10,000개의 경도{經度} 지대로 나뉘어 있다. 이 구체에는 7개 주요 수도와 70개의 부속 행정 중심지가 있다. 7개의 구역 본부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돼 있으며, 체계 주권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각 본부를 방문한다.

46:1.2 (519.3) 예루셈의 표준 거리 1마일은 유란시아에서 약 7마일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래던트"는, 성숙한 궁극체로부터 10진 체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너희의 무게 단위로 10온스와 거의 똑같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는 3일과 같은데, 예루셈을 축으로 한 번 회전하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로 이뤄진다. 으뜸 크로놀덱들이 체계의 시간을 방송한다.

46:1.3 (519.4) 예루셈의 에너지는 훌륭하게 통제되고 지대 경로를 따라서 구체 둘레를 회전하는데, 이 경로는 우주의 에너지 축적량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노련하게 경영한다. 이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전도{傳導} 경로들을 통과하는 데 대한 자연 저항이, 예루셈의 한결같은 온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열을 방출한다. 빛이 충만할 때 온도는 화씨로 약 70도를 유지하는 한편, 빛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50도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진다.

46:1.4 (519.5) 예루셈의 채광{採光} 체계는 너희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는 낮과 밤이 없으며, 덥고 추운 계절도 없다. 동력 변형자들이 10만 개의 중심지를 유지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심원한 에너지가 특정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구체의 전기를 띤 대기_천정에 도달할 때까지, 행성 대기를 통해서 위로 투사되며;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태양이 아침 10시경에 위에서 비출 때, 유란시아 태양광의 강도와 비슷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평온한 빛으로 반사돼서 내려온다.

46:1.5 (520.1) 그런 채광 조건 하에서, 광선은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마치, 온 공간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발산되면서 하늘에 뿌려지는 것 같다. 이 빛은 매우 적은 열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외하면 자연 항성광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너희는, 그런 본부 세계들이 공간 속에서 빛을 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며; 예루셈이 유란시아에 매우 근접돼 있더라도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46:1.6 (520.2) 예루셈 윗쪽 전리층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빛_에너지를 반사하는 기체는, 너희가 소위 북극광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현상과 관련되는, 유란시아의 상부 대기층에 있는 기체와 매우 흡사하지만, 이 북극광은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유란시아에서 지상 방송 파장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기체 막인데, 파장이 똑바로 밖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이 기체 층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지구 쪽으로 반사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이 너희 세계를 둘러싼 공기를 통과하면서 표면 가까이에 방송이 이뤄지게 한다.

46:1.7 (520.3) 그 구체의 이런 채광은, 예루셈의 하루 중에서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동안 균일하게 유지되며,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빛이 비칠 때, 즉 청명한 밤에 너희에게 보름달이 떴을 때의 빛처럼 될 때까지 점차 줄어든다. 이때는 예루셈 전체에서 고요한 시간이다. 휴식하고 회복하는 이 기간에 오직 방송_수신소들만 작동된다.

46:1.8 (520.4) 예루셈은 근처에 있는 여러 항성으로부터 --빛나는 별빛 같은--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지만, 이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예루셈 같은 세계는 항성의 동요로 생기는 변화에 지배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어가거나 죽어가는 항성의 문제와도 상관없다.

46:1.9 (520.5) 7개의 과도기 연구 세계와 그에 속한 49개 위성은, 예루셈 기법에 따라서 따뜻하게 유지되고, 빛을 받고, 에너지와 물을 공급받는다.

2. 예루셈의 물리적 특색

46:2.1 (520.6) 예루셈에 지진이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유란시아 및 진화된 다른 세계에서 보는 울퉁불퉁한 산맥이 없어서 아쉽겠지만, 아름다운 고지대{高地帶} 그리고 독특하게 다양한 다른 지형과 경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들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며, 그런 지역의 풍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초월한다.

46:2.2 (520.7) 수많은 작은 호수가 있지만, 세차게 흐르는 강은 없고, 광대한 바다도 없다. 어떤 건축양식 세계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며,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이 감소됨으로써 온도가 가장 낮아질 때 습기가 응축되는 이슬 현상이 매일 발생된다. (이슬이 맺히는 온도는 유란시아 같은 두_기체 행성보다 세_기체 세계에서 더 높다.) 물리적인 식물 생명체 및 모론시아 세계 생명체, 둘 다 습기를 필요로 하지만, 이 습기는 그 구체 전체에, 심지어 고지대의 최고 높은 곳까지 뻗은, 하층토{下層土} 순환 체계를 통해서 주로 공급된다. 이 물 체계는 완전히 지하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 활기찬 예루셈의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수로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46:2.3 (520.8) 예루셈의 대기는 세_기체 혼합이다. 이 공기는 유란시아의 공기와 매우 흡사한데, 모론시아 생명 체제의 호흡에 적당한 어떤 기체가 추가돼 있다. 이 셋째 기체는, 물질 계층에 속하는 동물 또는 식물의 호흡에,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적당하다.

46:2.4 (521.1) 교통 체계는 에너지 운동의 순환류{循環流}와 합쳐져 있는데, 이 주요 에너지 흐름들은 10마일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 기계장치를 조정함으로써, 그 행성의 물질 존재들은 시간당 200에서 500마일에 이르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운송용 새는 한 시간에 100마일 정도 날아갈 수 있다. 물질 아들들의 비행장치는 시간당 약 500마일을 여행할 수 있다. 물질 존재 및 초기 모론시아 존재들은 반드시 이 기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지만, 영 인격체들은 우세한 세력, 그리고 에너지의 영 근원들과 연결함으로써 움직인다.

46:2.5 (521.2) 예루셈 및 그와 관련된 세계들은, 네바돈의 건축양식 구체들의 특질인, 10개 표준 분야의 육체적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예루셈에는 유기체 진화가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생명 형태가 없고, 실존을 위한

투쟁도 없으며, 적자생존도 없다. 오히려 중앙의 신성한 우주에 있는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 조화, 및 완전성을 예시하는 창조적 적응이 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완비된 이 모든 것에는, 천상의 기능공들과 그 동료들이 예술적으로 대조해 보여주는 물리적 생명과 모론시아 생명이 아주 놀랍게 혼합돼 있다.

46:2.6 (521.3) 예루셈은 정말로 천국 같은 영광과 장엄함을 맛보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 애쓰더라도, 너희는 이 영화로운 건축양식 세계들에 대한 적당한 관념을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너희 세계에는 무엇이든지 비교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예루셈의 물체들조차 유란시아의 것들을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역겨울 정도다. 너희가 실제로 예루셈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는 하늘의 세계들에 대한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체계 수도에서 갖게 되는 체험을, 우주와 연방우주 그리고 더욱 먼 하보나 훈련 구체들에 너희가 언젠가 도착할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46:2.7 (521.4)

예루셈의 생산 구역, 즉 실험 구역은 광대한 영토인데, 연기 나는 굴뚝이 없으므로, 유란시아인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이며;그럼에도 특별한 이 세계들과 관련된 복잡한 물질 경제활동이 있으며, 너희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한 화학자와 발명가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경이롭게 만들 만큼, 기계적 기법과 물리적 성취가 극치에 이르렀다. 낙원으로 가는 여행에서 잠시 붙들어두는 이 첫 세계가, 영적이기보다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잠시 멈춰서 고려해 보자. 예루셈 및 그것의 과도기 세계들에서 너희가 머무는 동안 내내, 너희는 진보하는 영 실존으로서 사는 너희의 후대 생애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뤄진 땅에서 보냈던 생애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다.

46:2.8 (521.5)

스랍 산{山}이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데, 거의 15,000피트에 이르며, 모든 운송 스라빔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행성의 중력을 탈피하기 위해, 그리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에너지 공급에 수많은 기계 개발품이 활용된다. 스랍 운반체는 낮 시간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빛이 줄어드는 깊은 밤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출발한다. 운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초당 약 25 표준 마일로 출발하며,

예루셈으로부터 2,000마일 이상 멀어질 때까지는 표준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46:2.9 (521.6) 운송체들은,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수정 같은 별판에 도착한다. 이 지역 주변에는 스랍 운송으로 우주를 통과하는 다양한 계층의 존재를 영접하는 장소들이 있다. 연구하는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수정 같은 극 지점 가까이에서, 너희는 진주처럼 생긴 관측소로 올라갈 수 있으며, 본부 행성 전체의 거대한 부조{浮彫}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루셈 방송

46:3.1 (522.1) 연방우주 및 낙원_하보나 방송은, 살빙톤과 연결하여, 극 수정체, 즉 유리바다를 이용하는 어떤 기법으로 예루셈에서 수신된다. 이 네바돈의_바깥쪽 통신을 수신하기 위한 설비 외에, 세 가지 다른 집단의 수신소가 있다. 분리돼 있지만 삼중궤도 집단에 속한 이수신소들은, 여러 지역 세계에서, 성좌 본부에서, 그리고 지방우주 수도에서 오는 방송을 수신하도록 조정돼 있다. 이 모든 방송은 중앙 방송 원형극장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존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상연되며;예루셈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몰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끝없이 흐르는 우주 공간 보고서를 듣는 것보다 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열중하게 하는 것은 없다.

46:3.2 (522.2) 이 예루셈 방송_수취소는 하나의 거대한 원형극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극장은 유란시아에 대개 알려지지 않은 번쩍거리는 물질로 건축됐고, 수많은 영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외에, 50억 이상의 --물질 및 모론시아-- 존재를 앗힐 수 있다. 그 방송국에서 우주의 복지와 상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여가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것은, 온 예루셈이 매우 좋아하는 오락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지체되지 않는 유일한 행성 활동이다.

46:3.3 (522.3) 방송을_수신하는 이 원형극장에, 살빙톤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가까운 곳에서, 지고자인 성좌 아버지들의 에덴시아 연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수신된다. 우버사의 보통 방송과 특별 방송이 살빙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전달되며, 낙원의 메시지가 수신될 때에는, 주민 전체가 유리바다 주변에 모이고, 우버사 친구들이 낙원의 방송 기법에 반사성 현상을 첨가하기

때문에,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안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향상되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계속해서 미리 맛볼 기회가 필사 생존자들에게 주어진다.

46:3.4 (522.4) 예루셈 송신소는 그 구체의 반대 극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개별 세계에 보내는 모든 방송은, 이따금 천사장의 회로 위로 목적지까지 직접 가는 미가엘의 메시지를 제외하고, 체계 본부에서 중계된다.

4. 거주지와 경영 지역

46:4.1 (522.5) 예루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주지로 배정돼 있고, 한편 체계 수도의 다른 부분들은 619개의 인간거주 구체, 56개의 과도기_문화 세계, 그리고 체계 수도 자체의 직무 감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영 기능에 배정돼 있다. 예루셈에서 그리고 네바돈에서 이 배열은 다음과 같이 고안돼 있다:

46:4.2 (522.6) 1. 원형(圓形) --원주민이 아닌 자들의 거주 지역.

46:4.3 (522.7) 2. 정사각형--체계의 행정_경영 지역.

46:4.4 (522.8) 3. 직사각형--비교적 낮은 토착 생명체의 집결지.

46:4.5 (522.9) 4. **삼각형**--지역 경영, 즉 예루셈 행정부 지역.

46:4.6 (522.10)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및 삼각형으로 체계 활동을 이렇게 배열하는 것은 네바돈의 모든 체계 수도에 공통이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열이 통용될 수 있다. 이것은 창조주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이다.

46:4.7 (523.1) 이 주거 지역과 경영 지역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하나님의 물질 아들들, 즉 예루셈의 영구 시민의 방대하고 아름다운 소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수많은 매력있는 계층의 영 피조물 및 영에 가까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예루셈은 체계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스피롱가의 유능한 봉사를 누린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 거주자 및 방문자들을 대신해서 영적 사역에 전념한다. 그들은 놀랄만한 지성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의 집단이며, 모든 모론시아 피조물을 유지하고 장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높은 모론시아 피조물 및 모론시아 도우미들을 과도기에 시중드는 하인이다. 그들은, 중도 피조물이 유란시아에서

활약하듯이, 예루셈에서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서 활약하는 중도{中道} 도우미다.

46:4.8 (523.2) 체계의 수도는, 우주 실존의 세 국면, 즉:물질, 모론시아, 영 국면 전부를 거의 완전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세계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네가 어떤 물질, 모론시아, 또는 영 인격체든지 상관없이,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중도 피조물과 물질 아들들 같은 통합된 존재도 그렇게 느낀다.

46:4.9 (523.3) 예루셈에는 물질적 유형과 모론시아 유형의 거대한 건물들이 있고, 한편 순전히 영적인 지대의 장식도 같은 정도로 정교하고 충만하다. 예루셈의 기묘한 물리적 장비인 모론시아 보완물{補完物}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갖고 있었더라면! 더 나아가, 이 본부 세계의 영적 설비의 장엄한 위엄과 정교한 완전성을 설명할 수 있었더라면! 설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의 완전성에 대한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해도, 너희의 개념은 이 웅장함에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셈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낙원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길에서 첫 걸음에 불과하다.

5. 예루셈 원형

46:5.1 (523.4) 주요 집단의 우주 생명체들에게 배정된 거주 예정지는, 예루셈 원형{圓形}을 가리킨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원주{圓周} 집단들은 다음과 같다:

46:5.2 (523.5)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주.

46:5.3 (523.6) 2. 천사 및 상류 영들의 원주.

46:5.4 (523.7) 3.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을 포함하는, 우주 조력자들의 원주.

46:5.5 (523.8) 4.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원주.

46:5.6 (523.9) 5. 중도 피조물을 포함하여, 배정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주.

46:5.7 (523.10) 6. 우대 거주지의 원주.

46:5.8 (523.11) 7. 완결성취 단체의 원주.

46:5.9 (523.12) 이렇게 배치된 각 거주지는, 연속으로 높아지는 일곱 개의 동심원{同心圓} 원주로 이뤄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계통을 따라서 건설됐지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질로 형성된다. 이것들은 모두 멀리 미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곱 동심원 집단마다 이를 완전히 둘러싸는 넓은 산책로를 이를 만큼 올라가 있다.

46:5.10 (524.1)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주*.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교제하는 행성, 즉 과도기_문화 세계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지만, 예루셈에서도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도기_문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신성한 아들신분의 다른 모든 계층과 자유롭게 섞인다. 너희는 거기서 이 아들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이 특별한 세계와 그 위성들에 국한된다. 아무튼, 예루셈의 원주들에서는, 아들신분의 다양한 이 집단이 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론시아 시력이 대단히 광범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로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여러 계층인 그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활동을 내려다볼 수 있다.

46:5.11 (524.2) 아들들의 이 일곱 원주는 동심 형태이고 잇따라 높아져서, 바깥쪽의 큰 원주는 각각 안쪽의 비교적 작은

원주들을 내려다보며, 각 원주는 공공{公共}의 산책로로 사용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울타리는 번쩍이며 빛나는 수정 보석으로 건축됐으며, 각각의 거주지 원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게 돼 있다. 이런 울타리마다 -- 50개부터 15만 개까지의 -- 통과하는 많은 문은, 하나의 진주 같은 수정으로 돼 있다.

46:5.12 (524.3) 아들들의 영토에서 첫째 원주는, 집정관 아들과 그들 개인의 참모진이 차지한다. 이 사법담당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고 판결하는 봉사 계획 및 그에 직결된 활동이 모두 여기에 집중된다. 또한 바로 이 중심지를 통해서 체계의 아보날들이 우주와 접촉을 유지한다.

46:5.13 (524.4) 둘째 원주는 삼위일체 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신성시되는 이 영토에서, 데이날들과 그 동역자들은 새롭게 도착한 1차 교사 아들들에 대한 훈련을 더 진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찬란한 저녁별 가운데 특정 협조자 부서의 훌륭한 도움을 받는다. 피조물에서 삼자일체된 아들이 이 데이날 원주에서 한 지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지역 체계에서 만유의 아버지의 개인 대표자가 될 정도에 이르며;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에서_지원된 존재다. 이 둘째 원주는, 예루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영토다.

46:5.14 (524.5) 셋째 원주는 멜기세덱들에게 할애돼 있다. 체계의 우두머리들이 여기에 거주하며, 이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을 감독한다. 첫 맨션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예루셈 전체 생애 내내, 멜기세덱들은 양아버지이며 항상_현존하는 충고자다. 물질 아들과 딸들이 항상_하는 활동을 제외하면, 멜기세덱들이 예루셈에서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6:5.15 (524.6) 넷째 원주는, 보론다덱들, 그리고 달리 집이 제공되지 않은 다른 모든 계층의 방문자 및 관찰자인 아들들의 집이다. 지고자 성좌 아버지들은, 점검하기 위해 지역 체계를 방문할 때, 이 원주에 거주지를 정한다. 체계에서 일할 때, 지혜 완성자, 신성한 조연자, 및 우주 검열관들은 모두 이 원주에 거주한다.

46:5.16 (524.7) 다섯째 원주는, 라노난덱들, 즉 아들신분 계층인 체계 주권자와 행성 왕자들의 거주지다. 세 집단은 이 영토에서 쉴 때 하나로 섞인다. 체계 예비군이 이 원주에서

모이며, 한편 체계 주권자는 행정부 언덕에 있는, 통치하는 구조물 단지{團地}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의 성전을 갖고 있다.

46:5.17 (524.8) 여섯째 원주는 체계 생명 운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 계층의 아들들은 모두 여기에 소집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곳으로부터 세계로 나아간다.

46:5.18 (524.9) 일곱째 원주는 상승하는 아들들의 집결지인데, 그들은 자신의 스랍 배우자와 함께 체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정된 필사자다. 예루셈 시민권보다 높고 완결성취자 신분보다는 낮은, 전에_필사자였던 모든 존재는, 이 원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도록 계수된다.

46:5.19 (525.1) 아들들을 위한 이 둥그런 보호구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지역을 차지하며, 1,900년 전까지, 그 중앙에 큰 빈 공간이 있었다. 이 중앙 지역에는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약 500년 전에 완성됐다. 495년 전에, 이 성전이 봉헌됐을 때, 미가엘이 친히 참석했었고, 예루셈 전역은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했던 으뜸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이제, 미가엘 증여로 인해 발생한, 수정된 체계 관리에 내포되는 모든 활동의 중심지인데, 이 활동은 최근에 이식{移植}된 살빙톤 활동 대부분을 포함한다. 기념관의 직원은 100만 명 이상의 인격체로 구성된다.

46:5.20 (525.2) 2. *천사의 원주*. 아들들의 주거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이 원주는 잇따라 높아지는 일곱 동심{同心} 원주로 이뤄져 있는데, 각각 안쪽에 있는 지역들을 내려다보게 돼 있다.

46:5.21 (525.3) 천사들의 첫째 원주는, 본부 세계에 머물게 되는 무한한 영의 고등 인격체들이--곧 단독 사자들과 그 동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둘째 원주는, 사자{使者} 무리, 법해석 고문, 동무, 검사관{檢査官}, 그리고 기록원들이, 때때로 예루셈에서 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그들끼리만 차지한다. 셋째 원주는 상류 계층과 집단의 돌보는 영들이 차지한다.

46:5.22 (525.4) 넷째 원주는 행정관 스라빔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타니아와 같은 지역 체계에서 봉사하는 스라빔은 “무수한 천사 무리”이다. 다섯째 원주는 행성 스라빔이 차지하며, 한편 여섯째는 과도기 사역자들의 집이다.

일곱째 원주는 스라빔 중에서 계시되지 않은 어떤 계층들이 머무는 영역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들 중에서 기록원들은 동료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예루셈 기록 성전에 거주한다. 모든 기록은 이 삼중 보관소에 세 복사본으로 보관돼 있다. 체계 본부에서는, 기록이, 물질 형태, 모론시아 형태, 및 영 형태로 항상 보관된다.

46:5.23 (525.5) 이 일곱 원주는, 둘레가 5,000 표준 마일에 해당하는 예루셈의 전시{展示} 파노라마로 둘러싸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는 사타니아 세계들의 진보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일에 전용으로 쓰이며, 각 행성의 최근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 수정된다. 초기의 방문 중에 너희에게 확장된 여가 시간이 허락될 때, 천사의 원주들을 내려다보는 이 광대한 산책로가 너희의 주의를 끄는, 예루셈의 첫 광경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46:5.24 (525.6) 예루셈의 원주민 생명체가 이런 전시{展示}를 책임지고 있지만,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예루셈에 머무는, 여러 사타니아 세계에서 온 상승자의 도움을 받는다. 행성의 상황과 세계 진보에 대한 묘사는,

여러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더러는 너희에게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기법이다. 이 전시는 이 광대한 울타리 바깥쪽 가장자리를 차지한다. 그 산책로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완전하게 열린 상태인데, 고귀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장식돼 있다.

46:5.25 (525.7) 3. *우주 조력자들의 원주*에는, 거대한 중앙 공간에 자리잡은 저녁별들의 본부가 있다. 갈란티아의 체계 본부가 여기에 위치하는데, 갈란티아는 이 강력한 최고천사들의 부{副} 우두머리이고, 상승한 저녁별 전체 중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자다. 이 본부는 최근에 건축된 것에 속하지만, 예루셈의 경영 구역 전체 중에서 가장 장엄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이 중심지는 직경이 50마일이다. 갈란티아 본부는 완전히 투명한, 부어서 만든 하나의 수정이다. 모론시아 존재와 물질 존재는, 물질이자_모론시아인 이 수정들을 높이 평가한다. 창조된 저녁별들은 예루셈 전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인격체 이외의 그런 속성을 지닌다. 전체 세계가 영적으로 향기로운 모습인데, 그들의 활동 가운데 다수가 살빙톤에서 이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46:5.26 (526.1)

4.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원주*. 다양한 계층의 총괄 물리 통제관들은, 능력 있는 거대한 회당 주변에 동심{同心}으로 배치돼 있는데, 거기서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의 우두머리와 연합하여, 체계의 동력 우두머리가 주관한다. 이 동력 회당은 상승하는 필사자와 중도 피조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예루셈에 있는 두 지역 가운데 하나다. 다른 하나는 물질 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非}물질화 된 구역, 즉 일련의 실험실인데, 여기서 운반 스라빔이 물질 존재들을 모론시아 계층의 존재와 매우 비슷한 상태로 변형시킨다.

46:5.27 (526.2)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주*. 상승하는 필사자 원주들의 중앙 지역은, 체계의 인간거주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개의 행성 기념관 단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광범한 변화를 겪는다. 각 세계에서 온 필사자들은, 자신의 행성 기념관을 이따금 특정하게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특권을 누린다. 많은 변화가 지금도 유란시아 구조물들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 619개 회당의 중앙을, 에덴시아 및 그에 딸린 여러 상승 문화 세계의 실용 모형이 차지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직경이 40마일이며, 에덴시아 체계를 실제 모습으로 복제한 것인데, 모든 면에서 원본과 다름없다.

46:5.28 (526.3)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즐겁게 봉사하며, 다른 집단들의 기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한다. 이 다양한 원주에서 이뤄진 모든 것은, 온 예루셈이 전부 관찰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46:5.29 (526.4) 그런 세계의 활동에는:일, 진보, 및 놀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다양성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활동은:봉사, 연구, 및 휴식이다. 복합된 활동은, 사회적 교제, 집단 연회, 및 신성한 경배로 구성된다. 다양한 집단의 인격체, 즉 자신의 동료와는 매우 다른 계층들과 어울리는 데에는 큰 교육적 가치가 있다.

46:5.30 (526.5) 6. *우대 거주지들의 원주*. 거대한 세 구조물이 우대 거주지의 일곱 원주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이구조물은:예루셈의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 화랑, 그리고 회고 지휘자들의 거대한 집회 강당인, 휴식과 유흥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모론시아 활동 공연장 등이다.

46:5.31 (526.6) 천상의 기능공들이 스포르나기아를 지휘하며, 공중 집회가 이뤄지는 각 장소에 풍부하게 있는 창조적 장식물과, 다수의 기념비적 기념관을 제공한다. 이 기능공들의 작업장은, 이 훌륭한 세계의 비길 데 없는 구조물 전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에 해당한다. 다른 우대 거주지에는 넓고 아름다운 본부가 유지된다. 이런 건물 가운데 다수는 전부 수정 보석으로 지어졌다. 모든 건축양식 세계에는, 수정, 그리고 소위 귀금속이 풍부하다.

46:5.32 (527.1) 7. *완결성취자들의 원주*는 중앙에 하나의 독특한 구조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어 있는 바로 이 성전이, 네바돈 전역의 각 체계 본부 세계에서 발견된다. 예루셈에 있는 이 건물은 미가엘의 휘장으로 봉인돼 있으며, 거기서: "일곱째 영 단계까지--곧 영원히 양도될 때까지--개관되지 않는다"고 새겨져 있다. 가브리엘이 신비로운 이 성전을 인봉{印封}했으며, 미가엘 이외에 누구든지, 빛나는 새벽별이 부착한 주권자의 인봉을 뜯을 수 없고 뜯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꿰뚫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이 고요한 성전을 언젠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

46:5.33 (527.2) *예루셈의 기타 원주*이 거주지 원주들 외에, 예루셈에는 수많은 다른 지정된 거주지가 있다.

6. 행정_경영 정사각형

46:6.1 (527.3) 이 체계의 행정_경영 부서는, 1,000개에 이르는 거대한 분과별 정사각형 안에 자리잡고 있다. 각 경영 단위는 100개 하위부서로 나뉘고, 각 하위부서는 10개의 하위집단으로 돼있다. 이 1,000개의 정사각형은 10개의 큰 부서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10개의 경영 분과{分課}를 구성한다:

46:6.2 (527.4) 1. 물리적 유지 및 물질 개선, 즉 물리적 동력 및 에너지 분야.

46:6.3 (527.5) 2. 중재, 윤리, 및 경영 판결.

46:6.4 (527.6) 3. 행성 및 지역의 직무.

46:6.5 (527.7) 4. 성좌 및 우주의 직무.

46:6.6 (527.8) 5. 교육 및 멜기세덱들의 기타 활동.

46:6.7 (527.9) 6. 행성 및 체계의 물리적 진보, 사타니아 활동 중에서 과학 분야.

46:6.8 (527.10) 7. 모론시아 직무.

46:6.9 (527.11) 8. 순전한 영 활동 및 윤리.

46:6.10 (527.12) 9. 상승자를 돌봄.

46:6.11 (527.13) 10. 광우주 철학.

46:6.12 (527.14) 이 구조물들은 투명하며;그래서 연구하는 방문자들도 모든 체계 활동을 구경할 수 있다.

7. 직사각형--스포르나기아

46:7.1 (527.15) 예루셈의 1,000개의 직사각형은 본부 행성의 하위 원주민 생명체가 차지하며, 그 중앙에는 스포르나기아의 광대한 원형{圓形} 본부가 있다.

46:7.2 (527.16) 너희는 예루셈에서 훌륭한 스포르나기아의 농업 업적에 놀랄 것이다. 거기서 땅은 주로 심미적 효과와 장식 효과를 위해 경작된다. 스포르나기아는 본부 세계들의 조경{造景} 원예가이며, 예루셈의 빈 공간을 처리할 때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이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는데 동물과 수많은 기계 장치를 활용한다. 그들은 자기 영역의 동력 장치를 활용함에서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

피조물인, 자신보다 못한 수많은 계층의 형제들을 활용함에서 지성적으로 노련하며, 많은 하등 동물이 이 여러 특별 세계에서 그들에게 제공된다. 대체로, 진화 구체들에서 온 상승하는 중도 피조물이, 지금 이 계층의 동물 생명체를 지도한다.

46:7.3 (528.1) 스포르나기아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생존하는 혼이 없지만, 긴 생애를 사는데, 때로는 4만 년에서 5만 년의 표준 연도에 이른다. 그들의 숫자는 군단을 이루며, 물질 봉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에게 물리적 사역을 제공한다.

46:7.4 (528.2) 스포르나기아는 생존하는 혼을 갖지 않고, 그 혼이 진화되지 않으며, 인격체를 소유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육신화 되는, 체험할 수 있는 개체성을 발전시킨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독특한 피조물의 육신이 늙아지고 나이 들어 악화되면, 그 창조자들은, 생명 운반자들의 협동을 얻어서, 늙은 스포르나기아가 그 속에 자기 거주지를 다시_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제작한다.

46:7.5 (528.3) 스포르나기아는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이 종류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재육신화{再肉身化}를 체험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들은 처음 다섯 보조 정신_영에 대해서만 반응하며;경배의 영과 지혜의 영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섯_보조 정신은, 전체성, 즉 여섯째 실체 수준과 대등하게 되며, 체험적 정체성으로서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요소다.

46:7.6 (528.4) 그들에 견줄만한 동물이 진화 세계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유용하고도 비범한 피조물을 설명하는 일을 맡으면서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닌데,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현재 형태와 지위로 입안했다. 그들은 자웅동체{雌雄同體}이며, 늘어나는 인구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대로 번식한다.

46:7.7 (528.5) 충실한 말{馬}과 애정 어린 개의 혼합된 특징을 포함하고, 가장 높은 유형의 침팬지보다 능가하는 지능을 그들이 나타낸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내가 이 아름답고 유용한 피조물의 본성에 대해 유란시아 지성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설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의 육체적 표준으로 평가할 때, 그들은 매우 아름답다. 그들은, 이런 건축양식 세계에 있는 물질 및 약간물질 체류자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배려를, 최고로 고맙게 여긴다. 그들의 시력은, --물질 존재들 외에도-- 모론시아 피조물, 하등 천사 계층, 중도 피조물, 그리고 낮은 계층의 영 인격체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무한자에 대한 경배를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자의 의미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자신의 주인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자신의 범주에서 외견상 영적 헌신에 참여한다.

46:7.8 (528.6) 장래의 어떤 우주 시대에, 이 충실한 스포르나기아가 동물 수준의 실존에서 벗어나, 진보하는 지성적 성장과, 심지어 영적 성취까지 이루는, 훌륭한 진화 운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8. 예루셈 삼각형

46:8.1 (528.7) 순전히 국지적이고 일상적인 예루셈의 직무가, 100개의 삼각형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행정부를 유치{誘致}하는 10개의 신기한 구조물 주변에 무리 지어 있다. 그 삼각형들은, 체계 본부

역사를 묘사하는 파노라마로 둘러싸였다. 현재, 원형{圓形}으로 엮어진 이 줄거리 중에서, 2표준마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돼 있다. 이 부분은 사타니아가 성좌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때 재생될 것이다. 이 사건을 위한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가 갖추졌지만, 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은 루시퍼 반역의 용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완결하지 않았다. 최고 반역자들, 즉 빛에서 어둠 속으로 떨어져버린 높은 피조 존재들을 사타니아가 품고 있는 한, 사타니아는 노라티아텍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46:8.2 (529.1) 사타니아가 성좌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고립된 세계들을 인간거주 행성들의 체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고려되고, 그 후에 그 세계들은 영적 교류가 있는 영역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가 체계 궤도로 회복되더라도, 다른 모든 체계로부터 부분적으로 격리하는 노라티아텍 격리 아래에, 너희의 체계 전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어리둥절할 것이다.

46:8.3 (529.2)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 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사타니아 체계를 노라티아덱 성좌로 회복시킬 것이며, 그 후에, 유란시아 및 고립된 다른 구체들은 사타니아 회로로 회복될 것이고, 그런 세계들은 행성 간 통신과 체계간 교류라는 특권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46:8.4 (529.3) 반역자들과 반역의 끝이 다가올 것이다. 최고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지만, 고의로 조장된 악에 대한 법은 보편적으로 반드시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영원한 소멸이다.

46:8.5 (529.4)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47편 일곱 맨션 세계

47:0.1 (530.1) 창조주 아들은, 유란시아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우주에 맨션이 많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셈을 돌고 있는 56세계 전체가, 상승하는 필사자의 과도기 문화에 할애돼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_번 세계의 일곱 위성은 맨션 세계로 알려져 있다.

47:0.2 (530.2) 1_번 과도기 세계 자체는 오로지 상승 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사타니아에 배정된 완결성취자 단체의 본부다. 이 세계는 현재 10만 개 이상의 완결성취자 중대{中隊}를 위한 본부로서 이바지하며, 이 집단 각각에는 1,000명의 영화롭게 된 존재가 있다.

47:0.3 (530.3) 한 체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할 때, 그리고 맨션 세계들이 필사자_훈련소로 봉사하기를 하나씩 멈추게 되면, 점증하는 완결성취자 주민{住民}이 맨션 세계들을 차지하는데, 그 주민은 오래되고 고도로 완비된 이 체계들로 모여든다.

47:0.4 (530.4) 일곱 맨션 세계는 모론시아 감독관과 멜기세덱들이 책임 맡고 있다. 각 세계에는, 예루셈 통치자들에게 직접 응답하는 한 명의 대리 장관이 있다. 우버사 화해자들은 각 맨션 세계에 본부를 유지하며, 한편 법해석 고문들의 지방 회합 장소가 인접해 있다. 회고 지휘자와 천상{天上}의 기능공들은 이 세계들 각각에 집단 본부를 유지한다. 스피롱가는 2_번 맨션세계로부터 그 다음 세계들 쪽으로 활동하며, 한편 일곱 세계 전체는, 다른 과도기_문화 행성 및 본부 세계들과 공동으로,

표준{標準} 창조에 해당하는 스포르나기아를 풍성하게
제공받는다.

1. 완결성취자의 세계

47:1.1 (530.5) 1_번 과도기 세계에는, 오직 완결성취자와, 어떤
집단의 구원된 자녀 및 그 보호자들이 거주하지만, 영 존재,
과도기 필사자, 및 연구하는 방문자들 전체를 환대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스포르나기아는 이 세계들에
어디서나 활동하는데,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공손한 주최자다. 그들은 완결성취자들에
관해서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을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너희가 현재의 육체적 상태에서 천사를 고려하는
것과 비슷하게 완결성취자를 고려함에 틀림없다.

47:1.2 (530.6) 완결성취자 세계가 정교한 물리적 아름다움과
색다른 모론시아 장식으로 이뤄진 구체일지라도, 활동
중심지에 위치한 거대한 영 거주지, 즉 완결성취자들의
회당은, 도움 받지 않은 물질 시력이나 초기 모론시아
시력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에너지 변형자들은,
상승하는 이 실체 가운데 다수를 필사자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이 문화 구체에서 맨션 세계 학생의 수업 집회가 열리는 경우처럼, 때때로 그렇게 활동한다.

47:1.3 (531.1) 맨션 세계에서 체험하는 동안 내내, 너희는 낙원을 달성한 너희의 영화롭게 된 형제의 현존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자각하겠지만, 때때로 그들의 본부 거주지에서 활동하는 그들을 실제로 감지하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다. 너희가 참된 영{靈} 시력을 획득하기 전에는 완결성취자를 자연스럽게 볼 수 없을 것이다.

47:1.4 (531.2) 첫 맨션 세계에서, 모든 생존자는 자신이 출생한 행성 출신 부모 위원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현재의 유란시아 위원회는 최근에 도착한 열두 쌍의 부모로 구성돼 있는데, 그들은 필사자로서 사춘기 시기까지 셋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체험을 했다. 이 위원회에서 봉사는 교대로 이뤄지고 원칙적으로는 오직 10년 동안이다. 부모로서 겪는 체험에 관해서 이 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자는 누구나, 예루셈에 있는 물질 아들들의 가정에서, 또는 완결성취자 세계에 있는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얼마간 봉사함으로써 자격을 더 갖춰야만 한다.

47:1.5 (531.3) 그러나 부모로서 겪는 체험에 상관없이, 자기 자녀가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자라난 맨션 세계 부모에게는, 그런 자녀의 훈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의 모론시아 관리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주어진다. 이 부모들은 1년에 네 번까지 그곳으로 방문여행을 하도록 허락된다. 그리고 맨션 세계의 부모가 완결성취자 세계로 주기적 순례 여행을 하는 기회에, 자신의 물질 자손을 품에 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상승하는 전체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장면들 가운데 하나다.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그 자녀보다 먼저 맨션 세계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흔히 얼마 동안 같은 시대에 산다.

47:1.6 (531.4) 상승하는 필사자는 누구든지, 물질 세계에서, 또는 그 후에 완결성취자 세계나 예루셈에서, 아이를--곧 자기 자녀 또는 다른 아이를-- 기르는 체험을 피할 수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확실하게 이 필수 체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자녀 양육을 주로 어머니의 과제로 여기는 것은, 유란시아에 있는 현대인의 불행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자녀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필요하며,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는 만큼 부모로서의 이 체험이 필요하다.

2. 보호관찰 육아원

47:2.1 (531.5) 유아{乳兒}를 영접하는 사타니아 학교는, 완결성취자 세계, 즉 예루셈 과도기 문화 구체들 중에서 첫 구체에 자리잡고 있다. 유아를 영접하는 이 학교들은, 우주 기록부에서 개별 신분을 획득하기 전에 진화 공간 세계에서 죽은 자들을 포함하여, 시간세계의 자녀를 기르고 훈련하는 데 전념하는 계획사업이다. 그런 자녀의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생존하는 경우에, 운명의 수호자는 자신과 연합한 체루빔을 그 자녀의 잠재적 정체성의 관리인으로 대행하게 하는데, 모론시아 세계의 보호관찰 육아원에 있는 맨션 세계 선생들의 손에, 발달하지 못한 이 혼을 전달하는 책임을, 그 체루빔에게 부과한다.

47:2.2 (531.6) 멜기세덱들의 감독 아래, 맨션 세계 선생들로서, 그 완결성취자들의 보호관찰 피보호자를 훈련하기 위해 그런 확장된 교육 기관들을 유지하는 이는, 자기 자리에서 떠난 바로 이 체루빔이다. 완결성취자들의 이 피보호자들,

즉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이 유아{乳兒}들은, 번식 잠재력을 제외하고, 반드시 죽을 때와 똑같은 육체 상태 그대로 인격화된다. 이렇게 깨어나는 것은, 그 부모가 첫 맨션 세계에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음 때문에 그렇게 불시에 그들의 생애를 끝냈던 그 세상에서 그들이 선택했을 뻔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

47:2.3 (532.1) 그 유아 세계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피조물은, 자신이 조율사를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시간 세계와 똑같이 조율사가 이 물질 자녀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다. 조율사를 받기 이전 나이의 자녀들은 다섯 명씩 가족을 이뤄서 보살핌을 받으며, 한 살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부터 약 다섯 살, 즉 조율사가 도착하는 나이까지의 범위다.

47:2.4 (532.2) 진화 세계에서, 사고 조율사를 가졌었지만 죽기 전에 낙원 생애에 관해 선택을 하지 않은 모든 자녀 역시,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 되는데, 조율사 없이 도착했지만 나중에 도덕적{道德的} 선택에 필요한

나이에 이른 후에 신비 관찰자를 받게 될 그 어린이들처럼, 그들은 거기서 마찬가지로 물질 아들들 및 그 동역자들의 가족 안에서 성장한다.

47:2.5 (532.3)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조울사가_내주했던 아이 및 청소년 역시, 다섯 명으로 된 가족 안에서 양육되는데, 여섯 살부터 열네 살까지의 범위이며;이 가족은 대체로, 여섯, 여덟, 열, 열둘, 및 열네 살의 자녀로 구성된다. 열여섯 살이 지난 후 언제든지, 최종 선택을 하면, 그들은 첫 맨션 세계로 옮겨져서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더러는 이 나이에 이르기 전에 선택하고 상승하는 구체들로 가지만, 유란시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열여섯 살 이하의 아이는 맨션 세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47:2.6 (532.4) 진화하는 행성들에서 필사자를 영적으로 보살피는 것과 똑같이, 수호 스라빔은 완결성취자 세계의 보호관찰 육아원에서 이 청소년을 돌보는데,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는 충성스런 스포르나기아가 보살핀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최종 선택을 할 때까지 과도기 세계에서 성장한다.

47:2.7 (532.5) 물질 생명이 그 과정을 다 마칠 때, 상승하는 생애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시간세계의 이 아이들이 하보나 모험을 분명하게 거부하면, 죽음이 그들의 보호관찰 생애를 자동으로 종결시킨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받는 일이 없으며;그렇게 두 번째로 죽은 후에는 결코 부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뿐이다.

47:2.8 (532.6) 그러나 낙원으로 가는 완전성 경로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첫 맨션 세계로 옮겨질 준비가 즉시 갖춰지며, 거기서 그들 가운데 다수는 하보나로 상승하는 자기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도착한다. 하보나를 통과하고 신격들을 달성한 후에는, 필사자에서 기원된 이 구원된 혼들은 낙원의 영구 상승 시민권을 갖게 된다. 필사자가 탄생되는 세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값지고 필수적인 진화 체험을 박탈당했던 이 자녀들은, 완결성취 단체에는 모집되지 않는다.

3. 첫째 맨션 세계

47:3.1 (532.7) 맨션 세계들에서, 부활한 필사 생존자들은, 자신이 죽으면서 떠난 바로 그 위치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유란시아로부터 첫 맨션 세계로 갈 때, 너는 자신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음을 알아채겠지만, 네가 좀 더 정상적이고 진취적인 시간세계 구체{球體}에서 왔다면, 다른 몸 속에 있다는 사실;즉 살과 피로 이뤄진 장막은 탄생됐던 그 세상에 두고 왔다는 사실 외에는, 차이점을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47:3.2 (532.8) 첫 맨션 세계에서 모든 활동의 최고 중심 지역은, 부활 강당, 즉 인격체가 조립되는 거대한 성전이다. 거창한 이 구조물은, 스랍 운명 수호자, 사고 조율사, 그리고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심 집결지로 이뤄져 있다. 생명 운반자 역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이 천상{天上}의 존재들과 함께 활동한다.

47:3.3 (533.1) 물질 수준으로부터 영적 수준으로 변환된, 필사자_정신 이력서와 유효한 피조물_기억 원형{原型}은, 분리된 사고 조율사의 사유물{私有物}이며;영으로 바뀐 이런 정신 요소, 기억, 및 피조물 인격체는 영구히 그런 조율사의 한 부분이다. 피조물의 정신_구조,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 정체성 잠재력은, 스랍 운명 수호자가 보관하도록 위탁된 모론시아 혼 속에 현존한다.

스라빔에게 위탁된 모론시아_혼과 조율사에게 위탁된 영_정신을 다시 결합시킴으로써, 피조물 인격체가 다시 조립되고, 잠자던 생존자가 부활하게 된다.

47:3.4 (533.2) 필사자에서 기원된 일시적인 인격체가 그렇게 재조립되지 않는다면, 생존하지 못하게 된 그 필사 피조물의 영{靈} 요소는, 한때 내주했던 조율사의 전체 개별 체험 재능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영구히 존속할 것이다.

47:3.5 (533.3) 새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필사자 인종들의 부활 강당인 일곱 개의 부속건물이 방사형{放射形}으로 뻗어나가 있다. 이 구조물은 각각 시간세계의 일곱 인종 가운데 하나의 집회에 할애돼 있다. 원형{圓形}으로 된 학급 집회 강당에 붙어있는 이 일곱 부속건물 각각에는 10만 개의 개인 부활실이 있는데, 1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이 깨어나는 방으로 사용된다. 이 방들은 정상적인 아담_이후 세계에서 온 혼혈 인종의 인격체 조립실들로 둘러싸였다. 특별한 부활 또는 섭리시대 부활과 연관되어 개별 시간 세계에서 채택될 수 있는 기법과는 상관없이, 전부 갖춘 실제 인격체를 의식하게 되는 진짜 재조립이

1_번 맨소니아의 부활 강당에서 발생된다. 너희는 이 부활의 아침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감명,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그 감명을, 영원히 계속 되살리게 될 것이다.

47:3.6 (533.4) 너는 부활 강당에서 멜기세덱 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영구 거주지를 배정 받는다. 그 다음에 너는 10일간의 개인 자유시간을 갖는다. 너는 새로운 자기 집 바로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고, 곧 시작하게 될 계획표에 익숙해진다. 또한 너는 등록부를 들여다보고, 너보다 먼저 이 세계로 왔을지도 모를, 네가 사랑하던 사람들 및 세상에서 친구였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은 소망을 만족시킬 시간도 갖는다. 10일 동안의 자유시간이 끝날 때, 너는 낙원으로 가는 여행에서 둘째 걸음을 내딛는데, 맨션 세계들은 단순히 붙잡아 두는 행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훈련하는 구체이기 때문이다.

47:3.7 (533.5) 1_번 맨션 세계에서 (혹은 진보된 신분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너는 죽음 때문에 중지됐던 바로 그 수준에서, 너의 지적 훈련과 영적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행성에서 죽거나 옮겨지던 때와 맨션 세계에서 부활하는 때 사이에서, 생존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너는 이 아래에서 떠난 바로 그 수준에서, 저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

47:3.8 (533.6) 1_번 맨션 세계에서 겪는 체험 중에서 거의 전부는, 결핍된 부분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다. 붙잡아 두는 구체들 중에서 이 첫째에 도착하는 생존자는, 피조물의 성품에서 다양한 결함과 필사자 체험의 결핍을 너무나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영역의 주요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물질 진화 세계에서 육신을 입은 삶에서 가졌던, 이런 잡다한 습성을 바로잡고 치료하는 데 집중된다.

47:3.9 (534.1) 1_번 맨션 세계에 머무는 것은,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최소한 아담_이후 섭리시대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필사 생존자들을 발달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그 맨션 세계 학생들은 그런 단순한 인간 발달 상태보다 훨씬 앞서 있다.

47:3.10 (534.2) 네가 1_번 맨션 세계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면, 10일이 끝날 때 너는 옮겨지기 위한 수면{睡眠} 속으로 들어가서 2_번 세계로 나아가며, 그 후로 10일마다, 네가 배정될 세계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진급하게 될 것이다.

47:3.11 (534.3) 첫 맨션 세계 행정부에서 일곱 주요 원형(圓形)의 중앙은, 모론시아 동무들의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배정된 개인 안내자다. 이 동무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며, 사타니아의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이들이 수백만 명 있다. 집단 동무로서 배정된 자를 제외하고, 통역관{通譯官}과 번역가{翻譯家}, 건축물 관리인, 및 소풍 감독관들과 함께, 너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무들은 모두, 모론시아 몸 속에서 정신 및 영으로 된 너의 인격체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일과 관련된 자들에게 가장 협동적이다.

47:3.12 (534.4)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 시작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 1,000명으로 이뤄진 중대마다 한 명의 모론시아 동무가 배정되지만, 일곱 맨션 구체를 통해서 진보함에 따라, 더 많은 숫자와 만나게 될 것이다. 아름답고 다재다능한 이 존재들은, 사귀기 쉬운 동역자이며, 매력 있는 안내자다. 그 위성 세계들을 포함하여 어떤 과도기_문화 구체에든지, 그들은 개인 또는 선택된 집단들과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다. 그들은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의 소풍 안내자이고 여가시간 동역자다. 그들은

예루셈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생존자 집단과 자주
동행하며, 너희가 어느 날 거기 있더라도, 체계 수도의 등록
구역으로 갈 수 있고, 일곱 맨션 세계 전체에서 온,
상승하는 필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주거지와
체계 본부 사이를 그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여행하기
때문이다.

4. 둘째 맨션 세계

47:4.1 (534.5) 이 구체에서 너희는 맨소니아 생활에 더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모론시아 생활의 분류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일하는 집단과 사회 조직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들이 공식 역할을 하며, 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새로운 사회 체제와 정부 제도를 발족시킨다.

47:4.2 (534.6) 영과_융합된 생존자가, 조율사와_융합된
상승하는 필사자와 공동으로, 맨션 세계들을 차지한다.
다양한 계층의 천상의 생명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친근하고 우애 있다. 어느 세계로 상승하든지, 너희는
인간의 편협성과 경솔한 신분계층체계의 차별대우에
견줄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47:4.3 (534.7) 네가 맨션 세계를 하나씩 올라감에 따라서, 그 세계는 진보하는 생존자들의 모론시아 활동으로 더욱 붐비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너는 맨션 세계들에 덧붙여진 예루셈 특색을 점점 더 인식할 것이다. 유리바다는 둘째 맨소니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47:4.4 (534.8) 한 맨션 세계에서 다음 세계로 진보할 때마다, 새롭게 발전되고 알맞게 조정된 모론시아 몸을 획득하게 된다. 너는 스랍 운송체와 함께 잠자게 되고, 새롭지만 발달되지 않은 몸과 함께 부활 강당에서 깨어나는데, 맨션 세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잠을 자는 동안, 사고 조율사가 너를 떠나지 않는 것 외에는, 네가 1_번 맨션 세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네가 진화 세계로부터 첫 맨션 세계로 일단 옮겨진 후에는, 너의 인격체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47:4.5 (535.1) 네가 모론시아 생애에서 상승하는 동안, 네 조율사의 기억은 완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다. 순전히 동물적이고 완전히 물질적이었던, 머리 속에서 연상{聯想}했던 것들은 물질 뇌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너의 정신적 생애에서 보람 있었고 생존할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을 조율사가 복사했으며, 상승하는 생애 내내 끝까지 개인 기억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유지된다. 네가 한 맨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그리고 우주의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심지어 낙원으로--나아가는 동안, 너는 보람 있는 모든 체험을 전부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47:4.6 (535.2) 모론시아 몸을 갖더라도, 이 일곱 세계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계속 먹고 마시고 쉴 것이다. 너희는 모론시아 상태의 음식, 즉 물질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살아있는 에너지 계통을 섭취한다. 음식과 물은 모론시아 육체 안에서 완전히 활용되며;남는 찌꺼기가 없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1_번 맨소니아는 매우 물질적인 구체인데, 모론시아 체제 중에서 아주 초기를 보여준다. 너는 여전히 인간에 가깝고, 필사자 생애의 제한된 관점에서 그리 멀리 옮겨지지 않았지만, 각 세계는 분명한 진보를 보여준다. 구체에서 구체로, 너는 차츰 물질적 성향이 줄어들고, 더 지적으로 바뀌며, 좀 더 영적으로 변한다. 영적 진보는 이 일곱 진보 세계 가운데 마지막 세 곳에서 가장 크게 이뤄진다.

47:4.7 (535.3) 생물학상 결핍이 첫 맨션 세계에서 주로 보상된다.

성{性} 생활, 가족 관계,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성 체험에서 있었던 결점이 거기서 교정됐거나, 아니면 예루셈에 있는 물질 아들 가족 가운데서 앞으로 조정되도록 계획된다.

47:4.8 (535.4) 2_번 맨소니아는 특히, 모든 국면의 지적 갈등을

제거하고, 온갖 종류의 정신적 부조화를 치료하도록 마련돼 있다. 첫 맨션 세계에서 시작됐던, 모론시아 모타의 중요성을 숙달하려는 노력이 여기서 더 진지하게 계속된다. 2_번 맨소니아에서 이뤄지는 발전은, 이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집정관 아들_이후 문화의 지적 상태와 비교된다.

5. 셋째 맨션 세계

47:5.1 (535.5) 셋째 맨소니아는 맨션 세계 교사들의 본부다. 비록

그들이 일곱 맨션 구체 전체에서 활동하더라도, 3_번 세계의 학교 단지{團地} 중심에 집단 본부를 둔다. 맨션 세계들 및 더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는, 이 교관이 수백만 명 있다. 진보되고 영화롭게 된 이 체루빔은, 맨션 세계로부터 지방우주의 상승 훈련을 맡은 마지막 구체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모론시아 선생으로서 봉사한다. 작별하는 때가 가까이 올 때, 네가 기원된 우주에 --적어도 몇 세기 동안-- 작별 인사를 할 때, 네가 연방우주의 소구역에 해당하는 영접 세계들로 옮겨지기 위해 스라빔에 둘러싸일 때, 그들은 마지막으로 너에게 애정 어린 고별인사를 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47:5.2 (535.6) 첫 맨션 세계에 머물 때, 너는 완결성취자들의 본부이며, 개발되지 않는 진화 자녀 양육을 위한 체계 보호관찰 육아원인, 첫째 과도기 세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네가 2_번 맨소니아에 도착하면, 2_번 과도기 세계에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 그곳에는 사타니아 전체를 위한 모론시아 감독관 본부와, 다양한 모론시아 계층을 위한 훈련 학교들이 있다. 네가 3_번 맨션세계에 도착하면, 셋째 과도기 구체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즉시 부여받는데, 이 구체는 천사 계층의 본부이고, 그들의 다양한 체계 훈련 학교의 본고장이다. 이 세계로부터 예루셈를 방문하는 것은 점점 더 유익하며, 진보하는 필사자에게 흥미를 늘_증대시킨다.

47:5.3 (536.1) 셋째 맨소니아는, 필사자가 출생한 세계에서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이 문화 범위에 상당하는 것을 이룩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세계다. 이 구체에서는 더 긍정적인 교육 작업이 시작된다. 처음 두 맨션 세계의 훈련은 주로, 육신 속에서의 삶의 체험을 보충해야만 하는, 결핍이라는 --곧 부정적인-- 특징이 있다. 생존자들은 이 셋째 맨션 세계에서 자신의 점진적 모론시아 훈련을 실제로 시작한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은, 모론시아 모타와 필사자 논리{論理}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즉 모론시아 모타와 인간 철학을 더욱 조화시키는 데 있다.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이때 참된 형이상학에 대한 실제 통찰력을 얻는다. 이것이 시공우주의 의미와 우주 상호관계들을 지성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참된 첫 걸음이다. 셋째 맨션 세계의 문화는, 정상적인 인간거주 행성에서 증여 아들 이후 시대의 특징을 띤다.

6. 넷째 맨션 세계

47:6.1 (536.2) 네가 넷째 맨션 세계에 도착할 때, 너는 이미 모론시아 생애에 잘 들어갔으며;초기의 물질 실존으로부터 멀리 진보해 왔다. 이제는 너에게 4_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지며, 거기서 찬란한 저녁별을 포함하여, 최고천사들의 본부 및 훈련 학교에 관해서 익숙하게 된다. 넷째 과도기 세계에서 이 최고천사들이 잘 주선한 덕택으로, 모론시아 방문자들은 예루셈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다양한 계층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데, 진보하는 필사자들이 본부 세계를 이렇게 반복해서 방문함에 따라, 체계 본부의 새 구역들이 그들에게 점점 더 개방되기 때문이다. 이 상승자들의 성장하는 정신에게 새로운 장관{壯觀}이 점진적으로 펼쳐진다.

47:6.2 (536.3) 넷째 맨소니아에서 각 상승자는, 모론시아 생애의 집단 작업과 학급 활동에서 자기 위치를 점점 더 적절하게 발견한다. 상승자들은 여기서 방송 및 다른 국면의 지방우주 문화와 진보를 더욱 이해하게 된다.

47:6.3 (536.4) 4_번 세계에서 훈련받는 기간에,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모론시아 피조물의 참된 사회 생활의 요구사항과 환희를, 정말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진화하는 피조물이, 개인의 세력확장은 물론, 자기_본위의 승리에도 입각하지 않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체험이다. 새로운 사회 질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존중함으로 공감{共感}하는 의사소통, 서로 봉사하는 이타적 사랑, 그리고 최상의 공동 운명을--곧 낙원을 목표로 하는 경건하고 신성한 성숙을-- 실현하려는 압도적 동기에 기초를 둔 것이다. 상승자들은 모두, 하나님을_알아감, 하나님을_드러냄, 하나님을_추구함, 그리고 하나님을_발견함을 자아_의식하게 된다.

47:6.4 (536.5) 이 넷째 세계의 지적 및 사회적 문화는, 정상으로 진화하는 행성에서 교사 아들_이후 시대의 정신 생활 및 사회 생활과 비교할만하다. 영적 상태는 그런 필사자 섭리시대보다 훨씬 앞서 있다.

7. 다섯째 맨션 세계

47:7.1 (537.1) 다섯째 맨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모론시아 진보자 인생에서 엄청나게 전진한 발걸음에 해당한다. 이 세계에서 겪는 체험은, 정말로 예루셈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너는 여기서 충실하게 진화하는 세계의 고귀한 운명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런 행성 발전 기간에, 그런 세계들이 이 단계까지 진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맨션 세계의 문화는,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진화 행성에서 빛과 생명의 초기 시대의 문화와 대개 일치한다. 그리고 너는 이것에서, 이 진보된 진화 세계에 한때 거주했던, 대단히 교양 있고 진취적인 유형의 존재들이, 왜 맨션 구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체, 심지어 모든 구체를 거치지 않고 면제되도록 정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47:7.2 (537.2) 넷째 맨션 세계를 떠나기 전에 지방우주 언어를 숙달했으므로, 너는 이제, 거주권을 갖고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에, 우버사의 방언을 완벽히 구사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는, 체계 본부로부터 하보나까지, 두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는 연방우주 용어를 추가하면 되는데, 낙원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47:7.3 (537.3) 순례자들은 5_번 맨소니아에 도착하면, 상응하는 번호의 과도기 세계, 즉 아들들의 본부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상승한 필사자는, 신성한 아들신분의 다양한 집단과 여기서 개인적으로 친숙하게 된다. 이

뛰어난 존재들에 대해 소문을 들어 왔고, 예루셈에서 이미 만났지만, 이제는 그들을 실제로 알게 된다.

47:7.4 (537.4) 너는 다섯째 맨소니아에서 성좌 연구 세계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너는 여기서 그 다음 성좌에 체류하도록 너를 비로소 준비시킬 첫 교관을 만난다. 이런 준비는 6_번과 7_번 세계에서 더 계속되며, 한편 마무리하는 손질이,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 구역에서 더해진다.

47:7.5 (537.5) 5_번 맨소니아에서 시공우주 의식{意識}이 실제로 탄생된다. 너희는 우주에 몰두해간다. 이때는 정말로 시야가 넓어지는 시기다. 낙원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을 완성하는 모든 존재를, 어떤 엄청나고 훌륭한, 어떤 숭고하고 신성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상승하는 필사자의 확장되는 정신에 비로소 떠오르고 있으며, 이 상승은 그토록 힘들게 그러나 몹시 기쁘고 경사스럽게 시작됐다. 이 지점에 가까워지면, 평범한 필사 상승자는 하보나로 상승하는 것을 진실하게 체험하려는 열정을 보이기 시작한다. 연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이타적 봉사는 자연스러워지며, 경배는 저절로 일어난다.

참된 모론시아 성품이 싹트며;참된 모론시아 피조물이 계속 진화한다.

8. 여섯째 맨션 세계

47:8.1 (537.6) 이 구체에 머무는 자들은 6_번 과도기 세계를 방문하도록 허락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연방우주의 높은 영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지만, 이 천상의 존재 가운데 다수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기대되는 영 생애에서 첫 수업을 받는데, 이것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훈련에서 졸업한 직후에 따라온다.

47:8.2 (537.7) 보조 체계 주권자가 이 세계에 자주 방문하며, 여기서 우주 경영 기법의 첫 훈육이 시작된다. 한 우주의 전체 직무를 포함하는 첫 학습이 이때 주어진다.

47:8.3 (538.1) 이때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찬란한 시대이며,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과 신성한 조율사가 완전하게 융합되는 것을 목격한다. 잠재적인 면에서는, 이 융합이 그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다섯째 맨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여섯째에 머무는 시기까지도, 실제로 작동하는 정체성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47:8.4 (538.2) 부활된 생존자들을 감독하는 최고천사, 그리고 셋째 날에 심판 받으러 나가는 자들을 위해 기록하는 천사장, 이 둘을 스랍이 호출하면,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영원하고 신성한 조율사와 결합했음을 알게 되며;그 다음에는, 그런 생존자의 모론시아 동역자들 앞에서, 확증하는 이 사자들이 말한다:“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간단한 이 예식은, 상승하는 필사자가, 낙원에서 봉사하는 영원한 생애로 들어감을 표시한다.

47:8.5 (538.3) 조율사와 융합된 것이 확정되는 즉시, 새로운 모론시아 존재는 동료들에게 처음으로 새 이름으로 소개되며, 모든 일상 활동에서 영적으로 떠나 있는 40일을 부여받는데, 그동안 심사숙고하면서, 하보나에 이르는 임의의 경로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고, 낙원에 도달하는 상이한 기법들 중에서 선택하려는 것이다.

47:8.6 (538.4) 그러나 찬란한 이 존재들은 여전히 다소 물질적이며;참된 영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으며;오히려 초월필사자에 더 가까운데, 영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피조물이 돼가고 있다.

47:8.7 (538.5) 맨션 세계 학생들은, 6_번 세계에 머무는 동안, 빛과 생명의 첫 단계를 지나서 정상으로 진보한 진화 세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고양된 발전에 견줄만한 상태에 있다. 이 맨소니아에 있는 공동체의 조직은 고귀한 체제에 해당된다. 이 세계를 하나씩 상승할 때, 필사자 본성의 그림자가 점점 줄어든다. 행성의 동물에서 기원됨으로 인한 열등한 흔적이 사라짐에 따라서, 너희는 점점 더 사랑스럽게 돼간다. “큰 시련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를 매우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매우 동정심 많고 인내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

9. 일곱째 맨션 세계

47:9.1 (538.6) 이 구체에서 겪는 체험은, 죽음 직후의 생애에서 더할 나위 없는 업적이다. 너는 여기 머무는 동안 여러 선생의 지침을 받는데, 그들은 모두 예루셈에 거주하도록 너를 준비시키는 과제에 협조할 것이다. 고립되고 뒤쳐진 세계들에서 온 그런 필사자와, 더 진보되고 계몽된 구체에서 온 생존자 사이에, 모든 식별 가능한 차이점이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무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없어진다. 너의 불행한 유전, 유해한 환경, 그리고 행성의 비영적 경향 등의 모든 찌꺼기가 여기서 전부 제거될 것이다. “짐승의 흔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여기서 뿌리째 뽑힌다.

47:9.2 (538.7) 7_번 맨소니아에 머무는 동안, 7_번 과도기 세계, 즉 만유의 아버지의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다. 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 더 영적인 경배, 즉 너의 긴 상승 생애 전체에 걸쳐서 네가 점점 더 실행하게 될 습관을 여기서 갖추게 된다. 너희는 이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 아버지의 성전을 발견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한다.

47:9.3 (538.8) 이제는 예루셈으로 가는 졸업반이 구성되기 시작한다. 너희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개별적으로 갔었지만, 이제는 집단을 이뤄서 예루셈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상승자는 지구상에서 또는 맨소니아 실행 집단에서 뒤쳐진 일원이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곱째 맨션 세계에 머물기로 선택할 수 있다.

47:9.4 (539.1) 거주 신분을 갖고 예루셈을 향해 출발하는 너희를 보기 위해, 일곱째 맨소니아 요원들이 유리바다에 모인다. 너희가 예루셈을 수백 수천 번 방문했을지 모르지만, 항상 손님으로서 방문했으며;상승하는 필사자로서, 전체 맨소니아 생애에 영원한 작별인사를 고하는 한 무리의 동료들과 일행이 되어, 체계 수도를 향해서 나아간 적이 전에는 너희에게 전혀 없었다. 너희는 예루셈 시민으로서 본부 세계의 영접광장에서 곧 환영 받을 것이다.

47:9.5 (539.2) 너희는 비물질화를 겪는 일곱 세계를 통해서 진보하는 것을 크게 즐기게 되며;그 세계들은 실제로 불멸화{不滅化} 시키는 구체다. 너희가 첫 맨션 세계에서는 거의 인간에 가까운데, 물질적인 몸만 제거된 필사 존재, 즉 모론시아 형체--곧 육신과 피로 된 필사적 거처가 아니라, 모론시아 세계의 물질적 몸--안에 거하는 인간 정신일 뿐이었다. 너희는 조율사와 융합할 때 필사 상태에서 불멸 상태로 옮겨지며, 그때 예루셈 생애를 마치고 훌륭하게 성장한 모론시아인이 될 것이다.

10. 예루셈 시민권

47:10.1 (539.3) 새 학급의 맨션 세계 졸업생을 영접할 때가 되면, 환영 위원회로 모이라는 신호가 온 예루셈에 퍼진다. 스포르나기아조차, 진화로 기원된 승리한 이 상승자들의 도착을 즐거워하는데, 그들은 행성의 인생 행로를 달려왔고, 맨션 세계의 진보를 완료했다.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만, 이 즐거운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47:10.2 (539.4) 일곱째 맨션 세계로부터, 그들에게 첫 하늘나라인 예루셈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한 무리의 필사자가 도착하는 환상을, 계시자 요한이 봤다. 그가 기록했다:“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것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며;처음부터 그들 속에 있었던 짐승, 맨션 세계들을 통해서 남아 있었던 형상,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표시와 흔적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갖고, 필사자의 두려움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더라.” (완전하게 된 우주 통신이 이 모든 세계 위에 임재하게 될 것이며;너희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그런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주 통신을 수신하기에 미숙한 모론시아 감각

기관을 직접 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충해주는 모론시아 장치다.)

47:10.3 (539.5) 바울 역시 예루셈에서 완성돼가는 필사자들의 상승_시민 단체를 봤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 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무리의 천사에게로, 미가엘의 광대한 집회로,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로 왔다.”

47:10.4 (539.6) 필사자들이 체계 본부에서 거주지를 갖게 된 후에, 글자 그대로의 부활은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다. 맨션 세계의 생애를 떠날 때 너에게 수여된 모론시아 형체는, 지방우주 체험이 끝날 때까지 내내 너와 동행하게 될 그런 것이다. 때때로 변화가 이뤄지지만, 높아지는 교양과 영 훈련을 받는 연방우주의 여러 세계까지 옮겨지는 데 대비해서, 네가 첫_단계 영으로 떠오르면서 이 형체에 작별을 고할 때까지, 바로 이 형체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47:10.5 (540.1) 맨소니아 생애 전체를 통과한 그런 필사자들은, 조정하는 잠을 자고 부활해서 깨어나는 체험을 일곱

번이나 겪는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실, 즉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방을 일곱째 맨션 세계에 남겨두고 떠났다. 어떤 형체_변화도, 더 이상 의식을 잃게 하거나, 개인의 연속되는 기억을 단절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47:10.6 (540.2) 진화 세계에서 시작했고 육신 속에 살았던--곧 신비 관찰자들이 내주하고 진리의 영이 들어 있던-- 필사 인격체는, 그런 예루셈 시민이 에덴시아에 받아들여지고, 네바돈의 모론시아 단체의 참된 구성원이라고--곧 조율사와 연합하는 불멸하는 생존자, 낙원 상승자, 모론시아 상태의 인격체, 그리고 지고자의 참된 자녀라고--선포되기 전에는, 온전하게 발휘되고 실현되고 통합되지 않는다.

47:10.7 (540.3) 필사자의 죽음은, 육신을 입은 물질 생애로부터 벗어나는 한 기법이며;교정하는 훈련과 수양하는 교육을 받는 일곱 세계를 거쳐 진보하면서 사는 맨소니아 체험은, 필사 생존자가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진화하는 물질 실존과, 영원성의 문 앞에 서게 돼 있는 시간세계에서 상승하는 자들의 고귀한 영 달성,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과도기 인생이다.

47:10.8 (540.4) [찬란한 저녁별이 후원했음]

제48편 모론시아 생애

48:0.1 (541.1) 하나님들은, 어떤 신비스런 창조적 마술 행위로, 거친 동물 본성을 가진 피조물을, 완전해진 영으로 변형시키실 수 없다--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창조주들이 완전한 존재를 산출하기를 바랄 때, 그들은 직접 원본을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하지만, 동물에서_기원되는 피조물과 물질 피조물을, 단번에 완전한 존재로 전환시키는 일에는 결코 손대지 않는다.

48:0.2 (541.2) 지방우주 생애에서 가지각색의 단계로 연속되는 모론시아 생애는, 물질 필사자가 영 세계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로다. 물질 육체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죽음이, 무슨 마술을 부려서, 그렇게 단번에, 필사의 물질 정신을 완전하게 된 불멸하는 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믿음은 무식한 미신, 또는 재미있는 우화에 불과하다.

48:0.3 (541.3) 필사 상태와, 생존하는 인간이 나중에 얻는 영{靈} 신분 사이에는, 이 모론시아 과도기가 항상 끼어있다. 우주

진보에서 이 중간 상태는, 다양한 지방 창조계마다 현저히 다르지만, 의도와 목적에서는 모두 매우 비슷하다. 네바돈에 있는 맨션 세계와 상급{上級} 모론시아 세계들의 배열은, 오르본톤의 이 지역에서 모론시아 과도기 체제를 상당히 대표한다.

1. 모론시아 물질

48:1.1 (541.4) 모론시아 영역은, 피조물이 실존하는 물질 수준과 영적 수준 사이를 연결하는, 지방우주 구체들이다. 이 모론시아 생애는 행성 왕자의 초기 시대부터 유란시아에 알려졌다. 필사자들은 이 과도기 상태를 때때로 배워 왔으며, 그 개념은 왜곡된 형태로 오늘날 종교에 자리잡고 있다.

48:1.2 (541.5) 모론시아 구체들은, 필사자가 지방우주의 진보하는 세계들을 거쳐서 상승하는 과도기 국면에 해당한다.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구체를 둘러싼 일곱 세계만을 맨션 세계라고 부르지만, 성좌 및 우주 본부를 둘러싼 높은 구체들과 함께, 56개의 체계 과도기 거주지{居住地} 전체를, 공통적으로 모론시아 세계라고

부른다. 이 창조계는 지방우주 본부 구체들의 물리적 아름다움과 모론시아의 웅장함을 공유한다.

48:1.3 (541.6) 이 세계들은 모두 건축양식 구체이며, 진화된 행성에 있는 원소의 숫자보다 꼭 두 배를 갖고 있다. 주문에_따라_만들어진 그런 세계들에는, 100개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포함해서, 중금속과 수정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물질*이라고 불리는, 정확하게 100가지 형태의 독특한 에너지 조직을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다. 총괄 물리 통제관과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기초 물질 단위의 공전주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동시에, 이 에너지 결합을 변형시켜서, 이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

48:1.4 (542.1) 지역 체계에서 초기 모론시아 생애는 너희의 현재 물질 세계의 것과 매우 흡사한데, 성좌의 연구 세계들에서는 물리적 성향이 줄어들고 더 참된 모론시아 성향이 늘어난다. 그리고 살빙톤 구체들로 진보함에 따라서, 너희는 점점 더 영적 수준에 도달한다.

48:1.5 (542.2)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물질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의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하는 영이 겹쳐지도록 허용하는 모론시아 형태의

물질화를 일으킨다. 네가 네바돈의 모론시아 생애를 거치는 동안, 끈기 있고 능숙한 이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570가지 모론시아 몸을 너에게 연속으로 제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각각 너의 점진적 변형의 한 국면이다. 네가 물질 세계를 떠날 때부터 살빙톤에서 첫_단계 영으로 구성될 때까지, 너는 별개의 상승하는 모론시아 변화를 정확하게 570번 겪게 될 것이다. 이것들 중에서 여덟 번은 체계에서, 일흔한 번은 성좌에서, 그리고 사백아흔한 번은 살빙톤 구체들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다.

48:1.6 (542.3) 필사자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신성한 영이 거의 별개의 존재로서 너에게 내주한다--실제로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증여한 영이 사람에게 침투한다. 그러나 모론시아 생애에서는 그 영이 네 인격체의 진짜 일부분이 될 것이며, 570번의 점진적 변형을 연달아 거치는 동안, 너는 피조물 생애의 물질 상태에서 영적 상태로 올라간다.

48:1.7 (542.4) 바울은 모론시아 세계들이 실존함을, 그리고 모론시아 물질이 실체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다:“저희는 하늘에서 더 낮고 더 영속적인

실체를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축하고 만드신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모론시아 물질은 실재하고 글자 그대로다. 그리고 기묘한 이 구체들은 각각, “더 좋은 나라, 즉 하늘의 나라다.”

2.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48:2.1 (542.5) 독특한 이 존재들은 오로지, 영적 에너지와 물리적 에너지 또는 약간물질 에너지의 실용적 조합을 나타내는 그런 활동에 대한 감독에만 관여한다. 그들은 오로지 모론시아 진보 사역에만 몰두한다. 과도기 체험을 겪는 동안 필사자들에 대한 사역만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보하는 모론시아 피조물을 위해서 과도기 환경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에서 모론시아 국면들을 지탱하고 활기를 돋우는 모론시아 동력의 경로다.

48:2.2 (542.6)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은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다양한 지방 창조계에서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름에도, 설계상으로는 제법 표준화 돼있다. 그들은 자신의 특유한 역할을 위해서 창조됐으며, 책무를 수행하기 전에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

48:2.3 (542.7) 첫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을 창조하는 일은, 지방우주의 첫 모론시아 세계들 중에서 어느 한 세계의 기슭에 첫 필사 생존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이뤄진다. 그들은 1,000명씩 무리지어 창조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48:2.4 (542.8) 1. 회로 제어자{制御者} ----- 400.

48:2.5 (542.9) 2. 체계 조정자 ----- 200.

48:2.6 (542.10) 3. 행성 관리인 ----- 100.

48:2.7 (543.1) 4. 조합된 통제관 ----- 100.

48:2.8 (543.2) 5. 연락 안정자 ----- 100.

48:2.9 (543.3) 6. 선택적 분류자 ----- 50.

48:2.10 (543.4) 7. 부{副} 기록원 ----- 50.

48:2.11 (543.5) 동력 감독관들은 항상 자신이 태어난 우주에서 봉사한다. 오로지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이 공동으로 하는 영 활동만이 그들을 지시하지만,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자체_통치 집단이다. 그들은 지역 체계의 첫 맨션 세계에 본부를 유지하는데, 거기서 물리 통제관들 및 스라빔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일하지만, 에너지를 형태화하거나
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자체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48:2.12 (543.6) 또한 그들은 때로 진화 세계들에서 임시로 임명된
사역자로서, 초물질 현상과 관련돼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거주 행성에서 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또한 연방우주의 고등 훈련 세계에서 활동하지도
않는데, 한 지방우주에서 모론시아 진보를 담당하는
과도기 체제에 주로 전념한다.

48:2.13 (543.7) 1. *회로 제어자*. 이들은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독특한 존재이고, 모론시아 영역의
분리된 경로 속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며, 이
회로들은 전적으로 행성에 속하지만, 한 세계로 국한된다.
모론시아 회로들은, 과도기 세계에 있는 물리적 회로 및
영적 회로와 뚜렷이 다르고, 그것들을 보충해 주며, 심지어
사타니아 체계와 비슷한 체계의 맨션 세계들에 활력을
주는 데에도, 수백만 명의 이 제어자들이 필요하다.

48:2.14 (543.8) 회로 제어자들은, 물질 에너지 안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그 에너지가 동역자들의 통제와 규제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이 존재들은 회로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론시아 동력 발생기이기도 하다. 발전기가 대기{大氣}로부터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살아있는 이 모론시아 발생기들도, 편재{遍在}하는 우주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며, 모론시아 감독관들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육체와 생명 활동 속으로 그 물질을 엮어 넣는다.

48:2.15 (543.9) 2. *체계 조정자*. 각각의 모론시아 세계가, 분리된 계통의 모론시아 에너지를 소유한 까닭에, 인간이 이 구체들을 상상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그러나 필사자들은, 연속되는 과도기 구체 각각에서, 식물 생명체 및 모론시아 실존에 부속되는 다른 모든 것이, 상승하는 생존자의 발전하는 영화{靈化}에 일치하도록 점진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세계의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개별화 돼 있으므로, 이 조정자들은, 어느 특정 집단의 관련된 구체들을 위한 실용 단위 속으로, 그런 차이는 여러 동력 체계를 조화시키고 혼합시키려고 활동한다.

48:2.16 (543.10)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한 모론시아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전진함에 따라,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서서히 진보하며;따라서 모론시아 구체들의 상승 등급과 모론시아 형체들의 상승 등급을 규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48:2.17 (543.11) 맨션 세계 상승자들이 한 구체에서 다른 구체로 지나갈 때, 진보하는 세계에 있는 체계 조정자들의 수령자{受領者}들에게로, 운송 스라빔이 그들을 인도한다. 이 독특한 여러 회당에는, 땅에서_지원된 필사자를 영접하는 첫째 세계의 부활실과 비슷한 변환실{變換室}들이 70개의 방사형 부속건물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체계 조정자들이 피조물 형태에 필요한 변화를 능숙하게 일으킨다. 이 초기 모론시아_형태의 변화는, 완성되기까지 표준시간으로 약 7일이 소요된다.

48:2.18 (544.1) 3. *행성 관리인*. 맨션 구체들에서 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직무에 관해서 말하자면-- 각 모론시아 세계는 70명의 수호자의 보호 속에 있다. 그들은 최고의 모론시아 권세를 갖는 지방 행성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그 구체들에 착륙하는 모든 상승하는 피조물에게 모론시아 형체를 지을 물질을 수여하며, 상승자가 그 다음 구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를 피조물 형체에 허락한다. 너희가 맨션 세계들을 지나간 후에는, 의식을 잃을 필요 없이, 모론시아 생애의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오직 초기 변질을 겪을 때, 그리고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그리고 하보나에서 낙원으로 나중에 변환될 때에만 무의식이 수반된다.

48:2.19 (544.2) 4. *조합된 통제관*. 매우 기계적인 이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모론시아 세계의 각 경영 단위 중심에 항상 자리잡고 있다. 조합된 통제관은, 물리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및 모론시아 에너지에 민감하고, 이것들과 함께 작용하며; 두 명의 체계 조정자, 네 명의 회로 제어자, 한 명의 행성 관리인, 한 명의 연락 안정자, 그리고 한 명의 부{副} 기록원 또는 한 명의 선택적 분류자가 항상 이 존재와 연합한다.

48:2.20 (544.3) 5. *연락 안정자*. 이들은 그 영역의 물리적 및 영 세력과 관련된 모론시아 에너지를 제어하는 자다. 그들은, 모론시아 에너지가 모론시아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모론시아 실존 조직 전체가 안정자들에게 의존한다. 그들은, 물질화가 발생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회전 속도를 낮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들의 사역에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크게 벗어난다.

48:2.21 (544.4) 6. *선택적 분류자*. 너는 모론시아 세계의 한 부류 또는 국면으로부터 다음으로 진보하는 동안에 재_조율 또는 미리_동조돼야만 되며, 네가 모론시아 생활과의 점진적 동시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택적 분류자의 과제다.

48:2.22 (544.5) 기초 모론시아 형태의 생명과 물질은, 첫 맨션 세계부터 마지막 우주 변환 구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지만, 기능상 진보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점차 확장한다. 기본적으로는 균일하지만, 연속해서 진보하고 영화{靈化}하는 창조에 대해서는, 이런 선택적 재_조율이 너를 적응시킨다. 너희가 동일한 모론시아 형체를 그대로 유지함에도, 인격체 체제에서 그런 조정은 새로 창조되는 것에 상당한다.

48:2.23 (544.6) 너는 이 검사관들의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네가 합당한 영적 성취를 등록하자마자, 그들은 네 지위가 높아졌음을 기꺼이 보증해 줄 것이다. 이런 점진적

변화는, 음식의 필요성과 수많은 다른 개인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변경과 마찬가지로, 모론시아 환경에 대해 달라진 반응을 일으킨다.

48:2.24 (544.7) 선택적 분류자들은 또한, 연구, 가르침, 및 기타 기획사업의 목적을 위해 모론시아 인격체들을 분류하는데 크게 쓸모가 있다. 그들은 일시적 연합에서 최고로 활동하게 될 자들을 자연스럽게 지명한다.

48:2.25 (544.8) 7. 부{副} 기록원. 모론시아 세계에는 자체 기록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론시아 창조계 고유의 기록과 기타 자료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과제에, 영 기록원들과 연합해서 봉사한다. 모든 계층의 인격체가 모론시아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48:2.26 (545.1) 물질 존재와 영 존재가 모든 모론시아 과도기 영역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 너희는 모론시아 진보자로서 물질 세계 및 물질 인격체들과 완전한 접촉을 계속 이루게 되는 한편, 너희는 영 존재들을 점점 더 알아보고 그들과 사귀게 될 것이며;모론시아 체제를 떠나게 될 때까지, 단독 사자들 같은 고등 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의 영을 보게 될 것이다.

3. 모론시아 동무

48:3.1 (545.2) 맨션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에 있는 이 무리는 지방우주 어머니 영의 자손이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10만 명씩 무리지어 창조됐으며, 네바돈에는 현재 700억 명 이상의 이 독특한 존재가 있다.

48:3.2 (545.3) 모론시아 동무들은, 봉사하기 위해 살빙톤에 가까운 어떤 특별한 행성에서 멜기세덱들에게 훈련 받으며;중앙의 멜기세덱 학교 과정은 이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체계에서 가장 낮은 맨션 세계들로부터 살빙톤의 가장 높은 연구{研究}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봉사하지만, 인간거주 세계에서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반 감독 하에, 그리고 멜기세덱들의 직접 지휘 하에 봉사한다.

48:3.3 (545.4) 모론시아 동무들은 한 지방우주에 10,000개의 본부를 --지역 체계의 첫 맨션 세계 각 곳에-- 유지한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체_통치하는 계층이며, 일반적으로 지성적이고 충성스런 존재의 집단이지만;때때로 어떤 불행한 천상의 반역이 있을 때마다 타락했다고 알려져 왔다. 이 유익한 피조물 중에서

수천 명이,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역이 있었던 동안에 유실됐다. 너희의 지역 체계는 현재 이 존재의 배정된 숫자를 다 채우고 있는데, 루시퍼 반역으로 결손 된 부분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전부 보충됐다.

48:3.4 (545.5) 별개의 두 유형의 모론시아 동무가 존재하는데;한 유형은 적극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사교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동일한 신분을 갖는다. 그들은 남녀 피조물이 아니지만, 서로에게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애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 (인간적) 의미에서는 도저히 동무가 되지 않지만, 피조물 실존의 계층 면에서 보면 인간 종족과 아주 가깝다. 세상의 중도 피조물이 너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체루빔, 그리고 그 다음이 모론시아 동무들이다.

48:3.5 (545.6) 이 동무들은 감동적으로 애정이 깊고, 매력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그들은 뚜렷한 인격체를 소유하며, 너희가 맨션 세계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한 계층으로 인식하기를 배운 후에, 곧 그들의 개체성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필사자는 모두 서로 비슷하며;동시에 너희는 각자 독특하고 알아볼 수 있는 인격체를 소유한다.

48:3.6 (545.7) 한 지역 체계에서 이 모론시아 동무들의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분류로부터, 그들이 하는 업무의 본질에 대한 어떤 관념을 추론할 수 있다:

48:3.7 (545.8) 1. *순례자 관리인*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들과 연합할 때 특별한 임무에 배정되지 않는다. 이 동무들은 모론시아 생애 전체를 책임지며, 따라서 다른 모론시아 사역자와 과도기 사역자 전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8:3.8 (546.1) 2. *순례자를 영접하는 자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자*. 이들은 맨션 세계들에 새로 도착한 자들과 교제하는 동무다. 네가 시간세계에서 처음으로 변환을 위해 잠들었다가 첫 맨션 세계에서 깨어났을 때, 즉 네 육신이 죽은 후에 모론시아 생애로 들어가는 부활을 체험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가 너를 환영하려고 틀림없이 네 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깨어나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환영 받은 때부터, 첫_단계 영으로서 지방우주를 떠나게 되는 날까지, 이 모론시아 동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48:3.9 (546.1) 동무는 개인에게 영구히 배정되지는 않는다. 맨션 세계 또는 그보다 높은 세계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어지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동무를 가질 수 있으며,

동무 없이 오랫동안 지낼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 이뤄지며, 또한 가능한 동무의 공급량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다.

48:3.10 (546.1) 3. *천상의 방문자들을 영접하는 자*. 친절한 이 존재들은, 과도기 세계에 우연히 머물게 된, 초월_인간 집단의 학생 방문자 및 기타 천상의 존재들을 영접하는 일에 전념한다. 너는 자신이 체험함으로 달성했던 어떤 영역이든지 방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 방문자는, 모든 인간거주 행성, 심지어 격리된 행성도 방문할 수 있다.

48:3.11 (546.1) 4. *협조자 및 연락 지휘자*. 이 동무들은, 모론시아 교제를 촉진시키기에, 그리고 혼란을 예방하기에 전념한다. 그들은 사회적 행실과 모론시아 진보를 가르치는 자인데, 상승하는 필사자들 가운데서 학습 시간 및 기타 집단 활동을 후원한다. 그들은 광대한 지역을 유지하며, 거기서 학생을 모으고 그들의 계획표를 꾸미기 위해, 때때로 천상의 기능공과 회고 지휘자들을 소집한다. 너희가 진보함에 따라서, 이 동무들과 긴밀히 접촉하게 될 것이며, 이 두 집단을 대단히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적극적인 유형의 동무와 연합할 것인가, 또는 비사교적 유형의 동무와 연합할 것인가는, 우연의 문제다.

48:3.12 (546.1) 5. *통역관과 번역관*. 초기 맨소니아 생애에서, 너희는 통역관과 번역관에게 종종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 지방우주의 모든 언어를 알고 말하며;그 영역에서 어학에 능통한 자다.

48:3.13 (546.1) 너희는 새 언어를 자동으로 습득하지는 못할 것이며;여기서 하듯이 거기서도 한 언어를 배울 것이고, 이 훌륭한 존재들이 너희의 언어 교사가 될 것이다. 맨션 세계에서 첫 학습은 사타니아 방언이고, 그 다음에는 네바돈 언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새로운 이 방언들을 습득하는 동안, 모론시아 동무들은 너희의 유능한 통역관 및 인내심 있는 번역관이 될 것이다. 모론시아 동무들 중에서 누군가가 통역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서, 너희가 이 세계들 가운데 어디서든지 방문자를 만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48:3.14 (546.1) 6. *소풍 및 회고 감독관*. 이 동무들은, 본부 구체로 가는, 그리고 둘러싼 과도기 문화 세계들로 가는 긴 여행을 할 때,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들은 체계의 여러 훈련

세계와 문화 세계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개별 및 집단 여행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감독한다.

48:3.15 (546.1) 7. *지역 및 건물 관리자*. 너희가 맨소니아 생애에서 진보하는 동안에, 물질 구조와 모론시아 구조조차 점점 더 완비되고 웅장해진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너희는 다른 맨션 세계에 머물 본부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도록 허락돼 있다. 이 여러 구체에서 대부분의 활동은, 다양하게 지정된 원형, 정사각형, 및 삼각형으로 된 열린 구역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다. 대다수의 맨션 세계 구조물은 지붕이 없는데, 웅장하게 건축되고 절묘하게 장식된, 울타리 친 구역이다. 건축양식 세계들에 퍼져있는 기후를 비롯해서 기타 물리적 환경들이 지붕을 전혀 필요 없게 만든다.

48:3.16 (547.1) 상승자 생애의 과도기 국면들을 관리하는 이들이, 모론시아 직무 관리에서 주권을 갖는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지존하신 분의 실제화가 미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론시아 동무로 남아 있으며;결코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48:3.17 (547.2) 체계와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착하게 되면, 맨션 세계들은 모론시아 훈련을 맡은 과도기 구체로서 작동하기를 차츰 멈추게 된다. 완결성취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훈련 체제를 점점 더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의식{意識}을 현재의 광우주 수준으로부터 미래의 바깥 우주들 수준으로 전환시키려고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갈수록 더 완결성취자들과 연합해서 활약하고, 현재 유란시아에 계시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영역에서 활약하도록 돼 있다.

48:3.18 (547.3) 네가 머무는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맨션 세계들에서 누리는 너의 즐거움에 이 존재들이 아마 많이 기여하도록 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살빙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과 계속 교제할 것이다. 엄밀하게 보면, 그들은 너의 생존 체험 가운데 어느 부분에도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들 없이도 살빙톤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들을 크게 아쉬워할 것이다. 그들은 네가 지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생애 동안에 호사스럽게 누릴 인격체다.

4. 회고 지휘자

48:4.1 (547.4) 기쁜 환희와 미소_비슷한 것들은 음악만큼 보편적이다. 환희와 웃음에 상당하는 모론시아 상태와 영적 상태가 있다. 상승자의 생활은 업무와 놀이에--곧 임무로부터 해제됨에-- 거의 똑같이 배분된다.

48:4.2 (547.5) 천상의 휴식과 초인간적 유머는, 그것에 해당하는 인간적 유사물과 매우 다르지만, 양쪽에 속하는 어떤 형태에 우리 모두 실제로 만족하며;이것들은, 이상적인 유머가 유란시아에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을, 우리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성취한다. 모론시아 동무들은 능숙하게 놀이를 후원하며, 회고{回顧} 지휘자들이 그들을 매우 훌륭하게 후원한다.

48:4.3 (547.6) 유란시아에 있는 높은 유형의 익살꾼에 비유한다면, 아마 너희가 회고 지휘자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변화와 휴식에 대한 이 지휘자들, 즉 모론시아 및 영 영역의 고양된 유머를 지휘하는 자들의 기능에 대한 어떤 관념을 옮기려고 애쓸 때, 이것은 지극히 유치하고 어느 정도 유감스런 방법일 것이다.

48:4.4 (547.7) 영 유머를 거론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영 유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영적 농담은 결코, 열등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자의 불운을 변질시켜서 돋보이게 만들지 않는다. 또한 신성{神性}의 정의와 영광을 모독하지도 않는다. 우리 유머는, 일반적인 세 가지 인식 수준을 포함한다:

48:4.5 (547.8) 1. *추억에 잠기는 농담*. 투쟁, 갈등, 및 흔히 두려움을 체험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종종 바보스럽고 유치하게 근심했던 기억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 우리에게, 이 국면의 유머는, 과거를 기억 재료로 이용하는, 뿌리_깊지만 지속적인 역량에서 나오는데, 그 기억 재료로 오늘의 무거운 짐에 즐거움이라는 맛을 곁들이고, 달리 그 짐을 가볍게 만든다.

48:4.6 (548.1) 2. *현재의 유머*. 매우 종종 우리에게 심각한 염려를 불러일으킨 것들 대부분이, 어리석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근심 대부분이 하찮은 것임을 깨닫는 기쁨. 우리가 미래의 확실성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근심거리를 최대한 무시할 수 있을 때, 이 국면의 유머를 가장 고마워한다.

48:4.7 (548.2)

3. *예언적 기쁨*. 이 국면의 유머를 상상하는 것이 필사자에게는 아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필사자뿐 아니라 영들과 모론시아인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으로 특이한 만족감을 얻는다. 천상의 유머의 이런 관점은, 우리의 상관{上官}들이 애정으로 보살피고, 우리의 최고 지휘자들의 신성이 불변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온다.

48:4.8 (548.3)

그러나 그 영역의 회고 지휘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지성 존재의 고상한 유머를 묘사하기에만 전념하지는 않으며;기분 전환, 즉 영적 오락과 모론시아 여흥을 지도하는 데에도 또한 몰두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맥락에서 천상의 기능공들과 긴밀하게 협동한다.

48:4.9 (548.4)

회고 지휘자들 자신은, 창조된 무리가 아니며;하보나 원주민부터, 아래로 공간에 있는 사자{使者} 무리와 시간세계의 사역하는 영들, 그리고 진화 세계에서 온 모론시아 진보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존재를 포함하는, 모집된 단체다. 모두가 지원자인데, 사고{思考}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휴식을 맛보게 하려고

자기 동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고갈된 에너지를 회복시키기에 그런 태도가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48:4.10 (548.5)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지쳤을 때,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지나간 시절과 시대에 행한 것들을 되새겨볼 때 유쾌한 기쁨이 있다. *인종이나 계층에서 초기에 체험한 것을 추억하면 편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술가들이 회고 지휘자라고 불리는 정확한 이유다--그들은 예전의 발달 상태 또는 어설픈 상태의 존재였던 것에 대한 기억을 돌이키도록 돕는다.

48:4.11 (548.6) 모든 존재가 이런 종류의 기분전환을 즐기지만, 예외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창조주이고, 따라서 자동으로 스스로_활력을_되찾는 자들,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유형의 피조물, 즉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 같은 자들이며, 이들의 반응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철저하게 사무적이다. 기능적 의무로 긴장했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제되는 것은 온갖 우주 전역의 모든 세계에서 생애 가운데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낙원 섬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 거주지의 토착 존재들은 지칠

수 없고, 그래서 재_충전과 관계없다. 그리고 영원한 낙원
완전성에 속하는 그런 존재들에게는, 그렇게 되돌아볼
진화 체험이 있을 수 없다.

48:4.12 (548.7) 우리는 대부분, 비교적 낮은 실존 단계를 통해서,
또는 우리 계층의 점진적인 여러 수준을 통해서
올라왔으며, 우리가 초기에 체험한 어떤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상쾌한 일이고 어느 정도 즐거운 일이다.
자신의 계층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큼
정신이 소유한 것을 숙고하면 편안해진다. 앞날은 갈등과
발전을 의미하며;일, 노력, 및 성취를 예시하지만;지난날은
이미 정복하고 성취한 것들의 맛을 풍기며;지난날을
숙고하는 것은, 휴식과 그런 근심 없는 재음미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 환희와 흥겨움에 가까운 모론시아 정신 상태를
자극한다.

48:4.13 (548.8) 심지어 필사자의 유머도, 자신이 현재 도달한 발달
상태보다 바로 밑에 있는 자들에게 감동 주는 사건을
묘사할 때, 또는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흔히 겪는 체험을,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겪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묘사할 때, 가장 건전하다.

유란시아 출신인 너희는, 저속하고 고약한 많은 것을 너희의 유머라고 혼동하도록 내버려뒀지만, 비교적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축하 받을만하다. 너희 인종들 가운데 일부는 풍부한 유머 기질을 가졌고, 이로 인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크게 도움을 받는다. 너희는 유머에 있어서 아담의 유산으로부터 많이, 음악이나 예술이 얻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물려받은 것처럼 보인다.

48:4.14 (549.1) 사타니아 전체는, 노는 시간에, 거기 거주하는 자들이 낮은 단계에서 실존하던 때의 기억을 참신하게 소생시킬 때, 유란시아에서 온, 회고 지휘자 단체의 유쾌한 유머를 듣고 사기가 오른다. 가장 어려운 임무에 임할 때에도, 우리는 천상의 유머 감각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도할 만큼 자신을_중요시여기지 않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각 조직의 심각한 임무에서 풀려났을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너희가 “재미있게 지내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제멋대로 유머에 빠지지 않는다는.

48:4.15 (549.2) 우리가 자신의_중요성을 과장하도록 유혹 받을 때, 멈춰서 우리 조물주들이 무한히 위대하고 위엄있다는

것을 숙고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를_찬미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심지어 우스꽝스런 일에
가까울 것이다. 유머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을
덜 심각하게 만들도록 우리 모두를 돕는 것이다. *유머는,
자아 찬양이라는 독성에 대한 신이 주신 해독제다.*

48:4.16 (549.3) 긴장을 완화하고 유머로 기분을 전환시킬 필요는,
상승하는 그런 존재 계층에서 가장 큰데, 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쓸 때 지속적인 긴장감에 휩싸인다.
양극단의 생애는 유머로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거의 없다.
원시인은 유머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낙원에서 완비된
존재는 유머가 필요 없다. 하보나의 무리는 선천적으로
지극히 행복한 인격체를 지닌, 유쾌하고 상쾌한
회중{會衆}이다. 낙원에서는, 경배의 우수성 때문에, 회고
활동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낙원 완전성이라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회고 지휘자들의 사역이 큰 역할을 한다.

48:4.17 (549.4) 필사자 종족은, 수준이 높을수록 긴장감이 더
크고, 유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머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더 커진다. 영 세계에서는 그 반대인데: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회고 체험으로 기분전환 할 필요가 점차 줄어들는다. 그러나 영 생명체의 등급이 낙원으로부터 스랍 무리에 이르기까지 낮아질수록, 유쾌하게 만드는 사명과 명랑하게 만드는 사역이 더 필요해진다. 전에 체험했던 지적 상태를 이따금 회고함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존재는, 높은 유형의 인간 종족, 모론시아인, 천사, 및 물질 아들들이며, 비슷한 유형의 모든 인격체도 그렇다.

48:4.18 (549.5) 유머는, 발전적 진보와 고귀한 성취를 위한 격렬한 갈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자아를_성찰하는 단조로움 때문에 지나친 압박감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 안전장치로서 작용해야만 한다. 또한 유머는, 사실 또는 진리의 예기치 못한 영향, 즉 고정되고 유연성 없는 사실과, 늘_생생한 융통성 있는 진리가, 예기치 못하게 영향을 끼침으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필사 인격체는, 다음에 무엇을 만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그 본질이 사실이든지 또는 진실이든지, 유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요점을 찾아내서 간파한다.

48:4.19 (549.6) 유란시아의 유머는 대단히 미숙하고 지극히 예술적이지 못하지만, 일종의 건강 보험으로서, 그리고 감정적 압박감의 치료제로서 귀중한 목적에 이바지하며, 그리하여 해로운 신경과민과 지나치게 심각한 자아_성찰을 예방한다. 유머와 놀이는--곧 휴식은-- 진취적 노력에서 생기는 반응이 아니며;반드시, 뒤를 돌아보는, 지난날을 회고함으로 생기는 반응이다. 유란시아에서도,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그렇듯이, 너희는 더 새롭게 더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노력하는 수고를 잠시 멈추고, 너희 조상들이 하던 좀 더 단순한 일로 돌아갈 때, 너희는 항상 활력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48:4.20 (550.1) 유란시아인의 놀이 생활의 원칙은 철학적으로 건전하며, 너희의 상승하는 생애 내내, 하보나 회로들을 통해서 낙원의 영원한 기슭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너희는 상승하는 존재로서, 과거에 낮은 실존이었을 때의 개인적 기억을 모두 간직하며, 그런 지난날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필사자의 웃음이든지 모론시아 환희든지, 현재의 유머가 성립될 토대가 전혀 없을 것이다. 현재의 기분 전환과 오락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과거의 체험에 대한 이 회상이다. 그리하여

너희의 긴 모론시아 생애와, 그 다음의 점점 영적으로 바뀌는 생애를 통해서 꼭대기까지, 너희는 이 세상의 유머에 해당하는 천상의 유머를 즐길 것이다. 그리고 상승하는 필사자 인격체의 영원한 일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바로 그 부분은(조울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즐거운 표현, 심지어 영적 웃음소리에 신성의 울림을 더해준다.

5. 맨션 세계 선생

48:5.1 (550.2) 맨션 세계 선생들은, 사람으로부터 떠났지만 영화롭게 된 체루빔과 사노빔의 단체다. 시간세계의 순례자가, 공간의 시험 세계로부터, 맨션 세계 및 그에 관련된 모론시아 훈련 세계들로 나아갈 때, 그의 개인 또는 집단 스라빔, 즉 운명의 수호자가 그와 동행한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스라빔이 체루빔 및 사노빔의 훌륭한 도움을 받지만;필사 피보호자가 육신의 속박에서 해방돼 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할 때, 물질 이후의 인생, 즉 모론시아 인생이 시작될 때, 동행하던 스라빔은 자신의 이전{以前} 부관들, 즉 체루빔과 사노빔의 돌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48:5.2 (550.3) 사역하는 스라빔으로부터 분리된 이 보좌관들은 종종 우주 본부로 소환되는데, 거기서 우주 어머니 영의 친밀한 품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맨션 세계 선생으로서 체계 훈련 구체들로 나아간다. 이 선생들은 물질 세계를 종종 방문하며, 가장 낮은 맨션 세계에서 시작하여, 우주 본부와 연결된 가장 높은 교육 구체들에 이르기까지 줄곧 활동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사역하는 스라빔과 연합해서 일하던 예전 업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

48:5.3 (550.4) 사타니아에는 이 선생들이 수십억 명 있고, 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스라빔이 조율사와_융합된 필사자와 함께 안쪽으로 진행할 때, 체루빔과 사노빔은 둘 다 뒤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48:5.4 (550.5) 대부분의 다른 교관들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들이 맨션 세계 선생들을 임명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론시아 동무들의 감독을 받지만, 개인으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교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학교 또는 구체의 대리 우두머리의 감독을 받는다.

48:5.5 (550.6) 진보된 이 체루빔은, 자신이 스라빔에게 배속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개 쌍으로 일한다. 그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론시아 유형의 실존에 매우 가까우며,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선천적으로 동정심 많은 선생이고, 맨션 세계 및 모론시아 교육 체계의 과정을 아주 유능하게 운영한다.

48:5.6 (551.1) 모론시아 생활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 선생들은, 개인, 집단, 학급, 및 대규모 교육에 임한다. 맨션 세계에서 그런 학교들은, 각각 100개의 부서로 이뤄진 세 개의 일반 집단으로 조직돼 있는데:사고{思考}하는 학교, 느끼는 학교, 행하는 학교 등이다. 너희가 성좌에 도달할 때, 윤리 학교, 경영 학교, 및 사회 적응 학교가 더해진다.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너희는, 철학, 신성{神性}, 및 순수 영성{靈性}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48:5.7 (551.2) 지구에서 배울 수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너희는 이 신실하고 인내심 많은 선생들의 지도 아래서 반드시 획득할 것이다. 낙원에 이르는 왕도{王道}, 지름길, 또는 쉬운 길은 없다. 각자 가는 길이 다른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다른 구체로 진행하기 전에 한 구체의

과정을 숙달할 것이며;적어도 너희가 태어난 그 세계를
일단 떠난 후에는 이것이 진실이다.

48:5.8 (551.3) 모론시아 경력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꾸물거림,
얼버무림, 불성실, 문제 기피, 불공정함, 그리고
한가하기를 추구함 같은, 남아있는 짐승의 흔적을 필사
생존자들로부터 영구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맨소니아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린 모론시아 학생들은,
연기{延期}한다고 해서 결코 기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배우게 된다. 육신 속의 삶을 끝낸 후로는, 상황을
회피하는 기법 또는 달갑지 않은 책무를 우회하는
기법으로서, 시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48:5.9 (551.4) 맨션 세계 선생들은, 체류하는 구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체계와 성좌의 교육
구체들을 거쳐서 살빙톤 훈련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체험함으로써 진급한다. 그들은 우주 어머니 영의 품에
받아들여지기 전이나 후에,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는다. 맨션 세계에 체류하는 학생들의 출생지인 그
세계에서 스라빔의 동역자로서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미 훈련 받았다.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진보하는 이 필사자들과 함께 실제 체험을 가졌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동정심 많은 선생, 즉 현명하고 이해심 많은 교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안내자다. 그들은 상승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진보하는 생애의 초기 국면에서 철저히 체험했다.

48:5.10 (551.5) 이 선생들 중에서 오래된 자들 가운데 다수, 즉 살빙톤 회로의 세계들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온 자들은, 우주 어머니 영에게 다시 포용되며, 이 체루빔과 사노빔은 이 두 번째 포용에서 스라빔 신분을 지니고 떠오른다.

6. 모론시아 세계 스라빔--과도기 사역자

48:6.1 (551.6) 모든 계층의 천사는, 행성 도우미로부터 최고 스라빔에 이르기까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사역하는데, 과도기 사역자는 이 활동에 더 집중적으로 배정된다. 이 천사들은 스랍 봉사자 중에서 여섯째 계층이며, 그들의 사역은, 육신을 입은 현세의 생애로부터, 물질적인 필사 피조물이 일곱 맨션 세계에서 계속하여 초기 단계의 모론시아 실존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기에 전념한다.

48:6.2 (551.7) 너희는, 혼이 잉태될 때, 즉 도덕적 상태에 도달한 피조물 정신에 영 조율사가 내주하던 바로 그 순간에, 상승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생애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정말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 필사자의 혼은 필사자를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지방우주 모론시아 구체들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는다.

48:6.3 (552.1) 아무튼 너희는, 맨션 세계들에 도달하기 전에는 과도기 스라빔의 사역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거기서 필사자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데, 다음과 같이 일곱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배정된다:

48:6.4 (552.2) 1. **복음전도 스라빔.** 맨션 세계에서 의식을 되찾는 순간에, 너는 체계의 기록부에서 진화하는 영으로 분류된다. 정말로 너는 아직 실제 영이 아니지만, 더 이상 필사적 존재나 물질 존재도 아니며;영이 되기 전의 생애를 시작했고, 모론시아 생애에 정식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았다.

48:6.5 (552.3) 맨션 세계들에서 복음전도 스라빔은, 에덴시아, 살빙톤, 우버사, 및 하보나에 이르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노선 중에서 네가 현명하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똑같이 제안할만한 노선이 여럿 있다면, 이것들이 네 앞에 제시될 것이며, 너는 가장 좋아 보이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때 이 스라빔은 각각의 상승하는 혼에게 가장 유리할 그 행로를, 예루셈에 있는 24명의 충고자에게 추천한다.

48:6.6 (552.4) 네가 미래의 행로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너의 미래의 영 달성에 가장 알맞도록, 과도기 사역자들과 그 상관들이 현명하게 결정한, 그 한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행로가 너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너의 동료들에게 해롭지 않다면, 너의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영 세계가 통치된다.

48:6.7 (552.5) 이 복음전도 스라빔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복음, 즉 완전성 달성이 승리할 것임을 선포하는 데 전념한다. 맨션 세계들에서 그들은 선함이 보존되고 지배한다는 대법령을 선포하는데:어떤 선한 행위도 헛수고가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오랫동안 훼방 받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소멸된 적이 없고, 그 동기의 신성함에 비례해서
영원히 효력 있다.

48:6.8 (552.6) 심지어 유란시아에서도 그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교를 고수하라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인간 선생들에게 권고한다. 과연 이
진리가 너희 세계에 선포됐다:

48:6.9 (552.7) 하나님들이 나의 보호자시니;내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48:6.10 (552.8) 아름다운 통로로, 생명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소생시키면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48:6.11 (552.9) 나는 신성한 현존 앞에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48:6.12 (552.10) 내가 불확실성의 골짜기로 내려가거나, 태산 같은
의심 속에서 올라갈지라도,

48:6.13 (552.11) 외롭게 행하거나 내 동료 친구들과 동행할지라도,

48:6.14 (552.12) 빛이 합창하는 승리를 거두거나 창공에 숨어있던
곳에서 넘어지더라도,

48:6.15 (552.13) 주의 선한 영이 나를 돌보실 것이며, 주의 영광의
천사가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48:6.16 (552.14) 비록 깊은 어두움 속으로 죽음이 있는 바로
거기까지 내려갈지라도,

48:6.17 (552.15) 내가 주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48:6.18 (552.16) 주의 이름의 영광과 때가 이르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48:6.19 (552.17) 주는 나를 높여서 저 높은 성벽 위, 주의 곁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48:6.20 (553.1) 이것은 밤중에 그 목동 소년에게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간직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날
기록돼 있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표현했다.

48:6.21 (553.2) 이 스라빔은 또한, 개인 상승자뿐만 아니라 전체
체계 역시 완전성을 달성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심지어 지금도 젊은 사타니아의 체계에서 그들의 교훈과 계획은, 높은 곳의 구체들에 이르는 디딤돌로서, 맨션 세계들이 필사 상승자에게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게 될, 미래 시대들을 위한 준비를 포함한다.

48:6.22 (553.3) 2. *인종 해석자*. 모든 인종의 필사 존재들은 똑같지 않다. 정말로, 주어진 한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의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본성 전체에 통용되는 행성 원형{原型}이 있지만; 뚜렷이 다른 인종 유형들도 있고, 매우 명확한 사회적 성향이, 서로 다른 이 기본 유형의 인간 후손의 특징을 나타낸다. 시간 세계에서는, 인종을 해석하는 스라빔이, 이 인종들의 잡다한 관점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인종 감독관들의 노력을 더 촉진시키며, 그들은 맨션 세계들에서 계속 활동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이 차이점들이 다소 존속되는 경향이 있다. 유란시아 같은 혼란스런 행성에서는, 뛰어난 이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첫 하늘의 유능한 사회학자이며, 현명한 종족 충고자다.

48:6.23 (553.4) 너희는 “하늘”이라는 말과 “온갖 하늘”이라는 말을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너희 선지자 대부분이

감지했던 하늘은 지역 체계의 맨션세계들 가운데 첫째였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다”고 그 사도가 말했을 때, 그는 잠자는 동안 자신의 조율사가 분리됐고, 이 유별난 상태에서 이 일곱 맨션 세계 가운데 셋째 세계에 투사됐던 체험을 말한 것이었다. 너희의 현자들 중에서 더러는 더 높은 하늘, 즉 “온갖 하늘”에 대한 환상을 봤었는데, 칠중{七重} 맨션 세계에 대한 체험은 첫째에 불과했으며;둘째는 예루셈이고;셋째는 에덴시아와 그 위성들이며;넷째는 살빙톤과 그것을 둘러싼 교육 구체들이고;다섯째는 우버사;여섯째는 하보나;그리고 일곱째는 낙원이다.

48:6.24 (553.5) 3. *정신 계획가*. 이 스라빔은, 모론시아 존재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일과, 맨션 세계에서 그들이 협동하도록 조직하는 일에 전념한다. 그들은 첫째 하늘의 심리학자다. 특이한 이 부서의 스랍 사역자 대부분은, 예전에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로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의 피보호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맨션 세계에서 인격화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과 융합하는 기법으로 생존했다.

48:6.25 (553.6) 맨션 세계들을 통해서 이동하는 조율사 혼들의
본성, 체험, 및 신분을 연구하고, 업무 분담 및 진급을
위해서 그들을 분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정신
계획가들의 과제다. 그러나 이 정신 계획가들은, 맨션 세계
학생을 책동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그들의 무지나 다른
한계를 달리 이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으로 공정하고
현저히 올바르다. 그들은 너희의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의지를 존중하며;너희를 독립된 자발적 존재로 간주하고,
너희가 빨리 발달하고 진보하도록 북돋아주려고 애쓴다.
이때 너는 참된 친구와 이해심 많은 조언자들과 대면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네가 "남들이 너를 보는 것처럼 너
자신을 보도록",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도록", 너를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천사다.

48:6.26 (553.7) 유란시아에서도, 이 스라빔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데:만일 너 자신의 정신이 너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너는 네 정신을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바꿀 수
있는데, 그는 너를 항상 잘 섬긴다.

48:6.27 (554.1) 4. *모론시아 조언자*. 인간이 기원되는 세계로부터
오는, 생존한 필사자들, 즉 체계 본부의 비교적 높은

학교들로 옮겨가는 혼들을 가르치고 지휘하고 조언하도록
배정됐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에게 이런 이름이 주어진다.
그들은, 가지각색의 생명 수준에서 체험적 통일성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는 자, 즉 의미 있는
것들을 종합하고 가치기준을 통합하려는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것은 필사자의 인생에서 철학의 기능이고,
모론시아 구체에서 모타의 기능이다.

48:6.28 (554.2) 모타는 뛰어난 철학 이상{以上}이며;비교하자면,
철학은 한 눈으로 보는 것과 같고, 모타는 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으며;모타는 의미와 가치기준에 대해 두 눈으로
보는 효과를 갖는다. 물질적인 사람은, 말하자면, 한쪽
눈으로만--곧 평면으로--우주를 본다. 맨션 세계 학생들은,
육체적 인생에 대한 감지 위에, 모론시아 인생에 대한
감지를 첨가시킴으로써, 시공우주 원근을--곧 깊이를--
획득한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조언하는 스라빔의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을 통해서, 이 물질 관점과 모론시아 관점을
정확히 초점에 맞춰 볼 수 있게 되며, 이 스라빔은 맨션
세계 학생과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매우 끈기 있게
가르친다. 최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가르치는 상담자

가운데 다수는, 시간세계 필사자의 새로 해방된 혼에게 충고하는 자로서 생애를 시작했다.

48:6.29 (554.3) 5. *기술자*. 이들은, 여러 모론시아 구체의 새롭고 비교적 낮은 환경에, 새 상승자가 적응하도록 돕는 스라빔이다. 과도기 세계에서 지내는 생애는, 물리 수준과 모론시아 수준, 이 두 수준의 에너지 및 물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적 실체들과, 실제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상승자들은 모든 새로운 모론시아 수준에 적응해야만 하며, 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스랍 기술자들의 도움을 크게 받는다. 이 스라빔은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 및 총괄 물리 통제관들 사이에 연락원으로서 활동하며, 과도기 구체들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의 성질에 관해, 상승하는 순례자들의 교관으로서 광범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응급 공간 횡단자로서 봉사하며, 다른 정상 임무와 특별 의무를 수행한다.

48:6.30 (554.4) 6. *기록원_교사*. 이 스라빔은, 영계{靈界}와 물리계{物理界}의 경계지역 처리사항들, 즉 사람과 천사의 관계, 낮은 우주 영역의 모론시아 처리사항들을 기록하는 자다. 또한 그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 봉사한다. 관련 자료를 영리하게 조립하고 조정하는 데는 예술적 기교가 있고, 이 예술은 천상의 기능공들과 협동함으로써 강화되며, 심지어 상승하는 필사자도 이처럼 기록하는 스라빔과 관계를 맺게 된다.

48:6.31 (554.5) 모든 스랍 계층의 기록원들은, 모론시아 진보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세계의 사실을 맡은 이 관리인 천사들은, 모든 사실 추구자에게 이상적인 교관이다.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사타니아 및 그에 속한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의 역사에 매우 익숙하게 될 것이며, 이야기 대부분을 스랍 기록원들이 알려줄 것이다.

48:6.32 (554.6) 이 천사들은 모두, 시간세계의 사실과 영원성의 진리를 다루는 가장 낮은 관리인으로부터 가장 높은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기록원들 계통에 속해 있다. 언젠가 그들은 사실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라고, 너희의 정신뿐만 아니라 혼을 키우라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지식의 메마른 모래사장을 찾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심성의 정원에 물을 주는 법도

배워야만 한다. 교훈을 배운 뒤에는 형식이 무가치하게 된다. 어떤 병아리도 껍데기 없이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껍데기든지 병아리가 부화한 후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때때로 실책이 너무 커서 계시로 실책을 바로잡는 것은, 실책을 체험으로 정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서서히 떠오르는 진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상{理想}을 가질 때, 그것을 뭉개지 말고;자신이 키우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너희가 성인으로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너희 역시 어린아이처럼 간청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48:6.33 (555.1) 법은 생명 자체이며, 생명의 실행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악이란, 생명에 관계되는 실행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며, 생명이 법 *이/다*. 거짓말은, 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고의적인 어떤 것이다. 옛 사실로부터 새로운 그림을 창조하는 것, 자손의 삶 속에 부모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것이 진리의 예술적 승리다. 진실이 아닌 목적을 미리 생각해서, 태연한 척 하는 음침함, 원칙인 그것을 아주 약간 뒤틀거나 왜곡시킴--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나 진리를 사실화시킨 미신, 화석화 된 진리, 소위 불변의 진리라는

쇠고랑이, 냉혹한 사실로 밀폐된 궤도 안에 사람을 눈먼 채로 붙잡아 둔다. 사실에 비춰서 원칙적으로는 옳은 것이, 진리 면에서는 영구히 틀렸을 수 있다.

48:6.34 (555.2) 7. 사역하는 예비군. 모든 계층의 과도기 스라빔으로 구성된 큰 단체가, 첫 맨션 세계에 주둔한다. 운명 수호자들 다음으로, 모든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 이 과도기 사역자들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며, 너희는 여가 시간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된다. 천사들은 봉사하기를 기뻐하며, 배정되지 않을 때에는 종종 자원자로 사역한다. 상승하는 대부분 필사자의 혼은, 스랍 예비군의 자원 봉사자들과 갖는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 기꺼이_봉사하겠다는 신성한 열정으로, 처음으로 불붙게 된다.

48:6.35 (555.3) 너희는, 안정성과 확실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신실하고 정직하며 게다가 쾌활하게 되기;불만 없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맞서기를,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다. 그들이 질문할 것이다:너희가 실패한다면, 너희는 새로 시도하기 위해 굽히지 않고 일어설 것인가? 너희가 성공한다면,

물질적 타성의 족쇄를 부수기 위해, 영 실존의 자유를 성취하려고 오래 투쟁하는 동안 온갖 노력을 통해서, 너는 차분한 자세를--곧 안정되고 영성화 된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48:6.36 (555.4) 필사자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도 많은 실망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때때로 너희의 가장 낙담스러운 실망이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면 그것이 먼저 죽어야 하듯이, 네가 가장 바라는 소망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망이 사라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천사들로부터, 너는 먼저 다른 인격체들에 대해 몸소 계획하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너의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고통을 적게 받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48:6.37 (555.5) 너희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살피면 짐이 무거워지고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의 신분 구체에서--곧 이 세상 또는 다음 세상에서-- 할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음의

더 높은 구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 것도 네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할 일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그 일이 중요하더라도, 자아는 그렇지 않다. 네가 중요하다고 느낄 때, 너는 자기 존엄성이 손상될 만큼 에너지를 이미 낭비해서, 그 일을 할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미성숙한 피조물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업무를_중요시여김이 아니라, 자신을_중요시여김이며; 지치게 만드는 것은, 성취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자아 요소다. 너는 자기를_중요시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너 자신을 빼버리면, 여러 일을 하나의 일을 하듯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는 휴식을 주며; 단조로움은 초조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 매일 매일이 마찬가지로--바르게 살든지, 아니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7. 모론시아 모타

^{48:7.1 (556.1)} 모론시아 모타 중에서 낮은 차원은, 인간 철학 중에서 높은 수준과 직접 맞닿아 있다. 첫 맨션 세계에서는, 발전이 더딘 학생을 병렬식 기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관례인데; 다시 말하면, 한 줄은 모타 의미 중에서 단순한

개념이 제시되고, 다른 줄에서는 인간 철학과 비슷한 말이 인용된다.

48:7.2 (556.2) 사타니아의 첫 맨션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얼마 전에 이 교습 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그 학습의 모타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간 철학의 28개 서술문을 기록하도록 허락 받았는데, 모타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기에 애쓸 때, 맨션 세계에 새로 체류하는 이 사람들을 돕도록 계획된 설명 자료로서, 이 모론시아 교관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인간 철학의 이 실례는 다음과 같았다:

48:7.3 (556.3) 1. 전문화된 솜씨를 보여준다고 해서, 영적 수용력을 소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영리함이 참된 성품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48:7.4 (556.4) 2. 자신이 정말로 소유하는 신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을 속이는 주된 지적 속임수는, 불합리한 두려움이다.

48:7.5 (556.5) 3. 타고난 수용력을 초월할 수 없으며;한 되가 한 말을 담을 수 없다. 물질적인 기억의 틀 속에, 영 개념을 기계적으로 강제로 집어넣을 수 없다.

48:7.6 (556.6) 4. 개인에게 이바지하도록, 천성과 신의 은총이 함께 확정한 신용한도를 초과하기 직전까지, 과감하게 빌리고자 하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가난해진 혼들 대부분은, 실제로 부유한데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48:7.7 (556.7) 5. 어려움은, 진부한 자에게 도전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오직 지고자들의 참된 자녀는 이 어려움으로 자극받을 뿐이다.

48:7.8 (556.8) 6. 남용하지 않고 특권을 누림,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누림, 권력을 소유하면서도 자아를_과장하기 위해 사용하기는 단호하게 거부함--이것이 높은 문명을 가졌다는 표시다.

48:7.9 (556.9) 7. 맹목적이고 우연한 사건은 시공우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천상의 존재들은, 자신이 본 진리의 빛에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낮은 존재를 돕지 않는다.

48:7.10 (556.10) 8. 노력이 항상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영리한 노력 없이는 행복이 없다.

48:7.11 (556.11) 9. 행동은 힘을 얻게 하고;온건함은 결국 매력이 된다.

48:7.12 (556.12) 10. 정의는 진리의 조화로운 화음을 산출하며, 그 가락은 심지어 무한자가 알아보기까지 우주에 두루 울려 퍼진다.

48:7.13 (556.13) 11. 약한 자는 결심하기 바쁘지만, 강한 자는 행동한다. 인생은 오직 하루의 일이다--하루의 일을 잘 하라.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것이며;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48:7.14 (556.14) 12. 우주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 필사자는 오직 고난을 체험함으로써만 지혜를 배울 수 있다.

48:7.15 (556.15) 13. 빛나고 기쁨에 넘치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체험의 밑바닥에 외로이 격리된 곳에서 별들이 가장 잘 식별된다.

48:7.16 (556.16)

14. 너희의 동료들이 진리를 갈망하도록 자극하라;진리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만 충고하라.

48:7.17 (557.1)

15. 허식은, 무식한 자가 현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우스꽝스런 노력이요, 빈궁한 혼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꾀하는 것이다.

48:7.18 (557.2)

16. 영적 진리는, 네가 손으로 만지듯이 체험하기 전에는 파악할 수 없으며, 역경을 당해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느낄 수 없는 진리가 많이 있다.

48:7.19 (557.3)

17. 야망은, 완전히 사회화되기 전에는 위험하다. 어떤 미덕이든지, 네가 그에 어울리게 행동하기 전에는, 그 미덕을 참되게 획득할 수 없다.

48:7.20 (557.4)

18. 성급함은 영에게 일종의 독약이며;분노는 벌집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48:7.21 (557.5)

19. 근심을 버려야만 한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실망은, 결코 닥쳐오지 않는 실망이다.

48:7.22 (557.6)

20.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 시인만이 시를 분별할 수 있다.

48:7.23 (557.7) 21. 어떤 예술이든지 그 고귀한 사명은, 그 환상을 이용하여 더 높은 우주 실체를 예시하는 것, 즉 잠시 동안의 감정을 영원성 사고{思考} 속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48:7.24 (557.8) 22. 진화하는 혼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신성하게 된다.

48:7.25 (557.9) 23. 죽음은, 지적 소유나 영적 재능에 아무 것도 더해주지 않지만, 체험에 의거한 상태에 생존하는 의식{意識}을 더해준다.

48:7.26 (557.10) 24. 영원성{永遠性}을 향한 운명은, 하루하루 살면서 이룩한 업적에 따라 순간마다 결정된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운명이다.

48:7.27 (557.11) 25. 위대함은, 소유하고 있는 힘에 있지 않고, 그런 힘을 현명하고 신성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48:7.28 (557.12) 26. 지식은 나눔으로써만 소유되며;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위험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48:7.29 (557.13) 27. 진보는 개성의 발달을 요구하며;진부한 사람은, 표준화시킴으로써 영속시키려고 애쓴다.

48:7.30 (557.14) 28. 어떤 주장이든지, 내포된 진리가 빈약할수록
논쟁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48:7.31 (557.15) 이런 것은 첫 맨션 세계의 초보자들의 작품인
반면, 그 다음 세계들에서 더 진보된 학생은, 더 높은
수준의 시공우주 통찰력과 모론시아 모타를 터득한다.

8. 모론시아 진보자

48:8.1 (557.16) 맨션 세계들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연방우주
생애에서 영 신분을 얻게 될 때까지, 상승하는 필사자를
모론시아 진보자라고 부른다. 이 놀라운 경계지대의
생활을 너희가 거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 매력 있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영 생애로 들어가고 결국 피조물
완전성에 도달하는 진화의 입구이며, 이로 인해서
상승자들은 세월의 목표--곧 낙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48:8.2 (557.17)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이 모론시아 계획 및 차후의
영 계획, 즉 상승하는 피조물을 위한 이 정교한 우주 훈련
학교에는, 확실하고 신성한 어떤 목적이 있다. 시간세계의
피조물에게 광우주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내용을
숙달하도록 점진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창조주들의

계획이며, 생존된 필사자가 조금씩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그 모든 상승 과정에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이 오랜 훈련 과정이 최선으로 진행된다.

48:8.3 (558.1) 필사자를_생존시키는 계획에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목표가 있으며;너희를 생존시켜서 그저 끝없는 복과 영구적 편안함만 누리게 하려고, 이 모든 신성한 수고와 공들인 훈련에 너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 현 우주 시대의 수평선 너머에, 초월적 봉사라는 목표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들이, 겨우 하나의 길고도 영원한, 즐거운 소풍으로 너희를 데려가려고 계획했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전체 우주를 하나의 광대하고 복잡한 실제 훈련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거대하게 전환시키고, 천상의 창조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선생과 교관들로 징발하고, 그 다음에는 체험 훈련의 이 거대한 우주 학교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씩 안내하려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필사자 진보 계획을 촉진시키는 것이, 현재 조직된 우주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며, 수많은 계층의 창조된 지성체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사람을 완성시키는 이 계획의 어떤 국면을 진행하는 것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돼 있다.

필사적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격에게 포용되기까지, 살아있는 실존의 상승하는 단계를 거치는 동안, 너희는 현 우주 시대의 한계 속에서, 완성된 피조물 실존이 거치는 모든 가능한 국면과 단계의 바로 그 인생을 실제로 산다. 필사적 사람으로부터 낙원 완결성취자에 이르기까지, 현재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살아있는 여러 계층에서 총명하고 완성된 유한한 피조 존재가 당장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낙원 완결성취자의 미래 운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우주들에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이 새로운 미래 창조에서는, 필사 완결성취자의 일생과는 완전히 다른 일생을 살아갈, 그런 창조된 계층의 체험적 존재는 전혀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한데, 이 완결성취자들은, 상승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동물로부터 천사까지, 천사로부터 영까지, 영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진보하는 여정들 가운데 하나로서,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다.

48:8.5 (558.3)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49편 인간거주 세계

49:0.1 (559.1)

필사자가_거주하는 모든 세계는, 진화로
기원되고, 진화하는 본성을 가졌다. 이 구체들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인종들이 번식하는 곳이요 진화의
요람{搖籃}이다. 상승하는 일생의 각 구성단위는, 바로
다음 실존 무대를 위한 실제 훈련 학교이고, 이것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낙원까지 상승하는 각 단계마다
적용되며;진화하는 행성에서 초기의 필사자 체험의
경우에 똑같이 참말이고, 멜기세덱들의 최종 우주 본부
학교의 경우도 그런데, 이 학교는, 연방우주 체제로
변환되고 첫_단계의 영 실존이 달성되기 직전까지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다니지 못하는 곳이다.

49:0.2 (559.2)

모든 인간거주 세계는 기본적으로 천상의 경영을
위해서 지역 체계로 집단화되며, 이 지역 체계는 각각 약
1,000개의 진화 세계로 제한돼 있다. 이 제한은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생존할 자격이
있는 필사자들이 살고 있는 실제 진화 행성에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뿐만 아니라, 생명이
발달했지만 인간이 생기기 전 단계에 있는 행성도,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49:0.3 (559.3) 사타니아 자체는 미완성 체계이며, 오직 619개의 인간거주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행성은 인간거주 세계, 즉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다. 그래서 유란시아에는 *사타니아의 606_번*이 주어졌는데, 이 지역 체계에서, 오랜 진화 생명 과정이 마침내 인간을 출현시킨, 606번째 세계라는 의미다. 아직 인간이 거주하지 않지만 생명을_부여할 단계에 가까운 36개의 행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몇 개는 생명 운반자들을 맞을 준비가 돼 가고 있다. 앞으로 수백만 년 내에 생명을 이식할 채비를 갖추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구체가 200개 정도 있다.

49:0.4 (559.4) 모든 행성이 필사 생명체를 품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축 회전 비율이 높은 작은 행성은, 생명체의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다. 사타니아의 몇몇 물리 체계에서는 중앙의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거주지가 되기에 너무 큰데, 그 거대한 질량이 압도적인 중력을 일으킨다. 이 거대한 구체들 가운데 다수가 위성을 가졌는데, 때로는 6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며, 이런 달은 종종 유란시아의 크기와 매우 비슷해서 인간이 거주하기에 거의 이상적이다.

49:0.5 (559.5) 사타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거주 세계, 즉 1_번 세계는 아노바인데, 하나의 거대한 암흑 행성 주변을 도는 44개 위성 가운데 하나지만, 근처에 있는 세 항성의 다른 빛에 노출돼 있다. 아노바는 진보하는 문명 중에서 앞선 단계에 있다.

1. 행성의 생명

49:1.1 (559.6)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은 서서히 발달하며;생명의 진보는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마술적이지도 않다. 시공우주의 진화를 항상 이해할 수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49:1.2 (560.1) 물질 생명의 생물학적 단위는 원형질 세포인데, 이것은 화학적, 전기적, 및 기타 생물학적 에너지의 공동 결합체다. 화학 공식은 각 체계마다 다르며, 살아있는 세포의 번식 기법은 각 지방우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생명 운반자들이 물질 생명의 원시 반응을 발생시키는, 살아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똑같으며;그들은 살아있는 물질 에너지 회로들을 유발시키는 존재다.

49:1.3 (560.2) 한 지역 체계에 속한 모든 세계는 명백한 물리적 유사성을 나타내며;그럼에도 각 행성에는 그 자체의 생명 등급이 있는데, 어떤 두 세계도, 타고난 식물 및 동물 재능에서 정확히 똑같지 않다. 체계 생명의 유형에서 행성들 사이의 이 차이는,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변덕스럽지 않고 이상하지도 않으며;우주들은 법과 질서에 따라 운영된다. 네바돈의 법은 살빙톤의 신성한 명령이며, 사타니아에서 진화하는 계층의 생명체는 네바돈의 진화 원형{原型}과 일치된다.

49:1.4 (560.3) 진화가 인간의 발달을 규정하지만, 과정 자체는 세계마다 크게 달라진다. 생명은 때로 하나의 중심지에서 시작되고, 때로는 유란시아의 경우처럼 세 곳에서 시작된다. 공기가 있는 세계에서는 대개 해양에서 기원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며;행성의 물리적 상태에 많이 달려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을 개시하려고 작용하는 동안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

49:1.5 (560.4)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할 때, 식물 형태가 동물 형태보다 항상 앞서며, 동물 원형{原型}들이 분화하기

전에 거의 완전히 발달된다. 모든 동물 유형은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앞선 식물계의 기초 원형들로부터 발달하며;따로따로 조직화되지 않는다.

49:1.6 (560.5) 생명체가 진화하는 초기 단계들이 너희의 현_시대 관점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사적 사람은 진화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 정확한 체계, 즉 보편적 법칙이 있는데, 공간의 여러 구체에서 행성 생명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그 법칙이 결정한다. 시간과 한 종{種}의 대량 번식은 통제하는 영향력이 아니다. 쥐는 코끼리보다 훨씬 빠르게 번식하지만, 코끼리가 쥐보다 빠르게 진화한다.

49:1.7 (560.6) 행성의 진화 과정은 질서가 있고 통제된다. 하등 생명체 군집으로부터 고등 유기체로 발달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때로는, 선택된 종자가 지니는 생명 원형질의 어떤 순조로운 계통이 파괴됨으로써, 진화 발달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도 한다. 인간의 유전에서 어떤 우세한 단일 종족이 유실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에 여러 세대가 요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살아있는 원형질에서 선택된 이 우수한 종족들은, 일단 출현하게 되면, 조심스럽고 영리하게 보호돼야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는, 이 우수한 생명 잠재력을 유란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

2. 행성의 물리적 유형

49:2.1 (560.7) 각 체계에는 표준과 기본이 되는 식물 및 동물 원형{原型}이 있다. 그러나 생명 운반자들은 공간의 수많은 세계에서 이 기초 원형들과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 기초 원형들을 변경할 필요성에 자주 직면한다. 그들은 필사 피조물의 어떤 일반화 된 체계 유형을 육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뚜렷한 일곱 가지 물리적 유형이 있고, 이 일곱 가지 현저한 차이 중에 사소한 변종들이 수천 가지 있다:

49:2.2 (561.1) 1. 대기{大氣} 유형.

49:2.3 (561.2) 2. 원소 유형.

49:2.4 (561.3) 3. 중력 유형.

49:2.5 (561.4) 4. 온도 유형.

49:2.6 (561.5) 5. 전기 유형.

49:2.7 (561.6) 6. 에너지주입 유형.

49:2.8 (561.7) 7. 이름 없는 유형.

49:2.9 (561.8) 사타니아 체계는, 이 유형들 전체와 수많은 중간 집단을 내포하지만, 일부는 매우 빈약하게 나타난다.

49:2.10 (561.9) 1. *대기 유형*. 필사자가 거주하는 세계들의 물리적 차이는 주로 대기{大氣}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며;행성마다 생명이 차이 나도록 기여하는 다른 영향은 비교적 사소하다.

49:2.11 (561.10) 유란시아의 현재 대기 상태는, 숨 쉬는 유형의 사람을 지탱시키기에 거의 이상적이지만, 인간 유형은 조밀한_대기와 희박한_대기를 갖는 양쪽 행성에서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변경은 동물 생명체에도 적용되는데, 인간이 거주하는 다양한 구체마다 크게 다르다. 희박한_대기를 가진 세계와 조밀한_대기를 가진 세계, 양쪽 모두에서 동물 계층에 매우 큰 변경이 있다.

49:2.12 (561.11) 사타니아에 있는 대기 유형 중에서 약 2.5퍼센트는 저호흡자{低呼吸者}이고, 약 5퍼센트는 고{高}호흡자이며, 91퍼센트 이상은

중간{中間}호흡자인데, 합하면 사타니아 세계 중에서 98.5퍼센트에 달한다.

49:2.13 (561.12) 유란시아 인종 같은 존재는 중간호흡자로 분류되며;너희는 평균 계층, 즉 전형적인 호흡 계층의 필사 실존이다. 너희의 가까운 이웃인 금성{金星}의 대기와 비슷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지성 피조물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고호흡자 집단에 포함될 것이며, 한편 너희보다 바깥쪽에 있는 이웃인 화성{火星}의 대기처럼 희박한 대기를 갖는 행성에 거주한다면, 저호흡자로 불릴 것이다.

49:2.14 (561.13) 필사자들이 너희의 달처럼 공기가 없는 행성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들은 비호흡자라는 분리된 계층에 속할 것이다. 이 유형은 행성 환경에 대해서 급진적 또는 극단적 적응을 나타내며, 별도로 고려된다. 비호흡자는 사타니아 세계들 중에서 나머지 1.5퍼센트를 차지한다.

49:2.15 (561.14) 2. 원소 유형. 이 차이는, 필사자와, 물, 공기, 및 땅의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이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대로, 네 가지 뚜렷한 지성 생명체 종족이 있다. 유란시아 인종은 땅 계통에 해당한다.

49:2.16 (561.15) 너희가, 어떤 세계의 초기 시대 동안 우세했던 환경을 관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유별난 환경 때문에, 진화하는 동물 생명체는, 쾌적한 땅과_대기{大氣} 환경을 매우 초기에 제공한 행성들의 경우보다 더 오랫동안, 그 번식하는 해양 서식지에 남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어떤 고흥흡자 세계에서는, 그 행성이 너무 크지 않을 때, 대기에서 쉽게 통행할 수 있는 필사자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때로 유리하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때로 물 집단과 땅 집단 사이에 끼어 있으며, 반드시 얼마 동안 땅 위에 사는데, 결국에는 땅 거주자로 진화한다. 그러나 어떤 세계들에서는, 그들이 땅_유형의 존재가 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날아다닌다.

49:2.17 (562.1) 인간 중에서 원시 인종의 초기 문명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놀랍고 흥미로운데, 어떤 경우에는 공중과 나무 꼭대기에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아늑한 열대의 만{灣}에 있는 얇은 물속에서, 또한 그런 색다른 구체의 여명기 인종들이 사는 이 해양 동산의 바닥과 측면과 해안에서 형성된다. 유란시아에서도, 초기에 나무 위에서 살던 조상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원시인이 대체로 나무 꼭대기에서 삶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원시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은 포유류(박쥐 계통) 집단과, 해양에서 서식하면서 포유동물에 속하는 물개 및 고래 같은 집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

49:2.18 (562.2) 사타니아에서는, 기본 유형 중에서 7퍼센트는 물 유형이고, 70퍼센트는 땅 유형이며, 13퍼센트는 땅과_공기의 혼합 유형이다. 그러나 초기 지성 피조물이 이렇게 변경된 존재는, 인간 물고기가 아니고, 인간 새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 유형, 그리고 인간이 되기 전 유형에 속하는데, 초월 물고기가 아니고 ,영화롭게 된 새도 아니며, 명백하게 필사자다.

49:2.19 (562.3) 3. **중력 유형.** 창조적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지성 존재들은 유란시아보다 작은 구체와 큰 구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크기와 밀도를 갖지 않는 그런 행성의 중력에 어느 정도 순응{順應}된다.

49:2.20 (562.4) 다양한 행성 유형의 필사자는 키가 다양한데, 네바돈에서 평균은 7피트에서 약간 모자란다. 큰 세계들 가운데 일부에는 키가 2.5피트에 불과한 존재들이 산다.

필사자의 키는 여기서 시작하여, 평균_크기 행성들의 평균 키를 지나, 작은 인간거주 구체들에서 약 10피트에 이른다. 사타니아에서는 키가 4피트 이하인 인종이 하나밖에 없다. 사타니아 인간거주 세계들 가운데 20퍼센트에는, 큰 행성과 작은 행성을 차지하는, 변경된 중력 유형의 필사자가 살고 있다.

49:2.21 (562.5) 4. 온도 유형. 유란시아 인종들이 생활하는 범위보다 훨씬 높은 온도, 또는 훨씬 낮은 온도, 양쪽에서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들을 열_조정 기법에 따라서 분류할 때, 다섯 개의 뚜렷한 계층의 존재가 있다. 이 척도로 볼 때, 유란시아 인종은 3_번에 해당한다. 사타니아 세계들 가운데 30퍼센트에는 변경된 온도 유형이 산다. 중간_온도 집단에서 활동하는 유란시아인과 비교할 때, 12퍼센트는 높은 범위에 해당하고, 18퍼센트는 낮은 범위에 해당한다.

49:2.22 (562.6) 5. 전기 유형. 세계들의 전기, 자기, 및 전자 습성은 크게 다양하다. 필사 생명체에는, 구체들의 서로 다른 에너지를 견디도록 다양하게 만든 10가지 설계가 있다. 이 10가지 종류는 또한 정상적인 항성광의 화학적 광선에

대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물리적 차이는, 어떤 면으로도 지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9:2.23 (562.7) 필사 생명체를 전기{電氣} 기준으로 분류하면, 거의 23퍼센트는 유란시아 실존 유형인 4_번 부류에 속한다. 이 유형은 --정수{整數} 퍼센트로 따져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_번 1퍼센트;2_번 2퍼센트;3_번 5퍼센트;4_번 23퍼센트;5_번 27퍼센트;6_번 24퍼센트;7_번 8퍼센트;8_번 5퍼센트;9_번 3퍼센트;10_번 2퍼센트.

49:2.24 (563.1) 6. *에너지주입 유형*. 에너지를 받는 방식에서 모든 세계가 똑같지는 않다. 모든 인간거주 세계가, 현재 유란시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기체의 호흡 교환에 맞는 막대한 양의 대기{大氣}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많은 행성의 초기 및 후기 단계 동안, 너희의 현재 계층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실존할 수 없었으며;행성의 호흡 요소들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 그러나 다른 모든 선행조건이 지성 생명체에 적합할 때, 생명 운반자들은 그런 세계에서 변경된 형태의 필사자 실존을 종종

설립하는데, 이 존재들은, 빛_에너지로, 그리고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동력을 몸소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직접, 생명_진행 교환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

49:2.25 (563.2) 동물 및 필사자 영양 섭취에는 여섯 가지 다른 유형이 있다:저호흡자들은 첫째 유형의 영양 섭취를 택하고, 해양 거주자들은 둘째, 중간호흡자들은 유란시아에서처럼 셋째를 이용한다. 고호흡자는 넷째 유형의 에너지 섭취를 이용하며, 한편 비호흡자는 다섯째 체제의 영양 섭취와 에너지를 이용한다. 에너지를 주입하는 여섯째 기법은 중도 피조물에만 국한된다.

49:2.26 (563.3) 7. *이름 없는 유형*. 행성의 생명체에는 수많은 추가적인 물리적 다양성이 있지만, 이 차이는 모두 전적으로, 해부학상 변경, 생리적 차이, 그리고 전기화학적 조정의 문제다. 그런 특징들은 지적 생명이나 영적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다.

3. 비호흡자의 세계

49:3.1 (563.4)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는 숨을 쉬는 유형의 지성 존재가 산다. 그러나 또한, 공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필사자 계통도 있다.

오르본톤에서 인간거주 세계들 가운데 이 유형은 7퍼센트 미만이다. 이 비율은 네바돈의 경우에 3퍼센트 미만이다. 온 사타니아에서 그런 세계는 아홉 개밖에 없다.

49:3.2 (563.5) 사타니아에는 비호흡자 유형의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이 극히 적은데, 이는 노라티아덱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직된 이 부분에 아직도 유성{流星} 같은 천체들이 많고;마찰로 보호하는 대기가 없는 세계는, 이 방랑자들의 폭격을 끊임없이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성들의 떼로 이뤄진 혜성들도 더러 있지만, 대개 혜성들은 분쇄된 비교적 작은 물질 덩어리다.

49:3.3 (563.6) 수백만의 운석이 매일같이 거의 초당 200마일 속도로 유란시아 대기 속으로 들어온다. 비호흡 세계에서는 진보된 인종들이 운석을 태워버리거나 회피시키도록 작동하는 전기 장치를 만듦으로써, 운석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보호된 이 지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벗어날 때, 그들은 큰 위험에 직면한다. 이 세계들은,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성질의 끔찍한 전기{電氣} 폭풍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엄청난 에너지 동요가 있는

그런 시기 동안, 거주민은 방어{防禦} 절연체로 된 특별한 구조물 속으로 피해야만 된다.

49:3.4 (563.7) 비호흡자가 사는 세계의 생활은 유란시아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자는, 유란시아 인종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다. 특화된 이 사람들의 신경 체계 반응, 열_조정 장치, 및 신진대사는, 유란시아 필사자의 그런 기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번식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삶의 활동이 다르며, 출산{出產}하는 방식조차 어느 정도 다르다.

49:3.5 (564.1) 비호흡 세계에 있는 동물 종자들은, 대기가 있는 행성에서 발견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호흡 생활 계획은 대기가 있는 세계에서 실존하는 기법과 다르며; 심지어 생존에서도 거기 있는 민족들은 다른데, 영 융합의 후보자다. 그럼에도 이 존재들은 삶을 즐기며, 대기가 있는 세계에 사는 필사자들이 체험하는 것과 똑같이, 상대적인 시련과 기쁨을 갖고 그 영역의 활동을 진행한다. 정신과 성품에서, 비호흡자는 다른 필사자 유형들과 다르지 않다.

49:3.6 (564.2) 너희는 이 유형의 필사자가 행성에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더 흥미를 가질 것인데, 그런 인종의 존재들이 유란시아에 아주 가까이 있는 어느 구체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4. 의지를 가진 진화 피조물

49:4.1 (564.3) 다른 여러 세계에 있는 필사자들 사이에, 심지어 같은 지적 및 육체적 유형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의지 존엄성을 갖는 모든 필사자는, 직립 동물, 즉 두 발로 서는 동물이다.

49:4.2 (564.4) 여섯 가지 기본 진화 인종이 있다:셋은--곧 홍색, 황색, 및 청색은 -- 1차이고;셋은--곧 주황색, 녹색, 및 남색은-- 2차다.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는 이 인종들 전부를 포함하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행성들 중에서 다수는 세 개의 1차 유형만 포함한다. 어떤 지역 체계 역시 이 세 인종만 갖고 있다.

49:4.3 (564.5) 인간이 특별히 부여받은 육신_감각은 보통 열두 가지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의 특별 감각은 한 개의 뇌와 두 개의 뇌를 가진 유형보다 약간 더 확장돼

있으며;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보다 상당히 더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49:4.4 (564.6) 아이는 대개 하나씩 태어나고, 여럿이 태어나는 것은 예외이며, 가정생활은 모든 유형의 행성에서 상당히 균일하다. 진보된 모든 세계에는 남녀평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남성과 여성은 정신 재능과 영적 신분에서 동일하다. 한 편의 성이 다른 편을 학대하려고 추구하는 한, 우리는 행성이 야만적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여기지 않는다. 피조물이 겪는 체험의 이런 특색은, 물질 아들 및 딸의 도착 후에 반드시 크게 개선된다.

49:4.5 (564.7) 계절과 기온의 변화는, 항성의 빛을 받고 항성으로_가열되는 모든 행성에서 발생된다. 농업은 대기를 갖는 모든 세계에서 보편적이며;땅 경작은 그런 모든 행성의 발전된 인종들에게 유일하게 공통된 직업이다.

49:4.6 (564.8) 초기 시대에 필사자는 모두,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지금 체험하는 것 같이, 극히 미세한 적들과 동일한 일반적 투쟁을 벌이지만, 그렇게 광범하지는 않다. 생명의 길이는,

원시 세계들에서 25년으로부터, 더 진보되고 오래된
구체들에서 500년에 이르기까지, 행성마다 다르다.

49:4.7 (564.9) 인간은 모두, 부족끼리 그리고 인종끼리
집단생활을 한다. 집단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은, 그
기원과 구성에서 선천적이다. 그런 경향은, 오직 문명이
발달함으로, 그리고 점진적 영성화를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인간거주 세계의 사회, 경제, 및 정부 차원의 문제는,
행성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신성한 아들들의 이어지는
체류에 그들이 영향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49:4.8 (564.10) 정신은 무한한 영이 증여한 것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매우 동일하게 작용한다. 필사자들의 정신은
서로 유사하며, 지역 체계들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육체적 본성의 특징인, 어떤 구조적 및 화학적 차이와는
상관없다. 개인의 차이나 행성의 물리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의 정신 생활은
매우 비슷하며, 죽음 직후에 그들의 생애는 대단히
비슷하다.

49:4.9 (565.1) 그러나 불멸의 영 없이는, 필사 정신은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오직 증여된 영만

죽지 않는다. 생존은 조율사의 사역으로 영성화되는 데--
곧 죽지 않는 혼이 태어나고 진화되는 데--
달려있으며;적어도, 물질적 정신에 영적 변형을 일으키는
조율사의 사명에 대해 반항심을 발전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5. 필사자의 행성 계통

49:5.1 (565.2) 필사자의 행성 계통에 대해서 적당하게
묘사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너무
아는 바 없기 때문이며, 변종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필사 피조물을 수많은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9:5.2 (565.3)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49:5.3 (565.4) 2. 뇌_유형 계통.

49:5.4 (565.5) 3. 영_감수성 계통.

49:5.5 (565.6) 4. 행성의_필사자 시기.

49:5.6 (565.7) 5. 피조물_유사성 계통.

49:5.7 (565.8) 6. 조율사_융합 계통.

49:5.8 (565.9) 7.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기법.

49:5.9 (565.10) 일곱 연방우주의 인간거주 구체들에는, 진화 피조물 생명체의 이 일곱 가지 일반화 된 부류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주에 겹쳐서 분류되는 필사자가 산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 분류조차, 중간유한절대자 같은 그런 존재들뿐 아니라, 지성 생명을 갖는 어떤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본 문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간거주 세계들에는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이 살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도 있다.

49:5.10 (565.11)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행성 환경에 적응하는 피조물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거주 세계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 즉 정상적 적응 집단, 급진적{急進的} 적응 집단, 및 실험하는 집단으로 묶을 수 있다.

49:5.11 (565.12) 행성 상황에 대한 정상적 적응은, 앞에서 고려된 일반적인 물리 원형{原型}을 따른다. 비호흡자의 세계는 급진적 적응, 즉 극단적 적응을 대표하지만, 다른 유형들 역시 이 집단에 포함된다. 실험 세계는 대개 전형적 생명체 형태에 이상적으로 적응돼 있으며, 이런 10진 행성에서는 생명 운반자들이 표준 생명 설계도에 유익한 변화를

산출하려고 시도한다. 너희 세계는 실험 행성이므로, 사타니아에서 자매 구체들과는 현저히 다르며;유란시아에 나타나는 생명체 형태 가운데 많은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마찬가지로 평범한 종자 중에서 많은 것이 너희 행성에는 없다.

49:5.12 (565.13) 네바돈 우주에서, 생명체_변경 세계 전체가 연속물로서 함께 연결돼 있고, 지정된 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별 분야의 우주 직무를 구성하며;이 모든 실험 세계는 우주 지휘자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데, 그 단체의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로 알려진 노련한 완결성취자다.

49:5.13 (566.1) 2. 뇌_유형 계통. 필사자들에게 육신적으로 한 가지 균일한 성질은, 뇌와 신경 체계이며;그럼에도 뇌 장치에는 세 가지 기본 조직이 있는데:한 개의 뇌 유형, 두 개의 뇌 유형, 그리고 세 개의 뇌 유형이다. 유란시아인은 두 개의 뇌 유형에 속하는데, 한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보다 어느 정도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철학적이지만,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보다는 어느 정도 덜

영적이고 덜 윤리적이며 덜 경건하다. 뇌의 이런 차이는 인간이 되기 전 동물 실존에서도 특징을 나타낸다.

49:5.14 (566.2) 유란시아인 대뇌피질{大腦皮質}의 두_반구체{半球體} 유형으로부터 유추함으로써, 너희는 하나의 뇌를 가진 유형에 대해 무언가 파악할 수 있다.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의 셋째 뇌는, 너희의 소뇌, 즉 흔적만 있는 뇌 형태가 발달한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적합한데, 이것은 주로 상위의 두 뇌가 더 높은 용무에:즉 하나는 지적 활동에, 다른 하나는 사고 조율사가 영적으로_짜을_이루는 활동에 몰입하도록 자유롭게 남겨둔 채, 주로 육체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지점까지 발전한다.

49:5.15 (566.3) 한 개의 뇌를 가진 인종이 이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은, 두 개의 뇌를 가진 종류에 비해 약간 제한돼 있으며, 한편 세 개의 뇌를 가진 집단에 해당하는 비교적 오래된 행성들은, 유란시아인을 몹시 놀라게 할 만한 문명을 나타내며, 비교한다면 너희의 문명을 어느 정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기계의 발달과 물질 문명에서, 그리고 지적 진보에서도, 두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 세계는

세 개의 뇌를 가진 구체에 필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신 통제와 지적 및 영적 상호작용의 발달 면에서, 너희는 어느 정도 뒤떨어진다.

49:5.16 (566.4) 어느 세계 또는 집단을 이룬 세계들의 지적 진보 또는 영적 달성에 관한 그런 모든 비교 평가는, 행성의 나이를 공정하게 고려해야만 하며;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은, 나이, 생물학적 개량자들의 도움,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의 차후 사명에 따라서 달라진다.

49:5.17 (566.5) 세 개의 뇌를 가진 사람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뇌를 가진 종류보다 약간 높은 행성 진화를 할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유형의 원형질을 가졌고, 유란시아에서 인간이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행성 활동을 수행한다. 이 세 유형의 필사자들이 지역 체계의 세계들 전역에 두루 퍼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행성 환경은, 다른 세계에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필사자들을 입안하기 위한 생명 운반자들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생명 운반자들의 특권이다.

49:5.18 (566.6) 상승 생애에서, 이 세 계통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각자 동일한 지적 발달 단계를 거쳐야만 하며, 각자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을 완수해야만 한다. 서로 다른 이 세계들에 대한 체계의 경영과 성좌의 전면통제는 한결같이 차별이 없으며;심지어 행성 왕자들의 체제도 동일하다.

49:5.19 (566.7) 3. 영_감수성 계통. 영의 직무와 접촉하는 것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집단의 정신 설계가 있다. 이 분류는 한 개의 뇌, 두 개의 뇌, 그리고 세 개의 뇌를 가진 계층의 필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이것은 주로 분비선의 화학작용을 말하는데, 더 자세히 말하자면, 뇌하수체에 비교될 수 있는 특별한 분비선들의 조직을 말한다. 어떤 세계의 인종은 하나의 분비선을 갖고, 다른 데서는 유란시아인처럼 두 개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구체들에서는 인종들이 독특한 이 조직체를 세 개 갖고 있다. 타고난 상상력과 영적 감수성은, 서로 다른 이 화학적 재능에 명확하게 영향을 받는다.

49:5.20 (566.8) 영_감수성 유형 중에서, 65퍼센트는 유란시아

인종들처럼 둘째 집단이다. 12퍼센트가 첫째 형태인데, 선천적으로 감수성이 떨어지며, 한편 23퍼센트는 현세의

생애를 사는 동안 더 영적 성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는 자연사로 끝나며;이 모든 인종적 차이는 오직 육신 속의 생애에만 관계된다.

49:5.21 (567.1) 4. 행성의 필사자 시기. 이 분류는, 사람의 이 세상 신분, 그리고 천상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주는 이 세상 섭리시대들이 이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다.

49:5.22 (567.2)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에서 생명을 창시하는데, 그들은 필사적 사람이 진화로 출현한 후 어느 정도 지나갈 때까지 그 발전을 감시한다. 행성을 떠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한 명의 행성 왕자를 그 영역의 통치자로서 정식으로 임명한다. 이 통치자와 함께, 할당받은 숫자대로 하위의 조수{助手}와 사역하는 도우미가 도착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 통치자의 도착과 동시에 있게 된다.

49:5.23 (567.3) 인간 집단들이 출현하고 나서, 이 행성 왕자가 인간의 문명을 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사회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도착한다. 혼란에 빠진 너희 세계에는, 행성 왕자가 통치하는 초기 시대의 특징이 없는데, 유란시아에서 그런 경영이 막 시작될 무렵에, 너희의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가 체계 주권자 루시퍼와 반역의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너희 행성은 그 후로 계속, 험악한 행로를 걸어 왔다.

49:5.24 (567.4)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행성 왕자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인종 진보가 자연스런 생물학적 정점{頂點}에 도달하며, 그 후에 곧, 체계 주권자가 물질 아들과 딸을 그 행성으로 보낸다. 외계에서 들어온 이 존재들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봉사하며;유란시아에서 그들의 태만이 너희 행성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49:5.25 (567.5) 인간 종족의 지적 및 윤리적 진보가 진화 발달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집정관 사명을 띤 낙원의 아보날 아들이 거기로 오며;그 후에 그런 세계의 영적 상태가 자연스런 달성 한계에 도달할 때, 한 명의 증여 낙원 아들이 그 행성을 방문한다. 증여 아들의 주요 사명은, 행성의 지위를 확립하고, 행성에서 활동하도록 진리의 영을 양도하며, 그리하여 사교 조율사들이 보편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다.

49:5.26 (567.6) 유란시아는 여기서 다시 빛나갔다:너희 세계에서는 집정관의 사명이 수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증여된 아들도 아보날 계층이 아니었으며;너희 행성은 주권자 아들, 즉 네바돈의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살았던 고향 행성이 되는 대단한 명예를 누렸다.

49:5.27 (567.7) 신성한 아들신분 계층이 잇따라 모두 사역한 결과로, 인간거주 세계들과 거기서 진보하는 인종들은 행성 진화의 정점에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런 세계들은, 이제 전성기에 달하는 사명, 즉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도착할 때가 무르익게 된다. 교사 아들들의 이 시기는, 최종 행성 시대--진화의 유토피아--, 즉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다.

49:5.28 (567.8) 인간에 대한 이 분류는 이어지는 문서에서 특별하게 언급될 것이다.

49:5.29 (567.9) 5. *피조물_유사성 계열*. 행성들은, 체계, 성좌, 등등으로 그렇게 수직적으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우주 경영은 또한, 유형, 계통, 및 기타 관계에 따라서 수평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옆으로 뻗는 우주 경영은, 다른 구체들에서 독립적으로 육성돼 온, 비슷한 성질을 갖는 활동의 조정에 더 특별하게 관계한다. 관련된 이

부류의 우주 피조물들은, 오랜 체험을 가진 완결성취자들이 주관하는 혼합된 어떤 단체의 고등 인격체들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는다.

49:5.30 (568.1) 이런 유사한 요소가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연속물의 유사성이 필사 피조물뿐 아니라, 비인간 인격체 가운데서도--심지어 인간 및 초인간 계층 사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성 존재들은, 각기 일곱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12개의 대집단 안에서 수직으로 관련돼 있다. 독특하게 관련된 이 생물 집단들의 조화는, 지존하신 분의 완전하게 납득되지 않는 어떤 기법에 따라서 이뤄질지도 모른다.

49:5.31 (568.2) 6. *조율사_융합 계통*. 융합되기 이전의 체험을 겪는 동안에 모든 필사자의 영적 분류 또는 집단화는, 인격체 상태와, 내주하는 신비 관찰자의 관계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네바돈에 있는 인간거주 세계들 중에서 거의 90퍼센트는 조율사와_융합하는 필사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웃에 있는 어떤 우주에는, 간신히 절반을 넘는 세계들이, 조율사가_내주하는 영원한 융합 후보자들을 품고 있다.

49:5.32 (568.3)

7.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기법*. 개별 인간 생명체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임신과 자연분만을 통해서이며;반면에 사람이 이 세상 신분에서 벗어나서, 안쪽을 향해 움직이는 낙원 상승자들의 물결에 합류하는 기법은 무수히 많다.

6. 이 세상을 벗어나기

49:6.1 (568.4)

서로 다른 모든 물리적 유형과 행성 계통의 필사자는, 사고 조율사, 수호천사, 그리고 무한한 영의 다양한 계층의 사자{使者} 무리가 담당하는 사역을 똑같이 누린다. 모두가 똑같이 자연사로 해방되어 육신의 족쇄로부터 풀려나며, 모두가 똑같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진화하고 정신이 진보하는 모론시아 세계들로 나아간다.

49:6.2 (568.5)

때로는, 행성 당국 또는 체계 통치자들의 동의에 따라서, 잠자는 생존자들의 특별한 부활이 이뤄진다. 그런 부활은 적어도 행성 시간으로 1,000년마다 이뤄지는데, 그때 전부는 아니지만 “티끌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런 특별 부활은, 필사자를 상승시키려는 지방우주 계획에서, 특정한 봉사를 위해 특별한 집단의

상승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다. 이 특별 부활에는 실용적 이유가 있고, 감상적 관계도 연결돼 있다.

49:6.3 (568.6)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시대 내내, 특별 부활과 1,000년마다 부활{復活}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여러 맨션 구체로 호출되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는, 행성에서 봉사하는 어떤 신성한 아들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섭리시대가 개시될 때 다시 인격화된다.

49:6.4 (568.7) 1. *섭리시대에 또는 집단 체제로 생존하는 필사자.* 인간거주 세계에 첫 조율사가 도착할 때, 수호 스라빔 역시 나타나며;그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다. 잠자는 생존자들의 생명이_소멸된 기간 내내, 새롭게 진화된 불멸하는 혼의 영적 가치와 영원한 실체를, 개인 또는 집단 수호 스라빔이, 신성시되는 위탁물로서 보관한다.

49:6.5 (568.8) 잠자는 생존자들에게 배정된 집단 수호자들은, 심판하는 아들들이 그 세계에 출현할 때 항상 함께 활동한다. "그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저희는 그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잠자는 필사자를 다시 인격화시키는 일에 배정된 각 스라빔과 함께, 돌아온 조율사가 작용하는데, 그는 육신 속에 살았던 날들 동안

그의 안에 살았던 바로 그 불멸하는 아버지 단편{斷片}이며, 그리하여 신분이 복원되고 인격체가 부활된다. 자신의 상대자가 잠자는 동안, 기다리는 이 조율사들은 디비닝톤에서 봉사하며;이 기간에는 다른 필사자 속에 결코 내주하지 않는다.

49:6.6 (569.1) 필사자가 실존하는 비교적 오래된 세계들은, 모론시아 생애를 사실상 면제받은, 고도로 발달하고 지극히 영적인 유형의 인간들을 품고 있으며, 반면에 동물에서_기원된 인종들의 초기 시절의 특징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시 필사자가 미숙하다는 점이다. 제3 근원 및 중심에 속한 불멸하는 영{靈}의 개별화된 부분과 함께, 수호 스라빔이, 이런 필사자들을 다시_깨우는 일은 해낸다.

49:6.7 (569.2) 이렇게,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은, 섭리시대 출석점호가 있을 때 다시 인격화된다. 그러나 어떤 영역의 구원받지 못할 인격체에 관해서 말하자면, 불멸하는 어떤 영도 집단 운명 수호자들과 함께 활동하려고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이 피조물 실존의 중지{中止}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기록 가운데 더러는, 필사자가 죽는 행성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이것은 모두 맨션 세계들에서 정말로 일어난다.

49:6.8 (569.3) 2. *개별로 상승하는 계층의 필사자*. 인간의 개별 진보는, 일곱 시공우주 궤도를 연속해서 달성하고 통과하는(숙달하는) 것에 따라 측정된다. 필사자가 진보하는 이 궤도들은, 관련된 지적, 사회적, 영적, 및 시공우주_통찰력 가치의 수준이다. 필사자는 일곱째 궤도에서 시작하면서, 첫째에 도달하려고 애쓰며, 셋째에 도달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개인 운명 수호자를 즉시 소유한다. 이 필사자들은 섭리시대 또는 다른 심판과는 무관하게, 모론시아 생애에서 다시 인격화 될 것이다.

49:6.9 (569.4) 진화하는 세계의 초기 시절 내내, 셋째 날에 심판받으러 나아가는 필사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 운명 수호자가, 발전하는 필사자에게 배정되며, 그리하여 이 진화하는 피조물이 점점 더 증가하는 숫자로, 자연사 이후 셋째 날에 첫 맨션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된다. 그런 경우에, 조율사의 귀환{歸還}이 인간 혼을 깨나도록 신호하며,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한 섭리시대가 끝나면서 한 묶음으로 호출이 이뤄질 때와 아주 똑같은, 죽은 자들의 재인격화다.

49:6.10 (569.5) 개별 상승자들에는 세 가지 집단이 있다: 덜 진보된 자들은, 시작하는 세계, 즉 첫 맨션 세계에 도착한다. 비교적 더 진보된 집단은, 이전에 행성에서 진보한 것에 따라서, 중간 맨션 세계 가운데 어느 곳에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계층 중에서 가장 진보된 자는, 정말로 일곱째 모론시아 세계에서 모론시아 체험을 시작한다.

49:6.11 (569.6) 3. *보호관찰_부모의존 계층의 상승 필사자.* 우주의 견지에서 볼 때, 조율사의 도착이 정체성을 성립시키며, 내주했던 모든 존재는 응보의 출석점호를 받는다.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 현세의 삶은 불확실하며, 많은 사람이, 낙원 생애를 선택하기 전에 어려서 죽는다. 조율사가 내주했던 그런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부모 중에서 더 진보된 영적 신분을 가진 쪽을 따라가며, 그리하여 특별 부활이 있을 때, 또는 1,000년마다 정기적인 섭리시대 출석점호가 있을 때, 셋째 날에,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로(보호관찰 육아원으로) 간다.

49:6.12 (570.1) 사고 조율사를 소유하기에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는, 부모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맨션 세계에 도착함과 동시에, 지역 체계의 완결성취자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된다. 어린아이는 필사자로 태어날 때 육체적 독자성을 획득하지만, 생존 문제에서 본다면, 조율사가 없는 모든 아이는 여전히 자기 부모에게 딸린 것으로 간주된다.

49:6.13 (570.2) 때가 되면 사고 조율사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며, 한편 보호관찰_부모의존 계층에서 생존하는 두 집단에 대한 스랍의 사역은, 부모 중에서 더 진보된 쪽의 것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든지, 또는 부모 중에서 하나만 생존하는 경우에는 그 쪽의 것과 대등하다. 셋째 궤도에 도달한 자에게는, 그 부모의 상태와 상관없이, 개인 수호자가 수여된다.

49:6.14 (570.3) 변경된 1차 및 2차 상승자 체제의, 조율사_없는 자녀를 위해서, 비슷한 보호관찰 육아원들이 성좌의 완결성취자 구체와 우주 본부에 유지된다.

49:6.15 (570.4) 4. *변경된 2차 체제의 상승 필사자*. 이들은 중간쯤 진화한 세계에서 진보하는 인간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일곱 맨션 세계를 통과하는 것이 면제된다.

49:6.16 (570.5) 덜 완전하게 된 집단은 지역 체계 본부에서 다시 깨어나는데, 맨션 세계들만 그냥 지나친다. 중간 집단은 성좌의 훈련 세계들로 가며;그들은 지역 체계의 모론시아 체제 전부를 그냥 지나친다. 영적으로 투쟁하는 행성 시대로부터 더 오래 지나면, 많은 생존자가 성좌 본부에서 깨어나며, 거기서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49:6.17 (570.6) 그러나 이 여러 집단 중에서 누구든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이 지나쳐온 세계들에 교관으로서 되돌아가는 여행을 해야만 하는데, 그들이 학생으로서 그냥 지나쳐버린 그 영역의 선생으로서 많은 체험을 획득한다. 그들은 모두 나중에, 필사자가 진보하는 규정된 노선을 따라서 낙원으로 나아간다.

49:6.18 (570.7) 5. *변경된 1차 체제의 상승 필사자.* 이 필사자들은 조율사와_융합된 형태의 진화 생명체에 속하지만, 매우 종종, 진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마지막 국면을 대표한다. 영화롭게 된 이 존재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면제되며;아들에게 점유되도록 위임되며;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되고, 지방우주 본부에 있는 주권자 아들 현존 앞에 즉시 나타난다.

49:6.19 (570.8) 이들은 필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조율사와 융합하는 필사자이며, 조율사와 융합된 그런 인격체는 모론시아 형체를 입게 되기 전에 자유롭게 공간을 통과한다. 융합된 이 혼들은 조율사가 직접 운반함으로써, 높은 모론시아 구체의 부활실로 가는데, 거기서, 진화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다른 모든 필사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첫 모론시아 의상{衣裳}을 받는다.

49:6.20 (570.9) 이 1차 변경 체제의 필사자 상승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세계들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어떤 행성 계통에서든지 개인에게 적용되겠지만, 이런 상승은, 그들이 신성한 아들들의 수많은 체류에서 이득을 얻은 후에, 이 구체들 가운데 더 오래된 곳에서 더 자주 작용한다.

49:6.21 (570.10) 행성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확립되면, 변경된 1차 전환 체제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우주의 모론시아 세계들로 간다. 진보된 단계의 안정된 실존들을 따라 더 나아가서, 한 영역을 떠나는 필사자 대부분이 이 등급에

포함될 때, 그 행성은 이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오랫동안 빛과 생명에 정착된 이런 구체들에서, 자연사는 갈수록 드물게 된다.

49:6.22 (571.1) [예루셈 행성 경영 학교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50편 행성 왕자

50:0.1 (572.1) 행성 왕자들은, 라노난덱 아들 계층에 속하지만, 아주 전문화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대개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 지방우주 아들들은, 2차 라노난덱으로서 멜기세덱의 보증을 받은 후에, 성좌 본부에 있는 그들 계층의 예비군에 배정된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체계 주권자의 지시로 다양한 임무에 배정되며, 결국 행성 왕자로 임명되고, 진화하는 인간거주 세계를 다스리도록 파견된다.

50:0.2 (572.2)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를 확립시키고 진화하는 지성 존재들을 개발시킨 이 행성에서 활동할, 한 경영자 우두머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체계 주권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주어진 행성에 통치자를 배정하는 문제에 체계 주권자가 처음으로 개입한다. 진화하는 필사

피조물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은, 아들신분을 갖는 이 계층의 행성 통치자를 배정받는다.

1. 왕자의 사명

50:1.1 (572.3) 행성 왕자와 그의 보좌관 형제들은, 낙원의 영원한 아들이 시간과 공간의 하위 피조물에게 (육신화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인격화에 상당한다. 정말로, 창조주 아들은 자신의 영{靈}을 통해서 그 영역의 피조물과 접촉하지만, 행성 왕자는 낙원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뵈어 나가는, 인격있는 아들 계층들 중에서 마지막 계층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의 수호자 및 다른 천사 존재들의 인격자 안에서 매우 가까이 접근하며;만유의 아버지는 신비 관찰자들의 인격이전{人格以前} 현존으로서 사람 안에 거하지만;행성 왕자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다가가려는 마지막 수고를 나타낸다. 행성 왕자는 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에서, 완벽한 신성{神性}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자인데,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자손인) 창조주 아들과 (무한한 영의 우주 딸인) 신성한 사역자로부터 태어난다.

50:1.2 (572.4) 새롭게 인간이 거주하게 된 세계의 왕자는, 충성스런 도우미와 보좌관 단체,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역하는 영으로 둘러싸인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세계를 지도하는 단체는, 행성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선천적으로 동정심을 갖고 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낮은 계층의 체계 경영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진화 세계에 동정심을 가진 통치자를 마련해 주려는 이 모든 노력에는, 인간에_가까운 이 인격체들이 그들 자신의 정신을 최고 통치자들의 뜻보다 높게 고양시킴으로써 타락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늘어난다.

50:1.3 (572.5) 이 아들들은, 개별 행성에서 신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아주 외롭게 있으므로 엄중한 시험을 받으며, 네바돈은 몇 차례 반역이 발발하는 불운을 겪어 왔다. 체계 주권자와 행성 왕자들을 창조할 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개념을 인격화시키는 일이 발생하며, 그리하여 한 개인이 자신을_중요시여김에 따라서 균형 감각을 잃는 위험성이 점점 증대되고, 수많은 계층의 신성한 존재들의 가치기준과 관계, 그리고 단계적으로 얻는 그들의 권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아버지가

지방우주에 직접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한, 이 아들들 모두에게 어떤 신앙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 된다.

50:1.4 (573.1) 그러나 이 세계 왕자들이 인간거주 구체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사명에서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공은 나중에, 그 세계의 원시인에게 비교적 높은 형태의 피조물 생명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오는 물질 아들의 사명을 크게 촉진시킨다. 그들의 통치는 또한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을 위해서 그 행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아들들은, 그 후에 세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섭리시대들을 개시하기 위해서 온다.

2. 행성의 경영

50:2.1 (573.2) 모든 행성 왕자는, 미가엘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의 우주 경영 관할권 아래에 있으며, 한편 직속 권한에서는 체계 주권자의 행정 명령에 종속된다.

50:2.2 (573.3) 행성 왕자들은, 예전에 자신의 교관 및 후원자였던 멜기세덱들의 조언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보조를 요청하도록 임의로 요구받지는 않으며, 그런 도움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멜기세덱들은

행성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세계 통치자들은 24조언자의 충고를 따를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 체계의 증여 세계들로부터 소집된다. 사타니아에서 현재 이 조언자들은 모두 유란시아 원주민이다. 그리고 성좌 본부에 있는 비슷한 70인 협의회 역시, 그 영역들의 진화 존재들로부터 선택된다.

50:2.3 (573.4) 진화하는 여러 행성에서 초기에 불안정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부분 독재적으로 통치된다. 행성 왕자는 행성 조력자 단체 가운데서 특화된 집단의 보좌관들을 조직한다. 그들은 대개 열두 명의 최고 협의회를 두지만, 이것은 세계마다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선택되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행성 왕자는 아들신분을 갖는, 자신의 집단 가운데 셋째 계층에서 하나 이상, 그리고 간혹 어떤 세계들에서는 자신의 계층인 2차 라노난덱 동역자 한 명을 보좌관으로 둘 수 있다.

50:2.4 (573.5) 한 세계 통치자의 전체 참모진은,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고도로 진화된 존재 및 다른 세계들에서 상승한 필사자들로 구성된다. 그런 참모진은 평균 약 1,000명이며, 그 행성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 도우미 단체는 10만 명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 더 많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행성 왕자가 자신의 형제, 즉 체계 주권자에게 요청만 하면 되며, 그 청원은 즉시 승인된다.

50:2.5 (573.6) 행성들은, 본질, 조직, 및 경영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모두 사법을 담당하는 법정을 마련한다. 지방우주 사법 체계는 행성 왕자의 법정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개인 참모진 중에서 한 요원이 관장하며;그런 법정의 판결은, 고귀하게 아버지답고 자유재량의 입장을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의 규칙을 벗어날 만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고등 법정에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왕자의 세계 영토의 직무는 주로 그의 개인적 재량에 따라서 조정된다.

50:2.6 (574.1) 순회하는 여러 화해자 위원회가 행성의 법정을 돕고 보조하며, 영 통제관 및 물리 통제관이 이 화해자들의 조사 결과에 지배된다. 그러나 성좌 아버지의 승낙 없이 독단적 집행{執行}이 수행되는 일은 결코 없는데,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기” 때문이다.

50:2.7 (574.2) 행성에 배정된 통제관과 변형자들 역시, 천사 및 기타 천상의 존재 계층들과 함께, 후자{後者}의 이 인격체들을 필사 피조물에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협력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스랍 도우미, 그리고 심지어 멜기세덱들도, 진화 세계의 거주민에게 자신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행성 왕자 참모진의 일부로서 필사 상승자들을 체계 본부로부터 데려오는 주요 이유는, 그 영역의 거주민과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3.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50:3.1 (574.3)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세계로 갈 때, 행성 왕자는 대개 지역 체계 본부에서 자원하는 한 집단의 상승하는 존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상승자들은 초기 인종 개량 작업에 충고자 및 도우미로서 왕자를 따라간다. 이 물질 도우미 단체는 왕자와 그 세계 인종들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왕자인 캘리개스차는 100명으로 구성된 그런 도우미 단체와 동행했다.

50:3.2 (574.4) 그런 자원하는 보좌관들은 체계 본부 시민이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내주하는 조율사와 융합되지

않았다. 그런 자원 봉사자들의 조율사 상태는, 이 모론시아
진보자들이 예전의 물질 상태로 잠시 돌아가 있는 동안,
체계 본부에서 고정된 거주지에 속한 채 남아있다.

50:3.3 (574.5) 형체 설계자인 생명 운반자들이 새 육체를
제공하고, 그런 자원자들은 행성에 머무는 동안 이 육체를
차지한다. 이 인격체 형태는, 그 영역의 일반 질병에
면역력을 갖지만, 초기의 모론시아 몸처럼, 기계적 성질에
속하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다.

50:3.4 (574.6)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체에 도착할 때, 그 다음 판결과 연관되어, 대개
행성으로부터 옮겨진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다양한 임무를, 함께 낳은 후손에게, 그리고 어떤 우세한
토착민 자원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다. 왕자의 이
도우미들이 토착 인종들 중에서 뛰어난 집단과 짝짓도록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런 후손이 대개 그들을 계승한다.

50:3.5 (574.7) 행성 왕자의 이 보좌관들은, 그 세계의 인종들과
짝짓는 일이 거의 없지만, 반드시 자기들끼리 짝짓는다. 이
결합에서 두 부류의 존재가 생겨나는데:1차 유형의 중도
피조물과, 어떤 고귀한 유형의 물질 존재가 그들이며,

후자는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 자신의 부모가 행성에서 떠나게 된 후에, 왕자의 참모진에 계속 배속돼 있다. 이 자녀들은 특정한 응급 상황 이외에는 필사자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럴 때에도 오직 행성 왕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이뤄진다. 그런 경우에 그들의 자녀는--곧 육체전환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들의 시대와 세대{世代}에서 우수한 인종에 속하는 신분을 갖는다. 행성 왕자의 약간물질적인 이 조력자들의 모든 자손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한다.

50:3.6 (575.1) 왕자의 섭리시대가 끝날 때, 이 “되돌아온 참모진”이 낙원 생애의 재개를 위해 체계 본부로 복귀할 때가 되면, 이 상승자들은 물질 육신을 돌려줄 목적으로 생명 운반자들에게 온다. 그들은 변환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자신의 필사의 옷을 벗고 모론시아 형체를 입은 채로 깨어나서, 체계 본부로 돌아가는 스랍 운송을 위해 준비를 갖추며, 분리돼 있던 그들의 조율사들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예루셈 계층보다 온전한 한 섭리시대를 뒤쳐졌지만, 독특하고 이례적인 체험을 했고, 이것은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에서 희귀한 일련의 사건이다.

4. 행성 본부와 학교

50:4.1 (575.2)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훈련하고 교양을 가르치는 여러 행성 학교를 일찍부터 조직하는데, 진화 인종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이 방법을 그들의 민족에게 가르치도록 파송된다. 왕자의 이 학교들은 물질로 지어진 행성 본부에 자리잡는다.

50:4.2 (575.3) 육체전환 참모진이, 이 본부 도시의 설립과 관련된 물리적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 행성 왕자의 초기 시대에, 그런 본부 도시들, 즉 정착지들은,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매우 다르다. 후세와 비교할 때 이 정착지들은 단순한데, 광물 장식과 비교적 진보된 물질 구조물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동산 본부 주위에 집중되는 아담 체제와는 현저히 다른데, 이 동산 본부로부터 인종들을 위한 그들의 업무는 우주 아들들의 둘째 섭리시대 동안 수행된다.

50:4.3 (575.4) 너희 세계에서 본부 정착지에는, 모든 인간 거주지가 풍부한 땅과 함께 제공됐다. 비록 멀리 있는 부족들이 계속 사냥하고 음식을 찾아다녔지만, 왕자의

학교에 있는 학생과 선생들은 모두 농업과 원예에 종사했다. 시간은 다음과 같은 일들 사이에 거의 똑같이 분배됐다:

50:4.4 (575.5) 1. *육체 노동*. 집을 짓고 장식하는 것과 관련해 땅을 조성함.

50:4.5 (575.6) 2. *사회 활동*. 놀이 실행 및 문화적 사교 모임.

50:4.6 (575.7) 3. *교육적 적용*. 전문화된 계층 훈련으로 보충된, 가족_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적 지침.

50:4.7 (575.8) 4. *직업 훈련*. 결혼 및 가정 설립 학교, 예술 및 공작 훈련 학교, 그리고 선생을 훈련시키기 위한 --세속적, 문화적, 및 종교적-- 학급들.

50:4.8 (575.9) 5. *영적 교양*. 선생 협회, 유년 시대 및 젊은이 집단들의 계몽, 그리고 양자로 삼은 토착민 자녀를 그 민족에게 보낼 선교사로 양성함.

50:4.9 (575.10) 행성 왕자는 필사 존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그의 참모진인 약간물질 존재들의 설명을 믿는 것이 신앙에 대한 시험이다. 그러나 교양과 훈련을 맡은 이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에 잘 맞춰져 있으며, 이 다양한

배움의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사람의 종족들 가운데서 예민하고 칭찬할만한 경쟁이 곧 전개된다.

50:4.10 (575.11) 그런 교양과 성취를 이루는 세계 중심지로부터 온 민족에게, 고양시키고 개화시키는 영향이 점차 퍼져 나가는데, 진화 인종들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형시킨다. 그동안에 주변의 민족들 중에서, 왕자의 학교에서 양자가 되고 훈련을 거친, 교양을 갖추고 영성화된 아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집단으로 돌아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거기서 새롭고도 유능한 배움과 문화의 중심지들을 계속 세우고, 왕자의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해 나간다.

50:4.11 (576.1) 유란시아에서는 행성의 진보와 문화 증진을 위한 이 계획이 잘 진척됐고, 아주 만족스럽게 진행됐는데, 모든 일은, 캘리개스차가 루시퍼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히 갑작스럽고 가장 수치스런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

50:4.12 (576.2) 나와 동일한 계층의 아들신분에 속하는 존재인 캘리개스차의 냉담한 배반을 내가 전해 듣게 된 것은, 이 반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는 궁리 끝에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당시에

운영되던 유란시아 행성 학교 전체에 제공된 지침을 체계적으로 왜곡시켰고, 교훈 속에 독을 섞었다. 이 학교들의 파멸은 신속하고 전면적이었다.

50:4.13 (576.3) 왕자의 물질화 된 참모진과 관련된 상승자들의 자손 중에서 다수는 충성스럽게 남았는데, 캘리개스차의 반열에서 탈퇴했다. 충성스런 이 존재들은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들의 격려를 받았으며, 그들의 후손은 후일에 진리와 정의에 대한 행성 개념들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충성스런 이 복음전도자들이 한 일은, 유란시아에서 영적 진리 전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도움이 됐다. 이 용감한 혼들과 그 후손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지식이 살아남도록 지켰고, 세계 인종들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이 행성에서 연속으로 다스린다는 섭리시대 개념을 보존했다.

5. 점진적 문명화

50:5.1 (576.4) 인간거주 세계의 충성스런 왕자는, 자신이 원래 배정된 행성에 영원히 배속된다. 낙원 아들과 그들의 섭리시대들은 오고갈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행성 왕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영역의 통치자로서 존속한다. 그의

업무는, 더 높은 아들들의 사명으로부터 상당히 독립돼 있는데, 행성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50:5.2 (576.5) 문명의 진보는 어떤 두 행성에서도 전혀 똑같지 않다. 필사자 진화가 전개되는 세부내용은 수많은 다른 세계마다 매우 다르다. 물리적, 지적, 및 사회적 계통에 따른 행성 발달이 이렇게 많이 다양함에도, 모든 진화 구체는 윤곽이_뚜렷한 어떤 방향으로 진보한다.

50:5.3 (576.6) 행성 왕자의 인자한 통치 아래, 물질 아들로 인해 증대되고, 낙원 아들들의 정기적 사명이 끼어들면서, 시간과 공간의 평범한 세계에 있는 필사자 인종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발전적인 시기를 연달아 거치게 될 것이다:

50:5.4 (576.7) 1. *음식물 시대*. 인간이 되기 이전의 피조물과 여명기의 원시 인종들은 주로 먹을거리 문제로 근심한다. 진화하는 이 존재들은, 깨어 있는 자기 시간을, 먹을거리를 찾거나 공격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투쟁하는 일에 소모한다. 먹을거리를 찾는 일은, 이어지는 문명의 이런 초기 선조의 머리 속에서 가장 우선한다.

50:5.5 (576.8)

2. *안전 시대*. 원시 사냥꾼은, 먹을거리를 찾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를 갖게 되는 즉시, 자신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일에 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 싸우는 기법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거주지가 점점 더 보강되고, 공통으로 가진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질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불어넣음으로써, 씨족들이 단결한다. 자아_유지가 해결되면, 자아_보존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50:5.6 (577.1)

3. *물질적으로_안락한 시대*. 먹을거리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후에, 개인의 안락함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여가 시간이 활용된다. 인간의 활동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사치품과 필수품이 경쟁한다. 그런 시대는, 횡포, 아량 없음, 탐욕, 및 방탕함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종들 중에서 열등한 구성원들이 무절제와 잔인성으로 기울어진다. 쾌락을 추구하는 허약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더 강하고 진리를_사랑하는 구성원들에게 서서히 정복된다.

50:5.7 (577.2)

4. *지식과 지혜의 추구*. 먹을거리, 안전, 쾌락, 및 여가 시간은, 문화 발달과 지식 전파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지식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지혜를 가져오고, 어떤 문화가 경험을 얻음으로 어떻게 유익을 얻고 개선하는지를 배우게 될 때, 문명이 실제로 도래한다. 먹을거리, 안전, 및 물질적 안락함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많은 사람이 지식에 굶주리고 지혜를 갈망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행함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교육이 이 시절의 표어다.

50:5.8 (577.3)

5. *철학 및 형제관계의 시기*.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으로 유익을 얻기 시작할 때, 필사자는 철학적인 존재가 된다--그들은 속으로 추론하기 시작하고, 차이를 분별하여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게 되며, 그런 시대의 필사자는 정말로 도덕적 존재가 돼 간다. 현명한 도덕적 존재는, 그런 진보하는 세계에 인간의 형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윤리적 및 도덕적 존재는 황금률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50:5.9 (577.4)

6. *영적 투쟁의 시대*.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육체적, 지적, 및 사회적 발달 단계를 통과하면, 영적 만족과 시공우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도록 재촉하는 개인적 통찰력의 그 수준에 곧 도달한다. 종교는 두려움과 미신의 감정적 범위로부터, 시공우주의 지혜와 개인의 영적 체험이라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을 완성해 간다. 교육은 목적 달성을 열망하고, 문화는 시공우주 관계와 참된 가치를 파악한다. 진화하는 그런 필사자는, 진정으로 교양을 갖췄고, 정말로 숙련됐으며,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_안다.

50:5.10 (577.5)

7. *빛과 생명의 시대*. 이때는 육신적 안전, 지적 확장,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의 시대들이 이어지는 전성기다. 인간의 이런 업적은, 이제 시공우주 통일과 이타적{利他的} 봉사에 혼합되고, 결합되고, 조정된다. 유한한 자연과 물질 재능의 한계 내에서, 진보하는 세대들이 진화로 달성할 가능성에 어떤 제한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 세대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숭고하고 안정된 이 세계를 계승하면서 살아간다.

50:5.11 (577.6) 행성 왕자들은, 세계 역사에서 이어지는 여러 섭리시대와, 행성이 진보하는 진취적 시기들 내내 자신의 구체에서 봉사한 후에,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 행성 주권자 지위로 승진된다.

6. 행성의 문화

50:6.1 (578.1) 유란시아의 격리된 상태가, 사타니아에 있는 너희 이웃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의 공개를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설명을 제시할 때, 우리는 행성이 고립됨으로 인해, 그리고 체계가 격리됨으로 인해 제한 받는다. 우리는 유란시아 필사자를 교화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제역조건들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너희는 평범한 진화 세계의 진보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런 세계의 경력을 유란시아의 현재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50:6.2 (578.2) 유란시아에서 문명의 발달은, 영적으로 격리되는 불운을 겪어온 다른 세계들의 발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주의 충성스런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의 행성은 지적 진보와 영적 달성의 모든 국면에서 가장 혼돈돼 있고 크게 뒤떨어진 것 같다.

50:6.3 (578.3) 너희 행성이 불운을 겪었기 때문에, 유란시아인은 정상 세계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매우 많이 방해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진화 세계들을,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세계조차, 그곳의 생활이 어떤 한가한 꽃밭 같은 구체일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자 인종들의 첫 생애에는 항상 투쟁이 따라온다. 노력과 결단은, 생존 가치를 획득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50:6.4 (578.4) 문화는 정신이 우수할 것을 전제로 하며;문화는 정신이 고상해지지 않으면 증진될 수 없다. 우세한 지능은 고귀한 문화를 추구할 것이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길을 발견할 것이다. 열등한 정신들은, 가장 높은 문화가 준비된_상태로 자신에게 제시돼도, 그것을 경멸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것이 신성한 아들들의 이어지는 사명에 달려있고, 각 섭리시대 동안 그들이 계몽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달려있다.

50:6.5 (578.5) 루시퍼 반역 때문에 20만 년 동안이나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가 노라티아텍의 영적 금지령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죄와 분리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회복하는 데는 긴 시대가 요구된다.

너희 세계는, 반역한 행성 왕자와, 직무에 태만한 물질 아들의 이중적 비극의 결과로, 불규칙적이고 파란만장한 진로를 여전히 계속 따라가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된 것조차, 세상의 초기 경영에서 있었던 이 심각한 실수 때문에 현세에 발생한 결과를, 즉시 해결하지 못했다.

7. 격리에 대한 보상

50:7.1 (578.6) 언뜻 생각하기에는,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 및 딸 같은 그런 초인적 인격체들의 유익한 현존과 영향력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유란시아 및 관련된 격리된 세계들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구체들의 격리는, 그 인종들에게 신앙을 실천하도록, 그리고 시공우주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눈으로 보거나 어떤 다른 물질적 이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이고 뛰어난 신뢰를 개발하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반역의 결과로 고립된 세계들에서 태어난 필사 피조물이 지극히 운이 좋다는 것이 입증될 수도 있다. 우리는, 시공우주의 이행업무에 배정되는 수많은 특별 임무가, 그런 상승자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맡겨지는 것을 발견해

왔는데, 그 이행업무의 성취에는 명백한 신념과 탁월한 확신이 필수적이다.

50:7.2 (579.1) 이런 격리된 세계에서 온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자기들끼리 한 거주 지역을 차지하며, *아곤돈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고, 격리됐을 때 견디며, 홀로 있을 때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는,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을 의미한다. 아곤돈터라는 이 기능적 분류는, 지방우주에서 상승하고 연방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내내 지속되며;하보나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라지지만, 낙원에 도착할 때 즉시 다시 나타나고,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에서 분명하게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완결성취자 신분을 갖는 *아곤돈터*인데,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처음 일어난 반역에 말려든, 어느 고립된 구체에서 생존했다.

50:7.3 (579.1) 낙원 생애 내내,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보상이 노력을 따라다닌다. 그런 보상은 개인을 평균보다 뛰어나게 하고, 특이한 피조물 체험을 제공하며, 완결성취자들의 집합체에서 융통성 있는 궁극적 실행에 기여한다.

50:7.4 (579.1) [예비 단체의 2차 라노난덱 아들이 제시했음]

제51편 행성의 아담

51:0.1 (580.1) 행성 왕자의 섭리시대 동안, 원시인은 자연스런 진화 발달의 한계에 도달하며, 이 생물학적 달성은, 아들신분 가운데 둘째 계층인 생물학적 개량자들을 그런 세계에 보내달라고, 체계 주권자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 아들들은 --곧 물질 아들과 딸로서-- 돌이기 때문에, 행성에는 대개 아담과 이브로 알려진다. 사타니아의 원본 물질 아들은 아담이며, 체계의 세계들에게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가는 자들은, 독특한 그들 계층 중에서 첫째이자 원본인 이 아들의 이름을 항상 지닌다.

51:0.2 (580.2) 이 아들들은 인간거주 세계에게 주는 창조주 아들의 물질적 선물이다. 그들은 행성 왕자와 함께, 그런 구체의 진화 과정 내내, 자신이 배치된 행성에 남는다. 행성 왕자가 주둔하는 세계에서 그런 모험은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배반한 행성, 즉 영적 통치자가 없고 행성 간 소통이 두절된 영역에서는 그런 사명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51:0.3 (580.3)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 그리고 다른 체계들에서 이 아들들이 하는 업무에 관해 너희가 전부 알 수는 없을지라도, 흥미로운 한 쌍, 즉 아담과 이브의 삶과 체험에 대해서 다른 문서들이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인데, 이들은 유란시아 인종들을 증진시키려고, 예루셈의 생물학적 개량자 단체로부터 왔다. 너희 원주민 인종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담의 사명이 무익하지는 않았으며; 유란시아는 아담과 이브라는 선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익을 얻었고,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서, 그리고 높은 곳의 협의회에서는, 그들의 업적이 전부 헛일이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1. 하나님의 물질 아들의 기원과 본성

51:1.1 (580.4) 물질적인, 즉 남녀인 아들과 딸들은, 창조주 아들의 후손이며; 우주 어머니 영은 이 존재들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은 진화 세계들에서 육신의 개량자 역할을 하도록 예정돼 있다.

51:1.2 (580.5) 물질적인 아들신분 계층은 지방우주 전역에서 균일하지 않다. 창조주 아들은 각 지역 체계마다 오직 한 쌍의 이 존재를 산출하며; 원래의 이 쌍은 본성에서

다양한데, 그들 각자 체계의 생명 원형에 맞춰져 있다. 이것은 필연적 규정이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체계든지 거기에 속한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 존재의 번식 잠재력과 아담들의 번식 잠재력이 함께 작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 왔던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들 중에서 원본 사타니아 쌍의 자손이다.

51:1.3 (580.6) 물질 아들은 키가 8피트에서 1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들의 몸은 반짝이는 보라색 빛을 발한다. 그들은 물질적 피가 몸 전체를 흐르는 동시에, 신성한 에너지로도 충전돼 있고, 천상의 빛으로 가득하다. 이 물질 아들과(아담과) 물질 딸은(이브는) 서로 대등한데, 번식 본성에서만, 그리고 특정한 화학적 재능에서만 다를 뿐이다. 그들은 대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르고--따라서 상호보완적이며-- 거의 모든 임무에서 쌍으로 봉사하도록 예정된다.

51:1.4 (581.1) 물질 아들은 이중으로 영양을 섭취하며;본질과 체질에서 정말로 이중적인데, 그 영역의 육신적 존재들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이, 물질화 된 에너지를 섭취하는 한편, 그들의 불멸하는 실존은, 지속시키는 특정한 시공우주

에너지를 직접 자동으로 흡수함으로써 충분히 유지된다. 부여받은 어떤 사명에서 실패하거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이 계층의 아들들은 격리되는데, 빛과 생명의 우주 근원과 연결된 것이 끊어진다. 그들은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물질 존재가 되며, 자신이 배정된 세계에서 물질 생애 과정을 걸어가도록, 그리고 판결받기 위해 우주 재판관들에게 출두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불행하고 어리석은 물질 아들이나 딸의 행성 생애는, 결국 물질적 죽음으로 종료될 것이다.

51:1.5 (581.2) 원래의, 즉 직접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지방우주 아들신분을 갖는 다른 모든 계층과 똑같이, 선천적 재능으로 인해 불멸성을 갖지만,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불멸성 잠재력이 감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의 이 부부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무조건 불멸하는 성질을 전달할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영의 정신_인력 회로와 끊임없이 지적으로 동시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타니아 체계가 시작된 후로, 열세 명의 행성 아담이 반역과 태만으로 손실됐고, 681,204명이 하위의 위탁 직책에서 손실됐다. 이런 변절의 대부분은 루시퍼 반역 때 발생했다.

51:1.6 (581.3) 체계 수도에서는, 영구 시민으로서 사는 동안, 심지어 진화 행성으로 내려가는 사명에서 활약할 때에도, 물질 아들은 사고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지만, 조율사가 내주하고 낙원으로 상승하는 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봉사를 통해서 획득한다. 독특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이 존재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다. 그들은 체계 본부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 영역의 물질 시민으로서 자녀를 낳고 계속 살아가며, 거기로부터 진화 세계로 파송된다.

51:1.7 (581.4) 행성 봉사에 참여하는 다른 피조 아들과와는 달리, 아들신분의 물질 계층은 본질적으로 유란시아 거주자 같은 물질 피조물의 눈에 보인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시간세계의 피조물과 실제로 섞일 수 있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향상시키는 이 역할은 대개 행성 아담들의 자손에게 맡겨진다.

51:1.8 (581.5) 예루셈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충성스런 자녀마다 불멸성을 갖지만, 물질 아들과 딸이 진화 행성에 도착한 후에 출산한 후손은, 자연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생식{生殖} 활동을 위해 이 아들이 진화 세계에서 다시 물질화 될 때, 생명_전달 장치에 변화가 발생한다. 죽지 않는 아들과 딸들을 낳는 능력을,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서 생명 운반자들이 고의로 뺏는다. 태만하지 않는다면, 행성 사명을 띤 아담과 이브는 무기한으로 살 수 있지만, 어떤 한도 내에서 그들의 자녀는 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한다.

2. 행성 아담의 운반

51:2.1 (582.1) 또 하나의 인간거주 세계가 물리적 진화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체계 주권자는 체계 수도의 물질 아들과 딸 단체를 소집하며;그런 진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토의한 후에, 자원하는 집단 가운데 두 명이--곧 물질 아들들 중에서 선임 단체에 속한 한 명의 아담과 한 명의 이브가-- 모험을 이행하도록 선택되는데, 연합된 봉사를 하던 자기 고향으로부터,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험이 있는 새 영역으로 운송되도록 준비하면서, 스라빔에 둘러싸이고 깊은 수면{睡眠} 속으로 들어간다.

51:2.2 (582.2) 아담과 이브들은 약간물질 피조물이며, 그런 상태로는 스라빔이 운반할 수 없다. 그들은 배정된 세계로

운반되도록 스라빔에 둘러싸일 수 있기 전에, 체계 수도에서 비물질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운송 스라빔은, 물질 아들들에게 그리고 다른 약간물질 존재들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들로 스라빔에 둘러싸이게 하고, 그리하여 한 세계 또는 체계에서 다른 곳으로, 공간을 통해서 운송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운송 준비에 표준시간으로 3일이 소요되며, 비물질화 된 그런 피조물이 스랍_운송 여행을 끝내고 도착해서 정상 실존으로 재생되는 일에는, 생명 운반자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51:2.3 (582.3) 예루셈에서 진화 세계로 운반되도록 아담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비물질화 기법이 있지만, 그 행성 전체를 비워야 할 경우 외에는, 그런 세계들로부터 그들을 데려가는 대등한 다른 방법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전체 인구를 위해서, 비물질화 기법의 응급 설비가 만들어진다. 진화하는 인종의 행성 거주지에 어떤 물리적 대 참사가 일어난다면, 멜기세덱들과 생명 운반자들은 모든 생존자를 위해서 비물질화 기법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 존재들은 자신의 계속적인 실존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세계로 스랍 운송을 통해서 옮겨질 것이다. 인간 종족의 진화는, 공간에 있는 한 세계에서 일단 시작되고

나면, 그 행성이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과는 아주 별개로
진행돼야만 하지만, 진화하는 시절에는 행성 아담이나
이브가 자신이 선택한 세계를 떠나도록 달리 예정돼 있지
않다.

51:2.4 (582.4) 목적지인 행성에 도착하게 되면, 물질 아들과 딸은
생명 운반자들의 지시 하에 다시 물질화 된다. 이 전체
과정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0일내지 28일이 소요된다.
스랩 속에 잠들어있는 동안의 무의식 상태는, 재구성되는
이 전체 기간에 지속된다. 물리적 유기체의 재구성이
완성되면, 어느 면으로 보나, 이 물질 아들과 딸은 그들이
예루셈에서 비물질화 과정을 따르기 전의 상태 그대로,
그들의 새로운 집에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세상에 임하게
된다.

3. 아담의 사명

51:3.1 (582.5) 물질 아들과 딸은, 인간거주 세계에 자신의 동산
주택을 세우는데, 곧 자기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대개
행성 왕자가 동산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의 육체전환
참모진은, 원주민 인종들 중에서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대부분의 사전{事前} 예비작업에 참여한다.

51:3.2 (583.1) 이 에덴 동산은 성좌의 수도 에덴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고자 아버지들의 본부 세계의 장엄한 식물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된다. 그런 동산 주택은 대개 회귀선_근처 지대의 한적한 지방에 위치한다. 그 주택은 평범한 세계에서 볼 때 경이로운 창작품이다.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진행되던 그런 이행업무의 중단에 관한 단편적 설명을 듣고서는 이 아름다운 문화 중심지에 대해 전혀 판단할 수 없다.

51:3.3 (583.2) 잠재력으로 볼 때, 행성 아담과 이브는 필사 인종들에게 온전히 베푼 육체적 은혜의 선물이다. 외계에서 들어온 그런 한 쌍의 주요 업무는, 번식하는 것과, 시간세계의 자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산의 민족과 세상의 민족이 즉시 피를 섞지는 않으며;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계층에 속하는 강력한 인종을 이룩할 때까지 여러 세대 동안, 진화 필사자로부터 생물학적으로 격리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인간거주 세계에서 보라색 인종의 기원이다.

51:3.4 (583.3)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진이 인종 증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아담과 이브가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너희의 물질 아들과 그의 반려자가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크게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캘리개스차는 아담의 사명에 교활하고 효과적인 저항을 시도했으며;반역하는 행성 왕자의 출현에 내재된 행성 위험상태에 관해서,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아담과 이브 두 사람에게 이미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이 반역의 원흉은 교활한 계략으로 에덴 부부의 허를 찔렀고, 그들을 뒷에 걸리게 해서, 너희 세계의 가시적 통치자들로서의 위탁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반역한 행성 왕자는 너희의 아담과 이브와 타협하는 일에 성공했지만, 그들을 루시퍼 반역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서는 실패했다.

51:3.5 (583.4) 행성 도우미인 다섯째 계층의 천사들이 아담의 사명에 배속되는데, 행성 아담들이 세계 모험에 임할 때 반드시 동행한다. 처음에 배정된 단체는 대개 약 10만 명이다.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업무가 조급하게 시작됐을 때, 즉 그들이 규정된 계획에서 이탈했을 때, 비난받을만한 그들의 품행에 관해서 그들을 꾸짖은 자는,

동산의 소리 스랍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너희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주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너희 행성의 전승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란시아인은 이것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의 본성에 관해 자주 혼동해 왔는데, 그분의 모든 동역자와 하급자의 말과 행위가 너무나 전반적으로 그분 탓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 동산의 천사는 행성 도우미들의 우두머리로서 그때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스라빔 솔로니아가 신성한 계획의 실패를 선언했으며,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51:3.6 (583.5) 2차 중도 피조물은 아담의 사명에서 생겨나는 존재다.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과 함께 함으로써,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은:그들의 육신적 자손과 2차 계층의 중도 피조물, 이 두 계층으로 이뤄진다. 물질적이지만 대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 사역자들은, 문명의 진보에, 그리고 심지어 사회적 발전과 영적 진보를 파괴하려고 애쓸 수 있는 반항하는 소수 무리들을 굴복시키는 데에도, 많이 기여한다.

51:3.7 (583.6) 2차 중도자들은 1차 계층과 혼동돼서는 안 되는데, 후자는 행성 왕자가 도착할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이 초기 중도 피조물 가운데 대다수가 캘리개스차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으며, 오순절 이래 억류돼 있다. 행성 경영에 충성하기를 거부했던, 아담의 집단 가운데 다수 역시 비슷하게 억류돼 있다.

51:3.8 (584.1) 오순절 날에, 충성스런 1차 및 2차 중도자들은 자발적으로 합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계속, 세계 직무에서 한 단체로 활동해 왔다. 그들은 두 집단에서 교대로 선택되는 충성스런 중도자의 통솔 하에 봉사한다.

51:3.9 (584.2) 너희 세계에는: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하나님의 물질 아들인 아담과 이브;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의 현자{賢者}”인 마키벤타 멜기세덱;그리고 낙원 증여 아들로써 왔던 그리스도 미가엘, 이렇게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네 계층이 방문했다. 네바돈 우주의 최고 통치자인 미가엘이, 충성스럽고 유능한 행성 왕자와, 헌신되고 성공적인 물질 아들, 즉 증여된 아들의 필생의 사업과 사명을 매우 많이 증진시킬 수 있는 이 두 존재의 환영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아름다웠을까! 그러나 모든 세계가 유란시아처럼 불행했던 것은 아니며, 또한 행성 아담들의 사명이 항상 그토록 어렵고 위험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성공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민족이 발달되도록 기여하는데, 눈에 보이는 행성 직무 우두머리로서, 한 세계가 빛과 생명에 안주하는 그 시대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존재한다.

4. 진화하는 여섯 인종

51:4.1 (584.3) 인간거주 세계의 초기 시절에 우세한 인종은 홍색인인데, 그들은 대개 인간 발달 수준을 제일 먼저 달성한다. 그러나 홍색인이 행성의 선임 인종이지만, 그 뒤를 있는 유색 민족들은 필사자가 출현하는 시대에 아주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51:4.2 (584.4) 초기 인종들이 후기 인종들보다 어느 정도 뛰어나며;홍색인은 남색--곧 흑색--인종보다 훨씬 앞에 있다. 생명 운반자들은 살아있는 에너지를, 첫 인종, 즉 홍인종에게 충분히 나눠주며, 이어지는 별개의 필사자 집단들이 각각 진화해서 출현하는 것은, 원래의 자질을 희생시킴으로 얻는 변화를 의미한다. 필사자의 키조차

홍색인에서 남색 종족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거인{巨人} 혈통들이 녹색 민족과 주황색 민족 가운데서 나타났었다.

51:4.3 (584.5) 여섯 진화 인종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에서는, 첫째, 셋째, 및 다섯째 인종이--곧 홍색, 황색, 및 청색 인종이-- 우세하다. 진화 인종들은 지적 성장과 영적 발달을 위한 수용력이 그렇게 교차하는데, 둘째, 넷째, 및 여섯째는 어느 정도 덜 부여받았다. 이 2차 인종들은 어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며;많은 다른 세계에서 이미 멸종됐다. 유란시아에서 우세한 청색인이 너무 많이 손실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행히 혼혈된 “백인종” 속에 남아있다. 주황색과 녹색 혈통의 손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바 못 된다.

51:4.4 (584.6) 여섯--또는 세-- 유색 인종의 진화는, 홍색인의 원래 자질을 저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사자 유형에 매우 바람직한 어떤 변이를 제공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다양한 인간 잠재성이 표현되도록 마련한다. 이런 여러 변경은, 외계에서 들어온 아담 인종, 즉 보라색 인종이 나중에 이를 증진시킨다면, 전체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유익하다. 유란시아의 경우에, 이 평범한 혼합 계획이 광범하게 수행되지 못했으며, 인종 진화 계획을 수행하기에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 세계에서 이 초기 인종들의 후손을 관찰한다 해도, 인간이 거주하는 보통 행성에서 이 민족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희가 도무지 많이 이해할 수 없게 됐다.

51:4.5 (585.1) 인종이 발달하는 초기 시절에, 홍색, 황색, 및 청색 사람의 피가 섞이는 경향이 약간 있으며;주황색, 녹색, 및 남색인종이 서로 섞이는 비슷한 경향이 있다.

51:4.6 (585.2) 뒤떨어진 인간들은 대개 더 진취적인 인종들에게 노동자로서 채용된다. 이것이 초기 시대에 여러 행성에서 노예제도의 기원을 설명한다. 주황색 사람들은 대개 홍인종에게 정복됐고 하인 신분으로 격하된다--때로는 멸절된다. 황색인과 홍색인은 종종 화목을 이루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황인종은 대개 녹색인종을 노예로 삼는 반면, 청색인은 남색인을 정복한다. 이 원시 인종들은, 자신보다 뒤떨어진 동료들의 힘을 강제노동에 사용하는 것을, 유란시아인이 말이나 가축을 거래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51:4.7 (585.3) 대부분의 정상 세계에서, 본의 아닌 강제노동은 행성 왕자의 섭리시대에 살아남지 못하지만, 정신 장애자와 사회적 비행{非行}을 저지른 자들은 강제 노동을 하도록 여전히 종종 강요된다. 그러나 모든 정상 구체에서 이런 종류의 원시 노예제도는, 외계에서 들어온 보라색 인종, 즉 아담 인종이 도착한 후에 곧 폐지된다.

51:4.8 (585.4) 진화하는 이 여섯 인종은, 아담 개량자들의 자손과 융합함으로써 섞이고 고양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섞이기 전에, 열등하고 부적합한 자들은 대부분 제거된다.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이, 다른 적절한 행성 당국과 함께, 번식하는 혈통들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그런 급진적 계획표가 유란시아에서 수행되기 어려운 것은, 각 개인이 생물학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능한 심판관들이 너희 세계 인종 가운데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침돌이 있음에도, 아주 두드러지게 부적합하고, 결함이 있고, 퇴화되고, 반사회적인 혈통들을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데 너희가 동의할 수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5. 인종 혼합--아담의 피 증여

51:5.1 (585.5) 행성 아담과 이브가 인간거주 세계에 도착할 때, 그들은 현존하는 인종들의 지적 존재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상관들로부터 충분히 교육 받았다. 진행 계획은 획일적이지 않으며;대부분은 사역하는 쌍의 판단에 맡겨지는데, 특히 유란시아 같은 무질서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계의 경우에는, 실수가 종종 발생된다.

51:5.2 (585.6) 보라색 인종은 대개, 자체 집단이 100만 명을 넘기 전에는 행성 원주민과의 혼혈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에 행성 왕자의 참모진은, 이를테면, 하나님들의 자녀들이 사람의 인종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선언하며;우수한 인종적 혈통에 속함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새롭고 혼합된 인류 계층의 진화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들로서,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선포될 그날을 애타게 기다린다.

51:5.3 (585.7) 정상적인 세계에서,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진화 인종과 결코 짝짓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개선시키는 이 업무는 아담의 후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아담족속이 그

인종들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않으며;아담의 후손과 자발적으로 짝질 수 있도록, 우세한 남녀들을 왕자의 참모진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에서는, 동산의 아들 및 딸과 결혼할 수 있는 후보자로 뽑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51:5.4 (586.1) 종족간 전쟁 및 기타 부족간 투쟁이 처음으로 줄어들며, 한편 세계 인종들은 동산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고 더욱 애쓴다. 정상적인 행성에서 이런 경쟁적인 노력이 어떻게 모든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는지, 너희는 기껏해야 아주 미약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인종을 개량하는 이 전체 짜임새가 유란시아에서는 일찍부터 망가졌다.

51:5.5 (586.2) 보라색 인종은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민족이며, 아담의 아들 및 딸과 결합한, 진화하는 각 남자 또는 여자는, 다른 배우자를 취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의 또는 그녀의 자녀에게 한 번만 결혼하도록 가르치기로 맹세한다. 이렇게 결합한 각 자녀는, 행성 왕자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그 다음에는 진화하는 자신의 부모

인종에게로 가서, 거기서 선택된 집단의 우세한 필사자 가운데서 결혼하도록 허용된다.

51:5.6 (586.3) 물질 아들들의 이 혈통이, 세상의 진화하는 인종들에게 덧붙여졌을 때, 진화로 진보하는 더 위대한 새 시대가 시작된다. 외계에서 들어온 능력, 그리고 진화를 초월하는 특징이 이런 번식 방법으로 부여된 후에, 문명과 인종 발달에서 일련의 급속한 진전이 계속 일어나며;이전에 100만 년 동안의 투쟁보다 더 큰 진보가 10만 년 내에 이뤄진다. 너희 세계의 경우에, 심지어 예정된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너희 민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후에, 위대한 진보가 이뤄져 왔다.

51:5.7 (586.4) 그러나 행성의 에덴 동산에서 순수 혈통 자손이, 여러 진화 인종 중에서 우수한 구성원들에게 자신을 증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인류의 생물학적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유란시아 필사자들 중에서 높은 혈통이 저급한 인종과 짝짓는 것은 유익하다고 판명되지 않을 것이며;그런 현명치 못한 과정은 너희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아담의 기법으로

인종의 조화를 성취하기에 실패했으므로, 너희는 이제 인종 개선에 대한 너희 행성의 문제에서, 적응과 통제라는 다른 방법, 그리고 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6. 에덴의 체제

51:6.1 (586.5) 대부분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에덴 동산은 우수한 문화 중심지로서 남아있으며, 행성의 운영 및 관례의 사회적 원형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작용한다. 심지어 보라색 민족들이 상대적으로 격리된 초기 시대에도, 그들의 학교는 세계 인종들로부터 합당한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동산의 산업 발달은 새로운 무역 경로를 개설한다.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 및 그 후손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진화 인종들의 갑작스런 문화적 팽창과 급속한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진화 인종들과 아담의 아들들이 혼합됨으로써 증대되고 안정되는데, 그 결과로 생물학적 상태가 즉시 개선되고, 지성 잠재력이 갱생{更生}되며, 영적 감수성이 증진된다.

51:6.2 (586.6) 정상적인 세계의 경우에, 보라색 인종의 동산 본부는 세계 문화의 2차 중심지가 되며, 행성 왕자의 본부 도시와 공동으로,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를 정한다. 행성 왕자의 도시 본부에 있는 학교,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가, 여러 세기 동안 함께 존재한다. 그 학교들은 대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조화롭게 협동하면서 함께 일한다.

51:6.3 (587.1) 중단되지 않고 3만7천 년 동안 작동해 온, 문명의 세계적 중심지, 즉 어떤 위대한 행성 문화 대학이 레반트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것이 너희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또한, 통합된 진화 영향력이 50만 년 동안 누적된 힘을 발휘했을지도 모를 그런 전통을 가진 본부, 천상의 사역을 베푸는 또 하나의 더 오래된 본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면, 그런 고대의 중심지라도 그 도덕적 권위가 얼마나 힘을 받게 됐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라. 결국 에덴의 이상{理想}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것은 바로 관습이다.

51:6.4 (587.2) 행성 왕자의 학교는, 철학, 종교, 도덕, 그리고 고귀한 지적 및 예술적 성취에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아담과 이브의 동산 학교는 대개, 실용 예술, 기초 지력{知力} 훈련, 사회적 문화, 경제 발전, 무역 관계, 물리적 효율성, 그리고 국내 정치에 전념한다. 이 세계 중심들이 결국 혼합되지만, 이런 실제 합병은 때때로 첫 집정관 아들의 시대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51:6.5 (587.3) 행성 아담과 이브가 계속 실존하는 것은, 보라색 인종의 순수_혈통 핵심과 함께, 에덴의 문화가 안정된 성장을 이루게 하며, 그 덕택으로 그들의 실존은 전통이라는 강제적 힘으로 한 세계의 문명에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불멸하는 이 물질 아들과 딸들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필수불가결한 마지막 연결고리와 마주치는데, 영원한 창조주와 시간세계의 가장 낮은 유한 인격체들 사이의, 거의 무한한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 높은 곳에서 기원된 존재가 여기 있고, 그는 육체를 가졌고 물질적이며, 심지어 유란시아 필사자처럼 남녀 구별이 있는 피조물, 즉 눈에 안 보이는 행성 왕자를 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그 영역의 필사 피조물에게 그의 말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자인데, 물질 아들과 딸은 영 존재 가운데 비교적 낮은 계층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그들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행성
왕자 및 그의 전체 참모진을 본다.

51:6.6 (587.4) 여러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자손이 사람의
인종들과 혼합됨으로써, 바로 이 물질 아들과 딸은, 인류의
공통 조상, 즉 진화 인종들 중에서 이제 피가 섞인 후손의
공통 부모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시작된 필사자들은, 일곱 명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체험을
갖도록 예정돼 있다:

51:6.7 (587.5) 1. 생물학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51:6.8 (587.6) 2. 그 영역의 아버지 --행성 아담.

51:6.9 (587.7) 3. 구체들의 아버지 --체계 주권자.

51:6.10 (587.8) 4. 지고자 아버지 --성좌 아버지.

51:6.11 (587.9) 5. 우주 아버지 --창조주 아들 및 그 지역 창조물의
최고 통치자.

51:6.12 (587.10) 6. 초월_아버지들 --연방우주를 통치하는 태고
항존자들.

51:6.13 (587.11) 7. 영 아버지, 즉 하보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낙원에 거하시고, 온갖 우주에 사는 낮은 피조물의 정신 속에서 살면서 일하도록 자신의 영을 증여하시는 분.

7. 연합된 경영

51:7.1 (587.12) 낙원의 아보날 아들들이 사법적 조치를 위해 때때로 인간거주 세계에 오지만, 집행관 사명을 띤 첫 아보날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넷째 섭리시대를 연다. 이 집행관 아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어떤 행성에서, 그는 한 시대 동안 남아있으며;따라서 그 행성은 세 아들:즉 행성 왕자, 물질 아들, 및 집행관 아들의 공동 통치 하에 번영하는데, 마지막 두 존재는 그 영역의 모든 거주자의 눈에 보인다.

51:7.2 (588.1)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세계에서, 첫 집행관 아들이 자기 사명을 완료하기 전에,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의 교육 및 경영 업무의 합동이 실행돼 왔다. 행성에서 이중 감독이 이렇게 융합되면, 새롭고 효과적인 체제의 세계 경영이 실존하게 된다. 행성 아담은, 집행관 아들이 물러남에 따라서, 그 구체의 외부로 향한 지휘를 맡는다.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세계가 빛과 생명에 안주할 때까지, 행성

경영인으로서 공동으로 그렇게 행동하며;그렇게 되면, 행성 왕자는 행성 주권자 지위로 승진된다. 이렇게 진화가 진보하는 시대 동안, 아담과 이브는, 영화롭게 된 그 영역의 공동 총리{總理}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된다.

51:7.3 (588.2) 진화하는 세계의 새롭고 통합된 수도가 잘 수립되자마자, 그리고 유능한 하급 경영자들이 적당하게 훈련 받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멀리 있는 땅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 변방수도들이 건설된다. 또 다른 섭리시대의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50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이 하위{下位} 중심지가 조직될 것이다.

51:7.4 (588.3)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진은 영적 및 철학적 활동 분야를 여전히 돌본다. 아담과 이브는 그 영역의 물리, 과학, 및 경제 상태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다. 두 집단 모두, 예술, 사회 관계, 및 지적 성취의 증진에 에너지를 똑같이 분배한다.

51:7.5 (588.4) 세계 직무의 다섯째 섭리시대가 시작될 때가 되면, 행성 활동에 대한 장엄한 경영이 성취될 것이다. 잘_관리되는 그런 구체에 있는 필사자 실존은 정말로 활기를 띠고 유익하다. 그리고 유란시아인이 그런

행성에서 생애를 관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세계가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었는지, 즉시 알아보게 될 것이다.

51:7.6 (588.5) [예비단체의 2차 라노난덱 아들이 제시했음]

제52편 행성 필사자의 획기적 시대

52:0.1 (589.1) 진화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된 후부터, 빛과 생명에서 최종적으로 변창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활동 무대에는 인간 생애와 관련하여 최소한 일곱 시기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이 시대는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 사명에 따라서 결정되며, 평범한 인간거주 세계의 경우에 이 획기적 시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52:0.2 (589.2) 1. 행성 왕자_이전{以前}의 사람.

52:0.3 (589.3) 2. 행성 왕자_이후{以後}의 사람.

52:0.4 (589.4) 3. 아담_이후의 사람.

52:0.5 (589.5) 4. 집정관 아들_이후의 사람.

52:0.6 (589.6) 5. 증여 아들_이후의 사람.

52:0.7 (589.7) 6. 교사 아들_이후의 사람.

52:0.8 (589.8) 7. 빛과 생명의 시대.

52:0.9 (589.9) 공간의 세계들은, 물질적으로 생명체에 적합하게 되자마자, 생명 운반자들에게 등록되며, 때가 되면 이 아들들이 생명체를 창시할 목적으로 그런 행성에 파송된다. 생명체가 시작된 때부터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전체 기간은 인간 이전 시대로 구분되며, 본 문서에서 고려될 이어지는 여러 필사자 시기보다 앞선다.

1. 원시인

52:1.1 (589.3) 사람이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는 시기부터--곧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의지를 가진 필사 피조물을 *원시인*{原始人}이라고 부른다. 원시인에는 여섯 가지 기본 유형, 즉 인종들이 있으며, 초기의 이 사람들은 스펙트럼 색조의 순서에 따라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홍색부터 시작한다. 이 초기 생명 진화에 소요되는 시간 길이는

세계마다 크게 다른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15만년부터 100만 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52:1.2 (589.4) 진화하는 유색{有色} 인종은--곧 홍색, 주황색, 황색, 녹색, 청색, 및 남색 인종은-- 대략적으로 원시인이 간단한 언어를 발전시킬 때,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사람은 이 무렵에 똑바로 서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

52:1.3 (589.5) 원시인은 대단한 사냥꾼이고 사나운 투사{鬪士}다. 이 시대의 법칙은 육체적 적자생존{適者生存}이며;이 시대의 정치 체제는 전적으로 부족{部族} 중심이다. 많은 세계의 경우에, 유란시아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초기의 인종적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진화 인종들 가운데 일부가 멸종된다. 살아남은 종족은 대개, 나중에 외계에서 들어오는 보라색 인종, 즉 아담의 민족들과 그 후에 섞인다.

52:1.4 (589.6) 차후의 문명에 비춰볼 때, 이 원시인 시대는 길고 어두우며 피로 물든 부분이다. 밀림 지대의 윤리와 원시림의 도덕은, 계시된 종교 및 높은 영적 발전이 있는 후기 섭리시대의 규범과 어울리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실험 세계가 아닌 여러 세계에서 이 시기는, 유란시아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었던, 길고 유별나게 혹독한 투쟁과는 매우 다르다. 너희가 첫 세상 경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이 길고 고통스런 투쟁이 진화 세계에서 왜 일어나는지 비로소 보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낙원으로 가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동안, 외견상 생소한 이 행위의 지혜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출현한 초기 시대의 모든 흥망성쇠에도, 원시인의 업적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의 연대기{年代記}에서 찬란하고, 심지어 영웅적인 부분을 나타낸다.

52:1.5 (590.1) 초기에 진화하는 사람은 유색 피조물이 아니다. 이 원시 필사자는 대개 동굴에 거주하거나 절벽에서 산다. 그들은 큰 나무에 조잡한 오두막을 짓기도 한다. 그들이 높은 지성 체제를 획득하기 전에는, 큰 유형의 동물이 행성을 지배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필사자는 이 초기 시대에 불을 피우고 유지하기를 배우며, 진화하는 사람은 독창적인 상상력이 증가하고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비교적 크고 더 다루기 힘든 동물을 곧 정복한다. 또한 초기 인종들은, 날아다니는 큰 동물을 광범하게 활용한다. 이 거대한 새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보통_크기 사람을 쉬지

않고 500마일 이상 운반할 수 있다. 어떤 행성에서 이 새는 높은 계층의 지성을 지니기 때문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종종 그 영역의 언어 가운데 여러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 새는 가장 지성적이고, 매우 유순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애롭다. 그런 여객용 새는 유란시아에서 사라진지 오래 됐지만, 너희의 초기 조상은 이 새들의 도움을 받았다.

52:1.6 (590.2) 사람의 윤리적 판단, 즉 도덕적 의지를 습득하는 것은, 대개 초기의 언어가 출현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인간 수준이 달성되면, 필사자 의지가 이렇게 출현한 후에, 이 존재들은 신성한 조율사의 일시적 내주{內住}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생존자로서 정당하게 선택되고, 그 다음의 부활과 영 융합을 위해서 천사장들의 인가를 받는다. 천사장들은 항상 행성 왕자와 함께 오며, 그 영역의 섭리시대 판결은 왕자가 도착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52:1.7 (590.3)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는 모든 필사자는 잠재적 경배자이며; “참 빛을 받았고”, 신성{神性}과 갖는 상호 접촉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원시인의

초기 종교, 즉 생물학적 종교는, 주로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부족의 미신이 가미된 동물적 두려움이 지속된 것이다.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미신이 살아 있는 것은, 너희의 진화 발달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진보의 다른 측면에서 너희가 이론 훌륭한 업적과 양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초기에 있던 이 두려움의 종교는, 이 원시 피조물의 불같은 기질을 진압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두려움의 종교는 문명화의 선구자이며, 나중에 행성 왕자와 그의 사역자들이 계시 종교의 씨앗을 심는 토양이다.

52:1.8 (590.4) 사람이 직립{直立}을 습득한 때로부터 10만 년 이내에 행성 왕자가 도착하는 것이 상례인데,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발달했더라도,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생명 운반자들의 보고에 따라서 체계 주권자가 파송한다. 원시 필사자는 대개, 행성 왕자와 눈에 보이는 그 참모진을 환영하며;사실, 필사자들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만류하지 않는다면 경배하려고까지 한다.

2. 행성 왕자_이후의 사람

52:2.1 (591.1) 행성 왕자의 도착과 함께, 새로운 섭리시대가 시작된다. 땅 위에 정부가 태어나고, 진보된 부족의 시기에 도달한다. 이 체제가 유지되는 수천 년 동안, 위대한 사회적 진보가 이뤄진다. 정상 상황 하에서, 필사자는 이 시기에 높은 상태의 문명에 도달한다. 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야만 상태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거주 세계의 생명체가 반역으로 인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정상 행성에 있는 그런 체제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알 수 없다.

52:2.2 (591.2) 이 섭리시대의 평균 길이는 약 50만 년인데, 더러는 이보다 길고, 더러는 이보다 짧다. 이 시기 동안, 그 행성은 체계 회로에서 안정되며, 할당된 숫자의 스랍 및 다른 천상의 도우미 전체가 그 경영에 배정된다. 사고 조율사가 점점 더 많이 도래하고, 스랍 수호자들은 자신의 필사자 감독 체제를 확장시킨다.

52:2.3 (591.3) 행성 왕자가 원시 세계에 도착할 때, 두려움과 무지로 가득한 진화 종교가 널리 퍼져있다. 왕자와 그의 참모진은, 더 높은 진리와 우주 조직에 관한 첫 계시를 제공한다. 처음 제시된 이 계시 종교는 매우 단순하며, 대개

지역 체계 직무에 국한돼 있다. 행성 왕자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종교는 온전히 진화하는 과정이다. 종교는, 그 후에 진화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누적되는 계시로 인해 진보한다. 각 섭리시대, 각 필사자 시기에, 확대된 관념의 영적 진리와 종교적 윤리가 나타난다. 한 세계의 거주민 가운데서 종교적 수용 능력이 얼마나 진화하느냐가, 대체로 그들의 영적 발전 속도와 종교적 계시의 범위를 결정한다.

52:2.4 (591.4) 이 섭리시대에 영적 여명기가 이뤄지며, 다른 인종들 및 그들의 다양한 부족이, 전문화된 체계의 종교적 및 철학적 사고{思考}를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인종적 종교 전반에 두 계통이 균일하게 흐르는데:원시인의 초기 두려움과, 행성 왕자의 후기 계시들이다. 어떤 면에서, 유란시아인은 행성 진보의 이 단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이 연구를 추구함에 따라, 진화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평범한 과정에서 너희 세계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더 분명히 식별하게 될 것이다.

52:2.5 (591.5) 그러나 행성 왕자는 “평화의 왕자”가 아니다. 인종 간 투쟁과 부족 간 전쟁이 이 섭리시대 동안 계속되지만, 횡수와 격렬함은 줄어든다. 이때는 인종이 확산되는 중대한 시대이며, 격렬한 민족주의 시대가 절정에 달한다. 부족끼리 그리고 민족끼리 무리 짓는 기초는 피부색이며, 인종마다 다른 언어를 발달시키곤 한다. 확장하는 각 필사자 집단은 격리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리는 많은 언어가 생겨남으로써 촉진된다. 여러 인종이 통합되기 전에, 그들의 잔인한 전쟁은 때로 전체 민족의 소멸을 초래하기도 하며; 주황색과 녹색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멸{死滅}에 해당된다.

52:2.6 (591.6) 보통 세계들에서, 왕자의 통치 가운데 후반부에, 국가 생활이 부족 조직을 대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존의 부족 집단 위에 겹쳐지게 된다. 그러나 왕자의 시기의 위대한 사회적 업적은 가족생활의 출현이다. 이전까지는 인간관계가 주로 부족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정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52:2.7 (591.7) 이때는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섭리시대다. 어떤 행성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 있으며; 다른

행성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이 시대에 정상적인 세계들은 완전한 남녀평등을 이룩하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상{理想}을 더욱 실현하게 되는 예비단계다. 이때가 가정의 황금기의 시작이다. 부족 통치 관념은, 국가 생활과 가족생활이라는 이중 개념에게 점점 길을 내준다.

52:2.8 (592.1) 이 시기에 농업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족 관념의 성장은, 방랑하고 불안정한 사냥꾼 생활과 양립할 수 없다. 안정된 거주지와 땅을 경작하는 풍습이 점차 수립된다. 동물 길들이기와 가사{家事} 발달이 신속히 진행된다. 생물학적 진화가 정상{頂上}에 도달함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문명이 달성되지만, 기계가 활용되는 체제는 거의 발달되지 않으며;발명은 이어지는 시대의 특징이다.

52:2.9 (592.2)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인종들은 순화되고, 육체는 완전해지며, 지력{知力}은 높은 상태로 올라간다. 정상적인 세계의 초기 발달은, 높은 유형의 필사자의 증가와, 낮은 유형의 필사자의 균형 잡힌 감소를 촉진시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크게 도움 받는다. 너희의 초기 민족들이 이 유형들 사이를 이처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불완전하고 퇴보된 개인들이 존재하게 됐다.

52:2.10 (592.3) 왕자의 시대의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는,
정신적으로 결함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인이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한 것이다. 두 번째 아들인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대부분의 세계는 인종을
정화{淨化}하는 과제에 심각하게 착수했는데, 유란시아
사람들은 아직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

52:2.11 (592.4) 인종을 개선하는 이 문제는, 인간 진화에서 이런
초기 시대에 착수했을 때에는 그렇게 광범한 작업이
아니다. 인종이 생존하려고 부족끼리 싸우고 역센 경쟁이
있었던 앞선 시대가,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종족들
대부분을 제거했다. 원시적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부족
사회 조직에서, 바보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진화하는 인간 혈통 중에서 희망 없는 종족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존속시키는 것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게 된 너희
문명의 잘못된 감상주의다.

52:2.12 (592.5) 퇴보된 인간, 즉 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인간에게 쓸데없는 연민을 기울이는 것은, 애정이

아니고 이타주의도 아니다. 가장 정상적인 진화 세계들에서도, 진화하는 인류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퇴보된 종족들을 존속시키지 않으면서, 이타적 감상과 비이기주의적 필사자 사역을 하는 모든 고귀한 특징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수많은 사회 집단 사이에 충분한 차이가 존재한다. 자신의 도덕적 유산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하고, 자신의 영적 권리를 영원히 파괴당한, 불운하고 가난한 개인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고 이타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3. 아담_이후 사람

52:3.1 (592.6) 진화하는 생명체의 원래 추진력이 자체의 생물학적 과정을 마쳤을 때, 동물이 발달하는 정점에 사람이 도달했을 때, 아들신분의 둘째 계층이 도착하며, 은혜와 보살핌의 둘째 섭리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은 모든 진화 세계에 해당된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진화 생명체에 도달했을 때, 원시인이 생물학적 척도에서 가능한 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물질 아들과 딸이 그 행성에 반드시 나타나는데, 체계 주권자가 파송한다.

52:3.2 (593.1) 사고 조율사가 아담 이후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증여되며, 나중에 조율사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이 필사자의 숫자가 끊임없이 증가한다. 아담은,
하강하는 아들로써 활약하는 동안,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지만, 그의 --직계 및 혼혈-- 행성 자손은, 때가 되면, 신비
관찰자를 받아들일만한 합당한 후보자가 된다. 아담_이후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그 행성은 배정받은 숫자대로
천상의 사역자들을 소유하게 되며;오직 융합하는
조율사만 아직 보편적으로 증여되지 않는다.

52:3.3 (593.2) 사냥꾼 및 목자{牧者}의 문명 단계에서, 농업 및
원예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완성하도록, 진화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담 체제의 1차 목적인데, 이
단계는 문명에 부수되는 도시 및 산업의 출현으로 나중에
보충된다. 생물학적 개량자들이 활동하는 10,000년의 이
섭리시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들의 공동 지혜로 말미암는 그런 경영을
25,000년 동안 거치면, 그 구체는 대개 집정관 아들이
도래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는다.

52:3.4 (593.3) 이 시대에는 대개, 부적합한 자들을 제거하는 일이 완성되고, 인종별 혈통들이 더욱 정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며;정상적인 세계의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야만적 경향이, 그 영역의 번식하는 혈통들로부터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

52:3.5 (593.4) 아담의 자손은, 진화 인종들 중에서 열등한 종족과는 결코 피를 섞지 않는다. 또한 행성 아담 또는 이브가, 진화하는 사람들과 몸소 짝짓는 것은 신{神}의 계획이 아니다. 이 인종_개선 기획은 그들의 후손의 과제다. 그러나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은, 인종_혼합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준비된다.

52:3.6 (593.5) 필사 인종들에게 아담의 생명 원형질{原形質}을 선물한 결과로, 지적 수용력이 즉각 향상되고 영적 진보가 촉진된다. 대개 약간의 육신적 증진도 따라온다. 평범한 세계의 경우에 아담_이후 섭리시대는, 위대한 발명, 에너지 통제, 및 기계의 발달이 있는 시대다. 이때는 여러 형태의 제조업이 출현하고 자연의 힘을 통제하는 시대이며;행성을 탐험하고 마침내 정복하는 황금기다. 한 세계의 물질적 진보 대부분은, 자연 과학의 발달이

개시되는 이 시기 동안에 발생되는데, 유란시아가 현재 체험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시기다. 너희 세계는 평범한 행성의 시간표보다 한 섭리시대 이상 뒤떨어져 있다.

52:3.7 (593.6) 정상적인 행성에서는, 아담 섭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인종들이 실제로 혼합되며, 그래서 "하나님이 한 피로 모든 나라를 만드셨고", 그의 아들이 "모든 민족을 하나의 색으로 만드셨다"고 정말로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피가 섞인 인종의 혈색은, 보라색 바탕에 올리브색이 깃든 어떤 것, 즉 그 구체의 인종적 "백색"이다.

52:3.8 (593.7) 원시인은 주로 육식{肉食}을 하며; 물질 아들과 딸은 고기를 먹지 않지만,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후손은 대개 잡식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때로는 그들의 후예 전체가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기도 한다. 아담_이후 인종들의 이 이중 기원은, 피가 섞인 그런 인간 혈통들이 어떻게 해서 채식을 하는 동물 집단과 육식을 하는 동물 집단, 두 가지에 속하는 해부학적 흔적을 나타내는지 설명해 준다.

52:3.9 (593.8) 인종의 혼합이 시작된 지 10,000년 이내에, 그 결과로 생긴 혈통들은 다양한 정도의 해부학적 혼합을

보여주는데, 어떤 종족은 고기를 먹지 않는 조상의 흔적을 더 많이 지니고, 다른 혈통은 자신의 육식성{肉食性} 진화 조상의 특색을 띤 특징과 육신적 특질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이 세계 인종들 대부분은 곧 잡식성{雜食性}을 갖게 되는데, 동물군과 식물군 양쪽에서 광범하게 음식물을 섭취한다.

52:3.10 (594.1) 아담_이후의 시기는 국제화되는 섭리시대다. 인종을 혼합시키는 과제가 거의 완성되면서,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사람의 형제관계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의 정부가, 군주{君主} 형태 또는 세습 형태의 통치체제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교육 체제가 세계화되고, 인종들의 언어는 보라색 민족의 방언으로 대치된다. 보편적 평화와 협동은, 인종들이 매우 잘 혼합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할 때까지 성취되기 힘들다.

52:3.11 (594.2) 아담_이후 시대가 마감되는 세기{世紀}들 동안, 예술, 음악, 및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달하며, 이런 범세계적 각성은, 집정관 아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신호다. 이 시대의 최고 발달은, 지적 실체, 즉 참된 철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이다. 종교는 민족 특성이 줄어들고, 점점 더 행성의 직무가 돼 간다. 새로운 진리 계시가 이 시절의 특징이며, 성좌의 지고자들이 사람의 직무를 통치하기 시작한다. 진리는 성좌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계시된다.

52:3.12 (594.3) 위대한 윤리적 진보가 이 시대의 특징이며;사람의 형제관계가 그 사회의 목표다. 범세계적 평화는--곧 인종 갈등과 민족적 증오의 종지는-- 셋째 계층의 아들신분, 즉 집정관 아들이 출현할 만큼 행성이 성숙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指標}다.

4. 집정관 아들_이후의 사람

52:4.1 (594.4) 정상적이고 충성스런 행성의 경우에, 이 시대는 피가 섞이고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필사자 인종들과 함께 시작된다. 인종 문제, 즉 색깔 문제가 없으며;정말로 모든 나라와 인종이 한 핏줄이다. 사람의 형제관계가 번창하고, 나라들은 평화와 평정 속에서 지내기를 배운다. 그런 세계는 위대한 지적 발전의 절정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52:4.2 (594.5) 진화 세계가 이처럼 집정관 시대를 위해 무르익게 될 때, 높은 계층의 아보날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집정관 사명을 띠고 모습을 드러낸다. 행성 왕자와 물질 아들들은

지방우주에서 기원되며;집정관 아들은 낙원으로부터 온다.

52:4.3 (594.6) 사법적 조처를 위해 오직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 필사자 구체에 올 때, 낙원 아보날은 결코 육신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집정관 사명을 띠고 올 때에는, 적어도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육신화 하는데, 출생을 체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다. 특정한 행성에 통치자로서 남아 있는 경우에,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살지도 모른다. 사명이 완료되면, 그들은 행성에서 생애를 완료하고, 이전{以前}의 신성한 아들신분 상태로 돌아간다.

52:4.4 (594.7) 계시된 종교의 지평선을, 각각의 새로운 섭리시대가 확장하며, 집정관 아들들은, 지방우주 및 그 종속부서들의 모든 직무를 묘사하기 위해 진리의 계시를 확대한다.

52:4.5 (594.8) 집정관 아들의 첫 방문이 있는 후에, 인종들은 곧 경제적 해방을 이룩한다. 한 사람이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 작업은, 너희 시간으로 2시간 30분에 해당한다.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필사자를

해방시키더라도 틀림없이 안전하다. 그런 세련된 사람들은, 자아_개선과 행성 진보를 위해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안다. 적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자질을 타고난 개인들 사이의 번식을 억제시킴으로써, 이 시대는 인종별 혈통이 추가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52:4.6 (595.1) 인종들의 정치적 통치와 사회 경영이 계속 개선되는데, 이 시대가 종료될 무렵까지, 자체_정부가 상당히 정착돼 있다. 우리가 자체_정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유형의 대의 정부를 의미한다. 그런 세계들은,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지도자와 통치자들만 승진시키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52:4.7 (595.2) 이 시절에, 세상 필사자 대부분에게 조율사가 내주한다. 그러나 아직 신성한 관찰자 증여가 항상 보편적이지는 않다. 융합할 운명을 가진 조율사는, 아직 모든 행성 필사자에게 증여되지는 않았으며;의지를 가진 피조물이 신비 관찰자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52:4.8 (595.3) 이 섭리시대가 마감되는 시절에, 사회는 비교적 단순해진 생활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복잡한 성질을 가진 진보하는 문명이 그 과정을 마치고, 필사자는 더 자연스럽게 능률적으로 살기를 배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이어지는 각 시기마다 증가한다. 이때는 예술, 음악, 그리고 더 높은 배움이 꽃피는 시대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 시대가 끝나면, 위대한 종교적 각성, 즉 범세계적인 영적 계몽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인종들의 영적 본성이 이렇게 널리 각성되는 것은, 증여 아들이 도착하고 다섯째 필사자 시기가 개시된다는 신호다.

52:4.9 (595.4) 많은 세계에서, 한 번의 집정관 사명으로는 증여 아들을 위한 준비가 갖추지지 않으며;그런 경우에 두 번째, 그리고 심지어 여러 집정관 아들이 이어질 것인데, 그 행성이 증여 아들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각자 한 섭리시대에서 다른 섭리시대로 그 인종들을 증진시킬 것이다. 둘째 및 그 후의 사명에서 집정관 아들들은 육신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집정관 아들이 나타나게 되느냐에 상관없이--그리고 그들은 증여 아들 이후에 그런 자격으로 올 수도 있는데--

각 집정관 아들의 출현은 한 섭리시대의 끝과 다른 섭리시대의 시작을 표시한다.

52:4.10 (595.5) 집정관 아들들의 이 여러 섭리시대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5천 년부터 5만 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간이든지 해당된다. 때로는 그런 시기가 매우 짧으며, 드문 경우에 더 길기도 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바로 이 집정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낙원 증여 아들로써 태어나게 될 것이다.

5. 증여 아들_이후의 사람

52:5.1 (595.6) 인간거주 세계에서 지적 및 영적 발달이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 한 낙원 증여 아들이 반드시 도착한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인종들이 지적 발달 및 윤리적 달성의 최고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 증여 아들이, 아니 너희의 창조주 아들이, 아담 섭리시대가 마감될 때 나타났지만, 이것은 공간 세계들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통상적 순서가 아니다.

52:5.2 (595.7) 세계들이 영성화를 위해 무르익었을 때, 증여 아들이 도착한다. 이 아들들은 반드시 집정관 계층, 즉

아보날 계층에 속하는데, 예외는, 네바돈의 미가엘이 너희 필사자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 위해서 유란시아에 나타났을 때와 같이, 각 지방우주마다 한 번, 창조주 아들이 어느 진화 세계에서 그의 마지막 증여를 준비할 때다. 거의 1,000만 세계 중에서 오직 한 세계만이 그런 선물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세계는 아보날 계층의 낙원 아들이 증여됨으로써 영적으로 진보한다.

52:5.3 (595.8) 증여 아들은 높은 교육 문화를 가진 세계에 도착하며, 진보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증여 사명을 인정하도록,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인종과 만난다. 이 시대의 특징은, 도덕적 문화와 영적 진리를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섭리시대에 필사자가 열망하는 것은, 시공우주 실체를 통찰하고 영적 실체와 친교하는 것이다. 진리의 계시는 연방우주를 포함할 정도까지 확장된다.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및 정부 체계가, 이전{以前} 시대의 조잡한 체제들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한다. 삶에 대한 기쁨이 새로운 색조를 띠고, 생명의 반응은 하늘처럼 높은 음조와 음색을 갖기까지 고양된다.

52:5.4 (596.1) 증여 아들은 한 세계의 필사자 인종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그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설립하며; 그의 생애는 낙원의 진리가 필사자의 몸을 입고 육신화 된 것인데, 바로 그 진리를--심지어 진리의 영까지도-- 앎으로써 사람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52:5.5 (596.2) 유란시아에서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의 수립이 진리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도 했다.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유란시아가 고립됨으로써, 필사자들이 죽고 나서 맨션 세계들의 기슭으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과정이 중지됐다.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있던 날들 이전에는, 섭리시대 또는 1,000년마다 특별 부활이 있을 때까지, 모든 혼이 잠들어 있었다. 심지어 모세도, 특별 부활의 기회가 올 때까지 다른 편으로 건너가도록 허용되지 않았는데, 타락한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는 그런 구원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계속,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다시 모론시아 구체들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

52:5.6 (596.3) 육신화된 생명을 버린 후 셋째 날에, 증여 아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상승하여, 증여 사명이 인정받았음을 확인받게 되며, 지방우주 본부에 있는 창조주 아들에게로 돌아온다. 그 결과로, 증여된 아보날과 창조주 미가엘이 자신들의 연합 영, 즉 진리의 영을 증여 세계 속으로 보낸다. 이것이, “승리의 아들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어지는” 그 사건이다. 우주 어머니 영 역시 진리의 영을 이렇게 증여하는 데 참여하며, 이와 동시에 사교 조율사들을 증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 후로 그 세계에서 정상적인_정신과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영적 선택을 하는 나이에 이르는 즉시, 조율사를 받을 것이다.

52:5.7 (596.4) 그런 증여된 아보날이 증여 사명을 마친 후에 어떤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는 육신화 함으로가 아니라, “스랍 무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52:5.8 (596.5) 증여_아들_이후의 시대는 1만 년에서 10만 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섭리시대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독단적으로 기간이 할당되지 않는다. 이때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시기다. 이런 시절의 영적 영향 아래서, 인간 성품은 엄청난 변형을 거치고, 경이로운 발달을 체험한다. 황금률을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성품을 고귀하게 하고 교양을 증대시키는
섭리시대들과 함께, 증여 아들들이 오기 전의 예비 훈련을
마친 그런 필사자 세계에서는, 예수의 교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

52:5.9 (596.6) 이 시대 동안에 질병과 범죄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선택적으로 번식함으로써 퇴화가 이미 대체로
제거됐다. 질병은, 아담 혈통들의 높은 저항 특성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영리하게 범세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정복됐다.
이 기간에 평균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300년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진다.

52:5.10 (597.1) 정부의 감독이 이 시기 내내 점차 감소된다. 참된
자체_정부가 활동하기 시작하며;구속하는 법률이 점점
필요 없게 된다. 국가적 저항을 담당하는 군사 분야들이
사라지며;국제적 화합의 시대가 실제로 도래한다. 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는 대체로 땅 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만,
오직 한 인종, 한 언어, 그리고 한 종교만 있다. 필사자의
직무는 거의 이상{理想}에 가깝지만, 완전히 그렇지
않다. 이때는 정말로 위대하고 영광스런 시대다!

6. 유란시아의 증여_이후 시대

52:6.1 (597.2) 증여 아들은 평화의 왕자다. 그는, "땅에는 평화가, 사람 가운데는 선의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다. 정상 세계에서는 이것이 전{全}_세계적 평화의 섭리시대이며;나라들은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의 증여 아들인 그리스도 미가엘의 도래에는, 그런 유익한 영향이 수반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정상 순서를 밟고 있지 않다. 너희 세계는 행성의 행렬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다. 너희의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출현이 유란시아에서 통상적인 평화의 통치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했다. 또 그는 다른 경우에,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52:6.2 (597.3) 심지어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도, 사람의 범_세계적 형제관계의 실현은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유란시아처럼 혼동되고 질서가 없는 행성에서 그런 성취는, 훨씬 긴 시간을 요구하며,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영적으로 고립된 구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진화로는 그런 행복한 결과를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

유란시아에서 형제관계가 실현되려면 종교적 계시가 필수다. 예수는 영적 형제관계의 즉각적인 성취에 이르는 길을 보여줬지만, 너희 세계에서 사회적 형제관계가 실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개인의 변화와 행성의 조정을 성취하는 데 크게 달려있다:

52:6.3 (597.4) 1. *사회적 우애*. 여행, 상업, 및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및 인종 간 사회적 접촉과 우애 관계의 증가. 공통 언어 개발과 여러 언어 사용자들의 증가. 학생, 선생, 사업가, 그리고 종교 철학자들의 인종 간 및 국가 간 교류.

52:6.4 (597.5) 2. *지적 상호_교류*. 거주자들이 너무 원시적이어서, 완화되지 않은 이기주의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형제관계가 불가능하다. 국가적 및 인종적 학문 교류가 이뤄져야만 한다. 각 인종마다 전체 인종의 사고{思考}에 익숙해져야만 하며,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만 한다. 무지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연민과 사랑이라는 필수적인 태도와 양립될 수 없다.

52:6.5 (597.6) 3. *윤리적 각성*. 인간의 편협함이 부도덕하며, 동족을 죽이는 투쟁이 죄라는 것을, 오직 윤리적 의식만이

폭로할 수 있다. 국가간 질투와 인종간 시기심이라는 악을, 오직 도덕적 양심만이 책망할 수 있다. 오직 도덕적 존재들만이, 황금률을 살리기에 필수적인 영적 통찰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52:6.6 (598.1) 4. *정치적 지혜*. 감정의 성숙이 자아_통제에 필수적이다. 오로지 감정이 성숙해야만, 야만스런 전쟁으로 판결하는 대신, 국제적 기법으로 개화된 판결을 내리도록 보장할 것이다. 현명한 정치가들은, 자신의 국가 또는 인종 집단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동안에도, 인류 복지를 위해서 언젠가 일할 것이다. 이기적인 정치적 기민성은 결국 자멸한다--행성에서 집단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 모든 영속하는 특성을 파괴한다.

52:6.7 (598.2) 5. *영적 통찰력*. 사람의 형제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데 달려있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관계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하는 자연스런 추세를 촉진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위로부터 영적 압력을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필사자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각 필사자의 혼 수용력을

증진시키면서, 도덕적 통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형제간 사랑은, 사람을 문명화시키는 탁월한 처방이요, 사람의 형제관계를 범_세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강력한 요소다.

52:6.8 (598.3) 뒤떨어지고 뒤죽박죽된 너희 세계로부터, 증여 아들 이후 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정상 행성으로, 지금 너희를 데려갈 수만 있다면, 너희는 전승들이 말하는 그 하늘나라로 옮겨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필사 구체의 정상적 진화 활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도저히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계들은 그들 영역의 영적 회로 속에 있으며, 그들은 모두 지방우주 방송과 연방우주 반사성 봉사의 혜택을 누린다.

7. 교사 아들_이후의 사람

52:7.1 (598.4) 평범한 진화 세계에 도착하는 그 다음 계층의 아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 즉 낙원 삼위일체의 신성한 아들이다. 너희의 예수께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것에서도, 우리는 유란시아가 이웃 구체들보다 뒤떨어졌음을 다시 발견한다. 그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지만, 그의 두 번째 도래가 집정관 아들 또는 교사 아들이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보다 먼저 있을지, 아니면 나중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52:7.2 (598.5) 교사 아들은 영성화 되는 그 세계들로 무리를 지어
도래한다. 한 명의 행성 교사 아들이, 70명의 1차 아들, 열두
명의 2차 아들, 그리고 최상 계층의 데이날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경험이 많은 세 명의 보조와 후원을 받는다. 이
단체는 진화 시대로부터 빛과 생명의 시대로 변환되기에
충분할 만큼 오랫동안--곧 행성 시간으로 적어도 1,000년,
그리고 종종 상당히 더 길게-- 그 세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은, 인간거주 세계에 공헌한 모든 신성한 인격체가
이전에 수고한 것에, 삼위일체가 기여하는 것이다.

52:7.3 (598.6) 진리의 계시는 이제 중앙우주와 낙원까지
확장된다. 인종들은 고도로 영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
위대한 민족이 진화했고, 위대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행성의 교육, 경제, 및 경영 체계가 급진적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가치와 관계들이 수립되고 있다. 하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52:7.4 (598.7)

이때는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로부터 많은 필사자가 옮겨지는 섭리시대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세계의 필사자들의 영적 헌신이 점점 더 보편적으로 된다. 육신 속의 인생 동안에 조율사가 그 상대자{相對者}와 점점 더 많이 융합됨에 따라서, 자연사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 행성은 결국 변경된 1차 계층의 필사자 상승 행성으로 분류된다.

52:7.5 (599.1)

이 시기 동안의 생애는 즐겁고 유익하다. 오랜 진화 투쟁에서 퇴보된 것과, 반사회적{反社會的}인 최종 산물은 실질적으로 제거됐다. 수명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500년에 이르게 되며, 인종을 증가시키는 번식 비율이 이성적으로 통제된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필사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사회의 상태는 사회적 형제관계와 영적 평등이라는 이상{理想}에 더 가깝게 접근한다. 대의 정부는 사라지고, 세상은 각 개인의 자아_통제의 지배를 받으며 나아간다. 정부의 기능은, 사회 경영과 경제 조정이라는 집단 과제에 주로 집중된다. 황금기가 신속하게 다가오며;길고 격렬한 행성 진화 투쟁이 현세에 달성할 목표가 눈 앞에 있다. 오래

기다리던 보상이 곧 실현될 것이며;하나님들의 지혜가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52:7.6 (599.2) 이 시대에는, 어른 개인마다 세상의 물리적 경영을 위해서 매일 한 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며;다시 말해서, 유란시아의 한 시간에 해당한다. 그 행성은 우주 직무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희가 일간 신문 중에서 가장 최근 판에 지금 흥미를 보이는 것과 똑같은 흥미를 갖고, 최근 방송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인종들은 너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관심거리에 빠져있다.

52:7.7 (599.3) 지존하신 분에 대한 행성의 충성심이 점점 자라간다. 대대로 점점 더 많은 인종이, 공의를 실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한다. 세상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쁨에 넘치는 봉사에 설득된다. 육신의 어려움과 물질 문제는 거의 해결됐으며;행성은 크게 진보된 생애와 더 안정된 실존을 누릴 때가 되고 있다.

52:7.8 (599.4)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섭리시대 내내, 이 평화로운 세계들에 때때로 계속 도래한다. 진화 계획이 그

행성에 대해 고려했던 대로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은 이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교사 아들들이 계속되는 사명을 받을 때, 심판을 담당하는 한 집정관 아들이 대개 그들을 따라가며, 한편 그들이 떠나갈 때 또 하나의 그런 아들이 활동하고, 시간과 공간의 필사자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내내, 이 사법적 조치가 계속된다.

52:7.9 (599.5)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의 되풀이되는 사명은, 각각 그런 숭고한 세계를, 지혜, 영성{靈性}, 및 시공우주 계몽에서 계속_올라가는 수준으로 연달아 승진시킨다. 그러나 그런 구체의 고귀한 원주민은 여전히 유한하고 필사적이다. 아무 것도 완전하지 않으며;그럼에도, 불완전한 세계의 운영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인간 거주자의 삶에서, 완전성에 가까운 자질이 진화하고 있다.

52:7.10 (599.6)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동일한 그 세계로 여러 번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행성 왕자가 행성 주권자의 자리로 승진되며, 그런 세계가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간 것을 선포하기 위해 체계 주권자가 나타난다.

52:7.11 (599.7)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 왕자를 위해 단장한 공주처럼 준비돼 있었다”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교사 아들들의 마지막 사명이 끝나는 때였다(적어도 그것은 정상적인 세계의 연대기일 것이다).

52:7.12 (600.1) 옛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바로 개선된 이 세상, 즉 진보된 행성 단계였는데, 이렇게 기록했다:“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내가 만들겠고 내 앞에 남게 되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도 생존될 것이며;새 달부터 다음 달까지, 그리고 한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셨다”.

52:7.13 (600.2) 그런 시대의 필사자에 대해 이렇게 묘사됐는데, “선택된 세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고귀한 민족이요;너희를 어둠으로부터 이 신기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께 찬양을 드릴지니라.”

52:7.14 (600.3) 개별 행성의 특별한 자연 역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 영역이 완전히 충성했거나, 악으로 물들었거나, 또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 받았거나 차이 없이-

-이전의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들의 사역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출현하는 시절을 안내할 것이며;그들이 최종 사명을 마치고 떠나게 되면, 빛과 생명의 이 화려한 시대가 시작된다.

52:7.15 (600.4)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정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에게 평화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쓴, 어떤 사람의 소망에 동참할 수 있다.

52:7.16 (600.5) 교사 아들 단체가 자신의 첫 체제 또는 그 이후의 어떤 체제가 끝날 무렵에 떠나가면, 빛과 생명의 시대--곧 시간세계로부터 영원성의 문턱으로 전환되는 입구--가 밝아온다. 이 빛과 생명의 시대가 행성에서 실현되는 것은,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최고로 바라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데,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하늘나라는 생존하는 필사자가 즉시 마주치는 운명이요 최종 거주지라고 묘사하는 종교적 신념에 포함된 것보다, 미래 생애에 대해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신념을 더 환영하고 있었다.

52:7.17 (600.6) [가브리엘의 참모진에 일시적으로 배속된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53편 루시퍼 반역

53:0.1 (601.1) 루시퍼는 네바돈에서 빛나는 1차 라노난덱 아들이었다. 그는 이미 여러 체계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높은 조연자였으며, 지혜와 총명함과 능률면에서 뛰어났다. 루시퍼는 그의 계층에서 37_번이었고, 멜기세덱들이 그를 임명했을 때, 70만 명이 넘는 그의 부류 가운데서 가장 유능하고 총명한 100명 가운데 하나로서 지명됐다. 그의 출발은 그렇게 훌륭했으나, 악과 실책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됐고, 지금은 자신의 충동에 굴복하고--곧 우주에 충성하기를 거부하고 형제관계의 책무를 무시하며, 시공우주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개인 자유라는 궤변에 행복한, 네바돈에 있는 세 명의 체계 주권자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53:0.2 (601.2) 그리스도 미가엘의 영역인 네바돈 우주에는,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10,000개의 체계가 있다. 라노난덱 아들들의 전체 역사에서, 즉 이 수천 개의 체계와 우주 본부 전역에 걸친 그들의 전체 업무에서, 지금까지

오직 세 명의 체계 주권자만이 창조주 아들의 정부를
경멸한 것으로 발견됐다.

1. 반역의 주동자

53:1.1 (601.3) 루시퍼는 상승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지방우주에서 창조된 아들이었고, 그에
관해:“너는 창조된 후에, 네 속에서 불의가 발견될 때까지,
네 모든 방침에서 완전했다”는 평판이 있었다.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여러 차례 상담했다. 그리고
루시퍼는 예루셈의 경영 토대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군림했는데, 607개의 인간거주 세계로 구성된 커다란 한
체계의 최고 행정관이었기 때문이다.

53:1.2 (601.4) 루시퍼는 당당한 존재, 찬란한
인격체였으며;우주의 직계 권력 계통에서 성좌의 지고자
아버지들 다음 위치에 있었다. 루시퍼가 죄를 범했음에도,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되기 전에는, 부하 지성체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려하지 않았다.
모세가 부활했을 때, 심지어 미가엘의 천사장도 “그에게
대항해 비난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재판관이 너를

꾸짖는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런 문제의 판결은 연방우주 통치자인 태고 항존자들에게 속한다.

53:1.3 (601.5) 루시퍼는 지금 타락하고 폐워된 사타니아 주권자다. 자아_성찰은, 심지어 하늘 세계의 고양된 인격체들에게도 가장 불길하다. 루시퍼에 대해:“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고;네 총명함이 네 지혜를 타락시켰다”는 평판이 있었다. 너희의 옛 선지자는 그의 비참한 신분을 보고:“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여,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세계들을 감히 혼란에 빠뜨리려던 네가 어찌하여 쫓겨났는가!”라고 기록했다.

53:1.4 (602.1) 유란시아에는 루시퍼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 주장에 대해 너희 행성에서 변호하도록, 자신의 첫째 부관인 사탄을 배정한 사실 때문이다. 사탄은, 동일한 1차 라노난덱 집단의 일원이었지만, 체계 주권자로서 역할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루시퍼 반란에 완전하게 담했다. “마귀”는 바로 캘리개스차, 즉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에서 폐워된, 2차 라노난덱 계층의 한 아들에 불과하다.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유란시아에 있을 때,

루시퍼, 사탄, 및 캘리개스차는, 미가엘의 증여 사명이 실패하도록 꾀하기 위해 연합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실패했다.

53:1.5 (602.2) 아바돈은 캘리개스차 참모진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주인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 반역자들의 최고 행정관으로서 활동했다. 바알세불은, 불충한 캘리개스차의 군대와 스스로 연합했던 불성실한 중도 피조물들의 두목이었다.

53:1.6 (602.3) 용{龍}이 결국에는 이 악한 인물들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이 됐다. 미가엘이 승리하자, "가브리엘이 살빙톤으로부터 내려와서 용을(반역한 모든 지도자를) 한 시대 동안 결박했다." 예루셈의 반역한 스라빔에 대해 서 이렇게 기록됐다:"그리고 자신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거주지를 떠난 천사들을, 그가 큰 날에 심판할 때까지, 흑암의 든든한 쇠사슬로 묶어 뵈었다."

2. 반역의 원인

53:2.1 (602.4) 루시퍼와, 그의 첫째 보좌관인 사탄은, 만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의 대리권한을 가진

아들인 미가엘에게 대항하는 마음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50만 년 이상 예루셈을 통치해왔었다.

53:2.2 (602.5) 사타니아 체계에는, 반역을 조장하거나
불러일으킬만한 독특하거나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믿기로는, 그 생각이 루시퍼의 정신에서 기원되고
형성됐으며, 그가 어디 있었든지 그런 반역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루시퍼가 자기 계획을 사탄에게 처음 알렸지만,
그의 유능하고 총명한 동역자의 정신을 타락시키기까지는
여러 달 소요됐다. 아무튼, 반역 이론에 일단 넘어가자,
그는 “자기_주장 및 자유”에 대한 과감하고 열렬한
옹호자가 됐다.

53:2.3 (602.6) 아무도 루시퍼에게 반역을 제안한 적이 없었다.
미가엘의 뜻, 그리고 미가엘이 대표하는 만유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기_주장이라는 관념은, 그의 고유
정신에서 발단됐다. 그는 창조주 아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항상 충성스러웠다. 루시퍼가 자신의 정신을 찬양하기
전에는, 우주 경영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가 침묵했음에도, 표준시간으로 100년이
넘도록, 살빙톤에 있는 합동 항존자는 루시퍼의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버사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창조주 아들 및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에게도 통보됐다.

53:2.4 (602.7) 루시퍼는 이 기간 내내, 우주 경영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점점 더 비판하게 됐지만, 최고 통치자들에게는 항상 전심으로 충성한다고 고백했다. 노골적인 그의 첫 불충성은, 루시퍼 자유 선언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바로 며칠 전에, 가브리엘이 예루셈을 방문했을 때 표면화됐다. 가브리엘은 임박한 봉기에 대한 확신으로 무척 심각하게 충격 받았으므로, 공개적인 반역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좌 아버지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곧바로 에덴시아로 갔다.

53:2.5 (603.1) 루시퍼의 반역에서 최종적으로 극에 달했던 정확한 원인 또는 원인들을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확신하는 오직 한 가지는: 첫 시작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루시퍼의 정신에서 기원됐다는 점이다. 자기를_기만하는 지점까지 스스로 조성한 자아의 오만함이 분명히 있었으며, 그리하여 루시퍼는 반역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우주에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체계에는 실제로 선한 것이라고 한동안 진정으로 자신을 설득했다. 그의 계획이 환멸감에 이를 정도로 발전되기까지, 그의 원래 이간질하는 자존심이 너무 멀리 가버려서, 그를 중지시킬 수 없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이런 체험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신실하지 못하게 됐고, 고의적이고 의지적인 죄 속으로 악이 개입됐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총명한 행정관이 차후에 취한 행동으로 증명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오랫동안 주어졌지만, 그의 부하 가운데 일부만이, 제안된 자비를 받아들였다. 성좌 아버지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악명 높은 반역자들을 구하기 위한 미가엘의 계획을 에덴시아의 충실 항존자가 직접 제시했지만, 창조주 아들의 자비는 항상 거부됐고, 갈수록 더 경멸과 모욕을 받으며 거절당했다.

3. 루시퍼 성명서

53:3.1 (603.2) 루시퍼와 사탄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의 초기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최종적인 봉기는 루시퍼 자유 선언으로 나타났다. 반역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목으로 발표됐다:

1. *만유의 아버지의 실체.* 루시퍼는 만유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물리적 인력과 공간_에너지가 우주에 내재한다고, 그리고 낙원 아들이 우주들에 대한 통치를 아버지 이름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신화{神話}로서 아버지를 지어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인격체가 만유의 아버지의 선물임을 부인했다. 그는, 낙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실제 인격체에 대한 분명한 관념을 완결성취자들조차 상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창조계에 몰래 사기{詐欺}를 치려고 낙원 아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넌지시 비추기까지 했다. 그는 공경을 무지의 소치라고 매도했다. 그 비난은 포괄적이었고, 무시무시했으며, 모욕적이었다. 당시에 예루셈에 있던 상승한 시민들이, 반역자의 모든 제안에 대항해서, 견고하게 서고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완결성취자들에 대한 이 은근한 공격이었다.

2. *창조주 아들_미가엘의 우주 정부.* 루시퍼는 지역 체계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가엘, 즉 창조주 아들이 가상{假想}의 낙원 아버지 이름으로 네바돈의 주권을 사칭하고, 보이지도 않는 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모든 인격체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그는 항의했다. 그는 경배 계획 전체가 낙원 아들들을 강화시키려는 교묘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가엘을 자신의 창조주_아버지로 인정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 및 합법적 통치자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53:3.4 (603.5) 그는 태고 항존자들--곧 "외부 주권자들"--이 지역 체계와 우주 직무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장 혹독하게 공격했다. 그는 이 통치자들을 폭군과 침입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람과 천사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담대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할 만큼 용기를 갖기만 한다면, 완벽한 내정{內政} 자치 운영에 이 통치자들 가운데 누구도 전혀 개입할 수 없음을 믿게 하려고 추종자들을 강권했다.

53:3.5 (603.6) 그는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주장하기만 하면, 태고 항존자들의 집행자들이 지역 체계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멸성이 체계 인격체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다고, 부활은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며,

태고 항존자들의 집행자들이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했다.

53:3.6 (604.1) 3. *상승하는 필사자를 훈련하는 보편적 계획에 대한 공격.* 루시퍼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에게 우주 경영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는 짜임새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근거로 인용하는 원칙들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운명을 위해서 공간의 필사자를 준비시키는 오랜 기간의 계획표에 대해 반대했고, 완결성취자 단체가 예루셈에 현존하는 것은, 이 필사자들이 순전히 허구적인 운명을 준비하려고 오랜 세월을 허비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원됐던 구체와 비슷한 비천한 구체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영화롭지 못한 운명에 완결성취자들이 이미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비웃었다. 그는, 완결성취자들이 과도한 훈육과 장기간의 훈련으로 이미 타락했다고 공표하는 동시에, 상승하는 필사자가 신화{神話}같은 영원한 운명을 가졌다는 허구성에 모든 창조물이 노예가 되도록 하는 책략에 지금 협동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완결성취자들이 동료 필사자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는 상승자들이 개인의 자결권이라는 자유를
누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낙원 아들이
후원하고 무한한 영이 지지하는, 필사자 상승 계획 전체에
도전하고 이를 비난했다.

53:3.7 (604.2) 그리고 그런 자유 선언과 함께, 루시퍼는 자신을
흑암과 죽음으로 이끄는 방탕한 축제의 막을 열었다.

4. 반역의 발발

53:4.1 (604.3) 루시퍼 성명서는, 유리바다에서 이뤄지는
사타니아 연례 비밀회의{秘密會議}에서 발표됐는데,
유란시아 시간으로 약 20만 년 전, 그 해 마지막 날에,
소집된 예루셈 무리 앞에서였다. 경배는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우주 세력들에게 드릴 수 있지만, 충성맹세는 오직
현재의 실제 통치자, 즉 "사람과 천사들의 친구"이자
"자유의 하나님"인 루시퍼에게 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탄이 선언했다.

53:4.2 (604.4) 자기_주장이 루시퍼 반역의 표어였다. 그의 주요
논점 가운데 하나는, 자체_정부가 멜기세덱 및 다른
집단들에게 좋고 올바르다면, 그것은 모든 계층의
지성체에게도 똑같이 좋다는 것이었다. "정신은

동등"하고, "지성체는 형제관계"라고, 그는 단호하고 완고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가 지역 행성들로 제한돼야만 하고, 그 행성들의 자발적 연합이 지역 체계로 제한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어떤 감독권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행성 왕자들에게, 그들이 최고 행정관으로서 그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입법 활동이 성좌 본부에서, 그리고 사법적 직무의 수행이 우주 수도에서 이뤄지는 것을 비난했다. 그는 이 모든 정부 기능이 체계 본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으며, 자신의 입법 집회를 수립하기에 착수했고, 사탄의 관할 아래 자신의 법정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는 변절한 세계의 왕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

53:4.3 (604.5) 루시퍼의 경영 내각 전체가 한 덩어리로 넘어갔고, "해방된 세계와 체계들"의 새 우두머리의 행정부 관료{官僚}로서, 공식 선서를 함으로써 임명됐다.

53:4.4 (605.1) 네바돈에서 두 번의 반역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먼 성좌들에서 발생됐다. 이 폭동들의 실패는 그 지성체 대부분이 자기 지도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루시퍼는 주장했다. "과반수가 판결한다"고, 즉 "정신은

오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주 통치자들이 그에게 허용한 그 자유가, 사악한 그의 주장 가운데 다수를 뒷받침하는 듯 했다. 그는 상관들을 모두 무시했지만;상관들은 그의 행위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런 방해 없이, 유혹하는 그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53:4.5 (605.2) 루시퍼는, 처벌이 자비롭게 연기{延期}된 것은 모두, 낙원 아들들의 정부가 반역을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가엘, 임마누엘, 및 태고 항존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오만하게 도전했으며, 그리고 나서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주와 연방우주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하곤 했다.

53:4.6 (605.3) 가브리엘은 불충한 이 모든 회의과정 내내 직접 참석해서 지켜봤고, 다만 때가 되면 자신이 미가엘을 대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존재는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며;“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들들의 정부는 오직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며

궤변에_흔들리지_않는 충성과 헌신을 원한다”고 공표했다.

53:4.7 (605.4) 탈퇴할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역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이 어떤 노력이든지 기울이기 전에, 루시퍼는 자신의 반역 정부를 완전히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허용됐다. 그러나 성좌 아버지들이 이 불충한 인격체들의 행위를 즉시 사타니아 체계로 제한시켰다. 그럼에도 연기된 이 기간은, 사타니아 전체의 충성스런 존재들에게 커다란 시련과 시험의 시간이었다. 여러 해 동안 전체가 무질서했고, 맨션 세계들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다.

5. 갈등의 본질

53:5.1 (605.5) 사타니아 반역이 발발하자, 미가엘은 자신의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과 상담했다. 이 중대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미가엘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격변에 대해서 자신이 처리했던 방법의 특징이었던 것과 똑같은 정책, 즉 불간섭의 입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53:5.2 (605.6) 이 반역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두 반역이 있었을 때, 네바돈 우주에는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자주적

권세가 없었다. 미가엘은 만유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신성한 권한으로 통치했지만, 아직 자신의 개인 권한은 갖지 못했다. 그는 증여 생애를 완성하지 못했으며;“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

53:5.3 (605.7) 반역이 일어난 때부터 네바돈의 주권적 통치자로 즉위되는 때까지, 미가엘은 루시퍼 반역 무리와 한 번도 충돌하지 않았으며;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동안 멋대로 진행하도록 허용됐다. 그리스도 미가엘은 이제 그런 불충성이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심지어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만일 그런 격변이 다시 발생한다 해도, 이 주권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다르게 행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3:5.4 (605.8) 미가엘이 루시퍼 반역의 실제 투쟁에서 초연{超然}해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자신의 개인 참모진을 에덴시아에 소집하고, 지고자들과 상담한 후에, 사타니아의 충성스런 무리들에 대한 지휘권을 떠맡기로 작정했다. 미가엘은 살빙톤에 머물렀고, 한편 가브리엘은 예루셈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곧 루시퍼와 사탄이 의심했던 바로 그 만유의 아버지께--
바쳐진 구체에 자리잡았으며, 그는 모여든 충성스런
인격체들 무리 앞에 미가엘의 깃발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흰색 바탕에 세 개의 하늘색 동심원{同心圓}이 있는, 전체
창조물의 삼위일체 정부의 물질적 상징이었다.

53:5.5 (606.1) 루시퍼의 상징은 한 개의 빨간색 원이 있는 흰색
깃발이었는데, 그 중앙에는 검정색으로 가득 채워진 원이
나타나 있었다.

53:5.6 (606.2)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미가엘의 지휘관과 그의
천사들이 용에 대항해서(루시퍼, 사탄, 및 배반한 왕자들에
대항해서) 싸웠으며;용과 그의 반역하는 천사들이
맞섰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유란시아에서 혼동이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었다. 투쟁하던 초기에, 루시퍼는 행성의
원형극장에서 계속 떠들어댔다. 가브리엘은 바로 가까이
자리잡은 자신의 본부에서 반역의 궤변을 끊임없이
폭로하는 일을 했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 토론들
사이에서 태도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의심에
사로잡혔던 다양한 인격체가 그 구체에 있었다.

53:5.7 (606.3) 그러나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아주 심각했고, 매우 실제적이었다. 미성숙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 같은 그런 특질의 야만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투쟁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으며; 물질적 전투에서는 물질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만, 하늘에서의 전쟁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싸움이었다.

6. 충성스런 스랍 사령관

53:6.1 (606.4) 싸움이 발발한 때부터 새로운 체계 통치자 및 그의 참모진이 도착할 때까지 한 동안, 허다한 인격체들이 이행한, 고귀하고 영감을 주는 헌신과 충성스런 행동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담한 헌신적 위업들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사타니아 본부의 스라빔 부{副} 지휘관인 마노티아의 용맹스런 행동이었다.

53:6.2 (606.5) 예루셈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스랍 무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의 주장에 가담했다. 이것은 넷째 계층, 즉 체계 경영자 스라빔 중에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숫자가 타락하게 됐는지를 의심할 여지없이 설명한다. 스랍 지도자는 루시퍼의 총명한 인격체에 영적으로 눈멀었으며; 그의 매력 있는 방식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낮은 계층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다만, 그렇게 눈부신
인격체에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53:6.3 (606.6)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노티아는 루시퍼
반역의 징후와 관련된 체험을 설명하면서 말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상쾌했던 순간은, 루시퍼 반역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모험이었는데, 그때 스랍 부사령관으로서, 나는
미가엘을 모욕하려는 계획에 가담하기를
거부했으며; 막강한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연합 세력의 수단을 이용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애썼다. 예루셈에서 무시무시한 격변이 일어났지만,
충성스런 스라빔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다.

53:6.4 (606.7) “내 직속상관이 태만함에 따라, 나는 혼란에 빠진
체계의 스랍 직무에 대한 명목상 지휘관으로서, 예루셈의
천사 무리에 대한 지휘권을 떠맡게 됐다. 멜기세덱들이
나를 실질적으로 지지했고, 대다수 물질 아들들의 훌륭한
도움을 받았으며, 내가 소속된 계층 중에서 수많은 집단이
나를 버렸지만, 예루셈에 있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지했다.

53:6.5 (606.8) “루시퍼의 탈퇴로 인해 성좌 회로에서 자동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보 단체의 충성에 의존했는데, 그들은 근처에 있는 란투리아 체계로부터 에덴시아로 원조 요청을 전달했으며;질서 있는 나라, 충성스런 지성, 및 진리의 영은, 반역, 자기_주장, 그리고 소위 개인적 자유를 물리치고 선천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으며;루시퍼를 대신할 덕망 있는 후계자로서 새로운 체계 주권자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나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신분을 가진 단체에 배정됐고, 배반한 캘리개스차의 세계에서 충성스런 스랍 계층들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했으며, 캘리개스차는 루시퍼가 발표한 악명 높은 자유 선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의 구체가 ‘해방된 세계와 자유롭게 된 인격체들’의 체계라는 새롭게 입안된 체계의 구성원임을 공포했으며, 이것은 ‘잘못 통치되고 잘못 경영된 사타니아 세계들에 있는 자유를_사랑하고, 자유롭게_생각하고, 앞을_내다보는 지성체들을 부르려고 발표한 선언이었다.”

53:6.6 (607.1) 이 천사는 유란시아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스라빔의 부 지휘관으로서 활동한다.

7. 반역의 역사

53:7.1 (607.2) 루시퍼 반역은 체계에 널리 퍼졌다. 탈퇴한 37명의
행성 왕자는, 자신의 세계 행정부 대부분이 최고반역자
편으로 가도록 했다. 오직 파놉티아에서만 행성 왕자가
자기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는 데 실패했다. 이 세계의
경우에, 사람들은 멜기세덱들의 안내에 따라서, 미가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 필사자 영역의 한 젊은
여자인 엘라노라가 인간 종족들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투쟁으로_찢겨진 그 세계에서 어느 한 영혼도 루시퍼 깃발
아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충성스런
파놉티아인은 그후로 계속, 일곱째 예루셈 과도기
세계에서 보호자로서 봉사했고, 아버지의 구체 및 그
둘레에 있는, 일시적으로 붙들어두는 일곱 세계에서
건축자로 봉사했다. 파놉티아인은 이 세계들의 엄밀한
관리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어떤 미지의 활용을
위해서 이 구체들을 꾸미려고 미가엘이 친히 내린 지시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들은 에덴시아로 가는 도중에 머무는
동안 이 작업을 한다.

53:7.2 (607.3) 이 기간 내내, 캘리개스차는 유란시아에서
루시퍼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멜기세덱들은

변절한 행성 왕자에게 훌륭히 맞섰지만, 제한 없는 자유를 부르짖는 궤변과 자기_주장이라는 망상은, 미숙하고 발달되지 않은 세계의 원시적 민족들을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53:7.3 (607.4) 모든 탈퇴 선전활동은 개인의 노력으로 수행돼야만 했는데, 방송 서비스와 모든 다른 행성 간 소통 수단이, 체계 회로 감독관들의 작용으로 인해 중지됐기 때문이다. 반란이 실제로 발발하자, 사타니아 체계 전체는 성좌 회로와 우주 회로에서 모두 격리됐다. 스랍 대행자와 단독 사자들이, 이 시기 동안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처리했다. 타락한 세계에 이르는 회로들 역시 차단됐고, 그리하여 루시퍼는 자신의 사악한 책략을 확장시키기에 이 수단을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회로들은, 최고의 반역자들이 사타니아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한,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53:7.4 (607.5) 이것은 라노난덱 반역이었다. 지방우주의 아들신분 중에서 높은 계층들은 루시퍼 탈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반역한 행성에 머물렀던 생명 운반자 가운데 일부가 불충한 왕자들의 반역에 어느 정도 영향 받았다.

삼위일체처럼된 아들들 중에서는 아무도 타락하지 않았다. 멜기세덱, 천사장, 및 찬란한 저녁별들은 모두 미가엘에게 충성했으며, 아버지 뜻과 아들의 통치를 위해서 가브리엘과 함께 용감하게 투쟁했다.

53:7.5 (608.1) 낙원에서 기원된 존재들은 아무도 불충성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독 사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 본부를 차렸으며, 에덴시아의 충실 항존자의 지도력 아래 남아있었다. 화해자들 중에서는 누구도 변절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천상의 기록원들 가운데서도 한 명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론시아 동무와 맨션 세계 교사들 중에서는 큰 희생이 있었다.

53:7.6 (608.2) 최상 계층의 스라빔 중에서는 한 명의 천사도 잃지 않았지만, 그 다음 상급자들 계층에서는 상당히 많은 집단이 기만당하고 함정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셋째 계층, 즉 감독 계층 중에서 일부 천사가 현혹됐다. 그러나 격렬한 붕괴가, 넷째 집단, 즉 경영자 천사들에게 일어났는데, 그들은 대개 체계 수도의 임무에 배정되는 스라빔이다. 마노티아가 그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구했지만, 3분의 1이 약간 넘는 숫자는 자신의 두목을 따라서 반역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영 천사들에게 배속된 전체 예루셈 체루빔 중에서 3분의 1이 불충한 스라빔과 함께 유실됐다.

53:7.7 (608.3) 행성의 천사 도우미들 중에서 물질 아들들에게 배정된 자들은, 약 3분의 1이 속았고, 거의 10퍼센트의 과도기 사역자들이 함정에 빠졌다. 요한은 거대한 붉은 용에 대해 썼을 때 상징으로 이것을 봤는데, 이렇게 말했다:“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 당겨서, 흑암에 던져 넣었다.”

53:7.8 (608.4) 가장 큰 손실은 천사 직급에서 발생했지만, 지성체 중에서 하위 계층들 대부분이 불충성에 말려들었다. 사타니아에서 손실된 681,217명의 물질 아들들 중에서 95퍼센트는 루시퍼 반역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였다. 행성 왕자가 루시퍼의 주장에 가담한 그런 행성마다, 많은 숫자의 중도 피조물이 손실됐다.

53:7.9 (608.5) 여러 면에서, 이 반역은 네바돈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광범하고 비참했다. 다른 두 사건 전체보다 더 많은 인격체가 이 폭동에 가담했다. 그리고 루시퍼와 사탄의 밀사{密使}들이, 완결성취자 문화 행성에 있는 유아_훈련 학교들에 해를 입혔는데, 여러

진화 세계에서 은혜 가운데 구원된 발전하는 이 정신들을 타락시키려 했던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원한 불명예가 됐다.

53:7.10 (608.6) 상승하는 필사자들은 공격받기 쉬웠지만, 하위 영들보다는 반역의 궤변을 더 잘 견뎠다. 조율사와 최종 융합을 이루지 못한, 하위 맨션 세계들에 있는 자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타락했지만, 예루셈에 거주하는 사타니아 상승 시민신분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도 루시퍼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상승 기획의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려준다.

53:7.11 (608.7) 시간마다, 날마다, 온 네바돈의 방송국들은, 천상의 지성체로 이뤄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근심에 싸인 시청자들로 가득 메워졌는데, 그들은 사타니아 반역에 대한 속보를 속독했고,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여러 보고서가 잇달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으며, 탈퇴와 죄의 깃발 주변에 그토록 즉시 모여든, 교활한 악의 세력 전체가 연합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 필사자들은 멜기세덱의 지휘 하에 이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53:7.12 (608.8)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때부터 루시퍼의 후계자가 임명될 때까지, 체계 시간으로 2년 이상 걸렸다. 그러나 마침내 새로운 주권자가 왔는데, 참모진과 함께 유리바다에 도착했다. 나는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에서 동원한 예비군에 속해 있었으며, 노라티아텍의 성좌 아버지에게 전한, 라나휘지의 첫 메시지를 잘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 “예루셈 시민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 상승하는 모든 필사자가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남았고, 모두가 혹독한 시험에서 승리자로 나아왔다.” 그리고 동시에,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존체험이, 반역을 방지하는 가장 큰 보장이고, 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호조치라는, 확신을 주는 이 메시지가, 살빙톤, 우버사, 및 낙원에 전달됐다. 이 숭고한 예루셈 집단의 신실한 필사자는 정확하게 187,432,811명이었다.

53:7.13 (609.1)

라나휘지의 도착과 함께, 최고 반역자들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든 통치 권능을 뺏겼지만, 그들은 예루셈, 모론시아 구체들, 그리고 심지어 각 인간거주 세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들은 사람과 천사들의 정신을 혼동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속이고 유혹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있는 예루셈 언덕에서 그들이 하던 일을
고려할 때, “그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53:7.14 (609.2) 루시퍼는 사타니아에서 모든 경영 권세를
뺏겼지만, 당시에는 이 사악한 반역을 억제하거나 쳐부술
수 있는 지방우주 권능 또는 법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때 미가엘은 주권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었다.
체계 정부를 장악하도록 태고 항존자들이 성좌
아버지들을 지지했지만, 루시퍼, 사탄,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 대한 현재의 신분과 미래의 처분에 관해, 아직
미해결된 많은 상소{上訴}에 대한 그 다음 결정을 전혀
하달한 바 없다.

53:7.15 (609.3) 이처럼 이 최고 반역자들은 체계 전체를
배회하도록 허락됐고, 불만과 자기_주장을 외치는 자신의
교리를 더욱 퍼뜨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동안 다른 세계를 속일 수 없었다.
37개의 세계가 타락한 후에, 어떤 사타니아 세계도, 심지어
반역이 있던 시대 이후에 사람이 살게 된 더 젊은 세계들도
파멸되지 않았다.

8. 유란시아에 온 사람의 아들

53:8.1 (609.4)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루시퍼와 사탄은 사타니아 체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연합해서 사람의 아들을 공격하는 동안, 그들은 너희 세계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

53:8.2 (609.5) 그 전에, 행성 왕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사탄도 왔으며", 그는 타락한 행성 왕자들의 격리된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이후로, 그는 예루셈에서 그런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다. 미가엘이 육신 속에 증여됐을 때 그를 타락시키려고 루시퍼와 사탄이 애쓴 후에, 그들에 대한 모든 연민의 정이, 죄로 인해 고립된 세계들은 제외하고, 사타니아 전체에서 사라졌다.

53:8.3 (609.6) 미가엘의 증여가, 배신한 행성 왕자들의 행성을 제외한 사타니아 전체에서 루시퍼 반역을 차단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을 때, 자신이 몸소 겪은 체험을 의미했다. 사탄은 마지막 결정적 투쟁을 벌이려고, 루시퍼와 함께 유란시아에 왔었다.

53:8.4 (609.7) 사람의 아들은 성공할 자신이 있었으며, 너희 세계에서 승리하면, 사타니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 다른 두 체계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이었던 자들의 신분을 영원히 해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루시퍼의 제안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태연하게 신성한 확신을 갖고 말했을 때, 필사자는 생존하게 됐고, 천사들에게는 보호수단이 생겼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루시퍼 반역의 실제 종말이었다. 반역을 타파해 달라는 가브리엘의 요청에 대해서 우버사 법정이 행정적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됐으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53:8.5 (610.1) 캘리개스차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에게서 유란시아의 법적 왕자로서 인정받았다. 예수가 말했다:"이제는 이 세계에 대한 심판의 때이며;이제 이 세계의 왕자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생 업무가 완결될 날이 더 가까워지자, "이 세계의 왕자가 심판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폐위되고

불신임 당한 바로 이 왕자를, 한때 “유란시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53:8.6 (610.2)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했다. 너희의 배신자 행성 왕자인 캘리개스차에게는, 여전히 유란시아에서 사악한 계교를 실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사악한 현존과 함께 저주 받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 한, 그들을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혼에 접근할 수도 없다.

53:8.7 (610.3) 미가엘이 증여되기 전에, 이 어둠의 통치자들은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획책했으며, 하위의 종속된 천상의 인격체들에게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로, 불충한 이 캘리개스차와,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비열한 동료 달리개스차는, 낙원 사고 조율사들과, 보호하는 진리의 영, 즉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미가엘의 영의 신성한 위엄 앞에 굴복하고 있다.

53:8.8 (610.4) 그렇기는 해도, 어떤 타락한 영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을 침투하거나 혼을 괴롭히는 능력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사탄뿐 아니라 캘리개스차도, 하나님의 신앙 아들을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없었으며; 신앙은 죄와 죄악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전신갑주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스스로 보호하며,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53:8.9 (610.5)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방종하는 필사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들은 다만 자신의 선천적이고 타락한 성향에 지배되고,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악에 대해서도 크게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캘리개스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상당히 무력화됐다.

9. 반역의 현재 상태

53:9.1 (610.6) 루시퍼 반역 시대에 일찍부터, 미가엘은 모든 반역자에게 구원을 제시했다. 참된 회개를 증명하려는 모든 자에게, 미가엘은 완성된 우주 주권을 성취한 후에, 이들을 용서하고 어떤 형태의 우주 봉사

복직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모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 자비로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의 물질 아들과 딸을 포함해, 수천 명의 천사들 및 낮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은, 파놉티아인들이 선포한 자비를 받아들였고, 1,9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복권됐다. 이 존재들은 그 후에 예루셈의 아버지 세계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데, 가브리엘 대(對) 루시퍼 문제에 대해서 우버사 법정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구금돼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멸 평결이 내려질 때, 회개하고 구원된 이 인격체들은 소멸 판결에서 제외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보호관찰중인 이 혼들은 지금, 아버지의 세계를 돌보는 일에 파놉티아인과 함께 수고하고 있다.

53:9.2 (611.1) 미가엘이 증여를 완수하고 마침내 네바돈의 무조건적 통치자로서 확실히 취임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획책하던 그날 이후로, 그 최고 사기꾼은 유란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전혀 없었다.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의 확립된 지배자가 됨에 따라서, 루시퍼는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의 대행자들에게 구금됐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셈에 있는 아버지의 변환 구체 중에서

1_번 위성에 죄수로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와 체계들의 통치자들은, 사타니아의 불충한 주권자의 종말을 여기서 목격한다. 바울은 미가엘의 증여에 뒤따른 이 반역 주모자들의 상태에 관해서 알았는데, 캘리개스차의 우두머리들에 대해, “하늘의 거처에 있는 사악한 영적 무리”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53:9.3 (611.2) 미가엘은, 네바돈에 대한 최고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소송사건에서 연방우주 법정이 통치할 때까지, 루시퍼 반역에 관련된 모든 인격체를 억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태고 항존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너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거의 20만 년 전에 우버사 최고 법정에 기록됐다. 체계 수도{首都} 집단과 관련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미가엘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그런 배신한 세계들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는 우버사의 법정이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소송사건의 판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사탄은 타락한 세계의 배신한 왕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53:9.4 (611.3) 너희에게는 주재하고 있는 아들이 없었으므로--곧
행성 왕자도 없고 물질 아들도 없었으므로-- 사탄이
유란시아에 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고 선포돼 왔으며,
가브리엘 대 루시퍼의 사건이 다뤄지는 일은, 격리된 모든
세계에서 일시적 행성 체제가 시작됨을 의미했다. 본
계시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사탄이 주기적으로
캘리개스차 및 다른 타락한 왕자들을 방문한 것이
사실인데, 최고 반역자들의 소멸을 요청하는 가브리엘의
탄원에 대해, 이때 첫 청문회가 열렸다. 사탄은 지금 예루셈
감옥 세계에 무조건 억류돼 있다.

53:9.5 (611.4)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가 이뤄진 후로, 사타니아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억류된 반역자들을 돌보기 위해 감옥
세계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존재도 그 사기꾼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았다. 1,900년 동안 그 상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53:9.6 (611.5) 우리는, 태고 항존자들이 최고 반역자들에 대해
마지막 처분을 내릴 때까지, 현재의 사타니아 규제 조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체계의 회로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그는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53:9.7 (611.6) 반역은 예루셈에서 이미 끝났다. 타락한 세계들에서, 반역은 신성한 아들들이 도착하자마자 끝난다. 자비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모든 반역자는 이미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 반역자들에게서 인격체 실존을 빼앗게 됐다는 방송이 번쩍 임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억류된 이 반역자들을 소멸시킬 사형 집행 방송이, 우버사의 판결을 선포하게 되리라고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있던 자리를 찾겠지만, 그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알던 자들이 너희로 인해 놀랄 것이며;너희는 두려운 존재였으나, 더 이상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무익한 이 반역자들 전체는,“그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모두가 우버사 판결을 기다린다.

53:9.8 (611.7)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타니아에서 영적 어둠이 가득했던 일곱 감옥 세계는 네바돈 전체에 엄숙한 경고가 돼왔는데, “죄인의 길은 괴롭다”;“모든 죄에는 그 자체를

파괴하는 씨앗이 들어 있다”;“죄의 값은 죽음이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선포한다.

53:9.9 (612.1) [한때 유란시아의 관재인신분에 부속됐던 마노반데트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54편 루시퍼 반역의 문제점

54:0.1 (613.1) 진화하는 사람은, 악, 실책, 죄, 및 죄악{罪惡}의 의미심장함을 충분히 납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챈다.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현격한 차이가 잠재적 악을 산출한다는 것;일치하지 않는 진리와 거짓말이 혼란스런 실책을 만든다는 것;신이 부여한 자유의지 선택권이, 결국 죄와 정의라는 정 반대 영역으로 갈라진다는 것;끊임없는 신성 추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죄악의 영역으로 이끈다는 것 등을, 사람은 감지하기 어렵다.

54:0.2 (613.2) 하나님들은, 악을 창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와 반역을 허용하지도 않으신다. 차등적인 수준의 완전성 의미 및 가치기준이 허용되는 우주에서, 잠재적

악{惡}은 경우에_따라서_실존한다. 죄{罪}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은, 모든 영역에 잠재한다. 진리와 허구, 즉 사실과 거짓의 바로 그 모순된 현존이, 실책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준다. 악을 고의로 선택하는 것이 죄를 가져오며;진리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이 실책이며;죄와 실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죄악이다.

1. 참 자유와 거짓 자유

54:1.1 (613.3) 루시퍼 반역에서 발생한 복잡한 모든 문제 가운데, 미성숙한 진화 필사자들이 참 자유와 거짓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었다.

54:1.2 (613.4) 참 자유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추구됐고,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어졌다. 거짓 자유는, 시간세계에서 생기는 잘못과, 공간으로 말미암는 악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속임수다. 영속적 자유는 공의의 실체에--곧 지성, 성숙, 형제애, 및 공정성에-- 입각한다.

54:1.3 (613.5) 자유는, 그 동기가 우둔하고 무조건이며 통제되지 않을 때, 시공우주 실존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방편이 된다. 참 자유는, 점진적으로 실체에 관련되며, 사회적 공정성,

시공우주 공평성, 온 인류 형제애, 및 신성한 책무에 늘 주의한다.

54:1.4 (613.6) 자유는, 물질적 공의, 지적 공평성, 사회적 관용, 도덕적 의무, 및 영적 가치에서 분리될 때 자멸{自滅}한다. 자유는 시공우주 실체와 분리돼서 실존할 수 없으며, 어떤 인격체든지 그 실체는 인격체와 신성의 관계에 비례한다.

54:1.5 (613.7) 억제되지 않은 자아_의지와 통제되지 않은 자아_표현은, 완화되지 않은 이기심, 즉 경건치 못함의 극치다. 협력해서 점점_더 자아를 정복하지 않는 자유는, 자기본위인 필사자의 망상에서 생긴 허구다. 스스로_유발한 자유는, 개념적 환상, 즉 잔인한 속임수다. 자유라는 옷으로 변장한 방종에는 비참한 속박이 따른다.

54:1.6 (614.1) 참 자유는 진실된 자존감의 친구이며;거짓 자유에는 자아_찬양이 따라다닌다. 참 자유는 자아를_통제함으로써 얻는 열매이며;거짓 자유는 주제넘은 자기_주장이다. 자아_통제는 이타적 봉사로 이끌며;자아_찬양은, 불의한 권능으로 동료 존재들을 압제하기 위해 올바른 달성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된 개인의 이기적 야망을 채우려고 남들을 착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54:1.7 (614.2) 지혜조차, 그 범위가 시공우주이고 동기가 영적일 경우에만 신성하고 안전하다.

54:1.8 (614.3) 다른 존재들이 가진 선천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싶도록, 지적 존재들을 유도하는 그런 종류의 자기_속임보다 더 큰 실책은 없다. 인간에게 공평하라는 황금률은, 그런 모든 기만, 불공평, 이기심, 및 불의에 맞서서 외친다. 참되고 진정한 자유만이, 사랑의 통치 및 자비의 사역과 양립할 수 있다.

54:1.9 (614.4) 우주의 최고 통치자들이, 이런 의지의 특권과 인격체의 잠재성을 자비롭게 존중하면서 뒤로 물러설 때, 자기_뜻대로_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개인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료들의 권한을 침입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유를 행사하면서, 창조주가 수여 하고, 충실한 모든 동료와 하급자와 국민이 온당하게 존중하는, 그런 실존 특권을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빼앗을 권한은 없다.

54:1.10 (614.5) 진화하는 사람은, 죄와 죄악이 있는 세계에서, 또는 원시적인 진화하는 구체의 초기 시절에, 자신의 물질적 자유를 위해서 폭군이나 압제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모론시아 세계 또는 영{靈}의 구체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전쟁은 초기의 진화하는 사람이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문명 세계에서는, 인종적 오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물리적 투쟁이 오래 전부터 나쁘게 평가돼 왔다.

2. 자유를 도둑질함

54:2.1 (614.6)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영 안에서, 영원한 하보나를 입안했으며, 그 후로 늘 창조에 대등하게 참여하는--즉 공유하는-- 영원한 원형{元型}이 널리 통용된다. 공유하는 이 원형은, 영원히 완전한 중앙우주를 시간세계에 복제하는 시도에 착수하려고 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를 위한, 주요 밑그림이다.

54:2.2 (614.7) 아버지 뜻 행하기를 열망하는 전체 진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체험함으로 완전성을 달성하는 이 장엄한 모험에서, 시_공간 창조주들의 동역자가 되게 돼 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창조적 자유의지를 그런 피조물에게 부여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들 속에 내주하는, 즉 자신의 영을 수단으로 해서 그들과 동역관계를 실제로 맺는 일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54:2.3 (614.8) 루시퍼의 어리석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체험하는 우주에서 시간을 옆길로_단축시키려는 시도였다. 루시퍼의 범죄는, 사타니아에 있는 모든 인격체가 가진 창조성을 뺏으려고 꾀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빛과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긴 진화 투쟁에 피조물이 몸소 참여하는--곧 자유의지로 참여하는-- 권리를 몰래 박탈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한때 너희 체계의 주권자였던 이 존재는, 모든 인격있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증여하신 데서 드러난 목적, 즉 하나님 뜻의 영원한 목적에 상반되는 자기 뜻을 목적으로 정했다. 루시퍼 반역은, 이처럼 사타니아 체계의 상승자와 봉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 가능성을 침해했다--이것은 언젠가 완전하게 된 사타니아 체계로서 존재할, 서서히 세워지는 체험적 지혜의 기념비에, 이런 모든 존재로부터 무언가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을 기여하는, 감격적인 체험을

영원히 뺏는 위협이다. 그리하여 루시퍼 성명서는, 자유라는 옷으로 변장하면서, 개인적 자유의 탈취를 완성하려고, 그리고 온 네바돈 역사에서 오직 두 번 진행됐던 규모로 그것을 행하려고, 명료한 이성{理性}의 입장에서 볼 때 어처구니없는 협박을 하면서 나아갔다.

54:2.4 (615.1)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들에게 주신 것을, 루시퍼가 그들로부터 뺏고자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이 지역 체계의 운명과 그들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신성한 특권이다.

54:2.5 (615.2) 참 자유, 즉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동료들을 섬기는 특권을 다른 존재로부터 뺏을 정당한 자유가, 우주 전체에서 아무에게도 없다.

3. 응보의 시간 지연

54:3.1 (615.3) 진화 세계들에서, 의지를 가진 도덕적 피조물은, 온전히_지혜로운 창조주들이 왜 악과 죄를 허용하는가, 등의 경솔한 질문으로 항상 근심한다. 피조물이 정말로 자유로우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수임을 그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진화하는 사람 또는 고상한 천사의 자유의지는, 단순한 철학 개념, 즉 상징적 이상{理想}이 아니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은 우주 실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최고 통치자들이 부여한 것이며, 그들은, 어떤 존재 또는 존재들 집단도, 신성하게 증여된 이 자유를 넓은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인격체에게서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잘못 명명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잘못 인도되고 무지한 존재들을 만족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54:3.2 (615.4) 의식적으로 전심{全心}을 다해서 악(죄)에 공감하는 것이 비실존(소멸)과 동등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죄에 가담하는 때와, --그렇게 고의로 악을 택해서 생기는 자동 결과로-- 형벌이 집행되는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항상 들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그런 개인의 우주 신분에 관해서, 모든 관련된 우주 인격체가 완전히 만족스럽게 여길 정도로 아주 공정하고 당연해서 죄인 자신도 동의할, 그런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히 긴 기간이다.

54:3.3 (615.5) 그러나 진리와 선{善}의 실체에 대항하는 이 우주 반역이 그 평결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자기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판결의

집행은 태고 항존자들의 재량권에 따라서 연기돼야만 한다. 그리고 태고 항존자들은, 행악자 속에 있는, 그리고 또한 모든 관련된 후원자 및 가능성 있는 동조자 속에 있는 모든 도덕적 가치와 모든 영적 실체가 없어질 때까지, 어떤 존재든지 소멸시키기를 거부한다.

4. 자비의 시간 지연

54:4.1 (615.6) 노라티아텍 성좌에서, 설명하기에 어느 정도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는, 체포되고 억류되고 판결받기 전까지 무척 오랫동안 악영향을 미치도록, 무슨 이유로 루시퍼와 사탄 그리고 타락한 왕자들을 내버려두는가에 관한 것이다.

54:4.2 (616.1) 자녀를 낳고 키운 부모는, 창조주이자_아버지인 미가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고 파괴시키기를 왜 주저하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방탕한 아들에 관한 예수의 비유는, 사랑하는 어떤 아버지가 잘못된 자녀의 회개를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54:4.3 (616.2) 악을 행하는 피조물이 실제로 잘못을 범하기로-- 즉 죄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자유_의지작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연장된

자비가 회개와 복권이 이뤄지게만 한다면, 응보를 집행하는 데 아무리 오래 지연되더라도 이를 충분히 정당화한다.

54:4.4 (616.3) 루시퍼는 자신이 추구했던 대부분의 자유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며;다른 것들은 그가 앞으로 받게 돼 있었다. 자기가 지금 간청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갖 우주를 진정시키는 모든 다른 존재의 권한과 자유를 고려해야 할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바심에게 길을 내주고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고귀한 이 재능들 전체가 유실됐다. 윤리적 책무는 선천적이고, 신성하며, 보편적이다.

54:4.5 (616.4) 최고 통치자들이 루시퍼 반역의 지도자들을 즉각 괴멸시키거나 억류시키지 않는 많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이유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응보의 집행을 이렇게 지연시킨 자비의 특색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친히 베푼 것이다. 과오를 범하는 아들들을 이 창조주_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연방우주의 최고 재판관이 활동했을 것이다. 루시퍼 반역 같은 그런 사건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된 동안에 네바돈에서 발생했다면, 그런 악을 선동하는 자들은 즉시 철저히 소멸됐을 지도 모른다.

54:4.6 (616.5) 최고의 응보는, 신성한 자비로 억제되지 않을 때, 즉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에 대한 자비의 사역이, 이 시간 지연, 즉 씨 뿌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 사이에, 이 구원의 간격을 항상 제공한다. 뿌려진 씨가 선하면, 이 간격은 성품을 시험하고 발전시켜주며; 뿌려진 씨가 악하면, 이 자비로운 연기는 회개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행악자들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서 생기는 이 시간 지연은, 일곱 연방우주의 자비 사역에 본래부터 들어있다. 이렇게 처벌을 자비가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주들을 지배하고 모든 피조물의 운명과 심판을 자비롭게 통제하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54:4.7 (616.6) 자비로운 시간 지연은 창조주들의 자유의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죄로 물든 반역을 처리할 때, 이런 인내라는 기법에서 선{善}이 우주에 파생된다. 악을 피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악에서 선이 발생할 수 없음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실천하기를 사랑하며 그의 영원한 계획과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잠재적인 악과 드러난 악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도 똑같이 참이다.

54:4.8 (616.7) 그러나 이런 자비로운 지연에도 끝이 있다. 루시퍼 반역에 대한 판결이 (유란시아에서 계산되는 시간으로) 오래 지연됐지만, 본 계시가 이뤄지는 동안, 가브리엘 ~~과~~ 루시퍼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첫 청문회가 우버사에서 열렸고, 사탄을 루시퍼와 함께 감옥 세계에 가두도록 지시하는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이 곧 떨어졌음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이, 사타니아의 타락한 세계들 가운데 어디에도 사탄이 더 이상 방문할 수 없게 했다. 자비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응보는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

5. 지연시키는 지혜

54:5.1 (617.1) 루시퍼와 그의 공모자들이 왜 더 빨리 억류되거나 판결을 받지 않았는지에 관해 내게 알려진 많은 이유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허락 받았다:

54:5.2 (617.2) 1. 자비는, 모든 범죄자가 자신의 악한 생각과 죄로 물든 행위에 관해서, 신중하고 온전하게 태도를 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54:5.3 (617.3) 2. 최고의 응보는 아버지의 사랑에 지배되며;따라서 자비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응보가 결코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모든 행악자에게 허락된다.

54:5.4 (617.4) 3. 애정 어린 아버지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가운데 과오를 범하는 식구를 찾아가서 벌을 줄만큼 서두르는 법이 없다. 인내는 시간과 별개로 작용할 수 없다.

54:5.5 (617.5) 4.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한 가정에게 반드시 해롭지만, 지혜와 사랑은, 애정 어린 아버지가 허락한 시간 동안에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해서 참으라고, 정직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데, 죄지은 자가 그동안에 자기 방법의 오류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54:5.6 (617.6) 5. 루시퍼에 대한 미가엘의 입장과 상관없이, 창조주 아들은, 루시퍼의 창조주_아버지임에도, 당시에 자신의 증여 경력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네바돈의 무조건적 주권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체계 주권자에 대해서 즉석 재판을 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다.

54:5.7 (617.7) 6. 태고 항존자들은 이 반역자들을 즉각 소멸시킬 수 있었지만, 충분한 청문회 없이는 행악자를 거의 처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그들은 미가엘의 결정을 무효화하기를 거절했다.

54:5.8 (617.8) 7. 반역자들과 상관하지 말고, 반역이 스스로_소멸되는 자연스런 과정을 따라가도록 내버려두라고, 임마누엘이 미가엘에게 권고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합동 항존자의 지혜는, 낙원 삼위일체의 결합된 지혜가 시간상으로 반영된 것이다.

54:5.9 (617.9) 8. 에덴시아에 있는 충실 항존자들은 성좌 아버지들에게, 노라티아텍의 모든 현재 및 미래 시민의-- 곧 모든 필사자, 모론시아 또는 영 피조물의-- 마음 속에서 이 행악자들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곧 뿌리째 뽑히도록, 끝까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반역자들에게 허용하라고 충고했다.

54:5.10 (617.10)

9. 예루셈에서는 오르본톤의 최고 행정관의 개인 대리인은, 루시퍼 자유 선언에 포함된 여러 문제에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가브리엘에게 권고했다. 반역의 문제들이 부풀어 오르자, 가브리엘의 낙원 응급 충고자는, 그런 완전하고 자유로운 기회가 모든 노라티아덱 피조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냉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에 싸인, 그런 모든 피조물이 전체 성좌에 대항해서 자기_방어에 온 힘을 다할 것임을 설명했다. 노라티아덱의 존재들에게 낙원으로 상승하는 문들을 계속 열어놓기 위해서는, 반역이 충분히 발전하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존재의 편에서 태도를 완전히 결정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54:5.11 (617.11)

10.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는, 그의 세 번째 단독 선언으로서, 반역자들 및 반역의 가증한 모습을 반쯤 치료하거나, 소심하게 억압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감추려는 일을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천사 무리는, 죄와 악의 전염병을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가장 빠른 기법으로서, 완전히

노출시키고 죄를_표현할 무제한의 기회를 주도록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54:5.12 (618.1) 11. 강력한 사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몸소 체험을
겪은 영화롭게 된 필사자인데, 이들로 구성된
예전의_필사자들의 응급 협의회가 그 동료들과 함께
예루셈에서 조직됐다. 그들은, 억압이라는 독단적 또는
즉결 방법이 시도된다면 적어도 세 배나 많은 존재가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했다. 결과를
이루기까지 100만 년이 소요되더라도, 반란이 충분하고
자연스런 과정을 밟도록 내버려두라고 가브리엘에게
충고한 것에 대해, 우버사 조연자 단체가 전부 동의했다.

54:5.13 (618.2) 12. 심지어 시간세계의 한 우주에서도, 시간은
상대적이다:평범한 기간의 인생을 산 어떤 유란시아
필사자가, 전_세계적 대혼란을 촉진시키는 어떤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틀 또는
사흘 만에 체포되고 심문받고 집행됐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긴 시간으로 보이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시작된
루시퍼의 판결이 유란시아 햇수로 10만 년 동안 완결되지
못하더라도, 루시퍼의 일생 기간에 비교한다면, 더

짧을지도 모른다.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우버사의 관점에서 보면, 루시퍼의 범죄는 범행을 저지른 지 2.5초 내에 재판에 회부됐다고 함으로써, 그 상대적 시간 경과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판결은 그 범죄 행위와 동시에 일어난다.

54:5.14 (618.3) 루시퍼 반역을 독단적으로 중지시키지 않은 데에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수의 이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설명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악이 그 자체의 도덕적 파산과 영적 사멸의 온전한 과정을 거치도록 허용한 48개의 이유를, 우리가 우버사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내게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 이유가 똑같이 많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6. 사랑의 승리

54:6.1 (618.4) 루시퍼 반역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반역을 취급하는 기법은 신성한 사랑에 대한 입증이라는 점이, 모든 사려 깊은 사색가에게 분명하게 돼야만할 것이다. 반역자들에게 확장된 사랑의 자비가, 많은 무고한 존재를

시험과 환란에 말려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에 빠진 이 모든 인격체는, 온전히_지혜로운 심판관들이 그들의 운명을 공의로 판결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게 판결할 것임을, 확고히 믿어도 될 것이다.

54:6.2 (618.5) 지성 존재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든지, 창조주 아들과 낙원 아버지, 두 분 다 사랑의 지배를 받으신다. 신성과 인간성의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다른 모든 국면의 신격 형태화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들과 반역에 대한--곧 죄와 죄인들에 대한-- 우주 통치자들의 태도의 여러 국면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낙원 창조주 아들들은 모두 자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또한 상기해야만 한다.

54:6.3 (618.6) 어떤 대가족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자녀 가운데 하나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품행이 옳지 못한 이 자식에게 자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행실이 올바른 다른 모든 자녀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일을 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결말은 필연적이며;사랑스런 부모를 갖게 되고 가족 집단의 어떤 식구가 되는 실제 상황에서, 그런 위험성은 분리될 수 없다.

한 가족에서 각 식구는 나머지 모든 식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으며;마찬가지로 각 식구는, 나머지 모든 식구의 잘못된 행실이 직접 일으키는 한때의_결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가족, 집단, 나라, 인종, 세계, 체계, 성좌, 및 우주들은 개별성을 갖는 연합 관계이며;따라서 크든지 작든지, 그런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은, 관계되는 그 집단의 나머지 모든 구성원의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의 영향을 받는다.

54:6.4 (619.1)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만 되는데:너희 가족 가운데 어떤 식구, 어떤 동료 시민, 또는 동료 필사자의 죄, 심지어 그 체계 또는 다른 데서 있었던 반역의 악한 결과로 너희가 고통을 겪게 됐다면, --동역자, 동료, 또는 상관들의 비행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참아야 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그런 시련이 일시적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영원히 확신하면서 안심해도 좋다. 집단 속에서 부정행위가 형제간에 미치는 이런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것도, 결코 너희의 영원한 가능성을 계속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낙원으로 상승하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너희의 신성한 권리를 조금도 뺏을 수 없다.

54:6.5 (619.2) 그리고 반역의 죄를 변함없이 뒤따르는, 이런 시련, 지연, 및 실망에는 보상이 있다. 루시퍼 반역에서 가치 있고 거론할만한 많은 영향 중에서, 나는 오직, 그 필사 상승자들, 즉 예루셈 시민의 생애가 증진된 것에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인데, 그들은 죄의 궤변에 대항함으로써, 장차 강력한 사자들, 즉 나와 같은 계층의 동료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됐다. 그 악한 사건을 견뎌온 모든 존재마다, 그로 인해 즉시, 자신의 행정상 지위를 향상시켰고,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진시켰다.

54:6.6 (619.3) 루시퍼 격변이 처음에는,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수그러들 줄 모르는 재난처럼 보였다. 차츰 이익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체계 시간으로 2만 5천 년(유란시아 시간으로 2만 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들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나오는 선한 결과가, 초래된 악과 맞먹을 정도가 됐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악의 총합은 그때까지 거의 정지된 상태에 있었는데, 격리된 어떤 세계들에서만 증가됐던 반면, 유익한 영향은 우주와 연방우주를 통해 바깥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되고 확장됐다. 멜기세덱들은 이제,

사타니아 반역에서 발생하는 선한 것들이 전체 악의
합계보다 1,000배 이상에 달한다고 가르친다.

54:6.7 (619.4) 그러나 잘못된 행위의 그런 색다르고 유익한 추수
결과는 오직, 에덴시아에 있는 성좌 아버지들로부터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루시퍼보다
위에 있는 모든 분의 현명하고 신성하며 자비로운 태도
때문에 거둘 수 있었다. 시간의 흐름은, 루시퍼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파생될 수 있는 필연적 선을 증진시켜
왔으며;유죄를 선고받아야 할 악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법 완전히 발전됐으므로, 온전히_지혜롭고 선견지명
있는 우주 통치자들이 점점 더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시간을 확실히 연장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타니아
반역자들의 체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많은
이유는 차치하고, 이 한 가지 소득만 해도, 왜 이 죄인들이
더 빨리 억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판결 받고
궤멸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54:6.8 (619.5)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시간에_매인 필사
지성체들은, 우주 직무에 대한 선견지명 있고

온전히_지혜로운 경영자들의 시간 지연을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54:6.9 (620.1) 이 문제에 관해서 인간이 잘못 생각하는 한 가지는, 그들의 세계가 죄로 저주받지 않았다면, 진화하는 행성에서 모든 진화 필사자가 낙원 생애로 들어가기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관념에 있다. 생존을 거부하는 역량은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생긴 것이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낙원 생애를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자질을 항상 소유해 왔다.

54:6.10 (620.2) 생존을 체험하면서 상승하는 동안, 너희는 우주 개념들을 넓히고 의미와 가치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될 것이며;그리하여, 루시퍼와 사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반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왜 내버려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또한, 궁극적 선이 한시적 악으로부터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더 잘 납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낙원에 도달한 후에, 최고스라빔 철학자들이 우주를 조정하는 이 난해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될 때, 너희는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 위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가 돼도, 나는 너희가 자신의 정신에 완전한 만족감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내가 우주 철학의 정상을 그렇게 성취했을 때에도 그렇지 못했다. 나는 연방우주에서 행정부 임무에 배정된 후에야, 이 복잡성들에 대해 충분한 압득을 성취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는 실제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시공우주 평형과 영적 철학 안에서 그런 다방면의 문제를 압득하기에 충분한 개념적 수용력을 획득했다. 너희가 낙원을 향해 상승함에 따라서, 오직 이 체험 수용력이 증가된 후, 그리고 증진된 영적 통찰력을 성취한 후에야, 우주 경영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겨우 압득할 수 있음을, 너희는 점점 더 배우게 될 것이다. 시공우주 지혜는 시공우주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다.

54:6.11 (620.3) [지금은 오르본톤 연방우주 정부에 배속됐고, 살빙톤의 가브리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문제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세계의 우주들에서 처음 체계 반역이 일어났을 때 체험을 거쳐 생존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제55편 빛과 생명의 구체

55:0.1 (621.1) 빛과 생명의 시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진화로 달성하는 마지막 시대다. 원시인이 살던 초기 시대 이후로, 그런 인간거주 세계는, 이어지는 여러 행성 시대-- 곧 행성 왕자 이전 및 이후 시대, 아담 이후 시대, 집정관 아들 이후 시대, 및 증여 아들 이후 시대--를 지나왔다. 그 다음에 그런 세계는 최고조의 진화 달성, 즉 정착된 빛과 생명의 지위를 위해 준비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신성한 진리와 시공우주 지혜를 계속_확장해서 계시하는 것과 더불어, 연달아 행성 사명에 이바지함으로써 이뤄진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종 행성 시대를 안정시킬 때, 교사 아들들은 반드시 찬란한 저녁별들의 도움을 받고, 멜기세덱들의 도움도 가끔 받는다.

55:0.2 (621.2) 교사 아들들의 최종 행성 사명이 끝날 때, 그들이 개시하는 이 빛과 생명의 시대는,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무기한으로 계속된다. 안정된 지위에서 진보하는 각 단계는, 집정관 아들들의 사법 조처에 따라서 일련의 섭리시대들로 분리되겠지만;그런 모든 사법 조처는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이며, 어떤 면에서도 행성 사건의 과정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55:0.3 (621.3) 연방우주의 주요 회로에서 실존하게 된
행성들만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지만, 우리가
아는 한, 빛과 생명에 정착한 이 세계들은 모두, 영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해서 내내, 계속 나아가도록 예정돼 있다.

55:0.4 (621.4) 진화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전개되는 데는
일곱 단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영과_융합된 필사자
세계는, 조울사와_융합하는 계열의 세계와 똑같은 노선을
따라서 진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뒤편만 한다. 빛과 생명의
이 일곱 단계는 다음과 같다:

55:0.5 (621.5) 1. 첫째 단계, 행성 단계.

55:0.6 (621.6) 2. 둘째 단계, 체계 단계.

55:0.7 (621.7) 3. 셋째 단계, 성좌 단계.

55:0.8 (621.8) 4. 넷째 단계, 지방우주 단계.

55:0.9 (621.9) 5. 다섯째 단계, 소구역 단계.

55:0.10 (621.10) 6. 여섯째 단계, 대구역 단계.

55:0.11 (621.11) 7. 일곱째 단계, 연방우주 단계.

55:0.12 (621.12)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전 단계들은, 이 설명의 결론부분에서 우주 조직과 관련해 묘사되겠지만, 어떤 단계에 있는 행성의 가치기준이든지, 다른 세계들의 발달 또는 행성을 초월하는 우주 경영의 수준과는 아주 상관없이, 어떤 세계에서든지 달성될 수 있다.

1. 모론시아 성전

55:1.1 (622.1) 인간거주 세계의 수도에 모론시아 성전이 현존한다는 것은, 그런 구체가 빛과 생명의 정착된 시대에 들어갔다는 증거이다. 교사 아들들이 마지막 사명을 완료하면서 한 세계를 떠나기 전에, 진화로 달성하는 이 마지막 시기의 막을 열면서;“거룩한 성전이 땅에 내려오는” 그날을 주관한다. 빛과 생명의 시대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이 행사는, 반드시 그 행성의 낙원 증여 아들이 몸소 참석하는 영광을 누리는데, 그는 이 위대한 날을 직접 목격하려고 온다.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낙원의 이 증여 아들은 오래_근무한 행성 왕자를 새 행성 주권자로 선포하고, 그런 충실한 라노난텍 아들에게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고, 행성 직무에 대한 권한을 확장시킨다. 체계 주권자도 참석하여 이 선언{宣言}을 확증하는 연설을 한다.

55:1.2 (622.2) 모론시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돼 있다:가장 중심부는 낙원 증여 아들의 지성소{至聖所}다. 오른쪽에는, 전에 행성 왕자였던, 현직 행성 주권자의 자리가 있으며;이 라노난텍 아들은, 성전에 나타났을 때, 그 영역의 비교적 영적인 개인들의 눈에 보인다. 왼쪽에는 그 행성에 배속된 완결성취자들의 대리 우두머리의 자리가 있다.

55:1.3 (622.3) 행성의 성전이 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돼 왔지만, 실제로는 어떤 실질적 물질도 체계 본부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 각 구조물은 체계 본부에서 축소형으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모론시아 동력 감독관들이 이 승인된 계획을 그 행성으로 가져온다. 그들은 여기서,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연합하여, 설계도에 따라서 모론시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55:1.4 (622.4) 평범한 모론시아 성전에는 약 30만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다. 이 건축물은, 경배, 연극, 또는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는 이용되지 않으며;그 행성의 특별한 예식{禮式}에만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체계 주권자 또는 지고자들과의 소통, 영 존재들의 인격체 현존을

드러내도록 고안된 특별히 눈에 보이게 하는 예식, 그리고 조용히 시공우주를 묵상하는 것 등이다. 시공우주 철학 학교들이 졸업식 여행연습을 여기서 실시하며, 그 영역의 필사자들이 사회에 크게 봉사한 업적에 대한, 그리고 기타 뛰어나게 달성한 것들에 대한 행성 표창도 여기서 받는다.

55:1.5 (622.5) 그런 모론시아 성전은 또한, 살아있는 필사자들을 모론시아 실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격하기 위한 집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번쩍이며 다 태워버리는 영광의 불꽃에도 파괴되지 않는 것은, 전환시키는 이 성전이 모론시아 물질로 구성돼있기 때문인데, 이 불꽃은 신성한 조율사와 최종 융합을 여기서 체험하는 그런 필사자의 육체를 아주 완전하게 없애버린다. 이 이별{離別}의 섬광이 어떤 큰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전환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론시아 생명 보조 성소{聖所}들이 그 행성의 여러 다른 지역에 마련된다. 얼마 전에 나는, 25개의 모론시아 성소가 작동하는, 먼 북쪽에 있는 어떤 세계에 머문 적이 있다.

55:1.6 (622.6) 정착되기_이전의 세계, 즉 모론시아 성전이 없는 행성에서는, 이 융합 섬광이 행성 대기{大氣}에서 여러 번

일어나는데, 중도 피조물과 물리 통제관들이 전환 후보자의 물질 육신을 행성 대기로 들어올린다.

2. 죽음과 전환

55:2.1 (623.1) 육신의 자연사는 필사자에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진보된 진화 존재들, 즉 빛과 생명이라는 최종 시대에 실존하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시민은 죽지 않으며;그들은 육신 속의 생애로부터 모론시아 실존으로 직접 전환된다.

55:2.2 (623.2) 물질 생애로부터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이 체험은--즉 불멸하는 혼과 내주하는 조율사의 융합은--행성의 진화 발전에 비례해서 빈도가 증가한다. 처음에는 각 시대에 오직 소수의 필사자만이, 전환될 수 있는 영적 진보 수준에 도달하지만, 이어지는 교사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진보하는 이 필사자의 길어지는 생애가 마감되기 전에 점점 더 많은 조율사 융합이 일어나며;교사 아들들이 마지막 사명으로 오는 시대가 되면, 이 뛰어난 필사자들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자연사에서 제외된다.

55:2.3 (623.3) 빛과 생명의 시대 속에서 오래 지날수록, 중도 피조물 또는 그 동역자들은, 합동이 예상되는 상태에

혼과_조율사가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며, 이를 운명 수호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은 다시 이 문제를, 이 필사자가 활동하고 있을 관할 지역의 완결성취자 집단에게 통보하며;그 다음에는 그런 필사자에게, 모든 행성 임무에서 물러나고, 그가 기원된 세계에 작별을 고하고, 행성 주권자의 내부 성전으로 가서, 진화하는 물질적 영역으로부터 영_이전{以前}에 진보하는 모론시아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모론시아 전환, 즉 변환 섬광을 거기서 기다리라는, 행성 주권자의 소집명령이 떨어진다.

55:2.4 (623.4) 그런 융합 후보자의 가족, 친구들, 및 일하는 집단이 모론시아 성전에 모이게 됐을 때, 그들은 융합 후보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앙 무대 주변에 흩어져 있고, 그동안에 모여든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생명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에 나타나는 에너지 작용으로부터 물질 필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연{絶緣}시키는 천상의 인격체들로 이뤄진 한 집단이 배치되는데, 이 섬광은 상승 후보자를 물질 육신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을

벗어나는 자에게 자연사가 미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그런 진화 필사자에게 미친다.

55:2.5 (623.5) 많은 융합 후보자들이 넓은 성전에 동시에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영적 감격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의
상승을 목격하기 위해서 필사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필사자들이
자신의 시신을 지상의 원소 세계로 내줘야만 했던 초기
시대와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인간의 진화에서 초기
시대의 특징인, 눈물로 얼룩지고 비탄에 젖은 광경들은,
장엄하게 타오르고 영광스럽게 솟아오르는 영적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물질적 관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을_아는 이 필사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시적
작별을 고할 때, 이제 무아지경의 기쁨과 가장 장엄한
감격으로 대치된다.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에서는,
"장례식"이 최고의 기쁨, 심오한 만족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소망이 넘치는 행사다.

55:2.6 (623.6) 진보하는 이런 필사자의 혼은, 신앙, 소망, 및
확신으로 점점 더 채워진다. 전환시키는 성소 주변에 모인
그들에게 스며드는 활기는, 자기 집단에 속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졸업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게 어떤 큰 상이 수여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친구 및 친척들의
활기와 흡사하다. 아직 많이 진보하지 못한 필사자들이,
바로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한 태도로 자연사를 바라보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확실히 유익할 것이다.

55:2.7 (624.1) 융합하는 섬광이 있는 후에, 필사자 참관인들은
전환된 동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조율사가
운반함으로써 처리된 그런 전환된 혼은, 적합한
모론시아_훈련 세계의 부활실로 직접 옮겨진다. 살아있는
인간이 모론시아 세계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된 이
진행사항은, 빛과 생명에 처음 정착했던 그날에 그런
세계에 배정된 천사장의 감독을 받는다.

55:2.8 (624.2) 한 세계가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를 달성할 때가
되면, 절반 이상의 필사자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전환됨으로써 행성을 떠난다. 그런 죽음의 감소는 연이어
계속되지만, 나는 인간거주 세계들이 포함된 어떤 체계도,
심지어 생명 속에 오랫동안 정착됐더라도, 육신의
족쇄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연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행성의 진화가 그런 높은 상태로 균일하게 도달하기까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_훈련 세계들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진보자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구체로서 계속 봉사해야만 한다.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아마 그런 상태는, 정착된 행성 생명의 일곱째 단계를 잇는 시대에, 까마득히 먼 훗날에 달성될지도 모르겠다.

55:2.9 (624.3) 정착된 구체의 개화기{開花期}에 전환되는 혼들은 맨션 세계들을 거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체계 또는 성좌의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학생으로 머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론시아 생애의 어떤 초기 국면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물질 실존으로부터 약간영{靈} 상태까지, 모론시아의 과도기를 거의 피하는 상승 필사자일 뿐이다. 상승하는 생애에서 *아들에게_점유된* 그런 필사자들의 초기 체험은, 우주 본부의 진보 세계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빙톤의 이 학습 세계들로부터, 자신이 그냥 지나친 바로 그 세계들로 선생으로서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확립된 필사자 상승 노선을 따라서 낙원을 향해 안쪽으로 나아간다.

55:2.10 (624.4) 너희가 진보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행성을 방문할 수 있다면, 맨션 세계 및 그보다 높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을 차별해서 받도록 마련한 이유를 빨리 파악할 것이다. 그런 고도로 진화된 세계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쳐가는 존재들은, 유란시아 같은 혼란스럽고 뒤쳐진 세계로부터 도착하는 보통 필사자보다 훨씬 앞서서 낙원 상승을 다시 시작하도록 준비돼 있음을, 너희는 빨리 이해하게 될 것이다.

55:2.11 (624.5) 인간이 행성에서 어떤 수준을 달성하고 모론시아 세계들로 상승했든지, 그들이 태어난 행성의 발전 상태 때문에 거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_학생으로서 체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일곱 맨션 세계가 그들에게 제공한다.

55:2.12 (624.6) 우주는, 상승하는 체험에 필수적인 것을 어떤 상승자든지 하나도 빼가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이 평준화 기법을 틀림없이 적용한다.

3. 황금기

55:3.1 (624.7) 이 빛과 생명의 시대에, 세계는 행성 주권자의 아버지다운 통치 아래 점점 더 번영한다. 이때가 되면,

세상은 한 언어와 한 종교, 그리고 보통 구체의 경우에는 한 인종의 추진력 아래서 진보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완전치 않다. 이 세상에는 준비가 잘된 병원, 즉 환자를 돌보기 위한 건물들이 여전히 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나이 들어 생기는 노쇠함과 고령의 부조화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질병 문제가 여전히 있다. 질병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으며, 또한 육상 동물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지만;그런 세상은, 행성 왕자_이전{以前} 시대에 원시인이 살던 초기 시절과 비교하면 낙원 같다. 너희가 이런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행성으로 갑자기 옮겨질 수 있다면--너희는 본능적으로 그 세계를 땅에 있는 천국으로 묘사할 것이다.

55:3.2 (625.1) 물질적 직무를 수행하는 인간 정부는, 비교적 진보하고 완전해지는 이 시대 내내 계속 기능을 발휘한다. 내가 최근에 방문한 바 있는, 빛과 생명의 첫째 단계에 있는 어떤 세계의 공공 활동은, 십일조{十一租}라는 방법으로 재력을 마련한다. 모든 성인 노동자는--그리고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민은-- 자신의 수입이나 이자소득에서 10퍼센트를 공공 기금에 납부했고, 다음과 같이 지출됐다:

55:3.3 (625.2) 1. 3퍼센트는 진리를--곧 과학, 교육, 철학을--증진하는 데 사용됐다.

55:3.4 (625.3) 2. 3퍼센트는 미{美}에--곧 연극, 사교적인 여가, 예술에-- 지불됐다.

55:3.5 (625.4) 3. 3퍼센트는 선{善}에--곧 사회 봉사, 이타주의, 종교에-- 사용됐다.

55:3.6 (625.5) 4. 1퍼센트는, 사고, 질병, 노년, 또는 예방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노동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보험금에 배정됐다.

55:3.7 (625.6) 이 행성의 천연 자원은, 사회의 소유물, 즉 공동체의 자산으로 경영됐다.

55:3.8 (625.7) 이 세계에서는 시민{市民}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가 “최상의 봉사”라는 종류였는데, 일찍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유일하게 수여하는 표창장이다. 이 상은, 초물질적 발견 또는 행성의 어떤 국면의 사회 봉사에서 오랫동안 두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됐다.

55:3.9 (625.8) 대다수의 사회 및 경영 직책을 남녀가 공동으로 차지한다. 대부분의 가르침 역시 합동으로

행해지며;마찬가지로, 모든 사법적 직무도 비슷한 연합된 쌍들이 이행했다.

55:3.10 (625.9) 뛰어난 이 세계들에서는 자녀를 잉태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한 가족의 자녀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좋지 않다. 나이가 비슷할 때, 자녀들은 서로 훈련시키는 데 훨씬 더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계에서는,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통달을 다양하게 성취하는 진보된 범위와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 체제로 인해 훌륭하게 훈련된다. 영화롭게 된 그런 구체들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많은 악을 보이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죄와의{義} 사이를 선택하는 동기가 된다.

55:3.11 (625.10) 그럼에도 그런 진보된 진화 행성에서 필사자 실존에게 따르는 어떤 불가피한 형벌이 있다. 정착된 세계가 빛과 생명의 셋째 단계를 넘어서 진보할 때, 모든 상승자는, 소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초기 단계의 진화를 거치고 있는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일시적 임무를 부여받게 돼 있다.

55:3.12 (626.1) 이어지는 이 여러 시대는 각각, 행성이 달성하는 모든 국면에서 진보하는 업적을 나타낸다. 빛의 초기 시대에, 진리의 계시가 온갖 우주의 활동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며, 한편 둘째 시대에 신격에 관한 연구는, 칠중 하나님의 첫 수준, 즉 창조주 아들들의 본성, 사명, 사역, 관계, 기원, 및 운명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통달하려는 시도다.

55:3.13 (626.2) 유란시아 크기의 행성은, 매우 잘 정착됐을 때, 약 100개의 보조경영 중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영자 가운데 하나가 이 보조 중심지를 주관할 것이다:

55:3.14 (626.3) 1. 통치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보좌관으로서 행동하도록 체계 본부에서 데려온 젊은 물질 아들과 딸.

55:3.15 (626.4) 2. 이 책임 및 기타 비슷한 책임을 위해 어떤 세계들에서 출산된, 행성 왕자의 약간필사 참모진이 낳은 자손.

55:3.16 (626.5) 3. 아담과 이브의 직계 행성 자손.

55:3.17 (626.6) 4. 물질화되고 인간화된 중도 피조물.

55:3.18 (626.7) 5. 조율사와_융합하는 신분의 필사자이고, 그들 자신이 간청해서, 우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격화된 조율사의 명령에 따라, 그 행성에서 어떤 중요한 경영 지위를 계속 갖도록, 일시적으로 변환에서 제외된 자들.

55:3.19 (626.8) 6. 행성의 여러 경영 학교에서 특별하게 훈련된 필사자이고, 모론시아 성전에서 최상의 봉사에 임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받아온 자들.

55:3.20 (626.9) 7. 올바르게 자격을 갖춘 세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어떤 선출된 위원회이고, 특별한 행성 구역에 있어야만 될 어떤 분명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에 따라서, 행성 주권자의 지시 아래, 시민이 이따금 선택하는 자들.

55:3.21 (626.10) 빛과 생명의 높은 행성 운명을 달성하는 문제에서 유란시아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는, 질병, 퇴화, 전쟁, 다색 인종들, 그리고 복잡한 언어 등의 문제에 내포돼 있다.

55:3.22 (626.11) 어떤 진화 세계든지, 그 세계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그리고 하나의 철학을 성취하기 전에는, 정착되는 첫 단계를 넘어서 진보하기를 바랄 수 없다. 하나의 인종이 되는 것이 그런 성취를 크게

촉진시키겠지만, 유란시아에 많은 민족이 있다고 해서 높은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배제되지는 않는다.

4. 경영의 재조정

55:4.1 (626.12) 이어지는 정착된 실존 단계들에서, 인간거주 세계들은 자원하는 완결성취 단체의 현명하고 연민의 정으로 가득한 경영 아래서 놀라울 정도로 진보하는데, 이들은 낙원에 도달한 상승자이고,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 완결성취자들은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과 협동하여 활동하지만, 모론시아 성전이 땅 위에 나타나기 전에는 실제로 세상 직무에 참여하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55:4.2 (626.13) 완결성취 단체의 행성 사역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천상의 무리가 철수한다. 그러나 운명의 스랍 수호자들은, 빛 가운데서 진보하는 필사자들에게 계속해서 몸소 사역하며;정착된 시절 내내, 정말로 그렇게 오는 천사들의 숫자가 계속_증가하는데, 이는 행성에서 누리는 생애 동안에, 점점 더 큰 무리의 인간이 동등한 필사자 달성의 셋째 시공우주 궤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55:4.3 (627.1) 이것은 이어지는 경영 조정들 중에서 첫째 조정에 불과한데, 인간거주 세계가 첫째 단계에서 일곱째까지 정착된 실존을 거치는 동안, 점점 더 찬란한 달성을 이루는 이어지는 시대들이 펼쳐지면서, 그런 경영 조정들이 뒤따른다.

55:4.4 (627.2) 1. *빛과 생명의 첫째 단계*. 정착된 초기 단계에 있는 세계를 다음과 같은 세 명의 통치자가 경영한다:

55:4.5 (627.3) a. 행성 주권자, 그는 상담하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충고를 곧 받게 돼 있고, 그 행성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들들로 이뤄진 마지막 단체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55:4.6 (627.4) b. 행성 완결성취자 단체의 우두머리.

55:4.7 (627.5) c. 아담과 이브, 이들은 왕자_주권자 및 완결성취자들의 우두머리로 이뤄진 이중 지도 체제를 통합하는 자로서, 함께 활약한다.

55:4.8 (627.6) 고양되고 해방된 중도 피조물이 스랍 수호자와 완결성취자들을 위해 통역관으로서 활동한다.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마지막 사명에서 행하는 마지막 조치

가운데 하나는, 그 영역의 중도자들을 해방시키고
행성에서 진보된 지위로 진급(또는 회복)시키는 것인데,
정착된 구체의 새로운 경영 체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그들을 배치한다. 초기 아담 체제에 속한,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사촌들을, 필사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인간 시력 범위 내에서 이미 조성됐다.
이것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행성 기능이 증대된 것과
관련하여, 자연 과학의 최종 발견으로 가능하게 된다.

55:4.9 (627.7) 체계 주권자는, 정착된 첫째 단계 이후에, 생명
운반자와 물리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아 모론시아에서
인간화 하도록 중도 피조물을 어느 때든지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사고 조율사를 받은 후에 낙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55:4.10 (627.8) 셋째 및 그 이후 단계들에서, 주로 완결성취자들을
위한 접촉 인격체로서, 중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빛과 생명의 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계층의 연락 사역자들이 중도자 대부분을
대체하며;그들 가운데 극소수는 빛의 넷째 단계가 지난
뒤에도 계속 남는다. 일곱째 단계는, 어떤 우주 피조물을

대신해서 봉사하려고, 낙원으로부터 첫째 유한절대 사역자들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55:4.11 (627.9) 2. *빛과 생명의 둘째 단계.* 생명 운반자가 도착하는 것이, 이 시기가 세계들에 임했음을 알려주는데, 그 생명 운반자는, 필사자 인종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더 수고한다는 점에서 행성 통치자들에게 자발적 충고자가 된다. 그리하여 생명 운반자들은 --육신적, 사회적, 및 경제적 면에서-- 인간 종족의 더 많은 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감독은, 지적 본성, 철학적 본성, 시공우주의 본성, 그리고 영적 본성의 잠재력이 열등한, 뒤쳐지고 지속하는 잔재들을 과감히 제거시킴으로써, 필사자의 혈통을 더욱 정화시키는 일로 확장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생명을 계획하고 심는 자들은, 물질 아들과 딸들에게 충고할 자격이 충분하며, 모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진화 인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

55:4.12 (627.10) 둘째 단계부터 계속해서, 정착된 한 행성의 경력 내내, 교사 아들들은 완결성취자들에게 조연자로서 봉사한다.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배정됐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자로서 봉사하며;체계 주권자의
동의로 행성 아담과 이브에게 충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오로지 완결성취자 단체와 함께 봉사한다.

55:4.13 (628.1) 3. *빛과 생명의 셋째 단계.* 이 시기 동안에,
인간거주 세계는, 태고 항존자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칠중 하나님의 둘째 국면에 도달하며, 이 연방우주
통치자들의 대표자들은 행성의 경영 당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55:4.14 (628.2) 정착된 실존의 이어지는 각 시대에,
완결성취자들은 계속_증가하는 수용력으로 활약한다.
완결성취자, 저녁 별(최고천사들), 그리고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 사이에 긴밀한 실무 통신수단이 존재한다.

55:4.15 (628.3) 이 시대 또는 뒤따르는 시대 동안, 4인조의
돌보는_영이 보조하는 교사 아들이, 선출되는 필사자 최고
행정관에게 배속되는데, 이 행정관은 세상 직무에 대한
공동 경영자로서 행성 주권자와 이때 연합한다. 이 필사
최고 행정관들은 행성 시간으로 25년 동안 봉사하며, 바로
이런 새로운 진전 때문에,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이어지는

시절에 오랜_세월 동안 배정됐던 세계로부터 확실히 풀려나기 쉽게 된다.

55:4.16 (628.4) 4인조의 돌보는_영은, 구체의 스랍 우두머리, 연방우주 제2스랍 조연자, 전환 천사장, 그리고 체계 본부에 머무는 배정된 파수꾼의 개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전{쑤}스라빔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충고자들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결코 조언을 제시하지 않는다.

55:4.17 (628.5) 4.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 그 세계들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새로운 역할을 띠고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과 매우 오랫동안 연합했던,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의 보조를 받아, 이제 행성 주권자 및 그 동역자들에게 자발적 조연자와 충고자로서 그 세계들로 온다. 그런 쌍은--곤 낙원_하보나에서_삼일체된 아들 및 상승자에서_삼자일체된 아들은-- 행성 통치자들에게 고귀하게 봉사할 수 있는, 차이 나는 우주 관점과 다양한 개인 체험을 대표한다.

55:4.18 (628.6) 행성 아담과 이브는, 이 시대 이후에 언제든지, 자신의 낙원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 행성 의무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주권자 창조주 아들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아니면 점점 더 영적인 사회에 새롭게 출현하는 계층의 지휘자로서 행성에 남을 수 있는데, 그 영적 사회는, 찬란한 저녁별들이 묘사한 완결성취자들의 철학적 교훈을 납득하려고 애쓰는 진보된 필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찬란한 저녁별들은, 연방우주의 본부에서 온 제2스라빔과 쌍을 이뤄 공동으로 일하도록 이제 이런 세계에 배정된다.

55:4.19 (628.7) 완결성취자들은, 사회의 새로운 초물질적인 활동을--곧 사회 활동, 문화 활동, 철학 활동, 시공우주 활동, 및 영적 활동을-- 개시하는 데 주로 참여한다. 우리가 식별하는 한, 그들은 진화로 안정된 일곱째 시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인데, 아마 그때, 외부 공간에서 사역하려고 나갈지도 모르며;그래서 우리는 낙원으로부터 오는 유한절대 존재들이 그들의 자리를 대치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55:4.20 (628.8) 5. *빛과 생명의 다섯째 단계.* 정착된 실존에 대한 이 단계의 재조정은, 거의 완전히 물리적 분야에 관한 것이며,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주요 관심사다.

55:4.21 (628.9) 6. *빛과 생명의 여섯째 단계*는, 그 영역에서 정신 회로의 새로운 기능들이 개발되는 것을 목격한다. 시공우주의 지혜는, 정신이 우주에게 베푼 사역의 일부분인 듯하다.

55:4.22 (628.10) 7. *빛과 생명의 일곱째 단계*. 일곱째 시기에 일찍이, 태고 항존자들이 보낸 어떤 자발적 충고자가, 행성 주권자에게 조언하는 삼위일체 교사와 합세하며, 나중에는 연방우주의 최상 행정관이 그들에게 보낸 세 번째 조언자로 보강될 것이다.

55:4.23 (629.1) 이 시기 이전 또는 이 시기 동안에, 아담과 이브가 반드시 행성 임무에서 풀려난다. 완결성취자 단체에 한 물질 아들이 있다면, 그는 필사 행정관 우두머리와 연합할지도 모르며, 때로는 한 멜기세덱이 이 자격으로 활동하겠다고 자원한다. 한 명의 중도자가 완결성취자들 가운데 있다면, 행성에 남아 있는 그 계층 전체가 즉각 풀려난다.

55:4.24 (629.2) 긴 세월의 임무에서 풀려남에 따라, 행성 아담과 이브는 다음과 같은 생애를 선택할 수 있다:

55:4.25 (629.3) 1. 그들은 행성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증 받을 수 있으며, 낙원으로 가는 생애를 우주 본부에서 즉각 시작하고, 모론시아 체험이 완료될 때 사고 조율사를 받는다.

55:4.26 (629.4) 2. 아주 흔히, 행성 아담과 이브는, 빛 속에 정착된 어떤 세계에서 아직 봉사하는 동안에 조율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어떤 기간의 행성 봉사를 위해서 자원한, 외계에서 들어온 순수_혈통의 자녀 가운데 일부가 조율사를 받게 됨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후에 그들은 모두 우주 본부로 가서, 거기서 낙원 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

55:4.27 (629.5) 3. 행성 아담과 이브는 --체계 본부에서 온 물질 아들과 딸들이 하듯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중간유한절대 세계로 직접 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율사를 받는다.

55:4.28 (629.6) 4. 그들은 체계 본부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동안 최고 법정에서 자리를 차지하며, 그 봉사 후에 조율사를 받고 낙원 상승을 시작한다.

55:4.29 (629.7) 5. 경영 임무를 마치고, 자신이 태어났던 세계로 가서 한동안 선생으로서 봉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우주 본부로 이동할 때 조율사가 내주하게 된다.

55:4.30 (629.8) 이 모든 시기들 내내, 외계에서 들어온 보조하는 물질 아들과 딸들은, 진보하는 사회 및 경제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그들은 인간화 되고, 조율사를 받으며, 낙원을 향해 출발하기로 선택하는 그 시점까지는 잠재적으로 불멸한다.

55:4.31 (629.9) 진화 세계에서 사고 조율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든지 반드시 인간화돼야 한다. 필사 완결성취자 단체의 상승하는 모든 구성원에게는 조율사가 이미 내주하고 융합했으며, 스라빔은 예외인데, 스라빔에게는 이 단체로 소집되는 시점에 아버지가 다른 유형의 영으로 내주한다.

5. 물질 발달의 전성기

55:5.1 (629.10) 유란시아처럼, 죄에_짓눌리고, 악이_지배하고, 자아를_추구하는, 격리된 세계에 사는 필사 피조물은, 죄 없는 구체에서 이 진보된 진화 시기들의 특징인, 물리적 완전성, 지적 달성, 및 영적 발전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55:5.2 (629.11)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의 진보된 단계는 물질 진화 발달의 전성기를 나타낸다. 교화{教化}된 이런 세계에서는, 초기 원시 시대의 게으름과 충돌이 이미 사라졌다.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이 모두 사라졌고, 퇴화가 없어졌으며, 직무 태만은 보기 힘들다. 정신병이 실제로 사라졌고, 정신_박약은 아주 드물다.

55:5.3 (629.12) 이 세계들의 경제, 사회, 및 경영 상태는, 고귀하고 완전하게 된 계층에 속한다. 과학, 예술, 및 산업이 번창하고, 사회는 높은 물질적, 지적, 및 문화적 성취를 이뤄서 순조롭게 작동하는 구조다. 산업은 대체로 그런 뛰어난 문명의 높은 목표를 돕는 쪽으로 크게 전환됐다. 그런 세계의 경제생활은 윤리에 맞춰져 왔다.

55:5.4 (630.1) 전쟁은 역사의 관심거리가 돼버렸고, 더 이상 군대나 경찰은 없다. 정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아_통제가, 인간이 제정한 법규를 서서히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문명이 중간 정도로 발전돼 있을 때, 시민 정부와 법적 규제는, 시민이 도덕적이고 영적일수록 줄어든다.

55:5.5 (630.2) 학교는 광범하게 개선되고, 정신 훈련과 혼{魂}의 성장에 기여한다. 예술의 전당은 매우 아름답고 음악 단체는 뛰어나다. 경배 드리는 성전은, 그에 관련된 철학 및 체험적 종교 학교들과 함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연출한다. 경배 드리는 집회가 열리는 야외무대는 단순한 예술적 치장이 똑같이 장엄하다.

55:5.6 (630.3) 경쟁하는 놀이, 유머, 그리고 다른 국면의 개인적 및 집단적 성취를 위한 설비는 충분하고 적절하다. 고도로 문화화 된 그런 세계에서 경쟁 활동의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과학과 우주론{宇宙論} 철학에서 뛰어나려고 개인 및 집단이 기울이는 노력과 관계된다. 문학과 웅변술이 번창하고, 언어는 생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개념을 잘 상징하도록 무척 개선된다. 삶은 상쾌하고 단순하며;사람은 마침내 고도의 기계 발달과 영감 주는 어떤 지적 달성을 조화시켰고, 절묘한 영적 성취는 이 두 가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기쁘고도 만족스런 체험이다.

6. 개별 필사자

55:6.1 (630.4) 세계들이 빛과 생명의 정착된 상태에서 진보할 때, 사회는 점점 더 평화롭게 된다. 개인은, 확실히 자립하고, 자기 가족에 헌신하는 한편, 더 이타적이고 더 형제답게 된다.

55:6.2 (630.5)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현재 상태 그대로는, 완전하게 된 이런 세계들에서 사는 계몽된 인종들의 발전된 상태와 진보된 본성을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민족은 진화 인종들의 전성기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도 여전히 필사이며; 계속 숨 쉬고, 먹고, 자고, 마신다. 이렇게 대단한 진화도 하늘나라가 아니며, 하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는 신성한 세계들을 훌륭하게 예시한다.

55:6.3 (630.6) 정상 세계에서, 필사자 인종의 생물학적 건강은, 아담_이후 시기들 동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지 오래 됐으며; 이제, 안정된 여러 시대 전반에 걸쳐서 사람의 육신적 진화는 계속된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모두 확장됐다. 이제는 인구가 고정된 숫자로 안정된다. 출산은 행성의 요구와 타고난 유전적 자질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데: 이 시기 동안, 행성에 있는 필사자들은 다섯 내지 열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하류 집단은 상류 집단보다

절반 정도의 자녀만 두도록 허용된다. 빛과 생명의 시대 전반에 걸친 그런 훌륭한 인종의 계속된 개선은 대체로, 우수한 양질의 사회적 본성, 철학적 본성, 시공우주의 본성, 및 영적 본성을 나타내는 인종 혈통을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는 문제다.

55:6.4 (630.7) 이전{以前}의 진화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조율사가 계속 도래하며, 시기들이 지남에 따라, 이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아버지 단편과 점점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영적 발달 단계 이전의 배아기{胚芽期}에는 보조 정신_영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정착된 생명의 계속되는 여러 시기를 체험함에 따라서, 거룩한 영과 천사들의 사역은 더욱 효과를 나타낸다. 빛과 생명의 넷째 단계에서, 진보된 필사자들은 연방우주가 관할하는 으뜸 영의 영 현존과 상당히 큰 의식적{意識的} 접촉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며, 한편 그런 세계의 철학은, 지존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집중된다. 이런 진보된 상태의 행성에서는, 인간 거주자 가운데 반 이상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론시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렇더라도, “옛 것들은 지나가고 있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있다.”

55:6.5 (631.1) 빛_과_생명의 시대 가운데 다섯째 시기가 끝날 무렵에, 육체의 진화가 완전한 발달을 달성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진화하는 인간 정신과 관련된 영적 발달의 상한{上限}은, 모론시아 가치기준과 시공우주 의미가 결합된 수준, 조율사와_융합하는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그러나 지혜에 관해서는: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지적 진화와 지혜의 달성에 한계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추측한다. 일곱째 단계의 세계에서, 지혜는 물질 잠재력을 다 나타내고, 모타 통찰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결국 유한절대의 위대함도 맛볼 수 있다.

55:6.6 (631.2) 우리는, 고도로 진화되고 오래 지속되는 일곱째 단계의 세계에서, 인간이 전환되기 전에 지방우주 언어를 충분히 배우는 것을 봤으며;나는, 어밴돈터들이 비교적 나이 든 필사자들에게 연방우주 방언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몇몇 늙은 행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세계에서, 유한절대 인격체들이 모론시아

성전에서 완결성취자들의 현존을 드러내는 기법을 관찰해 왔다.

55:6.7 (631.3) 이것은 진화 세계들에서 일어나는 필사자 투쟁의 훌륭한 목표에 대한 이야기이며;인간이 모론시아 생애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부 발생하며;인간거주 세상에서 물질적 필사자는, 이 모든 찬란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런 달성은, 낙원으로 상승하고 신성에 도달하는, 끝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생애의 바로 첫 단계다.

55:6.8 (631.4) 그러나 정착된 빛과 생명의 일곱째 시기에 오래 존속한 세계들로부터, 지금 어떤 종류의 진화 필사자들이 출현하고 있는지, 너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상승 생애를 시작하려고, 지방우주 본부의 모론시아 세계들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55:6.9 (631.5) 혼란된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정착한, 비교적 더 진보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를 볼 수만 있다면, 진화적 창조 기획이라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설령 피조물이 영원히 진보하는 미래가 없더라도, 완전함을 성취한 그런 정착된 세계에서 필사자 인종들이 진화로 훌륭하게 달성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여러 세계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여전히 정당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55:6.10 (631.6) 우리는 종종 속고해 본다: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되면, 상승하는 세련된 필사자들이 여전히 완결성취 단체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7. 첫째 단계, 행성 단계

55:7.1 (631.7) 이 시기는, 새로운 행성 본부에 모론시아 성전이 나타나는 때부터, 전체 체계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때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는,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이 그들의 계속되는 세계 사명을 종료할 때 시작되는데, 그때 그 구체의 낙원 증여 아들의 명령으로, 그리고 몸소 출현함으로, 행성 왕자는 행성 주권자 신분으로 올라간다. 이와 동시에, 완결성취자들은 행성 직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55:7.2 (632.1)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빛과 생명에 정착된 그런 세계의 실제 통치자 또는 지휘자는, 물질 아들과 딸, 즉 행성 아담과 이브다. 완결성취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론시아 성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왕자_주권자 역시 그렇다. 그러므로 행성 체제의 실제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우두머리는 물질 아들과 딸이다. 우주 영역들에 두루, 왕과 왕비의 관념이 눈길을 끌어온 것은 이런 제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 환경 아래서 왕과 왕비는 대단한 성공자인데, 그런 경우에 한 세계는 그렇게 높은 인격체들에게, 더 높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을 대신해서 활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55:7.3 (632.2) 너희 세계가 그런 시대에 도달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행성 주권자 자리에 앉게 될 것이며;노라티아덱의 지고자의 피보호자로서 현재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는 유란시아 아담과 이브의 한 아들과 딸이 그를 동반하리라고, 예루셈에서 오랫동안 추측해 왔다. 아담의 이 자녀들이 멜기세덱_주권자와 연합하여 유란시아에서 그렇게 봉사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거의 37,000년 전, 에덴시아로 운반되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물질 신체를 포기했을 당시에, 번식 능력을 뺏겼기 때문이다.

55:7.4 (632.3) 정착된 이 시대는, 체계에 있는 모든 인간거주 행성마다 안정된 시절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되며;그 다음에는, --마침내 빛과 생명을 성취한-- 가장 어린 세계가, 체계 시간으로 1,000년 동안 그런 정착을 체험했을 때, 전체 체계가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며, 각 세계는 빛과 생명의 시대라는 체계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8. 둘째 단계, 체계 단계

55:8.1 (632.4) 전체 체계가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새로운 체제의 정부가 출범한다. 행성 주권자들은 체계 비밀회의의 회원이 되며, 성좌 아버지들의 거부권에 지배되는 이 새로운 경영 기관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 인간거주 세계들로 구성된 그런 체계는 사실상 자치정부가 된다. 체계의 입법 집회가 본부 세계에 설립되며, 각 행성마다 그곳으로 열 명의 대표자를 보낸다. 법정들이 이제 체계 본부들에 설립되고, 오직 항소{抗訴}만 우주 본부로 이관된다.

55:8.2 (632.5) 체계가 정착됨에 따라서, 연방우주 최상 행정관의 대표자인 배정된 파수꾼이, 체계의 최고 법정에게

자원하는 충고자가 되고, 새 입법 집회를 실제로 관장하는 관리가 된다.

55:8.3 (632.6) 체계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한 후에는, 체계 주권자들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권자는 그 체계의 우두머리로서 영구히 남는다. 보조 주권자들은 이전{以前} 시대들에서 하던 것처럼 계속 바뀐다.

55:8.4 (632.7) 안정되는 이 시기 동안에, 머물렀던 우주 본부 세계들로부터 처음으로 중간유한절대자들이 오는데, 입법 집회에 대해 조언하는 자로서, 그리고 판결 법정에 대한 자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 중간유한절대자들은, 완결성취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르치는 기관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 새로운 모타 의미들을 가르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물질 아들들이 필사자 인종들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행했던 것을, 이제 중간유한절대 피조물이, 철학 및 영성화 된 사고{思考}의 계속_발전하는 분야들에서, 통합되고 영화롭게 된 이 인간들을 위하여 행한다.

55:8.5 (633.1)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교사 아들들은 완결성취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가 되며, 또한 바로 이 교사 아들들은, 체계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한 후에, 그 구체들이 특이한 영접 세계로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게 될 때, 맨션 세계들까지 완결성취자들과 동행하며;성좌 전체가 그렇게 진화하는 때가 되면, 적어도 이것이 참말이다. 그러나 네바돈에는 그렇게 멀리 진보한 집단이 없다.

55:8.6 (633.2)

우리는 다시 헌신된 그런 맨션 세계들을 감독하게 될 완결성취자들의 업무의 본질을 계시하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지성 피조물이 우주들 전역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55:8.7 (633.3)

그리고 이제, 체계를 구성하는 세계들이 진보한 덕분에, 체계들이 빛 속에 하나씩 정착하게 됨에 따라서, 주어진 한 성좌에서 마지막 체계가 안정될 때가 도래하며, 우주 행정관들--곧 으뜸 아들, 합동 항존자,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 성좌 본부에 도착하는데, 인간거주 세계들로

이뤄진 정착된 100체계, 즉 새롭게 완성된 집단의 무조건 통치자는 지고자들이라고, 공표하기 위해서다.

9. 셋째 단계, 성좌 단계

^{55:9.1 (633.4)} 정착된 체계들로 이뤄진 한 성좌 전체가 통합되면, 행정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고 추가로 우주 경영을 재조정하는 일이 뒤따른다. 이 시기에, 각 인간거주 세계에서 증진된 달성이 이뤄지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 특징은 체계 감독 및 지방우주 정부 양쪽과 맺는 관계가 두드러지게 수정됨과 아울러, 특별히 성좌 본부에서 재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시기 동안에 많은 성좌 및 우주 활동이 체계 본부로 양도되며, 연방우주 대표자들은, 행성, 체계, 및 우주 통치자들과 새롭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새로운 연합과 동시에, 어떤 연방우주 경영자들이, 지고자 아버지들에게 자원하는 총고자로서 성좌 본부에 자리를 잡는다.

^{55:9.2 (633.5)} 한 성좌가 그렇게 빛 속에 정착할 때, 입법 기능이 멈추고, 지고자들이 관장하는 체계 주권자들의 의회가 대신 작용한다. 이제 그런 경영 집단들은, 하보나 및 낙원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처음으로 연방우주 정부를 직접

상대한다. 그 외에 성좌와 지방우주의 관계는 전과 동일하다. 생명이 정착된 한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 유니비타시아가 성좌의 모론시아 세계들을 계속 경영한다.

^{55:9.3 (633.6)}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세부 경영 기능 또는 전에 우주 본부에 중심 뒀던 감독 기능을, 성좌 아버지들이 점점 더 많이 맡게 된다. 여섯째 안정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통합된 이 성좌들은 거의 완성된 자치권의 지위를 갖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정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고자라는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참된 존엄성으로 이 통치자들이 고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볼 때, 성좌들은 그때 연방우주 통치자들과 직접 상대하며, 한편 지방우주 정부는 새로운 광우주 책무를 책임 맡기까지 확장할 것이다.

10. 넷째 단계, 지방우주 단계

^{55:10.1 (634.1)} 한 우주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게 될 때, 확립된 연방우주 회로 속으로 곧 들어가며, *무제한의 권세를 가진 최고 협의회*가 설립됐음을 태고 항존자들이 선포한다.

새로운 이 통치 기구는 100명의 충실 항존자로 구성되고, 합동 항존자들이 주관하며, 이 최고 협의회의 첫 활동은 으뜸 창조주 아들의 계속되는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것이다.

55:10.2 (634.2)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과 관계되는 한, 우주 경영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이 협의회는, 빛과 생명의 진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조건에 주로 관여한다.

55:10.3 (634.3) 부{副} 검사관은 이제 *지방우주의 안정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배정된 파수꾼을 동원하며, 자신과 함께 그 감독을 맡아달라고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영감 받은 삼위일체 영들의 어떤 단체가 합동 항존자의 봉사에 배정된다.

55:10.4 (634.4) 한 지방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개별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체 짜임새에 깊숙한 재조정을 일으킨다. 새로운 관계가 아래로 성좌와 체계들까지 확장된다. 지방우주 어머니 영은 연방우주의 으뜸 영과 새로운 연락 관계를 체험하며, 가브리엘은 으뜸 아들이 본부 세계에서

부재{不在}하게 될 경우에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태고
항존자들과 직접 접촉을 수립한다.

55:10.5 (634.5) 이 시대 및 이어지는 시대들 동안, 집정관
아들들이 섭리시대 심판관으로서 계속 활동하며, 한편 이
낙원 아보날 아들들 가운데 100명은, 빛나는 새벽별의
새로운 고등{高等} 협의회를 우주 수도에서 구성한다.
나중에, 그리고 체계 주권자들이 요청할 때, 이 집정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일곱째 통일 단계가 달성될 때까지,
각 지역 체계의 본부 세계에 머무는 최고 조연자가 될
것이다.

55:10.6 (634.6) 이 시기 동안에, 삼위일체 교사 아들들은, 행성
주권자들에게 자발적 자문가일 뿐만 아니라, 세 명씩
무리지어 성좌 아버지들을 비슷하게 섬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들은 지방우주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데,
이때 그들이 그 지역 창조물에 대한 관할권에서 제외되고,
무제한 권세를 갖는 최고 협의회와 봉사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55:10.7 (634.7) 완결성취자 단체는 이제 처음으로, 낙원_바깥쪽
권세, 즉 최고 협의회와 관할권을 인지한다. 이전까지

완결성취자들은 낙원 이쪽에서 행하는 어떤 감독도
알아보지 못했다.

55:10.8 (634.8) 그런 정착된 우주의 창조주 아들은, 낙원 및 그에
관련된 세계들에서, 그리고 지방 창조계에서 두루
봉사하는 수많은 완결성취자 집단과 상담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서 왔던
미가엘은, 영화롭게 된 필사 완결성취자들과 더욱 충만한
형제우애 관계를 맺을 것이다.

55:10.9 (634.9) 지금 예비로 조립 과정에 있는 외부 우주와
관련된, 이 창조주 아들들의 역할에 관해서 추측하는 것은,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이런
가정을 세워보곤 한다. 창조주 아들은 이 넷째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서 경영상으로 자유롭게 되며; 신성한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을, 연방우주 으뜸 영과 무한한 영의 사역과
점진적으로 혼합시킨다. 창조주 아들, 창조적 영,
저녁별들, 교사 아들들, 그리고 계속_증가하는 완결성취자
단체 사이에, 새롭고 탁월한 관계가 전개될 것처럼 보인다.

55:10.10 (635.1) 미가엘이 네바돈을 언제라도 떠나야만 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가브리엘이 최고 경영자가 되고, 아버지

멜기세덱은 그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동시에, 물질 아들들, 유니비타시아, 중간유한절대자들, 수사티아, 그리고 영과_융합된 필사자 같은, 모든 계층의 영구 시민에게 새로운 신분이 부여될 것이다. 그러나 진화가 계속되는 한, 스라빔과 천사장들은 우주 경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55:10.11 (635.2)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추측하는 두 가지 요점에 대해 만족하는데:창조주 아들들이 외부 우주들로 가도록 정해져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신성한 사역자들이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자신이 기원된 그 우주에 남을 것이라고, 똑같이 확신한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지방우주 정부 및 경영에서 계속_증가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다고 본다.

11. 소구역 및 대구역 단계

55:11.1 (635.3)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은, 빛과 생명 속에 정착시키는 계획에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진화로 진보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 단위로서 지방우주에 관련되며, 오직 한 지방우주의 구성원들의 관심거리다. 한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그 구성원인

지방우주들 전체가 그렇게 완전하게 됐을 때다. 그러나
일곱 연방우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여기에 근접하는 진보
수준을 달성치 못했다.

55:11.2 (635.4) *소구역 시대*. 관측이 가능한 한, 다섯째, 즉 소구역
정착 단계는, 오로지 물리적 상태와 관계있고, 연방우주의
확립된 회로에 연합된 100개 지방우주를 대등하게
정착시키는 것과 관계있다. 동력 중심들 및 그 동역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물질 창조를 이렇게 다시 정렬시키는 데
관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55:11.3 (635.5) *대구역 시대*. 여섯째 단계, 즉 대구역의 안정화에
관해서, 우리는 오직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진보된 상태에 있는 인간거주 세계들과 그 우주 집단화에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영 및 기타 재조정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정해볼 수 있다.

55:11.4 (635.6) 소구역 상태는 대등한 물리적 평형과 관련되게 돼
있으므로, 우리는 대구역 통합이 어떤 새로운 지성 달성
수준, 그리고 아마 시공우주 지혜를 최상으로

실현함으로써 어떤 진보된 수준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55:11.5 (635.7) 우리는, 개별 세계에서, 그리고 더 오래되고 고도로 발달된 구체들에서 사는 개별 필사자의 체험에서, 그런 업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진화적 진보로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한 수준을 실현하는 데 어떤 재조정들이 혹시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결론에 도달한다.

55:11.6 (635.8) 한 우주 또는 연방우주의 경영 체제와 통치 기법은, 개별 인간거주 행성, 또는 그런 세계에 있는 어떤 개별 필사자의 진화적 발전이나 영적 진보를,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자.

55:11.7 (635.9) 더 오래된 어떤 우주에는, 빛과 생명의 다섯째 및 여섯째 단계에 정착한--곧 심지어 일곱째 시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세계들이 있지만, 그 지역 체계들이 아직 빛 속에 정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비교적 젊은 행성들이 그 체계의 통합을 지연시킬지 모르지만, 이것은 더 오래되고 진척된 세계의 진보를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격리된 세계에서조차, 환경의 한계가 개별

필사자의 개인적 달성을 막을 수 없으며;나사렛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유란시아에서 1,900여년 전에 빛과 생명의 신분을 개인적으로 성취했다.

55:11.8 (636.1) 일곱 연방우주의 안정화 사건을 틀림없게 묘사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오랜 세월 정착된 세계들에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한 연방우주 전체가 빛 속에 정착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12. 일곱째 단계, 연방우주 단계

55:12.1 (636.2) 우리는, 한 연방우주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날지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런 사건이 사실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 번도 반론이 제기된 적이 없는, 멜기세덱들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는 인간거주 세계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서, 모든 단위에 대한 전체 조직과 경영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한다.

55:12.2 (636.3) 달리 어딘가에 배속되지 않은, 피조물에서_삼자일체된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정착된 연방우주들의 본부 및 구획별 수도들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외부_공간존재들이 하보나와 낙원으로 가는 길에 언젠가 도달할 것을 내다보고 그러는가 싶지만;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55:12.3 (636.4) 한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면, 그렇게 될 때, 지금은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이, 연방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높은 경영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들은 유한절대 경영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격체인데, 정착된 연방우주에서 즉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 무조건 감독관들이, 발전된 창조물 진화 단위들에서 오랫동안 자문가 및 조언자 역할을 해 왔더라도, 지존하신 분의 권세가 주권을 갖게 되기 전에는 경영 책임을 맡지 않는다.

55:12.4 (636.5) 이 시기에 더 광범하게 활동하는,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은, 유한하거나, 유한절대이거나, 궁극이거나, 무한하지 않으며;그들은 지존성 *이며*, 오직 지존자 하나님을 대변할 뿐이다. 그들은 시_공간 지존성이 인격화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보나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최상의 통합자로서

작용한다. 그들은 아마 우주의 반사성 기법에도 관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55:12.5 (636.6) 광우주가(하보나에 의존하는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완전히 정착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만족스런 개념을,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건은, 중앙우주가 출현한 이래, 영원성의 연대기{年代記}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다. 의존하신 분 스스로, 자신의 영 인격자를 덮고 있는 하보나의 신비로부터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완전하게 된 창조계를 다스리는, 전능하고 체험적인 주권자로서, 일곱째 연방우주 본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55:12.6 (636.7) [유란시아에 있는 천사장 위원회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제56편 우주의 통일성

56:0.1 (637.1) 하나님은 하나시다. 신격은 보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 온갖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종합 기구인데,

하나의 무한한 정신이 이를 절대로 통제한다. 물리적, 지적, 및 영적 우주 창조 범위는 신성하게 상호 관련돼 있다. 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실제로 서로 연결돼 있으며, 따라서 유한한 진화 피조물은, 만유의 아버지의:“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명령에 복종해서 낙원으로 상승한다.

56:0.2 (637.2) 창조물의 다양한 수준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계획과 경영에서 모두 통합돼 있다. 시_공간 필사자들의 제한된 정신에게는, 우주가 외견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많은 문제와 상황을 나타내고, 효과적인 협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우리 중에서, 더 넓게 퍼져나가는 우주의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고, 창조적 다양성의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 통일성을 탐지하며, 대다수의 이 기능발휘 전체에 만연해 있는, 신성한 하나됨을 발견하는 이 기술에 더 경험이 많은 자는, 보편적 창조 에너지의 이 다채로운 형태화 전체에 나타난 신성하고 유일한 목적을 더 잘 감지한다.

1. 물리적 조화

56:1.1 (637.3) 물리적 창조, 즉 물질 창조물은 무한하지 않지만,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힘, 에너지, 및 동력이 있지만, 기원은 모두 하나다. 일곱 연방우주는 외견상 이중적이며;중앙우주는 삼중적이지만;낙원은 하나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낙원은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물질 우주의 실제 근원이다. 그러나 시공우주가 이렇게 기원된 것은 영원성에 속하는 사건이며;공간이나 물질 시공우주는, 핵을 이루는 빛의 섬으로부터 어느 때에도 --곧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도-- 결코 나오지 않는다. 시공우주의 근원으로서 낙원은, 공간이 있기 전에 그리고 시간 이전에 작용하며;따라서 그 파생물은, 무조건 절대자를 통해서 출현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버림받은 듯 보일 수 있으며, 이 절대자는 공간에서 이 파생물의 궁극적 저장소이고, 세월 속에서 그 파생물을 드러내고 조정한다.

56:1.2 (637.4) 무조건 절대자가 물리적 우주를 유지하고, 한편 신격 절대자는 모든 물질 실체에 대한 정교한 전면통제를 유발하며;우주 절대자가 이 두 절대자를 기능상으로 통합한다. 물질 우주에서 응집하는 이 상호 관련성은, 하부 낙원에 집중하는 인력에 대해서, 진정한 모든 물질 실체가

어떤 인력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물질, 모론시아, 유한절대, 또는 영적인-- 모든 인격체에게 가장 잘 이해된다.

56:1.3 (638.1) 인력의 통합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며;순수_에너지 반응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다. 순수 에너지와(근본적 힘과) 순수 영은, 인력보다 온전히 먼저_반응한다. 절대자들에 내재하는 이 원시 세력들을 만유의 아버지께서 친히 통제하시며;따라서 모든 인력은, 순수 에너지 및 순수 영이신 낙원 아버지께서 몸소 현존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초물질 거주지에 집중된다.

56:1.4 (638.2) 순수 에너지는 상대적이고 기능적인 모든 비{非}_영 실체들의 조상이며, 한편 순수 영은 모든 기본 에너지 체계를 신성하게 지배적으로 전면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공간에 두루 나타날 만큼,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 속에서 발견될 만큼 무척 다양한 이 두 실체는 모두, 낙원 아버지의 인격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실체들도 하나다-- 통합돼야만 한다. 아버지의 인격체는 절대로 통합돼 있다.

56:1.5 (638.3)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에는,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그와 같은 실체의 이중성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낙원 아버지의 인격적 가치의 무한한 수준과 절대 실체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 두 실체가 실존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분이 몸소 현존하심에 대해 그 실체들이 충분히 민감하다는 것을 인식하며;그분 안에 만유가 있다.

56:1.6 (638.4) 너희가 낙원 아버지의 무한한 인격체라는 무조건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순간, 원래의 유일신 창조주 인격체,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곧 자존자의-- 이런 이중{二重} 우주 형태화가 계속_넓어지고 확산하는 것을 통일시켜야 할 필연적 기법이 **정신**이라고, 너희는 가정해야만 한다.

2. 지적 통일성

56:2.1 (638.5) 사고{思考}이신_아버지는, 말씀이신_아들 안에서 영{靈} 표현을 실현하며, 광범위한 물질 우주들에서 낙원을 통해 실체의 확장을 달성하신다. 영원한 아들의 영적 표현은, 무한한 영의 역할로 인해서 창조의 여러 물질 수준과 상호 관련되며, 정신에 대해 무한한 영이

영으로_반응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무한한 영이 정신을 물리적으로_지도하는 행위에서, 신격의 영적 실체 및 신격의 물질적 영향이 서로 관련된다.

56:2.2 (638.6) 정신은 무한한 영의 기능적 재능이며, 따라서 잠재력에서 무한하고 보편적으로 증여된다. 만유의 아버지의 원초적 사고{思考}는, 이중 표현으로 영구화 되는데:하나는 낙원 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신격 동등자, 즉 영적인 영원한 아들이다. 영원한 실체의 그런 이중성은, 정신 하나님, 즉 무한한 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정신은 영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소통 경로다.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은, 오직 정신이 이바지함으로 인해서, 내주하는 영을 느끼고 납득할 수 있다.

56:2.3 (638.7) 시간과 공간의 우주에서는, 무한하고 보편적인 이 정신이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부여되며;보조 영들이 베푸는 원시적 사역으로부터, 한 우주의 최고 행정관의 장엄한 정신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더라도, 심지어 이 시공우주 정신도 일곱 으뜸 영의 감독 아래서 합당하게 통합되는데, 이 일곱 으뜸 영은 다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존자 정신과 조화되며, 만물을_품는 무한한 영의 정신과 완전히 서로 관련된다.

3. 영적 통합

56:3.1 (639.1) 무한한 영이 낙원에 몸소 현존하는 곳에 보편적 정신 인력이 집중되듯이, 보편적 영 인력은, 영원한 아들이 낙원에 몸소 현존하는 곳에 집중된다. 만유의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이라는 이중 현상으로서 시_공간에 드러나신다.

56:3.2 (639.2) 낙원 영 실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이지만, 시_공간의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이 단일 영은, 영원한 아들의 영 인격체 및 감화력, 그리고 무한한 영 및 관련된 창조물의 영 인격체와 영향, 이 두 가지 현상에서 드러나며;아직 셋째가 있다--순수_영 단편들, 즉 인격이전{人格以前}의, 사고 조율사라는 아버지의 증여물 및 기타 영 실재들이 있다.

56:3.3 (639.3) 우주 활동 가운데 어떤 수준에서 너희가 영적 현상과 마주치거나, 또는 영 존재들과 접촉하거나 상관없이, 너희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모두가 파생된다는 것을, 영 아들과 무한한 정신 영의 사역으로

인해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광범위한 영{靈}은, 지방우주 본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화하는 시간 세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서 작용한다. 이 창조주 아들의 수도로부터, 보조 정신_영들의 사역과 함께,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이, 진화하는 하급 수준의 물질 정신에게 온다.

56:3.4 (639.4) 지존하신 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절대 정신에게 복종하는 시공우주 정신으로서, 정신은 으뜸 영들의 수준에서 더 통합돼 있지만, 진화하는 세계들에게 베푸는 영의 사역은, 지방우주들의 본부에 거주하는 인격체들 안에서, 그리고 주관하는 신성한 사역자들의 인격자 속에서, 더 직접 통합돼 있으며, 신성한 사역자들은 다시 영원한 아들의 낙원 인력 회로와 거의 완전히 상호 관련되며, 거기서 모든 시_공간 영 형태화가 최종적으로 통합된다.

56:3.5 (639.5)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의 삼위일체_이전{以前} 영 재능 단편과 자아_의식 정신이 융합함으로써, 완전하게 된 피조물 실존이 달성되고 유지되며 영구화 될 수 있다. 필사 정신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아들과 딸들이 창조한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고 조율사와 융합됐을 때, 진화 영역의 삼중 영 재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 표현은, 우주의 자존자{自存者}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기 전에, 그들이 우주의 자존자 안에서 영원성 속에 그렇게 통합돼서 존재했던 대로, 완결성취자들 속에서 완전히 통합된다.

56:3.6 (639.6) 영은 항상 궁극적으로, 삼중적으로 표현돼야만 하고, 최종적으로 실현됐을 때 삼위일체와 통합돼야만 한다. 영은 한 근원으로부터 삼중 표현을 통해서 기원되며;최종적으로, 신성한 통합에서 충만하게 실현돼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데, 그 통합은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함에서--곧 신성과 하나됨에서-- 체험되고, 아버지의 보편적 사고를 영원한 말씀으로 무한히 표현하는, 그 시공우주 정신의 사역을 수단으로 해서 체험된다.

4. 인격체 통합

56:4.1 (639.7) 만유의 아버지는 신성하게 통합된 인격체이며;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질 인간 속에 내주하기 위해 낙원으로부터 나아왔던 사고

조율사들의 반동 추진력으로, 낙원으로 옮겨지는 모든
상승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통합된 인격체가 될 것이다.

56:4.2 (640.1) 인격체는 선천적으로, 그를 구성하는 모든 실체를
통합하는 지점에 이르게 돼 있다. 제1 근원 및 중심, 즉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인격체는, 그 구성요소인 일곱
무한 절대자 전체를 통합하며; 필사적 사람의 인격체도,
만유의 아버지께서 독점적으로 직접 증여하셨으므로,
필사 피조물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잠재력을 똑같이
소유한다. 모든 피조 인격체의 그런 통합하는 창조성은, 그
인격체의 고귀하고 독점적인 근원을 가리키는
출생반점이며, 인격체 회로를 통해서 바로 이 근원과 중단
없는 접촉을 이루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데, 이 인격체
회로를 수단으로 해서, 피조물의 인격체는, 낙원에 계시는
모든 인격체의 아버지와 직접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56:4.3 (640.2) 칠중존재의 영토들로부터 지존성과 궁극성을
거쳐서 절대자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심에도, 지성체 실존의 모든 수준에 있는, 그리고
완전하고 완전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고 있는 모든 우주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 인격체를 고려하는 한, 낙원에 집중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자에 집중하는 인격체 회로는, 신성한 인격체의 이 다양한 표현 전체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통합한다.

56:4.4 (640.3) 여러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해 온 것 전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너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그는 한 분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시다. 인격체에게 하나님은 여럿일 수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 각자에게 아버지시며, 어떤 아이라도 아버지를 하나 이상 갖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56:4.5 (640.4) 철학적으로, 시공우주에서, 그리고 형태화의 특이한 수준 및 위치들을 고려할 때, 너희는 여러 신격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부득이 상상해야만 하며, 여러 삼위일체 실존을 가정해야 하지만;총괄우주 도처에서 경배하는 각 인격체마다, 몸소 접촉하는 경건한 체험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며;통합되고 인격있는 그 신격은 우리의 낙원 부모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인간거주 세계들에 있는 필사자 사람으로부터 중앙 빛의

섬에 있는 영원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격체의
증여자요, 보호자요, 아버지시다.

5. 신격 통일성

56:5.1 (640.5) 낙원 신격의 단일성, 즉 불가분성{不可分性}은,
실존적이고 절대적이다.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화가--곧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이-- 있지만,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세 분은 실제로 한 신격이며, 나뉘어 있지
않고 나뉘 수도 없다.

56:5.2 (640.6) 원래 낙원_하보나 수준의 실존적 실체로부터,
절대 이하의 두 수준이 분화됐고, 그 후로 즉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수많은 인격있는 동역자 및 하위 존재의
창조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월적 궁극
수준에서 유한절대 신격 통합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애쓰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다양하게 인격화{人格化}된
신격의 통합하는 기능의 어떤 특색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한데, 다양한 창조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계층의
지성적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인격화된 신격 안에 신성이
기능적으로 나타난다.

56:5.3 (640.7) 연방우주들에서 신성이 현재 발휘하는 기능은, 최상급 창조주들--곧 지방우주 창조주 아들들 및 영들, 연방우주 태고 항존자들, 그리고 낙원의 일곱 으뜸 영--의 작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 존재들은 만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안쪽으로 이끄는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을 구성하며, 칠중 하나님의 이 전체 영토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 안에서 체험적 신격의 첫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다.

56:5.4 (641.1) 낙원에서 그리고 중앙우주에서, 신격 통일은 실존하는 사실이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우주들 전역에서, 신격 통일은 성취되고 있다.

6. 진화하는 신격의 통합

56:6.1 (641.2) 신격의 영원한 세 인격자가,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나뉘지 않은 신격으로서 작용할 때, 세 분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며; 마찬가지로, 세 분이 연합으로 또는 나뉘어 창조할 때, 그분들의 낙원 자손은 그 특징인 신성의 통일을 드러낸다. 그리고 시_공간 영토의 최상급 창조주들과 통치자들이 명백히 나타내는 이 신성한 목적은, 결국 체험적으로 최상인, 주권으로 통합하는 잠재적 권능이

되는데, 그 잠재성은 실체의 긴장상태{緊張狀態}를 일으키며, 이것은 우주의 비인격 에너지가 통일된 가운데, 오직 체험적 신격의 체험하는 인격체 실체들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56:6.2 (641.3) 지존하신 분의 인격체 실체들은 낙원 신격들로부터 솟아나오며, 하보나 바깥쪽 회로의 안내 세계들에서, 광우주의 창조주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한 지존자의 특권이 있는 권능과 통합한다. 한 인격자로서 지존자 하나님은, 일곱 연방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보나에 존재했지만, 오직 영적 수준에서만 활동했다.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다양한 신성이 합성됨으로써, 전능자의 지존성 권능이 진화하여, 결국 새로운 권능을 가진 신격 현존이 됐는데, 이것은 지존자 정신을 수단으로 해서, 하보나에 계시는 지존자의 영적 인격자와 조정됐으며, 동시에 이 지존자 정신은, 무한한 영의 무한한 정신에 거하는 잠재성으로부터, 지존하신 분의 활기찬 기능적 정신으로 전환됐다.

56:6.3 (641.4) 일곱 연방우주의 진화 세계들에서 물질_정신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지존하신 분이 이런 권능과_인격체의

합성 속에서 진화하는 그런 신격 통일성을 납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실존 수준에서든지, 그런 수준에서 사는 존재의 개념 수용력을 넘어설 수 없다. 진리를 인식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선함을 존중함으로써, 필사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야만 하며, 그리고 나서, 높아지는 신격 수준을 거쳐서 지존자를 납득하기까지 진보해야만 한다. 신격은, 이처럼 권능에서 통합됐다고 파악됐으므로, 그 다음에 피조물이 이해하고 달성하도록 영으로 인격화 될 수 있다.

56:6.4 (641.5) 상승하는 필사자는, 연방우주 수도에서 전능자의 권능을 납득하고, 하보나 바깥쪽 회로에서 지존자의 인격체를 납득하지만, 낙원 신격들을 발견하도록 예정돼 있는 것과는 달리, 지존하신 분을 실제로 발견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여섯째 단계 영인 완결성취자들조차 지존하신 분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한 그들은 일곱째 단계 영의 신분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지존자가 미래의 외부 우주들의 활동에서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 발견할 것 같지도 않다.

56:6.5 (641.6) 그러나 상승하는 자들이, 만유의 아버지가 칠중 하나님의 일곱째 수준이심을 발견할 때, 그들은 이미, 우주 피조물과 맺는 모든 신격 수준의 인격적 관계에서, 제1 인격자의 인격체에 도달한 것이다.

7. 진화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

56:7.1 (642.1) 시_공간 우주에서 진화가 꾸준히 진보함에 따라서, 모든 지성 피조물에 대한 신격의 계시가 계속_확장된다. 한 세계, 체계, 성좌, 우주, 연방우주, 또는 광우주에서 진화함으로써 진보가 절정에 도달하면, 이런 연속되는 창조 구성단위들에게, 그리고 그 구성단위들 안에, 상응하는 신격 기능이 확장됐다는 신호다. 신성의 실현이 그렇게 국지적으로 향상될 때마다 뒤이어서, 모든 다른 창조 구역에게 신격이 표명하는, 윤곽이 뚜렷한 어떤 영향이 확대된다. 낙원에서 바깥쪽으로 확장하면서, 진화로 실현하고 달성한 새로운 각 영토는, 체험하는 신격이 온갖 우주에게 주는 새롭고 확장된 계시가 된다.

56:7.2 (642.2) 한 지방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이 빛과 생명에 점진적으로 정착함에 따라서, 칠중 하나님이 점점 더 명백히 나타난다. 한 행성에서 시_공간의 진화는,

통제하는 칠중 하나님의 첫 표현과 함께--곧 창조주 아들과_창조적 영의 연합과 함께-- 시작된다. 한 체계가 빛 속에 정착하게 되면, 이런 아들과_영의 연락이 온전히 작동하게 되며;성좌 전체가 그렇게 정착되면, 칠중 하나님의 둘째 국면은 그런 영역에서 두루 더 활발하게 된다. 한 지방우주에서 행정부의 진화가 완성됨에 따라, 연방우주 으뜸 영들이 새롭게 더 직접 돌보게 되며;이 시점에 지존자 하나님의 계속_확장되는 계시와 실현이 또한 시작되는데, 여섯째 하보나 회로의 세계들을 통과하는 동안, 지존하신 분에 대한 상승자의 이해력이 최고조에 이른다.

^{56:7.3 (642.3)}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은, 지성 피조물에게 형태화되는 실존적 신격이며, 따라서 모든 창조계의 정신 및 영 피조물과 맺는 인격체 관계에서는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56:7.4 (642.4)} 이 신격들을 인격있는 존재들로서 체험으로 몸소 인식하고 그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충분히 영적으로 변화되고 적절하게 교육 받기 훨씬 전에,

이어지는 신격 수준의 비인격 현존을 이 필사자들이
체험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56:7.5 (642.5) 창조계의 한 구역 안에서 새로운 진화 달성이 있을
때마다, 신성 형태화가 공간을 새로 차지할 때마다,
뒤이어서, 당시에 현존하고 예전에 조직된 모든 창조 단위
안에서, 신격의 기능적_계시가 일시에 확장된다. 우주와
그 구성 단위들의 경영 업무가 이렇게 새로 침입하는 것은,
여기에 윤곽을 제시한 기법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각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경영을 전면통제하는,
차후의 이어지는 새 시대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려고,
경영자 중에서 진보된 집단들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궁극자 하나님도, 빛과 생명에 정착된
어떤 지방우주의 후기 단계들 동안에, 자신이 우주들을
초월적으로 전면통제하리라는 것을 예시하신다.

56:7.6 (642.6)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가 진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지존자 하나님의 새롭고 더
충만한 기능발휘가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상응해
병행하여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형태화가 철수한다.
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지존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이 창조계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시작한다면, 칠중 하나님의 창조주_창조적 형태화의 미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시_공간 우주들을 조직하고 개척한 이분들은 외부 공간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도록 해방될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비롯해서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 많이 추측해 본다.

56:7.7 (643.1) 체험하는 신격의 개척지가 무조건 절대자의 영토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이 창조계 가운데 초기의 진화 시절에 칠중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상상해본다. 우리는, 태고 항존자들과 연방우주 으뜸 영들의 미래 지위에 관해서, 의견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존하신 분이 일곱 연방우주에서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도 작용하게 될지 아닐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들이 이 외부 우주들에서 활동하게 돼 있다고 추측한다. 더러는, 연합된 창조주 아들들과 신성한 사역자들이 더 밀접한 형태로 합동하는 것을 미래 시대에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그런 창조자 합동이 결국 궁극적 본성을 갖는, 부{副}_창조자 신분의 어떤 새로운 표현으로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되지 않은 미래의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 정말로 아는 바 없다.

56:7.8 (643.2)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칠중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제공한다는 것과, 이 진화적 접근이 지존자 하나님 안에서 체험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외부 우주들에서도 반드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다른 한 편으로는, 언젠가 이 우주들에 거주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이, 궁극적 수준에서, 그리고 유한절대 기법으로, 신격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서 신격에게 접근하는 어떤 기법이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56:7.9 (643.3)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하게 된 연방우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외부 창조계에 거주하게 될 그 존재들이 낙원으로_상승하는 생애의 일부가 되리라고 판단한다. 그 미래 시대에, 일곱 으뜸 영의 협동과 함께 또는 협동 없이, 지존자 하나님이 경영하는 일곱 연방우주를 거쳐서

하보나에 접근하는 외부_공간존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 최상의 통합자

56:8.1 (643.4) 지존하신 분은 필사적 사람의 체험에서 삼중 역할을 한다:첫째로, 그는 시_공간 신성, 즉 칠중 하나님을 통합하는 분이며;둘째로, 그는 유한한 피조물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신격의 최대치이며;셋째로, 그는 유한절대 정신, 영원한 영, 및 낙원 인격체와 교제하는 초월적 체험을, 필사적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법이다.

56:8.2 (643.5) 상승한 완결성취자들은, 지방우주에서 태어나서, 연방우주에서 양육 받고, 중앙우주에서 훈련 받았으므로, 지존자 안에서 통합하는 칠중 하나님의 시_공간 신성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자신의 개인 체험 속에 지니고 있다. 완결성취자들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연방우주들에서 연속으로 봉사하는데, 그리하여 피조물이 체험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다양성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체험에 체험을 더한다. 완결성취자들은, 내주하는 조율사의 사역을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완결성취자들은 바로 이 체험 기법으로,

지존하신 분을 실제로 *알게*되며,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서, 그리고 그 우주들에게, 이 지존적 신격을 *게시*하고 봉사하게 돼 있다.

56:8.3 (644.1)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낙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영으로,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우주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는 체험은 상호적{相互的}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증여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그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대신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그리고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께 줄 필요가 있다(또는 줄 수 있다).

56:8.4 (644.2) 모든 창조 현상은 선행{先行}하는 창조자와_영의 활동을 반영한다. 예수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직접 본 것만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장차, 동료들에게 지존자를 게시하기 시작할 수 있고, 너희가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동안에 이 게시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영원 속에서, 일곱째 단계의 완결성취자로서, 너희는 최상--심지어

궁극-- 수준에서 이 진화하는 피조물의 하나님을 더욱
게시하도록 허용될지도 모른다.

9. 우주의 절대 통일

56:9.1 (644.3) 무조건 절대자와 신격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안에서 통합된다. 절대자들은 궁극자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지존자 안에서 제한되며, 칠중 하나님 안에서
시_공간이 수정된다. 무한 이하 수준에서는 세 절대자가
있지만, 무한 수준에서 그들은 *하나*인 것 같다. 낙원에서는
신격이 세 분으로 인격화되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들은 하나 *이다*.

56:9.2 (644.4) 총괄우주의 주요 철학적 명제는
이렇다: 절대자가(무한 속에서 하나인 세 절대자가)
삼위일체보다 앞서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 절대자는
삼위일체의 조상인가? 아니면 삼위일체가 절대자보다
앞서는가?

56:9.3 (644.5) 무조건 절대자는 삼위일체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력 현존이신가? 신격 절대자의 현존은 삼위일체의
역할이 무제한임을 암시하는가? 그리고 우주 절대자는,

삼위일체, 심지어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최종 역할인가?

56:9.4 (644.6) 언뜻 생각하기에는, 절대자가 만물의--심지어 삼위일체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일관성을 충족시키고 철학적으로 통합되는 일시적 만족감을 주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 어떤 결론도, 낙원 삼위일체가 영원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무효가 된다.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삼위일체 동역자들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존에서 영원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오직 한 가지 일관된 철학적 결론이 가능한데: 모든 우주 지성체가 보기에, 절대자는 우주_내부 및 우주_외부의 모든 1차 기본 공간 상황에 대해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비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광우주에서 인격체를 소유한 모든 지성존재들에게, 낙원 삼위일체는, 완결성, 영원성, 지존성, 및 궁극성에 언제나 참여하시며, 또한 개인적으로 납득시키고 피조물을 깨닫게 하려는 모든 실질적 목적을 위해 절대원리로서 참여하신다.

56:9.5 (644.7) 피조물 정신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다시피, 그들은 우주의 자존자가, 삼위일체와 절대자, 이 두 분의 최초 원인이고 무조건 근원이라는 최종의 가설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자가 인격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몹시 연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낙원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이상{理想}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 비인격인 이 절대자를 납득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거나 그를 더 크게 의식하기를 바랄 때,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가 절대 인격체를 가진 실존적 아버지라는 사실로 돌아오며; 영원한 아들은 체험적 의미에서는 절대자의 인격화가 아니지만, 그가 절대 인격자라는 사실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체험적 삼위일체들이 결국 체험으로 신격 절대자의 인격화를 초래한다고 상상하는 한편, 우주 절대자는 지존성, 궁극성, 및 무한성을 가진, 통합되고 조화된 신격 연합의--곧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비인격 활동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그런 우주 및 우주 바깥의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상상한다.

56:9.6 (645.1) 아버지 하나님은 유한에서 무한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식별될 수 있으며, 낙원에서 진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이 그분을 다양하게 감지할지라도,
오직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만이 그분을 무한으로서
이해한다.

56:9.7 (645.2) 영적 인격체는 오직 낙원에서만 절대적이고,
절대자 개념은 오직 무한 속에서만 무조건적이다. 신격
현존은 오직 낙원에서만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게시{啓示}는 그의 능력이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잠재력
속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될 때까지 반드시
부분적이고 상대적이며 진보하는 것임에 틀림없고, 한편
그의 인격체가 형태화되는 것은 신격 절대자의 분명한
현존에서 체험적으로 무한하게 되며, 또한 무한성의 이 두
잠재력은 우주 절대자 안에서 실체로서_통합된다.

56:9.8 (645.3) 그러나 무한 이하의 수준을 넘어서면 세 절대자는
하나 *이/며*, 그리하여 다른 어느 계층의 실존이 무한에 대한
의식{意識}을 언제든지 스스로_깨달음과는 상관없이, 그
무한을 신격은_깨닫는다.

56:9.9 (645.4) 비록 무한한 영원에--곧 영원한 무한에-- 내재적인
체험적 잠재성을 스스로_깨닫는 체험을 겪기까지 또 한
번의 영원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영원 속에서

실존적 상태는 무한을 실존적으로 자아_의식{意識}함을 의미한다.

56:9.10 (645.5)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온갖 우주 전역에서, 신격과 실체가 지성 피조물 및 영 존재들에게 형태화 되는 모든 경우의 인격적 근원이다. 인격체로서, 현재 또는 영원한 미래에 이어지는 우주 체험들에서, 너희가 칠중 하나님께 도달하든지, 지존자 하나님을 납득하든지, 궁극자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또는 절대자 하나님의 개념을 납득하려고 애쓰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자신이 영원히 만족하게 되기까지, 각 모험을 완성하는 동안, 너희가 새로운 체험 수준에서 영원한 하나님을--곧 모든 우주 인격체들의 낙원 아버지를-- 다시 찾아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6:9.11 (645.6) 만유의 아버지는, 우주가 통일되는 그 원인이신데, 절대 가치와 의미가--곧 무조건적 실체가--궁극_이후까지 통일된 가운데, 최상으로, 심지어 궁극적으로, 실현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56:9.12 (645.7) 총괄 힘 조직가들은 공간으로 나아가서, 만유의 아버지로 인한 낙원의 끌어당김에 인력이 반응하도록

만들려고 공간 에너지를 동원하며;그 후에 창조주 아들들이 거기로 오는데, 그들은 인력이_반응하는 이 세력을 인간거주 우주들 안으로 조직하고, 거기서 지성 피조물을 진화시키는데, 이들은 낙원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능한 신성 속성에서든지 아버지와 비슷하게 되려고 나중에 아버지를 향해 상승한다.

56:9.13 (645.8) 낙원의 창조적 세력이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하여 진행하는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인력 지배 속에 있는 영토의 계속된_확장을 예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성 피조물의 끊임없는 증식을 예시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앎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즉 낙원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56:9.14 (646.1) 온갖 우주는 전부 통합돼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격체는 하나다. 모든 수준의 에너지와 모든 국면의 인격체가 조화된다. 철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물과 존재는 낙원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만유 안에

게시며, 어떤 사물이나 존재도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10.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

56:10.1 (646.2) 빛과 생명에 정착한 세계들이 초기 단계로부터 일곱째 시기로 진보하면, 창조주 아들을 찬미하는 것을 비롯해 낙원 아버지께 경배 드리기까지, 그 세계들은 칠중 하나님의 실체가 실현되는 것을 연달아 파악한다. 그런 세계의 역사에서, 이어지는 일곱째 단계 내내, 계속_진보하는 필사자들은 지존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성장하며, 한편 궁극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역이 실체임을 막연히 식별한다.

56:10.2 (646.3) 이 영광스런 시기 내내, 계속_진보하는 필사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납득 가능한 신격의 요소들을--곧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더 낮게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깨닫기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 물질, 및 영에서 하나님을 식별하려고 사람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사자가 이렇게 탐구할 때, 그는 철학, 우주론, 및 신성에 대한 체험적 연구에 점점 더 열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56:10.3 (646.4) 너희는 어느 정도 철학을 파악하고, 경배와 사회봉사 그리고 개인의 영적 체험 속에서 신성을 납득하지만, 너희는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곧 우주론을--, 너무 종종 사람의 미숙한 예술적 노력을 연구하는 데 제한시킨다. 아름다움, 즉 예술은 주로 대조되는 것들을 통합시키는 문제다. 다양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필수다. 최고의 아름다움, 즉 순수 예술의 절정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엄청나게 차이나는 시공우주 양 극단을 통합시키는 극적인 사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함과 하나님이 사람을--곧 창조주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피조물을-- 발견함, 바로 이것이 최상으로 아름다운 숭고한 성취, 즉 시공우주 예술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

56:10.4 (646.5) 따라서 유물론이라는 무신론은, 추함의 극치, 즉 아름다움의 정반대가 유한계에서 절정에 이른 것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선재{先在}하는 조화로운 실체로부터 이미 태어난 변화들이 통합되어 펼쳐지는 광경 속에 있다.

56:10.5 (646.6) 우주론 수준의 사고{思考}에 도달하는 데는 다음이 포함된다:

56:10.6 (646.7) 1. *호기심*. 조화에 대한 배고픔과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 새로운 수준의 조화로운 시공우주 관계를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56:10.7 (646.8) 2. *심미적 감상*. 아름다움을 사랑함, 그리고 모든
수준의 실체에서 창조적으로 형태화되는 모든 것을
예술적으로 공감하는, 계속_향상하는 식견.

56:10.8 (646.9) 3. *윤리 감수성*.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신격과 만물의 관계에서 신성의 선함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영원히 타당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만들며;따라서 우주론조차 신성한 실체의
가치를 추구하도록--곧 하나님을_의식하도록-- 인도한다.

56:10.9 (646.10) 빛과 생명에 정착된 세계들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납득하기에 아주 충분할 만큼 관심을 갖는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들에게 신격이 주는 계시를, 이런
우수한 가치기준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진리의
중요성이 필사 인간의 지적 및 영적 본성 모두에게
호소하게 만든다. 우주의 아름다움은 시공우주
창조계에서 조화로운 관계와 순환을 포함하며;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지성적인 호소이고, 물질 우주를

단일화해서 동시에 납득하도록 안내한다. 신성한 선함은 무한한 가치를 유한한 정신에게 계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계시는, 유한한 정신에게 감지되고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영적 수준, 바로 그 문턱까지 높아질 것이다.

56:10.10 (647.1) 진리는 과학과 철학의 기초이며, 종교의 지적 근거를 제시한다. 아름다움은, 예술, 음악, 및 모든 인간 체험의 의미심장한 리듬을 뒷받침한다. 선함은, 윤리, 도덕, 및 종교의 감각을--곧 체험에 의거한 완전성_갈망을--포함한다.

56:10.11 (647.2) 아름다움이 실존하는 것은, 점진적 진화라는 사실이 지존자 정신의 지배를 표시하는 만큼 분명하게, 감상할 줄 아는 피조물 정신이 현존함을 암시한다. 아름다움이란,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체의 광범위한 다양성이 조화롭게 시_공간에서 합성된 것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은 모두, 선재{先在}하는 영원한 하나됨에서 유래된다.

56:10.12 (647.3) 선{善}이란, 다양한 수준에서 신성한 완전성의 상대적 가치를 정신이 인식하는 것이다. 선을 인식한다는

것은, 도덕적 상태의 정신, 즉 선과 악 사이를 분간하는 역량을 인격있는 정신이 가졌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선을 소유함, 즉 위대함은, 실제적인 신성{神性}에 도달한 정도를 재는 척도다.

56:10.13 (647.4) *참된 관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진리와 오류 사이를 분간하기에 충분한 정신임을 암시한다. 유란시아의 인간 정신에게 주어진 증여되는 진리의 영은 진리에 대해--곧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상승에서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에 대해-- 반드시 반응한다.

56:10.14 (647.5) 어떤 전자{電子}, 사고{思考}, 또는 영이 일으키는 어떤 충동이든지, 우주 전체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다. 오직 죄만이, 정신적 및 영적 수준에서 저항하는, 고립되고 악한 범죄다. 우주는 하나의 전체이며;어떤 사물 또는 존재도 고립돼서 존재하거나 살지 않는다. 자아_실현은 그것이 반사회적일 때 잠재적으로 악하다. 이 말은 정확한 사실인데:“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다.” 시공우주와 사귀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인격체

통합이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장 큰 자가 되려거든,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

56:10.15 (647.6) 심지어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도--곧 정신, 물질, 및 영의 우주에 사람이 총명하게 접근하는 것도-- 신성한 최고의 *이상*{理想}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 속으로 혼합돼야만 한다. 필사자 인격체가 인간의 체험을 물질, 정신, 및 영과 통합하듯이, 이 신성한 최고의 이상{理想}은, 지존성 안에서 능력으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격화된다.

56:10.16 (647.7) 어떤 주어진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모든 통찰은, 그 전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관계를 총명하게 파악하기를 요구하며;이것은 우주에서 창조된 부분들과 창조적 전체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격은 보편적이고 영원히 달성할 초월적인 목표, 심지어 무한한 목표다.

56:10.17 (647.8) 우주의 아름다움은, 물질 창조에서 낙원 섬이 반사{反射}된 모습을 감지하는 것이며, 한편 영원한 진리는 낙원 아들이 특별히 베푸는 사역인데, 그들은 필사 인종들에게 자신을 증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진리의 영을 부어준다. 신{神}의 선함은, 무한한 영에 속하는 다양한 인격체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사역에서 더 완전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 특성 전체의 총합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영 아버지이심을 사람이 감지한 것이다.

56:10.18 (648.1) 물리적 물질은 절대 신격들이 가진 낙원 에너지와_광채가 시_공간에 드리워진 그림자다. 진리의 의미는 신격의 영원한 말씀이 필사자의_지능에 끼친 간접영향이다--최상의 개념들을 시_공간 세계가 납득하는 것이다. 신성의 선한 가치는, 진화하는 구체에 사는 시_공간의 유한한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의 영 인격체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사역이다.

56:10.19 (648.2) 신성의 의미 있는 이런 실체 가치는, 인격자를 가진 각 피조물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신성한 사랑으로서 섞인다. 이런 가치는 신성한 자비로서 아들 및 그의 아들들 안에 조화돼 있다. 그들은, 영과 그의 영 자녀들을 통해 신성한 사역으로서, 즉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자비의 묘사로서, 그들의 자질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 세 가지 신성은 주로 능력과_인격체가 합성된 지존하신 분으로서 나타난다. 칠중 하나님이, 상승하는 일곱 수준에서 신성한 의미와 가치기준의 일곱 가지 서로 다른 연합으로, 이런 신성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56:10.20 (648.3) 유한한 사람에게,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신성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신격을 이렇게 사랑하고_납득하는 것이, 하나님을_아는 필사자의 삶에서 영적으로 표현될 때, 신성의 열매 즉:지성적 평화, 사회적 진보, 도덕적 만족, 영적 기쁨, 및 시공우주 지혜라는 열매가 맺힌다. 빛과 생명의 일곱째 단계에 있는 세계에서 선구적인 필사자는,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것임을 배웠다--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

56:10.21 (648.4) 사랑은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다.

56:10.22 (648.5) [네바돈 계시 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인 어떤 멜기세덱과 협력하여, 유란시아를 방문 중인 한 강력한 사자가 제시했음]

56:10.23 (648.6) 우주의 통일성에 관한 본 문서는,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시 하에 활동하는, 열두 명의 네바돈

인격체로 구성된 한 위원회 집단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저자가 발표한 일련의 문서 가운데 25번째 문서다. 우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1934년에, 상관들이 인정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썼고 영어로 기록했다.

유란시아 책

III 부. 유란시아의 역사

제57편 유란시아의 기원

57:0.1 (651.1) 선사시대와 초기 역사에 관한 유란시아의 기록을 얻으려고 예루셈 기록 보관소에서 발췌된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현재 사용되는 용법으로 --곧 365와 1/4일을 한 해로 정해 윤년을 두는 달력으로-- 환산해서 시간을 계산하도록 지시받았다. 대체로, 정확한 연대{年代}를 제시하려고 애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대는 기록에 남아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기에 더 나은 방법으로서, 가장 근접된 정수{整數}를 사용할 것이다.

57:0.2 (651.2) 어떤 사건을 100만 년 또는 200만 년 전으로 언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20세기 초 시간으로부터 숫자를 정해서, 사건의 연대를 거꾸로 정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 옛날의 사건들을 1,000년, 1,000,000년, 1,000,000,000년 등의 등간격{等間隔}에 발생한 것으로 서술할 것이다.

1. 앤드로노버 성운

57:1.1 (651.3) 유란시아는 너희의 태양으로부터 기원됐고, 그 태양은 앤드로노버 성운으로부터 발생한 온갖 항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운은 한때 네바돈 지방우주의 물리적 동력과 물질 덩어리의 구성 부분으로서 조직됐다. 그리고 거대한 이 성운 자체는, 오르본톤 연방우주{聯邦宇宙}에서, 까마득한 옛날에 공간의 우주 힘_축적량{蓄積量}에서 기원됐다.

57:1.2 (651.4)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중에 앤드로노버 성운으로 조직된 공간_에너지를, 낙원의 1차 총괄 힘 조직가들이 오랫동안 온전하게 통제해 오고 있었다.

57:1.3 (651.5) 987,000,000,000년 전에, 오르본톤 계통의 힘 부{副}조직가와, 당시에 대리 검열관 811,307_번이

우버사로부터 시찰 나왔으며, 그때 오르본톤 동쪽 부분에 있는 어떤 구역에서, 공간 상태가 물질화 현상을 시도하기에 적합하게 됐다고, 태고 항존자들에게 보고했다.

57:1.4 (651.6) 900,000,000,000년 전에, 평형을 관장하는 우버사 위원회가 연방우주 정부에게 허가증을 발행했다는 것을 우버사 기록보관소가 입증하는데, 이 허가증은 811,307_번 검열관이 그 전에 선정했던 그 지역으로, 힘 조직가 한 명과 참모진을 보낼 수 있도록 인가했다. 오르본톤 당국은, 이 잠재적 우주를 처음 발견한 자에게, 새로운 물질적 창조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태고 항존자들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위임했다.

57:1.5 (652.1) 이런 허락이 기록된 것은, 힘 조직가와 참모진이 이미 우버사를 출발해서, 오르본톤에 새로운 물리적 창조의 출현 시에 종결시킬 지도 모르는 연장된 그 활동에, 그들이 나중에 가담하게 돼 있는 동쪽 공간 구역으로 긴 여행을 떠났음을 의미한다.

57:1.6 (652.2) 875,000,000,000년 전에, 876,926_번의 거대한 앤드로노버 성운이 정식으로 창시됐다. 결국 이 방대한

공간의 회오리바람으로 확대될 에너지 소용돌이를
개시하는 데에는, 오직 힘 조직가와 연락 참모의 참여만
필요했다. 그런 성운 회전이 시작된 후에는, 활기찬 힘
조직가들이 회전 판 표면의 오른 편으로 물러나 있기만
하면 되며, 이 시간 후로는, 에너지의 선천적 특성들이 그런
새로운 물리적 체계를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진화시키게
돼 있다.

57:1.7 (652.3) 이 무렵부터, 이야기는 연방우주 인격체들의
활동으로 옮겨간다. 실질적으로 그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은 이 시점{時點}부터다--낙원 힘 조직가들이,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동력 지휘자들과 물리 통제관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_에너지 상황을 조성하면서,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다.

2. 제1기 성운 단계

57:2.1 (652.4) 모든 진화하는 물질 창조계는, 회전하는
기체상태의 성운으로부터 발생되며, 그런 제1기 성운들은
모두,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초기 시절 내내 회전한다.
그것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형을 이루게 되며,
항성을 조성하는 그 기능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종종 별

무리들로 귀착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숫자의 행성, 위성, 그리고 너희의 조그마한 태양계와 여러모로 닮은 비교적 작은 물질 집단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항성들로 귀착된다.

57:2.2 (652.5) 8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창조물은 오르본톤의 거대한 제1기 성운 가운데 하나로 잘 조성됐다. 근처에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들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접된 곳에서 창조된 성운들에 적용된 인력{引力} 추정치{推定値}는, 앤드로노버 지역에서 공간에 물질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57:2.3 (652.6) 7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체계는 거대한 크기로 나타났으며, 매우 신속한 속도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물질 체계의 동력 중심지들을 후원하고 협동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홉 개의 물질 창조계에 물리 통제관들이 추가로 파견됐다. 이런 아득히 먼 옛날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조계에 전달된 모든 물질은 바퀴 모양의 이런 거대한 공간 경계선 안에 가둬져 있었으며,

그것은 계속해서 소용돌이치다가, 최대 직경에 도달한 뒤에는, 점점 더 빨리 회전하면서 계속 응집되고 수축됐다.

57:2.4 (652.7) 6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에너지_활성화가 최고도에 달하는 기간이 됐으며;그 성운은 최대 질량에 도달했다. 이때 그 성운은 납작한 접시 모양으로 거대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이었다. 이 시기는, 상이한 질량이 형성되고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초기 단계였다. 인력 및 기타 작용들이, 공간의 기체를 조직된 물질로 변환시키는 활동을 막 시작했다.

3. 제2기 성운 단계

57:3.1 (653.1) 그 거대한 성운이, 이제는 점차 소용돌이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멀리 있는 우주들의 천문학자에게도 확실하게 보일 정도가 됐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운의 자연스런 역사이며;항성들이 형성되고 우주가 구축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제2기 공간 성운이 대개 소용돌이/현상으로 관측된다.

57:3.2 (653.2) 그 일이 있던 먼 옛날에, 근처의 별 연구자들이 앤드로노버 성운의 이런 변질을 관측했을 때, 20세기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방향을 우주 밖으로 돌리고, 가까이

있는 외부 공간에서, 현_시대에 소용돌이치는 성운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봤다.

57:3.3 (653.3) 최대 질량에 도달했을 즈음에, 기체 상태인 내용물의 인력{引力} 통제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기체 누출 단계, 즉 두 개의 거대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팔처럼 앞으로 뻗어 나가는 기체 유출이 계속 발생했으며, 그 기체 유출은, 모체{母體}가 되는 큰 덩어리의 반대편에서 기원{起源}됐다. 이런 거대한 중앙 중심의 빠른 회전은, 투사하는 두 개의 이 기체 기둥으로 하여금, 곧 소용돌이치는 모양이 되게 했다. 뻗어나가는 이 기둥들 가운데 일부분이 냉각된 후에 응고됨으로써, 결국 울퉁불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렇게 농축된 부분들은, 성운의 기체 구름 한 가운데 있는 공간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여러 체계와 하위체계들의 물리적 물질이었고, 모체 바퀴의 인력 지배 속에 견고하게 붙잡혀 있었다.

57:3.4 (653.4) 그러나 그 성운은 수축하기 시작했고, 회전 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 통제력이 더욱 감소됐으며;머지않아, 기체상태의 바깥쪽 구역들이, 그

성운의 핵심에 조밀하게 포집돼 있는 상태에서부터 실제로 이탈하기 시작했고, 불규칙한 윤곽선을 그리는 순회경로를 타고 공간 속으로 옮겨갔다가, 핵심 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순회경로를 마쳤으며, 그런 식으로 계속됐다. 그러나 이것은 성운의 진보에서 일시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계속_증가하는 회전 속도는, 곧 서로 독립적인 회로를 갖는 무수한 항성을 공간 속으로 쏟아냈다.

57:3.5 (653.5) 그리고 이것이 아득히 먼 옛날에 앤드로노버에서 일어났었다. 에너지 바퀴가 최고 확장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커졌고, 그리고 나서 응축 과정이 시작될 때, 점점 빨리 소용돌이쳤으며, 결국 결정적인 원심분리{遠心分離} 상태에 도달하고 엄청난 분산이 시작됐다.

57:3.6 (653.6) 5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에서 첫 항성이 탄생됐다. 타는 듯한 이 광채는 모체{母體} 인력장으로부터 이탈됐고,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 창조계에서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공간 속으로 떨어져 나왔다. 그 궤도는 그 항성이 이탈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됐다.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항성들은 재빨리 구형{球形}의 모양을 갖췄으며, 우주의 별들처럼 길고 다사{多事}한 생애를 시작했다. 말기에 도달한 성운 핵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오르본톤 항성은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생겨났다. 이탈하는 이 항성들은 다채로운 기간을 거쳐서 진화하고, 나중에 우주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57:3.7 (653.7)} 4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성운의 재흡수 기간이 시작됐다. 모체 핵이 점차 확대되고 계속 응축됨으로 인해, 가까이 있는 비교적 작은 항성 중에서 다수가 흡수됐다. 곧 이어서 성운이 응축되는 말기 국면이 시작됐는데, 이 기간은, 에너지와 물질이 거대한 공간 집합체들이 마지막으로 분리되기 전에 반드시 앞서는 기간이다.

^{57:3.8 (654.1)} 낙원의 창조주 아들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우주를 건설하는 모험 장소로, 붕괴하는 이 성운을 선택한 것은, 이 시기에서 100만 년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살빙톤의 건축양식 세계들과, 행성들로 이뤄진 100개의 성좌 본부 집단이 거의 즉시로 개설됐다. 특별하게 창조된

세계들로 묶여진 이 무리들이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됐다. 지역 체계 본부 행성들은, 그때부터 약 50억 년 전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건설됐다.

57:3.9 (654.2) 3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항성 회로들이 잘 구축됐으며, 성운 체계는 물리적으로 비교적 안정을 누리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 무렵에, 미가엘의 참모진이 살빙톤에 도착했고, 오르본톤의 우버사 정부는 네바돈 지방우주를 물리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57:3.10 (654.3) 20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중앙 집합체, 즉 핵심 덩어리에 엄청난 열이 발생되면서, 수축과 응집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목격됐다. 중앙에 있는 모체{母體}_항성 바퀴 가까이 있는 영역에 상대적인 공간이 나타났다. 외부 영역들은 더 안정되고 잘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새로 태어난 항성의 주위를 회전하는 어떤 행성들은, 생명체가 이식되기에 적당할 만큼 이미 충분히 냉각됐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 전에 생명체가 거주하게 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다.

57:3.11 (654.4) 이제 네바돈의 완성된 우주 장치가 처음 작동하기 시작했고, 미가엘의 창조물은 인간거주 우주로서, 그리고 진보하는 필사자가 상승하는 우주로서 우버사에 등록됐다.

57:3.12 (654.5) 100,000,000,000년 전에, 성운의 응축 장력{張力}이 극점{極點}에 도달했으며;열에 의한 장력도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 인력과_열이 대립되는 이 결정적 단계가 때로는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열이 인력을 이기게 되고, 항성이 분산{分散}되는 눈부신 장면의 기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공간 성운의 제2기 생애는 마침표를 찍는다.

4. 제3기와 제4기

57:4.1 (654.6) 성운은, 제1기에는 회전하고;제2기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며;제3기에는 항성이 처음으로 분산되는 시기이며, 한편 제4기는 항성이 분산되는 둘째이자 마지막 주기를 포함하고, 모체의 핵은 구형{球形}의 성단{星團}으로서, 아니면 말기의 항성 체계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판 항성으로서 종결된다.

57:4.2 (654.7) 75,000,000,000년 전에, 이 성운은 그 항성_가족 단계 중에서 절정기에 도달했다. 이 시기는, 항성이 소실되는 첫 기간의 정점{頂点}에 해당됐다. 이 항성들 대부분은 그 후로, 행성, 위성, 흑암 섬, 혜성, 운석, 및 우주 먼지 구름으로 이뤄진 광대한 체계를 점유했다.

57:4.3 (654.8) 50,000,000,000년 전에, 항성이 분산되는 첫 기간이 완료됐으며;그 성운은 실존을 위한 제3 주기를 신속히 완료해 갔고, 그동안에 876,926개의 항성계가 생겨났다.

57:4.4 (654.9) 25,000,000,000년 전에, 성운 생애 중에서 제3 주기가 완성되는 것이 목격됐으며, 근원이 되는 이 모체 성운에서 발생된 광범위한 별 체계들의 조직과 상대적 안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응축하고 증가된 열이 발생하는 과정은, 그 성운 잔존물들의 중앙 덩어리 속에서 여전히 계속됐다.

57:4.5 (655.1) 10,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의 제4 주기가 시작됐다. 핵심_덩어리의 온도가 최고도에 달했으며;응축 과정이 임계점{臨界點}에 도달했다. 원래의 모체 핵은, 자체의 내부_열 응축 장력과, 둘러싸고 있는 독립된 항성계들로 인해서 증가되는 주기적 인력 작용의 혼합된

압력 아래서 진동하고 있었다. 둘째 성운 항성 주기를 시작하게 하는 핵 폭발이 임박하게 됐다. 성운 실재의 제4 주기가 막 시작되려 했다.

^{57:4.6 (655.2)} 8,000,000,000년 전에, 엄청난 말기{末期} 폭발이 시작됐다. 그런 우주적 격변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오직 외부에 있는 체계들만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그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런 마지막 항성 생성은, 거의 20억 년 동안 계속됐다.

^{57:4.7 (655.3)} 7,000,000,000년 전에, 앤드로노버 말기 붕괴의 절정이 관측됐다. 이것은 더 큰 말기 항성들이 결말에 이르는 기간이었고, 국지적인 물리적 교란의 정점이었다.

^{57:4.8 (655.4)} 6,000,000,000년 전에, 말기의 분산이 종료됐고, 너희의 태양이 생겨났으며, 앤드로노버의 제2 항성가족 가운데 끝에서 56번째로 탄생됐다. 그 성운 핵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출되면서, 136,702개의 항성이 생성됐고, 그 대부분은 단독 궤도를 갖는다. 앤드로노버 성운에서 기원된 항성과 항성계는 총 1,013,628개다. 항성계를 가진 항성은 1,013,572개다.

57:4.9 (655.5)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앤드로노버 성운이 없으나, 우주의 이 모체 구름에서 생성된 많은 항성으로, 그리고 그 행성가족으로 살아남아 있다. 이 거대한 성운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핵심 부분은, 붉은 빛을 내면서 여전히 불타고 있고, 165개의 세계들로 이뤄진 잔여 행성가족에게, 수그러든 빛과 열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막강한 두 세대에 걸쳐서 빛의 지배자들을 낳은 고색창연한 이 모체{母體} 주위를 돌고 있다.

5. 몬마시아--유란시아 태양계--의 기원

57:5.1 (655.6) 5,000,000,000년 전에, 너희의 태양이 비교적 독립적인 불타는 구체를 이뤘고, 가까이서 돌고 있는 공간 물질 대부분, 즉 그 자체의 생성에 기여했던 마지막 격변에서 생긴 잔여물이, 자체에게로 모이도록 했다.

57:5.2 (655.7) 오늘날,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은 비교적 안정을 이룩했지만, 11.5년 주기{週期}의 태양 흑점은, 그것이 청년기에 변광성{變光星}이었음을 나타낸다. 너희의 태양은 초기에는 계속 응축했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그 표면에 거대한 격변을 일으켰었다. 이런 거대한 융기{隆起}가, 변화하는 밝기의 주기를

완료하기까지는, 3.5일이 소요됐다. 이런 가변 상태, 즉 이 주기적 변동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부닥치게 될 어떤 외부 영향에 아주 잘 반응하게 했다.

57:5.3 (655.8) 너희에게 비취는 태양의 행성가족, 즉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소속된 태양계의 이름인, *몬마시/아*의 독특한 기원{起源}을 위해서 준비된 지역 공간의 무대가 그렇게 설치됐었다. 오르본톤에 소속된 행성 체계들 중에서 비슷한 기원을 갖는 것은 1퍼센트 미만이다.

57:5.4 (655.9) 4,500,000,000년 전에, 거대한 앙고나 체계가 독립된 이 태양 근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큰 이 체계의 중심은, 고체 상태이며, 심하게 축적되고,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는 어둡고 거대한 천체였다.

57:5.5 (656.1) 앙고나가 태양으로 더 접근하여, 태양이 진동하면서 최고로 확장되는 순간,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이뤄진 기둥들이, 태양의 거대한 허처럼 공간 속으로 분출돼 나왔다. 허 모양으로 불타는 이 기체 기둥들이 처음에는 반드시 태양 속으로 되돌아갔지만, 앙고나가 점점 더 접근하면서, 그 거대한 방문객의 인력 작용이 너무 커지자, 허 모양의 이 기체 기둥들이 어떤 지점에서 떨어져

나갔고, 뿌리 부분은 태양으로 되돌아갔지만, 바깥 부분은, 물체의 독립된 덩어리들, 즉 태양계의 운석을 형성할 만큼 떨어져 나가게 됐으며, 그것들은 자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곧 태양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57:5.6 (656.2)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접근하자, 태양의 분출은 점점 더 심화됐으며;점점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주변 공간에서 맴도는 독립적 덩어리들을 이루게 됐다. 이런 상황은 앙고나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50만 년 동안 계속 발전했으며;태양은 그 후에 주기적인 내부 격변 가운데 하나로 인해서, 부분적인 분열을 경험했으며;그 반대편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질이 일제히 분출됐다. 앙고나가 있는 쪽에서는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태양 기체가 분출됐고, 오히려 양쪽 끝을 향했으며, 가운데에서는 현저하게 부풀어 올랐고, 태양의 직접 인력 통제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됐다.

57:5.7 (656.3) 태양에서 이렇게 분리된 큰 기둥 모양의 이 태양 기체는, 나중에 태양계에 속한 12개의 행성으로 진화됐다. 이 거대한 태양계 선조{先祖}의 분출에 주기적으로 일치되도록, 반대편에서 반응해 유출된 기체는, 그 후로

태양계의 운석과 공간 먼지로 응축됐지만, 이 물체 중에서 많은 매우 많은 부분이, 나중에 앙고나 체계가 멀리 있는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태양의 인력에 다시 붙잡혔다.

57:5.8 (656.4) 태양계 행성들의 조상 물질, 그리고 소행성과 운석이 되어 현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막대한 양의 물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는 했더라도, 앙고나는 이런 태양계의 물질 가운데 어떤 것도 자체를 위해 확보하지 못했다. 방문하던 그 체계는, 태양의 내용물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흡수할 정도로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오늘날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분출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했었다.

57:5.9 (656.5) 안쪽에 있는 5개의 행성과 바깥쪽에 있는 5개의 행성은, 앙고나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거대한 중력 팽창이 점차 끝나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차가워지고 응축되는 핵들로부터 곧 소규모의 형태를 갖췄으며, 반면에 토성과 목성은, 비교적 부피가 크고 부풀어 오르는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됐다. 토성과 목성은 앙고나로부터 유실{遺失}된 대부분의 물질을 초기에 강력한 인력 작용으로 흡수했고, 토성과 목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역행{逆行}하는 움직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57:5.10 (656.6) 과열된 태양 기체의 거대한 기둥 한가운데에서 생성된 토성과 목성은, 매우 높은 열을 간직한 태양 물질로 이뤄졌기 때문에, 밝은 빛을 발했고, 많은 양의 열을 내뿜었으며; 독립된 천체로 형성된 후에 잠시 동안, 제2의 태양 역할을 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이 두 행성은, 오늘날까지도 기체 상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아직도 완성된 응축이나 응결{凝結}을 이룰 정도로 냉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57:5.11 (656.7) 기체에서 응축된 다른 10개의 행성들의 핵은, 곧 응결 상태에 도달했으며, 가까운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을 점점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중{二重} 기원을 갖게 됐는데: 즉 기체에서 응축된 핵과, 나중에 엄청난 양의 운석을 흡수함으로써 증가된 부분이다. 정말로 그것들은 여전히 운석을 흡수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57:5.12 (657.1) 그 행성들은, 모체인 태양의 적도 평면 위에서 태양 주위를 돌지 않는데, 그 행성들이 태양의 회전으로

던져졌더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태양의 적도 평면과 적지 않은 각도를 이뤄 유지하고 있는, 앙고나의 태양 분출 평면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57:5.13 (657.2) 앙고나가 태양의 물질 가운데 어떤 것도 끌어당기지 못하는 동안, 태양은 때때로 접근해 오는 우주 체계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끌어 당겨서 태양계 행성들에게 덧붙여 줌으로써 변형을 일으키게 했다. 앙고나의 강한 인력장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는 행성 무리는 거대한 흑암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으며;태양계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분출된 직후에, 그리고 앙고나가 아직 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안에, 앙고나 체계의 주요 행성 중에서 세 개가 육중한 태양계의 조상에게 너무 근접해서 돌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인력 작용은 이들 세 종속체{從俗體}들로 하여금, 앙고나의 인력 한계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가서 하늘에 떠돌아다니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57:5.14 (657.3) 태양으로부터 분출된 태양계의 물질 전체는, 처음부터 균일한 방향의 궤도 곡선을 그리면서 돌았으며,

세 개의 이 외래 천체의 침입을 받지 않았더라면, 모든 태양계 물체는 여전히 같은 방향의 궤도 운동을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앙고나에 소속됐던 세 종속체의 영향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힘을 태양계에 끼쳤으며, 그 결과로 **역행{逆行}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다. 어떤 우주 체계에서든지, 역행 운동은 항상 우연히 발생하며, 반드시 외부 천체들이 충돌하는 충격의 결과로 빚어진다. 그런 충돌 작용이 역행 움직임을 항상 가져오지는 않지만, 다양한 기원을 갖는 물질을 포함하는 체계가 아닌 곳에서는 결코 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6. 태양계 형성기--행성 형성 시기

57:6.1 (657.4) 태양계가 생성된 후에, 태양의 분출이 점차 감소되는 현상이 한동안 나타났다. 그 다음 50만 년 동안, 태양에서 주변 공간으로 분출되는 물질의 양은 점점 감소됐다. 그러나 안정되지 못한 궤도를 도는 이 초기 시절에, 주변의 천체{天體}들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모체인 태양은 이런 운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재 흡수할 수 있었다.

57:6.2 (657.5)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의 회전 속도가, 주기적 변동
마찰 때문에 먼저 감소됐다. 그런 인력 영향이 행성_축{軸}
회전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행성 궤도들이 안정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축의 회전이 멈출 때까지 행성이
언제나 점점 더 천천히 돌게 했고, 행성의 반쪽 부분이 항상
태양 또는 더 큰 행성을 향하도록 했는데, 이런 현상은
수성과 달이 보여주는 바와 같으며,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유란시아 쪽으로 향하면서 돌고 있다.

57:6.3 (657.6)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달과 지구의 견제력이
균등하게 되면, 지구도 항상 한쪽 면만 달을 향하게 될
것이며, 하루와 한 달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그 길이가
약 47일이 될 것이다. 그런 궤도 안정이 달성되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견제력은 거꾸로 작용될 것이며,
달은 더 이상 지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성이
행성 쪽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주 먼 훗날에, 달은 지구로부터 약 11,000 마일의
거리까지 접근할 것이며, 지구의 인력 작용이 달을
붕괴시킬 것이고, 이런 주기적 변동 인력 폭발이 달을 작은
입자들로 분쇄해서, 토성과 마찬가지로 고리 모양의 물질

띠를 이뤄, 지구 주변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점차 운석으로 지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57:6.4 (658.1) 천체들의 크기와 비중이 동일한 상태라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개의 천체가 비중에서는 비슷하나 크기에서 서로 다르고, 작은 것이 큰 것에 점점 접근한다면, 그 궤도 반경이 큰 천체 반지름의 2.5배에 도달했을 때, 작은 천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주에서 큰 물체들 간의 충돌은 정말로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이 인력의_주기적_변동으로 인한 작은 물체의 폭발{爆發}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다.

57:6.5 (658.2) 유성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현상은, 가까이 있는 큰 천체가, 주기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인해서 파괴된 천체의 큰 덩어리들 때문에 일어난다. 토성의 띠들은 파괴된 위성의 파편들이다. 목성을 돌고 있는 달들 중에서 한 개가 현재 주기적 변동의 파열 임계{臨界} 지점에 거의 도달해 있으며, 수백 만 년 내에 그 행성에 이끌리든지, 아니면 주기적 변동 인력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 태양계의 다섯째 행성이 불규칙적인 궤도를 돌다가, 주기적으로 목성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서, 주기적 변동 인력 파괴의 임계 지점에 들어가게 됐으며, 신속히 분쇄됐고, 오늘날의 소행성 무리가 됐다.

57:6.6 (658.3) 4,000,000,000년 전에, 목성과 토성의 체계들이 조직되는 것을 목격하게 됐으며, 이것들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크기가 계속 커진 자체의 달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관측되는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계속해서 운석을 흡수하는 결과로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7:6.7 (658.4) 3,500,000,000년 전에, 다른 10개 행성의 응축된 핵들이 잘 형성됐으며, 대다수의 달의 중심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비교적 더 작은 위성들 가운데 더러는 나중에 합쳐져서 오늘날과 같은 비교적 큰 달들이 되기도 했다. 이 시기는 행성들이 조직되는 기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57:6.8 (658.5) 3,000,000,000년 전에, 태양계는 오늘날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됐다. 그 행성과 위성들은, 엄청난 비율로 떨어지는 운석으로 인해 계속해서 덩치가 커졌다.

57:6.9 (658.6) 이 무렵에, 너희의 태양계가 네바돈의 물리 등록부에 기재됐고, 몬마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57:6.10 (658.7) 2,500,000,000년 전에, 행성들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 유란시아는 현재 부피의 10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잘 발달된 구체를 이뤘으며, 증가되는 운석으로 인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다.

57:6.11 (658.8) 이런 모든 엄청난 활동은, 유란시아와 같은 계열의 진화 세계를 형성하는 데 정상적인 부분이며, 시간세계에서 생명체가 모험을 하도록 준비된 그런 공간 세계들이, 물리적 진화를 시작하기 위한 무대를 설치하는 천문학상 준비 과정이다.

7. 운석 시대--화산 폭발기 행성의 원시 대기

57:7.1 (658.9) 이런 초기 시대 내내, 태양계의 공간 지역들에는, 분열과 응축의 과정을 거치는 작은 천체{天體}들이 떼 지어 있었고, 연소 작용으로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분쇄된 천체들이 바로 유란시아 표면에 떨어졌다. 이런 끊임없는 충격이 행성 표면을 다소 가열된 상태로 지속되게 했고, 구체가 커짐에 따라 중력 작용도 더욱 증가되면서, 철과 같은 무거운 성분이 행성

중심부를 향해서 점점 더 가라앉게 하는 영향력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57:7.2 (659.1) 2,000,000,000년 전에, 지구는 뚜렷이 달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위성보다 행성이 항상 더 컸지만, 엄청나게 많은 천체 조각이 지구에 흡수된 이 시기까지, 크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무렵에, 유란시아는 현재 크기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으며, 원시 대기를 붙잡아둘 만큼 충분한 크기에 도달하게 됐고, 이 대기는 가열된 내부와 냉각되는 표면 사이에서, 내부의 원소가 분리된 결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57:7.3 (659.2) 명확한 화산 작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운석들이 공간으로부터 가져온, 방사성{放射性}을 갖거나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더 깊이 묻힘으로써, 지구 내부의 열은 계속 증대됐다. 방사성이 있는 이 원소들을 연구하면, 유란시아의 표면이 1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듐 측정법은, 행성의 생성 년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시간 계산법이지만, 그런 측정 결과는 모두 너무 짧게 나타나는데, 이는 너희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사성

물질은 모두 지구 표면에서 채취된 것이고, 따라서 유란시아가 이 원소들을 비교적 최근에 획득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57:7.4 (659.3) 1,500,000,000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에 달한 반면, 달은 현재 질량과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갖게 됐다. 지구가 달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으므로, 그 위성이 본래 갖고 있었던 미세한 양의 대기{大氣}를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했다.

57:7.5 (659.4) 이때 화산 작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지구 전체는 마치 불타는 지옥처럼 되어, 그 표면은 무거운 금속 성분이 중심부로 가라앉기 이전의 초기 용암 상태와 흡사했다. 이것이 바로 *화산기*{火山紀}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대개 비교적 가벼운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표면은 점차 형태를 갖춰 나갔다. 장차 생명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다.

57:7.6 (659.5) 행성에 원시 대기{大氣}가 서서히 형성됐으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을 함유하게 됐지만, 질소와 산소는 거의 없었다. 화산 활동기의 지구 환경 상태는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여러 기체 외에, 엄청난 양의 화산 연기가 가득 차게 됐고, 공기 띠가 충분하게 형성되자, 지구 표면에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무거운 운석에서 산화 물질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운석 산화 작용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거의 전부 소모시켰고, 운석이 떨어지는 정도는 여전히 엄청났다.

57:7.7 (659.6) 이윽고, 대기 상태가 더 안정되고 충분히 냉각돼서, 지구의 가열된 암석 표면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란시아는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연속적인 증기 막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지구 표면에 태양이 전혀 비치지 못했다.

57:7.8 (659.7) 대기 속에 있던 많은 탄소가 흡수돼서, 지표층{地表面}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의 탄산염을 형성했다. 그 후로 훨씬 더 많은 양의 탄소 기체를 초기의 풍부한 식물 생명체가 소비했다.

57:7.9 (660.1) 이어지는 기간에도, 계속되는 용암 분출과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운석으로 말미암아,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거의 전부 소모되기에 이르렀다. 곧 나타나게 되는 원시 대양{大洋}의 초기 퇴적물 속에도, 색깔 있는

암석이나 이판암이 함유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대양이 나타난 후 오랫동안, 대기 속에는 실질적으로 유리{遊離} 산소가 거의 없었으며;나중에 해초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채소들이 산소를 생성하기 전에는 현저한 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57:7.10 (660.2) 화산 활동기의 원시 지구 대기는, 운석이 떴 지어 충돌하는 충격으로부터 지구를 거의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수많은 운석이 그런 공기층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고, 고체 덩어리로 지구 표면에 충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가 풍부한 후기 시대의 강력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기에 충분할 만큼 큰 운석은 점점 줄어들었다.

8. 지구 표면의 안정 지진 활동기 세계적 대양과 최초의 대륙

57:8.1 (660.3) 1,0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 역사가 실제로 시작됐다. 지구는 오늘날의 크기에 거의 도달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네바돈의 물리 등록소에 기재됐으며,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57:8.2 (660.4) 끊임없는 이슬 현상과 함께, 대기는 지구 표면의 냉각을 촉진시켰다. 화산{火山} 작용은, 일찍이 내부_열 압력과 지표면 응축을 균등화시켰으며;화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지표면이 식고 조절되던 이 시기가 진행되면서, 지진{地震}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57:8.3 (660.5) 유란시아의 실제 지질 역사는, 첫 대양이 형성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구 표면을 냉각시킴과 동시에 시작됐다. 지구의 냉각된 표면에서 수증기의 응결은, 일단 형성되기 시작하자, 실제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이 끝나게 됐을 때, 대양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고, 1마일에 달하는 동일한 깊이로 지구 전체를 덮었다. 그렇게 되자,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조수{潮水} 현상이 시작됐지만, 이 원시 대양에는 소금기가 없었으며;지구를 뒤덮은 물은 실제로 민물 상태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염소는 여러 종류의 금속 성분과 합쳐져 있었으나, 수소와 합쳐져서 이런 물이 약한 산성을 띄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57:8.4 (660.6) 아득히 먼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물 속에 갇힌 행성으로 관측됐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 깊은,

그리하여 밀도가 더 높아진 용암이, 현재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밑바닥으로 흘러 나왔고, 표면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역은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됐다. 점점 두꺼워지는 지층의 평형 작용에 대한 보상 조정 현상으로, 거대한 첫 대륙이 세계의 대양에서 솟아올랐다.

57:8.5 (660.7) 95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하나로 이뤄진 물, 즉 태평양이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화산 활동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지진 활동은 빈번하고 맹렬하게 지속됐다. 운석이 지구에 계속 떨어졌지만, 빈도와 크기는 줄어들고 있었다. 대기는 투명하게 됐으나,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지구 표면은 점점 안정돼 갔다.

57:8.6 (660.8) 바로 이 무렵에, 행성 경영을 위해서 유란시아가 사타니아 체계에 배정되고, 노라티아텍의 생명 등록소에 기록됐다. 그리고 나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구체에 대한 실제적인 경영이 시작됐는데, 이 구체는 미가엘이 나중에 필사자로서 증여되는 엄청난 이행업무에 착수할 행성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고, 거기서 미가엘은, 나중에

유란시아를 “십자가의 세계”로 지방우주에 알리게 될 여러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57:8.7 (661.1) 900,000,000년 전에, 사타니아의 첫 경찰대가
예루셈으로부터 유란시아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지구를
조사하고, 생명을_실험하는 장소가 될 만큼 적당한 상태가
됐는지 보고하도록 파송됐다. 이 위원회는 스물네 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생명 운반자들, 라노난덱 아들들,
멜기세덱들, 스라빔, 그리고 행성의 조직과 경영의 초기
단계에 활동하는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생명체들이
포함돼 있었다.

57:8.8 (661.2) 행성에 대한 수고스런 조사를 마친 후에, 이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유란시아가
생명을_실험하도록 등록되기에 적합하게 됐음을, 호감을
갖고 체계 주권자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예루셈에 10진{十進} 행성으로 등록됐고,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을 옮기고 주입하는 권한을 지니고
나중에 도착했을 때, 기계, 화학, 및 전기 방법으로
동원하는 새로운 원형{原型}들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락을
통고 받았다.

57:8.9 (661.3)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열두 명의 혼합된 예루셈 위원회가 행성 점유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에덴시아에 있는 70명으로 이뤄진 행성 위원회가 이를 인가했다. 생명 운반자들에게 자문하는 조언자들이 제안한 이 계획은, 살빙톤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 직후에 네바돈의 소식통은, 생명 운반자들이 네바돈의 생명 원형들 중에서 사타니아 유형을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고안된, 60번째의 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유란시아가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57:8.10 (661.4) 우주 방송이 유란시아를 네바돈 전체에 처음으로 알린 직후에, 온전한 우주 지위가 유란시아에 수여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란시아는 연방우주의 소구역과 대구역 본부 행성들의 기록부에 등록됐으며;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란시아는 우버사의 행성_생명 등록부에 기재됐다.

57:8.11 (661.5) 이 기간 전체의 특징은 빈번하고 격렬한 폭풍우였다. 초기에 지각{地殼}은 연속해서 유동{流動}하는 상태에 있었다. 냉각된 표면은 엄청난 양의 용암 분출로 인해 변형됐다. 지구 표면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원래의 지각 부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지구 전체는 깊은 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흘러나온 용암과 혼합됐고, 초기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대양에서 나중에 퇴적된 물질들과 뒤섞였다.

57:8.12 (661.6) 대양이 있기 전에 생긴 고대의 암반으로부터 변경된 잔재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허드슨 만{灣} 주변의 북동쪽 캐나다에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화강암이 용기된 이 광대한 지역은, 대양이 생기기 이전 시대에 속하는 바위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의 암반층은, 가열되고, 휘어졌고, 뒤틀려졌고, 위쪽으로 주름이 잡혔으며, 이런 뒤틀림의 변형 과정을 여러 번 거쳤다.

57:8.13 (661.7) 대양 시대 내내, 화석이 없는 성층암{成層岩}으로 이뤄진 거대한 지층이 고대의 대양 바닥으로 퇴적됐다. (석회암은 화학적인 침전의 결과로도 형성될 수 있으며;오래된 석회암 전체가, 해양_생명체의 퇴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고대에 형성된 이런 암반에서는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나중에 일어난 홍수기의 퇴적물이, 생명체가 생기기 이전의, 비교적 더

오래된 이런 지층과 뒤섞이지 않은 곳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57:8.14 (662.1) 지구의 초기 지각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산맥이 형성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구는 형태를 갖추면서 중력 작용으로 인해 응축 현상이 일어났다. 산맥은, 응축되는 영역에서 냉각된 지층이 붕괴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빗물과 중력 그리고 침식 작용의 결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됐다.

57:8.15 (662.2) 이 시기에 나타난 대륙은, 지구 표면의 10퍼센트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 확대됐다. 대륙이 물 위로 알맞게 떠오를 때까지, 심각한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시작되자, 지진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났고 격렬하게 발생됐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이 줄어들었지만, 유란시아에는 아직도 하루 평균 15번 정도 발생되고 있다.

57:8.16 (662.3) 850,000,000년 전에, 실제로 지각이 안정되는 시기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무거운 금속 성분 대부분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았으며; 냉각된 지각은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대한 정도의 함몰{陷沒} 현상을 멈추게 됐다.

땅의 돌출과, 이보다 무거운 해양 바닥 사이에, 더욱 안정된 균형이 이뤄졌다. 지표 밑에 있는 용암층의 유동은 거의 세계적으로 퍼졌으며, 이런 현상은 냉각과 응축 그리고 표면적인 변형 때문에 생긴 불안정을 보상하고 안정화시켰다.

57:8.17 (662.4)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의 빈도와 크기가 계속 줄어들었다. 대기에 있던 화산 먼지와 수증기가 없어졌지만, 이산화탄소 함유량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다.

57:8.18 (662.5) 땅과 공기 중의 전기{電氣} 교란 현상 역시 점차 감소됐다. 지각을 다양화시키고, 어떤 공간_에너지로부터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합성 원소들이,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으로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은, 자력{磁力}을 띤 두 극점의 작용에서 나타나듯이, 지구 에너지의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했고, 그 흐름을 통제하는 데 많이 기여했다.

57:8.19 (662.6) 800,000,000년 전에, 최초의 거대한 육지{陸地}의 시기, 즉 증가된 대륙 용기의 시대가 개시되는 것이 목격됐다.

57:8.20 (662.7) 지구 표면에서 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한 후, 처음에는 세계에 퍼진 대양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서, 그때 지구 표면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모습이 됐다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 바다로 떨어지는 운석은 해저{海底}에 쌓이게 됐는데, 운석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질들로 구성돼 있었다. 땅에 떨어진 것들은 대개 산화{酸化} 됐고, 이어서 침식 작용으로 부식됐으며, 바다로 씻겨 들어갔다. 그리하여 대양의 밑바닥은 점점 무거워졌으며, 그 위에 물의 하중이 더해졌고, 어떤 부분은 깊이가 10마일에 달하기도 했다.

57:8.21 (662.8) 점차 증가되는 태평양의 침강이 대륙을 더 밀어 올리게 됐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현재 오스트랄리아, 남_북 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역을 따라 태평양 깊은 곳에서 융기되기 시작했고, 한편 태평양의 바닥은 이를 보상하는 조정 작용으로 더욱 침강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육지가 됐는데, 전부 하나의 대륙 덩어리였다.

57:8.22 (662.9) 육지의 고도가 이렇게 점차 높아지면서, 지구상에 최초의 기후 차이가 나타났다. 땅의 용기, 광대한 구름 층, 및 대양의 영향이 기후 변동의 주요 요소였다. 땅이 최고로 용기됐을 때, 아시아 지역 중심부의 고도는 거의 9마일에 이르렀다. 공중에는 많은 수분이 함유돼 있었고, 이런 높이 솟아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거대한 얼음 층을 형성하기도 했으며;빙하기는 실제로 이뤄진 것보다 훨씬 전에 시작될 수도 있었다. 광범한 지역의 땅이 수면 위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수억 년 걸렸다.

57:8.23 (663.1) 750,000,000년 전에, 대륙 땅 덩어리가 처음으로 균열되면서 남_북 방향으로 거대하게 틈이 벌어지게 됐으며, 나중에는 해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갔고, 그린랜드를 포함한 남_북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됐다. 동_서 방향으로 길게 틈이 생겨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으로부터 분리됐고, 오스트랄리아와 태평양 군도{群島}, 그리고 남극 대륙의 땅 덩어리가 아시아 대륙에서 갈라져 나갔다.

57:8.24 (663.2) 700,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생명체를 유지시키기에 적합한 원숙한 환경에 도달했다. 대륙의

땅들은 계속 유동{流動}했으며;대양의 물이 점점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손가락 모양의 긴 바다가 형성됐으며, 얇은 물과 보호된 만{灣}은, 해양 생명체의 서식지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57:8.25 (663.3) 650,000,000년 전에, 땅 덩어리들은 더욱 분열됐고, 따라서 대륙의 내해{內海}들이 더 확장됐다. 그리고 이런 바다는, 유란시아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어느 정도의 소금기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게 됐다.

57:8.26 (663.4) 시대가 지나고 세기가 바뀌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잘 보존된 돌판들에서 나중에 발견된 바와 같이, 유란시아의 생명체 이력을 적어놓은 것은, 바로 이 여러 바다와 그 뒤를 이은 바다들이었다. 고대에 있었던 이 내륙의 바다들은 정말로 진화의 요람이었다.

57:8.27 (663.5) [원래 유란시아 단체의 일원이었고 현재는 거주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제58편 유란시아의 생명체 태동

58:0.1 (664.1) 사타니아 전체에서, 생명체_변경 행성인 유란시아와 비슷한 세계는 61개밖에 없다. 인간거주

세계들 대부분은 이미 확정된 기법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돼 있으며;그런 구체에서 생명 운반자들은 생명 이식을
위한 계획에 재량권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러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는 10진 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
운반자들의 특별 등록부에 배정되며;그런 행성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의 표준 우주 유형들을
변경시키거나, 가능한 한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생명체 실험을 수행하도록 허락받는다.

1. 물리적 생명의 필요조건

58:1.1 (664.2) 600,000,000년 전에, 예루셈에서 파견된 생명
운반자 위원회가 유란시아에 도착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606_번인 이 세상에 생명체를 태동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리적 조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타니아에서 네바돈 생명 원형{原型}을 전수하는
606번째 경험이며, 지방우주의 기본 및 표준 생명
설계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변경을 시도하는 60번째
기회였다.

58:1.2 (664.3) 구체가 진화 주기{週期}를 개시하기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생명 운반자가 생명체를 전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행성의 물리적 진보가 유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생명체를 개발할 수도 없다.

58:1.3 (664.4) 사타니아의 생명 운반자들은 염화나트륨 원형의 생명체를 입안했었으며;따라서 바닷물이 충분한 소금기를 갖기 전에는, 생명체를 심는 쪽으로 단계를 진행할 수 없었다. 유란시아 유형의 원형질은, 적당한 소금기를 머금은 용액에서만 작용할 수 있다. 모든 조상 생명체는-- 곧 식물과 동물은-- 소금기를_머금은_용액의 서식지에서 진화됐다. 더 고도로 조직화된 육상 동물일지라도, 바로 이 필수적 소금 용액이 혈액 순환을 통해서 몸 전체를 돌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혈액 순환은 이런 "짙은 소금기" 속에서 살아있는 미세한 모든 세포에게 자유롭게 염분을 제공하고 완전히 그 속에 잠기도록 한다.

58:1.4 (664.5) 너희의 원시 조상은 소금기 있는 해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했으며;오늘날, 바로 이 바닷물 같은 소금기 있는 용액이 너희의 몸 속에서 자유롭게 순환하고 있고, 각각의 세포를 화학 용액으로 적셔주고 있는데, 이 용액의 모든 본질적 요소는, 행성에서 활동하기로 된, 살아있는

처음 세포들의 첫 원형질 반응을 자극한 그 소금물과 비교될 수 있다.

58:1.5 (664.6) 그러나 이 시대가 시작될 때, 유란시아는 모든 면에서 해양 생명체의 초기 형태를 부양{扶養}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진화돼 갔다. 지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 지역들에서,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에--곧 땅과 공간의 환경에--가장 잘 적응할 것이라고 우리가 선택했던 생명체 형태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차후의 여러 시도를 위한 무대를, 물리적 발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58:1.6 (665.1) 그 후에 사타니아 생명 운반자 위원회는 예루셈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대륙의 땅 덩어리가 더 나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것은 실제로 생명체 이식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내륙의 바다와 보호된 만{灣}들을 마련해줄 것이다.

58:1.7 (665.2) 해양으로부터 생명체가 기원된 행성에서는, 수많은 내륙의 바다, 즉 수심이 얇고 끝없이 펼쳐진 해안선과 보호된 만{灣}이, 생명 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으며;지구에서 바로 그런 바다가 빠른

속도로 분포되고 있었다. 고대의 이런 내륙해{內陸海}의 깊이는 거의 500내지 600피트를 넘지 않았고, 태양 광선은 600피트 이상의 깊은 해수{海水} 밑까지 미쳤다.

58:1.8 (665.3) 그리고 후대의 온화하고 균일한 기후를 갖는 바로 그런 해안선에서, 원시 식물 생명체는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대기 속에 있는 많은 양의 탄소가, 새로운 땅의 다양한 생명체에게, 신속하고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대기 상태가 식물의 성장에 이상적이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너무 높았으므로, 사람은커녕, 어떤 동물도 지표면에 살 수 없었다.

2. 유란시아의 대기

58:2.1 (665.4) 행성의 대기는 태양의 전체 방사광{放射光} 가운데 약 20억 분의 1이 땅으로 들어오도록 걸러낸다. 만약 북 아메리카에 비치는 광선에 대해 시간당 1킬로 와트마다 2센트의 비율로 계산한다면, 연간 사용량 고지서는 약 800,000조{兆}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햇빛에 대해서 미국 시카고에 부과될 고지서는,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도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태양은 빛 외에도 여러 가지로 너희 대기{大氣}에 기여한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의 파장보다 짧거나 긴 파장을 포함해서, 방대한 태양 에너지가 유란시아에 퍼부어지고 있다.

58:2.2 (665.5) 스펙트럼의 자외선{紫外線} 끝 부분에 있는 태양 방사능 물질 대부분은,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이런 짧은 파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10마일 상공 전역에 퍼져 있는 오존층에 흡수되며, 그 층은 10마일 두께로 우주를 향해서 뻗어있다. 이 지역에 퍼져있는 오존은, 지구 표면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오직 10분의 1인치 두께의 층을 만들겠지만;그럼에도 비교적 소량이고 걸보기에 대단치 않은 양의 오존이, 햇빛 속에 있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자외선 방사능 물질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란시아 거주생명체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 오존층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매우 중요하고 건강을_제공하는 자외선이 차단될 것인데, 이 자외선은 지금 지구 표면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가장 필수적인 비타민 가운데 하나의 조상이다.

58:2.3 (665.6)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상상력이 빈약한 일부 필사 유물론자들은, 물질 창조와 인간 진화가 우연이라고 고집스럽게 간주한다. 유란시아의 중도자{中道者}들은, 우발적 우연의 법칙에 모순된다고 판단하는, 그리고 물질 창조에 지성적 의도가 들어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5만 가지 이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사실을 모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물리적 및 화학적 범위 밖에서 발견하는 10만 가지 이상의 목록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중도자들은 물질 시공우주를 계획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정신이 현존하고 있음을 이것들이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58:2.4 (666.1) 너희의 태양은, 죽음을 초래하는 광선을 홍수처럼 쏟아내며, 유란시아에서 너희의 쾌적한 삶은, 40가지가 넘는 보호 작용의, 겉보기에 “우연한” 영향력 때문인데, 이것들은 독특한 이오존층 효과와 유사하다.

58:2.5 (666.2) 밤에 대기를 “덮는” 효과가 없다면, 방열 작용으로 인해서 열이 너무 신속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인위적 열 공급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58:2.6 (666.3) 지구 대기{大氣} 가운데 아래쪽 5내지 6마일은 대류권{對流圈}에 해당되며; 기상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과 공기의 흐름이 있는 지역이다. 그 위에는 내부 전리층{電離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성층권{成層圈}이 있다. 지구 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6내지 8마일에 이를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내려가며, 꼭대기의 온도는 화씨로 약 영하 70도에 이른다. 화씨 영하 65내지 70도에 이르는 이 온도는 그 다음 40마일을 올라가는 동안 변함없으며; 온도가 일정한 이 구역은 성층권이다. 45내지 50마일의 고도에서, 온도는 다시 상승하고, 이 온도 상승은 오로라 현상이 있는 높이까지 계속되어 화씨로 1,200도까지 도달하며, 이런 극심한 열로 인해 산소가 이온화{化} 된다. 그러나 이런 희박한 대기에서 온도는 지구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열과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 너희의 전체 대기 중에서 반 정도가 지표면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가장 높은 오로라 유광{流光}이 지구 대기의 꼭대기를 가리킨다--약 400마일이다.

58:2.7 (666.4) 오로라 현상은, 태양 흑점, 즉 태양의 적도 위와 아래의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태양 폭풍우와 직접

관련되는데, 이 소용돌이는 땅에서 열대성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대기권 교란은, 적도보다 위 또는 아래에서 발생할 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58:2.8 (666.5) 빛의 파장을 변경시키는 태양흑점의 위력은, 이런 태양 폭풍 중심들이 막강한 자력{磁力}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자장은, 태양흑점 분화구로부터 대전{帶電}된 입자들을 공간을 통해서 지구 외부 대기로 뿜어내며, 거기서 그 이온화 영향력이 그런 장관{壯觀}의 오로라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태양흑점이 최고도에 달했을 때--혹은 그 직후에, 즉 그 흑점들이 비교적 더 널리 적도 부근에 위치했을 때, 너희는 가장 큰 오로라 현상을 보게 된다.

58:2.9 (666.6) 나침반조차 이런 태양 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가 뜰 때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치고, 해가 질 무렵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다. 이것이 매일 일어나지만, 태양흑점 주기가 최고조일 동안에는, 나침반의 이런 편차가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낮에 일어나는 나침반의 이런 산만함은, 태양 광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상층부 대기의 증가된 이온화 현상에 대한 반응이다.

58:2.10 (666.7) 너희의 장파 및 단파 라디오방송이 먼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충전된 두 개의 전도{傳導} 구역이 성층권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방송은, 이런 외부 전리층의 구역에서 가끔 거세게 일어나는 심한 폭풍에 방해를 받는다.

3. 공간의 환경

58:3.1 (666.8) 우주가 물질화하는 초기에, 공간 지역에는 광대한 수소 구름층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런 천문{天文} 먼지 다발이, 멀리 떨어진 공간 전역에서 많은 지역의 특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불타는 항성들이 복사{輻射} 에너지로 분산되고 흩어져서 조직화된 물질 대부분은, 초기에 나타난 이런 공간 수소 구름 속에서 원래 조성됐다. 또한 어떤 색다른 조건에서, 큰 수소 덩어리의 핵심부에 원자 분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가 조성되고 분열되는 이런 모든 현상은, 복사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이 만조{滿潮}에 도달함으로써 일어나는데, 극도로 가열된 성운의 경우와 같다. 이런 다양한 방사물에는,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공간_에너지가 뒤따른다.

58:3.2 (667.1)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짧은_광선의 에너지 축적량은, 조직된 공간 범위 속에 있는 모든 다른 형태의 복사 에너지보다 400배 더 크다. 짧은 공간 광선의 산출은, 어떤 불타는 성운들, 팽팽한 전기장{電氣場}, 외부 공간, 또는 방대한 수소 먼지 구름에서 나왔든지 상관없이, 온도, 중력, 및 전압의 파동 그리고 그 속의 갑작스런 장력{張力} 변동에 따라서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변경된다.

58:3.3 (667.2) 공간 광선의 기원에서 이런 우발성은, 많은 시공우주 사건 및 회전하는 물질의 궤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변경된 원에서 극심한 타원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자{電子}의 회전이 때로는 동일한 물리적 지대 안에서조차 더 큰 물질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 역시 크게 변경될 수 있다.

58:3.4 (667.3) 방대한 수소 구름은 실제적인 시공우주 화학 실험소인데, 진화하는 에너지와 변질되는 물질의 모든 국면을 품고 있다. 또한 매우 빈번하게 겹쳐지고, 그럼으로써 광범하게 뒤섞이는, 쌍으로 이뤄진 큰 별들의 변두리에 있는 기체 속에서, 큰 에너지 작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광범하고 거대한 공간의 에너지 활동 가운데 어떤

것도, 조직된 생명체의 현상에 --즉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의 원형질 씨앗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간의 이런 에너지 조건은 생명체 구성에 필수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조건은 복사 에너지를 가진, 비교적 파장이 긴 광선들 중에서 더러 그런 것과는 달리, 원형질 씨앗의 원초적인 요소들에서 뒤 따라 일어나는 변경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생명 운반자들이 이식{移植}한 생명체는,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런 모든 우주 에너지의 짧은 공간 광선에 대해, 완전한 저항력을 갖고 있다.

58:3.5 (667.4) 이런 모든 핵심적인 시공우주 조건은, 실제로 생명 운반자들이 유란시아에 생명체 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적당한 상태로 진화돼야만 했다.

4. 생명체_여명기

58:4.1 (667.5) 우리가 생명 운반자로 불리는 것 때문에 너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성에 생명체를 운반할 수 있고, 운반하기도 하지만, 유란시아에는 어떤 생명체도 가져오지 않았다. 유란시아 생명체는 독특하고, 이 행성에 고유하다. 이 구체{球體}는 생명체_변경 세계이며;이곳에

나타난 모든 생명체는 바로 여기 행성에서 우리가
조직했으며;유란시아와 똑같은 생명체 실존이 있는 다른
세계는, 사타니아 전체, 심지어 네바돈 전역에도 없다.

58:4.2 (667.6) 550,000,000년 전에, 생명 운반자 단체가
유란시아로 돌아왔다. 우리는 영적 권능 및 초{超}물리적
세력들과 협동해서, 이 세계의 원래 생명체 원형을
조직하고 창시했으며, 이 영역에 있는 쾌적한 물에 그것을
심었다. 행성 왕자 캘리가스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행성외계{行星外界}
인격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독창적이고 균등하며
동시적으로 이식{移植}한 3개의 해양_생명체에서
기원됐다. 3개의 이 생명체 이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는데: 중부 이식, 즉 유라시아_아프리카 지역, 동부 이식,
즉 오스트랄라시아 지역, 그리고 그린랜드와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부 이식지역이다.

58:4.3 (668.1) 500,000,000년 전에, 원시 해양 식물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남_북 아메리카를
위시하여 그린랜드와 북극 땅 덩어리는, 서쪽 방향으로
오랫동안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동쪽과 서쪽에 바다 골짜기, 즉 본래의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조성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이동했다. 남극 대륙과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이 가리키는 육지가 남쪽과 동쪽으로 떨어져 나갔고, 그날부터 멀리 떠내려갔다.

58:4.4 (668.2) 우리는 분리된 대륙 땅 덩어리의 동_서 방향 골짜기에 있는, 중앙 바다의 보호된 열대 기후의 만{灣}들 속에, 원시 형태의 해양 생명체를 심었다. 세 개의 해양 생명체 이식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목적인 바는, 나중에 땅이 분리돼 나갈 때, 각 대륙 땅 덩어리가 온화한 바닷물 속에 이 생명체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땅 위의 생명체가 태동되는 후기 시대에, 표류하는 이 대륙 땅 덩어리들을 거대한 해양의 물이 분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봤다.

5. 대륙의 표류

58:5.1 (668.3) 대륙의 땅은 계속 표류했다. 지구 중심은, 입방 인치 당 거의 25,000톤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중력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쇠처럼 농도가 짙고 단단해졌으며, 내부 깊숙한 곳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굉장히 가열된 상태다. 지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점차 증가하고, 중심 부분은 태양표면 온도보다 약간 높다.

58:5.2 (668.4) 지구 덩어리 표면으로부터 1,000마일은 주로 다양한 종류의 바위로 구성돼 있다. 그 밑으로는 더 조밀하고 무거운 금속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초기에 대기권이 생기기 이전 시대 내내, 지구가 뜨겁게 가열되고 녹아서 거의 액체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거운 금속 성분이 안쪽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오늘날 지구 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는 금속 성분은, 고대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것과, 나중에 대규모의 용암으로 흘러나온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후기에 운석이 쌓인 것이다.

58:5.3 (668.5) 지표층{地表面}은 약 40마일 두께였다. 이 바깥쪽 껍질을 다양한 두께의 녹아있는 현무암 바다가 받쳐줬고, 껍질은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 바다는 녹아있는 용암으로 된 유동성의 층으로, 높은 압력 아래서 유지됐지만, 변화하는 지구 압력을 균등하게 만들려고 항상 이곳저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졌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 표면을 안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58:5.4 (668.6) 오늘날에도 대륙들은, 녹아있는 현무암으로 이뤄진 부드럽고 폭신한 이 바다 위에서 여전히 떠다닌다. 이런 보호 환경이 없었다면, 훨씬 심각한 지진이 온 세상을 흔들어서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지진은 화산 폭발 때문이 아니라, 딱딱한 지각이 미끄러지고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58:5.5 (668.7) 지각의 용암층{鎔巖層}이 냉각되면 화강암이 된다. 유란시아의 평균 비중은 물 비중의 5.5배보다 약간 더 무거우며; 화강암의 비중은 물 비중의 3배보다 조금 가볍다. 지구 중심은 물 비중의 열두 배에 해당된다.

58:5.6 (668.8) 바다 밑바닥은 땅 덩어리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이 때문에 대륙들이 물 위에 떠있도록 만든다. 바다 밑바닥이 해수면 위로 돌출하게 되면, 대체로 현무암으로 돼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현무암은 땅 덩어리를 이루는 화강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용암 형태다. 다시 말해서, 대륙이 해저층{海底層}보다 가볍지 않다면, 중력이 태양의 가장자리를 땅 위로 올라오게 하겠지만, 그런 현상은 관측될 수 없다.

58:5.7 (668.9) 또한 대양의 무게는 해저층에 점점 더 센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기도하다. 낮은 곳에 있으나 비교적 더 무거운 해저층은, 누르고 있는 물의 무게와 더불어, 높은 곳에 있지만 훨씬 가벼운 대륙들의 무게와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대륙은 대양 속으로 서서히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해저의 고도와 동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륙의 압력은, 입방 인치 당 약 20,000파운드에 달한다. 즉, 이것은 해저로부터 15,000피트 솟아 있는 대륙의 압력일 것이다. 해저의 수압은, 입방 인치 당 약 5,000파운드에 불과하다. 이런 압력 차이가, 대륙이 대양의 바닥 쪽으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58:5.8 (669.1) 생명체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 동안에 대양의 밑바닥이 눌림으로써, 홀로 있던 대륙 땅 덩어리가 아주 높이 들어 올려져서, 측면 압력이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의 변두리를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밑에 있는 약간 점성을 갖는 용암지층 위로, 주변의 태평양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대륙의 압력을 아주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고대의 아시아 대륙 동쪽 연안에 폭 넓은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 동쪽 해안은 그 후로 항상, 인접한 해양 심해{深海}의 낭떠러지

위에 맴돌고 있으며, 물 속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6. 과도기

58:6.1 (669.2) 450,000,000년 전에, 식물 생명체로부터 동물 생명체로 변환이 일어났다. 이런 변환은, 열대성 기후의 보호된 만{灣}과, 분리된 대륙들의 광대한 해변의 환초{環礁}로 둘러싸인 바다에 있는 얇은 물속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모두 원래의 생명체 원형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인데, 차츰차츰 이뤄졌다. 초기의 원시 식물 형태의 생명과, 후기의 잘 조직된 동물 유기체 사이에는, 많은 변환 단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과도기의 점액질{粘液質} 모양이 잔존하며, 이것들은 식물이나 동물 중에서 어느 쪽으로도 분류되기 어렵다.

58:6.2 (669.3) 식물 생명체가 동물 생명체로 진화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고,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하고 향상된 유기체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너희는 동물계의 대분류{大分類} 사이뿐만 아니라, 인류 발생 이전에 가장 발달된 동물 유형의 선행인류{先行人類}와, 인간 종족 가운데 여명기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소위 “잃어버린 연결고리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58:6.3 (669.4) 시대가 바뀌면서 급진적인 새로운 종족의 동물 생명체가 생겨났다. 이것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이 아니며; 완전히 성장된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체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58:6.4 (669.5) 새로운 종족과 다양한 종류의 생명 유기체들의 *갑작스런* 출현은 전적으로 생물학적이며, 엄밀히 말해서 자연스런 것이다.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에는 초자연적 간섭이 전혀 없었다.

58:6.5 (669.6) 적당한 정도의 소금기 속에서 해양 동물 생명체가 진화됐고, 해양 생명체의 동물 육체 속으로 바닷물이 순환되게 하는, 비교적 단순한 상태였다. 그러나 해양이 줄어들고 소금 농도가 점차 높아지자, 똑같은 상태의 이 동물은, 소금기를 보존하는 독창적 기법으로, 자신의 체액에 있는 소금기를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량을

진화시켰는데, 이는 자신의 체액{體液}에 적당한 정도의 염화 나트륨을 유지하는 역량을 습득함으로 민물 속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한 유기체들과 동일하다.

58:6.6 (669.7) 바위 속에 들어 있는 해양 생명체 화석을 연구하면, 이 원시 유기체들의 초기 적응 투쟁을 발견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이런 적응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환경은 늘 변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기체는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려고 언제나 애쓰고 있다.

58:6.7 (670.1) 모든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인 장치는 물리적 법칙의 작용에 반응하게 돼 있지만, 나중에 주어진 정신은 타고난 뇌의 수용력에 따라 보조 정신_영들이 기증한 것이다. 정신은, 육체의 진화로 생긴 것이 아니지만, 순전히 육체적이고 진화적인 발달이 허용하는 뇌{腦}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58:6.8 (670.2) 획득과 손실, 적응과 재적응이 거의 끝없이 순환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보하거나 전진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시공우주와 하나 되는 자는 존속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소멸한다.

7. 지질 역사책

58:7.1 (670.3) 생명체_태동기, 즉 원생대 시절에, 세계의 지각을 구성했던 방대한 암석류{巖石類} 덩어리가 지금은 지구 표면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대에 쌓인 모든 퇴적물 밑에서 그것이 솟아오를 때, 오직 식물과 초기의 원시 동물 생명체만 화석으로 남아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고대에 물로 인해서 퇴적된 이 암석 가운데 어떤 것은 그 후에 이뤄진 지층들과 뒤섞였고, 어떤 경우에는 초기 형태의 식물 생명체 가운데 일부분으로 이뤄진 화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가장 높은 층에서는 초기 해양 동물 유기체 중에서 더 원시적인 형태 일부가 간혹 발견될 수 있다. 초기 동물과 식물의 해양 생물체로 이뤄진 화석이 들어있는 가장 오래된 이 성층암 지층은, 분화되지 않은, 더 오래된 바위 표면에서 바로 발견될 수 있다.

58:7.2 (670.4) 이 시기의 화석은, 해초, 산호 모양의 식물, 원시 원생동물 종류들, 그리고 스펀지처럼 생긴 과도기 유기체들을 드러낸다. 그러나 초기 암석층에 그런 화석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퇴적기{堆積期}에 어느 곳에도 실존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런 초기 시절 내내, 생명체는 매우 희소했고, 느리게나마 지구 표면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58:7.3 (670.5)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들은, 현재 지구 표면에 있거나 표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현재 대륙 전체의 약 8분의 1에 해당된다. 가장 오래된 성층암 지층인, 이 과도기 암석의 평균 두께는 약 1.5마일에 이른다. 어떤 지점에서는 고대의 이 암석류가 4마일에 이르는 두께를 갖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지층 가운데 다수는 후대에 이뤄졌다.

58:7.4 (670.6) 북 아메리카에서는, 원시 화석이 들어 있는 고대의 이 바위 지층이, 캐나다의 동부,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지표면에 돌출 돼 있다. 또한 거기에는 펜실바니아와 고대의 애디론덱 산맥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시간과 위스콘신 그리고 미네소타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 나간 이 암석으로 이뤄진 동_서 방향의 간헐적{間歇的} 능선이 있다. 뉴원드랜드에서 앨라바마로,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로 이어지는 다른 능선들도 있다.

58:7.5 (670.7) 이 시절의 암석이 세계 곳곳에 노출돼 있지만,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그랜드 캐년과 슈퍼리어 호수

근처에 있는 것들처럼 쉽게 확인되는 곳은 없으며, 화석이_들어있고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그곳의 이 원시 암석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융기{隆起}와 지표면 변동을 입증한다.

58:7.6 (670.8) 지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_들어있는 이 바위층은 주름지고 겹쳐졌으며, 지진으로 인한 융기와 초기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기괴{奇怪}한 모습으로 뒤틀어졌다. 이 시기의 용암 분출은 많은 철과 동과 납을 지구 표면 가까이 올려놓았다.

58:7.7 (670.9) 위스콘신에 있는 세인트 크로아 계곡보다 더 생생하게 그런 활동을 보여주는 장소는 이 지구 위에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는 127회에 달하는 연속적인 땅 위의 용암 분출과, 이어지는 침수 현상,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바위 퇴적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상층부 암반의 퇴적 현상과 간헐적 용암 분출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것의 밑바닥이 지구 속 깊이 묻혀있더라도, 지나간 시대를 층화{層化}된 모양으로 기록한 지층 중에서 65내지 70여개가 현재 밖으로 드러나 있다.

58:7.8 (671.1) 대부분의 땅이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던 이런 초기 시대에, 여러 차례의 연속된 침강과 융기가 발생됐다. 지각은 비교적 안정된 후기 시대에 막 접어들고 있었다. 더 일찍 있었던 대륙의 이동에 따른 굽이치는 현상들, 즉 상승과 하강 작용으로 인해서, 거대한 땅 덩어리들이 주기적으로 물에 잠겼다.

58:7.9 (671.2) 원시 해양 생명체가 이뤄지던 이 시기에, 광대한 지역의 대륙 해안선이, 작게는 몇 피트에서 크게는 반 마일에 이르기까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고대에 형성된 사암과 역암 대부분은, 이 고대 해안선이 침전돼서 쌓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초기 성층{成層}에 들어 있는 퇴적암은, 생명체가 기원되기 훨씬 전에, 즉 지구 전역에 퍼진 대양이 나타났을 때 형성된 지층들 바로 위에 놓여 있다.

58:7.10 (671.3) 이런 과도기 암반 퇴적으로 이뤄진 지표층 가운데 일부에는 소량의 이판암이나 어두운 색깔의 점판암이 들어 있으며, 이것은 유기질 탄소가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계속된 석탄기 동안 지구 위에 널리 퍼진 식물 생명체 형태들의 원조가 실존했음을 증명한다. 이런

암석층 속에 있는 동{銅} 성분 가운데 대부분은 물에서 침전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고대의 바위 틈 속에서 발견되며, 고대의 보호된 해안선에 있던 완만한 늪지대의 물에서 응축된 것이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의 철광{鐵鑛}은, 층을 이루지 않은 고대의 암석에, 그리고 생명체가 형성되는 변환기에 층을 이룬 후대의 바위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는, 퇴적층과 분출된 지층에 들어 있다.

58:7.11 (671.4) 이 시절에, 생명체가 지구 전체의 물 속에 퍼져 있었으며;해양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깊이가 얇은 광대한 내륙의 바다 밑바닥은 풍부하고 울창하게 자라나는 식물로 점차 가득 차게 됐고, 반면에 해변의 물에는 단순한 형태의 동물 생명체가 무리를 짓고 있었다.

58:7.12 (671.5) 이 모든 이야기는, 세계를 기록한 방대한 "바위 책"의 화석 기록에서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솜씨를 습득하기만 하면, 거대한 이 생물지질 기록에서 반드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대 해저 지층 가운데 다수가 현재 육지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퇴적된 지층은, 그 초기에 생명체들이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남았는지 보여준다. 어떤 너희 시인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도 한때는 살아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58:7.13 (671.6) [지금 행성에 거주하는 유란시아 생명 운반자 단체의 한 구성원이 제시했음]

제59편 유란시아의 해양_생명체 시대

59:0.1 (672.1) 우리는 유란시아의 역사가 약 10억 년 전에 시작됐고, 다음과 같은 주요 다섯 단계의 시대를 거쳐서 전개된다고 본다:

59:0.2 (672.2) 1. 전생명체기{前生命體紀}는 지구가 현재의 크기에 도달한 때부터 생명체가 태동되기 직전까지, 약 4억 5,000만 년에 해당되는 첫째 기간이다. 너희 학자들은 이 기간을 시생대{始生代}로 표시해 왔다.

59:0.3 (672.3) 2. 생명체_여명기는 그 다음 1억 5,000만 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앞에 있는 전생명체기, 즉 격변기{激變期}와, 뒤에 있는 고도로 발달된 해양_생명체

기간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시대는 너희 연구자들에게 **원생대{原生代}**로 알려져 있다.

59:0.4 (672.4) 3. **해양_생명체기**는 그 다음 2억 5,000만 년에 해당되며, 너희는 대개 이 기간을 **고생대{古生代}**라고 알고 있다.

59:0.5 (672.5) 4. **초기 육상_생명체기**는 그 다음 1억 년의 기간이며 **중생대{中生代}**로 알려져 있다.

59:0.6 (672.6) 5. 마지막 5,000만년은 **포유류기{哺乳類紀}**에 해당된다. 최근의 이 시대는 **신생대{新生代}**로 알려져 있다.

59:0.7 (672.7) 위에서 보듯이, 해양_생명체기는 너희 행성의 역사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여섯 개의 긴 기간으로 나뉘 수 있으며, 각각은 지질학 영역과 생물학 분야, 둘 다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어떤 발전 단계를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59:0.8 (672.8) 이 시대가 시작될 때, 바다 밑바닥, 광대한 대륙붕, 그리고 해변 가까이 있는 수많은 분지는, 풍부한 식물로 뒤덮여 있었다. 비교적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동물

생명체들이, 이미 선행{先行}하는 식물 유기체로부터 발전해서 나타났고, 초기 동물 유기체들은, 많은 내륙해{內陸海}가 원시 해양 생명체로 가득 찼 때까지 여러 땅 덩어리의 광대한 해안선을 따라서 점차 퍼져 나갔다. 이런 초기 유기체 중에서 극소수만이 껍데기를 가졌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시대 동안, 매우 질서정연하게 조성된 생명체_기록을 보존하는, 그 위대한 "바위 책"의 처음 장{章}들을 위한 무대가 준비됐다.

59:0.9 (672.9) 북 아메리카 대륙에는 전체 해양_생명체기 화석이 엄청나게 포함된 퇴적층들이 있다. 가장 처음에 생긴 오래된 지층은, 널리 퍼진 침식 퇴적층 때문에, 앞에 있는 기간의 후반부 지층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이 퇴적층은 행성이 발전한 이런 두 단계를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1. 얕은 바다 속의 초기 해양 생명체 삼엽충 시대

59:1.1 (673.1) 비교적 고요한 이 기간이 지구 표면에서 시작될 무렵에, 생명체는 대양의 해안선과 여러 내륙해에만 한정적으로 있었으며;아무 육상{陸上} 유기체 형태도 아직 진화되지 못했다. 원시 해양 동물이 성공적으로

태동됐고,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갖추졌다. 아메바는 이런 초기 단계의 동물 생명체가 살아남은 대표적 예이며, 앞에 있는 과도기가 끝날 무렵에 모습을 드러냈다.

59:1.2 (673.2) 400,000,000년 전에, 식물 및 동물 해양 생명체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게 됐다. 지구의 기후는 약간씩 더워졌고 더욱 안정된 상태가 됐다. 여러 대륙, 특히 남_북 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 전역이 침수됐다. 새로운 대양들이 나타났고, 전에 있던 침수 지역이 더욱 확대됐다.

59:1.3 (673.3) 이때 식물류가 처음으로 땅 위로 상륙했으며, 해양이 아닌 환경에 적응하는 데 곧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59:1.4 (673.4) 최초의 다세포{多細胞} 동물들이, 단계적 종자{種子} 변환 없이 갑자기 출현했다. 삼엽충{三葉蟲}이 진화됐고, 오랫동안 바다를 뒤덮었다. 해양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삼엽충 시대였다.

59:1.5 (673.5) 이 기간 후반부에, 북 아메리카와 유럽 대부분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지각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으며;산맥,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고지대의

땅들이, 서부 인도 지역과 남부 유럽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융기했다. 카리브 지역 전체가 매우 높이 솟아올랐다.

^{59:1.6 (673.6)} 390,000,000년 전에도, 땅은 여전히 융기돼 있었다. 동부와 서부 아메리카 그리고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퇴적된 암석층이 발견될 수 있으며, 삼엽충 화석이 들어있는 고대의 암석도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화석이 들어 있는 퇴적암들로 구성된 땅 덩어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손가락 모양의 긴 만{灣}이 여럿 있었다.

^{59:1.7 (673.7)}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태평양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침강은, 후기에 일어난 대륙의 분리, 즉 대륙의 유동 현상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지표면의 조정 때문이었다.

^{59:1.8 (673.8)} 380,000,000년 전에, 아시아 대륙이 가라앉았으며, 다른 대륙들은 일시적으로 융기돼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서양이, 인접한 전{全} 해안선을 광범하게 침식시켰다. 그때 북부 대서양, 즉 북극해는, 남부의 걸프 바닷물과 연결돼 있었다. 남부에 있는 이 바다가 아팔라치아 해구{海溝}로 유입됐을 때, 그

물결이 알프스만큼 높은 산들을 향해서 동쪽 지역으로 갑자기 밀어닥쳤지만, 대륙들은 대개, 완만한 낮은 지대, 즉 거의 보잘것없는 광경을 이루고 있었다.

59:1.9 (673.9) 이 시기에 침전된 퇴적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59:1.10 (673.10) 1. 역암 --해변 근처에 퇴적된 물질.

59:1.11 (673.11) 2. 사암{砂巖} --얕은 물이기는 하지만, 물결에 진흙 침전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곳에 만들어진 퇴적층.

59:1.12 (673.12) 3. 이판암 --보다 잔잔한 깊은 물 속에 이뤄진 퇴적층.

59:1.13 (673.13) 4. 석회암 --깊은 물 속에 있는 삼엽충 껍데기의 퇴적층을 포함한다.

59:1.14 (673.14) 이 시기에 형성된 삼엽충 화석은 뚜렷이 식별되는 특정한 변이들과 함께, 어떤 근본적인 균일성을 보여준다. 세 개의 원래 생명체 이식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기 동물은 특색이 있었으며;서반구에서 출현하는 초기 동물은, 유라시아 집단에 속한 동물과 다르고, 오스트랄라시아 혹은 오스트랄리아_남극 대륙 유형과도 약간 달랐다.

59:1.15 (674.1) 370,000,000년 전에, 남_북 아메리카에서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역이 물속에 가라앉았고, 이어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도 가라앉았다. 북 아메리카에서 겨우 어떤 지역들만 캄브리아기의 얇은 바다 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500만 년 후, 땅이 융기되기 전에 바다가 먼저 줄어들었다. 땅이 침강하고 융기하는 이 모든 현상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느리게 일어났다.

59:1.16 (674.2) 삼엽충 화석이 들어 있는 이 시기의 지층은, 중앙 아시아를 제외한 전체 대륙 여기저기에 노출돼 있다. 이 암석층이 여러 지역에서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산맥에서는 압력과 겹쳐지는 현상으로 기울어지고 뒤틀어졌다. 그리고 이런 압력이, 많은 지역에서 퇴적물의 본래 성질을 바꿨다. 사암{砂岩}은 석영으로 바뀌었고, 이판암은 점판암으로 변화됐으며, 한편 석회암은 대리석으로 변질됐다.

59:1.17 (674.3) 360,000,000년 전에, 땅은 여전히 융기되고 있었다. 남_북 아메리카는 잘 솟아올라 있었다. 깊이가 가라앉았던, 웨일즈 지역을 제외한 영국의 섬들과 서부

유럽 지역이 솟아올랐다. 이 시대 동안에 거대한 빙하층은 형성돼 있지 않았다. 유럽, 아프리카, 중국, 및 오스트랄리아에서, 이 지층과 연관돼 나타났다고 짐작되는 빙하 퇴적물은, 고립된 산의 빙하 때문이거나, 또는 나중에 발생한 빙하 조각들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기후는 대륙성{大陸性}이 아닌 해양성{海洋性}이었다. 남부의 바다들은 현재의 온도보다 높았으며, 북 아메리카 지역을 거쳐서 양극 지방으로 퍼져갔다. 걸프 해류가 북 아메리카 중심지역을 지나서, 동쪽으로 굽어져 그린란드 해안을 물에 잠기게 하고 온도를 가열시켜서, 현재는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대륙을 진정한 열대성 기후의 낙원으로 만들었다.

59:1.18 (674.4) 해양 생명체가 온 세계에 고루 퍼져 있었고, 해초, 단일 세포의 유기체, 단순한 형태의 스펀지, 삼엽충, 그리고 다른 갑각류의 새우, 게, 및 가재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3,00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완족류{腕足類}가 출현했고, 그 중에서 200가지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 동물들은 실제로 오늘날까지 변형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다양한 초기 생명체의 표본이다.

59:1.19 (674.5) 그러나 삼엽충이 가장 우세한 생물이었다. 그것은 성{性} 구분이 있는 동물이었고, 여러 형태가 있었으며;수영은 잘 하지 못했고, 물위에 떠서 느리게 움직이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기어 다녔으며, 나중에 나타난 천적{天敵}들로부터 공격받을 때에는 동그랗게 말았다. 그것들은 2인치 내지 1푸트 길이까지 자랐으며:초식성, 육식성, 잡식성, 및 “진흙을 먹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 주로 무생물을 먹고 살았던 “진흙을 먹는” 종류의 역량은, --존재 가능했던 최후의 다세포 동물이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크게 번성되고 오랫동안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준다.

59:1.20 (674.6) 이것이 지구 역사에서 5천만 년에 걸친 긴 기간 끝에 나타난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풍경이었고,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캠브리아기*라고 지칭한다.

2. 대륙 홍수 제1기 무척추 동물기

59:2.1 (674.7) 이 시기의 특징인, 일시적 대륙 융기와 침강 현상은,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일어났고, 화산 작용은 거의 동반되지 않았다. 대륙이 연속해서 융기하고 침강하는 전 과정 내내, 아시아 대륙의 모체{母體} 육지는,

다른 땅 덩어리들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 대륙은 침수 현상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가라앉는 방향이 틀렸으며, 초기에 더 뚜렷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대륙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퇴적암 형성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에 아시아 대륙은 모든 땅 덩어리 가운데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9:2.2 (675.1) 350,000,000년 전에, 중앙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 대{大}홍수기가 시작됐다. 땅 덩어리들은 반복해서 물로 뒤덮였으며;얕기는 하지만 넓게 분포돼 흔들거리는 내륙해{內陸海} 수면 위로, 연안에 있는 구릉지들만 솟아올라 있었다. 이 기간의 특징은 3대{三大} 범람이었지만, 그것이 끝나기 전에, 대륙들이 다시 융기했고, 전체 육지는 현재보다 15퍼센트 정도 더 컸다. 카리브해 지역은 아주 높이 솟아올랐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이 잘 식별되지 않는데, 화산 작용이 계속되는 한편 육지의 유동{流動}은 적었기 때문이다.

59:2.3 (675.2) 340,000,000년 전에,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광활한 육지가 다시 가라앉게 됐다. 세계 전역의 대양들의 물이 전반적으로 뒤섞였다. 이때는 거대한

석회암기였고, 이때 형성된 암석 대부분은 석회 성분을 분비하는 해초로 말미암아 퇴적됐다.

59:2.4 (675.3) 수백만 년 후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부분이 물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서반구에서는 태평양의 한 자락만 현재의 로키산맥과 멕시코 지역에 남아 있지만,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이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59:2.5 (675.4) 330,000,000년 전에, 넓은 땅이 다시 물위로 올라오면서, 비교적 고요한 시간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지역이 예외였는데, 북 아메리카의 켄터키 동부 지역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으며, 세상에 알려진 단일 화산 활동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 화산재가, 500입방 마일에 이르는 지역에 15내지 20피트 두께로 쌓일 정도였다.

59:2.6 (675.5) 320,000,000년 전에, 이 기간의 세 번째 주요 홍수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물에 잠겼던 땅들 전체가 이번 홍수로 다시 뒤덮였으며,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 사방으로 더욱 확대됐다. 동부 북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물 아래로 10,000내지 15,000피트 깊이로 잠겼다.

59:2.7 (675.6) 31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남부{南部}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육지들이 다시 솟아올랐다. 멕시코가 솟아올랐고, 그렇게 조성된 걸프해는 그 후로 계속 유지돼왔다.

59:2.8 (675.7) 이 기간에 생명체는 계속 진화됐다. 세상은 다시 고요했고 비교적 평온했으며;기후는 온화하고 일정했으며;육상 식물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식물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겠지만, 생명체 원형들이 잘 발달됐다.

59:2.9 (675.8) 이때는 식물에서 동물로 변환되는 일이 이미 발생됐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개개의 동물 유기체가 진화되는 대단한 시기이기도 했다. 척추를 가진 종류보다는 열등한 각 생명체 유형이, 이 시기 동안에 퇴적된 암석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양 동물군{動物群}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런 동물은 모두 해양 유기체였다. 해안선을 따라서 땅 속에 숨어 있는 약간의 지렁이 유형을 제외하고는, 아직

육상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상 식물도 아직 대륙에 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공기 중에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함유돼 있어서, 숨 쉬는 생물체들이 실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비교적 더 원시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물 생명체에 의존해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59:2.10 (676.1) 삼엽충은 여전히 풍부했다. 이런 작은 동물은, 수만 가지 형태로 존재했으며, 현대 갑각류의 원조였다. 삼엽충 가운데 일부는 25 내지 4,000개의 작은 눈을 가졌으며;또 어떤 것은 제대로 발육 되지 않은 눈들을 갖고 있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삼엽충이 몇 가지 다른 형태의 무척추{無脊椎}동물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음 기간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9:2.11 (676.2) 석회{石灰}를_분비하는 조류{藻類}가 널리 퍼졌다. 산호의 초기 조상에 해당하는 종족이 수천 가지 있었다. 바다 벌레가 풍성했고, 아주 다양한 해파리가 있었지만 그 뒤로 멸종됐다. 산호와 후기 유형의 해면{海綿}이 진화됐다. 두족류{頭足類}가 잘 발달됐고,

오늘날의 진주색 앵무조개, 낙지, 빼오징어, 오징어 등으로 남아 있다.

59:2.12 (676.3) 수많은 다양한 외피 동물이 있었지만, 그 껍데기는 후대의 동물이 가졌던 것과는 달리, 방어 목적에 충분할 정도는 못됐다. 고대의 바닷물에는 달팽이 류가 생겼으며, 그 중에는 홀겹의 바다달팽이, 고등, 그리고 다른 달팽이들이 포함됐다. 중간에 있는 수백만 년의 기간에, 그 당시 모습대로 쌍각조개류 동물이 생겼고, 긴 조개, 대합, 굴, 그리고 가리비 등이 포함됐다. 판막{瓣膜} 껍질을 가진 유기체 역시 진화돼 갔고, 이 완족류{腕足類}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속에 살았으며;여닫이 모양, 톱니 모양,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보호막이 배열돼 있었다.

59:2.13 (676.4) 이렇게 해서 해양 생명체의 둘째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며, 너희 지질학자들은 이 기간을 *오르도비스기{紀}*로 분류한다.

3. 대 홍수 제2기 산호기_완족류기

59:3.1 (676.5) 300,000,000년 전에, 대륙이 또 한 번 물에 잠기는 긴 기간이 시작됐다. 고대 실루리아계 바다들의 남쪽과 북쪽을 향한 침식이, 유럽과 북 아메리카 전역에 만{灣}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륙이 바다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았으므로, 해안선에는 퇴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에는 석회질 껍질을 가진 생명체로 가득 찼으며, 이 조개껍질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점차 매우 두꺼운 석회암 층을 이뤘다. 이것이 넓게 분포된 최초의 석회암 퇴적층이고, 실제로는 유럽과 북 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지만, 지표면에 나타나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고대에 형성된 이 암석층의 두께는 평균 약 1,000피트에 달하지만, 이 퇴적층 가운데 다수는 기울어짐, 솟아오름, 그리고 단층 작용으로 크게 변형됐고, 많은 부분은 수정, 이판암, 대리석 등으로 변했다.

59:3.2 (676.6) 불타는 바위와 용암은 이 기간의 암석층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큰 화산이 폭발했던 남부 유럽과 동부의 메인 그리고 용암이 흘러내린 퀘벡의 지층에서만 예외적으로 발견된다. 화산 작용은 거의 지나간 상태였다. 물에서 퇴적되는 작용이 최고조에 달했고, 산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거의 없었다.

59:3.3 (676.7) 290,000,000년 전에, 바다는 대륙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주변 해양의 바닥이 가라앉고 있었다. 대륙

덩어리들은 다시 융기될 때까지 거의 변화 없었다. 모든 대륙마다 초기의 산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지각 변동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시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과,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스피즈버겐으로 이어지는 칼레도니아 산맥이었다.

59:3.4 (677.1) 이때 형성된 퇴적층에서는 천연 가스, 석유, 아연, 납 등이 많이 발견되며, 천연 가스와 석유는 앞에 있었던 육지의 침수기 동안에 식물과 동물 성분이 엄청나게 퇴적된 것에서 형성됐고, 한편 광물질 퇴적층은 완만하게 흐르는 물에서 퇴적된 것임을 나타낸다. 바위 소금의 퇴적층 가운데 다수는 이 기간에 속한다.

59:3.5 (677.2) 삼엽충이 급격히 감소됐고, 비교적 큰 연체동물 또는 두족류{頭足類}가 주종을 이뤘다. 이 동물들은 15피트 길이까지 자랐으며 직경은 1푸트였고, 바다를 지배하게 됐다. 이런 동물류는 갑자기 나타났고, 바다 생명체의 주종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59:3.6 (677.3) 이 시기에 큰 화산 활동이 유럽 지역에서 있었다. 이때 지중해 해구{海溝}, 그리고 특히 영국 섬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광대한 화산 폭발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때 분출해서 영국 섬 지역을 덮었던 용암은, 오늘날 25,000피트 두께의 변형된 용암과 암석층으로 나타난다. 이 암석층은, 얇은 바다 지층 위로 널리 퍼져 나간, 간헐적인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퇴적암 층이 분산됐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바다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격렬한 지진이 북유럽과,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발생됐다.

59:3.7 (677.4) 해양성 기후가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한 상태로 있었고,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의 대륙 해안을 적셨다. 완족류를 비롯한 다른 해양 생명체 화석이, 북극 근처의 퇴적층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복족류, 완족류, 해면체 동물, 그리고 암초를 형성하는 산호초가 계속 증가했다.

59:3.8 (677.5)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실루리아계 바다들이 남부와 북부 해양의 물과 다시 섞이면서, 두 번째로 확장하는 현상이 있었다. 두족류가 해양 생명체의 주종을 이뤘고, 한편 연합된 형태의 생명체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분화{分化}됐다.

59:3.9 (677.6) 280,000,000년 전에, 대륙들은 실루리아기의 두 번째 침수 상태로부터 크게 솟아올랐다. 그 침수기에

퇴적된 바위 층은 북 아메리카에서 나이아가라 석회암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오늘날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 위로 흐르는 지층이기 때문이다. 이 암석층은 동부의 산맥에서 미시시피 계곡 지역까지 이르지만,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서부 쪽으로는 더 이상 분포돼 있지 않다. 일부의 지층이 캐나다, 남 아메리카의 일부,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 퍼져 있으며, 이런 나이아가라 계통 지층의 평균 두께는 약 600피트에 달한다. 역암, 이판암, 및 암염{巖鹽} 퇴적물이 나이아가라 퇴적층 바로 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 이것은 2차 침전물이 쌓인 것이다. 이 소금은 거대한 개펄에 가라앉았는데, 이 개펄은, 번갈아 가면서 바다에 열려 있다가 나중에 닫힌 후에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용액 속의 다른 물질과 함께 퇴적됐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암염 층이 70피트의 두께를 이루기도 한다.

59:3.10 (677.7) 기후는 일정하고 온화했으며, 바다 화석이 북극 지방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다는 소금기가 과도하여 생명체가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됐다.

59:3.11 (677.8)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기간이 끝나가면서, 극피동물{棘皮動物}이--곧 돌 백합이-- 크게 증가했으며, 백합 모양의 석회암 퇴적층으로 증명된다. 삼엽충은 거의 사라졌고, 연체동물이 바다를 계속 지배했으며;산호초 형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원시 형태의 물에서 사는 전갈류 동물이 비교적 적당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화돼 나타났다. 그 직후에, 그리고 갑자기, --대기 중의 공기로 숨을 쉬는-- 순종{純種}의 전갈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59:3.12 (678.1) 이런 발전이, 2,500만 년 동안 계속된 제3기의 해양 생명체 기간을 끝맺었으며, 이 기간은 너희 연구진에게 실루리아기로 알려져 있다.

4. 대륙 융기 단계 식물성 육지_생명체 기간 어류기

59:4.1 (678.2) 육지와 물이 오랫동안 싸우면서, 바다가 긴 기간 비교적 승리를 거뒀지만, 육지가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대륙의 표류는 아직 많이 진척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세계의 모든 땅 덩어리가 가느다란 지협{地峽}과, 좁은 연결육지로 언제나 모두 연결돼 있었다.

59:4.2 (678.3) 실루리아기의 마지막 침수 상태로부터 대륙이 융기되자, 세계가 안정되고 생명체가 진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끝나게 됐다. 이것은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벌거벗고 보잘 것 없던 이전{以前} 시대의 풍경이 무성한 초목으로 옷을 입었고, 최초의 광대한 숲이 곧 나타나게 됐다.

59:4.3 (678.4) 이 시기의 해양 생명체는 초기의 종족 분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모든 유형이 자유롭게 섞이고 결합했다. 완족류는 일찍이 최고로 번성하는 시기를 맞았으며, 절지동물{節肢動物}이 그 뒤를 이었고, 만각류{蔓脚類}의 갑각동물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엄청난 사건은 물고기 과{科}의 갑작스런 출현이었다. 그리하여 어류기{魚類紀}가 시작됐으며, 세계 역사에서 이 기간의 특징은 척추동물 유형의 출현이었다.

59:4.4 (678.5) 270,000,000년 전에, 대륙들이 모두 물위로 올라왔다. 수백만 년 동안에 그토록 큰 육지가 동시에 물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으며;전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육지가_융기한 시기 가운데 하나였다.

59:4.5 (678.6) 500만 년 후에는, 남_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지역의 대륙이 잠시 물에 잠겼고, 북 아메리카에서는 한동안의 침수가 거의 완료됐으며;그 결과로 석회암 층이 500내지 5,000피트 두께로 형성됐다. 이런 데본기의 다양한 바다들이 처음에는 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돼, 북 아메리카에 있는 거대한 북극 내륙해는 캘리포니아 북부를 통해서 태평양과 연결됐다.

59:4.6 (678.7) 260,000,000년 전에, 대륙이 함몰되는 이 시기가 끝나갈 때, 북 아메리카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및 걸프의 물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바닷물에 부분적으로 잠겼다. 최초의 데보니아기 홍수의 후반기 동안에 퇴적된 층의 평균 두께는 약 1,000피트에 달한다. 이 시기의 특징을 이뤘던 산호초를 통해서, 그 내륙해들이 깨끗하고 얕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산호초 퇴적층은, 루이스빌과 켄터키 근처의 오하이오 강 강변에서 발견되며, 약 100피트의 두께이고,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산호가 들어 있다. 이런 산호초 형성은 캐나다와 북부 유럽을 거쳐서 북극 지역까지 확장됐다.

59:4.7 (678.8) 이런 침수기 이후에, 많은 해안선이 적지 않게 융기해서, 초기의 퇴적층들이 진흙이나 이판암으로 뒤덮였다. 데보니아기 퇴적층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붉은 색의 사암층{砂巖層} 역시 그 속에 있으며, 이런 붉은 색 지층은 지구 표면 대부분에 퍼져 있고, 남_북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및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그런 붉은 색 지층은 건조한 상태 또는 약간건조한 상태를 암시하지만, 이 시기의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일정했다.

59:4.8 (679.1) 이 기간 내내, 썬씨내티 섬의 남동쪽 지역은 물위에 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제도를 포함해서 유럽 서부 지역 대부분은 침수됐다. 웨일즈, 독일, 및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서, 데보니아기에 형성된 암석층의 두께는 20,000피트에 이른다.

59:4.9 (679.2) 250,000,000년 전에, 물고기 과{科}, 즉 인류가 나타나기 이전의 모든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가운데 하나인 척추동물이 나타났다.

59:4.10 (679.3) 절지동물, 즉 갑각류 동물이 최초 척추동물의 원조였다. 물고기 과{科}가 나타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변경된 절지동물 원조가 있었는데;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긴 몸체를 가졌던 반면, 다른 하나는 척추가 없고 턱이 없는 물고기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나 이런 예비적인 유형들은, 동물 세계에서 첫 척추동물이 북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자 재빨리 멸종됐다.

59:4.11 (679.4) 이 기간에 가장 큰 물고기 가운데 다수는 25에서 30피트 길이였고, 어떤 것은 이빨이 있었으며;오늘날의 상어는 이런 고대의 물고기가 살아남은 것이다. 허파와 비늘을 가진 물고기가 진화의 정점에 도달했고,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물고기는 민물과 바닷물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

59:4.12 (679.5) 진정한 물고기 이빨과 해골의 뼈대가,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밑에 가라앉은 퇴적층에서 발견될 수 있고, 태평양의 수많은 보호된 만{灣}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땅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해안을 따라서 풍부한 화석 층이 자리 잡고 있다.

59:4.13 (679.6) 육지에는 새로운 계열의 육상 식물이 급격히 퍼져 나갔다. 이때까지는 물가를 제외하고는 육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거의 없었다. 이때, *갑자기*, 열매 맺는 *양치류*

과{科}가 나타나 급속히 퍼져서, 솟아오르는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2피트 두께와 40피트 높이의 나무 유형들이 곧 발달했고;나중에는 잎이 진화됐으나, 이런 초기 품종들은 오직 미숙한 잎 모양을 지녔다. 작은 초목도 많이 있었지만, 대개 초기에 나타난 박테리아로 인해 부식됐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59:4.14 (679.7) 대륙이 융기될 때, 북 아메리카는 그린랜드까지 뻗친 연결육지들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린랜드는, 그 얼음 층 밑에 이런 초기 육상 식물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59:4.15 (679.8) 240,000,000년 전에, 유럽과 남_북 아메리카 전역의 육지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침강은 데보니아기의 홍수 중에서 맨 나중에 발생했고 가장 소규모였다. 북극해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고, 대부분은 북 아메리카로 흘러들어갔으며, 대서양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침수시켰고, 남부 태평양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덮었다. 이번에 일어난 범람은 매우 서서히 발생했고, 퇴각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일어났다. 허드슨 강 서쪽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캐츠킬 산맥은, 북

아메리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시기의 가장 큰 지질학적 기념비 가운데 하나다.

59:4.16 (679.9) 2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계속 퇴각했다. 북 아메리카 대부분이 물위에 있었고, 거대한 화산 활동이 세인트 로렌스 지역에서 발생했다. 몬트리올에 있는 로알 산은 이런 화산 가운데 하나가 침식되어 목 부분만 남아 있는 형태다. 이 시기 전체의 퇴적층은 북 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 잘 나타나 있으며, 거기에는 서스케하나 강이 계곡을 침식시켜서 이런 연속적인 지층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했고, 그 층의 두께는 13,000피트를 넘는다.

59:4.17 (680.1) 대륙들의 융기가 계속됐고, 대기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됐다. 지구는 100피트 높이에 달하는 양치류 식물의 광활한 숲과, 그 당시의 독특한 나무들로 뒤덮였고, 숲은 고요했으며;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없었는데, 그런 나무에는 잎이 없었기 때문이다.

59:4.18 (680.2) 이렇게 해서, 가장 긴 기간의 해양_생명체 진화 기간, 즉 *어류 시대*가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의 세계

역사는 거의 5,000만 년에 달했으며;너희 연구진에게는 *데보니아*기로 알려져 있다.

5. 외피_변화 단계 양치류_삼림의 석탄기 개구리 시대

59:5.1 (680.3) 앞선 기간에 물고기의 출현이 해양_생명체 진화의 정점을 이뤘다. 이 시점부터, 육상 생명체의 진화는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은, 첫 육상 동물의 출현을 위한 거의 이상적인 무대가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59:5.2 (680.4) 22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한 대륙 지역 대부분이 물위로 올라왔다. 육지는 식물로 풍부하게 뒤덮였으며;이 시기는 정말로 *양치류 시대*였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대기 중에 있었지만 농도는 줄었다.

59:5.3 (680.5) 그로부터 얼마 후에, 북 아메리카의 중앙 부분이 침수됐고, 두 개의 거대한 내륙해가 조성됐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고지대들은 현재의 해변 바로 바깥에 있었다. 이윽고 이 두 바다가 합쳐졌고, 서로 달랐던 생명체 형태들이 섞이게 됐으며, 이런 해양 동물군{動物群}의 결합은, 신속하고 세계적인 쇠퇴가 해양 생명에게 시작되게 했으며, 이어서 육상_생명체 기간이 열리도록 했다.

59:5.4 (680.6) 210,000,000년 전에, 따뜻한 온도의 북극 바닷물이 대부분의 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덮었다. 남극 지방의 물은 남 아메리카와 오스트랄리아를 침수시켰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높이 솟았다.

59:5.5 (680.7) 바다가 가장 높아졌을 때, 새로운 진화 발전이 갑자기 이뤄졌다. 최초의 육상 동물이 돌연히 나타났다. 그것 중에는 땅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이 양서류는 절지동물에서 발달된 것이고, 절지동물의 부레가 허파로 진화했다.

59:5.6 (680.8)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에서 육상 달팽이, 전갈, 및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왔다. 오늘날의 개구리는 여전히 물속에 알을 낳고, 새끼 때에는 작은 물고기처럼, 올챙이로 살아간다. 이 기간은 *개구리 시대*로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59:5.7 (680.9) 그 직후에,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그리고 메뚜기와 함께 곤충들이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곧 전 세계의 대륙에 퍼졌다. 잠자리는 폭이 30인치나 됐다. 1,000여 종에 이르는 바퀴벌레가 생겼고, 어떤 것은 4인치 길이까지 자랐다.

59:5.8 (680.10) 두 가지의 극피동물이 특히 잘 발달했고, 그것들은 실제로 이 시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화석이다. 조개를 먹는 큰 상어 역시 매우 잘 진화됐으며, 500만 년 이상 바다를 지배했다.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했으며;해양 생명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민물고기가 나타났고, 삼엽충은 거의 소멸됐다. 산호초가 줄었고, 대부분의 석회암은 바다나리로 말미암아 조성됐다. 질 좋은 건축용 석회암은 이 시기 동안에 퇴적된 것이다.

59:5.9 (681.1) 많은 내륙해의 물은, 석회를 비롯한 다른 광물질이 너무 많이 축적돼서, 여러 해양 종족의 진화와 발전을 크게 방해했다. 결국에는 암석이 광대하게 퇴적된 결과로 바다가 맑아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암석에 아연과 납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59:5.10 (681.2) 이 초기 석탄기의 퇴적층들은, 500내지 2,000피트 두께이고, 사암, 이판암, 및 석회암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많은 자갈과 하구{河口} 퇴적물과 함께, 육상 및 해상 동식물의 화석이 들어 있다.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석탄이 비교적 오래된 이 지층에서 발견된다. 유럽에

널리 퍼져있는 이 퇴적층은, 북 아메리카에 쌓여 있는 지층들과 매우 흡사하다.

59:5.11 (681.3) 이 시기가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가 융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잠시 중단되고, 바닷물이 전에 들어와 있던 지역의 반 정도를 덮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의 침수였으며, 대부분의 육지는 곧 물위로 올라왔다. 남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전히 유럽과 연결돼 있었다.

59:5.12 (681.4) 이 시기에 보쥬, 흑림{黑林}, 및 우랄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대에 형성된 다른 산맥의 흔적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다.

59:5.13 (681.5) 200,000,000년 전에, 석탄기에서 정말로 활동적인 단계가 시작됐다. 이 시기보다 앞서서, 2,000만 년 동안에 전기{前期} 석탄 퇴적층이 형성됐지만, 이때부터는 더 광대한 석탄 형성 활동이 진행됐다. 실제적인 석탄_퇴적 시기의 길이는 2,500만 년 조금 넘는다.

59:5.14 (681.6) 해양 바닥의 활동 때문에 바다물 높이가 바뀔에 따라, 육지는 주기적으로 오르내렸다. 연안에 있는

늪지대들의 풍성한 초목과 관련해서, 이런 지각{地殼}의 불안정한 상태가--곧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광대한 석탄 퇴적층{堆積層}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 기간이 **석탄기**로 알려지는 원인이 됐다. 그리고 기후는 지구 전체가 온화했다.

59:5.15 (681.7) 석탄층은, 이판암, 암석, 및 역암 등과 번갈아가면서 형성돼 있다. 중부와 동부의 미합중국에 퍼져 있는 이런 석탄 지대는, 40피트 내지 50피트의 두께로 돼 있다. 그러나 이 퇴적층들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육지가 융기되는 동안 물에 씻겨 나갔다. 북 아메리카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이 들어있는 지층이 18,000피트 두께인 곳도 있다.

59:5.16 (681.8) 진흙 속에서 성장하던 나무의 뿌리가 현재의 석탄 지대 밑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 석탄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형성됐음을 나타낸다. 석탄은, 이와 같은 먼 옛날 연안에 있던, 늪지대와 습지에서 자라는 울창한 초목이 물의 보호 작용과 압력으로 인한 변형으로 남아있는 물질이다. 석탄층에는 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경우가 종종 있다. 성장이 멈춘 식물의 잔여물인

토탄{土炭} 지대는,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갖게 될 때 석탄 유형으로 바뀐다. 무연탄은 다른 석탄보다 더 많은 압력과 열을 받을 때 생긴다.

59:5.17 (681.9) 여러 지층으로 형성된 북 아메리카의 석탄층은, 육지의 침강과 융기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데, 일리노이에서 열 개로부터, 펜실바니아에서 20개, 알라바마에서 35개,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7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물과 바닷물의 화석들이 석탄지대에서 발견된다.

59:5.18 (682.1) 이 시기 내내, 남_북 아메리카의 산들이 활동적이었고, 안데스 산맥과 원시 형태의 남부 로키 산맥이 융기했다.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거대한 높은 지대들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우 침식되고 가라앉게 되어, 두 해양의 해안선은 대략 현재 위치까지 퇴각하게 됐다. 이 침수기간에 퇴적된 층은 평균 약 1,000피트 두께에 달한다.

59:5.19 (682.2) 19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석탄기 바다가, 현재의 로키 산맥 지역까지 서쪽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연결돼 있었다. 해안선 지역이 변동을 일으키는 이 시기 동안에 연안지대가 융기와 침강을 거듭하면서, 미국과 유럽 전역에 석탄이 여러 층으로 계속 쌓였다.

59:5.20 (682.3) 180,000,000년 전에, 석탄기{石炭紀}가 끝나게 되며, 그동안 세계 전역에서--곧 유럽, 인도, 중국, 북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 석탄이 형성됐다. 석탄_형성기가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계곡 동쪽이 융기했고, 그 지역 대부분은 그 후로 계속 해수면 위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육지가_융기하는 기간은, 북 아메리카, 즉 현재 아팔라치아 지역과 서부 지역에 있는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基點}이 됐다.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산이_형성되는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다. 동부 아메리카와 서부 유럽은 그린란드 대륙을 통해서 연결돼 있었다.

59:5.21 (682.4) 육지가 융기되자, 그 전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성 기후가 변경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덜 온화하고 변화가 많은 대륙성 기후가 시작됐다.

59:5.22 (682.5) 이 시기의 식물은 씨를 맺었고, 바람이 이 씨를 멀리까지 넓게 퍼뜨릴 수 있었다. 석탄기의 나무줄기는 보통 직경이 7피트 정도였으며, 125피트 높이까지 자라는 것들도 있었다. 현대의 양치류는 아득히 먼 이 시대의 유물이다.

59:5.23 (682.6) 일반적으로, 이때는 민물 유기체가 발달하는 시기였으며;이전의 해양 생명체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중요한 특질은 개구리 및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갑작스런* 출현이다. 석탄기의 생명체 특색은 *양치류 식물과 개구리*다.

6. 기후의 과도기 단계 종자_식물기 생물학적 시련기

59:6.1 (682.7) 이 기간은, 해양 생명체의 중추적인 진화 발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의 육상{陸上} 동물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가 시작되는 기점이다.

59:6.2 (682.8) 이 시기는 생명체의 거대한 퇴화기였다. 수천 종류의 해양 생명체가 사라졌고, 육지에는 아직 생명체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시련기였고, 육지 표면과 해양의 깊은 곳에서, 생명체가 거의 사라지는 시대였다. 긴 해양_생명체 시대가 끝날 무렵에,

지구상에는 10만 가지 이상의 생명체가 있었다. 이런 변환기가 끝날 때에는, 500가지 미만만 살아남았다.

59:6.3 (682.9) 새로운 이 시대의 특징은, 지각의 냉각이나 오랫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기 때문보다는, 통상적이고 선재{先在}하는 영향들이--곧 바다들의 축소와, 거대한 땅 덩어리들의 증대되는 용기가-- 특이하게 배합됐기 때문이었다. 이전{以前} 시대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는 사라졌고, 더 사나운 대륙성 유형의 기후가 빨리 발달되고 있었다.

59:6.4 (683.1) 170,000,000년 전에, 엄청난 진화적 변화와 적응 현상이 지구 표면 전체에서 발생됐다. 해양 지대가 가라앉으면서, 육지가 세계 전역에서 솟아올랐다. 독립된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북 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이 바다 위로 높이 올라왔으며;서부 지역은 서서히 솟아올랐다. 대륙들은 크고 작은 바다 호수와 수많은 내륙해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좁은 해협으로 대양과 연결돼 있었다. 이런 변환기에 형성된 지층은 1,000내지 7,000피트의 두께에 이른다.

59:6.5 (683.2) 이렇게 육지가 융기하는 기간에, 지각이 광범한 지역에서 접혀졌다. 남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 아메리카와 유럽을 오랫동안 연결하고 있었던 대륙을 포함해서, 어떤 연결육지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이 시기는 대륙이 융기되는 시대였다.

59:6.6 (683.3) 전 세계의 내륙에 있는 호수와 바다들의 물이 점차 마르게 됐다. 독립된 산과 국부적인 빙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남반구에서 심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얼음 형성 현상으로 인한 빙하 퇴적층이, 후기에 형성된 상부의 석탄 퇴적층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두 가지 새로운 기후 요소가--곧 빙하 작용과 건조 현상이-- 나타났다. 지구상의 다수의 높은 지역이 건조한 불모지가 됐다.

59:6.7 (683.4) 기후가 변화하는 이 시기 내내, 육상 식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씨 맺는 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이 식물은, 나중에 증가하는 육상동물 생명체에게 더 풍부한 먹이를 제공했다. 곤충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됐다. 겨울과 건조기에 일시적으로 생존 환경이 정지되는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휴면기(休眠期)가 진화로 발생됐다.

59:6.8 (683.5)

육상 동물 중에서 개구리는 전반기에 최고도로 번성했다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개구리가 살아남은 것은 아득히_멀고 극도로 어려운 이 시절에, 메마른 웅덩이와 연못 속에서도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구리가 줄어드는 동안, 개구리가 파충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땅 덩어리들이 아직 연결돼 있어서, 파충류 이전{以前} 단계의, 공기로 숨 쉬는 이 피조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때 대기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 숨을 쉬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였다. 파충류 이전 단계의 개구리가 도착된 직후에, 북 아메리카는 유럽, 아시아, 및 남 아메리카로부터 분리돼서, 일시적인 고립 상태에 있었다.

59:6.9 (683.6)

해양의 물이 점점 차가워졌으므로, 해양 생명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시대의 해양 동물은 세 지역의 적당한 은신처로 잠시 피난해 있었는데:현재의 멕시코 만 지역, 인도의 간지스 만,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시칠리아 만이었다. 그리고 이런 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해양 종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 태어났으며, 나중에는 바다를 가득 채우게 됐다.

59:6.10 (683.7) 160,000,000년 전에, 육상 동물 생명체를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식물이 육지 대부분을 뒤덮었으며, 기후는 동물이 호흡하기에 이상적인 상태가 됐다. 그 후에 해양 생명체가 축소되는 기간이 끝나게 됐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종류를 제외한 모든 형태가 전부 사라지는 생물학적 수난의 시험 기간이 끝나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것들은, 행성의 진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되고 매우 분화{分化}된 생명체의 시조{始祖} 역할을 했다.

59:6.11 (684.1) 이런 생물학적 수난기가 끝나는 부분이, 너희의 학자들에게는 *페름기*로 알려져 있고, 행성 역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년이라는 긴 기간의 *고생대*가 종료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59:6.12 (684.2) 유란시아에서 생명체의 거대한 해양 종묘원{種苗園}이 그 목적에 잘 부합했다. 육지가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부적합했던, 비교적 고등의 육상 동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산소가 대기 중에 함유되기 이전의 오랜 시절 동안, 바다가 그 영역에 있는 초기 생명체의 모체{母體} 역할을 했고 양육했다. 둘째

단계의 진화가 육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바다의 생물학적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됐다.

59:6.13 (684.3) [유란시아에 배정된 원래 단체의 구성원인,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제60편 초기 육상_생명체 시대의 유란시아

60:0.1 (685.1) 해양 생명체만이 독점하던 시절은 끝났다. 땅이 융기되고, 지각{地殼}과 해양이 냉각되고, 바다 면적이 줄면서 그에 따라 깊어진 것은, 북반구에 있는 땅이 크게 솟아오른 것과 아울러, 적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모든 지역에서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도록, 모두 함께 크게 작용했다.

60:0.2 (685.2) 앞에 있던 시절이 끝날 무렵은 개구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육상 척추동물의 선조인 이 개구리는 더 이상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극소수의 유형들만이, 앞에 있던 생물학적 고난의 혹독한 시련기를 견뎌냈다. 씨앗을 맺는 식물조차 거의 사라졌다.

1. 초기 파충류 시대

60:1.1 (685.3) 이 기간에 침전된 퇴적층은 대개, 역암, 이판암, 및 사암층으로 이뤄졌다. 아메리카와 유럽에 퍼져 있는 이 퇴적층에 포함된 석고 층과 적토 층은, 이 두 대륙의 기후가 매우 건조했음을 나타낸다. 이런 건조 지역은 주변에 있는 높은 지대에 주기적으로 몰아치는 맹렬한 폭풍우로 인해 거대한 침식작용을 겪었다.

60:1.2 (685.4) 이 지층들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사암{砂巖}층에서는 육상 파충류의 수많은 발자국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기간에 1,000피트 두께로 형성된 많은 지역의 적색 사암층에는 화석이 들어 있지 않다. 육상 동물 생명체가 계속 살아 있던 곳은, 아프리카의 특정한 지역들뿐이었다.

60:1.3 (685.5) 이 퇴적층의 두께는 3,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다양하며, 태평양 연안의 어떤 곳에서는 18,000피트에 이르기도 한다. 나중에 용암이 흘러 나와서 이 지층에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허드슨 강 강변의 절벽은 이런 트라이아스기 층에 용암이 분출돼 생성된 현무암으로 인해 형성됐다. 화산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광범하게 있었다.

60:1.4 (685.6) 유럽 전역, 특히 독일과 러시아에서, 이 기간에 형성된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다. 잉글랜드에 있는 새로운 적색 사암층은 이 시기에 형성됐다.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 남부 알프스에 석회암이 퇴적됐고, 오늘날 백운석 석회암으로 독특하게 이뤄진 벽과 봉우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둥들을 볼 수 있다. 이 지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 전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카탈라 대리석은 그런 변경된 석회암에서 나온다. 남 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대륙이 가라앉아 있었고, 따라서 앞에 있는 시기와 뒤에 있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민물 또는 해양 퇴적층만 발달했기 때문이다.

60:1.5 (686.1) 150,000,000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초기의 육상_생명체 기간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해양_생명체 기간이 힘들고 부적합한 상태로 끝나던 때보다는 나았다.

60:1.6 (686.2) 이 시절이 시작될 때, 북 아메리카의 동부와 중부, 남 아메리카의 북반부{北半部}, 유럽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아시아 전{全} 지역이 물 위로 상당히 솟아 있었다.

처음에는 북 아메리카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지만, 베링해협이 연결육지가 다시 올라와서, 곧 아시아 대륙과 연결됐다.

60:1.7 (686.3) 대서양 및 태평양 연안과 평행으로, 북 아메리카에서 거대한 해구{海溝}가 형성됐다. 동부 코네티컷에서 거대한 단층 현상이 있었고, 한 쪽 면은 결국 2마일 가량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북 아메리카 해구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침식 작용으로 생긴 퇴적물로 채워졌고, 또한 산악 지역에 있는 많은 웅덩이는 민물과 바닷물이 들어 있는 호수가 됐다. 나중에는, 함몰됐다가 다시 채워진 이 땅들이, 그 속에서 발생한 용암 분출로 말미암아 크게 높아졌다. 여러 곳에 있는 석화{石化}된 삼림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60:1.8 (686.4) 대륙이 침수돼 있는 동안 대개 물 위에 올라와 있었던 태평양 연안이, 지금은 태평양 바다가 됐지만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큰 섬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강했다. 고대의 이 캘리포니아 바다에는 해양 생명체가 풍성하게 서식했으며, 동쪽으로 확장되어 중서부 지역의 옛 바다 웅덩이와 연결됐다.

60:1.9 (686.5) 140,000,000년 전에, 앞에 있던 시기 동안 아프리카에서 발달됐던 파충류 이전의 두 가지 선조로부터 오직 미량{微量}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파충류가 충분히_성장된 형태로 출현했다. 이것들은 급속히 발전했고, 악어류와 비늘 있는 파충류 그리고 결국 해룡{海龍}과 날개가 달린 파충류가 생겨났다. 과도기에 있었던 그것들의 선조는 신속히 사라졌다.

60:1.10 (686.6) 급속도로 진화하는 이 파충류 공룡들이,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됐다. 이것들은 알을 낳았고, 뇌가 작은 것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점이었으며, 나중에 40톤에 이르게 된 거대한 몸통을 통제하는 뇌가, 겨우 1파운드 미만이였다. 그러나 초기 파충류는 비교적 작았고, 육식 동물이었으며, 캥거루처럼 뒷다리로 걸었다. 이것들의 뼈는 새처럼 속이 비었고, 나중에 발달된 뒷다리 발가락은 세 개뿐이었는데, 이것들의 발자국 화석 가운데 다수를 거대한 새 발자국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 후에 초식성{草食性} 공룡이 진화돼서 나타났다. 이것들은 네 다리로 걸었고, 이 무리 중에서 한 종류가 방호 갑옷 공룡으로 발전됐다.

60:1.11 (686.7) 수백만 년 후에 첫 포유류 동물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태반{胎盤}을 갖고 있지 않았고, 기능이 곧 저하됐으며;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은 포유류 동물 유형을 개량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였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60:1.12 (686.8) 이 기간의 해양 생명체는 빈약했지만, 바닷물이 새로 유입됨으로 인해, 즉 얇은 물로 형성된 해안선이 다시 광대하게 조성됨으로써 급속도로 개량됐다. 물이 얇은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주변에 더 많았으므로, 많은 화석 지대가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 너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히말라야와 시베리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뿐 아니라, 인도와 남부 태평양 해분{海盆}을 조사해 보기 바란다. 해양 생명체의 현저한 특색은 아름다운 암모나이트 껍데기의 출현이었으며, 그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60:1.13 (686.9) 130,000,000년 전에, 바다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시베리아와 북 아메리카는 베링해협을 연결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는 독특한 해양 생명체가 많이 있었고, 1,000여 종 이상의 암모나이트들이

비교적 높은 유형의 두족류 동물로부터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의 생명체 변화는 과도기적이고 점진적이었음에도, 정말로 혁신적이었다.

60:1.14 (687.1) 이 기간은 2,500만 년 동안 계속됐고, *트라이아스기*라고 알려져 있다.

2. 후기 파충류 시대

60:2.1 (687.2) 120,000,000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 국면이 시작됐다. 이 기간에 일어난 큰 사건은 공룡의 진화와 쇠퇴 현상이었다. 육상 동물 생명체는 그 크기에서 최고로 발달했고,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지표면에서 사실상 멸종됐다. 하나의 종류에서 진화된 모든 종류의 공룡은, 길이가 2피트도 안 되는 작은 것부터, 육식을 하지 않는 75피트 길이의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기로 진화했고, 그 후로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그렇게 큰 것은 나타난 적이 없다.

60:2.2 (687.3) 공룡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북 아메리카 서부에서 나타났다. 거대한 이 파충류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하고, 북 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 전체에 걸쳐 있는 로키산맥

지역 전체, 서부 유럽, 남 아프리카, 및 인도 등지에 묻혀 있다.

60:2.3 (687.4) 거대한 이 피조물은 체구가 점점 커지면서 활동력과 힘이 줄어들게 됐으며;반면에 이것들은 더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게 됐고, 온 땅이 그것들로 뒤덮이게 되자, 완전히 굶어죽게 됐고 멸종됐다--이것들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사고력이 없었다.

60:2.4 (687.5) 이 무렵에, 오랫동안 솟아 있었던 북 아메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은, 고도가 낮아지고 대서양으로 씻겨 들어가서, 해안선은 현재보다 수백 마일 이상 밖으로 뻗어 있었다. 대륙의 서쪽 지역은 여전히 융기돼 있었지만, 이 지역들도 나중에는 북쪽 바다와 태평양의 침입을 받았는데, 다코다의 검은 언덕들 지역까지 동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60:2.5 (687.6) 이 시기는 많은 내륙 호수가 특징인 민물 시대였으며, 콜로라도와 몬타나 그리고 와이오밍에 있는 소위 모리슨 지대{地帶}의 풍부한 민물 화석이 잘 보여준다. 뒤섞인 이 바닷물 및 민물 퇴적층 두께는

2,000내지 5,000피트에 이르지만;이 지층에는 석회암이 거의 없다.

60:2.6 (687.7) 북 아메리카 지역으로 멀리까지 확장됐던 바로 그 극지방 바다가, 남 아메리카 전체도 마찬가지로 뒤덮었고, 다만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안데스 산맥은 예외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지만, 물의 침입은 유럽에서 가장 심했다. 아름다운 석판 예술에 사용되는 남부 독일의 암석층은 이 침수기에 퇴적됐으며, 그 지층에는 고대에 있었던 곤충들의 섬세한 날개 등의 화석이 생생하게 보존돼 있다.

60:2.7 (687.8) 이 시대의 식물 분포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동일했다. 양치류는 현상유지 하는 정도였던 반면, 침엽수와 소나무는 점점 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종류로 발전됐다. 일부 석탄층이 지중해 북쪽 연안을 따라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었다.

60:2.8 (687.9) 바다가 다시 넓어졌으므로 기후도 개선됐다. 산호가 유럽 지역의 물속에 퍼졌는데, 기후가 아직 온화하고 일정했음을 입증하지만, 서서히 차가워지는 극지방의 바다들에서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해양 생명체는 크게 개량되고 발전됐으며, 특히 유럽 지역에 있는 물 속에서 그랬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잠시 동안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지만, 암모나이트가 해양의 무척추 생명체보다 우위를 차지했고, 평균 크기는 3내지 4인치였으며, 어떤 종류는 직경이 8피트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어느 곳에든지 해면체 동물이 살았고, 오징어와 굴 종류들이 계속 진화했다.

60:2.9 (688.1) 110,000,000년 전에, 잠재돼 있던 해양 생명체가 계속 나타났다. 성게는 이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돌연변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게와 가제 그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유형의 갑각류가 완성됐다. 물고기 과{科}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해서, 철갑상어 유형이 처음으로 나타났다지만, 사나운 해룡{海龍}은 육상 파충류에서 유래했고, 온 바다에 계속 창궐해 있었으며, 이것들로 인해 물고기 과 전체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다.

60:2.10 (688.2) 이때는 계속하여 뚜렷이 공룡시대였다. 공룡들이 육지에 너무 많이 번식해서, 두 종류는 바다가 밀려들어오기 이전의 기간에 생존을 위해 물을 택했다. 이런 해룡은 진화의 퇴보를 의미했다. 새로운 종류들이

발전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계통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또 어떤 종류들은 옛날로 퇴보해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바로 이것이, 두 유형의 파충류가 육지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일어났다.

60:2.11 (688.3) 시간이 지나면서, 해룡은 더욱 커져서 매우 둔하게 됐고 결국 멸종됐는데, 그것들의 거대한 체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뇌가 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거대한 어룡{魚龍}이, 어떤 경우에는 50피트의 길이까지 자랐고, 대부분 35피트의 길이에 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뇌의 무게는 2온스 미만에 불과했다. 악어와 비슷한 해양 동물 역시, 육상의 파충류 유형에서 퇴보된 것이었지만, 해룡의 경우와 달리, 알을 낳기 위해 항상 육지로 돌아왔다.

60:2.12 (688.4) 두 종류의 공룡이 생존을 위한 헛된 시도의 일환으로 물속으로 옮겨간 직후에,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더욱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른 두 유형이 공중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 익룡{翼龍}은,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난 순수한 조류{鳥類}의 선조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뼈를 가졌고, 나는 듯이 달리는 공룡으로부터 진화됐으며, 날개는 박쥐와 같은

형태로써 20내지 25피트까지 펼 수 있었다. 고대의 이런 날개 달린 파충류는 10피트 길이까지 자랐고, 오늘날의 뱀처럼 분리될 수 있는 턱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날개 달린 이 파충류는 한동안 잘 생존했지만, 공중을 날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만한 종류로 진화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새의 조상으로서 살아남지 못한 대표적 계통이다.

60:2.13 (688.5) 이 기간에 거북이류가 증가했고, 최초로 북 아메리카에 나타났다. 이것들의 조상은 북쪽에 있는 연결육지의 길을 통해 아시아에서 왔다.

60:2.14 (688.6) 1억 년 전에,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공룡은, 거대한 몸집에 비교할 때 뇌가 거의 없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대한 몸뚱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찾기에는 사고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리하여 기능이 둔해진 이 육상 파충류는 점점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 후로는 진화 과정이 육체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일어났으며, 그런 뇌 발달은 이어지는 동물 진화와 행성 진보에서 각 시기의 특징이 됐다.

60:2.15 (688.7) 파충류의 최고 발달기와 쇠퇴기가 포함된 이 기간은, 거의 2,500만 년에 이르며, 주라기로 알려져 있다.

3. 백악기 꽃_식물 시대 조류 시대

60:3.1 (688.8) 대단한 백악기{白堊紀}는, 바다에서 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즉 백악을 만드는 풍성한 유공충{有孔蟲}이 현저히 많이 존재한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파충류가 유란시아를 지배하던 긴 기간이 이 시대 이후에 끝나게 됐고, 꽃피는 식물과 조류{鳥類} 생명체가 이때 땅 위에 출현했다. 또한 서쪽과 남쪽으로 대륙들이 유동{流動}하던 것도 멈추게 됐고, 거대한 지각 변형이 있었으며, 큰 화산 활동과 함께 용암이 넓게 흘렀다.

60:3.2 (689.1) 앞에 있었던 지질학적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됐을 때, 산봉우리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륙이 물위에 있었다. 그러나 대륙의 땅 덩어리들이 계속 유동하자, 태평양 바닥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차단{遮斷} 현상이 발생했다. 지질학적 힘들의 충돌로 인해,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멕시코를 거쳐 케이프 혼에 이르는, 남북 방향의 거대한 산맥 전체가 형성되는 운동이 일어났다.

60:3.3 (689.2)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은 지질 역사상 *현대*

조산기{造山紀}가 됐다. 이 시기 이전에는 산봉우리가 거의 없었고, 매우 넓은 폭으로 높이 올라온 지대들이 있었을 뿐이다. 이때 태평양 연안 지역이 융기되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해안선에서 서쪽으로 약 700마일 지점에 있었다. 시에라 산맥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금이 들어 있는 석영 층이 이 시기에 용암 분출의 산물로 형성됐다. 북 아메리카의 동부 지역에서는, 대서양 바다의 압력으로 인해 또한 땅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60:3.4 (689.3) *100,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의 일부분이 물위로 충분히 올라왔다. 아메리카 대륙의 뒤틀림 현상이 계속됐고, 그 결과, 남 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이 변형됐으며, 북 아메리카의 서부 평원{平原}이 서서히 융기했다. 멕시코 지역 대부분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남 대서양 물이 남 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침범했으며, 결국 현재의 해안선까지 밀고 들어갔다. 그때 대서양과 인도양은 현재와 비슷했다.

60:3.5 (689.4) *95,000,000*년 전에, 아메리카와 유럽 땅 덩어리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다. 남부의 바다들이 북 아메리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북쪽으로 확대돼서 북극해와 합류했으며, 그 대륙이 두 번째로 크게 침수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 바다가 최종적으로 물러갔을 때, 현재와 비슷한 대륙이 나타났다. 이런 거대한 침수 현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아팔라치아 고지대들이 거의 침식되어 해수면과 같아졌다. 오늘날 질그릇 만들기에 사용되는, 순수한 점토질인 여러 색의 지층들은, 이 시기 동안 대서양 연안에 퇴적됐고, 평균 두께는 약 2,000피트에 이른다.

^{60:3.6 (689.5)} 거대한 화산 작용이, 알프스 남부 지역과 현재의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있는 산맥의 줄기를 따라서 발생됐다. 수 없이 긴 세월 중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들이 멕시코에서 발생됐다. 유럽, 러시아, 일본, 및 남 아메리카 남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는 점점 더 다양해졌다.

^{60:3.7 (689.6)} 90,000,000년 전에, 초기 백악기의 바다로부터 속씨식물이 발생됐고, 곧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이 육상 식물은, 무화과나무, 목련, 및 튜립나무와 함께 *갑자기* 나타났다. 이 시기 이후에 곧, 무화과나무, 빵열매나무,

그리고 종려나무가 유럽과 북 아메리카 평원 서부 지역에 퍼졌다. 새로운 육상 동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60:3.8 (689.7) 85,000,000년 전에, 베링 해협이 막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이 차단됐다. 그리하여 대서양_만의 물속에 있는 해양 생명체와, 태평양에 있는 해양 생명체가, 이 두 바닷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크게 달라지게 됐는데, 지금은 온도가 같다.

60:3.9 (689.8) 백악과 녹색 모래흙의 퇴적층으로 인해 이 기간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여러 색으로 돼 있고, 백악, 이판암, 사암, 그리고 적은 양의 석회암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나쁜 석탄 또는 갈탄도 포함돼 있고, 많은 지역에서는 석유도 섞여 있다. 이 지층의 두께는, 어떤 지역에서 200피트부터, 북 아메리카의 서부지역과 수많은 유럽 지방에서 일부 10,000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로키 산맥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서, 이 퇴적층은 기울어진 구릉지대에서 발견될 수 있다.

60:3.10 (690.1) 이 단층은 백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었고, 구멍이 많은 유사암석으로 구성된 이 지층은, 위쪽으로 노출돼 있는 곳으로 물을 받아들이고, 아래쪽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현재 지구상에 있는 건조한 지역 대부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60:3.11 (690.2) 80,000,000년 전에, 지각에 큰 교란이 발생했다. 유동하던 대륙의 서쪽 방향 진행은 멈췄고, 뒤에서 밀려오는 대륙 덩어리의 완만한 운동으로 말미암은 거대한 에너지로 인해, 남_북 아메리카 전체의 태평양 해안선이 위로 구겨졌으며, 이에 반응해서, 심한 변화가 아시아의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 시작됐다. 오늘날의 산맥이 된 태평양 주변의 육지 융기는 25,000마일 이상의 길이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생기자마자 융기된 이것들은, 유란시아에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로 가장 크게 표면이 일그러진 경우에 해당됐다. 용암의 흐름이 땅 위와 아래에서 광범한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다.

60:3.12 (690.3) 75,000,000년 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다. 알래스카에서 케이프 혼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산맥들이 완성됐으나, 산봉우리는 아직 소수만 있었다.

60:3.13 (690.4) 유동이 정지된 대륙의 역단층{逆斷層}이, 이 북 아메리카 서부 평원의 고도를 계속 높였고, 한편

동부에서는, 대서양 해안 지역의 약화된 아팔라치아 산맥이, 거의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똑바로 솟았다.

60:3.14 (690.5) 70,000,000년 전에, 로키산맥 지역이 최고도로 융기되면서, 지표면의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다. 큰 바위 조각이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지표면에, 15마일에 걸쳐서 단층을 형성했으며;여기서 캄브리아기 암석이, 백악기 지층들 위로 비스듬히 솟아 나왔다. 캐나다 국경선 가까이 있는, 로키산맥의 동쪽 기슭에서는, 다른 단층 현상이 장관을 이뤘으며;여기서는 그 후에 조성된 백악기 퇴적층들 위로 밀려나온, 생명체_이전{以前}의 암석층을 발견할 수 있다.

60:3.15 (690.6) 이 기간에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작은 화산 분화구가 독립적으로 솟아올랐다. 가라앉아 있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해저 화산들이 폭발했다. 시베리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 역시, 여전히 물밑에 있었다.

60:3.16 (690.7) 65,000,0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암 분출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다. 이때 퇴적된 지층과 그 전에 흘러

나왔던 용암층이, 아메리카 대륙 전역과 남_북 아프리카, 오스트랄리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60:3.17 (690.8) 육상 동물은 거의 변화 없었지만, 거대한 대륙의 출현으로 인해, 특히 북 아메리카에서 빠르게 번식했다. 북 아메리카는 이 시기의 육상 동물 진화가 많이 일어난 곳이었고, 유럽의 대부분은 물 밑에 있었다.

60:3.18 (690.9) 기후는 여전히 온화하고 균일했다. 북극 지역의 날씨는 오늘날 북 아메리카의 중부 및 남부 지역의 기후와 거의 흡사한, 쾌적한 날씨였다.

60:3.19 (690.10)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육상{陸上} 식물 중에서 속씨식물류가 선점했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많은 나무가 처음 출현했으며,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오크나무, 호두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그리고 개량된 종려나무 등이 포함됐다. 과일나무들과 초지 그리고 곡식류가 풍성하게 자랐고, 사람의 조상이 동물계를 구성한 것처럼, 이런 씨 맺는 풀과 나무들이 식물계를 구성했다--이것들은 사람 자체의 출현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진화였다. 갑자기 그리고 단계적인 변화 없이,

꽃피는 수많은 식물류가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이 식물이 곧 세계 전역을 뒤덮었다.

60:3.20 (691.1) 60,000,000년 전에, 육상 파충류가 줄어들었지만, 공룡은 여전히 육지의 지배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주도권은 육식을 하는 공룡 가운데 비교적 작고 꺾충꺾충 뛰는 캥거루 종류의, 더 기민하고 활동적인 유형들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 앞선 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초식 공룡이 출현했었고, 이것들이 빠르게 증식된 것은, 육상 식물에 속하는 풀 종류가 나타난 데 기인한다. 풀을 먹는 이 새로운 공룡 가운데 하나는 어깨 둘레에 갑옷 같은 것이 있고 두 뿔을 가진 순수한 네 발 짐승이었다. 직경이 20피트에 이르는, 육지에서 사는 유형의 거북이가 출현했고, 현재와 같은 유형의 악어와 뱀도 나타났다. 어류를 비롯해서 기타 해양 생명체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60:3.21 (691.2)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던, 조류 이전의 초기 동물은 공중에서 날지 못했고, 익룡{翼龍}도 마찬가지였다. 이 종족들은 수명이 짧았고, 곧 사라졌다. 이것들 역시 몸통의 크기에 비해서 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공룡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소멸됐다. 이 시대와 바로 앞에 있었던 시대 동안에, 포유동물을 조성하려던 미숙한 시도{試圖}가 실패했듯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을 산출하려던 두 번째 시도가 실패했다.

60:3.22 (691.3) 55,000,000년 전에, 최초의 진짜 조류, 즉 모든 조류 생명체의 선조가 됐던 작은 비둘기 형체의 피조물이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에 획기적 진보가 이뤄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나타났던, 날아다니는 피조물 중에서 셋째 유형이었으며, 당대에 있었던 익룡에서, 또는 비교적 초기 유형의 이빨을 가진 육상 조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에서 직접 발생됐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도 알려지게 됐다.

4. 백악기가 끝남

60:4.1 (691.4) 긴 백악기가 끝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바다가 대륙을 크게 침수시켰던 기간도 끝나게 됐다. 특히 이것은 북 아메리카에서 두드러졌고, 정확히 스물네 번의 거대한 침수 현상이 있었다. 그 뒤에도 사소한 침수 현상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와 그 이전 시대 중에 일어났던,

광대하고 긴 기간의 해양 침해 과정과는 비교될 수 없다. 육지와 바다가 번갈아 가며 지배하던 이 기간들은 100만 년 주기로 발생했다. 해양 바닥과 대륙의 고도가 오르내림과 관련된 긴 기간의 규칙적인 반복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주기적인 지각 운동이, 이때부터 전체 지구 역사 동안 계속됐지만, 빈도{頻度}와 범위는 계속 줄어들었다.

60:4.2 (691.5) 또한 이 기간에 대륙의 유동이 멈췄고, 유란시아의 현대 산맥들이 조성됐다. 그러나 대륙 땅 덩어리들의 압력과 오랫동안 유동하던 추진력의 반작용만이 산맥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산맥의 위치가 결정되는 데 근원적인 주요 요소는, 육지의 침식으로 생긴 비교적 가벼운 퇴적물과, 앞에 있었던 시대들의 해양 표류물로 채워진 선재하던 저지대 또는 해구{海溝}였다. 이런 가벼운 육지 지역의 두께가 15,000내지 20,000피트에 이르렀으며;지각이 어떤 원인으로든지 압력을 받게 됐을 때, 지각 속에서, 또는 그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충돌력과 압력에 대해 보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이 지역들이 먼저 구김살이 잡히고 접혀지면서 위로 솟았다. 때로는 이런 땅의 융기가 접혀지는 현상 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로키 산맥이 융기된 경우에는, 거대한 접혀짐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함께 지표면과 땅 속에서 다양한 지층이 거대한 단층을 이뤘다.

60:4.3 (692.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은, 아시아, 그린랜드, 및 유럽에 있는 동_서 방향으로 조직된 오래된 지역들에 있다. 중간 나이의 산맥들은, 태평양 주변의 무리들과, 거의 같은 무렵에 형성된 동_서 방향으로 조직된 유럽의 제2차 지역에 있다. 거대한 이 상승 현상은 길이가 거의 10,000마일에 이르며, 유럽에서부터 서인도제도의 융기된 땅까지 뻗어 있다. 가장 늦게 생긴 산맥은 로키 산맥 체계 속에 있으며, 거기에 높은 지대들이 섬으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오직 여러 시대 동안 바다가 연속적으로 덮여버린 것 때문에 땅이 융기됐다. 중간 나이의 산맥들이 형성된 이후에, 진정한 산악 고지대가 융기됐고, 결국 자연 요소들의 복합적인 기교로 말미암아 예술적으로 깎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로키 산맥이 형성됐다.

60:4.4 (692.2) 북 아메리카에 있는 현재의 로키 산맥 지역은, 융기{隆起}됐던 땅 그대로가 아니며;오랫동안 침식{浸蝕}돼서 평평해진 후에 다시 융기됐다. 현재의

산맥 앞면은 다시 융기됐던 원래 산맥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이다. 파이크스 봉우리와 롱스 봉우리는, 두 세대 또는 그 이상으로 산이 남아 있음으로써, 이런 조산{造山}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두 봉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침수 동안에도 물 위에 그 꼭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60:4.5 (692.3) 지질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 시기는 육지 위와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활동적인 기간이었다. 산호와 바다나리가 줄어든 반면, 성게는 증가했다. 앞에 있던 기간에 압도적 영향을 미쳤던 암모나이트가 급속도로 쇠퇴했다. 땅 위에서는, 거대한 아메리카삼나무를 포함해서 소나무와 기타 현대의 나무들이 대부분의 양치류 숲을 대체했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까지, 태반을 갖는 포유류가 아직 진화되지 못했지만, 미래의 포유류 유형들이 되기 위한 초기 선조가 그 다음 시대에 출현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무대가 충분히 마련됐다.

60:4.6 (692.4) 이렇게 해서, 육상 생명체의 초기 출현으로부터, 인류의 바로 앞 조상과 그와 평행으로 나타난 여러

지류들로 구성된 후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진화가 이뤄진 긴 시대가 끝나게 됐다. **백악기**인 이 시대는 5,000만 년 기간이었고, **중생대**라고 알려진, 1억 년 기간에 해당되는 포유류 이전의 육상 생명체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60:4.7 (692.5) [사타니아에 배정됐고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제61편 유란시아의 포유동물 시대

61:0.1 (693.1) 포유동물 시대는, 태반{胎盤}이 있는 포유동물이 기원된 시기부터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약 5,000만 년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다.

61:0.2 (693.2) 이 신생대 기간에, 세상의 경치는 매혹적인 모습을--곧 완만한 높낮이의 언덕, 넓은 계곡, 넓은 강, 그리고 울창한 삼림을-- 보여줬다. 이 기간에 파나마 지협{地峽}은 두 번 오르내렸으며;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는 세 번 오르내렸다. 동물 유형은 숫자도 많고 다양했다. 최상의 상태로 진화해 가려는 동물 종{種}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는 새들이 떼로 있었고, 지구 전체는 동물의 낙원이었다.

61:0.3 (693.3) 다섯 기간으로 구분되는 이 5,000만 년 시대 동안 누적된 퇴적층은, 연속되는 포유류 점령 시대의 화석 기록을 간직하고 있으며, 바로 사람이 나타나는 시대로 직접 연결된다.

1. 새로운 대륙 형성기 초기 포유동물 시대

61:1.1 (693.4) 50,000,000년 전에, 세계의 육상 지역은 거의 대부분 물위에 있었고, 침수된 지역은 매우 적었다. 이 기간의 지층과 퇴적물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형성됐지만, 주로 육지에서 이뤄졌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육지가 서서히 융기됐지만, 동시에 낮은 지대와 바다 쪽으로 씻겨 내려갔다.

61:1.2 (693.5) 이 기간 초기에, 북 아메리카에서 포유동물 유형이 갑자기 출현했고, 이것들은 이때까지 이뤄진 진화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전에 태반{胎盤} 없는 포유동물 종들이 존재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동물은, 선재{先在}하던 파충류 선조로부터 직접 갑자기 나타났으며, 파충류의 후손은 공룡의 쇠퇴기까지도

존속했다.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의 조상은, 작고, 매우 활동적이며, 육식 동물이었고, 펄쩍펄쩍 뛰는 유형인, 일종의 공룡이었다.

61:1.3 (693.6) 포유류의 기본적인 본능이 이런 원시 포유류 유형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유동물은 다른 모든 동물 생명체 형태보다 훨씬 유리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었다:

61:1.4 (693.7) 1. 비교적 성숙되고 잘_발육된 새끼를 낳을 수 있었다.

61:1.5 (693.8) 2. 자기 새끼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양육하며 보호할 수 있었다.

61:1.6 (693.9) 3. 자기를_존속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지능을 사용했다.

61:1.7 (693.10) 4. 적으로부터 도망칠 때, 증진된 민첩성을 활용했다.

61:1.8 (693.11) 5. 우세한 사고력을 사용해서 환경을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었다.

61:1.9 (694.1) 45,000,000년 전에, 해안선이 매우 광범하게
가라앉은 것과 관련해서, 대륙의 중심 지대들이 융기됐다.
포유류 생명체가 급속히 진화하고 있었다. 작은 파충류,
알을 낳아 번식하는 유형의 포유동물이 번성했고, 나중에
캥거루가 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에서 돌아다녔다.
오래지 않아서, 작은 말류, 발이 빠른 코뿔소류, 주둥이가
긴 맥{貘}류, 원시적인 돼지류, 다람쥐류, 여우원숭이류,
주머니쥐류,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여러 부류의 동물이
생겨났다. 이것들은 모두 작았고, 원시적이었으며, 산악
지역에 있는 숲 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했다. 타조처럼
생기고 키가 10피트에 이르는, 땅위에서 사는 큰 새가
나타났고, 가로 9인치 세로 13인치 크기의 알을 낳았다.
이것들은 후대의 거대한 여객용 새의 조상이었는데, 이
새는 매우 지능이 높았고, 한때 공중을 날면서 인간을
운반해 주기도 했다.

61:1.10 (694.2) 신생대 초기의 포유동물은, 땅 위, 물속, 공중, 및
나무 꼭대기에서 살았다. 이것들은 한 쌍에서 열한 쌍에
이르는 젖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많은 털로 덮여 있었다.
나중에 나타나게 될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연달아 붙어
있는 두 벌의 이를 갖게 됐고, 몸통에 비해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는 현대의 형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61:1.11 (694.3) 40,000,000년 전에, 북반구의 육지 지역들이 융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새로운 광대한 육지가 퇴적층을 이뤘으며, 용암 분출, 뒤틀림 현상, 및 호수의 형성과 침식 등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육상 활동들이 뒤따랐다.

61:1.12 (694.4) 이 시기의 후반에는 유럽 대부분이 침수됐다. 약간의 육지가 융기된 후에, 그 대륙에는 많은 호수와 만이 있었다. 북극해는 함몰된 우랄 지역을 통해 남쪽으로 흘러서, 당시에 북쪽으로 확장돼 있던 지중해, 알프스의 고지대들, 카르파티아 산맥, 아페니노 산맥,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섬처럼 물위로 올라와 있던 피레네 산맥과 연결됐다. 파나마 지협{地峽}이 융기됐고;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됐다. 북 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의 연결육지로 아시아와 연결됐고,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됐다. 북부 위도{緯度} 지역에 있는 땅덩어리의 이동 경로는 오직 우랄 해협 때문에 차단됐고, 그 해협은 확장된 지중해와 함께 북극해와 연결됐다.

61:1.13 (694.5) 상당한 유공충{有孔蟲}류의 석회암이 유럽 지역의 물속에 퇴적됐다. 바로 그 암석층은, 오늘날 알프스 지역에서 10,000피트 높이로, 히말라야 지역에서 16,000피트 높이로, 티벳 지역에서 20,000피트 높이로 솟아 있다. 이 기간에 형성된 백악{白堊} 퇴적층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랄리아의 해안선을 따라, 남 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선에서, 그리고 서부 인도 부근에서 발견된다.

61:1.14 (694.6) 소위 시/신세{始新世}라고 불리는 이 기간 내내, 포유류 및 관련된 다른 생명체의 진화는, 거의 또는 전혀 중단 없이 계속됐다. 그때 북 아메리카는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과 육지를 통해서 연결돼 있었고, 전 세계는 점차 다양한 유형의 원시 포유류 군{群}으로 가득 차게 됐다.

2. 최근의 홍수기 고등 포유동물 시대

61:2.1 (694.7) 이 기간의 특징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빠른 속도로 훨씬 더 진화한 것인데, 이들은 이 기간에 발달하던 포유류 생명체 중에서 더욱 진보된 형태였다.

61:2.2 (694.8) 태반을 가진 초기 포유동물이, 육식{肉食} 조상으로부터 발생됐지만, 초식성 종류들이 곧 이어

발달됐고, 오래지 않아 잡식성 포유류 계통도 나타났다. 속씨식물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포유동물의 중요한 먹이가 됐고, 오늘날 볼 수 있는 식물 대부분을 포함한 현대의 육상 식물 군{群}이 비교적 초기 기간에 출현했다.

61:2.3 (695.1) 35,000,000년 전에, 태반을_가진_포유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 연결육지가 확장되어, 당시에 거대한 크기였던 남극 대륙을 남 아메리카, 남 아프리카, 및 오스트랄리아에 다시 연결시켰다. 넓은 육지가 높은 고도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열대성 바다들이 크게 확장됐기 때문에, 그리고 빙하 지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할 정도까지 육지가 융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는 여전히 비교적 온화했다. 광대한 용암 분출이 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발생됐고, 약간의 석탄 퇴적층이 이 지층들 사이에 형성됐다.

61:2.4 (695.2) 괄목할만한 변화가, 행성에 있는 동물 군{群}에 발생됐다. 해양 생명체는 큰 변경을 겪었고;오늘날과 같은 종류의 해양 생명체 대부분이 실존했으며, 유공충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곤충 생명체는 앞에 있었던 시대와 거의 같았다. 콜로라도에 있는 플로리선트 화석

지대는 아득히 먼 이 시대 후반기에 형성됐다. 살아있는 곤충 계통 대부분은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시에 현존하던 것들 중에서 많이 멸종됐고, 지금은 화석만 남아 있다.

61:2.5 (695.3) 이 시기에 육지에서는 포유류가 현저히 개량되고 넓게 퍼져 나갔다. 전에 있었던, 더 원시적인 형태 중에서 100여 종 이상은,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몸체가 크고 뇌가 작은 포유동물도 곧 사라졌다. 외피{外皮}의 유무{有無}와 몸체의 크기 대신, 뇌의 크기와 민첩성이 동물 생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공룡 과{科}가 서서히 줄면서, 점차 포유동물이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던 것들의 파충류 조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멸종시켰다.

61:2.6 (695.4) 공룡이 사라지면서, 도마뱀 과에 속하는 다양한 동물에게 큰 변화가 발생했다. 초기의 파충류 동물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에는, 고대의 개구리를 비롯해 거북이류와 뱀류 그리고 악어류가 있었고, 이것들은 사람의 초기 조상을 대표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단이다.

61:2.7 (695.5) 다양한 종류의 포유동물은, 오늘날 사라진 어느 독특한 동물에서 기원됐다. 육식 동물이었던 이 피조물은, 고양이와 물개 사이의 잡종에 해당됐으며;땅과 물에서 살 수 있었고 상당히 지능적이고 활동적이었다. 개과{犬科}의 선조가 유럽에서 진화돼 나타났고, 수많은 종{種}의 작은 개들이 곧 생겨났다. 거의 동시에, 비버, 다람쥐, 땅다람쥐, 생쥐, 토끼를 포함해, 이로 갹아먹는 설치{楔齒} 동물이 나타나서 주목할 만한 형태의 생명체가 됐고, 이 계통들은 그 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후기 퇴적층에는, 개, 고양이, 너구리, 족제비류의 초기 형태 유골이 들어 있다.

61:2.8 (695.6) 30,000,000년 전에, 현대 유형의 포유동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포유동물이 산에서 사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언덕에서 살았으며;무늬가 없거나 발굽을 가진 유형의, 풀을 뜯어먹는 종류들이 거기서 갑자기 진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발톱을 갖고 고기를 먹는 종류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풀을 뜯어먹었는데, 다섯 개의 발가락과 44개의 이빨을 가진, 분화되지 않은 한 종류에서 발생됐고, 이 동물은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멸종됐다. 이 기간 내내,

세 발가락 단계 이후에는 발가락의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61:2.9 (695.7) 진화에서 대표적인 예가 되는 말{馬}은, 빙하기 후기까지도 발달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 기간에 북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서식했다. 반면에 코뿔소과{科}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나타났지만, 곧 이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되어 퍼져 나갔다. 돼지 비슷한 작은 피조물도 나타났는데, 이것은 돼지, 멧돼지, 밧 하마에 해당하는 여러 종{種}의 조상이 됐다. 낙타와 아메리카낙타가 이 기간 중반 경에 북 아메리카에서 생겨나서 서쪽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됐다. 나중에, 아메리카낙타는 남 아메리카로, 낙타는 유럽으로 이주했고, 일부 낙타들이 빙하기까지 살아 있었지만, 두 종류는 모두 북 아메리카에서 곧 사라지게 됐다.

61:2.10 (696.1) 이 무렵에 특기할만한 일이 북 아메리카 서부에서 발생했는데:고대의 여우원숭이의 초기 조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 계통은 순종{純種} 원숭이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등장은, 순종 원숭이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혈통이 확립됐음을 표시했다.

61:2.11 (696.2) 앞에 있던 시대 동안, 육지에 살던 뱀들이 바다로 피신했던 것처럼, 태반을 갖는 어느 포유동물 전체 부류가 이 기간에 육지를 떠나 바다 속에서 살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로 계속 바다에 남아 있었고, 현재와 같은 고래, 돌고래, 참돌고래, 물개, 및 바다표범을 이뤘다.

61:2.12 (696.3) 지구에 있는 조류 생명체는 계속 발전했지만, 중요한 진화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갈매기, 왜가리, 홍학, 말뚝가리, 독수리, 올빼미, 메추라기, 및 타조류 등을 포함하여, 현대에 있는 새들 대부분이 존재했다.

61:2.13 (696.4) 1,000만 년에 이르는 이 점신세{漸新世}가 끝날 때까지, 해양 생명체 및 육상 동물과 함께 식물 생명체가 크게 진화됐고, 오늘날과 흡사하게 땅 위에 존재했다. 괄목할만한 분화{分化}가 나중에 발생되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것들 대부분의 조상 형태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3. 현대의 조산기 코끼리와 말의 시대

61:3.1 (696.5) 육지의 융기와 바다의 격리 현상이 세계의 날씨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기온을 점차 내려가게 했지만, 기후는 아직 온화한 상태였다. 세쿼이아와 목련이 그린란드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아열대성 식물은 점점 남쪽으로
움아가기 시작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온대
기후의 식물과 나무는 북쪽 위도 지역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비교적 더 강한 식물과 낙엽수가 자라게 됐다.

61:3.2 (696.6) 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생겼고, 많은 포유동물
종류의 이빨이 점차 변화돼서, 현재처럼 풀을 뜯어먹는
유형이 됐다.

61:3.3 (696.7) 25,000,000년 전에, 육지가 융기하던 긴 시대에
뒤이어, 약간의 침수 현상이 있었다. 로키 산맥 지역은 높이
솟은 상태로 있었으므로, 침식된 물질이 저지대 도처에서
동쪽으로 계속 퇴적됐다. 시에라 지역이 상당한 정도로
다시 융기했으며;사실, 그것들은 그 후로 계속 융기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4마일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61:3.4 (696.8) 20,000,000년 전에는, 포유동물의 실제
황금기였다. 베링 해협을 연결육지가 물위에 있었고, 네
개의 엄니를 가진 매스토돈,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매우 다양한 고양이 과{科}를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북 아메리카로 이주했다.

61:3.5 (696.9) 최초의 사슴이 나타났고, 북 아메리카에는 반추{反芻} 동물이--곧 사슴, 황소, 낙타, 들소,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코뿔소가-- 가득했지만, 키가 7피트나 되는 큰 돼지는 멸종됐다.

61:3.6 (697.1) 이 시대와 후대에 있었던 거대한 코끼리들은, 몸체가 컸을 뿐만 아니라 큰 뇌를 지녔고, 곧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 퍼졌다. 이번에는, 계속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큰 뇌를 가진 거대한 동물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 시대에는 높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었으므로, 코끼리처럼 큰 동물은 큰 뇌와 우수한 특성의 뇌를 갖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사고력과 적응력으로 볼 때, 코끼리에 근접될 정도의 동물로는 말뿐이었고, 사람만이 그보다 월등했다. 그렇더라도, 이 시대 초기에 현존했던 50가지의 코끼리 중에서 두 종류만 살아남았다.

61:3.7 (697.2) 15,000,000년 전에, 유라시아의 산악 지대들이 융기됐고, 그 지역 전체에는 약간의 화산 활동이 있었지만, 서반구에 있었던 용암 분출에 비교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61:3.8 (697.3) 지브롤터 해협이 닫혔고, 스페인과 아프리카는 오래된 연결육지로 연결됐지만, 지중해는 불란서를 가로질러 뺀 좁은 수로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흘렀으며, 산봉우리와 고지대들이 고대의 이 바다 위로 섬처럼 올라와 있었다. 유럽의 이 바다들은 나중에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후대에는, 이 지중해가 인도양과 연결됐고, 한편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수에즈 지역이 융기돼서 지중해는 한동안 염분을 가진 내륙해{內陸海}가 됐다.

61:3.9 (697.4) 아이슬란드 연결육지가 가라앉고 북극해는 대서양과 혼합됐다. 북 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은 신속히 냉각됐으나, 태평양 연안은 현재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했다. 거대한 해류가 작용했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줬다.

61:3.10 (697.5) 포유류 생명체는 계속 진화했다. 수많은 말 때가 북 아메리카 평원에서 낙타와 합류했고;진정 코끼리 시대인 동시에 말의 시대였다. 말의 뇌는 동물 자질 면에서 코끼리의 뇌 다음으로 발달해 있었으나, 깜짝 놀랐을 때 도망치는 고질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한

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열등했다. 말은 코끼리보다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했고, 한편 코끼리의 결점은 몸체가 크고 활동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이 기간에 코끼리와 말, 이 둘을 어느 정도 닮은 한 동물이 진화해서 나타났지만, 고양이과{科}의 동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곧 도태됐다.

61:3.11 (697.6) 유란시아가 소위 “말{馬}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너희는 잠시 멈춰 서서, 이 동물이 너희 선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식용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여행에, 나중에는 농업과 전쟁에 이용했다. 말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유익을 줬고, 인간의 문명화{文明化}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61:3.12 (697.7) 이 기간에 이뤄진 생물학적 발전은, 후에 나타날 사람을 위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여했다. 중앙 아시아에서 순종 유형의 원시 원숭이와 고릴라가, 지금은 멸종된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진화됐다. 그러나 이 종류 가운데 어느 것도, 나중에 인간 종족의 선조가 되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계통과는 관계가 없다.

61:3.13 (697.8) 몇 개의 군{群}, 특히 이리와 여우가 개 과{科}를 대표했으며;고양이류를 표범,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대표했고, 후자는 북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진화해서 나타났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고양이 과와 개 과가 전 세계에 걸쳐 번성했다. 족제비, 담비, 수달, 및 너구리 종류는 북쪽 위도 전 지역에서 번성했다.

61:3.14 (698.1) 새들이 계속 진화했지만, 특기할만한 변화는 없었다. 파충류는 현대의 유형과--곤 뱀, 악어, 거북이와--비슷했다.

61:3.15 (698.2) 이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다사{多事}했고 흥미로운 기간이었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코끼리와 말의 이 시대는 중신세{中新世}로 알려져 있다.

4. 최근의 대륙_육지 단계 최종적인 포유류 이주

61:4.1 (698.3) 이때에는, 북 아메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서 빙하기 이전의 육지 육기가 있었다. 육지는 지형적으로 크게 변경됐다. 산맥이 형성됐고, 하천의 진로가 바뀌었으며, 독립적인 화산 폭발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다.

61:4.2 (698.4) 10,000,000년 전에, 여러 대륙의 저지대에 국지적 퇴적층이 널리 퍼지는 시대가 시작됐지만, 이 퇴적물 대부분은 나중에 제거됐다. 이때에, 영국, 벨지움, 및 불란서를 포함해 유럽의 많은 지역은 아직 물밑에 있었고, 지중해는 북 아프리카 대부분을 덮었다. 북 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퇴적 현상이 산기슭과 호수 그리고 거대한 육상 분지 속에서 이뤄졌다. 이 퇴적층의 두께는 약 200피트에 불과하고, 다소 색깔을 띠었으며, 화석은 드물게 들어있다. 두 개의 거대한 민물 호수가 북 아메리카 서쪽 지역에 있었다. 시에라 지역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며;샤스타, 후드, 및 레이니어 지역에서는 조산{造山}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차후에 있게 될 빙하시대가 돼서야 비로소, 함몰된 대서양 쪽으로 북 아메리카가 서서히 이동했다.

61:4.3 (698.5) 짧은 기간에,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대륙이 다시 연결됐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범세계적 동물 이주 현상이 발생됐다. 북 아메리카는 남 아메리카 및 아시아와 연결됐고, 동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다. 아시아의,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영양, 및 곰이 북 아메리카로 들어왔고, 한편 북 아메리카 낙타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코뿔소는 오스트랄리아와 남 아메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나, 서반구{西半球} 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에 멸종했다.

61:4.4 (698.6) 대체로, 앞에 있었던 기간에 속하는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하고 퍼져 나갔다. 고양이 과{科} 동물이 동물 생명체를 지배했고, 해양 생명체는 거의 답보 상태였다. 말들 중에서 다수는 여전히 세 개의 발톱을 지녔지만, 현대의 유형이 나타났으며;아메리카낙타와 기린 모양의 낙타가 초원에서 말과 섞였다. 기린이 아프리카에 출현했고, 현재와 똑같은 모습의 긴 목을 가졌다. 남 아메리카에서는,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개미핥기, 그리고 남 아메리카 유형의 원시 원숭이들이 진화됐다. 대륙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되기 전에, 매스토돈이라는 거대한 동물이, 오스트랄리아를 제외한 각 지역으로 이주했다.

61:4.5 (698.7) 5,000,000년 전에, 말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고, 북 아메리카로부터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나 말이 기원됐던 대륙에서는, 홍인종{紅人種}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멸종됐다.

61:4.6 (698.8) 기온은 점차 하강했고;육상 식물은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북쪽 지역의 온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북쪽의 지협들을 건너 이주하던 동물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으며;나중에는, 북 아메리카의 이 연결육지들이 가라앉았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와 남 아메리카를 연결하던 육지가 마침내 가라앉았고, 서반구는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분리됐다. 이때 이후로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독특한 생명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61:4.7 (699.1) 그리하여 1,000만 년에 가까운 이 지속기간이 막을 내리게 됐지만, 사람의 조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은 대개 *선신세*{*鮮新世*}로 알려져 있다.

5. 초기 빙하시대

61:5.1 (699.2) 앞에 있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북 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북동쪽 지역이 광대한 범위로 높이 솟았고, 북 아메리카에서는 광대한 지역이 30,000피트 이상 융기했다. 전에는 이 북쪽 지역이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었고, 북극{北極}의 물은 모두 증발되기 쉬웠으며, 그 지역에는 빙하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얼음이 없었다.

61:5.2 (699.3) 이렇게 육지가 융기함과 동시에 해류의 방향이 바뀌게 됐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북쪽에 있는 고지대{高地帶}로 이동된, 습도가 아주 높은 대기로부터, 거의 끊임없이 비를 내리게 했다. 융기되고, 그에 따라 기온이 내려간 이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20,000피트의 깊이가 될 때까지 계속 떨어졌다. 고도가 높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들은, 나중에 빙하가 그 압력으로 인해 이동하게 되는 중심점이 됐다. 그리고 빙하기는, 엄청난 눈이 북쪽에 있는 이 고지대들에 계속 내려서 거대한 눈 덩어리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됐고, 눈 덩어리는 곧 고체{固體}로 변하여, 서서히 움직이는 얼음 덩어리가 됐다.

61:5.3 (699.4) 이 기간에 가장 큰 얼음 덩어리들은, 융기된 고지대 전역을 뒤덮었으며, 오늘날 발견되는 산악지대에 있지 않았다. 빙하 지대의 절반은 북 아메리카에 있었고, 4분의 1은 유라시아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기타 지역, 특히 남극 대륙에 있었다. 아프리카는 빙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오스트랄리아는 남극의 얼음 층으로 거의 전부 뒤덮였다.

61:5.4 (699.5) 이 세계의 북쪽 지역에, 각 얼음 층의 활동과 관련해서 확장과 축소가 수십 차례 있었지만, 독립적이고 뚜렷하게 빙하가 침범한 것은 여섯 번이었다. 북 아메리카의 빙하는 두 군데에 집중됐고, 나중에는 세 중심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린랜드는 완전히 뒤덮였고, 아이슬랜드는 이동하는 얼음 층 밑에 완전히 묻혔다. 유럽에서는 남부 잉글랜드 해안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섬이 여러 차례 얼음으로 뒤덮였고, 서부 유럽으로부터 불란서에 이르는 지역에 빙하가 퍼졌다.

61:5.5 (699.6) 2,00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의 첫 빙하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때부터 빙하 시대가 시작됐고, 이 빙하가 북쪽에 있는 활동 중심지에서 처음 확장되기 시작한 때부터, 다시 그곳으로 축소되는 시기까지, 거의 100만 년이 소요됐다. 중부에 있는 얼음 층이 남쪽으로 확장돼서 캔사스까지 이르렀으나;동부와 서부에 있는 빙하 중심지는, 그때에는 별로 확장되지 않았다.

61:5.6 (699.7) 1,500,000년 전에, 거대한 첫 빙하가 북쪽으로 퇴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눈이 북 아메리카 북동부 지역과 그린랜드에 내렸고, 오래지 않아서 동쪽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빙하의 두 번째 침공이었다.

61:5.7 (699.8) 이와 같은 처음 두 번의 빙하 침해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빙하기의 초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 동안 북 아메리카에는, 매스토돈, 털로 뒤덮인 맘모스, 말, 낙타, 사슴, 사향소, 들소, 땅나무늘보, 대형 비버,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 코끼리처럼 큰 나무늘보, 그리고 많은 종류의 고양이 과{科}와 개 과의 동물로 넘쳤다. 그러나 빙하시대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짐으로써, 이때부터 그 숫자가 급속도로 줄었다.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 동물 종족 가운데 대다수는 북 아메리카에서 멸종됐다.

61:5.8 (700.1) 빙하기 이후로 지구에 있는 육상 및 수상 생명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빙하 침해 기간들 사이에는 기후가 오늘날만큼 온화했고, 아마 약간 더 따뜻했다. 빙하 현상은, 넓은 지역을 덮을 정도로 퍼지기는 했지만, 결국 국지적{局地的}인 현상이었다. 빙하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와, 거대한 빙산들이 메인의 해안에서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퓨젯 사운드에서 태평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노르웨이 협만에서 북해 속으로 떨어지는 시대 사이에, 해안 지역의 기후는 현저히 변했다.

6. 빙하시대의 원시인

61:6.1 (700.2) 이런 빙하시대의 중대한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다. 현재는 물속에 잠겨 있는 인도의 약간 서쪽 지역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고대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의 후손 가운데서, 시조{始祖}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작은 이 동물은 대개 뒷다리만 이용해서 걸어 다녔고, 몸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뇌에 비해서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생명체의 70대 후손 중에서, 새로운 상류 동물 집단이 **갑자기** 분화됐다. 크기와 키가 그 선조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고, 균형 있게 증대된 두뇌 능력을 가진-- 이런 새로운 중간_포유동물이 만족스런 상태로 자리 잡게 됐을 때, 지극히 중대한 세 번째 돌연변이인 영장류{靈長類}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중간_포유동물 혈통 속에는 퇴화 현상이 나타나서, 유인원{類人猿}의 조상이 됐으며;그날 이후로 이런 인류 계통은 점진적인 진화 과정에 들어간 반면, 유인원 부류는 그 상태로 남아 있거나 실제적인 퇴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61:6.2 (700.3) 1,000,000년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로 등록됐다. 진화하는 영장류 혈통에서 어떤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실제 조상인 두 명의 원시 인간이 *갑자기* 나타났다.

61:6.3 (700.4) 이 사건은 세 번째 빙하 확대기가 시작될 무렵에 일어났으며;그래서 너희의 초기 선조들이 자극적이고 고무적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란시아 원주민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스키모 종족은, 지금도 혹독하게 추운 북쪽 지방에서 살기를 더 좋아한다.

61:6.4 (700.5)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서반구에는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빙하기들 사이의 시기 동안에,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중해 부근에 도착했고, 곧 유럽 대륙에 가득 퍼졌다. 서부 유럽에 있는 동굴에서, 열대성 동물과 북극 지방 동물의 잔해와 함께 인간의 뼈가 발견되는데, 빙하가 확장되고 축소되는 후기 시기 동안에 사람이 이 지역에 살았음을 입증한다.

7. 계속되는 빙하기

61:7.1 (700.6) 빙하기 동안 내내 다른 활동도 진척됐지만, 얼음 층의 작용 때문에 북쪽 위도 지방에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못했다. 다른 어떤 육상 활동도, 이때만큼 지형학적으로 그런 독자적인 증거를 남겨놓지 못했다. 특이한 둥근 돌, 그리고 웅덩이, 호수, 치환된 암석, 및 바위 가루 등과 같은 지표면의 균열은, 다른 자연 현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그 얼음 층은 빙퇴구{氷堆丘}로 알려진, 완만하게 솟거나 지표면의 굽이치는 현상을 남기도 했다. 그리고 빙하가 전진할 때, 그것이 강줄기를 바꾸고, 지구 표면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빙하는, 이동된 흔적만--곧 바닥과 측면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빙퇴석{氷堆石}들만-- 뒤에 남겨놓았다. 이 유동 현상들, 특히 바닥의 빙퇴석은, 북 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으로부터 북쪽과 서쪽으로 뻗었고, 유럽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다.

61:7.2 (701.1) 750,000년 전에, 북 아메리카 중부와 동부의 얼음 지대를 연결하는, 네 번째 빙하 지대가 남쪽으로 눈에 띄게 확장됐고;가장 멀리 뻗어나갔을 때에는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르렀으며, 미시시피 강을 서쪽으로

50마일 이동시켰고, 동쪽으로는 오하이오 강 남쪽 끝과 펜실바니아 중부까지 확장됐다.

61:7.3 (701.2) 아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얼음 층이 남쪽 끝까지 침투했고, 한편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맥의 방해로 얼음 층의 확장이 멈췄다.

61:7.4 (701.3) 500,000년 전에, 다섯 번째 빙하 확장이 있었고, 이 기간에 인류의 진화 과정에 새로운 진보가 가속적으로 일어났다. 원래의 인간 혈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한 세대 안에서, 여섯 가지 색깔의 인종이 변이 돼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중으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이때 행성 왕자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61:7.5 (701.4) 북 아메리카에서는, 다섯 번째로 확장된 빙하가 세 개의 얼음 중심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아무튼, 동쪽 돌출부는 세인트 로렌스 계곡 바로 아래까지 확장됐을 뿐이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남쪽으로 약간 확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중부에 있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돼서 아이오와 주 대부분을 뒤덮었다. 유럽에서는 이 얼음 층의 침해가, 전에 있었던 것만큼 확장되지 못했다.

61:7.6 (701.5) 2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의 빙하 현상이 시작됐다. 북쪽에 있는 고지대가 이미 약간 침수되기 시작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쪽 얼음 지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였다.

61:7.7 (701.6) 이 침해 기간에, 세 개의 거대한 얼음 층이 하나의 방대한 얼음 덩어리로 합쳐졌고, 서쪽에 있는 모든 산이 이 빙하 활동에 동참했다. 북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모든 빙하 침투 현상 가운데, 이번의 경우가 가장 컸으며;그 얼음 층은 압력이 작용하는 중심지역에서 1,500마일 이상 남쪽으로 이동했고, 북 아메리카는 가장 낮은 기온을 체험하게 됐다.

61:7.8 (701.7) 2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확장되는 동안, 유란시아에서는 여러 사건의 진행과 많이 관련되는 어떤 일이--곧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다.

61:7.9 (701.8) 150,000년 전에,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남쪽으로 가장 먼 지점까지 확장됐고, 서쪽에 있는 얼음 층은 캐나다 접경 지역을 넘어섰으며;중부의 얼음 층은, 캔사스, 미조리, 및 일리노이까지 내려왔으며;동쪽의 얼음 층은, 남쪽으로 확장돼서 펜실바니아와 오하이오 대부분을 뒤덮었다.

61:7.10 (701.9) 이것은 여러 개의 혀 모양, 즉 얼음 돌출부들을 앞으로 밀어낸 빙하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크고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 이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에, 북아메리카의 5대호 체계가 형성됐다. 그리고 유란시아 지질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발달 단계를 매우 정확하게 추론했고, 이런 많은 양의 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는 미시시피 계곡으로,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허드슨 계곡에, 마지막으로 북쪽 길을 통해서 세인트로렌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추론했다. 5대호가 현재의 나이아가라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 37,000년이 지났다.

61:7.11 (702.1) 100,0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가 퇴각하는 동안, 극지방의 거대한 얼음 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축적된 얼음 층 중심부는 상당히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극지방이 계속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한, 그리고 장치 육지가 더 융기되거나 해류{海流}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다른 빙하기가 이뤄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61:7.12 (702.1) 마지막으로 있었던 이 빙하는 10만 년 동안 확장됐고, 북쪽으로 완전히 퇴각하기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됐다. 5만 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온화한 지역들이 얼음 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

61:7.13 (702.1) 혹독한 빙하시대로 인해,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멸종되거나 수많은 다른 형태로 신속히 변화됐다. 많은 종류는,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얼음 층에 대처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이주 과정을 통해서, 심하게 도태됐다. 이동하는 빙하를 따라서 온 땅에 퍼진 동물 중에는, 곰, 들소, 순록, 사향소, 맘모스, 및 매스토돈 등이 있었다.

61:7.14 (702.1) 맘모스는 개활{開豁} 목초지를 찾았지만, 매스토돈은 삼림 지역으로 보호된 변두리를 선호했다. 맘모스는 상당히 후기까지, 멕시코로부터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분포됐으며;시베리아에 있는 종류는 털로 뒤덮이게 됐다. 후대에 백인종이 들소를 죽인 것처럼, 매스토돈은 홍인종에게 멸종되기 전까지 북 아메리카에서 살았다.

61:7.15 (702.1) 북 아메리카에서는, 마지막 빙하가 작용하는 동안, 말, 맥, 아메리카낙타, 그리고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가 사라졌다. 그 대신에 나무늘보, 아르마딜로, 및 캐피바라가 남 아메리카로부터 북상해서 자리를 메웠다.

61:7.16 (702.1) 빙하가 확장되면서 강제적으로 이뤄진 생명체 이주는 식물과 동물을 특이하게 혼합시켰고, 마지막 빙하 침해가 물러가면서, 북극 지방에 서식하던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이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높은 산봉우리들 속에 남게 됐는데, 그것들은 빙하로 인해 파멸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된 이 식물과 동물이, 유럽에 있는 알프스 지역의 높은 곳, 그리고 심지어 북 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에서도 오늘날 발견된다.

61:7.17 (702.1) 빙하기는 소위 **홍적세**{**洪績世**}라고 불리며, 200만 년의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지질 시대를 장식했다.

61:7.18 (702.1) 35,000년 전에, 지구의 극지방들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大}빙하기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 시기가 또한 의미심장한 이유는,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된 시기와 비슷하며, 아담의 섭리시대가 시작된 때이고, **완신세**{**完新世**} 기간, 즉 빙하기 이후 시대의 시작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61:7.19 (702.1) 포유류 생명체가 발생된 때로부터 빙하가 퇴각한 시대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거의 5,000만 년에 걸친 기간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간은 -
-현재의-- 마지막 지질 시대에 해당되며, 너희
연구자들에게는 **신생대{新生代}** 또는 근세{近世}
시대라고 알려져 있다.

61:7.20 (702.1)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제62편 초기 사람의 시조 인종

62:0.1 (703.1) 약 100만 년 전에, 태반{胎盤}을 가진 포유동물인
여우원숭이 유형의 초기 혈통에서 유래된, 세 차례의
연속적이고 갑작스런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직계
조상이 나타났다. 이 초기 여우원숭이들의 우세한
유전인자는, 서부{西部} 계통, 즉 후기 아메리카 계통의
진화하는 생명 원형질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직계 혈통이 형성되기 전에, 이 종족은 아프리카에서
진화한 중부 생명체 이식{移植}의 기여로 보강됐다. 동부
생명체 집단은 인간 종족의 실제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1. 초기 여우원숭이 유형

62:1.1 (703.2) 인간 종족의 선조로 간주되는 초기 여우원숭이는, 그 당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서 살던, 예전에 존재하던 긴팔원숭이 및 꼬리 없는 원숭이 부류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현대 유형의 여우원숭이 후손과도 관계없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같은 조상에서 발생했고 오래 전에 멸종됐다.

62:1.2 (703.3) 이런 초기 여우원숭이가 서반구에서 진화된 반면, 인류의 직계 포유류 조상은, 남서부 아시아, 즉 중부 생명체 이식{移植}의 원래 지역이지만 동부 지역의 경계선에서 발생했다. 수백만 년 전에, 북 아메리카 유형의 여우원숭이가 베링 반도{半島}를 지나서 서쪽으로 이주했으며,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남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이주하던 이 부류는, 당시에 확장돼 있었던 지중해와 인도 반도의 융기되는 산악 지대 사이에 있는, 건강에 적합한 지역에 마침내 도착하게 됐다. 인도 서쪽에 있는 이 육지에서, 서로 좋아하는 다른 종족들과 결합했고, 그리하여 인간 종족의 조상을 형성하게 됐다.

62:1.3 (703.4) 시간이 지나면서 산악 지대 남서쪽에 있는 인도 해안선이 점차 침수됐고, 이 지역의 생명체는 완전히 고립됐다. 메소포타미아 반도, 즉 페르시아 반도인 이곳에는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고, 빙하지대가 남쪽으로 확장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잘려나갔다. 당시에 거의 낙원 같은 쾌적한 지역에서, 그리고 포유류인 이 여우원숭이 유형의 우수한 후손들로부터, 중대한 두 종족이 발생했는데, 현대의 유인원 류{類}와 오늘날의 인간 종족이다.

2. 시조 포유동물

62:2.1 (703.5) 100만 년보다 약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시조{始祖} 포유동물, 즉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으로서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의 직계 후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크기가 3피트에 이르는 작은 피조물이었으며;습관적으로 뒷다리를 사용해서 걷지는 않았지만, 쉽게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들은 털이 많고 민첩했으며 원숭이처럼 소리를 냈지만, 유인원 류{類}와는 달리 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다른 손가락들과 마주볼 수 있는 원시 형태의 엄지손가락뿐 아니라, 움켜쥘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긴 발가락을 지녔다. 이때부터

선행인류{先行人類} 종족들은,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상태로 연속적으로 발전된 반면, 큰 발가락으로 잡는 능력은 점점 잃게 됐다. 후대의 원숭이류는, 잡을 수 있는 큰 발가락은 유지했지만, 인간 유형의 엄지손가락으로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62:2.2 (704.1) 이 시조 포유동물은, 세 살 또는 네 살이 됐을 때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었다. 대개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62:2.3 (704.2) 새로운 이 종족에 속하는 것들은, 그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비슷한 크기의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큰 뇌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상당히 느낄 수 있었고, 후대의 원시인의 특징에 해당하는 여러 본능을 지녔으며, 호기심이 많았고, 어떤 주어진 일이든지 성공했다 싶을 때에는 상당히 의기양양해 보였다. 식욕과 성욕이 적당히 발전됐고, 조잡한 형태로 구애{求愛}하고 짝을 골라잡는 것을 통해서 성적{性的} 선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격렬하게 싸우려 했고, 가족 연합체 안에서는 매우 부드러웠으며,

수치심과 후회의 감정에 가까운 자기_비하{卑下} 감각을 소유했다. 그들은 매우 애정이 깊었고, 배우자에게 감동적으로 충성스러웠지만, 환경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에는 새로운 짝을 선택하곤 했다.

62:2.4 (704.3) 그들은 키가 작았으며, 서식하는 숲에 위험이 닥쳐옴을 알아챌 수 있는 날카로운 정신을 갖고 있어서, 두려움이 비상하게 개발되고 지혜로운 예방 대책을 갖게 되어, 살아남는데 막대한 기여를 했는데, 한 예로 그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음으로써, 땅 위 생활의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 인류의 두려워하는 성향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대부터 시작됐다.

62:2.5 (704.4) 이 시조 포유동물은, 전에 나타났던 어떤 것들보다 부족{部族} 성향이 더 발달됐다. 그들은 군집성{群集性}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추구하던 중에, 어떤 경로든지 동요됐을 때에는 지나치게 호전적이었고, 대단히 화났을 때에는 불같은 기질을 나타냈다. 아무튼 그것들의 호전적인 본성은 좋은 용도로 사용됐는데;우수한 무리들은 열등한 이웃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선택적으로 살아남음으로써 종족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그것들은 오래지 않아서 이 지역에 있는 작은 피조 생명체를 지배하게 됐고, 육식을 하지 않는 원숭이 모양의 오래된 부류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

62:2.6 (704.5) 공격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 동물은, 지중해 반도에서 1,000년 이상 번식해 퍼져 있었고, 육체적 유형과 전반적 사고력이 계속 발전됐다. 이 새로운 부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여우원숭이 조상에서 기원된 이래, 꼭 70세대가 지나자,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 중에 필수불가결한 그 다음 단계의 조상이 갑자기 파생됐다.

3. 중간_포유동물

62:3.1 (704.6) 시조 포유동물이 발전하던 초기에, 나무 꼭대기에 사는 민첩한 이 피조물 중에서, 우세한 한 쌍으로부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암컷이고 다른 하나는 수컷이었다. 그들은 조상에 비해서 정말로 잘생긴 작은 피조물이었다. 그들의 몸에는 털이 거의 없었지만, 온화하고 일정한 기후에서 사는 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62:3.2 (705.1) 이 새끼들은 자라서 4피트 조금 넘는 키가 됐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 부모보다 컸으며, 비교적 긴 다리와 짧은 팔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완전하게 마주 볼 수 있는 엄지를 가졌고, 현재 인간의 엄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거의 현대 인간 종족만큼 걷기에 편한 발을 가졌다.

62:3.3 (705.2) 그들의 뇌{腦}는 인간에 비해 열등{劣等}하고 작았지만, 그들의 조상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했고 훨씬 컸다. 그 쌍둥이는 일찍부터 우수한 사고력을 나타냈고, 곧 전체 시조 포유동물 부족의 우두머리가 됐으며, 원시 형태의 사회 조직, 그리고 미숙하지만 실용적인 노동 분할을 가르쳤다. 이 남매는 짝을 맺었고, 곧 자신과 거의 비슷한 21명의 자식을 낳아 집단을 이뤘으며, 키는 모두 4피트를 넘었고, 조상 종족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새로 나타난 이 무리가 중간_포유동물의 핵심을 형성했다.

62:3.4 (705.3) 새로 나타나고 뛰어난 이 무리의 숫자가 크게 불어났을 때,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격렬한 투쟁이 끝났을 때에는, 시조 포유동물 가운데 전에 있었던 조상 종족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숫자는 적지만 힘이

세고 영리한, 파생된 이 종{種}이 그들의 조상을 물리치고 살아남게 됐다.

62:3.5 (705.4) 그리고 이제 거의 1만 5천 년(600세대) 동안, 이 피조물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에서 공포의 대상이 됐다. 전에 있던 거대하고 광폭한 모든 동물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이 지역에 사는 큰 짐승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고, 고양이 과{科}의 비교적 큰 종{種}들, 즉 사자와 호랑이 종류는, 지구 표면 중에서 특이하게 보호되고 구석진 이곳으로 아직 침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 중간_포유동물은 점점 용맹스럽게 됐고, 창조물 중에서 그들과 비슷한 부류 전체를 정복했다.

62:3.6 (705.5) 선조 종{種}들과 비교할 때, 중간_포유동물은 모든 면에서 진보됐다. 그들의 잠재 수명도 비교적 길었는데, 25년 정도였다. 새로운 이 종들 가운데서 초보적인 몇몇 인간적 특징이 나타났다. 그들의 조상이 보여줬던 타고난 성향들 외에, 이 중간_포유동물은 어떤 불쾌한 상황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낼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저장{貯藏}하는 본능을 뚜렷이 소유했으며;나중에 먹기 위해서 음식을 감출 수 있었고, 방어와 공격을 위한

무기로서 특정한 유형의 둥근 돌이나 부드러운 둥근 자갈을 수집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

62:3.7 (705.6) 이런 중간_포유동물은 처음으로 분명한 건축 성향을 나타냈는데, 나무 꼭대기에 지은 그들의 집과, 구멍이 많은 지하 대피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잘 나타났으며; 나무 위와 땅 밑에 동시에 집을 지음으로 안전을 도모했던 최초의 포유동물 종{種}에 해당됐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무 위를 거주지로 삼지 않았는데, 낮에는 땅에 있었고 밤에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잤다.

62:3.8 (705.7) 시간이 지나면서, 숫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해, 결국에는 심각한 양식 경쟁과 성적{性的} 경쟁이 일어나게 됐으며, 모든 것이 최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거의 모든 종{種}이 멸절될 정도가 됐다. 이런 투쟁은, 100마리도 안 되는 한 집단이 남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평화가 다시 이뤄졌고, 자기들만 살아남게 된 이 부족은, 나무 위에 새 잠자리를 마련했으며, 정상적이고 다소_평화로운 생존을 재개하게 됐다.

너희의 선행인류 조상이 무엇 때문에 때때로 단절 현상을 보이는지, 너희는 거의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온 인류의 조상인 고대의 개구리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 2인치 짧게 뛰었더라면, 진화의 전 과정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시조_포유동물 종{種} 중에서 여우원숭이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어미는, 더 발전된 새로운 포유류의 조상을 낳기 전에, 다섯 차례 이상 아주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모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영장류 쌍둥이를 낳게 될 어미가 자고 있던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을 때였다. 중간_포유동물인 이 동물 쌍은, 둘 다 깊은 충격을 받았고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일곱 마리 새끼 중에서 세 마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벼락으로 죽었다. 진화하던 이 동물은 미신에 사로잡힌 듯했다. 나무 꼭대기의 집이 부서진 이 쌍은, 중간_포유동물 종{種} 중에서 더 많이 진보된 무리의 실질적 지도자였으며;더 발달된 지능을 가진 무리들을 포함해 반 이상의 부족이 그들을 본받아 이 지역으로부터 2마일 가량 이동했고, 새로운 나무 꼭대기의 거주지들과 땅 밑의 은신처를--즉 갑작스런 위험에 대비한 임시 대피소를-- 짓기 시작했다.

62:3.10 (706.1)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련한 체험을 가진 이 쌍은, 집을 다 짓고 난 직후에, 자랑스런 쌍둥이를 낳게 됐고, 그것들은 그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동물이었는데, 선행인류의 진화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를 제공하는, *영장류*라는 최초의 새로운 종{種}이었기 때문이다.

62:3.11 (706.2) 이 영장류 쌍둥이의 탄생과 같은 시기에, 다른 쌍-- 곧 중간_포유동물 부족 중에서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컷과 암컷,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열등한 쌍-- 역시 쌍둥이를 낳았다. 암컷 한 마리와 수컷 한 마리의 이 쌍둥이는 정복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으며; 먹이를 찾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했으므로 짐승을 잡는 일에 곧 모든 흥미를 잃게 됐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 쌍둥이는 오늘날 유인원 족속의 근원이 됐다. 그것들의 후손은, 온화한 기후와 열대성 과일이 풍성한 따뜻한 남쪽 지역을 찾아 이동했고, 거기서 그들은 초기 유형의 긴팔원숭이 및 꼬리 없는 원숭이와 섞인 것을 제외하고는 종족이 거의 그대로 보존됐으며, 결국 크게 열등한 상태가 됐다.

62:3.12 (706.3) 그리하여, 사람과 원숭이는 중간_포유동물, 즉 그 부족으로부터 동시에 태어났고, 나중에 서로 분리된 두 쌍의 쌍둥이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즉 열등{劣等}한 쌍은 현대 유형의 원숭이, 개코원숭이, 침팬지, 그리고 고릴라로 변했고;우수한 쌍은 사람으로 진화하는 향상되는 계통으로 계속 발전됐다는 점-- 외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62:3.13 (706.4) 현대의 사람과 유인원은 같은 유{類}와 종{種}에서 유래됐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사람의 조상은 이 중간_포유동물 부족 가운데 선택돼서 남은 자의 우세한 종족으로부터 연유됐으며;반면에 (선재{先在}하던, 여우원숭이, 긴팔원숭이, 꼬리 없는 원숭이, 그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다른 동물들의 특정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현대 유인원은 중간_포유동물 무리 중에서 가장 열등한 한 쌍의 후손으로부터 연유됐는데, 이 쌍은 그들 부족 간에 마지막 전투가 격렬하던 동안, 2주 이상 지하에 있는 음식 보관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전쟁 상태가 모두 끝난 후에 밖으로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다.

4. 영장류

62:4.1 (706.5) 암 수 한 쌍의 우수한 쌍둥이, 즉 중간_포유동물 부족을 지도하던 두 동물이 태어나던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이 동물 새끼들은 특이한 종류에 속했는데;부모보다도 몸에 털이 적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서서 걷기를 고집했다. 그들의 조상은 뒷다리로 걷기 위해서 그때마다 배워야 했지만, 이 영장류 쌍둥이는 처음부터 똑바로 섰다. 그들의 키는 5피트를 약간 넘었고, 같은 부족의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머리가 더 크게 자랐다. 신호와 소리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지만, 새로운 이 신호들을 그 동족에게는 결코 이해시킬 수 없었다.

62:4.2 (707.1) 약 열네 살이 됐을 때, 그들은 그 부족으로부터 도망쳤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부족을 이뤘으며, 새로운 영장류 종{種}을 확립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이 동물을 *영장류*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한 표현인데, 그들은 인간 가족 자체가 태어나게 한, 직접적이고도 바로 연결된 동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62:4.3 (707.2) 그리하여 영장류는, 당시에 남쪽 바다로 뿔어 나온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서해안에서 한 지역을 점유하게

됐으며, 반면에 비교적 지능이 낮고 가깝게 관계된 부족들은 반도 끝 부분과 동부 해안선 위쪽에서 살았다.

62:4.4 (707.3) 영장류는 그들의 조상인 중간_포유동물보다 더 인간에 가까웠고, 동물과는 더 거리가 멀었다. 새로운 이 종{種}의 골격 구조는 원시 인간 종족의 것과 매우 흡사했다. 인간 유형의 손과 발이 다 발달된 상태였으며, 이 피조물은 걸을 수 있었고, 후대의 인간 후손과 마찬가지로 뛸 수도 있었다. 그들은 예전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공포심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안전 대책으로 여전히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지만, 대체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점점 더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타고난 두뇌 능력이 많이 개발됐지만, 진정한 인간이라고 부를만한 정신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62:4.5 (707.4) 감정적인 본성에서는 영장류가 조상들과 거의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의 모든 성향{性向}은 인간의 경향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것들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수한 동물이었으며, 열 살 정도가 되면 성숙한 상태가 됐고, 평균 자연수명은 40년 정도였다. 즉, 그들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기간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원시 시대에 자연수명을 다 사는 동물은 극히 드물었으며;전체적으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너무 격렬했다.

62:4.6 (707.5) 그리고 이제, 시조 포유동물이 기원된 후로 약 21,000년에 걸쳐서, 거의 900세대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영장류로부터 두드러진 모습의 두 피조물이 **갑자기** 태어났고, 최초의 진짜 인간이 됐다.

62:4.7 (707.6) 그리하여, 북 아메리카 여우원숭이 유형으로부터 발생한 시조 포유동물에서 중간_포유동물이 기원됐고, 다시 이 중간_포유동물은 우수한 영장류를 발생시켰으며, 영장류는 원시 인간 종족의 직계 조상이 됐다. 영장류 부족들은 사람의 진화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연결고리였지만, 비범한 이 부족들은 5천 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멸종됐다.

5. 최초의 인간

62:5.1 (707.7) 서기 1934년을 기점으로, 꼭 993,419년 전에 두 명의 최초 인간이 태어났다.

62:5.2 (707.8) 두드러지게 뛰어난 이 두 피조물은 진짜 인간이었다. 그들은 여러 조상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 엄지손가락을 지녔고, 그들의 다리는 오늘날의 인간 종족과 똑같이 완전했다. 그들은 기어 다니지 않고 걷거나 뛰어다녔으며; 긴 발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없어졌다. 위험이 닥쳐서 나무 꼭대기로 피할 때에는, 오늘날 인간이 기어오르는 것과 똑같았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갈 때,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올라가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하지 않고, 곰처럼 나무 등치를 잡고 올라갔다.

62:5.3 (708.1) 최초의 이 인간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열두 살이 됐을 때 완전한 성인{成人}이 됐고, 잠재 수명은 약 75년이었다.

62:5.4 (708.2) 이 인간 쌍둥이에게는 일찍부터 새로운 감정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물 및 다른 존재들에 대해 감탄하는 감정을 체험했고, 상당한 허무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감정의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정말로 인간과 똑같은 일련의 새로운 느낌, 즉 경외심, 존경심, 겸손함, 그리고 원시 형태의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일련의 경이로운 느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두려움은, 자연 현상에 대한 무지{無智}와 결합해서, 곧 원시 종교를 발생시키게 됐다.

62:5.5 (708.3) 이 원시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인간적 느낌뿐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더 많은 감상{感想}도 초보 형태로 출현했다. 그들은, 동정심, 부끄러움, 및 치욕감을 약간 인지할 수 있었고, 사랑, 미움, 및 복수심을 정확하게 의식했으며, 뚜렷이 질투하는 느낌에 쉽게 빠지기도 했다.

62:5.6 (708.4) 최초의 이 두 인간은--곧 쌍둥이는-- 그들의 영장류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그들은 여덟 살도 되기 전에 여러 차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실 그대로, 그들이 열두 살 됐을 때에는 아주 상처투성이였다.

62:5.7 (708.5) 그들은 매우 일찍부터 말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열 살이 되자, 개량된 신호와 50여 가지 관념을 표현하는 단어를 고안해냈고, 선조들의 미숙한 의사소통 기법을 크게 개선하고 확장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지만, 부모에게 새로운 신호와 기호들 가운데 겨우 몇 개만 가르칠 수 있었다.

62:5.8 (708.6) 아홉 살 정도 됐을 때, 어느 청명한 날, 그들은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여행했고, 중대한 논의를 했다. 바로 나도 포함해서, 유란시아에 배치된 천상의 모든 지성체는, 한낮에 이 밀회장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봤다. 중대한 이 날에, 그들은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으며, 이것은 일련의 합의 중에서 첫 합의였지만, 마침내 열등한 동물 친척으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여행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도록 했고, 그들은 이로써 인간 종족의 시초를 이루게 됐음을 알지 못했다.

62:5.9 (708.7) 우리는 모두, 조그마한 이 두 미개인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뒀지만, 그들의 정신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며;그들의 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줄 수 없었다. 그러나 행성 기능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생명 운반자인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과 함께, 쌍둥이 인간을 북쪽으로, 그리고 털이 많고 부분적으로 나무 위에서 사는 무리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유도하기로 공모{共謀}했다. 그리하여, 쌍둥이는 그들 자신의 지성적 선택으로 이/주하게 됐고, 우리의 지도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해 외딴 지역에

도착했으며, 영장류 부족들에 속하는 열등한 여러 친족과 섞임으로써 생물학적으로 퇴화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62:5.10 (708.8) 그들이 고향 삼림으로부터 떠나기 직전에, 긴팔원숭이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그 어머니는 그들과 같은 사고력은 갖지 못했지만, 자손을 위해서 포유류가 갖는 높은 차원의 훌륭한 애정을 소유했고, 굉장한 그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대담하게 바쳤다. 또한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지원군과 함께 도착해서 침입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적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62:5.11 (709.1) 이 젊은 쌍이 인간 종족 설립을 위해 친척으로부터 떠난 직후에, 그들의 영장류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비탄에 잠겼다. 그는 다른 자녀들이 음식을 가져와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영리한 자식을 잃게 되자, 평범한 동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듯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숲 속에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적대적인 긴팔원숭이들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 죽었다.

6. 인간 정신의 진화

62:6.1 (709.2)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인 우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생명 원형질을 지구에 있는 물속에 심었던 날부터 주의 깊게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과정을 지내왔으며, 처음으로 정말로 지성적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자연적으로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과 최상의 만족감을 누리게 됐다.

62:6.2 (709.3) 우리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유란시아에 배정된 일곱 보조 정신_영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쌍둥이의 정신적인 발달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다. 행성 생명체의 긴 진화 발전 과정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이 정신 사역자들은, 점차 우수해지는 동물 피조물의 연달아 확장하는 두뇌 수용력과 접촉하는 역량이 늘어나는 것을 항상 등록해 왔었다.

62:6.3 (709.4) 원시 동물 생명체의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습성에서, 처음에는 직관의 영만 작용할 수 있었다. 더 높은 유형들이 분화{分化}됨에 따라, 이해의 영이 그런 피조물에게 여러 관념을 자동으로 관련시키는 재능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우리는, 용기의 영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진화하는 동물들은 보호하고 싶어 하는 미숙한 형태의 자아_의식{意識}을 실제로 개발하게 됐다. 포유류 집단들이 출현한 후에, 우리는 *지식의 영*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고등 포유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조언의 영*이 작용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집단을 이루는 본능이 자라나고, 원시 사회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62:6.4 (709.5) 시조 포유동물, 중간_포유동물, 및 영장류로 발전되면서, 처음 다섯 보조체의 봉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나 가장 높은 정신 사역자인 나머지 두 가지는, 유란시아 유형의 진화하는 정신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적이 결코 없었다.

62:6.5 (709.6) 쌍둥이가 열 살 정도 된--어느 날, *경배의 영*이 쌍둥이 중에서 처음에는 여자의 정신과, 그리고 잠시 후에는 남자 쪽의 정신과 접촉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라. 우리는 인간 정신과 아주 유사하게 된 어떤 정신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알았고;약 1년 후에, 그들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됐을 때, 집에서 떠나 북쪽으로 가겠다는 심사숙고한 생각과 목적이 분명한

결정을 내린 결과로, 그때부터 *지혜의 영*이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이 두 인간 정신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다.

62:6.6 (709.7) 일곱 보조 정신_영이 즉시 새로운 체제로 활성화됐다. 우리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으며;오래 기다리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됐으며;유란시아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진화시키려고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던 것이 바야흐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7. 인간거주 세계로 인정받음

62:7.1 (709.8)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도망친 다음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행성 접수_초점에 우주 회로 신호를 처음으로 시험하는 섬광이 발생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흥분했지만;이 세계가 생명을_실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행성에 있는 지성 생명체에 대한 승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통고될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결된 상태에 오래 있지 않아도 됐다. 그 쌍둥이가 가출한지 3일째 되던 날, 그리고 생명 운반자 단체가

떠나기 전에, 초기 행성 회로를 설립하는 네바돈의 천사장이 도착했다.

62:7.2 (710.1) 유란시아에 중대한 날이었던 그날, 작은 집단인 우리는 우주 통신이 이뤄지는 행성 극점{極點} 근처에 모였으며, 지구에 새롭게 설립된 정신 회로에 대해서, 살빙톤으로부터 첫 번째 소식이 접수됐다. 그리고 천사장 단체의 우두머리가 구술한 이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62:7.3 (710.2) “유란시아에 있는 생명 운반자들에게--잘 있었느냐! 의지를 지닌 존엄한 정신이 유란시아에 실존하게 됐다는 신호가 네바돈 본부에 등록됨을 축하하면서, 살빙톤과 에덴시아 그리고 예루셈에 큰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확실히 전한다. 그 쌍둥이가 열등한 선조로부터 북쪽으로 도망쳐서 자기 자손을 격리시키려는, 목적의식 있는 결정이 감지됐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정신이--곧 인간 유형의 정신이-- 내린 첫 결정이었고, 이를 인정한다는 이 첫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통신 회로가 자동으로 설치됐다.”

62:7.4 (710.3) 이어서 이 새로운 회로를 통해서, 에덴시아에 있는 지고자로부터 축하 인사가 도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설치했던 생명체 원형에 우리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인간 진보에 속하는 직무에 끼어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생명 운반자들이 행성 진화 계획의 자연적인 외부작업에 멋대로 기계적으로 항상 끼어든다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환경을 조종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 원형질을 보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있었으며, 그것은 보통과는 다른 관리체제이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자연스런 것이었고 언젠가는 중단되게 돼 있었다.

62:7.5 (710.4) 그리고 지고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당시 사타니아 체계의 주권자인 루시퍼로부터 아름다운 메시지가 행성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제 생명 운반자들은 자신의 우두머리로부터 환영의 인사를 들었고, 예루셈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루시퍼가 보낸 이 메시지에는, 유란시아에서 생명 운반자들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타니아 체계에서 확립된 대로 네바돈의 생명체 원형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기울인 어떤 수고에 대해서든지, 장래에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면제시켰다.

62:7.6 (710.5) 살빙톤, 에덴시아, 및 예루셈에서 온 이 메시지들은, 생명 운반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행성을 감독하던 일이 종결됐음을 정식으로 표시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근무했고, 오직 일곱 보조 정신_영과 총괄 물리 통제관들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의지, 즉 경배 드리기와 상승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행성에 있는 진화 피조물에게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업무가 완료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우리 무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유란시아는 생명체_변경 세계이기 때문에, 생명 운반자들 중에서 상급자 둘이 열두 보조원과 함께 남아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며, 나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고,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에 남아 있다.

62:7.7 (710.6) 유란시아가 네바돈 우주에서 인간 거주 행성으로서 정식으로 인식된 것은, 서기 1934년으로부터

정확하게 993,408년 전이었다. 생물학적 진화는, 존엄한 의지를 가진 인간 수준을 다시 한 번 성취했으며;사타니아에 있는 606_번 행성에 사람이 존재하게 됐다.

62:7.8 (710.7)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제63편 첫 인간 가족

63:0.1 (711.1) 최초의 두 인간이--즉 쌍둥이가-- 열한 살 됐을 때, 그리고 실제 인간의 둘째 세대, 즉 처음으로_태어나는 자녀의 부모가 되기 전에, 유란시아는 인간거주 세계로 등록됐다. 그리고 이 행성이 정식으로 인정되면서, 살빙톤에서 천사장이 보낸 메시지는 이런 말로 마무리됐다:

63:0.2 (711.2) "사람의_정신이 사타니아의 606_번 행성에 나타났고, 새로운 인종의 부모인 이 사람들을 *안돈과 환E*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천사장은, 개인적으로 내주하도록 선물로 주어지는 만유의 아버지의 영{靈}이, 이 피조물에게 속히 부여되기를 기원한다."

63:0.3 (711.3) 안돈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아버지같은 첫 피조물”을 의미하는 네바돈의 명칭이다. 흰타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아들같은 피조물”을 의미한다. 안돈과 흰타는 이런 이름을, 사고 조율사와 융합될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서로 부른 이름은 손타_안과 손타_엔이었는데, 손타_안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고, 손타_엔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런 이름을 붙였고, 그 의미는 그들의 상호 존중심과 애정을 뜻했다.

1. 안돈과 흰타

63:1.1 (711.4) 여러 면에서, 안돈과 흰타는 그때까지 지구에 살았던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부부였다. 온 인류의 실제 조상인 이 훌륭한 부부는, 많은 직계 후손보다 모든 점에서 뛰어났고, 그들의 가깝거나 먼 모든 옛 조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63:1.2 (711.5) 최초의 이 인간 부부의 부모는, 겉으로 보기에 그들 부족의 평균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비교적 더 총명한 부족원이었는데, 그들은 싸울 때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운 집단이었다. 또한 그들은 날카로운 돌 조각, 부싯돌, 밧 뼈를 이용했다.

63:1.3 (711.6)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안돈은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몽둥이 끝에 붙들어 매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위해서 동물 힘줄을 이용했고, 자기 생명은 물론 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열두 번 이상 그런 무기를 잘 사용했는데, 그 자매는 그와 마찬가지로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그가 탐험 여행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따라다녔다.

63:1.4 (711.7) 영장류 부족들로부터 도망치기로 한 안돈과 흰타의 결심은, 그들의 후대 자손 대부분의 특징이었던 열등한 사고력보다 질적으로 훨씬 높았음을 의미하는데, 그 후대 자손들은, 뒤떨어진 동족의 유인원 족속과 짝질 정도로 타락했다. 그러나 단순한 동물 존재들보다 자신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막연한 느낌은, 그들이 인격체를 소유했기 때문이었고,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여 현존함으로써 증대됐다.

2. 쌍둥이의 도피

63:2.1 (712.1) 안돈과 흰타는 북쪽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한 후에, 한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특히 아버지와 그 직계 가족이 화낼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적개심을 품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경우를 상상해 본 결과, 이미 자기들을 시기하고 있는 부족원들의 손에 붙잡히면 죽기 십상임을 깨닫게 됐다.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쌍둥이는 늘 동행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장류 부족이며 그들의 사촌 격인 동물들은 그들을 몹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매우 뛰어난 독립된 집을 나무로 지은 것도, 부족 내에서 그들의 처지를 호전시키지 못했다.

63:2.2 (712.2) 나무 꼭대기에 새로 지은 이 집에서, 맹렬한 태풍 때문에 그들이 잠에서 깬 어느 날 밤,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다정히 서로 끌어안았을 때, 그들은 나무 꼭대기 집과 부족 서식지로부터 도망칠 것을 마침내 온전히 결심했다.

63:2.3 (712.3) 그들은 북쪽으로 반나절 여행할 거리에, 천연 그대로의 나무 꼭대기 대피소를 이미 준비해 뒀다. 이것은 고향 숲에서 도망친 첫 날을 위한 그들의 은밀하고 안전한 은신처였다.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쌍둥이도 밤중에 땅

위에 있기를 심히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어두워지기 직전에 북쪽을 향한 고된 여행을 시작했다. 보름달이 비치기는 했으나, 이렇게 밤에 여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상한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그들은 부족원들과 친척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미리 약속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만났다.

63:2.4 (712.4) 북쪽으로 여행하던 중에, 그들은 밖으로 돌출 돼 있는 부싯돌 퇴적층을 발견했고, 여러 용도에 알맞은 모양의 돌을 많이 찾았으며, 장래를 위해서 수집해 뒀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더 적당한 모양이 되도록 이 부싯돌을 다듬다가, 안돈은 그것들에서 불꽃이 튀는 특성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불을 피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지만 그는, 기후가 아직 온화해서 불이 별로 필요치 않았던 당시에는 유념치 않았다.

63:2.5 (712.5) 그러나 가을이 돼서 해가 점점 낮게 떴고, 그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밤 공기가 점점 서늘해졌다. 이미 그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동물 가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못됐을 때, 안돈은

부싯돌로 불을 피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짝에게 내비쳤다. 그들은 부싯돌의 불꽃으로 불을 피우려고 두 달 동안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은 날마다 부싯돌을 마찰시켰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애썼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에, 버려진 새 등지를 손에 넣으려고 흰타가 근처의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을 때, 불을 붙이는 기법의 비밀이 풀리게 됐다. 등지는 건조한 상태였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었으며, 불꽃을 계속 튀겨서 그 위에 떨어뜨리자, 어느 순간에 완전히 불이 붙게 됐다. 그들은 성공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불을 거의 꺼뜨릴 뻔했지만, 적당한 땀감을 더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고, 온 인류의 조상인 그들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땀감을 찾기 시작했다.

63:2.6 (712.6) 이것은 그들의 짧지만 다사{多事}했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자신이 피워 놓은 모닥불을 밤새도록 앉아서 바라봤고, 이제는 자기들이 기후 조건에 맞서고, 따라서 남쪽 땅에 있는 친족 동물로부터 영원히 독립할 수 있는 발견을 해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3일 동안 더 머물면서 불을 바라본 후에, 다시 길을 떠났다.

63:2.7 (712.7) 안돈의 영장류 선조도, 번갯불로 붙은 불에 종종 땀감을 더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땅에 살았던 어떤 피조물도, 자기 의지로 불 피우는 방법을 터득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가, 새 등지와 마찬가지로 마른 이끼나 기타 물질들도 불이 잘 붙는다는 사실을 익히게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3. 안돈의 가족

63:3.1 (713.1) 쌍둥이가 그날 밤 집에서 떠난 지 거의 2년 됐을 무렵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손타드라고 붙였는데;손타드는 유란시아에서 태어난 피조물 중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덮개에 싸인 최초의 존재였다. 인간 종족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런 새로운 진화와 함께, 점점 더 연약하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알맞게 돌볼 수 있는 본능이 나타났으며, 이런 아기들은 순전히 동물적인 유형과는 대조적으로, 지적 계열의 정신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나타내곤 했다.

63:3.2 (713.2) 안돈과 흰타는 모두 열아홉 명의 자녀를 낳았고, 거의 50여명에 이르는 손주 및 여섯 명의 증손과 같이 살

수 있었다. 그 가족은, 네 개의 서로 붙어 있는 바위 집, 즉 동굴 비슷한 곳에 살았는데, 그 중에 셋은 서로 연결됐는데, 안돈의 자녀들이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암에 동굴 모양의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63:3.3 (713.3) 이런 초기 안돈족속은 매우 분명한 씨족 기질을 나타냈으며;무리 지어 사냥했고, 집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 방황하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격리돼 있고 독특한 집단을 이루면서 사는 존재이며, 따라서 서로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다. 친족으로서 이런 긴밀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보조 영들이 정신에게 베푸는 사역이 증진됐기 때문이었다.

63:3.4 (713.4) 안돈과 흰타는 씨족을 양육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마흔두 살까지 살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짐으로써 둘 다 죽게 됐다. 그들의 자녀 다섯 명과 손주 열한 명이 그들과 함께 죽었고, 그들의 후손 중에서 거의 20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63:3.5 (713.5) 부모를 잃게 된 손타드는, 발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즉시 씨족의 지도자역할을 했고, 제일 나이 많은 여동생인 그의 부인의 훌륭한 내조를 받았다. 그들의 첫째 과제는, 돌을 굴려서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의 시신을 잘 매장하는 일이었다. 이런 매장 행위에, 부적당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 이후의 생존 관념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모호했고, 주로 그들이 꿈 속에서 환상적으로 잡다하게 경험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63:3.6 (713.6) 안돈과 흰타의 이 가족은 20번째 세대가 이어질 때까지 함께 살았고, 그 후부터는 양식을 얻기 위한 경쟁과 사회적 마찰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시작했다.

4. 안돈의 씨족들

63:4.1 (713.7) 원시인은--곧 안돈족속은-- 검은 눈과, 노란 색과 붉은 색이 섞인 가무잡잡한 피부를 지녔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의 피부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색소{色素}다. 그것은 안돈 고유의 피부 색소였다. 이런 초기 안돈족속의 피부색과 일반적인 모습은, 살아있는 어떤 인간 유형보다도 오늘날의 에스키모인과 닮았었다. 그들은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사용한 최초의 피조물이었으며;그들의 몸에 나 있는 털은 오늘날의 인간보다 별로 많지 않았다.

63:4.2 (713.8) 이런 초기 사람의 동물 선조가 누렸던 부족 생활은 수많은 사회 관례의 전조{前兆}가 됐으며, 이 존재들의 감정이 확장되고 두뇌 능력이 발전되면서, 곧 사회 조직이 발달됐고, 새로운 종류의 씨족 공동 노동 단위가 발달됐다. 그들은 흥내를 매우 잘 냈지만, 놀이 본능은 아주 약간 발달될 정도였고, 유머 감각은 거의 전무했다. 원시인은 이따금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쾌활하게 웃는 법이 없었다. 유머는 후대의 아담 인종이 물려준 유산이었다. 이 초기 인간은 고통에 별로 민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화된 많은 필사자의 경우와는 달리, 불쾌한 환경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흰타와 그 직계 자손에게, 출산은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체험이 아니었다.

63:4.3 (714.1) 그들은 경탄할만한 부족이었다. 남성은 자기 배우자와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웠으며;여성은 자녀를 위해서 애정 넘치게 헌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희생정신은 직계 씨족에 국한됐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 매우 충실했으며;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관념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종교가 탄생되는 데 필요한 모든 감정이, 이 유란시아 원주민 속에 이미 나타났음에도, 이타심{利他心}은 인간의 마음에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63:4.4 (714.2) 초기의 이 사람들은 동지들에 대해 감동적인 애정을 가졌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진실된 우정의 관념을 분명히 소유했다. 후대에 이르러, 이 원시인들이 열등한 부족들과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쟁하게 됐을 때, 한 손으로는 용맹스럽게 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처 입은 동료 전사{戰士}들을 보호하기 위해 격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진화되어 발전되면서, 대단히 고귀하고 무척 인간다운 많은 특성이 이런 원시 민족에게 어렵풋이나마 나타난 것은 감동적이다.

63:4.5 (714.3) 안돈에게서 시작된 원래의 씨족은 27대까지 지휘 계통이 잘 유지됐는데, 손타드의 직계 후손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지 않게 되자, 씨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두 사람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됐다.

63:4.6 (714.4) 안돈으로부터 파생된 씨족들이 널리 흩어지기 전에, 일찍부터 서로 의사를 소통하려고 애쓴 결과로, 잘 발달된 하나의 언어가 만들어졌다. 이 언어는 계속 발달됐고, 이런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경했으므로, 거의 매일 새로운 말이 더해졌다. 그리고 이 언어는, 후대에 여러 색의 인종이 출현하기 전까지, 유란시아의 말, 즉 초기 인간 가족의 언어가 됐다.

63:4.7 (714.5) 시간이 흐르자, 안돈의 씨족은 점점 늘어났고, 퍼져가는 가족끼리 접촉할 때 마찰과 오해가 점점 많아졌다. 이들의 정신에는 두 가지 생각만 자리 잡게 됐는데:양식을 얻으려고 사냥하는 일과, 이웃 부족의 힘에 눌려서 실제로 어떤 불공평한 대우나 모욕을 받든지, 또는 받았다고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싸우는 일이었다.

63:4.8 (714.6) 가족의 불화{不和}가 증대됐고, 부족 전쟁이 발발했으며, 비교적 유능하고 진보된 집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구성원들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 손실됐다. 이런 손실 가운데 일부는 회복되지 못했으며;역량과 지성을 지닌 가장 귀중한 혈통들 중에서 더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 초기 인종과 그들의 원시 문명은 씨족들의 이런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소멸됐다.

63:4.9 (714.7) 그런 원시적 존재들끼리 함께 평화롭게 지내기를 열망하도록 유도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싸우는 동물의 후손이며, 미개한 민족은 가깝게 연합될 때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시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진화 피조물 가운데 있는 이런 경향을 잘 알았으며, 따라서 발전된 인간이 종국에는 적어도 독특하고도 분리된 세 인종으로, 그리고 더 흔하게는 여섯 인종으로 나뉘도록 마련한다.

5. 안돈족속의 분산

63:5.1 (715.1) 초기의 안돈 인종은 아시아 쪽으로 아주 멀리 들어가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지형 조건으로 말미암아 북쪽으로 향했고, 서서히 확장하는 세 번째 빙하에 길이 막힐 때까지 북쪽으로 점점 멀리 이동했다.

63:5.2 (715.2) 이 광대한 얼음 덩어리가 불란서와 영국 섬들에 이르기 전까지, 안돈과 흰타의 자손은 유럽 서쪽으로 이동했고, 당시에 따뜻한 물로 이뤄졌던 북해로 나가는

거대한 강기슭을 따라, 천여 개 이상의 독립된 마을을 이뤘다.

63:5.3 (715.3) 이 안돈 부족들이 바로 불란서의 초기 강변 거주자이며;솜 강변을 따라 수만 년 동안 살았다. 솜 강은 빙하의 영향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강이었고, 당시에와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사실은, 안돈의 후손에 대한 많은 증거물이, 왜 이 강 유역 줄기를 따라 발견되는지 설명해 준다.

63:5.4 (715.4) 유란시아의 이 원주민은, 위험이 닥치는 경우에 여전히 나무 꼭대기로 피신했지만, 나무 위에서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조성된 지붕처럼 생긴 절벽 아래 은신처에서, 그리고 접근하는 길을 잘 볼 수 있고 폭풍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구릉지대 동굴에서 주로 거주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기 때문에 심한 불편을 겪지 않고도 불의 안락함을 즐길 수 있었다. 그 뒤에 후대의 얼음 덩어리들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자손이 동굴 속으로 이주했지만, 그들은 순전한

동굴 거주자 또한 아니었다. 그들은 숲 가장자리와 시냇가에서 야영하기를 선호했다.

63:5.5 (715.5) 그들은 부분적으로 보호된 거주지를 꾸미기에 매우 일찍부터 놀랄 만한 솜씨를 보였고, 돌로 된 침실, 즉 돌로 된 둥근 모양의 오두막을 기술적으로 지었으며, 밤이 되면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돌을 굴려서, 오두막 입구를 막았는데, 지붕을 돌로 완전히 덮기 전에 이 큰 돌을 안쪽에 들여놓음으로써,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63:5.6 (715.6) 안돈족속은 두려움 없는 노련한 사냥꾼이었고, 야생 딸기류와 특정한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주로 고기를 먹었다. 안돈이 돌도끼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던지는 창과 작살을 일찍부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손이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공구를 발명하는 정신이 작용했고, 이 초기 인간들은 부식돌로 된 도구를 만드는데 매우 능숙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금, 백금, 다이아몬드 등을 찾으려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여행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식돌을 찾기 위해서 더 멀리, 더 광범한 지역으로 여행했다.

63:5.7 (715.7) 그리고 이 안돈 부족들은, 퇴보하는 후손들이 50만 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정도의 지성을 여러 방면에서 발휘했지만, 그 후손들은 불을 붙이는 다양한 방법을 되풀이함으로써 다시 발견했다.

6. 오나가--처음으로 진리를 가르친 선생

63:6.1 (715.8) 안돈의 후예가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씨족들의 문화적 및 영적 상태는 오나가가 출현하는 시기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퇴보했으며, 그는 이 부족들의 지도자가 됐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했으며,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에게 그들 모두가 처음으로 경배 드리도록 이끌었다.

63:6.2 (716.1) 안돈의 철학은 매우 혼동돼 있었는데;그는 불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으므로, 불 숭배자가 될 뻔한 것을 겨우 면했다. 어쨌든, 그의 이성은, 자신이 직접 발견했던 것으로부터, 열과 빛의 근원이 되는 비교적 더 장엄하고 뛰어난 태양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했지만, 태양이 너무 멀리 있어서 태양 숭배자가 되지는 못했다.

63:6.3 (716.2) 안돈족속은 --천둥, 번개, 비, 눈, 우박, 얼음 등의-- 자연 현상에 대한 경외심을 일찍부터 키웠다. 그러나 이런 초기 시대에는 굶주림이 계속 반복적인 자극으로 작용했고, 그들은 주로 동물을 먹었으므로, 결국 동물숭배 형태로 진화했다. 안돈에게, 더 큰 식용 동물은 창조적 힘과 몸을 보호하는 능력의 상징이었다. 때로는, 이런 몸집 큰 여러 종류의 동물을 숭배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관습이 되기도 했다. 특정한 동물이 숭배 대상으로 성행하는 동안, 그 동물의 투박한 윤곽선이 동굴 벽에 그려졌고, 후대에는 기술이 점차 발전돼서, 그런 동물 신{神}이 여러 장신구{裝身具}에 새겨졌다.

63:6.4 (716.3) 안돈 민족은 매우 일찍부터, 부족이 공경하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관습을 형성했다. 마침내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더 적절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공경하고 있는 이 동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 숭배하는 예식{禮式}을 발달시켰으며;아주 후대에는, 이런 원시적 실행이 자기 후손을 제물로 바치는, 더 공들인 예식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숭배의 한 부분으로 제물을 바치게 됐다. 그리고 이 관념을 모세가 히브리 제례식에 정교하게 도입됐고, 이론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 받는다는 교리로 유지시켰다.

63:6.5 (716.4) 이 원시 인간의 생활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던 오나가가 단순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이러했다:

63:6.6 (716.5) "오 생명의 입김이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얼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숲 속에 있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위대한 저 세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63:6.7 (716.6) 오나가는 현재 카스피해가 위치한 지역의 고대 지중해 북쪽 해안에 있는, 오반이라고 불리는 정착지에 본부를 설치했고, 메소포타미아 남쪽 땅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여행로가, 서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곳에 있는 체류지였다. 그는 오반에서 멀리 떨어진 정착지들로 선생들을 보내서, 자신이 새로 세운 유일{唯一} 신격의 교리와 내세{來世} 개념을 전파하려 했고, 내세를 위대한 저 세상이라고 불렀다. 오나가가 보낸 이 사자{使者}들은 이 세상에서 최초의 선교사였으며;고기를 익혀 먹은,

정기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고기를 막대기 끝에 꿰서 익히거나 달궈진 돌 위에 익혔으며;나중에는 불 속에 큰 덩어리로 굽기도 했지만, 그들의 후손은 날고기를 먹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되돌아갔다.

63:6.8 (716.7) 오나가는 (서기 1934년으로부터) 983,323년 전에 태어났고, 69세까지 살았다. 행성 왕자 이전 시대에 최고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였던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이 원시 민족이 실제 사회를 형성한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는 효과적인 부족 정부를 설립했는데,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이런 모습은 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그런 고도의 영적 문명은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이룩되지 못했다. 단순한 이 사람들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종교를 가졌으나, 그들의 퇴화된 후손은 그것을 계승하지 못했다.

63:6.9 (717.1) 안돈과 흰타는 그들의 여러 후손과 마찬가지로 사교 조율사를 받았지만, 오나가의 시대가 돼서야 많은 숫자의 조율사와 수호 스라빔이 유란시아에 내려오게 됐다. 이 시대는 원시인에게 정말로 황금기였다.

7. 안돈과 흰타의 생존

63:7.1 (717.2) 인간 종족의 화려한 설립자였던 안돈과 흰타는, 유란시아에 행성 왕자가 도착하면서 판결이 내려질 때 인정받았고, 때가 이르자 예루셈의 시민 자격을 받으면서 맨션 세계들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들은 비록 유란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들이 설립한 인종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배반에 대해 슬퍼했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비통해 했지만,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증여할 무대로 자기들의 세계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뿔듯이 기뻐했다.

63:7.2 (717.3) 안돈과 흰타는 예루셈에서 자신의 사고 조율사와 융합됐고, 손타드를 포함한 그들의 자손 여러 명도 그렇게 됐으나, 심지어 그들의 직계 후손 중에서도 대다수가 오직 영 융합을 성취했을 뿐이다.

63:7.3 (717.4) 안돈과 흰타는, 예루셈에 도착한 직후에, 유란시아로부터 하늘의 구체{球體}들로 들어오는, 시간세계의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론시아 인격체들과 함께 봉사하기 위해, 첫 맨션 세계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체계 주권자에게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봉사에 무기한 배정돼 있다. 그들은 본 계시와 관련해서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 요청은 지혜롭게 거절됐다.

63:7.4 (717.5) 그리고 이것이, 유란시아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웅대하고 황홀한 장{章}, 즉 온 인류의 독특한 부모가 진화하고, 살아가느라 애쓰고, 죽고, 영원히 생존하게 됐다는 줄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63:7.5 (717.6)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제64편 진화된 유색인종

64:0.1 (718.1)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만 년 전, 안돈과 흰타의 시절부터, 행성 왕자의 시대를 거쳐서,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살았던, 유란시아의 진화 인종들에 대한 이야기다.

64:0.2 (718.2) 인간 종족의 역사는 거의 100만 년에 이르며,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이전 시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인류 역사의 후반부는, 행성 왕자의 도착과 여섯 유색인종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고,

일반적으로 구석기시대로 간주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1. 안돈 원주민

^{64:1.1 (718.3)} 원시인이 진화해서 지구상에 출현한지 100만 년이 조금 못됐고, 격렬한 체험을 했다. 원시인은 열등한 유인원 족속들과 섞이는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본능적으로 애썼다. 그러나 원시인은, 바다 위로 30,000피트 이상 융기돼 있는 건조한 티벳 고원 지역 때문에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으며;지중해가 확대돼 있었으므로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당시에 지중해는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확장돼 있었으며;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전진하는 얼음 덩어리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얼음 때문에 더 북쪽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그리고 흠어지는 종족들이 점점 더 호전성을 띄게 됐음에도, 좀 더 지능이 발달된 무리는, 털이 많고 나무 위에 사는 열등한 지능의 친족들과 함께 살려고,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64:1.2 (718.4)} 사람이 초기에 품은 종교적 감정 가운데 다수는 이런 지형적 상황의 폐쇄된 환경--곧 오른 쪽으로는 산이,

왼쪽으로는 물이, 그리고 앞으로는 얼음이 가로막은 환경-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진취적인 이
안돈족속은, 남쪽에서 나무 꼭대기에 살고 있는 열등한
친족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64:1.3 (718.5) 이 안돈족속은, 인간이_아닌 동족의 습관과는
대조적으로, 숲을 피했다. 숲 속에 거주하는 자는 항상
퇴보했으며;인간의 진화는 오로지 개방된 고지대에서만
이뤄졌다. 개활지에서 부딪치는 추위와 배고픔이, 행동,
발명, 및 임기응변을 자극한다. 이 안돈 후손 부족들이,
바위투성이의 북쪽 지대에서 고난과 궁핍을 겪으면서
현재 인간 종족의 선구자로 발전해갔던 반면, 그들의
퇴보하는 친족은, 초기에 공통으로 기원됐던 남부 열대림
속에 있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었다.

64:1.4 (718.6) 이런 사건들은, 지질학자들이 제1빙하기로 알고
있는 제3빙하기에 일어났다.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빙하
지대는 북 유럽까지 확장되지 못했었다.

64:1.5 (718.7) 대부분의 빙하기 동안, 영국은 불란서와 육지로
연결됐고, 한편 아프리카는 나중에 시칠리의 연결육지로
유럽에 붙어 있었다. 안돈 후손이 이주하던 시기에,

서쪽으로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동쪽으로는 자바에 이르는 곳까지 육지가 계속 연결돼 있었지만;오스트랄리아는 다시 격리됐고, 그것만의 독특한 동물군{郡}이 더 두드러지게 발달됐다.

64:1.6 (719.1) 950,000년 전에, 안돈과 흰타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이주했다. 서쪽으로 향한 그들은 유럽을 지나 불란서와 영국까지 이르렀다. 더 나중에 그들은 동쪽으로 진출해서, 자바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뼈가 아주 최근에 발견된 바 있는 자바 지역까지 이르렀고, 그 후에 타스매니아에 도착했다.

64:1.7 (719.2)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들보다 서쪽으로 이동한 무리들이, 같은 선조로부터 기원된 퇴보된 혈통에 덜 오염됐는데,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는 뒤떨어진 동족 동물과 아주 자유롭게 섞였다. 이 진취성 없는 개인들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열등한 부족들과 짝 짓게 됐다.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출생된 불어나는 잡종이 다시 북쪽으로 가서, 빠른 속도로 퍼져가는 안돈족속과 짝졌고, 그런 유감스런 결합으로 말미암아, 우세한 혈통이 끊임없이 나빠졌다. 원시 정착민 중에서 호흡을 주신 분을

경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초기 시조 문명은 소멸될 위기에 직면했다.

64:1.8 (719.3) 그리고 그런 일은 유란시아에 늘 있어 왔다. 열등한 자들과 결합해서 자손을 낳도록 허락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장래가 매우 촉망되던 문명이 연속해서 퇴화됐고,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

2. 획스홀 민족

64:2.1 (719.4) 900,000년 전에, 안돈과 흰타의 기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으며;문화, 종교, 및 부싯돌 활용조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64:2.2 (719.5) 바로 이때, 큰 무리의 열등한 잡종 집단이 불란서 남쪽으로부터 영국에 도착했다. 이 부족들은, 숲에서 사는 꼬리 없는 원숭이 모양의 피조물과 너무 많이 섞여서,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무 종교도 갖지 못했지만, 미숙하나마 부싯돌을 쓸 줄 알았고, 불을 붙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고력을 가졌다.

64:2.3 (719.6) 그들에 이어,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더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한 민족이 뒤따랐고, 그들의 자손이

북쪽으로는 빙하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알프스와 지중해 지역까지, 온 대륙에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부족들이 소위 *하이델베르그인*이다.

64:2.4 (719.7) 문화가 퇴보하는 이 긴 기간에, 영국의 획스홀 민족들이, 그리고 인도 남부에서는 바도난 부족들이, 안돈의 전통 가운데 일부와 오나가의 문화 중에서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여전히 전수하고 있었다.

64:2.5 (719.8) 획스홀 민족은 가장 서쪽에 살았고, 안돈의 문화 가운데 많은 부분을 보존하고 있었으며;또한 부싯돌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을 보존했는데, 이것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의 고대{古代} 선조에게 전수했다.

64:2.6 (719.9) 획스홀 민족의 유물이 영국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안돈족속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 인간이었다. 당시에는 연결육지가 여전히 불란서와 영국을 이어주고 있었으며;안돈 후손이 살던 초기 정착지들 대부분이, 고대의 강변과 해안선을 따라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해협과 북해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중에 서너 개 정도는 영국 해안선 부근 물위에 남아있다.

64:2.7 (720.1) **웁스홀** 민족 중에서 더 지성적이고 영적인 사람 가운데 다수는 자신의 인종적 탁월성을 유지했고, 원시적인 종교 관습을 계속 유지했다. 그리고 이 민족은 후대의 혈통들과 섞이면서, 후기 빙하 침투가 있는 뒤에, 영국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했고, 오늘날의 에스키모인으로 살아남았다.

3. 바도난 부족

64:3.1 (720.2) 서쪽에 있는 **웁스홀** 민족을 제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다른 문화 중심지가 동쪽에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먼 후손인 바도난 부족 중에서, 인도의 북서쪽 고원{高原} 구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민족은 안돈의 후손 가운데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64:3.2 (720.3)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족속은, 숲으로 둘러싸이고 하천들이 가로지르는 광대한 고원을 차지했으며, 사냥감이 풍부했다. 그들은 티벳 지역에 있는 동족 가운데 일부와 비슷하게, 천연적인 암석 오두막, 산 중턱에 있는 동굴, 그리고 반지하{半地下}의 통로 속에서 살았다.

64:3.3 (720.4) 북쪽에 있는 부족들이 빙하를 점점 더 두려워했던 반면, 그들이 기원했던 고향 땅 근처에 사는 부족들은 물을 대단히 무서워하게 됐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점차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목격했고, 그 반도가 몇 차례 융기했음에도, 바다의 위험성과 주기적인 침수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해서, 이 원시 인종들의 구전{口傳}이 조성됐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강물의 범람을 체험한 것과 함께, 안전한 주거용 장소를 찾기 위해 고지대{高地帶}로 올라가게 된 원인이 됐다.

64:3.4 (720.5) 바도난 민족들이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인도 북부의 시워릭 언덕에서, 지구상의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사람과 다양한 선행인류 집단 사이의 과도기 유형에 더 가까운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64:3.5 (720.6) 850,000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은, 자신보다 열등하고 동물에 가까운 이웃을 멸종시키려는 전쟁을 시작했다. 1,0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지역의 접경지대에 있던 대부분의 동물 집단은 멸종되거나 남쪽 숲 속으로 도망쳤다. 열등한 자들을 멸종시키는 이 전쟁은, 그 시대에 높은 곳에 살던 종족들에게 약간의 향상을 가져다줬다.

그리고 향상된 이 바도난족속 혈통의 혼합된 후손들이,
겉으로 보기에 새로운 민족으로서--곧 *네안데르탈*
인종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4. 네안데르탈 인종

64:4.1 (720.7)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우수한 전사{戰士}였고, 먼
지역까지 여행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의 고원{高原}
중심지로부터 퍼져나가서, 서쪽으로는 불란서,
동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심지어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됐다. 그들은 진화된 유색 인종들이 이주하는
시기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64:4.2 (720.8) 800,000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고;여러
종{種}의 사슴과 코끼리와 하마가 유럽에 넘쳐났다. 소가
많았고;말과 이리는 없는 곳이 없었다. 네안데르탈인은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불란서에 있는 부족들은,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가장 우수한
사냥꾼에게 부여하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64:4.3 (721.1) 이 네안데르탈인에게 순록은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는데, 음식과 옷 그리고 도구들을 제공하고 뿔과
뼈를 여러 용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문화가

거의 없었지만, 부싯돌을 다루는 솜씨는 안돈 시대 수준에 거의 필적할 만큼 크게 향상됐다. 나무 손잡이에 매단 큰 부싯돌이 다시 사용됐고, 도끼와 곡괭이 역할을 했다.

64:4.4 (721.2) 750,000년 전에, 네 번째 얼음 층이 남쪽으로 상당히 내려왔다. 네안데르탈인은, 북쪽의 강을 덮은 얼음에 개선된 도구로 구멍을 내고, 이 공기구멍으로 올라오는 물고기를 창으로 잡을 수 있었다. 이 부족들은 확장되는 빙하를 피해서 계속 후퇴했는데, 이 무렵에 빙하는 유럽에 가장 광대하게 침투해 있었다.

64:4.5 (721.3) 이 시대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까지 내려왔고, 초기의 사람을 남쪽으로 몰아냈으며, 원래 발생했던 지역 쪽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인간 종족들은 매우 구별된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진보하지 않는 유인원 동족과 더 혼합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64:4.6 (721.4) 700,000년 전에, 유럽 지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던 제4기 빙하가 퇴각했으며;사람과 동물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기후는 추웠고 습도가 높았으며, 원시인은 유럽과 서부 아시아에서 다시 번성했다. 가장 최근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북쪽 대륙이, 점차 숲으로 뒤덮이게 됐다.

64:4.7 (721.5) 포유류 생명체는 대빙하기에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 동물들은, 빙하 지대와 알프스 사이에 있는 띠 모양의 좁은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빙하가 물러가면서 유럽 전역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똑바른 엄니를 가진 코끼리,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자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칠리아 연결_육지를 통해서 도착했고, 이 새로운 동물들이, 송곳니가 있는 호랑이와 하마를 사실상 전멸시켰다.

64:4.8 (721.6) 650,000년 전에,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현상이 있었다.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에 기온이 매우 따뜻해져서, 알프스 지역의 얼음과 눈이 거의 사라졌다.

64:4.9 (721.7) 600,000년 전에, 빙하는 북쪽으로 가장 멀리까지 퇴각{退却}했고, 수천 년 동안 활동이 멈췄다가, 다섯 번째 확장이 다시 남쪽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는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유럽에 있는 사람과 동물에게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에 있었던 약간

건조했던 상태가 줄어들었고, 고산지대의 빙하들은 강물이 있는 계곡을 따라서 멀리까지 내려왔다.

64:4.10 (721.8) 550,000년 전에, 확장되는 빙하가 사람과 동물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람에게는 넓은 지역에 풍부한 여유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북동쪽으로 아시아까지 뻗어 나간 띠 모양의 넓은 땅에, 그리고 당시의 지중해 지역에 크게 확장돼 있었던 흑해 지역과 빙하 지대 사이에 있었다.

64:4.11 (721.9)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빙하기 시대에, 네안데르탈 인종의 미개한 문화는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지능이 높은 새롭고 수정된 생명체 유형을 생성하려는 시도가, 유란시아에서 정말로 실패하는 듯했다. 거의 25만 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싸웠으며, 때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들의 우수한 안돈 조상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퇴보했다.

64:4.12 (721.10)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절 동안, 미신에 사로잡힌 인류의 문화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정말로 조잡스런 미신 이상{以上}의

종교를 갖지 못했다. 그들은 구름, 특히 이슬비와 안개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했다. 자연 현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긴 원시 종교가 점점 발전됐고, 한편 동물을 숭배하던 현상은 도구가 발달되면서 점차 퇴보했고, 사냥감이 풍부했으므로, 이 민족은 양식에 대한 염려 없이 살았으며;사냥에 대한 성적{性的} 보상으로 인해 수렵 솜씨가 크게 발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두려움 때문에 새로 발생한 이 종교는, 이런 자연 요소들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달래보려고 시도하도록 이끌었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지{未知}의 물리적 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 끔찍한 풍습을, 유란시아에서 뒤쳐진 민족들이 20세기까지 지속시켰다.

64:4.13 (722.1) 이 초기 네안데르탈인을 태양 숭배자라고 부르는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며;밤이 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달이 어슴푸레 비치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지낼 수 있었지만, 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더욱 공포에 사로잡혔고, 달이 다시 비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와 여자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이

규칙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지만;달의 경우에는, 오직 자기 부족의 동료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고 추측했다. 그 인종이 진보되면서, 제물을 바치는 대상과 목적은 점차 바뀌게 됐지만, 종교 예식절차의 한 순서로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은 오래 지속됐다.

5. 유색 인종의 기원

64:5.1 (722.2) 500,000년 전에,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 사는 바도난 부족들은, 또 한 번 극심한 인종적 투쟁에 휘말렸다. 격렬한 이 전쟁은 100년 이상 맹위를 떨쳤고, 긴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오직 100여 가구만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고 있던 안돈과 흰타의 자손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바람직했다.

64:5.2 (722.3) 그리고 이때, 고지대에 사는 이 바도난족속 가운데서 새롭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다.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는 고지대의 북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남자와 여자로부터, 유별나게 지성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게 됐다. 이들이 상의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여섯 유색 인종의 조상이었다.

64:5.3 (722.4) 이 상익 자손은 모두 열아홉 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더 지성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됨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열아홉 명의 이 아이들 가운데는, 홍색 다섯 명, 주황색 두 명, 황색 네 명, 녹색 두 명, 청색 네 명, 그리고 남색이 두 명 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 색깔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그 동료 부족민과 결혼하게 되자, 그들의 자손은 모두 상익 부모의 피부색을 닮는 경향을 보였다.

64:5.4 (722.5) 그리고 나는, 이 무렵에 행성 왕자가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이제 연대순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유란시아에 나타난 여섯 상익 인종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려고 한다.

6. 유란시아의 여섯 상익 인종

64:6.1 (722.6) 진화하는 보통 행성에서는, 진화하는 여섯 유색 인종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데;홍색 사람이 처음 나타나서 진화되고, 그 다음 색깔의 인종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인종이 여러 세대 동안 세상에 두루

퍼진다. 유란시아에서처럼 여섯 인종이 동시에, *그것도 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은 가장 유별났다.

64:6.2 (723.1) 그 전에 유란시아에 나타났던 안돈족속도, 사타니아 체계에서 어느 정도 새로웠다. 진화하는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의지를 가진 그런 피조물 인종이 진화되는 세계는 그 지방체계에 하나도 없었다.

64:6.3 (723.2) 1. *홍색인*. 이 민족은 인간 종족 가운데 비상한 종류였고, 여러 면에서 안돈과 흰타를 능가했다. 그들은 가장 지성적인 집단이었고, 상의 자녀들 중에서 부족 문명 및 정부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그들은 항상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지켰으며; 그들의 혼합된 후손들도, 여러 배우자를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64:6.4 (723.3) 후대에 이르러, 그들은 아시아에서 황인종 형제들과 매우 심각하게 장기간 분쟁했다. 그들은 일찍부터 활과 화살을 발명해 도움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선조의 습성 대부분을 이어받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세력이 약화됐으며, 황색 부족들 때문에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밀려났다.

64:6.5 (723.4) 약 8만 5천 년 전에, 홍인종 중에서 비교적 순수한 남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북 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링 지역의 지협{地峽}이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 고립됐다. 아시아로 되돌아간 홍색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유색 인종들과 피가 섞인 그들 혈통 중에서 많은 숫자가, 시베리아, 중국, 중앙 아시아, 인도, 및 유럽 전역에 남아있었다.

64:6.6 (723.5) 아메리카로 건너갔을 때, 홍색인은 초기에 기원된 자신의 전통과 교훈 대부분을 지녔다. 그들의 직계 조상은, 행성 왕자가 세운 이 세상 본부의 후기 활동과 관계를 맺어왔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 도착한 직후부터, 홍색인은 이 교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으며, 지적이고 영적인 문화에 큰 퇴보가 발생했다. 이 민족은 곧 자기들끼리 다시 너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으므로, 종족 내부의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순수한 홍인종 중에서 남은 자는,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64:6.7 (723.6) 이런 엄청난 쇠퇴로 인해 홍색인의 문명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6만 5천 년 전에, 오나모나론톤이 그들의

지도자와 영적 구원자로서 등장했다. 그는 아메리카 홍색인에게 일시적 평화가 이뤄지게 했고, “위대한 영{靈}”에 대한 경배를 부활시켰다. 오나모나론톤은 아흔여섯 살까지 살았고,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미국삼나무 숲에 본부를 유지했다. 그의 후대 자손 중에서 다수가, 블랙푸트족 인디언 속에서 현대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64:6.8 (723.7) 시간이 흐르면서, 오나모나론톤의 교훈은 어렵פות한 전통으로 바뀌었다. 내란{內亂}이 다시 시작됐고, 이 위대한 선생의 시대 이후에,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보편적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부족 내부에서 투쟁하는 중에, 비교적 지성적인 종족들이 점점 더 소멸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 유능하고 지성적인 홍색인이, 어떤 위대한 문명을 북 아메리카 대륙에 세웠을 것이다.

64:6.9 (723.8) 중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후에, 북쪽에 있는 홍색인은, 후대에 백색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에스키모는 제외하고) 다른 세계의 영향권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었다. 홍색인이, 후대의 아담 혈통과 섞임으로써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홍색인은 백색인을 지배할 수 없었으며,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두 종족의 피가 섞이지 않는다면, 둘 중에서 하나는 망한다.

64:6.10 (723.9) 2. **주황색인.** 이 인종의 뚜렷한 특색은,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 건축하려는 기묘한 충동이었으며, 심지어 어느 부족이 가장 큰 언덕을 쌓을 수 있는지 보려는 듯이, 거대한 바위 언덕을 쌓으려고 했다. 그들은 진취적 민족은 아니었지만, 행성 왕자의 학교들에서 많은 것을 습득했고, 지침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사절을 파견했다.

64:6.11 (724.1) 주황인종은 지중해가 서쪽으로 물러갈 때, 처음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아프리카에 안전하게 발을 붙인 적이 없었고, 후대에 도착한 녹색인종에게 전멸됐다.

64:6.12 (724.2)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이 민족은 대부분의 문화와 영적 토대를 잃었다. 그러나 폴숄타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제법 고상한 생활이 엄청나게 소생됐으며, 그는

불행한 이 종족의 정신적 기둥이었고, 약 30만 년 전에 그들의 본부가 아마겟돈에 있을 때 그들을 다스렸다.

64:6.13 (724.3) 주황색인과 녹색인 사이에, 마지막 큰 투쟁이 이집트의 나일 강 유역 하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오래_지속된 이 전쟁은 거의 100년간 유지됐고,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는 극소수의 주황인종만 살아남았다. 이 민족 중에서 흠어진 남은 자들은, 녹색인에게 흡수됐고, 나중에 도착한 남색인들에게 흡수됐다. 그러나 약 10만 년 전에, 하나의 종족으로서의 주황색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64:6.14 (724.4) 3. *황색인*. 원시 황색 부족은, 사냥을 멈추고, 정착된 공동체를 이뤘으며, 농업에 기초한 가정생활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었다. 지적으로는 홍색인보다 다소 뒤떨어졌지만, 인종적인 문명을 조성하는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다른 모든 상익 민족보다 뛰어남을 보여줬다. 그들은 우애 있는 정신을 개발했으므로, 다양한 부족이 비교적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아시아로 점차 확장하면서 홍인종을 몰아낼 수 있었다.

64:6.15 (724.5) 그들은 세상의 영적 본부의 영향권으로부터 멀리까지 여행했고, 캘리개스차의 배신 이후로는 극심한 암흑세계에 빠졌지만;약 10만 년 전에, 싱글랑톤이 이 부족들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의 진리"를 경배하도록 선포했을 때, 이 부족들에게도 한때 찬란한 시대가 임했었다.

64:6.16 (724.6)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인종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들의 부족 간 평화로운 관계 때문이었다. 싱글랑톤이 나타난 때부터 현대의 중국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황인종은 유란시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평화로운 환경에서 숫자가 계속 불어났다. 이 인종은, 후대에 유입된 아담 혈통의 유산을, 적지만 진하게 물려받았다.

64:6.17 (724.7) 4. **녹색인.** 녹색인종은 원시인 가운데 능력이 뒤떨어지는 집단들 가운데 하나였고, 여러 방향으로 광대하게 이주{移住}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들이 흩어지기 전인, 약 35만 년 전에, 이 부족들은 흰타드의 지도하에 문화가 크게 부흥되는 체험을 했었다.

64:6.18 (724.8) 이 녹색인종은 주로 세 부류로 나뉘었다. 북쪽의 부족들은 정복을 당해서 노예가 됐고, 황인종과 청인종에게 흡수됐다. 동쪽에 있는 무리들은 그 당시 인도의 민족들과 피가 섞였고, 그 잔재가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다. 아프리카로 들어간 남쪽의 종족은, 자신들과 거의 똑같이 열등한 주황색 동족을 파멸시켰다.

64:6.19 (724.9) 두 집단은 여러 면으로 이런 투쟁 속에서 비등한 호적수였는데, 이는 각 집단에 거인 계열의 종족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들 중에서 큰 사람은 키가 8피트에서 9피트에 이르렀다. 녹색인의 이런 거인 종족은 대체로 남쪽과 이집트에 있는 종족으로 국한됐다.

64:6.20 (725.1) 승리를 이룩한 녹색인 중에서 남은 자들은 나중에 남색인종에게 흡수됐는데, 이 남색인종은, 원래 상익 인종 분산 중심지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전하고 이주한 유색{有色} 민족이었다.

64:6.21 (725.2) 5. **청색인**. 청색인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일찍부터 창을 발명했고, 나중에는 현대 문명의 기술 가운데 다수의 기초를 알아냈다. 청색인은 황색인이 가진 혼{魂} 및 감상과 함께, 홍색인의 두뇌 능력을 소유했다.

아담의 후손은, 나중까지 존속된 유색 인종들 중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64:6.22 (725.3) 초기 청색인은,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이었던 선생들의 설득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나중에는 그 배반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큰 혼돈에 빠졌다. 다른 원시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배반으로 야기된 혼란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또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성향을 완전히 극복한 적이 없었다.

64:6.23 (725.4) 캘리개스차가 타락한 후 500년쯤 지났을 때, 원시 형태의 --그럼에도 참되고 유익한-- 교육과 종교가 널리 회복되는 현상이 있었다. 청인종 가운데서 올란돌프가 위대한 선생이 됐고, 많은 부족이 "최고 우두머리"라는 이름하에, 다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했다. 이 인종이 나중에 아담 혈통과 섞임으로써 크게 향상되는 시절까지, 이것은 청색인에게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사건이었다.

64:6.24 (725.5) 구석기시대에 대한 유럽인의 연구와 탐사 결과는, 주로 고대의 이 청색인의 도구, 뼈, 및 예술 작품의 발굴에

집중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근래까지 유럽에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소위 **백인종**은 바로 이 청색인의 후손이며, 그들은 처음에는 황색인 및 홍색인과 약간 혼합돼서 변경됐고, 나중에는 보라색 인종 중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과 동화됨으로써 크게 발전했다.

64:6.25 (725.6) 6. **남색인종**. 홍색인이 모든 상익 민족 중에서 가장 발달됐듯이, 흑색인은 가장 적게 진보됐다. 그들은 고지대에 있는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맨 나중에 이주했다. 그들은 아프리카로 이동해서, 그 대륙을 차지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서 노예로 강제 이주됐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거기에 남아 있었다.

64:6.26 (725.7) 아프리카에서 고립된 남색 민족들은, 홍색인과 마찬가지로, 아담 혈통과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인종적 진보를,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했다. 아프리카에서 홀로 된 남색인종은, 거대한 영적 각성을 체험했던, 오르보논이 출현한 시대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르보논이 선포한, "하나님들의 하나님"을 나중에는 거의 완전하게 잃어버린 반면, "알려지지 않은 분"을 경배하려는 욕구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며;적어도 수천 년 전까지 어떤 경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64:6.27 (725.8) 뒤쳐져 있지만, 이 남색 민족들은 천상{天上}의 권능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인종과 아주 똑같은 자격을 갖춰 왔다.

64:6.28 (725.9) 이 기간은 다양한 인종들 간에 격렬한 투쟁이 있던 시대였지만, 행성 왕자의 본부 근처에서는, 좀 더 계몽되고 최근에 가르친 무리들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았으며, 그럼에도 루시퍼 반역이 발생함으로써 이 체제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시기까지, 세계의 인종들은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64:6.29 (726.1) 이 색다른 민족들은 모두 문화적 및 영적 회복을 때때로 체험하기도 했다. 맨샌트는 행성 왕자 시대 이후에 나타난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러나 전체 인종에게 확실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줬던 뛰어난 지도자 및 선생들에 대해서만 여기에 언급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준이 낮은 많은 선생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출현했으며;특히 캘리개스차 반역이 발발한 때부터 아담이 도착하기까지 길고도 어두운 시대에, 대체로 그들은, 문화가 있는 문명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전체 영향력에 크게 공헌했다.

64:6.30 (726.2) 공간 세계들에서, 셋 또는 여섯 유색 인종을 진화시키려는 계획에는, 유익하고 충분한 이유가 많이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비록 이런 이유 전체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의를 환기 시킨다:

64:6.31 (726.3) 1. 다양성은, 자연도태의 폭넓은 작용, 즉 우세한 혈통들이 구별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필수 요소다.

64:6.32 (726.4) 2. 더 강하고 더 우수한 인종은, 서로 다른 이 인종들이 우수한 유전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양한 민족의 피가 섞임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아담 혈통과 철저히 섞임으로써, 그런 혼혈 민족을 나중에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었다면, 유란시아의 인종들은 그렇게 일찍 섞임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종적 상황 하에 있는 유란시아에서 그런 실험을 시행하려고 시도한다면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64:6.33 (726.5) 3. 인종들이 분화{分化}됨으로써 경쟁이 건전하게 자극받는다.

64:6.34 (726.6) 4. 인종 간에 차이 나는 지위, 그리고 각 인종 안에서 생기는 집단 간에 차이 나는 지위는, 인간의 관용과 이타주의{利他主義}가 발달하는 데 필수 요소다.

64:6.35 (726.7) 5. 인간 종족이 균일하게 되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의 민족들이 높은 수준의 영적 발달을 달성하기 전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유색 인종의 분산

64:7.1 (726.8) 상익 가족의 유색 후손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인근에 있는 지방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쓸 무렵에, 다섯 번째 빙하, 즉 지질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세 번째 빙하가,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서 남쪽으로 상당히 전진했다. 초기의 이 유색 인종들은, 주어진 빙하기의 혹독함과 곤궁함으로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됐다. 이 빙하는 아시아에서 무척 확장돼서, 수천 년 동안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는 길을 막았다. 그리고 그들은 후대에 아라비아 지역이 융기된 결과로 지중해가 퇴각할 때에야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64:7.2 (726.9) 그리하여 이 상익 민족들은, 서로 다른 인종들 간에 일찍부터 서로 보여 왔던, 특유하지만 자연스런 대립 현상이 있었음에도, 거의 10만 년 동안 구릉지대 근처에 퍼져 있었고, 어느 정도 서로 혼합됐다.

64:7.3 (726.10) 행성 왕자 시대와 아담 시대 사이에, 지금까지 지구 표면에서 발견된 지역들 중에서 인도가 가장 다양한 주민의 고향이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녹색, 주황색, 및 남색 인종이 너무 많이 혼합됐다. 이런 2차 상익 민족들은, 남쪽 지역에서 비교적 쉽고 적절하게 적응했으며, 그들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아프리카로 이주했다. 1차 상익 민족들은 우수한 인종이었고, 열대 지방을 멀리했으며, 홍색인은 북동쪽을 향해서 아시아로 건너갔고 황색인이 바로 뒤를 따라간 반면, 청색인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64:7.4 (727.1) 홍색인은 일찍이 북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퇴각하는 빙하를 뒤따랐으며, 인도에 있는 고지대를 돌아가면서 북동쪽 아시아 전역을 장악했다. 황색 부족들이 그들 바로 뒤에 따라갔고, 나중에는 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내, 북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했다.

64:7.5 (727.2)

비교적 순수한_핏줄인 홍인종 생존자들이 아시아를 떠났을 때, 그들 중에는 11개 부족이 있었고, 7,000명 약간 넘는 남녀와 아이들이 있었다. 이 부족들을 따라, 혼혈 혈통의 소규모 집단들 셋이 동행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무리는, 주황인종과 청인종이 혼합된 것이었다. 이 세 집단은 홍색인과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이룬 적이 없었으며, 일찍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로 들어갔고, 그들은 나중에 거기서, 황색인과 홍색인이 혼합된 작은 집단과 합류했다. 이 민족들은 서로 배우자 관계를 이뤄서 하나의 새로운 혼혈 인종을 형성했는데, 그들은 순수한_핏줄의 홍색인보다도 전쟁을 훨씬 싫어했다. 5천 년이 지나기 전에, 이 혼혈 인종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 아메리카에 각각 별도의 문명을 세웠다. 남 아메리카 분파는 아주 희미하게 아담의 피를 받았다.

64:7.6 (727.3)

초기의 홍색인과 황색인은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섞였고, 이 혼합으로 태어난 후손은 동쪽 방향과 남부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했으며,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황인종에게 쫓겨서, 여러 반도와 근처에 있는 바다의 섬들로 들어갔다. 그들은 오늘날의 갈색인이다.

64:7.7 (727.4) 황인종은 동부 아시아의 중앙 지대를 계속 지배해 왔다. 여섯 유색인종 중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황색인이 때때로 인종 간 전쟁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홍색, 녹색, 및 주황색인이 멸종 위기에 이를 정도로 벌였던 끊임없고 잔인한 전쟁보다는 훨씬 덜했다. 이 세 인종은, 다른 인종들로 구성된 적에게 마침내 멸종당하기 전에, 사실상 자기들 스스로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64:7.8 (727.5) 다섯 번째 빙하가 유럽 남부 멀리까지 확장되지 않았으므로, 이 상익 민족들이 북서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빙하가 물러감에 따라서, 청색인은 소수의 다른 인종 집단과 함께 안돈 부족의 옛 자취를 따라서 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연달아 물결을 이뤄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 대륙 대부분을 점령했다.

64:7.9 (727.6) 유럽에서 그들은 곧 네안데르탈 후손과 대면하게 됐는데, 안돈이 그들 전체의 공통된 초기 조상이었다. 비교적 더 오래된 유럽의 이 네안데르탈인은 빙하에 밀려서 남쪽과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침입해 들어오는 동족인 상익 부족들과 신속히
대면하고 흡수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64:7.10 (727.7)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상익
부족들은 초기에 평야에서 살던 열등{劣等}한 안돈
후손들보다 더 지성적이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보다
훨씬 우수했으며; 네안데르탈 민족들이 이 상익 부족들과
섞임으로써, 더 오래된 그 종족은 즉시 진보를 이루게 됐다.
상익 인종의 피가, 특히 청색인의 피가 이렇게 주입됐기
때문에, 네안데르탈 민족들은 현저히 발전됐고, 이것은
동쪽으로부터 유럽 전역{全域}을 휩쓴, 갈수록 더 영리한
부족들이 잇달아 물결처럼 밀려온 데서 나타났다.

64:7.11 (727.8) 그 뒤에 있었던 빙하기들 사이의 기간에, 이
새로운 네안데르탈 인종은 영국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다. 청인종 중에서 남은 자들이 옛 페르시아
반도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는 어떤 다른 부족들, 특히 주로
황색인과 혼합됐으며; 그 결과로 피가 섞인,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의 보라색 인종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룩한 인종이, 현대 아랍인 가운데 거무스름한
유목민으로 남아 있다.

64:7.12 (728.1) 현대 민족들의 상익 계보{系譜}를 추적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고, 나중에 아담의 피와 섞임으로써 인종적 혈통의 후기 개량을 이룩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64:7.13 (728.2) 우수한 인종들은, 북쪽 기후, 즉 온화한 기후를 찾았으며, 한편 주황색, 녹색, 및 남색 인종들은 서쪽 방향으로 퇴각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분리시키는, 새로 융기된 연결육지를 지나, 계속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몰려갔다.

64:7.14 (728.3) 상익 민족들 중에서, 그 인종이 원래 위치했던 중심지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주한 인종은 남색인이었다. 그 무렵에 녹색인은 이집트에서 주황인종을 전멸시켰으며, 그렇게 하는 중에 자신도 세력이 크게 약화됐고, 거대한 무리의 흑색 이주자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틴을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으며;나중에는 육체적으로 강한 이 남색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됐는데, 그때 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으므로, 순전히 그 힘으로 녹색인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 남색인종은 남은 주황색 사람과 녹색인 혈통 대부분을 흡수했고, 어떤 남색

부족들은 이 인종 혼합으로 말미암아 눈에 띌 정도로 진보됐다.

64:7.15 (728.4) 그리하여, 처음에는 주황색인이, 다음에는 녹색인이, 그 뒤로는 남색(검은색)인이,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남색, 청색, 및 변경된 녹색인의 혼혈 인종이 이집트를 지배했다. 그러나 아담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유럽의 청색인, 그리고 아라비아의 혼합된 인종들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먼 남쪽 지방으로 남색인종을 몰아냈다.

64:7.16 (728.5) 상익의 이주가 막을 내리게 될 때, 녹색인종과 주황인종은 사라졌고, 홍색인은 북 아메리카를 고수했으며, 황색인은 동부 아시아에, 청색인은 유럽에, 그리고 남색인종은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인도는 2차 상익 인종들의 혼혈 인종과, 갈색인, 즉 홍색인과 황색인의 혼혈 종족을 받아쥔고, 아시아 해안에서 많은 섬을 차지했다. 상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혼혈 인종이, 남 아메리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순수한 안돈족속들이, 유럽의 최고 북쪽 지역,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및 북 아메리카 북동쪽에서 살았다.

64:7.17 (728.6) 빙하가 가장 먼 지역까지 확장돼 있는 동안, 서쪽 끝에 있던 안돈 부족들은 바로 바다 가까운 곳까지 밀려갔다. 그들은 현재 영국 섬 남쪽으로 뻗은 좁은 띠 모양의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빙하 확장에 대한 구전{口傳}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섯 번째의 마지막 빙하가 출현했을 때 바다로 떠나게 됐다. 그들은 바다를 탐험한 최초의 종족이 됐다. 그들은 배를 만들었고, 위협하는 빙하 침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이슬랜드에 도착했고, 더러는 그린랜드에 도착했지만, 대부분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갈증과 굶주림 때문에 전멸됐다.

64:7.18 (728.7) 약 8만 년 조금 더 전에, 홍색인이 북 아메리카 북쪽 지대로 들어간 후 얼마 안 돼서, 유란시아 원주민 가운데 이 에스키모 후손은, 얼어붙은 북해와 확장되는 그린랜드의 지역적인 얼음 덩어리에 밀려서, 보다 나은 땅, 즉 새로운 고향을 찾게 됐으며; 그들은 다행히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당시에 그린랜드와 북 아메리카 북쪽 땅 덩어리를 이 해협이 갈라놓고 있었다. 그들은 홍색인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뒤 약 2,100년이 지났을 때,

그 대륙에 도착했다. 그 후에, 청색인과 섞인 혈통의 소수의 사람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후대의 에스키모들과 혼합됐고, 이렇게 합쳐진 사람들은 에스키모 부족들보다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64:7.19 (728.8) 약 5천 년 전에, 고립된 에스키모 집단과 인디언 부족이, 허드슨만 남동쪽 해안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 두 부족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알게 됐으나, 곧 서로 결혼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 에스키모인은 결국 숫자가 훨씬 많은 홍색인에게 흡수됐다. 그리고 이것은, 약 1,000년 전에 백색인이 우연히 대서양 해안의 땅에 상륙할 때까지, 북 아메리카의 홍색인이 다른 어떤 인간 혈통과 접촉한 유일한 경우였다.

64:7.20 (729.1) 이런 초기 투쟁의 특징은 용기, 용맹, 및 영웅심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희의 초기 조상의 순수하고 강건한 특징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후대의 인종들에게서 사라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진보된 문명이 제공하는 많이 개선된 것들의 가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때로는 숭고함과

웅대함에 가까웠던, 너희의 옛 조상이 보여줬던 훌륭한
끈기와 훌륭한 헌신을 다시 보고 싶다.

64:7.21 (729.2)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가 제시했음]

제65편 진화에 대한 전면통제

65:0.1 (730.1) 기본적인 진화하는 물질 생명체는--곧 정신
이전{以前}의 생명체는-- 총괄 물리 통제관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임명된 생명 운반자들의 활발한 보살핌과 함께,
일곱 으뜸 영의 사역으로 전달된_생명체다. 이렇게 창조성
기능이 삼중{三重}으로 협조한 결과로, 유기체의 물리적
정신 수용력이 발휘된다--이것은 외부 환경의 충동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내부의 충동, 즉 유기체의 정신
자체에서 기원되는 자극에 대해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물질 체제다.

65:0.2 (730.2) 그때, 생명체 생성과 진화에는 세 가지 뚜렷한
수준이 있다:

65:0.3 (730.3) 1. 물리적_에너지 분야 --정신의_수용력이 생기게
함.

65:0.4 (730.4) 2. 보조 영들의 정신 사역 --영{靈}의 수용력에 영향을 줌.

65:0.5 (730.5) 3. 필사 정신의 영 재능 --사고 조율사의 증여가 절정에 이르도록 함.

65:0.6 (730.6) 기계적이고_학습력_없는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은 물리 통제관들의 영역이다. 보조 정신_영들은, 순응하는 정신 유형, 즉 비기계적이고_학습력있는 정신 유형을--곧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기체의 반응 체제를--활성화시키고 조절한다. 그리고 영{靈} 보조체들이 정신의 잠재력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생명 운반자들은 인간의 의지가--즉 하나님을 아는 역량 그리고 그를 경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진화 과정의 환경 양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임의로 통제한다.

65:0.7 (730.7) 생명 운반자, 물리 통제관, 및 영 보조체들의 통합된 기능발휘가,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는 --유란시아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반드시 의도하여 생긴 것이며,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다.

1. 생명 운반자의 역할

65:1.1 (730.5) 생명 운반자들은 인격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부여받았는데, 극히 일부 계층의 피조물만이 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방우주에 있는 이 아들들은 세 가지 다른 존재 양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들은 대개 중간_양태 아들들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들이 기원된 상태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실존 단계에 있는 생명 운반자는,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 입자들을, 살아있는 존재 단위들이 되도록 조종하는 자로서, 전기화학{電氣化學} 영역에서는 도저히 역할을 할 수 없다.

65:1.2 (730.6) 생명 운반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작용한다:

65:1.3 (730.7) 1. 물리적인 전기화학 수준.

65:1.4 (730.8) 2. 유사{類似}_모론시아 실존의 통상적 중간_양태.

65:1.5 (730.9) 3. 진보된 약간영적 수준.

65:1.6 (731.1)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체 이식에 참여할 준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행업무를 위한 장소를

선정한 후에, 그들은 생명 운반자의 변질을 담당하는 천사장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집단은 열 개의 다양한 인격체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물리 통제관과 그 동역자들이 포함돼 있고, 태고 항존자들의 허락과 가브리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자격으로 집행하는,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주재한다. 적합하게 회로화 되면, 이 존재들은 생명 운반자들 속에 그런 변경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전기화학 수준에서 즉각 작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5:1.7 (731.2) 생명체 원형{原型}이 형성되고, 물질적 조직이 적절하게 완비된 후에, 생명 전파와 관계되는 초물질적 힘이 즉시 활동하게 되며,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다. 그 후에 생명 운반자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중간_양태의 인격체 실존으로 즉시 돌아오며, 비록 새로운 원형의 살아있는 물질을 유기체로 만들 수 있는--즉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박탈당했음에도,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단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진화하는 유기체들을 유도할 수 있다.

65:1.8 (731.3) 유기체의 진화가 어떤 과정을 마치고, 인간 유형의 자유 의지가 가장 높은 진화 유기체 속에 나타나게 되면, 생명 운반자들은 그 행성을 떠나든지, 아니면 단념하겠다는 서약;즉, 유기체 진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행성에 남아서, 의지를 지닌, 새롭게 진화된 피조물을 양육하도록 위탁받아서, 앞으로 자문가가 되기로 선택한 생명 운반자들이 그런 자발적 서약을 한 후에, 저녁 별들의 우두머리가 주재하는 12인 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체계 주권자의 권위로, 그리고 가브리엘의 허락 하에 활동하며;이 생명 운반자들은 셋째 양태의 인격체 실존으로--곧 약간영적 존재 수준으로--즉시 변형된다. 그리고 나는 유란시아에서 안돈과 흰타 시대 이후로 줄곧, 이런 셋째 실존 양태에서 역할을 해왔다.

65:1.9 (731.4) 우리는 우주가 빛과 생명에 안정될 때, 넷째 단계의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겠지만, 이런 바람직하고 진보된 상태를 어떤 기법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밝혀진 적이 없다.

2. 진화의 개관

65:2.1 (731.5) 해초{海草}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 창조물의 지배자로 승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적 투쟁을 겪고 정신이 살아남은 정말로 소설 같은 사건이다. 사람의 최초 조상은, 글자 그대로 대양 바닥의 점액{粘液}과 진흙이었는데, 그것들은 고대의 내륙해의 광대한 해안선에서, 완만하고 물이 따뜻한 만{灣}과 개펄 속에 있었고, 유란시아의 바로 그 물 속에, 생명 운반자들이 세계의 독립된 생명 이식{利息}을 정착시켰다.

65:2.2 (731.6) 결과적으로 동물 비슷한 어중간한 유기체가 된, 그 획기적 변화에 참여했던 초기 유형의 해양 식물 종{種} 중에서, 극소수만이 오늘날까지 실존하고 있다. 해면체는 초기의 이런 중간 유형 중에서 살아남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이 유기체를 통해 식물에서 동물로 점차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초기의 이 과도기 형태들은, 현재의 해면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했으며;정말로 어중간한 유기체였지만--곧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었지만-- 결국 진짜 동물 형태의 생명체가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65:2.3 (732.1) 박테리아는 매우 원시적인 성질의 단순한 식물 유기체이고, 초기에 시작되던 생명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기생{寄生}하는 습성은 오히려 어느 정도 퇴화됐다. 많은 곰팡이 역시, 진화에서 퇴화 작용을 대표하며, 엽록소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잃어버리고 기생성을 다소 나타내는 식물이 돼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대부분과, 그와 유사한 다수{多數}의 바이러스는, 이 변질된 기생 곰팡이 무리에 속한다. 중간에 끼어있는 시대에, 방대한 전체 식물 생명체 왕국이, 박테리아와 함께, 같은 선조로부터 파생돼서 내려왔다.

65:2.4 (732.2) 상류 원생동물 유형의 동물 생명체가 곧 출현했고,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전형적인 단일 세포 동물 유기체인 아메바가, 이런 아득히 먼 옛날부터 존재해 오고 있지만,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아메바는 생명체 진화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성취를 이뤘을 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다. 이 미세한 생물 및 그 원생동물 사촌들과 동물 세계의 관계는, 박테리아와 식물계{植物界}의 관계와 같으며;이것들은 생명체의 분화{分化}에서 초기에 진화하는 첫 걸음을 대표했고, 차후에 발전하는 데 실패했다.

65:2.5 (732.3) 오래지 않아서, 초기 단세포 동물 유형들은 처음에는 볼복스 모양으로, 그리고 곧 히드라와 해파리 계통을 따라서, 서로 군{群}을 이뤄 결합했다. 훨씬 뒤에는, 불가사리, 돌백합, 성게, 해삼, 지네, 곤충, 거미, 갑각류, 그리고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렁이와 거머리 류{類}로 진화했으며, 연체동물이--곧 굴, 낙지, 달팽이가-- 그 뒤를 이었다. 수백 가지 종{種}이 중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길고 긴 투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만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 그런 진보되지 못한 표본들은, 나중에 나타난 물고기 과{科}와 함께, 오늘날 정체된 유형의 초기 하등동물을 대표하며, 이것들은 생명체 파생 계통에서 진보하지 못한 부문들이다.

65:2.6 (732.4) 최초의 척추동물, 즉 물고기가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갖춰졌다. 이 물고기 과로부터 두 가지 독특한 변경체가 나타났는데, 개구리와 도롱뇽이다. 그리고 개구리가, 동물 생명체 속에서 일련의 점진적 분화{分化}를 시작하여, 마침내 바로 사람으로서 정점에 도달했다.

65:2.7 (732.5) 개구리는 가장 초기의 인간_종족 선조 중에서 살아남은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 역시 발전되지 못하고, 그 먼 옛날과 거의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 시조 인종들의 선조 중에서, 개구리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종{種}이다. 인간 종족의 선조 가운데, 개구리와 에스키모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멸종됐다.

65:2.8 (732.6) 개구리에서 파충류가 나왔고, 거대한 동물 군을 이루다가 거의 멸종됐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조류 전체 및 수많은 다른 종류의 포유동물을 기원시켰다.

65:2.9 (732.7) 모든 선행인류 진화 단계에서 가장 큰 한 번의 도약{跳躍}을 이룬 것은, 아마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왔을 때일 것이다. 오늘날 조류 유형은--곧 독수리, 오리, 비둘기, 및 타조 등은-- 모두 먼 옛날의 수많은 파충류에서 유래됐다.

65:2.10 (732.8) 개구리 과에서 유래된 파충류 계{界} 중에서 오늘날 살아남은 것은 네 분야로 대별되는데:뱀과 도마뱀, 그리고 그 동류인 악어와 거북이, 이 두 부문은 진보하지 못했으며;조류는 일부 진보를 이뤘고, 넷째는 포유동물의

선조이고 인간 종족의 직계 혈통이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멸되는 파충류의 거대함이 코끼리와 마스토돈을 통해 조금 나타났고, 그들의 독특한 형태가 꺾충 꺾충 뛰는 캥거루로 남아 있다.

65:2.11 (733.1) 유란시아에는 오직 14개의 문{門}이 나타났는데, 어류{魚類}가 마지막을 장식했고, 조류와 포유동물 이후에는 새로운 부류가 전혀 발달되지 않았다.

65:2.12 (733.2) 민첩하고 체구가 작지만 비교적 큰 뇌를 가진 육식성 파충류 공룡으로부터,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갑자기 생겼다. 이 포유동물은, 급속히 여러 상이한 방향으로 발달했는데, 현대의 흔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고래와 물개 같은 해양 생명체, 그리고 박쥐 계통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유형들로도 진화했다.

65:2.13 (733.3) 사람은, 동_서 방향의 격리된 고대{古代} 바다에서 서쪽 이/식지 생명체로부터 주로 파생된, 고등 포유동물로부터 그렇게 진화했다. 동부와 중부 집단의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선행인류 수준의 동물 실존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초기에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생명체 설치를 위한 동부 중심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포 원형질 유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잃어버려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복구시키는 능력을 영구히 잃어버렸으므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선행인류의 지성 상태를 달성하기에 실패했다.

65:2.14 (733.4) 이 동부 집단에서 정신이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의 질{質}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매우 뚜렷하게 열등했으므로, 생명 운반자들은, 직속 상관들의 허락 하에, 환경을 조종해서, 진화하는 생명체 가운데 이 열등한 선행인류 종족을 더욱 제한시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열등한 피조물 집단들의 소멸이 전적으로 우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의도적이었다.

65:2.15 (733.5) 지성이 나타나는 후기 진화 과정 중에, 인간 종족의 선조인 여우원숭이는 다른 지역들보다 북 아메리카에서 훨씬 앞서 있었고, 그 결과로 그것들은 서부 생명체 이식지에서 베링 연결육지를 지나 남서부 아시아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계속 진화했고, 중부 생명체 집단 가운데 어떤 종족들과 섞임으로써 유익을 얻었다.

사람은, 서부 및 중부의 어떤 생명체 종족들로부터, 그러나 중앙에서 근동 이르는 지역에서 그렇게 진화했다.

65:2.16 (733.6) 유란시아에 심어진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빙하시대까지 진화했으며, 빙하시대에 인류가 처음 나타났고, 행성에서 다사{多事}한 생애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빙하기 동안에 원시인이 이렇게 지구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기획으로 생긴 일이었다. 빙하기의 곤핍함과 혹독한 기후는, 엄청난 생존 재능과 함께 강인한 유형의 인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모든 면에서 적합했다.

3. 진화의 촉진

65:3.1 (733.7) 초기 진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외견상으로는 괴상하고 기묘한 많은 사건을, 오늘날의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겉보기에 이상한 생물들이 진화하는 동안 내내 의도적인 계획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생명 원형들이 일단 작동되기 시작한 후에는 그 발달에 우리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도록 금지됐다.

65:3.2 (733.8) 생명 운반자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천연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고, 생명체 실험의 발달 과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우연한 환경이라도 전부 활용할 수 있었지만, 식물이나 동물의 진화에 무의식적으로 개입한다든지, 또는 그 진행과 과정을 임의로 조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65:3.3 (733.9) 원시 개구리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유란시아 필사자들이 진화했다는 것과, 향상하는 이 혈통이, 한 마리의 개구리 속에 잠재되어 간직된 채, 어떤 경우에 가까스로 멸종을 피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러나 이런 전환기에 우연히 인류의 진화가 중단될 수 있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1,0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리고 먼 훗날에 나타나게 될, 돌연변이 생명체 혈통을 예의 주시하면서 육성하고 있었는데, 선행인류로 진보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원형으로 이것들을 유도할 수 있었다. 특유의 이 개구리 조상은 우리가 세 번째로 택한 것이었고, 그 전에 택했던 두 생명체 혈통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했음에도 소멸되고 말았다.

65:3.4 (734.1) 안돈과 흰타가 자손을 낳기 전에 죽었다면 인류의 진화가 늦어질 수 있었겠지만, 아주 중단될 수는 없었다.

안돈과 흰타가 출현한 후에, 그리고 동물 생명체로부터 돌연변이로 인간이 나타나는 잠재력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인간 유형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7,000가지 이상의 유망한 혈통이 진화돼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류 혈통 가운데 다수는, 여러 갈래로 퍼져 나간 인간 종족에게 나중에 동화됐다.

65:3.5 (734.2)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 아들과 딸이 지구에 도착하기 오래 전에, 진화하는 동물 종족들의 인간 잠재력은 모두 소진됐다. 동물 생명체의 이런 생물학적 상태는, 보조 영이 동원되는 세 번째 국면의 현상으로 인해 생명 운반자들에게 드러났는데, 이 현상은, 모든 동물 생명체가 선행인류 개체들의 돌연변이 잠재력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65:3.6 (734.3) 유란시아에서 인류는, 자체의 인간 혈통으로 필사자의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앞으로 영원히, 선행인류의 근원으로부터 어떤 인종도 진화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필사자 인종 속에 여전히 내재하는 진화 잠재력을 총명하게 육성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인류 발전을 달성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기 전에 생명체 혈통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생명 운반자인 우리가 하던 일을,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진화에 참여하던 상태로부터 물러난 후에는, 사람이 스스로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진화 운명은 자신의 손 안에 있으며, 통제되지 않는 자연 도태와 우연한 생존이 닥치는 대로 작용하는 것을, 과학적 지성이 조만간 대신해야만 한다.

65:3.7 (734.4) 그리고 진화의 촉진에 대해 논의하면서, 앞으로 있을 먼 훗날에, 너희가 어느 날 생명 운반자 단체에 배속되면, 생명체를 관리하고 이식{移植}시키는 계획과 기법에서 가능한 모든 개선책을 조성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갖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느긋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우주 영역에 대해서든지, 더 나은 방법으로 경영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너희 정신 속에 풍부하게 갖고 있다면, 너희는 동역자들과 동료 경영자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4. 유란시아 모형

65:4.1 (734.5) 유란시아가 생명을_실험하는 세계로서 우리에게 배정됐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네바돈의 생명체 설계도를 사타니아에 적용시키면서 가능한 한 개선하려고, 우리는 60번째 변경을 시도했으며, 우리가 표준 생명체 원형들의 유익한 변경을 많이 성취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확실히 말해서, 우리는 유란시아에서, 앞으로 네바돈 전체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될, 28가지 이상으로 생명체를 변경하는 특색을 만들어냈고 만족스럽게 입증했다.

65:4.2 (735.1) 그러나 전혀 시도된 적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시도됐다는 의미에서, 생명체 조성이 시험되는 세계는 결코 없다. 생명체의 진화는 항상 진취적이고 다양하며 변화무쌍하지만, 결코 우연히 또는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우연이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실험적인 경우도 없다.

65:4.3 (735.2) 인간의 생명 현상은, 필사자 실존이 지성적으로 계획됐다는 증거를, 즉 유기체의 진화가 시공우주에서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를 풍성하게

제공한다. 살아있는 세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세포는 인접해 있는 정상 세포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들어 내는 역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정상 세포들은 상처 치료 과정을 촉진시키는 어떤 물질을 즉시 분비하기 시작하며;동시에 이 정상적이고 상처받지 않은 세포들이 빠른 속도로 증식 된다--이 세포들은, 사고로 파괴된 어떤 동류 세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실제로 시작한다.

65:4.4 (735.3) 상처를 치료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관련된 이런 화학 작용과 반응은, 10만 가지 이상의 가능한 화학 작용과 생물학적 영향의 국면 및 특색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처방법{處方法}을 생명 운반자들이 선택했음을 가리킨다. 유란시아 생명체 실험을 위해서 이 처방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실험실에서 50만 번 이상의 특정한 실험을 했다.

65:4.5 (735.4) 유란시아 과학자들이 이런 치료하는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하게 될 것이고, 어떤 심각한 질병들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65:4.6 (735.5)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조성된 후에, 생명 운반자들은 이 치료 기법을 개선시켰고, 또 다른 사타니아 세계들에도 소개했는데, 그 치료 기법은 고통을 더 감소시키고, 관련된 정상 세포들의 증식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65:4.7 (735.6) 유란시아의 생명체 실험에는 많은 독특한 특색이 있었지만, 두 가지 특기할만한 사건은, 여섯 유색 인종이 진화되기 전에 안돈 종족이 출현했던 것과, 그 후에 단일 가족 안에서 상의 돌연변이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유란시아는, 사타니아에서 여섯 유색 인종이 동일한 가족으로부터 나타난 최초의 세계였다. 대개 그들은 선행인류의 동물 혈통 속에서 독립된 변이를 통해 여러 종족으로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 종류씩, 그리고 홍색인부터 시작해서 남색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세상에 나타난다.

65:4.8 (735.7) 또 다른 특기할만한 과정의 변동은, 행성 왕자가 늦게 도착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왕자는 의지가 조성될 즈음 행성에 나타나며;그런 계획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캘리개스차는 거의 50만 년 이후에 여섯 상의 인종이

나타남과 동시에 도착하는 대신, 안돈과 흰타가 살아있을 때 유란시아에 왔어야 했다.

65:4.9 (735.8) 통상적인 인간거주 세계에서는, 안돈과 흰타가 출현했을 때, 또는 그보다 조금 나중에,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행성 왕자가 수여되곤 한다. 그러나 생명체_변경 행성으로 지정된 유란시아의 경우에는, 생명 운반자들에 대한 자문가로서, 그리고 행성 왕자가 나중에 도착할 때까지 그 행성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열두 명의 멜기세덱 관찰자가 파견되도록 사전에 약속돼 있었다. 이 멜기세덱들은, 안돈과 흰타의 필사 정신에 사고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결정을 안돈과 흰타가 내렸을 때 왔다.

65:4.10 (736.1) 유란시아에서 사타니아 생명 원형을 증진시키려는 생명 운반자들의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형태의 수많은 과도기 생명체를 필연적으로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소득은, 표준 생명체 설계도를 유란시아에서 변경한 것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65:4.11 (736.2) 유란시아의 진화 생명체에 의지가 일찍부터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고, 우리는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의지는 유색 인종들이 출현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야 나타나고, 보통 우수한 유형인 홍색인 사이에서 먼저 나타난다. 너희의 세계는, 사타니아에서, 유색 인종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 유형의 의지가 존재한, 유일한 행성이다.

65:4.12 (736.3) 그러나 마침내 인간 종족의 포유 동물 선조를 낳은 유전 인자들의 조합과 결합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동안, 우리는 수십만 가지의 서로 다른, 비교적 쓸모없는 유전 인자들이 생성되는 것을 용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우리가 수고하는 과정의 이상한 부산물로 보이는 이런 것들 가운데 다수는, 너희가 행성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마주치게 될 것이 확실한데, 이것들 가운데 더러는, 제한된 인간 견해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

5. 생명체_진화의 변천

65:5.1 (736.4) 유란시아에서 지성 생명체를 변경시키려 했던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비극적인

과오 즉:캘리포니아의 배반과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심하게 방해 받은 것 때문에, 생명 운반자들이 유감스러워했다.

65:5.2 (736.5) 그러나 이 생물학적 모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특정한 원시 식물 생명체가 퇴화해서 그토록 광범하고 예기치 않은 정도로 엽록소 수준의 기생{寄生} 박테리아로 변한 것 때문이었다. 식물 생명체 진화에서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이 결말이, 고등 포유동물에게 많은 괴로운 질병을 유발시켰고, 특히 취약한 인간 종족들에게 심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나중에 아담의 생명 원형질이 섞임으로써, 그 결과로 나타난 혼혈 인종의 저항 능력이 보강돼서, 식물 유형 유기체가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 실제적인 면역성을 갖도록 만들 것임을 알았으므로, 복잡한 어려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아담이 직무에 태만한 불행 때문에 실망할 운명에 놓이게 됐다.

65:5.3 (736.6) 유란시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세계를 포함해서, 온갖 우주는, 단순히 우리의 동의를 받는 정도로, 또는 겨우

우리의 편리에 맞추도록, 더욱이 우리의 일시적 만족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관리되지는 않는다. 우주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현명하고 전능한 존재들은,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며;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혜로운 통치, 능력 있는 권세, 그리고 진보하는 행진에 진심으로 협조하는 것이 생명 운반자들에게 어울리고, 필사 지성인들에게 마땅하다.

65:5.4 (736.7)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된 바와 같이, 물론 시련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고려 사항에 상관없이, 나중에 온 이 천상의 행성 감독관들은, 인류 종족이 진화에서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것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원래 계획과 생명체 원형들이 결국 입증되리라는 것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표명한다.

6. 생명체의 진화 기법

65:6.1 (737.1)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세밀한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며;어느 하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즉시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변하게 돼있다. 필사적 사람이 원형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할 때에도

똑같은 종류의 모순에 봉착한다. 화학자{化學者}가 죽은 원형질의 화학적 성질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원형질의 물리적 조직이나 역동적{力動的} 실행은 식별할 수 없다. 과학자가 생명의 비밀에 계속 가까이 접근해 갈 수는 있지만, 생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형질을 죽여야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생명을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은 원형질은 살아있는 원형질과 똑같은 무게를 갖지만, 그 둘은 똑같지 않다.

65:6.2 (737.2) 살아있는 물체와 존재에는, 적응해 나가는 본래의 재능이 들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세포 속에, 즉 모든 *살아있는* --물질적 또는 영적-- 원형질 속에는, 환경 조정, 유기체적 적응, 그리고 증가된 생명체 실현에 대해 계속적으로 더 숙달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물체의 이런 끝없는 노력이, 완전성을 향한 타고난 욕구가 그들 안에 실존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65:6.3 (737.3) 식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엽록소를_생성하는 역량의 발달이었으며, 둘째로 큰 진전은 홀씨가 복잡한 씨앗으로 진화한 것이었다. 홀씨는

번식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이지만, 씨앗에 들어 있는 다양성과 융통성이라는 잠재력은 결여돼 있다.

65:6.4 (737.4) 고등 유형의 동물 진화에서 가장 유용하고 복잡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순환하는 혈액 세포 속에 있는 철분이, 산소를 운반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는 이중 역할을 하는 역량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리고 적혈구 세포의 이런 성능은, 진화하는 유기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변화하고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시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을 포함해서 고등 동물은, 적혈구 세포에 들어 있는 철분의 작용으로 조직체에 산소를 공급하며, 이 적혈구는 살아있는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그러나 다른 금속 성분도 똑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오징어 속에는 이런 기능을 위해서 동{銅} 성분이 들어 있고, 멧게는 바나듐을 이용한다.

65:6.5 (737.5) 계속된 그런 생물학적 적응은, 유란시아의 고등 포유동물의 이가 진화된 모습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사람의 먼 조상은 서른여섯 개의 이를 가졌고, 원시인 및 그의 가까운 동족들의 경우에는 서른두 개를 갖는 쪽으로

개조{改造}되는 재적응이 시작됐다. 이제 인간 종족은 스물여덟 개를 갖는 방향으로 서서히 줄었다. 진화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이 지구에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개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65:6.6 (737.6)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신비한 것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적응은, 대개 순전히 화학적이고 전적으로 물리적이다. 모든 인간의 혈액 속에는, 어떤 순간에든지, 12개의 내분비선{內分泌線}에서 분비된 호르몬들 사이에 1,500만 개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65:6.7 (737.7) 열등한 형태의 식물 생명체는 물질적, 화학적, 전기적 환경에 전적으로 민감하다. 그러나 생명체의 등급이 상승될 때, 일곱 보조 영의 정신 활동이 하나씩 하나씩 작동하게 되며, 정신은 점점 더 적응을 잘하고 창조적이며 협조적이고 지배적이 된다. 동물이 공기, 물, 및 땅에 적응하는 역량은 초자연적인 재능이 아니라, 초물리적 적응이다.

65:6.8 (738.1) 물리학이나 화학만으로는, 초기 바다의 원시 원형질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진화돼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환경을 배우고 기억하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역량은 정신의 재능이다. 물리 법칙은 훈련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불변하고 항상 일정하다. 화학 반응은 교육으로 변경되지 않으며;항상 일정하고 의존적이다.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은 제외하고, 전기 및 화학 반응은 예측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체험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반복되는 충동에 반응하는 민감한 습관적 행태로부터 배울 수 있다.

65:6.9 (738.2) 지성을 갖추기 전의 유기체들도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지만, 정신 활동에 민감한 유기체들은 환경 자체를 조절하고 조종할 수 있다.

65:6.10 (738.3) 한 인격체의 발전적인 정신이 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천적 수용력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영적인 진보와 달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뇌는 관련된 신경 체계와 함께 정신 활동에 대해 반응하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진화는, 일곱 보조 영과 그들의 초물리적 동역자들이 정신에게 베푸는 사역에 의존한다.

7. 진화하는 정신 수준

65:7.1 (738.4)

일곱 보조 정신_영은, 한 지방우주에서 열등한 지성 실존들에게 다재다능하게 작용하는 정신 사역자다. 이 정신 체제는 지방우주 본부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세계로부터 보살핌을 받지만, 하위_정신 기능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체계 수도{首都}에서 지시한다.

65:7.2 (738.5)

진화 세계에서는, 이런 일곱 보조체에 많이, 매우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이 보조체들은 정신 사역자이며;생명 운반자들의 영역인 물리적 진화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생명 운반자들이 전개하는 선천적 체제의 예정된 자연 과정과 이 영 자질이 완전하게 통합된 것은, 필사자가 왜 정신 현상에서 자연의 지배력, 그리고 자연스런 과정의 외부작업 외에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지 설명하며, 하지만 물질과 관련 있는 정신의 자연스런 반응과 관련된 각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때, 너희는 때때로 어느 정도 당황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란시아가 원래의 계획과 좀 더 일치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면, 너희는 정신 현상에서 관심 끄는 것을 무척 적게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65:7.3 (738.6) 일곱 보조 영은 실체 같지기보다는 회로 같으며, 평범한 세계들에서는, 지방우주 전체의 다른 보조 작용들과 함께 회로화 돼 있다. 어쨌든, 생명을_실험하는 행성들에서, 그들은 비교적 격리돼 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는, 생명체 원형들이 독특한 본성을 갖기 때문에, 하위 보조체들은, 더 표준화된 유형의 생명을 부여한 경우보다, 진화하는 유기체와 접촉하는 데 훨씬 심한 어려움을 체험한다.

65:7.4 (738.7) 게다가, 일곱 보조 영은, 동물이 발전하는 여러 향상 단계와 동조되는 것이, 유란시아에서 그랬던 것보다는, 평범한 진화 세계에서 훨씬 탁월하다. 오직 한 가지 예외로, 보조체들은 네바돈의 전체 우주에서 온갖 활동을 하면서 겪은 중에, 유란시아에서 유기체들의 진화하는 정신들과 접촉하는 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체험했다. 이 세계에서는 많은 형태의 어중간한--곧 기계적이고_학습력_없는, 그리고 기계적이_아니고_학습력_있는 유형의 유기체 반응들이 뒤죽박죽으로 배합된-- 현상이 발달됐다.

65:7.5 (739.1) 일곱 보조 영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 순전히 기계적인 종류와는 접촉을 이루지 않는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성을 갖기 전에 보이는 그런 반응은, 순전히 동력 중심, 물리 통제관, 및 그 동역자들의 에너지 분야에 관계된다.

65:7.6 (739.2)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잠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은, 보조 영들의 활동이 시작됨을 표시하며, 그들은 원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 같은 가장 열등한 정신부터, 인간 같은 가장 높은 유형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작용한다. 그들은 달리 어느 정도 불가사의한 행태, 그리고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물질 환경에 대한 정신의 신속한 반응의 근원이고 원형이다. 충실하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은, 동물 정신이 인간 수준의 영 감수성에 도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예비적인 사역을 계속 수행해야만 한다.

65:7.7 (739.3) 보조체들은, 여섯째 국면, 즉 경배의 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오로지 체험하는 정신이 진화하는 동안에만 작용한다. 이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사역이 겹쳐지는 일이 발생한다--높은 수준의 발전이 나중에 달성될 것을

기대해서, 높은 수준에 있는 자가 낮은 수준에 있는 자와
협조하려고 손을 내미는 현상이다. 그리고 여전히,
일곱째이자 마지막 보조체인 지혜의 영의 행동에,
추가적인 영 사역이 뒤따른다. 영 세계가 베푸는 사역
전반에 걸쳐서, 개인은 영의 협동으로 인한 갑작스런
변천을 결코 체험하지 않으며;이 변화는 항상 점진적이고
상호적이다.

65:7.8 (739.4)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물리적으로(전기
화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반응하는 분야들은 항상
구별돼야만 하며, 다음에 이 분야들은 모두 영적 활동과
구별된 현상으로 인식돼야만 한다. 물질적, 정신적, 및
영적 인력이 작용하는 분야는, 긴밀한 상호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시공우주 실체의 뚜렷이 다른 영역들이다.

8.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화

65:8.1 (739.5)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돼
있으며;타고난 연합체다. 어떤 공간 조건이 있는 곳에서,
시간 지연은 피할 수 없다.

65:8.2 (739.6) 진화로 생명체를 발달시키는 변천을 일으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면, 나는,

한 행성의 물리적 변형이 허용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생명체 과정을 펼치도록 시간을 맞추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 행성의 자연스런 물리적 발전을 기다려야만 하며;지질학적 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만일 물리적 조건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100만 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생명체 진화가 완성되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낙원의 최고 통치자들의 관할권 아래 있고, 낙원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65:8.3 (739.7) 자기 인생의 길이가, 시간을 재는 개인의 척도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를 길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일생의 기간이 일시적 실존으로 제한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진화가 그토록 오래 걸리는 진행사항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낙원에서는, 무한자의 정신과 영원자의 활동에서 이것들은 모두 ~~현재~~다.

65:8.4 (739.8) 정신의 진화가 물리적 조건의 느린 발전에 의존하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듯이, 영적 진보는 정신의

확장에 의존하고 지능의 발달 지연 때문에 반드시 늦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진화가, 교육, 문화, 또는 지혜에 달려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혼은 정신 문화에 상관없이 진보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정신의 수용력과 욕구가 없을 때에는--곧 생존을 선택하고, 늘_증가하는 완전성을 성취하려는 결정이 없을 때에는-- 불가능하다. 생존은 지식과 지혜의 소유에 의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보는 매우 분명하게 의존한다.

65:8.5 (740.1) 시공우주의 진화 실험실에서는 정신이 항상 물질을 지배하고, 영은 언제나 정신과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다양한 재능이, 동조{同調}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시간이 지연되지만,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면, 시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상관없이 생존이 보장된다. 물질적 상태가 정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정신적 사악함은 영적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이런 방해물 가운데 어떤 것도, 성의를_다한 의지의 선택을 좌절시키지 못한다.

65:8.6 (740.2) 물리적 조건이 성숙되면, *갑작스런* 정신적 진화가 발생될 것이며;정신 상태가 알맞게 되면, *갑작스런* 영적 변화가 발생될 것이며;영적 가치가 적합한 승인을 받게 되면, 시공우주의 의미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인격체는 시간의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점점 더 면제되며,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

65:8.7 (740.3)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네바돈의 생명 운반자가 후원했음]

제66편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66:0.1 (741.1) 일반적인 세계에 라노난덱 아들이 도래했다는 사실은, 의지, 즉 영원한 생존{生存}의 행로{行路}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원시인의 정신 속에 개발됐음을 뜻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출현한 후 거의 50만 년 됐을 때 행성 왕자가 도착했다.

66:0.2 (741.2) 약 50만 년 전, 그리고 여섯 유색 인종, 즉 상의 인종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 왕자 캘리개스차가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왕자가 도착했을 때, 지구에는 약 5억 명의 원시 인간이 있었으며, 그들은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왕자의 본부는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는데, 세계 인구의 거의 중심부에 있었다.

1. 캘리개스차 왕자

66:1.1 (741.3) 캘리개스차는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2차 계층 중에서 9,344_번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지방우주의 직무를 경영하는 체험을 했고, 후대{後代}에는 특히 사타니아 지역 체계를 관리하는 체험을 했다.

66:1.2 (741.4) 루시퍼가 사타니아를 통치하기 전에는, 캘리개스차가 예루셈의 생명 운반자 자문가 협의회에 배속돼 있었다. 루시퍼는 자신의 직속 참모 위치까지 캘리개스차를 높였고, 그는 명예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의 연속된 임무를 훌륭히 이행했다.

66:1.3 (741.5) 캘리개스차는 매우 일찍부터 행성 왕자로 임관되고자 애썼지만, 성좌 협의회는 허락을 받기 위해 상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성좌 아버지들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캘리개스차는, 10진{十進} 세계, 즉 생명체_변경 세계에 행성 통치자로 파견되기를 특별히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유란시아에 배정될 때까지, 그의 청원은 여러 차례 기각됐다.

66:1.4 (741.6) 캘리개스차는 예루셈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이때 그는 어떤 사소한 문제에서 기존 질서를 거부하려는 경향과, 특정한 성격적 불안감의 이중성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기원되고 머물러 있는 우주의 복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바람직한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66:1.5 (741.7) 총명한 캘리개스차가 체계 수도{首都}를 떠날 때, 나는 예루셈에 있었다. 어떤 행성 왕자도, 50만 년 전 그 중대한 날에 캘리개스차가 지냈던 것보다, 더 풍부한 예비 체험이나 더 훌륭한 성공 가능성을 지니고 세상을 통치하는 생애에 임한 적이 없었다. 한 가지는 분명한데:그 사건을 지방우주에 알리기 위해 서술{敍述}하는 내 임무를 수행할 때, 나는 훌륭한 이 라노난덱이, 행성을 관리하는 신성시되는 책임을 그토록 신속히 저버리고, 우주 아들신분의 고귀한 계층에 합당한 이름을 그토록 끔찍하게 더럽히리라고는, 한 순간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나는 정말로, 세상 직무를 주재하는 자리에, 그런 숙련되고

총명하고 독창적인 정신을 갖춘 존재를 유란시아가 모심으로써, 전체 사타니아 행성 가운데서 가장 운 좋은 다섯 내지 여섯 행성에 포함되리라고 여겼다. 그때 나는, 캘리개스차가 은밀하게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었음을 납득하지 못했으며;인격체의 오만함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2. 왕자의 참모진

^{66:2.1 (742.1)}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홀로 파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보좌관 단체와 경영 협조자들을 대동했다.

^{66:2.2 (742.2)} 이 집단의 수뇌부에는 행성 왕자의 동역_보좌관인 달리개스차가 있었다. 달리개스차 역시 라노난텍 아들이었고, 그 계층 중에서 319,407_번이었다. 그는 캘리개스차의 동역자로 배정됐을 때 보좌관 위치였다.

^{66:2.3 (742.3)} 행성 참모진은, 수많은 협조하는 천사와 한 무리의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간 종족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배정됐다. 그러나 너희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전환

구성원들일 것이다--때로는 *캘리개스차* 100인으로 불린다.

66:2.4 (742.4)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다시 물질화{物質化}된 100명의 이 구성원은, 유란시아 모험에 참여하기로 자원한 785,000명의 상승한 예루셈 시민 중에서 캘리개스차가 선택했다. 선택된 100명 각자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고, 유란시아에서 온 자는 하나도 없었다.

66:2.5 (742.5) 이 예루셈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스랍 운송{運送}을 통해서 체계 수도로부터 유란시아로 직접 옮겨졌고,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이중{二重} 본질을 갖는 행성 특별 봉사, 즉 살과 피로 구성된 순전한 육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체계의 생명 회로에 동조된 인격체 형태가 제공될 수 있을 때까지 스라빔에 둘러싸여 있었다.

66:2.6 (742.6) 이 1백 인의 예루셈 시민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감독하는 두 명의 생명 운반자는, 그들의 계획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전환 구성원을 위해서 투사될 물질적 몸체들 속으로, 안돈과 흰타 혈통에서 선택한 생존자 100명의 생명 원형질을 이식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예루셈과

에덴시아에 요청했다. 그 요청은 예루셈에서 승인됐고 에덴시아에서 허락됐다.

66:2.7 (742.7) 따라서, 생명 운반자들은 안돈과 흰타의 후손 가운데서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를 선택했는데, 이들은 그 독특한 인종에 속하는, 가장 뛰어난 혈통의 생존자를 대표한다. 한 두 사람의 예외는 있지만, 인종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할 이 안돈족속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일원화된 사고 조율사의 지시와 스랍의 안내에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왕자의 행성 본부 입구로 집합했다. 여기서 100명의 인간 상대자{相對者}는, 아바론에서 온 매우 능숙한 자원봉사자 위원회에게 맡겨졌고, 그들은 이 안돈 후예들의 생명 원형질의 일부 물질을 추출{抽出}하는 것을 지도했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때,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100명의 예루셈 시민 구성원에게 알맞도록 제조된 물질 몸체로 전환됐다. 그동안, 체계 수도로부터 새로 도착한 이 시민들은 스랍 운송의 보호 속에 잠들어 있었다.

66:2.8 (742.8) 이 진행사항은, 캘리개스차 100인을 위해서 특별한 몸체들이 실제로 창조됨과 동시에, 수많은

전설{傳說}을 만들어냈는데, 이중에 다수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대의 전통과 나중에 혼돈을 일으키게 됐다.

66:2.9 (743.1) 100명의 예루셈 자원봉사자를 데려온 스랍 운송체들이 도착한 때부터, 그 영역의 삼중적 존재인 그들이 의식을 찾기까지, 다시 인격화되는 전체 처리사항이 이뤄지는 데는 정확하게 10일이 소요됐다.

3. 달라마시아--왕자의 도성

66:3.1 (743.2) 행성 왕자의 본부는 당시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위치했는데, 후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일치되는 지역이었다.

66:3.2 (743.3) 그 시절에 메소포타미아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은, 그 뒤에 때때로 널리 퍼진 조건과는 매우 다르게, 왕자의 참모진과 그 보좌관들이 맡은 일을 하기에 모든 면에서 유리했다. 원시 유란시아인의 문화와 문명이 어떤 초기 수준까지 발전하도록 유도하려고 계획된 자연 환경의 일부로서, 그런 유리한 기후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시대에 큰 과제 하나는, 사람을 사냥꾼에서 목자{牧者}로 전환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평화를_사랑하고

집에서_거주하는 농부로 진화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66:3.3 (743.4)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본부는, 새로 조성되고 발전이 이뤄지는 구체에 있는 전형적 주둔지였다. 왕자가 정착한 장소의 중심부는 매우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운 도성{都城}이었고, 40피트에 달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적 문화 중심지는 달리개스차에게 경의를 표해, 달라마시아라고 이름지어졌다.

66:3.4 (743.5) 도성은 10개 구역으로 나뉘었고, 육체전환 참모진의 10개 협의회 본부 건물이 각 구역 중심부에 위치했다. 도성의 정 중앙에는 보이지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다. 왕자와 그 동역자들의 경영 본부는, 성전에 바로 이어서 배열된 12개의 회관에 배치됐다.

66:3.5 (743.6) 달라마시아에 있는 건물은 모두 단층이었고, 2층으로 돼 있는 협의회 본부,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3층 높이로 돼있는 만유{萬有}의 아버지의 중앙 성전만 예외였다.

66:3.6 (743.7) 도성은 건축 재료에서--곧 벽돌에서-- 그런 초기 시대로서는 최고의 풍습을 보여줬다. 돌과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변에 있는 주민의 집 건물과 마을 건축술은, 달라마시아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크게 발전했다.

66:3.7 (743.8) 왕자의 본부 근처에는 모든 피부색과 계층의 인간이 거주했다. 그리고 왕자의 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모집됐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이 초기 학교들은 비록 미숙했지만, 원시적인 그 시대의 남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66:3.8 (743.9)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은, 주변에 있는 부족 중에서 우수한 개인들을 끊임없이 모집했으며, 이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영감{靈感}을 불어넣은 후에는, 그들 각자 민족의 선생과 지도자로서 돌려보냈다.

4.1백 인의 초기 시절

66:4.1 (743.10) 왕자의 참모진이 출현함으로써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소식이 널리 퍼지기까지 거의 1,000년이 소요됐고, 메소포타미아 본부 근처에 있는 부족들은 새로

유란시아에 머물게 된 100인의 가르침과 행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중에 이뤄진 신화{神話} 대부분은,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이 구성원들이 유란시아에서 초인간으로 다시 인격화된, 이 초기 시대에 관한 왜곡된 전설로부터 생겨났다.

66:4.2 (744.1) 그런 행성 바깥에서 온 선생들이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데 심각한 방해물은, 그들을 신{神}으로 간주하려는 필사자들의 경향이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한 기법을 제외하고, 캘리개스차 100인은 --곧 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는-- 초자연적 방법이나 초인적 조작{操作}에 의존하지 않았다.

66:4.3 (744.2) 그러나 육체전환 참모진은 그림에도 초인간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색다른 삼중적 존재로서 사명을 개시했다:

66:4.4 (744.3) 1. 그들은 육체전환 상태였고 비교적 인간이었는데, 인간 종족 가운데 하나, 즉 유란시아의 안돈 생명 원형질을 몸속에 지녔기 때문이다.

66:4.5 (744.4)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이 1백 명의 요원은, 그들이 전에 필사자 상태였을 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숫자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됐다. 이 집단에 속한 각 사람,은 부모로서 어떤 새로운 계층의 육체적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오직 특별한 조건하에서 아버지 관계를 이루도록 조심스럽게 지시받았다. 행성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에게는, 특별한 행성 사명으로부터 은퇴하기 얼마 전에 후손을 낳는 것이 관례였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행성 아담과 이브가 도착할 때,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다.

66:4.6 (744.5) 그러므로 이 특별한 존재들은, 남녀의 결합으로 어떤 유형의 피조물이 출산되는지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관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그들의 세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단계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전체 체제가 반역으로 혼란에 빠졌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나중에 참여한 그들은 체계의 생명 흐름에서 이미 격리돼 있었다.

66:4.7 (744.6) 캘리개스차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된 이 요원들은, 피부 색깔과 언어에서, 안돈 종족을 닮았다.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똑같이 음식을 섭취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다시 창조된 육체를 가진 이 무리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과일과 나무 열매가 있는 따뜻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결정한 고려사항들 가운데 하나였다.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풍습은 캘리개스차 100인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이런 관습이, 가깝거나 먼 곳에 퍼져서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족, 즉 한때 고기만 먹었던 진화하는 종족들로부터 기원된 집단들의 식사 습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66:4.8 (744.7) 2. 그 100인은 물질적이지만 초인적 존재였는데, 고귀하고 특별한 계층의 독특한 남자와 여자로서 유란시아에서 재구성됐다.

66:4.9 (744.8) 이 집단은, 예루셈에서 임시 시민신분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직 사교 조율사와 융합되지 못했으며, 그들이 자원하고 나서, 하강하는 아들신분 계층들과 연관되는 행성 봉사를 하도록 허락 받았을 때, 그들의 조율사가 분리됐다. 그러나 이 예루셈 거주자들은 초인적 존재였다- 그들은 상승하면서 성장하는 혼을 소유했다. 필사 생명체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 혼은 배아기{胚芽期}

상태에 있으며;그것은 모론시아 생명체 속에 태어나고(부활되고), 연속되는 모론시아 세계들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체험을 한다. 그리고 캘리개스차 100인의 혼은, 일곱 맨션 세계를 점진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지나, 예루셈에서 시민 자격의 신분을 얻기까지 그렇게 성장했다.

66:4.10 (744.9) 참모진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지침을 준수해서, 성교{性交}를 통한 출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체 구조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적(정신) 단계와 모론시아(혼) 접촉을 면밀히 탐구했다. 그리고 성벽{城壁}이 완성되기 훨씬 전인, 달라마시아에 머물게 된지 33년째 해에, 단족속 집단 중에서 2_번과 7_번이 (성교가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라고 간주되는) 모론시아 자아의 접촉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했으며;이런 진귀한 체험의 결과로 나타난 존재는, 1차 중도{中道} 피조물 가운데 첫째임이 판명됐다. 새로운 이 존재는, 행성 참모진과 그 천상의 동역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보였지만, 다양한 부족의 남녀 인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성 왕자의 지시에 따라서, 육체전환 참모진 전체는 동일한 존재의 생산에

참여했고, 선구자 격인 단족속 쌍의 지침에 따라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왕자의 참모진은, 결국 5만 명으로 이뤄진 독특한 1차 중도자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

66:4.11 (745.1) 이런 중간_유형의 피조물은, 세계 본부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큰 사명을 감당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달라마시아에 원래부터 머문 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 약간영들에 관해서 배웠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하는 이 필사자들에게는 이들이 영 세계의 전부였다.

66:4.12 (745.2) 3. 캘리개스차 100인은, 개인적으로 불멸하는, 죽지 않는 존재였다. 체계 생명 흐름의 해독{解毒} 보충물{補充物}이 그들의 물질 형상 도처에 순환됐는데;그들이 반역을 통해서 생명 회로와의 접촉을 잃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하보나와 낙원을 향한 여행을 그 후에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살아왔을 것이다.

66:4.13 (745.3) 사타니아 생명 흐름이 들어있는 이 해독 보충물은,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추출됐는데, 이 나무는

캘리개스차가 도착할 때, 노라티아텍의 지고자들이 유란시아로 보낸 에덴시아의 떨기나무였다. 달라마시아 시대에,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성전 뜰 중앙에서 자랐으며,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물질적 존재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획득하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 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66:4.14 (745.4) 진화하는 인종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었지만, 캘리개스차 100인에게, 그리고 또한 그들과 연합됐던 변경된 100인의 안돈족속에게는, 이 음식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66:4.15 (745.5) 이것과 관련해서, 100명의 안돈족속이 인간의 배아{胚芽} 원형질을 왕자의 참모진에게 기증했을 당시에,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필사 육체 속으로 체계 회로의 보충물을 삽입시켰던 것을 설명해야만 하며;그리하여 그들은, 육체적 죽음에 구애받지 않고, 참모진과 함께 여러 세기 동안 같이 살 수 있었다.

66:4.16 (745.6) 결국, 100명의 안돈족속은 상관의 새로운 형체에 자신들이 기여했음을 알게 됐고, 안돈 부족의 바로 이

자녀들 100명은,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의 수행원으로서 본부에 남아 있었다.

5.1백 인 무리의 조직

66:5.1 (745.7) 100인은 각각 열 명으로 구성된 자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봉사하도록 조직됐다. 10개의 이 협의회 가운데 두 개 이상이 합동으로 모일 때에는, 함께 모인 그런 무리를 달리개스차가 통솔했다. 10개의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66:5.2 (745.8) 1. *양식과 물질적 번영을 관할하는 협의회.* 이 집단은 양이 관장했다. 유능한 이 단체가, 인류의 양식, 물, 의복, 및 물질적 증진을 촉진시켰다. 그들은 우물 파기, 샘물 통제, 그리고 관개{灌溉}를 가르쳤다. 그들은 높은 고지대에서 온 자들과 북쪽에서 온 자들에게, 가축을 처리해서 의복으로 사용하는 발전된 방법을 가르쳤고, 나중에는 기술과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 짜는 방법을 소개했다.

66:5.3 (746.1)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에 큰 진보가 이뤄졌다. 음식을 익힘, 말림, 및 그을림으로 보존했고;그리하여 음식은 아주 일찍부터 재산이 됐다. 사람은 굶주림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굶주림이 주기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66:5.4 (746.2) 2. *동물 길들이기와 활용을 담당하는 부서.* 이 협의회는, 무거운 짐을 지거나 인간을 수송하는 일에서 그들을 돕고, 음식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땅을 일구는데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을 선택하고 사육하는 과제를 전담했다. 본이 이 유능한 단체를 통솔했다.

66:5.5 (746.3) 길들여진 상태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은 멸종된, 몇몇 유형의 유용한 동물을 길들였다. 개는 오래 전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고, 청색인은 코끼리를 길들이기에 이미 성공했다. 소는 음식을 위한 유용한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런 개량 작업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고;버터와 치즈는 인간에게 흔한 식품품목이 됐다. 사람들은 짐을 나르는 일에 소를 활용하기를 배웠지만, 말은 후대까지도 길들이지 못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쉽게 끌 수 있게 바퀴를 이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다.

66:5.6 (746.4) 우편배달용 비둘기가 처음 사용된 것도 이 시대였고, 소식을 전하거나 구조 요청을 위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본이 지휘하는 이 집단은, 여객용{旅客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환도르 새를 훈련시키기에 성공했지만, 그것들은 3만 년 전에 멸종됐다.

66:5.7 (746.5) 3. 육식 동물을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충고하는 자들. 초기 인간은, 특정한 동물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으며, 그는 또한 호전적인 동물 세계에서 살아남은 동물에게 먹이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이 집단은 단이 우두머리였다.

66:5.8 (746.6) 고대 도시들이 성벽{城壁}을 쌓은 목적은, 적대적인 인간들의 갑작스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성벽이 없는 곳이나 숲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 바위 움막 속, 그리고 밤에 불 피워놓기 등에 의존했다. 그러므로 이 선생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 거주지를 개선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게 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개선된 기법을 사용하고 함정을 이용함으로써, 동물을 제압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뤘다.

66:5.9 (746.7) 4. *지식의 전파와 보존을 담당하는 선생들.* 이

집단은, 그 초기 시절에 순전히 교육하려는 시도를 체계화하고 지휘했다. 헛이 통솔했다. 헛의 교육 방법은 고용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이에 개량된 방법의 교육이 뒤따랐다. 헛은 최초의 알파벳을 조직적으로 구성했고, 쓰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알파벳은 스물다섯 자로 구성됐다. 이런 초기 민족들이 글씨를 쓰기 위한 재료로, 나무껍질, 진흙 판, 돌 판, 가죽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양피지 형태, 그리고 말벌 집으로 만든 종이처럼 생긴 조잡한 형태의 물질 등을 사용했다. 달라마시아에 있는 도서관은, 캘리개스차가 이탈한 직후에 파괴됐는데, 200만 개 이상의 분리된 기록으로 구성됐고 “헛의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66:5.10 (746.8) 청색인은 알파벳 쓰기를 특히 좋아했고, 그 쪽

방면으로 큰 진보를 이뤘다. 홍색인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글씨쓰기를 좋아했던 반면, 황인종은 단어와 관념을 대표하는 상징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갔고,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반역이 일어남에 따라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알파벳은 물론 아주 많은 것이 후대의 세계에 전해지지 못했다. 캘리개스차의 배반은,

보편적 언어를 가질 희망이, 적어도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세상에서 사라지게 했다.

66:5.11 (747.1) 5.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이 협의회는 부족들 안에서 산업{産業}을 조성하는 일과, 다양한 평화로운 집단들 사이에 거래를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낯이었다. 이 단체는 모든 형태의 원시 제조업을 촉진시켰다. 그들은 원시인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많은 새로운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직접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했다. 그들은 과학과 예술을 전담하는 협의회가 생산한 개선된 소금의 거래를 매우 널리 확장시켰다.

66:5.12 (747.2) 최초의 상업적인 신용{信用}이 실용화 된 것은, 달라마시아 학교에서 교육 받은 계몽된 집단 가운데에서였다. 그들은 중앙 신용 거래소로부터 동전을 확보했고, 물물 교환하는 실제 상품 대신 이것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수십만 년 동안, 이런 거래 방법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66:5.13 (747.3) 6.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학부.* 이 기관은 기능을 발휘하는 속도가 느렸다. 유란시아의 문명은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망치와 필요성이라는 모루 사이에서 연마됐다. 그러나 이 집단은, 배반으로 인한 격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후대의 혼란으로 인해 그들의 수고가 중단되기 전에, 피조물을 두려워하는(유령{幽靈}을 숭배하는) 대신,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체시키려는 시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 협의회는 우두머리는 합이었다.

66:5.14 (747.4)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아무도, 진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계시는 제시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들은 진화의 힘이 모두 소모된 정점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계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합은, 종교 예배 형식을 설립하자는 도성 거주민의 요구에 굴복했다. 그의 집단은, 경배를 위한 일곱 개의 영창을 달라마시아 주민에게 제공했으며, 일상적 찬양_경구{警句}도 줬고, 결국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66:5.15 (747.5) "만유의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공경하오니, 은혜로 우리를 굽어 살피 주십시오. 당신 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신성한 선생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진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나움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며;우리 어른들과 우리 이웃에 속한 자들을 존경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푸른 초장의 계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다산{多産}의 가축 떼를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올려줄 약속의 사람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66:5.16 (747.6) 왕자의 참모진은, 비록 인종을 개선하는 자연스런 수단과 평범한 방법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기는 했지만, 생물학적 발전이 최고로 달성되고 나면, 이어지는 진화 성장의 목표로서 새로운 인종인 아담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했다.

66:5.17 (747.7) 7.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들.* 이 협의회는, 공중위생을 소개하고 원시적인 위생상태를 증진시키기는 데 관여했고, 렛이 인도했다.

66:5.18 (747.8) 그 요원들이 가르친 것들 대부분은 나중에 혼란스런 와중에 소멸됐고, 20세기까지 다시 발견되지 못했다. 그들은 익히기, 끓이기, 밋 굽기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또한 그런 요리법이 유아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과, 일찍 젖을 떼도록 촉진시킨다는 것도 가르쳤다.

66:5.19 (747.9) 렛이 인도하는 건강 수호자들의 초기 교훈 가운데 다수가, 크게 왜곡되고 변경됐음에도, 지구상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서 모세 시대까지 이어졌다.

66:5.20 (748.1) 무지한 이 민족들 사이에서 위생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방해물은,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실제 원인이 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있었고, 또한 그들 모두가 항상 미신적{迷信的}인 생각으로 불을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에 태우는 의식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데, 수천 년이 소요됐다. 그동안, 부패되는 쓰레기를 땅에 묻도록 그들을 설득했다. 이 시기의 공중위생에서 가장 큰 진보는, 햇빛이 건강을 제공하고 질병을 몰아내는 수단이라는 체험이 보급됨으로써 이뤄졌다.

66:5.21 (748.2) 왕자가 도래하기 전에는, 목욕하는 것이 순전히 종교 예식이었다. 건강 요법으로 몸을 씻으라고 원시인을 설득하기는 정말로 힘들었다. 렛은 마침내 종교 선생들을

설득해서, 만유의 아버지께 경배하는, 매주 한 번씩 정오 헌신 시간에 정결{淨潔} 예식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물로 씻기를 포함하도록 만들었다.

66:5.22 (748.3) 또한 이 건강 수호자들은, 개인적인 친구관계 확인과 집단적 충성심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서로 침을 교환하거나 피를 마시는 방법 대신 손을 잡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탁월한 지도자들의 교훈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 원시인들은 자신이 전에 시행하던, 건강을 파괴하고 질병을_조장하는, 무지하고 미신적인 풍습으로 신속하게 돌아갔다.

66:5.23 (748.4) 8. *예술과 과학을 담당하는 행성 협의회.* 이 단체는, 초기 인류의 산업 기술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기여했다. 그들의 지도자는 맥이었다.

66:5.24 (748.5) 예술과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에 있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물리와 화학의 기본을 배웠다. 도기{陶器} 제조법이 발달했고, 장식하는 기술이 매우 발전했으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이상{理想}이

크게 진보됐다. 그러나 음악은, 보라색 종족이 출현할 때까지 거의 진보되지 못했다.

66:5.25 (748.6) 선생들이 반복해 재촉했음에도, 이 원시인들은 증기 압력에 대한 실험에 동의하지 않으려 했으며; 억압된 증기의 폭발력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금속 밧 불을 다룰 수 있도록 설득됐으며, 그럼에도 빨강계 달궈진 금속은 초기의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66:5.26 (748.7) 맥은 안돈 족속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색인의 예술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청색인과 안돈 혈통의 혼혈 종족은, 예술적 재능을 타고난 후손을 낳았고, 그들 중에서 숙련된 조각가가 많이 나왔다. 그들은 암석이나 대리석을 다루지 않았지만, 불에 구워 단단하게 된 진흙 작품으로 달라마시아의 동산을 장식했다.

66:5.27 (748.8) 큰 진전은 주택 기술에서 이뤄졌지만, 오랫동안 계속된 반역의 암흑기에 대부분 사라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다.

66:5.28 (748.9) 9. *증진된 부족 관계 운영자들*. 이 집단은 인간 사회를 국가체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텃이었다.

66:5.29 (748.10) 이 지도자들은 부족 간 결혼을 성립시키기에 많이 기여했다. 그들은 적당한 심사숙고와 친해질 충분한 기회를 가진 후에 구애{求愛}와 결혼이 이뤄지게 했다. 순전히 군사적인 전쟁 무도회가 다듬어졌고 유용한 사회적 목적에 이바지했다. 많은 경기 종목이 소개됐지만, 고대의 이 사람들은 무뚝뚝한 민족이었으며;이 초기 부족들에게는 유머가 거의 없었다. 행성의 폭동으로 인한 분열이 있는 후에, 이런 풍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66:5.30 (749.1) 텃과 그의 동역자들은, 평화로운 성질의 집단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규제하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종족 간의 협조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 정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달라마시아 근처에서는 더 진보된 문화가 개발됐고, 이렇게 개발된 사회관계는, 멀리 있는 부족들에게 영향을 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왕자의 본부에서 널리 보급된 문명의 원형{原型}은, 다른 곳에서 진화된 야만적 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마치 남 아프리카에 있는 케이프타운의 20세기 사회가, 북쪽에 있는 몸집 작은 부시먼 종족의 미개한 문명과 전적으로 다른 것과 같다.

66:5.31 (749.2) 10. 부족의 협조와 인종 간의 협동을 담당하는 최고 법정. 반이 이 최고 협의회를 지휘했고, 인간사{人間事}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9개의 다른 특별 위원회 전체의 상소{上訴}를 처리하는 법정이었다. 이 협의회는 폭 넓게 활동했고, 다른 집단들에게 특별히 배정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위임받은, 폭넓게 활동하는 협의회였다. 선발된 이 단체는 유란시아의 최고 법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락받기 전에, 먼저 에덴시아의 성좌 아버지들의 승인을 받았다.

6. 왕자의 통치

66:6.1 (749.3) 한 세계의 문화 수준은, 거기서 태어난 존재들의 사회 유산으로 측정되며, 문화 발전 속도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새롭고 향상된 관념을 납득하는 역량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정된다.

66:6.2 (749.4) 전통을 노예처럼 따르면, 과거와 현재를 감상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안정과 협동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독창성을 억압하고 인격체의 창의력을 노예화시킨다. 캘리개스차 100인이 도래해서 당시의 사회 집단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부르짖는 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온 세계는 전통에 사로잡힌 사회관행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익한 이 방식이 너무 일찍 중단됐으므로, 인종들은 관습에 노예 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적이 전혀 없었으며;관례가 여전히 지나치게 유란시아를 지배한다.

66:6.3 (749.5) 캘리개스차 100인은--곧 사타니아 맨션 세계의 졸업생은-- 예루셈의 기술과 문화를 잘 알고 있었지만, 원시 인간이 사는 미개한 행성에서는 그런 지식이 거의 쓸모없었다. 이 지혜로운 존재들은, 당시의 원시 종족들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일괄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았다. 그들은 인간 종족들 속에서 이뤄지는 느린 속도의 진화를 잘 이해했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변경시키는 어떤 급진적{急進的} 시도도 현명하게 삼갔다.

66:6.4 (749.6) 10개의 행성 위원회 각각은 위임받은 관심거리들을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증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다시 그들의 민족에게 돌려보내서 사회를 증진시키는 특사{特使}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66:6.5 (749.7) 어떤 민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민족을 사자{使者}로 보내지 않았다. 주어진 부족이나 종족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은, 반드시 그 부족 또는 종족의 원주민이었다. 그 100인은 아무리 우수한 종족이라도 그들의 습관이나 사회관행을 다른 부족에게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성된 각 종족의 사회관행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끈기 있게 작업했다. 유란시아의 단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 관습을 새롭고 더 나은 풍습과 바꾸려고 달라마시아에 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우수한 정신들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증진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매우 효과적이었다.

66:6.6 (750.1) 달라마시아 선생들은, 생물학적 진화로 생기는 순전히 자연스런 선택에, 의도적인 사회적 선택을

덧붙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인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회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진화를 현저히 촉진시켰다. 그들의 목적은, 진화로 진보하는 것이었고, 계시로 대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종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미미한 종교와 도덕을 획득하기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으며, 계몽되고 우수한 존재들이, 퇴보된 종족들을 과도한 교훈과 과도한 계몽으로 증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혼돈과 실망스런 일이 생겨나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진보를 인류로부터 빼앗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이 초인적 존재들은 잘 알았다.

66:6.7 (750.2) 아프리카 중심부에서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부모의 통제와 지시 아래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21세에 이른 후에는 부모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 풍습을 단 하나의 세대 중에 대체시키려고 추구한다면, 그들에게는 오직 혼란만 야기되고 모든 권위가 붕괴될 것이다.

7. 달라마시아의 생활

66:7.1 (750.3) 왕자의 본부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비록 그 시대의 원시인을 압도할 정도로 설계돼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수했다. 축산업을 소개함으로써 결국 농업의 발전을 북돋우는 것이, 외계에서 들어온 이 선생들의 목적이었던 만큼, 건물은 유별나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 도성의 성벽 안에 있는 경작지{耕作地}는, 약 2만 명의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목초지와 밭을 제공했다.

66:7.2 (750.4) 중앙에 있는 경배 드리는 성전과 감독하는 초인간 집단의 10개 협의회 관저{官邸}들 내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모양이었지만, 후대에 개발된 것들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했고, 전체적으로 원시적인 형태였다. 이 문화 본부에는, 유란시아에 자연스럽게 속하지 않은 다른 방법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66:7.3 (750.5) 왕자에게 소속된 육체전환 참모진은, 단순하면서도 훌륭한 주거지들을 관장했는데, 세계적인 사회 중심지이고 교육의 본산지인 거기에 머물면서

관찰하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설계된 집이 되도록 유지했다.

66:7.4 (750.6) 명확한 가정생활 체제와, 비교적 정착된 장소의 한 주거지에 한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이, 달라마시아의 시대부터 시작됐고, 주로 100인과 그 제자들의 모범과 교훈에 따라서 이뤄졌다. 사회 단위로서의 가정은, 달라마시아의 초인적 남녀가 인류를 인도해서, 그들의 손주와 그 손주의 자손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도록 만들 때까지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미개한 사람은 자기 자녀만 사랑하지만,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손 역시 사랑한다.

66:7.5 (750.7) 왕자의 참모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살았다. 정말로, 그들에게 자신이 낳은 자녀는 없었지만, 달라마시아에 있는, 원형이 되는 50개의 가정에는, 안돈의 후예와 상익 인종의 우수한 가정들로부터 소집된 양자와 양녀가 항상 500명 이상 살았으며;이 아이들 가운데 다수는 고아였다. 아이들은 이 초인적 부모의 훈련과 교육에 호의를 보였고;그 후에, (열세 살부터 열다섯 살 사이에 입학하는) 왕자의 학교들에서 3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 그들 각자의 인종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에게 왕자의 사자{使者}로서 임명받을 준비가 됐다.

66:7.6 (751.1) 직업학교 식으로 가르치려는 달라마시아 계획을 헛이 후원했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유익한 과제를 매일 실행함으로써 자활{自活}해 나갔다. 이 교육 계획은 성품의 발달에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육체 단련을 첫째로 삼았다. 지침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해졌다. 남녀가 같이 학생들을 지도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르쳤다. 이 집단 훈육의 절반은 성별{性別}로 행해졌으며; 나머지 절반은 합동으로 교육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수공{手工} 기술을 배웠고, 여러 집단이나 반으로 나뉘어 교제했다. 그들은 비교적 나이 어린 집단, 나이 많은 집단, 그리고 어른들과 친하게 지내는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또래인 자들과 협동 작업을 하는 것도 배웠다. 또한 그들은, 가족 집단, 놀이하는 소집단, 그리고 학급{學級} 같은 연합에도 익숙해졌다.

66:7.7 (751.2) 각자 자기 인종과 함께 일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훈련 받은 후대의 학생 중에는, 서부 인도의 고지대에서 온 안돈족속이 있었고, 홍색인 및 청색인의 대표자들도 있었으며;더 후대에는 소수의 황인종도 훈련 받았다.

66:7.8 (751.3) 합은 초기 인종들에게 도덕법{道德法}을 제시했다. 이 규범은 "아버지의 길"이라고 알려졌으며, 다음과 같은 7개의 지침으로 구성됐다:

66:7.9 (751.4) 1. 만유의 아버지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마라.

66:7.10 (751.5) 2. 세상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을 거역하지 말고, 그의 초인적 동역자들에게도 불경함을 보이지 마라.

66:7.11 (751.6) 3. 백성의 재판관 앞에 불러갔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66:7.12 (751.7) 4. 남자나 여자 또는 어린아이를 죽이지 마라.

66:7.13 (751.8) 5. 이웃의 물건이나 가축을 훔치지 마라.

66:7.14 (751.9) 6. 친구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66:7.15 (751.10) 7. 부모와 부족의 어른에게 무례하지 마라.

66:7.16 (751.11) 이것은 거의 30만 년 동안 달라마시아의 법이었다. 그리고 이 법이 여러 개의 돌 위에 새겨졌고,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해안선 멀리 물밑에 묻혀 있다. 각 요일마다 이 계명 중에서 하나를 마음 속에 묵상하는 것이 관습이 됐고, 그것을 식사시간의 감사 기도와 인사로 사용했다.

66:7.17 (751.12) 이 시대의 날짜 계산은, 월력{月曆}, 즉 28일을 한 기간으로 삼는 방법을 사용했다. 낮과 밤을 제외하고는, 이것만이 초기 민족들에게 알려진 시간 계산법이었다.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은 7일을 한 주{週}로 삼는 방법을 소개했고, 7일이 28일의 4분의 1이라는 사실에서 형성됐다. 연방우주에서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일반 시간 계산법에 영적 암시를 도입하게 되는 기회를 그들에게 확실히 제공했다. 그러나 한 주라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기원된 경우는 전혀 없다.

66:7.18 (751.13) 그 도성{都城} 주변에 100마일 반경까지는 매우 잘 정착됐다. 도성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는, 왕자의 학교를 졸업한 수백 명의 사람이 축산업에 종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참모진과 수많은 인간 협조자로부터 받은 지침을 실행에 옮겼다. 소수의 사람이 농업과 원예에 종사했다.

66:7.19 (751.14) 인류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형벌로 농사짓는 고통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들의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배반한 캘리개스차의 지도하에 사람이 루시퍼 반역의 어리석음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벌칙이 아니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진화하는 세계에 진보된 문명을 설립하기 위해서 고유하게 있는 것이며,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도착한 때부터, 캘리개스차가 반역자 루시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그 비극의 시대 사이에 있었던 30만 년 내내, 이 명령은 그들의 전체 교훈의 핵심이었다. 땅을 일구는 것은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인간 활동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즐기도록 그렇게 허용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66:7.20 (752.1) 반역이 발발했을 때, 달라마시아에는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다. 이 숫자에는 정규

학생들이 포함되지만, 항상 1,000명 이상의 숫자를 유지하는 방문자와 관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먼 옛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진보가 이뤄졌었는지, 너희는 거의 또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며;당시에 인간들이 획득했던 거의 모든 놀라운 소득은, 속임수와 선동으로 점철된 캘리개스차의 파멸 이후에 따라온 끔찍스런 혼란과 비천한 영적 암흑으로 인해, 실제로 완전히 사라졌다.

8. 캘리개스차의 불행

^{66:8.1 (752.2)} 캘리개스차의 오랜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의 행위 가운데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색을 우리가 발견했는데;그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였다. 그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의 모든 무리를 편드는 경향이 있었고, 비난하기 위해 완곡하게 표현하는 자들에게 대개 공감{共感}했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차분하지 못한, 통제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언제나 완곡하게 반항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 초기에 그것을 간파했다. 상부 방침에는 약하게 화내고, 상급 권위 아래서는 약간 반항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시험이 시행될 때마다, 그는 항상 우주 통치자들에게 충성하고, 성좌 아버지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입증됐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고약한 배반이 있을 때까지, 어떤 실제적 결점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66:8.2 (752.3) 루시퍼와 캘리개스차 둘 다, 그들의 비판적 경향, 그리고 자만심이 미묘하게 발전하고, 이와 관련해서 과장되게 자신을_중요시여기는 것에 관해, 끈기 있는 가르침과 사랑의 경고를 받아왔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러나 도와주려 했던 이런 모든 노력은, 근거 없는 비판이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개입이라고 잘못 오해돼 왔다. 캘리개스차와 루시퍼 둘 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충고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을 지배하기 시작한, 매우 비난받을 만한 의도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심판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자라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사심 없는 충고자들을 비판했다.

66:8.3 (752.4) 캘리개스차 왕자가 도착한 이래, 행성의 문명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의 30만 년 동안 진보했다. 생명체_변경 구체가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진화의 불안정으로 말미암는 특이한 사건들 및 수많은 변칙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외하면, 루시퍼의 반역 및 그와 동시에 일어난 캘리개스차 배반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유란시아는 그 행성 경력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진전을 이뤘다. 차후의 모든 역사는, 후대{後代}에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행성 사명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큰 실수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변경됐다.

66:8.4 (752.5) 유란시아의 왕자는,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암흑세계로 들어갔고, 그리하여 이 행성에서 오래 지속되는 혼란을 일으켰다. 성좌 통치자 및 다른 우주 권위자들의 협조적 조치에 따라서, 그는 나중에 주권을 뺏겼다. 그는 아담이 지구에 머물게 될 때까지, 고립된 유란시아의 어쩔 수 없는 흥망을 함께 나눴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새로운 보라색 인종의 생혈{生血}이 주입됨으로써 필사 인종들에게 증진이 이뤄지게 하는 계획이 실패하도록,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66:8.5 (753.1) 인간의 관심사를 교란시키는 타락한 왕자의 능력은, 아브라함 시대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필사자로 육신화함으로써 크게 줄어들었으며;나중에, 미가엘이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이 배반한 왕자는 마침내 유란시아에서 모든 권한을 뺏겼다.

66:8.6 (753.2) 유란시아에서 인간 비슷한 마귀에 대한 교리는, 배반하고 사악한 켈리개스차의 행성 실재에 어느 정도 기초를 뒀더라도, 정상 인간 정신이 자유롭고 자연스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귀”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허구다. 심지어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되기 전에도, 켈리개스차나 달리개스차는 필사자를 억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개인이든지 강요해서 인간 의지를 거슬리는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들 수도 결코 없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도덕적 용건에서 주권을 가지며;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조차, 사람 자신의 의지가 선택한 것에 반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라도 행동하도록 억지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는다.

66:8.7 (753.3)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의 이 반역자는, 옛 부하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뺏긴 채,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내릴, 루시퍼 반역에 참여했던 모든 존재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6:8.8 (753.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67편 행성의 반역

67:0.1 (754.1) 과거의 어떤 중대한 시기들에 대한 지식, 그 중에도 특히 행성에 반역이 발생한 것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 없이는, 유란시아에서 인간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 격변이 유기체의 진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의 진화와 영적 발전 과정을 현저히 변경시켰다. 지구의 초물리적 역사 전체가, 파괴적인 이 재난으로 심하게 영향 받았다.

1. 캘리개스차의 배반

67:1.1 (754.2) 루시퍼의 보좌관인 사탄이 정기 시찰{視察}의 일환으로 방문하고 있을 때, 캘리개스차는 30만 년 동안 유란시아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탄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너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매우 뛰어난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놀랄 것이 없음은, 사탄 자신이 찬란한 빛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67:1.2 (754.3) 이 시찰 과정에서, 당시에 루시퍼가 획책했던 “자유 선언”에 대해, 사탄이 캘리개스차에게 알려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왕자는 반역이 공표{公表}되는 즉시 행성을 팔아넘기기로 동의했다. 충성스런 우주 인격체들은, 맡은 책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반한 것 때문에, 캘리개스차 왕자를 특별히 경멸했다. 창조주 아들은 이 치욕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다: “너는 네 지휘자인 루시퍼를 닮았고, 그의 죄악을 사악하게 이어받았다. 그는 진리에 거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_높아지려 할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67:1.3 (754.4) 지방우주의 어떤 경영 업무에서든지, 새롭게 사람이 거주하게 된 세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복지와 안내를 책임지는 행성 왕자에게 맡긴 것보다 더 신성시되는 높은 책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惡} 중에서, 맡은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친구들에게 불충하는 것보다 더 인격체 상태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캘리개스차는, 고의로 이런 죄를 범하면서, 자기 인격체를 너무나 철저하게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게 됐다.

67:1.4 (754.5) 죄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 철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죄{罪}는 시공우주 실체에 대해 고의로 반항하는, 인격체의 태도다. 실책은 실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악{惡}은 우주 실체에 대한 편파적인 깨달음, 또는 부적응{不適應}이다. 그러나 죄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의도적인 저항이며--즉 영적인 진보에 대항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반면에 죄악{罪惡}은 공인된 실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이고, 포괄적 광기{狂氣}에 가깝도록 인격체가 파괴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67:1.5 (755.1) 실책{失策}은 지적 예민함의 결핍을;악은 지혜의 부족을;죄는 비참한 영적 빈곤을 암시하지만;죄악은 인격체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67:1.6 (755.2) 그리고 죄를 매우 여러 번 선택하고 자주 반복하면,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 습관적인 죄인은 쉽게 죄악을 범하게 되고, 우주와 거기 있는 신성한 실체들 전체에 대항해서 전심으로 반역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만성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자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비통함을 체험할지,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일지,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회의적이다.

2. 반역이 발발함

67:2.1 (755.3) 사탄의 시찰이 있던 직후에, 그리고 행성 경영 당국이 유란시아에서 있을 큰 사건을 깨닫기 전에, 북부 대륙이 한겨울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캘리개스차는 동역자 달리개스차와 긴 시간 논의했고, 그 후에 달리개스차는 유란시아의 10개 협의회를 특별히 소집했다. 이 집회는, 캘리개스차 왕자가 자신이 유란시아의 절대적 주권자임을 선언하려 한다는 발표와 함께 시작됐으며, 행성 정부의 재구성과 경영적 권위를 갖는 이 부서들을 나중에 다시 배치할 때까지, 모든 경영 집단은 모든 기능과 권한을 피신탁인인 달리개스차에게 넘겨줌으로써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67:2.2 (755.4) 어리둥절케 하는 이런 요구가 발표된 후에, 협조를 담당하는 최고 협의회 의장인 반의 탁월한 호소가 이어졌다. 뛰어난 실력의 경영자이면서 유능한 법학자인 이 의장은, 캘리개스차가 획책하는 행로가 행성 반역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정했고,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인

루시퍼에게 항소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호소했으며;전체 참모진의
지지를 얻었다. 그에 따라서, 항소가 예루셈에 제기됐고,
캘리개스차를 유란시아의 최고 주권자로 임명한다는
명령과,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라는 명령이 즉시 하달됐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숭고한 반은 일곱 시간에 걸친 잇을
수 없는 긴 연설을 통해서, 네바돈 우주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경멸하는, 달리개스차, 캘리개스차, 및
루시퍼를 정식으로 고발했으며;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지지와 확인을 호소했다.

67:2.3 (755.5) 그러는 사이에 체계 회로들이
단절됐으며;유란시아는 고립됐다. 행성에 있는
천상{天上}의 생명체 집단은 모두,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고립돼서, 외부의 어떤 충고와 조언도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됐음을 발견했다.

67:2.4 (755.6) 달리개스차는, 캘리개스차가 “유란시아의
하나님이고 만민 위에 뛰어난 존재”라고 정식으로
선포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자, 쟁점이 분명하게

제기됐고;각 집단은 자기네끼리 물러나서 논쟁하게 됐으며, 결국 지구에 있는 각 초인적 인격체마다 그 운명이 이 논쟁이 결정하게 돼 있었다.

^{67:2.5 (755.7)} 스라빔, 체루빔, 및 기타 천상의 존재들이, 이런 격렬한 투쟁, 즉 길고도 죄로 가득한 이 투쟁의 결정에 말려들었다. 유란시아가 격리되던 당시에 우연히 여기에 와있던 많은 초인간 무리가 이곳에 억류됐고, 스라빔 및 그 동료들처럼, 죄{罪}와 의{義} 둘 중에서--곧 루시퍼의 길과,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67:2.6 (756.1)} 이런 투쟁은 7년 이상 계속됐다. 각 인격체가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에덴시아의 권위자들은 방해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 그때가 되기까지, 반과 그의 충성스런 동역자들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오랫동안의 염려와 견딜 수 없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 혹독했던 7년의 세월

^{67:3.1 (756.2)} 사타니아의 수도{首都}인 예루셈에서 일어난 반역을, 멜기세덱 협의회가 널리 알렸다. 비상대책

멜기세덱들이 즉시 예루셈으로 파견됐고, 가브리엘은, 권위에 도전 받게 된 창조주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겠다고 자원했다. 사타니아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그 체계는 고립됐고, 그 자매 체계들로부터 격리됐다. “하늘에서”, 즉 사타니아의 본부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지역 체계의 온갖 행성으로 확산됐다.

67:3.2 (756.3) 유란시아에서는, 100명의 육체전환 참모진 가운데 (반을 포함해서) 40명이 반란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 참모진의 인간 보조원(변경된 보조원 및 기타 보조원) 중에서 다수 역시, 미가엘과 그의 우주 정부에 대한 수호자가 됐다. 스라빔과 체루빔 중에서는 몹시 많은 인격체가 손실됐다. 행성에 배정됐던 경영자 스라빔과 과도기 스라빔 중에서는, 거의 반{半} 정도가 루시퍼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와 달리개스차에게 합류했다. 1차 중도 피조물 중에서 40,119명이 캘리개스차와 손잡았지만, 이 존재들 가운데 나머지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충실한 채 남아있었다.

67:3.3 (756.4) 배반한 왕자는, 불충한 중도 피조물, 그리고 반역한 다른 인격체 무리들을 집합시켰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조직했으며, 반면에 반은 충성된 중도자들과 신실한 다른 무리들을 모았고, 행성 참모진 및 고립된 다른 천상의 인격체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투를 개시했다.

67:3.4 (756.5) 이런 투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충성된 존재들은 달라마시아 동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마련된, 벽이 없고 거의 보호되지 못한 촌락에 거주했지만, 깨어서 항상 파수를 보는 충성된 중도 피조물이 그들의 거주지를 주야로 보호했고, 그들은 대단히 귀중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다.

67:3.5 (756.6) 반역이 발발하게 되자, 충성된 체루빔과 스라빔이 세 명의 신실한 중도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나무의 관리를 맡았으며, 오직 40명의 충성된 참모진 및 그들과 연합된 변경된 필사자들만 이 에너지 식물의 열매와 잎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그 중에는 참모진의 동역자인 변경된 안돈족속이 56명 있었고, 불충한 참모진의

안돈족속 수행원 중에서도 열여섯 명은, 주인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다.

67:3.6 (756.7) 캘리개스차가 반역을 일으킨 이래 혹독한 7년 내내, 반은, 사람, 중도자, 및 천사들로 구성된 자신의 충성된 군대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우주 정부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태도의 충성심을 반이 견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확고함은, 명확한 사고{思考}, 현명한 논법{論法}, 논리적 판단, 진실된 의도, 사심 없는 목적, 지성적 충성심, 체험의 회상{回想}, 단련된 성품, 그리고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인격체를 봉헌하는 태도의 산물이었다.

67:3.7 (756.8) 기다리면서 보낸 이 7년의 세월은, 마음을 추스리고 혼을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 우주 직무에서 그런 위기는, 영적 선택의 한 요소로서 정신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교육, 훈련, 및 체험은, 진화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이, 생사를 좌우하는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방법에 대해 충성된 헌신을 하는 놀라운

행동을, 온전히 헌신한 피조물 의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 하는 영{靈}이, 인간 인격체의 결정하고_결심하는 능력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반의 변경된 인간 동료인 아마돈의 체험에서 일어났다.

67:3.8 (757.1) 아마돈은 루시퍼 반역에서 걸출한 인간 영웅이다. 안돈과 흰타의 후손인 이 남자는, 왕자의 참모진에게 생명 원형질을 기부했던 100명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사건이 있는 후로 줄곧, 동역자 및 인간 보좌관으로서 반에게 배속돼 왔었다. 아마돈은 길고 괴로운 투쟁기간에, 자신의 우두머리와 한 편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7년의 투쟁기간 내내, 아마돈과 그의 충성스런 동역자들이, 명석한 캘리개스차의 온갖 현혹하는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동안, 진화하는 인종 출신인 이 사람이, 달리개스차의 궤변에 동요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감격스러운 광경이었다.

67:3.9 (757.2)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우주 직무에서 광범위하게 체험한 캘리개스차는 타락했다--죄를 지었다. 최소의 지성을 가졌고 우주 체험은 전혀 없는 아마돈은, 우주에

대한 봉사와, 동역자에 대한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했다. 반은 지적{知的} 결단과 영적 통찰력을 멋지게 효과적으로 배합하면서, 정신과 영 양쪽 다 활용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 인격체 실현의 체험 수준을 성취했다. 정신과 영은, 온전히 일치하게 되면, 초인적 가치들, 심지어 모론시아 실체까지도, 창조할 가능성이 있다.

^{67:3.10 (757.3)} 이 비극적인 날들 동안, 소란스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인격체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에야, 유란시아에서 권세를 몰수하기 위해, 에덴시아의 지고자가 비상대책 멜기세덱들과 함께 도착했다. 예루셈에 있는 캘리개스차의 파노라마 통치_기록이 삭제됐고, 행성의 재건을 위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됐다.

4. 반역 이후의 캘리개스차 1백 인

^{67:4.1 (757.4)} 마지막 출석을 점검했을 때,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육체전환 요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렬돼 있었다:반과 그의 조정 법정 전체는 충성된 상태를 견지했다. 양식 담당 협의회 중에서 양과 세 명의 요원이 살아남았다. 동물을

이용한 축산 담당 부서는 모두 반역에 가담했고, 동물을_정복하도록 충고하는 자들 전원도 마찬가지로였다. 교육 담당 교수진 중에서 다섯 명과 맺은 구원됐다.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위원회 전체와 낯은 캘리개스차에게 가담했다. 종교를 계시하는 전체 학부와 합은, 반과 그의 훌륭한 일행들과 함께 충성된 존재로 남았다. 건강 담당 부서 전체와 맺은 멸망했다. 예술 및 과학 담당 협의회 전체가 충성된 상태로 남았지만, 부족 정부 담당 위원회 전체와 맺은 타락했다. 그리하여 100명 가운데 40명이 구제됐고, 나중에 예루셈으로 옮겨갔으며, 거기서 낙원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했다.

67:4.2 (757.5) 행성 참모진 가운데 반역에 가담한 60명은 낯을 지도자로 뽑았다. 그들은 반역한 왕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일했지만, 체계의 생명 회로가 주는 영양을 뺏겼음을 곧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필사 존재 상태로 퇴보{退步}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들은 정말로 초인적 존재였지만, 동시에 물질이고 필사자였다. 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달리개스차는 즉시 성교{性交}로 자식을 낳도록 명령했는데, 원래의 60명과 변경된 44명의 안돈족속 동역자가, 죽음으로 곧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달라마시아가
와해진 후에, 불충한 참모진은 북쪽과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들의 후손은 낫족속으로, 그들이 거주하던 곳은 “낫의
땅”으로, 오랫동안 알려졌다.

67:4.3 (758.1) 반역으로 인해 궁지에 빠지고 곧 이 세상의
아들딸과 짝짓게 된, 특출난 이 초인적 남녀의 현존은,
신{神}들이 필사자들과 짝지으려고 내려왔다는,
전설{傳說}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쉽게 기원시켰다.
그리하여 신화적{神話的} 성격을 갖는 수많은 전설이
생겼지만, 반란 이후 시대의 사실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나중에, 조상이 낫족속 및 그 후손과 이렇게
접촉한 다양한 민족의 민간설화와 전승에 자리 잡게 됐다.

67:4.4 (758.2) 영적 양식을 뺏긴 채, 반역에 가담한 참모진은 결국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성된 인간
종족들의 우상 숭배 대부분은, 캘리개스차 시대에
고귀하게 숭앙받던 이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려는 열망에서 발생됐다.

67:4.5 (758.3) 100명의 참모진이 유란시아에 왔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사고 조율사와 분리됐었다. 멜기세덱

관재인{管財人}들이 도착하자마자, (반을 제외한) 충성된
인격체들은 예루셈으로 돌아갔고, 기다리던 조율사와
다시 연합했다. 우리는 반역에 가담했던 참모진 60명의
운명을 알지 못하며;그들의 조율사는 여전히 예루셈에
머물고 있다. 루시퍼의 반역 전체가 최종적으로 판결 받고,
모든 가담자의 운명이 정해질 때까지, 사태는 틀림없이
지금 상태대로 유지될 것이다.

67:4.6 (758.4) 천사와 중도자 같은 그런 존재들은, 캘리개스차 및
달리개스차 처럼 뛰어나고 신뢰받는 통치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즉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죄에 빠진 존재들은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는데-- 믿었던 지도자들에게 속은
자기 상관{上官}들에게 잘못 이끌렸다. 원시적_성향을
가진 진화하는 필사자의 지지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웠다.

67:4.7 (758.5) 예루셈 및 잘못 인도된 여러 행성에서, 루시퍼
반역의 희생자였던 모든 인간과 초인적 존재들 대다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오래 전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태고 항존자들이 아주 최근에 시작한, 사타니아

반역의 용건들에 대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완결 지을 때, 진지한 참회자{懺悔者} 전원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고, 우주 봉사의 어떤 국면으로 복직될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믿는다.

5. 반역의 직접 결과

^{67:5.1 (758.6)} 반역의 선동이 있는 후에, 큰 혼란이 거의 50년 동안 달라마시아와 인근에 퍼져 있었다. 전 세계에 대한 완전하고 급진적인 재조직이 시도됐고;문화를 증진하고 인종을 개선하는 방침으로서, 혁명이 진화를 대체했다. 달라마시아 내부와 주변에 있던, 부분적으로 훈련된 우수한 체류자들 가운데서, 문화적 상태에 갑작스런 진보가 나타났으나;새롭고 급진적인 이 방법이, 외곽에 있는 민족들에게 시도됐을 때, 형언할 수 없는 혼란과 인종적 대혼란이 즉시 일어났다. 당시의 어설프게 진화된 원시인들은, 재빨리자유를 방종{放縱}으로 해석했다.

^{67:5.2 (758.7)} 반역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선동에 가담한 참모진 전체는, 반미개인{半未開人}에게 시기상조로 가르쳐졌던 자유주의의 결과로, 사방의 벽으로 몰려드는 그들 무리에 대항해서, 그 도시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본부가 남부의 파도 밑으로
가라앉기 수년 전에, 달라마시아의 시골 지역에 있던,
오도{誤導}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부족들이, 화려한
그 도시에 반야만적{半野蠻的} 급습을 감행해서, 탈퇴한
참모진 및 그 동역자들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67:5.3 (759.1) 개인의 해방과 집단적 자유라는 관념에 따라서
인간 사회를 즉시 건설하고자 했던 캘리개스차의 책략은,
신속히 거의 완전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사회는 과거의
생물학적 수준으로 재빨리 후퇴했고, 이 대격변이 세계를
더욱 심각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으므로, 발전하려는
투쟁은, 캘리개스차 체제가 시작될 때 있던 자리보다
그다지 앞서지 않은 데서 모두 다시 시작됐다.

67:5.4 (759.2) 반역이 있는 후 162년이 지났을 때, 해일{海溢}이
달라마시아를 완전히 뒤덮었고, 행성 본부는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았으며, 화려한 시대의 고귀한 문화에
속하는 거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땅은
다시 솟아오르지 않았다.

67:5.5 (759.3) 최초의 세계 수도{首都}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을 때, 유란시아에서 가장 낮은 유형인 상의

인종만 거기에 남아있었는데, 이 배신자들은 아버지의 성전을, 빛과 불의 가짜 신{神}인 녹에게 바친 사당{祠堂}으로 이미 바꿔버렸다.

6. 반--흔들리지 않는 자

67:6.1 (759.4) 반을 따르는 자들은, 일찍부터 인도 서부 고지대로 철수했고, 거기서 혼란에 빠진 낮은 지대 종족들의 공격을 피했으며, 상익 부족들이 태어나던 시대 직전에 그들의 초기 바도난족속 선조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한때 모두 무의식적으로 일했던 것처럼, 그 은거지로부터 세계를 부흥시킬 계획을 세웠다.

67:6.2 (759.5)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반은 인간 직무의 경영을 네 명씩으로 구성된 10개의 위원회에 맡겼는데, 그 집단들은 왕자의 통치 체제와 동일했다. 거주하고 있던 선임 생명 운반자들이, 40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일시적으로 통솔했고, 대기 상태에 있던 7년 내내 활약했다. 충성된 참모진 39명이 예루셈으로 돌아간 후에는, 아마돈족속으로 구성된 비슷한 집단들이 이 책임을 맡았다.

67:6.3 (759.6) 이 *아마돈*족속은 아마돈이 소속된 144명의 충성된 아마돈족속 무리에서 유래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집단에는 남자 39명과 여자 105명이 포함됐다. 이 숫자 중에서 56명은 불멸{不滅}의 신분에 속했고, 그들은 모두 (아마돈을 제외한) 충성된 참모진 요원과 함께 옮겨졌다. 고귀한 이 무리 가운데 나머지는 그들의 일생이 끝날 때까지, 반과 아마돈의 지도 아래 이 세상에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반란 이후 시절의 긴 암흑기 내내 번식하여, 세계를 위한 통솔력을 계속 제공한 생물학적 효소였다.

67:6.4 (759.7) 반은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유란시아에 남아 있었고, 행성에서 활동하는 초인적 인격체들 전체의 명예{名譽} 우두머리로서 머물렀다. 반과 아마돈은 15만 년 이상, 멜기세덱들이 베푸는 특화된 생명체 사역과 함께, 생명나무의 기법으로 목숨을 유지했다.

67:6.5 (759.8) 수석 성좌 통치자인 노라티아덱의 지고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승인을 받아서, 열두 명의 멜기세덱 행성 관재인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유란시아의 직무를 오랫동안 경영해 왔다. 멜기세덱 관재인들과 연합된 자문

협의회는:타락한 왕자의 충성된 조력자들 중에서 한 명,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 두 명, 견습생 신분으로 훈련받는 삼위일체처럼된 아들 한 명, 자원봉사자인 교사{教師} 아들 한 명, (정기적으로) 아바론의 찬란한 저녁 별 한 명, 스라빔과 체루빔의 우두머리들, 두 이웃 행성에서 온 자문가들, 하위 천사 생명체의 지휘 사령관, 그리고 중도{中道} 피조물의 우두머리 지휘자인 반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유란시아는 아담이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경영됐다. 용감하고 충성스런 반이, 유란시아의 직무를 그토록 오랫동안 경영한 행성 관재인 협의회에서 한 자리에 배치됐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67:6.6 (760.1)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 열두 명은 훌륭하게 일했다. 그들은 남아있는 문명을 보존했고, 반은 그들의 행성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반역이 일어난 후 1,000년이 지나기 전에, 세계에 널리 흩어진 350개 이상의 진보된 무리를 유지했다. 이 문명 전초기지들은 주로, 충성된 안돈족속으로 구성돼 있었고, 상익 인종들, 특히 청인종이 약간 섞여 있었으며, 늦족속도 섞여 있었다.

67:6.7 (760.2) 반역으로 인한 심각한 퇴보에도, 이 세상에는 생물학적 전망이 훌륭한 많은 종족이 있었다. 멜기세덱 관재인들의 감독 하에, 반과 아마돈은 인간 종족의 자연스런 진화를 계속 촉진시켰는데, 물질 아들과 딸이 유란시아로 파견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의 육체적 진화를 진척시켰다.

67:6.8 (760.3) 반과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도래한 직후까지 지구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에 그들은 예루셈으로 옮겨졌고, 반은 거기에서 기다리던 조율사와 재결합했다. 반은 지금, 모이고 있는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의 계시되지 않은 운명과, 낙원 완전성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출발하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유란시아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67:6.9 (760.4) 루시퍼가 유란시아에서 캘리개스차를 지지한 후에, 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항소했을 때, 반이 주장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즉각적인 결정을, 성좌 아버지들이 보냈던 사실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던 도중에, 행성의 통신 회로{回路}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오직 최근에 이르러서야, 유란시아의 격리 이후부터 줄곧 고립돼 있는 교대{交代} 에너지 전달자의 소유물 속에, 이 실제 판결이 들어 있음이 발견됐다.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조사 결과로 이뤄진 이런 발견이 없었다면, 이 결정의 발표는 유란시아가 성좌 회로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행성 간 연락의 이런 명백한 사고{事故}는, 에너지 전달자들이 정보를 받고 보낼 수는 있지만, 연락을 직접 주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67:6.10 (760.5)} 사타니아의 법률상 기록에서 반의 절차상 신분은, 에덴시아 아버지들이 내렸던 이 판결이 예루셈에 기록될 때까지는, 실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

7. 죄의 간접 영향

^{67:7.1 (760.6)} 피조물이 빛을 고의로 끊임없이 거부함으로 인해 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심적) 결과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며, 오직 신격과, 그리고 인격자인 피조물과 관련될 뿐이다. 그런 식으로 혼을 파괴하는 죄악의 수확은, 의지를 지닌, 죄악을 범하는 피조물이 내적으로 거뒀들이다.

67:7.2 (761.1) 그러나 죄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죄를 내포하는 비인격적 (원심적) 결과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이며, 그런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피조물과 관련된다.

67:7.3 (761.2) 행성 경영체제가 붕괴된 후 5만 년이 지나자, 이 세상 직무는 너무나 질서 문란하고 퇴락{頹落}해서, 35만 년 전에 캘리개스차가 도착한 시대에 있었던, 일반 진화 상태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가 이뤄졌지만;다른 방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초가 유실{遺失}된 상태였다.

67:7.4 (761.3) 죄는 그 영향에서 결단코 국지적일 수 없다. 우주의 경영 구역들은 유기적이며;한 인격체의 처지는 반드시 전체와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게 돼 있다. 죄는, 실체에 대한 인격자의 태도이므로, 우주 가치의 어느 관련된 수준에서든지, 그 안에 내재된 부정적 수확을 거두게 돼 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 악한 행동, 또는 죄로 가득한 계획으로 인한 전체 결과는, 오직 실제로 실행하는 수준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우주 법칙을 어기는 것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영적 체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영역에서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오직 죄가 그 존재 전체의 태도일 때, 즉 정신이 선택하고 혼이 의도하는 것을 죄가 대표할 때에만, 죄가 인격체 생존에 파멸적 영향을 초래한다.

67:7.5 (761.4) 악과 죄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며, 때로는 우주 실체의 특정한 수준에서 영적 진보를 늦출 수도 있지만, 어떤 존재의 죄 때문에, 다른 존재가 인격체를 생존시킬 수 있는 신성한 권한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 영원한 생존은, 오직 각 개인 자신의 정신이 결정하고 혼이 선택함으로써만 위태롭게 될 수 있다.

67:7.6 (761.5) 유란시아에서 죄는 생물학상의 진화를 거의 지체시키지 못했지만, 아담의 유산에서 생기는 풍부한 혜택을 인간 종족들로부터 빼앗는 작용을 했다. 죄는, 지적 발전, 도덕적 성장, 사회적 진보, 및 대규모의 영적 달성을 크게 저해한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신성한 뜻을 진심으로 행하기를 바라든지, 죄는 그가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67:7.7 (761.6) 캘리가스차는 반역했고, 아담과 이브는 태만했지만, 그 후에 유란시아에서 태어나는 어떤 필사자도, 이런 큰 실수들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 고통 받지는 않았다. 캘리가스차의 반역 이후에 유란시아에 태어난 필사자마다, 어떤 의미에서 시간상_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혼이 받을 장차의 행복은 영원토록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인격자가 다른 인격자의 죄 때문에 심각한 영적 손실을 당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죄의 영향이, 경영적, 지적, 및 사회적 영역에 광범하게 미침에도, 죄가 가져오는 도덕적 죄책감 또는 영적 결과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다.

67:7.8 (761.7) 우리는 그런 큰 재앙들이 일어나도록 왜 용납하는지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국지적인 침해가 우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와 같이, 그 침해가 주는 유익한 결실과정을 반드시 식별할 수 있다.

8. 반역 때 나타난 인간 영웅

67:8.1 (761.8) 사타니아에 있는 다양한 세계에서, 용감한 많은 존재가 루시퍼 반역에 저항했지만;살빙톤의 기록은, 엄청나게 밀려오는 선동의 물결을 아마돈이 멋지게

물리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에게 변함없이 헌신했다는 점에서--곧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충성에서 변하지 않고 같이 지켜나갔다는 점에서, 전체 체계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로 아마돈을 꼽았다.

67:8.2 (762.1) 이런 중대한 진행사항이 일어날 때, 나는 에덴시아에 머물고 있었고, 살빙톤의 방송물을 숙독하면서 체험했던 유쾌한 기분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데, 안돈 종족에서 실험 중인 원래 혈통에서 태어난, 한때 반{半}야만인이었던 이 사람이, 날마다 놀라울 정도로 견실했고, 탁월하게 헌신적이며, 더없이 훌륭하게 충성했다는 내용이었다.

67:8.3 (762.2)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타니아의 반역과 관련하여, 에덴시아에서 살빙톤을 거쳐 심지어 우버사까지, 모든 하위 천상{天上} 생명체의 첫 질문은 항상, "유란시아의 아마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서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67:8.4 (762.3) 루시퍼의 반역이 지역 체계 및 그 타락한 세계들을 방해했다면, 이 아들과 잘못 인도된 동역자들의 실패가,

노라티아덱 성좌의 진보를 일시적으로 꺾방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아마돈의 불충한 상관들이 가한 그토록 극심하고 불리한 압력에 직면해서, 더 높은 우주 관리 및 경영 개념을 지지해서 확고부동하게 버틴, 자연스럽게 태어난 이 한 사람과 그의 동지 143명의 굳게 결심한 무리가 보여줬던, 용기를 북돋우는 업적을 멀리까지 퍼져 나가게 한, 그 소식의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희는 안심해도 좋은데, 이것은 네바돈 우주와 오르본톤 연방우주에서, 루시퍼 반역으로 인한 모든 악과 불행의 총계가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좋은 일을 했다.

^{67:8.5 (762.4)}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낙원에 있는 필사자 완결성취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상승하면서 진보하는 평범한 육체를 가진 필사자로부터--즉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아마돈 같은 바로 그런 필사자로부터, 이런 광대한 무리의 불가사의한 미래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아버지의 우주 계획의 지혜를, 최고로 장엄하게 빛내고 있으며, 아름답게 감동을 주고 있다.

^{67:8.6 (762.5)}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68편 문명의 태동

68:0.1 (763.1) 이 글은, 동물 실존보다 거의 나을 것 없는 상태에서부터, 중간의 여러 시대를 거쳐서, 어설프기는 하지만 실제 문명이 인류의 고등 인종들 가운데서 진화한 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종족들이 겪은 길고 긴 전진하는 투쟁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68:0.2 (763.2) 문명은 종족이 획득하는 것이며;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며;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녀든지, 문화가 있는 환경에서 키워야 하고, 한편 이어지는 각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 교육을 새로 받아야만 한다. 문명의 우수한 --과학적, 철학적, 및 종교적-- 자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직접 계승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취는, 오직 사회 유산을 현명하게 보존함으로써만 유지된다.

68:0.3 (763.3) 달라마시아의 선생들이 협동 체제의 사회적 진화를 개시했고, 인류는 30만 년 동안 집단으로 활동하는 관념 속에서 양육됐다. 누구보다도 청색인이 초기의 이런 사회 교훈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고, 홍색인은 다소 얻었으며, 흑색인이 전체 가운데 가장 적게 얻었다. 더

최근에는, 황인종과 백인종이 유란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사회 발전을 나타냈다.

1. 보호하기 위한 사회화

68:1.1 (763.4)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했을 때 종종 서로 비슷해지길 배우지만, 원시인에게는 형제처럼 느끼는 기분, 그리고 동료들과 사회적으로 접촉하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지는 못했다. 오히려, 초기 인종들은 “협력해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비참한 체험을 겪음으로 배웠으며;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형제관계를 즉시 실현하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연스런 형제다운 애정의 부족이다.

68:1.2 (763.5) 연합은 일찍부터 살아남기 위한 대가{代價}가 됐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갑작스런 습격을 받는다 해도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음을 표시하는 부족 표지{標識}를 간직하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가인의 시대에도,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어떤 표지를 갖지 않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문명은 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됐으며, 반면에 그 대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법적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지불된다.

68:1.3 (763.6) 원시 사회는 이처럼 필요의 상호의존, 그리고 연합으로 증진된 안전에 기초를 뒀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고립을 두려워한 결과로, 그리고 마지못해 협동함으로, 오랜 세월의 반복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다.

68:1.4 (763.7) 원시 인간은, 독립된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보다 집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강함을 일찍부터 배웠다. 100명의 남자가 결합해 힘을 합쳐서 일하면 거대한 돌도 움직일 수 있으며; 잘 훈련된 다수의 평화 수호자는 흥분한 군중을 자제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가 생겨났는데, 개인들을 단순히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협동하는 자들을 조직한 결과였다. 그러나 협동은 사람의 선천적 특징이 아니며; 사람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시간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그리고 영원한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비하여 조심하기에, 협동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협동하기를 배운다.

68:1.5 (764.1) 일찍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원시 형태의 사회로 조직화했던 민족들은, 동료들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도전에서도 더 성공하게 됐으며;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증대됐고, 그리하여 문명은 여러 번 퇴보했음에도 유란시아에서 꾸준히 진보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실책을 저질렀어도 인간의 문명이 정지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연합함으로써 살아남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68:1.6 (764.2) 오스트랄리아 원주민, 아프리카의 부시먼 인종, 및 피그미 인종의 특징인 원시 사회 상황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현대의 문화 사회가 상당히 최근 현상임을 잘 보여준다. 진보가 늦은 이 민족들 가운데서, 초기의 집단적 호전성, 개인적 의심, 그리고 모든 원시 종족의 전반적인 특질이었던 매우 반사회적{反社會的}인 기타 특징들이 발견될 수 있다. 사회성이 없는 고대의 민족 중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진보에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조직체 및 연합체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명됐다. 40내지 50마일마다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며, 진보가 늦고 의심 많은 이 반사회적
인종들은,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의 합동 교육,
그리고 인종을 개량시키는 아담의 후예 무리들의 후기
활동이 없었다면,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지를 예증{例證}하고 있다.

68:1.7 (764.3)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현대의 외침은, 무식한
망상, 즉 한때의 허구적인 “황금기”를 실체라고 믿는
것이다. 황금기에 관한 전설의 유일한 근거는,
달라마시아와 에덴이라는 역사적 사실뿐이다. 그러나
개량된 이 사회들은, 꿈같은 유토피아의 실현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2. 사회 발전의 요인

68:2.1 (764.4) 문명화된 사회는, *고립되기* 싫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일찍부터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간 애정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
어느 원시 집단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태도는, 초기
부족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는지를 잘 묘사한다. 그렇지만
문명세계에서 각 개인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리고 문명 자체가 경쟁과 투쟁이라는 모순

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문명은 심히 단조롭게 정제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분투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68:2.2 (764.5) 지성의 수준은 문화의 발전 속도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주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각 개인의 생활양식에서 위험한 요소를 줄여주도록 고안돼 있으며, 인생에서 고통을 줄여주고, 만족이라는 요소를 증대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빨리 진보해 왔다. 이처럼 전체 사회 집단은, 운명의 목표를 향해 --소멸하든지 생존하든지-- 그 목표가 자아_유지인가 아니면 자아_만족인가에 따라서, 서서히 나아간다. 자아_유지는 사회가 태동되게 하는 반면, 지나친 자아_만족은 문명을 파괴한다.

68:2.3 (764.6) 사회는, 자아_영속{永續}, 자아_유지, 및 자아_만족에 관심을 갖지만, 인간의 자아_실현{實現}은 여러 문화 집단의 당면한 목표가 될 만하다.

68:2.4 (765.1) 자연인에게 있는 집단 본능은, 유란시아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사회 조직의 발전을 설명할 만큼 충분치 않았다. 비록 타고난 집단 성향이 인간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도, 사람의 사교성 대부분은 습득한 것이다.

인간의 초기 연합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두 요소는 식욕과 성욕이었으며;사람은 이런 본능적 충동을 동물계와 공유한다. 인간을 억지로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둔 두 가지 다른 감정은 허영심과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다.

68:2.5 (765.2)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사람이 양식을 얻으려고 투쟁한 기록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배고플 때에야 겨우 생각했으며;식량 저장은, 최초의 금욕, 즉 자아_훈련이었다.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식욕만이 상호 연합을 유일하게 자극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수많은 다른 열망, 즉 다양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인류의 연합은 더 긴밀하게 됐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가정되는 것보다 너무 커져서 불안정하다. 20세기 서양 문명은, 인간의 지나치게 배가{倍加}된 욕구, 열망, 및 사치의 지나친 부담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광범한 상호연합과 매우 복잡한 상호의존이라는 가장 위험한 국면의 긴장상태를 견디고 있다.

68:2.6 (765.3) 굶주림, 허영심, 및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의 사회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지만, 성욕의 만족은 일시적이고 돌발적이었다. 원시인 남녀가 가정을 유지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오직 성적 충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초기의 가정은, 성욕의 만족감을 자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남성의 불만, 그리고 인간 여성의 헌신적 모성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성애는 모든 고등동물 암컷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 연약한 어린 아기가 태어남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활동에서 일찍 분화{分化}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여자는 정착된 주거지를 유지해야 했고, 거기서 땅을 일굴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여자가 사는 곳이 항상 가정으로 간주돼 왔다.

68:2.7 (765.4) 그리하여 여자는 일찍부터, 속히 사라지는 성욕의 열정 때문보다는 *음식의 필요성* 때문에, 진화하는 사회적 짜임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으며;여자는 자아_유지에서 필수적 동반자가 됐다. 여자는 양식 제공자, 짐 나르는 짐승, 난폭한 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심한 학대를 견디려 하는 동무, 그리고 바람직한 이 모든

특징 외에도, 성욕의 만족을 위해 항상_예비된 수단이였다.

68:2.8 (765.5) 문명사회에서 지속하는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것은, 가정에 그 뿌리를 둔다. 가정은 최초의 성공적 평화 집단이었는데,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대립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배우는 동시에, 자녀들에게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다.

68:2.9 (765.6) 진화에서 결혼의 기능은, 개인의 행복 실현뿐만 아니라, 종족 보존을 위한 대비책이었으며;자아_유지와 자아_영속이 가정의 실제 목적이였다. 자아_만족은 어쩌다 일어나며, 성적{性的} 연합을 보장하는 미끼로서의 역할을 제외하면, 필수적이 아니라 부수적이다. 자연은 살아남기를 갈망하지만, 결혼의 즐거움과 가정생활의 만족감을, 문명의 기술이 계속 증대시킨다.

68:2.10 (765.7) 자존심, 열정, 및 명예심을 덮을 만큼 허용심이 커지면, 우리는 이런 경향이 인간의 연합체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함께 묶어 주는지도 분간할 수 있는데, 과시를 받아주는 청중 없이는

그런 감정이 아무 쓸모없기 때문이다. 허영심은 곧 그 자체와 다른 감정들을 결합시키며, 그 감정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충동한다. 이런 일련의 감정들이, 예술, 예식절차, 그리고 각종 형태의 운동경기와 시합이 태동되도록 일찍부터 원인을 제공했다.

68:2.11 (766.1) 허영심이 사회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지만;본 계시가 주어질 때, 허영심 강한 세대의 사악한 경쟁심이, 고도로 전문화된 문명의 복잡한 구조 전체를 궁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침몰시키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쾌락의_욕구가 오래 전부터 배고픔의_욕구를 대체했으며;자아_유지를 위한 합리적 사회 목표들은, 자아_만족을 위한 비열하고 위협적인 형태들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자아_유지는 사회를 세우지만;억제되지 않는 자아_만족은 반드시 문명을 파괴시킨다.

3.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화에 미친 영향

68:3.1 (766.2) 원시적 욕구가 최초의 사회를 탄생시켰지만, 유령{幽靈}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회를 단결시켰고,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상을 실존에 덧붙였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생리적으로 기원된:육체적 고통, 만족되지 못한 열망,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지만;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새롭고 극심한 종류의 공포였다.

68:3.2 (766.3) 인간 사회의 진화에서 가장 큰 단일 요소는 유령에 대한 꿈이었을 것이다. 대개의 꿈이 원시 정신을 크게 혼란시켰더라도, 유령에 대한 꿈은 초기의 사람을 실제로 위협했고, 미신적으로 꿈꾸는 이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 대한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위험에 대항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손잡도록 만들었다. 유령에 대한 꿈은, 정신을 소유한 인간 유형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초기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동물은 죽음 이후의 생존을 상상하지 못한다.

68:3.3 (766.4) 이런 유령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사회는 근본적인 필요성과 기본적인 생물학상 충동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요소를 문명에 선보였는데, 개인의 기본적 필요에서 밖으로 멀리 벗어나는, 그리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보다 훨씬 심각하게 떠오르는,

두려움이었다. 죽은 시체에서 떠난 영에 대한 두려움은, 새롭고 놀라운 형태의 두려움, 즉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공포심을 드러내게 됐는데, 초기 시대의 산만한 사회 체제가 더 완전하게 단련되도록, 그리고 고대의 원시 집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도록 기여했다. 이 어리석은 미신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존속하는데, 실재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을 통해서, 후대에 “지혜의 근원인 주께 대한 두려움”을 발견하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준비시켰다. 진화로 생긴 근거 없는 두려움은, 계시로 영감{靈感}받는 신격에 대한 경외심으로 대체되도록 고안돼 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초기 의식{儀式}은 강력한 사회적 구속력이 됐고, 인류는 먼 옛날부터 항상 영성{靈性}을 달성하려고 다소 애써왔다.

68:3.4 (766.5) 굶주림과 사랑이 사람들을 뭉치도록 강요했고;허영심과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을 단결시켰다. 그러나 평화를 증진시켜 주는 계시의 영향이 없다면, 이 감정들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상호연합체들에서 의심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상태를 감당할 수 없다. 초인적 근원으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사회의 긴장상태는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폭발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결집된 바로 이런 영향들이--즉 굶주림, 사랑, 허영심, 및 두려움이-- 상호 작용함으로 인해, 인류는 전쟁과 학살에 휩쓸린다.

68:3.5 (766.6) 인간 종족의 평화적 성향은 당연한 재능이 아니며;그것은 계시된 종교 교훈으로부터, 진보하는 인종들의 누적된 체험으로부터 유래되지만, 특히 평화의 왕자인 예수의 교훈으로부터 더 유래된다.

4. 사회관행의 진화

68:4.1 (767.1) 현대의 모든 사회 관례{慣例}는, 너희의 미개인 조상의 원시 관습이 진화돼서 나타난 것이며;오늘날의 관례는 과거의 관습이 변경되고 확장된 것이다. 습관은 개인에 해당하고, 관습은 집단에 해당하며;집단적인 관습은, 풍속 또는 부족의 전통으로--곧 큰 덩어리의 관례로-- 발전된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관례 전체는 이런 초기 시작에서 초라하게 기원됐다.

68:4.2 (767.2) 실존하는 조건에 집단생활을 적응시키려는 대중의 노력에서 사회관행이 기원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하며;사회관행은 최초의 사회 규범이었다.

그리고 이런 부족{部族}의 반응은 모두, 고통과 굴욕을 당하지 않는 동시에 기쁨과 권력을 누리기 위한 노력에서 발생됐다. 언어의 기원{起源}과 마찬가지로, 풍속은 항상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기원되며, 따라서 항상 신비에 싸여있다.

68:4.3 (767.3) 유령에 대한 두려움은, 초자연적 존재를 상상하도록 원시인에게 강요했고, 그리하여 종교와 윤리라는 강력한 사회 세력이 형성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줬으며, 그것들은 역으로 신성불가침의 사회관행과 관례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보존하게 했다. 초기에 사회관행을 형성하고 구체화시킨 한 가지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든지, 그 인생 여정{旅程}에 몹시 관심을 갖는다는 믿음이었으며;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있던 동안에 공경했던 생활 법도를, 감히 경솔하게 경멸하는 태도로 다루려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황인종의 조상 숭배에서 잘 예증된다. 나중에 발달된 원시 종교는 사회관행을 안정시키면서 유령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강화시켰지만,

진보하는 문명은 두려움의 속박과 미신의 노예 상태에서 인류를 점점 해방시켜 왔다.

68:4.4 (767.4) 해방시키고 완화하는 지침을 달라마시아 선생들이 제시하기 전에는, 고대 인간은 사회관행이라는 제례식의 무기력한 희생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원시의 미개인은 끝없는 예식절차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침에 깨는 시간부터 밤에 동굴로 돌아가 잠드는 순간까지,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렇게--곧 그 부족의 풍속에 일치되도록-- 이뤄져야만 했다. 미개인은 관례의 횡포에 노예가 됐고;그의 삶에는 자유롭거나 자발적이거나 독창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높은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실존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진보할 수 없었다.

68:4.5 (767.5) 초기의 사람은 관습에 꼼짝 못하도록 붙들려 있었으며;미개인은 관례에 실제적인 노예 상태로 있었지만;새로운 방법의 사고{思考}와 개선된 방법의 생활을 감히 시도하려는, 변화된 유형의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곤 했다. 그럼에도 원시인의 타성은, 너무 빠르게 진보하는 문명에 잘못 적응하는 파멸의 길로, 너무

갑작스럽게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는, 생물학적 안전
제동장치다.

68:4.6 (767.6) 그러나 이런 관습은 순전한 악은 아니며;관습의
진화는 계속돼야만 했다. 급진적 혁명으로 한꺼번에
관습을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명의 지속에 거의
치명적이다. 관습은 문명을 함께 묶어주는 연속된 끈이 돼
왔다. 인류 역사의 경로는, 폐기{廢棄}되는 관습과 진부한
사회 풍습 중에서 남은 것들로 구성돼 있지만;더 향상되고
더 알맞은 관습을 수용하지 않은 채, 자체의 사회관행을
포기하는 문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속되지 못했다.

68:4.7 (767.7) 한 사회가 살아남는 것은 주로 그 사회관행의
점진적 진화에 의존한다. 관습의 진화 과정은, 실험해보고
싶은 욕구에서 발생되며;새로운 관념들이 제시된다--
경쟁이 잇따른다. 진보하는 문명은 진취적인 관념을
허용하고 견디며;시간과 환경은, 결국 더 알맞은 집단이
살아남도록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사회의
구성에서 분리되고 격리됐던 각각의 변화가 더 나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유란시아

문명이 오랫동안 전진하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퇴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5. 토지 이용 기법--유지하는 기술

68:5.1 (768.1) 땅은 사회의 무대이고, 사람은 배우다. 그리고 사람은 땅의 환경에 순응하도록 자신의 연기{演技}를 늘 조절해야만 한다. 사회관행의 진화는 항상 인구_밀도에 달려있다. 이것을 식별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이다.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기법, 즉 유지하는 기술에 생활규범을 합치면, 풍속의 총합, 즉 사회관행이 된다. 그리고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사람이 적응한 것의 총합이, 문화가 있는 문명이다.

68:5.2 (768.2) 가장 초기에 있었던 인간의 문화는, 동반구에 있는 강들을 따라서 이뤄졌고, 문명의 힘찬 행진에서 네 개의 큰 단계가 있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68:5.3 (768.3) 1. **채집 단계.** 양식의 부족과 굶주림은, 최초의 산업 조직 형태, 즉 원시적으로 양식을_채집{採集}하는 행렬들이 이어지게 했다. 어떤 때에는, 땅에 떨어진 양식을 찾는 굶주린 자들의 행렬이 10마일에 이르기도 했다.

이것은 원시 방랑기 문화였으며, 오늘날 아프리카 부시먼
종족이 따르는 생활 형태다.

68:5.4 (768.4) 2. 수렵 단계. 무기를 만드는 도구가 발명되면서,
사람은 사냥꾼이 됐고, 따라서 양식의 노예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위험한 전투에서 손을 심하게 다치자, 생각이
깊은 안돈족속은, 팔 대신 긴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 끝에,
손을 대신하는 단단한 부싯돌 조각을 힘줄로 붙들어 매는
개념을 다시 발견했다. 여러 부족이 이와 비슷한 방법을
독자적으로 발견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망치는 인간
문명에서 크게 내딛는 발걸음을 대표한다. 오늘날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원주민은 이런 단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68:5.5 (768.5) 청색인은 노련한 수렵꾼과 덫을 놓는 사냥꾼이
됐고, 강에 담을 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며, 남는 것은
겨울을 위해서 건조시켰다. 여러 형태의 교묘한 함정과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이용됐지만, 원시적인 종족일수록
작은 동물을 사냥했다.

68:5.6 (768.6) 3. **목축 단계.** 이 문명 단계는 동물을 길들임으로 가능하게 됐다. 아랍 족속과 아프리카 원주민은, 아주 최근까지도 목축하는 민족에 속한다.

68:5.7 (768.7) 목축 생활은 양식에 노예 된 상태를 훨씬 줄여줬고, 사람은 자기 자산{資産}의 증식, 즉 자기 짐승 떼가 증식하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 법을 배웠으며;이것이 문화와 진보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부여했다.

68:5.8 (768.8) 목축 이전의 사회는 남녀가 협동하는 사회였지만, 축산업이 널리 보급되면서, 여자는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처지로 점차 떨어졌다. 초기에는, 동물성 양식 준비가 남자의 의무였고, 식물성 식품 제공은 여자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자가 목축 시대의 생활에 들어가자, 여자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다. 여자는 생활에 필요한 야채를 가꾸기 위해서 여전히 수고해야 했지만, 남자는 풍부한 동물성 식품 제공을 위해 자기 가축 떼를 돌보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비교적 덜 의존하게 됐고;목축 시대 내내, 여자의 지위는 꾸준히 낮아졌다. 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여자가 인간 동물이나 다름없었고, 일하기와 인간 자손 낳기를 맡았으며, 가축 떼에게

노동하고 새끼 낳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목축 시대의 남자는 자기 가축을 무척 소중히 다뤘고;너무 아낀 나머지, 자기 아내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을 수 없을 정도였다.

68:5.9 (769.1) 4. *경작 단계*. 이 시대는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가장 높은 유형의 물질문명에 해당된다. 캘리개스차와 아담은 원예와 농업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아담과 이브는 목자{牧者}가 아니라 채소 가꾸는 자였고, 채소 재배는 당시에 가장 진보된 문화였다. 식물 재배는 온 인류 종족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친다.

68:5.10 (769.2) 농업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인구밀도가 네 배로 높아졌다. 농업은 그 전에 있었던 문화 단계의 목축 생활과 견할 수도 있었다. 세 개의 단계가 겹쳐질 때, 남자는 사냥했고 여자는 땅을 경작했다.

68:5.11 (769.3) 목동과 땅 경작자 사이에는 항상 마찰이 있었다. 사냥꾼과 목동은 투쟁적이고 호전적이었으며;농부는 평화를 더 사랑하는 유형이다. 동물과의 연합은 투쟁과 무력{武力}을 암시하고;식물과의 연합은 인내와 침착성과 평화가 스며들게 한다. 농업과 산업주의는 평화로운

활동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 활동으로서, 두 산업의 약점은 자극과 모험심이 부족한 것이다.

68:5.12 (769.4) 인간 사회는, 사냥 단계에서 목축 단계를 거쳐 농업이라는 토지 단계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런 진보하는 문명의 각 단계마다, 떠돌이 생활은 점점 줄어들었고;남자는 점점 더 가정에서 생활하게 됐다.

68:5.13 (769.5) 그리고 이제 산업이 농업을 보충하게 되고, 그 결과로 도시화가 더욱 이뤄지고, 시민 계층에는 농업과 상관없는 집단이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 발전이라도, 반드시 견고한 농업 기반에 기초를 뒤탈만 된다는 사실을 그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산업 시대는 살아남기를 바랄 수 없다.

6. 문화의 진화

68:6.1 (769.6) 사람은, 흙에 속하는 존재, 즉 자연의 자손이며;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국 확실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게 문자적으로도 참되다. 사람의 근본적 투쟁은 땅에 대한 투쟁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원시 인간의 처음 사회

연합은, 땅과의 이런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구밀도는 모든 사회 문명의 기반이다.

68:6.2 (769.7) 사람의 지성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수단으로 땅의 소산{所産}을 증대시켰으며;동시에 자손의 자연증가는 어느 정도 통제됐고, 그리하여 문화가 있는 문명사회의 건설에 생계와 여가{餘暇}를 제공했다.

68:6.3 (769.8) 인간 사회는, 인구가 땅을 경작하는 기술에 정비례로, 그리고 주어진 생활수준에 반비례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지배된다. 이런 초기 시대 내내, 사람과 땅의 관계에서 공급과 수요 법칙은, 심지어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양쪽의 예상 가치를 결정했다. 풍부한 땅이--즉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던 시대에는, 사람의 필요성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더욱 증대됐으며;따라서 생명을 잃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땅이 부족해서 그에 따라 인구가 과밀{過密}하게 된 기간에는, 인간의 생명이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전쟁, 기근, 및 역병{疫病}이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68:6.4 (770.1) 땅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증가될 때, 필연적으로 투쟁이 재연{再演}되며;인간 본성에서 가장 나쁜 특징들이 표출된다. 땅의 소산의 증대, 기계 기술의 확장, 그리고 인구 감소 등은 모두 인간 본성에서 더 좋은 면이 개발되도록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68:6.5 (770.2) 개척지의 사회는 인간성의 미숙한 면을 드러내며;순수 예술과 참된 과학의 진보는, 영적 문화와 함께, 인구밀도가 약간 낮은 농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지원을 받을 때, 인구밀도가 높은 생활 중심지에서 가장 효과 있게 이뤄진다. 도시는, 그 거주민의 권력을 선한 쪽으로든지 악한 쪽으로든지 반드시 배가시킨다.

68:6.6 (770.3) 가족의 크기는 생활수준에 늘 영향 받아왔다.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또는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가족의 크기가 작아진다.

68:6.7 (770.4) 여러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 내내, 생활수준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살아남은 인구의 질{質}을 결정했다. 지역 계층의 생활수준은, 새로운 사회 신분계층, 새로운 사회관행이 태동되게 한다. 생활 규범이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심하게 호화스럽게 되면, 그 규범은 급속도로

자멸{自滅}한다. 신분계층은, 조밀한 인구가 격렬하게 경쟁하는 심한 사회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직접 결과다.

68:6.8 (770.5) 초기 인종들은, 인구 제한을 위해서 고안된 풍습에 종종 의존했으며;모든 원시 부족은 불구자와 허약한 아이를 죽였다. 여자아이는 아내로 구매되기 전에 종종 살해됐다. 때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목 졸리기도 했지만, 버리는 방법을 선호했다. 둘 이상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은, 마술 또는 부정{不貞} 때문이라고 믿었으므로, 쌍둥이의 아버지는 대개 그 가운데 하나를 죽여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성{同性}의 쌍둥이는 살렸다. 쌍둥이에 대한 이런 금기{禁忌}가 한때 보편적으로 퍼졌지만, 안돈족속의 사회관행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이 사람들은 쌍둥이를 항상 행운의 징조로 여겼다.

68:6.9 (770.6) 많은 인종이 낙태하는 기법을 연구했고, 이런 풍습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 낳는 것을 금기로 여기는 것이 매우 일반화 됐다. 미혼{未婚}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지만, 더 문명화된 집단 가운데에서는 이 사생아{私生兒}가 소녀의 어머니의 보호를 받게 됐다. 낙태와 유아 살해 두 가지 풍습 때문에, 많은 원시 씨족이 실제로 멸절됐다. 그러나 사회관행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일단 젖을 먹인 후에는 아이가 거의 살해되지 않았다--모성애가 훨씬 강하다.

68:6.10 (770.7) 20세기에도 이런 원시적 인구 통제 방법이 존속한다. 오스트랄리아에는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 기르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있다. 최근까지, 다섯 번째 태어나는 아이마다 잡아먹는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어떤 부족은, 아직도 특정한 불길한 날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데, 그 결과로 전체 신생아의 약 25퍼센트가 죽는다.

68:6.11 (770.8)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과잉인구 현상이 과거에 심각하게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전쟁이 줄어들고 과학이 인간의 질병을 점점 더 통제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과잉인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런 때가 되면, 세계를 이끄는 지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임할 것이다. 유란시아의 통치자들이, 보통 이상{以上}의 사람들과,

엄청나게 증가하는 보통 이하의 집단들의 양극단 대신에, 평범하거나 안정된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인가? 보통 사람은 육성돼야만 할 것이며;보통 사람은 문명의 중심이고, 종족에서 천재성이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원천{源泉}이다. 보통 이하의 사람은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며;낮은 수준의 산업, 즉 동물 수준보다는 높은 지성을 필요로 하지만, 상류 유형의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노예가 되고 속박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낮은 등급의 노동에 필요한 인구 이상으로 증가해서는 안 된다.

68:6.12 (771.1) [언젠가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69편 원시적 인간 제도

69:0.1 (772.1) 감정적으로, 유머, 예술, 및 종교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에서 사람은 동물 조상을 능가한다. 사회적으로, 사람은 연장을 만들고 대화하며 제도를 만드는 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

69:0.2 (772.2) 인간이 사회 집단을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그런 집합체는 반드시, 제도화를 이룩하는 특정 활동 경향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의 제도 대부분은, 노동을 절약하고, 동시에 집단 안전의 증진에 무언가 공헌한다는 것이 입증돼 왔다.

69:0.3 (772.3) 문명화된 사람은, 자신이 확립한 제도의 특성, 안정성, 및 연속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지만, 인간 제도 전체는, 금기들이 보존하고 종교가 품위를 부여하면서 축적된 과거의 사회관행에 불과하다. 그런 유산{遺産}은 전통으로 변하고, 전통은 결국 관례로 변형된다.

1. 기본적인 인간 제도

69:1.1 (772.4) 제도의 과도한 발달은, 인격체가 빛을 잃고 독창력이 퇴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제도는 모두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 필요를 보살핀다. 사람은 발전하는 문명이 산출하는 이런 것들에 자신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그 제도를 통제해야만 한다.

69:1.2 (772.5) 인간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 된다:

69:1.3 (772.6)

1. *자아_유지에 해당되는 제도*. 이런 제도는 식욕{食慾} 및 이에 관련된 자아_보존 본능에서 발생하는 풍습을 받아들인다. 이런 제도는, 산업, 소득을 위한 소유권 투쟁, 그리고 사회의 통제 기관 전체를 포함한다. 오래지 않아서 두려움의 본능이, 금기, 관례, 및 종교적 제재를 수단으로 해서, 생존을 위한 이런 제도의 확립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두려움, 무지, 및 미신은, 모든 인간 제도가 초기에 기원되도록, 그리고 후일에 발전하도록,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다.

69:1.4 (772.7)

2. *자아_영속에 해당되는 제도*. 이것은, 성욕, 모성{母性} 본능, 그리고 인종들의 고상한 부드러운 감정에서 생겨나는 공동체가 확립한 제도다. 이것은 가정과 학교에 대한, 즉 가정생활, 교육, 윤리, 및 종교를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제도에는, 결혼 관습, 방어를 위한 전쟁, 그리고 주택 건설 등이 포함된다.

69:1.5 (772.8)

3. *자아_만족에 해당되는 제도*. 이것은 허영심의 성향과 자존심의 감정들로부터 자라난 풍습이며; 옷 입기와 걸모습 치장하기, 사회 관습, 영광을 얻기 위한 전쟁, 춤, 오락, 놀이, 그리고 관능적 만족을 위한 다른

국면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문명은, 자아_만족에 해당되는 뚜렷한 제도를 발전시킨 적이 전혀 없었다.

69:1.6 (772.9) 이런 세 가지 사회 풍습 집단은 긴밀하게 상호 관련돼 있고, 끊임없이 서로 의존한다. 유란시아에서 이 제도들은 단일 사회 기구로서 작용하는 복잡한 조직에 해당한다.

2. 산업의 태동

69:2.1 (773.2) 원시 산업은 끔찍한 굶주림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서서히 자라났다. 초기에 살았던 사람은, 식량난이 닥치는 때를 대비해서, 풍부한 수확이 있는 동안 양식을 저장하는 방법을 일부 동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69:2.2 (773.3) 초기의 검소함과 원시산업이 태동되기 전에는, 보통 수준의 많은 부족{部族}이 궁핍과 현실적인 고통을 겪었다. 초기의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전체 동물 세계와 경쟁해야만 했다. 경쟁의_무게가 사람을 짐승 수준으로 계속 끌어 내리며;빈곤은 사람의 선천적이고 강압적인 유산이다. 재산은 당연한 선물이 아니며;노동, 지식, 및 조직체에서 비롯된다.

69:2.3 (773.4) 원시인은 연합의 이점{利點}을 재빨리 깨닫게 됐다. 연합은 조직체를 형성했고, 조직체로 말미암은 처음 결과는, 노동의 분화{分化}와, 그로 인한 시간과 물질의 직접적인 절약이었다. 노동의 이런 전문화는 곤경에 적응함으로--곧 저항이 약한 길을 추구함으로-- 형성됐다. 원시 미개인은 무엇이든지 실제 일을 할 때, 기쁘게, 즉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순응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69:2.4 (773.5) 원시인은 힘든 일을 싫어했고, 심각한 위험에 닥치지 않는 한 서두는 법이 없었다. 노동에서 시간 요소, 즉 특정한 시간 한도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이행한다는 관념은, 전적으로 현대의 성향이다. 고대의 사람들은 전혀 서둘지 않았다. 초기 사람 가운데서 천부적으로 게으른 인종들을 산업 수단이 되도록 몰아붙인 것은, 살기 위한 격렬한 투쟁, 그리고 계속 발전되는 생활 규범이라는 이중적 요구였다.

69:2.5 (773.6) 노동, 즉 의도된 노력이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는데, 짐승의 노력은 주로 본능적이다. 노동의 필요성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왕자의 참모진은

모두 일했고;유란시아에서 육체 노동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 많이 활약했다. 아담은 채소를 가꾸는 자였으며;히브리인의 하나님도 일했다--그는 창조자였고 만유{萬有}의 유지자였다. 히브리인은 근면을 최고로 평가한 첫 부족이었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민족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 종교들 가운데 다수는 놀고 지내는 초기 개념으로 되돌아갔다. 주피터는 술꾼이었고, 부다는 한가하게 묵상하는 자로 바뀌었다.

69:2.6 (773.7) 상의 부족들은, 열대지방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됐을 때, 제법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술을 신봉하는 게으른 자들과, 일하기를 주장하는 자들--곧 장래를 대비했던 자들--사이에는 아주 오랜 세월 갈등이 있었다.

69:2.7 (773.8) 처음으로 장래를 대비한 인간은, 불, 물, 및 음식을 저장하는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원시인은 천부적으로_타고난 도박꾼이었으며;항상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 했고, 이런 초기 시대 동안, 근면한 풍습에서 생긴 성과를 모두 마법의 탕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마술은, 통찰력, 금욕, 및 산업에게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3. 노동의 전문화

69:3.1 (773.9) 원시 사회에서 노동의 분업은, 처음에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후에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결정됐다. 초기에 노동이 전문화된 체제는 다음과 같았다:

69:3.2 (774.1) 1. *남녀 구별에 따른 전문화*. 여자의 일은 자녀에 대한 선택적 태도에서 유래했으며;천부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많이 아기를 사랑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일상적인 일을 하게 됐고, 한편 남자는 사냥꾼과 전사{戰士}가 됐는데,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69:3.3 (774.2) 시대가 변천하는 내내, 여자는 금기로 인해서 자기 분야의 일만 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됐다. 남자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로 더 마음에 드는 일을 택했고, 일상적인 고된 일은 여자에게 맡겼다. 남자는 여자의 일을 하기를 항상 부끄러워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일을 하는 데서 조금도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일에는 언제나 남녀가 함께 일했다.

69:3.4 (774.3)

2. *나이와 질병의 결과로 발생한 변경.* 이런 차이가 그 다음 노동 분업을 결정했다. 노인과 장애인은 일찍부터 연장과 무기 만드는 일에 배치됐다. 나중에는 물 대는 일이 그들에게 할당됐다.

69:3.5 (774.4)

3. *종교에 근거한 분화.* 주술사{呪術師}는 육체노동을 면제받은 최초의 인간이었으며;전문 계층의 선구자였다. 대장장이는 주술사에 필적할 만큼 요술쟁이로 취급되는 작은 집단이었다. 금속을 다루는 그들의 솜씨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흰 대장장이"와 "검은 대장장이"로 인해서, 백색과 흑색 마술에 대한 초기 믿음이 기원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믿음은,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즉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미신과 결부됐다.

69:3.6 (774.5)

대장장이는 특혜를 누린 최초의 비종교 집단이었다. 그들은 전쟁 중에 중립자로 간주됐고, 이런 특별대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층, 즉 원시 사회의 정치꾼이 되게 했다. 그러나 이 특권을 야비하게 남용함으로써, 대장장이는 널리 미움 받는 대상이 됐고, 주술사는 이 기회에 자기들의 경쟁자에 대한 적개심을 더

부추겼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첫 시합에서 종교가(미신이) 승리했다. 대장장이는 마을에서 쫓겨난 후에, 주거지역 외곽에서, 최초의 여인숙{旅人宿}, 즉 일반인을 위한 숙박소를 운영하게 됐다.

69:3.7 (774.6) 4. *주인과 노예*. 노동에서 그 다음 분화는 정복자와 피정복자 관계에서 발생했고, 인간 노예제도의 시작을 의미했다.

69:3.8 (774.7) 5. *다양한 육체적 및 정신적 재능에 근거한 분화*. 사람의 타고난 차이가, 노동의 더 많은 분업을 조장했는데;모든 인간이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다.

69:3.9 (774.8) 산업에서 초기의 전문가는 부싯돌 가공자와 석공{石工}이었고;그 다음에 대장장이가 출현했다. 나중에는 집단적 전문화가 이뤄졌으며;전체 가족과 씨족이 특정한 종류의 노동에 전념했다. 가장 오래된 사제 신분계층 가운데 하나는, 부족의 주술사와는 별도로, 능숙한 칼 제작자의 가족을 미신적으로 우러러 받든 것 때문에 생겼다.

69:3.10 (774.9) 산업에서 첫 전문가 집단은 암염{巖鹽} 수출업자와 도공{陶工}이었다. 여자는 단순한 질그릇을 만들었고, 남자는 화려한 것을 만들었다.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여자가 바느질과 천 짜는 일을 맡았고, 다른 부족에서는 남자가 그 일을 했다.

69:3.11 (774.10) 초기 상인{商人}은 여자였는데;그들은 첩자{諜者}로 고용됐고, 거래하는 일은 덤이었다. 마침내 무역이 확장되자, 여자는 중개인으로--곧 도매상으로--활동했다. 이렇게 되자 상인계층이 형성돼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수수료와 이익금을 부과했다. 물물교환을 하는 무리가 늘어나게 되어 상업으로 발전됐으며;상품 교환에 뒤이어, 숙련된 노동의 교환이 이뤄졌다.

4. 거래의 발단

69:4.1 (775.1) 생포{生捕}함으로 결혼하는 것 다음에 계약 결혼이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로, 습격으로 강탈한 다음에는 물물 교환이 뒤따랐다. 그러나 무언{無言}으로 물물교환 하는 초기 풍습과 현대적 교환 방식 사이에는, 오랜 동안 해적 행위가 있었다.

69:4.2 (775.2) 최초의 물물교환은, 무장{武裝}한 상인들이 중간 지점에 상품을 남겨둠으로써 이뤄졌다. 여자가 최초의 시장{市場}을 차렸으며;최초의 상인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 반면;남자는 전사{戰士}였기 때문이다. 거래하는 계산대가 매우 일찍부터 개발됐는데, 이것은 상인들이 무기를 갖고 상대방에게 갈 수 없도록 막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벽이었다.

69:4.3 (775.3) 무언의 물물교환을 위해 맡겨진 물건을 지키는 일에 주물이 사용됐다. 그런 시장은 도둑맞을 염려가 없었고, 물물교환이나 구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옮길 수 없었으며;주물이 보호하면, 물건은 항상 안전했다. 초기 상인들은 자기 부족에게는 철저히 정직했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게 여겼다. 초기 히브리인도, 이방인과의 거래에는 별도의 윤리 규범을 인정했다.

69:4.4 (775.4) 무언의 물물교환이 오래 계속된 후에, 사람들은 무장하지 않고, 신성시되는 시장에서 만나게 됐다. 바로 이런 장터가, 신전{神殿}이 세워진 처음 장소가 됐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나중에 “도피성{逃避性}”으로 알려지게 됐다. 어떤 도피자든지 시장에 들어가면 안전했고 공격받을 염려가 없었다.

69:4.5 (775.5) 최초의 저울추는 소맥 및 기타 곡식들이었다. 최초의 교환 수단은 물고기 또는 염소였다. 나중에는 암소가 물물교환 단위가 됐다.

69:4.6 (775.6) 현대의 필기{筆記}는 초기 거래 기록에서 기원됐고;사람의 최초 문서는, 거래를_선전하는 문서, 즉 소금 선전문이었다. 초기 전쟁 가운데 다수는, 부싯돌, 소금, 그리고 금속 같은 천연 매장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부족들 간 최초의 공식 조약{條約}은, 매장된 소금의 공동 사용과 관련됐다. 조약을 맺은 이 장소는, 서로 친근하고, 평화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부족이 상호_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69:4.7 (775.7) 필기{筆記}는, “통신용 막대기”, 매듭을 만든 끈, 그림으로 쓰기, 상형문자, 그리고 조가비를 구슬로 엮은 띠를 거쳐서, 초기의 기호화된 문자로 발전됐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원시 형태에서,

달려가는 사람, 동물 타는 사람, 철도, 비행기뿐 아니라, 전보, 전화, 무선 통신에 이르기까지 진화됐다.

69:4.8 (775.8) 고대의 상인이, 새로운 착상과 개량된 방법을, 사람 사는 모든 세계로 퍼뜨렸다. 상업에 모험심이 결합되자, 탐험과 발견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운송수단이 생겨나게 됐다. 상업은 문화의 상호_교류 증진을 통해서, 문명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다.

5. 자본의 발단

69:5.1 (775.9) 자본{資本}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체념하려는 노력이다. 저축은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양식 저장은 자아_통제를 개발했고, 자본과 노동으로 인한 첫 문제를 야기했다. 양식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양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뚜렷한 이점{利點}을 가졌다.

69:5.2 (775.10) 초기 은행가는 그 부족 중에서 용감한 남자였다. 그는 그 집단의 보물을 보관했고, 공격 받을 경우에 씨족{氏族} 전체가 그의 집을 방어하곤 했다. 그리하여 각 개인의 자본과 집단의 재산이 곧 군대 조직을 구성하게 했다. 처음에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조치들이 고안됐지만, 나중에는 이웃 부족들의 토지와 재산을 탈취하는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군대 조직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69:5.3 (776.1) 자본 축적을 발생시킨 근본 충동은 다음과 같았다:

69:5.4 (776.2) 1. *굶주림 --예지력과 관련됨.* 양식의 절약과 저장은, 충분한 *예지력*을 가짐으로써 장래의 필요시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과 안락함을 의미했다. 양식의 저장은 굶주림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원시 형태의 사회관행 전체 줄거리는, 사람이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시하도록 도와주려고 고안됐던 것이 사실이다.

69:5.5 (776.3) 2.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함.* 자본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압박감에도, 미래의 수요{需要}에 대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미래의 필요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자손에게 해당될 수도 있다.

69:5.6 (776.4) 3. *허영심 --자기 재산 축적을 과시하고자 함.* 여분의 옷은 탁월성에 대한 최고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다. 수집하는 허영심이 일찍부터 사람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69:5.7 (776.5) 4. *지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명성을 얻으려는 열망. 상업화된 귀족 신분이 일찍부터 생겨났는데, 귀족 신분을 얻는 것은, 왕족에게 어떤 특별한 봉사를 실행하는데 달려있기도 하고, 또는 노골적으로 돈을 낸 대가{代價}로 허락되기도 했다.

69:5.8 (776.6) 5. *권력* --주인이 되려는 열망. 재산을 빌려주는 행위, 즉 이런 옛 시대에 통용된, 매 년 100퍼센트의 대부 이자율이, 노예를 만드는 수단으로 자행됐다. 돈을 빌려준 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상비군으로 조직함으로써 스스로 왕이 됐다. 노예화된 종들은 아주 초기 형태의 축적된 재산이었으며, 고대에는 빚 때문에 생긴 노예 신분이 연장돼서 시체까지도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69:5.9 (776.7) 6. *죽은 자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 --보호 받으려고 사제에게 주는 사례금.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 생애로 쉽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자기 재산이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예물을 사제에게 바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제계층은 큰 부자가 됐고;고대의 자본가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69:5.10 (776.8)

7. *성욕{性慾}* --하나 또는 여러 아내를 차지하려는 열망. 인간의 최초 거래 형태는 여자 교환이었으며;그것은 말{馬}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앞섰다. 그러나 성적 노예의 교환은 사회를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으며;그런 거래 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종적 치욕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가정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수한 민족의 생물학적 적합성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69:5.11 (776.9)

8. *여러 형태의 자아_만족*. 더러는 부{富}가 권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구하고, 더러는 재산이 안락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써 얻으려고 한다. 초기 사람은 (그리고 어느 정도 후대의 사람들도) 사치하는 데 자산을 탕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하게 만드는 것과 마약{麻藥}이 원시 종족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69:5.12 (776.10)

문명이 발달하자, 사람은 저축하도록 새롭게 자극받았으며;새로운 욕구들이 원래의 식욕에 신속하게 덧붙여졌다. 가난을 무척 싫어하게 됐으므로, 사람이 죽게 되면 오직 부자들만 곧바로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재산을 아주 귀중히 여겼으므로, 허세부리는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이름에서 불명예를 씻어버리려고 했다.

69:5.13 (777.1) 재산 축적은 일찍부터 사회적 영예{榮譽}의 상징이 됐다. 어떤 부족에서는, 개인이 어느 축제일에 자기 재물을 태우거나, 동료 부족원들에게 공짜로 나눠줌으로써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재물을 여러 해 모으기도 했다. 이런 행위가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현대인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절제하게 나눠줌으로써 흥청대고 있으며, 한편 부자들은 자선 단체와 교육 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사람의 기법은 변하지만, 이런 성향은 거의 변함없이 남아 있다.

69:5.14 (777.2) 그러나 고대의 많은 부자는 자기 재물을 탐내는 사람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재물을 많이 나눠줬다는 사실을 밝혀야 공정할 것이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거드름을 피우기 위해서, 다수의 노예를 제물로 바쳤다.

69:5.15 (777.3) 자본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소속된 사회 및 산업 체제를 크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정하지 못한 자본가들이 자본을 악용하는 것도, 자본이 현대 산업 사회의 기초라는 사실을 파기시키지는 못한다. 오늘날 세대는 자본과 발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경솔하고 이기적인 관리인들이 자본을 여러 번 오용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서, 이것을 기록한다.

6. 불과 문명의 관계

69:6.1 (777.4) 네 분야로--곧 산업, 규범, 종교, 및 군사로-- 구성된 원시 사회는, 불, 동물, 노예, 및 재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발생됐다.

69:6.2 (777.5) 불을 피운 것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사람을 동물로부터 영원히 구분시켰으며;근본적인 발명, 즉 발견이었다. 불은, 모든 동물이 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밤에도 땅에 머물 수 있게 했다. 불은 황혼 무렵의 사교{社交}를 촉진시켰으며;추위와 맹수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유령에 대항하는 안전책이 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열보다 빛을 밝히려고 불을 사용했으며;대부분의 퇴보한 부족은, 밤새 불꽃이 타지 않으면 잠을 자려하지 않았다.

69:6.3 (777.6) 불은 문명화에 크게 기여했는데, 아직 불이 살아있는 숯을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서, 아무 손해 없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최초의 수단이 됐다. 한 집안의

불은 어머니 또는 만딸이 보존했는데, 방심하지 않는 태도와 믿음직스런 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교육자였다. 초기의 가정은 건물을 갖추지 못했지만, 가족 화로{火爐}인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새 가정을 꾸민 아들은, 가족 화로에서 불씨를 옮겨갔다.

69:6.4 (777.7) 불을 처음 발견한 안돈은 그것을 경배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 다수는 불꽃을 주물{呪物} 또는 영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쓰레기 태우기를 싫어했으므로, 청결하게 만드는 불의 효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했다. 원시인은 불을 두려워했으며,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서 냄새가 적게 나도록 하려고 항상 애썼다. 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 속에 침을 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오르는 불과 사람 사이를 결코 지나가지 않았다. 초기 인류는 심지어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황철광과 부싯돌도 신성하게 여겼다.

69:6.5 (777.8) 불을 꺼뜨리는 것은 죄였으며;집이 불에 타면 그대로 뒀다. 신전{神殿}과 제단의 불은 신성시됐고, 해마다 또는 어떤 재난이 있은 후에 새로 불을 붙이는 것이 관례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불을 절대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여자들이 사제로 선택됐는데, 그들이 집에 있는 불을 보호하기 때문이었다.

69:6.6 (778.1) 불이 어떻게 해서 신들로부터 내려왔는지를 기록한 초기 신화는, 번갯불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시작됐다.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이 관념이, 불을 숭배하도록 직접 작용했고, 불에 대한 숭배는 “불을 통과하는” 풍습을 낳았으며, 그 풍습은 모세 시대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불을 통과하게 된다는 관념이 여전히 존속한다. 불에 관한 신화는, 초기 시대에 엄청난 속박의 도구였고, 파시 교도의 기호 체계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69:6.7 (778.2) 불로 말미암아 조리법이 생겼고, “생식{生食}”은 조롱하는 말이 됐다. 그리고 음식을 익힘으로 인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가 음식 소화로 소모되는 것을 줄였고, 그리하여 초기 사람은 사회 문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됐으며, 한편 목축업은, 양식 확보에 필요한 노력을 줄임으로써,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했다.

69:6.8 (778.3) 불이 금속 가공의 문을 열었고, 나중에는 증기력{蒸氣力}을 발견하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전기를 이용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동물의 활용

69:7.1 (778.4) 처음에는, 동물계 전체가 사람의 적{敵}이었고, 인간은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동물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동물을 길들이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69:7.2 (778.5) 동물 길들이기는 우연히 시작됐다. 미개인은 마치 아메리카 인디언이 들소를 사냥했던 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냥했다. 떼를 포위함으로써 그 동물을 계속 통제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양식에 필요한 대로 그것들을 죽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울타리가 세워졌고, 떼 전체를 사로잡곤 했다.

69:7.3 (778.6) 어떤 동물은 길들이기가 용이했지만, 많은 동물은 코끼리처럼 속박된 상태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 더 후일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포획 된 상태에서도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하여 동물 길들이기는, 골라서

번식시키는,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크게 진보된 기술로 인해 촉진됐다.

69:7.4 (778.7) 개는 처음으로 길들여진 동물이었고, 개를 유순하게 만드는 어려운 체험은, 어떤 개가 하루 종일 사냥꾼 주변을 맴돌다가 그를 따라서 정말로 집에까지 오게 됐을 때 시작됐다. 개는 오랫동안, 양식, 사냥, 운반 수단, 그리고 동무관계로 활용됐다. 처음에는 개들이 길게 뿔듯이 소리 냈지만, 나중에는 짖는 법을 배우게 됐다. 개의 날카로운 냄새 감각 때문에, 개가 영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으며, 개를 숭배하는 종파가 생기기도 했다. 감시하는 개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씨족 전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그 후에는 눈에 보이는 적뿐만 아니라 영{靈}으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데 감시견을 이용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개가 짖을 때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길게 울부짖을 때에는 영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에도, 개가 밤에 길게 울부짖는 것은 죽음의 전조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69:7.5 (778.8) 남자가 사냥하던 시절에는, 여자에게 제법 친절했지만, 동물을 길들인 후에는, 캘리개스차가 일으킨

혼란이 가중돼서, 많은 부족이 자기네 여자들을
고약스럽게 취급했다. 그들은 대체로 동물을 다루듯이
여자를 대했다. 남자가 여자를 무자비하게 대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운데 하나다.

8. 문명의 한 요소로서의 노예 제도

^{69:8.1 (778.9)} 원시인은 망설임 없이 동료들을 노예로 삼았다.
여자가 최초의 노예, 즉 가정의 노예였다. 목축하는 남자는
여자를 노예화해서 자기보다 열등한 성{性}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종류의 성 노예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곧 생겨났다.

^{69:8.2 (789.1)}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정복자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 포로는 노예가 될 운명이었다. 더 먼 옛날에는,
포로를 잡아먹거나, 죽도록 고문하거나, 서로 싸우게
하거나, 영들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삼았다.
노예제도는 대량학살이나 식인{食人}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것이었다.

^{69:8.3 (789.2)} 노예제도는 전쟁 포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한
단계 발전한 것이었다. 아이 성{城} 복병들이, 남녀는 물론
어린아이까지 모두 학살하면서, 정복자로서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왕만 살려뒀던 것은, 문명인으로 여겨지는 민족들까지도 야만적 대량학살을 일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바산의 왕 옥을 습격한 것은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히브리인은 적을 “완전히 섬멸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남자가 멸절되는” 고통 대신, 모든 도시가 조공{租貢}을 바치게 했다. 그러나 당대의 부족들 가운데 다수는 부족 이기주의가 훨씬 덜했고, 유능한 포로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관례가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69:8.4 (789.3) 아메리카 홍색인처럼, 사냥꾼은 노예를 삼지 않았다. 그들은 포로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으면 죽였다. 목축하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노예제도가 유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노동인력이 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목자{牧者}들은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만 노예 삼는 풍습을 만들었다. 모세의 법전{法典}은, 이 여자 포로를 아내 삼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브리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돌려보낼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되지 못한 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그것은 문명화에서 적어도 한 걸음

진보였다. 히브리인의 사회 규범은, 미숙하기는 했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보다 훨씬 앞섰다.

69:8.5 (789.4) 목자는 최초의 자본가였으며;그들의 가축 떼는 자본금이었고, 이자로--곧 자연 증가분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을 노예나 여자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남자 포로를 거느렸고 포로들로 하여금 땅을 일구도록 시켰다. 이것이 농노{農奴}의--곧 토지에 부속된 사람의-- 초기 기원이다. 아프리카인은 땅을 일구는 방법을 쉽게 배웠고;그리하여 그들은 탁월한 노예 인종이 됐다.

69:8.6 (789.5) 노예제도는 인간 문명의 연결 고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고리였다. 그것은 혼돈과 게으름의 상태에서부터 질서와 문명화된 활동으로 옮겨가는 다리였으며;진보가 느리고 나태한 민족들에게 일하도록 강요했고, 그리하여 그들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사회를 진흥시키도록 재산과 여가 시간을 제공했다.

69:8.7 (789.6) 노예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시 사회의 통제 장치를 창안하도록 강요했으며;정부가 시작되게 했다. 노예제도는 강력한 규칙을 필요로 했고, 봉건 군주들이

노예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럽의 중세시대에 거의 사라졌다. 고대의 뒤떨어진 부족들은, 오늘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처럼,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었다.

^{69:8.8 (789.7)} 사실, 노예제도가 억압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산업을 배운 것은 억압이라는 학교에서였다. 노예들은 상류 사회가 생기는 것을 아주 마지못해서 도왔지만, 결국 그 사회의 축복을 공유하게 됐다. 노예제도는 문화 체제와 사회 진보를 이룩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곧, 모든 파괴적 사회 병폐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되어, 사회를 내부에서 공격한다.

^{69:8.9 (789.8)} 현대의 기계 발명이 노예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노예제도는, 일부다처제처럼,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은 숫자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며;점진적으로 해방될 때 문제가 적게 발생된다.

^{69:8.10 (780.1)} 오늘날, 사람은 사회적인 노예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야심 때문에 빛의 노예로 전락한다. 무심결에 형성된 노예제도가, 새롭고 개선된 형태의 변경된 산업 노동을 형성했다.

69:8.11 (780.2) 보편적 자유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게으름이 묵인돼서는 결코 안 된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강제로라도 해야만 한다.

69:8.12 (780.3) 현대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노예는 거의 사라졌고;길들여진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문명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다시 불에--곧 무기물{無機物}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람은 불, 동물, 및 노예제도를 거쳐서 미개한 상태로부터 벗어났으며;오늘날에는 노예의 도움과 동물의 보조가 폐기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자연{自然}이라는 본질적인 창고에서, 부와 권력의 새로운 비결과 출처를 억지로 뺏으려고 애쓴다.

9. 사유재산

69:9.1 (780.4) 원시 사회는 사실상 공동사회였지만, 원시인은 현대 공산주의 학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이런 초기 시대의 공산체제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 정책이 아니었으며;간단하고 실용적인 자동 조절이었다. 공산체제가 빈곤한 상태와 결핍을 방지했으며;고대의 이 부족들은 구걸과 매춘을 거의 알지 못했다.

69:9.2 (780.5) 원시 공산체제는, 사람의 수준을 유별나게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부함을 높여주지도 않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장려했고, 산업을 억제했으며, 야망을 소멸시켰다. 공산체제는 원시 사회의 성장에 필수적 발판이기는 했지만, 강력한 네 가지 인간 성향에 거슬렸으므로, 더 높은 사회 체제로 진화하도록 길을 내주게 됐다:

69:9.3 (780.6) 1. *가족*. 사람은 재산 축적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초기 공산 사회에서 사람의 자산은 즉시 소비되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무리들에게 분배됐다. 증여되는 재산은 없었다--증여세{贈與稅}가 100퍼센트였다. 후대에 자본을 축적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사회관행은, 뚜렷한 사회적 진보였다. 그리고 자본을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지나친 남용이 뒤따랐음에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69:9.4 (780.7) 2. *종교적 성향*. 원시인은 저 세상의 생애를 시작할 때를 위한 토대로서 재산을 모으기를 바라기도 했다. 이런 동기는, 사람을 매장할 때 그의 개인 소장품을 함께 묻는 풍습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설명한다. 옛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자들만 기쁨과 위엄을 갖춘 상태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 특히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선포했다.

69:9.5 (780.8) 3. *자유와 여가 시간을 갖고 싶은 욕망.* 사회가 진화하던 초기 시대에, 개인의 소득을 집단이 나누는 것은 실제로 노예제도의 한 형태였으며; 일하는 자는 게으른 자에게 노예가 됐다. 공산체제가 자멸하게 된 약점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절약하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로 하여금(절약하는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도록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기를 여전히 바란다.

69:9.6 (780.9) 4. *안전과 권력에 대한 열망.* 공산체제는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개인들의 속이는 버릇 때문에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들은 자기 부족{部族} 가운데 무기력한 게으름뱅이들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저축했고;원시적 불안감 때문에 자본을 공개적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후대에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했으며;왕은 부자의 재산을 압수하려고 어떤 혐의를 반드시 꾸며냈으며, 부자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공공복지를 위해서, 또는 왕에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바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69:9.7 (781.1) 아주 먼 옛날에 여자는 그 공동체의 재산이었으며,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했다. 초기에는 족장이 모든 땅을 소유했고, 모든 여자의 주인이었으며;결혼은 부족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공산체제가 지나가자, 여자는 개인별로 소유됐고, 차츰 아버지가 가정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리하여 가정이 시작됐고, 널리 행해지던 일부다처제 관습은 점차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서 여자_노예제도 요소가 잔존한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의 설립, 자녀 양육, 공동 문화, 그리고 자아_수양이라는 절묘한 계획사업에서, 노예삼지_않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비길 데 없이 이상적인 결합이다.)

69:9.8 (781.2) 처음에는, 연장과 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소유였다. 개인 재산은 직접 손을 댄 모든 물건으로 먼저 이뤄졌다. 낫선 사람이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 그 그릇은 그때부터 그의 소유가 됐다.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린 장소는 어디든지, 상처 난 사람 또는 집단의 재산이 됐다.

69:9.9 (781.3)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은 원래 높이 평가됐는데, 그것이 소유주의 인격체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미신을 토대로 해서 재산에 대한 정직성이 안전하게 형성됐으므로, 개인의 소유물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집단 내에서는 훔치는 일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다른 부족의 재물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재산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으며;처음에는 개인의 물건을 불에 태웠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함께 묻었으며, 후대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부족에게 물려줬다.

69:9.10 (781.4) 장신구 유형의 개인 소지품은, 부적{符籙}을 몸에 지닌 것에서 비롯됐다. 허영심과 함께 유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기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부적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게 됐고, 그런 소유물은 생활필수품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졌다.

69:9.11 (781.5) 잠자는 공간은 사람의 초기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나중에는 부족의 추장이 집터를 결정했고, 추장은 그 집단을 위해서 모든 부동산을 관리했다. 이윽고 불 피우는 자리가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더 후기에는 우물이 주변 땅에 대한 재산권을 성립시켰다.

69:9.12 (781.6) 물웅덩이와 우물은 최초의 개인 소유지에 속했다. 주물송배 풍습 전체가, 물웅덩이, 우물, 나무, 농작물, 그리고 꿀 보호에 이용됐다. 주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후에는, 개인에게 소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 법규가 발달했다. 그러나 수렵법{狩獵法}, 즉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법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아메리카 홍색인은 땅의 개인 소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백색인의 관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69:9.13 (781.7) 개인 사유지는 일찍부터 가족 표지{標識}로 표시됐고, 이것은 가족 문장{紋章}의 효시{嚆矢}가 됐다. 부동산 역시 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제가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마술적 금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금기의 소유주는 “사제의 권리증서”를 가졌다고 말하게 됐다. 히브리인은 이런 가족 경계표{境界標}를 무척 존중했는데:“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돌로 만든 이런 표지 위에는 사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새겨질 때에는 나무조차 사유 재산이 됐다.

69:9,14 (782.1) 초기 시대에는 오직 농작물만 사유{私有}됐지만, 연속해서 거둬들이는 농작물에 소유권을 부여했으며;그리하여 농업은 개인 토지 소유권의 기원이 됐다. 각 개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땅의 소유권을 가졌고, 죽은 후에는 부족의 소유로 되돌려졌다. 땅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수여된 가장 최초의 경우는 무덤이었다--가족 공동 묘지였다. 후대에 이르러서, 땅은 담을 세운 사람에게 소속됐다. 그러나 성읍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땅을 공동 목초지로 예비해 뒀으며;이런 “공동 토지”는 초기 형태의 공동 소유권이 잔존한 대표적인 예다.

69:9.15 (782.2) 결국,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게 됐다. 땅 임자는, 이 소유권을 보장받으면서, 땅을 빌려준 샅을 받을 수 있었고, 땅은 소득의 근원이 됐다--자본이 됐다. 마침내, 판매, 이전, 저당, 및 담보소유권 상실 등과 함께, 정당하게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됐다.

69:9.16 (782.3) 사유 재산권이 자유를 증대시켰고, 안정성을 증진시켰지만;땅의 사유 재산권은 오직 공동 사회의 통제와 지시가 실패한 후에만 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곧 그 뒤를 이어서, 노예, 농노{農奴}, 그리고 땅 없는 계층이 연속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개선된 기계들이, 일에 노예 된 상태에서 인간을 점차 벗어나게 하고 있다.

69:9.17 (782.4)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순전히 사회적이다. 그러나 현대인이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정부, 법, 질서, 시민권, 사회적 자유, 관례, 평화, 및 행복 등 전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돼 왔다.

69:9.18 (782.5) 현재의 사회 체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곧 신성하지도 신성시되지도 않지만, 인류는 변화를

서서히 이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지닌 체계는, 너희 조상이 알았던 어떤 체계보다 대단히 월등하다. 너희가 사회 질서의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라. 너희의 조상이 폐기시켰던 상투적인 방식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라! 진화가 계속되도록 노력해라! 뒷걸음질 치지 마라.

69:9.19 (782.6)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70편 인간 정부의 진화

70:0.1 (783.1) 사람은, 생계유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자마자, 인간의 접촉을 규제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산업의 발달은, 법, 질서, 및 사회적 조정을 요구했고, 재산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정부{政府}가 필요하게 됐다.

70:0.2 (783.2)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적개심이 선천적이며;사회를 규제하는 어떤 체계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의 조직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연합은 다소간의 통제하는 권위를 내포한다.

정부는, 부족, 씨족, 가족, 및 개인의 대립 관계가 조정되기를 강요한다.

70:0.3 (783.3)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발달한 것이며;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한다. 정부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으며;따라서 정부는 전통이 된다. 무정부 상태는 고통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부, 즉 상대적인 법과 질서가 서서히 발생했거나 발생되고 있다. 살기 위해서는 투쟁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요구는, 문명에 이르기까지 진보하는 길을 따라가도록 글자 그대로 인류를 내몰았다.

1. 전쟁의 기원

70:1.1 (783.4) 전쟁은 진화하는 사람의 자연스런 형편과 유산이며;평화는 문명의 발전 정도를 재는 사회의 척도다. 진보하는 인종들이 부분적인 사회화를 이루기 전에,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의심이 많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好戰的}이었다. 폭력은 자연 법칙이고, 적개심은 자연인의 자동 반응이며, 한편 전쟁은 바로 이런 활동을 집단으로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명의 구조가 사회 발전에 따른 혼란에 시달릴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생기는

자극{刺戟}을 폭력으로 조정하려는, 이런 초기 방법으로 반드시 역행하는데, 즉시 파멸을 초래한다.

70:1.2 (783.5) 전쟁은 오해와 자극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며;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문명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 평화가 따라온다. 상익 인종은, 후대의 타락한 아담족속 및 낫족속과 함께, 모두 호전적이었다. 안돈족속은 일찍부터 황금률을 배웠고,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에스키모인은 그 규범을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으며;관습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난폭한 적개심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70:1.3 (783.6) 안돈은 자식들에게, 각자 저주하면서 막대기로 나무를 때리게 해서 다툼을 진정시키도록 가르쳤으며;막대기가 먼저 부러지는 쪽이 승자였다. 후대의 안돈족속은, 다툼은 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희롱하고 비웃게 했고,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박수갈채로 승리자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다툼을 진정시키곤 했다.

70:1.4 (783.7) 그러나 사회가 평화로운 기간을 실제로 체험하고, 호전적 풍습을 제재할 정도로 훨씬 더 진화하기까지,

전쟁이라 할 만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조직됐음을 의미한다.

70:1.5 (784.1) 사회의 집단화{集團化}가 출현하면서, 개인의 노여움은 집단의 감정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이것은 부족 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대신, 부족 내부의 평온을 증진시켰다. 그리하여 먼저 집단_내부, 즉 부족이 평화를 누렸고, 그들은 언제나, 외부_집단, 즉 이방인을 싫어하고 미워했다. 일찍부터 사람은 이방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70:1.6 (784.2)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 족장들은 불화를 해결하고 싶을 때, 부족끼리 투석전{投石戰}을 하도록,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종종 발견했다. 그 씨족은 두 무리로 나뉘어 하루 종일 싸웠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재미를 위한 것이었고;그들은 그런 싸움을 정말로 즐겼다.

70:1.7 (784.3) 전쟁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된 인간이고, 모든 동물은 호전적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70:1.8 (784.4) 1. *굶주림*, 음식을 강탈하도록 만듦. 땅의 부족{不足}은 항상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초기에 평화롭던 부족{部族}들이 이런 투쟁 와중에 실제로 멸종됐다.

70:1.9 (784.5) 2. *여자의 부족* --가사를 돌보는 인력{人力}의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 여자를 훔치는 것은 항상 전쟁을 일으켰다.

70:1.10 (784.6) 3. *허영심* --부족의 용맹성을 과시하려는 욕망. 우수한 집단은 열등한 민족들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다.

70:1.11 (784.7) 4. *노예* --노동자 직급을 확보할 필요성.

70:1.12 (784.8) 5. *복수*는, 자기 부족의 동료를 이웃 부족이 죽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됐다. 머리 하나를 집으로 가져올 때까지 계속 애곡{哀哭}했다. 복수는 비교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70:1.13 (784.9) 6. *오락* --이런 초기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쟁을 오락처럼 여겼다. 전쟁을 일으킬만한 그럴듯하고 충분한

구실이 없으면, 평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인접한 부족들은 가짜 전쟁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일을 정해 약탈하는 식으로, 다소 친근감을 갖는 전투를 벌이곤 했다.

70:1.14 (784.10) 7. 종교 --개종시키고자 하는 욕구. 원시 종교들은 모두 전쟁을 인정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야 종교가 전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초기 사제계층은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군사력{軍事力}과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평화 운동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였다.

70:1.15 (784.11) 이 옛 부족들은, 자기 신{神}이 명령하는 대로, 즉 그들의 족장 또는 주술사{呪術師}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히브리인은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고;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침략한 것에 대한 기록은, 고대의 부족 간 전쟁이 지독하게 무자비했음을 전형적으로 설명하며;모든 남자를 학살했고, 나중에는 처녀가 아닌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했던 이 습격은, 20만 년 전 어느 부족 추장이 세운 사회관행에 경의를 표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주{主}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70:1.16 (784.12) 이것은 사회의 진화에 대한--곧 인종 문제에 대한 자연스런 해결작업에 대한--이야기,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풀어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잔학성은, 책임을 자기 신{神}들에게 돌리려는 인간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신격이 부추긴 것이 아니다.

70:1.17 (784.13) 군대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인류에게 잘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드보라라는 여자가 히브리인을 다스릴 때에도, 바로 이런 대규모 잔학 행위가 계속됐다. 그 여자의 지휘관들은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모든 무리를 칼로 죽이되;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

70:1.18 (785.1) "인종의 역사에서 아주 초기에는 독약{毒藥}을 묻힌 무기가 사용됐다. 손상시키기 위한 온갖 종류의 행위가 실행됐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위해서 지불할 지참금으로, 다윗에게 블레셋족속 100명의 인피{人皮}를 주저함 없이 요구했다.

70:1.19 (785.2) 초기의 전쟁은 전체 부족 간 싸움이었지만, 나중에는 두 부족 전체가 싸우는 대신, 두 싸움꾼이 결투를 벌였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경우처럼, 두 군대는 각자

자기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두 군인이 싸운 결과에 전부를 거는 것이 관례가 되기도 했다.

70:1.20 (785.3) 전쟁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것은 포로 삼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전투 행위에서 제외됐고, 그 후에는 비전투원을 인정하게 됐다. 전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 계급제도와 상비군{常備軍}이 곧 개발됐다. 그런 전사{戰士}들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일찍부터 금지됐고, 여자는 오래 전부터 싸움에서 제외됐지만, 언제나 군인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치료했으며 전투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70:1.21 (785.4) 전쟁을 선포하는 풍습은 큰 진보를 의미했다. 싸움 의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은, 공명정대함이 나타나는 전조{前兆}가 됐고, 그 뒤를 이어 “문명화된” 전쟁 규정이 차츰 개발됐다. 종교적인 장소 근처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특정한 거룩한 날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주 일찍부터 관습이 됐다. 그 다음으로는 도피처의 권리가 공인됐으며, 정치적 망명자는 보호받았다.

70:1.22 (785.5) 그리하여 전쟁은, 원시인 사냥으로부터, 후대의 “문명화된” 국가 간의 약간 더 규율화된 형태로, 점차

진화했다. 그러나 증오하는 사회적 태도를 우호적인 태도로 바꾸는 것은 매우 느리게 이뤄진다.

2. 전쟁의 사회적 가치

70:2.1 (785.6) 지난 시대에 있었던 격렬한 전쟁은, 1만 년이 걸려야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고, 새로운 관념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곤 했다. 전쟁으로 인한 이런 특정한 이점{利點}을 위해서 지불된 무시무시한 대가{代價}는, 그 사회가 잠정적으로 미개한 상태로 돌아간 것이었으며;문명화된 이성만은 포기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심각한 치료법이며, 매우 비싸고 가장 위험하며;어떤 사회적 혼란을 종종 치료하지만, 환자를 죽이는, 즉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다.

70:2.2 (785.7) 지속적인 국가 방어의 필요성이, 새롭고 진보된 많은 사회적 적응을 일으킨다. 오늘날 사회는, 여러 유용한 기술 혁신의 유익을 누리는데, 이것들은 처음에 전적으로 군사 목적이었고, 춤은 전쟁 덕분으로 비롯됐으며, 초기 형태의 군사 훈련들 가운데 하나였다.

70:2.3 (785.8) 전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나간 문명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70:2.4 (785.9) 1. 강요된 훈련, 즉 강제적 협동.

70:2.5 (785.10) 2.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함.

70:2.6 (785.11) 3. 민족주의를 조성하고 촉진시킴.

70:2.7 (785.12) 4. 약하고 부적당한 민족들을 도태시킴.

70:2.8 (785.13) 5. 원시적인 평등의 망상을 해체시키고, 선택적으로 사회를 계층화시킴.

70:2.9 (785.14) 전쟁은 진화적이고 선택적인 어떤 가치를 갖지만, 노예제도처럼, 문명화가 서서히 진척됨에 따라서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옛 전쟁들은 여행과 문화 교류를 증진시켰으며;이런 목적이 이제는 현대적 수송 및 통신 방법으로 더 잘 이뤄지고 있다. 옛 전쟁은 국가를 강화시켰지만, 현대의 투쟁은 개화{開化}된 문화를 붕괴시켰다. 고대의 전쟁은, 열등한 민족들이 멸절되는 결과를 낳았으며;현대 전투의 최종 결과는, 가장 우수한 인간 혈통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것이다. 초기의 전쟁은 조직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이것은 이제 현대

산업의 목표가 됐다. 지난 시대 동안, 전쟁은 문명을 앞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사회 효소{酵素}였으며;이제 야망과 발명이 이런 결과를 더 잘 달성한다. 고대의 전쟁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했지만, 현대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쟁은 과거에 가치 있는 많은 목적을 만족시켰지만, 즉 문명 건설에서 필요 불가결한 발판이 됐지만, 곧 문화적 파산을 가져오게 한다--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따르는 비참한 손실에 비례하는 이익을, 어떤 면으로도 사회에 배당 할 수 없다.

70:2.10 (786.1) 의사들은 피를 흘림으로써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때 믿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대부분의 질환을 위한 더 나은 치료법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피 흘리는 전쟁 대신, 나라들의 재난을 고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는 일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70:2.11 (786.2) 유란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적 군국주의와 산업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투쟁을 이미 시작했으며, 이 투쟁은 목자{牧者}인 사냥꾼과 농부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의 투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주의가 군국주의를 이기려면, 산업주의를 따르는 위험 요소들을 피해야만 한다. 유란시아에서 싹트는 산업의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70:2.12 (786.3) 1. 물질주의, 즉 영적 무지를 향한 심각한 표류.

70:2.13 (786.4) 2. 부와_권력을 숭배함, 즉 가치 왜곡.

70:2.14 (786.5) 3. 사치하는 악습{惡習}, 즉 문화적 미성숙.

70:2.15 (786.6) 4. 게으름의 위험성이 증가됨, 즉 봉사에 무감각함.

70:2.16 (786.7) 5. 바람직하지 못한 인종적 관대함의 증가, 즉 생물학상의 퇴보.

70:2.17 (786.8) 6. 표준화된 산업에 노예가 될 징조, 즉 인간성의 침체. 노동은 고상하게 만들지만, 단순 노동은 감각을 마비시킨다.

70:2.18 (786.9) 군국주의는 독재적이고 잔인하다--야만적이다. 그것은 정복자들 가운데서 사회 조직을 증진시키지만, 피정복자들을 붕괴시킨다. 산업주의는 더 문명화된 것이며, 창의력을 촉진시키고 개인주의를 장려하도록

진행돼야 한다. 사회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독창성을
육성해야 한다.

70:2.19 (786.10) 전쟁을 찬양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오히려
전쟁이 사회에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지 분별해서, 문명의
계속되는 진보를 위해 무엇으로 전쟁을 대체시킬 것인지,
너희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충분한 대용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쟁은 계속될 것을
확신해도 좋다.

70:2.20 (786.11) 평화가 사람의 물질적 복지에 최선을 완전히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인류의 자아_보존 반응
가운데 하나인, 늘 누적되는 감정과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고안된 집단적 충동을 주기적으로 해소시키는 선천적
성향을 만족시키도록, 사회가 평화적인 대용품을
현명하게 제공할 때까지, 사람은 결코 평화를 정상 생활
형태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70:2.21 (786.12) 그러나 말이 난 김에, 전쟁은 체험 훈련소로서
존중 받아야 할 것이며, 이 훈련소는 오만한
이기주의자들로 구성된 인종으로 하여금 크게 집중된
권위에--곧 대통령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했다.

구식{舊式}의 전쟁은 선천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지만,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도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회는 이제 평화의 전리품, 즉:산업, 과학, 및 사회적 성취에 눈을 돌려야만 한다.

3. 초기의 인간 연합체

70:3.1 (787.1) 가장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대집단{大集團}*이 전부이고, 아이들조차 무리의 공동 재산이다. 아이의 양육에서 진화하는 가정이 대집단을 대체한 반면, 새로 출현한 씨족과 부족이 사회 단위로서 가정을 대신했다.

70:3.2 (787.2) 성욕과 모성애가 가족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족을 초월하는 집단들이 형성되기 전에는 실제 정부 형태가 출현하지 못한다. 대집단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비공식으로 뽑은 개인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은 이런 원시 단계를 넘어서 진보한 적이 없었고;대집단에는 우두머리가 없다.

70:3.3 (787.3) 핏줄로 결합된 가족들이 혈연 집합체인 씨족으로 연합했고;나중에 이것이 진보돼서 지역 공동체인 부족을 이루게 됐다. 전쟁과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까운 씨족들에게 부족 체제를 이루도록 강요했지만, 초기의 이

원시 집단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내부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묶일 수 있게 한 것은, 상업과 무역이었다.

70:3.4 (787.4) 망상적 평화를 계획하는, 감상에 젖은 어떤 궤변보다, 국제 무역 체제들이, 유란시아의 평화를 훨씬 더 증진시킬 것이다. 언어의 발달이, 그리고 향상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개선된 통신 방법이, 무역 관계를 촉진시켜 왔다.

70:3.5 (787.5) 공통 언어의 부재{不在}가, 평화를 지키는 집단들의 성장을 항상 방해했지만, 현대의 무역에서는 돈이 보편적 언어가 돼왔다. 주로 산업 시장이 현대 사회를 결속시킨다.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봉사하려는 욕구로 증대됐을 때, 문명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70:3.6 (787.6) 초기 시대에 각 부족은, 바깥쪽일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커지는 그런 동심원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모든 낯선 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노예 삼는 일이 한때의 관습이었다. 친구 관계의 옛 관념은 씨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으며; 씨족에 소속되면 죽은 뒤에 생존한다고 믿었다--가장 초기의 영생{永生} 개념 가운데 하나였다.

70:3.7 (787.7) 서로를 받아들이는 예법으로 상대방의 피를 마셨다. 어떤 집단에서는 피를 마시는 대신 침을 서로 나눴는데, 이것이 사교적 입맞춤을 행하는 풍습의 옛 기원이다. 그리고 결혼이든지 양자결연이든지, 연합을 이루는 모든 예식 끝에는 반드시 축제가 열렸다.

70:3.8 (787.8) 후대에는, 피 섞은 붉은 포도주가 사용됐고, 결국 포도주만 마심으로써 서로 받아들이는 예법을 지켰으며, 포도주 잔에 손을 댄으로써 승인을 표명했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완료됐다. 히브리인은 서로 받아들이는 이런 예법으로부터 변경된 형태를 채택했다. 그들의 아랍 조상은,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 원주민의 생식기{生殖器}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다. 히브리인은 받아들인 외국인을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우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낯선 이들을 너희 중에 태어난 사람처럼 대할 것이며, 너 자신처럼 그를 사랑해야 한다.”

70:3.9 (787.9) “손님과의 우정”은 잠시 환대하는 관계였다. 방문했던 손님이 떠날 때, 접시를 둘로 쪼개서 한 조각을 떠나는 친구에게 주고, 제삼자{第三者}가 나중에 방문할 때 적절한 소개장{紹介狀}이 되게 했다. 손님은 자신의

여정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빛을 갠 것이 관례였다. 옛 시대에 이야기꾼이 너무 유행하게 됐으므로, 결국 사냥이나 추수하는 시기에는 그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사회관행이 생겼다.

70:3.10 (788.1) 최초의 평화 조약은 “피로 맺는 계약”이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부족의 평화 사절{使節}이 만나서 경의를 표한 후에, 피가 흐를 때까지 피부를 찢었으며;서로의 피를 빨아 마시면서 평화를 선언하곤 했다.

70:3.11 (788.2) 가장 일찍 있었던 평화 사절단은, 한때 자신의 적{敵}이었던 사람들의 성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선택한 처녀들을 거느린 파견대표단으로 구성됐는데, 전쟁의 충동을 제거하는 일에 성욕이 이용됐다. 그렇게 공경 받은 부족은 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면서 처녀들을 선물로 줬으며;그 후부터 평화가 정착되곤 했다. 그리고 곧 족장{族長} 가족들 간의 결혼이 허용됐다.

4. 씨족과 부족

70:4.1 (788.3) 최초의 평화 집단은 가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씨족, 부족, 그리고 나중에는 민족이 이뤄졌는데, 민족이

결국 현대의 지역 국가를 이루게 됐다. 유란시아의 나라들이 여전히 전쟁 준비에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평화 집단들이 오래 전부터 혈연을 넘어서 나라들을 용납하기까지 확장됐다는 사실은,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70:4.2 (788.4) 씨족은 부족 내에서 혈연으로 묶인 집단이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공통 이해관계를 가졌다:

70:4.3 (788.5) 1.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같음.

70:4.4 (788.6) 2. 동일한 종교 토템을 모심.

70:4.5 (788.7) 3. 같은 통용어를 사용함.

70:4.6 (788.8) 4. 공동 거주지에서 생활함.

70:4.7 (788.9) 5. 동일한 적을 두려워함.

70:4.8 (788.10) 6. 공동으로 전투 체험을 했음.

70:4.9 (788.11)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항상 부족장{部族長}에게 복종했으며;초기 부족 정부는 씨족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다.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은 결코 부족 형태의 정부를 개발하지 못했다.

70:4.10 (788.12) 평화로울 때, 씨족 추장은 대개 모계{母系}를 통해서 다스렸으며;전시{戰時}의 부족 추장은 부계{父系}를 확립했다. 부족장과 초기 왕의 법정은 씨족장들로 구성됐는데, 매 년 몇 차례씩 그들을 왕 앞으로 소집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은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협동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씨족들은 지역의 자체_정부를 통해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게는 했지만, 큰 규모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지연시켰다.

5. 정부의 출현

70:5.1 (788.7) 인간의 모든 제도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며, 시민 정부는, 결혼, 산업, 및 종교와 마찬가지로, 점진적 진화의 산물이다. 초기 씨족과 원시 부족들로부터, 이어지는 인간 정부 체제가 점차 발전됐는데, 그 정부 체제들은, 20세기 중반의 특징을 이룬 그런 형태의 사회 및 민간 규칙에 바로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어 왔다.

70:5.2 (788.8) 가족 단위들이 점차 출현함에 따라서, 정부도 씨족 체제, 즉 혈통이 같은 가족들의 집단화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게 됐다. 최초의 정부다운 정부 체제는 원로{元老}

협의/회였다. 조정 기능을 가진 이 집단은, 남달리 유능함을 보인 바 있던 노인들로 구성됐다. 지혜와 체험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일찍부터 높이 인정받았으며, 원로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됐다. 나이 든 소수가 이렇게 독재하는 통치는, 점차 족장{族長} 개념으로 발전했다.

70:5.3 (789.1) 원로들로 구성된 초기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모든 잠재 기능들:즉 행정, 입법, 및 사법 기능이 있었다. 협의회가 당시 사회관행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법정의 역할을 했고;새로운 방식의 사회관행을 세울 때에는 입법기관이었으며;그런 판결과 법규를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였다. 협의회 의장은, 후대의 부족장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70:5.4 (788.10) 어떤 부족은 여성 협의회도 있었고, 때로는 여성이 다스리는 부족도 많았다. 홍색인 가운데 어떤 부족은, "7인 협의회"의 만장일치 통치를 따르는 면에서 오나모나론톤의 가르침을 보존했다.

70:5.5 (788.11) 논쟁하는 사회는, 평화는 물론 전쟁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류가 깨닫기는 매우 힘들었다. 원시의 "교섭"은 별로 쓸모가 없었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씨족장이 명령하는 군대는, 강력한 한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에 맞서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다. 전쟁은 반드시 왕을 세웠다.

70:5.6 (788.12) 처음에 전쟁을 맡은 추장은 군 복무만을 위해 뽑혔고, 평화 시에는 그 권위 중에서 일부가 해제되곤 했는데, 그러면 추장의 임무는 사회적인 성질을 더 띠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로운 기간에도 권한을 갖는 경향이 점점 많아져서, 전쟁 후에도 다음 전쟁 때까지 계속 통치하려고 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서 다음 전쟁이 이어지도록 모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초기의 전쟁 주관자들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70:5.7 (788.13) 후대에는 군 복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어떤 추장들이 선정됐는데, 보기 드문 체격이나 뛰어난 개인 재능 때문에 뽑혔다. 홍색인은 두 종류의 추장을--곧 평화시의 지도자인 추장과, 전쟁을 맡는 세습되는 추장을--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평화시의 통치자는 재판관과 선생을 겸했다.

70:5.8 (788.14) 초기의 어떤 공동체들은 주술사가 통치했는데, 그들은 종종 추장으로서 행세했다. 한 사람이, 사제{司祭},

의사, 및 최고 행정관 역할을 하곤 했다. 초기의 호화로운 휘장은 원래 성직자 복장의 상징 또는 문장{紋章}인 경우가 아주 흔했다.

70:5.9 (788.15)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정부의 행정 부문{部門}이 점차 생겨나게 됐다. 씨족과 부족의 협의회는, 자문하는 자격으로 계속 유지됐고, 후대에 나타난 입법부와 사법부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원시 정부의 모든 형태가 여러 부족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

6. 군주제 정부

70:6.1 (789.8) 효과적인 국가 통치는, 완전한 행정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가 출현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사람은, 어떤 관념을 증여함으로써가 아니라, 한 인물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만 효과적인 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70:6.2 (789.9) 통치지위는, 가족의 권한 또는 재산 관념으로부터 형성됐다. 족장 소왕{小王}이 실제적인 왕{王}으로 바뀌게 됐을 때, 때로는 그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중에는, 영웅들로부터 왕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리고 훨씬 후대에는, 왕이 신성한 기원을 갖는다는 믿음 때문에, 통치지위가 세습됐다.

70:6.3 (789.10) 세습되는 왕권은, 이전에 한 왕이 죽은 때부터 후임자가 결정되는 사이에 대혼란을 일으켰던, 무정부 상태를 겪지 않도록 해줬다. 가족은 생물학상의 우두머리를 가졌고;씨족은 자연히 선택된 지도자를 가졌으며;부족과 후대{後代}의 국가는 자연발생적인 지도자를 갖지 못했는데, 이것이 추장이나_왕권의 세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왕가{王家}와 귀족의 관념은, 씨족들에게 있었던 “이름 소유권”이라는 사회관행에 기초를 두기도 했다.

70:6.4 (790.1) 왕위 계승은 결국 초자연의 일로 간주됐는데, 왕의 핏줄이 캘리개스차 왕자의 물질화된 참모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은 주물 인격체가 됐고, 과도한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데, 특별한 형태의 말투를 왕실어법{王室語法}으로 사용했다. 최근까지도, 왕과 접촉함으로써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아직도 유란시아의 어떤 민족은 자신의 통치자가 신성한 기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0:6.5 (790.2) 초기의 주물 왕은 흔히 격리된 생활을 했으며;너무 신성시되어, 축제 기간과 거룩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볼 수도 없었다. 대개 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행자가 선출됐으며, 이것이 수상{首相}의 기원이다. 내각{內閣}의 최초 관원은 음식 관리자였고, 다른 직책들이 뒤따라 생겨났다. 통치자는 교역과 종교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을 선임했으며;내각 제도의 발전은, 집행부 권위를 개인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직접 원인이 됐다. 초기의 왕을 보좌하던 이 사람들은 귀족으로 선택됐고, 여자들이 더 존중받게 되면서, 왕의 아내는 왕비의 위엄으로 높아졌다.

70:6.6 (790.3) 사악한 통치자들은 독약을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권력을 획득했다. 초기의 궁정{宮廷} 마술은 악마적이었고;왕에게 대적하는 자는 곧 죽게 됐다. 그러나 가장 악랄한 폭군도 어느 정도 제한 받았는데, 어쨌든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암살에 대한 공포가 그를 억제시켰다. 주술사, 의사, 및 사제{司祭}들은 왕에게 반드시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됐다. 나중에는 땅을 소유한 자들, 즉 귀족이, 압박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때때로 씨족과 부족들이 단순한 의도로 봉기해서, 독재자와 폭군을

타도하기도 했다. 폐위{廢位}된 통치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자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특별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자살하는 유행이 고대 사회에서 시작됐다.

7. 원시 동호회와 비밀 공동체

70:7.1 (790.4) 혈연관계가 최초의 사회 집단들을 확정했으며;연합을 통해서 친척 관계의 씨족이 확대됐다. 씨족 간의 결혼은 그 다음 단계로 집단 확대를 이룩했고, 그 결과로 생긴 복합적인 부족은 참된 첫 정치 기구였다. 사회 발전에서 다음 단계는, 종교적 종파와 정치 동호회{同好會}의 출현이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비밀 공동체로 결성됐고, 원래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이었는데;나중에는 통제하는 것이 됐다. 처음에는 이런 공동체들이 남자의 동호회였고;나중에는 여자의 모임도 나타났다. 이윽고 그것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사회정치적인 부류와 종교적이고_신비적인 부류였다.

70:7.2 (790.5) 이런 공동체들이 비밀리에 이뤄진 이유가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70:7.3 (790.6) 1. 어떤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통치자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

70:7.4 (790.7) 2. 소수파 종교의 제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70:7.5 (790.8) 3. 가치 있는 "기품" 이나 거래 비밀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70:7.6 (790.9) 4. 어떤 특별한 마법이나 마술을 즐기기 위해서.

70:7.7 (790.10) 이런 공동체의 강력한 비밀 엄수로, 그 부족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신비의 능력을 모든 회원에게 제공했다. 비밀 엄수는 허용심을 자극하기도 했는데;회원 가입은 당대의 사회적 특권이였다. 가입된 후에는 소년들이 어른과 함께 사냥했으며;반면에 그 전에는 여자들과 함께 식물을 채집해야 했다. 그리고 사춘기에 거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남자의 거주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자 및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약한 자로 취급받는 것은 최고의 굴욕이고, 부족에서 망신거리였다. 게다가, 가입되지 못한 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70:7.8 (791.1) 원시 민족은, 청년기에 도달한 자녀들에게, 매우 일찍부터 성욕{性慾}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사춘기부터 결혼할 때까지, 남자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관례가 됐는데, 그들의 교육과 훈련은 남자 비밀 공동체에게 위임됐다. 그리고 이런 동호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청년기의 젊은 남자를 계속 통제함으로써, 사생아{私生兒}의 탄생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70:7.9 (791.2) 이런 남자 동호회들이 다른 부족 여자를 이용하는 대가{代價}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상업화된 매춘이 시작됐다. 그러나 초기 집단들은 방종{放縱}한 성관계와는 현저히 거리가 멀었다.

70:7.10 (791.3) 사춘기에 입문하는 의식{儀式}은 대개 5년간 계속됐다. 많은 고행{苦行}과 고통스럽게 상처 내는 행위가 이 의식에 포함됐다. 이런 단체 가운데 하나에 가입되는 제례로, 할례가 처음 실행됐다. 사춘기 입문식의 일부로 부족의 표지{標識}를 피부에 새겼으며;문신{文身}은 그런 회원을 상징하는 표시에서 기원됐다. 그와 같은 심한 고통은, 오랫동안의 궁핍과

함께, 이 젊은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즉 삶의 실체감과 피할 수 없는 결핍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고안됐다. 후대에 나타난 운동 경기와 육체적 경연이 이런 목적을 더 훌륭하게 성취한다.

70:7.11 (791.4) 그러나 비밀 공동체들은 청년의 도덕 증진에 목적을 뒀는데;사춘기 의식{儀式}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가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소년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70:7.12 (791.5) 이런 여러 해 동안의 종교적 수양과 훈련이 있는 후에, 그리고 결혼이 이뤄지기 전에, 젊은이들은 대개 짧은 기간의 한가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그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결혼했고, 부족의 금기를 평생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고대의 이런 관습은, "젊은 혈기로 난봉부리기"라는 어리석은 관념으로 현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70:7.13 (791.6) 후대의 여러 부족은 여자 비밀 동호회를 허용했는데, 그 목적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처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입회한 후에 소녀는 결혼할 자격을 얻었고, "신부 보여주기", 즉 당대의

성인 축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반대하기로 서약한 여자 계층이 일찍부터 생겼다.

70:7.14 (791.7) 결혼하지 못한 남자 집단과 결혼하지 못한 여자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되자, 마침내 공개적인 동호회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 연합체들은 정말로 최초의 학교에 해당됐다. 그리고 남녀 동호회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경향에 종종 빠졌지만, 진취적인 어떤 부족들은 달라마시아의 선생들과 접촉한 후에, 남녀공학을 실험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했다.

70:7.15 (791.8) 비밀 공동체들은, 주로 입회식의 신비스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회 신분계층이 형성되도록 기여했다. 이 공동체 회원들은, 애도하는 제례--곧 조상 숭배-- 현장에서 호기심 있는 자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내려고, 처음으로 가면을 썼다. 이런 종교 제례식이 나중에는 사이비 강신회{降神會}로 발전했는데, 거기서 유령들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퍼졌다. "새로 출현한"고대의 공동체들은 기호를 사용했고, 특별한 은어{隱語}를 이용했으며;특정한 음식과 음료수를 거부했다. 그들은

야간 경비원으로 활동했고, 그밖에도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역할을 했다.

70:7.16 (792.1) 모든 비밀 연합체는 맹세를 강요했고, 신용을 요구했으며, 비밀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이런 명령이 폭도에게 두려움을 줘서 통제했으며;또한 그들은 자체 경비 공동체로서 활약함으로써, 사형{私刑} 법을 실행했다. 그들은 부족 간 전쟁이 발생할 때 선두 정탐꾼이 됐고, 평화시에는 선두 비밀경찰이 됐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악한 왕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들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왕은 친위 비밀경찰을 양성했다.

70:7.17 (792.2) 이 공동체들로 인해서 최초의 정치 정당이 출현했다. 최초의 정당정치는 "강한 편"과 "약한 편"의 대결로 이뤄졌다. 고대에는 경영진이 바뀌게 되면 곧 내란{內亂}이 뒤따랐는데, 약한 편이 강하게 됐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70:7.18 (792.3) 이 동호회들은, 빚을 독촉하려는 상인에게 고용됐고, 세금을 거두려는 통치자에게 고용됐다. 세금 징수는 오랫동안 투쟁을 겪었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십일조{十一條}, 즉 사냥한 것과 약탈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다. 세금은 원래 왕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됐지만, 신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물 하도록
속임수를 쓰면 세금 거두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70:7.19 (792.4) 이윽고 이런 비밀 연합체들이 점점 커져서, 최초의
자선{慈善} 단체를 이뤘고, 나중에는 --교회의
전조{前兆}인-- 초기 종교 공동체로 발전됐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더러는 마침내 여러 부족을 참여시키게 돼서,
최초의 국제 협동단체가 됐다.

8. 사회 계층

70:8.1 (792.5)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차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회 계층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 계급이 없는 유일한
세계는, 가장 원시적인 세계와 가장 진보된 세계다. 문명이
태동{胎動}될 때에는 아직 사회 수준의 분화{分化}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빛과 생명의 단계에 도달한
세계에서는, 진화의 중간 단계들의 특징인 이런 인류
구분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70:8.2 (792.6) 사회가 야만 상태에서 미개한 상태로 발전되면서, 인간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이유 때문에 여러 계층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었다:

70:8.3 (792.7) 1. *선천적 이유* --연줄, 친척 관계, 및 결혼;최초의 사회적 차이는 성{性}, 나이, 핏줄에--곧 우두머리와 친척 관계에-- 기초를 뒀다.

70:8.4 (792.8) 2. *개인적 이유* --역량, 인내심, 솜씨, 및 강인함을 높이 평가함;언어 숙련도,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지성에 대한 인식이 곧 뒤따랐음.

70:8.5 (792.9) 3. *기회* --전쟁과 이주{移住}로 말미암아 인간 집단들의 분리가 이뤄짐. 계층의 진화는, 정복, 즉 승리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노예 제도는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는, 처음으로 전반적인 사회 분화가 이뤄지게 했다.

70:8.6 (792.10) 4. *경제적 이유* --부자와 가난한 자. 재산과 노예의 소유는 한 사회 계층의 유전적 기초였다.

70:8.7 (792.11) 5. *지리적 이유* --정착된 곳이 도시인지 아니면 시골인지에 따라서 계층이 결정됨. 도시와 시골은,

목자_농업인과 상인_산업인이 구분되도록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들의 관점과 태도가 서로 달랐다.

70:8.8 (792.12) 6. *사회적 이유* --여러 다른 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대중이 평가함에 따라서 점차 계층들이 형성됨. 이런 종류의 최초 분화{分化} 가운데에는, 사제{司祭}_선생, 통치자_전사{戰士}, 자본가_상인, 일반 노동자, 그리고 노예 사이의 구분이 있었다.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자본가 반열에 들어오도록 뽑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예는 결코 자본가가 되지 못했다.

70:8.9 (793.1) 7. *직업적 이유* --직업이 세분화되자, 그들은 신분계층과 조합을 형성하려고 했다. 노동자는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주술사를 포함한 전문 계층, 그 다음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있었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그 뒤를 이었다.

70:8.10 (793.2) 8. *종교적 이유* --초기 사교{邪教} 동호회는, 씨족과 부족 내에서 자기들만의 계층을 형성했고, 사제들의 경건성과 신비성이 그들을 오랫동안 구별된 사회 집단으로 남아 있게 했다.

70:8.11 (793.3)

9. *인종적 이유* --하나의 일정한 국가 또는 지역 단위 안에 둘 이상의 인종이 함께 있게 되면, 대개 피부색에 따른 신분계층이 형성된다. 인도의 원래 신분계층 체계는, 초기 이집트의 경우처럼, 피부색에 기초한 것이었다.

70:8.12 (793.4)

10. *나이* --어린이와 성인. 부족원 가운데 소년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감독을 받았고, 소녀는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았다.

70:8.13 (793.5)

문명이 진화하려면 융통성 있고 변하기 쉬운 사회 계층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계층이 계급제도로 바뀌면, 즉 사회 수준이 완전히 굳어지면, 사회의 안정성은 개인의 독창력이 감소함으로써 증진된다. 사회 신분계층은, 사람이 산업 사회에서 일터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발전을 심하게 축소시켰고, 사회의 협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70:8.14 (793.6)

공동체 안에서 계층은 자연스럽게 형성돼 왔는데, 진보하는 문명에서 다음과 같은 생물학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자원을 재치 있게 조종함으로써, 계층은 사람이 진화로 점차 소멸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70:8.15 (793.7) 1. 인종 혈통의 생물학적 쇄신--열등한 인간 종족을 골라서 도태시킴. 이것은 필사자의 많은 불공평을 근절시키게 될 것이다.

70:8.16 (793.8) 2. 그런 생물학적 개선을 통해서 발생하는, 향상된 두뇌 능력을 교육으로 훈련시킴.

70:8.17 (793.9) 3. 필사자가 친척이고 형제관계라는 느낌을 종교적으로 북돋움.

70:8.18 (793.10) 그러나 이런 방책은 장차 수천 년이 흐른 뒤에야 그 참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화적 진보를 촉진시키는 이 요소들을 지성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 있게* 조종한 결과로, 많은 사회적 개선이 즉시 이뤄질 것이다. 종교는 혼란으로부터 문명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이지만, 견고하고 정상적인 세습 체제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견고하고 정상적인 정신이라는 받침대가 없이는 힘을 쓸 수 없다.

9. 인간의 권리

70:9.1 (793.11) 자연은, 오직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원시림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추론할 수 있듯이, 자연은 살 권리조차도 주지 않는다. 공동체가 사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안전{安全}이다.

70:9.2 (793.12)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는데, 오늘날 이 권리는 다음과 같다:

70:9.3 (793.13) 1. 양식 공급 보장.

70:9.4 (793.14) 2. 군사적 방어--대비를 통한 안전.

70:9.5 (793.15) 3. 내부의 평화 유지--개인에 대한 폭력과 사회의 무질서 예방.

70:9.6 (794.1) 4. 성적{性的} 통제--결혼, 가족 제도.

70:9.7 (794.2) 5. 재산--소유권.

70:9.8 (794.3) 6. 개인 및 집단 경쟁의 육성.

70:9.9 (794.4) 7. 청소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준비.

70:9.10 (794.5) 8. 무역과 상업의 증진--산업 개발.

70:9.11 (794.6) 9. 노동 조건과 보상의 개선.

70:9.12 (794.7) 10. 영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런 모든 다른 사회 활동을 고양{高揚}시키려는 목적으로, 종교 풍습의 자유를 보장함.

70:9.13 (794.8) 권리가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을 때, 이를 흔히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정말로 선천적이지 않으며; 온전히 사회적이다. 이 권리는 상대적이고 항상 변화하는데, 경기 규칙과 다름없다--인간의 항상 변화하는 경쟁 현상을 지배하는, 인정받은 여러 관계를 조정한 것이다.

70:9.14 (794.9) 한 시대에 권리로 간주됐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미비하고 타락한 것 가운데 다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세기 문명을 방해할 만큼 어떤 자연권이든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시대의 공동체, 즉 사회관행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이다.

70:9.15 (794.10) 유럽의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때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속했고, 권리는 국가 또는 교회가 수여한 특권 또는 은혜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잘못에 대한 항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태어난다고 믿도록 유도한 점에서, 똑같이 잘못됐다.

70:9.16 (794.11) 약하고 열등한 사람은 항상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그들은, 그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그밖에 결함을 회복시켜주도록, 국가가 강하고 우수한 자들을 강압해야 한다고 항상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이런 결함은 아주 빈번히, 바로 그들의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결과다.

70:9.17 (794.12) 그러나 평등이라는 이 이상{理想}은 문명의 산물이며;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받아들일 사람의 바로 그 능력이 균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화 자체도 사람의 선천적 불평등을 단호하게 증명한다. 자연스런 평등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갑자기 비진화적으로 실현하면, 문명화된 사람은 원시 시대의 미숙{未熟}한 관습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지만, 각자의 서로 다른 권리가 공평하고 균등하도록 경영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자아_유지를 추구하고, 자아_영속에 참여하게 하고,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자아_만족을

누리도록, 공정하고 평화로운 기회를 자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일이고 의무이며, 이 세 가지 전체가 인간의 행복의 총합이다.

10. 응보의 진화

70:10.1 (794.13) 자연이 처벌{處罰}한다는 것은, 사람이_만든 이론이며;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자연계에서, 응보는 순전히 이론적이고, 완전한 허구{虛構}다. 자연은 오직 한 가지 응보밖에 제공하지 않는다--결과는 원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70:10.2 (794.14) 사람이 고안해 낸 응보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점진적 진화의 문제였다. 응보 개념은, 영{靈}이_부여된 정신 속에서 잘 구성될지 모르지만, 공간 세계들에서 온전히_성숙된 상태로 불쑥 나타나지는 않는다.

70:10.3 (794.15) 원시인은 모든 현상을 사람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 죽게 되면, 미개인은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를 생각하는 대신, 누가 죽였는가를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벌을 부과할

때, 그 범죄의 동기는 전혀 무시됐으며;판결은 손상된 결과에 따라서 내려졌다.

70:10.4 (795.1) 가장 초기 원시 사회에서는 여론{輿論}이 직접 작용했으므로, 법관이 필요 없었다. 원시인의 생활에는 사생활이 없었다. 한 사람의 행실에 대해 이웃이 책임을 졌으며;따라서 그들은 그의 개인 직무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공동체는, 그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각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해서 통제됐다.

70:10.5 (795.2) 유령이 주술사와 사제{司祭}를 통해서 응보를 집행한다는 믿음이 매우 일찍부터 있었으며;이로 말미암아 이 계층들이 최초로 범죄를 탐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게 됐다. 범죄를 탐지하려고 그들이 초기에 사용한 방법은, 독약, 불, 고통 등으로 시험하는 시죄법{試罪法}이었다. 미개한 이 시죄법은, 중재{仲裁}하는 미숙한 기법에 불과했으며;논쟁을 반드시 정당하게 해결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독약을 먹었을 때, 피의자가 그것을 토해내면, 그에게 무죄가 선언됐다.

70:10.6 (795.3) 이런 시죄법 가운데 하나, 즉 부부간의 죄에 대한 시험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다: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의 비행을 의심하게 되면, 아내를 사제{司祭}에게 데려가서 자신이 의심하는 바를 말했고, 그 후에 사제는 성전 바닥의 먼지와 성수{聖水}로 만들어진 음료수를 준비했다. 험악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적당한 예식을 치른 후에, 고소당한 아내는 그 더러운 음료수를 마셔야만 했다. 여자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임하게 하는 물이 여자 속에 들어가 쓴맛을 내고, 내장이 부풀어 오르며, 허벅다리가 썩게 되고, 여자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여자가 이 더러운 물을 마신 후에 몸이 아픈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 여자는 남편이 질투심으로 고소했던 죄에서 풀려났다.

70:10.7 (795.4) 진화하는 거의 모든 부족이, 범죄를 감지하는 이런 잔인한 방법을 한동안 사용했다. 결투{決鬪}하는 것은, 시죄법으로 판결하는 방법이 현대까지 잔존한 것이다.

70:10.8 (795.5) 히브리인 및 기타 약간문명화된 부족들이, 처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원시 기법을 3천 년 전에 사용했다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사려깊은 사람들이, 신성시되는

수집된 문서에 담겨있는 그런 야만적 유물을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사려 깊게 생각하면, 의심스런 부부간의 부정행위를 탐지하고 판결하는 방법에 관해, 어떤 신성한 존재도 그런 부당한 지침을 필사적 사람에게 결코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70:10.9 (795.6) 공동체는 일찍부터 보복하는 태도:즉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방법을 채택했다. 진화하는 부족들 전체가, 피로 보복하는 이런 권리를 인정했다. 복수는 원시 생활의 목표가 됐지만, 종교가 이런 초기 부족 풍습을 크게 변경시켰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주{主}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을 항상 선포했다. 고대에 자행됐던 복수를 위한 살인은, 불문율{不文律}을 핑계 삼아 저지르는 오늘날의 대량 학살과 아주 다르지는 않았다.

70:10.10 (795.7) 자살은 보복을 위한 비정한 방법이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전에 직접 보복할 수 없게 되면, 귀신이 돼서 돌아와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매우 일반화된 후로, 원수의 문지방 위에서 자결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은, 흔히 상대방을 굴복시키기에 충분했다. 원시인은 생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사소한 일로 자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습이 현저히 감소됐으며, 최근에는, 여가, 안락함, 종교, 및 철학이 결합해서 인생을 더 감미롭고 매력 있게 만들었다. 아무튼, 단식투쟁은 고대의 이런 복수하는 방법의 현대판이다.

70:10.11 (796.1) 가장 초기에 공식화된 진보된 부족 율법 가운데 하나는, 피 흘리는 반목{反目}을 부족의 용건으로 떠넘기는 것과 관련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에도 남자는 자기 아내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면 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었다. 아무튼 오늘날 에스키모는, 범죄에 대한, 심지어 살인에 대한 벌금형이 여전히 있는데, 범죄를 당한 가족이 판결하고 부과한다.

70:10.12 (796.2) 또 다른 진보는, 금기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금 부과, 즉 형벌에 대한 규칙이었다. 이 벌금은 최초의 공공{公共} 재산을 형성했다. "피 값"을 지불하는 풍습

역시, 피로 갚는 복수 대신 성행하게 됐다. 그런 손해는 대개 여자 또는 가족으로 갚았으며;실제 벌금, 즉 범죄에 대한 형벌 대신 화폐로 갚는 일은 훨씬 후대에 이뤄졌다. 그리고 형벌의 관념이 근본적으로 배상{賠償}의 관념으로 바뀐 후부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 배상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됐다. 히브리인은 피 값을 지불하는 풍습을 처음으로 폐지한 민족이었다. 모세는 "죽을죄를 지은 살인자는 그의 생명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70:10.13 (796.3) 이처럼 처음에는 가족이, 그 다음에는 씨족이, 그리고 후대에는 부족이 처벌을 시행했다. 참된 처벌의 집행은, 복수하는 일이 개인과 친척 집단에서 이양되어, 사회 집단, 즉 국가의 손에 넘겨진 때부터 시작됐다.

70:10.14 (796.4) 산채로 화형 시키는 형벌이 한때 일반 풍습으로 사용됐다. 함무라비와 모세를 포함해서, 고대의 많은 통치자가 이 풍습을 인정했으며, 모세는 여러 범죄, 특히 성적{性的} 본성이 나쁜 자는 반드시 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제의 딸" 또는 다른 지도자급 시민이 매춘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불로 태우는 것"이 히브리 관습이었다.

70:10.15 (796.5) 반역은--곧 자기 부족의 동료들 “팔거나” 배반하는 것은-- 첫째가는 최고 범죄였다. 가축을 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즉결 처형으로 다스려졌고, 최근에도 말을 훔치는 사람에게 비슷한 형벌이 집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범죄를 방지하는 면에서, 형벌의 혹독함이 그 확실성과 신속성보다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70:10.16 (796.6) 공동체가 범죄를 응징하지 못하면, 집단적 분노가 대개 사적{私的}인 응징으로 나타나게 돼 있으며;성역{聖域}에 대한 규정은, 이런 갑작스런 집단적 분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됐다. 사적인 제재와 결투는, 개인이 사사롭게 시정{是正}하는 일을 국가에게 넘겨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1. 법률과 법정

70:11.1 (796.7) 새벽에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관행과 율법 사이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사회관행은 발달 과정에 있는 율법과 치안 규칙이다. 오랫동안의 형성 과정이 지나가면, 모호했던

사회관행이 정확한 율법, 명확한 규칙, 그리고 뚜렷한 사회 관례로 구체화된다.

70:11.2 (796.8) 율법은 언제나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금지하는 내용이지만;문명이 진보됨에 따라서 점점 더 긍정적이고 지시하는 내용이 된다. 초기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운영됐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과함으로써, 개인에게 살 권리를 부여했다.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가 삭감될 필요가 있으며, 원시 율법인 금기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기의 전체 관념은 본래 부정적인데, 이는 원시 공동체가 그 체제에서 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초기의 처벌 시행이 금기를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이 율법은, 후대의 히브리인이 보여줬다시피, 오직 동료 부족민에게만 적용됐는데, 히브리인은 이방인을 취급할 때 다른 윤리 규범을 적용했다.

70:11.3 (797.1) 더 진실하게 증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라마시아 시대에 맹세가 시작됐다. 그런 맹세는 자신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태어난 집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70:11.4 (797.2) 범죄는 부족의 사회관행을 범하는 것이었고, 죄는 유령{幽靈}이 좋아하는 금기를 어기는 것이었으며, 범죄와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다.

70:11.5 (797.3) 이기심이 살인을 금기로 확립했고, 공동체는 이를 전통적 사회관행으로 정당화 시켰으며, 한편 종교는 그 관습을 도덕적 율법으로 신성화 시켰고, 그리하여 인간의 삶이 더 안전하고 신성하게 되도록 세 가지 모두가 협력했다. 권리가 종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초기 시대에 공동체는 단결하지 못했을 것이며;진화하는 오랜 세월 동안, 미신{迷信}이 도덕과 사회의 경찰 역할을 했다. 고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전통적인 율법, 즉 금기를 신{神}들이 자기 조상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70:11.6 (797.4) 율법은, 오랜 세월의 인간 체험, 즉 구체화되고 공인된 여론이 성문화된 기록이다. 사회관행은 누적된 체험으로 이뤄진 기본 자료였는데, 통치자들은 나중에 이것으로부터 성문법{成文法}을 구체화시켰다. 고대의

재판관에게는 법률이 없었다. 그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만 “이것이 관습이라”고 말했다.

70:11.7 (797.5) 법정이 결정하는 중에 판례{判例}를 참조하는 것은, 재판관이 공동체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성문화된 법률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통이 연속된다는 감명을 주면서, 변하는 사회 조건에 대해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

70:11.8 (797.6) 재산 분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졌다:

70:11.9 (797.7) 1. 분쟁이 일어난 재물을 파괴시킴으로써.

70:11.10 (797.8) 2. 힘으로--분쟁하는 사람들이 결투로 해결함.

70:11.11 (797.9) 3. 중재로--제삼자{第三者}가 결정함.

70:11.12 (797.10) 4. 원로들에게 상소함으로써--나중에는 법정에 상소함.

70:11.13 (797.11) 초심{初審} 법정은, 대항하는 사람들을 주먹다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고;재판관은 심판원 또는 심판관에 불과했다. 그들은 싸움이 공인된 규정에

의거해서 수행되도록 주선했다. 법정에서 격투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어느 한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각각 재판관에게 비용과 벌금을 제출했다. “힘이 여전히 정의로 통했다.” 그 후에는 언쟁{言爭}이 육체적 싸움을 대체했다.

70:11.14 (797.12) 원시적 응보 관념 전체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싸움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서, 공중의 무질서와 개인의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시인은, 오늘날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분개하지는 않았으며;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어떤 문명의 상태는, 그 법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한가, 그리고 그 재판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재판하는가에 따라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다.

12. 시민사회 권위의 배분

70:12.1 (797.13) 정부의 진화{進化}에서 가장 큰 갈등은 권력의 집중과 관계돼 왔다. 우주 경영자들은, 잘_조화된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 부서들 사이에 적당한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대의정치 유형의 시민 정부가, 인간거주

세계에서 진화 민족들을 가장 잘 통제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워 왔다.

70:12.2 (798.1) 원시의 권위는 힘, 즉 육체의 능력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상적인 정부는, 역량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정되는 대의정치 체제이며, 야만적 시대에는 한결같이 너무 많은 전쟁 때문에, 대의정치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권위의 분할과 지휘계통의 통일 사이에 있었던 오랫동안의 갈등 속에서, 독재자 체제가 선택됐다. 원로들로 구성된 원시 협의회가 가졌던 초기의 산만한 권력이, 절대 군주라는 인물에게 점점 더 집중됐다. 실제 왕들이 출현한 후로, 원로 집단은 유사{類似}_입법_및_사법 자문 기관으로 계속 명맥을 유지했으며;나중에는 대등한 입장의 입법 기관들이 생겨났고, 결국 최고 판결 법정이 입법기관에서 분리되어 확립됐다.

70:12.3 (798.2) 왕은, 사회관행, 즉 본래의 율법 또는 불문율{不文律}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입안된 법, 즉 구체화된 여론을 왕이 집행했다. 비록 더디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론을 제시하기 위한 대중 집회가 큰 사회적 진보를 표시했다.

70:12.4 (798.3) 초기의 왕은 사회관행에--곧 전통 또는 여론에--크게 제한을 받았다. 최근에 유란시아의 어떤 나라들은 이 사회관행을, 정부를 위한 근거 자료로 성문화했다.

70:12.5 (798.4) 유란시아의 필사자는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정부 체계를 구성해야만 하며;자체 헌법, 또는 시민사회의 권위와 경영 절차에 관한 기타 헌장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가장 유능하고 덕망 있는 동료들 최고 행정관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입법부에 소속되는 대표자들의 경우에는, 지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그런 신성시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한다. 고등 법원과 최고 법원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오직 타고난 역량을 부여받고 충분한 체험으로 현명하게 된 자들만 선출돼야 한다.

70:12.6 (798.5)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고 싶다면, 자유 헌장을 채택한 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헌장을 현명하고 지성적이며 담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

70:12.7 (798.6) 1. 행정부 또는 입법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강탈함.

70:12.8 (798.7) 2. 무지하고 미신에 사로잡힌 선동자{煽動者}들의 술수.

70:12.9 (798.8) 3. 과학적 진보의 지연.

70:12.10 (798.9) 4. 진부한 사람이 지배하는 위기.

70:12.11 (798.10) 5. 부도덕한 소수의 무리가 지배함.

70:12.12 (798.11) 6. 독재자가 되려는 야심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에게 지배됨.

70:12.13 (798.12) 7. 공포로 인한 비참한 혼란.

70:12.14 (798.13) 8. 사악한 자들에게 착취당함.

70:12.15 (798.14) 9. 국가가 세금으로 일반 시민을 노예로 만들.

70:12.16 (798.15) 10. 사회적 및 경제적 공평성의 부족.

70:12.17 (798.16) 11. 교회와 국가의 통합.

70:12.18 (798.17) 12. 개인의 자유를 상실함.

70:12.19 (798.18) 이것들이, 진화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대의정부{代議政府}라는 기구 위에 군림하는, 합법적 법정을 두는 목적과 목표다.

70:12.20 (799.1) 유란시아에서 완전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인류의 투쟁은, 경영의 경로를 완전하게 만들고, 항상 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그 경로를 적응시키며, 정부 안에서 권력을 더 균형 잡히게 분시커야만 하며, 그 다음에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을 경영 지도자로 뽑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신성하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계시될 수 없고, 대신에 시간과 공간의 우주 전역에서, 각 행성의 남녀가 서서히 힘겹게 발견해야만 한다.

70:12.21 (799.2)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71편 국가의 발전

71:0.1 (800.1) 국가는 문명의 유익한 진화이며;전쟁의 파괴와 고통으로부터 사회가 얻은 대표적 순이익{純利益}이다. 심지어 정치적 경륜조차, 투쟁하는 부족들 및 국가들 사이의 경쟁적 무력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누적된 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71:0.2 (800.2) 현대의 국가는, 집단 권력을 얻으려는 긴 투쟁에서 살아남은 제도다. 강력한 권력이 결국 우세하게 됐고, 시민은 국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절대적 책무의 도덕적 통념{通念}과 함께, 현실의 산물이--곧 국가가-- 생기게 했다. 그러나 국가는 신에게서 기원되지 않으며;의도적인 총명한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으며;순전히 진화로 형성된 제도이고, 전적으로 자동으로 생겼다.

1. 국가의 태동

71:1.1 (800.3) 국가는 지역별로 사회를 통제하는 조직체이며, 가장 강력하고 능률적이고 영속{永續}하는 국가는, 공통의 언어, 사회관행, 및 제도를 갖는 단일{單一} 민족으로 이뤄진다.

71:1.2 (800.4) 초기의 국가들은 소규모였고, 모두 정복의 결과였다. 이런 국가는 자발적 연합으로 생겨나지 않았다. 공격적 유목민이 세운 국가가 많았고, 그들은 평화로운 목자{牧者} 또는 정착된 농민을 급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곤 했다. 정복의 결과로 형성된 그런

국가는 부득이 계층화됐으며;계급은 불가피했고, 계급 간 투쟁은 항상 선택과 도태로 끝났다.

71:1.3 (800.5) 아메리카의 홍색인 가운데 북쪽 부족들은, 한 번도 실제 국가체제를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매우 원시적인 국가 형태인,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 체제를 넘어서 발전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가장 다가갔던 것은 이로쿼이 연맹{聯盟}이었지만, 여섯 민족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었고 존속하지 못했는데, 현대 국민 생활에 확실히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요소의 부재{不在} 때문이었다:

71:1.4 (800.6) 1. 사유재산{私有財産}의 획득과 상속{相續}.

71:1.5 (800.7) 2. 도시 이외에 농업과 산업.

71:1.6 (800.8) 3. 도움 주는 길들인 동물.

71:1.7 (800.9) 4. 실용적인 가정 조직. 이 홍색인은 모계_가족과 조카 상속을 유지했다.

71:1.8 (800.10) 5. 명확한 영토.

71:1.9 (800.11) 6. 강력한 행정 우두머리.

71:1.10 (800.12) 7. 포로의 노예화--포로를 양자와 양녀로 삼든지,
아니면 대량 학살했다.

71:1.11 (800.13) 8. 과단성 있는 정복.

71:1.12 (800.14) 홍색인은 너무 민주적이었으며;좋은 정부를
가졌지만, 실패했다. 그들이,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정부
형태를 추구하는, 비교적 진보된 백색인 문명과 일찍
충돌하지 않았다면, 결국 국가{國家}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다.

71:1.13 (801.1) 로마 국가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것에 기초했다:

71:1.14 (801.2) 1. 부계{父系}_가족.

71:1.15 (801.3) 2. 동물 길들이기와 농업.

71:1.16 (801.4) 3. 인구 집중--도시.

71:1.17 (801.5) 4. 사유재산과 사유지{私有地}.

71:1.18 (801.6) 5. 노예 제도--시민권의 여러 등급.

71:1.19 (801.7) 6. 약하고 퇴보된 민족들을 정복하고 재편성함.

71:1.20 (801.8) 7. 도로망이 구축된 명확한 영토.

71:1.21 (801.9) 8. 친히 강력하게 다스리는 통치자.

71:1.22 (801.10) 로마 문명에서 가장 취약했던 점, 그리고 제국이 완전히 붕괴된 요인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착각하는 제도였는데, 소년이 스물한 살에 이르면 부권{父權}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소녀를 무조건 풀어줌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거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부도덕하게 되는 자유를 누리게 했다. 사회에 해를 끼친 것은 이런 개혁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용한, 갑작스럽고 대규모적인 방법에 있었다. 로마의 멸망은, 한 국가가 너무 빨리 확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

71:1.23 (801.11) 국가의 태동{胎動}은, 지역적 결합이 이뤄지도록 핏줄 결합이 쇠퇴함으로써 가능하게 됐고, 그런 부족들 간 연맹은 대개 정복으로 견고하게 됐다. 모든 사소한 갈등과 집단 간 차이점을 초월하는 하나의 주권이 참된 국가의 특질이지만, 여러 계층과 계급제도가, 옛 시대의 씨족과 부족들의 잔재로서 후대의 국가 조직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큰 영토를 가진 후대의 국가들은, 핏줄이 같은

그보다 작은 이 씨족 집단들과 오랫동안 고통스런 투쟁을 겪어왔는데, 부족 정부는 가족으로부터 국가 권위로 넘어가는, 가치 있는 과도기인 것이 입증됐다. 후대의 시기에는, 무역 및 다른 산업 연합체들로부터 여러 씨족 집단이 생겨나게 됐다.

71:1.24 (801.12) 국가 형태로 통합되지 못하면, 유럽의 중세시대에 있었던 봉건제도처럼, 국가 이전{以前}의 통치 기법 상태로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암흑기 동안에 지역 국가는 멸망했고, 성{城}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들, 즉 씨족과 부족이 발전되던 단계가 재현되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와 비슷한 준국가{準國家}들이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 전부가 진화에서 후퇴함으로써 형성된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에, 장차 국가로 태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2. 대의정부의 진화

71:2.1 (801.13) 민주주의는 이상{理想}이지만, 문명의 산물이고,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속도를 늦춰라! 신중히 선택하라!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의 위험성 때문이다:

71:2.2 (801.14) 1. 평범함을 찬미함.

71:2.3 (801.15) 2. 밑바닥의 무식한 통치자를 선택함.

71:2.4 (801.16) 3. 사회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함.

71:2.5 (801.17) 4. 무지하고 나태한 다수파에게 맡겨진 보편적 선거권의 위험성.

71:2.6 (801.18) 5. 여론에 노예가 됨;다수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

71:2.7 (802.1) 여론, 즉 일반 의견은 항상 사회를 지체시키며;그럼에도 여론은 유익한데, 사회의 진화 속도를 늦추지만, 문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교육하는 것만이, 문명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참된 유일한 방법이며;강압은 임시 편법에 지나지 않고, 총알 대신 비밀 투표를 할 때, 문명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여론, 즉 사회관행은, 사회 진화와 국가 발전에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동력이지만;국가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이 비폭력적이어야만 한다.

71:2.8 (802.2) 사회가 얼마나 발전됐는지는, 폭력을 쓰지 않는 표현 방법을 통해서, 여론이 개인의 습성과 국가의 규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직접 결정된다. 참되게

문명화된 정부는, 여론이 개인 선거권의 힘을 갖췄을 때 이뤄져 왔다. 대중의 투표가 어떤 일을 항상 올바르게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쁘게 되는 경우라도 정당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진화는 단숨에 최상의 완전성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이고 발전적인 실용적 조절을 이룩한다.

71:2.9 (802.3)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대의정부가 진화하는 데는, 10개의 계단, 즉 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71:2.10 (802.4) 1. *사람의 자유*. 노예제도, 농노{農奴}제도,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간 속박{束縛}이 사라져야만 한다.

71:2.11 (802.5) 2. *정신의 자유*.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교육을--곧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계획하도록 가르침을--받지 못하면, 자유는 대개 유익보다 해를 끼친다.

71:2.12 (802.6) 3. *법의 지배*. 용인된 기본 법률에 따르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 통치자의 의지와 번덕스러움을 대체시킬 경우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71:2.13 (802.7) 4. *언론의 자유*. 모든 형태에서 인간의 열망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의정부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71:2.14 (802.8) 5. *재산의 안전 보장*. 어떤 형태로든지 개인의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사용, 통제, 증여, 판매, 대여, 및 상속할 권리를 열망한다.

71:2.15 (802.9) 6.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대의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원은 자유 시민권의 고유한 특권이다.

71:2.16 (802.10) 7.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청원의 힘은 정부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돼야 한다.

71:2.17 (802.11) 8. *보통 선거권*. 대의정부는 지성적이고 유능한 보통 선거권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 정부의 특징은, 정부를 구성하는 자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서 늘 결정될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선거권은 남녀에게

보편적으로 남아있지만, 효과적으로 변경되고, 재편성되며, 달리 차별화될 것이다.

71:2.18 (802.12) 9. *공무원에 대한 통제*. 시민이 공무원과 국가 기관원을 인도하고 통제하는 현명한 기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시민 정부도 쓸모없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71:2.19 (802.13) 10. *지성적이고 훈련된 대표자*. 민주주의의 생존 여부는, 대의정부의 성공에 달려있으며;기술적으로 훈련되고, 지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적합한 개인들만 관공서 직원으로 선출하는 풍습에 따라서 좌우된다. 오직 그런 준비가 갖춰졌을 때에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유지될 수 있다.

3. 이상적인 국가체제

71:3.1 (803.1) 만일 문명사회의 진보를 이룩하는 본질적인 것들을--곧 자유, 안전, 교육, 및 사회적 조정을--제공한다면, 한 정부의 정치 또는 경영 형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사회의 진화 과정은, 국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들이 예가 되듯이, 어떤 국가도 시민의 도덕적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한다. 무지와 이기심은, 아무리 높은 유형의 정부라도 반드시 몰락시킬 것이다.

71:3.2 (803.2) 매우 유감스럽지만, 민족적 이기주의는 사회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선민{選民}이라는 신조는, 부족의 결합과 국가 건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왔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편협성이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국가도 이상적인 수준의 기능발휘에 도달할 수 없으며;인간의 진보에 영구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과학, 상업, 놀이, 및 종교를 조정하는 것이 편협성을 가장 잘 물리친다.

71:3.3 (803.3) 이상적인 국가는, 강력하고 조화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욕구의 자극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한다:

71:3.4 (803.4) 1. 인간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획득되는, 사랑의 충성심.

71:3.5 (803.5) 2. 현명한 이상{理想}을 기초로 하는, 지성적 애국심.

71:3.6 (803.6) 3. 행성의 현실, 필요성, 및 목표 관점에서 해석한, 시공우주 통찰력.

71:3.7 (803.7) 이상적 국가의 법률은 숫자가 매우 적으며, 하지 말라는 금기 시대를 지나서, 자아_통제가 향상된 결과로, 개인의 자유가 분명히 진보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높은 수준에 이른 국가는 시민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재촉할 뿐만 아니라, 기계 시대로 진보함으로써 고된 일로부터 해방된 결과로 얻는 점증적 여가시간을, 유익하고 고상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여가시간은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도움이 돼야만 한다.

71:3.8 (803.8) 나태함을 허용하거나 빈곤을 묵인하는 한, 어떤 사회도 멀리까지 진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불완전하고 퇴화된 혈통의 사람들이, 값없이 후원받고 아무 제한 없이 아이를 낳도록 허용한다면, 빈곤과 의존 상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71:3.9 (803.9) 도덕적 사회는, 자체 시민의 자존감을 보존하고, 모든 정상적인 개인에게 자아_실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적 성취 계획은,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최소한의 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정부 차원의 감독으로 사회의 진화가 촉진돼야만 할 것이다. 가장 적게 다스리면서, 가장 잘 조정하는 국가가 최상의 국가다.

71:3.10 (803.10) 이상적인 국가체제는, 시민 의식{意識}, 즉 사회봉사의 책무와 특권에 대한 인식{認識}이 완만한 성장과 진화로 달성돼야만 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이권{利權} 운동가들의 경영 목표를 뒤쫓아 가는 어떤 의무로 간주하지만, 나중에는 특권으로, 즉 가장 큰 명예로 그런 직책을 추구하게 된다. 어떤 수준이든지 문명 상태는, 국가체제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의 됴됨이가 정확하게 나타낸다.

71:3.11 (803.11) 국민의 모든 다른 형태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공화국{共和國}에서는 도시와 지방을 통치하는 직무를 전문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71:3.12 (803.12) 진보된 국가에서는, 정치에 봉사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가장 고상한 헌신으로 존중된다.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시민의 가장 큰 야망은, 시민사회의 인정을 얻는 것,

즉 정부가 위탁하는 어떤 지위에 발탁되거나 지정되는 것이며, 그런 정부는 봉사를 인정하는 최고의 명예를 공무원이나 사회 봉사자에게 수여한다. 그 다음 명예는, 철학자, 교육가, 과학자, 산업인, 및 군인에게 수여된다. 부모는 자녀의 우수성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순전히 종교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나라의 대사{大使}이므로, 다음 세상에서 참된 보상을 받는다.

4. 진취적인 문명

71:4.1 (804.1) 경제, 사회, 및 정부는, 존속되려면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정지된 상태는 쇠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오직 진화의 흐름과 함께 전진하는 제도만 살아남는다.

71:4.2 (804.2) 확장하는 문명의 진취적 계획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71:4.3 (804.3) 1. 개별적인 자유의 보존

71:4.4 (804.4) 2. 가정의 보호.

71:4.5 (804.5) 3. 경제적 안전의 증진.

71:4.6 (804.6) 4. 질병 예방.

71:4.7 (804.7) 5. 의무 교육.

71:4.8 (804.8) 6. 의무 고용.

71:4.9 (804.9) 7. 여가 시간의 유익한 활용.

71:4.10 (804.10) 8. 불운한 자들을 보살핌.

71:4.11 (804.11) 9. 인종 개량.

71:4.12 (804.12) 10. 과학과 예술의 증진.

71:4.13 (804.13) 11. 철학의--곧 지혜의-- 진흥.

71:4.14 (804.14) 12. 시공우주 통찰력--곧 영성{靈性}-- 증대.

71:4.15 (804.15) 그리고 문명의 기술에서 이런 진보는 필사자의 노력에서 가장 고상한, 인간답고 신성한 목표의 실현으로--곧 사람의 형제관계와, 하나님을_의식하는 개인적 상태를 사회에서 성취함으로-- 직접 이끌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각 개인의 존귀한 열망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71:4.16 (804.16) 진정한 형제관계의 출현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짐을 기쁘게 감당하는 상태에 사회 체제가 도달했음을 의미하며;그들은 황금률 실천하기를 실제로 원한다. 그러나 허약한 자 또는 사악한 자들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점을, 불공정하게 그리고 터무니없이 취하려고 기다리는 한, 그런 이상적{理想的}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직 한 과정만 실용적인데:“황금률을 따르는 사람”은, 평화를 선호하는 그들의 성향을 이용해먹거나, 아니면 진보하는 문명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뒤떨어진 동료들에 대항하여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상{理想}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진취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71:4.17 (804.17) 더 열등한 계층의 인간에게 멸망당하도록 각 세대의 이상주의자들이 스스로 허용한다면, 이상주의는 진화하는 행성에서 존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주의의 가장 큰 시험은 다음과 같다:이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또는 나라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작전에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진보하는 한 사회가, 전쟁을 좋아하는 이웃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대비태세가 필요하며, 종교적 이상주의만이, 대비태세를 침략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사랑과 형제관계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5. 경쟁의 진화

71:5.1 (805.1) 경쟁은 사회 진보에 필수이지만, 규제받지 않는 경쟁은 폭력을 유발한다. 오늘날 사회에서, 경쟁은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서 개인의 자리를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전쟁을 서서히 대신하고 있다. (사회관행 앞에서는 살인과 전쟁이 다른데, 살인은 사회의 초기 시대 이후로 금지된 반면,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전체가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1:5.2 (805.2) 이상적 국가는, 개별 경쟁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제거하고, 개인의 주도권에서 불공정함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사회 행위를 규제한다. 국가체제의 큰 문제가 여기 있다: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산업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나는 동시에, 세금 징수가 산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으면서, 국가가 기생충이나 폭군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겠는가?

71:5.3 (805.3) 어느 세상에서든지 그 초기 시대 내내, 경쟁은
진보하는 문명에 필수 요소다. 사람의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협동이 점점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진보된
문명사회에서는, 협동이 경쟁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초기의 사람은 경쟁으로 자극을 받는다. 초기 진화의
특징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이지만, 영리한 협동, 이해심 있는 우애, 그리고 영적
형제관계가, 후대의 문명을 더 잘 증진시킨다.

71:5.4 (805.4) 사실, 산업사회에서 경쟁은 매우 낭비적이고 심히
비효율적이지만, 이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장치를
제거하려는 어떤 노력이든지, 개인의 기본 자유를
조금이라도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노력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

6.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

71:6.1 (805.5)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봉사하려는 동기로 인해
증대될 수 없다면, 이익에_따라서_움직이는 오늘날의

경제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기초한 무자비한 경쟁은, 경쟁이 유지하려는 것마저 결국 파괴한다. 오로지 자기만을_위한 이익의 동기는, 그리스도교의 이상{理想}과 모순된다--예수의 교훈과는 훨씬 더 모순된다.

71:6.2 (805.6) 경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와 봉사하려는 동기의 관계는, 종교에서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는, 갑자기 파괴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만 하며;그런 동기가 없으면 나태할 그런 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어쨌든, 사회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자극제의 목적이 언제나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71:6.3 (805.7) 진보된 사회 체제에서는, 경제 활동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전체적으로 천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그럼에도, 그 동기는 문명의 초기 단계 내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사람들이 경제적 노력과 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유형의 비영리를 추구하려는 동기를--곧 최상의 지혜, 흥미로운 형제관계, 및 탁월한 영적 달성을 얻으려는 초월적 충동을-- 단단히 붙잡게 될

때까지,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제거해서는 안 된다.

7. 교육

71:7.1 (806.1) 영속하는 국가는, 문화에 기초를 두고, 이상{理想}에 지배되며, 봉사로 인해 자극 받는다. 교육의 목적은, 숨씨 습득, 지혜 추구, 자아성의 실현, 및 영적 가치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71:7.2 (806.2)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평생토록 교육이 계속되고, 때로는 철학{哲學}이 시민의 주요 추구 대상이 된다. 그런 나라의 시민은, 인간관계의 중요성, 실체에 대한 의미, 가치의 고결함, 삶의 목표, 그리고 시공우주의 영광스런 운명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지혜를 추구한다.

71:7.3 (806.3) 유란시아인은 새롭고 더 높은 문명사회를 이루는 꿈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순전히 이익추구를_동기로_삼는 경제 체제가 물러감에 따라서, 교육은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교육은, 지방색, 군국주의, 자기 찬미, 그리고 성공 추구에 너무 오래 매달려 왔지만;결국에는

반드시 세계적이고, 이상적이며, 자아를_실현하고,
시공우주를 파악하게 돼야만 한다.

71:7.4 (806.4) 요즈음에, 교육은 성직자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법률가와 사업가의 통제를 받게 됐다. 결국은 교육이
철학자와 과학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주된 교육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선생은 반드시
자유로운 존재, 즉 참된 지도자가 돼야만 한다.

71:7.5 (806.5) 교육은 생존과 관련된 일이며;평생 계속돼야만
하며, 그리하여 인류는 다음과 같이 높아지는 수준의
필사자 지혜를 점점 더 체험해야 한다:

71:7.6 (806.6) 1. 사물에 관한 지식.

71:7.7 (806.7) 2. 의미를 깨달음.

71:7.8 (806.8) 3. 가치를 인식함.

71:7.9 (806.9) 4. 일의 고결함--의무.

71:7.10 (806.10) 5.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도덕성.

71:7.11 (806.11) 6. 봉사하고 싶은 마음--성품.

71:7.12 (806.12) 7. 시공우주 통찰력--영적 분별.

71:7.13 (806.13) 그렇게 되면, 이런 성취를 통해서, 필사자의 궁극적 정신 달성, 즉 하나님을_의식하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8. 국가체제의 성질

71:8.1 (806.14) 어떤 인간 정부든지 유일하게 신성시되는 모습은, 행정, 입법, 및 사법 기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국가체제가 분할되는 것이다. 우주는, 기능과 권위를 그렇게 분리하는 계획에 따라서 경영된다. 효과적인 사회 규칙 또는 시민 정부에 대한 이런 신성한 개념을 제외하고, 시민이 더욱 자기를_통제하고, 사회에 더욱 봉사하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면, 한 민족이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민족의 지적 예리함, 경제적 지혜, 사회적 영리함, 및 도덕적 지구력{持久力}은 모두 국가체제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71:8.2 (806.15) 국가체제의 진화는 다음과 같이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진보할 필요가 있다:

71:8.3 (806.16) 1.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라는 삼중적 정부를
창설함.

71:8.4 (806.17) 2. 사회, 정치, 및 종교 활동의 자유.

71:8.5 (807.1) 3.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인간 속박의 철폐.

71:8.6 (807.2) 4. 세금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

71:8.7 (807.3) 5. 보편적 교육 체제 설립--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학습.

71:8.8 (807.4) 6. 지역 정부와 국가 정부 사이의 적절한 조정.

71:8.9 (807.5) 7. 과학 육성과 질병 퇴치.

71:8.10 (807.6) 8. 남녀평등을 당연히 여김, 그리고 산업과
정부에서 여자들이 특화된 봉사를 하는 것과 아울러, 가정,
학교, 및 교회에서 남녀가 조화롭게 활동함.

71:8.11 (807.7) 9. 기계의 발명 그리고 차후의 기계시대를
정복함으로써, 힘들여 일하는 노예 상태를 제거함.

71:8.12 (807.8) 10. 방언들을 정복함--보편적 언어의 승리.

71:8.13 (807.9) 11. 전쟁이 사라짐--여러 국가의 대륙{大陸}의 법정이 국가와 종족의 의견 차이를 국제적으로 판결하던 것을, 대륙의 법정에서 정기적으로 물러난 지도자들로부터 자동으로 보충된 최고 행성 재판소가 관장함. 대륙의 법정은 권위적이고;범세계 법정은 권고한다--윤리적이다.

71:8.14 (807.10) 12.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철학이 찬미 받음. 세계적인 한 종교의 진화, 이것은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을 예시할 것이다.

71:8.15 (807.11) 이것들이 진취적인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이상적인 국가체제의 특징이다. 유란시아는 이런 고양된 이상{理想}의 실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명화된 인종들이 태동되고 있다--인류는 더 높은 진화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71:8.16 (807.12)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후원했음]

제72편 이웃 행성에 있는 정부

72:0.1 (808.1) 나는, 라나휘지의 허락을 받고, 에덴시아 지고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타니아 체계에 소속되고 그리 멀지 않은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진보된 인간 종족의 사회, 도덕, 및 정치 생활 가운데 일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72:0.2 (808.2) 루시퍼의 반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격리됐던 사타니아의 전체 세계 중에서,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매우 비슷한 역사를 경험해 왔다. 이 두 구체{球體}의 유사성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소개를 허락했음이 분명한데, 어느 한 행성의 직무를 다른 행성에 설명하도록 동의하는 것은, 체계 통치자들에게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72:0.3 (808.3) 이 행성은,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루시퍼 반역과 관련해 그 행성 왕자의 불충{不忠}으로 말미암아 배반으로 인도됐다. 거기 있는 필사 인종들에게 집정관 아들이 증여된 적이 없었으므로,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체에도 물질 아들이 왔고, 이 아들 역시 태만해서, 그 구체가 격리되도록 만들었다.

1. 대륙 국가

72:1.1 (808.4) 이 행성의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오스트랄리아와 비슷한 크기의 독립된 한 대륙{大陸}에서, 매우 우세한 문명이 진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이다. 그 민족은 혼합된 인종이고, 청색인과 황색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유란시아에서 백인종이라고 불리는 인종보다, 약간 더 많은 보라색 인종 성분을 갖고 있다. 이 다양한 인종은 아직 충분히 섞이지 않았지만, 매우 기꺼이 사귀고 교제한다. 이 대륙에서 평균 수명은 지금 90세인데, 그 행성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약 15퍼센트 높다.

72:1.2 (808.5) 이 나라의 산업 구조는,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큰 혜택을 누린다. 높은 산악지대에는 1년에 여덟 달 비가 내리며, 그 나라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자연 조건은, 수력 발전의 활용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대륙의 비교적 건조한 서쪽 4분의 1에 엄청난 양의 물을 쉽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72:1.3 (808.6)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접 국가들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들의 천연 자원은 풍부하며, 생활필수품의 결핍을 과학 기법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의 국내

교역은 활발하지만, 그들보다 덜 진보된 이웃 국가들의 전반적인 호전성 때문에, 국제 무역은 거의 없다.

72:1.4 (808.7)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그 행성의 진화 경향을 따랐는데: 부족국가 단계에서 강력한 통치자와 왕이 출현하는 단계까지, 수천 년이 소요됐다. 절대 군주제가 있는 후에, 다른 여러 정부 체제가 이어졌다--미숙한 상태의 공화정치, 공동 국가 체제, 그리고 독재 정권이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런 성장은 500년 전까지 계속됐는데, 정치적 혼란기에, 그 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하는_집정관들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그는 다른 통치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자진해서 물러났고, 나머지 두 사람 가운데 비교적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권한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한 명의 통치자가 대륙의 주권을 차지했다. 통합을 이룬 국가는 강력한 군주 통치 아래서 거의 100년 이상 발전했고, 그 기간에 훌륭한 자유 헌장이 완성됐다.

72:1.5 (809.1) 그 후에 군주제로부터 대의제도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차 진행됐고, 왕은 단순한

사회적이거나 감상적인 명목상 우두머리로 남게 됐으며, 남자 후계자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사라졌다. 현재의 공화국은 겨우 200년 전부터 존재해 오고 있으며, 그 기간에,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정부 기법을 향해 계속 발전해 왔고, 산업과 정치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고 있다.

2. 정치 조직

^{72:2.1 (809.2)}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나라의 수도{首都}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독립된 상태에 있는 100개 주{州}를 관할하는 강력한 연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주들은 10년 임기의 자체 주지사와 의원들을 선출하며, 누구도 재선{再選}할 수 없다. 주 재판관들은 주지사로부터 종신으로 임명받고, 입법부의 동의를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마다 대표자 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72:2.2 (809.3)} 도시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5개 유형의 대도시 정부가 구성되지만, 어떤 도시도 주민이 100만 명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자치도시를 통치하는 짜임새는,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직접이며, 경제적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시민들이, 소수의 도시 행정 직무를 예리하게 조사한다.

72:2.3 (809.4) 연방 정부는 3개의 협조 분야로 구성됐는데: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다. 연방 최고 행정관은 6년마다 지역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그는 재선이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각 주지사의 동의를 받은, 75개 이상의 주 입법부의 청원으로 재선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뿐이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전직 최고 행정관들로 구성된 최고 고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72:2.4 (809.5) 입법부는 세 의회로 구성된다:

72:2.5 (809.6) 1. 상원(上院)은, 산업, 전문직, 농업, 및 기타 노동자 집단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에 따라서 투표한다.

72:2.6 (809.7) 2. 하원(下院)은, 산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회, 정치, 및 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특정한 사회 조직체들이 선출한다. 정상 신분을 갖는 모든 시민은 두 부류의 대표자 선출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가 상원에 관계된 것이냐 하원에 관계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된다.

72:2.7 (809.8)

3. 제3 의/회는--곧 원로{元老} 정치가들은-- 노련한 시민 봉사자들이 포함되고, 최고 행정관, 지역(연방 산하) 행정관들,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그리고 상하 양원{兩院}의 지도자급 관리들이 지명한 많은 저명한 인사가 참여한다. 이 집단은 100명으로 제한되고, 그 구성원은 원로 정치가들 자체의 과반 결정으로 선출된다. 회원권은 평생 지속되며, 빈자리가 생길 때에는, 지명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출된다. 이 기관의 활동범위는 순전히 자문하는 역할이지만, 여론을 조정하는 대단한 기관이고, 정부의 모든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72:2.8 (810.1)

연방의 경영 업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10개의 (연방 산하) 지역 관계당국이 수행하는데, 각각 10개 주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별 부서는 전적으로 행정과 경영만 담당하는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10개 지역의 대표자는 연방 최고 행정관이 직접 지명하며, 그들의 재직{在職} 기간은 그의 임기와 똑같다-- 6년이다. 연방 최고 재판소가 열 명의 이 지역별 대표자 지명에 대해 승인하고, 그들은 재 지명될 수 없으며, 은퇴한 대표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후임자의 동역자 및 자문가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역별 대표자가 경영 관리들로 구성된 내각을 직접 구성한다.

72:2.9 (810.2) 이 나라는 두 개의 주요 법정 체계를--곧 법률 법원과 사회경제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다. 법률 법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세 수준으로 분류된다:

72:2.10 (810.3) 1. *부속법원*{部屬法院}은 자치도시와 지역을 관할하며, 부속법원의 결정은 주{州} 고등법정에 항소{抗訴}될 수 있다.

72:2.11 (810.4) 2. 주 *최고법원*의 결정은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이지만, 연방 정부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는 예외다. 지역 대표자들은 어떤 사례{事例}든지 즉시 연방 최고법원의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2:2.12 (810.5) 3. *연방 최고법원* --주 법원에서 상정한 항소 사건과 국가적 논쟁에 대해 판결하는 고등 재판소. 이 최고 법정은, 어떤 주 법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0세부터 75세 사이에 있는 열두 명의 남자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최고 행정관이 지명하고, 최고 내각의 과반수 동의와, 입법 의회

중에서 제3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 최고 사법 기관의 모든 결정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한다.

72:2.13 (810.6) 사회경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작용한다:

72:2.14 (810.7) 1. *부모 법원*, 가정과 사회 체계의 입법부 및 행정부와 관련돼 있음.

72:2.15 (810.8) 2. *교육 법원*--주 및 지역 학교 체계와 연결되고, 교육 경영 체제의 행정 및 입법 부서들과 관련된 사법기관.

72:2.16 (810.9) 3. *산업 법원*--모든 경제적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전권{全權}을 부여받은 사법 재판소.

72:2.17 (810.10) 연방 최고 법원은, 국가 정부의 셋째 입법부, 즉 원로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의 4분의 3의 찬성을 얻는 경우 외에는, 사회경제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경우는, 부모와 교육 그리고 산업 최고 법원의 모든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3. 가정생활

72:3.1 (811.1) 이 대륙에서, 한 집에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집단 주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유형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됐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클럽이나 호텔 또는 다른 집단 거주지에 살 수 있다. 집을 짓도록 허락된 가장 작은 대지{垓地}는 최소 5만 평방피트의 땅을 갖춰야 한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땅과 재산은, 최소한의 택지{宅地}를 위한 비용의 열 배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72:3.2 (811.2) 이 민족의 가정생활은 지난 세기 동안 크게 증진됐다. 부모로서 수고하는 사람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의 자녀 훈육을 위한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도 통신으로 이 일을 마쳐야 하는데, 10일마다 한 번 -- 5일을 한 주{週}로 계산하기 때문에 2주마다 한 번, 직접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해당기관에 나가야 한다.

72:3.3 (811.3) 각 가정의 평균 자녀 숫자는 다섯이며, 그들은 완전히 부모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데, 부모 중에서 어느 한 쪽 또는 둘 다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법원이 지정하는 후원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어떤 가족이든지, 부모가 둘

다 없는 고아의 후견인 임무를 받는 것을 큰 명예로 간주한다. 경쟁하는 시험이 부모들에게 시행되고, 최고의 부모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판명된 사람들의 가정에 고아가 위탁된다.

72:3.4 (811.4) 이 민족은 가정을 그들 문명의 기본 제도로 간주한다. 한 아이의 교육과 인격 훈련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얻기를 기대하며, 아버지도 어머니가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한다.

72:3.5 (811.5) 모든 성교육{性教育}은, 가정에서 부모 또는 합법적 보호자가 시행한다. 도덕 교육은 학교 실습실에서 방과 후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부모의 특권으로 간주되며, 종교를 가정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 순전히 종교적인 가르침은, 철학을 가르치는 신전{神殿}에서만 대중에게 제공되며, 유란시아의 교회 같은 전속 종교 기관은 이 민족 가운데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동료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전형적 종교 상태가 아니다. 이 민족에게는 종교가 전적으로 가족 문제이므로, 종교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공공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인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종교와 철학은 기이하게 중첩돼 있다.

72:3.6 (811.6) 20년 전만 해도 (유란시아의 목사{牧師}에 해당하는) 영적인 선생들이 정부 차원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들은 각 가정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올바르게 훈육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했다. 영적 자문가이며 시험관인 이 사람들은, 현재 새로 창립된 영적 진보 재단의 지휘 아래 있고, 이 기관은 자발적 기부금으로 유지된다. 아마 이 기관은 낙원 집정관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더 진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72:3.7 (811.7) 어린이는 열다섯 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법적으로 소속돼 있고, 그 나이가 되면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처음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연속으로 5회에 걸쳐서 비슷하게 시행되는 5년 동안의 공개 훈련이, 비슷한 연령 집단들에게 부과되고, 부모에 대한 그들의 책무는

줄어드는 반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 투표권은 스무 살에 수여되고,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는 스물다섯 살이 돼야 부여되며, 자녀들은 서른 살이 되면 가정을 떠나야만 한다.

72:3.8 (812.1)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은 나라 전체가 동일하다.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갖는 연령인--스무 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은 오직, 결혼 의사를 밝힌 지 1년 후, 그리고 결혼 생활의 책임을 가르치는 부모 예비 학교에서 충분히 훈련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신랑과 신부 양쪽이 제출한 후에야 허락된다.

72:3.9 (812.2) 이혼 규칙은 어느 정도 엄격하지 못한 편이지만, 부모 법원이 발행한 이혼 허가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을 수 없으며, 이 행성에서 1년은 유란시아의 1년보다 훨씬 길다. 법이 그들의 이혼을 쉽게 허용함에도, 현재 이혼율은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인종들 경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4. 교육 체계

72:4.1 (812.3) 이 나라의 교육 체계는, 다섯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학생이 참여하는, 학부_이전{以前} 학교의 의무교육 및 남녀공학교육으로 이뤄진다. 이 학교들은 유란시아에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거기에는 교실이 없고, 한 번에 한 과목만 배우며, 첫 3년이 지나면 모든 학생이 보조{補助} 교사가 돼서, 하급생을 가르친다. 학교 실습장과 농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요구될 때에만 책이 사용된다. 그 대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구와 많은 기계장치가 이 실습소들에서 생산된다--발명과 기계화가 이뤄지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각 실습소 주변에는, 필요한 참고 서적을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실무 도서관이 있다. 농업과 원예술에 관한 학습 역시, 각 지역 학교 근처에 있는 광대한 농장에서 전체 학기 동안 진행된다.

72:4.2 (812.4) 정신박약아는 농업과 목축업만 훈련받으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적{性的}으로 격리되는 특별 보호지역에서 생활하게 돼 있는데, 정상 이하의 모든 사람은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이런 제한조치는 75년 동안 시행돼 왔으며;부모 법원이 그 구속{拘束} 명령을 하달한다.

72:4.3 (812.5)

각 사람마다, 매 년 1개월의 휴가를 갖는다. 학부_이전{以前}의 학교들은 10개월로 돼있는 1년 중에서 9개월 동안 공부 하고, 부모 또는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로 방학을 지낸다. 이런 여행은 성인_교육 계획표의 한 부분이며, 일생동안 계속되는데,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노후대책 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아진다.

72:4.4 (812.6)

학습시간의 4분의 1은 운동에--곧 경쟁하는 운동경기에-- 소요되며, 그 지역의 시합에서 이긴 학생들은, 주{州}와 광역{廣域} 시합을 거쳐서, 솜씨와 용맹성을 겨루는 국가 시합에 진출한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낮은 사회 부문들에서 전국 명예를 얻는 시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은 웅변과 음악 시합은 물론, 철학과 과학에 관한 시합에 관심을 기울인다.

72:4.5 (812.7)

학교 행정은, 세 개의 연관된 분야로 구성된 국가정부와 똑같은 형태이고, 가르치는 직원들은, 제3의 부서, 즉 자문하는 입법 부서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이 나라의 주요 교육목적은, 모든 학생을 자활{自活}할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72:4.6 (813.1) 학부 교육 체계 이전{以前}의 교육 과정을 18세에 마친 자녀는 모두, 숙련된 기능공이 돼 있다. 그 다음에는 성인 교육기관 또는 학부에서, 책을 통해서 연구하거나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이, 계획된 기간 이전에 과정을 완료하면, 그에게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직접 구상하는 어떤 계획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체 교육 체계는 각 개인을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다.

5. 산업 구조

72:5.1 (813.2) 이 민족 가운데서 산업 환경은, 그들의 이상{理想}보다 훨씬 뒤떨어졌으며;자본과 노동이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진지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맞도록 조정되고 있다. 독특한 이 대륙의 일꾼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 분야의 주주{株主}가 되고 있으며;영리한 노동자마다 서서히 소규모 자본가가 되고 있다.

72:5.2 (813.3) 사회의 적대관계는 줄어들고 있으며, 선한 의도가 신속하게 자라고 있다. (약 100년 전에) 노예 제도의 붕괴로 인해서는 어떤 심각한 경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는데,

해마다 2퍼센트 정도가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런 조정 과정이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신적, 도덕적, 및 육체적 시험에서 만족스럽게 통과된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으며;이 우수한 노예들 가운데 다수는 전쟁 포로 또는 그 포로의 자녀였다. 그들은 약 50년 전에 마지막 남은 열등한 노예들을 추방했고, 아주 최근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계층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72:5.3 (813.4)} 이 사람들은 최근에 산업 간 의견 차이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조절하기 위한 새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방법보다 현저히 개선됐다. 개인 간 또는 산업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 이익금, 및 기타 경제적 문제들은 엄격히 통제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산업담당 입법부의 통제를 받으며, 한편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산업 법원으로 이관된다.

^{72:5.4 (813.5)} 산업 법원들은 이제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우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는 산업 법원들이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법적 보정{補整}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72:5.5 (813.6)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 이자율.

72:5.6 (813.7) 2. 산업 운영에 고용된 기술에 대한 합당한 급여{給與}.

72:5.7 (813.8) 3. 노동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임금.

72:5.8 (813.9) 이것들은 먼저 계약에 의거해서 이뤄질 것이며, 그렇지 않고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그들은 일시적 감소를 비례해서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이런 고정된 요금을 초과하는 모든 소득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이고, 세 분야, 즉:자본, 기술, 및 노동에 할당될 것이다.

72:5.9 (813.10) 10년마다 지역 대표자들이 1일 유급 법정 노동시간을 조절해서 발표한다. 현재 산업체는 5일을 한 주로 해서 작동되는데, 4일 일하고 하루 쉰다. 이 사람들은 매일 여섯 시간씩 일하며, 10개월로 돼 있는 1년에, 학생과 마찬가지로 9개월 동안 일한다. 휴가 기간에는 대개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방법의 운송 수단들이 아주 최근에 개발돼서, 온 국민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 여행에 적당한

기후는 1년에 약 8개월이며, 그들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72:5.10 (813.11) 200년 전에는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전체 산업계를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동기가 다른 더 높은 추진력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놀이, 솜씨, 과학적인 성취, 및 지적 달성으로 옮겨졌다. 경쟁은 사회에 봉사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데서 가장 활기차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대중을 위한 봉사가 명예를 얻는 주된 목적이 돼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기계 작업장에서 하루에 6시간 일한 후에, 정치인자격학교의 지역 분교{分校}로 급히 달려가서 대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자 애쓰고 있다.

72:5.11 (814.1) 이 나라에서는 노동이 점점 더 명예로운 것이 되고 있으며, 열여덟 살 이상이고 신체 건강한 모든 시민은, 집과 농장, 어떤 공인된 산업체, 일시적으로 실직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공공의 일터, 또는 의무적으로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에서 일한다.

72:5.12 (814.2) 또한 이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을--곧 게으름 뿐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관{機關}들을 정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한때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 그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게다가 자아_실현 증진에 사용될 수 있는, 스스로 획득한 여가 시간을 오히려 인식하기 시작했다.

6. 노후 대책 보험

72:6.1 (814.3) 이 나라는, 자존감을_파괴하는 유형의 자선 행위를, 노후{老後}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정부_보험으로 대체시키려는, 단호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는 어린이 각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에게는 각각 일터를 제공하기 때문에;약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 기획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72:6.2 (814.4) 이 민족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70세 될 때까지 일터에 남아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주{州}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면, 65세에 유급{有給} 직장에서 은퇴해야만 한다. 이런 연령 제한은, 공무원 또는 철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장애자 또는 영구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과 지역 정부의 은퇴연금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72:6.3 (814.5) 노인의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원에서 조성된다.

72:6.4 (814.6) 1. 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 중에서 매 월 하루에 해당되는 소득을, 연방 정부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징수함.

72:6.5 (814.7) 2. 유산{遺産}--수많은 부자 시민이 이 목적으로 자산을 남김.

72:6.6 (814.8) 3. 주{州}가 관리하는 광산의 의무 노동으로 생긴 이익금. 징발된 노동자의 생계비와 그들 자신의 은퇴 보험료를 제외하고, 그들의 노동에 대한 모든 이익금이 이런 은퇴연금 자금으로 전환된다.

72:6.7 (814.9) 4. 천연 자원으로부터 생긴 수익금{收益金}. 그 대륙에 저장돼 있는 모든 천연 자원은 연방 정부가 사회 신탁 기금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질병 예방,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가를 위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하게 촉망되는 개인들을 위한 경비 등의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 자원에서 생긴 수익금의 절반은, 노인 은퇴연금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간다.

72:6.8 (814.10) 주{州} 및 지역 보험 재단들이 여러 형태의 보호 보험을 제공하더라도, 노인 은퇴연금은 오직 연방 정부가 10개의 지역 관청을 통해서 경영한다.

72:6.9 (814.11) 이런 정부 자금은 오랫동안 정당한 방법으로 경영돼 오고 있다. 반역죄와 살인죄 다음으로, 법원이 내리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대중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의가 없는 행위는 이제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세금징수

72:7.1 (815.1) 연방 정부는 오직 노인 연금의 경영, 그리고 천재와 창조적 독창성을 육성하는 데만 간섭하며;주{州} 정부가 시민 개인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지역 정부는 훨씬 더 간섭하거나,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다. 도시는(또는 도시의 어떤 하위부서들은), 건강, 공중위생, 건물 규제, 미화{美化}, 상수도, 조명, 난방, 오락, 음악, 및 통신 등과 같은 문제에 관여한다.

72:7.2 (815.2) 모든 산업체의 최고 관심은 건강에 있으며;특정한 단계의 육체적 행복이 산업과 공동체의 특권으로 간주되지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는 오직 개인의 관심거리일 뿐이다. 의료에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 점점 더 정부의 계획으로 굳어지고 있다.

72:7.3 (815.3) 도시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州} 정부 자금에서 주민 숫자대로 배당액을 수령하며,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들의 수익금에서 생긴 자금과, 다양한 상업 활동에 면허를 줌으로써 생긴 자금이 추가된다.

72:7.4 (815.4)

도시 범위를 실제로 크게 확장시키는 고속{高速}_운반 시설은 자치도시의 통제를 받는다. 도시의 소방서는 화재_예방 및 보험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도시와 지방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불에 타지 않도록 건축됐다 -- 75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

72:7.5 (815.5)

자치도시는 보안 요원을 운영하지 않으며;경찰 요원은 주{州} 정부가 유지한다. 이 부서는 거의 대부분 스물다섯 살에서 오십 살 사이의 미혼 남자로부터 모집된다. 대부분의 주는, 미혼 남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은 주 경찰로 선정된 모든 남자를 위해 사용된다. 현재 주 경찰 요원의 평균 숫자는 50년 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

72:7.6 (815.6)

경제 및 기타 조건이 대륙의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100개의 주 정부 세금징수 요강은 거의 또는 전혀 일률적이지 않다. 각 주{州}마다 기본적으로 입법화{立法化}된 열 개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들은 연방 최고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변경될 수 없으며, 이 조항들 가운데 하나는 도시 또는 지방에 상관없이 택지{宅地}를 제외한 어떤

부동산이든지, 1년에 그 가치의 1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2:7.7 (815.7) 연방 정부는 빚질 수 없으며, 전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州}든지 돈 빌리기 전에 4분의 3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빚질 수 없으므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요시에는, 국방 협의회가 각 주에게 비용뿐 아니라 인력과 물자를 분담시키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5년이 넘기 전에 어떤 빚이든지 청산돼야 한다.

72:7.8 (815.8) 연방 정부 유지를 위한 수입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원에서 모금된다:

72:7.9 (815.9) 1. 수입 관세. 모든 수입품에는 이 대륙의 삶의 표준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이 행성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 관세는, 산업 의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직무를 맡은 최고 책임자의 제안을 비준한 후에, 최고 산업 법원이 정하는데, 그 책임자는 이 두 입법부 기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산업 의회의 상원은, 자본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선출한다.

72:7.10 (816.1) 2.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열 개의 지역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분야의 천재들을--곧 예술가, 작가, 및 과학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특허권을 보호해서, 발명품과 독창적 작품이 나오도록 장려한다. 정부는, 기계, 책, 예술품, 식물, 또는 동물 가운데 어디에 속하든지, 그런 모든 발명과 창작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절반을 그 대가{代價}로 취한다.

72:7.11 (816.2)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를 비롯한 기타 조건에 따라서, 1내지 50퍼센트의 누진{累進} 상속세를 부과한다.

72:7.12 (816.3) 4. 군용{軍用} 장비. 정부는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과 오락 용도로 빌려줌으로써, 상당히 많은 수익금을 만든다.

72:7.13 (816.4) 5. 천연 자원. 천연자원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연방 국가체제 헌장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부 요구되지 않을 때, 나머지는 국고{國庫}로 전환된다.

72:7.14 (816.5) 국방 협의회가 부과한 전쟁 자금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 지출금은 입법부의 상원 의회에서 발의{發意}되고,

하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며, 최고 행정관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 예산 위원회의 비준{批准}을 받는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주지사가 지명하며, 24년간 봉사하도록 주{州} 입법부가 선출하는데, 6년마다 4분의 1씩 선출한다. 이 기관은 6년마다 4분의 3의 투표로, 그들 중에서 한 명을 우두머리로 뽑으며, 그리하여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휘자와_통제관이 된다.

8. 특별 학부

72:8.1 (816.6) 다섯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 교육 계획표 외에, 특별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72:8.2 (816.7) 1. *정치인자격학교*. 이 학교는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국가, 지역, 및 주{州}로 구분된다. 그 나라의 관공서는 네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경영에 관계되며, 이 집단의 모든 공무원은 정치인을 위한 지역학교와 국가학교, 둘 다 마쳐야만 한다. 정치인을 위한 열 개의 지역 학교 가운데 하나를 졸업한 사람은, 둘째 부문의 정치적 직책, 선출되는 직책, 또는 임명받는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지역

경영과 주 정부에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제3 부문은 주에 대한 책무가 포함되고, 그런 공무원은 정치인을 위한 주{州} 학위를 얻어야만 한다. 마지막 넷째 부문의 공무원에게는 정치인을 위한 학위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런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그것들은, 보좌관, 비서관, 및 기술 협회에서 일하는 사소한 직책이며, 정부를 경영하는 자격을 갖추고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식 있는 전문인이 그 일을 수행한다.

72:8.3 (816.8) 부속법원과 주 법원의 재판관은, 주{州}의 정치인자격 학교의 학위를 지닌다. 사회, 교육, 및 산업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법정의 재판관은, 지역 학교 학위를 지닌다. 연방 최고 법원의 재판관은, 이 정치인자격학교들의 학위를 전부 가져야만 한다.

72:8.4 (817.1) 2. **철학 학교.** 이 학교는 철학을 연구하는 전당{殿堂}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공 기능으로써 종교와 다소 관련돼 있다.

72:8.5 (817.2) 3. *과학 교육기관.* 이 기술학교는 교육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보다 산업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열다섯 개의 분야로 경영되고 있다.

72:8.6 (817.3) 4. *전문적인 훈련 학교.* 이 특수 교육기관은, 열두 개에 달하는 다양하고 박식한 전문 분야를 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72:8.7 (817.4) 5. *육군 학교와 해군 학교.* 국가 본부 근처와 스물다섯 개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육군 중심지에는, 열여덟 살에서 서른 살 사이의 자원하는 시민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에 이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9. 보통 선거권 방식

72:9.1 (817.5) 모든 공직 후보자는, 정치인을 위한, 주{州}, 지역, 또는 연방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 나라의 진취적 지도자들은 보통 선거권 방식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50년 전에 수정된 투표 기획을 위한 헌법 조항을 제정했는데,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갖췄다:

72:9.2 (817.6)

1. 스무 살 이상의 모든 남녀 각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모든 시민은 반드시 두 가지 투표 집단의 회원권을 획득해야 하는데:--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 등-- 자신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첫째 집단에 들어가며;정치적, 철학적, 및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소속된다.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는 참정권을 갖는 어떤 경제 집단에 소속되고, 이 조합{組合}들은, 비경제 연합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중적으로 권력이 분리된 국가 정부와 아주 흡사하게 조절된다. 이런 집단에 등록되면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72:9.3 (817.7)

2.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거나, 정부 봉사에서 비범한 지혜를 나타내는 각 개인은, 주지사 또는 지역 행정관들의 지명을 받고, 지역 최고 협의회에 명령에 따라서, 5년 이상의 기간 마다 추가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런 초과 선거권은 아홉 개를 넘지 못한다. 어떤 복수 투표권자든지, 최대 투표권은 열 개다. 과학자, 발명가, 선생, 철학자, 및 영적 지도자 역시, 확대된 정치 권한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州}와 지역의 최고 협의회가 이런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며,

수혜자{受惠者}들은 자신의 개인 경력표에, 다른 학위들과 함께 그런 시민 표창을 첨부해 표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72:9.4 (817.8) 3. 광산{鑛山}에서 의무적으로 노동하도록 선고 받은 모든 개인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모든 공직자는, 그런 봉사 기간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65세에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하게 될 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2:9.5 (817.9) 4. 납부한 연평균 세금을 5년마다 반영한 다섯 등급의 투표권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투표권이 다섯 개까지 부여된다. 이런 혜택은 다른 모든 상급{賞給}과는 별개로 부여되지만, 어떤 사람도 열 개보다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72:9.6 (818.1) 5. 이런 참정권 계획이 채택됐을 때, 경제 체계, 즉 기능적 체계를 찬성하는 대신, 지역 투표 방식은 폐기됐다. 모든 시민은 이제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산업, 사회, 또는 전문 집단에 소속된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그리하여 유권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장 뛰어난 회원들만 선출하는, 단결되고, 통합되고, 지성적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런 기능별 또는 집단별 투표 기획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6년마다 선출되는 연방 최고 행정관은 전국 투표로 결정하며, 어떤 시민도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72:9.7 (818.2) 최고 행정관 선거를 제외하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적, 전문적, 지적, 및 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시행된다. 이상적인 국가는 유기적이며, 자유롭고 지성적인 모든 시민 집단은, 그보다 큰 유기체인 정부 안에서 생동적이고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器官}을 대표한다.

72:9.8 (818.3) 정치인자격학교는, 어떤 결함이든지 있는 자, 게으른 자, 무관심한 자, 또는 죄를 범하는 개인의 투표권 말소시킬 의도로,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이 열등하거나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 투표권을 가질 때에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어떤 나라든지 진부한 사람이 지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투표는 의무이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마다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10. 범죄에 대한 조치

72:10.1 (818.4) 이 사람들이, 범죄, 정신 이상, 및 퇴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만족스럽지만, 대부분의 유란시아인에게는 충격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통상적인 죄수와 결함 있는 자는, 남녀가 따로 농장 지역에 수용되고, 자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상습 범죄자와 불치{不治}의 정신 이상자는, 독{毒} 가스실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법원이 선고한다. 살인범 외에도, 정부의 신용을 배반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자에게도 사형이 구형되며, 정당성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실시된다.

72:10.2 (818.5) 이 사람들은 법률의 부정적 시대에서 탈피하여 긍정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 살인 및 중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격리된 주거지에서 일평생 살도록 선고하는, 범죄 예방 대책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죄수들이 비교적 정상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중에 입증하면, 가석방{假釋放}되거나 사면{赦免}될 수도 있다. 이 대륙에서 살인 비율은 다른 나라들의 비율의 1퍼센트에 불과하다.

72:10.3 (818.6) 범죄와 정신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미 만족스런 결과를 낳고 있다. 정신 이상자를 위한 감옥이나 병원이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무리가 유란시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숫자의 10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1. 군대의 전시대비책

72:11.1 (818.7) 전국 국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방 군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 역량과 체험에 따라서, 일곱 가지 직급의 “문명의 수호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최고 부모 재판소, 최고 교육 재판소, 및 최고 산업 재판소가 그들을 지명하고, 연방 최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며, 합동 군사 직무 참모총장{參謀總長}이 직권으로 통솔한다. 그런 요원{要員}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근무한다.

72:11.2 (819.1) 그렇게 임명된 장교가 이수해야 할 과정은 4년 걸리고, 어떤 무역 또는 전문직과 반드시 관련돼 있다. 군사 훈련은 반드시 관련된 산업학교, 과학학교, 또는 전문적인 학교 수업과 함께 수행된다. 군사 훈련이 끝났을 때, 각 개인은 4년의 과정 동안에, 마찬가지로 4년 동안 과정이

계속되는 다른 모든 특수학교에서 부과하는 교육의 절반을 마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전반부{前半部} 과정의 기술 또는 전문직 훈련을 확보하는 동안에, 많은 남자들에게 자활{自活} 능력을 갖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군인 계층을 창설하지 않아도 된다.

72:11.3 (819.2) 평화 시에 군복무는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분야의 봉사에 편입된 사람은 4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그 기간에 각 사람은 군사 전술학{戰術學}을 전공하는 이외에 어떤 특별한 계통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음악 훈련은, 대륙의 주위에 흩어져 있는 스물다섯 개의 훈련소와 중앙 군사학교에서 이뤄지는 주요 오락 가운데 하나다.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기간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가,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대륙의 군사 방어력을 제고{提高}시키는 일에 자동적으로 활용된다.

72:11.4 (819.3) 이 사람들이 주변의 호전적 민족들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강력한 전쟁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군사 자원을 갖고 지난 100년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히 칭찬받을 만하다. 그들은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을 호전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채, 문명을 힘차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명화 됐다. 대륙의 주{州}들이 연맹을 이룬 이래, 내란{內亂}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두 세기{世紀} 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맹렬한 방어 전투를 치러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은 세계 강대국들의 강력한 동맹체와의 싸움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호전적인 이웃의 공격에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인, 과학자, 및 철학자의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72:11.5 (819.4)} 전 세계가 평화로울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어용 장비가 무역, 상업, 및 오락을 위해서 사용된다. 전쟁이 선포되면 국가 전체가 동원된다. 전쟁이 계속되는 전체 기간에는 군인이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모든 군대 부서 대장들이 최고 행정관 내각의 일원이 된다.

12. 다른 나라들

^{72:12.1 (819.5)} 이런 독특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유란시아의 나라들보다 우수하더라도, (이 행성에는 열한 개의 대륙이 있는데) 다른 여러 대륙에 있는

정부는, 유란시아에서 비교적 진보된 나라들보다 명백히 뒤떨어져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2:12.2 (819.6) 바로 지금, 뛰어난 이 정부는, 뒤쳐진 민족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처음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도록 주장하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출현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종족들에게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많은 다른 사람이 저질렀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대륙 국가가 단순히 이웃 민족들에게 가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 온 후, 그들을 교육시키고, 문화 대사 자격으로 다시 그들의 미개한 형제들에게 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이 세계에 벌어지겠는가! 물론 진보된 이 나라에 집정관 아들이 곧 도래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이 세계에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72:12.3 (820.1) 이웃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이런 설명은, 유란시아에 있는 정부의 진화를 증대시키고 문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특별한 허락을 받아 이뤄졌다. 분명히 유란시아인의 흥미를 돋우고 관심을

끝기에 충분한 훨씬 많은 것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허용된 명령의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72:12.4 (820.2) 아무튼, 유란시아인은, 사타니아의 구성원인 자매 구체가, 낙원 아들들의 집정관 사명뿐 아니라 증여 사명의 혜택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또한 유란시아의 여러 민족은, 이 대륙 국가를 그 행성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 차이로 서로 분리돼 있지도 않다.

72:12.5 (820.3) 진리의 영이 부어진 것은, 증여 세계의 인류에게 크게 진전된 유익{有益}을 실현시키는 영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유란시아는, 그 법률, 절차, 상징, 관례, 및 언어와 함께, 행성 정부를 더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수 있도록 훨씬 잘 준비돼 있다--이 모든 것이, 법률에 의거한 범세계적 평화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언젠가는 참된 영적 투쟁의 시대가 태동되도록 인도할 것이며;그런 시대는 행성이 빛과 생명의 이상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入口}에 해당된다.

72:12.6 (820.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73편 에덴 동산

73:0.1 (821.1) 캘리가스차가 몰락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혼란해짐으로 말미암은 문명의 퇴보와 영적 빈곤은, 유란시아 민족들의 육체적 상태, 즉 생물학적 상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캘리가스차와 달리가스차의 불만에 뒤따라서 그토록 신속하게 발생된 문화와 도덕의 후퇴와는 거의 상관없이, 유기적 진화는 급속히 진행됐다. 그러던 가운데 행성 역사에 어떤 시기가 도래했는데, 약 4만 년 전에, 근무하던 생명 운반자들은, 순수한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제 유란시아 인종들의 발육상 진보가 정점{頂點}에 가까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멜기세덱 관재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즉각 동의했으므로, 그들은 생물학적 개량자인 한 쌍의 물질 아들과 딸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유란시아가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요청했다.

73:0.2 (821.2) 이 요청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에게 제출됐는데, 캘리가스차가 몰락하고 예루셈에서 일시적 권력 공백이

생긴 후로 늘, 유란시아 직무 가운데 많은 것을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직접 다스려 왔었기 때문이다.

73:0.3 (821.3) 그래서 이런 십진{十進} 세계, 즉 실험 세계 계통을 다스리는 최고 감독관 타바만시아가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고, 인종 진화를 조사한 후에, 유란시아가 물질 아들들에게 적합한 행성임을 정식으로 추천했다. 이 조사가 있는 뒤 100년이 조금 못됐을 때, 아담과 이브, 즉 지방체계의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했고, 반역으로 뒤쳐지고 영적 격리 명령 아래에 있는 행성의 뒤엎킨 직무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다.

1. 낯죽속과 아마돈죽속

73:1.1 (821.4) 정상 행성에 물질 아들이 도래한 것은 대개, 발명과 물질적 진보 및 지적 각성에서 위대한 시대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예고하곤 한다. 아담 이후 시대는 대부분의 세계에서 고도의 과학 문명시대에 해당됐지만, 유란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신체적으로는 적합한 인종들이 행성에 살고 있었지만, 부족들은 야만스럽고 도덕적으로 침체된 수렁에서 시들고 있었다.

73:1.2 (821.5) 반역 후 1만 년이 지나자, 왕자의 통치기간에 얻었던 모든 것이 실제로 소멸돼 버렸으며;그 세계의 인종들은, 잘못 인도된 이 아들이 유란시아로 오지 않았던 경우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오직 낯족속과 아마돈족속 가운데서만, 달라마시아의 전통과 행성 왕자의 문화가 지속됐다.

73:1.3 (821.6) 낯족속은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요원들의 후손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첫 지도자인 낯에서 유래됐는데, 낯은 한때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달라마시아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아마돈족속*은 반과 아마돈에게 계속 충성했던 안돈족속의 후손이었다. "아마돈족속"이라는 이름은 인종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 문화적 내지 종교적 명칭이며;인종 면에서 볼 때 아마돈족속은 본질적으로 *안돈족속*이었다. "낯족속"은 문화와 인종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낯족속 자체가 유란시아의 여덟 번째 인종을 이뤘기 때문이다.

73:1.4 (822.1) 낯족속과 아마돈족속 사이에는 전통적 적대감이 있었다. 이런 반목은, 이 두 집단의 자손이 어떤 공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마다 끊임없이 표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후일에 에덴의 직무에서도, 평화롭게 같이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힘들었다.

73:1.5 (822.2) 달라마시아가 붕괴된 직후에, 낫 추종자들은 세계의 주요 집단으로 나뉘게 됐다. 중앙에 위치한 집단은, 페르시아 만 상류 부근에 있는 그들의 원래 고향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동쪽에 위치한 집단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바로 동쪽에 있는 엘람 고원 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쪽에 위치한 집단은, 지중해와 인접 영토에 있는 시리아의 북동 연안에 자리 잡았다.

73:1.6 (822.3) 이 낫족속은 상익 인종과 자유롭게 짝져 왔고 유능한 자손을 남겼다. 그리고 반역한 달라마시아인 후손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서 반과 그의 충성스런 추종자들과 합세했다. 낫족속은 반 호수와 남쪽 카스피 해 지역 부근인 여기서 아마돈족속과 섞이고 교제했으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勇士}들” 가운데 속했다.

73:1.7 (822.4) 아담과 이브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집단이--곧 낫족속과 아마돈족속이-- 세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문화가 발달된 인종이었다.

2. 동산에 대한 계획

73:2.1 (822.5) 타바만시아가 조사하기 전에 거의 100년 동안, 반과 그 동역자들은, 고원지대{高原地帶}에 있던 그들의 세계 윤리 및 문화의 본부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즉 인종적 개량자이고, 진리의 선생이며, 배반한 캘리개스차를 대신할, 귀중한 계승자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파하고 있었다. 당시의 세계 거주민 대다수가 그런 예고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반 및 아마돈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던 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약속된 아들을 실제로 영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73:2.2 (822.6) 반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에게 예루셈의 물질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유란시아에 오기 전부터 일찍이 알던 것이었다. 그는 아담이라는 이 아들들이 항상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집에 산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기 83년 전에, 그들의 도래를 선언하는 일과, 그들을 영접하기 위한 동산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에 헌신하자고 그들에게 제안했다.

73:2.3 (822.7)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본부와, 멀리까지 산재해 있는 61개의 정착지로부터, 반과 아마돈은 3천 명 이상의 자원하는 열성적 일꾼 단체를 모집했는데, 그들은 이 엄숙한 집회에서, 약속된--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준비하는 이 사명에 헌신했다.

73:2.4 (822.8) 반은 지원자들을 100개의 무리로 나누고, 각 무리마다 한 명의 지휘관을 뒀으며, 각 부대마다 한 명씩,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참모를 세워서 연락 책임자로 삼았고, 아마돈을 동역자로 삼았다. 이 위원회들은 모두 진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물색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힘차게 떠났다.

73:2.5 (822.9)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는, 해를 끼치는 힘을 많이 뺏긴 상태에 있었지만, 동산을 준비하는 작업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이 기획을 진행해나가기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의 신실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무력화{無力化}됐다.

3. 동산 부지

73:3.1 (823.1) 장소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거의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세 군데의 가능한 장소를 물색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첫째는 페르시아만의 한 섬이었고;그 다음에는 나중에 두 번째 동산으로서 사용된, 강의 하구였으며;셋째는 --거의 섬에 가까운-- 좁고 긴 반도로서, 지중해 동쪽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간 곳이었다.

73:3.2 (823.2)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셋째 지역을 채택했다. 이 부지{敷地}가 선정되고 난 후에,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세계의 문화 기지를 이 지중해 반도로 이전하는데 2년 걸렸다. 반과 그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한 집단을 제외한 반도 전체 거주민이 평화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갔다.

73:3.3 (823.3) 이 지중해 반도는 쾌적한 기후와 온화한 기온을 유지했으며;이런 안정된 날씨, 여러 산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 지역이 사실상 내륙해{內陸海} 안에 있는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주위에 있는 고원지대에는 비가 많이 내린 반면, 에덴 본토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 광활한

인공{人工} 관개시설의 수로망{水路網}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동산에 있는 식물을 싱싱하게 만들었다.

73:3.4 (823.4) 이 육지의 해안선은 상당히 융기돼 있었고, 대륙과 연결돼 있는 목 부분은, 가장 좁은 지점의 경우에 너비가 27마일밖에 되지 않았다. 동산을 적셔주는 큰 강이, 반도의 비교적 높은 지대에서 흘러내려서, 반도의 목 부분을 통하여 동쪽으로 대륙을 향해 흘러가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低地帶}를 가로질러 저편 바다에 이르렀다. 에덴 반도의 해안에 있는 구릉지대에서 발원{發源}하는 네 개의 지류{支流}가 그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들이 “에덴에서 흘러나가는” 강의 “네 개의 상류{上流}”인데, 나중에 두 번째 동산을 둘러싼 강들의 지류와 혼동되게 됐다.

73:3.5 (823.5)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산에는 진귀한 돌과 금속이 풍부했지만, 이것들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배적인 견해는, 원예술을 꽃피우게 하자는 것, 그리고 농업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었다.

73:3.6 (823.6) 동산으로 선정된 부지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목적을 위한 장소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며,

기후도 당시에 이상적이었다. 이렇게 완전하게 식물의 낙원이라고 불릴 만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집결지로 유란시아 문명의 정수{精髓}가 모아졌다. 그러나 동산 너머의 세계는 여전히, 어둠, 무지, 그리고 미개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에덴은 유란시아에서 한 점의 빛나는 장소였으며;있는 그대로 꿈같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곧 한 편의 절묘한 시{詩}를 생각나게 하는 완벽한 영광의 절경을 이루게 됐다.

4. 동산을 세움

73:4.1 (823.7)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 아들이 진화 세계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는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이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고 식물로 장관을 이루는 성좌 수도{首都} 에덴시아의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반은 이 관습을 잘 알았고, 그에 따라 반도 전체가 동산에 소속되도록 준비했다. 목초와 동물 사육은, 대륙과 인접된 지역에서 이뤄지게 입안됐다. 동물 생명체 중에서는 단지 새와 다양한 길들여진 종류들만 그 공원 안에 거하게 돼 있었다. 에덴이 동산 중에서도 최상의 동산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 반의 지침이었다. 어떤 동물도 그 관할 지역 안에서는 도살하지

못하게 했다. 건설하는 기간 내내, 동산 일꾼들이 먹은 모든 고기는 대륙에서 사육된 동물 떼에서 조달됐다.

73:4.2 (824.1) 첫째 과제는, 반도의 목 부분을 가로지르는 벽돌 담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단 완성되자, 실제적인 조경 작업과 보금자리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73:4.3 (824.2) 동물을 키우는 동산은, 근간이 되는 담 바로 바깥쪽에 비교적 작은 담을 건설함으로써 조성됐으며;그 사이 공간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추가적 방어수단으로 제공된 온갖 종류의 맹수로 채워졌다. 이 동물원은 크게 열두 개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무리들 사이에는 담으로 막은 도로가 동산의 열두 대문, 강, 그리고 중앙지역을 차지하는, 강 주변 목초지로 이어졌다.

73:4.4 (824.3) 동산을 준비하는 일에는 오직 자원하는 일꾼들만 고용됐으며;대가를 지불하는 고용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동산을 경작했고, 도움 받기 위해서 가축을 길들였으며;식량 조달은 가까운 곳에 있는 믿는 자들로부터 공급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업은,

이런 어수선한 시절에, 세상의 혼란스런 상태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완성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73:4.5 (824.4) 그러나 반은, 기대되는 아들과 딸이 얼마나 빨리 오게 될지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도래가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작업을 계속 이끌어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를 훈련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을 크게 낙심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반의 태도는 그의 믿음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됐으며, 많은 이탈자가 뒤따랐지만;반은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탈자의 자리를 젊은 자원자{自願者}들로 대신 메워나갔다.

5. 동산의 집

73:5.1 (824.5) 에덴 반도 중심에는, 동산의 신성시되는 성역{聖域}인, 절묘하게 돌로 지은 만유의 아버지의 성전{聖殿}이 있었다. 북쪽에는 경영 본부가 건립됐고;남쪽에는 일군들과 그 가족을 위한 집이 세워졌으며;서쪽에는 기대하는 아들의 교육 체계에 따른 계획된 학교들을 세울 땅으로 분할해서 제공됐고, 한편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의 직계 후손을 위해서

계획된 주거지가 건설됐다. 에덴을 위한 건축 계획에는, 100만 명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집과 땅이 할당됐다.

73:5.2 (824.6)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 동산은 4분의 1밖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수천 마일의 관개{灌溉}수로{水路}와 12,000마일에 달하는 포장된 통로 및 도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는 5천 채가 넘는 작은 벽돌집이 있었으며, 나무와 식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원 안에 있는 각 동네마다, 집의 수는 일곱 채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동산의 구조물은 단순한 형태였지만, 가장 예술적이었다. 통로와 도로가 잘 건설됐고 그 풍치는 절묘했다.

73:5.3 (824.7) 동산의 정화시설은, 전에 유란시아에서 시도됐던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됐다. 에덴의 음료수는,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안한 위생 규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위생적으로 유지됐다. 이 초기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 것은 이런 규정을 소홀히 한 때문이었지만, 반은 동산의 물 공급원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역자들에게 점차 인식시켰다.

73:5.4 (825.1) 나중에 하수처리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는, 에덴의 주민이 모든 쓰레기와 부패물을 철저하게 땅에 묻는 풍습을 지켰다. 아마돈의 조사원{調査員}들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살피기 위해서, 매일 자기 구역을 순찰했다. 유란시아인은 후대{後代}에 기원후 19세기와 20세기까지, 다시는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자각하지 못했다. 아담의 통치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땃개를 씌운 하수도 체계가 울타리 아래로 흘러서, 동산 바깥쪽, 즉 낮은 담에서 거의 1마일 가량 떨어진 에덴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73:5.5 (825.2)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 세계 각 지역의 식물 대부분이 에덴에서 자라고 있었다. 많은 종류의 과일, 곡류, 및 견과류가 이미 크게 개량돼 있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채소류와 곡류 대부분이 여기서 처음 재배됐지만,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식용 식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73:5.6 (825.3) 동산의 식물 중에서 5퍼센트 정도는 고도의 기술로 재배됐고, 15퍼센트는 부분적으로 재배됐으며, 나머지는 대체로 자연 상태에서 아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담의 생각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73:5.7 (825.4) 그리하여 에덴 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의 배우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 동산은, 완벽한 경영과 정상적 통제 아래서 이 세상에 영예가 될 만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 자신의 거주지를 꾸미는 데서만큼은 상당한 수정을 했지만, 에덴의 전체 계획에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73:5.8 (825.5) 아담이 도착할 무렵까지 마지막 장식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음에도, 그곳은 이미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식물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으며;그가 에덴에 머물던 초기 시절 동안, 동산 전체는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조화{調和}가 이뤄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풍부한 원예와 농업 전시장은 유란시아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6. 생명나무

73:6.1 (825.6) 반은,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나무를 동산의 성전 중앙에 심었고, 그 나무의 잎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실은 그를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있게

했다. 아담과 이브가 일단 유란시아에 물질 형태로 도래한 후에는, 그들 역시 생명 유지를 위해 에덴시아의 이 선물에 의존하리라는 것을, 받은 잘 알았다.

73:6.2 (825.7) 물질 아들은, 체계 수도{首都}에 있을 때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생명나무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행성에서재인격화 됐을 때에만, 육체의 불멸을 위해 이 보조물에 의존한다.

73:6.3 (825.8)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잡다한 인간 체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회화적{繪畵的}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실제였고, 오랜 기간 유란시아에 남아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캘리개스차를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 그리고 100명의 예루셈 시민을 그의 경영 참모진으로 임명하도록 승인했을 때, 에덴시아에 있는 한 묘목{苗木}을 멜기세덱들 편에 행성으로 보냈으며, 이 묘목이 유란시아에서 자라나 생명나무가 됐다. 지성이 없는 이 형태의 생명체는 성좌 본부 구체의 토산품인데, 하보나 구체들뿐 아니라 지방우주나 연방우주들의 본부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체계 수도에는 없다.

73:6.4 (826.1) 이 초월 식물은, 동물 실존을 노화{老化}_시키는 요소를 해독하는 어떤 공간_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초화학적 축전기{蓄電池} 같아서, 그것을 먹으면 신비하게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우주의 힘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이런 영양물 형태는, 유란시아에 있는 일반 진화 존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특별히 100명의 물질화된 캘리개스차 참모진, 그리고 왕자의 참모진에게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기부했던 100명의 변경된 안돈족속에게는 유용하게 쓰였는데, 그들은 그 대가{代價}로 그 생명 보충물을 지닐 수 있게 됐고, 그것 없이는 필사적{必死的}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무한히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73:6.5 (826.2) 왕자의 통치 기간에, 그 나무는 아버지의 성전 중앙에 있는 원형{圓形} 뜰의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역이 일어나자, 반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것을 그들의 임시 야영지 중앙 한가운데서 다시 자라게 했다. 이 에덴시아 나무는, 나중에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피난처로 옮겨졌는데, 반과 아마돈은 거기서 15만년 이상이나 그 나무의 혜택을 입었다.

73:6.6 (826.3)

아담과 이브를 위한 동산을 준비했을 때, 반과 동역자들이 그 에덴시아 나무를 에덴 동산에 옮겨 심었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는 또 다른 성전 중앙의 원형 뜰에서 다시 한 번 자라게 됐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이중 형태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열매를 먹었다.

73:6.7 (826.4)

물질 아들의 계획이 잘못된 길로 가버렸을 때, 아담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 나무 동치를 동산에서 옮겨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에덴으로 침범해 온 놋족속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신{神}들처럼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방치돼 있음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과실을 마음껏 따먹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으며;모두 그 영역의 물질 필사자였으며;그 나무의 과실이 효력을 발휘할 만한 형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약효를 섭취할 능력이 없음에 격분하게 됐고, 여러 차례 내란{內亂}이 일어나는 중에, 성전과 나무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말았으며;나중에 동산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돌담만 남아있었다. 이것은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의 두 번째 소멸이었다.

73:6.8 (826.5) 그리하여 이제는, 유란시아의 모든 육체적 존재가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스런 과정을 겪어야 했다. 아담, 이브,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시간이 흐르자 모두 소멸해 갔으며, 그리하여 육체가 죽은 후에는, 맨션 세계 부활이 이뤄지는 지방우주의 상승{上昇} 기획 아래 놓이게 됐다.

7. 에덴의 비운

73:7.1 (826.6)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떠난 후에, 낫족속, 컷족속, 및 선족속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 동산은 나중에, 아담족속과 협동하기를 거부한 북쪽에 있는 낫족속의 거주지가 됐다. 반도{半島}는 아담이 동산을 떠난 뒤 거의 4천 년 동안, 열등한 계층에 속하는 이 낫족속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화산의 격렬한 활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시칠리아 연결육지의 침수{沈水}와 관련해서, 지중해 동쪽 지반{地盤}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 에덴 반도 전체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광대한 지역이 침수됨에 따라서, 지중해 동쪽 해안선이 크게 융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유란시아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천연 창작품의 종말이기도 했다. 이 침몰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었으며, 반도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다.

73:7.2 (827.1) 우리는 동산이 사라진 것이 신성한 계획을 잘못
수행한 어떤 결과라거나,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에덴의 침몰을 자연
발생적인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간주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세계 사람을 갱생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한, 보라색 인종의 비축 인구가 다 축적될 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동산의 침몰이 일어나도록 맞춰진 것
같았다.

73:7.3 (827.2) 멜기세덱들은 아담에게, 그의 직계 가족이 50만 명
될 때까지는, 인종 개량을 위한 혼혈 계획표를 개시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동산이 아담족속만의 영원한 거처가
돼야 한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자{使者}가 될 예정이었으며;이
세상의 궁핍한 인종들에게 사심 없이 증여되기 위해서
동원될 예정이었다.

73:7.4 (827.3) 멜기세덱들이 아담에게 준 지침 중에는, 아담이,
인종별, 대륙별, 및 분야별로 본부를 세워서 그의

직계{直系} 아들과 딸들에게 맡기고, 한편 그와 이브는 세계 전역에, 생물학적 향상, 지적 발전, 그리고 도덕성의 부흥을 꾀하는 일에 자문가 및 조정자가 돼서, 이 여러 나라의 수도{首都}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눠 쓰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73:7.5 (827.4)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제74편 아담과 이브

74:0.1 (828.1)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을 기준으로,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동산에 꽃이 피는 최고 절정기 중간이었다. 정오에, 아무 예보 없이, 두 대의 스랍 운송선{運送船}이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개량자의 수송을 맡은 예루셈 대원들을 함께 태우고, 자전하는 행성 표면 위로, 만유의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 근방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를 재물질화{再物質化}하는 모든 작업이, 새롭게 지어진 이성소{聖所} 내부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도착한지 10일 만에, 그들은 그 세계의 새 통치자로 소개될 수 있는, 이중{二重} 인간 형태로 다시_만들어졌다. 동시에 그들의 의식도 돌아왔다. 물질 아들과 딸은 언제나 함께 봉사한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결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봉사에 임한다. 그들은 한 쌍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졌으며;홀로 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예루셈에서 아담과 이브

74:1.1 (828.2) 유란시아에 온 행성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선임{先任} 물질 아들 단체의 대원이었으며, 그들의 공동번호는 14,311_번이었다. 그들은 셋째 육체 계통에 속했으며, 신장은 8피트보다 약간 컸다.

74:1.2 (828.3) 아담이 유란시아로 가도록 선정됐을 때, 그는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의 신체 시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1만 5천 년이 넘도록, 그들은 생체{生體} 형태 변경에 적용될 실험용 에너지 부서의 지도자였다. 이보다 오래 전에는, 예루셈에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민권 학교 교사였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한 그들의 행동을 앞으로 서술하는 동안 참고가 되도록,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4:1.3 (828.4) 유란시아에서, 아담으로서 모험하는 사명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발표가 있게 되자, 선임 단체의 물질 아들과 딸 전체가 지원했다. 멜기세덱 시험관은,

라나휘지와 에덴시아의 지고자{至高者}들의 동의를 얻어서, 후일에 유란시아의 생물학적 개량자 역할을 할, 아담과 이브를 마침내 선발했다.

74:1.4 (828.5)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 반역 중에도 미가엘에게 충성스런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그럼에도 한 쌍의 그들은, 심사와 지침을 받기 위해서 체계 주권자와 그의 내각 전체 앞으로 호출됐다. 유란시아 직무의 세부사항이 완전하게 제시됐고, 그들은 투쟁으로 분열된 그런 세계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추구할 것인지 철저하게 지시 받았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과 살빙톤의 미가엘에게 충성하겠다는 공동{共同} 맹세를 했다. 그리고 멜기세덱 관재인들로 구성된 유란시아 단체가, 그들이 배정받은 세계의 통치권을 양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자신들이 그 통치 기관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정식으로 권고 받았다.

74:1.5 (829.1) 예루셈에서 선택된 이 한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그 외에도 다른 곳에 100명의 자손을 --곧 50명의 아들과 50명의 딸을 -- 남겨뒀는데, 이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함정을 피한 훌륭한 피조물이었고, 부모가 유란시아를 향해서 떠날 때, 우주의 책임을 맡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모두 임명됐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증여를 수락하는 마지막 예식과 관련된 작별 연습이 있고 나서, 물질 아들들의 아름다운 성전에 참석했다. 이 자손들은 그들 계층의 비물질화 본부까지 부모를 따라갔고, 스랍 운송선에 탑승할 준비에 앞서 진행되는, 의식{意識}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는 인격체 속에서의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안녕과 신성한 번영을 빌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곧 사타니아 체계에 속한 606호 행성의 실제 단독 통치자인, 눈에 보이는 우두머리가 되리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가족의 회합을 잠시 함께 즐겼다.

74:1.6 (829.2)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성공을_기원하는 가운데 예루셈을 떠났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임무와 위험에 관해서도 충분히 지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책무가 기다리는 곳으로 출발했다.

2. 아담과 이브의 도착

74:2.1 (829.3)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깊이 잠들었고, 유란시아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무리가 거기 있었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두 존재, 즉 반 및 그의 충실한 동역자 아마돈과 직접 대면하게 됐다. 캘리개스차가 이탈할 당시에 공헌했던 이 두 영웅이, 새로운 동산 주거지에서 그들을 맨 먼저 환영했다.

74:2.2 (829.4) 에덴의 언어는 아마돈이 사용하는 안돈 방언이었다. 반과 아마돈은 새로운 스물네 글자로 된 알파벳을 만들어서 이 언어를 현저히 개선시켰으며, 에덴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때 그것이 유란시아 언어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전에 이 인간 방언을 완전히 터득했으므로, 이 안돈의 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통치자가 자기와 동일한 언어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74:2.3 (829.5) 그리고 그날에는 에덴 전역에 대단한 흥분과 기쁨이 넘쳤고, 연락원들은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소집된 소식 전달용 새들의 집결지로 급히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새들을 놓아줘라; 약속된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비둘기들이 전하게 하라.” 신자{信者}들이 사는 수백 개의 마을은 충실하게, 해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집에서_기른 이 비둘기들을 계속 공급했다.

74:2.4 (829.6) 아담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가까이_있는 수천 명의 부족민이 반과 아마돈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한편으로는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여러 달 동안 계속 몰려들었다.

74:2.5 (829.7) 깨어나자마자, 아담과 이브는 공식 환영행사를 위해서 성전 북쪽 큰 언덕 위로 안내됐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언덕은 본래의 모습보다 더 크게 확장됐고, 새로운 세계 통치자의 취임식을 위해서 준비됐다. 유란시아 환영 위원회는, 사타니아 체계의 이 아들과 딸에 대한 환영행사를 여기서 정오에 가졌다. 아마돈이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위원회는 여섯 개 상익 인종 각각의 대표;중도자들의 실무 지휘관;놏족속의 충성스런 딸이자 대변인인 안난; 동산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의 아들이며, 돌아가신 부친의 계획을 집행한 노아;그리고 두 명의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를 포함해서, 모두 열두 명으로 이뤄졌다.

74:2.6 (830.1) 다음 행사는, 유란시아의 관재인신분 협의회 우두머리인, 선임{先任} 멜기세덱이 행성 관리 책임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는 의식{儀式}이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노라티아덱의 지고자들과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반이 그들을 유란시아 통치자로 선언했는데, 반은 이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결의한 덕분에 15만 년이 넘도록 지녀온 직함에 따른 권세를 양도했다.

74:2.7 (831.2) 그리고 세상 통치자로서 공식 취임을 하는 행사가 있던 이 날, 아담과 이브는 왕의 예복을 입었다. 달라마시아의 모든 기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며;에덴 시대에도 천짜기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다.

74:2.8 (830.3) 그 후에 천사장의 선포가 있었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심판 출석점호가 선언됐으며, 사타니아의 606_번 행성에서 은총과 자비의 두 번째 섭리시대에 속하는

잠자고 있던 생존하는 자들의 부활이 이뤄졌다. 왕자의 섭리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행성 시기인 아담 시대가 소박하지만 웅대한 모습으로 시작됐으며;이 행성에서 권한을 가졌던 전임자의 협조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유란시아의 새 통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됐다.

3.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대해 배움

74:3.1 (830.4)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식 취임식이 끝나게 되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행성이 격리돼 있음을 고통스럽게 자각했다. 익숙했던 방송은 들리지 않았고, 행성외계{行星外界} 소통 회로도 전혀 없었다. 그들의 예루셈 동료들은, 잘_자리잡은 행성 왕자와 경험 있는 참모진, 즉 그런 세계에서 초기에 체험을 겪는 동안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고 그들과 협동할 유능한 참모진이 있는, 순조롭게 운영되는 세계들로 갔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반역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이곳에는 행성 왕자가 매우 자주 등장해서, 비록 악행으로 인해 그의 힘을 대부분 뺏겼더라도, 여전히 아담과 이브의 과제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보름달 아래서, 동산을 거닐며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을 의논하던 예루셈의 아들과 딸은 심각했고 환상에서 깨났다.

74:3.2 (830.5) 아담과 이브는 캘리개스차의 배신으로 혼란되고 고립된 행성인 유란시아에서 첫 날을 그렇게 보냈으며;이 세상에서 지내는 첫 날 밤에, 늦게까지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했다--그리고 무척 외로운 밤이었다.

74:3.3 (830.6) 이 세상에서 아담이 맞은 둘째 날은, 행성 관재인들 및 자문 협의회와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보냈다. 아담과 이브는, 멜기세덱들과 그 동역자들로부터, 캘리개스차 반역에 관한 세부사항과 세상의 진보 과정에 일어난 그 격변의 결과에 관해서 더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실망스런 이야기, 즉 세상의 직무를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긴 설명이었다. 그들은, 사회 진화 과정을 가속화 시키려 했던 캘리개스차의 책략이 완전히 붕괴된 것에 관한 모든 사실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신성한 진보 계획과는 별개로 행성의 향상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어리석다는 것도 충분히 깨닫게 됐다. 슬프기는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가--곧 유란시아에서 둘째 날이-- 이렇게 저물었다.

74:3.4 (831.1)

셋째 날은 동산을 시찰하면서 보냈다. 커다란 여객용{旅客用} 새를--곧 환도르를-- 타고 동산 위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광대하게 뻗어있는 그곳을 내려다봤다. 시찰을 단행한 이 날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이룩하려고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대한 연회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셋째 날 밤늦게까지 동산을 거닐면서 자신에게 닥친 막대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74:3.5 (831.2)

넷째 날에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의 집회에서 연설했다. 그들은 취임식 날 올라갔던 언덕에서, 세계를 재건할 자신들의 계획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죄와 반역의 결과로 추락된 낮은 수준으로부터, 유란시아의 사회적 문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이 날은 대단한 날이었으며, 세상 직무에 대한 새로운 경영을 책임질 남녀를 선정해서 협의회를 만든 기념으로 열린 향연과 함께 끝났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이 집단에 있었다는 사실과, 달라마시아 시대 이후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음을 주목하라! 세상 직무에 대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남자와 함께 나누는 한 여자 이브를 보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혁신이었다. 이 땅에서 넷째 날이 그렇게 끝났다.

74:3.6 (831.3) 다섯째 날은 임시 정부를 조직하는 일로 보냈는데,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게 될 날까지 활동하게 돼 있는 경영진이었다.

74:3.7 (831.4)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의 여러 유형에 대해 조사하면서 보냈다. 에덴의 동쪽 벽을 따라가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위를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 생활을 관찰했고, 그런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거주하는 세계가 처한 혼란된 상태에서 질서를 유도해 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74:3.8 (831.5) 그날 아담과 함께 이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들은, 아담에게 보여준 수천 가지 동물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 아담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모두 크게 놀랐다. 그는 어느 동물을 쳐다보는 순간, 그 본성과 습성을 지적했다. 어떤 물질 피조물이든지 보자마자, 아담은 그 기원, 본성, 및 기능을 묘사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다. 이 시찰 여행에 그를 안내한 자들은, 세상의 새 통치자가 사타니아 전역에서 가장

유능한 해부학자 가운데 하나임을 알지 못했으며;이브 역시 같은 전문가였다. 아담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 무리를 설명함으로써 동역자들을 놀라게 했다.

74:3.9 (831.6) 그들이 이 세상에 머문 후 여섯째 날이 저물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처음으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자신의 새 집에서 쉬었다. 그들은 유란시아 모험 가운데 첫 엿새는 매우 바쁘게 지냈고, 모든 활동에서 벗어나게 될 온전한 하루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대했다.

74:3.10 (831.7) 그러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담이 유란시아 동물의 삶에 대해서 매우 지성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한 바로 전 날 체험은, 그의 훌륭한 취임식 연설 및 그의 멋진 자태와 함께,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고 지능을 압도해 버렸으므로,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셈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로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은 엎드려서 그들을 신{神}으로 숭배할 준비가 돼 있었다.

4. 첫 격변

74:4.1 (832.1)

여섯째 날 밤에,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에덴 중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성전 부근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거기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수백 명의 열광하고 흥분한 남녀가, 자기네 지도자들이 열정적으로 부탁하는 소리를 여러 시간 경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좋은 뜻을 가졌지만, 새로운 지도자들의 다정스런 소박함과 민주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세상 직무를 맡아 볼 새롭게 구성된 정부 각료들은,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너무 겸손하고 신중하다는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신성{神性}이 육체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 즉 아담과 이브가 실제로 신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숭배 대상이 될 만한 신분이라고 결정했다.

74:4.2 (832.2)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와서 엿새 동안 보여준 놀라운 사건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는 감당키 힘들 정도였으며;따라서 그들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으며;결국 그들은, 그 고귀한 쌍을 그날 정오에 아버지 성전에 모셔놓고, 경배의 절을 올리고, 복종의

서약을 하자는 제의에, 한결같이 동조했다. 동산 거주자들은 이 모든 일에 정말로 진지했다.

74:4.3 (832.3) 반은 반대했다. 아마돈은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그들을 호위할 책임으로 아담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반의 주장은 거부됐다. 사람들은 반 역시 너무 겸손하고, 조금도 주제넘지 않은 사람이며;그 역시 신{神}에 가까운 자라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땅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아담의 도래를 위한 그런 위대한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열광하는 에덴 주민이, 반을 붙잡아서 언덕 위에 모셔놓고 경배하려 하자, 반은 중도자들과 연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중 틈에서 벗어나서 중도자들의 지도자를 급히 아담에게 보냈다.

74:4.4 (832.4)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일곱째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좋은 뜻을 갖기는 했지만 잘못 인도된 이 필사자들이 제안한 것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며;그때, 여객용 새들이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속히 날아오고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중도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성전으로 옮겼다. 그것은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벌어졌는데, 아담은 환영식을 개최했던 언덕으로 올라가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계층들에 관해 군중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경배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아담은, 어떤 명예든지, 그리고 어떤 존경이든지 받아들이겠지만, 경배만큼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74:4.5 (832.5) 그날은 중대한 날이었으며, 정오 직전에, 그 세계 통치자들의 취임을 예루셈이 인정한다는 허가서를 스랍 연락원들이 갖고 도착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군중으로부터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다:“자, 너희는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현존을 물질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께 경배하고 절하라. 그리고 이 행위를,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다시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서약으로 삼아라.” 그들은 모두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물질 아들과 딸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옆드려 절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둘이서만 언덕에 서 있었다.

74:4.6 (832.6)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 전통의 기원이 됐다. 에덴에서 7일째 되는 날은 언제나 정오에 성전 집회로 모였고, 그날을 자기 수양의 날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전해졌다. 오전에는 신체 단련으로 보냈고, 정오에는 영적 경배를 드렸으며, 오후에는 마음을 수양하고, 저녁에는 함께 어울려서 즐겼다. 에덴에서 이것이 법으로 확립된 적은 없었지만, 아담의 경영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관습으로 지켜졌다.

5. 아담의 경영

74:5.1 (833.1)

아담이 도착한 후로 거의 7년 동안,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임무 수행을 위해 남아있었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들은 세상 직무의 경영을 아담에게 맡기고 예루셈으로 돌아갔다.

74:5.2 (833.2)

관재인들의 작별 인사가 하루 종일 계속됐고, 저녁에는 각 멜기세덱이 자기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충고와 최고의 희망사항을 아담과 이브에게 전했다. 아담은 자문가들에게 자기와 함께 이 세상에 머물 것을 여러 번 요청했었지만, 그 청원은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이 물질 아들이 세계 직무를 이끌어갈 모든 책임을 맡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사타니아 스랍 운송선이 한 밤중에 열네 명의 존재를 태우고 행성을 떠나 예루셈으로 갔고, 반과 아마돈을 옮기는 것도 열두 명의 멜기세덱이 출발함과 동시에 일어났다.

74:5.3 (833.3) 유란시아에서는 한동안 모든 것이 무난하게 진행됐고, 아담이 결국에는 에덴의 문명을 점차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어떤 계획을 시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멜기세덱들의 충고에 따라서, 외부 세계들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으로, 제조업 기술을 육성시키기 시작했다. 에덴이 몰락했을 당시에, 100개 이상의 원시 제조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으며, 인근에 있는 부족{部族}들과의 광범한 무역관계가 수립돼 있었다.

74:5.4 (833.4) 아담과 이브는, 진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특화된 기여를 준비하려고, 세상을 개선하는 기법을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았었지만;이제는 미개인, 야만인, 그리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 같은,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동산에 모인, 지구{地球}의 주민 중에서 정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조금이라도 돼 있는
집단은 여기저기에 겨우 몇 개밖에 없었다.

74:5.5 (833.5) 아담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영웅적이고
단호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 번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아담은 이미 에덴 전역에서 하나의 집단 통제 체계를
작동시켜 놓았고, 이 모든 무리를 에덴의 연맹체제에
속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동산 밖의 세계로 나가서, 이
생각을 이방 부족들에게도 적용시키려 하자, 심각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아담의 동역자들이 동산
외부{外部}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의 잘 계획된 직접 저항에 곧
부딪혔다. 몰락한 왕자는, 세계 통치자로서의 지위는
박탈됐지만, 아직 이 행성에서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땅에 여전히 있었고, 인간 사회를 부흥시키려는 아담의
모든 계획에,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 아담은, 캘리개스차를 대항하도록 부족들에게
경고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대적{大敵}이 필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과제는 무척 어려웠다.

74:5.6 (833.6) 심지어 에덴 사람 가운데서도,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캘리개스차의 가르침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혼동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아담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켰으며; 질서 있게 진보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담이 짜놓은 최상의 계획을 항상 뒤엎었다. 마침내 그는 즉각적인 사회화를 위한 자신의 계획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이 조직했던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에덴 주민을 100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편성했고, 각 집단마다 지휘관을 뒀으며, 열 명의 모임마다 보좌관을 뒀다.

74:5.7 (834.1) 아담과 이브는, 군주제{君主制}를 대체하는 대의정부를 설립하게 돼 있었지만, 온 지구상에서 그 이름에 어울릴만한 어떤 정부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담은 대의정부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을 당분간 포기했으며, 에덴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거의 100개에 이르는 외부의 무역 및 사회 중심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는데, 중심지마다 강력한 개인이 아담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이 중심지들 대부분은, 반과 아마돈이 전에 조직한 것이었다.

74:5.8 (834.2)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대사를 파견하는 일이, 아담 시대부터 생겨났다. 이것은 정부의 진화에서 큰 진전이었다.

6. 아담과 이브의 가정생활

74:6.1 (834.3) 아담 가족의 주거지는 5평방 마일을 약간 넘었다. 이 택지{宅地}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구역은, 순수 혈통을 지닌 자손을 3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입안된 건물 중에서 지금까지 오직 첫째 단위의 건물들만 건축됐다. 아담 가족의 수요가 이런 초기 설비보다 더 많아지기 전에 에덴의 계획 전체가 파괴됐고, 동산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

74:6.2 (834.4) 아담선은 유란시아의 보라색 인종 중에서 첫_태생이었고, 그 밑으로 누이동생이 태어났으며,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 이브선이 태어났다. 멜기세덱들이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이브는 다섯 자녀의--곧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됐다. 두 딸은 쌍둥이였다. 이브는 직무에 태만하기 전까지 모두 6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2명의 딸과 31명의 아들이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은 4대를 이뤘고, 순수_혈통 자손의

숫자는 1,647명에 달했다. 그들은 동산을 떠난 후에도 마흔두 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그 외에 이 세상 필사자 혈통과 결합해서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낫죽속 및 진화 인종들로 이어지는 아담 혈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74:6.3 (834.5) 아담의 자녀는 생후 1년이 지나서 엄마 젖을 뗀 후에도, 동물에서 나온 우유를 먹지 않았다. 이브는 젖을 뗀 후에 여러 종류의 견과류 유액{乳液}이나 여러 가지 과일 즙을 먹었는데, 이 음식의 에너지와 화학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가 전부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먹었다.

74:6.4 (834.6) 에덴에서 아담의 주거지역 밖에서는 익혀먹기가 널리 이용된 반면, 아담의 가족 중에서는 익혀서 먹지 않았다. 그들은 충분히 여문 것들로--곧 과일, 견과류, 및 곡류로-- 자신의 음식을 마련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직후에 식사를 했다. 또한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의 효력과 연관되는 특정한 공간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섭취했다.

74:6.5 (834.7) 아담과 이브의 육체는 희미한 빛을 발산했지만, 그들은 항상 동역자들의 관습과 비슷하게 옷을 입었다. 낮 동안에는 아주 조금만 입었고, 황혼 무렵에는 밤 외투를 걸쳤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나타낼 때, 머리 뒤로 둥그렇게 둘러싼 후광{後光}을 표현하는 전통은, 그 기원이 아담과 이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가 옷으로 가려졌으므로, 오직 머리 둘레에서만 광채를 볼 수 있었다. 아담선의 후손은, 영적 성장에서 비범하다고 믿어지는 개인들에 대한 개념을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74:6.6 (834.8) 아담과 이브는, 약 50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서로, 그리고 직계 후손들과도, 즉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 전달은, 그들의 대뇌 구조물에 아주 근접해 있는 섬세한 공기 주머니들을 이용함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이 기법{技法}으로 생각의 진동{振動}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정신이 악의 불협화음과 분열에 굴복하는 즉시 정지됐다.

74:6.7 (835.1) 아담의 자녀는,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연장자가 동생을 가르치는 그들 자체 학교에 다녔다. 어린아이들은

매 30분마다 활동을 바꿨고, 조금 나이가 든 아이들은 한 시간마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이 순전히 재미를 위해 즐겁고 신나는 활동에 빠져있는 모습은, 유란시아에서 확실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오늘날 인종들의 놀이와 유머는 주로 아담의 혈통에서 유래됐다. 아담족속은 모두 예리한 유머 감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74:6.8 (835.2) 약혼하는 평균 연령은 열여덟 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젊은이들은 부부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로, 2년간의 훈육 과정에 들어갔다. 그들은 스무 살이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결혼 후에는 생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위해서 다른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다.

74:6.9 (835.3) 후대의 어떤 나라들에서, 신들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왕족{王族}은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했는데, 이 전통은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유래됐다--그렇게 서로 결합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했다. 동산에서 첫째 세대와 둘째 세대의 결혼 예식은, 반드시 아담과 이브가 주관했다.

7. 동산의 생활

74:7.1 (835.4) 아담의 자녀는, 서쪽에 있는 학교에 4년 동안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들은, 예루셈 학교의 방식에 따라서,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지적{知的}으로 훈련받았다. 열여섯 살에서 스무 살까지는, 동산 반대쪽 끝에 있는 유란시아 학교에서 배웠는데, 거기서는 비교적 낮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선생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74:7.2 (835.5) 동산 서쪽에 있는 학교 체계의 전체적인 목적은 *사회화{社會化}*였다. 휴식이 있기 전의 오전{午前} 수업시간에는 원예업과 농업 실습으로 보냈고, 오후 수업시간에는 경쟁하는 놀이를 했다. 저녁시간은 사회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연마하는 데 이용됐다. 종교 및 성{性} 교육은, 가정의 직분, 즉 부모의 의무로 간주됐다.

74:7.3 (835.6) 이 학교들의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포함됐다:

74:7.4 (835.7) 1. 건강과 몸을 돌보는 일.

74:7.5 (835.8) 2. 황금률{黃金律}, 즉 사회 교제의 표준.

74:7.6 (835.9)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무.

74:7.7 (835.10) 4. 이 세상의 여러 인종의 역사와 문화.

74:7.8 (835.11) 5.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방법.

74:7.9 (835.12) 6. 임무와 감정의 갈등을 조정하기.

74:7.10 (835.13) 7. 오락, 유머, 그리고 육체적 싸움을 대신하는 경쟁체제를 양성함.

74:7.11 (835.14) 사실상 동산의 모든 활동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는, 방문자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참관인이 에덴을 잠깐 방문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됐다. 유란시아인이 동산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양돼야만” 했다. 그는 아담의 증여가 갖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교육받았고, 이 사명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그 다음에는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주권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74:7.12 (836.1) 동산의 법률은 달라마시아의 옛 규범에 기초를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제목을 중심으로 선포됐다:

74:7.13 (836.2) 1.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률.

74:7.14 (836.3) 2. 동산의 사회 규칙.

74:7.15 (836.4) 3. 무역과 상업에 관한 규범.

74:7.16 (836.5) 4. 공정한 경기와 시합에 관한 법률.

74:7.17 (836.6) 5.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

74:7.18 (836.7) 6. 황금률에 관한 시민 규범.

74:7.19 (836.8) 7. 최상의 도덕적 규정인, 일곱 가지 계명.

74:7.20 (836.9) 에덴의 도덕규범은 달라마시아의 일곱 계명과는 약간 달랐다. 그러나 아담족속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여러 추가적 이유를 가르쳤는데;예를 들면,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추가적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주{內住}하는 사고 조율사를 제시했다. 그들은:"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마다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74:7.21 (836.10) 에덴의 대중 경배 시간은 정오였고;해 질 무렵은 가족 경배 시간이었다. 아담은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온전히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혼의 열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에덴 주민은 달라마시아 시대부터 전해온 기도문과 형식을 계속 사용했다. 또한 아담은, 종교 예식에서 피 흘리는 제물 대신 땅에서 난 과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동산이 몰락할 때까지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74:7.22 (836.11) 아담은 남녀평등을 인종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브가 남편과 나란히 함께 일하는 모습은 동산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아담은,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생명 요소를,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때까지 인류는, 모든 생식력이 “아버지의 허리” 속에 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어머니는 단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태어난 뒤에는 기르는 역할만 할뿐이라고 생각했다.

74:7.23 (836.12) 아담은 당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인종들 가운데

비교적 영리한 사람들은, 우수한 보라색 인종 자손과 서로 결혼이 허락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다. 인종을 향상시키는 이 위대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유란시아는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됐겠는가! 심지어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도, 진화하는 민족들이 우연히 간직하게 된, 외계로부터 도래한 이 인종의 소량의 피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74:7.24 (836.13) 이처럼 아담은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이런 뒤섞이고 잡다한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8. 창조설화

74:8.1 (836.14) 6일 만에 유란시아가 창조됐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시찰하기에 6일 걸렸던 사건에 근거했다. 이런 상황은, 원래 달라마시아인이 소개했던 1주일이라는 기간에, 거의 신성시되는 구속력을 더했다. 아담이 동산을 시찰하고 조직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6일을 소비한 것은, 미리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하루하루 일하다보니 그렇게 됐던 것이다.

그리고 제 7일을 경배의 날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서술한 사실들에 따라서 일어난, 전적으로 우연한 것이었다.

74:8.2 (837.1)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설은, 사실, 이때로부터 3만 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인, 해와 달이 갑자기 생겼다는 일화는, 아마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리고 있던, 미세한 물질로 이뤄진 짙은 공간 구름으로부터 세계가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한때의 전통에서 기원된 것처럼 보인다.

74:8.3 (837.2)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담이 도착한 것과, 45만년보다 더 전에,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이 온 것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물질을 교환하는 천상{天上}의 수술을 받은 것과 뒤섞여 혼동되면서, 잘못 결합된 것이다.

74:8.4 (837.3) 세상사람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는 즉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육체 형상을 입었다는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은, 동반구{東半球}에서 거의 보편적이었으며;이 전통은 필리핀 군도{群島}부터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집단이, 점진적으로 창조됐다는--곧 진화했다는-- 초기의 믿음 대신, 사람이 어떤 특별 창조 형식으로 진흙에서 기원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74:8.5 (837.4)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져서, 인류는 인간 종족이 점차 향상됐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라는 사실은 현대에 발견된 것이 아니며; 옛 사람들은 인간 진보의 느린 진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다. 초기 그리스인은 메소포타미아에 근접해 있었는데도, 이런 사실에 대해 확실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의 진화 개념이 딱할 정도로 뒤죽박죽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많은 원시 부족은 자신이 여러 가지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그렇게 가르쳤다. 원시 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동물을 "토템"으로 선택했다. 어떤 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이 비이버 또는 늑대로부터 생겨났다고 믿었다. 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자신이 하이에나로부터, 한 말레이 종족은 여우원숭이로부터, 한 뉴기니아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친다.

74:8.6 (837.5) 바빌로니아인은 아담족속 문명의 잔재와 직접 접촉했으므로, 인간 창조 이야기를 확대시키고 미화시켰으며;그들은 아담이 신{神}들의 직계 후손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그 인종이 귀족에서 기원됐다고 고집했는데, 이는 진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교리와도 모순됐다.

74:8.7 (837.6) 구약 성경의 창조 설화{說話}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에 나왔으며;모세는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히브리인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에 관한 간단하고 함축된 이야기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창조주이신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하라고 호소할 때 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74:8.8 (837.7) 모세는 자신의 초기 교훈에서 매우 현명하게도, 아담의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모세는 히브리인의 최고 스승이었으므로,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창조 설화와 밀접하게 결합됐다. 더 초기의 전승이 아담_이전{以前}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대 이전의 인간사{人間事}에 관한 모든 언급을 없애버리려고 의도했던 후세의 편집자들이, 가인이 “놋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아내를 취했다는, 내막을 드러내는 언급을 무심코 넘겨 버리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74:8.9 (838.1) 히브리인은 팔레스틴에 도착한 후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블레셋족속으로부터 알파벳 사용법을 배웠는데, 그들은 더 높은 문명권인 크레테에서 정치적으로 피신한 사람이었다. 히브리인은 기원전 약 900년이 될 때까지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그런 후대까지도 문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창조 설화가 유포돼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변경된 메소포타미아 역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74:8.10 (838.2) 유대인 전통이 모세를 중심으로 구체화 됐으며,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추적해서 아담에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가정했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은

첫 사람으로 간주됐으므로, 야훼가 아담을 만들기 직전에 세상을 창조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6일 전통이 하나의 설화로 섞여 들어갔는데, 그 결과로, 모세가 땅에 머문 지 거의 1,000년이 지난 후에, 6일 창조 전통이 글로 기록됐고, 나중에는 모세가 그 글을 썼다고 공적을 돌렸다.

74:8.11 (838.3)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만물의 시작에 관한 설화의 기록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곧, 이 이야기는 최근에 발견된, 모세가 기록한 창조 기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원전 500년 무렵에, 당시의 유대인은, 이 문헌들이 나중에 신성한 계시로 여겨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며; 후세의 민족들이 그것을 신화 같은 설화 정도로 여기리라고 생각했다.

74:8.12 (838.4) 모세의 교훈이라고 평판이 난 이 위조문서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리스인 왕 프톨레메우스의 관심을 끌게 됐고, 그는 70명의 학자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자신의 새 도서관을 위해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성서{聖書}”라는 수집된 작품 가운데 일부가 되는 문서들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 동일시됨으로써, 그런 개념들은 오랫동안 여러 서양 민족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74:8.13 (838.5) 그리스도교 교사들은, 명령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믿음을 영구화시켰으며,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유토피아처럼 행복을 누렸던 한때의 황금기에 대한 가설{假說}이 형성됐고, 유토피아가 아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사람 또는 초인{超人}이 타락한 탓으로 돌리는 이론이 직접 형성됐다.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서 사람의 처지에 대한 이런 관점은, 기껏해야 낙담하게 만들 뿐이었는데, 왜냐하면 행성 경영자들이 저지른 한때의 실책들 때문에, 이를 징벌하려고 인류에게 진노를 퍼붓는, 복수심에 불타는 신격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진보하기보다 오히려 퇴보한다는 믿음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74:8.14 (838.6) “황금기”는 신화{神話}이지만, 에덴은 사실이었으며;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멸망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17년 동안 끈기 있게 견뎠지만, 그

당시에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판단 실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정된 길에서 감히 벗어났으며, 자신들은 신속하게 재난에 처하게 됐음은 물론, 파멸을 초래할 만큼, 온 유란시아의 발전적 진행을 지연시켰다.

74:8.15 (838.7)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제75편 아담과 이브의 태만

75:0.1 (839.1) 아담은 유란시아에서 100년 이상 수고한 후에도, 동산 바깥 세상에 진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세상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인종 개량의 실현은 먼 길처럼 보였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본래 계획에 없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이런 생각이 아담의 마음에 종종 스쳐갔고, 그는 이브에게 자신의 심정을 여러 번 고백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충성스러웠지만, 자신의 족속으로부터 고립됐고, 자신이 맡은 세계의 유감스런 처지로 인해 몹시 힘들어했다.

1. 유란시아의 문제

75:1.1 (839.2)

실험 중이고, 반역으로_피폐되고,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이행업무가 아니었다. 그리고 물질 아들과 딸은 자신의 행성 임무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들은 산적한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에 용기 있게 착수했다. 그러나 결함과 퇴보된 부분들을 인간 종족들 가운데서 제거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업무에 그들이 막상 뛰어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 그들은 그 궁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예루셈이나 에덴시아에 있는 상관{上官}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고립됐고,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문제와 매일 부딪혔는데,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75:1.2 (839.3)

정상 조건에서는, 행성 아담과 이브가 협조해서 인종들의 피를 섞는 것이 첫째 업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는 그런 기획이 가망 없는 듯 했는데, 인종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적당했지만, 그들 중에서 뒤떨어지고 결함 있는 혈통들을 제거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75:1.3 (839.4) 아담과 이브는, 사람의 형제관계를 선포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구체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됐는데, 이 구체는 비참한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전에 있었던 경영진의 사명이 실패함으로 인해 더 악화된 혼란으로 저주받은 세계였다. 정신과 도덕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종교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시작하는 대신에, 주민들을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종교적 신념으로 전향시키는 업무를, 모두 새로 시작해야만 했다. 채택하기에 알맞은 한 가지 언어를 발견하는 대신에, 아담과 이브는 수백 가지 지방 방언을 사용하는, 전_세계적 혼동에 직면했다. 행성에서 봉사하는 어떤 아담도, 이보다 더 어려운 세계에 내려온 적이 없었을 것이며;장애물은 넘기 힘들어 보였고, 문제는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75:1.4 (839.5) 그들은 고립됐고, 그들을 짓누르는 엄청난 고독감은, 멜기세덱 관재인들마저 일찍 떠나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더욱 심하게 임했다. 겨우 간접적으로, 천사 계층을 이용해서, 그들은 행성 밖의 어떤 존재든지 교류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서서히 약해졌으며, 영은 시들었고, 때로는 신앙마저 거의 넘어질 정도였다.

75:1.5 (840.1) 그리고 이상{以上}이, 자신 앞에 부닥친 과제들을 고려할 때마다, 이 두 고상한 혼들의 당황스런 실제 모습이었다. 그들은 둘 다, 행성에서 받은 임무의 실행과 관련된 이행업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민하게 자각했다.

75:1.6 (840.2) 어쩌면 네바돈의 어떤 물질 아들도, 유란시아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닥친 곤경 같은, 어려움과 절망적 과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지력과 *인내심*을 갖고 임했더라면, 언젠가는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특히 이브는 참을성이 너무 부족했는데; 그들은 오래 견디는 시험에 차분히 임하기를 싫어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 했고, 또한 봤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는 자신들뿐 아니라 그 세계에 대단히 비참했음이 판명됐다.

2. 캘리개스차의 계략

75:2.1 (840.3) 캘리개스차가 동산을 자주 방문했고, 아담과 이브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아담과 이브는 그가 제안하는 타협안과 지름길처럼 보이는 모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모든 간사한 제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면역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반역의 결과들이 그들 앞에 충분히 있었다. 아담의 어린 자녀들조차, 달리개스차의 제안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캘리개스차 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도, 아담의 자녀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도록 설득하기는커녕, 어떤 개인에게도 그 자신의 뜻을 거슬러 영향을 줄 힘이 없었다.

75:2.2 (840.4) 캘리개스차가 여전히, 유란시아의 유명무실한 행성 왕자, 즉 잘못 인도됐지만 그럼에도 지방우주의 높은 아들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 그리스도 미가엘이 왔을 때가 돼서야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쫓겨났다.

75:2.3 (840.5) 그러나 타락한 왕자는 집요하고 단호했다. 그는 곧 아담을 직접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이브에게 교활한 측면 공격을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악한 자는, 한때 자신의 육체전환_참모 동역자들의 후손인, 낯죽속 집단의 상류 계층 중에서 기민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보라색 인종의 어머니를 적절하게 함정에 빠뜨렸다.

75:2.4 (840.6) 아담의 계획에 반대하거나, 그들의 행성 책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저지를 의도가 이브에게는 전혀 없었다. 훨씬 광범한 효과를 위해서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선호하는 여자들의 경향을 알았으므로, 멜기세덱들은 떠나기 전에, 행성의 고립된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에 관해 이브에게 각별히 주의를 줬고, 그녀의 반려자 곁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상호적인 이행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이거나 혼자 비밀을 지키는 어떤 일도 시도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했다. 이브는 이 지침을 100년 이상 아주 면밀하게 지켜나갔고, 세라파타샤라는 이름의 어느 낯죽속 지도자의 방문을, 점점 더 사적{私的}이고 은밀하게 즐기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위험스런 일도 그녀에게 발생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일이 너무나 서서히 자연스럽게 발전돼 갔으므로, 그녀도 눈치 채지 못했다.

75:2.5 (840.7) 동산 거주자들은 에덴의 초기 시절부터 낯죽속과 접촉해왔었다. 그들은 캘리개스차의 참모진에서 태만한 요원들의 혼합된 이 후손들로부터, 많은 가치 있는 도움과

협조를 받았지만, 에덴의 체제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완전한 작동불능과 최종 멸망을 맞이하게 됐다.

3. 이브를 유혹함

75:3.1 (841.1)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세라파타샤가, 낫족속 부족들의 서부 연맹, 즉 시리아 연맹의 지도자가 됐을 때, 아담은 이 세상에서 처음 100년을 방금 마침 후였다. 세라파타샤는 갈색 피부의 남자였는데, 먼 옛날 청인종의 여자 족장 가운데 하나와 결혼한, 한때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의 영리한 후손이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가문{家門}이 권력을 잡았고, 서쪽에 있는 낫족속 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75:3.2 (841.2) 세라파타샤는 동산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아담의 대의명분이 정당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시리아에 있는 낫족속의 지도자가 된 후에 곧,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일에 제휴할 뜻을 표명했다. 그의 백성 가운데 대다수가 이 계획표에 그와 함께 참여했고, 아담은 모든 이웃 부족 중에서 가장 힘 있고 영리한 부족이, 세상의 개선을 위한 계획표에 헌신적 후원을 맹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는데;그것은 확실히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사건 직후에, 세라파타샤와 그의 신임 참모들이 아담과 이브의 집에서 환대 받았다.

75:3.3 (841.3) 세라파타샤는 아담의 부관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는 아주 정직했고, 자신의 모든 활동에서 철저히 성실했으며; 교활한 캘리개스차의 부수적 도구로 자신이 이용되고 있었음을 나중에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75:3.4 (841.4) 이윽고 세라파타샤는 부족 간 관계에 관한 에덴 위원회의 부의장이 됐고, 먼 곳의 부족들을 참여시키는 업무에서, 동산의 노선을 따라 좀 더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다.

75:3.5 (841.5) 그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특히 이브와--많이 논의했고, 자신들의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계획을 의논했다. 하루는 그가 이브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문득 매우 효율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보라색 인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대기하고 있는 결핍된 부족들을 즉시 진보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하리라는 것이었다. 세라파타샤는, 만약 가장 진취적이고 협동적인

인종인 낫족속이, 보라색 혈통에서 일부 기원된 어떤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면, 이 민족들이 동산에 더 가깝게 묶어주는 강력한 끈을 성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 아이가 동산에서 자라고 교육받아서, 자기 아버지 민족에게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사심 없이 했다.

75:3.6 (841.6) 세라파타샤가 아주 정직했고, 그가 제안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진지했음이 다시 강조돼야만 하겠다. 그는 캘리개스차와 달리개스차의 손에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세라파타샤는 유란시아의 혼란스런 사람들을 전{全}세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보라색 인종을 축적하려는 계획에 전적으로 충성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달성하기까지 수백 년 세월이 요구됐고, 그는 참을성이 부족했으므로 --자신의 생전에 뭔가 이뤄지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원했다. 그는 세상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성취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때문에 아담이 자주 용기 잃고 있음을 이브에게 확인시켰다.

75:3.7 (841.7) 5년이 넘도록, 이 계획이 비밀스럽게 무르익어 왔다. 마침내 그들은, 인근의 우호적인 낫족속 식민지에서 가장 현명하고 활동적 지도자인 가노와 이브가 비밀 회담을 갖는데 동의하게 되기까지 발전했다. 가노는 아담 체제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이었으며;사실 그는 동산과의 우호관계를 갖는 데 찬성하던, 이웃 낫족속의 영적 지도자였다.

75:3.8 (842.1) 어느 가을 저녁 황혼 무렵에 몇 시간 동안, 아담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치명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이브는 아름답고 정열적인 가노를 전에는 만나 적이 없었다--그리고 그는 행성 왕자의 참모진에 속하는 먼 선조 가운데서, 우수한 신체와 뛰어난 지능을 이어 받은 훌륭한 표본이었다. 가노 역시 세라파타샤가 제시한 계획의 정당성을 철저히 믿었다. (동산 밖에서는 복수{複數}의 짝짓기가 통상적 관행이었다.)

75:3.9 (842.2) 달콤한 말, 열정, 및 대단한 개인적 설득력에 자극받은 이브는 그때 거기서, 여러 번 논의해 왔던 계획에 착수할 것과, 더 크고 더 널리_미치는 신{神}의 계획에,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녀 자신의 작은 책략을 덧붙이기로

동의했다. 그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운명의 발걸음은 시작됐다. 그 일은 이뤄졌다.

4. 태만했음을 깨달음

^{75:4.1 (842.3)} 행성에 있던 천상의 생명체가 동요했다. 아담은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리고, 이브에게 동산에서 자기 옆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은,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즉:세라파타샤의 계획사업을 이행하는 동시에 신의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상의 개선을 가속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계획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됐다.

^{75:4.2 (842.4)} 그리고 물질 아들과 딸이 달빛 어린 동산에 함께 있을 때, "동산의 소리"가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에덴의 쌍에게, 그들이 동산의 서약을 어겼음;멜기세덱들의 지시사항을 어겼음;그리고 우주 주권을 신뢰하겠다고 한 그들의 맹세를 이행하는 데 태만했음을, 바로 나 자신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75:4.3 (842.5)} 이브는 선{善}과 악{惡}의 실행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선이란 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고;죄란 신의

뜻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악이란, 계획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기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주의 부조화와 행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75:4.4 (842.6)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마다, 동산의 쌍은 선과 악을 결합시키려는 캘리개스차의 제의에 따르지 말라고, 수호천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훈계 받았다:“너희가 선과 악을 혼합하는 날, 너희는 반드시 그 영역의 필사자가 될 것이며;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75:4.5 (842.7) 이브는 비밀리에 만난 치명적인 날에, 자주 반복됐던 이 경고를 가노에게 말했지만, 가노는 그런 경고의 중요성이나 의미심장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남녀가 선한 동기와 진실한 의도로 만나는 것은 악이 될 수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으며;그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 자손의 몸에서 새롭게 살 것이며, 그 자손들은 성장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평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75:4.6 (842.8) 비록 신의 계획을 변경시킨 이런 기획이, 전적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오직 세상의 복지를 위한 가장 고상한

동기로 실행됐더라도, 그것이 악을 성립시켰는데, 정당한 목적을 이루려고 잘못된 방식을 주장했기 때문이고, 옳은 방법, 즉 신의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75:4.7 (843.1) 이브가 가노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며, 이브는 자신을 속인 자가 “인간사{人間事}에 관해서 새롭고 확대된 지식을 얻고, 인간 본성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아담의 본성을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약속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았다.

75:4.8 (843.2) 이런 슬픈 상황에서,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날 밤 동산에서 보라색 인종의 아버지 및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어머니 이브가 태만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됐고, 그런 후에 당면한 상황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두 사람에게 해 줬다. 그들은 이 충고 가운데 어떤 것은 지켰고 어떤 것은 무시했다. 너희가 읽는 기록에서는 이 논의가, “주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적혀 있다.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이거나 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신들이

직접 친히 개입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 후세{後世} 사람들의 풍습이었다.

5. 태만의 영향

75:5.1 (843.3) 이브가 꿈에서 깨어난 모습은 정말로 애처로웠다. 아담은 모든 상황을 깨달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탄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반려자{伴侶者}에 대하여 오직 연민과 동정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75:5.2 (843.4) 이브가 과오를 저지른 다음 날, 아담은 실패를 인식한 좌절감 속에서, 동산의 서쪽 학교 책임자로 있는 늦죽속의 현명한 여자 라오타를 찾아갔고, 그는 계획적으로 이브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아담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었으며;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알았는데;이브의 파멸을 공유하기 위해서 고의로 선택했다. 그는 초인적 애정으로 반려자를 사랑했고, 이브 없이 혼자서 유란시아를 지켜야 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75:5.3 (843.5) 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동산 거주자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화가 나서 자제할 수 없었으며;인근에

있는 늦속속 정착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에덴의 문들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습격했고, 완전히 섬멸했다--남녀는 물론 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가인의 아버지, 가노 역시 죽었다.

75:5.4 (843.6)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자, 세라파타샤는 당황해서 몸둘바를 몰랐고, 죄책감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날 큰 강에 몸을 던졌다.

75:5.5 (843.7) 아담이 30일간 홀로 방랑하는 동안에, 그의 자녀들은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심판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아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75:5.6 (843.8) 미혹된 부모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죄 없는 자녀에게도 종종 영향을 미친다. 아담과 이브의 정직하고 고귀한 아들과 딸들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자비하게 자신들에게 몰아닥친 믿을 수 없는 비극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파묻혔다. 50년이 지나도, 비교적 나이든 자녀들은, 그 비극의 날들의 비탄과 슬픔, 특히 아버지가 집을 비운 30일 동안 체험했던 공포에서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때 괴로워하던 어머니는, 남편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75:5.7 (843.9) 그리고 바로 그 30일이, 이브에게는 몇 년처럼 긴, 슬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이 고상한 영혼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슬픔이라는 고난의 영향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후일에 그들이 겪게 되는 궁핍과 물질적 고난의 모습은, 이브의 기억에 새겨진 그 끔직한 나날, 그리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의 무시무시한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브는 세라파타샤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알게 됐으나, 남편에 대해서는, 그가 슬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과오에 대한 대가{代價}로 세상에서 제거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아담이 돌아왔을 때 이브가 느꼈던 충만한 기쁨은, 이후에 함께 겪은 어렵고 긴 세월의 고난을 지우고도 남을 정도였다.

75:5.8 (844.1)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브가 직무에 태만한 후로 70일이 될 때까지, 아담은 자신들의 위법의 본질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때 멜기세덱 관재인들이 유란시아로 돌아와서 세상 직무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자신들이 실패했음을 알게 됐다.

75:5.9 (844.2)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졌는데:에덴 근처에 있는 낫족속 정착민이 학살됐다는 소식이, 북쪽 세라파타샤의 고향 마을에 전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동산으로 진군해 왔다. 이것이 바로, 아담족속과 낫족속 사이에 있었던 길고 쓰라린 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아담과 그 추종자들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운 두 번째 동산으로 이주한 뒤로도, 이 적대감이 오래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 그리고 그의 씨와 그 여자의 씨 사이에” 강렬하고 지속되는 불화가 있었다.

6.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남

75:6.1 (844.3) 낫족속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담은 멜기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그에게 조언하기를 거절했으며,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어떤 진로의 결정이든지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75:6.2 (844.4) 아담은 자신과 이브가 실패했음을 알았는데;멜기세덱 관재인들의 출현으로 그것을 알게 됐지만, 개인 신분이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자기 지도자를 따르기로 맹세한, 약 1,200명의 충성스런 추종자와 밤새워 논의했고, 이 나그네들은 다음 날 정오에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에덴을 떠났다. 아담은 전쟁을 싫어했고, 따라서 늦죽속과 부딪히지 않도록, 첫 번째 동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75:6.3 (844.5) 에덴의 행렬은 동산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예루셈으로부터 스랍 운송선들이 도착했으므로 멈추게 됐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처음 알게 됐다. 운송선들이 멈춰있는 동안, 선택할 나이(20세)에 도달한 자녀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노라티아덱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 가운데 3분의 2는 에덴시아로 가기로 선택했고, 약 3분의 1은 부모와 함께 머물기로 결정했다. 선택할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는 모두 에덴시아로 옮겨졌다. 이 물질 아들과 딸이 자녀들과 이별하는 슬픈 장면을 보면서, 법을 어긴 자의 길이 고됨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의 이 자손들은 지금 에덴시아에 있지만;우리는 그 후에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75:6.4 (844.6) 슬프고 슬픈 행렬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겠는가! 그토록 고귀한 희망을 품고 한 세계에 와서 성대하게 영접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불명예스럽게 에덴을 떠나야 했으며, 게다가 새 거주지를 찾기도 전에, 자식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다니!

7. 아담과 이브의 강등

75:7.1 (845.1) 에덴의 행렬이 길을 멈춘 동안,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 본질에 대해 통고받았고, 또한 자신의 운명에 관한 충고도 들었다.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 평결은 이랬다: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직무에

태만했으며;이 인간거주 세계 통치자로서 피신탁인 계명을 위반했다고 판결한다.

75:7.2 (845.2) 죄책감으로 침울해 있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우주 정부를 모욕한 죄”에 참여했다는 모든 혐의로부터는 방면된다는 살빙톤 심판관들의 판결문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반역죄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75:7.3 (845.3) 에덴의 부부는, 자신이 그 영역의 필사자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과;이 세상 인종의 미래가 곧 자신의 미래임을 내다보면서, 이후로는 유란시아의 남녀처럼 살아야만 한다고 통지를 받았다.

75:7.4 (845.4)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을 떠나기 오래 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교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의 계획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었다. 나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경고했는데, 나는 그들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행성 사명의 이행에 태만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결과, 즉 징벌로써 그들이 필사자 육신의 신분으로 떨어질 것임을 말해줬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태만에 수반하는 결과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아들신분에 속하는 물질 계층의 불멸 상태에 대한 납득이 필수적이다.

75:7.5 (845.5) 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영의 정신_인력 회로와 지적{知的}으로 결합함으로써 불멸 상태를 유지한다. 정신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 자양물이 끊어지면, 피조물의 실존이 어떤 영적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불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육체가 소멸하게 되는 필사자의 신분은, 아담과 이브가 지적 태만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가피한 결과였다.

75:7.6 (845.6) 2.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과 딸은, 또한 이 세상의 필사 육체와 유사하게 인간화 돼버렸으므로, 이중{二重} 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더 의존하게 됐었는데, 하나는 그들의 신체적 본성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 과실에 저장돼 있는 초월 에너지로부터 획득됐다. 수호천사장은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맡은 임무의 불이행은 결국 지위의 강등을 가져오리라는 사실과, 그들의 태만에 뒤따라서 이 에너지 원천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환기시켜 왔다.

75:7.7 (845.7) 캘리개스차는 아담과 이브를 함정에 빠뜨리는데는 성공했지만, 우주 정부에 대항하는 공개적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정말로 악{惡}이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모독하는 죄는 전혀 저지르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와 그의 창조주 아들의 의로운 다스림에 대항하는 반역에 고의로 동조하지도 않았다.

8. 소위 인간의 타락

75:8.1 (845.8) 아담과 이브는, 높은 물질 아들신분의 지위에서 낮은 필사적 사람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타락이 아니었다. 아담의 태만이 즉각 영향을 미쳤음에도, 인류는 계속 향상돼 왔다. 유란시아에 보라색 인종을 수여하려는 신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필사 인종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유란시아 인종들에게 미친 한정된 기여 덕분에 막대한 유익을 얻었다.

75:8.2 (846.1) "사람의 타락"은 없었다. 인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화한 역사이며, 아담의 증여는 그 이전의

생물학적 조건과 비교할 때, 세계의 민족들을 크게 개선했다. 더 우세한 유란시아 혈통들은 이제, 안돈족속, 상익, 낫족속, 및 아담족속이라는 네 가지 독립된 근원으로부터 획득된 유전 요소들을 내포하게 됐다.

75:8.3 (846.2) 아담이 인류에게 임한 저주의 원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가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신격과 맺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와 그의 반려자가 피조물의 신분으로 가장 확실하게 강등됐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유란시아 문명을 많이 진보시켰다.

75:8.4 (846.3) 너희 세계에서 아담의 사명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성의 조건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담이 아름다운 반려자와 함께 예루셈에서 이 어둡고 혼돈스런 행성으로 옮겨왔을 때, 그는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멜기세덱들과 동역자들의 조언에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결국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브는, 개인의 자유와 행성에서 행동의 자유를 주창하는 교활한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이브는 물질 계층의 아들신분에 속하는 생명 원형질로 실험하도록 유도됐으며, 그 과정에서 이브는, 자신에게 위탁된 이 생명이, 생명 운반자들이 원래 설계해서 그 당시에 혼합됐던, 행성 왕자의 참모진에 한때 배속됐던 번식하는 존재들의 생명 원형질과 그 전에 이미 혼합됐던, 그 계층의 생명과 너무 조급하게 섞이도록 허락했다.

75:8.5 (846.4) 너희가 낙원으로 상승하는 과정 내내, 완전한 길, 완전해 이르는 길,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길에서, 지름길이나 개인적인 창작, 또는 개선하는 다른 방책으로, 확립된 신의 계획을 교묘하게 회피하려고 성급하게 애써도, 너희는 결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75:8.6 (846.5) 무엇보다 네바돈 전역에 있는 어떤 행성에서도, 이처럼 가슴 아픈 지혜의 실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 실수가, 진화하는 우주의 직무에서 일어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의 한 부분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우리 우주는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완전성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지, 우리의 기원이 아니다.

75:8.7 (846.6) 이것이 기계적 우주였다면, 제1 근원 및 중심이 또한 인격체가 아닌 단지 하나의 힘일 뿐이었다면, 모든 창조가 불변의 에너지 작용이라는 특징의 정확한 법칙에 지배되는 방대한 물리적 물질의 집합체라면, 비록 우주의 상태가 미완성이더라도, 완전성이 통용될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며;마찰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완전함 및 불완전함에 속하는 진화하는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가 불일치와 오해의 가능성을 오히려 기뻐하는데, 이로써 인격체가 있다는 사실과 그 활동이 우주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창조물이, 인격체의 통치를 받는 어떤 실존이라면, 너희는 인격체가 생존하고, 진보하며, 성취할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우리는 인격체의 성장, 체험, 및 모험을 확신할 수 있다. 우주가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수동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진취적이니, 얼마나 영광스런 우주인가!

75:8.8 (846.7)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제76편 두 번째 동산

76:0.1 (847.1)

아담이 첫 번째 동산을 놋족속에게 저항 없이 넘겨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와 그의 일행은 서쪽으로 갈 수 없었는데, 에덴족속에게는 해양 모험에 적합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북부 놋족속이 이미 에덴으로 진군해왔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으며;그 지역 언덕에는 호전적 부족들이 들끓었다. 유일하게 열린 길은 동쪽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당시에 살기 좋은 목초지를 향해 이브 동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도 훗날 동쪽으로 여행하여, 유역에 있는 아담족속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과 합류했다.

76:0.2 (847.2)

가인과 산사는 둘 다, 아담 이주민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의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오타는 딸을 해산하다가 죽었으며;이브도 무척 산고{産苦}를 겪었지만, 강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이브는, 라오타의 아이인 산사를 자기 품에 받아들여서, 가인과 함께 길렀다. 산사는 큰 역량을 지닌 여자로 성장했다. 산사는 북방에 있는 청색인의 족장 사르간의 아내가 됐고, 그 당시 청색인의 진보에 기여했다.

1. 에덴주민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감

76:1.1 (847.3) 아담의 행렬이 유프라테스 강에 도달하기까지 거의 1년 걸렸다. 홍수가 났으므로, 물줄기의 서쪽 평원에 천막을 치고 거의 6주간 남아 있었으며, 그 후에 두 번째 동산이 될 강들 사이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76:1.2 (847.4) 두 번째 동산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며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서둘러 동쪽 산으로 도망갔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그가 원하는 모든 지역이 비어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 새로운 지역에서, 아담과 그를 돕는 자들은 새 집을 짓고, 문화와 종교의 새 중심지를 열심히 건설했다.

76:1.3 (847.5) 이 부지{敷地}는, 아담이 알기로는, 반과 아마돈이 제안한 동산을 위해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위임된 위원회가 원래 선정한 세 곳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에 두 강 자체가 훌륭한 천연적 방어 역할을 했고, 두 번째 동산의 약간 북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서로 근접했으므로, 남쪽에, 강들 사이의 지역을 보호하도록, 56마일에 달하는 방어벽을 세우기만 하면 됐다.

76:1.4 (847.6) 새 에덴에 정착한 후에는 원시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땅이 저주받았음은 완전히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은 다시 한 번 멋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아담족속은 냉담한 자연과 필사자 실존의 여러 모순에 직면한 가운데, 개간되지 않은 토양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야만 했고, 삶의 현실에 대처해야만 했다. 그들은, 첫 번째 동산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부분적으로 준비돼 있었던 반면, 두 번째 동산은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룩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2. 가인과 아벨

76:2.1 (848.1) 가인이 태어난 지 2년이 못돼서 아벨이 태어났는데,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였다. 아벨은 열두 살 됐을 때 목동이 되기로 선택했으며;가인은 농업에 종사하기로 이미 선택했었다.

76:2.2 (848.2) 그런데, 당시에는 획득한 물품 중에서 사제{司祭}에게 헌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목동은 자신의 동물 떼 중에서, 농부는 들판의 열매 중에서 가져가곤 했으며;이런 관습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예물을 제사장에게 바쳤다. 두 소년은 자기 직업이 더 좋다는 논쟁을 여러 번 벌였고,

아벨은 자신의 동물 제물이 선호되고 있음을 빨리 알아차렸다. 가인은 첫 번째 에덴의 전통으로 들판의 열매를 선호했다는 선례{先例}를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아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형이 당황할 때마다 조롱했다.

76:2.3 (848.3) 첫 번째 에덴 시절에, 동물로 제물을 바치는 관습을 없애려고 아담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에덴에서 종교 생활을 조직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아담은, 건축, 국방, 농업 등의 일과 관련된 수많은 세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매우 침체됐으므로, 아담은 첫 번째 동산에서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낫족속 출신 사람들에게 경배와 교육의 조직을 일임했으며; 집례{集禮}하는 낫족속 사제들은, 무척 짧은 기간에 아담_이전{以前} 시기의 기준과 통치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76:2.4 (848.4) 두 소년은 한 번도 서로 잘 지내지 못했으며, 제물에 관한 이 문제는 그들 사이에 미움이 커지도록 더욱 부채질했다. 아벨은 자신이 아담과 이브 둘 다의 아들임을

알았고, 가인에게 그가 아담의 자식이 아님을 상기시키곤 했다. 아버지가 청색인 및 홍색인과 섞이고, 나중에 안돈 혈통 원주민 혈통과 섞인 뉘족속에 속했으므로, 가인은 순수한 보라색 인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인의 선천적 호전성{好戰性}과 함께, 그로 하여금 동생을 점점_더 증오하게 만들었다.

76:2.5 (848.5) 소년들이 각각 열여덟 살과 스무 살이 됐을 때, 그들 사이의 긴장상태는 결국 끝장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벨이 호전적인 형을 무척 화나게 하자, 가인은 분노가 폭발해서 그에게 달려들어 죽였다.

76:2.6 (848.6) 아벨의 행동을 관찰할 때, 환경과 교육이 성품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시켜 준다. 아벨은 이상적 유전형질을 가졌고, 전통이 그의 모든 성품 밑바닥에 있었지만;열악한 환경의 영향이, 이 훌륭한 기질을 실질적으로 상쇄해버렸다. 아벨은 특히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환경에 크게 영향 받았다. 그가 스물다섯 살이나 서른 살까지 살았다면, 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것인데;그의 훌륭한 유전형질이 그때 결국 드러나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천한 유전자의 성품 결함을

극복하는 데는 좋은 환경이 실제로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반면, 나쁜 환경은, 적어도 생애에서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유전형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망칠 수 있다. 좋은 사회 환경과 적절한 교육은, 좋은 유전형질을 최대한 발휘시키기에 필수적인 토양과 상황이다.

76:2.7 (849.1) 아벨의 개들이 주인 없이 양떼를 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담과 이브는 그가 죽었음을 알아차렸다. 가인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빨리 찾아온 대가{代價}였으며, 그들은 그가 스스로 동산을 떠나기로 결정하도록 권했다.

76:2.8 (849.2) 가인은 그런 색다른 점에서 태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그에게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떤 부족 표시도 지니지 않았으므로, 우연히 만나는 첫 이웃 부족원에게 죽임 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는 공포와 약간의 후회 때문에 회개하게 됐다. 가인에게는 조율사가 내주한 적이 없었으며, 그는 항상 가정의 규율에

도전적이었고, 아버지의 종교를 경멸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머니 이브를 찾아가서 영적 도움과 인도를 부탁했고, 정직하게 신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조율사가 그에게 내주하게 됐다. 그리고 내주하면서 밖을 내다보는 이 조율사가, 가인에게 명백하게 탁월한 장점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담의 부족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됐다.

76:2.9 (849.3) 그리하여 가인은 두 번째 에덴의 동쪽, 늦의 땅으로 떠났다. 그는 거기서 아버지 쪽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세라파타샤의 예언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데, 가인은 평생 늦족속과 아담족속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가인은 먼 친척 레모나와 결혼해서 아들 에녹을 낳았는데, 엘람주민 늦족속의 족장이 됐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엘람주민과 아담족속 사이에 평화가 계속됐다.

3. 메소포타미아 생활

76:3.1 (849.4) 두 번째 동산에서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태만의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떠난 자기 아이들뿐 아니라, 아름답고 고요한

이전{以前} 고향을 무척 그리워했다. 이 훌륭한 부부가 그 영역의 보통 육체 상태로 전락해 있음을 지켜보기란, 참으로 딱한 일이었지만;그들은 자신의 하락된 지위를 품위와 인내심으로 견뎠다.

76:3.2 (849.5) 아담은 지혜롭게도 자녀와 동역자들에게, 시민사회 경영, 교육 방법, 그리고 종교적 헌신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예지력이 없었다면 그가 죽은 뒤에 그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아담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민족의 직무 수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죽기 훨씬 전에, 자녀와 추종자들이 에덴에서의 영광스러웠던 나날을 점차 잊어 가고 있음을 그들은 인식했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 대다수가 에덴의 화려함을 잊어버린 것은 다행이었으며;그들은 비교적 불행한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불만족을 품는 것 같지 않았다.

76:3.3 (849.6) 아담족속의 집권자는 첫 번째 동산의 아들들로부터 세습으로 이어졌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아담선(아담의 아들 아담)은 두 번째 에덴의 북쪽에서

보라색 인종의 2차 중심지를 세웠다. 아담의 둘째 아들 이브선도 훌륭한 지도자이자 행정관이 되었으며;그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브선은 아담만큼 오래 살지 못했으므로, 그의 맏아들 얀사드가 아담족속 부족들의 우두머리로서 아담의 후계자가 됐다.

76:3.4 (849.7) 종교 통치자, 즉 사제계층은 셋으로부터 유래됐는데, 그는 두 번째 동산에서 태어나서 살아남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었다. 그는 아담이 유란시아에 온지 129년째 해에 태어났다. 셋은 아버지 민족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됐고, 두 번째 동산에서 결성된 새 사제계층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의 아들 에노스는 새로운 경배 체계를 설립했고, 손자 케난은 가깝거나 먼 주변 부족들에게 대외 선교 봉사를 시작했다.

76:3.5 (850.1) 셋족속 제사장은 3중 업무를 맡았는데, 종교, 건강, 및 교육을 포함했다. 이 계층의 제사장들은 종교 예식을 거행하고, 의사와 위생{衛生} 감독관으로서 일하고, 동산의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도록 훈련 받았다.

76:3.6 (850.2) 아담의 이주민은, 첫 번째 동산에서 수백 가지 식물과 곡물의 씨앗과 뿌리를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가져왔으며;또한 그들은 다양한 짐승 떼와 모든 종류의 길들인 동물 가운데 일부도 데려 왔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능가하는 큰 이점{利點}을 갖게 됐다. 그들은 원래의 동산에 있었던 이전{以前}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76:3.7 (850.3) 첫 번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그의 가족은 항상, 과일, 곡류, 견과류 등에 의존해서 살아 왔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풀잎과 채소류를 먹었다. 육식{肉食}이 두 번째 동산에 일찍부터 소개됐지만, 아담과 이브는 정규 식사의 일부분으로 고기를 먹는 일이 결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담선과 이브선 그리고 첫 번째 동산에서 태어난 첫째 세대 아이들까지도 모두 육식을 하지 않았다.

76:3.8 (850.4) 아담족속은 문명 성취와 지적 발달에서 주변의 민족들보다 대단히 뛰어났다. 그들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어냈고, 다른 면에서는 현대적 예술, 과학, 문학 등의 선구적 기초를 많이 정립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땅에서, 글쓰기, 금속가공, 도기 제조, 직조 등의 기술을 유지했고, 그 후로 수천 년 동안, 그 보다 나은 것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건축 유형을 만들어냈다.

76:3.9 (850.5) 보라색 민족의 가정생활은, 그들이 살던 시대와 시기에 맞는 이상적인 것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공예술, 그리고 동물 사육 등의 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셋 자손으로서의 세 가지 임무인:제사장, 치료자, 및 선생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76:3.10 (850.6) 그리고 셋족속 제사장을 생각할 때, 고상하고 고양된 정신을 지닌, 위생과 종교 교사인 동시에 진정한 교육자였던 그들을, 후세의 부족이나 인접한 국가에 존재했던, 타락하고 상업적인 사제계층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격과 우주에 대한 그들의 종교 개념은 성숙돼 있었고 대체로 정확했으며, 그들의 위생 설비도 그 시대로서는 탁월했고, 그들의 교육 방식은 그 후로 그것을 능가할 만한 것이 없었다.

4. 보라색 인종

76:4.1 (850.7) 아담과 이브는, 사람들 가운데 보라색 인종, 즉 유란시아에 9번째로 출현한 인간 종족의 창시자였다. 아담과 그의 자손은 파란 눈을 가졌으며, 보라색 민족들은 하얀 피부와 --황색, 적색, 및 갈색의-- 밝은 머리카락 색깔이 특징이었다.

76:4.2 (850.8) 이브는 출산할 때 고통을 겪지 않았으며;뿐만 아니라 초기의 진화 인종들도 그랬다. 오직 진화 인종이 늦속속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담속속과 합동함으로써 생긴 혼혈 인종들만,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76:4.3 (851.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형제들처럼, 이중 영양 보충으로 에너지를 받았는데, 음식과 빛에 의존해서 살아갔고, 유란시아에는 계시되지 않은 어떤 초물질 에너지로 보충됐다. 그들의 유란시아 자손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빛을 순환시키는 재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다. 그들은 한 가지 순환만 지녔는데, 피로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 유형의 순환이었다. 그들은 비록 오래_살았지만 반드시 죽도록 고안됐는데, 그럼에도 길었던 수명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인간 수준에 가까워졌다.

76:4.4 (851.2)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첫 세대 자녀는,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았다. 첫 세대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낙농식품을 먹기 시작했지만, 그들 가운데 다수는 육식하지 않는 관습을 계속 따랐다. 그들이 후에 결합한 남쪽 부족 가운데 다수 역시 육식을 하지 않았다. 채식하는 이 부족들 대부분은 나중에 동쪽으로 이주했고, 인도의 민족들과 섞여서 지금까지 남아있다.

76:4.5 (851.3) 아담과 이브의 신체적 및 영적 선견력은 모두 오늘날의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 그들의 특별한 감각은 훨씬 민감했으며, 그들은 중도자, 천사 무리, 멜기세덱, 그리고 타락한 캘리개스차 왕자를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캘리개스차는 자신의 고귀한 후임자와 협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었다. 그들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볼 수 있는 역량을, 직무에 태만한 후에도 100년 이상 유지했다. 이 특수 감각은, 그들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민감하게 나타나지 않게 됐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76:4.6 (851.4) 아담의 자녀에게는 대개 조율사가 내주했는데, 이는 그들 모두 확실하게 생존 자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수한 이 자손은, 진화 자녀와는 달리, 두려움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았다.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은 두려움이 아주 많은데, 이것은 인종의 신체 향상을 위한 계획이 초기에 실패함에 따라서, 너희 조상이 아담의 생명 원형질을 아주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76:4.7 (851.5) 물질 아들과 그 자녀의 육체 세포는, 행성에서 진화한 원주민 존재의 세포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했다. 토착 인종의 육체 세포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 영역의 미세하고 극미한 유기체와 비슷하다. 이 사실은, 유란시아 사람들이 왜 많은 신체 질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토록 과학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너희 인종들이 아담의 생명을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너희는 질병 저항력이 훨씬 강하게 됐을 것이다.

76:4.8 (851.6) 아담은 유프라테스 지역에 두 번째 동산을 세우게 된 후, 자신이 죽은 뒤에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원형질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남기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브가 인종 개량 12인 위원회의 의장이 됐고,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가장 뛰어난 유형의 유란시아 여자 1,682명을 뽑았으며, 이 여자들은 아담의 생명 원형질로 임신했다. 그들이 낳은 자녀는 112명을 제외하고 모두 어른으로 성장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은 1,570명의 탁월한 남녀가 더해지는 혜택을 입었다. 비록 이 어머니 후보자들이 주위의 모든 부족에서 뽑혔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인종을 대표했지만, 다수는 낫속속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족에서 뽑혔고, 그들은 막강한 안드족속 인종의 옛 시조였다. 이 자녀들은 각자 자기 어머니의 부족 환경에서 태어나고 양육됐다.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76:5.1 (851.7)} 두 번째 에덴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들의 뉘우침이 받아들여졌고, 그들 자신은 이 세상 필사자의 죽음을 맛보도록 운명이 정해진 반면,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生存者}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실히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멜기세덱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감동적으로 선언한, 부활과 명예회복에

대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었다. 그들의 범법은 판단 착오였으며,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죄는 아니었다.

76:5.2 (852.1) 아담과 이브가 예루셈 시민이었을 때에는 사고 조율사를 소유하지 않았고, 유란시아의 첫 번째 동산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사고 조율사는 그들에게 내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필사 상태로 전락되고 얼마 후에, 자신 안에 새로운 현존을 의식하게 됐으며, 그들은 인간 신분으로도 진지하게 뉘우치면 조율사가 내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조율사의 내주에 대한 이 인식은, 아담과 이브에게 남은 생애 동안 큰 기쁨이 됐으며;그들은 사타니아의 물질 아들로서는 실패했음을 알았지만, 우주에서 상승하는 아들로서, 낙원으로 가는 생애가 아직 자신에게 열려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

76:5.3 (852.2) 아담은 자신이 행성에 도착함과 동시에 섭리시대의 부활이 일어난 것을 알았고, 자신과 반려자는 아마 다음 아들신분 계층의 도래에 연관해서 다시 인격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 우주의 주권자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그렇게 빨리 도래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으며;다음 번 아들로는 아보날 계층이 오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미가엘로부터 받은 유일한 개인적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항상 위안이 됐지만, 일부는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메시지는 우정과 위로의 다른 표현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태만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다. 나는 내 아버지 뜻에 항상 충성하려는 너희 심정의 열망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역에서 하급{下級} 아들들이 그 전에 너희를 부르러 가지 않는다면, 내가 유란시아에 내려갈 때 너희가 필사 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것이다.”

76:5.4 (852.3)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크나큰 신비였다. 그들은 이 메시지 속에 특별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숨어있음을 납득할 수 있었고, 그런 가능성은 그들에게 크게 용기를 불러 일으켰지만,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나타나는 날과 관련해서 일어날 부활의 때까지, 자신들이 휴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에덴의 부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항상 선포했으며, 자신들이 크게 실수하고 슬픔을 겪은 세계가 어찌면, 이 우주 통치자가 낙원 증여 아들로써 활동하려고 선택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적어도 간절한 소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사실로 이뤄지기에는 너무 굉장한 일처럼 보였지만, 아담은 다툼으로_분열된 유란시아가, 결국 사타니아 체계에서 가장 운 좋은 세계, 즉 전체 네바돈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행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다.

76:5.5 (852.4) 아담은 530년 동안 살았으며;노령{老齡}이라고 칭할만한 원인으로 죽었다. 단순히, 그의 육체 장치가 낡아버린 것이었으며;붕괴 과정이 고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앞지르게 됐고, 필연적인 끝이 왔다. 이브는 약해진 심장으로 인해서 아담보다 19년 먼저 죽었다. 그들은, 그 정착지의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졌던, 신성한 예배 장소인 성전 중앙에, 함께 매장됐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이 독실한 남자나 여자를 경배 장소의 마루 밑에 매장하는 풍습의 기원이었다.

76:5.6 (852.5)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멜기세덱들의 지휘 하에 계속 유지됐지만, 진화 인종들과의 직접적인 육체 접촉은 단절돼 왔다. 먼 과거에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들이 도착한 때부터, 반과 아마돈 시대를 거쳐서 아담과 이브가 도래할 때까지, 우주 정부의 물리적

대표자들이 이 행성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5만년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돼 온 이 체제는,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 영적 분야에서, 천사 협조자는 사고 조율사와 협력하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 둘 다 영웅적으로 계속 투쟁해 왔지만;아브라함 시대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도래하기 전에는, 멀리_미치는 세계 복지를 위한 포괄적 계획이 이 세상의 필사자들에게 공표되지 않았는데, 마키벤타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인내심, 및 권위를 갖고, 불운한 유란시아를 더욱 향상시키고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기초{基礎}를 놓았다.

76:5.7 (853.1) 하지만 유란시아에 불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이 행성은 네바돈 지방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행성이기도 했다. 선조의 실책과 초기에 왔던 세계 통치자들의 실수 때문에, 행성이 그토록 혼란스런 절망 상태에 던져지고, 악과 죄로 인해 한결 더 형편없이 된 바로 이런 어둠의 배경이, 네바돈 미가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리하여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스런 인격체를 드러내는 경기장으로 이 세계를 선택했다면, 유란시아인은 이 모든 것을 이득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유란시아가 그

영커버린 직무를 바로잡는 데 창조주 아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으며;그보다는, 유란시아에서 죄와 악은, 낙원 아버지의 비길 데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창조주 아들이 드러내는 데 좀 더 강하게 대조되는 배경을 제공했다.

6. 아담과 이브의 생존

76:6.1 (853.2) 아담과 이브는, 언젠가 죽음에서 깨어나, 맨션 세계들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멜기세덱들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간직한 채, 필사 휴식에 들어갔는데, 그 맨션 세계들은, 유란시아에서 보라색 인종의 물질 육체 속에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무척 친숙한 곳이었다.

76:6.2 (853.3)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가 겪는 무의식 수면{睡眠}의 망각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아담이 죽은 뒤 셋째 날, 경건한 장례식을 치른 후 둘째 날에, 에덴시아의 대리 지고자들이 승인하고, 미가엘을 대행하는 살빙톤의 합동 항존자가 동의한 라나휘지의 명령을 가브리엘이 받았는데, 이 명령은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태만했을 때 현저하게 생존한 자들에 대한 특별

출석점호를 지시했다. 그리고 유란시아 계열에서 26_번에 해당하는, 이 특별 부활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첫 번째 동산을 체험한 1,316명의 동역자와 함께,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에 있는 부활실{復活室}에서 다시 인격화되고 다시 조립됐다. 아담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충성한 많은 다른 혼이 이미 전환돼 있었으며, 뒤이어, 잠자던 생존자와 자격 있는 살아있는 상승자들 양쪽에 대해서 섭리시대 판결이 내려졌다.

76:6.3 (853.4)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세계들을 빠르게 통과했는데, 자신의 원래 행성에서 다시 한 번 거주민이 됐지만, 이번에는 우주 인격체 가운데 다른 계층의 일원으로서 오게 됐다. 그들은 영구 시민으로서--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루셈을 떠났으며;상승한 시민으로서--곧 사람의 아들로서-- 돌아왔다. 그들은 체계 수도{首都}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즉시 배속됐는데, 나중에는 유란시아의 현재 자문_통제 기관을 구성하는 24명의 조연자 가운데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76:6.4 (854.1) 이렇게 해서,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 이것은 시련, 비극, 및 승리의 이야기, 즉 의도는 좋았지만 속임수에 넘어간 물질 아들과 딸에게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승리한 이야기이며, 의심할 바 없이 마침내, 그들의 세계 및 반역으로_버림받고 악에_시달리던 거주민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이야기였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문명 발달을 가속시켰고 생물학적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위대한 문명을 남겼지만, 아담의 유산마저 일찍부터 희석되고 종국에 침몰하고 마는 운명에 직면해서는, 그토록 진보된 문명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문명을 이룩하는 것은 민족이며;문명이 민족을 만들지 않는다.

76:6.5 (852.1) ["동산의 소리" 스랍인 솔로니아가 제시했음]

제77편 중도 피조물

77:0.1 (855.1) 네바돈에서 인간거주 세계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독특한 존재 집단을 품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영역의 필사자와 천사 계층 중간쯤에 생명이_작용하는 수준에서 존재하며;그래서 그들을 중도{中道} 피조물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시간세계에서 우연히 출현한 것 같지만, 매우 광범하게 퍼져있고, 돕는 자로서 매우 유익하므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복합 행성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계층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다.

77:0.2 (855.2) 유란시아에서는 뚜렷이 다른 두 계층의 중도자가 활동하는데: 1차 단체, 즉 선임{先任} 단체는 먼 옛날 달라마시아 시대에 생겼고, 2차 단체, 즉 그 후에 생긴 집단의 기원은, 아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 1차 중도자

77:1.1 (855.3) 1차 중도자는, 유란시아에서 물질계와 영계의 독특한 상호결합으로 탄생됐다. 우리는 다른 세계 및 다른 체계에 있는 비슷한 피조물 실존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다른 기법으로 생겨났다.

77:1.2 (855.4) 진화 행성에서 이뤄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잇따른 증여는, 그 영역의 영적 질서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고, 때로는 한 행성에서 영적 매개체와 물질적 매개체의 상호 연합 작용을 변경시켜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캘리가스차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要員}의 신분이 바로 그런 독특한 상호연합을 나타내는데:그들은 예루셈의 상승한 모론시아 시민으로서, 번식{繁殖}하는 특권이 없는 초물질 피조물이었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은, 하강하는 행성 사역자로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나중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물질 자손을 낳을 수 있고, 남녀 구별이 있는 물질 피조물이었다. 이 1백 명이 초물질 수준에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육체전환 참모진의 남성과 여성 요원이, (성교{性交}가 아니라) 초물질적으로 접촉함으로써, 1차 중도자 중에서 첫_태생이 출현됐다.

77:1.3 (855.5) 필사{必死} 수준과 천사{天使} 수준 사이의 존재인 이 계층의 피조물이, 왕자 본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즉각 발견됐으며, 그에 따라서, 육체전환 참모진 각 쌍은, 비슷한 존재를 산출하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수고로 말미암아, 첫째 집단인 50명의 중도 피조물이 탄생됐다.

77:1.4 (855.6) 이런 독특한 집단의 활동을 1년 동안 관찰한 후에, 행성 왕자는 중도자를 제한 없이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이

계획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수행됐으며, 따라서 5만 명의 원래 단체가 존재하게 됐다.

77:1.5 (856.1) 각 중도자를 산출하는 데는 6개월이 소요됐고, 각 쌍으로부터 1,000명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그리고 1,000번째 자손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능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시험을 계속해도 항상 완전하게 실패하는 결과밖에 없었다.

77:1.6 (856.2) 이 피조물은 왕자의 경영에서 정보 단체를 형성했다. 그들은 멀리까지 광범하게 활동했는데, 세계의 인종을 연구하고 관찰했으며, 행성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왕자와 그의 참모진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했다.

77:1.7 (856.3) 이 체제는 행성에 반역이 일어나던 비극의 날까지 계속됐는데, 1차 중도자 가운데 5분의 4를 조금 넘는 숫자가 미혹됐다. 충성스런 단체는, 멜기세덱 관재인들의 봉사에 참여했고, 아담 시대까지 명목상 지도자인 반의 수하에서 활동했다.

2. 낯죽속 인종

77:2.1 (856.4) 이것이 유란시아 중도 피조물의 기원, 본성,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 1차와 2차의 -- 두 계층 간 유사성으로 인해, 이 시점에서 1차 중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으며, 행성에 반역이 있던 시대에서 아담 시대까지, 캘리개스차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 중에서 반역에 가담한 요원들의 후손 계통을 더듬어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동산의 초기 시대에, 둘째 계층의 중도 피조물을 낳은 조상 가운데 절반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유전형질 계통이었다.

77:2.2 (856.5)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육체를 가진 요원들은, 그들의 특별한 계층이 안돈 부족의 선택된 혈통의 품질과 결합한, 통합 품질을 갖는 자손을 낳는 계획에 참여할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아담이 출현할 것을 예상해서였다. 생명 운반자들은, 왕자의 참모진의 공동 자손과, 아담과 이브의 첫 세대 자손의 결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필사자를 계획했었다.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계층의 행성 피조물을 예상해서 계획을 입안해 냈었고,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선생_통치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런 존재들은, 일반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안됐다. 그러나 이런 계획사업이 거의 완전하게 실패했으므로, 유란시아가 얼마나 자비로운 지도력과 비길 데 없는 문화를 가진 어떤 귀족사회를 그렇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육체전환 참모진이 나중에 번식했을 때는, 이미 반역이 일어난 후였고, 그들이 그 체계의 생명 흐름과 연결된 상태에서 이미 끊어진 뒤였기 때문이다.

77:2.3 (856.6) 반역 이후 시대에 색다른 일이 유란시아에 많이 일어났다. 위대한 문명이--곧 달라마시아의 문명이--무너지고 있었다. “네페림(놋족속)이 그 시대에 땅에 있었고, 이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결과로 그들이 탄생했으며, 이 자녀들은, ‘옛날의 용사들’, 즉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 참모진과 그들의 초기 자손은, 도저히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그런 아득한 시절에 진화하는 필사자들은 이들을 그렇게 여겼으며;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키조차 과장됐다. 그 후로, 이것이 거의 보편적인 민간설화의 기원이 됐는데, 신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과 관계를 가졌고, 영웅적인 옛 인종을 탄생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설은, 두 번째 동산에서 후대에 나타난 아담족속의 인종 혼합과 더욱 혼동하게 됐다.

77:2.4 (857.1) 왕자의 참모진 가운데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이 안돈의 인간 종족들로부터 생식세포 원형질을 받았으므로, 그들이 성교로 번식하게 되면, 그들의 후손은 모두 다른 안돈족속 부모들의 자손과 닮았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늦을 추종했던 60명의 반역한 참모가 실제로 성교로 번식에 들어갔을 때, 그 자녀는 안돈족속은 물론 상익 민족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이 입증됐다. 예기치 못했던 이런 탁월성은, 육체와 지능의 품질뿐 아니라, 영적 수용력의 특징이기도 했다.

77:2.5 (857.2) 늦족속의 첫 세대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의 특징은, 안돈의 세포 원형질의 유전 인자의 배열과 화학적 구성요소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로부터 생겨났다. 이런 변화는, 사타니아 체계의 강력한 생명_유지 회로가 참모진 요원의 육체 속에 현존함으로 인해 발생됐다. 이 생명 회로는, 특화된 유란시아 원형{原型}의 염색체로 하여금, 규정된 네바돈 생명체 형태화 중에서, 표준화된 사타니아

특화 원형과 비슷하게 다시 조직하도록 만들었다. 체계 생명 흐름의 작용으로 생식세포 원형질을 변질시키는 이런 기법은, 유란시아의 과학자들이 X 광선을 이용해서 식물과 동물의 세포 원형질을 변경시키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77:2.6 (857.3) 그리하여 낫족속 민족들은 어떤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변경으로부터 발생했는데, 이 변경은, 아바론 외과 의사들이 안돈족속 기증자들의 몸에서 육체전환 참모진 요원들의 몸으로 옮긴 생명 원형질 속에서 일어났다.

77:2.7 (857.4) 세포 원형질을 기증한 100명의 안돈족속은 그 대신 생명나무를 보완하는 유기체를 소유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타니아 생명의 흐름이 그들의 육체에도 마찬가지로 투입됐다는 사실이 생각날 것이다. 변경된 안돈족속 가운데 참모진을 따라서 반역에 가담했던 44명 역시 자기들끼리 짝졌고, 낫족속 민족 가운데 더 나은 혈통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77:2.8 (857.5) 변경된 안돈족속 세포 원형질을 지닌 104명의 개인을 포함하는 이 두 집단은, 유란시아에 여덟째 인종으로 나타난 낫족속의 조상을 형성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에서 인간 생명체의 이런 새로운 특색은, 예상치 못했던 발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 행성을 생명체_변경 세계로 활용하려는 원래 계획을 능가하는 또 다른 국면을 나타낸다.

77:2.9 (857.6) 순수한_핏줄의 낫족속은 훌륭한 인종이었지만, 점차 이 세상의 진화 인간과 혼합됐고,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퇴보가 발생됐다. 반역이 있는 지 1만 년이 지나자, 그들의 평균 수명은 진화 종족의 수명보다 약간 긴 정도까지 쇠퇴했다.

77:2.10 (857.7) 낫족속 가운데 후대 수메르인 후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점토층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을 때,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으며, 이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 각각의 왕의 통치 기간이 25년 내지 30년에서, 130년 또는 그 이상까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고대 왕들의 통치 기간이 더 긴 것은, 초기 낫족속 통치자들이(왕자의 참모진의 직계 후손) 후대의 후계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며, 그 왕조를 달라마시아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확대해석해보려고 애썼음을 암시한다.

77:2.11 (857.8) 그렇게 오래 살았던 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시간 계산에서 달{月}과 해{年}를 혼돈한 것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성서의 계보에서, 그리고 중국{中國}의 초기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8일로 돼 있는 한 달 또는 계절이, 후대에 소개된, 350일이 조금 넘는 1년과 혼돈을 일으킨 것이, 그런 긴 인간 수명 전통을 만들게 했다. 900“년” 이상 살았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것은 70년 조금 못되는 기간에 해당됐으며, 그런 연수{年數}는 매우 긴 기간으로 간주됐는데, “인생은 70”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타나게 됐다.

77:2.12 (858.1) 28일을 한 달로 치는 시간 계산이, 아담 시대 이후로 먼 훗날까지 오래 유지됐다. 그러나 약 7천 년 전에 이집트인이 달력을 다시 만들게 됐을 때,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했는데, 1년을 365일로 소개했다.

3. 바벨탑

77:3.1 (858.2) 달라마시아가 물에 밀에 가라앉은 후에, 늦속속은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마침내 자신의 인종 및 문화 본부로 딜문이라는 새 도시를 설립했다. 그리고 늦이 죽은 후 약 5만 년이 지나자, 왕자의 참모진의 자손이 너무 많아져서,

딜문이라는 그들의 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땅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이미 멀리 퍼져서 국경 지역에 있는 안돈족속 및 상익 부족과 그들이 서로 결혼하기에 이르자,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인종적 통일성을 유지시킬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따라서 부족들의 협의회가 소집됐고, 낫의 후손인 배브롯의 계획이 심사숙고 끝에 승인됐다.

77:3.2 (858.3) 배브롯은, 당시에 자신들이 차지한 영토 중앙에 종족을 영화롭게 할 만한 거창한 성전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세상 사람이 전혀 본 적이 없는 모양의 탑을 성전에 세우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그 탑을, 한때 그들이 위대했던 것을 기리는 대단한 기념비가 되게 하려 했다. 이 기념비를 딜문에 세우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더러는 첫 수도였던 달라마시아가 물에 잠겼다는 전승을 기억하고, 그런 거대 구조물은 바다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77:3.3 (858.4) 배브롯은, 이 새 건물이 낫족속 문화와 문명의 미래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그의 조언이 마침내 받아들여졌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건축이 시작됐다.

새로운 그 도시는, 탑 설계자이며 건축자인 그의 이름을 따라서 **바벨루트**로 명명{命名}됐다. 이 지역은 나중에 바벨루트이라고 알려졌고, 결국 바벨이 됐다.

77:3.4 (858.5) 그러나 **놏족**속은 이 이행업무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정도 감정이 나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건축 계획 또는 그 건물이 완성된 후의 용도에 대해서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다. 4년 반 동안 작업이 진행된 후에, 탑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큰 논쟁이 일어났는데:그 다툼이 너무 심각해져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음식을 나르던 자들이 분쟁 소식을 퍼뜨렸고, 부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건물 부지{敷地}로 모여들었다. 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제안됐다.

77:3.5 (858.6) 1.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많은 큰 무리는, **놏족**속의 역사와 인종적 우수성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탑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든 후세 자손의 경탄을 불러일으킬만한, 거대하고 당당한 구조물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77:3.6 (858.7) 2.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무리는, 딜문의 문화를 기념할 수 있도록 탑을 설계하려고 했다. 그들은 배브루티, 상업, 예술, 및 제조업의 거대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77:3.7 (859.1) 3. 가장 숫자가 적고 소수파인 무리는, 캘리개스차 반역에 참여했던 선조의 어리석음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탑을 세우자고 고집했다. 그들은, 탑이 오직 모든 존재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과, 새 도시를 세우는 모든 목적은 달라마시아를 대신하는--곧 주변에 있는 야만인을 위한 문화 및 종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7:3.8 (859.2) 종교 집단의 의견은 즉각 부결됐다. 다수파는 반역의 책임이 조상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으며;그런 인종적 오명{汚名}에 분개했다. 세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두 가지를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을 싫어하는 종교인들은 남쪽에 있는 자신의 본거지로 피했지만, 그 동료들은 거의 소멸될 때까지 싸웠다.

77:3.9 (859.3) 약 1만 2천 년 전에, 바벨탑을 세우려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 안드족속(놏족속과 아담족속)이라는 혼합된 인종들이 첫 구조물의 폐허 위에 새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했지만, 그 계획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으며;그 자체의 과장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벨 땅으로 알려졌다.

4. 놏족속의 문명 중심지

77:4.1 (859.4)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다툼이 즉시 가져온 결과는 놏족속의 분산이었다. 이 내란{內亂}은 순수한 혈통의 놏족속 숫자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그들이 아담_이전의 위대한 문명 건설에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 이때부터 놏족속의 문화는, 아담의 피가 주입{注入}돼서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계속 퇴보했다. 그러나 심지어 아담 시대에도, 놏족속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로 합류했고, 반 집단에서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은 놏족속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사람 가운데 일부도 이 인종이었다.

77:4.2 (859.5) **눗족속의 4대 중심지 중에서 3개는 배브롯 투쟁 직후에 건설됐다:**

77:4.3 (859.6) 1. **서부{西部}, 즉 시리아의 눗족속.** 민족 또는 종족을 기념하려는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이 북쪽으로 이동했고, 안돈족속과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후대의 눗족속 중심지를 건설했다. 이들은 분산된 눗족속 중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고, 나중에 나타난 앗수르인의 혈통에 많이 기여했다.

77:4.4 (859.7) 2. **동부, 즉 엘람의 눗족속.** 문화와 상업을 지지하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엘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혼합된 상익 부족들과 결합했다. 3만 년 또는 4만 년 전의 엘람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이미 주로 상익 인종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야만인의 문명보다 우수한 문명을 계속 유지했다.

77:4.5 (859.8)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에는, 근처에 있던 이 눗족속 정착지를 “눗의 땅”으로 부르는 것이 관례였으며; 눗족속 집단과 아담족속 사이에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두 종족의 피가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아담족속)이 사람의

딸들(눗족속)과 서로 결혼하는 것이 점점 더 관습이 됐기 때문이다.

77:4.6 (860.1) 3. *중부, 즉 수메르인 이전의 눗족속*.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는 작은 집단이, 본래의 인종 상태를 더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아담족속과 피가 섞여서, 역사 시대에 수메르 민족을 세운 눗족속의 조상을 이뤘다.

77:4.7 (860.2) 그리고 수메르인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불가사의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 무대에 나타났는지를, 이 모든 것이 설명해 준다. 너희는 아무리 조사해도 수메르인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달라마시아가 물에 가라앉은 후인, 20만 년 전에 기원됐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그들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지만, 고대의 이 부족들은, 완전히 성숙된 모습과 우수한 문화를 간직한 채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신전, 금속 기술, 농업, 동물, 질그릇 만들기, 천짜기, 상업 법률, 시민사회 규범, 종교 예식절차, 및 옛 글씨 체계를 갖고 있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은 오래 전부터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어버렸는데, 딜문에서 시작된 독특한 글씨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메르인의 언어는, 비록 세상에 실제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셈 계통이 아니었으며;소위 아리아 방언과 공통점이 많았다.

^{77:4.8 (860.3)} 수메르인이 남긴 정교한 기록이, 딜문이라는 초기 도시 근처의 페르시아만에 자리잡은, 주목할 만한 정착 지역을 묘사한다. 이집트인은 이 도시를 고대의 영광스런 딜맛이라고 불렀으며, 한편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낫족속 도시와 달라마시아를 혼동해서, 이 셋을 모두 딜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토판{土版}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 토판은, 초기의 “하나님들이 문명화되고 문화화된 생활에 대한 표본으로 인류를 축복한 곳”이라고, 이 세상 낙원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낙원인 이 딜문을 설명하는 이 토판들은, 현재 여러 박물관 선반 위에 먼지로 뒤덮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77:4.9 (860.4)} 수메르인은 첫 번째 에덴과 두 번째 에덴을 잘 알았지만, 아담족속과 넬리 서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동산 거주자들을 계속 이질적인 족속으로 간주했다. 훨씬 오래된 낫족속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긴 수메르인은, 딜문이라는 도시의 웅장함과 낙원같은 전통에 우호적이어서, 이런 후기의 영광스런 추억을 무시했다.

77:4.10 (860.5) 4. 북부의 낫족속과 아마돈족속 --반족속. 이 집단은 배브롯 투쟁이 있기 전에 조성됐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낫족속은, 낫과 그의 후손의 지도체제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을 추종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77:4.11 (860.6) 반의 초기 동역자 중에서 더러는 그의 이름을 여전히 지닌 호숫가 부근에 나중에 정착했고, 그들의 전통은 그 부근에서 번성했다. 아라랏 산은 그들이 신성시하는 산이 됐는데, 시내 산이 히브리인에게 의미를 갖듯이, 후대의 반 자손에게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 1만 년 전에, 앗수르인의 반족속 선조는, 일곱 계명으로 된 도덕률을, 하나님들이 아라랏 산에서 반에게 수여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동역자 아마돈이 그 산에 올라가서 경배 드리는 가운데, 행성으로부터 산 채로 들려 올라갔다고 굳게 믿었다.

77:4.12 (860.7) 아라랏 산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신성시되는 산이었으며, 이런 옛 시대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전통 대부분이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와 연결돼서 얻어졌기 때문에, 아라랏 산과 그 지역이, 노아의 홍수와 세계적 홍수에 관한 유대인의 후대 이야기 속에 짜 맞춰진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77:4.13 (860.8) 기원전 약 35,000년경에, 아담선은 자신의 문명 중심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동쪽에 있는 반족속의 옛 정착지들 가운데 한 곳을 방문했다.

5. 아담선과 라타

77:5.1 (861.1) 2차 중도자의 족보에 관해서 낯족속의 내력을 묘사했으므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들 족보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담 쪽에 관해서 고찰할 것인데, 2차 중도자 역시 유란시아에 처음 태어난 보라색 인종인 아담선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77:5.2 (861.2) 아담선은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무리에 속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맏아들은, 북쪽에 있었던 반과 아마돈으로부터 고원지대에 있는 그들의 집 이야기를

종종 들었으며, 두 번째 동산이 세워진 후 어느 날, 자신이 어렸을 때 꿈에 그리던 이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77:5.3 (861.3) 이때 아담선은 120세였고, 첫 번째 동산에서 낳은 순수한_핏줄의 자녀 32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남아서 그들을 도와 두 번째 동산을 세우고 싶었지만, 자기 짝과 자녀들을 잃음으로써 크게 동요됐는데, 그들은 모두, 지고자들의 보호를 받기로 선택한 아담의 다른 자녀들을 따라서, 에덴시아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77:5.4 (861.4) 아담선은 유란시아에 있는 부모를 쓸쓸히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를 싫어했지만, 두 번째 동산에 함께 머무는 것은 크게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방어하고 건축하는 초기 활동에 많이 공헌했으나, 기회가 나는 대로 북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아담과 이브는 맏아들이 곁을 떠나서, 낯설고 호전적{好戰的}인 세계로 가게 된 것을 무척 슬퍼했으며,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77:5.5 (861.5) 그가 어렸을 때 상상하던 이 사람들을 찾아서, 27명의 무리가 아담선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3년 조금

넘었을 때, 아담선 무리는 자신들의 모험 대상이던 그 목적지를 실제로 발견했고, 그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20세의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는 왕자 참모진의 순수한_핏줄을 가진 마지막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라타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자기 조상은 모두 왕자의 몰락한 참모진 가운데 두 사람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그 종족에서 마지막 사람이었고, 형제자매가 아무도 없었다.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자식 없이 죽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지만, 위엄 있는 아담선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뺏겼다. 그리고 에덴에 관한 이야기, 즉 반과 아마돈의 예언이 어떻게 정말로 이뤄졌는지 듣게 됐을 때, 그리고 동산의 태만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아담의 자손이자 아들인 이 사람과 결혼하는--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곧 아담선에게도 생겼다. 그들은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결혼했다.

^{77:5.6 (861.6)} 아담선과 라타는 자녀 67명을 가족으로 거느렸다. 그들은 위대한 혈통을 지닌 이 세상 지도자들을 낳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룩했다. 이 두 존재 모두 진정으로 초인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네 번째마다 독특한 계층에 속했다. 종종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 역사에서 그런 일은 발생된 적이 없었다. 라타는 매우 당황했지만--심지어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아담선은 1차 중도자의 실존을 잘 알았으며, 비슷한 어떤 일이 자기 눈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두 번째로 이상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는 그들을 따로 짝져 주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기 때문이며, 두 번째 계층의 중도자가 이렇게 기원됐다. 이런 현상이 멈출 때까지, 100년 동안 거의 2,000명이 태어났다.

77:5.7 (862.1) 아담선은 396년을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방문했다. 그와 라타는 매 7년마다 남쪽으로 여행해서 두 번째 동산으로 갔고, 그동안에 중도자들이 그의 민족의 안전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계속 전해줬다. 아담선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새롭고 독립된 세계 중심지를 세우기에 크게 공헌했다.

77:5.8 (862.2) 아담선과 라타는 불가사의한 이 협조자 단체를 그렇게 지휘했는데, 그들은 진보된 진리를 전파하는 일과,

더 높은 영적, 지적, 및 육체적 생활 표준을 퍼뜨리는 일에서, 오래 살아 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그리고 세계를 개선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는, 그 후에 일어난 쇠퇴 과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빛을 잃지는 않았다.

77:5.9 (862.3) 아담선족속은 아담선과 라타의 시대부터 거의 7천 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문화를 유지했다. 나중에, 그들은 이웃에 있는 낫족속 및 안돈족속과 섞이게 됐고, 또한 “옛날의 용사들” 가운데 포함됐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뤄진 진보 가운데 일부는, 후대에 유럽 문명에서 꽃피웠던 문화 잠재력의 잠복된 부분으로 계속 유지됐다.

77:5.10 (862.4) 이 문명 중심지는 코펫 다그 근처, 카스피 해의 남쪽 끝 부분의 동쪽 지역에 위치했다. 투르케스탄에 있는 구릉지대 약간 위쪽은, 한때 보라색 인종의 아담선족속 본부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코펫 산맥의 낮은 구릉지대에 있는 좁고 오래된 비옥한 띠 모양의 땅에 자리 잡은 이런 고원지대에서는, 서로 다른 네 집단의 아담선 후손이 각각 조성한, 네 개의 다양한 문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연달아 나타났다. 이 무리 가운데 두 번째 무리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 지역과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이주했다.

나머지 아담선 후예는 북쪽과 서쪽으로 이주해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마지막 안드족속 인파를 이룬 혼혈 혈통의 사람들이 따라갔으며, 그들 역시 인도를 침입한 안드족속_아리아인에 포함돼 있었다.

6. 2차 중도자

77:6.1 (862.5) 1차 중도자가 거의 초인적 기원을 가진 것에 반해, 2차 계층은 순수한 아담 혈통이, 선임{先任} 단체 가문과 공통 조상을 갖는 인간화된 후손과 결합해서 태어난 자손이다.

77:6.2 (862.6) 아담선의 자녀 가운데 2차 중도자의 색다른 선조는 오직 열여섯 명 있었다. 이런 독특한 자녀는 남녀의 숫자가 똑같이 구성돼 있었으며, 각 쌍은 성교{性交} 및 비성교{非性交} 접촉의 혼합된 기법으로, 매 70일마다 2차 중도자를 출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77:6.3 (862.7) 열여섯 명의 이 자녀는 (그들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살다가 죽었지만,

전기{電氣}로 에너지를 받는 그들의 자손은 계속 생명이 유지됐고, 필사 육체의 한계에 지배되지 않았다.

77:6.4 (862.8) 여덟 쌍은 각각, 결국 248명의 중도자를 출산했고, -- 1,984명의 -- 원래 2차 단체는 그렇게 해서 실존하게 됐다. 2차 중도자에게는 여덟 가지 하위{下位}집단이 있다. 그들은 A_B_C 첫 번째, A_B_C 두 번째, A_B_C 세 번째로 불리고, 그렇게 계속된다. 그 다음에는 D_E_F 첫 번째, D_E_F 두 번째이고, 그렇게 계속된다.

77:6.5 (862.9) 아담의 태만이 있는 뒤에, 1차 중도자들은 멜기세덱 관재인들을 돕는 일로 돌아간 반면, 2차 집단은 아담선이 죽을 때까지 아담선 중심부에 소속됐다. 이 2차 중도자 가운데 33명, 즉 아담선이 죽었을 때 그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전체 체제를 멜기세덱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전향시켜서, 그런 식으로 1차 단체와의 접촉을 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동무들을 버리고 한 덩어리가 돼서 행성 관재인들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77:6.6 (863.1) 아담선이 죽은 후에, 나머지 2차 중도자는 이상하고 조직되지 않은 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영향을 유란시아에 끼치게 됐다. 그때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까지, 그들은 변칙적이고 조직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통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미가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충성스런 대다수는 그때 1차 중도자의 지휘 아래 편입했다.

7. 반역에 가담한 중도자

77:7.1 (863.2) 루시퍼의 반역이 있을 때 대다수의 1차 중도자가 죄를 범했다. 행성 반역의 참상이 평가됐을 때, 여러 손실 가운데서, 원래의 50,000명 가운데 40,119명이 캘리개스차의 탈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77:7.2 (863.3) 2차 중도자의 원래 숫자는 1,98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873명은 미가엘의 통치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오순절 날 유란시아에 내려진 행성 판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감금{監禁}됐다. 이 타락한 피조물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77:7.3 (863.4) 두 집단의 반역한 중도자들은 모두, 현재 감금{監禁}된 상태에서 체계 반역의 용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

77:7.4 (863.5) 이 불충한 중도자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필사자의 눈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특히 이것은 변절한 2차 중도자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동역자들에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이 세상에 역시 존재했던, 반역에 가담한 어떤 체루빔 및 스라빔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고대의 어떤 작가들은 반역한 이 중도 피조물을 악한 영과 귀신으로 표현했고, 배신한 스라빔을 악한 천사로 표현했다.

77:7.5 (863.6) 증여된 낙원 아들의 생애가 끝난 후에는, 어느 세상에서든지 악한 영이 어떤 필사 정신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는-- 곧 사도 조울사가 보편적으로 도래하기 전, 그리고 주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기 전에는-- 반역에 가담한 이

중도자들이 실제로 어떤 열등한 필사자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 조율사가 초인간 지성체들과 접촉하는 시기 내내, 사실상 그 인격체로부터 분리돼 있는 동안, 충성스런 중도자가 유란시아 운명 예비 단체의 인간 정신과 접촉하는 유능한 보호자로서 봉사할 때 작용하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게, 이것이 이뤄졌다.

77:7.6 (863.7) 그 기록이 이렇게 진술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었다:“그리고 그들이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그분에게 데려왔는데,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정신병과 귀신들린 것의 차이를 알았고 구별했지만, 그 당시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크게 혼동했다.

77:7.7 (863.8)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도, 반역에 가담한 어떤 영이든지 정상 인간 정신을 지배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연약한 정신을 소유한 열등한 인간도 그런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진리의 영이 도착한 뒤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여기는 것은, 히스테리, 정신이상, 및 정신박약을 귀신들린 것으로 믿는 혼동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가엘의 증여가, 유란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을 귀신들릴 가능성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추측하지는 말아라.

77:7.8 (864.1) 반역에 가담한 모든 중도자는, 현재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갇혀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고 조율사의 현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진리의 영이 부어짐에 따라서, 어떤 종류 또는 어떤 계층의 불충한 영이든지, 가장 연약한 인간 정신이라도 다시 침입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됐다. 오순절 날 이후로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8. 연합한 중도자

77:8.1 (864.2) 최근에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있을 당시에, 잠자고 있던, 시간세계에서 생존한 자들을 미가엘이 이동시켰을 때, 중도 피조물은 그대로 남았는데, 행성에서 영적인 일과 약간영적인 일을 돕도록 남겨뒀다. 그들은 현재 단일 단체로 활동하며, 두 계층이 모두 포함돼 있고, 10,992명이다.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각 계층의

선임{先任} 요원이 번갈아가며 통치하고 있다. 이런 체제는 오순절 직후에 하나의 집단으로 합병될 때부터 성립됐다.

77:8.2 (864.3) 오래된 계층, 즉 첫째 계층의 요원들은 대개 숫자로 알려지는데, 마치 1_2_3 첫째, 4_5_6 첫째 등과 같은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란시아에서 아담 후손 중도자들은, 1차 중도자들을 숫자로 호칭하는 것에서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으로 호칭한다.

77:8.3 (864.4) 두 계층 모두, 영양물과 에너지 섭취를 고려할 때에는 비물질 존재이지만, 인간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며, 너희의 경배뿐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유머도 즐기고 알아들을 수 있다. 인간에게 배속됐을 때, 그들은 인간의 업무, 휴식, 및 놀이의 기질을 짐작한다. 그러나 중도자들은 잠자지 않고, 번식하는 능력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둘째 집단은 남성적인 모습과 여성적인 모습에 따라서 계통이 나뉘어 있는데, 종종 "그" 또는 "그녀"로 호칭되기도 한다. 그들은 흔히 그런 쌍을 이뤄서 일한다.

77:8.4 (864.5) 중도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만, 2차 중도자는 본성적으로 천사보다 인간에 가까우며;어떤

면에서 너희 인종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접촉할 때 대단히 잘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며; 다양한 인간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스라빔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이고, 두 집단 모두 인간의 개인 수호자로 봉사하는 스라빔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77:8.5 (864.6) 유란시아 연합 중도자들은, 타고난 재능과 획득된 솜씨에 따라서, 행성 스라빔과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과 같은 집단으로 조직돼 있다:

77:8.6 (864.7) 1. **중도 사자{使者}**. 이 집단은 이름을 갖고 있으며; 작은 단체이고,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봉사에서 진화 세계를 크게 돕는다.

77:8.7 (864.8) 2. **행성 파수꾼**. 중도자는, 공간 세계들의 수호자, 즉 파수꾼이다. 그들은 그 영역의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중요한, 수많은 현상과 유형의 통신 전체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행성의 보이지 않는 영 영역을 순찰한다.

77:8.8 (865.1)

3. 접촉하는 인격체. 이 통신문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상대자의 경우처럼, 물질 세계의 필사{必死} 존재들과 접촉할 때, 중도 피조물이 항상 이용된다. 그들은 영적 수준과 물질적 수준의 그런 접촉에서 필수 요소다.

77:8.9 (865.2)

4. 진보 협조자. 이들은 중도 피조물 중에서 더 영적인 자들이며, 행성에서 특별한 집단을 이뤄서 활동하는 다양한 계층의 스라빔에게 협조하도록 배치돼 있다.

77:8.10 (865.3)

중도자들은, 위로는 스라빔과, 그리고 아래로는 인간 사촌과 접촉하는 역량이 무척 다르다. 이를테면, 1차 중도자들은 물질 매개체와 직접 접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천사 유형의 존재에 현저히 가까우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 행성에 거주하는 영적 무리와 함께 일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배정된다. 그들은 천상{天上}의 방문자와 학생 체류자들을 위한 동무 및 안내자로서 행동하며, 한편 2차 피조물은 그 영역의 물질 존재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배속돼 있다.

77:8.11 (865.4)

1,111명의 충성스런 2차 중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 그들은 1차 동역자들과 비교할

때, 단연코 물질적이다. 그들은 인간 시력 범위 바로 밖에 있고, 인간이 “물질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음대로 육체적 접촉을 하기에 충분한 적응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독특한 피조물은, 시공간 세계의 사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영역의 짐승도 예외가 아니다.

77:8.12 (865.5) 천사의 탓으로 돌리는, 글자 그대로 일어난 많은 현상은 2차 중도자가 수행한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초기 선생들을 당시의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뒀을 때, 실제로 “주{主}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야고보가 처형된 후 베드로가 구출된 경우에, 천사의 탓으로 돌린 그 일을 수행한 것은 2차 중도자였다.

77:8.13 (865.6) 오늘날 그들의 주된 업무는, 행성의 운명 예비 단체를 구성하는 남녀에게, 눈에 띄지 않은 채 몸소_연락하는 동료로서 하는 업무다. 천상{天上}의 행성 감독관들로 하여금 여러 청원{請願}의 시작을 마침내 유도하도록, 유란시아에서 인격체들 및 환경 조건의 조정을 일으킨 것은 이 2차 집단의 작용이었고, 1차 단체

중에서 어떤 자들이 이를 훌륭하게 후원했는데, 이런 청원은, 일련의 계시를 가능하게 만든 명령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본 발표문{發表文}은 그 계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은, 중도 피조물은 대개 “심령술”로 알려진 그런 상황 아래서 자행되는 지저분한 연기{演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란시아에 현존하는 중도자는, 그들 전체가 존경할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소위 “영매{靈媒}”로 불리는 현상과는 관계없으며;그들은, 때때로 물리적 활동을 하거나, 물질세계와 달리 접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인간의 감각이 감지하듯이 그렇게 인간이 구경하는 것은 대개 허용치 않는다.

9. 유란시아의 영구 시민

^{77:9.1 (865.7)} 인간 피조물처럼 진화하면서 상승하는 존재들 및 천사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중도자는 여러 우주에 두루, 다양한 체제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영구 거주자 가운데 첫째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다양한 지점에서, 그런 영구 시민을 만나게 된다.

77:9.2 (866.1) 행성에서 *사역하도록* 배정된 다양한 계층의 천상의 존재와는 달리, 중도자는 인간거주 세계에서 *산다*. 스라빔은 왔다 갔다 하지만, 중도 피조물은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머물 것이며, 비록 행성의 토착민 신분으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스랍 무리의 변화하는 경영진과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하나의 계속적인 체제를 마련해 준다.

77:9.3 (866.2) 중도자는 유란시아의 실제 시민으로서, 이 구체의 운명에 공통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행성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굳게 결의한 연합체다. 그들 계층이 내걸고 있는 좌우명이 그들의 각오를 암시해 준다: “연합된 중도자가 착수한 것은, 연합된 중도자가 끝낸다.”

77:9.4 (866.3) 에너지 회로를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중도자든지 행성을 떠나게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우주 권세자들이 언젠가 방면할 때까지 행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개별적으로 굳게 맹세했다. 중도자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행성에 머물 것이다. 1_2_3

첫째를 제외하고, 충성스런 중도 피조물은 한 명도 유란시아를 떠난 적이 없다.

77:9.5 (866.4) 1차 계층 가운데 최고 고참인 1_2_3 첫째는, 오순절 직후에 직접 참여하는 행성 임무에서 해제됐다. 고귀한 이 중도자는, 행성 반역이 있었던 비극적인 날들 동안, 반과 아마돈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용맹스런 지도력은 자기 계층에서 희생자를 줄이는 데 힘이 됐다. 그는 현재 예루셈에서 24명의 조연자 가운데 하나로 봉사하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에 한때 유란시아 총독으로서 이미 활동했었다.

77:9.6 (866.5) 중도자는 행성에 묶여 있지만, 필사자가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함으로써 행성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관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도자도 천상의 여행자들과 그렇게 대화하고 우주의 먼 지역에 관해서 배운다. 그들은 이 체계와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오르본톤 및 그것의 동종 창조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통하게 됐으며, 피조물 실존 중에서 더 높은 수준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스스로 준비한다.

77:9.7 (866.6) 중도자는 완전히 발달된 존재로서 태어났지만--곧 미숙한 상태에서부터 자라거나 발달하는 기간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지혜와 체험에서는 끊임없이 자라왔다. 필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진화하는 피조물이며, 성실하게 진화로 달성하는 어떤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유란시아의 중도 단체에는, 위대한 정신과 강력한 영을 소유한 자가 많이 있다.

77:9.8 (866.7)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유란시아의 문명은 유란시아 필사자와 유란시아 중도자의 합동 작품이며, 두 문화 수준 사이에 현재 차이가 있음에도, 이것은 사실이며, 이 차이는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보정{補整}되지 않을 것이다.

77:9.9 (866.8) 중도자의 문화는, 불멸하는 행성 시민의 작품이므로, 인간의 문명을 괴롭히는 일시적 흥망에 비교적 영향 받지 않는다. 사람의 세대들은 잊어버리지만;중도자 단체는 기억하며, 그 기억은 너희가 사는 세계의 전통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다. 그래서 행성의 문화는 그 행성에 늘 남아 있으며,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도, 유란시아의 중도자들이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사촌에게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환경이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7:9.10 (867.1) 중도자는, 아담과 이브가 죽고 나서 물질적 직무와 영적 직무 사이에 생긴 간격을 보정하는 노련한 사역자다. 그들은 너희의 나이 많은 형, 또는 유란시아에 빛과 생명의 안정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랫동안의 투쟁에서 전우와 다름없다. 연합된 중도자는 반역의 시험을 거친 단체이며, 그들은 이 세계가 오랜 세월 추구하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즉 평화가 실제로 지구에 임하고, 진실로 선한 뜻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게 되는 먼 훗날까지, 행성의 진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77:9.11 (867.2) 이 중도자들이 수행하는 가치 있는 업무로 인해, 우리는 그들이 그 영역의 영적 경륜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반역으로 행성 직무가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라빔을 크게 돕고 있다.

77:9.12 (867.3) 높은 영들, 천사 무리, 및 중도{中道} 동료들의 조직 전체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완전성을 달성하는 낙원 계획을 증진시키기에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사자와 중도자를 위해서 똑같이, 우주에서 천상의 사업 가운데 하나다--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는, 숭고한 종류의 동업관계로,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봉사하고 신성에 도달하게 하는, 생존시키는 숭고한 계획이다.

77:9.13 (867.4) [네바돈의 어느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78편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

78:0.1 (868.1) 두 번째 에덴은 거의 3만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이었다. 이곳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담의 민족들이 퍼져나갔는데, 그 자손을 땅 끝까지 보냈고, 나중에 늦족속 및 상익 부족들과 섞이게 되면서, 안드족속으로 알려지게 됐다. 역사 시대의 활동을 시작하고, 유란시아의 문화적 진보를 그토록 대단하게 증진시켜 온 남녀들이, 이 지역으로부터 나아갔다.

78:0.2 (868.2) 본 문서에서 서술될 보라색 인종의 역사는, 기원전 35,000년경에 있었던 아담의 태만 직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5,000년경의 낫족속 및 상익 인종들과의 혼합을 거쳐, 안드족속 민족들이 형성되기까지,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본거지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

1. 인종과 문화의 분포

78:1.1 (868.3) 아담이 도착했을 때, 인종들의 정신과 도덕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육체의 진화는 캘리개스차의 반역으로 생긴 급박한 사태에 그다지 영향 받지 않고 진행됐다. 인종들의 생물학적 상태에 아담이 기여한 것은, 그 이행업무가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에도, 유란시아 민족을 막대하게 증진시켰다.

78:1.2 (868.4)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사회적, 도덕적, 및 지적{知的} 진보에도 유익한 많은 것을 기증했으며;문명은 그들의 자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러나 3만 5천 년 전에, 세계는 일반적으로 문화를 거의 소유하지 못했다. 특정한 문명 중심지가 여기저기 있었지만, 유란시아 대부분은 미개한 상태에서 괴로워했다. 인종과 문화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78:1.3 (868.5)

1. *보라색 인종--아담족속과 아담선족속.* 아담족속 문화의 대표적 중심지는 두 번째 동산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 지역에 위치했으며;이 지역은 진정으로 서양과 인도 문명의 발상지였다. 보라색 인종의 두 번째 중심지, 즉 북쪽 중심지는 아담선족속의 본부였고, 코펫 산맥 근처 카스피 해 남부 해변 동쪽에 자리 잡았다. 이 두 중심지로부터 문화와 생명 원형질이 주변 땅들로 퍼져 나갔는데, 이것은 모든 인종에게 즉각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78:1.4

(868.6)

2. *수메르_이전 족속 및 기타 낫족속.* 메소포타미아에는 또한 그 강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달라마시아 시절 고대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현존했다.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집단은 북쪽에 있는 아담족속과 완전히 섞이게 됐지만, 낫족속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 레반트에 정착했던 다양한 다른 낫족속 집단들은, 후대에 팽창하는 보라색 종족에게 대개 흡수됐다.

78:1.5 (869.1)

3. *안돈족속은,* 아담선 본부의 북동쪽에 있는 다섯 내지 여섯 개의 매우 전형적인 정착지를 유지했다. 또한

그들은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들 중에서 고립된 집단들이 유라시아 전역 특히 산악 지역에 살아남았다. 이 원주민은 아이슬란드 및 그린란드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 북쪽 지역에 여전히 기거했지만, 유럽 평원에서는 청색인에게,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의 하천 계곡지역에서는 팽창하는 황색인에게 쫓겨난 지 오래 됐다.

78:1.6 (869.2) 4. **홍색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했는데, 아담이 도래하기 5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밀려났다.

78:1.7 (869.3) 5. **황인종**. 중국 사람들은 동부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면서 잘 정착했다. 그들의 가장 진보된 정착지는, 티벳 인접 지역의 현대 중국의 북서쪽에 위치했다.

78:1.8 (869.4) 6. **청인종**. 청색인은 전 유럽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중심지는 지중해 분지의 비옥한 유역과 유럽 북서부에 자리 잡았다.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한 것은 청색인의 문화를 크게 뒤쳐지게 했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 청색인은 유라시아의 진화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모험심과 탐구심이 강했다.

78:1.9 (869.5)

7. *드라비다인_이전의 인도*. 인도에 있었던 인종들의--곧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을 포함하지만, 특히 녹색, 주황색, 및 흑인종의-- 복잡한 혼합이 외곽 지역의 문화보다 약간 높은 문화를 유지하게 했다.

78:1.10 (869.6)

8. *사하라 문명*. 남색인종의 우수한 요소들이, 현재의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이룬 곳에서, 그들 나뭇으로 가장 앞선 진보를 이룩했다. 이 남색_검은색 집단은, 사라진 주황인종과 녹색인종의 광범한 혈통을 지녔다.

78:1.11 (869.7)

9. *지중해 분지*. 인도를 제외하고, 피가 가장 많이 섞인 종족이, 현재 지중해 분지가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북쪽에서 온 청색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이 여기서 마주쳤고, 동쪽에서 온 노족속 및 아담족속과 섞였다.

78:1.12 (869.8)

이것이 약 2만 5천 년 전, 보라색 인종의 엄청난 확장이 시작되기 이전{以前}에 세상의 모습이었다. 미래의 문명을 위한 가능성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들 사이의 두 번째 동산에 숨어 있었다. 아시아 남서부인 이곳에, 거대한 문명의 잠재력, 즉 달라마시아 시대와 아담

시대에서 보존돼 온 개념과 이상{理想}을 온 세계에 퍼뜨릴 가능성이 존재했다.

78:1.13 (869.9) 아담과 이브는,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강력한 후손을 남겼으며, 유란시아에 있는 천상{天上}의 관찰자들은, 과오를 범한 물질 아들과 딸의 후손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게 될지 몹시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렸다.

2. 두 번째 동산의 아담족속

78:2.1 (869.10) 아담의 자손은,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강들 근처에서 수고했는데, 남쪽으로 물 대기와 홍수_예방 문제를 해결하고, 북쪽으로는 방어를 튼튼하게 하면서, 첫 번째 에덴의 영화로운 전통을 보존하려고 애썼다.

78:2.2 (869.11) 두 번째 동산의 통솔력에서 드러났던 영웅적 자질은, 유란시아의 역사에서 놀랍고 영감 주는 서사시 가운데 하나다. 뛰어난 이 혼들은, 아담의 사명이 가졌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들은 주위를 둘러싼 부족들 세력과 용맹스럽게 싸우는 동시에, 가장 빼어난 아들과 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종족들에게 꾸준히 사자{使者}로 파견하는 일을 기꺼이 담당했다.

어떤 때에는 이런 확장이 본고장의 문화를 고갈시키기도 했지만, 뛰어난 이 민족은 항상 스스로 회복시키곤 했다.

78:2.3 (870.1) 아담족속의 문명, 사회, 및 문화적 상태는, 유란시아에 있는 진화 인종들의 일반 수준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오직 반과 아마돈의 옛 정착지들, 그리고 아담선족속 가운데서만, 어느 정도 비교될만한 문명이 존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의 문명은 인위적 구조였으며--곧 *진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런 진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퇴보될 수밖에 없었다.

78:2.4 (870.2) 아담은 지적이고 영적인 위대한 문명을 남겼지만, 그 문명은 기계 장치에서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유용한 천연 자원, 선천적 특별재능, 그리고 창의적 성과를 보증할만한 충분한 여가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문명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보라색 인종의 문명은, 아담의 현존과 첫 번째 에덴의 전통에 기초를 뒀다. 아담이 죽은 후에,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 전통이 희미하게 되자, 아담족속의 문화 수준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수준과, 그리고 보라색 인종의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문화 수용력과,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까지 퇴보했다.

78:2.5 (870.3) 그러나 아담족속은 기원전 약 19,000년까지 실제 국가를 이뤘고, 인구는 45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미 수백만 명의 자손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낸 상태였다.

3. 아담족속의 초기 확장

78:3.1 (870.4) 보라색 인종은, 평화를 수호하는 에덴의 전통을 수천 년 동안 간직했는데, 그들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이 오랫동안 지연됐음을 이것이 설명해 준다. 인구 팽창으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초과되는 숫자의 주민을 다른 인종들에게 선생으로 파견했다. 이런 초기 이주{移住}의 문화적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아담족속의 선생, 상인{商人}, 및 탐험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생물학적으로 활기를 띠게 됐다.

78:3.2 (870.5) 아담족속 가운데 더러는 일찍이 서쪽으로 여행해서 나일 강 지역에 이르렀고;더러는 아시아로 들어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후대의 대량 이동은 북쪽으로 광범하게 이뤄졌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이뤄졌다. 그것은 대부분 점차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이뤄졌는데, 더 많은 숫자가 북쪽으로 이동했고, 그 후에는 서쪽으로 돌아서 카스피 해를 지나 유럽으로 들어갔다.

78:3.3 (870.6) 약 2만 5천 년 전에, 아담족속의 좀 더 순수한 요소들 가운데 다수가, 북쪽으로 집단 이주한 자들에게서 잘 유지됐다. 그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아담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것은 투르케스탄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인종들, 특히 낫족속과 완전히 섞이기까지 계속됐다. 순수한_핏줄의 보라색 민족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유럽이나 아시아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78:3.4 (870.7) 기원전 약 30,000년부터 10,000년까지, 신기원을_이루는 인종 혼합이 남서부 아시아 전역에서 발생됐다. 투르케스탄 지역의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은 씩씩하고 활기찬 민족이었다. 인도 북서쪽 지역에서, 반 시절의 문화가 많이 유지됐다. 이 정착지들보다 더 북쪽에서는, 초기 안돈족속의 최고 문화가 보존됐다. 그리고 문화와 문자를 가진 우수한 이 두 종족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담족속에게 흡수됐다. 이런 혼합은 많은 새

관념을 수용하도록 이끌었는데;그것이 문명의 진보를 촉진시켰고, 예술, 과학, 및 사회적 문화의 모든 국면을 크게 진보시켰다.

78:3.5 (871.1) 기원전 15,000년경에, 아담족속의 초기 이주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아담 후손이 유럽과 아시아에 이미 존재했으며, 심지어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많았다. 그들은 이미 유럽의 청인종 속에 대체로 스며든 상태였다. 낫족속과 안돈족속 그리고 홍색 및 황색 상의 인종들과 섞인 아담족속으로 축적된 거대한 무리가, 지금 러시아와 투르케스탄이라고 불리는 땅의 광활한 남부 지대 전체를 두루 차지했다. 남부 유럽과 지중해 주변은, 극소수의 아담 혈통과 함께, 안돈족속과 -- 주황색, 녹색, 및 남색-- 상의 민족들의 혼혈 인종이 장악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와 중앙_동부 유럽 땅은, 대체로 안돈족속에 해당하는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78:3.6 (871.2)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도래한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보충된, 피가 섞인 유색 인종이 이집트를 차지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이어받을 준비를 갖췄다. 검은색 민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홍인종처럼, 사실상 고립됐다.

78:3.7 (871.3) 사하라 문명은 이미 가뭄으로 붕괴됐고, 지중해 분지 문명은 홍수로 붕괴됐다. 청인종은 아직 진보된 문화로 발전하지 못했다. 안드족속은 여전히 북극 및 중앙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녹색과 주황인종은 이미 그렇게 멸절된 상태였다. 남색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거기서 서서히 그러나 오래_계속되는 인종 퇴보를 겪었다.

78:3.8 (871.4) 인도에 있는 민족들은 진보되지 않는 문명과 함께 정체된 상태였으며;황색인은 중앙 아시아에서 자신의 소유지를 굳건히 하고 있었으며;갈색인은 태평양 연안 섬들에서 아직 문명을 꽃피우지 못한 상태였다.

78:3.9 (871.5) 이런 인종 분포는, 광범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안드족속 시대의 유란시아 문명을 개시하기 위한 세계적 무대를 설치했다. 이런 초기 이주{移住}는, 기원전 25,000년에서 15,000년까지 약 1만 년 동안 계속됐다. 후대{後代}의 이주, 즉 안드족속의 이주는, 기원전 15,000년에서 6000년까지 계속됐다.

78:3.10

(871.6)

아담족속의 초기 인파가 유라시아를 지나가기까지 무척 오랜 세월이 걸렸으므로, 그들의 문화는 이동하는 도중에 크게 손실됐다. 오직 후대의 안드족속만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무리 먼 지역까지라도 에덴 문화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빨리 이동했다.

4. 안드족속

78:4.1 (871.7)

안드족속 인종은, 순수 혈통의 보라색 인종과 낫족속 그리고 여러 진화 민족이 1차로 섞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드족속은 현대의 인종들보다 아담의 피가 훨씬 많이 섞여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안드족속이라는 말은 주로, 인종적 유전형질 중에서 8분의 1내지 6분의 1을 보라색 인종에서 받은 민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의 유란시아인은, 심지어 북쪽의 백인종마저, 이 비율보다 훨씬 적은 아담의 피를 지니고 있다.

78:4.2 (871.8)

가장 초기의 안드족속 민족은, 2만 5천 년보다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 근처 지역에서 기원됐고, 아담족속과 낫족속의 혼혈로 구성됐다. 두 번째 동산은, 보라색 피가 점차 줄어드는 동심원{同心圓}으로 둘러싸였고, 안드족속

인종의 탄생은, 이 인종 용광로 주변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이주하는 아담족속과 노트족속이 투르케스탄의 비옥한 지역으로 들어오자, 그들은 곧 우수한 주민과 혼합됐고, 그 결과로 생긴 인종 혼합은 안드족속 유형을 북쪽으로 확대시켰다.

78:4.3 (872.1) 안드족속은, 순수한 혈통의 보라색 민족 이후로 유란시아에 나타난 혈통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혈통이었다. 그들은 아담족속과 노트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가장 수준 높은 유형 대부분을 소유했고, 나중에는 황색인, 청색인, 및 녹색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종족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다.

78:4.4 (872.2) 이 초기 안드족속은 아리아인이 아니었으며;아리아인의 선조였다. 그들은 백인종도 아니었으며;백인종의 선조였다. 그들은 서양 민족이 아니었고, 동양 민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소위 백인종 혼혈에게, 코카소이드라고 알려진 일반화된 동질성을 제공한 것은, 바로 안드족속 유전형질이었다.

78:4.5 (872.3) 보라색 인종 중에서 더 순수한 혈통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아담 전통을 간직했는데, 이것은 초기 인종 이동이 어떻게 평화로운 이주 환경에서 이뤄졌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아담족속이 낫족속 혈통들과 결합하자, 당시에 가장 호전적인 인종이 됐고, 그들의 안드족속 후손은, 그 시대와 그 후로 오랫동안, 전에 유란시아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능숙하고 영리한 군사 전문가들이 됐다.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인의 이동은 군사적 성격이 점점 더 강해졌고, 실제 정복활동에 더 가까워졌다.

78:4.6 (872.4) 이 안드족속은 모험을 좋아했고, 방랑하는 성향이 있었다. 상익 또는 안돈족속 혈통의 증가가, 그들을 안정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더라도, 그들의 후대 자손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멀리 떨어진 마지막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멈춘 적이 없었다.

5. 안드족속의 이주

78:5.1 (872.5) 두 번째 동산의 문화가 2만 년 동안 지속됐지만, 그것은 기원전 약 15,000년까지 꾸준한 퇴보를 겪었는데, 이때 셋족속 제사장체제의 부활과 아모사드의 지도력이

찬란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후대에 유라시아에 퍼진 문명의 거대한 물결은, 아담족속이 주변에 있는 혼합된 낫족속과 광대하게 합쳐져서 안드족속을 형성한 결과로 생긴, 동산의 위대한 문예부흥에 뒤이어 즉시 퍼졌다.

78:5.2 (872.6) 이 안드족속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새롭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장{新疆} 전역{全域}까지 안드족속 문화가 지배했고, 유럽을 향한 끊임없는 이주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로 대체됐다. 그러나 혼합된 아담 후손이 마지막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안드족속을 메소포타미아 고유 종족이라 부르는 것이 거의 타당하지 못하다. 이 무렵에 두 번째 동산의 인종들도 너무 피가 섞인 상태여서, 더 이상 아담족속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78:5.3 (872.7) 투르케스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 도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후대의 안드족속 기마병{騎馬兵}으로 인해, 끊임없이 회복됐고 힘을 얻었다. 소위 아리아인의 원천 언어가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며;그것은 그 지역에 있던 안돈족속 방언과 아담선족속의 언어 및 후대 안드족속

언어의 혼합물이었다. 현대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는, 유럽, 인도, 및 메소포타미아 평원 윗부분을 정복한 중앙아시아의 이 부족들이 사용하던 초기 언어에서 유래됐다. 고대의 이 언어는, 소위 아리아 어족{語族}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유사성을, 서양의 여러 언어에 제공했다.

78:5.4 (872.8) 기원전 12,000년이 되자, 세상에 있는 전체 안드족속 혈통의 4분의 3이 유럽의 북부와 동부에 살았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후대의 최종적 대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주하는 이 마지막 무리의 65퍼센트가 유럽으로 들어갔다.

78:5.5 (873.1) 안드족속은 유럽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북부 중국과 인도까지 이주했고, 동시에 많은 무리가, 선교사, 선생, 및 상인{商人}으로서 땅 끝까지 퍼졌다. 그들은 사하라의 상익 민족 중에서 북부 지역 집단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나일 강 상류 지역 남쪽으로는 선생과 상인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나중에는, 혼합된 안드족속 및 이집트인이, 적도보다 훨씬 밑으로 아프리카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서 내려갔지만, 마다가스카르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78:5.6 (873.2) 이 안드족속은, 인도에서 소위 드라비다인, 그리고 나중에는 정복자 아리아인이었으며;중앙 아시아에서는 우랄알타이 어족 조상을 엄청나게 증진시켰다. 이 인종 가운데 다수는 신장과 티벳을 지나는 양쪽 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고, 후대 중국인 혈통들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더해줬다. 때로는 작은 집단들이, 일본, 대만, 동인도 제도, 중국 남부 등으로 여행했고, 매우 적은 무리들이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남부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

78:5.7 (873.3) 이 인종 132명이 작은 배들을 나눠 타고 일본을 떠나서, 결국 남아메리카에 도착했고,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과 결혼함으로써, 후대에 잉카 제국 통치자들의 조상을 설립했다. 그들은 쉬운 중간지점, 즉 그 항로{航路} 도중에 발견되는 수많은 섬 위에 머물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다. 폴리네시아 군도{群島}는 현재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고 면적도 훨씬 넓었으며, 이 안드족속 항해자들은, 따라오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여행 도중에 많은 원주민 집단을 생물학적으로 변경시켰다. 안드족속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들에서, 번성하는 많은 문명 중심지가 자라났다.

이스터 섬은, 사라진 이 집단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 및 경영 중심지역할을 오래 유지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태평양을 향해한 많은 안드족속 가운데 132명 외에는, 아무도 아메리카 본토에 이르지 못했다.

78:5.8 (873.4) 안드족속의 이주와 정복은, 마지막 분산{分散}이 발생한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까지 계속됐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그들은 본거지의 생물학적 보존물을 계속 고갈{枯渴}시켰고, 한편 주변의 민족들을 현저히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각 나라마다, 유머, 예술, 모험, 음악, 및 제조 기술을 증진시켰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이는 재주가 있었고 농업 전문가였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대개 옛 인종들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풍습이 개선됐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는, 유럽, 인도, 중국,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6. 안드족속의 마지막 분산

78:6.1 (873.5) 메소포타미아에서 퍼져 나가는 마지막 세 번의 물결이, 기원전 8000년부터 6000년 사이에 있었다. 세

차례의 이 문화 대이동{大移動} 물결은, 동쪽으로는 고지대 부족들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평야지대 주민의 괴롭힘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주변 지역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향으로 마지막 이주를 단행했다:

78:6.2 (873.6) 65퍼센트는 카스피 해 바닷길로 유럽에 들어가서, 새로 등장하는 백인종을--곧 청색인과 초기 안드족속의 혼혈을-- 정복했고 그들과 섞였다.

78:6.3 (873.7) 셋족속 제사장 가운데 큰 집단을 포함해서, 10퍼센트는 동쪽으로 이동했고, 엘람 고지대를 통과해서 이란 평원과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수는 나중에, 북쪽 지역에서 온 아리아 동족{同族}들과 함께 인도로 몰려갔다.

78:6.4 (874.1) 메소포타미아인 중에서 10퍼센트가, 북쪽으로 이주하던 중에 동쪽으로 돌아서 신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안드족속_황색인 주민과 섞였다. 이런 인종적 결합의 결과로 태어난 유능한 자손 대부분이 나중에

중국으로 들어갔고, 황인종 중에서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즉시 개선하는 데 많이 기여했다.

78:6.5 (874.2) 도피한 이 안드족속 가운데 10퍼센트가, 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집트로 들어갔다.

78:6.6 (874.3) 안드족속 중에서 5퍼센트는, 열등한 이웃 부족과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 근처 해변 지역의 매우 우수한 문화를 유지했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많은 우수한 낫족속과 아담족속 종족들 가운데 생존자를 대표했다.

78:6.7 (874.4) 기원전 6000년경에 안드족속은 이 지역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지만, 주변의 상익 인종들 및 소아시아의 안돈족속과 크게 섞인 그들의 후손이, 거기서 훨씬 후대에 북쪽과 동쪽을 침입한 자들에 대항해서 싸웠다.

78:6.8 (874.5) 두 번째 동산의 문화 시대는, 주변에 있는 열등한 혈통의 사람들이 점점 더 침투해 들어옴으로써 종말을 맞이했다. 문명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나일 강과 지중해 섬들에 도달했고, 거기서 계속 번성하고 발전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메소포타미아 근원지가 퇴락{頹落}하게 됐다. 그리고 제지받지 않고 열등한 민족들이 이렇게 유입된 것은, 북방 야만인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나중에 정복하도록 길을 닦아줬으며, 그들은 남아있는 유능한 혈통을 몰아냈다. 심지어 후기 시대에도, 문화를 가진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고 거친 이 침입자들의 출현에 여전히 분개했다.

7.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78:7.1 (874.6)}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계절에, 제방{堤防} 위로 강물이 넘치는 것에 익숙했으며;이런 주기적 홍수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매년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북쪽 지방의 지형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을 위협했다.

^{78:7.2 (874.7)} 첫 번째 에덴이 물에 잠긴 후 수천 년 동안, 지중해 동쪽 연안 근처의 산맥과 메소포타미아 북서쪽 및 북동쪽 산맥이 계속 솟아올랐다. 고원지대의 이런 상승 현상은 기원전 5000년경에 크게 가속화 됐고, 북쪽에 있는 산들 위에 점점 더 엄청나게 쌓이는 눈과 함께, 전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매해 봄마다 전례 없던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런 봄철 홍수는 점점 더 심각하게 돼서, 결국 강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동쪽 고원지대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 거의 1,000년 동안 이런 광범한 지역의 이런 대홍수 때문에, 수많은 도시가 실제로 황폐한 상태로 변했다.

78:7.3 (874.8) 거의 5천 년 뒤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있던 히브리 제사장들은, 유대 민족의 조상을 아담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추적하려고 애썼는데,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수고를 포기하면서, 노아 홍수 때 온 세계의 사악함 때문에 물에 잠긴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조상을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로 바로 연결시키는, 훨씬 확실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

78:7.4 (875.1) 물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때에 대한 전설은 널리 퍼져있다. 많은 인종이, 과거 어느 시대의 전세계적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노아와 방주 그리고 홍수에 대한 성서 이야기는, 베벨론 포로기에 히브리 제사장들의 창작품이다. 생명체가 유란시아에 심어진 이후로, 전세계의 홍수가 일어난 적은 전혀 없었다. 지구 표면

전체를 물이 덮었던 유일한 시기는, 육지가 나타나기 전인
시생대{始生代} 동안이었다.

78:7.5 (875.2) 그러나 노아는 실제 인물이었으며;아람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자였고, 에렉 근처 강변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강물이 불어나는 날들을 매년 기록했다.
홍수 철이 다가오면, 그는 그 강 유역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집을 배 모양이 되도록 나무로 지을 것과, 집안에 있는
동물을 매일 밤마다 배에 실으라고 외쳤으므로, 많은
조롱을 받았다. 그는 강 근처에 정착한 이웃에게 해마다
가서, 아주 오랫동안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곤 했다.
마침내 매년 발생하는 홍수 철이 시작됐고, 유별나게 심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강물이 크게 불어남으로써
모든 마을이 휩쓸렸으며;오직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만, 배
위에 지은 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

78:7.6 (875.3) 이 홍수들로 인해 안드족속 문명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 홍수 기간이 끝나면서, 두 번째 동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오직 남부 지역에서, 그리고
수메르인 가운데서, 그 전에 있었던 영화{榮華}의 자취가
약간 남았을 뿐이다.

78:7.7 (875.4) 가장 오래된 문명 가운데 하나인 이것의 잔재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에서 그리고 북동쪽 및 북서쪽 지역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훨씬 오래된 달라마시아 시대의 흔적은 페르시아 만의 물밑에 있으며, 첫 번째 동산은 지중해의 동쪽 끝 부분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8. 수메르인--마지막 안드족속

78:8.1 (875.5) 안드족속의 마지막 분산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의 생물학적 중심 세력이 힘을 잃게 됐을 때, 우수한 이 인종 가운데 소수 집단이, 그 강들의 입구 근처에 있는 고향에 남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수메르인이었으며, 기원전 6000년경에, 그들의 문화의 성격은 낫족속에 더 가까웠고, 달라마시아의 고대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태생적으로는 거의 안드족속이 돼 있었다. 그럼에도, 해변 지역의 이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은 마지막 안드족속이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인종들은, 이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두개골 유형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런 후대에 이르자 이미 완전히 피가 섞여 있었다.

78:8.2 (875.6)

수사가 매우 번창한 것은, 이 홍수가 있던 시절이었다. 처음에 낮은 곳에 세운 도시가 물에 잠겼으므로, 더 높은 지대에 있었던 두 번째 도시가, 그 당시 공예 기술의 본부로서 낮은 지대의 도시를 대신했다. 나중에 이런 홍수가 줄어들자, 우르가 도기{陶器} 제조 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약 7천 년 전에는 우르가 페르시아 만에 위치했는데, 강의 퇴적물 때문에 현재의 경계 지역까지 육지가 확장됐다.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덜 입은 것은, 강들을 잘 통제하고 입구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78:8.3 (875.7)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평화롭게 곡식을 재배하던 사람들은, 투르케스탄과 이란 평원에 사는 야만인의 침입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몹시 시달려 왔었다. 그러나 일제히 벌어진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침략은, 고원지대 목초지에 점점 심한 가뭄이 닥침으로써 발생됐다. 그리고 이런 침략은 훨씬 심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 목축업자와 사냥꾼들이, 많은 숫자의 길들여진 말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더 부유한 남쪽 사람들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말의 소유였다. 그들은 삼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역과 서부 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로 마지막 문화의 물결이 퍼져 나가게 했다.

78:8.4 (876.1)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이 사람들 대열에는, 아담선 혈통 일부를 포함해서, 투르케스탄 북부 지역의 인종들과 섞인 우수한 안드족속 종족들 가운데 다수가 들어 있었다. 북쪽에서 도래한, 덜 진보됐지만 더 강력한 이 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여물{殘餘物}을 재빨리 그리고 기꺼이 흡수했으며, 마침내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정착한 혼합된 민족들로 발전했다. 그들은 사라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국면을 회복시켰는데, 계곡 부족들의 예술과 수메르인 문화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들은 세 번째 바벨 탑 건설을 꾀했고, 나중에는 그 이름을 그들 나라의 이름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78:8.5 (876.2) 이 야만인 기마병들이 북동쪽으로부터 침입해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을 때, 페르시아 만에 있는 강 입구 근처에 거주하던 나머지 안드족속은 정복하지 않았다. 이 수메르인은 우수한 지성과 훨씬

강력한 무기, 그리고 저수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관개{灌溉} 시설로도 사용한 광범한 체계의 군사적 수로{水路}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동일한 집단 종교를 소유했으므로 결합된 민족을 형성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서쪽 이웃 나라들이 고립된 도시_국가들로 갈라진 지 오랜 후에도, 그 종족과 민족적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도시 집단 가운데 어떤 것도, 뭉쳐있는 수메르인을 정복할 수 없었다.

78:8.6 (876.3) 그리고 북쪽 침입자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 수메르인을 선생 및 경영자로서 신뢰하고 존중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과, 서쪽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모든 민족에게 매우 존경받았고, 예술과 산업의 선생으로서, 상업의 지휘자로서, 그리고 집권자로서 추대됐다.

78:8.7 (876.4) 초기 수메르인 연방 체제가 무너진 후에, 셋족속 제사장들의 후손 가운데 변절한자들이 후대{後代}의 도시_국가들을 지배했다. 이 제사장들이 이웃 도시들을 정복했을 때에야, 그들은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 다른

신격{神格}을 경계했기 때문에, 후대의 도시 왕들은 사르곤 시대 이전에는 강력한 연방을 형성하지 못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 자체의 신이 모든 다른 신{神}보다 뛰어나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공동 지도자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78:8.8 (876.5) 도시의 사제들이 미약하게 통치하던 이 긴 기간은, 키쉬의 사제 사르곤으로 말미암아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했으며,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것이, 각 도시마다 자체의 도시 신{神}과 자체의 예식절차 풍습을 소유하는, 사제가 통치하고 사제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_국가들의 종말을 가져왔다.

78:8.9 (876.6) 이런 키쉬 연방 체제가 깨진 후에,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들 상호간에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던 긴 기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통치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쉬, 에렉, 우르, 및 수사 사이에서 여러 번 바뀌었다.

78:8.10 (877.1) 기원전 2500년경에, 수메르인은 북부 지역에 있는 수이족속과 구이족속에게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됐다.

홍수를 막는 제방 위에 세워진, 수메르인의 수도 라가쉬가 함락됐다. 에렉은 아카드가 몰락한 후에 30년 동안 유지됐다. 함무라비 법전이 완성될 무렵에, 수메르인은 북쪽에 있는 셈족속 반열에 흡수됐고, 메소포타미아의 안드족속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졌다.

78:8.11 (877.2)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방랑하는 무리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네르족속은, 피가 섞인 안돈족속과 안드족속 인종들의 메소포타미아 후손 중에서, 카스피 지역 집단의 최종적 이주를 형성했다. 야만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몰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그 뒤에 일어난 기후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다.

78:8.12 (877.3) 이것이, 아담 시대 이후의 보라색 인종에 관한 것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본거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우수한 민족들이 이주{移住}해 나간 것과, 열등한 이웃들이 이주해 들어온 것 때문에, 마침내 침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야만인 기마병들이 그 계곡을 정복하기 전에, 동산의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퍼졌고, 거기서 발효{醱酵}됨으로써 유란시아의 20세기 문명이 태어나게 됐다.

78:8.13 (877.4)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79편 동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79:0.1 (878.1) 아시아는 인류의 조국{祖國}이다. 안돈과 흰타가 태어난 곳은, 이 대륙의 남부에 있는 어느 반도{半島}였으며;그들의 후손인 바도난이, 지금은 아프카니스탄이 된 고원지대에서 원시 문화 중심지를 세웠고, 50만 년 이상 유지됐다. 인류의 이 동부 중심지에서, 안돈족속 혈통으로부터 상의 민족들이 갈라져 나왔고, 아시아는 그들의 처음 고향이자 첫 사냥터였고 첫 전쟁터였다. 남서부 아시아는, 달라마시아인, 낫족속, 아담족속, 및 안드족속으로 이어진 문명을 겪었고, 이 지역으로부터 현대 문명의 잠재력이 세계로 퍼져 나갔다.

1. 투르케스탄의 안드족속

79:1.1 (878.2) 거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기까지, 2만 5천 년이 넘는 동안, 안드족속이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점점

줄었지만 현저히 많았다. 안드족속은 투르케스탄 저지대로부터 서쪽을 향해 내륙 호수들을 돌아서 유럽으로 들어갔고, 한편 이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동쪽으로 스며들었다. 동부 투르케스탄(신장)은 고대의 통로 역할을 했고, 그보다 미약하기는 했지만 티벳 역시 그런 통로였는데, 거기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이 민족들이 산맥을 넘어, 황색인이 사는 북부 땅으로 들어갔다. 안드족속의 인도 침투는, 투르케스탄 고지대에서 유래되어 편잡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란의 목초지역에서 바루키스탄을 통과해 들어갔다. 이런 초기 이주는 결코 정복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안드족속 부족들이 서부 인도와 중국으로 되풀이해서 흘러 들어간 것이었다.

79:1.2 (878.3) 거의 1만 5천 년 동안, 잡다한 안드족속 문명 중심지들이, 신장에 있는 다림 강 분지와 티벳의 고원지대 남부에 유지됐으며, 거기서 안드족속과 안돈족속이 광범하게 섞였다. 다림 계곡은, 변질되지 않은 안드족속 문화의 동쪽 끝 전초기지였다. 그들은 여기서 정착지를 형성했고, 동쪽으로는 진취적인 중국인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안돈족속과 거래 관계를 이루게 됐다. 당시에

다림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으며;강우량이 풍부했다. 동쪽으로 고비 지역은 넓게 펼쳐진 목초지였고, 목축업이 점차 농업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자 이 지역 문명이 쇠퇴했지만, 당시에는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쌍벽을 이뤘다.

79:1.3 (878.4) 기원전 8000년경에, 중앙 아시아 고지대가 점점 더 건조해짐으로써, 안드족속은 강변과 해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심해지는 건조 현상 때문에, 나일 강,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 및 황하{黃河} 유역으로 그들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안드족속 문명에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게 됐다. 새로운 계층 사람인 상인{商人}이 많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79:1.4 (879.1) 이주하는 안드족속이 기후 조건 때문에 사냥하기 어렵게 됐을 때, 그들은 목축업자가 됨으로써 옛 인종들의 진화 과정을 답습하지 않았다. 상업과 도시 생활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을 거쳐서 중국과 인도의 강들까지, 상당히 문명화된 부족들이 제조업과 무역에 전념하는 여러 도시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도니아는 중앙 아시아의 상업

중심지가 됐는데, 현재 아쉬카바드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자리 잡았다. 돌, 금속, 나무, 및 도기{陶器}의 교역{交易}이 땅과 바다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79:1.5 (879.2) 그러나 계속_심화되는 건조 현상이, 안드족속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카스피 해 남부와 동부로 대이동 하도록 만들었다. 이주 물결이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뀌었고, 바벨론 기마병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79:1.6 (879.3) 중앙 아시아의 심해지는 건조 상태가 인구를 더 감소시켰고, 이 사람들의 호전성을 줄였으며;북쪽 지역의 강우량이 줄어들었으므로, 방랑하던 안돈족속이 강제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수많은 안드족속이 투르케스탄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이 소위 아리아인이 레반트와 인도 지역으로 들어간 마지막 이동이다. 오랫동안 이뤄진 잡다한 아담 후손의 분산이 절정에 달했고, 그러는 동안에 아시아의 모든 민족과 태평양 섬들의 대부분의 민족이, 우수한 이 인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다.

79:1.7 (879.4) 그리하여, 그들이 동반구로 퍼져 나가는 동안,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투르케스탄에 있는 본거지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안드족속의 이런 광대한 남쪽 이동 때문에 중앙 아시아의 안드족속이 희귀해져서 거의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79:1.8 (879.5) 그러나 기원후 20세기까지도, 우랄알타이 어족{語族} 및 티벳 민족들 가운데에는 안드족속 핏줄의 흔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따금 발견되는 금발 유형의 사람들이 이를 증거한다. 초기 중국 사료{史料}는 황하의 평화로운 정착지 북쪽 지역에 붉은 색 머리카락을 가진 유목민이 있었다고 기록했으며, 옛날에 다림 분지에서 금발_안드족속과 갈색_몽고족 유형들이 같이 있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79:1.9 (879.6) 중앙 아시아 안드족속의 잠자던 군사적 천재성이 마지막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서기 1200년에 징기스칸이 지배하는 몽고가, 아시아 대륙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였다. 그리고 옛 안드족속과 마찬가지로, 이 전사{戰士}들은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전파했다. 그들의 제국이 일찍 무너짐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문화 교류가 오랫동안 연기됐고, 아시아에서 유일신 개념이 성장하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했다.

2. 안드족속의 인도 정복

79:2.1 (879.7) 인도는 유란시아의 모든 인종이 섞인 유일한 장소인데, 안드족속의 침입이 마지막 혈통을 더했다. 인도 북서쪽 고지대에서 상익 인종이 출현했고, 초기에 인도 아{亞}대륙에 들어온 각 종족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섞임으로써, 유란시아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종족 가운데 가장 잡다한 인종을 남겼다. 고대의 인도는, 이주하는 인종들을 붙잡아두는 웅덩이 역할을 했다. 반도의 아래쪽 폭이 전에는 현재보다 약간 좁았으며, 간지스와 인더스 삼각주{三角洲} 대부분은 지난 5만 년 세월의 작품이다.

79:2.2 (879.8) 인도에서 있었던 최초의 인종 혼합은, 이주하는 홍인종과 황인종이 토착민 안돈족속과 섞인 것이었다. 이 집단은, 소멸된 동부 녹색 민족들 대부분과 많은 숫자의 주황인종을 흡수함으로써 나중에 약화됐고, 청색인과 제한적으로 혼합됨으로써 약하게나마 진보했지만, 많은 숫자의 남색인종과 혼합됨으로써 크게 수난 당했다. 그러나 소위 인도 원주민은 도저히 이런 초기 민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그들은 오히려 남부와 동부 지역에 사는 가장 열등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은 초기 안드족속 또는 후대에 나타난 아리아 동족에게 결코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다.

79:2.3 (880.1) 기원전 20,000년경에, 서부 인도 주민은 이미 아담의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유란시아 역사상 한 민족이 그토록 많은 다른 종족의 혼합으로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2차 상의 종족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오래 전의 이 인종 용광로에서 청색인과 홍색인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은 정말로 재난{災難}이었는데;1차 상의 종족이 더 많았다면, 훨씬 훌륭한 문명이 발생되도록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매우 많이 기여했을 것이다. 전개된 바와 같이, 홍색인은 아메리카에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었고, 청색인은 유럽에서 흥겹게 살고 있었으며, 아담의 초기 후손(그리고 후대의 후손 대부분)은,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든지, 짙은 색 인종과는 혼합되기를 싫어했다.

79:2.4 (880.2) 기원전 15,000년경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압력이 투르케스탄과 이란에서 전역으로 확장됐고,

정말로 광범한 안드족속 이동이 처음으로 인도 쪽으로 일어났다. 열다섯 세기가 넘는 동안, 우수한 이 민족들이 바루키스탄 고지대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갔는데, 인더스와 간지스 강 유역으로 퍼져나갔고,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해서 데칸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북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안드족속에 밀려서, 남부와 동부에 있던 열등한 사람들이 쫓겨나 버마와 남부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침입자들이 인종 소멸을 당하지 않을 만큼 숫자가 충분치는 않았다.

^{79:2.5 (880.3)} 인도가 유라시아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주로 지형{地形} 문제였는데, 인구 팽창으로 인해 북쪽에서만 붐비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데칸 지역으로 들어감으로써, 거주지는 더 줄어들었고, 삼면{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부근에 이주해 들어갈 만한 땅이 있었다면, 열등한 민족은 사방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우수한 혈통이 훨씬 발전된 문명을 성취했을 것이다.

^{79:2.6 (880.4)} 사실 그랬듯이, 초기의 이 안드족속 정복자들은 자신의 주체성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종족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규율을 제정함으로써, 종족을 흡수하는 인파를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럼에도, 안드족속은 기원전 10,000년경에 사라졌지만, 그 민족 대부분은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증진을 이룩했다.

79:2.7 (880.5) 인종 혼합은,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고 진보하는 문명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항상 유리하지만, 열등한 요소를 지닌 종족 혈통이 우세할 경우에는, 그런 성취가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는, 우세한 혈통이 열등한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자손을 퍼뜨릴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열등한 사람의 자손이 제한 없이 늘어나고, 우수한 사람의 자손이 줄어들면, 문화가 있는 문명은 반드시 자멸{自滅}한다.

79:2.8 (880.6) 안드족속 정복자들이 당시에 실제 숫자보다 3배가 됐거나, 아니면 혼합된 주황색_녹색_남색 주민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3분의 1을 쫓아냈든지 파멸시켰다면, 인도는 문화가 있는 문명의 세계 중심지들 가운데 하나가 됐을 것이며, 투르케스탄으로 흘러

들어가고, 거기서 유럽으로 건너간, 메소포타미아인의 후기 인파를 확실히 더 많이 끌어들였을 것이다.

3. 드라비다인의 인도

79:3.1 (881.1) 인도를 정복한 안드족속과 원주민 혈통의 결합은 결국, 드라비다인이라고 불려 온 그 잡다한 민족을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에 있었고 좀 더 순수했던 드라비다인은, 문화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지녔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안드족속 유전자가 점점 희박해짐에 따라서 계속 약화됐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만 2천 년 전에 인도의 싹트는 문명을 망하게 했다. 그러나 아담의 피가 이렇게 적은 양만 주입됐지만, 사회적 발전에서는 괄목할만한 축진을 이룩했다. 이런 혼합 혈통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문명을 즉시 꽃피웠다.

79:3.2 (881.2) 인도를 정복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드라비다인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종족 및 문화의 접촉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뱃길과 대상{隊商} 행로가 개통되자 이 관계가 회복됐으며, 지난 1만 년 동안,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쪽으로 중국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산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서쪽과의 교류가 훨씬 유리했다.

79:3.3 (881.3) 인도에 있는 민족들의 우수한 문화적 및 종교적 성향은, 드라비다인이 지배한 초기 시대부터 시작됐으며, 일부는 일찍이 있었던 안드족속과 후대의 아리아인의 침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셋족속 제사장이 인도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도의 종교 역사 내내 이어지던 일신교의 가느다란 빛은, 두 번째 동산의 아담족속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게 유래됐다.

79:3.4 (881.4) 기원전 16,000년경에, 이미 100명에 이르는 셋족속 제사장 일행이 인도에 들어갔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쪽 지역에서 종교적 정복을 거의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 5천 년 이내에, 낙원 삼위일체에 관한 그들의 교리는 화신{火神}의 삼자일체 상징으로 퇴화됐다.

79:3.5 (881.6) 그러나 안드족속의 이주가 끝나기까지, 7천 년 이상, 인도 주민의 종교 상태는 세계 대부분의 상태보다 훨씬 높았다. 인도는, 이 시기 동안에 세계에서 선도적인, 문화, 종교, 철학, 및 상업 문명을 산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안드족속이 남쪽의 민족들 밑에 완전히 파묻혀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런 운명이 아마 실현됐을 것이다.

79:3.6 (881.6) 드라비다의 문화 중심지들은 강 유역에 자리 잡았는데, 대개 인더스와 간지스 지역이었으며, 데칸에서는 3개의 큰 강물이 동부 가트 지역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 서부 가트의 해변을 따라서 형성된 정착지들의 탁월성은, 바다를 통해 수메르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79:3.7 (881.7) 드라비다인은, 가장 일찍 도시를 건설하고, 육상{陸上}과 해상{海上}의 광대한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민족에 속했다. 기원전 7000년경에 낙타 행렬이 메소포타미아의 먼 지역까지 정기적으로 여행했으며;드라비다의 선박은 해안을 따라 활동했는데, 아라비아 해를 지나서 페르시아 만에 있는 수메르 도시들까지 이르렀고, 해상에서 모험을 감행하여 벵갈 만을 지나 동인도 제도까지 이르렀다. 이런 해상 여행자와 상인을 통해서, 글 쓰는 기술과 함께 알파벳이 수메르에서 수입됐다.

79:3.8 (881.8) 이런 상업 관계는 국제적 문화를 더 다양화 시키는 데 기여했고, 도시 생활의 많은 진보와, 심지어 사치품이 일찍부터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중에 나타난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안드족속 동족이 상의 인종에 스며들었던 것을 드라비다인의 모습에서 인식하지 못했지만, 잘_증진된 문명은 발견할 수 있었다. 생물학적 제한조건에도, 드라비다인은 우수한 문명을 건설했다. 그것은 인도 전역으로 잘 확산됐고, 데칸 지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돼 왔다.

4. 아리아인의 인도 침입

79:4.1 (882.1) 안드족속의 두 번째 인도 침투는, 기원전 셋째 천년 중간쯤에 거의 500년 동안 일어난 아리아인 침입이었다. 이 이주{移住}는, 안드족속의 고향 투르케스탄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것을 가리킨다.

79:4.2 (882.2) 초기 아리아인 중심지는 인도 북쪽 지역 절반에 산재해 있었는데, 북서부에서 두드러졌다. 이 침입자들은 그 나라의 정복을 결코 끝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이것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게 됐는데, 히말라야 지방을 제외한 반도 전체를 휩쓸게 됐던 남부의

드라비다인에게 흡수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79:4.3 (882.3) 아리아인은 북쪽 지방들을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인종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 데칸에서 그들의 영향은 인종보다는 문화와 종교에 끼친 것이었다. 북부 인도의 소위 아리아인 핏줄이 더 많이 지속된 것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현존 숫자가 훨씬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정복자, 상인, 및 선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중에 보강됐기 때문이었다. 바로 기원전 1세기에 이르기까지, 아리아인 핏줄의 지속적인 침투가 편잡 지방으로 이뤄졌는데, 마지막 유입은 헬라 민족들의 군사행동에 부수적으로 따라왔다.

79:4.4 (882.4) 간지스 강 평원에서 아리아인과 드라비다인이 결국 섞여서 고상한 문화를 창출했고, 이 중심지는, 중국이 기여{寄與}한 것으로 인해 나중에 북동쪽으로부터 보강됐다.

79:4.5 (882.5) 인도에서는, 민주주의 비슷한 아리아인 체제로부터 전제적이고 군주적인 정부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사회 조직이 때때로 번성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독자적인 특색은, 인종의 주체성을 영존시키려는 노력으로 아리아인이 설립한, 거대한 사회 신분계층을 끈질기게 고수한 것이었다. 이런 정교한 신분계층 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79:4.6 (882.6) 네 개의 큰 신분계층 가운데,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아리아인 정복자들이 자신보다 열등한 백성과 인종적으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찮은 노력으로 인해 설립됐다. 그러나 첫째 신분계층인 선생_제사장은 셋족속에서 유래했으며;기원후 20세기의 브라만은 두 번째 동산의 제사장들로부터 직계로 내려온 문화적 후손이지만, 그 교훈은 그들의 저명한 조상의 교훈과 크게 다르다.

79:4.7 (882.7)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두 번째 동산에 있었던 종교의 남아있는 전통에 간직돼있는 그대로, 신격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만 사제들은, 아리아인이 소멸된 후에 데칸의 열등한 종교와 갑작스럽게 접촉함으로써 생긴 이교적{異教的} 타성{惰性}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거의 대부분의 주민은, 미신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열등한

종교들의 속박으로 굴러 떨어졌으며;따라서 인도는 초기 시대에 징조를 보여 왔던 고상한 문명을 일으키지 못했다.

79:4.8 (882.8) 기원전 6세기의 영적 각성이 인도에서는 유지되지 못했고, 모하메드교가 침투하기 전에 이미 소멸됐다. 그러나 언젠가는 더 위대한 가우타마가 나타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인도 사람을 인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온 세상 사람은, 진보하지 않는 영적 시각{視覺}의 무감각한 영향력 아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던, 다재다능한 한 민족의 문화적 잠재력이 열매 맺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79:4.9 (883.1) 생물학적 기초 위에 문화가 얹혀있었지만, 계층만으로는 아리아인 문화를 존속시킬 수 없었는데, 이는 종교, 즉 참된 종교가, 인간의 형제관계에 기초된 우수한 문명을 설립하도록 사람들을 재촉하는, 더 높은 에너지의 필수 근원이기 때문이다.

5. 홍색인과 황색인

79:5.1 (883.2)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안드족속이 더 오래된 진화 민족들을 정복하고 결국 그 속에 파묻힌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부 아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차 상익, 특히 홍색인 및 황색인과 관계된다. 이 두 인종은, 유럽에서 청색인들을 아주 크게 뒤떨어지게 만든 저질{低質}의 네안데르탈 혈통과 섞이는 것을 거의 겪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1차 상익 유형의 우수한 잠재력을 간직했다.

79:5.2 (883.3) 초기 네안데르탈인이 유라시아 전체에 퍼지는 동안, 동쪽 주변지역은 저질의 동물 핏줄로 더 많이 오염됐다. 이런 유인원 유형은 다섯 번째 빙하기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는데, 바로 그 빙하 때문에 상익이 동부 아시아로 이주하지 못했다. 그리고 홍색인이 인도 고원지대를 돌아서 북동쪽으로 이동했을 때, 홍색인은 북동쪽 아시아에 이 유인원 유형의 사람이 없음을 발견했다. 홍인종의 부족 조직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형성됐고, 상익 인종의 중앙 아시아 중심지로부터 처음으로 이주한 인종이었다. 열등한 네안데르탈 종족은, 나중에 이주하는 황색 부족들에게 파멸되거나, 아니면 본토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홍색인은, 황색 부족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만 년 동안 동부 아시아를 호령했다.

79:5.3 (883.4) 30만 년 보다 더 전에, 황인종 본대{本隊}가 남쪽에서 해안을 따라 이주하여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깊숙이 내륙으로 들어갔지만, 티벳으로 이주한 형제들과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주치지 않았다.

79:5.4 (883.5) 북쪽으로 이동하던 황인종은 인구가 과도하게 팽창함으로써 홍색인의 사냥터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침입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인종적 적개심과 함께, 최고 지점까지 호전성{好戰性}을 부추겼고, 이처럼 더 멀리 아시아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혹독한 투쟁이 시작됐다.

79:5.5 (883.6) 홍인종과 황인종 사이에 있었던 오랜 세월의 이야기는, 유란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敍事詩}다. 이 두 우수한 인종은, 20만 년이 넘는 동안 더 냉혹하고 끈질긴 전쟁을 벌였다. 초기 투쟁에서는 대체로 홍색인이 우세해서, 습격을 담당하는 그들의 무리는 황색인 정착지를 황폐화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황색인은 전쟁 기술을 배우는 데 매우 기민했고, 동포와 평화롭게 사는 상당한 역량을 일찍부터 나타냈는데,

중국인은 합동하는 것에 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홍색 부족들은 내부 투쟁을 계속했으며, 이윽고 냉혹한 중국인의 적극적인 공격에 계속 패배를 맛보기 시작했으며, 중국인은 사정없이 북쪽으로 계속 진군했다.

79:5.6 (883.7) 10만 년 전에, 많은 사람을 잃은 홍인종 부족들은, 뒤로는 마지막 빙하기의 퇴각하는 얼음 덩어리와 싸워야 했으며, 베링 해협이 육로{陸路}를 통해서 서부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자, 이 부족들은 야박스런 아시아 대륙 해안을 서슴없이 떠나게 됐다. 순수한 홍인종이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난 지 8만 5천 년이 지났지만, 오랜 기간의 투쟁은 승리를 거둔 황인종에게 유전적인 흔적을 남겼다. 안돈족속 시베리아인과 함께, 북부 지역 중국 민족들은 홍색 혈통을 많이 닮았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유익을 얻었다.

79:5.7 (884.1) 북 아메리카 인디언은, 아담과 이브의 안드족속 후손과 전혀 접촉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담의 도래보다 약 5만 년 전에, 그들의 고향이었던 아시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안드족속이 이주하는 동안, 순수한 홍색 혈통이

방랑하는 부족, 즉 농사를 약간 짓는 사냥꾼이 되면서 북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 이 종족들 및 문화 집단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첫 1,000년이 끝날 무렵에, 유럽의 백인종에게 발견될 때까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래 세계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격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 북쪽에 있는 홍색인 부족들이 봤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키모가 백색인에 가장 가까웠다.

79:5.8 (884.2) 홍인종 및 황인종은, 안드족속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룩한 유일한 인간 혈통이었다.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인디언 문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나모나론톤이었지만, 이것은 기원전 3만 5천 년경에 사라진 지 오래 됐다. 중앙 아메리카의 멕시코에서 그리고 남 아메리카의 산악지대에서, 나중에 더 오래 지속된 문명들은, 주로 홍인종이지만 황색, 주황색, 및 청인종이 상당히 섞인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79:5.9 (884.3) 이 문명은 상익 인종의 진화 산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안드족속 핏줄의 흔적이 페루에서도 발견된다. 북 아메리카의 에스키모와 남 아메리카에 있는 소수의 폴리네시아 안드족속을 제외하면, 서반구 민족들은

기원후 첫 1,000년이 끝날 무렵까지 세계의 다른 인종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유란시아 종족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멜기세덱의 원래 계획에서는, 아담의 순수_계통 후손 100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들의 홍색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아가게 돼 있었다.

6. 중국 문명의 발단

79:6.1 (884.4) 홍색인이 북 아메리카로 쫓겨 건너간 후에 얼마 있다가, 확장하는 중국인이 동부 아시아의 여러 강 유역에서 안돈족속을 몰아냈는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투르케스탄으로 그들을 밀어냈으며, 거기서 그들은 곧 안드족속의 우수한 문화와 접촉하게 됐다.

79:6.2 (884.5) 버마와 인도_차이나 반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가 섞이고 혼합돼서 그 지역에 연속되는 문명을 창출했다. 여기서는, 사라진 녹색인종이 세계의 다른 어떤 장소보다 더 큰 비율로 존속돼 왔다.

79:6.3 (884.6) 많은 다른 인종이 태평양 섬들을 점령했다. 대체로, 남쪽 섬들을, 그 다음에는 더 광범한 지역의 섬들을, 높은 비율의 녹색과 남색 피를 지닌 민족들이

점령했다. 북쪽 섬들은 안돈족속이 차지했고, 나중에는 황색 혈통과 홍색 혈통 중에서 큰 부분을 포함하는 인종들이 차지했다. 일본인 민족의 조상은 기원전 12,000년까지 본토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가, 그때 북쪽 중국인 부족들이 남쪽 해안을 따라 강력하게 밀려 내려옴으로써 쫓겨났다. 그들의 최종 탈출은, 인구 팽창 압력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신성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 어떤 족장{族長}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었다.

79:6.4 (885.1) 인도와 레반트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황색인 부족이 해안선과 강줄기를 따라서 초기 중심지들을 건설했다. 연안{沿岸}에 있는 주거지는, 홍수가 잦아지면서, 그리고 강줄기가 변경됨으로 인해 낮은 지역의 도시들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나중에는 살아가기 힘들게 됐다.

79:6.5 (885.2) 2만 년 전에, 중국인 조상은 열두 개에 달하는 강력한 원시 문화 및 교육 중심지를 건설했는데, 특히 황하와 양쯔강을 따라서 세웠다. 그리고 그때 이 중심지들은, 신장과 티벳으로부터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피가 섞인 우수한 민족들이 도착함으로 인해 보강되기 시작했다. 티벳으로부터 양쯔강 유역에 이르는 이주는, 북쪽에서 일어난 것처럼 광범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며, 티벳 중심지들도 다림 분지 중심지들만큼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두 무리는 상당한 양의 안드족속 핏줄을 지니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강변에 정착했다.

79:6.6 (885.3) 고대 황인종의 우수성은 네 가지 큰 요인 때문이었다:

79:6.7 (885.4) 1. *유전적 요인*. 유럽에 있는 그들의 청색 동족과는 달리, 홍인종과 황인종은 저질{低質}의 인간 혈통들과 혼합되는 것을 대개 피할 수 있었다. 우수한 홍색 혈통과 안돈 혈통이 약간 섞인 북부의 중국인은, 안드족속 피가 상당히 유입됨으로써 곧 유익을 얻게 됐다. 남부의 중국인은 이런 점에서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는데, 녹색인종을 흡수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했고, 나중에는 드라비다_안드족속 침입으로 인해 인도에서도 망 나온 열등한 민족들 무리가 침투해 들어와서 훨씬 약화됐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북부 종족과 남부 종족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79:6.8 (885.5)

2. *사회적 요인*. 황인종은 자기들끼리 평화로운 것이 귀중함을 일찍부터 습득했다. 그들의 내부적 평화 유지 능력은 인구 증가에 막대하게 기여해서 그들의 문명이 수백만의 사람에게 퍼지게 했다. 기원전 25,000년부터 5000년까지, 유란시아에서 가장 높은 집단 문명은 중국 중앙과 북부 지역에 있었다. 황색인이 인종적 결속을 처음 성취했다--큰 규모의 문화, 사회, 및 정치 문명을 처음 달성했다.

79:6.9

(885.6)

기원전 15,000년에 중국인은 공격적인 군국주의자였으며; 옛 사람을 과도하게 숭상함으로써 약화되는 일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숫자는 1,200만이 채 안됐으며,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밀집된 집단을 형성했다. 그들은 이 시기 동안에 실제 국가를 형성했는데, 역사 시대에 이룩한 그들의 정치적 합동보다 훨씬 결합됐고 동질성이 있었다.

79:6.10 (885.7)

3. *영적 요인*. 안드족속이 이주하는 동안에, 중국인은 이 세상에서 더 영적인 민족에 속했다. 그들은 싱글랑톤이 전한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는 데 오랫동안 집착했으므로, 대부분의 다른 인종들보다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진취적이고 발전된 종교의 자극이, 때로는 문화 발전에 중대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인도가 쇠약해졌을 때, 중국은 진리를 최고 신격으로 모시는 어떤 종교의 자극, 활력을 주는 자극 아래서 착실히 전진했다.

79:6.11 (885.8) 이런 진리에 대한 숭배는, 자연 법칙과 인류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대담하게 탐구하도록 유도했다. 6,000년 전에도, 중국인은 여전히 예민한 학생이었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79:6.12 (885.9) 4. *지형적 요인*. 중국은, 서쪽은 산맥 때문에, 그리고 동쪽은 태평양 때문에 보호 받았다. 오직 북쪽에서만 공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으며, 홍색인 시대부터 후대에 안드족속의 자손이 도래할 때까지, 어떤 호전적인 종족도 북쪽을 차지하지 못했다.

79:6.13 (886.1) 또한 산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영적 문화에서 후대{後代}의 퇴보가 없었다면, 황인종은 분명히, 투르케스탄으로부터 이주하는 안드족속 대부분을 끌어들이 수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틀림없이 세계 문명을 재빨리 지배했을 것이다.

7. 중국에 들어온 안드족속

79:7.1 (886.2) 약 1만 5천 년 전에, 상당한 숫자의 안드족속이 티타오 고개를 넘었고, 칸수에 있는 중국인 정착지들 중에서 황하 상류 유역으로 퍼졌다. 그들은 이윽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호난에 이르렀고, 거기서 가장 진취적인 정착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서쪽에서 침투한 사람들은 대체로 안돈족속이 절반이고 안드족속이 절반이었다.

79:7.2 (886.3) 황하 유역을 따라서 이뤄진 북쪽 문화 중심지들은, 양쯔강에 있는 남쪽 정착지보다 항상 더 진취적이었다. 소수의 무리이기는 했지만 우수한 이 필사자들이 도착한 후 수천 년 내에, 황하 유역 정착지들은 양쯔강 마을들보다 착실히 앞서 나갔고, 남부에 있는 동족보다 우위를 차지했으며, 이 우위는 그 후로 늘 유지됐다.

79:7.3 (886.4) 그것은 안드족속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문화가 훨씬 우수했기 때문도 아니었으며, 오직 그들과의 혼합으로 더 다재다능한 혈통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북부 중국인은 선천적으로 유능한 정신을 약간 자극하기에 겨우 충분할 만큼 안드족속 종족을 받았지만, 북부 백인종의 특질처럼, 들떠있고 탐험하고 싶은 호기심으로 그들을 불태울 만큼

충분히 받지는 못했다. 안드족속 유전형질이 이렇게 더 제한적으로 주입됨으로써, 상익 유형의 타고난 안정성은 별로 교란되지 않았다.

79:7.4 (886.5) 후대에 이동한 안드족속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향상된 문화를 함께 가져왔으며;이것은 특히 서쪽에서 이동한 마지막 물결에서 더 그랬다. 그들은 북부 중국인의 경제 및 교육 관습을 크게 증진시켰으며;반면에 황인종의 종교 문화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들의 먼 후손이, 나중에 일어난 영적 각성에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에덴과 달라마시아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드족속 전승이 중국의 전승에 영향을 줬으며;초기 중국 전설은 “신{神}들의 땅”이 서쪽에 있다고 간주했다.

79:7.5 (886.6) 중국인 민족은, 기원전 10,000년이 지날 때까지, 즉 투르케스탄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후대의 안드족속이 도착한 후까지, 도시 건설을 시작하지 못했고 제조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이런 새로운 핏줄의 주입은, 황색인의 문명에 많이 기여했다기보다, 오히려 우수한 중국인 혈통의 잠재적 경향이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도록 자극했다. 호난에서 센시에 이르기까지, 진보된 문명의

잠재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금속 가공과 모든 제조 기술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79:7.6 (886.7) 시간 계산, 천문학, 그리고 정부 경영에 대한 중국의 방법과 메소포타미아의 방법 일부가 비슷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중심지 사이의 상업 관계 때문이었다. 중국의 상인들은, 수메르인 시대에 이미 육로{陸路}를 통해 투르케스탄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여행했다. 이런 교환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었다--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갠지스 평원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기원전 셋째 천년의 유목민 침입으로 말미암아, 중앙 아시아의 대상로{隊商路}를 지나가는 교역량이 크게 줄었다.

8. 후대의 중국 문명

79:8.1 (887.1) 홍색인은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해 시달렸지만, 중국인 가운데서 국가체제의 발달은, 그들이 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했기 때문에 연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종족의 결속{結束}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성을 적절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외적{外的} 공격이 항상_존재한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계속 몰아붙이는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79:8.2 (887.2) 동부 아시아 정복이 완료됨과 함께, 고대의 군사 체제가 서서히 붕괴됐다--과거의 전쟁은 잊혀졌다. 홍인종과 투쟁했던 이야기 가운데, 활 쏘는 민족들과 옛날에 싸웠다는 희미한 전승만 남았다. 중국인은 일찍부터 농업으로 돌아섰고,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을 더 심화시켰으며, 동시에 농사짓기에 필요한 인구 밀도보다 훨씬 적은 인구도, 그 나라의 평화로움을 증대시키기에 더욱 기여했다.

79:8.3 (887.3) (현재는 어느 정도 쇠퇴한) 과거의 성취에 대한 의식, 압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민족의 보수적 경향, 그리고 잘 발달된 가정생활이 조상숭배{祖上崇拜}를 탄생시켰는데, 조상에 대한 존경이 극에 달한 나머지, 숭배 비슷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리스_로마 문명이 붕괴된 후에 거의 500년 동안, 유럽에 있는 백인종들 가운데서 매우 비슷한 태도가 유행된 적이 있었다.

79:8.4 (887.4)

싱글랑톤이 가르쳤던 "하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숭배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결코 없었지만;시간이 흐르자, 새롭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은, 이미 설립된 것을 공경하려는 경향이 커짐으로써 빛을 잃었다. 황인종의 천재성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구하려는 태도에서, 이미 알려진 것을 보존하려는 태도로 서서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보하던 문명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79:8.5 (887.5)

기원전 4000년과 500년 사이에, 황인종의 정치적 재통합{再統合}이 이룩됐지만, 양쯔강과 황하에 있는 중심지들의 문화적 연합은 이미 완료돼 있었다. 후대 부족 집단들의 정치적 재통일에 갈등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쟁에 대한 사회 여론은 빈약한 상태에 머물렀으며;조상 숭배, 늘어나는 숫자의 방언,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군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과도한 평화를 누렸다.

79:8.6 (887.6)

황인종은, 발전된 국가체제로 일찍부터 발전될 가능성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문명의 기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특히 농업과 원예술의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센시와 호난에서는 농민이 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집단의 협동이 요구됐다. 그런 관개{灌溉}와 토양_보존 문제는, 상호의존의 발달에 상당히 기여했고, 나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사이에 평화가 촉진됐다.

79:8.7 (887.7) 곧, 기록하는 기술이 발달되고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식이 보급되도록 기여했다. 그러나 일찍부터 인쇄술이 출현했음에도, 표의문자{表意文字} 체제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지식인 계층의 숫자가 매우 제한됐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의 표준화{標準化}와 종교_철학의 교의화{教義化}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됐다. 조상을 공경하는 종교의 발달은, 자연 숭배를 포함하는 미신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더 복잡하게 됐지만,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의 끈질긴 흔적이, 상_티라는 황제 숭배에 간직된 채 유지됐다.

79:8.8 (888.1) 조상 숭배의 중대한 약점은, 과거만_생각하는 사상을 증진시킨다는 점이다. 과거로부터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 아무리 현명할지라도, 과거만을 유일한

진리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리석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확장하며;현재 속에 항상 *살아있어서*, 각 인간 세대마다--심지어 각 인생마다-- 새 표현을 이룩한다.

79:8.9 (888.2) 조상 숭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태도가 가족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인 문명의 놀랄만한 안정성과 지속성은, 가족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생긴 결과인데, 문명은 가족의 효과적 기능발휘에 직접 의존하기 때문이며;중국에서 가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달성했고, 심지어 어떤 다른 민족도 거의 접근하지 못한 종교적 의미까지 달성했다.

79:8.10 (888.3) 심화되는 조상 숭배 종파{宗派}가 강요하는, 자식으로서의 헌신과 가족에 대한 충성은, 뛰어난 가족 관계 형성과 영구적 가족 집단 형성을 보장했으며, 문명 보존에서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촉진시켰다:

- 79:8.11 (888.4) 1. 재산과 부{富}의 보존.
- 79:8.12 (888.5) 2. 한 세대 이상의 체험이 쌓이게 함.
- 79:8.13 (888.6) 3. 과거의 기술과 과학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함.

79:8.14 (888.7)

4. 강한 의무 감각의 개발, 도덕의 향상, 그리고 윤리적 민감성{敏感性}의 증진.

79:8.15 (888.8)

중국 문명의 형성 기간은, 안드족속의 도래와 함께 시작됐고, 기원전 6세기에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및 반{半}종교적 각성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중국의 전승{傳承}은 과거의 발전에 대한 어렴풋한 기록을 보존했는데, 즉;모계{母系}에서 부계{父系}중심의 가족으로 전환함, 농업의 확립, 농업의 발달, 산업의 개시-이 모든 것을 연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비슷한 설명보다 훨씬 정확하게, 우수한 민족이 미개한 수준에서 훌륭하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 동안에 그들은 원시 농업사회로부터, 도시, 제조업, 금속 가공, 상업 교역, 정부, 기록, 수학, 예술, 과학, 인쇄 등을 포함하는 더 높은 사회 체제로 발전했다.

79:8.16 (888.9)

그리하여 황인종의 고대 문명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전해 내려왔다. 최초의 중요한 발전이 중국인 문명에 발생된 이래, 거의 4만 년이 지났고, 여러 차례 퇴보 과정이 있었지만, 한의 아들들이 세운 문명은 20세기 시대까지 내려오는, 계속적인 진보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다. 백인종의 기계 및 종교의 발전은, 어떤 높은 체제를 이룩하고 있지만, 가족 충성심이나 집단 윤리 또는 개인의 도덕성 면에서는 중국인보다 뛰어난 적이 없었다.

79:8.17 (888.10) 이런 고대 문화는 인간의 행복에 많이 기여했으며;수많은 인간이 그 업적으로 혜택을 입으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 위대한 문명은, 수세기 동안 과거에 얻었던 명예로 만족해 왔지만, 필사자 실존의 초월적 목표를 새롭게 계획하기 위해서, 즉 영원한 진보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성하고 있다.

79:8.18 (888.11)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80편 서양에서 안드족속의 확장

80:0.1 (889.1) 유럽의 청색인은, 위대한 문화가 있는 문명을 비록 스스로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아담화{化} 된 혈통들이 후대의 안드족속 침입자와 섞였을 때, 보라색 인종과 그들의 안드족속 계승자 시대 이후로 일찍이 유란시아에

나타난 진취적 문명을 달성하기에 가장 유능한 혈통 가운데 하나를 창출한,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했다.

80:0.2 (889.2) 현대의 백색 민족들은 아담 혈통 중에서 살아남은 핏줄들을 흡수했는데, 이 아담 혈통은, 상의 인종, 즉 어느 정도 홍인종 및 황인종이지만 특히 청인종과 섞이게 됐다. 모든 백인종에는 상당한 비율의 원래 안돈족속 혈통이 포함됐고, 초기 낫족속 핏줄은 훨씬 높은 비율로 들어 있다.

1. 유럽에 들어간 아담족속

80:1.1 (889.3) 마지막 안드족속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들의 많은 형제는, 모험가, 선생, 상인, 및 전사{戰士}로서 유럽에 들어갔다. 보라색 인종이 활동하던 초기 시대에는, 지중해 해구{海溝}가 지브랄터 해협과 시칠리아 연결육지로 보호 받았다. 사람의 아주 초기 해상 교역 가운데 일부는 이런 내륙 호수들에서 이뤄졌는데, 북쪽에서 온 청색인과 남쪽에서 온 사하라인이 동쪽에서 온 낫족속 및 아담족속과 거기서 만났다.

80:1.2 (889.4) 지중해 해구 동쪽 유역에서, 낫족속은 자신의 가장 광범한 문화 가운데 하나를 이룩했고, 이 중심지들에서

유럽 남부 쪽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들어갔지만, 특히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 얼굴이_넓적한
놋속속_안드속속 시리아인은, 서서히 융기되는 나일 강
삼각주에 정착했으므로, 도기{陶器} 제조법과 농업을
매우 일찍부터 도입했다. 또한 그들은, 양, 염소, 소, 그리고
길들여진 다른 동물을 수입했고, 크게 개선된 금속
가공법을 들여왔는데, 당시에는 시리아가 그런 산업의
중심지였다.

80:1.3 (889.5) 3만 년이 넘도록, 이집트에는 메소포타미아인이
꾸준하게 이주해 들어갔는데, 그들은 자신의 예술과
문화를 가져와서 나일 강 유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엄청난 숫자의 사하라 사람이 유입돼서
나일 강 주변의 초기 문명을 크게 악화시켰으므로, 약 1만
5천 년 전에는 이집트 문화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80:1.4 (889.6) 그러나 그 전에는 아담속속의 서부 이주를
방해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사하라는 목동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넓은 목초지였다. 사하라인은
제조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적도 없었다. 그들은 멸종된 녹색 및 주황인종의 혈통을 많이 지닌 남색_흑색 집단에 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습기 많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부유하고 평화로운 문명을 소멸시키고 땅이 융기되기 전에, 아주 제한된 양의 보라색 유전형질을 받았다.

80:1.5 (890.1) 아담의 피가 대부분의 인간 종족에게 나눠졌지만, 더러는 다른 종족들보다 더 확보했다. 인도의 혼합된 인종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 색 사람들은 아담족속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홍색인이 멀리 이주해서 아메리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담족속은 홍색인과 자유롭게 섞였을 것이며, 황색인에게도 친절한 태도를 보였겠지만, 황인종도 너무 먼 아시아 지역에 있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접촉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모험심이나 애타심이 작용했을 때, 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유럽에 있는 청인종들과 합동하기를 매우 자연스럽게 선택했다.

80:1.6 (890.2)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던 청색인에게는, 초기에 이주하던 아담족속에게 불쾌감을 주는 종교 관습이 전혀 없었고, 보라색 인종과 청인종은 서로 성적 매력을 많이

느꼈다. 청인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은, 아담족속과 결혼하도록 허락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모든 청색 남자는 아담족속 여자의 호감을 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고 예술적인 상태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고, 우수한 청색 여자의 최고 소원은 아담족속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80:1.7 (890.3) 이주하는 이 에덴의 아들들은 청인종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유형의 사람들과 서서히 결합했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네안데르탈 혈통의 종족들을 무자비하게 멸절시키면서, 자신의 문화 풍습을 활성화시켰다. 이런 종족 혼합 기법은, 열등한 종족들을 제거시킴과 함께, 우수한 청색인으로 구성된 열둘 이상의 강건하고 진취적인 집단을 형성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는 크로_마농인이라고 불러 왔다.

80:1.8 (890.4) 이런 이유 및 기타 이유들로 인해, 이주하기에 더 유리한 경로가 조금도 없었음에도,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초기 물결이 거의 유일하게 유럽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현대 유럽 문명이 앞서도록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이었다.

2. 기후와 지형의 변화

80:2.1 (890.5) 보라색 인종이 유럽으로 들어가던 초기 팽창은, 어떤 기후 및 지형 변화로 갑자기 끝나게 됐다. 북쪽 빙원{氷原}이 물러감에 따라, 습기가 많은 바람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졌고, 거대한 사하라의 끝없이 펼쳐진 목초지가 점차 불모의 사막 지대로 바뀌었다. 이런 건조 현상 때문에, 거대한 사하라 고원 거주자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은 키가_작고 거무스름하며 눈동자가_검고 얼굴이_길쭉했다.

80:2.2 (890.6) 더 순수한 남색 요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중앙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이르렀고, 그 후로 거기에 계속 남았다. 좀 더 혼합된 집단들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갔는데:우수한 부족들은 서쪽으로 이주해서 스페인으로 갔고, 거기서 유럽 인근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후대에 지중해에 있던 얼굴이_길쭉하고 거무스름한 인종의 중심을 형성했다. 진보가 가장 안 된 무리가 사하라 고원 동쪽으로 향했고, 아라비아로 이주했으며, 거기서 북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거쳐서 멀리 실론에 이르렀다. 중간에 해당되는 집단은 북동쪽으로 나일 강 유역까지, 그리고 팔레스틴으로 옮겨갔다.

80:2.3 (890.7) 데칸에서 이란과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지중해 양쪽 해안선을 따라 흩어진 현대의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 2차 상익 토대 때문이다.

80:2.4 (890.8)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날 무렵에, 영국이 대륙에서 분리됐고, 덴마크가 바다 밑에서 융기했으며, 한편 지중해 서쪽 해구{海溝}를 막는 지브롤터 해협이 지진 영향으로 길을 열어줬는데, 이 내륙 호수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서 대서양과 같은 높이가 됐다. 이윽고 시칠리아 연결육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중해라는 하나의 바다가 탄생됐고, 대서양과 연결됐다. 이런 자연의 대격변으로 인해 수많은 인간 정착지에 홍수가 났으며, 세계의 전체 역사 중에서 홍수로 인한 가장 많은 생명체 손실이 야기됐다.

80:2.5 (891.1) 지중해 분지가 이렇게 가라앉음으로써, 아담족속의 서쪽 방향 이동은 즉각 줄어들었고, 한편 사하라인이 대량으로 유입됐으므로, 그들은 증가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덴의 북쪽과 동쪽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아담 후손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북쪽으로 여행했을 때,

당시에 확장돼 있던 카스피 해와 산맥 울타리들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아담족속은 여러 세대 동안 사냥과 목축을 하고 정착지 주변 땅을 경작하면서 투르케스탄 전역으로 흩어졌다. 격조 높은 이 민족은 영역을 유럽으로 서서히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때 동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아담족속은, 청색인의 문화가 아시아 문화보다 수천 년 뒤쳐졌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와의 접촉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돼 왔기 때문이다.

3. 크로_마농 청색인

^{80:3.1 (891.2)} 청색인 문화의 고대 중심지는 유럽의 모든 강을 따라서 자리 잡았었지만, 지금은 오직 솜르 강이 빙하기 이전 동안 흘렀던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흐른다.

^{80:3.2 (891.3)} 청색인이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여러 인종 유형이 거기에 있었다. 3만 5천 년 전에도, 유럽 청인종은 이미 홍색 및 황색의 두 핏줄을 지닌, 크게 혼합된 민족이었고, 한편 대서양 해안 지대와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안돈족속 피를 흡수했고, 남쪽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인종 집단을 다 열거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

80:3.3 (891.4) 아담_이후의 이 초기 시절에 유럽 문명은, 청색인의 활동력과 예술을 아담족속의 창조적 상상력과 독특하게 혼합한 것이었다. 청색인은 활기 넘치는 인종이었지만, 아담족속의 문화와 영적 상태를 크게 저하시켰다. 매우 많은 사람이 처녀를 속이고 타락시키는 경향 때문에, 아담족속은 크로_마농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심어 주기가 너무 힘들었다. 1만 년 동안, 인도와 이집트에서 이룩된 종교 발전에 비교할 때, 유럽의 종교는 가장 쇠퇴한 시기에 있었다.

80:3.4 (891.5) 청색인은 모든 거래 관계에서 몹시 정직했으며, 혼합된 아담족속의 성적{性的} 악습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순결성을 높이 평가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부족할 경우에만 일부다처제를 허용했다.

80:3.5 (891.6) 이 크로_마농 민족들은 용감하고 선견지명 있는 인종이었다. 그들은 효과적인 어린이 양육 체제를 유지했다. 부모 양쪽이 이런 수고에 참여했고, 비교적 나이 많은 아이들의 협조가 충분히 활용됐다. 어린이는 각자

동굴에서 보호 받으면서 부싯돌 만들기과 기술 익히는 훈련을 신중하게 받았다. 여자는 어려서부터 가사{家事}의 기술과 미숙한 농업에 잘 숙달됐고, 한편 남자는 노련한 사냥꾼과 전사{戰士}였다.

80:3.6 (891.7) 청색인은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음식을 모았으며;배 만드는 데서도 숙달됐다. 그들은 돌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베고, 통나무로 오두막을 지었는데, 일부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했고, 짐승의 가죽으로 지붕을 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는 아직도 그와 비슷하게 오두막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남부 지대의 크로_마농인은 대개 돌로 지은 집과 동굴에서 살았다.

80:3.7 (892.1)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밤마다 동굴 입구에 파수꾼을 세움으로써, 얼어 죽는 것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용감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예술가였으며;아담족속과 혼합됨으로써 창조적 상상력이 갑자기 증진됐다. 청색인의 예술은 약 1만 5천 년 전에 최고로 발달했는데, 짙은 색 피부를 가진 인종들이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이었다.

80:3.8 (892.2) 약 1만 5천 년 전에, 알프스산맥의 삼림{森林}이 광범하게 퍼져 나갔다. 세계적인 풍성한 사냥터를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바꾼 바로 그 기후의 강요 때문에, 유럽의 사냥꾼들은 해안과 강변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비바람이 북쪽으로 바뀌자, 유럽의 광활한 목초지는 삼림으로 뒤덮이게 됐다. 이런 광대하고 비교적 갑작스런 기후 변경으로 인해, 유럽 인종들은 광활한_평야의 사냥꾼으로부터 목자{牧者}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부{漁夫} 또는 땅을 경작하는 자로 바뀌도록 내몰렸다.

80:3.9 (892.3) 이런 변화가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편, 어떤 생물학적 퇴보를 가져왔다. 그 전에 사냥 하던 시대에는, 우수한 부족들이 비교적 고상한 유형의 전쟁 포로와 결혼했고, 그들이 보기에 열등한 사람은 반드시 멸절시켰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로는, 진부한 포로 가운데 다수를 노예로 남겨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대에 크로_마농인 유형 전체를 엄청나게 타락시킨 것은,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이었다. 이런 문화적 퇴보는 동부로부터 새로운 추진력을 받을 때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메소포타미아인의 마지막 대규모 침입이 유럽을 휩쓸어서, 크로_마뇽 유형과 문화를 재빨리 흡수하고, 백인종의 문명을 시작했다.

4. 유럽의 안드족속 침입

80:4.1 (892.4) 안드족속이 한결같은 흐름으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일곱 차례에 걸친 주요 침입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세 개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말을 타고 들어갔다. 더러는 에게 해 섬들을 거쳐서, 그리고 다뉴브강 유역으로 유럽에 들어갔으나, 그보다 일찍 있었던 더 순수한 핏줄 가운데 대다수는, 불가강과 돈강이 있는 목초지를 건너는 북쪽 길을 통해서 북서부 유럽으로 이주했다.

80:4.2 (892.5) 세 번째와 네 번째 침입 사이에, 러시아의 강들과 발틱 해의 길을 통해서 시베리아로부터 온, 안돈족속 한 떼가 북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안드족속 부족들과 즉시 동화됐다.

80:4.3 (892.6) 그보다 일찍 있었던 더 순수한 보라색 인종의 확장은, 나중에 어느 정도 군사적이고 정복하기 좋아하는 안드족속 후손의 확장보다 훨씬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아담족속은 평화를 사랑했지만;놏족속은 호전적이었다. 이 두 혈통의 결합은, 나중에 상익 인종들과 섞이면서, 실제 군사 정복을 이룩한 유능하고 공격적인 안드족속을 형성했다.

80:4.4 (892.7) 그러나 서양에서 안드족속이 지배하도록 결정한 진화 요인은 말{馬}이었다. 흠어지던 안드족속은, 말 때문에,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기동력을 갖추게 됐는데, 안드족속 기마병들의 마지막 집단은 재빨리 카스피 해를 돌아서 유럽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있었던 안드족속 인파는 너무 느린 속도로 이뤄졌으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멀어진 인파는 모두 와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후대의 인파는, 매우 빨리 이동했으므로 단결된 집단을 이루면서 유럽에 도착했고, 어느 정도 더 높은 문화를 여전히 간직했다.

80:4.5 (893.1) 기원전 7000년부터 2천 년 동안, 맹렬하게_달리는 안드족속 기마병들이 출현했을 때, 중국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 외에 전체 인간거주 세계는, 매우 제한된 문화 진보를 1만 년 동안 이룩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러시아 평원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색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은 흡수하고 가장 퇴보된 사람은 멸절시켰을 때,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혼합됐다. 이들은, 소위 노르딕 인종의 조상, 즉 스칸디나비아, 게르만, 및 앵글로색슨 민족들의 선조였다.

80:4.6 (893.2) 오래지 않아서, 우세한 청색 종족들이 북부 유럽 전역에서 안드족속에게 완전히 흡수됐다. 오직 라플란드에서만(그리고 브리타니에서 어느 정도) 옛 안돈족속이 비슷한 정도만이라도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5. 안드족속의 북유럽 정복

80:5.1 (893.3) 북 유럽의 부족들은, 투르케스탄 남쪽 러시아 지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꾸준히 밀려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 보강되고 증진됐으며, 마지막 안드족속 기병대{騎兵隊}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는, 안드족속 유전형질을 지닌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는 숫자보다 그 지역에 이미 더 많이 있었다.

80:5.2 (893.4) 이 3천 년 동안, 북부에 있는 안드족속의 군사 본부는 덴마크에 있었다. 이 중심지에서 정복의 물결이 잇따라 퍼져 나갔는데, 메소포타미아인 정복자들과

피정복 민족들이 여러 세기{世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안드족속은 점점 줄어들고 백인이 점점 많아졌다.

80:5.3 (893.5) 청색인은 북쪽 지역에서 흡수됐고, 결국 남쪽을 침투한 백인 기병대 침략자들에게 굴복 당한 반면에, 백인종과 혼합된 진보된 부족들은 크로_마농인의 완강하고 계속적인 저항을 받게 됐지만, 그들은 뛰어난 지성과 계속 축적{蓄積}되는 생물학적 비축물에 힘입어서, 그 전에 있던 인종을 전멸시켰다.

80:5.4 (893.6) 백색인과 청색인 사이의 결정적 투쟁은 솜므 강 유역에서 벌어졌다. 여기서, 전성기에 도달한 청인종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안드족속과 심한 투쟁을 벌였고, 이 크로_마농인은 백색 침입자들의 탁월한 전술{戰術} 앞에 굴복 당하기까지, 500년 넘는 동안 자기 영토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솜므 강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투에서, 북쪽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승리를 거둔 쏘르는, 북부 백색 부족들의 영웅이 됐으며, 나중에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를 신{神}으로 숭배했다.

80:5.5 (893.7) 가장 오래 유지된 청색인 본거지{本據地}는 남부 프랑스에 있었지만, 마지막 극심한 군사적 저항은 솜르 강 주변에서 무너졌다. 후대의 정복은, 강{江}을 따라서 상업의 침투와 과도한 인구 증가 때문에, 그리고 열등한 인종을 냉혹하게 멸절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인종과 계속 서로 결혼함으로 인해 진행됐다.

80:5.6 (893.8) 안드족속 원로{元老}들로 구성된 부족 협의회가, 열등한 포로에 대해 부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그 포로는 공들인 예식을 거쳐서 샤만 사제{司祭}에게 넘겨졌고, 그 사제는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가서 -- 익사{溺死}시키는 --"행복한 사냥터"로 들어가는 제례를 집행했다. 유럽의 백색 침입자들은, 자체의 대열로 빨리 흡수되지 않고 대항하는 모든 민족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멸절시켰으며, 청색인은 그렇게 해서--그리고 빠른 속도로-- 멸종됐다.

80:5.7 (893.9) 크로_마농 청색인은 현대의 유럽 인종들의 생물학적 기초를 이뤘지만, 후대에 그들의 본거지를 정복한 강건한 사람들에게 흡수됨으로써만 살아남게 됐다. 청색 종족은 유럽의 백인종에게 억센 특징과 육체의

생기를 많이 제공했지만, 피가 섞인 유럽 사람들의 유머와 상상력은 안드족속으로부터 얻었다. 이런 안드족속과_청색인의 결합이 결국 북부 지역의 백인종이 됐고, 즉시 안드족속 문명의 쇠퇴, 일시적 성질의 둔화를 초래했다. 결국, 이 북부 야만인의 잠재적 우수성이 나타났고, 오늘날 유럽 문명에서 절정에 달하게 됐다.

80:5.8 (894.1) 기원전 5000년경에, 진화하는 백인종이, 독일과 북부 프랑스 그리고 영국 제도{諸島}를 포함하는 북부 유럽 전체를 지배했다. 청색인과 얼굴이_둥근 안돈족속이 중부 유럽을 한동안 장악했다. 후자{後者}는 주로 다뉴브 강 유역에 자리 잡았고, 안드족속에게 완전히 쫓겨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 나일 강 근처의 안드족속

80:6.1 (894.2) 마지막 안드족속의 이주가 발생한 시기부터, 문화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문명의 중심지는 나일 강 유역으로 바뀌었다. 이집트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진보된 집단의 본부로서, 메소포타미아를 계승했다.

80:6.2 (894.3) 나일 강 유역은 메소포타미아 유역보다 약간 먼저 홍수를 겪기 시작했지만,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초기 퇴보는, 안드족속이 계속 이주해 들어옴으로 보충되고도 남았으며, 그래서 이집트 문화가 실제로는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유래됐지만 서서히 선두로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홍수기 동안에, 이집트에는 독특한 일곱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집단 외에는 모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80:6.3 (894.4)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마지막 탈출이 발생했을 때, 이집트는 가장 숙련된 예술가와 기능공을 많이 받아들이는 행운을 얻었다. 이 안드족속 기능공들은, 강가의 생활과 홍수 그리고 관개{灌漑}와 건조한 계절 등에 완전히 익숙했으므로, 마치 고향에 있는 듯이 매우 안정감을 누렸다. 그들은 보호된 나일 강 유역의 혜택을 누렸는데;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을 때보다는, 적으로부터 습격과 공격을 훨씬 적게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인의 금속 가공 솜씨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들은 흑해 지역 대신 시내 산에서 가져오는 철광석을 여기서 가공했다.

80:6.4 (894.5)

이집트인은 도시마다 다른 신격들을 매우 일찍부터 모아서, 하나의 정교한 국가적 신{神}들의 체계를 세웠다. 그들은 광범한 신학 체계를 개발했고, 똑같이 광범하지만 부담 주는 제사장체제를 갖췄다. 몇 명의 다른 지도자는, 셋족속의 초기 종교 교훈 중에서 남은 것을 되살리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이런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안드족속이 이집트에서 최초의 석조{石造} 건축물을 지었다. 돌로 지은 피라밋 가운데 처음 건축되고 가장 절묘한 것은, 안드족속 건축술의 천재였던 임호텝이 세웠으며, 그가 수상{首相}으로 일할 때였다. 그 전에 세워진 건물들은 벽돌을 이용했고,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에서는 돌로 지은 건축물이 많이 세워졌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건축 기술은, 이 위대한 건축가가 활동하던 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했다.

80:6.5 (894.6)

이런 찬란한 문화 시기는 나일 강 주변의 내란{內亂}으로 인해 중단됐고, 메소포타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는 황폐한 아라비아에서 온 열등한 부족들과 남쪽에서 온 흑색인들로 곧 들끓었다. 그 결과로, 사회적 진보는 500년 넘는 동안 꾸준히 퇴보했다.

7. 지중해 섬들의 안드족속

80:7.1 (895.1) 메소포타미아에서 문화가 퇴보하는 동안에, 지중해 동부에 있는 여러 섬에서 우수한 문명이 얼마 동안 지속됐다.

80:7.2 (895.2) 기원전 12,000년 무렵에, 안드족속의 한 총명한 부족이 크레테 섬으로 이주했다. 이 섬은 그런 우수한 집단이 그토록 초기에 정착한 유일한 섬이었고, 거의 2천 년이 지나서야, 이 항해자들의 후손이 인접된 섬들로 퍼져 나갔다. 이 집단은 얼굴이_좁고, 키가_작은 안드족속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낫족속의 반족속 계열과 섞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키가 6피트 미만이었으며, 그들보다 키가 크고 열등한 동료들에게 글자 그대로 본토에서 밀려났다. 크레테 섬으로 이주한 이 사람들은, 옷감 짜기, 금속 가공, 도예술, 배수시설, 그리고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데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글쓰기에 종사했고 목축업과 농사짓는 일을 했다.

80:7.3 (895.3) 그들이 크레테 섬에 정착한 후 거의 2천 년이 흐른 뒤에, 키가 큰 아담선 후손 중에서 한 무리가 북부 지역의

섬을 거쳐서 그리스로 들어갔는데,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의 고향으로부터 거의 직접 내려왔다. 아담선과 라타의 직계 후손인 사토가, 그리스인의 선조인 이 사람들을 서쪽으로 인도했다.

80:7.4 (895.4)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정착한 이 집단은 375명으로 구성됐는데, 아담선족속의 두 번째 문명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택되고 우수한 민족이었다. 아담선의 이 후대 자손은, 신흥{新興} 백인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인 계층이었고, 육체적으로도 호감을 샀는데, 첫 번째 에덴 시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

80:7.5 (895.5) 그리스와 에게해 제도{諸島} 지역은, 이윽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뒤를 이어서, 서양의 무역, 예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아담선족속 선구자들의 문화를 제외하고, 에게해 지방의 모든 예술과 과학 역시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됐다. 이 그리스의 아담선족속 민족의 모든 예술과 천재성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 아담선과, 그의 비범한 둘째 부인 사이에서 생긴 자손의

직접 유산이었는데, 그 부인은 캘리개스차 왕자의 순수한
늦죽속 참모로부터 이어진 혈통을 이어받은 딸이었다.
그리스인이, 자신들은 신들과 초인적 존재들로부터
탄생된 직계 후손이라고 여기는 신화{神話}의 전승을
가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80:7.6 (895.6) 에게해 지역은 다섯 차례에 걸친 뚜렷한 문화
단계를 지나왔는데, 단계가 지날 때마다 영적 수준이
저하됐고, 그리스의 후기 세대들이 다뉴브 지역에서
사들인 노예의 진부한 후손이 급속도로 증가함으로 인한
압력에 눌려서, 마지막으로 영화롭던 시대는 머지않아
소멸됐다.

80:7.7 (895.7) 가인의 후손의 어머니 숭배 종파{宗派}가 최고로
유행됐던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크레테 섬에서였다. 이
종파는 이브를 "대모{大母}"로 숭배하면서 이브에게 영광
돌렸다. 이브의 형상이 도처에 있었다. 대중을 위한 수천
개의 신전이 크레테 섬과 소아시아 전역에 세워졌다.
그리고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 종파는 그리스도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는, 예수의 이 세상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고 숭배한다는 구실로, 초기 그리스도교와 합쳐졌다.

80:7.8 (895.8) 기원전 6500년 무렵까지, 안드족속의 영적 유산에 큰 퇴보가 계속됐다. 이 아담 후손은 광범하게 흩어졌고, 더 오래되고 숫자가 많은 인간 종족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안드족속 문명의 이런 쇠퇴는, 그들의 종교 기준이 사라짐과 함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세상 종족들을, 영적{靈的}으로 가난한 처지에 내버려뒀다.

80:7.9 (896.1) 기원전 5000년까지, 3개의 가장 순수한 아담 후손 종족이, 수메르, 북부 유럽, 및 그리스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는, 아라비아에서 스며들어오는 혼합되고 짙은 색 종족들의 인파 때문에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열등한 사람들의 도래는, 안드족속의 생물학적 및 문화적 잔재가 더 널리 흩어지도록 기여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에서, 더 모험심 많은 민족들이 서쪽으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 섬으로 들어갔다. 이 이주민은 곡식과 채소를 재배했고, 길들인 동물을 데려왔다.

80:7.10

(896.2)

기원전 5000년 무렵에, 진취적인 메소포타미아인의 강력한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밖으로 이동해서 키프러스 섬에 정착했는데, 이 문명은 2천 년 정도 지난 후에, 북쪽에서 들어온 야만적인 유랑민 무리에게 파괴당했다.

80:7.11 (896.3)

또 다른 거대한 이주민이, 후대의 칼타고 지역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에 정착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많은 숫자의 안드족속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일찍이 에게 제도에서 이탈리아로 들어갔던 그들의 동족과 스위스에서 섞였다.

80:7.12 (896.4)

이집트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의 퇴보를 답습할 때, 매우 유능하고 진보를 이룩한 여러 가족이 크레테 섬으로 피신했으며, 그렇게 해서, 이미 진보된 이 문명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열등한 집단들이 들어와서 크레테 섬의 문명이 위협 당하자, 문화가 매우 발달된 가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리스로 들어갔다.

80:7.13 (896.5)

그리스인은 위대한 선생과 예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상인과 식민지 개척자였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과 상업을 삼켜버린 열등한 인파에

결국 압도당하게 되기 전에는, 성공적으로 많은 문화 전초기지를 서쪽 방향에 세웠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 문명에서 엄청난 진보가 남부 유럽의 후대 민족들 속에 계속 이뤄졌고, 이런 아담선족속의 혼합된 후손 중에서 다수는 주변에 있는 대륙{大陸}의 여러 부족에게 합병됐다.

8. 다뉴브 강의 안돈족속

80:8.1 (896.6)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안드족속 민족 중에서, 북쪽으로 이주하여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청색인과 섞였고,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지중해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사하라인 및 남부의 청색인과 섞였다. 그리고 백인종의 이 두 부류는, 당시에, 그리고 현재에도, 이 중심 지역들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초기 안돈족속 부족 중에서, 산악 지역에 살아남은 얼굴이_넓적한 사람들로 인해 널리 흩어졌다.

80:8.2 (896.7) 이 안돈 후손은 중부와 남부 유럽의 산악지대 대부분으로 분산됐다.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도착된 사람들로 인해 종종 보충됐는데, 그들은 상당한 세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했다. 고대의 헛족속은 안돈족속 혈통에서

직접 기원됐으며;그들의 창백한 피부와 넓적한 얼굴이 그 종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 종족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낳았고, 그로부터 시작된 유대인 후손의 독특한 얼굴 모양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후손은 안드족속으로부터 유래된 문화와 종교를 간직하면서, 확실히 색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의 언어는 안돈족속과 뚜렷이 일치했다.

80:8.3 (897.1) 이태리, 스위스, 및 남부 유럽의 호수에서, 퇴적지{堆積地} 또는 통나무 방파제 위에 세운 집에 거주한 부족들은, 아프리카인, 에게 해 사람들, 그리고 특히 다뉴브 이주민의 확장하는 결가지였다.

80:8.4 (897.2) 다뉴브인은 안돈족속이었고, 발칸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던 농부와 목동이었으며, 다뉴브 강 유역을 따라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질그릇을 만들었고 땅을 경작했으며 계곡에서 살기를 선호했다. 다뉴브인의 가장 북쪽 거주지는 벨기에의 리지에 있었다. 이 부족들은, 자신의 문화적 중심지와 근원지로부터 멀리 이동함에 따라서, 급속도로 나빠졌다. 최고의 질그릇은 비교적 초기 정착지의 작품이다.

80:8.5 (897.3) 다뉴브인은 크레테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한 결과로 어머니 숭배자가 됐다. 이 부족들은 작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 해안에서 온 안돈족속 항해자들과 나중에 혼합됐는데, 그들 역시 어머니 숭배자였다. 그리하여 중앙 유럽 대부분에는, 얼굴이_넓적한 백인종의 혼합된 유형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 잡았고, 그들은 어머니 숭배, 그리고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종교 제례를 신봉했는데, 어머니 숭배 종파에서는 죽은 사람을 돌 움막에서 태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9. 세 백인종

80:9.1 (897.4) 안드족속의 이주가 끝나게 되면서, 유럽에서 인종적 혼합은 다음과 같은 세 백인종으로 정리됐다:

80:9.2 (897.5) 1. **북부의 백인종.** 소위 노르딕 종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청색인과 안드족속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안돈족속 핏줄이 섞였고, 홍색과 황색의 상익도 비슷한 양으로 섞여 있었다. 그리하여 북부의 백인종은, 이 네 가지 가장 바람직한 인간 혈통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전자가 청색인으로부터 왔다. 전형적인 초기 노르딕인은

얼굴이_길쭉하고 키가 컸으며 금발이었다. 그렇지만 이 인종은 오래 전에 백색 민족의 모든 지류{支流}와 완전히 혼합됐다.

80:9.3 (897.6) 침입하는 노르딕인이 마주친 유럽의 원시 문화는, 청색인과 피가 섞인, 퇴화하는 다뉴브인이 이룩한 것이었다. 오늘날 독일에서 두 인종 집단의 실존이 증언하다시피, 노르딕_덴마크 문화와 다뉴브_안돈족속 문화는 라인 강에서 만나서 섞였다.

80:9.4 (897.7) 노르딕인은 발틱해 해안에서 호박{琥珀}을 계속 매매했는데, 다뉴브 강 유역에 사는, 얼굴이 넓직한 사람들과 브렌너 통로를 통해서 큰 교역을 이뤘다. 다뉴브인과의 이런 광범한 접촉으로 인해, 이 북부 지역 사람들이 어머니를 숭배하게 됐고,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시행됐다. 유럽 전역에 매장 풍습이 있었음에도, 초기 백인종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돌과 진흙으로 만든 납골{納骨} 단지 속에서 그 재만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이 백색인은 집을 건축했고;결코 동굴에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백색인의 초기 문화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에 반해, 그 전에 있었던 크로_마농인 유형은 동굴과 석굴 속에 밀봉되어 잘 간직돼 왔다. 이를테면, 한때 유럽 북부 지역에는 퇴보하는 다뉴브인과 청색인의 원시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나타난, 매우 우수한 백색인 문화가 있었다.

80:9.5 (897.8) 2. *중부의 백인종*. 이 집단은, 청색, 황색, 및 안드족속의 혈통을 포함하지만, 주로 안돈족속이다. 이 민족은 얼굴이_넓적하고 가무잡잡하며 땅딸막하다. 그들은 노르딕 종족과 지중해의 종족 사이에 썰기처럼 박혔는데, 넓은 하부{下部}는 아시아에 자리 잡고, 그 꼭대기는 프랑스 동부를 파고들었다.

80:9.6 (898.1) 거의 2만 년 동안, 안돈족속은 안드족속에게 점점 더 멀리 중앙 아시아 북쪽으로 밀려났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 때문에, 이 안돈족속이 투르케스탄으로 돌아왔다. 이 안돈족속은 1,000년 이상 계속 남쪽으로 밀려왔는데, 카스피해와 흑해 부근에서 나뉘어, 발칸과 우크라이나 두 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 침입에는 아담선의 자손 중에서

남은 집단들이 포함됐으며, 그 침입 기간의 하반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란 안드족속뿐 아니라, 셋족속 제사장들의 후손 중에서 많은 사람도 동행했다.

80:9.7 (898.2) 기원전 2500년까지, 안돈족속 중에서 서쪽 방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유럽에 이르렀다. 그리고 투르케스탄 언덕에 있던 야만인이, 메소포타미아 전역{全域}, 소아시아, 그리고 다뉴브 분지에 들끓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문화적 퇴보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퇴보가 일어났다. 이 침입자들은 중앙 유럽에 있는 종족들의 성품을 분명히 안돈족속과 비슷하도록 만들었는데, 알프스인 특징을 지닌 채로 남았다.

80:9.8 (898.3) 3. *남부의 백인종*. 거무스름한 이 지중해 인종은 안드족속과 청색인의 혼혈로 이뤄졌는데, 안돈족속의 혈통이 북쪽보다 적게 들어 있었다. 또한 이 집단은, 사하라인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2차 상의 핏줄을 흡수했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백인종의 이 남부 집단에, 지중해 동부로부터 전달된 강력한 안드족속 요소들이 주입됐다.

80:9.9 (898.4) 아무튼, 지중해의 근해{近海} 지역들은, 기원전 2500년에 있었던 거대한 유목민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안드족속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유목민이 동부 지중해 구역들을 침입했을 때, 육상{陸上} 통행과 거래는, 이때 수세기 동안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 이런 육상 교통의 방해로 인해, 해상 통행과 거래가 크게 확장됐으며;지중해의 해상{海上} 무역은 약 4천 500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상 교통이 발전한 결과로, 지중해 분지의 연안{沿岸} 지역에 두루, 안드족속 후손이 갑작스럽게 확산됐다.

80:9.10 (898.5) 이런 인종 혼합은, 남부 유럽 인종으로 하여금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혼합되게 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인종은 더 심한 혼합을 겪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청색_황색_안드족속이 합쳐진 아라비아 민족과 많이 혼합됐다. 이 지중해 연안의 인종은, 사실, 주변 사람들과 아주 자유스럽게 섞여서, 실제로는 서로 다른 유형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그 구성원들은, 키가 작고 얼굴이_길쭉하고 거무스름한 피부를 지녔다.

80:9.11 (898.61) 북쪽 지역에서는 전쟁과 결혼을 통해서 안드족속이 청인종의 흔적을 없앴지만, 남부에서는 그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바스크인과 베르베르인은, 살아남은 이 종족의 두 지류{支流}를 대표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사하라인과 완전히 섞였다.

80:9.12 (898.7) 이와 같은 내용은, 기원전 3000년경 중앙 유럽에서 나타났던 인종 혼합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이 부분적으로 불이행했음에도, 상류 유형들은 혼합됐다.

80:9.13 (898.8)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며, 도래되는 청동기 시대와 교차되는 때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어머니 숭배와 관련된다. 남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태양 숭배와 관련된다. 이 시기에는 둥글고 지붕이 없는 태양 신전들을 세웠다. 유럽의 백인종은 정력적인 건축가였고, 태양의 상징으로 거대한 돌 기념비 세우기를 좋아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스톤헨지를 세운 것도 그런 성향 때문이었다. 태양 숭배가 유행한 것은, 이때 남부 유럽에서 농업이 크게 번창했음을 보여준다.

80:9.14 (899.1) 비교적 최근인 이 태양 숭배 시기의 미신들이, 브리타니 반도의 풍속에서 지금도 존속한다. 비록 1,500년 전에 그리스도교화 됐지만, 이 브리타니 사람들은, 흉안{凶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마법의 장식물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번갯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뇌석{雷石}을 여전히 굴뚝 속에 넣어둔다. 브리타니인은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딕인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서부 유럽에 있었던 본래의 안돈족속 주민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인데, 지중해 연안 혈통들과 혼합됐다.

80:9.15 (899.2) 그러나 백색 민족들을, 노르딕, 알파인, 및 지중해 사람으로 감히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피가 너무 많이 섞였기 때문이다. 한때는 백인종을 그런 계통으로 상당히 잘 분류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광범한 혼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쾌하게 그 차이를 밝히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오늘날 북 아메리카 주민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3000년에도, 고대의 사회 집단들은 하나의 종족이라고 할 수 없었다.

80:9.16 (899.3) 유럽의 이 문화는 5천 년 동안 계속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섞였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서양 나라들의 완전한 왕래가 방해를 받았다. 지난 세기 동안에 이 문화는 북 아메리카의 국제적 주민 속에서 섞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그 대륙의 미래는, 유지되는 사회 문화 수준뿐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주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종적 유전인자들의 자질{資質}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80:9.17 (899.4) [네바돈의 천사장이 제시했음]

제81편 현대 문명의 발전

81:0.1 (900.1) 캘리개스차와 아담의 사명에 입안됐던 세계 개량을 위한 계획이 실패함으로 생긴 불안정과 상관없이, 인간 종족의 기본적인 유기체 진화는, 인간 진보와 인종 발달을 재는 눈금으로 볼 때, 인간 종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진화는, 지연될 수 있지만 중지될 수는 없다.

81:0.2 (900.2) 보라색 인종의 영향은, 비록 숫자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문명의 진보를 이룩했는데,

아담 시대부터 이 진보는, 인류가 그 이전의 실존 전체를 통해서 거의 100만 년 동안 진보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 문명의 발상지

81:1.1 (900.3) 아담 시대 이후로 거의 3만 5천 년 동안, 문명의 발상지{發祥地}는 아시아 남서부에 있었는데, 나일 강 유역으로부터 동쪽으로 뻗어 나가서, 약간 북쪽으로 아라비아 북부를 지나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과 투르케스탄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문명이 정착되는 데에는 기후가 중대한 요소였다.

81:1.2 (900.4) 아담족속의 초기 이주를 막은 것은 북부 아프리카와 서부 아시아의 기후 및 지형의 심한 변동이었는데, 그들이 유럽에 들어가는 것은 확장되는 지중해로 인해서 막혔고, 이주하는 인파의 방향을 북쪽과 동쪽으로 바뀌서 투르케스탄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런 육지의 융기와 그에 관련된 기후 변화가 끝난, 기원전 15,000년 무렵에는, 문명이 이미 전 세계적 교착상태 있었는데, 동쪽으로는 아시아에서 산맥 때문에, 서쪽으로는 유럽에서 확장되는 삼림 때문에 여전히

간혀있는, 안드족속의 문화 효소와 생물학적 보존물만 예외였다.

81:1.3 (900.5) 다른 모든 수고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기후 변화가 완성하려 하는데,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을 포기하고, 더 진보된 가축 기르기와 농사짓기에 매달리도록 강요한다. 진화는 느릴 수 있지만, 몹시 효과적이다.

81:1.4 (900.6) 초기 농사꾼들이 노예를 매우 널리 이용했기 때문에, 전에는 농부가 사냥꾼과 목동으로부터 천대받았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오랫동안 천한 일로 여겨졌으며;그렇기 때문에 땅과 씨름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모든 축복 중에서 으뜸이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목축된 생명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농산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존중됐다.

81:1.5 (900.7) 사람은 대개 사냥꾼으로부터 목축업자 시대를 거쳐서 바뀜으로써 농부로 진화했으며, 이런 일들이 안드족속에서도 똑같이 이뤄졌지만, 더 빈번하게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강압적 필요성 때문에, 모든 부족을

사냥꾼으로부터 성공적 농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만들곤 했다. 그러나 사냥하는 일에서 농업으로 즉각 옮겨가는 현상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보라색 혈통과 혼합된 지역에서만 발생했다.

81:1.6 (901.1) 진화 민족들(특히 중국인)은, 우연히 수분을 머금은 씨앗에서, 또는 죽은 사람을 위해 무덤에 넣어 뒀던 씨앗에서 싹이 돋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씨 뿌리고 곡식 재배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배웠다. 그러나 아시아 남서부 전역{全域}에서는, 비옥한 강바닥과 인근 평야 지대를 따라서, 안드족속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개선된 농업 기법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은, 두 번째 동산 경계 지역에서 주로 농사짓고 채소를 가꾸는 일에 종사했다.

81:1.7 (901.2) 아담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상부 경계 지역의 고원 지대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동산에서 개량된 그대로, 밀과 보리를 재배했다. 아담과 아담선의 후예는 여기서 만나고 거래했으며 허물없이 어울렸다.

81:1.8 (901.3) 생활 조건에서 이런 강제적 변화로 말미암아, 인간 종족 가운데 그토록 많은 비율이 잡식성{雜食性} 습관을

갖게 됐다. 그리고 밀, 쌀, 및 채소 위주의 식사와 가축{家畜}의 고기를 섞어 먹음으로써, 고대의 이 사람들은 건강과 활력에서 큰 진보를 이뤘다.

2. 문명의 도구

81:2.1 (901.4) 문화는 문명의 도구가 발달하는 데 입각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사람이 미개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활용했던 도구는, 더 높은 과제를 완수할 때 사람의 힘을 덜 사용하는 정도만큼 효과가 있었다.

81:2.2 (901.5) 문화가 싹트고 사교 모임에서 진보가 시작되는 요즈음 상황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사회와 문명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실제로 약간 갖고 있는데, 초기에 너희의 조상이 사려 깊게 돌아보고 사회에 관한 판단에 헌신할 수 있는 여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81:2.3 (901.6) 인간 문명에서 가장 크게 발전된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81:2.4 (901.7) 1. 불을 다룰 수 있게 됨.

81:2.5 (901.8) 2. 동물을 길들임.

81:2.6 (901.9) 3. 포로를 노예로 삼음.

81:2.7 (901.10) 4. 사유 재산.

81:2.8 (901.11) 불은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었고 결국 과학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지만, 이 점에서는 원시인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평범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81:2.9 (901.12) 불이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자, 안돈과 부싯돌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는, 곧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늘 나라에서 훔쳐왔는지 설명하는 전설로 대체됐다. 고대인은 자신이 직접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모든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으며, 많은 현대인도 계속 이렇게 한다. 소위 자연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객관화 시키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된 원인을 찾기 위한, 솔직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현대 과학이 생겨났는데:이것이 점성술을 천문학으로, 연금술을 화학으로, 마술을 의학으로 바꿨다.

81:2.10 (901.13) 기계가 생기기 전 시대에,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작업을 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지성인은 동물을 길들임으로써 살아있는 도구를 손에 쥐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짓고 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동물 없이는, 원시 상태에서부터 후대의 문명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81:2.11 (902.1) 길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발견됐는데, 특히 중부와 남서부 지역이었다. 이것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방에서 문명이 더 빨리 발전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동물 중에서 다수는 전에 두 번이나 길들여졌었으며, 안드족속 시대에 재차 길들여졌다. 그러나 개는 아주 오래 전에 청색인이 길들인 후로 계속 사냥꾼 곁에 남아 있었다.

81:2.12 (902.2) 투르케스탄의 안드족속은 광범하게 말을 길들인 첫 민족이었으며, 그들의 문화가 오랫동안 주도권을 쥔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기원전 5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부는 양, 염소, 젖소, 낙타, 말, 닭, 및 코끼리를 기르기 시작했었다.

그들은, 황소, 낙타, 말, 그리고 야크를 운반용 짐승으로 이용했다. 한때는 인간 자신이 운반용 짐승 역할을 했다. 청인종의 어떤 통치자는, 한때 그의 짐꾼 거류지에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81:2.13 (902.3) 노예 제도와 땅의 개인 소유 제도는 농업과 함께 발전됐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생활수준을 높였고, 사회 문화를 누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공했다.

81:2.14 (902.4) 미개인은 자연의 노예이지만, 과학 문명은 인류에게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수여하고 있다. 동물, 불, 바람, 물, 전류,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할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왔고, 계속 해방시킬 것이다. 기계류의 풍성한 발명으로 발생하는 과도기 병폐에 상관없이, 그런 기계 발명에서 얻게 되는 궁극적 유익은 측량하지 못할 만큼 크다. 일을 처리하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갖게 되기까지, 문명은 확립되기는 커녕, 결코 번영할 수 없다.

81:2.15 (902.5) 사람은 처음에는 돼 있는 것을 단순히 이용해서 주거지를 삼았는데, 암봉{岩棚} 밑에 살거나 동굴에

거주했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돌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서 가족을 위한 오두막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집 건물을 새롭게 짓는 단계로 발전했는데, 벽돌 또는 다른 건축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81:2.16 (902.6) 투르케스탄 고원지대의 민족들은, 비교적 현대적인 종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이 집들은 아메리카를 개척한 정착민이 만든 초기 통나무집과 흡사했다. 평야 지대에 세워진 모든 사람의 거주지는 벽돌로 지어졌으며;나중에는 불에 구운 벽돌이 사용됐다.

81:2.17 (902.7) 강가에 살던 이전의 종족들은 둥근 모양을 이루도록 긴 막대기들을 땅에 박은 다음에;꼭대기는 서로 모아져서, 오두막을 위한 뼈대를 이루게 했는데, 가로지르는 갈대이영으로 엮갈리게 짜서, 전체적인 모양은 큰 바구니를 얹어놓은 것과 흡사했다. 이런 구조물은 나중에 진흙으로 칠해졌고, 그것이 햇빛으로 마르게 된 후에는, 비가 새지 않는 매우 유용한 주택이 됐다.

81:2.18 (902.8) 이런 초기 오두막으로부터, 각종 바구니를 엮어 짜는 후대의 방법이 독립적으로 생겨났다. 어떤 집단에서는, 나무로 만든 뼈대에 축축한 진흙이 칠해지는 광경을 관찰함으로써, 도기{陶器}를 만드는 방법이 생겨났다. 진흙으로 뒤덮인 원시 오두막 가운데 하나가 우연히 불에 타게 됐을 때, 도기를 불에 구어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발견됐다. 옛날에 사용되던 기술은, 초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수반하는 우연한 사건에서 유래됐다. 이런 사실은, 적어도 아담이 도래하기까지, 진화로 진보하던 인류에게는 거의 전반적으로 정확한 사실이었다.

81:2.19 (903.1) 왕자의 참모진이 도기 만드는 방법을 약 50만 년 전에 처음 소개했지만, 진흙으로 그릇 만들기는 15만 년 넘도록 실제로 사라졌었다. 그 만{灣}의 해안에 있던 수메르인_이전{以前} 늦죽속만 계속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도기 만드는 기술은 아담 시절에 다시 회복됐다. 이런 기술의 보급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및 중앙아시아의 사막 지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이뤄졌고, 개선된 기법이 연달아 파도를 이루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바깥으로 동반구에 퍼졌다.

81:2.20 (903.2) 안드족속 시대의 이 문명을, 그들의 도기류 또는 다른 기술의 단계로 항상 추적할 수는 없다. 인간 진화의 완전한 과정은,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체제로 인해서 굉장히 뒤엎혔다. 후대의 항아리와 도구들이, 순수한 안드족속 사람들이 만든 그 이전의 생산품보다 더 열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도시, 제조업, 및 상업

81:3.1 (903.3) 기원전 12,000년 무렵부터 시작해서, 풍부하고 광활한 목초지로 구성된 투르케스탄 사냥터와 방목지가 기후조건 때문에 파괴됨으로써,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미숙한 제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러는 길들여진 짐승 떼 사육으로 돌아섰고, 더러는 농사꾼이 되거나 물에서 자라는 먹을거리를 수집하기도 했지만, 더 상류 유형의 안드족속 지식인들은 상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전체 부족이 한 가지 산업의 개발에 매달리는 것이 풍습이 되기도 했다. 나일 강 유역에서 힌두쿠쉬까지, 그리고 간지스 강에서 황하{黃河}까지, 우수한 부족의 주요 업무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 됐고, 상업을 부업으로 겸했다.

81:3.2 (903.4) 상업의 증가와, 원료를 가공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의 증가는, 그런 초기의 제법 평화로운 공동체 구성에 직접 도움 줬고, 그 공동체는 문화와 문명의 기술을 확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광대한 세계 무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사회 공동체는 부족단위였다--확장된 가족 집단들이었다. 거래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사귀게 됐고, 그리하여 문화가 더 빠른 속도로 섞이도록 기여했다.

81:3.3 (903.5) 약 1만 2천 년 전에, 독립된 도시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원시 무역과 제조업을 하는 이런 도시들은 반드시, 농업과 가축을 기르는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생활수준이 증진됨으로써 산업이 촉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희는 개량된 초기 도시 생활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초기 인종들은 그렇게 깔끔하고 정결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원시 촌락{村落}은 순전히 오물과 쓰레기가 쌓임으로써 25년마다 평균 1내지 2피트씩 높아졌다. 또한 이런 옛 도시 가운데 어떤 것들은 주변의 땅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졌는데, 불에 굽지 않은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이 오래

지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옛 것이 허물어진 자리 위에 바로 새 집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81:3.4 (903.6) 금속의 보편적 사용은, 초기 산업 및 상업 도시들이 이뤄지던 이 시대의 특색이었다. 너희는 이미 기원전 9000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동{靑銅} 문화를 투르케스탄에서 발견했으며, 안드족속은 마찬가지로, 쇠, 금, 및 구리를 잘 다루는 기술을 일찍부터 익혔다. 그러나 비교적 진보된 문명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상황은 매우 달랐다. 그런 곳에는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 같은 뚜렷한 시기가 없었으며; 세 시기가 모두 한꺼번에 다른 장소에서 존재했다.

81:3.5 (904.1) 금은 사람이 얻으려고 애쓴 최초의 금속이었는데; 가공하기 쉬웠고, 처음에는 장식품으로만 사용됐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것은 구리였지만, 주석{朱錫}을 섞음으로써 더 강한 청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드는 방법은, 투르케스탄의 아담선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들이 사는 고지대의 구리 광산이 우연히 주석 퇴적층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81:3.6 (904.2) 미숙한 제조업이 출현하고 산업이 시작되면서, 문화를 가진 문명의 보급에 상업이 재빨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여행이 크게 촉진됐고, 문화의 혼합은 물론, 문명의 융합이 크게 촉진됐다. 기원전 5000년까지, 문명화된 지역과 약간 문명화된 지역 전체에서, 말이 광범하게 이용됐다. 이런 후대 인종들은 길들여진 말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차와 전차{戰車}를 갖췄다. 오래 전에도 바퀴가 사용됐지만, 이제는 운송수단들이 그렇게 갖춰져서, 상업과 전쟁 양쪽에 널리 이용됐다.

81:3.7 (904.3) 여행하는 상인과 방랑하는 탐험가가, 다른 모든 영향력이 합쳐진 것보다 더 많은 진보를 역사상 문명에 이룩했다. 군사적 정복, 식민지화, 그리고 후대의 종교들이 조성한 선교사 체계 역시 문화를 보급시키는 요인이 됐지만;이것은 모두, 무역 관계 다음으로 2차였고, 무역 관계는 산업에서 급속도로 발달하는 기술과 과학으로 인해 속도가 계속 빨라졌다.

81:3.8 (904.4) 아담 혈통이 인간 종족들에게 주입됨으로써, 문명의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끝까지 모험하고 탐험하려는 성향을 크게 자극했으며, 그 결과로 안드족속의 급속도로 번식하는 혼혈 후손이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곧 차지하게 됐다.

4. 혼합된 인종

81:4.1 (904.5) 역사 시대가 시작될 즈음에는, 유라시아 전역, 북부 아프리카, 및 태평양의 섬들이 인류의 혼합 인종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인종들은, 유라시아의 다섯 가지 기본 인간 혈통이 섞이고 다시 섞임으로써 형성됐다.

81:4.2 (904.6) 유라시아 인종들은 각각 어떤 특색 있는 육체적 특질로 구분된다. 아담족속과 낫족속은 얼굴이_길었으며;안돈족속은 얼굴이_넓적했다. 상의 인종은 얼굴이_중간이었고, 황색인과 청색인은 얼굴이_넓적한 경향이 있다. 청인종들은, 안돈족속 혈통과 섞이게 됐을 때, 뚜렷하게 얼굴이_넓적했다. 2차 상의 종족들은 얼굴이_중간이거나 얼굴이_길었다.

81:4.3 (904.7) 이런 두개골 용적이 종족의 기원을 해독하는 데 유용하더라도, 골격 전체가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유라시아

인종들이 발전하던 초기 시절에는, 원래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다른 유형의 골격 구조가 있었다:

81:4.4 (904.8) 1. 안돈족속, 유란시아 원주민.

81:4.5 (904.9) 2. 1차 상익, 홍색, 황색, 및 청색.

81:4.6 (904.10) 3. 2차 상익, 주황색, 녹색, 및 남색.

81:4.7 (904.11) 4. 낫족속, 달라마시아인의 후손.

81:4.8 (904.12) 5. 아담족속, 보라색 인종.

81:4.9 (904.13) 이런 5대{大} 종족 집단이 광범하게 서로 섞였는데, 혼합이 계속될수록, 상익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 때문에 안돈족속 유형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라플란드인과 에스키모인은 안돈족속과 상익_청인종의 혼합이다. 그들의 골격 구조는 원래 안돈 유형에 거의 근접했었다. 그러나 아담족속과 낫족속은 다른 인종들과 무척 심하게 섞였으므로, 오직 일반화된 코카소이드 종류로만 발견될 수 있다.

81:4.10 (905.1)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나간 2만 년 동안의 인간 유골이 발굴되더라도, 다섯 가지의 원래 유형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골격 구조의 연구는, 인류가 현재 대략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됨을 밝혀줄 것이다:

81:4.11 (905.2) 1. *코카소이드*--놏족속과 아담족속 혈통들이 안드족속과 섞였는데, 1차와 (약간의) 2차 상익과 혼합됨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안돈족속과 이중 교배됨으로 더 변경됐음. 서양의 백인종은, 약간의 인도인 및 우랄알타이 어족{語族} 사람들과 함께 이 집단에 포함된다. 이 구분에서 일치하는 요소는, 많든지 적든지 안드족속 유전형질이 있다는 것이다.

81:4.12 (905.3) 2. *몽고인*--원래의 홍인종, 황인종, 및 청인종을 포함하는 1차 상익 유형. 중국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여기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몽고인 유형이 2차 상익과 안돈족속의 혼합으로 변경됐으며;안드족속이 주입됨으로써 더 변경됐다. 말레이인과, 기타 인도네시아 민족들은, 높은 비율의 2차 상익 핏줄을 가졌음에도, 이 분류에 속한다.

81:4.13 (905.4) 3. *흑색 인종*--원래의 주황인종, 녹색인종, 및 남색인종을 포함하는 2차 상익 유형. 이것은 흑인이 가장 잘 예증{例證}하는 유형이며, 아프리카, 인도,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차 상의 종족들이 위치한 곳은 어디서든지 발견될 것이다.

81:4.14 (905.5) 중국 북부에는 코카소이드와 몽고인 유형이 섞인 어떤 인종이 있으며;레반트에서는 코카소이드와 흑색 인종이 서로 섞였으며;인도에서는 남 아메리카처럼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세 가지 유형의 골격 특질이 여전히 존속하며, 현재 인간 종족들의 후기 선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문화가 있는 사회

81:5.1 (905.6) 생물학적 진화와, 문화가 있는 문명이, 반드시 상호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어느 시대든지 유기체의 진화는 문화적 쇠퇴 한가운데서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인간 역사를 조사해 보면, 결국 진화와 문화가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됨을 발견할 것이다. 진화는 문화가 없는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문화가 있는 문명은 인종 발달이 선행되는 충분한 바탕 없이는 번성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인간 사회의 진보와 상관없는 문명의 기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피는 인종들의 선천적 역량을 증대시켰고, 경제 발전과 산업

진보 속도를 가속시켰다. 아담이 증여됨으로써 인종들의 두뇌 능력이 향상됐고, 그리하여 자연스런 진화의 진행이 크게 촉진됐다.

81:5.2 (905.7) 농업, 동물 길들이기, 및 개선된 건축술을 통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최악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됐고, 무엇으로 삶의 과정을 상쾌하게 만들 것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궁리하기 시작했으며;이것은 계속 높아지는, 물질적으로 안락함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시발점이 됐다. 인간은 제조업과 산업을 통해서 필사자 인생의 유쾌한 만족감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81:5.3 (906.1) 그러나 문화 사회는, 무료 회원권과 완전한 동등함을 갖고 그 속에 태어나도록 상속된 특권을 모든 사람이 가질 만큼, 훌륭하고 인정 많은 동호회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회는, 세상 노동자들의 늘_진보하는 상류 조합{組合} 같은데, 그 속에서 자기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가 후세에 생활하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숭고하게 고생하는 사람만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명 조합은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데, 엄하고 혹독한 훈련을 강요하고, 모든 반대자

및 거부자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회의
공통된 위험과 인종적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증강된 안전
보장 외에는, 개인의 자유나 특권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81:5.4 (906.2) 사회의 연합은, 인간이 그동안 배워온 것이
유익하다는, 생존 대비책의 한 형태이며;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은 자기를_희생하고 개인의_자유를
삭감하는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며, 사회는 이런 증대된
집단적 보호에 대한 값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낸다. 한 마디로, 오늘날 사회 체제는 시행착오로 생긴
보험 계획인데, 이것은 인간 종족의 초기 체험의 특징을
나타내는, 혹독하고도 반{反}사회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게, 어느 정도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돼 있다.

81:5.5 (906.3) 이처럼 사회는, 제도를 통한 시민의 자유, 자본과
발명을 통한 경제적 자유, 문화를 통한 사회적 해방, 그리고
치안{治安} 규칙을 통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짜임새가 돼간다.

81:5.6 (906.4) *힘이 정의를 이루지는 않지만, 뒤를 잇는 각 세대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강력하게 시행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권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층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며, 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각 인간의 권리는 사회적 의무와 관련돼 있으며;집단의 혜택은 보호장치인데, 이것은 집단의 봉사에 대해서 부과되는 요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어김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집단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성적{性的} 성향에 대한 규칙을 포함해서, 반드시 보호돼야만 한다.

81:5.7 (906.5) 집단의 규칙을 따르는 자유가, 사회 진화에서 정당한 목표다. 제한 없는 자유는, 불안정하고 경솔한 인간 정신이 지어낸, 헛되고 공상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6. 문명의 유지

81:6.1 (906.6) 생물학적 진화는 계속 상승되는 방향으로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문화적 진화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파도를 이루면서 밖으로 퍼져 나갔고, 그 파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수한_핏줄의 아담 자손 전체가 마침내 흩어져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풍성하게 만들 때까지, 연속해서 약화됐다. 종족들이 충분히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명은 상당한

정도까지 섞였다. 문화는 서서히 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리고 이 문명은 반드시 유지되고 촉진돼야만 하는데,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화 자원, 즉 느리게 발전하는 문명 진화에 활력을 주고 이를 자극할 안드족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81:6.2 (906.7) 현재 유란시아에서 진화하고 있는 문명은, 다음 요인에서 자라났고 현재도 그 요인에 입각하고 있다:

81:6.3 (906.8) 1. *자연 환경*. 물질 문명의 본질과 범위는, 대체로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기후, 날씨, 및 수많은 물리적 조건이, 문화의 진화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81:6.4 (907.1) 안드족속의 시대가 시작될 때, 광대하고 비옥한, 흰 트인 사냥터가 온 세계에서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북 아메리카에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퍼져 있었으며;다른 하나는 투르케스탄 북부에 있었고, 안돈족속과 합쳐진 황인종이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남서부 아시아에서 우수한 문화가 진화한 결정적 요인은 인종과 기후였다. 안드족속은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그들 문명의 진로 결정에 중대한 요인은, 이란, 투르케스탄, 및 신장 지역이 점점 건조한 지대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자꾸 메말라가는 그들의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새롭고 발전된 방법을 발명하고 채택하도록, 이것이 *강요했다*.

81:6.5 (907.2) 대륙의 지형{地形}, 그리고 땅이 분포된 기타 상황들이, 평화나 전쟁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 아메리카 민족들이 누렸던 것만큼, 곤란을 받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가진 유란시아인은 거의 없었다--그들은 광대한 대양 때문에 온 사방이 실제로 보호를 받았다.

81:6.6 (907.3) 2. *자본재{資本財}*. 빈곤한 상황에서는 결코 문화가 발전할 수 없으며;여가 시간은 문명의 진보에 필수다.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갖는 개인의 성품은 물질적 풍요함 없이도 획득될 수 있지만, 문화가 있는 문명은 오로지, 열망과 더불어 여가 시간을 조장하는 물질적 번영이 이뤄진 조건에서만 조성될 수 있다.

81:6.7 (907.4) 원시 시대 동안에, 유란시아의 생활은 심각하고 냉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열대지방의 쾌적한 기후 쪽으로 이동하려는 지속적인 경향은, 끊임없는 투쟁과 끝없는 고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비교적

따뜻한 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실존을 위한 격렬한 투쟁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지만, 그런 편안함을 추구한 종족과 부족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여가 시간을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힘써서 머리를 쓰으로써, 힘을 덜 들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_획득하고 유익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종족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변함없이 사회 진보가 발생했다.

81:6.8 (907.5) 3. *과학 지식*. 문명의 물질적 국면은 반드시 과학적 자료가 누적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활과 화살을 이용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동력을 얻을 목적으로 동물을 활용한 뒤에, 사람이 바람과 물을 동력화{動力化}하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증기와 전기의 이용이 뒤따랐다. 그러나 문명의 수단은 서서히 개선됐다. 옷감 짜기, 도기, 동물 길들이기, 및 금속 가공이 발명된 후에는, 글을 쓰고 인쇄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81:6.9 (907.6) 지식이 능력이다. 발명이 이뤄진 후에야 문화 발전이 세계적인 규모로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과학과 발명은, 특히 인쇄기의 등장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이런 모든 문화 활동과 발명 활동의 상호 작용은 문화가 발달하는 속도를 엄청나게 가속시켰다.

81:6.10 (907.7) 과학은 수학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사용을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정확성을 요구하도록 인간의 사고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또한 과학은, 실책을 제거함으로써 철학을 안정시키며, 한편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종교를 정화{淨化}시킨다.

81:6.11 (907.8) 4. *인적{人的} 자원*. 인력{人力}은 문명의 보급에 필수 요소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수가 많은 민족이 수가 적은 인종의 문명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면 나라의 운명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막히지만,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자멸{自滅}하게 된다. 정상적인 인구 밀도의 적정 수준을 넘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생활수준이 저하됐음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평화적 침투나 군사적 정복, 즉 강제 점령으로 영토의 경계선을 즉각 확장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81:6.12 (908.1) 너희는 때로 전쟁의 참혹한 피해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및 도덕적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필사자가 태어나야만함도 깨달아야 하며;행성에서 그런 번식과 더불어 곧 인구 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세계는 크기가 작다. 유란시아는 평균인데, 아마 약간 작을 것이다. 나라의 인구를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면, 문화가 증진되고 전쟁이 방지된다. 그리고 언제 성장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나라가 현명한 나라다.

81:6.13 (908.2) 그러나 천연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발전된 기계 장비를 갖춘 대륙{大陸}이라도, 그 민족의 지성이 쇠퇴한다면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교육으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문화에 필수 요소인 지혜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선천적으로 지성적인 남녀만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민족은 체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그들은 정말로 현명하게 될 수도 있다.

81:6.14 (908.3) 5. *물질 자원의 유효성.* 많은 것이, 천연 자원, 과학적 지식, 자본재, 및 인간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데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초기 문명에서 주요 요소는, 현명한 사회 지배자가 행사하는

세력이었으며;원시인은, 자기보다 우수한 동시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엄밀하게 강요하는 문명을 가졌다. 잘 조직되고 우수한 소수가 대체로 이 세상을 지배해 왔다.

81:6.15 (908.4) 힘이 무엇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힘은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결정한다. 유란시아는 겨우 최근에 이르러서야, 힘과 정의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토론 할 수 있는 경지에 사회가 도달했다.

81:6.16 (908.5) 6. *언어의 유효성*. 문명은 언어가 형성될 때까지 확산되지 못한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언어가, 문명화된 사고{思考}와 계획의 확산을 보장해 준다. 초기 시절에 중요한 진전이 언어에서 이뤄졌다. 오늘날, 진화하는 사고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앞선 언어의 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81:6.17 (908.6) 언어는 집단의 교제로부터 진화했는데, 각 지역 집단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자체 체계를 개발했다. 언어는, 몸짓, 손짓, 외침, 흉내 내는 음성, 억양, 그리고 나중에는 알파벳을 소리 내는 데 붙는 강약을 통해서 성장했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용한,

생각에 이용되는 도구이지만, 사회 집단들이 어느 정도 여가 시간을 획득하기 전에는 번성하지 않는다. 언어를 구사하려는 성향이, 새로운 단어를--곧 속어를-- 개발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관습이 그것을 언어화한다. 사투리의 기원은, 가족 집단에서 “어린애 같은 말투”를 허용하는 것에서 예증된다.

81:6.18 (908.7) 언어가 다른 것이, 평화의 확장에 항상 큰 장애가 돼 왔다. 어떤 문화가, 인종 전반에, 대륙 전체에, 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언어 정복이 먼저 이뤄져야만 한다. 보편적 언어는, 평화를 증진시키고, 문화를 지켜주며, 행복을 증대시킨다. 심지어 세계의 언어들이 몇 개로 줄어들 때에도, 뛰어난 문화 민족들이 이것들을 숙달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81:6.19 (908.8) 국제어{國際語}가 개발되는 면에서는 유란시아에서 거의 진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상업 교류의 확립이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언어, 상업, 예술, 과학, 경쟁적 시합, 또는 종교와 관련되는가에 상관없이, 이런 모든 국제 관계는 촉진돼야만 할 것이다.

81:6.20 (909.1)

7. *기계 장치의 유효성*. 문명의 진보는, 도구, 기계, 그리고 보급 경로의 개발과 보유에 직접 관련된다. 개선된 도구, 즉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기계들이, 진보하는 문명의 무대에서 경쟁하는 집단들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지를 결정한다.

81:6.21 (909.2)

초기 시대에는, 땅 경작에 이용되는 유일한 에너지는 인력{人力}이었다. 사람 대신 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므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최근에는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하기 시작했고, 그런 발전은 모두 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했는데, 더 가치 있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인력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81:6.22 (909.3)

지혜롭게 사용하면, 과학은 인간을 사회적으로 크게 해방시키는 방편이 된다. 노동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기계가 너무 빨리 발명되는 결과로서, 대량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나라의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런 과도기의 난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만큼 현명한 방법과 확실한 기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계 시대가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81:6.23 (909.4) 8. 계몽가{啓蒙家}의 성품. 사회 유산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보다 앞선 모든 사람, 그리고 전체 문화와 지식에 무엇이든지 기여한 모든 사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해준다. 문화의 횃불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런 작업에서, 가정은 언제나 기초 기관이 될 것이다. 오락과 사회생활이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 순서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복잡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서 똑같이 필수 요소다.

81:6.24 (909.5) 곤충은, 삶을--곧 정말로 매우 한정적이고 순전히 본능적인 실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교육되고 준비를 갖춘 상태로 태어난다. 갓난아기는 교육 받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린 세대를 교육 훈련을 통제함으로써, 문명의 진화 행로를 크게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81:6.25 (909.6) 문명 촉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20세기의 가장 큰 영향은, 세계 여행의 괄목할만한 증가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통신 방법 향상이다. 그러나

교육의 향상은, 사회 구조의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윤리에 대한 현대의 평가 역시, 훨씬 더 순수한 지적 및 과학적 계통이 성장하는 정도에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은, 영적{靈的} 개발과 가정 제도의 보호 면에서 정지 상태에 있다.

81:6.26 (909.7) 9. *종족의 이상{理想}*. 한 세대의 이상{理想}이, 직계 후손을 위해서 운명의 경로를 개척한다. 문명이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를, 사회 계몽가의 *자질*이 결정할 것이다. 어느 한 세대의 가정, 교회, 및 학교가, 다음에 계속되는 세대의 성품 경향을 미리 결정한다. 어느 종족 또는 민족의 도덕 및 영적 추진력이, 그 문명에서 문화의 속도를 대체로 결정한다.

81:6.27 (909.8) 이상{理想}이, 사회 흐름의 원천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든지, 압력이나 방향을 통제하는 무슨 기법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근원보다 조금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문화가 있는 문명의 가장 물질적인 면을 추진하는 힘조차, 사회의 업적들 중에서 물질 성향이 가장 적은 곳에 들어 있다. 지성은 문명의 체제를 통제할

수 있고, 지혜는 이를 지휘할지 모르지만, 영적 이상주의는, 한 달성 수준에서 다른 달성 수준으로, 인간의 문화를 정말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에너지다.

81:6.28 (910.1) 처음에, 인생은 실존하기 위한 투쟁이었지만;이제는,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며;다음에는 사고{思考}의 질{質}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인간 실존의 다가오는 이 세상 목표다.

81:6.29 (910.2) 10. *전문가의 협조.* 초기에는 분업{分業}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화{專門化}되는 결과로 인해서 문명이 엄청나게 진보됐다. 문명은 이제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달려있다. 사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를 한데 모으는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만 한다.

81:6.30 (910.3) 사회, 예술, 기술, 및 산업의 전문가는 계속 늘어나고, 기술과 솜씨 면에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조정하고 협동하는 효과적 수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런 다양화된 역량과 다변화된 고용은 결국 인간 사회를 약화시키고 붕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발명과 그런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지성은, 빠른 속도의 발명과 가속화된 속도의 문화 팽창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81:6.31 (910.4) 11. *일자리를_찾아주는 장치.* 다음 세대의 사회 발전은,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는 전문화에 대한, 더 훌륭하고 더 효과적인 협동과 조정에서 구현될 것이다. 그리고 분업{分業}이 점점 심화될수록,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개인을 안내하는 어떤 기법이 고안돼야만 한다. 유란시아의 문명화된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기계만이 실업{失業}의 원인은 아니다. 경제적 복잡성, 그리고 산업 및 직업의 전문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자를 배치{配置}하는 문제는 더 어렵게 된다.

81:6.32 (910.5) 사람들에게 직업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복잡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효율적인 방법 역시 제공돼야만 한다. 시민에게 고도의 전문화된 기법을 생활 방편으로 훈련시켜주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일반 노동이나 장사 또는 직업을 훈련시킴으로써, 전문화된 일에서 일시적으로 실직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야만 한다. 실직된 많은 부류의 사람을 오랫동안 보호한다면, 어떤 문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최고 수준의 시민이라도 공공 기금에서 후원받게 되면, 조만간 비뚤어지고 문란하게 될 것이다. 사적{私的} 자선금의 경우라도, 신체 건강한 시민에게 오래 제공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81:6.33 (910.6)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사회는, 옛 민족들의 오래된 공동사회 풍습 및 봉건적 풍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대부분의 평범한 고용살이는 수긍할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회화될 수 있지만, 총명하게 협동하는 어떤 기법으로, 잘 훈련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인간들을 최선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대화된 조정과 우호적인 규제는, 힘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또는 독재적인 규범적 제도 같은, 구식이고 더 원시적인 방법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협동을 가져올 것이다.

81:6.34 (910.7) 12. *기꺼이 협동하려는 마음*. 인간 사회의 진보를 크게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크고 더 사회화된 인간 집단들과, 반{反}사회적인 정신을 소유한 개인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작고 서로 용납하지 않는

정신을 소유한 반사회적인 사람들의 연합체, 이 둘의 이권{利權}과 복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다.

81:6.35 (910.8) 교육 방법과 종교적 이상{理想}이, 높은 유형의 총명한 애국심과 나라에 대한 헌신을 고취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의 문명도 오래 견딜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총명한 애국심과 문화적 단결이 없다면, 편협한 질투심과 지역 이기주의의 결과로서, 모든 나라가 붕괴되기 쉽다.

81:6.36 (911.1) 세계적 문명을 유지하는 것은, 평화롭고 우애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 효과적인 조정이 없다면, 산업 문명은 과도한 전문화의 위험성, 즉:단조로움, 협소함, 그리고 의심과 질투를 일으키려는 성향 때문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81:6.37 (911.2) 13. *유능하고 현명한 지도자*. 문명사회에서는 많은, 아주 많은 것이, 분담량을_끌어당기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심령의 소유자에게 의존한다. 무거운 짐을 열 사람이 함께--모두 동시에--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협동 작업은-- 곧 사회적 협동은-- 지도력에 좌우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있는 문명들은, 시민이 현명하고 진취적인 지도자들과 영리하게 협동한 것에 기초해 왔으며;인간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기까지, 문명사회는 현명하고 활기 있는 지도자들에게 계속 의존할 것이다.

81:6.38 (911.3)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물질적 부{富}, 지적 탁월성, 도덕적 가치, 사회적 슬기, 및 시공우주 통찰력 등을 현명하게 상호 관련시킴으로써 탄생된다.

81:6.39 (911.4) 14. *사회의 변화*. 사회는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점진적으로 진화하는, 한 현상이며;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과학 발전과 속도를 맞추는 데 필수인 사회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 할 때, 전진하는 문명은 반드시 지연된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또한 어떤 관념이 색다르고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채택돼서도 안 될 것이다.

81:6.40 (911.5) 사람은 사회라는 장치를 실험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모험은, 사회 진화의 역사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이며;이런 혁신자들은, 심사숙고된 사회 실험 또는 경제 실험 분야에서 실제

체험을 가진 자들의 지혜를 반드시 참조해야만 한다. *어떤 큰 사회 변화나 경제 변화든지, 갑작스럽게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물리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모든 유형의 인간적 조정에는 시간이 필수 요소다. 오직 도덕적이고 영적인 조정만이, 순간적인 자극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도, 그 물질적 및 사회적 반응이 충분히 완성되기에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 문명이 어느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옮겨가는 위험한 기간에, 그 종족의 이상{理想}이 최고 버팀목이고 보험이다.

81:6.41 (911.6) 15. *과도기 붕괴의 예방.* 사회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시행착오로 얻은 산물이며;행성의 신분상 동물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상승한 연속 단계에서, 선택하여 조정하고, 재조정함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해당되는 큰 위험은, 이미 확립된 과거의 방법으로부터 새롭고 더 나은, 그러나 시도된 적이 없는 미래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동안에 붕괴되는 조짐이다.

81:6.42 (911.7) 지도력이 진보를 좌우한다. 지혜, 통찰력, 및 선견지명은 나라가 지탱되는 데 필수다. 문명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만 정말로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갖춘 현명한 지도자는, 그 인구의 1퍼센트를 넘은 적이 없다.

81:6.43 (911.8) 문명은 진화 사다리 위의 이런 디딤판을 딛고, 빠르게 확장하는 20세기의 문화를 낳은 그 강력한 영향력이 개시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오직 이 필수적인 것들에 충실함으로써, 사람은 오늘날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확실히 살아남도록 마련하면서, 그 문명을 유지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81:6.44 (912.1) 이것이, 이 세상의 민족들이, 아담 시대 이후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투쟁한 것에 대한 개략{概略}이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런 격렬한 진화의 최종 결과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진보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한 세대가 앞 세대의 업적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이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명이 투쟁해 온 모든 시대의 누적된 추진력의 기세를 등에 업고, 인간 사회가 앞으로 돌진해 나가고 있다.

81:6.45 (912.2) [네바돈의 천사장이 후원했음]

제82편 결혼의 진화

82:0.1 (913.1) 결혼은--곧 짝 짓기는-- 남녀 구별에서 생겨난다. 결혼은 그런 남녀 구별에 사람이 반응해서 조절한 것이며, 한편 가정생활은, 진화하면서 적응하는 그런 모든 조절에서 발생한 결과의 총합이다. 결혼은 영속적이며;생물학적 진화에 내재되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 진화의 기초이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실존할 것이 확실하다. 결혼은 인류에게 가정{家庭}을 제공했고, 가정은 길고 험한 진화 투쟁 전체에서 더할 나위 없는 광영이다.

82:0.2 (913.2) 종교, 사회, 및 교육 제도는 모두, 문화가 있는 문명의 생존에 필수지만, *가족은 문명을 일으키는 주역이다.* 어린아이는 기본 생활 대부분을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배운다.

82:0.3 (913.3) 옛 시대의 인간은, 매우 풍부한 사회 문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소유했던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너희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 문명 대부분이 다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로 받으면서도

계속 진화했음을 알아야만 한다. 오늘날 인간 종족들은, 풍부한 사회 유산과 문화 유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만 한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족은 계속 유지돼야만 한다.

1. 짝짓는 본능

82:1.1 (913.4) 남녀 사이에 인격체가 크게 다름에도, 성욕은 인류의 번식을 위해서 남녀가 확실히 합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이 본능은, 사랑, 헌신, 및 부부간 충절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것들 대부분을 인간이 체험하기 훨씬 전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짝짓기는 타고난 성향이며, 결혼은 짝짓기가 사회에 미치는 진화적 영향이다.

82:1.2 (913.5) 성적{性的} 관심과 욕구는 원시 민족들에게 지배적인 열정이 아니었으며;그들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번식하는 체험 전체는,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꾸민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우 높게 문명화된 사람들의 마음을_온통_뺏는 성적 열정은, 주로 인종이 혼합된 때문인데, 노족속과 아담족속의 조합된 상상력과 미적{美的} 감상이 진화 본성을 자극하는 곳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런 안드족속 유전형질을 진화 인종들이

너무나 제한된 정도만 흡수했기 때문에, 더 예민한 성의식{意識}과 더 강력한 교미 충동을 부여받음으로써 이처럼 각성되고 자극받은 동물적 열정에, 충분한 자제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진화 인종들 중에서, 홍색인이 가장 고상한 성적 규범을 지니고 있었다.

82:1.3 (913.6) 결혼과 관련해서 성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암시한다:

82:1.4 (913.7) 1. 문명의 상대적 진보. 문명은, 유용한 방향에서 그리고 사회관행에 따라서 성욕이 만족되기를 점점 더 요구한다.

82:1.5 (914.1) 2. 어떤 민족에게나 들어있는 안드족속 혈통의 양{量}. 성은 그런 집단들 사이에서, 육체적 본성과 감정적 본성 중에서 가장 높고 낮은 것을 모두 표현하게 됐다.

82:1.6 (914.2) 상의 인종들은 정상적인 동물적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성{異性}의 아름다움과 육체적 매력을 상상하거나 감상하는 능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성적 매력이라고 불리는 것은, 오늘날 원시 인종들에서도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섞이지 않은 이런 인종들은,

한정적인 교미 본능을 갖고 있지만, 사회의 통제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성적 매력을 느끼지는 않는다.

82:1.7 (914.3) 짝짓기 본능은 인간의 가장 유력한 육체적 추진력이며;개인을 만족시킨다는 구실로,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보다 종족의 복지와 영속을 더 중요시하도록, 이기적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이는 하나의 감정이다.

82:1.8 (914.4) 제도로서의 결혼은, 그것이 시작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아를_영속시키려는 생물학적 성향이 사회에서 진화한 것을 묘사한다. 진화하는 인간 종족이 영속하는 것은, 종족의 이런 교미 충동이 현존함으로써 확보되는데, 이 충동을 막연하게 성적 매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중대한 생물학적 충동은, 온갖 종류의 관련된 본능, 감정, 및 --육체적, 지적, 사회적-- 관습을 자극하는 중추가 된다.

82:1.9 (914.5) 미개인에게는, 양식 공급이 어쩔 수 없는 동기가 됐지만, 풍부한 양식을 문명이 보장하게 되자, 성욕이 자주 지배적 충동이 됐으며, 따라서 사회의 규제가 늘 필요하게

됐다. 동물의 경우에는 본능의 주기가 교미 성향을 규제하지만,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아_통제 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성욕이 전혀 주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따라서 사회가 개인에게 자아_통제를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

82:1.10 (914.6) 억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어떤 인간 감정이나 충동도, 이런 강력한 성적 충동만큼 많은 해악과 불행을 낳을 수 없다. 이런 충동을 사회의 규제 아래 이성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어떤 문명이든지 그 현실에 대한 최고 시험이다. 자아_통제, 즉 점점 더 자기를_통제하는 것이, 진보하는 인류의 계속_증가하는 요구사항이다. 비밀, 불성실, 및 위선{偽善}으로 성적 문제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며, 윤리를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2. 제한하는 금기

82:2.1 (914.7) 결혼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는, 사회, 종교, 및 시민사회의 규정이 압박함으로써 성욕을 통제된 역사에 불과하다. 자연계는 개인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소위 도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오직 순전히 종족

번식에만 관심을 갖는다. 자연계는 강제로 번식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문제는 사회가 해결하라고 무관심하게 버려두며, 이처럼 진화 인류에게 늘_따라다니는 주요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회적 모순은, 기본적 본능과 진화 윤리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싸움을 발생시킨다.

82:2.2 (914.8) 초기 인종들 가운데서는, 남녀 관계에 대한 규제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이런 성적 자유 때문에, 매춘이 없었다. 오늘날, 피그미족 및 기타 미개한 집단들에는 결혼하는 관습이 없으며;이런 민족들을 연구해 보면, 원시 인종들이 단순한 짝짓기 관습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대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들 시대의 사회관행의 도덕 수준에 비춰서 연구하고 판단해야만 한다.

82:2.3 (915.1) 아무튼, 자유로운 성관계는 지독한 야만 수준보다 좋은 평판을 얻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회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자마자, 결혼 관례와 부부간 제약조건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짝짓기는, 거의 완전한 성적

분방함으로부터, 비교적 완전하게 성욕을 제한하는 20세기 규범까지, 여러 번 과도기를 거쳐서 진보해 왔다.

82:2.4 (915.2) 부족이 형성되는 최초 단계에서는, 사회관행과 제한적인 금기가 매우 조잡했지만, 그것들로 인해 남녀 사이에 간격이 유지됐고--이것이 정숙함, 질서, 근면함을 장려했고-- 결혼과 가정의 오랜 진화가 시작됐다. 남자와 여자의 의복, 장신구, 및 종교 의식{儀式}이 다른 관습은, 이런 초기 금기에서 기원됐으며, 이 금기가 성적{性的} 자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타락, 범죄, 및 죄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귀중한 축제의 날, 특히 5월의 축제에 모든 성적 규제를 정지시키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82:2.5 (915.3) 여자는 언제나 남자보다 한층 더 제한적인 금기의 지배를 받아왔다. 초기의 사회관행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남자와 똑같은 어느 정도의 성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아내에게는 반드시 남편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시 시대의 결혼은 남자의 성적 자유를 별로 축소시키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성적 자유에 대한 더 많은 금기를 적용했다. 결혼한 여자는, 머리 모양, 의복,

면사포, 격리, 장식품, 반지 등, 구별된 집단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3. 초기 결혼의 사회관행

82:3.1 (915.4) 결혼은, 사람에게 번식하도록--즉 자신을_퍼뜨리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늘_나타나는 생물학적 긴장상태에 대해서 사회 조직체가 제도로 반응하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편적으로 자연스런 일이며,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짝짓는 사회관행도 유사하게 진화했는데, 그것이 결혼 제도의 시초다. 사회관행이 형성되는 단계까지 사회 진화가 진보된 곳은 어디든지, 진화하는 제도로써 결혼이 발견될 것이다.

82:3.2 (915.5) 결혼에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것인데:이 두 가지는, 짝짓기의 외부 양상을 규제하는 법칙인 사회관행과, 그밖에 남녀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다. 사회가 강요하는 성 규제에 대해서 개인은 언제나 반항하며;오랜 세월에 걸친 이런 성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다:자아_유지는 개인 문제이지만

집단이 이를 수행하며;자아_영속은 사회 문제이지만 개인의 충동으로 보장된다.

82:3.3 (915.6) 모든 인종 가운데서 봐왔듯이, 사회관행은, 높이 평가될 때,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큰 힘을 갖는다. 결혼의 기준은 언제나, 사회관행의 현행 효력, 그리고 민간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참된 척도{尺度}였다. 그러나 초기의 성{性} 및 짝짓기 사회관행은, 변화가 매우 심하고 조잡한 규칙 덩어리였다. 부모, 자녀, 친척, 및 사회 전체가 결혼 규칙에 상반되는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찬양하고 실천해 온 인종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했고, 숫자가 증가됨으로써 살아남았다.

82:3.4 (915.7) 원시 시대에 결혼은 사회 신분을 얻으려고 지불하는 값이었으며;아내를 소유하는 것은 탁월함의 상징이었다. 미개인은 결혼하는 날을 책무와 성인으로 입문하는 기점으로 여겼다. 어떤 시대에는 결혼을 사회에 대한 의무로;다른 시대에는 종교적 책무로;또 어떤 시대에는 국가의 시민이 되기 위한 정치적 요구조건으로 간주됐다.

82:3.5 (916.1) 초기의 많은 부족은, 결혼 자격으로 흠치는 재주를 요구했고;후대의 민족들은, 급습해서 약탈하는 그런 행위 대신, 운동 시합과 경쟁하는 경기를 채택했다. 이런 경쟁의 승자에게는 최고의 상이--곧 적령기 신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사람을 사냥하는 야만인 가운데서는 최소 한 개의 머리를 가진 젊은이만 결혼할 수 있었는데, 때로는 그런 두개골을 살 수도 있었다. 구매를 통해서 아내를 얻는 경향이 줄면서, 수수께끼 풀기 시합으로 아내를 얻었는데, 여러 집단의 흑색인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관습이다.

82:3.6 (916.2) 문명이 진보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남자의 인내심을 평가하는 혹독한 결혼 시험을 여자들에게 맡겼으며;그리하여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결혼 시험에는, 사냥 솜씨, 격투,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역량 등이 포함됐다. 신랑은 적어도 1년간 신부의 가족에게로 가서, 거기에 살면서 노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됐다.

82:3.7 (916.3) 아내의 자격조건은, 힘든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역량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한 양의 농사일을 마치도록 요구됐다.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으며;다산{多産} 능력이 그렇게 확인됐다.

82:3.8 (916.4) 옛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치욕으로 또는 심지어 죄로 간주했다는 사실에서, 어린이 결혼의 유래를 알 수 있는데;사람은 결혼해야만 하고 빠를수록 좋게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고, 이것이 어린이 결혼을 촉진시켰는데, 심지어 태어날 때 이뤄졌고, 어떤 때에는 성별{性別}의 조건으로 출생 전에 이뤄지기도 했다. 고대인은 죽은 자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믿었다. 원래 결혼 중매인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협상하도록 고용된 자였다. 죽은 아들의 부모가, 그 아들과 다른 가족의 죽은 딸이 결혼하도록, 이런 중재인을 주선하곤 했다.

82:3.9 (916.5) 후대의 민족들 가운데서는 사춘기가 일반 결혼 연령으로 여겨졌지만, 문명의 진보에 비례해서 나이가

늦어졌다. 사회의 진화 초기에는 남녀 양쪽에 독특한 독신자 계층이 있었는데;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소 부족한 개인들이 시작하고 유지했다.

82:3.10 (916.6) 많은 부족은, 신부를 그 남편에게 내주기 직전에, 통치 집단 회원들이 신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허용했다. 이 남자들 각자는 소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으며, 이것이 결혼 선물을 주는 관습의 시초가 됐다. 어떤 집단에서는 젊은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벌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것은 신부를 전시하는 방에서 신부가 제공하는 성적{性的} 봉사에 대한 대가{代價}로 받은 선물로 이뤄졌다.

82:3.11 (916.7) 어떤 부족은 젊은 남자가 과부 또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했고, 그 후에 그 여자가 죽게 되면 젊은 여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만일 둘 다 어린 사람이 짝을 맺도록 허락되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난처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어떤 부족은 비슷한 나이의 집단끼리 짝을 맺도록 제한했다. 특정한 연령 집단에게 결혼을 제한시킨 것 때문에, 근친상간 개념이 처음 생겼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82:3.12 (916.8) 어떤 사회관행에서는, 과부 신세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서, 과부를 죽이거나 남편 무덤 앞에서 자살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함께 영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먼저 죽은 것은 항상, 살아남은 과부 탓으로 돌렸다. 어떤 부족은 과부를 산채로 태우기도 했다. 과부가 계속 살아있는 경우에, 대개 재혼이 금지됐으므로, 그 여자의 인생은 계속 애도하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회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

82:3.13 (917.1) 현재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관습이 옛날에는 오히려 장려됐다. 원시 시대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 맺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소녀의 순결은 결혼에 큰 장애물이었으며;소녀가 결혼 전에 아내로서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했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반려자를 얻었다는 확신을 그 남자에게 줬기 때문이다.

82:3.14 (917.2) 많은 원시 부족은, 여자가 임신할 때까지 시험적 결혼을 허용했고, 그 후에 결혼 예식이 거행됐으며;어떤 집단에서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의 부모가 데려갔고, 결혼은 취소됐다. 사회관행은 모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82:3.15 (917.3) 이런 원시적인 시험적 결혼은, 방종과는 비슷한 구석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생식력{生殖力}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시험하는 것이었다. 약혼한 사람은 출산 능력이 인정되자마자 영구 결혼이 이뤄졌다. 현대의 부부가,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손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고,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결혼했다면, 실제로는 그들이 일종의 시험적 결혼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것은 그들보다 덜 문명화된 조상의 정직한 모험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4. 재산 사회관행과 결혼

82:4.1 (917.4) 결혼은 언제나 재산 및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재산은 결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종교는 도덕성을 부과하는 역할을 해왔다.

82:4.2 (917.5) 원시 결혼은, 일종의 투자, 즉 경제적 투기였으며; 연애하는 용건보다는 사업하는 문제에 더 가까웠다. 옛 사람들은 집단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결혼했으며;그것을 위해서, 집단, 즉 그들의 부모와 원로{元老}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회관행이 결혼 제도를 안정시키기에 효과적이었음은, 많은 현대 민족의 결혼보다, 초기 부족들의 결혼이 더 영구적이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82:4.3 (917.6) 문명이 진전되고, 사회관행에서 사유 재산이 더 많이 인정받게 되면서, 훔치는 행위는 큰 죄로 여겨지게 됐다. 간음은, 훔치는 행위, 즉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됐으며;따라서 그것은 초기 법전과 사회관행에서는 특별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여자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모든 합법적 성관계는 이런 선재{先在}된 재산권에서 생겨났다. 구약 성경은 여자를 재산 형태로 취급하며, 코란은 여자가 열등하다고 가르친다. 남자는 아내를 친구 또는 손님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이런 관습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82:4.4 (917.7) 현대의 성에 대한 경계심은 선천적이 아니며;진화하는 사회관행의 산물이다. 원시인은 아내를

뺏길까 해서 경계하지 않았으며;자기 재산을 보호했을 뿐이다.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엄격하게 성{性}을 책임지게 한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부정{不淨}이 혈통과 상속에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문명의 진행에서 아주 초기부터 사생아는 평판이 나빴다. 처음에는 여자만 간음으로 처벌 받았지만;나중에는, 사회관행이 그 상대자에게도 징벌을 내렸고, 오랫동안, 불법을 행한 그 남자를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손해 입은 남편이나 아버지 보호자에게 있었다. 현대인도 이런 사회관행을 유지하는데, 불문율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간통죄를 인정한다.

82:4.5 (917.8) 순결의 금기가 재산 사회관행의 한 국면으로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에게 적용됐다. 후대에는 구혼자{求婚者}보다 아버지가 더 순결을 요구했는데, 처녀는 아버지에게 --더 값이 나가는-- 상업적인 자산이었다. 순결이 더 많이 요구되자, 순결한 신부를 훌륭하게 길러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 될 사람이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풍습이 됐다. 여자의 순결에 대한 이 관념이 일단 시작돼서 종족 전체에 퍼지자, 소녀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가둬두는, 즉 여러 해 동안 실제로 감금시키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그후의 기준과 처녀성 시험 때문에 전문적 매춘 계층이 자동으로 생겨났으며;그들은 퇴짜 맞은 신부, 즉 처녀가 아닌 것이 신랑의 어머니에게 들킨 여자들이었다.

5. 동족결혼과 족외 결혼

82:5.1 (918.1) 매우 초기의 미개인은, 종족이 혼합됨으로써 자손의 자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격했다. 족내번식{族內繁殖}이 항상 나쁘지는 않았지만, 족외번식{族外繁殖}이 항상 더 나았으며, 따라서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 사이의 성 관계를 제한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적 변이와 진보를 위한 선택적 기회를, 족외번식이 훨씬 증대시켰다. 다른 부족과 결혼한 개인은 더 재능이 많았고, 불리한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컸으며;같은 부족끼리 결혼한 자는 사회관행과 더불어 점차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했으며;미개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대의 진보된 민족들은 의식적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족내번식이

지나치면 때때로 전반적 허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목격했다.

82:5.2 (918.2) 우수한 혈통의 족내번식은 때로 강력한 부족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자들의 족내번식으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놀라운 경우가 사람의 마음에 더 강한 인상을 줬고,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가까운 친척들 사이의 모든 결혼을 반대하는 금기를 점점 더 구체화시켰다.

82:5.3 (918.3) 종교는 오랫동안 족외결혼{族外結婚}을 막는 효과적 장벽이었으며;많은 종교 교훈은 신앙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가르쳤다. 여자는 대개 동족결혼 풍습을 좋아하고;남자는 족외결혼을 선호한다. 재산이 결혼에 항상 영향을 미쳤고, 씨족에게 소속된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아버지의 부족 가운데서 남편을 찾도록 여자에게 강요하는 사회관행도 종종 생겨났다. 이런 종류의 규정으로 인해,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동족결혼은 기술의 비법{秘法}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실행됐으며;숙련된 기능인은 자기 기술을 가족만 알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82:5.4 (918.4) 우수한 집단은, 고립됐을 때에는 언제나 동족끼리 짝을 맺는 쪽으로 전환됐다. 낫족속은 15만 년 이상 동족결혼을 한 큰 집단들 가운데 하나였다. 후대의 동족결혼 사회관행은 주로 보라색 인종의 전통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부득이 남매{男妹}끼리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매끼리 결혼하는 것은, 초기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안드족속이 한때 점령했던 지역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됐다. 이집트인은 왕족의 피를 순결하게 지키려는 노력에서 남매간 결혼을 오랫동안 준수했는데, 페르시아에서는 더 오랫동안 지켜진 관습이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인 사이에서는, 사촌끼리의 결혼이 의무였으며;사촌은 사촌과 먼저 결혼할 권리가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거의 자매와 다름없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런 결합은 유대인의 후대 사회관행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82:5.5 (919.1) 남매간 결혼이 처음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사회관행 아래서, 자매인_아내가 다른 아내 또는 아내들을 오만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사회 관습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했지만, 살아남은 형제로 하여금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 주도록 요구했다. 동족결혼을 아주 반대할 만한 생물학적 본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그런 규제는 완전히 금기의 문제다.

82:5.6 (919.2) 마침내 족외결혼이 보편화됐는데, 이는 남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었으며;밖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인척{姻戚}들로부터 덜 구속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관계는 치욕의 원인이 됐으며;그래서 개인적인 선택 요인이 짝짓기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부족 바깥에서 짝을 선택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82:5.7 (919.3) 마침내 씨족 내 결혼을 많은 부족이 금지했고;또 어떤 부족은 특정한 신분계층과 짝 맺는 것을 제한시켰다. 자기와 같은 토템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금기 때문에, 이웃 부족으로부터 여자를 훔쳐오는 관습이 촉진됐다. 나중에는, 친족 관계보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규제됐다. 족내결혼이 현대의 족외결혼 관습으로 바뀌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었다. 심지어 족내결혼에 대한 금기가 일반 사람에게 적용된 후에도, 족장이나 왕의 경우에는 왕실의 핏줄을 모으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도록 허용됐다. 사회관행은 대개,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성적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했다.

82:5.8 (919.4) 후대의 안드족속 사람들이 출현함으로써, 상의 인종들은 자기 부족 바깥에서 짝을 찾으려는 욕구가 무척 증대됐다. 그러나 이웃에 있는 집단들과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에서 살기를 배울 때까지는, 족외결혼이 널리 이행될 수 없었다.

82:5.9 (919.5) 족외결혼 자체가 평화 주동자였으며;결혼이 이뤄진 부족 사이에서는 적대감이 줄었다. 족외결혼은 부족의 협조와 군사 동맹을 유도했고;그렇게 함으로써 힘이 강대해질 수 있었으므로, 그것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으며;국가를 세우는 요인이 됐다. 또한 족외결혼은 거래를 위한 접촉이 증대됨으로써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모험과 탐험은 짝짓는 범위를 넓히도록 공헌했고, 종족 문화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켰다.

82:5.10 (919.6)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인종적 결혼 사회관행의 모순점은 대체로, 이런 족외결혼 관습과 그에 따른 아내 훔쳐오기, 그리고 다른 부족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은 독립된 부족 사회관행의 혼합을 초래했다. 동족결혼에 관한 이런 금기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이었음은, 여러 단계의 인척 관계, 즉 조금도 핏줄 관계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친족 간 결혼을 막는 금기에서 잘 나타난다.

6. 인종 혼합

82:6.1 (919.7) 오늘날 세상에는 순수한 인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에 원래의 진화하는 유색 민족들 중에서는 오직 두 가지 대표적인 인종만 세상에 남아 있는데, 황색인과 흑색인이 그들이며; 심지어 이 두 인종도, 사라진 유색 민족들과 많이 혼합됐다. 소위 백인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고대의 청색인 자손이지만, 아메리카의 홍색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인종과 어느 정도 혼합됐다.

82:6.2 (919.8) 여섯 색깔의 상의 인종 중에서, 셋은 1차이고 다른 셋은 2차다. 비록 1차 인종이--곧 청색, 홍색, 황색이-- 여러 면에서 2차 인종보다 우수했더라도, 이 2차 인종은 바람직한 많은 특징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류 혈통들을

흡수했더라면, 1차 민족들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82:6.3 (920.1) “혼혈아”, “잡종”, 그리고 “튀기”를 싫어하는 오늘날의 편견은 대부분, 현대의 인종 잡종교배가, 고려되는 인종 가운데 크게 열등한 종족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같은 인종의 퇴화된 혈통들이 근친결혼을 하는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은 자손을 얻는다.

82:6.4 (920.2) 오늘날 유란시아 인종들이, 자신의 타락하고 반{反}사회적이며 정신이 박약하고 버림받은 가장 저질적인 계층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제한적 인종 혼합에 거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유형의 몇몇 인종 사이에서 그런 인종 혼합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반대하는 일은 더 줄어들 것이다.

82:6.5 (920.3) 전혀 다른 우수한 혈통들의 혼합은, 새롭고 더 강건한 종족이 형성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종족에서도 실제로 있다. 잡종을 통해 힘이 증대되고 번식력이 증가된다. 다양한 민족의 평범하거나 우수한 계층에서 인종 혼합은, 북 아메리카에

있는 미합중국의 현재 인구에서 보다시피, 창조적 잠재력을 크게 증대시킨다. 그런 짝짓기가, 낮거나 열등한 계층에서 이뤄질 때에는, 오늘날 남부 인도의 민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의력이 줄어든다.

82:6.6 (920.4) 인종 혼합은 새로운 특성의 갑작스런 출현에 크게 기여하며, 우수한 혈통들의 합동으로 그런 교배가 이뤄졌다면, 이 새 특질 역시 우수한 특징이 될 것이다.

82:6.7 (920.5) 오늘날의 인종들이 열등{劣等}하고 퇴화된 종족들로 인해 너무 큰 부담을 받는 한, 대량의 인종 혼합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되겠지만, 그런 실험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생물학적 고려에서라기보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편견 때문이다. 심지어 열등한 혈통들 가운데서도, 잡종이 종종 그들의 선조보다 개선된다. 잡종이 종자{種子} 개량을 가져오는 것은, 우성{優性} 유전자의 작용 때문이다. 인종 혼합은, 잡종 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람직한 우성 형질이 더 많아질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82:6.8 (920.6) 유란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은 인종적 잡종이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발생됐다. 인간 혈통들이 섞인 결과에 의한 심각한 부조화의 위험이 너무

과장돼 왔다. “혼혈아”의 주된 문제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82:6.9 (920.7) 백인종과 폴리네시아 인종을 섞는 핏케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인종 남자와 폴리네시아인 여자는 꽤 좋은 인종적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백인종, 홍인종, 및 황인종 사이의 혼혈은 생물학적으로 효과적이고, 새로운 많은 특질을 즉각 형성할 것이다. 이런 세 민족은 1차 상의 인종에 속한다. 백인종과 흑인종의 혼합은 당대의 결과로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런 1대 혼혈 자손이 너무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또는 인종적 편견이 그런 자손을 낳으려 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런 백색_흑색 혼혈은, 어떤 다른 면에서 조금 못하기는 해도, 인류의 탁월한 표본이다.

82:6.10 (920.8) 1차 상의 인종이 2차 상의 인종과 혼합됐을 때, 전자{前者}의 희생으로 후자{後者}는 상당히 개선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규모로 이뤄진다면, 2차 집단의 향상을 위해서 1차 인종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기여함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생물학적으로 고려한다면, 2차 상의 인종은 1차 인종보다 어떤 면에서 우수하기도 하다.

82:6.11 (921.1) 결국, 인간 종족들의 진짜 위험은, 인종들이 서로 교배하는 데 따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어떤 위험보다는, 오히려 문명화된 다양한 민족 중에서 열등하고 퇴보된 혈통들이 무제한으로 번식하는 데서 발견될 것이다.

82:6.12 (921.2) [유란시아에 배치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83편 결혼 제도

83:0.1 (922.1) 이 글은 결혼 제도의 초기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결혼은, 집단의 절제 없는 문란한 짝짓기로부터, 많은 변화와 적응 단계를 거쳐서, 결혼 규범이 나타나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했는데, 그 규범은, 결국 한 쌍의 짝이 맺어짐으로써, 즉 가장 고상한 사회 체제인 가정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83:0.2 (922.2) 결혼은 여러 번 위험에 빠졌고, 결혼 사회관행은, 지탱하기 위해서 재산과 종교에 몹시 의존해

왔지만;결혼과 그 결과로 생기는 가정을 영원토록 유지시킨 실제 영향력은, 가장 원시적 미개인이든지 또는 가장 문화화 된 필사자든지, 남녀가 서로 상대방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단순하고 타고난 생물학적 사실이다.

83:0.3 (922.3) 성욕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동물보다 나은 어떤 존재로 만들도록 이끌렸다. 자아를_중시하고 자아를_만족시키는 성관계는, 자아를_부정하는 어떤 결과를 수반하며, 이타적 임무와 종족을_유익하게 하는 가정{家庭}의 여러 책임을 맡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성{性}은, 인식되지 않고 생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미개인을 문명화시키는 장본인이 돼 왔는데;바로 이 성적 충동이, 자동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몰아붙이고 결국 사랑하도록 그를 이끌기* 때문이다.

1.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

83:1.1 (922.4) 결혼은, 남녀가 다른 생식기관을 가졌다는 육체적 사실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 장치다. 그런 제도로서의 결혼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한다:

83:1.2 (922.5) 1. 개인의 성관계를 규제하는 경우.

83:1.3 (922.6) 2. 혈통, 유전, 상속, 및 사회 계층을 규제하는 경우,
이것은 더 오래된 원래의 기능이였다.

83:1.4 (922.7) 결혼에서 발생하는 가족 자체가, 재산에 대한 사회관행과 함께, 결혼 제도를 안정시켰다. 결혼을 안정시킨 다른 유력한 요소는, 자존심, 허영심, 기사도{騎士道} 정신, 의무, 및 종교적 신념 등이다. 그러나 결혼이 높은 곳에서 인정받을 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 가족은 명백하게 인간 제도요, 진화로 발전한 결과다. 결혼은 사회 제도이지, 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종교가 결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함은 사실이지만, 독점적으로 결혼을 규제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83:1.5 (922.8) 원시의 결혼은 본래 산업이었으며;심지어 현대에도 종종 사회 업무 또는 사업 업무다. 안드족속 혈통의 혼합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그리고 진보하는 문명의 사회관행의 결과로, 결혼은 서서히 상호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됐으며, 어버이 자격을 이루고, 시적{詩的}이고 애정 깊고 윤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됐다. 어쨌든, 원시의 짝짓기에서는 소위 낭만적인 사랑과 선택이 거의 없었다. 초기 시대에 남편과 아내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그러나 옛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의 애정이 성적 매력과 크게 관련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같이 살고 일하기 위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

2. 구혼과 약혼

83:2.1 (923.1) 원시의 결혼은 반드시 소년과 소녀의 부모가 계획했다. 이런 관습과, 자유의사로 선택하는 시대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서는, 결혼 중개인, 즉 전문 결혼 중매인이 활동했다. 이 결혼 중매인은 처음에는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었고;나중에는 사제{司祭}였다. 결혼은 원래 집단의 용무였고;그 다음에는 가족의 문제였으며;최근에 이르러서야 개인의 모험이 됐다.

83:2.2 (923.2) 원시의 결혼은 매력이 아니라 강압으로 인해 성사됐다. 초기 시대에, 여자에게는 성적 초연함이 없었고, 오직 사회관행이 주입됨으로 말미암는 성적 열등의식만 있었다. 탈취가 거래보다 앞섰듯이, 포로와 결혼하는 것이 계약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앞섰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

부족의 나이 많은 남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로 되기를 묵인하려 했는데;자기 또래의 다른 부족 남자 손에 잡히기를 더 좋아했다. 가짜로 도망가기는, 강제로 포로 되기와 후대에 매력으로 구혼{求婚}하기 사이의 과도기 단계였다.

83:2.3 (923.3) 초기 유형의 결혼 예식은 탈출을 흥내 내는 것이었는데, 일종의 도망치는 연습이었고, 한때 흔한 풍습이었다. 나중에는, 가짜로 사로잡는 행위가 정규 결혼 예식의 일부분이 됐다. 오늘날 소녀가 “포로” 되기를 거부하는 듯 보이는 것, 즉 결혼에 대해서 입 다무는 것은 모두 옛 관습의 잔재다. 신부를 안아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대의 여러 풍습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흠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한다.

83:2.4 (923.4) 여자는 결혼에서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는 완전한 자유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지만, 더 총명한 여자들은 지혜를 현명하게 발휘해서 이런 규제를 항상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구혼{求婚}에서 대개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항상 그렇지지는 않았다. 여자는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공식으로 결혼을 제안했다. 그리고 문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구혼과 결혼의 모든 국면에서 여자가 맡는 역할이 늘어나게 됐다.

83:2.5 (923.5) 결혼하기 전 구혼 기간에, 사랑, 낭만, 및 개인 선택의 증가는, 안드족속이 세계 종족들에게 기여한 것이다. 남녀 사이의 관계는 순조롭게 진화하고 있으며;진보하는 많은 민족은, 효용성과 소유권이라는 구시대의 동기 대신, 성적 매력이라는 어느 정도 이상화된 개념을 차츰 받아들이고 있다. 인생의 반려자를, 냉정한 계산으로 선택하던 것을, 성적 충동과 애정을 느끼는 감정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83:2.6 (923.6) 원래 약혼은 결혼과 동일했으며;초기의 사람들 사이에서 약혼 기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 관례였다. 최근 들어서, 약혼과 결혼 사이 기간에 성관계를 막는 금기가 조성된 것은 종교 때문이었다.

3. 구매와 지참금

83:3.1 (923.7) 옛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으며;오래 합동하려면, 어떤 확실한 보증, 즉 재산으로 보장돼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를 구매{購買}하는 비용은,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릴 경우에

남편이 손해 보도록 선고되는 벌금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됐다. 신부의 값이 일단 지불되고 나서, 남편의 낙인을 불로 지저서 신부의 몸에 새기는 것을, 많은 부족이 허용했다. 아프리카 남자는 여전히 아내를 구매한다. 그들은 사랑해서 얻은 아내, 즉 백인 남자의 아내를 고양이에 비유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자를 얻기 때문이다.

83:3.2 (924.1) 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신부 전시회는, 아내로서의 값을 더 높여보려는 의도에서 행했다. 그러나 그들이 동물처럼 팔린 것은 아니었다--후대의 부족들 사이에서 그런 아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또한 냉정한 돈 거래만 항상 여자를 사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내 구매에서 봉사하는 것도 현찰과 똑같이 취급됐다. 아내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다른 면에서 호감을 주는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양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얻고자 하지만 욕심 많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원로들이 아버지에게 유효한 압력을 가해서, 그의 요구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애인과 함께 달아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83:3.3 (924.2) 문명이 진보되면서, 아버지는 딸을 파는 것처럼 보이기를 싫어하게 됐고, 그리하여 신부 구매{購買} 비용을 계속 받는 한편, 그 비용과 거의 동등한 값이 나가는 선물을 그 쌍에게 주는 관습이 시작됐다. 그리고 후대에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일이 중지되면서, 이런 선물은 신부 지참금으로 바뀌게 됐다.

83:3.4 (924.3) 지참금 관념은 신부가 자립했다는 인상을 줬고, 노예로서의 아내 또는 소유물로서의 반려자로 여기던 시대와는 매우 달라졌음을 암시했다.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에게 그 지참금을 완전히 돌려주기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신부와 신랑 양측 부모에게 서로 보증금을 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 위한, 실제적인 결혼 보증금이었다. 구매에서 지참금으로 바뀌는 과도기에는, 아내가 구매된 경우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소속됐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내의 가족에게 소속됐다.

4. 결혼 예식

83:4.1 (924.4) 결혼 예식은, 결혼이 다만 두 개인의 결정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동체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에서 발생됐다. 짝짓기는 개인의 역할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의 관심사였다.

83:4.2 (924.5) 마술, 제례식, 및 예식{禮式}이 옛 사람들의 전체 생활을 에워쌌고, 결혼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중요시함에 따라, 결혼 예식은 갈수록 더 허세부리는 것이 됐다. 초기 결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재산 소유권에서 한 요소였고, 따라서 법적 예식이 필요했으며, 한편 나중에 출생하는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원시인에게는 기록하는 일이 없었으므로;결혼 예식을 많은 사람이 목격해야만 했다.

83:4.3 (924.6) 처음에는 결혼 예식이 약혼과 비슷했고, 다만 같이 살려는 의향을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이뤄졌지만;나중에는 공식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이뤄졌다.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부모가 딸을 남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전부였으며;다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유일한 예식이었고, 그 후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줬다. 많은 레반트 민족 가운데서는 모든 형식 절차를 생략하고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결혼이 완료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홍색인은 처음으로 더 복잡한 결혼 예식을 개발했다.

83:4.4 (924.7)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불임이 영적 존재의 음모 때문이라고 여겼으므로, 다산{多産}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마술 또는 종교 예식절차가 결혼과 결합됐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으로, 마법{魔法}을 많이 사용했으며; 심지어 결혼 당사자의 탄생 별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성가에게 상담하기도 했다. 한때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식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공식 순서였다.

83:4.5 (925.1) 사람들은 행운의 날을 추구했는데, 목요일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겼으며, 보름달 뜨는 날에 결혼 예식을 올리는 것이 특별한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신혼부부에게 곡식을 던지는 것이, 근동에서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으며;이것은 다산을 보증한다고 여겨지는 마술적 제례였다. 어떤 동양 민족은 이런 목적으로 쌀을 사용한다.

83:4.6 (925.2) 불과 물은, 유령과 악한 영들을 반드시 물리치는 최고의 도구로 간주됐으며;따라서 제단{祭壇}의 불과 촛불뿐 아니라 성수{聖水}를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결혼식에서 흔하게 징표로 이용됐다. 가짜로 결혼식 날을 잡아 놓은 다에음 갑자기 행사를 연기시킴으로써 유령과 영들을 따돌리는 것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졌다.

83:4.7 (925.3) 신혼부부에게 짓궂게 굴고 신혼여행 중인 그들에게 장난치는 일은 모두 이런 오랜 옛 시대의 잔재인데, 옛날에는 영들이 보는 앞에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질투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은, 신부를 변장시킴으로써 영들로 하여금 그녀를 못 알아보게 하고, 또한 질투하고 시샘하는 다른 영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의 잔재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신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리스도교 사회관행에서, 차가 도착된 곳부터 교회 제단 앞까지 양탄자를 까는 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83:4.8 (925.4) 결혼 예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 가운데 하나는, 그 결합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보장하려고, 사제{司祭}가 결혼하는 사람들의 침실을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이것은 공식 결혼 제례가 이행되기 훨씬 전에 행해졌다. 결혼에 관한 사회관행이 진화한 이 시대 동안,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밤에 침실에 둘러서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이 완료된 것에 대한 법적 증인이 됐다.

83:4.9 (925.5) 운과 관계되는 요소, 즉 결혼 이전에 온갖 시험이 있었음에도, 어떤 결혼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원시인은 결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했으며;사제와 마법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 현대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르도록 직접 이끌었다. 그러나 결혼은 대체로 계약을 맺는 부모들의--나중에는 당사자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됐던 반면, 지난 500년 동안에는

교회와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했고, 지금은 감히 결혼을 선포하고 있다.

5. 복수의 결혼

83:5.1 (925.6) 결혼의 초기 역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그 부족의 남성들에게 속했다. 나중에는 한 여자가 한 번에 오직 한 남편만 가질 수 있었다. *한_번에_한_남자*라는 관습은, 집단으로 하는 난교{亂交}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였다. 한 여자에게 한 남자만 허락된 반면, 그 남편은 그런 임시 관계를 마음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느슨하게 규제되는 이 결합은, 무리 지어 사는 상태와 구별돼서, 한 쌍으로 사는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이런 결혼 발전 단계에서 어린이는 대개 어머니에게 속했다.

83:5.2 (925.7) 짝짓기 진화에서 다음 단계는 *집단 결혼*이었다. 이런 공동 결혼 단계가, 가정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끼어들었는데, 한 쌍의 연합을 영구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결혼의 사회관행이 아직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와 자매의 결혼은 이런 계열에 속했는데;한 가족의 다섯 형제가, 다른 가족의 다섯 자매와 결혼하곤

했다. 전세계에서 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결혼이 점차 진화해서, 여러 유형의 집단 결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집단 결합은 주로 토tem 사회관행에 규제를 받았다. 가정생활은 서서히 확실하게 발전했는데, 자녀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성 및 결혼의 규제가 보장함으로써, 부족 자체의 생존을 유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83:5.3 (926.1) 집단 결혼은, 더 진보된 부족들 가운데서 다부다처{多夫多妻}--곧 일부다처와 일처다부-- 관습이 나타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일처다부는 한 번도 일반화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여왕 또는 부유한 여자의 경우로 제한됐으며;더욱이 여러 형제가 한 아내를 갖는 것은 관례상 가족의 직무였다. 신분계층과 경제적 제한 때문에, 여러 남자가 한 아내로 만족해야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경우라도 그 여자는 한 번만 결혼할 수 있었고, 다른 남자들은 공유되는 자손의 "삼촌"으로서 대충 참고 지냈다.

83:5.4 (926.2) 유대인의 관습은,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목적으로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지키던

관습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개인의 결합보다 가족의
직무였던 시대의 잔재{殘在}였다.

83:5.5 (926.3) 여러 시대에서 일부다처제는 네 종류의 아내를
인정했다:

83:5.6 (926.4) 1. 예식을 치른 아내, 즉 합법적인 아내.

83:5.7 (926.5) 2. 애정을 느끼고 허락된 아내.

83:5.8 (926.6) 3. 첩, 즉 계약상의 아내.

83:5.9 (926.7) 4. 노예 아내.

83:5.10 (926.8) 모든 아내가 동등한 신분을 갖고 모든 자녀가
똑같이 취급되는 진정한 일부다처제는 아주 드물었다.
대개, 심지어 복수{複數}의 결혼에서도, 우두머리 아내, 즉
신분상 반려자가 가정을 지배했다. 그 여자만 제례적 결혼
예식을 치렀고, 신분상 아내와 특별한 합의에 따라서가
아니면, 구매되거나 지참금을 지불한 그런 배우자의
자녀들만 상속받을 수 있었다.

83:5.11 (926.9) 신분상 아내가 반드시 사랑받는 아내일 필요는
없었으며;초기 시대에는 대개 그렇지 않았다. 사랑 받는

아내 또는 애인은, 인종들이 상당한 진보를 이룩할 때까지, 특히 진화하는 부족들이 늦죽속 및 아담족속과 섞이기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83:5.12 (926.10) 금기의 아내--곧 법적 신분을 갖는 한 명의 아내--로 인해, 첩을 두는 사회관행이 만들어졌다. 이런 사회관행 아래서는 한 남자가 한 아내만 둘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리 많은 첩과 성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았다. 첩을 두는 제도는 일부일처제로 전환되는 디딤돌이었고, 공공연한 일부다처제에서 탈피하는 첫걸음이었다. 유대인, 로마인, 및 중국인은, 아내의 하녀를 첩으로 삼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후대에는, 유대인 가운데서처럼, 남편으로 인해 태어난 모든 자녀는 법적 아내를 어머니로 여겼다.

83:5.13 (926.11)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옛 금기가, 일부다처제를 크게 촉진시켰다. 원시 시대의 여자는, 자주 아이를 낳고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늙었다. (과중한 일이 맡겨진 그런 아내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경우에 매 달 한 주 동안 혼자 있도록 조치한 사실 덕분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녀 출산으로 자주 지쳤던 아내는, 더 젊은 아내, 즉

해산{解産}과 가사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도록 남편에게 요청하곤 했다. 따라서 나이 많은 배우자는 새로 얻은 아내를 대개 환영했으며;옛날에는 성적 질투심이 전혀 없었다.

83:5.14 (926.12) 아내의 숫자는 오직 그들을 부양하는 남자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될 뿐이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많은 숫자의 자녀를 원했고, 아이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내가 필요했다. 이런 복수{複數}의 아내 가운데 다수는, 단순한 노동자, 즉 노예 아내에 불과했다.

83:5.15 (927.1) 인간의 관습은 진화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다. 후궁{後宮}을 두는 목적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다수의 혈족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지배자는 한때, 후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즉시 자신의 후궁을 해산시켰다. 불만을 품은 아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성난 친족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지배자를 몰아냈고 즉석에서 처단했다.

6. 진정한 일부일처제--부부의 결혼

83:6.1 (927.2) 일부일처제는 독차지함이며;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곤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일부일처제가 명백한 최선책이다.

83:6.2 (927.3) 최초의 일부일처제는, 환경의 압력, 즉 가난 때문이었다. 일부일처제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인공적이고 부자연스런 것인데, 다시 말해서, 진화하는 사람에게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늑속속과 아담속속에게는 전적으로 자연스러웠으며, 모든 진보된 인종에게 중대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해 왔다.

83:6.3 (927.4) 갈대아의 부족들은, 아내가 그 배우자에게, 둘째 아내나 첩을 얻지 않겠다고 결혼 전에 서약하게 하는 권리를 인정했으며;그리스인과 로마인은 모두 일부일처 결혼을 선호했다. 조상숭배는, 결혼을 성례{聖禮}로 간주하는 그리스도교의 잘못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일부일처제를 촉진시켰다. 심지어 생활 표준의 향상도,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래했을 무렵에, 문명화된 모든 세계는 실제로

이론상 일부일처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 일부일처제는, 인류가 실제적인 부부의 결혼을 실천하는데 익숙해졌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83:6.4 (927.5) 이상적인 부부의 결혼은 결국 독점적인 성관계와 비슷한 것이며, 일부일처 제도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요구조건에 협조하고 그 조건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새롭고 개선된 이런 사회 체제에서 자리를 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남녀의 난처한 상황을 사회가 못 본체 해서는 안 된다. 경쟁사회의 경기장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관행이 강요하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또는 다수의 제한조건 때문일 수 있다. 이미 그것을 이룩한 사람에게는 일부일처제가 이상적이지만, 혼자 쓸쓸히 살아가도록 소외된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임에 틀림없다.

83:6.5 (927.6) 불행한 소수의 무리들은, 진화하는 문명의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진보할 수 있도록, 항상 참을 수밖에 없지만;혜택을 입은 대다수 사람은, 자신보다 운이 덜 다른 동료들을 반드시 친절함과 동정심으로 바라봐야만 하는데, 모든 생물학적 욕구를

채워줄만한 이상적인 남녀 협력관계를 이룩한 반열에서
회원권을 얻지 못한 이 동료들은, 발전하는 사회 진화의
가장 고상한 사회관행의 허용 아래서, 그 대가{代價}를
치를 수밖에 없다.

83:6.6 (927.7) 일부일처는, 인간의 성 생활의 진화에서 이상적
목표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영원토록 그럴 것이다. 진정한
부부 결혼이라는 이 이상{理想}은 자아_부정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계약 맺은 상대방 가운데 한 편 또는 양 편이,
모든 인간적 덕행의 정점, 즉 강한 자아_통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실패한다.

83:6.7 (927.8) 일부일처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진화와 구별해서
사회 문명이 진보되는 정도를 재는 척도다. 일부일처제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거나 자연적일 필요는 없지만, 사회
문명의 즉각적인 보존과 더 향상된 발전에 반드시
있어야할 요소다. 그것은 정서의 섬세함과, 도덕적 성품의
세련됨, 그리고 일부다처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영적
성장에 기여했다. 한 여자가 남편의 애정을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하는 동안에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다.

83:6.8 (928.1) 부부의 결혼은, 긴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협동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데, 이것들은 부모의 행복, 자녀의 복지, 및 사회의 효율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유지한 강요로 시작된 결혼은, 자아_문화, 자아_통제, 자아_표현, 그리고 자아_영속이라는 훌륭한 제도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

7. 혼인의 취소

83:7.1 (928.2) 결혼 사회관행이 초기에 진화할 때, 결혼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느슨한 합동이었고, 자녀는 언제나 어머니를 따랐으며;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결속은 본능적인 것이었고, 사회관행의 발전 단계와 상관없이 작용해 왔다.

83:7.2 (928.3) 원시 민족들 가운데서는, 대략 절반의 결혼만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헤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고, 항상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갔으며;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는 영{靈} 세계에서 뱀이 된다고 믿었다. 더 원시적인 사회관행 하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자에게만 주어졌으며, 이런 기준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서 20세기까지도 유지돼 왔다.

83:7.3 (928.4)

사회관행이 진화하면서, 어떤 부족들은 두 가지 형태의 결혼을 발전시켰는데:평범한 결혼은 이혼을 허용했고, 사제가 맺어준 결혼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내를 구매하기와 아내의 지참금의 시작은, 결혼의 실패에 대한 재산 벌금으로 이용됨으로써, 이혼을 현저히 줄였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구식{舊式}의 재산 요소가 현대의 많은 결합을 안정시킨다.

83:7.4 (928.5)

공동체의 평판과 재산 특권이 좋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결혼 금기와 사회관행을 유지하도록 항상 설득해 왔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은 꾸준한 진보를 이룩했고, 현대의 세계에서는 진보된 기초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결혼은 개인의 선택을--곧 새로운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들 가운데 불만이 널리 퍼짐으로써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진보된 종족들 가운데서는, 사회 진화가 갑작스럽게 가속화된 결과로 이런 조정의 격변{激變}이 이뤄지지만, 그보다 덜 진보된 민족들 가운데서는 결혼이 계속 번성하며, 더 오래된 사회관행의 지도 아래서 서서히 개선된다.

83:7.5 (928.6) 결혼에 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몹시 개인적인, 사랑의 동기가, 더 구식{舊式}이고 오랫동안 확립돼 온, 재산의 동기를, 새로 갑자기 대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결혼 제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이 결혼하는 동기는 언제나 실제 결혼 윤리를 훨씬 초월했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결혼에 대한 서양의 이상{理想}은, 자아_중심이고 겨우 부분적으로 통제했을 뿐인, 종족들의 성 충동을 갑작스럽게 멀리 앞질러갔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관행의 일시적 붕괴 또는 과도기에 있음을 나타낸다.

83:7.6 (928.7) 지나온 긴 세월 내내 결혼의 진짜 시험은 끊임없는 애정표현이었는데, 이는 모든 가정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고, 허영심과 자존심을 완전히 만족시키도록 교육받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버릇없는 두 젊은이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 곧 스스로 삼가고, 절충하고, 헌신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일생의 동역관계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83:7.7 (929.1) 현대의 서양 민족들 가운데서 증가하는 이혼 경향은 대체로, 구혼{求婚} 단계로 들어가는 고도의 상상력과 환상적 낭만에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모두 여자의 개인적 자유가 커지고 경제적 해방이 늘어남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된다. 쉬운 이혼은, 그것이 자아_통제의 부족이나 정상적인 인격체 조정이 실패한 결과일 때, 극심한 개인적 고뇌와 인종적 고통을 통해서 아주 최근에 사람이 벗어나게 됐던, 바로 그런 미숙한 사회 단계로 곧장 되돌아가게 할뿐이다.

83:7.8 (929.2) 그러나 사회가 아이와 젊은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한, 사회 체제가 충분한 혼전{婚前}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숙한 젊은이의 이상주의{理想主義}가 결혼을 성사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한, 이혼은 계속 유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집단이 젊은이의 결혼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한, 이혼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 안전장치로 작용해야만하며, 이것은 진화하는 사회관행이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시대 동안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83:7.9 (929.3) 옛 사람들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현대의 조급하고 불운한 결혼 가운데 다수는, 젊은 남녀가 짝짓는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한시켰던 고대의 관습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모순은, 사랑을 고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이상화{理想化}시키면서도,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8. 결혼의 이상화

83:8.1 (929.4) 가정으로 귀결되는 결혼은, 정말로 사람의 가장 고상한 제도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적이며; 결코 성례{聖禮}로 여기지 말았어야 했다. 셋족속 제사장들이 결혼을 종교 제례식으로 만들었지만; 에덴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짝짓기는 순전히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제도로써 계속돼 왔다.

83:8.2 (929.5) 인간의 연합을 신성한 연합에 비유하는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 결혼과 가정{家庭}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합동은, 진화 세계에서 필사자의 물질적 기능이다. 정말로, 진보를 향한 남편과 아내의 진지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영적 진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혼이 반드시 신성시돼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적 진보는, 인간의 노력을 다른 방향에 진지하게 몰두한 결과로 생긴다.

83:8.3 (929.6) 결혼은, 조율사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확하게 비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미가엘과 인간 형제들 사이의 우애에도 비교될 수 없다. 그런 관계는, 어떤 점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관계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결혼의 의미에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83:8.4 (929.7) 결혼이 신{神}의 행위로 인해 완성됐다고, 어떤 필사자 집단들이 상상하는 것 역시 유감스럽다. 그런 신념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환경이나 소망과 상관없이, 결혼한 상태가 취소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직접 이끈다. 그러나 결혼이 해체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격이 그런 합동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어떤 두 사물 또는 사람을 일단 합쳐놓으셨다면, 신의 뜻이 그들의 분리를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합쳐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인 결혼의 경우에, 과연 누가 재판자리에 앉아서, 어떤 결혼은 본질과 근원에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그에 비해 어떤 결혼은 우주의 감독관들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는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83:8.5 (930.1) 그럼에도 저 높은 곳의 구체들에는 이상적인 결혼이 있다. 각 지역 체계의 수도에서는, 결혼이라는 합동에서 그리고 자손을 낳고 기르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물질 아들 및 딸들이 남녀의 가장 이상적인 합동을 보여준다. 결국, 필사자의 이상적 결혼은 *인간적 견지에서* 신성하다.

83:8.6 (930.2) 결혼은, 언제나 현세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사람이 가진 최고의 꿈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비록 이런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일은 드물더라도, 그 꿈은 영광스런 이상으로서 지속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더 위대한 분투를 하도록, 진보하는 인류를 항상 끌어들인다. 그러나 젊은 남녀는, 가정생활의 상호연합에 따른 고된 요구사항에 뛰어들기 전에, 결혼의 현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배워야만 하며;이상화{理想化}시키는 젊은이다운 태도는,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실망감으로 조절돼야만 한다.

83:8.7 (930.3)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상화가 포기돼서는 안 되는데;그런 꿈은 가정생활의 장래 목표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결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정생활이 실제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깨닫는 데 사람을 둔감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자극을 주는 동시에 유익하다.

83:8.8 (930.4) 결혼의 이상은 요즈음 크게 진전됐으며;어떤 민족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그 배우자와 실제로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 가족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성{性}의 정절과 함께, 후손을 기르기 위한 충실한 협력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새로운 개정판의 이런 결혼조차, 모든 인격체와 개인성의 상호 독점권을 부여할 만큼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혼은 개인주의적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화하는 사회 협동체인데, 현재 사회관행 아래서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으며, 금기로 규제되고, 사회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83:8.9 (930.5) 20세기에 이뤄지는 결혼은, 과거 시대의 것들과 비교할 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에 관한 제도는 현재 심각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여자의 특권, 즉 지난 세대들의 사회관행의 느린 진화에서 매우 오랫동안 부인됐던 권리가 다급하게 늘어남으로써, 사회 조직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문제들 때문이다.

83:8.10 (930.6) [유란시아에 배치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84편 결혼과 가정생활

84:0.1 (931.1) 물질적 필요가 결혼의 기초를 세웠고, 성욕{性慾}은 결혼을 미화{美化}했으며, 종교는 결혼을 인가하고 강화했으며, 국가는 결혼을 요구하고 조정했으며, 한편 후대에, 진화하는 사랑은 문명의 가장 유용하고 탁월한 제도인 가정을 낳고 창조하는 것으로서 결혼을 비로소 정당화하고 찬미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가, 교육하려는 모든 노력의 중심과 본질이 돼야만 한다.

84:0.2 (931.2) 짝짓기는, 정도가 다른 자아_만족과 관련된, 순전히 자아를_존속시키려는 행동이며;가정을 건설하는 결혼은 주로 자아를_유지하는 문제이며, 사회의 진화를 수반한다. 사회 자체는 가족 단위들이 집합된 체계다. 개인은 행성의 요소로서 매우 일시적이다--가족만이 사회 진화에서 계속 존재하는 매개체다. 가족은, 문화와 지식의 강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경로다.

84:0.3 (931.3)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제도다. 결혼은 자아_유지에 협동하고 자아_영속{永續}에 협력함으로 생겨났는데, 자아_만족 요소는 대개 부수적이다. 그럼에도, 가정은 인간 실존에 필수적인 세 가지 기능 전부를 포함하며, 한편 생명체 번식은 가정을 근본적 인간 제도로 만들고, 성{性}은 다른 모든 사회 활동으로부터 가정을 돋보이게 한다.

1. 원시적 부부 결합

84:1.1 (931.4) 결혼은 성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았으며;성관계는 결혼에 따르는 것이었다. 원시인은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내, 자녀, 및 가정을 책임지지 않은 채, 자유롭게 성욕을 만족시켰다.

84:1.2 (931.5) 여자는 자식에 대한 육신적 및 감정적 애착 때문에, 남자와 협동하는 데 의존했고, 이것이 결혼이라는 보호 장치 속으로 여자를 몰아넣었다. 그러나 어떤 명백한 생물학적 충동도, 남자를 결혼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그를 붙잡아 두는 힘은 훨씬 약했다. 결혼이 남자에게 매력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었고, 그 식욕이 미개한 남자를 여자에게로, 그리고 여자의 자녀들이 공유하는 원시 은신처로 끌어당겼다.

84:1.3 (931.6) 결혼은 성관계에 따른 책무를 의식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원시인은, 성적 쾌락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한때는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믿었다. 미개인은, 초기에는 아기가 영나라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으며;임신은 진화하는 유령인 어떤 영이 여자에게 들어간 결과라고 믿었다. 음식물과 흥안{凶眼} 역시 처녀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한편 후대에는 생명체의 시작을 호흡 및 햇빛과 관련시키는 믿음이 있었다.

84:1.4 (932.1)

초기의 여러 민족은 유령을 바다와 관련시켰으며;따라서 처녀는 목욕하는 습관에서 크게 제한받았으며;젊은 여자는, 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밀물 때 바다에서 목욕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 불구자로 태어난 아기 또는 조산{早産}한 아기는, 부주의한 목욕 또는 심술궂은 영이 활동한 결과 때문에 여자 몸속으로 들어올 길을 발견한 동물의 새끼로 간주됐다. 당연히, 미개인은 그렇게 태어난 자손을 목 졸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84:1.5 (932.2)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시키는 유령이 여자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계몽의 첫 단계가 됐다. 그 후로 사람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살아있는 유전적 요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심지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부모는 여전히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해 다소 무지한 상태에서 자녀를 기르려고 한다.

84:1.6 (932.3)

번식 기능에는 어머니_자녀 관계가 수반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소 무지한 부류의 가족도 유지될 수 있었다. 모성애{母性愛}는 본능이며;결혼이 그랬듯이,

사회관행에서 기원되지 않았다. 모든 포유동물의 모성애는, 지방우주의 보조 정신_영들의 내재적 재능이며, 그 강도와 헌신은, 반드시 그 종{種}의 무기력한 유아기{幼兒期}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84:1.7 (932.4)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강력하고 본능적이며, 따라서 원시 시대의 여자로 하여금 수많은 생소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했고, 무수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성애는, 남자와의 모든 투쟁에서 여자에게 항상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감정적 방해요소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종족에서 모성애의 본능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야심, 이기주의, 종교적 신념 등이 그 본능을 꺾을 수도 있다.

84:1.8 (932.5) 어머니와_자녀의 관계는 결혼도 가정도 아니지만, 그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솟아나온 핵심이었다. 이런 임시 동역관계가, 그 결과로 생긴 자손을 기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래 지속될 때, 짝짓기 진화에서 큰 발전이 이뤄졌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84:1.9 (932.6) 이 초기 부부의 대립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 연합의 느슨함에도, 살아남을 확률은 이런 남_녀 간 동역관계로 인해 크게 증진됐다. 가족과 자손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 협동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남자 또는 두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우세하다. 남녀가 짝을 맺는 이런 일이, 살아남는 능력을 증대시켰고, 인간 사회의 첫 걸음이 됐다. 성{性}에 따른 노동 분화 역시 편안함을 제공했고 행복을 증대시켰다.

2. 초기의 모계_가족

84:2.1 (932.7) 여자의 주기적 월경과 아이 낳는 과정에서 흘리는 많은 피로 인해, 피가 아기를 조성한다는 (심지어 혼의 근원이라는) 추측이 초기 시대부터 이뤄졌고, 인간관계에서 혈연{血緣} 개념이 생겨나게 했다. 초기 시대에는 모든 후손이 여자 계통을 따라서 계수 됐는데, 이것이 상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유일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84:2.2 (932.8) 어머니와 자녀의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혈연에서 생겨났으므로, 원시의 가족은 필연적으로 모계{母系}_가족이었으며; 많은 부족이 이런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했다. 모계_가족은, 유랑민 무리의 집단 결혼 단계로부터, 일부다처 및 일부일처 부계{父系}_가족이라는, 후대의 개선된 가정생활 단계로 옮겨가는, 유일하게 가능한 과도기였다. 모계_가족은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었으며;부계_가족은,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이었다. 다른 면에서 진취적인 이로쿼이가 진정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아메리카 홍색인 가운데서 모계_가족이 지속된 것이었다.

84:2.3 (933.1) 모계_가족의 사회관행 아래서는, 아내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세를 누렸으며;가족을 감독하는 데서, 아내의 남자 형제 및 그들의 자녀들이 남편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흔히 자녀들을 따라서 다시 지어지곤 했다.

84:2.4 (933.2) 가장 초기의 종족들은 아버지의 공로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는 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출생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다고 믿거나, 또는 어머니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닮게 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 모계_가족이 부계_가족으로 전환된 후에는, 아이 낳는 공로를 아버지가 온전히 가졌고, 임신한 여자에 대한 많은 금기는, 나중에 그 남편도 포함시킬 만큼 더 확장됐다. 아버지 될 사람은 출산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일을 멈췄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서 3일내지 8일 동안 휴식을 취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만;남편은 계속 침실에 남아서 축하 인사를 받았으며;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세워주기 위해 고안된, 초기 사회관행 가운데 일부였다.

84:2.5 (933.3) 처음에는 남자가 아내의 족속에게 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후대에는 남자가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마친 후에, 아내와 자녀를 본래의 자기 족속에게 데려올 수 있게 됐다. 모계_가족으로부터 부계_가족으로 변환된 것은, 달리 의미가 없는데도, 왜 어떤 유형의 사촌 간 결혼은 금지하면서, 똑같은 인척 관계에 있는 다른 것은 인정했는가를 설명해 준다.

84:2.6 (933.4) 사냥꾼의 사회관행이 지나가고, 목축이 시작되면서 식량 공급 통제권이 남자에게 넘어가자, 모계_가족은 급속히 사라지게 됐다. 모계_가족이 사라진 단순한 이유는, 새롭게 형성되는 부계_가족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남자 친척에게 주어진 힘으로는, 남편_아버지에게 집중된 힘과 경쟁할 수 없었다. 여자는 자녀를 임신하면서, 계속된 권한과 늘어나는 집안의 권력을 행사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새로 등장하는 아내 훔치기와 후대에 이뤄진 아내 구매{購買}가, 모계_가족이 사라지도록 재촉했다.

84:2.7 (933.5) 모계_가족에서 부계_가족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변화는, 인간 종족이 이제까지 수행했던, 가장 급진적이고 완전히 180도 방향이 전환되는 조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즉시 사교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가족을 이루는 모험이 증가했다.

3. 아버지의 지배 아래 있는 가족

84:3.1 (933.6) 모성 본능이 여자를 결혼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은, 사회관행의 영향과 함께 남자의 우세한 힘이었다. 목축 생활은, 새로운 사회관행 체계, 즉 가부장적{家父長的} 유형의 가정생활이 이뤄지도록 이바지했으며;목축업과 초기 농업의 사회관행 하에서 이뤄진 가족 통일의 기초는, 명백하고 독단적인 아버지의 권위였다. 국가적인 것이든지 가족적인 것이든지, 모든 사회는 가부장적 체제라는 독재 권위 단계를 거쳤다.

84:3.2 (934.1) 구약 시대 동안 여자를 거의 대우하지 않은 것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사회관행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히브리 족장{族長}들은, “주는 나의 목자{牧者}시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목축업자였다.

84:3.3 (934.2) 그러나 지난 시대에 남자가 여자를 낮게 취급한 것은,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 자신 때문이었다.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시대에 사회적 명성을 얻지 못했으며;극적인 영웅 또는 위기 상황에서의 영웅이 되지 못했다. 생존 투쟁에서, 임신 기간은 뚜렷이 불리한 조건이었으며;모성애는, 부족을 방어할 때 여자에게 장애물이 됐다.

84:3.4 (934.3) 또한 원시 여자들은, 남자의 호전성{好戰性}과 정력에 대해 감탄하고 칭찬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됐다. 전사{戰士}들에 대한 이런 찬미는 남성의 자존심을 높여준 반면, 여자의 자존심은 그만큼 억눌렸고, 여자가 더 종속되도록 만들었으며;군인의 제복은 여성의 감정을 여전히 크게 흥분시키고 있다.

84:3.5 (934.4) 더 진보된 인종들 가운데서, 여자는 남자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않다. 여자는, 더 약해졌기 때문에 더 약삭빠르게 됐으며;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익혔다. 여자는 남자보다 생각이 약간 덜 깊지만, 더 기민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됐다. 전쟁터와 사냥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지만;가정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남자라도 여자가 대개 술책으로 이길 수 있었다.

84:3.6 (934.5) 목축하는 남자들은 먹을거리를 자기 가축 떼에서 찾았지만, 이런 전원 시대 내내, 여자는 여전히 먹을 채소를 마련해야만 했다. 원시 시대의 남자는 흠을 멀리했는데;그것은 모두 너무 평화롭고 모험하는 재미가

너무 없었다. 또한 당시에는 여자가 식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오래된 미신이 있었는데;그들이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퇴보한 많은 부족 사이에서는, 남자가 고기를 요리하고, 여자는 채소를 요리하고 있으며, 오스트랄리아의 원시 부족들이 행진할 때, 여자는 결코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으며, 한편 남자는 뿌리 하나라도 뽑으려고 몸을 굽히지 않는다.

84:3.7 (934.6) 여자는 항상 일을 해야만 했는데;적어도 현대 시대까지, 여자들은 실제 생산자 역할을 해왔다. 남자는 대개 비교적 쉬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이런 불평등은 인간 종족의 전체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다. 여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져왔는데, 가족의 재산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가 일에 매이지 않고 싸우거나 사냥할 수 있게 했다.

84:3.8 (934.7) 여자가 처음으로 해방된 것은, 남자가 땅을 경작하기로 동의했을 때, 즉 당시까지는 여자의 일로 간주돼 왔던 것을 하겠다고 동의했을 때 도래했다. 남자 포로를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 대신 농사짓는 노예로 삼게 된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것이 여자를 해방시켜서

가사{家事}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했다.

84:3.9 (934.8)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더 일찍 유아에게서 젖을 떼 수 있게 됐으며, 따라서 어머니는 때때로 임시적인 불임기간에 편히 쉬으로써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동시에, 소와 염소의 젖을 이용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목축하는 사회 단계 이전에는, 아이가 네 살 또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곤 했다.

84:3.10 (934.9) 원시 시대의 전쟁이 크게 줄어들자, 성에 따라 구분된 노동 사이의 불균형이 감소됐다. 그러나 남자가 보초를 서는 동안, 여자는 여전히 실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야영지 또는 마을은 밤이나 낮이나 보초를 세워야만 했지만, 이런 과제도 개를 길들임으로써 완화됐다. 일반적으로는, 농업이 이뤄짐으로써 여자의 위신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는데;적어도 이런 사실은 바로 남자가 농사꾼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랬다. 그리고 남자가 땅을 경작하는 일에 참여하는 즉시 농업 방식이 곧 크게 개선됐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뤄졌다.

남자는 전쟁과 사냥을 통해서 조직이 귀중함을 배웠고, 이런 기법을 산업에 적용했으며, 그 후에 여자의 일을 많이 떠맡게 됐을 때에는, 그동안 허술했던 노동 방식이 크게 개선됐다.

4. 초기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

84:4.1 (935.1)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느 시대든지 여자의 지위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써 결혼이 얼마나 진화해서 진보했는지를 재는 공정한 척도이며, 한편 결혼 자체의 진보는,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가리키는 상당히 정확한 계량기다.

84:4.2 (935.2) 여자의 지위는 언제나 사회의 모순이었으며;여자는 항상 남자를 약삭빠르게 조종해 왔으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남자의 왕성한 성욕을 이용해 왔다. 여자는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미묘하게 거래함으로써, 남자를 지배하는 능력을 종종 발휘해 왔는데, 심지어 남자에게 비천한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에도 그랬다.

84:4.3 (935.3) 일찍이 여자는 남자에게, 친구, 연인, 또는 동업자라기보다는 재산 목록의 일부, 즉 종 또는 노예였고,

나중에는 경제적 동업자, 노리개, 그리고 아이 낳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적절하고 만족스런 성관계에는 반드시 여자가 선택하고 협동하는 요소가 들어갔고, 이것 때문에 총명한 여자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자가 자신의 속박된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줄곧 약삭빠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의 불신과 의심은 완화되지 못했다.

84:4.4 (935.4)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녀를 의심과 경멸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지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에 홀린 상태가 야릇하게 섞인 눈으로 여자를 봤다. 부족과 종족의 여러 전통은, 재난을 이브, 판도라, 또는 어떤 다른 여성 대표자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왜곡돼서, 여자가 남자에게 악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이 모든 것은 여자를 한때 보편적으로 불신했음을 가리킨다. 사제계층이 독신주의를 지지하면서 늘어놓은 여러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자가 천하다는 것이었다. 무당으로 생각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자였다는 사실이, 여성에 대한 전통적 평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했다.

84:4.5 (935.5) 남자는 오랫동안 여자를 기묘한 존재로, 심지어 비정상 존재로 간주했다. 그들은 여자에게 혼이 없다고 믿기까지 했으며;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먼 옛날에는 여자와 처음 성관계 맺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으며;그리하여 처녀로 하여금 사제{司祭}와 첫 성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심지어 여자의 그림자가 위험스런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84:4.6 (935.6) 해산{解産}이 여자를 위험스럽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한때 일반적으로 퍼졌다. 그리고 여러 부족의 사회관행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상당한 기간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해산하는 현장에 남편이 참여케 하는 집단들 이외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된 여자를 회피했고 따로 혼자 있게 했다. 고대인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 해산하는 동안 할머니들이 산모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이런 관습에 따라서 전문 산파술{産婆術}이 기원됐다. 분만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산하는

동안에 몇 십 가지 미련스런 일들을 말하고 행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령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수{聖水}를 뿌리는 것이 관습이었다.

84:4.7 (935.7) 피가 섞이지 않은 부족들 가운데서는, 해산이 비교적 수월해서, 두 세 시간이면 충분했으며;피가 섞인 종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드물었다. 어떤 여자가 출산 중에 죽으면, 특히 쌍둥이를 낳다가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영적 간음죄를 범했다고 믿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비교적 발달된 부족들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를 하늘의 뜻으로 간주했고;그런 산모는 숭고한 목적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됐다.

84:4.8 (936.1) 신체 노출과 의복에 관계되는, 소위 여자의 정숙함은, 월경 기간에 사람들에게 관측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것에서 연유됐다.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중대한 죄, 즉 금기 위반이었다. 옛 사회관행 하에서는, 사춘기로부터 출산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나이까지의 모든 여자는, 매 달 1주일씩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있어야 했다. 그녀가 만지거나 앉거나 누웠던 모든 것을, "부정{不淨}"한 것으로 여겼다. 매 달 그 기간이 끝난

소녀는, 그 몸에서 악령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여자의 경우에는, 대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더 많은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가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그리스인도 월경{月經} 기간의 여자를 세 가지 큰 오염원인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는데, 다른 두 가지는 돼지와 마늘이었다.

84:4.9 (936.2) 아무리 어리석었을지라도, 이런 고대의 생각들은, 과중한 일을 부과했던 여자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했는데, 적어도 나이 어렸을 때에는 매 달 1주일씩 휴식을 즐기면서 유익한 명상에 잠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휴식 시간에 자신의 남자 동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예리한 지혜를 익힐 수 있었다. 여자의 이런 격리 기간은, 남자로 하여금 과도한 성적 탐닉에 빠지지 않게 했고, 그리하여 인구 증가의 억제와 자아_통제 증진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84:4.10 (936.3)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게 됐을 때 큰 진보가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결혼 예물을 간직할

수 있게 됐을 때 한 단계 더 진보했다. 나중에는,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획득했지만, 교회 또는 관청에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오랫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는 기원후 20세기 이전은 물론 20세기에든, 어느 정도는 항상 재산으로 취급돼 왔다. 여자는, 남자의 통제 아래 차단된 상태에서부터 세계적인 해방을, 아직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된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남자가 탁월함을 말없이 주장하는 것이었다.

84:4.11 (936.4) 그러나 원시 시대의 여자는, 아주 최근에 해방된 자매들이 곧잘 하듯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행복하고 만족했으며; 더 낫거나 전혀 다른 실존 방식을 감히 상상하지도 않았다.

5. 발전하는 사회관행 하에서의 여자

84:5.1 (936.5) 자아를_존속시키는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지만, 자아를_유지하기 위한 동반자 관계 면에서는, 여자가 분명히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이런 모성의 불리한 장애는, 진보되는 문명의 계몽된

사회관행으로, 그리고 공평성에 대한 감각을 남자가 점점 더 획득함으로써 보정{補整}될 수밖에 없다.

84:5.2 (936.6) 사회가 진화하면서, 성에 관한 도덕적 규범이 여자들 가운데서 더 높게 일어났는데, 이는 성{性}에 대한 사회관행을 위반한 결과에서 그들이 더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자의 성 기준은, 문명이 요구하는 공정성을 미약하게 의식한 결과로, 오직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되고 있을 뿐이다. 자연은 공정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아이 낳는 고통을 여자 혼자 겪게 만든다.

84:5.3 (936.7) 현대의 남녀평등 관념은 아름답고, 확장하는 문명에 어울리지만, 자연 법칙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며;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평성이 더 우세해진 후에는, 여자가 노예 신분과 미천한 상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시대든지, 대개 군국주의의 정도에 반비례로 변화된다.

84:5.4 (937.1) 그러나 남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여자의 권리를 빼앗지는 않았고, 그 후에는 점차 마지못해서 권리를 여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이 모든 것은 사회의

진화에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사건이었다. 늘어난 권리를 실제로 누리게 됐을 때, 여자는 권리를 가졌고, 남자가 자각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 가졌다. 그런 사회적 조정은 문명의 끊임없는 진화의 일부분이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관행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 진보하는 사회관행은, 더 나은 대우를 서서히 점점 더 여자에게 제공했으며; 여자에게 계속 잔인한 부족은 살아남지 못했다.

84:5.5 (937.1) 아담족속과 낫족속은 여자를 더 많이 인정했고, 이주하는 안드족속에게 영향을 받은 집단들은,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에 관한 에덴의 교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84:5.6 (937.1) 초기 시대의 중국인과 그리스인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낮게 여자를 대우했다. 그러나 히브리인은 지나치게 여자를 의심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에 첨부된 바울의 교리 아래서, 여자의 지위 향상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는 더 엄격한 성적 책무를 남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회관행을 발전시켰다. 여자의 생활

상태는, 마호메트교에서 여자에게 부여한 색다른 퇴보
아래서 거의 절망 상태에 있으며, 여자는 다른 몇몇 동양
종교의 가르침 아래서 훨씬 악화된 상태로 살고 있다.

84:5.7 (937.1)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과학이 여자를
해방시켰으며;가정에 감금된 여자를 크게 풀어준 것은
현대의 공장{工場}이었다. 남자의 육체적 기량은, 새 생활
체제에서는 더 이상 극히 중대한 근본 요소가
아니며;과학이 생활환경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은 여자의 능력을 더 이상 크게 능가하지
못하게 됐다.

84:5.8 (937.1) 이런 변화는 집안의 노예 신세로부터 여자를
해방시키는 경향을 보였고, 실제로 남자와 동등한 정도의
개인 자유와 성적 결정권을 현재 누리고 있을 만큼, 여자의
지위가 변경되게 했다. 한때는 여자의 가치가 음식을
만드는 역량에 제한됐지만, 발명과 풍요함으로 인해
여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곧 우아하고
매력 있는 영역을--창작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여 산업은,
여자의 사회적 및 경제적 해방을 위한 무의식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왔다. 그리고 계시조차 완성시키지 못한 것들까지 진화가 다시 이룩해 왔다.

84:5.9 (937.1) 공동체에서 여자의 처지를 규제하는 불공정한 사회관행에서 벗어난 계몽된 사람들의 반응은, 그 과격성에서 정말로 격변을 일으켜 왔다. 산업화된 인종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거의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됐고, 군대 복무 같은 많은 책무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린다. 실존을 위한 투쟁이 완화될 때마다 여자의 해방에 도움이 됐고, 일부일처제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여자는 직접 혜택을 입었다. 공동체가 진취적으로 진화하면서 사회관행이 조정될 때마다, 약자는 항상 공평함 이상으로 이익을 얻는다.

84:5.10 (937.1) 부부의 결혼이라는 이상{理想}에서, 여자는 마침내, 인정{認定}, 존엄성, 독립성, 동등권, 및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지만;여자가 새롭고 전례 없는 이런 모든 성취를 누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과연 증명하게 될 것인가? 사회의 해방이라는 엄청난 성취에 대해, 현대의 여자들이, 나태함, 무관심, 불임{不妊}, 및 간통{姦通}으로

반응할 것인가? 20세기인 오늘날, 여자는 오랫동안 세상에
현존한 것에 대한 중대한 시험을 거치고 있다!

84:5.11 (938.1) 종족 번식에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동반자이고,
따라서 종족의 진화가 전개되는 데 똑같이
중요하며;그러므로 진화는 여자의 권리를 점점 더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여자의 권리는
남자의 권리와 결코 똑같지 않다. 남자가 여자의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없다.

84:5.12 (938.2) 남녀는 각자 특유의 실존 영역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갖는다. 여자가 문자
그대로 남자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현재 많은
여자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아주 최근에
남자로부터 획득한, 기사도{騎士道} 정신과 특별한
존중심을, 냉혹하고 삭막한 경쟁이 곧 분명하게 없애버릴
것이다.

84:5.13 (938.3) 문명은 남녀 사이에 있는 습성의 큰 차이를 결코
없앨 수 없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관행은 변하지만,
본능은 결코 그렇지 않다. 타고난 모성애가, 산업 사회에서

남자의 심각한 경쟁상대가 되도록 여자를 결코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정신적 차이점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각자 자기만의 영역에서 최고의 상태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84:5.14 (938.4) 남녀는 각자 항상 자기만의 특별한 영역을 가질 것인데, 그것은 때때로 서로 중첩되기도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오직 사회에서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6. 남자와 여자의 협력

84:6.1 (938.5) 번식하려는 충동이, 자아_영속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모이도록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그들이 함께 계속 상호 협동하도록--곧 가정{家庭}을 설립하도록--보장하지 않는다.

84:6.2 (938.6) 성공적인 인간 제도마다,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돼 온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는 것을 용납하며, 가정을 세우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결혼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인데, 상반되는 협동을 최고로 형태화한 것이며, 이것은 매우 자주 자연과 공동체 접촉의

특징이 된다. 갈등은 필연적이다. 짝짓기는 선천적이며;자연스런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생물학상의 일이 아니며;사회적인 일이다. 열정은 남녀가 함께 하도록 보장하지만, 그보다 약한 부모로서의 본능과 사회관행이, 그들의 동반 관계를 유지시킨다.

84:6.3 (938.7) 실질적으로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밀접하고 긴밀한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종류의 두 가지 뚜렷한 변종이다. 그들의 관점과 전체 생애의 반응은 근본적으로 다르며;그들이 서로를 완전하게 실제로 납득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성간의 완전한 이해는 이뤄질 수 없다.

84:6.4 (938.8) 여자는 남자보다 더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논리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자는 항상 도덕의 주창자{主唱者}였고 인류의 영적 지도자였다. 요람을 흔드는 손은, 숙명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한다.

84:6.5 (938.9)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본성, 반응, 관점, 및 생각의 차이는, 걱정을 야기 시키기는커녕,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간주돼야만 할 것이다. 많은 계층의 우주 피조물은, 이중{二重} 국면으로

인격체를 형태화하도록 창조된다. 필사자와 물질 아들 그리고 중간유한절대자 가운데서는, 이런 차이가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며;스라빔과 체루빔, 그리고 모론시아 동료 가운데서는, 양성{陽性}, 즉 적극적 존재와, 음성{陰性}, 즉 내향적 존재로 언급돼 왔다. 낙원_하보나 체계에서 어떤 삼자일체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런 이중 연합은 융통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선천적 제한조건을 극복한다.

84:6.6 (939.1) 남자와 여자는 필사자 생애뿐 아니라, 모론시아 생애 및 영적 생애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점 차이는, 첫 번째 생애 이후, 그리고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과정 내내 지속된다.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서도, 한때 남자와 여자였던 순례자는, 낙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서로 돕게 될 것이다. 심지어 완결성취 단계에서도, 피조물은 결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부르는 인격적 경향을 지워버릴 만큼 변환되지 않을 것이며;인류의 이런 두 가지 근본 변종{變種}은, 서로에게 호기심과 자극과 용기를 주고 협조하는 일을 항상 계속할 것이며;그들은 복잡한 우주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리고 시공우주의 각양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언제나 서로 협동하면서 의존할 것이다.

84:6.7 (939.2) 남녀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기를 희망할 수는 결코 없지만, 서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어떤 경우는 인간적으로 다소 대립된다 할지라도, 협동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결혼은 성적 차이점을 완화시키도록 고안된 제도인 동시에, 문명이 지속되게 하고 종족의 번식을 보장한다.

84:6.8 (939.3) 결혼은 모든 인간 제도의 근원인데, 그것이 가정의 설립과 유지를 직접 이룩하기 때문이며, 가정은 사회의 구조적 기초다. 가족은 자아를 유지하는 체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문명의 사회관행 아래서 종족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특정한 아주 만족스런 형태의 자아_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가족은 사람이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업적인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관계의 진화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관계를, 실제로 합병한다.

7. 가정생활의 이상

84:7.1 (939.4) 남녀가 짝짓는 것은 본능이고, 자녀는 자연스런 결과이며, 그리하여 가족이 자동으로 존재하게 된다. 종족 또는 나라의 가족들이 어떠하듯, 그 사회도 그렇다. 가족이 선하다면, 그 사회도 마찬가지로 선하다. 유대 민족과 중국 민족의 뿌리 깊은 문화적 안정성은, 그들의 가족 집단의 힘에서 나온다.

84:7.2 (939.5)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여자의 본능이, 그녀로 하여금 결혼과 원시 가정생활을 증진시키기에 흥미를 갖는 집단이 되도록 도모했다. 남자는 후대의 사회관행과 사회적 인습으로 인해 강제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뿐이며;남자가 결혼과 가정을 설립하기에 흥미를 갖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는 성행위가 어떤 생물학적 영향도 그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84:7.3 (939.6) 남녀의 결합은 자연스런 것이지만, 결혼은 사회적인 것이며, 언제나 사회관행에 규제를 받아왔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관행은, 재산, 자존심, 및 기사도 정신과 함께,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안정시킨다. 사회관행이 동요될 때마다, 가정_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렸다. 결혼은 이제 소유{所有} 단계를

탈피해서 개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재산이었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했으며,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가 복종했다. 그 장점과는 상관없이, 이런 체계는 안정성을 제공했다. 이제는, 여자는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혼_가정 제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사회관행이 출현하고 있다:

84:7.4 (939.7) 1. 종교의 새로운 역할 --부모의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가르침, 시공우주 시민을 낳는다는 관념, 즉 출산{出產}이 --아들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특권임을 더욱 이해하는 것.

84:7.5 (940.1) 2. 과학의 새로운 역할 --출산은 점점 더 계획적인 것이 됐는데, 사람의 통제를 따르게 됐음. 옛날에는 이해 부족 때문에 그것을 위한 모든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의 출생이 보장됐다.

84:7.6 (940.2) 3. 쾌락을 주는 매력의 새로운 역할 --이것이 종족의 생존에 새로운 요소를 제공했으며;옛 사람은 원치 않는 아이를 죽였지만;현대인은 그런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84:7.7 (940.3) 4. 부모로서의 본능의 향상. 각 세대는 이제, 부모로서의 본능이 충분치 못해서, 다음 세대에 부모가 될 자녀의 출산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족의 번식 흐름에서 제거시키는 경향이 있다.

84:7.8 (940.4) 그러나 제도로서의 가정,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협동체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약 50만 년 전에 달라마시아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안돈과 그의 직계 후손이 가졌던 일부일처제 관습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아무튼, 가정생활은 늦죽속과 그 후의 아담족속 시대 이전에는 자랑할 만하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인류에게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가 동산에서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온 가족이 채소 가꾸는 자가 되는 에덴의 이상은, 유란시아에서 새로운 관념이었다.

84:7.9 (940.5) 초기의 가족은, 함께 일하는 집단, 즉 노예를 포함해서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가깝게 관련될 필요가 있었다. 여자는 항상 독립적인 가족을 원했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했다.

84:7.10 (940.6) 자손에 대한 사랑은 거의 보편적이고, 명백하게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 옛 사람은 언제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의 권리를 희생시켰으며;에스키모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이를 물로 씻는 대신 혀로 핥아준다. 그러나 원시 시대의 어머니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만 먹여주고 돌봤을 뿐이며;동물처럼, 그들이 자라자마자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인간 연합체는 생물학적 애정만을 기초하여 설립된 적이 전혀 없었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며;사람은--곧 문명화된 사람은-- 자기 자녀의 자녀도 사랑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녀의 발전과 성공에 대한 부모의 기쁨이 커지며;따라서 *가문{家門}*의 자긍심에 대한 새롭고 더 고상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84:7.11 (940.7) 고대의 민족들 사이에서, 규모가 큰 가족이 반드시 환영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바람직했다:

84:7.12 (940.8) 1. 자녀는 일꾼으로서 가치 있었다.

84:7.13 (940.9) 2. 자녀는 노후대책이었다.

84:7.14 (940.10) 3. 딸을 팔 수 있었다.

84:7.15 (940.11) 4. 가족의 자금심이 가문의 확장을 요구했다.

84:7.16 (940.12) 5. 아들은 보호하는 일과 방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84:7.17 (940.13) 6.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했다.

84:7.18 (940.14) 7. 어떤 종교들은 자손을 바치게 했다.

84:7.19 (940.15)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항상 영원한 불행으로 여긴다. 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고, 유령이 영 나라를 통해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제물을 바칠 아들을 무엇보다도 더 바란다.

84:7.20 (941.1) 옛날의 미개인 가운데서는 자녀에게 벌주는 것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됐으며;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순종이 실패 또는 심지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다. 어리석은 행실에 대한 자연스런 대가{代價}를 치르지 않도록 문명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이, 현대의 반항적 태도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84:7.21 (941.2) 에스키모 아이들은 훈련과 벌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장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들이 선천적으로 유순한 어린 동물과 같기 때문이며;홍색인과 황색인 자녀도 거의 똑같이 유순하다. 그러나 안드족속 유전자를 가진 종족들 가운데에서는, 아이들이 그다지 차별하지 않으며;상상력이 더 풍부하고 모험심 강한 이 아이들은 더 많은 훈련과 억제가 필요하다. 아이를 훈육하는 현대 문제는 다음 이유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

84:7.22 (941.3) 1. 상당한 정도로 종족이 혼합됨.

84:7.23 (941.4) 2.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교육.

84:7.24 (941.5) 3. 자녀가 부모를 모방함으로써 문화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함--부모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84:7.25 (941.6) 가족을 징계하는 옛 관념은 생물학적이었는데, 부모가 자녀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라는 깨달음에서 형성됐다. 가정생활에 관한 진보하는 이상{理想的}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어떤

권리를 준다는 개념 대신에, 인간 실존에서 최고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개념으로 이끌고 있다.

84:7.26 (941.7) 문명은 모든 의무를 부모가 맡고, 자녀는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간주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존경심은, 부모가 낳아주신 은혜를 인식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주는 가운데,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보살핌과 훈련과 애정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참된 부모는 봉사와_보살핌을 계속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현명한 자녀는 이를 알아보고 감사하게 된다.

84:7.27 (941.8) 현재와 같은 산업 시대와 도시 시대에, 결혼 제도는 새로운 경제 계통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다. 가정생활은 점점 더 호사스럽게 됐고, 한편 하나의 자산{資産}이 되곤 했던 자녀는 경제적 부채{負債}가 됐다. 그러나 문명 자체의 안전성은, 여전히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 점점 더 기꺼이 투자하려는 성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국가 또는 교회에 떠맡기려는 모든 시도는, 문명의 복지와 발전에 자살행위임이 입증될 것이다.

84:7.28 (941.9) 결혼은, 자녀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가정생활과 함께,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자극하며, 동시에 필사자 인격체의 이런 자극받은 속성을 나타내도록 이상적인 길을 제공한다. 가족은 인간 종족들이 생물학적으로 존속되게 한다. 가정은 자연스런 사회 경기장인데, 자라나는 자녀들은 핏줄로 맺어진 형제관계의 윤리를 거기서 파악할 수 있다.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 단위이며,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인내, 이타심{利他心}, 아량, 및 관용에 대한 훈계를 배우는데, 이것들은 모든 사람 사이의 형제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요소다.

84:7.29 (941.10) 문명화된 종족들이 안드족속의 가족_협의회 풍습으로 더욱 널리 되돌아간다면, 인간 사회는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들은 가부장 형태 또는 독재 형태의 가족 운영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친숙했고 협조적이었는데, 가족과 관련되는 모든 제안과 규칙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토의했다. 그들은 가족 운영체제의 모든 일에서 더할 나위 없이 우애 있었다. 이상적인 가족 안에서 효도와 부모 사랑은 모두 형제로서 헌신함으로 확대된다.

84:7.30 (942.1) 가정생활은 참된 도덕의 창시자요, 의무에 충성하는 의식{意識}의 선구자다. 가정생활에서 강제된 연합은, 다양한 다른 인격체에게 적응해야만 하는 강제성을 통해서, 인격체를 안정시키고 인격체가 성장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참된 가족은--곧 훌륭한 가족은-- 육신의 부모에게, 창조주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드러내며, 한편 동시에 그런 참된 부모는, 우주의 모든 자녀의 부모이신 낙원 부모의 사랑을 점점 더 보여주는, 상승하는 긴 과정 중에서 첫 단계를 자녀에게 나타낸다.

8. 자아_만족의 위험성

84:8.1 (942.2) 가정생활의 최고 위협은, 자아_만족, 즉 위협적으로 높아지는 현대의 쾌락에 대한 열광의 물결이다. 결혼으로 이끄는 첫째 동기는 늘 경제적인 것이었으며; 성적 매력은 2차적이었다. 자아_유지에 기초한 결혼은 자아_영속으로 이끌었고, 그와 동시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아_만족을 제공했다. 결혼은 삶을 위한 세 가지 큰 동기 전부를 포함하는, 인간 사회의 유일한 제도다.

84:8.2 (942.3) 원래, 재산은 자아를_유지하는 기본 제도였고, 한편 결혼은 자아를_영속시키는 독특한 제도로써 작용했다. 주기적인 성적 탐닉과 함께, 흡족한 음식, 놀이, 및 유머가 자아_만족의 수단이었음에도, 진화하는 사회관행이 자아_만족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제도를 형성하기에 실패했음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만족스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기법으로 진화하지 못한 이런 실패 때문에, 모든 인간 제도가 이런 쾌락 추구로 너무 심각하게 물들어 있다. 재산 축적은 모든 형태의 자아_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한편 결혼은 흔히 오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이런 방종, 즉 널리 퍼진 이런 쾌락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일찍이 사회의 진화적 가정생활 제도인 가정을 노리는 가장 큰 위협이다.

84:8.3 (942.4) 보라색 인종은, 새롭고 오직 불완전하게 실현된 특질을--곧 유머 감각과 결부된 놀이 본능을-- 인류의 체험에 도입했다. 이 본능은 상익 인종들과 안돈족속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담 종족은, 이런 원시 성향을 *쾌락의 잠재성*, 즉 자아_만족의 미화{美化}된 새로운 형태에 이르도록 향상시켰다. 배고픔의 해소를 제외한다면,

자아_만족의 기본 유형은 성적{性的} 만족이며, 이런 형태의 관능적 쾌락은 상익 인종들과 안드족속의 피가 섞임으로써 엄청나게 강화됐다.

84:8.4 (942.5) 안드족속 이후 인종의 불안감, 호기심, 모험심, 및 쾌락_방종 특질이 합쳐진 곳에,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혼{魂}의 열망은 육체적 쾌락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가정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쾌락 추구로 증대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술, 색감{色感}, 소리, 박자, 음악, 및 몸을 치장하는 자원을 다 소모시킨다 하더라도, 너희는 영을 살찌게 하거나 혼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할 수 없다. 허영심과 유행은,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에 공헌할 수 없으며;자존심과 경쟁심은,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질을 증진시켜주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84:8.5 (942.6) 진보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는 모두 휴식을 즐기며, 회고 지휘자의 봉사를 즐긴다. 건전한 오락을 획득하고 기분을 드높여주는 놀이에 참여하려는 모든 노력은 건전한 것이며;단조로움에서 나오는 권태감을 막아주는 모든 취미, 오락, 휴식, 그리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수면{睡眠}은 보람 있는 것들이다. 경쟁적인

시합, 이야기하기, 그리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자아_만족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너희가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낼 때, 거의 100만 년 동안, 인간은 오직 음식을 재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만 소금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

84:8.6 (943.1) 사람이 스스로 즐기도록 내버려둬라;인간 종족들이 무수한 방법으로 쾌락을 찾을 수 있게 하라;진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합리적 자아_만족, 즉 오랫동안 향상돼 온 생물학적 투쟁의 결실{結實}을 탐구하게 하라. 사람은 오늘날의 즐거움과 쾌락의 일부를 잘 획득했다. 그러나 너희는 운명의 목표를 잘 고려해 보라! 자아를_유지하는 토대가 돼온 재산을 쾌락이 파괴시키기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자살이며;자아_만족이, 결혼의 파탄, 가정생활의 타락, 가정의 파괴를 초래한다면, 정말로 치명적인 대가{代價}를 치른 것이다--가정은 인간이 진화로 획득한 최고의 성취이며, 문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84:8.7 (943.2) [유란시아에 파견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85편 숭배의 기원

85:0.1 (944.1) 도덕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적 영향을 제쳐놓으면, 원시 종교는, 생물학적 기원, 즉 자연스런 진화 발전으로 이룩됐다. 고등 동물에게는, 두려움은 있지만 환상{幻想}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다. 사람은 두려움에서, 그리고 환상이라는 수단으로, 원시 종교를 창시했다.

85:0.2 (944.2) 인간 종족들이 진화하면서, 원시적 표현으로 숭배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 현세와 내세에 대한 더 복잡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기 훨씬 전이며, 이것은 종교라고 불릴만하다. 초기의 종교는 본질에서 완전히 지적이었고, 오로지 관련되는 환경에 입각했다. 숭배의 대상은 모두 연상적{聯想的}인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바로 가까이에 있거나, 정신이 단순한 원시 유란시아인의 평범한 체험 속에서 크게 돋보이는, 자연계의 물체로 구성됐다.

85:0.3 (944.3) 종교는, 일단 자연 숭배 수준을 넘어서 진화한 후에 영적 기원의 뿌리를 획득했지만, 그럼에도 항상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 숭배가 발달하자, 사람의

개념은, 죽음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분업{分業}을 상상하게 됐으며;호수, 나무, 폭포, 비, 그리고 수백 가지의 땅에 있는 다른 평범한 현상을 대표하는 자연의 영들이 있었다.

85:0.4 (944.4) 필사적 사람은 한때, 자신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숭배했다. 또한 하늘 위에 그리고 땅 표면 밑에 있을 것으로 상상되는 모든 것도 숭배했다. 원시인은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으며;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자연 현상을 숭배했다. 폭풍,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불, 열, 추위 등과 같은 강력한 자연의 힘을 목격하자, 사람의 확장되는 정신은 엄청나게 감동받았다.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의 신비한 처방"이라고 여전히 일컫는다.

1. 돌 숭배와 언덕 숭배

85:1.1 (944.5) 진화하는 인간의 최초 숭배 대상은 돌이었다. 오늘날 남부 인도에 사는 카테리 민족은 북부 인도에 있는 여러 부족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돌을 숭배한다. 야곱이 돌을 베고 잔 것은, 그가 돌을 공경했기 때문이며;심지어

그 돌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라헬은 신성시되는 여러 개의 돌을 자기 천막 안에 숨겼다.

85:1.2 (944.6) 돌은 처음에 초기의 사람에게 특이한 것으로 인상을 심어줬는데, 그것이 경작된 땅 또는 목초지 표면에 갑자기 드러나는 특성 때문이었다. 사람은 그것이 땅을 갈아엎은 결과 또는 침식 작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돌이 종종 동물을 닮았기 때문에 초기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문명화된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동물 또는 심지어 사람의 얼굴을 무척 닮은, 산에 있는 수많은 돌 형태였다. 그러나 가장 심한 영향을 준 것은 운석{隕石}이었고, 원시인은 이 운석들이 화려하게 타오르면서 대기를 뚫고 돌진하는 것을 목격했다. 유성{流星}은 초기의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었고, 그런 타오르는 광선이 그 방향을 따라서 어떤 영을 지구에 운반한 흔적이라고 쉽게 믿었다. 사람이 그런 현상을 숭배하게 됨은 당연했는데, 나중에 운석을 발견했을 때 특히 그랬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다른 돌에 대한 경외심을 더 확대시켰다. 벵갈에서는 많은 사람이 서기 1880년에 땅에 떨어진 운석을 숭배한다.

85:1.3 (945.1) 고대의 모든 씨족과 부족은 신성시하는 돌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현대 민족도 특정한 유형의 돌을--곤 보석을-- 상당히 공경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다섯 개의 돌 한 묶음을;그리스에서는 30개로 된 다발을 숭배했으며;홍색인 가운데서는 대개 돌들로 만든 원{圓}이었다. 로마인은 주피터에게 소원을 빌 때 항상 돌을 공중에 던졌다.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돌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돌이 법적 힘을 갖는 부적으로 이용됐고, 그 권위로 범죄자를 법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순박한 필사자들이, 경건한 예식의 대상물을 통해서 신격을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맹목적 숭배물은 흔히 진정한 숭배 대상의 상징일 뿐이다.

85:1.4 (945.2) 고대인은 돌에 있는 구멍에 색다른 관심을 가졌다. 구멍이 많은 그런 돌은 대개 병 고치는 효험을 지녔다고 여겼다.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지는 않았지만, 손잡이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돌을 넣어 뒀다. 현대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동전에 구멍을 낸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은 숭배하는 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진보가 늦은 모든 부족과 민족 가운데서, 돌은 아직도 미신처럼 공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돌 숭배는 지금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묘비{墓碑}는 죽은 동료의 영 및 유령을 믿는 것과 관련해, 돌에 새겨진 형상과 우상의 잔존 상징이다.

85:1.5 (945.3) 언덕 숭배가 돌 숭배 후에 발생했고, 공경 대상이 된 최초의 언덕은 큰 돌로 형성된 것이었다. 신{神}들이 산에 거주한다는 믿음이 이윽고 관습으로 변했고, 그리하여 높이 솟은 땅은 이런 추가적 이유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산은 특정한 신과 관련됐고, 그리하여 거룩하게 여겨졌다. 무지하고 미신적인 원주민은, 동굴이 악한 영과 귀신들이 있는 지하 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산은, 나중에 진화하는 선한 영 및 신격들의 개념과 동일시됐다.

2. 식물 및 나무 숭배

85:2.1 (945.4) 식물은,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나중에는 취하게 하는 액체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숭배 대상이 됐다. 원시 시대의 인간은, 취하게 하는 물질이 사람을 신성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런 체험에는 진귀하고 신성시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심지어 현대에도 술을 “영들”이라고 일컫는다.

85:2.2 (945.5) 옛 사람은 싹이 나는 곡식을 불안감과 미신 같은 경외감으로 바라봤다. 싹트는 곡식에서 심오한 영적 교훈을 도출해 내고, 그 위에 종교적 신념의 근거를 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니었다.

85:2.3 (945.6) 나무를 숭배하는 종파{宗派}는 가장 오래된 종교 집단에 속한다. 모든 초기 결혼식은 나무 아래서 이뤄졌고,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을 때, 튼튼한 떡갈나무를 다정하게 껴안고 숲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여러 식물과 나무는, 치유 효과를 지녔거나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경 대상이 됐다. 미개인은 모든 화학 작용이 초자연적 힘의 직접 활동 때문이라고 믿었다.

85:2.4 (945.7) 나무 영들에 관한 관념은 부족과 종족마다 크게 달랐다. 어떤 나무에는 인정 많은 영이 살고;다른 나무에는 현혹하는 사악한 영이 숨어있다고 믿었다. 핀란드인은 친절 한 영들이 대부분의 나무에 들어있다고 믿었다. 스위스인은 오랫동안 나무를 불신했는데, 교활한 영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인도와 동부 러시아 주민은 나무의 영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파타고니아 주민은, 초기 샘족속처럼, 여전히 나무를 숭배한다. 히브리인은, 나무

숭배를 멈춘 지 오랜 세월 후에, 작은 숲에서 다양한 신격을 계속 공경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생명나무*에 대한 보편적 종파가 한때 있었다.

85:2.5 (946.1) 점치는 나무 막대기로 땅 밑에 있는 물 또는 귀중한 금속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종파의 잔재다. 5월 축제의 기둥,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를 두드리는 미신적 풍습이, 나무를 숭배하는 고대 관습과 훗날의 나무 종파에 있었던 어떤 것을 영속시키고 있다.

85:2.6 (946.2) 초기 형태의 이 자연 숭배 가운데 다수는 후대의 진화하는 숭배 기법과 혼합됐지만, 새롭게 깨어나는 인류의 종교 본성이 영적 영향의 충동에 완전히 반응하게 되기 훨씬 전에, 보조_정신이_활성화시킨 가장 초기 유형의 숭배가 작용하고 있었다.

3. 동물 숭배

85:3.1 (946.3) 원시인은 고등 동물에 대해서 특이하고 다정한 느낌을 가졌다. 그의 조상은 그것들과 함께 살았고, 심지어 그것들과 교미{交尾} 관계를 갖기도 했다. 남부 아시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의 혼이 동물 형태가 돼서

땅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런 신념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동물숭배 풍습의 잔존물이다.

85:3.2 (946.4) 초기의 사람들은 동물의 힘과 민첩함 때문에 그것들을 숭배했다. 그들은, 특정한 생물이 예민하게 냄새 맡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영{靈}의 안내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물들은 모두 이런 저런 종족에게 때때로 숭배 받았다. 그런 숭배 대상물 중에는, 반인반마{半人半馬} 또는 인어{人魚}처럼,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존재로 생각되는 피조물이 있었다.

85:3.3 (946.5) 히브리인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뱀을 숭배했고, 힌두인은 아직도 자기 집에 있는 뱀을 잘 대우하고 있다. 중국인의 용 숭배는 뱀 숭배의 잔재다. 뱀의 지혜는 그리스 의술의 상징이었고, 현대 의사들이 여전히 표상{表象}으로 사용하고 있다. 뱀을 길들이는 기술은, 일상적으로 뱀에 물려서 면역성을 갖게 되어 사실적으로 독액{毒液}에 완전히 중독되고, 이 독극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뱀을 모시는 종파*의 여자 무당 시대부터 전해 내려왔다.

85:3.4 (946.6) 곤충 및 다른 동물 숭배는 나중에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모든 생물체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조장됐다. 고대인은 새의 날개가 모든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때 믿었으므로, 날개 달린 모든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숭배했다. 초기 노르딕 족속은, 늑대가 해나 달의 일부를 먹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힌두인은 말의 머리를 가진 비쉬누를 종종 보여준다. 동물 형상이, 잊혀진 신{神} 또는 사라진 종파를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기 진화 종교에서, 양은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전형이 됐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됐다.

85:3.5 (946.7) 종교에서 상징주의는, 그 상징이 신앙심 깊은 원래의 개념을 바꾸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주의는 노골적인 우상숭배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우상숭배는 물질 대상을 직접, 실제로 숭배한다.

4. 자연의 힘 숭배

85:4.1 (946.8) 인류는, 땅, 공기, 물, 및 불을 숭배했다. 원시 종족들은 우물을 공경했고 강을 숭배했다. 지금도

몽고에서는 영향력 있는 강 숭배 종파가 번창하고 있다. 바벨론에서는 세레가 종교 예식절차가 됐고, 그리스인은 해마다 제례적 목욕을 시행했다. 거품이 일어나는 우물, 용솟음치는 분수, 흐르는 강, 그리고 맹렬한 급류 속에 영{靈}들이 산다고, 고대인이 상상한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움직이는 물은, 이 단순한 정신의 사람을, 영 활동력과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생생하게 감동시켰다. 어떤 강의 신{神}을 거역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85:4.2 (947.1) 많은 사물과 다양한 사건이, 여러 시대마다 서로 다른 민족에게 종교적 자극제로 작용했다. 무지개는 인도 고지대에 사는 많은 부족에게 여전히 숭배 대상이 되고 있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를 거대한 천상의 뱀으로 여기며;히브리인과 그리스도교인은 “약속의 활”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상의 한 지역에서 유익하다고 간주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동풍을 신{神}으로 여기지만;인도에서는 그것이 먼지와 가뭄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귀로 여긴다. 고대의 베도원 족속은 자연의 영이 모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믿었으며, 심지어 모세 시대에도 자연의 영들을 믿는 믿음이 충분히 강해서, 그것들이 히브리 신학에서, 불, 물, 및 공기의 천사로 영구히 존속되도록 보장했다.

85:4.3 (947.2) 수많은 원시 부족과 초기의 많은 자연 숭배 종파가, 구름, 비, 및 우박을 모두 두려워하고 숭배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는 초기 인간에게 겁을 줬다. 그들은 이런 소란스런 자연 현상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천둥을 화난 신의 목소리로 간주했다. 불 숭배와 번개에 대한 두려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초기의 많은 집단 가운데서 널리 퍼졌다.

85:4.4 (947.3) 불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원시 필사 정신 속에서 마술과 혼합됐다. 마술 신봉자는, 마술 방식을 실행하다가 우연히 생긴 긍정적 결과 하나를 생생히 기억하는 반면, 철저하게 실패한 수많은 부정적 결과는 태연히 잊으려 한다. 불 숭상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조에 달했고 오래 지속됐다. 어떤 부족은 불을 신격 자체로 숭배했으며;또 어떤 부족들은 그들이 공경하는 신격들의, 정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영의 타오르는 상징으로 불을 숭배했다. 베스타를 섬기는 처녀에게는, 신성시되는 불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고, 20세기에도 많은 종교 예배의 제례 일부분으로 촛불이 여전히 사용된다.

5. 천체 숭배

85:5.1 (947.4) 바위, 언덕, 나무, 및 동물의 숭배는 자연적으로 발달해서, 자연의 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단계를 거치고, 태양, 달, 및 별을 신격화 시킬 정도까지 됐다. 인도 및 기타 지역에서도, 별은 육신의 삶에서 떠난 위대한 사람의 영화롭게 된 혼이라고 여겼다. 별을 숭배하는 갈대아인은, 자신을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의 후손으로 여겼다.

85:5.2 (947.5) 달 숭배가 태양 숭배보다 먼저 있었다. 달 숭앙은 사냥 시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한편 태양 숭배는 그 후에 이뤄진 농경 시대의 주요 종교 예식이 됐다. 태양 숭배는, 처음에는 인도에서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거기서 가장 오래 지속됐다.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가 나중에 미드라 숭배 종파로 발전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는 태양을 왕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다. 갈대아인은 “우주의 일곱 궤도” 중심에 태양을 위치시켰다. 후대의 문명인들은, 한 주의 첫 날을 그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태양을 공경했다.

85:5.3 (947.6) 태양 신{神}은, 처녀로부터 탄생되는 운명의 아들들의 신비한 아버지라고 생각됐고, 이 아들들은 때때로 호감을 산 종족에게 구원자로서 증여된다고 생각됐다. 이런 초자연적 아기는 항상 색다른 방법으로 구출되도록 어떤 신성시되는 강물 위로 떠내려 오며, 구출된 후에는 자라나서 그 민족에게 기적의 인물과 구원자가 되곤 했다.

6. 사람 숭배

85:6.1 (948.1) 땅 위에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다른 것을 숭배해 왔으므로, 사람은 자신을 찬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정신이 단순한 미개인은, 짐승, 인간, 및 신{神}들 사이를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85:6.2 (948.2) 초기의 사람은 모든 비범한 사람을 초인간으로 간주했고, 그런 존재를 너무 두려워해서 경외심으로 신봉했으며;어느 정도는 문자 그대로 그들을 숭배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조차 매우 운 좋거나, 매우 운 나쁜 것으로 간주됐다. 미치광이, 간질 병자, 및 정신박약자가, 정상_정신을 가진 동료들의 숭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비정상 존재 속에 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사제, 왕, 및 선지자가 숭배 받았으며;나이 많은
거룩한 사람은 신격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고 여겼다.

85:6.3 (948.3) 부족장이 죽으면 *신격화 됐다*. 나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죽으면 *성인{聖人}*으로 여겼다. 오직
진화만으로는, 영화롭게 되고 높아지고 발전된 죽은
인간의 영보다 더 높은 신들을 만들어낸 적이 전혀 없었다.
초기 진화 단계서는 종교가 자체의 신들을 만든다.
계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들께서 종교를 공식화하신다.
진화 종교는, 필사적 사람과 비슷하게 그 형상에 따라서 그
신들을 만들지만;계시 종교는, 필사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 한다.

85:6.4 (948.4) 인간에서 기원된다고 가정되는 유령 신은, 자연
신과는 구별돼야만 하는데, 자연 숭배가
만신전{萬神殿}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자연 영들을
신들의 위치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자연 숭배 종파는,
나중에 나타난 유령 숭배 종파를 따라서 계속 발전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종교 체계가, 신격의 이중
개념, 즉 자연 신과 유령 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번개의

주인이면서 유령의 영웅이기도 한 토르가 설명하듯이, 어떤 신학{神學}에는 이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얹혀있다.

85:6.5 (948.5)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현세{現世}의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그런 공경을 명령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로, 자기들이 신격으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주장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7.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

85:7.1 (948.6) 자연 숭배는, 원시 남녀의 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며, 또 그것이 사실이었지만;이 시기에 바로 그 원시 정신 속에는 여섯째 보조 영이 항상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 영은 인간의 진화 단계를 안내하는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미 증여돼 왔다. 그리고 이 영은, 경배를 갈망하는 첫 징후가 아무리 원시적일지라도, 인간 종족들의 경배 충동을 변함없이 자극시키고 있었다. 동물적 두려움이 경건함을 표현하도록 자극했고, 그 초기 풍습이 자연의 대상물에 집중됐음에도, 경배의 영은, 경배 드리고 싶은 인간의 충동을 명확하게 탄생시켰다.

85:7.2 (948.7) 사고{思考}가 아니라 감정이, 모든 진화 발전에서 안내하고 통제 한 영향력이었음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원시 정신 속에서는, 두려움, 회피, 존경, 및 숭배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85:7.3 (948.8) 경배하고 싶은 충동은 --묵상하고 체험을 숙고하는-- 지혜의 충고와 지도를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종교 현상으로 비로소 발전한다. 일곱째 보조 영, 즉 지혜의 영이 효과적으로 봉사할 때, 경배 과정에서 사람은, 자연과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자연의 하나님께로, 자연스런 만유의 영원한 창조주께로 비로소 고개를 돌린다.

85:7.4 (949.1)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

제86편 종교의 초기 진화

86:0.1 (950.1) 예전의 원시적 경배 충동으로 말미암은 종교의 진화는,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보편적 영 증여에 속하는 여섯째와 일곱째 정신_보조체의 지배적 영향 하에서 인간 정신이 정상으로 작용하면, 그런 발전을 보장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다.

86:0.2 (950.2) 자연이 인간의 의식{意識} 속에서 인격화되고, 초자연적 존재로 취급되고, 결국 신격화됨에 따라서, 종교가 생기기 전에 사람이 처음 가졌던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종교적 성향을 띄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유형의 종교는, 그런 정신이 일단 초자연 개념을 생각한 후에, 진화하는 동물 정신의 심리적 타성{惰性}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생물학적 결과였다.

1. 우연:행운과 불운

86:1.1 (950.3) 자연스런 경배 충동을 제외한다면, 초기 진화 종교는 인간이 우연을--곧 소위 운수{運數}, 보통 일어나는 일을-- 체험한 데서 기원됐다. 원시인은 음식을 찾아다녔다. 그런 탐색 결과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행운**과 **불운**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했다. 생존과 죽음의 불확실하고 초조한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살아야만 하는 남녀의 생애에서, 재수가 없는 것은 중대한 요소였다.

86:1.2 (950.4) 미개인의 제한된 지적 시야가 너무나 우연에 관심을 집중했으므로, 운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정한 요소가 됐다. 원시 유란시아인은, 생활수준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위해서 투쟁했으며;우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한 생애를 살았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변함없는 두려움이, 모든 쾌락을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절망적 구름을 이 미개인 머리 위에 드리웠으며;그들은 불운을 가져올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변함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미개인은, 행운이 연속되는 것을 항상 무서워했으며;그런 행운은 재난의 어떤 전조라고 생각했다.

86:1.3 (950.5) 항상_나타나는 이 불운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는-- 행운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불운을 자초하겠는가? 생각 없는 사람들은 행운을 쉽게 잊지만--곧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운은 애써 기억한다.

86:1.4 (950.6) 초기의 사람은 불확실성과 --불운한-- 우연에 대한 부단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인생은 우연이라는 일종의 흥미진진한 경기였으며;실존은 도박이었다. 부분적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연을 믿고 도박에 미련을 두는 경향은 이상하지 않다. 원시인은 두 개의 잠재적 관심 즉: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으려는 욕망과, 무엇인가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됨에 대한 염려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이 도박은, 초기의 미개한 정신에게 주요 관심사였고 최고의 매력이었다.

86:1.5 (951.1) 목축하는 후대 사람들도, 우연과 운수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졌으며,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더 후대 사람들은, 사람이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인해 농작물이 직접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됐다. 농부는 가뭄, 홍수, 우박, 폭풍우, 해충, 및 식물의 질병뿐 아니라, 더위와 추위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영향이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자, 그들은 그것을 행운 또는 불운으로 간주했다.

86:1.6 (951.2) 이런 우연과 운수 관념이, 모든 고대 사람의 사고{思考}에 강력하게 침투했다. 심지어 후대에 쓰인 솔로몬의 지혜서에도:“내가 돌이켜 보니, 빠르다고

달리기에 이기지 않고, 강하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으며, 총명하다고 부자가 되지 않고, 숨씨 있다고 잘되지도 않으며;숙명과 우연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자기 숙명을 알지 못하며;물고기가 악한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의 아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

2. 우연의 의인화

86:2.1 (951.3) 불안은 미개한 정신의 자연스런 상태다. 남녀가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먼 조상의 자연 생활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을 뿐이며;불안이 실제로 고통스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활동을 억제하고 반드시 진화적 변화와 생물학적 적응을 시작한다. 고통과 고난은 점진적 진화에 필수다.

86:2.2 (951.4) 어떤 부족은, 살기 위한 투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소리 지르며 비탄에 잠기기까지 한다. 원시인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계속 질문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한 물질 근원을 찾지 못했으므로, 영적 해결책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종교는,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발생됐다. 그래서 자연을 두려워함은, 처음에 우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신비로움 때문에, 살기위한 투쟁에서 한 요소가 됐다.

86:2.3 (951.5) 원시 정신은, 논리적이기는 했지만 영리하게 관련시키는 관념은 거의 없었으며;미개한 정신은 무지했고 전적으로 순박했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 다음에 일어나면, 미개인은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간주했다. 문명인이 미신으로 간주하는 것이, 미개인 세상에서는 그저 단순한 무지에 불과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반드시 성립될 필요가 없음을 인류가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인간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이에서 실존의 여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미개인은 감지할 수 없고 추상적인 모든 것을 인격화시키려고 애쓰며, 그리하여 자연과 우연 양쪽이 유령으로, 나중에는 신들로 인격화됐다.

86:2.4 (951.6)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즉 당장 또는 훗날의 유익과 관계되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으며;사리사욕은 대체로 논리를 흐리게 만든다. 미개인과 문명인의 정신에서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 내용적인 것, 즉 질보다는 정도의 차이이다.

86:2.5 (951.7)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계속 초자연적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두뇌를 쓰는 모든 형태의 힘든 일을 회피하려는, 게으르고 편리한 방법이나 다름없다. 운수라는 말은, 인간이 실존한 모든 시대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에 불과하며;인간이 통찰할 수 없는, 또는 통찰하기 싫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우연은, 사람이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나태해서 원인을 측정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은, 호기심과 상상력이 부족할 때, 즉 인종에게 독창력과 모험심이 부족할 때에만 자연 현상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간주한다. 생명 현상을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우연과 운수 그리고 소위 돌발사고에 대한 사람의 믿음은 조만간 무너질 것이며, 그 대신, 분명한 원인이 모든 결과에

앞서는, 법과 질서가 있는 우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하여 실존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가는 기쁨으로 바뀐다.

86:2.6 (952.1) 미개인은, 모든 자연이 살아있다고, 즉 무언가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문명화된 사람도 여전히,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생명 없는 물건을 발로 차면서 저주한다. 원시인은 결코 무엇이든지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었다. 원시인에게 숙명의 영역, 운수의 역할, 영 세계는, 원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직되지 않은 채로 아무렇게나 있었다. 운수는 영 세계가 번덕스럽게 기분대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봤으며; 나중에는 신{神}들의 익살스러움이라고 봤다.

86:2.7 (952.2) 그러나 모든 종교가 정령숭배로부터 발전하지는 않았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 정령숭배와 동시에 존재했고, 이 믿음들 역시 경배로 이끌었다. 자연주의는 종교가 아니다--종교의 산물이다.

3. 죽음--설명할 수 없음

86:3.1 (952.3)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충격이었고, 우연과 신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힌 것이었다.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라 죽음의 충격이 두려움을 불어넣었고, 그리하여 효과적으로 종교를 육성했다. 죽음은 미개한 사람들 가운데서 대개 폭력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폭력이 아닌 원인으로 죽는 것을 점점 더 신비하게 여겼다. 자연스럽고 예상되는 인생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원시 민족의 의식{意識}에 명료하지 않았고, 그 필연성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됐다.

86:3.2 (952.4) 초기의 사람은 생명을 사실로 받아들인 반면, 죽음은 어떤 부류의 존재가 찾아온 것으로 간주했다. 모든 종족은 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초기 입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통이다. 인간 정신에는, 막연하고 조직되지 않은 영 세계에 대한 불투명한 개념이 이미 존재했는데,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이 세계로부터 나왔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여러 현상의 목록에 죽음이 첨가됐다.

86:3.3 (952.5) 인간의 모든 질병과 자연사{自然死}는, 처음에는 영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인종들은 “원수”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종교 예식에 의존해서 이를 치유하려고 한다. 후대의 더 복잡한

신학{神學} 체계도 여전히 죽음을 영 세계의 작용 탓으로 돌렸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원죄{原罪}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교리가 생겨나게 됐다.

86:3.4 (952.6) 질병과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능력을 깨닫는 것은, 미개인으로 하여금 초물질 세계로부터 도움 받으려고 애쓰도록 강요했으며, 그는 이 초물질 세계가 인생에서 불가해한 변천의 근원이라고 어렴풋이 상상했다.

4. 죽음과_생존의 개념

86:4.1 (952.7) 필사자 인격체의 초물질 국면에 대한 개념은 무의식에서 생겨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것과, 유령에 대한 꿈이, 순전히 우연하게 관련됨으로써 생겨났다. 죽은 부족장{部族長}에 대한 꿈을 여러 부족원이 동시에 꾸게 된 것은, 옛 부족장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됐다. 땀을 흘리고, 떨면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꿈에서 깨어난 미개인에게, 그것은 모두 너무나 생생했다.

86:4.2 (953.1) 미래에 실존한다는 믿음이 꿈에서 기원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상상하려는 경향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꿈_유령_미래_생애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이, 이윽고 자아를_보존하는 생물학적 본능과 관련해서, 죽음의 공포를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시작했다.

86:4.3 (953.2) 또한 초기의 사람은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추운 지방에서 더 그랬는데, 거기서는 숨을 내쉴 때 입김이 보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호흡*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유일한 현상으로 간주됐다. 그는 호흡이 육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잠자는 동안 모든 종류의 괴상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비물질적인 무엇이 있다고 확신했다. 인간의 혼, 즉 유령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관념은, 호흡과_꿈 개념의_체계로부터 생겨났다.

86:4.4 (953.3) 미개인은 결국 자신이 --육체와 호흡의-- 이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육체를 제외한 호흡이, 영{靈}, 즉 유령과 같았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한 개념을 가진 반면, 유령 또는 영은 초인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이 실존한다는 이런 믿음이, 보기 드문, 괴상한, 드물게 일어나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86:4.5 (953.4) 죽음 이후의 생존에 대한 원시 교리가 반드시 불멸{不滅}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20개를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무한과 영원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환생{還生}을 생각했다.

86:4.6 (953.5) 주황인종은 특히 윤회{輪廻}와 환생을 믿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환생 관념은 유전적 현상과 자손의 특징이 조상을 닮는 것을 관찰한 것에서 기원됐다. 조부모{祖父母} 및 다른 조상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을 믿기 때문이었다. 후대의 어떤 종족은 사람이 세 번 내지 일곱 번 죽는다고 믿었다. (맨션 세계에 관한 아담의 교훈의 잔재인) 이런 믿음과,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유물이, 20세기 야만인의, 다른 면에서 불합리한 교리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다.

86:4.7 (953.6) 초기의 사람에게는, 지옥 또는 장래의 형벌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미개인은, 저 세상의 삶을, 모든 불운을 제외한 이 세상 삶과 똑같이 생각했다. 나중에는 선한

유령과 나쁜 유령의 운명이--곧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원시 인종은, 사람이 이 인생을 떠난 그대로 다음 인생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늙고 쇠약해지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했다. 늙은 사람은 너무 쇠약해지기 전에 죽음 당하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

86:4.8 (953.7) 거의 모든 집단마다, 유령이 된 혼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가졌다. 그리스인은, 약한 사람의 혼은 반드시 허약하다고 믿었으며;그래서 그들은 그런 무기력한 혼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데스를 창안했으며;튼튼치 못한 이 사람들은 그 망령도 작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초기 안드족속은 자기 유령이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중국인과 이집트인은 혼과 육체가 함께 머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인 가운데서는, 이것 때문에 주의 깊게 무덤을 건축하게 됐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됐다. 심지어 현대인도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려고 애쓴다. 히브리인은 각 개인의 복제{複製}된 허깨비가 스올로 내려간다고,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혼의 진화라는 교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룩했다.

5. 유령_혼 개념

86:5.1 (953.8) 사람의 비물질 부분은, 유령, 영, 망령{亡靈}, 허깨비, 요괴, 그리고 최근에는 혼이라는 이름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혼은 초기 사람의 꿈 대역{代役}이었으며;접촉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필사자 자신과 똑같았다. 꿈 대역에 대한 믿음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사람처럼 혼이 있다는 개념을 직접 유도해 냈다. 이런 개념은, 자연이_영을_가졌다는 믿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에스키모인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영을 가졌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86:5.2 (954.1) 유령이 된 혼을 볼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종족의 꿈꾸는 생활이 점차 더 개발됐고, 이런 진화하는 영 세계의 활동이 확장됐으므로, 마침내 죽음을 "유령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됐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는 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시 부족은, 어떤 혼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문명이 진보되면서, 미신 같은 이런 혼 개념은 무너지고, 혼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 정신과 거기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즉 사교 조율사가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새로운 혼 관념을

얻으려고, 사람은 계시와 개인의 종교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86:5.3 (954.2) 초기 필사자들은 내주하는 영 개념과, 진화 본성을 가진 혼 개념을 대개 구분하지 못했다. 미개인은, 유령이 된 혼이 원래 몸속에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감싸는 외부 매개체인지에 대해서 매우 혼돈을 일으켰다. 혼란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理性的}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혼, 유령, 및 영에 대한 미개한 관점이 왜 총체적으로 모순되는지를 설명한다.

86:5.4 (954.3) 향기가 꽃에서 나오는 것처럼, 혼이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옛 사람은 혼이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몸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86:5.5 (954.4) 1. 혼하게 잠시 기절하는 경우.
- 86:5.6 (954.5) 2. 잠자면서, 자연스럽게 꿈꾸는 경우.
- 86:5.7 (954.6) 3.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해서, 혼수상태 또는 무의식 상태에 빠진 경우.
- 86:5.8 (954.7) 4. 죽어서 영원히 떠나는 경우.

86:5.9 (954.8)

미개인은, 재채기를 혼이 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다. 깨어서 지킴으로써, 혼이 도망치려는 것을 몸이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는, 재채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이라는 말과 같은, 어떤 종교적 표현이 언제나 따라왔다.

86:5.10 (954.9)

초기 진화에서, 잠자는 것은 유령이 된 혼이 육체에서 떠날 수 있음을 증거 하는 것으로 간주됐고, 잠자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소리침으로써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형태의 무의식 속에 있을 때 혼이 더 멀리 떠난 것으로, 즉 아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으로--죽음이 임박한 것으로--생각됐다. 꿈은, 잠자는 동안 혼이 일시적으로 육체를 떠나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개인은, 깨서 겪는 체험의 일부분과 마찬가지로, 꿈도 똑같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옛 사람은 혼이 몸속으로 돌아올 시간을 갖도록, 잠자는 사람을 급히 깨우지 않는 풍습을 제정했다.

86:5.11 (954.10)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사람들은 밤에 나타나는 허깨비를 두려워했으며, 히브리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관념을 반대하는 모세의 명령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모세가 옳았는데, 영적인 세계의 인격체가 물질 존재와 대화할 방법을 모색할 때, 일상적인 꿈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86:5.12 (954.11) 옛 사람은, 혼이 동물이나 무생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동물과 동일시하는, 인간이 늑대가 된다는 관념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지만, 잠들면 그의 혼이 늑대 또는 다른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야밤의 약탈 행위를 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며 다닐 수 있다고 믿었다.

86:5.13 (955.1) 원시인은 혼이 호흡과 관련된다고 생각했으며, 혼의 특성이 호흡으로 전해지거나 양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맹스런 우두머리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숨을 크게 내쉬어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 가운데서는, 거룩한 영을 증여하는 예식 중에 후보자에게 입김을 뿜었다. 시편 기자는:“주의 말씀이 하늘들을 만들었고, 그 속에 있는 온 무리는, 그의 입이 생기를 불어넣어 지어졌다”고 기록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맡아들이 들이마시려고 애쓰는 행위가 오랫동안 관습이었다.

86:5.14 (955.2) 나중에는 그림자를 두려워했고, 호흡과 마찬가지로 숭배 대상이 됐다. 물에 비친 모습도 때로는 이중{二重} 자아의 증거로 간주됐으며, 거울을 미신적 두려움으로 응시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문명인이, 사람이 죽으면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여전히, 사진, 초상화, 모형, 또는 형상이 그 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제거시킨다고 믿으며;따라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킨다.

86:5.15 (955.3) 혼은 호흡과 일치된다고 대개 생각됐지만, 또한 여러 부류의 민족은,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질에 혼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피 속에 유령이 현존한다는 한때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셈족속은 혼이 몸의 지방질 속에 거주한다고 가르쳤으며, 동물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금기였다. 가죽 벗기기과 마찬가지로, 머리 잘라오기가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눈이 혼의 창문이라고 간주됐다.

86:5.16 (955.4) 혼이 세 개 내지 네 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혼을 하나 잃는 것은 불안감을, 두 개 잃는 것은 질병을, 세 개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혼이, 하나는 호흡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머리카락에, 또 하나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다. 환자는 자신의 방황하는 혼을 다시 찾겠다는 희망으로 야외를 방황하도록 충고 받았다. 가장 훌륭한 주술사는, 환자의 아픈 혼을 새로운 것으로, 즉 "새로운 탄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됐다.

86:5.17 (955.5) 바도난의 자손은, 두 개의 혼, 즉 호흡과 그림자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켰다. 초기 늦죽속 부족들은, 인간이 두 인격자, 즉 혼과 몸으로 구성된다고 봤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런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 관점에 반영됐다. 그리스인 자신은 세 개의 혼을 믿었는데;성장하는 혼은 배에, 동물적인 혼은 심장에, 지적인 혼은 머리에 있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인간이 세 부분, 즉:몸, 혼, 및 이름으로 돼 있다고 믿었다.

6. 유령_영 환경

86:6.1 (955.6) 사람은 자연 환경을 물려받았고, 사회 환경을 획득했으며, 유령이 둘러싼 환경을 상상했다. 국가는

사람이 자연 환경에 반응한 것이고, 가정은 사회 환경에 반응한 것이며, 교회는 유령이 둘러싸고 있다는 환상에 반응한 것이다.

86:6.2 (955.7) 인류 역사상 아주 초기에는, 유령과 영에 대한 가상의 세계가 실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믿게 됐으며, 새롭게 상상한 이런 영 세계가 원시 공동체에서 어떤 권능을 갖게 됐다. 온 인류의 정신 및 도덕 생활은, 인간의 사고{思考}와 행동에서 이런 새로운 요소가 출현함으로 영구히 변경됐다.

86:6.3 (955.8) 필사자의 두려움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원시 민족들의 모든 미신과 종교는, 환상{幻想}과 무지라는 이런 주요 전제조건 속에 압축됐다. 이것은 계시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의 유일한 종교였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인종 가운데 다수가 이런 미숙한 진화 종교만 신봉하고 있다.

86:6.4 (955.9) 진화가 진행되면서, 행운은 선한 영과 연결되고, 불운은 악한 영과 관련됐다. 변화하는 환경에 강제로 적응하는 불편함이 불운으로, 즉 영 유령들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됐다. 원시인은, 타고난 경배 충동과 운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종교를 서서히 진화시켰다. 문명화된 사람은, 이런 우연한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책략을 제공하고 있으며;현대 과학은, 허구적인 영과 번덕스런 신들 대신 수학으로 계산하도록, 보험 회계사에게 맡긴다.

86:6.5 (956.1) 지나가는 각 세대는, 조상의 어리석은 미신을 비웃었으며, 한편 개화{開化}된 후손 가운데 일부를 더욱 비웃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그런 그릇된 사고와 숭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

86:6.6 (956.2) 그러나 원시인의 정신은 마침내, 타고난 모든 생물학적 충동을 초월하는 사상에 사로잡혔으며;사람은 마침내, 물질적 충동에 대한 반응보다 나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삶의 기술을 발전시키게 됐다. 원시적인 철학적 생활 방침의 시초{始初}가 나타났다. 초자연적인 생활 기준이 나타나게 됐는데, 영적인 유령이 화나면 불운을 가져오고, 유쾌하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인간의 행위가 그에 따라서 조절돼야만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진화했으며;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계시 시대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뤄졌다.

86:6.7 (956.3) 이런 개념이 출현하자, 항상 화내는 영을 달래기 위한 오랫동안의 낭비적 투쟁, 진화 종교의 두려움에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 그리고 무덤, 신전, 제물, 및 사제계층에게 인간의 노력을 바치는, 오래 계속된 낭비가 시작됐다. 그것은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대가{代價}였지만, 그 만큼 가치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은 비교적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됐고;인간의 윤리가 탄생됐기 때문이다!

7. 원시 종교의 기능

86:7.1 (956.4) 미개인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운에 대처하는 마법 같은 보험수단으로, 두려움, 미신, 공포, 사제{司祭} 기증품 등의 힘든 사례금을 기꺼이 지불했다. 원시 종교는, 단순히 사냥터가 재난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보험료 지불금이었으며;문명화된 사람은, 산업의 재해와 현대적 방식의 삶에서 급박한 사정에 대비하는 물질적 대가를 지불한다.

86:7.2 (956.5) 현대 사회는 사제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보험 업무를 뺏아서, 경제 영역에 맡기고 있다. 종교는 점점 더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대비책에 관여하고 있다. 현대인은,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은, 행운을 통제하기 위해서 낭비적인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불운에 대비하는 보험이라는 책략으로서 종교가 작용하던 예전의 기능과는 다르게, 종교는 더 높은 철학 수준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86:7.3 (956.6) 그러나 이 고대 종교 관념은, 사람이 숙명론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절망적 비관 상태에 빠지지 않게 예방했으며; 그들은 적어도 운명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종교는, 사람에게 *유령의 행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줬고, 인간의 운명을 조절하는 초물질 세계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86:7.4 (956.7) 현대의 문명화된 종족들은, 행운에 대한 해석과, 평범한 불평등의 실존에 대한 해석이 이뤄지면서, 유령에 대한 두려움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 인류는, 유령_영 때문에 불운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사슬에서 해방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변천이 영적 원인으로 이뤄진다는 잘못된 교리를 포기하는 한편,

인간의 모든 불평등을 잘못된 정치적 적응과 사회의 불공정 그리고 산업 사회의 경쟁 탓으로 돌리도록 명령하는, 거의 똑같은 정도로 그릇된 가르침을 놀라울 정도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 자선행위의 증가, 그리고 산업 재구성의 향상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출생한 사실과 삶에서 생기는 우연을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사실을 납득하고, 자연 법칙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조종하는 것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는 것을 이룩하고, 바라지 않는 것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과학적 행동으로 이끄는 과학 지식이, 소위 우연이라고 말하는 재난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다.

86:7.5 (957.1) 산업, 전쟁, 노예제도, 및 시민사회 정부는,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진화하는 데 반응해서 생겨났으며;그와 유사하게 종교도 허구적 유령 세계라는, 가공{架空}의 환경에 반응해서 생겨났다. 종교는 자아_유지가 진화로 발전한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잘못된 개념이고 철저히 논리가 없었음에도, 효과가 있었다.

86:7.6 (957.2) 원시 종교는, 그릇된 두려움의 강력하고 장엄한 힘을 이용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원된, 진정한 영적 세력인 사교 조율사의 증여를 위해서, 인간 정신의 토양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신성한 조율사는, 하나님을_두려워하는 태도를 하나님을_사랑 사랑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려고, 그 후로 항상 수고해 왔다. 진화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86:7.7 (957.3) [네바돈의 저녁별이 제시했음]

제87편 유령 종파

87:0.1 (958.1) 유령 종파{宗派}는 불운의 위험을 상쇄시키는 수단으로서 진화했으며;그 원시 종교 의식{儀式}은, 불운을 염려하고 죽은 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함으로 생긴 결과였다. 이런 초기 종교 가운데, 신격에 대한 인식 또는 초인{超人}에 대한 경의와 관계 깊은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그 제례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는데, 유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쫓아버리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유령 종파는 재난의 대비에 불과했으며;더 높은 장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와는 전혀 관계없었다.

87:0.2 (958.2) 사람은 유령 종파와 오랫동안 쓰라린 투쟁을 해왔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이 유령_영에 대한 두려움에 비굴하게 노예가 됐던 이 모습보다, 더 유감스럽게 되도록 예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 이 두려움의 탄생과 함께, 인류는 종교적으로 진화하는 오르막길에서 발을 내딛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자아라는 해안선에서 떠났고, 참된 신격, 즉 참된 하나님 개념에 도달할 때까지, 닳을 내릴 곳을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다.

1. 유령 공포감

87:1.1 (958.3) 죽음이란, 또 하나의 유령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다. 고대인은,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유령과 투쟁하게 되는 불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유령을 설득해서 죽음의 현장을 떠나게 하려고, 죽은 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하려고 항상 애썼다. 죽는 순간 유령이 밖으로 나온 때부터, 유령의 고향 나라, 즉 불분명하고 원시적인 개념의 가짜 하늘나라로 나중에 떠나는 때까지의, 과도기라고 상상하는 기간에, 유령을 가장 심하게 두려워했다.

87:1.2 (958.4) 미개인은 비록 유령에게 초자연적 힘이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초자연적 지성을 갖는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유령을 속이고 기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속임수와 술책이 이용됐으며;문명화된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심지어 전지{全知}한 신격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87:1.3 (958.5) 원시인은 질병을 두려워했는데, 질병이 죽음의 전조인 경우를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다. 부족 주술사가 고통 받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환자는 대개 가족이 기거하는 오두막으로부터 옮겨졌고, 격리된 채 죽을 수 있도록 더 작은 오두막이나 야외에 버려졌다. 죽음이 발생한 집은 대개 부숴버렸으며;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버려졌고, 초기의 사람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견고한 집을 짓지 못했다. 또한 그것은 영구적인 마을과 도시를 세우지 못하도록 작용했다.

87:1.4 (958.6) 미개인은 자기 씨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밤을 지새우며 앉아서 이야기했으며;시체 근처에서 잠들면 자신도 죽을까 두려워했다. 시체로부터 전염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화시켰고, 모든 민족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을 정화{淨化}시키도록 고안된, 복잡한 정결 예식을 한때 채택했었다. 고대인은 시체를 향해서 빛을 비춰줘야만 한다고 믿었으며;시체를 결코 어두운 곳에 방치해두려고 하지 않았다. 20세기에든, 시체 안치실에 여전히 촛불을 켜두며, 사람들이 시체를 지킨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도, 생활 철학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87:1.5 (959.1)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유령을 속이려고 한다. 죽은 자의 오두막이 부서지지 않으면, 문을 통하지 않고 벽에 구멍을 만들어서 시체를 운반했다. 이 방책은 유령이 혼동하도록,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조객{弔客}은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 그 유령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이용했다. 유령이 무덤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 다른 여러 술책이 사용됐다. 유령을 속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애곡하는 관습은, 유족{遺族}을 변장시키기 위해서;나중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함으로써 그 유령을 달래기 위해서 고안됐다.

2. 유령 달래기

87:2.1 (959.2) 종교에서, 유령을 진정시키는 소극적 강령{綱領}은, 영에게 강요하거나 간청하는 적극적 강령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인간의 첫 경배 행위는 방어 현상이었고, 존경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현대인이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을 현명하게 여기는 것처럼;미개인은 유령이 일으키는 불운에 대비해서 보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이런 보장을 얻으려는 노력이, 유령 종파의 기법과 제례식을 제정했다.

87:2.2 (959.3) 유령의 큰 욕구를 신속히 "가라앉힘"으로써 죽은 자의 나라로 조용히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한때 지배적이었다. 그 유령을 진정시키는 제례식을 치르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만한 행동이나 실책이든지, 유령이 유령의 나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지연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것이 유령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믿었으며, 화난 유령이, 재난, 불운, 및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87:2.3 (959.4) 장례 예배는, 유령이 된 혼으로 하여금 미래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도록 설득하려는 사람의 노력에서 생겨났고, 장례식 설교는 원래, 새로운 그 유령이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됐다. 유령의 여행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런 물건을 무덤 속이나 무덤 근처에 놔뒀다. 미개인은, "유령을 달래기에"--곧 무덤 근처에서 멀리 떠나보내기까지-- 3일 내지 1년이 걸린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혼이 시체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문다고 여전히 믿는다.

87:2.4 (959.5) 사람이 죽은 뒤에는, 유령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도록 하려고 침묵하거나 애곡했다. 고행은--곧 상처내기는-- 일반적인 애곡 형태였다. 먼저 깨달은 여러 선생이 이런 행위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금식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자아_부정이 유령을 즐겁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유령이 죽은 자의 나라로

실제로 떠나기 전까지 근처에 숨어있는 과도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즐긴다고 생각했다.

87:2.5 (959.6) 일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주 애곡하는 것은, 문명의 발전에 큰 장애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매 년 여러 주, 심지어 여러 달이, 정말로 이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애곡에 소모됐다. 장례식 행사를 위해서 전문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고용됐다는 사실은, 그 애곡이 제례적이었고,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음을 설명한다. 현대인은 죽은 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별{死別} 때문에 애곡하기도 하지만, 고대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

87:2.6 (959.7) 죽은 사람의 이름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실, 그 이름이 언어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이름은 금기가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는 빈번하게 약화됐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이름 또는 날"과 같은, 상징적인 말과 비유적 표현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87:2.7 (960.1) 고대인은 유령에서 벗어나기에 너무 열심이였으므로, 그 유령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랬을만한 모든 것을 그 값으로 바쳤다. 유령이 아내와 종을 원한다고

여겼으며;어떤 부자 미개인은,자기가 죽을 때 한 명 이상의 노예 아내를 산채로 매장하도록 요구했다. 나중에는 과부가 남편 무덤에서 자살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아이가 죽으면, 어른 유령이 자녀 유령과 동행하며 보살피도록, 어머니, 숙모, 또는 할머니가 목 졸려 죽음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자살하는 자는 대개 자발적이었으며;정말로, 그들이 관습을 위반하고 살았더라도, 원시인이 인생에서 누렸던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쁨마저, 유령이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박탈했을 것이다.

87:2.8 (960.2) 족장이 죽으면 여러 신하를 딸려 보내는 것이 관례였으며;주인이 죽으면 그 노예들을 죽여서 유령나라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보르네오인은 여전히 안내원 반려자를 지명하고 있으며;노예 한 사람을 죽여서, 죽은 주인과 함께 유령 여행에 동반하게 한다. 살인 당한 유령이 살인한 자의 유령을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믿었으며;이런 관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사냥을 하도록 만들었다.

87:2.9

(960.3)

유령이 음식 냄새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으며;장례식 잔치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한때 보편적이었다. 음식 먹기 전 기도에 해당하는 원시 방법은, 영을 달래는 목적으로, 마술적 문구를 중얼거리면서 음식 한 조각을 불에 던지는 것이었다.

87:2.10 (960.4)

죽은 자는 자기가 살았을 때 소유했던 도구와 무기의 유령을 이용한다고 생각됐다. 물건을 깨뜨림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었으며, 그리하여 유령 나라에서 봉사하기 위해 떠나가라고 그 유령을 풀어줬다. 또한 재물을 태우거나 묻음으로써 제물이 되게 했다. 고대에는 장례식에 낭비가 심했다. 후대의 종족들은, 종이로 모형을 만들어서, 죽은 자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실제 물건이나 사람 대신 그림으로 바꿔치기했다. 재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을 친족 상속이 대체했을 때 문명이 크게 진보했다. 이로쿼이 인디언은 장례식 낭비를 많이 개선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재산 보존으로 북부 지역 홍색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됐다. 현대인은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습이 확고하고, 현세적인 많은 재물이 여전히 장례 제례식과 사망 예식에 소모된다.

3. 조상 숭배

87:3.1 (960.5) 유령 종파가 진척됨에 따라서 조상 숭배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는데, 일반 유령 및 더 높은 영들, 즉 진화하는 신{神}들 사이를 조상 숭배가 연결시키게 됐기 때문이다. 초기의 신들은 단순히 칭송받는 고인{故人}에 지나지 않았다.

87:3.2 (960.6) 조상 숭배는 원래 숭배라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믿음은 유령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태도를 널리 퍼뜨리는 데 확실히 기여했다. 초기 조상_유령 종파 사람들은, 하품할 때 해로운 유령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87:3.3 (960.7) 양자를 삼는 관습은, 죽은 후에 그 혼이 평안하고 잘 가기 위해서 누군가 확실히 제물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미개인은 동료의 유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죽은 후 자기 유령의 안전한 행동을 위한 계획에 여가 시간을 투자했다.

87:3.4 (960.8) 대부분의 부족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온갖_유령에 대한 축제를 시행했다. 로마인은 12가지 유령 축제를 열었고, 매 년 예식을 치렀다.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이런 고대 종파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예식에 바쳤다. 어떤 로마 황제는 축제에 몰두하는 날을 한 해에 135일로 줄임으로써 이런 풍습을 개선하려고 했다.

87:3.5 (961.1) 유령 종파는 계속 진화했다. 유령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더 높은 국면의 실존으로 옮겨간다고 상상되자, 그 종파는 결국 영들, 그리고 심지어 신들에 대한 숭배로 그렇게 발전했다. 그러나 더 진보된 영들에 대한 다양한 믿음에는 상관없이, 모든 부족과 종족이 한때 유령을 믿었다.

4. 선한 유령과 악한 유령

87:4.1 (961.2) 유령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이었으며;오랜 세월 동안, 유령들은 다 같은 부류라는 옛 믿음을 여러 부족이 고수했다. 그들은, 유령이 즐거울 때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고, 유령이 화날 때 불운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87:4.2 (961.3) 유령을 두려워하는 종파가 확장되자, 더 고등{高等} 유형의 영, 즉 어떤 개인 인간과도 명확하게 동일시되지 않는 영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이들은

유령나라의 영역에서 진보하여, 더 높은 영{靈}나라로
졸업한 유령 또는 찬미 받는 유령이었다.

87:4.3 (961.4) 두 종류의 영{靈} 유령 개념은, 세계 전역에서
느리지만 확실히 진보했다. 이런 새로운 이중적 심령술은
부족에서 부족으로 퍼질 필요가 없었으며; 세계 전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됐다. 확장하는 진화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 관념의 힘은, 그 관념의 실체 또는
정당성이 아니라, 그 관념의 *생생함*과 보편성을 신속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

87:4.4 (961.5) 더 나중에 사람의 상상력은, 초자연적인 선한
매개체와 악한 매개체라는 개념을 구상했는데; 어떤
유령은 선한 영 수준으로 결코 진화하지 못했다. 유령을
두려워하는 초기의 단일 영 체계는 점차 이중 영 체계로
진화했는데, 이 세상 직무를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한다는
새 개념이었다. 마침내 행운과 불운을 각각 통제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부류 중에서, 불운을 가져오는
쪽이 더 활동적이고 많다고 믿었다.

87:4.5 (961.6) 선한 영과 악한 영의 교리가 최종적으로 성숙되자,
그것은 모든 종교 신념에 가장 널리 퍼지고 계속 유지됐다.

이 이원론은 위대한 종교_철학의 진보를 의미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운과 불운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동시에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적 존재를 믿게 했기 때문이다. 영은 선한 쪽이나 악한 쪽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가장 원시적인 종교의 단일 영 체계에서 초기의 유령들이 완전히 변덕스럽다고 상상했듯이, 이 영들도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사람은 마침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초인적 세력들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종교 진화의 전체 역사 및 인간 철학의 확장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의 발견 가운데 하나였다.

87:4.6 (961.7) 어쨌든, 진화 종교는 이중{二重} 심령술 개념을 얻기 위해서 심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다. 인간의 초기 철학은, 오직 두 종류의 영, 하나는 선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을 가정{假定}함으로써만, 영의 불변성과 현세의 행운의 변화를 조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운수의 변화무쌍함을, 변하지 않는 초인간 세력의 개념과 조화시킬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교리는 그 후로 계속, 종교가들이 시공우주의 통일성을

깨닫기 힘들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의 신{神}들은, 대개 어둠의 권세의 대항에 부딪혔다.

87:4.7 (962.1) 이 모든 것의 비극은, 이 관념이 사람의 원시 정신 속에 뿌리 내리게 됐을 때, 해로운 영 또는 부조화의 영이 어느 세계에도 정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은 캘리개스차의 반역 이후부터 전개됐고, 오직 성령강림절까지만 지속됐다. 선과 악이 시공우주에서 대등하다는 개념은, 심지어 20세기에든, 인간 철학에서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으며;세계 종교 대부분은, 유령 종파가 생겨나던 시절의, 없어진지_오래된 이런 문화적 흔적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5. 진보하는 유령 종파

87:5.1 (962.2) 원시인은, 영과 유령이 거의 무제한 권리를 갖는 반면, 어떤 의무도 없다고 여겼으며;영들은 사람에게 여러 의무가 있지만 권리는 없다고 여긴다고 생각됐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실패할 때 영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믿었다. 유령이 인간의 관심사에 간섭하지 않는 대가로 계속 헌신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 인류의 일반적 믿음이었고, 아주 작은 불운도 유령의 활동 탓으로

돌렸다. 초기 인간은, 신들에게 당연히 바쳐야 할 공경을 빠뜨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알려진 모든 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철저히 안전하게 하려고,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 다시 한 번 바쳤다.

87:5.2 (962.3) 그리고 이제 단순한 유령 종파 다음에는, 더 진보되고 비교적 복잡한 영_유령 종파의 풍습이 생겨났는데, 인간의 원시적 상상 속에서 상류의 영들이 진화함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었다. 종교 예식절차는 영의 진화와 진보에 보조를 맞춰야만 한다. 확대된 종파는, 초자연 존재들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 실행되는 자아_유지 기술, 즉 영 환경에 대한 자아의_조율이었을 뿐이다. 산업 조직체와 군사 조직체는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대한 조율이었다. 그리고 결혼이 남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듯이, 종교 조직체는 고등{高等} 영 세력과 영적 존재들을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발전했다. 종교는 사람이 우연한 신비에 관한 환상에 조율하는 것을 나타낸다. 영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숭배는, 불운에 대한 대비책, 즉 행운을 위한 방책으로서 채택됐다.

87:5.3 (962.4) 미개인은, 선한 영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쾌한 기분을 유지시켜야만 하는 존재는 악한 유령과 영이었다. 따라서, 원시 민족들은 호의를 가진 영보다 심술궂은 유령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다.

87:5.4 (962.5) 인간의 성공이 특히 악한 영의 질투심을 자극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보복하는 방법은, 인간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흉안*{凶眼} 기법으로, 되받아 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영을 피하는 것과 상관되는 국면의 종파는 악한 눈의 음모와 많이 관계됐다. 악한 눈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전 세계에 퍼졌다. 아름다운 여자는 흉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베일로 가렸으며;나중에는 아름답게 여겨지고 싶은 많은 여자가 이 풍습을 택했다. 악한 영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후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일이 드물었고, 초기 기도문에는 “흉안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청원이 항상 포함됐다.

87:5.5 (962.6) 코란에는, 한 장{章} 전체가 흉안과 마법 주문{呪文}에 관계되는 글로 채워져 있으며, 유대인은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 남근{男根}을 숭배하는 종파는 모두 흥안에 대항하는 방어책으로 형성됐다. 생식기가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물이라고 여겼다. 흥안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감화를 주는 것, 즉 어머니의 영향에 관한 첫 미신이 생기게 했고, 그 종파는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87:5.6 (963.1) 질투심은 인간의 뿌리 깊은 특징이며;따라서 원시인은 질투심을 초기 신들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람은 유령을 속이는 풍습을 한때 가졌으므로, 곧 영들도 속이기 시작했다. “영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질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흥하게 치장하고 우리의 성공을 하찮게 말하리라”고 했다. 그래서 초기의 겸손은, 자기를 낮춤이 아니라, 질투하는 영을 물리치고 속이려는 시도였다.

87:5.7 (963.2) 인간의 행복을 영이 질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행운을 가져오거나 귀하게 여기는 물건 또는 사람에게 욕을 심하게 퍼붓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 또는 가족에 관해서 칭찬하는 말을 경시하는 관습이 이런 식으로 기원됐으며;결국 예의바른 겸손, 사양, 및

공손함으로 발전했다. 동일한 동기에 따라서, 얼굴을 추하게 보이기가 유행했다. 아름다움은 영의 질투심을 자극했으며;죄 많은 인간의 교만을 예시했다. 미개인은 추한 이름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 종파의 이런 특색은, 예술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었고, 세상을 오랫동안 어둡침침하고 추하게 만들었다.

87:5.8 (963.3) 영 종파의 지배하에서 인생은, 기껏해야 하나의 도박, 즉 영에게 통제받은 결과에 불과했다. 영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노력, 근면, 또는 재주가 인간의 미래와 아무 상관없었다. 영을 달래기 위한 예식이 무거운 부담을 줬는데, 인생을 진저리나게 만들었고 사실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면서, 여러 인종이 이런 초월 유령에 관한 교리를 개선시키려고 애썼지만, 어떤 세대도 아직 감히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고 있다.

87:5.9 (963.4) 영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예언, 신의 계시, 또는 표적이라는 수단으로 검사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메시지를 점{占}, 예언, 마술, 괴로운 체험, 그리고 점성술이 해석했다. 종파 전체가, 이런 변장한 뇌물을

통해서 영을 달라고, 만족시키고, 매수{買收}하도록
고안된 책략이었다.

87:5.10 (963.5) 그리하여 새롭고 확장된 세계 철학이 자라났고,
다음 것들로 이뤄졌다:

87:5.11 (963.6) 1. *의무* --영들을 기분 좋게, 적어도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들.

87:5.12 (963.7) 2. *권리* --유익이 되도록 영들을 능동적으로
설득하려고 고안한, 온당한 행위와 예식.

87:5.13 (963.8) 3. *진리* --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영들에 대한 태도, 따라서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87:5.14 (963.9) 고대인이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으며;불운을 피하기 원했다. 점{占}은
재난을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이 시절에는, 꿈이
예언으로 간주됐고, 한편 일상적이 아닌 모든 것이 어떤
징조로 고려됐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문명화된
인종들도, 징후, 표시, 그리고 발전하는 옛 유령 종파의
다른 미신적 잔재들에 대한 믿음으로 시달린다. 사람은

그토록 느리고 고통스럽게 진화 생애 계단을 올라가는 데 사용한 이런 방법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기할 것이다.

6. 강압과 쫓아내기

87:6.1 (963.10) 사람들이 유령만 믿었을 때에는, 종교 제례식이 더 개인적이고 덜 조직돼 있었지만, 더 높은 영들을 인식함으로 인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높은 영적 방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영을 달래는 기법을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이 시도가, 그 영에 대항하는 방어책을 형성하도록 직접 이끌었다. 사람은, 현세의 생애에서 작용하는, 통제할 수 없는 세력들 앞에서, 정말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고, 그의 열등감이, 어떤 보상하는 조정 방법, 즉 사람 대 시공우주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불평등을 없애주는 어떤 기법을 찾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었다.

87:6.2 (964.1) 그 종파의 초기 시절에, 유령의 작용에 영향 주려는 사람의 노력은, 달래기, 즉 뇌물로 불운을 면하려는 시도에 국한됐다. 유령 종파의 진화가, 악한 영뿐 아니라 선한 영도 있다는 개념으로 진보되자, 이런 예식은 더 긍정적인 성질의 시도, 즉 행운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종교는 완전히 부정적인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됐고, 또한 행운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됐으며;곤 책략을 발명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영의 협동을 강요할 수 있게 됐다. 종교인은, 자신이 고안하는 영 환상의 끊임없는 요구 앞에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서 있지 않게 됐으며;미개인은, 영 활동을 억제하고 영의 도움을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발명하기 시작했다.

87:6.3 (964.2) 사람의 첫 방어 노력이 유령을 대항하도록 인도했다. 시대가 지나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영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멀리 쫓기 위해서 많은 기법이 개발됐는데, 그 중에 다음이 언급될 수 있다:

87:6.4 (964.3) 1. 시신의 머리를 잘라내고 무덤 속에 묶어 둠.

87:6.5 (964.4) 2. 죽은 사람의 집에 돌을 던짐.

87:6.6 (964.5) 3. 시체의 다리를 제거하거나 부러뜨림.

87:6.7 (964.6) 4. 돌 밑에 묻음, 현대 묘비의 기원 가운데 하나.

87:6.8 (964.7) 5. 화장{火葬}, 유령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발명됨.

87:6.9 (964.8) 6. 시체를 바다에 던짐.

87:6.10 (964.9) 7. 시체를 방치해서, 야생 동물이 뜯어먹게 함.

87:6.11 (964.10) 유령은 시끄러운 소리에 당황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했으며;고함, 종, 그리고 북 소리가, 그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내쫓는다고 생각했으며;이런 고대의 방법은, 죽은 사람을 위해 "밤샘"을 하는 곳에서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달갑지 않은 영을 내쫓기 위해서, 악취를 뿜는 혼합물이 이용됐다. 영들의 무시무시한 형상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게 만들려고 했다. 영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개가 감지할 수 있고, 짖어댐으로써 경고한다고 믿었으며;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수탉이 운다고 믿었다. 수탉형상을 풍향기에 이용하는 것은 이런 미신의 잔재다.

87:6.12 (964.11) 유령을 대항하는 데는 물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생각됐다. 성수{聖水}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 우수했는데, 사제들이 발을 씻은 물이었다. 불과 물은 모두 유령에게 지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믿었다. 로마인은 물을 갖고 시체 주위를 세 번 돌았으며;20세기에는 시체 위에 성수를 뿌리고, 묘지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의

제례식으로 남아있다. 세례는 물로 하는 후대의 제례식 가운데 한 부분이었으며;원시 시대의 목욕은 종교 예식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목욕이 위생 습관으로 바뀌었다.

87:6.13 (964.12) 그러나 사람은 유령을 강압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종교 제례식 및 다른 풍습을 통해서, 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애썼다. 쫓아내기는, 어떤 한 영을 택해서 다른 영을 통제하거나 추방시키려는 것이었고, 이 술책은 유령과 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됐다.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라는 이중_심령술 개념은, 한 매개체와 다른 매개체를 싸움 붙이도록 시도하기 위한 엄청난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했는데, 어떤 힘 센 사람이 악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강한 영이 열등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시의 저주{咀呪}는, 낮은 계층의 영을 겁주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강압하는 관습이었다. 나중에 이런 관습은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확장됐다.

87:6.14 (965.1) 더 오래된 사회관행으로 돌아감으로써, 영들과 반신반인{半神半人} 존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래 지속됐다. 현대인도 똑같은 과정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너희는 일상적 언어에서는 평범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지나간 세대의 옛 문체, 즉 소위 엄숙한 문체라 불리는 형태를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87:6.15 (965.2) 이 교리는 또한, 신전 매음 행위 같은, 성교의 성질을 지닌 많은 종교_예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설명해 준다. 원시적 관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많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분명한 대비책으로 간주됐다. 그리고 단순한 정신을 소유한 이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실행은, 현대인이 난잡하다고 부르는 형태와는 전혀 달랐다.

87:6.16 (965.3) 그 다음에는 제례식에서 맹세하는 풍습이 생겼고, 그 뒤를 이어 종교의 서약과 신성시되는 맹세가 곧 시행됐다. 이런 맹세 대부분은 고행과 자상{自傷} 행위를 동반했으며;나중에는 금식과 기도가 동반됐다. 그 후에는 금욕이 틀림없는 강압 수단으로 여겨졌으며;성욕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특히 그랬다. 그리하여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 풍습에서 단호한 내핍생활을 일찍부터 발전시켰는데, 마음 내키지 않는 영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고난과 궁핍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반응하도록 강압할 수 있는 제례식으로, 고행과 금욕이 효험 있다고 믿었다.

87:6.17 (965.4) 현대인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영들을 강압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여전히 신격과 흥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현대인은 여전히 맹세하고, 나무를 두드리며, 손가락을 겹쳐 보이고, 침을 뱉으면서 어떤 진부한 말을 하는데;한때 마술적 처방이었다.

7. 종파체계의 본질

87:7.1 (965.5) 종파 유형의 사회 조직체가 계속 유지됐는데, 도덕적 정서와 종교적 충성을 보존하고 자극하는 상징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종파는 "오래 된 가족들"의 전통으로부터 생겨났고, 확립된 제도로서 계속 존재했으며;모든 가족은 어떤 종류의 종파를 지니고 있다. 영감 주는 모든 이상{理想}은 영존하는 어떤 상징체계를 붙잡으려 하며--즉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고 실현을 증대시키는 어떤 문화적 명시 기법을 추구하며, 종파는 감정을 조성하고 만족시킴으로써 이런 목적을 성취한다.

87:7.2 (965.6) 문명의 여명기부터, 사회의 문화 또는 종교적 진보에서 모든 매력적인 활동이, 제례식, 즉 상징적

예식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이 의식{儀式}이 무의식적 성장을 이룩하면 할수록,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종파가 정서를 보존하고 감정을 만족시켰지만, 사회의 개조와 영적 진보에는 항상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87:7.3 (965.7) 종파가 사회 진보를 항상 방해했음에도, 도덕 표준과 영적 이상을 믿는 매우 많은 현대인이 어떤 적당한 상징도--곧 서로 밀어줄 어떤 종파도, 소속될만한 어떤 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그러나 종교의 종파는 조종될 수 없으며; 자라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두 집단이든지, 그 제례식이 권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표준화되지 않는 한, 동일할 수 없다.

87:7.4 (965.8) 초기 그리스도교 종파는, 그때까지 생각해 내거나 고안해 냈던 어떤 제례식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며 영구적이었지만, 그 가치 대부분은 너무 많은 원래의 근본 교의{教義}가 파괴됨으로써, 과학 시대 동안 훼손돼 왔다. 그리스도교 종파는 많은 근본 개념을 상실함으로써 활력을 잃었다.

87:7.5 (965.9) 과거에는, 종파가 신속성이 있을 때, 즉 상징체계가 확장될 수 있을 때, 진리가 급속도로 자라고 자유롭게 확대됐다. 풍족한 진리와 조정할 수 있는 종파가, 사회 진보의 신속성을 장려했다. 무의미한 종파는, 철학을 대체하고 이성{理性}을 노예 삼으려고 애쓸 때, 종교를 타락시키는 반면;참된 종파는 성장한다.

87:7.6 (966.1) 결점과 불리한 조건에 상관없이, 진리가 새롭게 계시될 때마다 새로운 종파가 생겨났으며, 심지어 예수의 종교를 수정해서 진술하는 것도, 새롭고 적절한 상징체계를 발전시켜야만 한다. 현대인은 자신의 새롭고 확장하는 개념, 이상, 및 충성심에 맞는 어떤 상징체계를 발견해야만 한다. 이런 향상된 상징은 반드시, 종교 생활, 즉 영적 체험에서 발생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류 문명의 고등 상징체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개념에 입각해야만 하며,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강력한 이상{理想}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

87:7.7 (966.2) 옛 종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으며;새 종파는, 적용된 사랑에서 발생돼야만 한다. 새 종파는, 옛 종파처럼, 정서를 조성하고, 감정을 만족시키며, 충성심을

증진시켜야 하지만;그 이상{以上}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반드시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고, 시공우주의 의미를 증진시키며, 도덕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고, 높은 유형의 개인 종교 생활을 고무시켜야만 한다. 새 종파는 현세와 영원한 세계 양쪽에 해당되는--곧 사회적이고 영적인-- 삶의 최고 목표를 제공해야만 한다.

87:7.8 (966.3) 어떤 종파도, 가정{家庭}의 생물학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사회 문명의 진보와 개인의 영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없다. 계속 살아남는 종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영구한 것을 상징해야만 하며;항상 변화하는 사회적 변질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찬미해야만 한다. 그 종파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를 강화시키며, 정말로 고귀한 좋은 가치 기준을 찬미해야만 한다.

87:7.9 (966.4) 그러나 새롭고 만족스런 상징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대인이 집단적으로는 과학적 태도를 고집하고 미신을 피하며 무지함을 멸시하는 한편, 개인적으로는 모두 신비를 갈망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어떤 멋진 신비를 담고, 획득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 한, 어떤 종파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상징체계는 집단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의미 있어야만 한다. 어떤 유용한 상징체계 형태든지, 개인이 자신의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새로운 그 종파가 정지된 상태 대신 역동적 상태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현세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류의 진보에 정말로 훌륭한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7:7.10 (966.5) 그러나 종파는--제례식, 표어{標語}, 또는 목표 같은 상징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요청, 즉 충성심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어야만 한다. 효과적인 모든 종교는 반드시 훌륭한 상징체계를 발전시키며, 그 신봉자들은 그런 제례식이 진부한 예식절차로 구체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데, 진부한 예식절차는 사람을 속박하고 추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며, 모든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지연시킬 뿐이다. 어떤 종파도, 도덕적 성장을 지연시키고, 영적 진보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종파는 뼈대 구조물이요, 몸소 영적 체험을 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몸이--곧 참된 종교가-- 그 주변에서 자란다.

87:7.11 (966.6)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

제88편 주물, 마법, 요술

88:0.1 (967.1) 영{靈}이 무생물이나 동물 또는 인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주 오래되고 존중받을만한 믿음인데, 종교의 진화가 시작될 때부터 널리 퍼졌다. 영을 지닌다는 이런 교리는 주물**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미개인이 반드시 주물{呪物}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며;그 속에 거주하는 영을 매우 논리적으로 숭배하고 공경한다.

88:0.2 (967.2) 처음에는, 주물 속에 있는 영은 죽은 사람의 유령일 것이라고 믿었으며;나중에는, 더 높은 영이 주물 속에 거주한다고 상상했다. 그리하여 주물숭배 종파는 결국, 유령, 혼, 영,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는 원시 관념 전체와 합쳐졌다.

1. 주물에 대한 믿음

88:1.1 (967.3)

원시인은 색다른 모든 것을 항상 주물{呪物}로 여기려고 했으며;따라서 많은 주물이 우연히 생겨났다. 어떤 사람이 아팠다가, 무엇인가 발생해서, 그 병이 낫는다. 여러 약품에 대한 평판, 그리고 우연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꿈과 관련된 대상물도 마찬가지로 주물로 전환된다. 산이 아니라 화산{火山}이 주물로 바뀌었으며;별이 아니라 혜성이 주물로 바뀌었다. 초기의 사람은, 유성{流星}과 운석이, 지구를 방문하는 특별한 영의 도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88:1.2 (967.4)

최초의 주물은 특별히 두드러진 모양의 조약돌이었고, 사람은 그 후로 항상 “신성시되는 돌”을 찾아다녔으며;한 줄로 꿰 구슬 모양은, 한때 신성시되는 돌을 수집한 한 벌의 마법 장식물이었다. 많은 부족이 돌로 된 주물을 갖고 있었지만, 카아바 신전과 스쿰의 돌처럼 보존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불과 물 역시 초기 주물에 포함됐고, 불 숭배는 성수{聖水}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여전히 존재한다.

88:1.3 (967.5) 나무 주물이 나중에 생겼지만,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자연 숭배가 존속됨으로써, 어떤 종류의 자연 영이 마법의 장식물 속에 거주한다는 믿음으로 유도됐다. 식물과 과일이 주물이 되면, 그것들은 음식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사과는 이런 범주에 들어간 처음 것들 가운데 하나였으며;레반트 민족들은 그것을 결코 먹지 않았다.

88:1.4 (967.6) 어떤 동물이 사람의 살을 먹으면, 그 동물은 주물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는 파시 교도들에게 신성시되는 동물이 됐다. 주물이 동물이고, 유령이 그 속에 영구히 거주한다면, 주물숭배체계가 윤회{輪廻}와 충돌할 것이다. 미개인은 여러 면에서 동물을 부러워했는데;동물보다 우세함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과 비슷하게 이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88:1.5 (967.7) 동물이 주물로 여겨지게 되면, 주물이 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기가 뒤따라 나타났다. 꼬리 없는 원숭이와 꼬리 있는 원숭이는, 사람을 닮았으므로 일찍부터 주물로 여겨지는 동물이 되었으며;나중에는, 뱀,

새, 및 돼지가 비슷한 존재로 간주됐다. 한때는 소가 주물이었는데, 우유가 금기인 반면, 그 배설물은 높이 평가됐다. 뱀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숭배됐고, 특히 페니키아인이 그랬는데, 그들은 유대인을 따라서 그것을 악한 영들의 대변자로 간주했다. 심지어 많은 현대인도 파충류의 마력을 믿는다. 아라비아로부터, 인도 전역을 지나, 홍색인 가운데 모키 부족의 뱀 춤에 이르기까지, 뱀을 숭배했다.

^{88:1.6 (968.1)} 한 주 가운데 어떤 날이 주물이 되기도 했다. 금요일은 오랜 세월 불운한 날로 여겨져 왔으며,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행운의 숫자 3과 7은, 후대의 계시에서 유래했으며;⁴는 원시인에게 행운의 숫자였고, 나침반의 네 지점에 대한 초기 인식에서 유래됐다. 가축이나 기타 소유물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여겼으며;고대인은, 인구조사, 즉 “민족을 계수하기”를 항상 반대했다.

^{88:1.7 (968.2)} 원시인은 성{性}에 대해 과도한 주물을 만들지는 않았으며;생식{生殖} 기능은 한정된 관심만 받았을

뿐이다. 미개인은 꾸밈없는 정신을 소유했고, 음란하거나 음탕하지 않았다.

88:1.8 (968.3) 침은 강력한 주물이었으며;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마귀가 쫓겨난다고 여겼다. 연장자나 윗사람이 누군가에게 침 뱉는 것은 최고의 인사였다. 인간 신체 부위가 잠재적 주물로 여겨졌는데, 특히 머리카락과 손톱이 그랬다. 족장의 길게 자란 손톱을 고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다듬고 남은 조각은 강력한 주물이었다. 해골을 주물로 여기는 믿음은 후대의 머리_사냥을 잘 설명한다. 탯줄은 높게 평가되는 주물이었으며;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간주된다. 인류 최초의 노리개는 모아둔 탯줄이었다. 진주로 장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목걸이의 시초였다.

88:1.9 (968.4) 곱사등과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는 주물로 간주됐으며;정신 이상자는, 달빛 작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 원시인은 천재와 정신이상을 구분하지 못했으며;정신박약아는 맞아죽거나, 아니면 주물 인격체로 숭배됐다. 광란{狂亂}은 마법에 대한 대중적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었으며;간질 환자들이

사제와 주술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영에 사로잡힌 형태로 간주됐으며;미개인이 실컷 마셨을 때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머리에 나뭇잎을 꽂았다. 독물{毒物}과 마취제가 주물이 됐으며;그것에 홀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88:1.10 (968.5) 많은 사람이 천재를 현명한 영에게 사로잡힌 주물 인격체로 간주했다. 그리고 재주 있는 이 인간들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곧 사기 행위와 속임수를 익히게 됐다. 주물 대상자를 인간 이상{以上}의 존재로 여겼으며;신성하게, 또는 심지어 무오{無誤}하게 여겼다. 족장, 왕, 사제, 선지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으며, 결국 큰 권력을 휘둘렀고, 무제한의 권세를 행사했다.

2. 주물의 진화

88:2.1 (968.6) 유령은 육체 속에 살았을 당시에 자신에게 속했던 어떤 물건 속에 계속 거주하기를 더 좋아한다고 여겨졌다. 이 믿음 때문에 현대에도 많은 유품이 간직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지도자의 뼈를 항상 숭배했고, 많은 사람은 성인{聖人}과 영웅의 유골{遺骨}을 여전히 미신적

경외심으로 바라본다. 오늘날에도 순례 행렬이 위대한 사람들의 묘지를 찾는다.

88:2.2 (968.7) 유품에 대한 믿음은 고대의 주물숭배 종파에서 파생됐다. 현대 종교의 역사적 유물은, 미개인의 주물을 합리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현대의 종교 체계 속에서 위엄과 체통을 유지하는 경지로 그렇게 끌어올린다. 주물과 마술을 믿음은 이교적{異敎的}이지만, 유품과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88:2.3 (969.1) 화로를--곧 벽난로를-- 어느 정도 주물, 즉 신성시되는 장소로 여겼다. 묘지와 신전이 최초의 미신적 숭배 대상 지역이 된 것은, 시체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주물숭배 장막을, 초월적 주물,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당시 현존하는 개념을 숨겨놓은 장소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족속은, 돌 제단에 대한 가나안족속의 독특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다:“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는 주물에 불과한, 그런 돌 제단 속에 거하신다고 정말로 믿었다.

88:2.4 (969.2) 가장 초기의 상징은, 유명한 죽은 사람들의 생김새와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기념물이었음이 사실이다. 우상은 주물송배의 극치였다. 원시인은, 봉헌 예식을 통해서 영이 그 형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으며;마찬가지로, 특정한 물체가 축복 받으면 주문{呪文}이 된다고 믿었다.

88:2.5 (969.3) 모세는, 달라마시아에서 통용됐던 고대의 도덕 규약에 둘째 계명을 덧붙이면서, 히브리인 가운데서 자행되던 주물 송배를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물로 신성시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지시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너희는 하늘을 날거나, 땅 위에 기어 다니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 이런 계명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술을 매우 퇴보시켰지만, 주물 송배는 줄었다. 그러나 모세는 매우 현명했으므로 옛 주물을 갑자기 버리도록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전쟁을 위한 제단인 동시에 종교적 성소였던 궤 속에,
율법과 함께 특정한 유품들을 넣도록 승낙했다.

88:2.6 (969.4) 말씀이 결국 주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특별했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종교의
신성시되는 책들이, 사람의 영적 상상력을 가둬 놓는
미신적 감옥{監獄}이 됐다. 주물을 배격하려는 모세의
바로 그 노력이 최고의 주물이 됐으며;그의 계명은 나중에
예수를 망치는 데 사용됐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
찬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사용됐다.

88:2.7 (969.5) 옛날에는 주물이 된 권위 있는 말씀은,
두려움을_고취시키는 교리/였는데, 사람을 노예 삼는 모든
폭군 중에서 가장 무서웠다. 주물이 된 교리는, 필사적
사람으로 하여금 본성을 드러내서, 편협한 신앙, 광신,
미신, 불관용, 그리고 가장 지독하고 야만적인 학대의
족쇄를 채우게 했다. 현대인이 지혜와 진리를 존중하려는
태도는, 주물을 만들려는 경향으로부터, 더 높은 사고와
이성{理性}의 수준으로 최근에 회피한 것일 뿐이다.
다양한 종교가들이 신성시/되는 책으로 여긴, 축적된 주물
문서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책 속에 있는 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가 그 책 속에 있다고 믿었다. 이런 신성시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공교롭게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한다면, 여러 세대 동안, 다른 면에서는 멀쩡한 남녀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명확한 증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88:2.8 (969.6) 이런 신성시되는 책들 가운데 하나를 펴서,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따름으로써,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기획을 결정하려는 풍습은, 터무니없는 맹목적 숭배와 다름없다. "거룩한 책"을 두고 서약하거나, 최고로 공경되는 어떤 물체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정교한 주물숭배체계의 한 형태다.

88:2.9 (969.7) 그러나, 미개인 족장의 손톱을 다듬은 부스러기를 주물로 두려워하는 것을 비롯해서, 편지, 법률, 전설, 우화, 신화, 시{詩}, 및 연대기{年代記} 등의 훌륭한 수집품을 찬미하기까지 나아간 것은, 정말로 진화적 진보를 이룩했음을 나타내며, 결국 이것들은 적어도 "신성시되는 책"으로 수집된 시절과 사건이 있기까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선별된 도덕적 지혜를 반영한다.

88:2.10 (970.1) 주물이 되려면, 말سم은 영감{靈感}된 것으로 간주돼야 했으며, 신성하게 영감 돼서 씌어졌다고 여겨지는 주문{呪文}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직접 세워진 반면, 국가의 권위는 시민정부 형태의 진화로 인해 실현됐다.

3. 토템숭배

88:3.1 (970.2) 주물숭배체계는, 신성시되는 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믿음으로부터, 우상 숭배, 식인 풍습, 및 자연 숭배를 거쳐서, 토템숭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시 종파에 흘러 내려왔다.

88:3.2 (970.3) 토템숭배는 사회 관례와 종교 관례의 혼합물이다. 원래는, 생물학적 원천이라고 추측되던 토템 동물을 존중함으로써 식량 공급이 보장된다고 생각됐다. 토템들은 한꺼번에 그 집단과 그들의 신{神}의 상징이었다. 그런 신은 의인화{擬人化}된 씨족이었다. 토템숭배는, 다른 면에서 개인적인 종교를 사회적 종교로 만들려는 시도의 한 국면이었다. 토템은 결국, 현대의 여러 민족의 깃발, 즉 국가적 상징물로 진화됐다.

88:3.3 (970.4) 주물 주머니, 즉 마법의 주머니는, 유령이 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물건들로 훌륭하게 구색을 갖춘 내용물이 들어 있는 주머니였고, 옛 주술사는 자기 능력의 상징인 그 주머니를 절대로 땅에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도, 문명화 된 민족들 역시, 국가적 의식{意識}의 상징인 깃발이 결코 땅에 닿지 않게 하려 한다.

88:3.4 (970.5) 사제 직책과 왕의 직책의 휘장은 결국 주물로 숭배됐고, 국가를 최고로 여기는 주물은, 씨족에서 부족으로, 종주권에서 주권으로, 토템에서 깃발로 발전하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주물로 여겨지는 왕은 “거룩한 권한”으로 통치했고, 다른 여러 형태의 정부가 생겼다. 또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주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여론”을 형성했을 때, 보통 사람의 관념을 높이 평가하고 찬양한다. 한 사람의 의견 자체만으로는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민주적 체제에서 집단으로 작용할 때에는, 바로 이 평범한 판단이 응보의 중재자와 정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진다.

4. 마술

88:4.1 (970.6) 문명화된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실제 환경의 문제들을 공격하지만;미개인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유령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실제 문제들을, 마술{魔術}로 해결하려 했다. 마술은, 영이 들어있다고 추측되는 환경을 조종하는 기법이었고, 불가해{不可解}한 것들은 그 영의 간계라고 끊임없이 설명했으며;마술은, 주물들 또는 더 강력한 다른 영들을 이용해서, 영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게 하고, 비자발적인 영에게는 도움을 강요하는 기술이었다.

88:4.2 (970.7) 마술, 요술, 그리고 점{占}의 목적은 이중적이었다:

88:4.3 (970.8) 1. 미래를 확고하게 통찰하기 위해서.

88:4.4 (970.9) 2.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88:4.5 (970.10) 과학의 목적은 마술의 목적과 일치한다. 인류는, 명상이나 이성이 아니라 오랜 체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마술에서 과학으로 진보하고 있다. 사람은 점차, 진리로 되돌아가고, 오류에서 시작하며, 오류 속에서 진보하고, 마침내 진리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다.

그는 오직 과학적인 방법이 도래함으로써 똑바른 방향에서 있게 됐다. 그러나 원시인은 시도하든지 아니면 사라져야만 했다.

88:4.6 (970.11) 초기 미신의 매력이 나중에 과학적 호기심을 낳았다. 이런 원시적 미신들 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있는-- 진취적인 역동적 감정이 있었으며; 옛날의 마술 속에는 진보하는 추진력이 있었다. 이런 미신은 지구의 환경을 알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출현했음을 가리켰다.

88:4.7 (971.1) 마술이 미개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는데, 그들이 자연사{自然死}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죄{原罪}라는 후대의 관념은, 자연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마술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한 사람의 자연사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해서 무고한 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것이 고대 민족들의 숫자가 빨리 늘어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고,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고소당한 개인은 대개 죄를 고백했는데, 죽음 앞에서도 그랬다.

88:4.8 (971.2) 마술은 미개인에게 자연스럽다. 그는 적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조각에 요술을 행함으로써 실제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뱀에 물려서 죽는 것은 요술쟁이의 마술 탓으로 돌려졌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술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지 못했다. 원시 민족들은, 마술을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마술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그런 결과가 잘못된 이 믿음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했다. 실패한 경우에 어떤 그럴듯한 해명이 늘 만들어졌는데;불완전한 마술에 대한 치유책은 더 마술적이었다.

5. 마술적인 주문

88:5.1 (971.3)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주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가장 초기의 마술은 머리카락 및 손톱과 관련 있었다. 육신의 배설{排泄}을 은밀히 행하는 습관은, 육체에서 나온 어떤 것을 적{敵}이 취해서, 해로운 마술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유래했으며;따라서 몸에서 나온 모든 배설물을 신중히 땅에 묻었다.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를 자제한 것은, 그 타액이 해롭게 하는 마술에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며;뱉은 침은 반드시 감췄다. 심지어 먹다 남은 것, 옷, 그리고 장신구도 마술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미개인은 식탁에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적이 이것을 마술적 제례에 사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해졌고, 그런 관습의 위생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

88:5.2 (971.4) 마술적 주문{呪文}은 매우 다양한 물체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사람의 살, 호랑이 발톱, 악어 이빨, 유독성 식물의 씨, 뱀의 독액,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 등이 있었다. 죽은 시체의 뼈는 매우 마술적인 것이었다. 발자국에서 생겨난 먼지조차 마술에 이용될 수 있었다. 고대인은 사랑의 주문을 매우 강하게 믿었다. 피 또는 기타 형태의 육체 분비물이 사랑의 마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다.

88:5.3 (971.5) 형상이 마술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됐다. 초상화가 그려졌고, 나쁘게 또는 좋게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실제 몸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믿었다. 물건을 살 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나무 조각을 씹곤 했다.

88:5.4 (971.6) 검은 소에서 나오는 우유는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취급됐으며;검은 고양이도 그랬다. 막대기 또는 지팡이는,

복, 종, 및 매듭과 함께 마술적인 것이었다. 옛날에는 모든 대상이 마술적 주문{呪文}이었다. 새롭거나 더 높은 문명 세계의 관습을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악한 마술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글쓰기, 인쇄, 및 초상화가 오랫동안 그렇게 간주됐다.

88:5.5 (971.7) 원시인은, 이름, 특히 신들에 대한 이름을 특별하게 존중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이름은, 실재, 즉 육체적 인격체와는 다른 어떤 영향력으로 간주됐으며;혼 및 그림자와 동일하게 존중됐다. 이름을 저당 잡아 돈을 빌렸으며;빌린 것을 갚음으로써 다시 찾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증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한다. 개인의 이름은 마술에서 곧 중요한 요소가 됐다. 미개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중요한 하나는 너무 신성하게 여겨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 번째, 즉 일상적 이름을--곧 별명을-- 사용했다. 낯선 자들에게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한 성질의 어떤 체험을 해도 이름을 바꿔야 했으며;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거나 불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름을 바꿨다. 미개인은 부족장으로부터 새 이름을 살 수 있었으며;사람들은

여전히 직위와 학위를 따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부시먼 종족 같은, 가장 원시적인 부족 가운데서는, 개인의 이름이 없다.

6. 마술의 실행

88:6.1 (972.1) 마술은, 요술 지팡이 사용, “주술{呪術}” 제례식, 그리고 주문 외우기를 통해서 실행되고, 마술사들은 벌거벗고 일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원시 마술사 중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마술에서 “주술”은 치료가 아니라 신비를 의미한다. 미개인은 절대로 자신을 치료하지 않았으며;마술에 능통한 사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결코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세기 부두교의 주술사는 전형적인 옛 마술사다.

88:6.2 (972.2) 마술에는 공적{公的} 국면과 사적{私的} 국면 둘 다 있다. 주술사나 무당 또는 사제가 행하는 것은, 부족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녀, 요술쟁이, 마법사는, 사람의 적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강제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적인 마술, 즉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술을 시행했다. 이중 영 체계, 즉 선한 영과 악한 영 개념은, 백 마술과 흑 마술에 대한 후대의 믿음을

지원시켰다. 그리고 종교가 진화되면서, 마술은 자기 종파 바깥에서 작용하는 영에게 적용하는 용어였고, 마술은 또한 유령을 믿는 더 옛날의 믿음을 가리키기도 했다.

88:6.3 (972.3) 낱말의 조합, 영창{詠唱}과 주문을 외우는 제례식은 매우 마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의 어떤 주문은 마침내 기도문으로 발전했다. 이윽고, 흥내를 내는 마술이 실행됐고;기도문을 연극으로 꾸몄으며;마술적 춤은 극적{劇的}인 기도문에 불과했다. 기도는 제물에 준하는 것으로서, 점차 마술을 대신했다.

88:6.4 (972.4) 몸짓은, 말하기보다 오래됐는데, 더 거룩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고, 흥내를 내는 것은 강력한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흥색인은 때때로 들소 춤을 추곤 했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들소 역할을 하고 붙잡히는 시늉을 함으로써 곧 있을 사냥에서 성공을 보장하고자 했다. 5월축제에서 성적인 잔치는, 단순히 흥내를 내는 마술, 즉 식물 세계의 성욕{性慾}에 암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형은 처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마술적인 부적으로 사용했다.

88:6.5 (972.5) 마술은 진화하는 종교 나무에서 뺏어 나간 가지였고, 결국 과학 시대라는 열매를 맺었다. 점성술에 대한 믿음은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현자{賢者}의 돌에 대한 믿음은 금속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마술적 숫자에 대한 믿음은 수학을 창시했다.

88:6.6 (972.6) 그러나 주문{呪文}으로 가득한 세상은, 개인의 모든 열망과 독창력을 매우 많이 파괴시켰다. 더 노력하거나 부지런히 노동해서 얻은 소산물은, 마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이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면, 족장 앞에 끌려갔고, 이런 초과되는 곡식을, 게으른 이웃의 땅에서 피어냈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개한 시절에는 많이 아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는데;흑 마술사로 처형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88:6.7 (972.7) 과학이 도박성 요소를 삶에서 점차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교육 방법이 실패한다면, 거의 즉시 마술에 대한 원시 믿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미신은, 소위 문명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의 정신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언어는 그 인종이 마술적인 미신에 오랫동안 물들었음을 증명하는 많은 흔적을 내포하는데, 마법에

걸렸다, 팔자가 사납다, 귀신이 붙었다, 영의 감응, 영처럼 사라진다, 재주가 많다, 낚을 빼앗겼다, 벼락 맞는다, 깜짝 놀랐다, 등의 말이 있다. 그리고 지성적인 인간이, 행운, 흉안, 및 점성술을 여전히 믿고 있다.

88:6.8 (973.1) 고대의 마술은 현대 과학을 낳은 고치였으며, 그 시대에는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리하여 무지한 미신으로 가득한 환상은, 과학의 개념들이 탄생될 때까지 사람의 원시 정신을 선동했다. 오늘날, 유란시아는 이런 지적 진화에서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세계의 절반은 진리의 빛과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절반은, 옛날의 미신, 그러나 알파하게 변장한 마술의 품속에서 번민하고 있다.

88:6.9 (973.2)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

제89편 죄, 제물, 속죄

89:0.1 (974.1) 원시인은, 자신이 영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즉 속전{贖錢}을 내야 할 위치에 있다고 간주했다. 그렇게 판단하자 미개인은, 영들이 설령 훨씬 더 많은 불행을

자신에게 줬더라도, 공정하다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개념은 죄와 구원의 교리로 발전했다. 혼{魂}은 상실된 상태에서--곧 원죄{原罪}를 지니고-- 세상에 나온 것으로 간주됐다. 혼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고;속죄양을 바쳐야 했다. 사람_사냥꾼은, 해골 송배 종파를 따르고, 그 외에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속죄인간을 바칠 수 있었다.

89:0.2 (974.2) 미개인은, 인간의 비참함, 고난, 및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영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 오직 범행에 대한 죄만 고려했지만, 나중에는 태만에 대한 죄를 적용하게 됐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차후의 전체 체계가, 이런 두 개념을 중심으로 자라났다. 이 새로운 제례식은, 제물로 위로하는 예식을 준수하는 것과 관계있었다. 원시인은, 신{神}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으며;오직 진보된 문명이, 시종일관하게 한결같이_침착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 속죄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기보다, 당면한 불행을 물리치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그리고, 회피,

쫓아내기, 강압, 및 달래기 같은 제례식이 모두 서로 뒤섞여서 합쳐졌다.

1. 금기

89:1.1 (974.3) 금기{禁忌}의 준수는, 사람이 불운을 피하려는, 즉 어떤 것을 회피함으로써 영적 유령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금기가 처음에는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유령 또는 영의 허락을 받고자 했으며, 그렇게 강화됐을 때, 금기는 법률 제정자와 제도 설립자가 됐다. 금기는 예식 표준의 근원이며, 원시적 자아_통제의 선조다. 그것은 사회 규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였고, 매우 오랫동안 유일한 규제였으며; 여전히 사회를 규제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다.

89:1.2 (974.4) 미개인의 정신 속에서 이런 금지조항들은, 금지조항들을 집행한다고 추측되는 권력자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똑같은 만큼 존경심을 강요했다. 금기는 처음에 불행을 우연히 체험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나중에는 족장과 무당이--곧 영 유령의 지시, 심지어 신{神}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물 사람들이-- 금기를 제안했다. 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시인의 정신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았으므로, 자신이 금기 사항을 위반했을 때 놀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런 극적인 사건은, 생존자의 정신에 미치는 금기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켰다.

89:1.3 (974.5) 가장 오래된 금지조항들 가운데, 여자 및 기타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제한이 있었다. 종교가 금기의 진화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금지된 물건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됐고, 나중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히브리인의 기록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지만, 이런 계통에 따른 그들의 믿음은, 많은 다른 민족의 관념보다 훨씬 덜 복잡하고 범위가 좁았다.

89:1.4 (975.1) 히브리인의 열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일곱 계명은, 명확한 금기였고, 가장 오래된 금지조항처럼, 동일한 부정적 형태로 모든 것이 표현됐다.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이 법전은, 선재{先在}하는 수천 가지 금기를 대체시키면서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후대의 계명들이 순종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 명확하게 약속했다는 점이다.

89:1.5 (975.2) 초기의 음식 금기는 주물숭배체계와 토렘숭배체계에서 기원됐다. 페니키아인에게는 돼지가, 힌두인에게는 소가 신성시됐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집트인의 금기가 히브리 신앙과 이슬람 신앙에 계승됐다. 음식에 대한 금기에서 변형된 한 형태는, 임신한 여자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음식물은 그 아이에게 금기가 되곤 했다.

89:1.6 (975.3) 먹는 방식이 곧 금기가 됐고, 그리하여 고대와 현대의 식탁 예절이 생겨났다. 신분계층 체계와 사회의 표준은, 옛 금지조항이 남아 있는 흔적이다. 금기는 사회를 조직하는 데서 매우 유효했지만, 몹시 부담됐으며;부정적_금지 체계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규칙들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진부하고, 케케묵은, 그리고 쓸모없는 금기들도 유지했다.

89:1.7 (975.4) 그러나, 이런 광범하고 잡다한 금기를 제외하면, 어떤 문명화된 사회도 원시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

것이며, 원시 종교가 지지하는 제재규약이 없었다면, 금기는 결코 지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진화에서 다수의 근본 요소는 매우 값이 비쌌는데, 노력과 제물과 금욕에 막대한 대가{代價}를 치렀지만, 자아_통제라는 이런 업적은, 사람이 밟고 올라간 문명의 사다리에서 진정한 발판 역할을 했다.

2. 죄의 개념

^{89:2.1 (975.5)} 운수{運數}에 대한 두려움과 불행에 대한 공포는, 이런 재난을 막는 대비책이라고 여겨진 원시 종교를 창안하도록, 글자 그대로 인간을 내몰았다. 종교는, 마술과 유령으로부터, 영{靈}과 주물을 거쳐서, 금기 사항으로 진화했다. 각 원시 부족마다, 금지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이것은 실제로 사과였지만, 수천 개의 가지에 온갖 종류의 금기가 무겁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금단의 나무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89:2.2 (975.6)} 미개인 정신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모두 상상하는 단계까지 진화하게 되고, 진화하는 종교로부터 금기가 진지한 지지를 받게 되자, 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모두 준비됐다. 죄의 관념은, 계시된 종교가

미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됐다. 오직 죄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자연사가 원시 정신에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죄는 금기 사항을 어기는 것이었고,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었다.

89:2.3 (975.7) 죄는 이성적이 아니라 제례적이었으며;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죄에 대한 이런 전체 개념은, 딜문의 전통,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작은 낙원 시절에 관한 남아있는 전통 때문에 조성됐다. 에덴 동산과 아담의 전통 역시, 인종의 여명기에 한때 "황금기"가 있었다는 몽상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특별한 창조에서 기원됐다는 믿음, 완전한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했다는 믿음, 그리고 금기를 어김이--곧 죄가-- 그를 나중에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다는 믿음으로 후대에 표현된 관념을 입증했다.

89:2.4 (976.1) 금기를 습관적으로 어기는 것은 악덕이 됐으며;원시 법률은 악덕을 범죄로 규정했으며;종교는 그것을 죄라고 했다. 초기 부족들 가운데서, 금기를 어기는 것은 위법과 죄가 혼합된 의미였다. 공동체가 겪는 재난은 항상 부족의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간주됐다. 의로움과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악한 자의
외견상 번영이 너무 괴로웠으므로, 금기 사항을 어긴
자들을 위한 지옥 개념을 창안할 수밖에 없었으며;미래의
형벌에 대한 이 장소의 숫자는 하나에서 다섯까지
다양했다.

89:2.5 (976.2) 자백과 용서의 관념은 원시 종교에서 일찍부터
출현했다.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저지르려고 하는 죄를 위해,
공개회의에서 용서를 부탁하곤 했다. 자백은 단순히
용서를 위한 제례에 불과했으며, 죄를 범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통고하고,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외치는
예식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는 정결 제례식 순서가
이어졌다. 고대의 모든 민족이 무의미한 이 예식을 행했다.
외견상 위생적인 옛 부족들의 관습 대부분이 주로
예식절차였다.

3. 체념과 굴종

89:3.1 (976.3) 체념이 종교 진화에서 다음 단계로
발생했으며;금식이 일반 풍습이었다. 여러 형태의 육체적
쾌락, 특히 성적{性的} 본성을 지닌 쾌락을 삼가는 것이 곧
관습으로 굳어졌다. 금식하는 제례식은, 고대의 여러

종교에 깊이 뿌리 내렸고, 실질적으로 현대의 모든 신학
사고 체계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89:3.2 (976.4) 죽은 사람과 함께 재산을 태우고 땅 속에 묻는
낭비하는 풍습에서 야만인이 막 벗어날 무렵이 되자,
인종들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체념에 대한
이런 새로운 종교 교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진지한 혼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가난을 자초하기 시작했다. 재산은
영적 불이익으로 간주됐다. 물질 소유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은, 필로와 바울 시대에 널리
유행했고, 유럽의 사상에 유례없는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89:3.3 (976.5) 가난은 육신의 극기에 속하는 제례식의 일부였고,
불행하게도 많은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 문헌과 교훈에
삽입됐다. 참회는, 체념이라는, 흔히 어리석은 이 제례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미개인에게 *자아_통제*를 가르쳤고, 이는 사회 진화에서
상당한 발전이었다. 금욕과 *자아_통제*는 초기 진화
종교에서 얻은 두 가지 가장 큰 사회적 소득이었다.
*자아_통제*는 새 인생 철학을 사람에게 제공했고;이기적

만족이라는 분자{分子}를 증대시키려고 항상 애쓰는 대신, 개인적 욕구라는 분모를 낮춤으로써 인생의 분수{分數}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사람에게 가르쳤다.

89:3.4 (976.6) 자아_훈련에 속하는 이런 옛 관념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고문과 매질을 포함했다. 어머니를 섬기는 종파의 사제들이 특히 육체적 고통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는데, 스스로 거세{去勢}함으로써 본을 보이려고 했다. 히브리인, 힌두인, 및 불교도들은, 육체적 굴종에 속하는 이 교리를 진지하게 신봉했다.

89:3.5 (976.7) 옛 시절 내내,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神}들의 금욕 장부책에서 여분의 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감정적 압박을 당할 때, 금욕과 고행의 맹세를 하는 것이 한때의 관습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런 맹세는 신{神}들과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행과 극기에 대한 대가{代價}로 신들이 확실히 무언가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면에서, 진화에서 참된 발전이었다. 맹세는 부정적이기도 했고 긍정적이기도 했다. 해롭고 극단적 특성을 갖는 이 맹세를, 인도의 어떤 집단들이 오늘날 가장 잘 준수한다.

체념과 굴종을 요구하는 종파가 성적 만족에 눈을 돌린 것은 그저 자연스러웠다. 군인들 가운데서,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절제하는 종파가 제례식으로서 생겨났으며;나중에는 "성자"라는 풍습이 됐다. 이 종파는 결혼을 간음보다는 약간 덜 악한 것으로 묵인했다. 세상의 큰 종교 가운데 다수는 이런 고대 종파로부터 해로운 영향을 받아왔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교보다 더 뚜렷이 영향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 종파를 신봉했고, 그의 개인적 견해는, 그가 그리스도교 신학으로 확정 시켰던 교훈에 반영됐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남자가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게 말하겠는데, 나처럼 홀로 사는 것이 저희에게 좋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 교훈이 예수의 복음의 일부가 아님을 잘 알았고, 이런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말함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예찬이, 바울로 하여금 여자를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유감스런 것은, 그의 개인 의견이 위대한 세계 종교의 교훈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천막을 만드는 그 선생의 충고가 글자 그대로 보편적으로 지켜졌다면, 인간 종족은

갑작스럽게 불명예스런 종말을 맞았을 것이다. 더욱이, 고대의 절제하는 종파에 종교가 휩쓸려 들어가면, 인간 진화의 기본 제도이고 참된 사회적 기초에 해당하는 가정과 결혼에 항거하는 전쟁이 직접 발생된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신념이, 다양한 민족의 여러 종교에서 독신자 사제계층 형성을 조장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89:3.7 (977.2)}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 폭식하지 않고 자양분을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방탕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언젠가는 사람이 배워야만 할 것이다. 자아_통제는, 극단적 금욕보다 뛰어난, 인간의 습성을 규제하는 방침이다. 또한 예수는 이런 비이성적 견해를 추종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전혀 없었다.

4. 제물의 기원

^{89:4.1 (977.3)} 종교적 헌신의 일부분으로서의 제물은, 다른 여러 경건한 제례식처럼,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원된 것이 아니다. 권력자 앞에 허리 숙이고 신비적 존재 앞에 경건한 동경을 드리면서 엮드리려는 경향은, 주인 앞에 아양 떠는 개{犬}의 태도에서 잘 예시된다. 숭배하려는

충동으로부터 제물을 바치는 행동까지는 겨우 한 걸음에 불과하다. 원시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로 제물의 값을 판단했다. 제물 관념이 처음으로 종교 예식절차에 덧붙여졌을 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제물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최초의 제물은 머리카락을 뽑고, 살을 도려내고, 수족을 절단하고, 이를 뽑아내고,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였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런 거친 제물 개념은 자기_희생, 고행, 금식, 궁핍의 제례식 수준으로 향상됐고, 나중에는 슬픔, 고난, 및 육체의 극기를 통해서 성화{聖化}된다는 그리스도교 교리로 발전했다.

89:4.2 (977.4) 종교의 진화에서, 초기에는 제물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존재했는데:선물을 바치는 관념은 감사드리는 태도를 암시했고, 빚 갚는 제물은 죄 값을 치른다는 관념을 포함했다. 나중에는 죄 값을 대신 치른다는 개념이 발전했다.

89:4.3 (977.5) 그 후에 사람은, 어떤 성질의 제물이든지, 그 제물이 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으며;향기로운 냄새로 신격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제례식에 향과 기타

미적{美的} 특색을 더했고, 제례식은 제물을 바치는 축제로 발전됐으며, 시간이 지나자, 축제는 점점 더 정교하고 화려하게 됐다.

89:4.4 (978.1)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 화해하고 달래는 제물 제례가, 옛날의 도피, 달래기, 및 쫓아내기 등의 방법을 대신했다.

89:4.5 (978.2) 가장 초기의 제물 관념은, 조상의 영들이 균형 있게 부과금을 징수한다는 관념이었으며;후대에 이르러서야 속죄 관념이 개발됐다. 인종이 진화로 기원됐다는 개념이 사람에게서 사라지면서, 행성 왕자 시대와 아담이 머물던 시대의 전통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제거되면서, 죄와 원죄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됐고, 그리하여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제물은, 종족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물 교리로 진화했다. 제물로 죄 값을 치르는 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神}의 분노와 질투심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비책이었다.

89:4.6 (978.3) 신경질적인 허다한 영과 욕심 많은 신들로 둘러싸인 채, 원시인은 수많은 빗쟁이 신격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빛을 평생토록 갚기 위해서,

모든 사제, 제례식 및 제물이 필요했다. 원죄 교리, 즉 인종 전체에게 죄가 있다는 교리는, 사람마다 영 권력자들에게 무거운 빚을 진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89:4.7 (978.4) 선물과 뇌물을 사람에게 주지만;신들에게 바칠 때에는, 그것들이 헌납됐다고 설명하거나, 신성시됐다거나, 또는 제물이라고 부른다. 체념은 소극적 형태로 달래는 것이었으며;제물은 적극적 형태가 됐다. 신을 달래는 행위에는, 찬양, 찬미, 아침하는 말, 그리고 심지어 연회를 베푸는 것까지 포함됐다. 신을 달래던 옛 종파의 이런 적극적 관습의 잔재가, 현대의 신성한 경배 형태를 구성한다. 오늘날의 경배 형태는, 적극적으로 신을 달래는 제물의 이런 옛 기법을 제례식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89:4.8 (978.5)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현대의 종족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것보다 원시인에게 훨씬 많은 것을 의미했다. 이런 야만인은 동물을 가까운 실제 친척으로 간주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은 제물을 바치는 데 약삭빨라져서, 일을 돕는 동물은 바치지 않게 됐다. 처음에는 길들여진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바쳤다.

89:4.9 (978.6) 이집트의 어떤 통치자가:113,433명의 노예, 493,386마리의 가축, 88척의 배, 2,756개의 금으로 된 형상, 331,702병의 꿀과 기름, 228,380병의 포도주, 680,714마리의 거위, 6,744,428덩어리의 빵, 5,740,352자루의 동전을 제물로 바쳤다고 공표했을 때, 그것은 빈말로 자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백성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였음에 틀림없다.

89:4.10 (978.7) 신들은 제물에서 떠난 혼을 즐기므로, 심각한 궁핍이 이런 반미개인으로 하여금 결국 제물로 바친 것들 중에서 고기를 먹게 했다. 그리고 이 관습은, 옛날에는 신성시되는 식사, 현대의 관례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구실로 정당화됐다.

5. 제물과 식인 풍습

89:5.1 (978.8) 초기의 식인{食人} 풍습에 대한 현대 개념은 아주 잘못됐는데;그것은 초기 공동체의 사회관행 가운데 일부였다. 현대 문명은 식인 풍습을 끔찍한 전통이라고 인식하지만, 원시 사회에서는 사회 및 종교 구조의 일부였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식인 풍습의 실행이

강요됐다. 그것은 궁핍의 압박감에서 발생됐고, 미신과 무지에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유지됐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및 군사적 관습이었다.

89:5.2 (979.1) 초기의 사람은 식인자였으며;인간의 살을 즐겼고, 따라서 영들 및 자신이 섬기는 원시적 신들에게 먹는 선물로서 인간의 살을 바쳤다. 유령이 된 영들은 단순히 변경된 사람으로 여겨졌으므로, 그리고 음식은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필수품이었으므로, 영들에게도 음식이 가장 중요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89:5.3 (979.2) 식인 풍습은, 진화하는 인종들 가운데서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다. 상의 인종들은 모두 식인 풍습을 갖고 있었지만, 안돈족속은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고, 낫족속과 아담족속도 그렇지 않았으며;안드족속도 진화 인종들과 많이 섞이기까지 그렇지 않았다.

89:5.4 (979.3) 인간의 살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다. 배고픔, 우정, 복수심, 또는 종교 제례식을 통해서 시작됐지만, 인간의 살을 먹는 것은 습관적 식인 풍습으로 변했다. 사람을 먹는 것은 음식 부족 때문에 발생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적은 드물다. 그러나, 에스키모와 초기

안돈족속은 굶어 죽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식인 풍습이 없었다. 홍색인, 특히 중앙 아메리카에 있던 그들은 식인이었다. 분만하면서 잃은 힘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자기 아이를 죽여서 먹는 것이 원시의 어머니들에게 한때 일반 풍습이었고, 퀴즈랜드에서는 아직도 첫 아이를 죽여서 먹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식인 풍습은,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이 전쟁을 벌이는 방법, 즉 이웃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종의 소름끼치는 짓으로서, 고의로 이용돼 왔다.

89:5.5 (979.4) 어떤 식인 풍습은, 한때 우세했던 혈통이 퇴화함으로 생겼지만, 대체로 진화 인종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사람을_먹는 것은, 적에 대해 격렬하고 냉혹한 감정을 체험했을 때 발생됐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엄숙한 복수{復讐} 예식의 일부가 됐으며;이렇게 해서, 적의 유령이 파괴되거나 먹는 사람의 유령과 결합된다고 믿었다. 요술쟁이들이 인간의 살을 먹음으로써 능력을 얻는다는 믿음이 한때 널리 퍼졌다.

89:5.6 (979.5) 사람을_먹는 어떤 집단은 오직 자기 부족원만 먹곤 했는데, 거짓된 영적 근친 교배가 부족의 단결을

강화시켜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적의 힘을 뺏는다는 관념에서, 원수를 갚기 위해 적을 잡아먹었다. 친구 부족 또는 벗의 시체를 먹는 것이 그 혼에게 영광스런 일로 간주된 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적에게는 다만 확실한 형벌이 될 뿐이었다. 미개한 정신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허세부리지 않았다.

89:5.7 (979.6)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늙은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먹히기를 원했으며;또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가까운 친척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관습이 있었으며;그들의 시체를 낯선 사람에게 팔거나, 또는 그들의 것과 교환했다. 도살하기 위해 살찌게 한, 여자와 아이를 거래하는 일도 상당히 있었다. 질병이나 전쟁이 인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과잉된 숫자를 허물없이 잡아먹었다.

89:5.8 (979.7) 식인 풍습이 점차 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은 영향 때문이었다:

89:5.9 (979.8) 1. 식인 풍습이 때로는 공동 사회의 예식, 즉 동료 부족원에게 사형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전체, 즉 공동체가 참여할 때에는,

살인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식인 풍습은, 이와 같이 사형 집행된
죄수를 먹는 것이었다.

89:5.10 (979.9) 2. 식인 풍습은 매우 일찍부터 종교 제례식이
됐지만, 유령에 대한 증대되는 두려움이, 사람을_먹는
일을 줄여주도록 항상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89:5.11 (979.10) 3. 결국 시체의 특정 부위 또는 기관들만 먹는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그 부위들은 혼 또는 영의 일부분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피를 마시는 것이 일반화됐고,
육신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약품과 섞는 것이
관습이었다.

89:5.12 (980.1) 4. 식인 풍습이 남자에게 국한됐고;여자는 사람의
살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89:5.13 (980.2) 5. 그 다음에는, 족장, 사제, 그리고 무당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89:5.14 (980.3) 6. 그 후에는, 식인 풍습이 상류 부족들 가운데서
금기가 됐다.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금기는
달라마시아에서 기원됐고, 서서히 온 세계에 퍼졌다. 땅에

물은 시체를 다시 파내서 먹는 것이 한때 일반 풍습이었기 때문에, 늦죽속은 식인 풍습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장{火葬}을 권장했다.

89:5.15 (980.4) 7.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식인 풍습에 종말을 고했다. 인간의 살은, 우세한 사람, 즉 우두머리의 음식이었고, 결국 더 우세한 영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으며, 그리하여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식인 풍습을 효과적으로 멈추게 했으나, 가장 열등한 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자, 사람을_먹는 것은 금기가 됐으며;인간의 살은 오직 신들에게만 양식이 됐고;사람은 예식적인 작은 조각, 즉 성찬만 먹을 수 있었다.

89:5.16 (980.5) 마침내 제물을 바치는 목적에 동물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고, 더 뒤떨어진 부족들 가운데서도, 개를_먹음으로써 사람을_먹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개는 최초로 길들여진 동물이었고, 그 자체로서, 그리고 음식으로서 가장 존중됐다.

6. 인간 제물의 진화

89:6.1 (980.6)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식인 풍습을 고치는 처방일 뿐만 아니라, 그 간접 결과였다. 영을 호위해서 영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려는 노력 역시 사람을_먹는 일을 줄여줬는데, 제물로 바쳐졌던 시체를 먹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족은 없었지만, 안돈족속, 낫족속, 밋 아담족속은 식인 풍습에 가장 적게 물들었다.

89:6.2

(980.7)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사실상 보편적이었으며;중국인, 힌두인, 이집트인,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기타 여러 민족의 종교 관습에서 지속됐고, 오늘날에도, 뒤떨어진 아프리카인과 오스트랄리아 부족들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후대의 아메리카 인디언은 식인 풍습에서 벗어난 문명을 소유했고, 따라서 인간 제물에 몰두했는데, 특히 중앙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에서 그랬다. 갈대아인은 평범한 경우에 인간 제물 바치기를 처음으로 거부한 사람에 속했고, 동물로 대체시켰다. 약 2천 년 전에, 일본에서는 어느 인정 많은 황제가 인간 제물 대신 진흙으로 만든 형상을 바치도록 가르쳤지만, 북부

유럽에서는 이런 제물이 사라진 지 1,000년이 못 됐다. 뒤쳐진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인간 제물이 지원자들, 즉 일종의 종교적 또는 제례적 자살 행위로 여전히 수행된다. 한때 어느 무당이 어떤 부족에서 매우 존경 받는 한 노인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켰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복종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신을 죽이도록 했으며;고대인은 이 관습을 진지하게 믿었다.

89:6.3 (980.8) 기록된 사건 가운데, 입다와 그의 외동딸에 대한 히브리인 이야기보다 더 비극적이고 애처로운 일은 없을 것인데, 고대의 전통적 관습과 진취적 문명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슴을 찢는 듯한 갈등을 보여준다. 일반 관습대로, 마음씨 좋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맹세를 했는데, "전쟁의 신"과 흥정해서, 적을 물리치게 해 주는 어떤 대가{代價}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입다는 믿을만한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자기 딸에게 벌어졌고, 유일한 자식이 뛰어나와서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심지어 그런 후기 시대에도, 그리고
문명화됐으리라고 생각되는 민족 가운데서도, 두 달 동안
자신의 운명을 슬퍼한 후, 동료 부족민의 동의하에, 그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소녀를 실제로 인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 제물을 철저히 금지한 모세의
엄중한 판결문에도 아랑곳없이 자행됐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들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 데 빠지며, 옛
사람은 그런 모든 서약을 무척 신성하게 여겼다.

89:6.4 (981.1) 옛날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새 건물이
지어질 때, 한 사람을 죽여서 “기초{基礎} 제물”로 바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것은 유령이 된 영으로 하여금 그
건물을 감시하고 보호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인은
종{鐘}을 주조할 준비가 됐을 때, 종소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관습에 따라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소녀를
제물로 바치게 돼 있었으며;선택된 소녀는 용해된 쇠물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

89:6.5 (981.2) 중요한 성벽 속에 노예를 산채로 집어넣는 것이,
여러 집단의 오랫동안의 풍습이었다. 후대에 이르러서,
북부 유럽의 부족들은 새로운 건물 벽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이런 관습 대신, 지나가는 사람의 초상화를 벽 속에 넣었다. 중국인은 건물을 짓다가 죽은 인부를 벽 속에 묻었다.

89:6.6 (981.3) 팔레스틴의 어떤 웅졸한 왕은 여리고 성벽을 지으면서, “그 기초를 놓으면서 만_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우면서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그런 후기 시대에, 그 아버지는 그 성문의 기초석 구멍에 두 아들을 산채로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모세는 기초를 위한 이런 제물을 금지했지만, 이스라엘족속은 그가 죽은 직후에 이런 풍습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건물의 주춧돌 속에 장신구와 기념품을 보관시키는 20세기 예식은, 기초를 위한 원시 제물의 흔적이다.

89:6.7 (981.4) 첫 열매를 영들에게 바치는 것이 오랫동안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상징적 의미가 된 이런 관례는 모두,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초기 예식의 유물이다. 첫_태생을 제물로 바치는 관념이 고대인에게 널리 퍼졌는데, 특히 페니키아인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포기한 민족이었다. 제물을 바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말하곤 했다. 이제 너희는 죽음에 이를 때
“티끌에서 티끌로”라고 말한다.

89:6.8 (981.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억지로 제물로 바치려던
장면은, 감수성 예민한 문명인에게는 충격적인
것이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새롭거나 이상하지
않았다. 심한 감정적 압박감에 짓눌린 아버지가 첫_태생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유행한
풍습이었다. 여러 민족이 이와 유사한 전설을 갖고 있는데,
어떤 비범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때 인간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한때 세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7. 인간 제물의 변경

89:7.1 (981.6) 모세는, 인간 대신 몸값을 내게 함으로써 인간
제물을 끝내려고 애썼다. 자기 민족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조직적 명세서를 설립했다. 땅,
재산, 및 자녀를 정해진 값으로 변제{辨濟}할 수 있었는데,
그 속전은 사제들에게 지불할 수 있었다. 첫_태생을
제물로 바치기를 멈추게 된 그 집단은, 이런 잔학한 행위를

계속하는 뒤쳐진 이웃 민족들보다 곧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됐다. 뒤떨어진 그런 부족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들을 잃어버림으로써 크게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도권 계승조차 종종 끊어졌다.

89:7.2 (982.1) 첫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관습은,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 사라지면서 생겨났다. 이런 일은 한 해의 신성시되는 축제 가운데 하나와 관련해서 종종 이뤄졌고, 이 예식{禮式}은 한때 멕시코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89:7.3 (982.2) 아이를 죽이는 제례식을 대부분의 집단이 멈춘 후에도, 갓난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즉 광야에 두거나 또는 배 위에 혼자 태워 물위에 띄워놓는 관습이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신{神}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했다고 생각했으며, 사르곤, 모세, 키루스, 및 로물루스에 관한 전설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을 신성시되는 존재로서 또는 산 제물로서 바치는 풍습이 생겨나서, 그들을 자라게 한 뒤에, 죽이는 대신 멀리 떠나도록 허용했으며;이것이 식민지 형성의 기원이 됐다. 로마인의 식민지화 계획은 이런 관습을 고수했다.

89:7.4 (982.3) 원시적 숭배와 성적 방종이 독특하게 연합된 것들 가운데 다수는 인간 제물과 관련해서 기원됐다. 옛날에는, 어떤 여자가 인간_사냥꾼을 만나게 되면, 성적으로 행복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후대에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소녀가, 자기 몸을 신전에서 신성시되는 성적 봉사의 삶에 바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이런 식으로 보상의 돈을 벌수도 있었다. 고대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여자와 성관계 맺는 것을 매우 고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신성시되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종교 예식이었으며, 더욱이 이런 제례식 전체가, 진부한 성적 만족을 위한 구실을 제공했다. 이것은 그 처녀와 그 상대자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즐기는, 미묘한 종류의 자아_기만이었다. 문명의 진화 발전을 사회관행이 항상 방해했으며, 진화 인종들의 더 오래되고 더 야만스러운 성적 풍습들이 그런 식으로 허용됐다.

89:7.5 (982.4) 신전 매춘 행위는 결국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도 널리 퍼졌다. 신전 매춘 행위로 번 돈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신성시되는 것으로--곧 신들에게 바쳐진 고귀한 선물로--간주됐다. 가장 고상한 유형의 여자들이 신전에서 매춘

시장에 몰려들었고, 자신이 번 돈을 온갖 종류의 신성시되는 예배와 공익사업에 바쳤다. 상류의 여자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전에서 일시적인 성적 봉사를 통해서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선호했다.

8. 구속과 계약

89:8.1 (982.5) 제물로 죄 값을 치르는 것과 신전 매춘 행위는, 실제로는 인간 제물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딸들을 가짜로 바치는 일이 등장했다. 이 예식은, 평생 처녀로 지내기로 헌신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뤄졌고, 그 전에 있었던 신전 매춘에 대한 도덕적 반작용이었다. 더 최근에는, 신성시되는 신전 성화{聖火}를 돌보는 일에 처녀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89:8.2 (982.6) 사람들은 결국, 신체의 어떤 부분을 바치는 것이, 인간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더 옛날의 관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신체를 잘라내는 것 역시 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머리카락, 손톱, 피,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제물로 바쳐졌다. 후대에 거의 보편적으로 퍼진, 할례{割禮}를 행하는 옛 제례는,

일부분을 제물로 바치는 종파에서 발생했으며;순전한 제물에 해당됐고, 거기에 첨부된 위생학적 개념은 전혀 없었다. 남자는 할례를 받았고;여자는 귀에 구멍 뚫었다.

89:8.3 (983.1) 나중에는 손가락을 자르는 대신, 그것들을 묶는 것이 관습이 됐다.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역시 종교적 헌신의 비슷한 형태였다. 내시{內侍}를 만드는 것은, 처음에는 인간 제물 관념의 변경이었다. 코와 귀를 뚫는 행위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문신{文身} 행위는, 먼 옛날에 몸에 조잡하게 상처를 내던 것이 예술적으로 진화한 것이다.

89:8.4 (983.2) 제물을 바치는 관습은, 발전하는 교훈의 결과로, 결국 계약 관념과 연결됐다. 마침내, 신들이 인간과 실제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이해됐으며;이것은 종교가 안정을 이루게 되는 주요 단계였다. 율법, 즉 계약이, 운수{運數}, 두려움, 및 미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89:8.5 (983.3) 사람은, 그의 하나님 개념이, 우주 통제관을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신격과 계약 맺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초기 관념은 너무나 의인화 됐으므로, 자신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믿을만한 신격을 생각할 수 없었다.

89:8.6 (983.4) 그러나 신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관념이 결국 조성됐다. 진화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감히 자신의 신들과 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도덕적 존엄성을 획득했다. 그리하여 제물이 점차 발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성적으로 협상하는 시합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운을 물리치는 대비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명확한 번영을 위한 발전적 방법이었다. 이런 초기 제물이, 신들에게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고,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쳐진 것이었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며;그것은 참된 경배의 표현이 아니었다.

89:8.7 (983.5) 원시 형태의 기도는, 영들과의 협상, 즉 신들과의 논쟁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물물 교환 같은 것이었고, 그 속에 포함된 변론과 설득은, 더 실체적이고 값나가는 어떤 것과 바꾸려는 것이었다. 종족들의 발전하는 교역{交易}은, 매매하는 정신을 심어줬고, 영리하게 물물 교환 하도록 발달시켰으며;그때부터 이런

기운이 인간의 경배 방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상인{商人}이 되듯이,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됐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매우 존중됐다. 의로운 사람이란, 영들에 대한 모든 계산을 마친, 신들에 대한 모든 제례적 채무{債務}를 완전히 면제받은 사람이었다.

89:8.8 (983.6) 초기의 기도는 도저히 경배라고 할 수 없었으며;건강, 재산, 및 생명을 위해서 거래하는 청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기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고, 형식적으로 암송하며, 바퀴에 새겨놓고 나무에 걸어놓기 위해서 베껴 쓰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허튼소리 하는 수고를, 불어오는 바람이 덜어줄 것이다.

9. 제물과 성례

89:9.1 (983.7)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유란시아 제례식이 진화하는 과정 내내, 사람을_먹는 잔인한 거래로부터, 더 높고 더 상징적인 수준으로 진보해 왔다. 제물을 바치는 초기 제례식이 후대의 성례{聖禮} 예식을 탄생시켰다. 더

후대에 이르러서는, 사제가 혼자 야만적인 제물 한 조각을 먹거나 소량의 사람의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대용품인 동물을 먹곤 했다. 몸값, 구속{救贖}, 및 계약과 같은 이런 초기 관념은 후대의 성례 예배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예식의 진화는, 강력하게 사회화 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89:9.2 (984.1) 멕시코 및 기타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종파와 연결돼서, 결국 떡과 포도주로 구성된 성찬식이, 옛날에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활용됐다. 히브리인은 이런 제례식을 유월절 예식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바로 이 예식절차로부터, 나중에 그리스도교식 성찬이 탄생됐다.

89:9.3 (984.2) 고대 사회의 형제관계는 피를 마시는 제례에 기초했으며;초기 유대인 공동체는 제물의 피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바울은 "영원한 계약의 피"에 기초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교 종파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피와 제물에 관한 교훈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에 방해 요소를 제공하기는 했어도, 인간이나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단숨에

끝내버렸다. 그의 신학적 타협은, 진화의 누진적 통제에
계시조차 복종해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완전무결한 인간 제물이
됐으며;신성한 재판관은 이제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만족하게 됐다.

89:9.4 (984.3)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제물 바치는
종파는 성례를 행하는 종파로 진화했다. 이렇게 현대
종교의 성찬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충격적인 초기
예식과, 그 이전에 있었던 식인 제례식을 합리적으로
계승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피에
의존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비유이고 상징이며
신비가 됐다.

10. 죄의 용서

89:10.1 (984.4) 고대의 사람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기에 도달했을 뿐이다. 현대인은 구원에 대한
자아_의식을 획득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만 한다.
죄에 대한 의식은 필사 정신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만,
거기서 나온 구원에 대한 사고{思考} 경향들은 진부하고
낡은 것이 됐다. 영적 필요라는 실체는 지속되지만, 지적

진보는 정신 및 혼에게 평화와 위로를 보장하는 옛 방식을 파괴해 왔다.

89:10.2 (984.5) 죄는, 신격에 대한 고의적 불충{不忠}이라고, 다시 정의돼야만 한다. 불충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우유부단한 부분적 충성이 있고;갈등을 일으키는 분열된 충성이 있으며;무관심이라는 죽어가는 충성이 있고;신을 믿지 않는 이상{理想}에 대한 헌신에서 드러나는 죽은 충성이 있다.

89:10.3 (984.6) 죄의식 또는 죄책감은 사회관행을 위반했음을 의식{意識}하는 것이며;그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다. 자각하면서 신격에게 불충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죄가 아니다.

89:10.4 (984.7) 죄책감을 인식할 가능성은 인류에게 초월적 탁월성이 있다는 표시다.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 위대성과 영원토록_상승하는 영광스런 존재로 구별시킨다. 그런 부덕{不德}하다는 느낌은 초기의 자극이고, 이것은 신앙의 승리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인도해야만 할 것인데, 그 승리는 필사 정신을, 도덕적 숭고함, 시공우주 통찰력, 및 영적 생활이라는

훌륭한 수준으로 전환시키며;이처럼 인간 실존의 모든 의미는 현세의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바뀌고, 모든 가치는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높아진다.

89:10.5 (984.8) 죄의 고백은 불충을 용감하게 거절하는 것이지만, 그런 불충의 시공간 결말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고백은--곧 죄의 본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은--종교적 성장과 영적 진보에 필수 요소다.

89:10.6 (985.1) 신격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고의적 반역 결과로 그런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을 한동안 인간이 의식한 후에, 충성스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용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오직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충실한 관계가 회복됨을 의식{意識}함으로써 용서를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런 아들들은 모두 행복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며, 낙원을 향해 상승하면서 늘_전진한다.

89:10.7 (985.2) [네바돈의 찬란한 저녁별이 제시했음]

제90편

무속신앙--주술사와 사제

90:0.1 (986.1) 종교 관례의 진화가, 회유, 피하기, 쫓아내기, 강압, 화해, 그리고 달래기로부터, 제물, 죄값, 및 구속{救贖}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 종교 제례식을 치르는 기법은, 원시 종파 형태로부터, 주물숭배를 거쳐서, 마술과 이적{異蹟}으로 발전했으며; 초물질 영역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점점 복잡하게 됨으로써 제례식도 더 복잡하게 되자, 주술사, 무당, 및 사제들이 불가피하게 제례식을 지배하게 됐다.

90:0.2 (986.2) 원시인의 진보하는 개념에서, 결국 영 세계가 평범한 필사자에게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됐다. 인간 가운데 오직 예외적인 사람들만 신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영들은 특별한 남자나 여자의 말만 듣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교는, 새로운 국면, 즉 점차 매개체에 의존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으며; 숭배 대상과 종교인 사이에, 주술사, 무당, 또는 사제가 반드시 개입됐다. 그리고 오늘날 조직된 유란시아 종교 신념 체계 대부분은 이런 수준에서 진화하는 발전을 거치고 있다.

90:0.3 (986.3) 진화 종교는 단순하고 온통_강력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데, 이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할 때,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쇄도한다. 결국 종교는, 전능한 사랑을 몹시 단순하게 깨닫는 경지를 성취하는데,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주의 아들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푸신다는 생각에 인간의 혼이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혼을 휩쓴다. 그러나 종교적 진화의 시초와 완료 사이에 무당의 시대가 오랜 동안 개재했는데, 이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인, 통역자, 및 조정자로서 주재님께서 있다.

1. 최초의 무당--주술사

90:1.1 (986.4) 무당은 뛰어난 주술사{呪術師}였고, 예식을 맡은 주물인간이었고, 진화 종교의 모든 풍습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많은 집단의 경우에 무당이 전쟁터의 우두머리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무당은 때로 사제 역할을 했고, 심지어 사제_겸_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후대의 일부 부족들에는, 초기 무당_주술사(선각자)와 후대에 나타난 무당_사제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무당의 직책이 세습됐다.

90:1.2 (986.5) 옛날에는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영{靈}에 사로잡힌 탓으로 돌렸으므로, 두드러진 정신병 또는 육체적 기형{奇形}은, 주술사가 되는 자격조건을 성립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남자가 간질병이었고, 많은 여자가 히스테리 환자였으며, 이 두 유형은, 영과 마귀에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고대의 신통력의 상당 부분을 설명했다. 상당수의 초기 사제들은, 나중에 편집증 환자라고 일컬은 부류에 속했다.

90:1.3 (987.1) 그들은 사소한 문제에서 속임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무당은 자신이 영에 사로잡혔다고 믿었다. 황홀경 또는 강경증{強硬症} 발작 상태에 스스로 빠져들 수 있는 여자는 강력한 여자 무당이 됐으며;나중에는 그런 여자들이 선지자 또는 영매{靈媒}가 됐다. 강경증으로 인한 그들의 혼수상태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대개 죽은 사람의 유령과 교통하는 데 관련됐다. 많은 여자 무당은 전문 춤꾼이기도 했다.

90:1.4 (987.2) 그러나 모든 무당이 자아_기만적이지는 않았으며;교활한 사람과 유능한 사기꾼도 많았다. 그 직업이 발달하게 되자, 초보자에게는, 주술사 자격을 얻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하고 금욕하며 실습하는 봉사 기간이 요구됐다. 무당은 전문 형태의 복장을 개발했고, 신비스럽게 보이는 행위를 꾸며냈다. 그들은 부족원들을 감동시키고 미혹할 수 있는 어떤 신체 상태를 유발하려고 흔히 약품을 사용했다. 재빠른 손재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였고, 교활한 사제들이 복화술{腹話術}을 처음 이용했다. 옛 무당 중에는 최면 상태가 돼서 무의식적으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꼽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쳐다봄으로써 자기 최면을 유도했다.

^{90:1.5 (987.3)} 많은 사람이 이런 사기와 속임수를 이용했지만, 집단으로서의 그들의 명성은 결국 겉으로 나타난 업적에 달려 있었다. 무당이 자신의 이행업무에 실패했을 때,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위를 잃거나 살해됐다. 그래서 정직한 무당은 일찍 사라졌고; 오직 교활한 연기자만 살아남았다.

^{90:1.6 (987.4)} 부족{部族} 직무의 독점 지휘권을 노인과 강자의 손에서 빼앗아, 교활한 자, 영리한 자, 및 선견지명 있는

자들의 손에 맡기게 한 것은 바로 무속신앙{巫俗信仰}이었다.

2. 무속 풍습

90:2.1 (987.5) 영{靈}을 불러내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심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오늘날 교회 제례식에서 옛 말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인간 종족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매우 일찍부터 초인적 존재의 도움을 추구했으며;사람은 무당이 실제로 그런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다. 무당들은 활동할 때 암시의 큰 능력을 활용했지만, 그것은 거의 변함없이 소극적인 암시였으며;아주 최근에서야 적극적 암시 기법이 채택됐다. 전문적인 무당 직업이 발달하던 초기에, 그들은 비 내리기, 병 고치기, 범죄자 찾아내기 등의 분야로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무속{巫俗} 주술사의 주요 기능이 아니었으며;오히려 삶 속에서 위험요소를 알아내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90:2.2 (987.6) 고대에 종교와 속세에서 쓰인 흑마술은, 사제, 선지자, 무당, 또는 주술사가 행할 때 백마술이라고 불렸다. 흑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요술쟁이, 마술사,

마법사, 마녀, 요술사, 마술쟁이, 강령술사, 및 점쟁이라고 불렸다. 시간이 흐르자, 초자연적 존재와 접촉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현상은, 마술 또는 무당술책으로 분류됐다.

90:2.3 (987.7) 옛날의 비정규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영들이 행한다고 생각되는 요술이 마술에 포함됐으며;부족의 알려진 신들과 조직적 영들이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기적은 무당술책에 포함됐다. 후대에 이르러서, 마녀는 마귀와 연합됐고,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종교적 편협성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조성됐다. 마술은 많은 원시 부족에게 일종의 종교였다.

90:2.4 (987.8) 무당들은, 우연이 영들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었으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주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는 성향이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운수를 바라는 많은 경기{競技}에서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셈노래로_뽑아내기”라는 노랫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단 뽑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에서만

그럴 뿐이다. 원시인에게 심각한 일이던 것이 변해서 오늘날 아이들의 오락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90:2.5 (988.1) 주술사{呪術師}는 “너희가 뽕나무 꼭대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더 분발해서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적과 징조에 커다란 신뢰감을 불어넣었다. 무당은 종족의 역사에서 매우 초기부터 별에 관심을 쏟았다. 원시 점성술은 범세계적인 믿음과 풍습이었으며;꿈 해몽 역시 널리 퍼졌다. 이 모든 것에 뒤이어, 죽은 자의 영{靈}과 대화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과민증의 여자 무당들이 곧 출현했다.

90:2.6 (988.2) 비를 내리게 하거나 날씨를 조정한다는 무당은, 아주 옛날에 기원됐음에도, 여러 시대를 거쳐서 계속 유지돼 왔다. 심각한 가뭄은 옛 농부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었으며;날씨를 통제하는 일은 고대의 많은 마술의 목적이었다. 문명화된 인간도 여전히 날씨를 평범한 대화 주제로 삼고 있다. 옛 사람은 모두, 무당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실패할 때 그 실패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못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90:2.7 (988.3) 가이사들이 점성가를 여러 번 추방시켰지만, 그들이 늘 다시 돌아온 것은, 대중이 그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전히 추방될 수 없었고, 심지어 기원후 16세기에도 서양 교회와 국가 지도자들이 점성술을 신봉했다. 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행운 또는 불운의 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하늘에 있는 천체들의 평행 현상이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의 발생을 결정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경솔하게 믿는 자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즐겨 찾는다.

90:2.8 (988.4) 그리스인은 신탁{神託}의 충고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고, 중국인은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마술을 이용했으며, 인도에서는 무속신앙이 번성했고, 중앙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무속신앙이 공공연히 지속되고 있다. 그 풍습을 세계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오직 최근의 일이다.

90:2.9 (988.5) 때때로, 선지자와 선생이 출현해서, 무속신앙을 비난하고 가면을 벗기려 했다. 심지어 사라져 가는 홍색인조차 그런 선지자들이 지난 수백 년 사이에 나타났었는데, 샤우니 텐스과타와는 1,808년에 태양의

일식{日蝕}을 예언했고 백색인의 악행을 비난했다. 오랜 기간의 진화 역사에서, 많은 참된 선생이 여러 부족과 종족 가운데 출현했었다. 각 시대의 무당 또는 사제가 대중{大衆} 교육을 반대하고 과학적 진보를 훼방하려 애쓰더라도,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참된 선생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90:2.10 (988.6) 옛 무당들은, 여러 면에서 사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대변자와 신의 뜻을 보존하는 자로서 명성을 구축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이름을 지어줬으며;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들은 모든 장례 예식을 주관했고, 죽은 자가 영{靈}나라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공식으로 선포했다.

90:2.11 (988.7) 무속{巫俗} 사제와 주술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영들에게 바치는 다양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큰 부자{富者}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어떤 무당이 자기 부족의 물질 재산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부자가 죽게 되면, 어떤 공공 단체 또는 자선 단체와 무당이 그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풍습은 티벳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통용되는데, 거기서는 남자 인구의 절반이 비생산적인 이 부류에 속해 있다.

90:2.12 (989.1) 무당은 옷을 잘 입었고, 대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최초의 귀족에 해당됐는데, 부족의 모든 제약 조건에서 제외됐다. 그들은 저급한 정신과 도덕을 소유한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들은 경쟁자를 마녀 또는 요술쟁이로 몰아서 탄압했고, 우두머리나 왕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을 갖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90:2.13 (989.2) 원시인은 무당을 필요악{必要惡}으로 여겼으며;그를 두려워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초기의 사람은 지식을 높이 평가했으며;지혜를 존중하고 그 값을 지불했다. 무당은 대개 사기꾼이었지만, 무속신앙을 공경한 것은, 그 종족의 진화에서 지혜에 비싼 값을 치렀음을 잘 보여준다.

3. 질병과 죽음에 대한 무속의 견해

90:3.1 (989.3) 고대인은 자신과 물질 환경이 유령의 번덕과 영의 취미에 직접 반응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그의 종교가 오로지 물질 용건에만 관련됐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현대인은 자신의 물질 문제에 직접 대처하며;정신이 총명하게 조종함에 따라서 물질이 반응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원시인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영역의 에너지와 생명을 변경하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지만;시공우주에 대한 납득이 제한됐기 때문에, 유령, 영, 및 신들이 몸소 즉시 생명과 물질을 낱알이 통제하는 데 관여한다고 믿게 됐으며, 이런 초인적 대행자의 호감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이치에 맞게 노력을 기울였다.

90:3.2 (989.4)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 종파에 있는 설명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들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종파{宗派}의 예식은, 원시인 자신이 살고 있는 물질세계를 통제해 보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원시인은, 목숨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질병과 죽음 자체가 처음부터 영적 현상으로 간주됐으므로, 무당은 주술사와 사제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의사와 외과의사의 일도 해야만 했다.

90:3.3 (989.5) 원시 정신은 진상{真相}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논리적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질병과 죽음을 볼 때, 이것을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려 하며, 무당과 과학자는 자신이 이해함에 따라서, 불행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해 왔다:

90:3.4 (989.6) 1. *유령 -- 영의 직접 영향*. 질병과 죽음을 설명하는데 가장 일찍 제기된 진보된 가설은,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도록 영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그 혼이 돌아가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고대인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령의 심술궂은 행동을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병든 자를 음식과 물도 주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잘못됐음에도, 그들은 앓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격리시켰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90:3.5 (989.7) 2. *폭력 -- 명백한 원인*. 어떤 사고나 죽음의 원인은 너무 쉽게 판명됐으므로, 유령의 작용으로 여겨지는 범주에서 일찍부터 제외됐다. 전쟁, 동물과의 사투, 그리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작용으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연되는 치료, 또는 심지어 "자연스런" 원인으로 발생해도, 상처가 감염되는 것은 여전히 영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눈에 보이는 당연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유령들이 여전히 그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90:3.6 (990.1) 오늘날, 누군가 폭력이 아닌 원인으로 죽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을,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사가 죄 있는 상대방을 지목한다.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으면, 그 아이를 즉시 목 졸라 죽였다--생명에는 생명으로.

90:3.7 (990.2) 3. *마술 --적들의 영향력.* 대부분의 질병은, 마녀술책에 걸림으로써, 즉 흥안과 마술적 활 겨누기 행위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정말로 위험하게 여겼으며;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지금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애매한 질병이나 죽음이 발생된 경우에, 고대인은 공식으로 검시하고, 시신을 해부하고, 무엇을 발견하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결정하곤 했으며;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마녀술책의 책임으로 돌리곤 했고, 따라서 그 책임이 있는 마녀를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 옛날 검시관의 검시가, 마녀라고 생각되는 자의 생명을 많이 살렸다. 어떤 부족 가운데서는 부족원이 자기

스스로 마녀술책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되지 않았다.

90:3.8 (990.3) 4. *죄 -- 금기{禁忌} 위반에 대한 형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서, 질병은 개인이나 종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믿었다. 이런 수준의 진화를 겪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널리 퍼진 견해는, 누군가 금기를 범하지 않는 한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속에 계시는 전능자의 화살"로 간주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중국인과 메소포타미아인은 질병을 악한 귀신이 작용한 결과로 간주했으며, 갈대아인은 또한 별들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신이 진노한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는 이런 견해는, 문명화 된 것으로 평판 나 있는 대부분의 유란시아인 집단에서 여전히 우세하다.

90:3.9 (990.4) 5. *자연발생적 원인.* 에너지, 물질, 및 생명을 다루는 물리적 영역에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관계라는 물질적 비밀을 인류가 깨우치기까지,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아담선의 교훈을 전통으로 간직했던 고대 그리스인은, 질병이 자연발생적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다. 과학 시대의 전개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케케묵은 견해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열병{熱病}은 초자연적 부조화의 범주에서 제외된 최초의 인간 질병 가운데 하나였고, 인간 정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가뒀던 무지의 족쇄를, 과학시대가 점진적으로 파괴해 왔다. 노화 현상과 전염병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치명적인 고난을 직접 일으키는 가해자라고 여긴, 유령, 영, 및 신들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90:3.10 (990.5) 진화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데:진화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을 미신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며, 이것은 하나님 개념이 생기는 발판이다. 그리고 신격에 대한 발전된 이해심의 탄생을 목격했으므로, 바로 이 진화 기법이, 계시의 협조 작용을 통해서, 그런 사고{思考}의 힘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이바지해온 그 발판을 냉혹하게 제거시킬 것이다.

4. 무당이 장악한 약품

고대 사람들의 생활은 온통 질병 예방법이었으며;그들의 종교는 질병 방지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들어있는 오류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전심으로 노력했으며;자신의 치료 방법을 무한히 신뢰했고, 그런 신념 자체가 강력한 치료제였다.

이런 고대의 한 무당의 어리석은 보살핌을 받고서 낫는 데 필요한 신념은 결국, 후일에 비과학적 질병 치료에 종사하는 어떤 후계자의 손으로 치료받는 체험에 요구되는 신념과,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 없었다.

원시적인 부족일수록 환자를 크게 두려워했으며, 환자를 오랜 세월 주의 깊게 피하고, 부끄럽게도 방치했다. 무당술책이 진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동의하는 사제와 주술사들이 생겼을 때, 인도주의적으로는 큰 진보가 이뤄졌다. 그 다음부터는, 질병을 일으킨 유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이 소리치는 일을 도와주려고, 환자의 방에 전체 씨족이 모여드는 관습이 생겼다. 여자가 진찰하는 무당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한편 남자는

치료를 담당하곤 했다. 질병을 진단하는 일반적 방법은 동물의 내장을 검사하는 것이었다.

90:4.4 (991.3) 노래 부르기, 소리치기, 손 얹기, 환자에게 숨 내뿜기, 그리고 기타 여러 기법이 질병 치료에 동원됐다. 후대에는 신전에서 잠자는 방법이 널리 퍼졌고, 자는 동안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됐다. 주술사는 결국 신전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실제 외과 수술을 시도하게 됐으며;최초의 수술 중에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이 도망가도록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것이 있었다. 남자 무당은 골절상과 뺨 것을 치료하고, 부스럼과 종기를 짜서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며;여자 무당은 산파술에 정통하게 됐다.

90:4.5 (991.4) 감염되거나 손상 입은 신체 부위에 마술적인 어떤 것을 문지르고, 주문을 멀리 던지며, 체험상 치료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누구든지 버려진 주문을 우연히 만지면, 그 사람이 감염되거나 손상을 입는다고 믿었다. 약초 또는 기타 실제 약품이 소개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안마하는 방법은, 주문 외우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됐는데,

몸을 주물러서 영을 쫓아내려는 것이었으며, 그 전에는 현대인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약품을 문질러서 침투되게 하려고 시도했다. 사혈{瀉血}과 함께, 병 걸린 부위에서 피를 짜거나 빨아들이는 방법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됐다.

90:4.6 (991.5) 물은 강력한 주물이었으므로 많은 질병 치료제로 이용됐다. 병을 일으키는 영은 땀을 흘림으로써 없앨 수 있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증기 목욕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여겼으며;천연 온천{溫泉}이 곧 원시적 건강 수단으로 각광 받았다. 초기의 사람은 열을 가함으로써 통증이 경감되는 것을 발견했으며;햇빛, 싱싱한 동물 내장, 뜨겁게 달군 진흙, 뜨거운 돌멩이가 이용됐고, 이런 방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여전히 활용된다. 영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율동이 실행됐으며;단조로운 북소리가 널리 쓰였다.

90:4.7 (991.6) 어떤 민족 가운데서는, 영과 동물 사이에 꾸민 사악한 음모로 질병이 발생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미암아, 동물이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효험 있는 식물 치료제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홍색인은 만병통치약에 해당하는 식물 요법을 특히 신봉했는데;그 식물을 뽑을 때에는, 뿌리가 있었던 구멍에 피 한 방울을 반드시 떨어뜨렸다.

90:4.8 (991.7) 금식, 식이요법{食餌療法}, 및 반대자극제들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확실히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 분비물이 매우 효험 있다고 생각했으며;따라서 처음에는 피와 오줌을 약품으로 활용했고, 뿌리 및 다양한 소금이 곧 첨부됐다. 무당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역겨운 냄새와 고약한 맛의 약품으로 인해 몸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믿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매우 일찍부터 틀에 박힌 치료법이 됐으며, 익히지 않은 코코아와 키니네의 효험은 약학{藥學}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물에 속했다.

90:4.9 (992.1) 그리스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을 처음 발달시켰다. 그리스인과 이집트인은 모두, 유프라테스 강 유역 사람들로부터 의학 지식을 받아들였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치료하는 매우 초기 약품이었으며;수메르인은 비버 기름과 아편을 사용했다.

효과적인 이런 고대의 치료 비법 중에서 다수는, 널리 알려지게 되자 그 효능을 잃어버렸는데;미신과 기만행위의 효과적 실행에는 반드시 은밀함이 근본 요소였다. 오직 사실과 진리만이, 온전히 납득시키는 빛을 추구하며, 과학적 연구로 얻은 조명과 계몽을 기뻐한다.

5. 사제와 제례식

90:5.1 (992.2) 제례식{祭禮式}의 본질은,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데 있었으며;미개인 가운데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했다. 제례식이 정확하게 이뤄질 때에만, 영들을 강압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제례식에 잘못이 있게 되면, 신들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킬 뿐이었다. 그러므로, 더디게 진화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례식의 기법*이 그 효력에서 결정적 요소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초기 시대의 무당이 곧 사제계층{司祭階層}으로 발전하여, 제례식의 신중한 실행을 지시하도록 훈련받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 그리하여 수만 년 동안, 끊임없는 제례식들이 공동체를 휘방하고 문명의 발전에 화를 미쳤는데, 생활에서 행위마다, 종족의 이행업무마다 그 위에 건디기 힘든 짐을 부과했다.

제례식은 관습을 신성하게 만드는 기법이었으며;신화를 만들고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과 종교 관습의 보존에 기여했다. 또 한편, 제례식 자체가 신화로부터 생겨났다. 제례식은 처음에는 공동체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됐고, 마침내 종교 예식절차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획득하게 됐다. 제례식은, 기도, 춤, 및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으로--또는 양쪽으로-- 실행할 수 있다.

단어들이 제례식의 한 부분이 됐는데, 아멘과 셀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예다. 맹세하는 습관,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은, 전에 제례식에서 거룩한 이름들을 반복하던 행위가 타락된 것이다. 신성시되는 성지를 순례하는 행위는 매우 오래된 의식{儀式}이다. 그 다음에 의식은, 정화, 씻음, 그리고 성화{聖化}라는 정교한 예식으로 발전했다. 원시 부족의 비밀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은 실제로 미숙한 종교 제례였다. 옛 시대의 신비 종파의 숭배 기법은 축적된 여러 종교 제례식을 길게 이어 놓은 것에 불과했다. 제례식은 결국, 현대 유형의 사회 예식절차와 종교적 경배, 기도가 포함된 예배, 노래,

교독{交讀}, 그리고 다른 여러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영적 헌신행위로 발전했다.

90:5.4 (992.5) 사제는 무당으로부터, 신탁{神託}을 전하는 자, 점쟁이,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날씨조정자, 종교 유품을 지키는 자, 신전 관리인, 그리고 사건을 점치는 자 등을 거쳐서, 종교적 경배를 실제로 지휘하는 자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 그 직책은 결국 세습됐고; 계속 이어지는 사제 신분계층이 생겨났다.

90:5.5 (992.6) 종교가 진화되자, 사제는 자신의 타고난 재주 또는 특별히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일부는 가수, 일부는 기도하는 자, 또 어떤 이들은 제물 바치는 자가 됐고; 나중에는 연설자--곧 설교자--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종교가 제도화되자, 이 사제들은 자신이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90:5.6 (992.7) 사제는, 옛 언어로 종교 제례식을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마술적인 잡다한 골동품을 이용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놀라게 함으로써 경배자를 미혹하여, 자신의 경건성과 권위를 증진시키려고 항상

애써 왔다. 이 모든 것에서 심각한 위험성은, 제례식이 종교의 대용품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90:5.7 (993.1) 사제계층은,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영적 진보를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문명을 안정시키고 특정한 종류의 문화를 증진시키기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제례식의 지휘자 역할을 중지해 왔으며, 관심을 신학에--곧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

90:5.8 (993.2) 여러 종족의 목에 사제들이 맷돌을 매달아 온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참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높고 더 향상된 실체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 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

90:5.9 (993.3)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1편 기도의 진화

91:0.1 (994.1) 기도는, 종교의 한 매개체로서, 종교성이 없는 예전의 독백과 문답식 표현으로부터 진화했다. 원시인이 자아를_의식하게 됨에 따라서, 필연적인 당연한 결과로,

남을_의식함, 즉 사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겼다.

91:0.2 (994.2) 초기의 기도 형태는 신격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표현은, 너희가 어떤 중요한 이행업무에 착수하면서 “내 성공을 빌어 달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했다. 원시인은 마술에 노예가 됐으며;행운과 불운이 인생의 모든 용건과 결부됐다. 행운을 비는 이런 간구가 처음에는 혼잣말이었다--마술 부리는 자가 생각을 크게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그 다음에는, 행운을 믿는 이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윽고 전체 씨족 또는 부족을 참여시키는, 어떤 형태의 예식이 거행되곤 했다.

91:0.3 (994.3) 유령과 영의 개념이 진화했을 때, 이 간구는 초인적인 연설이 됐고, 신들을 의식하게 되자, 그런 표현은 참된 기도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이것에 해당하는 한 예로,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부족들 가운데서는, 영들 및 초인적 인격체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보다, 원시 종교의 기도가 먼저 생겼다.

91:0.4 (994.4) 종교적 자각이 생기기 전에 초기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의 토다 부족은 특별한 대상 없이 기도하는 관습을 지금도 지킨다. 오직, 토다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들의 퇴보하는 종교의 이런 원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토다 부족 가운데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행하는 오늘날 제례식은 종교 예식과 상관없는데, 이런 비인격적 기도가 어떤 사회적, 도덕적, 또는 영적 가치든지 보존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91:0.5 (994.5) 종교가 생기기 전의 기도는, 멜라네시아인의 마나{초자연적 힘} 풍습, 아프리카 피그미의 우다 신앙, 그리고 북 아메리카 인디언의 마니투 미신의 요소였다. 아프리카의 바간다 부족들은, 최근에야 마나 수준의 기도에서 탈피했다. 이런 초기 진화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지역 및 민족의-- 신{神}들, 즉 주물, 부적, 유령, 통치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다.

1. 원시적인 기도

91:1.1 (994.6) 초기 진화 종교의 기능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는, 사회적,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것이였다. 종교의 이런 사명을, 사람들이 의식{意識}하면서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명은 주로 기도의 역할로 성취된다. 기도하는 습관은, 어떤 집단이든지 더 높은 가치를 이렇게 확고히 보존하려는(실현시키려는) 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수고를 의미한다. 기도가 옹호하지 않는다면, 모든 거룩한 날은 단순한 공휴일 상태로 재빨리 전환될 것이다.

91:1.2 (995.1) 매개체 중에 으뜸은 기도인데, 종교 및 그 매개체는, 오직 일반적인 사회 인식, 즉 일반적으로 사회에 인식된 그런 가치기준과 연합돼 있다. 따라서, 원시인이 더 열등한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순전히 이기적인 야망을 달성하려고 애쓴다면, 그는 종교의 위로와 기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개인이 반{反}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지 이루려고 모색한다면, 그는 비종교적 마술의 협력을 추구하고, 요술쟁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기도의 도움을 뺏기게 된다. 따라서 기도는 매우 옛날부터, 사회적인 진화, 도덕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 달성을 강력하게 증진시키는 수단이 됐다.

91:1.3 (995.2) 그러나 원시인의 정신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일관성도 없었다. 초기의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기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단순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은, 음식, 주거지, 비, 사냥감, 및 기타 물질 재화가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생각했으며, 그리하여 이런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도를 오용하는 요인이 됐지만, 윤리에 맞는 사회 활동으로 이 물질적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에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기도의 그런 타락은, 한 민족의 영적 가치를 저하시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윤리적 사회관행을 직접 향상시켰다.

91:1.4 (995.3) 가장 원시적인 정신 유형의 경우에는 기도가 혼잣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대화형태가 됐고, 집단 경배 수준으로 확장됐다. 기도는, 원시 종교에서 마술 이전에 있었던 주문이 진화해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도덕적 이상{理想}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정 많은 권능 또는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는 수준에 인간 정신이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이런 영향력이 초인적이라는 것과, 자아_의식하는 인간 및 동료 필사자의 자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사역의 기능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기 전에는, 참된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91:1.5 (995.4) 기도는 정령{精靈} 숭배와 거의 관련이 없지만, 그런 믿음은 싹트는 종교적 감상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 종교와 정령 숭배가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 경우가 많다.

91:1.6 (995.5) 두려움이라는 원시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필사자에게는, 모든 기도가, 죄에 대한 병적인 감각, 즉 실제적이든지 공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의식에 대해서 위험할 정도로 골똥하게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을 기도에 바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도를 잘못 이용하고 왜곡하는 데 따르는 위험은, 무지, 미신, 정형화{定型化}, 생명력 상실, 유물론, 및 광신에 있다.

2. 진화하는 기도

91:2.1 (995.6) 시초의 기도는, 소원을 말로 나타낸 것, 즉 진지한 욕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의 협조를 얻는 기법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훌륭한

가치기준을 보존하는 면에서 종교를 돕는 더 높은 기능에 도달했다.

91:2.2 (995.7) 기도와 마술 둘 다, 사람이 유란시아 환경에 맞춰서 반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일반화된 관계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아의 적극적 행위를 가리켰으며;항상 심령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이기도 하다. 마술은 대개, 조종하는 사람, 즉 마술을 행하는 사람의 자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실체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의미했다. 마술과 기도가 독립적으로 기원됐음에도, 그것들은 후대의 발전 단계에서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술은 처방으로부터 제례식과 주문을 거쳐서, 참된 기도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높임으로써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기도가 너무 물질적이었고, 그래서 유란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피하는 사이비 마술 기법으로 타락했다.

91:2.3 (996.1) 기도가 신{神}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게 되자, 기도는 청원에 더 가까운, 호의를

추구하는 것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진지한 기도는 사람과 조물주 사이의 교류다.

91:2.4 (996.2)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 자신의 헌신된 의지를 바치는 대신, 물질 소유물을 바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종교든지 제물 개념의 출현은 참된 기도의 더 높은 효력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91:2.5 (996.3) 종교가 인격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신학 및 철학 수준으로 전환된다. 종교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 범신론의 이상주의에서 보는 것 같은 비인격적 신격 개념이 될 때, 어떤 형태의 마술적인 교류를 위한 기초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참된 기도의 효력에 치명적임이 입증되는데,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인격있고 초월적인 존재와 사람의 교류를 의미한다.

91:2.6 (996.4) 인종이 진화하던 초기에,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도, 보통 필사자의 일상 체험에서 기도는, 사람이 자신의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현상과 아주 가깝다. 그러나 지적으로 기만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개인이, 인간 정신의 초의식 수준, 즉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의 영역과 다소간 접촉을 달성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 역시 존재한다.

그 외에도, 우주의 영적 세력들이 수신{受信}하고 인식하는 데 관련되는 참된 기도의 분명한 영적 국면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인간답고 지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91:2.7 (996.5) 기도는, 진화하는 인간 정신의 종교적 감상{感想}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기도는 인격체가 고립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91:2.8 (996.6) 기도는 인종의 진화에서 자연 종교와 관련된 하나의 기법을 대표하며, 이것은 또한 윤리적으로 탁월한 더 높은 종교, 즉 계시 종교의 체험적 가치 가운데 일부를 구성한다.

3. 기도와 또 하나의 자아

91:3.1 (996.7) 언어 사용법을 처음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생각을 소리치려는 경향,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 창조적 상상력이 생기면서, 그들은 가상{假想}의 동무들과 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싹트는 자아는, 가상의 또 하나의 자아와 교류하고자 한다. 아이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독백을 가상의 대화로 바꾸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하는데, 또 하나의 이 자아가, 말로 표현된 자신의 생각과 희망에게 그 대화 속에서 반응한다. 어른의 사색은, 상당한 부분이 대화 형태로 정신 속에서 이뤄진다.

91:3.2 (996.8) 초기에 원시 형태의 기도는, 오늘날 토다 부족의 약간마술적인 암송{暗誦}, 즉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기도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기법은, 또 하나의 자아 개념이 나타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하는 대화 유형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때가 이르면, 또 하나의 자아 관념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초월적 상태로 강화되고, 기도가 종교의 매개체로서 나타난다. 여러 국면을 거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원시 유형의 기도는, 진정으로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기도의 수준을 달성하기 전에 계속 진화하게 돼 있다.

91:3.3 (997.1) 이어지는 여러 세대의 기도하는 필사자들이 납득하다시피, 또 하나의 자아는, 유령, 주물, 및 영들을 거쳐서 다신론의 신{神}들로, 그리고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즉 기도하는 자아의 가장 높은 이상{理想}과 가장

고귀한 염원을 구현하는 신성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가장 고상한 가치와 이상을 보존하는 일에, 종교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또 하나의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개념이 출현할 때까지, 기도는 언제나 사회화시키고 교화{敎化}하고 영화{靈化}시키는 실습이다.

91:3.4 (997.2) 신앙으로 드리는 단순한 기도는 인간의 체험에서 강력한 진화를 입증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원시 종교에서 허구적 상징물인, 또 하나의 자아와 함께 가졌던 옛날의 대화는, 무한자의 영과 교류하는 수준까지, 그리고 모든 지성적 창조의 영원한 하나님 및 낙원 아버지의 실체를 진정으로 의식하는 수준까지 고양됐다.

91:3.5 (997.3) 기도하는 체험 속에서 초월적 자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차치하고, 윤리적인 기도는,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달성을 위해서, 사람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아를 강화하는 훌륭한 방법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기도는 인간 자아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 즉 물질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필사자가 체험하는 잠재의식 저장소로

가는 길, 그리고 통찰력과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인 신비 통제사와 물질 존재가 접촉하는 초의식 경계선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유도한다.

91:3.6 (997.4) 기도는 언제나 이중적인 인간 체험: 즉 영적 기법과 서로 관련된 심리적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이런 두 가지 기능은 결코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

91:3.7 (997.5) 영적 통찰력을 얻은 기도는, 밖에 계신 인격있는 하나님뿐 아니라, 안에 계시고 비인격인 신성, 즉 내주하는 조율사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사람이 기도할 때, 낙원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기법은, 원시 정신이 늘 그랬듯이, 가까이 있는 또 하나의 자아 개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런 또 하나의 자아 개념이 단순한 허구로부터 진화하여, 조율사라는 실제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진리에 이르게 됐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내주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 즉 만유의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이자 본질인 실제적이고

참되며 신성한 또 하나의 자아와, 말하자면,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다.

4. 윤리적인 기도

91:4.1 (997.6) 간구하는 자가, 동료들보다 유리한 이기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어떤 기도도 윤리적일 수 없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는, 이타적이고 거룩한 사랑에 입각한
윤리적 종교와 모순된다. 그런 비윤리적인 모든 기도는
가짜 마술의 원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문명 및 계몽된 종교에 적합하지 않다. 이기적인 기도는
애정 어린 응보 위에 세워진, 모든 윤리의 참뜻에 위배된다.

91:4.2 (997.7) 기도는 행동을 대체시킬 만큼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윤리적인 기도는 행동하도록 자극하며,
초월적_자아_달성이라는 이상적 목적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도록 안내한다.

91:4.3 (998.1) 너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공정**
하라;하나님께서 편애하심으로, 다른 자녀들,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심지어 적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자연 종교, 즉 진화 종교의 기도는,
후대의 계시된 종교의 기도와는 달리, 처음에는

윤리적이지 않다. 모든 기도는, 개별로 하든지 집단으로 하든지,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기중심으로 또는 타인중심으로 드릴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그 자신은 물론 동료를 위해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 혼의 그런 태도는 참된 경배 수준에 도달한다. 자기중심의 기도는 고백과 청원을 포함하며, 물질적 은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용서를 다루고 자아_통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할 때, 기도는 얼마큼 더 윤리적이다.

91:4.4 (998.2) 이기적이 아닌 유형의 기도는 힘을 주고 위안을 주지만, 사람이 법칙과 질서 속에 운행되는 물리적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진보하는 과학의 발견이 보여줌에 따라서, 물질적 기도는 실망과 환멸감을 주게 돼 있다. 한 개인이나 종족이 어린 시기에는,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기도를 드리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모든 청원은,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도록, 어김없이 인도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 신앙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는, 비록 그런 청원이 영적 보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더라도, 삶의 기법을 증대시키도록 반드시 기여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보된 인간은, 원시적이거나 미숙한 정신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려고 시도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91:4.5 (998.3)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확실하게 기대하는 그 사람 속에, 거대하고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매우 흔히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도는, 진화하는 종족들의 남녀 안에서, 상당한 정신적 평안, 쾌활함, 침착, 용기, 자제심, 및 공정성의 근원이었다.

5. 기도의 사회적 영향

91:5.1 (998.4) 조상 숭배에서, 기도는 조상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길로 이끈다. 그러나 신격을 경배하는 한 부분으로서의 기도는, 모든 다른 그런 풍습을 초월하는데, 신성한 이상을 계발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에서 또 하나의 자아 개념이 지극히 높아지고 신성하게 되면서, 사람의 이상도 그에 따라 단순한 인간 수준에서 숭고하고 신성한 수준으로 올라가며, 그런 모든 기도의 결과로, 인간의 성품이 증진되고 인간의 인격체가 심원한 통합을 이룩한다.

91:5.2 (998.5) 그러나 기도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 집단 기도 또는 회중 기도가 매우 효과적인데, 그 속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심오한 사회화가 이뤄진다. 한 집단이 도덕 증진과 영적 향상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할 때, 그런 헌신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에게 반응을 일으키며;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더 낮게 변화된다. 심지어 한 도시 전체 또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헌신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고백, 회개, 및 기도는, 개혁하려는 위대한 수고와 과감한 성취를 향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개인, 도시, 국가, 그리고 전체 종족을 이끌어 왔다.

91:5.3 (998.6) 너희가 어떤 친구를 비난하는 습관을 극복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은, 너희 삶에서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사회적 반응은 주로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91:5.4 (998.7) 1. 자신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그 사람이 알아야만 한다.

91:5.5 (999.1) 2.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 긴밀한 사회적 접촉에 참여해야만 한다.

91:5.6 (999.2) 기도는 조만간에 모든 종교를 제도화시키는 기법이다. 그리고 기도는 때가 되면 수많은 보조 매개체와 결합되는데, 사제, 거룩한 책, 경배 제례식, 그리고 예식절차 등과 같이, 더러는 유익하지만 더러는 뚜렷이 해롭다.

91:5.7 (999.3) 그러나 영적으로 더 계몽된 정신은, 자신의 연약한 영적 통찰력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상징을 갈망하는, 지능을 적게 타고난 자들에 대해서, 참고 아량을 베풀어야만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상징물 없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형식과 제례식 없이는, 신격을 숭배하기 어렵고,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존중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상징물의 은혜로운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배 드리는 동안, 대부분의 필사자는, 예배하는 대상_목표에 해당하는 어떤 상징을 상상한다.

6. 기도의 범위

91:6.1 (999.4) 기도는, 어떤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적 세력 및 물질 감독관들의 뜻과 행위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의 물리적 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청원하는 기도의 범위에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한계는, 기도하는 자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91:6.2 (999.5) 기도는, 실제적이고 유기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기법은 아니지만, 넘치는 건강을 향유하기에, 그리고 수많은 정신, 감정, 및 신경성 질병의 치유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리고 심지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는 실제 질환의 경우에도, 기도는 여러 번 다른 치료 절차의 효험에 크게 보탬이 됐다. 기도는, 흥분 잘하고 불평하는 수많은 환자를 변화시켜서 모범적 환자가 되게 하고, 고통 받는 모든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감화 받도록 만든다.

91:6.3 (999.6) 기도의 효능에 관한 과학적 의구심, 그리고 신성한 근원들로부터 도움과 인도를 받으려 하는 늘_있는 충동,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으로 드리는 진지한 기도는, 개인의 행복, 개인적 자아_통제, 사회적 조화, 도덕적 진보, 및 영적 달성을 증진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91:6.4 (999.7) 기도는, 심지어 순전히 인간적인 풍습, 즉 사람의 또 다른 자아와의 대화라 하더라도, 인간 정신의 무의식 영역에 저장되고 보존된, 인간 본성에 축적된 능력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이다. 기도는, 그 종교적 함축성과 영적 의미 이외에도, 건전한 심리적 습관이다. 충분히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도움의 근원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체험에서 사실이다.

91:6.5 (999.8)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만큼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너희가 당면하는 문제를 단호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지탱시킬 수 있는 영적 힘과 지혜를, 서슴지 말고 그분께 요청해라.

91:6.6 (999.9) 기도는 종교적 문명의 진보와 보존에서 필수 요소였으며, 기도하는 자가 과학적인 사실, 철학적인 지혜, 지적인 진지함, 그리고 영적 신앙의 견지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는 공동체를 더욱 행상시키고 영화{靈化}를 이룩하도록 여전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진지하게, 이타적으로, 공정함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91:6.7 (1000.1)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몸소 영적 체험을 겪으면서 드리는 기도의 효력은, 어떤 면에서도, 그런 경배자의 지적 이해력, 철학적 통찰력, 사회적 수준, 문화적 상태, 또는 필사자의 기타 재능에 의존하지 않는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심령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수되는 것들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이며 체험적이다. 필사자가 무슨 다른 업적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조물주와 대화할 수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의 실체와, 내주하는 사조율사와 접촉하는, 바로 그 영역의 입구에 아주 효과적으로 즉시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7. 신비주의, 황홀경, 영감

91:7.1 (1000.2) 신비주의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의식{意識}을 배양하는 기법으로서 아주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 풍습이 사회에서 고립되도록 야기하고 결국 종교적 광신에 이른다면,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도한 신비주의자가 신성한 통찰력이라고 평가한 것이, 자신의 깊은 정신에서 솟아난 경우가 대체로 너무 흔하다.

필사 정신이, 내주하는 조율사와 접촉하는 것은, 묵상에 몰입함으로써 종종 혜택을 입지만, 동료 피조물을 이타적으로 보살피면서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촉진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91:7.2 (1000.3) 지난 시절에 나타났던 위대한 종교 교사와 선지자들은 극단적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남녀였고, 동료 필사자들을 이타적으로 보살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께서 종종 사도들만 따로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시 동안 묵상과 기도에 잠기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이 대중을 접촉하고 봉사하도록 했다. 사람의 혼은 영적 양식뿐 아니라 영적 실행도 필요로 한다.

91:7.3 (1000.4) 종교적 황홀경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런 체험은 깊은 영적 성품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순전히 감정적인 영향에서 생긴 부산물일 경우가 훨씬 많다. 종교적인 사람은, 명확한 심리적 예감과 강렬하게 감동한 체험 전부가, 일종의 신성한 계시 또는 영적 교통이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참된 종교적 황홀경은 대개 외적{外的}으로 심오하게 평온하며, 거의

완전한 감정 통제와 연결돼 있다. 그러나 참된 선지적{先知的} 환상은 심리 기능을 초월하는 예감이다. 그런 은총은 허위적 환각이 아니며, 또한 신들린 것 같은 황홀경도 아니다.

91:7.4 (1000.5) 인간의 정신이 잠재의식에서 떠오르는 것이나 초의식의 자극에 민감할 때, 아마도 그 정신은 소위 영감{靈感}에 반응해서 작동할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경우든지, 의식{意識}의 내용물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다소 이질적으로 보인다. 제어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광신{狂信}과 자유분방한 종교적 황홀경은, 영감{靈感}을 받았다는 인증서,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증서가 아니다.

91:7.5 (1000.6) 신비주의, 황홀경, 및 영감 같은 이런 모든 생소한 종교 체험이 진짜인지를 재는 실용적 진단은, 이런 현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91:7.6 (1000.7) 1. 더 낮고 더 완전한 육체적 건강을 누리게 하는가.

91:7.7 (1000.8) 2. 그의 정신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작용하는가.

91:7.8 (1000.9) 3. 자신의 종교 체험을 더 완전하게 더 기쁘게 사회화하는가.

91:7.9 (1000.10) 4. 일상적 필사자 실존에서 평범한 임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매일의 생활을 더 완전하게 영화{靈化}시키는가.

91:7.10 (1001.1) 5.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그가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게 하는가.

91:7.11 (1001.2) 6.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및 영적 가치기준을 유지하게 하는가.

91:7.12 (1001.3) 7. 그의 영적 통찰력을--곧 하나님_의식을--증대시키는가.

91:7.13 (1001.4) 그러나 기도는 이런 특별한 종교 체험과 아무런 진정한 관계가 없다. 기도가 과도하게 심미적{審美的} 상태가 될 때, 기도가 거의 순전히 낙원의 신성{神性}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숙고로 구성될 때, 기도는 사회화시키는 그 영향력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기도에 열중하는 자를 신비주의와 고립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지나친 혼자만의 기도와 관련된 어떤 위험이 있는데, 집단의 기도, 즉 공동체의 헌신이 이를 교정하고 예방한다.

8. 개인 체험으로서의 기도

91:8.1 (1001.5) 기도에는 참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원시인은 이미 스스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사람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닥칠 때 늘 기도했다:긴박한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충동을 체험했으며;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91:8.2 (1001.6) 기도는 마술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며;그 둘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 마술은 상황에 맞게 신격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기도는 인간성을 신격의 뜻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마술은 둘 다 아니다.

91:8.3 (1001.7) 기도는 확립된 관습이 될 수도 있으며;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더러는,

자신이 정기적인 간청을 드리지 않으면 무서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므로 기도한다.

91:8.4 (1001.8) 어떤 개인들에게 기도는 감사에 대한 조용한 표현이며;다른 사람에게는 찬미를 집단으로 표현한 것, 즉 사회적 헌신의 표현이며;때때로 기도는 다른 종교를 흉내 낸 것이기도 하지만, 참된 기도란, 피조물의 영적 본성이, 어디든지 계시는 창조주의 영과 진지하게 신뢰하면서 나누는 대화다.

91:8.5 (1001.9) 기도는, 하나님을_의식함을 무의식으로 표현한 것이거나, 신학적으로 공식화된 무의미한 낭송{朗誦}이 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_아는 혼이 환희에 넘쳐서 드리는 찬양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속박 당한 필사자가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일 수 있다. 기도는 때로 영적 목마름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며, 경건한 문장을 떠들썩하게 외치는 경우도 있다. 기도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 또는 용서를 바라는 겸손한 탄원일지도 모른다.

91:8.6 (1001.10)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유치한 요청이 될 수 있고, 도덕적 성장과 영적 능력을 바라는 성숙된 간청이

될 수도 있다. 간구{懇求}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행하고자 전심으로 열망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것은 완전히 이기적인 요청이 될 수 있고, 이타적인 형제관계를 실현하려는, 참되고 숭고한 태도가 될 수도 있다.

91:8.7 (1001.11) 기도는 복수를 위한 성난 고함 소리, 또는 자신의 적을 위한 자비로운 중재가 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법이 될 수도 있다. 기도는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심판주 앞에서 도망갔던 죄인이 하는 비굴한 해명이 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살아 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해방된 아들이 기쁨에 넘쳐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다.

91:8.8 (1001.12) 현대인은 하나님과 여러 일에 관해서 순전히 개인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황해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규칙적인 기도를 거부해 왔고, 오직 특별한 고난을 받을 때에만--즉 긴급한 경우에만--기도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오직 영적 어린아이만이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91:8.9 (1002.1) 그러나 참된 기도는 실체에 도달한다. 기류{氣流}가 위로 솟구칠 지라도, 새가 날개를 펴지 않으면 날아오를 수 없다. 기도는 사람을 향상시키는데, 우주의 상승하는 영적 기류를 이용함으로써 진보를 이룩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91:8.10 (1002.2) 참된 기도는 영적 성장에 보탬이 되고, 태도를 변경시키며, 신성과의 교류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을 낳는다. 기도는 하나님_의식{意識}이 저절로 분출하는 것이다.

91:8.11 (1002.3)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증대된 계시, 아름다움에 대한 증진된 감상, 그리고 선함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제공하심으로써,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주관적인 행동이지만, 인간 체험의 영적 수준에서 강력한 객관적 실체들과 접촉하며;초인적 가치를 얻으려고 인간이 의미심장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유력한 자극제다.

91:8.12 (1002.4) 말은 기도와 상관이 없으며;영적 간청이 우연히 흐를 수도 있는 지적{知的} 경로에 불과하다. 기도에서 말의 가치는, 개인의 헌신에서 순전히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 헌신에서 공동체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혼의 태도에 응답하신다.

91:8.13 (1002.5) 기도는 갈등에서 회피하는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에 직면하여 자라나게 하는 자극제다. 물질이 아니라, 오직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며;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9.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

91:9.1 (1002.6) 너희가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널리 적용되는 간구의 법칙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91:9.2 (1002.7) 1. 너희는 우주 실체의 문제에 진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맞섬으로써 능력 있는 기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야 한다. 너희는 시공우주의 끈기를 소유해야만 한다.

91:9.3 (1002.8) 2. 너희는 인간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적 수용력을 정직하게 모두 쏟아 부었어야만 한다. 너희는 부지런했어야 한다.

91:9.4 (1002.9) 3. 너희는 정신의 모든 소원과 혼의 모든 갈망을 영적 성장이라는 변형시키는 품 속에 굴복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의미의 증진과 가치기준의 향상을 체험했어야 한다.

91:9.5 (1002.10) 4. 너희는 신성한 뜻을 전심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너희는 쓸모없는 우유부단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한다.

91:9.6 (1002.11) 5. 너희는 아버지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아버지 뜻을 실제로 행하도록 무조건적 헌신과 역동적 봉헌을 실행해 왔어야 한다.

91:9.7 (1002.12) 6. 너희의 기도는 낙원으로 상승하면서--곧 신성한 완전성을 달성하면서-- 부딪치는 특이한 인간 문제를 해결키 위해, 오로지 신성한 지혜를 얻도록 방향을 잡아야만 할 것이다.

91:9.8 (1002.13) 7. 그리고 너희는 신앙을--곧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91:9.9 (1002.14)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92편 후대의 종교 진화

92:0.1 (1003.1) 유란시아에 어떤 체계적인 계시든지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사람은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로서 자연적으로 기원된 일종의 종교를 소유했다. 그러나 *자연발생으로* 기원된 이 종교 자체는, 사람이 가진, 동물을 초월하는 재능의 산물이다. 진화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체험적 경력 전반에 걸쳐서, 미개인, 야만인, 및 문명인 속에서 작용하고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작용의 역할을 통해서 서서히 발생했다:

92:0.2 (1003.2) 1. *경배 보조체*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초동물적 잠재력이 동물 의식{意識} 속에 출현함. 이것은 신격을 찾는 근본적인 인간 본능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92:0.3 (1003.3) 2. *지혜 보조체* --상류의 표현 경로에서, 그리고 계속_확장하는 신격 실체에 대한 개념을 향해서, 경건한 정신 속에 존송을 지도하는 성향이 있는 나타남.

92:0.4 (1003.4) 3. *거룩한 영* --이것은 정신을 초월해서 초기에 증여되는 것이며, 진실한 모든 인간 인격체 속에 반드시

나타난다. 경배를_갈망하고 지혜를_구하는 정신에게 베푸는 이 사역은, 신학 개념으로서, 그리고 또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인격체 체험으로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기본원리를 자각{自覺}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한다.

92:0.5 (1003.5) 이 세 가지 신성한 보살핌이 협조해서 작용하는 것은, 진화 종교의 성장을 개시하고 속행하기에 아주 충분하다. 사고 조율사, 스라빔, 및 진리의 영이 이 영향을 나중에 확대하는데, 이 모든 것이 종교의 발전 속도를 가속시킨다. 이 매개체들은 유란시아에서 오래 전부터 작용해 왔고, 이 행성이 인간거주 구체로 남아있는 한, 존속할 것이다. 이런 신성한 매개체들의 잠재력 대부분은, 아직까지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전혀 없었으며;그 대부분은, 모론시아 가치와 영 진리의 숭고한 정상을 향해서 필사자의 종교가 한 수준씩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올 시대에 밝혀질 것이다.

1. 종교의 진화 본성

92:1.1 (1003.6) 초기의 두려움과 유령들로부터 시작해서, 영들을 처음에는 강요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설득시키려고 애쓰

것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여러 발전 단계를 통해서 종교가 진화한 것을 추적해봤다. 부족의 주물은 토템과 부족 신{神}들로 발전했으며;마술적 방식은 현대의 기도가 됐다. 처음에는 하나의 제물이었던 할례는 위생 절차가 됐다.

92:1.2 (1003.7) 종족들이 미개했던 초기단계 내내, 종교는, 자연 숭배로부터 유령 숭배를 거쳐서 주물숭배체계에 이르기까지 진보했다. 인간 종족은 문명의 태동과 함께 더 신비하고 상징적인 믿음을 신봉했지만, 이제는 인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참다운 종교를 감지할 만큼, 심지어 진리 그 자체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것까지도 감지할 만큼 무르익고 있다.

92:1.3 (1004.1) 종교는, 영적 믿음과 환경에 대해서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생겨났으며;한 종족 안에서 좀처럼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는, 어느 시대든지, 신비스런 것에 대한 사회의 조절이다. 종교는, 하나의 사회 제도로써, 제례, 상징, 숭배자 집단, 경전, 제단, 성소, 신전 등을 포함한다. 성수{聖水}, 유물, 주물, 주문, 제의, 종, 북, 및 제사장체제 등은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있다. 그리고 순전히 진화된 종교를, 마술이나 요술로부터 온전히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92:1.4 (1004.2) 신비와 능력이 언제나 종교적 느낌과 두려움을 자극해 왔고, 한편 감정은 이 두 가지의 발전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요소로서 언제나 작용해 왔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근본적인 종교적 자극제였다. 진화 종교에서, 두려움이 신{神}들을 형성했고, 원시 신자의 종교 제례식을 유발시켰다. 문명이 발전되자, 두려움은 경애심, 찬양, 존경심, 및 연민의 정으로 인해 변경됐고, 그 다음에는 자책과 회개가 이를 더욱 조절했다.

92:1.5 (1004.3) 아시아의 어떤 민족은, "하나님은 심히 두려운 분이시라"고 가르쳤는데;그것은 순전히 진화 종교의 산물이다. 가장 높은 유형의 종교적 삶을 계시했던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했다.

2. 종교와 사회관행

92:2.1 (1004.4) 종교는,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서 가장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마지못해 적응한다. 결국, 진화 종교는 변화하는 사회관행을 반영하게 되는데, 역으로 사회관행은 계시된 종교에 영향을 받아 왔을 수도

있다. 서서히, 분명하게, 그러나 억지로, 종교는(경배는) 지혜의 발자국--곧 체험적 이성이 유도하고, 신성한 계시가 조명하는 지식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92:2.2 (1004.5) 종교는 사회관행에 집착하며; *이미 있던* 것은 고전적이고 신성하게 여겨진다. 다름 아닌 이런 이유로, 돌로 만든 도구가 청동기와 철기 시대까지 오랫동안 사용됐다. 이런 말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돌로 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 것이니,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면, 너희는 이미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도, 힌두교도는 원시적인 발화도구{發火道具}를 이용해서 제단 불을 붙인다. 진화 종교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은 항상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 성례에서, 새롭고 가공된 음식은 허용되지 않았고, 가장 원시적인 음식물만 허용됐는데: “불로 구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쓴 나물들과 함께 제공됐다.” 모든 유형의 사회관행과 심지어 법정의 절차도 옛 형태를 고수한다.

92:2.3 (1004.6) 음란하게 보일 수도 있는 많은 것이, 다른 여러 종교 경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현대인이 놀랄 때, 조상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기를, 지나가는 세대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멈춰서 생각해 봐야만 한다. 한 세대가 음란하게 여길 수 있는 많은 것이, 그 전 세대에는 사회관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공인된 종교 제례식인 경우도 있었다. 상당히 많은 종교적 논쟁은, 오래 전부터 내려왔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풍습을 새로 제시된 논리와 절충하고, 진부한 옛 관습을 신조{信條}로 영속시키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럴듯한 이론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시도 때문에 야기돼 왔다.

92:2.4 (1004.7) 그러나 종교의 성장을 너무 갑작스럽게 가속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음 뿐이다. 한 종족이나 민족은, 진보된 어떤 종교로부터든지, 적응하는 영재들과 함께, 당시의 진화 상태와 상당히 일치되고 호환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사회, 기후, 정치, 및 경제 조건은 모두, 종교 진화 과정과 진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도덕성{道德性}은, 종교에, 다시 말해서, 진화 종교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종족의 도덕성이 종교의 형태를 규정한다.

92:2.5 (1005.1) 사람의 종족들은 생소하고 새로운 종교를 오직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며;실제로는 그것을 자신의 사회관행과 옛날의 믿는 방식에 끼워 맞춘다. 이런 사실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특이한 부족의 예에서 잘 설명되는데, 이 부족의 사제들은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만 받아들인 후에, 가브리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계시의 취지는, 바로 이 부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 됐고, 절제 없는 성관계에,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구시대의 비난 받을만한 관습에 마음대로 빠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그리스도교인이 된 모든 자들은 이런 새롭고 덜 엄격한 그리스도교 개정판으로 즉시 전향했다.

92:2.6 (1005.2) 종교는 한때 온갖 종류의 부적합하고 모순된 행태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비도덕적이거나 죄악시되는 모든 것을 실제로 허용한 때가 있었다. 체험으로 배우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양심은, 인간의 행위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양심은 인간의 혼에게 말씀하는 신{神}의 음성이 아니다. 양심은 실존하는 현 단계의 사회관행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의 총합에 불과하며;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든지, 인간답게 생각한 이상적 반응을 나타낼 뿐이다.

3. 진화 종교의 본성

92:3.1 (1005.3) 인간의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낡은_사고방식을_지닌, 지나간 시대의 사회 계층에 대한 고찰이다. 의인화{擬人化}된 신들에 대한 사회관행은, 그런 신격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의 도덕률을 참되게 반영한다. 옛 종교와 신화는, 오래 전에 이름 없이 사라진 민족들의 신앙과 전통을 충실히 묘사한다. 이런 옛 종파 풍습은 새로운 경제 관습 및 사회 진화와 나란히 존속했고, 물론, 심하게 모순돼 보인다. 그 종파의 남은 흔적들이, 과거의 민족 종교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종파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신조를 널리 펼치려고 형성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92:3.2 (1005.4) 종교는 언제든지 주로 제례, 제례식, 관례, 예식, 및 교의{敎義}의 문제였다. 종교는 대개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오류, 즉 선택받은_민족이라는 해를_끼치는 착각으로 오염됐다. 주문 외우기, 영감{靈感}, 계시, 속죄, 회개, 죄 값, 중재{仲裁}, 제물, 기도, 고백, 경배, 죽은 뒤의

생존, 성례, 제례식, 대속{代贖}, 구원, 속죄, 계약, 부정{不淨}, 정화{淨化}, 예언, 원죄 등의 기본적인 종교 관념--이 모든 것은 유령에 대한 원시적 두려움이 있었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92:3.3 (1005.5) 원시 종교는, 무덤 저편의 생활을 포함하기까지 확장된, 물질 실존에 대한 갈등에 불과하다. 자아_보존 투쟁이, 상상하는 유령_영 세계의 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런 신조를 준수했다. 그러나 진화 종교를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조심하기 바란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진화 종교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관념이 갖는 힘은, 그 개념이 확실하거나 진실한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생생하게 인간에게 호소하는가에 있다.

92:3.4 (1006.1) 진화 종교는 변화 또는 개정을 준비하지 않으며;과학과는 달리, 자체를 진취적으로 수정{修正}할 방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진화된 종교가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추종자들이 그 종교를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며;"한때 성인{聖人}들에게 전해졌던 신앙은" 이론적으로는

최종적이고 오류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 종파는 발전에 저항했는데, 진정한 진보는 종파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파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며;따라서 항상 종파에게 수정을 강제해야만 한다.

92:3.5 (1006.2) 두 가지 영향만이 자연 종교의 교의를 변경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데:하나는, 느리게 진행되는 사회관행의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획기적 계시가 주기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가 느린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옛날에는 진취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은 요술쟁이로 취급받아 살해됐다. 종파는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리고 긴 시간의 순환 주기 속에서 느리게 전진한다. 그러나 종파는 앞으로 나아간다. 유령을 믿는 진화된 믿음은, 계시된 종교의 철학을 받아들일 기초를 놓았고, 결국 이것은 그 근원인 미신을 파괴시킬 것이다.

92:3.6 (1006.3) 종교는 여러 면에서 사회 발전을 방해해 왔지만, 종교가 없었다면 지속되는 도덕성이나 윤리가 없었을 것이며, 훌륭한 문명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는 비종교적 문화를 많이 산출했는데:조각술{彫刻術}은 우상 만들기에서, 건축술은 신전 건축에서, 시문학은 주문에서,

음악은 경배의 영창{詠唱}에서, 연극은 영의 안내를 대신하는 행위에서, 그리고 춤은 계절에 맞춰 숭배하는 축제에서 기원됐다.

92:3.7 (1006.4)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보존에 종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자연 종교는, 그 종교가 달리 육성하고 유지시켰을 바로 그 문명을, 무능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사실 역시 기록돼야만 한다. 종교는 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노동을 낭비해 왔고 자본을 탕진해 왔으며;가족 체제에 항상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으며;평화와 선한 의지를 적절히 육성해오지 않았으며;때로는 교육을 게을리 하고 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죽음을 부유하게 꾸미기 위해서 삶을 과도하게 빈곤하게 만들었다. 진화 종교, 즉 인간의 종교는, 이런 모든 것과 그 외에 더 많은 잘못, 실책, 및 실수를 범하는 죄를 지어 왔으나;그럼에도 종교는, 문화적 윤리, 문명화된 도덕성, 및 사회적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계시된 종교가 후대에 이런 많은 진화적 결점을 보충할 수 있게 만들었다.

92:3.8 (1006.5) 진화 종교는 사람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제도였지만, 비길 데 없을 만큼 효과가 있었다. 인간의 종교는 오직 진화된 문명의 견지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람이 동물의 진화에서 우세한 산물이 아니었다면, 그런 종교 발전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92:3.9 (1006.6) 종교가 자본 축적을 촉진시켰으며;특정한 종류의 일을 육성했고;시간이 남는 사제들이 예술과 지식을 증진시켰으며;결국 인류는 초기에 윤리적 기법의 이런 온갖 실책의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정직한 무당과 부정직한 무당 때문에 비용이 몹시 많이 지출됐지만, 그들은 그 값에 해당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학구적인 전문직과 과학 자체는 더부살이하는 사제계층에서 발생됐다. 종교가 문명을 촉진시켰고 사회의 연속성을 제공했으며;세세토록 도덕을 유지하는 경찰력이 돼 왔다. 종교는 인간의 수양과 자아_통제를 제공했고, 이것이 지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종교는 진화에서 효과적인 채찍인데, 이 채찍은 게으르고 고통 받는 인류를, 지적으로 무기력한 자연 상태에서부터 더 높은 이성과 지혜의 수준으로, 앞으로, 위로 가도록 사정없이 몬다.

92:3.10 (1006.7) 그리고 동물에서 올라간 존재의 이런 신성시되는 유산인 진화 종교를, 계시된 종교로 계속 검열함으로써, 그리고 참된 과학의 맹렬한 용광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다듬고 고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4. 계시라는 선물

92:4.1 (1007.1) 계시{啓示} 역시 진화하지만 항상 진취적이다. 세계 역사의 시대가 흐르는 동안, 종교의 계시는 항상 확장됐고, 더 많은 계몽{啓蒙}을 연속으로 이룩했다. 이어지는 진화 종교들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것이 계시의 사명이다. 그러나 계시가 진화 종교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려면, 신성한 그런 방문은 그 교훈을 제공하는 그 시대의 사고{思考}와 반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훈을 묘사해야만 한다. 이처럼 계시는 진화와 항상 접촉을 유지해야만 하며, 또한 그렇게 한다. 계시 종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용력에 반드시 제한을 받는다.

92:4.2 (1007.2)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연관성 또는 유래와는 상관없이, 계시 종교는 항상 최종 가치를 갖는 어떤 신격을 믿고, 죽음 이후에 인격체 정체성이 생존한다는 어떤 개념을 믿는 특징이 있다.

92:4.3 (1007.3) 진화 종교는 감상적이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진화 종교는, 가상하는 유령_영 세계를 믿는 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다--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으로 자극받는 인간의 믿음이자_반사작용이다. 실재하는 영적 세계가 계시 종교를 제시하며;계시 종교는, 우주의 신격들을 믿고 의존하려는 필사자의 갈망에, 지능을 초월하는 시공우주가 반응하는 것이다. 진화 종교는 인류가 진리를 찾으려고 멀리 돌아서 헤매는 것을 묘사하며;계시 종교는 바로 그 진리 *이다*.

92:4.4 (1007.4) 종교적 계시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획기적 중요성을 갖는 경우는 다섯 번밖에 없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92:4.5 (1007.5) 1. *달라마시아의 교훈*.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에 속하는 100명의 육체전환 요원이,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한 참된 개념을 유란시아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신격에 대한 이런 확장되는 계시는, 행성의 탈퇴와 교육 체제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중단될 때까지, 30만 년 이상 계속됐다. 반이 일한 것을 제외하고, 달라마시아의 계시의 영향은 온 세상에서 실제로 상실됐다. 심지어 늦족속도,

아담이 도착할 무렵에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 100명의 교훈을 받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홍색인이 그 교훈을 가장 오래 간직했지만, 위대한 영{靈}의 관념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종교에서 어렵פות한 개념에 불과했고,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그 개념은 크게 정화되고 강화됐다.

92:4.6 (1007.6) 2. *에덴의 교훈*. 아담과 이브가, 모든 진화하는 민족에게 아버지 개념을 다시 제시했다. 첫 번째 에덴의 붕괴는, 아담의 계시 과정이 미처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 과정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중단된 아담의 교훈을 셋족속 제사장들이 이어갔고, 이 진리 가운데 일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레반트족속의 종교적 진화의 전체 경향은 셋족속의 교훈으로 인해 변경됐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이 되자, 인류는 에덴의 시대에 후원받았던 계시를 대부분 잃어버렸다.

92:4.7 (1007.7) 3. *살렘의 멜기세덱*. 네바돈의 이 비상대책 아들이 유란시아에 세 번째 계시를 개시했다. 그의 교훈의 주요 훈계는 *신뢰*와 *신앙*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를 신뢰할 것을 가르쳤고, 신앙은 행위이며 그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선포했다. 그의 교훈은 다양한 진화 종교의 믿음 및 풍습과 점차 섞였으며, 마침내 기원후 첫 1,000년이 시작될 즈음, 유란시아에 있었던 여러 신학 체계로 발전했다.

92:4.8 (1008.1)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개념을 유란시아에 네 번째로 제시했으며, 이런 가르침은 그 후로 계속 널리 유지됐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봉사*였는데, 즉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시는 보살핌을 피조물 아들이 깨닫고, 또한 그에 반응해서 사랑으로 자발적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그런 피조물 아들들은 형제들에게 자유 의지로 봉사하고, 이런 봉사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기쁘게 깨닫는 것이었다.

92:4.9 (1008.2) 5. *유란시아 문서*. 이 글도 본 문서 가운데 하나인데, 본 문서는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가장 최근에 제시된 진리로 구성돼 있다. 본 문서는 전에 있었던 어떤 계시와도 다른데, 본 문서는 단일 우주 인격체의 활동이 아니라 여러 존재의 종합된 발표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계시든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하늘이 베푸는 다른 모든 보살핌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며,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 조건에 실용적으로 맞춰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인함으로써 모든 계시의 즉각적인 영향과 권위를 손상시킬지도 모르지만,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에게 가장 최근에 이렇게 계시된 진리의 미래 영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명백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유란시아에 임했다.

5. 위대한 종교 지도자

92:5.1 (1008.3) 진화 종교에서는, 신{神}들이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된 반면;계시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성의 한정적인 모습을 따라서 형성됐을 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으며;계시의 교훈과 진화의 산물이 조합돼서 합성된 믿음의 경우에, 하나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혼합된 것이다:

92:5.2 (1008.4) 1. 여러 진화 종파의 선재{先在}하는 관념.

92:5.3 (1008.5) 2. 계시된 종교의 탁월한 이상{理想}.

92:5.4 (1008.6)

3. 위대한 종교 지도자, 즉 인류의 선지자와
선생들의 개인적인 관점.

92:5.5 (1008.7)

대부분의 중대한 종교 시기는, 어떤 뛰어난
인격체의 생애와 교훈으로 개시됐으며;역사상 대다수의
가치_있는 도덕 운동을 지도층이 유래시켰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도자의 교훈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공경하려는 경향을 항상 보여 왔으며;그가 선포한 진리를
잊었음에도, 그의 인격체를 경외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진화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로부터 그리고 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찾는 본능적 갈망이 있다. 이런 열망은, 행성 왕자와 나중엔
물질 아들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를 기대하도록
고안됐다. 유란시아에서 사람은 이런 초인적 지도자와
통치자를 뺏겼으며, 따라서 초자연적 기원과 기적 같은
생애를 관련시키는 전설로 인간 지도자들을 덮어
가림으로써, 이런 손실을 계속 메우려고 애쓴다.

92:5.6 (1008.8)

많은 종족이, 그들의 지도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했으며;이런 지도자들의 생애는 기적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지고, 각 집단들은 그 지도자가

재림{再臨}하기를 항상 고대한다. 중앙 아시아에 있는 부족민들은 아직도 징기스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티벳과 중국과 인도에서는 부다가;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가;아메리카 원주민은 예수나닌 오나모나론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히브리인은 대체로 아담이 물질 통치자로서 재림하기를 기다린다. 바벨론에서 마르덕 신은, 아담의 전설, 즉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_의_아들 관념이 지속된 것이다. 아담이 이 세상에 출현한 후로는,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계 인종들 가운데 공통적이었다.

92:5.7 (1009.1) 그러나 사람들이 미신적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힌 것과는 상관없이, 인류의 도덕성, 철학, 및 종교의 진보를 위해서, 이 선생들은 현세의 인물 지레받침이었고, 계시된 진리라는 지렛대가 그 받침 위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92:5.8 (1009.2) 오나가로부터 구루 나낙에 이르기까지 100만 년 동안, 유란시아의 인류 역사에서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 이 시기 동안에 종교적 진리와 영적 신앙의 밀물과 썰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과거에, 유란시아에서 종교가

부흥했던 각 시기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생애 및 교훈과 동일시돼왔다. 근래의 선생들을 고려하면서, 아담 이후에 유란시아의 주요 종교 시기를 일곱으로 묶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92:5.9 (1009.3) 1. *셋족속 시대*. 아모사드의 지도력 아래서 다시 탄생된 셋족속 사제들은, 아담 이후에 탁월한 선생이 됐다. 그들은 안드족속이 차지한 땅 전역에서 활약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그리스인, 수메르인, 및 힌두인 가운데서 가장 오래 지속됐다. 그들은 힌두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도 힌두 신앙의 브라만으로 계속되고 있다. 셋족속과 그 추종자들은, 아담이 계시한 삼위일체 개념을 완전히 잊은 적이 전혀 없었다.

92:5.10 (1009.4) 2. *멜기세덱 선교사 시대*. 유란시아의 종교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기원전 2000년경에 살렘에 살면서 가르쳤을 때, 그가 임명했던 선생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부활됐다. 이 선교사들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고 선포했으며, 그들의 교훈은, 어떤 종교든지 즉시 나타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가르치는 후대의 선생들이 유란시아 종교들을 세우게 된 그 기초를 형성했다.

92:5.11 (1009.5) 3. *멜기세덱 이후 시대*. 아메네모과 이크나톤이 이 기간에 가르쳤지만,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뛰어난 종교적 천재는 레반트의 베도원 집단의 지도자이며 히브리인 종교의 창시자인--모세였다. 모세는 일신교를 가르쳤다. 그가 말했다:“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主}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기 민족 가운데서 유령 종파의 잔재를 뿌리 뽑으려고 끈질기게 노력했으며, 심지어 그 실행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했다. 후계자들이 모세의 일신교에 불순물을 섞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그의 여러 교훈으로 돌아갔다. 모세의 위대함은 지혜와 총명함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한 개념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진보된 믿음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그토록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2:5.12 (1009.6) 4. *기원전 6세기*. 많은 사람이 이 세기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때는 유란시아에서 전에

증거 됐던 종교적 각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세기{世紀}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람들 중에는 가우타마, 공자, 노자, 조로아스터, 및 자이나교 선생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가우타마의 교훈은 아시아에 널리 퍼지게 됐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부다로 공경한다. 공자와 중국인의 도덕성의 관계는, 플라톤과 그리스 철학의 관계와 같았으며, 그 두 사람의 교훈에 종교적 영향이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둘 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으며; 인간성에 치중한 공자나, 이상주의에 치중한 플라톤보다는, 노자가 도{道}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상상해냈다. 조로아스터는, 널리 퍼진 이중 심령주의, 즉 선한 영과 악한 영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영원한 신격 관념과 빛이 결국에는 어둠을 이긴다는 관념을 확실히 강화시켰다.

92:5.13 (1010.1) 5. *기원후 첫 세기.* 종교 선생으로서, 나사렛 예수는 세례 요한이 설립한 종파와 함께 출발했으며, 금식{禁食}과 형식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벗어났다. 예수를 제외한다면, 다소의 바울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생이었다. 그들의 종교 개념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이 진화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

92:5.14 (1010.2)

6. *기원후 6세기*. 모하메드는 그가 살던 시대의 여러 신조{信條}보다 뛰어난 종교를 설립했다. 그의 종교는, 이방인 신념의 사회 요구 조건과, 자기 민족의 종교 생활의 모순점에 대한 저항이었다.

92:5.15 (1010.3)

7. *기원후 15세기*. 이 기간에는 두 종교 운동이 있었는데: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의 통일이 붕괴됐고, 동양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합성됐다. 유럽의 경우에,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더 증진된 성장이 통일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까지 융통성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동양에서는, 이슬람교, 힌두교, 및 불교의 혼합된 교훈을 나낙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크교로 합성했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

92:5.16 (1010.4)

유란시아의 미래는 의심할 여지없이, 종교적 진리를--곧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형제임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출현하는 특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지적{知的} 신학들이 사타니아 체계에서 유란시아의 특색을 많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미래에 나타날 이런 선지자들의 열렬하고 진지한 수고가, 종교간 장벽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그런 여러 신학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경배 드리는 종교적 형제관계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6. 혼합 종교

^{92:6.1 (1010.5)} 20세기의 유란시아 종교들은, 사람의 경배 충동이 사회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관한 흥미 있는 견본을 제공한다. 많은 신념이 유령 종파 시대 이후로 거의 진보하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그들 가운데 더러는 환경을 미약하게 믿지만, 한 부류로서의 종교적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오늘날 상태는 종교 진화가 시작했을 당시의 원시인 상태와 똑같다. 원시 종교의 기본 믿음은 죽음 이후의 생존이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념은, 진보된 진화 발전까지, 심지어 계시에서 첫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다야크족은 가장 원시적인 종교 풍습만 진화시켜 왔다. 비교적 최근에 에스키모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빈약한 하나님 개념을 갖게 되었으며; 유령을 믿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종류로 생존한다는 불분명한 관념을 가졌다. 오늘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에게는, 유령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숙한 조상 공경만 있다. 줄루족은 유령에 대한 두려움과 제물을 바치는 종교를 진화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교인과 마호멧교도의 선교 활동을 통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부족이 종교 진화에서 주물승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집단들은, 옛 트라키아인처럼, 일신교를 오랫동안 간직해 오고 있는데, 트라키아인도 불멸을 믿었다.

92:6.2 (1010.6) 유란시아에서,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본문서들이 기록되던 시기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신학 체계로 섞이고 합병되는 동시에,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진보하고 있었다. 이런 종교들, 즉 20세기 유란시아 종교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92:6.3 (1011.1) 1. 힌두교 --가장 오래됐음.

92:6.4 (1011.2) 2. 히브리인 종교.

92:6.5 (1011.3) 3. 불교.

92:6.6 (1011.4) 4. 공자의 교훈.

92:6.7 (1011.5) 5. 도교의 믿음.

92:6.8 (1011.6) 6. 조로아스터교.

92:6.9 (1011.7) 7. 신도{神道}.

92:6.10 (1011.8) 8. 자이나교.

92:6.11 (1011.9) 9. 그리스도교.

92:6.12 (1011.10) 10. 이슬람교.

92:6.13 (1011.11) 11. 시크교 --가장 최근.

92:6.14 (1011.12) 고대에 가장 진보된 종교는 유대교와 힌두교였으며,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 종교 발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왔다. 힌두인과 히브리인은 모두 자기네 종교만이 영감과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으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의 참된 신앙의 타락한 형태라고 믿었다.

92:6.15 (1011.13) 인도는, 힌두교, 시크교, 마호멧교, 및 자이나교로 갈라져있는데, 각각 하나님, 사람, 및 우주에 대해 가지각색으로 이해해서 묘사하고 있다. 중국은 도교와 공자의 교훈을 따르고;일본에서는 신도를 숭배한다.

92:6.16 (1011.14) 국제적이고 종족을 넘어선 주요 신앙은, 히브리교, 불교,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 등이다. 불교는

실론과 버마에서 뺏어나가, 티벳과 중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 불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만 이에 맞먹을 정도로, 여러 민족의 사회관행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

92:6.17 (1011.15) 히브리인 종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일신교로 바뀌는 철학적 과도기를 보내고 있으며;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 사이의 진화 연결고리다. 히브리인은, 초기에 진화된 신들을 따르다가, 계시의 하나님을 직접 받아들이게 된 유일한 서방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이사야 시대 전에는 광범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 이사야는 우주의 창조주와 종족 신격 개념이 섞여서 합쳐진 개념을 다시 한 번 가르쳤다:“오 만군의 주{主},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한때 서양 문명이 살아남을 희망은, 선{善}에 대한 탁월한 히브리 개념과, 미{美}에 대한 진보된 헬라 개념 속에 있었다.

92:6.18 (1011.16)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에 관한 종교인데, 유대교 신학에 기초하고, 특정한 조로아스터 교훈과 그리스 철학에 융화돼서 더 변경됐으며, 주로:필로,

베드로, 및 바울, 세 사람이 이를 조직화했다. 바울 시대 이후로 이 종교는 여러 국면의 진화를 거쳤고 너무 철저히 서양화 됐으므로, 유럽 이외의 여러 민족이, 그리스도교를 낯선 하나님이 낯선 자들에게 준 이상한 계시로 간주한 것은 아주 당연했다.

92:6.19 (1011.17) 이슬람교는, 북 아프리카, 레반트, 및 남동부 아시아의 종교_문화적 연결고리다. 이슬람교를 일신교로 만든 것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교훈과 관련된 유대교 신학이었다.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은 진보된 삼위일체 교훈 앞에서 망설였으며;신성한 세 인격체와 하나의 신격에 대한 교리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진보되고 계시된 진리를 *순식간에* 받아들이도록, 진화 정신을 소유한 자들을 설득하기는 언제나 어렵다. 사람은 진화된 피조물이며, 대체로 진화 기법으로 자기 종교를 획득해야만 된다.

92:6.20 (1012.1) 조상 숭배는 종교 진화에서 한때 결정적 진보를 이루도록 기여했지만, 이런 원시 개념이, 불교와 힌두교처럼 비교적 더 진보를 이룩한 종교들이 가득 들어찬, 중국, 일본, 및 인도에서 존속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인 동시에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양에서는, 조상숭배가 발전해서, 민족의 신들을 공경하고 민족의 영웅들을 존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세기에, 영웅을 숭배하는 이런 국가적 종교는, 서양의 여러 종족과 국가의 특징을 이루는, 여러 가지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속주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런 태도 대부분 역시, 영어를 언어로 갖는 민족들의 이름난 대학과 큰 산업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이런 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관념은, 종교가 "풍족한 삶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민족 종교"는 로마 초기의 황제 숭배로, 그리고 --국가의 황제 가족을 숭배하는-- 신도{神道}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7. 종교의 추후 진화

92:7.1 (1012.2) 종교는 결코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없다. 철학은 정말로 과학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지만, 종교는 진화된 것이거나 계시된 것이거나, 아니면 오늘날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가능한 조합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92:7.2 (1012.3) 새 종교는 창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진화*에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불시에* *계시된다*. 진화로 새롭게 형성되는 모든 종교는 단순히, 옛 믿음에 대한 진보된 표현, 즉 새로운 적응과 조정에 불과하다. 옛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및 기타 동시대 종파들의 토양과 형태로부터 시크교가 싹트고 꽃핀 것처럼, 새로운 것과 융합된다. 원시 종교는 매우 민주적이었으며; 미개인은 빌려주기와 빌리기를 잘했다. 오직 계시된 종교에서만, 독재적이고 편협한 자기본위의 신학이 나타났다.

92:7.3 (1012.4) 유란시아의 여러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에, 그리고 사람에게 아버지를 깨닫도록 하기에, 모두 유익하다. 어떤 종교인 집단이든지 자기 신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런 태도는 신앙의 확신보다 신학적 오만함을 나타낸다. 다른 모든 신앙에 담긴 최고의 진리를, 유익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흡수하지 못할 유란시아 종교는 없는데, 모두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웃의 미신적인 것과 시대에 뒤떨어진 제례식에 있는 최악의

것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생한 영적 신앙에서 최선의 것들을 빌려오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92:7.4 (1012.5) 이 모든 종교는, 사람이 똑같은 영적 인도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 반응을 보인 결과로 발생돼 왔다. 이 종교들은 신조, 교의, 및 제례식에서 균일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곧 이것들은 지적인 것이지만;언젠가는 만유의 아버지께 대한 참된 경배에서 통일을 이룰 것인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이 영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은 영원한 진실이다.

92:7.5 (1012.6) 원시 종교는 주로 물질의_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었지만;문명은 종교의 가치를 증진시켰는데, 참된 종교는 의미 있고 지고{至高}한 가치의 공헌에 자기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서, 윤리는 도덕을 다루는 철학이 되고, 도덕성은 최고의 의미와 최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곧 신성하고 영적인 이상{理想}에 따라서-- 자아를 훈련시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종교는, 자발적이고 정교한 헌신, 즉 사랑의 충성심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된다.

92:7.6 (1013.1) 종교의 질{質}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표시된다:

92:7.7 (1013.2) 1. 가치기준의 수준 --충성심.

92:7.8 (1013.3) 2. 의미 있는 것들의 깊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식별하는 데 개인이 민감해짐.

92:7.9 (1013.4) 3. 헌신의 강도{强度} --이런 신성한 가치기준에 헌신하는 정도.

92:7.10 (1013.5) 4. 이상주의로 영적 생활을 하는 이런 시공우주 통로에서, 인격체가 구속받지 않고 진보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신분과 우주에서 끝없이 진보하는 시민신분임을 깨닫는 것.

92:7.11 (1013.6) 종교적 의미는, 자녀가 전능{全能}의 관념을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자아_의식 속에서 진보한다. 그리고 그런 자녀의 종교 체험 전체는 주로, 두려움과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부모_자식 관계를 지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예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_사랑하는 개념으로 바꾸는 데 항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문명, 과학, 및 진보된 종교는,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심에서 발생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더 훌륭히 계몽된,

교양 있는 필사자들은, 신격과의 교류에서 중간 매개체에 의존하는 모든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92:7.12 (1013.7) 인간답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로부터, 신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공경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상숭배로 머뭇거리는 이런 중간 단계를 피할 수 없지만, 이런 단계는 내주하는 거룩한 영의 촉진시키는 사역을 인식함으로써 단축돼야만 한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신격 개념뿐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돌리기로 선택한 영웅의 성품에도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신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된 자들이, 그 남자를--곧 씩씩하고 용감한 영웅인--요셉의 아들 예슈아를-- 경시한 것은, 가장 유감스런 일이다.

92:7.13 (1013.8) 현대인은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만, 사회의 변질 작용이 가속되고 전례 없이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현대인의 경건한 관습은 혼란에 빠지고 의심을 받는다. 생각이 깊은 남녀는 종교가 재규명{再糾明} 되기를 바라며, 이런 요구는 종교가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를 강요할 것이다.

92:7.14 (1013.9) 현대인은, 2천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이, 인간의 가치를 한 세대 동안에 다시 조정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교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는 생각하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92:7.15 (1013.10) 참된 종교는 언제든지, 한꺼번에, 모든 영구적 문명의 영원한 기초이자 안내하는 별이 돼야만 한다.

92:7.16 (1013.11)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3편 마키벤타 멜기세덱

93:0.1 (1014.1) 멜기세덱은 비상대책 아들로써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방우주의 세계들에서 놀랄만한 범위의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든지, 또는 유별난 어떤 것이 시도될 때, 그 일이 매우 흔히 멜기세덱에게 배정된다. 비상사태에서, 그리고 우주의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심지어 인격체가 형태화되는 물리적 수준에서도 작용하는 멜기세덱 아들들의 역량은, 그들 계층에만 독특하게 있다. 이렇게 변형하는 범위의

인격체 활동에, 생명 운반자만이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93:0.2 (1014.2) 우주 아들신분의 멜기세덱 계층은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열두 명의 단체가, 생명 운반자들과 공동으로 봉사했다. 후대의 열두 명의 단체는, 캘리개스차 탈퇴 직후에 너희 세상을 위한 관재인이 됐고, 아담과 이브 시대가 이를 때까지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열두 명의 이 멜기세덱은, 아담과 이브가 태만했을 때 유란시아로 돌아왔으며, 그 후에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의 명목상 행성 왕자가 된 그날까지, 행성 관재인으로서 계속 활동했다.

1. 마키벤타의 육신화

93:1.1 (1014.3) 계시된 진리는,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사명이 실패한 후로, 수천 년 동안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인간 종족들은, 지적으로 진보했지만, 영적으로는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기원전 3000년경에, 하나님 개념은 사람의 정신 속에서 매우 모호해졌다.

93:1.2 (1014.4) 열두 명의 멜기세덱 관재인은 그들의 행성에 미가엘의 증여가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지는 몰랐으며, 따라서 그들은 정식 협의회를 소집했고, 진리의 빛을 유란시아에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요청했다. 이런 청원은, "사타니아 606_번에서 직무 수행은 멜기세덱 관리인들 손에 완전히 위탁됐다"는 명령과 함께 기각됐다. 그러자 관재인들은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증여 아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진리를 계속 수호해야만 하고, 이 증여 아들은 "몰수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부터 행성의 여러 직함을 구출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을 뿐이다.

93:1.3 (1014.5) 자신들의 방책에 의존하도록 너무도 완전하게 내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열두 명의 행성 관재인 가운데 하나인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네바돈 전체 역사상 여섯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이것은:땅에서 한 현세적 사람으로서 그 영역에 인격화하는 것, 즉 세상에 이바지하는 비상대책 아들이로서 자신을 증여하는 것이었다. 살빙톤의 권위자들이 이런 모험을 허락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실제 육신화는, 팔레스틴에서, 앞으로 살렘이라는 도시가 될 장소 근처에서 이뤄졌다. 멜기세덱 아들이 물질화 되는 전체

진행사항은, 생명 운반자들, 어떤 총괄 물리 통제관들,
그리고 유란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천상{天上}의
인격체들의 협동을 얻어서, 행성 관재인들이 완결했다.

2. 살렘의 현자

93:2.1 (1015.1)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인간 종족들에게 증여된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기 1,973년 전이었다. 그의 출현은
돈보일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물질화 과정은
인간에게 목격되지 않았다. 그 중요한 날에 그가 필사적
사람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수메르 혈통이고 갈대아의
목축업자인, 암돈의 천막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선포는, 그가 이 목동에게 했던,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다”라는 간단한 한 마디에 들어 있었다.

93:2.2 (1015.2) 놀랬다가 정신을 차린 그 목축업자는,
멜기세덱에게 여러 질문을 퍼부은 후에,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권했으며, 이것은
마키벤타가 자신의 긴 우주 경력에서 물질 음식을 처음
먹은 순간이었고, 물질 존재로 있던 94년의 생애 동안,
음식물이 그를 유지시켰다.

93:2.3 (1015.3)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별 빛 아래서 대화할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사명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팔을 휘두르면서 암돈을 향해 말했다;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은 창공에 있는 별들의 거룩한 창조자시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땅도 지으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입니다.”

93:2.4 (1015.4)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살렘 공동체의 핵심을 형성하게 됐던, 학생, 제자, 그리고 신자들 한 무리를 자기 주변에 모았다. 그는 지고자이신 엘 엘리온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살렘의 현자{賢者}로서 팔레스틴 전역에 곧 알려졌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 중 일부 부족 가운데서는 그가 종종 살렘 왕 또는 족장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살렘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여부스라는 도시가 된 장소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

93:2.5 (1015.5) 신체의 외모로 보면, 멜기세덱은 당시의 늦족속과 수메르인이 섞인 사람을 닮았는데, 키는 거의 6피트에 달했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는 갈대아 말을 했고, 여섯 가지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 그의 복장은 가나안족속

사제와 거의 흡사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가슴에 달고 있는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이었는데, 이것은 사타니아에서 낙원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그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 개의 동심원 모양의 이 표시를 그의 추종자들이 매우 신성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몇 세대가 지나면서 곧 잊혀졌다.

93:2.6 (1015.6) 마키벤타가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기는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이 땅에 자손을 남겨둘 수도 없었다. 그의 육신은, 남자의 모습을 닮은 반면, 실제로는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 중에서 물질화된 100명의 요원이 사용했던, 특별하게 지어진 종류의 몸을 갖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인간 종족의 생명 원형질을 전혀 갖지 않았다. 또한 유란시아에는 생명나무도 없었다. 마키벤타가 이 땅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남아있었다면, 그의 육체 기능은 점차 저하됐을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바와 같이, 그는 물질 몸이 붕괴되기 훨씬 전에, 94년에 걸친 자신의 증여 사명을 마무리했다.

93:2.7 (1016.1) 육신화됐던 이 멜기세덱은 사고 조울사를 받았는데, 그 조울사는 시간 감시자와 육신의 선도자{先導者}로서 그의 초인적 인격체 속에 내주했고, 그리하여 유란시아 문제들과, 육신화된 아들 속에 내주하는 기법에 대해, 체험과 실무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이것은 이 아버지 영으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의 인간 정신 속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약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유란시아에서 두 정신 속에서 활약했던 유일한 조울사였지만, 두 정신 모두 인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했다.

93:2.8 (1016.2) 직접 육신화 된 동안, 마키벤타는 열한 명의 행성 관리단{管理團} 동료와 완전하게 접촉했지만, 다른 계층의 천상{天上}의 인격체와는 대화할 수 없었다. 멜기세덱 관재인들을 제외하고는, 인간 이외의 초인적 지성체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

3. 멜기세덱의 교훈

93:3.1 (1016.3) 10년이 지나면서,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여러 학교를 체계화 했는데, 초기의 셋족속 사제들이 두 번째

에덴에서 개발했던 옛 체계를 본떠서 만들었다. 나중에 전향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작한 십일조 체계 역시, 고대의 셋족속이 유지한 전통적 방법에서 유래됐다.

93:3.2 (1016.4)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우주의 신격 개념을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노라티아덱의 성좌 아버지와 관련시키도록 내버려뒀는데, 그는 이 아버지를 엘 엘리온이라고--곧 지고자라고-- 불렀다. 멜기세덱은 루시퍼의 지위와 예루셈 직무의 상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는, 미가엘의 증여가 완료될 때까지, 유란시아에 대해서 거의 상관하지 않았다. 살렘의 학생들 대다수에게는, 에덴시아가 하늘이었고, 지고자가 하나님이었다.

93:3.3 (1016.5) 멜기세덱이 자신의 증여에 대한 표지로 채택했던 세 개의 동심원 형상을,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 천사, 및 하나님의 세 왕국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됐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거의 아무도 이 세 개의 원이, 신성하게 유지하고 지휘하는 낙원 삼위일체의 무한성, 영원성, 및 보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아브리함 조차, 세 지고자가 하나로 작용한다고 배운 바에 따라서, 오히려 이 형상이 에덴시아의 세 지고자를 표시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멜기세덱은, 자신의 표지가 상징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가르쳤던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노라티아덱 성좌의 세 보론다덱 통치자와 관련시켰다.

93:3.4 (1016.6) 멜기세덱은,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곧 유란시아의 하나님들이-- 통치한다는 사실보다 더 깊이, 평회원 추종자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지방우주의 운행과 조직을 포함하는 고급{高級} 진리를 일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한편 겐족속이었던 그의 뛰어난 제자 노르단과 그 무리에 속한 진지한 학생들에게는, 연방우주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하보나에 대한 진리도 가르쳤다.

93:3.5 (1016.7) 멜기세덱은 카트로 집안과 30년 이상 같이 지냈는데, 그 집안의 식구들은 이런 고급 진리를 많이 알았고, 그들의 유명한 후손인 모세의 시대까지도 자기 가족끼리 오랫동안 간직했으며, 그리하여 모세는, 멜기세덱 시대의 활기 넘치는 전통을, 아버지 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 쪽에서도 다른 근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받았다.

93:3.6 (1016.8)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이 받아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심지어 하늘과 땅에 관한, 즉 사람과 하나님과 천사에 관한 많은 현대 종교 관념도, 이런 멜기세덱 교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위대한 이 선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의 우주 신격, 하늘에 계신 창조주, 신성한 아버지께 대한 교리에 모든 것을 종속시켰다. 바로 이 만유의 아버지의 아들이자 미가엘이 나중에 출현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사람의 갈망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가르침에 비중을 뒀다.

93:3.7 (1017.1) 멜기세덱은, 자신이 왔던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미래의 어느 날에 육신을 입고 도래하겠지만, 그는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그로 인해서, 후대의 많은 선생은, 예수가 “영구히 멜기세덱 계층을 따르는” 제사장 또는 성직자라고 굳게 믿었다.

93:3.8 (1017.2) 그리하여 멜기세덱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제 낙원 아들의 증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세계적 추세의 일신교 무대를 설치했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아버지라고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버지가 바로, 개인의 신앙이라는 간단한 조건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에 관해서 멜기세덱이 가르친 모든 것을 확증했다.

4. 살렘 종교

93:4.1 (1017.3) 살렘의 경배 예식은 매우 단순했다. 멜기세덱 교회의, 진흙으로 만든 명부{名簿}에 서명하거나 표시한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신경을 암기하고 동의했다:

93:4.2 (1017.4) 1. 나는, 엘 엘리온, 지고자 하나님, 만유의 유일한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를 믿는다.

93:4.3 (1017.5) 2. 나는 제물과 불에 태운 제물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지고자와 맺은 멜기세덱 서약을 받아들인다.

93:4.4 (1017.6) 3. 나는 멜기세덱의 일곱 계명에 복종할 것과, 지고자와 이렇게 서약했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을 약속한다.

93:4.5 (1017.7) 이것이 살렘 집단의 신조 전부였다. 그러나 그런 짧고도 단순한 신앙 고백조차, 그 시대 사람에겐 너무 앞선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아무 것도 바치지 않고--곧 신앙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신{神}들에게 몰수당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진지하게 사제들에게 제물과 선물을 바쳤으므로, 구원, 즉 신성한 은혜가 멜기세덱 서약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하면서 믿었는데, 그것조차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93:4.6 (1017.8) 멜기세덱이 공표했던 일곱 계명은, 고대의 달라마시아 최고 법률 계통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덴에서 가르쳤던 일곱 가지 명령과도 매우 흡사했다. 살렘 종교의 이 명령은 다음과 같았다:

93:4.7 (1017.9) 1.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고자 창조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93:4.8 (1017.10) 2.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오직 신앙만이
요구조건임을 의심치 마라.

93:4.9 (1017.11) 3. 거짓 증언 하지 마라.

93:4.10 (1017.12) 4. 살인하지 마라.

93:4.11 (1017.13) 5. 훔치지 마라.

93:4.12 (1018.1) 6. 간음하지 마라.

93:4.13 (1018.2) 7. 너희의 부모와 어른에게 무례하지 마라.

93:4.14 (1018.3) 그 거류지{居留地} 안에서는 어떤 제물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은 오랜 세월 동안 수립돼 온
관습을 갑자기 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으며,
따라서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치던 옛 방법 대신, 빵과
포도주로 하는 성례로 대체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제안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런 신중한 혁신조차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여러 부족은 모두, 살렘 외곽
지역에 보조 중심지들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제물과
불태운 제물을 바쳤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멜을
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런 야만적 행위를

자행했는데;그는 단지 전통적 제물을 바칠 때까지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추종자들,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교 풍습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이런 성향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93:4.15 (1018.4) 예수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은 자신의 증여 사명 완수에 엄격하게 몰두했다. 그는 사회관행을 재구성하거나 세상의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보된 위생 관습이나 과학적 진리도 세상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온 것은 두 가지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계속 살려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아들이 나중에 필사 존재로 증여되게 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93:4.16 (1018.5) 멜기세덱은 94년 동안 계시된 기본 진리를 살렘에서 가르쳤고, 이 시기 동안 아브라함은 세 차례에 걸쳐서 살렘 학교에 참여했다. 그가 마침내 전향해서 살렘 교훈을 받아들였고, 멜기세덱의 가장 훌륭한 학생 및 최고 지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됐다.

5. 아브라함을 선택함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한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복수{複數}의 신격을 믿는 만연된 신앙과는 현저히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계속 살리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다.

마키벤타의 활동 장소로 팔레스틴이 선택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지도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인간 가족과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멜기세덱이 육신화 됐을 당시에,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살렘의 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똑같이 잘 된 가족이 여럿 있었다. 홍색인, 황색인, 그리고 서부와 북부에 있는 안드족속의 후손 가운데는, 똑같은 자질을 가진 가족이 많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장소들 중에서 어떤 곳도 지중해 동부 해안만큼, 나중에 미가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에 더 알맞은 장소는 없었다. 팔레스틴에서 멜기세덱이 선교한 것과, 차후에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미가엘이 출현한 것은, 상당히 많이 지리적 요소 때문에, 즉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무역, 교통, 및 문명의 면을 고려할 때 팔레스틴이 중심 위치라는 사실 때문에 결정됐다.

93:5.3 (1018.8) 멜기세덱 관재인들은 한동안 아브라함의 조상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어떤 특정한 세대 가운데서 지성적이고 독창적이며 현명하고 성실한 특징을 갖춘 인물이 출현할 것으로 확신 있게 기대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시켰다. 마키벤타가, 이집트, 중국, 인도, 또는 북쪽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서 출현하기보다 살렘에서 출현했던 상당한 이유는, 데라의 이런 다재다능한 자녀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93:5.4 (1019.1) 데라와 그의 온 가족은, 갈대아에 전파돼 있었던 살렘 종교에 마지못해서 전향한 상태였으며;우르에서 살렘 교리를 선포하는 페니키아인 선생 오비드의 설교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알았다. 그들은 곧장 살렘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지만, 멜기세덱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하란에 머물자고 권유했다. 그리고 팔레스틴에 도착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갖고 나온 가신{家神}을 모두 기꺼이 파괴했으며;살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을 포기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93:5.5 (1019.2)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지 몇 주 지난 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나홀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기 위해서 학생 가운데 하나인 헷족속 사람을 보냈다:“당신들이 살렘으로 온다면, 영원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의 교훈을 들을 수 있으며, 당신들 두 형제에게서 태어나는 계몽된 자손으로 인해, 온 세상이 복 받게 될 것이오.” 이때 나홀은 멜기세덱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며;뒤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지닌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립했지만;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함께 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93:5.6 (1019.3) 살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과 롯은 그 도시 근처의 가파른 곳에 요새를 선정했고, 거기서 북쪽 침입자들의 잦은 기습에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었다. 이때 헷족속, 앗수르인, 블레셋족속, 및 기타 여러 집단이 팔레스틴 중부와 남부에 있는 부족들을 계속 침략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언덕에 있는 본거지로부터 살렘으로 자주 여행했다.

93:5.7 (1019.4) 그들이 살렘 근처에 자리 잡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틴에 가뭄이 심했으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음식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일 강 유역으로

여행했다. 이집트에서 이 짧은 여행 동안에, 아브라함은 먼 친척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았음을 알게 됐고, 이 왕을 위해 지휘관으로서 두 차례의 군사 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가 나일 강에 머물던 후반기 동안, 그와 아내 사라는 궁전에서 살았으며, 이집트를 떠날 때에는 자신의 군사 출전에서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서 한 몫을 받았다.

93:5.8 (1019.5) 이집트의 궁전에서 사는 명예를 버리고, 마키벤타가 후원하는 더 영적인 일로 돌아가는 데는, 아브라함의 큰 결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집트에서도 존경 받고 있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바로에게 전해지자 바로는, 돌아가서 살렘 운동에 대해서 약한 것을 이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권했다.

93:5.9 (1019.6) 아브라함은 왕이 되는 야망을 가졌으며, 이집트로부터 돌아오는 도중에,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살렘의 통치 하에 두려는 계획을 롯에게 이야기했다. 롯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그래서 나중에는 동의하지 않고, 상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버렸다. 롯은 군인이 되기를 싫어했고, 목자{牧者} 생활도 좋아하지 않았다.

93:5.10 (1019.7)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살렘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군사 기획을 완성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곧 살렘 지역에서 집권자로 알려지게 됐고, 근처에 있는 일곱 부족으로 자신의 지휘권 아래 동맹국을 형성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류하기는 정말로 무척 힘든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나가서 인근에 있는 부족들을 강제로 끌어 모아서, 그들에게 살렘의 진리를 더 빨리 알리려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93:5.11 (1019.8) 멜기세덱은 주변의 부족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으며;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군대들이 오가며 이동할 때에도 전혀 공격 받지 않았다. 그는 나중에 실행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살렘을 방어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전적으로 원했지만, 야심적으로 정복하려는 제자의 계획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며;그리하여 우호적이었던 친구 관계는 단절됐고, 아브라함은 군사 중심지를 수립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건너갔다.

93:5.12 (1020.1) 아브라함은 저명한 멜기세덱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규모 왕들보다 매우 큰 이점을 가졌으며;그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을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을 알았고, 이웃을 공격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런 구실을 찾게 된 것은,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재산을 이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가 주제넘게 탈취한 때였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 일곱 동맹 부족의 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이 적을 추격했다. 그의 호위병 318명이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때 공격에 가담한 숫자는 4,000명이 넘었다.

93:5.13 (1020.2) 아브라함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은 멜기세덱이 그를 설득하려고 달려갔지만, 옛 제자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야 겨우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적을 살렘의 하나님께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탈취물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의 재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고집했다. 그는 나머지 90퍼센트를 헤브론에 있는 자신의 중심지로 옮겨갔다.

93:5.14 (1020.3) 싯딤에서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열한 부족으로 구성된 두 번째 동맹국의 지도자가 됐으며,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부족도 반드시 똑같이 하도록 시켰다. 소돔 왕과

맏은 그의 외교적 거래는, 그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두려움과 더불어, 소돔 왕 및 다른 왕들이 헤브론 군사 동맹에 가담하도록 만들었으며;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일을 정말로 순조롭게 이뤄갔다.

6.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맏은 계약

^{93:6.1 (1020.4)}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꿈을 꿔다. 그의 결심을 유일하게 약화시킨 것은, 멜기세덱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막 실행하려 했을 때, 예상되는 이 왕국의 통치자로서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멜기세덱과 협의를 다시 주선했으며;이 회견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살렘 제사장은, 물질적으로 정복해서 현세에 통치하는 그의 책략을 포기하고, 하늘 나라의 영적 개념을 지지하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했다.

^{93:6.2 (1020.5)} 멜기세덱은, 아모리족속 동맹과 싸우는 것이 무익함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달되지 못한 씨족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풍습으로 인해 자멸{自滅}할 것이 분명하므로,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너무도 약하게 돼서, 그동안 엄청나게 증가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을 쉽게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했다.

93:6.3 (1020.6)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공식 계약을 맺었다:“이제 저 하늘을 쳐다보고, 할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봐라;네 자손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됐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그의 후손이 이집트에 머문 후에, 장차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다.

93:6.4 (1020.7)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 *모든 것*을 하기로 동의하시는,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협정을 의미하며;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침을 따르기로 동의할 뿐이다. 그때까지는 구원이 오직 행위로--곧 제물과 헌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이제는 멜기세덱이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으로 획득한다는 기쁜 소식을 유란시아에 다시

전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복음은 너무 앞선 것이었으며;셈족속 부족민은 그 후에, 옛 제물 방식과 피를 뿌림으로써 죄 값을 갚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더 좋아했다.

93:6.5 (1021.1)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멜기세덱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맺은 계약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졌으며, 그것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살렘으로 건너갔다.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수락하는 이 자리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93:6.6 (1021.2) 살렘 종교를 믿는 자 대부분이 이미 할례를 행했지만, 멜기세덱은 결코 할례를 의무로 요구하지 않았다. 이때 아브라함은 늘 할례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므로, 이 경우에 살렘 계약을 비준한다는 표시로 이 제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행사를 엄숙히 축하하기로 결심했다.

93:6.7 (1021.3) 멜기세덱의 더 큰 계획을 위해, 그의 개인 야망을 실제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굴복시킨 이 일에 뒤따라서, 세

명의 천상{天上}의 존재가 마므레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자연적 멸망과 관련시켜서 나중에 합성된 이야기가 꾸며졌음에도, 이것은 실제 출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전설은, 도덕과 윤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보여준다.

93:6.8 (1021.4) 엄숙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화해가 완성됐다. 아브라함은 살렘 거류지의 민간 및 군사 지도권을 다시 행사하게 됐는데, 전성기에는 멜기세덱 형제회 명부에 실린 정기 십일조 헌금자가 10만 명 넘게 유지됐다. 아브라함은 살렘의 성전을 크게 개량했으며, 모든 학교에 새로운 천막을 제공했다. 그는 십일조 체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개선된 방법을 많이 제정했고, 그 외에도 선교사의 포교활동 분야를 더 잘 운용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살렘의 낙농업 기획과 목축업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에도 많은 일을 했다. 아브라함은 기민하면서 유능한 사업가, 즉 당대의 큰 부자였으며;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빈틈없이 성실했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다.

7. 멜기세덱의 선교사들

93:7.1 (1021.5) 멜기세덱은 여러 해 계속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를 훈련시켰는데,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에게 스며들었고, 특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가자, 이 선생들은 살렘으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키벤타 복음을 전했다.

93:7.2 (1021.6) 반 호수의 해변에 밀집돼 있던 아담선 후손은, 살렘 종파의 헛족속 선생들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한때 안드족속의 중심지였던 여기서, 여러 선생이 유럽과 아시아의 먼 지역으로 파송됐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에 스며들었고, 심지어 영국 제도{諸島}에도 이르렀다. 어떤 집단은 페로 제도를 경유해서 아이슬란드의 안돈족속에게로 갔고, 또 어떤 집단은 중국을 건너서 동쪽 섬에 있는 일본인에게로 갔다. 동반구에 있는 부족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살렘, 메소포타미아, 및 반 호수로부터 생명을 내걸고 전진했던 남녀의 삶과 체험은, 인간 종족의 연대기{年代記}에서 영웅적인 부분을 연출했다.

93:7.3 (1022.1) 그러나 그 과제는 너무 힘들었고 부족들이 너무 뒤떨어졌으므로, 그 결과는 미미하고 명확치 않았다. 세대가 바뀌면서 살렘 복음의 거점{據點}이 여기저기 형성됐지만, 팔레스틴을 제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전체 부족 또는 종족의 지속적인 충심을 결코 얻을 수 없었다. 예수가 도래하기 훨씬 전에, 살렘 선교사의 교훈은, 더 오래되고 더 보편적인 미신과 신념에 대체로 매몰됐다. 본래의 멜기세덱 복음은, 대모{大母} 숭배, 태양 숭배, 및 기타 옛 종파를 믿는 신앙 속으로 거의 완전하게 흡수됐다.

93:7.4 (1022.2) 오늘날 인쇄 기술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이런 초기 시대 동안 진리를 존속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뀌면서 새로운 교리를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교리가 옛 종교의 가르침과 마술 풍습의 덩어리 속으로 흡수돼 버리는 경향이 항상 있었다. 새로운 계시는 언제나, 더 오래된 진화하는 믿음에 오염된다.

8. 멜기세덱이 떠남

93:8.1 (1022.3)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에, 멜기세덱은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멜기세덱이 육신 속에서의 체류를 종결짓기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준 요인이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가까운 동역자들까지도, 그를 반신반인{半神半人}으로 간주하고 초인적 존재로 보려는 경향이 많아진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가 그렇긴 했지만;그들이 그를 부당하게 그리고 매우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숭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 외에도, 멜기세덱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추종자들의 정신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 세상에서의 활동 무대를 떠나고자 했다. 따라서 어느 날 밤 마키벤타는 인간 동무들에게 취침 인사를 하면서 살렘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물러갔으며,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그를 부르러 갔을 때에는, 그가 거기에 없었는데, 동료들이 그를 데려갔기 때문이다.

9. 멜기세덱이 떠난 후

93:9.1 (1022.4) 멜기세덱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 비록 자신이 왔던

그대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추종자들에게 이미 완전하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경이로운 지도자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시대의 전통을 기초로 해서, 모세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기는 했지만, 살렘에 세워졌던 그 위대한 조직체는 거의 사라졌다.

93:9.2 (1022.5) 멜기세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가득했고, 결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포기했을 때 이미 헤브론을 포기했으며;이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를 잃게 되자, 살렘을 떠났고, 자기 기업{企業}이 있는 그랄 근처에서 살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93:9.3 (1022.6)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직후에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됐다. 그는 그랄에 도착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고, 그리하여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가로챘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총명한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엿들었다. 그 외에는 용감하고 대담했던 그 지도자에게 이런 불안감이 두려움을 줬으며;그는 자신의

여생에 누군가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몰래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의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용감한 남자가 정말로 겁쟁이처럼 보였던 사건을 설명해 준다.)

93:9.4 (1023.1)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로서 자기 사명을 행하는 데 오래 방해받지는 않았다. 그는 곧 블레셋족속과 아비멜렉 민족 중에서 개종자가 생겨나게 했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으며, 역으로 그들의 많은 미신 관습, 특히 첫 태생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에 오염됐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서 다시 큰 지도자가 됐다. 그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존경 받았고, 모든 왕으로부터 존중 받았다. 그는 모든 이웃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동안 한 번 더 헤브론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곳은 그의 초기 활동 무대였고, 멜기세덱과 연합해서 활동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작업은, 아들 이삭의 아내로 자신의 원래 민족 중에서 한 여자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접경에 있는 형제 나홀의 성읍으로 믿을만한 하인을 보낸 것이었다.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브라함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진 살렘 학교에서 멜기세덱에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확신하면서 죽었다.

93:9.5 (1023.2)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가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여기게 됐다. 이삭은 아버지의 교훈을 아주 잘 유지했고, 살렘 집단의 복음을 잘 보호했지만, 야곱이 이 전승의 의미심장함을 납득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요셉은 멜기세덱을 굳게 믿었고, 주로 이 이유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몽상가 취급을 받았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명예를 얻은 것은, 주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요셉은 이집트 군대의 군사 지휘관이 돼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전승,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대 교훈을 그토록 굳게 믿었으므로, 민간 경영자로 일하기를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하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93:9.6 (1023.3)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충분하고 충만했지만, 이 시절에 관한 기록은, 후대의 히브리인 제사장들에게

불가능하고 공상적인 일로 보였으며, 그러나 적어도 바벨론에서 구약 성경 기록이 한 묶음으로 편집되던 시기까지는, 이 진행사항을 이해하는 자가 많았다.

93:9.7 (1023.4)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묘사하는 기록이,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협의였다. 후대의 서기관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비슷한말로 여겼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천사”와 매우 여러 번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93:9.8 (1023.5) 이삭, 야곱, 및 요셉에 대한 히브리인 전승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하지만, 그것 역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히브리 제사장들이 이 기록을 편집할 때, 고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변경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었으며;하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첩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모두 본처{本妻} 사라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다. 아브라함은 그 기록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는 훨씬 어렸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나이는 나중에 고의로 수정됐다.

93:9.9 (1023.6) 유대인의 민족 자부심은 바벨론에 포로가 됨으로써 크게 하락됐다. 민족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은 정반대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자만심으로 돌아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인종보다 우위에 서도록 자기 민족을 고양시킬 생각으로, 자신들의 전승을 왜곡시키고 오용했으며;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물론 다른 민족 지도자들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목적으로, 전체 기록을 세심하게 편집했고,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서기관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관한 모든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파기했고, 자신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큰 명예가 반영되는, 싯딤 전투 후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뒀다.

93:9.10 (1024.1) 그리하여 그들은 멜기세덱을 잊게 되면서, 약속된 증여 아들의 영적 사명에 관한 이 비상대책 아들의 가르침 또한 잊게 됐으며;이 사명의 본질에 대한 망각이 너무

전체적이고 완전했으므로, 마키벤타가 예언했던 대로 미가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그들의 자손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93:9.11 (1024.2)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記者}들 가운데 하나가 멜기세덱의 사명을 이해했는데, 그는:“지고자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한 평화의 왕이었으며;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인생의 시작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진 까닭에,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있다”고 기록했다. 이 기자는 멜기세덱을, 나중에 증여된 미가엘의 예표로 삼았으며, 예수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사역자”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교가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미가엘이 자신을 세계에 증여할 때 근무하던 “12명의 멜기세덱 관재인의 서열에 따라서” 유란시아에 대한 잠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다.

10.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현재 지위

93:10.1 (1024.3) 마키벤타가 육신화 됐던 여러 해 동안,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재인은 열한 명으로 활동했다.

마키벤타가 비상대책 아들이자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실을 열한 명의 동역자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그가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그의 원래 멜기세덱 상태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법을 즉시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살렘에서 사라진 후 3일째 되던 날, 유란시아를 양도받은 열한 명의 동료 가운데서 나타났고, 사타니아의 606_번에 대한 행성 관재인 가운데 하나로서 단절됐던 자신의 생애를 재개했다.

93:10.2 (1024.4) 마키벤타는, 자신이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형식 없이, 육체를 갖는 피조물로서의 증여를 종결지었다. 그의 출현뿐 아니라 사라짐도 아무런 유별난 성명서 또는 과시함 없이 이뤄졌으며; 유란시아에서 그의 출현을 현저하게 나타낼만한, 부활 출석점호나 행성 섭리시대의 종결도 없었으며; 그의 출현은 비상대책 증여였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자신을 아버지 멜기세덱이 정식으로 해제시킬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비상대책 증여를, 네바돈 최고 행정관인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허락 했다고 통보받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채로 계속 머물러 있었다.

93:10.3 (1024.5)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자기가 육신 속에 있었을 때 자신의 교훈을 믿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의 직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계속 쏟았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겐족속과 서로 결혼 하면서 생겨난 아브라함의 후손은, 살렘 교훈의 어떤 분명한 개념을 오랫동안 계속 보존했던 유일한 혈통이었다.

93:10.4 (1024.6)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이어지는 열아홉 세기 동안 내내, 여러 선지자 및 예언자와 함께 협력하면서 계속 일했고, 그렇게 해서 미가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까지, 살렘의 진리를 계속 살리려고 애썼다.

93:10.5 (1025.1) 마키벤타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계속 행성 관재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에 그는 2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예루셈에서 유란시아 봉사에 배속됐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예루셈에서 창조주 아들의 개인 대사 자격으로 승격됐는데,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는, 유란시아가 사람이 사는 행성으로 남아 있는 한,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아들신분 계층의 임무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며,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원토록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표하는
행성 사역자가 될 것이다.

93:10.6 (1025.2) 유란시아에 대한 마키벤타의 증여가
비상대책이었듯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바돈의 멜기세덱 단체는,
그들 숫자 가운데 하나를 영구히 손실된 상태로
지속될지도 모른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전한 최근의
판결문과,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에게서 나중에
확인받은 바에 의하면, 증여됐던 이 멜기세덱이, 타락한
행성 왕자 캘리개스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암시한다. 이런 기대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다시 직접
나타나서, 어떤 변경된 방법으로, 폐위된 행성 왕자의
직책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
직함을 실제로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미가엘을 대신해서,
대리 행성 왕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 마키벤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본다면, 앞에 말한 추측이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다.

93:10.7 (1025.3) 유란시아에서 승리함으로 미가엘이 어떻게 캘리개스차와 아담, 이 둘의 계승자가 됐는지; 그가 어떻게 행성에서 평화의 왕자가 되고 두 번째 아담이 됐는지, 이제 우리는 잘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게 유란시아의 대리 행성 왕자라는 직함이 수여될 것을 기대한다. 그가 또한 유란시아의 대리 물질 아들로도 임명될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그리고 전례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언젠가 아담과 이브가 행성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후손이, 미가엘의 대행자로서, 유란시아의 두 번째 아담의 대리인 직함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을까?

93:10.8 (1025.4) 그리고 이런 집정관 아들 및 삼위일체처럼된 교사 아들 둘 다 장차 출현할 것에 대한 확실성과 관련되는 이런 모든 추측은, 창조주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명백한 약속과 함께, 유란시아를 앞날이 확실치 않은 행성으로 만들고, 온 네바돈 우주에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 끄는 구체 가운데 하나로 만든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시대에 가까이 도달하는 미래의 어떤 시기에, 루시퍼 반역과 캘리개스차 탈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에, 집정관 아들 또는 심지어 삼위일체처럼된 교사

아들들 뿐만 아니라, 마키벤타, 아담과 이브, 및 그리스도 미가엘이, 동시에 유란시아에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다.

93:10.9 (1025.5) 24명의 조연자인, 유란시아 지도자들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에 마키벤타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진보하고 상승하는 우주 짜임새를 거쳐서, 심지어 낙원 완결성취 단체까지도, 그가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우리 계층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오고 있다. 유란시아가 빛과 생명의 상태에 정착될 때, 이처럼 낙원으로 가는 모험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구의 동료들을 따라가게 돼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93:10.10 (1025.6) 약 1,000년 미만 전에, 한때 살렘의 지혜자였던 바로 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1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나타나서, 행성에 거주하는 총독으로서 활동했으며;행성 직무를 지도하는 현 체계가 계속된다면, 약 천 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동일한 자격으로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93:10.11 (1026.1)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유란시아 역사에 관련됐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 가운데 하나이며, 너희의 불규칙적이고 유별난 세상이 앞으로 겪을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운명이 정해졌을지도 모를 인격체다.

93:10.12 (1026.1)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4편 동양의 멜기세덱 교훈

94:0.1 (1027.1) 살렘 종교의 초기 선생들은,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가장 멀리 있는 부족들까지 스며들었고, 한 분뿐이신 우주의 하나님을 사람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유일한 값이라고 제시하는, 마키벤타의 복음을 계속 증거 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살렘을 비롯한 다른 중심지들에서 퍼져나가는 초기의 모든 선전활동{宣傳活動}의 본이 됐다. 어떤 종교에도, 동반구 전체에 멜기세덱의 교훈을 전했던, 이 고귀한 남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선교사가 유란시아에 있었던 적이 없다. 이 선교사들은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부터 모집됐고, 주로 개종한 원주민을 통해서

교훈을 전파했다. 그들은 세계의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훈련 중심지를 설립했고, 거기서 원주민에게 살렘 종교를
가르쳤으며,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민족 가운데서 선생
역할을 하도록 이 제자들을 임명했다.

1. 베다시대의 인도에서 살렘 교훈

94:1.1 (1027.2) 멜기세덱 시대에, 인도는 국제적 지역이었고,
최근에 북쪽과 서쪽에서 침입한 아리아인_안드족속의
정치적 및 종교적 지배를 받게 됐다. 이때 아리아인은
반도{半島}의 북부와 서부 지역만 광범하게 점령했다.
베다시대에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부족
신격{神格}을 가져왔다. 그들의 종교 경배 형태는 옛
안드족속 조상의 예식 풍습과 거의 다름없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사제 기능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여자
사제 역할을 했으며, 가족 화로{火爐}를 여전히
제단{祭壇}으로 사용했다.

94:1.2 (1027.3) 베다 종파는, 당시에 선생_사제인 브라만
신분계층의 지시 아래서 성장과 변질 과정에 있었으며, 이
신분계층은, 확대되는 경배 제례식을 점점 더 통제하려고
했다. 살렘 선교사가 인도 북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전에

33명에 달했던 아리아인 신격의 합병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94:1.3 (1027.4) 이 아리아인의 다신교{多神敎}는 초기 일신교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러 부족 단위로 갈라지고, 각 부족마다 고유의 신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메소포타미아 안드족속의 원래 일신교와 삼자일체론이 이렇게 퇴화한 것은, 기원전 2000년 이후 처음 몇 세기 동안 재통합되는 과정에 있었다. 하늘의 주인인 다이우스 피타;대기의 폭풍우를 주관하는 주인인 인드라;땅의 주인이고 초기 삼위일체 개념이 퇴화한 상징인 머리 셋 달린 화신{火神} 애그니, 이 삼자일체 지도력 아래서, 여러 신{神}이 만신전{萬神殿}으로 조직됐다.

94:1.4 (1027.5) 명확한 단일신교{單一神敎}의 발전이, 진화된 일신교{一神敎}를 위해서 길을 닦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신격인 애그니는, 전체 만신전의 아버지_우두머리로 종종 승격되곤 했다. 때로는 프라야파티로 불렸고, 때로는 브라마로 명명됐던, 아버지_신격의 원리는, 브라만 사제들이 나중에 살렘 선생들과 벌인 신학적 투쟁에서

사라져버렸다. *브라만*은 베다의 만신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신성_에너지의 원리라고 생각됐다.

94:1.5 (1028.1) 살렘 선교사는, 멜기세덱의 유일하신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지고자를 전파했다. 이런 묘사는,
아버지_브라마가 모든 신{神}의 근원이라는 새로
생겨나는 개념과 완전히 불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살렘의
교리는 의식{儀式}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브라만
사제 제도의 교의, 전통, 및 교훈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브라만 사제계층은, 신앙을 통한 구원, 즉 제례식
관례와 제물 예식절차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살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94:1.6 (1028.2) 하나님을 신뢰할 것과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는 멜기세덱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인도에는
중대한 전환점이 이뤄졌다. 살렘 선교사들은 베다의 모든
옛 신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베다
교리를 따르는 사제인 지도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의 단순한 신앙을 부르짖는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94:1.7 (1028.3) 브라만들은 살렘 선생과 대항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대의 신성시되는 기록에서 발췌했고, 이런 편집물은 나중에 다시 개정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리그_베다로 전해오는데, 가장 오래된 신성시되는 책 가운데 하나다. 브라만들이 당시 민족들에게 제시한 자기네 경배 제례식과 희생제사를, 구체화시키고 형태화 하고 고정시키려고 애씀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베다가 계속 만들어졌다. 최상의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기록들은, 개념의 아름다움과 통찰력의 진실성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어떤 본문에든지 필적할 만하다. 그러나 뛰어난 이 종교가 인도 남부에서, 수많은 미신, 종파, 및 제례식에 오염되자, 점차 변형돼서, 전에 필사적 사람이 개발한 것들 가운데 가장 잡다한 체계가 되고 말았다. 베다 경전을 살펴보면, 전에 알려졌던 신격 개념 중에서 가장 높은 개념과 가장 타락된 개념을 얼마큼씩 드러낼 것이다.

2. 브라만교

94:2.1 (1028.4) 살렘 선교사들이 남쪽으로 드라비다의 데칸으로 스며들며 따라, 그들은 점차 확대되는 신분계층 체계와 부딪치게 됐는데, 이 체계는, 증가하는 2차 상의 민족들의

물결에 직면해서, 종족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아리아인의 책략이었다. 브라만 사제 신분계층이 이 체계의 바로 그 본질이었으므로, 이 사회 질서는 살렘 선생들의 전진을 크게 지연시켰다. 이 신분계층 체계는 아리아 인종을 구하지 못했지만, 브라만을 영속시키는 데는 성공했고, 그들은 다음에 인도에서 오늘날까지 종교 패권을 유지했다.

94:2.2 (1028.5)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진리를 거부함으로 베다교리가 약화되면서, 아리아인 종파는 데칸에서 점점 더 침략 당하게 됐다. 종족이 멸망하고 종교가 소멸하는 형세를 막아보려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브라만 신분계층은 스스로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위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신격{神格}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히_효과적이고, 그 효력에서 대단히_강력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우주에 근본적인 두 가지 신성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신격인 브라만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만 사제계층이라고 선포했다. 다른 어떤 유란시아의 민족들 중에서도, 사제가 자기네 신들 위에 자기를 더 높이고, 신들에게 돌아갈 영예를 자신이 가로챈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뻔뻔스런 주장과 함께

너무 모순되게 멀리 갔으므로, 주변의 덜 발전된 문명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타락시키는 종파들 앞에서, 그 불안정한 체계는 통째로 붕괴됐다. 광대한 베다 사체계층 자체는, 그들 자신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무례함이 온 인도에 가져온, 무기력하고 염세적인 암담한 물결 아래로 허우적거리며 침몰했다.

94:2.3 (1029.1)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 짐승, 또는 잡초로 연달아 끝없이 거듭 육신화함으로써, 자아가 진화 과정과는 다르게 영속한다는 두려움으로 확실하게 인도했다.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일신교가 될 뻔한 어떤 것에 매달릴 수 있었던, 모든 오염시키는 믿음 중에서 어떤 것도, 드라비다의 데칸에서 온 윤회{輪廻}에 대한 이 믿음처럼--즉 혼이 다시 육신화한다는 교리처럼-- 그토록 망쳐놓지는 못했다. 진저리나고 단조로운 반복적인 윤회에 대한 이 믿음은, 초기 베다 신앙의 한 부분이었던, 죽고 나서 구원과 영적 승진을 획득한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희망을, 고심하는 필사자들로부터 빼앗았다.

94:2.4 (1029.2) 철학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이 가르침 이후에 곧 뒤이어, 모든 창조의 대령{大靈}인 브라만과 절대적으로 결합해서 우주의 안식과 평화 속에 잠김으로써, 자아로부터 영원히 탈출할 수 있다는 교리가 창안됐다. 필사자의 욕망과 인간 포부는 효과적으로 강탈되고 실질적으로 파괴됐다. 2천 년이 넘는 동안, 인도의 상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욕망에서 탈피하려고 애썼으며, 그리하여 영적 절망상태의 사슬로, 수많은 힌두 민족의 혼{魂}을 실질적으로 속박해 온, 후대의 그 종파들과 교훈에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모든 문명 중에서, 베다_아리아인이, 살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가장 혹독한 대가{代價}를 지불했다.

94:2.5 (1029.3) 계급제도 자체만으로는, 아리아인의 종교_문화적 체계를 존속시킬 수 없었고, 데칸의 열등한 종교들이 북쪽으로 퍼지자, 절망과 자포자기 시대가 시작됐다. 생명 없는 종교가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암흑시대 동안이었고, 그 후로 계속 유지됐다. 새로운 종파들 중에서 다수는 솔직히 말해서 무신론적인데, 아무 도움 없이 사람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런 구원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유감스런 전체 철학의 많은 부분에서,

멜기세덱의 교훈은 물론, 아담의 교훈의 잔재가 왜곡되어 남은 흔적도 두루 발견할 수 있다.

94:2.6 (1029.4) 힌두 신앙의 후대 경전인 브라마나와 우파니샤드가 편집된 것은 바로 이 시대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개인 신앙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개인적 종교 교훈을 거부했으므로, 그리고 데칸에서 온, 저하시키고 쇠약하게 만드는 종파와 신조의 물결로, 그리고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과 환생사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으므로, 브라만교 사제계층은 이런 오염시키는 믿음에 대항하는 격렬한 반발을 체험했는데; 참된 실체를 추구하고 찾으려는 명확한 노력이 있었다. 브라만들은 인도인의 신격 개념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겨내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개념에서 인격을 빼버리는 끔찍한 오류에 빠졌으며, 낙원 아버지라는 드높은 영적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만물을_품는 절대자라는,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갖고 나타났다.

94:2.7 (1029.5) 브라만들은, 자아_보존을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이제 그들은

브라만이라는 가설,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철학적 자아,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한 그것을 찾아냈는데, 이것은 그 불행한 날부터 20세기까지 인도의 영적 삶을 무력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94:2.8 (1029.6) 불교는 우파니샤드 문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인도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번성했음에도, 불교는 후대의 힌두교와 경쟁할 수 없었으며;도덕 수준이 더 높았음에도,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교의 묘사는 힌두교의 묘사보다도 분명치 못했는데, 힌두교는 더 지위가 낮고 개인적인 신격들을 마련해 줬다. 알라가 우주의 최고 하나님이라는 선명한 개념을 가진 호전적인 이슬람의 돌진 앞에서, 불교는 마침내 인도 북부 지역을 넘겨줬다.

3. 브라만의 철학

94:3.1 (1030.1) 브라만교의 가장 높은 단계는 거의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정신이 철학과 형이상학의 영역 속으로 가장 훌륭하게 도달한 것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최종적인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인도인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이중 종교 개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학적 국면을 사색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는데:이 두 개념은, 온 우주의 피조물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가 실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완전하라고 명하신 그 아버지께 도달하려고 애쓰는 동안, 바로 이 피조물들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체험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94:3.2 (1030.2) 브라만의 개념을 보면, 당대의 지성인들은, 만유에_충만한 어떤 절대자 관념에 정말로 붙잡혀 있었는데, 이 가정{假定}이 한꺼번에 창조 에너지와 시공우주의 반작용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브라만은 도무지 정의{定義}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즉 유한한 모든 특성을 연달아 부정{否定}함으로써만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것은 확실히, 절대 존재, 즉 심지어 무한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이 개념에는 대체로 인격체 속성이 빠져 있으며, 따라서 개별 신앙인이 이를 체험할 수 없었다.

94:3.3 (1030.3) 브라만_나라야나는, 절대자, 무한한 자존체{自存體}, 잠재하는 시공우주의 근원적 창조 효력, 모든 영원 세계 전체에 정적{靜的}으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자아로 생각됐다. 당시의 철학자들이 신격 개념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할 수만 있었다면, 브라만을, 연합하기 쉽고 창조적이라고, 피조된 진화하는 존재가 다가갈 수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다음에 그런 가르침은 유란시아에서 신격에 대한 가장 진보된 설명이 됐을 터인데, 이는 그 가르침이 전체 신격 기능 가운데 처음 다섯 수준을 포함하고, 아마 나머지 둘을 상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94:3.4 (1030.4) 어떤 국면에서, 유일한 우주의 대령{大靈}이 모든 피조된 실존을 합친 총체라는 개념은, 지존하신 분에 대한 진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도록 인도 철학자를 이끌었지만, 이런 진리는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들이 브라만_나라야나라는 이론적 일신교{一神敎} 목표에 도달하기에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어떤 개인적 접근법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4:3.5 (1030.5) 인과관계의 연속성이라는 인과응보 원칙은, 다시, 지존자의 신격 현존 안에 이뤄지는 모든 시_공간 행위의 영향이 통합된다는 진리에 매우 근접하기는 했지만;이런 가정{假定}은, 결코 개별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대등하게

신격에 도달한다고 규정한 적이 없었고, 오직 우주적 대령이 모든 인격체를 궁극적으로 흡수한다고 규정했다.

94:3.6 (1030.6) 또한 브라만교의 철학은, 사교 조율사의 내주를 거의 깨달을 뻔했지만, 진리를 오해함으로 비뚤어지기만 했다. 브라만의 내주가 바로 혼이라는 가르침은, 이렇게 우주의 한 분이 내주하는 것을 일단 제쳐놓고, 인간의 개체성이 전혀 없다는 믿음으로 완전히 손상되지만 았았더라면, 진보된 종교를 위해서 길을 닦았을지도 모른다.

94:3.7 (1030.7) 자아의_혼이 대령과 합쳐진다는 교리에서, 인도 신학자들은, 인간다운 어떤 존재, 즉 새롭고 독특한 어떤 존재,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됨으로써 태어나는 어떤 존재가 생존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혼이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은, 만유의 아버지의 품안으로 조율사가 돌아간다는 진리와 아주 유사하지만, 조율사와는 달리, 또한 생존하는 무엇이 있는데, 이것은 필사 인격체의 모론시아 사본{寫本}이다. 그리고 지극히 중요한 이 개념이 브라만의 철학에는 치명적으로 결여됐다.

94:3.8 (1031.1) 브라만의 철학은 우주의 많은 사실에 접근했고, 수많은 시공우주 진리에 가까이 도달했지만, 절대, 초월, 및 유한 등과 같은 몇 가지 수준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너무 자주 저질렀다. 절대 수준에서 유한하고_착각일 수 있는 것이, 유한한 수준에서는 철저히 실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그 철학은, 만유의 아버지의 근본 인격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진화 피조물의 제한된 하나님 체험으로부터, 영원한 아들이 낙원 아버지를 무한하게 체험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만유의 아버지를 몸소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4. 힌두교

94:4.1 (1031.2) 인도에서 몇 세기가 지나자 사람들은, 멜기세덱 선교사의 교훈으로 인해 변경돼 왔고 나중에 브라만 사제계층이 구체화한, 베다의 고대 제례식으로 어느 정도 되돌아갔다.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국제적이었던 이 종교는, 불교와 자이나교 그리고 나중에 나타난 마호멧교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에 반응해서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이 도착할 무렵에,

그 교훈은 이미 너무 서양화 돼서 “백인의 종교”가 돼버렸으므로, 힌두 지성인에게는 이상하고 낯설었다.

94:4.2 (1031.3) 현재의 힌두 신학은 신격과 신성에 대해서 네 개의 하향식 수준을 묘사하고 있다.

94:4.3 (1031.4) 1. *브라만*, 절대자, 무한한 한 분, 자존체{自存體}.

94:4.4 (1031.5) 2. *삼신일체*{三神一體}, 힌두교의 최고 삼자일체. 이런 연합에서 첫째 위{位}인 *브라마*는 브라만--곧 무한의 존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_창조된 존재로 생각된다. 범신론적 무한한 한 분과 유사하게 동일시하지만 않았더라면, 브라마는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브라마는 숙명과도 동일시된다.

94:4.5 (1031.6) 둘째와 셋째 위{位}에 해당하는 시바와 비쉬누 숭배는 기원후 1,000년 기간에 생겨났다. *시바*는 생사{生死}의 주인이고, 풍요의 신이며, 파괴의 주{主}다. *비쉬누*는 주기적으로 인간 형태로 육신화한다는 믿음으로 인해 몹시 인기가 좋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쉬누는 인도인의 상상의 세계에서 실제적이고 생생한 존재가

된다. 어떤 사람은 시바와 비쉬누를 각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최고의 존재로 간주한다.

94:4.6 (1031.7) 3. *베다* 및 *베다*_이후 신격들. 아그니, 인드라, 소마 등과 같은 아리아인의 여러 고대{古代} 신은, 삼신일체의 세 위{位}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수많은 신은 베다 인도의 초기 시대부터 계속 형성됐고, 이것들도 힌두 만신전에 합병됐다.

94:4.7 (1031.8) 4. *반신반인*{半神半人}:초인간, 반신{半神}, 영웅, 귀신, 유령, 악한 영들, 요정, 괴물, 도깨비, 및 후대 종파의 성자{聖子}들.

94:4.8 (1031.9) 힌두교는 오랫동안 인도 민족에게 생기를 주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아량 있는 종교였다. 힌두교의 큰 장점은, 그 종교가 유란시아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응력 있고,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종교로 판명돼 왔다는 사실에 있다. 힌두교는 거의 무제한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지적인 브라만의 고상하고 어느 정도 일신교{一神敎} 같은 의견으로부터, 천하고 억압받는 계층의 무지한 신자들이 가진, 형편없는 주물숭배체계와 원시 종파 풍습에

이르기까지, 보기 드물게 광범한 융통성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

94:4.9 (1032.1) 힌두교가 살아남은 것은, 그 종교가 본질적으로 인도의 기본 사회 구조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다. 힌두교에는 교란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큰 성직자 계급 제도가 없으며;그 민족의 생활양식에 스며들어 있다. 힌두교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모든 다른 종파를 능가하며, 다른 여러 종교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가우타마 부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역시 육신화한 비쉬누라고 주장한다.

94:4.10 (1032.2) 오늘날, 인도에 매우 필요한 것은, 예수교인{敎人}의 복음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이 자녀신분이요, 따라서 형제관계임을--묘사하는 것이며, 이 복음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회에 봉사함으로 개인적으로 실현된다. 인도에는 철학 체제가 존재하고, 종파 체계가 나타나는데;다만 필요한 것은, 미가엘의 증여 생애를 백인의 종교로 만들려는 서양의 교의와 교리의 옷을 벗겨낸, 사람의 아들의 원래 복음에 제시된 활력을 주는 역동적 사랑의 불꽃이다.

5. 중국에서 진리를 향한 투쟁

94:5.1 (1032.3) 지고자 하나님을 전파하고,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전파하면서 아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살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의 철학과 종교 사조를 많이 흡수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그 후계자들이 임명한 선생들은 그들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스며들었고, 그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기원전 둘째 천년의 중엽이었다. 살렘족속은 100년 넘는 동안 시 후크에 본부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중국인 선생들을 훈련시켰고, 이들은 황인종의 영토 전역에서 두루 가르쳤다.

94:5.2 (1032.4) 가장 초기 형태의 도교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이런 가르침의 직접 결과였는데, 오늘날 통용되는 이름의 종교와는 크게 달랐다. 초기, 즉 원시 형태의 도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합성된 형태였다:

94:5.3 (1032.5) 1. 계속 남아있는 싱글랑톤의 교훈, 이것은 상제{上帝},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개념으로 지속됐다. 싱글랑톤이 살던 시대에는, 중국 민족이 실질적으로 일신교를 믿게 됐으며; 그들은 하나의 진리를 숭배하기에

물두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늘의 영, 즉 우주 통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황인종은, 그 후에 여러 세기 동안, 많은 하급{下級} 신과 영 개념이 그들의 종교 속으로 교활하게 스며들었음에도, 신격에 대해서 가졌던 이런 초기 개념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94:5.4 (1032.6) 2.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증여하려는, 지고자 창조주 신격을 믿는 살렘 종교. 그러나 멜기세덱 선교사가 황인종 지역으로 스며들 때가 되자, 그들의 원래 메시지는, 마키벤타 시대에 살렘에 있었던 단순한 교리에서, 이미 상당히 변형돼 있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94:5.5 (1032.7) 3. 모든 악{惡}에서 도피하려는 욕구와 더불어, 인도인 철학자들이 가진 브라만_절대자 개념. 베딕 신앙을 가르치는 인도인 선생들은, 동쪽을 향한 살렘 종교의 전파에 아마 가장 큰 외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브라만에 대한--곧 절대자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살렘 사람의 구원 사상에 불어넣었다.

94:5.6 (1033.1) 복합적인 이 믿음은, 종교_철학적 사고에 깔려있는 영향력으로서 황인종과 갈색인종의 지역 도처에

퍼졌다. 일본에서는 이런 원시_도교가 신도{神道}로 알려졌고, 팔레스틴의 살렘으로부터 아득히 먼 이 나라에서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류가 잊지 않게 하려고 땅에서 살았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육신화에 대해서 배웠다.

94:5.7 (1033.2) 중국에서 이런 모든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조상 숭배 종파와 후일에 혼동되고 혼합됐다. 그러나 싱글랑톤 시대 이후로, 중국인이 제사장제도에 무력하게 노예화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황인종은 야만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리된 문명으로 발전된 첫 종족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신들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 해방됐고, 다른 인종들이 두려워한 것과는 달리, 죽은 사람의 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제들로부터 해방된 초기 성공에서 더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며; 거의 마찬가지로 비참한 실책이었던, 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94:5.8 (1033.3) 그러나 살렘족속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다. 6세기에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교훈을 수립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세웠던 복음의 기초 위에서였다.

노자{老子}와 공자{孔子} 시대의 도덕적 분위기와 영적 정서는, 그 전 시대의 살렘 선교사의 교훈으로부터 자라났다.

6. 노자와 공자

94:6.1 (1033.4) 미가엘이 도래하기 약 600년 전에, 육체에서 떠난 지 오래된 멜기세덱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것이 유란시아의 옛 신앙에 전반적으로 흡수됨으로써, 그 순수성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미가엘의 선구자로서 그의 사명이 한동안 위험에 처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에, 영적 매개체의 특별한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종교 진리가 유란시아에 아주 특이하게 여러 번 발표됐는데, 행성 감독관도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 인간 선생의 작용으로 살렘의 복음이 다시 규정되고 소생됐으며, 당시에 제시된 대로, 대부분은 본 기록이 쓰이던 때에도 존속됐다.

94:6.2 (1033.5) 영적 진보에서 독특했던 이 세기의 특징은, 종교, 도덕, 및 철학에 위대한 선생들이,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중국에서 탁월한 두 선생은, 노자와 공자다.

94:6.3 (1033.6) 노자는, 모든 창조의 유일한 최초 원인으로 도{道}를 천명했을 때, 살렘 전승의 개념에 직접 기초했다. 노자는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도, 즉 지존자 하나님과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의 영속적 합일{合一}이라”고 가르쳤다. 근본 원인에 대한 그의 납득은 가장 통찰력 있는 것이었는데, 그는: “통일은 절대적 도에서 발생되며, 통일에서 시공우주 이원성{二元性}이 나오고, 그런 이원성에서 삼위일체가 실존하게 되며, 삼위일체는 모든 실체의 근본 원천이다.” “모든 실체는 시공우주의 잠재성과 실제성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이루며, 신성{神性}의 영이 이것들을 영원히 조화시킨다”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94:6.4 (1033.7) 또한 노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교리를 가장 처음 제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선{善}은 선을 낳지만, 정말로 선한 사람에게는 악조차 선을 초래한다.”

94:6.5 (1033.8) 그는 피조물이 창조주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쳤으며, 생명을 시공우주 잠재성으로부터 인격체가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는 한편, 죽음은 이 피조 인격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묘사했다. 참된 신앙에 대한 그의 개념은 특이했으며, 그도 또한 참된 신앙을 “어린아이의 태도”에 자주 비유했다.

94:6.6 (1034.1)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매우 분명했는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절대자 신격은 싸우지 않지만 항상 승리하며; 인류를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지만 그들의 참된 간구에 응답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인내하고, 그 뜻의 표현은 영원히 필연적이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에 대해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진리를 표현하면서: “선한 사람은 진리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 재산을 동료에게 나눠주려고 애쓰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를 실현함이기 때문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익을 주고 파괴시키지 않으며; 참된 신자{信者}의 목적은 항상 실천함에 있고 결코 강요함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94:6.7 (1034.2) 무저항에 대한 노자의 가르침과, 행동 및 강압 사이에 대해서 그가 했던 구분이 나중에는, “아무 것도 보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라는 믿음으로

왜곡됐다. 그러나 노자는 그런 오류를 가르친 적이 없으며, 그럼에도 무저항에 대한 그의 표현은, 중국 민족들의 평화로운 성향이 더 발전되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

94:6.8 (1034.3) 그러나 20세기 유란시아에서 유행하는 도교는, 그 옛 철학자의 고상한 시공우주 개념 및 정서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그는 자신이 깨달은 대로 가르쳤고, 그 진리는 이랬다: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 에너지로 사람은, 도{道}, 즉 우주들의 영원한 신격이요 절대 창조주이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

94:6.9 (1034.4) 공자(공 후_쯔)는 6세기에 중국에서 노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노자보다는 어렸다. 공자의 교리는, 황인종의 오래된 역사에서 이뤄진, 더 나은 도덕 전통에 기초를 뒀으며, 또한 살렘 선교사들의 계속 남아있던 전승에도 얼마간 영향을 받았다. 그의 주요 업적은, 고대 철학자들의 현명한 교훈을 편집한 데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환영 받지 못한 선생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문서와 교훈은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자는 마술의 자리를 도덕으로 대체시키면서, 무당들에게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갔으며; 질서가 새로운 주물이 되게 했고, 조상의 행위를 공경하도록 만들었는데, 본 기록이 이뤄지던 당시에도 중국인은 여전히 이것을 공경하고 있었다.

94:6.10 (1034.5) 도덕성에 대한 공자의 훈계는, 이 세상 방법이 하늘 방법의 왜곡된 그림자라는, 즉; 현세 문명의 참된 모범은, 하늘의 영원한 체계가 반사{反射} 투영된 것이라는 이론에 입각했다. 유교{儒敎}에 잠재하는 하나님 개념은, 시공우주의 원형인 천도{天道}를 강조한 것에 비해서 거의 완전하게 경시됐다.

94:6.11 (1034.6) 노자의 교훈은 동양에서 소수의 무리에게 전수됐지만, 공자가 기록한 문서는 그 후로 계속, 유란시아인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도덕적 바탕의 기초가 됐다. 이런 공자의 격언은 지난 날의 최선의 것을 존속시켰지만, 그토록 공경 받은 그 업적을 창출했던 바로 그 중국인의 연구 정신에 어느 정도 해로운 것이기도 했다. 진시황 황실의 수고와 묵자{墨子}의 교훈이 이 교리의 영향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는데, 묵자는 도덕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형제관계를 전파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는 옛 탐구정신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썼지만,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제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실패했다.

94:6.12 (1034.7) 중국의 영적 암흑기{暗黒期} 시대에, 다른 여러 영적 및 도덕적 선생과 마찬가지로, 결국 추종자들이 공자와 노자를 신격화했는데, 이 시대는 도교 신앙이 쇠퇴하고 타락하던 때와, 인도로부터 불교 선교사들이 도래하던 때 사이에 있었다. 이런 영적 퇴폐기 동안에 황인종의 종교는, 마귀, 용, 및 악한 영들로 가득 찬 비참한 신학{神學} 체계로 퇴보했는데, 이 모든 것은, 계몽되지 못한 인간 정신에 두려움이 돌아온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진보된 종교로 말미암아 한때 인간 사회의 우위{優位}를 차지했던 중국은, 그 후에 하나님_의식을 발전시키는 참된 경로에서 일시적으로 진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쳐지게 됐는데, 이 하나님_의식은 개별 필사자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 행성에서 문화와 사회의 진보의 특징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명이 참으로 진보하는 데 꼭 필요하다.

7. 가우타마 싯다르타

94:7.1 (1035.1) 중국에서 노자 및 공자와 같은 시대에, 진리를 가르친 다른 위대한 선생이 인도에서 나타났다. 가우타마 싯다르타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 북부 지방 네팔에서 태어났다. 그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그가 터무니없을 만큼 부유한 통치자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남부 히말라야에 있는 협소하고 외진 산악 계곡에서, 주위의 묵인 하에 다스리는 하급{下級} 족장의 자리를 이을 것으로 보이는 후계자였다.

94:7.2 (1035.2) 가우타마는 무익한 요가 실습을 6년 동안 한 후에, 불교 철학으로 발전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싯다르타는 점점 왕성해지는 신분계층 체계에 대항해서, 단호하지만 효과 없는 투쟁을 했다. 이 젊은 선지{先知} 왕자에게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크게 호감을 샀던, 고상한 성실성과 독특한 이타심이 있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 고뇌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추구하려는 풍습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94:7.3 (1035.3) 인도에서 혼란되고 극단적인 숭배 관습이 한창일 때, 더 온전하고 절도 있는 가우타마의 교훈이 참신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신들, 사제들, 및 그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비난했지만, 우주의 한 분의 *인격체*를 깨닫는 면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했다. 개별 인간의 혼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혼이 윤회한다는 유서_깊은 믿음에 반대하여 가우타마가 단호하게 투쟁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구하고, 거대한 우주에서 그들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도록 고귀한 노력을 했지만, 상승하는 필사자의 실제적이고 숭고한 집으로--즉 낙원으로-- 가는, 그리고 영원한 실존으로서 확장하는 봉사에 이르는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94:7.4 (1035.4) 가우타마는 진정한 선지자였으며, 은둔자 고다드의 지침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살렘 복음을 부활시키는 영감{靈感}으로 인도 전체를 일깨웠을지도 모른다. 고다드는 멜기세덱 선교사의 전승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는 어느 가문{家門}의 후손이었다.

94:7.5 (1035.5) 가우타마는 베나레스에 학교를 설립했고, 그 이듬해에 바우탄이라는 학생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관해서 살렘 선교사가 전한 전승을 스승에게 전했으며; 싯다르타는 만유의 아버지에 관해서 매우 분명한 개념을 갖지는 못했지만, 신앙을--곧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보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제자를 60명씩 무리지어 내보내기 시작함으로써, "값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의로움과 응보에 의거한 신앙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94:7.6 (1035.6) 가우타마의 아내는 남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여승{女僧} 체제의 설립자가 됐다. 그의 아들이 뒤를 이었고, 그 종파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그는 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닫기는 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신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살렘 복음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고, 늙어서 유언을 남길 때에는 "너희의 구원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했다.

94:7.7 (1036.1) 최선의 상태로 선포됐을 때, 보편적 구원에 대한 가우타마의 복음, 즉 제물, 고뇌, 제례식, 및 사제로부터의 해방은 당시에 혁명적이고 놀라운 교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살렘 복음의 부흥과 흡사했다. 그 복음은 자포자기한 수백만의 혼에게 도움을 줬고, 나중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우스꽝스럽게 타락했음에도, 수많은 인간이 여전히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94:7.8 (1036.2) 싯다르타는,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는 현대 종파에 잔존해 온 것보다 훨씬 많은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의 교훈이 아닌 것처럼, 현대 불교는 가우타마 싯다르타의 교훈이 아니다.

8. 불교도의 신앙

94:8.1 (1036.3)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부다를 피난처로 삼으며; 불법{佛法}을 피난처로 삼으며; 형제관계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방책{防柵}을 낭송함으로써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됐다

94:8.2 (1036.4) 불교는 신화에서 기원되지 않고, 역사적 인물에서 기원됐다. 가우타마의 추종자들은, 그를 주{主}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 사스타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런 초인적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그를, 부다, 즉 *통달한 존재*로 부르기 시작했으며;나중에는 석가모니 부다라고 불렀다.

94:8.3 (1036.5) 가우타마의 원래 복음은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기초로 했다:

94:8.4 (1036.6) 1. 고난에 관한 고귀한 진리.

94:8.5 (1036.7) 2. 고난의 근원.

94:8.6 (1036.8) 3. 고난의 극복.

94:8.7 (1036.9) 4. 고난을 극복하는 길.

94:8.8 (1036.10) 고난의 교리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남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팔중도{八重道} 사상이 있었는데:그것은, 올바른 통찰, 올바른 열망, 올바른 언변, 올바른 품행, 올바른 생계{生計}, 올바른 노력, 올바른 정신 집중, 및 올바른 묵상이다. 고난에서 탈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 갈망, 및 애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우타마의 뜻이 아니었으며;그의 가르침은 오히려, 현세의 목표와 물질적 대상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필사적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계획됐다. 동료들 사랑하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신자는 이 물질 세계의 관계를 뛰어 넘어서, 영원한 미래의 실체들을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94:8.9 (1036.11) 가우타마가 훈계한 도덕 계명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94:8.10 (1036.12) 1. 살인하지 말라.

94:8.11 (1036.13) 2. 도둑질하지 말라.

94:8.12 (1036.14) 3.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

94:8.13 (1036.15) 4. 거짓말하지 말라.

94:8.14 (1036.16) 5.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94:8.15 (1036.17) 몇 가지 추가 계명, 즉 이차적{二次的} 계명도 있었으며, 이를 준행할 것인지는 믿는 자의 재량이었다.

94:8.16 (1036.18) 싯다르타는 인간 인격체의 불멸성을 거의 믿지 않았으며;그의 사상은 오직 일종의 기능적 연속성만을 고려했다. 그는 열반{涅槃}이라는 교리에 무엇을 포함시키려 했는지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었다.

필사자가 실존하는 동안에 이론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열반을 사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지 않았음을 가리킬 것이다. 열반은 사람을 물질세계에 붙들어 매고 있는 모든 족쇄가 파괴된, 최상의 깨달음과 천상{天上}의 희열이라는 상태를 가리켰으며;필사 인생의 욕망에 매이지 않고, 끝없이 다시 육신화를 체험한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94:8.17 (1037.1) 가우타마의 원래 교훈에 의하면, 신성한 도움은 별도로 하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며;구원 얻는 신앙, 또는 초인적 능력의 존재에게 하는 기도가 있을 자리가 없다. 가우타마는 인도의 미신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마술적 구원이라는 뻔뻔스런 주장을 사람이 외면하게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는, 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도록, 그리고 달성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험오스럽고 고통스런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후계자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최고의 행복은 바람직한 목표를 총명하게 열심히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런 성취는 시공우주에서 자아를_실현하면서 참으로 진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추종자들은 간과했다.

94:8.18 (1037.2) 싯다르타가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우주가 절대로 공정하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필사적 사람이 일찍이 창안한, 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철학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철학을 가르쳤으며; 그 철학은 이상적인 본주의였고, 미신, 마술적 제례식, 및 유령과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모든 근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

94:8.19 (1037.3) 불교의 원래 복음에서 가장 큰 약점은, 그 복음이 이타적 사회봉사의 종교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불교의 형제관계는 믿는 자들의 우애 관계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연구하는 선생들의 공동체였다. 가우타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도록 금했고, 그렇게 해서 고위성직자의 성향이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가우타마 자신은 매우 사교적이었으며; 정말로 그의 삶은 그의 설교보다 훨씬 위대했다.

9. 불교의 전파

94:9.1 (1037.4) 불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 부다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번창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종교

체계보다 멜기세덱의 진리를 더 많이 묘사했다. 그러나 하위_신분계층 군주{君主}였던 아소카가 자신을_보호하려고 신봉할 때까지, 불교는 종교로 퍼져나가지 못했는데, 아소카는 멜기세덱과 미가엘 사이에서 이집트의 이크나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집권자 가운데 하나였다. 아소카는 불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을 통해서 큰 인도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25년 동안 1만 7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훈련시켰고, 알려진 온 세계의 가장 먼 변경지대까지 보냈다. 그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계 절반에서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되게 했다. 불교는 곧 티벳, 카슈미르, 실론, 버마, 자바, 시암, 고려{高麗}, 중국, 및 일본에 전파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불교는 불교가 대체하거나 증진시킨 것들보다 훨씬 우수한 종교였다.

94:9.2 (1037.5) 불교가 인도 원산지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은, 진지한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헌신하고 끈질기게 선교한 감격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가우타마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자신의 신앙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육로의 대상{隊商} 통로에서 당하는 위험에 담대히 맞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지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중국해의 위험에도 용감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이 불교는 더 이상 가우타마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으며; 그를 신으로 만든, 초자연적인 것으로 변경된 복음이었다. 그리고 불교가 원산지인 인도에서 멀리 퍼질수록, 불교는 가우타마의 교훈과 더욱 달라졌으며, 불교가 밀어냈던 종교들과 더욱 비슷해졌다.

94:9.3 (1038.1) 후대에 이르자 불교는, 중국에서는 도교에, 일본에서는 신도에, 그리고 티벳에서는 그리스도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단순히 시들고 소멸됐다. 불교는 브라만교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이슬람교에 비굴하게 굴복했으며, 한편 동양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에서는, 가우타마 싯다르타가 전혀 알지 못했을 제례식으로 퇴화됐다.

94:9.4 (1038.2) 남부 지역에서는 싯다르타의 전형적 교훈을 따르는 근본주의자들이, 실론, 버마, 및 인도-차이나 반도에 계속 존재했다. 이것이, 초기의 교리, 즉 반사회적 교리를 따르는 불교의 히나야나 종파다.

94:9.5 (1038.3) 그러나 인도에서 붕괴되기 전에도, 히나야나, 즉 “소승{小乘}”을 지지하는 남부의 순수파와는 대조적으로, 가우타마를 추종하는 중국인과 북부 인도인 무리는, 구원에 이르는 “대승{大乘}” 마하야나 가르침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마하야나 신자들은, 불교 교리에 본래부터 있던 사회적 제한에서 벗어났으며, 불교의 이 북부 지파는 그 후로 줄곧 중국과 일본에서 진화했다.

94:9.6 (1038.4) 불교는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자라나는 종교인데, 불교가 신봉하는 가장 높은 도덕적 가치를 많이 보존하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평온과 자아_통제를 증진시키고, 침착함과 행복을 증대시키며, 슬픔과 비탄을 많이 줄여준다. 이 사상을 믿는 그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산다.

10. 티벳에 있던 종교

94:10.1 (1038.5) 멜기세덱 교훈이, 불교, 힌두교, 도교, 및 그리스도교와 연합된, 가장 생소한 형태가 티벳에서 발견될 수 있다. 불교 선교사들이 티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유럽의 북쪽 부족들

가운데서 발견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미개한 원시 상태에 부딪혔다.

94:10.2 (1038.6) 순진한 이 티벳인들은 오래된 마술과 주문을 완전히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 티벳에서 행하는 제례식의 종교 예식절차를 조사하면, 머리를 민 사제 단체가 과도하게 발달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방울, 영창{詠唱}, 향{香}, 행렬, 묵주, 형상, 장식물, 그림, 성수{聖水}, 화려한 의복, 그리고 정교하게 준비된 성가대를 포함하는 복잡한 제례식을 거행한다. 그들은 엄격한 교의와 정형화 된 신조, 즉 신비로운 제례와 특별한 금식을 행한다. 그들의 계층 제도는, 승려, 여승, 주지, 달라이 라마 등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천사, 성인, 및 성모{聖母}와 신들에게 기도한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며 연옥{煉獄}을 믿는다. 그들의 절은 규모가 크고 사원은 웅장하다. 그들은 신성시되는 제례식을 끝없이 반복하고, 그런 예식절차가 구원을 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도문을 바퀴에 붙이고, 바퀴가 돌아갈 때 탄원했던 것이 응답된다고 믿는다. 현대에 어떤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그들처럼 그토록 많은 종교로부터 그렇게 많은 관례를 준수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으며;그런 누적된 예배의식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방해받고 과도하게 부담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94:10.3 (1038.7) 티벳인은 예수교인{敎人}의 복음의 단순한 교훈 즉:하나님의 아들신분, 사람의 형제관계, 그리고 영원한 우주에서 계속_상승하는 시민자격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로부터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

11. 불교도의 사상

94:11.1 (1038.8) 불교는 기원후 첫 1,000년 동안 중국으로 전파됐고, 황인종의 종교 관습에 잘 조화됐다. 그들은 조상을 숭배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데;이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됐다. 불교는, 붕괴되는 도교에서 잔존한 제례식 풍습과 곧 혼합됐다. 숭배하는 신전{神殿} 및 일정한 종교 예식절차와 더불어, 새로 합성된 이 종교는 곧, 중국, 고려, 및 일본의 민족들이 널리 받아들인 종파가 됐다.

94:11.2 (1039.1) 가우타마의 추종자들이 그 종파의 전통과 교훈을 왜곡하여 그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 때까지 불교가 세상에 퍼지지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간 생애에 대한 이 신화는, 수많은 기적을 동반했던

것처럼 미화됐는데, 불교의 북부 복음, 즉 마하야나 복음 청취자에게 무척 호소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11.3 (1039.2) 나중에 그의 추종자 가운데 더러는, 석가모니 부다의 영이, 살아있는 부다가 되어 정기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온다고 가르쳤는데, 그리하여 부다 형상, 사원, 제례식, 그리고 "살아있는 부다"라고 사칭하는 자를 막연히 영속시키도록 길을 열어줬다. 따라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는 위대한 인도인의 종교는, 그가 그토록 맹렬하게 반대해서 투쟁했던, 그리고 그토록 용맹스럽게 비난했던 바로 그런 예식 풍습과 제례식 주문{呪文}에, 그 자체가 속박됐음을 결국 발견하게 됐다.

94:11.4 (1039.3) 불교 사상에서 큰 진보는, 모든 진리의 상대성을 납득함에 있었다. 이런 가설{假說} 장치를 통해서, 불교도는 자신과 다른 여러 사람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기네 종교 경전들의 상이점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킬 수 있었다. 작은 진리는 나약한 정신을 위한 것이고, 큰 진리는 탁월한 정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94:11.5 (1039.4) 또한 이 사상은, 부다의 (신성한)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한다고 주장했으며;사람은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이런 내적 신성{神性}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내주하는 조율사에 대한 진리를 유란시아의 종교가 가장 분명하게 제시한 것들 가운데 하나다.

94:11.6 (1039.5) 그러나 싯다르타가 제창했던 원래의 복음에서 심각한 취약점은, 그의 추종자가 해석했던 바와 같이, 자아를 객관적 실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법으로, 필사자 본성의 모든 한계로부터 인간의 자아를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시공우주에서 진정한 자아_실현은, 시공우주 실체와 일체가 되고, 공간에 속박 받고 시간에 제한되는, 에너지, 정신, 및 영으로 이뤄진 유한한 시공우주와 일체가 된 결과로 일어난다.

94:11.7 (1039.6) 그러나 불교 예식과 표면상의 의식거행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지나가는 지역의 예식과 의식거행들로 인해 심하게 오염됐음에도, 때때로 이 체계의 사고{思考} 및 믿음을 받아들였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적 삶에서, 이런 퇴화가 일괄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천 년이 넘는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다수는,

절대 진리와 절대자에 관한 진리를 확인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

94:11.8 (1039.7) 절대자에 대한 고등 개념의 진화는, 여러 사고{思考}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논리의 복잡한 행로를 거쳐서 성취됐다. 이 무한성 교리의 향상은, 히브리인 신학에서 하나님 개념이 진화한 것만큼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주들의 원초적 근원{根源}을 상상하는 도중에, 불교도의 정신이 도달하고, 머물고, 거쳐 간 어떤 명료한 수준들이 있었다:

94:11.9 (1039.8) 1. *가우타마의 전설*. 그 개념의 밑바닥에는, 인도의 왕자이며 선지자인 싯다르타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이 전설은, 불교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퍼지는 동안, 신화적인 것으로 변해갔으며, 결국 가우타마를 통달한 존재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부가적 속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94:11.10 (1040.1) 2. *다수{多數}의 부다*. 가우타마가 인도의 민족들에게 왔다면, 아득히 먼 과거에 인류의 종족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선생이 오시는 복을 반드시 받았을

것이고, 아득히 먼 미래에 틀림없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 명의 부다, 즉 무제한이고 무수히 많은 부다가 존재한다는 가르침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누구든지 --부다의 신성{神性}을 달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열망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94:11.11 (1040.2) 3. *절대 부다*. 부다의 숫자가 무한대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런 거대한 개념을 다시 통합시킬 필요성이 당시 지성인에게 제기됐다. 따라서, 모든 부다가 존재하지만, 더 높은 어떤 실체, 즉 무한하고 무조건적 실존인 어떤 영원한 한 분, 모든 실체의 절대적 근원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불교의 신격 개념은, 최고의 형태를 취하면서 가우타마 싯다르타의 인간적 인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속박해왔던 의인화된 제한조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영원한 부다라는 이런 최종 생각은 절대자, 때로는 무한한 자존자{自存者}로도 쉽게 동일시될 수 있다.

94:11.12 (1040.3) 이 절대자 신격 관념은, 아시아 민족들의 대중적 호응을 얻은 적이 결코 없었지만, 이 지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철학과 통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우주관과 조화하도록 만들었다. 절대 부다 개념은, 때로는 유사{類似}_인격적이고, 때로는 완전히 비인격적이었다-- 심지어 무한한 창조 세력이기도 했다. 그런 개념이 철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종교 발달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모습을 닮은 야훼조차, 무한히 멀리 있는, 불교 또는 브라만교의 절대자보다 더 큰 종교적 가치가 있다.

94:11.13 (1040.4) 때로는, 절대자가 무한한 자존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굶주린 대중을 위로할 수 없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영원한 생존과 신성한 은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살렘의 단순한 복음을 듣고 위로받으려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12. 불교의 하나님 개념

94:12.1 (1040.5) 불교의 우주론에서 큰 약점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인도와 중국의 많은 미신으로 불교가 오염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우타마에 대한 불교의 이상화{理想化}, 즉 처음에는 통달한 존재로,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부다로 삼은 것이었다.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많은

인간 철학을 흡수함으로써 수난을 당해 온 것처럼, 불교 역시 인간적 출생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우타마의 교훈은 지나간 2천 500년 동안 계속 진화해 왔다. 계몽된 그리스도교인에게 여호와의 개념이 호렙산의 정령{精靈}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계몽된 불교도에게 부다 개념은 이제 더 이상 가우타마의 인간 인격체가 아니다. 언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사용하던 언어를 감상적으로 기억함과 함께, 종교 개념에 있었던 진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94:12.2 (1040.6) 절대자와 대조하여, 하나님 개념이 불교에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근원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추종자를 이처럼 구별하던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자{後者}의 이 불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과 절대자라는 이중{二重} 생각이 마침내 무르익었다. 일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세기 한 세기, 료닌, 호넨 쇼닌, 및 신란의 교훈과 함께, 하나님 개념이 진화했고, 마침내 이 개념은 아미다 부다에 대한 믿음에서 열매를 맺었다.

94:12.3 (1041.1) 이 신자들 가운데서는, 죽음을 체험한 혼은 궁극 실존 상태인 열반{涅槃}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에 머무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서쪽에 있는 낙원의 하나님, 즉 아미다의 신성한 자비와 사랑의 보살핌을 믿는 신앙으로 새로운 구원이 달성된다고 선포된다. 그들의 사상에서는, 아미다를 믿는 사람은 모든 유한한 필사자의 파악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실체를 굳게 붙잡고 있으며;그들의 종교에서는, 완전히 자비로운 아미다, 즉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과 순수한 심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낙원의 숭고한 행복 달성에서 실패하는 고통을 주지 않을 그런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수한다.

94:12.4 (1041.2) 불교의 큰 장점은, 그 신자들이 모든 종교로부터 진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며;그런 선택의 자유는 유란시아 신앙의 특징이 거의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일본의 신도는 세계에서 가장 진취적인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가 돼 왔으며;가우타마 추종자의 옛 선교 정신을 부활시켰고, 선생들을 다른 민족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이 모든 출처에서 기꺼이

도입하려는 태도는, 기원후 20세기 전반기에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난, 정말로 칭찬받을만한 경향이다.

94:12.5 (1041.3) 불교 자체는 20세기의 부흥을 겪고 있다. 불교의 사회적 측면은 그리스도교와 접촉함으로써 크게 증진돼 왔다. 형제관계를 이루는 승려 사제들의 마음에, 배우려는 열망이 다시 불붙었으며, 이 신앙 전반에 이뤄진 교육으로 인해서, 종교 진화에 새로운 진보가 분명히 이룩될 것이다.

94:12.6 (1041.4) 본 기록이 이뤄지던 당시에, 아시아 대부분은 불교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인도의 위대한 선생의 제자들이 한때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그에게 귀 기울였던 것처럼, 과거의 암흑기 동안 그토록 영웅적으로 잘 견뎌 온 이 고귀한 신앙이, 확장된 시공우주 실체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받아들일 것인가?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던, 하나님과 절대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상쾌한 자극에, 이 옛 신앙이 다시 한 번 반응할 것인가?

94:12.7 (1041.5) 유란시아 전체는, 진화로 기원된 여러 종교와 접촉함으로써 열아홉 세기 동안 축적된 교리와 교의{敎義}에 방해 받지 않은, 미가엘의 고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실체인 예수의 복음이, 불교, 그리스도교, 및 힌두교뿐 아니라, 온갖 신앙을 가진 민족들에게도 제시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94:12.8 (1041.6)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5편 레반트의 멜기세덱 교훈

95:0.1 (1042.1) 인도가 동부 아시아에서 많은 종교와 철학을 태동시켰듯이, 레반트가 서양 세계의 신앙 본산지였다. 살렘 선교사들은,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란, 및 아라비아를 거쳐서, 남서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 이 지역들 가운데 일부에서 그들의 교훈이 열매를 맺었으며;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들의 실패는 지혜의 부족 때문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의 살렘 종교

95:1.1 (1042.2) 기원전 2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는, 셋족속의 교훈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으며, 두 침입자 집단의 원시적 믿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서부 사막에서 스며든 베도원 셈족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온 말 타는 야만인이었다.

95:1.2 (1042.3) 그러나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숭배하는 초기 아담족속 민족의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멜기세덱 시절에는, 일곱째 날이 가장 불운한 날로 간주됐다. 금기{禁忌}가 지배했으며;불길한 일곱째 날에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발견한 메소포타미아의 금기 사항 가운데 다수를 팔레스틴으로 가져왔는데, 일곱째 날, 즉 샤바툼을 지키는 바벨론의 관례에 기초해서 창시한 것들이었다.

95:1.3 (1042.4)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종교를 많이 다듬고 개선하려고 많이 수고했음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양한 민족이 영구히 인식{認識}하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가르침은 150년 이상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 다음에는 잡다한 신격들을 믿는 옛 신앙에 점차 굴복하게 됐다.

95:1.4 (1042.5) 살렘 선생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들의 숫자를 크게 줄였는데, 한때는 주요 신격을:벨, 샤마쉬, 나부, 아누, 에아, 마르덕, 썬, 이렇게 일곱 개로 줄이기도 했다. 새로운 가르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이 신들 가운데 세 가지를 다른 것보다 우위에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삼신{三神}, 즉: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벨, 에아, 및 아누였다. 또 다른 삼신들이 다른 장소에서 조성됐고, 모두가 안드족속과 수메르인의 삼자일체 교훈을 연상시켰는데, 세 개의 동심원으로 된 멜기세덱의 휘장에 대한 살렘족속의 믿음에 기초했다.

95:1.5 (1042.6) 신{神}들의 어머니이자 성적{性的} 풍요로움의 정령{精靈}인 이쉬타르의 인기를, 살렘 선생은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여신 숭배를 제거하려고 많이 애썼지만, 바벨론인과 그 이웃은 변장된 형태의 성교{性交} 숭배를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여자가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보편적 풍습이

됐으며;이것을 이쉬타르가 요구하는 헌신으로 여겼고, 풍요로움이 이런 성적 희생 행위에 주로 달렸다고 믿었다.

95:1.6 (1043.1) 멜기세덱 교훈의 초기 진보는, 키쉬에 있는 학교의 지도자였던 나보닷이, 성전에서 유행하는 매춘 풍습에 대해서 일치된 공격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런 사회 갱신을 이루려는 살렘 선교사들의 노력은 실패했으며, 이런 실패로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들의 더 중요한 영적 교훈과 철학 교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95:1.7 (1043.2) 살렘의 복음이 이렇게 실패한 후 즉시, 이쉬타르 종파의 제례식이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이 제례식은 이미, 팔레스틴에서는 아스다롯으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북부 부족들에게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퍼져있었다. 바벨론 사제들이 다시 한 번 점성술로 기울어진 것은 이쉬타르 숭배의 이런 부흥과 관련됐는데;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지막으로 큰 부흥을 겪었고, 점치는 일이 유행하게 됐으며, 사제계층은 여러 세기 동안 점차 약화됐다.

95:1.8 (1043.3) 멜기세덱은 추종자들에게, 만유의 아버지시며 조물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그리고 오직 신앙으로 신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전파하도록 훈계했었다. 그러나 새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는, 느린 진화를 갑작스런 혁명으로 대체시키려는 실책을 종종 범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는, 그 민족에게 너무 높은 도덕 기준을 제시했으며;너무 많은 것을 시도했고, 그들의 고귀한 대의{大義}는 실패로 끝났다. 명확한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만유의 아버지가 실체라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사회관행을 개선하는, 외견상 가치 있는 목적에 집착하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한 사명은 탈선했고, 좌절과 망각 속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95:1.9 (1043.4) 한 세대 만에, 살렘 본부가 키쉬에서 사라졌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파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살렘 학교들의 잔재는 존속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무리들이, 유일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고, 메소포타미아 사제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성에 맞서 싸웠다.

95:1.10 (1043.5) 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다수를 돌 위에 새긴 사람은, 바로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부된 뒤에 활동하던 살렘 선교사들이었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 제사장들이 거기서 그것들을 발견했고, 나중에는 유대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찬미의 시{詩}를 수집하면서 그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켰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이 아름다운 성시{聖詩}들은 벨_마르덕 신전에 새겨진 글이 아니며;이 성시들은 초기 살렘 선교사들의 후손의 작품이었고, 바벨론 사제들이 수집한 마술적인 것과는 뚜렷이 대조가 된다. 읊기는, 키쉬에 있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있던 살렘 학교의 교훈이 매우 잘 반영된 작품이다.

95:1.11 (1043.6)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문화 대부분은, 아메네뎀과 이크나톤의 작품을 통하여 이집트를 거쳐서, 히브리인 문학과 예배의식{禮拜儀式} 속으로 들어갔다. 이집트인은 사회적 책무에 관한 교훈을 눈에 띄게 보존했는데, 이 교훈은 초기 안드족속 메소포타미아인에게서 유래됐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점령한 후대 바벨론인은 대부분 잃어버렸다.

2. 이집트의 초기 종교

95:2.1 (1043.7)

원래의 멜기세덱 교훈은 이집트에서 실제로 가장 깊게 뿌리내렸고, 나중에 거기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나일 강 유역의 진화 종교는, 낫족속과 아담족속 그리고 후대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안드족속 민족 가운데 우세한 종족들이 들어옴으로써 주기적으로 증대됐다. 때로는, 이집트의 민간 경영자 가운데 다수가 수메르인이었다. 이 시기에 세계 인종들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섞인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유란시아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혼합된 유형의 종교 철학이 조성됐고, 그것은 나일 강 유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유대인은 세상 창조에 대한 관념 대부분을 바벨론인으로부터 흡수했으며, 한편 신성한 섭리 개념은 이집트인으로부터 도입했다.

95:2.2 (1044.1)

살렘 교훈에 대해서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호의적이었던 것은, 철학 또는 종교 성향보다 정치와 도덕 성향 때문이었다. 이집트의 각 부족 지도자는, 권좌를 쟁취한 후에, 자기 부족의 신이 다른 모든 신의 원본 신격이며 창조자라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왕조를 영속시키려고 애썼다. 이집트인은 이런 식으로 초월신 관념에 점점 익숙해졌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주를 창조한

신격의 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됐다. 일신교 관념은 이집트에서 여러 세기 동안 오락가락 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토대를 이뤘지만, 진화하는 다신론{多神論} 개념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했다.

95:2.3 (1044.2) 이집트인은 자연 신들을 오랜 세월 숭배해 왔으며; 더 현저히, 수십 개로 분리된 각 부족마다 특별한 집단 신, 즉 하나는 황소를, 하나는 사자를, 또 하나는 수양을, 그런 식으로 숭배했다. 훨씬 전에는 그들도 아메리카 원주민과 매우 흡사한, 토템을 섬기는 부족이었다.

95:2.4 (1044.3) 시간이 지나자, 이집트인은 벽돌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놓인 시신이 소다 성분을 함유한 모래 작용으로 인해 보호되는 반면--즉 미라가 되는 반면, 벽돌로 지은 무덤에 장사된 것은 부패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관찰이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이끌었고, 결국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풍습을 나중에 낳게 했다. 이집트인은, 시신을 보존함으로써 그가 미래의 생애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고 믿었다. 그들은 시체가 부패한 후 먼 훗날에도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시체 옆에 매장용 조각품을 뒀고, 관

위에도 비슷한 모습을 새겼다. 이런 매장용 조각상 만들기가, 이집트의 예술을 크게 개선했다.

95:2.5 (1044.4) 이집트인은 무덤이 시신을 지켜주고, 그 결과로 사후{死後}의 생존을 쾌적하게 해준다는 신념을 여러 세기 동안 간직했다. 마술 풍습의 후대{後代} 진화는, 인생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담을 줬지만, 무덤을 믿는 종교로부터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출했다. 사제들은, “지하 세계에서 사람의 심장을 빼앗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마법의 문장을 관{棺}에 새기려고 했다. 곧 이런 다양한 내용의 마법 문장이 사자의 서{死者書}로 수집되어 보존됐다. 그러나 나일 강 유역에서 마법 제례식은, 당시 제례식이 흔치않게 도달하는 정도까지, 일찍부터 양심과 성품의 분야와 관련됐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교한 무덤보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상{理想}이 구원의 조건이 됐다.

95:2.6 (1044.5) 이 시대의 미신은,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침 뱉기가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서 잘 설명되는데, 이 관념은 이집트에서 기원됐고, 거기서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전파됐다. 호루스와 셀이 전투를 벌이는

전설에 의하면, 그 젊은 신이 자기 눈을 잃었지만, 셀을 정복한 후에, 현명한 신 소스가 상처에 침을 뱉어 치료함으로써 이 눈을 회복시켰다.

95:2.7 (1044.6) 이집트인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은 존경받던 혼의 생존을 나타낸다고 오랫동안 믿었으며;다른 생존자들은 태양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고 생각했다. 어떤 기간에는, 태양 공경이 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되기도 했다. 거대한 피라밋의 경사진 출입 통로가 똑바로 북극성을 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혼이 무덤에서 깨어났을 때, 정지된 그곳으로 똑바로 가서, 왕들의 거주지라고 생각되는 정지된 그 별의 별자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하려 했다.

95:2.8 (1045.1) 태양의 비스듬한 광선이 구름 속에서 틈새를 통해서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것이, 왕과 기타 의로운 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천상{天上}의 계단이 내려오는 징조라고 믿었다. “페피 왕이 그의 발밑에 층계를 이루도록 광채{光彩}를 내려뜨렸고, 그것을 밟고 어머니에게 올라가려 했다.”

95:2.9 (1045.2)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이집트인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난 종교를 소유했다. 그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혼이 마술 처방으로 알맞게 무장된다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피할 수 있고, 오시리스의 재판실로 갈 수 있으며, 거기서 “살인, 약탈, 거짓말, 간음, 도둑질, 이기심{利己心}”의 죄가 없다고 판명되면, 행복의 세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 혼이 저울에 달아서 모자란다고 판명되면, 지옥으로, 즉 삼키는 여신에게 위탁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믿음과 비교할 때, 미래의 생애에 대한 비교적 진보된 개념이었다.

95:2.10 (1045.3)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저 세상에서 심판 받는다는 개념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신학으로 전래됐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 시편 문서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집트인이 바로 그 성시를 기록했다.

3. 도덕 개념의 진화

95:3.1 (1045.4) 안드족속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가 주로 유래됐고, 히브리인과 그리스인을

통해서 그 후의 문명에 많이 전수됐지만, 이집트인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나일 강 유역에서 순수한 진화 발전으로 발생했다. 안드족속에서 기원된 많은 진리와 문화가 수입됐음에도, 미가엘의 증거가 있기 전에 다른 어느 제한된 지역에서든지 비슷하게 자연스런 방법으로 나타났던 것보다 더 도덕적인 문화가, 이집트에서 순전한 인간적 발전으로 진화했다.

^{95:3.2 (1045.5)} 도덕의 진화는 계시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다. 고귀한 도덕 개념이, 사람 자신의 체험에서 유래될 수 있다. 신성한 영이 사람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가치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생활에서 시공우주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런 자연스런 양심 및 성품의 진화는, 고대에 두 번째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후대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살렘의 멜기세덱 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도래함으로써 증대되기도 했다.

^{95:3.3 (1045.6)} 살렘의 복음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도덕적인 지도자들이, 정의, 공정성, 및 탐욕

회피 등을 가르쳤다. 히브리인 경전이 기록되기 3천 년 전에, 이집트인의 금언{金言}은 이랬다:“정의를 표준으로 삼는 사람;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출세한다.” 그들은 친절함, 온화함, 및 분별력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위대했던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의 메시지는:“바르게 행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이 시대에 이집트인의 세 가지 척도는, 진리_응보_정의였다. 유란시아의 순전히 인간적인 모든 종교 중에서, 나일 강 유역에서 한때 있었던 이런 인본주의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상{理想}과 도덕적 위엄을 능가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95:3.4 (1045.7) 이런 진화하는 윤리 개념과 도덕적 이상의 토양에서, 살렘 종교의 잔존{殘存} 교리가 번성했다. 선과 악의 개념은, 이런 말씀을 믿는 민족의 마음 속에서 이미 반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평화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죄 있는 자는 죽음을 받는다.” “사랑 받는 일을 행하는 자는 평안하며;미움 받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나일 강 유역의 거주민은 후대의 옳고 그름의--곧 선과 악의-- 개념을 미처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새로 생겨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 세기 동안 살았다.

95:3.5 (1046.1) 이집트는, 지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그렇게 영적이지는 못했다. 6천 년 동안에 겨우 네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이집트인 가운데서 출현했다. 그들은 아메네뎀을 한동안 따랐고;오크반을 죽였으며;이크나톤을 짧은 한 세대 동안 마지못해서 인정했고;모세를 거절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살렘의 교훈을 위해, 아브라함이, 그리고 후대에는 요셉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집트 전역에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종교 상황보다 정치 상황이었다. 그러나 살렘 선교사가 처음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주민의 변경된 도덕 표준과 혼합되어 진화된, 상당히 윤리적인 이 문화를 접했다. 나일 강 유역의 이 초기 선생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즉 신격의 소리라고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4. 아메네뎀의 교훈

95:4.1 (1046.2) 때가 되자 이집트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더러는 아메네뎀이라고 칭하는 한 선생이 출현했다. 이 선각자{先覺者}는, 양심을 강화시켜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최고 지점으로 끌어 올렸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며, 태양 신격에게 요청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다.

95:4.2 (1046.3) 아메네뎀은, 부유함과 행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개념은 나중에 나타난 히브리인 사상에 속속들이 영향을 미쳤다. 고귀한 이 선생은, 하나님을_인식{認識}하는 것이 모든 행위에서 결정적 요소라고 믿었으며;매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책무를 다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이 현자{賢者}의 교훈은, 그 후에 히브리어로 번역됐고, 구약 성경이 축소돼서 기록되기 훨씬 전에 그 민족의 신성시되는 책이 됐다. 이 선한 사람의 주요 훈계는, 위탁된 정부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할 것을 아들에게 훈계하는 일과 관련됐으며, 먼 옛날의 이런 고상한 정서는 현대의 어떤 정치가에게든지 명예가 될 것이다.

95:4.3 (1046.4) 나일 강에 있던 이 현자는,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다--고 가르쳤다. 그의 위대한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행동”으로 향하라고 훈계했다. 물질에 대해서는:사람이 소유하지만 하나님이 나눠주신다고 가르쳤다. 그의 교훈은 히브리어로 번역됐고, 구약 성경 잠언서의 사상을 결정지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차후에 헬라의 모든 종교 철학을 그럴싸하게 꾸몄다.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인 필로는 그 지혜서 사본{寫本}을 갖고 있었다.

95:4.4 (1046.5) 아메네모은, 진화로 생긴 윤리와 계시된 도덕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자신이 기록한 문서를 통해서, 히브리인과 그리스인 양쪽에 그것들을 전해줬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종교 선생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문명의 성장에서 두 가지 중대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후대의 사상을 물들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히브리인 가운데서는 서양의 종교 신념의 정점으로 진화됐고, 그리스인 가운데서는 유럽의 가장 높은 정상에 이르는 순전히 철학적인 사상으로 발전됐다.

95:4.5 (1046.6) 히브리인 잠언서 가운데, 15_장, 17_장, 20_장, 및 22_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아메네몹의 지혜서에서 거의 글자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히브리인 시편에서 1편은 아메네몹이 쓴 것이며, 이크나톤의 교훈의 핵심{核心}이다.

5. 주목할 만한 이크나톤

95:5.1 (1047.1) 이집트인이면서 살렘족속이었던 한 치료사의 영향력을 통해서, 왕족 가문의 한 여자가 멜기세덱의 교훈을 신봉했을 때, 아메네몹의 교훈은 이집트인 정신 속에서 지배력을 서서히 잃고 있었다. 이 여자는 이집트의 바로인 자기 아들 이크나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다.

95:5.2 (1047.2) 육신을 입은 멜기세덱이 사라진 후에,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이크나톤만큼 살렘의 계시된 종교 개념을 그토록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간직하지는 못했다. 어떤 면에서, 젊은 이 이집트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영적 쇠퇴가 증대되던 이 시기 동안에, 그는 이집트에서 엘 엘리온,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교리를 존속시켰고, 이처럼 철학적

일신교의 경로를 유지했으며, 이것은 당시에, 장차 미가엘의 증여를 위한 종교적 배경에 지극히 중요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이유 중에서도, 이런 업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데려가게 했고, 거기서 이크나톤의 영적 후계자 가운데 일부가 그를 만나고, 유란시아에 대한 그의 신성한 사명의 어떤 국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95:5.3 (1047.3) 멜기세덱과 예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는, 히브리인 종족 세계와 이집트 왕족 가문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으며;이크나톤이 모세의 융통성과 역량을 소유했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 천재성과 놀라운 종교 지도력을 조화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집트는 그 시대에 유일신 개념을 갖는 위대한 국가가 됐을 것이며;그렇게 됐다면, 예수께서 그의 인간 생애 가운데 더 많은 부분을 이집트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95:5.4 (1047.4) 전체 역사에서 어떤 왕도, 이 비범한 이크나톤처럼, 국가 전체를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옮겨가는 일을 그토록 조직적으로 진행시키지는 못했다.

이 젊은 왕은 가장 놀랄만한 결단력으로 과거를 청산했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고, 수도를 떠났으며,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전체 민족을 위해서 새 예술과 문학을 창출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서둘렀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을 설립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민족의 물질적 안정과 번영을 마련하기에 실패했는데, 나중에 역경과 고난이 이집트인에게 몰려왔을 때, 그 모든 것은 그의 종교 교훈에 대항해서 불리하게 반응했다.

95:5.5 (1047.5)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 통찰력과 엄청나게 일사불란함을 소유했던 이 사람이 만일 모세의 정치적인 현명함을 가졌더라면, 그는 서양 세계에서 종교 진화와 진리 계시의 역사 전체를 바꿨을지도 모른다. 그는 일생 동안 사제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개 신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네 종파를 비밀리에 유지시켰고, 젊은 왕이 세력을 잃자마자 행동을 재개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에 세워진 일신교와, 이집트가 나중에 겪은 모든 분쟁 요소를, 재빨리 결합시켰다.

95:5.6 (1047.6)

이크나톤은 매우 현명하게도, 태양_신을 가장해서 일신교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모든 신을 흡수해서 태양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경배에 접근해 보려는 이 결정은, 살렘족속 치료사가 준 조언 때문이었다. 이크나톤은, 신격의 부성애와 모성애에 관해서 당시에 존재하던 아톤 신앙의 일반화된 교리를 취해서 한 종교를 창시했는데, 이 종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하고 경건한 관계를 인정했다.

95:5.7 (1048.1)

이크나톤은, 외견상으로는 태양_신인 아톤을 경배하는 동시에, 동역자들로 하여금 위장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즉 아톤의 창조자와 만유의 지존하신 아버지를 경배하게 할 만큼 매우 현명했다. 선생이면서 왕이었던 이 젊은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주해서{註解書}를 썼고, 그 책은 31장으로 돼 있었으며, 권력을 다시 잡은 사제들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또한 이크나톤은 137편의 찬송 시를 썼으며, 그 가운데 열두 개는 현재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존돼 있고, 히브리인이 쓴 것처럼 돼 있다.

95:5.8 (1048.2) 이크나톤의 종교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주는 최고의 말씀은 "정의"였고, 그는 옳게 행하는 개념을 신속하게 확장시켜서 국가의 윤리뿐 아니라 국제 윤리까지 포함시켰다. 이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인 경건성을 보였고, 지성 있는 더 많은 남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고자 하는 참된 열망이 특징을 이뤘다. 그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것은, 어떤 이집트인에게든지 율법 앞에서 전혀 특혜를 주지 않았다. 이집트의 가정생활은, 도덕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했으며, 후대에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뛰어난 가정생활에 감화를 줬다.

95:5.9 (1048.3) 이크나톤이 제시한 복음의 치명적 결점은, 거기에 담긴 가장 위대한 진리, 즉 아톤이 이집트뿐 아니라 또한 "온 세계, 사람과 짐승, 및 이 이집트 땅 외에 모든 이방 나라, 심지어 시리아와 쿠시도 창조하신 분이며, 그가 만물을 제 자리에 두고 만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가르침이었다. 이런 신격 개념은 고상하고 숭고했지만, 민족 개념은 아니었다. 그런 국제 종교를 가졌다는 감상은, 전쟁터에서 이집트 군인의 사기를 높여주지 못한 반면, 젊은 왕과 그의 새로운 종교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사제들에게 마련해 줬다. 그는 후대의 히브리인보다 훨씬 뛰어난 신격 개념을 소유했지만, 국가를 세우는 자의 목적에 소용되기에는 너무 앞선 것이었다.

95:5.10 (1048.4) 일신교의 이상이 이크나톤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은 많은 집단의 정신 속에 지속됐다. 이크나톤의 사위는 사제들을 따라가서 다시 옛 신들을 숭배했고, 자기 이름을 투탄카멘으로 고쳤다. 수도는 다시 데베로 돌아갔고, 사제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결국 이집트 전체의 7분의 1을 소유하기에 이르렀으며, 바로 이 계층의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대담하게 왕좌를 차지했다.

95:5.11 (1048.5) 그러나 사제들이 일신교의 물결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점차 자기 신들을 합병시키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신들의 계통은 점점 축소됐다. 이크나톤은 하늘의 불타는 원반을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시켰고, 이 관념은 젊은 개혁자가 죽고 한참 지난 후에도, 사람의, 심지어 사제들의 마음 속에서도 계속 불타올랐다. 일신교 개념은 이집트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동일한 그 신성한 아버지, 즉 이크나톤이 모든 이집트인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토록 열광적으로 전파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이 등장할 때까지도 존속했다.

95:5.12 (1048.6) 이크나톤의 교리의 취약점은, 오직 교육 받은 이집트인만이 그의 교훈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보된 종교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일반인은, 실제로 그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과 재난의 신인 셀의 손에 무자비하게 죽음 당했다가, 초자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시스와 그 배우자 오시리스에 대한 옛 숭배로 사제들과 함께 돌아갈 준비가 이미 돼 있었다.

95:5.13 (1049.1) 모든 사람이 불멸한다는 가르침은 이집트인에게 너무 진취적이었다. 오직 왕과 부자들만 부활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해서, 왕과 부자들의 시신을 그토록 신중하게 미라로 만들어 무덤 속에 보존했다. 그러나 이크나톤이 가르쳤던 일반 구원과 부활이 결국 설득력을 갖게 됐고,

심지어 후대의 이집트인은 말을 못하는 동물도 생존한다고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95:5.14 (1049.2)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백성에게 강요하려는 이 이집트의 통치자의 노력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듯 보였을지라도, 그의 작품의 영향이 팔레스틴과 그리스 양쪽에서 존속됐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나일 강의 진화 문화와 유프라테스 강의 계시 종교가 혼합된 것을 나중에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주는 대행자 역할을 이집트가 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록돼야 할 것이다.

95:5.15 (1049.3) 나일 강 유역에서 도덕적 발전과 영적 성숙이 이뤄진 이 위대한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인의 민족 생활이 시작될 무렵에 급속도로 소멸됐으며, 그 후에 이 베도원 사람들은, 이집트에 머문 결과로 이런 교훈 가운데 다수를 가져갔고, 이크나톤의 교리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자신들의 민족 종교 속에 지속시켰다.

6. 이란의 살렘 교리

95:6.1 (1049.4) 일부 멜기세덱 선교사가, 팔레스틴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거대한 이란 평원으로 들어갔다. 살렘 선생들은, 500년 넘는 동안 이란에서 일을

진행시켰고, 국가 전체가 멜기세덱 종교로 기울어지게 됐을 때, 통치자들이 바뀌게 되어 갑자기 격심한 박해를 당하게 됐고, 이것이 살렘 종파의 일신교 교훈을 실제로 중단시켰다. 아브라함의 계약에 관한 교리는 페르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는데, 기원전 6세기경, 도덕 문예 부흥이 일어나던 그 중대한 세기에, 조로아스터가 나타나서, 꺼져가는 살렘 복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듯 보였다.

95:6.2 (1049.5) 이 새로운 종교 창시자는 모험심 강한 씩씩한 젊은이였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처음 순례하러 갔다가 --다른 여러 가지 전승과 함께-- 캘리개스차와 루시퍼 반역에 관한 전승을 배우게 됐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종교 본성을 강하게 자극했다. 따라서, 그는 우르에 있을 때 꿈의 결과로, 북부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의 종교를 개편하는 일을 착수하는 계획표를 확정했다. 그는 응보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인의 관념, 즉 신성에 대한 모세의 개념을 흡수했다. 최상의 하나님 관념이 그의 정신 속에 분명히 있었고, 다른 모든 신을 마귀로 격하시켰는데,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었던 여러 귀신 등급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우르에 남아 있던

일곱 으뜸 영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으며, 따라서 그는 일곱 명의 최고 신 무리를 만들면서, 아후라_마즈다를 그 꼭대기에 뒀다. 그는 이런 하위{下位} 신들을, 정의의 율법, 선한 사고{思考}, 고귀한 정부, 거룩한 성품, 건강, 및 불멸성을 이상화한 것과 관련시켰다.

95:6.3 (1049.6) 그리고 이 새 종교는, 기도와 제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종교였다--일하는 종교였다. 이 종교의 하나님은 최상의 지혜를 지닌 존재이고 문명의 후원자였으며;이것은 악{惡}, 게으름, 및 후진성과 감히 투쟁하는 호전적인 종교 철학이었다.

95:6.4 (1049.7) 조로아스터는, 불을 숭배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인 최고 권세를 갖는 순수하고 현명한 영의 상징으로 불꽃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의 후대 추종자들이 이 상징적 불을 모시고 숭배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마침내, 이란 왕자를 개종시킴에 따라서, 이 새 종교는 무력을 이용함으로써 퍼져나갔다. 그리고 조로아스터는, 자신이 "빛의 주{主}의 진리"라고 믿은 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영웅답게 죽었다.

95:6.5 (1050.1)

조로아스터교는, 일곱 으뜸 영에 관한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교훈을 영원히 간직했던, 유란시아의 유일한 신조다. 삼위일체 개념을 진화시키지 못했지만, 어느 면에서 조로아스터교는 칠중 하나님 개념에 접근했다. 원래의 조로아스터교는 순수한 이원론{二元論}이 아니었으며;초기 교훈이 비록 악{惡}을 시간세계에서 선함과 동등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악은 확실히 선한 자의 궁극적 실체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후대에 와서야, 그 믿음은 선과 악이 동일한 조건으로 싸운다는 개념을 신봉했다.

95:6.6 (1050.2)

히브리인 경전에 기록돼 있듯이, 유대인의 천국과 지옥의 전승, 그리고 마귀들에 관한 교리는, 잔존한 루시퍼와 캘리개스차에 대한 전승에 기초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유대인이 페르시아인에게 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지배 받는 동안에 조로아스터 신자들로부터 얻었다. 조로아스터는 이집트인처럼 “심판의 날”을 가르쳤지만, 이 사건을 세상의 종말과 관련시켰다.

95:6.7 (1050.3)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뒤이은 종교조차, 그것에 현저하게 영향 받았다. 이란의 사제들이

조로아스터의 교훈을 뒤집고자 했을 때, 그들은 옛 미드라 숭배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미드라교는 레반트와 지중해 지역 전체에 퍼졌는데,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와 동시대에 존재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조로아스터의 교훈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 즉: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호멧교에 연달아 영향을 주게 됐다.

95:6.8 (1050.4) 그러나 조로아스터의 고양된 교훈 및 고상한 성시{聖詩}들은, 파르시교도들이 그의 복음을 왜곡한 현대의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들은 죽은 자를 크게 두려워했고, 아울러 조로아스터가 결코 묵인하지 않았을 그런 궤변을 믿었다.

95:6.9 (1050.5) 위대한 이 사람은, 어두워진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나는 길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살렘의 빛이 너무 희미하게 타고 있을 때,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원전 6세기경에 출현한 그 독특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7. 아라비아의 살렘 교훈

95:7.1 (1050.6)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멜기세덱의 교훈은, 비교적 최근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립됐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아라비아에서도, 살렘 선교사는 지나치게_조직하는 것에 대한 마키벤타의 지침을 오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력이나 정부의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하라는 그의 훈계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써 그런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95:7.2 (1050.7) 멜기세덱의 교훈이, 심지어 중국이나 로마에서도, 바로 그 살렘에 그토록 가까이 위치한 이 사막 지역보다 더 완전하게 실패하지는 않았다. 동양과 서양에 있는 민족들 대다수가, 각자 불교도와 그리스도교인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아라비아 사막은 마치 수천 년 전 상태가 계속되는 듯했다. 각 부족은 옛 주물을 숭배했고, 많은 개별 가정은 자기네 가신{家神}을 섬겼다. 바벨론의 이쉬타르, 히브리인의 야훼, 이란의 아후라,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어떤 한 개념이 결코 다른 개념들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었다.

95:7.3 (1051.1) 아라비아 전역 여기저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렵פות한 관념을 고수하는 가족과 씨족들이 있었다. 그런 무리들은,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및 조로아스터에 관한 전승을 소중히 간직했다. 예수교인의 복음에 반응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중심지가 있었지만,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에서 선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타협적이고 혁신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사막 지역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는 엄격하고 완고한 집단이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호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 자신이 궁리한 부수적인 사회 요구조건을 덜 까다롭게 했더라면, 아라비아를 포함해 많은 지역이, 그 목수의 아들의 단순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95:7.4 (1051.2) 레반트의 위대한 일신교들이 아라비아에서 뿌리 내리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 지대는, 사회적 필요조건에서는 비교적 덜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역시 일신교에 해당했던, 한 신앙을 일으킬 수 있었다.

95:7.5 (1051.3) 사막에 있는 원시적이고 조직되지 않은 믿음에 관해서, 부족, 종족, 또는 국가의 성질을 가진 요소가 꼭 하나 있었는데, 거의 모든 아라비아 부족이, 메카에 있는 어떤 사원의 검은 돌 주물에 기꺼이 특이하게 널리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었다. 만인이 접촉하고 숭상하는 이 지점이 나중에 이슬람 종교 설립을 이끌었다. 유대인 셈족속이 화산{火山}의 영인 야훼를 모셨듯이, 그들의 사촌인 아랍인은 카바의 돌을 모셨다.

95:7.6 (1051.4) 이슬람의 장점은, 오직 유일한 신격인 알라를 선명하고 뚜렷하게 소개한 것이었으며; 약점은, 여자를 격하시킨 점과 함께, 군사적 힘을 종교의 보급과 관련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만유의 유일한 우주의 신격을 확고부동하게 끊임없이 제시해 왔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를 아시는 분이다. 그는 자비롭고 인정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다." "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넷째 존재로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며, 또한 보이는 분일뿐 아니라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 아닌가?

제96편 야훼--히브리인의 하나님

96:0.1 (1052.1) 신격을 상상할 때,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신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외부의 모든 신을 자기 부족 신격 아래 복속시키며,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지고한 가치를 갖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시킨다. 유대인은 모든 신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더 탁월한 개념으로 통합했다. 마찬가지로 힌두인은, 자신의 잡다한 신격을, 리그_베다에 표현된 "신들의 한 가지 영성{靈性}"으로 합성시켰으며, 한편 메소포타미아인은, 벨_마르덱이라는 더 집중된 개념으로 그 신들을 축소시켰다. 이 일신교 관념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팔레스틴에 있는 살렘에 출현한 후 오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신격 개념은, 포함시키고, 종속시키고, 배제하는 진화된 철학적 개념과는 달랐으며;오로지 창조하는 능력에 기초했고, 곧 메소포타미아, 인도, 및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격 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96:0.2 (1052.2) 겐족속을 비롯한 다른 몇몇 가나안 부족은, 살렘 종교를 전승으로서 존중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육신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인데: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증여되는 길을 예비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종교가 그렇게 육성돼야만 했다. 미가엘은, 자신이 나타나게 될 그들 가운데 만유의 아버지를 믿는 어떤 민족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올 수 없었다.

96:0.3 (1052.3) 팔레스틴에서 겐족속이 살렘 종교를 자신들의 신조{信條}로 유지해 왔으며, 이 종교는 나중에 히브리인이 채택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집트인의 도덕적 교훈에;나중에는 바벨론의 신학 사고{思考}에;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이란인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인 종교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마키벤타 멜기세덱 사이의 계약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으로는 여러 독특한 상황에 알맞은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물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전체 레반트의 종교, 도덕, 및 사상에서 거리낌 없이 빌려온 것이다. 히브리 종교를 통해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및 이란의

도덕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의 많은 부분이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졌다.

1. 셈족속의 신격 개념

96:1.1 (1052.4) 초기 셈족속은, 영이 만물에 내주한다고 생각했다. 동물계와 식물계의 영들;소산물{所產物}의 주인인 1년생 영들;불, 물, 및 공기의 영들;경외심과 숭배를 받으려는 영들로 가득한, 진정한 만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이런 하위{下位} 영들 또는 자연 신들에 대한 믿음을 결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96:1.2 (1052.5) 히브리인이 다신교로부터 단일신교를 거쳐서 일신교로 발전한 것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난 개념의 발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격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역행{逆行}을 경험했으며, 또한 모든 시기마다 서로 다른 셈족속 신자 무리들 가운데서 다양한 하나님 관념이 존재했다. 때로는 수많은 단어가 그들의 하나님 개념에 적용됐으며, 이런 다양한 신격 이름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신학의 진화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96:1.3 (1053.1)

1. *야훼*는 남쪽에 있는 팔레스틴 부족들의 신이었는데, 그들은 이 신격 개념을 호렙산, 즉 시나이 화산{火山}과 관련시켰다. 야훼는, 셈족속 부족들과 민족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의 경배를 요구한, 수백 수천의 자연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96:1.4 (1053.2)

2. *엘 엘리온*. 멜기세덱이 살렘에 머문 후에, 그의 신격 교리가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판으로 유지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엘 엘리온, 즉 하늘의 지고자 하나님이라는 말로 암시됐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포함해서 다수의 셈족속이, 여러 경우에 야훼와 엘 엘리온, 둘 다 숭배했다.

96:1.5 (1053.3)

3. *엘 샤다이*. 엘 샤다이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하나님 관념은, 이크나톤의 아톤 교리로 인해서 변경되고, 엘 엘리온 개념에 들어있는 멜기세덱의 교훈에 더 영향 받았던, 아메네뎀의 지혜서의 교훈에서 유래된 합성물이었다. 그러나 엘 샤다이 개념이 히브리인의 정신에 퍼지게 되자, 그것은 사막의 야훼 믿음으로 완전히 물들게 됐다.

96:1.6 (1053.4)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지배적 관념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인의 신성한 섭리 개념, 즉 물질적 번영이 엘 샤다이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르침이었다.

96:1.7 (1053.5) 4. 엘. 용어상의 이 혼돈과 개념상의 불투명성의 와중에, 신앙심 깊은 많은 신자는, 신성{神性}에 대한 이런 진화하는 모든 관념을 숭배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했고, 그리하여 이 복합된 신격을 엘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용어는 베도원의 자연 신들 중에서 또 다른 신을 포함했다.

96:1.8 (1053.6) 5. 엘로힘. 키쉬와 우르에는 수메르_갈대아인 집단들이 오랫동안 존속했는데, 이들은 아담과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에 기초한, 세_분이_하나_된 하나님 개념을 가르쳤다. 이 교리는 이집트로 전수됐고, 이 삼위일체는 거기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단수{單數} 형태의 엘로아로서 숭배됐다. 이집트에서 철학을 하는 무리들과 히브리 혈통의 후대 알렉산드리아 선생들은, 다원론의 하나님들이 이렇게 통일됐다고 가르쳤으며,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조언자들 중에서 다수가 이 삼위일체를 믿었다. 그러나 삼자일체의 엘로힘 개념은, 그들이

바벨론인의 정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기까지는, 히브리인 신학의 실제 부분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96:1.9 (1053.7)} 6. *잡다한 이름*. 셈족속은 자기네 신격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를 싫어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때때로 수많은 명칭을 사용했는데:하나님의 영, 주, 주의 천사, 전능자, 거룩하신 분, 지고자, 아도나이, 태고 항존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큐리오스, 야, 만군의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등이었다.

^{96:1.10 (1053.8)}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오랜 체험에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완성된 야훼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래에 채택한 용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시대 이후 1500년이 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96:1.11 (1054.1)} 기원전 2000년경까지, 시내산은 때때로 화산 활동이 계속됐는데, 이스라엘족속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후대에도 이따금씩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레 같은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는, 주변 지역에 있는 베도원족속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호렙산의 이 영은 나중에 히브리인

셈족속의 신{神}이 됐으며, 그들은 결국 그 신이 다른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됐다.

96:1.12 (1054.2) 가나안족속은 오랫동안 야훼를 숭배했으며, 비록 겐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렘 종교의 초월신 엘엘리온을 다소 믿기는 했지만, 가나안족속 대부분은 옛 부족 신격들을 숭배하기를 막연하게 고수했다. 그들은, 행성간{行星間} 하나님은 고사하고, 국제적 하나님 개념을 위해서 자기네 민족의 신격들을 기꺼이 버릴 생각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우주의 신격을 받아들일만한 정신을 갖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들은 계속 자신의 부족 신격들을 숭배했는데, 야훼는 물론, 베도원 목자들의 시나이 화산 영 개념을 상징화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도 포함됐다.

96:1.13 (1054.3) 시리아인은, 자기네 신들을 숭배하는 동시에, 히브리인의 야훼도 믿었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이 시리아 왕에게:“그들의 신들은 언덕의 신이며;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우리가 그들과 평야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96:1.14 (1054.4) 사람의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작은 신들은 최고 신격에게 종속되며; 위대한 조브(쥬피터)는 겨우 감탄사로 존속할 뿐이다. 일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급 신들을, 영, 귀신, 운명, 네레이즈, 요정, 농가{農家}의 요정, 난쟁이, 여자 요정, 흉안{凶眼} 등으로 유지시킨다. 히브리인은 단일신교 단계를 지나왔고, 야훼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음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이런 이방의 신격들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점점 더 믿게 됐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神}인 케모쉬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 신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주장했다.

96:1.15 (1054.5) 하나님에 관한 필사자의 모든 이론 중에서, 야훼 관념이 가장 광범한 발전을 겪어왔다. 그런 발전적 진화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다 개념의 변모밖에 없는데, 야훼 개념이 마침내 만유의 아버지 관념으로 인도된 것처럼, 부다 개념은 결국 우주 절대자 개념으로 인도됐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격 관점을, 호렙산의 부족{部族} 신으로부터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후대의 창조주 아버지로 바꿨지만,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그들은 계속해서 내내, 이런 진화하는
신격 개념을 야훼라고 불렀다.

2. 셈족속의 민족

96:2.1 (1054.6) 동방의 셈족속은, 잘 조직되고 잘_훈련받은
기마인{騎馬人}이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동쪽으로
침입해서, 거기서 바벨론인과 결합했다. 우르 근처의
갈대아인은 동쪽 셈족속 가운데서 가장 진보된 족속에
속했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장악한, 우수하고 잘 조직된 혼합된 셈족속 집단이었다.
인종적으로 볼 때, 셈족속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 가장
피가 많이 섞인 사람에 속했는데, 당시에 아홉 세계 인종
가운데 거의 전부의 유전 인자를 내포했다.

96:2.2 (1054.7) 아라비아의 셈족속은, 북쪽에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반복해서 투쟁하며 올라갔지만,
더 조직이 잘 돼있고 더 고도로 문명화된, 북쪽의 셈족속과
헷족속에게 번번이 밀려났다. 나중에, 대단히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방랑하는 이 베도원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집트 공공 작업장의 계약 노동자가 돼서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나일 강 유역의 평범하고

학대받는 노동자로서, 매일 힘들게 고생하며 노예 상태의 쓰라린 체험을 하는 신세가 됐을 뿐이다.

96:2.3 (1055.1)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시대 이후가 돼서야, 어떤 셈족속 부족들을,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유대인, 및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게 됐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전체의 인종적 조상이 아니었으며; 이집트에 포로 됐던 베도윈 셈족속 전체의 조상도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자손이 후대에 유대인 민족의 핵심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씨족으로 편입된 거의 대부분의 남녀는 이집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 아브라함 후손과 그들의 셈족속 동료들이 아라비아 북부를 거쳐서 여행하는 동안, 모세의 지휘 체제를 따르기로 선택한 동료 유목민에 불과했다.

96:2.4 (1055.2) 얼마 안 있어서, 히브리인 국가를 형성하게 될 셈족속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되자, 엘 엘리온, 지고자,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신성한 은총을 받는다고 약속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대체로 잊혀졌다. 그러나 포로로 살던 이 기간 내내, 이 아라비아 유목민은

그들의 종족 신격으로서 야훼에 대한 남아있는 전통적 믿음을 유지했다.

96:2.5 (1055.3) 100개 이상의 독립된 아라비아 부족이 야훼를 숭배했으며,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혼합된 혈통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비교적 교양 있는 부류 가운데서 유지됐던 멜기세덱의 엘 엘리온 개념에 얽게 물든 것을 제외하고, 포로가 된 서민 계층의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진 종교는, 신비적이고 제물을 바치는 옛 야훼 제례식의 개정판이었다.

3. 독보적인 모세

96:3.1 (1055.4) 최상급 창조주라는 히브리 개념과 이상{理想}의 진화가 시작된 것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선생이며 조직가인 모세의 지도하에, 셈족속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부터 이뤄졌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왕족{王族}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베도원 포로와 정부{政府} 사이에서 연락 업무를 맡은 셈족속 혈통의 관리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수한 종족 근원에서 유래된 자질을 소유했으며; 그의 조상은 피가 매우 많이 섞였으므로, 어느 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이런 혼합된 유형이

아니었다면, 그의 지휘 하에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친 그 베도원 셈족속과 결국 연합하게 된, 다양한 유랑민 무리를 잘 다루도록 했던 그런 특이한 다재다능함과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96:3.2 (1055.5) 나일 왕국 문화의 유혹에도, 모세는 아버지의 민족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선택했다. 이 위대한 조직가가, 아버지의 민족을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베도원 포로는 그 이름에 걸 맞는 종교를 갖지 못했으며;실제로는 참된 하나님 개념이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96:3.3 (1055.6) 일찍이 어떤 지도자도, 이보다 더 비참하고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무지한 인간 집단을 갱생{更生}하고 향상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유전적 혈통에 잠복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유를 위한 폭동과 파업을 일으킬 날을 위해서 유능한 조직자 단체를 구성할 만큼 모세가 지도한, 충분한 숫자의 학식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우수한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의 토착민 감독관으로서 고용돼 있었으며;모세가 이집트인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

96:3.4 (1056.1) 모세는 동포 셈족속의 해방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협상하려고 애썼다. 그와 그의 형제는 이집트의 왕과 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평화적으로 나일 강 유역을 떠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동한 대가{代價}로 적당한 양의 돈과 물질을 받게 돼 있었다. 히브리인 편에서는, 바로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이집트에 대적하는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그 왕은 나중에 이 조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첩자들이 베도윈 노예들 가운데서 불충함을 발견했다는 핑계를 이유로 삼았다. 그들이 이집트에 맞서서 유목민을 조직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자유를 찾는다고, 그 왕은 주장했다.

96:3.5 (1056.2)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강력한 리비아 군대가 남쪽에서 들이닥치고 그리스 해군이 북쪽에서 침입하는,

동시적 맹공을 물리치는 일에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전념하게 됐을 때, 이 대담한 조직가는 자기 동포를 이끌고 극적인 야간도주{夜間逃走}를 감행함으로 이집트에서 빠져 나왔다. 자유를 위한 이 행진은 신중하게 계획됐고 능숙하게 수행됐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와 작은 규모의 이집트 부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왔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부대는 모두 도망자들의 반향 앞에 무릎 꿇었고, 많은 전리품을 안겨줬으며, 이 모든 것 외에도, 사막에 있는 조상의 고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동안, 도망치면서 전진하는 노예 무리의 약탈로 더해졌다.

4. 야훼를 선포함

96:4.1 (1056.3) 진화하고 향상된 모세의 가르침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왔고,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렇다. 모세는 더 진보된 이집트의 종교 철학을 이해했고, 한편 베도원 노예는 그런 교훈을 거의 알지 못했지만, 그 선조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호렘 산의 신을 완전히 잊은 적은 결코 없었다.

96:4.2 (1056.4)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교훈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왕족 핏줄의

여자와 포로 된 인종의 남자가 보기 드물게 결합하게 된 것을, 그들의 공통된 종교적 신념이 설명해 준다. 모세의 장인은 엘 엘리온을 숭배하는 겐족속이었지만, 그 해방자의 부모는 엘 샤다이를 믿었다. 그래서 모세는 엘 샤다이를 믿는 사람으로 교육 받았으며; 그의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엘 엘리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고,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에 시내 산에 머물 무렵이 되자, (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믿음으로부터) 그는 새롭고 확장된 신격 개념을 형성했으며, 현명하게도, 확장된 전통적 부족 신 야훼 개념으로서, 이것을 자기 민족에게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96:4.3 (1056.5) 모세는 이 베도원족속에게 엘 엘리온 관념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그들이 이 교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이 섬기는 사막의 신을, 추종자들의 유일한 신으로 절충해서 채택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했다. 모세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 다른 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야훼가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특히 히브리인에게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야훼라는 옛 이름을 가장해서,

새롭고 더 높은 신격 관념을, 무지한 이 노예들에게 제시하려고 애쓰는 거북스런 문제 때문에, 그는 놀 괴로워했는데, 베도원 부족들의 금송아지가 항상 이 야훼를 상징했다.

96:4.4 (1056.6) 야훼가 도망치는 히브리인의 신이었다는 사실은, 왜 그들이 거룩한 시내 산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호렙 산의 신{神}인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공표했던 십계명이 왜 거기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한다. 시내 산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새로 진화하는 히브리인 경배의 종교 예식절차가 더욱 다듬어졌다.

96:4.5 (1057.1) 그들이 산 아래서 엄숙히 머물던 셋째 주 동안에 호렙 산의 맹렬한 화산 분출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진보된 숭배 예식 제정에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25년 동안 변치 않게 지키는 일에서, 모세가 성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야훼의 산이 불 속에 타오르고, 연기가 마치 화로{火爐} 연기처럼 올라갔으며,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지각변동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전능하고, 무시무시하며, 맹렬한

불이고, 무서우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모세가 동족에게 가르쳤을 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놀랍지 않다.

96:4.6 (1057.2) 모세는, 야훼가 직접 히브리인을 유일한 선민{選民}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었고, 현명하게도 자신의 종교 교훈을 민족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야훼가 엄격한 감독관, 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럼에도 그는, 야훼가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희 피난처시며 영원한 팔로 보호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신성{神性}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애썼다. 모세는, 야훼가 계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96:4.7 (1057.3) 모세는, “진실하며 죄악이 없으신, 모든 행사가 공의롭고 옳으신 하나님”이라고 야훼를 표현했을 때, 최고 신격의 존엄성으로 그를 격상시키려는 영웅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런 고양된 가르침에도, 추종자들의 제한된 이해력 때문에, 사람 형상, 즉 화내고 복수하며 혹독하다고 여겨지는 존재, 심지어 복수심이 불타고 사람의 행위에 쉽게 좌우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96:4.8 (1057.4) 모세의 교훈에 따라서, 이 부족의 자연 신{神} 야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됐는데, 그 야훼는 광야로 나와서 방랑하는 때까지도 그들을 따라오고, 거기서 곧 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됐다. 후일에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어 포로생활을 한 덕분에, 진화하는 야훼 개념이 마침내 해방됨으로써,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일신교의 역할을 떠맡았다.

96:4.9 (1057.5) 히브리인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색은, 호렙 산의 원시 신으로부터, 뒤를 이은 영적 지도자들의 교훈을 거쳐서, 두 이사야의 신격 교리에 묘사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신격 개념이 이렇게

계속 진화한 것과 관계되는데, 두 이사야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훌륭한 개념을 선포했다.

5. 모세의 교훈

96:5.1 (1057.6) 모세는, 군사 지도자, 사회 조직가, 및 종교 선생의 역할이 대단하게 통합된 인물이었다. 그는 마키벤타와 예수 사이의 기간에, 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 선생이자 지도자였다. 모세는, 현재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개혁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한 남자로서의 생애 만에, 차후에 한 나라가 탄생하고 한 종족이 영속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한편, 히브리인이라 불리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유랑민 무리를, 노예 신세와 문명화되지 못하고 방랑하던 처지로부터 이끌어냈다.

96:5.2 (1057.7)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인에게 글자가 없었으므로,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귀하다. 그 시대와 모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 1,00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잔존하는 전승으로부터 유래됐다.

96:5.3 (1058.1) 모세가 이집트인과 주변의 레반트 부족들의 종교보다 앞서서 이룩한 진보 가운데 다수는, 멜기세덱 시대의 겐족속 전승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同時代} 사람에게 마키벤타가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은 아무 희망 없는 암흑 속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는,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 가운데 남은 것들을 수집했고, 이 교훈은 이집트인의 학문과 결합돼서 이스라엘족속의 개량된 종교와 제례식을 창안하도록 모세를 인도했다. 모세는 조직가였으며;이집트와 팔레스틴의 종교 및 사회관행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선택했고, 이 풍습을 멜기세덱 교훈의 전승과 결합시켜서, 히브리인 경배 예식절차 체계를 조직했다.

96:5.4 (1058.2) 모세는 섭리를 믿었으며;초자연적 힘이 나일 강 및 다른 자연 요소들을 통제한다는 이집트의 교리로 완전히 오염됐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큰 통찰력을 가졌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마음으로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태{胎}의 열매와 너희 땅의 소산물을--

곧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떼를-- 배가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번영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인 주께서 너희의 모든 병을 물리치고,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에서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심지어:“너희 하나님인 주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에게 빌려주겠으나, 너희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을 다스리겠으나, 그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96:5.5 (1058.3) 그러나, 무지하고 무식한 히브리인이 납득하도록, 엘 엘리온, 즉 지고자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이 모세가 애쓰는 모습은 정말로 애처로웠다. 그는 모여 있는 지도자들에게, “너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우레같이 소리쳤으며, 한편 혼합된 군중을 향해서는, “모든 신 중에서 너희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냐?”고 선언했다. 모세는, 용감하게 주물과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호렙 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견줄만한 것을 너희가 본 일이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96:5.6 (1058.4) 모세는, 야훼가 자비롭다고 선포하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응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족을 위압하기를 선호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주 너희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은 주, 위대한 하나님, 강력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신다.” 게다가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죽이실 것이며; 너희가 복종하면 고쳐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거친 씨족들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법령에 복종하는” 조건에서만, 이 부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리라고 가르쳤다.

96:5.7 (1058.5) 이 초기 시절에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의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주는 전쟁하는 이, 즉 전쟁터의 하나님, 적들을 궤멸시키는 영광스런 능력의 존재로” 배웠다. “너희 주 하나님은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 진영{陣營} 한 가운데에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족속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바로⁹⁶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적을 저주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96:5.8 (1058.6)} 모세는, 우주적이고 인자한 신격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거의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체로, 그들의 일상적 야훼 개념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부족 신들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하나님 개념이었다. 그들의 하나님 개념은, 원시적이고, 미숙하고, 사람의 모습을 닮은 상태였으며;모세가 죽은 후에 이 베도원 부족들은, 자신들이 그 전에 섬겼던 호렙 산과 사막의 신들에 대한, 어느 정도 미개한 관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제시했던, 하나님에 대한 더 확장되고 탁월했던 통찰력은 곧 보이지 않게 됐으며, 한편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주물이었던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섰는데, 금송아지는 팔레스틴 목동들에게 야훼를 상징했다.

^{96:5.9 (1059.1)}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한 지휘권을 예슈아에게 넘겼을 때,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의 친족 후손들, 그리고 관계된 다른 부족들 중에서 수천 명을 모았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스스로 지탱하고 어느 정도

자치하며 목축을 하는 전사{戰士}들의 민족이 되도록 했다.

6. 모세가 죽은 후의 하나님 개념

96:6.1 (1059.2) 모세가 죽자, 그의 고상한 야훼 개념은 급속도로 타락됐다. 예슈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온전히 지혜롭고 인정 많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전통을 계속 간직했지만, 일반 대중은 사막에서 가졌던 옛 야훼 개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그리고 신격 개념이 이렇게 퇴보하는 경향은, 소위 사사{士師}라는 다양한 부족 족장이 연달아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증가했다.

96:6.2 (1059.3) 모세의 비범한 인격체의 매력이,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 개념의 영감{靈感}을 추종자들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유지시켰지만; 그들이 일단 팔레스틴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게 되자, 유목민 목축업자에서 재빨리 변화하여, 기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농민이 됐다. 그리고 이런 생활 풍습의 진화와 종교 관점의 변화는,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특성에 다소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시내 산의

엄격하고 미숙하고 가혹하고 우리 같이 소리치는 사막의 신{神}이 변형돼서, 후대에 나타난, 사랑, 응보, 및 자비의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동안에, 히브리인은 모세의 고귀한 교훈을 거의 잊게 됐다. 그들은 일신교 개념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유란시아의 영적 진화에서 지극히 중대한 연결 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 즉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 아들이 육신화 하기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집단이 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96:6.3 (1059.4) 예수아는 절망적 상태가 되어, 부족원의 정신 속에 지존자 야훼 개념을 유지시키려 애썼고,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했다:“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아는, 믿지 않는 자기 민족에게 단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졌던 원래의 옛 종교를 아주 기꺼이 믿으려고 했지만, 신앙과 정의를 찾는 종교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예수아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랬다:“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질투하는 하나님이고;너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높았던 개념은, 야훼를 “권능과 심판과
응보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96:6.4 (1059.5)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때때로 선생이
외롭게 일어나서 모세의 신성 개념을 전파하곤 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사악한 너희 자녀는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전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너희가
완전하신 전능자를 찾을 수 있느냐?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능자와
접촉하면서도,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

7. 시편과 욥기

96:7.1 (1060.1) 족장과 사제들의 지도 하에, 히브리인은
팔레스틴에서 영성하게 조직됐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막에서 가졌던 뒤떨어진 믿음으로 돌아갔고, 덜 진보된
가나안의 종교 풍습에 오염됐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방종한 상태에 빠졌으며, 그들의 신격 관념은, 어떤
살아남은 살렘 집단이 유지했고 시편 일부와 소위

옴기라는 책에 기록돼 있는, 이집트인 및 메소포타미아인의 하나님 개념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96:7.2 (1060.2) 시편은 20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작품이며; 많은 것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선생들이 썼다. 레반트 사람이 자연 신들을 숭배하던 이 시절에, 지고자인 엘 엘리온의 지존성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꽤 많이 있었다.

96:7.3 (1060.3) 수집된 어떤 종교 문서도, 헌신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하나님 관념을, 시편 기록만큼 그렇게 풍성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놀랄만하게 수집된 이 경건한 문헌을 정독{精讀}하는 동안, 어떤 다른 단일 수집품도 그렇게 긴 세월을 망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독립된 각각의 찬양과 경배의 시의 출처와 연대{年代}를 고려할 수만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은, 아메넨뭉 부터 이사야 때에 이르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레반트 전역에서 살렘 종교 신자들이 환영했던, 다양한 하나님 개념을 기록했다. 시편에서는, 부족 신격의 미개한 개념으로부터 후대 히브리인의 크게 확장된 이상{理想}에 이르기까지, 온갖 국면의 하나님 개념이 서술돼 있는데, 그

중에 야훼는 사랑 많은 통치자이면서 자비로운 아버지로 묘사된다.

96:7.4 (1060.4) 이렇게 볼 때, 시편의 이 작품들은, 20세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일찍이 모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경건한 감상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찬송시의 경건한 영성{靈性}은 세상에 있는 신성시되는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96:7.5 (1060.5) 욥기에 묘사된 다채로운 신격의 모습은, 거의 300년에 걸쳐서, 20명이 넘는 메소포타미아 종교 교사들이 창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소포타미아 믿음의 수집품에서 발견되는 고상한 신성 개념을 너희가 읽게 되면, 팔레스틴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참된 하나님 관념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주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96:7.6 (1060.6)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물에_충만하심을 종종 파악했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를 파악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그의 적들의 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보내는" 존재였으며;자기에게 소속되고 복종하는 자녀를 번성케

하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주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다. “그는 교활한 자의 계락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해서 교활한 자를 잡는다.”

96:7.7 (1060.7)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부르짖음이 우르에서만 일어났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성한 정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구원받음, 즉 신성한 은혜가 우르에서 전파됐다: “그는 뉘우치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내가 몸값을 받았으니, 그가 무저갱{無低坑}에 들어가지 않게 구출하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행치 않았으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혼을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출하시며, 그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멜기세덱 이후로, 레반트 세계는 엘리후의 이 놀라운 교훈만큼, 그렇게 우렁차고 기운차게 하는 메시지, 인간이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엘리후는 우르의 선지자였고, 살렘 신자들, 즉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멜기세덱 거류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사제였다.

96:7.8 (1061.1)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렘 선교사들의 잔재는, 길게 이어진 이스라엘 선생들의 선구자가 나타날 때까지, 히브리 민족이 아직 무질서하던 기간에 진리의 빛을 꺼트리지 않았는데, 이 선생들은, 만유에게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할 때까지, 즉 야훼 개념의 진화가 최고조에 달한 때까지, 개념을 하나씩 쌓으면서 결코 멈추지 않았다.

96:7.9 (1061.2)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7편 히브리인 가운데서 진화된 하나님 개념

97:0.1 (1062.1) 히브리인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그들은 오직 철학자만 납득할 수 있는 추상적 신격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개념에서 인간의 모습을 벗겨냈다. 보통 사람조차, 성숙된 야훼 개념을, 각 개인의 아버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종족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었다.

97:0.2 (1062.2) 멜기세덱 시대에 살렘에서 하나님의 인격체 개념을 분명히 가르쳤지만, 이 개념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시대에 모호하고 불분명했으며,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응하여, 히브리인 정신에서 대대로 겨우 차츰차츰 진화했을 뿐이다. 야훼의 인격체에 대한 감지는, 그 점진적 진화에서 신격의 여러 다른 속성에 대한 감지보다 훨씬 더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모세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체에 대한 관념화{觀念化}는 거의 끊임없이 성장했으며, 이 개념은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예수의 교훈으로 인해 강화되고 찬미됐다.

1. 사무엘--첫 히브리인 선지자

^{97:1.1 (1062.3)} 히브리인 족장들은, 부족 조직들이 동맹해서 중앙집권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팔레스틴 주변 민족들의 적대적{敵對的} 압력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행정 권력이 이렇게 집중됨으로써, 선생과 개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다.

^{97:1.2 (1062.4)} 사무엘은, 멜기세덱의 진리를 경배 형태의 일부로 계속 유지시켜왔던, 살렘 선생들의 오래된 가계{家系} 출신이었다. 이 선생은 씩씩하고 단호한 사람이었다. 모세

시대에 믿었던 최고의 야훼를 경배하도록, 그가 온 이스라엘족속을 돌이키게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거의 전반적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그의 비범한 결단력과 함께, 오직 그의 숭고한 헌신만이 그 저항을 견딜 수 있게 했다. 그때에도 그는 단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며;더 높은 야훼 개념을 섬기도록, 히브리인 가운데서 비교적 더 지성적인 절반만 설득할 수 있었고;나머지 절반은 그 고장의 부족 신들을 숭배하면서, 열등한 야훼 개념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97:1.3 (1062.5) 사무엘은 임시_변통 유형의 사람, 즉 동역자들과 함께 가서, 하루아침에 여러 바알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용적 개혁가였다. 그는 순전히 강제적인 힘으로 진보를 이룩했으며;거의 설교하지 않았고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는, 하루는 바알 사제를 조롱했고;다음 날에는 포로 된 한 왕을 난도질해서 죽였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믿었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주께서 지구의 기둥들을 세우셨고, 세상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나 사무엘이 신격 개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야훼가 *변함없다*는, 틀림없는 완전성과 신성을 항상 동일하게 구현한다는, 우렁찬 선언이었다. 이 시대에 야훼는, 질투심으로 변덕스러운, 이러이러하게 행했던 것을 항상 후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됐지만;이제는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온 후 처음으로:“이스라엘의 능력자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됐다. 신성{神性}과 나누는 교제는 변치 않는다고 선포했다. 사무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되풀이해서 말했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모든 진리, 안정성, 및 불변성의 근원이라고 선언했다. 히브리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 즉 알지 못하는 기원을 갖는 고귀한 영{靈}인 어떤 초인간이라고 항상 간주해 왔지만;이제 그들은, 옛 호렙의 영이 창조자의 완전함을 갖추,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고양됐음을 듣게 됐다. 사무엘은, 진화하는 하나님 개념이, 변덕스런 사람의 정신과 필사자 실존의 변천을 뛰어넘는 높은 곳으로 상승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 아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부족 신들과 비슷한 개념으로부터,

전능하고 변화 없는 창조주요 모든 피조물의
감독관이라는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97:1.5 (1063.2) 그는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즉 약속_이행을
믿을만하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전파했다. 사무엘이
말했다:“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우리와 영구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확실하다.” 그리하여, 지존하신 야훼
경배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팔레스틴 전역에 울려 퍼졌다.
활기찬 이 선생은 항상, “오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위대하시니, 당신 같으신 이가 없으며, 당신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다.

97:1.6 (1063.3)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주로 물질 번영의 의미에서
야훼의 은혜를 생각했다. 사무엘이, “주께서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며;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가
가난한 자를 굴욕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구걸하는 자를
높이 들어 왕자들과 함께 있게 해서, 그들로 영광의 왕권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감히 선언했을 때, 이는
이스라엘족속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사무엘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모세 이후로는, 초라하고 행운이 덜

따라온 사람에게 그런 위로의 약속이 선포된 적이 없었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절망하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97:1.7 (1063.4) 그러나 사무엘은, 부족{部族} 신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진보하지는 못했다. 그는 야훼가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주로 히브리인, 즉 야훼가 택한 민족에 주로 국한됐다. 그렇더라도, 모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개념이 다시 한 번 거룩하고 공정한 신격을 나타냈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97:1.8 (1063.5) 여러 해가 지나면서, 백발의 늙은 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진보했는데,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행위를 측정하신다. 주께서는 이 세상 종말을 심판하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며, 올바른 자에게는 그분 역시 올바르게 대하실 것이다.” 여기서 자비의 빛이 밝아오더라도, 그것은 자비로운 자에게만 국한된다. 그가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발전했는데, 자기 민족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훈계했다: “주의 자비가 크시니,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손에 의뢰하자.” “많이 구원하시든지 적게 구원하시든지, 주를 속박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97:1.9 (1063.6) 그리고 야훼의 성품에 대한 개념의 이런 점진적 발전은, 사무엘의 후계자들이 활동할 때에도 계속됐다. 그들은 야훼를, 계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제시하려고 시도했지만, 사무엘의 걸음과 도저히 발을 맞추지 못했으며; 사무엘이 말년에 느끼게 됐던 하나님의 자비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야훼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유지됐음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경향이 계속됐다. “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만유{萬有} 위에 높임을 받으십시오.”

97:1.10 (1064.1) 이 시대의 주안점{主眼點}은 신성한 권능이었으며; 이 시기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인의 왕권을 차지할 왕을 조성하도록 고안된 어떤 종교를 전파했다. “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시며, 능력 있으시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권능과 힘이 있으며, 만인을 위대하게 하실 수 있고 힘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와 그의 직계 후계자들 시대 동안, 하나님 개념이 그랬다.

2. 엘리야와 엘리사

97:2.1 (1064.2) 기원전 10세기경에 히브리 민족은 두 왕국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뉜 두 나라 모두, 분단으로 인한 전쟁 이후에도 비참하게 계속됐고 이미 확립된 영적 퇴폐의 복고적{復古的} 물결을 저지시키려고, 진리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이 노력했다. 그러나 히브리 종교를 발전시키려는 이 노력은, 정의를 향해서 단호하고 대담한 전사{戰士}였던 엘리야가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엘리야는, 사무엘 시대에 필적할만한 하나님 개념을 북왕국에 부활시켰다. 엘리야는, 진보된 하나님 개념을 제시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으며;사무엘이 그에 앞서 했던 것처럼, 그도 역시 가짜 신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 제단들을 뒤집어엎기 바빴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군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으며;그의 과제는 사무엘이 당면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어려웠다.

97:2.2 (1064.3) 엘리야가 부름을 받아서 떠난 후에, 신실한 동역자 엘리사가 그의 일을 떠맡았고, 거의_알려지지_않은 미가야의 매우 귀중한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틴에 진리의 빛을 계속 비쳤다.

97:2.3 (1064.4) 그러나 이 시대에는 신격 개념이 진보를 이룩하지 못했다. 히브리인은 아직 모세의 이상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상류 계층이 최고 야훼 숭배로 돌아옴과 함께 막을 내렸으며, 사무엘이 남겨둔 그 자리 근처에 우주의 창조주 개념이 회복된 것을 목격했다.

3. 야훼와 바알

97:3.1 (1064.5) 야훼 신자와 바알 추종자 사이에 오랜 세월 이어진 논쟁은, 종교 신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 이념의 충돌이었다.

97:3.2 (1064.6) 팔레스틴 원주민은 땅 소유권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남부 부족, 즉 방랑하는 아라비아 부족들은(야훼 경배자들은) 땅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곧 씨족에게 준 신격의 선물로-- 간주했다. 그들은 땅을 팔거나 저당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훼께서 '땅은 내 것이니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97:3.3 (1064.7) 북부에 정착한 가나안족속은(바알 숭배자들은) 자기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았으며 저당 잡히곤 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자를 의미한다. 바알 종파는 두 개의 주요 교리에 기초했는데:첫째는, 재산의 교환, 계약, 및

서약을--곧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바알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었다. 양질의 곡식이 맺히는 것은 바알의 은혜라고 믿었다. 그 종파는 주로, 땅에, 즉 그 소유권과 비옥함에 관심을 가졌다.

97:3.4 (1065.1) 바알 숭배자는 대개, 집, 땅, 및 노예를 소유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는 귀족이었고 도시에 살았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 각각 하나의 신성시되는 장소, 사제계층, 그리고 "성스런 여자들", 즉 제례식에 이용되는 매춘부가 있었다.

97:3.5 (1065.2) 땅에 대한 이런 기본적 견해 차이 외에도, 가나안족속과 히브리인은, 사회, 경제, 도덕, 및 종교의 태도에서 심각한 적대감이 서서히 자라났다. 이런 사회경제적 논쟁은, 엘리야 시대 이전에는 명확한 종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욕적인 이 선지자 시대부터, 그 문제는 더 명확해진 종교 계통 사이의--곧 야훼 대{對} 바알의-- 투쟁거리가 됐으며, 야훼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로 일신교 쪽으로 몰려갔다.

97:3.6 (1065.3) 엘리야는, 야훼_바알 논쟁을, 땅 문제로부터 히브리인과 가나안족속 관념의 종교적 측면으로 전환시켰다. 아합 왕이 나봇 가문의 땅을 차지할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죽였을 때, 엘리야는 땅과 관계되는 옛 사회관행에 의거해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했고, 바알 숭배자들에게 대항하는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이것은, 도시인의 지배에 항거하는 시골 사람들의 투쟁이기도 했다. 야훼가 엘로힘이 된 것은, 주로 엘리야로 인해 이뤄졌다. 그 선지자는, 토지 개혁자로 출발해서 신격을 고양시킴으로 끝을 맺었다. 바알은 숫자가 많았지만 야훼는 하나였다--일신교가 다신교를 이겼다.

4. 아모스와 호세아

97:4.1 (1065.4) 부족{部族} 신이--곧 그토록 오랫동안 제물과 예식을 바쳤던 신, 즉 초기 히브리인의 야훼가-- 자기 자손의 죄와 부도덕성까지도 기꺼이 응징하시는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전환기에, 아모스가 큰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는 남부 산악지대에서 출현하여, 북부 부족들의 범죄, 술취함, 그리고 억압과 부도덕성을 비난했다. 모세 시대 이후로 팔레스틴에서 그토록 울려 퍼지는 진리가 선포된 적이 없었다.

97:4.2 (1065.5) 아모스는 단순히 원상복귀하거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신격 개념을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는 선조가 공표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전파했고, 소위 선택된 민족 가운데 있는 죄를 묵인하리라는 신성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용감하게 공격했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은 국가적 공의와 도덕성이라는 이중 기준이 선언되는 것을 들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히브리인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가, 그들의 삶에서 생기는 범죄와 죄를, 어떤 다른 민족의 경우보다 더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모스는 사무엘과 엘리야의 엄격하고 공정한 하나님을 상상했지만, 또한 잘못에 대해서 응징할 때, 어떤 다른 나라와 전혀 다름없이 히브리인을 취급하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선민" 교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고, 그 당시 많은 히브리인이 이를 통렬히 비난했다.

97:4.3 (1065.6) 아모스가 말했다: "산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신 이, 일곱 별과 오리온을 지으신 그를 찾으라,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꿔서 아침이 되게 하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신다." 그는, 건성으로_종교를_믿고 기회주의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한 동료들을 비난하면서, 변치 않는 야훼의 어김없는 응보를 묘사하려고 애쓰면서 행악자들에게 말했다:“저희가 음부에 파묻혀도 내가 거기서 저희를 취할 것이며;저희가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저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적군 앞에서 포로가 돼도, 내가 거기서 응보의 칼을 휘두를 것이며, 그 칼이 저희를 무찌를 것이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손짓으로 그들을 가리키면서:“너희가 행한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체질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체질할 것이라”고, 야훼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아모스는 청중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97:4.4 (1066.1) 아모스는 야훼를 “만국의 하나님”으로 선포했으며, 제례식이 정의를 결코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족속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선생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최고의 야훼 교리를 보존시키기에 충분한 진리의 누룩을 퍼뜨렸으며;멜기세덱 계시가 더욱 진전하도록 보장했다.

97:4.5 (1066.2) 호세아가 아모스의 뒤를 이었고, 모세가 가르친 사랑의 하나님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써, 우주의 하나님이

응보하신다는 아모스의 교리를 이어받았다. 호세아는, 제물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전파했다. 그는 인자{仁慈}와 신성한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했다:“나는 너희와 영원히 약혼할 것이다;그렇다, 나는 정의와 심판으로, 그리고 인자와 자비로 너희와 약혼할 것이다. 또한 나는 신실함으로 너희와 약혼할 것이다.” “나는 내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97:4.6 (1066.3) 호세아는, 아모스의 도덕적 경고를 충실히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내가 그들을 벌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나 그가 “내 민족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너희는 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며;그들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족속은 그것을 반역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회개와 용서를 계속 전파하면서 말했다:“내가 그들의 타락을 고칠 것이며;내 진노가 사라졌으므로 그들을 값없이 사랑하리라.” 호세아는 항상 희망과 용서를 선포했다. 그의 메시지는 늘 이랬다:“나는 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나만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97:4.7 (1066.4) 아모스는,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된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지은 범죄와 죄를 야훼가 용서치 않을 것임을 깨닫도록 히브리인의 민족 양심을 자극한 반면, 호세아는, 신성한 연민과 인자{仁慈}에 대한 자비로운 화음{和音}에서 도입음{導入音}을 연주했고, 후일에 이사야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 화음을 아주 절묘하게 노래했다.

5. 제1 이사야

97:5.1 (1066.5) 이때, 북부 씨족들 사이에서 개인의 죄와 민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 협박하듯 선포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한편 더러는 남왕국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1 이사야가 출현한 것은, 히브리 나라들에서 양심과 의식이 이렇게 자극되기 시작할 때였다.

97:5.2 (1066.6)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즉 무한한 지혜, 변함없이 완전한 신빙성을 계속 전파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묘사했다: “또한 내가 심판으로 저울의 줄을 삼고, 정의로 추를 삼을 것이다.” “너희의 슬픔과 두려움에서, 너희가 수고하는

고된 속박의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주께서 휴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귀는 너희 뒤에서 울리는, ‘이것이 그 길이다, 여기로 걸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며; 주는 내 힘이요 찬송이시니, 내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지금 와서 함께 따져보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97:5.3 (1066.7) 두려움에_지배되고 혼이_갈급한 히브리인에게 이 선지자가 말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의 빛이 임했고,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주의 영이 내게 계시며; 그는 비탄에 잠긴 자를 싸매 주기 위해서, 즉 포로 된 자에게는 자유를, 묶인 자에게는 옥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주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정의의 외투로 나를 가리셨으니, 나는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은 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고통 당하셨고, 그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했다. 그가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을 구하셨다.”

97:5.4 (1067.1) 이 이사야의 뒤를, 미가와 오바다가 따랐는데, 그들은 혼을_만족시키는 그의 복음을 확립하고 미화시켰다. 그리고 이 두 용감한 사자{使者}는, 사제에게_지배당한 히브리인 제례식을 담대하게 비난했고, 제물을 바치는 체계 전체를 겁 없이 공격했다.

97:5.5 (1067.2) 미가는, "보상받기 위해 재판하는 통치자, 급료를 받기 위해서 가르치는 제사장,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를 비난했다. 그는 미신과 제사장제도에서 해방될 날을 가르치면서 말했다:"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아무도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7:5.6 (1067.3) 미가의 메시지의 취지는 늘 이랬다:"내가 번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인가? 주께서 천 마리의 숫양과 큰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범죄 대신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 대신 내 육체의 열매를 바칠 것인가? 오 사람아, 그가 무엇이 선한지 내게 보이셨으니;공정하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외에, 주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때는 위대한 시대였으며;정말로 감동적인 시대였는데, 2,500년도 더 전에, 필사적 사람은 그런 해방시키는 메시지를 들었고 더러는 믿었다. 제사장들의 완고한 저항이 없었다면, 이 선생들은 히브리인의 경배 제례식에서 피 흘리는 예식절차 전체를 폐지시켰을 것이다.

6. 두려움을 모르는 예레미야

97:6.1 (1067.4) 여러 선생이 이사야의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동안, 히브리인의 하나님인 야훼를 국제화{國際化}시키는 일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97:6.2 (1067.5) 예레미야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 야훼가 히브리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선언했다. 그는 야훼가 온 땅의 하나님,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예레미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국제화시키는 상승 파도를 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대담한 이 전도자는, 야훼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고, 이집트인을 위한 오시리스, 바벨론인을 위한 벨, 앗수르인을 위한 아쉬르, 또는 블레셋족속을 위한 다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침내

영구히 선포했다. 그리하여 히브리인의 종교는, 이 시대 무렵과 그 후에, 일신교의 부흥을 온 세상에 나눠주게 됐으며;마침내 야훼 개념은 행성의 신격 수준으로, 심지어 시공우주의 위엄을 갖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동역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히브리인 나라를 배제한 야훼를 생각하기 힘들었다.

97:6.3 (1067.6) 또한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묘사했던, 공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선언했다:“그렇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며;따라서 나는 인자함으로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에게 고통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이라.”

97:6.4 (1067.7) 대담한 이 선지자가 말했다:“우리 주는 의로우시고, 능숙하게 충고하시며, 강력함으로 일하신다. 그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주시고 그의 방법에 따라서 주시려고, 사람들의 모든 자손의 모든 길을 살피신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포위된 동안, 그가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내 종이며 바벨론의 왕인 느브갓네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불경스런 반역죄로 간주됐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충고하자, 제사장들과 집권자들은, 그를 지하 감옥의 비참한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7. 제2 이사야

97:7.1 (1068.1) 히브리인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그 사제계층의 단호한 행동만 없었다면, 그들의 확장되는 신학에 크게 유익함이 입증됐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무너졌고, 그들 민족을 두둔하던 야훼는 영적 지도자들의 국제적인 지루한 설교로 시달렸다. 그들의 민족 신{神}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모든 나라의 국제화된 하나님에 대한 새롭고 확대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제사장들은 유대인을 선민{選民}으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으로, 히브리인 역사상에서 그토록 장황한 전설을 꾸며내고, 기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여러 배로 부풀리게 됐다.

97:7.2 (1068.2)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은 바벨론의 전통과 전설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변함없이 이 전설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역사에 명예와 영광을 반영시키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빌려온 갈대아인

이야기의 도덕적 격조와 영적 의미를 충실하게
개선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97:7.3 (1068.3) 이 히브리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는데, 유대 나라의 회복, 즉 히브리
전통을 영화롭게 하고, 종족의 역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였다.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서양
세계의 그토록 넓은 지역에 심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들이 이 일을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며; 그들은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성시되는 책을 쓰겠다고 공언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 돼 있는 동료들의 저하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고안된 교과서를 준비했던
것뿐이다. 그들은 동포의 민족정신과 사기 증대를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과 기타 문헌들을
모아서, 마치 오류가 없는 교훈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할만한 지침서를 만들게 됐다.

97:7.4 (1068.4)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유대인 사제들은 이
문헌을 아낌없이 이용해 먹었지만, 제1 이사야가 외친
응보, 사랑, 정의, 및 자비의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한,

젊은 불굴의 제2 이사야가 나타남으로써, 동료 포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크게 궤방 받았다. 그는 또한, 야훼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 가운데서도 똑같이 개종자를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전파했다. 그리고 이 젊은 전도자는 자신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적대적이고 앙심품은 제사장들은, 이 교훈이 제1 이사야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으나,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순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제1 이사야가 쓴 작품 사이에 집어넣게 됐다. 그리하여 제2 이사야의 작품은 그 이름을 지닌 책에서 발견될 수 있고, 40장부터 55장 끝까지 포함한다.

97:7.5 (1068.5) 마키벤타로부터 예수 시대까지, 어떤 선지자나 종교 선생도, 이 포로기에 제2 이사야가 선포했던 귀중한 하나님 개념을 달성치 못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선포한 것은, 작은, 인격화된, 사람이_만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 "보라, 그가 섬들을 티끌처럼 들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97:7.6 (1069.1)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인간 선생들이 참된 하나님을 필사적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됐다. 제1 이사야처럼, 이 지도자는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을 전파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에 뒀다. 내가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으며;사람이 살도록 조성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 선지자가 말했다:“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은 죽어갈지라도, 내 의{義}는 영원히 지속되고, 내 구원은 세대마다 지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낙담치 마라.” “나 외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원주인-- 하나님이 없다.

97:7.7 (1069.2) 유대인 포로를 위로하고, 마찬가지로 그 후로 허다한 사람들을 늘 위로한 말씀은 이랬다:“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되찾았고,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며;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물을 지나갈 때, 너는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자가 제 자식에게 연민의정이 없다고 해서, 젖 먹는 제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그렇다, 여자는 잊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잊지 않을 것인데,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며;내가 내 손의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후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97:7.8 (1069.3) 살렘의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 드러내는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그가 목동처럼 자기 양떼를 먹이실 것이며;양들을 팔로 모으고 품에 안아 옮기실 것이다. 약한 자에게는 그가 능력을 주시며, 힘없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주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받게 될 것이며;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산을 오를 것이며;뛰어가더라도 피곤치 않을 것이며;걸어가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97:7.9 (1069.4) 이 이사야는, 확장되는 최고 야훼 개념의 복음을 멀리까지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묘사하는 웅변술에서, 모세와 경쟁될 만 했다.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묘사함에서 시적{詩的}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보다 더 아름답게 소개한 적이 없었다. 이사야의 글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도착되기 이전에 필사적 사람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장엄하고 참되게 제시한 영적 개념이었다. 그가 신격을 묘사한 것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영원 속에 거하는 높고 고상한 존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또한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하지만 당당한 이 선지자가, 신{神}의 불변성, 즉 하나님의 충실하심을 계속 훈계했을 때, 그것은 유대인에게 새로운 교리였다. 그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97:7.10 (1069.5) 이 대담한 선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말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 받은 각 사람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며, 그들은 내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들의 범죄를
지워버리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아니 할 것이다.”

97:7.11 (1069.6) 이 위대한 히브리인이 민족의 하나님 개념을
무너뜨린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동안, 그는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을 선포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하늘들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사야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웅대하며 불가사의하다. 사막의
베도원이 가졌던, 화내고 복수심에 불타며 질투하는 야훼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최고이며 보편적인 새 야훼 개념이
필사적 사람의 정신 속에 나타나게 됐고, 인간의 눈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됐다. 신의 응보를 깨닫는 것이, 원시적
마술과 생물학적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마침내 법칙과 질서가 있는 우주를 알게 됐고,
신뢰할만하고 궁극적인 속성을 가진 우주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97:7.12 (1070.1) 숭고한 하나님을 전파한 이 전도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영혼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생은, 동시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더했다:“그리고 주께서는 너를 계속 인도하고 너의 혼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너는 물 댄 동산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이 홍수처럼 밀려오면, 주의 영이 그에 맞서서 방어물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멜기세덱의 복음과, 신뢰감을 조성하는 살렘 종교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97:7.13 (1070.2) 선견지명이 있고 용감한 이사야는, 최고 야훼, 즉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주의 통치자이며, 모든 인류에게 애정 깊으신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보편적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탁월한 묘사가, 민족주의적 야훼를 효과적으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 중대한 시절 이후로는 늘, 서양에서 가장 고상한 하나님 개념은, 보편적 응보, 신성한 자비, 및 영원한 정의를 포함했다. 이 위대한 선생은, 뛰어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견줄 데 없는 우아함과 함께, 전능하신 창조주를, 만유를_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묘사했다.

97:7.14 (1070.3) 포로로 잡혀갔던 이 선지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귀 기울이는 자기 민족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이 제2 이사야는 약속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종족의 자기중심적인 많은 잘못된 개념을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제사장들이 그릇된 생각으로 민족주의를 세우기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두 이사야의 교훈은,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도록 길을 예비했을 것이다.

8.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97:8.1 (1070.4)} 히브리인의 체험에 관한 기록을 신성한 역사로 보고, 나머지 세상의 다른 진행사항을 세속 역사로 보려는 관습이, 역사를 해석할 때 인간 정신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은, 유대인의 세속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다. 바벨론에 유배됐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기적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가정되는 새로운 기록, 즉 구약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의 새 기록을 준비한 후에, 그들은 히브리인 사건들과 관련되는 현존 기록을--곧 히브리인 역사에서 다소 정확한 다른 몇몇 기록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유다 왕들의 행적" 같은 책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없애버렸다.

97:8.2 (1070.5) 세속 역사가 지독하게 억압한 것과 꿈쩍 못하고 강요당한 것이, 포로가 되고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서 그토록 공포에 빠뜨렸는지, 그래서 자기네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고 개작하려고 애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민족의 복잡한 체험 기록을 간단히 살펴봐야만 하겠다. 유대인은, 삶에서 비{非}신학적인 적당한 사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끔찍한 벌을 받고, 의로우면 신성한 보상을 받는다는, 자신의 원래 개념 및 이집트 개념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전도서의 노골적 염세주의는, 섭리를 믿는 지나친 이 낙관적 믿음에 대한 현명한 세속적 반응이었다.

97:8.3 (1071.1) 그러나 외국인 통치자가 지배한 500년은, 끈기 있고 오래 견디는 유대인에게조차 너무 가혹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외치기 시작했다:“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경전{經典}을 탐구하는 동안에, 성실한 유대인의 혼돈은 더 심해졌다. 어느 옛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고 구출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족속이 민족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속을 버리실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명기를 기록한 서기관은,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을 묘사했다. 제1 이사야는 인정 많은 왕_구원자를 전파했다. 예레미야는 --마음 판에 계약을 새기는-- 내적{內的} 정의의 시대를 선포했다. 제2 이사야는, 제물을 바치고 속죄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에스겔은, 헌신적 봉사를 통한 구출을 전파했고, 에스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은 계속 노예 상태였고, 해방은 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때 다니엘이 임박한 "위기"라는--큰 형상을 깨뜨리고 정의가 영원토록 지배하는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 즉시 설립되는 것이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제시했다.

97:8.4 (1071.2) 그리고 이런 모든 잘못된 희망이 그토록 심각한 인종적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로 인해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무나 혼돈을 일으킨 나머지, 신성한 낙원 아들이 마침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곧 사람의 아들로 육신화 돼서-- 자신들에게 도래했을 때, 그의 사명과 사역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97:8.5 (1071.3) 모든 현대 종교는, 인간 역사의 어떤 시기들에 대해서 초자연적 해석을 시도함으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 왔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개입하는 손을 인간 사건들의 흐름 속에 섭리로 여러 차례 밀어 넣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신학의 교의와 종교적 미신을, 이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적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초자연적 침전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속 역사를 소위 신성한 역사로 바꾸지는 않는다.

97:8.6 (1071.4) 신약 성경 저자들과 후대의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선의의 뜻으로 유대인 선지자들을 불가사의한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히브리인의 역사의 왜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역사는, 유대인 및 그리스도교 저술가들 모두에게 비참하게 이용당했다. 히브리인의 세속 역사는 철저하게 교의화{敎義化} 돼왔다. 그것은 신성한 역사라는 꾸며낸 이야기로 바뀌었으며, 소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도덕 개념 및 종교 교훈과 철저하게 묶이게 됐다.

97:8.7 (1071.5) 히브리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대목을 간단히 되새겨 본다면, 그들 민족의 일상적인 세속 역사를, 꾸며낸 신성한 역사로 바꾸려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기록된 사실을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토록 심하게 뜯어고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9. 히브리인의 역사

97:9.1 (1071.6)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를 이룬 적이 전혀 없었다--팔레스틴에 정착한 지파는 셋 또는 넷에 불과했다. 히브리인 국가는, 소위 이스라엘족속과 가나안족속이 결합한 결과로 있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저희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가나안족속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냈다." 히브리인은 가나안족속을 팔레스틴 밖으로 쫓아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일에 대한 제사장들의 기록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서슴없이 주장했다.

97:9.2 (1071.7) 이스라엘족속 같은 의식{意識}은, 에브라임 산지{山地}에서 기원됐으며;후대의 유대인 의식은 유다라는 남부 씨족에서 유래됐다. 유대인(유다족속)은

항상 북부의 이스라엘족속(에브라임족속)의 이력{履歷}을 모욕하고 나쁘게 평가하려 했다.

97:9.3 (1072.1) 히브리인의 과장된 역사는. 암몬족속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동료 지파 사람들을--곧 길르앗족속을--침공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사울이 북부 씨족들을 소집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는 3,000명 정도의 군사로 적을 무찔렀으며, 이 공로로 인해 산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유배된 제사장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사울의 군대를 330,000명으로 부풀렸고, 그 전투에 참여한 지파 명단에 “유다”를 덧붙였다.

97:9.4 (1072.2) 암몬족속을 무찌른 직후에, 사울은 그 군대의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됐다.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신{神}의 지시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을 나중에 삽입했다. 그들은 다윗의 유다 왕권을 “신성한 계통의 후손”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다.

97:9.5 (1072.3) 유대인 역사에서 가장 심한 왜곡은 다윗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울이 암몬족속을 무찌른 후에, (그는 이 공을 야훼에게 돌렸지만) 블레셋족속이 긴장하게 됐고, 북부

씨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윗과 사울은 결코 화합할 수 없었다. 다윗과 600인은 블레셋족속 동맹에 가입했고, 에스드랴론 해안선으로 진격해 올라갔다. 블레셋족속은 가드에서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라고 명했는데;그들은 그가 사울에게 동조할 것을 염려했다. 다윗은 물러났으며;블레셋족속이 공격해서 사울을 격퇴시켰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충성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다윗의 군대는 여러 나라 말을 쓰는 잡다한 불평꾼들이었는데, 대부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피해서 달아난 자였다.

97:9.6 (1072.4) 사울이 길보아에서 블레셋족속에게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가나안족속이 보기에 야훼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됐다. 보통은, 사울의 패배는 야훼를 변심한 탓이라고 했겠지만, 이때 유다족속 편집자들은, 그것을 잘못된 제례식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위한 배경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전통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97:9.7 (1072.5) 소규모의 군대를 가진 다윗은 히브리인 성읍이 아닌 헤브론에 근거지를 뒀다. 이윽고 그의 동족이 그를

유다라는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선포했다. 유다는 대체로 히브리인이 아닌 출신성분으로--곧 겐족속, 갈렙족속, 여부스족속, 및 기타 가나안족속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고--곧 목축업자였고-- 그래서 땅 소유권에 대한 히브리인 관념에 동조했다. 그들은 사막 씨족들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

^{97:9.8 (1072.6)}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신성한 역사와 세속 역사 사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의 측근 추종자들이(그의 군대가) 그를 왕으로 만든 세속 이야기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부주의로 기록에 남게 됐는데, 그 제사장들은 나중에 신성한 역사에 관해서 길고도 무미건조한 설명을 만들어 냈으며, 선지자 사무엘이 신성한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윗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진행해서 정교하고 엄숙한 예식에 따라 히브리인의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는 그를 사울의 후계자로 선포했는지에 대해 묘사했다.

^{97:9.9 (1072.6)}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 조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면서,

이미 기록돼 있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여러 번 있었다.

97:9.10 (1072.7)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의 딸과, 그 다음에는 에돔족속이며 부자인 나발의 과부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쉬르 왕인 달매의 딸과 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다. 그는 헷족속 아내 밋세바 말고도 여부스에 속하는 여섯 명의 아내를 취했다.

97:9.11 (1073.1) 그런 방식으로 그런 민족으로부터, 다윗은, 에브라임족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라지는 북부 왕국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유다 왕국을 세웠다는 허구를 꾸며냈다. 유다라는 다윗의 국제적 부족은, 유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는데; 그럼에도 강요당한 에브라임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군사적 협박을 가한 후에, 다윗은 여부스족속과 계약을 맺었고, 결합된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곳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매우 강력한 성벽을 가진 성읍이었다. 블레셋족속이 자극받아서 곧 다윗을

공격했다. 격심한 전투가 있는 후에 그들은 패배했고, 야훼는 다시 한 번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확립됐다.

97:9.12 (1073.2) 그러나 다윗의 군대 대부분이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므로, 야훼는 어쩔 수 없이 그 영광의 일부를 가나안 신들과 나누게 됐다. 그리하여 너희가 보는 기록에 (유다족속 편집자들이 간과했던) 비밀을 폭로하는 이런 말이 기록돼 있다: “야훼가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지방의 이름을 바알_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의 병사들 가운데 80퍼센트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97:9.13 (1073.3) 다윗은, 가나안족속이 에브라임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도, 사울이 가나안족속의 성읍인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이 길보아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이것 때문에 야훼가 그를 버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울이 활약하던 시대에도, 다윗은 블레셋족속에 대항해서 길르앗이라는 가나안 성읍을 방어했고, 그 다음에 자기 수도를 가나안 성읍에 세웠다. 다윗은 가나안족속과 타협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 일곱 명을 기브온족속에게 내줘서 목매달게 했다.

97:9.14 (1073.4) 블레셋족속을 무찌른 후에, 다윗은 “야훼의 법궤”를 손에 넣게 되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야훼 경배를 공식화 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웃 부족에게--곧 에돔족속, 모압족속, 암몬족속, 및 시리아인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했다.

97:9.15 (1073.5) 다윗의 부도덕한 정치 조직은, 히브리인의 사회관행과는 반대로 북쪽에 있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으며, 전에 블레셋족속이 거둬들였던 대상{隊商}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마침내 획득하게 됐다. 그 다음에는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그 포악성이 절정에 이르게 됐다. 모든 법률 소송은 예루살렘에서 판결됐는데;“장로들”은 더 이상 상벌을 시행할 수 없었다. 반역이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오늘날 압살롬을 선동가로 부를지 모르지만;그의 어머니는 가나안족속이었다. 밋세바의 아들--솔로몬-- 외에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아들이 여섯이나 있었다.

97:9.16 (1073.6)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모든 북쪽 세력의 정치 조직을 없애버렸지만, 아버지의 체제에 있던 모든 폭정과 징세 제도는 계속했다. 솔로몬은 사치스런 왕궁과 공들인 건축 사업으로 나라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그 중에는 레바논에 있는 집, 바로의 딸의 궁전, 야훼의 성전, 왕의 궁전, 그리고 많은 성읍의 성벽 재건 등이 있었다. 솔로몬은 방대한 히브리인 해군을 창설해서, 시리아인 뱃사람들로 이를 운영케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했다. 그의 후궁은 거의 1,000명에 달했다.

97:9.17 (1073.7) 이때가 되자, 실로에 있던 야훼의 성전은 신용을 잃었고, 나라의 모든 숭배는 여부스에 있는 호화스런 왕궁 예배당으로 집중됐다. 북왕국은 엘로힘을 숭배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바로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로들은 나중에 유다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 남왕국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

97:9.18 (1073.8) 흥망이--곧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들이--계속됐다. 4년 동안의 내란, 그리고 왕조가 세 번 바뀐 후에, 이스라엘은 땅을 거래하기 시작한, 도시의 전제 군주의

통치를 받았다. 오므리 왕조차, 시므리가 소유한 땅을 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살만에셀 3세가 지중해 연안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자,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에브라임의 아합 왕은 10개의 다른 집단을 모으고 카르카에서 저항했으며;그 전투에서는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앓수르인이 공격을 멈췄지만 동맹군은 많이 희생됐다. 이 큰 싸움은 구약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97:9.19 (1074.1) 아합 왕이 나봇의 땅을 사려 하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그의 페니키아인 아내가 아합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나봇이 "엘로힘과 왕"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대가{代價}로 그의 땅을 몰수하라는 명령서를 만들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즉시 처형됐다. 활력 넘치는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나봇 가족 살해에 대해서 아합을 비난했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의 땅_매매 태도에 대항해서, 즉 도시가 농촌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항해서, 땅에 관한 옛 사회관행 옹호자로서 이처럼 그의 가르침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마리아에 있던 바알 선지자(토지 중개인)들을 죽이려고, 시골 지주{地主}

예후가 집시의 족장인 여호나답과 합세하기 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97:9.20 (1074.2)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하자, 새로운 생활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때가 되자 어느 악당_귀족이 사마리아에서 다스렸고, 그의 악탈 행위는 옛 다윗 왕조가 무색할 정도였다. 국가와 회당이 서로 결탁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엘리야, 아모스, 및 호세아로 하여금 비밀 기록을 쓰게 만들었고, 이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성경의 실제 발단이었다.

97:9.21 (1074.3)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 왕과 음모를 꾸며서 앗수르에 조공 바치기를 거절할 때까지, 북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3년간 포위 공격이 있는 후에, 북왕국은 완전히 흩어지게 됐다. 에브라임(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졌다. 유다는--즉 유대인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사야가 "집을 가진 자가 더 갖고 땅을 가진 자가 더 갖는다"고 말한 것처럼, 소수의 무리에게 땅 소유권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는, 야훼 성전과 나란히 바알 신전이

세워지게 됐다. 이런 공포의 통치는 소년 왕 요아스가 주도한 일신교 폭동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됐는데, 그는 야훼를 위해 35년 동안 개혁 운동을 벌였다.

97:9.22 (1074.4) 그 다음 왕인 아마시야는, 세금을 납부하는 에돔족속과 그 이웃들의 폭동으로 고통당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등을 돌려 북쪽의 이웃들을 공격했고, 똑같이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러자 시골에 있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왕을 암살하고, 열여섯 살 난 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혔다. 그가 바로 아자리야인데, 이사야는 그를 웃시야라고 불렀다. 웃시야가 물러난 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고, 유다는 앗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100여년 존속될 수 있었다.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야훼의 성읍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함락될 것임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다.

97:9.23 (1074.5) 유다의 실제 파멸은, 소년 왕 므낫세의 통치하에서 일하던 정치인들의 경쟁적 타락과 치부로 인해 초래됐다. 변화하는 경제 체제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가 융성하게 됐는데, 그들의 사유지 매매는 야훼의

관념에 위배됐다. 앓수르의 몰락과 이집트의 패권이 유다를 잠시 구제했고, 시골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요시야의 통치하에, 그들은 타락한 정치인들의 예루살렘 도당을 격퇴했다.

97:9.24 (1074.6) 그러나 이 시대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앓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온, 네코의 강력한 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시도했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는 완패했고, 유다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 바알을 섬기는 정치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 속박당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알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왕실과 사제계층을 모두 통제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바알 숭배는, 땅의 비옥함과 상관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다루는 경제 및 사회 체계였다.

97:9.25 (1075.1) 느브갓네살이 네코를 타도한 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됐고,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곧 반역을 일으켰다. 느브갓네살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유다족속은 야훼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주는 등, 사회 개혁을 시작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자, 히브리인은 마술적 개혁이 자신들을 구출했다고 기뻐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임박한 파멸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때였으며, 이내 느브갓네살이 돌아왔다.

97:9.26 (1075.2) 그리하여 유다의 종말이 갑자기 임했다. 성읍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야훼와_바알의 투쟁은 포로가 됨으로써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은, 포로가 되는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일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97:9.27 (1075.3) 바벨론에서 유대인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회 및 경제 관습을 지녔으므로, 팔레스틴에 있던 작은 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고, 자신들의 관념이 우세하다면 이방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운명에 관한 그들의 새로운 개념이-- 곧 유대인이 야훼의 선택받은 종들임에 틀림없다는 관념이-- 기원됐다. 구약 성경의 유대인 종교는 정말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됐다.

97:9.28 (1075.4) 불멸의 교리 역시 바벨론에서 모습을 갖췄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사회 정의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내세{來世} 개념이 손상시킨다고 생각해 왔었다. 이때 처음으로 신학이 사회학과 경제학을 밀어냈다. 정치, 사회학, 및 경제학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돼야 하는, 인간의 사고{思考} 및 행동 체계로서, 종교가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97:9.29 (1075.5) 그리하여 유대인 민족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만큼, 신성시되는 역사로 여겨져 온 많은 것이 평범한 세속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유대교의 토양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자라났지만, 유대인은 기적의 민족이 아니었다.

10. 히브리인의 종교

97:10.1 (1075.6) 이스라엘족속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관대한 대우를 받고 신성한 총애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특별한 봉사를 하라고 선택된 민족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 운명을 성취시키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도래할 메시아가 평화의 왕자로서 그들 및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97:10.2 (1075.7)

페르시아인이 유대인을 해방시켰을 때,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그들은, 오직 성직자가 지배하는 율법, 제물, 및 제례식의 규범에 묶이는 신세로 전락했을 뿐이었다. 제물을 바치고 속죄하는 제례식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가 고별 연설에 제시했던 경이로운 하나님 이야기를 히브리인 씨족들이 거부한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은 점점 확장되는 제사장체제의 규정, 규칙, 및 제례식을 따르기 위해서, 제2 이사야의 훌륭한 개념을 거부했다.

97:10.3 (1075.8)

민족의 자기중심주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리고 제사장체제의 점점 심해지는 속박과 횡포로 인해, (다니엘, 에스겔, 학개, 말라기를 제외한) 영적 지도자들의 외침은 끊임없이 묵살됐으며; 그날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온 이스라엘은 점점 심화되는 영적 퇴보를 체험했다. 그러나 유대인은, 만유의 아버지 개념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기원후 20세기까지도 이 신격 개념을 계속 따라왔다.

97:10.4 (1076.1)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일신교의 횃불을 전해줬던, 성실한 선생 계통이 끊어지지 않고 모세에서

세레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며, 한편 그들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꾸짖고, 상업화된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최고 야훼, 즉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경배를 고수하도록 그 민족에게 계속 훈계했다.

97:10.5 (1076.2) 유대인은 결국, 한 나라로서의 정치적 주체성을 잃었지만, 유일하신 우주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갖는 히브리인의 종교는 흩어진 유랑민 가슴속에 계속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살아남은 것은, 그것이 추종자들의 최고 가치를 보존하도록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종교는 민족의 이상{理想}을 보존했지만, 진리의 영역에 대한 철학적인 창조적 발굴을 더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에는 실패했다. 유대인의 종교는 --철학이 부족하고 심미적 특성이 거의 없는-- 많은 결점을 가졌던 반면, 도덕적 가치를 보존시켰으며;그래서 존속됐다. 다른 신격 개념들과 비교할 때, 지존하신 야훼는, 명쾌하고, 생생하며, 개인적이고, 도덕적이었다.

97:10.6 (1076.3)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의, 지혜, 진리, 및 정의를 사랑했지만, 이런 신성한 특성을 지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모든 민족을 이끄는 데는 가장 적게 기여했다. 히브리인의 신학은 확장하기를 거절했지만, 다른 두 세계 종교, 즉 그리스도교와 마호멧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97:10.7 (1076.4) 유대인의 종교는 그 제도 때문에 존속되기도 했다. 고립된 개인의 사사로운 풍습으로서 종교가 살아남기는 힘들다. 이것은 늘 종교 지도자들의 실책이었는데:그들은 제도화된 종교의 악한 면을 보면서 집단 활동의 기법을 파괴시키려고 모색한다. 그들은 모든 제례식을 없애는 대신, 그 제례식을 개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현명했으며;비록 그가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고집하는 데 그들과 합세했지만, 그는 또한 우수하고 정화된 제례식을 충실히 지키는 관례를 확립하는 일도 시작했다.

97:10.8 (1076.5) 이처럼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일찍이 유란시아에서 발생됐던 종교 진화에서 가장 큰 업적을 달성했는데:미개한 정령{精靈} 야훼에 대한 야만적 개념, 즉 폭음을 내면서 폭발하는 시내산 화산의 질투심 많고 잔인한 영적 신이, 나중에는 만유의 창조자이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인, 최고

야훼라는 고양되고 숭고한 개념으로, 점진적이지만 계속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이런 하나님 개념은, 그의 아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친히 주신 가르침과 생애의 본보기로 인해 더욱 확장되고 절묘하게 확대될 때까지, 만유의 아버지께 대한 인간의 심상{心像}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

97:10.9 (1076.6)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8편 서양의 멜기세덱 교훈

98:0.1 (1077.1) 멜기세덱의 교훈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지만, 주로 이집트를 통해서 전달됐으며, 철저히 헬라화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교화 된 후에 서양 철학에 포함됐다. 서방 세계의 이상{理想}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따랐고, 후일에 그 종교 철학은, 진화하는 서양 철학 및 종교와 접촉하여 변경되고 절충된 대로 예수의 종교 철학이 됐으며, 서양 철학 및 종교는 모두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98:0.2 (1077.2)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했고, 간헐적으로 일어난 많은 종파와 제레 집단에

점차 흡수됐다. 살렘 교훈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간직한 사람들 중에서, 견유학파{犬儒學派}는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외치는 이 전도자들은, 기원후 1세기에 로마화 된 유럽에서 여전히 활약했고, 나중에는 새롭게 형성되는 그리스도교에 통합됐다.

98:0.3 (1077.3) 서양의 수많은 군사 투쟁에서 싸웠던 유대인 용병{傭兵}들이 대부분의 살렘 교리를 유럽에 퍼뜨렸다. 고대{古代}에 유대인은 신학적 독특성으로 유명했던 만큼, 용맹스런 군인으로도 유명했다.

98:0.4 (1077.4) 그리스 철학, 유대인 신학, 및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본 교리는 근본적으로, 더 예전에 있었던 멜기세덱 교훈의 간접영향이었다.

1. 그리스인 가운데서 살렘 종교

98:1.1 (1077.5) 살렘 선교사들은, 임직식{任職式} 때 했던 맹세, 즉 마키벤타가 부과한 서약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인 가운데서 대단한 종교 체제를 세웠을 것인데, 이 서약은 순전히 경배를 위한 회중{會衆}은 조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선생

각자에게 결코 사제로서 활동하지 말고, 종교적 봉사에 대한 대가{代價}를 받지 말고, 오직 양식, 의복, 및 거처할 장소만 받는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헬라화하기_전의 그리스에 들어갔을 때, 멜기세덱 선생들은 아담선과 안드족속 시대의 전승을 여전히 간직한 민족을 발견했지만, 이 교훈은 그리스 해안에 점점 많은 숫자로 불어났던 열등한 유랑민 무리 노예의 관념과 믿음으로 크게 오염됐다. 이런 오염은, 피 흘리는 제례와 함께 조잡한 정령 숭배로 퇴보하게 했는데, 하류 계층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들의 집행을 예식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98:1.2 (1077.6) 살렘 선생의 초기 영향은, 남부 유럽 및 동방으로부터 소위 아리아인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없어졌다. 이 헬라인 침입자들은, 아리아인 동족이 인도로 가져갔던 것과 유사한, 사람 모습을 닮은 하나님 개념을 가져왔다. 이 개념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남신과 여신들로 구성된 그리스의 신{神} 계보가 진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 종교는, 유입되는 헬라 야만인이 갖고 있는 종파에 부분적으로 기초했지만, 또한 그리스의 옛 주민의 신화도 공유했다.

98:1.3 (1078.1)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은 어머니 숭배 종파가 지중해 연안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 민족들에게 자기네 인신{人神} 디아우스_제우스를 믿도록 강요했는데, 이 인신은 단일신교를 숭배하는 셈족속 가운데 있던 야훼처럼, 그리스의 하급 신들의 만신전 전체에서 이미 우두머리가 됐다. 운명의 신이 전면통제한다는 생각을 버렸더라면, 그리스인은 제우스 개념에서 결국 참된 일신교를 성취했을 것이다. 최종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은, 자신이 운명의 중재자 및 운명의 창조자여야만 한다.

98:1.4 (1078.2) 종교의 진화에서 이 요인들의 결과로, 올림푸스 산의 낙천적 신들에 대한 대중적 믿음이 곧 발달했는데, 이 신들은 신보다 인간에 가까웠고, 총명한 그리스인은 이 신들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이런 신들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고,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그의 반신반인{半神半人} 가족에 대해 애국심과 민족적 느낌을 가졌지만, 그들을 공경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았다.

98:1.5 (1078.3) 헬라인은 사제제도에 반대하는 초기 살렘 선생의 교리에 너무 젖어 있었으므로, 그리스에서는 어떤 유력한 사제계층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형상을 만들어 신들에게 바치는 것도,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일이 됐다.

98:1.6 (1078.4)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사람의 전형적 신인{神人} 동형론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는 윤리적이라기보다 심미적이었다. 그리스의 종교는, 한 신격 집단이 지배하는 우주를 묘사했기 때문에 유익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도덕, 윤리, 및 철학은, 곧 신 개념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진보했고, 지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이의 불균형은, 인도에서 입증됐다시피, 그리스에 위험했다.

2. 그리스의 철학적 사고

98:2.1 (1078.5)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피상적인 종교는, 특히 그 형식을 조성하고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채워줄 사제계층이 없을 때, 지속될 수 없다. 올림포스 산의 종교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의 영적 갈증도 해결하지 못했으며;따라서 그것은 소멸될 운명이었다. 그것은 생긴

후 1,000년 안에 거의 사라졌고, 그리스인은 민족 종교 없이 지냈는데, 올림포스 산의 신들은 상류의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98:2.2 (1078.6) 이것이, 동양과 레반트가 영적 의식{意識}의 회복을 체험하고, 일신교를 깨닫는 새로운 각성을 체험하던, 기원전 6세기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방은 이런 새로운 발전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유럽이나 북부 아프리카도 종교 부흥에 널리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굉장한 지적 발전을 이룩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로 종교를 찾지 않았지만, 바로 그 참된 종교가, 혼의 갈급함, 영적 불안감, 그리고 도덕적 절망감에 대한 치료제라는 사실은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깊이 사색함으로써--철학과 형이상학으로-- 혼의 위안을 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자아_보존에 대한--곧 구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자아_실현과 자아_이해로 돌아섰다.

98:2.3 (1078.7) 그리스인은, 엄밀하게 사고{思考}함으로써 생존한다는 믿음의 대용품으로 쓰일 보증품을

의식{意識}하려고 애썼지만, 철저히 실패했다. 오직 헬라 민족들 가운데 상류 계층에서 더 지성적인 사람들만, 이 새로운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옛 세대 노예의 후손인 서민은 이런 새로운 종교 대용품 받아들이기만한 수용력이 없었다.

98:2.4 (1079.1) 거의 모든 철학자가, "우주의 지성", "하나님 관념", 및 "위대한 근원"을 가르친 살렘 교리에 대한 믿음의 배경에 미약하게나마 물들어 있었음에도, 모든 형태의 숭배를 경멸했다. 신성한 자들과 유한{有限}을 초월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솔직하게 일신교를 믿었지만; 올림포스 산의 남신 및 여신들 전체 무리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98:2.5 (1079.2) 5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 시인{詩人}들, 특히 핀다로스는, 그리스의 종교를 개혁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그리스 종교의 이상{理想}을 높였지만, 종교가라기보다 예술가였다. 그들은 최상의 가치기준을 조성하고 보존하는 기법을 개발하지 못했다.

98:2.6 (1079.3) 크세노파네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지만, 필사적 사람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기에는, 그의 성격

개념이 너무 범신론적이었다. 아낙사고라스는 최초 원인, 즉 시초 정신을 인식한 것 외에는 기계론자에 불과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 미덕이고;건강한 혼이 선{善}이며;불의를 범하기보다 당하는 편이 낫고, 악을 악으로 갚음은 잘못이며, 신들은 현명하며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 덕행은:지혜, 용기, 절제, 및 공의였다.

98:2.7 (1079.4) 헬라 민족과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종교 철학의 진화는, 문화 진보의 형태를 결정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교회의 기능을 대조해서 보여준다. 팔레스틴에서 인간의 사고{思考}는, 너무 사제의_통제를 받고 성서에 지배됐으므로, 철학과 미학{美學}은 종교와 도덕에 완전히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리스에서는, 사제와 "신성한 경전"이 거의 완전하게 없었으므로 인간 정신이 자유롭고 속박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사고{思考}의 깊이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개인 체험으로서, 종교는 시공우주의 본성과 실체를 추구하는 지적 탐구와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

98:2.8

(1079.5)

그리스에서 믿음은 생각에 종속됐으며;팔레스틴에서 생각은 믿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스도교가 장점이 많은 것은, 히브리인의 도덕성과 그리스의 사상으로부터 매우 많이 빌려왔기 때문이다.

98:2.9

(1079.6)

팔레스틴에서는 종교 교의가 너무 정형화{定型化}돼서,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으며;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너무 추상화돼서, 하나님 개념이 분해됨으로써 범신론적 사색{思索}으로 변하는 안개 같은 상태가 됐지만, 브라만 사상가들의 비인격적 무한자와는 전혀 달랐다.

98:2.10 (1079.7)

그러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은, 자아 실현과 추상적 신격을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을 파악할 수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으며;오히려 자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인격적 하나님을 비롯하여,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갈망했다. 그들은 철학자들을 추방시켰고, 살렘 종파의 잔재를 박해했으며, 이 두 교리가 많이 혼합됐고, 몹시 문란하게 되어, 신비 종파들의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준비가 됐으며, 이 신비 종파들은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었다. 엘레우시스의 신비의식{神秘儀式}이, 올림포스

산의 만신전, 즉 다산{多産}을 숭배하는 그리스 개정판 속에서 자라났으며;디오니수스의 자연 숭배가 번성했고;그 종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은 오르페우스 형제단{兄弟團}이었는데, 그들의 도덕적 훈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은 많은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98:2.11 (1080.1) 구원에 이르는 이 새 방법, 즉 감정적이고 열렬한 이 예식절차에 전체 그리스인이 말려들었다. 어떤 나라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런 고도의 예술 철학을 달성한 적이 없었으며;실질적으로 신격 없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이 전혀 없이, 아무도 그런 진보된 윤리 체계를 일찍이 만든 적이 없었으며;바로 이 그리스 민족들이 신비 종파의 맹렬한 소용돌이에 뛰어들었을 때 그랬듯이, 어느 나라도 그토록 빨리, 깊이, 그리고 세차게, 그런 깊은 지적 침체, 도덕적 타락, 및 영적 빈곤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

98:2.12 (1080.2) 종교는 철학의 도움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지만, 종교와 어느 정도 일치함 없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그런 철학은 거의 없었다.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생각과 행동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인간의 이상적 정황은, 철학,

종교, 및 과학이, 지혜, 신앙, 그리고 체험의 합쳐진 행위로
인해, 하나의 의미 있는 통일체 속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3. 로마의 멜기세덱 교훈

98:3.1 (1080.3) 가족 신들을 숭배하는 예전의 종교 형태로부터,
전쟁의 신{神} 마르스에 대한 부족{部族} 숭배로
발전했기 때문에, 라틴 지역의 후대 종교가, 그리스 및
브라만의 지적 체계 또는 몇몇 다른 민족의 더 영적인
종교보다 오히려 정치 관례에 더 가까운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98:3.2 (1080.4) 기원전 6세기에 멜기세덱의 복음이 일신교의
부흥을 크게 꺾는 가운데, 이탈리아에 스며든 살렘
선교사가 너무 적었으므로, 스며든 그들은, 급속히 퍼지는
에트루리아 사제계층, 그리고 새 집단의 신들 및 신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로마의 국가
종교로 조직됐다. 라틴 부족들의 이 종교는, 그리스인의
종교처럼 진부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것처럼 엄격하거나 압제적이지도
않았으며; 대체로 단순한 형식, 맹세, 및 금기를 준수하는
것이였다.

98:3.3 (1080.5)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로부터 문화를 널리 도입한 데 크게 영향 받았다. 결국 올림포스 산의 신들 대부분이 라틴의 만신전으로 옮겨지고 합병됐다. 그리스인은 가족화로{火爐}의 불을 오랫동안 숭배해 왔다--헤스티아가 그 화로의 처녀 여신{女神}이었으며;베스타는 가정을 돌보는 로마 여신이었다. 제우스는 주피터가 됐고;아프로다이트는 비너스가 됐으며;올림포스 산의 많은 신격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98:3.4 (1080.6) 로마의 젊은이들이 치르는 종교 입회식은, 국가 봉사에 엄숙히 헌신하는 행사였다. 선서와 시민권 부여는 실제로 종교 예식이었다. 라틴 민족들은, 신전, 제단, 및 성소{聖所}를 유지했고, 위기가 닥칠 때에는 계시를 받고자 했다. 그들은 영웅의 뼈,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성자{聖子}들의 뼈를 보관했다.

98:3.5 (1080.7) 그리스인의 상당히 지적이고 예술적인 숭배가, 신비 종파들의 열렬하고 매우 감정적인 숭배 앞에 무릎 꿇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적이고 감동이 없는 형태의 종교를 가장한 애국심은 붕괴될 운명이었다. 이 파괴적인 종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신비교 분파였는데, 오늘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서있는 바로 그 자리에 본부가 있었다.

98:3.6 (1080.8) 신흥 로마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정복 했지만, 이집트, 그리스, 및 레반트의 종파, 제례식, 신비의식, 그리고 신 개념들에게 역으로 정복당했다. 수입된 이 종파들은 로마 국가 전역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계속 번창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와 시민의 도리 때문에, 신비의식들을 말살하고 예전의 정치적 종교를 부흥시키려고 영웅적으로 애썼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98:3.7 (1081.1) 국가 종교를 섬기는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유일하신 하나님, 즉 모든 초자연 존재를 지배하는 최종 신격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렘 선생들이 초기에 시도했던 것을,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야기했으며;이 개념이 그 황제를 강하게 사로잡게 돼, 많은 신전을 세웠고 아름다운 형상들로 신전들을 장식했으며, 국가적 사제체제를 재구성했으며, 국교{國敎}를 다시 세우고, 전체를 주관하는 대사제로 자신을 지정했으며, 황제로서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98:3.8 (1081.2)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이 새 종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유대인의 고향인 팔레스틴을 제외한 제국 전역에서 번창했고 신봉됐다. 그리고 이 인간 신들의 시대는, 공식 로마 종파가 40명 이상의, 스스로_높아진 인간 신격을 명부에 올릴 때까지 계속됐는데, 이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초인적인 다른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98:3.9 (1081.3) 진지한 전도자 집단인 견유학파가, 점점 감소하는 살렘 신자 무리의 마지막 저항이었고, 그들은 로마인에게, 거칠고 몰상식한 종교 제례식을 버리고, 멜기세덱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경배 형태로 돌아가라고 훈계했는데, 그 복음은 이전에 그리스인의 철학과 접촉함으로써 변경되고 오염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견유학파의 주장을 거부했으며;신비의식 제례에 몰입하기를 선호했는데, 신비의식은 개인이 구원받는다라는 희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락, 흥분, 및 여흥에 대한 욕구 또한 채워졌다.

4. 신비 종파

98:4.1 (1081.4) 그리스_로마 세계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원시 가족 종교와 국가 종교를 잃어버렸고, 그리스 철학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거나 납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와 레반트에서 온, 호화롭고 감정적인 신비 종파들로 눈을 돌렸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곧 오늘 종교적 위로를 받고 죽은 후에 불멸한다는 희망의 보장을-- 갈망했다.

98:4.2 (1081.5) 세 개의 신비 종파가 가장 널리 퍼졌다:

98:4.3 (1081.6) 1. 퀴벨레와 그녀의 아들 아티스를 믿는 프리지아 종파.

98:4.4 (1081.7) 2. 오시리스와 그의 어머니 이시스를 믿는 이집트 종파.

98:4.5 (1081.8) 3. 죄 많은 인류의 구원자와 구속자{救贖者}로서 미드라를 숭배하는 이란 종파.

98:4.6 (1081.9)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의식은, 신성한 아들이(각각 아티스와 오시리스가) 죽음을 체험하고 신성한 능력으로 부활됐다고 가르쳤으며, 더욱이 그 신비 상태로 올바르게 가입된 사람, 그리고 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념일을 경건하게 축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함으로 그의 신성한 본성과 불멸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98:4.7 (1081.10) 프리지아의 예식은 화려했지만 타락했으며;그들의 피 흘리는 축제는, 레반트의 이 신비의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원시 상태였는지 보여준다. 불길한 금요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이었는데, 아티스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피의 날”이었다. 축제는 아티스의 희생과 죽음을 3일 동안 경축한 후에, 그의 부활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98:4.8 (1082.1)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숭배하는 제례식은 프리지아 종파의 제례식보다 더 세련되고 인상적이었다. 이집트의 이 제례식은, 옛 나일 신, 즉 죽었다가 살아난 신에 대한 전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개념은 모든 생명 있는 식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동면{冬眠}한 상태에 있다가 봄철에 다시 회복되어 자라나는 것을 관찰한 데서 유래했다. 이런 신비 종파들의 관례의 광포함과, 그들의 예식절차에 속하는 방탕함이, 신성을

깨닫는 “열광”으로 이끈다고 생각됐는데, 때로는 아주 구역질나는 것이었다.

5. 미드라 종파

98:5.1 (1082.2) 프리지아와 이집트의 신비의식은, 모든 신비 종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미드라 숭배 앞에 결국 굴복했다. 미드라 종파는, 광범한 인간 본성에 호소했고, 이전에 있었던 두 종파를 차츰 갈아치웠다. 미드라교는, 레반트에서 모집한 로마 군단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는데, 레반트에서 이 종교가 유행한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종교 제례식은 그 전에 있던 신비 종파들보다 훨씬 개량됐다.

98:5.2 (1082.3) 미드라 종파는, 이란에서 생겨났고, 조로아스터 추종자의 호전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그 고향에서 오래 존속했다. 그러나 미드라교가 로마에 전파될 때가 되자, 이 종파는 조로아스터의 교훈 가운데 다수를 흡수함으로써 크게 개선됐다. 조로아스터의 종교가, 후대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미드라 종파를 통해서였다.

98:5.3 (1082.4) 미드라 종파는 큰 바위에서 생겨난 호전적 신을 묘사했는데, 그 신은 용맹스런 위업을 이룩하고, 화살로 맞춘 어떤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다. 홍수가 발생했고, 한 사람이 특별하게 건조된 배를 타고 피했으며,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미드라가 태양_신과 함께 축하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 이 태양_신, 즉 솔 인빅투스는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_마즈다 신격 개념이 퇴화된 것이었다. 미드라는, 태양_신이 어둠의 신과 벌인 싸움에서 살아남은, 태양_신의 투사{鬪士}로 여겨졌다. 미드라는, 신화의 신성시되는 황소를 살해한 보상으로 불멸하게 됐고, 하늘에 있는 신들 가운데서 인간 종족을 위해 중재하는 자리로 높임 받았다.

98:5.4 (1082.5) 이 종파 신봉자들은 동굴 또는 다른 비밀 장소에서 숭배했고, 성가{聖歌}를 불렀으며, 주문{呪文}을 중얼거렸고, 제물로 바친 동물의 고기를 먹었으며, 그 피를 마셨다. 그들은 매일 세 번 숭배했고, 태양_신의 날에는 특별한 주간{週間} 예식절차를 곁들였으며, 12월 25일인 미드라 연중{年中} 축제일에는, 전체 가운데서 가장 공들인 행사를 치렀다.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보장, 즉 죽은 후에 즉시 미드라의 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판의 날까지 행복을 누리며 머문다고 믿었다. 심판 날에는, 신실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미드라가 가진 천국의 열쇠들이 낙원의 문들을 열 것이며;그 후에는 미드라가 이 땅에 돌아옴으로써, 산 자나 죽은 자나 세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절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 받기 위해서 미드라 앞으로 인도된다고 가르쳤으며, 세상의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무덤에서 나온 모든 죽은 자를 미드라가 소집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악한 자는 불로 멸망하고, 의로운 자는 미드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했다.

98:5.5 (1082.6) 처음에는 이것이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였고, 믿는 자들이 잇따라 가입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다른 계층이 있었다. 나중에는, 믿는 자의 아내와 딸들이 위대한 어머니의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은 미드라 신전 가까이 있었다. 여자의 종파는, 미드라 제례식과, 아티스의 어머니 퀴벨레를 믿는 프리지아 종파 예식의 혼합이었다.

6.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98:6.1 (1083.1) 여러 신비 종파와 그리스도교가 도래하기 전에, 북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명화된 땅에서 개인적 종교가

독립된 제도로 발전되는 일은 전혀 없었으며;종교는 오히려, 가족, 도시 국가, 정치, 및 제국의 일이었다. 헬라 시대의 그리스인은, 중앙에 집중된 숭배 체계를 발전시킨 적이 없었으며;제례식은 지역에 국한됐으며;사제계층이 없었고 “신성한 책”도 없었다. 로마인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 제도에는 상류의 도덕적 및 영적 가치를 보존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 매개체가 없었다. 종교의 제도화가 대개 그 영적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종교든지 어느 정도, 크던지 작던지, 제도적 조직의 도움 없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98:6.2 (1083.2) 회의론파, 견유학파, 에피쿠로спа, 및 스토아학파의 시절까지,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새로운 종교와 미드라교가 엄청나게 경쟁을 벌이던 시절까지, 서양의 종교는 그렇게 시들어 있었다.

98:6.3 (1083.3) 기원후 3세기에,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교회는 외형과 제례식의 특성에서 매우 흡사했다. 그런 예배 장소 대부분은 지하에 있었고, 죄의 저주를 받은 인간 종족에게

구원을 가져온 구원자의 고난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배경이 그려진 제단{祭壇}이 양쪽 다 있었다.

98:6.4 (1083.4)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스런 물에 손가락을 적시는 것이 미드라 숭배자의 풍습이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동시에 두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로마 근처에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교회에 이 관습을 들여왔다. 두 종교가 세례를 베풀었고, 빵과 포도주로 성례를 거행했다. 미드라와 예수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큰 차이점 하나는, 전자는 군국주의를 장려한 반면, 후자는 지나치게 평화적이었다. (후대의 그리스도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을 묵인한 것이, 미드라교의 마지막 파멸을 가져왔다. 그러나 두 종교 사이의 갈등에서 결정적 요소는, 여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온전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었다.

98:6.5 (1083.5) 결국, 명목상 그리스도교 신앙이 서양을 지배했다. 그리스 철학은 윤리적 가치의 개념을;미드라교는 경배 관례의 제례식을;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 도덕적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존 기법을 제공했다.

7. 그리스도교

98:7.1 (1083.6) 창조주 아들이 필사적 몸의 모습으로 육신화하고 유란시아 인류에게 자신을 증여한 것은, 화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속죄{贖罪} 교리를 부르짖은 위대한 주창자도 이런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98:7.2 (1083.7)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전파를 다루는 것은 본 문서의 범위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는 인간으로 육신화한, 네바돈의 미가엘 아들, 유란시아에 그리스도로 알려진,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 갈릴리인을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레반트와 서양 전역에 퍼뜨렸고, 그들의 선교 열정은 아시아에서 동시대에 살던 진지한 사람들, 즉 불교를 가르친 선생들뿐

아니라, 뛰어난 선구자, 즉 셋족속과 살렘 사람들의 열정과 견줄 만했다.

98:7.3 (1084.1)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유란시아 믿음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교훈, 영향, 믿음, 종파, 그리고 개인의 개별적 의견이 복합됨으로써 형성됐다:

98:7.4 (1084.2) 1. 멜기세덱의 교훈, 이것은 지나간 4천 년 동안에 발생됐던 서양과 동양의 모든 종교에 기본 요소다.

98:7.5 (1084.3) 2. 히브리인의 도덕, 윤리, 및 신학의 체계, 그리고 섭리와 최고 야훼에 대한 믿음 체계.

98:7.6 (1084.4) 3. 시공우주의 선과 악이 싸운다는 조로아스터교의 생각, 이것은 이미 유대교와 미드라교 양쪽에 그 흔적을 남겼다. 미드라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투쟁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오랫동안의 접촉을 통해서, 이란 선지자의 교리는, 예수의 교훈이 헬라화 되고 라틴화된 개정판에 담긴, 교의, 주의{主義}, 그리고 우주론의 신학적 및 철학적 기질과 구조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됐다.

98:7.7 (1084.5) 4. 신비 종파들, 특히 미드라교, 뿐만 아니라 프리지아 종파에서 위대한 어머니 숭배.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탄생했다는 전설조차, 이란의 구원자이자_영웅인 미드라가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는 로마 식 해석으로 오염됐는데, 미드라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선물을_바치는 몇몇 목동에게만 목격됐으며, 그 목동들은 임박한 이 사건을 천사들로부터 이미 들었다고 생각돼 왔다.

98:7.8 (1084.6) 5. 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생애라는 역사적 사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의 실체.

98:7.9 (1084.7) 6. 다소의 바울이 가진 개인적 견해. 그리고 미드라교는 바울이 소년이었을 때 다소의 지배적 종교였음이 기록돼야만 한다.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사람들에게 선의{善意}에서 쓴 편지들이, 어느 날 더 후대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선의로 쓴 그런 선생들의 기록을 후대에 계승한 자들이 이용해 먹은 책임을, 그 선생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98:7.10 (1084.8)

7.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으로부터 그리스를 거쳐서 시라큐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배했던, 헬라 민족들의 철학적 사고. 그리스인의 철학은, 다른 어떤 현행 종교 체계보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개정판에 더 잘 조화됐으며, 그리스도교가 서양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리스 철학은 바울의 신학과 함께, 여전히 유럽인의 윤리적 기초를 이룬다.

98:7.11 (1084.9)

예수의 원래 교훈은, 서양 세계로 들어가자 서양화{西洋化} 됐고, 서양화 됨에 따라서, 모든 인종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잠재된 보편적 호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백인종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사회관행에 잘 적응된 종교가 돼버렸다.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되기를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그 가르침의 방법을 따라서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그런 개인들에게, 예수에 관한 아름다운 종교를 아직도 용감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를 미화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주님이 친히 전하신 복음 즉: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관계임을 대체로 잊어버렸다.

98:7.12 (1085.1) 이것이,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유란시아에 준 교훈에 대한 긴 이야기다. 네바돈의 이 비상대책 아들이 자신을 유란시아에 증여한 지 거의 4천 년이 됐으며, 당시의 "엘 엘리온, 지고자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교훈은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마키벤타는 자신의 특수한 증여 목적을 성취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며;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출현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 개념이 남녀의 가슴속에 존재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 개념은, 만유의 아버지의 다채로운 자녀가, 흥미를 자아내는 생애를 공간의 회전하는 행성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생생한 영적 체험 속에서 여전히 새롭게 불타고 있다.

98:7.13 (1085.2)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99편 종교의 사회적 문제

99:0.1 (1086.1) 종교가 사회에서 세속의 제도와 관련이 가장 적을 때, 종교는 가장 높은 사회 공헌을 이룩한다. 지난 시대에는, 사회 개혁이 주로 도덕 영역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종교는 그 태도를,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에서 일어나는 광범한 변화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았다. 종교의

주요 문제는, 정치 및 경제 문화에 현존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선으로 악을 대체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종교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간접적으로 영속시키고, 현존하는 유형의 문명이 유지되도록 조장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99:0.2 (1086.2) 그러나 종교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거나 오래된 질서를 보존하는 데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 참된 종교는, 사회를 진화시키는 기법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사회가 자체의 제도를 적응시키고, 사회의 제도를 새 경제 조건과 문화적 요구에 맞게 조절하려고 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99:0.3 (1086.3) 종교는 과거 여러 세기에 간헐적으로 일어난 사회 개혁을 인정했지만, 20세기에는 광범하면서 계속적인 사회 재건에 따른 조정에 직면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삶의 조건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은 크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종교는 이런 새롭고 계속 변하는 사회 질서에 맞춰서 재빨리 적응해야만 한다.

1. 종교와 사회 재건

99:1.1 (1086.4) 기계 발명과 지식 보급이 문명을 변경시키고 있으며;문화적 재앙을 피하려면, 어떤 경제적 조절과 사회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도래하는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는, 1,000년이 지나도 만족스럽게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종족은, 변화하고, 조절하고, 다시 조절하는 과정을 달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인류는 새롭고 드러나지 않은 행성의 운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99:1.2 (1086.5) 종교는 도덕적 안정과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상황이 늘_변하고 경제적 조절이 끝나지_않는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돼야만 한다.

99:1.3 (1086.6) 유란시아의 사회는 결코 지난 시대처럼 안정되기를 바랄 수 없다. 사회라는 배는 확립된 전통으로 보호받던 만{灣}에서 밖으로 나왔고, 진화의 운명이라는 공해{公海}에서 항해를 시작했으며;사람의 혼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이, 그 도덕성을 보여주는 해도{海圖}를 면밀히 조사하고, 종교적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을 공들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서, 종교의 탁월한 사명은, 문명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즉 한 문화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옮겨가는 이런 위험한 시기 동안에, 인류의 이상{理想}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99:1.4 (1087.1) 종교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임무는 없지만, 새롭고 재빠르게 변하는 이런 인류의 전체 상황에서, 현명한 안내자이자 노련한 상담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사회는 더 기계적이고, 더 밀집되고, 더 복잡하고, 더 위태롭게 서로 의존하게 되고 있다. 종교는, 이런 새롭고 긴밀한 상호 관계들이 공동으로 역행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종교는, 진보라는 효소가 문명의 문화적 맛을 파괴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시공우주의 소금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새로운 사회 관계와 경제적 격변은, 오직 종교의 사역으로 인해서만, 영속하는 형제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

99:1.5 (1087.2) 인간적으로 보면, 신을 부정하는 인도주의{人道主義}는 고상한 손짓이지만, 다른 집단들의 필요와 고난에 대한 한 사회 집단의 민감성을 영구히 증대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참된 종교뿐이다. 과거에는, 사회의 상류층 사람이 무력한 하류 계층의

고난당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관심 두지 않는 동안, 제도화된 종교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하류의 이 사회 계층이, 현대에는 더 이상 그토록 비천하게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력하지 않다.

99:1.6 (1087.3) 종교는, 사회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조직하는 세속적인 일에 유기적으로 말려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종교는 자체의 도덕적 명령과 영적 훈계에 대해서, 즉 인간의 삶과 초월적 생존에 관해서 진취적 철학을 분명하고 활기 있게 다시 진술함으로써, 문명에서 생기는 이런 모든 진보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만 한다. 종교의 기풍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은 인간 언어 사전이 개편될 때마다 다시 진술돼야만 한다.

2. 제도화된 종교의 약점

99:2.1 (1087.4) 불행하게도 제도화된 종교는, 개조를 꾀도록 예정돼 있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계에 다소간 유기적인 부분이 돼왔기 때문에, 전_세계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조직하는 임박한 이 과정에서 영감을 줄 수 없고 지도력을 제공할 수도 없다. 오직 몸소 영적 체험으로 얻는

참된 종교만이, 현재 문명의 위기에서 유익하게 창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99:2.2 (1087.5) 제도화된 종교는 지금 악순환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 그런 종교는, 먼저 자체를 재건하지 않고는 사회를 재건시킬 수 없으며; 기존 질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돼있는 한, 사회가 급진적으로 개조될 때까지 그런 종교는 자체를 개조시킬 수 없다.

99:2.3 (1087.6) 종교인은, 사회, 산업, 및 정치 분야에서, 집단이나 정당 또는 기구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활동해야만 한다. 종교 활동과는 상관없이, 주재님께 그런 역할을 하려는 종교 집단은 곧, 정당, 경제 조직, 또는 사회 기구로 바뀐다. 종교의 집단행동경향은, 그 노력을 종교 운동을 촉진시키는 일에 국한해야만 한다.

99:2.4 (1087.7) 종교인은, 사회 재건 과제에서 비종교인보다 더 가치가 없는데, 오직 예외는, 그들의 종교가 종교인들에게 증진된 시공우주 선견지명을 베푸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하늘 나라에 있는 형제로서 사랑하려는, 진지한 소망에서 생겨난 그런 뛰어난 사회적 지혜를 부여하는 경우다. 이상적 사회

체제는, 그 체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99:2.5 (1087.8) 제도화된 교회는, 기존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미화시킴으로써, 지난날에 사회에 공헌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살아남으려면 그런 행동을 즉시 멈춰야만 한다. 제도화된 교회의 유일하게 타당한 태도는, 비폭력, 즉 격렬한 혁명 대신 평화로운 진화의 교리를--곧 땅에서 평화를 지키고 모든 사람 가운데 선의를 갖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99:2.6 (1088.1) 현대의 종교는, 오직 그 자체가 너무 철저하게 전통화, 교의화, 및 제도화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신속히 바뀌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그 태도를 조절하기 어려움을 발견한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종교는, 이 모든 사회 발전과 경제 격변보다 계속 앞서나가기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 과정에서 그런 종교는 도덕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내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장치로서 늘 작용한다. 참된 종교는, 가치 있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체험에서 생겨나는 그 지혜를,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해준다.

3. 종교와 종교인

99:3.1 (1088.2) 초기 그리스도교는, 모든 국내 분규, 사회적 책무, 그리고 경제적 제휴에 매이는 일이 전혀 없었다. 오직 후대의 제도화 된 그리스도교가, 서양 문명의 정치 및 사회 구조의 유기적 일부가 됐다.

99:3.2 (1088.3) 하늘 나라는 사회 체제도 경제 체제도 아니며;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의 영적 형제관계일 뿐이다. 정말로, 그런 형제관계는 본래, 놀랄만한 정치적 및 경제적 반응이 수반되는 새롭고 놀라운 사회 현상이다.

99:3.3 (1088.4) 종교인은 사회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고, 민간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경제적 견해를 무시하지 않고, 정치적 횡포에 무감각하지도 않다. 개별 시민을 영성화하고 이상화하기 때문에, 종교는 사회 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있는 문명은, 이런 개별 종교인들이, 다양한 사회, 도덕, 경제, 및 정치 집단의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이 됨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99:3.4 (1088.5) 고도의 문화를 가진 문명의 달성은, 처음에는 이상적 유형의 시민을 요구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런 시민이 그런 진보된 인간 사회의 경제 및 정치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사회 장치를 요구한다.

99:3.5 (1088.6) 과도하게 잘못된 감상{感想} 때문에, 교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오랫동안 돌봐 왔으며, 이것이 모두 잘 이뤄져 오기는 했지만, 바로 이 감상이, 문명의 진보를 엄청나게 퇴보시켜 온, 인종적으로 퇴화된 혈통들을, 어리석게 영존 시키도록 유도해 왔다.

99:3.6 (1088.7) 사회를 재건하려는 많은 개인은, 제도화된 종교를 맹렬히 거부하면서, 결국 자신의 사회 개혁을 퍼뜨리는 데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그래서 개인적이며 다소 인식되지 않은 그 종교적 동기가, 사회를 재건하는 현대의 계획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99:3.7 (1088.8) 인정되지 않고 무의식적인 이런 모든 유형의 종교 활동의 큰 약점은, 공개된 종교 비판에서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 유익한 수준까지 자신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적 비판으로 단련되고, 철학으로 확대되고,

과학으로 정화되고, 충성스런 교제로 양육되지 않으면, 종교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99:3.8 (1088.9) 전쟁이 벌어질 때 참여한 각 나라가, 자체의 종교를 군사적 선전물로 악용할 때에는, 종교가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상태에 빠질 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사랑이 결여된 열의는 종교에 항상 해로운 반면, 박해는 종교 활동을 전환시켜서, 어느 정도 사회적이거나 신학적인 추진력을 성취하게 한다.

99:3.9 (1089.1) 종교는 오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속과의 부정{不淨}한 제휴로부터 계속 벗어날 수 있다:

99:3.10 (1089.2) 1. 비판적으로 교정{矯正}하는 철학.

99:3.11 (1089.3) 2. 어떤 사회, 경제, 및 정치적 제휴에도 매이지
않음.

99:3.12 (1089.4) 3. 창조적이고 위안을 주며 사랑을_확장하는
교제.

99:3.13 (1089.5) 4. 영적 통찰력을 진취적으로 향상시키고,
시공우주의 진가를 알아봄.

99:3.14 (1089.6)

5. 과학적 정신의 태도로 보충함으로써, 광신주의를 방지함.

99:3.15 (1089.7)

종교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종교 이외의 어떤 것에도 결코 자신을 관련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어떤 종교인이든지, 한 개별 시민으로서, 어떤 사회, 경제, 또는 정치 재건 운동에서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99:3.16 (1089.7)

어렵기는 해도 바람직한 모든 사회 봉사를 증진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기까지 개별 시민을 인도하도록, 시공우주에 대해 개별 시민의 그런 충성심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영감{靈感}을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4. 과도기의 어려움

99:4.1 (1089.9)

참된 종교는, 종교인이 사회적으로 향기를 풍기도록 하고, 인간의 교제에 대한 안목을 조성한다. 그러나 종교 집단의 형식화는, 그 집단의 조직화를 촉진시킨 바로 그 가치를 여러 차례 파괴시킨다. 인간의 교우관계와 신성한 종교는, 각각의 성장이 균등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귀중하게 빛을 발하게 된다. 종교는 모든 집단 연합체에--곧 가정, 학교, 및

동호회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종교는 새로운 가치기준을 나눠주고, 모든 참된 유머를 고양시킨다.

99:4.2 (1089.10) 사회의 지도력은 영적 통찰력으로 인해 바뀌며;종교는 모든 집단 운동이 그 참된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 어린이와 더불어, 종교는 가정생활을 통합하는 좋은 약인데, 생생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가정생활은 자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종교 없이도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런 부족함은 이 긴밀한 인간 연합체의 어려움을 무척 증대시킨다. 20세기 초기에는 수십 년 동안 가정생활이 개인 종교 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데, 이런 상처는 옛 종교적 충성으로부터, 떠오르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른 쇠퇴에서 생긴다.

99:4.3 (1089.11) 참된 종교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현실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이다. 그러나 종교가 개인의 성품 개발과 인격체의 통합 완성을 자극하려면, 종교는 결코 표준화돼서는 안 된다. 체험의 평가를 자극하고 호의적인_미끼로 쓰으려면, 종교가 판에

박은 듯이 진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최상의 충성심을 촉진시키려면, 종교는 형식화 돼서는 안 된다.

99:4.4 (1089.12) 어떤 종류의 격변이 문명의 사회 성장과 경제 성장에 일어나더라도,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지배하는 그런 체험을, 종교가 각 개인 속에 조성한다면 참되고 가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최상의 실체의 참된 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사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이 교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뜻있게 된다.

99:4.5 (1090.1) 결국,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행위를 결정하고 개인의 성과를 좌우한다. 순전히 사실에 관한 지식은, 감정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에게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의 활성화는 감정을 초월하며, 필사자의 인생에서 영적 에너지와 접촉하고 그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인간 체험 전체를 초월 수준에서 통합시킨다.

99:4.6 (1090.2)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던 20세기에, 과학 시대의 격렬한 변천으로 인한, 경제적 격변, 도덕적 역류, 및 거센 사회적 물결 속에서, 수많은 남녀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어려워졌으며;이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세계 역사에서 유례없이, 건전한 종교가 주는 위로와 안정을 필요로 한다. 전례 없는 과학적 성취와 기계의 발달에 직면해서, 영적 침체와 철학적 혼돈에 빠져있다.

99:4.7 (1090.3) 종교가 이타적이고 사랑 넘치는 사회 봉사를 하려는 그 동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종교가 점점 더 사적{私的}인 문제가 돼도--곧 개인 체험이 돼도-- 아무 위험이 없다. 종교는 도시화 및 기계화와 함께, 많은 2차적 영향, 즉:갑작스런 문화의 혼합, 신조의 뒤섞임, 교회의 권위 축소, 가정생활의 변화 때문에 고생했다.

99:4.8 (1090.4) 사람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부분적 진보, 성장을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곤경:즉 두려움의 진화 종교를 버리면서, 사랑의 계시 종교를 즉시 붙잡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 특히 심리학은, 오직 두려움, 미신, 및 감정에 아주 많이 의존하는 그런 종교들만 약화시켰다.

99:4.9 (1090.5) 변화는 항상 혼란을 동반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쟁하는 종교 철학 사이에 큰 갈등이 끝나기 전에는, 종교계에 평온함이 거의 없을 것이다:

99:4.10 (1090.6) 1. 여러 종교의 심령현상을 믿는 (섭리하는 신격에 대한) 믿음.

99:4.11 (1090.7) 2. 여러 가지 철학의 인본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믿음.

99:4.12 (1090.8) 3. 여러 과학 분야의 기계론 및 자연주의 개념들.

99:4.13 (1090.9) 시공우주의 실체에 다가가는 이 세 가지 부분적 접근법은, 낙원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오고 지존자의 신격 안에서 시_공간의 통합을 달성하는, 영, 정신, 및 에너지라는 삼자일체 실존을 묘사하는, 종교, 철학, 및 우주론의 계시적 발표로 결국 조화를 이루게 돼야만 한다.

5. 종교의 사회적 양상

99:5.1 (1090.10)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적 체험--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지만, 이 체험의 필연적 결과는--곧 사람이 형제임을 아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조정해서 다른 자아들에게 맞추게 하며, 이것은 종교 생활의 사회 양상 또는 집단 양상을 포함한다. 종교는 먼저, 내적 조정, 즉 개인적 조정이며, 그 다음에는 사회 봉사, 즉 집단적 적응의 문제가 된다. 사람에게 사교성이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종교 집단들이 생기도록 결정한다. 이런 종교 집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은, 총명한 지도층에 아주 크게 달려있다. 원시 공동체에서 종교 집단은 반드시 경제 집단이나 정치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는 항상 도덕을 보존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존재였다. 현대에 많은 사회주의자와 인본주의자가 반대로 가르침에도, 이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다.

99:5.2 (1091.1) 항상 염두에 뒀라:참된 종교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너희 형제임을 아는 것이다. 종교는, 형벌의 위협 또는 미래의 신비스런 보상이라는 마술적 약속에 대한 노예근성의 믿음이 아니다.

99:5.3 (1091.2) 일찍이 인류를 활성화시킨 것 중에서, 예수의 종교가 가장 역동적인 영향력이다. 예수는 전통을 무너뜨렸고, 교의를 파기했으며, 현세와 내세에서 가장 높은 이상을 성취하라고--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고--인류를 불렀다.

99:5.4 (1091.3) 종교 집단이 모든 다른 집단에서--곧 하늘 나라의 영적 구성원의 사회 연합체에서-- 분리될 때까지, 종교는 활동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99:5.5 (1091.4)

인간의 전적{全的} 타락이라는 교리가, 향상시키는 본성과 영감 주는 가치를 갖는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종교의 잠재력 대부분을 파괴시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려고 애썼다.

99:5.6 (1091.5)

신자를 영적으로 만들기에 효과 있는 어떤 종교 신념이든지, 그런 종교인의 사회생활에서 강력한 반응을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다. 종교 체험은, 영의 인도를 받는 필사자의 일상생활에서 “영의 열매”를 틀림없이 맺는다.

99:5.7 (1091.6)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서로 나누는 만큼, 공통 목표를 결국 창출하는 어떤 종류의 종교 집단을 확실히 만들어 낸다. 종교인은, 심리학의 견해와 신학적 신념의 토대 위에서 협동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통일된 이상{理想}과 목적에 기초를 두고 실제로 협동할 것이다. 신조{信條}가 아니라 목표가 종교인을 통합시켜야만 한다. 참된 종교가 개인의 영적 체험의 문제이므로, 각 종교인은 그 영적 체험의 실현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신앙”이라는 말이, 어떤 인간 집단이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태도로 동의할 수 있는 공식화된 신경{信經}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허용하라. “너에게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너 자신에게만 적용하라.”

99:5.8 (1091.7) 신앙이 오직 이상적 가치의 파악과 관계있음은, 신약 성경의 정의에 잘 묘사돼 있는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언한다.

99:5.9 (1091.8) 원시인은 자신의 종교 신념을 말로 표현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원시인의 종교는 생각보다 춤으로 표출됐다. 현대인은 여러 신조를 생각해냈고, 종교적 신앙에 대한 많은 기준을 만들어냈다. 미래의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를 생활에서 실천하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전심으로 봉사하는 데 자신을 바쳐야 한다. 이제는 사람의 종교 체험이 너무 개인적이고 고상해서, 오직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있는 느낌”으로만 그 체험을 깨닫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무르익었다.

99:5.10 (1091.9) 예수께서는 추종자에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공통적 믿음을 나타내는 말의 형식을 암송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규정한 것은, 그들이 서로 모여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라* --곧 유란시아에 증여된 예수의 생애를 기념하는 공동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99:5.11 (1091.10) 그리스도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이상{理想}이라고 제시하면서, 지나간 시대들 동안 특정한 국가적 또는 인종적 계몽을 위해서 기여해 왔던 하나님을_아는 사람들이 역사에 남을만한 지도자였음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을_의식하는 남녀에게 감히 요구했을 때, 그리스도교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6. 제도화된 종교

99:6.1 (1092.1) 여러 분파로 갈라지는 것은 제도적 종교의 병폐이며, 독단적 태도는 영적 본성을 노예로 만든다. 종교가 없는 교회보다는, 교회가 없는 종교를 갖는 것이 훨씬 낫다. 20세기의 종교적 혼란은, 그 자체로, 영적 퇴폐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혼란은 파괴에 앞설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전에도 나타난다.

99:6.2 (1092.2) 종교의 사회화{社會化}에는 참된 목적이 있다. 집단 종교 활동의 목적은, 종교의 충성심을 극적으로

표현하기;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매력을 확대하기;높은 가치의 매력을 조성하기;이타적 교제의 봉사를 증진시키기;가정생활의 잠재력을 찬미하기;종교 교육을 증진시키기;현명한 상담과 영적 안내를 제공하기;모여서 경배하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친분 관계를 촉진시키고, 도덕성을 유지하며, 이웃의 복지{福祉}를 증진시키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각 종교의 메시지에 담긴 근본적 복음의 전파를 촉진시킨다.

99:6.3 (1092.3)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됨에 따라서, 그 종교가 선{善}을 행할 능력은 줄어들고, 악{惡}을 행할 가능성은 크게 늘어난다. 형식화 된 종교의 위험성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믿음이 경직되고 정서가 결정화{結晶化}됨;세속화의 증가에 따라 기득권이 누적됨;진리를 표준화시키고 화석화시키려는 경향;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 교회 예배로 바꾸려는 종교적 전환;성직자보다 경영자가 되려는 지도자들의 성향;파벌을 조성하고 경쟁적 분파를 만들려는 경향;압제적인 교회 권세를 세움;귀족적인 “선택받은_민족”의 태도를 창시함;신성시됨에 대한 잘못되고 과장된 개념을 조장함;종교를 관례화 시키고 경배를 돌처럼 굳어지게

만듦;현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과거를 공경하려는 경향;종교를 현대에 맞게 해석하지 못함;세속 제도의 기능과 뒤얽힘;종교 신분계층이라는 악한 차별 제도를 만듦;관행에 따른 편협한 판결을 내리게 됨;모험적인 젊은이의 흥미를 끄는 데 실패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구원하는 메시지를 점차 잃어버림.

99:6.4 (1092.4)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는,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로서 고상한 봉사를 하도록 사람을 풀어주는커녕,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적 활동을 제한한다.

7. 종교의 공헌

99:7.1 (1092.5)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종교 집단은 모든 세속 활동에서 멀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종교는 인간 제도의 사회적 조정을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어떤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의미심장한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만 하며;사람은 반드시 자기 철학을 개혁하고 종교를 정화{淨化}하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야만 한다.

99:7.2 (1092.6) 정치학은 사회과학에서 배운 기법으로, 그리고 종교 생활이제공하는 통찰력과 동기를 가지고, 경제조건과 산업을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 모든 사회

재건에서 종교는, 초월적 객체, 즉 당면한 현세의 목표를 넘어서고 그 위에 있는 어떤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안정시키는 충성심을 제공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오는 혼란의 한 가운데서, 필사적 사람은 광범위한 시공우주 관점으로부터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99:7.3 (1093.1) 종교는, 지구 표면에서 용기 있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인내와 열정을, 열의에 통찰력을, 동정심과 능력을, 그리고 이상{理想}과 에너지를 연결시킨다.

99:7.4 (1093.2)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명상하고 신성한 의미와 영적 가치를 가진 여러 현실을 헤아리지 않으면, 사람은 현세의 문제를 현명하게 결정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99:7.5 (1093.3)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사회가 형제처럼 지내는 것은 결국 형제관계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꿈꾸는 자이지만, 과학은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며, 그래서 종교는, 광신적 반응으로 거꾸러지는 위험성을 훨씬 줄이면서, 사람을 즉시 활동하게 만들 수 있다. 경제적 필요는 사람을 현실에 묶이게 만들며, 몸소

겪는 종교체험은, 바로 그 사람이 항상 발전하고 진보하는
시공우주 시민신분이라는 영원한 현실과 얼굴을
마주하도록 이끌어 준다.

99:7.6 (1093.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0편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

100:0.1 (1094.1) 역동적인 종교 생활 체험은, 평범한 개인을,
이상주의적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변화시킨다. 종교는 각
개인의 진보를 촉진시킴으로써 전체의 진보에 공헌하며,
각 개인의 진보는 전체의 성취를 통해서 증대된다.

100:0.2 (1094.2) 다른 종교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자극한다. 사랑은, 종교적 성장에--곧 주관적
욕구 충족이 아니라 객관적 매력에-- 토양을 제공하며,
더욱이 최상의 주관적 만족감을 낳는다. 그리고 종교는
일상생활의 진부한 고역{苦役}을 고상하게 만든다.

1. 종교적 성장

100:1.1 (1094.3) 종교는 의미의 성장과 가치기준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평가{評價}가 절대불변
수준으로 높여질 때, 반드시 악{惡}이 생겨난다. 어린이는

즐거움의 크기에 따라서 체험을 평가하며;성숙도는 개인의 즐거움 대신, 더 높은 의미를 찾는 정도, 즉 다양해진 생활환경과 시공우주 관계에서 최고 개념에 충성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100:1.2 (1094.4)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성장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착{固着}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의미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서로 다른 시대에, 계속되는 문화에서, 그리고 증진하는 문명의 진행 단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편견과 무지가 성장의 주요 방해요소다.

100:1.3 (1094.5) 성장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자신의 종교 체험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진부한 어른의 체험을 그에게 강요하지 말라. 확립된 교육 체제를 통해서 매년 진보되는 것이 반드시 지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영적 성장은 더욱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성품의 발달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진행되는 정도로 참되게 표시된다. 참다운 교육의 성장은, 이상{理想}의 향상,

가치에 대한 증대된 감상, 가치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최상의 가치에 대한 증가된 충성심으로 표시된다.

100:1.4 (1094.6) 어린이는 오직 어른 지인{知人}들의 충실함으로만 영구적으로 감명 받으며;교훈이나 본보기조차 오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충실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며;성장은 감명을 주고 영감을 일으키는 실체다. 지금 충실하게 살면--즉 성장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순간마다 올챙이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100:1.5 (1094.7) 종교적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토양{土壤}은, 자아를_실현하는 진취적 생활, 타고난 성향의 조화, 호기심 발동 및 타당한 모험심 향유, 만족감 체험, 주목하고 경계하도록 자극하는 두려움의 작용, 경이감의_매력, 그리고 겸손, 즉 자신이 보잘 것 없음을 정상으로 의식하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또한 성장은, 자아_비판을--곧 양심을-- 동반하는 개성의 발견에 입각하는데, 이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_습성, 즉 개인의 이상{理想}에 따라서 스스로를 비평하는 것이, 정말로 양심이기 때문이다.

100:1.6 (1095.1) 종교 체험은 육체의 건강, 유전된 기질, 및 사회 환경에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현세의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몰두하는 혼이 이룩하는 내면의 영적 진보를 막지 못한다.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 속에는, 그들이 특별히 억압하지만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성장과 자아_실현을 향한 어떤 타고난 본능적 욕구가 있다. 영적 성장 잠재력을 갖는 이 구조적 재능을 육성하는 확실한 기법은, 최상의 가치에 대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100:1.7 (1095.2) 종교는, 증여되거나, 받거나, 빌리거나, 배우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최종 가치를 더욱 탐구하는 데 비례해서 성장하는 개인적 체험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성장은, 의미가 누적되고 가치기준이 계속_확장하면서 높아진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나 숭고함 자체는, 항상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100:1.8 (1095.3)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교적 습관은 질서 있는 영적 성장에 기여한다. 누구든지, 영적 자극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일종의 영적 조건반사를 일으키도록, 종교적 성향을 개발할 수 있다. 종교적 성장을 도와주는 습관에는,

신성한 가치에 대한 세련된 감수성,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삶 인식, 시공우주의 의미에 대한 깊은 명상, 경건한 문제 해결, 자신의 영적 삶을 다른 동료들과 나눔, 이기심을 회피함, 신성한 자비를 이용하지 않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기 등이 있다. 종교적 성장의 요소는 의도적일지 모르지만, 성장 자체는 반드시 무의식적{無意識的}이다.

100:1.9 (1095.4) 그렇지만, 종교적 성장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은, 그 성장이 인간 지능의 잠재의식 영역으로 가정되는 곳에서 작용하는 활동임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사 정신의 초의식 수준에서 이뤄지는 창조적 활동임을 뜻한다. 의식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성장하는 현실을 깨닫는 체험은, 초월의식 기능이 실존한다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다.

2. 영적 성장

100:2.1 (1095.5) 영적 발전은, 첫째로, 참된 영적 권세와 생생한 영적 관계를 유지함에, 둘째는, 영적 열매를 계속 맺음에: 즉 자신이 영적 은인{恩人}으로부터 받은 것을 동료들에게 베푸는 데 달려있다. 영적 진보는, 완전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자아_의식,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려는 욕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영적으로 부족함을 지적으로 깨달음에 달려있다.

100:2.2 (1095.6) 영적 성장은, 처음에 필요를 각성하고, 다음에는 의미를 식별하고, 그리고 나서 가치기준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증거는, 사랑으로 인해 자극받고, 이타적 섬김으로 활성화되며, 신성{神性}에 속하는 완전한 이상{理想}을 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에 지배되는, 인간다운 인격체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체험 전체가 종교의 실체이며, 단순한 신학적 믿음과 대조된다.

100:2.3 (1095.7) 종교는, 우주에 대해 영적으로 반응하는, 개화되고 현명한 기법이 되는 체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 영화롭게 된 그런 종교는, 인간다운 인격체의 3가지 수준, 즉:지적 수준, 모론시아 수준, 및 영적 수준에서;정신에 대해, 진화하는 혼 속에서, 그리고 내주{內住}하는 영과 함께, 작용할 수 있다.

100:2.4 (1096.1) 영성{靈性}은 곧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친근한지, 그리고 그의 동료 존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재는 척도가 된다. 영성은,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발견 하고, 의미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아보며, 가치기준에서 선함을 발견하는 역량을 증진시킨다. 영적 발달은, 발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며, 사랑의 이기적 특성을 제거하는 만큼 즉시 이뤄진다.

100:2.5 (1096.2) 실제 영적 상태는, 신격에 도달한 정도, 즉 조율사와 동조{同調}된 정도와 같다. 궁극의 영성 성취는, 실체가 최고점에 도달함, 즉 하나님처럼 되는 최고점과 일치한다. 영생{永生}이란, 무한한 가치기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100:2.6 (1096.3) 인간이 자아를_실현하는 목표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노력할만한 가치를 갖는 유일한 실체는 신성하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필사적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인간적 애정을 만족시킬 권리가 있으며;인간 관계와 현세의 제도에 충성함으로써 유익을 얻지만, 이런 것들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극복하고, 신성한 완전성과 완결성취자로 봉사하는, 영원한 운명을 성취할

불멸{不滅}의 인격체를 그 위에 건축하기 위한 영원한 기초가 아니다.

100:2.7 (1096.4)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심오한 확신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들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현세의 안전은 무너지기 쉽지만, 영적 확실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역경, 이기심, 잔인함, 증오, 원한, 및 시기심의 큰 물결이 필사자의 혼을 휩쓸 때, 너희는 하나의 내적 요새, 즉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영의 성곽이 존재한다는 확신 속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으며;적어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에게 자신의 혼을 완전히 맡기는 모든 인간에게 확실히 적용된다.

100:2.8 (1096.5) 그런 영적 달성이 이뤄지고 나면, 점차적인 성장으로 확립되든지, 또는 특정한 위기로 인해 확립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가치 기준의 발달은 물론, 인격체의 새로운 적응이 일어난다. 영으로 태어난 그런 개인은 확실한 동기를 삶에 다시 부여받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가장 열망하는 희망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태연히 기다릴 수 있으며;그런 큰 재앙이 단지, 새롭고 더 웅대한 수준의 우주 달성이라는 더 고상하고 영속적인 실체를 높여주기에 앞서, 사람이 현세에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방향을 수정하는 격변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안다.

3. 최상의 가치에 관한 여러 개념

100:3.1 (1096.6) 종교는, 정적{靜的}이고 행복 넘치는 정신의 평안을 얻는 기법이 아니며;역동적 봉사를 위해서 혼을 체계화하는 추진력이다. 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는 충성된 봉사에 자아성 전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종교는, 최고 목표 달성, 즉 영원한 보상에 필수적인 어떤 값이든지 지불한다. 종교적 충성심에는 완벽한 헌신이 있는데, 이것은 최고로 숭고하다. 이런 충성심은 사회적으로 유효하고 영적 진취성이 있다.

100:3.2 (1096.7) 종교인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실체에 접근하고 신성한 가치를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으며;도덕적 가치기준은 소망의 실현이나 감정적 좌절감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100:3.3 (1096.8) 가치기준을 고려할 때, 너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를 갖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너희는 유쾌하게 활동하는 것과, 늘 점진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인간 체험 수준에서 유쾌한 활동을 의미 있게 통합하고 더 낮게 실현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해야만 한다.

100:3.4 (1097.1) 의미는, 체험이 가치에 덧붙이는 무엇이며;가치기준을 식별해서 의식하는 것이다. 혼자서만 누리는 순전히 이기적인 만족은, 의미를 실질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상대적 악{惡}에 가까운, 무의미한 향락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실체들이 의미 있고 심적으로 연결될 때, 정신이 그런 관계들을 인식하고 식별할 때, 가치기준은 체험에 의거한다.

100:3.5 (1097.2) 가치기준은 결코 정적{靜的}일 수 없으며;실체는, 변화, 즉 성장을 의미한다. 성장이 없는 변화, 즉 의미를 확장함과 가치를 높임이 없는 변화는 무가치하다--잠재적 악이다. 어떤 체험이든지, 시공우주에 적응이 잘 돼있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가치는 관념적 환상이 아니며;실재하지만, 반드시 관계라는 실상에 의존한다. 가치기준은 항상 실제적인 동시에

잠재적이다--과거의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무엇, 그리고 앞으로 있을 무엇이다.

100:3.6 (1097.3)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을 결합시키면, 성장, 즉 체험적 가치 실현이 된다. 그러나 성장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다. 진보는 항상 의미심장하지만, 성장이 없으면 비교적 무가치하다.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것은, 가치기준이 성장함, 의미가 향상됨, 그리고 이 두 체험이 시공우주에서 서로 관계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은, 하나님을_의식함과 동등하다. 그런 필사자는, 자연을 초월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인간을 초월하고 있으며;불멸의 혼{魂}이 진화하고 있다.

100:3.7 (1097.4) 사람은 성장을 일으킬 수 없지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는 있다. 육체의 성장이거나 지적 성장이거나 영적 성장이거나 상관없이, 성장은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랑은 이렇게 성장하며;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구매될 수 없으며;사랑은 자라야만 한다. 진화는 성장을 일으키는 시공우주 기법이다. 사회의 성장은 법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도덕의 성장은 경영을 개선해서 이룰 수 없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 수 있지만,

기계의 참된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문화와 개인의 평가로 도출해야 한다. 사람이 성장에 유일하게 기여하는 것은, 자기 인격체의 온 힘을--곧 살아있는 신앙을-- 동원하는 것이다.

4. 성장의 문제

100:4.1 (1097.5) 종교 생활은 헌신적인 삶이며, 헌신적인 삶은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창조적 생활이다. 새로운 종교 통찰력은 갈등에서 생겨나며, 갈등은 예전에 열등하게 반응하던 경향 대신, 새롭고 더 낮게 반응하는 습관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새로운 의미는 오직 갈등 한가운데서만 일어나며;갈등은, 우수한 의미에 내포된 더 높은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속된다.

100:4.2 (1097.6) 종교적 혼란은 피할 수 없으며;심령의 갈등과 영적 동요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철학적 생활 기준을 체계화 할 때, 정신의 철학 영역에 상당한 소란이 생긴다. 투쟁 없이는, 위대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고결한 것들을 위한 충성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영적 시력이 밝아지고 시공우주 통찰력이 증진되는 데는 수고가 수반된다. 그리고 인간 지능은, 이 세상에 실존하는 비영적{非靈的}

에너지를 먹고 살다가 젖 떼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저항한다. 나태한 동물적 정신은, 시공우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 하는 데 필요한 수고를 몹시 싫어한다.

100:4.3 (1097.7) 그러나 종교 생활에서 중대한 문제는, **사랑**이 지배함으로 인격체의 혼의 능력들을 통합하는 과제에 있다. 건강, 심적{心的} 능률, 및 행복은, 육체 체계, 정신 체계, 그리고 영 체계가 통합될 때 발생한다. 사람이 건강과 건전함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만, 행복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깨닫는 바가 거의 없다. 가장 고상한 행복은, 영적 진보와 떼어 수 없을 만큼 연결돼 있다. 영적 성장은, 오래 가는 기쁨, 즉 너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온다.

100:4.4 (1098.1) 육체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감각이 물체의 실존을 밝혀주며;정신은 의미를 가진 실체를 발견하지만;영적 체험은 생애의 참된 가치관을 각 개인에게 드러낸다. 인간의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함으로 달성된다. 너희가 동료들 사랑한다면, 그들의 가치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예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한 것은, 사람에게 그런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동역자들의 동기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누가 너를 짜증나게 한다면, 분노의 느낌을 일으킨다면, 너는 그의 관점, 즉 그런 불쾌한 행위의 이유를 분별하기 위해 동정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단 네 이웃을 이해하면, 너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 아량이 자라서 우정이 되고, 무르익으면 사랑이 될 것이다.

100:4.5 (1098.2) 동굴에서 살던 시대의 원시적인 너희 조상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곧 키가 작고, 흥하며, 불결하고, 고함치는 인간 괴물이 다리를 벌리고, 막대기를 들고, 정면을 사납게 보며 증오심과 악의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라. 그런 모습은 사람의 신성한 존엄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 그림을 확대시켜보자. 힘찬 이 인간 앞에, 날카로운_송곳니를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그 사람의 뒤에는 한 여자와 두 아이가 있다. 너희는, 그런 모습이 인간 종족에서 훌륭하고 고귀한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곧 알겠지만, 그 사람은 두 그림 속에서 같은 주인공이다. 너희는 오직 두 번째 그림에서만 넓어진 시야의 덕을 보고 있다. 너희는 그 속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동기를 헤아린다. 너희가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칭찬 받을 만한 것이 된다. 너희가 동료의 동기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질까. 동료를 알 수만 있다면, 너희는 결국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00:4,6 (1098,3) 너는 단순히 의지로 행동함으로써는 네 동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네 이웃의 동기와 감상을 속속들이 이해함으로써만 생겨난다. 네가 매일 한 사람씩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네가, 매일 또는 매 주, 동료 가운데 한 사람씩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네 역량의 한계라면, 너는 분명히 사회화 돼갈 것이고, 네 인격체를 진정으로 영성화 시켜갈 것이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으며, 인간의 헌신이 지성적이고 현명할 때에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 매력 있다. 그러나 참되고 이타적인 사랑만이 정말로 전염된다. 각 사람이 역동적 애정의 중심점이 될 수만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 친절한 바이러스는 곧 인류의 감상적 감정_흐름에 널리 침투해서, 모든 문명 세계가 사랑으로 휩싸이고, 사람의 형제관계가 실현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5. 회심과 신비주의

100:5.1 (1098.4) 세상은 길 잃은 혼들로 가득한데, 그들은 신학적 감각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지시 의미에서 길을 잃었고, 좌절감을 느끼는 철학 시대의 이론과 종파들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한다. 종교 권세에 복종하는 대신, 어떻게 삶의 철학을 세우는지를 배운 사람이 너무 적다. (강바닥은 강물이 아니지만, 성장의 경로인 사회화된 종교 상징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00:5.2 (1098.5) 종교적 성장의 진보는, 침체로부터 갈등을 거쳐서 조화로, 불확실성으로부터 확신하는 신앙으로, 혼돈 된 시공우주 의식으로부터 인격체 통합으로, 현세의 목표로부터 영원한 목표로, 두려움에 속박된 상태에서부터 신성한 아들신분의 해방으로 이끈다.

100:5.3 (1099.1) 최고의 이상{理想}에 대한 충성심의 고백은--곧 하나님을_의식함을, 심령적, 감정적, 및 영적으로 깨달음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성장일지도 모르며,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에서 때때로 체험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 중대한 날, 바로 그런 갑작스럽고 장엄한 회심을 체험했다. 가우타마

싯다르타는, 홀로 앉아서 궁극적 진리의 신비를 꿰뚫어보고자 하던 그 밤에, 비슷한 체험을 했다. 많은 다른 사람도 유사한 체험을 했으며, 갑작스런 회심 없이 영적 진보를 이룩한 참된 신자도 많이 있었다.

100:5.4 (1099.2) 소위 종교적 회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극적 현상 대부분은 본질상 완전히 심리적인 것이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기원되는 체험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 달성을 향해서 심령적으로 상승해 도달하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절대로 온전히 정신을 기울일 때, 즉 신성한 개념에 인간이 충성하는 동기가 완벽할 때에는, 믿는 그 필사자의 초의식적 정신이 갖는, 집중되고 정화된 목적에 동조하기 위해, 내주하는 영이 갑자기 내려와서_잡아채는 현상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순전히 심리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요소들 속에서 회심을 성립시키는 것은, 바로 지적 현상과 영적 현상을 통합하는 그런 체험이다.

100:5.5 (1099.3) 그러나 감정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회심이며;느낌뿐 아니라 신앙도 가져야만 한다. 그런 심령 활성화가 불완전한 만큼, 그리고 그런 인간적_충성심의

동기부여가 미완성인 한, 회심 체험은 그 정도까지, 지적, 감정적, 및 영적 실체의 혼합이 될 것이다.

100:5.6 (1099.4) 다른 면에서는 통합된 지적 생활에 실제로 작용하는 전제{前提}로서, 이론적 잠재의식 정신을 인정하고 싶다면,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영역인, 더 높은 지적 활동이 있는 초의식 수준을 가정해야 하며, 이 초의식 수준은, 내주하는 영 실재인 사교 조율사와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지대다. 이런 모든 심령적 고찰에 있는 큰 위험성은, 색다른 꿈을 포함해서 환상과 소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불리는 그것들이, 인간 정신에게 주는 신성한 전언{傳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시절에, 신성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신비로운 황홀경이나 병적 환상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현상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다.

100:5.7 (1099.5) 회심을 추구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르게, 사교 조율사와 접촉이 가능한 모론시아 지대에 더 잘 접근하는 길은, 생생한 신앙과 진지한 경배, 즉 전심의 기도와 이타적 기도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인간 정신의 무의식

수준에서 급격히 솟아오르는 기억들 가운데 허다한 것이, 신성한 계시와 영의 인도라고 잘못 생각돼 왔다.

100:5.8 (1099.6) 종교적 백일몽{白日夢}의 습관적 실행과 관련된 큰 위험성이 있으며;신비주의는 때로 참된 영적 교류 수단이었지만, 현실을 도피하는 기법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의 바쁜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지 모르지만, 인격체가 긴 기간 고립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망상적 의식{意識}의 무아지경 상태가 종교 체험으로 장려돼서는 안 된다.

100:5.9 (1099.7) 신비스런 상태의 특질은, 비교적 수동적인 지능에 작용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선명한 격리지대들과 함께 의식이 산만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초의식인 영적 접촉 지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향해서 의식을 끌어내린다. 많은 신비주의자가 자신의 정신적 분리를 정신 징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까지 몰아갔다.

100:5.10 (1100.1) 영적 명상 가운데 좀 더 건전한 태도는, 사려 깊은 경배와 감사드리는 기도에서 발견돼야 한다. 육체를 입은

예수의 일생 후반에 일어났던 것처럼, 자신의 사고
조율사와 직접 교류하는 것을, 이른바 이 신비 체험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비스런 교류의 개시에 기여하는
요소들은, 그런 심령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비 상태는:육체의 피로, 금식, 심령적 분리, 깊은 심미적
체험, 강렬한 성욕, 두려움, 불안, 분노, 그리고 격렬한 춤
등으로 촉진된다. 그런 예비적 준비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들 대부분은 잠재의식 정신에서 기원된다.

100:5.11 (1100.2) 신비 현상이 일어날 조건이 아무리
호의적이더라도, 나사렛 예수께서는 낙원 아버지와
교류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잠재의식의 망상
또는 초의식의 환상을 겪지 않았다.

6. 종교 생활의 징후

100:6.1 (1100.3)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는 방법이 뚜렷이 다를지
모르지만, 동기는 매우 비슷하다. 종교는 생명의 특정한
기능은 아니며;오히려 삶의 방식이다. 참된 종교는
종교인이 자신에게,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최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뚜렷한 특질은:최상의 가치기준에 의심 없이 충성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최상의 가치에 대한 이런 종교적 헌신은, 신앙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비종교인들이 지지하는 운동에 열심히 충성을 바치는 데서 나타난다.

100:6.2 (1100.4) 종교인이 용납하는 최고의 가치는, 저속하거나 심지어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종교적이다. 종교는, 최상의 것으로 유지되는 가치가 정말로 참된 영적 가치를 갖는 시공우주 실체인, 바로 그 한도 내에서 참되다.

100:6.3 (1100.5) 인간이 종교적 충동에 반응하는 징후는 고귀하고 웅장한 특성을 띤다. 진지한 종교인은, 우주 시민임을 의식하고, 초인적 능력의 근원과 접촉함을 자각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뛰어나고 고상한 교제에 소속된다는 확신으로 감격하고 활력을 얻는다. 가장 높은 우주 목표를-- 곧 최상의 목표를-- 탐색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자아의_가치를 더욱 의식{意識}하게 된다.

100:6.4 (1100.6) 자아는, 전부_포함하는 동기로 인한 흥미로운 충동에 굴복했으며, 그 동기는 강화된 자아_훈련을

강요하고, 감정의 갈등을 줄여주고, 필사자의 생애를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준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병적 인식은, 가장 높은 우주 및 초우주 목표를 달성하려는 도덕적 결정 및 영적 열망과 관련해서, 필사자의 결점을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초인적 이상{理想}을 달성하려는 열정적인 이 노력의 특징은 반드시, 인내, 관용, 깨끗함, 및 아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100:6.5 (1100.7) 그러나 참된 종교는, 살아있는 사랑, 즉 봉사하는 인생이다. 종교인이 순전히 현세적이고 진부한 많은 것들로부터 초연함은 결코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지 않으며, 그 초연함이 유머 감각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 실존으로부터 아무 것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인생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며; 새로운 유형의 열정, 열심, 및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십자군의 기풍까지도 불러일으킬지 모르며, 이것은 영적 통찰력으로, 그리고 인간이 충성하는 평범한 사회적 책무에 성실히 헌신함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극도로 위험하다.

100:6.6 (1101.1) 종교 생활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동적이고 숭고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모든 인간을 이해시키는, 즉 모든 의심과 혼란이 없음을 나타내는 시공우주의 균형이다. 그런 수준의 영적 안정성이 실망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그런 종교인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능력도, 현재에 있는 것도, 장차 도래할 것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다.

100:6.7 (1101.2) 승리하는 영광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보호받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은 지존자의 실체를 파악한, 그리고 궁극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인의 의식에 내재한다.

100:6.8 (1101.3) 심지어 진화 종교도 충성심과 숭고함에서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그 종교가 참된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참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훌륭하다*. 영적 선견지명이 증대됨으로 생기는 새로운 충성심은, 새로운 수준의 사랑과 헌신, 즉 봉사와 교제를 창출하며;증진시킨 이 모든 사회적 전망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을 더욱 크게 의식하게 한다.

100:6.9 (1101.4) 진화된 종교와 계시된 종교 사이의 독특한 차이점은 새로운 특성의 신성한 지혜인데, 이 지혜는 순전히 체험으로 얻은 인간의 지혜에 덧붙여진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들 안에서 그리고 그 종교들과 함께 얻은 체험은, 더 한층 증여하는 신성한 지혜와 시공우주 통찰력을 차후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7. 종교 생활의 절정

100:7.1 (1101.5) 유란시아의 보통 필사자는, 나사렛 예수께서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에 획득한, 그 완벽한 성품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겠지만, 필사 신자는 누구나, 예수의 인격체가 완전하게 된 계통을 따라서, 강력하고 통합된 인격체를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주님의 인격자의 독특한 특색은, 그 인격자의 완전성보다는 대칭성, 즉 그 인격자의 절묘하고 균형 잡힌 통합이었다. 예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의 어떤 사람의 예인데, 그는 예수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해서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고 말했다.

100:7.2 (1101.6) 예수의 끊임없는 친절이 사람의 가슴을 감동시켰지만, 신념이 굳은 그의 강력한 성품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정말로 진실했으며;그의 안에는 위선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허식{虛飾}이 없었으며;항상 매우 참신한 진실됨이 있었다. 그는 겉치레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었으며, 결코 체면 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진리를 실천했다. 그가 바로 진리였다. 구원하는 진리를 그의 세대에게 성실하게 선포하는 것이 때로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진리에 충실했다.

100:7.3 (1101.7) 그러나 주님은 무척 이성적이었고, 무척 사귀기 쉬운 분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매우 실용적이었으며, 한편 그의 모든 계획의 특징은 정화{淨化}된 그런 상식이였다. 그는, 기형적인, 변덕스런, 또는 괴벽스런 모든 경향과는 전혀 상관없었다. 그는 변덕스럽거나 별나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의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비범한 예의바름과 관련된 절묘한 분별이 있었다.

100:7.4 (1102.1)

사람의 아들은 항상 매우 침착한 인격체였다. 심지어 그를 대적하는 적들도 그에게 진지한 존경심을 보였으며; 그가 나타나는 것을 무서워하기조차 했다. 예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성한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결코 광신을 보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결코 경솔하지 않았다. 상상력이 풍부했지만 언제나 실용적이었다. 인생의 실체를 솔직하게 대면했지만, 결코 침체되거나 단조롭지 않았다.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으며; 신중하면서도 비열하지 않았다. 연민의 정이 깊었지만 감상적이지 않았으며; 독특했지만 괴벽스럽지 않았다. 경건하면서도 거룩한 척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매우 침착했는데, 아주 완전하게 통합됐기 때문이다.

100:7.5 (1102.2)

예수의 독창성은 억압되지 않았다. 그는 전통에 묶이거나 제한된 상투성에 젖음으로 방해받지 않았다. 확실한 자신감으로 말씀했고, 완전한 권세로 가르쳤다. 그러나 훌륭한 독창성이 있었어도, 그의 선조와 그 시대 사람들의 교훈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배를 경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교훈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두려움과 제물 대신 사랑과 자비를 강조한 것이었다.

100:7.6 (1102.3) 예수께서는 매우 폭넓은 견해를 가졌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추종자들에게 간곡히 타일렀다. 그에게는 편협함이 없었다. 그의 동정적 심성은, 온 인류, 심지어 한 우주까지 포용했다. 그는 항상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다.

100:7.7 (1102.4) 예수의 경우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장 숭고하게 신뢰했다. 어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아버지를 신뢰했다. 그의 신앙은 완전했지만 오만한 적이 결코 없었다. 예수께서는, 잔인한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복지에 관계가 없을지라도,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실망 당할 염려가 없었고 박해에 영향 받지 않았다. 그는 외견상 실패에 흔들리지 않았다.

100:7.8 (1102.5) 그는 사람들을 형제로 사랑했고, 동시에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헤아렸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셨다.”

100:7.9 (1102.6) 예수께서는 유별나게 쾌활한 사람이었지만,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었다. 그가 늘 훈계한 말씀은,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확신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감동적으로 인정이 많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신념에 항상 진실했고,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헌신하는 동안, 당당하게 견고했다.

100:7.10 (1102.7) 주님은 항상 관대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기를 항상 즐겨워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또한, 끝없이 모든 관용을 베풀면서도, 결코 낭비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100:7.11 (1102.8) 그는 솔직했지만 항상 친절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숨김없었지만, 항상 친근했다.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놀랍게 솔직한 내내, 그는 어김없이 *공평했다*.

100:7.12 (1102.9) 예수께서는 가끔 인간적 슬픔의 잔을 진하게 마시기도 했지만, 변함없이 쾌활했다. 그는 실존하는 실체에 담대히 대면했고, 더욱이 천국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열정을 통제했으며; 열정이 그를 통제한 적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무제한 헌신했다. 이런 신성한 열정 때문에, 영적이지 못한 형제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던 온 우주는, 그를 온전한 사람의 본보기로, 그리고 영적 삶의 고상한 표준에 헌신한 고귀한 인간 원형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그의 통제된 열정은 전염성 있었으며; 동역자들은 그의 신성한 낙관주의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다.

100:7.13 (1103.1) 갈릴리의 이 사람은 슬픔에 잠긴 한 남자가 아니었으며; 기쁨이 넘치는 혼이었다. 그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 항상 말씀했다. 그러나 의무가 요구할 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골짜기”를 기꺼이 용감하게 걸어갔다. 그는 유쾌했지만 동시에 겸손했다.

100:7.14 (1103.2)

그의 용기는 그의 인내심에 못지않았다. 시기상조로 행동하도록 압력 받을 경우에, 그는 오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으며; 그의 침착성은 탁월했다. 그러나 종종 악에 분개했고, 죄를 참지 못했다. 땅에 있는 자녀들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항하도록, 강하게 감동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의 의분{義憤}은 결코 그 죄인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다.

100:7.15 (1103.3)

그의 용기는 대단했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았다. 그의 표어는 “두려워 말라”였다. 그의 용감성은 고상했고 그의 용기는 종종 영웅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분별력과 연결됐고, 이성으로 통제됐다. 그것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용기였고, 무모하게 맹목적인 부주의함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용감했지만, 결코 주제넘지 않았다.

100:7.16 (1103.4)

주님은 공경의 한 본보기였다. 젊었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로 시작했다. 그는 동료의 그릇된 경배조차 존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 전통을 공격하거나 인간의 잘못된 믿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그는 참된 거룩함을 존중했지만, 동료에게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온당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

100:7.17 (1103.5) 예수께서 위대하신 것은 선행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그는 어린아이와 친하게 사귀었다. 그는 개인 생활에서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그럼에도 한 우주의 온전하게 된 사람이었다. 동역자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100:7.18 (1103.6) 예수께서는 완전히 통합된 인격체였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체험을 계속 통합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을 조화시키고 있다. 그는 삶을 통합시키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며, 체험을 단순화시킨다. 그는 인간 정신에 들어가서 그 정신을 증진시키고 변형시키고 변모시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소유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되다.

100:7.19 (1103.7)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1편 종교의 진짜 본성

101:0.1 (1104.1) 인간이 체험하는 종교는, 진화하는 미개인이 원시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당당하게 의식하는 그런 문명화된 필사자가, 숭고하고 비길 데 없는 신앙으로 해방을 얻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101:0.2 (1104.2) 종교는 점진적 사회 진화에서 생기는 선진{先進} 윤리와 도덕의 선구자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종교의 외형적이고 사회적인 형태화가 인간 사회의 윤리적 및 도덕적 추진력에 크게 영향 받음에도, 단순한 도덕 운동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의 진화하는 본성에 반드시 영감을 주지만, 그 진화의 비결은 아니다.

101:0.3 (1104.3) 종교는, 인격체의 확신과_신념인데, 믿지 않는 물질 정신에 잉태된, 절망이라는 피상적으로 모순된 논리를 항상 타파할 수 있다. 순수하고 참된 내적{內的} 음성,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된 빛”이 정말로 있다. 그리고 영의 이런 인도는 인간 양심의 윤리적 자극과는 다르다. 종교적 확신의 느낌은 감정적 느낌 이상{以上}이다. 종교가 주는 확신은, 정신의

이성{理性}을 초월하고, 심지어 철학의 논리조차 초월한다. 종교는, 신앙, 신뢰, 및 확신 *이다*.

1. 참 종교

101:1.1 (1104.4) 참 종교는, 자연스런 증명으로 이치가 도출되거나 입증될 수 있는 철학 신념 체계가 아니며, 몽상적 신비주의 신봉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황홀경이라는 막연한 느낌 같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도 아니다. 종교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지만, 내부 관점에서는, 대체로 이성적이다. 종교는 인간 철학의 논리에서 도출되지 않지만, 필사자의 체험으로서는 대체로 논리적이다. 종교는, 진화적으로 유래된 도덕적 존재의 의식{意識} 속에서 신성{神性}을 체험하는 것이며;시간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들을 맛보는 참된 체험, 즉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영적 만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101:1.2 (1104.5) 사고 조율사는, 자신을_표현할 통로가 될 특별한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종교적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할 수 있는 신비스런 종교 기능도 없다. 필사 정신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장치를 통해서 이 체험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율사가 변함없이

내주하고 있는 물질 정신과 직접 통신{通信}하려고 시도할 때 왜 어려움을 겪는지, 한 가지 설명이 있다.

101:1.3 (1104.6) 신성한 영은,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높고 최고로 영성화된 사고 영역에서, 필사적 사람과 접촉한다.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느낌이 아니라, 너희의 *사고*다. 정신의 눈만으로 이 신성한 본성을 감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식별하는, 즉 내주하는 조율사의 음성을 듣는 정신은, 순결한 정신이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主}를 볼 수 없다.” 그런 모든 내적이고 영적인 친교를 영적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그런 종교 체험은, 하나님의 진화하는 아들들의 관념, 이상, 통찰력, 및 영적 분투 한가운데와 그 위에, 조율사와 진리의 영이 활동하는 동안, 이 둘의 합동 작용이 사람의 정신에 주는 감명{感銘}으로부터 생긴다.

101:1.4 (1105.1) 그래서 종교는, 시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나 통찰력으로 존속하고 번창한다. 그것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독특한 체험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인류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에서 새롭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가장 높은 종교 체험은,

믿음, 전통, 및 권세에 속하는, 예전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종교는, 숭고한 느낌과 순전히 신비스런 감정의 소산물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는,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영의 영향과 영적으로 친교하는 심원{深遠}하고 실제적인 체험이며, 그런 체험이 심리학 용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종교는 다만 하나님을 믿는 현실을 맛보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현실로서 얻는 체험에 불과하다.

101:1.5 (1105.2) 종교는 물질적 우주론을 합리적으로 고찰한 결과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종교는 사람의 정신_체험 속에 기원되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통찰력의 창조물이다. 종교는 신비적 명상으로 잉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리돼서 묵상함으로 잉태되지도 않지만, 늘 다소 신비스러우며, 순전히 지적인 이성과 철학적 논리 형식으로 반드시 정의내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참된 종교의 싹은, 사람의 도덕 의식{意識}의 영역에서 기원되며, 사람의 영적 통찰력, 즉 하나님을_갈망하는 필사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_드러내는 사고 조율사가 현존한 결과로 발생하는, 인간 인격체의 그 기능이 성장함에 따라서 드러난다.

101:1.6 (1105.3) 신앙은 도덕적 통찰력과 가치기준의 양심적인
판별력을 결합하며, 선재{先在}하던 진화적 의무 감각이
참된 종교 계통을 완성시킨다. 종교 체험은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 의식, 그리고 믿는 인격체가 생존한다는
의심할 여지없는 확신을 초래한다.

101:1.7 (1105.4) 그리하여, 종교적 열망과 영적 충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쇼어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본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본성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으로 몹시 감동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시가 밝혀준 결과로 말미암은 진화적 의무 및 책임
감각이 사람의 도덕적 본성에 아주 깊은 인상을 줌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로 그 정신의 위치와 바로 그 혼의 태도에
마침내 도달한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혼속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심원한* 존재에게--곧 신성한 조율사에게--
충실치 않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그런 계몽되고 훈련받은
개인들의 철학을 뛰어넘는 더 높은 지혜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준다.

2. 종교의 실상

101:2.1 (1105.5) 종교의 실상은, 이성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종교 체험 속에 전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종교가 과학적인 것이라고, 또는 심지어 심리적인 것이라고, 언제든지 간주할 수 있다. 계시가 계시임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체험하는 바로 이 사실:즉 외견상 서로 갈라지는 자연 과학, 그리고 종교에 관한 신학, 이 두 가지를 일관되고 논리적인 하나의 우주 철학이 되도록, 즉 일치되고 완전한 해석이 되도록 과학과 종교를 계시가 합성함에 따라서, 정신을 조화시키고 영을 만족시키는데, 무한자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물질 속에서, 정신들과 함께, 그리고 영에게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몹시 알고 싶어 하는 필사 정신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인간 체험 속에서 대답한다.

101:2.2 (1106.1) 이성¹은 과학의 방법이고; 신앙은 종교의 방법이며; 논리는 철학이 시도하는 기법이다. 정신이 중재해서 물질과 영의 실체 및 관계를 납득함에 통일을 이루는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계시는 모론시아 관점의 부재{不在}를 보정한다. 그리고 참된 계시는 결코, 과학을

사악한 것으로, 종교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또는 철학을 비논리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101:2.3 (1106.2) 이성은 과학의 연구를 통해 자연을 거꾸로 추적해서 최초 원인에 이를 수 있지만, 과학의 최초 원인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는 종교적 신앙이 요구되며;그런 신앙, 그런 영적 통찰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계시가 추가로 요구된다.

101:2.4 (1106.3) 인간의 생존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기본 이유가 있다:

101:2.5 (1106.4) 1. 인간의 체험, 개인의 확신,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가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마음 속에 새긴, 희망과 신뢰감.

101:2.6 (1106.5) 2. 진리의 영이 몸소 직접 사역함으로 인한, 신성한 아들들이 이 세상에 증여됨으로 말미암은, 또는 기록된 말씀의 계시를 통한, 진리의 계시.

101:2.7 (1106.6) 과학은 최초 원인을 가정함으로써 그 논리와_탐색을 끝낸다. 종교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기 전에는 신앙으로 날아오르기를 멈추지 않는다. 과학의

식별력 있는 연구는, 절대자의 실체와 실존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종교는, 인격체 생존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실존과 실체를 숨김없이 믿는다. 형이상학이 완전히 실행치 못한 것, 그리고 심지어 철학마저 부분적으로 하지 못한 것을 계시가 해 주는데;다시 말해서,과학에서 이 최초 원인과 종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은 *아주 동일한 신*격임을 확인한다.

101:2.8 (1106.7) 이성¹⁰¹은 과학을 증명하고, 신앙은 종교를 증명하며, 논리는 철학을 증명하지만, 계시는 오직 인간의 *체/험*으로만 확인된다. 과학은 지식을 낳고;종교는 행복을 가져오고;철학은 통일을 이룩하며;우주 실체에 이르는 접근법, 삼자일체에 이르는 이 접근법이 체험으로 조화되는 것을 계시가 확인한다.

101:2.9 (1106.8) 자연을 숙고하는 것은, 자연의 하나님, 즉 운행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자연은 오직, 물질, 운행, 및 생기를--곧 생명을-- 드러낸다. 물질과 에너지의 결합은, 어떤 조건 아래서 살아있는 형태를 겉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나 자연의 생명이 현상으로는 그렇게 비교적 연속적이지만, 개체에게는 아주

일시적이다. 자연은, 인간_인격체의 생존을 논리적으로 믿을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혼 속에서, 처음부터 바로 이 인격적 하나님을 이미 발견했다.

101:2.10 (1106.9) 신앙이 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낸다. 계시는, 진화 세계에서 모론시아 통찰력의 대용품이며, 신앙이 사람의 혼 속에 나타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이 자연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계시는, 물질계와 영계 사이,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큰 간격에 다리를 놓는 데 성공한다.

101:2.11 (1107.1) 자연을 숙고하는 것이, 지성적 안내와 심지어 생생한 통제 방향을 논리적으로 지시하지만, 어떤 만족스런 방법으로도,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자연은,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주를 간주하지 못하도록 막을만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연구는 우주에 대한 더 높고 더 영적인 해석과 전적으로 양립한다.

101:2.12 (1107.2) 계시는, 획기적인 현상으로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며;개인적인 인간 체험으로서는 연속으로 일어난다. 필사자 인격체 속에서, 아버지의 조율사 선물로서, 아들의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우주적 영의 거룩한 영으로서 신성{神性}이 작용하며, 한편 이런 세 가지 초인적 재능은 인간의 체험적 진화 속에서 지존자의 사역으로서 통합된다.

101:2.13 (1107.3) 참 종교는, 실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고, 도덕 의식의 신앙_자녀이며, 독단적 교리로 이뤄진 어떤 기관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 자신이 우리 영에게 증거 하는” 체험으로 이뤄진다. 종교는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혼의 숭고한 신뢰에 있다.

101:2.14 (1107.4) 너의 가장 깊은 본성이--곧 신성한 조율사가-- 네 속에 의{義}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즉 신성한 완전성을 향한 어떤 갈망을 창출한다. 종교는, 신에게 도달하려는 이런 내적 충동을 인식하는 신앙의 행위이며;구원받는 길, 즉 인격체가 생존하고, 참되고 선하다고 네가 간주하게 된

모든 가치가 생존하는 기법이라고 네가 의식하게 되는,
그런 혼의 신뢰, 그런 확신이 이처럼 생긴다.

101:2.15 (1107.5) 종교에 대한 깨달음은, 위대한 배움이나 현명한
논리에 따라서 이뤄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은 영적 통찰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 가운데 일부,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때로 세상의 지혜를 왜 그토록 적게
소유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다. 종교적인 신앙은, 배운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똑같이 유효하다.

101:2.16 (1107.6) 종교는 언제든지 그 자체의 비평가와 재판관이
돼야만 하며; 외부에서는 이해하기는커녕, 전혀 관찰할
수도 없다.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너의 유일한 확신은,
영적인 것에 대한 너의 믿음 및 체험에 관한 너 자신의
통찰력에 있다. 비슷한 체험을 이미 했던 어떤
동료에게든지, 하나님의 인격체 또는 실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과 어떤 가능한 논쟁을
하더라도, 진정으로 설득할 수는 결코 없다.

101:2.17 (1107.7) 심리학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종교가 반응하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정말로 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의 작용과 실제적이고 내적인 동기에 이르기까지 파고들기를 바랄 수는 결코 없다. 오직 신앙의 영역이고 계시의 기법인 신학만이, 종교 체험의 본성과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지성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3. 종교의 특질

101:3.1 (1107.8) 종교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배움 없는 데서도 존속된다. 잘못된 우주론과 그릇된 철학으로 오염됐음에도, 종교는 여전히 살아있으며;심지어 형이상학의 혼란을 겪고도 살아남는다. 종교의 역사적 변천 내내, 그리고 그 변천을 통해서, 인간이 진보하고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것, 즉:윤리적 양심과 도덕의식{意識}이 늘 존속한다.

101:3.2 (1108.1) 신앙의_통찰, 즉 영적 직관{直觀}은, 사조 조율사와 관련된 시공우주 정신의 기증품인데, 이 조율사는 아버지가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이다. 영적 이성, 즉 혼{魂}의 지성은 거룩한 영의 기증품인데, 창조적 영이 사람에게 수여한 선물이다. 영적 철학, 즉 영 실체들을

깨닫는 지혜는 진리의 영의 기증품인데, 이 진리의 영은 증여 아들이 사람의 자손에게 합동으로 수여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런 영{靈} 재능들을 조정하고 서로 연합시키는 것이, 사람을 잠재적 운명을 가진 영 인격체로 만든다.

101:3.3 (1108.2) 원시적이고 미발달된 형태로 있는 바로 이 영 인격체를 조울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육체가 자연사를 겪은 뒤에 생존한다. 생명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물질계와 영계의 그런 일시적 동반자 관계가 분리될 때, 영에서 기원된 이 혼합 실재는 인간의 체험과 결합하여, 신성한 아들이 마련한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로 이뤄진 물질 자아의 분해 이후에 (조울사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101:3.4 (1108.3) 사람의 혼은,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솟아나는 혼의 본성이 지닌 잠재적 신성을 나타내는데, 독자적 방식으로 지적이고 시험하는 어떤 견디기 어려운 사회 상황에 반응하도록, 그 신앙이 필사 인격체를 유인한다. 진정한 영적 신앙(참된 도덕 의식)은 다음과 같이 드러나는데, 그 신앙은:

101:3.5 (1108.4) 1. 타고난 불리한 동물적 성향이 있음에도, 윤리와 도덕이 진보하도록 만든다.

101:3.6 (1108.5) 2. 쓰라린 실망과 압도적 패배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탁월한 신뢰를 창출한다.

101:3.7 (1108.6) 3. 자연의 역경과 물리적 재난에도, 강한 용기와 확신을 발생시킨다.

101:3.8 (1108.7) 4. 어쩔 수 없는 질병과 심지어 격렬한 육체적 고난에도, 불가해한 평정과 지속적인 평온을 나타낸다.

101:3.9 (1108.8) 5. 부당한 대우와 가장 지독한 불법 앞에서도, 인격체의 신비로운 평정과 침착성을 유지시킨다.

101:3.10 (1108.9) 6. 암담하게 닥치는 숙명이 잔인한 듯 보이고, 걸보기에 자연 세력이 인간의 복지에 전혀 냉담한 듯해도, 궁극에 승리하는 신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킨다.

101:3.11 (1108.10) 7. 모든 논리의 불리한 논증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속시키고, 다른 모든 지적 궤변을 성공적으로 견뎌낸다.

101:3.12 (1108.11) 8. 그릇된 과학의 현혹시키는 교훈과 불합리한 철학의 능란한 기만에 상관없이, 혼이 생존할 것이라는 담대한 신앙을 계속 나타낸다.

101:3.13 (1108.12) 9. 현대의 복잡하고 편파적인 문명이 주는 압도적인 부담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승리한다.

101:3.14 (1108.13) 10. 인간의 이기심, 사회적 적대감, 산업의 탐욕, 및 정치적 부적응에도, 이타주의{利他主義}가 계속 존속하도록 기여한다.

101:3.15 (1108.14) 11. 악과 죄가 당혹스럽게 현존함에 상관없이, 우주의 통일과 신성한 안내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확고히 신봉하게 한다.

101:3.16 (1108.15) 12.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줄곧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치실 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한다.

101:3.17 (1108.16)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신성한 영 또는 그의 속에 거주하는 영들을 갖고 있음을 세 가지 현상으로 알며:첫째, 개인의 체험으로--곧 종교적 신앙으로;둘째, --개인적 및 인종적-- 계시로;셋째, 진짜 인간 실존의 실제 괴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앞에 상술한 12가지의 영{靈}다운 행적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물질 환경에 대한 그런 색다르고 부자연스런 반응을 놀랍게 표명하는 것으로 이를 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있다.

101:3.18 (1109.1)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의 바로 그런 생생하고 활발한 행적이, 인간 본성 중에서 최고의 재능, 즉 종교 체험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그 체험이 영적 실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사적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4. 계시의 한계

101:4.1 (1109.2) 너희 세계가, 기원{起源}에 대해서, 심지어 물리적 기원에 대해서도 대개 무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주론에 지침을 주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에 항상 말썽을 일으켜 왔다. 계시의 법칙은, 노력 없이 얻은 지식, 즉 미성숙한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으로 우리를 크게 방해했다. 계시된 종교의 일부분으로서 제시된 우주론은, 모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써먹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그런 계시를 공부하는 훗날의 연구자들은, 계시에 제시된 관련된

우주론이 외견상 잘못됐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계시가 담고 있을지 모르는 참된 종교적 진리의 어떤 요소든지 다 폐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101:4.2 (1109.3) 진리의 계시에 참여하는 우리가, 감독관들이 내리는 지시사항으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을 인류는 이해해야만 한다. 1,000년 동안에 이뤄질 과학의 발견을 앞지르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계시자들은, 계시 명령의 일부를 형성하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며,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이다. 이 일련의 계시 발표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종교의 진리는, 다가오는 시대의 기록에서 계속 유효하겠지만, 자연 과학에 관련된 우리의 진술 가운데 다수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발견과 부가적 과학 발달에 따라 교정돼야 할 필요성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발전의 결과를 지금도 예견하지만, 인간적으로 발견되지 못한 그런 사실을 본 계시 기록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금지돼 있다. 계시가 반드시 영감{靈感}받을 필요는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본 계시의 우주론은 *영감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우주론은, 현재의 지식을 조정하고 분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제한된다. 신성하거나 영적인 통찰력은
선물인 반면, *인간의 지혜는 진화해야만 한다.*

101:4.3 (1109.4) 진리는 언제나 하나의 계시인데:내주하는
조율사의 활동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자기계시이며;획기적 시대의 계시는, 어떤 다른
천상{天上}의 매개체, 집단, 또는 인격체의 역할로 제시될
때다.

101:4.4 (1109.5) 결국, 종교는 그 열매로, 즉 종교 자체에 본래부터
있는 신성한 탁월성을 나타내는 방법과 정도에 따라서
판단되어야만 한다.

101:4.5 (1109.6) 계시가 변함없이 영적 현상일지라도, 진리는 다만
상대적으로 영감{靈感} 받을 지도 모른다. 우주론과
관련된 설명은 결코 영감 받지 않았지만, 그런 계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일시나마 지식을 뚜렷이
설명하므로, 굉장한 가치가 있다:

101:4.6 (1109.7) 1. 권위 있게 오류를 없앴으로써 혼돈을 줄임.

101:4.7 (1109.8) 2. 이미 알려졌거나 곧_알려지게_돼_있는 사실과 관찰결과를 조정함.

101:4.8 (1110.1) 3. 먼 과거에 있었던 획기적 진행사항들과 관련된, 잃어버린 지식의 중요한 조각들을 복구함.

101:4.9 (1110.2) 4. 다른 방법으로 획득된 지식에서 분실된, 지극히 중대한 공백을 채우게 될 정보를 제공함.

101:4.10 (1110.3) 5. 수반하는 계시 속에 담긴 영적 교훈을 밝히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우주 자료를 제시함.

5. 계시로 확대된 종교

101:5.1 (1110.4) 계시는, 영이 획득한 진리 가운데서 진화적 오류를 분류하고 가려내는 필수 작업에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절약하는 기법이다.

101:5.2 (1110.5) 과학은 사실을 취급하며;종교는 오직 가치/기준에만 관심을 쏟는다. 정신은, 계몽된 철학을 통해서 사실과 가치기준, 이 두 의미를 통합시키려고 애쓰며,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실체/개념에 도달한다. 과학은 지식의 영역이고, 철학은 지혜의 영역이며, 종교는 신앙

체험의 분야임을 기억해라. 그러나, 그럼에도 종교는 다음과 같은 두 국면에서 형태화 된다:

101:5.3 (1110.6) 1. 진화 종교. 원시적 경배 체험, 즉 정신에서 파생된 종교.

101:5.4 (1110.7) 2. 계시된 종교. 영에서 파생된, 우주에 대한 태도;영원한 실체들이 보존되고, 인격체가 생존하고, 궁극에 시공우주 신격에 도달하며, 그 신격의 목적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 조만간에 진화 종교가 영적으로 확장된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예정된 것은, 우주 계획의 일부분이다.

101:5.5 (1110.8) 과학과 종교 둘 다, 논리적 추론을 위해 일반적으로 용인된 어떤 기초를 가정{假定}하면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철학 역시, 다음 세 가지 실체를 가정하고 그 경력을 시작해야 한다:

101:5.6 (1110.9) 1. 물질적인 몸.

101:5.7 (1110.10) 2. 인간의 초물질 국면, 혼 또는 심지어 내주하는 영까지 포함한다.

101:5.8 (1110.11) 3. 인간의 정신, 즉 영과 물질 사이에,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상관하는 장치.

101:5.9 (1110.12) 과학자는 사실을 모아서 정리하고, 철학자는 관념들을 조화시키며, 한편 선지자는 이상{理想}을 높인다. 느낌과 감정은, 종교의 변함없는 부수물이지만,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체험에 대한 느낌일지 모르지만, 느끼는 체험이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본질적으로는 논리(합리화)뿐 아니라 감정(느낌)도 종교 체험의 일부분이 아니지만, 개인 정신 상태와 기질의 성향에 따라서, 그 둘은 실체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을 촉진하는 신앙 연습과 다양하게 관련될지도 모른다.

101:5.10 (1110.13) 진화 종교는, 진화하는 사람 안에서 경배하는 버릇을 만들고 육성하는 일을 맡은, 지방우주 정신 보조체가 부여한 재능이 성취한 것이다. 그런 원시 종교는, 인간의 의무 감각인 윤리와 도덕에 직접 관련된다. 그런 종교는 양심의 보증에 입각하며, 비교적 윤리가 있는 문명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01:5.11 (1111.1) 개인적으로 계시된 종교는, 낙원 삼위일체의 세 인격체를 대표하는 증여 영들의 후원을 받으며, 특히

진리의 확장에 관여한다. 진화 종교는 개인에게 개인의 의무 관념을 알아듣게 만들며; 계시된 종교는 사랑하기를, 즉 황금률을 더욱 강조한다.

101:5.12 (1111.2) 진화된 종교는 전적으로 신앙에 의존한다. 계시는, 신성 및 실체에 관해 확장된 진리가 제시된다는 추가된 보장을 받고, 실제 체험이라는 훨씬 가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 체험은, 진화로 얻은 신앙과, 계시에 속하는 진리, 이 두 가지가 실용적인 실무 합동의 결과로 누적된다. 인간의 신앙과 신성한 진리의 그런 실무 합동이, 모론시아 인격체를 실제로 획득하러 가는 길에서 바람직한 성품을 점유하게 한다.

101:5.13 (1111.3) 진화 종교는 신앙을 확신시키고 양심을 확증시켜줄 뿐이며; 계시 종교는 신앙의 확신뿐 아니라 계시된 실체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진리를 제공한다. 종교에서 셋째 단계, 즉 종교 체험에서 셋째 국면은, 모론시아 상태와 상관이 있으며, 이것은 모타를 더 확고히 붙잡는 것이다. 모론시아 진보에서는, 계시된 종교의 진리가 점점 더 확장되며; 너희는, 최상의 가치기준, 신성한

선함, 보편적 관계, 영원한 실체, 및 궁극의 운명에 대한 진리를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101:5.14 (1111.4) 모론시아 진보 전반에 걸쳐서, 진리의 확신이 신앙의 확신을 점점 대체시킬 것이다. 너희가 마침내 실제 영 세계 속으로 부름 받게 되면, 순수한 영 통찰력이 주는 확신은, 신앙과 진리 대신 작용하든지, 또는 도리어 인격체가 확신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기법과 더불어,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서 작용할 것이다.

6. 점진적 종교 체험

101:6.1 (1111.5) 계시된 종교의 모론시아 국면은 생존 체험과 상관이 있으며, 그 국면의 큰 욕구는, 영이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더욱 윤리적으로 봉사하도록 재촉하는 부름과 관련해서, 더 강한 경배 욕구도 있다. 모론시아 통찰력은, 칠중존재, 지존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에 대한 늘_확장하는 의식{意識}을 수반한다.

101:6.2 (1111.6) 맨 처음에 물질 수준에서 시작할 때부터, 온전한 영 상태를 달성할 때까지, 모든 종교 체험 전반에 걸쳐서, 조율사는 지존자가 실존하는 실체임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비결이며;바로 이 조율사는 또한 초월적으로 궁극자에게

도달하는 너희 신앙의 비결도 쥐고 있다. 진화하는 사람의
체험 인격체는, 실존적인 하나님의 조율사 본질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실존을 완성할 잠재력이며, 이것은
선천적으로, 선험적{先驗的}인 인격체가
초월유한{超越有限} 결말에 이르기 위한 기초다.

101:6.3 (1111.7) 도덕적 의지는, 사리에 맞는 지식에 기초하고,
지혜로 인해 증대되고, 종교적 신앙이 인정한 결정을
포함한다. 그런 선택은 도덕적 본성의 행동이고 도덕적
인격체가 실존한다는 증거인데, 그 인격체는 모른시아
인격체의 선구자이고 결국에는 참된 영 신분의 선구자다.

101:6.4 (1111.8) 진화로 얻는 유형의 지식은, 원형질의 기억
물질이 축적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이것은 피조물의
의식{意識}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지혜는,
연합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원형질의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관념들을 포함하며, 그런 현상은 인간의 정신을
단순한 동물 정신과 구분시킨다. 동물도 지식이 있지만,
사람만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영, 즉 사도 조율사와 진리의 영을 그런 정신에게

수여함으로써, 지혜를_부여받은 개인이 진리를 이용할 수 있다.

101:6.5 (1112.1) 유란시아에 증여됐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세례 받을 때까지 진화 종교의 영향 아래서 살았다. 그는 그때부터 십자가형 사건이 끝나기까지, 진화 종교와 계시 종교의 혼합된 안내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갔다. 그가 부활한 그날 아침부터 승천이 있을 때까지는, 물질 세계로부터 영 세계까지, 필사 과도기에 해당하는 모론시아 생애의 여러 단계를 지나갔다. 미가엘은 승천한 후에, 지존성 체험, 즉 지존자에 대한 깨달음의 주인이 됐으며;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는 무제한의 수용력을 소유한 유일한 인격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지방우주에서,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해서, 최상의 주권을 가진 지위를 즉시 달성했다.

101:6.6 (1112.2) 사람이었지만, 궁극에 융합하고 그 결과로 생긴 내주하는 조율사와 하나됨이--곧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을 인격체가 합성함이, 잠재적으로는 그를 지존자의 살아있는 한 부분이 되게 했으며, 그런 한때 필사 존재로 하여금 지존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우주 사역의

궁극성을 끝없이 추구하는 영원한 장자상속권을 확립하게 했다.

101:6.7 (1112.3) 계시는 필사적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시간 진행이라는 수단으로 공간을 거치는 그런 장엄하고도 흥미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관념과_결정으로 체계화해야만 하며;그 다음에 사람은, 냉정한 여러 관념을, 심지어 관념으로서 너무나 이치에 맞고, 이상으로서 너무나 논리적인 그런 개념들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실용적이지만 그럼에도 숭고한 이상으로 변화시키는 고귀한 과제에 끊임없이 지혜를 이용하라고 명령해야만 하며, 그래서 조율사가 그 개념들을 감히 혼합하고 영화{靈化}시켜서, 아들들의 진리 영이 행동하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된, 실제 인간의 보충물이 되도록 이 개념들을 유한한 정신 속에서 그런 연합에 소용되게 만드는데, 이 진리 영은 시_공간에 현시되는 낙원 진리--곧 보편적 진리--의 표현이다. 관념_결정, 논리적 이상, 및 신성한 진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의로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것은 필사자가 모론시아 세계들의, 계속_확장하고 점점 더 영적인 실체에 친숙해지는 데 필수 조건이다.

101:6.8 (1112.4) **예수의 교훈은, 조화롭게 조정된 지식, 지혜, 신앙, 진리, 및 사랑을 아주 넘치게 담고 있어서, 현세의 평안, 지적 확신, 도덕적 계몽, 철학적 안정성, 윤리적 민감성, 하나님_의식, 및 개인의 생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완벽하게 동시에 제공하는, 첫 유란시아 종교를 설립했다. 예수의 신앙은, 인간 구원의 완결성, 즉 필사자가 우주에서 달성하는 궁극점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줬는데, 다음을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101:6.9 (1112.5) **1.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개인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물질의 족쇄로부터 구원됨.**

101:6.10 (1112.6) **2. 지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됨:사람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그를 자유하게 함.**

101:6.11 (1112.7) **3. 영적 무지로부터 구원됨, 즉 필사 존재들의 우애{友愛}를 인간이 깨닫고, 모든 우주 피조물이 형제관계인 것을 모론시아적으로 자각함;영적 실체를 봉사함으로_발견하고, 영 가치기준이 선함을 섬김으로_드러냄.**

101:6.12 (1113.1) 4. 우주의 여러 영 수준을 달성함으로, 그리고 하보나의 조화와 낙원의 완전성을 결국 깨달음으로, 자아의 미완성으로부터 구원됨.

101:6.13 (1113.2) 5. 자아로부터의 구원, 즉 지존자 정신의 시공우주 수준에 도달함으로, 그리고 자아_의식하는 모든 다른 존재의 달성과 조화함으로, 자아_의식의 한계로부터 해방됨.

101:6.14 (1113.3) 6. 시간으로부터의 구원, 즉 하나님을_인식하고 하나님을_섬기면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을 성취함.

101:6.15 (1113.4) 7. 유한으로부터의 구원, 즉 지존자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격과 완전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 피조물은 유한절대의 완결성취자_이후 수준에서 초월적으로 궁극자를 발견하려고 애씀.

101:6.16 (1113.5) 일곱 가지로 구성된 그런 구원은,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궁극적 체험의 실현을 완료하고 완성하는 것에 상당한다. 그리고 가능성 면에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종교 체험에서 신앙의 실체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의 신앙이, 심지어 근본원리를 초월하는 실체들로부터 자양분을 받았고, 그 실체들을 드러냈기 때문이며;예수의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주의 절대 상태에 접근했다.

101:6.17 (1113.6) 필사적 사람은, 예수의 신앙을 사유함으로써, 시간세계에서 영원성 실체들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예수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최종적 아버지를 발견했으며, 아버지를 발견하는 바로 이 체험을 따라서, 육체 속에서 필사 인생을 사는 형제들이 자신을 좇아올 수 있게 했다. 예수께서 당시에 했듯이, 그들도 자신의 현재 상태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 체험에서 똑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미가엘의 마지막 증여 결과로 새로운 여러 가능성이 네바돈 우주에서 실현됐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는, 만유의 아버지께 인도하는, 영원성의 길을 새롭게 비추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공간의 여러 행성에서 사는 첫 생애에서, 심지어 물질적인 삶과 피로 구성된 필사자도 거쳐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는 신성한 유산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고, 지금도 그런데, 그 유산은 요청만 하면 사람의 것이 되리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셨다. 인류가, 즉 신을 모시는 인류가 겪는 신앙 체험의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

7.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

101:7.1 (1113.7) 관념은 행동을 위한 이론적 계획일 뿐인 반면, 명확한 결정은 인가{認可}된 행동 계획이다. 고정관념은 인가를 거치지 않고 받아들인 행동 계획이다.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재료는, 각자의 내적{內的} 체험 및 환경 체험 양쪽에서 얻는다. 사람이 처한 시대와 장소에서, 사회적 신분, 경제적 조건, 교육 기회, 도덕적 경향, 제도의 영향, 정치적 발전, 종족의 경향, 및 종교적 교훈은 모두, 종교에 관한 개인의 철학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타고난 기질과 지적 소질까지도, 종교의 철학 원형{原型}을 뚜렷이 결정짓는다. 직업, 결혼, 및 혈족 관계는 모두, 사람의 개인 생활 기준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101:7.2 (1113.8) 종교에 관한 철학은, 관념과 실험적 생활이 모두 동역자들을 흥내 내리는 경향에 따라서 변경되는 바와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본적 성장으로부터 진화한다. 철학적 결론의 건전성은, 목적에 대한 민감성 및 평가의 정확성,

그리고 관련된 예리하고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사고{思考}에 달려 있다.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철학적 사고를 결코 성취할 수 없으며; 새로운 수준의 체험을 시작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적 생활 분야의 탐구를 시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101:7.3 (1114.1) 새로운 체계의 가치기준이 곧 성립되며; 원칙과 표준의 새로운 공식화가 성취되며; 기질과 이상{理想}이 다시 모양을 갖추며; 인격있는 하나님 개념이 이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장되는 개념이 뒤따른다.

101:7.4 (1114.2) 종교의 생활 철학과 비종교의 생활 철학 사이의 큰 차이는, 인정된 가치기준의 본성과 수준에 그리고 충성심의 대상에 있다. 종교 철학의 진화에는 네 국면이 있다: 그런 체험은 전통과 권위에 굴복하기로 체념하면서 단지 순응하는 체험이 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철학은 단지 일상의 삶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에서 사소한 달성에 만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런 우발적 수준에서 일찍부터 성장이 멈춘다. 그런 필사자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셋째 집단은, 논리로 지적 수준까지 진보하지만, 문화에 노예 상태가 된 결과로 거기서 침체에

빠진다. 문화적 속박의 무자비한 손아귀에 그토록 견고히 붙들려 있는 대단한 지식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문화적 속박을, 과학이라고 속아서 거짓되게 부르는 유물론적 속박으로 대체시키는 자들을 보는 것도, 똑같이 애처로운 일이다. 철학의 넷째 수준은 모든 틀에 박히고 전통적인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해방을 달성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용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감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101:7.5 (1114.3) 어떤 종교 철학이든지 그 까다로운 시험은, 물질 세계의 실체와 영적 세계의 실체 사이를 구별 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지적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에 봉사할 때 그 실체들이 하나 된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건전한 종교 철학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혼동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순전히 이적{異蹟}을 바라는 심미적 종파를 종교 대용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101:7.6 (1114.4) 철학은, 대체로 양심을 일깨우는 옛 이야기였던 원시 종교를, 시공우주 실체의 높아지는 가치를 맛보는 생생한 체험으로 변형시킨다.

8. 신앙과 믿음

101:8.1 (1114.5)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양식을 실현할 때, 믿음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다. 어떤 가르침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그것은 믿음에 불과하다. 또한 확신이나 신념도 신앙이 아니다. 정신 상태는 생활 방식을 실제로 지배할 때에만 신앙의 수준에 도달한다. 신앙은 개인적인 참된 종교 체험의 생생한 속성이다. 사람은 진리를 믿고 아름다움을 동경하며 선함을 숭상하지만, 그것들을 경배하지는 않으며;그런 구원하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의인화된 분이고, 무한히 그 이상{以上}이시다.

101:8.2 (1114.6) 믿음은 항상 제한하고 구속하며;신앙은 확장하고 풀어준다. 믿음은 고정시키지만, 신앙은 해방시킨다. 그러나 살아있는 종교적 신앙은 고귀한 믿음들의 연합 이상{以上}이며;고양된 철학 체계보다 크며;영적 의미, 신성한 이상{理想}, 그리고 최상의 가치기준과 관련된 생생한 체험이며;하나님을_알고 사람을_섬긴다. 믿음은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개인적이다. 신학적 믿음을 한 집단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신앙은 오직 종교인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101:8.3 (1114.7) 신앙이 감히 현실을 부정하고 추종자에게 추측된 지식을 수여할 때, 신앙은 신뢰를 저버렸다. 신앙이 지적 성실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최상의 가치기준과 신성한 이상{理想}에 바치는 충성심을 헐뜯을 때, 그 신앙은 배신했다. 신앙은 필사자의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신앙은 편협함이나 박해 또는 옹졸함을 조장하지 않는다.

101:8.4 (1115.1) 신앙은 창조적 상상력을 속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로 얻은 발견에 대해 불합리한 편견을 보이지도 않는다. 신앙은 종교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용맹스럽게 황금률을 실천하라고 종교인에게 강요한다. 신앙의 열정은 지식에 의거하며, 신앙의 분투는 장엄한 평안으로 이끄는 전주곡이다.

9. 종교와 도덕성

101:9.1 (1115.2) 이전의 진화 종교가 창출하고 육성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의무의 요구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교에서 공언{公言}된 어떤 계시라도 믿을만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계시는 진화된 종교의 윤리적 시야를

반드시 확장시키며, 한편 전에 있었던 모든 계시의 도덕적
책무를, 일제히 그리고 반드시 확대시킨다.

101:9.2 (1115.3) 너희가 사람의 원시 종교에 대해서 (또는
원시인의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다고 가정할 때, 너희는 그런 미개인의 계몽된 정도와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종교
체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너 자신의 지식 및 진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101:9.3 (1115.4) 모론시아 실체는, 사람의 가장 높은 윤리 및 도덕
개념, 즉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우주의 가장 심오한 실체에
대한 그의 가장 고상한 해석을 구성하는데, 참 종교는, 이
모론시아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 그에게 옳지 못하리라고
그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혼 속에 있는 장엄하고 심원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런 종교는, 다만 영적 의식{意識}이
내리는 최고의 명령에 지적 충성을 바치는 체험이다.

101:9.4 (1115.5) 아름다움의 추구는, 오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고 도덕 개념을 풍성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일부분이다. 예술은, 높은 영적 동기로부터 도출된 목적으로 확산될 때에만 종교적이다.

101:9.5 (1115.6) 문명화된 사람의 계몽된 영적 의식은, 어떤 특정한 지적 믿음, 또는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생활 방식에 관여하기보다, 오히려 생활에 관한 진실, 즉 필사자 실존에서 항상_반복되는 상황에 반응하는, 선하고 올바른 기법의 발견에 관여한다. 도덕 의식은, 일상의 행위를 통제하고 안내하면서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의무가 요구하는, 윤리적이고 새로 나타나는 그 모론시아 가치기준을 인간이 인식하고 자각하는 데 적용되는 이름일 뿐이다.

101:9.6 (1115.7) 종교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종교의 본성과 기능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제 징후가 있다:

101:9.7 (1115.8) 1. 종교의 영적 충동과 철학적 압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에 대한 그의 판단을 직접 밖으로 향하게 해서, 그의 동료의 용무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향--곧 종교의 윤리적 반응--이 있다.

101:9.8 (1115.9) 2. 종교는 인간 정신이 신성한 실체를 영적으로 의식{意識}하게 만드는데, 그런 의식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 여러 기존 개념에 기초하며, 그것으로부터 신앙을 통해서 도출되고 영적 가치가 있는 첨가된 개념들과 조화된다. 그리하여 종교는 필사자의 직무를 검열하며, 이것은 실제로, 시간세계의 증진된 실체와 더 영속하는 영원성에 속하는 실체들을 믿는, 일종의 영화롭게 된 도덕적 신뢰와 확신이다.

101:9.9 (1116.1) 신앙은, 도덕적 의식, 그리고 영속하는 실체에 대한 영적 개념을 연결하는 수단이 된다. 종교는, 구원하는 기법, 즉 점진적인 모론시아 변화로,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현세의 자연 세계의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영적 세계의 숭고한 실체에 도달하는 통로가 된다.

10. 사람을 해방시키는 종교

101:10.1 (1116.2) 지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자연에서 발생한 존재, 즉 물질 우주의 한 부분임을 알며; 마찬가지로, 에너지인 우주에서, 엄밀한 수준의 움직임과 균형상태 속에서는 개별 인격체가 생존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또한 사람은

물리적 인과법칙의 고찰을 통하여 영적 실체를 식별할 수도 전혀 없다.

101:10.2 (1116.3) 인간은 또한, 자신이 관념적인 시공우주의 일부분임을 자각하지만, 개념이 필사자의 수명보다 길게 지속되더라도, 그 개념에 내재된 어떤 것도, 생각하는 그 인격체의 인격적 생존을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논리와 이성의 가능성을 다 소모해도, 인격체가 생존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논리학자나 판단하는 자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101:10.3 (1116.4) 물질 수준의 법칙은, 인과관계의 연속성, 즉 선행{先行}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규정하며;정신 수준은 관념 작용의 연속성의 영구 보존, 즉 선재{先在}하는 생각들로부터 개념의 잠재력의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주에서 이 두 수준 가운데 어떤 것도, 탐구하는 필사자에게, 신분의 불공평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주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불안, 즉 제한된 생명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소멸될 운명을 가진 일시적

인격체라는 건딜 수 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

101:10.4 (1116.5) 오직 영적 통찰력에 이르게 하는 모론시아의 길을 통해서, 사람은 우주에서 자신의 필사자 신분 속에 타고난 족쇄를 언젠가 깨뜨릴 수 있다. 에너지와 정신은 낙원과 신격에게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지만, 사람의 에너지 재능도 정신 재능도, 그런 낙원 신격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영적 의미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영적 의미에서, 낙원 아버지가 현재, 사람에게 자질을 부여하고 내주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인류는, 종교 체험이라는 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경우 외에는, 결코 신성{神性}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막힌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며, 죽음이 존재하는 물질 영역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 영역으로 안전하게 안내받을 합리적 희망을, 사람에게 제공한다.

101:10.5 (1116.6)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불변성과 철학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 즉 필사 존재를 신성한 존재와, 부분적 존재를 완전한 존재와, 사람을 하나님과 융합시킴으로써, 인간 생애를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화 된 것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현실성을 부여받는 것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다.

101:10.6 (1116.7) 신성{神性}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명도 논리적 증명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종교 체험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언제나 옳을 것이다:하나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 가치기준의 확실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필사자의 수준에서 종교적 체험이 실체임을 증명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가능한 접근법이다. 그런 신앙은 물질세계의 기계 같은 쇠고랑으로부터, 그리고 지적 세계의 불완전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왜곡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며;신앙만이, 개별 인격체가 계속해서 생존하는 것에 관해 필사자가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는, 유일하게 찾아낸 해결책이다. 사랑, 법칙, 통일, 및 점진적 신격 달성이 있는 보편적 창조에서, 신앙은 완성된 실체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행증{通行證}이다.

101:10.7 (1117.1) 종교는, 사람이 이상주의로 고립된 느낌 또는
영적으로 외로운 느낌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며;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써, 즉 새롭고 의미심장한 우주의 한
시민으로서 해방시킨다. 종교는, 혼 속에서 식별할 수
있는, 어슴프레하게 보이는 정의의 빛을 따를 때,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무한자의 계획과 영원자의 목적과 한 편이
된다는 확신을 준다. 해방된 그런 혼은, 이 새로운 우주, 즉
자신의 우주에서 즉시 평안한 느낌을 갖기 시작한다.

101:10.8 (1117.2) 네가 그런 신앙의 변환을 체험할 때, 너는 더 이상
엄밀한 시공우주에 맹종하는 노예가 아니며, 오히려
만유의 아버지의 해방되고 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그런
해방된 아들은, 일시적 실존의 종말이라는 냉혹한 운명에
대항해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으며; 더 이상 모든 자연
현상, 즉 자기에게 절망적으로 대항하는 불평등과 싸우지
않으며; 희망 없는 환상을 신뢰하거나, 공상적인 어떤
오류에 신앙을 고정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무력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다.

101:10.9 (1117.3) 이제는 오히려, 실존의 부분적인 그림자에 대해서 실체가 승리하는 싸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지원한다. 마침내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신분을 달성하려는 숭고한 투쟁에서, 거의 무제한적인 우주의 모든 거룩한 단체와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신앙으로 해방된 그런 자녀는, 영원성에 속하는 최상의 세력들 및 신성한 인격체들과 같은 편에서 시간세계의 싸움에 확실하게 지원했으며;그들이 가는 길에 이제는 천체들도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그들은 마침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은, 물질적으로 고립된 불확실성으로부터,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확실성으로 변환됐다. 심지어 시간 자체도, 공간의 움직이는 찬란한 모습 위에 낙원 실체들이 던진, 영원 세계의 그림자가 될 뿐이다.

101:10.10 (1117.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2편 종교적 신앙의 기초

102:0.1 (1118.1) 믿음 없는 물질주의자에게, 사람은 진화해서 우연히 생긴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생존할 것이라는

희망은, 필사자가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에 속은 것이며;그의 두려움, 사랑, 열망, 및 믿음은 생명 없는 어떤 물질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에서 생긴 반응에 불과하다. 어떤 에너지 발산이나 신뢰 표명으로도, 그를 무덤 저편으로 데려갈 수 없다. 최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헌신적 수고와 영감{靈感}을 불러일으키는 재능도, 죽음 후에 소멸될 운명에 처해있고, 죽음은 영원한 망각과 혼의 사멸{死滅}이라는 길고 고독한 밤이다. 필사자 실존이 현세의 태양 아래서 영위한 삶과 수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절망만이 인간의 유일한 보상이다. 매일의 삶이, 무자비한 멸망의 손아귀를 서서히 단단히 조이며, 냉담하고 혹독한 물질 우주는, 이 멸망이 인간의 소망 중에 아름답고 고귀하며 고상하고 유익한 모든 것에 최고의 모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102:0.2 (1118.2)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의 종말과 영원한 운명이 아니며;그런 장면은 영적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복잡한 학문의 혼돈과 왜곡으로 눈먼 채, 물질 철학의 기계론적 궤변에 직면해 용감하게 투쟁하는, 소수의 방랑하는 혼이 외친 절망의 함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든 어둠의 운명과 이런 모든 절망의 숙명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배우지 못한 자의 편에서, 신앙이 한 번 용감하게 손을 뻗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진다.

102:0.3 (1118.3) 인간의 가치가 필사자의 체험에서 물질계로부터 영계로, 인간다움으로부터 신성함으로, 시간세계에서 영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사람의 도덕 의식이 깨달을 때, 구원하는 이 신앙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잉태된다.

1. 신앙의 확신

102:1.1 (1118.4) 사람의 원시적이고 진화적인 의무 감각이, 계시되는 영원한 실체에 대한 더 높고 더 확실한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도 조울사의 업무가 설명한다. 최상의 달성에 이르는 신앙 경로를 납득하기 위한 수용력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완전함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만 한다. 누구든지 신성한 뜻을 선택한다면, 그는 진리의 길을 알게 된다. “인간적인 것은 이해해야 사랑을 받지만, 신성한 것은 사랑해야 이해한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옳다. 그러나 정직한 의심과 진지한 질문은 죄가 아니며; 그런 태도는 완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진보하는 여행에서, 단순히 지체시킬 뿐이다. 어린아이

같은 신뢰는 사람이 하늘로 상승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보장하지만, 진보는, 온전히_성장한 어른이 튼튼하고 자신감 있는 신앙을 활기차게 실행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102:1.2 (1119.1) 과학의 논리는 시간세계에서 관측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며;종교에서 신앙은 영원 세계의 영 계획표에 근거해서 주장한다. 지식과 이성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종교적 통찰력과 영적 변화를 통해서 신앙이 완성하도록 허용하라고, 참 지혜가 우리를 훈계한다.

102:1.3 (1119.2) 반역으로 격리됐기 때문에, 유란시아에 주어진 진리 계시는 모두,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우주론의 주장과 너무 종종 혼동돼 왔다. 진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물리적 세계에 관한 관련된 교훈은 매년 그리고 매일 바뀐다. 영원한 진리는, 물질세계와 관련된 진부한 관념과 함께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 너희가 과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며;종교를 깊이 가지/면가질수록,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102:1.4 (1119.3)

과학의 확실성은 전적으로 지능에서 생겨나며;종교의 확신은 온전한 인격체/의 바로 그 기초에서 솟아난다. 과학은, 정신의 이해력에 호소하며;종교는, 몸, 정신, 영, 및 심지어 인격체 전체의 충성과 헌신에 호소한다.

102:1.5 (1119.4)

하나님은 가장 실제적이고 절대적이시므로, 어떤 물질 증명 부호든지, 또는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징후든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무한한 실체의 신성한 현시에 우리가 몸소 참여하는 것에 기초한다.

102:1.6 (1119.5)

내주하는 사도 조울사는, 광범위한 호기심과 더불어 완전성을 추구하는 참된 갈망을 인간의 혼에 반드시 발생시키는데, 이 호기심은, 그 조울사의 신성한 근원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만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 인간의 갈급한 혼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깨달음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높고 완전한 도덕적 인격체 이상의 어떤 분이 되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갈급하고 제한된 개념 속에서, 그보다 못한 어떤 분도 되실 수 없다.

2. 종교와 실체

102:2.1 (1119.6) 주의 깊은 정신과 식별력 있는 혼은, 동료의 삶에서 종교를 발견할 때 그 종교를 알아본다. 종교는 어떤 정의{定義}를 내릴 필요가 없으며;우리는 모두 종교의 사회적, 지적, 도덕적, 및 영적 열매를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인간 종족의 자산{資産}이라는 사실에서 자라나며;문화의 소산이 아니다. 정말로, 사람이 종교를 인지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다우며, 따라서 무지에 속박되고, 미신에 노예가 되고, 궤변에 속으며, 잘못된 철학에 미혹되기 쉽다.

102:2.2 (1119.7) 진심에서 우러난 종교적 확신의 독특한 특색 가운데 하나는, 그 주장이 절대적이고 그 태도가 완고함에도, 그것이 표현하는 정신이 너무나 침착하고 조절돼서, 자기를_주장하거나 자기중심으로 칭찬한다는 인상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 체험에서 얻는 지혜는, 인간적으로 독창적인 동시에 조율사의 유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효력은, 개인의 사사로운 특권의 산물{產物}이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지혜의 영속적인 근원과 사람의 숭고한 동반자 관계가 맺는 결실이다. 그래서 참되고 순수한 종교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모든 계몽된 필사자에게 어쩔 수 없이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

102:2.3 (1119.8) 종교 체험을 확인하고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마치 이미 영원자의 현존 속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믿는 사람은, 마치 불멸성이 이미 자신의 소유라도 된 듯이 이 현세의 삶에 반응한다. 그런 필사자의 생활에는, 오직 세상의 지혜만 흡수해온 동료들의 생활로부터 그를 영원히 구분시키는, 정당한 독창력과 자발적 표현이 있다. 종교인은, 현세의 풍조에 내재하는 흥망으로 인해 서두르는 고달픔과 고통스런 압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나서 사는 듯이 보이며;생리학, 심리학, 및 사회학의 법칙이 설명하지 못하는, 안정된 인간성과 평온한 성품을 나타낸다.

102:2.4 (1120.1) 시간은 지식을 얻는 데 변함없는 요소이며;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요소, 즉 종교 체험의 모든 국면에서

분명히 발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에도, 종교는 그 재능을 즉시 쓸모 있게 만든다. 지식은 영원한 탐구이며;너희는 항상 배우고 있지만, 결코 절대 진리를 충분히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지식만 갖고는 절대 확실성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근사치의 가능성이 증가될 뿐이지만;영적 조명을 받는 종교적 혼은 *아는데, 지금* 안다. 그럼에도 이 심원하고 긍정적인 확신은, 그런 건전한_정신의 종교인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혜의 진보에서 생기는 기복{起伏}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덜 느끼도록 만들지 않는데, 느리게_움직이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 지혜의 물질적 목적에 구속받는다.

102:2.5 (1120.2) 심지어 과학이 발견한 것들조차, 그것들을 해명하고 상호 연결하기 전에는, 즉 정신의 사고{思考} 흐름 속에서 순회함으로써, 연관된 여러 사실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전에는, 인간이 체험하는 의식 속에서 정말로 *실제적이지* 않다. 필사적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조차, 정신 수준에서, 즉 정신이 심리적으로 기록한 견지에서 바라본다. 따라서, 사람이 우주에 대해 매우 통합된 해석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과학에서 이 에너지의 통일을 자신의 종교 체험에서 영{靈}의 통일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신은 통일돼 있으며;필사자의 의식은 정신 수준에서 존속하고 정신 재능의 눈을 통해 우주의 실체를 감지한다. 정신의 전망은, 실체의 근원인 제1 근원 및 중심의 실존적 통일을 초래하지 못하겠지만, 에너지와 정신과 영이 지존하신 분 안에서, 그리고 지존하신 분으로서, 체험으로 통합됨을 사람에게 묘사할 수 있고, 언젠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사물, 지적인 의미, 및 영적 가치기준을 그런 정신이 확고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정신은 실체의 다양성을 이렇게 통합하는 데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오직 세 가지 기능적 실체가 하나로 조화될 때에만 통일이 있고, 오직 통일된 가운데서만 시공우주 불변성과 일관성을 깨닫는 인격체가 만족한다.

102:2.6 (1120.3) 통일성은 인간의 체험에서 철학을 통해서 가장 잘 발견된다. 그리고 철학 사고의 본론은 반드시 물질적 사실에 항상 기초해야 하지만, 참된 철학 원동력{原動力}의 혼 및 에너지는 필사자의 영적 통찰력이다.

102:2.7 (1120.4) 진화된 사람은 힘든 일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다.

그의 생애 체험에서, 증대되는 종교 체험의 강제적 충동과 밀려오는 요구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것은, 영적 성장, 지적 확장, 사실에 입각한 확대, 그리고 사회 봉사에서 끊임없이 활동함을 의미한다. 고도로 활동적인 인격체와 상관없는 진짜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나태한 사람은, 진부한 종교 교리와 교의가 마련하는 가짜 피난처로 피신함으로써, 일종의 교묘한 자아_기만으로, 참된 종교 활동의 엄격함에서 벗어나려고 종종 애쓴다. 그러나 참 종교는 살아있다. 종교의 개념을 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영적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관념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지만, 일단 종교가 오직 하나의 *관념*으로 축소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며; 그저 일종의 인간 철학이 된 것이다.

102:2.8 (1121.1) 그 밖에, 불안정하고 거의 훈련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삶의 짜증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길로서 종교의 감상적 관념을 이용하려고 한다.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어떤 필사자들이, 진화적 삶의 끊임없는 압박에서 피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이 이해하는 종교는 가장 가까운 피난처, 즉 탈출에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종교의 사명은, 사람이 용감하게 그리고 심지어 영웅적으로 삶의 변천에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종교는 진화적인 사람의 최상의 재능인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듯이 인내하고” 계속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무튼 신비주의는, 종종 삶에서 도피한 어떤 것인데, 그 도피는 인간 사회 및 교류라는 열린 운동장에서 종교적 인생을 사는, 비교적 더 벅찬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환영받는다. 참 종교는 반드시 *행한다*. 사람이 실제로 종교를 가졌을 때, 또는 오히려 종교가 그 사람을 정말로 지배하도록 허용됐을 때, 행위는 종교의 결과가 될 것이다. 종교는, 단지 생각만 하거나 행함 없이 느끼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102:2.9 (1121.2) 종교가 때로는 어리석게 그리고 심지어 비종교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종교는 적어도 *행한다*. 빛나간 종교적 신념은 피로 얼룩진 박해를 가져오지만, 언제나, 종교는 무언가 행하며;역동적이다!

3. 지식, 지혜, 및 통찰력

102:3.1 (1121.3) 지능의 부족이나 교육의 결핍은 더 높은 종교적 달성을 불가피하게 방해하는데, 이것은 영적 본성이 힘을 빼앗긴 그런 환경이, 종교가 과학 지식의 세계와 철학적으로 접촉하는 주요 경로를 종교로부터 강탈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지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이 요소가 과도하게 발달하면, 마찬가지로 종종 심하게 방해가 되고 곤란해진다. 종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역설적 필요 아래서 계속 수고해야만 하는데: 즉 모든 사고의 영적 실용성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사고{思考}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2:3.2 (1121.4) 종교적 추론{推論}은 필연적이지만 항상 해로우며; 추론은 변함없이 그 대상을 왜곡한다. 추론은 종교를 물질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하여 논리적 사고의 명료성을 직접 방해하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종교가 현세의 기능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드는데, 종교는 바로 그 세상과 영구히 대조를 이뤄야만 한다. 따라서 항상 역설이 종교의 특징인데, 이 역설은 우주의 물질적 수준과 영적 수준사이에 체험적 연결이 없음으로 인해--곧 모론시아

모타, 즉 진리를 분별하고 통일을 감지하는, 철학을 뛰어넘는 민감성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된다.

102:3.3 (1121.5) 물질적 느낌, 즉 인간 감정이, 물질적 행위, 즉 이기적 행동으로 직접 이끈다. 종교적 통찰력, 즉 영적 동기가, 종교 활동, 즉 사회 봉사와 이타적 자비심이라는 사심 없는 행동으로 직접 이끈다.

102:3.4 (1121.6) 종교적 열망은, 신성한 실체를 탐구하는 갈급함이다. 종교적 체험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의식{意識}을 깨닫는 것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존재의 혼 속에서, 발견했다는 승리감으로 인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흥분상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덜 계몽된 동료에게 애정 어린 봉사로_접촉하도록 재촉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동료를 회복시키고 고귀하게 만들려고, 자기 혼 속에서 영원한 선{善}이 흘러넘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다. 진짜 종교는 사회에 더욱 봉사하도록 이끈다.

102:3.5 (1122.1) 과학, 즉 지식은 사실을 의식하도록 인도하고;종교, 즉 체험은 가치를 의식하도록

인도하며;철학, 즉 지혜는 조화를 의식하도록 인도하고;게시(모론시아 모타의 대용품)는 참된 실체를 의식하도록 인도하며;한편 사실, 가치, 및 참된 실체에 대한 의식을 조화시키는 것은, 인격체 실체, 즉 최대한의 존재를 자각하고, 이와 함께 바로 그 인격체가 생존할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102:3.6 (1122.2) 지식은 사람의 지위를 정하도록 이끄는데, 사회 계층과 계급제도를 창설한다. 종교는 사람을 섬기는 길로 이끌며, 그리하여 윤리와 이타주의를 생성한다. 지혜는 이 두 관념과 사람의 동료들의 교류가 더 깊어지고 더 나아지도록 이끈다. 게시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모험을 시작하게 한다.

102:3.7 (1122.3) 과학은 사람을 분류하고;종교는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며;지혜는 다양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지만;게시는 사람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동역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을 드러낸다.

102:3.8 (1122.4) 과학은 문화 협회를 창설하려고 헛되이 애쓰며;종교는 영의 협회를 만들어 낸다. 철학은 지혜의

협회를 위해서 애쓰며;계시는 영원한 협회, 즉 낙원
완결성취 단체를 묘사한다.

102:3.9 (1122.5) 지식은 인격체라는 사실에 자존심을 갖게
하며;지혜는 인격체의 의미를 의식하는 것이며;종교는
인격체의 가치를 인지{認知}하는 체험이며;계시는
인격체가 생존하는 것을 보장한다.

102:3.10 (1122.6) 과학은, 무한한 시공우주의 분할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종교는
전체의_관념, 즉 전체 시공우주를 파악하려고 한다.
철학은, 과학의 물질 단편들을 전체의 영적_통찰력 개념과
동일시하려고 애쓴다. 철학이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점에서 계시는 성공하는데, 시공우주 궤도가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함을 확인한다.
무한한 자존자의 이 시공우주는 그래서 끝이 없고
무한하며 전부_포함한다--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고,
조건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자존자가 또한
네바돈의 미가엘의 아버지시며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

102:3.11 (1122.7) 과학은 신격이 *사실임*을 표시하며;철학은 절대자 *관념*을 제시하며;종교는 하나님이 자애로운 *영적 인격체*라고 상상한다. 계시는, 신격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자라는 관념, 및 하나님의 영적 인격체, 이 세 가지의 *일관성*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이 개념이--즉 실존하는 보편적 사실, 영원한 정신 관념, 그리고 무한한 생명의 영이-- 우리 아버지라고 제시한다.

102:3.12 (1122.8) 지식 추구가 과학을 구성하며;지혜 탐구가 철학이며;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이며;진리를 갈망함이 계시 *이다*. 그러나 시공우주를 꿰뚫어보는, 사람의 영적 통찰력에 실체의 느낌을 덧붙여 주는 것은,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다.

102:3.13 (1122.9) 과학에서는, 관념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관념이 앞서며;종교에서는, 깨닫는 체험이 관념의 표현보다 앞선다. 계몽된 이성, 종교적 통찰력, 및 계시, 이 세 가지의 산물과--곧 *믿는 의지와*-- 믿고자하는_진화적_의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02:3.14 (1122.10) 진화에서는, 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개념을 창출하도록 종종 인도하며;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진화시키는 현상을 계시가 드러내며,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자신에게 드러내시는 현상을 목격했다. 진화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계시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다.

102:3.15 (1122.11) 과학은 오직 최초 원인들로 만족하고, 종교는 최상 인격체로 만족하고, 철학은 통일로 만족한다. 계시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이며, 그 모든 것이 선함을 확인한다. 영원한 실상은, 우주가 선하다는 것이고, 공간이 악하다는 한때의 착각이 아니다. 모든 인격체의 영적 체험에서는, 실재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실재하는 것임이 항상 참이다.

4. 체험이라는 사실

102:4.1 (1123.1) 사고 조율사가 너희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것은, 인간이든지 초인간이든지, 다른 어떤 정신을 안다는 의식{意識}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아니다. 종교와 사회 의식은 이런 공통점을 갖는데:남에게_신경쓰임을 의식하는 데 입각한다. 너희가 다른 존재들의 관념을 마치

너희 것인 양 받아들이게 하는 기법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정신을 너희 안에도 품으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법이다.

102:4.2 (1123.2) 인간의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자아와, 활동적이고 밖에 있는 어느 다른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체험의 양은, 개념의 깊이, 그리고 외부의 실체를 인식한 것 전체의 합으로 결정된다. 체험의 운동능력은, 기대하는 상상력의 힘에, 접촉했던 실체의 외부 특성을 감각으로 발견이라는 민감성을 더한 것이다. 체험하는 사실은, 자아_의식과 기타_실존들--곧 남을_객관적_실재로_여김, 남에게_신경쓰임, 남에게_활기를_줌--의 합{합}에서 발견된다.

102:4.3 (1123.3)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또는 우주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님을 아주 일찍부터 의식하게 된다. 자기본위 환경에서, 남에게_신경쓰임이라는 자연스런 자발적 자아_의식이 발달한다. 신앙은 이런 자연스런 체험을 종교로 바꾸는데, 이것은 남에게_신경쓰임의 실체로서--곧 근원, 본성, 및 운명으로서--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언제나 반드시 몸소

체험하는 실체다.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한 인간 인격체가 겪는 진짜 종교 체험의 생생한 부분이 될 수 없다.

102:4.4 (1123.4) 인간의 종교 체험에서 실책의 요소는, 만유의 아버지라는 영적 개념을 오염시키는 유물론의 내용에 정비례한다. 우주에서 영을 받기 이전{以前} 사람의 진보는, 하나님의 본성과 순수하고 참된 영 실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념을 떨쳐버리는 체험에 있다. 신격은 영{靈} 이상{以上}이지만, 영적 접근법만이, 상승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접근법이다.

102:4.5 (1123.5) 기도는 정말로 종교 체험의 한 부분이지만, 경배라는 더 근본적인 교통을 많이 소홀히 하기까지, 현대 종교는 기도를 잘못 강조해 왔다. 정신의 숙고하는 능력은 경배로 인해 깊어지고 넓어진다. 기도가 인생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 경배는 운명을 밝혀준다.

102:4.6 (1123.6) 계시된 종교는, 인간 실존을 통합시키는 요소다. 계시는, 역사를 통일시키고, 지질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 및 심리학 등을 조화시킨다. 영적 체험이, 사람의 시공우주인 진짜 혼이다.

5. 의도적 잠재력의 우월성

102:5.1 (1123.7) 믿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믿는 대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생명이 인격체의 지위까지 진화로 진보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격체 잠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한{時限}이 있는 우주에서는, 잠재력이 실제보다 반드시 훨씬 우세하다. 진화하는 시공우주에서 잠재력은 앞으로 이뤄질 무엇이며, 앞으로 이뤄질 무엇이 신격이 의도적으로 내린 명령이 전개되는 것이다.

102:5.2 (1124.1) 동물적인 원시 공포심이, 계속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전환되고, 우주에 대한 점점 더 심화되는 경외심으로 전환될 때, 바로 이 의도된 우월성은 정신의 관념작용이 진화하는 데서 나타난다. 원시인은 신앙보다는 종교적인 두려움이 더 많았으며, 영 잠재력이 현재의 정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 소심한 두려움이 영적 실체들을 믿는 생생한 신앙으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102:5.3 (1124.2) 너희는 진화 종교를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기원되는 개인_체험의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은 가치를 인식할지 모르지만, 오직

종교만이 그런 가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영성화{靈性化}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있어도, 종교는 감정으로 취급되는 도덕 이상의 어떤 것이다.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사랑과 의무의 관계, 아들신분과 노예 신세의 관계, 본질과 물체의 관계와 같다. 도덕은, 전능한 지배자, 즉 섬김 받으실 신격을 드러내며;종교는, 만유를_사랑하시는 아버지, 즉 경배와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의 영적 잠재력이, 진화에서 도덕성의 임무 실태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6. 종교적 신앙의 확실성

102:6.1 (1124.3) 종교적 두려움이 철학적으로 제거되고, 과학이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거짓된 신{神}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며;사람이 만든 신격들이 이렇게 무력화됨으로써 영적 시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사랑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불분명하게 만들었던, 그 무지와 미신을 결국 타파할 것이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는, 생생한 체험, 즉 역동적인 종교적 신앙인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생활의 일부를 격리시키고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생활을 붕괴시키고 종교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충성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이유다.

102:6.2 (1124.4) 원시인이 섬기던 신들은 원시인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 같으며;살아 계신 하나님은 신성한 빛이신데,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모든 공간에서 창조의 그림자를 만든다.

102:6.3 (1124.5) 철학으로 달성한 종교인은,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인격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하는데, 실체, 가치, 성취 수준, 고양{高揚}된 과정, 변이, 시_공간의 최종 단계, 이상화{理想化}, 에너지의 인격화, 인력{引力}을 가진 실재, 인간의 예측, 자아의 이상화, 자연이 밀어올림, 선을 향한 경향, 앞으로 나가게 하는 진화 충동, 또는 탁월한 가설보다 더한 무엇이다. 종교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다. 사랑은 종교의 근본이며 뛰어난 문명의 원천이다.

102:6.4 (1124.6) 신앙은, 있음직한 철학적 하나님을, 개인의 종교 체험에서 확실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꾼다. 무신론이

신학 이론에 도전할지 모르지만, 몸소 겪은 체험의 신빙성을 확신함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나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단언한다.

102:6.5 (1124.7) 하나님에 관한 확신은 현명한 이성 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은 오직 신앙으로만, 즉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삶에 관계되는 많은 일에는, 가능성이 고려돼야만 하지만, 시공우주 실체와 접촉할 때에는, 그런 의미와 가치기준을 생생한 신앙으로 접근할 때 확실성을 체험할 수 있다. 지적 논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확신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는 혼은 “내가 안다”고 감히 말한다. 그렇게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는 오직, “내가 알지 못함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대답할 뿐이다.

102:6.6 (1125.1) 이성은 항상 신앙을 의심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항상 이성과 논리 양쪽을 보충할 수 있다. 이성, 신앙이 도덕적 확실성으로, 그리고 심지어 영적 체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최초의 진리이자

최종적 사실이시며;따라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고, 한편 모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즉
설명하려면-- 반드시 온갖 우주의 사실을 탐구해야 한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실임을
모르는 것 사이의 엄청난 간격에는, 오직 생생한
신앙으로만 다리를 놓을 수 있다. 이성 자체만으로는
무한한 진리와 우주의 사실을 조화시킬 수 없다.

102:6.7 (1125.2) 믿음은 의심을 저지할 수 없고 두려움에 저항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신앙은 반드시 의심을 물리치는데,
신앙은 긍정적인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긍정이
부정보다, 진리는 오류보다, 체험은 이론보다, 영적
실체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격리된 사실보다, 항상
장점이 있다. 이 영적 확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영이 사회에서 맺는 열매에 있으며, 그런 신자{信者}, 즉
신앙인은 참된 이 영적 체험의 결과로 그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동료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102:6.8 (1125.3) 하나님은, 과학에서는 가능성이고, 심리학에서는 바람직함이며, 철학에서는 있음직함이고, 종교에서는 확실성, 즉 종교 체험이라는 실제상황이다. 있음직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철학은, 확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하는 그 종교적 신앙을 대단히 존중해야 한다고, 이성이 요구한다. 또한 과학은, 사람이 쉽게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체험을 깎아내려서는 안 되며, 사람의 지적 및 철학적 재능이,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열등한 지성에서 출현했다고, 마침내 모든 생각과 느낌이 전혀 없는 원시 생명체에서 기원됐다고 계속 가정하는 한, 그들은 더욱 뒷걸음질할 것이다.

102:6.9 (1125.4) 진화에 속하는 여러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가 종교 생활에서 얻는 확실한 영적 체험이 실체라는 진리에 맞서서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명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따지기를 멈추고, 일관성 있는 어른의 논리, 즉 사실의 관측과 나란히 진리의 개념을 허용하는 논리를 적용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거듭해서 일어나는 우주 현상 하나하나와 마주쳐서, 명백하게 높은 것을 명백하게 낮은 것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현재의 반론을 지속해서 되풀이할 때, 과학적 유물론은 파산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목적을 가진 창조주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

102:6.10 (1125.5) 유기체의 진화는 사실이며;의도적 진화, 즉 점진적 진화는 진리이고, 늘_올라가는 진화적 성취라는, 다른 면에서 모순된 현상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어떤 과학자든지, 자신이 선택한 과학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존자 정신이 지배한다는 시공우주 진리를 지지해서, 유물론적 사실에 근거한 이론들을 점점 더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생애를 값싸게 만들며;예수의 복음은 모든 필사자를 엄청나게 증진시키고 숭고하게 고양시킨다. 필사자의 실존은, 인간이 위로_뻗은 손과 신{神}이 아래로_뻗은 구원의 손이 만나는 현실을 깨닫는, 흥미를 자아내는 매혹적인 체험이라고 상상해야만 한다.

7. 신성한 존재에 대한 확신

102:7.1 (1126.1) 만유의 아버지는, 스스로_존재하시므로, 또한 설명이_불필요하며;모든 이성적 필사자 속에 실제로 사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관해 확신할 수 없으며;아들신분은,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만드는 유일한 체험이다. 우주는 어디서나 변화를 겪는다.

변화하는 우주는 종속적인 우주이며;그런 창조는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 유한한 우주는 궁극자와 절대자에게 완전히 종속된다. 우주와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으며;하나는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다. 원인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며;결과는 시_공간에서 일어나고, 초월적이지만 영원히 변화하고 항상 성장한다.

102:7.2 (1126.2) 하나님은 우주에서 스스로_원인이 된, 오직 하나 뿐인 사실이다. 그는 사물과 존재들로 이뤄진 온 창조의 질서, 계획, 및 목적의 비결이다. 어디서나 변하는 우주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 즉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질에 따라서 통제되고 안정된다. 하나님의 실상, 즉 신{神}의 법칙은 변함없으며;하나님의 진리, 즉 그분과 우주의 관계는, 항상 진화하는 우주에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상대적 계시{啓示}이다.

102:7.3 (1126.3) 하나님 없이 종교를 창안하려는 자는, 나무 없이 과일을 모으려는, 부모 없이 자녀를 두려는 사람과 같다. 너희는 원인 없이 결과를 소유할 수 없으며;오직 자존자{自存者}만 원인이 없으시다. 종교 체험의 실상은

하나님을 내포하며, 개인이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은
인격있는 신격이어야만 한다. 너희는 화학 공식에게
기도하거나, 수학 방정식에게 간구하거나, 가정{假定}을
경배하거나, 공리를 신뢰하거나, 과정과 사귀거나, 추상
개념을 섬기거나, 또는 법칙과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을 수
없다.

102:7.4 (1126.4) 사실,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많은 특징이,
비종교적 근원에서 자라날 수 있다. 사람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선하고 충실하며
효심 있고 정직하며 심지어 이상적일 수도 있다. 사람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많은 가치를 자신의 기본적인 영적
본성에 접목{接木}시키고, 이처럼 신이 없는 종교의 편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에는, 생존하는 가치,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께로 상승하는 것이 빠져있다. 그런 필사자
체험에는 영적 열매가 아니라 오직 사회적 열매만 맺힌다.
신{神}이 원래 내려준 정신과 영의 뿌리로부터 생존을
위한 자양물을 흡수함에도, 어디에 접목했는지에 따라서
열매의 본질이 결정된다.

102:7.5 (1126.5) 종교의 지적 표식은 확신이며;철학적 특질은 일관성이고;사회적 열매는 사랑과 봉사다.

102:7.6 (1126.6) 하나님을_아는 개인은, 미신, 전통, 및 현대의 유물론 경향이 있는 미로{迷路}에서,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제들을 못 보거나, 장애물을 눈치 채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이런 모든 방해물에 봉착해 왔고, 그것들을 극복했으며, 생생한 신앙으로 이겨냈고, 방해물이 있음에도 영적 체험의 고지를 점령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모으고, 어려움을 부풀리는 자들이 허다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하는 많은 사람이, 그런 확신의 느낌을 주장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함을 골라내거나,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대단한 지능이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런 여러 질문에 대답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뛰어난 정신이 요구되며;그런 모든 하찮은 논쟁을 처리하는 데는, 신앙의 확신이 가장 탁월한 기법이다.

102:7.7 (1127.1) 과학, 철학, 또는 사회학이 참 종교의 선지자들과 논쟁함에서 감히 독단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자존자의 아들이므로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안다”고 하면서, 개인의 확실한 영적 체험에서 생긴, 더
선견지명 있는 독단적 태도로, 그런 근거 없는 독단적
태도에 답변해야만 한다. 한 신앙인의 개인 체험이 교의에
도전을 받는다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
교의, 즉 자신이 실제로 만유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로
응답해도 좋다.

102:7.8 (1127.2) 무조건적인 실체, 즉 절대적 존재만이, 감히
일관되게 독단적일 수 있다. 독단적 상태가 되려는 자는,
지조가 있다면, 곧 에너지의 절대자, 진리의 우주적 존재,
및 사랑의 무한자의 품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102:7.9 (1127.3) 시공우주 실체에 이르는 비종교적 접근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이유로 감히 신앙의 확실성에
도전한다면, 영을 체험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과학이
다루는 사실과 철학의 믿음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독단적으로 도전하는 길을 택할 수 있으며;이 사실과
믿음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나 철학자의 의식 속에 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102:7.10 (1127.4) 모든 현존 중에서 가장 불가피한, 모든 사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생생한, 모든
친구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런, 그리고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신성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전체 우주 체험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둘 권리가 있다.

8. 종교의 징표

102:8.1 (1127.5) 종교의 실체와 효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징표는, *인간의 체험이라는 사실*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의심하며, 강한 자아_보존
본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시에, 죽음 이후의 생존을
갈망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권능 및 인격자가 보존하고 지도하도록,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깊은 관심을, 기꺼이 전적으로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유일한 중심 진리다.
그 권능 또는 인격자가 이런 보호와 최종적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두
종교도 일치하지 않으며;사실, 그 종교들은 모두 대체로
의견이 다르다.

102:8.2 (1127.6) 어떤 종교든지 진화의 척도에서 그 종교가 차지하는 지위에 관해서 말하자면, 종교를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른다. 어떤 종교든지 높은 유형일수록, 계속 개선되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문화를 더 권장하며, 또한 이에 격려 받는다. 우리는 종교를 그에 수반되는 문명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으며;차라리 문명의 실제 본성을 자체 종교의 순수함과 고결함에 따라서 추정하는 것이 좋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많은 종교 스승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구원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세상의 지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102:8.3 (1127.7) 다양한 시대에 있던 여러 종교의 차이점은, 사람이 실체를 다르게 납득함에, 그리고 도덕적 가치, 윤리적 관계, 및 영적 실체들을 사람이 다르게 인식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102:8.4 (1127.8) 윤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내면의 영적 및 종교적 발전의 진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영원한 사회적 또는 인종적 거울이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알았던 최상의 용어, 즉 가장 심오한 관념과 가장 높은

이상{理想}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 심지어 역사적 종교도, 반드시 그 종교가 인정하는 가장 높은 가치기준으로부터 하나님 개념을 고안해냈다. 지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아는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한다.

102:8.5 (1128.1) 이성적이고 지적인 표현 방식으로 격하될 때, 자체의 윤리적 문화와 도덕적 진보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했던 대로, 종교는 언제나 감히 문명과 진화적 진보를 비판해 왔다.

102:8.6 (1128.2) 개인적 종교는 인간의 도덕의 진화를 앞서지만, 제도화된 종교는, 느리게 발생하는 인류의 서서히 변하는 사회관행보다 항상 뒤쳐졌다고 기록하는 것은 유감이다. 조직화된 종교는 보수적으로 더딘 것이 입증돼 왔다. 종교적 발전을 이루도록, 대개 선지자들이 사람을 인도해 왔으며; 신학자는 대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왔다. 종교는, 내적{內的} 문제, 즉 개인적 체험의 문제이므로, 결코 종족들의 지적 진화보다 훨씬 앞서서 발달할 수 없다.

102:8.7 (1128.3) 그러나 종교는 결코 소위 기적 같은 것에 호소함으로써는 향상될 수 없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원시의 마술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참 종교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으며, 계시된 종교는, 권위를 증명하려고 결코 기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종교는, 영원히 그리고 언제든지, 개인의 체험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초한다. 그리고 너희의 가장 고상한 종교인 예수의 생애는, 바로 그렇게 몸소 겪은 체험이었으며: 그는 육신 속에서 가졌던 한 번의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찾다가 마음껏 찾은 사람, 필사적 사람이었고, 한편 바로 그 인간 체험 속에서 사람을 찾다가, 무한히 높은 완전한 혼이 철저히 만족하기까지, 사람을 찾고 발견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종교이며, 이제까지 네바돈 우주에서 계시된 가장 높은 종교는 바로--나사렛 예수의 지상{地上} 생애다.

102:8.8 (1128.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3편

종교 체험의 실체

103:0.1 (1129.1) 사람의 참된 종교적 반응은 모두, 경배 보조체의 초기 사역으로 후원받고, 지혜 보조체의 검열을 받는다.

사람의 첫 초월정신 재능은, 우주 창조적 영의 거룩한 영 안에서 인격체가 회로화{回路化}되는 재능이며;신성한 아들들이 증여되거나 조율사가 보편적으로 증여되기 훨씬 전에, 이 영향력은, 윤리, 종교, 및 영성{靈性}에 대한 사람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낙원 아들의 증여가 이뤄진 뒤에는, 종교적 진리를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의 수용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방된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기여한다. 인간거주 세계에서 진화가 진척됨에 따라, 사교 조율사는 인간이 가진 더 높은 유형의 종교적 통찰력을 개발시키는 데 점점 더 참여하게 된다. 사교 조율사는 시공우주의 창문인데, 유한한 피조물이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신격, 즉 만유의 아버지의 확실성과 신성{神性}을 신앙으로 어렵듯이 볼지도 모른다.

103:0.2 (1129.2) 인류의 종교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며;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외견상 자연적으로 발생되며;원시 종교는 반드시 진화로 유래된다. 자연스런 종교 체험이 계속 진보함에 따라서, 계시가 없다면 느리게_움직일 행성 진화 과정에, 진리의 주기적 계시가 힘을 실어준다.

103:0.3 (1129.3) 오늘날 유란시아에는 네 종류의 종교가 있다:

103:0.4 (1129.4) 1. 자연 종교, 즉 진화 종교.

103:0.5 (1129.5) 2. 초자연 종교, 즉 계시 종교.

103:0.6 (1129.6) 3. 실제의 종교, 즉 자연 종교와 초자연 종교가 다양한 정도로 섞여있는, 유행되는 종교.

103:0.7 (1129.7) 4. 철학적 종교, 즉 사람이_만들었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해_낸 신학 교리 및 이성으로_창출된 종교.

1. 종교에 관한 철학

103:1.1 (1129.8) 사회 집단 또는 인종 집단 가운데서 종교 체험이 일치하는데, 이는 각 개인에게 내주하는 하나님 단편이 동일한 본성을 가진 데서 연유한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사심 없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신성{神性}한 존재다. 그러나 인격체의 독특성--곧 어떤 두 필사 존재도 똑같지 않은 것--때문에, 어떤 두 인간도, 자기 정신 속에 거주하는 신성한 영의 안내와 충동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없음이 불가피하다. 한 필사자 집단이 영적 통일성을 체험할 수 있지만, 결코 사상의 획일성을 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종교적 사고{思考}와 체험에 대한

해석의 이런 다양성은, 20세기 신학자와 철학자가 종교에 대해서 500여 가지 서로 다른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한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체험적 해석에 따른 말로 종교를 정의하며, 따라서 그런 해석은 독특하고, 다른 모든 인간의 종교 철학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103:1.2 (1130.1) 한 필사자가 동료 필사자의 종교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런 현상은, 철학적인 종교 해석의 유사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접근하는 비슷한 **종교 체험**을, 이 두 존재가 겪었음을 의미한다.

103:1.3 (1130.2) 너의 종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해도, 네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기중심적인--곧 외부와 담쌓고, 이기적이고, 반{反}사회적인--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을 목적으로, 너는 많은 다른 종교 체험(다양한 다른 필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이해하는 지식을 접해야만 한다.

103:1.4 (1130.3) 종교가 처음에는 무언가에 대한 원시적 믿음이고, 가치 추구가 그다음에 뒤따라온다고 가정할 때,

합리주의는 오류를 범한다. 종교는 원래 가치기준의 추구이며, 그 다음에 해석하는 믿음 체계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믿음--곧 해석--보다 종교적 가치기준--곧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훨씬 쉽다. 이것은 종교가 어떻게 해서 수백 가지 모순되는 신념--곧 신조--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혼란된 형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것은,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많이 포기하거나 바꿈에도, 자신의 종교 체험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종교는, 종교적 믿음에 혁신적 변화가 있음에도 존속한다. 신학은 종교를 산출하지 못하며;종교가 신학 사상을 산출한다.

103:1.5 (1130.4) 종교인이 거짓된 것을 너무 깊게 믿어왔다고 해서 종교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데, 이는 종교가 가치기준에 대한 인식 위에 기초하고,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신앙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는 체험과 종교적 사고에 기초하며;신학, 즉 종교에 관한 철학은, 그 체험을 해석하려는 정직한 시도다. 그런 해석적 믿음은 옳거나 옳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진리와 오류의 혼합일 수도 있다.

103:1.6 (1130.5) 영적 가치기준을 인식한다는 깨달음은, 관념 작용을 초월하는 체험이다. 하나님을_의식{意識}하는 것이라고 명명하기로 우리가 결정했던 이 "감각", "느낌", "직관", 또는 "체험"을 가리키기 위해서 채택될 수 있는 인간 언어가 전혀 없다. 사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은 인격있는 존재가 아니지만--곧 조율사는 인격이전{人格以前}이지만, 이 관찰자는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데, 가장 고상하고 무한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신성{神性}의 향기를 발산한다. 하나님이 적어도 인격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의식하실 수 없으며, 의식이 없다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일 것이다.

2. 종교와 개인

103:2.1 (1130.6) 종교는 인간 정신 속에서 작용하며, 종교가 인간의 의식 속에 나타나기 전에 체험 속에서 인식돼 왔다. 어린아이는 출생을 체험하기 전에 약 아홉 달 동안 실존했다. 그러나 종교의 "출생"은 갑작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점진적 출현이다. 그럼에도, 곧 "출생일"이 있게 된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즉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육체적 출생의 특징이, "격렬한 산고{産苦}"와

“출산”이라는 기타 비정상상황인 것과 마찬가지로, 허다한 영적 출생에 영의 고뇌가 많이 따르고, 심리적 동요의 흔적이 남는다. 그 밖의 영적 출생은, 영적 체험이 증진됨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성장이지만, 의식해서 기울이는 노력과 분명한 개인적 결심 없이는 종교적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는 결코 소극적 체험, 즉 부정적 태도가 아니다. “종교의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위 회심{回心} 체험이라고 불리는 것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며, 이런 감화는, 정신의 갈등, 감정의 억압, 및 기질의 동요가 일어난 결과로, 후기 생애에 발생하는 종교적 사건의 특징을 대개 나타낸다.

103:2.2 (1131.1)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의식하면서 자라날 만큼, 부모의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심리적 위기, 감정적 격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동료 필사자들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서는 안 된다.

103:2.3 (1131.2) 계시된 종교의 씨가,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진화의 토양에서 싹트며, 이 토양은 아주 일찍부터 사회 의식을 낳는 도덕적 본성이다. 어린이의 도덕적 본성을

처음 자극하는 것은, 남녀, 죄의식, 또는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 공정성, 및 친절을 베풀려는 충동--곧 동료들에게 유익한 사역--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의 도덕적 각성이 성숙될 때, 갈등, 격변, 또는 위기에 속박 받지 않는 종교 생활이 차츰 발달한다.

103:2.4 (1131.3) 인간은 누구나, 매우 일찍부터 사리{私利}를_피하는 자극과 이타적 자극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체험하며, 그런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제에서 초인적 도움을 구하는 결과로, 하나님을_의식하는 첫 체험을 얻을 수 있다.

103:2.5 (1131.4) 어린이의 심리 상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다. 수많은 필사자가 부정적인 까닭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긍정적이라고 할 때, 그의 도덕적 충동을 언급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의 힘이 솟아나는 것은, 사고 조율사가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103:2.6 (1131.5) 잘못된 가르침이 없으면, 정상적인 어린이의 정신은, 부정적으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 의식{意識}이 출현함에 따라서, 도덕적 정의와 사회 봉사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종교적

체험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 의지의 결정, 수고, 및 역할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있다.

103:2.7 (1131.6) 도덕적 선택은 대개 다소간의 도덕적 갈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서 맨 처음 생기는 바로 이런 갈등은, 자기중심적 충동과 이타주의적 자극 사이에 있다. 사고 조율사는, 자기중심의 동기를 갖는 인격체의 가치기준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목표에 이르고 하늘 나라의 기쁨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타심의 충동을 조금 더 우대하도록 작용한다.

103:2.8 (1131.7) 한 도덕적 존재가, 이기적이 되려는 충동에 직면해서 이타적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원시적 종교 체험이다. 어떤 동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으며; 그런 결정은 인간다운 동시에 종교적이다. 그것은 하나님_의식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사회에 봉사하려는 충동을 나타내며, 이 충동이 사람의 형제관계의 기초다. 어떤 정신이 자유의지 행위로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그런 결정은 종교적 체험이 된다.

103:2.9 (1131.8) 그러나 한 어린이가 도덕적 수용력을 얻고, 따라서 이타적 봉사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그는 이미 튼튼하고 잘_통합된 자기중심의 본성을 개발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에 입각한 상황이,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 사이에, 즉 "죄 속에 있는 옛 사람"과, 은혜로운 "새 본성"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이론을 낳았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삶에서 매우 일찍 배우기 시작한다.

103:2.10 (1131.9) 사람은, 자기를_섬기려는 충동을, 자아와--곧 그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이타적이 되려는 의지를, 자신의 바깥에 있는 어떤 영향력--곧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정말로 그런 판단은 옳은데, 이는 이타적인 그런 모든 욕구가, 내주하는 사조 조율사의 인도함에서 실제로 기원되기 때문이며, 이 조율사는 하나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런 영 관찰자의 자극을, 이타적이 되려는, 즉 동료_피조물에게 신경 쓰려는 충동으로서, 의식 속에서 인식한다. 적어도 이것이 어린이의 정신이 일찍부터 겪는 근본적인 체험이다. 자라는 어린이가 인격체 통합을 이루지 못할 때, 이타적 충동은 자신의 복지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만큼

과도하게 자랄 수도 있다. 잘못 인도된 양심은, 많은 갈등, 염려, 슬픔, 및 끝없는 인간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3. 종교와 인류

^{103:3.1 (1132.1)} 영, 꿈, 및 다양한 기타 미신에 대한 믿음은 모두, 원시 종교들의 진화적 기원에 어떤 역할을 했지만, 너희는 씨족 또는 부족의 단결하는 기풍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기 인간 정신의 도덕적 본성에서 생기는, 이기적_이타적 갈등에 도전한 엄밀한 사회 상황이, 집단 관계에서 제시됐다. 원시적 오스트레일리아인은 영들을 믿음에도, 여전히 자기 종교의 초점을 씨족에 둔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종교 개념은 처음에는 동물로, 나중에는 초인간이나 하나님으로 인격화되는 경향이 있다. 토템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부시먼 같은 열등한 인종도, 자기_이익과 집단_이익의 차이를 인식하며, 세속의 것과 신성시되는 것의 가치를 원시적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은 종교 체험의 근원이 아니다. 인간의 초기 종교에 이 모든 원시적 공헌이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없이, 참된 종교적 충동은, 이타적이 되려는 의지를 촉진하는 진짜 영 현존에서 기원되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103:3.2 (1132.2) 자연의 경이로움과 신비, 즉 비인격적 마나에 대한 원시적 믿음은 후일에 종교가 나타날 것을 예시한다. 그러나 진화하는 종교는 머지않아, 개인이 사회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몸소 희생해야만 한다고, 즉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사람에 대한 봉사가 되게 마련이다.

103:3.3 (1132.3) 종교는 사람의 환경을 변경시키도록 설계돼 있지만, 오늘날 필사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종교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행할 힘을 잃어버렸다. 환경이 너무나 자주 종교를 지배해 왔다.

103:3.4 (1132.4) 어느 시대의 종교에서든지, 지극히 중요한 체험은, 신학적 교의 또는 철학적 이론에 관한 사고{思考}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에 관한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도덕 개념이 마술의 요소를 대체함에 따라서 종교는 순조롭게 진화한다.

103:3.5 (1132.5) 사람은, 마나, 마술, 자연 숭배, 영에 대한 두려움, 및 동물숭배 등의 미신을 거쳐서, 다양한 예식절차로 진화했는데, 그런 예식으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태도는

씨족의 집단 반응이 됐다. 그다음에 이 예식은 부족 믿음으로 집중되고 형태화 됐으며, 결국 이 두려움과 신앙이 신{神}들로 인격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적 진화에서 도덕적 요소가 통째로 빠진 적은 없었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자극은 항상 효력 있었다. 그리고 -- 하나는 인간적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이런 강력한 영향력은, 천 가지의 파괴적 성향과 냉담한 적개심으로 인해 사멸될 위기에 자주 처했음에도, 세월의 변천에서 종교가 살아남도록 보장했다.

4. 영적 친교

103:4.1 (1133.1) 사회의 행사와 종교적 모임의 특징적 차이점은, 세속의 모임과는 반대로, 종교적 모임이 *교류* 분위기로 충만되는 것이다. 인간 연합체는 이런 방법으로 신성한 존재들과 교제하는 느낌을 창출하며, 이것이 집단 숭배의 시발점이다.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초기 유형의 사회 교류였으며, 그래서 초기 종교들은, 예식절차로 바친 제물의 일부분을 숭배자들이 반드시 먹도록 규정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주{主}의 만찬이 이런 교류 방식을 유지한다. 교류하는 분위기는, 사리를_괴하는 자아와, 내주하는 영{靈} 관찰자의 이타적 충동의 싸움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위로하는 휴전 기간을 마련해 준다.
이것이 참된 경배에 이르는 전주곡이다--결국 사람의
형제관계가 출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실습하는 것이다.

103:4.2 (1133.2)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됐다고 느낄 때, 원시인은
속죄{贖罪}하기 위한, 즉 친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의존했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했으며, 진리가 이상{理想}을 증대시켰고, 이것이
종교인 개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안겨줬는데, 이는 우리의
이상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이상에
맞춰 생활하는 우리의 역량은 오직 산술급수로 증대되기
때문이다.

103:4.3 (1133.3)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죄의식은, 영적 교류가
단절되거나, 사람이 도덕적 이상{理想}을 낮추는 데서
생긴다.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이상이 반드시 하나님
뜻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점점 더 그를 닮아가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103:4.4 (1133.4) 예수께서는 제물과 속죄의 모든 예식절차를 제거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함으로써 즉:피조물_창조주 관계를 자녀_부모 기초 위에 놓음으로써, 이런 모든 허구적 죄의식의 근본과 우주에서의 고독감을 파괴했다. 하나님은 필사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친밀한 가족 관계에 맞지 않는 모든 예식절차는 영원히 폐기됐다.

103:4.5 (1133.5)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실제 덕행이나 자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동기{動機}--곧 피조물의 목적과 의지--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을 자녀로 취급하신다. 그 관계는 부모_자녀 관계이며, 신성한 사랑으로 작동된다.

5. 이상의 기원

103:5.1 (1133.6) 주로 감정적 두려움에서 유래되는, 사회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을, 초기의 진화적 정신이 발생시킨다. 사회에 봉사하려는 더 적극적인 충동과

이타주의라는 관념론은,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의 직접 충동에서 파생된다.

103:5.2 (1133.7)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는 관념_이상{理想}-- 곧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희생하려는 충동--은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시인은, 자신에게 매우 가까운 자들, 즉 자신에게 친절한 자들만 이웃으로 간주하며;종교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이웃 개념은, 씨족, 부족,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온 인류, 심지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정도까지, 이웃에 대한 관점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모든 정상 인간에게는, 이 가르침이 도덕적이라고--즉 옳다고-- 말해주는 어떤 존재가 들어있다. 이런 이상을 거의 실천하지 않는 사람조차,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시인한다.

103:5.3 (1134.1) 모든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이 되려는, 이 보편적 인간 충동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인본주의자는, 이런 충동의 근원이 물질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이라고 설명하지만;종교인은, 필사 정신의 정말로

이타적인 충동은, 사고 조율사가 내부에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더 명확하게 인식한다.

103:5.4 (1134.2) 그러나 자아_의지와 자아_이외의_의지 사이의 이런 초기 갈등에 대한 사람의 해석은, 반드시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 정말로 잘 통합된 인격체만이, 자아의 열망과 싹트는 사회 의식이 여러 형태로 논쟁하는 것을 중재할 수 있다. 자아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갖고 있다. 어느 쪽도, 개인의 친절과 봉사를 독점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초기 유형의 죄책감이 기원됐다.

103:5.5 (1134.3) 인간의 행복은, 오로지 자아의 자기 욕구와, 더 높은 자아(신성한 영)의 이타적 충동이, 통합하고 감독하는 인격체의 단일화된 의지로 조정되고 절충될 때에만 성취된다. 진화하는 사람의 정신은, 감정적 충동의 자연스런 증가와, 영적 통찰력--곧 진실된 종교적 숙고--에 입각한 이타적 충동의 도덕적 성장, 이 둘 사이의 싸움을 중재하는 복잡한 문제에 늘 부딪친다.

103:5.6 (1134.4) 자아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자아를 위해서 균등한 유익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시_공간 틀 속에서는

항상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 영원히 산다면 그런 적대감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한 번의 짧은 인간 생애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순을 언급하면서 말씀했다:“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잃게 되지만, 천국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얻을 것이다.”

103:5.7 (1134.5)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것--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는 것--은 죽기 전과 후에 계속되는 노력이다. 죽은 후의 삶은 본질적인 면에서 필사자 실존 상태와 전혀 차이가 없다. 이 세상의 삶에서 행하는 선한 모든 것은, 미래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 기여한다. 사람에게 부여된 고귀한 성품의 모든 덕행을, 자연사의 관문을 통과한 결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불어넣음으로써, 도덕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필사자가 수명이 다하기까지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수고를 경시하지 않는다. 필사자가 획득한 것은 모두, 첫 단계에 생존하는 불멸 체험을 강화하는 데 직접 기여한다.

103:5.8 (1134.6) 사람의 모든 이타적 충동은 단지 자연스런 군집 본능이 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칠 때, 그의 이상주의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자기 혼의 이런 수준 높은 충동이, 자신의 필사 정신에 내주하는 영적 세력에서 나옴을 알게 될 때, 사람은 고상하게 되고 크게 에너지를 얻는다.

103:5.9 (1134.7) 사람은 영원하고 신성한 어떤 존재가 자기 속에 살면서 애쓰고 있음을 일단 완전히 자각하면, 그것이 그를 향상시키고 초월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상{理想}이 초인적으로 기원됐다는 생생한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믿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의 이타적 신념, 즉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느낌을 실제화 시킨다.

103:5.10 (1134.8)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영역에서 자유 의지가 있다. 필사적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고한 주권 아래 아무 힘없는 노예가 아니며, 기계적인 시공우주 결정론에서 절망적인 운명에 희생되는 자도 아니다. 사람은 정말로 확실하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이뤄가는 건축가다.

103:5.11 (1135.1) 그러나 사람은 강압으로 구원되거나 고귀하게 되지 않는다. 영의 성장은 진화하는 혼 속에서 솟아난다. 강압은 인격체를 비뚤어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육적 강압도 겨우 부정적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참한 체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영적 성장은 모든 외부적 강압이 최소화 될 때 극대화된다. “주{主}의 영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다.” 사람은, 가정, 공동체, 교회, 및 국가의 강압이 최소화 될 때 최고로 발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취적 사회집단에서, 가정, 사회 기관, 교회, 및 국가가 나설 자리가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103:5.12 (1135.2) 사회의 종교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그런 집단의 요구에 순응해 왔을 때, 종교적 신념이 진실인가, 그리고 종교 체험이 사실인가에 관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완전히 표현하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도록 장려돼야만 한다. 한 종교 집단의 안전은, 신학적으로 동일한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통일됐는가에 달려있다. 종교 집단은, “자유 사상가”가 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교회든지,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신조{信條}로 인한 어떤 압력도
구성원에게 주지 않을 때 큰 희망이 있다.

6. 철학적 조화

103:6.1 (1135.3) 신학은 인간의 영의 작용과 반응에 대한
연구이며;신학의 개별 표현에는 심리학과, 신학의 체계적
묘사에는 철학과, 반드시 어느 정도 결합돼야만 하기
때문에, 신학은 결코 학문이 될 수 없다. 신학은 항상 *너의*
종교에 대한 연구이며;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다.

103:6.2 (1135.4) 사람이 자신의 우주를 *외부*로부터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에 접근할 때, 다양한 자연 과학을
만들어내며;자신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내부*에서 접근할
때, 신학과 형이상학을 기원시킨다. 사물과 존재들로
이뤄진 우주에 접근하는, 이런 두 가지 정 반대되는
방법에서 얻은 조사 결과와 교훈 사이에, 처음에
나타나도록 정해진 많은 차이점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으로, 후일에 철학이라는 기술이 발달한다.

103:6.3 (1135.5) 종교는 영적 관점, 즉 인간 체험의 *내면성*에 대한 자각을 다뤄야만 한다. 사람의 영적 본성은, 우주를 밖에서 안으로 뒤집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사람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순전히 인격체가 체험하는 내면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모든 창조가 본질에서 영적인 듯 보인다는 것이 참말이다.

103:6.4 (1135.6)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감각으로 이뤄진 물질 재능 및 관련된 정신의 인식을 통해서 우주를 분석적으로 조사할 때, 시공우주는 기계적이고 에너지_물질인 것처럼 보인다. 실체를 연구하는 그런 기법은, 우주를 안에서 밖으로 뒤집어보는 것이다.

103:6.5 (1135.7) 우주에 대한 논리적이고 모순 없는 철학적 개념은, 유물론 또는 심령술{心靈術}의 가정{假定} 위에 세워질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사고{思考} 체계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 왜곡된 상태로 시공우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전자{前者}는 안에서 밖으로 뒤집힌 우주와 접촉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뒤집힌 우주의 본질을 인식한다. 그래서, 과학이든지 종교든지, 독립된 상태에서 그 자체로는 그리고 그 스스로는, 인간

철학과 신성한 계시의 조명의 인도함 없이 보편적 진리 및 관계를 결코 합당하게 깨닫기를 바랄 수 없다.

103:6.6 (1136.1)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자체를 표현하고 자아_실현을 위해서 항상 정신의 심리과정과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실체에 대한 사람의 외부 체험은, 체험하는 그 인격체의 정신 의식{意識}에 입각한다. 따라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즉 인간의 내적 체험과 외적 체험은, 반드시 정신의 기능과 상호 관련되며, 그들이 의식으로 깨닫는 것에 따라서, 정신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사람은 정신 속에서 물질을 체험하며; 혼{魂} 속에서 영적 실체를 체험하지만, 이 체험을 정신 속에서 의식하게 된다. 지능은 필사자가 겪는 체험 전체를 조화시키고, 항상 조절하고 제한하는 도구다. 에너지_물체와 영 가치기준, 양쪽 모두, 의식이라는 정신 매개체를 통한 해석에 따라서 채색된다.

103:6.7 (1136.2) 과학과 종교가 더 조화되도록 조정하는 데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간에 개재하는 모론시아 세계의 사물과 존재의 영역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히 무지하기 때문이다. 지방우주는, 실체가 형태화되는 세 가지 정도

또는 단계, 즉:물질, 모론시아, 및 영으로 이뤄져 있다. 모론시아 견지의 접근은, 자연 과학에서 발견된 것과 종교의 기질의 작용 사이에 있는 모든 차이를 없앤다. 이성온 과학이 이해하는 기법이며;신앙은 종교가 통찰하는 기법이며;모타는 모론시아 수준의 기법이다. 모타는 초물질 실체에 대한 감수성인데, 그 내용이 지식_이성이고 그 본질이 신앙_통찰력이기 때문에, 불충분한 성장을 모타가 보정하기 시작한다. 모타는, 물질 인격체가 달성할 수 없는, 서로 틀리게 실체를 인지함을 초월 철학으로 절충하는 것이며;어느 정도는, 육체로 사는 물질 인생 이후에 살아남은 체험에 입각한다. 그러나 상당히 동떨어진 과학과 종교 분야의 상호작용을 절충하는 어떤 방법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많은 필사자가 인지해 왔으며;형이상학은 잘_알려진 이런 간격을 연결시키려고, 사람이 무익하게 시도한 결과다. 그러나 인간의 형이상학은, 빛을 비춰주기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입증돼 왔다. 형이상학은, 선의{善意}에서 했겠지만, 모론시아 모타의 부재{不在}를 보상하려고 사람이 쓸데없이 수고했음을 나타낸다.

103:6.8 (1136.3) 형이상학이 실패했음이 입증됐으며;사람은 모타를 감지할 수 없다. 계시는, 진리에 대한 모타의 민감성이 물질세계에 없음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진화하는 구체에서 이치를_따짐으로 발달한 형이상학의 혼란을, 계시가 권위 있게 밝혀준다.

103:6.9 (1136.4) 과학은, 자신의 물리적 환경, 즉 에너지_물질의 세계를 사람이 연구하려는 시도이며;종교는 영적 가치가 있는 시공우주를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며;철학은,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개념들이 발견한 것들을, 시공우주를 향한 합리적이고 통합된 태도와 비슷한 무엇이 되도록 조직하고 연결시키려는, 인간 정신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다. 계시로 명료해진 철학은, 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모타를 대신하는 사람의 이성의 대용품--곧 형이상학--이 좌절하고 실패한 처지에서, 만족스럽게 작용한다.

103:6.10 (1136.5) 옛날 사람은 에너지 수준과 영 수준을 구분하지 않았다. 수학적인 것과 의지가 있는 것을 분리시키려고 처음 시도한 이는, 보라색 인종과 그들의 안드족속 후계자들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은, 생명 없는 것과 생명

있는 것을 구별한, 아주 초기의 그리스인과 수메르인의 발자취를 점점 더 따라갔다. 그리고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철학은 영 개념과 에너지 개념 사이의 계속 넓어지는 간격에 다리를 놓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공간 시대에, 이런 여러 차이점은 지존자 안에서 조화된다.

103:6.11 (1137.1) 상상과 추측은 과학의 범위 확장에 유용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이성{理性}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성은 안정시키는 영향력이고 도와주는 시녀{侍女}지만, 종교는 영원히 신앙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과학과 종교라고 잘못 부르는 부당한 해석이 항상 존재해 왔고, 또 언제든지 존재할 것이다.

103:6.12 (1137.2) 과학에 대한 어설픈 파악, 종교에 대한 어렴풋한 매달림, 그리고 수포로 돌아간 형이상학의 시도로부터, 사람은 철학의 뼈대를 세우려고 애써 왔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_중요하고 필수적인 형이상학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형이상학이 물리계와 영계 사이의 모론시아 간격에 다리를 놓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현대인은 자신과 우주에 대해 훌륭하고 매력 있는 철학을 정말로 세우려 했을지도

모른다. 필사적 사람은 모론시아 정신 및 물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며;우주에 대한 논리적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주에서 확실하고 안정된 자기 자리를 만족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토록 다급하게 필요한 이런 개념 자료의 결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이다.

103:6.13 (1137.3) 계시는, 진화하는 사람이 모론시아 간격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모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과 이성, 논리적 우주를 상상할 수 없고 그려볼 수 없다. 모타의 통찰력이 없으면, 필사적 사람은 물질 세계의 현상에서, 선, 사랑, 및 진리를 식별할 수 없다.

103:6.14 (1137.4) 사람의 철학은, 물질 세계를 향해서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 합리주의적이 되거나 *자연주의적*이 된다. 영적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기울어질 때, 철학은 *이상주의적*이 되거나 신비적이 되기도 한다. 형이상학에 기댈 정도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철학은 반드시 *회의적인*, 혼란된 상태가 된다. 지난 시절에, 사람의 지식과 지적 평가 대부분은 이런 세 가지 감지의 왜곡 가운데 하나에 빠져들었다. 철학은 감히 직선형 방식의

논리로 실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철학은, 실체가 타원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 개념이 본질적으로 구부러져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103:6.15 (1137.5) 필사적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은, 과학의 이성애, 종교의 신앙애, 그리고 계시가 제공하는,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에 논리적으로 기초해야만 한다. 이런 통합으로 사람은, 적당한 형이상학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모론시아의 모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

7. 과학과 종교

103:7.1 (1137.6) 과학은 이성으로 인해 지속되고, 종교는 신앙으로 인해 지속된다. 신앙은, 이성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이며;논리와 무관함에도, 건전한 논리로 인해 촉진된다. 이상적 철학조차 신앙을 조성할 수 없으며;신앙은 정말로 과학과 함께 그런 철학의 바로 그 근원이다. 신앙, 즉 인간의 종교적 통찰력은 오직 계시함으로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조율사로 현존하심을, 필사자가 몸소 체험해야만 확실히 증진될 수 있다.

103:7.2 (1137.7) 참된 구원은, 물질과 일체화된 상태에서부터, 모론시아 접촉이 있는 영역을 거쳐서, 영적 상호관계가 있는 높은 우주 상태에 이르기까지, 필사 정신을 신성하게 진화시키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화에서, 물질적인 직관 본능이 이성에 의거한 지식의 출현보다 앞서는 것처럼, 영적인 직관 통찰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론시아 및 영 판단력이 나중에 출현하고 하늘에서 진화하는 숭고한 계획표를 체험할 것을 미리 알리는데, 이 진화는, 일시적 존재인 사람의 잠재성을 사람의 실체성 및 신성{神性}으로, 영원한 존재인 낙원 완결성취자로 변환시키는 사업이다.

103:7.3 (1138.1) 그러나 상승하는 사람이 하나님 체험을 얻으려고 안쪽으로 그리고 낙원 쪽으로 손을 뻗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물질 시공우주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외계{外界} 쪽으로 손을 뻗고 있을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사람이 땅에서 사는 삶에만 국한되지 않으며;사람이 우주와 연방우주를 상승하는

체험은, 적지 않게 에너지 변형과 물질적 변질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신격은 통일체이고, 신격의 통일체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영적 가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주 통제관과 낙원 섬의 에너지 실상을 인지하며, 한편 이 두 국면의 우주 실체는, 공동 행위자와 정신의 연관성에서 서로 완전하게 관련되고,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신격 속에서 유한한 수준으로 통합된다.

103:7.4 (1138.2) 체험 철학의 중재로 과학적 태도와 종교적 통찰력을 연합하는 것은, 사람의 긴 낙원_상승{上昇} 체험의 일부분이다. 수학이 추정한 것과 통찰력이 확실히 얻은 것은, 지존자라는 최고 달성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수준의 체험에서, 정신 논리의 조화시키는 역할을 항상 필요로 할 것이다.

103:7.5 (1138.3) 그러나 한 인격체의 과학적 면과 종교적 면 양쪽이 진리에 지배되지 못하면, 즉 진리가 무슨 결론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논리는 과학의

연구결과와 종교의 통찰력을 조화시키기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03:7.6 (1138.4) 논리는 철학의 기법이요 그 표현 방법이다. 참된 과학의 영역에서, 이성¹⁰³은 진실된 논리를 항상 쾌히 받아들이며;참된 종교 영역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과학적 접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신앙이 지극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신앙은 내부적 관점의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논리가 있다.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며;안에서 밖으로 보면, 바로 그 우주는 온통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성은 물질을 자각함에서 자라나고, 신앙은 영적 자각에서 자라나지만, 논리는 계시로 강화된 철학의 중재를 통해서 안쪽의 관점과 바깥쪽의 관점 양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과학과 종교의 안정에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과학과 종교 양쪽은, 철학의 논리와 공동으로 접촉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점점 더 관대하게 되고 회의{懷疑}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른다.

103:7.7 (1138.5) 발달하는 과학과 종교 양쪽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탐색과 담대한 자아_비판, 즉 진화하는 상태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자각하는 것이다. 과학과 종교의 스승들은, 너무 과잉된 자신감과 독단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학과 종교는 그것들이 가진 사실에 대해 자체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사실의 무대에서 떠나는 순간, 이성 은 기권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논리라는 뎀은꼴 속으로 급속도로 타락한다.

103:7.8 (1138.6) 진리--곧 시공우주 관계, 우주 실상, 및 영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진리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 최선이고, 계/시로 비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계시는 과학도 종교도 창시하지 않으며;계시의 역할은 과학과 종교를 실체의 진리와 조화시키는 것이다. 계시가 없을 때, 또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할 때, 필사적 사람은, 항상, 자신이 만든 쓸데없는 형이상학의 손짓에 도움을 청했는데, 형이상학은 인간에게 진리의 계시 또는 모론시아 인격체의 모타를 대신하는 유일한 대용품이다.

103:7.9 (1139.1) 물질 세계를 다루는 과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영적 체험의 종교는, 과학 시대의 문명의 복잡성 속에서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형제애를 자극하는 근원이다. 형이상학이, 그러나 더 확실하게는 계시가, 과학과 종교, 이 둘을 발견하기 위해 공통으로 만나는 토대를 제공하며, 분리돼 있으면서도 서로 의존하는 이런 사고 분야들을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시켜서, 과학적으로 안정되고 종교적으로 확실한, 잘 균형 잡힌 철학이 되도록 만드는 인간의 노력을 가능하게 한다.

103:7.10 (1139.2) 필사자의 신분에서는, 아무 것도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며;과학과 종교 둘 다 가정{假定}에 입각한다. 모론시아 수준에서, 과학과 종교의 여러 가정은, 모타 논리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다. 최고 상태인 영적 수준에서는, 실제로 실체를 체험하고 실체와 함께 체험하기 전에, 유한한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지만;그럴 때에도, 유한한 상태를 뛰어넘어 증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

103:7.11 (1139.3)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임에도, 사람의 정신 재능을 구성하는 실체에 대한 감수성을 이용해서 받아들인, 어떤 여러 가정에 입각한다. 과학은:물질, 움직임, 및 생명 이 세 가지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자랑스런 이성작용의 경력을 시작한다.
종교는:정신, 영, 및 우주--곧 지존하신 분-- 이 세 가지가
정당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103:7.12 (1139.4) 과학은, 공간에서 시간세계의 에너지와 물질을 다루는 수학을 생각하는 분야가 된다. 종교는 유한한 속세의 영 뿐만 아니라, 영원한 최상의 영을 다루고자 한다. 오직 모타를 오랫동안 겪는 체험을 통해서만, 우주를 감지하는 이런 두 극단이, 기원, 기능, 관계, 실체, 및 운명을 유사하게 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일곱 으뜸 영의 순회활동에서, 에너지와_영의 확산이 최고로 조화돼 있으며;지존자의 신격 속에서, 에너지와_영이 처음으로 통합되며;자존자{自存者}이신 제1 근원 및 중심의 무한성 안에서, 최종으로 통일된다.

103:7.13 (1139.5) *이성*은, 에너지와 물질로 이뤄진 물리 세계에서, 그리고 그 세계와 함께 겪는 체험에 관해서, 의식{意識}이 내리는 결정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신앙*은 영적 의식--곧 필사자가 달리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활동이다. *논리*는, 신앙과 이성이 통일돼 진리를_추구함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며, 필사

존재를 구성하는, 정신 재능, 즉 사물, 의미, 및 가치기준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초한다.

103:7.14 (1139.6) 영적 실체가 있음을 사고 조율사의 현존이 실제로 증명하지만, 이 현존의 타당성은, 외부 세계에 증명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에게만 증명될 수 있다. 조율사를 의식하는 것은,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선을 초월정신이 감지하는 것, 그리고 인격체의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 기초한다.

103:7.15 (1139.7) 과학은 물질 세계를 발견하고, 종교는 그 세계를 평가하고, 철학은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과학의 물질적 관점과 종교의 영적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역사는, 과학과 종교가 결코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8. 철학과 종교

103:8.1 (1140.1) 과학과 철학이 모두 자체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더라도, 오직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몸소 겪는 종교 체험만이, 인격있는 그런 최상의 신격이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를 그렇게 육신화하는 기법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철학적 가정은 종교의 실체가 된다.

103:8.2 (1140.2) 하나님이 확실히 계심을 체험하는 것에 관한 혼동은, 분리된 개인들이, 그리고 다른 종족 사람들이 그 체험을 다르게 해석하고 진술하는 데서 발생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때로는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불합리하다.

103:8.3 (1140.3) 선하고 고상한 남자가 아내와 더할 나위 없는 사랑에 빠지지만, 부부 애정 심리학의 필기시험에서도저히 만족스럽게 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다른 남자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시험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통과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 받는 자의 참된 본성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완전치 못하다고 해서, 그의 사랑의 실체 또는 진심을 조금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103:8.4 (1140.4)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곧 신앙으로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체험의 실체가, 과학의

의혹을 품는 암시, 논리의 트집 잡기, 철학의 가정, 또는 하나님 없이 어떤 종교를 창설할 수 있는 선의를 가진 흔들의 영리한 제안으로 인해, 어떤 면에서도 줄어들거나 손상되지 못하게 하라.

103:8.5 (1140.5)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의 확신은, 의심하는 유물론자의 불확신으로 인해 교란돼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체험을 겪은 신자의 견고한 신앙과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믿지 않는 자의 불확신에 강하게 도전해야만 한다.

103:8.6 (1140.6) 철학이 과학과 종교 모두에게 가장 훌륭하게 공헌하려면, 유물론과 범신론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만 할 것이다. 변화에 직면해서도 불변하는--인격체라는 실체를 인식하는 철학만이, 사람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물질 과학과 영적 종교를 다루는 이론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봉사할 수 있다. 계시는 진화하는 철학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것이다.

9. 종교의 본질

103:9.1 (1140.7) 신학은 종교의 지적 내용을 취급하며, 형이상학은(계시는) 철학 양상을 취급한다. 종교 체험은

종교의 영적 내용 *이다*. 종교의 지적 내용에 신화{神話} 같은 변덕과 심리학적 망상이 있고, 형이상학의 잘못된 가정과 자아를_기만하는 기법, 종교의 철학적 내용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사회경제적 곡해에도, 개인적 종교에서 얻는 영적 체험은 여전히 참되고 정당하다.

103:9.2 (1140.8) 종교는, 생각하기뿐만 아니라, 느끼기, 행하기, 및 살아가기와 관계가 있다. 생각하기는, 물질 생활과 더 가깝게 연관돼 있고, 온통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이성과 과학이라는 사실에 지배를 받고, 영의 영역을 향한 비물질 범위에서는 진리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사람의 신학이 아무리 가공적{架空的}이고 잘못됐더라도, 사람의 종교는 전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고 영구히 참될지도 모른다.

103:9.3 (1141.1) 본래 형태의 불교는, 유란시아의 진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하나님 없이 이뤄진 최고의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이 신앙이 발전하자, 신{神}이 없는 상태로 머물지는 않았다. 신앙이 없는 종교는 모순이며;하나님 없는 종교는 철학적 모순이고 지적 불합리다.

103:9.4 (1141.2) 자연 종교가 마술과 신화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후대의 계시 종교의 실체와 진리, 그리고 예수의 종교인 구원을 완성한 복음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은 마침내, 마술적 미신, 신화적 환상, 및 전통적 독단주의의 사슬을 벗겨버렸다. 그러나 초기의 이런 마술과 신화는, 초물질적 가치기준과 존재들의 실존 및 실체를 가정함으로써, 나중에 나타난 뛰어난 종교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길을 예비했다.

103:9.5 (1141.3) 종교 체험이 비록 순수한 영적 주관적 현상일지라도, 그런 체험은, 우주의 객관적 실체의 가장 높은 영역을 향한,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태도를 받아들인다. 종교 철학의 이상{理想}은, 온갖 우주의 무한하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에,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이요_신뢰다. 그런 참다운 종교 체험은, 이상주의적 욕구를 철학적으로 객관화한 것을 훨씬 초월하며; 그런 체험은, 실제로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일에만 관여한다. 그런 종교의 특징은: 최상의 신격을 믿는 신앙, 영원히 생존한다는 희망, 그리고 사랑, 특히 동료에 대한 사랑이다.

신학이 종교를 지배할 때 종교는 사라지며;생명이 아니라 교리가 된다. 신학의 사명은, 단지 개인이 영적 체험을 자아_의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신학은, 종교의 체험적 주장을 정의하고, 명료하게 하고, 해석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종교적 노력인데, 이 주장은 결국 살아있는 신앙으로만 입증될 수 있다. 우주에 대한 고등 철학에서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신앙과 결합하게 된다. 이성, 지혜, 및 신앙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간적 달성이다. 이성은, 사실의 세계, 즉 사물을 사람에게 소개하며;지혜는, 진리의 세계, 즉 관계를 그에게 소개하며;신앙은, 신성{神性}의 세계로, 즉 영적 체험으로 사람을 이끈다.

신앙은, 이성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아주 기꺼이 이성을 옮겨주고, 그 후에는 철학 한계 끝에 도달할 때까지 지혜와 동행하며;그 다음에 신앙은, 오직 진리만 따라가면서, 무한하고 끝나지_않는 우주 여행을 감히 시작한다.

과학(지식)은, 이성이 타당하다는, 우주가 납득될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假定}(보조 영)에 기초한다.

철학(조화된 납득)은, 지혜가 타당하다는, 물질 우주가 영적 존재와 조화될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지혜의 영)에 기초한다. 종교(몸소 영적으로 체험하는 진리)는, 신앙이 타당하다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선천적 가정(사고 조율사)에 기초한다.

103:9.9 (1141.7) 필사 인생의 실체를 충분히 깨닫는 것은, 이성, 지혜, 및 신앙, 이 세 가지 가정을 점진적으로 기꺼이 믿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 그런 인생은, 진리에 자극받고 사랑이 지배하는 인생이며;이것들은, 실존한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 시공우주 실체의 이상{理想}이다.

103:9.10 (1142.1) 이성이 일단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나면, 이성은 지혜를 드러내며;지혜가, 옳고 그름, 즉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선택하면, 지혜는 영이 인도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신, 혼, 및 영의 기능은 늘 가깝게 연합하고,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이성은 사실에 관한 지식을;지혜는 철학과 계시를;신앙은 생생한 영적 체험을 다룬다.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달성하고, 영적 사랑으로 선함의 경지까지 올라간다.

103:9.11 (1142.2) 신앙은, 신성한 현존이 주는 신비스런 느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한다. 신앙은 그 감정적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참 종교는, 만족스런 느낌일 뿐만 아니라, 믿고 아는 체험이다.

103:9.12 (1142.3) 종교 체험에는 영적 내용에 비례하는 실체가 있으며, 그런 실체는, 이성, 과학, 철학, 지혜, 그리고 인간의 기타 모든 성취를 초월한다. 그런 체험으로 얻은 확신은 무너지지 않으며;종교 생활의 논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그런 지식의 확실성은 초인적이며;그 만족감은 최고로 신성하고, 그 용기는 굴하지 않으며, 그 헌신은 주저함이 없고, 그 충성심은 더할 나위 없으며, 그 운명은 최종적이다--영원하고, 궁극적이며, 보편적이다.

103:9.13 (1142.4)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4편 삼위일체 개념의 성장

104:0.1 (1143.1) 계시된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진화 종교의 삼원소{三元素} 믿음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삼원소 개념은, 많은 암시적 관계에서 발생됐지만, 주로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된 것 때문에, 어떤 발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다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의 받침점이 움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그리고 더 나아가 원시인이 오랫동안 셋 이상을 셀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4:0.2 (1143.2) 과거와 현재, 낮과 밤, 뜨거움과 차가움, 남성과 여성 등과 같은 특정한 자연적 쌍을 제외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삼원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어제, 오늘, 내일;아침, 점심, 저녁;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이다. 승리자에게 세 번 환호한다. 죽은 사람을 셋째 날에 묻으며, 물로 세 번 씻음으로써 유령을 위로한다.

104:0.3 (1143.3) 인간 체험에서 이런 자연스런 연결이 이뤄진 결과로, 삼원소는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됐고, 낙원의 삼위일체 신격들, 또는 그들의 어떤 대리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이것이 인류에게 계시돼 왔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인, 힌두인, 그리스인, 이집트인, 바벨론인, 로마인, 및 스칸디나비아인 전체가, 삼원소 신{神}들을 소유했지만, 이것들은 아직 참된 삼자일체가 아니었다. 삼원소 신격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기원됐고, 유란시아에 있는 지성적인 민족들 대부분 가운데서 한때 나타났었다.

때로는 진화로 생긴 삼원소 개념이, 제시된 삼위일체 개념과 혼합되기도 했으며;이런 경우에 흔히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1. 유란시아의 삼위일체 개념

104:1.1 (1143.4) 낙원 삼위일체를 깨닫도록 인도한 첫 유란시아 계시는, 약 50만 년 전에 캘리개스차 왕자의 참모진을 통해서 이뤄졌다. 최초의 이 삼위일체 개념은, 행성 반역이 터지고 나서 불안정한 시기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104:1.2 (1143.5)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계시는, 첫 번째 동산과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뤄졌다. 이 교훈은, 약 3만 5천 년 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 시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는데, 셋족속의 삼위일체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존속됐기 때문이지만, 더 특별하게는 인도에서 애그니, 즉 베다의 머리 셋 달린 화신{火神}속에 오랫동안 잔존했다.

104:1.3 (1143.6)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계시는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뤄졌고, 살렘의 현자{賢者}가 자신의 흉갑{胸甲}에 붙인 세 개의 동심원이 이 교리를 상징했다. 그러나 마키벤타는, 팔레스틴의 베도원에게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그리고 무한한 영에 관해서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제자 대부분은, 삼위일체가 노라티아덱의 지고자{至高者}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했으며;소수의 사람은, 삼위일체를 체계 주권자와 성좌 아버지, 및 지방우주의 창조주 신격이라고 생각했으며;훨씬 적은 무리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희미하게나마 파악했다.

104:1.4 (1144.1) 살렘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삼위일체 교훈이 유라시아 대부분과 북부 아프리카 전역에 서서히 전파됐다. 후기의 안드족속 시대와 멜기세덱 이후 시대에 삼원소와 삼자일체 사이를 구분하기는 대체로 힘든 일인데, 그때에는 두 개념이 어느 정도 혼합되고 유착돼 있었다.

104:1.5 (1144.2) 힌두인 가운데서 삼자일체 개념은, 존재, 지성, 및 기쁨으로서 뿌리 내렸다. (인도인의 후대 생각은, 브라마, 시바, 및 비쉬누였다.) 초기에 있었던 삼위일체 묘사를 셋족속 제사장들이 인도로 전파했고, 한편 삼위일체에 관한 후대의 개념은 살렘 선교사들이 전했으며, 인도

원주민 지식인들이 이런 교리들을 진화된 삼원소 개념과 합성시킴으로써 발전시켰다.

104:1.6 (1144.3) 불교도 신앙은, 삼자일체 본성을 갖는 두 교리로 발달했다: 먼저 있던 것은, 스승, 법도, 및 형제관계였으며; 가우타마 싯다르타가 제시했다. 후대 관념은 부다의 추종자 가운데 북부 계열에서 발전됐는데, 최상의 주{主}, 거룩한 영, 및 육신화 된 구원주를 포함했다.

104:1.7 (1144.4) 그리고 힌두인과 불교도의 이 관념은, 실제적인 삼자일체의 선결조건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일신교의 하나님이 삼중으로 나타난다는 관념이었다. 참된 삼자일체 개념은, 독립된 세 신을 함께 묶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4:1.8 (1144.5) 히브리인은, 멜기세덱 시대의 겐족속 전승으로부터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지만, 한 분 하나님, 즉 야훼에 대한 그들의 일신교 열정이, 그런 모든 교훈을 너무 어둡게 만들었으므로, 예수께서 출현했을 무렵에는, 엘로힘 교리가 유대 신학에서 이미 실제로 근절된 상태였다. 히브리인의 정신은, 삼자일체 개념을,

유일하신 주,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일신교 믿음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104:1.9 (1144.6)} 이슬람 신앙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개념을 파악하지 못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신론이
다신론{多神論}에 직면했을 때에는, 삼자일체론을
유지하기가 항상 어려웠다. 삼자일체 관념은, 교리의
융통성과 결부된 견고한 일신교 전통을 갖는 그런
종교에서 뿌리를 가장 잘 내린다. 위대한 일신론자였던
히브리인과 마호멧교도들은, 삼신{三神} 숭배, 다신론,
그리고 삼자일체론, 즉 신성과 인격체의 삼자일체 형태화
속에 존재하는 한 분 신격을 경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104:1.10 (1144.7)} 예수께서는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에 관한
진리를 사도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가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히브리의 유일신 사상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는 야훼 개념과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삼위일체 개념에 반대되는 히브리인의 편견을 이어받았다.

104:1.11 (1144.8) 그리스도교의 최초 삼위일체는 안디옥에서 선포됐으며, 하나님, 그의 말씀, 및 그의 지혜로 구성됐다. 바울은, 아버지, 아들, 및 영의 낙원 삼위일체를 알았지만, 그것에 관해 설교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새롭게 형성된 교회들에게 보낸 몇 번의 편지를 통해서만 언급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동료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인 예수를, 신격의 제2 인격자인 낙원의 영원한 아들과 혼동했다.

104:1.12 (1144.9) 기원후 1세기가 마무리될 무렵에야 이해하기 시작한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만유의 아버지, 네바돈의 창조주 아들, 및 살빙톤의 신성한 사역자--곧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이자 창조주 아들의 창조 배우자--가 포함됐다.

104:1.13 (1145.1) 예수 시대 이후로, 본 계시 발표가 제시될 때까지, 낙원 삼위일체의 실제 정체성은 (특별히 그 계시를 받은 소수의 개인은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개념이 사실상

잘못됐더라도, 영적 관계에 관해서는 실제로 옳았다. 오직 그 철학적 함축성과 우주론적 결론만이 이 개념을 난처하게 만들었다:시공우주에 신경을 쓰는 많은 사람은, 신격의 둘째 인격자, 즉 무한한 삼위일체의 둘째 구성원이 한때 유란시아에 거주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으며;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옳은 반면,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다. 미가엘 창조주들은 영원한 아들의 신성을 완전하게 간직하지만, 절대 인격체는 아니다.

2.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수의 신격

104:2.1 (1145.2) 일신교는 다신교의 모순에 대항하는 철학적 항변으로 발생됐다. 처음에는 초자연적 활동의 세분화와 함께 만신전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신 위에 한 신을 높이는 단일신교로, 그리고 마침내 최종 가치를 갖는 한 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시킴을 통해서 일신교가 발달했다.

104:2.2 (1145.3) 삼위일체론은, 우주 취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비의인화{非擬人化}된 고독한 신격이 홀로 있음을 상상하기 불가능한 것에 대한, 체험적 항변에서 생겨난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철학은 순수한 일신교 신격

개념에서 인격적 특성을 뽑아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하여 아무 관계없는 이 하나님 관념을, 이처럼 범신론적 절대자 지위로 낮춘다. 동격의 다른 인격적 존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이해하기는 항상 어려웠다. 신격 속에 있는 인격체는, 인격있는 다른 대등한 신격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신격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104:2.3 (1145.4) 사람의 정신은, 삼위일체 개념의 인식을 통해서, 시_공간 창조계에서 사랑과 법칙의 상호관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영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런 영적 신앙이, 물질 우주의 규정된 법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곧 발견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낙원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확고한 것에 상관없이, 팽창하는 시공우주 범위는, 또한 낙원 신격이 보편적 법칙임을 인식하라고, 즉 삼위일체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사람에게 요구하는데, 그 주권은 낙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하고, 영원한 세 인격자의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주 딸들이 만든 진화하는 지방우주들조차 무색하게 만들며, 이러한 세 인격자의 신격 합일은, 낙원

삼위일체의 사실이요 실체 *이*고 영원한 불가분성{不可分性} *이다*.

104:2.4 (1145.5) 그리고 바로 이 낙원 삼위일체는 실제적 실재--곧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참되고 절대적인 실체--이며;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존하는 인격체들--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체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세 낙원 신격의 결합에서 결말에 이르는 초월 연합 신격이다. 삼위일체의 특성, 특질, 및 기능은 세 낙원 신격의 속성들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며;삼위일체 기능은,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속성을 분석함으로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무엇이다.

104:2.5 (1146.1) 예를 들자면: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추종자들에게 응보가 결코 *개인의* 작용이 아니며;반드시 *집단의* 기능이라고 훈계했다. 또한 하나님들께서도 인격체로서는 응보를 집행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기능을 하나의 집단으로서, 즉 낙원 삼위일체로서 수행하신다.

104:2.6 (1146.2) 아버지, 아들, 및 영이 삼위일체로 연합한다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삼중적 관계에 대한

추가적 제시를 위해서 인간 정신을 준비시킨다. 신학적 전제는 낙원 삼위일체 개념으로 완전히 만족될 수 있겠지만, 철학적 및 포괄적 전제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삼자일체의 연합체들, 즉 삼중체{三重體}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데, 그 삼중체들 안에서는, 무한자가 우주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_무관한 다양한 자격으로-- 곧 힘, 에너지, 능력, 원인, 반작용, 잠재력, 실제성, 인력{引力}, 장력{張力}, 원형{原型}, 원칙, 및 통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여러 관계로-- 활동한다.

3. 삼위일체와 삼중체

^{104:3.1 (1146.3)} 인류는 때때로 신격의 세 인격자로 이뤄진 삼위일체를 파악했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일곱 절대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들이 있음을 인간 지능이 감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낙원 삼위일체에 관해서 참된 모든 것이, *삼중체{三重體}*에 관해서도 반드시 참이지는 않는데, 삼중체는 삼위일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적 견지에서 본다면 삼중체는 삼위일체와 유사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104:3.2 (1146.4) 필사적 사람은, 유란시아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개념이 확장되는 위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며, 그의 시공우주 철학은, 인간 사고{思考}라는 지적 경기장이 확장되는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화에 박차를 가해야만 된다. 시공우주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필사적 사람은, 물질 과학, 지적 철학, 및 영적 통찰력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된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도 사람은 시공우주가 통일돼 있다는 이 모든 믿음과 함께, 모든 실존의 다양성을 감지한다. 신격의 불변성에 관한 모든 개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정하게 변화하고 체험적으로 성장하는 우주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지한다. 영적 가치가 생존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상관없이, 사람은, 힘, 에너지, 및 동력을 다루는 수학{數學} 및 선재{先在}_수학으로 늘 판단해야 한다.

104:3.3 (1146.5) 무한성의 영원히 충만한 성질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시간_성장과, 또한 거기서 체험하는 거주자들의 불완전성과 어떤 방법으로 절충돼야만 한다. 전체 무궁함에 대한 생각은, 최종 가치가 있고 영성화하는 중요성이 있는 이 개념을, 필사자의 지능과 모론시아 혼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분되고 제한돼야만 한다.

104:3.4 (1146.6) 이성(1146.6)은 시공우주 실체의 일신교적 통일을 요구하지만, 유한한 체험은, 복수{複數}의 절대자에 대한 가정, 그리고 시공우주 관계에서 그들이 조화된다는 가정을 요구한다. 동급의 실존들이 없다면 다양한 절대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차이, 변수, 변경자, 감쇠자{減衰者}, 제한자, 또는 축소자가 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04:3.5 (1146.7) 본 문서들에서는 총 실체가(무한이) 일곱 절대자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돼 왔다:

104:3.6 (1146.8) 1. 만유의 아버지.

104:3.7 (1146.9) 2. 영원한 아들.

104:3.8 (1146.10) 3. 무한한 영.

104:3.9 (1147.1) 4. 낙원 섬.

104:3.10 (1147.2) 5. 신격 절대자.

104:3.11 (1147.3) 6. 우주 절대자.

104:3.12 (1147.4) 7. 무조건 절대자.

104:3.13 (1147.5)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낙원 섬에게 원형{原型}이시다. 그는 아들 안에서 무조건적 인격체이지만, 신격 절대자 안에서는 잠재화{潛在化}된 인격체시다. 아버지는, 낙원_하보나에 계시된 에너지이며, 또한 동시에 무조건 절대자 안에 감춰진 시간 에너지시다. 무한자는, 공동 행위자의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늘 드러나며, 한편 우주 절대자의, 보정하지만 감춰진 활동에서 영원토록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섯 동격 절대자와 관련되며, 그리하여 영원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동안 내내, 일곱 존재 모두 무한성 궤도를 둘러싼다.

104:3.14 (1147.6) 절대 관계의 삼중체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인격체는, 절대 수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수준에서도, 다른 인격체와 연합하기를 추구한다. 낙원의 세 인격체의 연합은, 첫 삼중체, 즉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체 결합을 영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세 인격자가, *인격자들*로서, 결합된 기능을 위해 합칠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 기능적으로 통일되는 삼중체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삼위일체--곧 유기체적 실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삼중체, 즉 삼중적으로 기능이 일치된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104:3.15 (1147.7) 낙원 삼위일체는 삼중체가 아니며;기능적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나뉘어 있지 않고 또 나뉘 수도 없는 신격이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인격자로서) 낙원 삼위일체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는 그들의 나뉘지 않은 신격 *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첫째 삼중체와 그런 인격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는 첫째 삼중체가 세 인격체로서 그들의 기능적 합동 *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삼위일체로서만--곧 나뉘지 않은 신격으로서만-- 그들의 인격자 집합체인 삼중체에 대해서 대외 관계를 집단으로 유지한다.

104:3.16 (1147.8) 그래서 낙원 삼위일체는 절대 관계들 가운데서 독특성을 유지하는데, 여러 실존적 삼중체가 있지만 실존적 삼위일체는 하나밖에 없다. 삼중체는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유기체라기보다 기능적인 것이다. 그 구성원들은 협조자라기보다는 동업자다. 삼중체들의 구성 요소들은 실재이겠지만, 삼중체 자체는 하나의 연합체다.

104:3.17 (1147.9) 아무튼, 삼위일체와 삼중체 사이에는 한 가지 유사점이 있다:이 둘은 결국 기능들이 되는데, 구성 요원의 속성들 가운데 식별할 수 있는 전체와는 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이들을 이처럼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명백한 관계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대체로 기능이 구조와 갖는 관계로서만 관련돼 있다. 그러나 삼중체 연합의 기능은 삼위일체의 구조 또는 실재의 기능이 아니다.

104:3.18 (1147.10) 그럼에도 삼중체들은 실제적이며;매우 실제적이다. 삼중체들 속에서 전체 실체가 기능을 발휘하며, 만유의 아버지는 이를 통해서 무한의 총괄 기능에 대해서 직접 친히 통제를 행사하신다.

4. 일곱 삼중체

104:4.1 (1147.11) 일곱 삼중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만유의 아버지가 각 삼중체의 근본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제1 만유의 아버지_근원, 절대 중심, 최초의 원인, 우주적 통치자, 무제한 활력자, 원래의 통일, 무조건 지탱자, 신격의 제1 인격자, 최초의 시공우주 원형{原型}, 및

무한성의 본질이 되실 것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절대자들의 인격적 근원이시며;절대자들의 절대적 존재시다.

104:4.2 (1148.1) 일곱 삼중체의 본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04:4.3 (1148.2) *제1 삼중체--인격적이고_목적이_있는 삼중체.*
이것은 세 신격 인격체들의 집단화다.

104:4.4 (1148.3) 1. 만유의 아버지.

104:4.5 (1148.4) 2. 영원한 아들.

104:4.6 (1148.5) 3. 무한한 영.

104:4.7 (1148.6) 이것은, 사랑, 자비{慈悲}, 및 봉사의--낙원의 영원한 세 인격체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격적인 연합의--삼중 합동이다. 이것은, 신성하게 우애 있는, 피조물을_사랑하는, 아버지답게_행동하는, 그리고 상승을_증진시키는 연합체다. 이런 제1 삼중체의 신성한 인격체들은, 인격체를_수여하고, 영을_증여하며, 정신을_부여하는 하나님들이시다.

104:4.8 (1148.7) 이것이 무한한 의지를 가진 삼중체이며;영원한 현재에 두루, 그리고 시간의 과거_현재_미래 흐름 전체 속에서 활동한다. 이 연합은 무한한 의지를 낳고, 인격있는 신격이, 진화하는 시공우주의 피조물에게 스스로를_계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104:4.9 (1148.8) 제2 삼중체--동력_원형 삼중체. 미세한 입자나 타오르는 별 또는 소용돌이치는 성운{星雲} 그리고 심지어 중앙우주 또는 연방우주들, 즉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물질 조직체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물리적 원형은--곧 시공우주 배열은-- 이 삼중체의 기능에서 도출된다. 이 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10 (1148.9) 1. 아버지_아들

104:4.11 (1148.10) 2. 낙원 섬.

104:4.12 (1148.11) 3. 공동 행위자.

104:4.13 (1148.12) 제3 근원 및 중심의 시공우주 대행자들이 에너지를 조직하며;절대적 물질화인 낙원의 원형을 따라서 에너지가 형성되지만;끊임없는 이 모든 조종 뒤에 아버지_아들이 현존하시는데, 두 분의 합동은, 무한한 영,

즉 공동 행위자의 탄생과 동시에 낙원 원형을 처음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보나가 출현하게 만들었다.

104:4.14 (1148.13) 종교 체험을 겪으면서, 피조물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접촉을 이루지만, 그런 영적 통찰력은, 그 원형, 즉 낙원 자체가 우주의 실상임을 총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낙원 인격체들은, 신성한 사랑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모든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찬미를 드리게 하며, 영으로_태어난 그런 모든 인격체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완결성취자 아들들이 끊임없이 봉사하는 숭고한 환희{歡喜}에 동참하게 한다. 둘째 삼중체는, 이런 처리사항이 나타나는 공간 무대의 건축가이며;시공우주에 배치되는 원형들을 결정한다.

104:4.15 (1148.14) 사랑이 제1 삼중체의 신성{神性}의 특징일지 모르지만, 원형은 제2 삼중체가 성단{星團}으로 형태화한 것이다. 제1 삼중체와 진화하는 인격체들의 관계는, 제2 삼중체와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계와 같다. 원형과 인격체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행동 가운데 두 가지 가장 중대한 형태화이며;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동력_원형과 사랑이 넘치는 인격자가 동일한

보편적 실체인 것이 여전히 사실이며;낙원 섬과 영원한 아들은, 만유의 아버지_힘의 헤아릴 수 없는 본성이 나란히 그러나 정반대로 계시된 존재들이다.

104:4.16 (1149.1) 제3 삼중체 -- 영을_진화시키는 삼중체. 영적 징후의 전체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연합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104:4.17 (1149.2) 1. 만유의 아버지.

104:4.18 (1149.3) 2. 아들_영.

104:4.19 (1149.4) 3. 신격 절대자.

104:4.20 (1149.5) 영 잠재력으로부터 낙원 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은, 아버지의 순수한 영 본질, 아들_영의 활동적 영 가치, 및 신격 절대자의 무제한적 영 잠재성, 이 삼자일체의 연합에서 실체가 표현된다. 영의 실존적 가치는 이 삼중체 속에서 원초적으로 창시되고, 완벽하게 명시되고, 마지막 운명을 갖는다.

104:4.21 (1149.6) 아버지는 영 이전에 존재하시며;아들_영은 활동적인 창조 영으로 작용하며;신격 절대자는

만유를_포함하는 영으로서, 심지어 영을 넘어서도 존재한다.

104:4.22 (1149.7) 제4 삼중체--무한 에너지의 삼중체. 이 삼중체 안에서, 공간 잠재력으로부터 단일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 실체의 시작과 끝을 영존시킨다. 이 모임은 아래 존재들을 포함한다:

104:4.23 (1149.8) 1. 아버지_영.

104:4.24 (1149.9) 2. 낙원 섬.

104:4.25 (1149.10) 3. 무조건 절대자.

104:4.26 (1149.11) 낙원은 시공우주에서 힘_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중심이다--제1 근원 및 중심의 우주 위치, 무조건 절대자의 시공우주 초점,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 삼중체 안에 실존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시공우주의_무한한 에너지 잠재력인데, 그 가운데 광우주와 총괄우주는 겨우 부분적으로 형태화된 것이다.

104:4.27 (1149.12) 제4 삼중체는, 근본 단위의 시공우주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변질을 일으키는 시공우주를 통제하고 안정시키는 준절대 수용력이 체험적 신격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에 정비례로, 이 에너지를 무조건 절대자의 지배로부터 풀어준다.

104:4.28 (1149.13) 이 삼중체는 힘과 에너지 *이/다*. 무조건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은 낙원 섬의 절대물질 주변에 중심 두는데, 무조건자의 그 외의 고정된 정지상태의 상상할 수 없는 진동이 거기서 발산된다. 그리고 무한한 활력제공자,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원형과 불가사의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무한한 시공우주의, 물질로 된 낙원 심장부의 끝없는 맥박이 뛴다.

104:4.29 (1149.14) *제5 삼중체--무한히 반응하는 삼중체*. 이 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30 (1149.15) 1. 만유의 아버지.

104:4.31 (1149.16) 2. 우주 절대자.

104:4.32 (1149.17) 3. 무조건 절대자.

104:4.33 (1149.18) 이 모임은, 신격이 아닌 실체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무한한 기능의 실현을 영원하게 만든다. 이 삼중체는, 다른 삼중체들의 자발적인, 원인이 되는,

긴장되는, 그리고 원형이 되는 행위 및 현존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104:4.34 (1150.1) 제6 삼중체--시공우주에서_연합된 신격의
삼중체. 이 배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35 (1150.2) 1. 만유의 아버지.

104:4.36 (1150.3) 2. 신격 절대자.

104:4.37 (1150.4) 3. 우주 절대자.

104:4.38 (1150.5) 이것은 시공우주에_계신_신격의 연합, 즉
신격의 초월성과 함께 신격의 내재성이다. 이것은,
신격화된 실체의 영역밖에 있는 그 실체들을 향해서,
신성{神性}이 무한 수준에서 마지막으로 미치는 범위다.

104:4.39 (1150.6) 제7 삼중체--무한히 통일되는 삼중체. 이것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무한한 통일, 즉
실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이 나란히 통합되는 것이다. 이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4.40 (1150.7) 1. 만유의 아버지.

104:4.41 (1150.8) 2. 공동 행위자.

104:4.42 (1150.9) 3. 우주 절대자.

104:4.43 (1150.10) 공동 행위자는, 유한한 것으로부터 초월적인 것을 거쳐 절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준의 모습으로 현시{顯示}된 모든 실체의 다른 기능적 모습을 보편적으로 통합한다. 우주 절대자는 적극적_의지적이고, 무언가 일으키는 신격 실체의 무한한 잠재성으로부터, 무조건 절대자의 불가해한 영역에 있는 실체, 즉 고정되고 반응하는 비{非}_신격 실체의 무한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완전한 실체의 변화하는 양상 속에 타고난, 여러 차이점을 완전하게 보정{補整}한다.

104:4.44 (1150.11) 이 삼중체 속에서 활동함에 따라, 공동 행위자와 우주 절대자는, 신격에게, 그리고 비{非}_신격 현존들에게 똑같이 민감하고, 제1 근원 및 중심 역시 그런데, 그는 이 관계에서 모든 의미와 목적으로 볼 때, 자존자{自存者}의 개념과 구분할 수 없다.

104:4.45 (1150.12) 이런 접근은 삼중체들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삼중체들의 궁극적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 일곱 가지를 완전하게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시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15가지 삼자일체의 연합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말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여덟 가지는 본 문서들에 게시되지 않는다. 게시되지 않는 이 연합체들은 지존성{至尊性}에 대한 체험 수준을 넘어서는 실체, 사실성, 및 잠재성과 관련된다.

104:4.46 (1150.13) 삼중체들은, 무한을 기능적으로 안정시키는 평형 바퀴요, 일곱 무한 절대자의 독특성의 통합이다. 무한이 일곱 절대자로 다양화됐음에도, 아버지_자존자로 하여금 기능적 무한의 통일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삼중체들이 실존적으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삼중체를 통합하는 구성원이며;그분 안에서 만물이, 무조건적 시작, 영원한 실존, 및 무한한 운명을 갖는다--“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104:4.47 (1150.14) 이 연합체들이 아버지_자존자{自存者}의 무한성을 증대시킬 수 없을지라도, 이런 연합체들은 그의 실체가 준{準}무한대와 준절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듯하다. 일곱 삼중체는, 융통성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깊이를 영구화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신격화시키고, 새로운 잠재성을 드러내며, 새로운 의미를

계시하고;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영원한 시공우주에서,
변화 많은 이 모든 징후는, 원래 무한한 자존자가
가정적{假定的}으로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존재한다.

5. 삼극체

104:5.1 (1151.1) 구성에서 아버지를_포함하지_않는 다른 어떤
삼자일체의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삼중체가 아니며, 아버지 삼중체들로부터 언제나
구분된다. 이들은 다양하게 불리는데, 부{副} 삼중체들,
동격 삼중체들, 그리고 *삼극체{三極體}*들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삼중체들이 실존하는 결과로 생긴다. 이 연합체들
가운데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04:5.2 (1151.2) *실제성의 삼극체*. 이 삼극체는 다음의 세 가지
절대적 실상의 상호 관계에 있다:

104:5.3 (1151.3) 1. 영원한 아들.

104:5.4 (1151.4) 2. 낙원 섬.

104:5.5 (1151.5) 3. 공동 행위자.

104:5.6 (1151.6) 영원한 아들은, 영{靈} 실체의 절대자, 즉 절대
인격체다. 낙원 섬은, 시공우주 실체의 절대자, 즉 절대
원형이다. 공동 행위자는, 정신 실체의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영 실체의 협조자이며, 인격체와 능력의 실존적
신격 합성이다. 삼자일체의 이 연합은, 실현된 --영 실체,
시공우주 실체, 또는 정신적-- 실체의 전체 총합에 대한
조화를 생겨나게 한다. 그것은 실제성에서 무조건적이다.

104:5.7 (1151.7) *잠재성의 삼극체*. 이 삼극체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의 연합에 있다.

104:5.8 (1151.8) 1. 신격 절대자.

104:5.9 (1151.9) 2. 우주 절대자.

104:5.10 (1151.10) 3. 무조건 절대자.

104:5.11 (1151.11) 그래서 모든 숨어있는 --영 에너지 실체, 정신적
에너지 실체, 또는 시공우주의-- 에너지 실체의 무한대
저장소들이 상호 연합돼 있다. 이 연합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 실체를 통합하게 한다. 그것은 가능성 면에서
볼 때 무한대다.

104:5.12 (1151.12) 삼중체들이 본래적으로는 무한대의 기능적 통합과 관련되듯이, 삼극체들은 체험적 신격들의 시공우주 출현에 포함된다. 삼중체들은, 체험적 --곧 지존, 궁극, 및 절대-- 신격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삼극체들은 직접 관계된다. 그들은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권능_인격체를 합성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피조물에게, 지존하신 분은 자존자의 통일성에 대한 계시{啓示}다.

104:5.13 (1151.13)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5편 신격과 실체

105:0.1 (1152.1) 높은 계층의 우주 지성체들도, 무한성을 오직 부분적으로만 납득할 수 있으며, 실체의 완결성을 오직 상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실재한다고 부르는 모든 것의 기원 및 운명의 영원함과_신비를 통찰하려 할 때, 영원성_무한성을 거의 무한한 타원{橢圓}이라고 상상함으로써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지 모르는데, 이 타원은 하나의 절대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고, 끝없이 다양화되는 우주의 궤도에 두루

작용하면서, 어떤 절대적이고 무한한 운명의 잠재성을 늘 추구한다.

105:0.2 (1152.2) 필사자 지능이 실체 전부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애쓸 때, 그런 유한한 정신은 무한한 실체와 대면하게 되며; 실체의 총계는 무한 *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수용력에서 무한하지 않은 어떤 정신도, 결코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105:0.3 (1152.3) 인간의 정신은 영원성을 가진 실존에 대해서 적당한 개념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런 납득 없이는 실체 전부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조차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소개를 시도할 수 있는데, 필사 정신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해석하고_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개념들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음도 잘 안다.

1. 자존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

105:1.1 (1152.4) 여러 우주의 철학자들은, 무한 속에서 절대 시초의 원인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자존자{自存者}로서 활동하시는 만유의 아버지께 있다고 추정한다.

105:1.2 (1152.5) 이 무한한 자존자 개념을 필사 지능에게 제시하는 데에는, 뒤따르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개념은 인간이 체험으로 이해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가치를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존자에 대한 철학적 개념은, 절대적 기원{起源}과 무한한 운명을 부분적으로 납득해보려고 시도하도록, 유한한 존재들에게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체의 발생 및 결실{結實}을 밝히려고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든지, 이 자존자 개념은, 모든 인격체 의미 및 가치에서 신격의 제1 인격자, 즉 모든 인격체의 만유의 아버지와 똑같은 의미임을 분명히 해두자. 하지만 이 자존자라는 가정{假定}은, 신격화되지 않은 우주 실체의 영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될 수 없다.

105:1.3 (1152.6) *자존자는 무한자시며; 자존자는 또한 무한이시다.* 연속되는 시간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실체는 무한하신 자존자 안에서 기원되는데, 과거의 무한한 영원성 속에 그가 홀로 실존했다는 것이, 유한한 피조물의 첫째 철학적 가정이 돼야만 한다. 자존자 개념은, *무조건적 무한대*, 즉 무한한 영원 전체 속에서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직 분화{分化}되지 않은, 그런 실체를 암시한다.

105:1.4 (1153.1) 실존적 개념으로서 자존자는, 신격화 되지도 비신격화 되지도 않으며, 실제적이지도 잠재적이지도 않으며, 인격적이지도 비인격적이지도 않으며, 정적{靜的}이지도 역동적이지도 않다. 자존자가 *계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제한조건도 무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자존자라는 철학적 가정은, 무조건 절대자 개념보다 납득하기가 다소 더 어려운, 하나의 우주 개념이다.

105:1.5 (1153.2) 유한한 정신에게는 단순히 어떤 시작이 있어야만 하며, 실체에게 어떤 진정한 시작이 결코 없었을지라도, 여전히 실체가 무한으로 나타나는 어떤 근원적 관계들이 있다. 실체 이전{以前}의, 근본적인, 영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무한히 먼, 가정{假定}하는, 영원한_과거의 어떤 순간에 자존자는, 물체이자 비{非}물체로서, 원인과 결과로서, 의지작용과 반응으로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하는 이런 영원의 순간에는 무한 전반에 아무런 분화{分化}가 없었다. 무한은 무한자로 채워지고;무한자는 무한을 포함한다.

이것이 영원에 대해서 가정한 정적{靜的} 순간이며;실상은 그들의 잠재성 속에 아직 가뒤틀린 상태였고, 잠재성은 자존자의 무한 속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는 상황에서도, 자아_의지의 가능성이 실존함을 가정해야만 한다.

105:1.6 (1153.3) 사람이 만유의 아버지를 납득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임을 항상 기억해라. 너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필사자도 납득할 수 있지만;*너희가 체험적으로 경배할만한 만유의 아버지 개념은, 제1 근원 및 중심, 즉 자존자가 무한하시다는 너희의 철학적 가정보다 반드시 작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고등{高等} 피조물과 하등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뜻하지만, 신격에게는 우주의 피조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 네 아버지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실체로서 우리가 감지하는, 무한자의 그 국면이지만, 자존자는 제1 근원 및 중심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가정{假定}으로서 항상 남아 계신다. 그리고 그 가정조차 원래 실체의 광대한 무한성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105:1.7 (1153.4) 온갖 우주는, 거기에 거주하는 무수한 무리의
인격체와 함께, 방대하고 복잡한 유기체에 해당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은 그의 의도적 지시에 반응해서 실재하게
된, 우주들 및 인격체들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다. 네가
총괄우주의 장관{壯觀}을 보고 놀라며 서 있을 때, 잠시
멈춰 서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창조조차 무한자의 부분적
게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105:1.8 (1153.5) 무한은, 필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체험 수준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지만, 유란시아에서 이 시대에도, 무한에
대한 너희의 개념은 점점 자라가고 있으며, 미래의 영원을
향해서 앞으로 뻗어가는 너희의 끝없는 생애들 내내 계속
자라갈 것이다. 조건 없는 무한은 유한한 피조물에게
무의미하지만, 무한은 스스로_제한할 수 있고 모든 수준의
우주 실존들에게 실체의 표현을 허용한다. 그리고
무한자가 모든 우주 인격체를 향해서 돌리는 그 얼굴은,
아버지, 즉 사랑이 넘치는 만유의 아버지의 얼굴이다.

2. 삼자일체 및 칠중으로서의 자존자

105:2.1 (1153.6) 실체의 기원을 고려할 때, 모든 절대 실체가
영원부터 있다는 것과, 실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우리는 신격의 세 실존적 인격자, 낙원
섬, 그리고 세 절대자를 절대 실체로 언급한다. 우리가 일곱
실체의 연속되는 기원을 인간에게 제시할 때 시_공간
언어에 의존할지라도, 이 일곱 실체는 대등하게 영원하다.

105:2.2 (1154.1) 실체의 기원을 연대{年代} 순으로 계속
설명하려면, 자존자 안에 "최초"의 의지가 표현되고, 이
영향에 "최초"로 반응하는, 이론적으로 가정하는 순간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실체의 기원과 발생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때, 이 단계는 *무궁한 존재*에서 *무한한 분*이 스스로
분리하는 것으로 상상해도 되지만, 이런 이중 관계의
가정{假定}은, *무한자*, 즉 자존자가 영원히 연속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삼자일체를 생각하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확장돼야 한다.

105:2.3 (1154.2) 자존자가 이렇게 스스로_변신하시는 것은,
신격화된 실체와 비신격화된 실체,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실체,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분류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실체들로 마침내 다양하게 분화{分化}되기에 이르렀다.
이론적으로 일원적인 자존자의 이런 분화는, 바로 그
자존자 안에서 일어나는 동시적 관계들로 인해 영원히

통합된다--이 자존자는 잠재이전이고, 실제이전이고, 인격이전인, 홀로단정적인 선{先}실체인데, 이 선{先}실체는 무한하지만 제1 근원 및 중심의 현존에서 절대로서 드러나고,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인격체로서 드러난다.

105:2.4 (1154.3) 자존자는, 이런 내부 변신으로 말미암아, 칠중{七重}의 자아_관계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혼자인 자존자라는 철학적 (시간) 개념과, 삼자일체로서 과도기의 자존자 (시간) 개념은, 이제 자존자를 칠중으로 포함할 만큼 확장될 수 있다. 이 칠중--곧 일곱 현상--의 본성은, 일곱 무한 절대자에 대한 관계로 제시되는 것이 최선일지 모른다:

105:2.5 (1154.4) 1. *만유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의 아버지이신 자존자. 이것은 실재하는 자들의 원초적 인격체 관계다. 아들의 절대 인격체는, 하나님ی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인격체의 잠재적 아들신분을 설립한다. 이 관계는, 무한자가 인격체임을 확증하고, 그 영적 계시를 원본 아들의 인격체 안에서 완성한다.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필사자들도, 자존자의 이 단계를 영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다.

105:2.6 (1154.5) 2. 우주 통제관. 영원한 낙원의 원인인 자존자. 이것은 실재하는 자들의 원초적 비인격자 관계, 즉 원래의 비{非}영적 연합이다. 만유의 아버지는 사랑으로서의_하나님이시고;우주 통제관은 원형{原型}으로서의_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는 형태--곧 구성--의 잠재성을 설정하고, 비인격적 관계와 비영적 관계의 기본 원형--곧 모든 복사본을 만들게 하는 근본 원형--을 결정한다.

105:2.7 (1154.6) 3. 우주의 창조주. 영원한 아들과 하나인 자존자. (낙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합동이 창조적 순환을 개시하는데, 공동 인격체와 영원한 우주의 출현에서 완성된다. 유한한 필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보나 창조가 영원히 출현함과 함께 실체가 정말로 시작한다. 신격의 이런 창조 활동은, 행동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행동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본질적으로 그는, 실재하는 것들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에 대하여 명시된, 아버지_아들의 통일이다. 따라서 신성한

창조성은, 틀림없이 통일된 특징을 가지며, 이런 통일성은, 이원{二元}인 아버지_아들의 절대적 하나 됨과 아버지_아들_영의 삼위일체가 바깥으로 반사된 것이다.

105:2.8 (1155.1) 4. *무한한 유지자*. 스스로_연합하는 자존자. 이것은 실체의 근본적인 정적{靜的} 및 잠재적 연합이다. 이 관계에서,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모두가 보정{補整}된다. 자존자의 이 국면은, 우주 절대자--곧 신격과 무조건 절대자들을 통합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105:2.9 (1155.2) 5. *무한한 잠재력*. 스스로_제한한 자존자. 이것은 자존자가 의지로 스스로를_제한함에 대해서 영원히 증거하는 무한의 기준점이며, 그 덕분에 삼중적 자기_표현과 자기_게시가 이뤄졌다. 자존자의 이 국면을 대개 신격 절대자라고 이해한다.

105:2.10 (1155.3) 6. *무한한 수용력*. 정적{靜的}이면서_반응하는 자존자. 이것은 끝없는 행렬, 즉 미래에 모든 시공우주가 확장할 가능성이다. 자존자의 이 국면은, 아마 인력{引力}을 초월하는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7. *무한성을 지닌, 우주의 한 분*. 자존자로서의 자존자. 이것은 무한자의 균형 상태 또는 자아_관계, 즉 무한한_실체가 영원한 사실이요 실체가_무한하다는 보편적 진리다. 이 관계가 인격체로서 식별될 수 있는 한, 모든 인격체의--심지어 절대 인격체의--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 우주들에게 드러난다. 이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한, 만유의 아버지의 현존 안에서, 우주들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절대 통일로서 이를 접촉한다. 이 관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탁월함에서 드러나며;공간에 있는 피조물로부터 낙원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누리며;이것은 무한소{無限小} 궁극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괄우주에서도 똑같이 참말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참말일 것이다.

3. 일곱 무한 절대자

자존자 안에서 근원적인 일곱 관계는, 일곱 무한 절대자로서 영존{永存}한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실체 기원들과 무한성 구분을 설명하더라도, 사실은 일곱 절대자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대등하게 영원하다. 필사 정신은 그들의 시초{始初}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곱 절대자에게 시작이 없었음을 깨달음으로 이 생각을 항상 물리쳐야만 하며;그들은 영원하고 그렇게 항상 존재해 왔다. 일곱 절대자는 실체의 전제조건이다. 그들은 본 문서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돼 왔다:

105:3.2 (1155.6) 1. 제1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1 인격자이며 근본적인 비신격 원형,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창조자, 통제관, 유지자, 우주적 사랑, 영원한 영, 무한의 에너지;모든 잠재성의 잠재성이고 모든 실재하는 것들의 근원;모든 정적인 것의 안정성이고 모든 변화의 원동력;원형의 근원이고 인격자들의 아버지. 집단으로서, 일곱 절대자 전체는 무한성과 동등하지만, 만유의 아버지 자신은 실제로 무한하시다.

105:3.3 (1155.7) 2. 제2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2 인격자, 영원한 원본 아들;자존자의 절대 인격체 실체들이며, “자존자 인격체”를 실현하고_게시하기 위한 기초. 어떤 인격체도, 영원한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으며;모든 인격체의 이 절대 원형의

조처와 도움 없이는, 아무 인격체도 영 수준의 실존에 도달할 수도 없다. 제2 근원 및 중심 안에서, 영은 무조건적이고 한편 인격체는 절대적이다.

105:3.4 (1156.1) 3. **낙원 근원 및 중심.** 제2 비신격{非神格} 원형, 영원한 낙원 섬;“자존자 세력”을 실현하고_계시하기 위한 기초이며, 우주 전반에 걸친 인력{引力} 통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토대. 실체화 된, 비영적인, 비인격적인, 그리고 의지가 없는 모든 실체에게, 낙원은 절대 원형{原型}이다. 영 에너지가, 어머니이신_아들의 절대 인격체를 통해서 만유의 아버지와 관련됨과 똑같이, 모든 시공우주 에너지는, 낙원 섬이라는 절대 원형을 통해서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력 통제에 붙잡혀 있다. 낙원은 공간 속에 있지 않으며;공간은 낙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상습적인 움직임은 낙원과 갖는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 영원한 섬은 절대로 안정돼 있으며;조직돼 있고 조직하는 다른 모든 에너지는 영원히 움직이고 있으며;전체 공간 속에서, 오직 무조건 절대자의 현존만 정지돼 있고, 무조건자는 낙원과 조화를 이룬다. 낙원은 공간의 초점에 존재하고, 무조건자가 공간을 채우고, 모든 상대적 실존은 이 영역 안에서 그 존재를 누린다.

105:3.5 (1156.2)

4. 제3 근원 및 중심. 신격의 제3 인격자, 공동 행위자; 낙원의 시공우주 에너지를, 영원한 아들의 영 에너지와 무한히 결합시키는 존재; 의지의 동기와 세력의 역학을 완전하게 조정하는 자; 모든 실재하는 실체와, 실현해가는 실체를 통합하는 자. 무한한 영은, 자신의 다양한 자녀의 보살핌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의 자비를 드러내는 동시에 무한한 조종자 역할을 하고, 공간의 에너지 속으로 낙원의 원형을 영원히 엮어 넣는다. 바로 이 공동 행위자, 즉 이 행동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표현한 분이며, 한편 그 자신은 광범위한 시공우주의 피조물에게 정신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지능을 수여하는 자로서 작용한다.

105:3.6 (1156.3)

5. 신격 절대자. 우주 실체의 원인이 되고 잠재적으로 인격자가 될 가능성, 신격의 전체 잠재성의 총합.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비신격인 실체들을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분이다. 신격 절대자는 절대적인 것을 제한하는 분이며, 제한하는 것들을 절대화하는 분이다--운명 개시자다.

105:3.7 (1156.4) 6. *무조건 절대자*. 정적{靜的}이고, 반응하고, 정지된;자존자의 계시되지 않은 시공우주 무한성;비신격화된 실체의 전체성 및 모든 최종 비인격적 잠재성. 공간이 무조건자의 역할을 제한하지만, 무조건자의 현존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 총괄우주에는 개념적 외주{外周}가 있지만, 무조건자의 현존은 무한하며;영원조차 이런 비신격 절대자의 끝없는 정지상태를 고갈시키지 못한다.

105:3.8 (1156.5) 7. *우주 절대자*. 신격화된 존재와 신격화되지 않은 존재를 통합시키는 자;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연관시키는 자. 우주 절대자는 (정적이고 잠재적이고 연합하기 쉬우므로) 항상_존재하는 것과 완성되지 않은 것 사이의 균형상태를 보상한다.

105:3.9 (1156.6) 일곱 무한 절대자는 실체의 시초를 구성한다. 필사 지성인들이 간주하고 싶어 하는 바와 같이, 제1 근원 및 중심은 모든 절대보다 앞서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정은, 도움은 되더라도, 아들, 영, 세 절대자, 및 낙원 섬이 영원히 공존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절대자들이 자존자_제1 근원 및 중심의 형태화라는 것은 *진리*이며;이 절대자들에게는 결코 시작이 없었지만, 제1 근원 및 중심과 동등한 영원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영원 속에서 절대적인 것들의 관계는, 시간이라는 용어에, 그리고 공간이라는 개념 원형에 모순{矛盾}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일곱 무한 절대자의 기원에 관한 어떤 혼동에도 관계없이, 모든 실체가, 그들이 영원히 실존하는 것과, 무한한 관계들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사실인 동시에 진리다.

4. 단일체, 이중체, 삼중체

우주를 연구하는 현자{賢者}들은, 자존자의 영원성 실존을 모든 실체의 시초 근원이라고 가정한다. 그와 동시에, 자존자가 여러 원초적 자아_관계로--곧 무한성의 일곱 단계로-- 스스로_분할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설과 동시에, --일곱 무한 절대자가 영원에 출현했고, 자존자의 일곱 국면과 이 일곱 절대자의 이중체{二重體} 연합이 영원하게 됐다는-- 셋째 가정이 있다.

105:4.2 (1157.3) 자존자의 자아_계시는, 이처럼 정지된 자아로부터, 자아_분할과 자아_관계를 거치고, 절대 관계까지, 즉 스스로_파생한 절대자들과 갖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이중체는, 일곱 무한 절대자가 자신을_드러내는 자존자의 자아_분할 국면에서, 칠중{七重} 무한성과 영원히 연합됨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중적 관계들은, 우주들에게 일곱 절대자로서 영구화{永久化} 되면서, 모든 우주 실체를 위해 기본적인 기초들을 영구화시킨다.

105:4.3 (1157.4) 단일체가 이중체를 낳는다는 것, 이중체가 삼중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삼중체가 모든 사물의 영원한 조상이라는 것을 언젠가 진술한 적이 있다. 중대한 세 계층의 근본 관계들이 정말로 있는데, 다음과 같다:

105:4.4 (1157.5) 1. *단일체 관계*. 자존자 안에 존재하는 관계들, 이 관들의 통일은 삼중 자아_분화{分化}로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칠중 자아_분화로 생각되는 바와 같다.

105:4.5 (1157.6) 2. *이중체 관계*. 칠중인 자존자와 일곱 무한 절대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들.

105:4.6 (1157.7) 3. 삼중체 관계. 이 관계들은 일곱 무한 절대자의 기능적 연합체다.

105:4.7 (1157.8) 절대자 상호연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삼중체 관계들은 이중체 기초 위에서 생겨난다. 그런 삼중체 연합들은 모든 실체의 잠재성을 영구화 시키며;신격화 된 실체와 비신격화된 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105:4.8 (1157.9) 자존자는 통일체로서 무조건적 무한이다. 이중체들은 실체의 기초들을 영구화시킨다. 삼중체들은 보편적 기능으로서 결국 무한을 실현한다.

105:4.9 (1157.10) 선재하는 것들은 일곱 절대자 안에서 실존적이 되며, 실존하는 것들은, 삼중체들, 즉 절대자들의 기본 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삼중체들이 영구화됨과 동시에, 우주의 무대가 준비되고--곧 잠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실재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영원성이 충만해지면 시공우주 에너지가 다양해지고, 낙원 영이 퍼져나가고, 인격체의 증여와 함께 정신의 기증이 나타나는데, 이 덕분으로, 모든 신격 및 낙원 파생물들은 피조물 수준에서 체험으로 통합되고, 피조물을 초월하는 수준에서는 다른 기법으로 통합된다.

5. 유한한 실체의 확산

105:5.1 (1158.1) 자존자의 원래 다양화를, 선천적인 자기_충족 의지작용 탓으로 돌려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한 실체의 확산에 대해서는, 낙원 신격이 의지로 하는 여러 작용, 그리고 기능적 삼중체들이 반응해서 조정하는 탓으로 돌려야만 한다.

105:5.2 (1158.2) 유한한 자가 신격화되기 전에는, 모든 실체의 다양화가 절대 수준에서 일어난 듯이 보이겠지만;의지로 하는, 유한한 실체를 확산시키는 행동은, 절대성이 제한됨을 의미하고, 상대적인 것들이 출현함을 암시한다.

105:5.3 (1158.3)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제시하고, 유한한 자들의 역사적 출현을, 절대자들로부터 직접 파생된 것으로 묘사하지만, 초월자들은 유한한 모든 것보다 앞서고 또한 뒤따랐을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초월 궁극자들은, 유한자와 갖는 관계에서, 원인인 동시에 완결이다.

105:5.4 (1158.4) 유한한 가능성은 무한자에 내재적이지만, 가능성이 개연성{蓋然性}과 필연성으로 변질되는 것은, 모든 삼중체 연합을 활성화시키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스스로_실존하는 자유의지 탓으로 돌려야만 한다. 오직 아버지 뜻의 무한성만이, 결국 한 궁극자가 생기게 하거나 한 유한자를 창조하도록, 절대 수준의 존재를 일찍이 제한할 수 있었다.

105:5.5 (1158.5) 상대적이고 제한된 실체의 출현과 함께, 실체의 새로운 주기{週期}--곧 성장 주기--가 존재하게 되며, 이것은 무한대의 절정에서 유한자의 영역으로 당당하게 아래쪽으로 굽히는 것이요, 유한자는 낙원과 신격을 향해 영원히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무한 근원에 알맞은 높은 수준의 운명을 항상 추구한다.

105:5.6 (1158.6)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진행사항이 우주 역사의 시초를 장식하고, 시간 그 자체가 실존하게 되는 것을 표시한다. 한 피조물에게, 유한자의 시작은 실체의 시초 *이/며*; 피조물 정신이 보건대, 유한자에 앞서, 상상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유한한 실체는 원래의 두 국면에서 존재한다:

105:5.7 (1158.7) 1. *1차 극대존재들*, 최상으로 완전한 실체, 하보나 유형의 우주와 피조물.

105:5.8 (1158.8) 2. 2차 극대존재들, 최상으로 완전하게 된 실체, 연방우주 유형의 피조물과 창조.

105:5.9 (1158.9) 그 다음에, 이들은 원래의 두 형태화 즉:구조적으로 완전한 자와 진화로 완전하게 된 자다. 이들은 영원성 관계에서 동등하지만, 시간의 한계 속에서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인다. 시간 요소는 성장하는 것들에게 성장을 의미하고;2차 유한자들은 성장하며;따라서 성장하는 자는 시간세계에서 미완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낙원의 이쪽 편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영원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05:5.10 (1158.10) 우리는 완전한 자와 완전하게 된 자에 대해서 1차 및 2차 극대존재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유형도 존재한다:1차인 자들과 2차인 자들 사이에, 삼위일체처럼됨 및 기타 여러 관계는, 3차 극대존재들의 출현을 초래한다--이것들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 완전하게 되지도 않지만, 조상이 되는 두 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사물, 의미, 및 가치다.

6. 유한한 실체의 반응

105:6.1 (1159.1) 유한한 실존들의 출현 전체가, 기능적 무한성의 절대적 연합 속에서, 잠재하는 것으로부터 실재하는 것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유한자의 창조적 현실화에 대한 많은 반응 가운데, 다음 것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105:6.2 (1159.2) 1. *신격 반응*, 세 수준에서 체험적 지존성의 출현: 하보나에서, 인격있는 영이 최상이라는 사실, 앞으로 이뤄질 광우주에서, 인격있는 권능이 최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총괄우주에서, 어떤 지존성 수준에서 작용하는 체험적 정신이 가진,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능을 위한 수용력.

105:6.3 (1159.3) 2. *우주 반응*은 연방우주 공간 수준을 위한 건축양식 계획들이 활성화됨과 관련되며, 이 진화는 일곱 연방우주의 물리적 조직에 두루,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105:6.4 (1159.4) 3. *피조물 반향*, 하보나의 영원한 거주자 계통에서 완전한 존재들,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로부터 진화로 완성된, 상승하는 존재들의 출현으로 귀착되는 유한한 실체의 확산에 대해서. 그러나 진화하는 (시간_창조적) 체험으로 완전성을 달성함은, 출발지점이

완전성이_아닌_다른 무엇을 암시한다. 그래서 진화 창조에서 불완전함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잠재적 악의 기원이다. 부적응, 부조화, 및 갈등, 이 모든 것은, 물리적 우주들로부터 인격있는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진화로 성장하는 데 내재한다.

105:6.5 (1159.5) 4. 진화로 인한 시간 지연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에 대한 신성{神性} 반응은, 칠중 하나님의 보정하는 현존에서 드러나며,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자와 완전하게 된 자, 이 둘과 결합된다. 이 시간지연은 진화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데, 진화는 시간세계에서 창조성이다. 다른 여러 이유는 물론, 시간 지연 때문에, 지존자의 전능한 힘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 성취에 입각한다. 이 시간 지연은, 피조 인격체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발달을 달성하면서 신격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성한 창조에 피조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필사 피조물의 물질 정신조차, 이처럼 불멸의 혼의 이원화{二元化}에서 신성한 조율사와 동역자가 된다. 또한 칠중 하나님은, 상승_이전{以前}에 불완전했던 한계를 보정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완전성의 체험적 한계를 보정하는 기법도 마련해 준다.

7. 초월자의 결말

^{105:7.1 (1159.6)} 초월자들은 무한 이하이고 절대 이하이지만, 유한 이상이고 피조물을 초월한다. 초월자는, 절대자의 초월가치를 유한자의 최고 가치와 서로 연결해서 결합시키는 수준으로 생겨난다. 피조물 입장에서는, 초월자는 유한자의 결말로;영원성 관점에서는, 유한자를 예상해 생겨난 것처럼 보일 것이며;이것이 유한자를 “예시한_것”이라고 간주한 자들도 있다.

^{105:7.2 (1159.7)} 초월적인 것이 반드시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것은 유한한 의미에서 진화를 초월하며;게다가 비체험적인 것도 아니지만, 피조물에게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서 체험을 초월한다. 그런 역설의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완전한 중앙우주일 것인데:중앙우주는 도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낙원 섬만이 “물질화됐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절대적이다. 또한 그것은 일곱 연방우주와는 달리 유한한 진화 창조물도 아니다. 하보나는 영원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우주라는

의미에서 변화가 없지는 않다. 피조물이(하보나 원주민이) 하보나에 거주하고, 그들은 실제로 창조된 적이 없는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보나는, 완전하게 유한하지 않고 더욱이 절대적이지도 않은 어떤 것을 예증한다. 더 나아가 하보나는, 절대적인 낙원과 유한 창조계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작용하며, 게다가 초월자들의 기능을 밝혀준다. 그러나 하보나 자체는 초월적이지 않다--그것이 하보나다.

105:7.3 (1160.1) 지존자가 유한자들과 관련되듯이, 궁극자는 초월자들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존자와 궁극자를 그렇게 비교하더라도, 그들은 정도 차이 이외의 어떤 면에서 다르며;그 차이는 또한 질적 문제다. 궁극자는 초월 수준에 투사된, 초월_지존자 이상의 어떤 존재다. 궁극자는 그 모든 것이지만, 그 이상이다:궁극자는 새로운 신격 실체들의 결말, 즉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것의 새로운 여러 국면을 제한하는 것이다.

105:7.4 (1160.2) 초월 수준과 관련된 그런 실체들 가운데는 다음이 있다:

105:7.5 (1160.3) 1. 궁극자의 신격 현존.

105:7.6 (1160.4) 2. 총괄우주의 개념.

105:7.7 (1160.5) 3. 총괄우주의 구조.

105:7.8 (1160.6) 4. 두 계층의 낙원 세력 조직자.

105:7.9 (1160.7) 5. 공간 잠재력 속의 어떤 변경.

105:7.10 (1160.8) 6. 영의 어떤 가치.

105:7.11 (1160.9) 7. 정신의 어떤 의미.

105:7.12 (1160.10) 8. 유한절대 특성 및 실체.

105:7.13 (1160.11) 9. 전능, 전지{全知}, 및 편재{遍在}

105:7.14 (1160.12) 10. 공간

105:7.15 (1160.13)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는 유한, 초월, 및 절대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인격체가 공연하고 에너지가 변질되는, 끝없는 연극을 상연하는 시공우주 무대다.

105:7.16 (1160.14) 그리고 이 다양한 실체 전부를 여러 삼중체가 절대적으로 통합하고, 총괄우주 설계자들이 기능적으로 통합하며, 일곱 으뜸 영이 상대적으로 통합하는데, 으뜸

영들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을 최상 수준보다 밑에서 조정한다.

105:7.17 (1160.15) 칠중 하나님은, 최고 신분의 피조물과 최고 신분보다 밑에 있는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 및 신성이 계시됨을 의미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영적 사역이 형태화되는 것과 상관없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칠중 관계가 있다.

105:7.18 (1160.16) 영원한 과거에, 절대자들의 세력, 신격들의 영, 및 하나님들의 인격체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_의지의 근본적 자아_의지에 반응해서 술렁였다. 이런 우주 시대에 우리는 모두, 이 모든 실체의 무한한 잠재력이 준절대적 징후로 나타나는, 광범위한 시공우주 광경에 대한 엄청난 반응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제1 근원 및 중심의 원래 실체의 계속된 다양화가, 세월이 흘러가는 내내, 계속 반복해서, 아득히 멀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 무한대의 범위 속으로 전진하면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

105:7.19 (1161.1)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6편 실체의 우주 수준

106:0.1 (1162.1) 상승하는 필사자는, 시공우주 실체의 발생 및 형태화와 신격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며;또한 실존적인 실체와 체험적인 실체, 즉 잠재하는 실체와 실재하는 실체의 수많은 수준과 자신 사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무언가 납득해야만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방향감각, 시공우주 통찰력, 그리고 영적 방향설정은 모두, 우주 실체들을 더 낮게 납득하고, 이것들이 상호연합되고 종합되고 통합되는 그 기법을 더 잘 납득함으로써 향상된다.

106:0.2 (1162.2) 현재의 광우주와 떠오르는 총괄우주는 여러 형태와 국면의 실체로 구성돼 있고, 이것들은 다시 기능적 활동의 몇 가지 수준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실존하는 것들과 잠재하는 것들은 본 문서들에서 이미 제시됐으며, 이제 개념적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한다:

106:0.3 (1162.3) 1. *불완전한 유한*. 이것은 광우주의 상승하는 피조물의 현재 상태, 즉 유란시아 필사자의 현재 상태다. 이 수준은, 행성 인간으로부터 운명 달성자 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피조물 실존을 포함한다. 이 수준은, 초기 물리적 출발점으로부터 빛과 생명에 정착하기 직전까지, 그러나 안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우주들에 해당된다. 이 수준은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 활동이 있는 현재의 바깥둘레를 구성한다. 이 수준은, 현재 우주 시대가 마감되는 것을 위해서, 낙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듯한데, 그 시대가 마감되면, 광우주가 빛과 생명에 도달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분명히, 첫 외부 공간 층에서 발전하여 성장하는, 새로운 어떤 질서의 출현을 목격할 것이다.

106:0.4 (1162.4) 2. *최대 유한*. 이것은 운명을--곧 현 우주 시대의 범위 내에서 계시된 운명을-- 달성한 모든 체험하는 피조물의 현재 상태다. 심지어 우주들도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최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라는 말은 그 자체가 상대적 용어다--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최대인가?. 그리고 최대에 달한 그것은, 현재 우주 시대에서 보기에는 최종적이지만, 다가올 시대들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보나의 어떤 국면들은 최대 상태인 듯이 보인다.

106:0.5 (1162.5) 3. 초월. 유한한 진보 다음에, 유한을 초월하는 이 수준이 (먼저) 따라온다. 이것은 유한 시초들의 유한_이전 발생과, 뚜렷하게 유한한 모든 종말 또는 운명이 유한_이후에 갖는 중요성을 암시한다. 낙원과_하보나 대부분은 초월 상태에 있는 듯이 보인다.

106:0.6 (1162.6) 4. 궁극. 이 수준은, 총괄우주 중요성이 있고 완성된 총괄우주의 운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한다. 낙원과_하보나는 (특히 아버지 세계들의 회로는) 여러 면에서 궁극적 중요성을 갖는다.

106:0.7 (1163.1) 5. 공동절대. 이 수준은, 창조적으로 표현되는, 총괄우주를 초월하는 분야에, 체험하는 자들이 입안{立案}됨을 의미한다.

106:0.8 (1163.2) 6. 절대. 이 수준은, 실존적 일곱 절대자가 영원부터 현존함을 암시한다. 또한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연합하는 체험적 달성을 포함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며, 아마 인격체의 잠재력과 접촉함을 통해서일 것이다.

106:0.9 (1163.3) 7. 무한. 이 수준은 실존_이전이며 체험_이후다. 무한의 무조건적 통일은, 모든 시초보다 앞에 있고 모든 운명 이후에 있는 가상의 실체다.

106:0.10 (1163.4) 실체의 이 수준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그리고 필사자의 관점을 위한, 절충하는 편리한 상징법이다. 필사자가_아닌_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우주 시대들의 입장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첨부하여 제시된 개념들은 완전히 상대적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에 제약을 받고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106:0.11 (1163.5) 1. 필사자 언어의 한계.

106:0.12 (1163.6) 2. 필사 정신의 한계.

106:0.13 (1163.7) 3. 일곱 연방우주의 제한된 발달.

106:0.14 (1163.8) 4. 낙원을 향해서 필사자가 상승하는 데 관계되지 않는, 연방우주의 주요 여섯 목적에 대한 너희의 무지함.

106:0.15 (1163.9) 5. 영원성 관점을 부분적으로도 파악하지 못하는 너희의 무력함.

106:0.16 (1163.10) 6. 일곱 연방우주가 진화로 펼쳐지는 현 시대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모든 우주 시대와 관련된 시공우주의
진화와 운명을 묘사하기가 불가능함.

106:0.17 (1163.11) 7. 실존_이전의 존재 또는 체험_이후의
존재들이--곧 시작 이전에 있는 것과, 운명 이후에 있는
것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할 능력이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음.

106:0.18 (1163.12) 실체의 성장은 이어지는 여러 우주 시대의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중앙우주는 하보나 시대에 진화적
변화를 전혀 겪지 않았지만, 연방우주 시대의 현재
시기에는 진화하는 연방우주들과 협조함으로써 야기되는,
어떤 진취적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진화하고 있는 일곱
연방우주가 언젠가는 빛과 생명의 안정된 상태에 도달할
것인데, 현재 우주 시대에 적합한 성장 한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다음 시대, 즉 첫째 외부 공간 층
시대에는, 연방우주들이 현재 시대의 운명 한계로부터
풀려날 것이다. 완성됨에 따라 충만함이 계속
첨가{添加}되고 있다.

106:0.19 (1163.13) 이것들은, 사물, 의미, 및 가치의 성장에 대하여, 그리고 항상_올라가는 실체 수준에서 이들의 합성에 대하여 통합된 개념을 제시하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시공우주에서 만나는 한계 가운데 일부다.

1. 유한한 기능의 1차 연합

106:1.1 (1163.14) 유한한 실체의 1차 국면, 즉 영에서_지원되는 국면은, 피조물 수준에서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우주 수준에서는 완전한 하보나 창조로서 직접 표현된다. 심지어 체험하는 신격도, 하보나에 계신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의 2차, 진화적인, 시간과_물질에_제약을 받는 국면들은, 오직 성장과 달성하는 결과로서만 시공우주에서 통합된다. 2차 유한자, 즉 완전하게 되는 유한자는 모두, 결국 1차 완전성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겠지만, 그런 운명은 시간 지연에 종속되는데, 중앙 창조에서는 유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연방우주의 구조적 제한에 종속된다. (우리는 3차 유한자가 실존함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통합하는 기법은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106:1.2 (1164.1) 이 연방우주의 시간 지연, 즉 완전성의 달성을 막는 이 방해물은, 진화적 성장에 피조물이 참여하도록 만든다. 시간 지연은 이처럼 피조물로 하여금, 바로 그 피조물을 진화시키는 데 창조주와 협동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든다.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는 이 시절에, 불완전한 자는 칠중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자와 서로 관련된다.

106:1.3 (1164.2) 칠중 하나님은,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낙원 신격이 시간이라는 방해물을 인식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하는 한 물질 인격체가 낙원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공간적으로 아무리 깊은 데서 기원되더라도, 칠중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 불완전하고 허덕이며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으로 이뤄진, 사랑하는 사역과 자비로운 사역에 동참하심이 발견될 것이다. 칠중 하나님의 신성{神性} 사역은, 영원한 아들을 거쳐서 낙원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뻗어나가며, 태고 항존자들을 거쳐서 지방우주 아버지들--곧 창조주 아들들--에게 이르기까지 밖으로 뻗어나간다.

106:1.4 (1164.3) 사람은, 인격을 가졌고 영적 진보로 상승하기 때문에, 칠중 신격의 인격있는 신성과 영적 신성을 발견하지만;인격체의 진보와 관계되지 않는 칠중 하나님의 다른 국면들이 있다. 이렇게 집단화하는 신격의 신성 양상들은, 일곱 으뜸 영과 공동 행위자 사이의 접촉으로 현재 결합돼 있지만,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떠오르는 인격체 속에서 영원히 통합될 운명이다. 칠중 신격의 다른 국면들은 현재의 우주 시대에 다양하게 통합돼 있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지존자 안에서 통합될 운명이다. 모든 국면에서, 칠중 하나님은 현재 광우주의 기능적 실체가 상대적으로 통일되는 근원이다.

2. 최상의 2차 유한 통합

106:2.1 (1164.4) 칠중 하나님이 유한한 진화를 기능적으로 조화시키듯이, 지존하신 분은 결국 운명의 달성을 종합한다.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진화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신격이다--영 핵심들 주위에 물리적 진화가 있으며, 물리적으로 진화하는, 회전하며 소용돌이치는 영역을, 영 핵심들이 종국에 지배한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인격체, 즉:가장 높은 의미에서 낙원 인격체, 우주 의미에서 창조주 인격체, 인간적 의미에서 필사자 인격체,

궁극의 또는 체험으로 종합하는 의미에서 지존자
인격체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한다.

106:2.2 (1164.5) 지존자 개념은, 영 인격자, 진화적 권능, 및
권능과_인격체의 합성을--곧 진화적 권능을 영 인격체와
통합하고, 영 인격체가 그 권능을 지배하는 것을--
구별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106:2.3 (1164.6) 최종적으로, 영은 낙원으로부터 하보나를 거쳐서
온다. 에너지와_물질은, 외관상 공간 깊은 데서 진화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과 협력해서 무한한 영의
자손들이 이를 능력으로 조직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체험적이며;심지어 창조주 신{神}들과
진화하는 피조물도 포함해서, 폭넓은 살아있는 존재를
참여시키는 시간과 공간의 진행사항이다. 광우주에서
창조주 신들이 권능을 지배하는 것은, 차츰 확대돼서
시_공간 창조계가 진화로 정착되고 안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이것은 칠중 하나님의 체험적 권능이 절정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가 조율사를 증여하는
것으로부터, 낙원 아들이 생명을 증여하기까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신성을 달성하는 전체 범위를 포함한다.

이것은 획득한 권능, 입증한 권능, 체험으로 얻은 권능이며;낙원 신격들이 가진, 영원성 권능, 불가해{不可解}한 권능, 실존적 능력과 대조 된다.

106:2.4 (1165.1) 칠중 하나님이 신으로서 성취하는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이 체험적 권능 자체는, 합성함으로써--곧 총합{總合}함으로써--, 진화하는 창조계를 체험으로 숙달한 전능{全能}한 권능으로서, 신성의 결합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전능한 권능은, 지존자 하나님의, 하보나에 현존하시는 영{靈} 인격체와 합동해서, 하보나 세계들 바깥 지대의 안내 구체{球體}에서 영_인격체가 결합되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하여 체험적 신격은, 중앙 창조물에 거주하는 영 현존 및 신성한 인격체를, 시간과 공간의 산물인 권능에 부여함으로써, 긴 진화적 투쟁을 완결시킨다.

106:2.5 (1165.2) 그래서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화하는 모든 것 전체를 결국 포함하기에 이르며, 한편 이 특성에 영 인격체를 부여한다. 피조물이, 심지어 필사자도, 이 대단한 처리사항에 참여하는 인격체들이므로, 그들도

지존자를 알고, 그런 진화하는 신격의 참된 자녀로서, 그 지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획득한다.

106:2.6 (1165.3) 네바돈의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와 같은데, 아버지의 낙원 완전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진화하는 필사자는 언젠가 체험적 지존자와 비슷하게 되는 상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가 진화로 얻은 완전성을 진정으로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106:2.7 (1165.4) 지존자 하나님은 체험에 의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다. 일곱 절대자의 실존적 실체는 체험이라는 기법으로 감지될 수 없으며; 유한한 피조물 인격체는, 기도하고_경배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인격체 실체*들만 파악할 수 있다.

106:2.8 (1165.5) 지존하신 분의 권능과_인격체의 합성이 완성된 가운데, 그렇게 연합될 수 있는 여러 삼극체{三極體}의 모든 절대성이 관련될 것이며, 유한한 모든 인격체는, 진화된 이 당당한 인격체에 체험으로 도달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존재들이, 가정된 일곱째 단계의 영 실존에 도달할 때, 그들은 그 단계에서, 체험될 수 있는 존재인 지존하신 분 안에 절대 이하 수준에서

게시된 바와 같이, 절대적이고 무한한 삼극체들의 새로운 의미와_가치의 실현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로 발전하는 이 단계들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 광우주 전체가 빛과 생명에 조화 있게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3. 초월적 3차 실체 연합

106:3.1 (1165.6) 유한절대 설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하며;최상급 창조주들이 그 계획을 실존하게 하며;지존하신 분은, 최상급 창조주들이 시간에 맞춰서 창조한 대로, 그리고 으뜸 설계자들이 공간에 맞춰서 예측한 대로, 이를 충만하게 완성시킬 것이다.

106:3.2 (1165.7) 현 우주 시대 동안에, 총괄우주의 경영상 조정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 우주 시대가 종료될 때, 전능한 지존자의 출현은, 진화로 생긴 유한자가 체험적 운명의 첫 단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할 것이다. 이 사건은 확실히,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곧 최상급 창조주들, 지존하신 분, 및 총괄우주의 설계자들의 합동--의 역할을 완성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삼위일체는 주요 창조의 추가적인 진화적 종합을 초래하도록 예정돼 있다.

106:3.3 (1166.1) 낙원 삼위일체는 정말로 무한한 삼위일체이며, 어떤 삼위일체도 이 원본 삼위일체를 포함하지 않고는 무한할 수 없다. 그러나 원본 삼위일체는 오로지 절대적 신격들의 연합으로 생긴 결말이며;준절대 존재들은 이런 원초적 연합과 아무 관련 없었다. 나중에 출현하는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피조 인격체들이 기여한 것들 까지도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 삼위일체에게 확실히 해당되는데, 그 점에서 으뜸 창조주 아들들이 그 최상급 창조주 구성원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현존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연합 *안에* 피조물이 실제로 겪는 진정한 체험이 동시에 현존함을 가리킨다.

106:3.4 (1166.2)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는 궁극적 결말을 집단으로 달성하게 한다. 집단 연합은, 각자의 수용력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초월할 수 있게 하며;이것은 심지어 유한 수준을 넘어설 때에도 그렇다. 다가올 시대에,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후에, 완결성취 단체들은 궁극 삼위일체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리고 지존하신 분 안에서 권능과_인격체가 통합된 대로, 의심할 여지없이 낙원 신격들의 목적을 선포할 것이다.

106:3.5 (1166.3) 과거 영원과 미래 영원의 거대한 전체 우주 발전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 대한 납득 가능한 요소들이 커지는 것을 간파했다. 자존자{自存者}로서, 그가 전체 무한에 충만하다고, 우리는 철학적으로 가정하지만, 어떤 피조물도 그런 가정을 체험으로 납득할 수는 없다. 우주들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_조직하는 공간 속으로 인력{引力}과 사랑이 뻗어감에 따라서, 우리는 제1 근원 및 중심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 절대자의 공간 현존을 뚫고 들어가는 인력 작용을 우리는 목격하며, 신격 절대자가 신성으로 현존하는 가운데 영 피조물이 진화하고 확장하며, 한편 시공우주와 영의 진화는 모두, 유한한 신격 수준에서 정신과 체험으로 인해 지존하신 분으로서 통합하고, 초월 수준에서는 궁극 삼위일체로서 협조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4. 궁극적 4차 통합

106:4.1 (1166.4) 낙원 삼위일체는 궁극적 의미에서 확실히 협조하지만, 이 면에서는 스스로_제한한 절대자로서 활동하며;체험적 궁극 삼위일체는 초월적인 것들을 초월자로서 조화시킨다. 영원한 미래에, 이 체험적

삼위일체는 통일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 신격의 결말에 이르는 현존을 더 활성화할 것이다.

106:4.2 (1166.5) 궁극 삼위일체가 총괄 창조물을 조화시키도록 예정돼 있는 반면, 궁극자 하나님은 전체 총괄우주를 지휘하는 초월적 권능의_인격화다. 궁극자의 완성된 결말은, 총괄 창조물의 완성을 암시하며, 이 초월적 신격이 온전히 출현함을 의미한다.

106:4.3 (1166.6) 궁극자가 온전히 출현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존자가 지금 하보나에 영적으로 몸소 현존하고 있듯이, 궁극자 또한, 그러나 유한절대 및 인격자를 초월한 의미에서 하보나에 현존한다. 그리고 궁극자의 제한된 대리인들이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준 적이 있지만, 그들의 현재 행방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106:4.4 (1167.1) 그러나 궁극 신격의 출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영상 영향에 상관없이, 그의 초월 신성{神性}의 인격적 가치를, 이 신격 수준의 활성화에 참여해 온 모든 인격체가 체험할 것이다. 유한자를 초월하는 것은 궁극적 달성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다. 궁극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절대자들과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수용력을 타고났는데도, 절대 이하다.

5. 공동절대, 즉 다섯째_국면의 연합

^{106:5.1 (1167.2)} 지존자가 진화로_체험하는 실체의 정점{頂點}인 것처럼, 궁극자는 초월 실체의 극치다. 그리고 이 두 체험적 신격이 실제로 출현하는 것은,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생길 기초를 놓는다. 이것은 절대 삼위일체, 즉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계시되지 않은 우주 운명 완성자, 이 셋의 합동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잠재성의 절대자들을--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를-- 이론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절대 삼위일체가 마침내 형태화 되는 것은, 하보나에서 가장 바깥쪽 넷째 공간 층에 이르기까지, 전체 총괄우주의 진화가 완성된 후에만 발생할 수 있다.

^{106:5.2 (1167.3)} 이 체험적 삼위일체들은, 체험적 신성의 인격체 특성뿐 아니라, 그들이 도달한 신격의 통일된 특징을 나타내는, 인격적이지_않은 특성들 전부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이런 설명이 먼저 시공우주 통합의 인격적 국면을 취급하지만, 그럼에도,

지존하신 분의 진화와 관련하여 지금 이뤄지고 있는 권능과_인격체의 합성이 묘사하다시피, 온갖 우주의 비인격적 양상{樣相}도 마찬가지로 통합 과정을 겪도록 예정돼 있음이 사실이다. 지존자의 영_인격적 특성은, 전능자의 권능 특권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지존자 정신의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이 이 두 가지를 보완한다. 또한 한 인격자로서의 궁극자 하나님도, 궁극 신격의 인격적이지_않은 양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고려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絶對} 수준에서 신격과 무조건 절대자들은, 우주 절대자의 현존 앞에서 분리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없다.

106:5.3 (1167.4) 삼위일체들은, 그 자체로는 인격적이지 않지만, 인격체와 모순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인격체를 포함하고, 집단적 의미에서 비인격적 기능과 서로 관련시킨다. 그래서 삼위일체들은 항상 신/격실체인 반면, *인격체* 실체는 결코 아니다. 삼자일체의 인격체 양상은 그 개별 구성원에 내재하며, 개별 인격자로서는 그 삼자일체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합으로서만 삼자일체이며;바로 그것이 삼자일체 *이다*. 그러나 삼자일체는 포함된 모든 신격을 항상 내포하며;삼자일체는 신격 통일이다.

106:5.4 (1167.5) 세 절대자--곧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는 삼자일체가 아닌데, 모두가 신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신격화된 존재만 삼자일체가 될 수 있으며;다른 모든 연합체는 삼중체 또는 삼극체다.

6. 절대, 즉 여섯째_국면의 종합

106:6.1 (1167.6) 총괄우주의 현재 잠재력은 도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_궁극일지도 모르며, 우리는 준절대 시공우주 범위 내에서 절대적 의미와_가치를 온전히 계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모든 표현을 납득하도록 시도하거나, 신격 절대자의 비인격적인 현재 수준에서 절대자 하나님이 체험으로 인격화되는 것을 상상하려고 시도할 때조차,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친다.

106:6.2 (1168.1) 지존하신 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 삼위일체의 형태화와 충분한 기능을 위해서, 궁극자 하나님의 결말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절대 삼위일체가 시작되는 것을 위해서도, 총괄우주의 공간_무대는 적절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가 온전히 활동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널리_퍼지는 총괄우주까지도 초월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듯하다.

106:6.3 (1168.2) 우리가 무한한_시공우주--곧 총괄우주 바깥에 있는 끝없는 어떤 시공우주--를 가정한다면, 그리고 절대 삼위일체의 최종 발전이, 궁극을 초월하는 그런 실천 단계에 바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절대 삼위일체의 완성된 기능은 무한한 여러 창조에서 마지막으로 표현되고, 모든 잠재성이 마침내 절대적으로 실현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늘_확장하는 실체의 여러 부분을 종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된 부분들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는 데 비례해서, 절대 상태에 접근할 것이다.

106:6.4 (1168.3) 달리 말하면: 절대 삼위일체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전체 기능에서 정말로 절대적이다.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또는 달리 한정된 기초 위에서, 절대 기능이 어떻게 총체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떤 총체 기능이라도 (잠재적으로는) 제약 받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양적 관계에 대해서 매우

확신치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질적 견지에서 본다면, 무조건적인 것들이 또한 제한되지도 않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106:6.5 (1168.4)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실존적 낙원 삼위일체가 무한하고, 한편 체험적 궁극 삼위일체가 준무한대{準無限大}이며, 한편 절대 삼위일체는 분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비록 체험으로 발단되고 구성됐더라도, 그것은 잠재성을 갖는 실존적 절대자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106:6.6 (1168.5) 인간 정신이 그런 요원하고 초인적인 개념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은 도저히 유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절대 삼위일체의 영원한 행위가, 잠재성의 절대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국 체험적이 된다고 생각해도 됨을 암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무조건 절대자는 아니라도, 우주 절대자에 관해서 이치에 맞는 결론인 듯이 보일 것이며;최소한 우리는, 우주 절대자가 정적{靜的}이고 잠재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낱말 전체의 신격 의미에서 볼 때, 또한 연합하기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신성 및 인격체의 가치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추측하는 사건들이 신격 절대자가 인격화하는 것,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인격체가--곧 체험적 신격들 중에서 셋째이자 마지막 존재의 인격체가-- 완성되는 데 내재돼 있는, 초인격적 가치와 극단인격적 의미가 출현함을 암시한다.

7. 운명의 완결

106:7.1 (1168.6) 실체의 무한한 종합에 관한 개념을 조성하는 데 겪는 어려움 가운데 더러는, 그런 모든 개념이 우주의 발달이 결말에 이른 어떤 것, 즉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종류의 체험적 실현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그리고 양적 무한대가 완결성에서 항상 철저하게 실현될 수 있음을 믿기는 어렵다. 체험적 발전 가운데 어떤 부분도 결코 고갈될 수 없는, 탐구되지 않은 가능성이, 세 잠재적 절대자에게 항상 남아 있어야만 한다. 영원성 자체는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절대 이상{以上}은 아니다.

106:7.2 (1169.1) 심지어 최종 종합이라는 시험적 개념조차, 무조건적 영원성의 결실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시간에도 실제로 실현할 수 없다.

106:7.3 (1169.2) 낙원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격들의 자발적 행동이 운명을 확립하며;운명은 세 가지 큰 방대한 잠재성 안에서 확립되고, 그 절대성은 미래에 발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며;아마 우주 운명 완성자의 행위가 운명을 완성하고, 이 행위는 아마 절대 삼위일체 안에서 지존자 및 궁극자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어떤 체험적 운명이든지, 체험하는 피조물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납득할 수 있지만;무한한 실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운명을 납득할 수는 도저히 없다. 완결된 운명은 실존적이고_체험적인 달성이고, 신격 절대자를 참여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신격 절대자는, 우주 절대자 덕분에, 무조건 절대자와 영원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체험 가능성을 지닌 이 세 절대자는 실존적이고 그 이상인데,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이며, 무공간적이고, 끝이 없으며,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말로 무한하다.

106:7.4 (1169.3)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런 가상의 운명에 관해서 철학적 이론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도달_가능한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신격 절대자의 현실화는, 실질적으로 실현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며;그럼에도, 완결되는 그런 결실은 이론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무조건 절대자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_시공우주에 연루되는 것은, 끝없이 영원한 미래에 헤아릴 수 없이 아득할지 모르지만, 그런 가정은 그럼에도 타당하다. 필사자, 모론시아 존재, 영, 완결성취자, 초월자, 및 기타 존재들은, 우주들 자체 및 모든 다른 국면의 실체와 함께, *절대 가치가 있는 잠재적 최종 운명*을 확실히 지니지만;우리는, 어떤 존재나 우주든지 그런 운명의 모든 양상을 영원히 완전하게 달성하게 되리라는 점에는 의혹을 품는다.

106:7.5 (1169.4) 아버지를 납득하는 데 너희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너희의 정신은 아버지_자존자{自存者}의 계시되지 않은 무한성에 항상 어리둥절할 것인데, 그 무한성의 탐구되지 않은 방대함은, 영원성의 모든 순환 전체에 걸쳐서, 항상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다가가더라도, 존재하는지 어쩐지 너희가 상상치도 못할 훨씬 많은 부분이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것이 유한한 실존 영역에서 참말인 것처럼, 초월 수준에서도 참말이다. 하나님을 탐구함에는 끝이 없다!

106:7.6 (1169.5) 최종 의미에서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 어떤 면에서도 우주 피조물을 낙담시켜서는 안 되며;너희는 정말로, 칠중존재, 지존자, 및 궁극자의 신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수준이 너희에게 갖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히 인식하는 것이, 영원히 실존하는 절대 지위를 갖는 영원한 아들에게 그리고 공동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피조계{被造界}를 괴롭히기는커녕, 끝없는 미래 전반에 걸쳐서, 영원성조차 고갈시키지 않고 종결시키지도 않을 인격체를 발전시키고 신격과 연합할 가능성을, 상승하는 인격체가 앞으로 소유하게 되리라고, 최상으로 보증할 것임에 틀림없다.

106:7.7 (1169.6) 광우주의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총괄우주 개념이 거의 무한한 듯 보이지만, 거기 있는 유한절대 설계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무궁한 자존자 안에서 상상하지 못한 미래의 발달에 총괄우주가 관련되는 것을 인지한다. 심지어 공간 자체도, 궁극 상황, 즉 중간_공간에 있는 고요한 지역들의 상대적 절대성 *내에서* 제한하는 조건일 뿐이다.

106:7.8 (1170.1) 전체 총괄우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의 영원한 시점에, 의심할 여지없이, 그 전체 역사를 단지 그 시초라고, 즉 미지의 무한성 속에서 더 크고 더 황홀한 변질을 위해서 어떤 유한한 초월적 기초를 창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회상할 것이다. 총괄우주는 그런 미래의 영원한 순간에 여전히 젊은 듯이 보일 것이며;정말로, 결코 끝_없는 영원성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항상 젊을 것이다.

106:7.9 (1170.2) 무한한 운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그런 운명에 관한 관념을 생각해 보는 것을 조금도 방해치 않으며, 그 세 가지 절대 잠재성이 언제든지 완전히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전체 실체의 최종 종합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이런 발전적 실현은, 무조건적, 우주적, 및 신격 절대자들의 완성된 현실화에 입각하며, 세 잠재성의 합동은 자존자의 잠복기를 성립시키는데, 이것은 영원성의 정지된 실체, 모든 미래와 그보다 더한 것의 유보된 가능성들이다.

106:7.10 (1170.3) 그런 결말은 줄잡아 말하더라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이며;그럼에도, 세 가지 삼위일체의 여러 체제, 인격체, 및 연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_자존자의 일곱 절대 국면이 다시 연합하는 이론적 가능성을 우리가 탐지했다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삼중 삼위일체 개념과 대면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실존적 상태의 낙원 삼위일체, 그리고 체험적 본성과 기원을 갖고 나중에 나타나는 두 삼위일체를 포함한다.

8.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106:8.1 (1170.4)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본성을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이것은 영원 속에 실현되는 이론적 무한에서 명시되는 바와 같이, 체험적 무한 전체를 실제로 합한 것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적 무한자는 실존적 무한자와 일치하게 되며, 이 둘은, 선형적인, 즉 선재하는 자존자 안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15개의 삼중체 및 관련된 삼극체에 암시되는 모든 것의 최종 표현이다. 상대적 존재는, 실존적이든지 체험적이든지, 완결성을 납득하기 힘들며;따라서 완결은 항상 상대성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106:8.2 (1170.5)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몇몇 국면에서 존재한다. 그것은,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들의 상상력을 동요시킬 가능성, 확률, 및 필연성을 포함한다. 그것은 천상{天上}의 철학자들도 예견치 못할 암시적인 것들을 지니는데, 그것이 암시하는 것들이 삼중체들 안에 있고, 삼중체들은 결국 아무리 분석해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106:8.3 (1170.6)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묘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세_수준의 개념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106:8.4 (1170.7) 1. 세 가지 삼위일체의 수준.

106:8.5 (1170.8) 2. 체험적 신격의 수준.

106:8.6 (1170.9) 3. 자존자의 수준.

106:8.7 (1170.10) 이것들은 점점 더 통합되는 수준이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실제로 첫째 수준이고, 한편 둘째와 셋째 수준은 첫째 수준의 통합에서_파생된 것들이다.

106:8.8 (1171.1)

첫째 수준:이 첫 연합 수준에서는, 세 가지 삼위일체가, 뚜렷하지만 완전히 동조된, 신격 인격체들의 집합으로서 활동한다고 여겨진다.

106:8.9 (1171.2)

1. *낙원 삼위일체*, 세 낙원 신격--곧 아버지, 아들, 및 영--의 연합. 낙원 삼위일체가 --절대 기능, 초월 기능(궁극 삼위일체), 유한 기능(지존 삼위일체)의-- 삼중 기능을 내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낙원 삼위일체는 어느 때든지, 항상, 이들 가운데 어느 분도 되고, 전부도 된다.

106:8.10 (1171.3)

2. *궁극 삼위일체*. 이것은 최상급 창조주들, 지존자 하나님, 및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신격 연합이다. 이것이 이 삼위일체의 신성 양상들을 적절히 묘사한 것인 한편, 이 삼위일체의 다른 국면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 국면들은 그 신성 양상들과 완전히 조화되는 듯이 보인다.

106:8.11 (1171.4)

3. *절대 삼위일체*. 이것은 모든 신성 가치에 관해서,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우주 운명의 완성자의 집합이다. 이런 삼자일체 집합의 어떤 다른 국면은, 확장하는 시공우주에서 신성이_아닌_다른

가치들과 관계있다. 그러나 체험적 신격들의 권능과
인격체 양상들이 지금 체험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신성 국면들과 함께 통합되고
있다.

106:8.12 (1171.5)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의 연합은, 실체의 가능한 한없는 종합을 마련해
준다. 이 집합은, 원인, 중간 상태, 및 결과를
포함하고;개시자, 실행자, 및 완성자를 포함하며;시작,
실존, 및 운명을 포함한다. 아버지_아들의 협력관계는
아들_영이 됐고, 다음에는 영_지존자가 됐고, 이어서
지존_궁극자와 궁극_절대자, 심지어 절대자와
아버지_무한자--곧 실체의 순환의 완성--까지 됐다.
마찬가지로, 신성과 인격체에 아주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른 여러 국면에서, 위대한 제1 근원 및 중심은, 영원성
순환 주위에서, 절대적인 자아_실존으로부터, 무한한
자아_계시를 거쳐서, 완결된 자아_실현에 이르기까지--곧
절대 실존자로부터 완결된 체험자들에 이르기까지--
실체의 무제한성을 스스로_실현한다.

106:8.13 (1171.6)

둘째 수준: 세 가지 삼위일체의 협조,는 불가피하게 체험적 신격들의 연합된 합동에 연루되는데, 이들은 이 삼위일체들과 근본적으로 연합돼 있다. 이 둘째 수준의 본성은 때때로 다음과 같이 제시돼 왔다:

106:8.14 (1171.7)

1. **지존자.** 이것은 낙원 삼위일체가 낙원 신격들의 창조주 아들들 및 창조적 딸들과 체험적으로 접촉을 가지면서 통일된 신격 결과다. 지존자는, 첫째 단계인 유한한 진화가 완성된 신격 구현{具現}이다.

106:8.15 (1171.8)

2. **궁극자.** 이것은 둘째 삼위일체, 즉 신성의 초월적이고 유한절대적인 의인화{擬人化} 결과로 통일된 신격 결과다. 궁극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일정치 않게 고려되는 통일성에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최소한 통제하고 지휘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고, 균형상태 속에서 통합하는 그런 국면의 궁극성을 포함하기에 적합하겠지만, 결말에 이른 신격의 계시되지 않은 많은 다른 측면이 있다. 궁극자와 지존자는 서로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으며, 또한 궁극자는 단순히 지존자가 확장된 것도 아니다.

3. *절대자*.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둘째 수준에서, 셋째 구성원의 특성에 관하여 많은 이론이 있다. 절대자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 삼위일체의 최종 기능이 인격체에 미치는 결과로서 이 연합에 참여하지만, 그래도 신격 절대자는 영원성 상태의 실존적 실체다.

이 셋째 구성원에 관한 개념의 어려움은, 그런 구성원 자격을 전제하는 것은 절대자가 오직 하나만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내재돼 있다. 이론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 절대자가 하나로서 *체험*으로 통합된 것을 목격해야 한다. 그리고 무한 속에서 *실존적*으로 하나의 절대자만 있다고 우리는 배웠다. 누가 이 셋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아주 분명치 않지만, 상상도 못한 접촉과 시공우주 형태화의 어떤 형태로,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로 구성될지 모른다고 종종 가정된다. 분명히,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세 절대자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벽한 기능을 도저히 획득할 수 없고, 세 절대자는 무한한 잠재력을 모두 완전히 실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합될 수 없다.

106:8.18 (1172.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셋째 구성원이 우주 절대자라고 상상하고, 이 생각이 우주 절대자가 정적{靜的}이고 잠재할 뿐만 아니라 연합 성질이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아마 진리를 최소한으로 왜곡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신격의 기능과 창조하고 진화하는 측면이 무슨 관계인지, 여전히 감지하지 못한다.

106:8.19 (1172.4)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형성하기는 어렵더라도, 한정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둘째 수준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지존자 하나님, 궁극자 하나님, 및 절대자 하나님의 합동이, 이 체험적 신격들의 조상인, 인격있는 삼위일체들의 합동이 낳은 인격적 반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매우 가능하게 된다. 이 세 체험적 신격이, 그들의 조상이자 원인이 되고 첫째 수준을 이루는 삼위일체들이 점점 더 통일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둘째 수준에서 확실히 통합되리라는 견해를 우리는 과감하게 제시해 본다.

첫째 수준은 세 가지 삼위일체로 이뤄지며;둘째 수준은 체험으로_진화한, 체험한_결과로 생긴, 그리고 체험적이고_실존적인, 신격 인격체들의 인격체 연합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완벽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어떤 개념적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둘째 수준에서 이 세 신격의 인격적 연합은, 위엄자{威嚴者}가 신격화되는 현상에서, 바로 우리의 우주 시대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신격 절대자가 궁극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최초 창조적 명령에 반응하여 활동하면서, 이 둘째 수준에서 위엄자를 현실화했다.

셋째 수준:둘째 수준에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무조건적 가정{假定}에서는, 전체 무한에 지금 있거나, 전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체가 가진 어떤 국면의 상호 관계든지 다 포함된다. 지존하신 분은 영{靈}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 능력, 및 체험이다. 궁극자는 이 모두이고 이보다 훨씬 더하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에 모든 실체가 실현되는 절대 완결성이 포함돼 있다.

106:8.22 (1172.7) 지존자, 궁극자, 및 완벽한 절대자, 이 세 분의 합동에는, 자존자{自存者}가 원래 부분화된 측면, 그리고 일곱 무한 절대자의 출현으로 귀결됐던 무한의 그 측면을 기능적으로 다시 결합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주의 철학자들은 비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자주 질문한다: 둘째 수준에서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삼자일체 통일을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다면, 그런 신격 통일 결과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존자를 체험으로 달성 가능한 존재로 현실화되도록, 그것이 직접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격있는 존재들의 관점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자존자가 이미 아버지_무한자로서 체험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할 수 있다. 비인격적 견제에서, 이 절대 운명이 무엇을 의미할지는 다른 문제이고, 오직 영원성만이 해명해 줄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가능성이 적은 이런 결말을, 우리가 인격있는 피조물로서 보건대, 모든 인격체의 최종 운명을, 바로 이 인격체들의 만유의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한다.

106:8.23 (1173.1) 우리가 과거 영원에 계셨던 자존자를 철학적으로 상상할 때, 그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영원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존자가 한 실존자로서 도저히 변화할 수 있다고 보지 않지만, 광대한 체험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자존자 개념은 충분한 자아_실현을 의미한다--자존자의 자아_계시 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전체 무한대의 절대 의지 부분, 즉 절대적인 아버지의 최종 아들로써 영원히 남아있을 그런 인격체들이 사는, 무한한 성단{星團}을 포함한다.

9. 실존적인 무한한 통합

^{106:9.1 (1173.2)}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우리는 한없는 실체의 가능한 체험적 통합을 가정하며, 이 모든 것이 아주_먼, 정말로 아득히 먼 영원 속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론을 때때로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모든 과거와 미래의 우주 시대처럼, 바로 이 시대에 실제로 오늘날 무한의 통합이 있으며;그런 통합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실존한다. 체험하는 실체로서 무한성 통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훗날의 일이지만, 무한성의 무조건적 통일은 우주 실존의 현재 순간을 지배하며, 모든 실체의 다양성을 *절대적 상태*인 실존적 장엄함과 결합시킨다.

영원성이 완성된 완결 수준에서 무한한 통합을 생각하려고 애쓸 때, 유한한 피조물은 자신의 유한한 실존에 내재된 지능의 한계에 직면한다. 시간, 공간, 및 체험은 피조물의 개념에 방해물이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없고 공간에서 분리되고 체험이 제외된다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주 실체에 대한 제한된 납득마저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민감성 없이는, 어떤 진화 피조물도, 연속되는 관계를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공간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피조물도, 동시에 일어나는 관계를 헤아릴 수 없다. 체험 없이는 어떤 진화 피조물도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이며; 오직 일곱 무한 절대자만이 정말로 체험을 초월하고, 이들조차 어떤 국면에서는 체험할지 모른다.

시간, 공간, 및 체험은, 사람이 상대적 실체를 감지하는 데 가장 큰 도구이지만, 그래도 실체를 완벽하게 감지하는 데는 가장 끔찍한 방해물이다. 필사자 및 기타 많은 우주 피조물은, 잠재하는 것들이 공간에서 현실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해 결실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이런 전체 과정은, 낙원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시_공간 현상이다.

절대 수준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으며;거기서는 잠재적인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감지될 것이다.

106:9.4 (1173.5) 모든 실체를 통합하는 개념은, 이 우주 시대 또는 다른 어느 우주 시대든지 상관없이,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다. 그런 통일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체험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삼중적 삼위일체가 명백히 실현되는 정도는, 시공우주에서 실체에 대한 제한조건과 불완전성이 사라지는 데 정비례한다. 그러나 실체의 전체 종합은, 무조건, 영원히, 실존적으로 낙원 삼위일체 안에 현존하는데, 그 속에서 바로 이 우주 순간에, 무한한 실체는 절대로 통합돼 있다.

106:9.5 (1174.1) 체험하는 자의 관점과 실존적인 자의 관점이 만든 역설{逆說}은 불가피하고, 낙원 삼위일체와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는 각각, 오직 시_공간 상대성으로써만 필사자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영원성 관계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입각한다.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점차 체험으로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인간 개념--곧 시간 관점--은, 이것이 이미 사실화 됐음을 추가적으로 가정함으로--곧 영원의

관점으로-- 보충돼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낙원 삼위일체가 실존적으로
무한히 통합될 것이며, 체험하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가 실제로 현존하시고 완벽하게 형태화됐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서로 일으키는 왜곡에 기인한다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유한한 필사자들에게 제안한다:

106:9.6 (1174.2) 1. 인간의 제한된 관점, 무조건적 영원성 개념을
파악할 능력이 없음.

106:9.7 (1174.3) 2. 불완전한 인간 상태, 체험하는 것들의 절대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106:9.8 (1174.4) 3. 인간이 실존하는 목적, 인류는 체험이라는
기법으로 진화하도록 설계돼 있고, 따라서 본래부터
구조적으로 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절대자만이 실존적인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106:9.9 (1174.5) 낙원 삼위일체에서 만유의 아버지는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의 자존자시며, 아버지가
무한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유한한 한계 때문이다.

실존적이고, 홀로 계시고, 삼위일체_이전의 도달할 수 없는 자존자에 대한 개념과, *체험적인*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_이후 및 도달 가능한 자존자에 대한 개념은 동일한 가설이며;어떤 실체적 변화도 무한자 안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며;명백한 모든 발전은, 실체를 받아들이고 시공우주의 진가를 알아보는 수용력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106:9.10 (1174.6) 결국, 자존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해야만 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 *이후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런 관념들이 인간 정신 속에서 영원성과 무한성의 역설을 규명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코 끝나지 않을 이런 문제들에 새롭게 달라붙어 싸우도록, 그런 유한한 지능을 자극해야 하는데, 이 문제들은 살빙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완결성취자들로서, 그리고 널리_퍼지는 우주들에서 너희의 영원한 인생을 사는 끝없는 미래 전체를 통해서, 너희의 흥미를 계속 돋우게 될 것이다.

106:9.11 (1174.7) 모든 우주 인격체는, 영원을 향한 마지막 탐색이 끝없이 무한을 탐험하는 것,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성을 찾아내는 끝없는 탐사 여행임을 곧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서, 모든 피조물
성장이,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비례함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한 자체의 끝없는
가능성에 이르는 영원한 신분증임을 이해하게 된다.
무한자를 찾는 데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음을
성취하는 데 정비례하고, 이 우주 시대에 아버지의
실체들이 신성{神性}의 특성들 내부에 계시된다는 것을,
필사자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의
피조물들은 거룩하게 사는 체험에서 신성의 이 특성들을
몸소 총당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실제로
실천함을 의미한다.

106:9.12 (1175.1) 물질적이고 진화하는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에 입각한 인생이, 인격체의
경기장에서 영 우월성의 달성에 이르도록 직접 인도하며,
아버지_무한자에 대한 납득에 그런 피조물이 한 발짝 더
접근하도록 만든다. 아버지를 닮은 그런 인생은, 진리에
입각하고 아름다움에 민감하며 선함이 지배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인간은, 경배함으로써
내적으로 조명되고, 외적으로는 모든 인격체가 우주에서
형제관계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전념하는데, 이 봉사는

자비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인해 동기가 유발돼서 베푸는 것이며, 한편 인생의 이런 모든 특성은, 시공우주 지혜와 자아를_실현하는 수준, 하나님을_발견하고 아버지께 경배 드리는, 항상_올라가는 수준에서, 진화하는 인격체 안에서 통합된다.

106:9.13 (1175.2) [네바돈의 멜기세덱이 제시했음]

제107편 사고 조율사의 기원과 본성

107:0.1 (1176.1) 만유의 아버지는, 낙원에, 우주들의 바로 한가운데에 몸소 거하실지라도, 또한 시간세계의 무수한 자녀의 정신 속에서, 공간 세계에 실제로 현존하시는데, 그들에게 신비 관찰자로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행성에 있는 필사자 아들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동시에, 가장 친밀하게 관련돼 있으시다.

107:0.2 (1176.2) 조율사는,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의 혼 속에 육신화한 실재이며;필사 정신 속에 묶여있는 생애, 사람의 영원한 생애를 틀림없이 약속하는 존재이며;사람의 완성된 완결성취자 인격체의 본질이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에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우주에서 우주로 한 단계씩 상승하는 동안
내내,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성취하는 신성한 기법을 점차
숙달해 가면서, 이 본질을 미리 맛보게 된다.

107:0.3 (1176.3)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지기를 사람에게
명하시느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된 숭고한 운명을
성취하는 데 사람의 체험 동반자가 되려고, 이
조율사들로서 내려오셨다.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단편은, 사람이 이 신성한 조율사와 연합해서
만유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장인데, 심지어 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을 찾아내고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왔다.

107:0.4 (1176.4) 창조주 아들을 본 필사자는 누구든지 만유의
아버지를 본 것이며, 신성한 조율사가 내주하는 자는 낙원
아버지께서 내주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내주하는 조율사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필사자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자다. 조율사의
현존을 의식{意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사람의 혼과 이 조율사의 영원한 융합은,

우주에서 신격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하는
실제 체험이다.

107:0.5 (1176.5) 사람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낙원에
도달하기를, 그리고 거기서 신격의 존전{尊前}에서
신성한 은사{恩賜}의 무한한 근원을 경배하기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갈망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가
조율사다. 조율사는 살아있는 현존인데, 필사 아들과 낙원
아버지 사이를 실제로 연결하고, 그가 아버지께 점점
가까이 가도록 끌어당긴다. 조율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편성에 비해서 너무 부분적임으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우주 긴장상태를 우리에게 보충해서
평준화 시키는 존재다.

107:0.6 (1176.6) 조율사는, 유한한 피조물의 정신 내부에 갇혀있는
무한한 존재의 절대 본질인데, 그런 필사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 일시적 합동을 언젠가
완성시킬 수 있고, 끝없는 우주 봉사를 위한 새로운 계층의
존재를 틀림없이 현실화할 수 있다. 조율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진리를 사실로 만드는 신성한 우주

실체다. 조율사는, 사람에게 절대로 확실한 시공우주 나침반{羅針盤}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혼에게 언제든지 틀림없이 가리킨다.

107:0.7 (1177.1)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은, 존재하면서 일반적인 세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조율사가 도착할 때부터 비교적 완숙하게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20세 정도까지, 관찰자를 때때로 사고 변경자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연령까지, 약 40세까지, 신비 관찰자를 사고 조율사라고 부른다. 분별력을 달성한 때부터 육신을 떠나는 때까지, 그들을 종종 사고 통제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사자 인생의 이 세 국면은, 정신을 복사하고 혼을 진화시키면서 조율사가 진보하는 세 단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1. 사고 조율사의 기원

107:1.1 (1177.2) 사고 조율사는 원본 신격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서 권위 있는 설명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살빙톤의 전승과, 우버사에서 믿고 있는 것을 전할뿐이며;이 신비 관찰자들,

그리고 광우주 전반에 걸친 그들의 연합된 실재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107:1.2 (1177.3) 사고 조율사가 증여되는 양식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도,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런 차이가 없으며;제1 근원 및 중심이신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아왔다고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며;무한한 하나님의 실제 현존을 구성하는 단편화{斷片化} 된 실재다. 조율사들은 계시되지 않은 많은 동역자와 함께, 혼합되거나 희석되지 않은 신성{神性}, 즉 신격의 무조건적이고 감소되지 않은 부분이며;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이다.

107:1.3 (1177.4)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성을 벗어나고 그들이 실존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또한 그들의 숫자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인간 정신에 내주하기 위하여 시간세계의 행성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경력에 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그들의 삼중적 운명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완료를 포함하는 그들의 시공우주 진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데, 삼중적 운명은:어떤 필사
상승자와 융합함으로 인격체를 달성하는 것, 만유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인격체를 획득하는 것, 또는 사고
조율사들이 부여된 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107:1.4 (1177.5)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가 확장됨에 따라서,
조율사와 융합할 후보자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율사들이 끊임없이 개별화 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이
조율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잘못일 가능성도 똑같이 있을지 모르며;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불가해한 본성을 가진 이 단편들이 실존적으로
무한할 수 있다.

107:1.5 (1177.6) 사고 조율사가 기원된 기법은, 만유의 아버지의
게시되지 않은 기능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제1 근원 및
중심의 다른 동료 절대자들 중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단편들 산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믿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율사는 다만, 영원토록 신성한
선물이며;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같다.

107:1.6 (1177.7) 융합하는 피조물과 갖는 관계에서, 그들은 숭고한 사랑과 영적 사역을 드러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선언을 충분히 확증한다. 그러나 이 초월적 사역 외에도,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계시된 적이 없는 많은 것이 일어난다. 또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시간세계의 피조물 인격체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자신을 내주셨을 때, 정말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또한 낙원 완결성취자들의 상승하는 진보 과정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숭고한 동역관계에 내재적일 충분한 가능성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 단편들은, 절대적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피조물에게 절대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다.

107:1.7 (1178.1) 만유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인격이전 신격을 단편화시키심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영도 영_융합 계열에 속하는 생존하는 필사자의 진화하는 혼과 실제로 융합하도록, 그리고 내주하도록, 자신의 선{先}정신 영 부분들을 개별화시킨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본성은 그렇게 단편화될 수 없으며; 원본 아들의 영은 발산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격자를 갖는다. 아들과_융합된

피조물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주 아들들이 개별화하여
증여하신 것과 결합된다.

2. 조율사의 분류

^{107:2.1 (1178.2)} 조율사는, 체험 없는 실재로 개별화되며, 모두
해방되거나, 융합하거나, 아니면 인격화된 관찰자가 되게
돼있다. 우리는 일곱 계층의 사고 조율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분류를 다 납득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상이한
계층을 종종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07:2.2 (1178.3)} 1. *무체험 조율사*, 진화하는 영원한 생존 후보자의
정신 속에서 첫 임무에 임하는 자. 신비 관찰자들은 신성한
본성에서 영원히 동일하다. 그들은 또한 디비닝톤에서
처음 나올 때 체험적 본성에서도 역시 동일하며; 그 후에
이뤄지는 체험의 차이는, 우주에서 사역하는 중에 실제로
체험한 것들의 결과다.

^{107:2.3 (1178.4)} 2. *진보된 조율사*,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정체성,
그리고 제3 근원 및 중심이 지방우주에서 현현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이 둘 사이에 최종 융합이 일어나는 여러
세계에서, 의지 피조물과 함께 한 번 이상의 생애 동안
봉사한 자.

107:2.4 (1178.5) 3. *최상 조율사*,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한때의 모험에 봉사한 적이 있지만, 그 인간 상대자가 어떤 이유로 영원한 생존을 획득하지 못한 관찰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진화 세계에서 다른 필사자의 다른 모험에 배정된 관찰자. 최상 조율사는, 무체험 관찰자보다 더 신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많은 체험을 했으며, 덜 체험한 조율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인간 정신 속에서 할 수 있다.

107:2.5 (1178.6) 4. *사라진 조율사*, 신비 관찰자의 경력을 추적하려는 우리의 수고가 여기서 중단된다.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넷째 단계의 봉사가 있다. 멜기세덱들은, 이 넷째_단계의 조율사가, 온갖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견 임무에 임한다고 가르친다. 단독 사자들은,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참신한 교제 기간을 누리면서, 제1 근원 및 중심과 하나가 된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율사는, 편재하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으면서, 동시에 총괄우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107:2.6 (1178.7) 5. *해방된 조율사*, 진화하는 구체의 필사자를 위해서, 시간세계의 봉사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신비 관찰자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는 모른다.

107:2.7 (1179.1)

6. *융합된 조율사*--완결성취자-- 연방우주들에서 상승하는 피조물과 하나 된 자, 즉 시간세계에서 상승하고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 속하는 자의 영원한 동반자. 사고 조율사들은 대개 시간세계의 상승하는 필사자와 융합하고, 생존하는 그런 필사자와 함께 어센딩톤에서 출입이 등록되며;상승하는 존재의 행로를 따른다. 진화하는 상승 혼과 융합함에 따라서, 그 조율사는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 수준으로부터, 상승하는 인격체와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유한한 체험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인다. 융합한 조율사는, 실존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모든 특성을 보유하는 동시에, 생존하는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다.

107:2.8 (1179.2)

7. *인격화된 조율사*, 육신화 한 낙원 아들과 함께 봉사한 자, 그리고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동안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지만,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기간에 그 상대자가 생존하기를 거부한, 많은 조율사. 그런 조율사들은 배정된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의 권고에 따라서 인격화된다고 우리가 믿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107:2.9 (1179.3) 이 신비로운 하나님 단편들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우주 임무에 따라서, 개별 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데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할 필사 후보자의 인증 계통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3. 조율사의 디비닝톤 본향

107:3.1 (1179.4) 신비 관찰자들의 파송, 관리, 지휘,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 전체의 봉사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관련된 모든 우주 활동은, 디비닝톤이라는 신성시되는 구체에 중심을 두는 듯하다. 내가 아는 한, 조율사들 및 아버지의 다른 실재들 외에는 아무도 그 구체에 가 본 적이 없다. 계시되지 않은 무수한 인격이전 실재가 조율사들과 함께 디비닝톤을 고향 구체로 삼는 듯하다. 이 동료 실재들이 신비 관찰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모른다.

107:3.2 (1179.5) 사고 조율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본향으로 보이는 그 영역, 즉 디비닝톤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이런 체험의 일환으로, 이 비밀한 구체에 위치한다고 알려진

아버지의 신성의 특화된 현시뿐 아니라, 아버지의 낙원
인격체와도 실제 접촉이 있다.

107:3.3 (1179.6) 우리가 낙원에 속한 비밀한 일곱 구체 전부에
대해서 무언가 알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디비닝톤에 대해서 더 적게 안다. 높은 영적 계층에 속한
존재들은, 신에게서 오직 세 가지 금지명령을 받는데,
다음과 같다:

107:3.4 (1179.7) 1. 자기 선배 및 상관의 체험과 재능에 항상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107:3.5 (1179.8) 2. 자기 후배 및 부하의 한계와 체험부족을 항상
배려해야 한다.

107:3.6 (1179.9) 3. 디비닝톤에 상륙하려고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107:3.7 (1179.10) 내가 디비닝톤에 가야할 필요가 전혀 없으리라는
것을 종종 회고해 본 적이 있으며; 아마 나는 인격화된
조율사들 외에는 어떤 거주하는 존재도 볼 수 없을 것인데,
나는 그들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매우
확신하는데, 디비닝톤에는 내게 유익하거나 실제적인

가치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내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됐을 리 없다.

107:3.8 (1180.1) 우리는 디비닝톤에서 조율사의 본성이나 기원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배울 수 없으므로, 수많은 다른 자료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며, 유익한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축적된 자료를 모으고, 연결하고, 또한 서로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107:3.9 (1180.2) 사고 조율사들이 나타낸 용기와 지혜가, 그들이 광범한 분야와 범위에 걸쳐서 훈련 받아왔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디비닝톤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이 훈련을 제공했음에 틀림없다. 독특한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의심할 여지없이, 디비닝톤에 속한 조율사 훈련 학교 요원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에 있는 이 감독하는 단체들을, 자기 우주 영역에 있는 종족과 민족들에게 자신의 칠중{七重} 증여를 완성한, 미가엘 계층 가운데 첫 낙원 아들의 현재 인격화된 조율사가 관장한다는 것을 안다.

107:3.10 (1180.3) 우리는, 인격화되지 않은 조율사에 대해서 정말로 거의 알지 못하며; 다만 인격화된 계층과만 만나고 대화할 뿐이다. 이들은 디비닝톤에서 이름을 수여 받았고, 숫자로가 아니라 항상 이름으로 알려진다.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영구적으로 디비닝톤에 주소가 정해지며; 신성시되는 그 구체가 그들의 고향이다. 그들은 오직 만유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 그들 중에서 거의 아무도 지방우주 영토들에서 발견되지 않지만, 많은 숫자가 중앙 우주에 현존한다.

4. 조율사의 본성과 현존

107:4.1 (1180.4) 사고 조율사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기원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낙원 아버지의, 보편적으로 현존하는 그런 절대 본질에 속하는 단편 내부에 포함될 수 있는, 신격의 모든 잠재 속성의 본질을 그렇게 순수한 신성{神性}이 포용하고 있음이 매우 유력하다.

107:4.2 (1180.5) 조율사의 실제 근원은 반드시 무한해야 하며, 발전하는 필사자의 불멸하는 혼과 융합하기 전에도, 조율사의 실체는 절대성에 가까움이 틀림없다. 조율사는

보편적 의미에서, 즉 신격의 의미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으나, 단편화된 본성의 잠재성에서는 아마 진정한 절대 존재일 것이다. 그들은 보편성에 대해서는 제한되지만, 본성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으며;폭넓음에서는 제한되지만, 의미, 가치, 및 사실 등의 집약됨에서는 *절대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성한 선물을 아버지의 제한된 절대적 단편이라고 칭한다.

107:4.3 (1180.6) 어떤 조율사도 낙원 아버지께 불충한 적이 없었으며, 인격자를 가진 피조물 가운데서 낮은 계층의 존재는 불충한 동료와 때로 다툴 수 있지만, 조율사들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피조물을 보살피고 우주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숭고한 분야에서, 그들은 최상이고 실패하지 않는다.

107:4.4 (1180.7) 오직 인격화된 조율사만이, 인격화되지 않은 조율사를 볼 수 있다. 단독 사자인 내 계층은, 영감된 삼위일체의 영들과 함께, 조율사의 출현을 영적 반응 현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심지어 스라빔도, 때로는 사람의 물질 정신 속에 관찰자의 현존이 함께 연합하는 듯한 영 광채를 식별하기도 하지만;인격화됐다면 모를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조율사들의 출현을 실제로 감지하지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진화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융합된 인격체와 합동하는 동안에 감지될 수 있다. 조율사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고차원적이고 순전히 신성한 기원과 본성을 지녔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107:4.5 (1181.1) 이 신성한 현존에 수반하는, 독자적인 빛, 즉 영광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조율사들과 관련돼 왔다. 네바돈 우주에서는, 이 낙원 광채가 “안내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우버사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이 유란시아에서는 때때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으로 언급돼 왔다.

107:4.6 (1181.2)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한 모든 존재는, 인격화된 사고 조율사들을 볼 수 있다. 어떤 단계에 있는 조율사든지, 다른 모든 존재, 실재, 영, 인격체, 및 영 형태화와 함께, 낙원의 신격들 안에서 기원되고 광우주의 주요 정부를 주관하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이 언제나 식별할 수 있다.

107:4.7 (1181.3) 조율사의 내주하심이 정말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너희는 깨달을 수 있는가? 너희의 유한한 필사 본성에 내주하고 그와 융합하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격의 절대적 단편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가 정말로 통찰할 수 있는가? 필사적 사람이, 전체 시공우주의 존재 근원의 실제 단편과 융합할 때, 전례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업관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영원 속에서, 사람은 객관적 신격의 무한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주관적 단편의 끝없는 잠재성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율사는 필사자 인격체에게 하나님의 불가사의함을 항상 드러낼 것이며, 이 숭고한 계시{啓示}에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는데, 조율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필사적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5. 조율사의 정신자세

107:5.1 (1181.4) 진화하는 필사자는, 정신을 영과 물질 사이의 시공우주 중재자로 간주하기 쉬운데,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식별할 수 있다시피 정신의 근본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 조율사가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조율사가
인격이전{人格以前}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와 영이
갈라지기 이전인 실체의 절대 수준에서 이뤄진, 하나님의
단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영이 구분되기 전의 일원론
수준에서는 정신의 중재 작용이 있을 수 없는데, 중재해야
할 어떤 갈라짐도 없기 때문이다.

107:5.2 (1181.5) 조율사는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정신과 어울리는 자아의 능력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즉 첫째 또는
무체험 집단보다 높은, 온갖 형태의 관찰자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무제한의 역량을 갖는다. 그들의 상호간 대화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게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지적으로 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격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7:5.3 (1181.6) 사고 조율사의 정신자세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정신자세와 비슷하다--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정신들에게 조상이 되는 무엇이다.

107:5.4 (1181.7) 조율사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정신 유형은, 아마도 제1 근원 및 중심 안에서 마찬가지로 기원되는, 인격이전 실재의 수많은 다른 계층의 정신 재능과 비슷함에 틀림없다. 이 계층들 가운데 다수가 유란시아에는 계시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정신이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 원본 신격이 개별화된 이 존재들에게는, 필사적이지_않은 존재의 수많은 진화 유형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신격 단편들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온, 제한된 숫자의 비진화{非進化} 존재들과 통합하게 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107:5.5 (1182.1) 생존하는 인간의 진화하는 불멸의 모론시아 혼과 사고 조율사가 융합할 때, 상승하는 필사자가 우주 진보의 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조율사의 정신은 피조물의 정신으로부터 따로 존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07:5.6 (1182.2) 상승 체험을 거친 완결성취자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이 여섯째 단계의 영들은, 어떤 정신 요소를 변형시키는 것 같은데, 이 정신 요소는 그런 상승하는 인격체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국면 사이의 연락관으로서 전에 작용했던, 필사자의 정신과 조율사의 정신의 어떤

국면들이 합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험적 정신의 질{質}은 아마, “최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후에는 진화하는 신격--곧 지존하신 분--의 체험 재능을 증대시킬 것이다.

6. 순수 영으로서의 조율사

107:6.1 (1182.3) 피조물의 체험 속에서 사고 조율사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들은 영 영향력이 있고 피조물을 인도하는 것을 드러낸다. 조율사는 정말로 어떤 영, 순수한 영이지만, 영 이상{以上}의 존재다. 우리는 신비 관찰자들을 한 번도 만족스럽게 구분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_같은 존재라는 점이다.

107:6.2 (1182.4) 조율사는 사람의 영원성을 가능하게 하며;사람은 조율사가 인격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의 개별 조율사는, 너희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구화시키기를 기대하며, 너희를 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 조율사는, 영들의 아버지의 아름답고 자기를_증여하는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고 신성하게 너희를 사랑하며;영 희망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 안에

간혀있는 포로다. 그들은 너희의 필사 정신이 신성{神性}을 달성해서 그들의 고독함이 끝나기를, 물질 의상{衣裳}과 시간 장신구{裝身具}라는 한계로부터 너희와 함께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107:6.3 (1182.5) 너희가 낙원으로 가는 길은, 영에 도달하는 통로이며, 조율사의 본성이 만유의 아버지의 영적 본성을 충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낙원으로 상승한 뒤에, 그리고 영원한 생애의 완결성취자_이후{以後} 단계들에서, 조율사는 영 사역이 아닌 다른 어떤 일에서 한때 인간 동반자였던 그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과 완결성취자로서 사는 생애는, 하나님을_알고 영적 존재로 변화하는 필사자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율사의 영적 사역 사이의 동업관계다.

107:6.4 (1182.6) 사교 조율사가 영이고, 순수한 영이며, 짐작컨대 절대적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조율사는 또한 순전한 영 실체 이상의 무엇임에 틀림없다. 추측되는 마음가짐 외에 순수한 에너지 요소 역시 현존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순수한 에너지와 순수한 영의 근원이심을 기억한다면, 그의 단편{斷片}들이 양쪽 다 해당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것이다. 조율사가, 낙원 섬에 있는 순간적인 보편적 인력 회로들을 따라서 공간을 횡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107:6.5 (1182.7) 신비 관찰자가 그렇게 온갖 우주의 물질 회로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당황스럽다.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_인력 회로들을 따라서 전체 광우주에 두루 출현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이 외부 공간 층들까지 스며드는 것이 완전히 가능하며;그들은 틀림없이 낙원의 인력 현존을 따라서 이 지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와 같은 계층의 인격체가 공동 행위자의 정신 회로들뿐 아니라 광우주 경계선 너머까지도 지나갈 수 있음에도, 우리는 외계 공간의 미지의 영역에서 조율사의 현존을 확실히 감지한 적이 전혀 없다.

107:6.6 (1183.1) 그러나, 조율사가 물질_인력 회로들을 이용할지라도, 물질 창조물에서처럼 제한 받지는 않는다. 조율사들은 인력의 결과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인력의 선조의 단편들이며;인력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실존의 어떤 우주 수준에서 분화됐다.

107:6.7 (1183.2) 사고 조율사는, 자신이 증여된 그 순간부터, 필사 상대자가 자연사{自然死}를 맞이함에 따라서 디비닝톤을 향해 출발하도록 자신이 풀려나는 그날까지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대자가 자연사의 문턱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그들은, 이런 일시적 휴식조차 맛보지 못한다. 사고 조율사는 에너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그들은, 에너지, 즉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계층에 속하는 에너지다.

7. 조율사와 인격체

107:7.1 (1183.3) 사고 조율사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실재이며;필사자에게 내주하는 동안에 결코 실제로 인격화하지 못했더라도, 확실히 완전하게 개별화돼 있다. 사고 조율사는 진정한 인격체가 아닐지라도;진정한 실체, 즉 온갖 우주에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한 계층의 실체다--그들은 신{神}의 현존이다. 비록 인격적이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이 경이로운 단편{斷片}들은 존재로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필사자들에게 현재 베푸는 사역의 영적 국면에 견주어, 영 실재로서 대개 언급된다.

107:7.2 (1183.4) 사고 조율사들이 의지 특권과 선택 능력을 소유한
인격체가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필사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화 세계의 이 피조물에 자발적으로 내주할 수
있을까?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아마 온갖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도 정확한 대답을 찾은 적이 없을
것이다. 단독 사자인 나 같은 계층의 인격체도, 인격적이지
않은 실재들 속에 있는, 의지, 선택, 및 사랑이라는 재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107:7.3 (1183.5) 사고 조율사가 모든 *인격이전의* 선택 수준에서
반드시 자유의사를 소유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곤
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내주하며, 사람의
영원한 생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고 변경하고 대체시키며, 이 활동은 진정한
자유의사를 내포한다. 그들은 필사자에게 애정을 갖고
있으며, 우주가 위기일 때 활동하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확고하게 행동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매우
자발적인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영역과 관계없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의지와 부합될 만한
능력 행사를 나타내는 행동, 극대화된 결정을 확실히
드러낸다.

107:7.4 (1183.6) 사고 조율사가 의지작용을 소유한다면, 그들은 왜 필사자의 의지에 따라가기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율사의 의지작용이 본질적으로는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현현할 때에는 인격이전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인격체 수준에서 작용하며, 시공우주 전반에 걸쳐서 비인격 존재는--곧 인격없는 존재, 인격이하 존재, 인격이전 존재는-- 실존하는 인격체의 뜻과 활동에 항상 민감하다.

107:7.5 (1183.7) 창조된 존재들 및 인격없는 에너지가 있는 우주에 두루, 인격체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의지, 자유의사, 선택, 및 사랑을 우리는 목격할 수 없다. 조율사 및 그와 유사한 다른 실재들의 경우 외에, 비인격 실체들과 연합해서 작용하는 인격체의 이 속성을, 우리는 증거할 수 없다. 조율사를 인격이하 존재로 구분함은 옳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런 실재를, 인격을 초월한 존재로 암시하는 것도 적당치 못하겠지만, 그런 존재를 인격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107:7.6 (1184.1) 우리가 속한 계층의 존재들에게는, 신격의 이 단편들이 신성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조율사들이

기원에서 신성하다는 것, 그들이 만유의 아버지의 거의 무한한 영역에 두루, 모든 물질 피조물과 직접 무제한으로 교통할 가능성을 만유의 아버지가 남겨뒀음을 가리키는, 있음직한 증명이자 시범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그가 낙원 아들들의 인격체 속에 현존하심, 또는 무한한 영의 인격체들 속에서 간접적으로 베푸는 보살핌을 통해서 현존하심과는 별개임을 인정한다.

107:7.7 (1184.2) 신비 관찰자를 맞이하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을 피조 존재가 없겠지만, 완결성취자가 될 운명을 갖는, 의지를 지닌 진화하는 피조물 외에는, 다른 어떤 계층의 존재에게도 이처럼 내주하지 않는다.

107:7.8 (1184.3)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08편 사고 조율사의 사명과 섬김

108:0.1 (1185.1) 사고 조율사들이 인류에 대해서 갖는 사명은, 시간과 공간의 필사 피조물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 즉 만유의 아버지가 돼주는 것이며;그것이 신성한 선물의 근본 업무다. 그들의 사명은 또한, 필사 정신을 발전시켜주는 것과, 사람들의 불멸하는 혼을 낙원

완전성이라는 신성한 절정 및 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환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을, 영원한 완결성취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변환시키는 체험을 겪으면서, 조율사들은 독특한 유형의 존재, 즉 완전한 조율사와 완성된 피조물의 영원한 합동에서 이뤄지는 어떤 존재를 실존하게 하며, 그런 존재는 다른 어떤 우주 기법으로든지 결코 복사할 수 없을 것이다.

108:0.2 (1185.2) 전체 우주에서 아무것도, 비실존적 수준에서 겪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대신할 수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고 완전하신데, 그에게는, 다만 피조 체험과 악을 제외한, 모든 것이 무한하게 포함된다. 하나님은 잘못을 범할 수 없으며;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친히 체험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험적으로 아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험{先驗}지식은 실존적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은 유한 필사자와 함께,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진실한 체험에 동참하기 위해 낙원으로부터 내려오시며; 실존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진실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사람에게 체험적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유한한 체험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며, 정말로 그 가능성은 인간이 인생의 변천을 겪는 체험을 실제로 공유하는, 조율사 단편의 사역에서 실제화 된다.

1. 선택과 배정

108:1.1 (1185.3) 필사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디비닝톤에서 파송될 때, 조율사들은 실존적 신성{神性} 재능은 동일하지만, 진화하는 피조물 속에서, 그리고 그 피조물과 이전에 접촉한 것에 비례해서, 체험의 질이 다르다. 우리는 조율사를 배정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주된 인격체에 적응하는 데 영원히 적합한, 어떤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 신성한 선물이 증여된다고 추측한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더 많이 체험한 조율사일수록 더 높은 유형의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따라서 인간의 유전형질은, 선택과 배정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는 요소다.

108:1.2 (1185.4)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사고 조율사가 자원자{自願者}임을 확고하게 믿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이 자원하기에 앞서, 내주하게 될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 조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측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스랍이 작성한 초안{草案}이, 지방우주 중심지역에서 연방우주 본부를 향해 안쪽으로 확장하는 반사성 기법으로, 낙원을 거쳐서 디비닝톤에 있는 조율사 예비 단체에 전달된다. 이 예측은, 필사 후보자의 유전적 조상들뿐 아니라, 예상되는 지적 재능 및 영적 수용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조율사는, 충분하게 통고 받은 친숙한 본성을 소유하는 정신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한다.

108:1.3 (1186.1)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조율사는 인간 후보자의 세 가지 자격조건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108:1.4 (1186.2) 1. *지적 수용력*. 그 정신이 정상적인가? 지적 잠재력, 지성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 개인이, 의지를 지닌 순수한 피조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지혜가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인가?

108:1.5 (1186.3) 2. *영적 감지*. 경건하게 발달할 가능성, 즉 종교적 본성이 태동{胎動}하고 성장할 가능성. 혼의 잠재력, 감수성에 대한 예상되는 영적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

108:1.6 (1186.4)

3.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의 총합*. 이런 두 가지 재능이 강건한 인간 성품을 낳고 생존할 가치가 있는 불멸{不滅}의 혼을 확실히 진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연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정도.

108:1.7 (1186.5)

이런 여러 사실을 앞에 놓고, 관찰자들은 배정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지원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아마 하나 이상의 조율사가 지원하며; 아마 자원하는 이 조율사 무리 중에서, 필사 후보자의 인격체를 영성화하고 영구화 시키는 과제에 가장 적합한 하나를, 인격화된 감독 계층이 택할 것이다. (조율사의 배정과 봉사에서 피조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108:1.8 (1186.6)

조율사가 자원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파송되기까지 사이의 짧은 기간을, 인격화된 관찰자들의 디비닝톤 학교에서 보낸다고 추측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필사 정신의 실무 원형{原型}이, 인격체에 접근하고 정신을 영성화{靈性化}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배정된 조율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정신 모형은, 연방우주의 반사성 봉사가 공급하는 자료를 종합해서 작성된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이고, 단독 사자들의 긴 우주 경력 내내, 많은
인격화된 조율사와 접촉함으로써 얻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 우리가 얻은 확신이다.

108:1.9 (1186.7) 조율사가 실제로 디비닝톤에서 일단 파송되고
나면, 그가 파송된 순간부터, 선택된 대상자의 정신 속에
출현하는 순간 까지 사이에는, 사실상 시간이 전혀
개재하지 않는다. 디비닝톤에서 유란시아까지 걸리는
평균 운송시간은 117시간 42분 7초다. 실제로 이 시간은
모두 우버사에서 등록하는 데 사용된다.

2. 조율사가 내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

108:2.1 (1186.8) 인격체에 관한 예측이 디비닝톤에 전달되자마자
조율사들이 봉사를 자원하지만, 인간 대상자가 도덕적
인격체로서 첫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들의 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간 어린이가 하는 처음으로
하는 도덕적 선택은 일곱째 정신_보조체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을 경유해서, 연방우주
관할 으뜸 영이 계신 가운데 공동 행위자의 보편적
정신_인력 회로에 등록되는 즉시, 그 으뜸 영이 이 정보를
디비닝톤에 보낸다. 조율사는, 유란시아에 있는 자신의

인간 대상자가 대체로 여섯 번째 생일이 되기 바로 전에 그에게 당도한다. 현재 세대에서는, 5년 10개월 4일이 되는 때에 이뤄지며; 다시 말하면, 지상 생애 중에서 2,134일째 날이다.

108:2.2 (1187.1) 조율사는, 필사 정신이 보조 정신_영들의 내주하는 섬김으로 적당히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거룩한 영 안에 회로화{回路化} 될 때까지, 필사 정신에 침투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조율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그렇게 갖추지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모든 보조체의 협조 기능이 있어야만 한다. 피조 정신은 경배를 시도하려는 태도를 나타내야만 하며, 솟아나는 선과 악의 가치 사이에서 선택을--곧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임으로써 지혜가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야만 한다.

108:2.3 (1187.2) 이렇게 해서, 조율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의 무대가 설치되지만, 진리의 영이 이런 서로 다른 영{靈} 사역의 영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세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런 정신에 내주하려고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증여 아들의 이 영이 현존한다면,

일곱째 보조 정신_영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이 정신_영이 그런 필사자 지능을 그동안 섬겼던, 연합된 여섯 보조체를 조정하는 잠재성을 성취했다고, 우주 어머니 영에게 알리자마자, 조율사가 어김없이 도래한다. 따라서 오순절 이후로 항상, 유란시아에 있는 도덕적 상태의 모든 정상 지성인에게, 신성한 조율사들이 보편적으로 증여돼 왔다.

108:2.4 (1187.3) 조율사들은, 심지어 진리의 영과 함께 정신에게 부여됐더라도, 도덕적 결정이 나타나기 전에는 필사자 지능을 임의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 결정이 일단 이뤄지면, 이 영 협조자는 디비닝톤으로부터 직접 관할권을 취하게 된다. 신성한 조율사와 그의 인간 대상자 사이에 끼어들거나 또는 다르게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능력도 작용할 수 없으며;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연결된다.

108:2.5 (1187.4) 진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부어지던 때 이전에는, 조율사들의 증여가 많은 영 영향력과 인격체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다. 우리는 그런 증여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며;그런 진화하는 정신에 내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조율사를 양도하도록, 정확하게 무엇이 결정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 증여되기 전에 그런 정신 속에 조율사가 도착하는 것과 관련되는 듯 보이는 수많은 영향과 조건을 목격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8:2.6 (1187.5) 1. 개인 스랍 수호자가 배정됨. 필사자에게 조율사가 내주한 적이 아직 없었다면, 개인 수호천사가 배정됨과 동시에 조율사가 주어진다. 조율사의 섬김과 개인 스랍 수호자의 섬김 사이에는, 아주 뚜렷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다.

108:2.7 (1187.6) 2. 지적 성취 및 영적 달성의 셋째 궤도가 달성됨. 셋째 궤도를 획득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에 관여하는 지방우주 인격체들에게 그런 성취가 미처 알릴 수 있기도 전에, 조율사가 필사 정신 속에 도착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108:2.8 (1187.7) 3.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행성에서 개인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런 인간 행동은 대개, 기다리던 조율사의 즉시 도착을 수반한다.

108:2.9 (1187.8) 4. 형제관계의 기질. 심령 궤도들이 달성됐는지, 그리고 개인 수호천사가 배정됐는지에 상관없이--곧 위기에 내리는 결정과 비슷한 점이 전혀 없더라도, 진화하는 필사자가 동료들 사랑을 마음으로 점령되고, 육신 속에 있는 형제를 사심 없이 섬기기에 몰두하게 되면, 기다리던 조율사는 그런 필사 사역자의 정신 속에 내주하기 위해서 어김없이 내려온다.

108:2.10 (1188.1) 5.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향을 공표함. 우리는, 공간 세계에서 많은 필사자가 조율사를 받을 준비가 외견상으로는 돼 있으나, 아직 관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본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의 하루하루 삶을 계속 지켜보는데, 그들은 곧 조용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결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 조율사가 즉시 파송되는 것을 목격한다.

108:2.11 (1188.2) 6. 지존하신 분의 영향. 필사 거주자의 진화하는 혼과 조율사가 융합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향력에 반응해서 조율사들이 증여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런 증여가 지존하신 분에서

지원되는 어떤 시공우주 반사 작용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한다. 이 조율사들이, 진화하는 필사 정신 가운데 이 특정한 유형들과는 왜 융합할 수 없으며 또 융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 처리사항은 우리에게도 제시된 적이 전혀 없었다.

3. 조직과 경영

108:3.1 (1188.3) 우리가 아는 한, 조율사들은 온갖 우주에 어떤 독립적 활동 단위로 조직되며, 디비닝톤으로부터 직접 경영되는 듯하다. 그들은 일곱 연방우주에 두루 균일하며, 모든 지방우주는 동일한 유형의 신비 관찰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수많은 계열의 조율사가 여러 인종을 통해서, 여러 섭리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세계, 체계, 및 우주들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조직에 관련됨을 관찰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선물이 광우주 전역에서 상호 교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추적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108:3.2 (1188.4) 조율사는 (디비닝톤 바깥에서) 오직 일곱 연방우주 본부에만 완벽하게 기록된다. 상승하는 각 피조물에 내주하는 각 조율사의 숫자와 계층을 낙원

권세자들이 연방우주 본부에 통보하며, 그곳으로부터 관련된 지방우주 본부에 소식이 전해지고, 관계된 특정한 행성까지 전달된다. 그러나 지방우주에 전달된 기록은 사고 조율사들에 대해서 완전한 숫자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네바돈의 기록은 태고 항존자들의 대리인들이 제시한 대로, 지방우주에 배정된 숫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조율사들의 완전한 숫자의 실제 의미는 오직 디비닝톤에만 알려져 있다.

108:3.3 (1188.5) 인간 대상자는 종종 그 조율사의 번호로 알려지는데, 필사자는 조율사와 융합될 때까지 참된 우주 이름을 받지 못하며, 새로운 피조물에게 운명 수호천사가 새 이름을 수여함으로써 그 합동이 알려진다.

108:3.4 (1188.6) 오르본톤에 있는 사고 조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고 경영상 관계가 전혀 없을지라도, 지방우주에 속한 개별 세계들과 디비닝톤에 있는 신성한 선물로서의 중앙 거점{據點} 사이에, 매우 밀접한 경영상 관계가 있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낙원 증여 아들이 출현한 후에는, 진화 세계에 조율사들의 행성

감독관으로서 배정된 한 인격화된 조율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08:3.5 (1189.1) 지방우주 검열자들이 행성 검사를 시행할 때, 진화하는 세계의 경영을 위해서 배속된 다른 계층의 존재들에게, 그리고 스라빔의 우두머리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성의 사고 조율사 우두머리에게 항상 직접 말하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유란시아는 타바만시아에게 그런 주기적{週期的} 검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는 네바돈 우주에 있는 생명을 실험하는 모든 행성을 다스리는 감독관이다. 그리고 여러 기록이 계시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초인적 인격체를 지닌 다방면의 우두머리들에게 훈계와 기소장을 하달한 것 외에, 조율사들의 우두머리에게 아래와 같은 인정서를 전달했는데, 행성, 살빙톤, 우버사, 또는 디비닝톤 가운데 어디 있는 자들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108:3.6 (1189.2) “이제 당신들에게, 나보다 훨씬 높은 상급자들에게, 나는 여러 실험적 행성 계열에 대한 임시 권위를 갖고 임명된 자로서 왔으며;나는 이 장엄한 천상의

사역자 집단, 즉 이런 변칙적인 구체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한 신비 관찰자들에게 찬미와 깊은 존경심을 표하려고 왔습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견디기 어렵든지, 당신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바돈의 기록은 물론, 오르본톤 위원회 앞에서도, 신성한 조율사에 대해서 고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책임 맡은 대로 이행했으며; 신성하게 충실했습니다. 당신들은, 혼란에 빠진 이 행성에서 수고하는 모든 존재의 잘못을 조절하고 부족함이 메워지도록 도왔습니다. 당신들은 경이로운 존재요, 뒤쳐진 이 영역의 혼들 속에서 선{善}을 보호하는 분들입니다. 자발적 사역자로서 외견상 내 관할 아래 있는 동안일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참으로 사심{私心} 없음, 사려 깊은 섬김, 및 전적 헌신을 깨달으면서, 나는 당신들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당신들은, 투쟁이 난무하며, 비탄에 잠기고, 병으로 시달리는 이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에게, 하나님 같은 봉사자로서 칭호 받을만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경배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드립니다!”

108:3.7 (1189.3) 암시된 여러 계통의 흔적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고 조율사들이 철저하게 조직됐음을 믿으며, 디비닝톤일 것으로 추측되는, 매우_멀리 있고 중심적 근원이 되는 어떤 곳으로부터, 이 신성한 선물들을 매우 지성적이고 효과 있게 지시 경영하는 체제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디비닝톤으로부터 여러 세상으로 가고, 그들의 상대자가 죽으면 반드시 거기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108:3.8 (1189.4) 비교적 높은 영 계층 가운데서는 경영 체계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에게 부여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속한 인격체 계층은, 수많은 다른 인격적 및 비인격적 하위_신격 집단, 즉 광범위한 우주를 서로 관련짓게 하는 자로서 단결하여 활동하는 그들과, 의심의 여지없이 무의식적으로 널리 관계한다. (인격화된 조율사들 외에) 우리가 여러 계층의 인격이전 실재의 현존을 획일적으로 의식하는, 유일한 인격화된 피조물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108:3.9 (1189.5) 우리는 조율사들의 현존을 자각하는데, 이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인격이전 신격 단편{斷片}이다. 우리는 영감된 삼위일체 영들의 현존을 감지하는데, 이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초월인격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에게서 나오는, 계시되지 않은 특정한 계층의 영 현존을 반드시 탐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계시되지 않은 또 다른 실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둔감하지는 않다.

108:3.10 (1190.1)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단독 사자들은,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의 확장되는 신격 안에 등록되는 이런 다양한 영향력을 조정하는 인격체다. 시간세계의 설명되지 않는 여러 현상을 체험으로 통합시키는 데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다.

4. 다른 영적 영향과의 관계

108:4.1 (1190.2) 신격의 다른 단편{斷片}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제외하면, 조율사는 필사 정신 속의 활동 영역에서 매우 고독한 존재다. 아버지께서 광우주에 두루, 모든 능력과 권위를 직접 친히 행사하기를 그만두신 듯

보이더라도, 낙원 신격들의 자녀인 최상급 창조주들을 위한 이런 포기 행위에도, 아버지께서는 낙원 아들들의 영적 인력과 대등하게, 모든 피조물 창조를 자신에게 이끌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진화하는 피조물의 정신과 혼 속에 현존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없는 권한을, 확실히 독점해 오셨다는 사실을 신비 관찰자는 설득력 있게 말해준다. 너희의 낙원 증여 아들이 아직 유란시아에 있을 때, “내가 들림 받으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씀했다. 낙원 아들들 및 그 창조 동역자들이 이끌어 내는 이 영적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지만, 인간 정신 속에 거주하면서 그토록 힘차게 역사하는 이 신비 관찰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토록 온전히_지혜롭게 활동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다.

108:4.2 (1190.3) 비록 사람들의 자녀의 정신 속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더라도, 온갖 우주의 운행{運行}에 종속적이거나 대등하거나 또는 외견상 관련된 듯하지 않으면서, 이 신비스런 현존들은, 자신이 내주하는 피조물에게 신성한 이상{理想}으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재촉하며, 앞날의 더 나은 삶의 목적과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들을

항상 위로 이끌어 준다. 이 신비 관찰자들은, 미가엘이 네바돈 전 우주에 걸친 영적 통치권을 형성하도록 끊임없이 돕는 한편, 오르본톤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주권을 안정시키는 데 신비롭게 기여한다. 조울사는 하나님 뜻 *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최상급 창조주 역시 바로 그 뜻을 몸소 실현하므로, 조울사의 작용과 우주 통치자들의 주권은 상호 의존적이어야만 함을 피할 수 없다. 비록 외견상으로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조울사로서 현존하심과, 아버지가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통치하심은, 동일한 신성{神性}이 다양하게 형태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108:4.3 (1190.4)} 사고 조울사들은, 다른 어떤 영적 현존과도 아주 상관없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며;다른 모든 영 영향의 성능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서 아주 벗어나서, 우주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외견상 독립성에 상관없이, 장기간의 관찰 결과가 명백히 나타내는 바에 의하면, 사고 조울사들은 인간 정신 속에서, 보조 정신_영들,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및 기타 영향들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영 사역과 완전히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한다.

108:4.4 (1190.5) 캘리개스차 동란이 있는 후에 유란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한 세계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립될 때, 한 행성이 회로화 된 모든 외부의 대화 통로에서 차단될 때, 개인적 사자{使者}들 외에는, 행성 사이 또는 우주와 직접 통신하는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구체들에 있는 조율사들의 연락을 통해서 이뤄진다. 어떤 세계 또는 우주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조율사는 결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행성이 고립된다고 해서 조율사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으며, 지방우주, 연방우주, 또는 중앙우주의 어느 부분과 통화할 수 있는 역량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운명 예비 단체인 스스로_행동하는 최상 조율사들과 접촉하는 것이, 고립된 세계서도 그토록 자주 일어난다. 행성의 고립에 따르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기법에 의뢰한다. 천사장들의 회로가 유란시아에서도 최근에 다년간 작용해 왔으나, 그 통화 수단은 천사장 단체들 자체의 처리사항에서만 가능하도록 지극히 제한된다.

108:4.5 (1191.1)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광범한 우주에서 많은 영 현상을 인지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아직 정통하지 못하며;나는, 이

불가사의한 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인력 사자들 및 특정한 유형의 신비 관찰자들이 해낸다고 믿는다. 나는 조율사가 오직 필사 정신을 개조하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나는, 인격화된 관찰자들 및 기타 계층들의 계시되지 않은 인격이전 영들이, 그 영역의 피조물과 만유의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접촉을 대표한다고 확신한다.

5. 조율사의 사명

108:5.1 (1191.2) 유란시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혼합 존재들 속에 내주하기를 자원했을 때, 조율사들은 어려운 임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의 정신 속에 존재하면서, 거기서 그 영역의 영적 지성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영적 메시지를 물질 정신에게 다시 지시하거나 번역하는 과제를 떠맡아 왔으며;그들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데 필수적이다.

108:5.2 (1191.3) 피조물이 충분한 정도의 협동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 상대자의 체험 속에 기억시키지 못하는 그 항목들을, 사고 조율사가 이 궤도에서 저 궤도로 지금 전달하는 것과 똑같이, 사고

조율사는, 너희의 현재 삶 속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 즉 그의 약혼자인 그 사람에게 그가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다음 단계의 실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전할 것이다.

108:5.3 (1191.4)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는:조율사는, 보호하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것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우리는 이 영 협조자가 태만한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지방우주 유형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천사 및 기타 높은 유형의 영 존재들이, 이따금 악을 용납하여, 때로 신성한 길을 벗어날지 모르지만, 조율사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로 신뢰할만하며, 이것은 일곱 집단 전체에 똑같이 적용된다.

108:5.4 (1191.5) 너의 조율사는, 너를 새로운 다음 계층의 실존이 되게 하는 잠재력이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이루도록 미리 증여된 존재다. 너의 의지가 동의함으로, 그리고 그 동의를 얻어서, 조율사는 물질 정신의 피조물 성향을 굴복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따르게 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행동은 떠오르는 모론시아 혼의 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

108:5.5 (1191.6)

신비 관찰자는 사고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사고를 조율하는 자다. 그들은 새 세계들을 위한 새로운 정신과 너의 미래 생애의 새 이름을 이를 목적으로, 조율하고 영성화 시킴으로, 물질 정신과 함께 수고한다. 그들의 사명은 이 생애가 아니라 주로 미래의 생애와 관련된다. 그들은 현세의 도우미가 아니라, 하늘의 도우미라고 불린다. 그들은 필사자의 생애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오히려 너의 인생을 합리적인 정도로 어렵고 괴롭게 해서, 결심이 이뤄지도록 자극하고, 더 많은 결심이 이뤄지도록 하기에 관심을 둔다. 위대한 사고 조율사 현존은, 삶을 편안하게 하거나 고심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기보다, 심오한 마음 속 평화와 뛰어난 영의 평강을 제공하는 신성한 선물이다.

108:5.6 (1192.1)

일시적이고 끊임없이_변하는 너의 기쁘고 슬픈 감정은, 내적{內的}인 심령 풍토와 외적{外的}인 물질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이기적인 위로와 필사자의 안위를 위해서 조율사를 바라서는 안 된다. 조율사가 하는 일은, 영원한 모험을 하도록 너를 준비시키는 것, 즉 네가 꼭 생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너의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거나 상한 자존심을 보살피는 것은 신비 관찰자의 사명이 아니며;조율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상승하는 긴 생애를 위하여 너의 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108:5.7 (1192.2) 조율사가 너희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너희의 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성한 관찰자와 인간 정신이 시공우주에서 연합할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계획이나 목적으로가 아니라 성취하는 실제적인 면에서,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비다. 이것이 바로, 필사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숭고한 선물에 맞는 적당한 이름을 찾기에 우리가 그토록 고심하는 바로 그 이유다.

108:5.8 (1192.3) 사고 조율사는 너의 두려워하는 느낌을 사랑과 신뢰의 확신으로 바꾸려고 하지만;그런 것들을 기계적으로나 임의로 할 수 없으며;그것은 네가 할 일이다. 두려움의 족쇄에서 너 자신을 구해내는 그 결정을 내릴 때, 너는 글자 그대로 심령의 지레 받침을 제공하고, 그 위에

조율사가 들어 올리고, 진보하는 빛을 주는 영적 지렛대를 나중에 작동시킬지 모른다.

108:5.9 (1192.4) 인종들의 비교적 높은 성향과 비교적 낮은 성향 사이에, (단지 너희가, 옳다, 그르다,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거나 그른 것 사이에 날카롭고 잘_규정된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런 체험에 조율사가 결정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할 것임을 너는 믿을 수 있다. 그런 조율사 활동을 그 인간 동반자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그 가치와 실제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108:5.10 (1192.5) 네가 개인 운명 수호자를 소유하고도 생존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수호천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판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고 조율사는, 그 상대자가 생존에 실패했을 때 그렇게 심사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 모두가 알기로, 천사는 섬김의 완전성에서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사고 조율사는 낙원의 완전한 방식으로 활동하며;그들의 사역에는, 디비닝톤 바깥의 어떤 존재에게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기법의 특징이 있다. 너희는 완벽한

인도자를 가졌으며;따라서 완전하게 되는 그 목표를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

6.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108:6.1 (1192.6) **승고하고 완전한 조율사가, 동물로부터_기원된 이 세상 존재와 일정 기간 시험적인 합동을 성취하도록, 유란시아의 필사자 같은 물질 피조물의 정신 속에 실제로 실존하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신성한 겸손이 아닐 수 없다.**

108:6.2 (1193.1)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상관없이, 신성한 아들의 증여가 있는 후에, 그리고 진리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증여된 후에는, 조율사들은 의지를 지닌 모든 정상 피조물의 정신에 내주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으로 몰려온다. 낙원 증여 아들의 사명이 완수됨에 따라서, 이 관찰자들은 참으로 "너희 안에 있는 하늘 나라"가 됐다. 아버지께서는, 신성한 선물을 증여하심으로써, 죄와 악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접근 하셨는데, 조율사가 필사 정신 속에, 심지어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不義} 한가운데까지 함께할 수밖에 없음이 참으로 사실이기 때문이다. 내주하는 조율사는, 순전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고{思考} 때문에 각별히 고통당하며;아름답고 신성한 것에 대한 불경함으로 괴로워하고, 많은 사람의 어리석은 동물적 두려움과 유치한 근심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궤방 받는다.

108:6.3 (1193.2) 신비 관찰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만유의 아버지를 증여한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주에 널리 반영한 것이다. 어느 위대한 선생은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사람은 자기 정신의 기질이 새로워져야만 하며;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움 속에서, 완벽한 진리 가운데 창조된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조율사는 신성의 표지, 즉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닮았다거나 물질 피조물 재능의 제한된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들에 있는 비천한 피조물에게 사고 조율사를 숭고하게 증여하면서, 만유의 아버지가 영으로 현존하는 선물을 뜻한다.

108:6.4 (1193.3) 조율사는 네 안에서 영적 달성의 원천{源泉}이요, 신성한 성품을 얻을 희망이다. 그는 생존의 권능, 특권, 및 가능성이요, 너희를 단순한 동물 피조물로부터 그토록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별시켜 준다. 물질적 육신의
신경_에너지 장치를 따라 정신에 미치는 외적{外的} 및
육체적 충동과는 현저히 다르게, 그는 더 높고 정말로
내부에서 생각하게 하는 영적 충동이다.

108:6.5 (1193.4) 미래의 생애를 위한 이 충성된 관리인들은,
정신이 창작한 모든 것을 영적 사본으로 반드시
복사{複寫}하며;생존하는 세계에서 너희가 정말로 (오직
영적으로) 부활되도록, 너희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다시_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절묘하게 영적으로
다시_창조하는 이것들은 모두, 너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떠오르는 실체, 즉 너의 모론시아 자아 속에 간직되고 있다.
조율사가 이렇게 창작한 복제품{複製品}을 의식의 빛
속에 드러내기에 충분할 만큼 좀처럼 강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이 실체들은 실제로 있다.

108:6.6 (1193.5) 네가 육신적으로 부모인 것처럼, 조율사도 진짜
너, 즉 더 높고 발전된 너의 자아, 너의 더 나은 모론시아
자아 및 미래의 영적 자아에게 거룩한 부모가 된다.
심판관과 검열관들이 너의 생존을 판결하고 새로운
세계로 너를 올려 보내서, 너의 충실하신 동역자와--

하나님, 즉 조율사와-- 영원히 함께해서 끝없이 실존하게 될 때,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108:6.7 (1193.6) 조율사들은, 너희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영원한 조상, 신성한 원본이며;영적인 미래의 생애를 고려해서, 물질적인 현재의 실존을 통달하려고 애쓰도록 사람을 인도하는 끊임없는 충동이다. 관찰자들은 사라지지 않는 희망에 사로잡힌 자들, 즉 영원한 진보의 원천이다. 그리고 다소간의 직통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상대자와 대화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즐기는지! 상징 또는 기타 간접 방법을 배제하고, 전할 메시지를 인간 동반자의 지능 속에 직접 떠오르게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108:6.8 (1194.1) 너희 인간은 거의 무한한 파노라마를 끝없이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흐뭇한 봉사, 비길 데 없는 모험, 장엄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한한 달성을 위한, 끝이_없는 언제나_넓어지는 기회의 영역을 무제한으로 확장한다. 어둠이 머리 위에 드리울 때, 내주하는 조율사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너의 신앙이 받아들여야만 하며, 너는 필사자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너머로 눈을 들어서,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들이 손짓해 부르는, 높은 곳 위에 영원한 의의 태양이 밝게 빛나는 곳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

108:6.9 (1194.2)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09편 조율사와 우주 피조물의 관계

109:0.1 (1195.1) 사고 조율사는 우주 생애를 사는 아이이며, 정말로 무체험 조율사는, 필사 피조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에 반드시 체험을 획득해야 한다. 인간 아이의 인격체가 진화로 실존하려고 애쓰면서 성장하듯이, 조율사도 다음 단계로 상승하는 삶을 연습하면서 점점 성장한다. 아이가 초기 어린 시절에 사회생활과 놀이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활동에 적응할 융통성을 획득하듯이, 내주하는 조율사도, 모론시아 생애와 관계있는 활동을 필사자가 예비로 계획하고 연습하는 덕택으로, 다음 단계의 시공우주 생애를 위한 솜씨를 습득한다. 인간 실존은, 미래의 삶에서 증가된 책임과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조율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때의 실습기간이다. 그러나 너에게 내주할지라도, 조율사의 노력은 현세의 삶에서,

그리고 행성에서 실존하면서 생기는 일에는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오늘날 사고 조율사는, 인간의
진화하는 정신 속에서 우주 생애의 실체를 미리 연습하고
있다.

1. 조율사의 성장

109:1.1 (1195.2) 무체험 조율사들이 디비닝톤에서 파송되기 전에
훈련과 성장을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내주 체험을 가진 조율사가 필사자와
연합하는 새 사명에 착수하기 전에, 다시 훈련시키는
광범한 체계가 또한 있지만, 이것 역시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

109:1.2 (1195.3) 관찰자가_내주했던 필사자가 생존에 실패할
때마다, 그 조율사가 디비닝톤으로 돌아갈 때, 확대된 훈련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나는 인격화된 조율사에게서
들었다. 이 훈련은, 인간에게 내주했던 체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며, 그 조율사가 진화하는 시간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주어진다.

109:1.3 (1195.4) 시공우주에서 실제로 사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새롭게 형성된 사고 조율사의 완전한 신성은, 이 신비 관찰자에게, 노련하게 섬기는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도 부여하지 않는다. 체험은 실아 있는 실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아무리 신성한 재능이 많더라도, 실제 삶으로 확고히 해야 할 필연성에서, 너희를 조금도 면제시킬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현재 영역 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조율사들도 체험을 획득해야만 하며, 체험하지 않은 낮은 집단으로부터, 더 많이 체험한 높은 집단으로 진보해야만 한다.

109:1.4 (1196.1) 조율사들은 필사 정신 속에서 명확하게 발전하는 생애를 체험하며; 달성한 실체를 획득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다. 특정한 필사 상대자가 생존하든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물질적 종족과 어떤 접촉을 갖든지, 그 결과로, 조율사로서의 솜씨와 역량을 점진적으로 획득한다. 또한 그들은, 생존할 자격이 있는 불멸의 혼이 진화하도록 촉진하는 일에, 인간 정신의 대등한 동업자다.

109:1.5 (1196.2) 조율사의 진화에서 첫 단계는, 필사 존재의 생존하는 혼과 융합할 때 달성된다. 이렇게, 너희는 사실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안쪽으로 그리고 위로 진화하는 한편, 조율사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진화하며;그래서 이 신성{神性}과 인간성의 합동으로 생기는 최종 산물은, 영원히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2.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

109:2.1 (1196.3) 체험과 관련해서 너희는, 조율사들의 분류--곧 무체험 조율사, 진보된 조율사, 및 최상 조율사--를 알게 됐다. 너희는 또한, 어떤 기능적 분류--곧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도 알아야 한다.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란:

109:2.2 (1196.4) 1. 조율사를 필사 상대자에게 빌려줄 뿐인 그런 유형의 세계에, 또는 인간이 생존에 실패했던 실제 융합 행성에, 임시 거주자로서, 의지를 지닌 피조물의 진화하는 삶에서 어떤 필수 체험을 했다. 그런 관찰자는 진보된 조율사 또는 최상 조율사다.

109:2.3 (1196.5) 2. 셋째 심령 궤도가 이뤄지고, 또한 개인 스랍 수호자를 배정받은 한 인간 속에서, 안정된 영적 능력을 획득했다.

109:2.4 (1196.6) 3. 최상의 결정을 내렸던, 조율사와 엄숙하고 진지한 약혼 관계에 돌입했던 상대자를 가졌다. 그 조율사는 실제로 융합할 때를 미리 내다보며, 그 합동을 사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한다.

109:2.5 (1196.7) 4. 필사자가 상승하는 진화하는 어떤 세계에서, 운명 예비 단체 가운데 하나에 소집된 한 상대자를 갖고 있다.

109:2.6 (1196.8) 5. 언젠가, 인간이 잠자는 동안에, 배정된 그 세계의 영적 경영과 관련된, 연락, 접선, 재등록, 또는 기타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 등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 정신 속에 감금된 상태에서부터 잠시 분리된 적이 있다.

109:2.7 (1196.9) 6. 그 행성의 영적 질서에 필수적인 어떤 시공우주 업적을 실행할 역할이 맡겨진, 영 인격체의 육신적 보완체였던 어떤 인간의 체험에서, 위기의 때에 봉사했다.

109:2.8 (1196.10)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는, 배속된 필사 상대자의 안과 밖에서 이론 많은 업적이 가리키듯이, 자신이 직접 내주하는 인간의 인격체와 관련 없는 모든 면에서, 현저한 정도로 의지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조율사들은 그 영역의 수많은 활동에 참여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이 세상의 장막{帳幕}에서,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내주하는 존재로서 더 자주 작용한다.

109:2.9 (1196.11)

이와 같은 더 높고 더 많이 체험한 유형의 조율사는, 다른 영역에 있는 자들과 대화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들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한편, 오직 공동으로 일하는 수준에서, 자신이 머무는 영역의 조율사 사역에 필수적인 보관용{保管用} 자료를 보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위기가 닥쳤을 때 행성 간 문제에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109:2.10 (1197.1)

최상의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는 인간의 육신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다. 내주하는 자는 필사 생명의 유기적 또는 생물학적 부분이 아니며;그 위에 신성하게 얹혀있다. 원래 생명 계획에서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물질로 실존하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단 그들이 내주하게 된 후에는, 자신의 필사 장막을 잠깐이라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록해야만 할 것이다.

109:2.11 (1197.2) 초월 행동을 하는 조율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완수했고, 오직 물질적_생명 운반체가 분해되거나, 그 불멸의 혼이 옮겨지기만을 기다리는 자다.

3. 조율사와 필사자 유형의 관계

109:3.1 (1197.3) 신비 관찰자들이 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특성은, 그들의 임무의 본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락하는* 조율사 또는 *융합하는* 조율사냐 아니냐에 달렸다. 어떤 조율사들은 다만 자신의 상대자에게 일시적 생애 동안만 대여되며;다른 조율사들은 자신의 상대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영존하는 융합을 하도록 허락된, 인격체 후보자로서 증여된다. 또한 그들의 활동에는, 다른 체계 및 우주들뿐 아니라 다른 행성 유형들 가운데서도 차이가 약간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의 활동은 놀랄 만큼 한결같으며, 어떤 창조된 계층의 천상{天上} 존재들이 맡는 임무보다 더 한결같다.

109:3.2 (1197.4) (제1 계열 집단의) 어떤 원시 세계에서, 조율사는 체험 훈련으로서, 주로 자아_수양과 진보 발전을 위해 피조물 정신에 내주한다. 무체험 조율사는, 대개 원시인이 선택의 골짜기에 도달하는 초기 시대 동안 그런 세계에 보냄 받지만, 그때 비교적 적은 숫자만이, 더 높은 수준의 솟아나는 영성{靈性} 달성을 위하여 자아를_지배하고 성품을 획득하는 언덕을 넘어서, 도덕적 산봉우리까지 올라가기로 선택할 것이다. (어쨌든, 조율사와 융합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영과_융합되어, 상승하는 존재로서 살아남는다.) 조율사는 원시 정신과 일시적으로 연합하면서, 가치 있는 훈련을 받고 멋진 체험을 획득하며, 다른 세계의 더 높은 존재들을 위하여 이 체험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온 우주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109:3.3 (1197.5) (제2 계열 집단의) 또 다른 유형의 세계에서는, 조율사들이 필사 존재에게 단순히 대여된다. 여기서는 관찰자들이 그런 내주를 통해서 인격체 융합을 획득할 수 없지만, 필사자의 생애 동안에,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인간 상대자에게 도움을 준다. 조율사들은 여기서 더 높은 영적 달성을 위한

원형{原型}으로서, 생존하는 성품을 완성시키는 흥미로운 과제에 임시 협조자로서, 짧은 단 한 번의 생애 동안 필사 피조물에게 대여된다. 그 조율사들은 자연사{自然死} 후에도 돌아가지 않으며;생존하는 이 필사자들은, 영 융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09:3.4 (1197.6) (제3 계열 집단의) 유란시아같은 세계에서는, 신성한 선물과 실제로 약혼하는 관계, 즉 삶과 죽음을 정하는 계약이 있다. 너희가 생존하면, 영원한 합동, 즉 사람과 조율사가 하나의 존재로 되는 영구적 융합이 있게 된다.

109:3.5 (1197.7) 이 계열의 세계에서 삼분{三分}된_뇌를 가진 필사자의 경우에, 조율사들은, 하나의_뇌 그리고 이분{二分}된_뇌 유형보다 현세의 생애 동안 훨씬 많은 실제 접촉을 상대자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생애에서는, 삼분된_뇌 유형도 하나의_뇌 유형이나 이분된_뇌 유형과--곧 유란시아 인종들과-- 똑같이 진행한다.

109:3.6 (1198.1) 이분된_뇌 세계들에서는, 증여되는 낙원 아들이 머문 후에, 의심할 여지없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체험 조율사가 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믿기로, 그런 세계에서 생존 수용력을 가진 총명한 남녀에게 내주하는 모든 조율사는, 실제로 진보된 유형 또는 최상의 유형에 속한다.

109:3.7 (1198.2) 유란시아의 초기 진화 인종 가운데 많은 경우에 세 가지 집단의 존재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너무 동물에 가까워서 조율사를 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조율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고, 도덕적 책임을 질 나이가 되면, 즉시 조율사를 받는 자들도 있었다. 셋째 부류는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었는데;그들은 조율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갖췄으나, 각자 몸소 청원해야만 관찰자들이 그 정신에 내주할 수 있었다.

109:3.8 (1198.3) 그러나 부적당하고 열등한 조상의 영향 때문에 상속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생존할 자격을 잃어버린 자의 경우에, 많은 무체험 조율사는, 진화 정신과 접촉하면서 값진 예비 체험을 가졌고, 그리하여 어떤 다른 세계에서 더 높은 유형의 정신에게 나중에 배정될 수 있는, 더 나은 자격을 갖췄다.

4. 조율사와 인간의 인격체

^{109:4.1 (1198.4)} 내주하는 조율사는, 인간들 사이에서 높은 형태의 지성적 상호_연락에 많은 도움을 준다. 동물도 동료의 느낌을 갖지만, 서로 개념을 전달하지는 않으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뿐, 관념이나 이상{理想}은 표현하지 못한다. 동물에서 기원된 사람도, 사고 조율사가 증여되기 전에는, 동료들과 높은 유형의 지적 교제나 영적 교류를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말하기를 개발할 때, 그런 진화 피조물은 조율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탄한 길을 밟고 있다.

^{109:4.2 (1198.5)} 동물은 서로 미숙한 방법으로 대화하지만, 그런 원시적 접촉에는 *인격체*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조율사는 인격체가 아니며; 인격이전 존재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체의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들이 현존함으로 인간 인격체의 질적{質的} 표현이 증대되며; 조율사가 이전의 체험을 지녔다면, 특히 이것이 참말이다.

^{109:4.3 (1198.6)} 조율사의 유형은, 인간 인격체의 표현 잠재력과 크게 상관있다. 오랜 시절 동안, 유란시아에서 많은 위대한 지적 및 영적 지도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그들에게 내주했던 조율사의 우수성과, 이전{以前} 체험 때문이었다.

109:4.4 (1198.7) 내주하는 조율사들은, 고대의 원시인 자손을 인간화시키고 변모시키는 데 다른 영적 영향과 적지 않게 협동해 왔다.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자들의 정신에 내주하던 조율사가 모두 떠나게 된다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다시 원시 시대 사람의 모습과 풍습으로 서서히 돌아갈 것이며; 신성한 관찰자들은, 진보하는 문명의 진정한 잠재력 가운데 하나다.

109:4.5 (1198.8) 나는 유란시아에서 어느 정신에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를 관찰한 적이 있는데, 우버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오르본톤에서 전에 열다섯 명의 정신에 내주했었다. 우리는 이 관찰자가 다른 연방우주들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추정한다. 이 조율사는 불가사의한 존재였으며, 현재 이 시대 동안에 유란시아에서 가장 유용하고 유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다. 다른 이들이 생존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것을, 이 인간이 (그리고 너희 세계 전체가) 지금 쟁취한다. 체험된 조율사를 지금 갖고 있는 자라도, 생존할 자질이

그에게 갖춰지지 않았다면 이를 뺏기게 돼 있으며, 한편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는, 게을러서 포기한 자가 가졌던, 앞서_체험한 조율사까지도 주어질 것이다.

109:4.6 (1199.1)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조율사들이,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영역에서 행성의 상호간_교류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행성에서 두 번 내주 체험이 주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며;이 세상에 전에 왔던 조율사가 유란시아에서 지금 다시 일하는 경우는 없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은, 우버사의 기록보관소에 있는 그들의 번호와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조율사의 내주에 대한 물질적 장애

109:5.1 (1199.2) 스스로_행동하는 최상 조율사들은 종종, 해방됐으나 통제되는 창조적 상상력의 경로에서 인간의 정신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 영적 중요성이 있는 요소들을 그 정신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리고 때로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조율사가, 정신의 흐름을 붙잡아서 그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념의 진행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으며;이 모든 것은, 초월_의식이 있는 높은

심중{心中}에 깊은 영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해진다. 이처럼 정신의 세력 및 에너지가, 현재와 장래의 영적 수준에서 접촉하는 어조{語調}에 더 온전하게 맞춰진다.

109:5.2 (1199.3) 정신에 빛을 비추는 것, 즉 네 안에 끊임없이 내주하는 잠재 인격체의 지혜, 진리, 선함, 및 아름다움을 네가 부분적으로나마 의식할 수 있도록, 네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신성한 음성을 듣는 것이 때때로 가능하다.

109:5.3 (1199.4) 그러나 불안정하고 빠르게 바뀌는 너희의 정신 태도 때문에, 조율사들의 업무가 종종 방해받고 계획이 휘방된다. 조율사들의 일은, 필사자 종족들의 타고난 본성으로 인해 간섭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역은 너희 자신의 선입견, 고정된 관념, 그리고 오래_계속된 편견으로 인해서도 매우 많이 지연된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오직 조율사들의 미완성 작품만이 의식 속으로 여러 번 떠오르며, 개념상 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신의 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때, 모든 체험과 생각 하나하나가 무엇이 될 뻔 했는지를 전혀 무시하면서, 바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민하게 인식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

109:5.4 (1199.5)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는,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삶의 성향을, 신비 관찰자의 신성한 현존이 시작한 영적 충동의 요구에 맞추는 일이다. 우주와 연방우주의 생애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란시아에서 네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는, 누구나 할 수 없이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계속해서 현세에 타협하는 기술에 반드시 숙달돼야 하고, 한편 오직 한 주인에게 영적으로 충성해야만 하며;이것이 바로,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비틀거리고 실패하는지, 점점 더 피로하고 진화 갈등의 긴장감에 굴복하는지, 그 이유다.

109:5.5 (1199.6) 대뇌{大腦}의 재능이라는 유전적 유산과, 전기화학적으로 전면통제하는 유전적 유산, 이 두 가지는 효과적인 조율사 활동을 제한하도록 작용하지만, (정상적 정신에서는) 어떤 유전적 장애도, 종국의 영적 성취를 방해하지 못한다. 유전이 인격체의 획득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상승하는 모험을 종국에 완성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네가 조율사와 협동한다면, 그 신성한

선물은 조만간에 불멸의 모론시아 혼을 발전시킬 것이며, 그 융합이 있는 후에, 그 새 피조물을 지방우주의 주권자인 으뜸 아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낙원에 계신 조율사들의 아버지께 나타낼 것이다.

6. 참된 가치의 영속

109:6.1 (1200.1) 조율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생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의미를_발견하거나 평가하는 인격체가 생존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 속의 중요한 모든 가치는 확실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필사 피조물은 생존을 거부할 수 있으며;그래도 생애의 체험은 낭비되지 않으며;영원한 조율사는 그런 외견상 실패한 생애의 가치_있는 특색을 어떤 다른 세계로 가져가서, 생존 수용력이 있는 더 높은 유형의 어떤 필사 정신에게, 이 살아남은 의미와 가치를 증여한다. 가치_있는 체험은 결코 헛되이 일어나지 않으며;어떤 진정한 의미나 실제 가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109:6.2 (1200.2) 융합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신비 관찰자가 동료 필사자에게 버림받고, 그 인간 동반자가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자연사로 인해 (또는 그 전에) 해방될 때, 조율사는 생존하지 못하는 그 피조물의 정신 속에서 진화돼 온, 생존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어지는 인간 상대자들이 생존하지 못해서, 조율사가 인격체 융합 달성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이 관찰자가 나중에 인격화 된다면, 이 필사 정신들에게 내주했던, 그리고 그 정신을 통달하면서 획득한 모든 체험은, 그런 새롭게 인격화된 조율사의 실제 소유물, 즉 장래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계층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모든 예전 피조물 주인의 살아남은 특징을 전부 혼합해서 조립한 것이다.

109:6.3 (1200.3) 오랜 우주 체험을 가진 조율사는, 증여 사명을 수행중인 신성한 아들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자원할 때, 이 봉사를 통해서 인격체 달성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이 지원자에게 종종 인격체를 수여하며, 그들 부류의 지휘자로 세우신다. 이들은 디비닝톤에서 영화롭게 권위를 받은 인격체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본성은, 필사자에게 여러 번 내주한 체험을 모자이크식으로 인간성을 구현한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내주하는 체험을 하려고 증여되는 낙원
아들의 인간적 신성{神性}을 가리키는 영 이력서다.

109:6.4 (1200.4) 너희 지방우주에서 조율사들의 활동은 네바돈
미가엘의 인격화된 조율사의 지휘를 받는데, 바로 그
관찰자는 미가엘이 요셉의 아들 예수의 육신 속에서 인간
생애를 살았을 때,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했다. 이
비범한 조율사는 자신이 맡은 책임에 충실했고, 이
용맹스런 관찰자는 현명하게 인간 본성을 지휘했는데,
아버지의 완전한 뜻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때, 그 낙원
아들의 필사 정신을 항상 안내했다. 이 조율사는, 이전에
아브라함 때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봉사했고, 이렇게
내주하기 전에, 그리고 이 두 증여 체험 사이에, 엄청난
공훈을 세우는 일에 종사했다.

109:6.5 (1200.5) 이 조율사는 예수의 인간 정신 속에서 참으로
승리했다--이것은 인생에서 거듭되는 상황 하나하나에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뤄지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뜻에 전념하는 헌신을 계속 유지했던 그
정신이였다. 그런 확고한 헌신은, 인간 본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성을 달성하는 결말에 이르는 확실한
통행증에 해당한다.

109:6.6 (1200.6) 바로 이 조울사는 그때, 자신의 강력한 인격체의
불가사의한 본성 속에, 요셉의 아들 예수의 세례받기
이전의 인간성을 반영했는데, 그 인간성은, 전체
유란시아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가, 필사자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완전히 소모되기까지 살았던, 그
평범한 인생의 비천한 환경으로부터 창조한, 영원하고
생생한 가치를 담은 영원하고 살아 있는 증명서다.

109:6.7 (1201.1) 조울사에게 위임된 영원한 가치를 갖는 모든 것은
영원한 생존이 보장된다. 어떤 경우에는, 장차 내주할 필사
정신 속에 증여하려고 관찰자가 이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다른 어떤 경우에는, 인격화됨에 따라서, 살아남아
보존되는 이 실체들이 총괄우주의 설계자들의 봉사
장차 쓰이기 위해 보관돼 있다.

7. 인격화된 조울사의 운명

109:7.1 (1201.2) 조울사가_아닌 아버지 단편들이 인격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인격체가
만유의 아버지의 주권적 자유의지로 증여된 것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버지의 단편 가운데 조율사 유형은, 오직 개인 존재에 대한 봉사_사역을 통해서 인격적 속성을 습득함으로써만 인격체를 획득한다. 이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디비닝톤에서 지내고, 거기서 인격이전 동역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109:7.2 (1201.3) 인격화된 사교 조율사는, 광범위한 온갖 우주에서, 숙박 받지 않고, 배정되지 않고 통치하는, 안정시키고 보상하는 존재다. 그들은 창조주의 체험과 피조물의 체험을--곧 실존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결합시킨다. 그들은 시간과 영원이 결합된 존재다. 그들은 우주 경영에서 인격이전 존재와 인격있는 존재를 연합시킨다.

109:7.3 (1201.4)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총괄우주 설계자들의 온전히_지혜롭고 강력한 행정관이다. 그들은 만유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역을--곧 인격있는, 인격이전의, 그리고 인격을 초월하는 사역을--친히 베푸는 대행자다. 그들은 궁극자 하나님의 영토에 속하는 초월 유한절대 구체들의 모든 영역에 두루, 심지어 절대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비범한 것, 진기한 것, 및 예기치 않은 것을 몸소 베푸는 사역자다.

109:7.4 (1201.5) 그들은 알려진 인격체의 모든 관계를 자신의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우주들에서 독자적인 존재이며;전{先}인격자다--인격체 이전, 인격체, 및 인격체 이후의 존재다. 그들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현재,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서 한 것처럼, 만유의 아버지의 인격체를 보살핀다.

109:7.5 (1201.6) 아버지께서는 무한자 및 절대자와 비슷한 실존적 인격체를 영원한 아들에게 증여하셨지만, 실존적인 인격이전 조율사에게 증여된, 인격화된 조율사 유형의 체험적 인격체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기로 선택하셨으며;그럼으로써 그 두 분은, 궁극자, 최상급_궁극자, 심지어 최상급_절대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유한절대 영역에서 초월적 사역을 베푸는, 미래에 영원한 초월 인격체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109:7.6 (1201.7)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우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태고 항존자들과 가끔 상의하며, 때로는 칠중{七重} 창조주 아들들의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보론다덱 통치자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성좌{星座} 본부 세계에 오기도 한다.

109:7.7 (1201.8) 유란시아에 있는 보론다덱 행성 참관인이--곧
너희 세계의 비상대책 섭정{攝政} 역할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지고자 관리인이, 주둔하는 통치 우두머리 앞에서
자기 권위를 나타냈을 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전체
참모진과 함께 유란시아에 대한 비상{非常} 경영을
시작했다. 그는 즉시 모든 동역자와 보좌관들에게 행성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는, 섭정 역할을 맡는 순간에
자기 앞에 나왔던 세 분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택하지
않았다. 이전의 섭정기간에 그들의 신성한 현존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이와 같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섭정을 맡은 지고자는, 이
자원하는 인격화된 조율사들에게 어떤 봉사를 부여하거나
임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세 분의
전{全}인격적 존재는,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던 수많은
계층의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계층에
속했다.

109:7.8 (1202.1) 인격화된 조율사들은 수많은 계층의 우주
인격체를 위해 넓은 범위에서 봉사하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조율사가_내주했던 진화하는 피조물과 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금지돼 있다. 이 비범한 인간 신{神}들은,
광우주 전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격체들에 속하며,
누구도 감히 그들의 장차 사명이 어떨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한다.

109:7.9 (1202.2)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10편 조율사와 개별 필사자의 관계

110:0.1 (1203.1)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데는
비극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충실한 동무로서 이런
고통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애정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 완전한 조상 신격의 본성이다.

110:0.2 (1203.2) 우주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교
조율사의 사랑과 헌신이 모든 창조에서 참으로 가장
신성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들들이 여러 종족에게
베푸는 사역에서 보여주는 사랑이 고귀하지만, 개인에
대한 조율사의 헌신은 감동적으로 숭고하고, 신성하게

아버지를_뒀다. 낙원 아버지는, 창조주로서의 독특한 특권으로, 각 피조물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 형식을 명백히 예비해 두신다. 그리고 진화 행성에 속한 자녀들에게 매혹적으로 내주하는 이 비인격 실재의 경이로운 사역에 필적할 만한 것은 온갖 우주 전체에 하나도 없다.

1. 필사 정신에 내주함

110:1.1 (1203.3) 조율사가 인간의 물질 뇌 속에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율사는, 그 영역에 사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의 유기체적 부분이 아니다. 사교 조율사는 단일 신체 기관의 한계 안에 존재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필사 정신에 내주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 또한 조율사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상대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는데, 특히 초의식{超意識} 속에서 정신과 영이 경건한 접촉을 이루는 장엄한 체험을 하는 동안에 더욱 그렇다.

110:1.2 (1203.4) 나는, 진화하는 필사자가 자신 안에 사는 조율사들이 헌신적이고 훌륭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더 낮게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감사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사람의 영적 번영을 육성하는
과제에 무척 헌신적으로 충실하다. 이 관찰자들은, 사람의
정신의 더 높은 국면에 효과적인 사역자이며;인간 지능의
영적 잠재력을 현명하고 익숙하게 조종하는 자다. 하늘의
이 협조자들은, 행복한 천상의 안식처를 향해 안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엄청난
과제에 전념한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일꾼들은, 너희의
영구적 인생에서 신성한 진리의 승리가 장차 구현되는
일에 거룩하게 헌신한다. 그들은,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저
멀리 영원한 해변에 있는 완비된 신성한 항구를 향하도록
노련하게 안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을_의식하는 인간
정신이, 악의 모래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신중한 일꾼이다. 조율사들은, 사랑스런 인도자, 즉 너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 동안 겪는 어둡고 불확실한 미로를
통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안내하는 자이며;자신의
상대자가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자극하는 참을성 있는 선생이다. 그들은
피조물 성품의 고귀한 가치를 신중히 보호하는 자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과 더 전적으로 협동하고,
그들을 더 다정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

110:1.3 (1204.1) 신성한 내주자{內住者}들은, 영구히 실존할 다음 단계를 위한 너희의 영적 준비에 주로 관여할지라도, 현세에 너희의 번영과 땅에서 이루는 실제 성취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너희의 건강, 행복, 및 참된 성공에 이바지하기를 기뻐한다. 그들은, 영원히 진보해 갈 너희의 미래 인생에 해롭지 않은, 행성에서 진보하는 모든 문제에서 너희가 성공하는 데 무관심하지 않다.

110:1.4 (1204.2) 조율사들은, 너의 일상 활동과 너의 다양한 세부적 삶이, 너의 현세적이면서 중대한 여러 선택과 생사를 좌우하는 영적 결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하여 혼이 생존하고 영원히 진보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요인이 되는 바로 그 정도까지, 너의 활동과 삶에 흥미를 가지며 관심을 갖는다. 조율사는, 순전히 현세적 번영 면에서는 소극적이지만, 너의 영원한 미래의 모든 직무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적극적이다.

110:1.5 (1204.3) 어떤 재난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든지 정신력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한, 조율사는 너와 함께 남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경이로운 선물이 땅에서 거할 장막으로서 봉사해야만 하는 그 육체를, 알면서도

더럽히거나, 고의로 오염시키는 것은 얼마나 몰인정한 일인가. 모든 육신적 독약은, 물질 정신을 고상하게 하려는 조율사의 노력을 크게 지체시키며, 한편 두려움, 노여움, 질투심, 투기, 의심, 및 편협함 등의 정신적 독약은, 진화하는 혼의 영적 진보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휘방한다.

110:1.6 (1204.4) 너는 오늘날 네 조율사가 구애{求愛}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으며;너의 정신과 혼에게 영원한 합동을 요구하는 신성한 영이 너에게 맡긴 책임에, 네가 충실한 것을 입증만 한다면, 모른시아로 하나 됨, 숭고한 조화, 시공우주 협조, 신성한 동조, 천상의 융합, 정체성의 끝_없는 혼합, 그리고 존재의 일치가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주 완전하고 최종적이므로, 최고로 체험한 인격체들조차, 융합 동반자들을--곧 필사적 사람과 신성한 조율사를-- 독립된 정체성으로 분리하거나 알아볼 수가 결코 없다.

2. 조율사와 인간 의지

110:2.1 (1204.5) 인간 정신에 내주할 때 사고 조율사는, 자신이, 그리고 디비닝톤에 있는 인격화된 조율사들이 결정하고

미리 정한 대로, 모범적 생애, 즉 이상적 삶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유란시아의 인격화된 조율사의 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조율사들은, 그의 인간 상대자가 지적 및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뚜렷하고 미리 정해진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인간도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돼 있지는 않다. 너희는 모두 예정에 대한 주체{主體}이지만, 너희가 이 신성한 예정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사고 조율사의 계획표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기꺼이 영리하게 허락하는 대로, 인격체 방향설정에 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기까지, 영적 조정을 하고 정신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지만;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성한 관찰자들은 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임의로 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조율사는 네 인격체의 주권을 존중하며;*네 뜻에 항상 복종한다.*

110:2.2 (1204.6) 일하는 방법에서 그들은 불변적이고 독창적이며 완전하지만, 주인의 의지적 개성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 신성한 관찰자는, 어떤 인간이든지 결코 그의 의지에

거슬리면서 영성화하지 않으며;생존은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원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결국, 조율사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성공적인 일을 했더라도, 네가 협동하겠다고 동의함에 따라서 변형이 성취됐는지를, 기록이 보여줄 것이며;상승하는 생애에서 생기는 엄청난 변형의 단계를 하나하나 달성하는 동안에, 너는 조율사와 기꺼이 동반자가 됐을 것이다.

110:2.3 (1205.1) 조율사는, 너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영성화 해서 영존하게 하려고 애쓴다. 어떤 천사나 조율사도, 인간의 사고에 직접 영향을 주려고 몰두하지 않으며;사고는 너희에게만 있는 인격체의 특권이다. 조율사는 너희의 생각하는 과정을, 증진, 변경, 조절, 및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나;더 특별하고 명확하게, 그들은 생존되게 할 목적으로, 너희 생애의 영적 사본{寫本}, 즉 자라가는 너희의 참된 자아의 모론시아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일에 전념한다.

110:2.4 (1205.2) 조율사는 인간 정신 가운데 상위 수준의 영역에서 일하며, 필사자의 지능에서 생기는 모든 개념의 모론시아 복사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쓴다. 따라서

인간 정신 회로들에는, 위에 덧붙여지고 그 안에 집중하는 두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 운반자들의 원래 계획에서 진화돼 온 필사의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디비닝톤이라는 높은 구체들에서 온 불멸의 실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주하는 선물이다. 그러나 필사의 자아 역시 인격있는 자아이며;인격체를 지녔다.

110:2.5 (1205.3) 너희는 인격있는 피조물로서 정신과 의지를 지녔다. 조율사는 인격이전 피조물로서 선{先}정신과 선{先}의지를 지녔다. 네가 눈을 마주하고 보듯이 조율사의 정신에 전적으로 순응한다면, 너의 두 정신도 하나가 되고, 너는 조율사의 정신으로 보강된다. 그 후에, 이 새로운, 즉 결합된 정신의 결정을 네 의지가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집행한다면, 그 조율사의 인격이전 의지는 너의 결단을 통해서 인격체 표현을 달성할 것이며, 그 특정한 기획이 고려되는 한, 너와 조율사는 하나다. 네 정신은 신성과 조율{調律}됐고, 그 조율사의 뜻은 인격체 표현을 달성했다.

110:2.6 (1205.4) 이 정체성이 실현되는 정도까지, 너는 모론시아 계층의 실존에 정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모론시아

정신은, 다양하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본성을 지닌, 협동하는 정신들의 본질과 총합{總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모론시아 지능은 지방우주에서 하나의 뜻에 지배되는 이중{二重} 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사자의 경우에, 이것은 인간에서 기원되는 의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하고자하심에 인간 정신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그 의지는 신성하게 돼 간다.

3. 조율사와 협동함

110:3.1 (1205.5) 조율사들은 신성시되는 고귀한 경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벌이고 있으며;공간에서 시간세계의 최고 모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영원성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동안, 일시적인 너희의 짧은 투쟁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협동하여 그들의 도움을 허용할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 조율사가 너와 대화하려 애쓸 때, 메시지는 인간 정신의 에너지가 흐르는, 물질의 흐름 속에서 분실되며;겨우 이따금, 너는 그 메아리, 즉 신성한 음성의 희미하고 아득한 소리만 듣는다.

110:3.2 (1205.6)

너의 조율사가 필사 인생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생존시키는 계획에서 성공하는 것은, 네가 믿는 이론보다 네 결정, 결심, 및 확고한 신/앙에 달려있다. 이런 모든 인격체 성장 경향은, 조율사와 잘 협동하도록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며;네가 저항하기를 그치도록 너를 도와준다. 사교 조율사는, 필사자들이 완전성을 달성하려고 상승하는 통로를 따라서 나아가도록 정해진, 그 계획에 협조하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한까지만, 현세의 이행업무에서 성공하거나 외견상 실패한다. 생존하는 비결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최상의 인간 욕망에, 그리고 그 소망을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는 동시에 무엇이든지 되고자 함에 달려있다.

110:3.3 (1206.1)

우리가 한 조율사의 성공 또는 실패를 언급할 때, 인간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율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들은 신성한 본질에 속하고, 그들이 맡은 각 이행업무에서 항상 승리한다.

110:3.4 (1206.2) 너희 중에서 매우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생각을 삶의 사소한 일에 소모하는 반면,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더 본질적인 실체들을 거의 전적으로 간과하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성취는, 너희와 너희의 조율사들 사이에 더욱 조화되는 실무 협정의 진전과 관련된다. 인간 실존의 큰 목표는, 내주하는 조율사의 신성에 적응하는 것이며;필사자 인생에서 큰 성공은, 너희의 정신 속에서 기다리며 일하는 신성한 영의 영원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진실하면서 이해심 있는 헌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려는 헌신적이고 단호한 노력은, 명량하고 기쁨 넘치는 삶, 그리고 성공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이 세상 생애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사교 조율사와의 협동은, 고행, 거짓 신앙심, 또는 위선적이고 과시하는 자기_비하를 수반하지 않으며;이상적인 인생은,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생활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생이다.

110:3.5 (1206.3) 혼동, 당황함, 심지어 때로는 낙심되고 마음이 산란한 것조차, 내주하는 조율사의 인도에 저항함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태도는, 때로 거룩한

관찰자와 적극 협동하는 자세가 부족함을 뜻할지 모르며, 따라서 영적 진보를 어느 정도 늦출지도 모르지만, 그런 지적이고 감정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을_아는 혼이 확실히 생존하는 것을 조금도 훼방하지 못한다. 오직 무지함 때문에 생존이 막힐 수는 결코 없으며; 혼란된 의심뿐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불안도 그럴 수 없다. 오직 조율사의 인도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것만이,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생존을 막을 수 있다.

110:3.6 (1206.4) 조율사와 협동하는 것을, 특별히 의식{意識}하는 과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나 너의 동기와 결정, 충실한 결단과 최상의 소망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협동을 이룬다. 너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조율사와의 조화를 의식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

110:3.7 (1206.5) 1. 신성한 인도에 응답하기를 선택함;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가장 높이 의식하는 데 인간 생애의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 신성{神性}의 특성들을, 지혜, 경배, 신앙 및 사랑을 통해서 조화시킴.

110:3.8 (1206.6)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램--
신성한 아버지를 진심으로 인식하고, 하늘의 어버이를
사랑으로 경배함.

110:3.9 (1206.7) 3.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섬기기를
바램--동료 필사자들 하나하나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사랑함과 더불어,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전심으로 인식함.

110:3.10 (1206.8) 4. 시공우주 시민권을 기쁘게 받아들임--
지존하신 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너의 책무를
솔직히 인정함, 진화하는 인간과 진보하는 신격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함. 이것은 시공우주 도덕성의 탄생이요,
보편적 의무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4. 정신 속에서 조율사가 하는 일

110:4.1 (1207.1) 조율사들은, 시간과 공간의 주요 회로들을 따라서
들어오는 계속된 시공우주 정보의 흐름을 받을 수
있으며;여러 우주의 영 정보 및 에너지와 온전히 접촉한다.
그러나 공통된 본성이 부족하고 감응하는 인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강력한 내주자{內住者}들은 이
풍부한 지혜와 진리를 필사 상대자의 정신에게 아주 많이
전해줄 수는 없다.

110:4.2 (1207.2) 사고 조율사는 너의 모론시아 혼이 진보하도록 너의 정신을 영성화 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바로 너 자신은 이런 내적 사역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너 자신의 물질 지능으로 인한 결과와, 너의 혼 및 조율사의 공동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아주 없다.

110:4.3 (1207.3) 사고{思考}, 결정, 그리고 정신 속의 다른 심상{心象}들이 갑자기 떠오른 것들 가운데 더러는, 때때로 조율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한 것이지만;그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이것들은 가라앉은 정신 수준에서, 즉 진화하는 동물적 정신의 회로들 속에 내재된, 정상적이고 평범한 심령 기능의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스스로를 조화시켜오던 개념들이 갑자기 의식 속으로 솟아난 것이다. (이 잠재의식의 표출과는 대조적으로, 조율사의 계시는 초의식{超意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110:4.4 (1207.4) 모든 정신의 문제를, 메마른 의식 수준 건너편으로, 조율사의 보호에 맡겨버려라.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맨션 세계들에서, 조율사는 자신의

청지기_직분을 훌륭히 해낼 것이며, 보호하고 보관하라고 위탁받았던 가치와 의미를 결국 가져다줄 것이다. 너희가 생존한다면, 그들은 필사 정신에게 속한 모든 가치 있는 보화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110:4.5 (1207.5) 인성과 신성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광대한 간격이 있다. 유란시아의 인종들은 전기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너무 많이 통제되며, 일반 행태가 너무 동물적이고, 평상시 반응에서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관찰자가 그를 인도하고 지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너희에게 담대한 결정능력과 헌신된 협동이 너무 결여돼서, 내주하는 조율사는 인간의 정신과 직접 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심지어 진보하는 필사 혼에게 새로운 진리의 섬광을 비출 가능성을 조율사가 발견할 때에도, 이 영적 계시는 종종 피조물의 눈을 멀게 해서, 광신적 격동{激動}에 빠지게 하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색다른 지적 격변을 일으킨다. 많은 새로운 종교와 이상한 "주의{主義}"들은, 사고 조율사와의 의사소통이 중단되고, 완성되지 못하고, 오해되고, 왜곡돼서 생겨났다.

110:4.6 (1207.6) 예루셈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수천 년 동안,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들과,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의 숫자가, 각 세대마다 점점 줄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광경이며, 사타니아를 감독하는 인격체들은, 너희 행성의 어떤 직속 감독관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는데, 그들은 유란시아 인종들 가운데 높은 영적 유형들을 육성하고 보존하도록 고안된 방책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조율사의 인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

110:5.1 (1207.7) 조율사의 사명과 영향을, 흔히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과 혼동하거나 헷갈리지 말라;이것들은 직접 관련이 없다. 양심은 인간적이고 순전히 심령적인 반응이다. 양심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조율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양심은 옳게 행하라고 마땅히 너를 타이르지만;조율사는 그 외에도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를 너에게 말하려고 애쓰며;정확히 말하면, 네가 관찰자의 인도를 감지할 수 있을 때 그렇다.

110:5.2 (1208.1) 사람이 꿈꾸는 체험은, 조화를_이루지_못한 잠자는 정신이, 혼란되고 연락이 끊긴 상태가 계속되는 과정인데, 사람의 정신에 있는 다양한 요소를 조화시키고 연합시키기에 조율사가 실패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증거다. 다만 조율사는, 한 번의 인생 동안에 인간 존재 및 신성한 존재로서 서로 다르고 다양한 생각의 두 유형을, 독단적으로 조화시키거나 동조시킬 수 없다. 조율사가 그렇게 하면, 가끔 그렇게 해왔듯이, 그런 혼은 죽음의 체험을 거칠 필요 없이 맨션 세계로 직접 옮겨진다.

110:5.3 (1208.2) 의식이 충분히 깨어 있는 시간에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조율사가 내주한 인격체의 의지가 이전에 온전히 허락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월정신의 영역에 던져진 것만을, 잠자는 시기 동안에 조율사가 달성하려고 애쓰는데, 이 초월정신은 인간과 신이 상호관계로 접촉하는 영역이다.

110:5.4 (1208.3) 조율사는, 자신의 필사자 주인이 잠든 동안에, 높은 수준의 물질 정신 속에 자신이 창작한 것을 등록하려고 애쓰며, 너희의 괴상한 꿈 중에서 어떤 것들은, 조율사가 효과적으로 접촉을 이루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꿈속 세상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억압을 증거 할 뿐만 아니라, 조율사가 제시한 영적 개념의 묘사가 꿈쩍하게 왜곡됐음을 증거한다. 바로 너의 열정, 충동, 및 타고난 기타 성향은 자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한 의식 없이 잠자는 동안에, 내주자가 심령 기록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애쓰는 신성한 메시지를, 자체의 표현되지 못한 욕구로 대치한다.

110:5.5 (1208.4) 꿈속의 내용을 조율사가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잠자는 동안에 조율사가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의 일상적 꿈 체험은 순전히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조율사가 개념을 등록하는 것과, 필사자 양심의 명령에 대해서 다소 연속적이고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 둘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롭지 못하다. 이것은 개인이 식별하고 개인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인간은, 필사 정신의 반응을 신성한 존엄성의 영역으로 높이려는 큰 실수를 범하기보다는,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 체험일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조율사의 표현을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사고 조율사의 영향은, 비록

전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이 초의식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110:5.6 (1208.5) 너희가 심령 궤도들을 올라가면서 점점 더, 다양한 정도로 자신의 조율사와 대화하게 되는데, 어떤 때에는 직접 이뤄지지만 대개 경우에는 간접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인간 정신 속에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개념이 조율사의 가르침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너희 같은 계층의 존재에게는, 너희가 조율사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실제로는 너희 자신의 지능에서 나온 것일 경우가 더 많다. 이것은 위험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연스런 인간 지혜와 초인적 통찰력에 따라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110:5.7 (1208.6) 본 문서를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은 그 인간의 조율사는, 그런 넓은 범위의 활동을 누리는데, 이는 주로 그 조율사의 내적 현존이 바깥으로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 인간이 거의 완전히 무관심하기 때문이며;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아주 개의치 않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다. 그는 그가 사는 그 시대와 세대에서 무척 체험

있는 조율사 가운데 하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다재다능한 조율사가 그의 정신 속에 현존함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그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은 드물고도 다행스런 반응이라고, 그 운명 수호자가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 영향력을 알맞게 조화시켰는데, 높은 행동 영역에 있는 조율사에게 유익하고, 건강, 능률, 및 평온함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상대방에게도 유익하다.

6. 일곱 심령 궤도

110:6.1 (1209.1) 물질 세계에서 인격체가 실현한 것의 총합{總合}은, 필사자 잠재력인 일곱 심령 궤도를 연속해서 정복하는 데 내포돼 있다. 일곱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참된 인간 인격체가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첫째 궤도의 완료는, 필사{必死} 존재가 비교적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시공우주에서 성장하는 일곱 궤도를 모두 거쳤더라도,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 궤도들의 정복은, 조율사와 융합하는 예비 단계에 도달했음을 표시한다.

110:6.2 (1209.2) 일곱 궤도를 달성하는--곧 필사자가 비교적 성숙해지는데-- 과제에서, 조율사는 너와 대등한 동반자다. 조율사는 일곱째로부터 첫째까지 너와 함께 궤도들을 올라가지만, 필사자의 정신이 적극 협동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최상의 상태와 스스로_행동하는 상태까지 진보한다.

110:6.3 (1209.3) 심령 궤도들이 오로지 지적인 것만은 아니고, 전적으로 모론시아적인 것도 아니며;이것들은 인격체의 지위, 정신 달성, 혼의 성장, 그리고 조율사와 동조{同調}하기 등과 관계가 있다. 이런 수준들을 성공적으로 거치는 것은, 단순히 인격체의 어느 한 국면이 아니라 *전체 인격체*가, 조화롭게 활동하기를 요구한다. 여러 부분이 성장해도 전체의 진정한 성숙과는 다르며;그 부분들은 참으로 전체 자아--총체적 자아, 즉 물질적, 지적, 및 영적 자아의 확장에 비례해서 성장한다.

110:6.4 (1209.4) 지적 본성 개발이 영적 본성 개발보다 빨리 앞지를 때, 그런 상황은 사고 조율사와 대화하는 것을 어렵고도 위험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영적 성장은, 신성한 내주자의 영 인도에 대해서 광신적이고

비뚤어진 해석을 내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 수용력이 부족하면, 더 높은 초월의식에 내재하는 영적 진리를 그런 물질 지능에게 전해주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결점 없는 습관, 안정된 신경 에너지, 및 균형 잡힌 화학작용을 가진 육체 속에 자리 잡은, 완전히 안정된 정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처럼 조화되어 발달했을 때-- 그런 존재의 실제 번영에 대한 현세의 위험이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빛과 진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함으로써, 사람은 일곱째로부터 첫째까지, 행성에서 진보하는 궤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간다.

110:6.5 (1209.5) 조율사는 항상 네 곁에 있고 너에게 속하지만, 다른 존재로서 너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는 거의 없다. 너의 지적 결정, 도덕적 선택, 및 영적 성장은, 조율사가 네 정신 속에서 작용하도록 매 궤도마다 역량을 덧붙여주며;그렇게 함으로 너는, 조율사와 연합하고 정신을 조율하는 낮은 단계로부터 한 궤도씩 올라가고, 그래서 조율사는, 하나님을 찾는 이 정신_혼의 진화하는 의식 위에, 생생함과 확신감을 증대시키면서, 운명을 그림처럼 나타낸 것들을 점점 더 등록할 수 있게 된다.

110:6.6 (1210.1) 네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조울사의 기능을 방해하든지 촉진시키든지 하며;마찬가지로 바로 이 결정들은, 인간 성취의 여러 궤도에서 네가 승진하는 것을 좌우한다. 최고의 결정, 그 결정과 위기의 관계는, 각 궤도를_획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과 크게 상관있는 것이 사실이지만;그럼에도, 결정의 빈도, 빈번한 반복, 끊임없는 반복 또한 그런 반응을 확실히 습관으로_형성하는 데 필수다.

110:6.7 (1210.2) 인간이 진보하는 일곱 수준을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이 수준들이 개인적이기 때문이며;이 수준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외견상 인간 각자의 성장 수용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다. 시공우주 진화에서 이런 수준을 정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으로 반영된다:

110:6.8 (1210.3) 1. *조울사에게 동조하기*. 영화{靈化}된 정신은 궤도 달성에 비례해서 조울사의 현존에 가까워진다.

110:6.9 (1210.4) 2. *혼의 진화*. 모론시아 혼의 출현은 궤도 정복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낸다.

110:6.10 (1210.5) 3. *인격체의 실체*. 자아성 실체의 등급은 궤도의 정복에 따라서 직접 결정된다. 인격자는 일곱째 수준으로부터 첫째 수준의 필사자 실존으로 올라가면서 더욱 실제화 된다.

110:6.11 (1210.6) 궤도들을 거치면서, 물질적 진화를 겪는 자녀는 불멸의 잠재력이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란다. 일곱째 궤도에 있는 자들의 발달되지 못한 본성의 희미한 실체는, 지방우주 시민의 떠오르는 모론시아 본성이 더 분명히 나타날 때 물러난다.

110:6.12 (1210.7) 인간 성장의 일곱 수준, 즉 심령 궤도들을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성숙을 실현하는 이 단계들의 최소 한계와 최대 한계를 암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110:6.13 (1210.8) *일곱째 궤도*. 인간이 몸소 선택하고, 개인별로 결정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능력, 그리고 영적 개체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용력을 계발할 때 이 수준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혜의 영의 지휘 아래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이 연합하여 활동함, 거룩한 영의 영향력 안에 필사 피조물이 회로화 됨, 그리고 유란시아의 경우에는

필사 정신 속에 사고 조율사를 받아들임과 함께, 진리의 영이 처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궤도에 들어가는 것은, 필사 피조물이 지방우주의 진정한 잠재적 시민이 되게 한다.

110:6.14 (1210.9) **셋째 궤도.** 조율사의 업무는, 상승하는 인간이 셋째 궤도를 획득하고 운명의 개인 스랍 수호자를 받은 후에 훨씬 효과적이다. 조율사와 스랍 수호자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협조 노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개인 스랍 안내원이 배정된 뒤에 시공우주에서 성취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국면에서, 틀림없는 진전이 있음을 목격할 것이다. 셋째 궤도가 달성될 때, 조율사는 필사자 생애 중에서 남은 기간에 사람의 정신을 모론시아화 하고, 나머지 궤도들을 마치게 하려고, 그리고 자연사가 독특한 동반자_관계를 끝내기 전에, 신과_인간의 관계에서 마지막 단계를 성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110:6.15 (1210.10) **첫째 궤도.**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첫째이자 마지막 궤도에 네가 도달할 때까지, 조율사는 평상시에 너와 직접 즉시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수준은

진화하는 모론시아 혼이 물질적 육신의 껍데기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인간의 체험에서 정신과_조율사의 관계가 가능한 한 최고로 실현된 것을 나타낸다. 정신, 감정, 및 시공우주 통찰력에 관해서, 이런 첫째 심령 궤도의 달성은, 인간의 체험에서 물질 정신과 영 조율사가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110:6.16 (1211.1) 아마, 필사자 진보의 이 심령 궤도들을 시공우주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이것은 진화하는 혼과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초기 관계에 대한 모론시아 의식을 얻기까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실제 의미를 파악하고 가치를 깨닫는 수준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시공우주 궤도들의 중요성을 물질적 정신에게 완전히 설명하기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런 궤도의 달성은, 겨우 상대적으로 하나님을_의식하는 데 관련될 뿐이다. 일곱째 또는 여섯째 궤도에 있는 자는, 둘째나 첫째 궤도에 있는 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을_아는 경지에--곧 자녀신분을 의식함에-- 거의 이를 수 있지만, 그런 낮은 궤도의 존재는, 지존하신 분과 갖는 체험적 관계, 즉 우주 시민권을 훨씬 적게 의식한다. 이런 시공우주 궤도들의 달성은, 그들이 자연사하기 전에 그런 성취에 실패한다면,

맨션 세계들에서 상승하는 자가 얻을 체험의 일부가 될 것이다.

110:6.17 (1211.2) 신앙이 주는 자극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체험하게 하지만, 행동, 즉 결정한 것을 완성시킴은, 지존하신 분의 시공우주 실체와 점진적으로 유사하게 되고 있다는 의식을 진화로 얻는 데 필수다. 신앙은 영적 세계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지만, 지존자의 유한한 영역에서는 오직 선택과 체험을 실현함으로써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잠재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선택은 인격체가 행동할 때 영적 신앙을 물질적 결정에 결합시키며, 이럼으로써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지렛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신성하고 영적인 지레 받침대를 제공한다. 물질 세력과 영적 세력이 그렇게 현명하게 협조하는 것은, 시공우주에서 지존자의 실현, 그리고 낙원 신격들에 대한 모론시아 납득을 심히 증대시킨다.

110:6.18 (1211.3) 시공우주 궤도들의 정복은, 모론시아 혼의 양적 성장, 즉 최상의 목적을 납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불멸의 혼의 질적 상태는, 필사적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낙원_잠재성의 사실_가치를 믿는 살아있는 신앙을 붙잡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일곱째 궤도에 있는 자는, 둘째 또는 심지어 첫째 궤도에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시공우주 성장의 양적 실현을 더욱 달성하기 위해서 맨션 세계로 간다.

110:6.19 (1211.4) 시공우주_궤도의 달성과 실제적인 영적 종교 체험 사이에는 간접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며;그런 달성은 상호적이고, 따라서 서로에게 유익하다. 순전히 영적인 발전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성공과 아무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궤도의 달성은 인간이 성공하고 필사자가 성취할 가능성을 반드시 증대시킨다.

110:6.20 (1211.5) 일곱째 궤도로부터 셋째 궤도까지, 모론시아 수준의 체험에 더욱 진입하는 데 대비해서, 물질 생애 심리과정의 현실에 필사 정신이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일곱 보조 정신_영의 행동이 증가되고 통합된다. 셋째 궤도부터는 보조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점차 줄어든다.

110:6.21 (1211.6) 일곱 궤도는, 가장 높은, 순전히 동물적인 수준으로부터, 인격자 체험으로써 자기를_의식하는 가장 낮은, 실제로 접촉되는 모론시아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필사자 체험을 포함한다. 첫째 시공우주 궤도의 정복은, 필사자가 모론시아_이전{以前} 상태로 성숙했음을 알리며, 인간의 인격체 속에서 정신 작용에 미치는 유일한 영향으로서 보조 정신_영들의 공동 사역이 끝났음을 표시한다. 첫째 궤도를 지나면, 정신은 진화의 모론시아 단계의 지성과 더욱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공우주 정신, 그리고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이 부여한, 보조체를 초월하는 재능의 연합된 사역이다.

110:6.22 (1212.1) 조율사의 개별 생애에서 중대한 날은:첫째로, 인간 상대자가 셋째 심령 궤도로 뚫고 들어오고, 따라서 (내주자가 이미 스스로_행동하지 않는다면) 관찰자가 스스로_활동하며, 작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보장할 때이며;다음은, 인간 동반자가 첫째 심령 궤도에 도달하고, 그리하여 상호 대화가 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 때이며;마지막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영원히 융합할 때다.

7. 불멸성의 달성

110:7.1 (1212.2) 일곱 시공우주 궤도를 성취하는 것은, 조율사와 융합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유란시아에는 자신의 궤도들을 달성한 많은 필사자가 살지만;융합은 아직 더 크고 더 탁월한 다른 영적 성취, 즉 필사자의 의지를, 사고 조율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뜻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동조시키는 것을 완성하는 데 달려 있다.

110:7.2 (1212.3) 한 인간이 시공우주 성취 궤도들을 완료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사자 의지의 최종 선택이, 진화하는 육체 생애 동안에, 조율사로 하여금 인간의 정체성과 모론시아 혼의 연합을 완결하도록 허락하면, 혼과 조율사의 그런 완성된 동맹은 맨션 세계들까지 독립적으로 계속되며, 조율사와 모론시아 혼이 즉시 융합되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이 우버사로부터 하달된다. 이 융합이 육신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면, 순식간에 물질 육체를 다 태워버리며;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는 인간은 오직, 옮겨가는 그 필사자가 “불병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110:7.3 (1212.4)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상대자를 옮겨간 대부분의 조율사는 고도로 체험한 존재였으며, 전에 다른

구체들에서 수많은 필사자에게 내주했던 것으로 기록된 존재였다. 빌려주는 계층에 속하는 행성에서, 조율사는 값진 내주 체험을 획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오직 생존에 실패하는 필사 상대자 안에서만 조율사가 고등 업무를 위하여 체험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110:7.4 (1212.5) 필사자와 융합하고 나서 조율사는 너의 운명과 체험을 공유하며;*그가 바로 너다.* 불멸의 모론시아 혼, 그리고 관련된 조율사가 융합한 후에, 한쪽의 모든 가치와 모든 체험은 결국 다른 쪽의 소유가 되며, 결국 그 둘은 실제로 하나의 실재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 속한다. 생존하는 혼 속에서 한때 인간적이었던 모든 것, 그리고 조율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신성한 모든 것이, 이제는 영원히_상승하는 새로운 우주 인격체의 실제 재산이 된다. 그러나 각 우주 수준에서, 조율사는 오직 그 수준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속성만을 그 새 피조물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성한 관찰자와 절대적인 *하나 됨*, 즉 조율사에게 주어진 재능의 완전한 소모는, 이 신성한 선물의 영원한 근원이신 만유의 아버지, 즉 영들의

아버지께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나서 영원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110:7.5 (1212.6) 진화하는 혼과 신성한 조울사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융합할 때, 각 존재는 상대방의 체험 가능한 특성을 전부 얻게 된다. 이 동격 인격체는, 한때 조상 필사 정신이 지녔고, 그 다음에는 모론시아 혼에 내재하다가 살아남은 모든 체험적 기억을 소유하며, 이에 덧붙여서, 이 잠재적 완결성취자는, 필사자에게 내주했던 전체 기간 내내 조울사가 체험으로 얻은 모든 기억을 품는다. 그러나 신성한 관찰자가 과거 영원으로부터 앞으로 가져온 의미와 가치를, 조울사가 인격체 동반관계에 완벽히 부여하는 데는, 미래의 영원이 필요할 것이다.

110:7.6 (1213.1) 그러나 대다수 유란시아인의 경우에, 조울사는 죽음으로 구원이 임하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만 하며; 너희의 물질 실존 계층에 내재하는 에너지 원형{原型}과 화학적 힘이 거의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에서부터, 떠오르는 혼이 해방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조울사와 접촉하는 데 너희가 겪는 주요 어려움은, 본래부터 가진 바로 이 물질적 본성 때문이다. 극소수의

필사자만이 진정한 사색가이며;너희는 신성한 조율사와
호의적으로 접촉하는 정도까지, 너희의 정신을 영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는다.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발생되는, 사랑의 우주 방송이 전하는 다채로운
메시지로부터 조율사가 번역해 주는 영적 탄원이, 인간
정신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조율사는, 너희의 물질
본성에 타고난 화학 및 전기{電氣} 세력에 아주 완전히
지배되는 동물 정신 속에, 영감을 주는 이 영의 인도를
의식하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110:7.7 (1213.2) 조율사들은 필사 정신과 접촉하기를
기뻐하지만;그들은, 동물적 저항을 돌파하여 너희와 직접
대화할 수 없어서 침묵하며 머무는 오랜 세월 내내,
인내해야만 한다. 봉사의 척도에서 사고 조율사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유능하게 된다. 그러나 맨션 세계들에서
정신 대 정신으로 네가 조율사를 알아볼 때, 충만하고,
동정적이며, 깊은 애정으로 너를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네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도 조율사가 그렇게
너를 영접할 수는 없다.

110:7.8 (1213.3) 필사 인생 동안에는, 물질 육체와 정신이 너를 조율사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유로운 교통을 방해하며, 죽은 뒤에 영원한 융합이 이뤄진 후에는, 너와 조율사가 하나이며--곧 너희는 별개의 존재로 구분될 수 없으며, 따라서 네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교통할 필요는 없다.

110:7.9 (1213.4) 조율사의 음성은 항상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 대부분은 일생 동안에 그 음성을 듣는 일이 드물 것이다. 달성하는 궤도 중에서 셋째와 둘째 보다 아래에 있는 인간은, 최상의 소망을 가진 순간, 최상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정을 내린 결과로 생기는 경우 외에는, 조율사가 직접 말하는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다.

110:7.10 (1213.5) 운명 예비군의 필사 정신과 행성 감독관들 사이의 접촉이 이뤄졌다 끊어졌다 하는 동안에, 내주하는 조율사는 가끔 어떤 메시지를 필사 상대자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 최근에 유란시아에서, 스스로_행동하는 조율사가 그 인간 동역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는 운명 예비 단체 회원이었다. 이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된다:“이제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내 상대자에게 손상이나 위험 없이,

그리고 과도한 비난이나 훼방을 시도함 없이, 나를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기록하라.” 그러자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매력적인 훈계가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그 조율사는 이렇게 간청했다: “그는 내게 진지한 협동을 더욱 충실히 베풀고, 내가 부여한 과제들을 더 기쁘게 참아내며, 내가 배치한 계획표를 더 신실하게 진행하고, 내가 선택한 시험들을 더 많은 인내심으로 통과했으며, 내가 선택한 길을 더 변함없이 기쁘게 걸었고, 내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생길지도 모르는 영예를 더 겸손히 받아들일 것을- 내가 거주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 훈계를 전하라. 나는 그에게 최상의 헌신과 신성한 영의 애정을 베풀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상대자에게, 끝나는 순간까지, 이 땅의 마지막 분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지혜와 능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나는 내 인격체에 맡겨진 것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 인내와 격렬한 분투에 대한 보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생존하라고 타이른다. 우리가 인격체를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궤도 한 궤도, 나는 이 인간 정신의 높이까지 인내심을 갖고 올라왔으며, 내 부류의 우두머리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나는 판결 받기까지, 한 궤도 한 궤도 전진하고 있다. 나는 기쁨으로, 염려하지 않으면서, 운명의 출석점호를 기다리며;태고 항존자들의 법정에 모든 것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110:7.11 (1214.1)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11편 조율사와 혼

111:0.1 (1215.1) 신성한 조율사가 인간 정신 속에 현존함은, 과학 또는 철학이 인간 인격체의 진화하는 혼을 만족스럽게 납득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론시아 혼은 우주의 산물이며, 오직 시공우주 통찰력 및 영적{靈的} 발견을 통해서만 정말로 혼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111:0.2 (1215.2) 혼이 있고, 그 안에 내주하는 영이 있다는 개념은, 유란시아에 새롭지 않으며;이 개념은 행성의 다양한 믿음 체계에 자주 출현했다. 어떤 서양 신앙뿐 아니라 동양의 여러 신앙은, 사람이 인간적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유산을 가졌음을 감지했다. 신격이 바깥에 두루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현존하신다는 느낌이, 오랫동안 많은 유란시아 종교의 한 부분을 형성했다. 인간

본성 안에서 무언가, 짧은 현세 생애의 저편에서 계속할 운명을 지닌 어떤 생명원천이 자라고 있음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어왔다.

111:0.3 (1215.3) 신성한 영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을 낳았다는 것을 사람이 깨닫기 전에는, 혼이 육신의 다른 기관에--곧 눈, 간, 콩팥, 심장, 그리고 나중에는 뇌에-- 거한다고 생각했다. 미개인은 혼을, 피, 숨결, 그림자 및 물에 비친 자기 모습과 연결시켰다.

111:0.4 (1215.4) 힌두교 선생들은 *대아{大我}*를 생각함으로써 조율사의 본성과 현존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접근했지만, 진화하면서 불멸의 잠재성을 갖는 혼이 공존함을 식별하지는 못했다. 반면에, 중국인은 인간의 두 가지 면, '*양{陽}*'과 '*음{陰}*', 혼과 영을 인식했다. 이집트인과 여러 아프리카 부족도, 두 요소, 즉 '*카*'와 '*바*'를 믿었으며; 혼은 선재하지 않고, 영{靈}만 그렇다고 대개 믿었다.

111:0.5 (1215.5) 나일 강 유역에 거주하던 자들은, 은총을 얻은 각 개인이 태어날 때, 또는 바로 그 후에, 보호하는 영이 증여된다고 믿었고, 이것을 '*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수호 영이 일생동안 필사 상대자와 함께 남아 있다가,

그보다 먼저 미래의 생애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 룩소에 있는 한 신전 벽에는 아멘호텝 3세의 탄생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어린 왕자가 나일 강 신{神}의 팔 위에 그려져 있고, 그의 곁에는 그 왕자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인이 '카'라고 부르는 그 실재의 상징이다. 이 조각은 기원전 15세기에 완성됐다.

111:0.6 (1215.6) '카'는 관련된 필사자의 혼을 현세의 삶에서 더 나은 길로 안내하기를 바라지만, 더 특별히 다음 세상에서 그 인간 상대자의 행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뛰어난 천재 영이라고 생각됐다. 이 시대에 살던 이집트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기 '카'가 큰 강 저편에서 자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처음에는, 왕들만 '카'를 소유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모든 의인이 '카'를 소유한다고 믿게 됐다. 어느 이집트 통치자는, 자기 마음 속의 '카'를 언급하며 말했다:"나는 '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며;'카'의 인도를 어기기를 두려워했다. 나는 '카'로 인해 번영했으며;'카'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으며;나는 그 안내로 저명하게 됐다." '카'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린 신탁{神託}"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많은 사람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겁게 영원을 보내리라”고 믿었다.

111:0.7 (1216.1) 진화하는 유란시아 필사자 종족마다, 혼 개념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를 갖고 있다. 미개한 여러 민족은 혼이 인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믿었으며;그래서 그들은 증오심에 찬 흉안{凶眼}을 매우 무서워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라”고 믿었다. 리그_베다에는:“내 정신이 내 가슴에게 말한다”고 써있다.

1. 선택하는 정신 경기장

111:1.1 (1216.2) 조율사의 활동이 본질적으로는 영적이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적 기초 위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만 한다. 정신은 인간의 토양이요, 그 토양으로부터, 영 관찰자는 내주하는 인격체의 협조를 얻어서 모론시아 혼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111:1.2 (1216.3) 온갖 우주에 있는 여러 정신 수준에는 시공우주의 통일성이 있다. 마치 성운{星雲}이 우주 공간에 있는 시공우주 에너지에서 기원되는 것처럼, 지적 자아는 시공우주 정신에서 기원된다. 지적 자아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따라서 인격있는 수준에서), 필사 정신의 동의에 따라 영의 진화 잠재력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인간 자아 안에 있는 절대 가치의 실재_접촉점이 창조적 현존과 함께 하는, 인간 인격체의 영적 재능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물질 정신의 영 지배는 두 가지 체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이 정신은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사역을 통해서 진화했어야만 하며, 물질적 (인격적) 자아는, 모론시아 자아, 즉 진화하고 불멸의 잠재력이 있는 혼을 창조하고 돌보면서 내주하는 조율사와 협동하는 쪽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111:1.3 (1216.4) 물질 정신은 인간 인격체들이 사는 경기장인데, 이 인격체들은 자아를_의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택하거나 저버리고, 자신들을 영원하게 만들거나 파괴한다.

111:1.4 (1216.5) 물질 진화가 생명 장치인 육신을 너에게 제공했으며, 우주에 알려진 실체 중에서 가장 순수한 영 실체인 사고 조율사를, 아버지 자신이 너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나 바로 너의 결정에 따라서, 네 손에 정신이 주어졌으며, 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 정신에

달렸다. 너는 이 정신 속에서, 이 정신으로, 너를
조율사처럼 만들 수 있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사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111:1.5 (1216.6) 필사자의 정신은, 물질적 일생 동안에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대여된 일시적 지능 체계이며, 인간은 이 정신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히 실존할 잠재성을 수락하거나
거절한다. 우주 실체 중에서 네 뜻에 지배되는 것은 네가
가진 정신이 전부이며, 혼은--곧 모론시아 자아는-- 필사
자아가 현세에 내리는 결정들이 거두는 수확을 충실히
묘사할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아래로 전기화학 장치 위에
살며시 놓여 있고, 위로는 영_모론시아 에너지 체계에
정교하게 접촉돼 있다. 인간은, 그 필사 생애 중에, 이 두
체계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완전하게 의식하지
못하며;따라서 자신이 의식하는 정신 속에서 일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신이 무엇을 납득하는가 하는 것보다,
정신이 무엇을 납득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생존을
보증하며;정신이 무엇과 비슷한가보다, 무엇처럼 되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영의 신분을 증명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 영원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111:1.6 (1217.1) 정신은, 인간의 의지가 파멸의 불협화음을 연주하든지, 아니면 바로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 사람을 영원히 생존시키는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할 수 있는, 시공우주 악기다. 결국, 사람에게 증여된 조율사는,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없지만, 필사 정신은 사악하고 사리를_꺾하는 인간 의지의 죄 많은 음모로 인해, 실제로 비틀리고, 일그러지고, 악하고 비열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정신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영의 빛을 받은 의지에 따라서, 고결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선하게--정말로 위대하게-- 될 수 있다.

111:1.7 (1217.2) 진화하는 정신은, 시공우주의 지적성향의 두 극단에--곧 온전히 기계화된 것과 완전히 영성화된 것에-- 스스로 나타날 때에만 전적으로 안정되고 신뢰할만하다. 순전히 기계적인 통제와, 참된 영 본성, 지적인 이 양극단 사이에는 거대한 집단의 진화하고 상승하는 정신들이

개입하는데, 그 정신들의 안정성과 차분함은 인격체의 선택과 영의 일체감에 달려 있다.

111:1.8 (1217.3)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자기 의지를 조율사에게 굴복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율사의 인도가 자연스런 필사 정신의 욕구 및 충동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렇게 의식하면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으로 조율사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조율사는,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지만, 그의 뜻에 어긋나게 지배하지는 않으며;인간의 뜻이 조율사에게 최고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하는 인간 지능이라는 거의 한없는 경기장에서, 사고를 조절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영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동안, 인간의 뜻을 그토록 고려하고 존중한다.

111:1.9 (1217.4) 정신은 너의 배, 조율사는 너의 도선사{導船士}, 인간의 의지는 선장이다. 필사적 배의 주인은, 상승하는 혼을 영원한 생존의 모론시아 항구로 안내하는 신성한 도선사를 신뢰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오직 이기심, 나태함, 및 범죄만이, 사람의 의지로 하여금 그런 사랑하는 도선사의 안내를 거부하도록 할 수 있고, 결국 거부된

자비의 함정과 포위된 죄의 바위에 필사자의 생애가 파선되게 한다. 이 신실한 도선사는, 너의 동의에 따라서,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지나 신성한 정신의 바로 그 근원까지, 그리고 이를 지나서 계속, 심지어 조율사들의 낙원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2. 혼의 본성

111:2.1 (1217.5) 시공우주 지성의 정신 기능 전반에 걸쳐서, 전체 정신이 지적 활동의 부분들을 지배한다. 정신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기능적 단일체이며;따라서 잘못 인도된 자아가, 현명치 못하게 행동하고 선택함으로써 휘방 받고 저지당할 때조차, 정신은 어김없이 이런 구조적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신의 이 통일성은, 의지의 존엄성과 상승 특권을 갖는 자아들과 관련되는 모든 수준에서, 영의 협조를 늘 추구한다.

111:2.2 (1217.6) 필사적 사람의 물질 정신은, 모론시아 원단을 걸어놓은 시공우주 방직기계와 같은데, 영속적 가치와 신성한 의미를 지닌 우주 성품의--곧 궁극적 운명과 무궁한

생애를 지닌 생존하는 혼, 즉 잠재적 완결성취자의--
영{靈} 무늬를,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가 그 위에 수놓는다.

111:2.3 (1218.1) 인간의 인격체는, 물질 육신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인한 기능적 관계에 함께 묶여있는 정신 및 영과
동일시된다. 그런 정신과 영이 작용하는 이 관계는, 정신과
영의 특성 또는 속성의 어떤 배합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할 잠재력이 있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독특한 우주 가치, 즉 혼을 낳는다.

111:2.4 (1218.2) 그런 불멸의 혼을 진화로 창조하는 데는 둘이
아니라 세 요소가 있다. 모론시아 인간 혼의 이 세 가지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11:2.5 (1218.3) 1. *인간의 정신*, 그리고 그에 선행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공우주 영향.

111:2.6 (1218.4) 2. 이 인간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 그리고
인생에 관련된 모든 영적 영향 및 요소와 함께, 절대
영성{靈性}의 그런 단편 속에 타고난 모든 잠재성.

111:2.7 (1218.5) 3. *물질 정신과 신성한 영 사이의 관계*인데, 그런
연합에 기여하는 어느 쪽 요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가치를 뜻하고 의미를 지닌다. 이 독특한 관계의 실체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지도 않으나, 모론시아다. 그것이 혼이다.

111:2.8 (1218.6) 중도 피조물은, 사람의 이 진화하는 혼을, 낮거나 물질적인 정신, 그리고 높거나 포괄적인 정신과 구별되도록, 중간_정신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다. 이 중간_정신은 진정으로 모론시아 현상인데, 이것이 물질계와 영계 사이의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론시아로 진화하는 잠재성은, 정신의 두 보편적 충동에 타고 나는데: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의 신성을 획득하려는 피조물의 유한한 정신의 욕구, 그리고 사람을 알고 피조물의 체/험을 획득하려는 창조주의 무한한 정신의 욕구다.

111:2.9 (1218.7)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이 숭고한 처리사항은, 인간 정신이 첫째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초동물적 실체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그 정신은, 도덕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본성의 진화를 보장하는 시공우주 사역의 초물질적 재능을 소유하는데, 그럼으로써 관련된 영적 사역들과,

그리고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와 진실한 독창적 접촉을 이룩한다.

^{111:2.10 (1218.8)} 인간 정신이 접촉해서 그렇게 영성화되는 필연적 결과는, 혼이 점진적으로 탄생되는 것인데, 그 혼은,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어 하는 인간 의지에 지배되는 보조 정신이, 우주의 영적 세력들과 접촉하면서 일함으로써 공동으로 만든 산물이며, 그 영적 세력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실제 단편--곧 신비 관찰자--의 전면통제 아래에 있다. 그리하여 자아의 물질적 및 필사적 실체는, 육체의_삶을 영위하는 기관의 일시적 한계를 초월하며, 자아성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진화하는 매개체 속에서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일체감을 달성하는데, 이 매개체가 불멸하는 모론시아 혼이다.

3. 진화하는 혼

^{111:3.1 (1218.9)} 필사 정신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혼의 진화를 심히 늦출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피조물 의지의 동의에 따라서, 내주하는 조율사가 혼의 진화를 일단 시작하면, 그런 모론시아 현상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필사자가 죽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로 이 물질적 인간

의지는, 그런 선택을 취소하고 생존하기를 거부할 힘이 있다. 상승하는 필사자는, 심지어 생존한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거부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전히 지니며;조율사와 융합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진화하며 상승하는 피조물이 낙원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은, 상승하는 그 필사자가 영원히 무제한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111:3.2 (1219.1) 육신 속에 사는 동안, 진화하는 혼은 필사 정신의 초물질적 결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혼은, 초물질이므로, 인간이 체험하는 물질 수준에서 저절로 작용하지 않는다. 영적이지 못한 이 혼은, 신격의 어떤 영, 즉 조율사 같은 그런 존재의 협조 없이는, 모론시아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용할 수도 없다. 이 물질 정신이, 관련된 기능을 가진 그런 모론시아 혼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그런 권한을 위임할 때, 그리고 그러는 동안 외에는, 죽음이나 전환이 필사 정신과 물질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혼을 분리할 때까지, 혼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생애 동안에, 필사자의 의지, 즉 결정하고_선택하는 인격체의 능력은 물질 정신 회로에 거하며;땅에서 필사자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자아는, 귀중한 선택 능력과 함께,

떠오르는 모론시아_혼 실재와 점차 동일시되며;죽고 나서
맨션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인간의 인격체는 모론시아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이처럼 혼은, 인격체의
정체성을 가진, 미래에 모론시아 운송수단이 되는
새싹이다.

111:3.3 (1219.2) 이 불멸의 혼은, 처음에 전적으로 모론시아
본성을 갖지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격의 영들과 융합할 가치가 있는 참된 영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며, 대개는 피조물의 정신 속에 그런 독창적
현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만유의 아버지의 영과 융합한다.

111:3.4 (1219.3) 인간 정신과 신성한 조율사, 이 둘은 진화하는
혼의 실재 및 특이한 본성을 --조율사는 전체적으로,
정신은 부분적으로-- 의식한다. 혼은, 그 자체의 진화
성장에 비례해서, 정신과 조율사 양쪽을 점점 더 연합된
실체로 의식하게 된다. 혼은, 인간 정신과 신성한 영, 이
둘의 특성을 함께 띄지만, 정신 기능 육성을 통해서, 영
통제와 신성한 지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정신 기능이 의미하는 것들은 참된 영 가치와
조화하기를 추구한다.

111:3.5 (1219.4) 혼이 진화하는, 필사자의 생애는, 보호관찰기간이라기보다는 교육기간이다. 최상의 가치가 살아남는 것을 믿는 신앙이 종교의 중심이며; 참된 종교 체험은, 최상의 가치와 시공우주 의미가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우주 실체로 실현되는 데 있다.

111:3.6 (1219.5) 정신은, 양, 실체, 의미를 안다. 그러나 질{質}은-- 곧 가치는-- 느껴진다. 느끼는 그 주체는, 아는 정신 및 실체화하는 관련된 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다.

111:3.7 (1219.6) 하나님을_의식하는 가치_실현인,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에 스며들어있는 한, 그 결과로 생기는 그런 존재는 파괴될 수 없다. 사람의 진화하는 혼 속에 생존할만한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필사자의 실존은 의미가 없으며, 삶 자체가 비극적 망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은 영원한 진리다: 너희가 시간세계에서 시작한 것은 --끝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영원 속에서 확실히 완성할 것이다.

4. 내면생활

111:4.1 (1219.7) 인식한다는 것은, 바깥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적 느낌을, 개인의 기억 양식 속으로 맞춰 넣는 지적

과정이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인식된 감각적 느낌과 그에 관련된 기억 양식이, 역동적 원칙 연락망 속으로 합쳐지고 조직됐음을 의미한다.

111:4.2 (1220.1) 의미는 인식과 이해의 조합에서 파생된다. 의미는, 전적으로 감각적이거나 물질적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와 가치는, 오직 인간 체험의 내면, 즉 초물질 영역에서만 감지된다.

111:4.3 (1220.2) 참 문명의 진보는 모두, 인류의 이런 내면 세계에서 탄생된다. 참으로 독창적인 것은 내면생활뿐이다. 어떤 세대든지, 대다수의 젊은이가 자신의 흥미와 에너지를 감각 또는 바깥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 추구에 쏟을 때에는, 문명이 도저히 진보할 수 없다.

111:4.4 (1220.3)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는 서로 다른 일련의 가치를 갖는다. 어떤 문명이든지, 젊은이 가운데 4분의 3이 유물론적 직업에 종사하고, 바깥 세계의 감각적 활동 추구에 몰두할 때에는 위태롭다. 젊은이가, 윤리학, 사회학, 우생학, 철학, 순수 예술, 종교, 및 우주론 등에 흥미를 두지 않을 때, 문명은 위험에 봉착한다.

111:4.5 (1220.4) 너희는 오직 초의식 정신의 높은 수준에서, 인간이 체험하는 영 영역에 초의식 정신이 접속함에 따라서, 더 낮고 더 영구적인 문명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효과적인 지배적 모형과 관련된 그런 높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격체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이지만, 오직 개인의 내적 생활에서만 그렇게 작용한다.

111:4.6 (1220.5) 눈{雪}의 결정체는 항상 6각형 형태를 갖지만 어떤 것도 서로 똑같지 않다. 자녀들이 어떤 유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둘이 똑같은 경우는 전혀 없으며, 쌍둥이인 경우라도 그렇다. 인격체도, 유형을 따르기는 하지만 항상 독특하다.

111:4.7 (1220.6) 행복과 즐거움은 내면생활에서 기원된다. 너희는 혼자 힘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없다. 외로운 삶은 행복에 치명적이다. 심지어 가족이나 나라들조차, 삶을 서로 나눌 때 삶을 더 즐길 것이다.

111:4.8 (1220.7) 너희는 바깥 세계를--곧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너의 방향 설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세계의 창조성인데, 거기서 너의 인격체가, 전에

인과{因果} 법칙에 구속됐던 상태에서부터 대체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인격체에는 의지의 제한된 주권이 관련돼 있다.

111:4.9 (1220.8) 사람의 이 내면생활이 진실로 창조적이기 때문에, 이 창조성이 자발적이고 전혀 우연한 것이 되든지, 아니면 통제되고, 지시되고, 구조적인 것이 되든지, 그 선택의 책임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창조적 상상력이 작용하는 무대 위에, 선입관, 미움, 두려움, 분노, 복수심, 및 편협함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그 상상력이 어떻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111:4.10 (1220.9) 생각은 바깥 세계의 충동에서 일어나지만, 이상{理想}은 오직 내면세계의 창조적 영역에서만 탄생된다. 많은 관념을 소유한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의 나라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상{理想}은 가난에_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난, 이혼, 전쟁, 및 종족 간의 증오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다.

111:4.11 (1220.10) 문제는 바로: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내면에 창조성의 능력을 타고난다면, 자유의지적 창조성이 자유의지적 파괴 능력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에는, 너희가 죄와 악--곧 억압, 전쟁, 그리고 파괴--의 참상에 직면한다. 악은 창조성이 치우친 것이고, 그것은 분열을 획책하고 결국 파괴로 향한다. 모든 대립은 내면생활의 창조 기능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악하다--대립은 인격체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한 종자{種子}다.

111:4.12 (1221.1) 내면의 창조성은, 인격체를 종합하고 개성을 통합함으로써, 성품을 고상하게 만들도록 기여한다. 영원히 참된 것은: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오직 내면의 자아의 현재 창조성이 수고함으로써 앞날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5. 선택을 성별함

111:5.1 (1221.2)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곧 내면의 의미와_가치가 있는 그런 피조물 생활을 가능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내면생활을 기꺼이 공유하겠다는 표현일 뿐이다. 나눔은 하나님 같다--신성하다. 하나님은 만유를 영원한 아들 및 무한한 영과 공유하시며, 그들은 우주들의 신성한 아들들 및 영 딸들과 차례로 만유를 공유하신다.

111:5.2 (1221.3)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완전성에 이르는 열쇠이며;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존하는 비결이고, 생존해서 완성에 이르는 비결이다.

111:5.3 (1221.4) 필사자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래서 하나님도 필사자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셨다. 사람이 자신을 그분께 맡기듯이, 그분도 --그리고 먼저-- 자신의 한 부분을 사람과 함께 있도록 맡기셨으며;인간의 뜻에 맞춰서 사람 안에 살고, 사람에게 내주하기로 동의하셨다.

111:5.4 (1221.5) 피조물 인격체가 피조물의 의지를 아버지 뜻에 맡기기로 동의할 때--즉 선택할 때--, 이 생애에서 평화를 얻고, 죽음에서 생존하며, 다음 생애에서 완전하게 되고, 영원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이 모든 것이-- *지금* (영속에서) 성취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미, 자신의 단편이 피조물 인격체의 의지에 지배되도록 하는 선택을 하셨다.

111:5.5 (1221.6) 그런 피조물의 선택은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성별{聖別}, 의지의 확대, 의지의 찬미, 의지의 완성이며;그런 선택은 피조물의 의지를 현세

의미 수준으로부터, 피조물 아들의 인격체가 영 아버지의 인격체와 교류하는 더 높은 신분으로 올려준다.

111:5.6 (1221.7) 피조물 아들이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실적 현존 앞에 서기 전에 비록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이처럼 선택하는 것은, 필사적 사람이 영 아버지를 영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은 피조물의 의지를 부인하는 데--곧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뤄지이다"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피조물의 긍정적 단언에--곧 "당신의 뜻이 이뤄짐이 내 뜻입니다"에-- 있다. 그리고 만일 이 선택이 이뤄지고 나면, 하나님을 선택한 아들은 곧, 내주하는 하나님의 단편과 내면에서 합동한(융합한) 것을 발견할 것이며, 한편 완전하게 되는 바로 이 아들은, 사람의 인격체가 조물주의 인격체와 경배 드리는 친교에서 최상의 인격체 만족감을 발견할 것인데, 이 두 인격체의 창조적 속성은, 스스로_작정한 공동 표현에서 영원히 결합했다--사람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또 하나의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가 탄생됐다.

6. 인간의 역설

111:6.1 (1221.8) 필사적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고난은, 시공우주에 대하여 그가 갖는 이중적 관계에서 파생된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곧 자연 속에 존재하며--그럼에도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무한의 불꽃이 그에게 내주한다. 그런 이중적 상황이, 악의 잠재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적지 않은 불안을 내포하는 많은 사회적 및 도덕적 상황을 발생시킨다.

111:6.2 (1222.1) 천성{天性}을 정복하고 사람의 자아를 초월하는데 필요한 용기는, 자만{自慢}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다.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필사자는, 자신의 자아_의식을 신격화하려는 유혹에 굴복할지도 모른다. 필사자의 진퇴양난은, 그가 자연에 묶여있는 동시에, 독특한 자유를--곧 영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를--소유한다는, 이중적 사실에 있다. 사람은, 물질 수준에서 자연에 예속된 자신을 발견하는 반면, 영적 수준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대해서 승리한다. 그런 역설{逆說}은, 유혹, 잠재적 악, 결정상의 실책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자아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때, 죄가 깊어질 것이다.

111:6.3 (1222.2) 죄의 문제는 유한한 세계에서 스스로_실존하지 않는다. 유한이라는 사실은 악하거나 죄스런 것이 아니다. 유한한 세계는 무한한 창조주에게 지음 받았으며--그의 신성한 아들들의 작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산하다. 유한한 것을 오용하고, 왜곡하고, 남용함으로써 악과 죄가 발생한다.

111:6.4 (1222.3) 영은 정신을 지배할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정신은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물리적 영역에서 인과법칙이라는 엄밀한 수준에 내재된 변질 가능성을, 지성 자체가 숨씨 있게 처리함으로써만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 피조물의 정신은 선천적으로 에너지를 통제하지 않으며;그것은 신격의 특권이다. 그러나 피조물의 정신은, 물리적 우주의 에너지 비밀을 정복하는 한도 내에서만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다.

111:6.5 (1222.4)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변경하고 싶을 때, 그것이 자신이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수단과 방법을 발견한 그 정도까지 성공한다. 도움 받지 않는 정신은, 불가피하게 연결돼 있는 자신의 물리적 장치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에든지 영향을 미칠

힘이 없다. 그러나 정신은, 몸 구조를 총명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구조들, 심지어 에너지 관계들 및 삶의 관계들까지 창조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은 이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우주에서 물리적 수준을 점점 더 통제하고, 심지어 지배할 수도 있다.

111:6.6 (1222.5) 과학은 사실의 근원이며, 정신은 사실 없이 작용할 수 없다. 사실은 지혜를 건축하는 벽돌과 같은데, 인생 체험으로 인해 함께 접착된다. 사람은 사실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신성한 법칙과 신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화하는 시공우주 철학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결코 제1 근원 및 중심의 포괄적인 본성의 무한한 균형, 숭고한 조화, 절묘한 충만함을 헤아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111:6.7 (1222.6) 물질적 지식의 확장은, 생각의 의미와 이상의 가치를 훨씬 더 지적으로 헤아릴 수 있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내적 체험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발견한 진리를 일상생활의 냉혹한 실질적

요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111:6.8 (1222.7) 일시적이고 유한한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한편, 자연에 묶여서 탈출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필사적 사람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오직 종교적 확신이--곧 살아있는 신앙이--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

111:6.9 (1223.1) 사람의 인간 본성에 붙어서 괴롭히고 그의 영적 성실성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 용기는 씩씩함을 주지만, 자기중심은 허영심을 주며 자멸적이다. 합리적 자신감을 유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그를 동물계로부터 구별시킨다.

111:6.10 (1223.2) 교만은, 개인, 단체, 인종, 또는 국가를 막론하고 어디서 발견되든지 기만적이며, 도취시키며, 죄를_잉태하도록 만든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先鋒}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틀림없다.

7. 조율사의 과제

111:7.1 (1223.3)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낙원 모험--곧 시간과 정신 속의 불확실성, 낙원으로 올라가면서 펼쳐지는 사건에 관한 불확실성;영 속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의 안전,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성한 연민에 대한 피조물 아들의 무조건적 신뢰에서 오는 안전;체험하지 못한 우주 시민으로서의 불확실성;전적으로_강력하시고, 온전히_지혜로우시며, 만유를_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우주 맨션들에서 상승하는 아들로서의 안전--에서 본질적 요소다.

111:7.2 (1223.4) 네 혼을 향해서 조울사가 충실하게 외치는 어렵פות한 반사음에 주의하라고, 너에게 충고해도 되겠는가? 내주하는 조울사는, 시간세계에서 분투하는 네 생애를 중지시킬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바꿀 수조차 없으며;조울사는, 네가 가혹한 이 세상에서 보내는 인생의 고난을 줄여줄 수도 없다. 신성한 내주자는, 네가 행성에 살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에 오직 인내심으로 참아낼 뿐이지만;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일하고 고민하는 동안, 싸우면서 수고하는 동안--용맹스런 조울사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싸우도록 허용할 수 있다. 네가 현 물질계의 평범한

문제들과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씨름을 하는 실제 동기, 최종 목표, 및 영원한 목적에 대한 묘사를 조율사가 끊임없이 발표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너는 무척 위로받고 영감 받을 수 있다.

111:7.3 (1223.5) 조율사는 이 모든 불굴의 물질적 노력에 대한 영적 대응물을 네게 보여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너는 왜 조율사를 돕지 않는가? 네가 피조 실존으로서 일시적 어려움과 씨름하는 동안, 조율사가 시공우주의 능력을 가진 영적 진리로 너를 강화하도록, 너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여러 문제를 네가 당혹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우주 생애의 영원한 전망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으로 하늘의 협조자가 너를 응원하도록, 너는 왜 격려하지 못하는가? 인생 여정을 에워싼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네가 허우적거리며 시간의 불리한 조건 한복판에서 수고하는 동안, 너는 왜 우주 관점으로 깨우침과 영감을 받으려 하지 않는가? 네 발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물질 통로를 걸어야 하라도, 조율사가 네 생각을 영성화 하도록, 너는 왜 허용하지 않는가?

111:7.4 (1223.6) 유란시아의 상류 인간 종족들은 복잡하게 섞여 있으며;여러 인종과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 혈통들의 혼합이다. 이런 혼합 본성은, 관찰자들이 일생동안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주며, 죽은 뒤에 조율사 및 안내 스라빔 양쪽에 문제를 확실히 더해준다. 나는 살빙톤에 갔다가, 한 운명 안내자가 그 필사 상대자에게 사역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라는 공식 성명서를 제시하는 것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스라빔은 이렇게 말했다:

111:7.5 (1223.7) "내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대부분은, 내 상대자가 두 가지 본성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때문이었는데, 이 갈등은:큰 뜻을 이루려는 충동이 동물적 나태함으로 방해받음;열등한 인종의 본능으로 방해받는 우수한 민족들의 이상{理想};원시 유전형질의 충동으로 상쇄되는 탁월한 정신의 고상한 목적;시간세계의 피조물의 근시안적 속성으로 인해 휘방 받는, 관찰자의 멀리_내다보는 장거리 전망;물질 본성의 욕구와 갈망 때문에 변경되는, 상승하는 존재의 점진적 계획;진화하는 인종의 화학_에너지 지시로 인해 삭제된 우주 지성의 섬광;동물적 감정으로 인해 방해받는 천사의 충동;본능적

성향 때문에 소멸되는 지능의 단련;인종의 누적된 경향으로 인해 방해받은 개인 체험;최선의 목적이 최악의 경향으로 빛을 잃음;보편성을 중대히 여김으로써 중화되는 천재성의 약동;부정한 것의 타성으로 인해 지연된, 선한 것들의 진보;악의 현존으로 인해 손상된, 아름다운 자의 예술;질병의 쇠약으로 인해 중화된 건강의 회복력;두려움이라는 독약으로 오염된 신앙의 우물;슬픔의 물로 인해 쓴 맛을 갖게 된 기쁨의 샘;예견된 기쁨이 비통한 현실로 인해 환멸을 느낌;삶의 즐거움이 죽음의 슬픔에 늘 위협받음 등이었다. 그런 행성에서 그런 인생이라니! 그럼에도 이 혼은, 사고 조율사의 언제든지_현존하는 재촉과 도움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행복과 성공을 성취했으며, 지금도 모론시아의 재판정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다.”

111:7.6 (1224.1)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12편 인격체의 생존

112:0.1 (1225.1) 진화하는 행성들은 인간이 기원되는 구체이며,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가 시작되는 세계다. 유란시아는 너의 출발지점이며;여기서 너와 너의 신성한 사고

조율사가 일시적으로 합동하고 있다. 너는 완전한 안내자를 부여받았으며;따라서, 네가 시간의 경주를 진지하게 달려가고, 신앙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오랜 세월에 대한 보상은 네 것이 될 것이며;너는 너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와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진짜 인생, 즉 상승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며, 너의 현재 필사 상태는 거기에 이르는 접근로{接近路}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앞에 펼쳐지는 영원 속에서, 너의 고양되고 진취적인 사명이 완결성취자로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연속되는 시대들 내내 그리고 진화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한 부분이 네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변화에 직면해서도 불변하는-- 인격체다.

112:0.2 (1225.2) 인격체를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겠지만, 인격체에 관해 알려진 것들을 열거해 보는 것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112:0.3 (1225.3) 1. 인격체는, 만유의 아버지 자신이, 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공동 행위자가 증여하는, 실체 속에 있는 그 자질이다.

112:0.4 (1225.4) 2. 인격체는 정신 또는 영을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에 증여될 수 있다.

112:0.5 (1225.5) 3. 인격체는 전제{前提}된 인과관계라는 족쇄에 전적으로 종속되지는 않는다. 인격체는, 상대적으로 창조적 또는 공동_창조적이다.

112:0.6 (1225.6) 4.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에게 증여됐을 때, 인격체는,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_질료를 지배하려고 애쓰게 만든다.

112:0.7 (1225.7) 5. 인격체는, 정체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든 살아있는 에너지 체계의 정체성을 통합할 수 있다.

112:0.8 (1225.8) 6. 인력에 질적 및 양적 반응을 나타내는 세 가지 에너지와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오직 인격체 회로에 대하여 질적 반응만 나타낸다.

112:0.9 (1225.9) 7.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인격체는 바뀌지 않는다.

112:0.10 (1225.10) 8. 인격체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뜻 행하기에 자유 의지를 바칠 수 있다.

112:0.11 (1225.11) 9. 인격체의 특징은, 도덕성이다--다른 인간들과 상대적 관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인격체는 행동 수준을 식별하며, 그것들 사이를 선택적으로 분간한다.

112:0.12 (1225.12) 10. 인격체는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독특한데:시간과 공간에서 독특하며;영원 속에서 그리고 낙원에서 독특하며;증여될 때 독특하며--전혀 중복됨이 없으며;실존하는 순간마다 독특하며;하나님과 관련해서 독특하다--그는 인격자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지만, 그들을 함께 합치지도 않는데, 그들은 합쳐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그들은 연합할 수 있지만 합해질 수는 없다.

112:0.13 (1226.1) 11. 인격체는 다른_인격체의 현존에 직접 반응한다.

112:0.14 (1226.2) 12. 인격체는 영에 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이처럼 아들과 갖는 관계에서 아버지가 우선함을 보여준다. (정신을 영에 더할 필요는 없다.)

112:0.15 (1226.3) 13. 인격체는, 필사자가 죽은 뒤에, 생존하는 혼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생존할 것이다. 조울사와 인격체는 변함이 없으며;(혼 속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변화, 즉

계속되는 진화에 불과하며;이 변화가(성숙이) 멈춘다면, 혼도 멈출 것이다.

112:0.16 (1226.4) 14. 인격체는 시간을 독특하게 의식하며, 이것은 정신이나 영이 시간을 감지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다.

1. 인격체와 실체

112:1.1 (1226.5) 인격체는 잠재적으로 영원한 자질인데, 만유의 아버지께서 피조물에게 증여하신다. 그런 신성한 선물은, 낮은 유한자부터 가장 높은 유한절대자까지, 심지어 절대자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준 및 연속되는 우주 상황에서 작용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처럼 인격체는 세 시공우주 수준에서, 즉 세 우주 국면에서 실행한다:

112:1.2 (1226.6) 1. *위치 상태*. 인격체는, 지방우주, 연방우주, 및 중앙우주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112:1.3 (1226.7) 2. *의미 상태*. 인격체는, 유한자, 유한절대자의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 절대자에 접촉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112:1.4 (1226.8) 3. *가치 상태*. 인격체는, 물질 존재, 모론시아 존재, 및 영적 존재의 진보하는 영역들에서 체험으로 실현될 수 있다.

112:1.5 (1226.9) 인격체는 시공우주 차원의 완전하게 된 실행 범위를 갖는다. 유한 인격체 차원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12:1.6 (1226.10) 1. *길이*는 진보--곧 공간을 통하고 시간을 따르는 움직임--, 즉 진화의 본질과 방향을 나타낸다.

112:1.7 (1226.11) 2. *수직의 깊이*는, 유기체의 본능적 욕구와 성향, 즉 변화하는 자아_실행 수준들 및 환경에 반응하는 일반 현상을 포함한다.

112:1.8 (1226.12) 3. *넓이*는, 조정하고, 연합하고, 자아성을 조직하는 분야를 포함한다.

112:1.9 (1226.13)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증여된 인격체 유형은, 자아를_표현하는, 즉 인격자를_실행하는 일곱 차원의 잠재성을 갖는다. 이런 여러 차원의 현상은, 유한 수준에서 셋으로, 유한절대 수준에서 셋으로, 그리고 절대 수준에서 하나로 실현될 수 있다. 준절대 수준에서는, 이 일곱째

차원, 즉 전체성 차원을 인격체라는 사실로서 체험할 수 있다. 최상의 이 차원은, 연합할 수 있는 절대이며, 무한하지는 않아도, 절대 존재들이 준무한{準無限}에서 침투할 수 있도록 차원상으로 잠재적이다.

112:1.10 (1226.14) 인격체의 유한 차원은, 시공우주의 길이, 깊이, 및 넓이와 상관이 있다. 길이는 의미를 나타내며;깊이는 가치를 의미하고;넓이는 통찰력을--곧 시공우주 실체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포함한다.

112:1.11 (1227.1) 모론시아 수준에서는 물질 수준의 이 모든 유한 차원이 크게 강화되며, 어떤 새 차원의 가치는 실현이 가능하다. 모론시아 수준에서 증가된 이 모든 차원의 체험은, 모타의 영향을 통해서, 또한 모론시아 수학의 기여로 인해, 최상의 차원, 즉 인격체 차원으로 놀랍게 표현된다.

112:1.12 (1227.2) 체험으로 인격체를 실현하는 데는, 차원 수준과 영적 수준이 조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한한 피조물이 기억하려 한다면, 인간의 인격체를 연구하는 데 필사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112:1.13 (1227.3) 생명은 정말로 유기체와(자아성과) 그 환경 사이에서 생기는 과정이다. 인격체는, 정체성의 가치와 연속성의 의미를, 이 유기체와_환경의 연합에 나눠준다. 인격체가 전체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처럼 충동{衝動}에_반응하는 현상은 단지 기계적 과정이 아님을 인식할 것이다. 기계작용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며;유기체는 본질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참말이다.

112:1.14 (1227.4) 육체적 생명은, 유기체 안에라기보다, 오히려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모두, 그런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원형{原型}들을 창조하고 확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지/향적 양상*은, 목표 선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112:1.15 (1227.5) 자아는,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환경과 의미 있는 접촉을 이룩한다. 유기체가 환경과 그런 의미심장한 접촉을 (추진력에 대한 반응을) 이루고자 하는 역량과 자발성은, 인격체 전체의 *임장*을 나타낸다.

112:1.16 (1227.6) 인격체는 고립된 상태에서는 잘 작동할 수 없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피조물이며;소속되려는 열망으로 지배된다. "혼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옳다.

112:1.17 (1227.7) 그러나 살아서 활동하는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격체 개념은, 여러 관계를 통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뜻하며;여러 관계의 조화는 물론, 실체의 모든 요소의 통합을 의미한다. 관계는 두 객체 사이에 존재하지만, 셋 또는 그 이상의 객체는 체계~~체~~를 이루며, 그런 체계는 단순히 확대되고 복잡하게 된 관계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이 차이는 지극히 중요한데, 시공우주 체계에서, 각 구성원이 오직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전체의 개체성을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12:1.18 (1227.8) 인간 유기체의 경우에, 그 유기체의 부분들을

합치면 자아성--곧 개체성--을 이루지만, 그런 과정은 인격체와 어떤 관련도 없는데, 시공우주 실체들에 관련된 바와 같이, 인격체는 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다.

112:1.19 (1227.9) 집합체에서는 부분들이 합산되며;체계에서는

부분들이 배열된다. 체계들은 조직으로 인해--곧 위치상의

가치로 인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체계 내에서는 모든 요소가 시공우주 위치를 갖는다. 나쁜 체계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모자라거나 바뀌어 있다--혼란돼 있다. 인간 체계 안에서는, 바로 인격체가 모든 활동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과 독창성의 성질을 수여한다.

2. 자아

112:2.1 (1227.10)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 자아성{自我性} 연구에 도움 될 것이다:

112:2.2 (1227.11) 1. 육체적 체계들은 종속적이다.

112:2.3 (1227.12) 2. 지적 체계들은 대등하다.

112:2.4 (1227.13) 3. 인격체는 상위{上位}에 있다.

112:2.5 (1227.14) 4. 내주하는 영적 세력은, 지휘하는 잠재성을 지녔다.

112:2.6 (1228.1) 모든 자아성 개념에서, 산다는 사실이 먼저이고, 평가 또는 해석은 나중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어린아이는 먼저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하여

생각한다. 시공우주 질서에서 통찰력이 선견{先見}보다 앞선다.

112:2.7 (1228.2)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우주의 사실이, 인간 인격체의 모든 의미를 변화시켰고, 모든 가치를 영구히 바꿔버렸다. 단어의 참된 의미에서 사랑은, 인간의 경우든지 신의 경우든지, 아니면 인간의 경우인 *동시/에* 신의 경우든지, 모든 인격체들의 상호 관심을 의미한다. 자아의 부분들은 여러 방법으로--곧 생각하기, 느끼기, 소망하기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전 인격체의 조화된 속성들은 오직 지성적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이 모든 능력은,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다른 존재를, 한 인간이 진심으로 그리고 이타심{利他心}으로 사랑할 때, 필사 정신의 영적 재능과 연합된다.

112:2.8 (1228.3) 실체에 관한 필사자의 모든 개념은, 인간의 인격체가 실제임을 가정{假定}하는 데 기초를 두며;초인간 실체에 대한 모든 개념은, 인간의 인격체가 어떤 관련된 영적 실재들 및 신성한 인격체들의 시공우주 실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실체들 속에서 겪는 체험에 기초를 둔다. 인격체를 제외하고, 인간 체험에서

비영적{非靈的}인 것은 무엇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필사적 사람이 --인간이든지 신이든지-- 다른 인격자들과 갖는 모든 참된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리고 신격의 인격체와 그런 교제를 갖는 것은, 우주 상승의 영원한 목표다.

112:2.9 (1228.4) 인격체 소유가,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는데, 이는 자아성의 통일과 인격체의 자아_의식이, 초물질적 세계가 부여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한 필사 유물론자가 초물질 실체의 실존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인간 정신 속에 영의 합성과 시공우주 의식{意識}이 현존함을 증명하고, 그것들이 작용함을 가리킨다.

112:2.10 (1228.5) 물질과 사고{思考} 사이에는 거대한 시공우주 간격이 존재하며, 물질 정신과 영적 사랑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 잴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기계론적인 전자{電子}의 결합이나 유물론의 에너지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으로도, 자아_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을 설명할 수 없다.

112:2.11 (1228.6) 정신이 실체의 궁극적 분석을 추구함에 따라서, 물질은 물질적 감각에게 자취를 감추지만, 정신에게는

여전히 실재로 남는다. 물질이 사라진 후에 남아 있는 바로 그 실체를 영적 통찰력이 추구하고 궁극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추구할 때, 실체는 정신에게 자취를 감췄지만, 영의 통찰력은 영적 본성을 지닌 시공우주의 실체들과 최상의 가치를 여전히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철학에게 길을 비켜주고, 한편 철학은 참된 영적 체험에 선천적으로 들어 있는 결론에 굴복해야만 한다. 사색{思索}은 지혜에게 무릎을 꿇으며, 개화되고 사려 깊은 경배 속에서 지혜는 사라진다.

112:2.12 (1228.7) 과학에서는 인간 자아가 물질적 세계를 관찰하며;철학은 물질적 세계의 이런 관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며;종교, 즉 진정한 영적 체험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에너지 물질의 이런 모든 상대적 합성의 관찰 결과를 지켜보는 것, 즉 시공우주 실체를 체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순전한 유물론에 기초해서 우주 철학을 세우는 일은, 처음에 인간이 의식하는 체험 속에서 모든 물질적인 것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자는 관찰 대상이 될 수 없으며;평가는 평가 받는 바로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초월하기를 요구한다.

112:2.13 (1228.8) 시간세계에서, 생각하기는 지혜로 인도하고, 지혜는 경배로 인도하며;영원 속에서는, 경배가 지혜로 인도하고, 지혜는 결국 사고{思考}를 완결한다.

112:2.14 (1229.1) 진화하는 자아가 통합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의 특성에 타고나는데:즉 기초 에너지, 기본 세포조직, 근본적인 화학적 전면통제, 최상의 관념, 최상의 동기, 최상의 목표, 그리고 낙원에서 증여된 신성한 영이다--사람의 영적 본성이 자아_의식하는 비밀이다.

112:2.15 (1229.2) 시공우주의 진화하는 목적은, 영이 갈수록 더 지배하는 것, 즉 사고 조율사의 가르침과 인도에 자발적으로 반응함으로, 인격체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 및 초인간의 인격체는 본래부터 시공우주 자질이 그 특징이며, 이 자질을 "지배의 진화"라고 불려도 좋은데, 인격체 자체와 그 환경을 통제하는 힘이 확대되는 것이다.

112:2.16 (1229.3) 한때 인간이었던 상승하는 인격체는, 자아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에서, 의지가 점점 더 지배하는 중대한 두 국면을 거친다:

112:2.17 (1229.4)

1. 시공우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 우주를 지배함과 아울러 정체성을 확장하고 실현하는 기법을 통해서, 자아_실현을 증대하는 완결성취자_이전{以前} 체험, 즉 하나님을_추구하는 체험.

112:2.18 (1229.5)

2.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한 차원{次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을_추구하는 지성체들에게, 체험하는 지존하신 분을 드러냄으로써 자아_실현을 창조적으로 확장하는, 완결성취자_이후 체험, 즉 하나님을_드러내는 체험.

112:2.19 (1229.6)

하강하는 인격체들은, 지존하신 신격, 궁극 신격, 및 절대 신격의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확대된 능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우주 모험을 통해서 비슷한 체험을 획득한다.

112:2.20 (1229.7)

물질적 자아, 즉 인간 정체성의 자아_실재는, 육체로 사는 동안에 물질 생명을 운반하는 수단이 계속 작용하는 데, 그리고 에너지와 지능의 불안정한 평형{平衡}이 계속 실존하는 데 의존하며, 유란시아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아성, 즉 죽는 체험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성은, 오직 일시적 생명 운반체로부터--곧 물질적 육신으로부터-- 더 영구적이고 불멸적인 본성을 지닌 모론시아 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혼이 영 실체로 주입되고 결국 영 실체 상태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까지, 진화하는 인격체 정체성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잠재성을 확립함으로써 겨우 진화된다. 물질적 연합으로부터 모론시아 정체성확인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성실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뤄진다.

3. 죽는 현상

^{112:3.1 (1229.8)} 유란시아인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죽음, 즉 생명 에너지의 물리적 중단만 알고 있으나;인격체 생존과 관련해서 본다면 정말로 세 가지가 있다:

^{112:3.2 (1229.9)} 1. **영적 (혼의) 죽음**. 만일 필사적 사람이 생존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생존하는 스라빔과 조율사의 공동 견해에 따라서, 영적 파멸, 즉 모론시아 면에서 파산했다는 선고가 내려지고, 그런 일치된 권고가 우버사에 기록되고

나서, 검열관들 및 그들의 반사하는 동역자들이 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로 오르본톤 통치자들은 내주하는 관찰자를 즉시 해방시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조율사가 이렇게 해방되는 것은, 조율사를_포기한 그 개인과 관련된 개인 스라빔 또는 집단 스라빔의 임무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죽음은, 육체적 장치와 정신적 장치의 살아있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존속되는 것에 상관없이, 최종 의미를 갖는다. 시공우주 관점에서 그 필사자는 이미 죽었으며;계속되는 생명은, 다만 시공우주 에너지의 물질적 잔여 운동력이 지속됨을 의미할 뿐이다.

112:3.3 (1230.1) 2. *지적 (정신의) 죽음*. 높은 보조 사역에 관련된 중대한 회로들이, 지능의 착란을 통해서, 또는 뇌의 구조 중에서 일부가 파괴됨으로 인해 분열될 때, 그리고 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내주하는 조율사는 즉시 해방돼서 디비닝톤으로 떠난다. 우주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_작용의 본질적 정신 회로들이 파괴될 때에는 언제나, 필사 인격체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질 육체의 생명 장치가 계속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것이다.

의지가 작용하는 정신을 제외한 육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만, 그런 개인의 혼{魂}은, 인간 의지가 전에 결정한 바에 따라 생존할 수 있다.

112:3.4 (1230.2) 3. 육체적(몸과 정신의) 죽음. 죽음이 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정신이 지성적 장치로써 작용하기를 멈출 때, 즉 측정 가능한 뇌 에너지가 그 주기적 생명 박동을 멈출 무렵까지, 조울사는 정신의 요새 속에 남아 있다. 이 죽음이 있는 후에, 조울사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떠나는데, 여러 해 전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이 아무 예식 없이, 우버사를 경유해서 디비닝톤으로 나아간다.

112:3.5 (1230.3) 죽은 뒤에 물질적 육체는 그것이 유래했던 원소계{元素界}로 돌아가지만, 생존하는 인격체의 두 가지 비물질 요소는 존속하는데:선재{先在}하는 사고 조울사는, 필사자 생애의 기억을 기록한 이력서와 함께 디비닝톤으로 나아가며;또한 죽은 인간의 불멸하는 모론시아 혼은 운명 수호자의 보호 속에 남는다. 혼의 이 국면과 형태, 한때 활동적이었으나 이제는 정지된 정체성 형식은, 모론시아 세계에서 다시 인격화되는 데 필수적이며;그 조울사와 혼이 재결합함으로써, 생존하는

인격체가 다시 조립되는데, 모론시아 부활 때에 너에게 의식이 돌아오도록 만든다.

112:3.6 (1230.4) 개인 스랍 수호자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체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인격체를 부활시키는 동일한 업무를, 집단 보호자가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스라빔은 인격체를 재조립하는 데 필수다.

112:3.7 (1230.5) 사고 조율사는 죽음과 함께 일시적으로 인격체를 잃지만, 정체성은 잃지 않으며;인간 상대자는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지만, 인격체는 잃지 않으며;맨션 세계들에서 이 둘은 영원히 형태화되면서 재결합한다. 떠났던 사고 조율사는 전에 내주했던 존재로써는 이 땅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인격체는 인간의 의지 없이 결코 나타나지 않으며;조율사와_분리된 인간이 죽은 후에는 실제적인 정체성을 결코 나타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지구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조율사와_분리된 그런 혼은, 죽음 속에 길게 또는 짧게 잠들어 있는 동안 완전히, 그리고 절대로 의식이 없다. 생존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인격체들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인격체나 역량도 발휘될 수 없다. 맨션 세계로

가는 자는, 자신이 사랑하던 자들에게 거꾸로 소식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 섭리시대 동안에는, 우주 전역에서 그런 소통이 정책상 금지돼 있다.

4. 죽음 이후의 조율사

^{112:4.1 (1231.1)} 물질적, 지적, 또는 영적 본성의 죽음이 발생할 때, 조율사는 필사자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디비닝톤을 향해서 떠난다.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본부에서, 어떤 반사하는 접촉이 두 정부의 감독관들과 이뤄지며,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던 것과 똑같은 번호로, 관찰자가 나갔다고 등록된다.

^{112:4.2 (1231.2)}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내주됐던 정신의 영적 가치와 모론시아 의미를 지닌 조율사의 이중{二重} 사본에 담긴 대로, 우주 검열관들은 그 인간 생애의 개요{概要}를 소유할 수 있다. 검열관들은, 죽은 인간의 생존하는 성품과 영적 특성에 관한 조율사의 소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자료는, 스랍의 기록과 함께, 관련된 그 개인이 판결을 받을 때 제시될 수 있다. 이 정보는 또한, 어떤 필사자가 죽은 후에 상승자로서 즉시 모론시아 생애를 시작하고, 행성의 섭리시대가 정식으로

종료되기 전에 맨션 세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연방우주 명령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112:4.3 (1231.3)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옮겨진 개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육체가 죽은 후에, 해방된 조율사는 즉시 디비닝톤이라는 고향 구체로 간다. 생존하는 필사자가 사실로 다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자세한 것은, 그 인간이 자신의 개인 권한으로 맨션 세계들을 향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한 행성 시대의 잠자는 생존자들에 대한 섭리시대의 호출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주로 달려 있다.

112:4.4 (1231.4) 필사 동역자가 한 섭리시대의 끝에 다시 인격화될 무리에 속해 있다면, 조율사는 전에 복무했던 체계의 맨션 세계로 즉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선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할당된 임무 가운데 하나에 임하게 될 것이다:

112:4.5 (1231.5) 1. 알려지지 않은 봉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관찰자 반열로 소집됨.

112:4.6 (1231.6) 2. 낙원 체제를 관찰하는 데 얼마 동안 배정됨.

112:4.7 (1231.7) 3. 디비닝톤의 여러 훈련 학교 가운데 하나에 입학함.

112:4.8 (1231.8) 4. 낙원 세계들에 속한, 아버지의 회로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신성시되는 다른 구체 가운데 하나에, 견습 관찰자로서 얼마동안 머물러 있음.

112:4.9 (1231.9) 5. 인격화된 조율사들의 사자{使者}가 되는 근무에 배정됨.

112:4.10 (1231.10) 6. 무체험 집단에 속하는 관찰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전념하는 디비닝톤 학교에서 부{副} 교관이 됨.

112:4.11 (1231.11) 7. 짝이었던 인간이 생존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복무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한 집단을 선택하도록 배정됨.

112:4.12 (1231.12) 만약, 죽음이 너에게 닥칠 때, 네가 셋째 궤도 또는 더 높은 영역을 달성했고, 그리하여 개인 운명 수호자가 너에게 배정돼 있다면, 그리고 조율사가 제출한 생존하는 성품에 대해 요약한 최종 이력서를, 운명 수호자가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면--곧 스라빔과 조율사가 그들이 작성한 생명 기록부와 추천서의 모든

항목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 우주 검열관들과 우버사에 있는 그들의 반사 동역자들이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얼버무리거나 보류함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경우에, 승진된 신분을 허락하는 명령을, 살빙톤으로 가는 통신 회로를 통해서, 태고 항존자들이 번개처럼 하달하며, 그렇게 발표되면, 생존하는 그 혼을 맨션 세계의 부활실까지 즉시 통과시키라고, 네바돈의 주권자의 법정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112:4,13 (1232.1) 내가 배운 바로는, 인간 개인이 연기됨 없이 생존한다면, 조울사는, 디비닝톤에 등록하고,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현존 앞으로 나아가며, 즉시 돌아와서, 배정된 연방우주와 지방우주의 인격화된 조울사들에게 포용되고, 디비닝톤의 인격화된 관찰자 우두머리에게 승인받으며, 그 다음에는 즉시 “정체성 변화가 실현”되는데, 거기서부터 그는, 운명 수호자가 그 형태를 입안한 대로, 이 세상 출신 필사자의 생존하는 혼을 받도록 준비돼 있는 실제 인격체 형태를 입고, 셋째 기간에, 맨션 세계에서 호출 받는다.

5. 인간 자아의 생존

자아성은, 물질이든지, 모론시아든지, 영적이든지, 시공우주 실체다. *인격있는 존재*의 실제성은, 스스로 홀로 행동하시든지, 아니면 다양한 우주 대행자를 통해서든지,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하신 것이다. 어떤 존재가 인격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공우주 유기체 안에서 그런 존재가 상대적으로 개별화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시공우주는, 실제 단위들이 거의 무한대로 결합된 집합체이며, 그 단위들은 모두 전체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종속된다. 그러나 인격있는 그 존재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운명을 거부하는 실제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단편인 신성한 사고 조율사의 경우에 참인 것처럼, 인격체의 경우에도 똑같이 참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그 인격체를 주신다. 사람의 인격체는 영원하지만, 정체성으로 본다면 조건적으로 영원한 실체다. 아버지 뜻에 응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격체는 신격의 운명에 도달하겠지만, 사람은 그런 운명의 달성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 선택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인격체는 체험적 신격에 직접 도달하고, 지존하신 분의 한 부분이 된다. 그 순환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개인적이며, 또한 체험적이다.

112:5.3 (1232.4) 필사자의 정체성은, 우주에서 덧없는 일시적_생명을 갖는 처지에 있으며;인격체가 계속되는 우주 현상이 되려고 선택하는 한에서만 실제적이다. 이것이 사람과 에너지 사이의 근본 차이인데:에너지 체계는 계속돼야만 하면서, 선택할 수 없지만;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온통 관련돼 있다. 조율사는 진실로 낙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이지만, 사람 자신은, 자신의 결정, 즉 자유의지로 선택함으로써 그 통로를 찾아가야만 한다.

112:5.4 (1232.5) 인간은 오직 물질적 의미에서만 정체성을 갖는다. 물질 정신이 지능의 에너지 체계 안에서 작용하는 대로, 물질 정신이 자아의 그런 특성을 표현한다.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인간 인격체가 행동하고 그 의지가 선택하는 데 복종하도록 놓인 정신 궤도를, 그가 소유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태아가 일시적으로 모태에

붙어있는 단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물질적이고 순전히 임시적인 형태화다. 시공우주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비교적 한 순간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으며;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사자 인격체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잠시 있는 물질_지능 체계로부터 더 높은 모론시아_혼 체계로, 그 정체성의 자리를 옮겨주는 능력을 소유하는데, 그 혼은 사교 조율사와 연합해서, 인격체를 명백히 나타내는 새 운반체로 창조된다.

112:5.5 (1233.1) 그리고 바로 이 선택 능력, 즉 자유의지를 갖는 피조물 신분임을 가리키는 우주 표지{標識}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회요, 최고의 시공우주 책임이다. 미래의 완결성취자의 영원한 운명은, 인간의 의지작용의 성실성에 달려 있으며;신성한 조율사가 영원한 인격체를 얻는 것은, 필사자의 자유의지가 진실한가에 달려있으며;만유의 아버지가 새로이 상승하는 아들을 얻는 것은, 필사자의 선택이 충실한가에 달려있으며;지존하신 분이 체험적 진화로 실체가 되는 것은, 끈질기고 지혜로운 결단_행동에 달려 있다.

112:5.6 (1233.2) 인격체가 성장하는 시공우주 궤도들을 결국 반드시 달성해야 할지라도, 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 속의 재난과 물질 실존의 불이익이, 네가 태어난 행성에서 이 수준들을 통달하지 못하게 한다면, 네 의향과 욕구가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다면, 집행 유예를 연장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너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가질 것이다.

112:5.7 (1233.3) 한 인간의 정체성을 맨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언제든지 의구심이 생기면, 우주 통치 체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개인 이익에 맞게 판결하며;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런 혼을 과도기 존재로 올려주는 한편, 떠오르는 모론시아 의지와 영적 목적을 계속 관찰한다. 그리하여 신성한 응보는 확실히 성취되며, 신성한 자비를 연장해서 베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112:5.8 (1233.4) 오르본톤 정부와 네바돈 정부는, 필사자를 다시 인격화하는 우주 계획의 세부 작업이 절대로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참을성, 아량, 이해심, 및 자비로운 동정심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어느 진화 세계에서 오더라도, 상승하는 생애를 추구하는

영원한 기쁨을, 분투하는 한 필사자로부터 뺏는 위험을 자초하기보다, 우리는 차라리 한 체계가 반역하는 위험성을 떠맡고자 했다.

112:5.9 (1233.5) 이것은 인간이 처음 기회를 거부해도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자아를_의식하는 최종 선택을 내리는, 단 한 번의 참된 기회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을 가진 우주 재판관들은, 영원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내리지 않은 어떤 존재에게서도 인격체 신분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며;참된 의지와 진정한 목적을 드러낼, 완전하고 충분한 기회를 사람의 혼에게 반드시 줘야 하고, 또한 줄 것이다.

112:5.10 (1233.6) 좀 더 영적으로, 그리고 시공우주에서 더 진보된 필사자가 죽으면, 그는 즉시 맨션 세계로 나아가며;대체로, 이 규정은 개인 스랍 수호자가 배정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외의 필사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붙잡혀 있을지 모르며, 그 후에 맨션 세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현재의 행성 섭리시대가 끝날 때

무더기로 다시 인격화될, 잠자는 생존자 반열에
배정될지도 모른다.

112:5.11 (1233.7) 죽음에 처한 너, 즉 떠나가는 조율사와는 다른, 생존하는 너에게 다만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는 내 노력을 훼방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물리적 영역과 모론시아 영역의 경계지점에서 생기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네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유란시아에 대한 천상{天上}의 통치 당국이, 진리 계시자로서의 내 위원회에 부과한 제한 때문에 생긴다. 보여줄 만한 흥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직속 행성 감독관들의 충고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도는 말할 수 있다:

112:5.12 (1234.1) 죽음 이후에 살아남는, 실제적인 어떤 것, 인간 진화에 속하는 어떤 것, 신비 관찰자에게 더해지는 어떤 것이 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실재는 혼이며, 그 혼은 너의 육체적인 몸과 물질 정신, 이 둘이 죽고 난 후에 살아남는다. 이 실재는 신성한 너, 즉 조율사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너의 결합된 생명과 노력이 공동으로 낳은 자식이다. 인간과 신성한 어버이로부터 나온 이 자식은, 이 세상에서 기원된 것 가운데 살아남는 요소를 이루며;그것은 모론시아 자아, 즉 불멸의 혼이다.

112:5,13 (1234,2) 존속하는 의미와 생존하는 가치를 갖는 이 자식은, 죽을 때부터 다시 인격화될 때까지 전혀 의식이 없고, 기다리는 전체의 이 기간에, 스랍 운명 수호자의 보호를 받는다. 죽은 후에, 사타니아의 맨션 세계에서 모론시아의 새로운 의식을 획득할 때까지, 너는 의식 있는 존재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112:5,14 (1234,3) 죽는 순간에, 그 인간 인격체와 관련된 기능상 정체성은, 생명의 움직임이 중지됨으로 중단된다. 인간의 인격체는, 그 구성 요소들을 뛰어넘지만, 기능상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그 요소들에 의존한다. 생명의 중지는, 정신을 부여받는 물리적 뇌 원형{原型}을 파괴하며, 정신의 붕괴는 필사자 의식을 종결시킨다. 바로 그 인간의 인격체가, 살아있는 에너지와 관련돼서 다시 작용하도록 허용하게 될 시공우주 상황이 마련되기까지, 그 피조물의 의식은 그 뒤에 다시 나타나날 수 없다.

112:5.15 (1234.4) 생존하는 필사자들이 기원된 세계에서 맨션 세계로 운반되는 동안에는, 그들이 셋째 기간에 인격체 재조립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부활할 때 상승하든지 상관없이, 인격체의 본질에 대한 기록은, 천사장들의 특수 활동 세계들에서 그들 덕분에 정확하게 보존된다. 이 존재들은 (수호하는 스라빔이 혼의 보관자인 것처럼) 인격체 보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격체의 모든 요소는, 필사자의 생존을 관리하는 믿을만한 이 보관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사실이다. 죽음과 생존 사이에 개재돼 있는 시간 동안에 필사자의 인격체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112:5.16 (1234.5) 다시 인격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은, 지방우주의 모론시아 영접{迎接} 행성들에 있는 부활실{復活室}에서 일어난다. 바로 생명을_조합하는 이 방들에서, 감독하는 관리들이 --모론시아적, 정신적, 및 영적-- 우주 에너지의 관계를 마련해 주며, 이것이 잠자는 생존자들을 의식을 되찾도록 만든다. 한때 물질이었던 인격체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결합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12:5.17 (1234.6)

1. 새로 생존하는 자가 그 안에서 비영적{非靈的} 실체와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시공우주 정신의 모론시아 변형이 그 안에서 순회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형태, 즉 모론시아 에너지 원형의 조립.

112:5.18 (1234.7)

2. 기다리는 모론시아 피조물에게 조율사가 돌아옴. 조율사는, 상승하는 너의 정체성의 영원한 수호자이며;너의 관찰자는, 너의 인격체 자각을 위해 창조된 모론시아 형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이 차지할 것을 절대로 보장한다. 그리고 조율사는, 너의 생존하는 자아에게 낙원 안내 역할을 한 번 더 수행하기 위해서, 너의 인격체 재조립 시에 출현할 것이다.

112:5.19 (1235.1)

3. 다시 인격화되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조립됐을 때, 잠자는 불멸의 혼의 잠재성을 보관한 스랍 수호자는, 수많은 시공우주 인격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정신_몸 형태 위에, 그리고 그 속에, 이 모론시아 실재를 증여하며, 한편 지존자의 이 진화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조율사와 영원히 연합하도록 맡긴다. 이것이 다시 인격화하는 과정, 즉 기억, 통찰력, 및 의식{意識}의-- 곧 정체성의-- 재조립을 완성한다.

112:5.20 (1235.2) 다시 인격화한다는 사실은, 깨어나는 인간 자아가 새롭게 분리된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화 된 모론시아 국면을 붙잡는 것이다. 인격체라는 현상은, 우주 환경에 대해 자아가 반응하는 정체성이 영속하는 데 의존하며;이것은 오직 정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자아성은, 자아의 구성 성분인 모든 요소가 계속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그 변화는 육신의 삶에서 점진적이며;그 변화는 죽었다가 다시 인격화될 때 돌연히 일어난다. 모든 자아성(인격체)의 진정한 실체는, 그 구성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화 덕분으로, 우주 상황에 민감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정체 상태는 필연적 죽음에 이르러서 끝난다. 인간의 생명은, 불변하는 안정된 인격체가 통합하는 생명 요소들의 끝없는 변화다.

112:5.21 (1235.3) 이처럼 네가 예루셈의 맨션 세계에서 깨어날 때, 너는 몹시 변화돼 있고, 영적 변형은 대단히 클 것이며, 그래서 너의 사고 조율사와 운명 수호천사가, 새 세계들에서 너의 새 생활을, 첫 세계에서 있었던 옛 생활과 아주 충분히 연결시켜 주는데, 만약 이들이 없다면, 너는 새 모론시아 의식을 너의 소생되는 예전 정체성에 대한 기억과 연결시키기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인격있는 자아성이 계속되는데도, 필사자 생애 가운데 대부분이, 처음에는 희미하고 몽롱한 꿈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사자의 관계가 대부분 명료해질 것이다.

112:5.22 (1235.4) 사고 조율사는, 오직 네 우주 생애의 일부분이고 그 생애에 필수적인 기억과 체험들만, 너를 위해서 다시 불러오고 숙달시킬 것이다.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진화시키는 데 조율사가 동반자였다면, 이 가치_있는 체험들은 그 조율사의 영원한 의식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과거 인생과 그 기억 가운데 많은 것들은, 영적 의미도 없고 모론시아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물질인 뇌와 함께 사라질 것이며;너를 모론시아 수준으로 가도록 다리 났던 물질 체험 대부분은, 우주에서 어떤 목적에 더 이상 소용되지 않는 한 번의 발판으로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인격체, 그리고 인격체들 간의 관계는, 결코 발판 역할이 아니며;인격체로서 가졌던 관계들에 대한 필사자의 기억은 시공우주 가치가 있고 영속할 것이다. 맨션 세계에 가면, 짧지만 흥미로웠던 유란시아의 생애 동안 한때 관계를 가졌던 동역자들을

네가 알아보고, 또 그들도 너를 알 것이며, 더욱이 너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너를 기억할 것이다.

6. 모론시아 자아

^{112:6.1 (1235.5)} 나비가 애벌레 단계로부터 생겨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참된 인격체들도 맨션 세계에서 생겨나는데, 물질 육신 속에 한때 가려져 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어 드러날 것이다. 지방우주에서 모론시아 생애는, 혼으로 실존하는 초기 모론시아 수준으로부터, 점진적인 영성{靈性}이 최종 모론시아 수준에 이르기까지, 인격체 체제의 계속적인 향상과 상관이 있다.

^{112:6.2 (1235.6)} 지방우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모론시아 인격체 형태에 관해 너희를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 너희는 인격체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모론시아 형체를 타고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너희의 납득 수준을 넘어서는 의복이다. 그런 형태는 전적으로 실제적이지만, 너희가 지금 이해하는 물질적 질서의 에너지 양식{樣式}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출생지인 행성에서 너희의 물질 육체가 어떤 목적에 소용됐던 것처럼, 지방우주의 세계들에서도 동일한 목적에 소용된다.

112:6.3 (1236.1) 어느 정도까지는, 물질적 육체_형상의 모습은
인격체 정체성의 성질에 민감하며;육체적 몸은 제한된
정도 내에서 인격체의 타고난 본성에서 무언가를
반영한다. 모론시아 형상은 훨씬 더 그렇다. 육체의
삶에서, 필사자는 내부적으로 추할지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모론시아 생활에서는, 그리고
그것의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인격체 형상은 내적
인격자의 본질에 따라 정비례로 변화하게 된다. 영적
수준에서는, 외부 형상과 내부 본성이 완벽하게 같아지는
지점까지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더 높은 영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완전해진다.

112:6.4 (1236.2) 모론시아 상태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는,
오르본톤의 으뜸 영에 속하는 시공우주_정신 재능의
네바돈 개량형을 부여받는다. 필사자의 지능은, 그
자체로서는, 사라졌는데, 즉 창조적 영의 분화되지 않은
정신 회로들에서 따로 떨어진, 한 집중된 우주 실재로서
존재하기를 멈췄다. 그러나 필사 정신에 있었던 의미와
가치는 소멸되지 않았다. 정신의 어떤 국면들은, 생존하는
혼 속에서 이어지며;예전의 인간 정신 속에 있었던 어떤
체험적 가치는, 조율사로 인해 유지되며;상승하는

필사자를 최종 평가하는 데 관련된 수많은 존재는, 스라빔에서 우주 검열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마도 이들을 지나서 지존자까지 그 범위가 연장되며, 이 존재들 안에 어떤 살아있는 기록과 함께, 인간 생명이 육체 속에 살았던 대로 그 인간 생활의 기록이 지방우주에 지속된다.

112:6.5 (1236.3) 피조물의 자유의사는, 정신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물질 지능을 잃어버렸음에도 존속한다. 생존한 이후에 즉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상승하는 인격체는 인간 생애에서 물려받은 성품 원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론시아 모타의 새롭게 나타나는 작용으로 말미암아 대체로 안내받는다. 그리고 맨소니아에서 가질 몸가짐에 관한 이 안내지침은, 모론시아 삶의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는 인격체의 충분히_성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모론시아 의지가 출현하기 전에, 만족할 수 있게 역할을 한다.

112:6.6 (1236.4) 지방우주 생애에는, 인간으로 실존할 때의 일곱 보조 정신_영에 필적할 만큼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시공우주 정신을 지방우주 지능의 창조 근원이-- 곧 신성한 사역자가-- 변경하고 해석한 대로, 모론시아

정신은 시공우주 정신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진화해야만 한다.

112:6.7 (1236.5) 필사자의 정신은, 죽기 전에는, 조율사 현존에 관계없이 자아_의식적으로 독립돼 있으며;보조 정신은 그 정신이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관련된 물질_에너지 원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론시아 혼은 초월 보조자이므로, 물질_정신 체제를 빼앗길 때에는 조율사 없이 자아_의식을 유지하지 않는다. 아무튼, 이 진화하는 혼은, 예전에 관련됐던 보조 정신이 내린 결정에서 얻은 계속되는 성품을 소유하며, 이 성품은, 되돌아오는 조율사로 인해 원형들이 거기서 활기를 얻게 될 때 생생한 기억이 된다.

112:6.8 (1236.6) 기억이 지속한다는 것은 원래 자아성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증거이며;인격체가 연속되고 확장됨을 완벽하게 자아_의식하는 데 필수다. 조율사 없이 상승하는 그런 필사자는, 인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스랍 동역자들의 설명에 의존하며;그 외에 영과_융합된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제한받지 않는다. 기억의 원형{原型}은 혼 속에 존속하지만, 이 원형은 계속되는

기억으로서 즉시/ 스스로_깨달을 수 있게 되기 위해, 예전의 조율사 현존을 요구한다. 조율사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하는 필사자가 이전{以前}의 실존에 속했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는 의식을, 다시 탐구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112:6.9 (1237.1) 생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혼은, 자아성의 정체성이 전에 앉아있던 자리인 그 물질 지능의 질적 및 양적 행동과 동기를 충실히 반영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선택하면서, 필사 정신은 지혜의 영의 지시 아래서, 통합된 일곱 보조 정신_영의 보호 하에 모론시아_이전{以前}의 우주 생애를 시작한다. 그 후에, 모론시아_이전에 달성하는 일곱 궤도를 완성함에 따라서, 모론시아 정신의 재능을 보조 정신 위에 첨가함으로써, 지방우주에서 진보하는 영이전{靈以前} 생애, 즉 모론시아 생애가 시작된다.

112:6.10 (1237.2) 피조물이 자신의 출생 행성을 떠날 때, 보조체의 사역을 뒤에 남겨놓고, 오직 모론시아 지능에 의존한다. 한 상승자가 지방우주를 떠날 때, 그는 실존으로서의 영적 실존 수준을 달성했는데, 모론시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새롭게 나타나는 이 영적 실재는, 그때 오르본톤
시공우주 정신이 직접 베푸는 사역에 맞춰진다.

7. 조율사 융합

112:7.1 (1237.3) 사고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은 인격체에게 영원한
실재들을 부여하는데, 이것들은 그 전에는 잠재했을
뿐이다. 새로 부여받은 이 재능 가운데 언급해도 좋은
것은:신성 자질이 정착됨, 과거_영원의 체험과 기억,
불멸성, 그리고 제한된 잠재 절대성의 한 국면이다.

112:7.2 (1237.4) 네가 일시적 형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과정이
끝났을 때, 너는 더 나은 세계의 기슭에서 깨날 것이며,
결국 영원한 품속에서 너의 신실한 조율사와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 즉 유한한 피조물이 진화하는 신비를 구성하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진실이다. 융합은 신성시되는 어센딩톤
구체의 비밀이며, 신격의 영과 융합되는 체험을 했던 자들
이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시간세계의 피조물의 정체성이
낙원 신격의 영과 영원히 하나 되는 때에 결합되는 그 실제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납득하지 못한다.

112:7.3 (1237.5) 조율사와 융합하는 일은 대개, 상승하는 자가 지역 체계에 거주하는 동안 이뤄진다. 융합은 출생한 행성에서 자연사{自然死}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일어날 수 있으며;맨션 세계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는 체계 본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심지어 성좌에 머무는 시간까지 연기될 수도 있으며;또는 특별한 경우에, 상승자가 지방우주 본부에 있을 때까지도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112:7.4 (1237.6) 조율사와 융합하는 일이 이뤄지면, 그런 인격체의 영원한 생애에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 천상{天上}의 존재들은 오랜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검사 받지만,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비교적 짧고 집약된 시험을 거친다.

112:7.5 (1237.7) 조율사와 융합하는 것은, 그 인간 본성이 영원한 경력을 위해서 최종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초우주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_됨을 공인{公認}하는 것이고, 공인이 이뤄질 때, 융합된 인격체가 결국 지방우주의 경계를 벗어나서, 언젠가 연방우주 본부까지 나아가게 하는 출국허가이며, 시간세계의 순례자는 연방우주

본부로부터, 먼 훗날에, 하보나 중앙우주와 신격을 만나는 모험을 떠나도록, 오랜 비행을 위해서 제2스라빔에 둘러싸인다.

112:7.6 (1238.1) 자아성은, 진화 세계에서는 물질이며;우주에서는 한 사물이고, 그런 상태로 물질 실존의 법칙에 종속된다. 자아성은 시간세계에서 하나의 사실이며 그 변천에 민감하다. *생존하려는 결정은 여기서 형성돼야만 한다.* 모론시아 상태에서, 자아는 새롭고 더 영구적인 우주 실체가 됐고, 자아의 계속되는 성장은 우주들의 정신 회로와 영 회로에 점점 더 맞춰짐에 따라 이뤄진다. *생존하려는 결정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 자아가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 자아는 우주에서 확고한 가치가 됐고, 이 새로운 가치는 *생존하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입각하는데, 이 사실은 사고 조율사와 영원히 융합함으로써 입증됐다. 그리고 참된 우주 가치를 지닌 신분을 획득했으므로, 그 피조물은 가장 높은 우주 가치를--곧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해방된다.

112:7.7 (1238.2) 그런 융합된 존재들의 우주 반응은 이중적인데:스라빔과 아주 다르지 않은, 분리된 모론시아

개체들이며, 또한 잠재적으로는 낙원의 완결성취자 계층과 비슷하다.

112:7.8 (1238.3) 그러나 융합된 개인은 정말로 한 인격체이고, 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우주에서 어떤 지성체든지 분석하려고 해도 시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우주 법정을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거치면서, 그 중에 어떤 것도, 사람 또는 조울사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마침내 너희는, 지방우주의 아버지이신 네바돈 주권자 앞으로 안내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창조하는 아버지 신분으로, 이 시간 우주에서 너희의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의 손에서, 그 신임장을 수여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만유의 아버지를 찾는 너희의 연방우주 생애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준다.

112:7.9 (1238.4) 승리한 조울사가 인류에게 숭고하게 봉사함으로 인격체를 획득했는가, 아니면 용맹스런 인간이 조울사처럼 되고자 진정으로 노력함으로써 불멸성{不滅性}을 획득했는가? 둘 다 아니지만;그들은 지존자에게 속하는 상승하는 인격체들 중에서 한 독특한

계층의 회원으로서 진화{進化}를 함께 성취해 왔고, 그는 쓸모 있고, 충실하고, 유능하다는 것이 언제라도 발견될 것이며, 그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만한 후보자인데, 하보나의 일곱 회로를 거치고, 한때 땅에서 기원된 혼이,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실제 인격체를 경건하게 인식하면서 서 있게 될 때까지, 언제나 위로 향하는 숭고한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

112:7.10 (1238.5) 이 엄청난 상승 내내, 사고 조율사는, 상승하는 필사자를 미래에 완전히 영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신성한 보증이다. 그동안에 필사자에게 현존하는 자유의지가, 조율사에게 신성하고 무한한 본성을 해방시키는 영원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이 두 정체성이 하나가 됐으며;시간 또는 영원 속에서 어떤 사건도, 사람과 조율사를 분리하지 못할 것이며;그들은 분리될 수 없고, 영원히 융합됐다.

112:7.11 (1238.6) 조율사와_융합하는 세계에서, 신비 관찰자의 운명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운명과--곧 낙원 완결성취 단체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율사뿐 아니라 필사자도, 상대방의 전적인 협동과 신실한 도움 없이는 독특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 특이한 동업관계는, 이 우주 시대의 모든 시공우주 현상 중에서 가장 마음을 사로잡고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다.

112:7.12 (1239.1) 조율사와 융합할 때부터, 상승자의 신분은 진화하는 피조물의 신분이다. 인간 구성원이 맨 먼저 인격체를 누렸고, 따라서 인격체를 감지하는 데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조율사보다 우위에 있다. 이 융합된 존재의 낙원 본부는 디비닝톤이 아니라 어센딩톤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이 독특한 조합은, 완결성취 단체에 이르기까지 내내, 상승하는 필사자로서 분류된다.

112:7.13 (1239.2) 조율사가 상승하는 필사자와 일단 융합하고 나면, 그 조율사의 번호는 연방우주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디비닝톤의 기록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컨대, 그 조율사의 등록부는 완결성취 단체의 대리 우두머리인 그랜환다의 내부 법정에 있는 비밀 궤도들로 옮겨진다.

112:7.14 (1239.3) 조율사 융합과 동시에, 만유의 아버지는 물질적으로 창조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완성하시며;신성{神性}을 인간성에게 영원히

증여한다는 약속을 모두 이루고, 그 계획을 완료하시게 된다. 이처럼 사실이 된, 하나님과의 숭고한 동반자적 관계 속에 내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고 현실화시키려는 인간의 시도가 이제 시작된다.

112:7.15 (1239.4)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현재 알려진 운명은 낙원 완결성취 단체이며;이것은 또한 필사자 동무와 영원히 하나 됨으로 결합하게 된 모든 사고 조율사에게 해당되는 운명의 목표다. 낙원의 완결성취자들은 현재 광우주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행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우리는 모두,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후 아득히 먼 장래에, 그리고 유한한 하나님이 이 지존하신 신격을 지금 감싸고 있는 신비에서 최종적으로 떠오를 때, 그들은 심지어 더욱 숭고한 다른 과제들을 갖게 되리라고 추측한다.

112:7.16 (1239.5) 중앙우주, 연방우주들, 및 지방우주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하여, 너희는 어느 범위까지 가르침을 받았으며;방대한 이 창조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러 인격체 가운데 일부분의 특성과 기원에 관해 무언가 들었다. 또한 너희는, 광우주의 주변을 지나 멀리 바깥에,

첫째 외부 공간 층에서, 우주들의 방대한 성단{星團}들이
구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됐다. 외부 공간에, 지금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이 지역들에서, 지존하신 분이,
계시되지 않은 제3의 활동을 나타내게 돼 있음이, 본
진술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또한 암시돼 왔으며;너희는
또한, 낙원 단체의 완결성취자들이 지존자의 체험하는
자녀라고 알려주는 것을 들었다.

112:7.17 (1239.6) 조율사와 융합된 필사자들은, 그들의
완결성취자 동역자들과 함께, 첫째 외부 공간 층에 있는
우주들의 경영에 어떤 방법으로 작용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거대한
성단{星團}들이 누군가가 거주하는 우주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경영자들 가운데서 낙원 완결성취자들이 발견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확신하는데, 그들의 본성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섞어서 생긴 시공우주 결과물이다.

112:7.18 (1239.7) 얼마나 굉장한 모험인가!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가! 지존자의 자녀들인, 인격화되고 인간화된 이
조율사들과, 조율사처럼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된 이

필사자들, 즉 제1 근원 및 중심의 본질이 가장 높게 알려진
형태화와, 만유의 아버지를 납득하고 달성할 능력이 있는
가장 낮은 형태의 지성적 생명, 이 둘의 신비스런 조합이자
영원한 연합이, 하나의 거대한 창조를 경영할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조합, 그런 융합된
존재들이, 첫 외부 공간 층의 이 미래 우주 전반에 걸쳐서
실존하게 될지 모르는, 모든 형태의 지적 생명의 뛰어난
통치자, 비길 데 없는 경영인, 및 이해심 많고 동정심 많은
지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2:7.19 (1240.1) 너희 필사자들은 땅에서, 동물에서 유래된 것이
사실이며;너희의 틀은 정말로 티끌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 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원한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유산은 분명히 너희 것이며, 언젠가 너희는 자신의
참된 성품에 어울리게 우주들에서 두루 봉사할 것이다--
너희는 체험하는 지존자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인격체의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아들이다.

112:7.20 (1240.2) [오르본톤의 단독 사자가 제시했음]

제113편 운명의 스랍 수호자

113:0.1 (1241.1) 시간세계에서 섬기는 영들과 공간의 사자 무리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했으니, 우리는 수호하는 천사들, 즉 개별 필사자를 보살피는 데 헌신하는 스라빔에 관한 고찰로 넘어가는데, 필사자를 향상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으로 진보하는 방대한 생존 요강 전체가 마련돼 왔다. 유란시아에서 지난 시절에, 이 운명 수호자들은, 사람에게 인식된 유일한 천사 집단이었을 것이다. 행성 스라빔은, 생존될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보냄 받은 섬기는 영들임에 틀림없다. 옆에 따라다니는 이 스라빔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큰 사건에서 필사적 사람의 영적 협조자 역할을 해 왔다. 여러 계시에서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으며”;하늘에서 온 많은 명령을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받았다.”

113:0.2 (1241.2) 스라빔은, 전통적인 하늘 천사들이며;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면서 너희를 위하여 매우 많은 일을 하는 섬기는 영이다. 그들은 인간 지성이 발달한 초기 시절부터 유란시아에서 사역해 왔다.

1. 수호천사

113:1.1 (1241.3) 수호천사에 관한 가르침은 신화가 아니며;어떤 인간 집단들은 개인 천사를 실제로 소유한다. 이것을 알기에,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에 관하여:"이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저희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영 현존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

113:1.2 (1241.4) 원래는, 독립된 유란시아 종족들에게 스라빔이 한정적으로 배정됐었다. 그러나 미가엘이 증여된 후로는, 인간의 지성, 영성{靈性}, 및 운명에 따라서 배정된다. 인류는 지적으로 다음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113:1.3 (1241.5) 1. 정상 이하의 정신소유자 --정상적인 의지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자들;평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 이 부류는 하나님을 납득할 수 없는 자들을 포함하며;신격을 지성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정상 이하의 존재들은, 하나의 체루빔 대대{大隊}와 더불어, 하나의 스라빔 단체, 즉 하나의 중대{中隊}를 그들에게 시중들도록 배정받는데, 이것은 또한 그 구체의 인생 투쟁에서, 응보와 자비가 그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113:1.4 (1241.6) 2. 평범한, 정상적인 유형의 인간 정신. 스랍 사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남녀 사람은, 인간적 진보와 영적 발전에 따라서 동아리들을 형성할 때, 그들의 상태에 따라 일곱 부류로 분류된다.

113:1.5 (1241.7) 3. 정상 이상{以上}의 정신소유자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영적 성취에서 확실한 잠재력을 가진 자들;자신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와 다소간 접촉을 누리는 남녀;다양한 운명 예비 단체의 구성원들. 한 인간이 우연히 어떤 집단에 소속됐든지 상관없이, 그런 개인이 여러 운명 예비 단체 가운데 어디든지 소속되면, 바로 그때 거기서, 개인 스라빔이 배정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필사자는 수호하는 천사의 계속적인 섬김과 끊임없는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인간이든지 진짜 최상의 결정을 내릴 때, 즉 조율사와 실제 약혼이 있을 때, 개인 수호자가 그 혼에게 즉시 배정된다.

113:1.6 (1242.1) 소위 정상 존재들에 대한 사역에서, 스랍의 배정은, 인간이 달성한 지능성 궤도와 영성{靈性} 궤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너희는 일곱째 궤도에서 필사의복{衣服}을 입은 정신 속에서 출발하여,

자아를_이해하고, 자아를_정복하고, 자아를_통달하는
과제에 임하면서 안쪽으로 여행하며, (자연사가 너의
인생을 종료시키고 너의 투쟁을 맨션 세계로 옮기지
않는다면) 내주하는 조율사와 상대적 접촉 및 친교를
이루는, 첫째 궤도, 즉 내부 궤도에 당도할 때까지, 한 궤도
한 궤도 전진한다.

113:1.7 (1242.2) 시초의 궤도, 즉 일곱째 궤도에 있는 인간은,
1,000명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배정된
일단{一團}의 보조 체루빔과 함께 한 명의 수호천사를
갖는다. 여섯째 궤도에서는, 일단의 체루빔과 함께 스랍 한
쌍이, 500명씩 무리지어 상승하는 이 필사자를 안내하도록
배정된다. 다섯째 궤도가 달성되면, 인간은 약 100명의
집단으로 분류되며, 한 무리의 체루빔과 함께 한 쌍의 수호
스라빔이 책임을 맡게 된다. 넷째 궤도를 달성하면, 필사
존재들은 열 명씩 무리지어 집합되고, 한 쌍의 스라빔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한 중대{中隊} 체루빔의 보조를 받는다.

113:1.8 (1242.3) 한 필사 정신이 동물적 유산의 타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지능성과 획득된 영성이 셋째 궤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나의 (실제로는 두 명의) 개인 천사가,

상승하는 이 필사자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배정된다. 그리하여 이 인간 혼은, 영원히 현존하고 점점
더 효력을 발휘하는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뿐 아니라, 셋째
궤도를 마치고 둘째 궤도를 지나서 첫째 궤도에
도달하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안에, 이 개인 운명
수호자들의 집중된 원조를 받는다.

2. 운명 수호자

113:2.1 (1242.4) 스라빔은, 세 가지 성취:즉 하나님처럼 되기로
하는 최고의 결정을 했거나, 셋째 궤도에 들어갔거나, 운명
예비 단체 가운데 하나에 소집됐거나, 이 셋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실현한 인간 혼과 연합하는 데 배정되기
전에는, 운명 수호자로 알려지지 않는다.

113:2.2 (1242.5) 인종들의 진화에서, 필수적으로 정복할 궤도에
도달한, 맨 첫 번째 존재에게 한 운명 수호자가 배정된다.
유란시아에서 개인 수호자를 확보한 첫 필사자는
란토웁이었는데, 그는 오래 전에 흥인종의
현자{賢者}였다.

113:2.3 (1242.6) 모든 천사 배정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스라빔
집단에서 이뤄지며, 이런 임명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쌍을 이루는 천사의 상태를 고려해서--곧 스랍의 체험, 숨씨, 및 지혜에 비취서-- 이뤄진다. 오직 오랫동안 봉사한 스라빔, 즉 더 많이 체험하고 시험을 받은 유형들만이 운명 수호자로 배정된다. 많은 수호자가, 조율사 없이 융합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세계들에서, 가치 있는 많은 체험을 획득했다. 조율사와 마찬가지로, 스라빔은 한 번의 인생 동안 이 존재들을 따라다니며,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배정을 기다리게 된다. 유란시아에 있는 많은 수호자는, 다른 세계들에서 이미 이런 실제 체험을 겪었다.

^{113:2.4 (1243.1)} 인간들이 생존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 또는 집단 수호자는, 같은 행성에서 비슷한 수용력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복무할 수 있다. 스라빔은 개별 세계에 대해 감상적 관심을 갖게 되며, 매우 가깝고 긴밀하게 관계했던 어떤 인종들과 여러 유형의 필사 피조물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는다.

^{113:2.5 (1243.2)} 천사들은 그 인간 동역자를 향한 지속적 애정을 발전시키며, 너희가 그 스라빔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도 그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갖게 될 것이다. 물질 육신을

벗어나고 영 형체가 주어지면, 너희는 인격체의 많은 속성에서 천사와 매우 흡사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가진 감정 대부분을 공유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체험한다. 그들이 납득하기 다소 어려운, 너희에게만 작용하는 감정은, 유란시아에서 사는 보통 거주자의 정신생활에서 덕지덕지 쌓인 동물적 두려움의 유산이다. 천사들은, 더 높은 지적 능력, 그리고 심지어 너희의 종교적 신앙마저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배당하도록, 너희가 왜 끈질기게 허용하는지, 겁에 질리고 걱정하며 경솔하게 공황상태에 빠져서 그토록 철저히 풀이 죽어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113:2.6 (1243.3) 모든 스라빔은 각자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 봉사에 배정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행성 번호로 호칭된다. 그들은 우주 본부에 이름과 번호로 등록돼 있다. 이번에 접촉하여 소통하는 동안 사용된 인간 상대자의 운명 수호자는, 네바돈의 182,314번째 스랍 군대의, 37무리, 6군단, 384사단, 4대대, 126중대, 17소대의 3_번이다. 유란시아에 있는 이 스라빔과 이 인간 상대자에게 부여된 현재 행성 번호는 3,641,852_번이다.

113:2.7 (1243.4) 개인 수호임무 사역에서, 천사들을 운명 수호자로
배정할 때, 스라빔은 언제나 복무를 자원한다. 이번에
방문{訪問}한 도시에서는, 어떤 필사자가 최근에 운명
예비 단체에 가입 허락을 받았으며, 그런 모든 인간에게는
수호하는 천사가 개인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100명 이상의 스라빔이 배정받으려고 했다. 행성
지휘자는 체험을 많이 한 개인들 중에서 열두 명을
선택했고, 이 인간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서 그를
안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그들이 선택한 스라빔을
나중에 임명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춘
스라빔 한 쌍을 선택했으며;스랍 쌍 가운데 하나는 항상
근무 중일 것이다.

113:2.8 (1243.5) 스랍의 과제는 약화되지 않겠지만, 천사 쌍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모든 돌보는 책임을 실행할 수 있다.
체루빔과 마찬가지로, 스라빔도 대개 쌍으로 봉사하지만,
덜 진보된 동역자들과는 달리, 스라빔은 때때로 홀로
일하기도 한다. 특히, 인간과 갖는 모든 접촉에서, 그들은
개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오직 우주의 더 높은
궤도들에서 소통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만 두 천사가
필요하다.

113:2.9 (1243.6) 스랍 한 쌍이 수호 임무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인간의 여생 동안 봉사한다. 보완 존재는(두 천사 중에서 하나는) 떠맡은 일을 기록하는 자가 된다. 이 보완 스라빔은 진화 세계들에서 필사자에 대해 기록하는 천사다. 체루빔 쌍이(하나의 체루과 하나의 사눔이) 기록을 유지하며, 이들은 항상 스랍 수호자들과 연합하지만, 언제나 스라빔 중에서 하나가 이 기록을 보증한다.

113:2.10 (1244.1) 휴식하고 우주 궤도들의 생명 에너지로 재충전할 목적으로, 수호자를 그 보완자가 정기적으로 교대하며, 그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연합된 체루빔이 기록원 역할을 하는데, 그 보완 스라빔이 비슷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도 또한 그렇게 한다.

3. 다른 영 영향에 대한 관계

113:3.1 (1244.2) 운명 수호자가 그 필사 상대자를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진화하는 물질 피조물의 정신과 혼에 내주하고, 둘러싸고, 부딪치는 수많은 비인격 영의 영향을 친히 조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격체이며, 비인격 영들과 인격이전 실재들이, 그렇게 상당히

물질적이고 별리되게 인격있는 정신과 직접 접촉을 이루기는 지극히 어렵다. 수호하는 천사의 사역에서, 이 모든 영향은 다소 통합되고, 진화하는 인간 인격체의 성장하는 도덕적 본성이 이를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3:3.2 (1244.3) 특히, 이 스랍 수호자는, 물리 통제관들과 보조 정신_영들의 영역으로부터, 신성한 사역자의 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낙원의 제3 근원 및 중심의 편재하는 영 현존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행자 및 영향을 상호 연결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무한한 영의 이 방대한 사역을 이처럼 통합하고 더 개인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그 스라빔이, 공동 행위자의 이 통합된 영향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 현존과 상호 관련시키기 시작한다.

113:3.3 (1244.4) 조울사는 아버지의 현존이며;진리의 영은 아들들의 현존이다. 이런 신성한 자질들은, 수호 스라빔의 사역으로 인해, 인간의 영적 체험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통합되고 조화된다. 섬기는 천사들은, 필사

피조물을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조합하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113:3.4 (1244.5) 그리고 본 문서에는, 육체의 죽음과 모론시아 부활 사이의 기간에, 왜 스랍 수호자들이 결국 필사 생존자의 정신 원형, 기억 방식, 및 혼 실체들에 대한 개인 보호자가 되는지, 그 이유가 계시돼 있다. 무한한 영의 봉사하는 자녀들 외에는 아무도, 우주의 한 수준에서 더 높은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는 이 국면에서, 인간 피조물을 위해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너희가 마지막 변환 수면 상태에 들어갈 때, 즉, 너희가 시간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옮겨갈 때에도, 높은 최고스라빔이, 피조물 신분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인격자를 보전{保全}하는 보증인으로서, 너와 함께 옮겨간다.

113:3.5 (1244.6) 영적 수준에서, 스라빔은 우주에서 달리 비인격적인 그리고 인격이전{人格以前}인 많은 사역을 인격있는 것으로 만들며;그들은 조정하는 자다. 지적 수준에서, 그들은 정신과 모론시아를 상호 관련시키는 자이며;그들은 해석하는 자다. 그리고 물리적 수준에서, 그들은 총괄 물리 통제관들과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중도{中道} 피조물의 협조하는 사역을 통해서, 땅의 환경을 조종한다.

113:3.6 (1244.7) 이것이 옆에 따라다니는 스라빔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지만;우주에서 인류의 수준보다 약간 높게 창조된, 그런 하급 천사 인격체가, 어떻게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이런 엄청난 사역은 지존하신 분의, 인식되지 않고 계시되지 않은 작용 때문에 촉진되는데, 이 지존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신격이다. 스라빔은, 지존하신 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존하는 전체 영역에 두루, 필사자의 계속되는 진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4. 스랍의 활동 범위

113:4.1 (1245.1) 수호 스라빔은 정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필사 정신을 기원시킨 동일한 근원, 즉 창조적 영으로부터 생겨난다. 스라빔은 정신을 자극하는 존재이며;인간 정신 속에서 여러 궤도에_도달하는 결정을 증진시키려고 계속 애쓴다. 그들은, 조율사가 안으로부터 혼을 통해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밖에서 안쪽으로,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및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한다. 스라빔은, 만유의 아버지의 신성한 조율사가 이용하는 미끼가 아니라, 무한한 영의 보살핌을 몸소 베푸는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113:4.2 (1245.2) 필사적 사람은, 조율사의 인도를 따르면서, 또한 스랍의 안내를 쾌히 받아들인다. 조율사는 사람의 영원한 본성의 본질이며; 스라빔은 사람의 진화하는 본성을--곧 이 세상에서는 필사 정신을, 저 세상에서는 모론시아 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맨션 세계들에서 너희는 스랍 교관{敎官}들을 인식하고 알아보겠지만, 첫 인생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대개 알아보지 못한다.

113:4.3 (1245.3) 스라빔은, 인간 인격체의 발걸음을 새롭고 진취적인 체험의 길로 안내함으로써, 사람의 선생으로서 활동한다. 스라빔의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한 인생 달성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안내를 따르는 동안에,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라는 거친 언덕에 반드시 부딪치게 되며, 너희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 언덕을 지나갈 것이다.

113:4.4 (1245.4) 경배하려는 충동은, 주로 높은 정신 보조체들의 영 충동에서 기원되는데, 조율사의 안내로 강화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들이 자주 체험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충동은, 스랍의 영향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보호하는 스라빔은 인간 상승자의 시공우주 통찰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필사자 환경을 끊임없이 조종하는데, 그 목표는, 내주하는 조율사의 현존을 그런 생존 후보자가 더욱 깨닫고, 그리하여 신성한 현존이 이를 영적 사명에 더욱 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113:4.5 (1245.5) 내주하는 조율사와 주변에 있는 스라빔 사이에 외견상으로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듯하지만, 그들은 항상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정교하게 화합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호자들은 조율사들의 활동이 가장 적을 때 가장 활동적이지만, 그들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서로 관련돼 있다. 그런 훌륭한 협동은 전혀 우연하거나 우발적이지 않다.

113:4.6 (1245.6) 수호하는 스라빔이라는 보살피는 인격체, 내주하는 조율사라는 하나님 현존, 거룩한 영의 회로화된

실행, 그리고 진리의 영의 아들_의식{意識}은 모두 신성하게 서로 관련되어, 필사 인격체 안에서 그 인격체에게 베푸는 영적 사역의 의미심장한 통일을 이룬다. 다른 근원들 및 다른 수준들로부터 쏟아져오더라도, 천상{天上}의 이 영향력은 모두, 지존하신 분의 감싸고 진화하는 현존 속에 통합돼 있다.

5. 스랍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113:5.1 (1245.7) 천사들은 인간 정신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필사자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으며;또한 내주하는 조율사와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 수호자는, 너의 인격체의 존엄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에게 영향을 미치며;이 천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실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천사는 물론 다른 어떤 계층의 우주 인격체도, 인간의 선택하는 특권을 축소시키거나 빼앗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다.

113:5.2 (1246.1) 천사들은 너희와 너무 가까이 있고 아주 다정하게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고집스럽게 편협하고 완강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스라빔은 물질적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며;육체가

없으며;날개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정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정과 비교될 수 있는 영적 본성의 느낌과 정서를 체험한다.

113:5.3 (1246.2) 스라빔은, 너희가 직접 호소하는 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너희를 위해 행동하며;자신보다 높은 존재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서 너희에게 스쳐지나가는 생각 또는 변화무쌍한 기분과는 무관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너희가 그들의 과제를 보다 쉽게 또는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천사들이 너희의 호소 또는 기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13:5.4 (1246.3)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필사적 사람은 천사들의 지성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배자 또는 지휘자가 아니며;수호자에 불과하다. 스라빔은 너희를 *보호하며*;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 않으며;너희는 반드시 자신의 행로를 계획해야 하지만, 이 천사들은 그때 너희가 선택한 행로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그들은 (대개) 인간 생애의 일상적 사건에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업적을 세우라고 상관들로부터 지시받았을 때, 이

수호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을 발견할 것을, 너희는 확신하고 안심해도 좋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아니면, 그것도 대개 상관들의 직접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인간 드라마의 장면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너희를 따라다닐 존재이며, 그래서 미래 업무와 인격체 관계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있다.

113:5.5 (1246.4) 스라빔은 어떤 환경에서 인간에게 물질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런 수용력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은 중도 피조물과 물리 통제관들의 협조를 얻어, 인간을 위해 광범한 범위에서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과 실제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은 대단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 영역의 환경은 스랍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되지만, 인간의 진화라는 사슬 속에 있는 극히 중대한 연결고리에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 스랍 수호자들이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했다.

6. 사람이 죽은 후 수호천사

113:6.1 (1246.5) 자연 수명을 누리는 동안에 스라빔이 베푸는 사역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 인간 동역자가 필사의 소멸을 겪을 때 운명 수호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한다. 네가 죽게 되면, 너에 관한 기록과 신원{身元}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필사 정신과 신성한 조율사의 사역으로 인해 공동으로 진화된-- 인간 혼의 모론시아 실재를, 너의 미래 실존과 관계되는 기타 모든 가치와 함께, 진짜 너, 즉 너를 구성하는 모든 것과 함께, 운명 수호자가 정확하게 보존하는데, 떠나가는 조율사 및 실제로 있던 인격체가 대표하는, 영속하는 실존의 정체성은 제외된다.

113:6.2 (1246.6) 인간 정신 속에서, 표시등, 즉 스라빔이 조율사의 현존과 연합하는 영 발광체가 사라지자마자, 항상 따라다니던 천사는, 소대, 중대, 대대, 사단, 군단, 및 군대의 지휘하는 천사에게 연달아 몸소 보고하며;시간과 공간의 최종 모험을 위해 정식으로 등록 된 후에, 그런 천사는 이 우주 상승 후보자의 스랍 군대 명령에 따라서, 저녁 별(또는 가브리엘의 다른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행성의 스라빔 우두머리로부터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 조직 단위의 지휘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즉시, 그런 운명 수호자는 첫 맨션 세계로 나아가고, 예전에 육체 속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던 자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거기서 기다린다.

113:6.3 (1247.1) 인간 혼이 개인 천사를 배정받은 후 생존하지 못할 경우에, 따라다니던 스라빔은 지방우주 본부로 출두해야만 하는데, 전에 보고했던 대로, 자신의 보완자의 기록 전부에 대해 거기서 증언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의 상대자가 생존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천사장들의 법정에 출두하며;그 다음에 그는, 상승하는 잠재력을 가진 다른 필사자에게, 또는 스랍 사역의 다른 어떤 분야에 다시 배정받으려고 그 세계들로 돌아간다.

113:6.4 (1247.2) 그러나 천사들은, 개인 수호자와 집단 수호자 자격으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진화하는 피조물을 여러 방법으로 돌본다. 자기 상대자가 즉시 맨션 세계로 가지 않는 개인 수호자들은, 섭리시대 심판의 출석점호를 기다리면서 한가하게 거기 머물지 않으며;우주에 두루, 수많은 돌보는 사명에 다시 배정된다.

113:6.5 (1247.3) 수호 스라빔은, 필사적 사람의 잠자는 혼의 생존하는 가치를 보관하는 신탁자{信託者}이며, 마찬가지로 자리를 비운 조율사는, 그런 불멸하는 우주 존재의 정체성 이다. 새로 조성된 모론시아 형태와 공동으로, 이 둘이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협력할 때, 필사 상승자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재결합된다.

113:6.6 (1247.4) 조율사는 너를 알아볼 것이며;수호하는 스라빔이 너를 다시 인격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네가 땅에서 살던 시절의 충실한 관찰자에게 너를 다시 데려갈 것이다.

113:6.7 (1247.5) 그렇더라도, 한 행성 시대가 끝날 때, 즉 낮은 필사자 성취 궤도에 있는 자들이 모일 때, 맨션 구체들의 부활실에서 그들을 재결합시키는 이는 바로 그들의 집단 수호자인데, 너희의 기록도, "그리고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이요,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한다.

113:6.8 (1247.6) 섭리시대 출석점호에, 생존하지 못하는 모든 인격체를 대신해서, 개인 또는 집단 보호 천사들이 응답하라고, 응보의 기법이 요구한다.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조율사는 돌아오지 않으며, 출석점호가 있을

때, 스라빔은 응답하지만, 조울사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부활”인데, 실제로는 피조물 실존이 끝났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응보의 출석점호는 언제나 자비의 출석점호, 즉 잠자는 생존자들의 부활 바로 다음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생존하는 가치에 대한 지고하고 전지{全知}한 재판관들 외에는 아무도 관심두지 않는 사항이다. 그런 판결상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113:6.9 (1247.7) 집단 수호자들은, 어떤 행성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봉사하고, 결국 수많은 잠자는 생존자의 잠자는 혼을 보관하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 부활 반응이 맨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그들은 주어진 한 체계의 여러 다른 세계에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

113:6.10 (1247.8) 사타나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역이 있었을 때 타락했던, 모든 개인 및 집단 수호자들은, 다수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회개했음에도, 그 반역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셈에 억류돼 있을 것이다. 우주 검열관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충한 이 수호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맡겼던 혼들의 모든 양상{樣相}을 임의로

가져갔으며, 이 모론시아 실체들을 보관하기 위해 자원한 제2스라빔에게 관리하라고 맡겼다.

7. 상승자 생애와 스라빔

113:7.1 (1248.1) 맨션 세계의 변방에서 이렇게 처음 깨어나는 것;땅에서 살던 시절에 너를 오랫동안_사랑했고 항상_함께했던 천사 동무를, 거기서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는 것;또한 땅에서 너의 정신에 그토록 오랫동안 내주했던 신성한 관찰자의 신분과 현존을 거기서 정말로 의식하게 되는 것은,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정말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런 체험은 영광스런 깨어남이요, 진정한 부활이다.

113:7.2 (1248.2) 모론시아 구체에서, 옆에 따라다니는 (두 명의) 스라빔은, 너의 공개된 동무다. 이 천사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의 생애를 통해서 네가 진보하는 동안, 가능한 모든 면에서 모론시아 상태 및 영{靈} 상태의 획득을 위해 너를 도우면서 너와 사귄 뿐만 아니라, 맨션 세계들에서 유지되는, 진화 스라빔을 위한 분교{分校}에서 연구함으로써 승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113:7.3 (1248.3) 인류는 단순한 유형의 천사 계층들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 따라서 모론시아 생애에서 너의 첫 임무는, 육신의 사슬에서 해방된 후에 인격체 의식{意識}을 되찾게 됐을 때 기다리고 있는 즉석 업무에서, 스라빔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113:7.4 (1248.4) 맨션 세계들을 떠나기 전에, 모든 필사자는, 영구적 스랍 동역자 또는 수호자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론시아 구체들을 올라감에 따라서, 사고 조율사와 네가 영원히 결합했다는 선포를 증언하고 보증하는 것은 결국 스랍 수호자다. 계속해서 그들은 너희의 인격체 신분이 시간 세계로부터 온 육신의 자녀임을 확증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성숙한 모론시아 상태에 도달하면, 예루셈, 그리고 체계의 진보와 문화를 가르치는 관련된 세계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너희와 함께 에덴시아 및 그것에 속한 70개의 진보된 사회화 구체로 갈 것이며, 이어서 너희를 멜기세덱들에게로 안내하고, 우주 본부 세계들에서 보내는 멋진 생애 내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멜기세덱들의 지혜와 문화를 다 배운 후에, 살빙톤으로 데려갈 것이며, 거기서 너희는 온 네바돈의

주권자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스랍 안내자들은, 연방우주의 소구역 및 대구역을 통해서, 우버사의 영접하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너희를 따라갈 것인데, 너희가 긴 하보나 비행{飛行}을 위해 마침내 제2스라빔에 둘러싸일 때까지, 너희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113:7.5 (1248.5)} 필사 생애 동안에 배속됐던 운명 수호자들 가운데 더러는, 하보나를 통해서 상승하는 순례자의 행로를 따라간다. 그 외에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필사 동역자에게 일시적으로 작별을 고하고, 그 후에 이 필사자가 중앙우주 궤도들을 지나가는 동안, 이 운명 수호자는 스라빙톤 궤도들을 성취한다. 그리고 필사 동역자가 새로운 영원성 체험으로 들어가도록 운송되기 위한 마지막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이 낙원 기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그런 스라빔은 나중에 완결성취자 단체에서 그리고 스랍 완료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된다.

^{113:7.6 (1248.6)} 사람과 천사는 영원한 봉사에서 다시 결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랍의 배정이 그들과 함께

하는 곳은 어디든지, 스라빔이 진화 세계에서 그 전에 자신이 보호했던 자, 즉 시간세계에서 상승한 필사자와 항상 교통한다. 인간이 기원된 영역들에서 가졌던 친밀한 관계와 애정 어린 소속감은 결코 잊히지 않고,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는다. 사람과 천사는, 시간세계의 생애에서 한 것처럼, 영원한 시대에 신성한 봉사에서 협동할 것이다.

113:7.7 (1249.1) 스라빔이 낙원 신격들에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화로 기원되는 한 혼을 낙원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명 수호자 직책을 받는 것이, 가장 높게 상급 받는 스랍의 임무다.

113:7.8 (1249.2) 오직 운명 수호자들만이, 1차, 즉 필사 완결성취 단체로 소집되고, 그런 쌍들은 정체성이 하나_되는 최상의 모험에 참여해 왔으며;그 두 존재는, 완결성취자 단체에 받아들여지기 전에, 스라빙톤에서 영적으로 이중{二重}_통합을 성취했다. 전체 우주 활동에서 그렇게 보완하던 그 두 천사 본성은, 이 체험에서 궁극적으로 두_영이_하나됨을 성취하는데, 낙원 아버지의 비{非}_조율사 부분을 받고 그것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시간세계에서 너희가

사랑하던 스랍 동역자들 가운데 더러는, 영원 세계에서도
너희의 완결성취자 동료가 되는데, 이들은 지존자의
자녀요, 낙원 아버지의 완성된 아들이다.

113:7.9 (1249.3) [유란시아에 주둔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114편 행성의 스랍 정부

114:0.1 (1250.1) 천상의 많은 세력과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나
주로 스라빔의 사역을 통해서, 지고자{至高者}들이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한다.

114:0.2 (1250.2) 오늘 정오에,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 수호자,
및 다른 자들의 출석인원은, 501,234,619쌍의
스라빔이었다. 내 지휘 아래 200 스랍 군대가 --곧
597,196,800쌍의 스라빔, 즉 1,194,393,600명의 개별
천사가-- 배정돼 있다. 아무튼, 등록된 개별 존재는
1,002,469,238명이며;따라서 191,924,362명의 천사가,
운송, 연락원, 및 죽음과 관련된 임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 세계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 (유란시아에는 스라빔과

거의 동일한 숫자의 체루빔이 있으며, 그들도 비슷하게 조직돼 있다.)

114:0.3 (1250.3) 스라빔과 그 동역자인 체루빔은, 한 행성, 특히 반역 때문에 고립된 세계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사항에 많이 관여한다. 천사는, 중도자의 훌륭한 협조를 받는데, 주재하는 총독과 그의 모든 동역자 및 부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초물질 사역자로서 유란시아에서 활동한다. 하나의 계층으로서 스라빔은, 개인 및 집단 수호자 역할 이외의 다른 많은 임무에 몰두한다.

114:0.4 (1250.4) 유란시아는, 체계, 성좌, 및 우주의 통치자들로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그리고 심지어 네바돈 전체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의 정부와도 같지 않다. 너희를 감독하는 계획이 이렇게 독특한 것은 몇 가지 특이한 환경 때문이다:

114:0.5 (1250.5) 1. 유란시아의 생명 변경 상태.

114:0.6 (1250.6) 2. 루시퍼 반역의 긴급사태.

114:0.7 (1250.7) 3. 아담의 태만으로 인한 혼란.

114:0.8 (1250.8) 4. 유란시아가 우주 주권자의 증여 세계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점들. 네바돈의 미가엘이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임.

114:0.9 (1250.9) 5. 24명의 행성 지도자의 특별한 기능.

114:0.10 (1250.10) 6. 천사장들의 회로가 행성에 위치함.

114:0.11 (1250.11) 7. 한때 육신화 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아주 최근에 대리 행성 왕자로 임명됨.

1. 유란시아의 주권

114:1.1 (1250.12) 유란시아의 원래 주권은 사타니아 체계 주권자에게 맡겨졌다. 그는 그것을 처음에 멜기세덱들과 생명 운반자들의 연합 위원회에 위임했으며, 이 집단은, 정식으로 임명된 행성 왕자가 도착할 때까지 활동했다. 루시퍼 반역이 일어났을 당시 캘리개스차 왕자가 몰락한 후에,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육신 속의 증여를 완성 할 때까지, 지방우주 및 그 경영 부서들과 확실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때 합동 항존자들이 미가엘을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 선포했다. 그런 선포는 확실히, 원칙적으로 너희 세계의 상태를 영원히

해결했지만, 실제로는 주권자 창조주 아들이 행성을 친히
경영하려는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았는데, 한 가지 예외는,
유란시아 정부를 비롯해 체계에서 격리된 다른 모든
행성의 정부에서 그를 대변할 권한을 가진, 24명의 옛
유란시아인으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 협의회 가운데 한 명은 지금 주재{駐在}하는
총독으로서 유란시아에 항상 거주하고 있다.

114:1.2 (1251.1) 행성 왕자인 미가엘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권한이,
최근에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됐지만, 지방우주의
이 아들은, 주재{駐在}하는 총독들의 잇따른 경영을 맡는
현재의 행성 체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114:1.3 (1251.2) 대리 행성 왕자가 자신의 직함에 맞는 책임을
맡으려고 도착하지 않는다면, 현재 섭리시대 동안에,
유란시아 정부에서 어떤 현저한 변화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 더러는,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24명의 조연자 가운데 한 명을 유란시아에
보내서 총독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계획을, 유란시아
주권에 대한 대리 통치권을 가진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적인 도착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루시퍼 반역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마 행성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먼 훗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그가 대리 행성 왕자로서 행성을 책임질 것이다.

114:1.4 (1251.3) 더러는, 현재 섭리시대가 끝날 때까지, 마키벤타가 유란시아 직무를 친히 지휘하려고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더러는, 미가엘이 아직 육신 속에 있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언젠가 유란시아에 돌아올 때까지, 대리 왕자가 그런 식으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도 포함해서, 어느 날 또는 어느 시각에든지 멜기세덱이 나타나리라고 고대하고 있다.

2. 행성 감독관 위원회

114:2.1 (1251.4) 너희 세계에 미가엘이 증여됐던 시절 이후로, 유란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한때 유란시아인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의 특별 집단에게 위탁돼 왔다.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건대, 그렇게 임명된 자는 모두, 사타니아 체계에서 지존자의 확장하는 주권에 공헌한 사람이었다. 본래 그들은 모두 유란시아에서 활동했을 때 참된 지도자였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이 우수한 지도력은 맨션 세계의 체험으로 인해 더욱 확대됐고, 예루셈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으로 증대됐다. 위원들은 라나휘지의 내각{內閣}으로부터 그 24명에 지명됐고,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이 재청했으며, 예루셈의 배정된 파수꾼이 승인했고,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서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임명했다. 임시로 임명받는 자들은, 이 특별 감독관 위원회의 영구 위원과 똑같이 활동한다.

114:2.2 (1251.5) 이 행성 지휘자 위원회는, 미가엘이 그의 마지막 증여를 이 세상에서 체험했다는 사실의 결과로 이 세계에서 생기는 활동을 감독하는 데 특히 관심을 갖는다. 어떤 찬란한 저녁별의 연락 활동으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긴밀하고도 즉각적인 접촉이 그들에게 유지되며, 그 찬란한 저녁별은, 예수께서 필사자로 증여하는 동안 내내 함께 했던 동일한 존재다.

114:2.3 (1252.1) 너희에게 “세레자”로 알려진 요한이, 현재 예루셈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이 협의회 의장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직권상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의 배정된 파수꾼인데, 그는 살빙톤에 있는 부 검열관 및 오르본톤의 최상 행정관을 직접 개인적으로 대표한다.

114:2.4 (1252.2) 전에 유란시아인이었던 바로 이 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체계에 속한 반역으로 격리된 36개의 다른 세계에 대해 자문하는 감독관으로도 활동하며;노라티아텍의 성좌 아버지들의 전면통제 아래에 아직도 다소 남아 있는, 이 행성들의 직무와 긴밀하고 동정심 어린 접촉을 하면서, 체계 주권자인 라나휘지를 따르는 매우 가치 있는 봉사를 수행한다. 24명의 이 조언자는, 격리된 각 행성에, 특히 유란시아에 개인적으로 자주 다녀간다.

114:2.5 (1252.3) 격리된 다른 세계들은, 각각 한때 거기에 거주했던 자들로 구성된, 비슷하면서도 크기가 다양한 여러 위원회의 자문을 받지만, 이 다른 위원회들은 24명의 유란시아 집단에 종속돼 있다. 유란시아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타니아에 있는 격리된 각 세계에서 인간이 진보하는 각 국면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두는 한편,

특히 유란시아의 필사자 인종들의 복지와 진보에 각별하게 관심 두고 있는데, 이는 유란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행성의 직무도 즉각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며, 심지어 여기서도 그들의 권위는 필사자 생존과 관계되는 특별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완벽하지 않다.

^{114:2.6 (1252.4)} 24명의 이 유란시아 조연자가, 우주 활동의 정규 계획표에서 벗어난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한 섭리시대가 끝나거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완전한 권위를 인수{引受}하거나, 루시퍼 반역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증여됐던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 같은, 어떤 행성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그들의 현재 자격으로 계속 봉사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유란시아에 주재하는 총독은, 사타니아 체계가 성좌 궤도로 환원되는 순간, 마키벤타를 제외하고, 모두 낙원으로 상승하기 위해 거의 자유롭게 되리라는 견해를 갖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견해들 역시 통용된다.

3. 거주하는 총독

114:3.1 (1252.5)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마다, 24명의 행성 조연자로 구성된 예루셈 단체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너희 세계에 머물도록 지정해서 그들의 행정 대표자, 즉 거주하는 총독으로 활동하게 한다. 본 문서들이 준비되던 시기에 이 행정 관원이 바뀌었는데, 열아홉 번째를 뒤이어 스무 번째가 그렇게 봉사하게 됐다. 현재의 행성 감독관의 이름이 너희에게 알려질 수 없는 이유는, 다만 필사적 사람이 비범한 동포와 초인적 선배들을 공경하려는, 그리고 심지어 신격화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114:3.2 (1252.6)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셈 24조연자의 대표자 역할 외에는, 세상 직무의 관리에 실제적인 개인 권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 그는 초인간 경영을 조정하는 자로서 행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천상의 존재들의 훌륭한 우두머리요, 널리 알려진 지도자다. 모든 계층의 천사 무리는, 그를 자신의 협조하는 지휘자로 간주하며, 한편 결합된 중도자들은, 1_2_3 첫 번째가 24조연자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 떠난 후로는, 이어지는 총독들을 정말로 자신의 행성 아버지로 여긴다.

114:3.3 (1253.1) 총독은, 행성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권위를 갖지 않더라도, 관계된 모든 인격체가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판정과 결정을 매일 하달한다. 그는 형식적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아버지 같은 자문가에 훨씬 가깝다. 어떤 면에서 그는 행성 왕자 역할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경영은 물질 아들의 경영과 훨씬 유사하다.

114:3.4 (1253.2) 유란시아 정부는 예루셈의 여러 협의회에서 역할을 맡는데, 돌아오는 총독이, 행성 왕자들로 구성된 체계 주권자 내각의 임시 회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조정안{調停案}에 따른 것이다. 마키벤타가 대리 왕자로 지정됐을 때, 사타니아의 행성 왕자 협의회에서 그가 즉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것과는 달리 그는 이런 방향에서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114:3.5 (1253.3) 유란시아의 초물질 정부는, 지방우주의 높은 단위들과 매우 가까운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 거주하는 총독은 예루셈뿐 아니라 살빙톤을 대표하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직접 대행하는 24명의 조언자를 위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셈 시민이므로, 행성의 총독은 체계 주권자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보론다텍 아들, 즉 에덴시아 관찰자가 성좌 당국을 직접 대표한다.

4. 관찰하는 지고자

114:4.1 (1253.4) 유란시아의 주권은, 행성의 반역이 있는 직후에, 노라티아텍의 정부가 행성의 권한을 한때 독단적으로 몰수함으로써 더 어렵게 됐다. 유란시아에는 한 보론다텍 아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데, 그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을 대신하는 관찰자이며, 미가엘의 직접 행동이 없는 가운데 행성 주권의 피신탁자{被信託者}다. 현재 관찰하는 (그리고 언젠가 섭정하는) 지고자는 이렇게 유란시아에서 23번째로 봉사한다.

114:4.2 (1253.5)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통제 하에 여전히 어떤 부류의 행성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찰권은 루시퍼 반역이 있을 때 몰수됐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노라티아텍 관찰자인 한 보론다텍 아들이 행사하는데, 그는 행성 감독관들과 매우 긴밀한 자문 관계를 유지한다. 인증 감독관들이 유란시아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우두머리들은, 주재하는 보론다텍

관찰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소속돼 있는데, 그는 그들의 자문하는 지도자로서 활동한다.

114:4.3 (1253.6) 위기의 때에, 순전히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적이고 주권을 가진 우두머리는, 현재 관찰 근무에 임하고 있는,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덱 아들일 것이다. (이런 순전히 영적인 문제,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 최고의 권한은 최근에 유란시아에 설립된 천사장 체제의 분야별 본부에 배속된, 지휘하는 천사장에게 부여된 것처럼 보인다.)

114:4.4 (1253.7) 관찰하는 지고자는, 행성에 중대한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성 정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유란시아 역사상 이것이 33번 일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 때에 관찰하는 지고자는 지고자 섭정 역할을 하는데, 오직 천사장들의 분야별 조직만 제외하고,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역자와 경영인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한다.

114:4.5 (1253.8) 보론다덱 섭정정치는, 반역으로_인해_격리된 행성에만 색다르게 있지는 않은데, 이는 사람의 나라들의 문제에 지고자들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인간거주 세계들의 상황에 성좌 통치자들의
우세한 지혜를 개입시킨다.

5. 행성 정부

114:5.1 (1254.1) 유란시아의 실제 경영에 대해 설명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분리된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같은 우주
조직의 계통을 따르는 공식 정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24명의 조언자는 행성의 정부에서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잠정적이고 자문 역할을 하는 최고 행정관이며,
거부권{拒否權}은 관찰하는 지고자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절대 권한을 가진 어떤 사법 권한도 행성에서 작용하지
않는다--오직 화해시키는 위원회들이 있을 뿐이다.

114:5.2 (1254.2) 스라빔 및 중도자들이 관련되는 대다수의 문제는,
공동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명의
조언자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판결은
모두 화해 위원회, 행성 활동을 위해 구성된 지역 당국,
또는 사타니아의 체계 주권자에게 올리는 상고{上告}에도
지배를 받는다.

114:5.3 (1254.3) 행성 왕자의 육체전환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 및
딸의 물질 체제가 부재{不在}한 것은, 스라빔의 특별한

사역, 그리고 중도 피조물들의 색다른 봉사로 어느 정도 보상된다. 천사장들, 관찰하는 지고자, 및 총독, 이 삼자일체 현존이, 행성 왕자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준다.

114:5.4 (1254.4) 다소 느슨하게 조직되고 어느 정도 직접 경영되는 이 행성 정부는 기대한 것보다 효과적인데, 이는 천사장들이 베푸는, 시간을 절약하는 도움과 그들의 항상_준비된 회로 때문이고, 이것은 행성의 비상시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매우 자주 활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행성은 여전히 노라티아덱 궤도에서 영적{靈的}으로 고립돼 있지만, 비상시에는 천사장들의 회로를 활용함으로써, 이 불리한 조건을 바로 회피할 수 있다. 물론, 1,900년 전에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여된 후로는, 행성 고립이 개별 필사자에게 거의 관계되지 않는다.

114:5.5 (1254.5) 유란시아에서 경영상 하루는 매일 자문회의{諮問會議}와 함께 시작하는데, 총독, 천사장들의 행성 우두머리, 지고자 입회인, 감독하는 최고스라빔,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가운데, 또는 행성에 머물게 될 기회가 있는 어떤 학생 방문자들 가운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참석한다.

114:5.6 (1254.6) 총독의 직속 경영 내각은 열두 명의 스라빔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행성 진보와 안정을 담당하는 직계 초인간 지휘자로서 활동하는, 특별한 천사들로 구성된 열두 집단의 대리 우두머리들이다.

6.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스라빔

114:6.1 (1254.7) 진리의 영이 부어짐과 동시에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열두 군단의 특별 스라빔, 스라빙톤 졸업생들이 그를 따라왔는데, 이들은 어떤 특별한 행성 봉사에 즉각 배치됐다. 이 고위급 천사들은, 행성 감독의 으뜸 스라빔으로 알려져 있고, 행성의 관찰하는 지고자의 전면통제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총독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114:6.2 (1255.1) 열두 집단의 이 천사들은 거주하는 총독의 전반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활동하지만, 각 집단의 대리 우두머리인 열두 명의 스랍 협의회가 그들을 직접

지휘한다. 또한 이 협의회는, 거주하는 총독의 자원하는 내각{內閣}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114:6.3 (1255.2) 나는 스라빔의 행성 우두머리로서, 스랍 우두머리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를 통솔하며, 또한 캘리개스차 탈퇴가 있었을 때 이탈했던, 천사 무리의 우두머리로 한때 봉사했던 자를 계승하여, 유란시아에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1차 계층의 최고스랍이다.

114:6.4 (1255.3) 행성을 감독하는 열두 군단의 으뜸 스라빔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14:6.5 (1255.4) 1. *시기{時期} 천사*. 이들은 현시대의 천사들, 즉 섭리시대의 집단이다. 이 천상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나타난 그 시대의 모자이크 무늬에 맞도록 고안된 바와 같이, 각 세대의 직무를 감시하고 지휘하도록 위탁돼 있다. 유란시아에서 봉사하는 현재의 시기 천사들 단체는, 현재 섭리시대 동안 행성에 배치된 세 번째 집단이다.

114:6.6 (1255.5) 2. *진보 천사*. 이 스라빔은, 계속되는 사회 시대들을 진화로 진보시키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진화하는 피조물이 타고난 진취적 성향을 개발하도록

육성하며;마땅히 처리돼야만 하는 대로 처리되도록 끊임없이 일한다. 현재 수고하는 집단은 행성에 배치된 두 번째 집단이다.

114:6.7 (1255.6) 3. **종교 수호자**. 이들은 “교회의 천사들”, 즉 지금 있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존재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를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살아남은 이상{理想}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진보 천사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데,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오래되고 일시적인 형태들에 담긴 불멸의 가치를, 새로운, 그래서 덜 고정된 양식{樣式}의 사고{思考}와 행동으로 바뀌게 하려고 항상 애쓴다. 이 천사들은 영적 형식을 놓고 경쟁하지만,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극단적 분파주의, 그리고 무의미한 논쟁으로 발생하는 분열의 근원은 아니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그렇게 봉사하는 다섯 번째다.

114:6.8 (1255.7) 4. **국가 수명의 천사**. 이들은 “나팔 부는 천사들”, 즉 유란시아 국가의 수명이 정치적으로 실행되도록 지휘하는 존재다. 국제 관계에 대한 전면통제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집단은, 행성에서 봉사하는 네 번째 단체다.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함”은 특별히 이 스랍
분과{分課}의 사역을 통해서다.

114:6.9 (1255.8) 5. *종족들의 천사*.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황과
종교적 집단화에 상관없이, 시간세계의 진화하는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존재들. 유란시아에는
아홉 인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혼합되고 섞여서 현대의
민족이 됐다. 이 스라빔은 종족 책임자들이 베푸는 사역에
매우 가깝게 관여하며, 현재 유란시아에 있는 집단은,
오순절 직후에 행성에 배치된 원래의 단체다.

114:6.10 (1255.9) 6. *미래의 천사*. 이들은 입안{立案}하는
천사인데,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새롭고 진보하는
섭리시대의 더 나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획하며;이어지는 시대들의 설계자다. 지금 이 행성에
있는 집단은, 현재 섭리시대의 시초부터 그렇게 활동해
왔다.

114:6.11 (1256.1) 7. *계몽{啓蒙}의 천사*. 유란시아는 이제 행성의
교육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세 번째 스라빔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개인, 가정, 집단, 학교,

공동체, 국가, 및 전체 인종들과 관련되는 정신 및 도덕을 훈련하는 데 종사한다.

114:6.12 (1256.2) 8. *건강의 천사*. 이들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헌신하는 그런 필사자 대행기관들을 돕도록 배정된 스랍 사역자다. 현재의 단체는 이 섭리시대 동안 여섯 번째로 봉사하는 집단이다.

114:6.13 (1256.3) 9. *가정(家庭) 스라빔*. 유란시아는 이제,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인 가정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에 헌신하는, 다섯 번째 집단의 천사 사역자들의 봉사를 누리고 있다.

114:6.14 (1256.4) 10. *산업 천사*. 이 스랍 집단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서 산업의 발달 촉진하고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관여한다. 이 단체는 미가엘이 증여된 뒤로, 일곱 번 바뀌었다.

114:6.15 (1256.5) 11. *기분전환 천사*. 이들은, 오락, 유머, 및 휴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스라빔이다. 그들은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는 오락을 향상시키고, 그리하여 인간의 여가를 더욱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증진시키려고 항상 애쓴다.

현재의 단체는 유란시아에서 세 번째로 사역하는 계층이다.

114:6.16 (1256.6) 12. *초인간 사역의 천사*. 이들은 천사들의 천사들, 즉 이 행성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있는 다른 모든 초인간 생명체의 사역에 배정된 스라빔이다. 이 단체는 현 섭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봉사해 왔다.

114:6.17 (1256.7) 행성의 정책 또는 과정을 다루는 문제에서, 이 여러 집단의 으뜸 스라빔들이 의견을 달리할 때, 대개 총독이 그 차이점을 조정하지만, 그의 모든 결정은, 불일치 속에 포함된 문제점의 본질과 중대성에 따라서, 요청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114:6.18 (1256.8) 이 천사 집단들 중에서 어느 것도, 자체의 배정 범위에 대한 직접 또는 독단적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행동 영역의 직무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이 배속된 인간 활동 영역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성의 환경을 조종하고 환경들을 결합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114:6.19 (1256.9) 행성을 감독하는 으뜸 스라빔은, 자신의 사명을 실행키 위해서 많은 매개체를 활용한다. 그들은, 관념 교환소, 정신을 집중시키는 자, 및 기획 입안자로서 활동한다. 그들은 새롭고 더 높은 생각을 인간 정신 속에 주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인간 지능 속에 이미 나타난 어떤 높은 이상{理想}을 강화시키려고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14:6.20 (1256.10)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여러 수단 외에도, 으뜸 스라빔은, 운명 예비 단체의 동원{動員}, 훈련, 및 유지를 통해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행성의 진보를 보장한다. 이 예비군의 주요 기능은 진화로 이뤄지는 진보가 붕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그들은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서, 천상의 세력이 준비한 조치이며;재난을 막는 보증인이다.

7. 운명 예비 단체

114:7.1 (1257.1) 운명 예비 단체는, 세계의 상황을 다루는 초인간 행정부의 특별한 봉사에 받아들여진, 살아있는 남녀들로 구성된다. 이 단체는, 진화하는 세상에서 시간세계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잘 베풀도록 돕기 위해, 그

영역의 영{靈} 지휘자들이 각 세대에서 선택한 남녀들로 이뤄진다. 상승 계획의 상황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지를 가진 필사 피조물이 그런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용할 만하면, 즉시 그들을 이처럼 접촉하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 관례다. 따라서, 남녀가 충분한 정신적 수용력, 적절한 도덕적 상태, 및 필수적 영성{靈性}을 갖고 현세의 행동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곧 필사자 보좌관으로서, 적절한 천상{天上} 집단의 행성 인격체들에게 즉시 배치된다.

114:7.2 (1257.2) 인간이 행성 운명의 보호자로 선택될 때, 즉 이 세상의 경영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계획에서 긴요한 개인이 될 때, 그때 행성의 스라빔 우두머리는 그들이 스랍 단체에 임시로 배속되도록 허락하고, 이 필사자 예비군과 함께 봉사하도록, 개인 운명 보호 천사들을 임명한다. 모든 예비군은 자아_의식하는 조율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적 성취와 영적 달성의 고등 시공우주 궤도들에서 활동한다.

114:7.3 (1257.3) 인간거주 세계들에서 운명 예비 단체로 봉사하도록, 그 영역의 필사자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14:7.4 (1257.4) 1. 세계 상황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성 있는 수많은 비상대책 사명을 위해 비밀리에 숙달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114:7.5 (1257.5) 2. 인간적인 보답이나 보상과는 상관없이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과 함께, 어떤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기타 대의{大義}에 전심으로 헌신함.

114:7.6 (1257.6) 3. 행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비상사태에 대처할, 비범한 융통성과 유란시아_이전{以前}에 유용한 체험을 한 사고 조율사를 소유함.

114:7.7 (1257.7) 행성에서 천상의 봉사에 임하는 각 부서는, 운명의 신분을 가진 이 필사자들로 구성된 연락 단체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보통의 인간거주 세계는 70개의 분리된 운명 단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 세계 직무의 초인적 실행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유란시아에는, 스랍의 감독을 받는 행성 집단마다 하나씩, 열두 개의 운명 예비 단체가 있다.

114:7.8 (1257.8) 열두 집단의 유란시아 운명 예비군은, 땅에서 수많은 중대한 직책을 위해 미리 연습하고, 가능성 있는 행성 비상사태에 행동할 준비가 돼있는, 그 구체의 필사 거주자로 구성된다. 연합된 이 단체는 현재 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작은 단체는 41명이고, 가장 큰 것은 172명이다. 20명 미만의 접촉 인격체를 제외하고, 독특한 이 집단의 구성원은, 어떤 행성 위기가 있을 때 작용할 가능성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 필사자 예비군은, 각자 자신이 배속돼 있는 그 단체의 선택을 받고, 사고 조율사와 스랍 수호자가 사역하는 혼합된 기법에 따라, 정신 속 깊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훈련받고 숙달된다. 무의식 속에서 받는 이 훈련에 수많은 다른 천상의 인격체가 여러 차례 참여하며, 이 모든 특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중도자들은 귀중하고 필수불가결한 봉사를 수행한다.

114:7.9 (1258.1) 많은 세계에서는 비교적 잘 적응된 2차 중도 피조물이, 사고 조율사가 내주{內住}하는 정신에

능숙하게 침투함으로써, 확실히 알맞게 구성된 어떤 필사자의 그 사고 조율사와 다양한 정도로 접촉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우주 조절이 바로 그렇게 우연히 조합돼서, 본 계시가 유란시아에서 영어로 물질화 됐다.) 진화 세계의 그런 잠재적{潛在的} 접촉 필사자들은 여러 예비 단체에 결집되며, 영적 문명이 증진되고 지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들에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앞을 내다보는 작은 집단의 이 인격체들을 통해서다. 이처럼 이 운명 예비 단체에 소속된 남녀들은, 중도 피조물의 간섭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조율사와 다양한 정도로 접촉하지만; 바로 이 필사자들은, 진화하는 문화가 몰락하거나 또는 살아있는 진리의 빛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예비 인격체들이 작용하는, 그런 드문 사회적 비상사태와 영적으로 위급한 상황 이외에는, 동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는 이 운명 예비군이 인간 역사의 장을 드물게 장식해 왔다.

114:7.10 (1258.2) 예비군은 필수 행성 정보를 보존하는 자로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어떤 예비군이 죽음에 임박했을 경우에, 특정한 생생한 자료가, 죽어가는 그 예비군의 정신으로부터 비교적 젊은 후계자에게로 전환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두 사고 조율사의 접촉으로 이뤄진다.
그 조율사들은, 이 예비 단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확실히 작용한다.

114:7.11 (1258.3) 유란시아에서 운명 예비 단체는 영구적 우두머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 통치 조직을 구성하는 그 자체의 영구적 협의회들을 갖고 있다. 이 협의회들 중에는, 사법 협의회, 역사 협의회, 정치적 주권에 대한 협의회, 및 기타 많은 것이 포함돼 있다. 때로는 그 예비군 조직에 따라서, 이런 영구적 협의회들은 특정한 역할을 위해, 전체 예비 단체의 명목상 (필사자) 우두머리를 임명해 왔다. 그런 예비군 우두머리들의 재직 기간은, 대개 몇 시간 지속되는 문제이며, 당면한 어떤 과제를 성취할 때까지로 국한된다.

114:7.12 (1258.4) 유란시아 예비 단체는, 아담족속과 안드족속 시대에 그 구성원이 가장 많았으며, 보라색 혈통이 희석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었고, 오순절 무렵에는 밑바닥에 도달했으나, 그 후로는 예비 단체의 구성원이 점차 증가해 왔다.

114:7.13 (1258.5) (유란시아에서 우주로_의식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공우주 예비 단체 필사자가 현재 1,000명을 넘어섰는데, 시공우주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그들이 거주하는 이 땅의 영역을 훨씬 초월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구성된 이 독특한 집단의 역할의 실제 성질을 계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114:7.14 (1258.6) 유란시아 필사자는, 자신의 세계가 지방우주의 어떤 회로들로부터 영적인 면에서 비교적 격리돼 있다고 해서, 시공우주에서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행성이라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행성에는 세계 직무와 인간의 운명을 아주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초인간적 감독이 활동하고 있다.

114:7.15 (1258.7) 그러나 너희는, 이상적 행성 정부에 대해서 기껏해야, 빈약한 관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성 왕자가 있던 초기 시절부터, 유란시아는 세상을 성장시키고 인종을 발전시키는 신성한 계획이 유실됨으로 고통당해 왔다. 사타니아에서 충성스런 인간거주 세계들은, 현재의 유란시아처럼 그렇게 통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고립된 다른 세계들과 비교하면, 너희 행성의

여러 정부는 그렇게 열등하지 않았으며;오직 하나 또는 두 세계만이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고, 몇몇은 약간 더 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계는 너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114:7.16 (1259.1) 지방우주에서는, 행성 경영의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친히 다시 도착할 때까지, 행성 정부와 경영에 거의 변화가 없으리라는 견해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 일찍이 아니라면 이때, 전면적 변화가 행성 관리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영의 그런 변경이 어떤 본질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추측할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바돈 우주에 있는 인간거주 세계들의 전체 역사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전례가 없다. 유란시아의 미래 정부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 가운데 두드러진 한 가지는, 천사장들의 회로와 분야별 본부가 이 행성에 있다는 것이다.

114:7.17 (1259.2) 우주의 여러 협의회에서는, 고립된 너희 세계를 잊지 않고 있다. 유란시아는 죄로 인해 비난 받고, 반역으로 인해 신성한 보호에서 떨어져 나간, 시공우주 고아가

아니다. 우버사로부터 살빙톤까지 그리고 예루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보나와 낙원에서도, 그들은 모두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으며;유란시아에 지금 거주하는 너희 필사자들은, 마치 구체가 불성실한 한 행성 왕자에게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지고, 똑같이 충실하게, 아니 그보다 더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영원히 참말이다.

114:7.18 (1259.3) [유란시아에 주둔한 스라빔 우두머리가 제시했음]

제115편 지존하신 분

115:0.1 (1260.1)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신분은 엄청난 친족관계다. 지존자 하나님께는, 성취{成就}가 신분을 얻는 필수조건이다--누구든지, 무엇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1. 개념 틀의 상대성

115:1.1 (1260.2) 높거나 낮은 모든 정신이, 한 우주 틀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타고난 역량이 없다면, 부분적이고

미완성이며 진화하는 지능들은 총괄우주에서 무기력할 것인데, 합리적 사고 원형{原型}의 형성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신이 결말을 추론할 수 없고 참 근원을 꿰뚫어볼 수 없다면, 그런 정신은, 정신이_창작한 이 여러 가설의 틀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결말을 가정할 것이고 근원을 고안할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의 사고를 위한 그런 우주 틀은 합리적 지능 작동에 필수적이지만, 그런 틀은, 정도가 크던지 작던지, 예외 없이 잘못돼 있다.

115:1.2 (1260.3) 우주에 대한 개념 틀은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며;유용한 발판이지만, 넓어지는 시공우주에 대한 압력이 확장되기 전에 결국 무너져야만 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에 대한 이해, 도덕성, 윤리, 의무, 사랑, 신성{神性}, 실존, 존재, 목적, 운명, 시간, 공간, 심지어 신격도, 오직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분이지만, 아버지는 사람의 가장 높은 하나님 개념이며;그럼에도, 창조주와_피조물 관계를 아버지와_아들로 묘사한 것은, 오르본톤, 하보나, 및 낙원에서 달성될 신격에 대한, 필사자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인해 증대될 것이다. 사람은 필사자의 우주 틀

속에서 생각해야만 하지만, 그 속에 사고{思考}를 펼칠 수 있는 다른 더 높은 틀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5:1.3 (1260.4) 온갖 우주에 대한 필사자의 납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공우주 실체의 다양한 수준을, 유한, 유한절대, 및 절대 수준이라고 명명했다. 이것들 가운데 오직 절대적인 것만이, 무조건 영원하고 진정으로 실존적이다. 유한절대인 것과 유한한 것은, 원래의 근본적인 무한성의 절대 실체에서 나온, 파생물, 변경물, 축소물, 및 희석물이다.

115:1.4 (1260.5) 유한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덕분에 존재한다. 높거나 낮은 유한한 피조물은, 시공우주 질서 안에서 유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이론{理論}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왔지만, 결국 유한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주는 설명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조상 전래의 존재들, 즉 창조주들 또는 어버이들의 이전{以前} 행위와 선재{先在}하는 의지작용에 호소하지 않은 채, 유한한

피조물은 어떻게 자신이 개인으로 실존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도 없다.

2. 지존성의 절대 기초

115:2.1 (1261.1) 실존적 관점에서 볼 때, 성단{星團}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 없는데, 이는 자존자{自存者} 안에 고유하게 있는 완벽한 무한대는 일곱 절대자 안에 영원히 현존하고, 삼중체{三重體} 안에서 기능적으로 연합되며, 삼극체{三極體} 안에서 전달돼 연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러 절대 연합 속에 무한대가 그렇게 실존적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이, 새로운 시공우주 체험의 실현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유한한 피조물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은 잠재적인 많은 것, 즉 현재의 실제성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속하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115:2.2 (1261.2) 가치는 우주 실체에서 독특한 요소다. 우리는 무한하고 거룩한 어떤 것의 가치가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무한한 신격의 관계들에서, *의미*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변경될 수는 있음을 발견한다. 체험적 우주들에게는, 실체 의미를

더 많이 납득함으로써 신성한 가치조차 실재로서
늘어난다.

115:2.3 (1261.3) 모든 체험 수준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진화시키는
전체 기획은, 겉으로 보기에 잠재성이 실제성으로
전환되는 문제이며;이 변형은, 공간 잠재력, 정신 잠재력,
및 영 잠재력의 영역들과 똑같이 관계있다.

115:2.4 (1261.4) 시공우주에서 가능한 것을 실제 실존으로
변화시키는 명백한 방법은 수준마다 다양한데, 유한
세계에서는 체험으로 진화하고, 유한절대 세계에서는
체험으로 결말에 이른다. 실존적 무한은 정말로
만물을_포함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만물을_포함하는
바로 이런 성질은, 부득이, 진화로 유한한 체험을 겪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체험적
성장 가능성은, 지존자에게 그리고 그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삼극체 관계들을 통해서 우주 실상이 된다.

3. 원본, 실제, 및 잠재

115:3.1 (1261.5) 절대 시공우주는 개념적으로 한계가 없으며;이
근원적 실체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무한을 제한시키고 순수한 영원성 개념을 약화시킬

것이다. 무한한_영원, 영원한_무한이라는 관념은, 범위에 제한이 없고 사실상 절대적이다. 무한한 실체 또는 실체의 무한성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언어가 유란시아에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도 없다. 사람은 무한한 시공우주에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요,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시작이_없이, 끝이_없는 실존에 대해 일그러진 그림자와 얽박해진 생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납득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의 역량을 벗어난다.

115:3.2 (1261.6) 정신은, 절대자라는 실체의 통일을 먼저 깨뜨리려고 시도하지 않고는, 절대자 개념을 파악하기를 결코 바랄 수 없다. 정신은 모든 차이를 통합하고 있지만, 다양성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정신은 이해하는 개념을 공식화하려고 애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115:3.3 (1261.7) 무한의 원초적 평형상태는, 인간이 납득하려고 애쓰기 전에 분할{分割}될 필요가 있다. 무한에는 통일성이 있고, 이것은 본 문서들에서 자존자로서--곧 피조물 정신이 설정한 최초의 가설로서-- 표현됐다. 그러나 이 통일성이 어떻게 해서, 이중성, 삼중성, 및 다양성이 되면서도, 여전히 무조건적 통일성을 이루는지,

피조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럿으로
인격화되심과 동시에 나뉘지 않은 삼위일체 신격이심,
이것을 사람이 잠깐 멈춰서 심사숙고 할 때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다.

115:3.4 (1262.1) 이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이 무한대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이다. 무한은, 한
편에서는 **통일**인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끝이나 한계가
없는 **다양성**이다. 유한한 지성체들이 관찰할 때, 무한은
피조물의 철학과 유한한 형이상학에서 최대의 역설이다.
사람의 영적 본성이 무한하신 아버지께 경배하는
체험까지 도달하더라도, 사람의 지적 납득 수용력은,
지존하신 분이라는 최대 개념작용으로 인해 소진된다.
지존자를 넘어서면, 개념들은 점점 더 이름뿐인 상태가
되고;실체의 참된 명칭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며;개념들은, 피조물이 유한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초월유한 쪽으로 점점 더 투사{投射}하게 된다.

115:3.5 (1262.2) 절대 수준에 관한 하나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국면의 가정을 포함한다:

115:3.6 (1262.3) 1. **원본존재**. 무조건적인 제1 근원 및 중심 개념, 즉 모든 실체를 기원시키는 자존자의 근원의 형태화.

115:3.7 (1262.4) 2. **실제존재**. 실체인 세 절대자, 즉 제2 근원 및 중심, 제3 근원 및 중심, 그리고 낙원 근원 및 중심의 합동.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및 낙원 섬으로 이뤄진 이 삼극체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성이 실제로 계시된 것이다.

115:3.8 (1262.5) 3. **잠재존재**. 잠재성의 세 절대자, 즉 신격 절대자, 무조건 절대자, 및 우주 절대자의 합동. 이 실존적 잠재성의 삼극체는, 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이 잠재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115:3.9 (1262.6) 원본존재, 실제존재, 및 잠재존재의 상호연합은, 무한대 속에서 균형상태를 초래하고, 우주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초래하며;성장은, 칠중존재, 지존자, 및 궁극자의 본성이다.

115:3.10 (1262.7)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가 연합할 때, 잠재성은 절대적인 반면, 실제성은 발생적이며;제2 근원 및 중심, 제3 근원 및 중심, 그리고

낙원 근원 및 중심의 연합에서는 실제성이 절대적인 반면,
잠재성은 발생적이며;제1 근원 및 중심의 독창성에,
실체성이나 잠재성이 현존하는지 아니면 발생하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아버지는 계신다*.

115:3.11 (1262.8) 시간 관점에서, 실제존재는 있었고 지금 있는
무엇이며;잠재존재는 되고 있고 앞으로 될
무엇이며;원본존재는 지금 있는 무엇이다. 영원 관점에서,
원본존재, 실제존재, 및 잠재존재 사이의 차이점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이런 삼자일체의 특질은, 낙원의_영원성
수준에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영원 속에서는 만물이
지금 있다--다만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115:3.12 (1262.9) 피조물 관점에서, 실제성은 물질이고 잠재성은
수용력이다. 실제성은 최고중심에 존재하고, 거기서
주변의 무한대 속으로 확장하며;잠재성은 무한대
주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모든 것의 중심에 모인다.
원본성{原本性}이란, 잠재하는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실재를 잠재하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실체의 이중적 순환 활동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를 균형 잡는 무엇이다.

115:3.13 (1262.10) 잠재성의 세 절대자는, 순전히 영원한 시공우주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절대적인 그런 수준들에서는 결코 작용할 수 없다. 실체의 하강하는 수준들에서는, 잠재성의 삼극체가, 궁극자와 함께, 그리고 지존자에게서 나타난다. 잠재하는 것은 어떤 준절대 수준에서, 부분별로는 시간에_따라_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지만, 총체로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뤄지는데, 개별적인 것들을 항상 고려하시지는 않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신다.

115:3.14 (1263.1) 시공우주에 실존하는 것들의 중심은 실체성의 삼극체에 있으며;영이든지, 정신이든지, 에너지든지, 모두가 이 아들, 영, 및 낙원 연합에 집중한다. 영{靈}인 아들의 인격체는 온 우주에 두루, 모든 인격체의 근본 원형이다. 낙원 섬의 내용이 근본 원형이고, 하보나는 그 원형의 완전한 계시{啓示}이고, 연방우주는 그 원형이 완성돼 가는 계시이다. 공동 행위자는 동시적으로,

시공우주 에너지를 정신으로 활성화한 것, 영{靈} 목적을 개념화한 것, 그리고 물질 수준의 엄밀한 인과관계를 영적 수준에서 의도하는 목적 및 동기와 결합한 것이다. 유한한 우주에서 그리고 그 우주에 대해서, 아들, 영, 및 낙원은, 궁극자가 지존자 안에서 좌우되고 제한되듯이, 궁극자 안에서 그리고 궁극자에 소속돼서 활동한다.

115:3.15 (1263.2) 사람이 낙원 상승 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신격의) 실제성이다. 사람이 그 탐구 속에서 진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신답게 되는) 잠재성이다. 실재하는 사람, 잠재하는 사람, 및 영원한 사람이 공존하고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는 원본존재다.

115:3.16 (1263.3) 시공우주의 최종 원동력은, 실체가 잠재성에서 실제성으로 연속해서 전환되는 것과 상관있다. 이론상으로는, 이런 변질에 끝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잠재존재와 실제존재가 모두 원본존재(자존자) 안에 회로화 돼있으므로 그런 것이 불가능하며, 이런 일체감 때문에 우주의 발전적 진보에 한계를 정하는 것이 영원토록 불가능하다. 자존자와 일체가 되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진보의 끝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자존자의 잠재력의 실제성이 절대적이고, 자존자의 실제들의 잠재성 역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실로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잠재하는 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인간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체험에서 새로운 실체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새 역량을 개발시킨다. 자녀마다 그 안에 어른이 살고,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사람 안에는 모론시아 진보자가 거한다.

115:3.17 (1263.4) 성장의 기초는--곧 절대적인 실제들은--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가능성--곧 절대적인 잠재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성장이 정지된 상태는 전체 시공우주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철학자들은 끝이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15:3.18 (1263.5) 제한된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여러 종말{終末}, 즉 활동의 종결들이 있지만, 더 높은 우주 수준에서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종말은 없고, 다만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있을 뿐이다. 총괄우주의 주요 만성적{慢性的} 성향은, 여러 우주 시대, 즉 하보나 시대,

연방우주 시대, 및 외부 우주 시대와 관계있다. 그러나 연속된 관계의 이 기본적 구분들조차, 끝없는 영원의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상대적 경계표에 불과하다.

^{115:3,19 (1263.6)} 지존하신 분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마침내 꿰뚫어보더라도, 이는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개념 수준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신성의 유한절대 특성을, 진보하는 피조물에게 열어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4. 최상 실체의 근원

^{115:4,1 (1263.7)} 지존자 하나님의 *기원(起源)*에 대한 어떤 연구든지, 반드시 낙원 삼위일체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하는데, 삼위일체가 원본 신격인 반면, 지존자는 파생된 신격이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연구든지, 반드시 실존적 삼극체들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이것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에 관련해서) 모든 절대적 실제성과 모든 무한한 잠재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하는 지존자는, 유한한 실존 수준에서, 그리고 그 수준 안에서, 잠재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곧 변형시키는--, 절정에 이르고 몸소 결단하는 중심점이다.

두 가지 삼극체, 즉 실제적인 삼극체와 잠재적인 삼극체는, 우주들에서 성장하는 상호 관계들 전체를 포함한다.

115:4.2 (1264.1) 지존자의 근원은, 낙원 삼위일체에--영원하고, 실제적이고, 나뉘지 않은 신격에-- 있다. 무엇보다도, 지존자는 영 인격자이며, 이 영 인격자는 삼위일체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지존자는 성장하는--곧 진화로 성장하는-- 신격이고, 이 성장은, 실제적인 삼극체와 잠재적인 삼극체, 이 둘로부터 파생된다.

115:4.3 (1264.2) 무한한 삼극체들이 유한 수준에서 작용할 수 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잠시 멈춰서, 그들의 바로 그 무한성이 유한의 잠재성을 그 자체 속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바라며;무한성은 가장 낮고 가장 제한된 실존으로부터, 가장 높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115:4.4 (1264.3) 무한이 유한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는, 이 무한이 실제로 어떻게 유한한 존재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에게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는, 심지어 절대적 하나님께서도 (절대자로서) 의지를 지닌 모든 우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와도 직접 접촉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영원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다.

115:4.5 (1264.4) 실재하는 것과 잠재하는 것을 집단으로 포함하는 삼극체들은, 지존하신 분과 관련하여, 유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는 기법은 직접적인 동시에 간접적인데, 즉:삼극체 관계들이 지존자 안에서 직접 반응하는 한, 직접적이고, 그 관계들이 유한절대자의 결말에 이른 수준을 통해서 유래되는 한 간접적이다.

115:4.6 (1264.5) 최상의 실체는, 유한한 실체의 총합인데, 외부 공간의 무조건적 잠재성과 만유의 중심에 있는 무조건적 실체성 사이에서, 역동적 성장 과정에 있다. 유한 영역은, 낙원의 유한절대 대리자들과 시간세계의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협동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화 한다. 위대한 세 잠재적 절대자의 제한된 가능성을 성숙시키는 행동은, 총괄우주의 설계자들과 그 초월 동역자들의 유한절대적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결말이 어떤 성숙된 지점에 도달할 때,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은, 진화하는 우주들을 사실적

존재로 만드는, 오랜 세월의 과제에 착수하기 위해서
낙원으로부터 나타났다.

115:4.7 (1264.6) 지존성의 성장은 삼극체들에서
지원되며;지존자의 영{靈} 인격자는 삼위일체에서
지원되지만;전능자의 권력 특권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
성립에 입각하고, 한편 전능한 지존자의 권능 특권을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와 결합시키는 것은 공동
행위자의 사역 덕분에 일어나는데, 이 공동 행위자는 이
진화하는 신격 안에 결합된 요소로서 지존자의 정신을
증여했다.

5. 지존자와 낙원 삼위일체의 관계

115:5.1 (1264.7) 지존하신 분은, 자신의 인격적 본성 및 영 본성의
실체를 위해서 낙원 삼위일체의 실존과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지존자의 성장은 삼극체 관계의
문제인 반면, 지존자 하나님의 영{靈} 인격체는 낙원
삼위일체에 의존하고 그로부터 파생됐는데, 낙원
삼위일체는 완전하고 무한한 안정성의 절대
중심이자_근원으로 항상 남아있고, 그 둘레에서 지존자의
진화 성장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115:5.2 (1265.1) 삼위일체의 기능은 지존자의 기능에 관련되는데, 이는 삼위일체가 지존성의 기능의 수준을 포함해서 모든(전체) 수준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보나 시대가 연방우주 시대에게 길을 비켜준 것처럼, 직접 창조자로서의 삼위일체의 식별 가능한 활동은, 낙원 신격들의 자녀의 창조적 행위에게 길을 양보한다.

6. 지존자와 삼극체의 관계

115:6.1 (1265.2) 실제성의 삼극체는 하보나_이후{以後} 시절에 계속 직접 작용하며; 낙원의 인력은 물질 실존의 기본 단위들을 붙잡고,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은 영 실존의 근본 가치에 대해 직접 작용하며, 공동 행위자의 정신 인력은 지적 실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을 틀림없이 붙잡는다.

115:6.2 (1265.3) 그러나 창조 활동의 각 단계가 미지의 공간을 통해서 뻗어나갈 때, 그 활동은, 중앙에 자리 잡은 창조 세력들과 신성한 인격체들--곧 절대적인 낙원 섬과 거기에 거주하는 무한한 신격들--의 직접 행동으로부터 떨어져나가 점점 멀리 작용하고 존재한다. 따라서 시공우주가 실존하는 이 연속되는 수준들은, 무한한 세

절대자 인격체 안에서 이뤄지는 발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115:6.3 (1265.4) 지존하신 분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또는 낙원 섬의 비인격 실체들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공우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이 세 실체성이 절대적임을 마땅히 고려해서 이렇게 진술하지만, 지존자의 성장은 신격과 낙원의 이 실체성에 입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격 절대자, 우주 절대자, 및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생기는 발전과도 관련된다.

115:6.4 (1265.5) 지존자는, 진화하는 우주들의 창조주들과 피조물이 하나님다움에 도달함에 따라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유한한 신격은 또한, 피조물과 창조주가 광우주의 유한한 가능성을 통달하는 결과로 성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지존자의 움직임은 이중적인데, 즉:내적{內的}으로는 낙원과 신격을 향해 집중해서 움직이고, 외적{外的}으로는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무한성을 향해서 광범하게 움직인다.

115:6.5 (1265.6) 현재 우주 시대에는, 이런 이중적 움직임이, 광우주의 상승하는 인격체와 하강하는 인격체들 속에서 드러난다.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과 그들의 신성한 모든 동역자는, 바깥쪽을 향하면서 발산하는 지존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며, 한편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는, 안쪽을 향하면서 집중하는 지존성의 경향을 가리킨다.

115:6.6 (1265.7) 유한한 신격은, 낙원과 거기 있는 신격들을 향해서 안쪽으로, 그리고 무한과 거기 있는 절대자들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항상 이중적 상호관계를 추구한다. 창조주 아들들 안에서 인격화하고, 권력 통제관들 안에서 동력을 얻는, 낙원의_창조적 신성{神性}이 힘차게 분출하는 것은, 지존성의 방대한 외부파동이 잠재성의 영역 안으로 돌진함을 의미하며, 한편 광우주에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끝없는 행렬은, 지존성의 강력한 내부파동이 낙원 신격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돌진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115:6.7 (1265.8)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움직임을 때때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우리는, 광우주의
인격체들과 원형들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진화적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지존성의 운동과 경향을 탐지할 수 있다고,
우주들에서 오래 전부터 배웠다.

115:6.8 (1266.1)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존자가, 낙원
신격의 유한한 반영으로서, 외부 공간으로 영원히
진보하는 데 관여한다고 믿고자 하지만;외부 공간의 세
절대자의 잠재성이 제한된 것으로서, 이 지존하신 분은
낙원과 일치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 움직임은, 현재 조직돼 있는 우주들에서 생기는
기본 활동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7. 지존자의 본성

115:7.1 (1266.2) 지존자 신격 안에서 아버지_자존자는, 무한한
지위, 영원한 존재, 그리고 절대 본성에 내재하는
한계로부터 비교적 완벽한 해방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지존자 하나님은, 우주의 기능의 체험적 한계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모든 실존적 제한으로부터 해방돼
오셨다. 유한한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서, 또한 체험할 필요성도 받아들이시게

되며;전능자는 영원으로부터 해방을 성취하면서, 시간이라는 장벽에 부딪치시며;지존자는 오직 부분적인 실존과 완성되지 못한 본성의 결과로, 성장과 발전을 겪으실 수 있다.

115:7.2 (1266.3)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른 것임이 틀림없는데, 그 계획은, 유한한 진보를 노력에, 피조물의 성취를 인내에, 인격체의 개발을 신앙에 기초했다. 지존자의 체험_진화를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유한한 피조물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으며, 체험적 진보를 통해서 언젠가 지존성이라는 신성{神性}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셨다.

115:7.3 (1266.4) 일곱 절대자의 무조건적 가치를 제외하고, 지존자, 그리고 심지어 궁극자를 포함해서, 모든 실체는 상대적이다. 지존성이 있다는 사실은, 낙원의 동력, 아들의 인격체, 및 공동자의 행위에 근거하지만, 지존자의 성장은, 신격 절대자, 무조건 절대자, 및 우주 절대자와 관련된다. 그리고 합성하고 통합하는 이 신격은--곧 지존자 하나님은--, 제1 근원 및 중심이신 낙원 아버지의

불가사의한 본성을 무한히 통일함으로써, 광우주 전체에 드리워진 유한한 그림자가 의인화{擬人化}된 분이다.

115:7.4 (1266.5) 삼극체들이 유한 수준에서 직접 작용하는 범위까지, 그 삼극체들은 지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존자는, 실재 절대자와 잠재 절대자의 본성에 부여한 유한한 제한들이 신격에 집중되고 시공우주에 합쳐진 분이다.

115:7.5 (1266.6) 낙원 삼위일체는 절대로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며;일곱 으뜸 영은 삼위일체에게 명백히 불가피하며;지존자의 능력_정신_영_인격자가 실현되는 것은 진화적으로 불가피함에 틀림없다.

115:7.6 (1266.7) 지존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무한 속에서 불가피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모든 상대성 수준에서는 불가피한 듯하다. 그는 진화 체험을 집중시키고 요약하고 포함시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그의 신격 본성 안에서 이 양식의 실체 감지 결과를 효과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말*의 출현, 즉 궁극자 하나님의 초월_체험과 초월_유한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115:7.7 (1267.1) 근원, 역할, 및 운명, 즉:근원이 되는 삼위일체와, 활동하는 우주와, 그리고 직접 닥치는 운명인 궁극 삼위일체와 갖는 관계,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존하신 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없다.

115:7.8 (1267.2) 인격있는 아들의 신성한 영성{靈性}과 낙원 원형의 불변하는 에너지를, 공동 행위자의 정신이 결합시키고, 신격 절대자의 활성화와 무조건 절대자의 반응을 우주 절대자의 현존이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존자는, 진화 체험을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한한 존재와 유한절대 존재를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런 통일성은, 최초의 아버지_원인 및 만물과 모든 존재의 근원_원형, 이 두 분의 원래 통일성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작용함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115:7.9 (1267.3) [유란시아에 잠시 머문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116편 전능한 지존자

116:0.1 (1268.1)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들이--곧 직속 감독자들이-- 신성한 동시에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 진화하는 비{非}절대적 신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모순은, 이제 더 이상 난해한 종교적 역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교적 신앙은 더 이상,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한 불행한 희생자들에게 금욕주의적 포기를 권장하는 데만 쓰이면서, 운이 좋은 자의 사회적 자만심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

116:0.2 (1268.2) 절묘하게 완전한 하보나 구체들을 바라볼 때, 완전하고 무한하며 절대적인 창조주가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이성적인 동시에 논리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성과 논리는, 유란시아의 혼란, 결함, 및 불공정함을 볼 때, 절대적이지 못하고 무한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치 않은 창조주들이 너희 세계를 만들고 관리돼 왔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어떤 정직한 존재에게든지 강요할 것이다.

116:0.3 (1268.3) 체험적 성장은, 피조물과_창조주의 동업관계를--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한다. 성장은 체험하는 신격의 증표다. 하보나는 성장하지 않았으며;하보나는 존재하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그 근원이신 영원한 하나님들처럼 실존적이다. 그러나 성장은 광우주의 특징을 나타낸다.

116:0.4 (1268.4) 전능한 지존자는 권능과 인격체를 소유한, 살아있고 진화하는 신격이시다. 그의 현재 영토인 광우주 역시, 권능과 인격체가 성장하는 영역이다. 그의 종착점은 완전성이지만, 그의 현재 체험은, 성장하는 요소와 불완전한 상태의 요소를 포함한다.

116:0.5 (1268.5) 지존하신 분은, 1차로 중앙우주에서 영 인격체로서 활동하며; 2차로 광우주에서 권능을 가진 인격체인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신다. 총괄우주에서 지존자의 3차 활동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오직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정신으로 존재한다. 지존하신 분의 이런 셋째 발전이 무엇을 드러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더러는, 연방우주들이 빛과 생명의 단계에 정착할 때, 지존자가 전능하고 체험을 겪은 광우주 주권자로서 우버사에서 활동하고, 한편 외부 우주들에서 초월전능자로서 권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더러는, 지존성의 셋째 단계는 셋째 수준의 신격 현시를 수반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1. 지존자 정신

116:1.1 (1268.6) 진화하는 각 피조물 인격체가 겪는 체험은, 전능한 지존자가 체험하는 한 국면이다. 연방우주의 각 물리적 구획을 총명하게 정복하는 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증대하는 통제력의 일부분이다. 능력과 인격체의 창조적 합성은, 지존자 정신의 창조적 총동의 일부분이며, 지존하신 분 안에서 진화로 성장하는 통일성의 바로 그 본질이다.

116:1.2 (1269.1) 지존성의 권능과 인격체 속성을 통합하는 것은, 지존자 정신의 작용이며;전능한 지존자의 진화가 완성되면, --신성한 속성들의 어떤 느슨하게 협조된 연합체가 아니라-- 통합되고 인격있는 한 신격을 낳게 될 것이다. 더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지존자에게서 분리된 전능성, 전능자에게서 분리된 지존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16:1.3 (1269.2) 여러 진화 시대 내내, 지존자의 물리적 잠재성은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에게 부여돼 있으며, 정신의 잠재성은 일곱 으뜸 영에게 위임돼 있다. 무한한 정신은 무한한 영의 기능이며;시공우주 정신은 일곱 으뜸 영이 베푸는 사역이며;지존자 정신은 광우주의 조화 속에서,

그리고 칠중 하나님의 계시와 달성과의 기능적 연합 속에서 실현돼가는 과정 중에 있다.

116:1.4 (1269.3) 시_공간 정신, 즉 시공우주 정신은, 일곱 연방우주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지만, 지존하신 분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연합 기법에 따라서 조화를 이룬다. 광우주에 대한 전능자의 전면통제는, 순전히 물리적이거나 순전히 영적이지는 않다. 일곱 연방우주에서 그 전면통제는 주로 물질적이고 영적이지만, 지존자의 지적인 동시에 영적인 현상들 역시 있다.

116:1.5 (1269.4) 이런 진화하는 신격의 어떤 다른 면들보다도, 우리는 지존성의 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적게 안다. 분명히 그 정신은 광우주에 두루 활동하고 있으며, 방대한 범위에 속하는 총괄우주에서 활동하는 잠재적 운명을 가졌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다:외형{外形}의 성장은 완성될지 모르고, 영은 완전하게 발달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결코 진보를 멈추지 않는다--정신은 끝없이 진보하는 체험적 기법이다. 지존자는 체험하는 신격이며, 따라서 정신의 달성을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

2. 전능자와 칠중 하나님

116:2.1 (1269.5) 전능자가 우주의 권능으로서 현존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진화하는 연방우주들의 높은 창조자와 통제관들이 시공우주 행동 무대에 출현함과 동시에 일어난다.

116:2.2 (1269.6) 지존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과 인격체 속성들을 낙원 삼위일체로부터 획득하지만, 창조주 아들들, 태고 항존자들, 및 으뜸 영들의 행위에서 권능을 실현하시고 있는데, 그들의 집단 행위는,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전능한 주권자로서, 그의 확장하는 권능의 근원이다.

116:2.3 (1269.7)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피조물은 무조건적 낙원 신격을 납득할 수 없다. 영원성과 무한성은 시_공간 피조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신격 실체를 의미한다. 신격의 무한성과 주권의 절대성은 낙원 삼위일체 안에 고유하며, 삼위일체는 필사적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없는 실체다. 시_공간 피조물은, 우주 관계를 파악하고 신성의 의미 있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원, 관련성, 및 운명을 지녀야만 한다. 따라서 낙원 신격은

낙원_바깥에서 일어나는 신성의 인격화를 약화시키고
달리 제한하는데, 그렇게 해서 최상급 창조주들과 그
동역자들이 실존하게 되며, 이들은 여러 진화 세계에서
증여 아들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의 빛의 가장
멀고도 아름다운 표현을 찾을 때까지, 그 낙원
근원으로부터 그 빛을 멀리 멀리 꾸준히 가져간다.

116:2.4 (1270.1) 그리고 이것이 칠중 하나님의 기원인데, 그의
연속된 수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필사적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116:2.5 (1270.2) 1. 창조주 아들들 (그리고 창조적 영들)

116:2.6 (1270.3) 2. 태고 항존자들

116:2.7 (1270.4) 3. 일곱 으뜸 영

116:2.8 (1270.5) 4. 지존하신 분.

116:2.9 (1270.6) 5. 공동 행위자.

116:2.10 (1270.7) 6. 영원한 아들.

116:2.11 (1270.8) 7. 만유의 아버지.

116:2.12 (1270.9) 처음 세 수준은 최상급 창조주들이며, 마지막 세 수준은 낙원 신격들이다. 지존자는, 낙원 삼위일체의 체험적 영 인격화로서, 그리고 낙원 신격들의 창조자 자녀들이 소유한, 진화하는 전능{全能}한 권능의 체험적 중심으로서, 언제나 개입한다. 지존하신 분은 일곱 연방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주 시대를 위해서, 신격이 최대한 계시된 것이다.

116:2.13 (1270.10)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의 집단 행위를 체험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낙원 신격 수준과 동등하리라고, 필사자가 논리를 따지는 기법으로 추론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낙원 신격은 실존적 신격이다. 최상급 창조주들은, 권능과 인격체가 신성하게 통일된 가운데, ~~체~~험적 신격의 새로운 잠재성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체험적 기원을 갖는 이 권능 잠재성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체험적 신격과--곧 지존하신 분과--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통합됨을 발견한다.

116:2.14 (1270.11) 지존자 하나님은 낙원 삼위일체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런 연방우주 창조주들 전체 또는 어느 누구도 아닌데, 그 창조주들의 기능적 활동이,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하는 전능한 권능을 실제로 통합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기원되지만, 오직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의 조정된 기능을 통해서만, 권능을 가진 인격체로서,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표현된다. 공동 행위자가 영원 속에서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뜻에 따라서 번개처럼 존재하게 됨과 마찬가지로, 전능한 지존자는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사실화되고 있다. 칠중 하나님의 처음 세 수준에 있는 이 존재들은, 전능한 지존자가 가진 권능의 바로 그 본성 및 근원이며;따라서 그들은 그의 경영 행위를 항상 따라가고 유지해야만 한다.

3. 전능자와 낙원 신격

116:3.1 (1270.12) 낙원 신격들은 광우주에서 두루, 자신들의 인력 회로 속에서 직접 활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행자 및 다른 형태화를 통해서 활동한다:

116:3.2 (1270.13) 1. 제3 근원 및 중심의 정신 집중. 에너지와 영의 유한한 영역들은, 공동 행위자의 정신 현존으로 인해 글자 그대로 결합된다. 이것은, 지방우주의 창조적 영으로부터, 연방우주의 반사하는 영들을 거쳐서, 광우주 안의 으뜸

영들에 이르기까지, 참말이다. 다양한 이 지성 초점들로부터 발산되는 정신 회로들은, 피조물이 선택하는 시공우주 경기장을 상징한다. 정신은, 피조물과 창조주들이 아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실체이며;물질과 영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다. 제3 근원 및 중심이 정신을 증여하는 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영 인격자와 진화하는 전능자가 체험으로 얻은 권능을 하나로 만든다.

116:3.3 (1271.1) 2. 제2 근원 및 중심의 인격체 계시. 공동 행위자의 정신 현존들은, 신성의 영과 에너지 원형을 통합시킨다. 영원한 아들과 낙원아들들의 증여 육신화{肉身化}는, 창조주의 신성한 본성을 피조물의 진화하는 본성과 통합시키는데, 실제로 융합한다. 지존자는 지음 받은 자인 동시에 창조자이며;그가 그런 존재일 가능성은, 영원한 아들 그리고 그와 동급이거나 그에게 종속되는 아들들의 증여 행위에서 드러난다. 아들신분 중에서 증여 계층인 미가엘과 아보날은, 진화 세계들에서 실제로 피조 생애를 살아봄으로써 그들의 것이 돼버린, 진정한 피조물 본성과 함께 그들의 신성한 본성을 실제로 증대시킨다.

신성{神性}이 인성{人性}처럼 될 때, 인성이 신성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관계에 내재한다.

116:3.4 (1271.2) 3. 제1 근원 및 중심의 내주하는 현존. 정신은 영원인을 에너지 반응과 통합하며;증여 사역은 신성{神性}의 하강과 피조물의 상승을 통합하며;만유의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斷片}들은, 진화하는 피조물을 낙원에 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통합시킨다. 수많은 계층의 인격체에 내주하는 아버지의 그런 현존이 많이 있으며, 필사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단편이 사고 조율사다. 신비 관찰자들과 인간의 관계는, 낙원 삼위일체와 지존하신 분의 관계와 같다. 조율사는 절대 토대이며, 절대 토대 위에서 자유 의지의 선택은 영원성취자 본성, 즉 사람의 경우에는 완결성취자 본성, 지존자 하나님의 경우에는 신격 본성이라는 신성한 실체가 진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116:3.5 (1271.3) 아들신분 중에서 낙원 계층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증여하는 것은, 이 신성한 아들이 우주 피조물의 실제 본성을 획득함으로써 아들의 인격체를 풍성하게 하며, 한편 그런 증여는, 신성을 달성하는, 낙원으로 가는 통로를

바로 그 피조물에게 어김없이 드러낸다.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 증여는, 자발적 의지를 가진 피조물의 인격체를 만유의 아버지 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유한한 우주들에서 이 모든 관계에 두루, 공동 행위자는 정신이 베푸는 사역의 상존{常存}하는 근원이며, 그 덕택으로 이런 활동이 발생한다.

116:3.6 (1271.4) 이 방법들 및 기타 많은 방법을 통해서, 낙원 신격들은, 공간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에서 시간세계의 진화가 펼쳐짐에 따라, 그리고 지존자 인격체의 모든 진화 결과가 마침내 발생하는 동안, 그 진화에 참여한다.

4. 전능자와 최상급 창조주

116:4.1 (1271.5) 지존자 총체의 통일은, 유한한 부분들의 점진적 통합에 의존하며;지존자의 현실화는 지존성의 요소들의-- 곧 우주들의 창조자, 피조물, 지성체, 및 에너지의-- 바로 이런 통합의 결과이고 그 산물이다.

116:4.2 (1272.1) 시간이 전개되는 것을 지존성의 주권이 겪고 있는 시대에는, 지존자의 전능{全能}의 능력은, 칠중 하나님의 신성 행동에 의존하는 반면, 지존하신 분과 공동 행위자 및 그의 1차 인격체인 일곱 으뜸 영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 행위자로서의 무한한 영은, 진화하는 신격의 미완성을 보정하며, 지존자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다. 이런 밀접한 관계는 어느 정도 모든 으뜸 영이 공유하지만, 특히 지존자를 대변하는 7_번 으뜸 영이 그렇다. 이 으뜸 영은 지존자를 안다--지존자와 친히 접촉한다.

116:4.3 (1272.2) 연방우주 창조 기획이 입안되던 초기에, 으뜸 영들은, 반사하는 영 49명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일에 조상인 삼위일체와 연합했으며, 동시에 지존하신 분은, 낙원 삼위일체의, 그리고 낙원 신격의 창조하는 자녀들의 공동 활동을 완결시키는 자로서, 독창적으로 작용했다. 위엄자가 나타나서, 그후로 항상 지존자 정신의 시공우주 현존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으며, 한편 으뜸 영들은 시공우주 정신이 광범하게 사역하도록 근원_중심으로서 존속한다.

116:4.4 (1272.3) 그러나 으뜸 영들은 반사하는 영들을 계속 감독한다. 일곱째 으뜸 영은, (중앙우주로부터 오르본톤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동안) 우버사에 위치한 일곱 반사하는 영과 친히 접촉한다(그리고 그들을

전면통제한다). 연방우주_사이 및 연방우주_내부의 통제와 경영에서, 그는 각 연방우주 수도{首都}에 위치한 자신과 같은 유형의 반사하는 영들과, 반사 작용으로 접촉을 이룬다.

116:4.5 (1272.4) 이 으뜸 영들은, 지존성의 주권을 지지하고 증대시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지존자의 창조적 목적에 영향을 받는다. 대개, 으뜸 영들이 집단으로 창조한 것들은 유사{類似}_물질 계층에(동력 지휘자 및 기타에) 속하는 반면, 개별로 창조한 것들은 영적 계층에(최고스라빔 및 기타에) 속한다. 그러나 으뜸 영들이 지존하신 분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일곱 궤도 영을 *집단으로* 산출했을 때, 이 창조 활동에서 나온 자녀는, 물질이거나 유사{類似}_물질이 아니라, 영적 자녀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116:4.6 (1272.5) 그리고 여러 연방우주의 으뜸 영들의 경우와 같이, 이 연방창조물들에 대한 삼자일체 통치자들의--곧 태고 항존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공간에서 삼위일체의 응보와_심판이 이렇게 의인화{擬人化}된 것들은, 지존자의 전능한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현장의

지레받침인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주권의 진화를 위한 칠중 초점 역할을 한다. 삼위일체에서 기원된 이 주권자들은, 낙원과 진화하는 세계들 사이에 있는 유리한 중간 지점으로부터, 양쪽 길을 다 보고, 양쪽 길을 다 알며, 양쪽 길을 조화시킨다.

116:4.7 (1272.6) 그러나 지방우주는 진짜 실험실인데, 정신의 실험, 성단{星團} 탐험, 신성의 전개, 및 인격체의 진보가 그 속에서 해결되고, 시공우주에서 합산할 때 이것들은, 체험 속에서, 그리고 체험으로, 지존자가 신격의 진화를 성취하는 실제 기초를 이룬다.

116:4.8 (1272.7) 지방우주에서는 창조주도 진화하는데:공동 행위자의 현존은, 살아있는 권능의 초점으로부터 우주 어머니 영의 신성한 인격체 상태로 진화하며;창조주 아들은, 실존적 낙원 신성의 본성으로부터 최상의 주권을 얻는 체험적 본성에 이르기까지 진화한다. 지방우주는, 참된 진화의 출발지점, 즉 예정된 바와 같이, 스스로 공동창조자가 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부여받은, 진실한 불완전 인격체들이 태어나는 장소다.

116:4.9 (1273.1) 진화하는 세계에 자신을 증여하는 집정관 아들들은, 물질적 인간 본성의 가장 높은 영적 가치와 체험적으로 통합하면서, 결국 낙원 신성을 나타내는 본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이 증여들 및 기타 증여들을 통해서, 미가엘 창조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제 지방우주 자녀의 본성과 시공우주 관점을 획득한다. 그런 으뜸 창조주 아들들은 최상 이하 체험의 완성에 접근하며;그들의 지방우주 주권이 관련된 창조적 영들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될 때, 진화하는 광우주의 현재 잠재력 안에서, 지존성의 한계에 접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6:4.10 (1273.2)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을, 증여 아들이들이 드러낼 때, 그들은 신성에 도달하는 이 길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존자의 현존을 통해서 낙원 아버지의 인격체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진보하는 영원한 대로{大路}를 밝혀준다.

116:4.11 (1273.3) 지방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큰 영적 상승을 체험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최고의 체험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인격체들을 위한 출발지점이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지방우주들은, 하강{下降}하는 인격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체험을 마련해 주는데, 이들은,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이 진화하는 피조물에게 의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무엇을, 이 방법으로 성취한다.

116:4.12 (1273.4) 칠중 하나님이 마침내 지존자로 현실화 하는 동안에, 필사적 사람은 이 신성 집합이 온전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듯하다. 지존자의 전능한 권능을 진화시키는 데 똑같이 필요한, 많은 다른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이 있지만, 여기에 기술한 것은, 인간을 교화{教化}시키기 위해서 제시되며, 따라서 주로 필사적 사람에게 관련되는 칠중 하나님의 진화에서 작동하는 그 요소들로 한정된다.

5. 전능자와 칠중 통제관

116:5.1 (1273.5) 너희는 지금까지 칠중 하나님과 지존하신 분의 관계를 배웠으며, 이제는 그 칠중 하나님이 광우주의 창조자들뿐 아니라 통제관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광우주의 이 칠중 통제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116:5.2 (1273.6) 1. 총괄 물리 통제관들.

116:5.3 (1273.7) 2. 최고 동력 중심들.

116:5.4 (1273.8) 3. 최고 동력 지휘자들.

116:5.5 (1273.9) 4. 전능한 지존자.

116:5.6 (1273.10) 5. 행동의 하나님--무한한 영.

116:5.7 (1273.11) 6. 낙원 섬.

116:5.8 (1273.12) 7. 낙원의 근원--만유의 아버지.

116:5.9 (1273.13) 이 일곱 집단은, 기능적으로 칠중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이 신격 연합에서 물리적_통제 수준을 구성한다.

116:5.10 (1273.14) 일곱 으뜸 영이 뭉쳐서 집단으로 창조하는 첫 행위에 들어갈 때, 연방우주 의미에서 에너지와 영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영원한 아들과 낙원 섬의 공동 현존에서 파생하는 것을) 상징했다. 이 사건은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의 출현을 입증한다. 그와 동시에, 동력 지휘자가 감독하는 물리적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으뜸 영들의 영적 회로들이 구별됐으며, 물질과 영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요소로서, 시공우주 정신이 즉각 등장했다.

116:5.11 (1274.1) 전능한 지존자는 광우주의 물리적 동력에 대한 전면통제관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우주 시대에 잠재적인 이 물리적 동력은, 일곱 최고 동력 지휘자 안에 중심을 두는 듯한데, 이들은 동력 중심지들의 고정된 위치를 통해서, 그리고 물리 통제관들의 움직이는 현존을 통해서 작동한다.

116:5.12 (1274.2) 시한이 있는 우주들은 완전치 않으며, 그것이 그것들의 운명이다. 완전성을 향한 투쟁은, 지적 수준 및 영적 수준뿐 아니라, 에너지와 질량이라는 물리적 수준과도 관계된다. 일곱 연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하는 것은, 그 우주들이 물리적 안정을 달성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질의 균형을 마침내 달성하는 것은, 전능자의 물리적 통제가 진화를 마쳤음을 뜻한다고 추측된다.

116:5.13 (1274.3) 우주가 조성되던 초기에는, 낙원 창조주들도 우선적으로 물질의 균형에 관심을 갖는다. 지방우주의 원형은, 동력 중심들이 활동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

영의 공간 현존 때문에 모습을 갖춘다. 그리고 지방우주를 조성하는 이 초기 시절 내내, 창조주 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 통제 속성을 나타내며, 지방우주가 대체로 균형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수도{首都} 행성을 떠나지 않는다.

116:5.14 (1274.4) 요컨대, 모든 에너지는 정신에 반응하며, 물리 통제관들은, 낙원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정신 하나님의 자녀다. 동력 지휘자들의 지성은 물질을 통제하는 과제에 끊임없이 전념한다. 에너지의 관계 질량의 운동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투쟁은, 그들의 영적인 활동 영역인, 에너지와 질량에 대한 유한한 승리를 성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116:5.15 (1274.5) 시간과 공간에서 영 투쟁은, (인격있는) 정신이 중재함으로 물질을 영{靈}이 지배하는 진화와 상관이 있으며;우주들의 물리적 (비인격적) 진화는, 시공우주 에너지를 영의 전면통제 아래에서 정신의 균형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광우주 전체의 모든 진화는, 에너지를_통제하는 정신, 그리고 영이_조정한 지능, 이 두

가지를 인격체가 통합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지존자의 전능한 권능이 완전히 나타남으로 드러날 것이다.

116:5.16 (1274.6) 역동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서 어려움은, 성장하는 시공우주라는 사실에 내재한다. 물리적 창조의 확립된 회로들은,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질량의 출현으로 계속 위태롭게 된다. 성장하는 우주는 안정되지 않은 우주이며;따라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일곱 연방우주가 물질적으로 완성됨이 목격되기 전에는, 전체 시공우주의 어떤 부분도 참된 안정을 찾을 수 없다.

116:5.17 (1274.7) 빛과 생명으로 안정된 우주에서는, 예견되지 못한 두드러지게 중요한 물리적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 물질 창조에 대하여 비교적 완전한 통제가 이뤄졌으며;안정된 우주와 진화하는 우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주적 동력 지휘자들의 솜씨에 계속 도전한다. 그러나 광우주가 진화적 표현의 최고점에 접근함에 따라서, 이 문제들은 새로운 창조 활동의 감소와 함께 점차 사라질 것이다.

6. 영의 지배

116:6.1 (1275.1) 진화하는 연방우주들에서는, 인격체의 경우를 제외하고, 에너지와_물질이 지배적인데, 인격체 안에서는, 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靈}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분투한다.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표는, 정신으로 에너지와_물질을 정복하고 정신과 영이 협조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창조적이고 통합하는 인격체 현존 덕택으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인격체에 대한 관계에서, 물리 체계들은 종속되게 되며;정신 체계들은 조화를 이루게 되며;영 체계들은 지배적이 된다.

116:6.2 (1275.2) 동력과 인격체의 이 합동은, 지존자 안에서, 그리고 지존자로서, 신격{神格} 수준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영{靈}의 지배가 실제로 진화하는 것은, 광우주의 창조주들과 피조물의 자유의지 행동에 바탕을 둔 성장이다.

116:6.3 (1275.3) 절대 수준에서는 에너지와 영이 하나다. 그러나 그런 절대 수준에서 떠나자마자 차이가 나타나고, 에너지와 영이 낙원에서 공간을 향해 움직임에 따라서, 그것들 사이의 간격은, 지방우주들에서 그것들이 크게 갈라질 때까지 벌어진다. 에너지와 영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비슷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이 개입해야만 한다.

116:6.4 (1275.4) 통제관 인격체들의 행위로 그 에너지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정신의 활동에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로 이런 통제하는 실재들의 작용을 통해서 질량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은, 질서를_산출하는 정신의 현존에 질량이 민감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체 안에서 영 자체가 에너지와_물질을 통달하기 위해 정신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유한 창조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116:6.5 (1275.5) 온갖 우주에서 두루, 모든 세력과 인격체는 서로_의존한다. 창조주 아들과 창조적 영들은, 우주를 조직할 때 동력 중심 및 물리 통제관들의 협동 기능에 의존하며;최고 동력 지휘자들은 으뜸 영들의 전면통제 없이는 불완전하다. 한 인간 안에서 육체 생명 구조는 (인격있는) 정신의 명령에 어느 정도 민감하다. 바로 이 정신은 역{逆}으로, 의도하는 영의 인도에 지배될 수 있으며, 그런 진화적 발달의 결과는, 지존자의 새로운

자손을 낳는 것, 즉 여러 종류의 시공우주 실체를 새롭게
인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116:6.6 (1275.6) 그리고 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경우도
그러하며;지존성의 영{靈} 인격자는, 완성된 신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와 연합하는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능자의 진화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시간과 공간에서 인격체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런 노력을 최고점에 이르게 하고 완성하는 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행동이다. 이처럼 전체의 성장은, 부분들의
집합된 성장의 합계이며, 마찬가지로 부분들의 진화는,
당연히 전체가 의도한 성장이 부분화돼서 반영된 것이다.

116:6.7 (1275.7) 낙원에서, 단일세력과 영은 하나와 마찬가지다--
이름으로만 구별할 수 있다. 하보나에서는 물질과 영이
뚜렷하게 다르지만, 그와 동시에 본질적으로 조화돼 있다.
반면에, 일곱 연방우주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시공우주
에너지와 신성한 영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으며;따라서
물리적 원형{原型}과 영적 목적을 조화시키고 결국
통합시키는 데에, 정신이 활동할 더 큰 체험 잠재력이 있다.
시간에_따라_진화하는 여러 공간 우주에는, 더 큰 신성

감소, 해결되기에 더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체험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그리고 이런 연방우주의 전체 상황은, 진화로 실존하는 더 큰 경기장이 생기게 하는데, 그 속에서 시공우주 체험 가능성은, 피조물과 창조주에게--심지어 지존자 신격에게 까지-- 똑같이 쓸모 있다.

116:6.8 (1276.1) 영{靈}의 지배는 절대 수준들에서 실존적이지만, 유한 수준들에서,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서는 진화하는 체험이 된다. 그리고 필사적 사람으로부터 지존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이 체험을 모두가 똑같이 공유한다. 성취하는 일에 모두가 애쓰는데, 개인적으로 애쓰며;운명에 모두가 참여하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한다.

7. 살아있는 유기체인 광우주

116:7.1 (1276.2) 광우주는, 물리적으로 웅대하고, 영적으로 장엄하고, 지적으로 고결한 물질 창조일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민감한 살아있는 유기체다. 활력이 넘치는 시공우주의 광대한 창조 체제에 두루, 실제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 우주의 물리적 실체는, 감지할 수 있는 전능한 지존자의 실체를 상징하며;마치 인간 육신 전체에 신경

감각 경로들의 망이 퍼져 있는 것과 흡사하게, 물리적이고 살아있는 이 유기체에 지성 회로들이 스며있다. 물리적인 이 우주에는, 물리적 창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통로들이 꼭 들어차 있는데, 그것은 인간 육체가 음식물에서 흡수될 수 있는 에너지 산물들을 순환 분배함으로써, 영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우주에는, 인간의 장치인 섬세한 화학_통제 체계에 비교될만한, 엄청나게 전면통제하는 조정 중심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동력 중심의 형세에 관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알기만 했다면, 우리는, 유추함으로써, 물리적 우주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116:7.2 (1276.3) 필사자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 에너지에 의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광우주는 물질{物質}의 활기와 공간의 시공우주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 하부 낙원으로부터 발산하는 끊임없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116:7.3 (1276.4) 정체성과 인격체를 스스로_의식하게 될 수 있도록, 정신이 필사자에게 주어졌으며;정신은--심지어 지존자 정신도-- 유한자의 총체 위에 증여됐고, 그리하여

시공우주에서 떠오르는 이 인격체의 영은 에너지와_물질을 통달하기 위해서 항상 분투한다.

116:7.4 (1276.5) 영원한 아들의 광범위한 영_인력의 붙잡는 힘, 즉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시공우주의 전체 창조계에서 영원한 영적 가치의 보편적 초물질 응집력에 광우주가 반응하는 것 같이, 필사적 사람은 영{靈}의 인도에 민감하다.

116:7.5 (1276.6) 인간은, 파괴할 수 없는 총 우주 실체와 영구히 자아를_동일시할 수 있다--사고 조율사와 융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존자는, 원본 성격, 즉 낙원 삼위일체의 절대 안정성{安定性}에 끊임없이 의존한다.

116:7.6 (1276.7) 낙원의 완전함에 이르려는 사람의 충동, 즉 하나님께_도달하려는 그의 노력은, 살아있는 시공우주에서 신성의 진정한 긴장상태를 창출하는데, 이 긴장상태는 오직 불멸하는 혼이 발전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으며;이것은 단일 필사 피조물의 체험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광우주에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주가 하나님께_도달하고 신성한 완전성을 얻으려고 마찬가지로 노력할 때, 시공우주 긴장상태가 깊어지는데,

이 긴장상태는 오로지, 전능한 권능을 모든 피조물의
진화하는 하나님, 즉 지존하신 분의 영 인격자와 숭고하게
통합하는 데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116:7.7 (1277.1)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117편 지존자 하나님

117:0.1 (1278.1) 우리가 어떤 우주 위치에서 실존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정도까지, 그만큼 지존자의 전능한
잠재력은 한 걸음 더 실제에 가까워진다. 하나님 뜻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목적인데,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성이 되고,
영원한 아들 안에서 인격화되고,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
활동을 위해 결합하고, 낙원의 영원한 원형{原型}들
안에서 영구화{永久化}된다.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 뜻의 유한한 최고 형태화가 되고 있다.

117:0.2 (1278.2) 전체 광우주 거주민이 하나님 뜻에 충실한 삶을
언제든지 비교적 성취하게 된다면, 그때 시_공간 창조계는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할 것이며, 그때 지존성의 신격

잠재성인 전능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체가 출현하면서 실체가 될 것이다.

117:0.3 (1278.3) 진화하는 정신이 시공우주 정신의 회로에 동조{同調}되면,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우주의 원형{原型}을 따라서 안정되면, 진보하는 영이 으뜸 영들의 결합된 사역과 접촉하게 되면, 상승하는 필사 인격체가 내주하는 조율사의 신성한 안내에 최종적으로 동조되면, 지존자의 실제성은 우주들에서 한 단계 더 실체가 되며;그러면 지존성의 신성{神性}은 시공우주 실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다.

117:0.4 (1278.4) 광우주의 부분들과 개체들은 지존자의 전체 진화의 닻은꼴로 진화하는 반면, 역으로 지존자는 전체 광우주의 진화를 종합한 누적 합계다. 필사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는 모두 진화적이고 체험적인 상호작용이다.

1. 지존하신 분의 본성

117:1.1 (1278.5) 지존자는, 물리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움이고, 지적 의미를 갖는 진리이며, 영적 가치를 갖는 선함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감미로움이고, 영구적 성취로 인한

기쁨이다. 그는 광우주의 대령{大靈}이고, 유한한 시공우주의 의식{意識}이며, 유한한 실체의 완성이고, 창조주와_피조물의 체험이 인격화된 분이다. 지존자 하나님은, 미래의 전체 영원성 내내 신격의 삼자일체 관계에서 자발적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117:1.2 (1278.6) 최상급 창조주들의 인격자 속에서, 하나님들은 낙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하강했는데, 이는 거기서 낙원에_도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아버지를 찾아 그곳으로 상승할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진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강하는 창조주들과, 하나님을_찾으면서 상승하는 피조물의 이런 우주 행진이, 지존자가 신격으로 진화함을 드러내는데, 지존자 안에서는 하강자와 상승자의 상호 이해, 즉 영원히 보편적으로 형제관계임을 발견한다. 지존하신 분은, 이처럼 완전한_창조주의 체험과 완전하게_돼가는_피조물의 반응 체험을 유한하게 종합한 존재가 된다.

117:1.3 (1279.1) 광우주는 온전한 통합 가능성을 포함하고 이를 늘 추구하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통일된 낙원 삼위일체의

창조 행위와 권능이 내린 명령의 결과가 이 시공우주 실존이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삼자일체의 통일성이, 지존자 안에서 유한한 시공우주 속에 표현되는데, 그의 실체는 우주들이 삼위일체와 동일시하는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해진다.

117:1.4 (1279.2) 창조주의 뜻과 피조물의 뜻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체험적으로는 유사한데, 우주 완전성을 성취하는 동안, 피조물과 창조주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일할 수 있고, 그리하여 영원한 완결성취자를 함께 창조한다. 하나님은 아들이 육신화할 때 인간으로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함으로 피조물이 되는 최고의 체험을 성취한다.

117:1.5 (1279.3) 지존하신 분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의 신격으로 결합하는데, 이 신격의 뜻은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를 표현한다. 그리고 네바돈의 으뜸 아들이 주권자로서 갖는 뜻이, 이제는 신성의 뜻과 인성{人性}의 뜻이 합쳐진 것 이상{以上}의 무엇임과 같이, 지존자의 뜻은, 피조물 또는 창조주의 뜻 이상의 무엇이다. 낙원의

완전성과 시_공간 체험의 합동은, 실체의 신격 수준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가치를 낳는다.

117:1.6 (1279.4) 지존자의 진화하는 신성한 본성은, 광우주에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창조주의 비길 데 없는 체험에 대한, 신뢰할만한 묘사가 되고 있다. 지존자 안에서, 창조자신분과 피조물신분이 하나이며;모든 유한한 창조가 미완성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완성과 해방을 찾아 영원한 경로를 추구하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수반되는 변화에서 생긴 그 체험으로 인해 그들은 영원토록 결합된다.

117:1.7 (1279.5)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영의 사역, 낙원의 웅장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지존자의 체험에서 서로 관련된다. 지존자 하나님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 *이신데*, 이런 신성 개념이 관념적 체험의 유한한 최고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 삼자일체 특성의 영원한 근원은 유한한 초월 수준에 있지만, 피조물은 그런 근원을, 초월적 진리, 초월적 아름다움, 및 초월적 선함으로써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117:1.8 (1279.6) 창조자 미가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녀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런 신성한 애정을 발견하고 받아들였으므로, 사람은 육신 속에 있는 형제에게도 이 사랑을 드러내기를 열망할 수 있다. 피조물의 그런 애정은 지존자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다.

117:1.9 (1279.7) 지존자는 균형 잡히도록 포괄한다. 제1 근원 및 중심은, 위대한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하고, 낙원에서, 아들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실재하지만;지존자는, 실재하면서 잠재하는, 인격적 지존성과 전능한 권능을 가진 존재인데, 피조물의 노력과 창조주의 목적에 똑같이 반응하며;우주에 대하여 스스로_행동하고, 우주의 전체 총합에 대하여 스스로_반응하며;그리고 동시에 최고 창조자이자 최고 피조물이다. 지존성 신격은 이처럼 유한자 전체의 총합을 나타낸다.

2. 진화 성장의 근원

117:2.1 (1280.1) 지존자는 시간_속의_하나님이며;시간세계에서 피조물이 성장하는 비결은 지존자에게 속하며;완성되지 않은 현재를 정복하고 완성시키는 미래의 완료 역시

지존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모든 유한한 성장의 최종
결실은:통합시키면서 창조적인 인격체 현존 덕분에
영이 정신을 통해서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런 모든 성장이
최고조에 달한 결과가 지존하신 분이다.

117:2.2 (1280.2) 필사적 사람에게, 실존은 성장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우주 의미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영의 인도를 받는 실존은, 체험 성장을--곧
자격의 확장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현재 우주 시대에 피조물 실존의 특징을
나타내는 현재의 성장은 지존자의 역할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성장은 지존자가
성장하는 시대에 특유하다는 것과, 지존자가 성장을
완성함과 함께 종료되리라는 것을 똑같이 주장한다.

117:2.3 (1280.3) 피조물에서_삼자일체화된 아들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며;정신 및 영 재능과 함께 인격체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많은 체험을 했고 그 기억을 지니지만, 상승하는
존재들처럼 성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기로는, 피조물에서_삼자일체화된 이 아들들은

현재 우주 시대 *에* 있지만, 정말로 다음 우주 시대--곧 지존자의 성장이 완성된 다음에 있게 될 시대--*에 속한다*. 그러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따라서 성장하는 지존자의 현재 상태의 시점에서, 그들은 지존자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해 예비돼 있다.

117:2.4 (1280.4) 내가 속한 계층인 강력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에 포용됐으므로, 현재 우주 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삼위일체의 상비 아들들인 것처럼, 신분으로는 지나간 우주 시대에 속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우리 신분이 삼위일체에 포용됨으로 고정됐고, 체험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117:2.5 (1280.5) 이것은 완결성취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지존자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진화하고 체험하는 어떤 다른 계층에게든지 해당되지 않는다. 낙원에 도달하고 완결성취자 신분을 얻기를 열망하면서 유란시아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 필사자는, 오직 너희가 지존자 안에 있고, 그에게서 나왔고, 따라서 지존자의 성장 순환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117:2.6 (1280.6) 지존자의 성장은 언젠가 끝날 것이며;그의 신분은 (에너지와_영의 의미에서 볼 때) 완성될 것이다. 지존자의 진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지존성의 일부분으로서 피조물의 진화도 끝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장이 외부 공간 우주들의 특징을 나타낼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연방우주가 진화하는 현재 시대에 우리가 봐온 모든 것과 매우 다른 어떤 것이 되리라고 우리는 아주 확신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존성 성장으로 인한 이 결핍을 외부_공간_존재들이 메워주는 것이, 광우주에서 진화하는 시민{市民}들의 역할일 것이다.

117:2.7 (1280.7) 현재 우주 시대가 완료되면서 실존할 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에서 체험 주권자로서 작용할 것이다. 외부_공간_존재들은--곧 다음 우주 시대의 시민들은--, 연방우주시대 이후의 성장 잠재력을 지닐 것인데, 이것은 전능한 지존자의 주권을 전제로 하는 진화로 획득한

수용력이며, 따라서 현재 우주 시대의 권능과_인격체를
합성하는 데 피조물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117:2.8 (1281.1) 이처럼 지존자의 미완성은 하나의 장점으로
간주될지도 모르는데, 이는 그것이 현재 우주들에 있는
피조물과_창조의 진화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상태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빈 것이
체험으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7:2.9 (1281.2) 유한한 철학에서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지존하신 분은 광우주의 진화에
반응해서 현실화하는가, 아니면 지존자가 점차
현실화하는 데 반응해서 이 유한한 시공우주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발전하려고 서로
의존하는 것, 그들이 진화에서 호혜적{互惠的}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다:피조물과 우주들은, 높은지
낮든지, 지존자 안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우주 시대의 유한한 활동 전체의 통합된 합계가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존하신 분의 출현이요,

모든 인격체에게 지존자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이 진화하는 것이다.

3. 우주 피조물에 대한 지존자의 중요성

117:3.1 (1281.3) 지존하신 분, 지존자 하나님, 전능한 지존자 등으로 다양하게 일컫는 시공우주 실체는, 떠오르는 국면에 있는 모든 유한한 실체를, 복잡하게 보편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영원한 에너지, 신성한 영, 및 보편적 정신의 광범위한 분화는 지존자의 진화에서 유한한 절정에 도달하는데, 지존자는 모든 유한한 성장의 총합이요, 유한하게 최대로 완성하는 신격 수준에서 스스로_실현한 것이다.

117:3.2 (1281.4) 지존자는, 공간에서 성운이 펼쳐지는 광경 속에 구체화되는 삼극체들의 창조적 무한성이 흐르는 신성한 경로이며, 그 광경을 배경으로 시간세계에서 장엄한 인격체 드라마가 발생하는데:정신의 중재를 통해서 영이 에너지와_물질을 정복하는 드라마다.

117:3.3 (1281.5)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했으며, 그래서 그는 자아를_의식하는 물질 수준으로부터, 하나님을_의식하는 영적 수준에 이르는,

살아있는 길이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 올라가는 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지존자는,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의식을 초월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유한절대성의 통찰력까지도 도달하는 생명의 길이다.

117:3.4 (1281.6) 너희의 창조주 아들은 실제로, 인성으로부터 신성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경로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예슈아,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참된 인성으로부터, 네바돈의 미가엘, 즉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낙원 신성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진보하는 이 경로를 충실하게 횡단하는 체험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존하신 분은 유한한 한계를 초월하는 우주 접근법으로서 작용하실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피조물의 모든 진화, 진보, 및 영화{靈化}를 실제로 구현한 분이요, 몸소 요약한 분이기 때문이다. 낙원에서 하강하는 인격체들의 광우주 체험조차, 지존하신 분이 겪는 체험의 일부이며, 이것은 시간세계의 순례자의 상승하는 체험을 그가 총합한 것을 보완한다.

117:3.5 (1281.7) 필사적 사람은, 비유로 표현된 하나님의 형상 이상{以上}의 존재다.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은 도저히 진실이 아니지만, 어떤 우주 잠재성의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다. 온갖 우주에서 광대하게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진화로 달성하는 바로 그 드라마와 비슷한 무엇이,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다. 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사람은, 지존자의 유한한 잠재성이 있는 가운데, 비인격 실재인 조율사와 연합해서 창조성을 가지며,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이 꽃피게 된다. 우주들에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 인격체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비인격 영과 연합해서 활동하며, 그리하여 신격 실체의 새로운 권능 잠재성을 창조하게 된다.

117:3.6 (1282.1) 필사적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신격{神格}인 지존하신 분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의 진화는 어떤 면에서 지존자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강하고 효력 있고 끈질긴가에 따라서, 물질적인 상태에서부터 영적인 상태로, 의식하면서 성장하며;또한 사람은, 사고 조율사가 영적 수준에서 하강하여 모론시아 혼 수준에 이르려고 새로운 기법들을

개발함에 따라서 성장하며;혼이 일단 생기면, 혼은 그 자체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117:3.7 (1282.2) 이것은 지존하신 분이 확장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의 주권은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행위와 성취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성장하며;그것은 광우주의 통치자로서 그의 웅대한 권능이 진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신격 본성은, 낙원 삼위일체의 선재하는 통일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에 여전히 다른 측면이 있는데:그는 창조주에게서_진화되고 삼위일체에게서_파생됐을 뿐만 아니라;또한 그는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파생하기도 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자신이 신격으로 사실화할 때, 그 자신이 의도하는, 독창적인 참여자다. 인간의 모론시아 혼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를 불멸화할 때 의도적이고 독창적인 동역자다.

117:3.8 (1282.3) 낙원의 에너지를 조종하고 그 에너지를 지존자에게 반응하도록 만들 때, 아버지는 공동 행위자와 함께 일하신다. 창조주 인격체들을 산출할 때, 아버지는 영원한 아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두 분의 활동은 언젠가 마침내 지존자의 주권을 이룰 것이다. 지존자의 진화가

완성되어, 그가 그 주권을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광우주의 통치자로서 활동할 삼위일체 인격체들을 창조할 때, 아버지는 아들과 영, 두 분과 함께 일하신다. 지존성의 진화를 촉진하면서 이 방법들 및 기타 여러 방법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신격 및 신격이_아닌 동격_존재들과 협동하지만, 또한 이런 문제들에서 홀로 작용하신다. 그리고 그의 독자적 역할은, 아마 사고 조율사 및 관련된 실재들이 베푸는 사역에서 최고로 잘 드러날 것이다.

^{117:3.9 (1282.4)} 신격은 통일성인데, 삼위일체로서는 실존적이고, 지존자로서는 체험적이며, 필사자의 경우에는, 조율사 융합으로 피조물로서_실현된다. 필사적 사람 속에 사고 조율사가 현존하심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사람, 즉 가능한 가장 낮은 우주 인격체가 그 속에 가장 높고 영원한 실체, 심지어 모든 인격체들의 원래 아버지의 실제 부분조차 담고 있기 때문이다.

^{117:3.10 (1282.5)} 지존하신 분은, 낙원 삼위일체와 접촉하는 덕분에 진화하고, 그 삼위일체의 자녀인 창조자 및 경영자들이 신성{神性}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진화한다.

사람의 불멸하는 혼은, 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현존과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인간 정신이 내리는 인격체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시킨다. 삼위일체와 지존자 하나님의 관계는, 조율사와 진화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

117:3.11 (1282.6) 시간과 공간에서 창조 대행자들이 유한한 행동 가능성을 다 소모한 경우 외에, 현재 우주 시대에 지존하신 분은 창조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우주 역사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오직 한 번 일어났는데;우주 반사성에 관해서 유한한 행동 가능성이 모두 소모됐을 때, 이때 지존자는 전에 있던 모든 창조자 행위를 창조적으로 완성하는 자로서 작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창조자신분이 창조 활동의 고유 주기를 마칠 때에는 언제든지, 미래 시대에 완성자로서 다시 작용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117:3.12 (1283.1) 지존하신 분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글자 그대로, 지존자의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됐고, 사람의 바로 그 생명도 거기서 파생됐다. 그가 사람을 진화시키지 않았지만;그럼에도 바로 지존자가 진화의

본질 자체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존자의 내재성 안에서 실제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

117:3.13 (1283.2) 지존자는 최초의 원인을 시작할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을 촉진시키는 존재인 듯하며, 걸음으로는 체험으로_진화하는 모든 존재의 운명에 관해서 총체의 완성을 마련하도록 예정된 듯하다. 아버지께서는 유한한 시공우주의 개념을 창설하시며;창조주 아들들은 창조적 영들의 동의와 협동을 얻어서, 시간과 공간에서 이 관념을 사실화하며;지존자는 유한자 전체를 완성시키고, 유한자 전체가 유한절대자 운명과 갖는 관계를 확립한다.

4. 유한한 하나님

117:4.1 (1283.3) 완전한 신분을 얻고 신 같은 존재가 되려는, 창조된 피조물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건대, 우리는 이런 끝없는 노력이, 지존자가 신성한 자아_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투하는 증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지존자 하나님은 유한한 신격이며, 그 단어의 전체 의미로 볼 때, 그는 유한자의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 공간에서 진화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의 변천과 벌이는 싸움은,

그의 진화하는 본성이 가능한 가장 바깥쪽 한계까지 확장하고 있는 행동 영역 안에서, 자아의 실체와 주권의 완성을 성취하려는 그의 노고를 반영한 것이다.

117:4.2 (1283.4) 지존자는 광우주에 두루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의 신성한 진화는, 실존하는 모든 인격체의 지혜와_행동에 어느 정도 근거한다. 한 인간이 영원한 생존을 선택할 때, 그는 운명을 공동으로_창조하며, 상승하는 이 필사자의 생애에서, 유한한 하나님은 양의 인격체 자아_실현이 증가하고 체험적 주권 확장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 피조물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이 피조물의 선택에 의존했던, 지존자의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 지연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대체하거나 추가적인 체험으로 보충돼야만 하는 결핍이며;생존하지 못하는 인격체의 경우에, 그것은 창조의 대령{大靈} 속으로 흡수되어 지존자 신격의 일부분이 된다.

117:4.3 (1283.5) 하나님은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이 많으시므로, 보관하면서 자아를_실현하라고 자신의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을 심지어 인간의 손에 맡기기까지 하신다. 아버지의 본성, 즉 조율사 현존은, 필사 존재의 선택에

상관없이 불멸한다. 잘못 인도된 그런 자아의 잠재적으로 통합하는 인격체가, 지존성 신격의 한 요소로서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자녀, 즉 진화하는 자아는 소멸될 수 있다.

117:4.4 (1283.6) 인간의 인격체는 피조물신분의 개체성을 정말로 파괴할 수 있고, 시공우주에서 자멸하는 그런 생애에서 가치 있었던 모든 것이 존속되겠지만, *이 특성들은 하나의 개별 피조물로서는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존자가 우주들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지만, 그런 특정한 인격자로서는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상승하지 않는 존재의 독특한 인격체는, 바다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처럼 지존자에게 돌아간다.

117:4.5 (1284.1) 유한자의 인격있는 부분들이 어떤 분리된 행동을 하든지, 지존자 총체가 종국에 출현하는 데는 비교적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전체는 다양한 부분의 전체 행위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인격체는 지존성의 총계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지만, 각 인간의 인격체는, 유한자에게 있는 대체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대표하며; 인격체는, 일단 나타난 후에는, 살아있는 그

인격체가 계속 실존할 경우 외에는, 결코 다시 동일한 표현을 회복할 수 없다.

117:4.6 (1284.2)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_표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지존자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격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발견하듯이, 지존자는 만유의 낙원 창조주를 다시 발견했다. 우리가 자아_실현의 문제를 통달하듯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전능한 지존성을 성취하시고 있다.

117:4.7 (1284.3) 인류는 우주에서 노력하지 않고는 상승하지 못하며, 또한 지존자는 의도적이고 지성적인 행동 없이는 진화하지 않는다. 피조물은 단순히 수동적 태도만으로는 완전성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지존성의 영은 유한한 창조에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역을 베풀지 않고는 전능자의 권능을 사실화 시키지 못한다.

117:4.8 (1284.4) 현세에 사람이 지존자와 갖는 관계는, 시공우주 도덕성, 즉 의무에 대한 보편적 민감성을 기르고 그 의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잠시 느끼는 것을 초월하는 도덕성이며;그 도덕성은,

자아_의식하는 피조물이 체험하는 신격에 대한 체험적
책무를 이해하는 데 직접 달려있다. 필사적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유한한 피조물은, 지존자 속에 현존하는 에너지,
정신, 및 영의 살아있는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된다.
조율사와_필사_상승자는, 완결성취자의 불멸성과 신성한
성품을 창조하기 위해 지존자에게 의존한다. 조율사는,
지존자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 인간 의지의 동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의 영원한 본성의 원형들을
조립한다.

117:4.9 (1284.5) 인간의 인격체를 영화{靈化}시키고
영존화{永存化}시키는 일에서, 조율사 진보의 진화는
지존자의 주권을 직접 확장시킨다. 인간의 진화에서 그런
업적은, 역시 지존자가 진화로 실제화하는 업적이다.
지존자 없이는 피조물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피조물의 완성된 진화에 관계없이
지존자의 진화가 결코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이다. 자아를_의식하는 인격체들의 큰 시공우주
책임이 여기에 있다:어떤 의미에서, 지존자 신격은 필사자
의지의 선택에 의존한다. 그리고 피조물의 진화와
지존자의 진화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우주 반사성이라는

불가해한 체제를 통해서, 태고 항존자들에게 충실하고
충분하게 제시된다.

117:4.10 (1284.6) 필사적 사람에게 주어진 큰 도전은
이렇다:시공우주의 체험할 수 있는 가치 의미를, 바로 너의
진화하는 자아성 속으로 개인화 시키겠다는 결정을 네가
하겠는가? 아니면 생존을 거부함으로써, 어떤 다른 시대에
유한한 하나님의 진화에 피조물로서 공헌하기를, 다른
피조물이 *자신의*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행동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지존성의 이 비밀이 잠자고 있도록 네가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존자에게
공헌한 것이 될 것이며, 네 것이 아니다.

117:4.11 (1284.7) 이 우주 시대의 큰 싸움은, 잠재적인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사이에 있다--아직 표현되지 않은 모든 것이
실현되기를 추구한다. 필사적 사람이 낙원 모험에
착수했다면, 그는 영원이라는 냇물 안에 있는 물결처럼,
흐르는 시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필사적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거부하면, 그는 유한한 우주들에서
사건들의 흐름에 역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기계적인 창조는, 낙원 아버지의 펼쳐지는 목적에 따라서

무정하게 계속 움직이지만, 의지에 따른 창조에는, 영원성의 탐험에 인격체가 참여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선택이 있다. 필사적 사람은, 인간 실존의 최고 가치를 파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몸소 겪는 체험에서 이 가치의 진화를 아주 명확하게 방해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낙원 상승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범위까지, 바로 그 정도까지 지존자는 광우주에서 신성 표현의 성취가 연기된다.

117:4.12 (1285.1) 낙원 아버지께서 필사적 사람에게, 조율사의 현존을 보관하라고 맡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존자의 장치 미세한 단편의 운명을 통제하는 권한도 맡기셨다. 사람이 인간의 운명에 도달함에 따라서, 지존자도 그렇게 신격 수준에서 운명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117:4.13 (1285.2) 그리하여 그 결정은, 한때 우리 각자를 기다렸듯이 너희 각자를 기다리는데:유한한 정신의 결정에 그토록 의존하시는, 시간세계의 하나님을, 너는 실망시킬 것인가? 동물처럼 퇴보하는 나태함으로 인해, 너는 우주들의 지존자 인격체를 실망시킬 것인가? 각 피조물에게 그토록 의존하는, 모든 피조물의

대형{大兄}을, 너는 실망시킬 것인가? 너는 --낙원 아버지를 신성하게 발견하고, 지존 하나님을 찾아서, 지존 하나님의 진화에 신성하게 참여하는-- 우주 생애의 매혹적인 광경이 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너는 실현하지 못한 자의 영토 속으로 자신이 사라지도록 버려둘 수 있는가?

117:4.14 (1285.3) 하나님의 선물은--곧 하나님이 증여하는 실체는--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그는 창조물을 멀리하지 않지만, 낙원을 도는 창조계들 속에 긴장상태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불멸성--곧 영원한 실체--의 잠재력을 수여하신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실제로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사람의 실체는--곧 실재성은-- 점점 커진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는 비실체{非實體}에--곧 실존의 중지예-- 점점 가까워진다. 사람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자기 의지를 성별하게 되면, 즉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현재보다 더 낮게 만드신다.

5. 창조의 대령

117:5.1 (1285.4) 위대한 지존자는 광우주에서 시공우주 대령{大靈}이다. 시공우주의 질{質}과 양{量}은 지존자 안에서 자체의 신격 닮은꼴 발견하며;그의 신격 본성은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모든 피조물과_창조주의 본성을 합성한 완전히 방대한 모자이크다. 그리고 지존자는 현실화하는 신격인데,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함하는 창조 의지를 구현한다.

117:5.2 (1285.5) 유한자의 지적 자아, 잠재적으로 인격있는 자아들은, 제3 근원 및 중심으로부터 출현하며, 시_공간에서 유한한 신격의 합성을 지존자 안에서 성취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를 때, 그는 자신의 인격체를 매몰시키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며;유한한 하나님의 현실화에 참여하는 개별 인격체들은, 그렇게 활동함으로 자신의 의지 자아성을 잃는 경우가 없다. 그런 인격체들은 오히려 이 큰 신격 탐험에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커지며;인간은 신성과 그렇게 합동함으로 자신의 진화하는 자아를 지존성의 바로 그 입구까지 높이고, 강화하고, 영성화시키고, 통일시킨다.

117:5.3 (1286.1)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즉 물질 정신과 조율사의 공동 창조물은, 그런 자격으로 낙원까지 상승하며, 나중에, 완결성취 단체에 모집됐을 때, *완결성취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 기법으로, 영원한 아들의 영_인력 회로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완결성취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체험적으로 인식되기에 적절한 후보자가 된다. 그리고 완결성취 단체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미래 임무에서 이 필사자 지능이 일곱째 단계의 영 실존에 도달할 때, 그런 이중 정신은 삼자일체가 될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이 조화된 이 두 정신은, 이때 실제화된 지존하신 분의 체험적 정신과 연합한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117:5.4 (1286.2) 만유의 아버지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그렇게 드러난 바와 같이, 영원한 미래에, 지존자 하나님은, 영화{靈化}된 정신, 즉 상승한 사람의 불멸의 혼 속에서 실제화될 것이다--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영적으로 묘사될 것이다.

117:5.5 (1286.3) 사람은 지존자와 하나 되어 사람의 인격있는 정체성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체험으로 우주에 반응한 것은, 이처럼 지존자가 신성하게 겪은 체험의 일부를 이룬다. "행동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117:5.6 (1286.4) 진보하는 인격체는, 여러 우주의 상승하는 수준을 통해서 지나갈 때, 실제화된 실체의 흔적을 남긴다. 시간과 공간에서 성장하는 창조물들은, 정신이든지, 영이든지, 또는 에너지든지, 그것들의 영역을 통해서 인격체가 진보함으로써 변경된다. 사람이 행동할 때 지존자가 반응하며, 이런 진행사항이 진보라는 사실을 만들어낸다.

117:5.7 (1286.5) 에너지, 정신, 및 영의 중대한 회로들은, 상승하는 인격체의 영구 소유물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이런 보살핌은 지존성의 일부분으로 영원히 남는다. 인간 지능은, 필사자 체험에서 보조 정신_영들의 율동적인 맥박 안에 거하며, 이 보살핌 안에서 회로화함으로써 생성된 경기장에서 그 지능이 결정하는 것들을 실행한다. 필사자가 죽은 후에, 인간의 자아는 그 보조 회로에서 영구히 떨어져나간다. 이 보조체들은, 인격체들 사이에서 결코 체험을 전달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결정_행동의 비인격 반응을 칠중
하나님을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전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적어도 경배 보조체와
지혜 보조체의 경우에 참말이다.)

117:5.8 (1286.6) 영적 회로의 경우에도 그런데:사람은 여러
우주를 거쳐 상승하면서 이 회로들을 활용하지만, 결코
자신의 영원한 인격체의 한 부분으로 회로들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영적 사역을 베푸는 이
회로들은, 진리의 영이든지, 거룩한 영이든지, 또는
연방우주 영 현존들이든지, 상승하는 인격체 안에서
떠오르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하며, 이런 가치는
칠중 하나님을 거쳐서 지존자에게 충실히 전달된다.

117:5.9 (1286.7)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 같은 그런 영적 영향은
지방우주에서 베푸는 보살핌이지만, 그들의 안내는
주어진 한 지방 창조물의 지리적 한계에 완전히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자신이 기원된
지방우주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갈 때, 물질 세계와
모론시아 세계의 철학적 미로{迷路}를 통과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안내해 온, 진리의 영의 사역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상승하는 동안 위기 때마다 항상:“이것이 그 길이라”고 말하면서 낙원 순례자를 확실히 지도한다. 네가 지방우주 영역을 떠나게 될 때, 너는 떠오르는 지존하신 분의 영이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연방우주 반사성이라는 대비책을 통해서, 낙원으로 상승하는 여정에 낙원에서 증여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로하고 지시하는 영이 계속 너를 안내할 것이다.

117:5.10 (1287.1) 시공우주를 보살피는 이런 여러 겹의 회로가 어떻게 지존자 안에서 진화 체험의 의미, 가치, 및 사실을 등록할까? 우리가 정확히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낙원에서 기원된 최상급 창조주들의 인격자들을 통해서 이런 등록이 이뤄진다고 믿는데, 그 인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이 회로들을 직접 증여했다.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정신_체험 축적은, 그들이 물리적 수준의 지능을 보살피는 동안, 신성한 사역자의 지방우주 체험의 일부분이며, 축적된 것들은 이 창조적 영을 통해 지존성의 정신 속에 등록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필사자가 진리의 영 및 거룩한 영을 체험하는 것은, 지존성의 인격자 속에 비슷한 방법으로 등록되는 것 같다.

117:5.11 (1287.2) 사람과 조울사의 체험조차,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 반응을 얻어야만 되는데, 조울사들은 체험하게 될 때 지존자와 비슷하며, 지존자 안에서 그런 체험을 얻을 선재{先在}하는 가능성으로부터, 필사적 사람의 진화하는 혼이 창시되기 때문이다.

117:5.12 (1287.3) 이런 방법으로, 모든 창조의 다양한 체험은 지존성의 진화의 일부가 된다. 아버지께로 상승하는 동안, 피조물은 유한한 세계의 질{質}과 양{量}을 활용하며;그렇게 이용해서 생기는 비인격적 결과는, 살아있는 시공우주, 즉 지존자의 인격자의 일부로 영구히 남는다.

117:5.13 (1287.4) 인격체의 소유물로서 사람이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낙원으로 상승하면서 광우주의 정신 및 영회로들을 이용한 체험이 성품에 미친 결과다.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체험하며, 이 체험의 의미와 가치는, 유한 수준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영구히 자신의 성품의 한 부분이다. 시공우주에서 도덕적이고 신성하게 영적인 성품은, 진지한 경배로 빛을 받고, 지성적 사랑으로

영화롭게 되며, 형제에게 봉사함으로 완성된 개인적 결정을 피조물이 축적한 자산을 가리킨다.

117:5.14 (1287.5) 진화하는 지존자는, 유한한 피조물이 온갖 우주와 접촉한 제한된 체험보다 더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결국 보완해줄 것이다. 피조물은 낙원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지만, 진화로 얻은 그들의 정신은 유한하므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아버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체험이 지존자 안에 등록돼 있고 지존자의 일부분이므로, 모든 피조물이 유한한 실존의 최종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리고 우주 발전 전체가, 실제적인 신성 현존이신 지존자 하나님께 그들이 도달할 수 있게 만든 후에, 그렇게 접촉한 사실에 내재적인, 전체 체험과의 접촉이 생긴다. 시간의 유한성은 그 속에 영원성의 씨앗을 간직하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진화가 충만하게 진행되고 시공우주의 성장 능력이 다 소모되면, 유한자 총체는 궁극자로서의 아버지를 찾아서, 영원한 생애의 유한절대 국면들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6. 지존자를 탐구함

117:6.1 (1287.6) 우리는 우주들에서 지존자를 찾지만, 그를 발견하지는 못한다. “그는 모든 사물과 존재, 즉 활동하는 것과 정지된 것들 안에 있는 존재인 동시에 밖에 있는 존재다. 그는 신비 속에 있음으로 인해 식별될 수 없으나,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다.” 전능한 지존자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의 형태, 즉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의 원형{原型}이다.” 지존자는 너희의 우주 고향이며, 너희가 그를 발견할 때, 이는 마치 고향에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체험하는 부모이며, 인간의 체험 속에서도 그렇듯이, 신성한 부모로서 체험하면서 성장해 왔다. 그가 너희를 아는 것은, 그가 창조자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117:6.2 (1288.1)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네 정신 속에 지존자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신성한 아버지인 것처럼, 지존자는 너희의 신성한 어머니요, 그분 안에서 너희는 우주의 피조물로서 사는 동안 내내 양육 받는다. “지존자는 얼마나 보편적인지!--그는 사방에 존재하신다. 무한한 창조된 사물은 생명을 위해서 그의 현존에 의존하며, 어떤 것도 거부되지 않는다.”

117:6.3 (1288.2) 미가엘과 네바돈의 관계는, 지존자와 유한한 시공우주의 관계와 같으며; 그의 신격은,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위대한 통로이고, 사랑이신 아버지를 찾아서 유한한 피조물이 안쪽으로 거쳐 가는 광대한 통로다. 심지어 사교 조율사도 그에게 관련되며; 원래의 본성이나 신성으로 보면 아버지와 비슷하지만, 공간 우주에서 시간세계의 처리사항들을 체험할 때에는 지존자와 같게 된다.

117:6.4 (1288.3)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행위는 시공우주에서 가치가 있으며,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는 어떤 협조하는 세력이 즉각 반응하는 우주 의미가 있는데, 그 세력은 아마 지존하신 분의 늘 확장되는 행위의 작용일 것이다.

117:6.5 (1288.4) 진화하는 필사자의 모론시아 혼은, 정말로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 행위에서 생긴 자손이며, 지존하신 분, 즉 우주의 어머니의 시공우주 반응에서 생긴 자녀다. 성장하는 혼이 지방우주에서 자녀신분으로 지내는 내내,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인격체를 지배한다. 신격 부모의 영향력은, 조율사와 융합된 후에, 연방우주 생애 동안 더

한결같이 되지만, 시간세계의 피조물이 영원한 중앙우주를 통과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본성이 점점 더 명백히 드러나는데, 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완결성취 단체로 들어간 후에, 유한{有限}하게 형태화될 수 있는 한 최고점에 도달한다.

117:6.6 (1288.5) 완결성취자를 달성하는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상승하는 자아의 체험적 어머니 특성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현존 및 무한한 영의 정신 현존과 접촉하고 주입됨으로써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는, 광우주에서 완결성취자의 활동 영역에 두루, 지존자의 숨어있는 어머니 잠재성의 새로운 각성, 체험의 의미를 새로 깨달음, 그리고 전체 상승 생애의 체험적 가치의 새로운 합성이 나타난다. 지존자가 어머니로서 주는 유전성이, 아버지의 조율사 유전성과 유한한 동시성을 획득하기까지, 여섯째 단계에 있는 완결성취자의 우주 생애에서 이런 자아 실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흥미로운 광우주 활동 기간은, 상승하는, 완전하게 된 필사자의 연속되는 성숙한 생애를 의미한다.

117:6.7 (1288.6) 여섯째 단계의 실존이 완성되고, 영 신분의 일곱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체험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성숙하고, 신성을 실현하는 진보하는 시대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완결성취자의 본성에서, 이것은 아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정신의 갈등을 마친 것, 즉 상승하는 사람의_본성을 유한한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신성한 조율사_본성과 협조하는 일을 마친 것과 대등할 것이다. 그런 장엄한 우주 자아는, 어머니 지존자가 우주에서 키운 영원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낙원 아버지의 영원한 완결성취자 아들이 되는데, 그 자녀는 창조됐거나 창조되고 있거나 진화하고 있는, 사물 및 존재들에 대한 유한한 경영에 적합한 어떤 활동 또는 이행업무든지, 그 속에 있는 우주들과 인격체들의 아버지 및 어머니, 두 분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우주 자아다.

117:6.8 (1289.1) 혼이_진화하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즉 지존하신 분이 낳은 진화의 아들이다. 그러나 필사적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유산{遺産}을 혼으로_의식하게 될 때까지, 신격과 친족관계라는 이 확신을 신앙으로 얻어야만 한다. 인간의 생애 체험은 시공우주 고치인데, 그 속에서 지존하신 분의

우주 재능과 만유의 아버지의 우주 현존은, (어느 것도
인격체가 아닌데) 시간세계의 모론시아 혼을, 그리고 우주
운명 및 영원한 봉사에 속하는 인간적이고_신성한
완결성취자 성품을 진화시키고 있다.

117:6.9 (1289.2) 하나님이 인간 실존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자주 망각한다. 다른 체험들은 그
본성과 내용물 안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피조물의 납득 수용력 한계 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바로 이 체험은 그 자체로 수용력을 확장시킨다.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것인데, 줘야 할 새롭고
더 큰 사랑을 놀랍게 발견하는 일이 수반된다.

117:6.10 (1289.3) 모든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은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사람 자신이 이
사랑을 동료에게 줄 때와 비슷하다. 사랑은 역동적이다.
사랑은 결코 붙잡아둘 수 없으며; 살아있고, 자유롭고,
두근거리게 하고, 항상 움직인다.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서 자기 마음 속에 가둬 둘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필사적 사람이 이 사랑을 다시 동료에게 베푸는 동안, 그 사람의 인격체를 통해 전함으로써만 그에게 실현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랑의 회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들을 통해서 형제에게 전해지며, 그리하여 지존자에게 도달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주하는 조율사의 사역으로 인해 필사자 인격체 속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아들은 이 사랑을 우주의 형제에게 나타내며, 형제로서의 이 애정이 지존자의 사랑의 핵심이다.

117:6.11 (1289.4)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현재의 창조 시대에 피조물이 지존성에 접근하는 길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

117:6.12 (1289.5) 1. 낙원 시민은 영원한 섬에서 하보나를 거쳐서 하강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낙원과 하보나 실체의 차이를 목격함으로써, 그리고 으뜸 영들로부터 창조주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최상급 창조주 인격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탐구해 발견함으로써, 지존성을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117:6.13 (1289.6) 2. 최상급 창조주들의 진화 우주들에서 올라오는 시_공간 상승자들은, 낙원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더욱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 하보나를 거치면서 지존자에게 가까이 접근한다.

117:6.14 (1289.7) 3. 하보나 원주민은, 낙원에서 내려오는 순례자들,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에서 상승하는 순례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지존자를 납득하게 된다. 하보나 원주민은 선천적으로, 영원한 섬의 시민과 진화 우주들의 시민의,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17:6.15 (1290.1) 진화하는 피조물에게는,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는 일곱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고, 낙원으로 상승하는 이 각각의 길은,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신성을 통해서 지나가며;그런 각 접근법은, 으뜸 영의 본성을 반영하는 연방우주에서 피조물이 봉사한 결과로, 체험 감수성이 확장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일곱 가지 체험의 전체 총합은, 지존자 하나님의 실체성과 실제성을 피조물이 의식하는, 현재_알려진 한계다.

117:6.16 (1290.2) 유한한 하나님을 사람이 발견치 못하도록 막는 것은, 사람 자신의 한계뿐 아니라;우주의 불완전성도 그렇게 만들며;심지어 --과거, 현재, 및 미래의-- 모든 피조물의 미완성조차 지존자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수준에 도달한 어떤 개인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아주 먼 훗날, *모든* 피조물이 완전성을 보편적으로 달성함으로써 동시에 그를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한* 피조물로서는 누구도 지존자 하나님을 결코 개인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117:6.17 (1290.3) 현재 우주 시대에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는 그를 발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과 그 후의 우주 생애는, 너희의 의식 속에서, 모든 체험의 하나님이 우주에 현존하시고 시공우주에서 활동하심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영의 열매는, 인간의 체험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존자의 본질이다.

117:6.18 (1290.4) 사람이 언젠가 지존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사람이 낙원 신격의 영과 융합한 결과로 생긴다. 유란시아인에게 이 영은 만유의 아버지의 조율사 현존이며; 신비 관찰자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를 닮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신성한 선물이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을 유한한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불가능한 과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심한다. 조율사들이 장차 일곱째 단계에 오를 완결성취자들에게 드러낼 것은, 지존자 하나님의 신성과 본성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한다. 그리고 이 계시와 유한한 피조물의 관계는, 무한자의 계시와 절대 존재의 관계와 같을 것이다.

117:6.19 (1290.5) 지존자는 무한하지 않지만, 유한 피조물이 일찍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무한성 전체를 포함할 것이다. 지존자보다 더 이해한다는 것은 유한 보다 크다는 것이다!

117:6.20 (1290.6) 체험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자신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의존한다. 오직 실존적 실체만이 스스로_충분하고 스스로_존재한다. 하보나와 일곱 연방우주는 최대의 유한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필요하며;마찬가지로, 유한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언젠가 외부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 의존할 것이다.

117:6.21 (1290.7) 인간 상승자는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총 우주에서 체험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재하신다. 그러나 이 지존자를 발견하는 데 동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 만큼, 모든 상승자가 우주에서 최대한 성숙해지기 전에는, 홀로 상승하는 어떤 존재도 결코 지존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117:6.22 (1290.8) 아버지는 인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상승하는 아들 하나하나를 시공우주의 개인으로 대하신다. 마찬가지로, 지존자도 인격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며;체험하는 자녀를 하나의 시공우주 총체로 대하신다.

117:6.23 (1290.9) 사람은,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지존자를 탐구해야만 할 것이며;모든 피조물이 지존자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게 되면,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의 우주 실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하게 됨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117:6.24 (1291.1) 모든 인격체가 완전하게 된 자아_실현에 도달하고, 또한 우주 전반에 걸친 완전하게 된 균형을 달성한 것은, 지존자에게 도달한 것과 같으며, 모든 유한한 실체가 미완성의 실존 한계로부터 해방됨을 증거 한다. 모든 유한한 잠재력이 그렇게 소모됨으로써 지존자의 완성된 달성이 초래되고, 이것은 바로 지존하신 분이 진화로 현실화를 완성한 것이라고 달리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117:6.25 (1291.2) 사람은, 지진이 바위를 갈라놓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극적으로 지존자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이 바닥에 있는 흙을 깎아내는 것처럼 서서히 끈기 있게 그를 발견한다.

117:6.26 (1291.3) 네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 너는 우주들에서 너의 영적 상승을 일으킨 위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네가 지존자를 발견할 때, 너는 낙원으로 진보하는 생애의 위대한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117:6.27 (1291.4)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필사자도 시공우주를 통과하는 여행에 고독감을 결코 느낄 수 없는데,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가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한편 그가 거쳐 가는 바로 그 길이 지존자의 현존 앞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7. 지존자의 미래

117:7.1 (1291.5) 모든 유한한 잠재성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모든 진화적 체험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지존자가 우주들에서 전능한 신격 현존으로서 최종적으로 출현할 것을 암시한다. 이런 발전 단계에서, 지존자는, 영원한 아들이 그런 것처럼 별개로 인격화되고, 낙원 섬이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동력화되고, 공동 행위자가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통합될 것이며, 현재 우주 시대가 절정에 달할 때, 이 모든 것은 지존성의 유한한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117:7.2 (1291.6) 이것이 지존자의 미래에 대한 전적으로 타당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개념에 내재된 어떤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17:7.3 (1291.7) 1. 지존자의 무조건 감독관들은, 지존자가 진화를 완성하기 전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도저히 신격화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바로 이 감독관들은, 빛과 생명에 정착된 우주들에 대해서, 지금도 지존성의 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117:7.4 (1291.8) 2. 지존자의 우주 지위가 완성된 실제성에 도달할 때까지, 지존자는 궁극 삼위일체 안에서 도저히 활동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궁극 삼위일체는 지금도 제한적인 실체이며, 너희는 궁극자의 제한된 대리인들이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

117:7.5 (1291.9) 3. 지존자는 우주의 피조물에게 완벽하게 실제적이지는 않지만, 낙원에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지방우주의 창조주 아들 및 창조적 영에 이르기까지, 그가 칠중 신격에게 매우 실질적이라고 추론함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117:7.6 (1291.10) 유한자의 위쪽 한계에서 시간은 초월 시간과 결합하데, 거기서 순서가 얼마나 흐릿해지고 혼합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존자는 자신의 우주 현존을 이런 초월시간 수준까지 예측하고, 그리고 나서 예상된

미완성자의 내재성{內在性}으로서, 이런 미래 예측을 창조된 수준까지 되돌려 반영함으로써, 어느 한도 내에서 미래의 진화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사고 조율사가 내주하는 인간이 겪는 체험의 경우와 같이, 그런 현상은, 유한한 것과 유한을 초월하는 것이 접촉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관찰될지도 모르며, 사고 조율사는, 모든 영원성 전반에 걸쳐 사람이 미래에 우주에서 달성할 것을 틀림없이 예측한다.

117:7.7 (1292.1) 필사 상승자들이 낙원의 완결성취자 단체에 받아들여질 때, 그들은 낙원 삼위일체에게 맹세하고, 이런 충성 맹세를 하면서 이것으로 지존자 하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인데, 지존자 하나님은 모든 유한한 피조 인격체가 납득하는 바대로 삼위일체 *이시다*. 나중에,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완결성취자 무리가 활동함에 따라서, 지방우주가 빛과 생명에 정착되는 그 중대한 시절까지, 그들은 오로지 낙원에서 하달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완전하게 된 창조계의 새로운 정부 조직이, 지존자의 떠오르는 주권을 비로소 반영함에 따라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완결성취자 무리가 이때 그런 새 정부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것을 목격한다. 지존자

하나님은 진화하는 완결성취 단체의 통합자로서 진화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 삼위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존자가 이런 일곱 단체의 영원한 운명을 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7:7.8 (1292.2) 지존하신 분은 유한을 초월하는 세 가지 가능성으로 우주에서 형태화 한다:

117:7.9 (1292.3) 1.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유한절대 협동.

117:7.10 (1292.4) 2. 둘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상호절대 관계.

117:7.11 (1292.5) 3. 삼위일체들의 삼위일체 안에서 공동으로 무한히 참여함,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족할만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117:7.12 (1292.6) 이것은 지존자의 미래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빛과 생명의 지위에 도달한 뒤에, 지존자와 현재 광우주의 관계가 무엇일지에 관한 많은 추측 역시 있다.

117:7.13 (1292.7) 연방우주들의 현재 목표는, 하보나가 그렇듯이, 그것들의 현재 상태 그대로 그것들의 잠재성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완전함은 물리적 및 영적

달성과 관계되는데, 심지어 경영의 발전, 정부의 발전, 그리고 형제관계의 발전에도 관계된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부조화, 부적응, 및 부적합 가능성이 결국 연방우주들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회로들은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고, 정신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며, 한편 영{靈}은 인격체 현존 안에서 정신을 지배하기를 성취했을 것이다.

117:7.14 (1292.8) 이런 먼 훗날에, 지존자의 영 인격자와 전능자의 달성된 권능은 대등한 발달을 이룩할 것으로 추측되며, 지존자 정신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통합될 때, 그 둘은 지존하신 분으로서 사실화 되리라고 추측되는데, 지존하신 분은 우주들에서 완성된 실제성이다--모든 피조 지성체가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창조된 에너지가 반응하고, 모든 영적 실재 안에서 조화되고, 모든 우주 인격체가 체험하게 될 실제성이다.

117:7.15 (1292.9) 이 개념은 광우주에서 지존자가 실제 주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삼위일체 경영인들이 그의 대리자로서 계속하는 것이 아주 있음직하지만, 일곱 연방우주 사이의 현재 경계선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광우주 전체는 완전하게 된 하나의 총체로서 작용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117:7.16 (1292.10) 그렇게 되면, 아마 지존자는 오르본톤의 본부 우버사에 몸소 거하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시간 창조계의 경영을 지시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추측일 뿐이다. 그래도 분명히, 지존하신 분의 인격체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분명히 접촉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어디에나 계신 그의 신격 현존은 아마 온갖 우주에 계속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연방우주 시민이 지존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하보나 원주민과 낙원 삼위일체 사이의 현재 관계와 비슷한 어떤 것일지도 모른다.

117:7.17 (1293.1) 그런 미래 시대에 완전하게 된 광우주는 현재의 상태와 매우 다를 것이다. 공간에서 성단{星團}들을 조직하면서 벌어지는 가슴 떨리는 모험, 불확실한 시간 세계에 생명을 심는 일,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조화를, 잠재성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의미로부터 진리를, 그리고 가치로부터 선을 진화시키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시한이 있는 우주들은 유한한 운명을 성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떤 공간에서는 휴식이 있을 것인데, 진화로 완전성을 얻으려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벌인 투쟁으로부터 쉬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쉬지는 않는다! 그들의 투쟁하면서 진화하는 선조{先祖}가, 한때 지존자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에 도전 받았던 것과 똑같이, 분명히, 확실히, 그리고 가차 없이, 궁극자 하나님이라는 떠오르는 신격의 수수께끼는, 정착된 우주들에서 완전하게 된 이 시민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런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서, 피조물의 궁극적 체험에서 드러나는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려는, 매혹적인 유한절대 탐구의 초월적 장관{壯觀}을 보여주려고, 시공우주 운명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활짝 열릴 것이다.

117:7.18 (1293.2)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118편 지존과 궁극--시간과 공간

118:0.1 (1294.1) 신격의 여러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18:0.2 (1294.2) 1. 아버지는 스스로_존재하는 자아다.

118:0.3 (1294.3) 2. 아들은 공존하는 자이다.

118:0.4 (1294.4) 3. 영은 결합하여_존재하는 자이다.

118:0.5 (1294.5) 4. 지존자는 진화하고_체험하는 자이다.

118:0.6 (1294.6) 5. 칠중존재는 스스로를_분배하는 신성{神性}이다.

118:0.7 (1294.7) 6. 궁극자는 초월적이고_체험하는 자이다.

118:0.8 (1294.8) 7. 절대자는 실존적이고_체험하는 자이다.

118:0.9 (1294.9) 칠중 하나님은 지존자가 진화로 달성하는 데 필수이며, 한편 지존자는 또한 궁극자가 궁극에 출현하는 데 필수다. 그리고 지존자와 궁극자, 두 분의 현존은 준절대적이고 파생된 신격의 기본 관계를 이루는데, 그들은 운명을 달성하는 데 상호 의존하면서 보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총괄우주에서 모든 창조적 성장의 시작과 완성을 체험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이룬다.

118:0.10 (1294.10) 창조적 성장에는 끝이 없지만 언제나 만족스러우며, 범위에서는 끝이 없지만 일시적 목표를

달성하는, 인격체를_만족시키는 그 순간들이 때때로 사이에 끼어드는데, 그런 순간은 시공우주에서 성장하고, 우주를 탐구하고, 신격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도록 동원하는 전주곡으로서 아주 효과 있게 쓰인다.

118:0.11 (1294.11) 수학의 영역은 질적 한계에 부딪치지만, 수학은 유한한 정신에게 무한을 숙고하도록 개념의 기초를 제공한다. 심지어 유한한 정신이 납득하기에도, 숫자에는 양적 제한이 없다.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해도, 너희는 항상 거기에 하나를 더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그 숫자가 무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무리 여러 번 이런 합산을 반복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8:0.12 (1294.12) 동시에, 무한한 연속물은 어떤 주어진 지점에서도 합산 할 수 있으며, 이 총합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계{小計}는) 정해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태에 목표를 달성했다는 충만한 달콤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은 조만간에 새롭고 더 큰 목표를 열망하고 바라며, 성장하는 그런 모험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고 영원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언제까지나
앞으로 닥칠 것이다.

118:0.13 (1294.13) 이어지는 각 우주 시대는 그 다음 시공우주 성장
시대로 가는 대기실이며, 각 우주 시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단계에 당면한 운명을 마련해준다. 하보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완성됨이_제한된
창조물이며;하보나의 완전함은, 진화하는 연방우주들
속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시공우주의 운명뿐 아니라
진화_이전{以前} 실존의 제한 한계로부터 해방됨을
획득한다.

1. 시간과 영원

118:1.1 (1295.1) 신격과 시공우주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모두
납득하는 것이, 사람의 시공우주 적응에 도움 된다. 절대
신격의 본성은 영원하지만, 하나님들은 영원 속에 있는
체험으로서 시간과 관계있다. 진화하는 우주에서 영원은
현세가 계속되는 것이다--영원한 현재다.

118:1.2 (1295.2) 필사 피조물의 인격체는,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선택하는 기법을 통해서, 내주하는 영과
자아를_동일시함으로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의지를

성별{聖別}하는 것은, 목적이 영원성의_실체임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순간들이 연속돼도 피조물의 목적은 고정됐음을 의미하며;달리 말하면, 순간들의 연속이 피조물의 목적에 어떤 변화도 입증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수백만 또는 수억의 순간이 지나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피조물의 목적과 관련해서 숫자는 의미를 잃어버린다. 따라서 피조물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합쳐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낙원 아버지가 영원히 봉사할 때, 인간 본성과 하나님의 영이 결국 끝없이 하나가 된 영원한 실체가 된다.

118:1.3 (1295.3) 주어진 어떤 지능 속에서든지, 시간을 의식하는 단위와 성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시간 단위는 하루나 일 년 또는 더 긴 기간이 될 수 있지만, 의식 자체가 인생의 환경을 평가하는 척도이고, 생각하는 지능은 그 척도로 현세에 실존하는 사실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118:1.4 (1295.4) 체험, 지혜, 및 판단은, 필사자의 체험에서 시간 단위가 길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인간의 정신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계산할 때, 정신은, 과거의 체험이 현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려는 목적으로 과거의

체험을 평가한다. 정신이 미래 속으로 손을 뻗을 때, 있음직한 행동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체험과 지혜를 모두 평가했으므로, 인간의 의지는 현재 속에서 판단과_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과거와 미래로부터 탄생된 행동 계획이 존재하게 된다.

118:1.5 (1295.5) 발달하는 자아가 성숙하는 동안, 과거와 미래가 함께 현재의 참된 의미를 밝게 비춰준다. 자아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것은 체험을 위해 점점 더 먼 과거로 손을 뻗으며, 반면에 그 지혜 예측은 미지의 미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려고 애쓴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아가 과거와 미래로 가급적 더 멀리 손을 뻗을수록, 판단은 순간적인 현재에 점점 덜 의존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결정과_행동은 움직이는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한편 과거_미래의 의미심장한 양상들을 띠기 시작한다.

118:1.6 (1295.6) 인내는, 시간 단위가 짧은 그런 필사자들이 발휘하는 것이며;참된 성숙은, 진정한 이해로 말미암는 관용{寬容}으로 인내를 초월한다.

118:1.7 (1295.7)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현재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체험에 기초를 둔 성숙한 계획은, 미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에 생겨나고 있다.

118:1.8 (1295.8)

미숙했을 때의 시간 단위는, 현재와 비_현재의-- 곧 과거와_미래의-- 참된 관계를 현재에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순간 속으로 의미와_가치를 집중시킨다. 성숙했을 때의 시간 단위는 과거_현재_미래의 대등한 관계를 드러내도록 균형 잡혀서, 자아는 비로소 사건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펼쳐지는 광경에서 시간이라는 풍경을 넓어진 시야로 비로소 바라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연속체{連續體}가 아니겠느냐고 짐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속체의 조각들을 시간이라고 부른다.

118:1.9 (1296.1)

무한자와 절대자의 수준에서는, 현재의 순간은 미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도 포함한다. 자존자는 또한 과거의 자존자 및 미래의 자존자를

의미한다. 이런 표현은 영원성과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 개념이다.

118:1.10 (1296.2) 절대적이고 영원한 수준에서는, 잠재하는 실체는 실재하는 실체와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오직 유한 수준에서 시간 제약을 받는 피조물에게만, 그렇게 방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절대적인 하나님께는, 영원한 결정을 내린 상승하는 필사자는 이미 낙원 완결성취자다. 그러나 만유의 아버지는, 내주하는 사교 조율사를 통해서, 이처럼 자각하는 데 제한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실존으로 올라가는 피조물이 문제와 씨름하는 현세의 투쟁마다 다 아실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다.

2. 무소부재와 편재

118:2.1 (1296.3) 신격의 편재{遍在}를 신{神}의 무소부재{無所不在}의 궁극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만유의 아버지가 시_공간에 편재하심 및 시간과_공간을_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심을, 지존자, 궁극자, 및 절대자가, 시간이 없고 공간도 없는 만유의 아버지의 보편적 및 절대적 현존으로서 보정하고,

조화시키고, 통합하는 것이 만유의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신격의 편재하심은 매우 종종 공간과 관련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118:2.2 (1296.4) 필사자 및 모론시아 상승자로서, 너희는 칠중 하나님이 베푸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식별한다. 너희는 하보나를 통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발견한다. 너희는 낙원에서 그를 한 인격체로 발견하며, 그다음에 완결성취자로서 너희는 곧 그가 궁극자이심을 알고자 애쓸 것이다. 완결성취자이므로, 궁극자에 도달한 후에 추구할 과정이 오직 하나 있는 듯이 보이며, 이는 절대자를 탐구하기 시작함일 것이다. 어떤 완결성취자든지, 자신이 최고의 궁극적 상승을 종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격 절대자에 도달할 것을 반신반의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완결성취자는, 비록 자신이 절대자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발견해야 함에도, 바로 그 하나님, 즉 아주 거의 무한하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낙원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뿐임을 의심 없이 믿게 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인격체들의 최종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주들의 시초 조상을 드러낼 것이다.

118:2.3 (1296.5) 신격이 시_공간에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증거가 지존자 하나님이 아닐지 모르지만, 지존자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신{神}의 편재하심에 대한 표현이다. 창조주의 영적 현존과, 물질로 나타난 창조 사이에는, 편재에 걸맞은--진화하는 신격이 우주에서 출현하는-- 방대한 영역이 있다.

118:2.4 (1296.6) 지존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을 직접 통제하기를 영원히 계속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신격의 경영이 궁극자의 전면통제 아래서 작용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런 경우에 궁극자 하나님은, 전능한 지존자의 경영 기능에 관계되는 초월시간 및 초월된 공간에 전면통제를 행사하는 초월 전능자(절대권자)로서, 시간세계의 우주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118:2.5 (1297.1) 필사자의 정신도 우리처럼 질문할지 모르겠다:광우주에서 경영 권세를 갖게 되는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가 궁극자 하나님의 증가된 형태화에 수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외부 공간의 가상되는

우주들에서 궁극자 하나님이 출현할 때에도, 비슷하게
뒤이어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가 늘어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3. 시_공간 관계

118:3.1 (1297.2) 신격은 오직 편재하심으로써, 시_공간에
형태화된 것들을, 유한자가 마음에 품는 것들에 일치시킬
수 있는데, 시간은 순간들의 연속인 반면, 공간은 관련된
지점들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결국 너희는 분석함으로
시간을 감지하고, 종합함으로 공간을 감지한다. 너희는
인격체의 종합하는 통찰력으로 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조화시키고 관련시킨다. 동물 세계 전체에서 오직
인간만이, 이 시_공간 감지력을 소유한다. 동물에게는
동작이 의미를 갖지만, 동작은 오직 인격체 신분의
피조물에게만 가치를 드러낸다.

118:3.2 (1297.3) 사물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진리는 시간을
초월한다. 너희가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진리 *이/면*
진리일수록, 과거를 더 많이 알 수 있고 미래를 더 많이
납득할 수 있다.

118:3.3 (1297.4) 진리는 흔들릴 수 없지만--곧 일시적인 모든 변천과는 영원히 무관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죽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는데, 항상 활기 넘치고 융통성 있다--눈부시게 생생하다. 그러나 진리가 사실과 연결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 양쪽이 그 의미를 결정하고 그 가치를 서로 관련시킨다. 사실과 결합된 그런 진리의 실체는 개념이 되며, 따라서 상대적 시공우주 실체의 영역으로 지위가 떨어진다.

118:3.4 (1297.5) 창조주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피조물의 사실 체험과 연결됨으로써, 결국 지존자의 새롭게 떠오르는 가치가 된다. 지존자 개념은, 신성하고 변함없는 상부{上部} 세계와, 유한하고 영원히 변화하는 하부{下部} 세계를 조화시키는 데 필수다.

118:3.5 (1297.6) 공간은 비절대적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절대성에 가깝다. 공간은 절대로 궁극적인 듯하다. 우리가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이해하기에 실제로 어려운 점은, 물체들이 공간 속에 있지만 공간은 또한 바로 그 물체들 속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간에 관하여

절대적인 것이 많지만, 그것은 그 공간이 절대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18:3.6 (1297.7) 상대적으로 말해서 공간이 결국 모든 물질 몸체의 소유물이라고 너희가 추측하고자 한다면, 공간 관계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 물체가 공간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것은 또한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 전부, 심지어 그런 움직이는 물체 속에 있고 그 물체에 속한 공간도 동반한다.

118:3.7 (1297.8) 실체의 모든 원형{原型}은 물질 수준에서 공간을 차지하지만, 영{靈} 원형은 공간과 갖는 관계에서만 존재할 뿐이며;영 원형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밀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포함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간에 대한 주된 난제{難題}는 관념의 원형과 관계있다. 우리는 정신 영역에 들어갈 때, 여러 수수께끼에 부딪히게 된다. 관념의 원형이--곧 실체가-- 공간을 차지할까?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관념의 원형이 공간을 담지 않는다는 점은 확신한다. 그러나 비물질인 것이 반드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확실치 않을 것이다.

4. 1차 및 2차 원인

118:4.1 (1298.1) 필사적 사람이 겪는 신학적 문제와 형이상학의 진퇴양난 가운데 많은 것은, 사람이 신격의 인격체를 잘못된_위치에 놓고, 그 결과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속성들을 하위 신성 및 진화하는 신격에 줄기차게 할당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참된 최초 원인이 정말로 있는 한편, 대등하고 종속적인, 부수적인 동시에 2차적인 일련의 원인들 또한 있다는 사실이다.

118:4.2 (1298.2) 1차 원인과 2차 원인의 중대한 차이점은, 1차 원인들이 원초적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선행{先行}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요소든지 전혀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차 원인은 앞에 있었던 다른 원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과를 반드시 변함없이 드러낸다.

118:4.3 (1298.3) 무조건 절대자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순전히 정적{靜的}인 잠재력은, 낙원 삼위일체의 행위로 생기는 신격 절대자의 인과관계에 반응한다. 우주 절대자의 현존 앞에서, 이런 원인의_씨를_받은 정적 잠재성은 곧 활기를 띠고, 어떤 초월 대행자들의 영향에 민감해지는데, 이

대행자들의 행동은 활성화된 이 잠재성을, 발전할 수 있는 참된 우주 가능성, 즉 실현된 성장 수용력을 가진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런 성숙된 잠재성을 기반으로, 광우주의 창조자들과 통제관들은, 시공우주의 진화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 드라마를 상연한다.

118:4.4 (1298.4) 존재하는 것들을 무시하면, 원인의 기본 구성은 삼중적이다. 원인이 현재 우주 시대에서 작용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일곱 연방우주의 유한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18:4.5 (1298.5) 1. *정적 잠재성의 활성화*. 신격 절대자의 행위로 우주 절대자 안에서 운명이 확립되는 것인데, 신격 절대자는 무조건 절대자 안에서, 그리고 그에게 작용하며, 낙원 삼위일체가 의도하는 명령의 결과로 작용한다.

118:4.6 (1298.6) 2. *우주 수용력이 결말에 이름*. 이것은, 획일적인 잠재성을, 분리되고 규정된 여러 계획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궁극 신격 그리고 초월 수준의 다양한 대행자들의 행위다. 그런 행위는 총괄우주 전체의 미래 필요사항을 완전히 예상해서 이뤄진다. 잠재성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총괄우주 설계자들은, 우주들에

대한 신격의 개념을 틀림없이 구현{具現}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그들의 계획의 범위가 궁극적으로 공간에서 개념상 총괄우주 바깥둘레로 크기가 제한될 듯하지만, *계획*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에 달리 제약받지 않는다.

118:4.7 (1298.7) 3. *우주에 실재하는 것들의 창조와 진화.*

수용력을_산출하는 궁극 신격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한 시공우주 위에, 성숙한 잠재성을 체험적 실재로 시간 속에서 전환시키려고 최상급 창조주들이 작용한다. 총괄우주 안에서, 잠재하는 실체의 현실화는 모두 궁극의 발전 수용력에 제한을 받으며, 최종 출현 단계에서 시_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낙원에서 나오는 창조주 아들들은, 실제로는, 시공우주 의미로 볼 때, *변화시킬 힘*이 있는 창조자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창조자라는 사람의 개념을, 어떤 면에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창조할 수 있고, 또한 창조한다.

5. 전능성과 공존가능성

118:5.1 (1299.1) 신격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시_공간 틀 속에서 그리고

필사자가 납득하는 지적{知的} 기준으로 볼 때, 무한한 하나님조차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거나 본질적으로 선한 악{惡}을 창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답지 않은 것을 행하실 수 없다. 철학 용어의 그런 모순은 비실재{非實在}에 해당하며, 아무 것도 그렇게 창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격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은 동시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모순되지 않음은 신성한 권능에 내재적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전능성은 어떤 본성을 갖는 물체들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 및 존재의 본성을 기원시킨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118:5.2 (1299.2) 태초에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무한자의 뜻과 명령에 반응하여 영원성의 전경{全景}이 펼쳐짐에 따라서, 피조물, 심지어 사람도 운명의 완결성 실현에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리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된다. 이것은 육신 속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사람과 하나님이 동업관계에 들어갈 때, 그런 동업관계의 미래 가능성에 어떤 제한도 부여할 수 없다. 사람이 영원히 진보하면서 만유의 아버지가 자신의 동업자임을 깨달을 때, 내주하는 아버지 현존과 융합할 때, 그는 영적인 면에서

시간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고, 만유의 아버지를 탐구하면서 영원히 진보하는 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

118:5.3 (1299.3) 필사자의 의식은, 사실로부터 의미로, 그 다음에는 가치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 창조주의 의식은, 사고와_가치로부터, 말씀과_의미를 거쳐서, 행동하는 사실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실존적 무한에 내재된 무조건적 통일이라는 막다른 골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행동하셔야만 한다. 신격은, 원형{原型} 우주, 완전한 인격체들, 모든 하위{下位}신격 창조계가 얻으려고 애쓰는 원래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항상 공급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내도록, 반드시 먼저 사람을 발견하셔야만 한다. 우주의 아들신분,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관계가 있기 전에, 만유의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만 한다.

6. 전능성과 만물창조

118:6.1 (1299.4)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시지는 않는다--이뤄지는 모든 일을 몸소 행하시지는 않는다. 전능성은 전능한 지존자와 지존하신

분의 능력_잠재성을 포함하지만, 지존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행동은 무한자 하나님의 직접 행위가 아니다.

118:6.2 (1299.5) 근원적 신격이 만물을 창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를 이뤄 협력하는 다양한 다른 계층의 창조 보좌관들은 물론이고, 거의 백만에 달하는 낙원 창조주 아들들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전체 우주에서, 원인 없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유일한 최초의 위대한 근원 및 중심에서 파생된다. 그리고 이런 원리 중에 아무 것도, 광대한 우주에 두루 산재한, 무수한 신격의 자녀들의 자유의지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118:6.3 (1299.6) 국지적 틀 안에서 보면, 의지작용이 마치 원인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독창적이고 원초적이며 절대적인 최초 원인들과 관계를 확립하는, 물려받은 요소를 반드시 나타내게 돼 있다.

118:6.4 (1299.7) 모든 의지작용은 상대적이다. 발생적인 의미에서, 아버지_자존자만이 의지작용의 완결성을 소유하시며;절대적 의미에서는, 오직 아버지, 아들, 및 영만이,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의지작용의 특권을 누리신다. 필사적 사람은, 자유의지, 즉 선택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그런 선택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한 수준에서, 그리고 선택하는 인격체의 운명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최종적이다.

118:6.5 (1300.1) 절대자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준에서든지, 의지작용은 선택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인격체 안에 설정된 제한에 부딪친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외에, 그는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우주에서 상승 여정에 참여하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신성한 뜻이 이 시점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아들이 원하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118:6.6 (1300.2) 필사자의 인생에서, 서로 다른 행위의 경로들이 계속 열리고 닫히며, 선택 가능한 시절 동안에 인간의 인격체는 이런 많은 행동 과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결정한다. 현세의 의지작용은 시간과 연결되며,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 영적 의지작용은, 시간의 연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성공했으므로, 시간의 족쇄로부터 해방을 맛보기 시작했으며, 이는 영적 의지작용이 하나님 뜻에 스스로_맞추기 때문이다.

118:6.7 (1300.3) 선택 행위인 의지작용은, 이전의 더 높은 선택에 반응하여 실제화 된 우주 틀 안에서 작용해야만 한다. 인간 의지의 전체 범위는, 한 항목 외에는 엄격히 유한하고_제한되는데: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선택할 때, 그런 선택은 유한을 초월하며;이 선택이 또한 유한절대를 초월하는지 여부는, 영원만이 밝힐 수 있다.

118:6.8 (1300.4) 신격이 전능하심을 인식하는 것은, 너희가 시공우주 시민으로서 겪는 체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 즉 낙원을 향한 긴 여행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신격이 만물을 창조한다는 오류를 수락하는 것은, 범신론이라는 터무니없는 착오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7. 전지와 예정

118:7.1 (1300.5) 광우주에서, 창조주 의지와 피조물 의지의 기능은, 으뜸 설계자들에 확정된 한계 내에서, 그리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최대 한계를 이처럼 미리 설정한 것은, 이런 테두리 안에서 피조물 의지의 주권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또한 궁극적인 선견{先見}도 --모든 유한한 선택을 충분히 승인하면서-- 유한한 의지작용을 파기하지도 않는다. 성숙하고 앞을 내다보는 인간은, 자신보다 어린 어떤 동역자의 결정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이런 선견은 바로 그 결정을 내릴 자율성과 순수성을 조금도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들은 미성숙한 의지의 행동 범위를 현명하게 제한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런 규정된 제한 내에서 참된 의지다.

118:7.2 (1300.6) 모든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선택을 최고로 서로 관련시키는 것조차, 그런 선택이 확실함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미리 설정된 시공우주의 동향을 나타내며, 모든 실체가 체험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맡기로 선택하든지 또는 안하든지 하는 그 의지적 존재들에게 선견이 있음을 암시한다.

118:7.3 (1300.7) 유한한 선택에서 생기는 오류는 시간에 묶이고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 오류는 시간 속에서만, 그리고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현존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지존자의 미완성이외에는) 자유의지로 실체와 접촉함으로써, 미숙한 피조물이 우주에서 진보하기 위해 부여받아야만 할 어떤 선택 범위가 있음을 가리킨다.

118:7.4 (1301.1) 시간_제약을 받는 공간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은, 유한자의 의지가 현세에 자유를--심지어 방종까지도--가졌음을 분명히 증거 한다. 죄는, 시공우주 시민신분이 요구하는 최고의 책무와 의무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미숙한 자가 비교적 자주적인 인격체의 의지의 자유에 현혹되는 것을 묘사한다.

118:7.5 (1301.2) 유한한 영역에서 최악은, 하나님과_일치하지_않는 모든 자아성의 덧없는 실체를 보여준다. 오로지 하나님과 한 편이 됨에 따라서, 피조물은 우주에서 참으로 실재하게 된다. 유한한 인격체는 스스로_창조되지 않았지만, 연방우주의 선택 경기장에서 운명을 스스로_결정한다.

118:7.6 (1301.3) 생명의 증여는, 물질_에너지 체계들로 하여금 스스로_보존하고, 스스로_번식하고, 스스로_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인격체 증여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스스로_결정하고, 스스로_진화하고, 신격의 융합 영{靈}과 자아가_일체감을 갖는 늘어난 특권을 부여한다.

118:7.7 (1301.4) 인격자가 없는 살아있는 존재들은, 처음에는 물리 통제관으로서, 그 다음으로는 보조 정신_영들로서, 에너지와_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정신이 있음을 암시한다. 인격체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살아있는 체계에 선택이라는 독특한 특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체를 증명하려고 의지적 선택을 행사하는 특권을 인격체가 갖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참되고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진화하는 인격체는 또한 자신을_혼란시키고, 자신을_분열시키고, 자신을_파괴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진화하는 인격체가 유한자의 의지를 정말로 자유롭게 행사하려면, 시공우주에서 자신을_파괴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118:7.8 (1301.5) 그러므로 하급 실존 수준들에서는 두루, 인격체의 선택 범위가 좁아지면서 안정성이 늘어난다. 여러 우주를 올라감에 따라서, 선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상승하는 인격체가 신성{神性} 신분을 성취하고,

우주의 목적에 최고로 헌신하며, 시공우주_지혜를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피조물이 일치되는 완결성을 이룩하게 되면, 선택은 결국 신{神}같은 자유에 접근하게 된다.

8. 통제와 전면통제

118:8.1 (1301.6) 시_공간 창조계에서, 자유 의지는 속박, 즉 제한조건들로 둘러싸여 있다. 물질_생명의 진화는, 처음에는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으로 활성화되며, (인격체가 증여된 후에는) 영의 지휘를 받을지도 모른다. 생명 운반자들이 최초로 물리적_생명을 심은 것들의 잠재성이, 인간거주 세계에서 유기체의 진화를 물리적으로 제한한다.

118:8.2 (1301.7) 필사적 사람은, 일종의 기계, 즉 살아있는 장치이며;사람의 근원은, 정말로 에너지라는 물리적 세계에 있다. 인간의 여러 반응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이며;생명의 대부분은 기계작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종의 기계장치인 사람은 기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며;정신이 부여되고 영이 내주하며;물질적 인생을 사는 동안 화학적 및 전기적 실존 양식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에도,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의 영적 충동을 집행하는데 인간의 정신을 거룩하게 바치는 과정으로 인해, 어떻게 이런 물리적_생명 기계를, 체험이 지휘하는 지혜에 종속시킬 수 있는지, 사람은 점점 더 배울 수 있다.

118:8.3 (1301.8) 의지 기능을, 영은 해방시키고 장치는 제한시킨다. 자동작용으로 통제되지 않고 영과 동화되지 않은 불완전 선택은 위험하고 불안정하다. 자동작용의 지배는 진보를 희생시킴으로써 안정성을 보장하며;영과 협력하는 것은, 선택권을 물리적 수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동시에, 증대된 우주 통찰력과 증강된 시공우주 파악으로 생긴 신성한 안정성을 보장한다.

118:8.4 (1302.1) 피조물을 따라다니는 큰 위험은, 생명 장치의 속박에서 해방을 성취할 때, 영과 조화되는 실무 접촉을 이룸으로써 이런 안정성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이를 실패하리라는 것이다. 기계적인 안정성에서 비교적 해방될 때, 피조물의 선택은, 영과 더욱 하나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더욱 자아_해방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118:8.5 (1302.2) 생물학적 진화의 전체 원리는, 인간거주 세계에서 원시인이 자아를_억제하는, 어떤 큰 재능이든지 갖고

출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진화를 계획했던 바로 그 창조적 설계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 속박, 즉 배고픔과 두려움을 똑같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교양 없는 그런 미개한 피조물이 영적 수준 이하로 선택하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시킨다. 사람의 정신이 점점 더 어려운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바로 이 창조적 설계는 또한, 인종적 유산{遺産}, 즉 애써서 획득한 체험적 지혜가 느리게 축적되도록 마련했다--다른 말로 하면, 감소되는 외부 속박{束縛}과 증대되는 내부 속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118:8.6 (1302.3) 진화의 더뎠음, 즉 인간의 문화가 더디게 진보하는 것은, 그 제동 장치가--곧 물질적 타성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데, 이것은 진보의 위험한 속도를 늦추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시간 자체는, 인간 행위를 가장 가깝게 에워싸는 장벽을 조급하게 벗어난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완화시키고 분산시킨다. 문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할 때, 즉 물질적 성취가 경배와_지혜의 진화를 앞지르게 될 때, 문명은 그 속에 퇴보의 씨앗을 품게 되기 때문이며; 체험에 의거한 지혜가 신속하게 증대됨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그런 인간 사회는

높지만 시기상조로 도달한 수준으로부터 움츠러들 것이고, 지혜가 단절되는 시대인 “암흑기”가 형성돼서, 자아_해방과 자아_통제 사이의 불균형이라는 냉혹한 상태로 복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118:8.7 (1302.4) 캘리가스차의 죄악은, 점진적 인간 해방이라는 시간 조절을 건너뛴 것이었다--억제하는 장애물, 즉 그 시기의 인간 정신이 체험적으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장애물을 정당성 없이 파괴한 것이었다.

118:8.8 (1302.5)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 정신은, 바로 그런 행위로, 뛰어넘은 자제의 장벽 대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을 자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118:8.9 (1302.6)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지역 체계에서 때 이르게 어떤 자유를 달성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시간 조절장치를 붕괴시키려 했다. 빛과 생명에 정착된 지역 체계는 어떤 관점과 통찰력을 체험으로 성취했으며, 이것은 바로 그 영역이 안정되기 전 시대에 분열시키고 파괴시킬지도 모르는 많은 기법의 작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118:8.10 (1302.7) 사람은, 두려움의 족쇄를 떨쳐버리게 됨에 따라서, 자신의 기계들로 대륙과 대양을 연결시키고, 자신의 기록으로 세대들과 시대들을 연결시킴에 따라서, 확장하는 인간 지혜의 도덕적 명령에 일치하는 새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떠맡은 금지조항으로, 각각의 과도한 금지조항을 대체시켜야만 한다. 스스로_부과한 이 제약조건은, 인간 문명의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 동시에 가장 빈약한 것이다--응보의 개념과 형제관계의 이상{理想}이다. 사람은 동료 사람들을 용기 있게 사랑할 때 자비라는 자제하는 옷을 입을 자격까지 갖추며, 한편 그는 자신이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그들을 대우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인 형제관계를 성취하기 시작한다.

118:8.11 (1303.1) 우주의 자동 반응은 안정돼 있고, 어떤 형태로 시공우주에서 계속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인격체, 즉 영 통찰력을 지닌 인격체는, 신성하게 안정돼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 우주에서 사람의 큰 모험은, 그의 필사 정신이, 기계적으로 고정된 안정성에서, 영적으로 역동적인 신성{神性}으로 넘어가는

데 있으며, 인생의 상황 하나하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인격체가 내린 결정의 힘과 끈질김으로 이 변화를 완수한다.

9. 우주 장치

118:9.1 (1303.2) 시간과 공간은 총괄우주에 겹쳐있는 하나의 장치다. 시간과 공간은,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자와 함께 시공우주에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방책이다. 유한한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으로 말미암아 절대 수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돼있다. 그러나 격리하는 이런 매체들 없이는 어떤 필사자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매체들은 유한한 행동 범위를 제한하도록 직접 작동한다. 시간과 공간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활동할 수 없으나, 모든 피조물 활동은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분명히 제한된다.

118:9.2 (1303.3) 상류 지성인들이 제작한 기계장치들은 그 창조 근원을 해방시키도록 작동하지만, 모든 종속 지성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어김없이 제한시킨다. 우주의 피조물에게 이 제한은 우주의 장치로서 명백해진다. 사람은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의

선택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그의 의지는 이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18:9.3 (1303.4) 필사자 인격체의 생명 장치, 즉 인간의 육체는 필사를 초월하는 창조 설계의 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인체를 결코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 오직 상승하는 사람만이, 융합된 조율사와 연합해서 인격체 표현 작용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에만, 인체에 대해서 완비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118:9.4 (1303.5) 광우주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살아있는 장치다--지존자 정신이 활성화시키고, 하나의 최상급 영과 함께 조정하며, 지존하신 분으로서 권능과 인격체를 통합하는 최고 수준에서 표현을 찾는 살아있는 장치다. 그러나 유한한 창조가 장치임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부인하고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118:9.5 (1303.6) 장치들은, 정신, 즉 시공우주 잠재력에 따라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창조적 정신의 산물이다. 장치들은, 창조주의 생각을 일정하게 정형화 한 것이며, 자신을 기원시킨 의지 개념에 늘 충실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어떤 장치든지 그 목적은 근원에 있고 기능에 있지 않다.

118:9.6 (1303.7) 이런 장치는 신격 행동을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바로 이 기교 속에서, 신격이 한 국면의 영원한 표현을 성취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 우주 장치들은 제1 근원 및 중심의 절대적 뜻에 반응해 존재하게 됐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무한자의 계획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영원히 작용할 것이며; 그것들이야말로 바로 그 계획의, 의지가 없는 원형이다.

118:9.7 (1303.8) 낙원의 장치가 영원한 아들의 인격체와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동 행위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적 존재의 이론적 장치와 신격 절대자의 잠재적 인격자에 대해서 우주 절대자가 무슨 작용을 하는가에 관한 여러 이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지존하신 신격과 궁극 신격 안에서, 우리는 어떤 비인격 국면들이 의지를 가진 그들의 상대자와 실제로 결합하고, 그래서 원형과 인격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진화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118:9.8 (1304.1) 과거의 영원에, 아버지와 아들은 무한한 영을 표현하는 통일에서 합동을 획득했다. 미래의 영원에,

시간과 공간의 지방우주들의 창조주 아들들과 창조적 영들이 외부 공간의 영역에서 창조적 합동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들의 신성한 본성의 연합된 표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통일이 무엇을 창조하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되지 않은 궁극 신격, 즉 새로운 유형의 초월 통치자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들은, 인격체의 독특한 특권과, 인격있는 창조주의 합동을 이룸, 비인격 창조적 영, 필사_피조물 체험, 및 신성한 대리인의 점진적 인격화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들은, 자신이 포함하게 될 인격있는 실체와 비인격 실체 안에서 궁극적 상태가 될 수 있는 한편, 창조주와 피조물의 체험을 결합시킬지도 모른다. 외부 공간의 창조계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가정된 이 삼자일체들에 속하는 그런 제3 인격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졌든지, 그들은, 무한한 영이 만유의 아버지 및 영원한 아들과 유지하는 바로 그 관계에 해당하는 무엇을, 창조주 아버지들 및 창조적 어머니들에 대해서 유지할 것이다.

118:9.9 (1304.2) 지존자 하나님은, 모든 우주 체험의 인격화, 모든 유한한 진화의 집중, 모든 피조물 실체의 극대화, 시공우주 지혜의 극치, 시간세계에 속한 성운들의 조화미의 구현,

시공우주 정신이 가진 의미의 진리, 그리고 최상의 영 가치를 지닌 미덕이시다. 낙원 삼위일체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한한 다양성이 지금 절대 수준에서 실존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미래에 지존자 하나님은, 이를 체험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합성할 것이다.

10. 섭리의 기능

118:10.1 (1304.3) 섭리{攝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시공우주의 횡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비교적 선택 능력을 가졌다. 또한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고 버릇없게 만드는 사람의 근시안적 애정도 신성한 사랑일 수 없다.

118:10.2 (1304.4) 아버지, 아들, 및 영은 --삼위일체로서-- 전능한 지존자가 아니지만, 전능자의 지존성은 그들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전능자의 성장은, 실제성의 절대자들에 중심을 두고, 잠재성의 절대자들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전능한 지존자의 역할은 낙원 삼위일체의 역할과
연관된다.

118:10.3 (1304.5) 지존하신 분 안에서, 이 체험 신격의 인격체는,
모든 국면의 우주 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결합하고 있는
듯이 보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그리고 이 개념을 현재
알려지고 조성된 광우주에 제한시킨다면, 우리는
진화하는 지존하신 분이 낙원 삼위일체의 부분적
인물묘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광우주에서 이 지존하신 신격이, 유한한 물질, 정신, 및
영을 인격체로 합성한 것으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18:10.4 (1304.6) 하나님들은 속성을 지녔지만 삼위일체는 기능을
지녔으며,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섭리는 하나의
기능 *인데*, 이것은 온갖 우주의 인격자_이외_다른
전면통제의 혼합물이며, 그 온갖 우주는,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합성하는 칠중 하나님의 진화 수준으로부터, 궁극
신격의 초월 영역을 거쳐서, 위로 확장한다.

118:10.5 (1304.7) 하나님은 피조물 각자를 자녀로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모든 시대와 영원성 내내 각 피조물을 감싼다. 섭리는 전체와 관련해 작용하며, 그런 기능이 전체와 관련되는 대로, 어떤 피조물 기능이든지 다룬다. 어떤 존재에 관해서든지 섭리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전체가 진화로 성장하는 데 관계하는 만큼 그 존재의 기능이 중요함을 암시하며;그런 전체는, 종족 전체, 국가 전체, 행성 전체, 또는 심지어 더 확대된 전체일 수도 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 피조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섭리에 따른 개입을 발생시키는 피조물 기능의 중요성이다.

118:10.6 (1305.1)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한 인격자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어울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가 유발돼서, 어느 때든지 시공우주 사건들의 흐름 속에 아버지다운 손을 대실지도 모른다.

118:10.7 (1305.2) 그러나 사람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자신의 상상, 즉 우연한 환경들에서 생기는 뜻밖의 일치에 따른 산물일 때가 너무 많다. 그럴지라도 우주 실존의 유한 영역에는 실제적이고 새로 발생하는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는, 공간의 에너지, 시간의 움직임, 지능이 품는 생각, 성품을 나타내는 이상{理想}, 영적 본성의 욕구, 그리고 진화하는 인격체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뜻하는 행동의 상호관계를 참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질 영역의 여러 상황은, 지존자와 궁극자의 결합된 현존 속에서, 최종적으로 유한하게 통합된다.

118:10.8 (1305.3) 광우주의 장치들이 정신의 전면통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밀한 지점까지 완전하게 됨에 따라, 피조물의 정신이 영과 완전하게 통합함으로써 신성을 달성하는 완전성을 향해 상승함에 따라, 그리고 지존자가 이런 모든 우주 현상의 실제 통합자로서 결과적으로 떠오름에 따라, 섭리는 점점 더 식별 가능하게 된다.

118:10.9 (1305.4) 진화 세계들에서 때때로 효과를 나타내는, 놀랍게 우연한 어떤 조건들은, 점차 떠오르는 지존자의 현존 때문일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필사자가 섭리라고 부르고자 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지 않으며;그런 것들에 대한 그의 판단은, 인생의 환경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잘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해 크게 제약 받는다. 필사자가 행운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불운일 수 있으며;노력 없이 얻는 한가함과 부당한 재물을 증여하는 행운의 미소는, 최대의 인간 고통이 될 수 있으며;고통 받는 어떤 필사자에게 시련을 쌓아 올리는 심술궂은 운명의 외견적 잔혹성이, 실제로는 미성숙한 인격체의 연약한 쇠를 단련시켜서 진정한 성질을 갖는 쇠가 되도록 바꾸려고 단련하는 불일 수도 있다.

118:10.10 (1305.5) 진화하는 우주들에는 섭리가 있으며, 피조물은 진화하는 우주들의 목적을 인지하는 수용력을 달성한 바로 그 정도까지 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주의 목적을 분간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은 피조물이 진화로 완성되는 것과 같으며, 달리 말하면, 미완성 우주들의 현재 상태의 한계 내에서 지존자에게 도달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118:10.11 (1305.6)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모든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과는 상관없이,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직접 작용하며;--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개인적이다. 신격의 비인격적 현존은(전능한 지존자와 낙원 삼위일체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지존성이 전면통제한다는 섭리는, 우주에서

점진적으로 유한한 운명을 달성하는 연속된 부분으로서, 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체계, 성좌, 우주, 및 연방우주들이 빛과 생명에 정착함에 따라서, 지존자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심장하게 상호 관련시키는 자로서 점점 더 떠오르며, 한편 궁극자는 만물의 초월적 통합자로서 점차적으로 떠오른다.

118:10.12 (1306.1) 진화하는 세계에서, 처음에는 물질 계통의 자연발생과 인간의 개인적 욕구가 흔히 반대되는 듯이 보인다. 진화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은, 필사적 사람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렵다--자연 법칙은 너무나 흔히 무자비하고, 냉혹하며, 인간이 납득하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행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우리는 이런 관점이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발견한다:

118:10.13 (1306.2) 1. *사람의 증대되는 상상력*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더욱 이해함; 시간세계의 물질 실상, 생각하는 의미심장한 관념,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지닌 귀중한 이상{理想}을 납득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

사람들이 오직 물리적 본성을 갖는 물체를 잣대로 해서 측정하는 한, 그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통일을 발견할 희망이 없다.

118:10.14 (1306.3) 2. *사람의 증가하는 통제* --물질 세계의 법칙에 대한 지식의 점증적 누적, 영적 실존의 목적, 그리고 이 두 실체를 철학으로 조정할 가능성. 사람, 즉 미개인은 자연력의 맹공격 앞에서 무기력했으며, 자신의 내면적 공포심의 가혹한 지배력 앞에 노예가 됐다. 약간문명화된 사람은 자연 영역의 비밀로 채워진 창고의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고, 그의 과학은 느리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미신을 파괴시키는 동시에, 철학의 의미와 참된 영적 체험의 가치를 납득하는 데 필요한, 새롭고 사실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젠가 행성의 물리적 세력을 비교적 통달하게 될 것이며;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료 사람들을 사랑할 만큼 효과적으로 부어질 것이고, 한편 인간 실존의 가치는 필사자 수용력의 한계점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118:10.15 (1306.4) 3. *사람의 우주 통합* --인간의 통찰력이 증대되고 그 위에 인간의 체험적 성취가 증가하면, 지존성--곧 낙원

삼위일체와 지존하신 분--의 통합하는 현존들과 인간이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빛과 생명에 오랫동안 안정된 세계들에서 지존자의 주권을 확립한다. 그렇게 진보된 행성들은, 정말로 조화를 이룬 시{詩} 같으며, 시공우주 진리를 추구함으로 달성한 선함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과 같다. 그런 일들이 한 행성에 발생할 수 있다면, 광우주에서 한 체계 그리고 더 큰 단위에, 그들 역시 유한 성장 잠재력이 모두 소모됐음을 나타내는 어떤 안정된 상태를 성취함에 따라서, 심지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18:10.16 (1306.5) 이런 진보된 계통에 해당하는 행성에서, 섭리는 하나의 사실이 됐고, 생명의 여러 상황은 서로 관련되겠지만, 이것은 사람이 세상의 물질적 문제를 지배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또한 우주들의 경향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며;그는 만유의 아버지께 도달하기까지 지존성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

118:10.17 (1306.6)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으며, 이 나라가 한 세계에 속한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실재화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행성에 실제화 되며;이것이
지존하신 분의 달성된 주권이다.

118:10.18 (1306.7) 시간세계에서 섭리를 깨달으려면, 사람은
완전성을 성취하는 과제를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물의 아버지를 탐구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전진을 위해, 선하든지 악하든지, 만물이 함께
일한다는 우주 실상을 깊이 생각한다면, 사람은 이 섭리의
영원한 의미를 지금이라도 미리 맛볼 수 있다.

118:10.19 (1306.8) 사람은,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위로 손을 뻗을 때, 섭리를 점점 더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완성된 영적 통찰력에 도달하는 것은,
상승하는 인격체로 하여금, 이때까지 혼돈이었던 것
속에서 조화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든다. 심지어 모론시아
모타도 이런 방향으로 진정한 진보를 나타낸다.

118:10.20 (1307.1) 섭리는 부분적으로, 미완성 우주에서 완성되지
않은 지존자의 전면통제가 나타나는 것이며, 따라서 항상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

118:10.21 (1307.2)

1. *부분적이다* --지존하신 분의 실제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118:10.22 (1307.3)

2. *예측할 수 없다* --피조물의 태도가 변동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태도는 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그리하여 지존자 안에서 외견적으로 변하는 상호적
반응을 일으킨다.

118:10.23 (1307.4)

사람들이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섭리의 개입이
있기를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인생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섭리는 변덕스럽지 않으며, 또한 공상적이거나
마술적이지도 않다. 섭리는 유한한 우주들의 강력한
주권자가 서서히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인데, 진화하는
피조물은 우주에서 진보하면서 때때로 그의 위엄 있는
현존을 발견한다. 섭리는 처음에 지존자 안에, 다음에는
궁극자 안에, 그리고 아마 절대자 안에 있는 영원성의
목표들을 향해, 공간의 성단들과 시간세계의 인격체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
속에 동일한 섭리가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수많은

우주에서 시공우주의 펼쳐지는 광경을 이처럼 일으키는,
낙원 삼위일체의 뜻이요, 행동이요, 목적이다.

118:10.24 (1307.5) [유란시아에 잠시 머무는 강력한 사자가
후원했음]

제119편 그리스도 미가엘의 증여

119:0.1 (1308.1) 네바돈의 저녁별들의 우두머리인 나는, 우주
통치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증여했다는 이야기를 계시하는 사명을 가브리엘로부터
받고 유란시아에 배정됐으며, 내 이름은 가바리아다. 본
문서를 만들면서, 나는 내 임무에 부과된 제한 조건을
엄밀히 지킬 것이다.

119:0.2 (1308.2) 증여라는 속성은 만유의 아버지의 낙원
아들들에게 선천적이다. 다양한 계층의 낙원 아들들은,
자신에게 종속된 살아있는 피조물의 인생 체험에 가까이
가려는 바람으로, 낙원 부모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낙원 삼위일체 가운데 영원한 아들이 이 관례에
앞장섰으며,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온 첫 순례자인
그랜환다가 상승하던 시절에,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

자신을 일곱 번 증여했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은, 자신의 대행자인 미가엘들 및 아보날 아들들의 인격자 속에서, 공간의 지방우주들에 자신을 계속 증여한다.

119:0.3 (1308.3) 입안된 지방우주에 영원한 아들이 창조주 아들을 증여할 때, 그 창조주 아들은 새로운 그 우주를 완성하고, 통제하고, 조직하는 총 책임을 맡는데, 이것은, 그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증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관할하는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의 보증을 받기까지, 그 새 창조물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영원한 삼위일체에게 드리는 엄중한 맹세를 포함한다. 우주를 조직하고 창조하기 위해 낙원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자청하는 미가엘 아들은 모두 이 의무를 떠맡는다.

119:0.4 (1308.4) 이렇게 피조물로서 육신화하는 목적은, 그런 창조주들이, 현명하고, 동정적이고, 올바르고, 이해심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신성한 이 아들들은 선천적으로 올바르지만, 연속되는 이 증여 체험 결과로 사려 깊게 자비로운 존재가 되며;천부적으로 자비롭지만, 이 체험들이 그들을 새롭고 추가적인 방법에서 자비롭도록 만든다. 이 증여는, 신성한 정의로,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지방우주를 통치하는 숭고한 과제를 위해 그들이 받는 교육과 훈련에서 마지막 과정이다.

119:0.5 (1308.5) 이 증여에 영향을 받고 혜택을 입는 다른 계층의 우주 지성체들뿐 아니라, 가지각색의 세계, 체계, 및 성좌들에게 수많은 부수적{附隨的} 유익이 생기더라도, 증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 아들 자신의 개인적 훈련과 우주 교육을 완성토록 계획돼 있다. 이 증여들은, 한 지방우주를 현명하고 의로우며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채로운 형태의 생명 그리고 지성적이지만 완전치 못한 무수한 피조물이 가득한 그런 창조물을, 공정하고, 자비롭고, 이해심 있게 경영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119:0.6 (1308.6) 미가엘 아들들은, 자신이 창조한 다양한 계층의 존재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연민의 정을 갖고 우주를 조성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그들은 이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베풀려고 엄청난 자비를 축적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만들어낸 이기적 수렁에서 잘못을 범하고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까지 지녔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로 이뤄진 그런 재능이, 태고

항존자들의 평가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연방우주들의 이 삼자일체 통치자들은, 창조주 아들 자신이 실존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바로 이런 피조물 자신으로서 실제로 체험함으로 피조물 관점을 정말로 획득하기 전에는, 결코 그를 우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들들은 지성적이고 이해심 많은 통치자가 되며;자신이 다스리고 우주 권세를 행사할 다양한 집단을 *알게* 된다. 그들은 생생한 체험을 겪음으로써, 체험하는 피조물 실존에서 생겨나는, 실용적 자비, 공정한 판단력, 및 인내심을 몸소 소유한다.

119:0.7 (1309.1) 네바돈 지방우주는, 자신의 증여 복무를 완료한 창조주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며;그는 진화하고 완전하게 돼가고 있는 자기 우주의 방대한 영역 전체를, 공정하고 자비로운 최고 지위에서 통치한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게 영원한 아들이 611,121번째로 증여한 분이고, 그는 4천억 년 전에 너희 지방우주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미가엘은, 유란시아가 현재의 형태를 갖추 무렵인 약 10억 년 전에, 첫 번째 증여 모험을 준비했다. 그의 여러 증여는 1억 5천만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는데, 마지막 증여는 약 1,900년 전에

유란시아에서 이뤄졌다. 나는 이제, 이 여러 증여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내 직권이 허락하는 만큼 충실히 밝히려고 한다.

1. 첫 번째 증여

^{119:1.1 (1309.2)} 거의 10억 년 전에, 네바돈 우주의 지휘자들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미가엘이) 밝혀지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신의 형님인 임마누엘이 네바돈에서의 주권을 곧 대신하게 될 것임을 미가엘이 밝혔을 때, 그것은 살빙톤에서 장엄한 행사였다. 성좌 아버지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제외한다면, 다른 여러 지침 가운데: “내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떠나있는 이 기간에, 너희를 임마누엘의 보살핌과 보존에 맡기겠다”는 말 외에는, 이 집행에 대한 다른 어떤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119:1.2 (1309.3)} 이 작별 인사를 발표한 후에, 미가엘이 살빙톤의 파송 광장에 나타났는데, 혼자 왔다는 사실 외에는, 우버사 또는 낙원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 전의 여러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출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다: “나는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다수가 나와 함께 가려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는 낙원 신격들의 뜻을 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내 사명을 마치고 이 체험을 획득하면, 너희 가운데 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바돈의 미가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존재의 눈앞에서 사라졌고, 표준시간으로 20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살빙톤 전체에서, 오직 신성한 통치자와 임마누엘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며, 합동 항존자들은 오직, 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 즉 빛나는 새벽별과 이 비밀을 공유했다.

119:1.3 (1309.4) 살빙톤의 모든 주민, 그리고 성좌 및 체계 본부 세계들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창조주 아들의 사명과 행방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희망을 안고, 우주 지성체를 위한 그들 각자의 수신소에 모였다. 미가엘이 출발한 지 3일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소식도 수신되지 않았다. 이날, 네바돈에 있는 멜기세덱 계층의 본부인 멜기세덱 구체에서 한 통신문이 살빙톤에 등록됐는데, 그것은 특별하고 전에_들어본_바_없는 이 진행사항을 간단히 기록했다:“우리 계층과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어떤 멜기세덱 아들이, 오늘 정오에 이 세계의 수신소에 나타났다. 그에게는 우버사로부터 신임장{信任狀}을 지닌 전{銓}스랍이 홀로 따라왔는데, 그 전스라빔이 우리 우두머리에게 주는 명령서를 제시했으며, 이것은 태고 항존자로부터 내려왔고, 살빙톤의 임마누엘의 동의를 받았으며, 새로운 이 멜기세덱 아들을 우리 계층으로 받아들여서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의 비상대책 봉사에 배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했으며;그대로 실행됐다.”

119:1.4 (1310.1) 그리고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관해 살빙톤 기록에 나타난 거의 전부다.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런 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 미가엘이 돌아와서, 아무 선포 없이, 우주 직무의 지휘를 재개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어떤 이상한 기록이 멜기세덱 세계에서 발견될 것인데, 그 시대의 비상대책 단체에 속한 이 독특한 멜기세덱 아들의 복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 기록은 현재 아버지 멜기세덱의 집 앞마당에 자리 잡은 어떤 소박한 모습의 성전에 보관돼 있고, 우주 비상사태에 대한 스물네 번의 사명에 그가 배정됐던 것과 관련해서, 잠시 있었던 이 멜기세덱 아들의

복무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내가 살펴본 이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119:1.5 (1310.2) “그리고 오늘 정오에, 사전 발표 없이 그리고 오직 세 명의 우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우리 계층의 이 방문자 아들은 자신이 왔던 대로 우리 세계에서 사라졌는데, 단 하나의 전스랍만 동행했으며;이 기록은 이 방문자가 현재 한 멜기세덱으로서, 즉 그가 멜기세덱으로서 일했던 어떤 멜기세덱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과, 우리 계층의 비상대책 아들로써 배정됐던 모든 업무를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함께 폐쇄돼 있다. 그는 보편적 찬성을 얻어 멜기세덱들의 대표가 됐는데, 그의 비길 데 없는 지혜와 최고의 사랑 그리고 임무에 대한 뛰어난 헌신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동경을 받는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고 이해했으며 우리와 함께 봉사했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충성되고 헌신된 동료 멜기세덱인데, 우리 세계에서 이 손님이 지금은 영원토록 멜기세덱 본성을 지닌 우주 사역자가 됐기 때문이다.”

119:1.6 (1310.3) 이것이 미가엘의 첫 번째 증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전부다. 물론 우리는, 10억 년 전에

멜기세덱들과 함께 무척 신비스럽게 봉사했던 이 색다른 멜기세덱이, 자신의 첫 번째 증여 사명을 위해 육신화 했던 바로 그 미가엘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 기록은 독특하고 유능한 이 멜기세덱이 미가엘이었음을 특별히 증거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보편적으로 믿는다. 아마 그 사실에 대한 실제 설명이, 소나링톤의 기록 이외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것이며, 그 비밀한 세계의 기록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신성한 아들들의 이 신성시되는 세계에서만, 육신화와 증여에 대한 그 비밀이 완전하게 알려져 있다. 우리는 모두 미가엘 증여들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른다. 한 우주의 통치자, 즉 멜기세덱들의 창조자가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그들 가운데 하나로, 즉 100년 동안 한 멜기세덱 아들로써 일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이뤄졌다.

2. 두 번째 증여

^{119:2.1 (1310.4)} 미가엘이 멜기세덱으로서 자신을 증여한 후 거의 1억 5천만 년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모든 것이 잘 이뤄졌고, 그 후에 37_번 성좌의 11_번 체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계 주권자인 어느 라노난텍 아들의 오해가 관련됐는데, 그것은 성좌 아버지들의 판결을 받았고, 그 성좌의 낙원 조연자인 충실 항존자들의 공인을 받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체계 주권자는 그 판결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불만족한 상태로 100년 이상 지난 후에, 네바돈 우주에서 이제까지 유발됐던, 창조주 아들의 주권에 대항하는 가장 널리 퍼지고 비참한 반역 가운데 하나에 동역자들을 이끌고 참여했는데, 그 반역은 우버사에서 태고 항존자들의 행동으로 판결을 받고 종료된 지 오래다.

119:2.2 (1311.1) 반역한 이 체계 주권자 루텐시아는, 네바돈 표준시간으로 20년 이상 자신의 본부 행성에서 최고의 권위에 있었으며;그 후에 지고자는 우버사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를 격리하라고 명령했고, 투쟁으로 비탄에 젖고 혼동된, 그 체계에 속한 인간거주 세계들의 지휘를 담당할 새 체계 주권자를 지명해달라고, 살빙톤 통치자들에게 요청했다.

119:2.3 (1311.2) 살빙톤에 이 요청이 접수됨과 동시에, 미가엘은, 우주 본부에서 자리를 비울 뜻을 표시하는, 두 번째 색다른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내 낙원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 즉 합동 항존자의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119:2.4 (1311.3)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증여와 관련하여 그가 떠나던 때에 목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가엘은 다시 자신의 본부 구체를 떠났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 작별이 있는 지 3일 후에,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일원이 네바돈의 1차 라노난덱 아들들의 예비 단체에 나타났다. 새로운 이 아들은 정오 무렵에 나타났고, 단독 제3스랍을 대동하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지참했고, 이것은 살빙톤의 임마누엘의 공인을 받았으며, 물러난 루텐시아의 후계자 자리에, 새 주권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권을 갖는 대리 체계 주권자로서, 새로운 이 아들을, 37_번 성좌의 11_번 체계에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119:2.5 (1311.4) 우주 시간으로 17년이 넘는 동안, 생소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임시 통치자가 직무를 경영했으며, 혼동되고 문란한 이 지역 체계의 어려운 일들을 판결했다.

그전에 어떤 체계 주권자도, 이보다 더 열렬한 사랑을 받고 더 널리 존경받으며 높이 평가된 적이 없었다. 새로운 이 통치자는, 응보와 자비 면에서 교란된 체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모든 백성을 공들여 보살폈는데, 반역한 전임자에게, 그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임마누엘에게 사과하기만 한다면 그 체계 직위의 권한을 공유하는 특권을 제의할 정도였다. 그러나 루텐시아는, 새롭고 낯선 이 체계 통치자가, 아주 최근에 자신이 공공연히 반항했던 바로 그 우주 통치자인 미가엘이었음을 잘 알면서, 이런 자비로운 권유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수백만에 달하는 오도되고 현혹됐던 그의 추종자들은, 그 시대에 파로니아 체계의 구원주 주권자로 알려진 이 새 통치자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119:2.6 (1311.5) 그리고 나서 새로 임명된 체계 주권자가 거기에 도착한 중대한 날이 도래했는데, 그는 폐위된 루텐시아의 영구한 후계자로서 우주 당국으로부터 임명받았고, 파로니아 전체는 네바돈에서 알려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자한 체계 통치자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다. 그는 체계 전체의 사랑을 받았고 라노난덱 아들들로 이뤄진 모든 동료 집단으로부터 찬미 받았다. 그는 아무런 예식 없이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가 체계 본부를 떠날 때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심지어 죄를 범한 그의 전임자도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당신은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정당했습니다. 내가 낙원 통치를 계속 거부하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이 올바르고 자비로운 통치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19:2.7 (1312.1) 그리고 나서 반역 체계의 이 임시 통치자는, 경영을 맡아서 잠시 체류했던 행성을 떠났으며, 한편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에, 미가엘은 살빙톤에 나타났고, 네바돈 우주의 통치를 재개했다. 미가엘의 주권과 권세의 높아지는 관할권에 대한 세 번째 우버사 선포가 뒤를 이었다. 첫 번째 선포는 그가 네바돈에 도착했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증여를 완성한 직후에 이뤄졌으며, 이제 세 번째가, 두 번째, 즉 라노난덱 사명이 종료된 다음에 있었다.

3. 세 번째 증여

119:3.1 (1312.2) 살빙톤의 최고 협의회는, 61_번 성좌의 87_번 체계에 있는 217_번 행성에 물질 아들을 파송해서 도와달라는,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방금

마무리했다. 이때 이 행성은 또 다른 체계 주권자가 타락해버린, 인간거주 세계들의 체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전체 네바돈에서 그런 반역 가운데 두 번째였다.

119:3.2 (1312.3) 미가엘의 요청에 따라서, 이 행성의 생명 운반자들의 청원에 대한 조처는, 임마누엘이 고려하고 이에 대한 그의 보고가 고려되는 동안 연기됐다. 이것은 비정상 과정이었으며, 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유별난 일을 예상하면서 미결{未決} 상태로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을 잘 기억한다. 미가엘이 나서서 우주 감독을 임마누엘의 손에 맡기는 한편, 천상{天上}의 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가브리엘에게 위탁했으며, 경영 책임을 그렇게 처리하면서, 우주 어머니 영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살빙톤의 파견 장소에서 사라졌다.

119:3.3 (1312.4) 그리고, 예상됐던 대로,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아무 예고 없이, 61_번 성좌에서 87_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낯선 물질 아들이 출현했는데, 단독 제2스랍과 동행했고,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의 공인을 받았으며,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보증 받았다. 대리 체계 주권자는, 새롭고 신비로운 이 물질 아들이 217_번 세계의 대리 행성 왕자로서 활동하도록 즉시 지정했으며, 이런 지명은 즉시 61_번 성좌 지고자들의 비준을 받았다.

119:3.4 (1312.5) 독특한 이 물질 아들은 이처럼, 외부 우주와 어떤 직접 교신도 없는 괴로운 처지의 체계에 위치한, 분리와 반역이 있던 한 고립된 세계에서 힘든 생애를 시작했는데, 행성 시간으로 온전히 한 세대 동안 혼자서 일했다. 이 비상대책 물질 아들은, 직무에 태만한 행성 왕자와 그의 참모들 전부가 회개하고 교정되도록 했고, 여러 지방우주에 설립된 대로 낙원의 통치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길로 그 행성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봤다. 때가 이르자, 원기를 회복하고 구제된 이 세계에 한 물질 아들과 딸이 도착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행성 통치자로서 정식으로 임명되자, 임시, 즉 비상사태 행성 왕자는 공식적으로 떠났는데, 어느 날 정오에 사라졌다. 그로부터 3일째 되던 날, 미가엘은 살빙톤에 있는, 자신이 늘 있던 장소에 나타났고, 연방우주 방송은, 네바돈에서 미가엘의 주권이 더 증진됐음을 알리는 태고 항존자들의 네 번째 선언을 즉시 발표했다.

119:3.5 (1312.6) 혼란에 빠진 이 행성에서 이 물질 아들이 괴로운 환경을 이겨낸,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숨씨에 대해 설명하도록 허락받지 못해서 유감이다. 고립된 이 세계가 교정 받은 것은, 네바돈 전체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으로 감동적인 장{章}들 가운데 하나다. 이 사명이 끝났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통치자가, 왜 어느 하위 계층의 지성적 존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증여에 거듭 참여하기를 선택했는지, 온 네바돈이 명백히 알게 됐다.

119:3.6 (1313.1) 멜기세덱 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라노난덱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 아들이고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한 것은, 모두 똑같이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각각의 경우에 그는 갑작스럽게, 그리고 증여된 집단의 완전히 성장한 한 개인으로서 나타났다. 그런 육신화의 비밀은, 소나링톤의 신성시되는 구체에 있는 기록의 내부 궤도에 접근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결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119:3.7 (1313.2) 고립과 반역이 있었던 한 세계의 행성 왕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증여가 있는 후에, 네바돈에 있는 어떤 물질 아들과 딸도,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행성

사명이 어렵다고 비난하도록 유혹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물질 아들들은, 우주의 창조주 아들이라는, 총명한 주권자와 연민의 정을 가진 친구, 즉 그들이 단련과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단련과 시험을 받은” 존재가 있음을 항상 알고 있다.

119:3.8 (1313.3) 이런 각 사명이 있는 다음에는, 그 우주에서 기원된 모든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이 더욱 봉사하고 충성하는 시대가 뒤따랐고, 한편 이어지는 각 증여 시대는, 우주 경영의 모든 방법과 정부의 모든 기법이 향상되고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증여가 있는 후에 어떤 물질 아들 또는 딸도, 고의로 미가엘에 대항하는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결코 의식하면서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오직 속임수와 꾀변을 통해서만, 최근에 높은 유형의 반역 인격체들이 아담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4. 네 번째 증여

119:4.1 (1313.4) 미가엘이 네바돈 정부를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의 손에 맡긴 것은, 우버사에서 1,000년마다 있는 정기 출석점호 가운데 하나가 끝날 무렵이었으며; 물론, 그런

행동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미가엘의 네 번째 증여 사명을 위해서 그가 사라질 것에 대비했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가 곧 살빙톤 파견장소로 나아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119:4.2 (1313.5) 증여를 위해서 사라진 후 셋째 날에, 우리는 우버사로 보내는 우주 방송에서 네바돈의 스랍 본부로부터 이런 의미심장한 소식 항목을 목격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스라빔의 예고 없는 방문을 보고하겠는데, 독자적인 한 최고스랍과 살빙톤의 가브리엘이 동행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이 스랍은, 네바돈 계층의 자격이 있고 또한 우버사 태고 항존자들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지니고 있으며, 살빙톤의 임마누엘에게 보증 받았습니다. 검사한 결과, 이 스라빔은 지방우주의 천사들 가운데 최고 계층에 속했으며, 교육 상담자 단체에 이미 배정됐습니다.”

119:4.3 (1313.6) 이번에 스랍으로 증여된 기간에, 즉 우주 표준시간으로 40년이 넘도록 미가엘은 살빙톤에 없었다. 이 시기 동안에 그는 가르치는 스랍 조연자, 즉 26명의 상이한 주요 선생에게 너희가 개인 비서라고 일컬을만한

존재로서 배속됐는데, 22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서 활약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 즉 최종 임무는, 네바돈 우주에서 3_번 성좌의 84_번 체계에 있는 462_번 세계에서,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사명에 소속된 조연자이자 협조자로서의 임무였다.

^{119:4.4 (1314.1)}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은 이렇게 배정된 7년 내내, 그의 스랍 동역자의 신분에 걸맞다고 전적으로 납득된 적이 전혀 없었다. 정말로, 그 시기 동안 모든 스라빔에게 특별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됐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권자가 스라빔으로 변장하고 우주에 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그가 이 삼위일체 교사 아들의 증여 사명을 수행하기까지는, 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내내, 피조물로서 증여하는 사명에 임하고 있는 우주 주권자를 눈치 채지 못하고 접대했음을,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알아보지 않을까 염려하여, 최고 스라빔이 특별히 배려하며 주목했다. 그리하여 천사들에 관해서, 그들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인 그가, "스랍 인격체와 비슷한 상태에서 모든 면에 단련과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영원한 사실로 남게 됐다.

119:4.5 (1314.2) 이 연속되는 증여가 점점 더 낮은 형태의 우주 생명체 본성을 가짐에 따라서, 가브리엘은 이런 육신화 모험에 점점 더 많이 관여했는데, 증여된 미가엘과 대리 우주 통치자인 임마누엘 사이에 우주 연락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119:4.6 (1314.3) 미가엘은 이제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아들들 가운데 세 계층: 즉 멜기세덱, 라노난덱, 및 물질 아들에 대한 증여 체험을 거치게 됐다. 그 다음에 그는, 의지를 가진 가장 낮은 형태의 피조물, 즉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필사자의, 상승하는 생애의 다양한 국면에 눈을 돌리기 전에, 한 최고 스라빔으로서 천사의 생애와 비슷한 상태로 인격화할 만큼 자신을 낮췄다.

5. 다섯 번째 증여

119:5.1 (1314.4) 유란시아에서 계산하는 시간으로, 3억 년보다 약간 더 전에, 우리는 임마누엘에게 우주 권세를 이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으며, 미가엘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 경우는, 그의 목적지가 오르본톤 연방우주의 본부인 우버사임을 그가 알린 점에서, 이전{以前}의 다른 경우들과 달랐다. 때가 되자 우리

주권자가 떠났지만, 연방우주 방송은 태고 항존자들의 뜰에 미가엘이 도착했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가 살빙톤에서 떠난 직후에, 우버사 방송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성명서가 실렸다:“아무 발표도 번호도 없이, 네바돈 우주로부터 필사의 기원에 속하는 상승 순례자가 오늘 도착했는데, 살빙톤의 임마누엘로부터 공인받았고, 네바돈의 가브리엘이 동행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이 존재는 참된 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 교제했습니다.”

119:5.2 (1314.5) 너희가 오늘 우버사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이븐토드가 거기에 머물렀던 시절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데, 시간과 공간에서 번호가 없는 이 특별한 순례자가, 우버사에서는 그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 필사자, 즉 적어도 상승하는 필사자의 영{靈} 단계와 똑같은 모습의 훌륭한 인격체가, 오르본톤 표준시간으로 11년 동안 우버사에서 살았고 활약했다. 이 존재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오르본톤의 다양한 지방우주에서 온 동료들과 공통으로, 한 영{靈} 필사자의 의무를 수행했다.“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시험과 단련을 받았으며”, 모든 경우에, 그는 상급자들의

신뢰와 신임을 받기에 마땅함을 입증했고, 한편 그는 어김없이 동료 영들의 존경과 충성스런 찬미를 받았다.

119:5.3 (1315.1) 살빙톤에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순례자 영의 생애를 따라다녔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번호가 없고 겸손한 이 순례자 영이 우리 지방우주의 증여된 통치자임을 우리는 잘 알았다. 필사자 진화에서 한 단계의 역할로 육신화한 미가엘의 이 첫 번째 출현은, 네바돈 전체를 짜릿하게 하고 매혹시키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때서야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성숙되고 완벽하게 훈련된 영 필사자로서, 그리고 하보나로 상승하는 한 필사자 집단이 진출할 때까지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계속하는 존재로서 우버사에 출현했으며; 그 후에 그는 태고 항존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곧 가브리엘과 함께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예식 없이 우버사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살빙톤에 있는 자기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119:5.4 (1315.2) 이 증여를 완성하기 전에는, 가장 높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래로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세계들의 삶과 피로 이뤄진 필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우주 인격체들과 같은 모습으로 미가엘이 육신화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 무렵에 멜기세덱 학부들은, 미가엘이 언젠가 육신을 입은 하나의 필사자로서 육신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여를 위한 가능한 기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미가엘이 상승하는 필사자의 역할을 이미 몸소 수행했다는 사실은, 지방우주와 연방우주를 거쳐 맨 위까지 피조물을 진보시키는 전체 기획에, 새롭고 증대된 흥미를 부여했다.

^{119:5.5 (1315.3)}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 증여의 기법은 신비로 남아있다. 심지어 가브리엘도, 낙원 아들이며 우주 창조주인 이 분이, 뜻대로, 자신에게 종속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의 인격체를 띠고 그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6. 여섯 번째 증여

^{119:6.1 (1315.4)} 이제 임박한 증여를 준비하기에 살빙톤 전체가 익숙했으므로, 미가엘은 본부 행성에 머무는 자들을

소집했고, 육신화 계획의 남은 부분을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 내용은 다섯째 성좌의 본부 행성에 있는 지고자 아버지들의 뜰에서,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生涯}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살빙톤을 곧 떠나게 됨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진화 세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를 처음 들었다.

119:6.2 (1315.5) 미가엘은 여섯 번째 증여를 위해 살빙톤을 떠나기 전에, 모여 있는 그 구체 거주민에게 연설했고, 모두가 잘 지켜보는 가운데 떠났는데, 어떤 단독 스랍과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만 동행했다. 우주에 대한 감독이 다시 임마누엘에게 위임되는 동안, 경영 책임이 더 널리 분산됐다.

119:6.3 (1315.6) 미가엘은 5_번 성좌 본부에 나타났는데, 상승하는 신분의 완전히 성장한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나타났다. 번호가 없는 이 모론시아 필사자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게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매우 유감인데, 이는 그것이, 유란시아에서 가졌던 극적이고 비참한 체류 기간도 제외하지 않고,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서 아주

색다르고 놀라운 시기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내게 부과된 여러 제한 가운데 하나는, 미가엘이 엔단텀의 모론시아 필사자로서 가진, 이 놀라운 생애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이다.

119:6.4 (1316.1) 미가엘이 이 모론시아 증여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에게 명백히 드러난 것은, 우리 창조주가 동료 피조물이 됐었다는 것, 즉 우주 주권자가, 자신의 영역들에 있는 피조 지성체 가운데 가장 낮은 형태에게도, 친구가 되고 인정 많은 협조자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주 경영에서 피조물의 관점에 대한 이런 점진적 습득을 우리는 이미 유념했는데, 그것이 점차 나타났기 때문이었으며, 그렇지만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를 완성한 후에 더 확실하게 됐고, 그가 유란시아에서 목수의 아들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더욱 확실해졌다.

119:6.5 (1316.2) 미가엘이 모론시아 증여에서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가브리엘로부터 미리 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살빙톤에서 적절한 환영식을 준비했다.

수백만의 존재가 네바돈의 성좌 본부 세계들로부터 모였으며, 살빙톤에 가까운 세계들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존재는, 자기 우주의 통치권을 되찾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자기 피조물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관심이졌던 주권자를 환영하고 그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많은 연설에 대한 답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뿐이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의 일을 했을 뿐이다.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고 간절히 이해하고자 하는 낙원 아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119:6.6 (1316.3)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가엘이 사람의 아들{人子}로서 유란시아 모험에 발을 내디딘 그 시각까지, 그가 머문 성좌 전체의 물질 세계들로부터 모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 받으면서, 진화로 상승하는 모론시아 필사자로 증여돼 육신화한자로서, 엔단텀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들의 주권 통치자가 세운 많은 업적에 대해, 온 네바돈이 계속 토의했다.

7.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

119:7.1 (1316.4) 수만 년 동안 우리는 모두, 미가엘의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를 고대했다. 가브리엘은 이 최종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뤄지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우리는 최고점에 달한 이 모험의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119:7.2 (1316.5) 미가엘이 자신의 마지막 증여 상영관으로 유란시아를 선택했다는 공개 발표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태만에 대해서 배운 직후에 이뤄졌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는 세계는, 3만 5천 년이 넘는 동안, 전체 우주 협의회들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란시아 증여의 어느 과정에서도 (육신화의 신비 이외에)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마침내 승리해서 최고 우주 주권자로서 살빙톤으로 돌아오기까지, 작지만 매우 명예로운 너희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가장 온전하게 우주에 공개됐다.

119:7.3 (1316.6) 우리는 이것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사건 자체가 발생할 때까지, 미가엘이 그 영역의 무력한 한 아기로 땅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그가 증여되기로 선택한 인격체 집단의 완전히 성장한 개인으로서 항상 나타났었으며, 베들레헴의 아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방송이 살빙톤에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119:7.4 (1316.7) 그때 우리는, 우리 창조주이며 친구인 그가, 무력한 한 아기로 증여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세에서 명백하게 위협 받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최종 필사자 증여가, 네바돈 우주의 명백한 최고 주권자로서의 영원한 지위를 그에게 부여할 것임도 알게 됐다. 지구 시간으로 3분의 1세기{世紀} 동안, 이 지방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관심이 유란시아로 집중됐다. 모든 지성체는 마지막 증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타니아에서 있었던 루시퍼 반역과 유란시아에서 캘리개스차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듯이, 인간 육체를 닮은 초라한 형체 속에서 유란시아에 육신화 되기 위해 우리 통치자가 자신을 낮췄을 때 일어나게 될 갈등이 얼마나 맹렬할지, 우리는 잘 알았다.

119:7.5 (1317.1) 유대인 아기인 요셉의 아들 예슈아는, 이 특별한 아기가 낙원의 신성한 아들이며, 이 지방우주의 모든

사물과 존재의 창조자인, 네바돈의 미가엘의 육신화였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든 아기와 마찬가지로 잉태됐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 형체 속에 신격이 육신화 된 이 신비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기원과는 달리,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과 비슷한 형태로 창조주가 육신화 됐던 그 기법과 방법을, 너희는 영원 속에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소나링톤의 비밀이며, 그런 신비는, 증여 체험을 통과한 그 신성한 아들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알려진다.

119:7.6 (1317.2) 땅에 있는 어떤 현자{賢者}들은 미가엘의 임박한 도래를 알았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와 접촉함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이 현자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중도 피조물들을 통해서, 스라빔이 한 무리의 갈대아 제사장에게 알려줬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아르드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첫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먼저 배정됐던 스라빔이, 아르드논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이었다.

119:7.7 (1317.3) 예수의 인간 부모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세대에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육신화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 종족과 시대의 어린이들이 겪는 평범한 방식으로 자라났다.

119:7.8 (1317.4)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이야기, 즉 너희가 사는 세계에 창조주 아들이 필사 존재로 증여됐다는 내용은 본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다.

8. 미가엘의 증여 이후 신분

119:8.1 (1317.5)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최종 증여에 성공한 뒤에, 네바돈의 주권 통치자로서, 태고 항존자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지방우주의 확립된 지휘자로서, 만유의 아버지의 인정도 받았다. 그가 살빙톤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미가엘은 네바돈의 확고한 통치자로서 선포됐다. 미가엘의 주권에 대한 여덟 번째 선포가 우버사로부터 도착했고, 또한 낙원으로부터는 만유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공동 선언문이 도래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이 합일체를 우주의 유일한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고, 살빙톤에 주둔하는 합동 항존자에게

낙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성좌 본부에 있는 충실 항존자들 역시 지고자들 협의회에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미가엘은 조언과 협동을 제공하는 삼위일체 아들들의 철수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살빙톤에 모아놓고 그들이 네바돈에서 영원토록 임무를 맡아줄 것을 친히 부탁했다. 그들은, 이 요청에 따르고 싶다는 바램을, 낙원에 있는 자신의 지휘자들에게 표명했으며,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낙원의 분리 명령이 발효됐는데, 중앙우주에 소속된 이 아들들을 네바돈의 미가엘의 법정에 영원히 배속시켰다.

119:8.2 (1318.1) 미가엘이 증여 생애를 마치고,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최고 권세를 최종적으로 확립하기까지, 유란시아 시간으로 거의 10억 년이 걸렸다. 미가엘은 창조자로서 태어났고, 통치자로서 교육받았으며, 관리자로서 훈련받았지만, 그 주권을 체험으로 얻도록 요구됐다. 그리하여 너희의 작은 세계는, 자신이 만든 우주에 대한 무제한의 통제 및 지휘 권한을 얻기 위해서 각 낙원 창조주 아들에게 요구되는 체험을 미가엘이 완성한 경기장으로, 온 네바돈에 두루 알려지게 됐다. 너희가 지방우주를 상승함에 따라서, 미가엘의 이전{以前}

증여들에 관계된 인격체들의 이상{理想}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될 것이다.

119:8.3 (1318.2) 자신을 피조물로 증여하는 과정을 완성하면서, 미가엘은 자신의 주권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지존자 하나님의 진화하는 주권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 여러 증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창조주 아들은 피조물 인격체의 다양한 본성을 하강하면서 탐구하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 신격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계시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의 종합된 통일은 최상급 창조주들이 드러낸 바와 같이, 지존하신 분의 뜻을 드러낸다.

119:8.4 (1318.3) 신격들의 이 다양한 뜻의 양상들은, 일곱 으뜸 영의 다른 본성들에서 영원히 인격화됐으며, 미가엘의 각 증여는 이런 신성 형태화들 가운데 하나를 독특하게 계시했다. 그는 멜기세덱 증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결합된 뜻을, 라노난덱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나타냈으며; 아담으로 자신을 증여했을 때에는 아버지와 영의 뜻을, 스랍으로 증여했을 때에는 아들과 영의 뜻을 계시했으며; 우버사에서 필사자로 증여했을 때에는 공동

행위자의 뜻을, 모론시아 필사자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을 묘사했으며;유란시아 물질 증여에서는 그가 심지어 삶과 피로 이뤄진 한 필사자로서 만유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다.

119:8.5 (1318.4) 일곱 번에 걸친 이 증여의 완성은, 미가엘의 최고 주권의 독립을 가져왔으며, 또한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주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가엘의 증여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지존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일곱 번에 걸친 증여 전체 총합은 지존하신 분을 네바돈에 새롭게 계시한 것이었다.

119:8.6 (1318.5)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체험에서, 미가엘은, 부분적인 증명가능성으로부터 최상의 유한한 행동으로 향상됨, 그리고 유한절대 기능의 잠재성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킴을 동시에 체험했다. 창조주 아들인 미가엘은 시_공간을 창조하는 자이지만, 칠중의 으뜸 아들 미가엘은 궁극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신성한 단체의 한 구성원이다.

119:8.7 (1318.6) 일곱 으뜸 영에서 나타난 삼위일체의 뜻을 계시하는 체험을 거치면서, 창조주 아들은 지존자의 뜻을

드리내는 체험을 거쳤다. 지존자의 뜻을 계시하는 자로서 활동하면서, 미가엘은 모든 다른 으뜸 아들과 더불어, 자신을 지존자와 영원히 일치시켰다. 그는 현재 우주 시대에 지존자를 계시하고, 지존성의 주권을 실현하는 데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우주 시대에 그가 외부 공간 우주들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서, 첫째 체험적 삼위일체 안에서 지존하신 분과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119:8.8 (1319.1) 유란시아는, 온 네바돈에서 감상을 일으키는 성지{聖地}, 즉 인간이 거주하는 천만 세계의 우두머리요, 그리스도 미가엘, 즉 네바돈 전체의 주권자, 영역들을 돌보는 멜기세덱 사역자, 체계 구원자, 아담의 구속자{救贖者}, 스랍의 동료, 상승하는 영들의 동역자, 모론시아 진보자,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했던 사람의 아들, 그리고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가 필사자로 있었던 고향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기록이,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을 일시적으로 증여했던 세계, 즉 십자가의 세계로 언젠가 돌아오리라 약속했다고 말하는데, 그 기록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19:8.9 (1319.2)

[그리스도 미가엘의 일곱 번에 걸친 증여를 묘사하는 본 문서는, 전해진 일련의 발표문 중에서 63번째 글인데, 미가엘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때까지, 유란시아의 역사를 서술하는 여러 인격체들의 후원을 받았다. 본 문서들은 맨투시아 멜기세덱의 지휘 아래서 활동하는, 열두 명으로 이뤄진 네바돈 위원회의 공인을 받았다. 우리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서기 1935년에, 우리 감독관들이 허락한 기법에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구성했고 영어로 기록했다.]

유란시아 책

IV 부. 예수의 생애와 교훈

제120편

유란시아에 미가엘이 증여됨

120:0.1 (1323.1)

나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필사{必死} 육신의 모습으로 있던 때의 생애를 다시 기술{記述}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가브리엘로부터 배정받아서 이 과제를 맡은 계시 위원회의 위원장 멜기세덱이며, 창조주 아들이 그의 우주에 자신을 증여하는 체험의 마지막 국면에 착수하려고 유란시아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관하여 이 이야기를 밝힐 권한을 부여받았다. 자신이 직접 창조한 지성 존재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여러 계층의 창조된 존재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증여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사물과 존재들이 사는 우주의 완전한 최고 주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창조주 아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값의 일부분이다.

120:0.2 (1323.2) 내가 기술하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바돈의 미가엘은, 다양하게 창조된 지성 존재들 가운데 다른 여섯 계층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미 여섯 번 자신을 증여했었다. 그런 후에 그는 의지를 가진 지성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기 위해, 그리고, 그 물질 영역의 그런 한 인간으로서, 온갖 우주의 신성한 낙원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우주 주권을 획득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려고 준비했다.

120:0.3 (1323.3) 미가엘은 전술한 이 여러 증여의 각 과정마다, 자신이 창조한 한 집단의 존재들의 유한한 체험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과 협동하는 필수적인 체험

역시 획득했으며, 이 체험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그를 자신이_만든 우주의 주권자로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다. 지나간 지방우주{地方宇宙} 시간 전체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든지, 미가엘은 창조주 아들이로서의 개인 주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창조주 아들이로서 자신이 직접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임마누엘 및 연합된 낙원 아들이 그 우주에서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은, 창조주 아들이로서, 단순히 자신의 고립된 권한만으로 네바돈을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지존하신 분의 고양된 통치 특질이 될, 완전한 통찰력과 지혜로운 집행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하고 그 직무를 경영할 자격을 갖추게 될, 우주 신분상 그런 높은 경지까지, 실제 체험을 통해서 낙원 삼위일체에게 협조해 순종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했다. 그는 창조주 아들이로서 완전한 통치를 바란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분의 우주 지혜와 신성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로서 최상으로 경영하기를 열망했다.

120:0.4 (1324.1) 그러므로 미가엘은, 다양한 계층의 우주 피조물에게 이 일곱 차례의 증여를 이룩하는 동안에,

이중{二重}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첫째로, 그는 모든 창조주 아들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피조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체험을 완성하고 있었다. 창조주 아들은 언제든지 고유의 권한으로 자신의 우주를 통치할 수 있지만, 오직 일곱 차례의 우주_피조물 증여를 모두 통과한 후에야, 낙원 삼위일체의 최고 대표자로서 통치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우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영에서 발휘될 수 있는, 낙원 삼위일체의 최대 권위를 의미하는 특권을, 그는 열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가엘은, 각 우주 증여{贈與}를 체험하는 동안, 낙원 삼위일체의 인격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체에서 여러 가지로 조성된 뜻에, 자발적으로 만족스럽게 자신을 종속시키는데 성공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첫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결합된 뜻에;두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세 번째 증여에서는 아버지와 영의 뜻에;네 번째 증여에서는 아들과 영의 뜻에;다섯 번째 증여에서는 무한한 영의 뜻에;여섯 번째 증여에서는 영원한 아들의 뜻에;그리고 유란시아에서 마지막이자 일곱 번째 증여에서는 만유의 아버지 뜻에 복종했다.

120:0.5 (1324.2) 그러므로, 미가엘은 자신의 지방우주 피조물을 이해하는 체험과, 우주의 창조주들의 칠중{七重} 국면의 신성한 뜻을, 자신의 개인 통치권 안에 통합시킨다. 그렇게 해서 그의 경영은, 모든 자의적 인수권{引受權}을 양도했을지라도, 최고로 가능한 권능과 권위를 대표하게 됐다. 그의 능력은, 낙원 신격들과의 숙련된 연합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무한하며; 그의 권위는 우주 피조물 모습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획득됐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주권은 최상인데, 낙원 신격의 칠중 관점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피조물의 한 관점을 아주 동일한 시간에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120:0.6 (1324.3) 그의 최종 증여 시기가 결정되고,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행성이 선택되자, 미가엘은 증여에_앞선 의례적인 회담을 가브리엘과 가졌으며, 그 다음에 자신의 형이자 낙원 조연자인 임마누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가엘은, 전에는 가브리엘에게 수여된 적이 없었던 우주 경영의 모든 권력을, 이제 임마누엘의 보호관리에 위탁했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肉身化}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에, 임마누엘은 그의 유란시아 증여 기간에 그의 우주에 대한 보호관리를

수락하면서, 미가엘이 곧 유란시아에서 그 영역의 필사자로 성장하게 될 때, 그를 위한 육신화 길잡이로 이바지하게 될 증여 방침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120:0.7 (1324.4) 이 점에 대해서, 미가엘은 낙원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이 증여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직 우주 주권 성취만을 목적으로 이 육신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창조주 아들이 누구에게서도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낙원 신격들의 다양한 뜻에 협조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존자의 계시 계획표에 이미 동참했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그의 주권은, 지존자 안에서 최고조에 도달하면서, 신격의 칠중{七重} 뜻을 실제로 모두_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여섯 차례의 증여는, 다양한 낙원 신격들 및 그 연합체들을 친히 대표하는 자들로부터 지시 받았었으며;이번에는 합동 항존자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는 만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낙원 삼위일체가 네바돈 지방우주에 보내는 대사다.

120:0.8 (1325.1) 이 막강한 창조주 아들이, 다시 한 번 낙원 신격들의 뜻에, 이번에는 만유의 아버지 뜻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한 결과로, 즉각적인 유익과 커다란 보상이 주어졌다. 그렇게 연합하는 순종을 이룩하기로 한 이 결정에 따라서, 미가엘은 자신의 육신화에서 필사적 사람의 본성뿐 아니라, 만유{萬有}의 낙원 아버지의 뜻 역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자신이 유란시아 증여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임마누엘이 낙원 아버지의 온전한 권위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뿐 아니라, 연방우주의 태고 항존자들 역시 그 전체 증여 기간 내내, 그의 영역이 안전할 것임을 이미 선언해 왔다는, 위안을 주는 소식을 지니고, 이 독특한 증여 과정에 착수할 수 있었다.

120:0.9 (1325.2) 그리고 이것이, 임마누엘이 일곱 번째 증여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중대한 행사의 배경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미가엘이) 된 우주 통치자에게, 이 증여_이전{以前}에 임마누엘이 줬던 지시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

1. 일곱 번째 증여의 위탁임무

120:1.1 (1325.3) “내 창조주 형제여, 나는 당신의 마지막 일곱 번째 우주 증여를 지켜보려고 한다. 당신은 앞선 여섯 차례 위탁임무를 가장 신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실행했으며, 나는 당신이 이번 최종 주권 증여 역시 똑같이 승리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제까지는 당신이 증여된 구체들에서, 당신이 선택한 계층 가운데 충분히 성숙된 존재로 나타났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행성인 유란시아에, 충분히 성숙된 필사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내 동지여, 이것은 당신에게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체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증여에 따른 대가{代價}를 온전히 지불하려고 하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화 하는 완벽한 깨우침을 체험하려고 한다.

120:1.2 (1325.4) “이전{以前}에 당신이 증여됐던 각각의 경우 내내, 당신은 세 분의 낙원 신격과 그들의 신성한 상호연합체들의 뜻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순응시킬 것을 선택해 왔다. 전에 있었던 당신의 증여들에서, 당신은 지존자의 뜻의 일곱 국면 가운데, 낙원 아버지의 개인적 뜻을 제외한 전체에 복종해 왔다. 이제 당신이 일곱 번째

증여 내내,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선택했기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개인 대리인으로서, 당신의 육신화
기간에, 당신의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 관할권을 당신을
대신하여 떠맡겠다.

120:1.3 (1325.5) “유란시아 증여에 착수하면서,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어느 피조물이든지 제공할 수 있는, 행성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후원과 특별한 보조를 자진해서 벗겨내
왔다. 당신이 창조한 네바돈의 자녀들이, 그들의 우주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전한 안내를 위해서 당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듯이, 이제는 곧 이어질 당신의 필사자 생애의
드러나지 않은 우여곡절 내내,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당신의 낙원 아버지께 전적으로 조건 없이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이 증여 체험을 끝내게 될 때, 그들의
지방우주 창조주이자 아버지로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신이
그들에게 그토록 한결같이 요구하는 신앙_신뢰의 온전한
의미와 값진 취지를,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120:1.4 (1326.1) “당신의 유란시아 증여 내내,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당신과 낙원 아버지 사이의 중단 없는 교류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그리고 당신이 증여되는 그 세상, 더 나아가 당신이 창조한 우주 전체가, 당신의 아버지시며 내 아버지이신, 삼라만상의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새롭고 더욱 이해하기 쉬운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가 완전하게 됨으로 인해 이뤄질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직 유란시아에서 지내는 개인 생애와 관련한 일에만 몰두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권세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우주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낙원의 확인을 받고, 당신이 지금처럼 내게 양도하는 대리자 권세가 아니라,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상의 능력과 관할권을 내 보호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당신의 우주의 안전과 중단 없는 경영을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맡아볼 것이다.

120:1.5 (1326.2)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신실하게 실행함에 대해 낙원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음을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권한이 내게 있음을 당신이 확실히 알도록, 우버사에 있는 태고 항존자의 명령이 방금 내게 통보됐다는 것을 당신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하는 기간 내내, 네바돈에서 모든 영적 위험을 예방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의식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필사자로 육신화 하고 나서, 당신의 창조계와 조직체인 이 우주의 무조건적인 최고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네바돈 전역에서는 어떤 심각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다. 이번에 당신이 육신화 한 사이에, 이 증여로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발생할 어떤 반역의 죄나 폭동을 부추기는 어떤 존재든지 즉각 자동으로 사멸시키도록,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태고 항존자의 명령을 나는 준수할 것이다. 내 형제여, 내 현존에 내재된, 그리고 우버사의 사법 명령권이 덧붙인 낙원 권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우주와 그 모든 충성스런 피조물 전체는, 당신이 증여되는 동안에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에 있는 지성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높이 드러내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갖고 당신의 사명을 진행해도 될 것이다.

120:1.6 (1326.3) “이전에 당신이 자신을 증여했던 각 경우처럼, 나는 형제이자_피신탁자로서 당신의 우주 관할권을 받은 자임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권위를 행사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나는 우리 낙원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당신 대신에 그렇게 행하라는 당신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든 위임된 권한을 돌려받아야 될 적당한 시기라고 당신이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당신 것이 된다는 점이다. 당신의 증여는 시종일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그 세상에서 필사적 육신화 됐을 때, 당신에게는 천상{天上}의 재능이 없겠지만, 당신이 우주 권세를 다시 갖고자 결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신의 양도했던 모든 능력이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능력과 권세를 돌려받기로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이뤄질 것임을 기억하기 바라는데, 당신의 아버지 뜻에 따라 당신의 우주의 안전한 경영을 그의 현존과 약속이 보증하는, 살아있는 최고의 담보물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네바돈에서 전에 세 차례 일어났던 그런 반역은, 이번 증여를 위해서 당신이 살빙톤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없다. 유란시아에서 증여하는 기간에, 네바돈에서 생기는 반역은 그 속에 스스로 파멸되는 자동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태고 항존자가 선포했다.

120:1.7 (1326.4) “당신이 최종적인 이 특별 증여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내가 (가브리엘의 협조를 받아서) 당신의 우주를 신실하게 경영할 것을 약속하며; 신성한

계시를 베푸는 이 사역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이 체험을 진행하도록 내가 당신에게 위임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곧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행동하며, 당신이 육체 속에 계속 머무는 신성한 사명에 관해서 당신이 점차 자각하게 될 때, 당신이 땅에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을 안내하게 될 다음과 같은 조언을 당신에게 제시한다:

2. 증여의 제한 조건

120:2.1 (1327.1) 1. "나는 소나링톤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법과 일치하게--곧 낙원의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당신이 수립했고 가브리엘이 내게 제출했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즉시 이 필사자 증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미리 준비해 왔다. 당신은 유란시아에서 그 세계의 어린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 낙원 아버지 뜻을 따르는 동안 내내-- 인간으로서 교육을 마치며, 당신이 결정한 대로 유란시아에서 생애를 살 것이고, 행성 체류{滯留}를 마칠 것이며,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주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2. “당신의 지상{地上} 사명과 우주에 베푸는 계시와는 별도로, 그러나 두 가지에 부수적으로, 나는 당신이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충분히 스스로_의식한 후에,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역을 기술적으로 종결시켜야 할 부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사람의 아들*{人子}로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조언하며;그리하여, 그 세계의 한 필사 피조물로서, 아버지 뜻에 신앙으로_순종함으로써만 강해지는 연약함 속에서, 이 사악하고 부당한 반역이 개시될 때 당신에게 부여됐던 능력과 권력으로 완성하기를, 당신이 임의로 계속 거절해 왔던 모든 것을 은혜롭게 성취하기를 제안한다. 당신이 자신의 우주의 최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로써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써,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그것을 당신의 필사자 증여에 걸맞은 절정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네바돈에 있는 지성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유형인 한 필사적 사람으로서, 캘리개스차와 루시퍼를 만나 불경스런 자만심을 심판하고, 당신의 겸허한 임시 신분 속에서, 이 타락한 빛의 자식들의 치욕적인 허위진술을 영원히 종결시켜라. 당신은 창조자 특권을 행사하여 이 반역자들을

불신임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거부해 왔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창조에서 가장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타락한 아들들의 수중에서 지배권을 비틀어 빼앗음이 적절할 것이며;그리하여, 자비가 독단적인 권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충고했던 그것들을 당신이 필사자 육신의 역할로 행한다는 그 정당성을, 당신의 지방우주 전체가 아주 공평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영원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증여함으로 네바돈에서 지존자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함으로써, 이 업적에 다소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지라도, 이전의 모든 반란 중에서 아직 판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당신이 효과적으로 종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 행위로 인해, 당신의 우주의 미결된 분쟁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우주에 대한 최고 주권이라는 차후의 재능에 따라서, 당신이 친히 창조한 위대한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당신의 권위에 대한 유사한 도전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120:2.3 (1327.3) 3. "당신이 유란시아의 이탈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게 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해내겠지만, 당신이 마지막 증여를 체험했던 당신의 우주에 영원히

인식될 수 있는, '유란시아 행성 왕자'라는 칭호를 가브리엘로부터 취하기를 권하며;켈리개스차의 배신과 그 뒤를 이은 아담의 태만으로 인해 유란시아에 임한, 슬픔과 혼란을 보상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당신의 증여 의도와 모순되지 않게 추가로 해주기 바란다.

120:2.4 (1328.1) 4. "한 시대가 종결되고, 잠자던 필사 생존자들이 부활되며, 증여된 진리의 영의 섭리시대가 확립됨과 동시에, 그 영역에 대한 섭리시대 심판이 공표됨과 함께, 당신의 유란시아 증여를 종결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할 때, 당신의 요청에 따라서 가브리엘과 모든 관계자가 당신과 협동할 것이다.

120:2.5 (1328.2) 5. "당신이 증여될 그 행성, 그리고 당신이 필사자로 머무는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나는 당신이 주로 선생 역할을 하라고 권한다. 우선, 사람의 영적 본성의 해방과 감화에 관심을 뒤라. 다음으로는, 어두움에 처한 인간 지성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며, 그들의 정신을 오래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는, 육신 속에 있는 당신의 형제들의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안락함을, 당신의 필사자 지혜로

보살펴주도록 하라. 당신의 우주 전체의 영감{靈感}과
계발{啓發}을 위해, 이상적{理想的}인 종교 생활을 하라.

120:2.6 (1328.3) 6. “당신이 증여될 행성에서, 반역으로_분리된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 줘라. 유란시아에서
지존자의 주권에 더욱 공헌하며, 그리하여 당신이 친히
창조한 광범한 영토 전반에도, 이런 주권 확립을
확장시켜라.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당신이 물질 증여를
하면서, 당신은 사람의 본성 안에서 일하는 동시에 낙원
아버지 뜻에 따라 일하는 이중적 체험인, 시_공간
창조주의 최종 계몽을 체험하려 하고 있다. 당신의 일시적
생애에서 유한한 피조물의 뜻과 무한한 창조주의 뜻이
하나로 되는데, 그것들은 지존하신 분의 진화하는 신격
속에서도 연합하고 있다. 당신이 증여될 행성에 진리의
영이 쏟아 부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그 격리된 구체에 있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로 하여금, 우리 낙원 아버지의
분화{分化}된 현존, 즉 그 영역의 사교 조율사의 보살핌을
즉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120:2.7 (1328.4) 7. “당신이 증여될 그 세계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수행하든지, 당신은 자신의 우주 전체를 가르치고

계발하기 위해 생애를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명심하라. 당신이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 육신화 하는 생애를 *증여*하고 있지만, 당신의 경영 범위에 속하는 그 광대한 성단의, 이미 형성됐거나 현재 형성중이거나 앞으로 형성될 각각의 모든 거주 세계에서, 이제까지 살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인간 및 초인간 지성체에게 영적 감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필사자 육신을 닮은 당신의 지상{地上} 생애는, 당신이 세상에 머무는 그 시대의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위한, 그리고 유란시아 또는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인간의 모든 후대 자손을 위한 *본보기*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다가오는 시대들의 모든 세대 전반에 걸쳐서 네바돈 세계 전체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감*을 일으키도록,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은 당신의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이다.

120:2.8 (1328.5) 8. “필사자로 육신화해서 실현하고 체험할 당신의 위대한 사명은,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육신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육신을 가진 피조물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당신의 결정에 포함돼 있다. 동시에

당신은 또한, 네바돈 전체의 초인간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새로이 향상시켜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인간 또는 초인간 유형의 정신에게 낙원 아버지를 새롭게 계시하고 확대 해석하는 이 사역과 똑같이,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 사람을 새롭게 드러내려고 활동할 것이다. 당신은 육신 속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네바돈 전체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_아는 한 인간이 필사자 실존의 짧은 생애 중에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성의 변화무쌍한 생활에 대해서, 네바돈 전체 및 모든 시대의 초인간 지성체들에게 새롭고 빛나는 *해석*을 해줘라.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유란시아에 내려가 그 시대와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은 자신의 광대한 창조 직무에 최상으로 임하는, 완전하게 된 이상적인 기법을 당신의 전체 우주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그 기법은, 사람을 찾다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취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가 발견하는 현상이며;상호 만족이 되도록, 육신 속에서 한 번의 짧은 일생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9. "나는, 당신이 사실적으로 그 영역의 보통 인간이 되는 동안에도, 잠재적으로는 낙원 아버지의 창조주 아들로 남아있게 될 것임을 항상 명심하라고 주의를 준다. 이 육신화 기간 내내, 당신이 비록 사람의 아들이고 살고 활동하게 될지라도, 당신의 개인적 신성{神性}의 창조 속성은 살빙톤에서 유란시아까지 당신을 따를 것이다. 당신의 사교 조율사가 도착한 후에는 언제든지, 육신화 과정을 종결시키는 것이 당신의 의지적_능력에 항상 달려있을 것이다. 조율사가 도착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당신의 인격체의 완전성을 보증할 것이다. 그러나 조율사가 도착하고, 당신의 증여 사명의 본성과 취지에 대한 점진적 인식이 이뤄진 후에는, 당신의 창조자 특권이 당신의 필사 인격체와 연합된 채 여전히 남아 있게 되리라는 사실로 볼 때, 당신은 어떤 초인적 달성_의지, 성취, 또는 능력이든지 자제해야만 하는데, 당신의 개인적인 현존에서 이런 속성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의식하면서 신중하게 의지로 행동함으로써 온_인격체의 선택으로 종결시킬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낙원 아버지의 뜻 외에는

어떤 초인적 영향도 당신의 세상 생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3. 계속된 권고와 조언

120:3.1 (1329.2) “내 형제여, 그리고 이제, 당신이 유란시아로 떠날 준비가 됨에 따라 당신을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당신의 증여의 일반 진행에 대해 당신에게 조언을 마치면서, 나는 가브리엘과 의논해서 얻은, 그리고 당신의 필사자 생애의 사소한 국면들에 관한 어떤 조언을 제시하고 싶다. 우리는 다음의 제안을 덧붙인다:

120:3.2 (1329.3) 1. “즉, 당신의 필사자 지상 생애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동안에, 당신은 동료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 되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에도 역시 관심을 기울여라.

120:3.3 (1329.4) 2. “가족 관계에 관해서는, 당신이 증여된 그 시대와 세대에 확립돼 있는 것들을 당신이 발견한 그대로, 숙지된 가정생활 관습에 우선권을 줘라. 당신이 나타나기로 선택한 그 민족의 풍습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살아라.

120:3.4 (1329.5) 3. "사회 질서에 대한 당신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주로 영적 쇄신과 지성적 해방을 위한 일에 당신의 노력을 한정시키기 바란다. 당신이 있는 시대의 경제 구조나 정치 공약{公約}에 결코 휘말리지 않도록 해라.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각별히 헌신해라.

120:3.5 (1329.6) 4.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유란시아 종족들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점진적 진화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제약이, 당신이 떠난 후에 유란시아에 *긍정적 종교 윤리*의 지속적이고 개선된 체계를 남겨 놓으려는 당신의 노력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섭리시대의 아들로써 당신에게는, 그 세계 민족들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상태를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어떤 특권이 부여돼 있다.

120:3.6 (1330.1) 5. "당신이 적당한 것을 찾게 된다면, 유란시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존 종교와 영적 운동에 견해를 같이할 수 있겠지만, 조직화된 한 종파, 구체화된 종교, 또는 필사 존재들의 분리된 어떤 도덕적 집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일은,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피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삶과 교훈은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유산이 되어야 한다.

120:3.7 (1330.2) 6. "유란시아의 종교적 신념의 계속되는 진부한 체계들, 또는 다른 유형의, 진보가 불가능한 종교적 충성심이 조성되는 일에, 당신이 끝까지 불필요하게 기여하지 않도록, 덧붙여서 충고 한다:당신은 그 행성에 어떤 문서도 남기지 말라. 영구적인 물질 위에 어떤 글도 남기지 말며;또한 동역자들에게 당신의 육신을 닮은 어떤 형상 또는 기타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해라. 당신이 떠날 때, 그 행성에 우상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해라.

120:3.8 (1330.3) 7. "당신이 정상적인 한 남성{男性} 개인이 되어, 그 행성의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당신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데, 그 관계가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당신의 증여와 모순되지는 않지만;나는 소나링톤에서 내린 육신화 명령들 가운데 하나가, 낙원에서 기원돼 증여된 아들은 어떤 행성에도

인간 후손을 남기지 말라고 금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다짐해 뉘야만 하겠다.

120:3.9 (1330.4) 8. “다가오는 당신의 증여에 관한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을 안내하는 언제든지_현존하는 신성한 영의 가르침인 내주하는 조율사의 안내, 그리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확장되는 당신의 인간 정신의 이성_판단에 당신을 맡기고자 한다. 피조물과 창조주 속성의 그런 연합은,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그 행성 구체에서 사람의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것인데, 그런 인생은 (유란시아는 물론이고) 어떤 한 세계에서, 어느 한 세대에 누가 보더라도 완전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의 멀리_퍼지는 우주에서 더욱 높게 완성되고 또 완성돼 가는 세계들이 평가하건대, 온전히 최상으로 충만한 인생일 것이다.

120:3.10 (1330.5)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를 떠나서 당신 자신의 인격체 의식을 양도하는 순간부터, 인간 모습으로 육신화한 당신의 신성한 신분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내, 그리고 나서 당신이 유란시아 증여 체험을 모두 마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주권 오른편으로 상승하게 될 때까지, 지나간 모든 업적을 통해서 우리를 늘 지탱해 주신 당신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께서,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며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살빙톤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신이 직접 만들고 봉사하며 완전한 이해를 이룩한 당신의 우주에, 최상의 무조건적인 주권자로서 귀환하는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120:3.11 (1330.6) “이제는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통치한다. 나는 당신이 유란시아에서 일곱 번째이자 필사자로서 증여하는 짧은 기간에, 네바돈 전체에 대해 대리 주권자로서 지배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권력과 영광을 지니고 내게 곧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 가브리엘에게 사람의 아들의 안전을 맡긴다. 그리고, 가브리엘아, 미가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네 주권자다.”

120:3.12 (1330.7) 그리고 나서 즉시, 전체 살빙톤 모임 앞에서, 미가엘은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졌으며, 우리는 그가 유란시아로의 증여 생애를 모두 마친 후에, 우주에서 최상으로 친히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가 평소에 있던 자리에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4. 육신화--둘을 하나로 만듦

120:4.1 (1331.1) 그리하여, 자신의 창조주_아버지가 이기적인 지배를 원한다고 참소하고, 비굴한 피조물이 사는 미혹당한 우주가 비이성적으로 충성한 덕분에, 창조주 아들이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지시 비난하는 일에 빠졌던, 미가엘의 어떤 비열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시작하는, 자기를_망각하고 봉사하는 --곧 항상 “낙원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생애로 인해, 영원히 침묵하고 당황하게 됐으며 환멸을 느끼게 됐다.

120:4.2 (1331.2)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그리스도 미가엘은, 진실로 이중{二重}_기원을 가진 존재이지만, 이중 인격체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육신/화한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바로 그 결합된 존재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서 점진적인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인간의 정신으로) 점진적으로
자아_의식하는 깨달음 및 인식이었다.

120:4.3 (1331.3) 그리스도 미가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어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인 *동시/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세 존재인 낙원 삼위일체가 실제로 *하나의*
신격이듯이,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다.

120:4.4 (1331.4) 미가엘이 자신을 증여하는 최고의 영적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20:4.5 (1331.5) 유란시아 필사자는 기적적인 것들에 대해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지방우주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거의 없으며, 기적 중에서 가장
경탄할만한 것은, 낙원 아들들의 증여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아들이, 외견상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세계 속에 그리고 거기에 출현함을, 우리는 기적으로

여긴다--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우주적 법칙의 작동이다. 나사렛 예수는 기적적인 인격자였다.

120:4.6 (1331.6) 이런 특별한 전체 체험 속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는 바와 같이 -- *평범한 방법으로*-- 신성하게 행동하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믿을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선택하셨다.

제121편 미가엘이 증여된 때의 시대환경

121:0.1 (1332.1) 유란시아 중도자 연합 형제단의 12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서 활동하는, 우리 계층의 수석 우두머리와 기록 담당 멜기세덱의 공동 후원을 받았던 나는, 한때 안드레 사도에게 배속돼 있었던 2차 중도자이며,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하는 지구상의 피조물이 관측했던 바대로, 그리고 나의 일시적인 지도 아래 있었던 인간 상대자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기록했던 바대로, 나사렛 예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안드레 사도는, 기록된 문서를 주님께서 그토록 세심하게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을 알았으므로,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가 복사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예수의 다른

사도들 편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으므로, 복음서 작성이 많이 지연됐다.

1.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의 서양

^{121:1.1 (1332.2)}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쇠퇴한 시기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으며;그가 태어났을 때, 유란시아는 영적 사색{思索}과 종교 생활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아담_이후 역사보다 앞선 전체 역사에서 알려진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어느 시대에도 체험하지 못할 정도였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육신화했을 때, 세상은 그 전에 만연했거나 또는 그 후로 획득했던 상황 중에서 창조주 아들의 증여에 최고로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다. 이 시기 직전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가 서양과 근동{近東}에 널리 퍼졌으며, 레반트족인 유대인은 본성에서 일부는 서양적이고 일부는 동양적이었는데, 동방과 서방 양쪽에게 새로운 어떤 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그런 문화와 언어의 배경을 활용하기에 매우 적당했다. 이런 최적의 환경은, 로마인이 지중해 지역을 정치적으로 관대하게 통치함으로써 더욱 증진됐다.

121:1.2 (1332.3) 세계의 영향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된 것은,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유대인 메시야의 복음을 그리스 말로 전파했지만,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이었다.

121:1.3 (1332.4) 예수의 시대 같은 문명은, 서양에서 그 이전이나 이후 어느 때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유럽의 문명은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삼중적 영향 아래서 통합됐고 조화를 이뤘다:

121:1.4 (1332.5) 1. 로마의 정치적 및 사회적 체계들.

121:1.5 (1332.6) 2. 그리스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철학.

121:1.6 (1332.7) 3. 유대인의 종교적 및 도덕적 교훈의, 급속히 퍼져나간 영향력.

121:1.7 (1332.8) 예수께서 태어났을 때, 지중해 연안 전 지역은 통합된 제국을 이뤘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양호한 상태의 도로들이 여러 주요 중심지를 연결했다. 바다에서는 해적이 소탕됐고, 무역과 여행이 크게

이뤄지는 시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었다. 유럽은, 그리스도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그런 여행과 무역의 시대를 다시 맛보지 못했다.

121:1.8 (1333.1) 그리스_로마 시대의 내부 평화와 외견상 번영에도, 제국의 대다수 주민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 속에서 고달픈 생활을 했다. 소수의 상류 계층은 부유했으나;가난에 쪼들리고 허약한 하류 계층에는, 인류 중에서 서민들도 포함됐다. 그 당시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중산층이 없었으며;중산층이 로마 사회 내에 막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21:1.9 (1333.2) 확장하는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첫 갈등이 이 시기 직전에 종결됐는데, 결과적으로 시리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틴과 시리아는, 번영하고 비교적 평화로운 기간을 누리고 있었으며, 서방과 동방에 있는 나라들과 상업 교역이 널리 이뤄지고 있었다.

2. 유대 민족

121:2.1 (1333.3) 유대인은 고대의 셈족속 가운데 일원이었으며, 바빌로니아인, 페니키아인, 그리고 다소 최근에 로마의

적이었던 카르타고인도 셈족속에 포함됐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전반기에는 유대인이 셈족속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으며, 그들은 당시에 그 지역이 무역을 위해 통치되고 조직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특별히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우연히 점유하고 있었다.

121:2.2 (1333.4) 옛 국가들을 연결하는 큰 대로들 가운데 다수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했으므로, 이 지역은 세 개의 대륙이 서로 만나는 장소, 즉 교차로가 됐다. 바빌로니아, 앗수르, 이집트, 시리아, 그리스, 파르티아, 그리고 로마의 여행객, 상인, 및 군대가 연속으로 팔레스틴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많은 대상{隊商} 경로가 동양으로부터 이 지역 가운데 어느 부분을 거쳐서,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몇몇 우수한 항구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배들이 서양의 연안{沿岸} 전역으로 짐을 운반했다. 그리고 이런 대상 행렬 가운데 반 이상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을 통과하거나 그 근처를 지나갔다.

121:2.3 (1333.5) 팔레스틴이 유대교 문화의 본향이자 그리스도교의 탄생지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 살았고, 로마와 파르티아 국가들의 모든 지역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

121:2.4 (1333.6) 그리스는 언어와 문화를 제공했고, 로마는 도로를 건설하고 제국을 통합했지만, 흩어진 유대인은 로마 세계 전역 여기저기 퍼져 있는 200개 이상의 회당과 잘_조직된 종교 공동체를 갖추고, 문화 중심지를 제공했는데, 거기서 하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기초를 다졌고, 나중에는 그곳으로부터 전 세계 땅 끝까지 퍼져나갔다.

121:2.5 (1333.7) 각 유대인 회당은 비주류 이방인 신자, 즉 “헌신적인” 또는 “하나님을_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초기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이 비주류 개종자에 속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도, 화려하게 장식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문화, 상업, 및 경배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울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렀다.

121:2.6 (1333.8) 유대인의 성전 경배가 예루살렘에 집중된 것은, 그들의 유일신{唯一神} 사상이 살아남은 비결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의 유일한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필사자의 아버지라는, 새롭고 확장된 개념을 양육시켜서
세계로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만들어냈다.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는, 이어지는 이방의 국가적 지배자들과 인종적
박해자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문화 개념이
살아남아 있었음을 보여줬다.

121:2.7 (1334.1) 이 시기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종주권 아래
있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누렸는데, 유다
마카비 및 그의 직속 후계자들이 이룩한, 그 당시로는
최근에 영웅적으로 나라를 구원한 업적을 기억하면서, 더
위대한 구원자, 즉 오랫동안_대망{待望}했던 메시아의
임박한 출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에 넘쳐 있었다.

121:2.8 (1334.2) 유대인 왕국인 팔레스틴이 약간_독립된
국가로서 생존한 비결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잇는
팔레스틴 대로{大路}뿐 아니라, 동양과 서양 사이의
대상{隊商} 노선들의 서쪽 기착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로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있었다.
레반트에서 로마가 장차 확장하려는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든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로마는 원치 않았다. 셀류시드의 시리아와 톨레마이스의 이집트가, 서로 대적하는 상태에서 완충 지역으로, 팔레스틴을 분리되고 독립된 국가로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 작고 힘없는 유대인 집단이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북으로는 셀류시드에 대적하고, 남으로는 톨레마이스에 대적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는데, 로마는 파르티아가 세력이 부상하기 전에 이집트를 쇠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셀류시드를 점차 약화시키려고 했다. 둘러싼 더 강력한 민족들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렇게 운 좋은 자유와 독립을 누린 것에 대해, 유대인은 자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 덕분이라고, 야훼가 직접 개입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로마의 압제가 마침내 그들의 영토에 임했을 때, 그런 인종적 자만심의 태도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한 시기에, 유대인은 자신의 지상 사명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121:2.9 (1334.3) 로마 관리들에게 아부함으로써 유대지방의 지배권을 갖게 된, 이두메 사람으로서 외부인인 헤롯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당시의 유대인은 유별나게

걱정과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헤롯은 히브리의 예식 관례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낯선 여러 신을 섬기는 신전을 계속 건설했다.

121:2.10 (1334.4) 헤롯과 로마 관리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유대인은 온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하게 됐으며,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먼 지역은 물론, 다른 여러 동맹국들에게까지 하늘 나라의 새 복음을 지니고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헤롯의 통치는, 히브리와 헬라 철학이 더욱 섞이는 데에도 많이 기여했다.

121:2.11 (1334.5) 헤롯이 가이사라 항구를 건설했는데, 팔레스틴이 나중에 문명세계의 교차로가 되는 데 더욱 기여했다. 그는 기원전 4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유년시절 및 공생애 기간에, 그리고 서기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다. 안티파스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건축가였다. 그는 중요한 무역중심지인 세포리를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를 개축했다.

121:2.12 (1334.6) 갈릴리인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 선생들로부터 충분한 호감을 얻지 못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보다 오히려 이방에 가까웠다.

3. 이방인 가운데서

^{121:3.1 (1334.7)} 로마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조건이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국내에 널리 퍼진 평화와 풍요는 미가엘이 증여되기에 매우 적합했다.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 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잘 구분된 다섯 계층이 있었다:

^{121:3.2 (1335.1)} 1. 귀족.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상위계층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통치하는 집단들.

^{121:3.3 (1335.2)} 2. 사업자 집단. 상인 부호{富豪}들과 은행가들, 무역업자들--곧 큰 규모의 수입, 수출업자들--과 국제 상인들.

^{121:3.4 (1335.3)} 3. 소수의 중산 계층. 이 집단은 정말로 작기는 했지만, 매우 영향력 있었고,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도덕적 중추 역할을 했는데, 교회는 이 집단이 다양한 생산과 교역을 계속하도록 장려했다. 유대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이 이 무역업자 계층에 속했다.

121:3.5 (1335.4)

4. *자유 무산 계층*.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거나 없는 집단. 자유를 누린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노예 노동자와 경쟁하도록 내몰렸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상위 계층들은 이들을 경멸했으며, “자손을 번성시키는 목적”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겼다.

121:3.6 (1335.5)

5. *노예 계층*. 로마 국가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으며;개인적으로 우수하여, 자유 무산 계층으로, 혹은 무역업자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향상시키는 통로를 재빨리 개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매우 열등했다.

121:3.7 (1335.6)

우수한 사람들조차 노예가 된 것은, 로마의 군사 정복으로 인한 특색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은 무조건적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주로 낮은 계층과 이 노예들로 구성됐다.

121:3.8 (1335.7)

우수한 노예는, 임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벌어들인 돈을 저축해서 자유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방된 노예 가운데 다수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상업 분야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갔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변경된 이 노예제도를 쉽게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이었다.

121:3.9 (1335.8)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 널리 퍼진 사회 문제는 없었다. 다수의 서민은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그 집단에 소속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재주 있고 유능한 개인들이 로마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회 직급에 만족했다. 그들은 계층을 의식하지 않았고, 이런 계층 구분을 불공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억압받는 계층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제 운동이 전혀 아니었다.

121:3.10 (1335.9) 여자는, 팔레스틴에서 제한된 지위에 있었던 것에 비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렸지만, 가족에 대한 유대인의 헌신과 자연스런 애정은 이방인 세계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다.

4. 이방 철학

121:4.1 (1335.10) 도덕적 관점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어느 정도 열등했으나, 더 고상한 이방인의 마음 속에는

천부적인 선함과 잠재적인 인간 애정의 풍부한 토양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도덕적 성품과 영적 성취의 풍성한 수확이 가능했다. 이방 세계는 그때 네 가지 중요한 철학에 지배됐는데, 그것들은 모두, 어느 정도 그리스인의 초기 플라톤주의에서 파생됐다. 이 철학 학파는 다음과 같다:

121:4.2 (1335.11) 1. *에피쿠로스학파*. 이 사고{思考} 학파는 행복 추구에 전념했다. 대부분의 에피쿠로스인은 관능적 무절제에 몰두하지 않았다. 이 교리는, 적어도 로마인이 치명적 숙명론 틀에서 해방되도록 도왔으며;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노력하면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무지한 미신을 효과적으로 퇴치했다.

121:4.3 (1336.1) 2. *스토아학파*. 금욕주의는 상류 계층이 지녔던 우수한 철학이었다. 금욕주의자는 이성_숙명 통제가 전체 자연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사람의 혼이 신성하며;물질 본성의 악한 육체 속에 혼이 갇혀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의 혼은, 자연계, 즉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성취할 수 있으며;따라서 미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었다. 금욕주의는 탁월한 도덕

수준까지 상승했고, 그 후에 어떤 순전한 인간적 철학체계도 결코 뛰어넘지 못한 이상이었다.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를 알아내기에 실패했고, 따라서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욕주의는 철학으로 남게 됐고;결코 종교가 되지 못했다. 그 추종자들은 보편적 정신의 조화에 자신의 정신을 조율시키려고 애썼지만, 자신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상하지는 못했다. 바울은, “나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글을 썼을 때, 금욕주의에 몹시 쏠려있었다.

121:4.4 (1336.2) 3. *견유{犬儒} 학파*. 견유학파는 그들의 철학 자취가 아덴의 디오게네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교리 중에서 많은 부분은 마키벤타 멜기세덱 교훈의 잔재에서 유래됐다. 견유주의는 초기에는 철학이라기보다 종교에 더 가까웠다. 견유학파는 적어도 그들의 종교_철학을 대중적{大衆的}이 되게 했다. 그들은 들에서나 시장에서,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계속 전파했다. 그들은 검소함과 덕행을 전파했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런 방랑하는 견유학파 설교자들은,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위해 영적으로 배고픈 민중을 준비시키기에 많이 공헌했다. 그들의 대중 설교 방식은 바울 서신의 형식과 문체를 많이 따랐다.

121:4.5 (1336.3) 4. *회의론{懷疑論} 학파*. 회의론은, 지식이란 그릇된 것이며 신념이나 확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태도였고 널리 전파된 적이 전혀 없었다.

121:4.6 (1336.4) 이런 철학들은 약간 종교적이었으며; 종종 기운을 북돋우고 윤리적이며 고귀하기도 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마도 건유주의는 제외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강한 자와 현명한 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었다.

5. 이방 종교

121:5.1 (1336.5) 이전의 시대들 내내, 종교는 주로 부족 또는 국가의 관심사였으며; 개인과 관련되는 문제일 경우는 드물었다. 신{神}들은 부족적 또는 국가적이었고, 개인적이지 않았다. 그런 종교 체계들은, 일반 사람의 개인적인 영적 소망에는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121:5.2 (1336.6) 예수 시대에 서양에 있던 종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21:5.3 (1336.7) 1. *이교(異敎) 종파들*. 이것들은 헬라와 라틴의 신화, 애국심, 및 전통의 조합이었다.

121:5.4 (1336.8) 2. *황제숭배*. 유대인과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개했으며, 이런 신격화는, 로마 정부가 두 종파의 교회를 혹독하게 박해하도록 직접 유도했다.

121:5.5 (1337.1) 3. *점성술*. 바벨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리스_로마 제국 전역에서 종교로 발전했다. 심지어 20세기에든, 사람들은 이 미신적인 믿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121:5.6 (1337.2) 4. *신비 종교들*. 그토록 영적으로 갈급한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종파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는데, 레반트에서 온 새롭고 색다른 종교들은, 평범한 인간을 매혹시키고 그들에게 *개인* 구원을 약속했다. 이 종교들은 재빨리, 그리스_로마 세계의 낮은 계층이 받아들인 믿음이 됐다. 그리고 이 종교들은,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교 교훈이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줬으며, 그리스도교 교훈은, 지식인에게 흥미를 자아내는 신학, 그리고 무지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당시의 평민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심오한 제안과 관련하여, 신격에 대한 웅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121:5.7 (1337.3) 신비 종교들은 국가적 믿음의 종말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개인 종파를 탄생시켰다. 신비교가 많이 있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121:5.8 (1337.4) 1. 약간의 신화적 전설, 일종의 신비--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유래됐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비교는, 미드라 신교{神敎}의 교훈으로 설명되듯이, 신{神}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됐는데, 그리스도교라는 바울의 신흥 종파와 한동안 공생{共生}하면서 서로 경쟁했다.

121:5.9 (1337.5) 2. 신비교는 민족이나 종족에 매이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우애적이었는데, 종교적 형제관계와 수많은 분파의 단체를 일으켰다.

121:5.10 (1337.6) 3. 예배에서 복잡한 입장 예식과 엄숙한 성례{聖禮}가 특징이었다. 그들의 은밀한 제례와 제례식은 때로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런 경우도 있었다.

121:5.11 (1337.7) 4. 그러나 그 예식의 본질 또는 그것이 얼마나 지나칠 정도였는지에 상관없이, 이 신비교들은 신봉자에게, 구원, 즉 "악으로부터의 구출, 죽음 이후의 생존, 그리고 슬픔과 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행복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똑같이 약속했다.

121:5.12 (1337.8) 그러나 예수의 교훈을 이런 신비교와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신비교가 유행됨은, 생존을 향한 사람의 추구를 드러내는 것인데, 개인 종교와 개개인의 의로움을 실질적으로 열망하고 묵말라하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그 신비교들이 이런 갈망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기에는 실패했더라도, 진실로 생명의 빵과 물을 이 세상에 가져온 예수께서 출현하도록, 그 길을 예비했다.

121:5.13 (1337.9) 바울은, 더 나은 유형의 신비 종교들에 대한 널리 퍼진 신봉을 활용하고자 애쓰면서, 개종이 기대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예수의 교훈을

어느 정도 개작{改作}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교훈을 (그리스도교로) 절충시켰더라도, 신비교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세했다:

121:5.14 (1337.10) 1. 바울은 도덕적인 구속{救贖}, 윤리적인 구원을 가르쳤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삶을 지시하고 새로운 이상{理想}을 선포했다. 바울은 마술적인 제례와 예식적인 요술을 거부했다.

121:5.15 (1337.11) 2. 그리스도교는, 슬픔,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된 뒤에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의로운 성품의 기증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붙잡은 종교를 출현시켰다.

121:5.16 (1338.1) 3. 신비교들은 신화{神話}에 기초했다.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미가엘이 인류에게 증여됐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다.

121:5.17 (1138.2) 이방인 사이에서, 도덕성은 종교나 철학과 반드시 관련돼 있지는 않았다.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도덕적 삶 역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하지는 않았다. 유대의 종교와, 뒤를 이은 예수의 교훈,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발전시킨 그리스도교는, 한 손은 도덕 위에, 또 한 손은 윤리 위에 놓고, 신자들이 이 두 가지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유럽 종교가 됐다.

^{121:5.18 (1338.3)} 예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철학체계와 복잡한 종파들의 종교에 지배당함으로써 혼란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세대 속으로 팔레스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바로 이 세대에게, 개인 종교인 자신의 복음을--곧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시했다.

6. 히브리 종교

^{121:6.1 (1338.4)} 기원전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의 종교 사상은, 그리스 문화의 교훈에,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고, 어느 정도 변경돼 있었다. 히브리 사상에 대한 동방 학파들과 서방 학파들의 견해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뤄지던 중에, 예루살렘과 그 외의 서양 지역 그리고 레반트는, 일반적으로 서방의 유대 관점 또는 변경된 헬라 관점을 택했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틴에서는 세 언어가 통용됐는데:보통사람은 아람어 방언을;제사장과 랍비는 히브리어를;교육받은 계층과 상류 계층 유대인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초기 히브리 성서는, 나중에 주류{主流}를 이루게 된 그리스파의 유대 문화 및 신학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사들의 기록이, 같은 언어로 곧 출현하게 됐다. 유대주의의 부흥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때부터 시작된다. 나중에 바울의 그리스도교 종파가 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서방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결정되는 데 이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헬라화된 유대인의 믿음은, 에피쿠로스학과 교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플라톤 철학과, 금욕주의자의 자아_부정 교리에 매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금욕주의에 크게 잠식당했다는 사실은, 마카비서 제4권에 잘 나타나 있으며;플라톤 철학뿐 아니라 금욕주의 교리들 역시 침투해 있었음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잘 나타나 있다. 헬라화된 유대인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히브리 신학에 접목시키는 일에

별로 어려움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런 우화적 해석을 히브리 성서에 적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 문제를 맡아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간단하고 비교적 모순 없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으로 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전에는, 극도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서 가르치던 시기에, 팔레스틴에 성행하던 것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이 합쳐진 이 후대의 가르침이었으며,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진보되고 계몽시키는 그리스도교라는 종파를 세우는 기초로 활용했다.

121:6.4 (1338.7) 필로는 위대한 선생이었으며;서양 세계의 윤리 및 종교 사상에 그토록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모세 이후로는 없었다. 윤리 및 종교 교훈이라는 동시 발생적 체계 속에, 더욱 훌륭한 요소를 결합하는 일에서, 일곱 명의 탁월한 인간 선생이 있었는데;셰타드, 모세, 조로아스터, 노자, 부다, 필로, 및 바울이었다.

121:6.5 (1339.1) 필로의 모순점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은, 그리스의 신비 철학과 로마의 금욕주의 교리,를 율법적인 히브리 신학과 결합시키려는 노력에서

발생됐는데, 그것을 인식한 바울은, 그리스도교_이전에 자신이 지녔던 기본 신학에서 이를 현명하게 제거했다. 필로는, 유대 신학 안에서 오랫동안 동면해 오던 낙원 삼위일체 개념을 충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로, 바울을 인도했다. 바울이 필로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거나, 또는 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교훈을 넘어서지 못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속죄에 관한 교리였으며;필로는 오직 피 흘림으로써만 용서 받는다는 교리로부터 해방되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사고 조율사의 실체와 현존에 대해, 바울이 알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알아차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의 원죄 이론, 즉 유전적 죄와 타고난 악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구출에 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드라 송배에서 기원됐으며, 히브리 신학이나 필로의 철학 또는 예수의 교훈과는 거의 상관없었다. 원죄와 속죄에 대한 바울의 교훈 중에서 어떤 국면들은 그의 창작품이었다.

121:6.6 (1339.2) 예수의 이 세상 생애를 기록한 것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은, 서방 민족들을 위해 기록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필로의 교훈도 동시에 따르고

있던 후대의 알렉산드리아 그리스도교 관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121:6.7 (1339.3) 그리스도 시대 무렵에, 유대인에 대한 이상하게 뒤집힌 정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됐고, 전에 유대인의 근거지였던 이곳으로부터, 지독한 유대인 박해 물결이 시작되어 심지어 로마까지 확장됐으며, 거기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추방됐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운동은 오래가지 않았으며;황제가 다스리는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국 전역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유대인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줬다.

121:6.8 (1339.4) 광범한 전 세계 도처에서, 상업 또는 박해로 인해 스스로 흩어졌던 유대인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일제히 집중했다. 유대인 신학은, 특정한 바빌로니아 선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함으로써,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번 구출됐음에도, 예루살렘에서 해석하고 실천해왔던 그대로 유지됐다.

121:6.9 (1339.5) 흩어져 살던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은, 민족적 종교 축제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곤 했다. 동방(바빌로니아)의 유대인과 서방(헬라)의 유대인이, 신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서로 차이 있었음에도,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을 경배 중심지로 여겼으며, 곧 오실 메시아를 여전히 대망{待望}했다.

7. 유대인과 이방인

121:7.1 (1339.6)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 유대인은 그들의 근원, 역사, 및 운명에 대해 확정된 개념에 도달했다. 그들은 자신과 이방세계 사이를 분리하는 견고한 벽을 쌓았으며;이방인 방식은 무엇이든지 심하게 경멸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 자체를 숭배했고, 혈통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에 근거해서 스스로_의롭게 여기는 틀에 빠졌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 이미 여러 선입견을 만들었으며;이런 대부분의 기대는, 그들의 나라 및 종족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상상하게 했다. 당시 히브리인에게 유대 신학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되고 영원히 고착된 상태였다.

121:7.2 (1339.7) 아량과 친절에 관한 예수의 교훈과 실천은,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오랫동안_품어온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유대인이 키워온 외부 세계에 대한 태도는,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방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야훼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그런 새롭고 생소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121:7.3 (1340.1) 서기관, 바리새인, 및 제사장들이, 제레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지독한 굴레를 유대인에게 씌워 놓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정치 기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은 율법에 예속됐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요구에 노예처럼 속박돼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들의 개인 및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을 일일이 간섭하고 침범했다. 이런 세세한 행동 규칙이 모든 충실한 유대인을 따라다니고 지배했으며, 신성시되는 전통을 무시한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오랫동안_받들어 온 사회 운영 규칙을 감히 경멸하는,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들이 즉시 제거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제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교리와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의 교훈을, 선의로 봐줄 수 없었다. 모세가

그들의 율법을 그들에게 줬고, 그들은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121:7.4 (1340.2) 그리스도 이후 1세기가 되자, 명망 있는 선생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 말로 해석한 것이, 문자화된 율법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됐다. 그리고 특정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 때문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대열에 서도록 하기가 더 쉬웠다.

121:7.5 (1340.3) 유대인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종교적 자유와 영적 해방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신성한 운명을 완수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은 전통의 족쇄를 깨뜨릴 수 없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돼야 할 율법”을 이야기했고, 에스겔은 “사람의 혼 속에 살게 될 새로운 영”을 말했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속에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선한 행위와 율법에 노예가 된 유대 종교가 전통적 타성의 침체에 희생자로 전락했을 때, 종교적 발전의 움직임은 유럽인을 향해서 서쪽으로 옮겨갔다.

121:7.6 (1340.4) 그리하여 진보하는 신학, 즉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인의 법, 히브리인의 도덕성, 및 예수의 교훈에 근거하고 바울이 조직적으로 만든, 인격체의 존엄성과 영적 자유를 외치는 복음 등을 포함하는 교육 체계를 세계로 전파하는 일에, 다른 민족이 부름을 받게 됐다.

121:7.7 (1340.5) 바울의 그리스도교 종파는, 유대교에서 출생한 흔적을 그 종파의 도덕성으로 보여줬다. 유대인은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곧 일하시는 야훼의 섭리로-- 여겼다. 영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개념을 새로운 가르침에 전해준 것은 그리스인이었다. 바울의 교리는, 신학과 철학 면에서 예수의 교훈뿐 아니라, 플라톤과 필로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윤리 면에서, 그는 예수뿐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에게서도 영감{靈感}을 받았다.

121:7.8 (1340.6) 예수의 복음은, 바울의 안디옥 그리스도교 종파에서 구체화됐듯이, 다음과 같은 교훈과 혼합됐다:

121:7.9 (1340.7) 1. 유대주의로 개종한 그리스인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들의 개념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는, 철학적 논법.

121:7.10 (1340.8) 2. 널리 퍼져 있던 신비 종파들의 매혹적인 교훈, 특히 어떤 신이 희생됨으로써 이뤄진, 구속, 속죄, 및 구원에 대한 미드라교의 교리.

121:7.11 (1340.9) 3. 이미 확립된 유대 종교의 완강한 도덕성.

121:7.12 (1341.1) 예수 시대에, 지중해의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왕국 그리고 인접된 지역의 사람들은 모두, 세계 지리, 천문학, 건강, 및 질병 등에 대해서 아주 미숙하고 원시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나사렛 목수의 새롭고 놀라운 선언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선령{善靈}과 악령을 소유한다는 관념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 모든 바위와 나무도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마법{魔法}이 성행하던 시대였으며, 기적이 보통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모두 믿었다.

8.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

121:8.1 (1341.2) 우리가 받은 명령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유란시아에 있는 기존의 기록을 활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화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우리는, 분실된 사도 안드레의 기록을 읽어 볼 수 있는 기쁨도 누렸고, 미가엘이 증여됐던 기간에 이

세상에 있었던 다양한 천상의 존재 무리의 (특히 그의
인격화된 조율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소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칭하는 복음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121:8.2 (1341.3) 이 신약 성경 기록들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기원됐다:

121:8.3 (1341.4) 1. *마가복음*. 요한 마가는 예수의 생애에 관해
(안드레의 기록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가장 간결하고 가장
담백하게 기록했다. 그는 주님을 한 사역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했다. 마가는 자신이 서술한 대부분의
장면들 주변에 한 소년으로서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기록은 시몬 베드로에 따른 복음서다. 그는 처음에는
베드로와;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연합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부탁으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간곡한
청에 따라서, 이것을 기록했다. 마가는, 주님이 세상에서
육신 속에 있는 동안 자신의 교훈을 글로 남기기를 얼마나
일관되게 거부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 및 다른
수제자{首弟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런 기록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마가가 그 준비를 담당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베드로가 서기 67년에 죽기 전까지 간단한 기록을 많이 만들었으며, 베드로가 승인한 전체 윤곽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가 죽은 직후부터 이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 복음서는 서기 68년 말쯤에 완성됐다. 마가는 순전히 자신과 베드로의 기억에 의존해서 글을 썼다. 그 기록은 그 후에 상당히 변경됐는데, 최초의 복음서에서 마지막 5분의 1은 첫 원본이 복사되기 전에 유실{遺失}됐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후일의 어떤 사건들이 끝 부분에 삽입됐다. 마가가 쓴 이 기록은, 안드레 및 마태의 기록과 결합되면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묘사하려 했던, 차후의 모든 성문화된 복음서의 기초가 됐다.

121:8.4 (1341.5) 2. *마태복음*. 소위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유대 그리스도교인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쓴, 주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의 저자는, 예수의 생애에서 그가 행한 대부분의 사건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했다. 마태의 복음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는데,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121:8.5 (1341.6)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다. 마태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사도르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마태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십자가형 직후에 이사도르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들의 도움도 받았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람어로 돼 있었으며; 이사도르는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이 글을 마태의 작품이라고 공언할 때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121:8.6 (1342.1) 마태의 원래 기록은, 서기 40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직전까지 편집되고 첨가됐다. 그것은 사적{私的}인 기록이었으며, 그 마지막 사본{寫本}은, 서기 416년에 시리아 수도원이 불탔을 때 파괴됐다.

121:8.7 (1342.2)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 기록들을 지니고 성을 빠져 나와서 펠라로 도피했다. 펠라에서 살고 있던

71년에, 이사도르는 마태의 단편 기록들에 의거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는 또한 마가의 기록 중에서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을 갖고 있었다.

121:8.8 (1342.3) 3. **누가복음**. 피시디아 안디옥의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로 인해 개종된 이방인이었고, 주님의 생애에 관해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는 서기 47년에 바울을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배웠다. 누가는, 바울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부터 이 사실을 수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보관했다. 그는 주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묘사했다. 그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여러 단편 기록을 복음서로 조직화하지 않았다. 누가는 아가야에서 82년에 기록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다루는 세 권의 책을 쓸 계획이었으나, 둘째 책인 "사도행전"이 완성되기 직전인 서기 90년에 죽었다.

121:8.9 (1342.4)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편집하기 위한 재료로서, 먼저 바울이 자기 체험과 관련시켜서 말했던, 예수의 생애에 대한 자료에 의존했다. 따라서 누가 복음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로 말미암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정보 자료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여러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과 면담했을 뿐만 아니라, 5분의 4에 해당하는 첫 부분의 마가복음 사본을 갖고 있었으며, 이사도르의 글, 그리고 서기 78년에 안디옥에서 세데스라는 한 신자가 쓴 간단한 기록도 갖고 있었다. 누가는 또한 사도 안드레가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종합적이고 많이_편집된 어떤 기록의 사본도 갖고 있었다.

121:8.10 (1342.5) 4.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다른 기록들에서 볼 수 없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근방에서 활동하신 일이 많이 기록돼 있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라고 불렸으며, 비록 요한이 쓰지는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붙여넣었다. 이것이 처음 기록된 후에, 바로 요한이 직접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편집됐다. 이 기록이 작성됐을 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것이 생략돼 있음을 발견했으며;따라서 그는, 서기 101년에 가이사랴에서 온, 그리스 유대인인 동료 나단을 설득해서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요한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재료를 그에게 제공했고, 이미 기록된 세 권의 기록을 참고토록 했다. 그가

직접 쓴 기록은 없었다. “요한1서”라고 알려진 서신서는 그가 직접 쓴 것이었는데, 그의 지시에 따라서 나단이 기록한 작품의 서언{序言}에 해당하는 편지였다.

^{121:8.11 (1342.6)} 이 저자들은 모두, 자신이 예수를 본대로, 기억나는 대로, 혹은 그에 대해 배운 대로, 그리고 나중에 지지 받게 된 바울의 그리스도교 신학에, 오래 전의 이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영향 받은 대로,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기록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란시아 역사의 진로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121:8.12 (1343.1)} [감사{感謝}의 글:나사렛 예수의 교훈을 다시 진술하고 활동을 다시 이야기하는 내 위탁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는 기록된 모든 자료와 행성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했다. 내 주요 동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를 계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록을 준비함에 있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보만 선택했다. 가능한 한, 나는 순전히 인간 세계의 자료들로부터 내 정보를 도출하려고 했다. 나는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초인적인 그 기록들의 도움을 받았다.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어떤 인간 정신이 적절하게 표현했을 때, 나는 그런 명백하게 인간적인 사고 유형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뒀다. 나는 주님의 생애와 교훈의 실제 의미와 진정한 뜻에 대한 우리 개념에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단어 표현을 조정하려 애썼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한 내 서술 전체에서 실제 인간 개념과 사고{思考} 원형에 충실했다. 인간의 정신에서 생겨난 이 개념들이, 다른 모든 인간 정신에게도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도움 될 수 있음이 입증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인간의 기록이나 인간의 표현에서 필요한 개념을 찾아 낼 수 없을 때, 내가 소속된 지상 피조물 계층인 중도자들의 기억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2차 정보 자료가 부적당한 경우에, 주저하지 않고 초행성 정보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121:8.13 (1343.2) 사도 안드레의 기록에 대한 기억은 별도로 하고-
- 예수 시대부터 이 계시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진술하는 이 기록을 쓸 때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2천 명 이상의 인간으로부터 수집한, 예수의 교훈에 관한 주옥같은 사상과 최고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가

수집해 온 메모들로부터, 나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 서술문을 준비했다. 인간의 기록과 인간의 개념들이 적절한 사고{思考} 원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된 계시를 활용해 왔다. 내가 소속된 계시 위원회는, 내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자료로부터 요구된 개념적 표현을 찾아내고자 수고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인간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정보나 표현의 자료에도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121:8,14 (1343,3) 나는 11인의 연합한 동료 중도자들의 협력과, 기록을 담당하는 멜기세덱의 감독 하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려는 내 개념에 맞도록, 그리고 직접 표현하기로 한 내 선택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묘사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 활용한 그 관념들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효과적인 표현들 가운데 일부분은, 이 일을 떠맡기 시작할 때 아직 살아있던 자들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세대들 동안 지구에 살아왔던, 여러 인종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그것들의 원천을 활용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내가 직접 이야기 했다가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자의 역할을 했다. 나는 인간 개념과 관념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내가 예수의 생애를 묘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창작성을 제공했고, 내가 예수의 비길 데 없는 교훈을 다시 기록할 때, 가장 현저하게 도움을 주고, 가장 보편적인 어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 줬다. 유란시아에 있는 결합된 중도자 형제단을 대신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다시 서술하는 자세한 글에서, 이어지는 다음 장들의 기록과 개념의 모든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은혜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다.]

제122편 예수의 탄생과 유아시절

122:0.1 (1344.1) 왜 팔레스틴이 미가엘의 증여를 위한 땅으로 선택됐는지, 그리고 특히 유란시아에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기 위한 직접적인 환경으로서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선택됐는지, 여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22:0.2 (1344.2) 미가엘은, 격리된 세계들의 상태에 대해 멜기세덱들이 작성한 특별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가브리엘과 의논하여, 자신의 마지막 증여를 수행할 행성으로 유란시아를 최종 선택했다. 이렇게 결정한 후에,

가브리엘이 유란시아를 직접 방문했고, 인간 집단들에 대한 검토와, 그 세계 및 민족들의 영적, 지적, 인종적, 및 지리적 특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는 증여될 종족으로 당연히 선택될만한 상대적 장점을 히브리인이 갖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미가엘이 허락함에 따라서, 가브리엘은 유대인 가정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과제를 위임받은 --높은 우주 인격체 계층들 중에서 선택된-- 12인 가족 위원회를 임명하여 유란시아로 파견했다. 이 위원회가 임무를 끝냈을 때, 가브리엘이 유란시아에 나타났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회의 의견으로, 미가엘의 기획된 육신화{肉身化} 증여 가족이 되기에 동등하게 적합한, 세 쌍의 기대되는 부부를 추천한다는 내용이었다.

122:0.3 (1344.3) 가브리엘은, 추천된 세 쌍 중에서 직접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고, 그 후에 몸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증여될 그 아이의 이 세상 어머니가 되도록 마리아가 선택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줬다.

1. 요셉과 마리아

122:1.1 (1344.4) 예수(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아버지인 요셉은 정통 히브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그의 선조들 중에서 여자 혈통 쪽으로, 이따금 비_유대인 종족 계통이 족보에 많이 첨가됐다. 예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유서 깊은 족장 시대를 지나서 더 초기 유전 혈통 쪽으로 가면, 수메르인과 늦족속을 거쳐, 고대 청색인으로 이뤄진 남부 지방 부족들을 지나서, 안돈과 흰타까지 이어진다. 다윗과 솔로몬은 요셉 조상의 직계 혈통에 속하지 않았고, 요셉의 가계{家系}는 아담에게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다. 요셉의 직계 선조는 기능공이었다--건축가, 목수, 석공, 대장장이였다. 요셉 본인은 목수였고, 후에는 하청업자로 일했다. 그의 가족은, 평민 중에서 귀족에 해당하는 오래되고 저명한 혈통에 속했는데, 유란시아에서 종교 진보와 관련해 스스로 탁월함을 드러낸 비범한 인재들이 출현함으로써 이따금씩 돋보였다.

122:1.2 (1345.1) 예수의 이 세상 어머니인 마리아는, 유란시아 인종 역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여성 가운데 다수를 포함하는, 독특한 조상으로 이뤄진 오래된 혈통의 후손이었다. 비록 마리아가, 그녀와 같은 시대 및 세대

중에서 평범한 여자였고, 상당히 전형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녀의 선조 중에는, 아논, 다말, 롯, 밋세바, 앤시, 클로아, 이브, 엔타와 라타 등의 저명한 여자들이 있었다. 그 시대의 어떤 유대 여자도, 더 유명한 평민 조상의 가계를 갖거나, 더 좋은 시조{始祖}로 거슬러 올라갈 만한 가계에 속하지 않았다. 요셉처럼 마리아의 조상도, 강하지만 평범한 개인들의 탁월성이 특징이었으며, 문명화 및 종교의 점진적 진화 행진 속에서 다수의 걸출한 개인으로 인해 때때로 돋보였다. 종족 면에서 본다면, 마리아를 유대인으로 간주하기에는 거의 적당치 않다. 그녀가 문화와 믿음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전적 재능에서는, 시리아,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리스, 및 이집트 혈통에 더 가까웠는데, 그녀의 인종적 유전성은 요셉에 비해서 더 평범했다.

122:1.3 (1345.2) 미가엘이 증여를 입안하고 있을 무렵에 팔레스틴에서 살고 있던 모든 부부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광범한 종족 결합과 보통 이상의 우수한 인격체 자질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 있게 갖춘 부부였다. 미가엘의 계획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일반인들이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으며;그래서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증여를 위한 부모가 되도록 선택했다.

2.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출현함

^{122:2.1 (1345.3)}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필생과업은, 사실상 세례 요한으로 인해 시작됐다.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라는 유대인 제사장 지파{支派}에 속했던 반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속했던 대가족 집단 중에서 더 번창한 지파의 일원이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122:2.2 (1345.4)} 가브리엘은, 나중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준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어느 날 정오에 나타났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약 3개월 후인, 기원전 8년 6월말이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122:2.3 (1345.5)} “네 남편 사가랴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원자의 도래를 염원하는 동안, 나 가브리엘은 이 신성한 선생의 선구자가 될 아들을 네가 곧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리러 왔는데, 너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가 자라서 주 너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이며, 장성한 후에는 네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데, 그 아이가 많은 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한 네 민족의 혼을 치유하는 자, 온 인류의 영을 해방시키는 자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친척 마리아가, 이 약속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나는 그녀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122:2.4 (1345.6) 이 환상은 엘리사벳을 몹시 놀라게 했다. 가브리엘이 떠난 후에, 그녀는 이 체험을 마음 속 깊이 간직했고, 위엄 있는 방문자의 말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했지만, 다음 해 2월초에 마리아와 만날 때까지, 남편 외에는 아무에게도 그 계시를 말하지 않았다.

122:2.5 (1345.7) 아무튼, 엘리사벳은 남편에게조차 다섯 달 동안 비밀로 간직했다.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사가라는 매우 회의적이었고, 여러 주 동안 모든 체험을 의심했으며,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됐음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자, 아내에게 가브리엘이 방문했음을 비로소 반신반의하는 정도가 됐다. 사가라는, 엘리사벳이 장차 어머니가 될 것에 관해 매우 당황했으나, 자신의 나이가 고령이지만 아내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가라는 요한이 태어나기 약 6주 전이 됐을

때에야, 어떤 인상적인 꿈을 꾼 결과로, 엘리사벳이 운명의 아들, 즉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게 됐다.

122:2.6 (1346.1) 기원전 8년 11월 중순쯤에,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나중에, 마리아는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마일 떨어진, 유다의 성읍 언덕에 거주하는 엘리사벳에게 다녀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셉을 설득했다. 가브리엘은 어머니가_될 이 사람들 각자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도 출현할 것임을 알렸었다. 자연히, 그들은 서로 만나서 체험을 비교하고, 자기 아들의 유망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갈망했다. 마리아는 먼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3주 동안 머물렀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을 본 것에 대한 마리아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많은 역할을 했고, 그리하여 그녀는, 아무 힘없는, 즉 그 영역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갓난아기로 세상에 곧 출현할 그 운명적 아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자신이 부름 받았음을, 더 온전히 확신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122:2.7 (1346.2)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유다의 성읍에서 출생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이 약속한대로 아들이 생긴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전에 지시 받았던 대로, 정식으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사가랴의 조카가 이미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는데,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122:2.8 (1346.3) 요한의 부모는, 그가 자라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종교 교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한에게 신중하게 감명을 줬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 발은, 그런 암시적인 씨앗이 뿌려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했다. 심지어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가 봉직하는 동안 성전에서 자주 발견됐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의 의미심장함에 크게 감동받았다.

3.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림

122:3.1 (1346.4) 어느 날 저녁 해 질 무렵 요셉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돌로 만든 낮은 식탁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고, 그녀가 평정을 되찾은 뒤에

말했다:“나는, 내 주님이시요 네가 앞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게 될 그분의 분부로 왔다. 마리아야, 네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너의 임신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기한이 되면 네가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너는 그를 예슈아라 불러야 하고, 그가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늘 나라를 펼칠 것임을 예고한다. 내가 이미 방문했던 네 친척 엘리사벳과 요셉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그녀 또한 요한이라고 부를 아들을 곧 낳을 것이며, 그는, 네 아들이 위대한 능력과 깊은 확신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구원의 메시지를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야, 내 말을 의심하지 마라. 이 집이 운명의 어린아이가 필사자로서 거주할 곳으로 선택됐기 때문이다. 내 축복이 네게 머물고, 지고자{至高者}의 능력이 너를 강하게 해 줄 것이며, 또한 온 땅의 주{主}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122:3.2 (1346.5) 마리아는, 이 이상한 일들을 남편에게 감히 밝히기 전에,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이 방문에 대해 여러 주 동안 은밀히 마음 속으로 숙고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뢰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동요했으며, 여러 날 잠을 잘 수 없었다. 요셉은 처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의심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신성한 사자{使者}의 음성을 정말로 들었고 그의 모습을 봤다는 사실이 거의 믿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다. 인간의 후손이 어떻게 신성한 운명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은 혼돈되는 이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러 주 동안 고심한 끝에, 그와 마리아는, 도래할 구원자는 신성한 본성을 지녀야 한다는 유대인의 개념과 다름에도, 그들 자신이 메시아의 부모로 선택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런 중대한 결론에 이르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122:3.3 (1347.1)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부모인 요아킴과 한나를 방문했다. 부모를 위시해서 두 형제와 두 자매는, 예수의 이 신성한 사명에 대해 심히 회의적인 태도를 늘 보였지만, 물론 이때에는,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장차 위대한 선생이 될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자매인 살로메에게 털어놓았다.

122:3.4 (1347.2) 마리아에게 했던 가브리엘의 예고는 예수가 수태된 다음 날 있었고, 마리아가 약속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전체 체험과 관련해서 일어난,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이었다.

4. 요셉의 꿈

122:4.1 (1347.3) 요셉은, 자신이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기 전에는, 마리아가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꿈속에서 밝게 빛나는 천상의 사자{使者}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이렇게 말했다:“요셉아, 나는 저 높은 곳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타났는데, 장차 세상의 위대한 빛이 되실 아들에 대해, 그리고 마리아가 그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너에게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며, 그의 삶은 인류의 빛이 될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 민족에게 오겠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저희가 하나님 자녀임을 그가 계시할 것이다.” 이 체험이 있는 후에, 요셉은 가브리엘의 방문과, 태어날 그 아이가 세상에게 신성한 사자{使者}가 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전적으로 의심하는 일은 없었다.

^{122:4.2 (1347.4)} 이런 방문이 이뤄지는 동안,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예수가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암시는 없었으며, 심지어 오래_대망{待望}하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암시도 전혀 없었다. 예수는 유대인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세상의 구원자였다. 그의 사명은, 어떤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종족과 민족을 향한 것이었다.

^{122:4.3 (1347.5)}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었다.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다윗 혈통에 더 가까웠다. 요셉이 로마 정부의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요셉의 6대조 부계{父系} 조상이 고아가 되어, 다윗의 직계 자손이었던 사독에게 입양됐기 때문이었으며;그로 인해 요셉 역시 “다윗의 가문{家門}”으로 간주됐다.

^{122:4.4 (1347.6)} 구약 성경에서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들 대부분은, 예수가 이 땅에 거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에게 맞도록 정돈됐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수세기 동안

구원자의 도래{到來}를 선포해 왔고, 이런 약속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다윗 왕의 권좌를 계승할 새로운 유대인 통치자가 도래할 것이며, 모세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틴에 유대인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외국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 외에도, 히브리 성서 전반에 걸쳐서 발견되는 많은 상징적 구절이, 후대에 이르러 예수의 생애 사명에 잘못 적용됐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이, 마치 주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어떤 사건과 일치하게 보일 정도로 심하게 왜곡됐다. 자신과 다윗 왕가의 모든 관련성을 예수께서 직접 공개적으로 부인한 적이 한 번 있었다. 심지어 “한 여자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문장마저, “한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해석됐다.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 중에서 많은 부분이, 미가엘의 이 세상 생애 이후에 작성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족보에는 주님의 실제 조상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진짜가 아니며, 사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기에 예수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은, 고대의 예언 기사들 전부가, 그들의 주시며 스승이신 그분의 생애에서 성취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유혹에 너무 자주 빠졌다.

5. 예수의 이 세상 부모

122:5.1 (1348.1) 요셉은 온화한_성품의 남자였고 지극히 양심적이었으며, 자기 민족의 종교 관례와 풍습에 모든 면에서 충실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생각이 깊었다. 유대 민족의 비참한 처지가 요셉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젊은 시절에는 그가 여덟 명의 남매 중에서 매우 쾌활한 편이었었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는) 영적으로 약간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이런 기질적 징후는, 그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목수의 직급으로부터 유망한 하청업자의 역할로 향상됨으로써 그의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후에, 매우 호전돼 있었다.

122:5.2 (1348.2) 마리아의 기질은 남편과는 상당히 상반됐다. 그녀는 늘 쾌활했고, 의기소침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항상 밝은 성격을 지녔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적인 느낌을 자유롭게 수시로 표현하곤 했고, 요셉이 갑작스럽게 죽기 전에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충격에서 거의 회복되자마자, 맏아들의 범상치 않은 생애로 말미암아 염려와 의문이 그녀에게 밀어닥쳤으며, 아들의 생애는, 놀라워하는 마리아의 눈앞에서 매우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범치 않은 이 모든 체험
내내,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맏_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형제 및 자매와의 관계에서, 마리아는 침착하고
용감하며 상당히 현명했다.

122:5,3 (1348,3) 예수는, 남다른 부드러움, 그리고 인간 본성에
공감하는 놀라운 이해심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어머니로부터는, 위대한 선생으로서의
재능, 그리고 의분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른으로서_살던 환경에 대해 보인 감정적
반응에서, 예수는 한때 아버지처럼 생각이 많고
신앙적이며 가끔씩은 슬픈 듯 보이는 특징이
있었지만;어머니의 낙천적이고 결단력 있는 성향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여 성인으로서 생활하며 중대한
걸음을 갑자기 내디딜 때, 마리아의 기질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께서
부모 두 사람의 특징이 혼합된 면을 보였고;또 다른
면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기질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122:5.4 (1348.4) 예수는, 유대 예식절차의 용법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히브리 성서에 대한 보기 드문 식견{識見}을,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마리아로부터는, 종교생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점과, 개인의 영적 자유에 대한 좀 더 개방적인 개념을 얻었다.

122:5.5 (1349.1) 요셉과 마리아 두 집안은 당시에 교육을 잘 받은 편에 속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의 시대 배경과 생활수준에 비춰 볼 때, 평균보다 훨씬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사색가였으며;그녀는 계획가, 즉 적응력이 뛰어나고 즉시 이행하는 실천가였다. 요셉은 검은 눈과 검은머리를 지녔고;마리아는 갈색 눈과 금발에 가까운 유형이었다.

122:5.6 (1349.2) 요셉이 살아 있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맏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확고하게 믿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다른 자식과 친구 및 친척들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마리아의 최종적인 태도는, 그 아이가 잉태된 직후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항상 안정을 되찾았다.

122:5.7 (1349.3) 마리아는 숙달된 직조기술자였고, 그 당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 기술 중에서 평범한 솜씨 이상이었으며; 훌륭한 살림꾼이었고 뛰어난 가정주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훌륭한 선생이었고, 자녀들이 그 당시의 지식에 해박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122:5.8 (1349.4) 요셉은 젊었을 때 마리아의 아버지 집 증축공사에 고용됐었는데, 점심시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예수의 부모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부부로서 구애{求愛}관계가 실제로 시작됐다.

122:5.9 (1349.5) 요셉이 21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유대인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정상적인 정혼{定婚} 지속기간이 끝날 때 치러졌다. 그 직후에 그들은 나사렛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으며, 그 집은 요셉이 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것이었다. 그 집은, 사방에 펼쳐진 시골 풍경이 매우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구릉지{丘陵地} 밑에 위치했다. 곧 부모가 될 이 두 젊은 부부는, 집을 떠나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에 가 있는 동안, 한 우주의 이 중대한

사건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이 집에서 약속의 아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122:5.10 (1349.6) 요셉 쪽 가족 대부분은 예수의 교훈을 믿는 신자가 됐지만, 마리아 쪽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를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 요셉은 예정돼있는 메시아에 대해 영적인 개념에 더 치우쳐 있었지만, 마리아와 그 가족들, 특히 마리아의 아버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단지 현세적인 구원자나 정치적 통치자로서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리아의 선조들은 그 당시 최근에 있었던 마카비 활동에 깊이 관여해 왔었다.

122:5.11 (1349.7) 요셉은 유대교 관점들 중에서 동방의 관점, 즉 바빌로니아 관점을 열정적으로 지지했으며, 마리아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해석할 때, 더 자유분방하고 폭넓은 서방, 즉 헬라파 해석 쪽으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6. 나사렛 고향집

122:6.1 (1349.8) 예수의 집은, 나사렛 북쪽 지역의 높은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고, 성읍의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수의 가족은 도시 외곽에 거주했으며, 이로 인해 그가 나중에 수시로 시골길 산책을 즐기거나, 근처에 있는 고원지대 꼭대기에 오르는 것도 훨씬 쉽게 했는데, 이곳은 동쪽으로 다불산 줄기, 그리고 비슷한 높이의 나인 언덕을 제외하고는, 남부 갈릴리의 모든 언덕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들의 집은 이 언덕의 남쪽 구릉에서 약간 남동쪽에 위치했고, 이 언덕의 기슭과 나사렛에서 가나 쪽으로 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했다. 예수께서는 언덕을 오르는 것 외에도, 세포리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향해 북동쪽 방향으로 자리 잡은, 언덕 기슭 주변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좁은 길을 따라서 산책하기를 즐겼다.

^{122:6.2 (1350.1)}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고 방이 하나 있는 석조 건물이었고, 축사{畜舍}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가구로는, 낮은 식탁, 질그릇과 돌로 된 접시와 냄비들, 베틀, 등잔, 몇 개의 작은 의자, 그리고 돌바닥에 깔고 잘 수 있는 돛자리들이 있었다. 축사가 가까이 있는 뒷마당에는, 곡식을 가는데 필요한 맷돌과 화덕을 보관해 두는 창고가 있었다. 이런 맷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곡물을 집어넣어야 했으므로, 두 사람이

필요했다. 어린 시절에 예수는, 어머니가 맷돌을 돌리는 동안 곡물을 집어넣는 일을 자주 도왔다.

122:6.3 (1350.2) 후년에 가족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온 식구는 더 넓게 만든 돌 식탁 주위에 함께 좁혀 앉아, 음식이 들어 있는 접시나 냄비에서 각자의 음식을 덜어 먹으면서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겨울 동안의 저녁식사 때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채워진 작고 납작한 진흙 등잔으로 식탁을 밝혔다. 마르다가 태어난 후에, 요셉은 이 집에 큰 방을 하나 덧붙여 지었고, 낮에는 목공소로 쓰고 밤에는 침실로 사용했다.

7. 베들레헬 여행

122:7.1 (1350.3) 기원전 8년 3월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그 달에) 가이사 아우구수투스가 로마 제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인구조사를 받도록 명령했는데, 인구조사는 세금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을 계수{計數}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선입견으로 항상 반대해 왔으며, 이것은 유대지방의 왕 헤롯이 국내의 심각한 어려운 여건들과 관련하여, 유대에서 이 인구조사 시행이 1년간 연기되도록

만들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이 인구조사가 기원전 8년에 실시됐지만, 유독 헤롯이 지배하는 팔레스틴 왕국만 예외였는데, 거기서는 1년 후인 기원전 7년에 실시됐다.

122:7.2 (1350.4) 등록하기 위해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야할 필요는 없었지만--곧 가족 전체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모험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인 마리아가 그와 동행할 것을 고집했다. 마리아는 요셉이 집을 비운 동안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될까봐 걱정스러웠고, 게다가 베들레헴이 유다의 성읍과 그리 멀지 않아서,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기쁘게 방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122:7.3 (1350.5) 요셉이 마리아의 동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소용없었으며;3일 내지 4일의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두 사람의 몫을 만들어서 자기도 그 여행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출발하기 전에, 마리아의 동행을 요셉이 수락했고, 그들은 새벽 무렵에 기쁜 마음으로 나사렛을 나섰다.

122:7.4 (1350.6)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고, 타고 갈 수 있는 가축이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마리아가 물건들과 함께 짐승 위에 타고, 요셉은 걸어서 그 짐승을 끌고 갔다. 요셉은 최근에 아버지가 몸을 못 쓰게 되어 부모도 부양해야 했으므로,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일이 크게 부담스러웠다. 그리하여 이 유대인 부부는, 기원전 7년 8월 18일 이른 아침에, 초라한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다.

^{122:7.5 (1351.1)} 여행 첫 날, 그들은 길보아산 기슭에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고, 거기서 요단강 가에 야영지를 정하고 밤을 보내면서,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요셉은 영적 선생의 개념에 집착했고, 마리아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유대의 메시아 개념을 고집했다.

^{122:7.6 (1351.2)} 8월 19일 밝은 이른 아침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사르타바산 기슭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여행을 계속해서 그날 밤에 여리고에 도착했고, 그 성읍{城邑} 변두리 도로변에 위치한 여인숙에 묵었다. 나사렛에서 온 이 여행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로마의 통치의 억압, 헤롯, 인구조사 등록, 그리고 유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해 많이 토론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0일 아침 일찍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정오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에는 오후 중반에 도착했다.

^{122:7,7 (1351:3)} 여인숙이 손님들로 가득 찼으므로, 요셉은 먼 친척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방은 이미 만원이었다. 그 여인숙 안마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여인숙 바로 아래쪽에, 바위를 깎아내고 대상{隊商}들을 위해 지어놓은 마구간들을, 숙박객을 위해서 짐승을 치우고 깨끗이 청소해 놓았음을 알았다. 요셉은 당나귀를 여인숙 안마당에 매놓은 후, 옷 보따리와 식량을 어깨에 메고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향해 마리아와 함께 돌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숙소는 전에 곡물창고로 사용됐던 곳이었고, 앞에는 마구간과 구유들이 있었다. 천막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들은 이런 안락한 장소나마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122:7.8 (1351.4) 요셉은 바로 나가서 등록하려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매우 지쳐있었으며;상당히 고통스러워진 그녀는, 요셉이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고, 요셉은 아내의 말대로 했다.

8. 예수의 탄생

122:8.1 (1351.5) 마리아가 밤새도록 몸이 불편했으므로, 둘 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에 산통{産痛}이 심해졌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다른 동료 여자 여행객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리아는 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났으며, 마리아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져온 옷으로 그를 싸서, 가까이에 있는 구유에 눕혔다.

122:8.2 (1351.6) 그날 이전이나 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약속된 그 아기가 태어났으며;팔 일째 되는 날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정식으로 예슈아(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122:8.3 (1351.7) 예수께서 태어난 다음 날, 요셉은 등록을 마쳤다. 그는 이틀 전에 여리고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는 여인숙에 머물고 있는 부유한 친구에게 요셉을 데려갔으며, 그 친구는, 나사렛에서 온 그 부부와 기꺼이 숙소를 바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여인숙으로 방을 옮겼고, 요셉의 먼 친척 집에 숙소를 얻기 전까지, 거의 3주간 거기서 지냈다.

^{122:8.4 (1351.8)} 예수께서 태어난 후 둘째 날에, 마리아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갈을 엘리사벳에게 보냈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가랴와 함께 그들이 당면한 모든 일에 대해 상의하도록 요셉을 초청한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 다음 주에 요셉은 사가랴와 상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께서 진실로 유대인의 구원자, 즉 메시아이며, 아들 요한은 조력자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할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자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요셉을 설득시키기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1년 이상 머물렀고, 요셉은 그동안 목수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122:8.5 (1352.1) 예수께서 탄생하던 날 정오에, 유란시아의 스라빔이 그들의 지휘자들 아래 함께 모여,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영광의 찬미를 불렀지만, 인간의 귀에는 이 찬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가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낸, 우르에서 온 어떤 사제{司祭}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목동은 물론 다른 어떤 필사 피조물도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지 않았다.

122:8.6 (1352.2)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 사제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아기의 모습으로 곧 나타날 것이라는 꿈을 꿴다는 이야기를, 그들의 나라에 있는 기이한 종교 교사로부터 얼마 전에 들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선생들은 그 “생명의 빛”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찾아보려던 여러 주간의 수고가 허사로 끝난 후에, 그들이 막 우르로 돌아가려 할 때, 사가랴를 만나게 됐고, 그는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예수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털어냈으며,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거기서 아기를 발견한 그들은, 아기의 이 세상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선물을 전해 줬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아기는 태어난 지 3주 정도 됐었다.

122:8.7 (1352.3) 이 현자{賢者}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됐다: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1일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적 사실이다. 선의{善意}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 신자들은, 이런 특수하지만 또한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에 기초해서,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구유로 안내되고, 거기서 그 아기를 발견해 경배를 드린 찬양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대한, 매력적인 전설을 만들어 냈다. 동양적이거나 거의_동양적인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술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며,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 영웅의 생애에 관해서 아름다운 신화를 계속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 지식이 구전{口傳}으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면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에는 사실로 인정되기가 매우 쉬웠다.

9. 성전 예식에 참여함

122:9.1 (1352.4) 모세는, 모든 첫_태생 아들은 주{主}께 속했다고 유대인에게 가르쳤으며, 이방인 국가들 중에서 관습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그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대신, 정식으로 인가된 어느 제사장에게든지 그의 부모가 다섯 세겔을 바침으로써, 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아기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성전에 직접 나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적당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서) 정화{淨化}를 받도록 하는 모세의 율례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보이고 그에 대한 속전{贖錢}을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 추정되는 마리아의 부정{不淨}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절차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직접 올라갔다.

122:9.2 (1353.1) 성전 뜰에는 비범한 두 인물, 즉 노래 부르는 시므온과 여자 시인{詩人} 안나가 항상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므온은 유대지방 사람이었지만, 안나는 갈릴리인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서로에게 동무가 됐고, 둘 다 제사장 사가랴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그가 요한과 예수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줬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해 왔고 또한 사가랴를 신뢰했으므로, 예수가 바로 유대 민족이 기대해 온 구원자라고 믿게 됐다.

122:9.3 (1353.2) 사가랴는, 요한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기로 한 날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함으로써, 여러 명의 첫_태생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예수인지를 가리켜 주기로, 시므온 및 안나와 사전에 협의했다.

122:9.4 (1353.3) 이때를 위하여 안나가 지은 시를 시므온이 노래로 불렀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위시해서 성전 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을 크게 놀라게 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첫_태생 아들의 속죄에 대한 찬미를 불렀다:

122:9.5 (1353.4) 이스라엘의 하나님하신 주께 복이 있으리로다,

122:9.6 (1352.5)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를 이루셨음이니;

122:9.7 (1353.6)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의 뿔을

122:9.8 (1353.7)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122:9.9 (1353.8)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

122:9.10 (1353.9)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심이라;

122:9.11 (1353.10)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

122:9.12 (1353.11) 곧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라,

122:9.13 (1353.12)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122:9.14 (1353.13) 종신토록 그의 앞에서 거룩함과 공의로,

122:9.15 (1353.14)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22:9.16 (1353.15) 그렇다, 너 약속의 아이여, 네가 지고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122:9.17 (1353.16) 네가 주 앞에 가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여;

122:9.18 (1353.17) 그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122:9.19 (1353.18) 구원을 알게 하리니.

122:9.20 (1353.19)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공화를 기뻐할 것은, 돈는
해가 위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122:9.21 (1353.20)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것이
비침이며

122:9.22 (1353.21)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이로다.

122:9.23 (1353.22) 그리고 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122:9.24 (1353.23)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122:9.25 (1353.24) 이는 당신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122:9.26 (1353.25)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122:9.27 (1353.26)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122:9.28 (1353.27)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
-혼동되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늙은 여자 시인 안나의 작별 인사 때문에 매우 불안했고,
요셉은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예수를 공표
하려는 그들의 이 미숙{未熟}한 노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0. 헤롯의 행동

122:10.1 (1353.28) 그러나 헤롯의 정탐꾼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우르의 사제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자, 헤롯은 그 갈대아인을 자기 앞에 출두시켰다. 그는 이 현자{賢者}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지만, 그들은 그를 거의 만족시켜주지 않았는데, 인구조사에 응하러 남편을 따라 온 한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헤롯은, 그의 나라는 세속적이 아닌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고 보내면서, 헤롯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현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의 의심은 더 심해졌다. 그가 이 일에 대해 마음 속으로 숙고하고 있을 때, 그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성전에서 최근에 생긴 일에 대해 보고했으며, 예수의 속전예식{贖錢禮式}에서 시므온이 노래한 가사 가운데 일부의 사본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추적하기에 실패했으며, 헤롯은 그 부부가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알아 내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 크게

화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도록 사람들을 보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사렛에서 온 그 가족을 헤롯이 쫓고 있음을 알게 되자,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기 예수를 요셉의 친척들 집으로 몰래 옮겼다.

122:10.2 (1354.1) 요셉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두려웠으며, 따라서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금방 바닥났다. 요셉은, 성전에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드릴 때에도, 모세가 가난한 사람에 속한 어머니들의 정결 제물로 지정해 준대로, 어린 비둘기 두 마리만 바쳤을 정도로 가난했다.

122:10.3 (1354.2) 1년이 넘은 후까지도 헤롯의 정탐꾼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아기가 여전히 베들레헴에 숨어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집마다 조직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두 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했다. 헤롯은 이렇게 해서라도,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이 아기를 없애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하여 유대지방 베들레헴에서는, 하루 동안에 열여섯 명의 남자 아기가 살해됐다. 그러나

음모와 살인은, 심지어 헤롯 자신의 직계 가족 내에서도, 그의 궁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122:10.4 (1354.3) 이 아기들의 집단 살해는, 예수가 겨우 한 살 조금 넘었던 기원전 6년 10월 중순에 일어났다. 그러나 헤롯의 측근 중에도 도래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살해할 계획을 사가랴에게 알렸고, 그는 바로 요셉에게 전갈을 보냈으며; 살해 사건이 있던 전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동행시키지 않고 예수만 데리고 이집트로 여행했다. 그들은 사가랴가 마련해준 돈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으며, 마리아와 예수가 요셉의 한 부유한 친척 집에 머무는 동안, 요셉은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했다. 그들은 고박 2년 동안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 돌아가지 않았다.

제123편 예수의 유년기 초기

123:0.1 (1355.1)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맛본 불안정과 염려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떼지 않았고, 이 가족은 거기에 정착해서 정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친척들과 함께 살았고, 요셉은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으므로,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목수로 고용돼서 일하다가, 당시에 건축 중이던 공공건물들 가운데 하나에 고용된, 큰 집단의 인부를 감독하는 직책으로 승진했다. 새로운 이 체험은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에, 하청업자 및 건축업자가 되는 계기가 됐다.

123:0.2 (1355.2) 예수가 무기력한 아기였던 이 처음 몇 해 동안 내내, 마리아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이뤄야 할 그의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거나, 아이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종일관 계속 가까이서 돌봤으며;어떤 어머니도 그녀보다 더 아이에게 헌신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연히 살게 됐던 그 집에는, 마침 그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두 명 있었고,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에도, 놀이_동무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가 여섯 명 있었다. 처음에

마리아는 늘 예수를 곁에 가까이 두려고 했다. 그녀는
예수가 다른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도록 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요셉은,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체험을, 예수에게서 뺏을
수 있음을 마리아에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도, 과도한 격리와 유별난 보호의 그런 계획이,
어쩌면 그를 수줍어하고 어느 정도 자기_중심적이 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깨닫고, 결국 이 약속의 아이를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게 허락하자는 계획에 동의했으며;이런
결정에 순종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집 주변과 마당에서
노는 동안 항상 지켜보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오직 애정
깊은 어머니만이, 갓난아기 때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
아들의 안전 때문에 항상 마음에 지니고 다녔던, 마리아의
그 무거운 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23:0.3 (1355.3)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렀던 2년 동안 내내,
예수는 아주 건강했고 계속 정상적으로 자라났다. 몇몇
친구들과 친척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요셉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멤피스에 있는 이크나톤의 먼 후예인 몇몇

친구들에게 이것을 누설했으며, 나사렛 가족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작은 무리의 신자{信者}들과 함께 요셉의 친척_후원자의 호화로운 집에 모여서, 나사렛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아이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때 모였던 친구들이,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판 사본 전권{全卷}을 예수께 선물로 드렸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문서의 이 사본은, 이집트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멤피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친구들의 청을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내 사양할 때까지, 요셉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신자들은, 그 운명의 아이가 팔레스틴의 어떤 이름난 장소에 있는 것보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함으로써, 이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설득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도, 그들은 팔레스틴으로 떠나는 일을 얼마 동안 연기했다.

123:0.4 (1356.1)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친구 이즈라언이 소유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옅바로 향했으며, 기원전 4년 8월 하순에 그 항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친구 및 친척들과 상의하느라고, 거기서 9월 한 달을 보냈다.

123:0.5 (1356.2) 마리아는, 예수가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성장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요셉은,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자가 될 것을 정말로 믿지는 않았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실제 다윗 자손이 아님을 알고 있었으며;자기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조상 가운데 한사람이 다윗 혈통 후손의 가문에 입양됐기 때문인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마리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새 계승자가 양육되기에는 다윗의 성읍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아켈라오 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있게 되기를 더 바랬다. 그는 베들레헴이나 유대지방에 있는 어떤 다른 도시 경우에도 아이의 안전에 대해 매우 염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갈릴리를 다스리는 안티파스보다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위협적인 통치 방법을 더 추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유 외에도, 요셉은 그 아이를 기르고 교육할 곳으로는 갈릴리가 더 좋은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마리아를 설득하기까지 3주가 걸렸다.

123:0.6 (1356.3) 10월 1일 경에,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리아와 모든 친구들을 확신시키게 됐다. 따라서 그들은, 기원전 4년 10월 초에 베들레헴을 떠났고, 리다와 스키토폴리스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향했다. 그들은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고, 마리아와 아이는 짐을 나르는 새로 구입한 짐승을 탔고, 요셉과 다섯 명의 친척은 걸어갔으며;요셉의 친척은, 그들이 나사렛으로 홀로 여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요단 계곡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를 두려워했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어린 나이의 아이와 함께 두 명만의 여행자가 가기에는 전혀 안전하지 못했다.

1. 나사렛으로 돌아옴

123:1.1 (1356.4) 여행한지 4일째 되던 날에, 일행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당도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나사렛 집에 도착했고, 거기에는 요셉의 결혼한 형제 가운데 하나가 3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 매우 놀랐으며;그들이 일을 매우 은밀히 추진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물론 마리아 쪽도,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가 자기 가족과 함께 그 다음날 이사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출생 후 처음으로 단출한 가족끼리 자기 집에 정착해 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요셉은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목수로서 일감을 확보했고, 그들은 매우 행복했다.

123:1.2 (1356.5) 그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올 당시에, 예수는 3년 2개월쯤 됐다. 그는 이 모든 여행 동안 아주 잘 견뎠으며,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고,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는 자기 공간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흥분으로 아이답게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함께 지냈던 놀이동무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123:1.3 (1356.6) 나사렛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말을 갈릴리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 퍼뜨리는 것은 현명치 않을 것이라고, 요셉이 마리아를 설득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결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 약속을 매우 잘 지켰다.

123:1.4 (1357.1) 예수가 네 살 되던 해 전체는, 정상적인 육체 발육과 비범한 정신 활동이 있던 기간이었다. 그는 당시에

나이가 비슷한 야곱이라는 이름의 이웃 소년과 매우 친한 사이가 됐다. 예수와 야곱은 항상 즐겁게 놀았으며, 그들은 자라면서 훌륭한 친구이자 충실한 동무가 됐다.

123:1.5 (1357.2) 이 나사렛 가족의 생활 중에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기원전 3년 4월 2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둘째 아이 야고보의 출생이었다. 예수께서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했으며, 아기의 초기 활동을 그저 지켜보려고, 오랫동안 그 주변에서 있곤 했다.

123:1.6 (1357.3) 같은 해 한여름에, 요셉은, 마을의 공동 우물과 대상{隊商}들이 묵어가는 장소 근처에 작은 작업장을 지었다. 이 후로 날이 갈수록 그는 목수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두 명의 형제 및 기술자 몇 명과 연합했고, 그들을 일하러 내보낸 동안, 작업장에 남아서 멩에나 쟁기 등을 만들거나 다른 목공일을 했다. 그는 가족을 가공하고 밧줄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커가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에 예수는,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세상 방방곡곡에서 오는 대상 안내자들과 여행객의 대화와 잡담에 귀 기울이면서, 아버지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데, 거의 같은 양의 시간을 보냈다.

123:1.7 (1357.4) 예수께서 네 살이 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7월에, 대상{隊商} 여행자들과 접촉함으로 인한 악성 장{腸} 전염병이 발발해서 나사렛 전역에 퍼졌다. 마리아는 예수가 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크게 우려했으므로,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사리드 근방 므깃도 거리에 있는 오빠의 시골집으로 두 아이를 데리고 피신했다. 그들은 두 달 넘도록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예수께서는 처음으로 맛보는 농장 생활을 무척 즐겼다.

2. 다섯 살 되던 해 (기원전 2년)

123:2.1 (1357.5)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 1년 조금 넘었을 때, 소년 예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첫 도덕적 결정을 내릴 나이에 이르렀으며;낙원 아버지의 거룩한 선물인 사고 조율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도래했는데, 이 조율사는 전에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함께 복무한 적이 있었고, 그리하여 초인적 존재가 필사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육신화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체험을 획득했다. 이 사건은 기원전 2년 2월 11일에 일어났다. 예수는 신성한 그 관찰자가 자신에게 온 것을 자각하지 못했는데, 그날 이전이나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아이의 정신 속에 거하여, 그 정신의 궁극적 영화{靈化}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진화하는 불멸{不滅}하는 혼의 영원한 생존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사고 조율사를 받아들이는 그들과 마찬가지로였다.

123:2.2 (1357.6) 2월이었던 이날, 미가엘이 아이의 모습으로 온전히 육신화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주 통치자들의 직접 친히 감독하는 일은 종료됐다. 그 시간부터, 인간으로서 육신화를 나타내는 동안 내내, 예수를 보호하는 임무는 내주하는 조율사 및 관련된 스랍 수호자들의 관리에 맡겨지도록 정해졌고, 이 일은 행성 상관들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특정한 한정적 임무를 실행하도록 배정된, 중도{中道} 피조물의 사역으로 때때로 보충됐다.

123:2.3 (1357.7) 예수는 같은 해 8월에 다섯 살이 됐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때를 그의 생애에서 (달력으로) 다섯 살 되던 해라고 부를 것이다. 기원전 2년인 이 해에, 예수의 다섯 번째 생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은 날인 7월 11일 밤에, 예수께서는 여동생 미리암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다. 다음날 저녁에, 예수께서는 세상의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각기 독자적인 개체로 태어나는 방식에 관해,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예수의 어린 시절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사려 깊고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부모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요셉은, 이 아이의 끝없는 질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충실히 대답하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수가 다섯 살이었을 때부터 열 살 될 때까지 질문이 끊어지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질문에 언제나 대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질문에 대해 그와 함께 토론하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떠오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런 답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에, 도움 될 만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123:2,4 (1358.1)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부터 이 가정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요셉은 새 가게를 지었고 또 일을 다시 시작하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너무 매여 있느라 야고보에게는 요람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었지만, 미리암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요셉이 미리 요람을 만들어 놔으므로, 미리암은 편안한 침대 속에 누워서 그 주위에 둘러선 가족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어린 예수는 이런 모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가정을 실컷 체험했다. 그는 어린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들을 돌보는 마리아에게 큰 힘이 됐다.

123:2.5 (1358.2) 당시에 이방 세계에는, 갈릴리의 이런 유대인 가정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매우 드물었다. 이 유대인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표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일곱 단계로 나눴다:

123:2.6 (1358.3) 1. 생후 8일까지의 신생아

123:2.7 (1358.4) 2. 젖을 먹는 아이

123:2.8 (1358.5) 3. 젖을 떼는 아이

123:2.9 (1358.6) 4. 다섯 번째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

123:2.10 (1358.7) 5. 아이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하고,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르칠 책임을 지게 되는 시기

123:2.11 (1358.8) 6. 청소년기의 남녀 아이

123:2.12 (1358.9) 7. 남녀 젊은이

123:2.13 (1358.10) 아이의 다섯 번째 생일까지만 어머니가 아이 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의 관습이었으며,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인 경우에 그 후의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졌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해에 갈릴리 유대인의 아동성장 가운데 다섯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기원전 2년 8월 21일에 마리아는 앞으로의 훈육을 요셉에게 정식으로 넘겨주게 됐다.

123:2.14 (1358.11) 이제는 예수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교육에 대한 직접 책임을 요셉이 지게 됐지만, 그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와 꽃들에 관한 지식과 가꾸는 방법을 예수에게 가르쳤다. 그녀는 또한 (여름에는 침실로 사용되는) 지붕 위에 모래를 넣은 낮은 상자들을 올려놓고, 예수가 지도를 그리거나, 아람어, 그리스어,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까지 쓰는 연습을 일찍부터 하게 했으며, 그는 오래지 않아서 이 세 언어 전부를 유창하게 읽고 쓰며 말할 수 있게 됐다.

123:2.15 (1358.12) 예수는 육체적으로 거의 온전한 아이로 보였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달력으로) 다섯 번째 해 후반기 즈음에,

처음으로 겪은 사소한 질병인, 약간의 소화불량을 체험했다.

123:2.16 (1359.1) 요셉과 마리아는 종종 맏아들의 장래에 대해 의논했는데, 너희가 그때 옆에 있었더라도,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처럼, 전형적이고 건강하며 아무 걱정 없는, 단지 매우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나고 있는 것만 목격했을 것이다.

3. 여섯 살 되던 해의 사건들 (기원전 1년)

123:3.1 (1359.2) 예수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미 아람어의 갈릴리 사투리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며;이때부터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리아도 그리스어를 약간 알았지만, 요셉은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리스어 교본으로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선물로 받은 히브리 성서 사본--곧 시편을 포함해서, 율법서와 예언서의 완성본--이 사용됐다. 나사렛 전체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전권{全卷} 성서 사본이 오직 두개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 목수 가정에서 갖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됐고, 예수는 자라면서 진지한 연구자와 신실한

구도자{求道者}를 끝없이 접할 수 있었다. 예수는 이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귀중한 책의 보관을 책임지게 됐고, 또한 그의 여섯 번째 생일에는, 이 신성시되는 책이 알렉산드리아 친구들과 친척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리고 그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그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됐다.

123:3.2 (1359.3) 예수의 어린 시절 가운데 첫 번째 큰 충격은, 그가 아직 여섯 살도 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그 소년의 생각에, 아버지는--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하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데 방금 일어난 약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예수의 질문에, “아들아, 난 정말 모르겠구나”라고 아버지가 대답하자, 호기심 많은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오랫동안의 혼란스런 각성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 완전한_지혜와 완전한_지식이 없음을 알게 됐다.

123:3.3 (1359.4) 요셉에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고 예수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지만, 그런 대답은 더 어렵고 당황스런 질문을 즉시 야기할 것이라고,

순간적인 깨우침이 그에게 떠올랐다. 심지어 예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질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나 마귀의 책임이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으로서 선한 영과 악한 영에 대한 교리를, 예수도 오랫동안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것은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믿음과 조화를 이뤘지만, 자연계의 물리적 현상을,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력 탓으로 돌리려는 것에, 그는 매우 일찍부터 의문을 갖게 됐다.

123:3.4 (1359.5) 예수가 아직 여섯 살 되기 전인 기원전 1년 초여름에,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찾아왔다. 그들의 기억에서 첫 만남이었던 이 기간에, 예수와 요한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방문자들이 겨우 며칠만 머물렀지만,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들의 장래를 비롯해서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그렇게 몰두해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지붕 위에 있는 모래 상자에서 벽돌을 갖고 놀기도 하고, 또한 진짜 아이 같은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온 요한과 만난 후에,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안식일 제례, 회당 설교, 및 연례적인 기념일 축제의 의미에 대해 매우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모든 절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줬다. 첫째는 한겨울에 행해지는 불을 밝히는 축제로, 8일간 계속됐으며, 첫째 날 밤에 한 개의 촛불을 켜고, 매일 밤마다 등불을 한 개씩 늘려 가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 모세의 예배 의식을 회복한 후의 성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른 봄철의 부림절 축제로, 에스더 및 그녀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출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장엄한 유월절이 이어졌는데, 어른들은 가능한 한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하하는 반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곤 했다. 그 다음에 수확하는 축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한 절기로서, 속죄의 날인 신년{新年} 축제였다. 이런 축전과 행사 중에서 어떤 것은 예수의 어린 정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봤고, 그런 후에는, 모든 유대 민족의

연중{年中} 휴가철인, 밖에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하면서 환희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장막절 축제의 즐거움에 적극 참여했다.

123:3.6 (1360.1) 이 해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기도에 대해 예수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예수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것을 고집했다. 엄숙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신격{神格}과 교통하지 않는 이런 방식은, 부모를, 특히 어머니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 고치라고 설득하지는 않았으며;그는 배운 대로 기도한 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고집했다.

123:3.7 (1360.2) 같은 해 6월에, 요셉은 나사렛에 있는 작업장을 형제들에게 넘겨주고, 건축업자로서의 일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놨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가족의 수입은 세 배 이상이 됐다. 요셉이 죽기 전까지, 이 나사렛 가족은 다시는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았다. 가족은 점점 불어났고, 그들은 가외의 교육과 여행에 많은 돈을 쓰게 됐지만,

증가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의 수입도 계속 늘어났다.

123:3.8 (1360.3) 그 후 몇 년간, 요셉은 나사렛과 그 근방에서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헴, 막달라, 나인, 세포리, 가버나움, 및 엔도르 등지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다. 집안일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머니를 돕기에 충분할 만큼 야고보가 자라게 되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떠나서 근방의 도시와 마을들을 자주 여행했다. 예수는 예리한 관찰자였고, 그래서 집을 떠난 이 여행에서 실제적인 많은 지식을 얻었으며;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았던 방식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축적하고 있었다.

123:3.9 (1360.4) 이 해에 예수는, 가족의 협동과 가정 규율의 요구사항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과 강한 충동을 조절하는데 많은 진보를 보였다. 마리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지만 상당히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 면에서 예수를 더 많이 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는 그 소년 곁에 앉아서, 가족 전체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개인적인 욕망을 자제하는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참된 이유와 그 이면적 이유까지도 충분히 설명하곤 했다. 그 상황이 예수에게 다 설명됐을 때, 그는 항상 부모의 바람과 가족의 규칙에 현명하게 그리고 기꺼이 협조했다.

123:3.10 (1360.5) 그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여가 시간 대부분을 낮에는 꽃과 식물을, 그리고 밤에는 별을 연구하면서 보냈다. 그는, 이 엄격한 나사렛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지키는 취침시간을 훨씬 넘은 시간까지, 자지 않은 채 누워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신기롭게 응시하기를 좋아하는, 유별난 경향을 보였다.

4. 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년)

123:4.1 (1361.1) 이 해는 예수의 생애에서 정말로 다사{多事}한 한 해였다. 1월 초에 갈릴리에는 굉장한 폭설이 내렸다. 눈이 2피트 넘게 왔으며, 이것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온 눈이었고, 나사렛에서는 100년 이래 최대의 폭설이었다.

123:4.2 (1361.2) 예수 시대에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 생활은 비교적 제한됐으며;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교적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놀이, 즉 그들이 자주 목격하고 호화로운 모습의 예식{禮式}들을 흥내 내며 놀았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했지만, 후대의 아이들이 대단히 즐겼던 그런 조직화된 오락은 거의 없었다.

^{123:4.3 (1361.3)} 예수는, 이웃집 소년과,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고보와 함께, 가족이 경영하는 목공소 한쪽 구석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거기서 톱밥과 나무토막을 갖고 매우 재미있게 놀았다. 안식일에는 특정한 종류의 놀이들이 금지됐는데, 예수로서는 그것이 왜 해로운지 항상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 시대와 세대의 환경으로는 나타내 보일 기회가 거의 없는 유머와 놀이에 대한 수용력을 갖고 있었지만, 열네 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항상 명랑하고 밝게 보냈다.

^{123:4.4 (1361.4)} 마리아는 집에 붙어 있는 축사{畜舍} 지붕에 비둘기 집을 마련했고, 그들은 비둘기를 팔아서 번 이익금을 특별 자선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는 그것에서 십일조를 떼어 회당 직원에게 넘겨 준 후에, 나머지 기금을 관리했다.

123:4.5 (1361.5) 이때까지 예수가 유일하게 겪은 실제 사고는, 천막으로 지붕을 만든 침실로 올라가는 뒷마당 돌계단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예기치 못했던 7월의 모래폭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안에 발생했다. 고운 모래 돌풍을 동반하는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期}에 불어 왔고, 3월과 4월에 특히 심했다. 그런 폭풍이 7월에 분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 폭풍이 왔을 때 예수는 습관처럼 지붕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건기{乾期} 중에는 이곳이 그의 습관적인 놀이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오다가, 모래 때문에 앞이 안보여서 계단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가 있은 후, 요셉은 계단 양옆에 난간을 설치했다.

123:4.6 (1361.6) 이 사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미리 방지될 수 없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로 돼 있던 일시적인 중도{中道} 보호자들, 즉 그 소년을 보살피도록 임명돼 있는 한 명의 1차 중도자와 다른 한 명의 2차 중도자의 태만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또한 수호 스라빔의 책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이 엔도르에 간 사이에 일어난 이

작은 사고로 마음에 매우 염려가 되어, 어리석게도 몇 개월 동안이나 예수를 자기 곁에 붙들어 두려고 애썼다.

123:4.7 (1361.7) 물리적 자연계에서 늘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물질적 사고에, 천상의 인격체들은 독단적으로 끼어들지 않는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단지 중도 피조물만이 운명의 남녀 인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질 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아무리 특별한 상황일지라도, 이 존재들은 오직 상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123:4.8 (1361.8) 그리고 이것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 있는 이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사소한 사고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너희가 활동적인 한 소년의 평범한 유년 및 어린 시절을 그려 본다면, 예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우려를 끼쳤는지도 상상이 될 것이다.

123:4.9 (1362.1) 나사렛 가족 가운데 넷째 아이인 요셉이, 서기 1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태어났다.

5. 나사렛에서 학교생활

123:5.1 (1362.2) 예수는 이제 일곱 살이 됐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이 나이에 회당{會堂} 학교에서 공식 교육을 시작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나사렛에서, 그는 사건이 많았던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이 소년은 이미, 두 가지 언어, 즉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며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히브리어를 읽고 쓰며 말하는 법을 배우기에 익숙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앞에 닥친 새로운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손꼽아 기다렸다.

123:5.2 (1362.3) 그는 --열 살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나사렛 회당에 소속된 초등학교에 다녔다. 3년의 이 기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대로 율법서의 기초 과정을 공부했다. 그 다음 3년 동안,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 신성시되는 율법 중에서 좀 더 심오한 교훈을 큰 소리로 반복해 읽는 방법으로 암기하는 과정을 거쳤다. 열세 살 되는 해에, 이 회당 학교를 졸업했고, 교육받은 "계명의 아들"로서 회당 관리{官吏}로부터 부모에게 인계됐으며--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부여됐으며;따라서 이 해에, 아버지 어머니와 동행하여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

123:5.3

(1362.4)

나사렛에서는 학생들이 마루 위에 반원형{半圓形}으로 앉았고, 카잔이라 불리는, 회당 직원인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다. 그들은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율법서들을 차례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시편을 공부했다. 나사렛 회당은 히브리어로 된 성서 사본 전권{全卷} 하나를 갖고 있었다. 열두 살 되기 전까지는 성서만 공부했다. 여름철에는 몇 달 동안 수업시간이 많이 단축됐다.

123:5.4 (1362.5)

예수는 히브리어를 일찍 통달했으며, 어떤 저명한 방문자도 나사렛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정규 안식일 예배 때 회당에 모인 신자들에게 히브리어 성서를 읽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123:5.5 (1362.6)

물론, 이 회당 학교들에는 교과서가 없었다. 수업 방식은, 카잔이 한 문장씩 읽어 나가면,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따라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다. 기록된 율법 책을 접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을 크게 읽고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123:5.6 (1362.7) 다음으로, 예수는 비교적 공식적인 학교생활 외에,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수리소를 거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인간 본성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더 나이가 들자, 그는 쉬거나 요기하려고 우물 근처에 머물던 대상{隊商}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렸다.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으므로, 예수는 대부분의 대상 여행자들이나 안내원과 대화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123:5.7 (1362.8) 나사렛은 대상들이 경유하는 곳이었으며, 여행 경로의 교차점이었고, 주로 이방인이 살았으며;동시에 그곳은, 유대의 전통적 율법에 대한 개방적 해석의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지방의 경우보다 더 자유롭게 이방인과 교제했다. 그리고 갈릴리의 모든 도시 중에서도 나사렛의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럽혀진다는 두려움에서 연유된 사회 제약에 대해서도, 가장 개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게 됐다.

123:5.8 (1363.1) 예수는 도덕적 훈련과 영적 수양을 주로 집에서 받았다. 그의 지적이고 신학적인 교육은 카잔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과 겨루는 실제적인 시험에 대비하여 정신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의 진정한 교육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습득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어울린 동무들과 나눈 이런 친밀한 교제,는 그에게 인간 종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예수는 그 속에서 사람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았다.

123:5.9 (1363.2) 그는 회당에서 교육 받는 전 과정 동안, 세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매우 총명한 학생이었다.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학교에서 과정을 졸업하게 됐을 때, "그 소년을 가르칠 수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탐구적인 질문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요셉에게 털어놨다.

123:5.10 (1363.3) 전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많은 것을 배웠고, 회당의 정기 안식일 설교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안식일에 나사렛에 머물게 된 저명한 방문자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자라면서 예수는, 전체 유대인 세계에서 손꼽히는 많은 사상가가 해석하는 견해를 들었고, 또한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견해도 들을 수 있었다.

123:5.11 (1363.4) 학생들은 일곱 살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유대인은 이때 의무교육법을 방금 시작했는데), 자신의 '탄생 기념 성구{聖句}'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동안 내내 일종의 황금률{黃金律}이 되게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들이 열세 살에 졸업하게 됐을 때, 이 성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곤 했다. 예수는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구절을 선택했다:"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기 위함이며;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123:5.12 (1363.5) 나사렛은 히브리 민족의 스물네 개의 사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의 사제들은,

전통적인 계명을 해석할 때, 유대지방의 학자나 랍비들보다 더 개방적이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안식일 준수에서도 역시 더 자유로웠다. 그래서 요셉은 안식일 오후에 예수를 데리고 종종 산책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었으며, 그들이 좋아하는 소풍 가운데 하나는, 사방의 갈릴리 지방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집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맑은 날에는, 북서쪽으로 갈멜산 한쪽 능선이 바다를 향해 뻗어 내려간 것도 볼 수 있었으며;예수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오래된 계통 가운데 초기 사람인 엘리야에 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엘리야는 아합을 책망하고 바알 사제들의 가면을 벗긴 사람이었다. 북쪽으로는 눈 덮인 헤르몬 산 봉우리가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높이가 3천 피트나 되는 상부 능선은 만년설{萬年雪}로 반짝였다. 멀리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을 식별할 수 있었고, 더 멀리로는 모압의 바위 언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남쪽과 동쪽으로, 데가볼리에 있는 그리스_로마 풍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벽에 해가 비칠 때, 원형 극장과 허세를 부리는 듯 서있는 높은 신전과 함께, 그 도시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편으로 지는 해를 보려고 머뭇거리는 동안, 그들은 서쪽으로 멀리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배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

123:5.13 (1364.1) 예수는, 나사렛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길을 재촉하는 대상 행렬들을 사방에서 관찰 할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길보아산과 사마리아까지 뻗어있는, 에스드렐론의 광활하고 비옥한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123:5.14 (1364.2) 산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이는 경치를 내려다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시골길을 산책하면서,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을 공부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훈련은 단란한 가정에서 받은 것 이외에도, 자연과의 경건하고 교감{交感}있는 접촉을 통해서 이뤄졌다.

123:5.15 (1364.3) 예수는 여덟 살 되기 전에, 나사렛의 모든 어머니와 젊은 여자들에게도 잘 알려졌고, 그들은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우물은 그의 집 가까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만나서 마을 전체에 관해 한담을 나누던, 교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같은 해에 예수는, 집에서 기르는 소의 우유를 짜고 다른 가축을

돌보는 일을 배웠다. 이 해와 다음 해에, 그는 또한 치즈 만드는 법과 천 짜는 법도 배웠다. 그는 열 살이 되자 베틀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예수와 이웃 소년 야곱이, 흐르는 샘물 가까에서 일하던 도공{陶工}과 친한 친구가 된 것도 바로 이때였으며;나단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자기 물레 위에서 흙을 주무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커서 함께 도공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나단은 이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종종 진흙을 쥐서 갖고 놀 수 있게 했으며, 여러 다른 물건과 동물을 경쟁적으로 만들게 하여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자극하려고 애썼다.

6. 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년)

^{123:6.1 (1364.4)} 이 해는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낸 한 해였다. 예수는 비범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매우 부지런했고, 학생들 가운데 비교적 더 진취성을 보이는 3분의 1에 속했는데, 맡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출석하지 않아도 됐다. 그는 이 한 주 동안, 대개 막달라 근처의 갈릴리 바다 해안에서, 어부{漁夫}인 삼촌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사렛에서 5마일 가량

남쪽으로 떨어진 농장에서, (어머니의 형제인) 외삼촌과 시간을 보냈다.

123:6.2 (1364.5) 비록 어머니가 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했지만, 차츰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을 용납하게 됐다. 예수의 삼촌과 숙모들은 모두 그를 매우 좋아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이 해와 그 뒤를 잇는 여러 해 동안, 예수가 매 달 자기 집에 방문하도록 노골적으로 경쟁하곤 했다. 삼촌의 농장에서 (갓난아이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 주 동안 머문 것은 이 해 1월이었고, 5월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한 주 동안 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다.

123:6.3 (1364.6) 예수는 이 무렵에 다마스쿠스에서 온 수학 선생을 만났으며, 숫자에 관한 새로운 기법을 배웠고,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숫자, 거리, 및 비율에 대해 예리한 감각을 발전시켰다.

123:6.4 (1364.7) 예수는 동생 야고보와 놀기를 매우 즐기기 시작했으며, 이 해가 끝날 무렵에는 그에게 철자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23:6.5 (1364.8) 이 해에 예수는 낙농제품을 주는 대가{代價}로 하프를 교습 받기로 합의했다. 그는 음악적인 모든 것을 남달리 좋아했다. 그는 나중에 젊은 동역자들 가운데서 노래 부르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열한 살이 됐을 때, 그는 능숙한 하프 연주자가 됐고, 비범한 연주 실력과 뛰어난 즉흥곡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무척 좋아했다.

123:6.6 (1365.1) 예수가 학교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계속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을 동안, 부모 또는 선생들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해서 난처한 많은 질문을 계속했다. 그는 특히 팔레스틴의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다. 또한 그는 나사렛과 요단 계곡의 온도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그는 지성적이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을 그치지 않았다.

123:6.7 (1365.2) 셋째 남동생 시몬이, 같은 해 서기 2년 4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태어났다.

2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의 선생들 가운데 하나인 나홀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왔는데, 그는 비슷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가랴의 집을 이미 방문했었다. 그는 요한의 아버지의 부추김을 받아서 나사렛에 왔다.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의 솔직함, 그리고 전통에 매이지 않은 태도에 처음에는 다소 충격 받았지만, 예수의 이런 태도를 갈릴리가 히브리 정통 교육과 문화에서 격리돼 있는 탓으로 돌렸고,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서, 유대 문화의 중심지에서 교육과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언했다. 마리아는 그의 설득에 거의 동의했으며;만아들이 메시아, 즉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요셉은 주저했는데;예수가 자라서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런 운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리라는 데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다. 그는, 나홀의 조언을

생각할수록,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더욱 의문스러웠다.

123:6.9 (1365.4)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의견이 달랐으므로, 나홀은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예수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예수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요셉 및 마리아와, 또한 이웃의 가장 친한 놀이 친구 야곱의 아버지인 석공{石工}과 이 문제를 의논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대답하기를, 부모와 충고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은 어느 한쪽으로도 특별히 선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결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논해” 보기로 결정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에 완전한 확신이 없어서, 차라리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내 외모를 보거나 내 마음을 관찰할 뿐인 낯선 사람들보다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들은 모두 그의 대답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나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예수가 집을 떠나는 문제를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여러 해
지난 다음이었다.

제124편 예수의 유년기 후기

124:0.1 (1366.1) 예수가 갈릴리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기회가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교육의 인도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토록 훌륭한 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문명화된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계층의 그런 수많은
남녀와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 있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오직 유대 계통의 교육만 받았을 것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방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됐고, 히브리 신학에 대한, 동방,
즉 바빌로니아 시각과, 서방, 즉 헬라 시각이 어떤 상대적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뛰어나고 균형 잡힌 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 예수가 아홉 살 되던 해 (서기 3년)

124:1.1 (1366.2) **예수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해에 남동생과 아기 여동생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흔히 앓는 어떤 사소한 병을 앓기도 했다.**

124:1.2 (1366.3) **학교 교육은 계속됐고,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주일 가량은 자유로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학생이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이웃 도시로 여행하기, 나사렛 남쪽에 있는 삼촌의 농장에 머물기, 그리고 막달라에서 낚시 여행 나가기에, 계속해서 여가 시간을 똑같이 할애했다.**

124:1.3 (1366.4) **형상, 초상화, 및 그림은 모두 본질적으로 우상이라는 카잔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가 감히 도전하려 했던 이 해 늦겨울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곧 학교에서 발생했다. 예수는, 경치를 그리기뿐 아니라, 질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다양한 물체를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런 종류는 무엇이든지 유대인의 법률로 엄격히 금지됐지만, 그는 이때까지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납할 정도로, 부모의 반대를 곧잘 무마시켜왔다.**

124:1.4 (1366.5) **그러나 예수가 목탄으로 학교 마루에 선생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비교적 뒤쳐진 학생 가운데 하나가**

발견하자, 문제가 다시 학교에서 터졌다. 그것이 그대로 있었고, 여러 장로가 그것을 본 후에, 위원회가 요셉을 방문하여, 그의 장남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인 아들의 행동에 대해 처음 듣는 불평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쏟아졌던 모든 비난 중에서 가장 심각했다. 예수는 뒷문 바로 밖에 있는 큰 바위에 앉아서,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한 비난에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는 비행으로 취급받는 자신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책망 받는 것에 분개했으며;그래서 그는 앞으로 걸어가, 비난하는 자들 앞에 대담하게 마주섰다. 장로들은 크게 당황했다. 몇몇 사람은 이 일을 적당히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한 두 사람은 그 소년을 불경스럽거나 아니면 무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요셉은 당황했고, 마리아는 화를 냈지만, 예수는 들어보라고 고집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자기 관점을 용감하게 옹호했으며, 최고의 자제심으로, 이것뿐 아니라 논쟁의 대상인 다른 모든 일에서도 아버지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발표했다. 그러자 장로들의 위원회는 조용히 떠났다.

124:1.5 (1367.1) 마리아는, 예수가 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미심쩍은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에서는 흙으로 모형을 만들 수 있게 허락하도록 요셉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요셉은 제2 계명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따라야만 한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예수는, 이날 이후로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비슷한 모양도 만들거나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틀렸다는 것도, 본인의 어린 시절의 큰 시련 가운데 하나인 그런 좋아하는 놀이를 포기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었다.

124:1.6 (1367.2) 6월 하순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다볼산 정상에 처음으로 올랐다. 맑은 날씨였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아홉 살 소년에게는, 이것이 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를 제외한, 정말로 온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124:1.7 (1367.3) 예수의 둘째 여동생인 마르다가 9월 13일 목요일 밤에 태어났다. 한동안 집에 머물렀던 요셉은, 마르다가 태어난 지 3주 지난 후에, 작업장 겸 침실을 집에 덧붙여 짓기 시작했다. 예수를 위해서 작은 작업대가 만들어졌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장들을 갖게 됐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틈나는 대로 이 작업대에서 일했고, 멍에 만드는 일에 상당한 기술자가 됐다.

124:1.8 (1367.4) 이 해 겨울과 다음 해는 나사렛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 예수는 산 위에 덮인 눈을 봤었고, 나사렛에도 몇 번 눈이 오기도 했지만 땅위에는 오래 남아있지 않았었는데;이 해 겨울에 처음으로 얼음을 보게 됐다. 물이, 고체,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소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세계와 그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토록 했지만--끓는 주전자에서 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었지만;광범한 우주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의 실제 창조자이자 조직자였던 그 인격체는, 성장 과정의 이 소년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이 정도였다.

124:1.9 (1367.5) 나사렛의 기후는 혹독하지 않았다. 1월이 가장 추운 달이었는데, 평균 기온은 화씨 50도 정도였다. 7월과 8월은 가장 더운 달이었고, 평균 기온은 화씨 75도에서 90도까지 변했다. 산으로부터 요단과 사해 계곡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틴의 기후는 한대와 열대기후가 두루

분포돼 있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유대인은 전 세계의 다양한 모든 기후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124:1.10 (1367.6)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도 오전 열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서쪽으로부터 시원한 바닷바람이 늘 불었다. 그러나 때때로 동쪽 사막으로부터 대단히 뜨거운 바람이 온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기도 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대개, 우기{雨期}가 끝날 무렵인 2월과 3월에 불었다. 우기에 해당하는 1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비가 끊임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틴에는 여름과 겨울, 건기{乾期}와 우기 두 계절만 있었다. 1월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4월말이 되면 온 땅은 하나의 방대한 꽃밭이었다.

124:1.11 (1367.7) 이 해 5월에, 예수는 삼촌의 농장에서 처음으로 곡물 거두는 일을 도왔다. 열세 살이 되기 전에, 그는 쇠다루는 일을 제외하고, 나사렛 주변에 있는 남녀가 종사하는 일에 대해 실질적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됐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몇 달 동안 대장간에서 일하기도 했다.

124:1.12 (1368.1) 예수는 작업이 없거나 대상 행렬이 드물 때,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 엔도르, 나인 등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차례 취미 여행 또는 출장을 다녔다.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3마일 남짓 떨어져 있는, 세포리에 자주 갔고, 그곳은 기원전 4년부터 서기 25년까지 갈릴리의 수도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거처 가운데 하나였다.

124:1.13 (1368.2) 예수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다. 그가 집을 떠나 여행함으로써 가족을 더 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때부터는 부모마저도 그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독창적인 사색가였고, 능숙한 선생이었다. 그는 소위 "구전{口傳}된 율법"과 부단히 충돌했지만, 언제나 가족의 규율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도 잘 지냈으나, 그들 정신의 느린_반응 때문에 자주 실망하곤 했다. 열 살이 되기 전에, 그는 일곱 명의 소년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들은 성인으로서 -- 육체적, 지적, 및 종교적-- 학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모였다. 예수는 많은 새로운 놀이와 개선된 다양한 육체적 오락 방법을 이 소년들에게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

2. 열 살이 되던 해 (서기 4년)

124:2.1 (1368.3) 7월 5일, 첫 안식일에, 아버지와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던 예수는, 자기 생애의 사명의 색다른 본질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느낌과 관념을 처음으로 표현했다. 요셉은 아들의 비상한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 거의 대꾸하지 않았으며;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는 어머니와 좀 더 오랫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소년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역시 어떤 정보도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았다. 예수가 자기 인격체의 본질과 이 세상에서 이뤄야 할 사명의 특성에 관해서, 자신의 의식 속에서 점점 증가되는 이 계시에 대해 부모에게 다시 언급한 것은 거의 2년이 지난 후였다.

124:2.2 (1368.4) 8월에 예수는 회당에 소속된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학교에서 질문을 그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나사렛 온 동네에 다소간의 소동이 점점 더 일어나게 했다. 그의 부모는

걱정스럽게 하는 그의 질문을 그치도록 하기에 지쳤으며, 담임선생은 그 소년의 호기심과 통찰력, 그리고 지식을 향한 열망에 크게 흥미를 갖게 됐다.

124:2.3 (1368.5) 예수의 놀이동무들은 그의 행동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으며;그는 어떤 면에서든지 그들과 똑같았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평균이상이었으나, 아주 특출나지는 않았다. 그는 학교에서 자기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질문했다.

124:2.4 (1368.6) 그의 가장 특이하고 눈에 띄는 특징은, 아마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잘_발육된 아이였으므로, 자신이 불의를 당하거나 개인적인 모독을 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의 놀이동무들에게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는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웃 친구 야곱 덕분에, 이런 특징으로 인한 곤란을 크게 겪지 않았다. 그는 요셉의 사업상 동료인 석공{石工}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예수를 무척 존경했고, 예수가 육체적으로 싸우기 싫어함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려는 아이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를 자기 일처럼 여겼다. 나이 많고 거친 아이들이 예수가 온순하다는 평판을 믿고,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스스로를 왕초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가 돼있는 석공의 아들 야곱의 재빠르고 정확한 반격에, 그들이 오히려 항상 당하곤 했다.

124:2.5 (1369.1) 당시의 또래들보다 비교적 높은 이상을 지닌 예수는, 나사렛 아이들의 지도자로서 널리 인정받았다. 그의 또래 동료들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공정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분별 있는 동정심에 가까운, 드물고도 사려 깊은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124:2.6 (1369.2) 이 해부터 그는 연장자들과 어울리기를 현저히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연상{年上}의 사람들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종교적인 사항들에 대해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그의 깊은 추리력과 예리한 관찰력에 어른 친지들이 매료돼서 언제든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갖게 되기까지, 예수는 자기보다 나이 많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는데, 그의 부모는, 그런 사람보다

같거나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다.

124:2.7 (1369.3) 같은 해 말쯤에, 그는 삼촌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두 달 동안 고기 잡는 체험을 했고, 아주 훌륭히 해냈다. 그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이미 능숙한 어부가 돼 있었다.

124:2.8 (1369.4) 그의 육체적 성장은 계속됐으며;학교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고 특전을 누리는 학생이었으며;동생 야고보보다 세 살 반이나 많은 우월성에도, 어린 동생들과 집에서 아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는 몇몇 우둔한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건방지다는 말, 즉 아이답지 않고 겸손한 구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사렛에서 좋은 평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기 또래의 놀이 활동을, 더 진지하고 사려 깊은 경로로 유도해 보려는 경향을 점점 더 나타냈다. 그는 타고난 선생이었으며,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 그런 역할을 억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124:2.9 (1369.5) 요셉은, 산업이나 무역에 비해서 농업이 유리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예수에게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갈릴리는 유대지방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으며, 생활비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지방보다 4분의 1정도면 충분했다. 그곳은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과, 날로 번창하는 산업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5천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200개 이상이었고, 1만 5천 명 넘는 도시도 30개 이상 있었다.

124:2.10 (1369.6) 아버지와 함께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의 어업{漁業} 현장을 관찰하러 왔을 때, 예수는 어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에 가까이 종사한 영향으로 목수가 됐고, 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력이,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는 종교 선생이 되는 최종 선택을 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3. 열한 살 되던 해 (서기 5년)

124:3.1 (1369.7) 이 해에, 소년은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여러 차례 여행했지만, 또한 삼촌의 농장도 자주 방문했고, 때로는 막달라로 가서, 그 도시 근처에 본거지를 둔 삼촌과 함께 고기잡이도 했다.

124:3.2 (1369.8)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게 어떤 특별한 편애{偏愛}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가 언약의 아이, 즉 운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설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졌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매우 현명하고 영리하게 처신했다. 아주 미약한 정도였지만,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를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몇 번 있을 때마다, 소년은 이런 특별한 배려를 즉각 거절했다.

124:3.3 (1370.1) 예수는, 대상{隊商}에게 필수품을 파는 상점에서 제법 시간을 보냈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온 여행자들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기이하게 보이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이 해는, 그가 무척 자유롭게 놀면서 아이로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였다. 이때부터 이 소년의 생애에는 많은 어려움과 책임이 급속도로 배가{倍加}됐다.

124:3.4 (1370.2) 서기 5년 6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유다가 태어났다. 이 일곱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이 생겼다. 마리아가 몇 주 동안 매우 심한 병을 앓았으므로, 요셉이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과 어머니의 심각한 병으로 인해 많은 일로 매우 바빴다. 이 소년은, 다시는 어린 시절의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는 어머니가 아팠던 때부터--곧 그가 열한 살이 되기 직전부터-- 맏아들로서 의무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으로 이런 무거운 짐이 부여되는 시기보다, 만{滿} 1년 내지 2년 전에 이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124:3.5 (1370.3) 매주 하루 저녁은 카잔이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가 히브리 성서를 숙지하도록 도왔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의 발전에 매우 흥미를 가졌으며;그런 까닭에 다방면으로 그를 기꺼이 도왔다. 이 유대인 교육가는 자라나는 이 정신에게 큰 영향을 줬으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박식한 랍비들 밑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전망에 관해 온갖 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가 왜 그토록 냉담한지,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124:3.6 (1370.4) 5월 중순경에,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데가볼리 지방에서 주요 그리스 도시이며, 베드_산 지역의 고대 히브리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로 사업차 여행을 했다. 여행 중에 요셉은 예수에게 사울 왕과 필리스틴,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험난한 역사의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예수는 소위 이방 도시의 깨끗한 모습과 잘 정돈된 배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노천극장을 보고 놀랐으며,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아름다운 대리석 신전들을 보고 감탄했다. 요셉은 아이가 이것들을 이토록 좋아하는 것에 당혹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칭찬함으로써, 예수의 이런 감정을 바꿔 보려고 했다. 예수는 이미 나사렛의 언덕에서 이 그리스 도시들을 호기심 있게 바라본 적이 종종 있었고, 그것을 짓기 위한 거대한 토목공사와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에 대해 여러 번 질문했었지만, 아버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 항상 대답을 피하려고 했다. 그들은 이제 이 이방도시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게 됐고, 요셉은 예수의 질문을 더 이상 점잖게 무시할 수 없었다.

124:3.7 (1370.5) 바로 이때,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이 연례적으로 대중 앞에서 서로 육체적인 용맹을 뽐내고 경쟁하는 시합이, 스키토폴리스의 원형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는 아버지께 그 시합을 보자고 졸랐으며, 너무 끈질기게 우겼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소년은 시합에 몹시 감동됐고, 육체적인 발달과 경기 솜씨를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됐다. 요셉은, “이방”의 허영심으로 들떠 있는 이런 시범경기를 아들이 열광적으로 관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 모든 시합이 끝난 후에, 예수가 그것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건전한 야외 육체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요셉은 이런 활동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 예수와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나, 아이가 설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124:3.8 (1371.1)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내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됐는데, 그날 밤 여관에서 이야기 나누던 중에, 아직까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잊고 있었던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면 나사렛에 원형극장을 짓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요셉은 맏아들이 이렇게 비_유대적 감상에 젖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의 온순한 성품을 잊은 채 예수의 어깨를 잡고 화난 목소리로,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런 악한 생각을 내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예수는 아버지가 흥분된 감정을

드리내는 것에 깜짝 놀랐으며;전에는 아버지가 화내는 것으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몹시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지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년이 시합이나 다른 운동 경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124:3.9 (1371.2)} 나중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식으로 지은 원형극장을 봤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왜 그토록 혐오스러운 것인지 배우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생애 동안 건전한 오락 관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에 도입해 보려고 시도했으며, 유대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두 명의 사도를 위한 후기{後期} 정규 활동 계획표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애썼다.

^{124:3.10 (1371.3)} 열한 살이던 이 해가 끝날 무렵까지, 예수는 생기 있고, 잘_발육되고, 적당히 유머 있고, 상당히 밝은 심성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그 후부터는 깊은 명상과 진지한 묵상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召命}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한돼 있지 않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4. 열두 살 되던 해 (서기 6년)

^{124:4.1 (1371.4)} 이 해는 예수의 생애에서 다사한 해였다. 그는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했고, 자연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점점 더 공부하게 됐다. 그는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같은 해에, 그는 또한 그런 문제들에 관해 가정 안에서 비밀을 지키는 지혜를 터득하게 됐다. 그는 자신이 전에 마을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됐던 방식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 따라서 그는 동료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일을 숨기면서 점점 더 사려 깊은 사람이 돼갔다.

^{124:4.2 (1371.5)} 이 해 동안 내내, 그는 자기 사명의 본질을 실제로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성장한 그의 인간 정신으로는, 자신의 이중적 본성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가 단일

인격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 동일한 인격체와 관련된 본질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의 이중적 기원을 그의 의식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124:4.3 (1371.6)} 이때부터 그는 형제자매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점점 더 재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특별히 배려했으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좀 더 설명하면:그는 야고보, 미리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더 어린 두 동생인 아모스 및 롯과 친하게 지냈다. 그는 언제나 마르다와 잘 지냈다. 그가 집에서 가졌던 분란은 주로 요셉 및 유다와의 충돌에서 야기됐는데, 특히 유다 때문이었다.

^{124:4.4 (1372.1)}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복합적으로 갖춘, 전례 없는 이런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지는 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괴로운 체험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크게 인정받을 만 했다. 예수의 부모는, 맏아들 속에 초인적인 어떤 존재가 들어있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됐지만, 이 약속의 아이가 정말로 그리고 참으로 이

지방우주의 사물과 존재를 창조한 실제 창조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필사자 육체 속에 육신화 한 우주 창조주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었다.

124:4.5 (1372.2) 같은 해에, 예수는 음악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집안에서는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계속 가르쳤다. 그의 사명의 본질에 관해, 요셉과 마리아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예민하게 알아챈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부모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고, 자기가 깊이 잠든 줄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대화를 종종 듣기도 했다. 그는 점점 더 아버지의 관점을 따르게 됐고,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이 일생을 통해 체험해야 할 문제들에서, 자신의 지시를 점점 더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상처를 받게 돼 있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이해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마리아는 예수의 사명의 의미심장함에 대해서 점점 더 납득하지 못하게 됐고, 훌륭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이 자신의 맹신적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점점 더 상처받게 됐다.

124:4.6 (1372.3) 요셉은 예수의 사명의 영적 본질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른 이유로 인해, 불운하게도 요셉은 예수의 이 세상 증여에 대한 자신의 개념이 충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다.

124:4.7 (1372.4) 학교에 다니던 마지막 해, 즉 예수가 열두 살 됐을 때, 그는 문설주에 못으로 박아 놓은 양피지 문서에 집안을 드나들 때마다 손끝을 대고, 양피지를 만진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 관습에 대해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사람들이 이런 제례식의 일부분으로, “주께서 우리가 드나드는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리라”고 말하는 것이 관례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에 예수에게 아무것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 번 가르치면서, 그런 작품은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예수는, 그들이 형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을 왜 금지시키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높은 개념을 갖고 있었으므로, 문설주의 양피지 문서에 습관적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에도 근본적으로 우상숭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지적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의 이런 항의를 받은 후에 문설주에서 양피지 문서를 제거했다.

124:4.8 (1372.5)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는 가족 공동 기도 및 다른 여러 관례와 같은 종교 형식의 습관을 많이 변경시켰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일은 그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거기에 있는 회당이, 나사렛의 유명한 선생 호세 같은 개방적 학풍을 따르는 랍비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124:4.9 (1372.6) 이 해와 그 후 2년 동안, 종교적 관례나 사회적 풍습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부모의 이미 확립된 신앙과 조화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예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체험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려는 충동과,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양심의 경고 사이의 충돌로 인해 혼란돼 있었으며; 그의 가장 심한 갈등은, 어린 마음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두 가지 큰 명령 때문이었다. 하나는, “진실과 의{義}에 대한 너 자신의 가장 숭고한 신념이 주는 명령에 충실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네게 생명을 줬고 길러줬으니,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충실해야 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매 순간마다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기피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충성심, 공정성, 그리고 아량과 사랑에 바탕을 둔 집단적 일체감의 뛰어난 개념 속으로, 개인적 신념과 가족에 대한 책무를 더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족감을 성취했다.

5. 열세 살 되던 해 (서기 7년)

124:5.1 (1373.1) 이 해에, 나사렛의 소년은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를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의 다른 특색들도 곧 어른의 상태에 속하는 증거들을 나타냈다.

124:5.2 (1373.2) 서기 7년 1월 9일 일요일 밤에, 남동생 아모스가 태어났다. 유다는 아직 두 살이 안 됐고, 여동생 롯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아버지가 사고로 그 다음 해에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예수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은, 꽤 큰 가족이 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124:5.3 (1373.3) 2월 중순쯤에, 예수는 자기가 숙명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계몽시키고, 하나님을 계시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음을 인간적으로 확신하게 됐다. 원대한 계획과 함께 중대한 결정들이, 나사렛에 사는 보통 유대인 소년으로 보이는 이 젊은이의 마음 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청년기를 맞이한 이 목수의 아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온 네바돈의 지성 생명체는 뉘을 잃고 경탄하면서 지켜봤다.

124:5.4 (1373.4) 그 주{週}의 첫날인 서기 7년 3월 20일에, 예수는 나사렛 회당과 연계돼 있는 지역 학교 훈련 과정을 졸업했다. 포부를 지닌 모든 유대인 가정생활에서 이날은 가슴 벅찬 날이었으며, 그날은 바로 맏아들이 “계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主} 하나님의 대속함을 받은 첫 아들, 즉 “지고자{至高者}의 아이”인 동시에 이 세상 전체의 주의 종으로서 선포되는 날이었다.

124:5.5 (1373.5) 지난 주 금요일에, 요셉은 이 기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 공공건물을 짓는 책임을 맡고 있던 세포리에서 돌아왔다. 예수를 가르친 선생은, 주의 깊고 부지런한 제자가 눈에 띄만한 어떤 경력, 즉 어떤 출중한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다. 예수의 순응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에도, 장로들은 이 소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유명한 히브리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할 계획을 이미 세우기 시작했다.

124:5.6 (1373.6) 이런 계획을 토론하는 것을 때때로 들으면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을 점점 더 확고히 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을 꿈도 꾸지 못했으며, 그것은 당시에 어머니와 자신뿐 아니라, 다섯 명의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부양하고 이끌어 갈 책임을 맡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을 포기하도록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 이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예수는 아버지 요셉에게 부과됐던 것보다 더 힘들고 긴 체험을 했으며, 자신이 나중에 스스로 부과한 기준, 즉: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치고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당하게 된 이 가족--곧 자기 가족--에게, 현명하고 참을성 있고 이해심 있는 효과적인 선생인 동시에 만아들이 되기에 적합했다.

6.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124:6.1 (1374.1) 이제 청년기의 문턱에 이르렀고 회당 학교를 공식적으로 졸업한 예수는, 유월절 기념식에 처음 참여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 해의 유월절 축제는 서기 7년 4월 9일, 토요일에 있었다. 여행에 동행할 (103명의) 많은 사람이,

4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지만, 제즈리엘에 당도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쪽으로 길을 바꿔서 길보아산을 돌아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요셉과 그 가족은, 야곱의 우물과 베델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었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요단 계곡으로 지나가는 길을 택했다.

124:6.2 (1374.2) 대단히 무서워했던 아켈라오가 이미 물러났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 헤롯 1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때로부터 12년이 지났고, 나사렛의 이 무명의 아이가 그 사건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124:6.3 (1374.3) 제즈리엘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한 후에, 곧 왼편에 있는 고대{古代}의 마을 수넴을 지나게 됐고, 예수는,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 이야기와, 엘리사가 여기서 행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제즈리얼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착취자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길보아산을 지나갈 때, 그들은 이 산 언덕에서 죽은 사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다윗 왕 및 이 역사적 장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했다.

124:6.4 (1374.4) 길보아산 밑을 돌아가면서, 순례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스키토폴리스라는 그리스 도시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멀리서 이 이방도시의 대리석 건축물들을 바라봤지만 가까이 가지는 않았는데, 이로써 자신을 더럽히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 축제의 엄숙하고 신성시되는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예수가 스키토폴리스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들의 언쟁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24:6.5 (1374.5) 길은 이제 곧장 열대성 기후의 요단 계곡으로 향했으며, 예수는, 사해{死海}로 흘러 내려가면서 반짝거리고 잔잔한 시냇물과 함께, 굽어져 있고 항상

바람이 부는 요단 지역을 곧 감탄하며 바라보게 됐다. 그들은 열대 기후의 이 계곡을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는 겹옷을 벗었고, 북쪽으로 멀리 서있는 눈 덮인 웅장한 모습의 헤르몬 산이, 역사적인 이 계곡을 위엄 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만발한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협죽도{夾竹桃}나무와 곡물이 맏힌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즐겼다. 그들은 스키토폴리스 반대편으로부터 세 시간 남짓 여행한 후에, 넘쳐흐르는 어느 샘에 도착했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서 하룻밤 지냈다.

124:6.6 (1374.6) 여행을 시작한지 둘째 날에, 그들은 압복강이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을 지났고, 강이 있는 이 계곡의 동쪽을 바라보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땅을 차지하려 했던, 기드온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날의 여정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사르타바산 아래 부근에서 하루 묵었으며, 이 산 정상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가뒀고, 목 졸라 죽인 두 아들이 매장된 곳이었다.

124:6.7 (1375.1) 셋째 날에, 그들은 헤롯이 최근에 건설한 두 마을을 지나갔고, 훌륭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야자수 정원들을 볼 수 있었다. 밤이 될 무렵에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했고, 다음 날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날 저녁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고대 여리고 지역으로 1마일 반을 걸어갔으며, 그곳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따온 예슈아가 유명한 업적을 이룩한 장소였다.

124:6.8 (1375.2) 여행을 떠난 지 넷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이어지는 순례자 행렬이 길을 메웠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다가가면서, 그들은 산 너머로 요단 지역을 볼 수 있었고, 남쪽으로는 잔잔한 사해의 물을 볼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반쯤 왔을 때, 예수는 (그의 후반부 생애의 많은 부분을 보내게 될 지역인) 감람산을 처음 보게 됐으며, 바로 그 산마루 너머에 거룩한 성{城}이 있다고, 요셉이 그에게 알려 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과 집을 곧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쁜 기대감으로 소년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다.

124:6.9 (1375.3) 그들은 감람원의 동쪽 비탈에 있는 베다니라 불리는 작은 마을 입구에서 쉬기 위해서 멈췄다. 호의적인

마을 사람들이 순례자를 보살피기 위해 몰려 나왔으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에게는 예수와 비슷한 또래의 세 아이--곧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쉬어갈 수 있도록 초대했고, 이 두 가족 사이에 평생의 우정이 여기서 싹트게 됐다. 그 후로, 예수는 다사{多事}한 생애 동안, 이 집에 여러 번 머물렀다.

124:6.10 (1375.4) 그들은 길을 재촉해서, 잠시 후에 감람원 경계선에 도착했고, 예수는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거룩한 성과 거만스런 저택들, 그리고 아버지의 감동스런 성전을 봤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4월의 이날 오후에 감람산 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처음 바라보게 됐을 때, 그토록 완전하게 자신을 매혹시킨,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감격을 전에는 체험한 적이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는 같은 지점에 서서, 또 다른 선지자, 즉 하늘에서 보낸 선생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생을 거부하려는 이 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124:6.11 (1375.5)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됐다. 성에 도착하자, 그들은 성전{聖殿}을

지나갔으며, 예수는 이처럼 많은 군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알려진 세계 도처에서 이런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으로 몰려드는지 곰곰이 숙고했다.

124:6.12 (1375.6) 이윽고 그들은 유월절 주간에 머물기로 미리 정해놓은 곳에 도착했으며, 이 큰 집은 마리아의 부유한 친척집이었고, 사가랴를 통해서 요한과 예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은 예비일{豫備日}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안식일에 합당한 축하행사를 위해 준비했다.

124:6.13 (1375.7) 온 예루살렘이 유월절 준비로 들떠있었으나, 요셉은 틈을 내서 예수를 데리고, 2년 후에 예수가 15세가 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자마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학교를 방문했다. 요셉은, 이렇게 주의 깊게 마련된 계획에 대해 예수가 그토록 관심 없음을 보았을 때 매우 당황했다.

124:6.14 (1375.8) 예수는 성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예배, 그리고 다른 행사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네 살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많은 질문을 하기 위해 홀로 사색하기에 무척 열중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는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왜 죄 없고 힘없는 동물을 이토록 많이 죽이도록 요구하시는가 하는 등의, (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것처럼) 몇 가지 황당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대답과 설명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예리하게 추론하는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얼굴 표정에서 쉽게 읽을 수 있었다.

124:6.15 (1376.1) 유월절 안식일 전날에, 영적 광채의 물결이 홍수같이 예수의 필사 정신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의 인간적 마음은, 고대의 유월절 기념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영적으로 눈멀고 도덕적으로 무지한 대중에 대한 자애로운 동정심으로 차고 넘치게 됐다. 이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내던 날 가운데 가장 특이한 날들 가운데 하나였으며;그날 밤, 그의 이 세상 행적 중에서 처음으로, 임마누엘의 명령을 받아 살빙톤으로부터 파견된 사자{使者}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일을 위해 활동할 시기가 됐습니다.”

124:6.16 (1376.2) 그리하여, 나사렛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이 나이 어린 그의 어깨 위에 지워지기도 전에, 이제 열세 살도

채 안된 이 소년에게 천상{天上}의 사자가 파견되어, 우주에 대한 책임을 재개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음을 주지시켰다. 이것은, 아들의 유란시아 증여를 완성하고, “그의 인성{人性}_신성{神性}의 어깨 위에 우주 정부를” 되돌려주는 일을 완성함으로써 마침내 정점{頂點}에 도달하게 될, 길고도 연속적인 많은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124:6.17 (1376.3)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화의 신비는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불가해{不可解}하게 됐다. 우리는, 이 나사렛 소년이 네바돈의 창조주임을 거의 납득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창조주 아들의 영과 낙원 아버지의 영이 인간의 혼과 어떻게 해서 연합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간 정신이 육신으로는 자기 인생을 살지만, 영으로는 그 어깨 위에 우주에 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뚜렷이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4:6.18 (1376.4) 그리하여 나사렛 소년의 경력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신성한 인간을 점점 더 자각하는-- 청소년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그는 가족 및

당대{當代}의 사회에 대한 책무와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확대되는 일생의 목적과 연합시키기 위해 애쓰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보낼 생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다.

제125편 예루살렘에서 예수

125:0.1 (1377.1) 예수의 다사한 지상{地上} 생애에서, 그의 기억으로는 처음인 이 예루살렘 방문보다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으로 감동적인 경우는 없었다. 그는 홀로 성전 토론에 참여한 체험으로 특히 고무됐으며, 이것은 후반기 유년시절과 초반부 소년기의 큰 사건으로서 그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이것은 그가 며칠 동안의 독립적인 생활, 즉 어떤 제재나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들뜬 기분을 맛본 최초의 기회였다. 유월절 이후 1주일 동안, 지시받지 않고 살았던 이 짧은 기간은, 그가 전에 누렸던 것들 중에서, 책무로부터 가장 완전하게 해방된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후로,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가 모든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이와 비슷한 해방의 기간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해가 지난 후였다.

125:0.2 (1377.2)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참여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는,

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실질적으로 거절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기로 결심하자, 다른 여러 나사렛 여자도 함께 따라 나섰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유월절에 올라갔던 무리들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례로 볼 때, 여자의 비율이 이번 유월절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때때로 시편 130편을 노래했다.

125:0.3 (1377.3) 그들이 나사렛을 떠날 때부터 감람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줄곧 긴장되는 체험을 했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 내내, 그는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에 관해 경건하게 들어왔었는데;이제 곧 그것들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그가 감람산에서 그리고 밖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면밀히 보게 됐을 때, 성전은 예수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신성시되는 입구로 일단 들어가자, 큰 혐오감이 일어났다.

125:0.4 (1377.4) 이제 곧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봉헌될 새로운 율법의 아들들 무리와 합류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는 부모와 함께 성전 경내를 지나가게 됐다. 그는 성전에 들어온 군중의 대체적 행실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날 그가

받은 첫 번째 큰 충격은 어머니가 일행을 떠나 여자들의 처소로 갔을 때였다. 예수는 어머니가 봉헌 예식에 자신과 함께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그런 불공정한 차별로 고통 받게 됐다는 것에 크게 분개했다. 그는 이 일로 몹시 화났지만, 아버지에게 몇 마디 불만을 표시한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이 의문점은 1주일 후에 서기관과 선생들에게 던진 여러 질문에서 드러났다.

125:0.5 (1377.5) 봉헌 제례식을 잘 마쳤지만, 그는 이 예식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것에 실망했다. 그는, 각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특징인, 나사렛 회당의 예식이 몹시 생각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돌아갔고, 아버지와 함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뜰과 방 그리고 복도를 처음으로 돌아보고자 했다. 성전 경내는 한 번에 20만 명 이상의 경배자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 그가 전에 보았던 모든 것과 비교할 때-- 이 건물의 방대함이 그의 정신을 크게 감동시켰지만, 그는 성전 예식과 거기에 관련된 경배의 영적 의미심장함을 숙고하는 일에 더 관심을 뒀다.

성전의 제례식 가운데 다수가, 그의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감각에 매우 감동적인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그의 예리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모가 제시하려했던, 이런 예식의 실제 의미에 대한 설명에 그는 실망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전능자가 노여워한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경배와 종교적 헌신을 설명하는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성전 방문이 끝난 후에 이 문제를 계속 토론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적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고백하도록 완곡하게 타이르게 됐을 때, 예수는 갑자기 부모에게 돌아서서 아버지의 눈을 애원하듯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대하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어리석은 일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음을 잘 압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도 신성한 분의 성품을 이렇게 소유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선하고 자비가

넘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125:0.7 (1378.2) 요셉과 마리아는 만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관한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들이 다시 시도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1. 성전을 둘러보는 예수

125:1.1 (1378.3) 예수는 성전에 있는 여러 뜰 전체를 하나씩 둘러볼 때마다, 자신이 목격한 불경스런 풍조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는, 성전에 있는 군중의 행동은 “아버지 집”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과 상반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이방인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어린 시절의 그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의 시끄러운 사투리와 큰 소리의 지껄임과 욕지거리들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환전하는 자나 희생동물을 판매하는 자들과 잡상인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얹혀서, 매우 소란스러웠다.

125:1.2 (1378.4)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에 세포리를 방문했을 때 그가 본 적이 있는 화장 한 여자와 똑같은, 천박한

매춘부들이 이 성전 경내를 활보하고 있는 광경으로 인해, 그의 예의범절 감각이 분노로 끓어올랐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은 그의 혈기 왕성한 의분{義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주저하지 않고 요셉에게 말했다.

125:1.3 (1378.5) 예수는 성전의 분위기와 예배에는 감탄했지만, 무의미하게 경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비친 영적 추함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125:1.4 (1378.6) 그들은 이제 성전 앞의 돌난간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의 뜰로 내려갔으며,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동물을 죽이는 장면과, 제사를 집행한 도살 제사장들이 청동으로 만든 그릇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로 얼룩진 도로, 제사장의 피투성이의 손,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의 신음소리에, 자연을 사랑하는 이 소년은 견딜 수 없었다. 그런 흉측한 광경이 이 나사렛 소년의 비위를 상하게 했으며;그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게 됐지만, 거기서 들려오는

조잡한 웃음소리나 천박한 농담조차, 방금 전에 봤던
광경으로부터 기분을 전환시켰다.

125:1.5 (1379.1) 요셉은 아들이 성전 제례들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봤으므로, 슬기롭게 그를 데리고 가서,
고린도식 청동으로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문”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처음 성전 방문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성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인파로부터 벗어나 바깥으로
나와 한 시간 가량 걸었고, 헤롯이 살았던 웅장한 모습의
하스몬 왕조 궁전과 로마 경비병의 탑을 봤다. 이렇게
산책하는 동안에 요셉은, 매일 성전에서 치르는 희생을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주민에게만 허락된다는 것과,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1년에 세 번, 즉:유월절,
(유월절로부터 7주 후의) 오순절, 그리고 10월의 장막절
축제의 경우에만 성전 경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에게 설명해 줬다. 이런 축제들은 모세가 만든
것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가지
축제인 봉헌식과 부림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숙소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축하할 준비를 했다.

2. 예수와 유월절

125:2.1 (1379.2) 다섯 나사렛 가정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 가족의 손님으로서 또는 친지로서 유월절 축제에 초대됐는데, 시몬이 일행을 위해 유월절 어린양을 구입해 뒀다. 예수가 성전 방문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그토록 많은 어린양의 살생이었다.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기로 계획됐지만, 예수는 베다니로 가자는 초대에 응하도록 부모를 설득했다.

125:2.2 (1379.3) 그날 밤에 그들은 유월절 제례를 위해서 모였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구운 고기를 먹었다. 새롭게 계명의 아들이 될 예수는, 유월절의 유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잘 했으나, 어리지만 사려 깊은 그의 마음 속에 아주 최근에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해 느꼈던 것을, 조심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모를 조금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축제의 7일 동안의 예식이 시작됐다.

125:2.3 (1379.4) 이처럼 시작에 불과할 때, 그런 문제들에 관해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양을 죽이지 않고 유월절을 축하하는 것이 타당한지, 마음 속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이런

희생 제물 바치는 장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했고, 해가 갈수록, 언젠가는 피 흘림 없는
유월절 축하 의식{儀式}을 제정하기로 더욱 결심하게
됐다.

125:2.4 (1379.5) 예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휴식은 살육과 고통의 불쾌한 꿈 때문에 크게 방해받았다.
유대인의 예식 체계 전반에 담긴 신학의 모순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산란해졌고 심정은
찢어졌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쳤다. 그들은
방금 끝난 그날의 일 때문에 크게 당황했다. 그 소년의
태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고 고집스럽게 보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 그날 밤 초반에,
마리아는 신경이 매우 곤두서 있었지만, 요셉은 똑같이
당혹했음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예수는, 부모가 과감히
자기를 격려해 줬다면, 기꺼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지만, 그들은 둘 다 이 문제들에 관해 그와 솔직히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했다.

125:2.5 (1379.6) 예수는 다음 날 성전에서 있었던 예배에서는 좀
더 나은 인상을 받았고, 전날에 느꼈던 불쾌한 기억은 많이

완화됐다. 다음 날 아침에는, 어린 나사로가 예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체계적으로 답사했다. 그날 해지기 전에, 예수는 가르치고 질문하는 회담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의 여러 장소를 발견했으며;지성소{至聖所}를 몇 차례 방문해서, 휘장으로 격리된 그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바라본 것 외에는, 가르치는 이 회담이 진행되는 성전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25:2.6 (1380.1) 유월절 주간 내내, 예수는 새로 임명된 계명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됐는데,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따로 갈라놓는 울타리 바깥에 앉아 있어야함을 의미했다. 그는 자기가 아직은 어린 나이임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정신 속에 요동치는 많은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참았으며;적어도, 유월절 축제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봉헌된 소년들에게 이런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참았다.

125:2.7 (1380.2) 유월절 주간의 수요일에, 예수는 그날 밤 나사로와 함께 집으로 가서, 베다니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날 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가 인간적인 그리고 신성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고, 그날 밤 이후로 이 세 사람은 예수를 친 형제라도 된 것처럼 사랑하게 됐다.

^{125:2.8 (1380.3)} 예수는 그 주간이 끝날 때까지 나사로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그는 바깥뜰에서 행해지는 어떤 공개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참관인의 자격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사로도 예수와 같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소년들은, 완전히 열세 살이 되기 전에는 계명의 아들로써 임명식에 좀처럼 참여할 수 없었다.

^{125:2.9 (1380.4)} 유월절 주간에, 예수의 부모는,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혼자 따로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거둬 발견했다. 그들은 전에는 그의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체험으로 인해 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돼 있고 영적으로 불안했는지 몰랐으므로, 무척 당황했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다만 유월절 주간이 어서 지나가기만 기다렸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들을 데리고 빨리 나사렛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고대했다.

125:2.10 (1380.5) 예수는 날마다 자신의 문제를 두루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주말이 될 무렵에 많은 것을 정리했지만;나사렛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그의 어린 정신은 혼란함으로 여전히 가득 차고, 다수의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했다.

125:2.11 (1380.6)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열다섯 살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장_저명한 랍비 학교들 가운데 하나에서 긴 교육 과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수를 가르친 선생과 함께 확실히 조치를 취했다. 예수는 부모와 선생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예수가 전혀 무관심한 것을 보고 걱정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예수의 반응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요셉은 소년의 생소한 소견과, 평소와 다른 행동 때문에 몹시 당황했다.

125:2.12 (1380.7) 결국, 유월절 주간은 예수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는 봉헌식에 후보자로 왔던 자기 나이 또래의 여러 소년과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런 접촉을 활용해서, 메소포타미아, 투르케스탄, 그리고

파르디아뿐 아니라 로마의 극서{極西}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이집트와 팔레스틴 근방의 다른 지역의 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꽤 알고 있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이 머물렀으며, 나사렛 소년은, 150명 이상의 소년과 개인적으로 만났고, 다소 광범하게 면담했다. 그는 특히 극동 지역과 멀리 떨어진 서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접촉한 결과로, 동료 사람들이 속하는 다양한 집단이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 지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은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

3. 요셉과 마리아의 출발

^{125:3.1 (1381.1)} 나사렛 사람들은, 유월절 축제가 끝난 다음 주 첫 날 오전에 성전 근처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었다. 그들은 약속대로 모여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예수는, 부모가 함께 돌아갈 동료 여행자들을 기다리는 동안, 토론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일행은 떠날 준비가 됐고, 예루살렘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오고 갈 때의 그들의 관례대로, 남자와 여자는 각각 따로 무리지어 걸어갔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 무리와 함께 했었다. 그는 이제 봉헌된 성인이므로, 아버지를 비롯한 남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게 돼 있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이 베다니를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성전에서 천사에 대한 토론에 완전히 몰입했으므로, 부모가 떠날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정오가 돼 성전 논의가 산회될 때까지도, 그는 홀로 거기에 남게 됐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125:3.2 (1381.2) 나사렛 여행객들은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예수가 남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의 당나귀를 끌고 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으므로, 이번에도 여자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날 밤 거기서 지내려고 준비할 때에야, 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물어본 후에,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유월절 주간에 보인 예수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면서,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걱정했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예수가 있는지 살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은근히 상대방을 원망했다.

4. 성전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

125:4.1 (1381.3) 그러는 동안 예수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유월절 주간에 있었던 많은 인파가 이미 거의 떠난 후로 좀 더 조용하고 정숙해진 분위기를 즐기면서, 그날 오후 내내 성전에 있었다. 예수는 한 번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후 토론이 끝나자, 혼자 베다니로 갔고, 시몬의 가족은 그때 저녁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세 아이는 예수를 몹시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그날 밤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그날 저녁에는 거의 교제하지 않았고, 정원에서 혼자 묵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25:4.2 (1381.4) 예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그는 감람산 정상에서 잠깐 멈췄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곧 전통에 얽매이고 로마 군단의 감시를 받으면서 사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전 일찍 성전에 도착한 그는, 토론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성전으로 갔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기로 했다. 그들은 우선 유월절 기간에 한 가족으로 머물렀던 친척 집으로 서둘러서 갔지만,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를 찾았으나 행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밤에는 친척집으로 돌아갔다.

125:4.3 (1382.1) 둘째 논의에서, 예수는 대담하게 질문했고, 성전 토론에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참여했지만, 언제나 소년다운 태도로 임했다. 때때로 그의 날카로운 질문이, 유대인의 율법에 조예가 깊은 선생들을 어느 정도 당황하게 했지만, 그가 솔직한 공평성의 기질과 함께 지식을 갈망하는 명백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성전의 선생들 대부분은 그를 잘 배려해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가, 술 취한 한 이방인이 이방인의 구역 근처를 배회하다가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는 성전 안의 금지된 구역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너그럽지 못한 선생 가운데 하나가, 이 소년의 간접적인 비난을 참다못해, 인상을 찡그리고 그를 노려보면서 몇 살이냐고 물었다. 예수는 “열세 살에서 4개월 조금 더 모자랍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난 선생이 이제 다시

물었다:“그렇다면, 너는 아직 율법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예수가, 유월절 기간 중에 임명 받았고, 나사렛에서 이미 학교를 졸업했다고 설명하자, 선생들이 하나같이 조롱하며, “우리가 알아봤어야 했는데;나사렛에서 왔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자는, 나사렛 회당 관리들이 열세 살이 아닌 열두 살에 그를 합법적으로 졸업시켰다면, 예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다으며;그를 험담하던 몇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음에도, 소년은 성전 토론에서 앞으로는 학생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25:4.4 (1382.2) 이렇게 해서, 그가 성전에서 보낸 둘째 날이 끝나자, 잠자기 위해 다시 베다니로 갔다. 그날도 그는 묵상과 기도를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그의 정신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에 관여돼 있음이 분명했다.

5. 성전에서 셋째 날

125:5.1 (1382.3) 예수가 성전에서 서기관 및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셋째 날에, 갈릴리에서 온 이 소년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구경꾼이, 율법학자들을 혼란시켰다는 한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시몬 역시, 소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베다니에서 왔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날도 하루 종일 걱정스레 예수를 찾아 다녔고, 성전에도 몇 번씩이나 왔었으며, 한 번은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거의 왔었음에도, 여러 토론 모임을 유심히 살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125:5.2 (1382.4) 그날이 끝날 무렵에는, 성전의 주요 토론 모임의 모든 관심이 예수가 물어보는 질문들로 집중됐다. 그의 많은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25:5.3 (1382.5) 1. 성전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는가?

125:5.4 (1382.6) 2.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성전에서 경배 드리는 남자로부터 왜 분리돼 있어야 하는가?

125:5.5 (1382.7) 3.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면, 신성한 호의를 얻기 위해 왜 이렇게 동물을 죽여야 하는가-
-모세의 교훈이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닌가?

125:5.6 (1382.8) 4.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경배 드리기 위해 성전이 봉헌됐다면서, 세속적인 거래나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해도 되는가?

125:5.7 (1382.9) 5. 기다리고 있는 메시야는, 다윗의 보좌에 임시로 앉을 현세의 왕자가 되실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나라 설립에서 생명의 빛 역할을 하실 분인가?

125:5.8 (1383.1)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듣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경탄했고, 시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다. 네 시간이 넘도록, 이 나사렛 소년은 유대인 선생들에게, 사고를_자극하고 심정을_살펴보는 질문들을 퍼부었다. 그는 장로들의 견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묻고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그는 능숙하고 명민하게 질문을 구사함으로써,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했고,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그가 질문하는 방식에는 현명함과 해학이 매혹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으므로,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소 화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좋아하게 됐다. 그는 이런 예리한 질문을 하면서 항상 탁월하게 공정하고 신중했다. 그는 이 중대한 오후에 성전에서, 반대자를

불공정하게 이용하기를 똑같이 꺼렸는데, 나중에 있었던 그의 전체 공적 사역의 특징이기도 했다. 소년으로서 그리고 후에 성인이 되기까지, 그는 동료들 단지 논리적으로 이겨 논쟁에 승리하려는 이기적 욕망이 전혀 없어보였는데, 단 한 가지:영구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더 충만한 계시의 성취에만 최고의 관심을 두기 때문이었다.

125:5.9 (1383.2) 날이 저물자, 시몬과 예수는 함께 베다니로 돌아왔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소년과 남자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예수는 다시 감람원 언덕에서 멈췄지만,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지는 않았으며;다만 고개 숙이고 조용히 기도했다.

125:5.10 (1383.3) 그는 베다니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흥에 겨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시 혼자 정원으로 나갔고, 밤이 깊을 때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으며, 자신의 필생과업의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명확한 계획을 생각해 내기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동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좀 더 아름다운 개념을 계시하고, 그럼으로써 율법, 제례식, 예식절차, 및 진부한 전통이라는

끔찍한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공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소년에게 분명한 빛은 도래하지 않았다.

6. 성전에서 넷째 날

^{125:6.1 (1383.4)} 예수는 이상할 정도로 육신의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아침 식사 중에, 지금쯤 부모가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나사로의 어머니가 말했을 때에도,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남겨 둔 것에 관해 얼마나 걱정할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125:6.2 (1383.5)} 그는 다시 성전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묵상하기 위해 감람원 기슭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전에 진행된 토론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율법과 선지서들에 할애됐고, 선생들은 예수가 그리스어 성서뿐 아니라 히브리어 성서도 잘 알고 있음에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알고 있는 진리보다 어린 나이라는 것에 더 놀라워했다.

^{125:6.3 (1383.6)} 예수가 질문한 기도의 목적에 관해 그들이 대답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날 오후 회담에서, 인도자가 그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자기 옆에 앉히고, 기도와 경배에 관한 그의 견해를 말하라고 했다.

125:6.4 (1383.7)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의 부모는, 율법 해석에서 능숙하게 논쟁하고 있다는 이 이상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엘리사벳과 요한을 만나러 사가랴의 집으로 갔을 지도 모른다고 짐작하여, 그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사가랴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유다의 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들렀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뜰을 지나다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아이의 음성을 들었고, 게다가 그가 성전의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겠는지 상상해 보라.

125:6.5 (1384.1) 요셉은 말문이 막혔지만, 마리아는 오랫동안 품었던 근심과 걱정을 떨치면서, 아이에게 달려갔으며, 그녀는 그제야 놀라고 있는 부모에게 인사하기 위해 서 있는 그에게, "아들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와 나는 지금까지 3일 넘게 상심하며 너를 찾아 헤맸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했느냐?”라고 말했다. 긴장된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에게 집중됐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책망의 눈으로 바라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25:6.6 (1384.2) **예수가 이제 성년이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소년으로서의 정상적인 학교 과정을 마쳤고, 율법의 아들로 인정됐으며, 게다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인정받은 후였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가장 진지하고 숭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의 어린 생애 한 가운데 있을 때,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온순하지만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써, 그가 진리의 선생으로서, 의{義}의 설교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에 대한 계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도록 했다.

125:6.7 (1384.3) **그러나 소년은 이 경우에도 한결같았다.** 이런 상황을 조장했던 모든 요인을 너희가 공정하게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즉흥적인 꾸지람에 대해 소년이 어떻게 현명한 대답을 하리라는 것쯤은, 너희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잠시 생각한 후 예수는 어머니에게, “나를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나요? 내 아버지의 일을 할 때가 왔으니,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예상을 못하셨나요?”라고 대답했다.

125:6.8 (1384.4) 아이가 말하는 방식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가버렸고, 예수는 부모와 홀로 남게 됐다. 이윽고 소년은 세 사람의 난처했던 상황이 사라지자, 조용히 말했다:“가시지요, 아버지 어머니, 각자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정해 놓으셨으니;함께 집으로 떠나시지요.”

125:6.9 (1384.5) 그들은 말없이 길을 재촉해서, 그날 밤 여리고에 도착했다. 그들은 감람원 기슭에서 한 번 멈췄을 뿐인데, 그때 그는 밀려오는 격렬한 감정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흔들며 말했다:“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로마의 멍에에 종속되고 자신의 전통에 희생된-- 노예와 다름없지만, 내가 언젠가 돌아와서 저 성전을 청소하고, 이 속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출할 것이다!”

125:6.10 (1384.6)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3일 동안, 예수는 거의 말이 없었으며; 부모도 그의 앞에서는 별로 말을 안했다. 그들은 정말로 만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난처했지만,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음에도,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125:6.11 (1384.7) 집에 도착하자, 예수는 자신의 애정을 부모에게 확신시키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염려할 일이 없을 터이니 두려워 말라고, 간단히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중요한 발언을 마무리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따르는 동시에, 이 세상 아버지께도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125:6.12 (1384.8) 정신 속에서 예수는, 자신의 생각의 진로를 바꾸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활동 계획을 정해 주려는, 의도는_좋은나 잘못 인도된 부모의 노력에 동의하기를 여러 번 거절하려 했지만, 낙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헌신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아버지의 바램에,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의 관습에 가장 양전하게 순응했다. 그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따르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자 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조정하면서 가족에게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는 문제에서, 그는 아주 기술적으로 처리했다.

125:6.13 (1385.1) 요셉은 혼란에 빠졌으나 마리아는, 감람원에서 예수가 메시아 사명에 대해 예언했던, 그런 체험들을 회상하면서,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다. 예수의 어머니는,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경로로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새 힘을 발휘하여 애썼고,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외삼촌인 그녀의 형제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맏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방인이 씌운 정치적 속박의 멍에를 영원히 없앨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과제에 모든 방법으로 헌신했다.

제126편 혹독한 시련의 2년

126:0.1 (1386.1) 예수가 겪은 세상_생애의 모든 체험 가운데, 열네 살과 열다섯 살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가 신성과 운명에 대해 이미 스스로_의식하기 시작한 후, 그리고 내주하는 조율사와 상당히 많이 교통하기 전의 이 2년은, 다사{多事}했던 유란시아 생애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 2년은, 큰 시험, 즉 실제적인 유혹의 기간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초기의 혼란과 청년기의 문제들을 거치면서, 어떤 인간 젊은이도, 예수가 겪었던 것보다 더 쓰라린 시험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126:0.2 (1386.2) 예수가 소년기 발육을 이룩한 이 중요한 기간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부터 시작됐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아들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해, 즉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가 충성된 아들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장차 그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그가 이제부터는 더 순종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물질적 망상,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족 자부심은, 곧 빛이 바래게 됐으며;그녀는 이내 더 완전하게 환상에서 깨어나게 돼 있었다. 소년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며;자기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한편 부모는, 그가 아버지의 일에 대한 관계를 숙고하는 것과, 이 세상 직무 사이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의 부모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

126:0.3 (1386.3)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예수의 연민의 정과 사랑이 깊어졌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아버지의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분{義憤}은, 그의 정신 속에서 점점 더 커졌다. 예수는, 진지한 바리새인과 정직한 서기관들을 매우 존경했으나, 위선적인 바리새인이나 정직하지 못한 신학자들은 심히 혐오했으며;진실하지 못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밀히 관찰한 후에,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유혹을 받은 때도 더러 있었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적은 전혀 없었다.

126:0.4 (1386.4) 예루살렘 성전의 현자{賢者}들 가운데서 보였던, 잊지 못할 그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나사렛 사람을 기쁘게 했고, 특히 그를 가르쳤던 회당 학교 선생들이 그랬다. 한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의 칭찬이 자자했다. 온 동네 사람은, 그의 어린 시절의 지혜와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 호의를 가졌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졌으며;드디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도 진정 위대한 선생이 나오게 됐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예수가 15세가 돼

안식일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될 날을 고대했다.

1. 열네 살 되던 해 (서기 8년)

^{126:1.1 (1387.1)} 그가 열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해가 됐다. 그는 멩에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됐고, 천과 가죽 취급에도 능숙했다. 또한 그는 노련한 목수와 가구 제작자가 되기까지 급속도로 숙련돼 갔다. 이 여름에, 그는 기도와 묵상을 위해 나사렛 북서쪽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자주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이 세상 증여의 본질을 점점 더 자각하기 시작했다.

^{126:1.2 (1387.2)} 이 언덕은, 100년 조금 더 전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저명한 성자{聖者}인 시므온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는 이 시므온 언덕 꼭대기에서 나사렛과 그 주변 지방을 바라봤다. 므깃도를 보면서 그는, 이집트 군대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대승을 거뒀던 이야기와;그리고 후대에는 다른 군대가 어떻게 유대지방의 왕 요시아를 참패시켰는지를 회상하곤 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세라를 쳐부셨다는 장소인

타낙을 바라볼 수 있었다. 멀리,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배워온 도단의 언덕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눈을 돌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한 전설을 혼자 회상해 봤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버지 요셉의 민족과 관계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사건들을 마음 속에 회상했다.

126:1.3 (1387.3) 그는 회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상급{上級} 독해{讀解} 과정을 계속 밟았고, 집에서는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알맞은 나이가 되는 대로 그들의 교육도 계속 맡았다.

126:1.4 (1387.4) 예수가 다음 해 8월에 15세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요셉은 그가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해 초기에,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따로 저축해 두기로 했다.

126:1.5 (1387.5) 이 해가 시작될 때, 요셉과 마리아는 똑같이, 맏아들의 숙명에 대해 자주 의심을 품었다. 그는 진정으로 총명하고 사랑스런 아이였지만, 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의 속을 헤아리기가 너무 힘들었으며, 게다가 그에게서 어떤 특출하거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자존심 강한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초인적이거나 기적적인 솜씨를 보여 주기를 오랫동안 숨죽이고 기다려왔지만, 그녀의 기대는 늘 비참할 정도의 실망으로 끝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용기를 잃게 했고, 심지어 낙담하게 했다. 당시의 독실한 신자들은, 선지자와 약속의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나타내고 신성한 권위를 세워야한다는 말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그리하여 그 부모는 그의 장래를 깊이 생각할수록 더 심각한 혼란에 빠져 들었다.

126:1.6 (1387.6) 나사렛 가정의 개선된 경제 조건이 가정생활에 여러 모로 반영됐고, 특히 목탄으로 그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필기 석판으로 사용되는 흰 색 칠판의 숫자가 증가했다. 또한 예수는 음악 교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됐으며;하프 연주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126:1.7 (1387.7) 이 해 전체 기간은, 예수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가족의 전망은 좋아보였고 장래는 밝았다.

2. 요셉의 죽음

126:2.1 (1388.1) 운명적인 날인 9월 25일 화요일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그날 세포리로부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요셉이 총독의 관사에서 일하던 중에 기중기{起重機}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는 비참한 소식을, 나사렛 가정에 전했다. 세포리에서 온 심부름꾼은, 요셉의 집으로 오는 길에 목공소에 들러서 예수에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마리아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함께 집으로 달려갔다. 예수는 즉시 아버지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마리아는 자신이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 급해서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마리아는 그때 열 살이던 야고보와 세포리까지 동행하고, 예수에게는 그동안 집에 남아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어린 동생들을 돌보도록 지시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그를 나사렛으로 옮겼고, 다음 날 선조들이 묻힌 곳에 장사지냈다.

전망이 좋았고 장래가 밝았던 바로 그때, 겔으로 보기에 무자비한 어떤 작용이 이 나사렛 가정의 가장{家長}을 넘어뜨렸고, 이 가정의 관심사는 혼란에 빠졌으며, 예수를 위한 모든 계획과 장래의 교육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막 열네 살 된 이 목수 소년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신성한 본성을 계시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탁임무를 완수해야 할 책임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어머니와 일곱 명의 동생을--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다른 한 동생을--부양해야만 할 책임도, 떠맡게 됐음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족이 된 가족에게는, 나사렛의 이 소년만이 유일한 부양자{扶養者}이며 위안이었다. 그리하여, 운명이 정해진 이 젊은이에게, 유란시아의 자연 질서에 따라서 일어난 이 사고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그러나 매우 교육적이고 책임감을 길러 줄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일찍 맡겨지는 듯 보였으며, 이로써 예수는 한 인간 가족의 가장이 됐고, 동생들의 아버지가 됐으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보호하면서, 아버지 집, 즉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체험하게 되는, 그 가정의 유일한 보호자가 됐다.

126:2.3 (1388.3) 예수는 그렇게 갑자기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 적어도 그의 생애에서 난국이 예상되는 하나의 큰 문제가 비극적으로 해결됐는데, --그는 이제 랍비들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됐다. 예수가 "어떤 사람의 제자도 아니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는 어린아이로부터도 항상 기꺼이 배우고자 했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권위를 인간적 출처에서 획득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

126:2.4 (1388.4)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어머니를 방문했던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으며;공중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받던 날에야 요한에게서 이것을 듣게 됐다.

126:2.5 (1388.5) 해가 지나면서, 나사렛의 이 젊은 목수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모든 종교적 관습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분석했다:그것은 인간의 혼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는가?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이 젊은이는 오락 및 사교적 면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시간과

정열을 두 가지 목적에 점점 더 쏟아 부었는데: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버지의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126:2.6 (1389.1) 이 해의 겨울 내내, 예수가 타는 하프 소리를 즐기고, (예수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읽어주는 그리스어 성서를 듣기 위해서, 매일 밤 그의 집에 들르는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됐다.

126:2.7 (1389.2) 요셉이 죽었을 당시에는 상당한 돈이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 사정은 꽤 순탄한 편이었다. 예수는 예리한 사업상 판단력과 재정적 총명함이 있음을 일찍부터 나타냈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검소했으며;절약하면서도 너그러웠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126:2.8 (1389.3) 그러나 예수와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에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마리아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다. 요셉은 가버렸다. 요셉은 보통 찾아보기 힘든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그들 모두 그를 그리워했다. 더욱이 그들은,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마지막 축복의 말도 듣지 못한 채 그가 죽었다는 생각에, 더욱 애처로워하는 듯했다.

3. 열다섯 살 되던 해 (서기 9년)

126:3.1 (1389.4) 열다섯 살이 되던 이 해 중순에, 예수는 가정의 경영을 완전히 떠맡게 됐다--우리는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라, 20세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저축했던 돈은 거의 바닥났고, 그리하여 그들은, 이웃인 야곱과 요셉이 공동으로 소유했던 나사렛에 있는 집들 가운데 하나를 처분할 처지에 놓였다.

126:3.2 (1389.5) 서기 9년 4월 17일 수요일 밤에, 그 가정의 마지막 아기인 룻이 태어났고, 예수는 이렇게 힘들고 특히 슬퍼하는 호된 시련의 기간에 처한 어머니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위로하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온갖 역량을 기울였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예수가 룻을 돌본 것보다, 더 자기 딸을 귀하고

충실하게 사랑하고 양육한 아버지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의 식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좋은 아버지였다.

126:3.3 (1389.6) 이 해 동안, 예수는 처음으로 기도를 구체화시켰는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기도문”으로 알려지게 됐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가족 제단이 진화된 것이었으며;그들에게는 여러 찬미 형식과 공식 기도문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에 예수는,--자신이 그렇게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처럼-- 기도 중에 개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나이 든 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고, 암기하고 있는 자기들의 기도 형식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다. 예수는 나이 든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수고스럽게 격려하면서, 제시된 문구를 그들이 따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곧 자신의 역할 없이도, 자신이 그들을 가르쳤던 함축성 있는 이 구절들로 주로 만들어진 기도 형식을, 모두가 사용하게 되도록 애썼다.

126:3.4 (1389.7) 마침내 예수는, 가족들 각자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오는 기도를 드리게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고, 10월

어느 날 저녁에, 돌로 만든 낮은 탁자 위 작은 등잔 옆에 앉아서, 약 18인치 되는 매끄러운 정사각형 나무판 위에 목탄으로 기도문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규격화된 가족 청원기도가 됐다.

126:3.5 (1389.8) 이 해에 예수는 혼란스런 생각들로 무척 괴로워했다. 예루살렘에 출현하여, "아버지의 일이 임박했다"고 그에게 일러준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든지 즉시 실행에 옮기려던 모든 생각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으로 인해,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됐다. 예수는 이 세상 아버지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다른 의무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자신의 첫째 책무라고, 올바르게 추론했다.

126:3.6 (1390.1) 이 해를 지내면서, 예수는 소위 예녹서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신의 유란시아 증여 사명을 표현하는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따오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 관념을 면밀히 검토했고, 자신은 결코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민족을 돕기를 갈망했지만, 유대인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틴을 점령한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좌에 앉지 않을 것을 알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명이 유대 민족의 영적 구원자나 도덕적 선생으로 국한 된다고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어떤 면에서도, 애타게 기다리던, 히브리 성서 가운데 가상의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적어도 유대인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해했던 것과는 달랐다. 마찬가지로, 그는 선지자 다니엘이 묘사한 그런 사람의 아들로써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126:3.7 (1390.2) 그러나 자신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아갈 때가 오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을까?

126:3.8 (1390.3) 그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마음 속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묵시적 책들 가운데 “에녹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발견했으며;그것이 옛 에녹이 쓴 것이 아님을 확신했지만,

그의 흥미를 매우 끌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 한 구절이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이 에녹서의 저자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 묘사했고, 이 사람의 아들은 그가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만유{萬有}의 아버지인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런 뜰을 거닐었으며; 불쌍한 필사자들에게 구원을 선언할 목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렸다고 설명했다. 예수가 이런 구절들을 읽었을 때, (동방의 많은 신비주의가 이 교훈에 섞여 들어가게 된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잘 이해하면서) 히브리 성서 가운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부분과, 유대인 구원자에 관한 모든 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받은, 이 에녹서 안에 모아진 이 이야기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을, 심정으로 응답하고 정신으로 인정했으며; 그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취임 직함으로 “사람의 아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공적 업무를 시작했을 때 이것을 실행했다. 예수는

진리가 어떤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역량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채택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126:3.9 (1390.4) 이 무렵, 그는 앞으로 세상을 위해 할 많은 일에 관해서 이미 철저히 정리해 뒀지만, 자기 아들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굳게 갖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26:3.10 (1390.5) 이제 예수의 젊은 시절의 큰 혼란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일에 임하는"--곧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본성을 온 인류에게 설명하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사명의 본질에 관한 어떤 것을 확정하면서, 민족적 구원자, 즉 유대인의 선생 혹은 왕의 출현에 관해 기록한 성서 가운데 많은 구절을 다시 숙고하기 시작했다. 이 예언들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그는 비 유대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그는 다윗 가문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머니는 그렇다고 단언했고; 아버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수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본성과 사명을 혼동했던 것일까?

126:3.11 (1391.1)

결국, 어머니의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을까?
과거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 어머니가 옳다고 판명됐었다. 그가 새로운 선생이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런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까?;그리고 더욱이, 이 유대인 메시아와 자신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가 사명을 착수한 후에는, 가족과, 유대 민족 및 종교와,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 및 그들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덟 명의 배고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목공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동안, 이 젊은 갈릴리인은 이런 중대한 문제 하나하나를 마음 속에 떠올리면서 진지하게 숙고했다.

126:3.12 (1391.2)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마리아는 가족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비둘기 파는 일을 야고보에게 넘겼다. 그들은 이윽고 두 번째 암소를 구입했고, 미리암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사렛의 이웃에게 우유 판매를 시작했다.

126:3.13 (1391.3) **예수의 긴 기간의 묵상, 기도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자주 가는 여행, 그리고 때때로 그가 제시하는 이상스러운 많은 착상 등으로 인해, 어머니는 몹시 불안해했다. 어머니는 때로는 아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럴 때마다, 아이가 약속의 자녀로서 결국 다른 소년들과는 어떤 면에서든지 다를 것임을 기억해냄으로써, 두려움을 안정시키곤 했다.**

126:3.14 (1391.4) **그러나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자기 생각을 전부 말하고 자기 이상{理想}을 전부 제시하는 것을 삼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 해부터 계속, 예수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다시 말해서, 보통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고,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거나 특별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고대했음에도, 겉으로는 모든 면에서 평범하고 통상적인 모습이 됐다. 그는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를 갈망했지만, 그의 문제는 인간 동료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이렇게 유별난 상황의 독특성이, 그에게 자기 짐을 홀로 지도록 강요했다.**

4.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

^{126:4.1 (1391.5)} 열다섯 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예수는 안식일에 정식으로 회당의 설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예수는, 연설자가 없을 경우에 성서를 읽어달라는 청을 전에도 여러 번 받았었지만, 이제는 법에 따라서, 그가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날이 됐다. 따라서 열다섯 번째 생일이 지난 후 첫 안식일에, 카잔은 그날 아침 회당 예배 순서를 예수가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나사렛에 있는 모든 신자가 모인 가운데, 이 젊은이는 일어서서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을 선택해서 읽기 시작했다:

^{126:4.2 (1391.6)}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시기 위함이며; 그가 나를 보내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이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 주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곳에, 그가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26:4.3 (1392.1)

“너희는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주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126:4.4 (1392.2)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눈 앞에서 너희 행함의 악을 멀리하며;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공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줘라. 아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과부를 변호하라.

126:4.5 (1392.3)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세상 만물의 주 앞에 경배할까? 내가 일 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갖고 그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수만 마리의 양, 아니면 강 같이 흐르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를 인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다! 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주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겠느냐?”

126:4.6 (1392.4)

“그런즉 너희가 지구의 궤도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볼 것이며, 누가 숫자대로 그들의 무리를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는지를 보라. 자신의 크신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느니라. 약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피곤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 줄 것이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126:4.7 (1392.5)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요, 내가 너희를 내 종으로 택했으니, 이는 너희 모두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영원자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내가 주이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26:4.8 (1392.6)

그렇게 읽은 다음에, 그가 자리에 앉았으며, 사람들은 예수가 그토록 우아하게 읽어줬던 문구를

곰곰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렇게 엄숙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며;그토록 열성적이고 진지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그토록 어른스럽고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126:4.9 (1392.7)}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는 야고보를 데리고 나사렛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 두 장의 매끈한 나무판에, 목탄을 사용해서 그리스어로 십계명을 썼다. 마르다는 나중에 이 판들에 색칠하고 장식했으며, 이것들은 야고보의 작은 작업장 벽에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

5. 경제적인 악전고투

^{126:5.1 (1392.8)} 예수와 그 가족은 점차 초기의 단순한 생활로 돌아갔다. 그들의 옷과 음식까지도 간소해졌다. 우유와 버터 그리고 치즈는 풍부했다. 제 철이 되면, 집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달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절약이 필요해졌다. 그들의 아침 식사는 매우 간단했으며;가장 좋은 음식은 저녁을 위해서

남겨뒀다. 그러나 유대인 세계에서는 이런 재산의 결핍이, 반드시 사회적으로도 열등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26:5.2 (1392.9) 이 소년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잘 납득했다. 그가 가정과 들판과 작업장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는, 그의 차후 교훈 속에 잘 나타나며, 그의 교훈은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조예가 깊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

126:5.3 (1392.10) 나사렛의 카잔은, 예수가 위대한 선생이 돼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저명한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되리라는 믿음에 계속 연연했다.

126:5.4 (1393.1) 경륜을 위한 예수의 모든 계획은 외견상 좌절됐다. 이때 진행되는 상태로는 미래도 밝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낙심치 않았다. 그는 현재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당면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 예수의 생애는, 낙담한 모든 이상주의자들에게 끝없는 위안을 준다.

126:5.5 (1393.2) 평범한 일용직{日傭職}_노동자 목수의 임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 해 말쯤에 예수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 까지 일해서, 하루에 25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수 있을 뿐이었다. 다음 해가 되자, 그들에게는 회당 헌금과 반 세겔의 성전 세금은 그만 두고라도,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조차 힘겨워졌다. 이 해에, 세금 징수원은 예수로부터 돈을 더 거두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의 하프를 빼어가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126:5.6 (1393.3) 예수는, 그리스어 성서 사본이 세금 징수원에게 발각돼 압수당할까 염려해서, 열다섯 번째 생일에 자신의 성인식을 기념하여, 주께 바치는 헌물로서 나사렛 회당 도서관에 기증했다.

126:5.7 (1393.4)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요셉이 사고로 사망했을 당시 그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제출했던 문제에 관한 판결을 받으려고, 예수가 세포리로 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세포리의 재정 담당자가 약속한 액수를 제시했을 때, 예수와 마리아는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헤롯에게 직접 진정서를 냈었고,

이제 예수는 궁전 안에 서서, 아버지가 죽었을 당시 그가 받아야 할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헤롯의 판결을 듣게 됐다. 그런 부당한 결정 때문에, 예수는 그 후로 헤롯 안티파스를 결코 다시 신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언젠가 헤롯을 “저 여우”라고 언급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26:5.8 (1393.5) 이 해와 다음 해 동안에, 예수는 목공소 작업대를 떠날 수 없었던 관계로, 대상{隊商} 여행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작업장은 이미 삼촌에게 넘어갔으므로, 예수는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다 같이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마리아를 가까이서 도왔다. 이 무렵에 그는, 대상들이 모이는 장소로 야고보를 보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오게 함으로, 당시의 소식과 계속 접촉하려고 애썼다.

126:5.9 (1393.6) 그는 성인{成人}으로 자라면서, 그 나이 전후{前後}에 있는 보통 젊은이들이 겪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갈등과 혼란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는 혹독한 체험은, 그가 무의미한 명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신비적{神秘的}인 경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줬다.

126:5.10 (1393.7)

예수가 자기 집 바로 북쪽에 상당히 넓은 땅을 세내어 가족의 밭을 일궈던 일도 이 해에 있었고, 작은 밭을 꾸밀 수 있도록 가족에게 분할했다. 나이 든 동생들은 각자 자기 몫의 밭을 갖게 했고, 그들은 민감한 경쟁을 벌이면서 농사에 힘썼다. 채소를 기르는 시기에는, 그들의 맏형이 매일 얼마간의 시간을 밭에서 함께 보냈다. 밭에서 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는 그들이 시골로 가서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하며 방해받지 않고 사는 농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러 번 마음에 품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시골에서 자랄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으며;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완전한 실용주의자였던 젊은 예수는, 문제가 일어나는 대로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대처했고,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 상황에 맞춰 나가는 일에, 그리고 개개인과 가족 전체의 소원이 가능한 한 최고의 만족감을 얻도록 자신들의 상황을 적응시키는 일에,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했다.

126:5.11 (1393.8)

예수는 한때, 아버지가 헤롯의 궁전을 지으면서 받아야 할 상당한 돈을 받게 되면, 작은 농장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증금이 되리라는 가느다란 희망을 가졌었다. 그는 실제로 가족을 시골로 이사시키는 계획을 심각하게

생각해 뒀었다. 그러나 헤롯이 요셉에게 줘야할 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시골에서 집을 소유하고 싶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있는 상태 그대로, 그들은 이제 비둘기 외에, 세 마리의 소, 네 마리의 양, 닭 몇 마리, 한 마리의 당나귀, 그리고 한 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농장 생활의 체험을 즐기려 궁리했다. 이 나사렛 가정생활의 특징인, 규율이 잘 잡힌 관리 요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작은 아이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주어졌다.

126:5.12 (1394.1) 열다섯 살이 되던 이 해가 끝나면서, 예수는 인간 체험에서 그토록 위험스럽고 어려웠던 기간을 마무리했는데, 이 기간은 비교적 더 만족스럽게 보낸 어린 시절과, 다가오는 성년기에 대한 의식 사이의 과도기였으며, 성년기에는 고상한 성품을 발달시키는 진보된 체험을 획득하기 위한 책임과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정신과 육체의 성장기가 끝났고, 이제 이 나사렛 젊은이의 진짜 생애가 시작됐다.

제127편 청년 시절

127:0.1 (1395.1) 청년 시절로 접어들었을 때, 예수는 대 가족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가 돼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들의 재산은 바닥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재{先在}에 대해서 점점 더 의식하게 됐고;동시에, 낙원 아버지를 사람 자녀들에게 계시하는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육신 속에서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음을, 더 온전히 깨닫기 시작했다.

127:0.2 (1395.2) 이 세상 또는 다른 어떤 세상에든지, 이제까지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청년도,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복잡한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유란시아의 어떤 소년도, 예수가 15세에서 20세까지의 격렬한 세월 동안 견뎌던 것보다 더 심한, 시험적 갈등 또는 더 쓰라린 상황을 체험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127:0.3 (1395.3) 사람의 아들은, 악에 휩싸이고 죄로 인해 혼란스런 세상에서, 이런 청년 시절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네바돈에 있는 모든 영역의 소년이 체험하는 생활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됐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지방우주 전역에 두루, 모든 세대와 모든 세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을 이해하는 보호자가 됐다.

127:0.4 (1395.4) 이 신성한 아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우주에 대한 주권자, 즉 지방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의 창조된 지성 존재들의 절대적인 최고 통치자요, 모든 세대의 존재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재능 및 체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보호자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고 있었다.

1. 열여섯 살 되던 해 (서기 10년)

127:1.1 (1395.5) 육신화 한 아들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평온하게 보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린 시절과 젊은 성년기 사이의, 곤란하고 견디기 어려웠던 전환 단계에서 벗어나게 됐다--청년 예수가 됐다.

127:1.2 (1395.6) 이 해에 그는 온전한 육체 성장을 달성했다. 그는 남성답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점점 더 침착하고 진지하게 됐지만,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았다. 그의 눈은 온유했으나 예리했으며; 그의 미소는 항상 매력적이고 위안을 줬다. 그의 목소리는 고왔으나 위엄 있었으며; 그의 인사말은 정중했으나 소박했다. 가장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인간적이고 신성한 양면적 본성이 맞닿아 있다는 증거가, 항상 보이는 듯했다. 그는 언제나 동정심이

있는 친구와 위엄을 갖춘 선생, 이 두 성품이 잘 배합돼 있음을 나타냈다. 이런 인격체 특징은, 그가 청년 시절이었음에도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27:1.3 (1395.7)}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인간적 지능 또한 온전한 성장을 이룩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온전한 체험이 아니라, 그런 지적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이룩했다. 그는 건강하고 잘 균형 잡힌 육신, 예리하고 분석적인 정신,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성향, 어느 정도 유연성 있지만 적극적인 기질을 가졌으며,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강하고 뛰어나며 매력적인 한 인격체를 구성하게 됐다.

^{127:1.4 (1396.1)}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그를 이해하기 힘들어졌으며;그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당황했고, 그의 행동을 잘못 해석했다. 만형이 유대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로 운명이 정해졌음을,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으므로, 그들 모두는 그의 생애를 납득하기 힘들었다. 가족들만 알아야하는 그런 비밀을 그들이 마리아에게서 듣고 난 후에, 예수가 그런 모든

관념이나 의도를 명백하게 부정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상상해 보라.

127:1.5 (1396.2) 이 해에 시몬이 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집을 팔아야 했다. 이제는 야고보가 세 여동생을 맡아서 가르치게 됐는데, 그 중에 두 여동생은 진지하게 공부할 나이가 됐다. 룯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자, 곧 미리암과 마르다가 룯을 돌봤다. 유대인 가정의 여자아이들은 대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자아이도 남자아이와 똑같이 학교에 가야만 한다는 견해를 가졌으나 (어머니도 동의했으나), 회당 학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학교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127:1.6 (1396.3) 이 해 내내, 예수는 작업대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일거리가 많았으며;숨씨가 뛰어났으므로 그 지역에서 아무리 일이 줄어들어도, 그에게는 한가히 지낼 시간이 없었다. 어떤 때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야고보가 그를 돕기도 했다.

127:1.7 (1396.4) 이 해 말쯤에, 가족을 양육해서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진리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계시자로서,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들이 고대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결론지었으며;이제까지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그녀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으므로, 그리고 아버지도 어떤 말로든지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생각났으므로, 어머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 이 해부터, 어머니에게 또는 다른 누구에게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사명이 너무 특수했으므로, 그것의 실행에 관해서 그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127:1.8 (1396.5) 그가 정말로 어렸지만 가족에게는 한 아버지였으며;가능한 모든 시간을 동생들과 보내려 노력했고, 그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머니는 그토록 힘들게 일하는 그를 보면서 비통해 했으며;자기들이 그토록 철저히 계획했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공부하는 대신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목공소에서 매일같이 일하게 된 것을

슬퍼했다. 마리아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지만, 그를 매우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서 맡겨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태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다.

2. 열일곱 살 되던 해 (서기 11년)

^{127:2.1 (1396.6)} 이 무렵,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항하는 반역에 가담하는 심각한 소동이,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강한 민족주의자 분파가 생겨나고 있었다. 바리새파와는 달리, 열심당은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치적 반란을 통해서 결론 낼 것을 제안했다.

^{127:2.2 (1396.7)} 한 무리의 조직원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도착했고, 그들은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나사렛까지 왔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는 주의 깊게 듣고 많이 질문했으나, 그 당에 참여하기는 거절했다. 그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밝히기를 사양했고, 그의 거절은 나사렛에 있는 젊은 동료들 가운데 다수가 가담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쳤다.

127:2.3 (1397.1) 마리아가 그를 설득해서 참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라는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부모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지만; 이런 암시에, 그는 단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며,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127:2.4 (1397.2) 예수의 외삼촌 가운데 한 사람(마리아의 형제인 시몬)이 이미 이 집단에 가입했고,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임원이 됐다. 그래서 예수와 외삼촌은 여러 해 동안 약간 서먹한 관계에 있었다.

127:2.5 (1397.3) 그러나 불화가 나사렛에서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놓고, 그 도시의 유대인 젊은이들 사이에 패가 갈리는 결과가 발생했다. 절반가량의 젊은이는 민족주의자 조직에 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온건한 애국자 집단을 만들어서, 예수가 그들의 지도자가 돼주기를 바랐다. 예수에게 이런 명예로운 직위가 주어졌을 때, 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이유로 사양하자, 그들은 몹시 놀랐지만, 모두 수긍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대인 갑부 이삭이, 예수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사렛에 있는 이 애국자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의 가족을 자기가 부양하겠다고 나서자,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127:2.6 (1397.4) 그때 거의 열일곱 살 된 예수는, 자신의 생애 초기에 가장 미묘하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하나에 직면하게 됐다. 애국심의 문제는, 특히 세금을 징수하려는 외국의 압제자들과 뒤얽힌 경우에,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을 거기에 직접 관계시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으며, 게다가 이 경우에는, 로마에 대항하려는 선동{煽動}에 유대 종교가 연관돼 있었으므로, 갑절이나 더 어려웠다.

127:2.7 (1397.5) 예수의 입장은, 어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그에게 민족주의자 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했으므로 더 어렵게 됐다. 대부분의 나사렛 유대인이 등록했고, 이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예수가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모두 등록하려고 했다. 나사렛에서 그의 유일한 지혜로운

상담자인, 전에 그를 가르쳤던 카잔이, 나사렛 시민 위원회가 미리 짜놓은 대중적 간청에 대답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왔을 때, 그가 할 대답에 관해 조언해 줬다. 예수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널리 알려진 방책에 의식적으로 도움을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때까지 그는 사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상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기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 이상{以上}의 어떤 존재임을 공표할 수 없었으며; 더 성숙된 성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명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알릴 수 없었다. 이런 제한들에도, 그의 종교적 신의와 국가적 충성심은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고, 젊은 친구들은 패가 갈렸으며, 성읍의 모든 유대인 대표자에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에 대해 비난받았음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었고, 이런 종류의 소동은 더욱 그랬다.

127:2.8 (1397.6) 무슨 조치든지 취해야만 했다. 그는 자기 입장을 밝혀야만 했고,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용감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것을 처리했다. 그는, 자신의 첫째 의무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 즉 과부인 어머니와 여덟 명의 동생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곧 물질적인 생활필수품-- 이상{以上}인 아버지의 보살핌과 인도라고 칭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비참한 사고로 인해 자신이 떠맡게 된 그런 책무를 양심상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처음부터 변명했던 그 이유를 고수했다. 그는 자기를 기꺼이 해방시켜 주려는 어머니와 큰 동생의 마음에 감사를 표명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가족을 떠날 수 없다고 반복하면서,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예수는 자신의 "생애 사명"에 대해 여러 번 암시했지만, 그것이 군사적{軍事的} 개념과 모순되든지 모순되지 않든지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끝마칠 때까지는, 자기 생애에서 다른 모든 것이 뒤로 미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사렛의 모든 주민은, 그가 가족에게 훌륭한 아버지임을 잘 알았고, 이것은 모든 고상한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예수의

대답은 대부분의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으며;그런 마음을 품지 못한 일부 사람도, 계획표에 없었던 야고보의 연설이 이때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요됐다. 바로 그날 카잔이 야고보에게 연설하도록 연습시켰는데,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127:2.9 (1398.1) 야고보는, (야고보) 자신이 가족을 위해 책임질만한 나이가 됐다면, 예수가 민족의 해방을 틀림없이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가 남아있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써, 아버지와 선생의 역할을 해서, 결국 여러분은 요셉의 가족 가운데 단 하나의 지도자뿐 아니라 곧 다섯 명의 충성스런 민족주의자를 갖게 될 것인데, 우리 형님이자_아버지의 지도를 받은 우리 다섯 형제 가운데,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우 긴장되고 험악한 상황이 꽤 만족스럽게 끝나도록 했다.

127:2.10 (1398.2) 그 위기는 일시적으로 지나갔지만, 나사렛에서는 이 사건이 결코 잊히지 않았다. 선동은 계속됐으며;예수가 다시는 모든 사람 전체의 호감을 사지

못하게 됐고, 갈라진 감정은 끝내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로 말미암아 확대돼서, 예수가 훗날 가버나움으로 옮겨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때부터 나사렛에서는 사람의 아들에 관한 분열된 정서가 지속됐다.

127:2.11 (1398.3) 이 해에 야고보가 학교를 졸업했고, 집에 있는 목공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연장을 잘 다루는 기술자가 됐고, 이제 멍에와 쟁기 만드는 일을 물려받았으며, 한편 예수는, 집 마무리와 노련한 가구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127:2.12 (1398.4) 이 해에 예수의 정신이 조직화되는 엄청난 발전이 이뤄졌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점차 결합시키게 됐고, 아들이 증여된 이후의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모든 필사자 마음 속에 거하는 관찰자와 똑같은, 내주하는 관찰자의 도움을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자신의 직접적인 결정으로 이와 같은 지능의 조직화를 모두 성취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밤에 그에게 한 번 나타났던, 임마누엘이 보낸 사자 외에는 어떤 초자연적 사건도 이 젊은이의 생애에 일어나지 않았다.

3. 열여덟 살 되던 해 (서기 12년)

^{127:3.1 (1398.5)} 이 해를 지나는 동안에, 집과 밭을 제외하고, 가족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처분됐다. 가버나움에 있는, (다른 하나의 소유권을 제외하고) 이미 저당 잡힌 마지막 부동산이 팔렸다. 이 돈은, 세금, 야고보를 위한 새 연장 구입, 그리고 대상 지역 근처에 있던 오래된 가정용품점 및 수리소의 대금 지불에 사용됐는데, 야고보가 집에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마리아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므로, 이때 예수가 그 가게를 다시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리하여 재정 압박이 당분간 줄자, 예수는 야고보를 유월절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하루 먼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걸어서 갔고, 예수는 아버지가 5년 전에 비슷한 여행에서 자기에게 가르쳤듯이, 가는 도중에 역사적 장소에 관해서 야고보에게 이야기해 줬다.

^{127:3.2 (1399.1)}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들은 생소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자신의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및 민족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야고보는 매우 종교적인 유형의 소년이었고, 예수의 필생과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이 가족의 부양을 떠맡게 돼서, 예수가 사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했다. 그는 예수가 자기를 유월절에 데려간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고, 미래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127:3.3 (1399.2)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는 많은 생각을 했는데, 특히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더욱 그랬다. 예수와 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전승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곧 보게 될 것들에 관해서 미리 많이 준비시켰는데, 그리함으로 자신이 성전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그런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광경에 그리 예민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제사장들이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태도로 임무 수행에 임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매우 즐겼다.

127:3.4 (1399.3) 예수는 유월절 만찬을 위해 야고보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시몬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므로,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양을 가져와서, 예수가 유월절 가족의 가장{家長} 자격으로 의식을 주관했다.

127:3.5 (1399.4)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마리아가 야고보와 같이 앉아 이야기 나눴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예수는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했다. 다음 날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했고, 야고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을 허락받았다. 그날 아침, 그들이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감람원 기슭에서 쉬는 동안, 야고보는 경탄하며 외쳤고, 예수는 조용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야고보는 형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에 그들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고, 다음 날 집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야고보는 선생들의 토론을 다시 듣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 성전을 다시 방문하자고 졸랐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대로, 예수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을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갔고 토론을 들었지만, 예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자 하나님인 이 자각하는 정신에게, 그것은 너무 미숙하고 무의미하게 보였다--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뿐이었다. 야고보는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 그의 물음에 예수는 단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127:3.6 (1399.5) 다음 날, 그들은 여리고와 요단 계곡을 지나 집으로 여행했고, 그 도중에 예수는, 자신이 열세 살에 이 길을 지나갔던 지난번 여행을 비롯한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127:3.7 (1399.6) 나사렛에 돌아오자, 예수는 오래된 가족 수리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지방의 사방으로부터, 그리고 근처 지역들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을 매일 만나게 돼서 매우 즐거워했다. 예수는 사람을--곧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매 달 그 가게에 대한 불입금을 지불했고, 야고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을 계속 부양했다.

127:3.8 (1399.7) 외부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일 년에 여러 차례, 예수는 회당에서 안식일 성서 구절을 계속 읽었고, 그가 읽은 구절에 대한 해설을 여러 번 요청받기도 했지만, 그는 대개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절을 골랐다. 그는 몇 개의 구절을 골라서 배열함으로써,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설명하도록 하는 데 능숙했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그는

안식일 오후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보했다.

127:3.9 (1400.1) 카잔이 이 무렵에 철학적 토의를 위한 젊은이의 모임을 창시했고, 그들은 각각 다른 회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자기 집에서도 가끔 모였는데, 예수는 이 모임에서 탁월한 일원{一員}이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는 최근의 민족주의적 논쟁 파문으로 잃었던, 동네에서의 자신의 위신을 약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27:3.10 (1400.2)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사렛의 남녀 젊은이들 가운데 다정한 친구와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많았다.

127:3.11 (1400.3) 9월에, 엘리사벳과 요한이 나사렛 가족을 방문했다. 아버지를 잃은 요한은, 예수가 자기에게 나사렛에 남아서 목공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계통의 일을 하라고 권하지 않으면, 유대지방 구릉지대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양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나사렛 가족이 매우 쪼들리고 있음을 몰랐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기 아들들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젊은이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고 확신하게 됐다.

127:3.12 (1400.4) 예수와 요한도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며;그들은 매우 상세하고도 개인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방문을 마쳤을 때,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한 후에 공적인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될 때까지,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요한은 나사렛에서 목격했던 것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게 돼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애썼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생애 사명의 한 부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지만, 예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해를 보내게 될 것을 알았으며;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작은 농장을 보살피며 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훨씬 더 만족하게 됐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타나는 그날 까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았다.

127:3.13 (1400.5) 이 해 12월 3일, 토요일 오후에, 이 나사렛 가족에게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다. 아기 동생 아모스가 고열로 한 주간 앓다가 죽었다. 마리아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맏아들과 함께 이 슬픈 기간을 견뎌 낸 후부터, 그녀는 드디어 예수를 진정한 가장으로 완전히 인식하게 됐으며;그는 정말로 자격 있는 가장이었다.

127:3,14 (1400:6) 4년 동안 그들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나빠졌고;그들은 해마다 더 가난해짐을 느꼈다. 이 해 말쯤에는 그들의 모든 힘든 싸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체험에 직면했다. 야고보는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장례비용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는 염려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_마리아여, 슬픔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며;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머니의 미소는 아마 우리에게 더 잘 하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는 희망으로 이런 과제들을 헤쳐 나갈 힘을 매일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굵기지 않는 실질적 낙천주의는 진정으로 영향력 있었으며;모든 아이가, 더 나은 세월과 일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희망에 찬 이런 용기는, 그들의 빈곤으로 말미암는 우울함에도, 강하고 고상한 성품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127:3.15 (1400.7) 예수는 당면한 과제에 자신의 모든 정신, 혼, 및 육체의 힘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깊이_생각하는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것이, 지치지 않는 인내심과 연결돼서, --마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살면서"-- 힘든 필사자 실존의 시험을 차분히 견디게 해줬다.

4. 열아홉 살 되던 해 (서기 13년)

127:4.1 (1401.1) 이 무렵에,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마리아가 그를 아들로 여기던 마음은 줄었으며;점점 더 아이들의 아버지로 여기게 됐다. 매일의 생활은, 실질적이고 당면한 어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의 필생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덜하게 됐고,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은 네 아들과 세 딸을 부양하고 양육하기에 공통으로 몰두했다.

127:4.2 (1401.2) 이 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는 아이들을 키우는 자신의 방법--곧 악을 행하기를 금지하는 옛 유대인 방식 대신에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는 긍정적 방법--에 관해서 어머니의 완전한 동의를 얻었다. 예수는, 자기 가정에서나

공생애의_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형태로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는 이것을 해야 한다--저것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대의 금기{禁忌}에서 유래된 부정적 방식의 가르침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악을 행하기를 금지시킴으로써 악을 부각시키기를 피하는 대신, 선을 실행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선을 부각시켰다. 이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가족의 행복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토의하는 시간이었다.

127:4.3 (1401.3) 예수는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현명한 훈육을 시작했으므로, 즉시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는 데 거의 또는 전혀 벌을 줄 필요가 없었다. 유일한 예외가 유다였는데, 그에게는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는 여러 경우에 자주 느꼈다. 세 번의 경우에, 고의로 가정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에 대해, 그에게 벌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대한 벌칙은 나이든 다른 형제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결정됐고, 벌을 주기 전에 유다 자신의 동의도 받았다.

127:4.4 (1401.4) 예수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매우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었으며, 또한 그의 모든 경영상 결정에는 참신하게 해석하는 융통성이 있었고, 이를 개인에 맞게 적용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가장{家長}인_형을 움직이는 공정함의 기질로 아이들 모두에게 크게 감명을 줬다. 그는 결코 독단적으로 형제를 훈련시키지 않았고, 그런 일관된 공정성과 각 개인에 대한 그의 배려 때문에, 가족 모두 예수를 매우 좋아했다.

127:4.5 (1401.5) 야고보와 시몬은, 자신의 호전성{好戰性}을,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성난 친구들을, 설득과 무저항의 방식으로 진정시키려는 예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자랐으며, 그들의 경우는 꽤 성공적이었지만;요셉과 유다는, 그런 교훈을 집에서는 따르면서도, 동무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성급하게 자신을 방어했으며;특히 유다가 이런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무저항이 가족의 규정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교훈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았다.

127:4.6 (1401.6) 대체로, 아이들 모두, 특히 여자아이들은 다정한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서 고민거리를 예수와 의논하려 했고 그를 신뢰했다.

127:4.7 (1401.7) 야고보는 온건하고 침착한 젊은이로 자랐지만, 예수처럼 영적 경향을 갖추지는 못했다. 충실한 일꾼인 반면에 훨씬 더 영적이지 못한 정신을 가졌던 요셉보다는, 야고보가 훨씬 더 우수한 학생이었다. 요셉은 민첩하지 못했고, 지적으로도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졌다. 시몬은 선의{善意}를 가진 소년이었지만 너무 심한 망상가였다. 그는 생활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으므로 예수와 마리아에게 상당한 근심을 끼쳤다. 그러나 그는 항상 착하고 선한_의도를 가진 아이였다. 유다는 말썽꾼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이상{理想}을 갖고 있었지만 기질이 안정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고집과 적극성을 모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균형 감각과 분별력은 거의 지니지 못했다.

127:4.8 (1402.1) 미리암은 고상하고 영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온건하고 분별력 있는 딸이었다. 마르다는 생각과 행동이 느렸지만 매우 믿을만하고 유능한 아이였다. 아기 룻은

가족에게 밝은 빛 같았으며;경솔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가장 진실한 심성을 갖고 있었다. 롯은 아버지 격인 제일 큰오빠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버릇없게 만들지는 않았다. 롯은 매우 아름다운 아이였으나, 그 성읍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가족 중에서 가장 미녀인 미리암보다는 못했다.

127:4.9 (1402.2)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는 안식일 관례,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적 양상과 관련된 가족 교훈과 격식을 많이 자유화하고 변경시켰으며, 마리아는 이런 변화에 진심으로 동의했다. 이 무렵에, 예수는 집안의 확고부동한 가장이 돼 있었다.

127:4.10 (1402.3) 이 해에 유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는 그 경비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 하프를 팔아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여가를 즐기던 마지막 도구가 사라졌다. 그는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로할 때에는 하프 연주를 매우 즐기곤 했었다. 그러나 그 하프가 적어도 세금 징수원에게 압수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었다.

5. 에즈라의 딸 리브가

예수는 비록 가난했지만, 나사렛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그는 성읍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고, 젊은 여자들 대부분이 그에게 깊은 호감을 가졌다. 예수는 건장하고 지적인 남성스러움의 훌륭한 표본이었고, 영적 지도자로서 명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나사렛 부자 상인 에즈라의 맏딸인 리브가가, 이 요셉의 아들에 대한 사랑에 점점 빠지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여동생 미리암에게 고백했고, 미리암은 다시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마리아는 대단히 흥분됐다. 이제 그녀는 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이 된 아들을 잃게 되려는 것일까? 어려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서 그녀는, 결혼이 예수의 장래 사명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곰곰이 생각했으며;자주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따금, 예수가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었다. 그녀와 미리암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한 후, 예수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는 특별한 운명의 아들이며;앞으로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 또는 어쩌면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을 리브가에게

직접 털어놓음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로 결정했다.

127:5.2 (1402.5) 리브가는 주의 깊게 들었으며;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렘고,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그 남자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로
더욱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충실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마리아가 반대하는 것은, 가정의
가장이자 유일한 부양자를 잃게 되는 두려움에서 오는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해석했지만;목수의 아들을 향한
자신의 이끌림을 아버지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예수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을 그의
가족에게 기꺼이 제공하리라고 판단했다. 아버지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마리아와 미리암에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고,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그녀는
대담하게 예수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협조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는
리브가의 열일곱 살 생일 축하연에 예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127:5.3 (1403.1) 예수는 신중하게 공감하면서 이 일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다음에는 리브가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책임 중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것을--곧 자신의 혈육에 대한 충성심을-- 완수"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책무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리브가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예수의 말에 매우 감동되어 의논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내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를 사위로 맞을 수 없으며;우리에게 과분하오"라고만 말했다.

127:5.4 (1403.2) 그리고 나서, 리브가와 심각한 대화를 시작했다. 이때까지 사는 중에, 예수는 소년과 소녀 또는 청년과 처녀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사귀었다. 그의 정신은, 이 세상의 실질적 사건의 긴급한 문제와, "아버지의 일에 관한" 궁극적인 생애를 생각하는 일에 너무 빠졌으므로, 개인적 사랑을 인간의 결혼으로 매듭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평범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말로 그는 "모든 면에서 너희와 똑같이 시험 받았다."

127:5.5 (1403.3)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에, 그는 리브가가 자기를 칭찬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 일생 동안, 그것은 내게 힘과 위안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한 형제간 사랑이나 진정한 친구관계 외에는, 어떤 여자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처지임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첫째이자 최고의 의무가 아버지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며, 그것이 완수되기 전에는 결혼을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서; “내가 운명의 아들이라면, 내 운명이 내 앞에 확실히 펼쳐질 때까지, 일생을 두고 약속하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127:5.6 (1403.4) 리브가는 비탄에 잠겼다. 그녀는 위로 받기를 거절했고, 아버지가 세포리로 이사하기로 마침내 동의할 때까지, 나사렛을 떠나자고 졸랐다. 그 후 수년 동안, 리브가는 청혼하는 많은 남자에게, 한 가지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그녀가 보기에,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남자가, 살아있는 진리의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때를 기다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다사한 공적 책무 시절 내내 헌신적으로 그를 따라갔고,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간 그날도 (예수의 눈에 띄지 않고) 거기에 있었으며;그녀에게 그리고 수 없이 많은 하늘 세계에게, “만인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위대한 분”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 오후에도, 마리아 곁에 있는 “다른 여자들 가운데” 서 있었다.

6. 스무 살 되던 해 (서기 14년)

^{127:6.1 (1403.5)} 리브가가 예수에게 품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나사렛에 그리고 나중에는 가버나움에도 널리 퍼졌고, 그리하여, 남자들이 예수를 사랑함과 똑같이 많은 여자도 예수를 사랑하게 됐지만, 그 후에는 다른 훌륭한 여자의 개인적인 헌신을 거절해야만 하는 체험을 다시 하지 않았다.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좀 더 경건하고 찬미하는 성향이 됐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 예수를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며, 자아_만족을 위하거나 그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한 개인감정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예수의 인간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리브가의 헌신도 화제가 됐다.

127:6.2 (1404.1) 미리암은, 리브가 사건에 관해 잘 알았고, 또한 오빠가 아름다운 한 처녀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 알았으므로, (그의 운명적 미래 사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예수를 이상화{理想化}시키게 됐고, 감동적이고 심오한 애정으로, 아버지이자 오빠로서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

127:6.3 (1404.2) 비록 형편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이상하게 예수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다. 예수가 최근에 리브가로 인해 겪은 경험을 알기에, 어머니는 그에게 여행하도록 지혜롭게 권했다. 예수가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나사로와 이야기하고, 마리아 및 마르다를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신의 가족 다음으로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했다.

127:6.4 (1404.3)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는 므깃도와 안티파트리스와 리다를 경유해서 갔는데, 일부는 그가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지나간 길이었다. 그는 유월절에 도착할 때까지 4일 동안 여행하면서,

팔레스틴의 국제적 전쟁터였던 므깃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127:6.5 (1404.4) 예수는, 예루살렘을 통과해 지나가면서, 성전과 모여 있는 방문객 무리를 보느라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제사장들과 함께, 헤롯이 준공한 이 성전에 대해, 그는 특이하고 가증되는 혐오감을 가졌다. 그는 무엇보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고 싶었다. 나사로는 예수와 같은 나이였고, 이제는 가장이었으며; 그가 방문할 무렵에 나사로의 어머니 또한 무덤에 묻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보다 한 살 조금 더 많았고, 마리아는 두 살 아래였다. 예수는 세 사람 모두에게 마치 우상처럼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127:6.6 (1404.5) 주기적으로 발생되던, 전통에 반항하는 폭동들 가운데 하나가 이 방문기간에 일어났다--예수가 보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못 대표하고 있는 예식{禮式} 풍습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예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나사로는, 여리고로 가는 길 아래쪽 이웃 동네에서 친구들과 유월절을 축하하도록 주선했었다. 이때 예수는, 나사로의 집에 남아서 같이 축제를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양이 없다”고 나사로가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그런 유치하고 무의미한 제례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긴 시간에 걸쳐서 설득했다. 엄숙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일어나자, 예수는, “우리 민족 중에서 어둠에 갇혀 있고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게 내버려두자;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생명에 이르는 빛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어두운 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지 말자.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앎으로써 자유를 누리자”고 말했다.

127:6.7 (1404.6) 황혼 무렵이 된 저녁에,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아서, 독실한 유대인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유월절 양 없이 지내는 첫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준비됐고, 예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이것들을,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라고 부른 후에 동무들에게 나눠줬으며, 그들은 방금 받은 교훈을 엄숙히 준수하면서 먹었다. 그때부터, 그가 베다니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성례{聖禮} 제례식을

치르는 것이 습관화됐다. 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차 그의 관점을 알게 됐으며;그럼에도, 예수가 유월절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관념을 자기 가족에게 적용시킬 의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녀는 크게 안도했다. 집에 있는 동생들과는, 해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눴다.

127:6.8 (1404.7) 마리아가 결혼문제에 대해 예수와 긴 대화를 나눈 것은 바로 이 해였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면 결혼하겠느냐고 그에게 직접 물었다. 예수는 그녀에게, 당면한 의무로 인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표현했으며;그런 일들은, “나의 때”, 즉 “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기로 이미 마음 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27:6.9 (1405.1) 이 해에 그는, 자신의 필사자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하나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인간 개성*으로 더욱 엮어 가는 과제를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도덕적 상태와 영적 이해에서 계속 성장했다.

127:6.10 (1405.2) (집을 제외하고)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모든 부동산이 없어졌음에도, 이 해에, 가버나움에 갖고 있던 한 개의 부동산 권리금을 팔아서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요셉이 남기고 간 전 재산 가운데 마지막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이 부동산 거래는, 세베대라는, 배를 만드는 사람과 이뤄졌다.

127:6.11 (1405.3) 요셉이 이 해에 회당학교를 졸업해서, 집에 있는 목공소의 작은 작업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이제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일하게 됐으므로, 가난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였다.

127:6.12 (1405.4) 예수는 빠른 속도로 한 사람의 성인, 즉 청년이 아닌 어른이 돼 가고 있었다. 그는 책임을 잘 이행하는 것을 배웠다. 낙심에 처했을 때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를 알았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목적이 현실적으로

무산됐을 경우에도 용기 있게 건넜다. 불의를 당했을 때도 공정하고 공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영적인 삶의 이상{理想}을,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의 실질적인 요구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지를 배워 나갔다. 당장 시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동시에 더 높고 먼 장래의 이상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방법도 계속 배웠다. 인간적 상황의 평범한 요구에 자신의 큰 뜻을 맞춰 가는 기법을 꾸준히 연마하고 있었다. 영적 충동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 성취 구조의 방향을 바꾸는 기법을 거의 완벽하게 터득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속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서서히 배워갔다. 한편으로 이 세상 가족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안내에 더욱 의존했다. 그는 실패의 문턱에서 기술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숙달됐으며; 시간세계의 어려움에서 영원한 승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갔다.

127:6.13 (1405.5) 그리하여, 해가 지나면서, 이 나사렛 젊은이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들에서 필사자 육신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계속 체험했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온전하고

전형적이며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피조물의 첫 생애, 즉 육신 속에서 짧고도 격렬한 생애를 통과하는 체험에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인간 체험 전체는 우주 주권자에게 영원히 간직됐다. 그는 이해심 많은 우리 형제이며, 연민의정이 깊은 친구이고, 체험을 많이 한 주권자이며, 자비로운 아버지시다.

127:6.14 (1405.6) 그는 어린아이 때 방대한 지식을 쌓았으며;청년기 때에는 이 정보를 간추리고 분류하고 서로 연관시켰으며;이제 그 영역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비롯해서 네바돈 전체 우주에 두루,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구체에서 사는 동료 필사자들을 위해, 그가 장차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이런 정신적 소유물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127:6.15 (1405.7) 그는 이 세상 아기로 태어난 후에, 어린아이로서의 삶을 살았고, 계속되는 소년과 청년 단계를 지나왔으며;이제 인생살이의 풍부한 체험을 소유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것의 나약함에 대한 많은 동정심을 가진, 완전한 성인이 되는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시대와 모든 단계의 필사

피조물에게 낙원 아버지를 계시하는 신성한 요령에
숙달돼 가고 있었다.

127:6.16 (1406.1)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성숙된 한 사람으로서-
-곧 그 영역의 한 성인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제128편 예수의 성년기 초기

128:0.1 (1407.1) 나사렛 예수는, 성년기 인생을 시작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 생애를 계속 살았다.
예수는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부모를 선정하는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일곱 번째인 마지막 증여, 즉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를 수행할 행성으로 이 특정한 세계를 선택했지만,
그 외에는, 자연스런 방법으로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계
또는 비슷한 세계들에 살고 있는 다른 필사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이, 주변 환경의 변천과 씨름하면서 그 영역의 한
아이로 성장했다.

128:0.2 (1407.2)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이중 목적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뒀다:

128:0.3 (1407.3) 1. 필사자 육신 속에서, 한 인간 피조물의 전 생애를 사는 체험에 정통하는 것, 즉 네바돈에서 자기 주권을 완성하는 것.

128:0.4 (1407.4) 2.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에 거주하는 필사자들에게 만유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동일한 이 필사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것.

128:0.5 (1407.5) 다른 모든 피조물 혜택 및 우주 이점{利點}은, 필사자 증여의 이 주요 목적에 부수적이고 2차적이었다.

1. 스물한 살 되던 해 (서기 15년)

128:1.1 (1407.4) 성년기에 도달하면서, 예수는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한 자의식을 갖고, 지성{知性}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의 생애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는 체험을 완수하는 과업, 그리하여 자신이_창조한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 통치자신분의 권한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획득하는 과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二重的}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이 엄청난 과제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두 가지 본성을 하나로, --나사렛 예수로서--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128:1.2 (1407.5) 요셉의 아들 예슈아는, 자기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남자, 필사적 사람임을 잘 알았다. 이것은 자신의 첫 칭호로 *사람의 아들을* 선택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는 정말 살과 피를 지닌 자였고, 한 우주의 운명을 주권자 권한으로 관장하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 획득한 수많은 호칭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적 말씀--곧 창조주 아들--이 "육신이 돼서 유란시아 세계의 한 사람으로 거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는 수고했고, 지쳤고, 쉬었으며, 잠을 잤다. 그는 배고팠고, 그런 음식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켰으며; 갈증을 느꼈고, 물을 마심으로써 해결했다. 그는 인간의 느낌과 감정 전반을 체험했으며; "너희와 똑같이, 모든 것에서 시험 받았고," 고난 받아서 죽었다.

128:1.3 (1407.6) 그는 그 영역의 다른 필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지식을 얻었고, 체험을 습득했으며, 이것들을 지혜 속에 결합시켰다. 그는 세례 받을 때까지, 어떤 초자연적

힘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한 아들로써 자신의 인간 재능 가운데 어떤 부분에도 매개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28:1.4 (1408.1) 그는 자신의 인간_이전{以前} 실재로서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유했다.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는 사람과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제한시켰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사람이었다.

128:1.5 (1408.2) 이 말은 영원히 영광스럽게 참되다:“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높은 통치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고 유혹당하신 한 주권자가 있는데, 죄는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직접 고생하고 시험당하고 견뎌으므로, 혼란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실 수 있다.

128:1.6 (1408.3) 나사렛 목수는, 이제 자신 앞에 놓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했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로에 따라서 인간 생애를 살기로 택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서, 그는 참으로 필사 피조물에게 본보기가 됐고, 이런 기록이 있다:“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이 정신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겨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기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128:1.7 (1408.4) 그는, 인간 혈통을 이루는 다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이, 자신의 필사 인생을 살았으며, “육체 속에 있던 시절에, 모든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 그토록 자주 기도와 간구를 드렸으며, 심지어 애통하며 눈물로 드렸고, 그가 믿었으므로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처신했으므로, 자비와 이해심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다.

128:1.8 (1408.5) 그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자명하게, 그리고 항상, 그의 의식{意識}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항상 있었고, 적어도 그가 세례 받는 순간까지는 그랬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한 자각은 느렸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런 진화적 계시였다. 신성에 대한 이런 계시와

자각은, 그가 열세 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가 인간으로 존재한 후 처음으로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에서 시작됐으며;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자각에 영향을 준 이 체험은, 그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초자연적 체험이 있을 때 완전해졌는데, 그것은 요단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장면이었고, 사역과 가르침으로 이뤄진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128:1.9 (1408.6) 첫 번째로 열세 살 되던 해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세례 받던 날에 있었던, 이 두 천상{天上}의 방문 사이에서는, 육신화한 이 창조주 아들의 삶 속에 어떤 초자연적 또는 초인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들레헴의 아기 때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나사렛의 한 남자가 됐을 때, 그가 실제로는 우주의 육신화한 창조주였음에도;그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부터 요한에게 세례 받던 그날까지, 수호 스라빔의 안내를 제외하고, 이 능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며, 천상의 인격체들의 안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

128:1.10 (1408.7) 그렇지만, 육체 속에 있던 모든 나날 동안, 그는 정말로 신성했다. 그는 실제로 낙원 아버지의 한 창조주 아들이었다. 일단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즉 주권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순전한 필사자 체험이 절차상 완성된 후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라”고 서슴없이 선언했다. 그는 훗날에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들, 즉 영광의 주님,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만유의 주, 우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한 우주의 전능자, 이 창조계의 우주 정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감추고 계신 분,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만유 이전에 계셨고 만유 속에 계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주의 유지자, 모든 땅의 심판자,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 참 목자, 세계들의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는 선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표하지 않았다.

128:1.11 (1409.1) 그가 순전히 인간적인 삶으로부터, 인류 속에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인류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세계를 위해서, 신성한 사역을 자아_의식하는 후반기로 들어간 뒤에 자신에게 이 칭호들이 적용되자, 그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한 가지 이름에 대해서는 사양했는데:한 번은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자, 그는 단지, “그는 내가 아니라, 내 형님이라”고 대답했다.

128:1.12 (1409.2) 예수는 항상, 심지어 이 땅에서 삶의 폭이 더 넓어진 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온순하게 순종했다.

128:1.13 (1409.3)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진지한 신자들과 감사하는 추종자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버려두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 그가 가난과 씨름하고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손이 닳도록 일할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 그에게서 자라났으며;자신이 지금 인간 실존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땅과 하늘을 만든 장본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관찰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 전체의 천상의 존재로 구성된 무리들도, 이 나사렛 사람이, 친애하는 주권자이며 창조주_아버지이심을 알았다. 심한 긴장감이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네바돈

우주에 퍼졌고;모든 천상의 존재의 시선은 유란시아의 팔레스틴에 계속 집중돼 있었다.

128:1.14 (1409.4) 이 해에, 예수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는 봉헌식을 위해 야고보를 성전에 데려갔으므로, 요셉을 데려가는 것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대할 때, 예수는 편애하는 듯한 태도를 결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다니던 요단 계곡 길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으나,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아마쉴스로 통하는 요단 동쪽 길로 갔다. 요단을 내려가면서, 예수는 요셉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들려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전승에 의하면 요단 동쪽에 거주했다는, 르우벤, 갓, 그리고 길르앗 등으로 불리는 족속들의 체험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128:1.15 (1409.5) 요셉은 예수에게 그의 생애 사명에 관해서 유도 질문을 많이 했지만, 이 질문 대부분에 대해, 예수는 단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쨌든, 이 친밀한 대화에서 많은 말이 흘러 나왔는데, 요셉은 많은 사건이 벌어진 여러 해 동안 그것들을 기억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이 축제 기념식에 참석할 때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요셉 및 베다니의 세 친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보냈다.

2. 스물두 살 되던 해 (서기 16년)

^{128:2.1 (1409.6)} 이 해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청소년기의 문제 및 적응에 따르는 특별한 시험과 고난에 부딪치는 여러 해 가운데 한 해였다. 이제 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에 이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고, 예수는 그들이 지적 및 감성적 생활을 새롭게 자각하고 거기에 자신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 도움 주느라 계속 분주히 지냈다. 청소년기의 문제가 그의 어린 동생들의 삶에서 드러남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그런 문제들과 씨름해야 했다.

^{128:2.2 (1410.1)} 이 해에 시몬이 학교를 졸업했고, 예수의 오랜 놀이동무이자 언제나 그를 보호할 준비가 돼 있는 석공 야곱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형제들이 모두 목수가 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결정을 했다. 그들은 직업을 다양화함으로써 건물 전체에 여러 개의 청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 그들 중에서 세 명이 목수 일에 전념한 후로, 모두가 바쁘게 일할 충분한 일거리가 없었다.

128:2.3 (1410.2) 이 해에 예수는 주택의 마무리 작업과 가구제작을 계속했으나, 대상들을 위한 수리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야고보가 작업장을 지키는 일을 교대하기 시작했다. 이 해 후반기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이 줄어들자, 예수는 야고보에게 수리점을 맡겼고, 요셉에게는 집의 작업대를 맡기고, 자신은 세포리로 가서 대장간 일을 했다. 그는 여섯 달 동안 쇧덩이와 씨름했고, 모루 사용에 상당한 기술을 습득했다.

128:2.4 (1410.3) 예수는, 세포리에서 새 직업을 갖기 전에,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었고, 그때 열여덟 살 갓 넘은 야고보를 가족의 실무 가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그는 동생들에게 진심 어린 지지와 전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 식구들 각자가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게 했다. 그날부터 야고보가 가족의 재정 책임을 전담하게 됐고, 예수는 자기 주급{週給}을 동생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권한을 야고보에게서 돌려받지 않았다. 그는 세포리에서 일하는 동안, 필요하면 매일 밤 집으로 걸어올 수도 있었지만, 날씨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떠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참된 동기는, 야고보와 요셉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예수는 매주 안식일마다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때때로 새로운 계획의 진행을 지켜보거나, 충고 또는 어떤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중에도 집에 들렀다.

128:2.5 (1410.4) 예수는 6개월 가운데 대부분 시간을 세포리에서 보내는 동안, 인생에 대해서 이방인의 관점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방인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내려 했고, 그들의 생활 습관과 이방인의 정신을 연구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28:2.6 (1410.5) 헤롯 안티파스의 고향인 이 도시의 도덕적 수준이, 심지어 대상들의 도시인 나사렛보다도 훨씬 낮았기 때문에, 예수는 6개월 동안 세포리에 머문 후, 나사렛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함께 일했던 집단은 세포리와 디베랴의 새 도시 두 곳에서 벌어진 공공사업에 참가하게 됐고,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의 감독 아래 고용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느낀, 몇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가 수리점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는 가족의 용무에 대해 개인적인 지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작업장에서 야고보와 함께 일했고, 집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그가 계속 감독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야고보가 가족의 경비를 관리하는 일과 집안 예산{豫算}을 경영하는 역할에 간섭하지 않았다.

128:2.7 (1410.6) 예수가 가족의 용무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길을 택한 것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계획 때문이었다. 야고보가 가족의 실제적인 가장으로서 2년간 체험을 쌓은 뒤에--그리고 그가(야고보가) 결혼하기 꼭 2년 전에, 요셉이 그 뒤를 이어 가족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게 됐고 가정의 제반 경영을 맡게 됐다.

3. 스물세 살 되던 해 (서기 17년)

128:3.1 (1411.1) 이 해에는 네 명이 일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 완화됐다. 미리암은 우유와 버터를 팔아서 제법 돈을 벌었고;마르다는 능숙한 직조{織造} 기술자가 됐다. 수리점의 구입 비용 중에서 3분의 1이상이 지불됐다. 그런 상황 중에, 예수는 3주 동안 일을 쉬면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시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것은 아버지가 죽은 뒤로 그가 일상적인 힘든 일에서 떠나 있었던 가장 긴 기간이었다.

128:3.2 (1411.2) 그들은 데가볼리를 경유해, 펠라, 거라사, 필라델피아, 헤쉬본, 및 여리고 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에는 해안선 길로 왔는데, 리다, 옘바, 가이사랴 등을 지난 후에, 갈멜산을 돌아 툴레마이스를 거쳐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예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관할의 팔레스틴 북부 전체 지역을 잘 알게 됐다.

128:3.3 (1411.3) 예수와 시몬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상인을 알게 됐는데, 그는 이 나사렛 청년들을 매우 좋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숙소에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다. 시몬이 성전에 관심을 갖는 동안, 예수는 잘_교육받고 세상 업무로 많이_여행한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상인은 4천 마리 이상의 여행용 낙타를 소유했으며;로마권 전체와 거래했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예수에게, 다마스쿠스에 와서 자신이 동양에서 하는 수입업에

동참하라고 제의했지만,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게서 지금 당장 멀리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먼 곳에 있는 이 도시들과 더 멀리 극서{極西} 및 극동{極東}에 있는 나라들, 즉 대상{隊商}과 안내인들로부터 자주 들어왔던 나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128:3.4 (1411.4) 시몬은 예루살렘 방문을 매우 즐겼다. 그는 율법의 새 아들에 대한 유월절 봉헌의식을 통해서 정식 이스라엘 시민이 됐다. 시몬이 유월절 예식에 참가하는 동안, 예수는 방문객들의 군중 속에 섞였고, 여러 이방인 개종자와 흥미로운 많은 개인 상담에 열중했다.

128:3.5 (1411.5) 아마 이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스테반이라는 한 젊은 헬라인과의 만남일 것이다.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고, 유월절 주간 목요일 오후에 우연히 예수를 만났다. 그들이 아스모니아의 궁전을 구경하면서 함께 걷는 동안, 예수는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으며, 그리하여 삶의 방식과 참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시간이나 토론하게 됐다.

스데반은 예수가 하는 말에 엄청나게 감명 받았으며;그의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128:3.6 (1411.6)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의 교훈을 믿게 된 바로 그 스데반이었는데, 그는 이 초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성난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 새로운 복음에 대한 자기 견해를 주장할 때 스데반이 몹시 대담했던 것은, 이전에 예수와 가졌던 대담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세상의 구원주라고 자신이 나중에 주장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15년 전에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어느 갈릴리인이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으며, 그는 곧 그를 위해 죽게 됐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새롭게 진보시키는 첫 순교자가 됐다. 스데반이 유대인의 성전과 그 전통적 관습을 공격한 대가{代價}로 자기 생명을 바쳤을 때, 거기에는 다소의 시민이며 사울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있음을 사울이 목격했을 때, 그의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도록 원인을 제공하기에 앞장섰으며;나중에는 그가 적극적이면서 굴하지 않는

바울이 됐고, 그는 철학자였으며, 비록 홀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교의 창시자가 됐다.

128:3.7 (1412.1) 유월절 주간이 끝난 일요일에, 시몬과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다. 시몬은 예수가 이 여행에서 자신에게 가르친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예수를 사랑해 왔지만, 이제는 가장인_형을 알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시골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길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목요일 정오에 집에 도착했고, 시몬은 늦은 밤까지 가족에게 자신의 체험담을 늘어놨다.

128:3.8 (1412.2) 마리아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낯선 사람들, 특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보냈다는 시몬의 이야기로 몹시 심란했다. 예수의 가족은 사람에 대한 그의 관심, 즉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내려는 강한 호기심을 결코 납득할 수 없었다.

128:3.9 (1412.3) 나사렛 가족은 눈앞에 닥친 인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몰두했으며;예수의 장래 사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예수 자신도 자기 장래 생애에 대해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약속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신성한 사명을 성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포기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일을 상기할 때에는 그녀의 신앙이 때때로 되살아나기도 했다.

4. 다마스쿠스 사건

^{128:4.1 (1412.4)}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수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만났던 상인의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이 해의 마지막 4개월을 다마스쿠스에서 보냈다. 이 상인의 대리인이 나사렛을 지나면서 예수를 찾아냈고, 그를 다마스쿠스로 인도했다.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 상인은, 다마스쿠스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엄청난 액수의 돈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압도할 교육 중심지를 세우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 새로운 이 계획사업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전 세계 교육 중심지를 돌아보는 긴 여행을 즉시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이것은

예수가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의 과정에서 부딪힌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였다.

128:4.2 (1412.5) 이 상인은, 곧 새로 입안된 학교를 지원하기로 동의한, 열두 명의 상인과 은행가로 구성된 무리를 예수 앞에 불러 모았다. 예수는 제시된 학교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것을 조직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는 무엇인지 말할 수는 없으나, 자신에게 맡겨진 이전의 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야심찬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했다. 그를 후원하려는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좋은 조건으로 통역하는 일을 하도록 예수를 자기 집에 고용했으며,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부인과 아들들 그리고 딸들까지 동원해서, 제안된 지위를 예수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이 교육 기관들로부터 후원 받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적어도 ‘사람들의 협의회’가 통제하도록 자신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128:4.3 (1412.6) 심지어 자신의 지도력을 보여준 뒤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그였지만, 다마스커스의 상인들과 은행가들로부터는 최고의 선생으로 인정받고 환호 받았으며, 이 모든 일은 그가 눈에 띄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목수 신분이었을 때였다.

128:4.4 (1412.7) 그는 이 제안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이 해 말에, 마치 다마스커스 친구들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으로 유혹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나사렛에 돌아와서 매일의 업무에 임했다. 또한 다마스커스의 이 사람들도, 전에 그들의 연합된 재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영광을 단호히 거절했던 나사렛의 옛 목수를, 훗날에 모든 유대인을 뒤집어 놓은 그 가버나움 사람과 연관시키지 못했다.

128:4.5 (1413.1) 예수는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분리하도록 궁리했으므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 개인의 행위로 연결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학교를 다마스커스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어느 이상한 갈릴리 사람에 대한,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128:4.6 (1413.2) 예수가 이 세상 체험 가운데 어떤 면들을 격리시키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한 가지 목적은, 다재다능하고 눈부신 경력이 자신에게 구축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으며, 그가 삶 속에서 실천했고 가르쳤던 진리를 후세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대신, 오히려 스승을 숭배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인간적 성공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예수는 자기가 세상에 선포하려는 천국 복음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자기에 *관한* 하나의 종교를 형성시키려는 유혹에 추종자들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일찍 인식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교훈을 전파하는 대신 스승을 높이 세우려는, 이 천성적 인간 성향에 도움 줄만한 모든 일을 억제하려고 계속 노력했다.

128:4.7 (1413.3) 이와 같은 동기로, 그가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여러 시기 동안 자신이 많은 다른 명칭으로 알려지도록 내버려뒀음이 분명해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솔직한 확신을 떠나서 그를 믿도록 하는, 어떤 부당한 영향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인간 정신을 부당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억이용하기를 항상 거부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교훈 속에 계시된 영적 실체들에 대해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를 믿는 것을 원치 않았다.

128:4.8 (1413.4) 이 해 말에, 나사렛 가정은 꽤 잘 돌아갔다. 아이들은 성숙해갔으며, 마리아는 예수가 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예수는 자신의 수입이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야고보에게 계속 보냈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급히 필요한 작은 부분만 남겼다.

128:4.9 (1413.5)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기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는 그 영역의 한 개인과 아주 똑같이, 즉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처럼 돼 가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증거가 바로 이런 식으로 펼쳐져야만 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었다.

5. 스물네 살 되던 해 (서기 18년)

128:5.1 (1413.6) 이 해는 예수가 가족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첫 해였다. 야고보는 예수의 조언과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가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꾸렸다.

128:5.2 (1413.7) 이 해 유월절 다음 주간에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어떤 젊은이가 나사렛으로 왔는데, 같은 해 후반기에, 한 무리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과 예수가, 팔레스틴 해변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주선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담은 6월 중순에 열렸고, 예수는 다섯 명의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들은 자기네 도시에서 그가 종교 선생이 돼달라고 간청했고, 그 일환으로 본부 회당의 카잔을 보좌하는 지위부터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제안을 했다.

128:5.3 (1414.1) 이 위원회의 대변인들은, 알렉산드리아가 전 세계에 걸친 유대인 문화의 거점이 될 운명임을 예수에게 설명했다; 유대인의 관심사에 대한 헬라 사조{思潮}가, 바빌로니아 학파의 사상을 사실상 훨씬 앞섰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을 통틀어 반역의 불길한 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을 예수에게 상기시켰고,

팔레스틴의 유대인이 어떤 폭동이든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고, 로마의 철권{鐵拳}이 3개월 안에 반역을 진압시킬 것이며,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128:5.4 (1414.2) 예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경청했고, 그들의 신뢰에 감사했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가는 것은 사양했는데, 대체적인 요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에게 수여하려는 명예에 대한 그의 명백한 무관심에 당황했다. 그들은 예수와 헤어지기에 앞서, 알렉산드리아 친구들의 존경의 표시와 또한 가이사랴까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시간과 비용의 대가{代價}로, 그에게 돈주머니를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돈도 마찬가지로 사양하면서, “요셉의 집안은 자선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강한 팔을 갖고 있고 또 내 형제들이 노동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남들에게 신세질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128:5.5 (1414.3) 이집트에서 온 친구들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몇 년 뒤에 그들은 팔레스틴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 가버나움의 조선공{造船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을 때, 그가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로 자랐으며,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선생으로 오라는 초청을 단호히 거절했던, 이상하게_행동하는 바로 그 갈릴리인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28:5.6 (1414.4) 예수는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이 해의 나머지 6개월은, 그의 전체 생애 중에서 가장 평범하게 보낸 기간이었다. 그는 극복해야 할 난관과 풀어야 할 문제의 일상적인 계획표에서 벗어난, 한때의 이 휴식을 즐겼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많이 교류했고, 자신의 인간 정신을 통달하는 것에도 엄청난 진보를 이뤘다.

128:5.7 (1414.5)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직무는 오랫동안 평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12월에, 야고보는 예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자신이 나사렛의 젊은 여자 에스더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고, 조건이 허락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예수는, 요셉이 곧 열여덟 살이 되며, 그때에는 가족의 실제 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에게도 좋은 체험이 되리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수는

야고보에게 2년 후에 결혼하도록 승낙했고, 야고보는
예수가 제안했던 대로 요셉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그를 훈련시켰다.

128:5.8 (1414.6) 그리고 이제 여러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혼이 줄을 잇게 됐다. 야고보가 결혼에 대해 예수의
동의를 받아내자, 미리암도 용기 내어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격인 오빠에게 털어놨다. 한때 예수의 호위자로
자청했던 젊은 석공 야곱이, 이제는 야고보와 요셉의 사업
동료가 됐는데, 오랫동안 미리암을 아내로 얻고 싶어
했었다. 미리암이 자신의 계획을 예수에게 말하자, 예수는
야곱이 자기에게 와서 그녀에 대한 공식적인 청혼을
해야만 한다고 지시했고, 동생 마르다가 장녀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그녀가 느끼게 되면, 바로
결혼하도록 축복해 주기로 약속했다.

128:5.9 (1414.7) 집에 있을 때, 그는 한 주에 세 번씩 야간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계속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자주 성서를
읽었으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동생들을 가르쳤고,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나사렛 성읍에 사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한 시민으로서 처신했다.

6. 스물다섯 살 되던 해 (서기 19년)

128:6.1 (1415.1) 이 해에는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출발했고, 마르다가 릿을 돌봐야만 하는 특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가 정규{定規} 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됐다.

128:6.2 (1415.2) 예수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건강하고 세련된 표본이 될 만한 인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의 정신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꿰뚫는 지성을 지녔고--그와 동시대의 평범한 정신력에 비하면, 그것은 엄청난 비율로 발전된 것이었고-- 그의 영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신성했다.

128:6.3 (1415.3) 가정의 재정 상태는 요셉의 유산이 사라진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대상{隊商} 수리점에 대한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했고, 그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빚이 없었으며, 근래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예비 자금을 모았다. 이것이 사실이고, 예수는 다른 남동생들을 그들의 첫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으므로, (막

회당 학교를 졸업한) 유다의 경우에도, 첫 성전 방문을 위해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128:6.4 (1415.4)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같은 길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예수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분란이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유다는 나사렛에서 사소한 분란을 여러 차례 일으켰었는데, 유다가 조금한 성향에다 강렬한 애국심까지 가졌기 때문이었다.

128:6.5 (1415.5) 그들은 예정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유다의 혼 깊은 곳까지 자극하고 흥분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광경의 성전을 먼저 방문하는 길로 갔는데, 그때 그들은 우연히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났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 나누면서 유월절 축제를 함께 지내기 위해 계획하는 동안에, 유다는 그들 모두에게 실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 서 있던 로마 근위병이, 지나가는 한 유대인 소녀에게 음란한 말을 몇 마디 했다. 유다는 불같이 분개하여 격앙됐으며, 그런 무례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병사에게 직접 그리고 들릴 정도로 표현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인의 사소한

비방에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웠으므로, 근위병은 즉시 유다를 체포했다. 이것은 그 어린 애국자에겐 감당 못할 일이었으며, 예수가 경고의 눈빛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전에, 그는 이미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찬 말을 한바탕 떠들어 버려서 일을 악화시켰다. 유다는 즉시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예수가 곁에 있었다.

128:6.6 (1415.6) 예수는, 바로 아니면 적어도 그날 저녁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유다를 위해 호소할 기회를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인도 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개시하기를 원치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둘째 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했고, 예수도 그와 함께 감옥에 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유다는, 열심당, 즉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매우 열심히 활약한 그 애국{愛國} 단체를 대표해서 선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다음 어느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있게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공식적인 이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

128:6.7 (1415.7) 그들이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은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해 군 법무관 앞으로 나갔다. 그는 동생의 미숙함을 사과하는 동시에, 동생이 체포되기까지의 돌발적인 상황을, 더 상세하지만 신중한 말로 재판을 잘 다뤘기 때문에, 법무관도 그 젊은 유대인이 분노를 폭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그를 용서할 뜻을 비쳤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그와 같은 경솔한 짓을 하지 않도록 유다에게 경고한 뒤에, 퇴장을 명령하면서 예수에게 말했다:“당신은 저 젊은이를 계속 주시함이 좋을 것이며;그는 당신들 모두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로마 법무관의 말은 사실이였다. 유다는 예수에게 상당한 걱정거리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이와 동일한 성질의 걱정거리였다--그의 지각없고 무분별한 애국심의 폭발로 말미암는, 행정 당국자들과의 충돌이였다.

128:6.8 (1416.1) 예수와 유다는 그날 잠을 자기 위해서 베다니로 걸어갔으며, 유월절 만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다음 날 나사렛을 향해 떠났다. 예수는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온 뒤 3주쯤 돼서, 이

사건에 대해 유다와 긴 대화를 나눴다. 예수와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유다가 스스로 그 일을 가족에게 털어놨다. 그는 이번에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인_형의 인내심과 관용{寬容}에 대해 결코 잊지 않았다.

128:6.9 (1416.2) 이것은 예수가 자기 가족 가운데 어떤 일원{一員}과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혈육과 가깝게 관련되는 일로부터 점점 더 분리돼 갔다.

128:6.10 (1416.3) 이 해에, 그의 깊은 명상 시간은 릿과 그녀의 놀이친구들로 인해 종종 방해받곤 했다. 예수는 꼬마 친구들의 아이다운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우주를 위한 미래의 일에 대한 명상을 뒤로 미룰 준비가 항상 돼 있었고, 그들은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결코 싫증 내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동물과 자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매우 좋아했다.

128:6.11 (1416.4) 수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환영받았다. 예수는 수리소 옆에 모래와 나무토막이나 돌을 준비해 놔고, 아이들 무리가 놀기 위해 거기에 모였다. 그들은

놀이를 하다가 싫증나면 그 중에 제일 담대한 아이가
작업장 안을 엿보고, 작업장 일이 바쁘지 않으면, 용감하게
들어와서, “예슈아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작업장 한
구석에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예수 손을
끌어당기려 했고, 그가 돌에 앉으면 아이들은 그의 주위로
둥글게 둘러앉았다. 그리고 꼬마 아이들이 예슈아
아저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즐겁게 들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웃는 법을, 마음껏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제일 어린 한 두 아이는 의례 예수의 무릎 위로
올라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그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
역시 아이들을 사랑했다.

128:6.12 (1416.5) 그의 친구들은, 그의 이런 지적 활동의 범위, 즉
그가 다섯 살에서 열 살까지의 아이들과 즐겁고 천진하게
놀다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아직 조카들이 태어나기 전인 이 시절에, 이 꼬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조카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 있지 못했다.

7. 스물여섯 살 되던 해 (서기 20년)

^{128:7.1 (1416.6)} 이 해가 시작되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이 넓은 범위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게 됐다. 그러나 이 능력을, 적어도 때가 오기 전에는,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자신의 인격체가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128:7.2 (1417.1)} 이즈음에 그는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언덕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을 한 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든지, 내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능력이 무엇이든지, 나는 언제나 낙원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왔고 또 항상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 일터를 오가며 나사렛을 거닐던 이 남자에 대해 기록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다”는 말은 --방대한 우주에 관한 한-- 글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128:7.3 (1417.2) 이 해 전반에 걸쳐서 가족의 일은 무난히 진행됐지만, 유다만 예외였다. 야고보는 막내 남동생으로 인해 수년간 속 썩었는데, 그는 정착해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정의 생활비에 대한 자기 몫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는 집안 살림살이에 기여해야 할 자신의 몫에 신경 쓰지 않았다.

128:7.4 (1417.3) 예수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유다가 호전적인 행위 또는 잦은 애국심 폭발로 인해, 때때로 난처해했다. 야고보와 요셉은 유다를 내쫓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예수는 단지 이렇게 충고했다: “참아라. 현명하게 충고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너희 어린 동생에게 더 나은 길을 먼저 알려 주고 난 뒤에, 너희를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어라.” 이런 예수의 현명하고 상냥한 조언이 가족 내의 분열을 막았으며; 그들은 함께 지냈다. 그러나 유다는 결혼한 후에야 침착한 기질을 갖게 됐다.

128:7.5 (1417.4) 마리아는 예수의 장차 사명에 대해서 거의 말이 없었다. 이 주제가 거론될 때마다 예수는 단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예수는 자신이 직접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을 독립시키는 어려운 과제를 거의 완성시켰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실제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나사렛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신속하게 준비해 나갔다.

^{128:7.6 (1417.5)} 예수는, 자신의 일곱 번째 증여에서 주요 사명이 피조물 체험을 획득함, 즉 네바돈의 주권 성취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체험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란시아는 물론 자신의 지방우주 전체에 낙원 아버지를 최고의 수준으로 계시했다. 이런 목적에 부수적으로, 그는 또한 루시퍼의 반역에 관련됐던 것과 같은 이 행성의 복잡하게 된 직무를 해결하는 일도 맡았다.

^{128:7.7 (1417.6)} 이 해에 예수는 평상시보다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었고, 수리점을 경영하도록 야고보를 훈련시키고, 요셉에게 집안일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들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을 떠나 어디로 가려는가? 무엇을 하려는가? 그녀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거의 포기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만아들의 심중을 도대체 가늠할 수 없었다.

128:7.8 (1417.7) 이 해 동안에, 예수는 가족 각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동산이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그리고 멀리까지 산책하려 했다.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예수는 나사렛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삼촌에게 유다를 데리고 갔지만, 추수가 끝나자 유다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달아났고, 나중에 호숫가에서 어부들과 함께 있는 그를 시몬이 발견했다. 시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는 도망쳤던 소년과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그가 어부가 되기를 원했으므로, 그와 함께 막달라로 가서 친척 어부에게 그를 맡겼으며;유다는 그날부터 자신이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무던히 규칙적으로 일했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어부로서 일했다.

128:7.9 (1418.1) 드디어 예수의 모든 형제가 각자 평생직업을 정하고 거기에 정착되는 날이 왔다. 예수가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128:7.10 (1418.2) 11월에는 두 쌍의 결혼식이 있었다. 야고보와 에스더, 미리암과 야곱이 결혼했다. 그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다. 마리아조차, 예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깨닫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한 번 행복을 누렸다. 마리아는 무거운 불확실성의 짐을 지고 괴로워했는데:예수가 소년시절처럼 앉아서 자유롭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계속 아무 말이 없었으며;미래에 대해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128:7.11 (1418.3) 야고보와 신부 에스더는, 그녀의 아버지가 마련해 준 읍내 서쪽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야고보가 어머니 집을 계속 도왔지만, 결혼 때문에 그에게 할당된 액수는 반으로 줄었고, 예수가 요셉을 정식으로 가장에 임명했다. 유다는 이제 매우 충실해져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매 달 집으로 보내왔다. 야고보와 미리암의 결혼식이 유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고, 두 쌍의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유다는 고기잡이를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겠다. 필요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맡겠다"고 요셉에게 말하며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128:7.12 (1418.4) 미리암은 마리아의 이웃집인 야곱의 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미 조상과 함께 묻혀 있었다.

마르다가 미리암 대신 집안일을 했고, 새 조직은 그해가 끝나기 전에 잘 돌아가고 있었다.

128:7.13 (1418.5) 합동 결혼식이 있던 다음 날, 예수는 야고보와 중대한 논의를 했다.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확실하게 말했다. 그는 수리점의 소유권을 야고보에게 물려줬고, 요셉 집안 가장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물려났으며, 아주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생 야고보를 “내 아버지 집의 가장이며 수호자”로 세웠다. 야고보는 수리점을 선물로 물려받은 대신, 가족의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맡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책무로부터 예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비밀 계약서를 예수가 작성했고, 둘이 함께 서명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예수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가계의 실제 비용의 예산안이 정리됐을 때, 예수가 야고보에게 말했다: “그러나, 얘야, 내 때가 올 때까지는 매달 얼마씩 네게 보내줄 것이지만, 내가 보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네가 쓰도록 해라. 네가 보기에 적당한 가족의 필수품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써라. 가족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병이 있을 때, 또는 뜻하지 않게 생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쓰도록 해라.”

128:7.14 (1418.6) 그리하여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에 공개적으로 임하기 전에, 가정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인{成人}으로서의 삶의 두 번째 국면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제129편 예수의 성년기 후반부 생애

129:0.1 (1419.1) 예수는, 나사렛 가족의 집안일을 돌보는 것과 가족 개개인에게 직접 지시하던 것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을 분리시켰다. 그는 세례 받기 직전까지 가족의 재정에 계속 도움을 줬고, 또한 형제자매들 각자의 영적 번영에 세심한 개인적 관심을 가졌다. 또한 그는 홀로된 어머니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인간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항상 돼 있었다.

129:0.2 (1419.2) 이제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나사렛 가정으로부터 영구히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실행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수는 나면서부터 민족을 사랑했으며; 가족을 사랑했고, 타고난 이 애정은 그들에

대한 각별한 헌신으로 인해 엄청나게 증대돼 있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내주면 내줄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며;예수는 그토록 온전히 가족에게 자신을 내준 이래, 위대하고 강렬한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129:0.3 (1419.3) 예수가 자신들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가족 모두 서서히 자각했다. 예상된 이별의 슬픔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도된 떠남을 알릴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점진적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결국 이렇게 이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4년 넘게 알고 있었다.

1. 스물일곱 살 되던 해 (서기 21년)

129:1.1 (1419.4) 서기 21년 1월,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형식을 차리지 않고 가족을 떠나면서, 자신은 디베랴로 갈 것이고, 그 후에 갈릴리바다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겠다는 설명만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그들을 떠났고, 다시는 그 가정의 정식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129:1.2 (1419.5) 그는, 세포리 대신 곧 갈릴리의 수도가 될 신도시{新都市}인 디베랴에서 한 주간을

보냈으며;관심거리가 거의 발견되지 않자, 잇달아 막달라와 베데스다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친구인 세베대를 방문하기 위해 거기에 머물렀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부였으며;세베대 자신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설계와 건축에 전문가였고;나무 다루는 일에는 이미 장인{匠人}의 경지였으며;세베대도 나사렛 기술자의 솜씨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베대는 개량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왔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예수에게 제시하면서 자기와 사업할 동업자로 그 방문자 목수를 초청했으며, 예수도 쾌히 승낙했다.

^{129:1.3 (1419.6)} 예수는 세베대와 1년 조금 넘도록 함께 일했지만, 그 기간에 새로운 모양의 배를 만들었고, 배 건조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정립시켰다. 우수한 기법으로, 그리고 증기를 찢는 널빤지를 이용하는 대단히 개선된 방법으로, 예수와 세베대는 매우 우수한 유형의 배, 즉 구식{舊式} 유형의 배보다 훨씬 안전하게 호수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신형{新型} 배를 만들기 위해서, 세베대는 자신의 작은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을 수년간 했으며;불과

5년이 못 돼서, 호수 위에 떠있는 모든 배는 실제로 가버나움의 세베대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었다. 예수는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에게 신형 배 설계자로 잘 알려지게 됐다.

129:1.4 (1420.1) 세베대는 비교적 재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의 조선소는 가버나움의 남쪽 호숫가에 있었고, 그의 집은 벳새다의 어업기지 근처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수는 이 해 동안에 세베대의 집에서 살았고, 가버나움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세상에서 홀로, 즉 아버지 없이 오랫동안 일해 왔으며, 아버지같은_동업자와 함께 일하는 이 기간을 매우 즐겼다.

129:1.5 (1420.2)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한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다가, 8년 전에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사두개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안나스의 친척이었다. 살로메는 예수를 매우 존경하게 됐다. 그녀는 예수를 자기 친아들인 야고보, 요한, 및 다윗처럼 사랑했고, 그녀의 네 딸도 예수를 큰오빠로 여기고 존경했다. 예수는 종종, 야고보, 요한, 및 다윗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갔고, 그들은 예수가 조선공으로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노련한 어부임을 알게 됐다.

129:1.6 (1420.3) 이 해 동안에, 예수는 매달 야고보에게 돈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10월에 마르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시몬과 유다의 합동결혼식
직전까지 2년 이상 나사렛에 돌아가지 않았다.

129:1.7 (1420.4) 예수는 이 한 해 동안 내내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는 대상{隊商} 정거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뻗은 직선 여행로{旅行路}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자주 내려가곤 했다. 가버나움은
강력한 로마 군사 요충지였고, 그 부대의 사령관은
이방인이면서 야훼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그런 개종자를 흔히 그렇게 불렀다. 이 장교는
로마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스스로 가버나움에
아름다운 회당을 지었으며, 예수가 세베대와 함께 살기
얼마 전에 그것을 유대인에게 기증했다. 예수는 이 해 동안
절반이 넘게 이 새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참석했던 대상 일행 가운데 일부는, 그를 나사렛에서 온 목수로 기억했다.

129:1.8 (1420.5) 세금 낼 기한이 되자, 예수는 자신을 “가버나움의 숙련된 기술자”로 등록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날부터 지상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가버나움 주민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기 거주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마스쿠스, 베다니, 나사렛,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거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버려뒀더라도, 자신은 다른 어떤 법적 거주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129:1.9 (1420.6) 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고{書庫}에 있는 새로운 많은 책을 발견했고, 적어도 한 주에 닷새 저녁은 연구에 매진했다. 하루 저녁은 나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보냈고, 하루 저녁은 젊은 사람들과 보냈다. 예수의 인격체에는, 젊은이를 늘 끌어당기는 온유하고 영감 어린 어떤 것들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의 큰 비결은 아마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갖는 한편, 그들이 묻지 않으면 그들에게 거의 충고하지 않았다는 이중적 사실로 이뤄졌을 것이다.

129:1.10 (1420.7) 세베대의 가족은 예수를 거의 숭배할 정도였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수가 회당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갖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회합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이웃 젊은이들 역시 저녁 식사 후의 이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예수는 작은 숫자의 이 무리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진보된 다양한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과 매우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정치학, 사회학, 과학, 철학 등에 관한 그의 관념과 이상{理想}을 표현했지만, 종교-- 곧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외에는, 결코 권위적으로 결론 내리듯 말하려 하지 않았다.

129:1.11 (1421.1) 세베대에게 많은 고용인이 있었으므로, 예수는 전체 집안과 공장 및 호숫가 도우미들과 매 주 한 번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가 "주님"으로 처음 불린 것은, 이 일꾼들 사이에서였다. 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세베대와 함께 수고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사렛 목공소 옆에서 놀던 꼬마 아이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다.

129:1.12 (1421.2) 세베대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가 예수를, 선생, 즉 철학자로 여기며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요한은 주로

그의 종교적 가르침과 견해에 관심을 가졌다. 다윗은 그를 기술자로는 존경했지만, 그의 종교적 견해와 철학적 교훈에 대해서는 거의 흥미가 없었다.

^{129:1.13 (1421.3)} 유다는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종종 거기에 왔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머물러 있으려 했다. 유다는 말형을 자주 대할수록,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

^{129:1.14 (1421.4)} 그해에 예수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우세하게 지배하는 일에 큰 진전을 이뤘고,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와 의식 속에서 접촉을 이루는, 새롭고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129:1.15 (1421.5)} 이 해는 그의 정착된 삶의 마지막 해였다. 그가 한 곳에서 또는 하나의 이행업무에 한 해 전체를 보내는 일이 다시는 없었다. 그의 이 세상 순례의 날이 빠르게 다가왔다. 집중적 활동 기간이 곧 오게 됐지만, 이제는, 단순한 반면에 강렬하고 활동적이었던 그의 과거의 삶과, 더욱 긴장되고 격렬한 공중{公衆} 사역 사이에, 수년 동안의 광범한 여행과 매우 변화 많은 개인 활동을 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가 유란시아에서 자신을 증여하는 동안, 인간이후의 신성한 국면에서 완전하게 된

하나님_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완성돼야 했다.

2. 스물여덟 살 되던 해 (서기 22년)

129:2.1 (1421.6) 서기 22년 3월에, 예수는 세베대와 작별하고 가버나움을 떠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드는 경비로 지불할 약간의 돈을 요청했다. 그는 세베대와 일하는 동안에 아주 적은 양의 돈만 꺼내서 매달 나사렛 가족에게 보냈다. 한 달에는 요셉이, 다음 달에는 유다가, 예수의 돈을 받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왔고, 그것을 나사렛으로 가져갔다. 유다가 일하는 어업기지는 가버나움 남쪽으로 겨우 몇 마일 떨어져 있었다.

129:2.2 (1421.7) 예수가 세베대 가족을 떠날 때, 유월절 기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로 동의했고, 그들 모두가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축하할 것까지도 계획했다. 예수가 그들을 떠날 때 모두 슬퍼했는데, 특히 세베대의 딸들이 그랬다.

129:2.3 (1421.8) 예수는 가버나움을 떠나기 전에, 새로_발견한 친구이자 친밀한 동무인 요한 세베대와 오래 이야기했다. 그는 요한에게, “내 때가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여행할

계획임을 말했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자기 대신 나사렛 가족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약속했다:“선생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세상의 업무를 실행하십시오;내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라도 당신 대신 처리할 것이고, 친어머니와 친동생들을 돌보는 것처럼 당신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당신의 몫은,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겠고, 그 돈이 다 사용된 후에 당신의 어머니가 어려운 사정에 놓이면, 당신이 돈을 더 보내지 않더라도 내가 번 돈으로 보내겠습니다. 편안하게 길을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 대신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129:2.4 (1422.1)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요한은 예수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아버지 세베대와 의논했고, 액수가 무척 많은 것에 놀랐다. 예수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은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사렛 가족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계획이 되리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세베대는 우선 일부만 받고 팔려고 내 놓은 작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의 돈으로 그 집을 매입하고, 요한이 친구 대신 집문서를 맡아보는 신탁인{信託人}이 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의 충고대로 했다. 2년 동안의 집 임대 수입은 용자금의 갚기 위해 저축됐고, 이 돈에, 예수가 그때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데 쓰도록 요한에게 보내온 상당히 큰 금액이 합쳐져서, 집값을 거의 갚을 만한 액수가 됐으며; 기한이 됐을 때 세베대가 약간의 차액을 자기 돈으로 보충했으므로, 요한은 방이 두개인 이 집의 용자금을 완불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의 소유주가 됐지만, 이것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129:2.5 (1422.2)} 나사렛 가족은 예수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맡은 재정적 원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이제는 예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믿었다. 야고보는 예수와 맺은 계약을 기억했고,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돌보는 모든 책임을 즉시 시행했다.

^{129:2.6 (1422.3)}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거의 두 달 동안 성전에서 열리는

토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다양한 학파에 속한 랍비들을 가끔 방문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안식일은 베다니에서 보냈다.

129:2.7 (1422.4)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그를 “내 친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의 편지를 갖고 왔었다. 안나스는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직접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이 운영하는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예수는 이 학파들을 면밀히 살피고 그들의 교습{敎習}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동안,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안나스는 비록 예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봤지만, 그에게 어떻게 충고를 해야 할지 당황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학교라 할지라도, 예수가 학생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았고, 또한 예수가 한 번도 이 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정식 교사의 지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잘 알았다.

129:2.8 (1422.5) 이윽고 유월절 때가 가까이 이르자,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가버나움의

세베대와 그의 가족도 전부 거기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안나스의 넓은 집에 머물렀고, 거기서 즐거운 한 가족이 돼서 유월절을 기념했다.

129:2.9 (1422.6) 유월절 주간이 끝나기 전에, 명백한 우연으로, 예수는 어떤 부유한 여행자와 열일곱 살 가량의 청년인 그의 아들을 만났다. 이 두 여행자는 인도에서 왔는데, 로마와 지중해의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이었고, 자기네 두 사람을 위해 통역하면서 아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 바라면서, 유월절 기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아버지는 자기들과 함께 여행해주도록 예수에게 끈질기게 부탁했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동안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가족과, 거의 2년이나 떨어져 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양에서 온 이 여행자는 예수에게, 필요시에 그의 가족의 안녕을 돌볼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친구에게 1년 분 봉급을 선불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예수는 여행에 동참하기로 동의했다.

129:2.10 (1423.1) 예수는 이 많은 돈 전부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맡겼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요한이 이 돈을 가버나움 부동산의 융자금 지불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들었다. 예수는 세베대를 완전히 신뢰하고 지중해 지역의 여행에 대해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의 혈육에게 까지도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고, 세베대는 예수가 거의 2년의 긴 기간 동안 어디에 갔는지를 결코 누설하지 않았다. 예수가 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사렛의 식구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으며, 거의 포기할 참이었다. 자기 아들 요한과 함께 여러 번 나사렛에 찾아온 세베대의 확신에 찬 말만이, 마리아의 가슴속에 얼마간의 희망을 품게 했다.

129:2.11 (1423.2) 이 시절에 나사렛 가족은 아주 잘 지냈으며; 유다는 자기 몫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분의 몫까지 감당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거의 필요 없었음에도, 요한 세베대는 예수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룻에게 습관처럼 매 달 돈을 가져다줬다.

3.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서기 23년)

129:3.1 (1423.3) **예수가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전부가, 지중해 지역 여행을 마무리 짓는 데 사용됐다. 이 체험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한도 내에서, 주요 사건들이 다음 문서부터 서술되는 내용의 주제를 이룰 것이다.**

129:3.2 (1423.4) **로마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는 내내, 여러 이유로, 예수는 *다마스쿠스 서기관*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고린도와 돌아오는 행로의 다른 경유지들에서는 *유대인 가정교사*로 알려졌다.**

129:3.3 (1423.5) **이것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 다사한 기간이었다. 그는 이 여행 도중에 많은 동료를 사귀었지만, 이 체험은 그의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이 없었고 사도들도 몰랐던, 그의 삶의 한 국면이었다. 예수가 육신을 입은 삶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떠났을 때, 그가 이렇게 두루 여행했음을 (벧새다의 세베대를 제외하고) 아무도 몰랐다. 그의 친구 중에서 더러는 그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고 생각했고;더러는 인도로 갔다고 생각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가 한때 보조 카잔(선생) 자격으로 거기에 오도록 초청 받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29:3.4 (1423.6)

예수가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었다는 가족의 견해를 바꾸려 하지 않았으며; 그는 자신이 팔레스틴에 없는 동안, 문화와 지식의 도시에서 지냈다고 가족이 믿는 것을 내버려뒀다. 벳새다에서 배를 만드는 세베대만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세베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29:3.5 (1423.7)

너희가 유란시아에서 예수의 생애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수고할 때마다, 반드시 미가엘 증여의 동기를 유념해야 한다. 너희가 겉보기에 신비한 듯한 그의 수많은 행위의 의미를 납득하려면, 그가 너희 세계에 체류한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과도한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주의를_쏟게 하는 개인 경력을 이루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다. 그는 동료에게 비범하거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동료 필사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고, 동시에 이 세상의 필사 생애를 사는 동안, 바로 그 낙원 아버지 뜻에 항상 복종하는 숭고한 과제에 전념했다.

129:3.6 (1424.1)

이 신성한 증여를 배우는 모든 필사자 학생이, 그가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고 이 일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았음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보낸 예수의 일생을 이해하는 데 항상 유용할 것이다. 그가 네바돈 우주 전역에 있는 각 인간거주 구체 전부를 위해서, 필사자 본성의 육체 속에서 살았던 생애와 관련되는, 특별한 그리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었다.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그의 다사한 시절 이후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된, 모든 세계의 경우에도 똑같이 진리다. 그리고 이 지방우주의 모든 미래 역사에서, 의지 피조물이 거주하게 될 모든 세계에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진리일 것이다.

129:3.7 (1424.2) 이 기간에, 그리고 로마 세계를 여행한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은 그 시대와 세대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과의 교육적인 접촉과_훈련을 실제로 완성했다.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오기까지, 훈련을 위한 이 여행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유란시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생계를 이어가는지를 꼭 배우고자 했었다.

129:3.8 (1424.3) 그의 지중해 지역 여행의 참 목적은, *사람을 아는* 것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수백 명의 인간과 매우 가깝게 사귀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흑인과 백인, 교육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교양 있는 자와 없는 자, 동물적인 자와 영적인 자, 종교적인 자와 비종교적인 자, 도덕적인 자와 비도덕적인 자를 만났고 사랑했다.

129:3.9 (1424.4) 예수는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물질적이고 필사적인 정신에 정통하는 자신의 인간적 과제에서 큰 진보를 이뤘고, 그에게 내주하는 조울사는 동일한 이 인간 지능의 상승과 영적 정복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이 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만유의 아버지의 창조주 아들임을 --모든 인간적 확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알았다. 조울사는, 그가 이 네바돈 지방우주를 조직하고 경영하기 전에, 신성한 아버지와 관련해 낙원에서 겪은 체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점점 더 사람의 아들의 마음 속에 회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울사는, 예수가 영원한 과거의 다양한 시기 속에 사는 동안, 이전{以前}의 신성한 존재로 있을 때 가졌던 필요 불가결한 기억들을, 예수의 인간 의식{意識} 속으로 조금씩 붙여넣었다. 조울사가 그에게 회상시킨, 그의 인간_이전{以前}의 마지막 사건은, 유란시아 육신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각하는 인격체를

양도하기 직전에, 살빙톤의 임마누엘과 가졌던 송별 회담이었다. 그리고 인간_이전 존재로 있던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억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던 바로 그날, 예수의 의식 속에 명료해졌다.

4. 인간 예수

129:4.1 (1424.5) 지켜보던 지방우주의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에게, 이 지중해연안 여행은, 적어도 십자가형과 필사자의 죽음 사건 이전에 있었던, 예수의 전체 세상 체험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곧_이어진 공적{公的} 사역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은 매혹적인 *개인 사역* 기간이었다. 이 독특한 사건이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때 그가 여전히 나사렛의 목수이고, 가버나움의 조선공{造船工}이고, 다마스커스의 학자였기 때문이며;그는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완전히 숙지하는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조울사는 필사자 정체성을 온전히 통달하지 못했고 동등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29:4.2 (1425.1) 사람의 아들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종교 체험은-- 곧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스물아홉 살 되던 이 해 동안, 정점에 이르는 성취에 거의 도달했다. 영적 발전의 이런 체험은, 사고 조율사가 도착한 순간부터, 사람의 물질 정신과 영의 정신_기증--이 두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 현상, 즉 요단에서 그가 세례 받던 날, 사람의 아들이, 그 영역에 육신화 된 필사자로서, 완성과 완결성을 달성했던 그 체험-- 사이에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완성되고 확정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점진적 성장을 계속했다.

129:4.3 (1425.2)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정식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러 해 동안 내내, 그는 영으로 내주하는 낙원 아버지의 현존과 개인적인 소통을 이루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점점 더 완성시켜 나갔다. 그는 실제적인 삶, 충만한 삶, 그리고 진실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삶을 육신 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물질세계들에서 인간이 사는 인생의 전체 합계와 내용물의 실제성에 상응하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안다.

129:4.4 (1425.3) 사람의 아들은 최상의 기쁨으로부터 심오한 슬픔에 이르기까지, 인간 감정의 넓은 영역을 모두 체험했다. 그는 명랑한 아이였고 보기 드문 훌륭한 유머 감각을 지닌 존재였으며, 마찬가지로 "슬픔 위에 비탄이 겹쳐진 사람"이었다. 영적 감각에서 보면, 그는 필사자 인생을 통해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체험했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인간 실존의 사회적 양극단을 통해서 삶을 도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체험에 대해서 지적{知的}으로 완전히 정통하게 됐다.

129:4.5 (1425.4) 예수는 생각과 느낌,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역들에서 진화하고 상승한 필사자들이 갖는 충동과 자극을 안다. 그는 육체적 출발부터, 지적, 영적 자아성의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 성인에 이르는 -- 심지어 인간적 죽음까지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는 지적 및 영적 진보를 이루는 이런 평범하고 친숙한 인생 기간들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에서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필사자밖에 성취하지 못한, 즉 인간과 조율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 같은, 더욱 고귀하고 진보된 국면들 역시 완전히 체험했다. 그리하여 그는 필사적

사람의 전체 생애를 체험했는데, 너희 세상에 산 것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모든 다른 진화하는 세계에 산 것과 같고, 심지어 빛과 생명의 상태 속에 정착된 가장 지고{至高}하고 진보된 모든 세계에서 산 것과도 같다.

129:4,6 (1425.5) 비록, 그가 필사 육체의 모습 속에서 살았던 이런 완전한 삶이, 그가 이 세상에 있던 동시대에 우연히 같이 있었던, 동료 필사자들로부터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찬성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육신 속에 살았던 그 생애가, 아주 동일한 시기에, 그리고 동일한 그 인격체_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필사적 사람에게 충만하게 드러내 보이고, 동시에 무한한 창조주에게는 만족할 정도로 완전한 인간 인격체의 현존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립시킨 것으로서,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고 무조건적인 승인을 받았다.

129:4,7 (1425.6) 그리고 이것이 그의 참된 최상의 목적이었다. 그는 그 당시 또는 모든 다른 시대의 어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에 대한 온전하고 세부적인 본보기로서 유란시아에 살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그의 충분하고 풍성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삶에서, 우리 모두가

절묘하게 모범적이고 신성하게 영감 주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인간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모든 인간이 모방하도록 어떤 본보기를 설정하려고 이 세상에 살지 않았다. 그는 자비를 베풀어 육체 속에서 인생을 살았고, 너희도 모두 이 땅에서 바로 그 자비로 살아갈 수 있으며; 자기 시대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 필사자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라는 모범을 그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설정해 줬다. 너희는 그의 생애와 똑같이 살기를 열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다. 예수는 이 지방우주 전체 영역에서 모든 시대의 필사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본보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승이 시작되는 세계들에서 온갖 우주를 지나 하보나를 통해서 낙원으로 가는 모든 낙원 순례자에게, 영원토록 영감{靈感}을 주고 지침이 되고 있다. 예수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시간세계에서 영원세계로 가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다*.

129:4.8 (1426.1) 나사렛 예수는,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로서의 필사자에게 요구되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스물아홉 살 되던 해 말쯤에 사실상 끝냈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이제는 하나님께 명백히 나타내게 될 기회를 기다리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는 서른 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제130편 로마로 가는 길에서

130:0.1 (1427.1) 이 세상에서 예수의 생애 가운데, 스물여덟 살 되던 해 대부분과 스물아홉 살 되던 해 전체 기간이 로마 세계 여행에 사용됐다. 예수와 두 명의 인도 원주민은--곧 고노드와 아들 가니드는-- 서기 22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일정에 맞춰 여행했고, 예수는 이듬해인 서기 23년 12월 10일에 페르시아만의 카락스 시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130:0.2 (1427.2)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옹바를 경유해서 가이사랴로 갔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탔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레테의 라세아로 향해했다. 그레테에서 구레네를 거쳐 칼타고로 갔다.

칼타고에서 나폴리로 가는 배를 탔고, 말타와 시라큐스와 메시나를 경유했다. 그들은 나폴리로부터 카푸아로 갔고,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아피아 도로를 여행했다.

130:0.3 (1427.3) 그들은 로마에 머문 다음에 육로를 이용해서 타렌툼으로 갔고, 거기서 그리스의 아테네로 향해했으며, 니코폴리스와 고린도에 들렀다. 아덴으로부터 드로아를 경유해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에베소에서 구브로로 향해했고, 가는 도중에 로데에 들렀다. 구브로에서 상당한 시간을 방문과 휴식으로 보냈고, 그 다음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향해서 향해했다. 안디옥에서 시돈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고, 다마스쿠스까지 갔다. 거기서 대상로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타프사커스와 라리싸를 지나갔다. 바빌론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우르와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수싸로 갔다. 그들은 수싸에서 카락스로 갔고, 거기서 고노드와 가니드는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났다.

130:0.4 (1427.4) 고노드와 가니드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본 원리를 예수가 습득한 것은, 다마스쿠스에서 일했던 4개월 동안이었다. 거기에 있는 동안, 그는 고노드의 고향 지역

출신인 한 인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어를 인도 언어들 가운데 하나로 번역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 수고했다.

130:0.5 (1427.5) 이 지중해 지역 여행에서 예수는 가니드를 가르치는 일과, 고노드의 사업상 회담 및 사교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면서, 매일 대략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매일 나머지 시간은 그의 재량에 맡겨졌고, 그는 동료 사람들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에, 그 영역의 필사자들과 그토록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이 몇 해 사이에 특색을 이루는 활동이었다.

130:0.6 (1427.6) 예수는, 직접 관찰하고 실제로 접촉함으로써, 서양과 레반트의 비교적 높은 물질적 및 지적 문명을 스스로 습득했으며; 고노드와 그의 영리한 아들로부터는, 인도와 중국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고노드 자신은, 인도 시민이면서 황색 인종의 제국까지 세 번이나 두루 여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30:0.7 (1427.7) 청년 가니드는, 이 길고 친밀한 교제 기간에 예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 무척 좋아졌고,

젊은이의 아버지는 예수에게, 자신과 함께 인도로 가자고 여러 번 청했지만, 예수는 언제나 팔레스틴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청을 사양했다.

1. 옅바에서--요나에 관한 설교

130:1.1 (1428.1) 그들이 옅바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는 제혁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필리스틴 통역자 가디아를 만났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노드의 대리점들이 이 시몬과 많은 거래를 했으므로, 고노드와 그의 아들은,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이 시몬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이 옅바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와 가디아는 다정한 친구가 됐다. 이 젊은 필리스틴 사람은 진리 탐구자였다. 예수는 진리 수여자였으며; 유란시아에서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진리 ~~였다~~. 위대한 진리 탐구자와 위대한 진리 수여자가 만났을 때, 새로운 진리를 체험함으로써 해방시키는 큰 깨우침이 탄생된다.

130:1.2 (1428.2) 어느 날 저녁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와 필리스틴 청년이 해변을 거닐었고, 가디아는 이 “다마스커스 서기관”이 히브리 전승에 매우 정통함을 알지 못한 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불행한 항해를 위해 승선했던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그 배를 가리켰다. 그는 설명을 마치면서,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실제로 요나를 삼켰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때 예수는, 이 젊은이의 인생이 이런 전통에 크게 영향받아왔고,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말미암아, 의무로부터 멀리 도망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에게 심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며;따라서 예수는, 실질적 생활을 위해서 가디아에게 현재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토대를 갑자기 무너뜨릴 만한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친구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요나들이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현재의 사명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 할 때마다 항상, 진리의 능력과 정의의 힘이 지시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의 즉각적인 통제 아래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다. 의무로부터 도피하면 진리가 희생된다. 하나님을_저버린 그런 요나들이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찾지 않는 한, 빛과 생명을 위한 헌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결국, 어둠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기심이라는 다루기 힘든 고래들과 비참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런 낙심된 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열망할 때에는--곧 진리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해 목말라 할 때에는, 아무 것도 그들을 계속 속박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빛을 찾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주{主}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속박에서 구출할 것이며, 삶의 악한 환경이, 새로운 봉사와 더 현명한 삶을 위한 신선한 기회의 마른 땅 위로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130:1.3 (1428.3) 가디아는 예수의 가르침에 크게 감동됐고, 그들은 밤이 깊도록 해변에서 이야기했으며,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나중에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된, 도르가의 집에서 어느 날 저녁 베드로와 인상적인 토론을 벌였던 가디아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디아는, 부유한 가족 상인 시몬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마지막 결심을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130:1.4 (1428.4) (예수가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동료 필사자들과 함께 했던 개인 행적을 서술할 때, 우리가 허락 받은 한도 내에서, 이 문서가 제시된 당시에 사용되던

유란시아의 현대 언어로 그의 말씀을 자유롭게 번역할 것이다.)

130:1.5 (1429.1) 예수는 가디아와 가진 마지막 만남에서, 선악{善惡}에 대해 토론했다. 이 필리스틴 청년은 세상에 악이 선과 공존함은 부당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괴로워했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으로 인한 슬픔을 겪도록 하시며;결국, 악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선과 악 둘 다를 창조했다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믿었지만, 예수는 그런 오류를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했다:"형제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선하시고, 그의 선하심은 너무 크고 실제적이어서, 악에 속하는 사소하고 비실재적인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부정적 악이 있을 자리가 절대로 없다. 악은, 선에 저항하고 아름다움을 거부하며 진리에 불충하는 자들의 성숙되지 못한 선택이고 경솔한 과실이다. 악은 미숙함을 오용한 것이거나, 무지로 인한 파괴적이고 왜곡된 작용일 뿐이다. 악은 어리석게 빛을 거부한 결과로 수반되는 필연적

어둠이다. 악은 어둡고 거짓된 것이며, 알면서 받아들이고 고의로 지지했을 때 죄가 된다.

130:1.6 (1429.2)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진리와 오류 둘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심으로써, 빛과 생명이라는 긍정적 통로에 부정적 잠재성도 만드셨지만;악에 속하는 그런 실책은, 지성 피조물 의지가 삶의 방식을 잘못_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생기게 하기 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런 악들은 강박하고 반역적인 피조물의 고의적이고 계획된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죄로 발전된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과 악을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인데, 추수하는 시기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자연이 허용하는 것과 똑같다.” 가디아는 그 뒤에 이어진 토론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말의 실제 의미가 마음 속에 명쾌하게 되자,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에 충분히 만족했다.

2. 가이사랴에서

130:2.1 (1429.3) 예수와 친구들은, 그들이 타고 가려던 배의 커다란 노 가운데 하나가 쪼개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계획보다 더 오래 가이사랴에 머물렀다. 선장은 새로운 노가 만들어질 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기로 결정했다. 이 과제를 맡아서 해결할 숙련된 목수가 부족했으므로, 예수는 자원해서 도와줬다. 매일 저녁시간에 예수와 친구들은 항구 주위에서 산책로로 쓰이는 아름다운 제방 위를 거닐었다. 가니드는 그 도시의 수리{水利} 체계, 그리고 조수{潮水}를 이용해서 도로와 하수도를 씻어 내리도록 꾸민 기법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젊은 인도인은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신전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았고,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그 위에 서 있었다. 거기에 머문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세 사람은 좌석이 2만 개나 되는 거대한 원형극장의 공연에 참석했고, 그날 밤에는 극장에서 상연되는 그리스 연극을 보러 갔다. 이런 것들은 가니드가 처음으로 구경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들에 대해 예수에게 많이 질문했다. 그들은 셋째 날 아침에 총독 관저를 공식 방문했는데, 가이사랴는 팔레스틴의 수도{首都}이자 로마 행정관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130:2.2 (1429.4) 그들의 숙소에 몽고에서 온 한 상인도 묵었고, 극동{極東}에서 온 이 사람은 그리스어에 유창했기 때문에, 예수는 여러 차례 긴 시간 그를 만났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인생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매일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그의 지혜로운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이 상인은 도교 신자였는데, 그리하여 보편적 신격 교리를 깊이 믿는 사람이 됐다. 몽고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 진보된 진리를 이웃과 사업 동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런 활동의 직접 결과로, 그의 장남은 도교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젊은이는 일생을 통하여 이 증진된 진리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유일한 하나님--곧 하늘의 최상급 통치자--에 대한 교리에 헌신적으로 충성했다.

130:2.3 (1430.1)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초기 그리스도교 동쪽 분파가, 예루살렘의 형제들보다 예수의 교훈을 더 신실하게 믿는 동안, 베드로 같은 태도로 중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바울 같은 태도로 인도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은, 매우 애석한 일이었으며, 그 곳의 영적 토양은, 당시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에 무척

적당했다. 필라델피아인이 갖고 있었던 바로 이런 예수의 교훈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던 이 아시아 사람들의 정신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가 서방에서 이룩했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설득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130:2.4 (1430.2) 예수와 함께 노를 만드는 일을 하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하루는 그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예수가 이따금 던지는 말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 둔다는 사실을 예수가 암시했을 때, 이 젊은 그리스인 아낙산드는, “하나님들이 내게 관심 둔다면, 잔인하고 불공평한 이 작업장 감독을 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 그는 깜짝 놀랐다: “네가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알고 공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들은 네가 이 부정{不正}한 사람을 이런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두셨는지도 모른다. 아마 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형제를 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소금일 것인데; 네가 맛을 잃지 않았다면 그렇다. 현재로서는, 이 사람의 악한 방식이 네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면에서, 그가 네 주인이다. 선의 힘으로 악을 극복함으로써, 너희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네 안에 있는 선에게 공정하고 활기찬 기회를 주면, 네 안에 있는 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압도할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필사자로서 실존하는 동안에, 실책과 악을 이기는 투쟁 가운데 하나에서 얻는 영적 에너지와 신성한 진리를 가지고, 물질적 인생에서 동업자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더 매혹적인 모험은 없다. 그것은 영적 어둠 속에 앉아 있는 필사자에게 영적 빛의 생생한 경로가 되는, 기묘하고 변화시키는 체험이다. 네가 이 사람보다 진리로 더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의 부족함이 너를 자극했어야 한다. 너는, 헤엄치지 못하는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닷가에 서 있을 겁쟁이는 분명히 아니다! 그 육체가 물에 빠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람의 혼이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냐!”

130:2.5 (1430.3) 아낙산드는 예수의 말에 크게 감동됐다. 이윽고 그는 예수가 한 말을 상관에게 전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신의 혼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의 충고를 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말씀이 가이사랴에 전파됐을 때, 하나는 그리스인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인인

두 사람 다, 빌립의 전도를 믿고, 빌립이 설립한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됐다. 후에 이 젊은 그리스인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된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의 청지기가 됐다. 아낙산드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히는 날까지,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빛을 공급했는데, 그때 그는, 2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 고통 받으며 죽어 가는 이들을 보살피다가 사고로 죽었다.

130:2.6 (1431.1) 이 무렵에 가니드는, 선생님이 동료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히 사역하는 일에 어떻게 여가 시간을 활용했는지 알기 시작했고, 젊은 인도인은 예수가 이런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동기를 알아보고자 했다. “당신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왜 그토록 끊임없이 전념하십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가니드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낯선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체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네 형제임을 네가 발견하는데, 새로 발견한 형제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느냐? 형제자매들과 사귀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삶에서 최상의 체험이다.”

130:2.7 (1431.2) 이 논의는 밤늦도록 계속됐고, 그러는 중에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도 불리는 선택하는 인간 정신 행위 사이의 차이를 말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했다. 예수가 말한 요지는 이랬다: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이요, 가능성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음에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처럼 돼 가는 점진적 체험이며,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표다. 사람의 뜻은 사람의 길이요, 필사자가 그렇게 되려 하고, 행하려 하는 그 목표의 총합이자 내용이다. 의지는 자아를_의식하는 존재의 의도적 선택인데, 지성의 반응에 기초한 결단과_실행으로 인도한다.

130:2.8 (1431.3) 그날 오후에 예수와 가니드는 아주 영리한 양치기 개 한 마리와 즐겁게 놀았는데, 가니드는 문득, 개도 혼을 갖고 있는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으며, 예수는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개는 자기 주인, 즉 물질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정신은 갖고

있지만, 영{靈}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며;따라서 개는 영적 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영적 체험도 즐길 수 없다. 개는, 본능에서 나오고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정신 능력은 영적인 힘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곧 그것은 비교적 더 고상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분별한 결과가 아니며,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는 비교될 수 없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필사적 사람을 도덕적인 존재, 즉 영적 책임을 느끼는 속성과 영원히 생존할 잠재력을 부여받은 피조물이 되게 한다.” 예수는 이어서, 동물에게는 그런 정신 능력이 없으므로, 언어를 발전시키거나 내세{來世}에 생존하는, 인격자와 동등한 어떤 것을 체험하기란 영원토록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날 예수의 설명으로 인해, 가니드는 사람의 혼이 동물의 몸 속에 윤회{輪廻}한다는 믿음을 다시는 갖지 않게 됐다.

130:2.9 (1431.4) 다음 날, 가니드는 아버지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노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는 이렇게 설명했다:“동물로 실존하는 물질적 문제와 관계있는

현세의 결정을 내리는 데만 완전히 몰두하는 인간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운명에 처해 있다. 전심을 다해 내린 도덕적 결정과 무조건적인 영적 선택을 내리는 사람은, 내주{內住}하는 신성한 영과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가며,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살아남는 가치로 점점 더 변화된다--신성한 봉사로 끝없이 진보한다."

130:2.10 (1431.5) 바로 이날, 우리는 중대한 진리를 처음 들었는데,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의지란, 주관적 의식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의 현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형태화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영적 생각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 창조성을 갖게 될 수 있다.

3. 알렉산드리아에서

130:3.1 (1432.1) 가이사라 방문은 뜻 깊었고, 배가 준비되자, 예수와 두 친구는 어느 날 정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출발했다.

130:3.2 (1432.2) 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향해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항해를 매우 즐겼고, 예수는 그의 여러 질문에 대답하기 바빴다. 그들이 항구에

다가가자, 젊은이는 바로의 거대한 등대를 보고 흥분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본토를 연결시켜 놓은 섬에 위치했으며, 또한 두 개의 큰 항구를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해상무역의 교차로 구실을 하게 했다. 이 거대한 등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으며, 후대의 모든 등대의 기원이 됐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이 장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가니드가 감탄사를 연발할 때 예수가 말했다:“그리고 애야, 네가 인도로 돌아가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라도 이 등대처럼 될 것이며;구원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길을 그토록 원하는 모든 이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네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가니드는 예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30:3.3 (1432.3) 초기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로마 세계의 서방 문명권에만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것은 큰 실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예수의 교훈을, 1세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자들이 지켰던 것처럼, 다양한 집단의 아시아 종교인들도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항구에 도착한지 네 시간 후에, 길고 넓은 도로, 즉 폭은 30미터이고 길이는 5마일 정도 되고,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의 서쪽 끝까지 뻗어 있는 길의, 동쪽 끝부분 가까운 장소에 숙박 장소를 정했다. 그 도시에서 제일 볼만한 것들--곧 대학(박물관), 도서관, 알렉산더의 왕릉, 궁정, 넵툰 신전, 극장, 체육관--을 먼저 돌아본 후에, 고노드는 자신의 사업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했고, 예수와 가니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모든 문명세계:즉 그리스, 로마, 팔레스틴, 파르티아, 인도, 중국,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 가져온, 거의 100만 권에 이르는 서적이 수집돼 있었다. 이 도서관에서 가니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집된 인도 문헌을 봤으며;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 매일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는 가니드에게, 히브리 성서가 여기서 그리스어로 번역됐던 것에 관해서 말해 줬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계속 토론했고, 그때마다 예수는 이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서, 그의 정신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애썼다:"그러나 야훼는 멜기세덱의 계시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발전된 하나님이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중에는 멜기세덱이 살고 가르치면서 모든 세계에 선생들을 보낸 중심지였던 바로 그 땅을 차지했으며;결국 유대인의 종교는 다른 어떤 세상 종교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만유의 아버지로서 더 분명하게 묘사했다.”

^{130:3.5 (1432.5)} 가니드는 예수의 지도하에, 비록 그것들이 열등한 신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더라도, 우주의 신격을 알아본 모든 세계 종교 교훈을 수집했다.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토론 끝에,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에 참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종교는 거의 황제 숭배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철학은 갖고 있지만 인격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종교는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신비 종파들은 제외했는데, 여러 종파로 인해 혼란되고, 그들의 다양한 신격 개념이, 더 오래된 다른 종교들로부터 파생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130:3.6 (1433.1)} 이 해석들이 비록 알렉산드리아에서 행해졌으나, 가니드가 이런 선별작업을 최종 마무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결론을 첨가한 것은, 로마 체류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는, 세상의 신성시되는 문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자들은 모두, 대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다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성품 및 그의 필사적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많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

130:3.7 (1433.2) 예수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박물관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박물관은 희귀한 물건을 소장한 곳이라기보다, 예술, 과학, 문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이었다. 거기서는 학식 있는 교수들이 매일 강의했고, 당시에는 이곳이 서양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다. 예수는 날마다 가니드에게 강의를 해석해 줬으며; 둘째 주가 되던 어느 날, 가니드가 큰소리로 말했다:“예슈아 선생님, 당신은 이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당신은 내게 말해준 위대한 것들을 그들에게도 일어나서 말해줘야 합니다:그들은 많은 생각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이 일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너는 감탄하는 학생이지만, 이 선생들은 너와 내가 저희를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영성화 되지 않은 채 학문을 배움으로써 생기는 자만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얼음판 같은 것이다.

참된 선생은 항상 배우는 자로 남음으로써 지적 성실성을 유지한다.”

130:3.8 (1433.3) 알렉산드리아는 서양의 모든 문화가 혼합된 도시였고, 로마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격조 높은 도시였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 즉 통치하는 70인 장로로 이뤄진 알렉산드리아 산헤드린의 행정 중심지가 있었다.

130:3.9 (1433.4) 고노드가 사업상 거래하는 많은 사람 중에 알렉산더라는 어떤 유대인 은행가가 있었는데, 그의 형제인 필로는 당대에 가장 유명한 종교 철학자였다. 필로는,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신학을 조화시키는, 칭찬할 만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가니드와 예수는 필로의 교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그의 강의에 참석하려고 계획했지만, 이 유명한 헬라파 유대인은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내내 병석에 누워있었다.

130:3.10 (1433.5) 예수는 가니드에게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학파 교리 가운데 많은 것을 칭찬했지만, 자신의 민족 중에서 일부가 준 불확실한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 체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자를 아는 생생한 체험을
즐기도록 사람을 인도할 때에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그 젊은이에게 가슴 깊이 새겨줬다.

4. 실체에 관한 강연

130:4.1 (1433.6) 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가니드와 예수는, 플라톤의 교훈을 강의하는, 정부 소속
교수 한 사람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만났다. 예수는,
박식한 그리스인 교수의 말을 통역했지만, 그리스 철학을
반박하는 자신의 교훈은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그날
밤에 고노드는 사업 관계로 다른 곳에 있었으며;교수가
자리를 떠나자, 선생과 그의 제자는 플라톤의 학설에 관해
숨김없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예수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 본질적인 영적 실체의
그림자라는 이론을 다루는, 그리스 철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적인 동의를 했던 반면, 젊은이의 생각에 좀
더 신뢰할만한 기초를 마련해주려고 애썼으며;그리하여
그는 우주에서의 실체의 본질에 관한 긴 설명을 시작했다.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30:4.2 (1434.1) 우주 실체의 근원은 무한자다. 유한한 창조에 속하는 물질적 사물은, 낙원 원형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주 정신이 시_공간에 반향{反響}한 결과다. 물리적 세계에서 인과관계가, 지적 세계에서 자아_의식이, 그리고 영{靈} 세계에서 진보하는 자아성이, *지존자의 실체*를 구성한다--이 실체들은, 우주적인 규모로 투사되고, 영원한 관계성 속에 결합되며, 자질의 완전성 및 가치의 신성{神性}과 함께 체험된다. 그러나 인과관계, 지성, 및 영적 체험의 원본{原本} 인격체는, 영원히 변화하는 우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다. 무한한 가치와 신성한 특성을 갖는 영원한 우주 안에서도 모든 사물이 변할 수 있고 또한 자주 변하는데, 절대적인 물질 상태, 절대적인 지적 용납, 또는 절대적인 영적 정체성을 달성한 것들과 절대자들은 예외다.

130:4.3 (1434.2) 유한한 피조물이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만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과 지존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완결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은, 물리 세계의 움직임과 그 물질 현상 속에서 변화를 계속 체험한다. 그들은 또한 영적 우주를 계속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아성이 진보하는 것을 여전히 자각하며, 지적

시공우주{時空宇宙 코스모스}에 대한 깊어지는 감상과 반응 속에서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여전히 자각한다. 오직 완전함, 조화, 및 의지의 일치 속에서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 될 수 있으며, 피조물이 창조주의 신성한 뜻에 자신의 유한한 개인 의지를 항상 맞춤으로써, 시간 속에서나 영원 속에서 계속 살아갈 때에만, 그런 신성의 상태를 달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혼 속에서 언제나 주권을 가져야 하고 그 정신을 지배해야만 한다.

130:4.4 (1434.3) 눈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은 결코 원근을 감지하고자 바랄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눈밖에 갖지 못한 물질적인 과학자, 영적 신비가, 또는 우화{寓話} 작가는, 우주 실체의 진정한 깊이를 정확하게 감지하거나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피조물이 체험하는 모든 진정한 가치는 인식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

130:4.5 (1434.4) 정신이 없는 인과관계{因果關係}는, 조잡하고 단순한 상태에서부터 세련되고 복잡한 상태로 진화할 수 없으며, 또한 영{靈}이 개재되지 않은 체험도, 영원히 생존하는 신성한 성품을 시간세계의 필사자의 물질

정신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다. 무한한 신격의 특징을 유일하게 나타내는 우주의 한 가지 속성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신격에 도달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인격체를 끝없이 창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130:4.6 (1434.5) 인격체는, 궁극적인 변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런 모든 변화가 있는 바로 그 와중에, 그리고 그 후로 언제까지나 그 정체성을 간직하는, 바로 그 시공우주 재능이요, 우주 실체의 바로 그 국면이다.

130:4.7 (1434.6) 생명은, 우주 상황에서 생기는 요구와 가능성에 대해, 근원적인 시공우주 인과법칙이 적응하는 것이며, 우주 정신의 작용,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영 불꽃이 활성화됨으로써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생명의 의미는 그 적응력에 있으며;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_의식하는 높이까지-- 진보할 수 있는 그 기량에 있다.

130:4.8 (1434.7) 자아_의식을 갖는 생명체의 우주에 대한 잘못된 적응이 시공우주에 부조화를 가져온다. 인격체 의지가 우주들의 경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지적 고립, 즉 인격체가 격리됨으로 종결된다. 내주하는 영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실존이 영적으로 중지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그래서 진보하는 지성적 생명이, 그 자체로, 신성한 창조주의 뜻을 나타내는 목적 있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전체가, 만유의 아버지를 최종 목표로 삼으면서,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분투한다.

130:4.9 (1435.1) 지성이 베푸는 높은 준{準}_영적 보살핌을 제외하면, 사람은 동물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신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므로 (경배심과 지혜를 갖지 못하는) 동물은, 의식 위의 의식인 초의식{超意識}을 체험할 수 없다. 동물의 정신은 오직 객관적인 우주만 의식한다.

130:4.10 (1435.2) 지식은 물질적 정신, 즉 사실을_분별하는 정신의 영역이다. 진리는 하나님을 앎에 대해서 의식하는, 영적으로 부여된 지성의 영역이다. 지식은 논증할 수 있는 것이며;진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은 정신의 소유물이며;진리는 혼, 즉 진보하는 자아의 체험이다. 지식은 비{非}영적 수준의 기능이며;진리는 우주의 정신_영 수준의 한 국면이다. 물질 정신의 눈은, 사실에 입각한 지식 세계를 감지하며;영성화 된 지능의 눈은, 참된 가치 세계를 식별한다. 동시성을 지니고 조화된 이 두

견해가 실체의 세계를 드러내는데, 그 안에서 지혜는 점진적으로 몸소 체험함으로 우주 현상을 해석한다.

130:4.11 (1435.3) 오류는(악은) 불완전함의 대가{代價}다. 불완전함의 특성, 즉 잘못된_적용의 실상은, 비판적 관찰과 과학적 분석으로 물질 수준에서 드러나며;인간의 체험으로 도덕 수준에서 드러난다. 악의 현존은, 정신이 부정확하고 진화하는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따라서 악은, 우주를 얼마나 불완전하게 해석하는지, 그 척도이기도 하다. 과오를 저지를 가능성은, 지혜의 획득, 즉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또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기획에 선천적으로 내포돼 있다. 오류는 상대적 불완전성의 그림자인데, 사람이 완전한 낙원을 향해 상승하는 우주 경로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돼 있다. 오류는(악은) 실제 우주 특성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불완전한 유한자들의 불완전성이 지존자와 궁극자의 상승하는 수준들에 관련됨으로써 관측되는 상대성에 불과하다.

130:4.12 (1435.4) **예수가 비록 이 모든 것을 젊은이가 납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말했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가니드의 눈은 무거워졌고 곧 잠들었다. 그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레테 섬에 있는 라씨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러나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젊은이는 악에 관해 물어볼 더 많은 질문이 여전히 있었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130:4.13 (1435.5) **악은 상대성 개념이다. 악은, 무한하신 분의 영원한 실체들이 우주에 표현하는 생생한 빛을 시공우주가 가림에 따라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함을, 사물과 존재가 가득한 그런 유한한 우주가 목격함으로써 생긴다.**

130:4.14 (1435.6) **잠재적 악은, 무한성과 영원성을 시_공간_제한 속에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는, 필연적 불완전함에 내재한다. 완성된 것들의 현존 앞에 부분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 실체이며, 총명하게 선택할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영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여러 가치 수준을 정립시킨다. 일시적이고 제한된 피조물의 정신이 간직하는, 무한자에 대한 불완전하고 유한한 개념은, 그 자체로 *잠재적인 악{惡}*이다. 그러나 본래부터 존재하는**

이 지적 부조화와 영적 부족함을 타당한 영적 방식으로
고쳐나가는 동안, 부당하게 결함을 증대시키는 잘못은,
실제 악을 실천하는 것과 동등하다.

130:4.15 (1436.1) 정지돼 있고 죽어있는 모든 개념은 잠재적으로
악하다. 상대적이고 생생한 진리의 유한한 그림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정지된 개념은 언제나, 과학,
정치, 사회, 종교 등의 발전을 지체시킨다. 정지된 개념은,
어떤 지식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진리가
결여돼 있다. 그러나 너희가 상대성 개념에 잘못
빠져들어서, 시공우주 정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주가
조정된다는 사실과, 지존자의 영과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주가 안정되도록 통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라.

5. 그레테 섬에서

130:5.1 (1436.2) 여행자들은 단지 섬을 산보하거나 등산하면서
즐기려는 목적으로 그레테에 갔다. 당시 그레테인은 인근
지역으로부터 부러워할만한 아무런 평판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수와 가니드는 많은 혼을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삶으로 인도했고,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것이 후대의 복음 교훈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는 기초를 제공했다. 바울이 나중에 그들의 교회들을 재조직하기 위해 디도를 그 섬으로 보내면서 그들에 관해 가혹한 말을 했음에도, 예수는 이 그레테인을 사랑했다.

130:5.2 (1436.3) 그레테의 산기슭에서, 예수는 종교에 관해 고노드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당신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저 아이가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다마스커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종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노드가 예수에게, 자신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처음 제의한 것은, 바로 이 섬에 머무는 동안이었고, 가니드는 예수가 그 계획에 동의하리라는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

130:5.3 (1436.4) 어느 날 가니드가 예수에게, 왜 대중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얘야, 모든 것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조바심을 내도, 너를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너는 모든 문제에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시간만이, 나무에 달린 꽃과일을 저절로

익게 한다. 시간이 흘러야 한 계절 뒤에 다음 계절이 오고, 해가 진 후에야 해가 뜨는 법이다. 나는 지금 너와 네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가는 중이고,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내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세와 그의 40년에 걸친 신중한 기다림과 꾸준한 준비에 대해서 가니드에게 이야기했다.

130:5.4 (1436.5) 페어 헤븐스를 방문한 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가니드에게 일어났는데;이 사건의 기억은, 고향 인도의 신분계층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에게 항상 불러 일으켰다. 어떤 술 취한 주정꾼이 큰길에서 노예 소녀를 폭행하고 있었다. 예수가 소녀의 곤경을 봤을 때, 즉시 달려가서 처녀를 미치광이의 공격에서 구했다. 겁에 질린 아이가 그에게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강한 오른팔을 내뻗어서 그 격분한 남자를 떼놓은 후에, 화내며 주먹을 허공으로 휘두르다가 지칠 때까지 그 변변치 못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 가니드는 예수를 도와 그 일에 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그의 아버지가 만류했다. 비록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소녀는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을 알 수 있었으며,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가 육신을 입었던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동료와 직접 가장 가깝게 부딪친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에 왜 술 취한 남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가니드에게 설명해야할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가니드는, 적어도 그 남자가 소녀를 때린 만큼 그도 역시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6. 두려움에 빠진 젊은이

130:6.1 (1437.1) 그들이 산을 올라가던 중에, 예수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풀죽은 한 젊은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동료들과의 교제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젊은이는, 혼자 있기 위해서 언덕을 찾았으며; 열등감과 절망감에 더욱 빠져들었다. 이런 천부적 성향은, 그가 열두 살 때 아버지를 잃고 성장하면서 현저하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증대돼 왔다.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여! 이처럼 아름다운 날 어찌하여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가? 만약 걱정거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나도 정말 기쁘겠다.”

젊은이는 대꾸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그러자 예수는 그의 혼에게 두 번째로 접근하며 말했다:“나는 네가 사람을 피해 이 언덕으로 올라온 것을 이해하며;물론 네가 나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나는 네가 이 언덕의 길을 잘 아는지 알고 싶은데;오솔길의 방향을 안다면, 혹시 피닉스로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느냐?” 그때 이 젊은이는 이 산을 잘 알았고, 정말로 피닉스에 이르는 길을 예수에게 말해주고 싶은 흥미를 느꼈으며, 그래서 모든 오솔길을 땅에 그리면서 각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예수가 작별 인사를 마친 후, 마치 떠나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호기심이 발동했다:“나는 네가 울적인 마음으로 홀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내가 피닉스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을 안내 받는 그런 관대한 도움을 받고나서, 네가 이 산기슭에 머무는 동안 마음 속에 추구한 운명의 목표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답해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은, 공정하지도, 잘한 일도 아닌 것 같다. 네가 피닉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잘 알고 여러 번 그 길을 지나다닌 것처럼, 나도, 지금은 네가

좌절한 그 희망과 무너진 그 포부의 도성에 이르는 그 길을 잘 안다. 그리고 네가 내게 도움을 청했으므로,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거의 압도당해 겨우 더듬거리면서, “하지만--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젊은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했다:“그렇지 않다, 얘야. 말이 아닌 네 간절한 표정으로 내 마음에 요청했다. 얘야, 동료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 실의와 절망의 표정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강한 호소력이 있음이 느껴진다. 슬픔에 빠진 자아를 사람의 형제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애정 어린 활동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봉사하는 오솔길과 행복의 대로에 관해 내가 말해주는 동안 함께 앉아있자.”

130:6.3 (1437.3) 그때 젊은이는 예수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했으며, 자신의 개인적 슬픔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 달라고, 무릎 꿇고 예수에게 간청했다. 예수가 말했다:“친구여, 일어나라! 남자답게 일어서라! 너는 작은 적들에 둘러싸이고 많은 장애물에 방해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우주의 큰 것과 실제적인 것들이 네 편이다.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올라, 땅에서 가장 힘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네게도 인사하지 않느냐? 보라, --너는 튼튼한 육체와 강인한 근육을 가졌으니-- 네 신체 조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낫다. 물론, 네가 이런 산기슭에 앉아서 실제적이든지 공상적이든지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는 동안에는 그 신체가 아무 쓸모없다. 그러나 네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훌륭한 일을 서둘러서 시작한다면, 너는 그 육체를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너는 불행한 자신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만, 불가능하다. 삶에 대한 네 문제들과 너 자신은 실제이며;네가 살아있는 한, 그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그러나 네 정신이 맑고 유능하다는 것을 다시 바라봐라. 네 강인한 육체는, 그 육체를 지시하는 영리한 정신을 갖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네 정신을 작동시키며;네 지능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며;생각 없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해라.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네가 지금까지처럼, 비참한 두려움의_노예, 그리고 패배와 좌절에 묶인_하인에 머물기보다는, 네 정신이 너 자신의 용감한 동맹군이 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네 실제 성취 잠재력은, 만약 네가 두려움의 족쇄로부터 네 정신을 풀어주고, 그리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침체의 악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키기를
네 영적 본성이 시작할 수 있다면, 네 정신이 그 자체를
통제하고 육신을 활성화 시키도록, 네 안에 사는 영이
자극하고 영감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신앙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 마음에 탄생된 그 의식
때문에 네 혼을 그토록 빨리 채워서 넘치게 할, 새롭고
완전히_지배적인 *네 동료들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현존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130:6.4 (1438.1) “*애야,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과 용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헌신된 봉사의 사람으로
다시_세움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게 내재하는 생명에 네가
재조정됐을 때, 마찬가지로 우주에 대해서도 재조정될
것이며;너는 다시 태어났고--곧 영으로 탄생했고,
그리하여 네 전체 생애는 승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근심거리는 네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낙심은 네게 격려가
될 것이며;난관은 네게 도전이 될 것이며;장애물은 네게
자극물이 될 것이다. 젊음이여, 깨어나라! 굶실거리고 도망
다니는 겁쟁이의 삶에 작별을 고하라. 그리고 서둘러 네
임무로 돌아가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의 기품 있는 봉사에 헌신되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훌륭한 영원한 봉사를 하게 돼 있는 한
필사자로서 살아가기 바란다.”

130:6.5 (1438.2) 그리고, 행운아인 이 젊은이는, 나중에
그레테에서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됐고, 그레테 신자들을
향상시키는 일에, 디도의 가까운 동역자가 됐다.

130:6.6 (1438.3) 여행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어느 날
정오에 상쾌한 마음으로 북 아프리카의 칼타고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으며, 구레네에서 이틀 머물렀다. 여기서
예수와 가니드는, 짐 실은 소달구지에 받쳐서 부상당한
루포라는 젊은이에게 응급치료를 해줬다. 그들이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시몬에게 데려다 줬는데,
그는 자기 아들에게 한때 친절을 베풀었던 낯선 사람의
십자가를, 후일에 로마 병사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대신
지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7. 칼타고에서--시간과 공간에 대한 강론

130:7.1 (1438.4) 칼타고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동료 여행자들과
함께, 사회, 정치, 및 상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종교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훌륭한 이야기꾼임을 처음

발견했고, 갈릴리에서 보낸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이나 다마스쿠스가 아닌 갈릴리에서 성장한 것도 알게 됐다.

130:7.2 (1438.5) 그들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에게 매료됐음을 알았으므로, 가니드가 예수에게, 친구를 사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자, 그의 선생이 말했다:“네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원한다고 네가 확신하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는 오래된 유대인 속담을 인용했다--“친구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호적인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

130:7.3 (1439.1) 예수는, 칼타고에서 어느 미드라고 사제와 불멸{不滅}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길고 기억에 남을만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페르시아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에게 배우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이날 그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30:7.4 (1439.2) 시간은, 피조물 의식으로 감지되는 일시적 사건들이 흘러가는 흐름이다. 시간은, 사건들이 인식되고 분리되는 연속된_배열에 붙여진 이름이다. 공간의 우주는, 낙원이라는 고정된 거주지 밖의 어떤 내부 위치든지, 거기서 보이는 시간과_관련된 현상이다. 시간의 움직임은 오직,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과 관련해 시간 현상으로서만 드러난다. 온갖 우주에서, 낙원과 거기 계시는 신격들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다.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들에서, (낙원 아버지의 영이 거주하고 인도하는) 인간의 인격체는, 현세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물질적 순서를 초월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연관된 유일한 실체다.

130:7.5 (1439.3) 사람과는 달리, 동물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에게도, 그의 부분적이고 제한된 시야 때문에, 시간이 사건들의 연속으로 나타나지만;사람이 상승함에 따라서, 즉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사건 진행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 그 전체 모습이 점점 더 식별된다. 전에는 사건들의 연속체로 나타났던 것이, 다음에는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연관된 순환{循環}으로 보일 것이며;이런 방식으로, 한때 일직선으로 연속되는

사건들로 인식했던 것이, 점점 순환적 동시성으로 바뀔 것이다.

130:7.6 (1439.4) 시간 제약에 따라서 공간 개념은 일곱 가지로 달라진다. 시간으로 공간을 측정하지만, 시간은 공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공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혼란에 빠지게 됐다. 공간은 우주 물체들 사이의 변화되는 관계를 보는 단순한 지적 개념이 아니다. 공간은 비어있지 않으며, 사람이 아는 한, 부분적으로라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은 공간과_관련된 물체의 개념과 관계없이 작용할 수 있다. 공간은 피조물 상태의 모든 존재에게 상대적이고 비교적 유한하다. 의식이 일곱 가지 시공우주 차원에 대한 자각에 가까워질수록, 잠재적 공간 개념은 더 궁극{窮極}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공간 잠재성은 절대 수준에서만 진정으로 궁극이다.

130:7.7 (1439.5) 사람이 상승하고 완전해지는, 시공우주의 여러 수준에서, 우주의 실체는 확장하는 의미를, 그리고 항상 상대적 의미를 가졌음이 명백하다. 궁극적으로, 생존하는 필사자들은 일곱_차원의 우주에서 정체성을 성취한다.

130:7.8 (1439.6) 물질적으로 기원된 정신의 시_공간 개념은, 의식하고 납득하는 인격체가 우주들의 수준들로 상승함에 따라서, 연속적인 확장을 겪도록 정해져 있다. 사람이 실존에 대한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들 사이에 개재하는 정신에 도달할 때, 시_공간에 대한 그의 관념들은, 감지{感知}하는 질과 체험하는 양에서 둘 다 거대하게 팽창될 것이다. 진보하는 영 인격체의 확장되는 시공우주 개념은, 의식의 넓이와 통찰력의 깊이, 이 두 가지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체가 신격과_비슷한 초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계속 나아감에 따라서, 시_공간 개념은 절대자들의 무시간 및 무공간 개념에 점점 더 접근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초월적 달성의 정도에 따라서, 궁극적 운명의 자녀들은 절대 수준의 이 개념들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

8. 나폴리와 로마로 가는 길에서

130:8.1 (1440.1)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처음 머문 곳은 말타 섬이었다. 예수는 여기서, 기가 죽고 낙심한 클라우더스라는 이름의 청년과 길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자살할 생각을 깊이 해왔지만, 다마스쿠스 서기관과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렇게 말했다:“나는

남자답게 인생을 대처하겠으며;비겁자 노릇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 민족에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곧 견유학파의 열렬한 설교자가 됐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손잡고 로마와 나폴리에서 설교했으며, 베드로가 죽은 뒤에는 스페인까지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는, 말타에서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이, 자신이 후에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한 그 예수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다.

130:8.2 (1440.2) 그들은 시라큐스에서 한 주간 내내 지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예수와 동무들이 머문 여인숙 주인이었던, 타락한 유대인 에스라의 갱생이었다. 에스라는 예수의 접근에 마음이 끌렸고,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그에게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절망 상태를 표현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수가 말했다:“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그 바램은 이미 네가 그를 찾았다는 증거다. 네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찾으셨기 때문이며;네 문제는 단지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그 선지자가, '그리고 나를 아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主}가 되고, 너희가 내 민족이 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성서에, '그가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때, 혹시 누군가 말하기를:나는 죄를 지었고 의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흑암으로부터 그 사람의 혼을 구출하고 그는 빛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씌어있는 것도 읽지 않았느냐?"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의 혼에 만족을 얻었다. 후일에 이 유대인은 어느 부자 그리스인 개종자와 연합했고, 시라큐스에 첫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웠다.

130:8.3 (1440.3) 그들은 메시나에서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과일 행상을 하는 한 어린 소년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예수는 소년에게서 과일을 산 후에 생명의 빵을 줬다. 어깨에 손을 얹고 친절하게 바라보면서 같이 걸었던 예수의 말을 소년은 결코 잊지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잘 있어라. 얘야. 자라서 어른이 될 때

훌륭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육체를 성장시킨 뒤에는 혼을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소년은 미드라고 신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130:8.4 (1440.4) 그들은 드디어 나폴리에 도착했고, 목적지인 로마가 멀지 않음을 알았다. 고노드는 나폴리에서 많은 사업 일을 처리했고, 예수는 통역하는 시간 외에는 가니드와 함께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다. 가니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일에 숙달돼갔다. 그들은 도시에 사는 많은 빈곤자를 발견했고 여러 번 구제금을 줬다. 그러나 예수가 거리의 한 걸인에게 동전 한 닢을 줬을 뿐, 그에게 잠시 멈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떠나면서 한 말의 의미를, 가니드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의 의미를 감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말을 낭비하느냐? 아버지의 영은, 아들신분을 수용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가 의미했던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 정신을 소유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영적 인도에 반응할 역량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었다.

130:8.5

(1441.1)

나폴리에서는 별다른 체험을 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젊은이는, 도시 전체를 누비며 수많은 남녀 및 아이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면서 용기를 전파했다.

130:8.6 (1441.2)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카푸아를 거쳐 로마로 갔는데, 카푸아에서 사흘 머물렀다. 그들은 짐 실은 동물을 이끌고 아피아의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갔고, 세 사람은, 제국의 주인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로마를 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제131편 세계의 종교

131:0.1 (1442.1)

예수, 고노드, 및 가니드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 필사적 사람의 관계에 관한 세계 종교들의 교훈을 수집하느라고, 가니드는 많은 시간과 아버지의 돈을 적지 않게 썼다. 가니드는 신격들에 관한 종교 교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60명 이상의 학식 있는 번역가를 고용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할 때 명백히 밝혀야 할 점은, 일신교{一神敎}를 표방하는 이 모든 교훈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보낸 선교사들의 설교에서

비롯됐다는 것인데,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곧 지고자--의 교리를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살렘 본부로부터 파견됐다.

131:0.2 (1442.2) 이것은 가니드의 문서 중에서 발췌해 제시하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준비했고, 그가 죽은 후 몇 백 년 동안 인도에 보존돼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으로 이 자료를 모았다:

1. 견유주의

131:1.1 (1442.3) 멜기세덱 제자들이 전한 교훈의 잔재는, 유대인 종교에 존속된 것을 제외하고, 견유학파{犬儒學派}의 교리에 가장 잘 보존돼 있었다. 가니드가 수집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됐다:

131:1.2 (1442.4) "하나님은 지존하시며;그는 하늘과 땅의 지고자시다. 하나님은 완성된 영원성 궤도이며, 온갖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는 하늘들과 땅의 유일한 조물주{造物主}시다. 그가 어떤 것을 명하시면, 그것이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며, 인정 많고 자비로우시다. 높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 지고자는 하늘과 땅의
빛이시며;동서남북에 두루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131:1.3 (1442.5) “땅이 없어지더라도, 지존자의 빛나는 얼굴은
위엄과 영광 속에 거하신다. 지고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시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 계시고, 그의 이름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그에게는 분노와 적의가 없으며;그는
불멸하고 무한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관대하시다. 그는 여러 가지로 현시{顯示}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경배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곧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맹세를-- 아시며, 또한 우리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의 능력은 만물에게
공평하다.

131:1.4 (1442.6) “하나님은 평화를 수여하는 분이며, 그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보호자시다.
그는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창조물은 지고자의 능력 안에 존재한다. 그의 신성한
사랑은 그의 거룩한 권능에서 솟아나며, 애정은 그의
위대한 능력에서 발생한다. 지고자는 육체와 혼이

합동하도록 명했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여하셨다. 사람이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지만, 창조주가 하시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는 사람의 체험에서 지식을 얻는 반면, 지고자를 묵상함으로 지혜를 얻는다.

131:1.5 (1443.1)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고, 싹트는 곡물에 태양을 비추며, 이 생애와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권위를 누리시며;그의 이름은 탁월이고, 그의 본성은 헤아릴 수 없다. 너희가 아플 때 치유하시는 이는 지고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선을 가득 품으시며;우리에게 지고자 같은 친구는 없다. 그의 자비는 모든 곳을 채우고, 그의 선하심은 모든 혼을 감싸신다. 지고자는 변치 않으며;필요할 때 우리를 항상 돕는 분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지고자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며;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신다. 창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고, 창조주는 창조물

안에 계신다. 우리가 지고자를 찾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소중한 친구를 찾으려 하다가, 네 혼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131:1.6 (1443.2)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며;저희는 형제다. 육신 속에 있는 형제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그 대가{代價}로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31:1.7 (1443.3) "너희 삶 속에서, 생생한 진리를 사랑함으로써 실책을 멀리하고 악을 극복하라.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주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시며;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형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악을,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131:1.8 (1443.4)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그의 이름을 믿는 대로, 네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지고자를 경배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온 세상과 우주들이 지고자를 경배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드려라-- 경배의 경지로 상승하라. 기도로 드리는 경배는 악을 피하고 죄를 막는다. 지고자의 이름을 항상 칭송하자. 지고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우주에게 숨길 수 있다.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는 어떤 창조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지고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시며, 이 세상에 있는 자녀인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 손을 잡고 그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그의 이름을 섬기라고 사람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

131:1.9 (1443.5) 지고자에 대한 신앙이 네 마음에 들어오면, 너는 인생의 모든 나날을 두려움 없이 살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번영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악을 꾸미는 자들을 두려워 말며;혼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방황하는 필사자의 지친 혼은 지고자

품안에서 영원한 쉼을 발견하며;현명한 사람은 신성한 포용을 그리워하고;세상 자녀는 만유의 아버지 팔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고대한다. 고상한 사람은, 필사자의 혼이 지존자의 영과 조화되는 높은 상태를 추구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고 얻지 못한 결실을 다음 세상에서 받게 하신다.”

2. 유대교

131:2.1 (1444.1) 팔레스틴의 겐족속은 멜기세덱의 가르침 대부분을 건져냈으며, 이 기록에서 예수와 가니드는 유대인이 보존하고 변경한 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31:2.2 (1444.2)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거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만물은 매우 좋았다. 주{主}가 하나님이시며;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위에,그분 없이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땅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준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고;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보여준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썸이나 언어가 없다. 주의 일은 위대하고, 그는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으며; 주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그는 별들의 숫자를 아시며;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신다.

131:2.3 (1444.3) "주의 능력은 위대하고 그의 이해는 무한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방법이 너희 방법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빛이 그 안에 거하므로, 깊고 비밀스런 것을 드러내신다. 주는 자비롭고 은총이 많으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실이 풍성하시다. 주는 선하고 정의로우시며; 온유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속에 함께 거하시는 도움이시다.

131:2.4 (1444.4) "주의 자비는 그를 경외하는 자 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임하며, 그의 의는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 주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풍성하시다. 주는 모두에게 선하고, 그의 부드러운 자비는 그의 모든 창조물을 덮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신성한 현존으로부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영원히 거하는 높고 존귀하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또한 회개한 마음과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못하니, 그가 하늘과 땅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하늘들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라. 모든 나라가 외치게 하라: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131:2.5 (1444.5) "하늘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을 봤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민족이고 그의 초장{草場}에 있는 양이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고 그의 진실은 모든 세대마다 계속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통치자시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가득 채워라!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의 놀라운 선물로 인해 주를 찬양하게 하라!

131:2.6 (1444.6) "하나님은 사람을 신성한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우셨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가 아시지만, 사악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지존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잊지 말라.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얻는 자보다 강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신다:‘네가 영적 휴식을 향해 돌아설 때 구원받을 것이며;잠잠하고 신뢰할 때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며;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다. 뛰어도 피곤치 않으며;걸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두려움으로부터 쉼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낙담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너를 도와주리니;정녕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131:2,7 (1445.1)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주는 우리 구세주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무리를 지으시고, 그들 모두를 보존하신다. 그의 의는 산 같고, 그의 판단은 깊은 바다 같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의 빛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주께

감사함과 지고자를 찬송함;아침에 사랑스런_친절을,
그리고 저녁마다 신성한 신실{信實}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주는 내 목자시며;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의 선하심과 자비가, 내가 죽는
날까지 정녕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것이다.

131:2.8 (1445.2) “야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나는 그
신성한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의뢰하며;나 자신의 명철{明哲}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것이며,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는 신실하시며;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며;의인은 자신의 신앙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편치 않다면 문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악을 밟 갈고 죄를 뿌린 자들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네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네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며;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네 자신의 혼에게도 해를 끼친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실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131:2,9 (1445:3) "주께서는 성실과 진리 안에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울음이 밤 동안 계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으니,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누구든지 죄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며;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둘 것이다.

131:2.10 (1445.4) “주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며;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은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의 죄다. 하나님은 내 안색{顔色}의 치유자시고, 내 혼의 기쁨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힘이시며; 우리 처소가 되시고, 그 아래에는 영원하신 팔이 있다. 주는 상한심령에게 가까우시며;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진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 네 길을 주께 맡기면--곧 그를 신뢰하면-- 그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것이다.

131:2.11 (1445.5)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며;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하지 마라. 주께서, ‘나는 내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의인의 길은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빛나는 밝은 빛 같을 것이다. 지혜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반역하는 생각들을 버려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널리 용서할 것이다.'

131:2.12 (1446.1)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소유한다.
내 계명은 이렇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31:2.13 (1446.1) "주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무덤에서 살려낼 것이며; 너를
죽음에서 구속할 것이다. 나는 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또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내
피조물에게,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처럼 되어 낙원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3. 불교

131:3.1 (1446.3) 가니드는, 불교가 하나님 없이도, 개인적이거나
보편적인 신격{神格} 없이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교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지
그는, 인도에서 부다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동한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교훈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초기 신조{信條}의 기록을 찾아냈다.
예수와 가니드는 불교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했다:

131:3.2 (1446.4) “순수한 마음에서 기쁨이 나와서 무한자에 이를
것이며;내 존재 전체는 죽음을 초월한 기쁨으로 평화로울
것이다. 내 혼은 만족으로 가득하고, 내 가슴은 평화스런
신뢰의 희열로 넘친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으며;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안전함에 거하고, 내 적들은
나를 놀라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확신의 열매로 만족한다.
나는 불멸자{不滅者}에게 쉽게 접근하는 길을 발견했다.
나는 오랜 여정에서 나를 붙들어 줄 신앙을 위해서

간구하며;저편에서 온 신앙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는 내 형제들이 불멸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번창하게 되리라는 것과, 심지어 겸양과 정직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과 인내심을 주는 신앙으로 자라갈 것임을 안다. 슬픔을 내버리고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자. 신앙으로 진정한 의와 순수한 인간다움을 간직하자. 공의와 자비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자. 신앙은 사람의 진정한 재산이며;덕행과 영광의 기증품이다.

131:3.3 (1446.5) "불의는 비천하며;죄는 비열하다. 악은, 생각 속에 있든지 행동으로 옮겨졌든지, 품위를 떨어뜨린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듯이, 악한 길에는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 물질로 이뤄진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순수한 생각과 덕 있는 생활에는 행복과 평화가 뒤따른다. 악{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생각의 열매다. 죄 없는 데서 죄를 보거나;죄 있는 데서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악은 거짓된 교리의 통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악을 피하는 자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을 얻는다. 죄를 혐오함으로 너희의 불행을 끝내라. 너희가 고귀하신 이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라. 악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며;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과거의 죄를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서, 너희는 다가올 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한다. 절제는 참회에서 나온다. 고귀하신 이에게, 잘못을 남기지 말고 고백하라.

131:3.4 (1447.1) “유쾌함과 기쁨은 바르게 행한 행위들의 보상이며 불멸자의 영광에 이른다. 아무도 너희 정신의 자유를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네 종교를 믿는 신앙이 네 마음을 해방시키게 되면, 정신이 산처럼 안정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혼의 평화가 강물처럼 고요히 흐를 것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탐심, 시기심, 증오심, 그리고 재산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다. 신앙이 더 나은 삶의 에너지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인내심을 갖고 너 자신의 구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너의 최종 구원을 확신코자 한다면, 네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속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확신을 키우고, 그리하여 영원한 구원의 황홀함을 즐겨라.

131:3.5 (1447.2) “어떤 종교인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허약하고 빈둥거리고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한,

불멸하는 지혜를 깨닫는 데 도달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사려 깊고 신중하고 반성하며 열렬하고 진지한
사람은, --그가 아직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라도-- 신성한
지혜에서 나오는 평화와 자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달성할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행동은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악은 슬픔을 가져오고, 죄는 고통으로 끝난다.
기쁨과 행복은 선한 생활의 결과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자신의 악행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즐거운 시절을 지낼 수
있지만, 악행에 대한 충분한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누구든지 마음 속에: '잘못된 행동의 벌이 내게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지혜의 심판이 있을 때, 네가 행한 것을 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동료들에게 행한 불의는 네게 돌아올 것이다.
피조물은 자기 행위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131:3.6 (1447.3) "어리석은 자는 마음 속으로 '악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지만; 안전함은 오직 혼이 책망을
갈망하고 정신이 지혜를 구할 때에만 발견된다. 지혜자란,
원수들 가운데서 친절하고, 난리 중에도 평온하며,
차지하려는 가운데서 관대한, 고귀한 혼을 말한다. 자기를
사랑함은 아름다운 들판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 이기심은

슬픔으로 인도하며;끊임없는 걱정은 죽음을 부른다.
유순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자신을 극복하고
복종시킨 자는 가장 위대한 전사{戰士}다. 매사에
자제함이 좋다. 덕을 쌓고 자기 의무에 충실한 자만이
위대하다. 분노나 미움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말라. 만족이 최고
재산이다. 지혜롭게 주어진 것은 잘 간직된다. 자신에게
내키지 않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악에게 선으로
깎고;선으로 악을 이겨라.

131:3,7 (1447.4) "온 땅을 다스리는 것보다 의로운 혼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불멸성은 성실함의 목표이며;죽음은
지각없는 삶의 종말이다. 진지한 자는 죽지
않으며;지각없는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죽음 없는
상태에 대해 관심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체를 괴롭히는
자는 죽음 후에도 행복을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며, 그들은 거기서
무한한 자유의 복락을 누리고, 고귀한 관용{寬容} 속에서
계속 성장한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말하고, 사심
없이 행동하는 모든 필사자는, 짧은 이 생애 동안에 여기서

덕을 즐길 뿐만 아니라, 몸이 죽은 뒤에도 하늘의 복락을 계속 누릴 것이다.”

4. 힌두교

131:4.1 (1447.5) 멜기세덱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전파했다. 이 일신교{一神敎} 교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전에 있던 다른 개념들과 함께, 힌두교의 후대 교훈에 포함되게 됐다. 예수와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발췌했다:

131:4.2 (1448.1) “그는 모든 방면에서 지존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는 만물을 포용{包容}하는 주시다. 그는 온갖 우주의 창조자이고 통제관이다.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며;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며;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이 한분 하나님이 우리 조물주시고 혼의 최종 운명이다. 지존하신 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시며;빛 중의 빛이다. 이 신성한 빛이 모든 마음과 모든 세계를 비춘다.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시며--곤 피조물의 곁에 계시며, 그를 알게 되는 자들은 불멸하게 된다. 하나님은 에너지의 큰 근원이며;위대한 혼이다. 그는 우주의 지배권을 만유 위에 펼치신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며 경배 받을 만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권능을 가졌고, 가장 높은 거주지에
거하신다. 진정한 이 인격자는 영원하고 신성하며;하늘의
원초 주시다. 모든 선지자가 그를 환호했고,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오, 지존하신
인격자, 존재들의 근원, 창조물의 주, 우주의 통치자여,
당신이 내재하여 거하시는 그 능력을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고;밝고 순수하며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의 영원한
지식은 신성하게 현명하다. 영원자에게는 악이 스며들지
못한다. 우주가 하나님에게서 생겨났으므로, 그가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신다. 그는 창조의 원인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형성됐다.

131:4.3 (1448.2) "하나님은, 필요할 때 모든 선한 사람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며;불멸하는 분이 모든 인류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하고, 그의 친절은 관대하다. 그는
사랑하는 보호자, 행복한 옹호자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나는 그들 자신의 혼 속에 지혜의 등불로서
머문다. 나는 빛나는 광채이고 선한 자들의 선함이다.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현존을

피할 수 없다. 주는 모든 필사자의 눈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도 세시며;우리는 이 신성한 존재를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동무로서 경배한다. 그는 모든 것에 세력을 미치고, 관대하고, 편재하고, 무한히 친절하다. 주는 우리 통치자, 피난처, 지존하신 통제관이며, 그의 태고{太古}의 영이 필사자 혼 안에 거하신다. 선행과 악행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한다. 경배할만하고 신성한 생명증여자를 깊이 명상하며;그의 영이 우리 생각을 충분히 다스리게 하라. 이 비현실의 세계로부터 실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죽음에서 불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131:4.4 (1448.3) "우리 마음으로 모든 미움을 지우고, 영원자를 경배하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주시며;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신다. 단호한 자인 그에게 모든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라. 기도의 주의 너그러우심을 기뻐하자. 너희 마음 속 깊은 곳의 친구에게 기도하고, 너희 혼의 지지자를 경배하라. 영원자가 말씀하셨다:'너희가 사랑으로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게 도달하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데, 나를 경배함이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된 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분이고 연약한 자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친구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가 사람의 신실하고 영원한 돕는 자이므로, 우리는 그를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지도자이고 실수 없는 안내자시다. 그는 하늘과 땅의 위대한 부모고, 무한한 에너지와 무제한 지혜를 소유하셨다. 그의 광채는 장엄하며, 그의 아름다움은 신성하다. 그는 우주의 최고 위로자이고 영원한 법을 변함없이 수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시고 모든 사람의 안위자시며;인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돕는 자이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인간 무리의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형제, 그리고 친구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내면 존재 속에서 알기를 갈망한다.

131:4.5 (1448.4)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얻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의 억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지존자 안에서 평화를 체험했다. 신앙으로 충만한 자는, 그의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진정으로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외투 삼으시고;또한 여섯 개의 넓게 펼쳐진 다른

우주에 거하신다. 그는 만유 위에, 그리고 만유 속에
지존하시다.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 대한 모든 과오로 인해
주께 용서를 구하며;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모든 악을
싫어하니;오 주여, 죄의 모든 흔적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는, 위로자, 보호자,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께 --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기도한다.

131:4.6 (1449.1) "우주 보호자의 영이 단순한 피조물의 혼 속으로
들어간다.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현명하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참으로 주 지존자를 알아야
한다. 지존자의 더없이 행복한 안전함을 아는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존자가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섭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피조물이 그를 이해하는 것이--곧 진리를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다. 진리는
영원하며;우주를 지탱한다. 우리의 최고 열망은 지존자와
합일될 것이다. 위대한 조정자가 모든 것을 발생시킨다--
모두 그로부터 진화한다. 그리고 전체 의무는
이렇다:아무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이에게 시키지

말며;원한을 품지 말고, 너희를 때린 자를 때리지 말며,
자비로 분노를 정복하고, 은혜로 증오를 극복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친절한 친구시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위법을 용서하는 은혜로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131:4.7 (1449.2)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땅은 우리
어머니이며, 우주는 우리의 출생지다. 하나님 없는 혼은
죄인이며;하나님을 앎으로써 혼이 풀려난다. 하나님을
명상함으로, 그와 합동함으로, 악의 환상들로부터의 구출
그리고 모든 물질 족쇄로부터 궁극에 해방된다. 사람이
공간을 한 조각 가죽처럼 말게 되면 악의 종말이 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세 가지 화근{禍根}에서--곧 탐심, 분노,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소서. 오, 혼이여, 영의 불멸을 위한
투쟁에 대비하라! 필사자 생애의 종말이 다가올 때, 더
알맞고 아름다운 형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불멸하며
지존하신 이의 영역, 즉 공포, 슬픔, 배고픔, 목마름, 및
죽음이 없는 그 속에서 깨나기 위해 주저 말고 이 육신을
버려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죽음의 끈을 끊는 것이다.
하나님을_아는 혼은, 우유 표면에 크림이 떠오르듯,

우주에서 떠오른다. 우리는 피조물의 마음에 항상 좌정하는, 막강한_작업가이며 위대한 혼이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좌정하심을 아는 그들은 그분처럼 될 운명이다--불멸한다. 악은 반드시 이 세상에 남지만, 덕은 혼을 따라서 하늘로 간다.

131:4.8 (1449.3) “오직 사악한 자만이 이렇게 말한다:‘우주에는 진리가 없고 어떤 통치자도 없으며;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고안됐을 뿐이다.’ 그런 혼들은 그의 지능이 편협 됨으로 인해 미혹됐다. 그들은 탐욕을 즐기기에 그렇게 자신을 던지고, 자신의 혼으로부터 덕의 기쁨과 정의의 즐거움을 뺏는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체험보다 더 큰 체험이 있을 수 있느냐? 지존자를 만난 사람은 불멸한다. 육체에 속한 사람의 친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며;사람이 낙원의 화창하고 빛나는 들판을 향해서 앞으로 여행할 때, 선행만이 그 사람 곁을 따라간다.”

5. 조로아스터교

131:5.1 (1449.4) 조로아스터 자신은 초기 멜기세덱 선교사들의 후손과 직접 접촉했고, 한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리는 그가 페르시아에 세운 종교의 중심 교훈이 됐다. 유대교를

제외하고,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보다 이 살렘 교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교는 없었다. 이 종교 문헌들로부터 가니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췌했다:

131:5.2 (1450.1) “모든 것이 --온전히_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께 속해 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은 모든 광영의 근원이다. 그는 창조주시고, 모든 선한 목적의 하나님이며, 우주의 정의를 수호하는 분이다. 현명한 삶을 사는 길은, 진리의 영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사악한 자의 악행과 의로운 자의 선행을 둘 다 지켜보고 계시며;우리 하나님은 번쩍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 그의 손길은 치유의 손길이다. 주는 전능한 후원자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둘 다에게 펼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셨고 선과 악에 대한 보응을 정하셨다. 온전히_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경건한 혼에게 불멸을 약속하신다. 너희가 최고로 바라는 대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해처럼 빛난다.

131:5.3 (1449.6) "지혜로운 이의 기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칭송하라. 그가 종교를 통해서 계시한 길을 기쁘게 걸어감으로, 빛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빛들의 주, 지존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물, 식물, 동물, 땅, 그리고 하늘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주시다.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관대한 불멸의 존재, 영원한 빛을 타고난 이를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가장 멀리 계시며, 동시에 가장 가깝게 우리 혼 안에 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신 낙원의 영이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친근한 자보다 더 친근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가장 중대한, 그를 알아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칭송 받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친구이며; 우리의 지혜, 생명, 그리고 혼과 육체의 활력이다. 지혜로우신 창조주는, 우리의 선한 생각을 통해서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신성하게 완벽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131:5.4 (1449.7) "주여, 영의 다음 생애를 준비하면서 육체 속에서의 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소서,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가겠나이다. 우리가 당신과 합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는 의로움과 함께 합동하도록 인도하는 종교가 옳다는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의 본성이고 최고의 생각이며 의로운 행동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신성한 영과 불멸성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131:5.5 (1449.8) "지혜로운 이의 이 종교는, 모든 악한 생각과 죄 많은 행위로부터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죄를 범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자비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위해 찬양한다. 내가 고백할 때,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나는 그 죄가 내 혼에서 물러갈 것임을 안다. 나는 용서가 죄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을 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 받을 것이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혼들에게 구원의 힘을 행사하소서. 우리는 완전해지기를 원하기에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6. 수두안교(샤이나교)

131:6.1 (1450.5) 인도에서 한분 하나님 사상을--곧 멜기세덱의 가르침의 잔재를-- 보존해 온 신자들 중에서 셋째 집단이, 당시에는 수두안 교도로 알려져 있었다. 후에 이 신자들은 자이나교 추종자로 알려지게 됐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131:6.2 (1450.6) "하늘의 주가 가장 높으시다. 죄를 범하는 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늘에서 처소를 찾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내세{來世}의 삶을 확신한다. 사람의 혼은 가장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거기서 진정한 영적 본성을 발전시키고 완전함을 성취할 것이다. 하늘의 유산이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구출하고 최종 행복으로 인도하며;의인{義人}은 이미 죄와 그것에 관련된 모든 불행의 종말을 체험했다. 자아는 사람이 이겨내기 어려운 적이며, 자아는 사람의 네 가지 가장 큰 열정:즉 분노, 자존심, 거짓, 탐욕으로 드러난다. 사람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가 대담하게 그런 자유를 즐길 때, 그는 그것을 통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동료 피조물을 대우하면서 삶의 여정을 지내야 한다."

7. 신도

131:7.1 (1451.1) 이 극동 지방 종교 사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당시에 최근의 일이었다. 신도{神道}는 가니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세계 종교였다. 다음의 요약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이 신앙 역시 초기 멜기세덱 교훈의 자취를 간직했다:

131:7.2 (1451.2)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너희는 모두 내 신성한 능력을 받은 자이며;모든 사람이 내 자비로운 보살핌을 누린다. 나는 온 땅에 의인이 늘어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하늘의 왕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미덕, 둘 다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의로운 자기 본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옛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지 못했기에, 나는 세상에 태어나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됨으로써 나 자신을 나타냈고, 사람이 내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굴욕마저 참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조물주이며;해와 달과 모든 별이 내 뜻에 복종한다. 나는 땅과 사해{四海}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다. 비록 내가 위대하고 지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의 기도를 중히 여긴다. 어떤 피조물이든 나를 경배하면, 나는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줄 것이다.

131:7.3 (1451.3) "'사람이 염려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영의 인도하심에서 한 걸음씩 멀어진다.' 자존심은 하나님을 흐리게 한다. 너희가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한 가닥 자만심마다 구원의 빛을 차단하는데, 마치 거대한 구름으로 가림과 같다. 너희가 내면에서 바르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거짓과 위선을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혼으로 내 앞에 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멸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8. 도교

131:8.1 (1451.4) 멜기세덱의 사자{使者}들이 중국까지 깊이 들어갔고, 한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중국에 있는 몇몇 종교의 초기 교훈의 일부가 됐으며;일신교 진리 대부분을 포함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은 도교였고, 가니드는 그 창시자의 교훈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수집했다:

131:8.2 (1451.5) "지존하신 분은 얼마나 순수하고 고요하며, 얼마나 힘세고 강하며, 얼마나 깊고 헤아릴 수 없는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은 만물의 영예로운 조상이다.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너는 깨우쳤고 현명하다. 네가 영원자를 모르면, 무지 자체가 악으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죄에 속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이 놀라운 존재는 하늘들과 땅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는 진실로 영적이며; 홀로 계시고 변치 않는다. 그는 참으로 세상의 어머니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주위에서 움직인다. 이 위대한 이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여 그들을 뛰어나게 하고 생존하게 한다. 아는 것이 적더라도, 그는 여전히 지존자의 길 위에서 걸을 수 있으며;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131:8.3 (1452.1) “참되게 섬기는 선행은 모두 지존자로부터 나온다. 만물은 생명을 위해서 위대한 근원에게 의존한다. 위대한 지존자는 자신이 증여한 것에 대한 명예를 원치 않으신다. 그의 권능은 최상이고, 우리 눈앞에서 여전히 숨어 계신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완성하면서 자신의 속성들을 계속 변화시키신다. 하늘의 이성인 자신의 계획에서 느리고 인내하지만, 그의 성취는 확실하다. 지존자는 우주를 뒤덮고 모든 것을 지탱한다. 그의 넘치는 영향력과 이끄는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참된 선은 물 같아서 모든 것에 복을 내리고 아무 것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참된 선은 물처럼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데, 지존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지존자는, 만물을 창조하고, 본성으로는 그들을 키우며 영으로는 그들을 완전하게 하신다. 지존자가 피조물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를 기르고 보호하고 완전하게 하심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른다. 그는 인도하고 지도하지만, 자기_주장은 없으시다. 그는 진보를 주관하나 지배하지는 않으신다.

131:8.4 (1452.2)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설픔게 아는 것은 위험하다. 위대해지기를 열망하는 자는 스스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창조 시에, 지존자가 세상의 어머니가 되셨다. 사람이 어머니를 아는 것은, 자신의 아들신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지혜자다. 너는 마치 그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라. 친절로 모욕에 보답하라. 네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너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네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31:8.5 (1452.3) "위대한 지존자는 어디든지_충만하며;왼편에도 계시고 오른편에도 계시며;모든 창조를 도우시고 모든 참된 존재 속에 거하신다. 너희는 지존자를 찾을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계시지 않는 곳에 갈 수도 없다. 사람이 자기 길의 악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면, 그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죄 값을 면할 수 있으며;화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 지존자는 모든 창조물의 안전한 피난처이며;인류의 수호자이고 구원자시다. 너희가 날마다 그를 구하면, 너희는 그를 찾게 될 것이다. 그는 죄를 용서할 수 있으므로, 만인에게 정말로 가장 귀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그러므로 너희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동료를 더욱 도와야 한다.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131:8.6 (1452.4) "영원자의 법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신성한 법에 대한 무지는 불행과 재난이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는 마음이 관대하다. 네가 영원자를 안다면, 네 육체가 죽더라도 혼은 살아남아서 영으로 봉사하리라. 네가 자신의 미천함을 인식할 때 진정으로 현명해진다. 네가 영원자의 빛 속에 거한다면, 지존자에 대한 깨달음을 누릴

것이다. 지존자를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영원자를 추구한다. 사람이 죽으면, 고향으로 귀환하는 긴 여행길에서 그 영이 날아가기 시작한다.”

9. 유교

131:9.1 (1452.5)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적게 인정하는 종교조차, 멜기세덱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계승자의 유일신 사상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교에 대한 가니드의 요약은 다음과 같았다:

131:9.2 (1452.6) “하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다. 진리는 실제적이고 신성하다. 만물이 하늘에서 나왔고, 위대한 하늘은 실수가 없다. 하늘은, 열등한 피조물에 대한 교육과 향상시킴을 도와주도록, 많은 신하를 임명했다. 위대하신, 아주 위대하신 이는, 높은 곳에서 사람을 통치하는 한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권능에서 장엄하고 심판에서 엄중하시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은, 많은 열등한 민족에게까지 도덕적 감각을 주신다. 하늘의 관대함은 멈추지 않는다. 자비심은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최고로 정선된 선물이다. 하늘은 사람의 혼에 그것의 고상함을

수여하며;사람의 덕은 하늘의 고상함이라는 이 기증품의 열매다. 위대한 하늘은 만물을 통찰하고 만사에 사람과 함께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하늘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를 때, 우리는 성공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신성한 선조들의 종이 된다면, 확신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늘의 위엄을 경외하자. 오, 하나님, 지고자여, 다스리는 군주시여, 우리는 심판이 당신에게 달려있음과, 모든 자비가 신성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31:9.3 (1453.1)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내게서 어떤 덕이든지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거하는 하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늘은, 종종 내 신앙에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마음 속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사물에 대한 진리에 아주 가까이 있어야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선한 신앙 없이 살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선과 악은 원인 없이 사람에게 발생되지 않는다. 하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혼과 관계를 이룬다. 네가 잘못됐음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너의 실책을 고백하고 빨리 고쳐라.

131:9.4 (1453.2) “현명한 사람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단순한 생계를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는다. 하늘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이 사람의 목표다. 뛰어난 사람은 자제하고, 염려와 공포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너희 마음 속에 의심을 품지 마라. 모든 선한 행위는 보상 받는다. 뛰어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악의를 갖지 않는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모든 벌 받는 자에게 자비심을 갖고, 모든 면에서 징벌을 복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라. 그것이 위대한 하늘의 방식이다. 모든 피조물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반면, 고귀한 자의 영은 높은 데서 나타나기까지, 그리고 가장 밝은 영광스런 빛에 오르기까지 나아간다.”

10. “우리 종교”

131:10.1 (1453.3) 낙원 아버지에 관한 세계 종교의 교훈을 모은 이 자료집을 완성하는 힘든 수고를 마친 후에, 가니드는 예수의 가르침의 결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그 믿음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구성하는 과제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젊은이는 그런 믿음을 습관적으로 “우리 종교”라고 부르곤 했다.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131:10.2 (1453.4) "우리 주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너희는 정신과 심성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동시에,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 한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서 이뤄졌으며, 진지한 인간의 모든 혼 속에 그의 영으로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실한 창조주이신 그에게 우리 혼을 의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만물과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매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를 동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131:10.3 (1453.5)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한 풍성함은, 무한히 깊고 영원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몸소 체험함으로 마음 속에서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공의는 발견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어도, 그의 자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우주를 채우는 동시에, 우리 마음 속에도 거하신다. 사람의 정신은 인간적, 필사적이지만,

사람의 영은 신성하고 불멸한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_지혜로우시다. 우리 세상 부모가, 악한 경향이 있음에도,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복을 내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반드시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다.

131:10.4 (1454.1)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버지를 찾기 원하고 진실로 그분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한 자녀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악인조차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도 언제나 친절하시다. 더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악한 기질을 후회하고 모든 알려진 죄를 떠날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며, 그분 속에는 변함이 없고 바뀌는 그림자도 없다. 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했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그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131:10.5 (1454.2)

“나는 하나님이 모든 내 민족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지금부터는 그가 또한 나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이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내 도우미이신 진리의 영의 도움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항상 힘쓸 것이다. 그러나 우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 배워서, 하나님 경배를 실천할 것이며;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최선을 다하여 동료 필사자를 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을 구할 것이며, 그는 동료를 돕기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싶다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치는 애정 어린 이 모든 봉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의 보살핌의 고상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랄 것이다.

131:10.6 (1454.3)

“나는 하나님께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매일 감사할 것이며;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놀라운 일로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는 내게, 전능자, 창조주, 권능, 및 자비이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내 영 아버지시며, 이 세상 자녀로서 나도 언젠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 선생님은, 내가 그분을 갈구함으로써 그를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는 그분과 평화롭게 지낸다. 우리의 이 새 종교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영구적인 행복을 준다. 나는 죽을
때까지 충실할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

131:10.7 (1454.4) "나는 선한 모든 것을 입증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기를 배우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동료들에게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이 신앙으로 인해,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내 형제임을 멈춰서 생각하면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실임에 틀림없다. 사람의
형제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뻐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내 형제임에 틀림없다.

131:10.8 (1454.5) "이제부터 나는 은밀히 선을 행할 것이며;또한
홀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동료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도록,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하나님처럼 되는 이 훈련을 정말로 통달하지는 못했다. 비록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하나님을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종교'에서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인간적이고 적극적이심을 발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런 존재가 바로 내 영적 아버지시며;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리고 오직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나의 진실된 바램으로만, 나는 결국 그를 발견할 것이며,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드디어 나는 한 하나님, 경탄할만한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를 갖게 됐고, 그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제132편 로마에 머무는 동안

132:0.1 (1455.1) 인도의 왕자들이 로마 통치자 티베리우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고노드가 갖고 왔으므로, 이 두 인도인과 예수는 로마에 도착한지 3일 후에 티베리우스를 만났다. 성미가 괴팍한 이 황제는 그날따라 평소와 달리 매우 기분 좋았고, 세 사람과 오래 이야기했다. 그들이 앞에서 물러가자, 이 황제는 오른 쪽에 서 있던 측근에게 예수에

대해, “내가 저 사람의 왕다운 자태와 우아한 태도를 가졌다면, 나도 진짜 황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32:0.2 (1455.2) 로마에 있는 동안, 가니드는 공부하는 것과 도시의 관심거리가 되는 곳들을 방문하는 것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아버지는 많은 사업상 거래가 있었고, 아들이 자라서 거대한 무역 이익을 관리하는 훌륭한 후계자가 되기 원했으므로, 소년에게 상업 세계를 보여 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로마에는 많은 인도 시민이 있었고, 고노드가 직접 채용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를 위해 자주 통역을 맡아 줬으므로, 그럴 때마다 예수는 하루 종일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예수는 이런 여가 시간으로 200만 인구의 이 도시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었다. 그는, 정치, 사법, 및 상업 활동의 중심지인 광장을 자주 방문했다. 그는 कै피토리움에 종종 올라갔고 거기서, 쥬피터, 쥬노, 및 미네르바에게 바쳐진 이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이 로마인이 붙들려 있는 무지한 속박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그는 팔라틴 언덕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황제의 저택, 아폴로 신전, 그리고 그리스와 라틴 도서관들이 거기에 있었다.

132:0.3 (1455.3) 이때 로마 제국은, 남부 유럽 전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북서 아프리카를 포함했으며;거기에 사는 주민 중에는 동반구{東半球}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시민도 포함됐다. 이런 세계적 집결지에서 유란시아 필사자들을 알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가 이 여행에 동참하기로 승낙한 주된 이유였다.

132:0.4 (1455.4) 예수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사람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이 도시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에 가졌던 다양한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제국의 수도{首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것과 그들에게 영향 끼친 것이었다. 로마에서 첫 주간{週間}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는, 건유학파, 스토아학파, 신비 종파들, 그리고 특히 미드라 숭배 집단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찾아냈고, 그들과 친숙해졌다. 예수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유대인이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그의 사자{使者}들이 하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곧 로마로 오게 될 것을 아주 확실히 예견했으며;그래서 그는 가장 경탄할 만한 방법으로 그들의 복음이 좀 더 수월하고 확실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토아학파에서 뛰어난 5명, 건유학파에서 11명, 그리고 신비_종파의 지도자 중에서 열여섯 명을 선택했고, 이 종교 교사들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여가 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교육 방법은 이랬다:그들의 실책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의 교훈이 내포하는 결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각 경우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를 분리해 낸 후에, 이 진리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조정되고 밝게 빛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진리가 강화되어, 관련된 오류를 효과적으로 밀어내게 만들었으며;그리하여 예수가_가르쳤던 이 남녀들은, 나중에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교훈에서, 좀 더 첨부되고 비슷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복음 전파자들의 교훈이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퍼지고, 거기서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강력한 촉진제가 제공됐다.

132:0.5 (1456.1) 우리가 기록하려는, 예수가 로마에서 가르쳤던 32명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오직 두 명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과;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설립될 때 30명이 중심인물이 됐고, 또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미드라고 신전을 그 도시의 첫 번째 그리스도교 교회로 바꾸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주목할 만한 이 업적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뒤에서 인간 활동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로서는, 그리고 19세기 시간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교가 빨리 퍼지도록 하는 무대를 일찍부터 설치함에서, 탁월한 가치를 갖는 정확하게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다음과 같다:

132:0.6 (1456.2) 1. 시몬 베드로를 사도{使徒}로 선택하고 유지시킨 것.

132:0.7 (1456.3) 2.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대화한 것, 그의 죽음은 다소의 사울을 얻도록 이끌었다.

132:0.8 (1456.4) 3. 로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종교 지도자가 되도록, 30명의 이 로마인을 미리 준비시킨 것.

132:0.9 (1456.5) 스데반도, 그리고 선택받은 30명의 로마인도, 그들의 모든 체험 전반에 걸쳐서, 자기들이 한때 이야기 나눴던 그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종교 교육의 주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원래의 이 32명을 위한
예수의 활동은 완전히 사적{私的}인 만남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수고하는 동안,
다마스커스 서기관이 동시에 세 사람보다 많이 만나는
일은 결코 없었고, 두 사람보다 많이 만나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대부분 그들을 한 사람씩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이 위대한 종교 훈련 작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녀들이 전통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그들은,
미래의 모든 종교 발전과는 달리, 고정된 선입견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132:0.10 (1456.6) 몇 년 후에 많은 사람이 매우 신속하게
뒤따랐으므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로마에 온 다른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그들보다 먼저 왔던, 그리고 그들이
새 복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상상했던 대로) 길을 준비해 놨던, 이
다마스커스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 서기관의 정체를 한 번도 실제로 추측한 적이
없었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에 대해 여러 개인이
설명한 것들의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안디옥의 천막 짓는
이"가 바로 "다마스커스 서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 번은, 로마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다마스쿠스 서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쩌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였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자기 스승이 로마에 온 적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다.

1. 참된 가치관

132:1.1 (1456.7) 로마 체류기간 중에서 초기에, 예수가 밤새도록 이야기 나눈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지도자 안가몬이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친구가 됐고,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를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예수가 안가몬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현대 언어로 다시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32:1.2 (1457.1) 참된 가치관의 기준은, 영적 세계에서, 그리고 신성한 수준의 영원한 실체에서 찾아야만 한다. 상승하는 필사자에게, 저급하고 물질적인 모든 표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돼야만 한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물질적 사실들의 연관성을 알아내기에 국한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자신이 유물론자 또는 이상주의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과학자의 태도를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며, 그렇게 주장하는 태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바로
철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132:1.3 (1457.2) 인류의 도덕적 통찰력과 영적 달성이 균형 잡힌
비례로 증가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물질적인 문화가
무제한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국 문명을 위협할 수 있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은, 모든 과학적 노력을 파괴하는
잠재된 씨앗을 그 속에 품고 있는데, 바로 이런 태도가,
도덕 가치에 대한 감각을 포기하고 영적{靈的} 목적
달성을 거부한 문명이 궁극에 붕괴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때문이다.

132:1.4 (1457.3) 물질적인 과학자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는
언제나 다투게 돼 있다. 높은 도덕적 가치관과 영적 시험
수준에 대한 공통 기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과학자와
이상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각 시대마다, 과학자와
종교가는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장벽 앞에서 시험받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의 진보를 이루는
봉사에 더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계속적인 생존을
합리화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노력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어떤 투쟁이든지 삼가야 한다. 어떤 시대든지 소위 과학이나 종교가 잘못됐다면, 그 활동을 정화{淨化}하든지, 아니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체계의 물질적 과학 또는 영적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2. 선과 악

132:2.1 (1457.4) 마르더스는 로마에서 유명한 견유학과 지도자였고, 다마스커스 서기관에게 훌륭한 친구가 됐다. 그는 예수와 매일 이야기를 나눴고, 그의 숭고한 가르침에 밤마다 귀를 기울였다. 마르더스와 가진 더 중요한 토론 중에는, 이 진지한 견유학자의 선과 악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 있었다. 예수가 말한 내용을 20세기 언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2:2.2 (1457.5) 형제여, 선{善}과 악{惡}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납득하는 상대적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네가 윤리적으로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면, 현재의 사회 관례를 선에 대한 너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후퇴한다면, 너는 현재의 종교 풍습이나

전통을 선의 기준으로 삼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세계에서 생존하여 영원 속으로 빠져나오는 혼은, 그런 선과 악 사이에서 선명하게 몸소 선택해야만 하며, 선과 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도록 보내신 신성한 영이 설립한, 영적 기준의 진정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주하는 이 영이, 바로 인격체 생존을 정하는 표준이다.

132:2.3 (1457.6) 선이란, 진리처럼, 항상 상대적이고, 반드시 악과_대조된다. 이런 선과 진리의 특성을 감지하는 것이, 사람의 진화하는 혼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존에 필수 요소인 그런 몸소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

132:2.4 (1458.1) 과학의 지시, 사회 관례, 그리고 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따르는, 영적으로 눈이 먼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자유를 희생하고 영적 해방을 잃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혼은, 지적 앵무새, 사회의 자동인형, 그리고 종교 권위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132:2.5 (1458.2) 선함은, 도덕적 자아_실현과 영적 인격체 달성이라는--내주하는 조율사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증가하는 자유의 새로운 수준을 향해서 항상

자라 간다. 체험은, 그것이 미{美}를 더욱 음미하게 하고, 도덕적 의지를 증가시키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증대시키고, 동료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며, 영적 이상을 고양시키고, 시간세계에서 최상의 인간적 동기를 내주하는 조율사의 영원한 계획들과 연합시킬 때 선하며, 그런 모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려는 염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직접 인도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좀 더 닮아가도록, 신성한 열정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132:2.6 (1458.3) 우주에서 피조물이 성장하는 계단을 올라감에 따라서, 선을_체험하고 진리를_헤아릴 수 있는 능력에 완전히 일치되게, 선이 커지고 악이 줄어드는 것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승하는 인간의 혼이 최종의 영 수준을 성취하기 전에는, 오류를 수용하거나 악을 체험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32:2.7 (1458.4) 선{善}은, 생생하고, 상대적이며, 항상 진보하고, 변함없이 개인적인 체험이며, 진리와 아름다움을 분별하는 것에 영구히 연관돼 있다. 선은 영적 수준의 긍정적 진리_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체험에서 부정적 상대물과--잠재적 악의 그림자와-- 대조해서 뚜렷이 드러나야만 한다.

132:2.8 (1458.5) 너희가 낙원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선은 항상, 소유라기보다 탐구, 달성의 체험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떤 목표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의{義}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때라도, 선의 부분적 달성을 통해서 증가돼 가는 만족을 체험한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현존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사람의 도덕적 의지, 즉 인격체가 실체인 동시에 실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데, 인격체는 이런 선악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한 그 두 가지 중에서 선택 할 수 있게 한다.

132:2.9 (1458.6) 낙원에 도달할 때가 되면, 진정한 영 가치를 자아{自我}와 동일시하게 하는, 상승하는 필사자의 수용력이 확장돼서, 생명의 빛의 완전한 소유를 달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완전하게 된 그런 영 인격체는, 선, 아름다움, 및 진리의 명확한 최상의 자질과 매우 완전하고 신성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무한하신 낙원 통치자들이 비취는 신성한 빛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광채{光彩}에 노출될 때, 그런 의로운 영이

잠재적인 악의 어떤 부정적 그림자든지 만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모든 영 인격체들 안에서, 선은 더 이상 부분적이거나, 대조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으며; 선은 신성하게 완성됐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됐으며; 지존자의 순수함과 완전함에 가까워진다.

132:2.10 (1458.7) 악의 가능성은, 도덕적 선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는 아니다. 그림자는 단지 상대적으로 실재할 뿐이다. 실제 악은 개인 체험으로서 필연적이지 않다. 잠재적 악은, 낮은 수준의 영적 발전을 이루는 동안, 도덕적으로 진보하는 범위 안에서 결단하게 하는 자극제로서, 똑같이 잘 작용한다. 악은 오직 도덕적 정신이 악을 선택했을 때, 몸소 체험하는 실체가 된다.

3. 진리와 신앙

132:3.1 (1459.1) 나본은 그리스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주류 신비교였던 미드라교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다. 이 미드라 신교 대제사장은, 다마스쿠스 서기관과 여러 차례 회담하는 가운데, 특히 어느 날 저녁에 나눴던 진리와 신앙에 관한 토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나본은 예수를 개종시키려 생각했고, 심지어 미드라교

선생이 되어 팔레스틴으로 돌아가라고, 그에게 제의하기까지 했다. 그는, 예수가 천국 복음에 대한 초기 개종자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현대 용어로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2:3.2 (1459.2) 진리는 말이 아니라, 오직 실천함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지식 이상{以上}이다. 지식은 관찰되는 사물과 관계하지만, 진리는 그런 순전히 물질적인 수준을 초월하는데, 그 안에서 지혜와 어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인간 체험, 심지어 영적이고 생생한 실체들도 포함한다. 지식은 과학에서;지혜는 진정한 철학에서;진리는 영적인 삶의 종교 체험에서 비롯된다. 지식은 사실을;지혜는 관계를;진리는 실체 가치를 다룬다.

132:3.3 (1459.3) 사람은 과학을 구체화시키고, 철학을 공식화시키며, 진리를 교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삶에서 발전적 투쟁에 적응시키는 일에 정신적으로 나태한 동시에, 미지{未知}의 세계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연인{自然人}은, 자신의 생각하는 습관이나 살아가는 방법에 변화를 시도하기에 둔하다.

132:3.4 (1459.4) 계시된 진리, 즉 개인적으로 발견된 진리는, 인간 혼에게 최상의 기쁨이며;물질 정신과 내주하는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진리를_분별하고 아름다움을_사랑하는 이 혼의 영원한 구원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처럼 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개발하도록 이 필사자를 인도하는, 선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확인된다. 참된 지식과 진리 사이에는 결코 충돌이 없다. 인간의 믿음들, 즉 편견으로 채색되고, 두려움 때문에 변형되고, 물질적 발견이나 영적 진보의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기를 염려하여 지배당하는 믿음들과 지식 사이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132:3.5 (1459.5) 그러나 진리는 신앙의 실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참됨은, 사람의 사고, 지혜, 및 윤리와 이상들이 자신의 신앙, 즉 자신의 최고의 희망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참된 신앙은, 심오한 숙고와, 진지한 자아_비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도덕의식 위에 세워진다. 신앙은, 영성화{靈性化}된 창조적 상상력이 주는 영감{靈感}이다.

132:3.6 (1459.6) 신앙은, 불멸의 씨앗인 신성한 불꽃이 초인적으로 활동하도록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사람의 정신 속에 살아있으며, 영원한 생존의 잠재력이다. 식물과 동물은, 자체의 분자들을 동일하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자동적으로 전하는 방법으로 시간세계에서 생존한다. 사람의 인간 혼은(인격체는), 내주하는 이 신성{神性}의 불꽃과 정체성을 결합함으로써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하는데, 그 불꽃은 불멸하며, 지속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진취적 우주 실존으로서 인간의 인격체를 영존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인간 혼 속에 감춰진 씨앗은 불멸하는 영이다. 혼의 두 번째 세대는, 진보하는 영적 실존의 인격체가 형태화되는 계통에서 첫 번째인데, 그것은 단지 이런 신성한 실재가, 그 실존의 근원, 즉 모든 실존의 인격적 근원이신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에야 끝난다.

132:3.7 (1459.7) 인간의 생명이 지속됨은--곧 생존은--, 그 생명이, 우주 기능, 즉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신앙으로_활성화된 사람의 혼은, 이런 운명의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멈출 수 없으며; 일단 이런 신성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그 혼은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됐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수 없다.

132:3.8 (1460.1) 영적 진화는 선함을 점점 더 자진해서 선택하는
체험이며, 악의 가능성이 똑같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일이 뒤따른다. 선함을 선택하는 것이 완결되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되면,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완전하게 되며, 이 두 가지의 의{義}가, 심지어 잠재적 악
개념이 솟아날 가능성조차 영원히 금지시킨다.
하나님을_아는 그런 혼은, 신성한 선함이라는 그런 높은
영 수준에서 작용할 때, 의심스런 어떤 악의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는다.

132:3.9 (1460.2) 사람의 정신 속에 낙원 영이 현존하심은, 만유의
아버지의 불멸적이고 내주하는 이 영 단편과 동일성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모든 혼에게, 신성하게 진보함으로
영원히 실존하는 것을 계시하는 약속이요 신앙의
서약이다.

132:3.10 (1460.3) 우주에서 진보하는 것은 인격체의 해방을
증대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진보가 점점 높아지는
수준에서 자아를_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아_억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완전한 영적 자아_억제에 도달하는 것은, 우주에서 해방되고 개인의 자유를 완성하는 것과 같다. 그런 광대한 우주에서 사람이 초기에 적응하는 혼란의 와중에서, 신앙은 혼을 양육하고 유지하며, 한편 기도는, 창조적 상상력으로 인한 다양한 영감{靈感}, 그리고 내주하는 관련된 신성한 현존의 영적 이상에 자신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혼의 신앙 충동,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통합시키게 된다.

132:3.11 (1460.4) 나본은, 예수와 대화할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에 매우 감명 받았다. 이 진리는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 타올랐고, 그는 나중에 도착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4. 개인적인 사역

132:4.1 (1460.5) 예수는 로마에 있는 동안, 도래하는 천국의 장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에만 여가시간 전체를 소비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국제적인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수집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수많은 인간과 접촉할

때마다, 예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즉 그는, 육신 속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알고 싶었고, 또한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고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행하려고 애썼다. 이런 시절 동안 그의 종교 교훈은, 열두 제자의 선생으로서, 그리고 대중{大衆}의 설교자로서 후반기 생애의 특징을 이룬 교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132:4.2 (1460.6) 그의 메시지의 요지는 항상: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이요, 그의 자비가 진리라는 것과 함께,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신앙_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사회적으로 접촉할 때 예수의 통상적 방식은,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면담은 흔히, 그가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시작됐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함으로 끝나곤 했다. 그는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답함으로 가르치는 데 똑같이 노련했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사람에게, 가장 적게 말했다. 그의 개인 사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걱정 많은, 그리고 낙심한 필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동정심 많고 이해심 많은 이 사람에게, 자기 혼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그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예수에게 털어놓았을 때, 예수는, 그들의 실제 어려움을 앞으로 풀어 나갈 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항상 해 줄 수 있었지만, 현재의 평안과 당장의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고난 받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식을,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곤 했다.

^{132:4.3 (1461.1)} 예수는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 영역에 있는 거의 500명 이상의 필사자와, 애정 넘치고 정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만남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여러 인종에 대한 지식을 획득했다. 그는 자신의 지상 생애 가운데 비슷한 어떤 기간 중에서도, 이 6개월을 가장 귀중하고 건문을 넓힌 시기 가운데 하나로 늘 간주했다.

^{132:4.4 (1461.2)}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재능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 세계의 중심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않은 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활동할 수는 없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 또는 더 흔히 어떤 교육 계획사업이나 사회 개혁 또는 종교 운동을 위하여 그가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 제의가 열두 번 이상 들어왔고, 그는 각각의 경우마다, 적절한 말로 또는 친절 한 봉사를 통해서, 영적 고결함에 대한 어떤 사상을 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예수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위해 --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기를 매우 좋아했다.

132:4.5 (1461.3) 그는 정치와 정치적 수완에 관해서 로마의 어떤 원로원 의원과 이야기했고, 예수와 이렇게 한 번 만남으로 이 입법부 의원은 크게 감명 받았으며, 그는 정부가 국민을 후원하고 부양하는 관념에서 국민이 정부를 후원하는 개념으로 통치 제도 방침을 바꾸도록 동료들을 유도하려고, 여생 동안 헛되게 노력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부유한 노예 소유자와 이야기하면서 하루 저녁을 보냈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사람은, 다음 날 117명의 자기 노예에게 자유를 줬다. 예수는 저녁 식사에서 어느 그리스인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그의 환자들이 육체

외에도 정신과 혼을 지녔음을 말해줬고, 그리하여 이 유능한 의사는, 동료에게 더 광범하게 봉사하려고 애쓰게 됐다. 그는 모든 계층에 속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그가 로마에서 방문하지 않은 유일한 장소는 공중목욕탕이었다. 난잡한 성{性} 행위가 거기서 유행했으므로, 그는 목욕탕에 친구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다.

132:4.6 (1461.4) 로마 군인에게는, 함께 티베르 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용감해라. 담대하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보이기에 충분할 만큼 크거라. 네 상관들에게 복종하듯이, 네 낮은 본성으로 하여금 더 높은 본성에 복종하게 해라. 선함을 공경하고 진리를 강화시키기 바란다. 추한 것 대신 아름다운 것을 택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 네 동료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132:4.7 (1461.5) 그는 공개토론회 연사{演士}에게 말했다: "네 웅변술은 만족할만하고, 네 논리는 감탄할만하며, 네 목소리는 듣기에 아름답지만, 네 가르침은 조금도 진실하지 못하다. 네가, 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감 어린 만족감을 누릴 수만 있다면, 너는 동료들 어둠의 속박과 무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에 네 연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그의 후계자가 됐던 마르커스였다. 그들이 시몬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로마의 박해자들에게 도전하고 새 복음 전파하기를 담대하게 계속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132:4.8 (1462.1) 예수는 누명을 쓴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행정관에게 가서,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허락을 얻은 후, 그 과정 중에 놀라운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공의가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라가 위대해질수록, 가장 미천한 시민에게까지도 불의가 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만 할 것이다. 단지 돈과 세력 있는 자들에게만 법정에서 공의를 보장하려는 나라에는 재앙이 있으리라! 죄지은 자를 벌주는 것뿐 아니라, 죄 없는 자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관의 신성시되는 의무다. 법정의 공명정대, 공정성, 및 완전성 위에, 한 나라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다. 진정한 종교가 자비 위에 세워지듯이, 시민 정부는 공의 위에 세워진다.” 그 재판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열었고, 증거를 면밀히

검사한 후에 죄수를 석방했다. 개인으로서 사역한 이 기간에, 예수의 전체 활동 중에서 이 사건이 공개적 양상에 가장 가까웠다.

5. 부자에게 준 충고

132:5.1 (1462.2) 금욕주의자이며 로마 시민인 어떤 부자가, 안가몬의 소개로, 예수의 가르침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됐다. 여러 번 친숙한 회담이 있는 후에, 이 부자는 예수에게, 그가 만일 많은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고 물었으며, 예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지식이나 지혜나 영적 봉사를, 지적 삶의 풍요나 사회생활의 고상함 또는 영적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듯이, 물질 재산은 물질 생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다음 세대와 그 후에 계속되는 후손의 이익과 고상함을 위해서 쓰일 자원을 책임진, 한 세대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신탁인{信託人}의 자격으로 물질 재산을 경영할 것이다.”

132:5.2 (1462.3) 그러나 그 부자는 예수의 대답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담하게 다시 물었다: “그러나 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까? 아니면 나눠줘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과 사람에 대한 그의 의무에 관한 진리를, 그가 진정으로 구하고 있음을 느낀 예수는 추가해서 대답했다: “착한 친구여, 나는 네가 지혜를 진지하게 구하고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나는, 네게 재산에 대한 책임 이행과 관련된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내가 이렇게 함은, 네가 내게 조언을 요청했기 때문이며, 이 충고를 주면서, 다른 부자들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오직 네게, 그리고 네 개인적 지침이 되도록 충고한다. 네가 진정으로 네 재산을 신탁물로 여기기 원한다면, 즉 네가 축적된 재산에 대해, 현명하고 유능한 청지기가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네 부{富}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조언하고자 한다: 이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 정직한 대답을 찾도록 최선을 다 해라. 너의 많은 재산의 출처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열 가지 물질 재산 축적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132:5.3 (1462.4) " 1. 상속된 재산 --부모나 다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富}.

132:5.4 (1462.5) " 2. 발견된 재산 --본래의 땅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얻은 부.

132:5.5 (1462.6) " 3. 거래 재산 --물질 상품의 물물교환에서 정당한 이익으로 얻은 부.

132:5.6 (1462.7) " 4. 부당한 재산 --부당한 착취 또는 동료를 노예화함으로 얻은 부.

132:5.7 (1463.1) " 5. 이자 재산 --투자한 자본의 공정하고 정당한 수익 가능성에서 얻은 수입.

132:5.8 (1463.2) " 6. 특별재능의 재산 --사람의 정신 속에 타고난 창조적이고 발명하는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부.

132:5.9 (1463.3) " 7. 우연히 얻은 재산 --동료의 관대함에서 도출되거나 삶의 환경에서 기원된 부.

132:5.10 (1463.4) " 8. 훔친 재산 --부당함, 부정직, 도둑질, 혹은 사기로 확보한 부.

132:5.11 (1463.5) " 9. 신탁된 기금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특정한 사용을 위해, 네 동료가 네게 맡긴 재산.

132:5.12 (1463.6) " 10. 벌어서 모은 재산 --너 자신의 노동, 즉 정신과 육체를 사용하여 네가 직접 매일 수고한 것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수로 직접 얻은 부.

132:5.13 (1463.7) "그러므로, 내 친구여, 네가 만일 너의 많은 재산에 대한 신실하고 의로운 청지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재산을 대략 이런 열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야만 하며, 그 다음에, 공의, 공평, 공정성,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법칙을 현명하고 정직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각 부분을 처리하도록 진행하며;그럼에도 네가 가끔 확실치 않은 상황에 처해서, 인간사{人間事}의 불행한 환경 아래 고통 받는 희생자의 괴로움을 도와주면서, 자비롭고 이타적인 배려를 하는 중에 실수를 범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질 상황의 공평함과 공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궁핍한자에게 유리하고 불행으로 부당하게 고생을 겪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도록 해라."

132:5.14 (1463.8)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한 후, 그 부자가 좀 더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가르침을 간청한 것에 대답하면서 예수는 부연해서 충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재산에 대한 너의 태도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제안하면서, 내 조언을 단지 네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너 개인의 지침으로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질문하는 친구인 너에게 나는 오직 내 생각을 말할 뿐이다. 다른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한다. 나는 네게 이렇게 충고하고자 한다:

132:5.15 (1463.9) “ 1. 너는 상속된 재산의 청지기로서 그 근원을 살펴야 한다. 너는 정당한 재산에 대해 현 세대의 이득을 위한 공정한 몫을 제한 후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과거의 세대들을 대표하는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네 조상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에 내포된 어떤 부정직함이든지, 또는 어떤 불의함이든지, 계속 유지시킬 의무는 없다. 사기{詐欺}나 부당함을 통해서 얻었다고 밝혀진, 네게 상속된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너는 공의와 관대함, 그리고 배상에 대한 네 신념에 의거해서 배분할 수 있다. 정당하게 상속된 네 나머지 재산은 네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신탁자로서 안전하게 전할 수 있다. 네 후손에게 재물을
전할 때, 현명한 식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이 네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

132:5,16 (1463.10) " 2. 발견한 결과로 부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한
개인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뿐임을
기억해야만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런 발견을
그들과 나눠 갖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발견한 자의
수고에 대한 대가{代價}가 무시돼서도 안 되지만, 또한
자연의 숨겨진 비축된 자원에서 유래한 모든 이익과
축복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이기적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된다.

132:5,17 (1464.1) " 3. 사람들이 세계의 상업을 위해서 무역이나
물물교환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모든 무역업자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상인은 그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세상의 조직화된 상업에서, 정당한 무역과 동료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익금을

창출하며, 이런 모든 재산의 근원을, 공의, 정직, 및 공정성이라는 최고의 원칙으로 판별해야만 한다. 정직한 무역업자는, 같은 종류의 거래를 하는 동료 무역업자들과 기꺼이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똑같은 이익을 남기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재산은, 큰 규모의 상업거래로 얻었을 때 개인이 번 소득과 동일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런 정직하게 축적된 재산은, 나중에 그 분배에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공평하게 나눠야만 한다.

132:5.18 (1464.2) " 4. 하나님을 알고 신성한 뜻 행하기를 원하는 필사자라면, 누구도 돈으로 남을 억압할 만큼 타락하지 못할 것이다. 숭고한 사람이라면, 육신의 형제를 노예화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함으로써 부{富}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이나_권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억압받는 필사적 사람의 땀으로 부를 얻었을 때, 부는 도덕적 저주와 영적인 오점이 된다. 그런 모든 재산은, 그런 식으로 빼앗긴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에게 반환돼야 한다. 지속적인 문명은, 고용된 노동자를 착취하는 관습 위에서는 세워질 수 없다.

132:5.19 (1464.3) " 5. 정당한 재산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이 빌리고 빌려주는 한,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이자는 합법적인 재산이다. 이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네 원금을 정화{淨化}시켜라. 너무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져서 고리대금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 돈과_권력을 이용해서, 쪼들리고 있는 동료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결코 얻지 않도록 해라.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는 네 형제에게서 폭리를 취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132:5.20 (1464.4) " 6. 네가 일련의 특별재능으로 우연히 든든한

재산을 얻었다면, 즉 발명하는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네 재산이 주어졌다면, 그런 보상에 대해 부당한 몫을 주장하지 마라. 특별재능은 조상과 후손 양쪽에 어느 정도 빛을 지고 있으며;마찬가지로, 종족, 국가, 그리고 그 독창적 발견을 가능하게 한 환경의 혜택도 받은 것이며;자기가 수고해서 발명한 것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룩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모든 재산 증식의 근원인 특별재능을 박탈하는 것도, 똑같이 불공정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호감을 줄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을 세우기란, 인간에게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너는 먼저 사람들이 네 형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상대방을 네 의도대로 시키려는 것처럼, 너도 그의 의도대로 그에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경제적 보상과 사회정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바르고 치우치지 않도록, 공의, 정직, 및 공정성이라는 평범한 명령이 너를 안내할 것이다.

132:5.21 (1464.5) " 7. 경영을 통해서 획득한 바르고 정당한 보수를 제외하고, 반복된 행운으로 인해 자기 손에 떨어진 재산에 대해, 어느 누구도 개인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얻은 재산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 또는 경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신탁물이라는 입장에서 간주돼야만 한다. 그런 재산을 소유한 자는, 노력 없이 얻은 자원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도록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만 한다. 문명화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私的}인 소유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132:5.22 (1465.1) " 8. 네 재산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기{詐欺} 행위에서 왔음을 알게 된다면; 네 재산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부정직한 일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축적된 것이라면;네 재산이 네 동료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말미암은 산물이라면, 그릇되게 얻은 이런 모든 소득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주인에게 서둘러 반환해라. 완전한 보상{報償}을 통해서, 네 모든 부정직한 재산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132:5.23 (1465.2) " 9.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일에는, 중대하고 신성시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신용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 안 된다. 모든 공정한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量}만, 그 신탁금에서 네 몫으로 취하라.

132:5.24 (1465.3) " 10. 네 재산 중에서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으로 얻은 것임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 --그 일이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되었다면-- 진정한 네 소유다. 그런 재산을 간직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네가 행사하면서, 네가 보기에 그것이 네 동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

132:5.25 (1465.4) 예수가 그에게 충고를 끝내자, 이 부유한 로마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기 위해 작별 인사 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선하신 친구여, 나는 당신이 위대한 지혜와 선함을 지닌 분임을 깨달았고, 내일부터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경영을 당신의 조언에 따라서 시작할 것입니다.”

6. 사회적인 사역

^{132:6.1 (1465.5)} 이곳 로마에서, 한 우주의 창조주가, 길 잃은 어떤 아이를 걱정하던 어머니에게 돌려주느라, 몇 시간 지체했던 감동스런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아이는 집으로부터 먼 곳까지 방황했고,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예수가 발견했다. 그와 가니드는 도서관에 가는 길이었지만, 아이의 집을 찾아 주기에 전념했다. 가니드는 예수의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가니드야, 대부분의 인간은 길 잃은 이 아이와 같단다. 이 아이가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듯이, 사람들은 안전함과 보호를 바로 지척에 두고도, 긴 시간 두려움에 울고 슬픔으로 고통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확신을 누리면서 진리의 길을 아는 모든 자는, 삶의 만족감을 찾아 헤매는 동료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만족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생 동안, 가니드는 길 잃은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낼까 하여, 줄곧 아이들을 주의하여 관찰했다.

132:6.2 (1465.6) 사고로 남편을 잃고, 다섯 아이와 함께 사는 과부가 있었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것에 대해 가니드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이 어머니와 아이들을 계속 위로하는 동안, 가니드는 음식과 옷을 제공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돈을 청했다. 그들은 가장 나이 많은 소년에게 직장을 구해 줌으로써 그가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

132:6.3 (1465.7) 그날 밤, 고노드는 이 체험담을 듣다가, 예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나는 아들을 학자나 사업가로 키우려 하는데, 당신은 이제 이 아이를 철학자나 자선가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러자 예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아마 우리는 당신이 말한 그 네 가지 전부를 그가 성취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며;그렇게 되면, 그의 귀가 한 가지 음색 대신 네 가지 음색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삶 속에서 네 배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고노드가 말했다:“당신은 정말로 철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후손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책이 아니라--내 사명은 이 세대와 다른 모든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이라고 대답하다가, 가니드에게, “얘야, 이제 잘 시간이라”고 하면서, 말을 중단했다.

7. 로마를 두루 여행함

132:7.1 (1466.1) 예수와 고노드와 가니드는, 로마를 떠나 변방 지역에 있는 흥미로운 곳들로, 다섯 차례 여행했다. 북부 이태리에 있는 호수를 방문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해, 예수는 가니드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호수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경솔한 한 이방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평소와는 달리, 예수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연스럽게 영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토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가니드는 의아해 했다. 가니드가 선생에게 왜 이 이방인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가 대답했다:

132:7.2 (1466.2) "가니드야, 그 사람은 진리에 굶주려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도움을 청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의 눈은 혼을 위한 빛을 얻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다. 저 사람은 구원의 추수에 해당될 만큼 무르익지 않았으며;지혜와 더 높은 깨달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를 준비시킬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또는, 그를 우리와 함께 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에 매료되어, 그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 부득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네가 그분을 보여 줄 수 없으며;원치 않는 혼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 사람은 삶을 체험한 결과로 진리를 갈망해야만 하며, 또는, 다른 인간이 그런 동료 필사자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도하는 수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 전에, 그 신성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의 삶과 접촉한 결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업무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자신을 계시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을_찾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132:7.3 (1466.3) **예수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산
위에서였다. 가니드는 예수에게 부다에 관해 여러 번 직접
질문했지만, 항상 다소 회피적인 대답을 들었다. 이제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부다에 대해 솔직하게
질문했는데, 바로 대답을 듣게 됐다. 고노드가, “나는
당신이 부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가 대답했다:**

132:7.4 (1466.4) **“너희가 아는 부다는 불교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부다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 민족에게는 선지자
같았지만, 고아{孤兒} 선지자였는데;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일찍이 영적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그의 체험은 비극이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자{使者}처럼 살아가고
가르치려 노력했다. 부다는 구원의 배를 안전한 항구의
문턱, 즉 필사자 구원의 안식처를 향한 입구까지**

안내했으나, 바로 거기서, 잘못된 항해지도 때문에, 그 훌륭한 배는 좌초됐다. 그것은 지나간 여러 세대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거의 희망을 잃고 거기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너희 민족 중에서 다수는 그 세월 내내 거기 머물렀다. 그들은 안식하는 안전한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만, 훌륭한 부다의 고상한 배가 항구 바로 밖에서 가라앉는 불행을 당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불교신자는, 그들의 선지자의 철학적인 배를 포기하고, 그의 고상한 정신을 붙들지 않는 한, 이 항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민족이 부다의 정신에 진실하게 머물렀다면, 너희는 영{靈}의 고요함과 혼{魂}의 안식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피난처에 오래 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132:7.5 (1467.1) "고노드야, 부다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신 속에서 그를 분명히 발견하기에는 실패했으며; 유대인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영으로 그를 알기에는 크게 실패했음을 너는 알 것이다. 오늘날, 불교신자는 하나님 없는 철학 속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반면, 내 민족은 가련하게도 생명과 자유의 구원하는 철학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돼 있다. 너희는

하나님 없는 철학을 지녔으며;유대인은 하나님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삶의 철학은 거의 없다.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한 부다는, 종교가 인류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도덕적 에너지와 영적 추진력을 그의 가르침 속에 제공하지 못했다.”

132:7.6 (1467.2) 그러자 가니드가 외쳤다:“선생님, 인도를 위해 충분히 훌륭하고 로마를 위해서도 충분히 거창한 새 종교를 우리가 만들지요, 그러면 아마 야훼를 대신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가니드야, 종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종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동료에게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예언적 말씀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다.

132:7.7 (1467.3) 그날 밤,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가니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했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아버지, 나는 가끔 예슈아가 선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지 졸음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아들아, 다른 사람들도 있다--.”

132:7.8 (1467.4) 그날 이후, 가니드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종교를 발전시키기를 계속했다. 예수의 편견 없는 마음과 공정함과 아량에, 그는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철학과 종교에 대한 그들의 모든 토론 속에서, 이 젊은이는 분노의 감정이나 적대심의 반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132:7.9 (1467.5) 이 인도인 청년이 우주의 창조주에게 새 종교를 만들자고 제의하는 광경이, 주시하던 천상의 지성체들에게는 얼마나 굉장한 구경거리였는지! 그리고 비록 이 젊은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새롭고 영존하는 종교를--곧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그때 거기서 만들고 있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영적{靈的}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계몽되고 반영되는 인간의 상상력이, 온 마음으로 그리고 이기심을 버린 채

하고 싶은 그것과,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은, 아버지 뜻을 신성하게 행하려는 필사자가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눈에 뵈 정도로 창조력을 갖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 살아갈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다.

제133편 로마에서 돌아옴

133:0.1 (1468.1) 로마를 떠나려고 준비할 때, 예수는 친구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마스쿠스 서기관은 예고 없이 로마에 나타났다가, 같은 방법으로 사라졌다. 그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만나려는 희망을 포기한 것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다. 이 두 번째 해가 끝나기 전에, 예수를 알고 지냈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의 교훈에 대한 공통 관심, 그리고 그와 함께 지냈던 시절의 즐거웠던 상호적인 기억으로 인해, 함께 모이게 됐다. 그리고 스토아학파, 견유학파, 신비주의자들로 구성된 이 소규모 집단은, 불규칙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런 모임을, 그리스도교 초기 설교자들이 로마에 출현할 때까지 계속했다.

133:0.2 (1468.2)

고노드와 가니드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했으므로, 소유물을 짐꾼 행렬 편으로 미리 타렌툼까지 보냈고, 그동안 세 여행자는, 유명한 아피아 도로를 따라 이태리를 가로질러 한가히 걸어갔다. 그들은 이 여행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 많은 고귀한 로마 시민과 그리스 식민지 주민이 이 길가에 살았지만, 비천한 노예들의 수많은 자손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33:0.3 (1468.3)

어느 날 타렌툼에 거의 절반 정도 와서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가니드는 인도의 신분계층 체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예수에게 물었다. 예수가 대답했다:“인간이 여러 방면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필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두 무리만 있는데: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다. 우주가 인간거주 세계들을 내려다볼 때,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는, 주어진 어떤 영역에서든지 동물로 간주된다.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도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다른 자격조건에 의거해서 그들을 여러 계층으로 적절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계층의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에는, 모두 동등한 신분으로 서게 되며;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격체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지적, 사회적, 도덕적 면에서, 인간의 역량과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는,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에서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1. 자비와 응보

133:1.1 (1468.4) 그들이 타렌툼에 가까이 당도한 어느 오후에, 길가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거칠고 난폭한 소년이, 자기보다 작은 한 아이를 폭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예수는 곤경에 처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고, 그를 구해낸 후에는, 그 아이가 충분히 멀리 도망갈 때까지 가해자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예수가 어린 깡패를 놓아주는 순간, 가니드가 그 소년에게 달려들어 호되게 때려주기 시작했고, 예수가 즉시 가니드를 제지하자, 그는 매우 놀랐다. 가니드를 말리면서 겁먹은 그 소년을 도망가게 한 뒤에, 젊은이는 숨을 돌리자마자 흥분하며 외쳤다:“나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작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비의 요구라면, 응보는 그보다 크고 공격적인 소년에게 벌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대답으로 말했다:

133:1.2 (1469.1) “가니드야,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자비의 사역은 항상 개인의 활동인 반면, 응보의 형벌은, 사회, 통치, 또는 우주 경영 집단의 역할이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자비를 베풀 권한이 있고;곤경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만 했으며, 가해자를 말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완력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방금 내가 한 일이었다. 나는 곤경에 처한 아이를 구하는 목적을 달성했고;그것으로 내 자비 행위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약한 자가 도망하기에 충분한 시간만큼 가해자를 힘으로 붙잡아 뒀고, 그 후에는 그 일에서 물러났다. 나는 가해자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아서, 그의 동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곤 동료들 공격하도록 만든 모든 것에 대해 판결하고, 그런 후에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代價}라고 내 마음이 지시했을 지도 모르는 처벌을 실행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가니드야, 자비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응보는 엄밀한 것이다. 응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징벌을 결정하는 데는, 두

사람조차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공정한 형벌로, 한 사람은 40대의 매를, 다른 사람은 20대의 매를, 또 어떤 이는 격리 감금을 권고하려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책임이 집단에게 맡겨지거나, 혹은 그 집단이 뽑은 대표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주에서는, 그 동기뿐 아니라 모든 범죄 전례를 완전히 알고 있는 존재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모든 문명화된 사회와 잘 조직된 우주에서는, 응보의 집행은 정당하게 심판한 결과로 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런 특권은 세계들에 속한 사법집단들에게, 그리고 전체 창조의 상급{上級} 우주들을 다스리는 전지{全知}한 경영자들에게 속해 있다.”

133:1.3 (1469.2) 그들은 자비를 나타내는 문제와 응보를 집행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 날 토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니드는, 예수가 개인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가니드는 마지막으로 한 질문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런 답변은 결코 듣지 못했는데; 그 질문은 이랬다: “그렇지만 선생님, 만약 힘이 더 세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안 하실 것입니까?” 예수는 그의 질문에 완전하고 만족스런 답변을 줄 수 없었음에도, 주시하고 있는 우주를 향한 낙원 아버지의 사랑의 본보기로서 자신이(예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렇게만 이야기했다:

133:1.4 (1469.3) “가니드야,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너를 어떻게 혼란시키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네 질문에 대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우선, 나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공격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하나님의 아들--곧 육신 속에 있는 내 형제--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며, 그가 도덕적 판단과 영적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나는 가해자에게 발생될 결과에 상관없이, 주저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신분을 이룩한 상태의 동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나는 나를 향한 그의 폭행에 대한 판단 없이, 또는 판단 이전에 그에게 응징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그런 공격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서 중지시키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니드야,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배려를 절대

신뢰하며;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헌신했다.
진정한 해{害}가 내게 미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으며;적들이 내게 가하려는 어떤 것이든지, 내
필생과업을 정말로 위태롭게 하리라고는 믿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어떤 폭행도 우리 친구들로부터 당하지
않는다. 나는 우주 전체가 내게 호의적임을 절대로
확신한다--나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심에서
우려나는 확신을 갖고, 전능한 이 진리를 믿고자 한다.”

133:1.5 (1470.1) 그러나 가니드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예수는 그에게
자신의 소년시절 체험과, 석공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다. 가니드는 야곱이 예수 지키기를 어떻게
자기 일로 삼았는지 알고 난 후에 말했다:“아, 이제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신 같은 친절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더라도, 마치 당신이 언제나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처럼, 당신을 재빨리 도와
줄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가까이에 있게 된다는 것이군요.
선생님, 당신에게 동의하지만, 내가 야곱이었다면, 당신이
방어하지 않음을 미끼로 공격했다고 여겨지는 무례한

사람에게 응징하기를 즐겼으리라는 생각이, 여전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곤경에 빠진 친구들을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시기 때문에--곧 당신에게는 언제든지 방어해 줄 어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 여정이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가니드야, 그 시험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아버지 뜻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_방어와 무저항에 관한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해, 이 소년이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다른 기회에, 조직된 사회는 올바른 명령을 집행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견해를, 예수에게서 얻어낼 수 있었다.

2. 타렌툼에서 배를 탐

133:2.1 (1470.2) 화물을 내리도록 배를 기다리면서 선착장에 머무는 동안, 그 여행자들은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 예수는 평상시 습관대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재에 나섰다. 그는 성난 남편 뒤로 걸어가서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말했다:“친구여, 나와 잠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나?”

화난 남자는 그런 접근에 어쩔 줄 몰랐고, 잠시 당황해 주저하다 더듬거리며 말했다--“저,--왜,--예, 내게 무슨 불일 있습니까?” 예수는 그를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친구여, 내가 보기에는 아주 끔찍한 어떤 일이 네게 일어난 것 같은데;무엇 때문에, 너 같이 건장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인,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를 공격하게 됐는지 내게 말해주기 바란다. 네가 이렇게 폭행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느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무엇 때문에 저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됐나?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자비를 베풀 의향은 없더라도, 공의를 사랑함을 네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히 말하겠는데, 길가에서도적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나를 네가 발견했다면, 너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재빨리 달려왔을 것이다. 나는 네가, 네 인생 중에 그런 용감한 일을 여러 번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 친구여 말해봐라, 무엇이 문제인가? 저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네가 어리석게 이성을 잃고 생각 없이 그녀에게 폭행했느냐?” 이 남자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말한 내용 자체보다, 오히려 말을 마치면서 예수가 그에게 보여준, 친절하고 인정 어린 미소였다.

그 남자가 말했다:“당신은 견유학파 사제인 것 같은데, 나를 말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 아내는, 큰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으며;착한 여자입니다만,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해서 흥분시켰고, 내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자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더 나은 삶의 방법을 내게 가르쳤던, 당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오래 전에 했던 내 서약에 맞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133:2.2 (1471.1) 그런 다음에,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예수가 말했다:“형제여, 여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남자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어떤 정당한 권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네 아내는 너와 일생을 같이 보내고, 함께 도와서 고난을 헤쳐 나가며, 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 더 힘든 몫을 담당하기로 약속했으며;그녀는, 이런 특별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자기 아이를 낳아주고 길러줘야만 하는 동반자로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보호를, 네게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꺼이 주는 사랑스런 보호와 배려는, 더 높은 수준의 창조적이고 영적인 자아_의식을 그 사람이 달성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불멸하는 혼을 스스로 소유하기까지 성장하는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해 협동할 때, 남녀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자녀들의 영 어머니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신다. 자녀들의 생명 속에서 너희 자신을 재생산하는 신성한 체험을, 너와 함께 그토록 완전하게 공유하는 어머니 동역자와 함께, 너의 삶,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똑같이 분담하는 것은, 존엄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네가 네 자녀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방대한 우주의 모든 영 자녀의 어머니인 무한한 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존중하고 높여주시는 것처럼, 너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133:2.3 (1471.2) 그들은 배에 오르면서, 눈물에 젖은 채 말없이 포옹하며 서 있는 부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다. 고노드는, 그 사람에게 했던 예수의 후반부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생각에 하루 종일 잠겨 있었고, 인도에 돌아가면, 자기 가정을 개혁시키겠다고 결심했다.

133:2.4 (1471.3) 니코폴리스로 가는 여정은 순탄했지만, 바람이 좋지 않아서 속도가 느렸다. 세 사람은 로마에서 했던 체험에 대해 여러 시간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난 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회상했다. 개인 사역의 영이 가니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 배의 관리인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둘째 날, 깊은 종교적 곤경에 빠지게 되자, 자기를 구해달라면서 예슈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133:2.5 (1471.4) 그들은 니코폴리스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그 도시는 아우구스투스가 50년 전에 악티움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승리의 도시"로 세운 곳이었고,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군대를 이끌고 야영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배에서 만나게 된 그리스 사람인, 제라미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는 유대인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제라미의 아들과 함께 바로 이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니코폴리스를 떠나서, 아가야라는 로마 식민지 수도인 고린도로 향해했다.

3. 고린도에서

133:3.1 (1471.5)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할 즈음, 가니드는 유대 종교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유대 회당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가 예수에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자고 제안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박식한 랍비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예배 후에 이 회당의 최고 관리인 그리스보를 만났다. 그 후에도 그들은 그 회당에 여러 번 갔는데, 주로 그리스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가니드는 그리스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다섯 명의 아이를 매우 좋아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133:3.2 (1472.1) 가니드가 가정생활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보에게 종교 생활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예수는 진취적인 이 유대인과 20번 이상 만났으며;여러 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로 이 회당에서 전도하자, 유대인이 그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에게 회당에서 전도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므로, 그가 이방인들에게로 갔을 때, 그리스보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새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조직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주요 지지자 가운데 하나가 됐음은, 뜻밖의 일이 아니었다.

133:3.3 (1472.2) 바울은, 훗날 실라 및 디모데와 합세하여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전도했을 때, “인도 상인의 아들의 유대인 가정교사”에게서 가르침 받았다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133:3.4 (1472.3) 그들은 고린도에서 세 대륙{大陸}으로부터 온 모든 인종의 사람을 만났다. 그곳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 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았고, 가니드는 거의 해발 2,000피트 위에 서 있는 성을 방문하기에 한 번도 싫증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여가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대 회당과 그리스보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유대 가정에서 여자의 위치를 알고 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는 매료됐는데;이 젊은 인도인에게는 하나의 계시였다.

133:3.5 (1472.4) 예수와 가니드는 또 다른 유대인 가정으로부터 자주 초대받았는데, 회당 옆에 위치한 믿음 깊은 상인 유스도의 집이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는 인도 청년과 그의 유대인 가정교사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는 동안 바울과 유스도는 그토록 현명하고 총명한 유대인 선생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133:3,6 (1472.5) 로마에 있을 때, 가니드는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에 이 젊은이는, 성{性}관계에 대해 예수가 좀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도록, 여러 번 유도하려 했다. 그가 소년의 질문에 대답하려 했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 길게 토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들이 고린도를 산보하다가 성벽이 바다로 이어지는 곳 가까이 갔을 때, 두 매춘부가 말을 걸어 왔다. 가니드는, 예수가 높은 이상{理想}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하거나 악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한다는 관념에 당연히 동화됐으므로;이 여자들에게 날카롭게 말하면서, 비키라고 거칠게 손짓했다. 이것을 본 예수가 가니드에게 말했다;“네 호의는 고맙지만, 그들이 어찌다가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기에 이 여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겠느냐? 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수단에 의지하도록 그들을 몰아붙인 모든 환경을, 네가 과연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 잠시 멈추자꾸나.” 매춘부들은 가니드의 말보다 오히려 예수의 말에 더 놀랐다.

133:3,7 (1472.6) 그들은 달이 비치는 곳에 서 있었고, 예수는 계속해서 말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물인 신성한 영이, 모든 인간 정신 속에 거하고 있다. 이 선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을 알도록 도와주려고 언제나 애쓰고 있으며;그뿐 아니라 필사자 안에는, 개인과 종족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주가 넣어준, 많은 타고난 육체적 성향도 있다. 지금은, 남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야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혼란을 겪으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니드야, 이 두 여자 중에서 누구도 의도적으로 사악하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나는 그들이 많은 슬픔을 체험했다는 것;외견상 잔인한 운명의 손에 많은 고통을 겪어 온 것;의도적으로 이런 종류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절망의 가장자리에서 낙망하여 당시 상황에 굴복했고, 그들에게 절망으로 보이는 어떤 환경을

빠져나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생계 수단에 의지해 왔던 것을,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 가니드야, 어떤 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악하며;고의적으로 비열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쁘거나 악한 어떤 것이든지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가 그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을 멈추자, 가니드는 목소리가 막혀 더듬거리며 간신히 대답했다:“선생님,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무례함을 사과합니다--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그분 대신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말하겠다. 자,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간단한 음식을 청한 후에, 앞으로의 새롭고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 놀란 여자들은 이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서로 쳐다보다가 남자들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133:3.8 (1473.1) 예수가 가니드와 함께 이 두 손님을 데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유스도의 아내가 놀란 것을 상상해 보라:“이런 시간에 온 우리를

용서하고, 가니드와 내게 음식을 조금 주기 바라며, 새로 만난 이 친구들과 그것을 나누려는데, 저들도 아마 배가 고플 것이며;이 모든 것 외에도, 이 여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는 일에, 너희도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해서, 너희에게 왔다. 저들이 너희에게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들이 많은 곤경을 겪었다는 것과, 여기 너희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선한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지 입증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이 얼마만큼 용감하며 고상한 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일지, 나는 짐작한다.”

133:3.9 (1473.2) 유스도의 아내인 마르다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자, 예수는 뜻밖의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시간이 늦었고, 또한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고자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너희를--곧 세 여자를-- 여기에 남겨 두고 먼저 떠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저 높은 곳의 영원한 생애를 위해 계획하는 동안,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안내를 받도록 기도하겠다.”

133:3.10 (1473.3) 그렇게 해서 예수와 가니드는 여자들로부터 떠났다. 이때까지 두 매춘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가니드 역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마르다도 그랬지만, 그녀는 곧 그 상황에 대처했고, 예수가 기대했던 모든 일을, 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이행했다. 이 두 여자 중에서 연장자는 그 후에 곧 영원한 생존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어린 여자는 유스도의 일터에서 일했으며, 나중에는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평생 봉사했다.

133:3.11 (1473.4) 예수와 가니드는 그리스보의 집에서 가이우스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는 나중에 바울을 충실하게 후원하는 자가 됐다. 그들은 두 달 동안 고린도에서 20명의 훌륭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접촉의 결과로 영향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반 이상은, 훗날 그리스도교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

133:3.12 (1473.5)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장기간 방문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책무를 위해, 유대인 개인교사가 길을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는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아굴라는 견유학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예수와 접촉했던 사람이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 피난민이었고, 바울의 교훈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들 역시 천막 짓는 자였으므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4. 고린도에서 개인 업무

133:4.1 (1474.1) 예수와 가니드는 고린도에서 더 재미있는 많은 체험을 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받은 훈육으로 큰 유익을 얻은 수많은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133:4.2 (1474.2) 제분업자에게, 삶의 체험이라는 제분기에 진리의 알곡을 제분하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으로써, 약하고 힘없는 동료 필사자도 신성한 삶에 대한 어려운 사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수가 말했다: “영적 깨달음에서 아직 아기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의 우유를 줘라. 네가 활기차고 사랑스런 봉사를 할 때, 영적 음식을

매력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네게 질문하는 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맞춰라.”

133:4.3 (1474.3) 그는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다:“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직 신격만이 요구할 수 있는 경의{敬意}를, 가이사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예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스런 봉사는 충돌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훌륭한 황제에 대한 네 헌신이 더 충성되고 신실하게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133:4.4 (1474.4) 미드라교의 진지한 지도자에게 말했다:“너는 영원한 구원의 종교는 잘 찾지만, 사람이_만든 신비와 인간 철학에서 영광스런 진리를 추구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영원한 구원의 신비가, 바로 너의 혼 속에 거하고 있음을 모르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 네 안에 거하도록 보내셨다는 것과, 이 생애로부터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자녀들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빛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를_사랑하고 하나님께_봉사하는 모든 필사자를, 이 영이 인도하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결코 잊지 마라:너희가 그분처럼 되기를 진정으로 열망하면,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133:4.5 (1474.5) 에피쿠로스학파 선생에게 말했다:“너는, 최선을 선택하고 선을 존중하기는 잘 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에서 유래된, 영 영역에 구현된, 필사자 생애의 더 위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네가 현명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모든 체험 중에서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현함이요, 그의 영은, 네 안에 거하면서, 모든 창조의 하나님, 우주들의 주{主}이신, 우리가 공유하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기까지 길고 거의 끝없는 여정에서, 너를 인도하고자 애쓰고 있다.”

133:4.6 (1474.6) 그리스의 건축청부업자에게 말했다:“친구여, 네가 사람의 물질적 건물을 짓는 것처럼, 네 혼 속에 있는 신성한 영을 닦도록 영적 성품을 성장시켜라. 이 세상에서 건축가로 성공하는 것이, 하늘 나라의 영적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세계에서 맨션을 짓는 동안, 너 자신을 위한 영원한 맨션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의로움과 진리가 기초를 이루는 도성{都城}, 하나님
건축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도성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라.”

133:4.7 (1474.7) 그가 로마 재판관에게 말했다:“네가 사람을
재판할 때, 너 자신도 언젠가 우주 통치자의 피고석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 지존하신
중재자의 손에서 자비로운 배려를 간청하게 될 것이니,
공정하게, 심지어 자비롭게 판결하라. 글자 그대로의
법으로만 아니라, 법의 정신에 안내를 받아서, 너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심판받듯이 판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앞에 불러온 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공정함으로
조절된 공의를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언젠가 이
세상 전체의 재판관 앞에 서서 자비로 완화된 응보를
기대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133:4.8 (1475.1) 그가 그리스 여인숙{旅人宿}의 여주인에게
말했다:“지고자의 자녀들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친절한
태도를 갖도록 해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려고 내려온
영이 내주하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네가 봉사하고
있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인 단조롭고

힘든 일을 예술적인 높은 경지로 끌어 올리며, 그리하여
저희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혼을 인도해서, 이 모든 선물,
즉 신성한 영을 증여하신 낙원 아버지를 알게 하라.”

133:4.9 (1475.2) 예수는 중국인 상인과 여러 차례 만났다. 작별을
고하면서 권고했다:“너의 진정한 영 조상인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버지의 영이 네 안에 항상 거하시고, 너의
혼의_방향을 하늘 쪽으로 항상 가리키고 있음을 잊지
마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불멸하는 이 영의 인도를
따른다면,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향상된 길을
계속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한다면, 그것은 네가 그를 찾음으로써 점점 더
그분처럼 되기 때문일 것이다. 쉼아, 오직 짧은 세월이지만
잘 있거라, 영적 혼들의 아버지께서, 낙원으로 가도록
결정된 자들을 위해 매혹적인 여러 정류장을 제공해
놓으신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3:4.10 (1475.3) 영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말했다:“형제여, 나는
네가 진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든 진리의 아버지의
영이 지금 네 안에 거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너는

자신의 혼에 속한 그 영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일은 정말로 어렵고 성공을 의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모든 물질 정신이, 내주하는 영과 대화하려는 진실한 모든 시도는, 확실히 성공을 거두는데, 그럼에도 그런 놀라운 인간 체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혼 속에 초의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채로 반드시 오랫동안 남아있다.”

133:4.11 (1475.4) 가출한 소년에게, 예수가 말했다:“네가 도망갈 수 없는 두 가지가--곧 하나님과 너 자신이-- 있음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마음 속에 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과 너 자신이 함께 있다. 애야, 너 자신을 속이기를 멈추고;삶의 실상을 대면하여 용감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안주하며;내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에 단단히 매달려라. 오늘부터 진정한 남자, 용감하고 총명하게 인생에 대처하기로 각오한 남자가 되겠다고 결심해라.”

133:4.12 (1475.5) 그는 죄가 확정된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형제여, 너는 악한 시대에 태어났다. 너는 길을

잃었고;범죄의 올라미에 걸려들었다. 너와 대화를 나눈 결과, 나는 네가 이 세상 생명을 잃을 만한 것을 계획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음을 잘 알게 됐다. 그러나 너는 이 악을 행했고, 동료들은 너를 죄인으로 심판했으며;네게 사형을 선고했다. 너나 나나,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자체를_방어할 이 권리를 가진 국가를 거역할 수 없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네 잘못에 대한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동료들은 네 행위에 따라 판단했지만, 네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심판관이 있는데, 그는 너의 진짜 동기 그리고 더 나은 의도에 의거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네 참회가 순수하고 네 신앙이 진지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네 오류로 인해 사람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네 혼이 공평하게 평가되고 자비를 누릴 가능성에 어떤 편견도 주지 않는다.”

^{133:4.13 (1476.1)} 예수는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굶주린 혼과 여러 차례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세 여행자는 고린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 중심지로서 더 많이 알려진 아테네를 제외하면, 고린도는 이런 로마 통치 시대에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번성하는 이 상업 도시에서 두 달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가치 있는 체험을 하게 됐다. 이 도시에 머문 것은, 로마로부터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였다.

133:4,14 (1476.2) 고노드는 고린도에서 많은 수입을 얻었으며, 마침내 사업상의 일을 모두 끝냈고, 그들은 아테네로 항해할 준비를 했다. 고린도의 한 항구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다른 항구까지, 그들은 육로로 옮겨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배로 여행했다.

5. 아테네에서--과학에 대한 강론

133:5.1 (1476.3) 그들은 곧 그리스의 과학과 학문의 오래된 중심지에 도착했고, 가니드는 그리스에, 그것도 아테네에 와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는데, 그곳은 자기 나라인 인도 국경까지 한때 지배했던 알렉산더 제국의 문화 중심지였다. 사업상 볼일은 거의 없었으며;그래서 고노드는, 흥미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소년과 그의 다재다능한 선생의 흥미로운 토의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와 가니드와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133:5.2 (1476.4) 아테네에서는 한 큰 대학이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 대학의 강의실을 자주 방문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에서 강의에 참석했을 때, 예수와 가니드는 플라톤의 가르침에 대해 면밀히 토론했었다. 그들은 모두,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 예술 작품을 관람했다.

133:5.3 (1476.5) 그 아버지와 아들은, 숙소에서 어느 날 저녁에 예수가 그리스 철학자와 가졌던 과학에 대한 토의를 매우 재미있게 들었다. 이 현학자가 거의 세 시간 이야기한 후에 강의가 끝나자 예수가 말했는데, 현대 사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133:5.4 (1476.6)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인력{引力}, 빛, 그리고 전류의 에너지 또는 힘의 형태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런 우주 현상이 무엇 *인지* 결코 (과학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 과학은 물리_에너지 활동을 다루며;종교는 영원한 가치를 다룬다. 진정한 철학은, 이런 양적 및 질적 관측을 연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부터 태동된다. 순전히 물질적인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눈 먼 것은 그만 두고라도, 수학적 자부심과

통계학적 자만심으로 고난당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133:5.5 (1476.7) 논리는 물질 세상에서 유효하고, 수학은 물질적인 것들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만 확실하지만;생명의 문제에 적용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거나 절대로 확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생명은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포함한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의 털을 깎는데 10분이 소요된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1분에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사실이 아닌데, 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그들이 서로 방해가 돼서 일이 매우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133:5.6 (1477.1)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단위의 지적 및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면, 수학은 열 사람이 열 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체를 다룰 때에는, 그런 인격체 연합은 단순한 산수{算數} 합계라기보다, 오히려 관련된 인격체들 숫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합계가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협동해서

일하는 조화된 인간의 사회집단은,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나타낸다.

133:5.7 (1477.2) 양{量}은 *사실*로 증명될 수 있고, 그래서 과학적 균일성을 갖추게 된다. 질{質}은 정신 해석의 문제이므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체험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과학과 종교가 모두 독단을 줄이게 되고 비평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철학은 비로소 *통일*을 이루게 되어, 우주를 지성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133:5.8 (1477.3) 질서정연한 우주에는 통일이 있는데, 실제로 작용하는 그것을 네가 식별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실제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우호적이다. 실제 문제는:사람의 유한한 정신이, 논리적이고 진실하고 일치하는 사고{思考}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주를_아는 이 정신 상태는, 양적인 사실과 질적인 가치가 낙원 아버지 안에서 공통의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만 소유될 수 있다. 실체에 대한 그런 생각은, 우주 현상의 의도적 통일에 대한 확대된 통찰력을 갖게 하며;그것은 점진적인 인격체

성취의 영적 목표까지도 드러낸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인격적 관계와 진화하는 인격적 관계로 이뤄진 생생한 우주의 변하지 않는 배경을 감지할 수 있는 통일성 개념이다.

133:5.9 (1477.4) 물질과 영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상태는, 실제 우주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는, 서로 관계되고 상호관련된 세 가지 수준이다. 사실과 가치라는 우주 현상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결국 지존자 안에서 통합된다.

133:5.10 (1477.5) 물질 존재의 실체성은, 눈에 보이는 사물뿐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 에너지에도 부여된다. 우주 에너지들이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필수 운동량만 갖게 되면, 바로 이 에너지는, 적당한 조건 속에서 물체가 된다. 그리고 명백한 실체의 현존을 독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 자체도 역시 실제임을 잊지 마라. 에너지_물체, 정신, 및 영으로 구성된 이 우주의 근본적인 근원은 영원하다-- 그것은 만유의 아버지 그리고 그와 절대로 동등한 자들의 본성과 반응 안에 실존하고, 또한 그런 것으로 구성돼 있다.

133:5.11 (1477.6) 그들은 모두 예수의 말에 매우 경탄했으며, 그때 그리스인이 떠나면서 말했다:“나는 인종적 우월감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종교 이외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133:5.12 (1477.7) 아테네에서 체류한 것은 즐겁고 유익했으나,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당시 아테네인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 명성에 대해 지적으로 자만심을 갖거나, 정신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는데, 그리스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던 과거 시절에 살았던, 열등한 노예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테네 시민 중에서, 예리한 정신의 소유자를 여전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6. 에베소에서--혼에 대한 강론

133:6.1 (1477.8) 아테네를 떠난 여행자들은, 드로아를 경유하여,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 수도{首都}인 에베소로 갔다. 그들은 도시에서 2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에베소인의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아르테미스는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女神}이었고, 고대 아나톨리아 시대의 초기 어머니 여신이 존속돼서 내려온 것이었다.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바친 거대한 사원에 전시된 조잡한 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가니드는 형상들을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존경하도록 초기에 훈련된 것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고, 소아시아의 이 다산{多産}의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은으로 만든 작은 성물함{聖物函}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133:6.2 (1478.1) 거기 머물던 셋째 날에, 그들은 항만 입구를 준설하는 것을 보려고 강을 따라서 걸어 내려갔다. 정오에,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우 낙심된 한 젊은 페니키아인과 이야기했으나;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상사로 승진을 임명받은 어떤 젊은이를 시기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에게 위안의 말을 하면서, 히브리의 옛 속담을 인용했다:“사람의 재능이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존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133:6.3 (1478.2) 이 지중해 여행 동안 방문했던 모든 큰 도시 가운데 여기서 그들이 얻은 성과는, 훗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의 일에 가장 가치가 적었다. 그리스도교가 에베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였는데, 그는 여기서 2년 이상 살았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두란노 학파가 대부분이었던 청중에게, 종교와 철학에 관해서 매일 밤 강의했다.

133:6.4 (1478.3) 이 지역의 철학 학파와 관련된 한 진취적 사상가가 있었고, 예수는 그와 몇 차례 유익한 회합을 가졌다. 이런 대화 도중에, 예수는 "혼"이라는 말을 반복해 사용했다. 이 박식한 그리스인은 마침내 그에게, "혼"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쓰는지 물었고, 대답은 이랬다:

133:6.5 (1478.4) "혼은 사람의, 자아_반사적인, 진리를_분별하는, 그리고 영을_인식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인간을 동물 세계의 수준보다 높이 향상시킨다. 자아_의식은, 그 자체로 혼이 되지는 않는다. 도덕적 자아_의식은, 인간의 진정한 자아_실현이고 사람의 혼의 기초를 이루며, 혼은, 인간의 체험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의 그 부분이다. 도덕적 선택과 영적 달성, 즉 하나님을 아는 역량과 그와 같이 되고자하는 충동이 혼의 특질이다. 사람의 혼은 도덕적 사고{思考}와 영적 활동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침체된 혼은 죽어가는 혼이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정신에 내주하고 있는 신성한 영과는 구별된다. 그 신성한 영은, 인간 정신의 첫 도덕적 활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도착하며, 그것이 바로 혼이 탄생되는 사건이다.

133:6.6 (1478.5) "혼의 구원 또는 소멸은, 도덕적 의식이, 그와 관련된 불멸하는 영 재능과 영원히 연합해서, 생존하는 자격을 달성 했는가 못했는가에 달려 있다. 구원은 도덕적 의식이 자아를_실현하는 영성화{靈性化}인데, 그렇게 함으로 생존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모든 형태의 혼적{魂的} 갈등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자아_의식과, 순수하게 지적인 자아_의식 사이에 조화가 부족해서 생긴다.

133:6.7 (1478.6) "인간의 혼은, 성숙되고 고상해지고 영성화 됐을 때, 하늘의 상태로 가까워져 가며, 그 속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물질 자아와 신성한 영 사이에

개재{介在}하는 실재로 점점 더 존재하게 돼간다. 인간의 진화하는 혼은, 물질을 연구하거나 영적 증명의 방법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보여주기는 더 어렵다. 물질 과학은 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순수한 영_실험도 할 수 없다. 물질 과학과 영적 기준이 인간 혼의 실재{實在}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도덕 의식을 가진 필사자는 누구든지, *실재*하고 실제로 몸소 겪는 체험, 즉 *자신의* 혼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7. 키프러스에 체류함--정신에 관한 강론

133:7.1 (1479.1) 여행자들은 로데에 잠시 들렀다가 곧 키프러스를 향해서 항해했다. 그들은 긴 해상{海上} 여행을 즐겼고, 육신을 충분히 쉬고 영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목적지인 그 섬에 도착했다.

133:7.2 (1479.2) 그들의 지중해 여행이 거의 끝 무렵에 가까웠기 때문에, 키프러스 방문에서는 단지 휴식을 취하고 즐길 계획이었다. 그들은 바보에 상륙했고, 가까운 산에서 몇 주간 지내기 위한 생필품을 곧바로 모으기 시작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물건을 알맞게_실은 동물들과 함께, 산을 향해서 떠났다.

133:7.3 (1479.3) 이 세 사람은 두 주 동안 매우 즐겁게 보냈는데, 어린 가니드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몹시 앓게 됐다. 그는 두 주 동안 심한 열로 고생했고, 가끔 헛소리도 했으며;예수와 고노드는 병자 간호에 바빴다. 예수는 능숙하고 부드럽게 소년을 돌봤고, 그 아버지는 괴로워하는 소년을 돌보는 모든 일에서 예수의 자상함과 능숙함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인가{人家}에서 멀리 있었고, 소년의 병이 너무 심해서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산 속에서 소년이 회복되도록 돌보기에 최선을 다 할 뿐이었다.

133:7.4 (1479.4) 가니드가 회복되던 3주 동안, 예수는 그에게 자연과 자연의 여러 변화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그들이 즐겼던 것은, 산을 배회하면서 소년이 질문하고 예수가 대답하는 것이었고, 소년의 아버지는 이 모든 실행에 감탄했다.

133:7.5 (1479.5) 그 산에 머물렀던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가니드는 인간 정신의 기능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시간의 토의가 있는 후에 소년이 질문했다:"그렇지만 선생님, 사람이 고등동물보다 더 고귀한 자아_의식 형태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
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3:7.6 (1479.6) **애야, 사람의 정신과 그 안에 거하는 신성한 영에 대해, 나는 이미 네게 많이 말했지만, 지금은 자아_의식이 하나의 실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떤 동물이든지, 자아를_의식하게 되면 원시인이 된다. 그런 달성은 인격아닌 에너지와 영을_느끼는 정신, 이 둘 사이의 작용을 조정함으로 이뤄지고, 바로 이 현상이, 한 절대 초점{焦點},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인간 인격체에게 증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133:7.7 (1479.7) **관념은 단순히 감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관념은 인격있는 자아가 사려 깊은 해석을 감각에 덧붙인 것이며;자아는 그가 가진 감각의 전체 합계 이상{以上}이다. 진화하는 자아성 안에는 통일로 접근하는 무엇이 비로소 생기고, 그 통일은 절대 통일의 일부분인 내주하는 현존으로부터 파생되는데, 동물에서_기원된 자아를_의식하는 정신을 영적으로 활성화시킨다.**

133:7.8 (1479.8) 동물에 불과한 존재는 한때의 자아_의식을 소유할 수 없다. 동물은, 관련된 지각_인식과 그 기억을 생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인간이 지성적으로 돌이켜보고 해석해서 내린 결론 속에 나타나는 것 같은, 감지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이 통합된 육체적 체험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성향은, 어떤 동물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자아_의식이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 체험의 실체와 결합해서, 사람이 우주에서 잠재적 아들이 되게 하고 결국 그가 우주의 최상의 통일을 달성하게 됨을 예시{例示}한다.

133:7.9 (1480.1) 그뿐 아니라, 인간의 자아는 단순한 이어지는 의식 상태들의 합계도 아니다. 의식을 분류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자아성이라는 명칭을 정당화시킬 만큼 충분한 통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통합되지 않은 그런 정신은, 인간 신분의 의식 수준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 의식한 것들을 결합하는 작용이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면, 모든 인간의 정신은, 정신적 광란이라는 어떤 국면의, 통제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결합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133:7.10 (1480.2) 오직 육체 감각에 대한 의식{意識}으로부터 형성된 인간 정신은, 영적 수준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이런 종류의 물질 정신은, 도덕 가치에 대한 감각에서 상당히 결여될 것이고,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안내 감각도 가질 수 없을 것인데, 이 안내 감각은, 시간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인격체 통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이고, 영원 세계에서 생존하는 인격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133:7.11 (1480.3) 인간 정신은 물질을 초월하는 특성을 일찍부터 나타내기 시작하며;확실히 사려 깊은 인간 지능은 시간 제약에 완전히 묶여 있지는 않다. 개인들이 인생살이에서 이룩한 업적이 그토록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유전적 자질과 상이한 환경의 영향뿐 아니라, 자아가 성취한, 내주하는 아버지의 영과 통합을 이룬 정도{程度}를 가리키며, 이것은 자아가 얼마나 아버지의 영과 일치됐는가를 재는 척도다.

133:7.12 (1480.4) 인간 정신은 이중적 충성의 모순을 잘 이겨내지 못한다. 선과 악, 둘 다 섬기려고 애쓰는 체험은, 혼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준다. 한없이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된 정신이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함에 전심으로 헌신된 정신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통일을 파괴시키고 정신 분열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혼의 살아남는 성품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고상한 열망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영적 이상{理想}과 타협함으로써 육성되지 않으며;오히려 그런 평화는, 참된 것에 대한 정복{征服}을 충실히 옹호함으로써 달성되고, 이런 승리는, 선{善}이라는 강력한 힘으로 악{惡}을 극복함으로써 성취된다.

133:7.13 (1480.5) 그들은 다음 날 살라미스를 향해 떠났고, 거기서 시리아 해변에 있는 안디옥으로 출항했다.

8. 안디옥에서

133:8.1 (1480.6) 안디옥은 로마의 시리아 식민지 수도였고, 이곳에는 제국의 총독공관이 있었다. 안디옥은 50만 인구의 도시였으며;크기로는 제국에서 셋째였고, 사악함과 지독한 부도덕으로는 첫째였다. 고노드가 상당히 많은 사업상 거래를 했으므로;예수와 가니드는 둘이서만 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다프네의 작은 숲을

제외하고, 여러 나라 말을 사용하는 이 도시의 모든 곳을 둘러봤다. 고노드와 가니드는, 음란하기로 악명 높은 신전{神殿}을 방문했지만, 예수는 그들과 함께 가기를 사양했다. 그런 장면들이 인도인에게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이상을 추구하는 히브리인에게는 불쾌했다.

133:8.2 (1480.7) 팔레스틴에 가까이 이르고 여행이 끝나감에 따라, 예수는 침착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됐다. 그는 안디옥에서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으며;그 도시도 거의 돌아보지 않았다. 가니드는 왜 안디옥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많은 질문을 선생님에게 한 끝에, 결국 예수에게서 이런 대답을 듣게 됐다:“이 도시는 팔레스틴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언젠가 내가 여기에 다시 올 지도 모르겠다.”

133:8.3 (1481.1) 가니드는 안디옥에서 매우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 이 젊은이는 영민한 학생임을 스스로 증명해 왔고, 예수의 교훈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실천하기 시작했다. 안디옥에는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는 한 인도인이 살았는데, 그가 너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불만까지 심해지게 돼서, 그를 내쫓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 가니드가

이 소식을 듣자, 아버지 사업장으로 가서, 동족인 그 사람과 오랫동안 논의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이 주어졌다고 느꼈다. 가니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해 이야기했고, 여러 방면으로 그의 종교적 견해를 넓혀줬다. 그러나 가니드가 말한 모든 것 가운데, 유대 속담의 인용이 그에게 가장 효과 있었는데, 그 속담은 다음과 같았다: “무엇이든지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거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라.”

133:8.4 (1481.2) 그들은 낙타로 여행하도록 짐을 준비한 후, 시돈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3일 후에는 사막의 모래벌판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9. 메소포타미아에서

133:9.1 (1481.3)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隊商}여행은, 많이_여행한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되지 못했다. 가니드는, 선생님이 20마리의 낙타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짐승을 손수 이끌고 가기로 자원하는 것을 본 후에, 외쳤다. “선생님, 당신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도대체 있습니까?” 예수는 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지런한

학생 앞에서 존경받지 못할 선생은 없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대 도시 우르를 향해 출발했다.

^{133:9.2 (1481.4)} 예수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인 우르의 초기 역사에 매우 관심을 보였고, 수씨의 유적과 전통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료됐으므로, 고노드와 가니드는, 예수가 연구하기에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인도로 돌아가자고 예수를 설득할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 거기서 3주 더 머물렀다.

^{133:9.3 (1481.5)} 가니드가 지식, 지혜, 진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와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우르에서였다. 그는 히브리 현인{賢人}의 다음과 같은 말에 매우 매료됐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탐구한 모든 지식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품기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33:9.4 (1481.6)} 마침내 이별할 날이 됐다. 그들은 모두 담대했고, 특히 젊은이가 그랬으나, 매우 힘들고 괴로운 체험이었다. 그들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으로는 용기를 가졌다. 가니드는 선생에게 작별인사하면서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선생님,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내가 다시 다마스쿠스에 오면,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적어도 당신께서 내게 이야기해주신 그분과 당신이 매우 닮으셨음을 압니다. 당신의 교훈을 기억하겠지만, 무엇보다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를 좀 더 낮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 위대한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평화가 여러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복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는 해변에서, 정박해있는 배를 향해 작은 배가 그들을 태우고 나가는 것을 바라봤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도에서 온 친구들을 카락스에서 작별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며;그들은 나중에 나사렛 예수로 나타난 그가, 자신들이 방금 작별한 바로 이 친구--곧 그들의 선생 예수아--였음을 이 세상에서는 전혀 몰랐다.

133:9.5 (1481.7) 인도에서, 가니드는 성장해서 유능한 아버지의 훌륭한 계승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며, 사랑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많은 고귀한 진리를 널리 전했다.

팔레스틴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이상한 선생에 대한 소문을 가니드가 말년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아들의 복음과 자신의 유대인 선생님의 교훈에서 유사성을 발견했지만,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다.

133:9.6 (1482.1)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아들의 생애에서: *선생님 예슈아의 선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장{章}이 끝나게 됐다.

제134편 과도기 시절

134:0.1 (1483.1) 지중해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는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 및 거쳐 간 나라들을 면밀히 연구했고, 이 세상에서 보낼 나머지 생애에 관한 최종 결정에 도달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팔레스틴에서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도록 마련한 계획을 전에 충분히 고려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정했으며, 따라서 그는 진리를 가르치는 공적{公的} 선생으로서 필생과업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으며; 아버지 요셉이 소속된 민족의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기 위한 계획을 비로소 수립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했다.

134:0.2 (1483.2) 예수는 몸소 겪은 인간적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 생애를 마무리하는 무대를 설치하고 마지막 장면을 상연하기에, 전체 로마 세계에서 팔레스틴이 가장 적합한 곳임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계획과, 자신이 태어난 팔레스틴의 유대인 및 이방인 가운데서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계시하는 계획표에 처음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됐다. 그는 무력한 아기로서 인간의 체험을 시작한 바로 그 땅에서, 이 세상의 생애를 끝내고 필사자로서 실존하는 생애를 마무리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생애는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시작됐고, 그는 일생을 팔레스틴의 유대인 가운데서 끝내기로 선택했다.

1. 서른 살 되던 해 (서기 24년)

134:1.1 (1483.3) 예수는 카락스에서 (서기 23년 12월에) 고노드와 가니드를 보낸 후, 우르를 경유해서 바빌론으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막 대상{隊商}과 합세했다. 다마스커스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단지 몇 시간 가버나움에 들렀고, 거기서 세베대 가족을 만났다. 그는 거기서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는 세베대의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가끔 그를

대신해 일하기 위하여 얼마 전부터 와있었다. 예수는 야고보와 (역시 우연히 가버나움에 왔던) 유다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서, 요한 세베대가 그럭저럭 구입한 작은 집을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갔다.

134:1.2 (1483.4) 예수는 지중해 여행을 마쳤을 때, 공적{公的}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받았다. 그러나 가버나움의 세베대, 그리고 이 특별한 여행 도중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세상은 그가 이런 여행을 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며 지냈다고 항상 믿었다. 예수는 이런 믿음을 한 번도 확인시키지 않았고, 그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다.

134:1.3 (1483.5) 예수는 나사렛에 머물던 몇 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동생 요셉과 수리소에 함께 있으면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마리아와 룻에게 쏟았다. 룻은 그때 거의 열다섯 살이었고, 소녀가 된 이래, 예수가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134:1.4 (1484.1) 시몬과 유다는 언제든지 결혼할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의 허락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으며;따라서 그들은 맏형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야고보를 가장{家長}으로 여기기는 했지만, 막상 결혼이 임박하자 예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시몬과 유다는 서기 24년 3월 초순에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모두 결혼하게 됐으며;가장 어린 롯만 마리아와 함께 집에 남게 됐다.

134:1.5 (1484.2) 예수는 자기 가족 가운데 개개인과는 평상시처럼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났지만,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에는 거의 말이 없었으므로, 가족은 자기들끼리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는 특히 맏아들의 비정상적으로 특이한 습성 때문에 당황했다.

134:1.6 (1484.3) 예수가 나사렛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에, 이 도시를 지나가던 큰 대상{隊商} 안내자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됐고, 예수는 외국어에 능통했으므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원했다. 예수는 이 여행으로 인해 1년간 집을 비워야 했고, 남동생들이 모두 결혼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롯뿐이었으므로, 가족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에 야고보에게 넘겨줬던 가버나움 집으로 어머니와 롯이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예수가 대상과 함께 떠난 며칠 뒤에, 마리아와 롯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했고, 거기서 그들은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예수가 제공한 집에서 살았다.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 고향집으로 들어왔다.

134:1.7 (1484.4) 이 해는 사람의 아들의 내적 체험에서 더욱 특이한 몇 해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의 인간 정신과 내주하는 조율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데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 당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큰 사건들을 위해서, 조율사는 생각을 재조직하고 정신을 연습시키기에 적극 관여해 왔었다. 예수의 인격체는, 세상을 향한 그의 태도에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기간은 사이에_낀 시기, 즉 사람으로 출현하는 하나님으로서 일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출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생애를 완성시킬 준비를 이제 갖추는, 그 존재가 거치는 과도기 단계였다.

2. 카스피로 가는 대상 여행

134:2.1 (1484.5) 예수가 나사렛을 출발하여 대상{隊商}과 함께 카스피 해{海}로 여행을 떠난 것은 서기 24년 4월 1일이었다. 예수가 안내자로 합세했던 그 대상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마스커스와 우르미아 호수를 경유하고, 앓수르, 메디아, 파르티아를 거쳐서 남부 카스피 해 지역으로 갔다. 그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기까지 꼬박 1년 걸렸다.

134:2.2 (1484.6) 예수에게 이 대상{隊商}여행은 탐구와 개인 사역을 이루는 또 다른 모험이었다. 대상 일행--곧 승객, 안내원, 및 낙타부리는 자들--과 그는 재미있는 체험을 했다. 대상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 살고 있던 많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은 예수와 접촉한 결과로, 풍요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평범한 대상을 이끄는 비범한 안내자로 보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역했던 이 기회를 포착했던 사람들 전부가 덕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만나서 이야기 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더 나은 자연스런 여생{餘生}을 보냈다.

134:2.3 (1484.7) 예수의 전체 세계여행 가운데 이 카스피 해 여행이 그를 동양에 가장 가깝게 가도록 했고, 극동지방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했다. 그는 홍인종을 제외하고 유란시아에 살던 모든 종족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가졌다. 그는, 이런 여러 다른 인종은 물론 혼합된 인종 각각에게 개인적인 보살핌을 똑같이 베풀었고, 그들 모두는 예수가 가져다 준, 생생한 진리를 잘 받아들였다. 극서지방에서 온 유럽인이나 극동지방에서 온 아시아인은, 희망과 영생을 전하는 그의 말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였고, 그들 가운데서 그토록 우아하게 함께 살았던 사랑의 봉사와 영적 보살핌으로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134:2.4 (1485.1) 대상 여행은 모든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이것은 예수의 인간 생애에서 가장 흥미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가 이 해 동안 행정가 자격으로 활동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물질과 대상 무리를 이루고 있던 여행자들의 안전한 인도를 책임 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신실하게, 능률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134:2.5 (1485.2) 카스피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우르미아 호수에서 안내자 자리를 그만두고, 2주 약간 넘게 거기에 머물렀다. 그는 나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대상 대열에

승객으로 합세해 돌아갔는데, 거기서 낙타 주인이 그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대상과 함께 여행해서, 서기 25년 4월 1일,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는 나사렛을 더 이상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버나움이 예수와 야고보와 마리아와 룻의 고향이 됐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는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가버나움에 있을 때에는 세베대의 집에서 지냈다.

3. 우르미아 강연

134:3.1 (1485.3) 카스피 해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우르미아 호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오래된 페르시아 도시 우르미아에서 며칠 머물렀다. 우르미아 근처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섬들 가운데 가장 큰 섬에, 어떤 큰 건물이--곧 원형극장식 강연 장소가--"종교의 영"에게 봉헌돼 있었다. 사실 이 건물은 종교에 관한 철학을 다루는 사원{寺院}이었다.

134:3.2 (1485.4) 우르미아 시민인 어느 부유한 상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종교 사원을 설립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썸보이톤이었고, 그의 조상 중에는 많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었다.

^{134:3.3 (1485.5)} 이 종교 학교의 강의와 토의는, 주 중에 매일 오전 열 시부터 시작했다. 오후 수업은 세 시에 시작했고, 저녁 토론회는 여덟 시에 열렸다. 썸보이톤 또는 그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가르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이 수업의 사회를 항상 맡았다. 이렇게 독특한 종교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 신념을 결코 나타내 보이지 않은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134:3.4 (1485.6)} 예수는 이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고, 그가 우르미아를 떠나기 전에, 썸보이톤은 예수가 돌아가는 길에 2주간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사람들의 형제관계”라는 주제로 스물네 번의 강의를 하도록, 그리고 특히 그의 강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제관계에 대해, 질문, 토의, 및 논쟁을 하는 열두 번의 저녁 수업을 하도록 합의했다.

^{134:3.5 (1485.7)} 이런 합의에 따라, 예수는 돌아가는 길에 우르미아에 들어서 이 강의를 했다.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있었던 주님의 모든 교훈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형식을

갖췄다.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해, 이 강의와 토의에서처럼, 그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강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들”에 관한 것이었다.

134:3.6 (1486.1) 종교 철학을 위한 이 사원의 교수진은, 30개 이상의 종교와 종파를 대표했다. 각 종교 집단이 이 선생들을 뽑고, 지원하고, 전적으로 승인했다. 이 무렵에는 75명의 선생이 교수진으로 활동했고, 그들은 각 집마다 열두 명이 함께 사는 사택에서 생활했다. 이 집단은 새 달{月}이 올 때마다 제비뽑기로 교체됐다. 아량이 넓지 못하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하거나, 집단을 순조롭게 운영하기에 방해되는 다른 어떤 경향이든지 나타내는 경우에, 법을 위반한 그 선생은 즉시 간단하게 해직됐다. 그 사람은 아무 행사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게 됐고, 대기해 있던 다른 사람이 곧 그 자리를 대신했다.

134:3.7 (1486.2) 다양한 종교에 속한 이 선생들은, 이 생애와 다음 생애에 대한 근본 사항들에서, 각자의 종교가 서로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원칙만

적용됐는데, 모든 선생은 하나님--곧 어떤 종류의 최고 신격{神格}--을 인식하는 종교를 대표해야만 했다. 교수진 가운데는, 어떤 조직화된 종교도 대표하지 않는 독립된 다섯 명의 선생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독립된 선생 자격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됐다.

134:3.8 (1486.3) [우리 중도자들이 예수의 우르미아 교훈의 요지를 처음 준비했을 때, 유란시아 계시에 이런 교훈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에 대해, 교회 스라빔과 진보{進歩} 스라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 20세기에 널리 보급돼 있는 종교와 인간 정부들 상황이, 예수 당시에 퍼져있던 그런 상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들에 관한 주님의 우르미아 교훈을, 20세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여러 세상 기능에 적용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우리는 행성정부의 이 두 스라빔 집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교훈에 대한 서술문{敍述文}을 결코 만들어 낼 수 없었다. 마침내,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議長}이, 우리 전체 인원 중에서 임명된 세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20세기 유란시아의 종교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에 맞도록, 주님의 우르미아 교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2차 중도자인

우리 세 명은, 예수의 교훈을 그렇게 각색하는 일을
마무리했는데, 현 시대의 세상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그가 발표한 말씀을 다시 고쳐 썼으며,
우리는 지금, 계시위원회의 멜기세덱 의장의
감수{監修}를 받은 그대로, 이 서술문을 발표한다.]

4. 주권--신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

134:4.1 (1486.4)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유래한다--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
전부를 신성하게 사랑하신다.

134:4.2 (1486.5) 하늘 나라, 즉 신(神)의 정부는 신이 주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다--하나님은 영{靈}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 나라는 영적이다. 하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지적이지도
않으며;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다.

134:4.3 (1486.6) 다른 종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주권{主權}을 인정한다면, 그런 모든 종교는 평화를
누린다. 한 종교가, 어떤 면에서 다른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 비해 독점적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할 때에만, 그런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종교 신자를 겁 없이 박해하게 될 것이다.

134:4.4 (1487.1) 종교적 평화는--곧 형제관계는--, 모든 종교가 성직{聖職}의 모든 권위를 기꺼이 완전히 버리고, 영적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전부 양도하지 않는 한,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 주권자시다.

134:4.5 (1487.2)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적 주권{主權}을, 초인적 수준, 즉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너희는 종교 전쟁 없이 종교들 가운데 평등을(종교적 자유를) 유지할 수 없다.

134:4.6 (1487.3)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 나라는, (반드시 획일적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적 통일을 창조하게 될 것인데, 그런 종교 신자{信者}들로 구성된 모든 종교 집단이, 성직{聖職}의 권위--곧 종교의 주권--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134:4.7 (1487.4)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 자아의 단편{斷片}을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도록 주신다.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늘 나라에는, 계급제도, 계층, 사회 수준, 및 경제 집단이 전혀 없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134:4.8 (1487.5)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 주권{主權}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며;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이뤄지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뜻이 이뤄지는 대신, 종교인들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 종교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134:4.9 (1487.6) 스스로를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자유의지 존재들은, 어떤 초월주권, 즉 자신보다 위에 있는 더 높은 권위에 자신들이 종속됨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다른 사람과 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과 권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평등의 개념은, 초월주권의 어떤 전면통제 영향력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134:4.10 (1487.7) 우르미아 종교인들은 종교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모든 관념을 완전히 양도해 왔으므로, 비교적 평화스럽고 편안하게 함께 살았다. 영적으로는,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그들 모두 믿었으며;사회적으로는, 완전하고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그들의 최고 사회자--곧 씬보이톤--에게 맡겼다. 그들은 모두, 동료 선생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 잘 알았다. 신성한 호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종교 주권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모든 종교 집단이 아낌없이 양도하기 전에는, 영구한 종교적 평화를 유란시아에서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최상의 뜻이 될 때, 사람은 종교적 형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종교적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

5. 정치적 주권

134:5.1 (1487.8)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이지만--곧 오직 그 후에 세상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출현된 그에 관한 종교로 인해 복잡해졌을 뿐이지만, 정치적 주권에 관해서 그가 제시한 것들은, 지난 1,900여 년 동안 국가 생존기간의 정치적 진화로 인해 대단히 복잡해졌다. 예수 시절에는 단지 두 개의 세계적 강국--곧 서방의 로마 제국과 동방의 한 제국--이 있었고, 이 두 제국은, 파르티아 왕국과 카스피 및 투루케스탄 지역의 땅들이 사이에 있음으로써 매우 멀리 분리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정치적 주권에 관한

주님의 교훈의 취지로부터 더 광범하게 동떨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교훈이 그리스도 이후 20세기에 정치적 주권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는, 특히 위급한 단계에 적용되는 대로, 그런 교훈의 의미를 서술해 보려고 시도했다.]

134:5.2 (1487.9) 국가가 무제한 주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개념에 국가들이 집착하는 한, 유란시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거주 세계에는 오직 두 수준의 상대적 주권만 있는데: 필사자 개인의 영적 자유의지와, 인류 전체의 집단적 주권이다. 개별 인간 수준과 전체 인류 수준 사이에 있는, 어떤 집단이나 연합도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개인 및 행성 전체 합계--곧 사람과 인류--의 복지와 안녕 그리고 진보를 향상{向上}시키는 경우에만 가치가 있다.

134:5.3 (1488.1) 종교 교사들은, 끼어있거나 중간에 있는 모든 영적 충성심보다 하나님의 영적 주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집권자들은, 지고자께서 사람의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것이다.

134:5.4 (1488.2) 사람의 나라들에서 이뤄지는 지고자의 이 통치는, 특별하게 혜택 받는 어떤 필사자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선택받은 민족”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지고자, 즉 정치 진화에 대한 전면통제관들의 통치는, 가장 긴 세월에 가장 많은 숫자의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134:5.5 (1488.3) 주권은 권력이고, 권력은 조직함으로 자란다. 정치 권력을 가진 조직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유익하고 바람직한데, 인류 전체 중에서 계속_넓어지는 부분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정치 조직의 성장은, 자연스런 정치 권력의 초기 조직과--곧 가족과--, --온 인류의, 온 인류에 의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정치적 성장의 최종 완성사이에 있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문제를 만들어낸다.

134:5.6 (1488.4) 가족 집단에 있는 부모의 권력을 비롯하여, 혈연관계인 가족들이 씨족으로 뭉침에 따라서, 정치 주권은 조직함으로 발전하는데, 이 씨족들은 다시 여러 이유로 부족{部族} 단위로--곧 혈연관계를 초월하는 정치 집단으로-- 뭉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무역, 상업, 및 정복을 통해서 부족들은 한 나라로 통합되고, 때때로 제국이 여러 나라를 통합한다.

134:5.7 (1488.5) 비교적 작은 집단들에서 비교적 큰 집단으로 주권이 옮겨가면서, 전쟁은 점점 줄어든다. 즉, 작은 국가 간의 국지전{局地戰}이 줄어드는 반면, 국가들이 휘두르는 주권이 점점 커갈수록 더 큰 전쟁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윽고, 온 세상이 탐험되고 차지되면, 국가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으면서 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 이런 엄청난 주권을 소유한 나라들의 국경이 서로 이웃하게 되면, 단지 바다만이 그들을 나눠 놓게 되면, 그때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날 무대가 꾸며질 것이다. 소위 주권 국가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는, 서로 사귄 수 없다.

134:5.8 (1488.6) 가족으로부터 전체 인류로 확대되는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재하는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는 관성_저항에 있다. 가족들은 경우에 따라 자기 씨족에게 도전해 왔고, 한편 씨족들과 부족들은 지역 국가의 주권을 종종 타도해 왔다. 각각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주권의 진화는, 정치 조직 속에 전에 있었던 발전의 “발판이 되는 단계들”로 인해 난처한 지경에 처하고 방해 받는다(그리고 항상 그래 왔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인간의 충성심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충성심이 부족_초월체의--곧 지역 국가의-- 진화를 어렵게 한다. 그리고 지역 국가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그 충성심(애국심)이 전체 인류 정부의 진화 발전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134:5.9 (1488.7) 정치적 주권은, 먼저 가족 안에서 개인이, 다음에는 부족 및 더 큰 집단과 갖는 관계에서 가족과 씨족들이, 자결주의{自決主義}를 포기함으로 창출된다. 소규모로부터 좀 더 큰 정치 집단으로 자결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명 왕조와 몽고 왕조가 설립된 후에, 동방에서 대체로 줄어들지 않고 진행돼 왔다. 이것이 서방에서는 1,000년 이상, 바로 세계 대전 말까지 유행했는데, 이때 유럽에서 수많은 작은 집단이 사라졌던 정치적 주권을 다시_수립함으로써, 유감스런 역행 운동이 이 정상적인 경향을 일시 거꾸로 뒤집어놓았다.

134:5.10 (1489.1) 유란시아는, 소위 주권 국가들이 자체의 주권 능력을 사람의 형제관계--곧 인류의 정부--의 권력에 총명하게 완전히 양도하기 전에는, 영구적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국제주의는--곧 국가들의 연맹은--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결코 가져올 수 없다. 국가들의 세계적 연합은, 소규모 전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작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되겠지만, 세계전쟁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 4개, 또는 5개의 초강대국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이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하나가 연맹에서 탈퇴하여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들이 국가 주권이라는 망상적 병균에 감염된 채 남아있는 한, 너희는 전쟁으로 치닫는 나라들을 막을 수 없다. 국제주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국제경찰의 힘은, 여러 작은 전쟁을 예방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정부 사이의 갈등인 큰 전쟁을 막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134:5.11 (1489.2) 진정한 주권을 갖는 국가들(강대국)의 숫자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인류 전체의 정부에 대한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한다. 단지 소수의 (거대한) 강대국만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할 때, 그들은 국가(제국)의 우월성을 위해 사생결단의 투쟁을 선포해야만 하던가, 아니면, 주권의 어떤 특권을 자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의 시작으로 작용하게 될, 초국가적 권력의 본질적인 토대를 창립해야만 한다.

134:5.12 (1489.3) 소위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력을 온 인류의 대표 정부에게 양보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주권은 세계의 민족들에게 내재적이다. 유란시아의 모든 민족이 하나의 세계정부를 창립했을 때, 그들은 그런 정부를 **주권자**로 만들 권리와 힘을 지니며;그런 대표적 또는 민주적 세계 권력이, 세계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을 지구에서 통제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이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선이 도모될 것이다--그러나 그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134:5.13 (1489.4) 19세기와 20세기의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48개의 주로 구성된 아메리카 합중국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전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권을 연방정부에게 양도했으며, 전쟁에 대한 중재를 통해서, 자결권이라는 망상에 대한 주장을 모두 포기해 왔다. 각 주정부{州政府}는 자체의 내부 업무를 규제하지만, 외국과의 관계, 세관, 이민, 군사 문제, 주정부 간의 통상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각 주정부는 시민권의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주권이 어떤 문제로

위태롭게 됐을 경우에만, 48개 주가 전쟁으로 인한 참화{慘禍}를 겪게 된다.

134:5.14 (1489.5) 이 48개 주는, 주권과 자결권이라는 두 가지 궤변을 포기해 왔기 때문에, 주들 사이에 평화와 평정을 누린다. 이와 같이 유란시아 국가들도 그들 각자의 주권을 범세계 정부--곧 사람의 형제단체의 주권--의 지배에 양도할 때, 그런 평화를 비로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적 국가에서는, 작은 나라들도 큰 나라만큼 힘을 갖게 되는데, 마치 작은 로드 아일랜드 주가, 많은 인구의 뉴욕 주나 가장 큰 텍사스 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에 두 명의 상원의원을 보내는 것과 같다.

134:5.15 (1490.1) 이런 48개 주의 (주정부의) 한정된 주권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주를 관할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가) 통치권은, 이 여러 주 중에서 원조{元祖}가 되는 13개 주가, 그들 자체의 이익과 주민{州民}의 이익을 위해 창설했다. 언젠가는 여러 나라가, 자체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초국가적 주권을 갖는 인류의 행성 정부를 비슷하게 창설할 것이다.

134:5.16 (1490.2)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이 태어난 것이 아니며;정부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고안된 조직이다.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갖는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 정치적 주권의 진화에 끝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다른 주권은 가치에서 상대적이고, 의미에서 중간적이며, 지위에서 종속적이다.

134:5.17 (1490.3) 과학의 발달과 함께, 전쟁은 그들이 거의 인종적 자살 행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잔인하게 돼가고 있다. 사람이 인류 전체의 정부를 기꺼이 세우고, 영원한 평화를 즐기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선으로--곧 전 세계적인 친선으로-- 얻은 평정을 토대로 번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계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 동맹이 깨져야만 할 것인가?

6. 법, 자유, 주권

134:6.1 (1490.4) 어떤 한 사람이 해방을--곧 자유를-- 열망한다면, 그는 모든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와 똑같은 해방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를_사랑하는 그런 필사자 집단은, 각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해방을 허락해 주는 동시에, 동료 필사자들 모두에게도 같은 양의

해방을 보장해줄, 법, 규정, 및 규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어떤 한 사람이 절대로 자유로워지려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노예가 돼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 상대적 본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정당하다. 자유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문명의 선물이다.

134:6.2 (1490.5)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을 종교가 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행복이나 효율성에 대한 그런 목표와 관련되는,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정부가 필요하다.

134:6.3 (1490.6) 세계의 정치 주권이 나뉘어 있고 한 집단의 국가_주정부가 불공정하게 장악하는 한,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반목하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그들이 각자의 주권을 영연방{英聯邦}에게 위임하기 전까지 항상 서로 싸우고 있었다.

134:6.4 (1490.7) 또 다른 세계전쟁을 체험함으로써, 소위 주권 국가들이 어떤 종류의 동맹을 형성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국지전{局地戰}, 즉 약소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예방하는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전쟁은 인류 정부가 생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 주권이 세계 전쟁을 막게 될 것이다--다른 수단은 없다.

134:6.5 (1490.8) 미국의 독립된 48개 주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고 있다. 이 48개 주의 시민 중에는,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국민과 종족 모두가 섞여 있다. 이 미국인은 전 세계 모든 종교와 교파와 종파를 대표하며,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북 아메리카 지역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이 48개 주가 자체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결권을 갖는 권리라고 생각된 모든 관념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134:6.6 (1490.9) 그것은 무장{武裝}과 비무장의 문제가 아니다. 징병인가 혹은 지원병인가 하는 것도,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강대국들로부터 현대의 기계화된 무기와 모든 유형의 폭탄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권이 신성한

권리라는 망상에 그들이 빠져 있는 한, 주먹과 돌과 몽둥이를 갖고서라도 싸울 것이다.

134:6.7 (1491.1) 전쟁은 사람의 가장 크고 끔찍한 질병이 아니며;전쟁은 증상, 즉 결과다. 진짜 질병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병균이다.

134:6.8 (1491.2) 유란시아 국가들은 진정한 주권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며;세계 전쟁의 참상과 황폐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인류의 범세계 정부를 창설하는 것은, 국가들이 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영구적인 세계 주권을 창설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전쟁으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지역의 직무는 지방정부가;나라의 직무는 국가 정부가 처리하며;국제적 직무는 범세계 정부가 경영할 것이다.

134:6.9 (1491.3) 세계평화는, 조약, 외교, 외교 정책, 연맹, 힘의 균등, 혹은 민족주의적 주권으로 즉흥적 속임수를 쓰는 어떤 다른 유형의 미봉책으로도 유지될 수 없다. 세계에 통용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를 세계정부가--곧 전체 인류의 통치권이-- 집행해야만 한다.

134:6.10 (1491.4) 개인들은 세계정부 아래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시민은 거의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 당하고, 제약 받고, 통제 받고 있으며, 이런 현재의 개인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간섭은, 국가 정부들이 국제적 문제에 관한 그들의 주권을 범세계 정부에게 기꺼이 맡길 때 사라질 것이다.

134:6.11 (1491.5) 국가 집단들은 범세계 정부 아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인적 자유를 깨닫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자결권이라는 그릇된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돈과 무역에 대한 범세계적 규칙에 따라서 세계적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곧 범세계적 언어가 생길 것이며, 적어도 언젠가는 범세계 종교를-- 또는 범세계 견해를 지닌 종교를-- 갖게 된다는 희망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134:6.12 (1491.6) 집단의 안전은, 그 집합체가 온 인류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화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134:6.13 (1491.7) 인류를 대표하는 정부의 정치 주권이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친선을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람 가운데 친선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134:6.14 (1491.8) 씬보이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들은 평화로운 교수진을 유지해 나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르미아 교수진에 합세했던 후대의 그리스도교 선생들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아량이 있었더라면, 예수의 교훈의 영향은 훨씬 컸을 것이다.

134:6.15 (1491.9) 씬보이톤의 맏아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넬에게 도움을 청했었지만, 아브넬이 선택한 선생들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바뀌는 바람에, 가장 유감스럽게 됐다. 이 선생들은, 자신의 종교가 다른 믿음들을 지배하도록 만들려고 애썼다. 그들은 그 대상{隊商} 안내자가 했다고 종종_인용된 강의들이, 예수가 직접 했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134:6.16 (1491.10) 교수진 사이에 혼란이 커지자, 세 형제는 경제 지원을 끊었고, 그 학교는 5년 후에 문을 닫았다. 그것은 나중에 미드라 사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으나, 결국 주신제{酒神祭} 축제 가운데 하나와 관련해서 불타버렸다.

7. 서른한 살 되던 해 (서기 25년)

^{134:7.1 (1492.1)} 카스피 해로 떠났던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는 자신의 세상 여행이 거의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한번 더 팔레스틴 밖으로 여행했는데, 시리아로 간 것이었다. 그는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한 후에, 나사렛으로 갔고, 거기서 며칠 머물렀다. 그는 4월 중순에 나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향했다. 거기서 북쪽으로 여행하여 시돈에 며칠 머물렀지만, 그의 목적지는 안디옥이었다.

^{134:7.2 (1492.2)} 이 해에 예수는 혼자 팔레스틴과 시리아를 두루 다녔다. 그는 이 여행 기간에, 다른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나사렛 목수, 가버나움 조선공, 다마스쿠스 서기관, 알렉산드리아 교사 등이 그것이었다.

^{134:7.3 (1492.3)} 사람의 아들은, 안디옥에서 두 달 동안 살면서, 일하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방문하고, 보살폈으며, 그동안 내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인간 실존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배웠다. 그는 이 기간 중에 3주 동안 천막 짓는 일을 했다. 그는 이 여행 중에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 안디옥에 가장 오래 머물렀다. 10년 후에,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추종자들이 *다마스쿠스 서기관*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학생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의 교훈을 받았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134:7.4 (1492.4) 예수는 안디옥에서 가이사랴를 향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여행했고, 거기서 몇 주 지내다가 해변을 따라서 옹바로 내려갔다. 그는 옹바에서 얄니아, 애쉬돗, 가자를 향해 내륙 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가자에서 내륙 도로를 택해서 브엘세바로 갔고, 거기서 한 주간 머물렀다.

134:7.5 (1492.5) 그리고 나서 예수는, 사적{私的}으로 혼자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팔레스틴 중심부를 통과하여,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북쪽의 단으로 갔다. 그는 북쪽으로 가는 여행 도중에, 헤브론과 베들레헴(여기서 자신의 출생지를 봤다), 예루살렘(베다니를 방문하지 않았다), 베롯, 레보나, 싸이카, 세겜, 사마리아, 게바, 엔_가님, 엔도르, 마돈을 들렸고;막달라와 가버나움을 지나서 북쪽으로 여행했으며;메롬의 우물에서 동쪽으로 카라타를 지나서, 단, 즉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다.

134:7.6 (1492.6)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을 떠나서 스스로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도록 예수를 인도했고, 거기서 예수는 자신의 인간 정신을 정복하는 업무를 끝낼 수 있었으며, 이 세상에서 남은 필생과업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완수하게 하는 과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134:7.7 (1492.7)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주님의 이 세상 생애 가운데 이례적이고 특이한 시기들 가운데 하나였다. 매우 비슷한 또 하나의 체험은, 세례 받은 직후에, 그가 혼자 펠라 근처 언덕에 있을 때 겪은 것이었다. 헤르몬 산에서 보낸 이 격리 기간은, 그의 순수한 인간 생애의 종료, 즉 필사자 증여의 절차상 종료를 표시하는 것이었던 반면, 나중에 있었던 격리 기간은, 증여에서 좀 더 신성한 국면의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는 헤르몬 산 기슭에서 6주 동안 홀로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

8. 헤르몬 산에 체류함

134:8.1 (1492.8) 예수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생필품을 준비했으며, 그것을 짐 싣는 짐승 위에 붙들어 매고, 티그랏이라는 소년을 데리고, 다마스쿠스

길을 따라서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베이트 젤이라 알려진 마을로 갔다. 서기 25년 8월 중순 경, 그는 거기에 본거지를 정하고 물자를 티그랏에게 맡긴 후에, 인적이 드문 산기슭을 올라갔다. 첫째 날, 티그랏은 약 해발 6,000피트 되는 지점까지 예수와 동행했고, 그들은 거기에 돌로 저장고{貯藏庫}를 지었는데, 티그랏이 매주 두 번씩 거기에 음식을 갖다 놓기로 했다.

134:8.2 (1493.1) 예수는 첫 날 티그랏을 보낸 후에, 산을 약간 더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멈췄다. 그는 무엇보다, 아버지께 “티그랏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호 스라빔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는 필사자 실존의 실체들과의 마지막 투쟁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수락됐다. 그는 단지 자신을 인도하고 유지시키는 내주하는 조율사와 함께, 이 엄청난 시험에 돌입했다.

134:8.3 (1493.2) 예수는 산에 있을 동안 음식을 간소하게 먹었으며;한 번에 하루나 이틀씩만 금식했다. 이 산에서 그가 대면했던, 그가 영으로 씨름을 했던, 그리고 능력으로 물리쳤던 초인간은 실재였으며;그들은 사타니아 체계에서

그의 우두머리_적{敵}들이었으며;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허약하고 굶주린 필사자의 지적{知的} 번덕스러움에서 연유된 망상적 환상이 아니었다.

134:8.4 (1493.3) 예수는 8월 마지막 3주와 9월의 첫 3주를 헤르몬 산에서 지냈다. 예수는 이 기간에, 여러 계통의 정신_이해 및 인격체를_통제를 성취하는, 필사자로서의 과제를 완료했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친교하는 이 기간에, 내주하는 조율사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완료했다. 이 세상 피조물의 필사 목표가 거기서 달성됐다. 다만 정신과 조율사의 동조{同調}라는 마지막 국면의 완성만 남게 됐다.

134:8.5 (1493.4) 방해받지 않고 5주 넘도록 낙원 아버지와 긴밀한 친교를 나눈 후에, 예수는 자신의 본성뿐만 아니라, 시_공간에서 인격체가 형태화되는 물질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었다는 것을 절대로 확신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이 인간 본성을 지배하게 됐음을 온전히 믿었고, 이를 서슴없이 단언했다.

134:8.6 (1493.5) 산에서 체류하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께 요셉의 아들 예수아라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예수는 사타니아에 있는 적들과 회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허락됐다. 헤르몬 산에서 마지막 주간에, 엄청난 유혹, 즉 우주 심리{審理}가 벌어졌다. (루시퍼를 대변하는) 사탄과, 반역한 행성 왕자 캘리개스차가 예수 앞에 나왔고, 그가 볼 수 있도록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유혹", 즉 반역한 인격체들의 잘못된 대표 권한에 직면해서 인간적 충성심을 판단하는 이 마지막 시련은, 음식이나 성전 꼭대기 또는 무엄한 행위들과는 상관없었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위력 있고 영광스런 우주 주권과 관계된 것이었다. 너희의 기록에 나타나는 그 상징은, 유치하게 생각하는 진부한 시대의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세대들은, 그 획기적인 날에 헤르몬 산에서 사람의 아들이 겪어야 했던 투쟁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134:8.7 (1493.6) 루시퍼의 밀사{密使}들이 제시한 많은 제안과 반대 제안에 대해서, 예수는 단지:"내 낙원 아버지 뜻이 이뤄지기 바라며, 반역을 일으키는 아들아, 너를 태고

항존자가 신성하게 재판하시기 바란다. 나는 너의 창조주_아버지이며;내가 너를 공정하게 재판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는 이미 내 자비를 거절해 왔다. 나는 너를 더 높은 우주 재판관들의 판결에 회부한다”고 대답했다.

134:8.8 (1494.1) 루시퍼가_제시한 모든 절충안과 미봉책{彌縫策}에 대해서, 즉 육신화 된 증여에 대한 그럴듯한 모든 제안에 대해서, 예수는 오직, “낙원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뤄질 지어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심리하는 호된 시련이 끝나자, 떠나갔던 수호 스라빔이 예수 곁으로 돌아와 그를 섬겼다.

134:8.9 (1494.2) 늦은 여름 어느 날 오후에, 나무로 둘러싸인 고요한 자연 속에서,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신의 우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주권을 획득했다.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창조주 아들들이 필사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화한 삶을 전부 살아야 하는 과제를, 그는 바로 그날 완성했다. 이 감격적 성취에 대한 우주 발표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있었던 그의 세례의 날까지 미뤄졌지만, 그 모든 것은 산에서 그날 실제로 이뤄졌다. 그리고 예수가 헤르몬

산에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사타니아에서 루시퍼의 반역과 유란시아에서 켈리개스차의 탈퇴는 실질적으로 처리됐다. 예수는 자신이 지은 우주의 주권을 획득하는 데 요구되는 마지막 값을 다 지불했는데, 이 주권은, 그 자체로, 모든 반역자의 지위를 통제하고, 그런 모든 미래의 격변{激變}이 (그런 것이 만약 발생한다면) 즉석에서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확정한다. 따라서, 소위 예수의 “큰 시험”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그가 세례 받은 직후가 아니라, 그 사건 이전의 어느 시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34:8.10 (1494.3) 산에서 체류를 끝내고 하산할 때, 예수는 음식을 갖고 올라오던 티그랏을 만났다. 그는 그를 돌려보내면서 단지: “쉬는 시간이 끝났으며; 나는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단으로 돌아갈 때 그는 아무 말 없었고 매우 달라진 사람이었으며, 거기서 소년에게 당나귀를 주고 작별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왔던 같은 길을 따라서 가버나움을 향해 남쪽으로 갔다.

9. 기다리던 시절

134:9.1 (1494.4) 이제는 여름이 끝날 때가 됐고, 속죄의 날과 장막절이 다가왔다. 예수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족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며, 호수 동쪽으로 갔고, 거라사를 지나 요단 계곡으로 내려갔다. 가는 도중에 동무와 얼마큼 이야기하는 동안, 요한은 예수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134:9.2 (1494.5) 예수와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날 밤 묵으면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함께 지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들은 거의 3주 동안 그 도성{都城} 안과 주변에서 보냈는데, 적어도 요한은 그랬다. 요한이 혼자 여러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예수는 가까이 있는 언덕을 거닐거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지냈다.

134:9.3 (1494.6) 그들은 둘 다 속죄{贖罪}의 날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했다. 요한은 유대인 종교 제례식의 모든 날 가운데 이날 예식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예수는 생각에 잠긴 채, 조용한 구경꾼으로 남았다. 사람의 아들에게는 이제 이런 실행이 가없고 애처롭게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들을 잘못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날의 여러 행사를, 신{神}이 응보한다는 사실과 무한히 자비를 베푸다는 진리에 대한 엉터리 시늉으로 간주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성품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자비로우신 운영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싶은 열정에 타올랐지만, 충실한 감시자가 그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날 밤 베다니에서, 예수는 요한을 매우 혼란시키는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요한은, 그날 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결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134:9.4 (1495.1) 예수는 장막절 주간 내내 요한과 함께 남아 있기로 계획했다. 이 축제는 팔레스틴 전체의 연중 공휴일이었으며;유대인의 휴가철이었다. 예수는 비록 이 행사의 흥겨운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자유분방하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만족함을 체험했음이 분명했다.

134:9.5 (1495.2) 축전{祝典}이 벌어지는 주중{週中}이고, 축제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예수는 낙원 아버지와 좀 더 긴밀한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 언덕으로 물러나 있고 싶다는 말을 하고 요한에게서 떠났다. 요한이 그와 함께 가려 했으나, 예수는 그에게 축제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도록 지시하면서 말했다:“너는 사람의 아들의 짐을 같이 져야 할 필요가 없으며;단지 파수꾼만이, 도시가 평화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불침번을 서야 한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베다니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거의 한 주간 홀로 지낸 후에, 가버나움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생애를 마쳤던 장소 근처 길보아산 기슭에서 하루 밤과 낮을 혼자 지냈으며;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요한을 남겨놓고 떠날 때보다 더 쾌활해 보였다.

134:9.6 (1495.3) 다음 날 아침에, 예수는 세베대의 작업장에 뒀던 개인 소지품 상자로 가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내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동생 야고보와 함께 다음 해 1월까지 수개월간 일했다. 예수와 함께 일한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사람의

아들의 필생과업에 대한 야고보의 이해심에 어떤 의심이 혼란을 일으키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사명에 대한 신앙을 그가 실제로 그리고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134:9.7 (1495.4) 배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예수의 이 마지막 작업 기간에, 그는 좀 더 큰 배의 내부를 마무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모든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훌륭한 그 배를 완성시켰을 때, 인간적 성취의 만족감을 체험하는 듯 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는 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떠맡은 일의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이는 일꾼이었다.

134:9.8 (1495.5) 시간이 지나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전도하고 있던 요한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퍼졌고, 요한은:“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예수는, 요한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강의 개울에서 요단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면서 일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예수는 다음 해인 서기 26년 1월에, 요한이 펠라 근처 지점으로 강을 따라서 여행하기까지, 배를 만들면서

일을 계속했으며, 그때 그는 작업도구를 내려놓고, “내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면서, 세레 받으러 요한에게 갔다.

134:9.9 (1495.6)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이미 예수에게 이뤄져 있었다. 그가 그 지역 땅들을 오가며 방문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공적{公的} 선생으로 나타난 그를, 이전 세월 동안 그들이 사적인 한 개인으로 알고 지내며 사랑했던 그 사람임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적이고 권위 있는 선생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정신과 영의 변형이 여러 해 진행돼 왔고, 이것은 획기적인 헤르몬 산에서 중대한 체류기간에 마무리됐다.

제135편 세레 요한

135:0.1 (1496.1) 세레 요한은 기원전 7년 3월 25일에 태어났는데, 그 전 해 6월에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였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의 방문을 5개월 동안 비밀로 했으며;엘리사벳이 남편 사가랴에게 말했을 때, 그는 매우 고심했지만, 요한이 태어나기 6주 전쯤 이상한 꿈을 꾸 후에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과 사가랴의 꿈 외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상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이 없었다.

135:0.2 (1496.2) 8일째 되던 날, 요한은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4마일 떨어진, 당시에는 유다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해를 거둬하며 나날이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

135:0.3 (1496.3) 요한의 어린 시절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은, 부모와 함께 예수와 나사렛 가족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 방문은 그가 여섯 살 조금 넘었을 때인, 기원전 1년 6월에 있었다.

135:0.4 (1496.4) 그들이 나사렛에서 돌아온 후에, 요한의 부모는 아이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 작은 마을에는 회당 학교가 없었지만;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므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사벳도 유대지방의 보통 여자들보다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으며;그녀 또한 "아론의 딸들"의 자손이었으므로, 제사장가문에 속했다. 요한이 독자{獨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정신적, 영적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사가랴는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짧은 기간만 봉사했다.

135:0.5 (1496.5)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양을 키우는 소규모 목장을 소유했다. 이 땅만으로는 거의 생활이 안 됐으나, 사가랴는 제사장들에게 배정돼있는 성전 기금에서 정규 수당을 받았다.

1. 나실인이 된 요한

135:1.1 (1496.6) 요한은 열네 살에 졸업하게 돼 있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해를, 그가 정식 나실인으로 맹세하기에 적당한 해로 택했다. 따라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사해{死海} 아래 엔게디로 데려갔다. 그곳은 나실인 동우회{同友會}의 남쪽 본부였고, 소년은 거기서 정식으로 엄숙하게 이 집단의 종신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며, 죽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에,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요한은 나실인 서약을 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헌물 드리기를 마쳤다.

135:1.2 (1496.7) 요한은, 저명한 선배인 삼손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종신 서원식을 행했다. 종신 나실인은 성화{聖化}되고 거룩한 인격체로 간주됐다. 유대인은 대제사장에 버금가는 존경과 경의{敬意}로

나실인을 대했으며, 이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허락된 대제사장 이외에는, 나실인만이 종신토록 봉헌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35:1.3 (1497.1) 요한은 아버지의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고귀한 성품의 건장한 남자로 자라났다.

135:1.4 (1497.2) 열여섯 살이 됐을 때, 요한은 엘리야에 관한 글을 읽게 된 결과로, 갈멜산의 선지자에게 크게 감명 받게 되어, 그의 의복 형식을 본받기로 결정했다. 요한은 그날부터 항상 가죽 허리띠를 두르고 털옷을 입었다. 열여섯 살이 됐을 때, 그는 6피트 이상으로 자랐고 거의 다 성장한 상태였다. 흘러내리는 긴 머리와 특이한 복장을 한 그는, 정말로 개성이 뚜렷한 한 젊은이였다. 그의 부모는 약속의 아이이고 종신 나실인인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2. 사가랴의 죽음

135:2.1 (1497.3) 사가랴는 몇 달 동안 병을 앓다가 서기 12년 7월에 세상을 떠났으며, 요한이 막 열여덟 살 될 때였다. 요한에게는 매우 난처한 시기였는데, 나실인 서약을 하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죽은 자로 인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서약의 규율을 따르려고 노력했음에도, 나실인 신분의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따랐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으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예루살렘에 가서 여자들의 정원 한 쪽에 있는 나실인 구역에서, 자신의 정화{淨化}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135:2.2 (1497.4) 이 해 9월에 엘리사벳과 요한은 마리아와 예수를 방문하기 위해 나사렛으로 갔다. 요한은 자신의 필생과업을 시작하기로 방금 결정했지만, 예수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모범을 봄으로써 깨달은 바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아버지의 때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이 즐거운 방문을 끝내고 예수와 마리아에게 작별한 후로, 예수가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때까지,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135:2.3 (1497.5) 요한과 엘리사벳은 집으로 돌아왔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요한이 성전 기금으로부터 받을 사제 수당을 거절했으므로, 2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 집도

처분해야 할 지경이 됐으며;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이 스무 살 되던 해 여름에 헤브론으로 이사했다. 소위 "유대지방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서, 요한은 엔게디에서 사해로 합류하는 좀 더 큰 시냇물의 지류인 개울을 따라서 양을 쳤다. 엔게디 마을에는 종신토록 봉헌된 나실인과 일시적으로 봉헌된 나실인 뿐만 아니라, 가축을 이끌고 이 지역에 모여 나실인 동우회와 친하게 지내는, 수도{修道}하는 수많은 다른 목자{牧者}가 있었다. 그들은 양 치기와, 부자 유대인이 그 계층에게 기증했던 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135:2.4 (1497.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은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든 반면, 엔게디 방문은 늘어났다. 그는 대부분의 나실인과 너무 달랐으므로 동우회와 친하게 지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엔게디 마을의 유명한 지도자이고 우두머리인 아브넬을 무척 좋아했다.

3. 목자의 생활

^{135:3.1 (1497.7)} 이 작은 여울 계곡을 따라서, 요한은 돌 오두막과 밤을 지내기 위한 가축우리를 열두 개 이상 지었는데, 가축

우리는 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양떼와 염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목자로서 요한의 삶은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다. 그는 베쓰_주르의 고아 소년 에즈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소년을 양자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는 요한이 안식일 예배드리러 엔게디로 내려갔을 때는 물론, 어머니를 방문하거나 양을 팔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도, 그를 대신해서 양떼를 돌봤다. 요한과 그 소년은, 양고기, 염소우유, 석청, 그 지방의 식용 메뚜기를 먹으면서 매우 간소한 생활을 했다. 그들은 이런 정규 음식 외에도, 때로는 헤브론과 엔게디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었다.

135:3.2 (1498.1) 엘리사벳이 팔레스틴과 세상 물정을 요한에게 계속 전했고, 그는 옛 체제가 끝나게 될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그리고 새 시대, 곧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선구자가 되리라는 확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꾸밈없는 이 목자는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특히 좋아했다. 요한은 거대한 형상에 대한 다니엘의 묘사를 천 번도 더 읽었는데, 사가라는 그에게, 이것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세계의 탁월한 나라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졌었다. 요한은 로마가 이미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과 종족으로 구성돼 있어서, 강하게 뭉치고 굳건하게 통합된 제국은 결코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로마가 앞으로,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틴, 그리고 다른 영토들로 더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으며;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이 열왕{列王}의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지배권과 영광과 나라를 줘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그를 섬기도록 했다. 그의 지배권은 영구적인 지배권이라서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천국, 지배권, 그리고 온 하늘 아래 있는 천국의 위대함이, 지고자의 성도{聖徒}들의 민족에게 붙인바 될 것이니, 그의 나라는 영구적인 나라이고, 모든 통치권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135:3.3 (1498.2) 요한은 예수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것으로 인해, 그리고 성서에서 읽은 이 구절들로 인해 생긴 혼란에서 결코 완전히 헤어날 수 없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내가 또 밤 환상{幻想} 중에 봤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수여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이런 말은, 부모가 자신에게 가르친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가 열여덟 살에 예수를 방문했을 때 그와 나눴던 이야기 역시, 이런 성서 내용과 맞지 않았다. 이런 혼동에도, 어머니는 그가 당황할 때마다, 먼 친척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가 장차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그는(요한은) 그의 도래를 미리 알리는 자와 최고 옹호자가 되리라고 그에게 주입시켰다.

^{135:3,4 (1498.3)} 요한은, 로마의 타락과 사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제국의 방탕함과 도덕적 결핍에 관해서 들은 대로,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지방 총독의 사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시대의 마지막이 박두하고 있음을 믿기로 결심했다. 거칠지만 천성적으로 고상한 이 소년에게, 세상은 이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신성한 시대가--곧 하늘 나라가-- 임하도록 무르익은 것처럼 보였다. 요한의 마음 속에서는, 자신이 옛 선지자들의 마지막인 동시에 새 시대의 첫 선지자가 되리라는 느낌이 자라났다. 그는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싶은,

솟아오르는 충동으로 상당히 흔들렸다:“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세상일의 새롭고 영원한 체제인 하늘 나라의
출현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라.”

4. 엘리사벳의 죽음

^{135:4.1 (1499.1)} 서기 22년 8월 17일, 요한이 스물여덟 살 됐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직계가족이라도 죽은
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나실인의 제약 조건을 알고 있는
엘리사벳의 친구들은, 요한에게 소식을 알리기 전에 장례
준비를 끝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에즈다에게 양떼를 몰고 엔게디로 가도록 지시하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135:4.2 (1499.2)}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엔게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양떼를 동우회에 기증하고, 한 계절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바깥세상과 접촉을 끊었다. 요한은
신{神}에게 접근하는 옛 방식만 알았으며;엘리야, 사무엘,
다니엘 등에 대한 기록만 알았다. 엘리야는 그가
이상{理想}으로 여기는 선지자였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간주되는 이스라엘 선생들 가운데 첫째였고, 요한은

자신이 하늘의 사자로서 이런 오래되고 저명한 계통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135:4.3 (1499.3) 요한은 2년 반 동안 엔게디에서 살았으며,
대부분의 동우회 사람들에게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초기 교훈은, 이방 통치자의 손에서 유대 국가를
건져내는,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당시 유대인 관념과
메시야 개념에 근거했다.

135:4.4 (1499.4) 요한은 나실인 본거지 엔게디에서 발견한
신성시되는 글을 이 기간 내내 많이 읽었다. 그는 특히
이사야에게, 그리고 당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사야서 마지막 다섯 장을 읽고 또 읽었으며, 이 예언을
믿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구절을 말라기에서
읽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며;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리고 도래하는

천국에 관해 전도하고 동료 유대인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도망가도록 권고하러 나가지 못하도록 요한을
막은 것은, 엘리야가 돌아오리라는 말라기의 이
약속뿐이었다. 요한은 도래하는 천국 소식 전파에 준비돼
있었지만,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이 기대가 그를 2년 이상
물려서 있게 했다. 그는 자신이 엘리야가 아님을 알았다.
말라기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예언은 문자 그대로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그는 마침내, 첫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이름이었으므로, 마지막 선지자도 결국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야 하리라고, 감히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의심이 들었고, 이 의심은 언제라도 자신을 엘리야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135:4.5 (1499.5) 요한이 그 시대 사람의 죄와 타락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비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엘리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말하려고 애썼는데; 외모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 그 옛 선지자와 비슷했다. 그는 정말로 건장하고
멋진 자연인{自自然人}이었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당당한 정의로운 설교자였다. 요한은 무식한 자가
아니었고, 유대의 신성시되는 문서를 잘 알았으나,

세련되지는 못했다. 그는 명철한 사고가였고 능력 있는 웅변가였으며 무서운 탄핵자였다. 그는 그 시대에 본보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설득력 있는 훈계자였다.

^{135:4.6 (1499.6)} 그는 드디어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자신이 메시아의 선구자{先驅者}가 되기로 결정했으며;모든 의심을 버리고, 서기 25년 3월 어느 날, 짧기는 했지만 찬란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 대중 설교자로서 엔게디를 떠났다.

5. 하나님 나라

^{135:5.1 (1500.1)}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행동 무대에 나타났던 당시 유대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거의 100년이나 궁지에 빠져 있었는데;그들은 계속 이방 군주들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모세는 가르치기를, 정의는 반드시 번영과 권력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나? 다윗 왕권은 왜 버림받고 공석이 됐나? 모세의 교리와 유대 선지자들의 훈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이런 민족적 처참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와 요한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새로운 학파의 종교 선생들, 즉 종말론자들이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이 선생들은, 자신이 나라의 죄에 대한 대가{代價}를 치르고 있다는 구실로, 유대인의 고통과 굴욕을 설명하려는 믿음 체계를 전개시켰다. 그들은 지난날의 바벨론 및 다른 나라 포로생활을 설명하도록 설정된, 잘_알려진 이유들로 후퇴했다. 그러나, 그 종말론자들은,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야하며;자기들의 고난의 날들은 거의 끝나고 있으며;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훈련은 거의 끝났으며;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가르쳤다. 로마 통치의 종료는 그 시대의 종료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새로운 이 선생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깊이 의존했고, 창조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이 세상 나라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끈기 있게 가르쳤다. 당시 유대인 정신 속에서는, 이것이 요한의 교훈과 예수의 교훈의 골자가 됐던 그 단어--곧 하늘 나라--의 의미였다. 팔레스틴의 유대인에게 “하늘 나라”는 단지 한 가지 의미가 있을 뿐이었는데:하나님(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똑같은 완전한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의미했다.

135:5.3 (1500.3) 요한의 시대에 모든 유대인은 간절한 마음으로:"천국은 얼마나 빨리 오게 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방 나라의 통치는 곧 끝나리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온 유대 사회에는,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대의 열망이 달성되리라는, 생기 넘치는 희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있었다.

135:5.4 (1500.4) 유대인은, 도래{到來}할 천국의 본질에 대한 추측에서는 크게 달랐던 반면, 그 사건이 박두했고, 가까이, 심지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나같이 믿었다. 구약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은, 다윗 왕의 후계자, 즉 빠른 시일 내에 온 세상의 정당하고 의로운 통치자로 인정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적들로부터 해방돼서 재건{再建}될 유대 나라를 위한 새로운 왕이 팔레스틴에 나타나리라고 문자 그대로 고대했다.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독실한 다른 유대인 집단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도래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세상은 어떤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이 나라는 영속하는 지배권이 되리라는 것, 죄는 끝나리라는 것, 그리고 새 나라의 시민은 이런 끝없는 복을 누리면서 불멸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쳤다.

135:5.5 (1500.5) 제거하거나 정화하는 어떤 강렬한 징계가, 이 세상에 새 나라를 설립하기 전에 필요하리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모든 불신자를 파괴할 세계 전쟁이 계속되는 한편, 신실한 자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가르쳤다. 심령가{心靈家}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대심판{大審判}으로 예고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심판이, 불의한 자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심판과 마지막 파멸로 내쫓는 동시에, 선택된 백성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들어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들을 통치할 사람의 아들과 함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에 앉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후자{後者}의 집단은,

많은 경건한 이방인도 새 나라 공동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믿기까지 했다.

135:5.6 (1501.1) 일부 유대인은, 하나님이 직접 신성하게 간섭함으로써, 새로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을 가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중재{仲裁}하는 대표자인 메시아가 개입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 시대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메시아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서만 간직될 수 있었다. *메시아*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 또는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킬 수는 없었다. 유대인은 그런 모든 신성한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시아는 선지자 이상이 돼야 했으며;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인 그 새 나라의 설립을 이끌어야 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전통적 유대인의 감각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135:5.7 (1500.7) 누가 이런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점에서도 역시 유대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구세대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교리를 붙들었다. 신세대는, 새 나라는 하늘의 나라이므로, 새 통치자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오래 앉아 계셨던 신성한 어떤 인격체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새 나라의 통치자를 그렇게 상상했던 그들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곧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 왕자로 그를 바라봤고, 이 세상 통치권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하면서 오래 기다려 왔다. 요한이 나가서:"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 국가의 종교적 배경이 그랬다.

135:5.8 (1500.8) 그러므로, 도래할 나라에 대한 요한의 발표는, 그의 정열적인 설교를 듣는 자들의 정신 속에, 여섯 가지 이상의 다른 의미를 가졌음이 분명하게 된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했던 구절들에 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든지, 유대인_나라를 기대했던 이런 여러 집단의 각 사람은, 듣는 이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그렇게 엄숙하게 권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진지하고 열렬하고 만반의 준비가 된, 의로움과 회개의 설교자의 선포에 매료됐다.

6. 전도하기 시작한 요한

135:6.1 (1501.4) 서기 25년 3월 초순에, 요한은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서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으로 여행했는데, 그 강은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약속된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건너서 지나간, 고대의 유서 깊은 곳이었으며; 그는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강 입구 근처에 자리 잡았고, 강을 건너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모든 요단 건널목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곳이었다.

135:6.2 (1501.5)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요한은 분명히 설교자 이상의 사람이었다. 유대지방 광야에서 온 이 이상한 사람에게 귀 기울였던 대부분의 사람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으면서 떠났다. 지친 가운데 기다리던 이 유대인 혼들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동요됐음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전체 유대 역사에서, 신앙심 깊은 아브라함 자녀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안"을 갈망하거나, 그렇게 열렬하게 "천국의 회복"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 유대 역사 전체에서, 요한이 요단의 남쪽 건널목의 독을 건너 그토록 신비하게 나타난 이때만큼, 그가 전파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심오하고 보편적인 호소를 제시한 적도 없었다.

135:6.3 (1502.1)

그는 아모스처럼 목자 출신이었다. 그는 옛 엘리야처럼 옷을 입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우렁차게 훈계했으며, 경고를 퍼부었다. 이 이상한 설교자가 요단강 주변에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여행자들이 멀리까지 전하게 되자, 그가 팔레스틴 전역에 굉장한 동요{動搖}를 일으켰음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135:6.4 (1502.2)

이 나실인 설교자의 활동에는 또 다른 새로운 특색이 있었는데: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비록 세례가 유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예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요한이 시행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었다. 이방인 개종자들을 성전 바깥뜰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던 관습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유대인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요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이 전도와 세례를 시작한 때부터,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갈 때까지는 겨우 15개월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에 10만 명 훨씬 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135:6.5 (1502.3) 요한은 요단 북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베다니 개울가에서 4개월 동안 전도했다. 그의 수많은 청중 가운데는, 호기심 때문에 왔던 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직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유대지방, 베레아,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리고 더러는 갈릴리에서 오기도 했다.

135:6.6 (1502.4) 이 해 5월에, 그가 아직 베다니 개울에 머물고 있을 때, 요한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권위로 전도하는지 묻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에게 대표단을 보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요한이 대답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순탄한 계곡이 될 것이요, 모든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노라고, 가서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라.”

135:6.7 (1502.5) 요한은 담대했지만, 재치 없는 설교자였다. 어느 날, 그가 요단강의 서쪽 강둑에서 전도하며 세례 를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 무리와 몇 명의 사두개인이 앞으로 나와서 세례 받기 위해 그의 앞에 섰다. 요한은 그들을 물속으로 인도하기 전에, 그 집단 전체에게 말했다:“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지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진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개의 돌로도, 너희 앞에서 능히 아브라함의 합당한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가 언급한 열두 개의 돌은 “열두 지파”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들이 건너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슈아가 바로 그 지점에 세운 기념비였다.)

135:6.8 (1502.6) 요한은 제자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르쳤고,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려고 애썼다. 그는 선생들에게, 율법의 내용뿐 아니라 영성{靈性}도 함께 가르치도록 조언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먹이라고 가르쳤으며;세금

징수원들에게는:“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건지 말라”고 했다. 그는 군인들에게:“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옳지 않은 일을 강요하지 말라--너희 보수에 만족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시대의 종말을 위해 준비하라--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조언했다.

7. 북쪽으로 가는 요한

135:7.1 (1503.1) 요한은 도래할 나라와 그 왕에 대해서 여전히 혼동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전도를 오래 할수록 더 혼동됐지만, 도래할 나라의 본질에 관한 지적{知的} 불확실성이, 천국의 임박한 출현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그의 신념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했다. 요한은 정신으로는 혼동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아니었다. 그는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천국의 통치자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요한이 다윗 왕좌의 복권 관념에 매달리는 동안에는,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토록 오래 기다려 온 구원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 모순이 없는 듯 했지만;그가 영적인 나라의 교리와 이 세상에서 일시적 시대의 종말에 더 치우치던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예수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 몹시 의심했다. 때로는 그가

모든 것을 의문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 사춘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명시한 약속에 어긋났다.

135:7.2 (1503.2) 요한은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예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는 요단강을 거슬러 여행하면서 열두 곳 이상 머물렀다. 제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라고 직접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는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다른 이”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담에서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보다 위대한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엎드려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키를 손에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완전히 정리할 것이며;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심판의 불에 태울 것이다.”

135:7.3 (1503.3)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교훈을 계속 확장시켰는데,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자신의 모호한 초기 메시지와 비교할 때, 좀 더 유용하고 위안이 되는 내용을 나날이 첨가했다. 이때가 되자, 군중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에서 몰려왔다. 날이 거듭되면서, 많은 진지한 신도가 존경하는 선생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냈다.

8. 예수와 요한의 만남

135:8.1 (1503.4) 서기 25년 12월, 요한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펠라 근처에 왔을 즈음에, 그의 명성이 온 팔레스틴에 퍼졌고, 그의 활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서 최고 화젯거리가 됐다. 예수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이야기했으며, 이것이 많은 가버나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종파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이 펠라 근처에서 전도를 시작한 직후인 12월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요한을 만나러 갔고, 그 전도자의 활동에 대해 새롭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예수에게 전했다.

135:8.2 (1503.5)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내려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때 유다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회당에서 예수의 설교를 경청한 다음, 그들의 계획에 대해 그와 상의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서기 26년

1월 12일의 일이었다. 예수는 그 의논을 내일로 미루자고 했으며, 그때 대답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다. 그는 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에 대해 조언을 주기로 계획했다.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는 평상시처럼 배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했다. 야고보와 유다가 점심을 갖고 도착했지만 아직 점심 휴식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목재실에서 그를 기다렸고, 그런 문제에서 예수가 얼마나 규칙적인지 잘 알았다.

135:8.3 (1504.1) 예수는 점심 휴식시간 직전에 연장들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었으며, 그와 함께 작업장에 있던 세 명의 일꾼에게, “이제 나의 때가 왔다”는 말만 했다. 그는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나가서, “나의 때가 왔다--같이 요한에게 가자”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펠라를 향해서 떠났고, 점심은 여행 도중에 먹었다. 이것은 1월 13일 일요일의 일이었다. 그들은 요단 계곡에서 그날 밤을 지냈고, 요한이 세례 주는 현장에는 다음 날 정오 무렵에 도착했다.

135:8.4 (1504.2)

요한은 그날의 지원자들에 대한 세례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수십 명의 회개하는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서있었고, 예수와 두 동생도, 도래할 나라에 대한 요한의 전도를 믿는 열성적인 남녀 대열 속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도에 관한 예수의 의견을 들었고,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매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의 행렬 속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135:8.5 (1504.3)

요한은 그토록 많은 개종자에게 신속히 세례를 주는 세부적 일에 몰두해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기 앞에 나오기까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요한이 예수를 알아봤을 때, 육신으로는 사촌인 그에게 인사하는 동안 예식은 잠시 중지됐고, 그는 “왜 당신이 나를 만나러 강까지 내려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가, “네게 세례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요한이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그러자 예수는 요한에게 속삭이면서 말했다: “이제 내 말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서 있는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내 때가 왔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35:8.6 (1504.4) 예수의 음성은 단호했고 권위 있었다. 서기 26년 1월 14일 월요일 정오에, 요한은 요단강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 줄 준비를 하면서 감정에 북받쳐 전율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와 두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요한이 이 세 사람에게 세례를 줬을 때, 그날 나머지 세례는 다음 날 정오에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사람들이 떠나갈 때, 아직 물속에 서있던 네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의 환영{幻影}이 잠시 예수의 머리 바로 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에서 나와 그들을 떠났고 동쪽 언덕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다시 보지 못했다.

135:8.7 (1504.5) 요한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던, 그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의 방문에 대해

예수에게 이야기했다. 요한은 예수에게, “이제 나는 당신이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예수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뒀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9. 40일간의 전도

^{135:9.1 (1505.1)} 요한이 (당시에 그와 항상 함께 거주하던 약 25 내지 30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의 세례와 관련돼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요한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에게 전했는데도 예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자,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30여명 되는 이 무리는 별 빛 아래서 오래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135:9.2 (1505.2)} 이날의 체험이 있는 후, 요한의 전도는 도래할 나라와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해 새롭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이 40일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대단한

위력으로 전도를 계속했으며, 이 무렵에는 요단강에서 요한 주변에 모여드는 넘쳐나는 군중에게 그의 제자들도 전도하기 시작했다.

135:9.3 (1505.3) 이렇게 40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소문이 근방에, 그리고 디베랴와 예루살렘까지도 퍼졌다. 수천 명이 요한의 야영지에서 새로운 흥밋거리인, 소문난 메시아를 보려고 모여들었지만, 예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언덕으로 갔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자, 많은 사람은 그 이야기 전체를 의심했다.

135:9.4 (1505.4) 예수가 떠난 지 약 3주 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새로운 대표단이 펠라에 도착했다.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직접 물었으며;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당신은 메시아인가?”라고 대담하게 물었고,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이 엘리야도,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며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요한이 대답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세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 말하겠지만,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세례 주실 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135:9.5 (1505.5) 이 40일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기간이었다. 예수와 요한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토의 제목으로 제시됐다. 정치적 흥정과 이기적인 자리다툼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관념과 개념을 둘러싸고 심각한 토론이 일어났다. 그는 군대 지도자가 되고 다윗의 왕좌를 이을 것인가? 예슈아가 가나안 사람을 취했던 것처럼, 그가 로마 군대를 무찌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를 세우려 올 것인가? 요한 자신도, 하늘 나라의 설립에 관한 이 사명에 무엇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자기 마음을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하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소수 의견 편에 서있었다.

135:9.6 (1505.6) 이런 날들은 요한의 체험에서 분투를 요하는 나날이었고, 그는 예수가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찾기 위한 수색대를 조직했으나, 요한은 말리면서 말했다:“우리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135:9.7 (1505.7) 2월 23일 안식일 이른 아침에, 요한의 일행은 아침식사를 하는 중에 북쪽을 보다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가까이 오자, 요한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내가 광야로부터 나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너희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 받으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세례 줄 분이 오고 계시다. 나는 신성한 영이 이 분 위에 강림하심을 봤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135:9.8 (1506.1) 예수께서는 요한과 둘이 앉아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계속하도록 권했는데, 그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후였다.

135:9.9 (1506.2)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는 언제 다시 그들을 만나리라는 것에 대해 아무 말씀도 없었다. 자신의 전도와 사명에 대한 요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단지:“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해 오신 것처럼, 지금이나 미래에도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위대한 이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요단 강변에서 헤어졌고, 육신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10. 남쪽으로 가는 요한

135:10.1 (1506.3)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로 가버리셨으므로, 요한은 왔던 길로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3월 3일 일요일 아침에,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은 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동안에 요한의 가까운 제자 가운데 약 4분의 1은 예수를 좇아 갈릴리로 떠났다. 요한에게는 혼란에 빠진 슬픈 기색이 있었다. 그는 예수께 세례 주기 이전에 행했던 것 같은 전도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는 어쩐지 도래할 나라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자기 일이 거의 끝난 것처럼 느꼈으며;마음 둘 곳을 잃었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는 전도하고 세례를 주면서 남쪽으로 계속 여행했다.

135:10.2 (1506.4) 요한은 아담이라는 마을 가까에서 여러 주 머물렀으며,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 인상적인 공격을 했다. 이 해(서기 26년) 6월쯤, 요한은 요단강의 베다니 개울가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1년 전에, 도래할 나라에 대한 전도를 시작한 곳이었다. 예수가 세례 받은 후에 몇 주 동안, 요한의 설교의 특징은 점차 보통 사람에게 자비를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한편 그는 부패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격렬한 태도로 공공연히 비난했다.

135:10.3 (1506.5)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이 자신의 행정구역에서 전도했으므로, 요한과 그 제자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 경계하게 됐다. 또한 헤롯은 자신의 가정 문제에 대한 요한의 공공연한 비난에 분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6월 12일 이른 아침,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주는 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 전에, 헤롯의

앞잡이들이 요한을 체포했다. 여러 주 지나도 그가 석방되지 않자, 그의 제자들은 팔레스틴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세하기 위해 갈릴리로 갔다.

11. 감옥에 갇힌 요한

^{135:11.1 (1506.6)} 요한은 감옥에서 다소간 쓰라리고 외로운 체험을 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사람의 아들을 믿게 됐던 추종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직 그의 업적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는 종종 예수와 그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유혹받았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이 견디기 어려운 감옥살이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광야{曠野} 출신인 이 억센 남자는, 경멸스런 감옥에서 번민하며 1년 반 이상 지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신앙과 충성에 대한 큰 시험이었다. 정말로, 이 모든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신앙까지 시험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체험의 순수성까지 의심하려는 유혹에 여러 번 빠졌다.

감옥에서 여러 달 지낸 후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무리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의 공적{公的} 활동에 대해 보고한 후 말했다: “선생님,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사람이 성공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는 물론 죄인과도 함께 식사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감하게 증거 했지만, 그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다. 내가 말했던,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너희가 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행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도 기뻐하는 법이다.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분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이 땅에서 왔고, 내가 전할 메시지를 선포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모두보다 위에 계신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영{靈}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135:11.3 (1507.2) 이 제자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떠날 만큼 요한의 선언에 놀랐다. 요한 역시 몹시 동요됐는데, 자신이 예언의 말을 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명과 신성에 대해 다시 전적으로 의심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 한 마디 전갈도 그에게 보내지 않는 점과, 그를 만나러 오지 않는 점, 그리고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는 점은 그에게 비통한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는 요한을 매우 사랑했으나, 이제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지했고, 그가 이 세상에서 떠나면 그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마련돼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요한의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위대한 설교자요_선지자인 그의 생애의 자연스런 결실과정에 자신이 끼어들기를 자제했다.

135:11.4 (1507.3) 감옥에서 이런 장기간의 긴장감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은 믿을만한

사람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다시 물었다:“내 일은 끝났습니까? 나는 왜 감옥에서 괴로워해야 합니까?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제자가 이 전갈을 예수께 전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 대답했다:“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그를 잊지 않고 있으며, 나 또한 이것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의를 완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곧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전하고, 마지막으로, 내 사명을 전한 사랑하는 사자{使者}에게, 그가 나를 의심하거나 실족하지 않으면, 장차 올 시대에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고 전해라.” 이것이 요한이 예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전갈{傳喝}이었다. 이 전갈이 그를 매우 안심시켰고, 신앙을 굳건하게 했으며, 이 기억할 만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그의 육신의 삶의 비극적 종말을 그에게 준비시켜줬다.

12. 세례 요한의 죽음

^{135:12.1 (1508.1)} 체포됐을 때 남쪽 베레아에서 일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마케러스의 요새에 있는 감옥으로 바로 이송됐고, 처형당할 때까지 거기에 감금돼 있었다. 헤롯은

갈릴리뿐 아니라 베레아도 지배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베레아에서 유리아와 마캐러스 두 군데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다. 갈릴리에서는, 공관{公館}이 세포리에서 새 수도 디베라로 옮겨졌다.

135:12.2 (1508.2) 헤롯은 요한이 반역을 선동할까 염려해서, 그를 석방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군중이 요한을, 거룩한 자, 즉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헤롯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나실인 설교자를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있었다. 요한은 여러 차례 헤롯 앞에 불러갔지만, 만약 석방되는 경우라도, 자기가 헤롯의 나라를 떠나거나, 또는 모든 공공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새로운 민심의 동요가, 요한을 풀어주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헤롯에게 일깨웠다. 게다가 요한은 헤롯의 불법 아내인 헤로디아의 맹렬하고 혹독한 미움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135:12.3 (1508.3) 헤롯은 하늘 나라에 대해 요한과 여러 번 이야기했고, 때로는 요한의 메시지에 매우 감명 받기도 했지만,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은 두려워했다.

135:12.4 (1508.4) 헤롯은 디베랴에서 아직도 많은 건축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베레아에 있는 거주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마케러스 요새를 특히 좋아했다. 디베랴에서 공공건물과 공관{公館}을 완공하려면 아직도 몇 년 더 걸릴 예정이었다.

135:12.5 (1508.5) 헤롯은, 자신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갈릴리와 베레아 관청의 협의회에서 직위가 높은 다른 사람들과 주요 관원들을 마케러스의 궁전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여 달라고 헤롯에게 직접 청원{請願}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요한을 죽이기 위해 간악한 계획을 세우는 과제에 착수했다.

135:12.6 (1508.6) 헤로디아는, 저녁 축제와 연회 순서로, 자기 딸이 연회 손님들 앞에서 춤추도록 주선했다. 헤롯은 그 처녀의 연기에 매우 기분이 좋아졌으며, 그녀를 불러서 말했다:“너는 매우 매력 있구나. 나는 너로 인해 매우 기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라도 네게 주겠다.” 그리고 헤롯은 술을 많이 마셔서 몹시 취한 상태로 이 모든 말을 했다. 소녀는 물러가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헤롯에게 구할

것인지 물었다. 헤로디아가 말했다:“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리고 소녀는 연회 식탁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말했다:“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135:12.7 (1508.7) 헤롯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자신의 망세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병정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날 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병정이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연회장 뒤에 있는 소녀에게 가져갔다. 그리고 소녀는 소반을 어머니에게 줬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의 시체를 가지러 감옥에 왔고, 요한을 무덤에 묻은 뒤에 예수께 가서 소식을 전했다.

제136편 세례와 40일 기간

136:0.1 (1509.1) 예수께서는, 요한의 전도에 대한 대중적 흥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팔레스틴의 유대 민족이 메시아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공적{公的} 업무를 시작했다. 요한과 예수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요한은 열렬하고 진지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는 침착하고 행복한

노동자였으며;전체 생애에서 오직 몇 번 외에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예수는 세상에 위로를 가져온 위로자였고, 어느 정도는 하나의 본보기였으며;요한은 거의 위로자 또는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그가 하늘 나라를 전파했지만 그로 인한 행복의 세계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요한을 옛 체제에 속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호평했지만, 새로운 길이 되는 위대한 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나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기도 했다.

136:0.2 (1509.2) 요한이 다가오는 나라를 전파했을 때, 그 메시지의 중점은: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는 권고는 같았지만, 그런 메시지 다음에는, 복음, 즉 새로운 나라의 기쁨과 자유라는 유쾌한 소식이 항상 따라왔다.

1. 고대하는 메시아의 개념

136:1.1 (1509.3) 유대인은 고대하는 구원자에 관한 많은 관념을 품었으며, 메시아를 가르치는 색다른 이 학파들은 각각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히브리 성서 구절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그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가 되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기에는 이 구원자를 “주의 종”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또한 더 후대에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는 “다윗의 아들”로 칭했더라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은 “주의 종”에서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발전했다.

136:1.2 (1509.4) 요한과 예수의 시대에 학식 있는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는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라는 삼중 직책을 겸비한 채, 완전하게 된 대표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개발했다.

136:1.3 (1509.5) 모세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불가사의한 기적으로 그들의 선조를 구했던 것처럼, 곧 오실 메시아는, 더 큰 기적의 권능과 인종적 승리의 경이로움으로 유대 백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열렬하게 믿었다. 랍비들은, 분명한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고 스스로 단언하는, 거의 500개 이상의 구절을 성서에서 수집해 왔다. 그리고 이런 시간적, 기술적, 기능적 세부사항에 집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인격체*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하게 잊어버렸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는 유대의 국가적 영광의 회복을--곧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지위 향상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신 속에 자리 잡은 이런 세속적 메시아 개념을, 나사렛 예수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그들이 예언적인 이 기록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면, 그들에게 메시아 예언으로 통했던 것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를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자요, 모든 민족을 향한 자비와 구원의 새롭고 더 나은 섭리시대를 시작하는 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신을 매우 자연스럽게 준비시켰을 것이다.

136:1.4 (1510.1) 유대인은 *쉐키나* 교리를 믿도록 양육받았다. 그러나 신성한 현현{顯現}이라고 일컫는 이 상징은 성전에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상징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족이 죄를 짓는다는 관념,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가정하는

관념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더러는 아담의 죄가 인간 종족을 저주받게 했는데, 메시아가 이런 저주를 없애고 사람을 신성한 호의로 회복시킨다고 가르쳤다. 더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모두 그 존재 속에 집어넣었다고 가르쳤으며;그가 이런 작업 결과를 보시고 매우 실망했고, "그렇게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은, 선천적으로 악한 이런 본성에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136:1.5 (1510.2) 대부분의 유대인은, 민족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의 냉담함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 계속 고통당한다고 믿었다. 유대 나라는 아직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았으며;따라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믿었다. 회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그런 이유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요한의 설교가 강력하고 즉각적인 호소력을 나타냈다.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든지 하늘 나라라는 말을 오직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메시아의 도래였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미가엘 증여의 한 가지 특색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라는 두 본성의 **합동**이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완전하게 된 인간, 초인간, 그리고 심지어 신성한 존재라고 다양하게 생각해 왔지만,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합동**이라는 개념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큰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초기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개념; 다니엘과 후기 선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제시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초인간 관념; 심지어 에녹서 저자 및 동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묘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붙잡았지만; 인간적이고 신성한 두 본성이 이 세상의 한 인격체 안에 합동한다는 참된 개념은 고려해본 적이 없었다. 창조주가 피조물 형상으로 육신화 한다는 사실은, 과거에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계시됐으며; 창조주 아들이 육신으로 와서 그 영역의 필사자들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전도가 절정에 달해서, 팔레스틴이 그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붙고, 온 유대민족이 심각하고
 엄숙하게 반성할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 유대인의 인종적
 연대감은 굉장히 뿌리 깊었다. 유대인은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를 괴롭힌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민족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사람 모두가, 요한이 비난했던
 특정한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신앙심 깊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 편에서 모르고 지은 어떤
 죄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지연될까봐 두려워했다.
 죄가 있고 죄로_저주받은 민족에 속해 있다고 느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세례 받으러 나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족
 참회의 결실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회개의 제레나 죄 사함을
 위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예수께서 요한의 손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자손의 본보기를 따른 것 뿐이었다.

136:2.2 (1511.1)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는 정신을 정복하고 영{靈}과 자아를_동일시하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진화로 올라갈 수 있는 절정에 도달한, 그 영역의 한 필사자였다. 그는 그날,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완전하게 된 한 필사자로서 요단강에 서 있었다. 완전한 일치와 온전한 대화가, 예수의 필사 정신과,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의 선물인 내주하는 영 조율사 사이에서 이뤄지게 됐다. 미가엘이 자기 우주의 우두머리로 상승한 후부터, 바로 그런 조율사가,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정상 존재 안에 거하게 됐으며, 예수의 조율사는 예외인데, 그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했던 다른 초인간, 즉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유사하게 내주함으로써, 이런 특별 사명을 미리 준비했다.

136:2.3 (1511.2) 그 영역의 한 필사자가 그토록 높은 수준의 완전한 인격체를 달성할 때, 대개는 영적으로 높아지는 예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필사자의 성숙한 혼이, 그와 관련된 신성한 조율사와 궁극에 융합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예수께서 두 동생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내려간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인격체 체험 속에서 일어나도록 명백하게 예정돼 있었다. 이 예식은 그가 유란시아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를 끝내는 마지막 무대였고, 조울사와 그 조울사가 내주한 정신이 융합됨을 목격하리라고, 많은 초인간 참관자가 기대했지만,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고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예수 위에 손을 얹자, 내주하던 조울사가, 완전하게 된 요셉의 아들 예슈아의 인간 혼으로부터 아주 떠나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신성한 실재는, 인격화된 조울사로서, 그리고 네바돈 지방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동료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디비닝톤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전에 있었던 신성한 영이 인격화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낙원에서 근원된 바로 그 영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자다." 예수의 두 동생과 요한 역시 이 말을 들었다. 물가에 서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듣지 못했고, 인격화된 조울사의 출현도 보지 못했다. 인격화된 조울사는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136:2.4 (1511.3) 방금 신분이 높아져서 돌아온 인격화된 조울사가 그렇게 말씀할 때,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네 명이 물 속에 머무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조울사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하옵소서.”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인격화된 조울사가 제시한 환상을 봤는데, 필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육신화 된 삶을 끝낸 후에 이뤄질 모습이었다. 이런 천상{天上}의 환상은 예수께만 보였다.

136:2.5 (1512.1) 요한과 예수가 들었던 것은, 만유의 아버지 대신 말했던, 인격화된 조울사의 소리였는데, 그 조울사는 낙원 아버지께 속하고 낙원 아버지와 같기 때문이다. 이 인격화된 조울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나머지 생애 내내, 그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그와 관련돼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고양된 이 조울사와 항상 교류했다.

136:2.6 (1512.2)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잘못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아무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세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데 헌신하는 세례였다.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라는 마지막 호출인, 아버지의 명백한 부르심을 들었고, 이런 복합적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 위해, 40일 동안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동역자들과 활발한 개인적 만남을 그렇게 얼마동안 피함으로써, 상승하는 필사자가 만유의 아버지의 내적 현존과 융합할 때마다 모론시아 세계들에서 거치는 바로 그 과정을, 자신이 처한 상태 그대로 유란시아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136:2.7 (1512.3) 이 세례의 날에, 예수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생애는 끝났다. 신성한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했고, 만유의 아버지께서는 육신화한 아들을 발견하셨으며,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눴다.

136:2.8 (1512.4)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을 당시에, 거의 서른한 살 반이었다. 누가는 가이사 디베리우스가 15년째 왕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므로, 이 해는 서기 29년이 되어 하지만, 디베리우스가 서기 11년 10월에 자신을 기념하는 동전을 주조했고, 아우구스투스와 2년 반 동안 함께 황제로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실질적 통치 가운데 15년째 되는 해는, 예수가 세례를 받던 바로 서기 26년이 된다. 또한 이 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지방 통치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3. 40일

136:3.1 (1512.5) 헤르몬 산에서 이슬을 맞던 6주 동안, 예수께서는 필사자로서 자신을 증여하는 생애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큰 유혹을 견뎌 냈었다. 그는 헤르몬 산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는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의 거짓말쟁이, 즉 이 세계 왕자인 캘리개스차를 만나 격퇴시켰다. 우주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 결정적인 날에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가 됐다. 그리고 곧 네바돈의 최고 주권자로서 선포될, 유란시아의 이 왕자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구상하고 그 방법을 결정짓기 위해, 40일 간의 고립기간에 돌입했다.

136:3.2 (1512.6)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조율사가
인격화{人格化}됨으로써,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달라진
관계에 자신을 맞추기 위한, 40일 동안의 은둔생활로
들어갔다. 베레아 언덕에서 지낸 이 격리기간에, 그는
새롭고 변화된 이 세상 생애의 국면 속에서, 자신이 곧
시작해 추구해야 할 정책과 사용될 방법을 결정했다.

136:3.3 (1512.7)

예수께서는 금식{禁食}을 목적으로 자기 혼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행자{苦行者}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것과
관련된 그런 모든 생각을 영원히 폐지시키러 왔다. 이렇게
떠나 있으려 했던 이유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마저 움직였던 이유들과는 전혀 달랐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낙원 아버지께서 감독하는,
자신이 만든 우주 및 온갖 우주와 자신의 관계를 그때
완전히 자각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유란시아에 육신화 돼
들어오기 전에, 형님인 임마누엘이 부과한 지시와 증여에
따른 책무를 온전히 상기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방대한
관계를 명료하고 충분하게 납득했으며, 이 세상과 자기
지방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를 위한 공적 책무를

실행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그 진행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용히 명상하려고 얼마 동안 떠나 있기 원했다.

136:3.4 (1513.1) 예수께서는 적당한 거처를 찾아 언덕을 다니다가, 그의 우주의 최고 행정관인 네바돈의 빛나는 새벽별인 가브리엘을 만나게 됐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주 아들과 직접 교통하는 경로를 재_수립했으며;미가엘이 유란시아 증여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하려고 에덴시아로 가면서, 살빙톤에서 동역자들을 떠난 이래, 그들이 직접 대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의 권위에 의거해서, 이제 그가 우주에 대한 완전하게 된 주권을 획득했고, 루시퍼 반역의 종결에 관한 한 그의 유란시아 증여 체험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했다. 전자{前者}는, 필사자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의 증여가 완전하고 완료됐음을, 그의 조율사가 인격화됨으로써 증거 했던, 그가 세례 받던 날에 성취됐고, 후자{後者}는, 그가 기다리고 있던 티그랏이라는 소년을 만나러 헤르몬 산에서 내려온 날 성취됐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예수께서는, 지방우주와 연방우주의 최고 권위에 입각해서, 주권과 반역에 관계되는 자신의 개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점에서는 자신의 증여 업무가 끝났음을, 이때
통보받았다. 그는 세례 받던 날 있었던 환상과, 자신에게
내주했던 사고 조율사가 인격화되는 현상을 통해서, 이미
낙원으로부터 직접 확인 받았다.

136:3.5 (1513.2) 그가 가브리엘과 대화하며 산에 머무는 동안,
에덴시아 성좌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 앞에 직접
나타나 말했다:“모든 기록이 완료됐습니다. 미가엘
611,121_번이 네바돈 우주를 통치하는 주권은, 완성된
상태로 만유의 아버지의 오른 편에 보존돼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후원자요_형님인 임마누엘이 보낸,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하는 일을 해제{解除}한다는 소식을 당신께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이후에 어느 때든지,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육신화 증여를 끝내고 아버지
오른편으로 올라가 주권을 받고, 훌륭하게_획득된
네바돈의 무조건적 통치권을 취하는 일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우주에서 모든
죄와_반란을 종결시키면서, 그리고 미래에 어떤 그런
가능한 격동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제한 없는 권위를 당신께 드리면서, 태고
항존자의 허락으로 연방우주 기록이 완성됐음을 또한

증언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당신의 업무가 유란시아에서, 그리고 필사자 육신 속에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행로는 당신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136:3.6 (1513.3) 에덴시아의 지고자 아버지가 떠나자, 예수께서는 우주 복지에 관해 가브리엘과 긴 이야기를 나눴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유란시아에서 자신이 시작하려는 일을 행하는 동안, 살빙톤에서 부과됐던 증여 이전의 지시와 관련해 이미 받은 조언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고 확신을 줬다.

136:3.7 (1514.1) 이런 격리된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찾아 다녔다. 그들은 예수가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까지 여러 번 왔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4. 공적 업무를 위한 계획

136:4.1 (1514.2) 언덕에서 날마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 증여 가운데 남은 부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요한과 중첩되는 시기에는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요한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거나, 감옥에 갇혀서 갑자기 중단되기 전에는, 대체로 물려서 있기로 계획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두려움 없고 요령 없는 전도가 곧 집권자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일으킬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불확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민족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방대한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인간거주 세계를 위해서, 공적 책무 계획표를 명확히 입안하기 시작했다. 미가엘의 필사자 증여가 유란시아 *에서* 이뤄졌지만, 네바돈 전체 세계를 *위해서*였다.

136:4.2 (1514.3) 예수께서 자신의 계획표를 요한의 동향에 맞춰 조절한다는 대체적인 계획을 고려한 후에, 처음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시를 마음 속에 다시 살피보는 것이었다. 그는 수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행성에 어떤 영구적 문서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다시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예수께서는, 모래 위를 제외하고, 다시는 어떤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다음 번 나사렛 방문 때, 목판에 써서 목공소 주위에 걸어뒀던, 그리고 고향집 벽에 걸려있던, 자신이 쓴 글씨를 모두 없애버렸는데, 동생 요셉을 매우 슬프게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직면해야 할 세상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관해 임마누엘이 줬던 조언을 곰곰이 생각했다.

136:4.3 (1514.4) 예수께서는 이 40일 격리 기간에 금식하지 않았다. 그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낸 가장 긴 기간은, 언덕에서 너무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먹는 것조차 잊었던, 첫 이틀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음식을 찾으러 나갔다. 그는 이 기간에, 이 세계 또는 어떤 다른 세계의 어떤 악한 영 또는 어떤 반역 인격체에게든지 유혹받은 적도 없었다.

136:4.4 (1514.5) 이 40일은,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사이에 최종 협의가 이뤄진 경우, 아니 오히려 두 정신이 이제 하나로 연합돼 처음으로 정말로 활동하는 경우였다. 결정적인 이 명상 기간으로부터 생긴 결과는, 결국 신성한 정신이 인간 지능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배했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정신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정신이 됐고, 비록 사람의 정신의 자아성이 언제나 존재해 있었지만, 영성화{靈性化}된 이 인간 정신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다.

136:4.5 (1514.6) 이런 획기적 시기의 진행사항들은, 굶주리고 허약해진 정신이 망상적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라는 나중에 붙여진 기록처럼 혼란되고 미숙한 상징주의적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되고 다양한 유란시아 증여 생애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선의 봉사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으로_격리된 다른 모든 구체{球體}를 개선하는 데 무엇이든지 기여하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그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는 기간이었다. 예수께서는, 안돈과 흰타 시대로부터, 아담이 직무에 태만했던 때를 지나서, 살렘의 멜기세덱이 사역하던 시기에 이르는, 유란시아의 인간 생애 전체 범위를 두루 숙고했다.

136:4.6 (1514.7) 유란시아에 한동안 더 머물기로 선택할 경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가브리엘은 예수에게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예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우주 주권 또는 루시퍼 반역의 종결과 아무 상관없을 것임을 그에게 분명히 알렸다. 세상을 보살피는 이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36:4.7 (1515.1) 1. 자신의 방법--이 세상에서 당면한 필요성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우주에서 당면한 계발{啓發}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적당하고 이익을 끼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방법.

136:4.8 (1515.2)

2. 아버지의 방법--온갖 우주를 다스리는 낙원 행정부에 참여하는 높은 인격체들이 구상한, 피조물 생애의 멀리 내다보는 이상{理想}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136:4.9 (1515.3)

그래서 남은 지상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음이 예수께 분명해졌다. 각 방법마다, 당장의 상황에 비춰 간주해 볼 때 장점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두 진행 방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우주 주권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으며;그것은 이미 해결됐고 온갖 우주에서 기록으로 봉인된 문제였고, 친히 요구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아버지 뜻에 복종하여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신화를 시작했듯이, 자신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도 그토록 고귀하게 끝낼 수 있다면, 낙원 형제 임마누엘을 매우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예수께 전달됐다. 이 격리 기간에서 3일째 되던 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를 완료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갈 것과, 두 가지 길이 관여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아버지 뜻을 선택할 것을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그 결심대로 충실히 살았다. 쓰라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자주적인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시켰다.

136:4,10 (1515,4) 산 속 광야에서 지낸 40일은, 큰 유혹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였다. 자신과 외롭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현존과--곧 인격화된 조율사와-- 교제를 나누는 이 기간에, (그에게는 더 이상 개인 스랍 수호자가 없었고) 그는 이 세상에서 나머지 생애를 위한 정책과 진행을 통제하게 될, 위대한 결정에 하나씩 도달하게 됐다. 헤르몬 산에서 분투했던 것에 대한 단편적 이야기들과 혼동됨으로써, 또 더 나아가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들이 자신의 공적 생애를 이런 기대되는 금식과 기도 기간을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큰 유혹이라는 전승이 나중에 이 격리 기간에 덧붙여졌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이든지 직면할 때, 아버지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영과 교제하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항상 해오던 습관이었다.

136:4.11 (1515.5) 예수는 이 세상 나머지 생애를 위한 이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두 가지 상반되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자신의 인간 심정에 항상 비탄을 느꼈다:

136:4.12 (1515.6) 1. 그의 사람들이--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믿고 영적인 새 천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싶은 강한 욕구를 품었다. 그리고 그는, 도래하는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았다.

136:4.13 (1515.7) 2. 아버지가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삶을 살며 일하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계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그리고 천국을 설립함으로써 아버지를 계시하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하기.

136:4.14 (1515.8) 이런 중대한 날들 내내, 예수께서는 베이트 아디스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가까운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은신처인 바위 동굴에서 지냈다. 그는 이 바위 동굴 근처 언덕 옆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샘에서 물을 마셨다.

5. 중대한 첫째 결정

136:5.1 (1516.1) 자신과, 그리고 인격화된 조율사와 이 협의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는 네바돈의 집합된 천상의 무리를 환상으로 봤는데,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도록 그들의 사령관이 보냈다. 이 강력한 무리는 12군단의 스라빔과, 우주의 지성체 가운데 각 계층에서 온 균등한 숫자의 인격체를 포함했다. 그리고 예수가 고립돼있는 기간에 내려야 할 첫째 중대한 결정은, 유란시아에서 공적 업무 계획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강력한 인격체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다.

136:5.2 (1516.2)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이 방대한 집단 가운데 한 인격체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전반적 결정에도, 이 방대한 무리는 주권자의 한 마디 명령이라도 즉각 따를 준비를 항상 갖추고, 그의 나머지 지상생애 기간 내내 남아있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인격체들을 인간의 눈으로 항상 볼 수는 없었지만, 그와 연합된 인격화된 조율사는 그들 전부를 항상 봤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136:5.3 (1516.3)

언덕에서 40일의 격리생활을 끝내고 내려오기 전에, 예수께서는 대기 중인 이런 우주 인격체 무리의 지휘권을, 최근에 인격화된 조율사에게 맡겼으며, 모든 부서의 우주 지성체들 중에서 선택된 이 인격체들은, 신분이 높아지고 노련한 이 인격화된 신비 관찰자의 현명한 지도를 받으면서,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 이상 충성스럽게 그리고 공손하게 활동했다. 이 강력한 집단의 지휘를 맡으면서, 그 조율사는 한때 낙원 아버지의 일부였고 본질이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런 개입을 원치 않으시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지상 생애와 관련되는 일 또는 그것을 위하는 일에 이 초인적 대행기관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금지시킬 것임을 예수께 약속했다.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림으로 인해, 아들의 이 세상 책무 가운데 어떤 분명한 행동이나 사건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나머지 필사자 생애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어떤 초인적 협동도 받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136:5.4 (1516.4)

인격화된 조율사는,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시중드는 우주 무리에 대한 이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우주 피조물 집단은, 창조주가 위임한 권위로 인해 그 공간 활동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간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제약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 주의시키려고 몹시 애썼다. 그리고 이런 제약은, 조율사들이 일단 인격화된 후로는 무시간적 존재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따라서 예수는, 공간이 개입되는 모든 문제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살아있는 지성체들에 대한 조율사의 통제가 완전무결할 수 있지만, 시간과 관련해 부과된 제약에서는 그렇게 완전할 수 없음을 경고 받았다. 조율사가 말했다:“당신이 지시한 대로, 나는 당신의 이 세상 생애와 관련된 어떤 방법에서든지 이 시중드는 우주 지성체 무리를 활용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선택한 그의 신성한 뜻이 성취되기 위해 그런 작용을 해제시키라고 낙원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경우, 또한 시간/에 대해서처럼 자연스런 세상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에만 관계하게 될, 당신의 신성한_인간적인 뜻에 속하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당신이 연루될 그런 경우에는 예외다. 그런 모든 경우에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여기에 완전하게 통일된 힘으로 모여 있는 당신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무력할 것이다. 당신의

결합된 본성이 일단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 당신이 선택한 이런 명령은 즉시 실행될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당신의 바램은 시간 단축을 초래하고, 입안된 그 일은 실존으로 *나타난다*. 내 지휘 아래서, 이것이 당신의 잠재적 주권에 부여될 수 있는, 가능한 제약의 전부다. 내 자아_의식에는 시간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것에서도, 나는 당신의 피조물을 제한시킬 수 없다.”

136:5.5 (1517.1)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수반할 것인지 알게 됐다. 그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간*에 관한 문제만 제외하고, 자신이 추구하려는 공적{公的} 사역에, 시종드는 다양한 지성체의 우주 무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따라서 예수의 사역에 부수된 것들 가운데 초자연적일 가능성이 있거나 초인적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다르게 처리하지 않은 한, 전적으로 시간 제거에 따라서 일어난 것임이 분명해진다.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활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어떤 기적, 자비의 사역, 또는 다른 어떤 가능성 있는 사건도, 이렇게 특별히 서술된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가 유란시아에 살았을

때 사람에게 대한 직무에 확립돼 있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의 본질 또는 성질에 해당 될 수 없었다. 물론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었다. 한 우주의 이 잠재적 주권자가 밖으로 표현한 바램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_사람의 의/지가 직접 분명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시간의 제거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의심스런 행동이나 사건과 관련될 때에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효과가 있었다. 예수는, 명백한 시간상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의식하며 지내야 했다. 분명한 바램을 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편에서 어떤 시간 의식에 착오가 생기면, 이 창조주 아들의 정신 속에서 생각된, 그리고 시간 간섭 없이 생각된 그것은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136:5.6 (1517.2) 미가엘로서는, 연합된 인격화된 조율사의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공간에 대해 이 세상에서 친히 하는 활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지만, 시간과 관련될 때에는, 잠재적인 네바돈 주권자로서,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새로운 이 세상 신분을 그렇게 제한시키기가 불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실제 상황이었다.

6. 둘째 결정

136:6.1 (1517.3) 예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신성{神性} 신분에 내재하는 잠재성에 비취서 결정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모든 인격체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사물 및 존재에 대해 이제 온전히 자각하는 창조자인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당장 부딪히게 될 되풀이되는 삶의 상황에서 이런 창조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던 바로 그 외로운 언덕에서, 벌써 음식을 구하는 일에 이 문제가 대두됐다. 홀로 명상에 잠긴지 3일째 되던 날, 인간적 육신은 점점 배가 고팠다. 그는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음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 권능을 발휘해서 즉시 준비되는 적당한 육체의 영양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주님의 중대한 결정이, 너희에게는 --곧 가상{假想}의 적{敵}들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명하라”고 그에게 도전 했다는-- 어떤 유혹으로 표현됐다.

136:6.2 (1518.1) 예수께서는, 나머지 이 세상 책무에 관해 또 다른 일관된 방침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가 고려되는 한, 그리고 대체로 다른 인격체들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상으로 실존하는 행로를 추구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이 직접 설립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어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히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인격화된 조율사로부터 경고 받은 것처럼, 상상 가능한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자연 법칙이 크게 *앞당겨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자신에게 약속할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원칙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르고 실존하는 사회 조직에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필생과업을 조직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대해 주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상당하는 삶의 계획표를 선택했다. 다시 한 번 그는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결정을 했으며;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낙원 아버지 손에 맡겼다.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째 의무가 자아_보존이라고 규정했는데;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상들에서 사는 자연인{自然人}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따라서 유란시아 필사자의 합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지 이 세계와 그것의 피조물에만 관심 두는 것은 아니었으며;방대한 우주의 다양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 주도록 고안된 인생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세례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과 인도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왔다. 그는 아버지 뜻에 대한 바로 그런 필사자의 절대 의존을 계속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는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자아_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하는 방침을 추구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자기 인간 정신이 잘 알고 있는 성서에 있는 말로, 자신이 내린 결론을 구체화시켰다:"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충동에 관해 최종 선언을 했다.

136:6.5 (1518.4)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쓸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그는 이런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켰는데, 그때 그는:“제가 남은 구원했지만;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당했다--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136:6.6 (1518.5) 유대인은, 모세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사막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를 먹었다고 간주했다. 예수께서는, 동포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지 잘 알았고,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권능과 영광의 그런 화려한 계획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행로는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呪術師}의 관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아마도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촉진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자신의 법을 초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136:6.7 (1518.6)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을 가엾게 여겼으며;그들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즉 그가 올 때 "세상은 그의 열매를 만 배 이상 수확할 것이며, 한 넝쿨에는 천 개의 가지가 있을 것이며, 각 송이마다 천 개의 포도를 맺을 것이며, 포도마다 한 갤론의 포도주를 생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풍성한 기적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은 기적에 근거한 전통과 이적{異蹟}의 전설에 오랫동안 젖어왔다.

136:6.8 (1519.1)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현세의 필요만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자녀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왔고,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에, 이 세상 자녀들이 그와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려고 했다.

136:6.9 (1519.2) 나사렛 예수께서는, 개인의 세력 확장 또는 순전히 이기적인 소득과 영광을 위해, 신성한 재주나 하나님이_주신 재능을 악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죄 짓는 것임을, 지켜보는 우주에게 이 결정을 통해서 나타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와 캘리개스차의 죄였다.

136:6.10 (1519.3) 예수의 이런 위대한 결정은, 이기적 만족감과 감성적 희열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했다. 필사자 실존 속에는 좀 더 높은 가치--곧 지적 숙련과 영적 성취--가 있는데, 사람의 순수한 육체적 식욕과 강한 충동이라는 필연적 만족감을 훨씬 초월한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과 역량은, 더 높은 정신 및 영 능력을 발전시키고 높이는 데 주로 사용돼야만 한다.

136:6.11 (1519.4) 이렇게 예수께서는, 새롭고 더 낫게 사는 방법, 그 인생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 그리고 공간의 세계들에서 진화하는 인간으로 실존하면서 심오한 영적 만족감을 얻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피조물에게 드러냈다.

7. 셋째 결정

136:7.1 (1519.5) 그의 물질 육신의 필요에 대한 음식 및 육체적 보살핌 같은 문제들, 즉 자신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신변의 위험에 닥쳤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육신의 생애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 안전에 대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정당한 예방책을 강구하되, 육신상의 생애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 그는 어떤 초인적 개입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이런 결정을 구체화시키고 있을 때, 바로 그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앞으로 좀 튀어나온 바위 위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는 튀어나온 바위에서 자신이 공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고, 유란시아에서 자신의 필생과업을 실행하는 동안,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의 중재를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중대한 첫째 결정과, 자아 보존 태도에 대한 둘째 결정을 폐기한다면, 어떤 손상도 입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깨달았다.

136:7.2 (1519.6) 예수께서는, 자기 동포가 자연 법칙을 초월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를 잘 알았다: "네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역병도 네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 모든 길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아버지의 중력 법칙에 대한 도전이 되는 이런 종류의 가정{假定}은,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 가르침 받고 빗나간 자기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을 아무리 만족시키더라도,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갖 우주에 설립돼 있는 법칙을 의심하게 하는 무익한 행동일 것이다.

^{136:7.3 (1519.7)}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개인 행동을 고려하는 한, 자신이 제정한 자연법칙을 무시하면서 일하기를 거절했음을 안다면, 너희는 그가 절대로 물위를 걸어 다닌 적이 없었고, 세상을 경영하는 동안 물질적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잘 알 것인데;물론, 인격화된 조율사의 관할 아래 놓인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시간 요소를 통제{統制}할 힘이 없는 것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6:7.4 (1520.1)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 내내, 이 결정에 끊임없이 충실했다. 바리새인이 그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비웃거나, 갈보리에서 구경꾼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을 때에도, 그는 그 언덕에서 이때 내렸던 결정을 꾸준히 지켰다.

8. 넷째 결정

136:8.1 (1520.2)

이 하나님_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따라 고심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로 다음의 큰 문제는, 동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가깝게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조금이라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웅장함과 경탄스러움을 열망하는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우주적 권능을 사용할 것인가? 그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사람의 주목을 끌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풍습을 모두 배제시키는 과정을 따르겠다고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 중대한 결정을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그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 번 허락했을 때조차, 자신의 치유 사역의 수혜자들이 받은 혜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그들을

타일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는 적{敵}의 조소 어린 도전을 항상 거절했다.

136:8.2 (1520.3) 예수께서는,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은 오직 물질 정신을 장악해서 겉으로 만 충성하게 하리라는 것을;그런 행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매우 현명하게 예견했다. 그는 단순히 기적_행하는 자 되기를 거절했다. 그는 단 한가지의 과제--곧 하늘 나라 설립--에만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136:8.3 (1520.4) 예수께서 자신과 교류하는 이런 모든 중대한 대화 내내, 의문을 던지고 거의_의심하는 듯한 인간적 요소가 여전히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기적을 행치 않는다면, 유대인이 그를 절대로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했다. 게다가, 그가 한 번이라도 자연에 위배되는 일을 실행하도록 승인한다면, 그것은 진정 그의 인간 정신이 신성한 정신을 경시한 것임을 확실히 알 것이다. 인간 정신의 의심하는 본성에 신성한 정신이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일치하는 것일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으며, 신성이
인성과 협력하는 충분한 증거가 바로 인격화된 조율사의
현존임을 상기했다.

136:8.4 (1520.5) 예수께서는 이미 많은 여행을 했으며;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커스를 회상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을--곧 사람들이 정치와 상거래를 통해 어떻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타협과 외교술로 교역을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이 세상 사명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지식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다! 그는 천국을
설립하는 데 모든 세상 지혜와의 타협과 부자들의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결정했다.

136:8.5 (1520.6)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 가운데 하나를 행사하는
여러 지름길을 잘 알았다. 그는 국가와 온 세상의 관심을
자신에게 즉각 집중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알았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가 곧 있을 것이며; 그 도시는
방문객들로 넘칠 것이다. 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경이에 찬 군중 앞에서 하늘 위를 걸을 수도

있었으며;그것이 그들이 찾고 있는 종류의 메시아였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그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인데, 다윗의 왕좌를 다시 세우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길, 자연스럽고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했던 그 길을 앞질러 가려 했던, 캘리개스차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알았다. 사람의 아들은 다시 한 번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로 했다.

136:8.6 (1521.1)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어렵고, 고된 방법으로, 인류의 마음 속에 하늘 나라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세상 자녀는 하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세력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바로 그런 과정을 따라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모든 세대의 자녀 가운데 다수가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교화된 사람으로서 큰 시험, 권력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기를 굳건히 물리치는 큰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다.

136:8.7 (1521.2) 사람의 아들의 생애와 체험을 고려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20세기 또는 다른 세기의 필사자가 아닌,

1세기의 인간 정신을 갖고 육신화 됐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의 인간 재능들이 자연스럽게 획득됐다는 관념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그는 그 시대의 유전{遺傳} 및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가 받은 훈련과 교육의 영향으로 빚어진 산물이었다.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웠고, 그 시절과 그 세대에 선행{先行}하던 실질적인 지적 상태와 사회 및 경제 조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졌고, 이로 인해 양육됐다. 반면에, 이 하나님_사람의 체험에서는, 신성한 정신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의 인간 정신이 작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인간 정신은 그 당시 인간의 환경 조건 아래서 필사자의 정신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136:8.8 (1521.3)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거나 영적 진보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 권위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임의의 권세를 나타낼 목적으로 인위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어리석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 보여줬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마카비 가{家}의 통치로 말미암은 실망의 반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인기나 정치적 명성을 얻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오용하기를 거절했다. 그는 신성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국가의 권력이나 국제적인 명성으로 변질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악과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하물며 죄와 결탁하는 것은 더욱 거부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서 아버지 뜻에 성공적으로 충성했다.

9. 다섯째 결정

^{136:9.1 (1521.4)} 그는 자연 법칙과 영적 권능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적합하도록 정책 현안들을 결정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설립하는 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계속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요한의 사명을 넘겨받을 것인가? 효과적인 노력과 총명한 협동을 위해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즉 적어도 당시에 일반에게 알려진 메시아로 더 이상 자신을 간주하지 않으려는, 최종 결정에 도달했다.

136:9.2 (1522.1) 유대인은 구원자를, 기적의 권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적을 쳐부수고, 유대인을 세상 통치자로 만들어 주며,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로 마음 속에 그려왔다. 예수는 이런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을 뒤엎는 일이고, 그것은 순수하게 영적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았다. 그는 찬란하게 권능을 전시함으로 영적인 나라를 개시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 봤지만--그런 행로는 허락될 것이며 전적으로 미가엘의 권한에 속했지만, 그런 계획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는 캘리개스차의 혁명적 기법과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자신이 그것을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일을 마치기로 계획했다.

136:9.3 (1522.2) 이제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능을 잠재적으로 소유한 이 하나님_사람이, 기적을 사용하는 무력 전쟁을 통해서 주권자의 깃발을 휘날리기로 일단 결정했다면, 유란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너희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짐작컨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런 악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뜻을 준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우주에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선포하려고 했다.

136:9.4 (1522.3) 여러 날이 지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진리 계시자가 될 것인지, 점점 더 확실하게 감지하게 됐다. 그는 하나님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머지 인간 체험의 잔이 더 쓴맛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136:9.5 (1522.4) 그의 인간 정신도, 다윗의 왕좌에게는 이제 작별을 고했다. 이 인간 정신은 신성의 통로를 한 걸음씩 따라갔다. 인간 정신은 여전히 질문했지만, 항상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며 무조건 복종하면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통합된 생애에서, 언제나 신성한 대답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136:9.6 (1522.5) 로마는 서방 세계의 지배자였다. 이제 격리된 가운데 이런 중대한 결정에 도달하면서, 자신의 지휘 아래

하늘의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의 아들은,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징했지만;그런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은, 자신의 우주 재능을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기 민족의 왕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 나라들”을 봤고, 그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었다.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은 이 모든 권능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줬으나, 그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 세상 나라들은, 우주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그의 관심을 끝만큼 가치 있는 것이 못됐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계시하는 것, 천국을 설립하는 일, 인류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뿐이었다.

136:9,7 (1522.6) 전쟁, 다툼, 및 살육의 관념은 예수께 불쾌한 것이었으며;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평화의 왕자로서 세상에 나타나고자 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에, 로마의 억압에 대항하는 반역에 유대 열심당을 인도해 달라는 그들의 청을 거듭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주{主}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네 상속으로 이방인을 줄 것이며 네 소유로 세상 끝까지 주겠다.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쳐부술 것이며;그들을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 조각 낼 것이다.’”

136:9.8 (1522.7)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런 말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아들의 인간 정신은 이런 모든 메시아의 문제점과 모순들을--곧 히브리 성서, 부모의 훈육, 카잔(선생)의 가르침, 유대인의 기대, 인간적 야망의 바램들을-- 깨끗이 쓸어버렸으며;딱 잘라서 자신의 행로를 결정했다.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조용히 천국의 선포를 시작하고, 아버지(인격화된 조율사)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과정의 세부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136:9.9 (1523.1) 예수께서는, 영적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물질적 시험을 적용시키기를 거절했을 때, 자연 법칙을 주체넘게 무시하기를 거절했을 때, 이런 결정으로, 방대한 우주를 망라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본보기가 됐다. 그리고 그가 영적 영광의 서막으로서 세속의 권력을

붙잡기를 거절했을 때, 그는 우주에 충성하고 도덕적으로
고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본보기를 보였다.

136:9.10 (1523.2) 사람의 아들이 세례 받은 후 언덕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든지 혹시
품었더라도, 홀로 있으면서 결정한 40일이 지난 후에
동료들에게 돌아온 그에게는, 어떤 의심도 남아 있지
않았다.

136:9.11 (1523.3) 예수께서는 아버지 나라 설립을 위한 계획표를
공식화했다. 그는 사람의 육체적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로마에서 최근에 행해진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군중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 비록 그런 종류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더라도, 그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의 주의를 끄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권위나 속세의 권력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도록 애쓰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136:9.12 (1523.4) 예수께서는 기대에 찬 유대인들의 눈에 다가오는
천국을 더 과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거절하면서, 모든
권위와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최종적으로 배척할 것임을 확신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므로, 초기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암시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애썼다.

136:9.13 (1523.5) 그는 자신의 공적 사역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 발생하는 세 가지 상황을 처리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는데: 음식을 제공하라고 소리침, 기적을 행하라고 강요함, 그리고 마침내 추종자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함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레아 언덕에서 자신의 격리 기간에 내렸던 결정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았다.

10. 여섯째 결정

136:10.1 (1523.6) 홀로 있던, 기억에 남을만한 이 기간의 마지막 날에,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합류하려고 산을 내려가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인격화된 조율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결정을 통보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되고_기록된 이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문제에서도 나는 아버지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에게 서약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씀한 후에, 산에서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영적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났다.

제137편 갈릴리 체류기간

137:0.1 (1524.1) 서기 26년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펠라에서 야영하던 요한의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날 내내 군중과 함께 지냈다.
그는, 떨어져서 다친 한 아이를 도와줬고, 그 소년을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위해, 가까이 있는 마을인
펠라로 여행했다.

1. 처음 네 명의 사도를 택하심

137:1.1 (1524.2) 이 안식일에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두 명이
예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요한의 추종자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께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다친 소년을 데리고 펠라로 가는 여행길에
예수와 동행했다. 요한을 만나러 돌아가는 길에, 그는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잠시 이야기하려고 멈췄을 때, 안드레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가버나움에 온 이래 당신을 계속

관찰해 왔고, 당신이 새로운 선생님인 것을 믿으며;당신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했으며;당신의 문하생으로서 새로운 나라에 관한 모든 진리를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진심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하게 될 열두 명 가운데 첫 사도로서 안드레를 받아들였다.

137:1.2 (1524.3) 안드레는 요한의 업무를 묵묵히 지켜보는 동시에 진지하게 믿은 사람이었으며, 그에게는 요한의 수제자{首弟子} 가운데 하나인, 아주 유능하고 적극적인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시몬은 요한의 최고 지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37:1.3 (1524.4) 예수와 안드레가 야영지로 돌아온 직후에,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였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려 줬다. 그는 예수께서도 봉사에 대한 자신의 서약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여 말하면서, 그도(시몬도) 마찬가지로 예수께 가서, 새 나라의 봉사 단체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시몬이

말했다:“그가 세베대의 작업장에 일하러 오셨을 때부터,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를 버리려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래서 그들은 곧 요한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가기로 동의했다. 요한은 자신의 유능한 조연자이고 가장 유망한 두 제자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슬펐으나, 그들의 질문에 용감하게 대답했다:“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내 업무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되어 할 것이다.” 그 후에 안드레는 예수에게 손짓해서 한쪽 옆으로 불러내고, 동생 역시 새 나라의 봉사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을 둘째 제자로 환영하면서 말씀했다:“시몬아, 너의 정열은 칭찬할 만 하지만, 천국 일에는 위험하다. 네가 언행에 좀 더 사려 깊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네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려고 한다.”

137:1.4 (1525.1) 펠라에 사는 부상당한 소년의 부모가, 자기 집에서 그날 밤 머물며 쉬어가도록 예수께 간청했고, 예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안드레 및 그의 동생과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내일 아침 일찍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137:1.5 (1525.2) 예수께서 그날 밤을 지내려고 펠라로 돌아간 후에, 안드레와 시몬이 다가올 천국 설립에서 자신이 맡을 봉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를 찾으려고 동산에서 오랜 시간 헤매다가 헛걸음을 한 세베대의 아들이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도착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과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처음 인정받은 임원이 됐는지, 그리고 자신들은 내일 예수와 함께 갈릴리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해 주자,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서글퍼했다. 그들은 한동안 예수를 알았고 사랑했다. 그들이 언덕 위에서 여러 날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오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택받았음을 알게 됐다. 그들은 예수의 행방을 물은 후에, 그를 찾으려고 서둘러 떠났다.

137:1.6 (1525.3) 예수께서 계신 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잠드셨지만,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당신과 그토록 오래 살아온 우리가 산에서 당신을 찾는 동안,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안드레와 시몬을 새 나라의 첫 동역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심정을 진정시키고 스스로 물어봐라, ‘누가 너희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 그를 찾아 나서라고 하더냐?” 그들이 언덕에서 오랫동안 그를 찾아 다녔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덧붙여 말씀했다:“너희는, 새로운 나라의 비밀을, 언덕 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혼 속에서 찾기를 배워야 한다. 너희가 찾던 것은 너희 혼{魂} 속에 이미 현존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 없는-- 진정 내 형제들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 기분을 풀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내일 갈릴리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러자 요한은, “그러면 주님, 야고보와 나도 안드레와 시몬처럼 당신의 새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담대하게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형제들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천국의 영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내 형제인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요청할 필요 없으며;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천국 안에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너희가 내게 청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천국 협의회에 너희도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의도이기는 했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을 찾아다님으로써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도 첫째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래할 나라에서는, 걱정을 사서하기보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만 항상 관심을 두기 바란다.”

137:1.7 (1525.4)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책망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며;안드레와 시몬을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동료 사도와 함께, 다음날 아침에 갈릴리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의 고문단{顧問團}으로 뽑힌 사람들을, 나중에 그를 따를 수많은 믿는 제자 무리와 구별하기 위해,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137:1.8 (1525.5) 그날 밤 늦게,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은 세례 요한과 함께 이야기했고, 굳건한 유대지방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수제자{首弟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다가오는 천국의 갈릴리 왕자의 사도가 되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양도했다.

2. 빌립과 나다니엘을 택하심

137:2.1 (1526.1) 서기 26년 2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세레 요한과 펠라 근처 강가에서 헤어졌고, 육신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137:2.2 (1526.2) 예수와 네 제자_사도가 갈릴리로 떠나던 그날,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야영지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다. 첫 번째 큰 분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전날, 요한은 안드레와 에즈라에게 예수가 구원주라고 확실하게 선포했다.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나, 에즈라는 부드러운 성품의 나사렛 목수를 거부했는데, 그는 동역자들에게, “다니엘 선지자는 사람의 아들이 권세와 큰 영광의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갈릴리의 목수이자 가버나움의 조선평인 이 사람은 구원주가 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예수가 요한의 친척이고 마음이 친절하므로 우리 선생님이 속은 것이다. 이 가짜 메시아를 가까이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요한이 꾸짖자, 그는 여러 제자를 이끌고 곧 남쪽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 무리는 요한의 이름으로 세레 주기를 계속했고, 결국 요한은 믿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하나의 종파를 세웠다. 오늘날까지도 이 무리의 뿌리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다.

137:2.3 (1526.3) 요한의 추종자 사이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예수와 네 제자_사도는 갈릴리를 향해 평안히 길을 갔다. 나인을 지나서, 나사렛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 앞쪽을 바라보던 예수의 눈에, 벳새다의 빌립이 친구와 함께 그들에게로 오는 모습이 보였다. 예수께서는 빌립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또한 네 명의 이 새로운 사도 역시 그를 잘 알았다. 그는 친구 나다니엘과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요한을 방문하러 펠라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를 만나자 매우 기뻐했다. 빌립은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에 살던 나다니엘은 예수를 몰랐다. 빌립은 친구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왔고, 나다니엘은 길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다.

137:2.4 (1526.4) 베드로는 빌립을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과 안드레, 야고보, 및 요한이 모두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의 동역자가 됐다고 말했으며, 빌립에게도 자진해서 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빌립은 난처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요단강 근처 노상{路上}에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즉석에서 결정해야 했다. 이때 그는 베드로, 안드레, 및 요한과 함께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여정의 대체적 일정을 야고보에게 설명했다. 마침내 안드레가 빌립에게,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137:2.5 (1526.5) 빌립은 예수께서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고 메시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이 일에 대해 예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며;곧장 그에게 가서 물었다:"선생님, 내가 요한에게 내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따르는 내 친구들과 같이 가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대답했다. 빌립은 구원주를 찾았다는 확신으로 감격했다.

137:2.6 (1526.6) 빌립은 일행에게 그 자리에 남아있어 달라고 손짓으로 표시하면서, 친구 나다니엘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급히 돌아갔는데, 그는 아직 뽕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세레 요한, 도래할 나라, 그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해 들어왔던 많은 것을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빌립이 그의 명상을 방해하면서,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요한이 선포했던 구원주를 발견했다”고 외쳤다. 나다니엘이 그를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시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는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최근에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나사렛 예수시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다소 충격을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빌립은 그의 팔을 끌면서, “가서 만나보자”고 말했다.

137:2.7 (1527.1)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께 데려갔고, 그는 진지하게 의심하는 자의 얼굴을 인자하게 들여다보며 말씀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다니엘은 빌립을 돌아보며, “네 말이 맞다. 그는 진정 사람들의 주인이시다. 나도 자격이 된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한 번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137:2.8 (1527.2) 이제 예수께서는 장차 긴밀하게 지낼 동역자 단체의 절반을 모으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다섯은 다소 친분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는 낯선 사람인 나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더 지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고, 나인 마을을 지나서, 그날 저녁 늦게 나사렛에 도착했다.

137:2.9 (1527.3) 그들은 모두, 예수가 소년시절에 살았던 집에서 요셉과 함께 그날 밤을 지냈다. 예수의 동역자들은, 새로 만나게 된 선생님이, 집에 있는 십계명이나 다른 금언과 경구 형태로 씌어진 자신의 필체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데 왜 그리도 신경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들이 그 후로 그가 --흠이나 모래 위를 제외하고-- 아무 데도 글씨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 줬다.

3. 가버나움 방문

137:3.1 (1527.4) 가나에서 명성 있는 집안의 처녀의 결혼식에 그들 모두가 초대받았으므로, 예수께서는 다음날 사도들을 그 마을로 보냈고, 그동안 자신은 급히 가버나움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가는 길에 동생 유다를 만나기 위해 막달라에 들렀다.

137:3.2 (1527.5) 나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새 동역자들은 예수의 가족 중에서 요셉과 다른 식구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수야말로 그렇게 오래 기다려오던 구원자라는 믿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다. 예수의 가족은 이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고, 요셉이 말했다: "아마, 결국 어머니가 옳았는지도 모른다-- 이상한 우리 형님이, 도래할 왕일지도 모른다."

137:3.3 (1527.6) 유다는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함께 있었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이 세상 사명을 굳건히 믿는 신자가 됐다. 야고보와 유다 두 사람은 형이 맡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 무척 혼란에 빠져 있었더라도, 그들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 일찍이 기대하고 있던 희망을 되살려 냈고, 형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믿도록 아들들을 부추겼다.

137:3.4 (1527.7) 예수께서는 월요일 밤 가버나움에 도착했으나, 야고보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가버나움에 있던 모든 친구는,

호감이 가는 큰 변화가 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는 다시 한 번 상당히 활기차 보였고, 초기 나사렛 시절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세례 받기 전 몇 년 동안과 격리된 기간 전후 시기 동안에, 그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말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들 모두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무언가 위엄 있는 기품과 고귀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명랑했고 즐거워했다.

137:3.5 (1528.1) 마리아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녀는 가브리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졌다고 예상했다. 아들이 곧 유대인의 초자연적 왕으로서 기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팔레스틴이 깜짝 놀라 정신을 잃게 될 것을 그녀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야고보, 유다, 및 세베대가 퍼붓는 모든 질문에, 예수께서는 단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당분간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해야 한다.”

137:3.6 (1527.9) 다음 날 화요일, 그들은 모두, 그 다음 날로 예정됐던 나오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나를 향해 여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이 올 때까지”는 자기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예수의 거듭된 당부에도,

그들은 구원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널리 퍼뜨렸다. 그들 각자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권능을 장악하기를, 다가오는 가나 결혼식에서 개시{開始}할 것이고, 대단한 권위와 숭고한 위엄{威嚴}으로 그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기대했다. 그들은 예수의 세례 후에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 이미 들었던 것을 기억했고, 이 세상에서 다가올 과정에서는, 점점 더 많은 초자연적인 경이로운 표적과 기적적인 증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온 마을 사람이 나단의 아들 요합과 나오미의 결혼식 축제에 함께 모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37:3.7 (1527.10) 여러 해 동안, 마리아가 이토록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대관식{戴冠式}에 가는 대비마마 같은 기분으로 가나를 향해 여행했다.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열세 살 되던 해 이후로, 그토록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동역자들의 바램이나 희망에 대해 그토록 사려 깊고 이해심 있으며, 그토록 감동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작은 무리로 나뉘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지에 대해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이 이상한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는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어떻게 예고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4. 가나의 결혼식

^{137:4.1 (1528.4)} 수요일 정오까지,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숫자보다
네 배가 넘는, 거의 1,000명의 손님이 가나에 도착했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수요일에 거행됐고,
초청장은 결혼식보다 한 달 전에 전달됐다. 오전부터 오후
이른 시간까지, 이것은 결혼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수를
위한 공개 환영식처럼 보였다. 모든 사람은, 거의
유명인사가 된 이 갈릴리 사람과 인사라도 나누기
원했는데, 예수께서는 젊은이와 노인, 유대인과 이교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진심으로 대했다. 그리고 결혼
예비의식을 인도하기로 예수께서 동의하자 모두
기뻐했다.

^{137:4.2 (1528.5)}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인간적 실존,
신{神}으로서 선재{先在}했던 것, 그리고 인간적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혼합되거나 융합된 상태를 전적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평정과 함께, 순간적으로

인간 역할을 하거나, 또는 즉각 신성한 본성의 인격적 특권을 취할 수 있었다.

137:4.3 (1528.6)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적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됐으며; 특히 자기 가족과 여섯 제자_사도는, 그가 어떤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나라가 다가왔음을 적절히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37:4.4 (1529.1) 오후 일찍, 마리아는 야고보를 불러내서, 결혼 예식과 관련하여 어떤 시간과 어떤 시점에 “초자연적 존재”로서 자신을 현시하려는 지에 대한 계획을, 자기들을 믿고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함께 예수께 담대히 다가갔다. 이것을 예수께 언급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특유한 분노를 유발시켰음을 알았다. 그는 오직 이렇게 말씀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내 옆에 머물러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에는 꾸짖음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137:4.5 (1529.2)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인간 예수께 크게 실망스러웠고, 그는 신성을 외부로 나타내라는 그녀의 권유하는 제안에 자신이 반응한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그가 최근에 언덕에서 홀로 있는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다. 마리아는 몇 시간 동안 몹시 우울했다. 그녀가 야고보에게 말했다:“난 그를 이해할 수 없으며;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이상한 행동은 언제나 끝날까?” 야고보와 유다가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동안, 예수께서는 한 시간 동안 홀로 떠나 있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쾌활하고 즐거워 보였다.

137:4.6 (1529.3)

결혼식은 은밀한 기대감 속에서 진행됐으나, 이 귀빈에게서 어떤 행동이나 한마디 말도 없이, 전체 예식이 끝났다. 그러자, 요한이 “구원주”라고 공표했던 이 목수이자 조선공이, 어쩌면 저녁 축제인 결혼 만찬에서 권능을 보여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여섯 제자_사도는, 저녁식사 바로 전에, 그런 증거에 대한 모든 기대를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버려야만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다:“내가 이 자리에서 호기심 있는 자들을 만족시키거나 의심하는

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러 왔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기다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동역자들과 회의하는 것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결혼 만찬과 축제 속에서 훌륭한 교제의 밤을 즐기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137:4.7 (1529.4)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한 대로 보여주는 일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는 유명한 갈릴리인을 손님 가운데 모시는 영광으로 기쁘기는 했지만, 결혼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당황스런 소식을 하인들로부터 들었다. 그 무렵에 공식 만찬은 끝났고, 손님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즈음, 신랑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마리아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내가 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분노를 일으킨 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그녀는 주제넘게 나섰다.

137:4.8 (1529.5) 여러 해 동안 나사렛 가정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마리아는 늘 예수께 도움을 청했으므로, 이번에도 그를 생각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 야심찬 어머니가 이 경우에 큰아들에게 부탁한 데는 다른 동기도 있었다. 예수께서 정원 한 쪽에 혼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아들아,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선한 여인이여, 내가 그것과 무슨 상관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마리아가 말했다:"그러나 나는 네 때가 왔다고 믿으니;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했다:"나는 이런 식의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다시 단언합니다. 왜 이런 일로 또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애원했다;"그러나 아들아, 네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했으니;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없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여인이여,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좌절했으며;어리벙벙했다! 그녀는 예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서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의 인간 심정은, 자기를 낳아준 여자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으며;그는 앞으로 굽혀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말씀했다:“자, 어머니 마리아여, 매정한 듯한 내 말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탁하신 일이 아버지 뜻의 한 부분이라면 아주 기꺼이 하겠지만, --”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잠시 멈췄고, 망설였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후,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면서, “내 아들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이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음을--아니 너무 깊이 원했음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기뻐하며 춤을 췄다. 그녀는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랐으나, 그의 권위를 주장하도록,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메시아로서

권능을 보여주도록, 자기가 마침내 만아들을 설득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어떤 우주 세력들과 인격체들의 현존 및 연합으로 인해, 그녀는 실망하지 않도록 돼있었다. 마리아가 원했고, 하나님_사람인 예수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동정심으로 바랐던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137:4.11 (1530.3) 각각 20겔론 정도 들어가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가까운 곳에 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 물은 나중에 결혼 축하연 마지막 정결 예식에 쓰려던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바쁘게 내리는 지시를 받아, 하인들이 큰 돌 항아리들 주위에서 법석 떠는 것이 예수의 주의를 끌었고, 그곳으로 간 그는 그들이 항아리에서 주전자로 포도주를 퍼 가는 것을 바라봤다.

137:4.12 (1530.4)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께서 차츰 깨닫게 됐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예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가 행치 않으려고 결정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인격화된 사고

조율사가 언덕에서 경고했던 말씀을 그때 기억해 냈다. 시간과 무관한 창조자 특권을 어떤 세력이나 인격체도 그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점에 관해, 조율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경고했었는지 회고했다. 이번 경우는, 동력 변형자, 중도자, 및 다른 모든 필요한 인격체들이 물과 기타 필요한 요소들 주위에 집합해 있었기에,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가 표현한 소망 앞에서, 포도주의 즉각적인 출현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아들의 소망을 이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음을 인격화된 조율사가 표명했기 때문에, 갑절로 확실히 이뤄졌다.

137:4.13 (1530.5)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기적이 아니었다. 어떤 자연법칙도, 변경, 파기, 또는 초월되지 않았다. 포도주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 요소들을 절묘하게 조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 제거 외에는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나에서 이 경우에, 시간과 무관하게, 그리고 필요한 화학 성분들을 공간에서 조립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초인적 매개체들이 개입해 이 일을 했다는 점 *외에는*, 창조주의 매개체들이 평상시 자연 과정에 따라서 하는 그대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137:4.14 (1531.1) 더욱이, 소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 공연은 낙원 아버지 뜻에 위배되지 않았음이 명백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께서 이미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

137:4.15 (1531.2) 하인들이 새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 주관자”인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줬을 때, 그가 그것을 맛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말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 질 낮은 것을 내는 것이 관습인데; 당신은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

137:4.16 (1531.3)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던 기적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행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지만, 예수께서는 정원의 외진 오두막으로 물러나 잠시 심각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 사건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직접 통제를 넘어섰다고, 그리고 아버지 뜻에 위반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경외심으로 그를 대했으며; 그들은 모두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척 당황했는데, 그들이 단지 무심코 목격하게 된 색다른 사건으로 인해 자기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 잠시 다시 물러나서 혼자 지붕위로 올라갔다.

137:4.17 (1531.4) 예수께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킬 만한, 동정과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납득했다. 그럼에도 사람의 아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필사자 생애를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됐다.

5. 가버나움으로 돌아옴

137:5.1 (1531.5) 결혼 축제가 있던 그 주간 내내 다수의 손님이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새로 뽑은 제자_사도들--곧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과 함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가나에 있던 예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으므로 매우 슬퍼했고, 예수의 가장 어린 남동생 유다가 그를 찾아 나섰다. 예수와 사도들은 곧장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갔다. 이 여행 도중에 예수께서는 새로 뽑은 동역자들에게, 도래할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많이 이야기했고, 특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앞으로 일 할 때, 세포리와 디베랴라는 도시를
피하라고 충고했다.

137:5.2 (1531.6) 그날 밤 저녁식사 후, 이 세베대와 살로메 집에서,
예수의 이 세상 생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 가운데
하나가 열렸다. 여섯 사도만 이 모임에 참석했으며;유다는
그들이 막 헤어지려고 할 때 도착했다. 선택된 이 여섯
명은, 예수와 함께 가나에서 벳새다까지 여행했는데, 마치
공중을 나는 듯이 걸어갔다. 그들은 기대감으로 활기
넘쳤고, 사람의 아들의 측근 동료로 선택됐다는 생각으로
설렘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이며, 이 세상 사명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가능성 있는지 그들에게
명백히 설명하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혔으며;베드로까지도
표현 못할 정도로 무너졌다. 사려_깊은 안드레만이 예수의
조언의 말씀에 용감하게 대꾸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또한
그들 안에 유대적 메시아 사상이 그토록 완전히 굳어져
있음을 봤을 때, 그들을 쉬도록 내보내는 한편, 동생 유다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유다는 예수께 작별을 고하기 전에, 흥분하면서 말했다:“가장이신_형님, 나는 당신을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이 당신인지에 대해, 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고, 다가올 천국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은 압니다. 나는 요단강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 막달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

137:5.3 (1532.1) 예수께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밤 외투를 두르고 호숫가에 앉아 다음날 새벽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날 밤 긴 명상을 통해, 추종자들이 오래_기다려온 메시야가 아닌 어떤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확실히 납득하게 됐다. 마침내 그는, 요한이 예견했고 유대인이 찾고 있던 자로서가 아니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어쨌든, 그는 다윗 유형의 메시야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마음이 비교적 더 영적으로 기울었던 옛 선견자들의 예언이 참으로 실현된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이 메시야가 아니라고 그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은 다시 발생되지 않았다. 이 복잡한 상황의 최종 해결을, 아버지 뜻이 풀려나가는 대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137:5.4 (1532.2) 예수께서는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했지만, 그들은 기쁨이 사라진 무리였다. 그는 그들과 대화했고, 식사 후 자기 주위에 모아놓고 말씀했다:“여기서 얼마동안 체류하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이다. 너희는,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요한의 말을 들었으며;따라서 우리는, 요한이 전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아들의 선구자가 자기 일을 마치면, 우리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도 세베대와 배목공소로 돌아갈 준비를 했으며, 다음 날 자신이 설교하기로 돼있는 회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안식일 오후에 그들과 회합을 갖도록 지시했다.

6. 안식일에 생긴 일

137:6.1 (1532.3) 세례 받은 후 예수의 첫 번째 공개적 출현은, 안식일인 서기 26년 3월 2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다.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넘칠 정도로 모였다. 요단강 세례 이야기 외에, 이제는 가나로부터 물과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더해졌다. 예수께서는 여섯 명의 사도를 귀빈석에 앉게 하고,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앉혔다. 전날 밤 가버나움에서 야고보와 함께 돌아와 있던 어머니 역시 거기에 왔는데, 그녀는 회당의 여자들의 처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청중은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그날 설교하기로 돼있는 그의 본성과 권위에 어울리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 권능의 현시를 목격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게 돼 있었다.

137:6.2 (1532.4) 예수께서 일어서자, 회당 관리가 두루마리 성서를 그에게 전했고, 그는 이사야 선지서를 읽었다:“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지은 집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가난하고 회개하는 영을 가진 자와, 내 말을 인해 떠는 자에게도, 내가 관심을 둘 것이다.’ 두려워하고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러나 주께 영광 돌려라. 그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고, 모든 다른 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성읍에서 나오는 소리,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주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말한다: ‘여자는 진통하기 전에 출산하며;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일을 누가 들었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한 나라가 갑자기 생기겠는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위로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137:6.3 (1533.1) 예수께서는 읽기를 마치자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자에게 돌려줬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에, 간단히 말씀했다: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와 함께 머물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행하기를 배우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137:6.4 (1533.2) 그날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야고보 및 유다와 함께, 배 타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갔고, 도래할 나라에 대해 예수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거기에 닻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목요일 밤보다는 더 많이 이해했다.

137:6.5 (1533.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이 도래하는 그 시간"까지는 각자 일상 임무에 전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배목공소로 돌아감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일을 위한 공부와 준비에 매일 밤 세 시간씩 보내야 한다고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너희를 부르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 여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각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나라는 소란스러움과 찬란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마음 속에 그리고 천국 협의회에 너희와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커다란 변화를 통해서 오게 됨을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내 친구이며;나는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를 사랑하며;너희는 곧 내 개인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인내하고, 온순하라. 아버지 뜻에 항상 순종해라. 천국의 부름에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는 동안, 너희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고생할 각오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큰 시련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경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세상은 내 말로 흔들릴 것이다. 심지어 내 친구인 너희도, 내가 너희의 혼동된 정신에게 무엇을 드러내는지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우리는 표적을 찾는 세대를 위해 수고하러 나아간다. 그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기적을_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내 사명의 핵심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더디게 인식할 것이다.”

137:6.6 (1533.4) 그날 밤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들 각자의 길로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 물가에 서서 기도했다:“내 아버지여, 이 어린 자들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의심이 있음에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이제 하나 되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7. 4개월의 훈련

^{137:7.1 (1533.5)} 4개월 --곧 3월, 4월, 5월, 6월--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됐으며; 예수께서는 여섯 동역자와 친동생 야고보에게, 100번 이상의 길고 진지한, 그러나 유쾌하고 즐거운 강의를 했다. 유다는 그의 가족 가운데 하나가 아픈 연고로 이 수업에 거의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그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으나, 마리아는 지연되고 활동이 없는 이 여러 달 동안 아들에게 거의 절망했다. 가나에서 고조됐던 그녀의 신앙은 이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녀는 항상 _되풀이했던 푸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가 마리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많이 수고했다.

^{137:7.2 (1534.1)} 이 4개월 동안 내내, 그의 친동생 하나를 포함하는 이 일곱 신자는 예수와 점점 더 친하게 사귀었으며; 이 하나님_사람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그를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그렇게 함께 지냄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성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비길 데 없이 품위 있는 인격체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곧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 한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정말로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믿는 자 전체 무리를 혹독하게 시험했다. 아무 일도, 정말로 아무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날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한편, 밤마다 예수 앞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비길 데 없는 예수의 인격체로 인해, 그리고 밤마다 그가 들려주는 품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 단합됐다.

137:7.3 (1534.2)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기다림과 배움의 기간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요한이 유대지방에서 전도를 계속하는 동안 갈릴리에서 천국에 대한 전도를 시작하자고, 반복해서 예수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몬아, 인내심을 가져라. 발전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노련하고 철학적인 조언으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종종 진정시키려 했다. 안드레는 예수의 인간적 자연스러움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과 가깝게 살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고 사려 깊을 수 있는 지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았다.

137:7.4 (1534.3) 예수께서는 이 전체 기간에 회당에서 단지 두 번 설교했다. 이 여러 주간의 기다림이 끝날 무렵이 되자, 그의 세례와 가나에서의 포도주에 관한 소문이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더 이상 명백한 기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나 그들이 벳새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지냈음에도, 이 이상한 예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는 곧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염탐꾼들을 파견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설교에 더 신경 썼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매우 조용히 일하고 있는 예수를 괴롭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137:7.5 (1534.4) 기다리던 이때, 예수께서는 팔레스틴의 여러 다른 종교 집단과 정치 당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동역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다. 예수는

항상:“우리는 그들 모두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137:7.6 (1534.5) 서기관과 랍비들을 합쳐서 바리새인이라고 칭했다. 그들은 자기네끼리 “동역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유대인 가운데 진취적인 집단이었고, 히브리 성서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많은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었고, 이것은 후기 예언서인 다니엘에서만 언급된 교리였다.

137:7.7 (1534.6) 사두개인은 제사장들과 어떤 부유층 유대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시행할 때 세부적인 면에 연연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진정으로 종파{宗派}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모임이었다.

137:7.8 (1534.7) 에세네 사람들은 진정한 종교적 분파로서 마카비 반란 동안 시작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격 조건이 바리새인보다 더 까다로웠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많은 신조와 관행을 받아들였고, 수도원에서 형제관계로 살면서 결혼을 금했으며, 모든 소유물을 공유했다. 그들은 천사에 관한 교훈에 전문이었다.

137:7.9 (1535.1) 열심당원은 열렬한 유대 애국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했다.

137:7.10 (1535.2) 헤롯당원은, 순수한 정치 모임으로서 헤롯 왕조를 복원함으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했다.

137:7.11 (1535.3) 팔레스틴 한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교훈과 유사한 많은 관점을 가졌음에도, "유대인은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137:7.12 (1535.4) 비교적 작은 집단인 나실인 동우회를 포함해서 이 모임들과 종파들 전체는, 언젠가 도래할 메시아를 믿었다. 그들은 모두 민족의 구원자를 찾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은 사상 또는 관행에서 이 학파들 가운데 어느 하나와도 연합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다. 사람의 아들은 나실인은 물론 에세네도 아니었다.

137:7.13 (1535.5) 예수께서 나중에 복음 전파와 신자{信者}의 훈련을 위해 사도들을 내보냈을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쳤다. 그는 동역자들에게, “사랑과 연민과 동정심을 보여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계되는 영적 체험임을 일찍부터 가르쳤다.

^{137:7.14 (1535.6)} 그들이 적극적인 공적{公的} 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와 그 일곱 명은 히브리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 매 주 이틀 저녁 회당에서 보냈다. 열정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한 다음 후년{後年}에, 사도들은 이 4개월이 주님과 교제했던 모든 나날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도움 됐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을 과잉으로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수용력 한도를 벗어나서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8. 천국에 관한 설교

^{137:8.1 (1535.7)}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10일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이던, 6월 22일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려온 후 두 번째로 회당 설교대에 섰다.

^{137:8.2 (1535.8)} “천국”에 관한 이 설교를 전파하기 며칠 전에, 예수께서 배 만드는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요한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드렸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연장을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은 후,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아버지의 때가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자.”

^{137:8.3 (1535.9)} 예수께서 목공소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날은 서기 26년 6월 18일 화요일이었다. 베드로는 목공소에서 달려 나갔고, 오후 중반쯤에 모든 동역자를 호숫가의 작은 숲에 모아놓은 다음, 예수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다른 작은 숲으로 기도하러 갔으므로,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그날 밤 늦게 세베대의 집으로 와 음식을 청할 때까지 그를 볼 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돌아오는 안식일에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동생 야고보를 회당으로 보냈다. 그리고 회당 관리는 예수께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137:8.4 (1536.1) 예수께서 자신의 공적 생애에서 처음으로 당당해 보이려고 애썼던, 기억에 남을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전파하기 전에, 성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요;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요;야훼는 우리의 왕이시니;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야훼는 내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는 온 땅에 큰 임금이다.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사랑과_자비가 임하리라. 야훼가 내 왕이시니 주께 영광 돌릴지어다.”

137:8.5 (1536.2) 그가 다 읽은 후에 말씀했다:

137:8.6 (1536.3)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묶인 자를 막론하고 경배하는 모든 혼을 맞이할 것인데, 내 아버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며;그의 사랑과 자비는 만민에게 해당된다.

137:8.7 (1536.4)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정신 속에 거하도록 자기 영{靈}을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을 모두 끝낼 때,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과 진리의 영은, 영적 이해와 신성한 의로움에 속하는 도래할 나라에서 너희가 견고히 서도록 할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권력이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라가 도래하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평화의 왕자요, 무궁하신 아버지께 대한 계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자녀들은 이 세상 나라를 설립하고 확장시키려고 싸우지만, 내 제자들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영적 승리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일단 들어가고 나면, 기쁨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137:8.8 (1536.5)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로 구하고, 이처럼 내 아버지의 성품과 같은 고상한 성품 얻기를 애쓰기 시작하는 자는,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곧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는데: 어린아이의 신앙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37:8.9 (1536.6) “어떤 사람들이 와서, 천국이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 아버지 나라는 보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혼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곳에, 하늘 나라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영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137:8.10 (1536.7) “정말로 요한은 회개에 대한 상징으로, 그리고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줬지만, 너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37:8.11 (1536.8) “내 아버지 나라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을 것이고, 봉사를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며,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아버지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피조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섬김으로써, 내가 그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곧 앉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동료들 기꺼이 섬기면,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137:8.12 (1536.9) "새로운 이 나라는, 별판의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씨와 같다. 그것은 다 익은 열매를 금방 맺지 않는다. 사람의 혼 속에서 천국이 설립되는 때부터, 천국이 영구적인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완전한 열매로 온전히 무르익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137:8.13 (1536.10) "그리고 내가 선언하는 이 나라는, 권력과 풍요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하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완전케 하시는 봉사에서, 진보하는 의로움과 증가하는 기쁨으로 이뤄진 삶이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완전함 같이 그들도 결국 완전하게 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37:8.14 (1537.1) "나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왔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선포하며, 도래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신성한 휴식을 즐길 것이다. 이 세상 물질로 너희에게 비용이 얼마나 부과되든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대가{代價}를 치르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몇 갑절의 많은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고, 다가오는 시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137:8.15 (1537.2)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군대의 행진이나,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을 뒤집어엎거나, 사로잡는 멍에를 꺾은 결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자는 풍부한 자유와 기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37:8.16 (1537.3) “이 나라는 영구적인 영토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로 상승할 것이며;그들은 반드시 낙원에서 그의 영광의 오른 편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에 그렇게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체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완전한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모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

137:8.17 (1537.4) “요한은 와서, 천국을 향해서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회개하라고 전파했으며;이제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신앙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값이라고 선포하러 왔다. 내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137:8.18 (1537.5)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 제자들도 경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_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약 3분의 1은, 완전하게 납득할 수는 없었음에도 그 메시지를 믿었으며; 약 3분의 1은 기대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순수하게 영적인 개념을 마음 속에서 거부할 준비가 돼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의 가르침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진정으로 그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제138편 천국 사자의 훈련

138:0.1 (1538.1)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전파한 후에, 예수께서는 그날 오후 여섯 명의 사도를 불러 모으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비로소 알려줬다.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이 회담에 부름 받지 못했으므로 기분이 매우 상했다. 그들은 이때까지

자신들도 예수의 핵심 동역자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의 이 사도 지휘자 대원에 가까운 친족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계획했다. 선택된 소수에서 야고보와 유다를 제외시킨 이 일은, 가나에서의 체험 이후로 줄곧 어머니를 멀리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예수와 그 가족 사이의 거리를 계속_멀어지게 하는 시발점이었다. 이런 상황은 그가 공적{公的}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됐고--그들은 그를 거의 배척했고, 이런 불화는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동요하는 신앙과 희망의 태도, 그리고 증대되는 실망, 창피함, 및 절망의 감정들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단지 가장 어린 룯만이 가장인_오빠에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였다.

138:0.2 (1538.2) 부활이 있을 때까지도, 예수의 온 가족은 그의 사역에 거의 협력하지 않았다.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만 존경받지 못한다면, 자기 가족으로부터만 이해심 있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1. 최종 지시

138:1.1 (1538.3)

다음 날, 서기 26년 6월 23일 일요일에, 예수께서는 여섯 명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둘씩 짝 지어 나가서 천국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라고 명했다. 세례 주는 것을 금했고, 공개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나중에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하겠지만, 당분간 여러 이유로 인해, 동포와 몸소 접촉하면서 실질 체험을 획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첫 여행이 전적으로 *개인 업무*가 되도록 의도했다. 이런 그의 발표가 사도들을 실망시키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천국 선포를 시작하는 이유를, 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알았으므로,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한 열정으로 출발했다. 이들을 둘씩 짝 지어 보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케레사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빌립과 나다니엘은 타리키아로 갔다.

138:1.2 (1538.4)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 첫 두 주간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떠난 후 천국의 일을 계속할 열두 명의 사도를 임명하기 원한다고 그들에게 발표했고, 입안된 사도 단체 회원으로, 전에 전도된 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선정하도록 그들 각자에게 위임했다. 요한이 큰

소리로 물었다:“그러나 주님, 우리는 요단에서부터 주님과 계속 함께 했고, 천국을 위한 우리의 첫 책무인 이 일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들어왔는데, 이 여섯 사람도 우리와 한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그렇다, 요한아, 너희가 선택할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후,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떠났다.

138:1.3 (1539.1) 여섯 명은, 각자 새로운 사도를 한 명씩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의 지시에 대해 토론하면서 많은 의견 교환을 마치기까지, 일하러 가지 않고 모여 있었다. 그들은 결국 안드레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각자 사역을 위해 떠났다. 안드레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주님이 옳다;이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선생들이 더 필요한데, 주님께서 이 여섯 명의 새 사도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길 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 헤어지던 이날 아침에, 각자의 마음 속에는 드러내지 않은 약간의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곧 예수를 보고 싶어지게 될 것을 알았으며,

두렵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천국이 시작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다.

138:1.4 (1539.2) 여섯 명은 두 주간 수고한 후에, 논의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요셉, 시몬, 그리고 근처에 사는 다른 가족을 만나려고 나사렛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 그는 이 문제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도 남았다.

138:1.5 (1539.3) 사도들이 이 사명을 위해 떠나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잠재적 권능을 사용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싶은 큰 유혹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한 번 더 단념했다.

2. 여섯 명을 택하심

138:2.1 (1539.4) 여섯 명의 이번 첫 선교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국, 종교란 순수하게 온전히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임을 더 확실히 깨달으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그들은, 종교적 위안과 영적 원기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에 일반인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알기 시작했다. 예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서로 먼저 말하려고 했지만, 안드레가 책임을 맡아 한 명씩 불러, 주님께 정식으로 보고하게 했고, 새로운 여섯 사도에 대한 추천도 제시하게 했다.

138:2.2 (1539.5) 각자 새 사도가 되도록 선택한 사람을 발표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추천에 대해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 찬반을 물었으며; 그리하여 여섯 명의 새로운 사도 모두가, 기존의 여섯 명 전체에게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함께 이 후보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봉사에 초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38:2.3 (1539.6) 새로 선택된 사도는 다음과 같았다:

138:2.4 (1539.7) 1. *마태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관 징수원이었고, 그의 사무실은 바타니아 경계에 가까운 도시 동쪽에 있었다. 안드레가 그를 선택했다.

138:2.5 (1539.8) 2. *도마 디두모*는 타리키아 지방의 어부였는데, 한때는 가다라에서 묵수와 석공 일을 했다. 빌립이 그를 선택했다.

138:2.6 (1539.9) 3. *야고보 알패오*는 케레사의 어부이자 농부였으며, 야고보 세베대에게 선택받았다.

138:2.7 (1539.10) 4. *유다 알패오*는 야고보 알패오의 쌍둥이 형제요, 그 역시 어부였으며, 요한 세베대에게 선택받았다.

138:2.8 (1540.1) 5. *열심당 시몬*은 열심당이라는 애국자 조직에서 높은 관원이었는데, 예수의 사도로 참여하기 위해 그 직위를 포기했다. 열심당에 가담하기 전에는 상인이었다. 베드로가 그를 선택했다.

138:2.9 (1540.2) 6. *가롯 유다*는 여리고에 사는 부유한 유대인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세레 요한에게 동조했고, 사두개인인 그의 부모는 그와 인연을 끊었다. 예수의 사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지역에서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재정을 맡아본 경험이 주된 원인이 돼서, 그들의 대열에 들어오도록 나다니엘이 그에게 권유했다. 유다는 열두 사도 중에서 유일한 유대지방 사람이었다.

138:2.10 (1540.3)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들이 보고하는 세부사항을 들으면서, 그 여섯 명과 하루 종일 같이 지냈는데, 관련시킬만한 흥미 있고 유익한 체험을 그들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시작하기전에,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일하도록 내보내는 주님의 계획의 지혜를 이제 알게 됐다.

3. 마태와 시몬을 부르심

138:3.1 (1540.4) 다음 날, 예수와 여섯 명은 세관 징수원인 마태를 부르러 갔다. 마태는 장부를 정리하고 동생에게 업무 인계를 끝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징세 사무실에 가까이 갔을 때, 안드레가 예수와 함께 다가갔고, 예수께서 마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와 사도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138:3.2 (1540.5) 마태는 자신이 마련한 그날 저녁 연회에 대해 예수께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주빈{主賓}이 돼준다면, 적어도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만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찬성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사도로 초대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시몬도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의 허락을 받았다.

138:3.3 (1540.6) 마태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끝낸 후에, 그들은 모두 베드로와 함께 시몬을 부르러 갔고, 이제 그의 조카가 대신 맡아보는 오래된 사무실에서 시몬을 만났다. 베드로가 예수를 시몬에게 모시고 가자, 주님은 그 열성 애국자를 환영하면서,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138:3.4 (1540.7) 그들은 모두 마태의 집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정치와 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레위 가족이 오랫동안 상업과 세금 징수하는 일에 종사해왔으므로;마태가 이 연회에 초대한 손님 중에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일컬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38:3.5 (1540.8) 당시에 이런 종류의 연회_만찬에 저명인사가 참석하게 되면,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회석상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식사에 참석한 귀빈을 관찰하거나 그의 대화 또는 연설에 귀 기울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따라서, 가버나움에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이런 색다른 사교

모임에서 예수의 품행을 관찰하기 위해 이 행사에 참석했다.

138:3.6 (1540.9) 만찬이 진행됨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기쁨은 최고의 흥겨움에 도달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쾌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시하던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그토록 낙천적이고 속편하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악의가 가득한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의 행동에 대해 베드로에게 비난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경망스럽게 즐기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너는 어떻게 감히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비난의 말을 그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예수께서 비소소 입을 열고 말씀했다: “마태와 시몬을 우리 공동체로 환영해 맞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너희의 편안함과 즐겁게 친교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기쁘지만, 너희는 더 많이 기뻐해야만 하는데, 하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더 풍성히 즐기게 될, 도래하는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너희 가운데 다수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비난하면서 서 있는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짓밟힌 자들에게 기쁨을, 도덕적으로 포로 된 자들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에게 쓸데 있음을 내가 다시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38:3.7 (1541.1) 그리고 이것은 모든 유대인의 눈에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는데:의로운 성품과 고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비종교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이라고 알려진 무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열심당 시몬이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 원했으나, 안드레는, 앞으로 이뤄질 천국이 열심당의 운동과 혼동되는 것을 예수께서 원치 않음을 알았으므로, 어떤 공개적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렸다.

138:3.8 (1541.2) 예수와 사도들은 그날 밤 마태의 집에 머물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사실:예수의 선함과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4. 쌍둥이 형제를 부르심

138:4.1 (1541.3) 다음 날, 그들 아홉 명은 모두, 다음 두 사도, 즉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가 추천한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를 정식으로 부르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케레사로 건너갔다. 어부인 이 쌍둥이 형제는, 예수와 사도들이 올 것을 알았으므로,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케레사 어부들에게 주님을 소개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

138:4.2 (1541.4) 그들이 함께 지낸 그날 오후에, 예수께서는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충분히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다: “모든 사람이 내 형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어떤 피조물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늘 나라는 모든 남녀에게 열려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쓸지 모르는 어떤 굶주린 혼 앞에서든지, 아무도 자비의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람을 내려다보실 때, 그들 모두 똑같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죄인, 사두개인이나 세리,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묶인 자와 함께 식사하기를 거부하지 말라. 천국 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두에게 넓게 열려있다.”

138:4.3 (1541.5) 그날 밤, 알패오의 집에서 있었던 간소한 저녁 식사 중에, 쌍둥이 형제가 사도 일행에 가입했다. 예수께서 그날 밤 늦게 사도들에게, 불순한 영들의 기원, 본성, 및 운명에 관해 처음으로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한 말씀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매우 쉬우나, 그의 교훈 가운데 다수는 이해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138:4.4 (1542.1) 밤에 휴식한 뒤에, 이제 열한 명이 된 전체 인원은 배를 타고 타리키아로 건너갔다.

5. 도마와 유다를 부르심

138:5.1 (1542.2) 어부 도마와 방랑자 유다는, 어선{漁船}들이 정박하는 타리키아에서 예수와 사도들을 만났고, 도마는 그들을 가까이 있는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이때 빌립이, 자기가 사도로 추천한 도마를 소개했고, 나다니엘은 유대지방 사람인 가롯 유다를 역시 정중하게 소개했다. 예수께서는 도마를 바라보면서 말씀했다:“도마야, 너는

신앙이 부족하지만;그럼에도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말씀했다:“유다야,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이제 나는 너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겠는데, 네 갈릴리 형제들에게 항상 충성하게
되기 바란다. 나를 따르라.”

138:5.2 (1542.3) 그들이 휴식을 끝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의 본성과 활동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 얼마동안 열두 사도를 데리고
떠났지만, 그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놀라운 진리의
의미를, 그들은 이번에도 거의 납득하지 못했다. 한 사람은
한 면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한 면을 납득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의 가르침 전체를 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지닌 종교적 신념의 옛 형식에 예수의
새 복음을 맞추려는 실수를 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설립하러 왔다는 관념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새로운 계시였음을 감지하지
못했다.

138:5.3 (1542.4) 예수께서는 다음 날 열두 사도를 그들끼리 있게 했으며;그들이 서로 친해지기 원했고, 자신이 가르친 것들에 대해 그들끼리 의논하기를 바랐다. 주님은 저녁 식사시간에 돌아왔고, 식사_후에 스라빔의 사역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가르침을 납득하는 사도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지낸 후에,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138:5.4 (1542.5) 세베대와 살로메는 아들 다윗과 같이 살려고 떠났으므로, 큰 집을 예수와 열두 사도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선택된 전도자들과 함께 조용한 안식일을 여기서 보냈으며;천국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을 신중히 요약해서 말했고, 정부 당국과 어떤 충돌이든지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말씀했다:"집권자들을 비난해야 한다면, 그 과제는 내게 맡겨라. 너희는 가이사나 그 신하들에 대해 어떤 비난도 하지 말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한쪽으로 불러내서, 왜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내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의 태도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했다.

6. 집중적인 훈련 주간

138:6.1 (1542.6)

그 다음 주간에는 집중적인 훈련 계획표가 진행됐다. 새로 뽑힌 여섯 사도는, 각자 자신을 추천한 자의 책임 아래, 그들이 천국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일에 대해 매일 철저히 돌이켜 봤다. 선배 사도들은, 후배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신이 그때까지 예수로부터 배워온 모든 것을 신중하게 복습했다. 밤에는 그들 모두 예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세베대의 정원에 모였다.

138:6.2 (1542.7)

예수께서 휴식과 오락을 위해 주중 하루를 휴일로 정한 것은 이때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물질 생애의 여생을 보내는 동안 내내, 매주 하루 쉬는 이 계획을 꾸준히 지켰다. 그들은, 대개 수요일에는 정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매주 이런 휴일이 되면, 예수께서는 대개 그들에게서 떠나면서 말씀했다:“얘들아, 가서 하루를 즐겨라. 천국의 힘든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너희가 예전에 하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기분을 즐기도록 해라.” 이 세상 생애의 이 기간에, 이런 하루의 휴식이 예수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인간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계획을 채택했다.

예수께서는 교사였으며--주님이었으며;동역자들은 그의 학생이었다--제자였다.

138:6.3 (1543.1)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가르친 것과, 후에 생길 수 있는 자신에 *관한* 교훈 사이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리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내 나라와 거기 관련된 복음이,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 할 것이다. 나에 *관해서* 또는 내 교훈에 *관해서* 전도함으로써,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해 내가 계시한 것을 보여줘야 하겠지만, 내 믿음과 교훈에 *관한* 믿음과 교훈에 관련되도록 전설을 만들거나 어떤 종파를 만드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138:6.4 (1543.2) 예수께서는 이런 초기 교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내포돼 있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사도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했다. 그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유란시아에서 세례 이후에 예수의 생애에는 단 *한 가지* 동기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낙원 아버지를 더 낮게 그리고 더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으며;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더 나은 길, 즉 신앙과 사랑의 길을 개척하는 자였다. 사도들에게 준 그의 충고는 항상:“가서 죄인을 찾으며;낙심한 자를 발견하고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라”는 것이었다.

138:6.5 (1543.3) 예수께서는 그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으며;자신의 사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소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하거나 시시하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인물에 온전히 만족했다. 그는 막대한 극적 실현 가능성을 갖는 어떤 사명에 매어 있었지만, 가장 조용하고 극적이지_않은 방식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나가기를 고집했으며;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않기 위해 몹시 애썼다. 그는 이제, 적어도 몇 달 동안 열두 사도와 함께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조용히 일할 계획을 세웠다.

7. 또 하나의 실망

예수께서는 다섯 달 동안 개인적으로 일하는 조용한 전도 운동을 하려고 계획했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사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일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 날 아침 일찍, 그가 열두 사도에게 이 계획을 막 발표하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 및 가롯 유다가 예수께 와서 개인 면담을 청했다.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베드로가 대담하게 말했다: “주님,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시기가 이제 무르익은 것인지 아닌지, 다른 동역자들의 요청으로 여쭙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천국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입니까? 그리고 천국 설립에서 당신과 함께 저희 각자 맡게 될 직위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게 될 것인지--” 베드로가 질문을 계속하려 했지만, 예수께서 훈계조로 손을 들어서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근처에 서있는 다른 사도들도 모이도록 손짓하며 말씀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권좌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아버지 나라에서 차지할 각자의 직위를 묻느냐? 내가 너희를 영적인 나라의 대사로 불렀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처럼, 너희도 곧, 아주 가까운 날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선포하는 일에 나를 대신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천국 사자{使者}가 되도록 가르쳤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신성한 우월성을 갖는 다가오는 이 나라의 본성과 중요성을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느냐? 친구들아, 다시 한 번 내 말을 들어라. 내 나라가 권력으로 통치되거나 영광으로 지배된다는 관념을 너희 마음에서 지워 버려라. 진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곧 내 손에 주어지겠지만, 이 신성한 재능을,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다른 시대에는 너희가 진실로 권세와 영광 속에 나와 함께 앉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뜻에 따라 겸손한 복종으로 이 땅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138:7.2 (1544.1) 동역자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둘씩 짝 지워 기도하러 보내면서, 점심시간까지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중대한 시간이었던

이날 오전에, 그들은 각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했으며, 예수께서 명령했던 대로 그에게 돌아왔다.

138:7.3 (1544.2) 예수께서는 이제, 세레 요한의 도래, 요단강에서의 세례,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 최근에 여섯 사도를 뽑은 일, 그리고 친형제들을 그들로부터 제외시킨 점에 대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 역시 떼어내려고 애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도들은 짧았지만 진지한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일어나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주님에 대한 변치 않는 헌신을 선언했으며, 도마가 이것을 “다가오는 이 나라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

138:7.4 (1544.3)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물어봤으며; 그들의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두 주간 겨우 지탱할 만큼의 기금 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그가 말씀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바닷가에서 두 주간 머물면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며;너희는 그동안 처음 선택된 사도인 안드레의 지도 아래, 너희가 앞으로 일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즉 현재의 개인 사역은 물론, 내가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고 신자{信者}들을 가르치도록 너희를 임명할 때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 조직을 갖춰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사기가 충천했으며;이것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차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대중 운동을 하려고 계획한다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첫 암시였다.

138:7.5 (1544.4) 사도들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자체 조직을 마무리했고, 모두가 고기잡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소용되는 배와 그물을 준비했는데;그들 대부분은 어부였고, 예수 자신도 노련한 사공이자 어부였다. 그들이 그 후 몇 년 동안 사용하게 됐던 배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께서 손수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했다.

138:7.6 (1544.5) 예수께서는 두 주 동안 고기를 잡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덧붙여 말씀했다:“다음에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 고기를 잡았고, 예수께서는 매일 밤 각각 다른 무리와 함께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는 훌륭한 어부, 명량한 동무, 그리고 영감 주는 친구였으며;그들이 그와 함께 일하면 할수록,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 어느 날 마태가 말했다:“어떤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덜 존경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점점 더 납득하지 못하겠음에도, 더 사랑하게 된다.”

138:7.7 (1545.1) 두 주간은 고기를 잡고 두 주간은 천국을 위한 개인 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이 계획은, 다섯 달 이상 계속됐으며, 심지어 요한이 감금되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박해{迫害}가 그칠 때인, 서기 26년 이 해 말까지 계속됐다.

8. 열두 사도의 첫 업무

138:8.1 (1545.2) 두 주간의 고기잡이를 끝낸 후에, 열두 사도의 회계로 활동하도록 뽑힌 가롯 유다가 부양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여섯으로 똑같이 나눴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서기 26년 8월 중순 무렵에, 그들은 안드레가 각자에게 할당한 일터로 둘씩 짝 지어 나갔다. 예수께서는, 첫 두 주는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두 번째 두 주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들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두 사람씩 함께 나갔다. 이렇게 해서 그는, 대중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 전에, 각 쌍과 함께 적어도 한 번씩 나갔다.

138:8.2 (1545.3) 예수께서는, 고행이나 희생 제물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도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다음을 논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명했다:

138:8.3 (1545.4) 1.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가 감옥에 갇힌 것.

138:8.4 (1545.5) 2. 세례 받던 날 들었던 목소리. 예수께서는, “소리를 들었던 자만 그것에 대해 언급하라. 내게 들은 것만 말하고; 풍문에 떠도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138:8.5 (1545.6)

3.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물과 포도주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했다.

138:8.6 (1545.7)

그들은 두 주간씩 번갈아 어부로 일한 이 5내지 6개월의 기간 내내 훌륭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하여 두 주간 어부로 일하고, 그 다음 두 주간 천국을 위한 전도 업무를 하기 위해 일터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다.

138:8.7 (1545.8)

일반인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봉사에 경탄했다. 랍비들은, 무식한 자는 신앙심이 깊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가르쳐왔다. 그러나 예수의 사도들은, 신앙심 깊고 또한 의로웠으나; 랍비의 학문과 세상 지혜 대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무지하고자 했다.

138:8.8 (1545.9)

유대인이 가르쳤던 소위 선행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값으로 예수께서 요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변화--곧 새로 태어남--의 차이점을,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요구 사항이 신/앙임을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세례

요한은,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회개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신앙은, 현존하고 완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열려있는 문”이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어떤 선지자처럼 말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추구하기보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들에게 내재하는 사랑과 구원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만족하고 확신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썼다.

138:8,9 (1545.10) 제자들은, 만나는 모든 인간마다 주님께서 심오한 존경과 동정심을 갖고 대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으며, 온갖 종류의 남녀 그리고 아이들에게 쏟는 이런 한결같고 변함없는 예수의 배려에,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진지한 토론 중에 있더라도, 육체와 혼의 짐을 지고 지나가는 한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갈 것이다. 그는 중간에 끼어드는 한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라면, 사도들과 심각한 회담 중이라도 그것을 중단할 것이다. 예수께는 우연히 자기 눈앞에 있게 된 한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했다. 그는 선생님이며 교사였지만, 그 이상이었다--그는 또한 친구이자 이웃이었고, 이해심 많은 동무였다.

138:8.10 (1546.1) 예수의 공적인 가르침이 주로 비유와 짧은 이야기로 이뤄지긴 했지만, 그는 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사도들을 가르쳤다. 추후 대중 설교 도중에도, 그는 진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멈추고자 했다.

138:8.11 (1546.2) 사도들은 여자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서 처음에는 충격 받았으나, 곧 익숙해졌으며; 그는 천국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9.5개월의 시험

138:9.1 (1546.3) 고기잡이와 개인 업무를 번갈아 하던 이런 단조로운 기간이, 열두 사도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체험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견뎠다. 그들은, 불평, 의심, 및 일시적 불만족을 간직한 채, 여전히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맹세를 지켰다. 이런 시험 기간에 예수와 함께 지낸 그들의 개인적 교제는,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로 하여금 재판과 십자가형의 암울한 기간

중에도, 예수께 충성하고 진실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들에게 그렇게 헌신했던, 존경하는 선생님을 실제로 쉽게 저버릴 수 없었다. 주님이 죽음을 맞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사도들의 마음 속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특별한 인간 감정이--곧 우정_충성이라는 최상의 감상{感想}이-- 힘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이성과 판단과 논리는 잊혀졌다. 예수와 함께 했던 이 다섯 달은, 사도 각자에게, 예수를 온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훌륭한 교훈이나 굉장한 행동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적 감상이, 부활이 있는 후 천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함께 붙들어 댔다.

138:9.2 (1546.4) 조용히 활동한 이 여러 달이 사도들에게는 큰 시험이 됐고, 그들은 이 시험을 극복했지만, 대중 활동이 없는 이 기간은 예수의 가족에게도 큰 시련이었다. 예수께서 대중 활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도, (룻을 제외한) 그의 전 가족은 실질적으로 그를 배척했다. 그 후에 그들은 몇 번만 그와 연락했고, 그때마다 자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를 설득했는데, 그들은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거의 믿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만 그의 사상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도 파악할 수 없었으며;그와 피를 나눈 가족에게는, 그 모든 일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찼다.

138:9.3 (1546.5) 사도들은 자신의 개인 업무를, 가버나움, 벳새다_줄리아, 고라신, 거라사, 힙보, 막달라, 가나, 갈릴리의 베들레헴, 요타파타, 라마, 사페드, 기스카라, 가다라, 및 아빌라 등지에서 수행했다. 그들은 이런 도시들 외에도, 시골에서 그리고 여러 마을에서 일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열두 사도는 각자의 가족 부양을 위해 상당히 충분한 방책을 강구할 정도로 일했다. 대부분의 사도는 결혼했고, 일부에게는 자녀도 있었지만, 사도들의 기금에서 적은 양의 어떤 도움과 함께, 그들의 식구 부양 대책을 이미 잘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다.

10. 열두 사도의 조직

138:10.1 (1547.1) 사도들은 일찍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조직을 갖췄다:

138:10.2 (1547.2) 1. 맨 처음 선택된 안드레가 열두 사도의 의장 및 총책임자로 임명됐다.

138:10.3 (1547.3) 2.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의 개인 동무로 임명됐다.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께 시종들었고, 그의 육신적이거나 기타 잡다한 필요 사항을 맡았으며,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비롭게 교류하고 기도로 밤을 새울 때, 그와 함께 있게 됐다.

138:10.4 (1547.4) 3. 빌립은 전체 모임의 사무장{事務長}이 됐다. 음식을 제공하고 방문객 또는 가끔 많은 청중 무리의 음식도 보살피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138:10.5 (1547.5) 4. 나다니엘은 열두 사도의 가족 부양을 책임졌다. 그는 각 사도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았고,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청구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주 기금을 보냈다.

138:10.6 (1547.6) 5. 마태는 사도 단체의 재무{財務} 책임자였다.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공동 부양을 위한 기금이 더 들어오지 않거나, 모임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기부금을 받지 못하면, 고기잡이를 위해 열두 사도를 얼마동안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이 마태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들이 대중 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는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회계에게 항상 맡겼다.

138:10.7 (1547.7) 6. 도마는 일정을 맡아보는 책임자였다. 그는 숙소를 정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정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행 일정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했다.

138:10.8 (1547.8) 7. 알패오의 쌍둥이 아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대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의 과제는, 전도하는 동안 인파 가운데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보조 안내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138:10.9 (1547.9) 8. 열심당 시몬은 오락과 놀이를 담당했다. 그는 수요일 계획표를 관리해서, 그날에는 사도들이 몇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분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일을 맡았다.

138:10.10 (1547.10)

9. 가룻 유다는 회계로 지명됐다. 그는 돈주머니를 보관했다. 모든 경비에 드는 돈을 그가 지불했고 장부를 관리했다. 그는 주 단위로 마태에게 예산안을 짜줬고, 안드레에게 매 주 보고했다. 유다는 안드레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서 돈을 지출했다.

138:10.11 (1547.11)

초기에 조직된 때부터, 배반자인 유다의 이탈로 말미암아 재_조직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열두 사도는 이런 식으로 활동했다. 주님과 제자_사도들은,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까지,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일을 계속했으며, 이날 예수께서 그들을 전부 불러 모아, 천국 대사 및 천국의 기쁜 소식 전파자로서 정식으로 임명했다. 그 후로 곧, 첫 대중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제139편 열두 사도

139:0.1 (1548.1)

예수가 사도들의 희망을 반복해서 산산조각내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높아지려는 모든 야망을 갈기갈기 찢었음에도, 한 사람만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의 이 세상 생애가 매력 있고 의로웠음을 웅변하듯 증언한다.

139:0.2 (1548.2) 사도들은 예수로부터 하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께서는 그들로부터 사람들의 나라, 즉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진화하는 다른 세계들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이 배웠다. 이 열두 사람은, 다양한 유형의 인간 기질을 대표했고, 학교교육으로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100년 전에 갈릴리 이방 주민을 강제로 개종시킨 결과로, 이 갈릴리 어부 가운데 다수는 이방인의 핏줄을 상당히 지니고 있었다.

139:0.3 (1548.3) 사도들 전체가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알패오 쌍둥이를 제외한 그들 모두는 회당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히브리 성서에 대해 그리고 그 당시 통용되는 지식 대부분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훈련돼 있었다. 일곱 명이 가버나움 회당 학교를 졸업했고, 갈릴리 전체에서 더 좋은 유대인 학교는 없었다.

139:0.4 (1548.4) 이 천국 사자{使者}들을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너희의 기록들이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랍비의 학문에 대해 무지하고, 성서에 대한 율법학자의 해석 방법을 훈련받지 않은 평신도였다는 관념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그들은 소위 고등교육이 결여돼 있었다. 오늘날로 볼 때, 그들은 확실히 교육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회 집단에서는 교양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그들 모두, 경직되고 편견에 치우친,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인이 된 후에, 그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각자 체험으로 터득했다.

1. 안드레, 처음 선택된 사도

139:1.1 (1548.5) 천국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인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섯 명의 아이--곧 본인, 남동생 시몬, 그리고 세 명의 여동생--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았다. 이미 고인{故人}이 된 그의 아버지는, 가버나움의 어항{漁港}인 벳새다에서 고기를 말려 파는 일에 종사하는 세베대의 동업자였다. 안드레는 사도가 됐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지만, 결혼한 동생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둘 다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였다.

139:1.2 (1548.6) 안드레는 서기 26년에 사도로 뽑혔으며, 예수보다 한 살 많은 서른세 살이었고 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는 훌륭한 선조를 둔 혈통에서 태어났고,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유능했다. 웅변술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동료가 가질만한 역량을 거의 다 소유했다. 예수께서 안드레에게는 애칭, 즉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지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들이 곧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듯이, 또한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안드레를 불렀다.

139:1.3 (1549.1) 안드레는 훌륭한 조직가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경영자로서 더 훌륭했다. 그는 네 명의 사도로 구성된 핵심 요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예수께서 그를 사도 집단의 우두머리로 임명했으므로, 다른 세 사람이 주님과 매우 긴밀하게 교류하는 특권을 누리는 동안, 그는 형제들과 함께 근무해야만 했다. 안드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단체의 책임자로 남아 있었다.

139:1.4 (1549.2) 안드레가 효과적인 설교자였던 적은 없었지만, 개인을 상대로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선택된 사도로서 즉시 동생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다는 점에서, 천국의 선구적인 선교사 역할을 했으며, 시몬은 나중에 가장 훌륭한 천국 설교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안드레는, 열두 사도를 천국 사자로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개인 업무 계획표를 활용하는 예수의 방침에 최고의 후원자였다.

139:1.5 (1549.3) 예수께서 사도들을 사적{私的}으로 가르칠 때든지, 군중에게 전도할 때든지, 안드레는 대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능통했으며;이해심 많은 실행가였고 능률적인 경영자였다. 그는 자기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예수께 가져갔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알게 된 모든 문제를 신속히 결정했다.

139:1.6 (1549.4)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품과 기질에서 매우 달랐지만, 훌륭하게 같이 지냈다는 점은 그들에게 명예가 되도록 영원히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웅변술을 질투하지 않았다. 연장자인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재주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충심에서 영향력 미치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역량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 2천 명의 혼이 천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가 동생에게 말했다:“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뒤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답변했다:“형님이 나를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주님 옆에 꾸준히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통례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형제간에도 함께 평화롭게 살고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139:1.7 (1549.5)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유명해졌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불리면서 나머지 생애를 지내는 것이, 형 안드레를 한 번도 초조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139:1.8 (1549.6) 모든 사도 가운데, 안드레가 사람을 가장 잘 판단했다. 회계에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때에도, 그는 가롯 유다의 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지만;자신의 염려에 대해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안드레의 위대한 천국 봉사는, 복음 선포를 위해 내보낼 첫 선교사들의 선정에 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충고한 것, 그리고 또한 천국을 경영하는 직무의 조직에

대해 이 초기 지도자들에게 조언한 것이었다. 안드레는 젊은이들의 숨겨진 자원과 잠재된 재주를 발견하는 데 큰 은사를 갖고 있었다.

139:1.9 (1549.7) 예수께서 높은 곳으로 상승한 후에 곧바로, 안드레는 떠나간 주님의 말씀과 행적들 가운데 많은 것을 손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안드레가 죽은 후에, 이 개인기록의 다른 사본들이 만들어졌고, 그리스도교 교회의 초기 선생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회람{回覽}됐다. 안드레의 이런 비공식 기록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생애에 관하여 사람들이 상당히 일관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훗날에 편집되고, 개정되고, 바뀌고, 첨부됐다. 이런 바뀌고 개정된 약간의 사본들 가운데 마지막 사본은, 열두 사도 중에서 처음 선택된 그 사도가 원본을 쓴 후 100년이 지났을 즈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불에 타버렸다.

139:1.10 (1550.1) 안드레는, 명석한 통찰력, 논리적 사고, 확고한 판단력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중요한 성격상 장점은 비할 바 없는 안정감이었다. 그의 기질의 단점은 열정의 결여였는데;그는 현명한 칭찬으로 동역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의 가치 있는 업적에 대해 이렇게 칭찬에 인색했던 것은, 아침이나 위선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안드레는, 다재다능하고, 침착하며, 자립적이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공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139:1.11 (1550.2) 사도들 모두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열두 사도 각자가 그에게 이끌린 것은, 각 사도에게 특별히 호감을 주는 어떤 특정한 인격체 특징 때문이었음이 사실이다. 안드레는, 예수의 일관적인 신중함과 변치 않는 위엄으로 인해 그를 존경했다. 일단 예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예수를 알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됐으며;진정으로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기 원했다.

139:1.12 (1550.3) 후일의 박해로 인해 결국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됐을 때, 안드레는,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를 지나 여행했고, 수천 명을 천국으로 인도한 후에, 결국 아가야의 파트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만 이틀이나 걸렸고, 그는 이런 비극적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늘 나라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효율적으로 선포하기를 계속했다.

2. 시몬 베드로

139:2.1 (1550.4) 사도로 가입했을 때, 시몬은 서른 살이었다. 그는
결혼해서 세 아이가 있었고, 가버나움 가까이에 있는
벳새다에서 살았다. 그는, 형 안드레, 그리고 자기 장모와
함께 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 다 세베대의 아들과
동업하는 어부였다.

139:2.2 (1550.5) 주님은, 안드레가 시몬을 둘째 사도로 제안하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때,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했으며;그것은 일종의
별명이었다. 시몬은 모든 친구에게 엉뚱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 별명에,
나중에는 예수께서 새롭고 뜻 깊은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
사실이다.

139:2.3 (1550.6)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격한 감정에 제멋대로 빠지면서 자라왔으며;생각
없이 계속 말을 내뱉었으므로, 빈번하게 곤경에 처했다.
이런 종류의 경솔함은, 친구와 동역자들 모두에게도

끊임없는 곤경을 일으켰고, 주님으로부터 가벼운 꾸중을 많이 듣게 된 원인이었다. 생각 없이 하는 그의 말로 인해 더 많은 곤경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많은 계획과 개요를 공공연히 털어놓기 전에, 형 안드레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매우 일찍부터 터득했기 때문이다.

139:2.4 (1550.7) 베드로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유창한 웅변가였다. 또한 그는 천부적이고 영감 주는 지도자였고 생각이 빨랐지만, 깊이 추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의 질문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질문했고, 대부분의 질문이 선하고 적절했지만, 다수는 생각 없이 나온 어리석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심지{心地}가 깊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을 잘 알았다. 따라서 그는 결정을 빨리 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를 보고 놀라서 떠드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나갔다.

139:2.5 (1551.1)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존경하게 됐던 하나의 특징은, 그의 탁월한 온화함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관용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를 일곱 번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못했다.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마음에도 없이 예수를 부인한 직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날들 동안, 그는 주님의 용서하는 성품에 대해 자신이 받았던 인상을 많이 회상했다.

139:2.6

(1551.2)

시몬 베드로는 비참할 정도로 변덕스러웠는데;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갑자기 옮겨가곤 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께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다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온 몸을 씻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국 베드로의 약점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용기와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가장 희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우애였다. 베드로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타오르는 격렬한 헌신에도, 너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주이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한 여종이 자기를 놀리도록 내버려뒀다. 베드로는 박해나 다른 형태의 직접 공격은 잘 견뎠지만, 조롱 앞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위축됐다. 그는 정면 공격 앞에서는 용감한 병사였으나, 후면 습격으로 놀랄 때에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었다.

139:2.7 (1551.3) 베드로는, 사마리아인 가운데서 빌립의 업무와 이방인 가운데서 바울의 업무에 대해, 예수의 사도 중에서 맨 먼저 두둔하고 나섰는데;나중에는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유대화_된_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태도를 바꿔 이방인에게서 잠시 떠나 있었는데, 두려움 없는 바울로부터 비난받게 됐을 뿐이었다.

139:2.8 (1551.4) 그는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의 혼합된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했고, 또한 --유다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그를 부인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심한 공상가는 아니었지만, 환희의 구름을 타고 극적으로 몰입하는 열정에 빠졌다가, 평범하고 단조로운 세상적인 현실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

139:2.9 (1551.5) 예수를 따르면서,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앞에서 이끌던가 아니면 뒤에 쳐졌다--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러나 그는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으며;바울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동안 다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이 천국을 설립했고,
천국 사자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냈다.

139:2.10 (1551.6) 그는 주님을 경솔하게 부인한 후에 자아를 발견했고, 안드레의 동정심 있고 이해심 많은 안내를 받아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섰으며, 한편 사도들은 십자가형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려고 기다렸다. 예수께서 자기를 용서했음을 완전히 확신하고, 자신이 주님의 양떼에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불이 그의 혼 속에서 그토록 밝게 타올라서,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수천 명에게 위대한 구원의 빛이 됐다.

139:2.11 (1551.7)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가운데서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바벨론에서부터 고린도까지 모든 교회를 방문하면서 널리 여행했다. 그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보살피기까지 했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기질이나 교육 수준에서 그리고 신학에서도 서로 많이 달랐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했다.

139:2.12 (1552.1) 베드로의 방식과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은, 누가 기록한 설교와 마가복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박력 있는 태도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그의 편지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적어도 바울의 제자가 나중에 그 편지를 고치기 전에는 정말로 그랬다.

139:2.13 (1552.2)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결국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유대인 메시아였다고 유대인에게 확신시키고자 애쓰는 과오를 계속 범했다. 죽는 날까지, 시몬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개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개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즉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계시라는 개념,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다.

139:2.14 (1552.3) 베드로의 아내는 매우 능력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여자 단체 회원으로 일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자, 그의 선교여행은 물론 교회 방문에도 동행했다. 그리고 저명한 남편이 목숨을 바치던 날, 그녀도 로마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졌다.

139:2.15 (1552.4) 이렇게 예수와 친숙했던 사람, 핵심 집단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권세와 영광으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갔으며;그 역시 그의 주님처럼--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한다고 그를 체포한 자가 알려줬을 때, 그는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박혔다.

3. 야고보 세베대

139:3.1 (1552.5)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우뢰{雨雷}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두 사도 중에 형인 야고보는 사도가 됐을 때 서른 살이었다. 그는 결혼해서 네 아이가 있었고, 가버나움 근교에 있는 벳새다에서 부모의 집 가까이에 살았다. 그는 어부였는데, 동생 요한과 함께, 그리고 안드레 및 시몬과 공동으로 생업에 힘썼다.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이점{利點}을 갖고 있었다.

139:3.2 (1552.6) 유능한 이 사도는 상반되는 기질을 소유했으며;실제로 두 가지 본성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둘 다 격한 감정에 자극받았다. 그는 분노가 일단 차오르면, 현저하게 과격했다. 그는 성질이 한번 자극되면, 불같은 성질을 나타냈고, 폭풍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의로움의 분개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언제나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주기적인 분노 표출을 제외하면, 야고보의 인간성은 안드레의 인간성과 비슷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안드레의 식별력이나 통찰력은 갖지 못했지만, 안드레보다 훨씬 우월한 대중 연설가였다. 마태가 없었다면, 야고보가 베드로 다음으로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 웅변가였다.

139:3.3 (1552.7)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도 기분파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는 조용하고 과묵하다 다음 날엔 말 많은 수다쟁이가 되곤 했다. 그는 대개 예수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잘 했지만, 열두 사도 중에서는 한 번에 며칠씩 가장 말없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런 한동안의 기묘한 침묵이었다.

139:3.4 (1552.8) 야고보의 인격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 가지 주장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역량이었다. 열두 사도 전체 가운데서, 그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 취지와 의미를 가장 근접되게 파악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주님께서 의미하는 바를 더디게 납득했지만, 그들이

훈련을 모두 마치기 전에, 그는 예수에 메시지에 담긴 탁월한 개념을 알아들었다. 야고보는 인간 본성의 넓은 범위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재다능한 안드레, 충동적인 베드로, 그리고 말없는 동생 요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139:3.5 (1553.1) 야고보와 요한은 문제가 있음에도 함께 일하려고 애썼는데, 그들이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관찰하는 일은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만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그렇게 고집 세고 단호한 형제들에게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해 나갔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보다는 서로에게 더 많은 참을성을 베풀었다. 그들은 서로 무척 다정했으며, 언제나 좋은 놀이 동무가 됐다. 주님께 불경스럽게 대했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을 없애기 위해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 내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뢰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야고보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해 동생 요한의 격렬한 기질이 많이 고쳐졌다.

139:3.6 (1553.2) 야고보가 가장 감탄했던 예수의 특질은 주님의 호의적인 애정이었다. 작은 자와 위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예수의 이해심 많은 관심이 그에게 큰 호감을 줬다.

139:3.7 (1553.3) 야고보 세베대는 균형 잡힌 사색가이자 계획가였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사도 집단에서 비교적 더 안정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격렬한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139:3.8 (1553.4) 그는 겸손했고, 극적이지 않았으며, 매일의 일에 충실한, 잘난 체 하지 않는 일꾼이었고, 일단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했을 때 특별한 보상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했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어머니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책임을 스스로 맡을 준비가 됐다고 표명했을 때, 주님이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반란 일으킬 것으로 상상되는 그 일에 위험이 수반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 역시 그 값을 기꺼이 치르려 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잔을 마실 준비가 됐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다--그는 일찍이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체험하는 첫 사도가 됐고, 주님과 함께 잔을 마셨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는 천국의 싸움터에서 열두 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생명을 바쳤다. 헤롯 아그리빠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야고보를 특히 두려워했다. 그는 정말로 종종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신념이 자극되고 도전 받으면 용감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139:3.9 (1553.5) 야고보는 일생을 충실히 살았고,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아함과 불굴의 정신으로 대처했으므로, 재판과 처형장에 참석했던, 그를 비난하고 고발한 사람조차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야고보의 처형장에서 급히 뛰쳐나가 예수의 제자들과 합류했다.

4. 요한 세베대

139:4.1 (1553.6) 요한은 사도가 됐을 때 스물네 살이었고, 열두 사도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 그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벳새다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으며;어부였고, 형 야고보와 함께 안드레 및 베드로와 동업했다. 요한은 사도가 되기

전이나 후 언제나, 주님의 가족과 관계되는 일에서 예수
의 개인 대리인 역할을 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줄곧 이 책임을 맡았다.

139:4.2 (1553.7) 요한은,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어렸고, 예수의
가족 문제에서 그와 무척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으므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너희가 보기에
도 예수처럼 도량 넓은 인격체가, 사도들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느 한 사람을 편애{偏愛}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요한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아왔음은 물론, 그가 예수의 세 명의 개인 측근
보조원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화시켰다.

139:4.3 (1554.1)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사도가 된 후 곧
예수의 개인 보조원으로 임명됐다. 열두 사도가 선택된
직후 그리고 예수께서 안드레를 그 집단의 지휘관으로
임명할 때,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이제 네 동역자 중에서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남아 나를 보살피고 일상적인 일을
도와줄 두 세 사람을 네가 선택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특별한 임무에 자기 다음으로 뽑힌 세 명의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토록 복된 봉사에 자신이 자원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위탁임무를 맡겼으므로; 예수 곁에서 시종들도록, 즉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임명했다.

139:4.4 (1554.2) 요한 세베대는 많은 매력적인 성품을 지녔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한 가지는, 그의 과도하지만 대개 잘 숨겨진 자만심이었다. 예수와 오랫동안 교제한 기간이 그의 성품에 커다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자만심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노후에 다소 유치해지기 시작한 다음, 이 자긍심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이제 그가 나단을 시켜서 현재 자기 이름으로 알려진 복음서를 쓰게 했을 때, 나이 많은 이 사도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계속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이 이 세상의 어떤 필사자보다 더 가까운 예수의 단짝, 즉 그가 그토록 많은 문제의 경우에 예수께서 택하신 그의 개인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간주할 때,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로 여긴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자신이야말로 예수께서 그토록 빈번히 일을 맡겼던 제자임을 가장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139:4.5 (1554.3)

요한의 성품에서 가장 강한 특징은 그의 신빙성이었는데;그는 신속했고 용감했으며, 신실했고 헌신적이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특유한 이자만심이였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고, 사도 집단에서도 가장 어렸다. 아마 그는 좀 버릇없었는지 모르며;아마 좀 지나치게 비위가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의 요한은, 예수의 사도들 반열에 참가했던 스물네 살 당시의, 자기를_찬미하고 멋대로 행동하던 젊은이와는 매우 다른 유형의 사람이였다.

139:4.6 (1554.4)

요한이 가장 좋아했던 예수의 특질은, 주님의 사랑과 애타심{愛他心}이었는데;이런 특징이 그에게 큰 감명을 줬기 때문에, 그 후의 그의 전 생애는 사랑의 감정과 형제로서의 헌신으로 지배됐다. 그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랑에 관해 기록했다. 이 "우뢰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됐으며;에베소에서 이 연로한 감독이 더 이상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의자에 앉은 채 교회로 옮겨져야 했을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신도들에게 몇 마디 말씀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해 동안 그는 오직,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다.

139:4.7 (1554.5) 요한은 감정이 격한 경우 외에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말은 거의 없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기질이 많이 양순해졌고, 더 잘 통제됐지만, 말하기를 꺼리는 이런 성격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으며;이 과묵함을 완전히 극복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놀랄만한 창조적 상상력을 타고났었다.

139:4.8 (1555.1) 요한에게는, 이런 조용하고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다소 웅조했고 지나칠 정도로 참을성이 없었다. 이 면에서 그와 야고보는 매우 비슷했다--그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을 불러서, 무례한 사마리아인의 머리에 떨어뜨리기 원했다. 요한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자, 즉시 그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긍심과 우월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열두 사도 가운데 요한 뿐만은 아니었다.

139:4.9 (1555.2) 요한의 생애는, 예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어머니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났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집 없이 다니는 광경으로 인해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가족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연유로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를 가슴속 깊이 동정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조그마한 소망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늘 양보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신뢰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요한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으며, 그래서 이것은 훗날에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의 성품에 뚜렷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39:4,10 (1555.3)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게는 거의 없는, 냉철하고 대담한 용기를 소유했다. 그는 예수께서 체포되던 날 밤에도 즉시 예수를 따라 갔고, 감히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곁을 지켰으며, 예수의 어머니에 관한 그의 신뢰를 끝까지 계속 지켰고, 주님이 필사자로서 실존하던 마지막 순간에도, 주어질지도 모를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곁에 있었다. 요한이 굉장히 믿을 만했다는 그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열두 사도가 식사할 때, 요한은 대개 예수의 오른 편에 앉았다. 열두 사도 중에서 그가 처음으로 진지하고 완전하게 부활을 믿었고, 부활한 예수께서 해변에서

그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 본 사람도 그였다.

139:4.11 (1555.4) 이 세베대의 아들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이 전개될 때 베드로와 매우 가깝게 관련돼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는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오른 팔 역할을 했다.

139:4.12 (1555.5) 요한은, 야고보가 순교한 후 몇 년 뒤에,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했다. 여생에 마지막 20년 동안, 그는 사랑스런 손녀{孫女}의 보살핌을 받았다.

139:4.13 (1555.6) 요한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고, 다른 황제가 로마에서 정권을 잡기 전까지, 4년 동안 밧모 섬에 유배됐다. 요한이 약삭빠르고 영리하지 못했더라면, 더 거침없이 말하는 형 야고보처럼 그 역시 분명히 처형됐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더불어, 정부의 고관들 앞에 불러 나갔을 때 현명하게 회유하기를 배웠다. 그들은 “부드러운 대답이 화를 물리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또한, 교회가 “하늘 나라”라기보다 오히려 “인류의 사회적 봉사”에 헌신하는 영적 형제관계”라고 설명하는 것도 배웠다. 그들은 지배하는

힘보다--곧 왕국과 왕보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을 가르쳤다.

139:4.14 (1555.7) 요한은 밧모 섬에 잠시 유배됐을 때 계시록을 썼는데,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단축되고 왜곡돼 있다. 이 계시록은 어떤 엄청난 계시 중에서 남아있는 여러 조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후에, 많은 부분이 누락됐고, 어떤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했다. 그것은 단지 부분적이고 다른 것이 섞인 형태로 보존됐다.

139:4.15 (1555.8) 요한은 여행을 많이 했고, 쉬지 않고 일했으며, 아시아 교회들의 감독이 된 후에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흔아홉 살 때 에베소에서 동역자 나단에게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불리는 글을 쓰도록 지시했다. 열두 사도 전체 중에서, 결국에는 요한 세베대가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됐다. 그는 에베소에서 103년에 자연사했는데, 그때 나이는 101세였다.

5. 호기심 많은 빌립

139:5.1 (1556.1) 빌립은 다섯째로 뽑힌 사도였는데, 예수와 처음 네 사도가 요단에서 요한을 만난 후 갈릴리 가나로 가는 도중에 부름 받았다. 빌립은 벳새다에서 살았으므로

예수와 이미 아는 사이였지만, 요단 계곡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예수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빌립은 또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구원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인해 다소 영향을 받았다.

139:5.2 (1556.2) 빌립이 사도로 참여했을 때 스물일곱 살이었는데;최근에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었다. 사도들은 그에게, “호기심”이라는 뜻의 단어로 별명을 붙여 줬다. 빌립은 언제나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 어떤 계획에서도 그는 결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둔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상상력이 부족했다. 이 상상력 결핍은 그의 성격상 큰 단점이었다. 그는 평범하고 사무적인 사람이었다.

139:5.3 (1556.3) 사도들이 봉사를 위해 조직을 갖췄을 때, 빌립은 사무장의 일을 맡았는데;그들에게 양식이 항상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살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그의 가장 강한 특질은 조직적인 꼼꼼함이었는데;수학적이고 체계적이었다.

139:5.4 (1556.4)

빌립은 아들 셋과 딸 넷의 일곱 자녀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둘째였고, 주님의 부활이 있는 후에, 그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줘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했다. 빌립의 친척은 모두 어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능력 있고, 생각이 깊었으나,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빌립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일을 큰 일처럼 할 수 있었고, 매우 적절하게 잘 처리했다. 4년 동안, 모든 사람을 먹일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실패한 것은 몇 번뿐이었다. 그들이 지내는 동안 겪었던 여러 차례의 비상시{非常時}에도, 그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이 거의 없었다. 사도 일행의 물자조달 부서는, 지적으로 효과 있게 관리됐다.

139:5.5 (1556.5)

빌립의 강점은 조직적인 확실성에 있었으며; 그의 성질의 약점은 상상력이 전혀 없는 것, 둘에 둘을 더하여 넷을 얻는 역량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론적인 것에서는 수학적이었지만,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그는 어떤 유형의 상상력에서는 거의 완전히 결핍돼 있었다. 그는 평범하고 단조로운 보통 사람의 전형이었다. 예수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대중 가운데는 그런 남녀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주님의 협의회에서 명예로운 지위까지 높여진 것을
봄으로써 큰 위안을 얻었으며;그들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이미 천국의 직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용기를 줬다. 예수께서는 빌립의 우둔한
질문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고, “보여 달라”는
사무장의 요구에 그토록 여러 번 응하면서, 일부 인간의
정신이 그 사람처럼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139:5.6 (1556.6) 빌립이 그토록 계속해서 존경했던 예수에 관하여
한 가지 특성은, 주님의 무한한 관대함이었다. 빌립은
예수로부터 웅졸하거나, 인색하거나, 또는 쪼쪼한 어떤
것을 결코 볼 수 없었고, 항상_나타나는 지칠 줄 모르는
이런 너그러움을 존경했다.

139:5.7 (1557.1) 빌립의 인간성에는 감탄할만한 점이 거의 없었다.
그는 흔히 “안드레와 베드로가 사는 성읍 벳새다의
빌립”이라고 불렸다. 그는 분별하는 선견지명이 거의
없었으며;주어진 환경에서 극적인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는 비관적이지 않았고;그저 단조로웠다. 그는
또한 영적 통찰력이 매우 부족했다. 그는 명백하게 우둔한
질문을 묻기 위해, 주님의 가장 심각한 강론 중간에 예수를

중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경솔함에 대해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았으며;그를 인내심으로 대했고, 가르침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함을 배려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방해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이 한 번이라도 빌립을 책망한다면, 이 정직한 혼에 상처를 줄뿐 아니라, 그런 비난이 빌립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은 공간의 세계들에는, 비슷하게 생각이_더딘 필사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알았고, 그들 모두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질문이나 문제를 항상 편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용기를 주고자 했다. 아무튼, 예수께서는 자기가 전하려던 설교보다 빌립의 우둔한 질문에 진정으로 더 관심 있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뒀다.

139:5.8 (1557.2) 사무장인 이 사도는 훌륭한 대중 웅변가는 아니었지만, 개인을 상대로 매우 설득력 있고 성공적인 일꾼이었다. 그는 쉽게 용기 잃지 않았으며;자기가 맡은 어떤 것에서든지 꾸준하고 매우 끈기 있었다. 그는 “오라”고 말하는 훌륭하고 보기 드문 은사를 갖고 있었다.

그가 첫 번째로 개종시킨 나다니엘이 나사렛과 예수의 장단점에 대해 논쟁하려 했을 때, 빌립의 효과적인 대답은 “와서 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에게 “가라”고--곧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훈계하는 독단적 설교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오라”는 말로--곧 “나와 함께 가자;내가 그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겠다”는 말로-- 대처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침의 모든 형식 및 국면에서 항상 효과적인 기법이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는 대신, 오히려 “우리과 함께 가자, 우리가 네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더 훌륭한 방법을 빌립에게서 배울 수 있다.

139:5.9 (1557.3)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하는 빌립의 무능력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인이 그에게 와서:“선생님,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잘 나타났다. 빌립은 어떤 유대인이든지 그런 질문을 했다면, “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었고, 빌립은 상급자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지시받은 기억이 없었으므로;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우두머리 안드레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런 후에 둘이서 그리스인을 예수께 데려갔다. 마찬가지로, 그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신자{信者}들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려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표시로 개종자에게 손 얹기를 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했는데, 이들은 그때 모{母}교회를 대표해서 그의 일을 관찰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즉시 내려왔다.

139:5.10 (1557.4) 빌립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시험 기간을 잘 견뎠고, 열두 사도를 재조직하는 데 참여했으며, 유대인 직계 반열 밖에서 천국을 향한 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진한 첫 번째 사도였는데, 사마리아인을 위한 그의 활동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의 훗날의 모든 수고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139:5.11 (1557.5) 빌립의 아내는 여자 단체 중에서 유능한 회원이었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급히 도주한 뒤에, 남편의 복음전파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아내는 두려움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빌립의 십자가 밑에서서,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그를 격려했고, 그의 힘이 다하자, 그녀는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를 외치기 시작했으며, 성난 유대인이 그녀에게 달려와 돌로 죽였을 때에야 비로소 잠잠했다. 그들의 딸 레아가 그들의 일을 이어받았고, 나중에는 히에라폴리스의 저명한 여{女}선지자가 됐다.

139:5.12 (1558.1) 한때 열두 사도의 사무장이었던 빌립은, 가는 곳마다 혼을 구제한, 천국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으며;마지막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고, 히에라폴리스에 묻혔다.

6. 정직한 나다니엘

139:6.1 (1558.2) 나다니엘은, 주님께서 직접 뽑은 여섯째이자 마지막 사도였고, 친구 빌립에게 이끌려서 예수께 안내됐다. 그는 여러 가지 사업관계로 빌립과 친분을 맺어왔었는데, 그와 함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

139:6.2 (1558.3) 나다니엘은 사도로 참여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고, 그 집단에서 둘째로 나이가 어렸다. 그는 일곱 가족 가운데 막내였고 미혼이었으며, 가나에서 함께 사는, 나이 들고 허약한 부모의 유일한 부양자였는데;그의 형과

누나들은 결혼 했거나 죽었으므로,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나다니엘과 가룟 유다는 열두 사도 가운데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다. 나다니엘은 상인이 되려고 생각하는 중이었다.

139:6.3 (1558.4)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별명을 직접 지어 준 일은 없었지만, 열두 사도는 곧,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의 용어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큰 장점이었으며;그는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진지했다. 그의 성격상 약점은 자존심이었는데;그는 자신의 가족, 도시, 명성, 그리고 민족에 대해 매우 자만심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은 지나치지만 많았다면 칭찬받을 만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 편견을 극단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견해에 따라서 사람마다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주저함 없이 질문했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자존심이 강했음에도, 완고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얼굴을 일단 살폈을 때, 그는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139:6.4 (1558.5)

열두 사도 중에서 나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색다른 천재였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철학자요 공상가였지만, 매우 실질적인 공상가였다. 한때는 철학에 깊이 빠졌다가, 다음에는 희귀하고 익살스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에는 그가 아마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유능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심각한 일은 물론 사소한 일에 대해 나다니엘이 연설하는 것을 듣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나다니엘은 날이 갈수록, 예수와 천국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나, 자신은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39:6.5 (1558.6)

사도들 모두가 나다니엘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그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와 매우 잘 지냈다. 유다는, 나다니엘이 사도 직분을 충분히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한 번은 무모하게도 예수께 몰래 가서 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놨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유다야, 신중히 행동해라; 네 직분을 너무 크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누가 형제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졌겠느냐? 아버지의 자녀들이 인생의 심각한 일만 함께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는데: 나는 육신 속의 내 형제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삶을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유다야, 이제 가서 네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네 형제 나다니엘이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도록 내버려 뒀라.” 그리고 이 기억은, 다른 많은 비슷한 체험과 함께, 가롯 유다의 자기를_속이는 심정에 오래 남아있었다.

139:6.6 (1559.1)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여러 번 산으로 멀리 떠나고, 사도들 사이에서 일이 긴박해지고 복잡하게 됐을 때, 그리고 심지어 안드레까지도 그의 울적한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나다니엘이 약간의 철학 혹은 번쩍이는 유머;또한 재미있는 유머로, 긴장감을 풀어주곤 했다.

139:6.7 (1559.2) 나다니엘의 의무는 열두 사도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는 사도들 회의에 자주 결석했는데, 그가 맡고 있는 가족 중에서 병자가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그 가족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열두 사도는, 자기 가족의 안녕이 나다니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음을 알았기에, 안심하며 지냈다.

139:6.8 (1559.3) 나다니엘이 예수를 가장 존경한 점은 그의 아량이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의 넓은 도량과 관대한 동정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운이 솟았다.

139:6.9 (1559.4) 나다니엘의 아버지(바돌로메오)가 오순절 직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도는 그 후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로 떠났다. 그의 형제들은, 한때 자신들의 철학가요 시인이며 익살꾼이었던 그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비록 나중에 생긴 그리스도교 교회의 조직에는 그가 참여치 않았지만, 주님의 교훈을 멀리 퍼뜨리는 일을 많이 했다. 나다니엘은 인도에서 죽었다.

7. 레위 마태

139:7.1 (1559.5) 일곱째 사도인 마태는 안드레에게 선택됐다. 마태는, 세금 징수원, 즉 세리{稅吏}의 집안에 속했지만,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관세를 거둬들이는 일을 했다. 그는 서른한 살이었고 결혼했으며 네 자녀를 뒀다. 그는, 사도 단체에 속해 있는 자로서는 유일하게 재산이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사교술이 좋았으며, 여러 종류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은사가 있었다.

^{139:7.2 (1559.6)} 안드레는 마태를 사도들의 재정 대표로 임명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의 재무 대리인이었고, 공식 대변인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예리하게 판단했고 매우 효과적인 선전원이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인격체였지만, 매우 열성적인 제자였고, 예수의 사명과 천국의 확실성을 점점 더 믿는 자였다. 예수께서는 레위에게 별명을 주지 않았지만, 동료 사도들은 흔히 그를 “돈_거두는 자”라는 말로 칭했다.

^{139:7.3 (1559.7)} 레위의 장점은 대의{大義}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었다. 세리인 그를 예수와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는 점은, 지난날에 세금을 거뒀던 사람 편에서 넘치도록 감사할 원인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도들, 특히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가 자기네 중에 세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마태의 약점은 안목이 짧은 것과 삶에 대한 물질적 관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문제에서 세월이 갈수록 많은 진전을 보였다. 물론

그는 금고를 계속 채우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므로, 가장 귀중한 학습 시간에 많이 참석치 못했다.

139:7.4 (1559.8) 마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주님의 용서하는 경향이었다. 그는,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곤 했다. 그는 천국에 대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일”이라고 말하기를 항상 좋아했다.

139:7.5 (1560.1) 마태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훌륭하게 처신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역자들도 세리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광범하게 받아 적은 사도 가운데 하나로서, 이 기록은 나중에 이사도르가 만든 예수의 말씀과 행적에 관한 서술문의 기초로 사용됐는데, 마태에 의한 복음서로 알려지게 됐다.

139:7.6 (1560.2) 사업가이자 가버나움의 관세 징수원이었던 마태의 위대하고 유용한 생애는, 다음에 오는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다른 사업가, 공공 관리, 및 정치가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도록 인도하는 매개체가 됐다. 마태는 진정으로 명석한 정치가였지만, 예수께 지극히 충성스러웠고, 도래하는

천국의 사자{使者}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살피는 과제에 더할 나위 없이 헌신했다.

139:7.7 (1560.3) 열두 사도 가운데 마태가 끼어 있다는 점은, 자신들에게는 종교적 위안의 혜택이 없다고 오래 전부터 여겨 왔던 다수의 기죽고 버림받은 혼들에게, 천국 문을 계속 활짝 열어 놓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남녀가 예수께 귀를 기울이려고 모여들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139:7.8 (1560.4) 마태는, 주님의 교훈을 직접 들은 사람과 신도들로부터 들어오는 헌금을 기꺼이 받았지만, 대중에게 기금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모든 재정 업무를 조용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했고, 대부분의 돈을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관심 있는 신도들로부터 모금했다. 그는 실제로 주님과 사도들의 일을 위해 자신의 온당한 재산을 사용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예수를 제외하고, 그들은 그의 이런 관용을 알지 못했다. 마태는, 예수와 동역자들이 자기 돈을 오염된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사도들의 기금으로 공공연하게 헌금하지 못했으며;다른 신도들의 이름으로

많이 기부했다. 마태는 초기의 여러 달 동안, 그들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가 다소 시험거리가 됐을 때, 자기 돈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종종 공급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세리를 경멸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레위는 자신이 후하게 기부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불탔으나, 항상 잠자코 있도록 자신을 잘 다스렸다.

139:7.9 (1560.5) 그 주간에 필요한 기금이 예산보다 모자랄 때, 레위는 자기 개인 재산에서 많이 빼서 쓰곤 했다. 또한 그는 가끔씩, 예수의 가르침에 대단히 흥미를 느끼게 됐을 때, 필요한 기금이 건히지 않아서 자기가 대신 개인적으로 그 기금을 충당해야 했음에도, 그 설명을 듣기 위해 남아있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레위는, 많은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아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다. 그는,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 다 알고 있음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박해가 시작된 후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마태에게 실질적으로 동전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마태가 그들의 후원자였음을,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다.

139:7.10 (1560.6) 이런 박해로 인해 신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북쪽으로 여행했다. 그는 옛 사도 동역자들과 연락이 끊어졌지만, 전도하고 세례를 주면서, 시리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레이스를 지나갔다. 리시마키아에 있는 드레이스에서는, 어떤 비신자 유대인이 로마 병정과 공모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머물렀을 때 그의 교훈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운, 구원에 대한 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 세리는, 승리의 죽음을 맞이했다.

8. 도마 디두모

139:8.1 (1561.1) 도마는 여덟째 사도였고, 빌립에게 선택됐다. 그는 후일에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지게 됐지만, 동료 사도들이 그를 상습적으로 의심하는 자라고 여기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정말로 논리적이고 회의적인 유형의 정신을 가졌지만, 그의 용기 있는 충성심 때문에, 그를 잘 아는 사람들도 그를 어리석은 회의론자로 여기지 못했다.

139:8.2 (1561.2)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 도마는 스물아홉 살이었고, 결혼해서 네 자녀가 있었다. 그가 전에는 목수와

석공 일을 했으나, 나중에는 어부 일을 하면서 다리키아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갈릴리해로 흘러가는 요단강 서쪽 비탈에 위치해 있었고,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예리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소유했으며, 디베랴에서 사는 훌륭한 부모를 뒀다. 도마는 열두 사도 중에서 진정으로 분석적 정신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며;사도 집단에서 참된 과학자였다.

139:8.3 (1561.3) 도마의 초기 가정생활은 불행했으며;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도마의 성년기 체험에 반영됐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 잘하는 성질을 갖고 자랐다. 그의 부인도 그가 사도들과 합류하게 된 것을 기뻐했으며;비관적인 남편이 대체로 집을 비우게 됐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해 매우 화가 나서, 형 안드레에게, 도마는 "비열하고, 불쾌하며, 항상 의심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동역자들은, 도마를 더 잘 알아갈수록, 그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들은 그가 매우 정직하고 단호하게 충성스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할 나위 없이 진지했고, 분명히 진실했지만, 날 때부터
혈뜬 사람이었으며, 실제로 비관주의자로서 자라왔다.
그의 분석적인 정신은 의심으로 꼼찍해졌다. 그는 열두
사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동료 남자들로부터 급속도로
신뢰를 잃게 됐지만, 이처럼 예수의 고상한 성품과
접촉하게 됐다. 주님과 의 이런 교제는 도마의 전반적인
기질을 즉시 바꾸기 시작했고, 동료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가 오도록 영향을 미쳤다.

139:8.4 (1561.4) 도마의 큰 강점은 --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
급힐 줄 모르는 용기와 함께, 굉장히 분석적인 정신을 가진
것이였다. 그의 큰 약점은 의심스러운 불신감이었는데,
그것은 육신 속에서의 생애 동안에는 결코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139:8.5 (1561.5) 열두 사도 조직에서, 도마는 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에 배정됐고, 사도 단체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유능한 지휘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가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는데;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됐을 때,

시무룩하게 우울해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예수 및 사도들과의 접촉이, 이 과민한 내성적 성격의 그를 많이 치료했다.

139:8.6 (1561.6) 예수께서는 도마와 매우 유쾌하게 지냈고, 그와 여러 번 긴 개인적 대화를 나눴다. 그가 사도들 가운데 있음은, 솔직하게 의심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됐으며, 고심하는 허다한 인물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의 영적이고 철학적인 국면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들도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줬다. 열두 사도 중에 도마가 들어있음은, 솔직하게 의심하는 자들도 예수께서 사랑한다는 변함없는 선언이었다.

139:8.7 (1562.1) 다른 사도들은 예수의 충만한 인격체의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특징 때문에 그를 존경했지만, 도마는 비할 바 없이 균형을 갖춘 주님의 성품 때문에 존경했다. 도마는, 아주 사랑스럽게 자비로우면서 그토록 확고하게 공정하고 공평한;무척이나 견고하지만 결코 완고하지 않은;아주 침착하지만 결코 냉담하지 않은;그토록 돕고자 하고 동정적이지만 결코 간섭하거나 독재적이지

않은;아주 강하지만 동시에 무척 부드러운;그토록 긍정적이지만 결코 사납거나 무례하지 않은;아주 부드럽지만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은;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하지만 동시에 무척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그토록 진정으로 용감하지만 결코 경솔하거나 무모하지 않은;무척이나 자연을 사랑하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모든 경향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운;그렇게 해학적이고 쾌활하지만 경솔함과 천박함으로부터 무척이나 자유로운, 예수를 점점 더 존경했고 받들었다. 도마를 그토록 매료시킨 것은, 이렇게 비할 데 없는 인격체의 균형이었다. 그는 아마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최고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체 감상을 누렸을 것이다.

139:8.8 (1562.2) 열두 사도가 회의하는 중에 도마는 언제나 신중했고, 안전한 정책을 첫째로 옹호했지만, 그의 보수적 의견이 투표로 부결되거나 거부되면, 결정된 계획표를 이행하는 데, 그가 항상 제일 먼저 두려움 없이 뛰어 들었다. 그는 무모하고 외람된 어떤 기획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 반대하려 했으며;격렬한 가운데 끝날 때까지 논쟁하곤 했지만, 안드레가 그 제안을 표결에 부쳐서, 그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안건을 열두 사도가 통과시키고 나면, 도마가 제일 먼저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패자였다. 그는 상처받은 감상에 붙잡혀 있거나, 그것을 더 키우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그가 여러 번 반대했지만, 주님께서 그런 모험을 택하기로 결정하면, “동지들, 어서 갑시다. 가서 그와 함께 죽읍시다”라는 용기 있는 말을 제일 먼저 하면서 사도들을 집결시키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139:8.9 (1562.3) 도마는 어떤 면에서는 빌립과 비슷했는데;그 역시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의심스런 표현은, 전혀 다른 지적{知的} 작용에 근거했다. 도마는 단순히 회의적{懷疑的}이 아닌, 분석적인 사람이었다. 개인의 육체적 용기에 관한 한, 열두 사도 중에서 그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139:8.10 (1562.4) 도마는 매우 힘든 날들을 어느 정도 겪었는데;그는 종종 우울했고 풀죽어 있었다. 그가 아홉 살이었을 때, 쌍둥이 여동생을 잃은 것이 어린 시절에 많은 슬픔을 줬고, 그것이 후반기 생애의 번덕스런 성격상 문제를 악화시켰다. 도마가 낙심하게 되면, 어떤 때에는

나다니엘이, 어떤 때에는 베드로가, 그리고 알패오 쌍둥이 가운데 하나가,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데 자주 도움을 줬다. 그가 가장 억눌렸을 때,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와 직접 대면하게 되기를 피하려고 항상 애썼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고, 그 사도가 그렇게 우울증으로 고난당하고 의심으로 지쳤을 때, 그에 대해 이해심 있는 연민의 정을 가졌다.

139:8.11 (1562.5) 도마는 때때로 하루나 이틀 동안 혼자 떠나 있을 수 있도록 안드레에게 허락을 받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행로가 현명치 않다는 것을 곧 알았으며;자신이 낙심했을 때에는 일하면서 동역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남아 있는 것이 상책임을 일찍 발견했다. 그러나 그의 감정적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는 항상 사도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오면,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도마였다.

139:8.12 (1562.6) 도마는, 의심을 품고, 그것에 대면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위대한 본보기였다. 그는 훌륭한 정신을 가졌으며;트집 잡는 비평가가 아니었다. 그는 논리적 사색가였으며;예수와 동료 사도들에게는 매서운

시험거리였다. 예수와 그의 활동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도마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예리하고 확실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 사기나 속임수가 나타나자마자, 도마는 그들 모두를 버렸을 것이다. 예수에 관해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에 관해,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과학자적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은--곧 도마 디두모는-- 주님과 인간 동역자들과 함께 살았고 일했으며,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

139:8.13 (1563.1) 도마는 재판과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동안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용기를 되찾았고 사도들에게 합류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의심으로 인한 억눌림에 한동안 굴복했지만, 결국에는 신앙과 용기를 되찾았다. 그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했고, 박해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자,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키프러스, 그레테, 북아프리카 해안, 시칠리로 갔다. 그리고 도마는, 로마 정부 대리인들에게 체포되어 말타에서 처형될 때까지 전도하고 세례 주기를

계속했다. 그는 죽기 불과 몇 주 전에,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기 시작했었다.

9 _ 10.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139:9.1 (1563.2)} 케레사 근처에 사는 쌍둥이 어부인,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는 아홉째와 열째 사도였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선택했다. 그들은 스물여섯 살이었고 결혼했으며, 야고보는 세 자녀, 유다는 두 자녀를 뒀다.

^{139:9.2 (1563.3)} 이 평범한 두 어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께서도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의 강론을 중단시키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동료 사도들의 철학적 토의나 신학적 논쟁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 집단에 속했다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이 두 사람은 겉모습과, 정신적 특질, 및 영적 감지 정도에서 거의 동일했다. 한 사람을 묘사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139:9.3 (1563.4)} 안드레는 그들에게 대중의 치안 유지 업무를 맡겼다. 그들은 설교 시간에 안내원들의 우두머리였으며, 사실상 열두 사도 중에서 일반적인 일을 하는 하인 및

심부름꾼이었다. 그들은 물자를 공급하는 데 빌립을 도왔고, 나다니엘을 위해서는 가족에게 돈을 전달했으며, 사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도움 줄 준비가 항상 돼있었다.

139:9.4 (1563.5) 보통사람들로 이뤄진 대중은, 자신과 비슷한 두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보고 크게 용기를 얻었다. 이 평범한 쌍둥이가 사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마음 약한 다수의 신도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은, 자신과 똑 같은 공식 안내원들로부터 지시 받고 관리된다는 생각으로 더 편하게 받아들였다.

139:9.5 (1563.6) 또한 다대오와 레비우스라고도 불렸던 야고보와 유다는, 강점은 물론 약점도 없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붙인 별명은 평범함을 뜻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들은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들”이었는데;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고 또한 그것에 대해 유쾌하게 생각했다.

139:9.6 (1563.7) 야고보 알패오는 주님의 단순함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 쌍둥이는 예수의 정신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과 주님의 마음 사이에 호의적인 연결이 있음을
납득했다. 그들의 정신은 높은 계층에 속하지
않았으며;그들은 경건함에서는 우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영적 본성에서는 진정한 체험을 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며;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천국의
동료였다.

139:9.7 (1564.1) 유다 알패오는 주님의 허식 없는 겸손으로 인해
예수께 끌렸다. 그런 인격적 위엄을 동반한 그런 겸손이
유다에게 큰 매력을 줬다. 예수께서 자신의 비범한 행동에
관해 항상 침묵을 지키고자 한다는 그 사실이, 이 단순한
본성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감명을 줬다.

139:9.8 (1564.2) 쌍둥이는, 너그러운 단순한 정신을 지닌
도우미였고, 모두가 그들을 사랑했다. 예수께서는 재주가
하나뿐인 이 젊은이들을 천국에서 자신의 개인 참모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받아들였는데, 세상에는 그런 단순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혼이
있으므로, 자기가 퍼부어 줄 진리의 영 안으로, 그리고
자신과의 적극적이고 신뢰하는 교제 안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소함을

경멸하지 않았고, 단지 악과 죄를 경멸했다. 야고보와 유다는 *보잘것없었지만*, 또한 *신실했다*. 그들은 단순하고 무지했지만, 또한 도량이 넓고, 친절했으며, 관대했다.

139:9.9 (1564.3) 그리고 주님이 어떤 한 부자에게, 그가 재산을 팔아서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자{傳道者}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던 날, 이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졌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쌍둥이가 그의 조언자들 가운데 있음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신성한 기관만이--곧 하늘 나라만이--그런 진부한 인간적 기초 위에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

139:9.10 (1564.4) 그들은 예수와 교제하는 동안 공개석상에서 단지 한 두 번 예수께 질문 했다.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가 한 번 예수께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열두 사도 가운데서 비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에 실망하게 되어, 그는 이렇게 대담하게 물었다:“그렇지만,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자신을 공표 하시면, 어떻게 당신의

선하심을 특별히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139:9.11 (1564.5) 쌍둥이는 끝까지, 재판과 십자가형과 절망의 어두운 날들까지 성실히 봉사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중심에서의 신앙을 한 번도 잃지 않았으며, (요한을 제외하고) 그의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설립을 납득할 수 없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직후에,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으며; 그들의 업무는 끝났다. 그들에게는 좀 더 복잡한 천국의 전투장으로 나갈 역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우주를 지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가깝게 개인적으로 교제한 4년을, 명예롭고 복 받은 것으로 의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11. 열심당 시몬

139:11.1 (1564.6) 열심당 시몬은 열한째 사도로서, 시몬 베드로에게 선택됐다. 그는 훌륭한 조상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고, 가버나움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사도가 됐을 때 스물여덟 살이었다. 그는 격렬한 선동가였고, 또한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열심당이라는 애국 조직에 온통 열중하기 전에는, 가버나움에서 상인{商人}이었다.

139:11.2 (1564.7) 열심당 시몬은 사도 집단의 기분전환과 휴식을 담당했고, 열두 사도의 놀이 생활과 오락 활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조직한 사도였다.

139:11.3 (1564.8) 시몬의 강점은 영감{靈感} 어린 충성심이었다. 사도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결정 하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하면, 시몬을 부르곤 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짖는 이 열성적인 사도가, 모든 의심을 해결하고, 모든 망설임을 없애고, 새로운 혼이 “신앙으로 인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39:11.4 (1565.1) 시몬의 큰 약점은 굳어버린 물질적_경향에 있었다. 그는 유대 민족주의자로부터 영적 기질의 국제주의자로, 자신을 빨리 전환시킬 수 없었다. 4년은, 그런 지적이고 감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에 너무 짧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그를 대했다.

139:11.5 (1565.2) 시몬이 예수를 그토록 존경한 한 가지는, 주님의 고요함, 곧 그의 확신, 평정{平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침착성이었다.

139:11.6 (1565.3) 시몬은 과격한 혁명가였고, 동요를 일으키는 두려움 없는 선동자이기는 했지만,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 가운데는 호의"를 외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기까지,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점차 완화시켰다. 시몬은 굉장한 토론가였으며; 논쟁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따지는 지성인, 또는 그리스인의 지적 궤변을 상대해야 할 경우에, 그런 과제는 항상 시몬에게 배정됐다.

139:11.7 (1565.4) 그는 타고난 반항자였고, 인습을 타파하는 자로서 훈련받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하늘 나라라는 더 높은 개념으로 끌어 올렸다. 그는 반항적인 집단에 항상 가담했었지만, 이제는 진보하는 집단, 즉 영과 진리의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진보에 참여했다. 시몬은 뜨겁게 충성하고 열심히 몸소 헌신하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깊이 사랑했다.

139:11.8 (1565.5) 예수께서는, 사업가, 노동하는 사람, 낙관론자, 비관론자, 철학자, 회의론자, 세리, 정치가, 및 애국자들과 같은 편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39:11.9 (1565.6) 주님은 시몬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를 국제주의자로 만들기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사회, 경제, 및 정치 질서를 개선시키기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자주 말씀했지만,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다: “그것은 하늘 나라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정부의 대사{大使}가 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의 당면한 일이 아니라, 신성한 아버지의 뜻과 성품을 대변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정부의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그의 신임장을 지니고 있다.” 시몬이 납득하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점차 파악하기 시작했다.

139:11.10 (1565.7)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분산된 후에, 시몬은 일시적 은퇴기간을 가졌다. 그는 문자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민족주의적 애국자로서 예수의 교훈을 좇는 일에 빠져 있었지만;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소망을 되찾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앞으로 나갔다.

139:11.11 (1565.8)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며 일한 후에, 아프리카 심장부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도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늙고 쇠약해질 때까지 수고했다. 그는 아프리카 심장부에서 죽었고 거기에 묻혔다.

12. 가롯 유다

139:12.1 (1565.9) 가롯 유다는 열두째 사도로서, 나다니엘에게 선택됐다. 그는 남부 유대지방의 작은 도시 가롯에서 태어났다. 그가 소년 시절일 때 부모는 여리고로 이사했고, 그가 세례 요한의 전도와 업무에 흥미를 느끼기 전에는, 거기에 살면서 아버지의 여러 사업에 종사했다. 유다의 부모는 사두개인이었으며, 그래서 아들이 요한의 제자로 참여하자, 그와 인연을 끊었다.

139:12.2 (1566.1) 나다니엘이 유다를 다리키아에서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 남쪽 끝에서 생선 말리는 사업에

일 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사도들과 합세했을 때 서른 살이었고 미혼이었다. 그는 아마도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았으며, 주님의 사도 일행 중에서 유일한 유대지방 사람이었다. 유다는 개인적 강점이 될 만한 탁월한 특징을 전혀 갖지 않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화적 특징 그리고 훈련으로 말미암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사색가였지만, 언제나 진실하게 **정직한** 사색가는 아니었다. 유다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정말로 진지하지 않았다.

139:12.3 (1566.2) 안드레가 유다를 열두 사도의 회계로 임명했는데, 그에게 매우 어울리는 자리였고, 그가 주님을 배신하기 직전까지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했다.

139:12.4 (1566.3)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고 절묘하게 매력적인 주님의 인격체 이외에, 유다가 예수를 존경했던 유별난 특징은 없었다. 유다는 갈릴리인 동역자들을 차별하는 유대지방의 편견을 결코 넘어서지 못했으며; 여러 면에서 예수까지도 마음 속으로 비판했다. 열한 명의 사도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으뜸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완벽한 사람인 그분을, 자만심이 가득한 이 유대지방사람은 마음 속으로 감히 자주 비판했다. 정말로 그는, 예수가 겁이 많고 자신의 권능과 권위를 주장하기를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139:12.5 (1566.4) 유다는 훌륭한 사업가였다. 몇몇 사도들의 허둥거리는 사업 방식을 언급하지 않고서라도, 예수 같은 그런 이상주의자의 재정문제를 관리함에는, 재치와 역량 그리고 각고의 헌신을 수반하는 참을성이 요구됐다. 유다는 진정으로 훌륭한 행정가, 멀리 내다보고 유능한 재정가였다. 그리고 그는 조직에 대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열두 사도 중에서 아무도 유다를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한, 가룟 유다는 비길 데 없는 회계, 학식 많은 사람, (가끔씩 비판적이긴 했어도) 충성스런 사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사도들은 유다를 사랑했으며;그는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다. 유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옳음을 잘 나타내 준다:"사람에게 바르게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인

길이 있다.” 죄와 죽음의 경로들로 향하도록 기분 좋게 조정하는 평화스런 속임수에 희생물이 되기는 무척 쉽다. 유다는 재정적으로 주님과 동료 사도들에게 항상 충실했음을 기억하라. 그가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139:12.6 (1566.5) 유다는 현명치 못한 부모의 외아들이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에게 지나친 풍요로움을 줬고, 응석을 다 받아줬으며; 그는 버릇없는 아이였다. 자라나면서, 그는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했다. 그는 불쌍한 패자였다. 그는 공정함에 대해 산만하고 왜곡된 관념을 가졌으며; 미움과 의심을 탐닉했다. 그는 친구들의 언행을 오해하는 데 전문가였다. 유다는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하는 습관을 길렀다. 가치와 충성에 대한 그의 감각에 결함이 있었다.

139:12.7 (1566.6) 예수에게, 유다는 신앙의 모험이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도의 약점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를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함을 잘 알았다. 그러나 모든 창조된 존재에게, 구원과 생존의 완전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이다.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피조물의 헌신이 진지하고 전심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에, 의심스런 그 후보자를 사람들의 심판자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변치 않는 태도임을, 이 세상의 필사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세상의 구경꾼에게도 알리기 원했다. 영원한 생명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으며;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있으며”; 들어오는 그 사람의 신/앙 외에는 어떤 제약도, 자격조건도 없다.

139:12.8 (1567.1)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약하고 혼동하는 사도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일을 하면서, 유다가 끝까지 가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빛이 정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빛이 혼 안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천국에 대한 예수의 교훈에 관해서, 유다가 지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다른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은, 영적 성품을 획득함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는 만족스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139:12.9 (1567.2) 유다의 개인적 실망은 점점 커졌고, 결국 분노의 희생물이 됐다. 그의 감정은 여러 번 상처 받았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주님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의심하게 됐다. 그는 이윽고, 비록 동역자들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일지라도,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139:12.10 (1567.3) 그러나 이런 사악하고 위험한 생각은, 감사하는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기 전에는, 확실한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유다에게는 그런 행동이 낭비로 여겨졌으며, 자신의 공개적 반론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예수가 목살했을 때, 그것은 너무 버거웠다. 그 사건은, 축적돼온 미움, 상처, 원한, 편견, 질투, 그리고 일생 최대의 원한을 품게 했고, 그는 누구에게 할지 몰랐던 복수를 하기로 작정했으며; 그의 불행한 생애의 전적으로 비열한 드라마에서, 그의 모든 악한 본성을 죄 없는 한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그가 진취적인 빛의 나라로부터, 스스로_택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건에서, 예수가 우연히 주연{主演}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139:12.11 (1567.4) 주님은 그가 넘어지고 있음을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양심 품은 인간 본성을

다룸에서는, 신성한 경고가 대개 아무 소용없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도덕적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큰 시험이 마침내 다가왔다. 분노의 아들은 실패했으며;과장된 자만심의 비열한 거만함과 복수심에 찬 마음의 비열한 명령에 굴복해서, 빠른 속도로 혼란과 절망과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다.

139:12.12 (1567.5) 그런 후에 유다는, 주와 주님을 배신하는 비열하고 부끄러운 책략에 가담해서, 흉악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했다. 분노로_싹튼 불충한 배반의 계획을 열심히 꾸미는 동안, 그는 잠시 후회와 수치심을 체험했으며, 이렇게 제 정신이 있는 동안, 비겁하게 자기 정신 속에 일종의 변명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권능을 발휘해서 자신을 구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었다.

139:12.13 (1567.6) 비열하고 죄 많은 일이 모두 수행된 후에, 오랫동안 품어온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 30을 받고 친구를 가볍게 팔아 넘겼던 이 변절자는, 필사 실존의

실체들로부터 도망치는 드라마에서, 급히 달려 나가
마지막 장면을 연기했다--자살했다.

139:12.14 (1567.7) 열한 명의 사도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이 배반자를 오직
동정심으로 바라봤다. 세계들은 유다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의 이름은, 방대한 우주에서
두루 회피하는 이름이 됐다.

제140편 열두 사도의 임직식

140:0.1 (1568.1)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정오 직전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대중에게 전할 설교자로
임명하기 위해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열두 사도는 어느
때든지 부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해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잡이 도구를
수선하면서 해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140:0.2 (1568.2)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불렀는데, 먼저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큰 소리로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해서 불렀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불러서 열두 명이 다 모아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 가서 그들의 공식적인 임직식{任職式}을 준비하도록 계속 지시했다.

140:0.3 (1568.3) 이번에는 열두 사도 모두 침묵했으며;베드로조차 묵상하는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주님을 대변하는 신성시되는 업무에 일생을 바치고 집단으로 봉헌하는, 일종의 엄숙한 예식에 참여하려고 주님과 함께 떠나고 있었다.

1. 예비 훈육

140:1.1 (1568.4)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임직식에 앞서, 열두 사도가 자기 주위에 앉자 그들에게 말씀했다:“형제들아, 천국의 때가 도래했다. 나는 너희를 천국의 대사로서 아버지께 바치려고 여기에 따로 불렀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나라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을 회당에서 들었다. 너희는 각자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들에서 나와 함께 일한 후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바로 지금,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 좀 더 말하고자 한다.

140:1.2 (1568.5)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자녀의 마음 속에 곧 세우시게 될 새 나라는, 영구한 통치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의 이 통치에 끝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내 아버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올 많은 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겠지만, 인간 자녀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영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런 새로운 형제관계에 참여하기를,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거절할 것이다.

140:1.3 (1568.6) “이 나라의 권능은,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부{富}의 능력에 있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신성한 영의 영광에 있을 것인데, 그 영이 이 하늘 나라의 거듭난 시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을 가르치고 마음을 다스리러 올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지배하는 사랑의 형제관계이며, 그들은:땅에는 평화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라고 외칠 것이다. 너희가 곧 선포하러 나가게 될 이 나라는,

모든 시대의 선한 사람들이 바라던 바요, 온 땅의 소망이며,
모든 선지자가 받은 지혜로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140:1.4 (1569.1) “그러나 애들아, 너희에게는, 그리고 너희를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신앙만이 너희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면서 계속 상승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140:1.5 (1569.2) “세상에게 너희가 전할 메시지는: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들을 찾으면,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다른 것도 함께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 아버지의 이 나라는,
권력을 밖으로 보여주거나 꼴사나운 과시를 통해서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천국을 전파하러 나갈 때,
‘그것이 여기 있다’ 또는 ‘그것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전파하는 이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40:1.6 (1569.3)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크게 될 자는 누구든지,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며;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 하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시중드는 자가 되라.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일단 받아들여지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아들,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하는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할 것이다. 이미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 가운데 일부는,
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140:1.7 (1569.4)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즉
평범한 열두 명으로 이뤄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배가{倍加}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다. 그리고 너희 정신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는 않겠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듯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을 너희 혼에 맡기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2. 임직식

140:2.1 (1569.5) 예수께서는, 천국에 관해 선언한 말씀을 방금 들은 열두 필사자에게,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 꿇도록 지시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서는 가롯 유다부터 시작해서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각 사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그는 두 팔을 펴고 기도했다:

140:2.2 (1569.6) “아버지여, 내 사자인 이 사람들을 이제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나아왔듯이, 나를 대신하도록 내보내기 위해, 이 세상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열둘을 택했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사랑하심같이, 저들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도래하는 나라의 모든 일을 저들 손에 맡겼으니,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 뜻이라면, 내가 천국을 위한 저들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다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내는 동안, 저들을 아버지의 보호에 맡깁니다.”

140:2.3 (1570.1) 예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사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 얼마 동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한 명씩 예수를 포옹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천상의 존재 무리가 --한 우주의 창조주가 사람의 신성한 형제관계의 일을 인간 정신이 지휘하도록 맡기는-- 이 엄숙하고 성스런 광경을 내려다보고는 동안, 그곳은 깊은 침묵에 싸여 있었다.

3. 임직식 설교

140:3.1 (1570.2)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독특한 부류의 사람이 됐다. 너희는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무지한 피조물 가운데서 또 다른 나라, 즉 하늘 나라의 계몽된 시민으로 있다. 너희가 이 시간 이전처럼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제부터는 더 나은 삶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그 세상의 주권자의 대사로 이 세상에 다시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야만 한다. 제자보다 선생에게 더 많이 기대하며;종보다 주인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하늘 나라 시민에게는, 세속 통치에 속하는 시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 가운데 더러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기 위해 뽑혔으며;이 세상에서 나의 대리인인 너희에게는, 공간의 세계들에서 필사자 생활에 대한 내 이상{理想}을 반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증하는, 그 교훈과 실행을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140:3.2 (1570.3)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좇아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내 자녀를 발견하거든, 용기를 북돋도록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140:3.3 (1570.4)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의 보물이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140:3.4 (1570.5)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140:3.5 (1570.6)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6 (1570.7)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140:3.7 (1570.8) "그리고 그렇더라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 추가적인 말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140:3.8 (1570.9)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기뻐하는 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9 (1570.10)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140:3.10 (1570.11)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3.11 (1570.12)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항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행복하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40:3.12 (1570.13)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즉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된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0:3.13 (1570.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취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140:3.14 (1571.1)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나를 대신하고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사자{使者}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의에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너희 자신의 육신적 힘에 의존하지 마라. 이웃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 가운데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 불의를 기꺼이 견뎌라. 고통과 빈곤을 당하는 모든 이를 친절과 자비로 보살펴라.

140:3,15 (1571.2) "너희에게 말하겠는데: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 또한 그들에게 행하라.

140:3,16 (1571.3)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고루 비취도록 해를 만드셨으며;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大使}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천국의 영원한 미래에 너희도 완전하게 될 것이다.

140:3.17 (1571.4) "너희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임명됐다. 이 세상에서 일생이 끝나면, 너희는 모두 자비를 기대할 것이므로;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육신 속의 모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 하나를 뽑고자 하는 잘못을 범치 마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140:3.18 (1571.5) "진리를 분명히 분별하며;담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그러면 너희가 내 사도와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살아있는 진리의 분명한 빛 속에서 너희 자신이 걸어가야만 한다. 너희가 천국의 어떤 일을 하든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라고,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의 보물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지 않게 해라.

140:3.19 (1571.6)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탐욕스런 이리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마침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줄 때, 그 동기로 판단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내면적 갈망과 진지한 의도를 심사하신다.

140:3.20 (1571.7)

“천국 심판이 있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으며;가짜 선생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위탁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한 자마다, 나의 섬김 속으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는 넓은 입구를 발견할 것이다.”

140:3.21 (1571.8)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그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 질 무렵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예수께 질문하지 않았다.

4.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140:4.1 (1572.1) 소위 “산상수훈{山上垂訓}”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유익한 교훈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준 임직식 훈시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감동적이고 완전하게 아버지를 보여줬던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나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히 일러준 위탁임무였다.

140:4.2 (1572.2) *“너희는 세상의 소금, 즉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0:4.3 (1572.3) 예수 시대에는 소금이 귀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사용됐다. 현대어에서 '월급{salary}'이라는 말은 소금{salt}에서 유래됐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낼뿐 아니라 방부제{防腐劑}이기도 하다. 소금은 다른 것에 맛을 더해주며, 그렇게 자신을 소모시키면서 봉사한다.

140:4.4 (1572.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취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취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140:4.5 (1572.5)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반면, "눈부시게"해서 혼란시키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매우 빛나게 해서,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롭고 경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훈계를 받았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을 정도로 밝게 빛을 비쳐야만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직업조차, 이런 생명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사체"로 활용될 수 있다.

140:4.6 (1572.6) 강인한 성품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지 않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을 실제로 행함에서 기원된다. 이타심{利他心}은 인간적 위대함의 표지{標識}다. 경배드리고 봉사함으로, 자아_실현의 최고 수준이 이뤄진다.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140:4.7 (1572.7)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인격체는 근본적으로 변함없으며;변화하는 것은--곧 성장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이다. 현대 종교의 주된 오류는 소극주의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도덕적 가치는 단순한 억압으로--곧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복종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종교적 생활을 위한 무가치한 동기다. 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고, 사람의 형제관계를 향상시킬 때에만 정당하다.

140:4.8 (1572.8) 효과적인 생활철학은, 시공우주 통찰력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의 총합{總合}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을

기억하라:본능적 충동은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반면, 그런 충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변할 수 있으며;따라서 도덕적 본성은 변경될 수 있고, 성품은 개선될 수 있다. 강인한 성품 속에서는, 감정적 반응들이 모아지고 협조되며, 그렇게 해서 통합된 인격체가 형성된다. 통합의 결핍은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고 불행을 야기한다.

140:4.9 (1572.9) 훌륭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정처 없고 무익하게 되며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열두 사도의 임직식에서 하신 예수의 설교는 탁월한 인생철학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체험으로 신앙을 단련하라고 권했다. 그는 단순한 지적 동의, 경솔한 믿음, 그리고 확립된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했다.

140:4.10 (1573.1) 교육은, 우리의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충동을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발견하는) 기법이어야 하며, 행복은, 감정적 만족을 주는 이런 강화된 기법들의 결과적 총합{總合}이다. 행복은 환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지만, 즐거운 주위 환경이 행복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140:4.11 (1573.2) 필사자는 누구나, 완벽한 인격자가 되기를,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정말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런 달성은 결국 “우주는 진실로 아버지 같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5.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140:5.1 (1573.3) 예수께서는, 산상수훈부터 마지막 만찬 설교에 이르기까지, 추종자들에게 *형제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타내도록 가르쳤다. 형제의 사랑은,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동료 필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140:5.2 (1573.4) 예수께서는 인류를 두 가지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두 인격체로서--곧 인간과 신으로서--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그는 사람의 창조주이고 우주에서 사람의 아버지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는, 필사자를 형제로 사랑한다--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40:5.3 (1573.5) 예수께서는, 표현 불가능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를 추종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같이 되도록--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 심히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듯 그들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곧 비로소 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중에,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새 개념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감정적 태도와 연관된다.

140:5.4 (1573.6) 주님께서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한계와 비교해서, 아버지다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초월적인 최상의 네 가지 반응을 이어서 묘사하게 될 전주곡{前奏曲}으로서, *신앙의* 네 가지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 중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140:5.5 (1573.7) 그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굶주린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해 말씀했다.

영을_식별하는 그런 필사자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려고 애쓸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이타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애통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의 애정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초월하는 헌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140:5.6 (1573.8) 이런 지복{至福}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도덕적 성품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두려움과 분노는, 성품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대한 설교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됐다.

140:5.7 (1573.9) 1. *"심령이 가난한 자는--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른은 증진된 행복이라는 수확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를_부정하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후로, 재산의 소유 관념과 행복이 너무 흔히 관련돼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영의

부유함을--곧 자만심을-- 느꼈고, 세리는 "영의 가난함"을--곧 겸손을-- 느꼈다. 전자는 자기_충족적이었고, 후자는 배우려는 자세이고 진리를_추구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풍요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런 진리 탐구자는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 없으며; 지금 보상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며, 그런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140:5.8 (1574.1)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만이 항상 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신성한 권능을 찾고 영적 능력을 추구한다. 그러나 영적 재능에 대한 욕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의 금식은 4, 5일 지나면 위험해지며;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140:5.9 (1574.2) 체험으로 얻는 정의{正義}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는 역동적 사랑이다-- 아버지다운_형제다운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계속 굶주릴 수 있겠는가?

140:5.10 (1574.3) 팔복{八福}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어린 정신에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성숙한 정신은 그 중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140:5.11 (1574.4)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관계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의 태도다--"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은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극을 받는다. 온유함은 신성한 인도에 반항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고, 방대한 우주를 상속받았다.

140:5.12 (1574.5) 4.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복수심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 특성이 아니다. 순결을 논할 때, 예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성적{性的}

태도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보다는, 사람이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의{信義};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의, 그리고 아버지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로 하여금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 신의를 더 고려했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반드시 거리가 멀다. 아버지다운 사랑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고, 반드시 사람 안에서 최선을 찾으며;그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다.

140:5.13 (1574.6) 하나님을 --신앙으로-- 보는 것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획득함을 뜻한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은 조율사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_의식{意識}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신분에 대한 확신을 확인받고, 육신의 형제들 각자를 형제로서-- 곧 형제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곧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40:5.14 (1574.7) 이 훈계는 아이에게도 가르치기가 쉽다. 아이들은 꾸밈없이 쉽게 믿으며, 부모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를 대할 때,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삼가라.
그들이 자신의 이상적 인물을 선정하고, 자신의
필생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와줘라.

140:5.15 (1574.8)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분투의
주된 목적--곧 완전성--의 실현, 심지어 신{神}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까지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항상 말씀했다:“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는 열두 사도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쓸모 있는 성취였을지
모르며;형제다운 사랑의 성취를 가리켰을지 모른다.
오히려 그는 사도들에게, 그가 그들을 사랑해 온 것처럼--
곧 형제다운 애정뿐 아니라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네 가지 최고 반응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설명했다:

140:5.16 (1575.1) 1.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고의 논리로 따져도,
결코 애통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적이거나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했다. 부드러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정심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가치 있는 속성이다. 남자다워지기 위해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용감한 남자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남자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이나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인간의 필요를 헤아리고 이에 민감한 것은 순수하고 영구적인 행복을 창조하며, 게다가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 증오, 및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한다.

140:5.17 (1575.2) 2.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비란,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진실한 우정을--곧 연민을--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최상의 아버지다움이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여러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한 자녀를 고통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충동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대개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다.

140:5.18 (1575.3) 3.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예수의 청중은,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종류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평화다. 개인의 평화가 인격체를 완성한다. 사회의 평화는, 두려움, 탐욕, 및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적 대립과 민족적 의심과 전쟁을 막는다. 화평케 하는 것이, 불신과 의심의 해결책이다.

140:5.19 (1575.4) 아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의 역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며;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언젠가 말씀했다:“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140:5.20 (1575.5) 4.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140:5.21 (1575.6) 평화 다음에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와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다운 사랑은 이런 모든 일을--곧 형제다운 사랑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박해의 최종 수확물은 항상 진보였다.

140:5.22 (1575.7) 아이들은 용기 있는 도전에 항상 반응한다. 젊은이는 늘 기꺼이 “도전에 응한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희생하기를 일찍부터 배워야만 한다.

140:5.23 (1575.8)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지복{至福}은 율법이 아니라--곧 윤리와 의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에 기초를 뒀음이 드러난다.

140:5.24 (1575.9) 아버지다운 사랑은,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곧 불의에 대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기뻐한다.

6. 임직식이 있던 날 저녁

140:6.1 (1576.1) 일요일 저녁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부터 세베대의 집에 도착한 예수와 열두 사도는 간소한 식사를 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열두 사도는 그들끼리 이야기했다. 간단한 회담을 마친 후에 쌍둥이 형제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안드레가 예수를 찾아 나섰고, 예수를 만나게 되자 말했다:“주님, 천국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내 형제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함께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140:6.2 (1576.2) 그는 정원에 들어간 후에, 사도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말씀했다:“너희가 새 가르침을 옛 가르침 위에 직접 세우려하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내가

단언하겠는데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기꺼이 내 가르침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천국의 새 복음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에 끼워 맞출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가 아니라 오히려 충족시키려고, 즉 발전시키고 명백히 밝히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 주려고 왔다.

140:6.3 (1576.3) "나는 너희에게, 구제{救濟}, 기도, 및 금식으로 아버지의 호의를 얻으려는 이들의 의{義}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의를 요구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사랑, 자비, 및 진리로 이뤄진 의를--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는 진지한 욕구를-- 지녀야만 한다."

140:6.4 (1576.4)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주님, 당신에게 새 계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살인하지

말라;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행위 뒤에 감춰진 동기를 본다. 내가 너희에게 단언하는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자기 마음에 증오를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심판받을 위험이 있다. 너희는 동료를 그의 행위로 판단해야만 하지만;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

140:6.5 (1576.5)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마음 속에서 그녀를 간음했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사람을 오직 그들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의도와 실제 욕구에 따라서 그들을 자비롭게 판결하신다."

140:6.6 (1576.6) 예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해 계속 말씀하려고 할 때, 야고보 세베대가 중간에 끼어들어 물었다:"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혼{離婚}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말씀했다:“나는 법{法}을 제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몽시키러 왔다. 나는 이 세상 나라들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습성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영들을 해방시키며 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 이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모세는 이런 일을 허락했으나, 아담 시대에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140:6.7 (1577.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 나누게 한 후에, 말씀을 계속했다:“너희는 모든 필사자의 행위에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곧 인간의 관점과 신성한 관점;육신의 방법과 영의 방법;시간적 평가와 영원의 관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만 한다.” 열두 사도는,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납득할 수는 없었음에도, 이 설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140:6.8 (1577.2)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해 비틀거리려 하며;내 가르침의 참뜻을 느리게 식별한다. 너희는 내 사자들임을;내가 영으로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 삶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 입었음을 다시 명심하라. 너희는 나를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이지만;모든 이들이 모든 면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살리라고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 외에도 다른 무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내가 매인바 돼서, 필사자 본성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40:6.9 (1577.3) 그러자 나다니엘이 물었다:“주님, 우리가 응보를 무시해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내 사자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모두에게 온유해라. 당한 그대로 갚는 것을 너희의 규칙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법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항상 자비로 심판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거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무 벅차다면, 너희는 덜 엄격한 제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140:6.10 (1577.4) 사도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잠시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졌으나, 곧 돌아왔고, 베드로가 말했다:“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으며;우리 중에서도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대가{代價}를 치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며;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겠습니다.”

140:6.11 (1577.5)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말씀했다:“그렇다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르라.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하며;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따로 가서 하고,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선택된 내 사도로서 이제 천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이타적 봉사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0:6.12 (1577.6) "눈은 몸의 등불이니;그러므로 네 눈이 관대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이기적이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네 속에 있는 바로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140:6.13 (1577.7) 그러자 자기들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눠가져야 하는지"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그렇다,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이해심으로 뭉친 한 가족으로서 살게 되기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서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 드리는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다. 천국 일에 기탄없이 협력하려고 애쓴다면,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기꺼이 일하는 손과 진실한 마음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천국 일에 바치고자 준비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곤란함에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그곳의 입구를 발견하고 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다.”

140:6.14 (1578.1) 예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려함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했다:“형제들아, 너희는 흠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내일 일을 위해 숙소로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잠이 달아났다. 베드로가 과감히 주님께 간청했다:“나는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한 심령 때문이며, 주님께 꾸짖음 당할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단 둘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베드로가 기분이 한결 고조된 것에 힘입어서, 야고보도 예수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이른 아침시간까지 다른 사도들도 한 사람씩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잠자고 있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와의 개인 면담을 끝내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주님, 쌍둥이 형제는 정원 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도 당신과 대화하겠는지 물어보러 깨울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안드레에게 말씀했다:“그들은 잘 하고 있으니--방해하지 마라.”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7. 임직식 다음 주간

140:7.1 (1578.2) 몇 시간 잠을 잔 후에, 열두 사도가 예수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는 이제,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자, 도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주님, 지금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함을 알고 있지만, 나는 우리가 이 위대한 이행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천국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도들 모두가 도마와 같은 생각임을 보고 말씀했다:“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하자;안식일까지 여기 머물자.”

140:7.2 (1578.3) 여러 주 동안,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작은 무리가, 호기심 있는 구경꾼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러 벳새다로 왔다. 이미 예수에 관한 소식은 시골까지 널리 퍼졌으며; 호기심에 찬 무리들이, 두로, 시돈, 다마스쿠스, 가이사라, 및 예루살렘 같은 먼 도시로부터 왔다.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천국에 관해 직접 가르쳤으나, 주님은 이제 이 업무를 열두 사도에게 맡겼다. 안드레는 사도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방문자 집단을 맡아보게 했고, 때로는 열두 명 모두 함께 참여했다.

140:7.3 (1578.4) 그들은 이틀 동안 일했는데,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적{私的}인 상담을 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고기를 잡거나 기분전환하거나 또는 가족을 방문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세베대와 살로메를 방문했다. 그들은 추가적인 3일 동안의 교육을 위해 목요일에 돌아왔다.

140:7.4 (1578.5) 이 연습기간에, 예수께서는 세례 받은 후에 자신이 땅에서 이뤄야 할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140:7.5 (1578.6) 1. 사람에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140:7.6 (1578.7) 2. 사람들이 아들_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그들이 지고자의 자녀임을 신앙으로_깨닫는 것.

140:7.7 (1579.1) 이 한 주간의 다양한 체험이 열두 사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며;일부는 과도한 자기_확신에 빠지기까지 했다. 안식일이 끝나는 밤에 마지막 회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께 나아와 말했다:"우리는 준비됐습니다--이제 천국을 취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께서 대답했다,"너희가 열심인 만큼 지혜롭고, 너희의 용기가 너희의 무지를 메우기 바란다."

140:7.8 (1579.2)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전부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의 중요성은 파악했다.

8.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140:8.1 (1579.3)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자신의 교훈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지침을 더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다른 동역자들의 관념을 분명히 밝혀 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가 영적인 천국 관념의 특색을 다소 파악하면서도, 이 세상의 현세적 권세로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뿌리 깊은 옛 개념에, 새로운 영적 교훈을 직접 적용하려고, 끈질기게 집착하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목요일 오후에 천국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물가에서 떠났다. 이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장장 네 시간에 걸쳐 가르치는 회합이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형 안드레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전했던 대로, 이 중대한 오후에 배웠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도록 재구성해서 요약한 것이다:

140:8.2 (1579.4) 1. *아버지 뜻을 행함*. 하늘 아버지의 자상한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니었다. 그는 이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을 인용했다: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으려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체험담을 들려줬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의 훈계를, 현대 또는 어떤 다른 시대의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지침{指針}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에서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이상적 원리를 담고 있다.

140:8.3 (1579.5) 예수께서는 세 명에게 사도신분과 제자신분에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밝혀줬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는, 열두 사도가 신중하고 선견지명을 발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였다. 그는 하나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그는,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수, 배 제작자, 및 어부였던 자신의 생애에 대해, 그리고 열두 사도로 구성된 자신의 신중한 조직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이다. 그는 세상이 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며, 생활 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작용하는 신의 섭리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다.

140:8.4 (1579.6) 예수께서는,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습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했고, 그들도 같은 방침을 추구한다면 자신이 기뻐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다. 악에 저항하거나 불의 또는 모욕에 대항해 싸우지 말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잘못된 일에 대한 수동적 인내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과,

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당연한 처벌의 집행을 위해 민간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40:8.5 (1579.7)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한 관습을 거부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했으며;복수, 즉 똑같이 되게 한다는 관념은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원한을 품는 것도 슬퍼했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맡겼다. 그는 자신의 교훈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40:8.6 (1580.1)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인간이 형제관계라는 도덕적 요구를 기억하라.

140:8.7 (1580.2) 악의 무익함:잘못된 것은 복수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악한 수단으로 악과 싸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140:8.8 (1580.3) 신앙을--곧 신성한 응보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라.

140:8.9 (1580.4) 2. *정치적 입장*. 예수께서는, 그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 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사도들에게 주의를 줬으며;그들이 이 곤란한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지 말라고 금했다. 그는 언제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해치려는 이들의 정치적 함정을 항상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확립하는 자신의 사명에서 옆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았으며;그 일 이외에 다른 어떤 일에도 자신의 주의를 돌리기를 거부했다. 그는 개인의 삶에서, 모든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했으며;자신의 모든 공적{公的} 교훈에서는,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은 오로지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원리에만 관심을 둔다고, 세 사도에게 말씀했다.

140:8.10 (1580.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정치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재조직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만약 이것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의 방법을 보여줬고, 자신의 문제에 예수의 삶을 어떻게 최선으로 적용시킬 것인지를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어떤 세대의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정치나 경제 이론 또는 사회나 산업 체계에 예수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말라.

140:8.11 (1580.6) 3. *사회적 입장*. 유대의 랍비들은: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예수께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친절, 즉 온 세계를 이웃으로 확장시키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 정도로 진실한, 동료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관념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는 군중이 아니라 단지 개인에게 관심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인 연민의 정을 가르쳤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_지배받는 아들이었으며;연민의정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140:8.12 (1580.7) 주님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한다고, 추종자들에게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확고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됐다. 그는, 사회적 기생충 또는 전문적으로 자선금을_타내려는 자들에게 기만당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씀은, “비판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140:8.13 (1580.8)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재산을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구제금으로 쓸 수 없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고 말씀하곤 했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인내, 아량, 및 용서를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 했다.

140:8.14 (1581.1) 예수의 생활철학의 최고 중심에는 --이 때와 그 후에도-- 가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교훈을 가족에 기초하는 동시에, 조상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경향을 고치려고 했다. 그는 가정생활을 인간의

최고 임무로 높였지만, 가족 관계가 종교적 책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가족이 현세적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수께서는, 가족이 아버지 뜻에 방해가 되자, 주저 없이 가족을 포기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의 새롭고 더 큰 형제관계를 가르쳤다. 예수 시대에 팔레스틴과 로마제국 전역에서 이혼 관습이 성행했다.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기를 거듭 거부했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혼에 관한 강한 의견을 가졌고, 그것을 예수의 뜻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하고, 모든 신약 성경 저자가, 이혼에 대해 더 엄격하고 진보된 이 개념을 고수했다.

140:8.15 (1581.2) 4. **경제적 입장**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딪치는 대로 세상에서 일하고, 살고, 거래했다. 불평등한 재산 분배의 부당함에 자주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그는 경제 제도의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부와 재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재산 분배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했을 뿐이라고, 그 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그는 사회 정의와 산업의 공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다.

140:8.16 (1581.3) 그는 추종자들에게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고, 열두 사도에게만 그렇게 가르쳤다. 의사 누가는,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신봉하는 자였고,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조화되도록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이 애썼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친히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그런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않았다.

140:8.17 (1581.4) 예수께서는 청중에게 탐욕을 물리치도록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그의 풍족한 물질 소유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했다. 그는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후반기 교훈에서, 그는 자신의 대중 사역 과정 가운데 제시했던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유란시아의

잘못된 인생 관점들을 고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경제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각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자체의 해결책을 발전시켜야만 함을 잘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중에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선남선녀 대부분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는 순수하게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배의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내적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아주 초연해 있을 것이다.

140:8.18 (1581.5)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동정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몰두하는 자들 대부분에게 재물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목요일 오후에 동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처음으로 말씀했다.

140:8.19 (1581.6) 5. *개인 종교*.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독특한 교훈은, 그 교훈의 직접 배경으로 그 생애가 생생하게 그려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사랑의 인격체를 드러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의 열두 사도에게 준 훈계나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생애다.

140:8.20 (1582.1) 예수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나 그리스 도덕가들의 교훈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이 위대한 선생들이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을 인정했지만, *부가적인* 어떤 것, 즉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 느낌으로 가득 차고 영적 충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그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 일을 많이 체험한, 진정한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교훈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많이 잘못 전해져 왔으며; 너희 역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 왜곡된 관념에 매달려 왔다. 그가 일생에 목표했던 것은 *뛰어난 자존감{自尊心}*이었던 것 같다. 그는 스스로 겸손해야

진정으로 높임 받게 된다고 충고했을 뿐이며;그가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그는 진실함에--곧 순수한 마음에-- 큰 가치를 뒀다. 성품에 대해 그가 평가할 때, 충성이 으뜸가는 덕목이었고, 한편 용기는 그의 교훈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가 그의 표어였고, 끈기 있는 인내는 강건한 성품의 이상{理想}이었다. 예수의 교훈은, 용맹, 용기, 및 영웅적 자질의 종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개인 대표자로 열두 명의 평범한 사람을 택한 이유였고, 그들 대부분은 거칠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어부였다.

140:8.21 (1582.2)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드물게 언급했다. 그는 진정한 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그는 가르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신중하게 피했으며;악을 선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덕을 개혁하는 자도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관능적 충동을 종교적 비난이나 율법의 제재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드물었던 그의

비난은 주로, 자존심, 잔인함, 억압, 및 위선에 대한 것이었다.

140:8.22 (1582.3) 예수께서는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조차 격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다수의 심정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예속돼 있음을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먼저 나무를 좋게 만들기”를 많이 강조했다. 그는 세 명에게, 자신은 단지 몇 가지 특별한 덕성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강조했다.

140:8.23 (1582.4) 이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진 인간성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가진 성품을 획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140:8.24 (1582.5)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진실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이로부터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교리를 지어냈다.

140:8.25 (1582.6) 야고보는, 이 세상 자녀들이 마치 하늘 나라에서 이미 시민이 된 것처럼 살기를 예수께서 원한다는, 감격스런 진리를 깨달았다.

140:8.26 (1582.7) 예수께서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그는 제자와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 맞추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분리된 한 개인으로서, 각각의 혼이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도록 허용하려 했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님이 말씀했다: “어린아이처럼 새롭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적이어야만 한다고, 즉 자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했다.

140:8.27 (1583.1) 세 사도는 이날 오후에, 주님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_반성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 예수 시대를 전후해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으로 자기를_반성하라고 면밀히 규정한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생활철학에는, 종교적 자기반성이 아예 없었다. 목수의 아들은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하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품의 성장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쭐하는 자만심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자기_분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다.

140:8.28 (1583.2)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즉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 천국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에 참여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代價}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소유하려는 아주 비싼 진주와 같다.

140:8.29 (1583.3)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그의 종교는 (그의 시절 동안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범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생애와 교훈은, 모든 세계의 모든 시대의 영적 인도와 도덕적 지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고, 이상적인 유산으로서 우주에 전해졌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종교로부터 초연해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는, 그들 모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

140:8.30 (1583.4)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며;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대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두 사도에게는, 종교가 그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예수께서는 신도들의 진정한 문화 추구에 방해될만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으며;오직 전통에 매여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학파들만 비방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박식했으며, 참을성이 많았다. 남을_의식하는 경건은, 정의롭게 사는 그의 철학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140:8.31 (1583.5)

주님은 그 당시 또는 후일의 어느 시대든지, 비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독창적인 삶이 시작되도록 자극하기 원했으며;인간 종족의 잠재적이고 영원한 영적 필요에만 전적으로 관심 뒀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선함을 보여줬다. 그는 사랑이--곧 진리, 아름다움, 선함이--신성한 이상이요 영원한 실체라고 찬양했다.

140:8.32 (1583.6) 주님은 새로운 영, 즉 새로운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려고--곧 진리를 알고, 동정심을 체험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려고-- 왔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다.

9. 봉헌식이 있던 날

140:9.1 (1583.7)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임직식을 거행했던 산지{山地}로 돌아가면서, 사도들에게 몰두했으며;거기서, 길고도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격려의 말씀을 친히 주신 후에, 열두 사도의 봉헌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산비탈에서 자기 주위에 사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세상에 그들만 남겨두고 떠날 날을 대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겼다. 이때에는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이 없었고, 단지 환담과 교류만 있었다.

140:9.2 (1584.1)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했던 임직식 설교의 많은 특색을 회고했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한 사람씩 앞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대표자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임명했다. 주님의 봉헌식 훈시는 이랬다:“세상에 나아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난당하는 자를 보살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140:9.3 (1584.2)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돈이나 여벌 옷을 지니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수고한 사람이 자기 품삷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했다:“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無害}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너희의 적들이 너희를 공회{公會} 앞으로 끌어가겠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관리와 총독들 앞에 불러갈 것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의 참된 증언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에게 데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그때 너희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 일부는 사형당할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두려워 말라;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영이 너희보다 먼저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라.”

140:9.4 (1584.3)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세베대의 집에 있는 본거지로 돌아갔다.

10. 봉헌식 이후의 저녁

140:10.1 (1584.4)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집안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해 애쓰면서 장시간 이야기했다. 그들은 의로움을--곧 구원을--얻는 수단으로서 특정한 *행함*을 요구하는 종교만 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게 *돼야*만 한다”고 거듭 말씀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 *하라*”고 했다. 갈피를 못 잡던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했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갖고 온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단순하고 진지한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요한은 옛 생활방식을 참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너희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세례를 선포하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회개를 전파하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참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자녀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것이, 이 세상 필사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의로움을 행함보다 앞서야 함을,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140:10.2 (1584.5) 열두 사도를 가르치는 이 일에 또 다른 큰 장애물은, 그들이 매우 이상적이고 영적인 원칙, 즉 종교적 진리의 원칙을, 단단하게 굳어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바꾸려는 경향이었다. 예수께서는 혼의 태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지만, 그들은 이런 교훈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고집했다.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할 때, 그들은 그가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확실히 잊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동화됐다. 사도들은, 그가 말로 지시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습득했다.

140:10.3 (1585.1) 사도들은, 주님이 광범위한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영감을 주는 생애를 사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때때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사도들은 그가 이 세상 *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가 창조한 방대한 모든 다른 세상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남녀만을 위하여 필사자로서 사는 본보기를 친히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계의 모든 필사 존재를 위한, *영적이고 영감을 주는 고귀한 이상{理想}*을 창조하려고, 유란시아에서 지상생애를 살았다.

140:10.4 (1585.2) 바로 이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전에 어린아이처럼 돼야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며 우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값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요구했을 때, 쉽게
속거나, 단순히 믿고자 하거나, 호감 주는 낯선 이를 성급히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너희가 그 설명에서 붙잡기
바랐던 것은, 자녀와_아버지의 관계였다. 너희는
자녀이고, 너희가 들어가고자 구하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나라다. 정상적인 모든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는 선천적 애정이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얻기 위해 흥정하려는 모든
계획을 영원히 배제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전파할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자녀와_아버지의 관계를
신앙으로_실현함으로써 자라나는 구원과 관련된다.”

140:10.5 (1185.3)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질은, 그의 철학에
담긴 *도덕성*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사적 관계--바로 이
자녀와_아버지의 관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종족이나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인에게*
중점을 뒀다.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마태와

이야기하다가, 어떤 행동이든지 그 도덕성은 개인의 동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예수의 도덕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규정한 황금률은 능동적인 사회적 교제를 요구했는데;부정적인 옛 규율은 고립 속에서 지켜질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도덕성에 붙어있는 모든 규정과 예식을 벗겨내고, 영적 사고와 진실로 의로운 삶이라는 웅대한 수준으로 도덕성을 끌어올렸다.

140:10.6 (1585.4) 이런 예수의 새 종교에 실질적인 함축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르침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엇이 발견되든지, 그것은 혼이 내적 체험으로 이루는 자연스런 결실과정이며, 그 혼은 진정한 개인적 종교체험으로 인해 날마다 자발적으로 사역함으로써 영의 열매를 맺는다.

140:10.7 (1585.5) 예수께서 마태와 이야기를 끝내자 열심당 시몬이,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가요?”라고 질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그렇다, 시몬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너희가 선포할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교리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새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추종자들에게 심어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도록 가르쳤다.

140:10.8 (1585.6)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도덕성은 자신이 실천하는 종교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성을 가르쳤다.

140:10.9 (1585.7) 요한이 예수께, “주님, 하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하늘 나라는 이 세 가지 본질로 이뤄졌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로 인정하고;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를 믿으며;셋째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곧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최고의 소망이 효력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사자든지 구원의 이 세 가지 필수사항 전부를 신앙으로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140:10.10 (1586.1)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 주간이 끝나고, 그들은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제141편 공적 업무의 시작

141:0.1 (1587.1) 서기 27년 1월 19일 그 주의 첫날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새다의 본부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열두 사도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고, 단지 4월에 있는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과, 요단 계곡을 거쳐 여행할 예정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사도들의 가족 및 다른 제자들이 작별인사를 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새 일의 성공을 빌기 위해서 왔으므로, 그들은 정오가 될 때까지도 세베대의 집을 떠나지 못했다.

141:0.2 (1587.2) 출발하기 직전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안드레가 찾아 나섰다. 그는 얼마 후에 해변 아래쪽에서 배에 앉아 있는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는 울고 있었다. 열두 사도는, 주님이 근심에 차있는 모습을 종종 봤고, 잠깐씩 심각한 마음 상태에 잠겨 있음을 본 적은 있었지만,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그렇게 상심해 있음을 보고 놀라서,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중요한 날에 왜 우시는지요? 우리 가운데 누구로 인해 상심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합류하기 위해 안드레와 함께 돌아가면서 대답했다:“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비탄에 잠기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내 아버지 요셉의 식구 가운데서 아무도, 잊지 않고 성공을 기원하러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롯은 오빠 요셉을 방문하러 나사렛에 가 있었다. 그의 가족 중에서 다른 식구들은, 자존심, 실망, 오해, 그리고 감정이 상한 결과로 하찮은 분노에 빠져서 그를 멀리했다.

1. 갈릴리를 떠남

^{141:1.1 (1587.3)}가버나움은 디베랴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예수의 명성은 갈릴리 전체는 물론 그 너머 지역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헤롯이 머지않아 자신의 일에 주목하게 될 것을 알았으며;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여행하여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100명 이상의 신도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어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도 집단과 동행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들은 뒤에 남아있기로 동의했지만, 그들 가운데 여럿이 며칠 뒤에 주님을 뒤쫓아 갔다.

141:1.2 (1587.4) 첫날에, 예수와 사도들은 겨우 다리키아까지 여행했고, 거기서 그날 밤을 지냈다. 그들은 다음날 펠라 근처 요단의 어느 지점까지 여행했는데, 1년 전에 요한이 전도하고 예수께서 세례 받은 장소였다. 그들은 여기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2주 이상 머물렀다. 첫 주 주말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가 기거하던 곳 가까이에 있는 야영지로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갈릴리, 페니키아, 시리아, 데가볼리, 베레아, 유대지방에서 왔다.

141:1.3 (1588.1) 예수께서는 대중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무리를 오전 오후 모임으로 나누고 설교자를 배정했으며;저녁 식사 후에는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이야기했다. 새로운 것은 가르치지 않고, 단지 그 전의 가르침을 복습했으며, 많은 질문에 답변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열두 사도에게, 자신이 그 장소 가까이 있는 언덕에서 지냈던 40일에 관해 언급했다.

141:1.4 (1588.2) 베레아와 유대지방에서 온 그들 가운데 다수는, 요한에게 세례 받았고 예수의 교훈에 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사도들은, 요한의 전도에 어떤 면에서도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많은

진전을 보였으며, 그 후로 이때까지도 새로 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의 추종자들에게는, 예수가 진정으로 요한이 주장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했어야 한다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지도자가 그런 잔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141:1.5 (1588.3)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미묘하고 어려운 과제를, 매일 밤 동료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지시했다. 예수의 공적 사역의 이 첫 해 동안, 추종자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이전에 요한을 따르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였다. 서기 27년인 이 해 전부는, 베레아와 유대지방에서 요한의 일을 넘겨받으면서 조용히 지나갔다.

2.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뜻

141:2.1 (1588.4) 펠라를 떠나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관해 좀 더 가르쳤다. 주님이 말씀했다: “너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배웠으며, 이제 나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이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고,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한다. 모든 나라에는 왕좌에 앉아서 그 영역의 법을 제정하는 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땅의 모든 민족 위에 유대 백성을 영광되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적적 권능을 행사해서, 모든 세상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으로 하늘 나라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애들아, 너희는 보아도 신앙의 눈이 없고, 들어도 영이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하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정 그분의 충실한 신하이지만, 그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변환시키는 진리다. 이 진리는 내 생애에서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또한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에 있으며;그는 수많은 우주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신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필사적 사람들의 혼 속에 살도록 보내신 영{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다스리신다.

141:2.2 (1588.5) "너희가 이 나라의 신하가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돼 있지만;내가 선포하러 온 천국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자녀임을 신앙으로_발견할 때, 너희는 그때부터 전능한 왕의 법에_굴복하는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신성하신 아버지의 특혜를 입은 자녀로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아버지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에는, 너희가 천국에 있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진실로 너희의 뜻이 될 때 너희는 진실로 천국에 있게 되는데, 그리함으로 천국이 너희 안에서 확고한 체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일 때, 너희는 고상한 노예 같은 신하이지만;너희가 신성한 아들신분의 새 복음을 믿을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너희는 천국의 해방된 아들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라는 높은 위치로 승격된다."

141:2.3 (1589.1) 사도 중에서 일부가 이런 가르침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이 굉장한 발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납득한 사람은 야고보 세베대 뿐이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나중에 봉사하는 동안 그들의 사역을 기쁘게 만들었다.

3. 아마수스에 체류함

141:3.1 (1589.2) 주님과 사도들은 아마수스 근처에서 거의 3주 동안 머물렀다. 사도들은 대중에게 매일 두 번씩 설교하기를 계속했고, 예수께서는 안식일 오후마다 설교했다. 수요일을 노는 시간으로 지키기는 불가능하게 됐으며;그래서 안드레는, 6일 동안 사도들이 하루에 두 명씩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 예배 동안에는 그들 모두 함께 근무하게 했다.

141:3.2 (1589.3)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대부분의 공중 설교를 맡았다.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은 개인을 상대로 많이 일했고, 질문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학급을 운영했으며;쌍둥이 형제는 일반적인 질서 유지 감독을 계속했고, 한편 안드레, 마태, 밋 유다는 3인 관리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세 사람 각자는 종교적 업무도 상당히 수행했다.

141:3.3 (1589.4)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불협화음을 조정하는 과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사도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하지 않는 집단들이 적어도 임시적이거나 다소간 화해를 이루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는 이 회담 가운데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또한 이런 어려움의 적합한 조정에 관한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조언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드레가 이런 질문을 예수께 가져오면, 그는 늘 이렇게 말씀했다:“주인이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 결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

141:3.4 (1589.5) 주님은 뛰어난 지혜를 드러냈고, 사도와 제자들을 다루는 데서 완벽한 공정성을 나타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스승이었으며;매력과 힘이 합쳐진 인간성으로 인해, 동료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고된 생활과 방랑 생활 그리고 집 없는 삶 속에, 형언하기 어려운 당당한 감화력이 있었다.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태도, 명석한 논리, 추론하는 힘, 현명한 통찰력, 정신의 민첩함, 견줄 데 없는 평정심, 그리고 고상한 아량에는 지적인 매력과 영적 흡인력이 있었다. 그는 수수했고 남자다웠으며 정직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주님의 현존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육체적 및 지적{知的} 영향력과 더불어, 그의 인간성--곧 참을성, 부드러움, 온유함, 온화함, 그리고 겸손함--과 관련됐던, 존재의 그런 모든 영적 매력 또한 있었다.

141:3.5 (1589.6)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로 강하고 설득력 있는 인간성을 지녔으며; 지적 능력과 영적 요새{要塞}였다. 그의 인간성은 추종자 가운데서 영적 성향의 여자들뿐 아니라, 학식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 그리고 강인한 로마 병정의 마음도 움직였는데, 십자가를 지키며 머물던 지휘관은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혈기왕성하고 억센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141:3.6 (1590.1) 예수의 초상화들은 아주 유감스럽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는데; 예수께서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려낸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전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위엄을 갖춘 성인{成人}이었으며; 설했지만, 자연스러웠다.

예수께서는 약하고, 달콤하며, 부드럽고, 타고난 신비적인 사람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박력 있었다. 그는 *의도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선을 행했다*.

141:3.7 (1590.2) 주님은 결코, "나태하고 환상에 잠겨있는 너희 모두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수고하는* 너희 모두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휴식을--곧 영적 힘을--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다. 주님의 멍에는 진정 쉬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각 개인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멍에를 져야만 한다.

141:3.8 (1590.3) 예수께서는, 희생, 즉 자존심과 이기심을 포기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자비를 나타냄으로, 모든 원한, 불평, 분노로부터, 그리고 이기적인 권력이나 복수를 갈망함으로부터, 영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그리고 그가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때, 죄를 묵과하거나 죄악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그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인격체를 악하게

취급하는 것, 즉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 이의 감정을 악하게 손상시키는 것을 참지 말라고" 가르치려 했다.

4. 아버지에 관한 가르침

141:4.1 (1590.4) 아마수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범한 자녀들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기입하기에 몰두하는, 즉 모든 창조물의 심판관으로서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죄와 악을 기록하기에 주로 몰두하는 능숙한 최고 장부 기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심지어 민족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이해해 왔지만, 필사적 사람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 개념을 *개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여겼던 적은 전혀 없었다.

141:4.2 (1590.5) "천국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종교는--곧 나의 복음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와 교훈에서 이 두 관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여기 있다.”

141:4.3 (1590.6) 예수께서는 또한 동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관념으로부터 사도들의 정신을 해방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날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종교에 젖어 왔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뜻하는 것이 납득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았다. 그는 한 번의 설명으로 사도들 전체를 이해시키기에 실패할 때, 메시지를 다시 말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다른 유형의 비유를 들곤 했다.

141:4.4 (1590.7) 예수께서는 이때, 열두 사도의 사명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더 충분히 가르치기 시작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전인{全人}--곧 남녀 개인을 형성하는 몸, 정신, 및 영의 합동--에 관해서 많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이 당면하게 될 세 가지 형태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인간의 질병에 대한 슬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를 그들이 어떻게 돌봐야 하는 지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는 다음 것들을 인식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쳤다:

141:4.5 (1591.1) 1. 육신의 질병--보통 육체적인 병으로 간주되는 그런 고난.

141:4.6 (1591.2) 2. 고통 받는 정신--후일에 감정 및 정신의 어려움과 교란이라고 여기게 된, 그런 비육체적 질병.

141:4.7 (1591.3) 3. 악한 영에 사로잡힘.

141:4.8 (1591.4) 예수께서는, 당시에 흔히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악한 영들의 본성 및 기원에 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사도들에게 설명했다.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과 정신이상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그들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예수께서는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이 악한 영들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상승하고 나면, 그리고 천국이 위대한 능력과 영적 영광 속에 도래하게 될 때, 내가 내 영을 그 시대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난 후에는, 그것들은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141:4.9 (1591.5)} 주가 거듭 되고, 달이 거듭되며, 이 온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사도들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5. 영적 통일

^{141:5.1 (1591.6)} 아마수스에서 있었던 모든 저녁 회담 중에서 가장 중대했던 회담은, 영적 통일에 대한 토의와 관계된 시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물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기를 배우고, 그리하여 우리가운데서 더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 예수께서는 자기 영 속에 교란이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대답했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봐야 한다고 가르쳤느냐? 나는, 필사자들이 독창적인 개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영적 자유를 선포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자유로운 인간성과 영적 독창성을 희생한 대가{代價}로, 사회적 조화나 우애 있는 평화를 얻게 되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사도들인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려고, 연합하여
헌신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영
통일이다. 영적으로 *똑같아지기* 위하여, 너희가 똑같이
보거나 똑같이 느끼거나 똑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영적
통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선물이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점점 더 지배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사도로서 너희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 소망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싹터야만 한다.

141:5.2 (1591.7) “이런 식으로 영의 목적과 영적 이해가 완전히
통일되는 것을 너희가 체험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너희
각자에게 내주하는 낙원 영의 정체성을 서로 의식함에서
자라나며; 지적 사고{思考}, 개성이 강한 느낌, 및 사회적
행동 면에서 각자의 태도가 극도로 다양하더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심오한 영적 통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인격체는 신선하게 다채롭고 뚜렷이 다를지 모르지만,
신{神}을 경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적 본성과 영의
열매가 그렇게 통합돼서, 너희의 생애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혼이 통일된 것을
틀림없이 인지할 것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고, 이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어떻게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웠음을 저희가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고유하게 부여받은, 정신, 몸, 및 혼이라는 재능을
이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그런 봉사를 베푸는
동안일지라도, 너희는 하나 되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141:5.3 (1592.1) “너희가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신도 각자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조화됨을 항상 발견할 것인데:첫째로,
너희는 일생동안 봉사하려는 공통된 동기로
지배되며;무엇보다도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공통된 실존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너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분처럼 돼
왔음을 우주에 증명한다.”

141:5.4 (1592.2)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훈련시키는 동안, 이
주제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심지어 선한 사람들의 종교
해석일지라도, 믿는 자들이 교리화되고 규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사도들에게, 신자를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으로, 천국

복음 안에 교리를 제정하거나 전통을 설립하지 말라고 거듭 거듭 경고했다.

6. 아마수스에서 지낸 마지막 주간

141:6.1 (1592.3) 아마수스에서 마지막 주간이 끝날 즈음에, 열심당 시몬이 다마스쿠스에서 사업하는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를 예수께 데려왔다. 테헤르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버나움에 갔었으며, 거기서 예수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섰다. 안드레는 시몬이 테헤르마를 가르치도록 했다. 테헤르마가 불은 단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한 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라고 애써 설명했지만, 시몬은 그 페르시아인을 “불 숭배자”로 여겼다. 예수와 이야기한 후에, 페르시아인은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기 위해, 며칠 더 머물러 있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141:6.2 (1592.4) 열심당 시몬과 예수가 단 둘이 있게 되자, 시몬이 주님께 물었다: “왜 나는 그를 설복시킬 수 없었습니까? 왜 그가 내게는 그렇게 저항하고, 당신께는 쉽게 귀 기울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시몬아, 시몬아, 구원을 찾는 자의 가슴으로부터 뭔가 꼬집어내려 애쓰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이런 굵주린 혼 속으로
뭔가 집어넣도록 노력하라고, 얼마나 자주 말했느냐?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천국의 진리가, 곧 모든 심각한 오류를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필사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에게 설득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 있던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준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가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새롭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선포했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단지 부분적으로 봤던 그것의 완성된 장면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천국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오고, 그 후에 그런 사람이 너희에게 질문할 때, 그때가
바로 신성한 천국 안에서 그 혼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데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할 때다.”

141:6.3 (1592.5) 시몬은 이런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예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했고, 페르시아인 테헤르마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141:6.4 (1592.6)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천국의 새로운 삶에 관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말씀한 일부분은 이렇다:“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다시 태어난다. 육신으로만 태어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을 가르칠 수 없으며;영의 진보된 길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하기 전에, 그들이 영으로 태어났는지 먼저 살펴봐라. 너희가 사람들을 성전으로 처음 데려가기 전에는, 그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아들신분이라는 교리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소개하라.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항상 참아라. 그것은 너희의 나라가 아니며;너희는 단지 대사일 뿐이다. 단순히 선포하며 나아가라:하늘 나라는 이렇다--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이며,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이 소식이 너희의 영원한 구원 *이다*.”

141:6.5 (1593.1) 아마수스에 체류하는 동안 사도들은 대단한 향상을 이뤘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대하는 문제에 관해 예수께서 아무 제안도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심지어 세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도, 예수께서는:“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 줬으나, 하늘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뿐이다.

7.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141:7.1 (1593.2) 2월 26일에, 예수와 그의 사도들 및 큰 집단의 추종자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가까운 곳에 있는 여울까지 여행했는데, 그곳은 도래하는 나라에 대해 요한이 처음 선포한 장소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4주 동안 여기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남아 있었다.

141:7.2 (1593.3)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던 둘째 주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여리고 남쪽에 있는 언덕으로 3일 간 휴식을 떠났다. 주님은 이 세 명에게 하늘 나라에 관한 새롭고 진보된

진리를 많이 가르쳤다.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다음과 같이 재조직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141:7.3 (1593.4) 제자들이 천국의 훌륭한 영 실체를 맛봤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봄으로써 천국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신자들에게 천국의 길에 관해 묻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다. 그런 모든 진지한 진리 탐구자는, 신앙의 선물인 기쁜 소식을 언제나 듣고 싶어 하는데, 영원하고 신성한 영 실체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선물이 보장한다.

141:7.4 (1593.5)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의 유일한 사업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곧 이 각 사람이 자녀임을 의식하도록 인도하는 것;그 다음에는 비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신앙 자녀로 소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근본 계시{啓示}는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그는 진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다. 예수의 종교는, 이 세상에 증여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전적으로 기초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책, 법률, 또는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 주는 다른 형태의 인간 조직도 남겨놓지 않았다.

141:7.5 (1593.6)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왔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모든
다른 인간관계보다 우선해야함을 분명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친밀한 영적 교제는,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 사이에 있는, 모든 사회 조건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자녀들에게 줬던
유일한 보상은:이 세상에서는--영적인 기쁨과 신성한
친교;다음 세상에서는--낙원 아버지의 신성한 영 실체들이
있는 곳까지 진보하는 영원한 생명이었다.

141:7.6 (1593.7) 천국에 대한 교훈에서, 예수께서는 제일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했던 것을 크게 강조했다는데,
그것은:신앙으로, 그리고 신앙만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진지하게 인식함으로 인간의 자유를
달성한다는 것이었으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혁명적 가르침이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로 그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 간 후에,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141:7.7 (1594.1)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시대를 위한 진리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이 자주 그의 교훈을 듣고 있을 때, 실제로 그가 하는 말씀에는, 다른 세계들에게 영감{靈感}을 주고 교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새롭고 독창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여줬다.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영역의 한 필사자로서 모든 세계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

141:7.8 (1594.2) 예수께서는 천국의 계획을 펼쳐 보이면서 아버지를 반드시 인식하게 하려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고, 이들은 이전{以前} 시대에 대부분의 진화 종교들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계층이었다. 그는 아무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범_세계적이었고, 우주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했으므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도

예수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을 정도였다.

141:7.9 (1594.3) 그는 자신이 이 증여 사명을 맡게 된 것은, 땅에 있는 소수의 피조물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우주에 두루,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 인생의 표준을 세우고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진리를, 이 사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 심지어 만유의 아버지의 최종 선{善}의 경지에 접근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141:7.10 (1594.4) 그는, 물질 정신에게 영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파송된 교사로서 역할을 하러 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한 일이었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강력한 웅변이나 감정적 호소 때문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인간성 때문에 무척 힘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 말씀했다. 그는 사람의 영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정신을 통해서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141:7.11 (1594.5) 예수께서는, 자신이 증여되기 전에, 낙원 형제인
임마누엘이 지시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 “높은 곳에 있는 동역자”의
지시로 제한받는다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아버지 뜻,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는 그렇게
전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만 동기를 뒀기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않았다.

141:7.12 (1594.6) 사도들은 예수의 변치 않는 친절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어떤 인간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살았다. 순전히 필사적인 어떤 영향에
지배되거나, 연약한 인간적 판단에 자신을 맡긴 적이 한
순간도 없었다. 그는 대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았고
찬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는 오해를 밝히거나 허위
진술에 분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며; 결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

141:7.13 (1594.7) 야고보는, 시발점에서 끝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수의 능력에 감탄했다. 주님은 놀라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는 결코 흥분하거나 짜증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슬픔에 젖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141:7.14 (1594.8) 모든 신성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결국 그가
인간이었음을, 요한은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았으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사생활은 아주 인간다웠지만, 정말로 흠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141:7.15 (1595.1)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이때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많이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그의 우아한 말씀은
그들의 마음 속에 머물렀으며, 십자가에 매달리고 부활한
후에 솟아나와서, 훗날의 그들의 사역을 매우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 줬다. 이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음은 이상하지 않은데, 그가 새로운
시대의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여리고에서 활동함

141:8.1 (1595.2)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체류하던 4주 내내, 안드레는 매 주 두 명의 사도에게,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로 가도록 여러 차례 배정했다. 여리고에는 요한의 신도가 많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와 사도들의 더 진보된 교훈을 환영했다. 사도들은 이번 여리고 방문에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예수의 지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도시에서 가정마다 방문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했다.

141:8.2 (1595.3) 사도들은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공적{公的}인 일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주로 좀 더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천국의 기쁜 소식이 병자들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의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지시한 것이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충분히 수행됐다.

141:8.3 (1595.4)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멈췄고, 예수와 상의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파견대표단을 만나게 됐다. 사도들은 여기서 하루만 지낼

계획이었는데, 이 진리 탐구자들이 동방으로부터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그들과 3일을 보냈고, 그들은 하늘 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어, 기뻐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9.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141:9.1 (1595.5)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언덕을 지나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러 요단에 두 번 내려왔었고, 주님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동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집에 본부를 두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져 있었다.

141:9.2 (1595.6)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 남아 군중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으므로,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만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갔다. 예수와 사도들은,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면서 5일간 여기에 머물렀다. 주님과 사도들을 나사로의 집에 모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생에 굉장한 사건이었고, 이들의 필요를 보살필 수 있었다.

141:9.3 (1595.7) 4월 6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으며;주님과 열두 사도 모두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142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142:0.1 (1596.1) 4월에는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는데, 저녁마다 성 밖으로 나갔고 베다니에서 밤을 지냈다. 예수 자신은, 그리스파 유대인인 후라비우스 집에서 매주 하루나 이틀 밤을 지냈으며, 그의 집으로 많은 저명한 유대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은밀히 찾아왔다.

142:0.2 (1596.2) 예루살렘에서 첫 날에, 예수께서는 옛 친구인 안나스를 방문했는데, 그는 한때 대제사장이었고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의 친척이었다. 안나스는 예수와 그의 교훈에 관해 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대제사장 집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쌀쌀하게 대접했다. 예수께서 안나스의 냉랭함을 눈치 채고 곧 떠나면서 말씀했다:“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교만이 사람의 큰 약점인데;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기쁨과 자유를 파괴하는 이 두 가지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나 안나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사위와 함께

사람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

1. 성전에서 가르침

142:1.1 (1596.3) 이 달 내내, 예수 또는 사도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매일 가르쳤다. 유월절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성전의 가르치는 장소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시되는 경내 밖에서 가르치는 여러 집단을 운영했다. 그들의 메시지의 취지는 이랬다:

142:1.2 (1596.4) 1. 하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142:1.3 (1596.5) 2.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신앙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42:1.4 (1596.6) 3. 천국에서는 사랑이 삶의 규율이다--하나님께 최상으로 헌신하는 동시에, 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142:1.5 (1596.7) 4.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즉 각자 개인 생활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율법이다.

^{142:1.6 (1596.8)}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대중이 예수와 이런 가르침을 들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쁜 소식으로 환희에 넘쳤다. 제사장들과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와 사도들에 대해 많이 염려하게 됐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토의했다.

^{142:1.7 (1596.9)} 성전과 그 주변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사도 및 기타 신도들은 유월절 군중 가운데서 개인을 상대로 많은 일을 하느라고 바빴다. 관심을 가진 이 남녀들이, 예수께서 이번 유월절 경축행사에서 전한 메시지의 소식을, 로마 제국 가장 먼 지방들과 또한 동방까지 전했다.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외부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예수의 업무는 더 이상 팔레스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 하나님의 진노

^{142:2.1 (1597.1)} 야곱이라는 크레테의 유대인 부자{富者} 상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축제에 참여했는데,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예수와 사적으로 만나기를 요청했다. 안드레는 다음 날 저녁 후라비우스의 집에서 예수와 이 비밀 회합을 갖도록 주선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납득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충분히 물어보려고 왔다.

야곱이 예수께 말했다:“하지만 랍비여, 모세와 옛 선지자들은, 야훼가 질투하는 하나님, 아주 혹독하고 불같이 화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고 그의 율법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당신과 제자들은,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을 무척 사랑하시므로, 당신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새 하늘 나라로 저희를 환영하신다고 가르칩니다.”

142:2.2 (1597.2) 야곱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대답했다:“야곱아, 너는 그들 시대의 빛에 따라서 그들 세대의 자녀를 가르쳤던 옛 선지자들의 교훈을 잘 표현했다. 낙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변치 않으신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개념은, 모세 시대에서 아모스 시대를 거쳐, 선지자 이사야 세대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영광으로 아버지를 드러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힘찬 생기와 선한 뜻을 지닌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게 될 때, 모든 나라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좀 더 개선되고 나은 관계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버지와 그 자녀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세상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야곱아, 선하고 진실된 아버지는 가족을 전체로서--곧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식구 **개개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142:2.3 (1597.3)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상당한 토론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 숨을 돌리며 말씀했다:"야곱아, 너는 여러 자녀의 아버지이니, 내 말이 진리임을 잘 알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주님, 내가 여섯 아이의 아버지임을 누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나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다:"아버지와 아들은 만물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저희가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너는, **너**를 향한--곧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뿐 아니라, 너 개인의 혼 곧 너를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실체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네 자녀들이 아주 어리고 미성숙할 때, 그리고 그들을 응징해야만 할 때, 그들은 아버지가 화나고 무서운 분노로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성숙함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바로잡으려는 아버지의 애정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成人} 남녀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에 관한 이런 잘못된 옛 생각에 붙잡혀 있다면, 어리석지 않겠느냐? 성인 남녀가 된 그들은 이제, 이런 모든 어렸을 적의 훈련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인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진정한 본성과 사랑 많으신 성품을 더 잘 이해할 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고집한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의 영적 계몽에서 무슨 이득을 얻겠느냐? 야곱아, 내가 말하겠는데, 너는 이 시간의 밝은 빛 아래서 이제까지 아무도 본적이 없는 아버지를 봐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봄으로써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너는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뜻이 이제부터 네 삶을 지배하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142:2.5 (1598.1) 그러자 야곱이 대답했다:“랍비여, 내가 믿습니다;당신께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 개념

142:3.1 (1598.2)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토론을, 열두 사도 대부분이 들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그날 밤에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현대 용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2:3.2 (1598.3)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가볍게 꾸짖었는데, 이렇게 말씀했다:야훼 개념의 성장에 관련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가 가르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유대 민족의 발달 과정 전반에 걸친 신격 개념의 진화에 관해서 사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국면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142:3.3 (1598.4)

1. *야훼*--시나이 씨족들의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킨, 원시 신격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신격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얼마나 미숙하든지, 또는 신성의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지한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142:3.4 (1598.5)

2. *지고자*{至高者}.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으며,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격 관념을 나중에 믿은 자들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파했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 숭배가 확립된 것 때문에 우르를 떠났으며,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 에리온--곧 지고자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가 됐다. 이들이 지닌 것은 합성된 하나님 개념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사상과 지고자 교리가 함께 섞여있었다.

142:3.5 (1598.6)

3. *엘 샤다이*. 이 초기 시절에, 많은 히브리인이 엘 샤다이를 숭배했는데, 이집트인이 가졌던 하늘의 하나님 개념이었고, 히브리인은 나일 강 지역에 포로로 있는 동안에 배웠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세 가지 하나님 개념이 전부 합쳐져서, 창조자
신격, 즉 이스라엘의 주{主} 하나님의 교리를 형성했다.

142:3.6 (1598.7) 4. *엘로힘*. 낙원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담
시대부터 계속돼 왔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성서가 시작되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는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한
분이신 세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개념이 우리 선조의
종교에 자리 잡았음을 나타낸다.

142:3.7 (1598.8) 5. *최고 야훼*. 이사야 시대 무렵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런 믿음들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는데, 그는 전능한 동시에 전적으로_자비로운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종교에 있던 이전의 모든
관념을, 이런 진화되고 확대되어가는 하나님 개념이
실제로 대체했다.

142:3.8 (1598.9)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이것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상승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히

영적으로 진보하는 끝없는 시대들 내내, 이 낙원 신격들의
본성과 사역을 드러내는 일이,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 어느 인간이든지, 진정으로
경배 드린다면--곧 개인의 영적 발달에 관계된다면,
내주하는 영은 그 경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경의{敬意}로 인식한다.

142:3.9 (1599.1) 사도들은 이전 세대 유대인의 정신 속에서 성장한
하나님 개념을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처럼,
그토록 심하게 충격 받은 적이 없었으며;너무
어리둥절해서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침묵하면서 예수 앞에 앉았을 때, 주님이 계속 말씀했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다면,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주{主}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해서 저희를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키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다'는 구절을 사무엘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사무엘의 시대에 아브라함 자손은, 야훼가 선과 악을 둘 다
창조했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인 개념이 확대된 뒤, 후세의
기자{記者}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감히 악을 야훼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그래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기록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본성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했는지, 성서의 그런 기록들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느냐?

142:3.10 (1599.2) "이 확대된 신성{神性} 개념들과 완전히 발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이해가 성장했음을, 너희는 다시 분별해야만 할 것이다. 야훼 개념이 확대되어 계시되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십계명{十誡命}이 있었고, 이것은 시내산 앞에서 야영하던 바로 그때까지 그들의 율법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음과 같았다:

142:3.11 (1599.3) " 1.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주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42:3.12 (1599.4) " 2. 우상{偶像}을 부어 만들지 마라.

142:3.13 (1599.5) " 3. 무교절 지키기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142:3.14 (1599.6) " 4. 모든 남자 또는 수컷 가축 중에서 첫_태생은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한다.

142:3.15 (1599.7) " 5. 너희가 6일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7일에는 쉬어라.

142:3.16 (1599.8) " 6. 첫 열매의 축제와 연말에 수확의 축제 지키기를 거르지 마라.

142:3.17 (1599.9) " 7. 어떤 희생 제물이든지 그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142:3.18 (1599.10) " 8. 유월절 축제의 희생 제물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142:3.19 (1599.11) " 9. 토지의 첫 열매 중에서 처음 것을 주 너의 하나님 전으로 가져오라.

142:3.20 (1599.12) " 10.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142:3.21 (1599.13) "그리고 나서 모세는,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로, 신격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을 갖고 있는 새로운 십계명을,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그들에게 제시했다. 너희는 이런 계명이 성서에 두 번 기록됐다는 것, 즉 처음 것에서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였다고 한 반면, 나중 기록에서는 우리 선조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창조 사건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라고 인정하도록 바뀌었음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느냐?

142:3.22 (1599.14) “그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더 큰 영적 깨우침을 받아서-- 이 부정적 십계명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다시 한 번 변경됐음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리고 나 역시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사람이 지킬 전체 임무다.”

142:3.23 (1600.1) 그리고 말씀을 마쳤을 때,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서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4. 후라비우스와 그리스 문화

142:4.1 (1600.2) 그리스의 유대인인 후라비우스는, 할레나 세레를 모두 받지 않았던, 할레를 행할 의무가 없는 개종자였으며, 그림과 조각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었으므로, 예루살렘에 머물 때 기거하는 그 집은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 이 집은, 그가 세계 여행 중에 사방에서 수집한, 매우 귀중한 보물로 절묘하게 장식돼 있었다. 그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 소위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들로 인해, 주님을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소유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대신, 후라비우스가 좋아하는 모든 조각상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각 물건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을 했으므로, 후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42:4.2 (1600.3) 주님은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 하는 것을 보았으며;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왜 너는, 내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의 예술적 손으로 만든 물건의 아름다움을 네가 알아본 것 때문에 비난받으리라고 추측했느냐? 모세가 한때 우상과 거짓 신들 숭배를 금했다고 해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재생한 것에 왜 모든 사람이 얼굴을 찡그려야 하겠느냐? 후라비우스야, 네게 말하겠는데, 모세의 자손은 그를 오해했으며, 그가 금지했던 형상,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림으로, 지금도 거짓 신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지성인들에게 그런 금지조항을

가르쳤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유를 다스리는, 우주의 영 통치자라고 계시된 오늘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후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숭배하지 말라, 저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그들은 이것을 억제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의 최상의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 임무는 두 가지 큰 특권으로 표현되는데:낙원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동료 사람들에게 쏟는 사랑의 봉사가 그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자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142:4.3 (1600.4) "내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됐겠지만;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애에서 드러날 것이며;하나님께 대한 이 새로운 계시가, 창조주 아버지를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혼동하는 일이 영원히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 총명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즐기는 것과, 모든 사물 및

존재의 하나님이신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께 경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즐겨도 좋다.”

142:4.4 (1600.5) 후라비우스는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다음 날 요단을 지나 베다니로 가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아직 신자에게 세례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라비우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예수를
위해 큰 만찬을 베풀었는데, 60명의 친구를 초대했다.
그리고 이 손님들 가운데 많은 이들 역시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믿게 됐다.

5. 확신에 대한 강연

142:5.1 (1601.1) 예수께서 이 유월절 주간에 성전에서 전한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는, 다마스쿠스 사람인 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랍비여,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당신과
제자들이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이 나라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는 내 메시지와 내 제자들의 가르침에 관해서 그 열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의 진리를 전파한다면, 우리 메시지가 참됨을 그 영이 너희 마음 속에서 증거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받아들이실지 확신하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너희 가운데 훌륭하고 인정 많은 아버지라면, 자녀가 자신도 가족 가운데 하나인지, 또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확실히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놔두겠느냐? 너희는 이 세상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인간적인 너희 마음 속에서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지 불안하게 의심하도록, 자녀 괴롭히기를 기뻐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신앙으로 자녀 된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 신분에 있을지 불안하게 의심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가 자녀라면, 너희는 영원하고 신성한 아들신분에 관련되는 어떤 일에서든지, 너희의 자격과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하늘 시민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는 자격을 얻는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면, 너희는 신성한 천국에서 진보하는 영생을 획득하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42:5.3 (1601.3)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최상급 영이 너희 영과 함께 증거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며;영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권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모든 불확실성, 즉 너희의 신앙까지도 정복하는 승리다.

142:5.4 (1601.4)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절에 대해 말했다:‘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는, 의의 결과로 영원한 화평, 평안, 및 확신이 이뤄지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내가 확실히 보증하는데, 영원한 자비와 영생이 있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저희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천국의 이 복음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며;너희가 영으로 난 자들임을 온 세상에 증거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함이다.”

142:5.5 (1601.5) 경청하던 무리는 여러 시간 함께 남아 예수께 질문했고, 위안을 주는 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다. 사도들도 예수의 가르침으로 담대해져서, 천국 복음을 좀 더 힘차고 확신 있게 전파하게 됐다. 예루살렘에서 가진 이 체험으로, 열두 사도는 큰 영감을 받았다. 이토록 수많은 인파와 그들이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그들은 많은 귀중한 훈계를 배웠고, 이것이 후일에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6. 니고데모와 이야기함

142:6.1 (1601.6) 어느 날 저녁, 후라비우스 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그는 부자였고 유대인 산헤드린의 나이 많은 회원이었다. 그는 이 갈릴리 사람의 교훈에 대해 소문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예수께서 성전 정원에서 가르칠 때 그의 말을 들으러 갔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러 자주 가고 싶었지만, 그의 가르침에 참여한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발견될까봐 두려워했는데, 유대인 통치자들이 이미 예수께 너무 적대감을 가져서,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누구도 예수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와 이날 저녁 어두워진 후

사적{私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안드레와 약속했었다. 대화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후라비우스의 정원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던 집안으로 나중에 들어갔다.

142:6.2 (1602.1)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맞으면서 특별한 경의를 표하지 않았으며;그와 이야기하면서 타협이나 지나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은밀한 방문객을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아무 빈정거림도 하지 않았다. 이 저명한 방문객을 대하는 모든 면에서, 예수께서는 침착했고 열심이었고 품위 있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식 대표자가 아니었으며;예수를 만나러 온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교훈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142:6.3 (1602.2) 후라비우스가 소개한 후에, 니고데모가 말했다:“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래하는 나라에 관한 당신의 교훈을 더 알기 원합니다.”

142:6.4 (1602.3)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했다:“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42:6.5

(1602.4)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럼에도 네게 단언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나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한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내는 소리는 네가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고,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렇다. 영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영을 실제로 식별할 수는 없다.”

142:6.6 (1602.5)

니고데모가 대답했다:“그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 모든 일을 모르느냐? 그래서 영의 실체들을 아는 사람은, 단지

물질 세상의 현상만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드러내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네게 하늘의 진리를 말한다면 네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만한 용기가 너에게 있느냐?”

142:6.7 (1602.6)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했다:“천국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도록 나를 개조시킬 이 영을, 어떻게 내게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네 안에 거하고 있다. 네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영의 인도를 선택함으로써 영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으로 태어난 너 자신을 그렇게 발견하고 나면, 너는 매일의 삶에서 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이다.”

142:6.8 (1602.7) 니고데모는 무척 진지했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어리둥절한 채 떠났다. 니고데모는 자아_발달, 자아_자제, 그리고 높은 경지의 도덕적

특성까지도 성취했다. 그는 세련되고 자기중심적인 동시에 이타적이었지만;현명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의지를 북돋시키듯이 신성한 아버지께 자신을 북돋~~시~~키는 방법은 알지 못했는데, 그렇게 북돋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곧 영원한 천국의 진화하는 상속자가 된다.

142:6.9 (1603.1) 그러나 니고데모는 천국을 소유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산헤드린의 동료들이 심문하지 않고 예수께 죄를 씌우는 것에 대해 미약하게나마 반대했으며;나중에 대부분의 제자들까지 주님의 마지막 수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 도망쳤을 때에도,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

7. 가족에 관한 수업

142:7.1 (1603.2)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주간에 가르치고 개인을 상대로 일하면서 바쁘게 지낸 후에, 예수께서는 다음 수요일에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쉬면서 보냈다. 그날 오후에 도마가 질문을 했고, 길고 교훈이 될 만한 대답을 얻어냈다. 도마가 말했다:“주님, 우리가 천국 대사로

출발하던 날, 우리의 개인적 생활 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군중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좀 더 완전하게 도래한 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노예를 소유해도 괜찮습니까? 당신을 믿는 사람은 가난을 구하고 재물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자비만 전파하고, 율법과 응보는 더 이상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와 열두 사도는, 도마의 질문에 관해 토의하면서, 그날 오후와 저녁 식사 후의 모든 밤 시간을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제시한다:

142:7.2 (1603.3) 예수께서는, 자신이 육신을 입고 독특한 생애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과, 열두 사도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런 증여 체험에 참여하도록 소명 받았음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했으며; 따라서 그런 동업자로서, 그들 역시 증여 체험 전체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과 책무를 분담해야만 한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심정과 사람의 바로 그 깊은 혼을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오직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넉넉히 암시했다.

142:7.3 (1603.4)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는 진화하는 체험인데, 여기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낙원에 이르는 연속되는 생애 정거장들을 통해서 진보해 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히 설명했다. 그 밤중에 그는, 천국이 발전해 가는 미래의 어떤 단계에, 자신이 영적 권능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142:7.4 (1603.5)

그 다음에 그는, "천국 관념"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대인이 천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이 도래하는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교했으므로, 그런 언어 상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서 천국 복음을 표현할 때-- 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 즉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임을 사람이 이해할 때--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하늘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의 가족에 대한 약간 긴 강론을 했는데, 두 가지 근본 생활 법칙을 다시 언급했다: 첫째 계명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 계명은 네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자녀들끼리의 상호적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 형제간 애정의 특성은 항상 이타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회에 봉사함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142:7.5 (1603.6)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근본적 특질에 관한, 그리고 이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관한, 잊지 못할 토론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가족은 다음의 일곱 가지 사실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했다:

142:7.6 (1604.1) 1. *실존에 관한 사실*. 본성이 관련되는 것과 필사자가 서로 유사한 현상은, 가족 안에서 맺어지는데:자녀는 부모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는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겨나며;인격체가 실존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자연에 내재하고, 모든 살아있는 실존에 널리 퍼져있다.

142:7.7 (1604.2)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는 자녀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것 또한 기뻐한다.

142:7.8 (1604.3)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신중하게 계획한다. 그들이 나중의 생애에서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142:7.9 (1604.4) 4.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는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녀에게 필요한, 단련, 인도, 및 교정을 마련하며, 때로는 금지조치도 마련한다.

142:7.10 (1604.5) 5. *동무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녀와 친근하고 사랑하는 교제를 갖는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 사항에 항상 열려있으며;그들의 고난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돼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둔다.

142:7.11 (1604.6) 6. *사랑과 자비*. 인정어린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하며;아버지는 자녀에 대해 양값을 하려는 기억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재판관, 적, 또는 채권자와는 다르다. 진정한 가족은, 아량, 인내, 및 용서에 기반을 둔다.

142:7.12 (1604.7)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기 원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를 끝내고 다른 세대가 시작됨을 표시할 뿐이다. 죽음은 개인의 생애를 끝낼 뿐이고, 가족을 종결시키지는 않는다.

142:7.13 (1604.8) 가정생활의 이 특색을, 이 세상 자녀인 사람과 낙원 아버지인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여러 시간 토의했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나는 자녀와 아버지의 이런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알며; 너희가 영원한 미래에 달성해야만 하는 완전한 아들신분을 나는 지금 이미 달성했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 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됐고, 그래서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고, 너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넓게 열려 있다.”

142:7.14 (1604.9)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예수께서 세례 받던 날 요한이 선언했던 것을 상기했고, 또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했다.

142:7.15 (1604.10) 예수는, 신성한 아들, 즉 만유의 아버지께서 완전히 신뢰하는 분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를

온전히 납득했다. 그는 이제 이 세상 생애를 아버지께서 완전히 만족하실 만큼 살았고, 이 육신화로 말미암아, 사람을 충분히 납득하시게 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진실한 신자가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운명지어진, 그런 완전성을 달성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냈고, 그 영역의 완전하게 된 자녀를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 제시했다.

142:7.16 (1605.1) 예수께서 여러 시간 말씀했음에도,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42:7.17 (1605.2) 예수께서 대답했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의 귀로 듣는 역량을 획득할 것이냐? 너는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과, 내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이심을 분별치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하늘의 영 가족, 즉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 최고아버지이신
그 가족의 영적 자녀로 대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 직무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를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 가족을
사용하도록,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네 정신 속에서
천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에서 분리시킬 수 없겠느냐? 내가 영의 언어로 말할
때, 단지 예를 들려는 목적으로 평범하고 문자 그대로의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왜 너는 내 의미를 육신의 언어로
해석하려고 고집 하느냐? 애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문제, 땅
같은 웅졸한 문제나 인간의 공평과 공의라는 물질 문제에
적용하기를 중지하기 바란다. 이런 현세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의 관심거리이며,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내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 받았다.
너희는 영적인 나라의 영적 대사, 곧 영이신 아버지의
특별한 대리인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이제는 영의
천국에서 성인{成人}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을 대하듯이 말해야 한단

말이냐? 너희가 영적 감지력을 갖고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나는, 육신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리고 그때에도, 내 영은 너희보다 먼저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8. 남부 유대지방에서

142:8.1 (1605.3) 4월 말쯤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예수에 대한 반대가 너무 뚜렷해져서, 주님과 사도들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일하러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5월 한 달 전부를, 이 도시들과 인근 마을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면서 보냈다. 이 여행 중에는 아무런 공중 전도를 하지 않았고, 다만 집집마다 방문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는 동안, 예수와 아브넬은 나실인의 거류지를 방문하면서 이 기간 가운데 얼마간을 엔게디에서 지냈다. 세례 요한은 이곳 출신이었고 아브넬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였다. 나실인 동우회에서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금욕적이고 괴벽스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께서 금식 및 다른 형태의 금욕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142:8.2 (1605.4)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주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항상
추측했지만, 열두 사도는 그 사실을 알았다.

142:8.3 (1605.5) 남부 유대지방에 머문 이 기간은, 수고한 결실을
얻고 휴식을 취한 시절이었으며;많은 혼이 천국으로
들어왔다. 6월 초까지는, 예수에 대한 동요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어, 주님과 사도들은
신자를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돌아갔다.

142:8.4 (1605.6) 비록 예수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6월 전부를 보냈더라도, 그들은 이 기간에 아무런 공개적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에 겿세마네라고
알려진 그늘진 공원, 즉 동산에 천막을 치고 대부분의 날을
지냈다. 이 공원은 기드론 시냇물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감람산 서쪽 비탈에 위치했다. 그들은 안식일인
주말에는 대개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과 함께
지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몇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관심 있는 여러 탐구자가 겻세마네로 나와서 그를 방문했다. 어느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만나러 왔으나, 주님의 천막 문 앞까지 왔다가 두려워서 돌아갔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다 알았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142:8.5 (1605.7) 유대인 통치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됐을 때, 그를 체포할 준비를 했지만; 예수께서 아무런 대중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지난번 동요로 겁먹은 것으로 단정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이런 사적인 방식으로 계속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예수의 교훈을 지지하고 나선 6월 말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일이 조용히 진행됐는데, 시몬은 유대인 통치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공표했다. 예수에 대해 우려하는 새로운 동요가 곧 일어났으며, 그것이 너무 강하게 싹틔었으므로, 주님은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에 있는 마을로 물러나 있기로 결정했다.

제143편 사마리아를 지나감

143:0.1 (1607.1) 서기 27년 6월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심하게 방해했으므로, 예수와 열두 사도는 천막과 개인 물건을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면서, 벤텔에서 안식일을 지냈다. 그들은 여기서, 곱나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전도했다. 아리마대와 탐나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를 방문해 달라고 예수를 초청했다. 주님과 사도들은 이 지역에서 2주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 안티파트리에서 왔다.

143:0.2 (1607.2) 남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가롯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많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다. 유다가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7월 마지막 주간에, 예수와 동역자들은 요단에서 가까운 그리스 도시 파새리와 아켈라이로 떠날 준비를 했다.

1. 아켈라이에서 전도함

143:1.1 (1607.3)

사도 일행은 8월 전반부에 그리스 도시 아켈라이와 파새리에 본부를 뒀고, 거기서 거의 이방인만으로--곧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으로--이뤄진 모임을 상대로는 처음 전도하는 체험을 가졌는데, 이 두 도시에는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로마 시민과 접촉하면서,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에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쳤고, 예수의 교훈에 대한 새로운 반대에 봉착하게 됐다. 사도들과 여러 차례 가졌던 저녁 회담 가운데 하나에서, 열두 사도가 개인적으로 수고해서 얻은 사람들과 겪은 체험담을 되풀이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런 장애물에 대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143:1.2 (1607.4)

빌립의 질문이 그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다. 빌립이 말했다:“주님, 이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그런 교훈이 오직 약한 자나 노예에게 어울린다면, 우리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방인의 종교가 강력하고 확고하고 적극적인 성품을 획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약하고 수동적인 비저항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주님,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이상적이라고 기꺼이 시인하지만,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종교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사람은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143:1.3 (1607.5) 도마, 나다니엘, 열심당 시몬, 및 마태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한 비슷한 반대에 대해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143:1.4 (1608.1) “나는, 내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의 사랑하는 성품을 전체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형제들아,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이 한 가지만 이행할 것인데, 내 교훈이 이 시대 또는 다른 세대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에 과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신성한 사랑에도 엄격한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경솔한 자식의 현명치 못한 행위를 억제하라고, 아버지에게 종종 강요한다. 아버지의

자제시키는 훈련의 현명함과 사랑의 동기를, 자녀가 반드시 납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낙원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권능으로 온갖 우주를 지배하신다. 모든 영 실체 중에서 사랑이 최고다.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계시이지만, 사랑은 최상의 관계다. 그리고 너희 동료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는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이 진보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건하게 깨닫는 것과,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사랑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143:1.5 (1608.2)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내 복음이 단지 노예와 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느냐? 내가 택한 사도들인 너희가 약한 자처럼 보이느냐? 요한이 약한 자처럼 보였느냐? 너희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봤느냐? 이 세대의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 종교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게다가, 회개하고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에,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표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곧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젊은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전파될 것이다.

143:1.6 (1608.3) “내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천국의 봉사가 단조롭고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낙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모험이요, 영원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봉사하려면, 너희와 너희 동업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감한 남자다움을 전부 요구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천국 복음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육체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戰友} 앞에서 용기를 얻어 죽는 것은 쉽지만, 너희 필사자 마음 속에 간직돼 있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 네 생명을 조용히 혼자 버리는 일에는, 더 높고 더 심오한 형태의 인간적 용기와 헌신이 요구된다.

143:1.7 (1608.4) “오늘날, 너희가 무저항의 복음을 전파하고 비폭력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 교훈을 향한 자신의

영웅적 헌신으로 인해 모든 인류를 놀라게 할 사람들, 곧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진지한 신자들의 긴 행렬에서 처음으로 자원한 자들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을-- 전파하게 될, 너희와 너희의 충성스런 계승자들이 제시하는 것 보다 더 큰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 준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 육신의 용기는 가장 낮은 형태의 용감함이다. 정신적 용감함이 더 높은 유형의 인간적 용기이지만, 심오한 영적 실체의 계몽된 신념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충성이, 가장 높고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하나님을_아는 사람의 영웅적 자질을 구성한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하나님을_아는 사람이며;진정으로 사람의 아들의 개인 동역자다."

143:1.8 (1608.5) 이것이 그 경우에 예수께서 말씀했던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연설의 서두였고, 그는 계속해서 이 발표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고 예를 들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던 가장 열렬한 강연 가운데 하나였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명백하게 강한 느낌을 갖고 말씀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것은 그가 깊은 감정과 함께 눈에

뜨는 열성으로 말씀했던,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143:1.9 (1609.1) 사도들의 공중 전도와 개인 사역에서 결과가 즉시 나타났는데;바로 그날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용기로 지배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열두 사도는 천국의 새로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기쁨을 계속 습득했다. 이날 이후로 계속하여, 그들은 주님의 다채로운 가르침 중에서 부정적 효력과 수동적 금지명령을 전파하는 일에 그렇게 많이 휩쓸리지는 않았다.

2. 자아_정복에 대한 수업

143:2.1 (1609.2) 주님은 인간의 자아_통제를 완성시킨 표본이었다. 그는 자신이 욕먹을 때에도 욕하지 않았으며;자신이 고통당할 때, 자기에게 고통 주는 자에게 아무 위협도 하지 않았으며;적들이 자기를 고발하면,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에 자신을 맡겼다.

143:2.2 (1609.3) 어느 날 저녁 회담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물었다:"주님,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금욕을 실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르침처럼 자아_통제를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까? 당신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요한은 진실로 선조의 빛과 율법에 의거해서 의의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것은 자아_반성과 금욕의 종교였다. 그러나 나는 자아_망각과 자아_통제라는 새 메시지를 갖고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신 대로, 너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143:2,3 (1609.4)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성을 뺀 자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크다. 자아_정복은 사람의 도덕적 본성의 척도이며, 그의 영적 발전의 지표{指標}다. 옛 규율에서는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너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고 기뻐하라고 배운다.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옛것은 지나갔으며;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속박으로부터 자유로, 죽음으로부터 영생{永生}으로 옮겨갔음을 세상에 확신시키게 될 것이다.

143:2.4 (1609.5)

“옛 방법을 따르면, 참고, 복종하고, 삶의 규정들에 순응하기를 너희는 추구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따르면, 먼저 진리의 영이 너희를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너희 정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너희 안에 있는 혼을 강건하게 하며, 그리하여 우아하고 마음에 들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기쁘게 실행하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잊지 마라--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고 귀중한 약속에 대한 너의 개인 신앙이, 네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보증한다. 그렇게 해서 너는, 네 신앙으로 인해, 그리고 네 영이 바뀔수록 인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그의 영이 실제로 네 안에 거하신다. 영이 네 안에 거한다면, 너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고 해방된 영의 자녀다. 영의 새로운 법이, 자아를_속박하는 두려움과 금욕의 노예 신분이라는 옛 율법 대신, 자아_정복으로 말미암는 해방을 너희에게 준다.

143:2.5 (1609.6)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너희 행동을 악한 세력의 영향 탓으로 돌리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실제로는 너희 자신의 선천적 경향들로 인해 길을 잃었을 뿐이다. 오래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에게,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기만적이고 지독하게 사악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아_기만에 빠지고 그리하여 어리석은 두려움, 여러 가지 욕망, 쾌락에 사로잡힘, 악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143:2.6 (1610.1) "스스로_의로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영{靈}이 갱생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두려움과 육신의 금욕이 아니라,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은혜로 교제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영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는, 늘 언제나 육신의 욕망에 속하는 모든 것과 자아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구원받았음을 알 때,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평화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항상_진보하는 자녀로서, 영원히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게 돼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완전성을 추구하는 동안, 스스로 정신과 육체의 모든 악을 씻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고귀한 특권이다.

143:2.7 (1610.2) "너희의 아들신분은 신앙에 근거하며, 너희는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너희의 기쁨은 신성한

말씀을 신뢰함에서 나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실체를 의심하도록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참되고 진정한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자아를 정복하는 비결은 내주하는 영에 대한 너희의 신앙에 달려 있는데, 그 영은 언제나 사랑으로 일한다. 구원하는 이 신앙조차, 너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며;그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살아있는 신앙의 자녀라면, 너희는 더 이상 자아에 묶인_노예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다스리는 승리한 주인이요, 하나님의 해방된 자녀다.

143:2.8 (1610.3) “애들아,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면, 너희는 금욕 생활을 자아_의식하는 속박에서,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 대한 경계심에서 영원히 구출되며, 즐거운 영의 나라로 옮겨지고,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열매를 맺게 되며;또한 영의 열매는, 즐길만하고 고상하게 하는 자아_통제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의 핵심,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필사자가 도달하는 최고봉이다--곧 진정한 자아_정복이다.”

3. 기분전환과 휴식

이 무렵에, 신경과민과 감정적 긴장 상태가, 사도들 및 그 직속 제자인 동역자들 가운데 발생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것에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방인 및 사마리아인과의 접촉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 외에도, 최근의 예수의 발언이 그들의 어지러운 정신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안드레는 거의 정신 나간 상태였으며;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자신의 문제와 난처한 일을 주님께 가져갔다. 사도들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안드레야, 그들이 그런 분류에 그렇게 연루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의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과 그 일을 논의할 수 없다. 나는 네가 요청한 일을 할 수 없지만--곧 나는 이런 개인적인 사교상 분류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3일간의 휴식과 기분 전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모두 나와 함께 사르타바 산으로 올라가자고 전해라, 거기서 나는 하루나 이틀 쉬기 원한다.

“지금 가서 11명의 형제 각자에게 사적{私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주님이 휴식을 취하고 쉬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잠시 떠나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영{靈}의 많은 괴로움과 정신의 압박감을 체험했으므로, 이 휴가 동안에는, 우리 시련과 걱정거리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이 문제에 네가 협조할 것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형제들 각자에게 접근하라.” 그리고 안드레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

이것은 그들 각자의 체험에서 놀라운 기회였으며; 그들은 산에 올라갔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했다. 전체 여행 기간에, 그들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기 주위에 앉히고 말씀했다: “형제들아, 휴식의 소중함과 기분전환의 효능에 대해 너희 모두 알아야만 한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은, 그것을 잠시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휴식이나 경배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신선한 상태로 돌아가면, 너희는 더 단호한 마음은 물론이고, 더 분명해진 머리와 안정된 손으로 너희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너희가 심신{心身}을 쉬게 하는 동안에 그 문제의 크기와 비중이 매우 줄어든 것을 여러 번 발견할 것이다.”

143:3.4 (1611.2) 예수께서는 다음 날 열두 사도 각자에게 토의할 제목을 나눠줬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종교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문제를 토의하면서 그날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정오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리 내어-- 감사드리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그가 그런 형식을 무시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다.

143:3.5 (1611.3)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안드레의 머리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지나칠 정도로 마음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야고보의 혼은 비통하게 어수선했다. 이방인 가운데 머물고 있었으므로, 마태는 기금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베드로는 과로했고, 최근에는 보통 때보다 더 번덕이 심했다. 유다는 주기적 신경과민과 이기심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시몬은 자신의 애국심과, 사람을 형제관계로 사랑하는 것을 절충하려고 노력하면서, 보통 이상으로 혼란스러워했다. 빌립은 일이 진행돼 나가는 방식에 점점 더 어찌할 바 몰랐다. 나다니엘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된 이래 유머가

줄었고, 도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쌍둥이 형제만이 정상이었고 평온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떻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들 모두 매우 난처했다.

143:3.6 (1611.4) 셋째 날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야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인간적인 많은 난처한 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힘든 걱정거리가 과장된 두려움의 결과이고, 우려가 확대돼서 생겨난 결과라는 중대한 발견을 했다. 그들은 그런 모든 난처한 일은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배웠으며; 그런 문제들에서 떠나감으로써 그것들이 저절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뒀다.

143:3.7 (1611.5) 이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 그들과 요한의 추종자들 사이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상적 삶의 의무에서 떠나 3일간 휴가를 가진 결과로, 열두 사도 가운데 다수는 모든 사람의 정신 상태가 바뀐 것을 봤고, 신경과민에서 해방됐음을 알게 되자 진정으로 기뻐했다. 인간의 접촉이 단조로울 때, 분류를 크게 부풀리고 어려움을 확대시키는 위험이 항상 있다.

143:3.8 (1611.6) 아켈라이와 파새리라는 두 그리스 도시에서는 별로 많지 않은 이방인이 복음을 믿게 되지 않았지만, 열두 사도는 순전히 이방인만 상대로 해서는 처음 일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했다. 그 달 중순경 어느 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했다:“사마리아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우물 근처 수가라는 성읍을 향해 즉시 떠났다.

4.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143:4.1 (1612.1) 600년이 넘도록, 유대지방의 유대인이, 그리고 나중에는 갈릴리의 유대인 역시, 사마리아인과 반목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악감정은 이렇게 연유됐다:기원전 700년경에, 앗수르 왕 사르곤이 중부{中部}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 그 자리를 거의 비슷한 숫자의 큐타이트, 세파바이트, 및 하마타이트 후손으로 채웠다. 더 나아가 그 뒤에는, 아쉬르바니팔이 다른 거류민을 보내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143:4,2 (1612,2)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종교적 적개심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는 날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막으려고 했다. 나중에 그들은, 알렉산더 군대를 호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대인을 화나게 했다. 그들의 우호에 보답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사마리아인에게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많은 부분을 본떠서, 야훼와 자기 부족 신들에게 경배 드렸고 제물을 바쳤다. 적어도 그들은 마카비 시대까지도 이 경배를 계속했는데,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파괴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도 빌립은 사마리아인을 위해 일하면서 이 옛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많은 모임을 가졌다.

143:4,3 (1612,3)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정은 유서_깊고 역사적이었으며;그들은 알렉산더 시절 이후로, 서로를 점점 더 상대하지 않았다. 열두 사도는, 그리스 또는 다른 이방 도시인 데가볼리나 시리아에서 전도하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자"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엄중히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 년 넘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일종의 개인적 충성심을 키웠는데, 이것은 그의 교훈을 믿는 신앙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까지도 뛰어넘었다.

5. 수가의 여자

143:5.1 (1612.4) 주님과 열두 사도가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음식물과 천막을 수가에서 가져오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빌립이 다른 사도들을 데리고 간 동안, 여행으로 지친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이 근처에서 당분간 머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와 함께 남아 있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권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 사마리아인은 친절할 것이며, 우리 형제 유대인만이 우리를 해치려고 꾀한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때는, 이 여름철 저녁 거의 여섯 시쯤이었다.

143:5.2 (1612.5) 야곱의 우물은 수가의 우물들보다 광물질이 적었으므로, 식수로 매우 소중히 여겨졌다. 예수께서는 목이 말랐으나, 우물에서 물을 뜰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수가의 한 여자가 물동이와 함께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말씀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와 모습과 복장을 보고 그가 유대인임을 알았으며, 그의 역양에서 갈릴리 유대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이름은 날다였고, 미모의 여자였다. 그녀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면서 물을 청하는 것에 매우 놀랐는데, 당시에 자존감_있는 남자가 공개적으로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온당히 여겨지지 않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욱 그랬다. 따라서 날다가 예수께 물었다:“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내가 네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네가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너는 내게 생수{生水} 한 모금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그러나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길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가축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143:5.3 (1613.1) 예수께서 대답했다:“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원기 회복의 우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이제부터는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토록 훌륭한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쁨이 될 것입니다.”

143:5.4 (1613.2) 날다는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주님의 얼굴에서 고결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친절함을 상투적인 치근덕거림으로 오해했고, 그의 말투를 자기에게 접근하려는 태도로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덕적으로 방종한 여자였으므로, 공공연하게 유혹해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예수께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여자여, 가서 네 남편을 찾아 여기로 데려오라”고 말씀했다. 이 명령이 날다의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의 친절을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으며; 그의 말투를 오해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으며; 자신이 어떤 비범한 사람 앞에 서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적당한 대답을 마음 속에서 찾지 못하여 크게 당황하면서 말했다:“나는 남편이 없으므로 남편을 불러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네 말이 맞다. 네가 한때는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제시했던 생수를 구한다면, 네게 더 좋을 것이다.”

143:5.5 (1613.3) 이때 날다는 정신이 맑아지고 제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부도덕한 여자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버림받았고, 끔찍한 곤경에 빠져서, 어떤 그리스인의 아내가 되어 그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날다는 이제 그토록 생각 없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에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꼈고, 아주 뉘우치면서 주님께 말했다:“내 주여, 당신에게 한 내 말투를 회개하는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거룩한 사람 또는 선지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직접 개인적인 도움을 주님께 막 구하려는 순간, 이전에 그리고 그 이래로 많은 사람이 행했던 것을--곧 신학과 철학적 토론으로 바꿈으로써 개인의 구원 문제를 비켜 가는 것을-- 그녀도 행했다.

그녀는 대화를 자신의 필요성으로부터 신학 논쟁으로 재빨리 돌렸다. 그녀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면서 말을 계속했다: “우리 선조는 이 산에서 경배 드렸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어느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올바른 장소입니까?”

143:5.6 (1613.4)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혼이 창조주와 직접 면밀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 함을 감지했지만, 그녀의 혼에 좀 더 나은 삶의 길을 알고 싶어 하는 바램이 있는 것도 한 몫을 했다. 결국, 생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날다의 마음 속에 있었으므로, 그는 참을성 있게 그녀를 대하면서 말씀했다: “여자여, 내가 말하겠는데,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드릴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적 신{神}의 종교와 이방인 철학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한다. 유대인은 적어도 경배 드리는 대상을 알고 있으며;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야훼에게만 경배를 집중시킴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했다. 그러나 진지한 모든 경배자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지금도 그런 때라고--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어야만 할 것인데,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경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에게 경배 드리는 자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경배해야만 한다. 너의 구원은, 다른 자들이 어떻게 혹은 어디서 경배 드리는지를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네게 주는 이 생수를 너 자신의 마음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온다.”

143:5.7 (1614.1) 그러나 날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개인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혼의 처지에 대한 당황스런 질문을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피하려 했다. 그녀는 다시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 질문했다:“예, 선생님,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구원주라고 칭할 것이라는 요한의 설교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그러자 예수께서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으로 말씀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143:5.8 (1614.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세상에 이미 설립한 아들신분에 대해 발표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이고 숨김없는 선언이었으며;그것도 한 여자, 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의심스런 성품의 여자에게 선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신성한 눈으로 볼 때, 그 여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죄짓는 것보다 더 많이 죄에 빠졌으며, 지금은 구원을 바라고 그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원하는 인간 혼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다.

143:5.9 (1614.3) 날다가 더 나은 것들과 더 고상한 삶의 방법에 대한 진실하고 개인적인 갈망을 말하려고 할 때, 즉 마음 속의 진정한 바람을 말할 준비가 됐을 때, 열두 사도가 수가에서 돌아왔으며, 예수께서 이 여자와--곧 이 사마리아 여자와 단 둘이서-- 친근하게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물건을 재빨리 내려놓고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는 못한 채 옆으로 다가갔을 때, 예수께서 날다에게 말씀했다:“여자여, 네 길을 가거라;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살도록 해라. 네가 생수를 받았으니, 새로운 기쁨이 네 혼 속에서 솟아오를 것이며, 너는 지고자의 딸이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사도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도망갔다.

143:5.10 (1614.4)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야곱의 우물로 빨리 가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개종시키는 분 아니겠습니까?” 해 지기 전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야곱의 우물에 모였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생수, 곧 내주하는 영의 선물에 대해 더 말씀했다.

143:5.11 (1614.5) 사도들은 예수께서 여자들과, 그것도 미심쩍은 성품의 여자들, 심지어 부도덕한 여자들과도 기꺼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 계속 충격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여자들, 즉 소위 부도덕한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삶을 위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19세기 이후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교훈을 파악하기를 꺼려하는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리스도교조차, 그의 생애라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확립돼 왔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슬픈 죽음 보다, 그의 행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에 더 관심 뒀어야 했다.

143:5.12 (1614.6) 날다는 다음 날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했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 말하지 않았고, 예수께서도 열두 사도에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

143:5.13 (1615.1) 날다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가 일찍이 행한 모든 것”을 말씀했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은 날다와 나눈 이 교제에 대해 예수께 여러 번 물어보려고 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녀 자신에 대해 한 가지 사실만 말씀했지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녀의 정신 속에는 자신의 변화무쌍한 인생이 잠시 주마등처럼 떠올랐는데, 자신의 과거 인생에 대한 이런 자기_계시를, 주님의 표정과 말씀에 관련시켰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그녀를 버린 이래 네 명의 다른 남자와 동거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모든 과거와 함께 이것이 정신 속에 선명하게 나타났으므로, 나중에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모든 행적을 정말로 말씀했다고 요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6. 사마리아의 부흥

예수를 만나도록 날다가 무리를 수가에서 이끌어내던 그 저녁에, 열두 사도가 음식을 가지고 막 돌아 왔으며, 그들은 하루 종일 굶어 시장했으므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대신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어두워질 것을 알았으며;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기로 작정했다. 무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무엇을 좀 드시라고 안드레가 설득하려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사도들은 이것을 듣고 자기들끼리 말했다:“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 여자가 마실 것뿐 아니라 음식도 드렸는가?” 예수께서는 그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열두 사도를 돌아보며 말씀했다:“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추수하기 전까지 이러 저러한 시간이 남았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사마리아 도시에서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라;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밭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수확하는 자는 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는데;이는 그 결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고 있는데;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려 한다.” 그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전도에 관련시켜서 말씀했다.

143:6.2 (1615.3) 예수와 사도들은 수가로 들어갔고, 그리심산에 야영지를 세우기 전까지 이틀 동안 전도했다. 그리고 수가의 거주민 가운데 다수가 복음을 믿었고 세례받기를 원했으나, 예수의 사도들은 아직 세례를 주지 않았다.

143:6.3 (1615.4) 그리심산에서 야영하던 첫 날 밤에, 사도들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예수께서 꾸중하리라고 예상했으나,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 되는 실체들”에 대해,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그들에게 했다. 어떤 종교에서든지,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내버려두고, 사람의 신학에서 진리 대신에 사실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기가 매우 쉽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중의 그리스도교에서 바로 그 핵심을

이루게 됐지만;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서 연유될만한 종교의 중심 진리는 아니다.

143:6.4 (1615.5) 그리심산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는 이랬다:그는 자기(예수)가 형제이자_친구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이자_친구로 여기기 원했다. 그는, 이 신성한 관계들을 주목하라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진리임과 똑같이, 사랑이 세상에서--곧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관계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했다.

143:6.5 (1616.1)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마리아인에게 선포했는데, 그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이었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사마리아 중심부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143:6.6 (1616.2) 예수와 열두 사도는 8월말까지 그리심산에서 야영했다. 그들은 낮에는 도시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전파했고 밤에는 야영지에서 지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읍들에서 한 일은, 많은 혼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으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에 대한 비참한 처형이 일어남으로써

사도들이 나중에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된 뒤에, 이 지역에서 빌립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도록 길을 예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7. 기도와 경배에 대한 교훈

143:7.1 (1616.3) 예수께서는 그리심산의 저녁 회담들에서 많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쳤는데, 특히 다음을 강조했다:

143:7.2 (1616.4) 참 종교는, 창조주와 자아_의식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생기는 개별 혼{魂}의 행동이며;조직된 종교는, 개별 종교인들의 경배를 *사회화*시키려는, 사람의 시도다.

143:7.3 (1616.5) 경배는--곧 영적 세계에 대한 묵상은-- 물질 실체와 접촉하는 봉사와 번갈아 이뤄져야 한다. 일과 오락을 번갈아 해야만 하며;종교는 유머로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다. 심오한 철학은 운율 있는 시로 완화돼야만 한다. 삶의 긴장--곧 인격체의 시간적 긴장감--은 경배가 주는 휴식으로 풀어야만 할 것이다. 우주에서 인격체가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생기는 불안감은,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묵상으로, 그리고 지존자에 대한 시도된 깨달음으로 해독{解毒}돼야만 할 것이다.

143:7.4 (1616.6) 기도는 사람에게 생각을 덜 하게 하는 반면, 더 깨닫도록 고안됐으며;지식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찰력을 확장하도록 고안됐다.

143:7.5 (1616.7) 경배는 앞날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영적 의미를 현재 상태의 삶에 반영하도록 의도됐다. 기도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경배는 신성하게 창조적이다.

143:7.6 (1616.8) 경배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분에게 주목하는 기법이다. 경배는, 물질 우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정도와, 혼이 모든 창조물의 영적 실체들에게 동시적이고 안전하게 소속된 정도를 재는 척도다.

143:7.7 (1616.9) 기도는 자아를 일깨우며--탁월한 사고이며;경배는 자아를 잊게한다--초월적 사고{思考}다. 경배는 힘들지 않는 집중이며, 참되고 이상적인 혼의 휴식이며, 편안함을 주는 일종의 영적 노력이다.

143:7.8 (1616.10) 경배는, 한 부분이 전체와;유한자가 무한자와;자녀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행위이며;시간이

영원과 발걸음을 맞추는 행위다. 경배는, 자녀가 신성한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행위요, 인간의 혼과 영이, 신선한, 창조적인, 우애 있는, 그리고 열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143:7.9 (1616.11) 사도들은 야영지에서 그의 교훈 가운데 몇 가지밖에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계들은 그의 교훈을 파악했고, 이 세상의 다른 세대들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제144편 길보아와 데가볼리에서

144:0.1 (1617.1) 9월과 10월은 길보아산 비탈에 있는 한적한 야영지에 은거하면서 지냈다. 예수께서는 9월 한 달을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따로 지내면서 천국의 진리에 입각해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144:0.2 (1617.2) 예수와 사도들이 이때 사마리아와 데가볼리의 경계지역에 은거하면서 지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매우 커졌으며;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과 예수께서 어떤 면에서든지 서로 관련돼 있다고 계속 의심하면서, 요한을 여전히 감옥에 잡아둔 채, 석방하거나 처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유대지방 또는 갈릴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세 번째 이유는:요한의 측근 제자들과 예수의 사도들 간에 싹튼 긴장감이 점차 심해졌는데, 신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나빠졌다.

144:0.3 (1617.3) 예수께서는,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예비 업무 기간이 거의 끝났고, 이어지는 진행으로, 자신의 지상 생애에서 완벽하고 최종적인 분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이행업무의 개시가 어떤 면에서든지 세례 요한을 시험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한동안 은거하면서, 요한이 처형되든지 아니면 석방돼서 공동으로 수고하려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을 때까지, 사도들을 재훈련시키면서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했다.

1. 길보아에서 야영함

144:1.1 (1617.4)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두 사도는 예수께 더 헌신하고, 천국 업무에 점점 더 열중하게 됐다. 그들의 헌신은 대부분 개인적 충성심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다방면의 가르침을 파악하지 못했으며;예수의 본성 또는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144:1.2 (1617.5) 예수께서는 자신들이 세 가지 이유로 은거하고 있음을 사도들에게 분명히 알렸다:

144:1.3 (1617.6) 1. 천국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144:1.4 (1617.7) 2. 유대지방과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반대가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

144:1.5 (1617.8) 3. 세레 요한의 숙명을 기다리기 위해.

144:1.6 (1617.9) 길보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의 초기 생애와 헤르몬 산에서의 체험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많이 이야기했으며;또한 자신이 세레 받은 직후에, 언덕에서 40일 동안 일어난 것 가운데 일부를 알려줬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체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직접 당부했다.

144:1.7 (1618.1) 그들은 이 9월에 몇 주 동안, 휴식하고 방문했으며,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을 불러서 봉사하게 한

이래 그들의 체험에 대해 회상했고, 그때까지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조화시키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들은 모두 이것이 오래 휴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 챘다. 그들은 유대지방 또는 갈릴리에서 곧 있게 될 공중 사역이, 도래하는 나라에 대한 최종 선포의 시작임을 깨달았지만, 천국이 도래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관념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했다. 요한과 안드레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했고;베드로와 야고보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믿었으며;나다니엘과 도마는 자신이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으며;마태, 빌립, 열심당 시몬은 확신 없이 혼동했으며;쌍둥이 형제는 행복에 겨워서 논쟁에 무관심했으며;가룟 유다는 모호한 태도로 침묵했다.

144:1.8 (1618.2) 예수께서는 이 시기의 대부분을 야영지 가까이에 있는 산에서 홀로 지냈다. 이따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으나, 홀로 기도하거나 교류하기 위해 물러나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베레아 언덕에서 40일을 지낸 후에, 아버지와 교류한 이 시절을 기도라고 하기에는 적당치 않고, 또한 예수께서 경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도 모순되지만,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교류한 시절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체로 정확하다.

144:1.9 (1618.3) 9월 한 달 동안 토의하는 중심 주제는 기도와 경배였다. 그들이 경배에 대한 토의를 여러 날 한 후에:“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도마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기억에 남은만한 강론을 했다.

144:1.10 (1618.4) 요한은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도래하는 나라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요한의 기도 형식을 금지한 적은 없었지만, 사도들은 주님이 그런 고정되고 틀에 박힌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관습을 완전히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일찍부터 감지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허락할만한 간구 형식을 알고 싶어 했다. 주로 일반인들을 위한 간단한 기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때 도마의 간청에 응답하면서, 함축성 있는 기도 형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로 허락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체류하던 셋째 주 어느 날 오후에 이것을
훈계했다.

2. 기도에 관한 강론

144:2.1 (1618.5) “요한은 진실로 너희에게 간단한 기도 형식을 가르쳤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영이 우리 마음을 영원히 정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너희가 군중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가르쳤다. 기도하는 너희가 자기 혼의 표현으로서 그런 판에 박힌 형식적 기원문을 사용하게 되기를, 그는 의도하지 않았다.

144:2.2 (1618.6) “기도는 영{靈}을 향한 혼{魂}의 태도인, 완전히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며; 기도는 아들신분으로서 하는 교류 및 친교의 표현이어야 한다. 기도는, 영이 표현했을 때, 협동하는 영적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상적인 기도는, 지성적 경배로 이끄는 영적 교류의 한 형태다. 참되게 기도함은, 너희의 이상{理想}을 달성키 위해 하늘로 향하는 진지한 태도다.

“기도는 혼의 호흡이며, 아버지 뜻을 확신하려고 계속 시도하도록 너희를 이끌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가 이웃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친구여,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게는 그들에게 차려낼 것이 하나도 없으니, 빵 세 덩이를 내게 빌려 달라’고 했지만;그가:‘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누웠으니;일어나 네게 빵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면, 너는 네 친구가 배고프다는 것과, 그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계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비록 네 친구 됨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네게 빵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의 끈질긴 요청으로 인해 그가 일어나서 네게 필요한 만큼의 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끈질김이 필사적 사람에게서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너희가 영으로 끈질기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꺼이 주시는 손에서 생명의 빵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찾는 자가 발견하고;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144:2.4 (1619.2) “만일 자식이 미련하게 요청했을 때, 자식의 잘못된 간청 내용 대신 부모의 지혜대로 주기를 주저할 아버지가 너희 중에 있겠느냐? 자녀에게 빵이 필요한데, 그가 미련하게 돌덩이를 원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돌덩이를 주겠느냐? 너희 자녀에게 생선이 필요하다면, 그물에 생선과 함께 물뱀이 우연히 걸려들었고, 아이가 바보스럽게 그 뱀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 뱀을 아이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너희도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고, 너희 자녀에게 유익하고 알맞은 선물을 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요청하는 자들에게 영{靈}과 추가적인 많은 복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만 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

144:2.5 (1619.3) “어느 사악한 도시에 살던 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다.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가 한동안 듣지 않았지만, 곧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계속 찾아와서 나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그녀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너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며, 너희의 간청이, 위에 계신 공정하고 의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무튼, 너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의 태도를 바꾸고, 혼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144:2.6 (1619.4)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신앙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참된 신앙은, 혼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에 우연히 가로놓일 수 있는, 산더미 같은 물질적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다.”

3. 믿는 자의 기도

144:3.1 (1619.5) 그러나 사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으며;새로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범 기도문을 예수께서 주시기를 원했다.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 세베대가 말했다:“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에게 자주 간청하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 형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144:3.2 (1619.6) 야고보가 말을 끝내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가 여전히 그런 기도문을 원한다면, 내가 나사렛에서 내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려 주겠다:

144:3.3 (1620.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44:3.4 (1620.2)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144:3.5 (1620.3)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당신의 뜻이

144:3.6 (1620.4)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44:3.7 (1620.5)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144:3.8 (1620.6) 우리의 혼을 생명의 물로 새롭게 하소서.

144:3.9 (1620.7)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144:3.10 (1620.8) 우리의 모든 빛을 용서해 주소서.

144:3.11 (1620.9)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며,

144:3.12 (1620.10) 당신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144:3.13 (1620.11) 신자들을 위한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사도들이 예수께 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추종자들에게 여러 기도문을 가르쳤고, 모든 위대한 선생도 학생들을 위한 기도문을 고안했다. 유대인 종교 교사들은, 회당에서나 길거리 모퉁이에서도 낭송하는, 스물다섯 내지 서른 개의 고정된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특히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것을 혐오했다. 열두 사도는 이때까지 그가 기도하는 것을 겨우 몇 번 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가 온 밤을 기도나 경배로 지새우는 것을 보으며, 그가 간구하는 방법이나 형식을 무척 알고 싶어 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군중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정말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144:3.14 (1620.12)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언제나 은밀히 기도하라고;기도에 몰두할 때, 훌쩍 떠나 홀로 조용한 자연

환경 속으로 가거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가르쳤다.

144:3.15 (1620.13)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아버지께로 상승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소위 이 주의 기도문을 마치는 것이 많은 신자의 관습이 됐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는 복사하는 과정에서 두 줄이 빠지게 됐고:"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구절이 이 기도문에 더해졌다.

144:3.16 (1620.14) 예수께서는 나사렛 집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공동체 형식의 기도문을 사도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구를 가르친 적이 없었으며, 오직 집단, 가족, 또는 공동체가 드리는 간구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자청해서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었다.

144:3.17 (1620.15) 예수께서는 효과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144:3.18 (1620.16) 1. 이타적{利他的} --자기만을 위하지 않음.

144:3.19 (1620.17) 2. 믿음 --신앙에 의거함.

144:3.20 (1620.18) 3. 진지함 --마음이 정직함.

144:3.21 (1620.19) 4. 지성적 --빛에 따라서.

144:3.22 (1620.20) 5. 신뢰성 --아버지의 온전히_지혜로우신 뜻에
복종함.

144:3.23 (1620.21) 예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은 주로 제자들을 위해서, 특히 열두 사도를
위해서였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낙원 아버지와 공감하고
교류하는 경배에 많이 몰두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

4.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

144:4.1 (1620.22) 기도에 관한 강론이 있는 다음에 여러 날 동안,
사도들은 이런 가장_중요하고 경건한 습관에 관해 주님께
계속 질문했다. 이 기간에, 기도와 경배에 관해 사도들에게
준 예수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현대 용어로 요약되고 다시
서술될 수 있다:

144:4.2 (1621.1) 어떤 간구든지 진지하게 간절히 반복하는 것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진지한 표현이고 신앙으로
표현됐을 때에는, 아무리 경솔하든지, 직접 응답이

불가능하든지 상관없이, 영적 감수성을 위한 혼의 수용력을 확장시키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144:4.3 (1620.10) 기도할 때마다, 아들신분이 선물임을 기억해라. 어떤 자녀든지, 아들이나 딸의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 자녀는 부모의 뜻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으로 은혜를 입고 영의 새 생명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하듯이 하늘 나라를--곧 신성한 아들신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의로움은--곧 점진적 성품 발달은-- 너희가 노력으로 얻지만, 아들신분은 은혜로 신앙을 통해서 받는다.

144:4.4 (1620.11) 예수의 혼이 온갖 우주의 최고 통치자들과 초월교류를 이루도록, 기도가 그를 이끌어 올렸다. 기도가 이 세상 필사자를 참된 경배의 교류로 이끌어 올려줄 것이다. 영적 감수성을 위한 혼의 수용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福}의 양을 결정하는데, 그 복은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 있고, 그 복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의식{意識}하여 깨달을 수 있다.

144:4.5 (1620.12) 기도는,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경배는 매일의 일상적 삶, 즉 물질 실존의 단조로운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기법이다. 기도는 영성화 된 자아_실현에 접근하고, 지적 및 종교적으로 달성하는 개성에 접근하는 통로다.

144:4.6 (1620.13) 기도는 해로운 자기반성에 대한 해독제다.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혼에게 그런 유익한 사역을 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동료들 위해 드리는 기도의 유익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이용했다. 주님은 대개 단수{單數}가 아닌 복수{複數}로 기도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생애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칠 때에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곤 했다.

144:4.7 (1620.14) 기도는, 인류의 여러 종족이 세운 물질 문명 한가운데서 영 생명체가 하는 호흡이다. 경배는, 쾌락을_추구하는 필사자 세대를 구원한다.

144:4.8 (1620.15) 혼의 영적 건전지를 재충전하는 것에 기도가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경배는 만유의 아버지의 무한한 영이 보내는 우주 방송을 수신{受信}하려고, 혼 속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44:4.9 (1620.16) 기도는, 자녀가 영 아버지를 진지하게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며;인간의 뜻을 버리고 신성한 뜻을 취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기도는, 현재 상태를 고쳐서 장차 반드시 돼야만 하는 상태로 만들려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다.

144:4.10 (1620.17) 예수가 길게 밤을 지새우는 경우에 그토록 자주 그와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이 기도를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의 모든 기도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곧 소리 없이-- 했다.

144:4.11 (1620.18) 모든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와 경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납득했다.

5. 다른 형식의 기도

144:5.1 (1621.11)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때때로, 여러 개의 추가적 기도 형식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은 단지 다른 일을 설명하는 방편으로 주어졌고, 이 "비유적인 기도"를 군중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분부했다. 그것들 가운데 다수는 다른 인간거주 행성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열두 사도에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기도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44:5.2 (1622.1) 우주 영역들을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여,

144:5.3 (1622.2)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당신의 성품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144:5.4 (1622.3) 당신의 현존이 우리를 감싸시고,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144:5.5 (1622.4) 그것이 위에서 완전하게 나타난 것처럼, 불완전하게나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144:5.6 (1622.5) 우리에게 오늘 날 활기차게 하는 빛의 힘을 주시고,

144:5.7 (1622.6)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는 악의 길로 빠져들지 말게 하시며,

144:5.8 (1622.7) 무궁한 권세인 영광의 거주지는 당신의 것이오니,

144:5.9 (1622.8)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의 무한한 사랑의 영원한 선물을 주소서.

144:5.10 (1622.9) 과연 그러하오며, 영원토록 참되니이다.

144:5.11 (1622.10)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이시여,

144:5.12 (1622.11) 우리에게 당신의 본성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주소서.

144:5.13 (1622.12)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고,

144:5.14 (1622.13) 우리의 영원한 성취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144:5.15 (1622.14) 당신이 조정하고 통제하시는 영을 우리 안에
살고 거하게 하셔서

144:5.16 (1622.15) 천사들이 빛으로 당신의 명령을 행하듯이,
우리도 이 구체에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144:5.17 (1622.16) 오늘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진보하도록 우리를
불들어 주소서.

144:5.18 (1622.17) 우리를 타성과 악과 모든 사악한 범죄로부터
구출하소서.

144:5.19 (1622.18) 우리가 우리 동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일 때
우리에게 참으소서.

144:5.20 (1622.19) 우리 피조물의 마음 속에 당신의 자비의 영을
보내 주소서.

144:5.21 (1622.20) 불확실한 인생의 미로를 지나갈 때, 당신의
손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며,

144:5.22 (1622.21) 우리에게 종말이 올 때, 충실한 우리의 영을
당신의 품속으로 받아 주소서.

144:5.23 (1622.22) 과연 그러하오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4:5.24 (1622.23) 우리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144:5.25 (1622.24) 오늘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소서.

144:5.26 (1622.25)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화시키소서.

144:5.27 (1622.26) 우리를 영원한 진보의 길로 항상 인도하소서.

144:5.28 (1622.27) 권능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시며

144:5.29 (1622.28) 당신의 무한한 에너지로 생기를 주소서.

144:5.30 (1622.29) 스랍 무리의 현존과 안내에 대해,

144:5.31 (1622.30) 신성한 의식{意識}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소서.

144:5.32 (1622.31) 빛의 길로 우리를 항상 끌어 올려 인도하시고;

144:5.33 (1622.32) 큰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온전히 변호해 주소서.

144:5.34 (1622.33)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
주시고

144:5.35 (1622.34)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끝없는 봉사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144:5.36 (1622.35) 신비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44:5.37 (1622.36)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소서.

144:5.38 (1622.37)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144:5.39 (1622.38)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 주소서.

144:5.40 (1622.39) 우리에게 영원한 진보의 경로를 보여주시고

144:5.41 (1622.40)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144:5.42 (1622.41) 우리 안에 당신의 신성한 왕권을 세우시고

144:5.43 (1622.42) 그리하여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소서.

144:5.44 (1622.43)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통로 속으로
빛나가게 하지 마시고;

144:5.45 (1622.44) 생명의 물 옆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144:5.46 (1622.45)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144:5.47 (1622.46)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 닮게 만드심으로
즐거워하소서.

144:5.48 (1623.1) 종말에 가서는, 신성한 아들을 인해

144:5.49 (1623.2) 영원한 품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144:5.50 (1623.3) 과연 그러하오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144:5.51 (1623.4) 하나가 되어 부모가 되시는 영광의 아버지와 어머니여,

144:5.52 (1623.5) 당신의 신성한 본성에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소서.

144:5.53 (1623.6) 당신의 신성한 영의 선물과 증여에 의해,

144:5.54 (1623.7) 당신 자신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셔서,

144:5.55 (1623.8) 당신이 높은 곳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나타내시듯이

144:5.56 (1623.9) 그렇게 이 구체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재현하시옵소서.

144:5.57 (1623.10) 우리에게 형제관계의 즐거운 사역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144:5.58 (1623.11) 사랑하는 봉사의 경로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144:5.59 (1623.12)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시며

144:5.60 (1623.13) 우리가 보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소서.

144:5.61 (1623.14) 모든 일을 잘 행하는 신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144:5.62 (1623.15)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가 되는 무한한 사랑을 주소서.

144:5.63 (1623.16)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사랑하시는_친절함을 내리시고

144:5.64 (1623.17) 우리의 자비로 그 영역의 약한 곳을 끌어안게 하소서.

144:5.65 (1623.18)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 그것이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되며,

144:5.66 (1623.19) 당신의 선한 영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혼의 협조자들에게 만족이 되게 하소서.

144:5.67 (1623.20)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필사자 자녀들의 영원한 선을 위해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144:5.68 (1623.21)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144:5.69 (1623.22) 우리의 온전히_신실하신 근원 그리고 전능하신
중심이시여,

144:5.70 (1623.23) 당신의 온전히_자비로우신 아들의 이름이
경배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144:5.71 (1623.24) 당신의 관대함과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셔서,

144:5.72 (1623.25) 그렇게 당신의 뜻을 행하고 당신의 명령을
행하도록 힘주소서.

144:5.73 (1623.26) 매 순간 순간마다 생명의 나무를 지속하게
하시고;

144:5.74 (1623.27) 우리를 매일 그 강의 생수{生水}로 새롭게
하소서.

144:5.75 (1623.28) 발자국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어 신성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144:5.76 (1623.29) 내재하시는 영의 변환시킴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144:5.77 (1623.30) 그리고 필사적 종말이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144:5.78 (1623.31) 당신에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
속으로 보내주소서.

144:5.79 (1623.32) 열매 맺는 봉사에 대한 천상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고

144:5.80 (1623.33)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권세자에게
영광을 돌리리이다.

144:5.81 (1623.34) 과연 그러하오며, 끝없는 우주 전체에
그러하나이다.

144:5.82 (1623.35) 우주의 비밀한 장소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144:5.83 (1623.36)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며, 당신의 자비를
경외하며, 당신의 판단을 존경하나이다.

144:5.84 (1623.37) 의로움의 해로 정오에 우리를 비추게 하시며

144:5.85 (1623.38) 당신께서 황혼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144:5.86 (1623.39) 당신 자신이 선택한 길로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144:5.87 (1623.40) 길이 평탄치 않고 어두운 시간일 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144:5.88 (1623.41) 우리가 자주 당신을 소홀히 하고 잊은 것처럼 우리를 잊지 마시고

144:5.89 (1623.42)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소서.

144:5.90 (1623.43)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자들을 공의로 용서한 것 같이

144:5.91 (1623.44) 우리를 친절함으로 내려다보시고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144:5.92 (1624.1) 웅대하신 아들의 사랑과 헌신과 증여를 이루시고

144:5.93 (1624.2) 당신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생명을 영원하게 만드소서.

144:5.94 (1624.3) 우주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며;

144:5.95 (1624.4) 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소서.

144:5.96 (1624.5) 헌신된 스랍 무리들의 사랑하는 사역으로

144:5.97 (1624.6) 세상 끝날까지 아들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144:5.98 (1624.7)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점점 더 당신을 닮을 수
있게 하시고

144:5.99 (1624.8)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원한 낙원의
품안으로 받아 주소서.

144:5.100 (1624.9) 과연 그러하오며, 증여되는 아들의 이름으로

144:5.101 (1624.10) 또한 지존자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이
이루어지이다.

144:5.102 (1624.11) 사도들은 이런 기도문을 공개적인 가르침
시간에 마음대로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계시로부터
자신의 개인 종교 체험에 많은 혜택을 입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상세한 교훈을 주는 과정에서, 이것들 및

모범 되는 다른 기도문들을 설명의 예로 사용했는데, 견본이 될 만한 이 일곱 개의 기도가 이 기록에 복사되도록 특별히 허락됐다.

6. 요한의 사도들과 협의함

^{144:6.1 (1624.12)} 10월 1일쯤, 빌립과 몇 명의 동료 사도가 가까운 마을에서 음식물을 사던 중에, 세레 요한의 사도 가운데 몇 명을 만나게 됐다. 시장{市場}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결과로, 예수의 사도들과 요한의 사도들이 길보아 야영지에서 삼 주 동안 협의를 하게 됐는데, 요한이 예수의 전례를 본받아서 최근에 열두 명의 지도자를 사도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요한은 충성스런 지지자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는 이 공동 협의가 있던 첫 주간 내내 길보아 야영지에 있었지만, 마지막 두 주 동안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144:6.2 (1624.13)} 이 달의 둘째 주 초순쯤에, 아브넬은 길보아 야영지에 있던 모든 동역자를 소집했고,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회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스물네 명의 이 사람들은, 삼 주 동안 하루에 세 번씩, 일주일 에 몇 세 동안

회합을 가졌다. 첫 주에는, 오전, 오후, 그리고 밤 회합 사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어울렸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동 토의를 주관해 주기 원했지만, 그는 그들의 토론에 참여하기를 한사코 거절했으며, 그럼에도 그는 세 번의 경우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로 동의했다. 예수께서 스물네 명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 강연들은, 동정심, 협동, 아량에 관한 것이었다.

144:6.3 (1624.14) 안드레와 아브넬이, 두 사도 집단의 합동 모임에서 사회를 번갈아 맡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토의해야 할 많은 어려움과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예수께 거둬 가지고 갔으나, 단지 이런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오직 너희의 개인적이고 순수하게 종교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나는 각 개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표자이고, 집단에 대해서가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고, 너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종교적 의문에 대한 다양한 인간적 해석의 조화에 관해서, 그리고 종교의 사회화에 관해서 토론할 때에는,

너희 자신의 판단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나는 언제나 동정심을 갖고 있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영적이지 않은 이런 취지의 문제에서 너희가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나도 온전히 동의하고 진정으로 협동할 것을 미리 약속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토론하는 데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2주 동안 떠나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나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144:6.4 (1625.1)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한 후에 산을 내려갔는데, 그들은 2주 내내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 기간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스물네 명은,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은 영향으로 매우 당황했으므로, 다시 자신의 문제들 가운데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야 했다. 아무튼, 그들은 한 주가 지나기 전에 다시 토론에 열중하게 됐고, 도움을 구하러 예수께 갈 수 없었다.

144:6.5 (1625.2) 그 모임이 동의한 첫째 항목은, 예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기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다. 양쪽 사도들은, 이 기도를 신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44:6.6 (1625.3) 그 다음으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요한이 살아있는 한, 그가 감옥에 있든지 석방되든지, 두 열두 사도 집단은 각각 현재 일을 계속하는 것과, 수시로 합의해 정해질 장소에서 한 주 동안의 합동 모임을 세 달마다 갖는 것이었다.

144:6.7 (1625.4)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세례에 대한 현안이었다. 그들의 어려움이 더 심화된 것은, 그것에 대해 예수께서 어떤 발언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요한이 살아 있는 한, 혹은 그들이 합동으로 이 결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요한의 사도들만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의 사도들만 새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훈련시킨다. 따라서 그때부터 요한이 죽을 때까지,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요한의 사도 중에서 두 명이 예수 및 사도들과 동행했는데, 그것은 세례가 천국 업무로 표면적인 연합을

이를 때 첫 단계가 되게 하기로, 합동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144:6.8 (1625.5) 그 다음으로 동의된 것은, 요한이 죽을 경우에 요한의 사도들이 예수께 스스로 나아와서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이며, 예수 또는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144:6.9 (1625.6) 그 다음에는, 요한이 죽을 경우에, 예수의 사도들이 신성한 영의 세례에 대한 상징으로 물세례를 시작하기로 가결했다. 세례에 대한 설교에서 그들이 회개를 포함해야 할지 아닐지는 선택의 여지로 남겨뒀으며; 그 집단을 제한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요한의 사도들은 설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 예수의 사도들은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다.

144:6.10 (1625.7)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노력을 조화시키고,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집단적인 이행업무를 조직하고, 외부적인 관례를 제정하고, 개인적인 종교 실행을 사회화시키려는, 예수의 추종자들의 첫 시도에 관한 이야기다.

144:6.11 (1625.8) 많은 다른 사소한 일이 거론됐고, 그 해결책이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스물네 명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예수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했던 처지에 놓였던 이 두 주 동안, 진정으로 훌륭한 체험을 했다.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것, 토론하는 것, 논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협상하는 것을 배웠고, 그 기간 내내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정적이었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의 정직한 의견에 대해 아량도 베풀었다.

144:6.12 (1625.9) 재정상 쟁점들에 대한 마지막 토의를 하던 어느 날 오후에 예수께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토론에 대해 듣고, 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귀를 기울인 후에, 말씀했다:“그렇다면 이것들은 너희가 결정한 것이고, 나는 너희 각자 이 일치된 결정의 참뜻을 실행하도록 도와주겠다.”

144:6.13 (1626.1) 이때로부터 두 달 반 후에, 요한이 처형됐고, 이 기간 내내, 요한의 사도들은 예수 및 열두 사도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계절 동안 함께 일했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길보아 야영지는 서기 27년 11월 2일에 해체됐다.

7. 데가볼리에 있는 도시들에서

144:7.1 (1626.2) 11월과 12월 내내, 예수와 스물네 명은 데가볼리에 있는 그리스 도시들에서 조용히 일했는데, 주로 스키토폴리스, 거라사, 아빌라, 가다라 등지에서 일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요한의 업무와 조직을 넘겨받는 예비 과정 중에서 마지막 기간이었다. 새로운 계시를 사회화한 종교는, 구원을 모색하는 기존 종교의 형식 및 관례와 타협하는 값을 항상 치르게 마련이다. 세례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사회화한 한 종교 집단으로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치러야했던 값이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추종자들과 합치면서, 물세례 외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

144:7.2 (1626.3) 데가볼리의 도시들에서는 예수께서 거의 공중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는 스물네 명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요한의 열두 사도와는 여러 차례 특별 회합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왜 예수께서 감옥에 있는 요한을 방문하러 가지 않았으며, 왜 그가 그의

석방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왜 예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외형적 표적 일으키기를 거절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길보아 야영지로 오기 전에는 주로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를 믿었으나, 그 뒤에는 곧 주님과, 그리고 그의 교훈과 직접 접촉한 결과로 믿기 시작했다.

^{144:7.3 (1626.4)} 이 두 달 동안, 그 집단은 대부분 짝 지어 일했는데, 예수의 사도 한 사람과 요한의 사도 한 사람이 함께 일했다. 요한의 사도가 세례를 줬고, 예수의 사도는 가르쳤으며, 그동안 그들 모두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방인과 변절한 유대인 가운데 많은 혼을 납득시켰다.

^{144:7.4 (1626.5)} 요한의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아브넬은, 예수를 충심으로 믿게 됐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위임한 70인 선생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다.

8. 펠라 근처 야영지에서

^{144:8.1 (1626.6)} 12월 후반기에, 그들은 모두 펠라에서 가까운 요단 근처로 갔고, 거기서 다시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이 야영지로 찾아 왔다. 예수께서 어느 날 오후에 대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요한의 절친한 친구들이 그 세례자로부터 마지막 전갈을 주님께 전하러 왔다.

144:8.2 (1626.7) 요한은 이때까지 1년 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기간 대부분, 예수께서 매우 조용히 일을 진행했으므로; 요한이 천국에 관해 궁금히 여기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요한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중간에 말씀을 중단시키고 말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물어보라 했습니다--당신이 정말 구원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144:8.3 (1626.8) 예수께서 잠시 멈췄다가 요한의 친구들에게 말씀했다: “돌아가서 요한에게 그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말하되,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의 사자{使者}들에게 말씀을 덧붙인 후에, 다시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요한이 천국 복음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단지, 내 제자들이기도 한,

자기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질문한 것뿐이다. 요한은 약한 자가 아니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기 전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너희에게 내가 묻겠는데:너희는 요한에게서 무엇을 봤더냐--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기분이 변덕스럽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잘 차려입은 사람들과 풍족하게 사는 이들은 대개 왕궁의 뜰이나 부자의 저택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요한을 볼 때 무엇을 찾았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는 선지자보다 훨씬 큰 자다. 요한에 대해 기록되기를:‘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는데;그가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고 했다.”

144:8.4 (1627.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으나;하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데, 그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144:8.5 (1627.2) 그날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세레를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간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요한의 사도들은 그날

이후로 예수께 확실히 결합했다. 이 사건은 요한과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동의 표시였다.

144:8.6 (1627.3) 그 사자{使者}들은 아브넬과 이야기한 후에,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 마캐러스로 떠났다. 그는 크게 위안 받았고, 그의 신앙은 예수의 말씀과 아브넬의 전갈로 인해 강화됐다.

144:8.7 (1627.4) 예수께서는 이날 오후에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했다:“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너희 가운데 다수는, 요한의 메시지뿐 아니라 내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데, 그들이 동료들을 불러서 말했다:‘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우리가 통곡해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일부도 그렇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희는 그가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바로 이 사람들은, ‘보라, 먹기를 탐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했다. 정말로, 지혜가 정당한지는 그 결과가 입증한다.

144:8.8 (1627.5)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지혜롭고 거만한 자들에게 숨기시는 반면, 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심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시며;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의 혼이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신성한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9. 세례 요한의 죽음

144:9.1 (1627.6) 서기 28년 1월 10일 밤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에 따라서 처형됐다. 마케러스로 갔던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다음 날 그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헤롯에게 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무덤에 묻었으며, 나중에는 다시 아브넬의 고향인 세바스테에 묻었다. 그 다음 날인 1월 12일에, 그들은 펠라 근처에 있던, 요한과 예수의 사도들의 야영지로 가서, 요한의 죽음을 예수께 전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받아 무리를 해산시키고, 스물네 명을 한 자리에 불러 놓고 말씀했다:“요한이 죽었다. 헤롯이 그의 목을 뼜다. 오늘 밤에 합동 회의를 열고 너희의 일을 그에

따라 준비해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천국을 공개적으로
힘차게 선포{宣布}할 때가 왔다. 우리는 내일 갈릴리로
들어갈 것이다.”

144:9.2 (1627.7) 따라서, 서기 28년 1월 13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스물다섯 명쯤 되는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길을 떠났으며, 그날 밤 세베대의 집에 묵었다.

제145편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많았던 나흘

145:0.1 (1628.1) 1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예수와 사도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벳새다에서
세베대의 집에 본부를 차렸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자,
예수께서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첫 갈릴리 전도여행을
시작하도록 준비했다. 예수께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른
속도로 도시 전역에 퍼졌으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나사렛으로 서둘러
떠났다.

145:0.2 (1628.2) 예수께서는, 첫 대규모 공중 전도를 시작하는
여행에 대비해 사도들에게 지시하면서, 세베대의 집에서
수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을 보냈다. 그는 또한 많은

열렬한 탐구자를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만나고 가르쳤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신이 연설할 수 있도록 안드레를 통해서 주선했다.

^{145:0.3 (1628.3)} 금요일 밤늦게 예수의 막내 동생 롯이 은밀하게 그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던 배 안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 받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이 방문에 대해 알지 못했다. 예수의 가족 가운데 롯은, 영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그의 중대한 사역, 죽음, 부활, 및 상승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지상 사명의 신성함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육신으로는 가장인_오빠의 사명의 초자연적 특성을 죽을 때까지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 세상 가족을 고려할 때, 막내 동생 롯은, 그의 재판, 배척, 및 십자가형이라는 벅찬 고난과정 내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됐다.

1. 물고기를 잡아올림

^{145:1.1 (1628.4)} 바로 그 주간 금요일 아침에, 해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물 가까이까지 붐비게 되자,

예수께서는 근처의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그는 배에 선 채로, 모여 있는 무리에게 두 시간 이상 계속 가르쳤다. 그 배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이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배로 사용했고, 예수께서 손수 만든 것이었다. 이 특별한 날 아침에, 그 배에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과 두 동역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간밤에 호수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 가까이 막 도착했다. 예수께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수선하는 중이었다.

145:1.2 (1628.5)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끝낸 후에 다윗에게 말씀했다:"네가 나를 도우러 오느라 지체됐으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한 그물 가득히 걸어 올리거라." 그러나 다윗의 조수 가운데 하나인 시몬이 말했다:"주님,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그렇지만 당신의 분부대로 그물을 던져 내리기는 하겠습니다." 시몬이 예수의 지시를 따르기로 동의한 것은, 그의 주인인 다윗이 손짓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가리킨 장소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으며,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있던 동역자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다. 그들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세 척의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은 후에, 시몬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과 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굉장한 어획량{漁獲量}에 경탄했다. 그날부터, 세베대 다윗, 이 시몬,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145:1.3 (1629.1)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올린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원래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는데다, 노련한 어부였으므로,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생태를 잘 알았다. 이 경우에, 단지 물고기가 흔히 이때에 잘 잡히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은 항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2. 오후에 회당에서

145:2.1 (1629.2) 회당의 그 다음 안식일 오후 예배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침에는 시몬 베드로가 “천국”에 관해서 설교했다. 회당의 목요일 밤 모임에서는 안드레가 가르쳤는데, 그의 주제는 “새로운 길”이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45:2.2 (1629.3)} 예수께서 이 안식일 오후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관습에 따라 첫 본문{本文}을 율법서에서 택했고, 출애굽기부터 읽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주{主}를 섬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병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는 둘째 본문을 선지서에서 택하고, 이사야에서부터 읽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네게 임했기 때문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민족을 가리겠지만, 주의 영이 네게 임하실 것이며, 신성한 영광이 네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방인도 이 빛으로 나아오며, 위대한 정신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빛의 광명 아래 굴복할 것이다.”

145:2.3 (1629.4) 예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종교가 *개인 체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려고 노력했다. 다른 것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145:2.4 (1629.5) “너희가 잘 알듯이, 마음이 자상한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한 무리로 여기는 것은, 그 가족의 식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 한 집단으로서, 너희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자녀지만, 개인으로서 너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계시하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가져오고, 그분의 사랑 및 자비에 대한 계시를, 개별 신자에게 순수한 개인 체험으로 주기 위해서다. 선지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진리, 즉 다수의 후기 선지자 역시 파악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곧 너희 각자를-- 개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너희 가운데 왔다.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너희는 민족이나

종족의 종교를 가졌지만;이제는 내가 개인적 종교를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

145:2.5 (1630.1) “그러나 이것도 새로운 관념은 아니다. 너희 중에서 영적으로 사려깊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은, 일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때에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다고,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각자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내가 내 민족과 새 언약을 세울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다시는 이웃에게, 네가 주를 아느냐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45:2.6 (1630.2) “너희는 이 약속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성서를 믿지 않느냐? 선지자들의 말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이뤄졌음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종교를 마음의 문제로 만들라고, 즉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개인으로서 관련시키라고 훈계하지 않았더냐?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개인의 심성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희는, 인간의 선천적 심성이 모든 것을 속이는 성향이 있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경우가 자주 있다고 경고를 받지 않았느냐?

145:2,7 (1630,3) “너희는 또한 에스겔이, 종교가 너희 개인 체험에서 실체가 돼야만 함을 너희 조상에게도 가르쳤던 부분을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조상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내가 살아 있다시피, 모든 혼이 다 내 것임을 명심하며;아비의 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혼도 내게 속했다. 죄를 범하는 혼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 오늘날까지도 예견하여 말하기를,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심성도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다.

145:2.8 (1630.4) “너희는 하나님이 한 개인의 죄로 인해 민족을 벌주실 것이라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며;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깊은 자녀들을 민족의 죄로 인해 벌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어떤 가족에 소속된 개인들은, 가족의 잘못이나 집단의 위반으로 생기는 물질적 결과로 흔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국가--혹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개인의 향상과 깨우침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145:2.9 (1630.5) 그 다음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이런 영적 자유를 식별한 후에, 이 세상에 있는 자녀가 낙원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생애를 시작하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했는데, 이 생애는 창조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을 알고 그와 같이 되기를 추구하는, 내주하는 영의 신성한 갈망에 피조물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145:2.10 (1630.6) 사도들은 이 설교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천국 복음이 민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임을 좀 더 충분히 깨달았다.

145:2.11 (1630.7)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음에도, 이 안식일 설교에 놀랐다. 그는 진정으로, 서기관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처럼 가르쳤다.

145:2.12 (1630.8) 예수께서 말씀을 막 마쳤을 때,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젊은이가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동요돼서 격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내며 큰소리로 외쳤다. 경련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면서, 그는 꿈꾸는 상태로 말했다:“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데;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젊은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했다--그리고 그가 즉시 깨어났다.

145:2.13 (1631.1) 이 젊은이는 더러운 영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일반적인 간질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난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배워왔다. 그는 자기 병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런 가르침을 믿고 또한 그에 따라 행동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런 현상은 더러운 영 존재 때문에 직접

생긴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때 그의 간질병을 낫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람은 해가 진 후에 그날 늦게까지 실제로 치유되지 않았었다. 오순절이 지난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소위 “마귀들을 쫓아내는” 이 행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오순절 이후로는 한 번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다.

^{145:2.14 (1631.2)} 이 평범한 사건으로 인해, 예수께서 회당에서 오후 설교를 마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했다는 보고가 가버나움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 놀라운 소문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퍼져 나가기에는 안식일이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보고는 또한 가버나움 주위의 모든 작은 마을에도 전달됐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

^{145:2.15 (1631.3)} 예수와 열두 사도가 본부로 삼았던 세베대의 큰 집에서, 음식과 집안일은 시몬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거의 다 맡아봤다. 베드로의 집이 세베대의 집과

가까웠으며;예수와 친구들은 회당에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들렀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며칠 동안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께서 이 아픈 여자를 굽어보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마를 쓰다듬으며 위로와 용기의 말을 몇 마디 했을 때, 우연히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났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사도들에게 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으며;그 사건이 그렇게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들의 정신에 간직돼 있는데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회상되어, 그들은 이 우연한 사건을 또 다른 기적으로 여겼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서 도시 전역에 이 소식을 퍼뜨렸다.

145:2.16 (1631.4) 베드로의 장모 아마씨는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때 그녀는 예수로 인해 기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몇 시간 지난 후 해 질 무렵이 돼서야, 세베대의 집 정원 앞에서 일어난 굉장한 사건과 관련돼서 그녀의 치료가 이뤄졌다.

145:2.17 (1631.5)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경이로움을_구하는 세대와 기적에_몰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이 예수로 인해

이뤄졌다고 선전하기 위한 구실로, 그런 우연한 경우를 빠뜨리지 않고 붙잡는 전형적 태도다.

3. 해 질 무렵의 치유

145:3.1 (1631.6) 이 뜻 깊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예수와 사도들이 저녁식사하려고 준비할 때, 가버나움 전체와 그 주변은 이런 기적적인 치유 소문으로 떠들썩했으며;해가 지자마자, 병들거나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가거나,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가려고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대 가르침에 의하면, 신성시되는 안식일에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145:3.2 (1632.1) 따라서 해가 지평선으로 사라지자마자, 고난당하는 많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이웃 집 뒤편으로 넘어가자마자, 몸이 마비된 딸을 데리고 출발했다.

145:3.3 (1632.2) 그날 하루 종일 일어난 사건이, 이 해질 무렵의 굉장한 장면을 연출할 무대 장치를 완료해 놓았다. 예수께서 오후 설교에서 인용했던 본문조차,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으며;그는 전례 없던 그런

식의 권능과 권위를 갖고 말씀했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박력이 넘쳤던가! 그가 인간적 권세에게는 아무런 호소를 하지 않은 반면, 사람의 의식과 혼에 대고 직접 이야기했다. 그는 논리나 율법의 논쟁, 또는 재치 있는 말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청중의 마음 속에 강력하게 직접, 뚜렷하게 개인적으로 호소했다.

145:3.4 (1632.3) 그 안식일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즉 한 우주의 생애에서 중대한 날이었다. 전체 지방우주에게, 이 작은 유대인 도시인 가버나움의 사실상 실제적인 네바돈 수도{首都}였다. “증오는 두려움의 그림자이며;복수는 비겁함의 가면이라”고 했던, 예수의 설교의 감격적 결론을 듣고 있던 자들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소수의 유대인만이 아니었다. 또한 청중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는 그의 복된 말씀도 잊을 수 없었다.

145:3.5 (1632.4) 해가 진 직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 식사 중이었을 때, 베드로의 아내는 앞마당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가는 도중에, 큰 무리의 병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봤고, 가버나움에서 오는 길이, 예수께 치유를 받으러

오는 자들로 붐비고 있음을 보게 됐다. 이 광경을 보고, 그녀는 바로 들어가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예수께 알렸다.

^{145:3.6 (1632.5)} 주님이 세베대의 집 앞으로 나갔을 때,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거의 1,000명이나 되는 아프고 병약한 인간을 바라봤으며; 적어도 그것이 그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 숫자였다. 거기에 나와 있던 모든 이가 고난당하는 자는 아니었으며; 그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도와주러 온 자들도 있었다.

^{145:3.7 (1632.6)} 자신이 신임했던, 우주 경영진에 속하는 아들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해 크게 고생하는 이런 고난당하는 필사자들, 남녀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의 인간 심성에 특별히 와 닿았으며, 이 자애로운 창조주 아들이 가진 신성한 자비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경이로움의 기반 위에는, 자신의 지속적인 영적 운동을 결코 세울 수 없음을 잘 알았다. 창조자로서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정책이었다. 가나 이후로,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것은 그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고통 받는 이 무리가 그의 동정심을 움직였고, 그의 이해심 많은 애정에 강하게 호소했다.

145:3.8 (1632.7) 앞마당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대한 스라빔 수행원들, 물리 통제관들, 생명 운반자들, 그리고 중도자들이, 주권자의 신호에 대비해 창조적 권능을 행사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들은 한 우주의 이 육신화 된 창조주와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예수의 이 세상 생애 중에서 신성한 지혜와 인간적 동정심이 사람의 아들의 판단 속에 너무나 맞물려 있어서, 이 일을 아버지 뜻에 호소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기를 원했던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145:3.9 (1632.8) 그들의 도와 달라는 외침을 들어달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 계시하고 그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나는 이 시간까지 이 목적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내 헌신에
모순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으며--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소란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145:3.10 (1633.1) 예수께서는 이런 치유를 결정하는 책임을
아버지의 판결에 맡겼다. 아버지 뜻은 명백하게 어떤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인격화된 사도 조울사의 명령 아래 봉사하는
천상{天上}의 인격체들이 힘차게 움직였다. 수많은
수행원이, 고난당하는 잡다한 필사자 군중 한가운데로
내려왔고, 순식간에 683명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면서, 모든 육체적 질병 및 다른 물질적 장애가
완전히 치유됐다. 그런 광경은 이 세상에서 그날 이전에
전혀 목격된 바 없었으며, 그 후로도 없었다. 그리고 이
창조적 치유 물결에 참석했던 우리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감격적인 장관{壯觀}이었다.

145:3.11 (1633.2) 그러나 이런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 치유 때문에 놀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예수였다. 그의 인간적 관심과 동정심이, 자기

앞에 펼쳐있는 고통과 고난의 광경에 집중되는 순간, 그는 어떤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환경 아래서는, 창조주 아들의 창조적 특권 다운데 시간 요소의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인격화된 조율사의 경고를, 그의 인간 정신이 잠시 잊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고통 받는 필사자들을 온전케 해주고 싶었다.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당시의 그런 창조적 에너지 행위가 낙원 아버지 뜻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즉시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결정으로 -- 치유하고 싶은 소망을 예수께서 조금 전에 표현한 것을 고려해서-- 창조적 행위가 일어났다. 창조주 아들이 바라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 예수의 나머지 이 세상 생애 내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필사자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145:3.12 (1633.3) 기대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벳새다에서 해질 무렵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갈릴리와 유대지방 전역은 물론 그 너머 지역까지 퍼졌다. 헤롯이 한 번 더 두려워하게 되어, 예수의 일과 가르침에 대해 보고하도록, 그리고 그가 과연 이전의 나사렛

목수인지, 아니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살펴보도록 염탐꾼을 파견했다.

^{145:3.13 (1633.4)} 예수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육체적 치유가 주요 원인이 돼서, 그 후의 나머지 지상{地上} 생애 내내 설교자 뿐 아니라 의사 역할도 맡게 됐다. 그가 가르침을 계속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몸소 한 일은, 병들고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사도들이 대중에게 설교하고 신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145:3.14 (1633.5)} 그러나 이날 해질 무렵에, 신성한 에너지로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육체적 치유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 굉장한 자비의 현시 덕택으로 영원한 영적 혜택을 본 것은 아니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이 물리적 사역을 통해 진정으로 교화{教化}됐으나,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적 치유의 이런 놀라운 돌발상황으로 인해 사람의 가슴속에 영적 천국이 촉진되지는 않았다.

^{145:3.15 (1633.6)} 치유 기적이 예수의 이 세상 사역에서 수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거의 무제한의 창조자 특권을 가진 신성한 존재가 이 세상에 거주함으로써, 전례 없는 신성한 자비와

인간적 동정심이 연합됨으로 인해, 그것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소위 기적이라고 불린 그것들은, 편견을 낳는 광고 효과와, 원치 않는 나쁜 평판을 많이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예수께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4. 그날 밤 이후

^{145:4.1 (1634.1)} 이 굉장한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밤 내내, 기쁨에 차고 행복한 군중이 세베대의 집을 가득 채웠고, 예수의 사도들은 감정적 열광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그들이 예수와 교제한 모든 중요한 날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위대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희망이 그렇게 확실한 기대감으로 물결친 적은 그 전이나 후에도 없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리고 그들이 아직 사마리아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천국이 권능을 갖고 선포될 때가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으며, 그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됐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치유 능력의 징후가 바로 그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전율했다. 예수에 대해 그들이 품었던 의심이 삼시간에 사라졌다. 그들은 황홀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졌다.

145:4.2 (1634.2)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님은 이 모든 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각종 병에서 치유 받은 이 남녀 어른과 아이들은, 예수께 감사를 표하려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사도들은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 은둔하는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가 계속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고 완전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는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치유로 혜택 입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돌아간 후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나려고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과 열두 사도의 축하와 예찬을 거절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육신을 치유하시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혼을 구원하시는 권능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니 내일을 위해 가서 쉬도록 하자"고 말씀할 뿐이었다.

145:4.3 (1634.3) 열두 사도는 다시 한 번 실망했고, 당황했으며, 비통한_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그들 모두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무섭게, 다시 곧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내고, 그들의 용기와 열성의

기반을 전부 뒤엎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런 혼란된 어부들은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생각했다:“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5. 일요일 이른 아침

^{145:5.1 (1634.4)} 예수께서도 토요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세상이 육신적 고뇌로 가득 차있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넘쳐 있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병자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영적 천국을 설립하려는 자신의 사명을 방해하거나, 또는 적어도 육신의 일에 종속되도록 강요하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했다. 그날 밤 동안, 예수의 인간 정신에는 이런 생각과 비슷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날이 새기 훨씬 전인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이 즐겨 찾는, 아버지와 친교하는 장소로 혼자 갔다. 그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필사자의 고통 앞에서 영향 받아 자신의 인간적 동정심과 신성한 자비가 연결돼서,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물리적 사역에 전념하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든 자들을 돌보기를

완전히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한 영적 가르침과 종교적 훈련이라는 더 중요한 일도 해야만 함을 알았다.

145:5.2 (1635.1) 예수께서 언덕으로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러 갔던 것은, 개인적 헌신을 하기에 적당한 사적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145:5.3 (1635.2) 베드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 기도하러 떠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깨워서 함께 주님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한 시간 이상 찾아 헤맨 후에 예수를 발견했고,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기쁨에 넘치고 사도들이 그토록 즐거워할 때, 치유의 영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왜 고심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145:5.4 (1635.3) 예수께서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세 사도에게 설명하려고 네 시간 넘게 애썼다. 예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런 징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러 온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 줬다. 그는 아버지 나라가 왜 기적_행함이나 육체적 치유 위에 세워질 수 없는지, 개인

동역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납득할 수 없었다.

145:5.5 (1635.4) 그러는 동안, 고난당하는 다른 무리의 혼들과 호기심에 찬 많은 사람이, 일요일 아침 일찍 세베대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사도들은 무척 당황했고, 열심당 시몬이 군중에게 말하는 동안, 안드레와 몇 명의 동역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갔다. 안드레는 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를 만나자:“주님, 왜 우리만 무리와 함께 있도록 내버려두십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인해, 가깝고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지금도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러 우리와 함께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145:5.6 (1635.5)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대답했다:“안드레야,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내 메시지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일을 버리고, 호기심에 찬 사람들 그리고 표적과 경이로움을 찾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제까지 여러 달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들으러 모여들었더냐? 그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지금 찾아 왔단 말이냐? 그것은 그들이 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물리적 육체의 치유 때문이 아니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나아올 때, 그들 가운데 다수는 진리와 구원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육체적 병을 치유 받기 위해 온 것이다.

145:5.7

(1635.6)

“나는 이제까지 가버나움에 있었고, 회당에서든지 해변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이런 호기심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영적 사역이 배제된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사역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도록 내가 너희를 임명했지만, 나는 내

가르침을 제쳐놓고 치유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서는 안 된다. 안드레야,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라고 말하고,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로 떠날 준비를 하거라, 거기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길이 이미 준비됐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다. 자, 가서, 우리가 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동안 나는 여기서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145:5.8 (1636.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안드레와 동료 사도들은 비탄에 잠겨서 세베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여 있는 무리를 해산시키고, 신속하게 여행 준비를 끝냈다. 그렇게 해서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갈릴리 도시들에서 그들의 진정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첫 전도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첫 여행 중에 많은 도시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나사렛에는 가지 않았다.

145:5.9 (1636.2) 그 일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림몬으로 떠난 직후에,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그를 만나러 세베대의

집으로 왔다. 그날 정오 무렵에 유다가 형 야고보를 찾아가서, 함께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청했다. 유다와 함께 가기로 야고보가 동의했을 즈음, 예수께서는 이미 떠난 후였다.

145:5,10 (1636.3) 사도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굉장한 흥미 있는 일들을 뒤에 두고 떠나기가 싫었다. 베드로는 1,000명 이상의 신자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세례를 받았다고 계산했다. 예수께서는 참을성 있게 그들의 말을 들었으나, 돌아가기는 거절했다. 침묵이 잠시 흐른 후에, 도마가 동료 사도들에게 말했다:“가자!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대한 수수께끼들을 온전히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한데: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못해서 그들은 갈릴리의 다른 도시들에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떠났다.

제146편

1차 갈릴리 전도여행

146:0.1 (1637.1) 갈릴리에서 첫 대중{大衆} 전도여행은, 서기 28년 1월 18일 일요일에 시작해서 약 두 달 간 계속됐고, 3월 17일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옴으로써 끝났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이 여행에서 요한의 옛 사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림몬, 요타파타, 라마, 스블론, 아이론, 가이사랴, 고라신, 매돈, 가나, 나인, 엔돌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들은 이 도시들에 머물면서 가르치는 한편, 많은 작은 도시에서는 지나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146:0.2 (1637.2) 예수께서 동역자들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자유롭게 전도하도록 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세 경우만 조심시켰는데;나사렛을 멀리하도록 경고했고, 가버나움과 디베랴를 지나칠 때 특히 조심하도록 경고했다. 사도들은 마침내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제약 없이 가르칠 수 있게 돼서 매우 만족했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에 큰 열성과 기쁨으로 헌신했다.

1. 림몬에서 전도함

146:1.1 (1637.3) 작은 도시인 림몬은, 한때 바벨론의 대기{大氣}의 신{神}인 람만을 헌신적으로 숭배한 적이 있었다. 옛 바벨론과 후일 조로아스터의 교훈 가운데 많은 것이,

여전히 림몬 사람들의 믿음에 포함돼 있었으며;따라서 예수와 스물네 명은, 이런 옛 믿음과 천국의 새 복음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과제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베드로는, 초기 사역에서 훌륭한 설교 가운데 하나인, "아론과 금송아지"에 관한 설교를 여기서 했다.

146:1.2 (1637.4) 많은 림몬 시민이 예수의 교훈을 믿는 자가 됐음에도, 그들은 나중에 형제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 하나의 짧은 인생 기간에, 자연 숭배자들이 영적 이상{理想}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도록 변화되기는 쉽지 않다.

146:1.3 (1637.5) 빛과 어둠, 선과 악, 시간과 영원에 대한 바벨론인 및 페르시아인의 관념 중에서 더 나은 많은 것이 나중에 소위 그리스도교 교리에 합쳐졌으며, 이것들이 포함됨으로, 근동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교훈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후대에 필로가 히브리 신학에 맞게 조정한 바와 같이, 이상적 영, 즉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만물의 보이지 않는 원형{原型}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을 많이 포함시킨 것은,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훈을 서방 그리스인이 더 쉽게 받아들일도록 만들었다.

146:1.4 (1637.6) 도단이 천국 복음을 처음 들은 곳이 림몬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메시지를 메소포타미아와 그 너머까지 전달했다. 그는 유프라테스 너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2. 요타파타에서

146:2.1 (1638.1) 요타파타의 보통 사람들은 예수와 사도들의 말을 기쁜 마음으로 들었고, 많은 이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요타파타 전도임무에서 특별한 것은, 그들이 이 작은 도시에 머물던 둘째 날 밤에 예수께서 스물네 명에게 강연한 것이었다. 나다니엘은, 기도, 감사, 및 경배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마음 속에서 혼동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긴 시간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설명했다. 현대 용어로 요약하면, 이 이야기는 다음의 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146:2.2 (1638.2)

1. 사람이 마음 속으로 의식하면서 죄악을 끈질기게 생각하면,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서, 인간 혼의 영적 통신 회로와 기도로 연락하는 길이 서서히 파괴된다. 하나님은 자녀의 간구를 당연히 듣고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이 고의로 끈질기게 죄악의 개념을 품으면, 이 세상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 친교는 서서히 단절된다.

146:2.3 (1638.3)

2. 이미 알려지고 확립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도는 낙원 신격들에게 가증스런 것이다. 영, 정신, 및 물질 법칙에 의거하여 하나님들께서 자신의 창조물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오만한 행위가, 영 인격체들로 하여금 그런 불법적이고 불순종하는 필사자의 개인적 간구를 외면하게 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스가랴 선지서에서 인용했다:“그러나 그들이 듣기 싫어해서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다, 그들은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영으로 보낸 율법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으며;따라서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간악한 머리에 큰 진노가 임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외치게 됐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혜자의 속담을 인용했다: “신성한 율법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돌리는 자는, 자신의 기도조차 증오하게 되리라.”

146:2,4 (1638,4) 3. 필사자는, 하나님과_사람의 대화 경로에서 인간 쪽을 열어 놓음으로써, 여러 세계의 피조물에게 베푸는 신성한 보살핌이라는, 항상_밀려오는 흐름을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것을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그런 체험에 내재돼 있다. 죄의 용서조차 틀림없이 바로 이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런 용서는, 너희가 동료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는 너희의 개인 종교 체험에서 효력이 없다. 사실에서는 네가 동료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좌우되지 않지만, 체험에서는 틀림없이 좌우된다. 이처럼 신{神}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보조를 맞춘다는 이 사실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기도에서 인식되고 함께 연결돼 있었다.

146:2.5 (1638.5)

4. 우주에는 자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근본적인 응보의 법칙이 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피조물은, 낙원의 이타적인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 생존하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유한한 피조물에게든지 영원히 생존하는 구원을 강제로 줄 수 없다. 자비를 베푸는 범위는 넓지만, 결국, 사랑이 자비와 합동할지라도 효과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응보의 명령이 있다. 예수께서 다시 히브리 성서에서 인용했다:“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거부했고;내가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않았으며, 이런 반역하는 태도로 인해,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생명의 길을 배척했으므로, 너희가 고통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해도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146:2.6 (1639.1)

5. 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비를 베풀어야만 하며;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너희 역시 비판 받게 될 것이다. 자비가 우주의 공정성을 전적으로 폐기하지는 못한다.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마다, 자신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는 말이 결국 참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어떤 기도든 진지함이 경청을 보증하며;어떤 간구든지, 영적 지혜와 우주적 일관성이, 응답의 시기, 방식, 및 정도의 척도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우둔하고 미숙한 자녀의 어리석은 기도를 *문자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녀는 그런 우둔한 간구를 하면서 많은 기쁨과 혼의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146:2.7 (1639.2) 6.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너의 모든 간구에 대한 응답이 이뤄질 것인데, 네 기도가 아버지 뜻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고, 아버지 뜻은 언제나 그분의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한 자녀가 원하고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간구든지 온전히 응답될 수 없다.

146:2.8 (1639.3) 7. 의로운 자의 부르짖음은, 선, 진리, 및 자비가 가득한 아버지의 창고의 문을 여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 행위이며, 이런 좋은 선물은, 자녀가 와서 자기 몫을

가져가도록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기도가 사람을 향한 신{神}의 태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기도하는 자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동기*가 신의 귀에 도달하는 올바른 길을 제공한다.

146:2.9 (1639.4) 8. 시간을 단축하거나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려고 기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자아를 과장하거나 동료를 능가하는 불공평한 이점을 얻기 위한 기법으로 고안되지 않았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혼은, 진정한 의미의 말로 기도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너의 최상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라,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진지한 소원을 너에게 분명히 이뤄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기도에 주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46:2.10 (1639.5) 9.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그러므로 네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리고 너의 진정한 필요와 소원에 따라서, 너 대신 간구할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자기_중심적이 되려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하기를 피하고;네 형제들의 영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라. 물질적인 기도를 피하고;영 안에서, 그리고 영의 풍성한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146:2.11 (1639.6) 10. 네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네 사랑과 지성적인 봉사를 네 기도가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가족, 친구, 및 동료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해라. “그러나 나는, 언제 기도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네 안에 거하는 영{靈}이, 너를 감동시켜서, 영들의 아버지와 맺는 내적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간구를 입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146:2.12 (1640.1) 11.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에야 기도한다. 그런 습관은 경솔하고 오해하기 쉽다. 정말로, 네가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또한 네 혼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뤄질 때에도, 아버지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진정한 간구는 항상 은밀히 드러라. 다른 사람들이 네 개인 기도를 듣게 하지 마라. 경배하는 자들의 집단이 감사드리는 기도는 적절하지만, 혼의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적합한 기도 형식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이다.

146:2.13 (1640.2) 12.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 나라가 확장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는 히브리 성서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들의 간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논평했다: “오, 하나님여, 내 속에 깨끗한 심성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은밀한 죄를 씻어 주시고, 주제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경솔하고 불쾌감을 주는 말로 하는 기도에 관련해 길게 언급하면서 다음 글을 인용했다: “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의 혀는 거의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신체기관이지만, 안에 있는 영만이, 이 통제할 수 없는 지체를 부드러운 아량의 목소리와 자비의 영감 어린 봉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146:2.14 (1640.3)

13.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알고자하는 간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생애의 행로에 대한 신{神}의 안내를 구하는 기도라고 가르쳤다. 실제로 이것은 신성한 지혜를 얻으려는 기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결코, 기도로 인간의 지식과 특별한 솜씨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신성한 영 현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키는 한 요소가 기도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동역자들에게 영으로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진지하게 자신의 깨우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즉 온 마음을 다하고 지성적으로, 열심히 확고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6:2.15 (1640.4)

14.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반복, 유창한 말, 금식, 참회, 또는 희생제물이 기도를 더 효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경배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신자들에게 훈계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의 기도와 경배에서 감사하는 기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한탄했다. 그는 이 경우에 관해 성서에서 글을 인용했다:“주께

감사하며, 지고자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마다 그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밤마다 그의 진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146:2,16 (1640.5) 15.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했다:“너의 평범한 필수품에 관해 계속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도록 해라. 네가 이 세상에 실존함으로 인한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진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펼쳐놓으라.” 그리고 나서 그는 성서에서 인용했다:“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다.”

146:2,17 (1641.1) 16.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동안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서, 내주하는 영이, 들으려는 혼에게 말씀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버지의 영은 사람의

정신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잘 말씀할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도움과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 정신이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예수께서는, 경배가, 경배 받으시는 분을 사람이 점점 더 닮아가게 해준다고 가르쳤다. 경배는 유한자가 무한자의 현존에 점차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께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체험이다.

146:2.18 (1641.2)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친교에 관한 다른 많은 진리를 사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포용할 수 있는 사도는 많지 않았다.

3. 라마에 머무름

146:3.1 (1641.3) 예수께서는 라마에서 연로한 그리스 철학자와 기억에 남을 만한 토의를 했는데, 그 철학자는 과학과 철학만으로도 인간 체험에서 생기는 결핍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인내심과 동정심을 갖고 이 그리스 선생의 말을 들었으며, 그가 말한 많은 것이 진리임을 인정했지만, 그가 말을 마치자, 인간 실존에 대해 토의할 때, “어떻게, 왜, 어디로”를 설명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점만 지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네가 끝낸

지점에서 우리는 시작한다. 종교는, 정신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거나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실체를 다루는, 사람의 혼에 대한 계시다. 지적 갈망이 생명에 관한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천국 복음은 존재에 관한 진리를 밝혀준다. 너는 진리의 물질적 그림자를 언급했는데; 이제 나는, 필사자 실존의 물질적 사실이라는 이런 일시적 시간 그림자를 벗어버린, 영원하고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 말하려는데, 들어보겠느냐?” 예수께서 이 그리스인에게 천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를 한 시간 이상 가르쳤다. 연로한 철학자는 주님의 접근 방법에 쉽게 따라왔고, 진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빨리 믿었다.

146:3.2 (1641.4) 사도들은 그리스인의 많은 주장에 공공연히 찬성하는 예수의 태도 때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사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했다: “애들아, 내가 그리스인의 철학에 관용을 베푸는 것에 놀라지 마라. 참되고 순수한 내적 확신은 외적 분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진리는 정직한 비판에 화내지 않는다. 편협함은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은밀하게 의심하고 있음을 감추려는 가면임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가 항상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그것의 진리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웃의 태도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용기는 그가 믿는다고 내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철저히 정직한 자신감이다. 진지한 사람은, 자신의 참된 신념과 고상한 이상{理想}을 비판적인 눈으로 따져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46:3.3 (1641.5) 라마에 머물던 둘째 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주님, 어떻게 해야, 당신의 가르침을 새로 믿는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의 진리에 관해 진정으로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46:3.4 (1641.6)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너희가 아버지 나라에서 가족이 됐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자녀로서 영원히 생존할 것에 대한 너희의 확신은, 전적으로 너희의 개인 체험--곧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문제다. 영적 확신은, 신성한 진리의 영원한 실체들을 너희가 몸소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동등하며, 달리 말하면, 진리인 실체들을 너희가 지능으로 이해함에

너희의 영적 신앙을 더하고, 거기서 너희의 숨김없는 의심을 뺀 것과 같다.

146:3.5 (1642.1)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선천적으로 부여받는다.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을 부여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살아 있는 영, 즉 영생의 선물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신 세계에서 인생이 끝난 뒤에 생존한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전에도 이런 삶을 살아 왔는데, 이제 내 말을 믿음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영을 받고 있지만;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보내실 것이다.

146:3.6 (1642.2) “너희는 정신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한 영을 볼 수 없지만, 혼의 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과 인도에 맡겼는지 그 정도{程度}를 알아보는 실질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동료를 사랑하는 정도다. 아버지의 이 영은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가지며, 이 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신성한 경배의 방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동료를

대하는 방향으로 어김없이 인도한다. 처음에는 내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내주하는 현존으로서 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더욱 의식하게 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곧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어질 것이며,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처럼, 그 영이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너희 혼의 영적 재능을 대변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영은 반드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현존, 즉 너희의 영을 증거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지금 몇 사람 안에 거하듯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146:3,7 (1642:3)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세상에서 난 자녀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내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생애로부터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길이 있고, 항상 있어 왔으며, 그 길을 새롭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에,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너희가 더 잘 이해할 것이며, 현재의 체험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이다.”

146:3.8 (1642.4) 그리고 이 복된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크게 기뻐했다. 의로운 자들의 생존에 관한 유대인의 교훈은 뒤죽박죽이고 불확실했으며, 모든 참된 신자가 영원히 생존한다고 확신을 주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새 힘을 얻고 영감을 받았다.

146:3.9 (1642.5)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한편으로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의기소침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의 사도마다 각각 요한의 사도 한 사람씩 동역자로 동반하면서 사도 조직이 확장됐으며;아브넬은 안드레의 동역자로 일했으며;이 방법은 그들이 다음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까지 지속됐다.

146:3.10 (1642.6) 스불론에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예수의 특별한 교육은, 주로 천국의 상호간 책무에 대한 좀 더 깊은 토론과 관련됐고, 개인 종교 체험과, 사회의 종교적 책무를 갖는

친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의도된 가르침을 포함했다. 이것은 주님이 종교의 사회적 관점에 대해 언급했던, 몇 번 안 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 생애 내내, 종교의 사회적인 면에 관하여 추종자들에게 지침을 준 적이 거의 없었다.

^{146:3.11 (1643.1)} 유대인이라 할 수 없고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혼합된 종족의 사람들이 스불론에 있었으며,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이 치유됐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예수를 실제로 믿는 자는 거의 없었다.

4. 아이론에서 복음을 전함

^{146:4.1 (1643.2)} 갈릴리와 유대지방에서 작은 축에 속하는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이론에도 회당이 있었는데, 이런 회당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는 것은, 예수의 초기 사역에서 그에게 관습처럼 돼 있었다. 때때로 그가 아침 예배의 설교를 맡고,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오후에 설교했다. 또한 예수와 사도들은 회당의 주중 저녁 모임에서도 자주 가르치고 전도하곤 했다. 예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점점 증가됐음에도, 그들은 그 도시 외곽에 있는 회당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있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거의 모든 회당에서 금지할 정도로, 그를 대적하는 그런 만연된 정서를 그들이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공중 사역에서 후기에 해당됐다. 이 무렵에는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모든 회당이 그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146:4.2 (1643.3) 아이론은 당시에 대규모 광산이 있던 장소였고, 예수께서는 광부 체험이 없었으므로, 아이론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광산에서 보냈다. 사도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광산 지하에서 광부들과 함께 일했다. 치유자로서 예수의 명성이 이 외딴 동네에도 퍼져 있었고, 많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며, 많은 이가 그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 크게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병환자의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소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146:4.3 (1643.4) 아이론에서 셋째 날 늦은 오후에, 예수께서 광산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좁은 골목길을 우연히 통과하게 됐다. 그가 어떤 나병환자의 지저분한 오두막집 가까이 왔을 때, 치유자라는 그의 명성을 들은 고통당하던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자, 그에게 감히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주여, 당신이 하려고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생들의 메시지를 들었고,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병환자는 회당에 참석하거나 공중 경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서 진정으로 고침 받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그를 보고 신앙으로 매달리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인간 심성이 감동됐고, 신성한 정신이 연민의 정으로 동요됐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자 그 사람이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면서 말씀했다:“내가 원하니--깨끗해져라.” 그러자 그가 즉시 치유됐으며;나병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146:4.4 (1643.5)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명령했다:“네 치유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서 네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증거로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께서 지시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자신의 나병을 예수께서 고쳤다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모든 동네 사람이 그를 알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병에서 깨끗하게 됐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훈계를 듣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치유했다는 소식을 그가 온 사방에 퍼뜨린 결과로, 주님에게 많은 병자가 몰려왔으므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그 마을을 떠났다. 예수께서 다시는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광산 근처 교외에서 이틀 더 남아 있으면서, 신자가 된 광부들에게 천국 복음에 관해 좀 더 가르쳤다.

146:4.5 (1644.1)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은, 이때까지 예수께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했던, 소위 말하는 첫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나병의 경우였다.

146:4.6 (1644.2) 그들은 아이론으로부터 가이샤라로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에, 고라신으로 출발했고, 거기서 거의 일주일 동안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고라신에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신자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가르쳤던 어떤 곳에서도, 그의 메시지가 이곳만큼

전반적으로 거부당한 적이 없었다. 고라신에 체류한 것은 대부분의 사도를 매우 우울하게 했으며, 안드레와 아브넬은 동료들에게 용기 주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조용히 가버나움을 통과하면서 매돈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조금도 나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도들 정신 속에는, 자기들이 최근에 방문했던 이 마을들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중에, 예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를 치유자로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기를, 그들은 얼마나 바랐던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열렬한 간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5. 가나로 돌아옴

146:5.1 (1644.3) 예수께서 “우리가 내일 가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자, 사도 일행은 매우 기뻐했다. 예수께서 가나에 잘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거기서는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던 셋째 날에, 가버나움의 어떤 저명한

시몬 디도가 가나에 도착했는데, 믿음이 적은 자였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가나에 있음을 들었으며;그래서 서둘러 그를 만나러 갔다. 가버나움의 신자들은, 예수께서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146:5.2 (1644.4) 이 귀족은 가나에서 예수를 찾아내자,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괴로워하는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사도들이 숨죽이고 기대감에 차서 옆에서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했다:“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있지만, 너희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러자 그 귀족이 예수께 간청했다:“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 주십시오. 내가 떠날 때, 그 아이는 거의 죽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 속에 묵상하다가 갑자기 말씀했다. “집으로 돌아가라;네 아들이 살 것이다.” 디도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러 나와서 말했다;“기뻐하십시오--당신 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가 살았습니다.” 그때 디도가 그들에게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자, 종들이, “어제 오후 한 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무렵이었음을 회상했다. 디도는 그때부터 전심으로 믿었고, 그의 온 가족도 믿었다. 이 아이는 천국의 대단한 일꾼이 됐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수난 당하던 자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 디도의 온 집안사람과 친구들 그리고 사도들까지도 이 사건을 기적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친 기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자연 법칙 과정에 대해 그가 선견{先見}으로 아는 경우였을 뿐이고, 세례 받은 후에 예수께서 자주 의존한 그런 지식이었다.

146:5.3 (1645.1) 예수께서는 다시 가나에서 급히 떠나야만 했는데,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관심이 이 마을에서 그의 사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기억했고, 게다가 이제는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귀족의 아들을 치유한 셈이 됐으므로,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가 멀리서 치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심부름꾼을

대신 보내오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온 지방이 떠들썩함을 보자, “나인으로 가자”고 말씀했다.

6.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

^{146:6.1} (1645.2) 이 민족은 표적을 믿었으며; 이적을 찾는 세대였다. 이 무렵까지, 중부와 남부 갈릴리 지방 사람은, 예수와 그의 개인 사역을 기적과 관련시키려 하고 있었다. 순전히 신경성 질환이나 감정의 혼돈 때문에 고통당하던 수많은 진실한 사람도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들을 치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런 정신병이 치유된 경우에 대해, 무지하고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 즉 기적으로 고침 받았다고 여겼다.

^{146:6.2} (1645.3) 예수께서 가나를 떠나서 나인으로 가려고 하자, 수많은 신도와 호기심에 찬 많은 이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 했고, 실망을 겪지 않게 돼 있었다. 예수와 제자들이 성문 가까이 왔을 때, 나인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운반하여 근처 공동묘지로 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 이 여자는 매우 존경받고 있었으므로, 동네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이 죽은 소년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례 행렬이 예수와 제자들 앞까지 왔을 때, 과부와 그녀의 친구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인간의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면, 그런 치유자가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적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였다.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가서 관 뚜껑을 열고 그 소년을 조사했다. 젊은이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거기에 있게 됨으로써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음을 알게 됐으며;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 “울지 말라. 네 아들은 죽지 않았으며; 자고 있다. 그가 네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의 손을 잡고,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했다. 그러자 죽었다고 생각됐던 젊은이가 곧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146:6.3 (1645.4) 예수께서는 무리를 조용히 시킨 후에, 그 청년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음과, 자신이 무덤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그를 따랐던 무리와 나인의 온 동네는 감정적

흥분이 절정에 달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가 엄습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꿇어앉아 기도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소란한 군중이 해산된 것은, 밤이 되고 한참 지난 후였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예수께서 소년이 단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은 그것은 평소 예수의 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항상 아주 겸손하게 기적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146:6.4 (1646.1) 그리하여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과 유대지방까지 퍼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가 그것을 믿었다. 예수께서는 과부의 아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그 소년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음을 제자들에게도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충분히 그들에게 강조했으므로, 그 사건이 그에게 관련돼 왔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제외하고, 후대{後代}의 모든 기록에는 그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다시 치료자로서 너무 많은 요청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일찍 엔돌로 출발했다.

7. 엔돌에서

146:7.1 (1646.2) 예수께서는 육신의 치유를 원하는 소란한 무리를 피하여 엔돌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들이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주님은 사울 왕과 엔돌의 마녀에 대해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타락하고 반역적인 중도자들, 즉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때때로 흉내내온 그 존재들은 곧 통제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신에게 쏟아 부어준 후에는, -- 소위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간영적인 존재들은, 필사자 가운데서 연약한_정신과 악한_정신을 가진 자를 더 이상 사로잡을 수 없다고 추종자들에게 말씀했다.

146:7.2 (1646.3)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인간에게서 떠난 영은, 살아있는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자신이 있었던 원래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섭리시대 시기가 지난 다음에야, 필사적 사람의 진보하는 영이, 그것도 오직 특별한 경우에 그 행성의 영적 경영상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에 돌아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46:7.3 (1646.4) 그들이 이틀 동안 휴식을 취했을 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그 지방이 조용해지는 동안, 우리는 내일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며 가르치도록 하자. 고향에서는 지금쯤 이런 종류의 흥분에서 다소 가라앉았을 것이다.”

제147편 막간의 예루살렘 방문

147:0.1 (1647.1) 예수와 사도들은 3월 17일 수요일에 가버나움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까지 두 주일을 벳새다 본부에서 지냈다. 이 두 주 동안 사도들은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돌보며 언덕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디베랴로 두 번 은밀히 여행했는데, 거기서 신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헤롯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이 모임에 참석했다. 헤롯의 정식 가족 가운데서는 이 신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예수에 대한 그 통치자의 적대감이 많이 감소됐다. 디베랴의 이 신자들은, 예수께서 선포하는 “천국”이 본래 영적이고, 정치적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헤롯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헤롯은 집안사람 중에서 이 식구들을 믿었으며,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에 대한 널리 퍼진 평판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치유자나 종교 선생으로서 예수의 일에는 아무런 적대 감정을 갖지 않았다. 헤롯의 여러 조언자, 그리고 바로 헤롯조차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음에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던 한 무리의 신하들은, 예수와 사도들에게 모질고 위협적인 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공중 활동을 많이 훼방했다. 예수에게 가장 큰 위험은 헤롯이 아니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예수와 사도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지방보다 갈릴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대부분의 대중 전도를 갈릴리에서 했다.

1. 백부장의 하인

147:1.1 (1647.3)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날, 가버나움에 배치된 로마 수비대의 백부장인 지휘관 맹거스가, 회당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말했다:“내 충직한 당번병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 대신 예수께 가서 내 하인을 좀 치유해 달라고 간청해 주시겠습니까?” 로마 중대장은,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께 더 잘 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께 갔고, 그 대변인이 말했다:“선생님, 가버나움으로 가서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 주시기를 간청하는데, 당신이 그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당신께서도 여러 번 연설했던 바로 그 회당을 우리에게 지어 줬기 때문입니다.”

147:1.2 (1647.4)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갔는데, 그 집 마당에 들어서기 전에 로마 군인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를 맞이하게 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지시했다:“주여,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되니, 집안으로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여;당신과 같은 민족인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서신 곳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치유될 것을 압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으며, 내 아래에 군인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147:1.3 (1648.1) 그리고 이런 말을 듣자, 예수께서는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했다:“내가 이 이방인의 믿음에 감탄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그토록 훌륭한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서 돌아서면서, “그러면 돌아가자”고 말씀했다. 집으로 들어간 백부장의 친구들은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맹거스에게 들려줬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 시간부터 차도를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정상적인 건강과 유용한 상태로 돌아갔다.

147:1.4 (1648.2)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단지 이렇게 기록할 뿐이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는지

아닌지는,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그 하인이 완쾌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2. 예루살렘으로 여행함

147:2.1 (1648.3) 3월 30일 화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사도 일행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요단 계곡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4월 2일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본부를 베다니에 뒀다. 여리고를 통과하면서, 유다가 자기 가족의 친구가 운영하는 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는 동안, 그들은 휴식을 취하려고 잠시 멈췄다. 유다가 잉여금을 소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 저축금은,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중대한 여행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다시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47:2.2 (1648.4)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없었지만, 베다니에서 아직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육체를 치유받기 위해, 불안한 정신에 위로 받기 위해,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기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의 쉴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겻세마네에 천막을 쳤고, 주님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기 위해 베다니와 겻세마네를
오가곤 했다. 사도 일행이 거의 3주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예수께서는 대중 전도를 하지 말고, 오직
사적으로 가르치고 개인만을 상대로 일하라고 명했다.

147:2.3 (1648.5) 그들은 베다니에서 유월절을 조용히 축하했다.
그리고 예수와 열두 사도 모두가 희생 제물 없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요한의 사도들은,
예수 및 그의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아브넬과 함께, 그리고 요한의 전도를 초기에
믿었던 여러 신자들과 함께 그 축제일을 지켰다.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보낸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

147:2.4 (1648.6) 예수와 열두 사도가 가버나움으로 떠났을 때,
요한의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아브넬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과 그 근방의 지역에 남아서
조용히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했으며, 한편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일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다. 70명의 복음
전도자를 임명해서 파견하기 직전까지는, 스물네 명이 다

함께 일하는 경우는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집단은 협조적이었고, 의견이 달랐음에도 좋은 감정을 유지했다.

3. 베데스다 연못에서

147:3.1 (1649.1) 예루살렘에서 둘째 안식일 오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성전 예배에 막 참석하려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내가 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으로 안내했다. 이 연못 주위에는 다섯 개의 행각{行閣}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큰 무리의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 받으려고 모여 있었다. 이곳은 온천{溫泉}이었는데, 불그스레한 색의 물이, 연못 아래 있는 바위 동굴에 축적된 공기로 인해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끓어오르곤 했다. 많은 이가 이런 주기적인 온수 소용돌이를 초자연적 영향에서 온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물이 움직인 직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147:3.2 (1649.2)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과한 금지조치 하에서 조바심을 냈는데,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어린 요한이 이 금지조치에 특히 더 침착하지 못했다. 요한은, 모여 있는 환자들의 광경이 어찌면 주님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를 감동시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찌면 그가 치유의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경탄할 것이고, 곧 천국 복음을 믿도록 이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그 연못으로 모시고 왔다.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이 모든 고생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요한아, 어찌하여 내가 선택한 길에서 옆길로 가도록 나를 유혹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이적을 행하고 병자 치유하기를 바라느냐? 애야, 나는 네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병들어 괴로워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영원한 위안의 말을 해주겠다.”

147:3.3 (1649.3)

모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여기 있는 너희 대부분은, 여러 해 잘못된 삶으로 인해 병들어 괴로워한다. 더러는 뜻밖의 사고로, 더러는 조상이 잘못된 결과로 고생하며, 한편 너희 가운데

더러는 현세에 실존하는 불완전한 조건의 방해로 고전한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이 세상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너희의 영원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나도 일하려고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생의 어려움을 거의 바꿀 수 없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영원자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 너희의 육체적 고난이 모두 치유된다면 너희가 정말로 경탄하겠지만, 모든 영적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고, 모든 도덕적 허약함에서 치유됨을 발견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다. 시간의 속박이 너희를 괴롭히는 듯이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두려워 말라, 너희는 모두 응보뿐 아니라 풍성한 자비도 함께 발견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이 가르침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며;그런 신자는 이미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빛과 생명으로

건너가고 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147:3.4 (1649.4)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다수가 천국 복음을 믿었다.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더러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고 영적으로 소생해서, 자신의 육신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고 전파하며 다녔다.

147:3.5 (1649.5) 불안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여러 해 우울하고 심하게 고통 받던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넘쳤으며, 안식일인데도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고통 받던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그 모든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느낌의 피해자였으므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회복을 위해 그가 행해야 했던 한 가지였음이--곧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147:3.6 (1650.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했다고 꼬투리 잡기 전에,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그들은 동무들과

합류하기 위해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곧 떠났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과 예수가 이 안식일 오후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갔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4. 삶의 규율

^{147:4.1 (1650.2)} 같은 날인 이 안식일 저녁에 베다니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 그리고 신자 무리가 나사로의 정원에서 불 옆에 모여 있을 때, 나다니엘이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들에게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삶의 옛 규정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가르쳐주셨음에도, 나는 우리가 그런 권면을 어떻게 항상 지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제하려는 사람을 이처럼 죄 속에서 사악하게 바라보는 음탕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남들이 자신에게 해주기 바라는 대로 저들에게 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147:4.2 (1650.3)}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질문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손가락으로 그 사도를 가리키면서

말씀했다:“나다니엘아, 나다니엘아! 너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영으로 난 자로서 내 교훈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지혜와 영적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를 듣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대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나는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내 가르침을 왜곡해서 악한 행위를 장려하는 면허증으로 삼도록, 유혹받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147:4.3 (1650.4) 주님께서 말을 마치자, 나다니엘이 일어나서 말했다:“그러나 주님,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그런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훈계를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우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니엘이 자리에 앉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나다니엘아, 나는 네가 마음 속에서 그런 악한 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내 평범한 교훈에 대해 너희가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것에 실망하는데, 그 교훈은 인간 언어로, 그리고 틀림없이 사람들이 말하듯 너희에게 제시한 설명이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이 네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저들을 대하라'는 이 훈계, 즉 이 삶의 규율에 대한 해석에 부가돼있는 여러 다른 수준의 의미에 관해 가르쳐 주겠다:

147:4.4 (1650.5) " 1. **육신 수준**. 그런 순전히 이기적이고 음탕하게 해석한 예는, 네가 추측하면서 질문한 것이 잘 보여줄 것이다.

147:4.5 (1650.6) " 2. **감정 수준**. 이 경지는 육신의 수준보다는 한 단계 높으며,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은, 이 삶의 규율을 사람이 높게 해석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147:4.6 (1650.7) " 3. **정신 수준**. 이제 정신의 논리와 체험의 지성이 활동하게 된다. 훌륭한 판단은, 그런 삶의 규율을 고귀하고 심오한 자존감이라는 가장 높은 이상주의에 조화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147:4.7 (1651.1) " 4. **형제다운 사랑의 수준**. 동료들의 안녕에 이타적으로 헌신하는, 좀 더 높은 경지의 수준이 발견된다. 더 높은 이 수준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의식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형제관계임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진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수준에서, 이런 삶의 기본
규율에 대한 새롭고 훨씬 아름다운 해석이 발견된다.

147:4.8 (1651.2) " 5. **도덕 수준**. 그다음에 너희가 참된 철학적
수준에서 해석할 때,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영원이 건전한 인간관계를 감지할 때,
마치 너희 삶의 상황에 적응하는 너희의 개인 문제에
적용하듯이 좀 더 고상한 정신으로, 이상적이고, 현명하게,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제 삼자가 그런 명령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라고 너희가 상상하는바 대로, 너희는 그런
해석의 문제를 비로소 바라볼 것이다.

147:4.9 (1651.3) " 6. **영적 수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대한, 영 통찰력과 영적 해석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리라고 우리가
아는바 대로 저희를 대하라는 신성한 명령을, 이 삶의
규율에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재촉한다. 이것이
우주에서 인간관계의 이상{理想}이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항상 행하기를 너희가 최상으로 바라게 될 때, 이것이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다. 그러므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리라고 너희가 아는 그것을, 너희도 저들에게 행하기를 바란다.”

147:4.10 (1651.4) 이때처럼 예수께서 사도들을 놀라게 한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러간 후에도 한동안 주님의 말씀을 계속 검토했다. 나다니엘은 자신의 질문의 성격을 예수께서 오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헤어나기 힘들어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철학적인 동료 사도가 용감하게 던진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다.

5. 바리새인 시몬을 방문함

147:5.1 (1651.5) 시몬은 비록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신도였으며, 심한 비난을 살 수 있음에도, 예수와 그의 개인 동역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담하게 자기 집으로 연회 자리에 초대했다. 시몬은 오랫동안 주님을 지켜봤으며, 그의 교훈에 많이 감동됐고, 그의 인간성에 더 감동됐다.

147:5.2 (1651.6) 부유한 바리새인은 자선 행위에 몰두했고, 자신의 자선 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고자 할 때, 때로는 나팔을 불기까지 했다. 바리새인이 저명한 손님들을 위한 만찬을 베풀 때, 심지어 거리의 거지들도 들어오도록 그 집의 문을 열어 놔고, 거지들은 식사하는 사람의 의자 뒤에서 방의 벽을 따라 둘러서서, 손님들이 던져 줄지도 모르는 음식 조각 받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

147:5.3 (1651.7) 이 특별한 기회에 거리에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온 자들 중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최근에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신자가 됐다. 이 여자는 전에 이방인의 성전 뜰 가까이에서 노골적으로 장사하는 소위 고급 매음 장소를 갖고 있던 주인으로서, 예루살렘 전역에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 후에, 좋지 못한 사업을 그만뒀고, 자신과 관련된 대다수의 여자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인도했으나;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바리새인으로부터 경멸을 받았고, --매춘부 표시로-- 머리를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이 이름 없는 여자가 향유{香油}를 담은 큰 병을 갖고 와서, 식탁에 앉은 예수의 뒤에 서서 울며,

감사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향유 바르기를 끝낸 후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췄다.

147:5.4 (1652.1) 시몬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그녀가 악명 높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말씀했다:“시몬아, 내가 네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시몬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어느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값을 돈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졌다. 시몬아, 너는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시몬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자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고,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계속했다:“시몬아, 이 여자를 잘 보라. 내가 네 집에 초대된 손님으로 들어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감사를 표시하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영접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으나, 저 여자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이것은 단지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더 많이 사랑하게 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고,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씀했다: “너는 네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고, 네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지각없고 불친절한 네 동료들의 태도로 인해 낙망하지 말고, 하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가거라.”

147:5.5 (1651.9) 시몬,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던 친구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자 더 놀랐으며, “이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죄까지도 용서하는가?”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여자를 보내면서 말씀했다: “여자여, 평안히 가라; 네 신앙이 너를 구원했다.”

147:5.6 (1651.10) 친구들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면서, 예수께서 시몬을 돌아보며 말씀했다: “네 마음이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네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그런 네 심정을 잘 알지만;나는 네가 빛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대받지 않고 환영받지 못한 네 손님의 마음 속에 이미 찾아온 천국 복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네 인생의 처소에서도 정신과 영이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선언하겠는데, 아버지께서는 들어오려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에게 하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가장 천박한 혼 또는 지상에서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들어오기를 구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 연합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청한 주인에게 작별을 알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야영지에 머무는 나머지 사도들과 합류하려고 떠났다.

147:5.7 (1653.1) 예수께서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과 관련된 신분의 상대적 가치와, 낙원으로 영원히 상승하는 진보에 관해, 오래_기억에_남을 긴 연설을 사도들에게 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애들아,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참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실존한다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이상{理想}을 향해서 확실히 계속 진보할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자녀가 느리게 발전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발전은 확실하다. 중요한 점은, 너희가 발전하는 속도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이다. 너희가 실제로 성취하는 성과는, 너희의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너희가 하루하루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무한히 중요하다.

147:5.8 (1653.2) "너희 가운데 일부가 오늘 시몬의 집에서 본 이 변화된 여자가, 지금 당장은 시몬과 그의 악의_없는 동료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지만;이 바리새인이 무의미하게 예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짓된 모임들을 오가면서, 착각하는 거짓 진보에 사로잡혀있는 동안, 이 여자는 확실한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길고 중대한 추구를 시작했으며,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녀의 길은 영적 자존심이나 도덕적 자만심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나, 그녀의 혼은 점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며;그녀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중이다. 이 여자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영적

가능성이 있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혼과 영의 실제 수준에서 높은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너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 향상을 보이고 있다. 너희 각자에게는 미래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 죽어버린 세상 지혜와 영적 불신으로 가득 찬 큰 지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작지만 살아있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147:5.9 (1653.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리석음에 대해 사도들에게 진지하게 경고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죄를 묵인하고 무모함을 용서하는, 그렇게 느슨하고 험겁고 어리석게 관대하기만 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는 청중에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공모해서 지각없는 자녀의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고, 그리하여 자식이 죄를 범하고 일찍부터 타락하도록 만드는 데 확실하게 직접 기여하는, 너무 관대하고 현명치 못한 어떤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도록,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예증을 적용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모든 발걸음에서

자멸하고 자살하는, 그런 행위와 버릇을 관대하게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런 죄로 가득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혐오스럽다.”

147:5.10 (1653.4) 예수께서 사도들과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약간 사적인 다른 여러 모임과 연회에 참여했다.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믿게 됐으며, 그들은 나중에 아브넬과 동역자들에게서 세례를 받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남아 있었다.

6.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147:6.1 (1653.5) 4월 마지막 주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본부를 떠나서, 여리고와 요단을 경유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147:6.2 (1654.1)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관한 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비밀 회담을 열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중단시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그들 모두가 동의했지만, 방법에서는 합의할 수 없었다. 그들은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것처럼 정부가

예수를 처벌해 주기 바랐으나, 로마인 관리들이 그의 설교에 그다지 놀라지 않도록, 예수께서 일을 잘 진행시켰음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떠나기 전날 열렸던 회담에서,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문제로 체포하여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여섯 명의 비밀 정탐꾼이 예수를 따라가도록 임명됐고, 그들은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다가, 율법을 어기거나 신성모독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고하기로 했다. 이 여섯 유대인은 약 30명 정도 되는 사도 일행과 여리고에서 만났고, 제자가 되려는 것처럼 가장해서 예수의 추종자 일행에 합류했는데, 갈릴리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때까지 그 집단과 함께 남아 있었으며; 그 후에 그들 가운데 세 명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에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7:6.3 (1654.2) 요단강을 건널 때 모여 있는 무리에게 베드로가 전도했으며,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아마수스 쪽으로 강을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곧바로 가기 원했으나, 거기 모여 있던 무리로 인해 3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또한 세례를 줬다. 그들은 5월 첫 날인

안식일 이른 아침까지 고향을 향해서 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루살렘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여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에 대한--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첫 고소 물증을 분명히 확보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예수께서 안드레를 불러, 유대 안식일의 법적 거리인 1,000 야드만 가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147:6.4 (1654.3)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예수와 동역자들을 고소할 기회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다. 그 일행이 좁은 길을 따라서 지나갈 때, 양쪽 길가 가까운 곳에 방금 무르익기 시작한 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사도 중에서 몇 명이 배가 고팠으므로, 익은 곡식을 뜯어 먹었다. 여행자가 길을 지나가면서 곡물을 뜯어먹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이것을 예수를 비난 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손으로 낱알을 비비는 안드레를 보자, 그에게 가서 말했다:“안식일에 낱알을 뜯어 손으로 비비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임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대답했다:“우리는 배가 고파서 필요한 만큼만 취했는데;언제부터 안식일에 곡물 먹는 것이 죄가 됐느냐?” 그러나 바리새인이 대답했다:“먹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낱알을 뜯어서 두 손으로 비비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며;너희 주님께셔도 그런 행동을 확실히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자 안드레가 말했다:“곡물을 먹는 것이 잘못 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일이, 너희가 허락하는 곡물을 씹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인데;어찌하여 그런 하찮은 일로 억지를 쓰는가?” 안드레가 그들을 궤변가라고 넌지시 비난하자, 그들은 격분하여, 예수께서 마태와 말씀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곳으로 급히 가서 항의하며 말했다:“보십시오, 선생님,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일을 당신의 사도들이 하는데;그들은 낱알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에게 그만 두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고발하는 자들에게 말씀했다:“너희는 진정으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로구나. 안식일을 신성하게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매우 잘 기억했지만;다윗이 배가 고파 자신과 함께 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陳設餅}을 먹고, 또한 함께 한 자들에게도 줬다는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꼭 필요한 여러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오늘 먹으려고 준비해 온 너희의 음식을 너희가 먹는 것을, 이날이 가기 전에 내가 보지 않겠느냐? 여보게들, 너희가 안식일을 열성적으로 잘 준수하는데, 동료들의 건강과 복지를 더 지켜주도록 하라. 내가 선언하겠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면, 내가 공공연히 선포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147:6.5 (1655.1) 바리새인들은, 그의 통찰력과 지혜 있는 말에 경탄했고 당황했다. 그들은 그날 나머지 시간을 자기들끼리 따로 있으면서,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147:6.6 (1655.2) 유대인의 전통을, 그리고 노예처럼 예식절차를 지키기를 반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가 행동한 것, 그리고 그가 확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주님은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데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방종함으로 죄를 지어 자신을 속이지 않고도, 삶의 자유를 즐길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사람들아, 너희가 진리로 깨우침을 얻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그러나 너희가 신성한 길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하며, 이미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

7. 가버나움에 돌아옴

147:7.1 (1655.3) 예수와 열두 사도가 다리키아에서 배를 타고 벳새다로 간 때는, 5월 3일 월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그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배로 여행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공식 정탐꾼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냈다.

147:7.2 (1655.4) 화요일 밤에,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질의답변 식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섯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나는 오늘 여기서 당신의 가르침에 참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금식하라고 했고, 요한도 추종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명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요한의 말에 관련해서 이 질문자에게 대답했다: “혼인잔치 집 자녀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느냐?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가 오는데, 그 시절 동안에는 혼인잔치 집 자녀들이 틀림없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런 일이지만, 금식하는 것은 하늘 나라의 복음의 일부가 아니다. 현명한 재단사는, 줄지 않은 새 천 조각을 헛 옷 위에 기우지 않는데, 그것이 젖으면 줄어들어서 보기 싫은 틈을 만들까 염려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또한 누구든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못쓰게 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따라서 내 사도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새 가르침 위에 낡은 명령을 너무 많이 덧붙이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고 있다. 선생을 잃어버린 너희는 한동안 금식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모세의 율법에 어울리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도래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신성한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위로를 받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더욱 어리둥절했다.

147:7.3 (1656.1)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옛 교훈을 새로운 교리로 완전히 대치해야한다는 개념을 품지 말라고 청중에게 경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오래되고 참된 것은 지속돼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새롭지만 거짓된 것은 거부돼야만 한다. 그러나 새로우면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옛 친구를 저버리지 말 것이니, 새 친구는 그에게 비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처럼 새 친구도 그런데;그것이 오래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8. 영적 선택의 축제

147:8.1 (1656.2) 그날 밤에 일반 청중이 돌아간 뒤 오랫동안,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계속했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이사야 선지서에서 인용했다:

147:8.2 (1656.3) ”왜 너희가 금식했는가? 압박 속에서 기쁨을 찾고, 불의에서도 즐거움 찾기를 계속한다면, 무슨 이유로 너희 혼을 괴롭히는가? 보라, 너희는 투쟁과 논쟁을 위해,

그리고 사악한 주먹으로 쳐부수려고 금식 한다 . 그러나 너희는, 자기 목소리가 높은 곳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7:8.3 (1656.4) "'내가 선택한 것이 그런 금식이냐?--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입고 엎드림이 그것이냐? 너희가 감히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고, 주{主}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하는 금식은,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내 빵을 나눠주며, 집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벗은 자를 보면, 그들을 입힐 것이다.

147:8.4 (1656.5)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건강이 신속히 샘솟을 것이다.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주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주를 부를 때 그가 대답하겠고;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압박과 저주와 허영을 버린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리라. 아버지께서는, 네가

배고픈 자들에게 네 심정을 털어놓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혼을 돌보기 원하시며;그리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고, 네 어둠이 대낮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 혼을 만족하게 하고, 네 힘을 새롭게
하시리라.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황폐하게 된
영광을 다시 세울 것이며;여러 세대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무너진 벽을 수리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안전한 길을 회복시켜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불리리라.”

147:8.5 (1656.6)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천국에서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은, 혼을 괴롭힘도, 금식함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밤늦도록 사도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사도들에게, 적어도 옛 선지자의 관념에
도달하기까지 살아야함을 열심히 당부했고, 그들이
심지어 이사야는 물론 그 전 선지자들의 이상보다 훨씬 더
진보됐으면 하는 희망을 표현했다. 그날 밤에 그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다:“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147:8.6 (1656.7) 새벽 두 시가 지나서야 예수께서 말씀을 끝냈고, 모든 사람은 잠을 자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제148편 벧새다에서 전도자 훈련

148:0.1 (1657.1) 서기 28년 5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수와 사도 일행은 벧새다에서 세베대의 집에 거주했다. 다섯 달 동안의 이 건조한 계절 내내,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을 따라서 거대한 야영지가 형성됐고, 늘어나는 예수의 일행으로 인해 점점 더 확장됐다. 진리 탐구자, 치유를 바라는 자,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로 구성된 500에서 1,500명에 달하는, 항상 변하는 숫자의 사람이 이 야영지에 있었다. 이 천막 도시는, 전반적으로 알패오 쌍둥이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던, 세베대의 아들 다윗의 감독 아래 있었다. 그 야영지는, 전반적 경영은 물론이고, 질서와 위생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유형에 따라서 병자들이 분리됐고, 신자{信者} 의사인 엘만이라는 시리아인이 관리했다.

148:0.2 (1657.2) 사도들은 이 기간 내내, 적어도 매주 한 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그렇게 잡은 것을 해변 야영지에서 소비하도록 다윗에게 팔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금을 그 집단의 회계에게 맡겼다. 열두 사도에게는, 매 달 한 주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내도록 허락됐다.

^{148:0.3 (1657.3)} 안드레가 사도 활동을 전반적으로 계속 책임졌고, 베드로는 전도자 학교를 전적으로 책임졌다. 매일 오전에는 사도들이 전도자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몫을 담당했고, 오후에는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가 사람들을 가르쳤다. 사도들은 한 주에 다섯 동안, 저녁식사 후에,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질문 시간을 가졌다. 한 주에 한 번은 예수께서 이 질문 시간을 주재했고,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그 이전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

^{148:0.4 (1657.4)} 다섯 달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야영지를 다녀갔다. 로마 제국 전역과 유프라테스 동쪽 지역에서, 관심 있는 자들이 자주 참석했다. 이때는 주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한 곳에 가장 오래 정착되고 잘_조직된 기간이었다. 예수의 친 가족은, 이 시간 대부분 나사렛 또는 가나에서 지냈다.

^{148:0.5 (1657.5)} 그 야영지는 사도 일행처럼 공유 자산 공동체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이 큰 천막 도시를 자급자족하는 기업으로 키우면서 이끌어나갔는데,

그럼에도 한 사람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항상 변화를 겪어가던 이 야영지는, 베드로의 전도자 훈련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었다.

1. 새로운 선지자 학교

148:1.1 (1657.6) 예수께서는, 전도자 학교에 입학하려는 신청자들의 심사 위원으로, 베드로, 야고보, 및 안드레를 임명했다. 로마 세계와 멀리 인도에 이르는 동양의 모든 종족과 민족이, 새로운 이 선지자{先知者}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있었다. 이 학교는 배우면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전 동안 배웠고, 오후에는 그것을 해변에서 회중에게 가르쳤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오전에 배운 것과 오후의 가르침에 대해 토의했다.

148:1.2 (1658.1) 사도 선생들은 각자 천국 복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르쳤다. 그들은 똑같이 가르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며; 신학적 교리를 표준화하거나 신조 형식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들 모두가 같은 진리를 가르쳤음에도, 각 사도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개인 해석을 발표했다. 예수께서는 천국 일을 하면서 얻은 개인 체험의

다양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지지했고, 한편으로는 매주 한 번 질문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견해를 반드시 조화시키고 조정했다. 가르치는 문제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개인적 자유가 있었음에도, 시몬 베드로의 영향력이 전도자 학교의 신학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다. 베드로 다음으로는 세베대의 아들이고보가 가장 큰 개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148:1.3 (1658.2) 이 5개월 동안 해변에서 훈련받은 100명 이상의 전도자가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아브넬 및 요한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중의 70인 복음 선생 및 설교자가 뽑혔다. 전도자 학교는 열두 사도가 그랬던 것과 같은 정도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148:1.4 (1658.3) 이 전도자들은, 직접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예수께서 나중에 70인의 천국 사자{使者}들로 임명하기 전에는,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여기서 해 질 무렵에 치유 받았던 큰 무리 가운데 겨우 일곱 명이 이 전도자 학생에 포함됐다. 가버나움 귀족의 아들도, 베드로의 학교에서 복음 활동을 위해 훈련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2. 벧새다 병원

148:2.1 (1658.4) 해변에 있는 야영지와 관련하여, 시리아인 의사 엘만이, 25명의 젊은 여자와 열두 명의 남자로 구성된 한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의 첫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조직해서 네 달 동안 운영했다. 그들은 천막 도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이 병원에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격려하는 영적 실행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모든 물질적 방법을 동원해서 병자를 치료했다. 예수께서는 한 주에 세 번 이상 이 야영지의 병자들을 방문했고, 고생하는 자들 각자와 친히 만났다. 우리가 아는 한, 고난당하고 병약했던 사람 1,000명이 호전되거나 고침 받아서 이 진료소{診療所}를 떠났지만, 그들 가운데서 소위 초자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혜택을 입은 개인들 대부분은 자신을 예수께서 치유했다고 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148:2.2 (1658.5) 예수께서 엘만의 환자들을 보살핀 것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치유 가운데 다수가, 확실히 기적의 작용과 비슷한 듯 보였지만, 그 치유는 신앙에 지배되고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의 체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영의 변화였을 뿐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들은 강하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인 인간성의 즉각적이고 영감어린 영향을 받았으며, 그런 인간성의 보살핌은 두려움과 걱정을 없앴다.

148:2.3 (1658.6) 엘만과 그 동역자들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힘”에 대해 이 병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나,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고난당하는 자의 정신이나 몸속에 소위 더러운 영이 들어있음으로써, 육신의 질병과 정신 착란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보편적이었다.

148:2.4 (1659.1)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만나는 모든 경우에, 치료하는 기법 또는 질병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을 밝히는 문제에 부딪칠 때,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육신화 모험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낙원 형제 임마누엘에게서 받았던 지시를 염두에 뒀다. 그럼에도, 병자들을 돌보던 그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병들고 고생하는 자들의 신앙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많은 유익한 교훈을 얻었다.

148:2.5 (1659.2) 그 야영지는 말라리아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계절 바로 전에 해산됐다.

3. 아버지의 일

148:3.1 (1659.3) 이 기간 내내, 예수께서 야영지에서 대중 예배를 인도한 것은 열두 번 미만이었으며,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들과 함께 공적인 2차 갈릴리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두 번째 안식일에 가서야 한 번 강연했을 뿐이다.

148:3.2 (1659.4) 세례 받은 후로, 벳새다에서 전도자들을 훈련하는 이 야영지 시절만큼 주님이 그렇게 많이 혼자 지낸 기간은 없었다. 사도들 중에서 누구든지, 예수께 어찌하여 자신들로부터 그렇게 자주 떠나가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대답하곤 했다.

148:3.3 (1659.5) 예수께서는 이렇게 떠나 있는 동안, 사도들 가운데 오직 두 사람만 대동했다.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00명 넘는 새로운 전도자 후보를 훈련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동무들로서의 임무에서 잠시 풀어줬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돌보기 위해 언덕으로 가기 원할 때, 한가한 사도들 중에서 아무나 두

사람씩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서 열두 사도 각자가 예수와
가깝게 지내며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148:3.4 (1659.6) 이 기록을 위한 목적으로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언덕에서 그렇게 혼자 지내던 이 여러 기간에, 주님은 우주
직무에 관여하는 주요 지휘관들과 직접 행정적인 연합을
이뤘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왔다. 대략 그가 세례 받았던
시기 이후로 줄곧, 우리 우주의 이 육신화 된 주권자는,
특정한 국면들의 우주 경영을 지시하는데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이 세상 직무에 적게 참여 했던 이 기간에, 항상 측근
동역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광대한
우주의 운영을 책임 맡은 그 높은 영 지성체들을 지시하는
일로 바빴다고 생각해 왔으며, 인간 예수께서는 그런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버지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
표명하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해 왔다.

148:3.5 (1659.7) 예수께서 두 사도만 데리고 홀로 여러 시간
보내던 시절에, 가까이 있던 그들은, 그가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빠르고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또한 그들은,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도 도무지 보지 못했는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중에 목격했던 바와 같이, 그 존재들은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4. 악, 죄, 죄악

148:4.1 (1659.8) 예수께서는 습관적으로, 매 주 이틀 저녁 세베대의 정원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직접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대화했다. 이렇게 상담 시간을 갖던 어느 날 저녁에, 도마가 주님께 질문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악한 자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 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듣고 도마에게 대답했다:

148:4.2 (1660.1) “*악한 자*, 더 분명히 말하면 *죄악을 범한 자*와 *악을* 혼동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자라고 부르는 그는, 이기적인 아들, 즉 내 아버지와 그의 충성된 아들들의 규율을 어기고, 고의적인 반역을 알면서 행했던 고위 경영자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죄 많은 반역자들에게 이겼다. 아버지와 우주에 대한 이런 상반된 태도를 네 정신 속에서 분명히

해뒤라. 아버지 뜻에 관계되는 이런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148:4.3 (1660.2) "악{惡}은, 신성한 율법, 즉 무의식적으로 또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악은 아버지
뜻에 얼마나 불완전하게 순종하는가를 재는 척도다.

148:4.4 (1660.3) "죄는, 신성한 율법, 즉 아버지 뜻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다. 죄는, 신성하게 인도되고
영적으로 지시받기를 얼마나 싫어하지를 재는 척도다.

148:4.5 (1660.4) "죄악은, 신성한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갖고, 완고하게, 계속해서 위반하는 것이다. 죄악은,
사랑으로 인격체를 생존하게 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자비로운 구원의 사역을, 얼마나 계속
거부하는지를 재는 척도다.

148:4.6 (1660.5) "필사적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선천적으로 악한 경향에 지배되지만, 그런 자연스런
불완전한 행실은 죄가 아니고 죄악도 아니다. 필사적
사람은, 낙원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에 이르는 긴
오르막길을 막 내딛고 있다. 타고난 재능에서

불완전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죄가 아니다. 사람은 정말로 악에 굴복하기 쉽지만, 알면서도 고의로 죄의 길과 죄악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도 악한 존재의 자녀가 아니다. 악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 내재적이지만, 죄는 영적인 빛으로부터 짙은 어둠 속으로 빠진 자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의식하면서 반역하는 태도다.

148:4.7 (1660.6)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와 페르시아인의 오류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완벽한 아담으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죄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타락해서 현재의 한심스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너는 악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해서 놋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아내를 얻었는지를 드러내는 그 기록의 의미를 납득하기를 왜 거부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기를 어찌하여 거부하느냐?

148:4.8 (1660.7) "사람은 정말로 본래 악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새로 태어남은--곧 영으로 세례

받음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중에 아무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잠재적 악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외계인, 외래인, 또는 양자로서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입양되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모든 의견은, 첫째로 네가 아버지를 오해한 데서, 둘째로 사람의 기원, 본성, 및 운명을 몰라서 생긴다.

148:4.9 (1660.8) “그리스인 및 다른 이들은, 사람이 신{神}처럼 완전한 처지에서, 망각 또는 파멸을 향해 꾸준히 타락했다고 너희에게 가르쳤으나;이제 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신성한 완전성을 향해 확실히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영원한 아버지 뜻의 신성하고 영적인 이상{理想}에 어떤 면에서든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악하지만, 그런 존재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며, 죄악을 범한 것은 더욱 아니다.

148:4.10 (1661.1) “도마야, 성서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아들로 택했으며,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름 받는 자들도 다 오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태어난 아이에게는 인간 아버지의 물질 요소가 있는 반면, 천국의 신앙 아들마다 그 속에 하늘 아버지의 영적 단편이 있다.”

148:4.11 (1661.2) 이 모든 것은 물론, 더 많은 것을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고, 그는 대부분을 납득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도마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는 이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5. 고난의 목적

148:5.1 (1661.3) 정원에서 개인적으로 면담했던 다른 경우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나는 당신께서 치유를 베풀기를 왜 절제하시는지 비로소 이해하지만,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그렇게 많은 자녀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지,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대답했다:

148:5.2 (1661.4) “나다니엘아, 너 또는 다른 많은 사람이 그런 식의 혼동을 겪는 것은, 아버지 뜻에 반항한 어떤 반역자들이 죄 많은 모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얼마나 여러 번 격동돼 왔는지, 네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시발점을 만들려고 왔다. 그러나 우주의 이 부분을 옛 경로들로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죄와 반역으로 추가된 괴로움에서 사람의 자녀들을 풀어주려면, 여러 시대가 필요할 것이다. 악의 현존만으로도, 사람의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험이다--죄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다.

148:5.3 (1661.5) “그러나 애야, 너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사람은 신성한 뜻을 따라서 좀 더 나은 길로 걸어가기를 끊임없이 거절한

결과로,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한다. 고난이 악에 잠재돼 있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죄와 죄악으로 인해 생겼다. 많은 유별난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났고, 분별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목격하는 고통과 고난의 장면들로 당황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한 가지를 너희가 확신할 것인데: 아버지께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독단적 형벌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악에 속한 불완전함 및 불리한 조건은 내재적이며; 죄에 대한 벌은 피할 수 없으며; 파괴시키는 죄악의 영향력은 변경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삶의 자연스런 결과인 그런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한 부분인 그런 체험에 대해, 불평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신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불행을 총명하게 머리를 씌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48:5.4 (1662.1) "나다니엘아,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정신에 박차를 가해서, 복잡한 물질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영감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네가 성서를 읽으면서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무지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너무 자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네가 납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직접 책임은 아니다. 네가 순수하게 또는 고의로 그런 신성한 법령을 어겼으므로, 그가 제정한 의롭고 현명한 어떤 율법이 우연히 너를 괴롭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148:5.5 (1662.2) “그러나 나다니엘아, 네가 성서를 분별하면서 읽기만 했어도, 배울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기록된 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경멸하지 말며;그의 처벌을 싫어하지도 마라, 이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꾸짖는 것 같이, 주께서 꾸짖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괴롭히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데, 이로 인해 내가 신성한 법령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피난처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 있다.’ ‘주는 또한 압박당하는 자의 피난처시요, 환난 때의 쉼터시다.’ ‘주께서 고난의 병상에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며;주께서는

병자를 잊지 않으신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는 네 체질을 아시며;네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시며, 고뇌 속에 있는 궁핍한 자들의 힘이시며,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시며, 강력한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연기 나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네가 고난의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역경의 강물이 네게 넘칠 때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보내서 상심한 자들을 감싸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셨다.’ ‘고통 속에는 꾸지람이 있으며;고난은 티끌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6. 고통에 대한 오해--옴에 대한 강연

148:6.1 (1662.3) 같은 날 밤 벳새다에서, 아주 명백하게 선한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고난을 체험하는지에 대해 요한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많은 다른 것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148:6.2 (1662.4) “얘야, 너는 역경의 의미 또는 고통의 사명을 납득하지 못한다. 너는 샘족속 문학작품 중에서 걸작인-- 욥의 고난이라는 성서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이 훌륭한 비유가, 주의 종의 물질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욥은, 자식, 재산, 명예, 지위, 건강 등, 즉 사람이 현세의 삶에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 복을 받았음을 너는 잘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유서 깊은 교훈에 의하면, 그런 물질적 번영은 신{神}의 은총을 받았다는 완전히_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런 물질 소유물이나 그런 현세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시며;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148:6.3 (1663.1) “신성한 법을 어기면 처벌이라는 결과가 조만간 따라오기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결국 반드시 거두지만, 그래도 인간의 고통이 반드시 그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저희의 난처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을 찾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관점으로는, 이 독특한 비유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너는

도저히 사탄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욥은, 자신의 지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 또는 자신의 철학적인 어려움의 해결책을, 고난을 통해서는 찾지 못한 반면, 큰 승리를 거뒀는데;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어가 붕괴되는 바로 그 앞에서도, 진지하게,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경지로 자신을 끌어 올렸으며;그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욥은, 잘못 이해된 고난을 통해서도 도덕적 이해와 영적 통찰력을 얻는, 초인적 경지로 올라갔다. 고난 받는 종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을 때, 모든 인간적 이해를 초월하는 혼의 평화가 따라왔다.

148:6.4 (1663.2) "욥의 첫째 친구 엘리바스가 수난자에게, 그가 번성했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했던 동일한 곳곳함을 자신의 역경 속에서 보이라고 훈계했다. 이 거짓 위안자가 말했다:'욥이여, 네 종교를 신뢰하라;사악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이지,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이 벌을 받을 일을 했음에 틀림없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음을 너는 잘 안다. 사악한 자는 절대로 번성할 수 없다는 것도 너는 안다.

아무튼, 사람은 고생이 예정된 것처럼 보이며, 아마 주께서 너를 좋게 하기 위해 벌하시는데도 모른다.’ 인간적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석에서, 불쌍한 욕이 크게 위로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148:6.5 (1663.3) “그러나 둘째 친구 빌닷의 조언은, 당시에 받아들여지던 신학 관점에서는 정당하게 들리더라도, 더욱 짓눌렀다. 빌닷이 말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실 수 없다. 네 자녀가 죽었으니 그들은 죄인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네가 잘못했음이 분명한데, 그렇지 않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당할 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정녕 의롭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고통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전능자께서는 단지 사악한 자들만 죽이신다는 것을,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신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148:6.6 (1663.4) “그리고 나서 욕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너는 기억한다. 그가 말했다: ‘도와달라는 내 외침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을 나는 잘 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철저히 내 무죄를 무시하실 수 있는가? 내가 전능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만족도 얻을 수 없음을 배우고 있다. 사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심을 너희는 분별할 수 없는가? 사람이 그토록 약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대체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나를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도록 나를 만드셨단 말인가?”

148:6.7 (1663.5) “친구들의 조언, 그리고 그의 정신을 차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비춰볼 때, 누가 욥의 태도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욥이 *인간다운* 하나님을 열망했다는 것,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알고 또한 낙원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 중에서 이 첫 번째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올바른 자들이 종종 억울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그런 신성한 존재와 대화하기를, 욥이 몹시 원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겠는가? 그래서, 욥이 견딘 고난을 견디라고 요청받을 모든 사람을 이제부터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려고 아버지로부터 왔다.

148:6.8 (1663.6) "욥의 셋째 친구 소발은 그보다 더 위로가 안 되는 말을 했다: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함을 나는 시인한다. 네 비극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욥은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으로 살 날이 적고, 근심이 가득하나이다'라는 사실을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직접 간청했다.

148:6.9 (1664.1) "그때 그의 친구들과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됐다. 엘리바스는 더욱 단호해졌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욥이 친구들을 경멸하자 빌닷은 분개했으며, 소발은 우울한 조언을 되풀이했다. 이 무렵에 욥은 친구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께 다시 호소했으며, 이제 그는, 친구들의 철학으로 유형화되고 자신의 종교적 태도에도 소중히 간직했던 불공평한 하나님에 맞서서, 공정하신 하나님께 탄원했다. 그 다음에 욥은, 필사자 실존에서 생기는 불공평함이 좀 더 공정하게 수정될까 싶은 미래의 삶 속에 피난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사람에게서 도움 받지 못했으므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 그러자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서 신앙과 의심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켰다. 마침내, 인간 수난자는 생명의 빛을 보기 시작했으며;괴롭힘을 받던 그의 혼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높은 경지로 올라갔으며;그가 계속 고생하다가 죽을지도 몰랐지만, 그의 깨달은 혼은 이제, '내 옹호자가 살아계신다!'는 승리의 외침을 부르짖었다.

148:6.10 (1664.2) "하나님이 부모를 벌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교리에 옴이 도전했을 때, 그가 참으로 옳았다. 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시인할 준비가 언제나 돼 있었으나, 영원자의 인격적 성품에 대하여 혼을_만족시키는 어떤 계시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다. 어떤 고통 받는 필사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에 훌륭한 개념이었지만,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며;오히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이것이 그 길이니, 그곳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거하심을,

너를 그분처럼 만들려고 그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너는 납득하지 못한단 말이냐!”

148:6.11 (1664.3)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했다:“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를
자진해서 괴롭히지 않으신다. 첫째로, 사람은 시간세계의
사건들로 인해, 그리고 미숙한 육체적 실존의 악{惡}인
불완전함으로 인해 고생한다. 그 다음에, 그는 --생명과
빛의 법을 어긴-- 냉혹한 죄의 결과로 고생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의로운 규율에
대항하는 반역에 스스로 간악하게 집착했던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둔다. 그러나 사람의 곤경은, 신성한 심판이
개인에게 불시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현세의 고통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끝으로 한번만 더 말하지만, 악한 자가
부추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신다는
미신으로부터 단호히 벗어나라.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이 선한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발견하기 위해 욕기를 읽어 보라;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도, 심지어 심하게 고난당하던
욕이 어떻게 위안과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는지

유의하라. 마침내 그의 신앙은 고통의 구름을 꿰뚫었고, 아버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빛이 치유하는 자비요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148:6.12 (1664.4) 요한은 마음 속으로 이 말씀을 여러 날 숙고했다. 그의 남은 생애 전체는, 그 정원에서 주님과 가진 이 대화의 결과로 현저히 변화됐으며; 나중에 다른 사도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고난의 근원, 본질, 및 목적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바꾸는 데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 회담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7. 손 마른 사람

148:7.1 (1664.5) 사도들과 새 전도자 단체가 2차 갈릴리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둘째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의로운 삶의 기쁨”에 대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했다. 예수께서 말씀을 끝냈을 때, 불구된 자, 절름발이, 병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큰 무리가, 치유 받으려고 그를 둘러싸며 모여 들었다. 또한 그 무리에는, 사도들, 새 전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정탐꾼들도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언덕으로 갔을 때를

제외하고) 예수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여섯 명의 예루살렘 정탐꾼도 반드시 따라왔다.

148:7.2 (1665.1) 예수께서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바리새인 정탐꾼 우두머리가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께 가까이 가서 안식일에 치료 받는 것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치유 받기를 구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에게서 보냄 받았음을 감지하면서 말씀했다:“네게 물어 볼 것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라. 네게 양 한 마리가 있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손을 아래로 뻗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그런 일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예, 주님,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했다:“너희가 왜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냈는지 나는 안다.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도록 만들어서 나를 공격할 이유를 찾으려 한다. 너희 모두가 속으로는,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림이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 하겠는데,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사랑과_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당하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선포하겠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 자기 앞에 조용히 서 있자,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했다: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도록 내 옆으로 와서 여기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아버지 뜻임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네게 치유 받을 만한 신앙이 있으면, 내가 명하겠는데, 네 손을 내밀어라.”

148:7.3 (1665.2)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마른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됐다.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혼내주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께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명하면서 말씀했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해를 가하거나 죽이려는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떠났다. 안식일이었음에도, 그들은 디베랴까지 서둘러 가서 헤롯과 상담했고, 헤롯 집안이 예수와 반목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의 편견을 일으킬 만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평하라고 충고하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조치든지 취하기를 거절했다.

148:7.4 (1665.3) 이것이 예수께서 적들의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한 첫 기적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치유 권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안식일 휴식을 무의미하게 제한시키는, 명백한 굴레를 전체 인류에게 씌우려하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인 석공의 일로 돌아갔으며, 치유 받음에 감사하면서 의로운 생애를 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됐다.

8. 벳새다에서 마지막 주간

148:8.1 (1665.4) 벳새다에 머물던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 정탐꾼들은 예수와 그의 교훈에 대한 태도에서 많이 갈라서게 됐다. 세 명의 바리새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산헤드린의 젊고 영향력 있는 의원인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실로암 연못에서 아브넬에게 세례 받았다. 온 예루살렘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해졌고, 여섯 명의 바리새인 정탐꾼을 소환하기 위해, 심부름꾼들이 곧 벳새다로 파견됐다.

148:8.2 (1666.1)

전에 있었던 갈릴리 여행에서 천국을 받아들였던 그리스인 철학자가, 알렉산드리아의 부자인 어떤 유대인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병자를 위한 병원은 물론이고, 철학과 종교를 공통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자기네 도시에 오도록, 다시 한 번 예수를 초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초청을 점잖게 거절했다.

148:8.3 (1666.2)

이 무렵에 바그다드로부터 커메쓰라고 하는, 최면에 빠지는 선지자가 벳새다 야영지에 도착했다. 선지자라고 소문난 이 사람은, 최면에 빠져 꿈꾸다가 이상한 환상들을 봤고, 잠자다가 교란될 때 환상적인 꿈을 꿔다. 그는 야영지에서 상당한 소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스스로_현혹되는 이 위선자를 열심당 시몬이 다소 엄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중재해 그가 며칠 동안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갖도록 허락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은, 그 가르침을 천국 복음에 비취 판단할 때 건전치 못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됐다. 그는 곧 바그다드로 돌아갔는데, 단지 여섯 명의 불안정하고 엉뚱한 사람만 데리고 갔다. 바그다드 선지자를 위해 예수께서 중재에 나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자청하는 한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커메쓰를 호수로 데리고 가서 여러 번 물속에

쳐 놓은 후, 여기를 떠나라고--곧 자기 야영지를 조직하고
건설하라고-- 충고했다.

148:8.4 (1666.3) 바로 그날, 페니키아 여자 베쓰_마리온이 너무나
열광해서 정신을 잃었고,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하다가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뒤에, 친구들이 그녀를
쫓아냈다.

148:8.5 (1666.4) 예루살렘의 새 개종자인 바리새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세상 재물 전체를 사도 기금으로 바쳤으며, 이
헌금은 그들이 새로 훈련받은 전도자 100명을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 안드레가 이미 야영지를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사람은 집으로 가거나
전도자들을 따라서 갈릴리로 갈 준비를 했다.

9. 중풍 병자를 치유함

148:9.1 (1666.5) 10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 사도, 전도자,
그리고 흠어지는 야영지{野營地}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여섯 명의
바리새인도, 세베대의 집에서 넓고 크게 만들어진 거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예수의 전체
지상 생애에서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발생했다. 이때, 주님은 우기{雨期}에 이런 모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큰 방에 서서 말씀하고 있었다. 그 집은, 예수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으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었다.

148:9.2 (1666.6) 그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열성스런 경청자들로 완전히 둘러 싸여 있는 동안, 중풍병으로 오래 고난당하던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버나움에서 실려 왔다. 이 중풍 병자는, 예수께서 벧새다를 떠나려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주 최근에 온전하게 됐던 석공{石工} 아론과 이야기한 후에, 치유를 간구할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실려 가기로 작정했다. 그의 친구들은 앞문과 뒷문 양쪽을 통해서 세베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람들로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다. 그러나 중풍 병자는 실패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으며;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친구들에게 지시했고,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방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긴 후에 대담하게 그 병자를 침상채로 줄에 매달아 주님 바로 앞 바닥에 내려놓았다. 예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중단했으며, 한편 방안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병자와 친구들의 인내심에

감탄했다. 중풍 병자가 말했다:“주님, 당신의 가르침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낫게 되기를 꼭 원합니다. 나는, 치유 받은 후에 바로 당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저들과는 다릅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그의 잘못 보낸 인생으로 인해 생겼음에도, 이제 그의 신앙을 본 예수께서 그 중풍 병자에게 말씀했다:“얘야, 두려워 마라;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신앙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148:9.3 (1667.1)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서기관 및 율법사들과 함께 예수의 이 발표를 듣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정신 속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렇게 따지는 것을 예수께서 영으로 감지하고 말씀했다:“너희 심정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기에 나를 비판하는 자리에 앉느냐? 내가 이 중풍 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중풍 병자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길을 비켜주자, 그들 전체 앞에서 걸어나갔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자가 놀랐다. 베드로가 무리를 해산시켰으나, 그렇게 기이한 일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8:9.4 (1667.2) 그리고 이 무렵에, 산헤드린의 심부름꾼들이 여섯 정탐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갖고 도착했다. 그들이 이 전갈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토의가 끝난 후에, 우두머리와 그 동역자 중에서 두 사람이 심부름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세 명의 바리새인 정탐꾼은 예수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호수로 가서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으며, 천국의 자녀가 된 그들을 사도들이 친구로 받아들였다.

제149편 2차 전도여행

149:0.1 (1668.1) 갈릴리에서 공적인 2차 전도여행은, 서기 28년 10월 3일 일요일에 시작됐고, 세 달 동안 계속되다가, 12월 30일에 끝났다. 예수와 열두 사도는, 새로 뽑은 117명의 전도자 단체와, 수많은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서, 가다라, 툴레마이스, 야피아, 다바리따, 므깃도, 에즈릴, 스키토폴리스, 다리키아, 힝보, 가마라, 벳새다_유리아,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방문했다.

149:0.2 (1668.2) 이 일요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새 전도자들에게 최종 책무를 제시해 달라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께 청했으나, 주님은 사양하면서, 다른 사람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말씀했다. 충분한 토의 끝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책무를 맡기로 결정했다. 야고보의 말이 결론에 이르자,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말씀했다:“너희는 나가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행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스스로 자격 있고 신실하다는 것을 보이면, 내가 그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너희를 임명하겠다.”

149:0.3 (1668.3) 이번 여행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와 함께 이동했다.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은 각각 약 열두 명에 달하는 전도자를 함께 데리고 다녔으며,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 사도들은, 신자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는 즉시 세례를 베풀고자 했다. 예수와 두 동행자는 이 세 달 동안 광범하게 여행했는데, 때로는 하루에 두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자들의 활동을 돌보고, 천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에 용기를 북돋아 줬다. 이 2차 전도여행 전체는 주로, 새로 훈련받은 117명의 이 전도자 단체에게 실질적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149:0.4 (1668.4) 이 기간 내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마침내 출발할 때까지, 세베대의 아들 다윗은 천국 업무를 위한 상설 본부를, 벳새다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꾸려나갔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업무를 위한 정보 교환소였고, 다윗이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과 주변 지역들 사이에 진행했던 심부름꾼 봉사를 위한 교대 장소였다. 그는 안드레의 승인만 얻어서 자신의 결단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다윗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확장되는 천국 업무에서 이 정보 분야에 40에서

50명의 심부름꾼을 고용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동안, 그는 예전의 고기잡이 일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일부나마 자신의 경비를 충당했다.

1. 널리 퍼진 예수의 명성

^{149:1.1 (1668.5)} 벳새다 야영지가 해산될 무렵에는, 예수의 명성, 특히 치유자로서의 명성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위시해서 시리아와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그들이 벳새다를 떠난 후에도 여러 주 동안 병자들이 계속 거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이 있는 곳을 다윗에게서 알아낸 후에 그를 찾아가곤 했다. 예수께서는 이 여행에서,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치유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난당하는 수십 명이, 치유를 추구하도록 자신을 재촉한 끈질긴 신앙에서 나오는 재건하는 능력의 결과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

^{149:1.2 (1669.1)} 이 사명을 수행하던 무렵에--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의 나머지 생애 내내 계속-- 이상하고 설명되지 않는 일련의 치유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세 달 동안의 여행 도중에, 유대지방, 이두매, 갈릴리, 시리아, 두로, 시돈, 및 요단강 너머에 있는 지방에서 온 100명 이상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예수의 이런 무의식 치유의 혜택을 입었으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명성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리고 자생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혜택을 입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직접 지시했음에도, 그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149:1.3 (1669.2) 임의로 일어나는, 즉 무의식적인 이런 치유의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도들에게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다만 몇 번의 경우에,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했을 뿐이다. 한번은, 병든 아이가 그에게 손을 대자, 주님은 “생기{生氣}가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다.

149:1.4 (1669.3) 이런 무의식 치유의 본질에 관해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제넘은 일인 줄 알지만, 그런 모든 치유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에,

예수의 이 세상 사역 도중에 일어났던, 이런 외견상 치유 기적 가운데 다수는, 다음 세 가지의 강력하고 효력 있고 연합된 영향이 공존한 결과였던 것 같다:

149:1.5 (1669.4) 1. 그런 치유가 순수한 육체적 회복보다는 영적 혜택을 갈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끊임없이 치유 받기를 갈망하는 인간 심성에 있는 강하고 우세하고 생생한 신앙이 현존함.

149:1.6 (1669.5) 2. 인간의 그런 신앙과 공존하는,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시간적인 창조적 치유 능력과 특권을 그의 인격자 안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육신화 하고 자비가_지배하는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의 큰 동정심과 연민이 실존함.

149:1.7 (1669.6) 3. 피조물의 신앙과 창조자의 생애와 더불어, 이 하나님_사람이 아버지 뜻의 의인화{擬人化}된 표현이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만 한다. 인간의 필요와 그것을 만족시키는 신성한 능력이 접촉할 때, 아버지께서 다르게 뜻하시지 않으면, 그 둘이 하나가 됐고, 치유가 인간 예수께는 무의식적으로 발생됐지만, 그의 신성한 본성에게는 즉각 인식됐다. 다수의 이런 치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오래 알아 온 위대한 법칙, 즉 창조주 아들이 원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법칙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

149:1.8 (1669.7) 우리의 의견은, 그때, 예수께서 몸소 현존하는 앞에서, 당시에 사람의 아들과 매우 가깝게 연합돼 있던 어떤 창조 세력 및 우주 인격체들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심오한 인간 신앙이, 글자 그대로 그리고 정말로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주, 자신이 보는 앞에서, 병든 사람이 강렬한 개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하셨음이, 기록된 사실대로다.

149:1.9 (1670.1) 다른 많은 사람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치유를 추구했다. 두로의 부유한 과부가 시종들과 함께 질병을 치유 받으러 왔었는데,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병이 있었으며;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돌아가기라도 한다는 듯이, 갈릴리 지방 여기저기서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계속 점점 더 많은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녀는 천국 복음에는 한 번도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으며;그녀가 추구한 것은 육신의 질병 치료뿐이었다.

2. 사람들의 태도

^{149:2.1 (1670.2)} 예수께서는 사람의 정신을 이해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며, 그의 교훈이 그가 제시한대로 간직됐더라면, 그에 관한 유일한 해설서가 그의 이 세상 생애로 인해 제공된 영감 어린 설명일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교가 신속하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예수의 교훈을, 특정한 민족, 종족, 및 종교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려고 초기 추종자들이 애쓴 것은 좋은 의도였지만, 모든 다른 민족, 종족, 및 종교가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149:2.2 (1670.3)} 사도 바울은, 예수의 교훈이 당시의 특정한 집단에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지침과 훈계를 주는 많은 편지를 썼다.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이런 글들 가운데 일부를, 예수의 교훈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수집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이, 다른 종교보다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것에 더 많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도 또한 많이 포함하고 있다. 페르시아 신비주의로부터 온 여러 교훈과 많은 그리스 철학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것 외에도,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149:2.3 (1670.4) 1. 그리스도교의 속죄 교리가--곧 예수께서 아버지의 엄격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신성한 분노를 완화시켜주는 희생양 아들이라는 가르침이-- 설명하듯이, 복음의 가르침을 직접 유대 신학에 연결시키려는 노력. 이런 교훈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 천국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려는 가혹한 노력에서 나왔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이런 노력은 실패했지만, 모든 후세 세대에서 많은 정직한 혼을 혼란시키고 따돌리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149:2.4 (1670.5) 2. 주님의 초기 추종자들의 두 번째 큰 실수, 그리고 모든 후세 세대가 지속적으로 범한 실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아주 온통 예수라는 *인격자*에 관한 것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예수의 인간성에 관한 이런 과잉 강조가 그의 교훈을 애매하게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 모하멧 교도, 힌두인, 그리고 동방의 다른 종교가들이 예수의 교훈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종교에서, 예수라는 인격자의 위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그런 배려가 그의 영감 어린 생애를 덮어버리고, 그의 구원의 메시지, 즉: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을 대신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149:2.5 (1670.6)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공통으로 유지되는 진리를(많은 것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예수의 메시지에서 왔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종교에 접근하는 동시에,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를 삼가야만 한다.

149:2.6 (1671.1) 그런 독특한 시기에, 예수의 명성은 주로 치유자로서의 평판에 의거했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 도움을 구하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일반 사람의 흥미를 즉시 직접 가장 많이 끈 것은 역시 육신의 치유였다. 도덕적으로 예속되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희생자들이

점점 많이 예수를 찾았으며, 그는 구원되는 길을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아버지들은 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어머니들은 딸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으며, 그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냈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인류의 슬픔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그의 보살핌을 구하는 자들을 항상 도와줬다.

149:2.7 (1671.2) 창조주 자신이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별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런 소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접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워야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초물질 행동을 실행한 유일한 종교 창시자임에도, 이런 경고는 정당하다.

149:2.8 (1671.3) 이 세상에서 미가엘의 사명 가운데 가장 놀랍고 혁명적인 부분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다.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도 아는 척 하지 않아야 했던 시절에, 예수께서는 3차 갈릴리 여행과 관련하여 여자들이 감히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따라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주기보다 차라리 태워버림이 더 낫다”는 율법학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할 만큼 최고의 용기를 가졌다.

149:2.9 (1671.4) 예수께서는 한 세대 만에, 멸시 당하고 잊혀진 상태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노예 같은 고역에서 여자들을 풀어줬다. 그리고 감히 예수의 이름을 취하고자 하는 그 종교가, 그 후에 여자들에 대한 이 고귀한 모범을 따를만한 도덕적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49:2.10 (1671.5)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예수께서 그 시대의 미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종교적 편견이 없었으며; 결코 편협함이 없었다. 그는 사회적 적대감과 비슷한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선조의 종교에서 좋은 점은 따르는 반면, 사람이_만든 미신과 속박의 전통을 무시하는 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자연의 큰 재해, 시간세계의 사고, 그리고 다른 비참한 사건은, 신성한 심판이나 섭리의 신비스러운 처방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가르쳤다. 의미

없는 예식절차에 노예처럼 헌신하는 것을 비난했고, 물질적인 경배의 오류를 폭로했다. 그는 사람의 영적 해방을 대담하게 선포했고, 육신에 속하는 필사자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진실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149:2.11 (1671.6) 청결한 손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이 진정한 종교의 표시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을 때, 예수께서는 선조의 모든 교훈을 뛰어넘었다. 그는 전통 대신 현실을 존중했고, 허영과 위선의 모든 겉치레를 부정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괴적인 비난의 말을 하거나, 당시의 종교, 사회, 경제, 및 정치 관례를 무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투쟁적 혁명가가 아니었으며; 점진적 진화를 주장하는 이였다. 그가, *돼있는* 그것을 파기하는 일에 가담한 것은, 오직 그렇게 *돼야만* 하는 뛰어난 일을 동료들에게 동시에 제시했을 때뿐이었다.

149:2.12 (1672.1)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순종을 받았다. 그에게 직접 부르심 받았던 사람 가운데 단지 세 사람만이, 제자신분으로 초청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특유의 힘을 발휘했지만, 독재적이지 않았다. 신용을 요구했으며, 누구도 그의 요구에 불만을 품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절대 권위를 행사했지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이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허락했다.

149:2.13 (1672.2) 뿌리_깊은 종교적 편견에 빠진 자들, 또는 그의 교훈에서 정치적 위험을 식별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제외하면,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의 독창성과 권위에 감탄했으며, 우둔하고 성가신 질문자들에게 인내심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 경탄했다. 그는 자신의 활동 영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희망과 확신을 심어 줬다. 그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만 그를 두려워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매달리기로 작정해 왔던 악과 오류를 뒤집어엎게 돼 있는 진리를 그가 옹호한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그를 미워했다.

149:2.14 (1672.3) 그는 친구와 적 모두에게, 강력하고 기묘하게 매혹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사람이, 단지 그의 우아한 말을 듣고 그의 간결한 생활을 보기 위해, 몇 주 동안

따라다니곤 했다. 헌신하는 남녀들이 거의 초인간적 애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진실인데:오늘날에도, 그리고 모든 미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_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3.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

149:3.1 (1672.4) 보통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교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과 적대감을 품게 됐다. 바리새인은 조직적이고 교리적인 신학을 형성했다. 예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며;조직적인 선생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의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비유를 들어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했을 때, 그 목적을 위하여, 이야기의 단 *한* 가지/ 특색만 사용했다. 그의 비유에서 우화{寓話}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함으로써, 예수의 교훈에 관한 많은 잘못된 관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

149:3.2 (1672.5)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에 젊은 아브라함이 개종했던 사건의 결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갈릴리의 이 2차 전도여행에서 전도자들과 함께 나가 있는 세 정탐꾼이 탈퇴한 사건 때문에,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해 점점 더 눈이 멀었으며, 한편으로는 천국 복음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를 계속해 배척함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다. 사람에게 내주하는 영의 호소에 귀를 막을 때, 그 태도를 변경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149:3.3 (1672.6)

예수께서 벳새다 야영지에서 전도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강연을 마치면서 말씀했다:“너희는 육체와 정신속에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한결같은* 것은 내주하는 영이다. 체험의 본질과 정도가 다소 다를지라도, 신성한 영들은 모든 영적 호소에 한결같이 반응한다. 인류는 오직 이 영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 영에게 호소함으로써만, 언제라도 하나가 되고 형제관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다수는 복음의 영적 호소에 마음 문을 닫았다. 그들은

이날부터 계속, 주님을 없애려는 계획과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종교 범죄자, 즉 유대의 신성시되는 율법의 주요 교훈을 위반한 자로서 예수를 체포하고, 유죄선고를 해서 처형해야만 한다고 확신했다.

4. 전도여행의 진행

^{149:4.1 (1673.1)} 예수께서는, 이 전도여행에서 대중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우연히 머물게 된 대부분의 도시나 동네에서 밤에 신자{信者}들에게 여러 차례 강의했다. 이런 저녁 수업시간 중에 한 번은, 나이 어린 전도자가 분노에 관하여 예수께 질문했고, 주님이 다른 것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49:4.2 (1673.2)} “분노는 대체로, 혼합된 지적 및 육체적 본성을 영적 본성이 통제하지 못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적 증상이다. 분노는 너그러운 형제다운 사랑이 모자라고, 자존감과 자기_통제가 모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정신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람의 혼을 가르치는 영 선생을 무력하게 만든다. ‘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분노해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리고 ‘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지만,’

반면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글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이런 말도 잘 알고 있다.'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한다.' '신중함이 분노를 지연시킨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성벽 없는 무방비한 성과 같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창수와 같다.'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격노 하는 자는 계명을 많이 어기게 된다.' '영으로 조급하지 마라, 분노가 우매자의 품에 머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좀 더 계속했다:"사랑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서, 신성한 아들신분의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동물적 분노를 발하는 경향으로부터, 영 안내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라."

149:4.3 (1673.3) 바로 이 경우에, 주님은 균형_잡힌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관해 그 무리에게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직업에 숙련되기까지 몰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전문화하고, 일생의 활동을 편협하게 만들고 제한하는 모든 경향에 대해 개탄했다. 그는 어떤 장점이든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수께서는 항상 절제를 설교했고, 일관성을--곧 삶의 문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을-- 가르쳤다. 과잉 동정심과 연민은 심각한 감정적 불안감으로 퇴보될지도 모르며;그 열성이 광신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예수께서는 옛 동역자 가운데 하나에 관하여, 그의 상상력이 그를 몽상적이고 비실제적인 이행업무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지나친 보수적 진부함은 둔감한 자가 되게 할 위험이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했다.

149:4.4 (1673.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용기와 신앙이 때로는 어떻게 지각없는 혼들을 무모함과 억측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신중함과 분별력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들이 어떻게 비겁함과 실패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듣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되는 모든 경향을 피하고, 독창성을 갖도록 권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동정심과, 독실한 신자인 척 하지 않는 경건함을 갖도록 호소했다. 두려움과 미신에 구속받지 않는 경의를 가르쳤다.

149:4.5 (1674.1) 동역자들을 감동시킨 것은, 균형 잡힌 성품에 관한 그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생애 자체가 그 가르침의 감동적인 본보기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압박과 격동 한가운데에서 살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적들은 계속해서 그의 앞에 덫을 놓았지만, 그는 결코 걸려들지 않았다. 교활하고 박식한 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논쟁에 휩쓸어 넣으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교화를 주고, 위엄 있으며, 또한 확정적이었다. 여러 종류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강론이 중단됐을 때도, 그의 대답은 항상 의미심장하고 결정적이었다. 적들의 계속된 압력에 맞서면서, 그는 결코 비열한 전략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거짓되고 부당하며 불의한 방법을 써서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149:4.6 (1674.2) 많은 남녀가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어떤 분명한 업무에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 인생에 대해 폭넓은 문화적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전적으로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학식 높은 사람이라면, 동료들의 삶과 활동을 모르고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5. 만족에 대한 교훈

149:5.1 (1674.3) 열심당 시몬과 함께 일하던 전도자 집단을 예수께서 방문했을 때, 저녁 회담 시간에 시몬이 예수께 질문했다:“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하는지요? 만족은 종교 체험의 문제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께서 시몬의 질문에 대답했다:

149:5.2 (1674.4) “시몬아,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남들보다 더 행복해 한다. 사람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영이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을 그 자신이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에, 많이, 아주 많이 달려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인데,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살핀다’고 현자가 한 말을 너는 성서에서 읽지 않았느냐? 또한 그런 영으로 인도된 필사자들이 말했다:‘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그렇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한 의인의 작은 재산이 여러 악인의 풍부한 재산보다 크다.’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항상 잔칫날이다. 재물이 적어도 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다.’ ‘한 움큼 밖에 없지만 평온한 것이, 남아돌지만 영이 슬프고 속상한 것보다 낫다.’

149:5.3 (1674.5) “사람의 슬픔 대부분은,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상처 받는 데서 나온다. 이 세상 생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의무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람의 허다한 근심거리는 모두, 자신의 평상시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토양에서 기원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은 안정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다.’

149:5.4 (1674.6) “그러므로 거짓 평강과 일시적인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 안에서, 평강, 만족, 및 최상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신앙의 확신과 아들신분에 대한 보증을 구하라.”

149:5.5 (1675.1)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도 “눈물 골짜기”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을, 오히려 낙원 상승을 이루는 영원하고 영생하는 영들이 탄생하는 장소, 즉 “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여겼다.

6. “주를 두려워함”

149:6.1 (1675.2) 가말라에서 있었던 저녁 회담 시간에 빌립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성서에서는 ‘주{主}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라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했다:

149:6.2 (1675.3) “얘야,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람이 단지 두려움을 통해서 경의{敬意}를 배울 수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그리하여 너희가 아버지의 깊고 완전한 사랑을 아들로서 다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보답하도록 이끌어서, 너희가 영원자를 경배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자 한다. 노예근성의

두려움으로 너희를 몰아가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왕_하나님을 따분하게 예배드리게 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주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_아들 관계임을 일깨워서, 사랑 많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_하나님께, 송고하고 탁월하게 자유로운 경배를 너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려고 한다.

149:6.3 (1675.4) "'주를 두려워함'은 이어지는 여러 시대에 다른 의미를 가졌는데,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고통과 근심의 단계를 거쳐서 위엄과 경의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는 경의에서 시작하여, 인식, 깨달음, 및 감사함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사람이 하나님의 업적만 알아볼 때에는, 지존자를 두려워하게 되지만;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격체와 성품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시작할 때에는, 점차로 그런 선하고 완전하며 보편적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다.

149:6.4 (1675.5) "충명한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까 하여 그를 두려워하지 않지만;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한 좋은 것들을 이미 풍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개로 이끌며;하나님의 은혜는 봉사로 이끌며;하나님의 자비는 구원으로 이끌며;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지성적이고 진솔한 경배를 드리도록 이끈다.

149:6.5 (1675.6) "너희 선조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신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풍성한 자비와 영광스런 진리로 인해 그를 흠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고귀하고 의로우신 성품은, 경의, 사랑,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초래한다. 충실하고 애정 어린 자녀는, 강력하고 고귀한 아버지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공포 대신 신뢰로, 노예근성의 굴종과 무의미한 예식 대신 사랑의 봉사와 감사의 경배로 바꾸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에게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나 빛이 더욱

완전하게 비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한자의 *행하*신 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가 *계심*으로 인해 찬미할 마음이 생긴다.

149:6.6 (1675.7) “아이들이 어리고 생각이 없을 때에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훈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봉사와 보호의 혜택을 좀 더 고마워할 줄 알게 될 때에는, 이해심에서 나온 존경과 증가하는 애정을 통해서, 실제로 부모가 행한 일보다는 그의 현존{現存}으로 인해 부모를 실제로 사랑하는 체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려워하다가,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의존하고, 존경하는 수준을 거쳐서, 사랑을 이해하고 깊이 존중하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만 한다.

149:6.7 (1676.1)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고 더 높은 계명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 행하기를 배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해방된 자녀의 최고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려 한다. 너희의 선조는,
'하나님을--곧 전능하신 왕을-- 두려워하라'고 배웠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곧 완전히_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149:6.8 (1676.2) "나는 하늘 나라를 선포하러 왔는데, 거기에는 높고
강력한 왕이 없으며;이 나라는 신성한 가족이다.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절대로 경배 받는 중심이시며, 지성
존재들의 광범위한 형제관계의 머리이신 분이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시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며,
너희 또한 그분의 아들이다. 따라서 너희와 내가 하늘
신분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는 이
세상 생활에서도 육신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거나 주인으로 섬기기를
그만 뉘라;그분을 창조주로 공경하기를 배우며;너희
미숙한 영{靈}의 아버지로서 그를 존경하며;자비로운
옹호자로서 사랑하며;궁극에는 너희의 좀 더 성숙된 영적
깨달음과 감사함의 대상인, 사랑 많으시고
온전히_지혜로우신 아버지로 경배하라.

149:6.9 (1676.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그릇된
관념들로부터, 겸손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개념들이
자라나고, 너희의 대부분의 위선이 생겨났다. 사람이
본질과 기원으로는 흙에서 나온 벌레 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영이 내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신성하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증여하는 영은, 신성한
근원으로, 즉 기원된 우주 수준으로 확실히 돌아가며,
필사적 사람의 인간 혼은, 내주하는 이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자녀가 됐을 것이요, 신성한 영과 함께 그 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현존 바로 그 앞까지 틀림없이 상승할
것이다.

149:6.10 (1676.4)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상승할 그런 모든 신앙
후보자에게 신성한 위엄이 덧붙여져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선물을
받은 필사적 사람에게는 정말로 겸손이 어울린다.
무의미하고 천박하게, 거짓 겸양으로 허세부리는 버릇은,
구원의 근원을 이해하고 영으로 태어난 너희 혼의 운명을
인식하는 것과 모순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너희의
마음 속 깊은 데서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며; 사람 앞에서
온순함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자신을 의식하는 위선과

주의를 끌기 위한 겸양은 유치하며, 천국의 계몽된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149:6.11 (1676.5)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의 온유함이 영적 기원에서 나오게 하고, 독선적 우월감을 의식하여 나타내는 자기_기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선지자가 충고하기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한자시고 영원자시기 때문이며, 그는 또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영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자존심을 경멸하고, 위선을 싫어하며, 죄악을 혐오하신다. 성실의 가치를 강조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으로 지원하고 충실히 인도하심을 완전히 의지할 것을 강조하려고, 정신 태도와 영 반응을 보여주는 예로서 내가 아주 종종 어린아이를 언급했는데, 그런 태도와 반응은, 필사적 사람이 하늘 나라의 영 실체들 속으로 들어가는 데 아주 필요하다.

149:6.12 (1677.1)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은 필사자에 대해서술하면서 잘 말했다:'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우나, 마음 속에서는 멀리 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무서운 경고를 한 선지자의 말을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은 샅을 위해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치면서, 동시에 신앙심을 말하며, 주가 그들과 함께 계심을 선포한다.’ 너희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과, ‘입으로는 아침하나, 마음 속에서는 이중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 받지 않았는가? 신뢰하는 사람의 모든 슬픔 가운데, ‘믿었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보다 더 지독한 것은 없다.”

7. 벧새다로 돌아감

^{149:7.1 (1677.2)}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 상의하고 예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이 여행을 끝내고, 12월 30일, 목요일 중에 벧새다로 돌아오라는 전갈을 보내기 위하여, 전도하는 여러 집단에 심부름꾼을 파견하라고, 벧새다의 다윗에게 지시했다. 비가 오는 그날 저녁식사 시간까지, 모든 사도 일행과 전도자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다.

^{149:7.2 (1677.3)} 그 집단은 벧새다 및 가까이 있는 가버나움의 여러 집에서 지내면서 안식일 이후까지 함께 지냈으며,

그런 후에 가족과 친구를 방문하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한 두 주일의 휴가가 전체 집단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벳새다에서 함께 있었던 2내지 3일 동안은, 진정 흥미롭고 영감 어린 날들이었으며;선배 선생님들조차 새 설교자들의 체험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

149:7.3 (1677.4) 2차 갈릴리 전도여행에 참가했던 117명의 전도자 중에서 약 75명만이 실제로 체험하는 시험을 통과했으며, 두 주의 휴가가 끝났을 때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세베대의 집에 남았고, 천국의 복지와 확장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150편 3차 전도여행

150:0.1 (1678.1) 서기 29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에, 아브넬이 요한의 사도들과 함께 벳새다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안드레 및 예수의 사도들과 함께 합동협의회에 들어갔다.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본부를 헤브론에 뒀고,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벳새다로 올라오는 것이 관습이었다.

150:0.2 (1678.2) 이 합동협약에서 다뤘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치유를 위해 기도드릴 때, 특별한 형태의 기름을 병자에게 바르는 관례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토론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를 다시 거절했다. 요한의 사도들은,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일할 때, 성별{聖別}시키는 기름을 늘 사용해 왔으며, 이것을 양쪽 집단이 똑같이 실행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사도들은 그런 규칙에 얽매이기를 거절했다.

150:0.3 (1678.3) 1월 18일 화요일에, 그 스물네 명은, 3차 갈릴리 전도여행에 파견되기에 앞서,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에서, 시험을 통과한 약 75명의 전도자와 합류했다. 이 세 번째 사명은 7주 동안 계속됐다.

150:0.4 (1678.4) 전도자를 다섯 명씩 무리지어 내보내는 한편, 예수와 열두 사도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여행했는데, 사도들이 둘씩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신자에게 세례를 줬다. 또한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거의 3주 동안 전도자 집단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충고했고, 신자에게 세례를 줬다. 그들은 막달라, 디베랴, 나사렛, 그리고 전에

방문했던 곳과 기타 여러 지역, 즉 중부와 남부 갈릴리의 주요 도시와 마을들을 방문했다. 북부 지방을 제외하고, 갈릴리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됐다.

1. 여전도자 단체

150:1.1 (1678.5) 이 세상의 생애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했던 대담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1월 16일 밤에 있었던 갑작스런 발표였다: “우리는 내일, 천국 일을 보살필 수 있도록 열 명의 여자를 따로 세우겠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휴가를 받아 벳새다에서 떠나 있었던 두 주{週} 기간이 시작될 무렵에, 예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부모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과, 예전의 야영지와 천막 병원 경영에 동참했던 열 명의 헌신된 여자를 벳새다로 불러들이도록 심부름꾼을 보내라고 요청했다. 이 여자들은 모두 젊은 전도자들에게 주어졌던 지시에 귀를 기울여 왔었지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는 일을,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맡기리라고는, 그들 자신이든지 또는 그들의 선생들이든지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선택하고 임명한 이 열 명의 여자는: 전에 나사렛 회당의 카잔이었던 사람의 딸 수산나;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추자의 아내

요안나;디베랴와 세포리 부자{富者} 유대인의 딸 엘리사벳;안드레와 베드로의 누나 마르다;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의 아내요_자매인 라헬;시리아 의사{醫師} 엘만의 딸 나산타;사도 도마의 사촌 밀가;레위 마태의 맏딸 롯;로마 백부장의 딸 셀타;그리고 다마스커스의 과부 아가만 등이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다른 두 여자--곧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 리브가--를 이 집단에 추가했다.

150:1.2 (1679.1) 예수께서는 이 여자들에게 자체 조직을 만들도록 위임했고, 그들의 장비와 운반용 동물을 준비할 기금{基金}을 제공하라고 유다에게 지시했다. 그 열 명은 수산나를 자기네 우두머리로, 요안나를 회계로 선출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기금을 스스로 충당했으며;다시는 유다에게서 기금을 조달 받지 않았다.

150:1.3 (1679.2) 여자가 회당의 본당{本堂}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여자의 방청석으로 제한되던) 그 시절에, 새로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선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하도록, 예수께서 이 열

명의 여자를 지정해서 책무를 부여했던 사건은, 모든 여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준 해방령이 됐으며;더 이상 남자가 여자를 자신보다 영적으로 뒤진 열등자로 여길 수 없게 됐다. 이것은 열두 사도에게도 분명한 충격이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매인 자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 열 명의 여자를 종교 선생으로 임명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도록 허락할 것을,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했을 때, 그들은 글자 그대로 기절할 지경이었다. 이 일로 인해 온 지방이 떠들썩했고, 예수의 적들은 이 기회를 예수를 비난할 큰 구실로 삼았지만, 사방에서 기쁜 소식을 믿는 여신도들은 선택된 자매들을 견고히 뒷받침했으며, 종교적인 일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한 때늦은 이 인정에 확실하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님이 떠난 직후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여자를 당연히 인정하면서 여성 해방을 실천했지만, 그 후의 세대에 그들은 다시 옛 관습으로 돌아갔다. 초기 그리스도교 회회를 통해서 내내, 여자 교사 및 사역자들을 *여집사*로 불렀고, 이들은 널리 인정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진정으로 자신의 태도가 되도록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이를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발견했다.

2. 막달라에 머무름

150:2.1 (1679.3) 사도 일행이 벳새다로부터 길을 떠나자 그 여자들이 뒤에 따라왔다. 회담이 있는 동안 그들은 항상 연설자 오른 쪽 앞자리에 앉았다. 점점 더 많은 여자가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됐으며, 그들이 예수나 혹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과 개인상담하기를 원할 때, 이것은 많은 어려움과 끝없는 당혹감의 근원이 돼 왔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여자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싶거나 사도들과 상의하고 싶을 때, 수산나에게 갔고, 열두 명의 여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해서, 바로 주님 앞으로 또는 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앞으로 가게 됐다.

150:2.2 (1680.1) 막달라에서 여자들이 처음으로 쓸모 있음을 보여줬고, 그들을 택한 것이 지혜로웠음을 입증했다. 안드레는 여자, 특히 평판이 좋지 않은 성품의 여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상당히

엄한 규율을 제정했었다. 그 집단이 막달라에 갔을 때, 이 열 명의 여자는 자유롭게 사창가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직접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자를 방문했을 때, 이 여전도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매들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열두 여자로 알려진) 이 열 명의 여전도자가 봉사한 결과로, 막달라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왔다. 연달아 불행이 겹치고, 그렇게 판단을 잘못 내린 여자들에 대해, 명망 있는 계층이 취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막달라에서 악질적 사창가 가운데 하나에 굴러들었다. 마리아에게, 그녀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분명히 말해준 것은 마르다와 라헬이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다음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150:2.3 (1680.2) 막달라 마리아는, 열두 명의 이 여전도자 집단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가장 능력 있는 교사가 됐다. 그녀는 개심한 지 약 4주 후에, 요타파타에서 리브가와 함께 그런 봉사에 참여하도록 구별됐다. 마리아와 리브가는, 이 집단의 다른 여자와 함께, 예수의 이 세상 생애 나머지 기간에, 천대받는 자매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교화시키고 계몽시키는 일을 계속했으며;예수 생애의 드라마에서 마지막 비극적 장면이 일어났을 때,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도망갔음에도, 이 여자들은 모두 거기 남아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그를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3. 디베라에서 지낸 안식일

150:3.1 (1680.3) 예수의 지시를 받아서, 안드레는 사도 일행의 안식일 예배를 여자들에게 맡겼다. 물론 이것은, 예배가 새 회당에서 진행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여자들은 이 일의 책임자로 요안나를 선출했으며, 헤롯이 펠라에 있는 유리아의 거주지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새 궁전에 있는 연회장에서 회합을 가졌다. 요안나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여자의 업무에 관계된 부분을 성서로부터 낭송하면서,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예로 들었다.

150:3.2 (1680.4) 그날 밤 늦게, 예수께서는 연합된 집단에게, “마술과 미신”에 대한 기억에 남을만한 말씀을 했다. 당시에는 밝고 새로운 별이라 생각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는 표시라고 여겼다. 그런

별을 최근에 보게 된 안드레가, 이런 믿음이 근거가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께 물었다. 안드레의 질문에 길게 대답하면서, 주님은 인간의 미신에 대한 전체 주제를 놓고 철저한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이때 말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현대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150:3.3 (1680.5) 1. 하늘에 있는 별들의 행로는 이 세상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아무 상관없다. 천문학은 타당한 과학적 연구인 반면, 점성술은 천국 복음에 함께할 수 없는 미신적 오류 덩어리다.

150:3.4 (1680.6) 2. 최근에 죽은 동물의 내장{內臟}을 조사하는 일은, 기후, 미래의 사건, 또는 인간적인 일의 결과에 대해 아무 것도 드러낼 수 없다.

150:3.5 (1680.7) 3. 죽은 자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 또는 한때 친구였던 사람과 연락하려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150:3.6 (1681.1) 4. 부적이나 유품{遺品}은, 병을 치유하거나 재앙을 막거나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영적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모든 물질 수단에 의지하는 것은, 단지 조잡스런 미신일 뿐이다.

150:3.7 (1681.2) 5. 제비뽑기에 맡겨 버리는 것은, 많은 사소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신의 뜻을 나타내주도록 고안된 방법은 아니다. 그런 결과는 순수하게 물질적 우연의 문제다. 영적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수단은, 아들이 쏟아 부은 영과 무한한 영의 어디에나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인류의 영 재능, 즉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에 포함돼 있다.

150:3.8 (1681.3) 6. 점, 요술, 및 마녀술책은, 무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미신이며, 또한 마술의 현혹도 마찬가지다. 마술의 숫자, 좋은 행운의 전조, 그리고 불운의 징조를 믿는 것은, 단순하고 근거 없는 미신이다.

150:3.9 (1681.4) 7. 꿈 해몽은 대체로, 무식하고 괴상하게 추측하는 미신적이고 근거 없는 체계다. 천국 복음은 원시 종교의 점치는 사제들과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음에 틀림없다.

150:3.10 (1681.5) 8.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은, 진흙, 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든 물질적 상징 속에 거할 수 없으며;우상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150:3.11 (1681.6) 9. 요술사, 마법사, 마술사, 및 요술쟁이의 풍습은,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벨론 사람, 그리고 고대{古代} 가나안인의 미신에서 연유됐다. 부적이나 온갖 종류의 주문{呪文}은, 선한 영의 보호를 받게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막아주지도 않는다.

150:3.12 (1681.7) 10. 그는, 주문, 죄인판별법, 마법, 저주, 표적, 맨드레이크, 매듭진 끈, 그리고 온갖 다른 형태의 무지하고 노예적인 미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비난했다.

4. 사도들을 둘씩 내보냄

150:4.1 (1681.8) 다음날 저녁에, 열두 명의 사도, 요한의 사도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여자 집단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예수께서 말씀했다:“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군이 적은 것을 너희도 직접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추수를 주관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가 추수할 일군을 발으로 훨씬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자. 내가 남아서 새로 된 교사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동안, 먼저 된 교사들을 둘씩

내보내서, 아직은 편리하고 조용한 시절 동안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빨리 퍼지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으로 내보낼 사도들을 쌍으로 정해줬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짝 지어 나갔다: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빌립과 나다니엘,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유다 알패오,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

150:4.2 (1681.9)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열두 사도가 다시 만날 기일을 정해주고, 헤어지면서 말씀했다:“이번 사명에서는 이방인의 어떤 도시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며,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으며,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해라.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다. 어떤 사람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과 관련된 자라고 감히 말했다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는데,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사적{私的}으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혜롭게

공공연히 전파해라. 내가 골방에서 너희에게 드러내 온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이 약속의 계절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구이자 제자인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몸은 죽일 수 있으되 혼은 파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오히려 몸을 유지시킬 수 있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해라.

150:4.3 (1682.1)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단언한다. 그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너희는 매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 가르침을 부끄러워 말며;가서 평화와 선한 뜻을 선포해라;그러나 속지 마라--너희 전도에 화평이 항상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지만, 사람들이 내 선물을 거부할 때에는 분리와 혼란을 가져온다. 가족 전부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평화가 그 집에 깃들지만;가족 중에서 일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복음을 배척할 때, 그런 분리는 단지 슬픔과 비극만 초래한다. 사람이 서로 원수 되는 일이 자기 집의 것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너희가 온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가 선언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치 않다.”

150:4.4 (1682.2) 열두 사도는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예정한 일정{日程}대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모일 때까지는 다시 함께 다니지 않았다.

5.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50:5.1 (1682.3) 요한의 사도들이 헤브론으로 돌아간 후, 그리고 예수의 사도들도 둘씩 짝 지어 나간 후, 수넴에서 어느 저녁시간에, 주님이 열두 명의 여자와 더불어, 야곱의 지도 아래서 수고하던 열두 명의 젊은 전도자를 가르치고 있을 때, 라헬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했다:“주님,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고 다른 여자들이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대답했다:

150:5.2 (1682.4) “남녀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천국의 이 복음을 믿고;신{神}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대답해라.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을

신앙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성서에서 '주 안에서 내가 의{義}와 힘을 갖는다'는 말을 읽지 못했느냐?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의가 가까우며;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내 백성을 감쌀 것이다.' '내 혼이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독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의로움과 영원한 구원의 옷으로 내 아들을 입히라.'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영원히 진실이다. 아버지 나라의 문은 완전히 열려있지만, 그 안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진보가--곧 은혜 안에서의 성장이-- 필수조건이다.

150:5.3 (1682.5)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며, 아들들이 구원을 드러낸다. 네 편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를,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 만들어 준다. 너희는 신앙으로 정당화되며; 신앙으로 구원받으며; 바로 이 신앙으로, 점진적이고 신성한 완전성에 이르도록 영원히 향상된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멜기세덱의 교훈으로 구원을 자각하게 됐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내내, 바로 이 신앙이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했지만, 이제는 이 구원을 좀 더 실제적이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150:5.4 (1683.1)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며, 이어지는 날들에도, 그들 모두가 새로운 힘과 재생된 에너지와 열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이 세상에 천국을 세우는 계획에 자신들이 포함됐음을 알고, 한층 더 기쁨에 넘쳤다.

150:5.5 (1683.2)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지으면서, 말씀했다:“너희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으며;수고해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의로움은 천국의 아들신분에 해당하는 영으로_탄생된 생애의 자연스런 열매다. 너희가 의로운 인생을 살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미 구원됐기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들신분을 인식하고, 천국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 인생의 최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저희는 사람이 아는 모든 죄를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아들신분을 깨닫는 것은, 죄를 범하고 싶은 욕구와 공존할 수 없다. 천국을 믿는 자는 의에 굶주리고 신성한 완전성에 목말라 한다.”

6. 저녁 수업

150:6.1 (1683.3) 예수께서는 저녁 토론에서 여러 주제{主題}에 대해 말씀했다. 이 여행의 나머지 기간에--곧 그들 모두가 나사렛에서 다시 결합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 “꿈과 환상들,” “악의,” “겸손함과 온순함,” “용기와 충성심,” “음악과 경배,” “봉사와 순종,” “자존심과 주제넘음,” “회개에 관련한 용서,” “평강과 완전성,” “악한 말과 시기,” “악, 죄, 및 유혹,” “의심과 불신,” “지혜와 경배”에 관해 토론했다. 먼저 된 선배 사도들이 자리에 없었으므로, 나중 된 이 남녀 집단은 주님과 함께 더 거리낌 없이 이런 토론을 시작했다.

150:6.2 (1683.4) 예수께서는, 열두 명의 전도자로 이뤄진 한 무리와 함께 이삼일 지낸 후,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내려고 자리를 옮겼으며,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의 근황과 동향에 대한 소식을 항상 듣고 있었다. 여전도자들은 이것이 첫 여행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다. 각 집단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 여행의 진행 상황을 계속 들어서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집단들로부터 오는 소식은, 멀리 퍼져서 따로 떨어져 있던 전체 사역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됐다.

150:6.3 (1683.5)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열두 사도는 전도자 및 여자 단체와 함께, 3월 4일 금요일에 주님과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 모이기로 미리 계획돼 있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 중부와 남부 갈릴리 전 지역에서, 사도와 전도자로 구성된 이 다양한 무리들이 나사렛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 오후 중반 무렵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도시 북쪽 고원 지역에 자리 잡은 야영지에 가장 나중에 도착했는데, 일찍 도착한 사람들이 야영지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중 사역을 시작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나사렛을 방문했다.

7. 나사렛에 체류함

150:7.1 (1683.6)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은 채,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나사렛을 거닐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집과 목공소를 지나갔고, 소년 시절에 자주 왔던 언덕에서 반 시간 정도 보냈다.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로, 사람의 아들이 자기 혼 속에서 이때처럼 인간 감정의 홍수로 격동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왔던, 해 질 무렵을 알리는 귀에 익은 나팔소리를 들었다. 야영지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인 회당 옆으로 걸어 내려갔고, 어린 시절에 대한 많은 추억을 마음에 떠올렸다. 예수께서는, 그날 일찍 도마를 회당 지도자에게 보내서, 안식일 아침 예배에 자신이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150:7.2 (1684.1)

나사렛 사람들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는 평판을 얻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동네는 가까이 있는 세포리의 낮은 도덕 수준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았다. 예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동안, 나사렛에서는 그에 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다. 그가 가버나움으로 옮겨갔을 때 많은 분노가 거기서 일어났었다. 나사렛 주민은 예전에 목수였던 그의 많은

행적에 관해 들었을 때, 초기 전도여행에서 그가 자기 고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상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명성을 들었으나, 대다수의 시민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에서는 아무런 위대한 일도 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여러 달 많이 토론했으나, 그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했다.

150:7.3 (1684.2) 따라서 주님은, 환영받는 귀향{歸鄉}이 아니라, 확연히 냉담하고 혹평하는 분위기 속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지낼 것이며, 회당에서 설교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괴롭히고 문제를 만들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난폭하고 질 나쁜 여러 사람을 고용했다.

150:7.4 (1684.3) 그를 지극히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스승인 카잔을 포함한, 예수의 옛 친구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거나 나사렛을 떠났고, 젊은 세대들은 강한 질투심을 갖고 그의 명성에 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 가족에게 바쳤던 초기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했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형제들 및 결혼한 여동생들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예수에 대한 그의 가족의 태도 역시, 시민의 불친절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통파 유대인은, 예수께서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 빨리 걷는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8. 안식일 예배

^{150:8.1 (1684.4)} 이 안식일은 날씨가 좋았으며, 친구든지 적이든지 모든 나사렛 사람은, 자기네 마을의 예전 시민이었던 그의 말을 들으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사도의 수행원들 중에서 여럿이 회당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러 가기에는 장소가 좁았다. 예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 경배 장소에서 종종 설교했었는데, 이날 아침에 회당의 지도자가 성서 본문을 읽을 신성시되는 두루마리 문서를 그에게 넘겨줬을 때, 거기 참석했던 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것이 그가 이 회당에 기증했던 바로 그 사본{寫本}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150:8.2 (1684.5) 이날 있었던 예배는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참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 그는 회당 지도자와 함께 연단에 올라갔고, 예배는 두 개의 기도를 낭송함으로써 시작됐다:“복되시도다, 세상의 왕이신 주여, 당신은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창조하시며, 평화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나이다;당신은 자비로써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며, 선하심으로 매일 매일 그리고 모든 날에 창조의 업적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의 창작품의 영광과, 자신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빛을_발하는 빛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 주께서 복되시도다. 셀라. 복되시도다, 빛을 지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150:8.3 (1685.1) 그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기도했다:“주 우리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넘치는 많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시여, 그를 신뢰하는 우리 조상을 위함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인생의 법령을 가르치셨으며;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소서. 우리 눈을 밝히사 율법을 깨닫게 하시며;우리 마음이 당신의 계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우리 마음을 결합하여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며;우리가 끝없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를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선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당신의 크신 이름에 가까이 있게 하셨사오니 -- 셀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통일성을 사랑으로 찬양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복되시도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시여."

150:8.4 (1685.2) 그때 회중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인 쉘마를 암송했다. 율법의 여러 부분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이 제례식은, 하늘 나라의 명에, 또한 밤과 낮에 적용되는 여러 계명의 명에를, 경배자들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가리켰다.

150:8.5 (1685.3)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었다:"진실로 당신은 야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며, 우리 왕이시고 우리 조상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주시요 우리 조상의 구원주시며;우리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도움, 우리의 구원자시니이다. 당신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있고, 당신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나이다. 구출된 그들이 바닷가에서 새 노래를 당신의

이름에 바쳤으니, 그들이 다 함께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기를, 야훼가 세상을 끝없이 통치하시리로다 했도다. 복되시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시여.”

150:8.6 (1685.4) 그 후에 회당장은, 신성시되는 글이 들어 있는 상자, 즉 언약궤 앞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열아홉 개의 찬양 기도문, 즉 축도문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은 특별한 손님이 말씀할 시간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해 예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래서 축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낭송했다. 처음 것은 이랬다: “주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 자비와 호의를 베푸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조상에게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시도다. 오, 왕이시여, 돕는 자시여, 구원자시여, 방패시여! 복되시도다, 오, 야훼여,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150:8.7 (1685.5) 그 다음은 마지막 축도가 이어졌다: “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큰 평화를 영원토록 베푸소서, 당신은

모든 평화의 왕과 주가 되심이니이다. 당신은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나이다. 복되시도다 야훼여, 당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평화로 복되게 하시나이다.” 회중은 축도하는 회당장을 바라보지 않았다. 축도 후에 그는 형식을 벗어나 그날에 적합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끝나자 온 회중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했다.

150:8.8 (1685.6) 그때 카잔이 궤로 가서 두루마리를 꺼내 예수께 건네주고 성서의 본문을 읽게 했다. 관례에 따르면 일곱 사람이 적어도 율법 중에서 세 구절씩 읽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은 그 관례를 접어두고, 방문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절의 말씀을 읽게 했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일어나서 신명기에서 읽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진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면전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150:8.9 (1686.1) 그리고 그가 율법에서 읽기를 마쳤을 때, 이사야의 글을 열어서 읽기 시작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호의적인 해{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150:8.10 (1686.2) 예수께서 책을 말아서 회당장에게 돌려준 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성서가 오늘날 이뤄졌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거의 15분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으며, 그의 우아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했다.

150:8.11 (1686.3) 정식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설교자가 남아 있으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당의 규례였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아침에 질문하기 위해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내려갔다. 이 집단 중에는 정신이 악하게 물들어 있는 많은 난폭한

사람이 섞여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무리 주위에는 예수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고용된 천박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밖에 남아 있던 사도들과 전도자들 가운데 다수가 이때 회당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문제가 일어날 기미가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님이 떠나도록 유도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가려 하지 않았다.

9. 나사렛의 배척

150:9.1 (1686.4) 예수께서는, 큰 무리의 적들이 있고, 추종자들도 여기 저기 흩어져 회당 안에 섞여 있음을 봤다. 그들의 무뢰한 질문과 악의를 품은 농담에, 그가 반 익살스럽게 대답했다:“그렇다. 내가 요셉의 아들이며;내가 그 목수이고, 너희가 내게 ‘의사여, 네 자신부터 치유해보라’는 속담을 일깨워 주고,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행하라고 너희가 도전하는 일은, 내게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증거 하겠는데, 성서에서도 선언하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민족 이외로부터는 존경 받지 않음이 없다’고 했다.

150:9.2 (1686.5) 그러나 그들은 그를 밀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당신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떠났지만, 당신의 형제는 평범한 일꾼이며, 당신의 여동생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 그들은 오늘날 어디 있는가? 당신이 위대하다는 말을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당신이 이곳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이적 행함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나는 내가 자라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 모두가 하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은혜로 말미암는 변화는, 받는 자의 살아 있는 신앙에 반응해서 일어난다.”

150:9.3 (1686.6) 가장 어린 전도자인 나홀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가운데 하나인 열심당 시몬이 전략적인 큰 실책을 범하지만 앎았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의 친구들이 무리 속에서 한군데로 모여서, 주님의 적들에게 나가라고 호전적인 태도로 명령하지 앎았다면, 예수께서 그 무리를 기분 좋게 다루고, 심지어 난폭한 적들도 효과적으로 무장해제 시켰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항상 사도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자기네가 기꺼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무례함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심했기에,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화내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은 단지, 사악하고 질 낮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자극했을 뿐이다. 이 무뢰한들은 고용인의 지휘 아래서 예수를 붙들고 회당 밖으로 끌고 나가, 가까이 있는 가파른 언덕 벼랑 끝으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그를 아래로 밀어뜨리고자 작정했다. 그런데 그들이 벼랑 끝에서 그를 막 밀치려 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을 잡고 있는 자에게로 갑자기 몸을 돌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의 팔을 조용히 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가 앞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자, 폭도들은 길을 비키면서 아무 방해도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뒀는데, 그것을 본 예수의 친구들은 경탄해 마지않았다.

150:9.4 (1687.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야영지로 갔고, 거기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지시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 밤에 준비를 마쳤다.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끝난 것이, 예수의

모든 추종자를 착잡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주님의 교훈의 의미를 얼마간 깨닫기 시작했으며;천국이 많은 슬픔과 쓰라린 실망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었다.

150:9.5 (1687.2) 그들은 일요일 아침에 나사렛을 떠났으며, 여러 다른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3월 10일 목요일 정오에 마침내 그들 모두가 벳새다에 집합했다. 그들은 열광적이고 모든 것을 정복한 승리의 십자군{十字軍}으로서가 아니라, 침착하고 진지한 집단, 환상에서 깨어난 진리의 복음 전파자로서 함께 모였다.

제151편 해변에 머물면서 가르침

151:0.1 (1688.1) 3월 10일이 되자, 전도하고 가르치는 전체 집단이 벳새다에 모였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그들 가운데 다수가 고기 잡으러 나갔고, 한편 안식일에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선조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회당에 참석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대부분을 언덕에서 혼자 지냈다. 토요일 밤에 “역경의 목적과 실망의 영적 가치”라는 주제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시간 이상

가르쳤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제시했던 이 수업을 결코 잊지 못했다.

151:0.2 (1688.2) 예수께서는 최근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함으로 인한 슬픔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사도들은 그의 평상시 유쾌한 모습에 야릇한 슬픔이 깃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고, 베드로는 새 전도자 단체의 안녕과 방침에 관련된 많은 책임에 더 전념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떠나기 전에, 가버나움과 그 주변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51:1.1 (1688.3) 이 무렵에, 예수께서는 자기 주변에 그토록 자주 모여드는 대중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비유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전날에 사도들 및 다른 사람들과 밤 깊도록 이야기했으므로, 이 일요일 아침에는 그 집단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침을 먹으러 나왔으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가서 자신이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전에 고기잡이하던 배에 홀로 앉아서, 천국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해 묵상했다. 그러나 주님이 홀로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가버나움과 근처 동네에서 사람들이 곧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날 아침 열 시가 되자, 거의 1,000명이 예수의 배 가까이 있는 해변에 모여서 그의 관심을 사기 위해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배로 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따라다니는 군중에게 연속해서 가르친 여러 비유 가운데 첫 비유였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 배에는 그가 앉았던 높은 의자가 있었고, 물가에 모여 있는 인파에게 말씀했다. 베드로가 몇 마디 말한 뒤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151:1.2 (1688.4)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고, 씨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발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땅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았으므로 곧 싹이 났지만,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나오자마자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자 그것이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자라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또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유 말씀을 마치면서, 대중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다.

151:1.3 (1689.1)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자 매우 당황했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날 밤 세베대의 정원에서 마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대중에게 가르치셨던 모호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151:1.4 (1689.2) “내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쳐 왔다. 하늘 나라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지금부터는, 분별력 없는 대중에게,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자들은 가르침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단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들으러 온 자들은 보기는 하되 진정으로 보지 못하며, 듣기는 하되 진정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내 자녀들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풍성히 소유하게 되겠지만;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고 선언하는 영{靈}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끝까지 비유로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게 되는 반면, 우리 적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선지자가 그런 모든 분별력 없는 혼에 대해 진정으로 묘사했다: '이 백성의 가슴이 둔하게 됐고, 귀가 듣기에 둔감하고, 눈이 감겼으므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151:1.5 (1689.3)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 안드레와 도마가 예수와 좀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정원의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토론했다.

2. 비유의 해석

151:2.1 (1689.4)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집단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풍유이고, 각 장면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서 말했다:“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간파할 수 없으며, 당신께서 말씀하기를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얘야, 나는 네게 아무 것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네가 그 비유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그것에 대한 네 해석이 무엇인지, 먼저 내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151:2.2 (1689.5)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주님,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결론에 도달한 해석은 이렇습니다: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이고;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가는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 즉 무지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훔쳐 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떨어지고, 아주

갑자기 싹 난 씨는,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그 진리가 그들의 깊은 이해심 안에 참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그들의 헌신이 곧 사라지는, 피상적이고 생각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이런 신자들은 비틀거리며;유혹 당하면 빠져들고 맙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꺼이 듣지만, 세상의 걱정거리와 정직하지 못한 부유함을 인정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진리를 듣고 --그들의 서로 다른 지적 재능으로 인해-- 다양한 정도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따라서 다양한 정도로 이 종교 체험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51:2.3 (1690.1) 예수께서는,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 또한 제시하고 싶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런 요청에 나다니엘만 반응했다. 그가 말했다:“주님, 나는 시몬 베드로가 비유를 해석한 것에 관해 좋은 점을 많이 인정합니다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씨는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반면, 씨 뿌리는 자는 천국의 사자{使者}들을 나타냅니다. 딱딱한 땅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메시지에 무관심한 자들과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을 위시해서,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자를 나타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채어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 악의 유혹, 및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돌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새로운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지만,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현실에 부딪치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영적 감지력이 부족한 감정적인 혼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에 매혹된 사람들을 의미하며;그들은 그 교훈을 따르려 작정했지만, 삶의 자존심, 질투, 시기심, 그리고 인간 실존의 근심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다양한 자질의 영적 빛을 소유한 남녀들이, 진리를 납득하고 그 영적 교훈에 반응하는 역량을 타고났으며,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51:2.4 (1690.2)

나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은 심각한 토론을 시작하고 진지한 논쟁에 임했는데, 얼마간의 사람은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서로를 확신시키며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는 열성적이고 확신에 찬 노력에 열중했다.

151:2.5 (1690.3)

주님은 이런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뒀으며; 그리고 나서 손뻘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다시 그의 주위에 모이자, “내가 이 비유에 관해 말하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없느냐?”고 말씀했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에 도마가 말했다: “네, 주님, 제가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바로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 설교를 위해 예화를 사용할 때, 우화{偶話}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선택해야만 하며,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소한 세부사항을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둘 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또한, 자연을 비유로 든 말씀에서 그 모든 면으로부터 영적 유추{類推}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들은 단지 그런 비유의 진정한 목적에 혼란과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두 무리로 나뉘어 이 비유에 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이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위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역량까지도 방해할 만큼, 그런 의견을 열렬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옳았음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151:2.6 (1691.1)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그들에게, 이전의 경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했다:“나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그가 말했다:“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를 원한다면,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위탁임을 실행할지라도,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며;그런 모든 다른 정도의 결과는, 우리의 사역 환경에 내재해있는 조건, 즉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151:2.7 (1691.2) 도마가 말을 마치자, 동료 설교자 대부분이 그에게 동의하려 했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갈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다:“도마야, 잘했다;너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봤지만;베드로와 나다니엘 모두 내 비유에서 풍유를 만들려는 일의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도 너희에게 똑같이 기여했다. 마음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종종 유익을 얻게 할지도

모르지만, 너희가 그런 결론을 공개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151:2.8 (1691.3)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해소됐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 칭찬했으며, 알패오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 사도들은 잠자리 가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했다. 가롯 유다도 매우 그럴듯한 해석을 내렸다. 열두 사도는 때때로 자기들끼리, 우화를 풀이하듯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쓰곤 했지만, 다시는 결코 그런 유추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으며, 예수께서는 특별히 이때부터 자신의 대중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비유를 점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3. 비유에 대해 더 하신 말씀

151:3.1 (1691.4) 사도들은 너무 비유에 몰두돼서, 다음 날 저녁 전체가 비유를 더 깊이 토의하는 데 사용됐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날 밤 협의가 시작됐다: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너희는 항상 그들의 정신과 심성에 적당하도록,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다양한 지능과 기질의 대중 앞에 섰을 때에는, 각 계층의 청중에 맞춰서 다른 말로 가르칠 수 없지만, 너희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말할 수 있으며; 각 집단, 그리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자신의 지적 및 영적 재능에 따라서, 너희 비유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빛을 비추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등불을 켤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하늘 나라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을 감춰두는 일이 전혀 없으며; 또한 끝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어떤 비밀도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듣는지도 생각하며;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151:3.2 (1692.1) 비유에 관한 이어진 토론,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대한 계속된 훈육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151:3.3 (1692.2) 1.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 둘 다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비유,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계를 “영 실체의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로 자주 암시했다.

151:3.4 (1692.3) 2. 예수께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그가 이때부터 비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대체로 새로운 교육 방법이 됐다.

151:3.5 (1692.4) 3. 예수께서는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음 몇 가지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151:3.6 (1692.5) 비유는, 방대하게 다른 수준의 정신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판별력에 도전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하며;적대감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공감하도록 촉진시킨다.

151:3.7 (1692.6) 비유는, 알려진 것들에서 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고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 물질적이고 자연스런 것을 그 수단으로 동원한다.

151:3.8 (1692.7) 비유는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도록 촉진한다. 비유는 많은 편견을 줄여주고, 새로운 진리를 정신 속에 은혜롭게 넣어주며,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자기_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룩한다.

151:3.9 (1692.8) 비유의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직접 무시하는, 의식적인 지적 행동을 요구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해서 사고{思考}를 강화시키도록 이끌어준다.

151:3.10 (1692.9) 비유 형식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으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 제시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그는 주로 모든 논쟁 및 전통 또는 확립된 권위와 외면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하게 된다.

151:3.11 (1693.1) 또한 비유는 똑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보게 될 때, 그것에서 배웠던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151:3.12 (1693.2) 예수께서는, 대중을 가르칠 때 왜 점점 더 비유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추종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 주려고 애썼다.

151:3.13 (1693.3)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비유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했다:첫째로, 그 비유는 자신의 그때까지의 일을 다시 돌아보고, 다가올 이 세상에서 여생 동안 자신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 및 다른 천국 사자{使者}들이 대대로 사역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넌지시 암시한 것이었다.

151:3.14 (1693.4) 예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반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는 데 의존했는데, 그들은 그가 한 모든 업적이 귀신과 마귀들의 두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졌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세력들의 직접 산물이라고 여겼으므로,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가 또한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을 알려는 자들에게는 생생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고소할 근거를 찾을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151:3.15 (1693.5) 그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이제 내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 주겠다. 나는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기 위해 시험하려고 한다:하늘 나라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며;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기 일을 보러 다니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랐으며,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가 알지 못했음에도, 그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됐다. 처음에는 싹이 났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왔으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결실이 맺혔다. 그런 후에, 곡식이 익으면 그가 곧 낫을 대고, 추수를 끝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51:3.16 (1693.6)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 속에 여러 번
생각했지만, 주님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결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4. 해변에서 말씀하신 더 많은 비유

151:4.1 (1693.7) 예수께서 다음날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했다:“하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은데;그러나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잡초를 덧뿌리고 급히
도망갔다. 그리하여 어린 싹들이 돋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이르자, 잡초들도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말했다;‘주인님,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잡초들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인들에게 대답했다;‘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인들이 말했다;‘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아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뽑아서 모으는 동안에, 곡식까지 뽑을 것이다. 차라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면,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잡초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151:4.2 (1693.8)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다. 지금은 겨자 씨 하나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모든 목초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게 된다.”

151:4.3 (1694.1)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세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며,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루가 모두 발효됐다.”

151:4.4 (1694.2)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한 밭에 감춰진 어떤 보물 같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것을 샀다.”

151:4.5 (1694.3) “또한 하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 같으며;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 귀한 진주를 살 수 있도록 나가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

151:4.6 (1694.4) “다시 말하는데, 하늘 나라는 마치 바다에 던진 쓸어내기 식 그물과 같으며, 그것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이게 했다. 이윽고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자,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그들은 거기 앉아서 고기를 분류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151:4.7 (1694.5) 예수께서 다른 많은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했다. 사실상, 이 시간 후부터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무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일반 청중에게 비유로 말씀한 후에, 밤 시간 동안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그 교훈을 더 충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곤 했다.

5. 케레사를 방문함

151:5.1 (1694.6) 그 주 내내 대중이 계속 늘어났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서둘러 언덕으로 떠났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자, 인파는 다시 돌아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이른 오후에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마치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말씀했다:“내가 군중 때문에 매우 피곤하니;하루 휴식을 취하도록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151:5.2 (1694.7) 그들이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의 특질이고 일 년 가운데 이 계절에 특히 그랬던, 격렬하고 갑작스런 폭풍우 하나를 만났다. 이 호수는 바다 표면보다 거의 700피트 낮아서, 높은 독으로 둘러있었고, 특히

서쪽이 더 그랬다. 호수에서 언덕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협곡이 거기 있었고, 낮에는 가열된 공기가 호수 위쪽으로 덩어리 지어 올라갔는데, 해가 진 후에는 협곡의 찬 공기가 호수로 급속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강풍이 때로는 빠르게 왔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곤 했다.

151:5.3 (1694.8) 이 일요일 밤에 예수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가 만난 것은 바로 그런 저녁 강풍이었다. 젊은 전도자 가운데 일부를 태운 세 척의 배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매우 강렬했는데, 그것이 호수의 이 지역에 국한됐음에도, 서쪽 해변에는 폭풍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물결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했다. 빠른 바람은, 사도들이 채 돛을 감아 말기도 전에 돛을 찢어 버렸고, 그들은 이제 약 1마일 반 이상 떨어진 해안으로 가기 위해, 단지 부지런히 노 젓는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다.

151:5.4 (1694.9) 그러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작은 지붕 아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그들이 뱃새다를 떠날 당시에 주님이 매우 피곤했으므로, 그들에게 자신을 건너편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었다. 예전에_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건장하고 노련한 사공들이었으나, 그 폭풍우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심했다. 바람과 물결이 마치 장난감 배처럼 그들의 배를 높이 치솟게 했음에도, 예수께서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오른 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가 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노를 내려놓고 예수께 뛰어가서 그를 깨우기 위해 심하게 흔들었으며, 그가 일어나자 소리쳤다: “주님,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151:5.5 (1695.1) 예수께서 비 속으로 나오자, 먼저 베드로를 바라본 후, 고전하고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자세히 봤으며, 아직도 걱정이 돼서 자기 노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며 말씀했다: “어찌하여 너희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 신앙이 어디 있느냐? 평안하라, 조용하라.” 예수께서 이런 책망의 말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채 끝내기도 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불안한 혼을 진정하고 평강을 찾으라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혼란된 공기가 평형점에 다다라서 아주 잠잠해졌다. 성난

물결이 거의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편 잠깐 소나기를 내렸던 검은 구름은 사라졌으며, 하늘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는 한,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우연하게 일어났지만,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이 영적 세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통제 아래 있다고 굳게 믿었으므로, 그런 사건을 자연의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특히 쉬웠다.

151:5.6 (1695.2) 예수께서는, 그들의 당황하는 기질에게 말하고 두려움에_흔들린 정신에게 말을 건 것이지, 본인의 말에 복종하라고 폭풍우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열두 사도에게 분명히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그런 사건에 자기 해석을 붙이기를 항상 고집했다. 이날 이후로 그들은, 주님이 자연 요소들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계속 간주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에게 순종했는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151:5.7 (1695.3) 예수와 동역자들이 해변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으며, 그날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으므로,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변으로 올라가지 않고 모두 배에서 휴식을 취했다. 약 40명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저 쪽 언덕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아버지 나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기로 하자.”

6. 케레사의 미치광이

151:6.1 (1695.4) 가까이 있는 호수 동쪽 해변 대부분이 그 위의 고원지대까지 경사가 완만했으나, 이 특정한 지점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어떤 곳의 해변은 호수 쪽으로 거의 수직을 이뤘다. 예수께서 가까이 보이는 언덕바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했다:“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침을 먹고, 움막 아래 쉬면서 이야기하자.”

151:6.2 (1695.5) 이 언덕바지 전체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들로 가득했다. 이런 벽감{壁龕} 가운데 다수는 고대의 무덤이었다. 언덕을 반 정도 올라간 곳의 작고 비교적 평평한 지점에, 케레사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동역자들이 이 무덤 가까이

지나가자, 이 언덕의 동굴에 살던 한 미치광이가 그들
앞으로 달려왔다. 이 미친 사람은 이 지역에 잘 알려졌는데,
한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석굴 가운데 하나에
감혀있었다. 그는 오래 전에 고랑을 부쉘서, 이제는 무덤과
버려진 돌무덤들 사이를 멋대로 배회하고 있었다.

151:6.3 (1696.1) 아모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주기적인 광란기로
고난당했다.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동료들 가운데서
상당히 잘 처신하는 기간도 제법 있었다. 그가 제정신이 든
이런 기간에, 한번은 벳새다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으며, 그때 천국 복음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됐다. 그러나 곧 그의 격렬한 발작
단계가 찾아왔고, 무덤으로 도망갔는데, 그는 거기서
큰소리로 신음하고 외쳐댔으며, 너무나도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151:6.4 (1696.2) 아모스는 예수를 알아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예수여,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마귀에 붙들렸으니,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기적인 정신적

고난은, 그런 때에 악한 영들이나 더러운 영들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정신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의 고통은 주로 감정적인 것이었다--그의 뇌는 심하게 병들어 있지 않았다.

151:6.5 (1696.3) 예수께서는 자기 발아래 짐승처럼 꾸부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몸을 굽혀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말씀했다:“아모스야, 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며;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다. 네게 이 발작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명령한다.” 아모스는 예수의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지능에 변화가 일어나서, 곧 자신의 올바른 정신을 되찾아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게 됐다. 이 무렵에 상당한 인파가 가까운 동네로부터 모여들었고, 고원지대에서 온 돼지 치는 자들과 합세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 추종자들과 함께 앉아서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1:6.6 (1696.4) 돼지 치는 자들이 그 미치광이를 고친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마을로 급히 들어갔을 때, 돌보는 사람 없이 있던 서른 마리쯤 되는 돼지 떼를 개들이 습격해서,

대부분의 돼지를 절벽 너머 바다로 내몰았다. 그리고
예수의 출현과, 미치광이를 기적적으로 고쳤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이 우연한 돼지의 사건이 관련되어,
예수께서 마귀들의 군대를 그에게서 쫓아내어 아모스를
고친 후에, 이 마귀들을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고 바다로
내몰아 빠지게 해서 처치해버렸다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날이 지나기 전에, 돼지 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렸고, 온 동네 사람이 이것을 믿었다.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히 믿었으며;교란된 정신이 진정된
직후에, 돼지 떼가 언덕 가장 자리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그를 오랫동안 항상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준
바로 그 악한 영들을 돼지 떼가 가져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질환이 영구히 고쳐진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도마를 제외하고) 예수의 사도들도 모두 그 돼지
사건이 아모스의 치유와 직접 관련 있다고 믿은 것 또한
사실이다.

151:6.7 (1696.5) 예수께서는 원하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그날
대부분, 예수께서는 아모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이 미치광이로부터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에게 시달렸다.

그리하여 예수와 친구들은 단지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재촉하러 온 돼지_기르는 이방인 파견대표단 때문에,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들의 대변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다:“갈릴리 어부들이여,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당신의 선지자도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인줄 알지만, 우리 고장의 신{神}들은 그를 알지 못하며, 많은 돼지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두려워하니, 여기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듣자, “우리 장소로 돌아가자”고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151:6.8 (1697.1)} 그들이 막 떠나려 했을 때, 아모스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도록 예수께 간청했으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했다:“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보여줘라.” 그리고 아모스는, 그의 고통 받는 혼으로부터 마귀들의 군대를 예수께서 내쫓았다는 것과, 이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몰살됐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는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닐 때까지, 자신을 위해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행했는지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제152편 가버나움 위기로 이끈 사건들

152:0.1 (1698.1) 케레사의 미치광이 아모스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이미 벳새다와 가버나움에 퍼졌으며, 그리하여 화요일 오전에 예수의 배가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군중 가운데는, 주님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구실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새 감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마중 나와 모여 있던 그들과 이야기할 때, 회당장들 가운데 하나인 야이로가 군중을 헤치고 나와 그의 발아래 엎드려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급히 가 줄 것을 간청하며 말했다: “주님, 내게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이 집에 누워 있는데 죽기 직전입니다. 부디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청을 듣고 말씀했다: “너와 함께 가겠다.”

152:0.2 (1698.2)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자,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었던 큰 인파가, 무슨 일이 생길지 보기 위해 그들을 뒤따라갔다. 회당장의 집에 당도하기 조금 전에

그들이 좁은 길을 따라 급히 갈 때, 그리고 군중이 그를 밀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멈춰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인파가 당신을 밀치고 우리를 짓밟을 정도까지 된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감지했으므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 자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이 있던 한 여자에게 눈이 멈추자, 그녀가 앞으로 나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심한 혈루병{血漏病}으로 고생했습니다. 나는 많은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난당했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고, 당신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확실히 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인파를 헤치고 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온전함을 얻었으며; 내 병이 치유 받았음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딸아, 네 신앙이 너를 온전케 했으니;평안히 가라.” 그녀를 온전케 한 것은, 그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일어난 많은 외견상 기적적 치유 가운데 좋은 본보기이지만, 어떤 면에서도 그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여자의 질병은 확실히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신앙은, 주님의 인격자 안에 거하는 창조적 능력을 직접 붙잡은 그런 종류에 속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신앙으로 주님의 인격자 앞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됐다. 그의 옷에 손을 댈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그것은 다만 그녀의 믿음 중에서 미신적인 요소였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랴_빌립보의 베로니카라는 이 여자를 앞으로 불러서, 그 정신에 잔존할 수 있는, 또는 이 치유를 목격한 그들의 정신 속에 존속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을 바로 잡고자 했는데:두려워하며 치유를 몰래 받으려던 시도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채로, 또는 그의 옷에 손댄 것과 관련된 그녀의 미신이 효과 있었다고 생각한 채로, 베로니카가 그곳을 떠나가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께서는,

병을 낫게 한 것은 그녀의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이었음을 모두가 알기 원했다.

1. 야이로의 집에서

152:1.1 (1699.1) 야이로는 집으로 가는 여정이 지연되자, 당연히, 몹시 초조해졌으며;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들이 야이로의 집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인이 나와서 말했다:“주님께 더 이상 수고를 끼치지 마십시오;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인의 말에 개의치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말씀했다:“두려워 마라;오직 믿기만 해라.”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대신 곡하는 자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음을 봤으며;친척들은 이미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대곡{代哭}꾼을 방에서 내보낸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사도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대곡꾼들에게,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를 경멸하며 비웃었다. 이때 예수께서 그녀의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며;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예수께서는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했다:“딸아, 내가 네게 명하니, 깨어 일어나거라!” 소녀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방에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곧, 그녀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라고 지시했는데, 그녀가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152:1.2 (1699.2)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동요가 있었으므로, 가족을 모아놓고 그 소녀가 오랜 열병 후에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단지 그녀를 잠에서 깨웠을 뿐,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며;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이 소녀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다수의 외견상 기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추종자들에게는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기적에 몰두했으며, 예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가 그들 모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에, 사도들과 함께 벳새다로 돌아왔다.

152:1.3 (1699.3) 그가 야이로의 집에서 나왔을 때, 두 소경이 한 귀머거리 소년의 인도를 받아 그를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울부짖었다. 이 무렵에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다. 어디를 가든지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주님이 매우 지쳐 있어서, 친구들은 모두 그가 가르침과 치유를 계속하면 쓰러질 지경에 이를 것을 염려하게 됐다.

152:1.4 (1699.4)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의 사도들까지도, 이 하나님_사람의 본성과 속성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후일에 어떤 세대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진기한 사건들에 대해, 과학이나 종교가 조사해 볼 기회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은 물론 네바돈의 다른 어떤 세계에서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필사자 육신을 입은 동시에, 시간의 제한 및 대부분의 다른 물질적 제한을 초월하는 영적 재능을 겸비하는 창조적 에너지의 모든 속성을 가진 존재는, 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세계에서도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52:1.5 (1700.1)

예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결과를, 남녀 필사자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렇게 직접 생생하게 보장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창조자이신 미가엘의 직접적인 현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이며, 그 당시의 그의 존재를--곧 사람의 아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그의 부재{不在}로 인해 그런 물질 현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영적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에 어떤 종류의 제한이든지 부과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물질 존재로는 함께 거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영적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사람의 마음 속에 현존하신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써, 온 인류의 정신에 내재하는 아버지의 영과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있게 했다.

2. 5천 명을 먹임

152:2.1 (1700.2)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낮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교육했다. 유월절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는 모든 추종자가 며칠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금요일에 한 주 동안의 휴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반

이상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일 늘어났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새 야영장을 세우자고 제안했으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은 안식일에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므로,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 있기 원했다. 예수와 열두 사도가 눈에 띄지 않게 건너편 호숫가로 가서, 벳새다_유리아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서 자신에게 매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소수의 전도자가 거기에 남아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 지역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였으며;그들은 모두 동쪽 해안에 있는 이 공원을 잘 알고 있었다.

152:2.2 (1700.3)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획이 이뤄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의 배가 가는 방향을 봤고,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모든 배를 타고, 그 뒤를 따르기 위해 출발했다. 배를 구하지 못한 자들은 그 호수 북쪽 끝을 돌아서 걸어갔다.

152:2.3 (1700.4) 늦은 오후 무렵이 되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공원에서 주님을 찾아냈고, 주님이 그들에게 잠시 말씀한 후에 베드로의 말이 이어졌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음식을 휴대했으며, 저녁식사 후에 예수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동안, 작은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152:2.4 (1700.5) 월요일 오후에는 대중{大衆}이 3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밤늦게 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고, 또한 그들은 온갖 종류의 병자를 데리고 왔다. 관심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이,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말씀을 들을 목적으로 가버나움에 들릴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은 단순히 실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수요일 정오까지, 약 5천 명의 남녀 어른과 아이들이, 벳새다_유리아 남쪽에 있는 이 공원에 모였다. 이때에는 이 지역에서 우기{雨期}가 끝나는 철이었으므로 날씨가 좋았다.

152:2.5 (1700.6) 빌립은 예수와 열두 사도를 위한 3일분 음식을 준비했었고, 모든 잔심부름을 맡은 소년 마가에게 그것을 돌보게 했다. 3일째 되는 이날 오후에, 거의 절반의 대중은 각자 가져온 음식이 거의 바닥 나 있었다. 세베대 다윗은 그 인파를 먹이고 수용할만한 천막도시를 이곳에 세워놓지 않았다. 또한 빌립 역시 그런 대중을 위한 음식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가 고팠음에도,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헤롯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왕으로 즉위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삼으려고, 모든 적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이 조용한 장소를 예수께서 선택했다는 속삭임이 돌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돼갔다.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진행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열두 사도까지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졌으며, 젊은 전도자들이 특히 그랬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려는 이 계획에 동의한 사도는, 베드로, 요한, 열심당 시몬, 가롯 유다였다.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도는, 안드레, 야고보, 나다니엘, 도마였다. 마태, 빌립, 알패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예수를 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이 음모의 주동자는, 새로 전도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요압이었다.

152:2.6 (1701.1) 이것이, 예수께서 야고보 알패오에게, 안드레와 빌립을 불러오라고 시킨 수요일 오후 다섯 시경에 설치된 무대 배경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우리가 이 대중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사흘이나 우리와 함께 있었고,

대부분이 배고프게 됐다.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다.”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쳐다봤고, 그때 빌립이 말했다:“주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스스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가 성사될까봐 걱정하던 안드레가 재빨리 빌립의 말에 끼어들어 말했다:“그렇습니다. 주님. 대중을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먹도록 하고, 그동안 당신은 잠시 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렵에 열두 사도 가운데 다른 이들도 이 논의에 참여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러나 나는 그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며;너희가 그들을 먹일 수 없겠느냐?” 빌립에게는 이것이 너무 벅찬 일이었고, 그가 기탄없이 말했다:“주님, 이 시골 어디서 이 대중을 먹일만한 빵을 사겠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그들에게 점심을 먹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152:2.7 (1701.2) 사도들이 의견을 발표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했다:“나는 이 사람들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들이 목자 잃은 양 같은 처지로 여기 있다. 나는 그들을 먹이기 원한다. 우리에게 무슨 음식이 남았느냐?” 빌립이 마태, 유다와 함께 말하는 동안,

안드레가 소년 마가에게 가서 음식이 얼마나 비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말했다:“저 소년에게 빵 다섯 개와 마른 생선 두 마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게다가 우리는 아직 저녁 식사 전입니다”라고 재빨리 덧붙였다.

152:2.8 (1701.3) 예수께서 잠시 침묵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사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갑자기 안드레에게 돌아서서, “그 빵과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했다. 안드레가 바구니를 예수께 가져오자, 주님이 말씀했다:“사람들을 100명씩 무리지어 풀밭에 앉게 하고, 각 무리의 대표를 정하는 한편, 모든 전도자를 여기 우리에게 불러와라.”

152:2.9 (1701.4) 예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드린 후, 빵을 떼어 사도들에게 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동역자들에게 전했으며, 차례대로 그것을 대중에게로 가져갔다. 예수께서는 생선도 그런 식으로 떼어 나눠줬다. 그리고 이 대중이 먹고 배부르게 됐다. 그들이 다 먹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남은 조각을 모두 거둬들여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조각을 다

거뒹들었을 때, 열두 바구니에 가득했다. 그 굉장한 잔치에서 음식을 먹은 남녀 어른과 아이들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됐다.

^{152:2.10 (1702.1)}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한 결과로 나타난 처음이자 유일한 자연의 기적이었다. 제자들은 기적이 아닌 많은 일을 기적이라 부르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적 사역이었다. 이 경우에, 시간 요소와 가시적 생명 경로를 제거한 것 외에는, 늘 그러다시피, 미가엘이 음식 요소들을 증가시켰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3. 왕으로 추대한 사건

^{152:3.1 (1702.2)} 초자연적 에너지로 5천 명을 먹인 일은, 인간적 연민에 창조적 권능을 더한 결과로 발생한 또 하나의 경우였다. 이제 배부르게 먹고 난 대중에게는, 당시의 예수의 명성에 이런 엄청난 기적까지 더해졌으므로, 주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선포하려는 계획에 더 이상 개인의 지시가 필요치 않게 됐다. 그 착상은 인파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충족시켜 준 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심오하고 압도적이었다.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그 땅을 젖과 꿀로 다시 넘치게 해 줄 것이며, 광야에 있던 선조에게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생명의 빵을 자신들에게 수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대중이 그 기적의_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만장일치 반응이 있었다:“우리 왕이 여기 계시다.” 기적을_행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드디어 온 것이었다. 단순한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의 눈에는, 먹일 수 있는 그 권능은 다스릴 권한이나 마찬가지였다. 잔치가 끝났을 때,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고 외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152:3.2 (1702.3) 이런 강력한 외침은, 예수께서 통치할 권한을 주창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중의 이 힘찬 외침이 가까이 있는 바위에 반사되기도 전에, 예수께서 큰 바위에 올라서서 오른 손을 들어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말씀했다:“내 자녀들아, 너희의 의도는 좋지만, 너희는 좁은 안목과 물질_정신을 갖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이 건장한 갈릴리인은 동쪽 황혼의 황홀한 빛을 받으면서 거기에 위엄 있게 서있었다. 숨죽이며 듣던 대중에게 말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은 어느 면으로나 왕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다:“너희는 지금 나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그것은 너희 혼이 위대한 진리로 비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배가 빵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했더냐?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늘 나라는 영적 형제관계이며, 아무도 물질적 왕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만이, 하나님의 이 세상 자녀의 이런 영적 형제관계를 다스리는, 온전히_지혜롭고 전능한 통치자시다. 육신을 입은 아들을 너희가 왕으로 추대할 만큼, 그렇게내가 너희에게 영적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던 말이냐! 이제 너희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왕을 섬기고 싶다면, 너희 각자 마음 속에서 빛들의 아버지를 만유의 영 통치자로 추대해라.”

152:3.3 (1702.4)

예수의 이런 말씀은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실망한 채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를 믿었던 많은 사람이, 그날부터 그에게 등을 돌린 후에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다. 사도들은 할 말을 잊은 채, 음식 조각을 거둬들인 열두 바구니 주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단지 심부름꾼 소년 마가만이, "그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는군요"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홀로 언덕으로 떠나기 전에 안드레를 돌아보며 말씀했다:"네 형제들을 세베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특히 네 동생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라."

4. 시몬 베드로가 밤에 본 환상

152:4.1 (1703.1)

사도들은, --그들끼리만 가라고 보냈기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배를 타고 호수 서쪽 해안 벧새다를 향해 말없이 노를 젓기 시작했다.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도 시몬 베드로만큼 좌절하고 풀이 죽어 있지는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으며;그들은 모두, 언덕에서 홀로 지낼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그는 그들을 버린 것일까? 그렇게 그들 모두를 보내면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절한 적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어둠이 그들 위에 드리웠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세찬 맞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여러 시간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 때, 베드로가 피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안드레와 야고보가 그를 배 고물에 있는 폭신한 자리로 옮겼다. 다른 사도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동안, 베드로는 꿈을 꿔으며;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는 환상을 봤다. 주님이 배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자, 베드로가 외쳤다:“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배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몇 마디 말을 들었다. 이런 밤의 환상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계속되는 중에, 그는 꿈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들었다:“안심하라;나이니;두려워 말라.” 이것은 베드로의 고통스런 혼에 마치 길르앗 향료 같았으며;그의 불안한 영을 진정시켰고, 그리하여 (꿈속에서) 주님께 외쳤다:“주여, 진정 당신이라면, 내게 오라고 명하셔서 당신과 함께 물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물위로 걷기 시작했을 때, 거센 물결이 그를 놀라게 했고, 빠지려 하자 소리쳤다:“주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두 사도 중에서 여럿이 그의 이 외침소리를 들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구해주러 와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끌어올리면서 말씀하는 꿈을 꿔다:“오, 신앙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152:4.3 (1703.3)} 꿈의 후반부와 연관하여, 베드로는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서, 실제로 배 밖으로 나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달려가 물에서 그를 끌어 올렸을 때, 그가 꿈에서 깼다.

^{152:4.4 (1703.4)} 베드로에게는 이 체험이 항상 진짜였다. 그는 예수께서 그날 밤에 자신들에게 왔었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그는 단지 요한 마가를 부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왜 마가 복음에 그의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이 기록돼 있는지 설명해 준다. 의사 누가는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자신의 기록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5. 벧새다로 돌아옴

^{152:5.1 (1703.5)} 목요일 아침 동 트기 전에, 그들은 세베대의 집 근처 해변에 배를 정박하고, 정오까지 잠을 자려고 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안드레가 해변으로 산보 나갔다가,

심부름꾼 소년과 함께 물가에서 돌 위에 앉아있는 예수를 발견했다. 대중 가운데 여러 명과 젊은 전도자들이, 온 밤과 다음날 온종일 동쪽 언덕 주변에서 예수를 찾아다녔음에도, 그는 자정이 조금 지난 후에 소년 마가를 데리고 걷기 시작해서 호수를 돌아 강을 건넜고, 벳새다로 돌아왔다.

152:5.2 (1704.1)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그리고 자신의 배는 채웠으나 심정은 공허했을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5천 명 가운데, 단지 약 5백 명만이 계속 그를 따라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벳새다에 돌아왔음을 이 사람들이 알기 전에, 열두 사도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동역자들을 모두 집합시키라고 안드레에게 요청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모두 준비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152:5.3 (1704.2) “내가 얼마나 오래 더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 모두 그토록 영적 납득이 느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 여러 달 동안 내내, 내가 천국의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아직도 영적 헤아림 대신 물질적 동기에 지배되고 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모세가 훈계한 것을 너희가 성서에서 읽지 못했느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主}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다: ‘주를 신뢰하라.’ ‘인내함으로 주를 기다리고 담대하라.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네 짐을 주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항상 그를 신뢰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부어라.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다.’ ‘지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께 피하는 것이, 인간 군주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152:5,4 (1704:3) “그리고 기적을 행하거나 물질적 이적을 실행하는 것이 사람을 영적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 모두 알겠느냐? 우리가 대중을 배불리 먹였으나, 그것이 생명의 빵을 위한 배고픔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영적 의로움의 생수에 목말라하도록 인도하지도 못했다. 배고픔이 해결되자, 그들은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로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왕들의 방법을 따라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선포하려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여럿도 다소나마 관여했던 이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거나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를 진보시키는 것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집권자들의 비위를 거스르기 십상인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충분한 적을 두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너희 눈을 정결하게 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너희 귀를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너희가 완전히 믿게 되도록 기도하겠다.”

152:5.5 (1704.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축하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며칠간 사도들과 물러가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고, 제자들이나 무리들 가운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삼일 휴식을 취하고 잠자기 위해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생의 큰 위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152:5.6 (1704.5)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있는 호기심을 발동시켰고,

온 갈릴리와 유대지방에 두루, 종교 지도자들 및 집권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큰 기적은, 물질_성향의 사람들이나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더 진전시키는 일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으나, 예수의 가까운 가족인 사도들 및 측근 제자들의 기적을_추구하고 왕을_열망하는 경향을 일깨우려는 목적에는 도움이 됐다. 이 굉장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훈련, 및 치유로 이뤄진 초기 시절이 끝나게 됐고, 좀 더 높고 좀 더 영적인 국면의 새로운 천국 복음--곧 신성한 아들신분, 영적 해방,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이 마지막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발판이 됐다.

6. 게네사렛에서

^{152:6.1 (1705.1)}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어느 부유한 신자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매일 오후 열두 사도와 비공식 협의를 했다. 천국의 대사들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각성된 사람들 중에서 잘 훈련된 집단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겪은 후에도, 나중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듯이, 이 열두 사람은 날 때부터 오랫동안 간직해 온, 유대인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개념에서 아직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놀라운 사건들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어부들은 그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사회적 행동, 철학적 관점, 종교적 확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남자와 여자들이 철저히 널리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152:6.2 (1705.2) 예수와 열두 사도가 게네사렛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대중이 해산됐는데, 더러는 집으로, 더러는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한 달 안 되는 동안, 갈릴리 한 군데에서 5만 명 이상이던 열성적이고 공개적인 예수의 추종자들의 숫자가 5백 명도 안 되게 줄었다. 예수께서는, 인기를 끄는 주장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제자들이 체험함으로써, 그들끼리 천국의 일을 하도록 남겨두고 떠난 후에, 그런 일시적인 종교적 흥분을 나타내는 것에 의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런 노력에서 단지 부분적 성공을 거뒀을 뿐이다.

152:6.3 (1705.3) 게네사렛에 체류한 둘째 날 밤에, 주님이 다시 사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다: “얘들아, 너희도 보는 바와 같이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것이며; 오직 사람의 지능만을 향한 호소는, 속이 비고 열매

맺지 못하며;오직 너희가 인간 정신 속에 살아있는 영에게 호소함으로써만, 영구적인 성공을 성취하고 인간 성품의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룩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데, 그 인간 성품은 신앙의 빛--곧 하늘 나라--속으로 영이 탄생됨으로써, 의심의 어둠으로부터 그렇게 해방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영의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곧 나타난다.

152:6.4 (1705.4) 예수께서는 지적 관심에 주의를 끌고 초점을 맞추는 기법으로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이처럼 격동되고 예민해진 정신이 혼에 이르는 통로라고 했는데, 참된 성품 전환이라는 영구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진리를 인식하고 복음의 영적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의 영적 본성이 혼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152:6.5 (1705.5)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이 머지않아 겪게 될 충격--즉 단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있을, 대중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 닥칠 위기--에 대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열두 사도에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없애기 위해 헤롯 안티파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최종적이지는 않았지만) 좀 더 충분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진리가 물질적 경이를 통해서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됐다.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던 인기 높은 운동이,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에 대한 민중의 환호의 절정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분리와 혹독한 역경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식별하고, 모호하게 예견했다. 이 열두 사람은, 천국 대사로서 맡은 과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서서히 눈뜨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해에 다가올 고되고 곤란한 호된 시련에 대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152:6.6 (1706.1) 그들이 게네사렛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인 것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는 단지, 왜 자신이 창조적 권능을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냈는지에 관해서만 말했고, 또한 그것이 “아버지 뜻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7. 예루살렘에서

152:7.1 (1706.2)

4월 3일 일요일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만 데리고 벳새다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대중을 피하고 가능한 한 관심을 적게 끌기 위해, 거라사와 필라델피아를 경유해서 여행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어떤 공개적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했으며;또한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이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4월 6일 수요일 밤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이날 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함께 묵었지만, 다음 날 흩어졌다. 예수께서는 요한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 집 근처에 있는 시몬이라 불리는 신자의 집에 머물렀다. 가룟 유다와 열심당 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고,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다른 가정에 체류했다.

152:7.2 (1706.3)

예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단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은 그 축제 중에서 가장 큰 날이었다. 다수의 예루살렘 신자가 아브넬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베다니로 나왔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열두 사도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악화돼가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들은 모두 위기가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152:7.3 (1706.4) 4월 24일 일요일에, 예수와 사도들은 벳새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해변도시들인, 옵바, 가이사랴, 톨레마이스를 경유하여 여행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욱로로, 라마, 고라신을 지나서 4월 29일 금요일에 벳새다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자 곧, 예수께서는 다음 안식일 오후 예배에 설교할 수 있게 주선하도록, 안드레를 회당 지도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받을 마지막 기회임을 잘 알았다.

제153편 가버나움에 임한 위기

153:0.1 (1707.1) 그들이 벳새다에 도착했던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사도들은 예수께서 어떤 중대한 문제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았으며; 주님이 평상시와는 달리 어떤 중요한 내용을 숙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고, 한낮에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안식일 오전 내내 그리고 저녁 전까지, 열두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집 주위와 정원과 해변을 따라

작은 무리들로 모여 있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한 느낌이 그들 주위에 맴돌았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 예수께서는 거의 말씀이 없었다.

153:0.2 (1707.2)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몰입되어 침묵하는 모습을 여러 달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시몬 베드로조차 기가 꺾이지는 않았으나 우울했다. 안드레는 낙심한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다. 나다니엘은 자신들이 “폭풍 전의 고요함” 한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도마는 “어떤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빌립은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기 전에는, 대중을 먹이고 채우는 계획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태는 재정을 다시 채우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했다. 야고보와 요한은 회당에서 하게 될 설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본질과 범위에 관해서 예견해 봤다. 열심당 시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실 것이라는 신념,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발표했으며, 한편 가롯 유다는 감히, “예수께서는 5천 명이 그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도록 허락할 용기와 대담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금 아마도 후회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53:0.3 (1707.3) 이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에, 우울하고 마음 둘
곳을 모르는 그런 추종자들 무리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획기적인 설교를 전하기 위해 나섰다.
측근 추종자 중에서 의심 없는 알패오 쌍둥이 형제만이
유쾌한 인사와 희망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께서 회당으로
가려고 집을 나설 때, 그에게 명랑하게 인사하면서
말했다:“아버지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중이 모여들기를 기원합니다.”

1. 무대의 배경

153:1.1 (1707.4) 이 아름다운 안식일 오후 세 시에, 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이, 새로 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를 맞이했다. 야이로가 관장했고, 성서를 읽도록
예수에게 건넸다. 그 전날, 53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했으며;또한 근처 회당들에서도 30명
넘는 지도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아서
행동했고, 예수와 제자들에게 공공연히 싸움을 선포하러

온 정통파 선봉대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회당의 명예석에 앉아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 옆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공식 감시인들이 자리 잡았으며, 그들은 헤롯의 형제 빌립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서민들이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려 했던 사건에 대한 보고의 진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53:1.2 (1708.1)} 예수께서는, 늘어나는 적들이 공언하던 공개적인 임박한 전쟁 선포에 직면하고 있음을 납득했으며, 대담하게 그 공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그들의 물질적 메시아 개념에 도전했으며;이제는 이들의 유대 구원자의 개념을 다시 드러내놓고 공격하기로 선택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으로 시작되고 이 안식일 오후 설교로 종결됐던 이 위기가, 대중적 명성과 갈채의 형세를 뒤집었다. 이후부터, 천국 업무는 더 중요한 과제, 즉 인류의 진정으로 종교적인 형제관계를 향한, 오래 지속되는 영적 전환을 이루는 일에 점점 더 치중됐다. 이 설교는, 토의하고, 논쟁하고, 결정하는 기간으로부터, 드러내놓고 싸워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배척하든지 하는 기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표시했다.

153:1.3 (1708.2) 주님은, 추종자 가운데 다수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국 자신을 배척하는 쪽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수의 제자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정신의 훈련과 혼의 단련을 통해서, 의심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천국 복음 안에서 충분히_진전된 신앙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알았다. 예수께서는, 선과 악이 반복되는 상황들 사이에서 되풀이하여 선택하는 느린 과정을 통해서, 위기에 결정을 내릴 각오를, 그리고 용기 있게 선택하는 갑작스런 행위를 수행할 각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전도자들이 반복해서 실망을 연습하도록 만들었으며, 영적 고난에 대처하는 옹고 그른 방법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빈번하고 극히 곤란한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 그는, 추종자들이 전에 하던 습관적인 정신 태도와 영적 반응에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겪게 될 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153:1.4 (1708.3)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위기는, 5천 명을 먹인 것으로 시작되고, 회당에서 이번 설교로 끝났으며; 사도들의 생애에서 위기는, 회당에서 이 설교로

시작해서, 한 해 전체 동안 계속됐고,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형으로 겨우 끝났다.

153:1.5 (1708.4)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 그들이 그날 오후 회당에 앉아 있는 중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큰 불가사의, 즉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친구들이나 적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왜 그는 인기 있는 영광의 물결에 그토록 고의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등을 돌리는 것일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불만에 찬 지지자들의 그런 의심과 실망이 무의식적 반감을 유발시켰고, 그것이 나중에 진짜 증오로 바뀌게 된 것은, 이 설교 직전과 직후의 일이었다. 가롯 유다가 처음으로 의식하여 배신하려는 생각을 한 것은 이 설교를 회당에서 한 후였다. 그러나 그는 당분간 그런 모든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153:1.6 (1708.5) 모든 사람이 혼동된 상태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말문이 막히고 혼란스런 상태로 내버려뒀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전체 업적의 특징을 나타내는 초자연적 권능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개념에

가장 가깝게 갔던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굉장한 이점{利點}은, 그가 왕이 되기를 재빠르고 명백하게 거절함으로써,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쇄됐다.

153:1.7 (1709.1) 금요일 밤에, 그리고 안식일 오전에 다시,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야이로를 오랫동안 열심히 설득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야이로는 모든 요청에 단지:“나는 이미 이 요청을 승낙했으며, 이제 와서 내 말을 번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2. 획기적인 설교

153:2.1 (1709.2) 예수께서는 신명기에서 찾은 대로 율법을 읽음으로써 이 설교를 시작했다:“이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저주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주께서 너희 적들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며;너희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속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가 너희 위에 세운 왕과 너희를, 생소한 나라의 수중에 넘기실 것이다.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경악의 대상과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딸은 포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낯선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반면, 너희는 지극히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희와 너희의 자녀에게 영원히 임할 것인데,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대적하러 나오게 될 너희의 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야 할 것이고, 쇠로 만든 이런 이방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도록, 먼 곳, 즉 땅 끝에서 한 나라,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나라, 사나운 모습의 나라, 너희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을 나라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매우 의존하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며; 온 땅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 대한 적의 압제가 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기 육신의 열매인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이 포위 기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153:2,2 (1709.3)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 읽은 후에, 선지서들로 넘어갔고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 온 내 종들과 선지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게 하고, 이 도시를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서 이 말씀을 하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고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집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쌌다. 그리고 유다의 왕자들이 이 일을 듣고, 예레미야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왕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당신들의 귀로 들음같이 우리 성{城}을 대적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왕자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의 들은바 이 집을 치고 이 성을 치는 예언을 하게 하셨고, 너희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고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며, 이는 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153:2.3 (1710.1)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생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경고한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를 줄로 달아매어 더러운 구덩이에 밀어 넣어, 그가 진흙 속에서 겨드랑이까지 빠지게 했다. 이것이, 임박한 정치적 타락에 대해 그의 형제들에게 경고하라는 주의 명령에 예레미야가 복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일이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영적 파멸을 그들에게 감히 경고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대담하게 선포하고, 하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하는 너희를 지적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을, 너희 역시 죽이려 할 것이냐?

153:2.4 (1710.2) “이 세상에서 내 사명에 대한 증거로 너희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동안,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가 존경하는 것에 대해 적개심으로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에 찬 혼을 위한 새로운 자유를 선포해 왔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형제관계, 즉 하늘 나라를 설립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여러 번 환기시켰음에도, 내 아버지께서는 좀 더 증거가 되는 영적 전환과 개혁 이외에, 많은 물질적 경이의 현시를 여전히 허락하셨다.

153:2.5 (1710.3) “내 손에서 너희가 찾는 새로운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선언하겠는데, 너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이미 가졌다. 오늘 내 앞에 앉은 많은 이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너희는 지금 어떤 길로 가야할지 선택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슈아가 너희 선조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했듯이, 오늘 너희 가운데 많은 이가 그 갈림길에 서있다.

153:2.6 (1710.4) “너희 가운데 더러는, 건너편에서 대중을 먹인 후에 나를 찾지 못하자, 일주일 전에 폭풍이 있을 동안

근처에서 대피하고 있던 디베랴의 어선을 빌려 나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진리, 의로움, 또는 동료들에게 봉사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더 알고자 함이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 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편안하게 얻는 빵으로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선택된 백성에게 유쾌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너희는 오랫동안 배워왔다. 그러므로 그렇게 배워온 너희가 빵과 생선을 고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겠는데, 그런 것은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다. 나는 영적 자유를 선포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있는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왔다.

153:2.7 (1710.5) "형제들아, 썩어질 고기를 열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음식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받아먹을 모든 자에게 사람의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이니,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셀 수 없이 풍성하게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내게 질문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대답했다;‘그가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153:2.8 (1710.6)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새로 지은 이 회당의 가로 들보를 장식한, 그리고 포도송이들로 아름답게 꾸민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씀했다:“너희는 선조가 광야에서 만나를--곧 하늘의 빵을-- 먹었다고 배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빵이었다. 모세는 너희 선조에게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으나,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빵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신다. 하늘의 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주는 이 빵을 달라고 내게 말할 때, 내가 대답할 것이다:내가 이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봤고, 나와 함께 살았으며, 내가 한 일을 봤지만, 너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데--두려워 마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내게 올 것이며, 내게 온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153:2.9 (1711.1)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하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최종적인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어제 내가 너희 육신을 위한 빵을 너희에게 줬으나;오늘은 내가 너희 굶주린 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빵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그때 그토록 기꺼이 이 세상의 빵을 먹었던 것 같이, 이제 영의 빵을 먹겠느냐?”

153:2.10 (1711.2)

예수께서 잠시 멈추고 회중을 돌아보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하나가 일어서서 질문했다:“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며,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광야에서 줬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으로 내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답했다:“네가 바로 이해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했다:“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를 우리 대부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나타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153:2.11 (1711.3) 이 무렵에 회당에서는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으며, 그런 소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했다: “인내심을 갖자; 공정하게 조사한다면 진리는 결코 손상을 입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며, 또한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며; 아들은 단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만 행하는 한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도 들을 것이라’고 씌어있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아들은 아버지를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153:2.12 (1711.4) “내가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생명을 주는 이 빵이며, 하나님과 사람의 이 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는 모든 자에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빵은, 바로 나의 살아있는 혼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다--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내 계시{啓示}요, 모든 나라에게 주는 내 구원의 선물이다.”

153:2.13 (1711.5)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회당의 지도자가 회중을 해산시켰으나,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더 많은 질문을 했고, 한편 다른 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논쟁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세 시간 이상 지속됐다. 청중이 마침내 해산된 것은 일곱 시가 한참 지난 뒤였다.

3. 설교 후 모임

153:3.1 (1712.1) 예수께서는 이 설교 후 모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혼동돼 있던 제자들로부터 얼마간의 질문이 있었지만, 더 많은 질문은 단지 그를 난처하게 하고 덧을

씻우기 원했던, 트집 잡는,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본 것들이었다.

153:3.2 (1712.2) 방문한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등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소리쳐 물었다:“당신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답으로 말씀했다:“나는 내 살이 생명의 빵이거나 내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네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으로 온 내 삶이 바로 하늘의 빵이 증여된 것이라고는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증여됐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현상은, 신성한 음식에 상당하는 체험의 실체를 성립시킨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을 수 없고 내 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내가 영으로 아버지와 한 몸인 것처럼, 너희도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생명의 빵이고,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증여됐으며;신성한 영이 너희의 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영이 진정한 생명의 물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면서 길을 가리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그래서 내주하는 하늘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 주기 위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인생을 살아왔다.”

153:3.3 (1712.3) 그러자 예수와 사도들을 관찰하던 예루살렘의 첩자{諜者}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우리는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이 빵을 먹기 전에 정당하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더럽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런 행동이 장로들의 유전{遺傳}을 범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물 잔이나 식기들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선조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 대답했다:“너희가 전통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은 어찌된 일이냐? 계명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다면 너희의 소유물을 부모와 나누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너희는, 불효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도움 됐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도록 허용하는 전통의 율법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장로들의 유전은 책임감 없는 자녀에게 핑계를 제공하며, 결국 그런 모든 재산을 자신의 안락을 위해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자신의 전통으로 계명을 피함은 어찌된 일이나?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훈계로 그들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153:3.4 (1712.4) "사람의 전통을 굳게 붙잡으면서 어떻게 그 계명을 폐하는지, 너희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너희는 자신의 전통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거부한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감히 율법과 선지자들 위에 자신의 교훈을 올려놓는다."

153:3.5 (1712.5) 그때 예수께서 전체 참석자에게 자기 소견을 말씀했다: "너희는 모두 내게 귀를 기울여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나 사도들까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일부 청중에게 불필요하게 걸림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너 또한 깨달음이 없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모두 뽑힐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로 네 관심을 돌려라. 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라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 선생들 가운데 다수는 눈먼 인도자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러나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동안,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언하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몸에 들어가는 것 또는 눈이나 귀를 통해서 정신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발생하고,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으로만 더럽혀진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사악한 흥계, 도둑질, 간음과 질투, 자존심, 분노, 복수, 욕지거리, 그리고 거짓 증거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식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제 예루살렘 산헤드린의 바리새인 위원들은, 예수께서 신을 모독한 죄명으로 또는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우롱한 명목으로 처형돼야한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으며;그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가 소위 민족의 구전{口傳}된 율법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 논쟁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아무리 물이 귀하더라도, 이 관습에 얽매인 유대인은, 매 식사 전에 예식에서 요구하는 손 씻기를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정탐꾼들은 예수께서 “구원은 깨끗한 손보다 깨끗한 마음의 문제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나 그런 신념들은, 일단 사람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사도 베드로는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에 관한 이런 많은 전통으로 인한 두려움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단지 굉장하고 생생한 어떤 꿈을 꾀 후에야 드디어 최종적으로 놓임 받게 됐다. 이 유대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매춘부와 거래하는 것 만큼이나 수치스럽게 여겼고,

양쪽 다 추방당할 만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음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53:3.7 (1713.2) 따라서 주님은, 구전된 율법이--곧 장로들의 전통이--대표하는 규정과 규칙들로 이뤄진 전체 율법학자 제도, 즉 심지어 성서의 교훈보다 더 신성하게 여겨지고, 유대인을 더 많이 속박하던 그 모든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 토의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공개적인 불화관계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낌 없이 말씀했다.

4. 회당에서 마지막 말씀

153:4.1 (1713.3) 이 설교 후 모임에서 토론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하나가, 다루기 힘들고 반항하는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한 젊은이를 예수 앞에 데려 왔다. 그가 이 미친 아이를 예수 앞으로 이끌면서 말했다:“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젊은이를 바라봤을 때, 연민으로 감동되어 말씀했다:“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그에게서 나와라;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네 충실한 동료 가운데 하나에게 명령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됐다. 이것이 예수께서 진정으로 처음으로, “악한 영”을 인간에게서 내쫓은 경우였다. 이전의 모든 경우는 단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된 것들이었지만;이번에는 진정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경우였는데, 그런 일이 그 시절에, 그리고 오순절 직전까지 때때로 일어났으며, 오순절에, 주님의 영이 모든 육신에 부어졌고, 이런 소수의 천상{天上}의 반역자들이 어떤 불안정한 유형의 인간을 이용하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53:4.2 (1714.1) 사람들이 경탄하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마귀들과 한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비난했으며;그가 이 마귀를 쫓아낼 때 사용한 언어는, 그것들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예루살렘의 종교 선생들과 지도자들이, 그가 마귀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서, 기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일을 행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바리새인이 말했다:“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그는 사탄의 동업자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곧 망하는 법이다. 성{城}이 연합돼 있지 않으면서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자신을 대항해서 분쟁하는 것인데;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치 못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너희 자녀는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이 너희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가 편견으로 눈멀고 두려움과 자존심으로 잘못 인도되지 않았다면, 너희는 마귀들보다 더 큰 자가 너희 앞에 서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자임을 선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너희가 다 알면서도 의도적인 악의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들의 일이라고 고의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엄숙히 경고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신성모독조차 용서받지만, 고의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속적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고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神}의 용서하심을 영원히 거부하는 죄를 범했다.

153:4.4 (1714.3)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갈림길에 서있게 됐으며;너희는 아버지 뜻과 스스로_선택한 어둠의 길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너희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무도 좋게 하고 실과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오염시키고 그것의 실과도 오염시키든지 해야만 한다. 내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더러는 독사 같은데, 이미 악을 택했으니, 어떻게 선한 실과를 맺겠느냐? 결국,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을 너희 입으로 말한다.”

153:4.5 (1714.4)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했다:“선생님, 당신의 권위와 가르칠 권리를 인정하는 데

우리도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했다:“신앙이 없고 기적을_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이미 가진 것과,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서 떠날 때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그것들 외에는, 너희가 어떤 표적도 얻지 못할 것이다.”

153:4.6 (1714.5) 그리고 그가 말씀을 마쳤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도들이 그를 회당에서 모시고 나갔다. 그들은 말없이 벳새다의 집을 향해 그와 함께 길을 갔다. 그들은 모두 놀랐고, 주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화돼서,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는 데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5. 토요일 밤

153:5.1 (1715.1) 예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으로 부셔 놓았고, 그들의 기대를 꺾어 오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실망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절망과 더불어 그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까지 겹쳤다. 민중의 갑작스럽고 완전한 배척에, 그들은 모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이 보여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담함과 확고한 결정에, 어느 정도 겁이 났고 당황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갑작스런 전술 변화에 매우 어리둥절했다. 정상 환경에서라면, 그들은 좀 더 강경한 이 태도에 환영을 표명했겠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153:5.2 (1715.2)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든 근심 걱정 외에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다락방에 혼자 올라가 있었다. 거의 자정 무렵에, 전도자들의 대표인 요압이 돌아와서, 동료 가운데 약 3분의 1이 떠났다고 그에게 보고했다. 그 밤 내내, 충성스런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 대한 태도의 돌변이 가버나움에 널리 퍼졌다고 보고한 후에 돌아갔다.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런 불신의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재빨리 행동을 개시했고, 예수와 그의 교훈을 멀리하는 운동을 조장하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시험 기간에 열두 명의 여자 대원은

베드로의 집에서 회의 중이었다. 그들은 매우 당황했으나,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153:5.3 (1715.3) 예수께서 다락방에서 내려와, 약 30명가량 되는 열두 사도 및 그 동역자들 가운데로 온 때는 자정이 좀 지난 후였다. 그가 말씀했다: “천국의 이런 변동이 너희를 걱정스럽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모든 훈련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내 말을 듣고 흔들릴만한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미지근한 무리들과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늘 나라의 영적 교훈이 새로운 영광으로 빛나며, 새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슬퍼한단 말이냐? 너희가 이 시험도 견디기 어려워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할 때 어찌하려느냐? 내가 이 세상으로 오기 전의 그곳으로 올라갈 때를 위해, 너희가 언제, 어떻게, 너희 자신을 준비할 것이냐?

153:5.4 (1715.4) “사랑하는 자들아, 소생하는 것은 영이며; 육신과 그것에 속한 것은 모두 무익함을 너희가 기억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요즈음 명백하게 말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내 제자 가운데 다수가 등을 돌렸다는 말을 들었으며;그들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신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내가 너희 열두 사람을 택해서 천국 대사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 각자 자기 신앙을 살펴봐라, 너희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슬프고 당황했지만, 절대로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고, 항상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알기에,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모두 그의 충성 서약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153:5.5 (1716.1) 그러자 예수께서 말했다:“가서 쉬거라. 바쁜 시절이 우리에게 왔으며;적극적으로 일할 날들이 목전에 와 있다.”

제154편 가버나움에서 마지막 날들

154:0.1 (1717.1) 4월 30일, 중대한 토요일 밤에, 풀 죽고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디베랴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예루살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특별 위원 집단이 회의를 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을 선동해서 분쟁을 꾀하며, 반역까지 하리라고 그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헤롯은 그를 정치범으로 체포하기를 거절했다. 헤롯의 충고자들이 그에게, 호수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했던 일과,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었다.

154:0.2 (1717.2) 헤롯의 정식 가족 가운데 하나인 추자의 아내가 여자 봉사단에 속했는데, 추자는 헤롯에게, 예수께서는 이 세상 통치와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기를 전혀 원치 않는다는 것과;단지 신자들의 영적 형제관계, 즉 그가 하늘 나라라고 부르는 형제관계의 설립에만 관심이 있음을 알려줬었다. 헤롯은 추자의 보고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에 간섭하기를 거절했다. 또한 이때 예수에 대한 입장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과 관련해 미신적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헤롯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 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한, 종교를 버린 유대인이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것에 양심이 찔렸으므로, 예수에 대항하는 이 음모에 끼어들기를 꺼렸다. 그는 예수가 치유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경우의 환자를 알았으며, 예수를 선지자 또는 비교적 해롭지 않은 종교 광신자로 간주했다.

154:0.3 (1717.3) 그가 배신자를 보호한다고 가이사에게 보고하겠다고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협박하자, 헤롯은 회의장에서 그들을 당장 쫓아내라고 명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은 한 주 유보됐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임박한 흠여짐에 대비하도록 추종자들을 준비시켰다.

1. 한 주 동안의 협의

154:1.1 (1717.4)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집에서 추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단지 시험에 통과한, 믿을만한 제자들만 이 협의에 참석하도록 허락됐다. 이때 바리새인의 반대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도덕적 용기를 갖고, 자신이 예수께 속해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제자는 겨우 100여명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집단과, 아침, 오후, 및 저녁에 회의를 열었다. 해변에는 질문하러 온 소규모 집단의 사람이 오후마다 모였으며, 거기서 소수의 전도자나 사도가 그들을 가르쳤다. 이 집단은 겨우 50명 남짓했다.

154:1.2 (1717.5) 같은 주 금요일에 가버나움 회당 관리인들이, 예수와 추종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이 처사는 예루살렘 바리새인의 음모로 이뤄졌다. 야이로는 회당장직을 그만두고, 드러내놓고 예수와 합세했다.

154:1.3 (1718.1) 마지막 회합이 5월 7일 안식일 오후에 해변에서 있었다. 그때 모인 15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 토요일 밤은, 예수와 그의 교훈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의 물결이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하던 때였다. 그때 이후로는 변함없고 느렸지만, 호의적 경향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믿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새로운 추종이 나타났는데, 전보다 더 튼튼한, 영적 신앙과 진정한 종교 체험에 더욱 기초했다. 주님의

추종자들이 가졌던 천국에 대한 물질적 개념과, 예수께서 가르쳤던 좀 더 이상적이고 영적인 개념 사이에서, 좀 더 혼합되고 타협적이던 과도기 단계가 이때 분명히 끝났다. 이때부터는, 더욱 공개적인 천국 복음 선포가, 더 큰 규모로, 그리고 광범위한 영적 영향력 속에서 이뤄졌다.

2. 한 주간의 휴식

^{154:2.1 (1718.2)} 서기 29년, 5월 8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은 예수와 추종자들에게는 팔레스틴의 어떤 회당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산헤드린이 새롭게 전례 없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각 회당은 독립된 경배자 모임으로 존재하고 작동했으며, 자체 운영자 회의의 통치와 지시 아래 있었다. 단지 예루살렘 회당들만 산헤드린 권위에 종속돼 왔었다. 산헤드린의 이런 즉석 조처가 있게 되자, 산헤드린 위원 중에서 다섯 명이 곧 사직했다. 이 명령을 전하고 실행시키기 위해, 100명의 심부름꾼이 즉각 파견됐다. 2주의 짧은 기간 내에, 헤브론 회당을 제외한 팔레스틴의 모든 회당이 산헤드린의 이 성명서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헤브론 회당의 관리들은, 자기네 집회에 대해 산헤드린이 그렇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예루살렘의 명령 따르기를 이렇게 거절한 것은, 예수의 주장에 대한 호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회중이 자치{自治}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의거했다. 헤브론 회당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불에 타서 파괴됐다.

154:2.2 (1718.3) 바로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한 주간의 휴식을 선언했고, 모든 제자에게 그들의 고통스런 혼을 쉬게 하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 집이나 친구들에게 가라고 재촉했다. 그가 말씀했다:“너희가 천국 확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고기 잡으러 여러 곳을 다니도록 해라.”

154:2.3 (1718.4) 이 한 주 동안의 휴식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해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족과 집단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세베대의 아들 다윗과 여러 번 고기 잡으러 나갔고, 한편으로는 많은 시간을 혼자 지냈다.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두 세 명의 심부름꾼이 가까이에서 항상 대기했는데, 그들은 예수의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 우두머리로부터 확실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 휴식하는 이 주간에는 대중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154:2.4 (1718.5) 이 주간에 나다니엘과 야고보 세베대가 상당히 심한 병을 앓았다. 그들은 고통스런 소화 불량으로 3일 동안 밤낮으로 심하게 괴로워했다. 셋째 날 밤에는 예수께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쉬도록 보내고, 고통당하는 사도들을 직접 돌봤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당장 치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이런 평상시의 어려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인간 자녀의 병을 해결하려고 아들 또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육신 속에서 획기적 생애를 지내는 내내,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세상 가족이나 측근{側近} 추종자들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든지,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보살핌도 베풀지 않았다.

154:2.5 (1719.1) 필사 피조물은, 그 진화하는 혼{魂}의 성장과 발달, 즉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도록 제공된 체험 훈련의 한 부분으로 우주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고, 행성의 장애물에 부딪쳐야만 한다. 인간 혼의 영성화{靈性化}는, 광범위한 실재의 우주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는 체험을 직접 겪기를 요구한다. 동물적인 본성과 비교적 낮은 형태의 의지 피조물은, 순탄한 환경 아래서는 순조롭게 진보하지 못한다. 불확실한 환경은, 힘든 일이 주는 자극과

더불어, 필사자 진보의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그리고 영{靈} 운명의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 데 대단히 기여하는, 정신과 혼과 영의 그런 활동을 산출하도록 협력한다.

3. 두 번째 디베랴 회의

^{154:3.1 (1719.2)} 5월 16일에, 예루살렘 권력자들과 헤롯 안티파스 사이의 두 번째 회담이 디베랴에서 소집됐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갈릴리와 유대지방의 사실상 거의 모든 회당이 예수의 교훈을 금지시켰다는 보고를 헤롯에게 할 수 있었다.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하도록 새롭게 시도했지만, 헤롯은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5월 18일, 헤롯은 유대지방의 로마 통치자가 그런 계획에 동의하는 조건하에, 산헤드린의 권위로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종교적 죄로 그를 문책하도록 허락하는 계획에 찬성했다. 그러는 동안 예수의 적들은, 헤롯이 예수께 적의를 품었고, 그것은 그의 교훈을 믿는 모든 자를 처형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소문을 부지런히 갈릴리 전역에 퍼뜨렸다.

154:3.2 (1719.3) 5월 21일 토요일 밤에,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와서, 유대 국가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게 하려는, 헤롯과 바리새인 사이의 협정에, 예루살렘 정부 당국으로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는 전갈이 디베랴에 전해졌다. 따라서 이날 자정 직전에,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 아래 있는 예수를 체포하여 그를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산헤드린 관원들에게 위임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헤롯이 이 허락을 내리기까지는 여러 방면에서 들어온 많은 압력이 있었으며, 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가증스런 적들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았다.

4. 토요일 밤 가버나움에서

154:4.1 (1719.4) 바로 이날 토요일 밤에, 가버나움에서는 50명의 지도자급 사람이 회당에 모여서 중대한 질문을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자정이 지나기까지 이야기하고 논쟁했으나, 합의를 볼 아무런 공통 근거를 찾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쩌면 메시아, 아니면 적어도 신성한 사람, 또는 아마 선지자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약간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 모임은 예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에 따라서 거의 똑 같은 숫자의 네 집단으로 갈라졌다:

154:4.2 (1719.5) 1. 그는 망상적이며 아무 해가 없는 광신자라는 견해.

154:4.3 (1719.6) 2. 그는 반역을 선동할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교활한 선동가라는 견해.

154:4.4 (1720.1) 3. 그는 마귀들과 연관돼 있다는, 어쩌면 그가 마귀들의 두목일지도 모른다는 견해.

154:4.5 (1720.2) 4. 그는 정신 나간 자, 즉 정신적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미친 자라는 견해.

154:4.6 (1720.3) 일반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교리를 예수가 전파하고 있음에 대해 많은 의논이 있었으며;적들은 그의 교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고, 모든 사람이 그의 관념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아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많은 차후 세대 사람도 같은 말을 해 왔다. 심지어 본 계시를 받은, 더 계몽된 시대에도, 총명하고 선의를 가진 많은 사람이, 현대 문명은 예수의 교훈 위에 세워질 수

없었다고 계속 주장한다--그리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나 그런 의심하는 모든 자는, 훨씬 나은 문명이 그의 교훈 위에 세워질 수도 있었고, 또 언젠가 세워질 것이라는 점을 잊었다.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따라가려는, 열의 없는 시도들이 종종 있기는 했어도, 이 세상은 예수의 교훈을 대규모로 실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5. 파란 많은 일요일 아침

154:5.1 (1720.4) 5월 22일은 예수의 생애에서 파란 많은 날이었다. 이 일요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다윗의 심부름꾼 하나가 디베랴에서 황급히 도착하여, 헤롯이 산헤드린의 관원들로 하여금 예수를 체포하도록 이미 허락했던지, 아니면 허락하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급박한 위험을 알리는 이 소식을 받음으로 인해, 다윗 세베대는 심부름꾼들을 깨우고 지방에 있는 모든 제자 집단에게 보내서, 그날 아침 일곱 시에 비상 회의로 모이라는 말을 전하게 했다. (예수의 동생) 유다의 처제는 이 급박한 소식을 듣자, 가까이에 살던 예수의 가족 모두에게로 서둘러 가서, 즉시 세베대의 집으로 모이라는 전갈을

전했다. 그리고 이런 급한 소집에 반응해서, 마리아, 야고보, 요셉, 유다, 롯이 곧 한자리에 모였다.

154:5.2 (1720.5) 이 이른 아침 회의에서, 예수께서는 모인 제자들에게 작별 지침을 내렸는데;즉, 그들이 곧 가버나움에서 해산될 것임을 잘 알았으므로, 잠시 동안의 작별을 그들에게 명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며, 결과에 관계없이 천국 일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도자들은 소집될 때까지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대로 일하도록 지시 받았다. 그는 전도자 가운데 열두 명을 선택해서 따라오게 했으며;열두 사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와 함께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열두 여자 대원에게는, 오라고 부를 때까지, 세베대와 베드로의 집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154:5.3 (1720.6)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이 전국적인 심부름꾼 봉사를 계속하도록 동의했고, 다윗이 주님께 작별 인사 하면서 말했다:“가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용졸한 자가 주님을 체포하게 하지 마시고, 심부름꾼들이 당신을 따라갈 것임을 의심치 마십시오. 내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당신은 다른 지역의 천국 소식을 들으실 수 있고, 또한 우리 모두는 당신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봉사는 계속될 것인데,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임자, 심지어 세 번째도 이미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도, 설교자도 아니지만, 내 마음이 꼭 이 이일을 하고 싶어서 하며,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154:5.4 (1720.7) 예수께서는 이날 아침 일곱 시 반쯤에, 말씀을 듣기 위해 방안에 가득 모여든, 거의 100명의 신자에게 작별의 인사말을 시작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순간이었으나, 예수께서는 매우 유쾌해 보였으며;그는 다시 한 번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주중에 있었던 심각함은 사라졌으며, 신앙, 소망, 및 용기의 말로 그들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

6. 예수의 가족이 도착함

154:6.1 (1721.1) 이 일요일 아침 여덟 시쯤, 예수의 이 세상 가족 다섯 명이 유다의 처제의 급한 전갈을 받고 거기에 도착했다. 그의 육신의 가족 중에서 롯만이,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을 전심으로 계속 믿었다. 유다와 야고보, 그리고 요셉까지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좀 더 나은 판단과 진정한 영적 성향을 이루지 못했다. 마리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모성애와 가족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녀는 의심으로 많이 시달렸음에도,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브리엘의 방문을 아주 잊을 수는 결코 없었다. 바리새인은 예수가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고 마리아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들과 함께 그에게 가서 더 이상 공중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결과로 예수의 건강이 곧 악화될 것이고, 그것은 가족 전체에게도 불명예와 수치를 불러올 뿐이라고 마리아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들 다섯 명은 모두, 유다의 처제의 말을 듣자, 세베대의 집을 향해 바로 떠났다. 그들은 전날 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바리새인과 만났었다. 그들은 밤 깊도록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이야기했고, 예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과, 그가 한동안 이상하게 행동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됐다. 한편 롯은 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항상 가족에게 공정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설득시키는 계획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4:6.2 (1721.2) 그들은 세베대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했고, 예수께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기로 동의했는데, 마리아가:“내 아들이 집에 와서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 신변의 안전이 걱정됐다. 예수께서 대중의 눈에 평판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한, 그의 가족은 문제들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뒀었지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갑자기 그에게 등을 돌렸으므로, 그들은 당혹한 입장에서, 예상되는 불명예에 대한 압력을 예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154:6.3 (1721.3)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를 외딴곳으로 모시고가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도록 재촉하기로 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문제만 일으키고, 또한 가족에게는 수치를 주게 되는 어리석은 전도를 그가

그만두기만 한다면, 그가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히 대한 것을 잊어버릴 것이라는--곧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을 것이라는-- 점을 그에게 확신시키리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롯은 단지 이렇게 말했다:“나는 오빠에게, 내가 오빠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오빠가 이 사악한 바리새인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기보다 차라리 그 전에 죽음을 택하기 바란다고 말하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가족이 예수를 설득하는 동안, 롯을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54:6.4 (1721.4) 그들이 세베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의 인사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곳은 사람들로 인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후문{後門} 쪽 현관에 자리 잡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귓속말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한 사람씩 말을 전하게 했으며,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전했다:“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고, 당신과 말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이 이별의 메시지가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으며, 또한 그의 인사말이 체포자들의 도착으로 인해 어느 순간에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알지 못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두드러지게 거리감이 있는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실제로 그를 만나고자 하는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말씀하던 것을 곧 중단하고 그들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그녀는 진정으로 생각했다.

154:6.5 (1722.1)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업을 돌봐야만 한다는 점을 그의 이 세상 가족이 납득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경우에 불과했다. 그런데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가 그 메시지를 받은 후 말하기를 중단했음에도, 자신들에게 인사하러 달려 나오는 대신, 음악소리 같은 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를 위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말해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며;내 가족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용기를 갖고 천국 아버지를 믿으라고 전하라. 그러나 결국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방 안에 모여 있던 제자들 모두에게 손을 뻗으며 말씀했다:“내게는 어머니가 없으며;동생도 없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내 어머니,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매이기 때문이다.”

154:6.6 (1722.2) 그리고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 유다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그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녀를 뜰로
데려갔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작별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가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심부름꾼이 급히 디베랴에서 도착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위임장을 가진 산헤드린 관원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중이라는 말을 전했다. 안드레가 그
메시지를 받자, 예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그 말을 그에게
전했다.

154:6.7 (1722.3) 안드레는, 다윗이 약 25명의 보초를 세베대의 집
주변에 배치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불시에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며;그래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었다. 주님은 침묵을 지킨 채 거기에
서있었으며, 한편 뜰에서는 “내게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가 충격에서 회복 중에 있었다.
바로 이때 그 방에 있던 한 여자가 일어나서,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라고 외쳤다. 안드레와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께서 잠시 몸을 돌려 그 여자에게 대답했다:“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154:6.8 (1722.4)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자의 웅변에 좌우되고, 정신이 논리와 이성에 반응하듯이, 양심이 어떻게 감정적 호소에 반응하는지 알았지만, 사람들에게 *과거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도 알았다.

154:6.9 (1722.5) 오해받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서는 동정심 많은 친구와 이해심 있는 조언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그는 사도들에게 사람의 적이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지만, 이런 예언이 그렇게 빨리 자신들의 체험이 되리라고는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 가족을 버리지는 않았다--그들이 그를 버렸다. 나중에,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 야고보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여했을 때, 그는 예수를 비롯해 그 제자들과 초기부터 연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154:6.10 (1723.1) 예수께서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간 정신의 한정된 지식에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단지 사람의 신분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체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가족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예수의 인간 정신이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후에 처음 만나게 된 것을, 설교를 중도에 멈추고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끝낸 다음 떠나기 전에 그들과 사적{私的}으로 만날 계획이었지만, 바로 잇따라 일어난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려옴으로써, 이 계획이 이뤄지지 못했다.

154:6.11 (1723.2) 그들이 서둘러 떠나야 했던 일은, 세베대의 집 뒷문에 다윗의 심부름꾼들 일행이 도착함으로써 야기됐다. 이 사람들로 인해 빚어진 소동으로 놀란 사도들은, 새로 도착한 이 사람들이 아마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자들일 것이라 생각하고, 즉시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앞문을 통해 대기해 놓은 배로 급히 갔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을 왜 만나러 가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154:6.12 (1723.3) 그러나 급히 달아나서 배에 오르는 와중에도, 그는 세베대의 아들 다윗에게 당부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그들이 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내가 그들을 만나러 했었다는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나를 무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구하라고 일러줘라.”

7. 황급한 도피

154:7.1 (1723.4) 그렇게 해서, 서기 29년 5월 22일, 이 일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열두 명의 전도자를 데리고 산헤드린 관원들을 피해 급히 떠났는데, 그들은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를 체포하여, 유대인들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한 죄와 다른 죄명으로 재판을 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 벳새다로 오고 있었다. 25명의 이 일행이 노를 저어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으로 간 것은, 이 아름다운 아침에 거의 여덟 시 반이 지날 때였다.

154:7.2 (1723.5) 주님의 배 뒤에 또 하나의 작은 배가 여섯 명의 다윗 심부름꾼을 태우고 따라갔고, 그들은 예수와 그 동역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또한 그들의 근황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벳새다에 있는 세베대의 집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지시 받았는데, 그곳은 한동안 천국 활동의 본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집에 다시는 머물지 않았다. 주님은 이때부터 이 세상에서 나머지 기간 내내 진정으로 “머리 돌 곳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안정된 거주지나 그 비슷한 것도 갖지 않았다.

154:7.3 (1723.6) 그들은 케레사 동네 가까이까지 노를 저어갔다. 그들은 거기서 친구에게 배를 맡겨놓고,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뜻 깊은 마지막 해의 방랑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케레사에서 가이사랴_빌립보로 가면서 빌립의 영역 내에 머물렀고, 거기서부터 페니키아 해변으로 길을 잡았다.

154:7.4 (1723.7) 세베대의 집 주변에 서성거리던 인파는, 이 두 배가 동쪽 물가를 향해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바라봤으며, 예루살렘 관원들이 서둘러 예수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들이 이미 떠난 지 오랜 후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을 피해 달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예수와 그 일행이 바타니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바리새인과 그들의 보좌관들은 가버나움의 근처에서 그를 찾느라 한 주일 내내 허비했다.

154:7.5 (1724.1) 예수의 가족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한 주를 이야기와 논쟁과 기도를 하며 지냈다. 그들은 혼란과 놀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목요일 오후에 롯이 세베대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롯은 가장인_오빠가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페니키아 해안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 집에서 다윗에게서 들었다.

제155편 갈릴리 북부를 거쳐서 도피함

155:0.1 (1725.1) 이 획기적인 일요일에, 예수와 스물 네 명은, 케레사 근처에 도착한 직후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갔고, 벳새다_유리아 남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전에 여기서 며칠 보낸 적이 있었으므로, 이 야영지를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은 추종자들을 주위에 부르고, 바타니아와 북부 갈릴리를 거쳐서 페니키아 해변까지 가려고 예정한 여행에 관해 그들과 상의했다.

1.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나?

155:1.1 (1725.2)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는 시편 기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기억해야한다. 그는,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민족의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주{主}와 그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자비의 끈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계율을 던져 버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155:1.2 (1725.3) “너희는 오늘 날 이것이 너희 눈앞에 이뤄졌음을 본다. 그러나 너희는 시편 기자의 나머지 예언들이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인데, 그가 사람의 아들에 대해, 그리고 땅에서 이를 그의 사명에 대해 틀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자비로 선포되며, 이타적 봉사로 확립된다. 내 아버지는, 이교도를 비웃으면서 하늘에 앉아계신 분이 아니다. 그는 기분

나쁘다고 격노하는 분이 아니다. 아들이 소위 이
이교도를(실제로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형제들을)
유산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은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이교도를 자비와 애정의 팔을 벌려서 맞아들일 것이다.
승리의 아들이 '이교도를 쇠막대기로 쳐서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것이라'는 불행한 선언이
있었음에도, 소위 이교도라고 불리는 이들 위에 이
사랑의_자비가 임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너희에게 '주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훈계하지만--나는 너희에게
신앙으로 신성한 아들신분이 되는 고양된 특전을
받으라고 명하며;그는 너희에게 떨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지만;나는 너희에게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명한다. 그는 말하기를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그의 분노에 불이 붙을 때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와 함께 생활해
온 너희는, 분노와 노여움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늘
나라를 설립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시편 기자도 이 훈계를 끝내면서, '이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함으로써, 참 빛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예수께서는 스물네 명에게 계속 가르쳤다: “이교도가 우리에게 화낼 때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 이교도는 소견이 좁고 편협하므로, 자신의 에너지를 열렬하게 집중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까이 있고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용감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쓴다. 하늘 나라로 들어간다고 고백한 너희가 가르치는 행동은, 전체적으로 우유부단하고 불분명하다. 이교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너희는 너무 만성적으로 동경만 하는 잘못을 범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치 이교도가 자신이 포위 공격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처럼, 왜 영적 기습공격으로 천국을 차지하지 않는가? 대체로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상황을 꾸념하며 부질없이 미래를 희망하는 태도로 너희가 봉사한다면, 너희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어찌하여 이교도가 분노하는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동경으로 번민하는가? 너희가 진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동경을 그만두고, 용감하게 나가서 천국 건설에 관계되는 일을 행하라.

155:1.4 (1726.1) “너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_전문화 되지 않게 하라.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바리새인은,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에 너무 얽매어서 편견으로 눈이 멀었고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그리스인을 보라, 유대인이 과학 없는 종교를 믿는 동안, 그들은 종교 없는 과학을 신봉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인도되어 편협하고 혼란스런 와해된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진리와_조화되는 것--곧 개심하는 것--뿐이다.

155:1.5 (1726.2) “이 영원한 진리를 단호히 주장한다:너희가 진리에 조화됨으로써, 너희 삶에 이 아름다운 정의의 온전함을 모범으로 보여주기를 배운다면, 너희의 동료들도 너희가 그렇게 획득한 그것을 얻기 위해 너희를 따라가려 할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마음이 끌리는 만큼, 너희는 진리 재능, 즉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야만 한다면, 어떤 면에서, 너희가 온전하거나 의로운 삶, 즉 진리와_조화된 삶을 그만큼 살지 못했다는 증거다.”

155:1.6 (1726.3) 그리고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그에게 밤 인사를 하고 잠자리 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가르쳤다.

2. 고라신에서 전도자들

155:2.1 (1726.4) 5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열두 명의 전도자를 데리고 고라신으로 가도록 명하고, 자신은 나머지 열한 명의 사도와 함께 가이사랴_빌립보를 향해 떠났는데, 요단강을 경유해서 다마섹_가버나움 길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이사랴_빌립보로 가는 교차로를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갔고, 거기서 2주간 머물면서 가르쳤다. 예수의 일행이 도착한 때에는 5월 24일 화요일 오후였다.

155:2.2 (1726.5) 베드로와 전도자들은 고라신에 2주 동안 머물렀고, 숫자는 작지만 진지한 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개종자를 많이 얻지 못했다. 갈릴리 전 지역의 어떤 도시에서도, 고라신 만큼 천국을 갈망하는 혼이 거의 없었던 곳은 없었다.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열두 전도자는 --육체적인-- 치유에 관해서보다는, 하늘 나라에 대한 영적 진리를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했다. 고라신에서 두 주는, 그때까지의 경력 중에서 가장 어렵고 비생산적인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열두 전도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역경으로 정화{淨化}되는 기간이었다. 천국을 갈망하는 혼을 거뒀들이는 만족감으로 뺏겼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혼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영적 길에서 자신의 혼이 얼마나 전진했는지를, 좀 더 진지하고 진솔하게 살피었다.

^{155:2.3 (1726.6)}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듯이 보이자, 6월 7일 화요일에 베드로가 동역자들을 모두 소집했고,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가이사랴_빌립보 지방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요일 정오쯤 거기에 도착해서, 저녁 내내 고라신의 비신자들 사이에서 겪었던 체험담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이날 저녁 토론 중에,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 좀 더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인생살이에서 명백한 실패의 의미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줬다.

3. 가이사랴_빌립보에서

^{155:3.1 (1727.1)} 예수께서 가이사랴_빌립보 지방 근처에 머문 2주 동안에 공적 업무는 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도들은 그

도시에서 수많은 밤 집회를 조용히 가졌으며, 많은 신자가 주님과 이야기하려고 그 야영지로 찾아왔다. 이 방문 결과로 신자들 집단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매일 이야기했으며, 그들은 하늘 나라를 전파하는 업무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하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신성한 아들신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영적 기쁨을 실현하는 것"임을 납득하기 시작했다.

155:3.2 (1727.2) 가이사랴_빌립보에 체류한 것은 열한 사도들에게 진정한 시험이었으며;그 두 주는 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했고, 베드로의 열정적 인간성으로 인한 간헐적 자극을 그리워했다. 이 시기에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기가 진정으로 크고 벅찬 모험이었다. 그들이 두 주 동안 개종자를 거의 얻지 못했지만, 매일 가졌던 주님과 합의를 통해서 매우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다.

155:3.3 (1727.3) 사도들은, 유대인이 진리를 하나의 신조{信條}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또한 진리가 영적 안내와 진보의 이정표로 봉사하는 대신, 스스로_의롭게 여기는 배타성의 경계선으로 굳어져 버릴 때, 그런 교훈은 자체의 창조력과 생명_수여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단지 보존되고 화석화{化石化}될 뿐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155:3.4 (1727.4) 인간의 인격체를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그 가능성에 기초하여 바라보는 방법을, 그들은 예수에게서 점점 더 배우게 됐다. 그들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많은 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동료들에 대한 이타적 봉사에 관한 예수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도,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가 가미됐다:“너희가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155:3.5 (1727.5) 가이사랴에서 보낸 이 체류기간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 전통의 기원과 연관된 것, 즉 신성하지 않은 물건, 일반 관념, 또는 일상적 사건에 신성한 느낌이 덧붙여지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연관된 것이었다. 진정한 종교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성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진실한 신념에 바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어느 한 회담에서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됐다.

155:3.6 (1727.6)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열망이 단지 물질적일 뿐이라면, 초자연적으로 기원된다고 가정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대신 들어섬으로써, 자연에 관한 증가하는 지식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로부터 빼앗아 가리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가 영적이라면, 영원한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155:3.7 (1727.7) 그들은, 종교가 온전히 영적 동기를 가졌을 때, 모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한편, 고귀한 목적을 부여하고, 초월적 가치로 존귀하게 하고, 훌륭한 동기로 영감을 주며, 그렇게 하면서 장엄하고 지속되는 희망으로 인간의 혼을 격려한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종교는, 존재의 긴장상태를 줄여주도록 고안됐으며; 일상생활과 이타적 봉사를 위해 신앙과 용기를 발산한다. 신앙은 영적 활력과 의로운 풍성함을 장려한다.

155:3.8 (1727.8) 예수께서는, 어떤 문명이든지 그 자체의 종교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또한 그는, 종교 체험 대신 종교의 상징과 예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심히 위험한지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얼어붙은 형태의 종교를 녹여서, 계몽된 아들신분이라는 막힘없는 자유 속으로 흐르게 하는 사명에, 그는 이 세상의 생애 전부를 한결같이 바쳤다.

4. 페니키아로 가는 길

155:4.1 (1728.1) 6월 9일 목요일 아침에, 벳새다에 있는 다윗의 심부름꾼들로부터 천국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소식을 받은 후, 진리를 가르치는 이 스물다섯 선생 집단은, 페니키아 연안 지방으로 여행하기 위해 가이사랴_빌립보를 떠났다. 그들은 늪지대 지역을 돌아, 루즈를 거쳐서, 막달라_레바논 산의 오솔길과 만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시돈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질렀으며, 금요일 오후에 거기에 도착했다.

155:4.2 (1728.2) 루즈 근처 바위 그늘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쉬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와 교제했던 전체 기간 중에 사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특기할만한 말씀을 했다.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의 영이 이 땅에 하늘 나라를 건설하려는 우리를 후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적들의 위협을 피해 도망갑니까? 어째서 우리는 진리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도마가 끼어들어서 물었다: “주님,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적들의 종교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리 종교에서 진정으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토록 다양한 믿음이 있는지요?” 도마의 질문이 끝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이번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공공연히 충돌하는 것을 피함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문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점심 식사를 끝낸 후에 계속 진행하겠다.”

5. 진정한 종교에 대한 강론

155:5.1 (1728.3) 종교에 대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 강론을 현대 용어로 요약해서 다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리를 표현했다:

155:5.2 (1728.4) 이 세상의 종교는, 어느 한 시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중적인 기원--곧 자연스런 기원과 계시적 기원--을 갖는데, 거기서 세 가지 뚜렷한 종교적 헌신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종교적 충동의 이 세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다:

155:5.3 (1728.5) 1. *원시 종교*. 신비한 능력을 두려워하고 초자연적 힘을 숭배하는, 약간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충동으로서, 주로 물질적인 자연 종교, 즉 두려움의 종교.

155:5.4 (1728.6) 2. *문명의 종교*. 문명화 하는 종족들의 발전하는 종교--곧 정신의 종교-- 개념과 풍습, 즉 확립된 종교 전통이라는 권위 있는 지적{知的} 신학.

155:5.5 (1728.7) 3. *참된 종교_계시 종교*. 초자연적 가치를 지닌 계시, 영원한 실체에 대한 부분적 통찰력,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성품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훑어봄--인간 체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영의 종교.

155:5.6 (1729.1) 예수께서는 비록 꾸밈없는 사람의 육체적 감각과 미신적 두려움의 종교를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원시적 경배 형태 중에서 매우 많은 부분이, 인류 가운데 총명한 축에 속하는 종족들의 종교 형태 속에서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탄했다. 예수께서는, 정신의 종교와 영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교회의 권위로 지탱되는 반면, 후자는 전적으로 인간 체험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155:5.7 (1729.2)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몸소 가르치는 시간에 다음의 진리를 분명히 했다:

155:5.8 (1729.3) 종족들이 고도로 지성적이 되고 더 충분하게 문명화될 때까지, 그런 유치하고 미신적인 예식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존속될 것인데, 그런 예식들은, 원시적이고 뒤떨어진 사람이 믿는 진화하는 종교 풍습의 큰 특징이다. 인간 종족이 영적 체험의 실체를 더 높은 수준에서, 그리고 좀 더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남녀가 오로지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권위의 종교를 개인적으로 계속 선호{選好}할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영{靈}의 종교에는, 진취적 인간 체험을 겪는 벅찬 현실과

맞붙어 싸우는 신앙의 모험에, 정신과 혼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한다.

155:5.9 (1729.4) 전통적인 권위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본성의 열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의 충동에 대해 쉬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안정되고 정형화되고 확립돼 있는 권위의 종교는, 사람의 심란하고 혼란스런 혼이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괴로워할 때, 피신할 수 있는 예비된 도피처를 제공한다. 그런 종교는, 그 종교에 만족하고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代價}로, 오직 수동적이고 순수하게 지적인 동의만을 헌신자들에게 요구한다.

155:5.10 (1729.5)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심하고 겁 많고 우유부단한, 그리하여 종교적 위로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할 개인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인데, 비록 그렇더라도, 그들은 권위 종교와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인격체 주권을 손상시키고, 자존감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며, 가능한 모든 인간 체험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는데, 그 체험은:개인적인 진리 추구, 지적 발견의

위험에 대처하는 유쾌함, 개인의 종교 체험이라는 실체를 탐사하려는 결심, 그리고 --사람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그를 발견하는-- 모든 인간 실존의 최상의 모험에서 정직하게 성취하는 승리, 영적 신앙이 지적 의심을 이기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만족감,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만족을 얻는 체험 등이다.

155:5.11 (1729.6) 영의 종교는, 노력, 투쟁, 갈등, 신앙, 결정, 사랑, 충성, 및 진보를 의미한다. 정신의 종교는--곧 권위를 내세우는 신학은-- 형식에 치우친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전통은 겁 많고 반신반의하는 혼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이고 가기 쉬운 경로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취적 인간 정신이 발견하고 진화하는 인간 혼이 체험할 수도 있는, 먼 바닷가의 영적 실체를 찾아서, 미지{未知}의 진리라는 숭고한 바다에 감히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항해와 관련된, 영 갈등 및 정신적 불확실성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자들이다.

155:5.12 (1729.7)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 스승 및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해 준 다양한 교리를, 기존의

지적 믿음 체계로, 즉 권위의 종교로 공식화시켰다. 그런 종교는 대개 인간 정신에 호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새 종교를 선언할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종교와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이 새 종교는 그 단어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닌 어떤 종교, 사람의 정신 안에 살고 있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게 최고의 호소를 조성하는 어떤 종교;그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맺히는 열매, 즉 이런 높은 영적 교류의 진리를 진정으로 참되게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체험 속에 매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열매로부터, 그 종교의 권위를 이끌어내게 될 어떤 종교다.”

155:5.13 (1730.1) 예수께서 스물네 명을 하나씩 지적하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했다:“자 이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진리와 최고의 장엄함을 너희 스스로 몸소 생생하게 체험하는, 아름다운 실체들을 발견하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포하는 사명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박해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옹호하는, 정형화되고 화석화{化石化}된 종교를 따르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으냐? 너희는 두려움에 차있고

심약하며 쉽게_얻고자 하는가? 진리의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미래를 맡기기 두려운가, 너희는 누구의 아들인가? 너희는 아버지를 불신하는가, 너희는 누구의 자녀인가? 너희는 전통적인 권위 종교의 지적 안정성과 확실성이라는 쉬운 길로 후퇴하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늘 나라인 영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는, 불확실하고 고통스런 미래를 향해,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겠느냐?”

155:5.14 (1730.2) 이것은 예수께서 일찍이 그들에게 했던 몇 번 안 되는 감정적 호소 가운데 하나였으며, 말씀을 듣던 스물네 명 전체는,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일치된 충성의 반응을 표시하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제지하면서 말씀했다;“이제 너희끼리 따로 가서 각자 아버지와 함께 홀로 있거라, 그리고 거기서 내 질문에 대해 냉철한 대답을 찾고, 그렇게 진실하고 진지한 혼의 입장을 발견한 후에, 그 대답을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자유롭게 그리고 대담하게 말씀드려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무한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종교의 참뜻이다.”

155:5.15 (1730.3)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얼마 동안 자기들끼리 따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사기가 북돋았고, 정신은 매우 고무됐으며, 감정적으로 매우 들떠있었다. 그러나 안드레가 그들을 모두 모았을 때, 예수께서는 단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다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서 그 곳에 한동안 머물 것이며, 너희는 모두 들뜬 정신과 몸을 변화시켜서, 더 깊은 충성심과 더 만족스런 영의 체험이 이뤄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155:5.16 (1730.4) 그들이 여행하면서 길을 갈 때, 스물네 명은 침묵을 지켰으나 곧 서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날 오후 세 시쯤 되자, 더 이상 갈 수 없었으며; 휴식을 취하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가서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듣기 원하며; 이 문제에 관해 저희에게 좀 더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6. 종교에 관한 두 번째 강론

155:6.1 (1730.5) 그래서 그들이 언덕 그늘 아래 멈춰서 쉬는 동안, 예수께서 영의 종교에 관해 계속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55:6.2 (1730.6) 너희는 정신의 종교에 만족한 채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 안전함을 갈망하고 신봉하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 동료들 가운데로부터 빠져 나왔다. 너희는 권위주의적 확신의 느낌을 버리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영적 신앙의 영성{靈性}에 대한 확신을 선택했다. 너희는 규격화된 종교의 엄격한 속박에 대담하게 맞서 싸워 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기록의 권위를 과감히 거부해왔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모세, 엘리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옛 선지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공급해 오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한 세대에는 주고 다른 세대에는 거둬들임으로써 인류나 세대를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일컫는 잘못을 범하지 말며, 또한 영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전통적 성경을 통해서만 나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기에 실패하지 말라.

155:6.3 (1731.1) 나는 너희가 거듭나기를, 즉 영으로 태어나기를 권해 왔다. 나는 권위라는 어둠과 전통이라는 무기력 상태로부터 너희를 불러내서, 인간의 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곧 혼자 힘으로, 자신 속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며, 자신의 개인 체험에서 하나의
사실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탁월한 체험--곧 가능성을
실현하는 초월적 빛 속으로 이끌어 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통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체험으로 옮겨갈 것이며;그리하여 너희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물려받은 민중 신앙으로부터 실제
체험을 거쳐서 성취한 개인 신앙으로 옮길 것이며;그리고
이로 인해, 너희는 너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정신의
신학으로부터, 영원한 재능으로 너희 혼 속에 세워지게 될
참된 영의 종교로 진보할 것이다.

155:6.4 (1731.2) 너희의 종교는, 전통적 권위를 따르는 단순한
지적 믿음으로부터, 살아있는 신앙의 실제 체험으로 바뀔
것인데, 그 신앙은,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 관계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신의
종교는 너희를 희망도 없이 과거에 얽매이게 하며;영의
종교는 점진적인 계시에 있고, 영적 이상{理想}과 영원한
실체들에서 더 높은 쪽으로, 그리고 더 고귀한 쪽으로 항상
너희를 손짓해 부른다.

155:6.5 (1731.3) 권위의 종교는 즉석에서 처리된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 잠깐의 만족을 위한 대가{代價}로 너희는 영적 자유와 종교적 해방감을 상실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대가로, 영적으로 거슬리며 불경스럽고 진실성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에 너희 자신을 붙들어 매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또한 퇴색한 종교 형식과 예식에 복종함으로써, 자비와 정의와 진리에 대한 너희 자신의 감각이 침해당하도록, 너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영의 종교는, 영이 너희를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지, 너희가 진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따라가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아마 이 영은, 다른 세대들은 듣기를 거부했던 어떤 것을 이 세대에게 나눠줄지도 모른다.

155:6.6 (1731.4) 굶주린 혼들을 어둡고 멀리 떨어진 과거로 끌고 가서 그 곳에 방치하는, 그 거짓 종교 선생들에게 부끄럼이 있을 지어다!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깜짝 놀랄 운명에 처했고, 한편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있을 때마다 당황하고 있다. "정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는, 권위의 신학에 대한 단순한 지적 신봉자가

아니었다. 진리를_알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했으며;하나님에 관해서 말로만 하지 않았다.

155:6.7 (1731.5) 나는 너희에게, 옛 선지자들의 말을 항상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습관을 버리는 대신, 지고자의 살아있는 선지자가 되고, 다가오는 천국의 영적 영웅이 되기를 열망하기 바란다. 과거에 하나님을_알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인간 실존에서 최상의 체험:즉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혼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희생시켜야만 하느냐?

155:6.8 (1732.1) 인류의 각 종족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자체의 관념적 견해를 가지며;그러므로 정신의 종교는 종족의 다양한 이 견해에 충실해야만 한다. 권위의 종교는 결코 통합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통일과 필사자의 형제관계는 오직 영의 종교가 주는 초월_재능으로 인해, 그리고 그 재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인종 간 정신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인류에게는 똑같이 신성하고 영원한 영이 내주한다. 인간이 형제관계를 이루는 희망은, 오직

다양한 권위의 정신 종교가, 통합하고 고귀하게 하는 영의 종교로--곧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종교로-- 주입되고, 그 영의 종교에 압도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155:6.9 (1732.2) 권위의 종교는 단지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반목시키게 할 뿐이지만; 영의 종교는, 사람을 점진적으로 함께 모아서, 서로 이해심을 갖고 공감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권위의 종교는 사람에게 획일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현재 세상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영의 종교는, 믿음의 다양성을 충분히 허락하면서, 단지 체험의 통일--곧 운명의 획일성--을 요구할 뿐이다. 영의 종교는, 견해와 전망의 획일성이 아닌, 오직 통찰력의 획일성만 요구한다. 영의 종교는, 지적 견해들의 획일성이 아니라, 오직 영 느낌의 통일만 요구한다. 권위의 종교는, 생명 없는 신경{信經}으로 정형화시키지만; 영의 종교는, 사랑으로 봉사하고 선행과 자비로 보살피는 행위,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행위가 가져다주는 증가하는 기쁨과 자유 속으로 자라간다.

155:6.10 (1732.3)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런 전통에 얽매인, 열매 없는 악한 시대에 처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조상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헌신했으며, 아담 시대 이후로 어떤 다른 종족도, 저희가 찾아낸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를 대부분 알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세 시대 이래,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고 지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투쟁과정을 아셨다. 유대인은 여러 세대동안 계속 애쓰고 땀을 흘리며 슬퍼하고 고생하면서 고통을 참아왔으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경멸당하는 슬픔을 감수해 왔는데, 그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갖 실패와 비틀거림에도, 모세로부터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는 더욱 분명하고 진실된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온 세상에 점차 드러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대한 더욱 큰 계시를 위한 길이 준비됐고, 너희는 그 계시를 나눠주기 위해 부름 받았다.

155:6.11 (1732.4) 살아 계신 아버지 뜻을 발견하려는 시도보다 더 만족스럽고 감동적인 모험은, 오직 신의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시도하는 최상의 체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한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 있고
세속적인 직업도 있다. 영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삶에서는
모든 직업이 신성시되며;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리에
복종하게 되고, 사랑으로 고귀하게 되며, 자비심이
풍만해지고, 공정함으로--곧 공의로-- 행동을 절제하게
된다. 내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에 보낼 영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영이기도 하다.

155:6.12 (1732.5)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권위를 가진 옛
기록에서만 찾으려 하기를 멈춰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출처에서
나왔든지 그 말씀을 알아본다. 그 증여 경로가 외견상
인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성한 진리가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된다. 너희 형제 가운데 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진지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하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자주
가르쳤던 이유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적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_믿고 완전히_신뢰하는 그런 영적 단순성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자라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155:6.13 (1733.1) 일단 너희의 혼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너희는 곧 다른 사람의 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결국 거대한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영원한 실체들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 속에, 아버지께서 최상의 충성과 신성한 이상{理想}으로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만한 무슨 가망이 있을까? 정신은 영적 본성의 중심지가 아닌 반면, 정말로 그곳으로 가는 통로다.

155:6.14 (1733.2)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도록 해라;너희가 그렇게 타당한 증명을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55:6.15 (1733.3) 1. 날마다 너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

155:6.16 (1733.4) 2.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겠다는 소망으로 추구하는 동안, 죽음 이후의 생존하는 모험에 너의 존재 전체와 너의 소유 전체를 아낌없이 걸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너의 전체 생애 계획이 제공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너는 시간 속에서 미리 경험해 왔다.

155:6.17 (1733.5) 그러니, 실수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는 아주 희미하게 깜박이는 신앙에도 항상 반응하신다. 그는 원시인의 물질적이고 미신적인 감정도 알아보신다. 그리고 정직하지만 두려움에 찬 혼들이, 자기 신앙이 너무 약해 권위의 종교에 동의하는 수동적 태도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그런 사람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도달하려는 그런 모든 미약한 시도를 언제나 존중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 받은 너희에게는, 전심을 다하여 믿게 되는 것이 기대되며;너희의 신앙이, 육체, 정신, 및 영, 이 셋의 결합된 태도를 지배해야 할 것이다.

155:6.18 (1733.6) 너희는 내 사도이며, 너희에게는 종교가, 영적 진보와 이상적 모험에 따르는 모진 현실에 맞서기 두려워서 피신하고 싶은 신학적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너희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셨고, 높여주셨고, 이상화 시키셨으며, 고귀하게 하셨고, 영성화{靈性化}시키셨음을 증명해 주고, 그렇게 너희를 찾아서 아들로 맞이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영원한 모험에 참여했음을 증명해 주는, 실제 체험의 사건이 돼야 할 것이다.

155:6.19 (1733.7)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안드레를 불러 페니키아가 있는 서쪽을 가리키며 말씀했다: “우리 길을 가도록 하자.”

제156편 두로와 시돈에 체류함

156:0.1 (1734.1) 6월 10일 금요일 오후에, 예수와 동역자들이 시돈 근처에 도착했고, 거기서 한 부유한 여자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여자는 예수의 대중적인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벧새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전도자와 사도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그 여자의 친구들 집에 머물렀으며, 이런 안락한 환경에서 안식일 기간을 쉬면서

보냈다. 그들은 북부 해변 도시들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기 전에, 거의 2주 반을 시돈과 인근에 머물러 있었다.

156:0.2 (1734.2) 6월의 이 안식일은 매우 조용한 하루였다. 전도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시돈으로 오는 도중에 들었던 종교에 관한 주님의 강론에 관해 깊은 묵상에 몰두했다. 예수께서 일러준 것을, 그들은 모두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 시리아 여자

156:1.1 (1734.3) 예수께서 머물렀던 카루스카의 집 근처에 한 시리아 여자가 살았는데, 예수께서 위대한 치유자이자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았고, 이 안식일 오후에 어린 딸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열두 살 정도 된 아이는 경련 및 기타 고통스런 증상의 특징이 있는 심한 신경증 질환을 앓았다.

156:1.2 (1734.4) 예수께서는, 쉬고 싶으니 자기가 카루스카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동역자들에게 당부했었다. 그들은 주님의 지시를 따랐으나, 카루스카의 하인이 이 시리아 여자 노라나의 집에 가서 자기 여주인의

집에 예수께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고난당하는 딸을 데려와서 치유 받으라고 이 가련한 여자에게 강권했다. 물론 이 어머니는 딸이 불결한 영, 즉 귀신에 붙잡혔다고 믿었다.

156:1.3 (1734.5) 노라나가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쉬시는 중이니 그를 방해할 수 없다고, 알패오 쌍둥이 형제가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했다;노라나는 아이와 함께 예수의 휴식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겠노라 대답했다. 베드로 역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치유를 하느라 매우 피곤해져서, 페니키아에는 예수께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으며;노라나는 떠나려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말에 대해 그녀는 단지, "당신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치유자가 내 딸을 살펴보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만 대답했다.

156:1.4 (1734.6)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애썼지만, 역시 실패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나는

당신의 주님께서 내 아이를 괴롭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갈릴리에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들었는데,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제자인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을 돌려보내려 하다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녀의 그런 말에 도마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156:1.5 (1735.1) 그러자 열심당 시몬이 노라나를 설득하려고 나섰다; “여자여, 당신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방인이다. 주님이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실 것이라고 당신이 기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노라나는 시몬의 무례한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내가 단지 한 마리 개에 불과하겠지만, 당신의 주님에 관한 한, 나는 믿음을 가진 개입니다. 나는 내 딸을 주님께 꼭 보이기로 걱정했는데, 그분이 내 딸을 한 번 바라보시기만해도 치유 받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의 특권을 감히 빼앗지는 못할 것입니다.”

156:1.6 (1735.2) 바로 이때 여자아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자, 어머니가 외쳤다:“보십시오, 내 아이가 악한 영에 붙잡혔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지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동정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치유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치유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56:1.7 (1735.3)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예수께서, 이때 밖으로 나와 모두를 매우 놀라게 하며 말씀했다:“오, 여자여, 네 신앙이 얼마나 큰지, 네가 바라는 것을 내가 보류할 수 없을 정도이며;평안히 네 길을 가라. 네 딸은 이미 온전하게 됐다.” 소녀는 그 시각부터 회복됐다. 노라나와 아이가 떠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동역자들은 이런 분부에 따랐으나, 그 여자와 아이는 온 시골에 두루, 심지어 시돈에까지 그 소녀가 치유 받았다는 사실을 퍼뜨렸으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수일 내로 숙소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156:1.8 (1735.4) 다음 날, 예수께서 사도들을 가르칠 때, 시리아 여자의 딸의 병을 낫게 해 준 일을 거론하면서 말씀했다:“항상 그래 왔던 것이지만, 이방인이 하늘 나라의 복음의 교훈에 따라서 구원의 신앙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제 너희가 직접 봤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충분한 신앙을 보이는데 유념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2. 시돈에서 가르침

156:2.1 (1735.5) 시돈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동역자들이 다리를 하나 건넜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는 처음 보는 다리였다. 그들이 이 다리를 건널 때, 예수께서 여러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이 세상은 단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하며;너희가 그것을 건너가겠지만, 살 집을 그 위에 지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156:2.2 (1735.6) 스물네 명이 시돈에서 일을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그 도시 바로 북쪽에 위치한, 젤스타와 그 어머니 버니스의 집에 머물렀다. 예수께서는 매일 아침 젤스타의 집에서

스물네 명을 가르쳤고, 그들은 오후와 저녁에 시돈으로 가서 가르치고 전도했다.

^{156:2.3 (1735.7)} 사도와 전도자들은, 전하는 메시지를 시돈에 있는 이방인이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사기가 많이 올랐으며; 짧은 체류기간에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왔다. 페니키아에 머물던 약 6주는 혼을 구하는 일에 많은 결실을 거둔 기간이었지만, 후대의 유대인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적대시했던 바로 이 시기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의 교훈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다는 기록을 항상 가볍게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156:2.4 (1736.1)} 이 이방인 신자들은, 여러 면에서 유대인보다 더 완전하게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이 시리아_페니키아인은, 예수가 하나님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예수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위 이 이교도들은, 이 세상 및 전체 우주의 법칙이 획일적이라는 주님의 교훈을 잘 이해하게 됐다. 그들은 어떤 개인, 종족, 또는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가르침을 파악했는데; 즉, 만유의 아버지는

편애하지 않으시며;우주는 전적으로 언제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절대로 의존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과감히 받아들였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내내, 사람들은 예수를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납득하기를 두려워했다.

156:2.5 (1736.2) 예수께서는, 자신이 적들과 맞설 용기가 부족해서 갈릴리로부터 피해 온 것이 아님을 스물네 명에게 분명히 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기존의 종교와 공개적으로 충돌할 준비가 아직은 돼있지 않았다는 것과, 순교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 다는 것을 납득했다. 예수께서는, 저스타의 집에서 열린 협의 중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진리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156:2.6 (1736.3) 시돈에 머무는 동안, 예수의 지시사항의 주제는 영적 진보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들이 정지해 있을 수 없으며;정의를 향해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죄와 악으로 빠져들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다. 그는, “과거 속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천국의 더 위대한 실체들을

포용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들에게 훈계했다. 그는, 복음의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리고 신자들과 친교하는 가운데, 신성한 아들신분의 완숙한 경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했다.

156:2.7 (1736.4) 예수께서 말씀했다:“내 제자들은 악을 행하기를 멈추는 것은 물론, 현명하게 행하기도 배워야 하며;너희는 알면서 죄를 범하는 태도를 모두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감정을 품는 것조차 거부해야 한다. 너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것이며;그런 결과로 너희는 죄짓지 않는 양심을 유지해야만 한다.”

156:2.8 (1736.5)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보여준 예리한 유머감각을 매우 즐겼다. 시리아 여자 노라나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크고 집요한 신앙뿐 아니라, 그녀가 보인 유머감각이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에게 유머가 부족한 것에 대해 애석해 했다. 그가 도마에게 언젠가 말씀했다:“유대인은 너무 진지해서 유머를 즐기는 것이 이제 사라지려 하고 있다. 바리새인의 부담스런 종교는,

유머감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일관성이 결핍됐으며;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3.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며 여행함

156:3.1 (1736.6) 6월 28일 화요일에, 예수와 동역자들은 시돈을 떠나 해안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포피리온과 헬두아로 갔다. 이방인이 그들을 환영했고 이 주간의 가르침과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 많이 들어왔다. 사도들은 포피리온에서 전도했고, 전도자들은 헬두아에서 가르쳤다. 스물네 명이 그런 식으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4내지 5일 정도 그들을 떠나서 베이루트의 해안 도시를 방문했는데, 1년 전에 벳새다에 함께 있었던 말락이라는 이름의 시리아인 신자와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다.

156:3.2 (1737.1) 7월 6일 수요일에, 그들은 모두 시돈으로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까지 저스타의 집에 머물렀고, 그 후에 두로를 향해 떠났으며, 사렙다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7월 11일 월요일에 두로에 도착했다. 이 무렵에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실제로는 주로 섬족속에 기원을 둔, 초기 가나안 부족들의 후손이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사도와 전도자들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매우 열성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 중에서 많은 이가 기꺼이 믿을 준비가 돼 있음에 매우 놀랐다.

4. 두로에서

^{156:4.1 (1737.2)} 그들은,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두로에서 가르쳤다. 사도들은 각각 전도자 한 명씩 데리고 짝을 지어, 두로 전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가르치며 전도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이 분주한 항구도시 주민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들었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공공연히 천국의 친교 속으로 들어왔다. 예수께서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3내지 4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요셉이라는 유대인 신자의 집에 본부를 유지했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도시국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의 무덤에서 멀지 않았다.

^{156:4.2 (1737.3)} 이 두 주 동안, 사도와 전도자들은 소규모 모임을 지도하기 위해, 날마다 알렉산더 방파제를 경유해서

두로로 들어갔고, 그들 대부분은 매일 밤 도시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많은 신자가 예수와 이야기 나누기 위해, 그 도시로부터 그가 쉬고 있는 곳으로 날마다 찾아왔다. 주님께서는 7월 20일 오후에 단 한번 두로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인류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아들의 사명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 이방인 가운데서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멜카쓰 사원의 문이 이때 예수께 개방됐으며, 후년에 가서 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옛 사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기록하는 것은 흥미롭다.

156:4.3 (1737.4) 두로의 자주색 물감 제조업을 선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는데, 이 자주색 물감은 두로와 시돈을 온 세계에 유명하게 만들고, 세계적 상업 중심지로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물감 만드는 자원인 해산물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물감 제조업자들은 이 갑각류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떠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땅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에 대한 메시지--곧 천국 복음--도 함께 가져갔다.

5. 두로에서 예수의 가르침

156:5.1 (1737.5) 예수께서는 이 수요일 오후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더럽고 어두운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햇빛을 향해 순결하고 하얀 꽃을 피우는, 흰 백합에 관한 이야기를 추종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줬다. 그가 말씀했다: “마찬가지로, 필사적 사람의 기원과 뿌리는 인간 본성의 동물적 토양에 두고 있지만, 신앙으로 자신의 영적 본성을 하늘의 진리라는 햇빛을 향해서 자라가게 할 수 있고, 결국 영의 고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56:5.2 (1738.1) 바로 이 설교 도중에, 예수께서는 자기 직업과--곧 목수와-- 관련된 처음이자 마지막 비유를 들려줬다. “영적 재능이라는 고귀한 성품의 성장을 위하여 기초를 잘 세우라”고 훈계하는 도중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영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동료들 가운데서 영으로_충만한 삶을 살고자하면, 너희는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벌레 먹고 속이 썩은 나무를 네모지게 다듬고 치수를 재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튼튼치 못한 기둥에 온 정성을 기울인 후에, 그 기둥을 시간의 흐름과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건물 기초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리라는 이유로 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목수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각 사람마다, 지금 그런 성품의 지적 및 도덕적 기초가, 그 상부구조물, 즉 사람을 키우고 고귀하게 하는 영적 본성을 적절히 떠받치는지 확인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필사 정신을 그렇게 전환시키고, 다음에는, 다시_창조된 정신과의 연합에서, 불멸하는 운명을 소유한 혼의 발전을 성취하게 돼 있다. 너희의 영 본성은--곧 공동으로 창조된 혼은-- 성장하는 생명체이지만, 개인의 정신과 도덕은, 인간적 발달과 신성한 운명의 더 높은 이 현상들이 솟아나야만 하는 토양이다. 진화하는 혼이라는 토양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이지만, 정신과 영이 합쳐진 이 피조물의 운명은 영적이고 신성하다.”

156:5.3 (1738.2) 바로 이날 저녁에,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주님,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대답했다:

“초기에 히브리 선지자들이 아버지를 어렵듯이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게 됐으니, 그런 질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너희는,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발견하려 했는지 잘 안다.
모든 자연 발생에서, 그리고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특이한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 그들은 선과
악, 양쪽을 하나님께 연관시켰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심성을 온화하게 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도록 강하게 충동되면, 이런 이례적 감정에
대해: ‘주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 아니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지독하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선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벌주시며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려는 습성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정말로,
이제 너희는 그 이상{以上}을 잘 안다. 사람이 너무 자주
이기심과 동물적 속성의 충동으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너희는 잘 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유혹될 때, 그 유혹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알아보는 한편, 어떻게 표현할지 찾고 있는, 영, 정신, 및 육체 에너지를, 보다 높은 경로나 좀 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지성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동물적 속성과 영적 속성 사이의 이런 무익하고 약화시키는 갈등을 거의 전적으로 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혹을 변화시켜서 필사자로서 가장 높은 유형으로 이바지할 수도 있다.

156:5.5 (1738.4)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인간 의지라는 단순한 힘을 통해서, 하나의 욕망을, 더 우세하다고 가정되는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어리석음에 대항하라고 경고하고자 한다. 덜 중요하고 저급한 본성의 유혹을 진정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너희가 유혹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더 낮고 덜 이상적인 행태 습관을 버리고, 너희의 정신이 대신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더 높고 좀 더 이상적인 행동 양식에 실제 관심을 정말로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이를 사랑하게 된 영적 이점{利點}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와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필사자의 욕망이라는 거짓된 억압의 무거운 짐을 점점 더 많이 지는 대신, 이런 방법으로

영적 전환을 통해서 구제될 것이다. 낡고 저급한 것은, 새로운 것과 뛰어난 것을 사랑함으로써 잊혀질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는 빛이 빛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추악함을 언제나 이긴다. 새롭고 진지한 영적 애정이 방출{放出}하는 에너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156:5.6 (1739.1) 사도와 전도자들은 밤 깊을 때까지 계속 질문했고, 예수께서 하신 많은 대답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상을 현대 용어로 다시 정리했다:

156:5.7 (1739.2) 원대한 야망, 지성적 판단, 그리고 체험으로 쌓은 지혜 등은, 물질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지도력은, 타고난 역량, 분별력, 의지력, 및 결단력에 달려 있다. 영적 운명은, 신앙, 사랑, 및 진리에 대한 헌신--곧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 즉 하나님을 찾고 그와 같이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는 것에 달려있다.

156:5.8 (1739.3) 너희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낙담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이 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선천적으로 죄에 물든 것이 아니다. 유감스런 체험을 더러

잊으려는 데 완전히 실패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너희가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과오들이 영원 속에서는 잊혀질 것이다. 네 운명의 원거리 관점, 즉 네 생애의 우주 확장을 신속하게 획득함으로써, 네 혼의 짐을 가볍게 해라.

156:5.9 (1739.4) 정신의 불완전성이나 육체의 욕망으로 혼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실수를 범치 말라. 단 한 번의 불행한 인간적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혼을 판단하지 말고, 그 운명을 평가하지도 말라. 영적 운명은, 오직 네가 영적으로 동경{憧憬}하는 것과 그 목적에 따라서만 좌우된다.

156:5.10 (1739.5) 종교란, 하나님을_아는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이 겪는 순전히 영적인 체험이지만, 도덕적 능력과 영적 에너지는, 어려운 사회 상황에 대처하고,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재능은, 어떤 수준의 인간 생활이든지 더 풍요롭고 더 의미 있게 해 준다.

156:5.11 (1739.6) 너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너희는 편협하고 조잡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인간의 사랑은 정말로 상호적이겠지만, 신성한 사랑은

어떤 만족을_추구하든지 밖을 향해서 나아간다. 어떤 피조물의 본성에서 사랑이 부족할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신성한 사랑이 그 필요성을 만족시키려고 더 많이 찾아 나선다. 사랑은 결코 자기_본위가 아니며, 자신에게_줄 수 없다. 신성한 사랑은 스스로_억제할 수 없으며;그 사랑은 이타적으로 남에게 줘야만 한다.

156:5.12 (1739.7) 천국을 믿는 자는 정의가 확실히 승리한다는 무조건적 신앙, 즉 마음에서_우러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한다. 천국을 건축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는, 경건한 교류를 가짐으로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정신에게 영감을 주고 혼을 새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고달픈 인생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는가를--곧 물질 실존에서 괴롭힘 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는가를--점점 더 배워야만 한다.

156:5.13 (1739.8) 하나님을_아는 각 개인은 불행이나 좌절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다. 신자는, 순전히 물질적 격변으로 초래된 우울증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영으로 사는 자는,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자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모든

변천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쾌하고 건설적인 기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신자는, 매일의 삶에서 옳은 일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156:5.14 (1740.1) 영적인 삶은 진정한 자존감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_찬양이 아니다. 자존감은, 동료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항상 대등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전자{前者}가 후자{後者}의 능력을 재는 척도다.

156:5.15 (1740.2) 날이 갈수록, 모든 진정한 신자는 동료들이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하기에 점점 더 능숙하게 된다. 너는 어제보다 오늘, 인류에게 선을 드러내는 일에 더 재치 있게 됐느냐? 너는 지난해보다 올해에 정의{正義}를 권고하는 데 더 나아지고 있느냐? 너는 갈급한 혼을 영적인 나라 안으로 이끄는 숨씨가 점점 더 기교 있게 되고 있느냐?

156:5.16 (1740.3) 땅에서 필사자 동료들과 연합하여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네가 실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네 이상{理想}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만큼 충분히 높게 설정됐는가? 영적으로는 네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다. 물질적인 것들은 가이사에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156:5.17 (1740.4) 진화하는 혼의 영적 수용력을 재는 척도는, 진리를 믿는 네 신앙과 사람을 향한 네 사랑이지만, 인간 성품의 힘을 재는 척도는, 악의를 품지 않으려고 거부할 수 있는 역량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패배는, 너의 진정한 자아를 솔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정직한 거울이다.

156:5.18 (1740.5) 너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국의 일을 더 많이 체험함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좀 더 요령 있게 대하고 완고한 동역자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느냐? 사람을 대하는 요령은 사회라는 지렛대의 받침이고, 아량은 위대한 혼을 소유하는 자의 표식이다. 네가 이런 진귀하고 매력적인 은사{恩賜}를 갖고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를 좀 더 민첩하고 능숙하게 피하기 위한 값진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실히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런 현명한 혼은 많이 피할 수 있다.

156:5.19 (1740.6)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 네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부정직함과 불공정함을 피하라. 부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동정을 구하지도 말아라. 네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에 상관없이, 신성한 근원과 인간적 근원 양쪽으로부터 아낌없이 사랑받고, 그 답례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라. 그러나 명예와 찬사{讚辭}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에서는 네게 속한 것만 정직하게 구해라.

156:5.20 (1740.7) 하나님을_의식하는 필사자는, 반드시 구원을 확신하며;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정직하고 일관성이 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용감하게 참아내는 방법을 알며;또한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156:5.21 (1740.8) 진정한 신자는, 벽에 부딪친다고 해서 선을_행하는 데 지치지 않는다. 어려움은 오히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열정을 자극하며, 장애물은 담대하게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에게 분발을 촉구할 뿐이다.

156:5.22 (1740.9) 그리고 그들이 두로를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많은 것을 가르쳤다.

156:5.23 (1740.10) 갈릴리 해안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두로를 떠나기 전날, 예수께서는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열두 사도가 가는 길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돌아가라고 열두 전도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와 헤어진 후, 전도자들은 그렇게 예수와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를 다시는 갖지 못했다.

6. 페니키아에서 돌아옴

156:6.1 (1741.1) 7월 24일 일요일 정오 무렵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두로 남쪽에 있는 요셉의 집을 떠나서, 해안을 따라 톨레마이스로 내려갔다. 그들은 여기에 하루 머물면서, 거기에 사는 신자들 일행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베드로가 7월 25일 저녁에 그들에게 설교했다.

156:6.2 (1741.2) 화요일에 톨레마이스를 떠나서, 그들은 디베라 도로를 거쳐 요타파타 가까운 곳까지 내륙의 동쪽으로

갔다. 수요일에 요타파타에 도착해서, 그 곳의 신자들에게 천국의 일에 대해 많이 가르쳤다. 목요일에 요타파타를 떠났고, 나사렛_산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라마를 거쳐 스불론이라는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금요일에 라마에서 모임을 가졌고 안식일을 거기서 보냈다. 그들이 스불론에 도착한 것은 31일 일요일이었으며, 거기서 그날 저녁 모임을 가졌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났다.

156:6.3 (1741.3) 그들은 스불론을 떠나서 가이사랴 근처 막달라_시돈 도로와 만나는 곳을 넘어 여행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남쪽인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갔으며, 거기서 다윗 세베대와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해 거기서 상의할 작정이었다.

156:6.4 (1741.4) 다윗과 잠시 협의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지도자가 케레사 근처 호수 반대편에 모여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바로 그날 밤에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다. 그들은 하루 동안 언덕에서 조용히 쉬었고, 다음 날에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인 적이 있었던 근처의 공원으로 갔으며, 그들은 여기서 3일간 쉬면서 매일 협의를 했는데,

약 50명의 남녀가 참석했고, 이들은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한때 많은 숫자였던 신자 일행 중에서 남은 자들이었다.

156:6.5 (1741.5) 예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떠나 페니키아에 머무는 동안에 적들은, 그 운동 전부가 와해됐으며, 예수께서 서둘러 떠난 것은 그가 너무 겁먹었기 때문이므로, 다시는 자기네를 성가시게 하러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교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가 거의 조용해졌다. 신자들은 한 번 더 공공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방금 통과했던 큰 난관에서 시험을 받고 진실로 살아남은 자들의,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단합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었다.

156:6.6 (1741.6) 헤롯의 형제 빌립은 예수를 반신반의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는 주님이 자유롭게 살면서 일해도 좋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156:6.7 (1741.7) 모든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와 추종자들의 가르침을 금한다는 명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었다. 논쟁의 대상인 예수께서 스스로 사라지자마자 전 유대인 가운데서 반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지도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분노였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선생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회당을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에게 은밀히 개방하기 시작했다.

156:6.8 (1741.8) 헤롯 안티파스조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호수 반대편에 있는 형제 빌립의 관할 안에 예수께서 머물고 있음을 알자, 자신이 갈릴리에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에 서명하긴 했지만, 펠라에서의 체포는 위임하지 않았기에, 그가 갈릴리 외부에 머물고 있는 한, 자기로서는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내왔으며;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 판결문을 전달했다.

156:6.9 (1742.1) 이상이 서기 29년 8월초까지의 상황이었는데, 이때에는 예수께서 페니키아에서 전도하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 세상 사명에서 마지막이자 중요한 1년을 위해, 흠어지고 시험받고 지친 무리를 재조직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56:6.10 (1742.2) 새로운 종교, 즉 사람들의 정신에 내주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의 종교를, 주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선언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그 싸움의 명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제157편 가이사랴_빌립보에서

157:0.1 (1743.1) 열두 사도와 함께 가이사랴_빌립보 근방에 잠시 체류하기 전에, 예수께서는 가족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8월 7일 일요일에 다윗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준비시켰다. 이번에는 배 만드는 세베대의 목공소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준비됐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동생 유다와 나사렛의 모든 식구--곧 마리아와 예수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예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안드레와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 마리아와 자녀들은 이 예약을 꼭 지키려 했지만, 예수께서 빌립의 관할 지역인 호수 건너편에 있음을 알게 된 한 무리의 바리새인이, 예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밀정{密偵}들이 도착하자 매우 불안했으며, 이들은

예수의 가족이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가족을 방문하기로 돼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그들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지원부대를 요청해 놓고, 예수께서 도착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렸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태가, 예수와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를 가족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하루 동안, 바리새인의 감시를 피해 예수께 전갈을 보내려고 유다와 룯이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57:0.2 (1743.2) 오후 일찍, 바리새인이 마리아의 집 현관에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예수께 가져왔으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가족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예수와 그 가족은, 어느 편에도 잘못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됐다.

1. 성전_세금 징수원

157:1.1 (1743.3) 예수께서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배 목공소가 가까이 있는 호숫가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를 알아본 한 성전_세금 징수원이 그들에게 와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며 말했다:“네 주님은 왜 성전 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는 적들의 종교 활동 유지에 예수도 공헌하기를 기대하는 그의 제안을 듣고 화를 내려 했지만, 그 세금 징수원의 얼굴에 나타난 묘한 표정을 보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성전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관례대로 지불하는 반 세겔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정확히 추측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대답했다:“물론 주님께서는 성전 세금을 내신다. 당신이 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세금을 갖고 돌아오겠다.”

157:1.2 (1743.4) 이때 베드로는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 그들의 자금은 유다가 갖고 있었는데, 그는 호수 건너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형제 그리고 예수께도 돈이 전혀 없었다. 바리새인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가지러 벳새다로 갈 수도 없었다. 베드로가 세금 징수원에게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예수께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네가 약속했다면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네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어부 일을 하겠느냐? 베드로야, 어쨌든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태도에 대해 아무런 흠도 잡히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동안, 네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저쪽에 있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 그 돈으로 우리
세 명 몫의 세금을 그 징수원에게 줘라.”

157:1.3 (1744.1) 가까이 서있던 다윗의 비밀 심부름꾼이 이 모든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그는 해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한 동역자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찬 몇 개의 큰 바구니를 다윗의 심부름꾼과 친구 어부가 그에게 줬으며, 그들은 그를 도와서 근처에 있는 물고기 상인에게 가져다가 팔았고, 다윗의 심부름꾼이 보태서 세 명에 해당되는 성전 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준비했다. 세금 징수원은, 예수의 일행이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늦게 납부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그 세금을 받았다.

157:1.4 (1744.2) 베드로가 돈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당시에는 물고기 입에서 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으며;기적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가 흔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떠나 배 있는 곳으로 갈 때, 예수께서

반_농담조로 말씀했다:“왕의 아들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구나;국가의 유지를 위해 대개 세금 내는 사람은 타인들인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라! 아마 네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을지도 모르겠다.”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가 성전 세금을 갖고 나타났으므로,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나중에 하나의 기적으로 확대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57:1.5 (1744.3) 예수께서는 안드레 및 베드로와 함께 해가 거의 질 때까지 해변에서 기다렸다. 심부름꾼들은 마리아의 집이 아직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으며;그래서, 날이 어두워지자, 기다리던 세 사람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을 향해서 천천히 노를 저었다.

2. 벳새다_유리아에서

157:2.1 (1744.4) 8월 8일 월요일에, 예수와 열두 사도가 벳새다_유리아 가까이에 있는 마가단 공원에 머물고 있을

때, 100명 이상의 신자, 전도자, 여자 단체, 그리고 천국의 건설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이 협의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된 많은 바리새인 역시 이곳으로 왔다. 이 무렵에 일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결합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신자들과의 비공개 협의를 하기 전에 바리새인도 참석한 공중 모임을 가졌고, 그들은 예수께 야유를 퍼붓거나 집회를 방해하려고 애썼다. 방해꾼들의 우두머리가 말했다:“선생님, 당신에게 가르칠 권한이 있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바라며,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나타난 후에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했다:“저녁이 됐을 때 하늘이 붉으면, 너희가 날이 좋을 것이라 하고;아침이 됐을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궂을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 하고;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타는 듯한 더위가 올 것이라고 한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은 잘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토록 완전히 분별치 못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표적이 주어졌으나;악한_마음을 지닌
위선적인 세대는 아무 표적도 얻지 못할 것이다.”

157:2.2 (1745.1)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한 후에, 물러가서
추종자들과 가질 저녁 회담 준비를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정된 가이사랴_빌립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합동 전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주님께서는
데가볼리 전도활동을 계획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일행을
떠나보내면서 말씀했다:“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많이
아는 척하고 종교 형식에 그들의 깊은 충성심을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영과 참된 종교의
능력에만 관심을 뒤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죽은 종교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의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너희의 신앙이다. 편견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눈멀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마비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해심을 왜곡시켜서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전통을 숭배하지 말아라. 단지 평화를
제시하는 것은 참 종교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를
보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한

실체들의 이상{理想}인 진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마음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정신 속에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곧 일생의 죄 많은 쾌락이 영원성의 올바른 실체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신앙과 희망으로 새로운 삶에 임하면서, 지금도 너희는 두려움과 의심의 족쇄에서 해방되기를 구하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동료들 위해 봉사하려는 감정이 너희의 혼 속에 생겨나면, 그것을 억압하지 말며;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마음 속에서 솟아나면, 동료들의 진정한 필요에 영리하게 봉사함으로 그런 애정의 충동을 표현해라.”

3. 베드로의 고백

157:3.1 (1745.2)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을 떠나서 가이사랴_빌립보로 향했는데, 그 도시는 영주{領主}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의 수도였다. 가이사랴_빌립보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지역에 위치했다. 이 도시는, 요단강이 지하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경치 좋은 언덕 사이의 매력적인 계곡에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정상에 한 눈에 들어오고, 언덕 남쪽으로는 요단강 상류와 갈릴리 바다의 장엄한 모습이 보였다.

157:3.2 (1745.3) 예수께서는 천국의 정세를 체득하던 초기에 헤르몬 산에 가본 적이 있었으며, 그의 업무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이 시련과 승리의 산에 다시 가기를 바랐는데, 여기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고, 곧 다가오게 될 고된 시기를 대비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희망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 걷다가 메롬 샘물 근처를 지날 즈음에,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최근에 페니키아와 그 외의 지역에서 겪었던 체험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에 대해 열거하기 시작했다.

157:3.3 (1745.4) 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을 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열두 사도에게 그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자신에 관한 질문을 처음으로 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놀라운 질문을 했다

157:3.4 (1746.1) 예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하늘 나라의 본질과 성질을 여러 달에 걸쳐 가르쳐 왔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본성에 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 대해 그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만 할 시기가 왔음을 잘 알았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뽕나무 아래 자리 잡고 앉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과 오래 교제하던 중에 가장 중대한 수업을 제시하려고 준비했다.

157:3.5 (1746.2) 사도들 가운데 반 이상이 예수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은 예수께,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 또는 매우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며;적들조차 그가 마귀들의 두목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기소장을 씌으로써,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일부 사람이, 그를 죽었다가 살아 난 세례 요한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여러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그를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교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보고를 다 듣고 난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주변에 반원{半圓}을 그리고 앉아있는 열두 사도를 내려다보면서, 팔을 들어 압도하는 듯한 태도로 그들을 가리키면서 놀랄 만큼 강조하며 물었다;“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깐 동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열두 사도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그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다:“당신은 구원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앉아 있던 열한 명의 나머지 제자도, 베드로가 자신을 대신해서 말했다고 동의하는 표시로, 동시에 똑바로 일어섰다.

157:3.6 (1746.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앉으라고 지시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선 채로 말씀했다:“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이제 나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만 할 때가 왔다. 하지만 너희는 당분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제 길을 떠나자.”

157:3.7 (1746.4)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가이사랴_빌립보로 가는 여행을 다시 계속했으며, 그날 저녁 늦게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던 셀서스의 집에 머물렀다. 사도들은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으며;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천국 업무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듯했다.

4. 천국에 관한 강의

157:4.1 (1746.5)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일과,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래, 사도들은 여러 경우에 사실상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그가 기대되던 구원주임을 짧은 기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희망이 그들의 가슴속에 생길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의 기대를 깨는 말씀을 하고 실망스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돈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정신 속에 간직하며 고대해 온 여러 메시아 개념, 그리고 그들이 마음 속에 간직했던 이 특별한 사람과의 특별한 교제에서 오는 체험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157:4.2 (1746.6)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셀서스의 집 뜰에 모인 것은 이 수요일 늦은 오전이었다. 지난 밤 내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로 계속,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은, 예수를 단순한 메시아로서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로서,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받아들이 수 있는 그 지점까지 형제들을 이끌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다. 이 두 시몬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거의 일치하게 됐으며,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도 자신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많이 애썼다. 안드레가 사도 단체의 총괄_지휘자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동생 시몬 베드로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점점 더 열두 사도의 대변인이 돼갔다.

157:4.3 (1747.1) 주님께서 정오 무렵에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위엄을 갖춘 엄숙한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께서 다가오자 모두 일어섰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그 긴장을 완화시켰는데, 그런 미소는, 추종자들이 그들 자신을, 또는 그들 자신에 관련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내 보이는 그의 특질이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앉으라고 손짓으로 지시했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나올 때 다시는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외형적 존경의 표시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157:4.4 (1747.2)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다가 올 데가볼리 여행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했다:“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공표에 동의한 지 만 하루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그 결정에 변함없는지 알고 싶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열두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몇 걸음 나와서 말했다:“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여전히 선 채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대사들이지만, 이 상황에서 단지 인간 지식으로는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너희 혼 깊은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시는 영의 통찰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 고백을 한다면, 나는 바로 이 기초 위에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를 세울 것임을 선언하려고 한다. 이 영적 실체의 반석{磐石} 위에, 내가 내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실체들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모든 악의 세력과 죄의 주인은, 신성한 영으로 이뤄진 이런 인간적 동포애에 대항해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런 영 공동체로 들어가는 모든 이의 신성한 안내자와 스승이 되실 것이며, 한편 나는 이제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물질계{物質界}의 천국 열쇠들을--곧 현세의 것들에 대한 권세, 즉 천국의 동료들로서 이 남녀 연합체가 갖는 사회적 및 경제적 기능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재차 지시했다.

157:4.6 (1747.4)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충성심과 정직함에 대해 신뢰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을 감당할만한 신앙이라면,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모든 희망이 명백히 파괴된 중에도 새로운 섭리시대라는 새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결국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주님께서는 이날부터, 한 사람을 제외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믿기 시작했다.

157:4.7 (1747.5)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바로 이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한 아들신분의 기초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워왔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된 사람은, 영들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 세운, 이런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인간 벽돌이다.

157:4.8 (1747.6)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고 나서, 열두 사도에게 그들끼리 언덕으로 따로 가서, 저녁식사 시간까지 지혜와 힘과 영적 안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시킨 대로 따랐다.

5. 새로운 개념

157:5.1 (1748.1) 베드로의 고백이 갖는 새롭고 뚜렷한 특색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신성{神性}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세례와 가나의 결혼식 사건이 있는 뒤로 계속 그를 메시아로 여겼으나, 민족의 구원자가 *신성해*야만 한다는 것이 유대인 개념의 한 부분은 아니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신{神}으로부터 생겨나리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며;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고백에서는 *연합된 본성*, 즉 그가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숭고한 사실이 더 강조됐으며,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세우리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의 합동이라는 이런 위대한 진리에 기초했다.

157:5.2 (1748.2)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를 살면서, 사람의 아들로써 증여 사명을 완수하려 했다. 추종자들은 그를 예정된 메시아로 간주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대망{待望}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들의 대망에 자신을 부분적으로 맞춰

가면서, 그들의 메시아 개념을 그렇게 변경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런 계획의 수행이 거의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대담하게 세 번째 계획--즉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고, 베드로가 한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하며, 열두 사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선언하는 것--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157:5.3 (1748.3) 예수께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주장해 왔으며, 사도들은 바로 이 3년 동안, 그는 대망하던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점점 더 주장해 왔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연합된 본성*의 개념 위에 하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 *인지* 그들에게 뚜렷이 드러내기로, 그다음에 그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계속 간주하려는 결정을 무시하기로 계획했다.

6. 다음 날 오후

157:6.1 (1748.4) 예수와 사도들은, 다음 날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며 하루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들이 가이사랴_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었다. 마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와 형제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으며, 과거에 여러 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돈을 유다에게 건네 줄 기금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것을 예상해서, 그에 따라 심부름꾼들에게 지시해 뒀는데, 그들이 유대지방, 사마리아, 갈릴리를 통과하는 동안, 도피중인 사도들과 주님께 전할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예수 일행이 데가볼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쓰고도 남은 충분한 기금을 갖고, 그날 저녁 무렵에 이 심부름꾼들이 벳새다에서도 도착했다. 마태는, 그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처분돼서 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런 다음 그 기금을 무명{無名}으로 유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157:6.2 (1749.1)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에서 새로운 시대, 즉 선생_치유자가 새롭게 생각되는 메시아로--곧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때의

시작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때부터 계속, 주님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한 면이 나타났다. 이제부터 그의 삶의 한 가지 이상{理想}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그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관념은, 오직 그렇게 살아감으로써만 납득될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의인화된 모습을 자기 우주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하고, 더 풍성히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157:6.3 (1749.2) 이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째 단계는 유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원, 속성, 운명에 관하여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자아를 점차 의식하는 청소년 시절과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시기로,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사명에 관해 보다 분명히 납득하게 됐다. 이 둘째 단계는 그의 세례와 관련돼 발생한 계시 및 체험과 함께 끝났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체험 중에서 셋째 단계는, 세례 받은 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사역을 수행했던 시기를 거쳐, 가이사랴_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던 시기까지였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셋째 시기는, 사도와 측근 추종자들이 그를 사람의

아들로 알고, 그를 메시아로 간주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기간은, 이곳 가이사랴_빌립보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특징은, 그가 신성을 자인{自認}한 것이었고, 육신 속에서 마지막 해에 행한 일들을 포함한다. 넷째 기간에, 추종자 대부분이 그를 여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됐다. 베드로의 고백은, 유란시아에 그리고 전체 우주를 위해 증여된 아들로서의 최상의 사역이라는 진리를 더 완전히 깨닫는, 그리고 선택된 대사들이 적어도 흐릿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은, 새로운 기간의 시작점이 됐다.

157:6.4 (1749.3)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친 어떤 것, 즉: '생생하게 진보하는 기법으로 영적 본성이 성장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증{例證}했다. 그는, 후세의 추종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혼과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이 이 두 가지를 쉽게 이기며, 이런 지적 및 본능적 싸움 대부분을 유익하게 조화시키기에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다.

157:6.5 (1749.4) 한 가지 새로운 의미심장함이 이 시점부터 모든
예수의 교훈에 첨가됐다. 가이사랴_빌립보 이전에는, 그가
우두머리 선생으로서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가이사랴_빌립보 이후에는, 그가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 천국의 중심인 동시에 율타리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서 나타났으며, 한
인간으로서, 즉 사람의 아들로써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요구됐다.

157:6.6 (1749.5) 예수께서는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선생_치유자로서, 추종자들을 영적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待望}을,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채워줄 수 없음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으며;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처럼 그렇게 될
수는 결코 없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길을 모색했지만, 추종자들은 그런 모험에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증여 아들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했다.

157:6.7 (1750.1) 따라서, 이날 예수께서 뜰에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선언 가운데 일부는 그들에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그들은 다른 놀라운 발표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157:6.8 (1750.2)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교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신분의 책무를 담당하면서 나를 따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이 세상이 너희 주님에게 대했던 것보다 너희에게 더 잘 대해 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최상의 희생을 함으로써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157:6.9 (1750.3) “그리고 내 말에 주목해라: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선언하겠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157:6.10 (1750.4)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들림 받으면, 그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 것이며,

아들의 연합된 본성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오랜_세월보다 더 긴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157:6.11 (1750.5)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는
계시됐으며;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신비에 관해
확실히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육체적 현존으로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아온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으며;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157:6.12 (1750.6) “그리고 너희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사람의 아들이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
경고를 듣고 나서, 이 선언이 진리임을 너희의 신앙은 이제
납득할 수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157:6.13 (1750.7) "그럼에도 내가 말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인데, 너희가 곧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러 나갈 때, 정말로 나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157:6.14 (1750.8) "그리고 이제, 이런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 인생의 영광을 납득하고 그 장엄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너희들만 따로 데려왔는데:곧 인류의 가슴 속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설립하는 모험, 즉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혼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면서 나와 친교를 도모하는 신앙_모험이다."

157:6.15 (1750.9) 사도들은 힘차고 놀라운 이런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였으며;어리병병했다. 이어서 그들은 작은 무리들로 분산돼서, 주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행하라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7. 안드레의 협의

157:7.1 (1750.10) 그날 저녁에, 안드레가 각 형제들과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협의{協議}했으며, 유익하고 사기 북돋아 주는 이야기를,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역자와 나눴다. 안드레는 다른 사도들과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개인적 교제를 유다와는 한 번도 유지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유다가 거리낌 없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안드레는 유다의 태도를 매우 염려하게 됐으므로, 그날 밤늦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 주님께 가서 자신이 염려하는 이유를 털어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안드레야, 네가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기를 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며;오직, 이 사도를 최대한 계속 신뢰하도록 해라.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는 나와 나눈 이야기를 전하지 말아라.”

157:7.2 (1751.1) 이상의 말이 안드레가 예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전부였다. 유대지방 출신의 이 형제와, 갈릴리 출신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유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주님께 들은 책망으로 몇 차례 심하게 상처받았고,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을 때

실망했으며, 바리새인으로부터 도주했을 때 창피했고,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통했으며,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의존하기를 주님이 거절했을 때 당황했고, 그리고 이제, 더 최근에는, 바닥 난 재정 때문에 우울해졌고 어떤 때에는 낙심했다. 그리고 유다는 대중의 열광을 그리워했다.

157:7.3 (1751.2) 다른 사도들 역시, 어떤 면에서, 그리고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각자 이런 똑같은 시험과 시련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다. 그들은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많이 예수를 사랑했음에 틀림없는데,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157:7.4 (1751.3) 유대지방 출신인 유다는, 최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에 대해 개인적 반감을 가졌으며;이 말씀이 자신을 은밀히 암시했다고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여러 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도들을 그들끼리 기도하러 보내려 했을 때, 유다는 우주의 영적 세력들과 진지한 친교를 나누는 대신 인간적 두려움에 빠졌고, 동시에 복수심의 감정을 마음 속에 숨겨두려는

불행한 성향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명에 관한 미묘한 의심을 계속 품은 것이었다.

157:7.5 (1751.4)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헤르몬 산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 사역 가운데 넷째 국면을 거기서 시작하게 돼 있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참석하여, 사람의 아들이로서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새롭고 공적인 역할을 시작한다는 권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부가 똑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8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저 산 너머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라,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거기서 하라고, 영{靈}이 내게 분부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체험할 고난의 시기에 대비하여 내 형제들 또한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제158편 변형되신 산

158:0.1 (1752.1) 예수와 동역자들이 헤르몬 산 어귀에 당도한 것은, 서기 29년 8월 12일 금요일 해질녘이었는데, 그곳은 주님이 유란시아의 영적 운명을 확립시키고, 루시퍼의 반역을 원칙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티그랏이라는 소년이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와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닥쳐올 사건들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 이틀 머물렀다.

158:0.2 (1752.2) 예수께서는 대체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았고, 사도들이 모두 이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산 어귀에 머문 것은, 자신에 대한 이 계시에 그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빨리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 천상의 존재들의 방문을 온전히 체험하기에는, 영적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동역자를 전부 데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마다 늘 자기를 따르게 했던 세 명에게만 동행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 만이, 비록 일부분이기는 했지만, 이 독특한 체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1. 변형되심

158:1.1 (1752.3) 8월 15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세 사도는 헤르몬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며, 이날은 길 옆에 있는 뽕나무 아래서 정오에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고백을 한 지 엿새 지난 때였다.

158:1.2 (1752.4) 예수께서는 이 체험이 자기가 창조한 우주와 관련된 것인 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처리사항이 육신 속에서 그의 증여에 진보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혼자서만 따로 산을 오르도록 요청 받았었다. 예수와 사도들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바로 그 시기 동안에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방인의 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158:1.3 (1752.5) 그들은 정오 직전에 산 중턱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점심을 먹는 동안, 예수께서는 세례 받은 후에 요단의 동쪽에 있는 언덕에서 체험했던 어떤 것을, 그 세 사도에게 간단히 이야기했으며, 또한 이 외진 은신처에 자신이 전에 방문했던 것과 관련된, 헤르몬 산에서 체험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 더 말씀했다.

158:1.4 (1752.6) 예수께서는 소년 시절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그 언덕을 자주 올라갔고, 에스드랴론 평원에서 여러 제국의

군대가 싸웠던 전투에 대해 꿈을 꾸곤 했으나;이제는, 유란시아에 자신을 증여하는 연극의 종결 장면을 공연하기 위해 요단 평원으로 내려가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자질을 부여받으려고, 헤르몬 산으로 올라갔다. 주님은 이날, 헤르몬 산에서 투쟁을 포기하고 우주 영토들에 대한 자신의 통치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낙원에 계신 영원한 아들의 명령에 포함된, 신성한 아들신분 계층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낙원 아버지의 당면한 뜻도 끝까지 온전히 이뤄드리기로 작정했다. 8월의 이날에 세 사도는, 그가 온전한 우주 권세로 덧입힘 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봤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도록, 천상{天上}의 사자들이 그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봤다.

158:1.5 (1753.1) 사도들의 신앙은, 5천 명을 먹일 때 높은 지점에 있었으나, 곧 급속도로 줄어들어 거의 전무{全無}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자신의 신성{神性}을 인정한 결과로, 침체되던 열두 사도의 신앙은, 이어지는 몇 주에 걸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그 뒤로는 오직 점진적 쇠퇴만

체험하게 된다. 그들의 신앙의 세 번째 소생은 주님의 부활 후에야 이뤄졌다.

158:1.6 (1753.2) 이 아름다운 오후에 세 시쯤 됐을 때, 예수께서 세 사도를 떠나면서, “아버지와 그의 사자{使者}들과 대화하기 위해 잠시 나 혼자 가려 하니;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사람의 아들의 남은 증여 사명과 관련된 너희의 모든 체험에서 아버지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한 후에, 가브리엘 및 아버지 멜기세덱과 긴 회담을 하기 위해 떠나있으면서, 여섯 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그들이 염려했음을 보자:“너희는 왜 두려워했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함을 너희도 잘 아는데;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삶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기운을 내라;나는 내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158:1.7 (1753.3) 그들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다. “우리는 형제들과 떨어져서 얼마 동안이나 더 이 산에 머물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공언한 것은 무엇이든지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다.” 그리고 그들은 빨강계 달아오른 모닥불 곁에서, 루시퍼의 반역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지자, 그날 아침에 매우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했으므로 사도들의 눈은 점차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158:1.8 (1753.4) 세 사도는 약 반 시간쯤 깊이 잠들었다가, 곁에서 탁탁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깨어났으며, 예수께서 천상의 세계의 광채가 나오는 복장을 입은 찬란한 두 존재와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과 외모도 하늘의 광채로 환하게 빛났다. 이상한 언어로 대화하는 이 세 명은 뭔가 특별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착각했으나; 실제로 그들은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이었다. 예수의 요청으로, 사도들이 이 광경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리 통제관들이 조치했다.

158:1.9 (1753.5) 세 사도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리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그 눈부신 광경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예수만 홀로 서 있음을 보자, 베드로가 맨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예수님,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롭지 못한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로 여기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장막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혼동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158:1.10 (1753.6)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을 때, 은빛 구름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들 네 명 위에 드리웠다. 이때 너무 놀란 사도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것과 동일한 음성을 들었다:“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그의 말을 명심하라.” 그리고 구름이 사라지자, 예수와 세 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에게 다가와서 손대며 말씀했다:“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이보다 더 큰 것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정말로 두려워했으며;자정이 되기 직전에 산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들 세 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2. 산에서 내려옴

158:2.1 (1754.1) 산을 반쯤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주의를 주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너희 형제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 사도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크게 당황하고 충격 받았다. 그들이 예수를, 구원주, 즉 하나님의 아들로써 믿는 신앙이 다시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이었고, 방금 전에는 바로 자신의 눈으로 영광 중에 변형되신 주님을 봤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다니!

158:2.2 (1754.2)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몹시 떨었으며--즉 생각조차 하기 싫었으며-- 야고보나 요한이 이 말씀에 관련된 질문을 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대화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것을 찾지 못했으므로, 마음에 처음 떠오른

생각을 말했는데, “주님,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말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베드로가 회피하려 함을 알고 대답했다.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결국 버림받는 사람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정말로 먼저 온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들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그에게 행했다.” 그러자 세 사도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고집한다면, 요한이 예언서의 엘리야가 되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158:2.3 (1754.3)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얻게 될 자신의 영광을 미리 맛 본 사실에 대해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한 것은,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그가 이적을 베푸는 구원자라는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리라는 생각을 키워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으로 깊이 숙고했지만,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58:2.4 (1754.4) 그들이 산을 계속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너희는 나를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며;그래서 너희의 변치 않는 결정에 따라 나를 받아들이도록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내 아버지 뜻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의지의 경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많은 실망을 체험하고, 많은 시험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너희 자신이 선택한 이 슬픔 속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의기양양하게 통과하도록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158:2.5 (1754.5)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변형되신 산에 올라갔던 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서든지 다른 사도들보다 잘 준비돼서, 일어날 일을 잘 증거 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드문 특권을 누리기에 영적으로 더 적당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누구도 이 체험을 할 만한 자격을 영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만의 교류를 누리기 위해 홀로 있고 싶을 때마다 동행하도록 배정된 세 사도만 데리고 갔던 것이다.

3. 변형되심의 의미

158:3.1 (1755.1) 변형되신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목격한 것은, 그 중대한 날에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천상의 야외극{野外劇}을 잠깐 스쳐 지나가며 본 것에 불과했다. 그 변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였다:

158:3.2 (1755.2) 1.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육신화 생애의 증여가 완성됐음을, 낙원에 계신, 어머니이신_영원한 아들이 승인한 것이었다. 영원한 아들의 요구조건을 고려하는 한, 예수께서는 이제 그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보증을 받았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그 보증을 예수께 전했다.

158:3.3 (1755.3) 2. 필사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유란시아에서 증여를 완성함에 따라, 무한한 영이 만족해하신다는 증언이었다. 무한한 영의 우주 대표자, 즉 살빙톤에 있는 미가엘의 가까운 동역자이며 항상_같이하는 동역자가, 이 경우에 아버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했다.

158:3.4 (1755.4) 예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사명이 성공했음에 관해,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사자들이 제시한 이 증언을 반갑게 받아들였지만, 아버지께서 유란시아 증여가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에 주목했으며;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현존만이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를 통해서 증언을 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그의 말을 명심하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이것은 세 사도 역시 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됐다.

158:3.5 (1755.5) 이 천상의 방문이 있는 다음에,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자 애썼으며,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필사자 증여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는 이것이 변형되심의 주요 의미였다. 세 사도에게 그 변형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이 세상 생애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갔음을 표시하는 사건이었다.

158:3.6 (1755.6) 가브리엘과 아버지 멜기세덱의 공식 방문이 있는 다음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봉사하는 아들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고, 우주 직무에 관해 교류했다.

4. 간질병에 걸린 소년

158:4.1 (1755.7) 예수와 동행자들이 사도 야영지에 도착한 것은 이 화요일 아침 식사시간 직전이었다.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은 상당한 인파가 사도들 주변에 몰려 있음을 발견했으며, 곧 50명쯤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면서 쟁론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아홉 명의 사도와 한 무리가 포함돼 있었고, 그 무리는

마가단으로부터 여행할 때 예수와 동역자들을 따라왔던
예루살렘 서기관들과 믿는 제자들로 반씩 갈라져 있었다.

158:4.2 (1755.8) 인파는 여러 가지로 쟁론했지만, 주된 논쟁은
예수를 찾아서 전날 도착했던 디베랴에 사는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사페드의 야고보인데, 그에게는
열네 살쯤 되는 외동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은 간질병으로
심하게 고난당하고 있었다. 이 소년은 이 신경성 질병
외에도, 그때 지구상에 현존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떠돌아다니며 화를 미치고 반역적인 그 중도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사로잡히게 됐으며, 그리하여 이 어린아이는
간질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귀신_들려 있었다.

158:4.3 (1755.9) 이 아이의 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이었고, 고난당하는 이 아들을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찾기 위해 거의 두 주 동안 열정을
갖고 빌립의 영지{領地} 서쪽 경계선을 따라서 두루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세 사도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있던 이날 정오까지도 사도 일행을 따라잡지
못했다.

158:4.4 (1756.1)

예수를 찾고 있는 거의 4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홉 사도는 몹시 놀라고 심히 동요됐다. 이 무리가 도착했을 때, 아홉 사도는,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가졌던 유혹--즉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지 의논하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는데; 사도 각자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 열심히 쟁론하고 있었다. 그들은 솔직히 메시아의 물질적 사명에 대해 오랫동안 신봉했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정말로 구원주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예수 자신이 용납했으니--적어도 그의 신성{神性}에 대한 사실은 그가 인정했으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올랐던 기대감과 대망에 관한 대화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아주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찾는 사페드의 야고보와 동료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158:4.5 (1756.2)

안드레가 이 아버지와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 다가와서 말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야고보가 대답했다; "선한 분이시여, 나는 당신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내 아들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를 예수께서 쫓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심하게 발작한 결과로 너무나 고난당해서 여러 번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음을, 사도들에게 계속 설명했다.

158:4,6 (1756.3) 사도들이 듣고 있을 때, 열심당 시몬과 가롯 유다가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우리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으니;당신들은 주님이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의 대사들이며;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주시고, 천국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드레와 도마는 이때까지 한 쪽에서 의논하고 있었다. 나다니엘과 다른 사도들은 놀라서 지켜봤으며;무례한 행동은 아닐지라도 시몬과 유다의 갑작스런 대답성에 모두 아연실색하고 있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다:“당신들에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이 숙박에서 내 아이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말로 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앞으로 나서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명령했다. “너 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예수의 이름으로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나 아이는

더 격렬하게 발작할 뿐이었고, 서기관들은 조소하면서 사도들을 조롱했으며, 실망한 신자들은 비협조적으로 비판하는 이 빈정거림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58:4.7 (1756.4) 안드레는 이 무분별한 수고와 참담한 실패에 깊이 통분했다. 그는 같이 협의하고 기도하기 위해 사도들을 따로 불렀다. 이렇게 잠시 묵상한 뒤에,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상처를 예민하게 느끼고, 자신들 모두에게 굴욕감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도, 안드레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두 번째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의 수고도 허사였다. 안드레는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하루 더 자신과 머물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권유하면서 말했다: “아마 이런 종류는 주님이 몸소 명령해야만 쫓겨날 것 같습니다.”

158:4.8 (1756.5) 그리하여, 원기 넘치고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다른 아홉 형제는 혼돈과 기가 꺾인 굴욕감 속에서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낙심되고 징벌 받은 집단 같았다. 그러나 사페드의 야고보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록 예수께서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는

대답을 사도들로부터 듣지 못했으나,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5. 예수께서 아이를 치유하심

158:5.1 (1757.1) 예수께서 가까이 오자, 아홉 사도는 그를 환영하는 이상{以上}으로 더 안심했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표정에서 활력과 보기 드문 열정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세 형제와 예수께 인사하기 위해 달려 나갔다. 그들이 인사하는 동안 인파가 다가왔고, 예수께서 물었다:“우리가 가까이 올 때 너희가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 그러나 당황하고 낙심한 사도들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고난당하는 아이를 염려하는 그 아버지가 나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주님, 내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놀라서 소리 지르고, 입에 거품을 품으며, 발작할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자주 아이를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어떤 때에는 물속으로 그리고 심지어 불 속에 넣기도 합니다. 이를 한참 갈며 많은 상처를 입은 후에야 기진맥진합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며;아이의 어머니와 나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당신을 찾다가, 어제 오후에 당신의 제자들을 따라잡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치유해주시겠습니까?

158:5.2 (1757.2) 예수께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일어나라 명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자세히 둘러봤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앞에 서 있는 모두에게 말씀했다:“오 신앙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신앙의 효과가, 의심하면서 내리는 명령에는 반응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씀했다:“네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리고 야고보가 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오자:“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당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이는 심한 공격을 당해서 무리 가운데 쓰러졌으며, 이를

갈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격렬한 발작이 끝나자, 그들 앞에서 마치 죽은 아이처럼 누웠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애원하며 말했다:“당신이 내 아이를 고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자, 아버지의 근심하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씀했다:“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네 신앙의 정직성과 미치는 범위를 의심해 보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사페드의 야고보는, 신앙과 의심이 뒤섞인 오랫동안 기억될만한 말을 했다:“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58:5.3 (1757.3)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앞으로 다가가서 아이를 손으로 붙잡고 말씀했다:“내 아버지 뜻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에 경의를 표하여 이 일을 행하고자 한다. 얘야, 일어나라! 불순종의 영아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아버지 손에 쥐어 주며 말씀했다:“네 길을 가라. 아버지께서 네 혼의 소망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심지어 예수의 적들도,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158:5.4 (1757.4) 변형되신 광경과 체험으로 영적 황홀경을 맛본지
얼마 되지 않는 세 사도에게, 그것은 정말로 환상에서
깨어나, 동료 사도들이 당황하고 좌절하는 이 장면으로
신속히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천국의 이 열두
대사에게는 늘 그런 식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의기양양함과 좌절 사이에서 계속
오락가락했다.

158:5.5 (1758.1) 이것은 육체적 병과 영 질병의 이중적 고난에
대한 진정한 치유였다. 그리고 아이는 그 시간부터 영구히
낫게 됐다. 야고보가 회복된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이제 우리도 가이사랴_빌립보로
가자;즉시 준비하라.” 그리고 그들은 남쪽을 향해서
여행하는 동안 침묵했고 인파가 뒤를 따랐다.

6. 셀서스의 집 뜰에서

158:6.1 (1758.2) 그들은 셀서스와 함께 밤을 보냈고, 저녁에는
뜰에 머물렀으며, 식사와 휴식이 끝나자 열두 사도가 예수
주변에 모였고, 도마가 말했다. “주님, 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운이 넘쳤는지, 뒤에 남았던 우리만 모르는데, 우리의 실패와 관련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지금 밝힐 수 없더라도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든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158:6.2 (1758.3)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해 말씀했다:“네 형제들이 산에서 들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너희에게도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너무 어리석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겠다. 너희 주님과 그 동행자들, 즉 너희 형제가, 아버지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 그리고 거룩한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지혜의 재능을 더 구하기 위해 어제 저쪽 산에 올라간 동안, 남아서 이곳을 지키면서 영적 통찰력 있는 정신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고, 아버지 뜻이 좀 더 완전하게 계시되도록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고 지시 받았던 너희가, 명령함으로써 신앙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했지만, 그보다도 유혹에 굴복하여, 하늘 나라에서--곧 너희가 명상 속에서 고집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나라에서--자신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악한 구습{舊習}에 다시

빠졌다.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선포함에도, 너희는 잘못된 이 개념에 집착하고 있다.”

158:6.3 (1758.4) “너희의 신앙이 사람의 아들의 정체성을 파악하자마자, 세속의 승진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슬며시 너희에게 임했고, 누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클 것인지에 대해 너희끼리 의논하게 됐지만, 천국에 대해 너희가 아무리 상상을 계속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적 형제관계가 이뤄진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게 돼야 하고, 그리하여 형제에게 봉사하는 자가 돼야만 한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위대함은, 하나님다운 이해심 있는 사랑에 있고, 자신을 높이는 물질적 능력 행하기를 즐기는 것에 있지 않다. 너희가 그토록 완전히 실패했던 그 시도를 했을 때, 너희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너희의 동기는 신성하지 않았다. 너희의 이상은 영적이지 않았다. 너희의 열정은 이타적이지 않았다. 그 과정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너희가 달성하려는 목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었다.

158:6.4 (1758.5)

“그런 것들이 아버지 뜻과 일치할 때를 제외하고는, 확립된 자연 현상의 과정을 너희가 단축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야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능력 없이는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가능성이 보일 때일지라도, 근본적인 셋째 인간 요소, 즉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개인 체험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도 행할 수 없다. 너희는 항상 물질적 징후가 있어야만 천국의 영적 실체들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느냐? 너희는 유별난 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사명의 영 취지를 파악할 수 없느냐? 언제가 돼야, 모든 물질적 징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천국의 더 높고 영적인 실체에 너희가 충실할 것이라고 신뢰받을 수 있겠느냐?”

158:6.5 (1759.1)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덧붙였다: “자 이제는 가서 쉬어라, 날이 새면 마가단으로 돌아가서, 데가볼리 지방의 마을과 도시들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관해 거기서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했던 체험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산에서 너희 형제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 각자에게도 증거 하겠는데, 이 말을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해라:사람의 아들은 이제 증여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간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게 될 때, 너희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엄중하고 최종적인 시험으로 곧 접어들게 될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꼭 기억하라:사람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지겠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158:6.6 (1759.2) 그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물러나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당황했으며;이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한 것들에 대해 어떤 것도 묻기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부활에 뒤따라 일어날 일들만 되새겨 봤다.

7. 베드로의 항의

158:7.1 (1759.3) 이 수요일 아침 일찍,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벳새다_율리아에서 가까운 마가단 공원을 향해 가이사랴_빌립보를 출발했다. 사도들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그래서 그들은 일찍 일어났고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둔감한 알패오 쌍둥이들까지, 예수의 죽음에 관한 말씀 때문에 충격 받았었다.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갔고, 메롬 물가를 조금 못 미쳐서 다마스쿠스 길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서기관들 및 다른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 뒤를 쫓아오고 있음을 알고, 갈릴리를 통과하는 다마스쿠스 길을 이용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와 사도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하여 그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동쪽 요단 길로 내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쫓아오고 있는 비난자들과 인파를 피해서 오직 사도들과 이날을 보내려 했다.

158:7.2 (1759.4) 그들은 갈릴리를 통해 여행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늘 아래 멈췄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난 때였다. 식사를 마치자, 안드레가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형제들이 당신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충분히 믿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떠나 죽으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발 우리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7.3 (1759.5)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대답했다:“형제여,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증여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너희에게 부득이 사실대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계속 고집하며,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권좌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얼마 안 있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 장로, 및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있는 후에 죽음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고 너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우리에게 이 사건들이 갑자기 닥칠 때, 너희가 잘 대처할까 하여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예수 앞으로 뛰쳐나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주님, 우리는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158:7.4 (1760.1)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지만;주님의 인간 본성은 선의의 감동을 주는 이 말에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증여된

삶을 마치기로 결정한 것을 바꾸려는, 미묘한 유혹의 암시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단념시키려는 그 제안을, 심지어 다정하고 충성스런 친구들이 용납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마치, 유혹하는 자, 즉 원수처럼 느껴진다.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때,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원수 편에 있다. 이런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려 한다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방해 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라.”

158:7.5 (1760.2) 그들이 예수의 따끔한 꾸지람으로 처음에 충격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린 후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주님은 덧붙여 말씀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매일의 자기 책임에 충실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그것을 잃겠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은 후에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 죄 많고 위선적인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도 모든 천상의 무리가 참석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너희를 시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앞에서 있는 너희 중에 여럿은,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158:7.6 (1760.3)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면 반드시 걸어야만 할, 고통스럽고 상충되는 그 길에 대해, 열두 사도에게 그렇게 꾸밈없이 설명했다.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위를 보장하는 이 땅에서의 나라를 계속 꿈꾸던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러나 그들의 충성심은 용기를 주는 이 호소로 감동됐고, 그를 버리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홀로 갈등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으며;그들을 인도했다. 그는 그들이 오직 용감하게 따라오기만을 요구했다.

158:7.7 (1760.4) 예수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열두 사도는 서서히 파악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납득할 뿐이었으며, 반면에 부활에 관한 말씀은 그들의 정신 속에

전혀 새겨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은, 변형되신 산에서 겪은 체험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

158:7.8 (1760.5) 열두 사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내내, 이번에 베드로와 그들 모두에게 한 것처럼, 눈을 번쩍이면서 빠른 어투로 꾸지람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몇 번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 결점에는 항상 인내했지만, 이 세상의 남은 생애에서 아버지 뜻을 절대적으로 실행하는 동안, 그 계획표에 반대되는 절박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도들은 정말로 대경실색했으며;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들은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무엇을 견뎌야만 함을, 그리고 이 체험에 주님과 함께 자신들도 동참해야함을, 그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지만, 나중에 일어날 절박한 비극에 대해 미리 암시했던 이때부터 훨씬 시간이 흐른 뒤까지도, 다가올 이 사건의 실상을 자각하지 못했다.

158:7.9 (1761.1)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에 있는 야영지를 향해, 침묵 속에서 가버나움 길을 따라 출발했다.

오후가 됐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와 한 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주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다.

8. 베드로의 집에서

158:8.1 (1761.2) 그들은 황혼 무렵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면서, 저녁 식사를 위해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다윗 세베대가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을 보시며 물었다:“오늘 오후에 너희가 함께 걸어오면서, 너희끼리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진지하게 나눴느냐?”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 여럿이,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자신이 무슨 지위를 가질 것인가;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따위에 관해, 헤르몬 산에서 시작했던 똑같은 토론을 계속했기 때문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날 사도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알고, 베드로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손짓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에 앉히고 말씀했다:“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방향을 바꿔서, 더욱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서 거의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춰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그 자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어린 자를 환영하는 자는 나를 환영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 자는 또한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너희 형제에게 이 선한 진리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짓도록 만들면,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네 손이 좋아하는 것들이나, 네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하늘 나라의 진보에 방해된다면, 소중히 여기는 이 우상들을 포기해라, 이 우상들에 매달리다가 결국 천국 문 밖으로 내쫓긴 너희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삶에서 아끼는 많은 것을 잃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희의 천사들이 하늘의 무리를 항상 대면하기 때문이다.

158:8.2 (1761.3)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배를 타고 마가단 쪽으로 건너갔다.

제159편 데가볼리 여행

159:0.1 (1762.1) 예수와 열두 사도는, 마가단 공원에 도착했을 때, 여자 단체도 포함하여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전도자와 제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데가볼리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여행을 즉시 시작하도록 준비돼 있었다.

159:0.2 (1762.2) 8월 18일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를 불러 모아서, 사도들마다 열두 전도자 가운데 하나와 짝을 짓고, 나머지 전도자들과 함께 열두 집단으로 나뉘어, 데가볼리의 도시와 마을들에 나가 일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여자 단체 및 다른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남아있도록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 전도여행에 4주{週}를 보내기로 했고, 늦어도 9월 16일 금요일까지 마가단으로 모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기간에 그들을 종종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달 중에 이 열두 집단은, 거라사, 가말라, 힙보, 자폰, 가다라, 아빌라, 에드레이, 필라델피아, 헤시본, 디움, 스키토폴리스, 그리고 기타 여러 도시에서 일했다. 이 여행 내내, 치유하는 기적 또는 다른 특별한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1. 용서에 대한 설교

159:1.1 (1762.3) 예수께서는 어느 날 저녁 힝보에서,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용서에 대한 훈계를 가르쳤다. 주님께서 말씀했다:

159:1.2 (1762.4) “어느 마음씨 고운 사람이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남겨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즉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선한 목자라면, 발견할 때까지 그 잃은 양을 두루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마침내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내가 선언하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한다. 그와 같이, 이런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길을 잃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며, 하물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더 그렇다. 너희 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복음에서는,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을 품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를 배워야만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용서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형제가 네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가서 재치와 인내심을 갖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와 그 형제 사이에서만 하도록 하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계속 잘못을 행하면, 그 형제와 네게 친구인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 다시 가되, 그렇게 둘 또는 세 명의 증인이, 네게 죄 범하는 형제에게 네가 자비와 공의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네 증언을 확증할 수 있게 하라. 그가 형제들의 말도 거절하면, 회중{會衆}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도 무방하고, 게다가 그가 모든 형제의 말도 거절하면, 그들로 하여금 현명한 생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하며; 제멋대로인 그 회원을 천국 밖으로 쫓아내라. 너희가 동료의 혼을 심판하겠다고 자처할 수 없고, 죄를 용서하거나, 달리 하늘 무리 감독자들의 특권을 감히 빼앗지도 못하겠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졌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신성한 판결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형제들이 현세적으로 잘 살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제간의 관계를 훈련시킴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에서, 너희가 땅에서 판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그대로 인지{認知}될 것이다. 너희가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더라도, 그 모임의 운영에 관해 규율을 제정할 수는 있는데, 너희 가운데 두 세 사람이 이 일 가운데 어떤 것에든지 의견이 일치되어 내게 요구한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너희가 요청한 것이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항상 참될 것인데, 두 세 신자가 함께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159:1.4 (1763.1) **힉보**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책임을 맡은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질문했다:“주님, 형제가 내게 죄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청지기들에게 회계{會計}할 것을 명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회계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우두머리 고용인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끌려나와서, 왕에게 일 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다. 이때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이 관원은, 어려움이 몰려왔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아이들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명했다. 이 우두머리 청지기는 이 엄중한 판결을 듣고 왕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시간을 더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며 말했다; '주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과실을 범한 이 종과 그 가족을 보자, 불쌍히 여기게 됐다. 왕은 그를 놓아주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고 명했다.

159:1.5 (1763.2) "그러자 이 우두머리 청지기는, 왕에게서 그렇게 자비와 용서를 입은 후에, 자기 일을 보러 나갔고, 자신에게 오직 일백 데나리 밖에 빚지지 않은 부하 청지기 하나를 발견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내게 빚진 것을 모두 갚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하 청지기는, 우두머리 청지기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며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곧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청지기는 부하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값어치할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다른 부하 청지기들이 돼 가는 일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주인이고 지배자인 그 왕에게 나아가 그 상관에 대해 털어놨다. 왕이 우두머리 청지기의 모든 소행을 듣고, 은혜를 모르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이 사람을 자기 앞으로 부르고 말했다: '너는 악하고 무익한 청지기다. 네가 동정을 구할 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하고, 모든 빛을 값없이 탕감해 줬다. 내가 네게 자비를 베풀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부하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했느냐?' 왕은 매우 화가 나서, 은혜를 모르는 우두머리 청지기를 옥졸들에게 내주어, 빛을 모두 값어치할 때까지 가두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더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인간적인 이런 결점으로 인해 형제가 죄 지은 것에 대해 너희가 늘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너희 모두에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천국의 좋은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서 동료들에게 값없이 주도록 해라."

159:1.6 (1764.1) 예수께서는 동료들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부당함을 설명했다. 계속적인 훈계가 있어야만 하고, 응보가 집행돼야만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형제관계의 지혜가 우선돼야 한다. 예수께서는 집단에게 입법권과 재판권을 부여했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집단에게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권한으로 행사돼서는 결코 안 된다. 각 개인에 대해 평결을 내릴 때, 편견 또는 왜곡된 감정 때문에 비뚤어질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런 위험을 제거하고 개인 성향에 따른 불공정성을 없애기에는, 집단으로 판결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예수께서는 항상, 불공정, 보복, 원수 갚기 등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159:1.7 (1762.9) [자비와 관용을 설명하기 위해 일흔_일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라멕이 그의 아들 두발가인의 철제 무기 때문에 영광했던 것에 대해 기록된 성서에서 비롯됐는데, 그는 적들의 무기와 월등히 뛰어난 이 도구를 비교하면서 외쳤다: "만일 가인이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일곱 배로 원수를 갚았다면, 이제 나는 일흔_일곱 배로 원수를 갚으리라."]]

2. 색다른 설교자

159:2.1 (1764.3)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 및 그와 함께 거기서 일하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말라로 올라갔다. 그날 저녁,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후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동료들 만나려고, 우리가 어제 아스다롯에 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이한 적이 없었고, 우리를 따르지도 않았으며;그러므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를 금하지 말라. 천국 복음이 곧 온 세계에서 선포되리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복음을 믿게 될 모든 자가 너희 지시에 복종하리라고, 어떻게 너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우리 가르침이 이미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 한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뻐해라. 요한아, 내 이름으로 큰 일을 한다는 자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결국 돕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은 분명히 나에 대해 속히 악한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야, 이런 종류의 문제라면, 우리에게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는 세대에는, 전적으로 훌륭하지는 않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기한 일을 많이 행하겠으나, 나는 그들을 금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냉수 한 잔을 목마른 자에게 줬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자들이 그런 사랑의 봉사에 대해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159:2.2 (1764.4) 이 설명은 요한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는, 이 경우에는 예수께서 천국의 영적 교훈에 대한 사람의 개인 관계에 대해 언급했던 반면, 다른 경우에는, 결국 전 세계적 형제관계를 앞으로 이룩하게 될 다른 집단들의 업무에 대해, 하나의 신자 무리가 경영상 통제를 하고 판결하는 문제들에 관해, 외적{外的}이고 광범한 사회 관계에 주어졌던 것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159:2.3 (1765.1) 그러나 요한은 그 후에 천국을 위해 애쓰면서 이 체험을 종종 되새기곤 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불쾌한 태도를 취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보지도 못한 자가 감히 그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온당치 못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59:2.4 (1765.2)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요한이 금지시킨 이 사람은, 사도들의 명령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옳은 방향으로 노력했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전에 카나타에서 상당히 많은 신자를 모았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덴이었는데, 예수께서 케레사 근처에서 치유했던 미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며, 주님이 그에게서 쫓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벼랑으로 몰아 떨어져 죽게 했다는 것을 매우 확고하게 믿었다.**

3. 선생과 신자를 위한 설명

159:3.1 (1765.3) **예수께서는, 도마와 동역자들이 일하던 에드레이에서 하루 낮과 밤을 보냈으며, 저녁에 가진 토론 과정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지표가 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게 될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의 표현으로 요약해서 다시 기술하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다:**

159:3.2 (1765.4) **사람의 인격을 항상 존중하라. 정의는 결코 무력으로 증진되지 않으며; 영적 승리는 오직 영적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물질적 영향을 배제하라는 이**

명령은, 심령의 힘뿐 아니라 육체의 힘에도 관련된다. 남자나 여자를 강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압도하는 논쟁과 정신적 우월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정신을 다만 논리적 무게로 압도하거나, 날카로운 웅변술로 위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사 결정에서 한 요소로 감정이 전혀 무시될 수 없으나, 천국 운동을 촉진시킬 자들을 가르칠 때, 감정에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람의 정신에 내주하는 신성한 영에게 직접 호소하라. 두려움, 연민, 또는 단순한 감상에 호소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호소할 때, 공정하며;자제력을 발휘하고 적당한 억제력을 보이며;학생들의 인격을 진실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라:“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다.”

159:3.3 (1765.5)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들의 자존감을 업신여기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과도한 자존감은 예의 바른 겸손을 보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결국 교만, 자만, 및 거만에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자존감의 손실은 흔히 의지가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존감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 너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잘못만 지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며;그들의 삶에 있는 가장 칭찬할만한 것들을 후하게 인정하는 것도 잊지 말라. 자존감을 잃었던 자들과 정말로 다시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기를 내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159:3.4 (1765.6)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혼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순진한 내 형제들을 희생시키면서 빈정거리는 일에 탐닉하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에 시달리는 내 자녀들에게 냉소적 태도를 갖지 말라. 나태함은 자존감에 해로우며;그러므로 너희 형제가 선택한 과제에 계속 정진하도록 권고하고, 직업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159:3.5 (1766.1) 사람들을 위협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무익한 술책을 쓰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라.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들을 위협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케 하지 않는다.

159:3.6 (1766.2) 천국의 자녀는, 감정에 속하는 강한 느낌이 신성한 영의 인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가고자 하는, 강렬하면서도 이상야릇하게 받는 감동이, 내주하는 영의 인도에 수반되는 그런 충동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159:3.7 (1766.3) 육신 속에서 사는 인생으로부터, 영 속에서 사는 더 고귀한 인생으로 옮겨간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만 하는, 부수적 갈등에 관해 모든 믿는 자에게 미리 경고한다. 어느 쪽 세계든지 매우 완전하게 살았던 자에게는 갈등이나 혼돈이 거의 없으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수준의 삶으로 옮겨가는 동안, 다소간 차이는 있어도 모두 불확실성을 체험하게 돼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책무를 피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기억하라:복음의 멍에는 쉽고 진리의 짐은 가볍다.

159:3.8 (1766.4) 세상에는 생명의 빵을 바로 앞에 놓고도 굶주려서 배고픈 혼들로 가득하며;자기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은 살아 있는 신앙을 곧 소유하게 될 시점에, 마음으로는 간절하지만 발은 싫증난 채로 천국 보물을 찾으려고 한다.

신앙과 종교의 관계는, 뜻과 배의 관계와 같으며;신앙은 능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인생에 얹혀있는 짐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싸움이 있는데, 신앙을 갖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의심--곧 믿지 않음--과 싸우는 전쟁이다.

159:3.9 (1766.5)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친목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교는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인데, 어떤 것이 그들의 특유한 열망과 이상을 가장 참되게 만족시켜 주는지를, 남녀 모두가 그 안에서 찾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그들의 과오를 오래 참는다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내가 죄에 대해 냉혹하고, 죄악을 참지 못한다는 것도 말해라.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정말로 유순하고 겸손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죄로 가득한 반역과 고의적 악행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잔인할 만큼 냉혹하기도 하다.

159:3.10 (1766.6) 너희 선생을 묘사할 때, 너희는 비탄에 잠긴 남자로 그리지 마라. 장차 올 세대들은 우리의 기쁨으로

인한 광채, 우리의 선한 의지로 인한 낙천적 기질, 그리고 우리의 선한 유머로 인한 영감{靈感}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소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쉽게 전달된다. 우리 종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로 약동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기쁨으로 가득차고, 그 마음 속에는 즐거움이 반드시 항상 있게 된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누구나, 점증하는 행복을 반드시 체험한다.

159:3.11 (1766.7) 거짓 동정심이라는 불안정한 기둥에 기대지 않도록 모든 믿는 자를 가르쳐라. 너희가 자기_연민에 빠져있을 때에는 강한 성품을 개발할 수 없으며; 불쌍한 처지를 단순히 함께 슬퍼하는 거짓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직하게 애써라. 인생의 시련 앞에 마지못해 서 있는 소심한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감하고 담력 있는 자들에게 연민의 정을 베풀어라. 재난이 닥쳐왔는데도, 투쟁하기보다는 그저 안일하게 누워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제공하지 말라. 단지 보답으로 네가 동조를 받을까 기대하여 동료에게 동조하지는 말아라.

159:3.12 (1766.8)

내 자녀들이 신성한 현존을 확신하는 자아_의식에 일단 도달하면, 그런 신앙은 정신을 확장시키고, 혼을 고상하게 하며, 인간성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증대시키며, 영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고, 사랑하는 능력과 사랑 받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159:3.13 (1767.1)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상의 사고나 자연적인 일반 재앙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라. 복음을 믿음은,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는 않겠지만, 재난이 너희를 덮칠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용기를 갖고 나를 믿고자 하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함으로써 틀림없이 안전한 통로로 고생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불운의 강물에서 너희를 건져 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그 모든 과정에 너희와 함께 갈 것을 약속한다.

159:3.14 (1767.2)

그리고 이 신자들 집단이 잠잘 준비를 하기까지, 예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것을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했으며, 이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종종 되풀이하곤 했다.

4. 나다니엘과 나눈 대화

159:4.1 (1767.3)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나다니엘과 그 동역자들이
수고하는 아빌라로 갔다. 나다니엘은, 공인된 히브리
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듯 보이는 예수의 어떤
발언들로 인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날 밤,
통상적인 질문과 대답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나다니엘은
예수를 아무도 없는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서
질문했다: “주님, 제가 성서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시되는 기록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든 가장 훌륭한-- 일부분만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봐 왔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이전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취지에서, 랍비들의 교훈을
거부하신다고 추측합니다. 성서에 관하여 무엇이
진리입니까?” 당황하고 있는 사도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159:4.2 (1767.4)

“나다니엘아, 네가 옳게 판단했으며;나는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성서를 대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아직 온전히 갖추지지 않은 네 형제들에게, 네가 이것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성서의 교훈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다. 다만 최근에 성서가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됐다. 그것들이 유대인 민족의 높은 사고{思考}와 가장 훌륭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과 교훈을 대표할 수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그러므로 나는 더 나은 교훈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위해 이삭 줍듯이 진리를 골라낼 수밖에 없다.

159:4.3 (1767.5)

“이 여러 기록은 사람들의 작품인데, 그들 가운데 더러는 거룩한 사람이었고, 또 더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다. 이 책들의 교훈은, 그것이 기원된 그 시대에 깨우친 견해와 범위를 나타낸다. 진리의 계시로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신뢰할 만하다. 성서가 불완전하고 모두 인간에게서 기원되기는 했지만, 실수하지 마라, 그것은 오늘날 온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종교적 지혜와 영적 진리 중에서 최고의 수집품이다.

159:4.4 (1767.6) 이 책들 가운데 다수는 그것이 지닌 이름의 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의 가치는 결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에 관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심지어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었다고 해도, 이 이야기에는 여전히 심오한 진리가 있고, 그것은 소위 이방이라고 불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동료를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성시되며, 그들은 이 작품들에서, 정의, 진리, 및 신성함 등에 대한 가장 높은 개념을 기록으로 남겼다. 성서는 참된 것을 많이 포함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비춰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많은 부분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네가 알 것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내가 왔다.

159:4.5 (1768.1) “나다니엘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그들의 적을--곧 남녀 어른과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한 순간도 결코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기록은 사람의 말, 그다지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서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상태를 늘 반영해 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사무엘부터 이사야까지 선지자들이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 야훼 개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 발전해 간 것을, 너는 눈치채지 못했느냐? 그리고 너는, 성서가 종교적 지침과 영적 안내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라. 성서는 역사가나 철학자의 작품이 아니다.

159:4.6 (1768.2) “가장 통탄할 일은, 단지 성서 기록이 절대로 완전하다는 생각과, 그 교훈이 무오{無誤}하다는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통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시되는 작품들을 혼동해서 잘못 해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더 새로운 이 교훈에 저항하기 위해, 성서가 영감{靈感}된 것이라는 교리, 그리고 고집스럽게 노력해서 만든 해석상 오류, 이 둘을 다 채택하려고 한다. 나다니엘아,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계시를 어느 한 세대 또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많은 사람이, 성서가 완전하다는 이 교리로 인해 혼동되고 낙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159:4.7 (1768.3) “진리의 권위는, 진리가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들 속에 깃들어있는 바로 그 기질이며, 덜 교화되고 영감 받았다고 짐작되는 다른 세대 사람들의 죽은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영으로_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의 *말*도 비슷하게 영적으로 영감 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교훈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는 내가 떠난 후, 내 교훈에 대한 너희의 다양한 해석의 결과로 인해, 가지각색의 진리 논쟁자 분파로 속히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록 만들기를 피하면서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159:4.8 (1768.4) “나다니엘아, 내 말을 잘 기억해라, 인간 본성이 관여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오{無誤}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사람의 정신을 통해서 신성한 진리가 참으로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상대적으로 순전할 뿐이며, 부분적인 신성{神性}이 있을 뿐이다. 피조물은 완전무결함을 갈망하지만, 오직 창조주들만 완전무결한 속성을 지닌다.

159:4.9 (1768.5) "그러나 성서를 가르칠 때 가장 큰 잘못은, 오직 그 민족의 현명한 정신을 가진 자들만 감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신비의 책이라고 봉해 버리는 교리에 있다. 신성한 진리의 계시는, 인간의 무지, 완고함, 그리고 좁은_마음의 불관용으로만 막힐 수 있다. 성서가 발하는 빛은 오직 선입관으로 약해지며, 미신적 관습으로 인해 어두워질 뿐이다. 신성시되는 것을 헛되이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가 상식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과거의 신성시되는 기록의 권위에 대해 가졌던 두려움 때문에, 오늘날 정직한 사람들이, 복음의 새로운 빛, 즉 하나님을 알던 다른 세대의 사람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던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159:4.10 (1769.1)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슬픈 점은, 이 전통주의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일부가, 이것을 진정한 진리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성서의 제한성을 다소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비겁하고, 지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신성시되는 문서들에 관해 진상을 알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혼란스런 사실을 계속 감추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 지혜, 종교적 영감, 그리고 하나님을_아는

다른 세대 사람들의 영적 가르침의 보고{寶庫}로서 신성시되는 문서를 대하기보다, 일상생활의 행동지침뿐 아니라 영적이지 못한 것들의 권위에 노예처럼 순응하도록 유도하려고 성서를 악용하고 왜곡한다.”

159:4.11 (1769.2) 나다니엘은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교화{敎化}됐고 충격 받았다. 그는 이 대화를 혼 깊숙이 오래 숙고했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까지 이 회담에 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그 후에도 주님이 설명한 전체 줄거리를 전하기를 두려워했다.

5. 예수의 종교의 적극적 본성

159:5.1 (1769.3) 예수께서는 야고보가 사역하는 필라델피아에서, 천국 복음의 적극적 본성에 관해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성서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진리를 더 많이 담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가장 좋은 영적 음식으로 혼을 먹이라고 청중에게 훈계했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야고보가 끼어들어 질문했다:“주님, 우리 개인의 수양을 위하여 성서에서 좀 더 적당한 구절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좋다. 야고보야, 네가 성서를 읽을 때, 영원히
참되고 신성하게 아름다운 이런 교훈을 찾아봐라:

159:5.2 (1769.4) “오, 주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159:5.3 (1769.5) “주는 내 목자시니;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9:5.4 (1769.6) “너 자신을 사랑함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159:5.5 (1769.7)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 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내가 너를 도우리라.

159:5.6 (1769.8) “민족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159:5.7 (1769.9)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추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또는 천국의 새로운 복음을 가르칠 때 삽입하기 위해,
날마다 히브리 성서에서 정선된 것을 인용한
실례{實例}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암시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에 비유했으며, 이
가르침을 자기 종교의 주춧돌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신조가, 사람이 형제관계를
필연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림과

사람에게 봉사함이 그의 종교의 전부이며 실질적 내용이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취하여, 천국 복음의 새로운 교훈에서 쓸 만한 배경으로 바꿔놓았다.

159:5.8 (1769.10)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수동적 교리 속에 적극적 행동 기질을 불어넣었다. 예식의 요구사항을 소극적으로 추종하는 대신, 예수께서는 새 종교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새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 행하도록 명했다. 예수의 종교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데* 있다. 그의 종교의 근본이 사회에 대한 봉사에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사회 봉사는 참된 종교의 기질을 소유함으로써 나타나는 한 가지 확실한 결과라고 가르쳤다.

159:5.9 (1770.1) 예수께서는 더 나은 절반가량의 성서를 서슴지 않고 인용한 반면,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은 거부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위대한 권유는, “너희는 네 민족의 자녀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성서의 기록에서 취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거부했다. 예수께서는, 부정적이거나 순전히 소극적인 무저항은 더욱 반대했다. 그는:“원수가 네 한 쪽 뺨을 칠 때, 소극적으로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적극적인 태도로 다른 뺨을 돌려 대라;다시 말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네 형제를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적극 행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삶의 모든 경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뺨을 돌려대든지, 또는 상징될만한 어떤 행동이든지, 숭선하는 것이 요청되며, 믿는 자의 인간성에 어울리도록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159:5.10 (1770.2) 예수께서는, 악{惡}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는 모욕에 소극적으로 굴복하도록 권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종자들이 선{善}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이기게 될 때까지, 악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되, 현명하고 기민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가장 고약한 악보다 진실한 선함이 반드시 더 강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주님은 의{義}의 적극적 표준을 가르쳤다:“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기 위해 매일 주어지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라.”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그는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복음의 이 관점은, 나중에 추종자들에게 말씀한 많은 비유에 그 예가 잘 나타났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참으면서 자기 책무를 감당하라고 훈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적 책임과 신성한 특권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책무를 감당하라고 가르쳤다.

159:5.11 (1770.3)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겹옷을 부당하게 벗겨 가거든 다른 옷도 벗어주라고 가르쳤을 때, 문자적으로 두 번째 겹옷을 의미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 “눈에는 눈으로” 등의-- 보복하라는 옛 충고 대신, 가해자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라는 뜻이었다. 예수께서는 보복하려는 생각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난자 또는 불법의 희생자가 되려는 생각을 아주 싫어했다.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악에 대해 저항하고 싸우는 세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가르쳤다:

159:5.12 (1770.4)

1. 악을 악으로 갚음--적극적이지만 불의{不義}한 방법.

159:5.13 (1770.5)

2. 불평이나 저항 없이 악을 견뎌--순전히 소극적인 방법.

159:5.14 (1770.6)

3. 악을 선으로 갚음, 그 상황의 주인이 되도록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선으로 악을 정복함--적극적이고 의로운 방법.

159:5.15 (1770.7)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질문한 적이 있었다:“주님,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짐을 일 마일이나 지고 가도록 내게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그 낯선 이를 혼잣말로 꾸짖으면서, 기분전환하려고 앉아서 한숨을 쉬지 않도록 하라. 그런 소극적 태도로는 이를 이룰 수 없다.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 효과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없거든, 적어도 네가 그 짐을 지고 다음 일 마일을 더 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불의하고 사악한 그 낯선 이에게 확실한 도전이 될 것이다.”

159:5.16 (1770.8)

유대인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으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죄인들을 찾는데
솔선하며,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종교에서 이런
적극적 내용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에도 적용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인간이 공정해야한다는
적극적 훈계로 바꿨다.

159:5.17 (1771.1) 모든 가르침에서, 예수께서는 산만하게 만드는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피했다. 예수께서는 화려한 언어를
멀리했고, 단순히 시적{詩的}인 표현으로 말장난하기를
피했다. 그는 작은 표현 속에 큰 의미를 습관적으로
부여했다. 예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소금,
누룩, 고기잡이, 어린아이 등과 같은 많은 단어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를 뒤집어서 사용했다. 순간을 영원과
대비시킨 것 외에도, 많은 경우에 대조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한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묘사하는 방법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를 들어 가르친 것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설득력은, 자연스러움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종교 철학을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가져왔다. 그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 증여된 애정을 갖고,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묘사했다.

6. 마가단으로 돌아감

^{159:6.1 (1771.2)} 데가볼리에서 4주 동안의 전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왔고, 사도와 전도자들은, 예수께서 친히 함께 계심으로 격려받지 않고서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체험을 했다.

^{159:6.2 (1771.3)} 9월 16일 금요일에, 전체 사역자 단체가, 미리 지시됐던 대로 마가단 공원에 모두 모였다. 안식일이 되자, 천국 업무를 확장시키기 위한 장차의 계획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신자 협의회가 소집됐다. 다윗의 심부름꾼들이 와서, 유대지방,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퍼져 있는 신자들이 잘 지내는지에 대해 보고했다.

^{159:6.3 (1771.4)} 이때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서, 그 심부름꾼 단체의 굉장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심부름꾼들은 팔레스틴 전역의 신자를 서로 연결시키고, 예수와 사도들과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울한 기간에 자금을 모으는 역할도 담당했는데, 이 돈은 예수와 동역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의 가족과 열두 전도자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다.

159:6.4 (1771.5) 이 무렵에, 아브넬은 활동 근거지를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겼으며, 새로 옮긴 장소는 또한 다윗의 심부름꾼들의 유대지방 본부였다. 다윗은 예루살렘과 벳새다 사이에 교대식 연락 용역을 밤새 유지했다. 이들은 매일 저녁 예루살렘에서 달려나갔으며, 사이카와 스키토폴리스에서 교대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벳새다에 도착하곤 했다.

159:6.5 (1771.6) 예수와 동역자들은, 이제 천국을 위한 사역의 마지막 기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전에, 한 주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휴식이 됐는데, 베뢰아 전도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운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며, 이 운동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들을 연출할 때까지 곧바로 이어졌다.

제160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

160:0.1 (1772.1) 9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안드레는 앞으로 한 주 동안 아무런 업무도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다니엘과 도마를 제외한 모든 사도는, 가족을 만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이 한 주 동안 거의 완전한 휴식을 취했지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단이라는 어떤 그리스 철학자와 토론하느라 매우 바빴다. 이 그리스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넬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근에 예수의 제자가 됐다. 로단은 이때, 자신의 인생 철학과 예수의 새로운 종교 교훈을 조화시키는 과제에 진지하게 매달렸고, 이 문제에 대해 주님과 대화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가단에 왔다. 또한 그는, 예수 또는 사도 가운데 하나로부터 권위 있는 복음 해설을 직접 듣고 확인하려 했다. 주님께서서는 로단과 그런 협의를 시작하기를 사양했음에도, 그를 정중히 맞아들이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듣고 나서, 그 대답으로 복음에 대해 그에게 설명해 주라고 즉시 지시했다.

1. 로단의 그리스 철학

160:1.1 (1772.2) 월요일 이른 아침에 로단은, 나다니엘, 도마, 그리고 마침 마가단에 있던 스물네 명가량의 신자 무리에게 열 번의 연속된 강연을 했다. 이 말을 압축해서 종합하고 현대의 문체로 다시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사상을 고찰할 수 있다:

160:1.2 (1772.3) 사람의 삶에는 --충동, 욕망, 및 매혹이라는-- 세 가지 큰 본능적 욕구가 있다. 강한 성품, 즉 위풍당당한 인간성은, 생명의 자연스런 충동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술로 전환시킴으로써만, 즉 현재의 욕망을 변형시켜서 영구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열망에 이르도록 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실존의 평범한 매혹은, 사람의 진부하고 만성적인 관념으로부터, 탐구되지 않은 관념과 발견되지 않은 이상{理想}이라는 더 높은 영역으로 전환돼야만 한다.

160:1.3 (1772.4) 문명이 복잡해질수록, 살아가는 기술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사회관습의 변화가 빨라질수록, 성품을 계발하는 과제도 더 복잡해질 것이다. 진보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매 열 세대마다 다시

배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영리해져서 사회의 복잡성을 더 조속히 가중시킨다면, 살아가는 기술을 다시 습득해야 하는 기간은 더 짧아져서, 매 세대마다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기술이 실존의 기법과 보조를 맞춰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인성{人性}은 다시 단순한 삶의 충동으로--곧 현재의 욕망을 만족시킴으로-- 조속히 돌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인성은 미성숙 상태에 머물 것이며;사회는 온전히 성숙하기까지 자라지 못할 것이다.

160:1.4 (1773.1) 사회는, 사람이 단순히 일시적이고 당면한 욕망의 충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더 뛰어난 열망을 품는 정도까지 성숙해지며, 그런 열망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영원한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얻는 더 풍성한 만족을 산출한다. 그러나 사회가 성숙했다는 진정한 증표{證票}는, 확립된 믿음과 전통적인 관념이 지닌 매력의 안일함을_장려하는 기준 아래서, 한 민족이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기꺼이 버리고, 아직 찾지 못한 이상적인 영적 실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매혹,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가능성을 추구할 때

불안하게 만들고 에너지를_소모하게 하는 그 매혹을 택하는 것이다.

160:1.5 (1773.2) 동물도 생명의 충동에 훌륭히 반응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살아가는 기술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럴지라도 대부분의 인류는 겨우 살고자 하는 동물적 충동 밖에 체험하지 못한다. 동물은 다만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충동만 알뿐이며;사람은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이 충동을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은 지성적 예술의 높은 경지, 심지어 초월적 기쁨과 영적 황홀경의 경지에서 살고자 선택하기도 한다. 동물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못하며;따라서 그들에게는 걱정이라는 것이 없고, 자살하지도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순전히 동물적인 실존 단계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필사자 체험에서 예술적 수준을 달성코자 하는 그런 인간의 탐구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동물은 삶의 의미를 모르지만;사람은 의미를 납득하고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미도 의식한다--통찰력을 가졌음을 스스로_의식한다.

160:1.6 (1773.3) 사람들이 자연스런 욕구에 따라 사는 인생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위험이 많은 기술과 불확실한 논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지적 및 감정적 성숙을 달성할 때까지, 감정적인 불상사--곤 갈등, 불행, 및 불확실성--의 결과로 일어나는 위험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만 한다. 낙심, 염려, 나태함 등은 도덕적으로 미성숙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인간 사회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는데: 각 개인의 성숙을 달성하는 문제와, 종족의 성숙을 달성하는 문제다. 성숙된 인간은, 모든 다른 필사자를 대할 때, 곧 부드러운 느낌과 너그러운 감정을 갖기 시작한다. 성숙된 사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그 사랑과 동정심으로, 아직 미성숙한 세상 사람을 바라본다.

160:1.7 (1773.4) 성공적인 삶이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기법을 통달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려움을 알아내고, 그 문제를 분리시키며, 본질과 위험성을 명백히 아는 것이다. 중대한 실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뿌리 깊은 두려움을 자극할 때,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자부심을 축소시키거나, 질투심을 용납하거나, 또는 깊숙이 위치한 편견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때, 보통 사람은 안전에 대한 옛 환상과 오랫동안 간직해 온 보안에 대한 잘못된 감정에 매달리기를 더 좋아한다. 진지하고 논리적인 정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솔직하게 용납하고 두려움 없이 대처한다.

160:1.8 (1773.5) 어떤 문제를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도록 드러나는 문제를 구성하는 실제 요소들을 공정하게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는, 편견, 열중, 그리고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다른 선입견에든지 정신이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용기와 성실성이 필요하다. 오직 정직하고 용감한 개인만이, 당황하게 하고 혼돈을 일으키는 삶의 미로를 용감하게 통과하면서, 두려움 없는 정신적 논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과 혼의 이런 해방은, 종교적 열의에 가까운 지성적 의욕이라는 추진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어려운 물질적 문제들로 둘러싸이고 많은 지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사람을 몰아붙이는 데는, 매력 있는 훌륭한 이상{理想}이 요구된다.

160:1.9 (1774.1)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무장됐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난 지지와 동료의 협동을 쟁취하게 하는, 정신적 지혜와 인격적 매력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성공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동료를 어떻게 설득하고, 사람을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는지 배우지 못한다면, 세속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아무 일에도 크게 성공할 희망은 없다. 여러분은 다만 재치와 아량을 가져야만 한다.

160:1.10 (1774.2)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로부터 가장 훌륭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웠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께서 늘 행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엄중하게 가르치셨던 것인데, 경건한 묵상을 위해 격리되는 것이다. 자주 혼자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류하신, 예수의 이런 습관에서 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상적 삶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질에 속하는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확하더라도, 인간성의 타고난 결함을 보충하지는 않으며, 참된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의 부재{不在}를 보상하지도 않는다.

160:1.11 (1774.3) 삶의 문제를 홀로 살펴보는 이 기간에 몰두하기 위해;사회적 봉사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에너지를 새롭게 비축하기 위해;신성{神性}과의 접촉을 의식하도록, 전{全} 인격체를 실제로 복종시킴으로써, 인생 최고의 목적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살아있는 실존의 항상_변화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소유하려고 매달리기 위해;보람되고 실제적인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을 강화하기에 필수적인, 사람의 인간적 자세에 대한 생생한 재조정과 재조성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곧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여러분의 주님께서 즐겨 하시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기 위해-- 홀로 떨어져 있는 예수의 습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160:1.12 (1774.4) 여러분의 주님의 이런 경건한 습관은, 정신이 새로워지도록 긴장을 풀어주며; 혼이 고무되도록 빛을 비추며; 자신의 문제에 과감히 대처하도록 용기를 주며; 쇠약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자기_이해를 가져오며; 사람이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장시켜 주는, 신성{神性}과 합동함을 의식하게 한다. 경배의 긴장 완화 또는 주님이 하신 것 같은 영적 친교는 긴장감을 해소시키며, 갈등을 없애고, 인격체의 전체 자원을 대단히 증대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철학과 천국 복음을 합치면, 내가 이해하기로는, 새로운 종교가 된다.

160:1.13 (1774.5) 선입견은 혼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동료들 온전히_받아들이고 전부_포함하는 대의명분을 동경하기에 혼을 진지하게 바침으로써만 선입견이 제거될 수 있다. 선입견은 이기주의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돼 있다. 오직 자기_본위를 버림으로써만, 그리고 자아보다 클 뿐 아니라 온 인류보다 훨씬 큰 대의명분에 봉사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곧 하나님을 찾기, 즉 신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대치함으로써만 선입견을 없앨 수 있다. 인격체가 성숙했다는 증거는,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하게 참된 그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추구하도록, 인간의 욕구를 전환시키는 데 있다.

160:1.14 (1774.6)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 질서가 한창 진화하는 중에, 확립되고 고정된 운명의 목표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무한히 달성하는 영원한 목적지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환영했던 사람들만, 인격체의 안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적지를 일시적 시간에서 영원성으로,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옮기는 데는, 그의 개심{改心}, 전환, 다시 태어남이 요구되며;신성한 영의 자녀로 다시_창조돼야만 하며;하늘 나라의 형제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런 이상이 부족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여러분이 전파하는 복음과 연결되며, 장차 올 모든 세대의 이상{理想}인, 성숙된 새로운 종교의 표본이다. 이런 설명이 참된 것은, 우리의 이상이 궁극적이고 결코 잘못이 없고, 영원하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무한하기 때문이다.

160:1.15 (1775.1) 내 철학은, 참으로 달성할 실체, 즉 성숙의 목적지를 찾도록 나를 재촉했다. 그러나 내 충동은 힘이 없었으며;내 탐구는 추진력이 부족했으며;내 추구는 방향 설정에 확실성이 없음으로 인해 상처 입었다. 그리고 예수의 새로운 복음이, 통찰력을 향상하고, 이상을 높이고, 목표를 확립함과 함께, 이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줬다. 나는 이제 의심이나 불안함 없이 전심으로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다.

2. 살아가는 기술

160:2.1 (1775.2) 필사자들이 함께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하나는 물질적 방법, 즉 동물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방법, 즉 인간다운 방법이다. 동물도 제한된 한도 내에서 어떤 신호나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대화 형태는, 의미나 가치 또는 관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한 가지 차이점은, 사람만이, 의미, 가치, 관념, 그리고 심지어 이상{理想}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상징을 수단으로 해서 동료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0:2.2 (1775.3) 동물은 서로 관념을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인격체를 발전시킬 수 없다. 사람은 관념뿐 아니라 이상을
동료들과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체를
발전시킨다.

160:2.3 (1775.4)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적
연합을 통해서 문명을 이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미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이 역량이다. 지식과 지혜는
누적될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의 역량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족의
문화 활동, 즉:예술, 과학, 종교, 및 철학이 발생한다.

160:2.4 (1775.5) 상징을 통한 인간 사이의 소통이, 사회 집단들이
생겨나도록 예정이다. 모든 사회 집단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가족인데, 그 중에도 특히 *부모*다. 개인적인
애정이, 이 물질적 연합을 함께 묶어주는 영적 결합력이다.
그런 효과적 관계는, 참된 우정으로 인한 헌신에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되듯이, 동성{同性}의 두 사람 사이에서도
가능하다.

160:2.5 (1775.6) 우정과 상호간 애정으로 이뤄지는 이런 교제는,
살아가는 기술을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조장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사회화
돼가고 고상하게 돼간다:

160:2.6 (1775.7) 1. *상호적인 자기_표현과 자기_이해*. 인간의 많은
훌륭한 추진력이, 그들의 표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 버린다. 정말로, 혼자 있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다소 존중받는 것이 인간 성품
개발에 필수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성품 계발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성품은 단순한 정신과 도덕 이상{以上}의 무엇이다.
성품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 관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리한 결혼생활을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는, 애정
깊고 이해심 있는 친구관계다. 여러 관계를 동반하는
결혼은, 강한 성품 계발에 불가결한, 더 높은 동기와 귀중한
추진력을 가져오도록 가장 잘 설계돼 있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찬미하는데, 여러분의
주님께서, 새로운 이 천국 복음의 바로 그 주춧돌로서
아버지_자녀의 관계를 현명하게 채택하셨기 때문이다.
시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상{理想}을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남자와 여자, 무엇에도 비길 데 없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는, 너무 가치 있고 체험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 어떤 희생, 또는 어떤 대가{代價}도 지불해야 한다.

160:2.7 (1776.1) 2. *혼들의 합동--지혜를 동원함.* 이 세상 개념과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떤 예견을, 인간마다 조만간 획득한다. 이제는 일시적 실존의 이런 관점과 영원한 전망을 결합하는 것이, 인격체 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통찰력을 많이 얻음으로써 영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각각의 영적 재산을 모음으로써 혼을 풍성케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견의 왜곡, 관점의 선입견, 및 판단의 편협성에 피해자가 되는, 항상_존재하는 그 경향을 피할 수 있다. 두려움, 질투, 자만은, 다른 지성인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다. 나는, 주님께서 천국의 확장을 위한 일에 여러분을 내보내실 때 절대로 혼자 가지 않도록 하신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며;그는 항상 여러분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리고 지혜는 초월지식이므로, 사회 집단이 작든지 크든지, 지혜와 합동하여, 모든 지식을 서로 나누게 된다.

3. *살고자 하는 열의*. 고립은 혼에 채워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과 연합하는 것은, 인생의 열정을 새롭게 하기에 꼭 필요하며, 인간의 삶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때 따라오는 투쟁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유지하기에 필수적이다. 우정은 기쁨을 향상시키고 인생의 승리를 영화롭게 한다. 인간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교제가, 인생의 쓰라린 체험의 슬픔과 학대로 인한 고통을 없애주는 경향이 있다. 친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모든 아름다움은 더 심화되고, 모든 선은 더 고상하게 된다. 사람은 지능적 상징으로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는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 인간의 우정에서 최고 영광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상상력을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다. 엄청난 영적 능력이, 공통되는 대의명분에 전심으로 헌신함, 즉 시공우주 신격에게 공동으로 충성함을 의식{意識}하는 데 내재한다.

4.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강화된 방어*. 인격체 연합과 상호 애정이, 악에 대항하는 효과적 대비책이다. 어려움, 슬픔, 실망, 및 패배를 혼자 견딜 때에는 더 고통스럽고 낙담 된다. 연합 자체가 악을 의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괴로움을 크게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위로할 친구가 옆에 있다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살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고립될 때 괴로워한다. 인간은 시간의 덧없는 흐름을 관찰할 수밖에 없을 때 반드시 낙담하게 돼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분리될 때, 짜증날 정도로 하찮게 된다. 사람은 영원성 궤도를 어렵듯이 감지하기만 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고무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에 전력을 다하도록 도전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 즉 시간과 영원성에 머무는 동료의 유익을 위해 가장 사심 없이 산다.

160:2.10 (1777.1) 다시 말하지만, 영감을 주고 고상하게 하는 그런 연합은, 인간의 결혼 관계에서 이상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정말로, 많은 것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결혼 생활에서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 매우 많은 부부가 완전히 실패한다. 사람들이, 인간의 성숙을 가져오는 이런 뛰어난 부속물보다, 다른 낮은

가치들을 찾으려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상적 결혼은 오르내리는 감정과 변하기 쉬운 성욕{性慾}보다는, 더 안정된 어떤 것 위에 세워져야만 하며;진실하고 상호적인 개인 헌신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런 신뢰할만하고 효과적인 인간 연합체의 작은 단위들을 여러분이 조성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룰 때, 세상은 장엄하고 영화로운 사회 구조, 즉 인간의 성숙된 문명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은,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뜻”이라는 여러분의 주님이 가진 이상{理想}을,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사회가 완전하거나 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숙으로 인한 안정에 도달할 것이다.

3. 성숙으로 이끄는 매력

160:3.1 (1777.2) 성숙을 향한 노력에는 노동이 필요하고, 노동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것들이 당연히 생각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했다. 정상적인 육체와 상당히 좋은 건강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또한 사람의 잠자는 영적 힘을 깨우도록 자극할, 그런

매력을 찾아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살아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는데;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해서, 혼에 묶여 있는 신성과 무한한 능력을 풀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혼이 외향적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수 없이 많은 다른 혼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고, 축복할 목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있겠는가? 너희의 혼 속에 동면하고 있는 선을 향한 이 잠재능력을, 내가 어떻게 깨우면 최선책이 되겠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감정적 흥분은 영을 자극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흥분은 에너지를 증대시키지 못하며;오히려 정신은 물론 육체의 능력을 소모시킨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언덕에 올라가서 능력을 취하고 계신다. 이 모든 문제의 비밀은, 영적 교류, 즉 경배 속에 감춰져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연합된 묵상과 긴장이완이다. 묵상은 정신과 영이 만나도록 하며;긴장이완은 영적 감수성의 수용력을 결정한다. 약함

대신 힘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자기중심적 정신 대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경배의 구성요소다. 적어도 그것이 철학자가 바라보는 방법이다.

160:3.2 (1777.3) 이 체험이 자주 반복되면, 습관, 즉 힘을 주는 경건한 습관으로 굳어지며, 그런 습관은 결국 그에게 영적 성품을 조성하며, 그런 성품은 동료들로부터 *성숙한 인간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훈련은 처음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곧 편안해지고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문명의 매력이 배가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개인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도록 고안된, 그런 보호하는 습관적 관례를 형성할 필요성이 더 다급해질 것이다.

160:3.3 (1778.1) 성숙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사회 집단들이 협동해서 적응하는 것이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동료에 대해 적대감을 키우며; 성숙된 사람은 동역자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협동을 함으로써, 일생의 노력에 대한 여러 배의 결실을 얻는다.

160:3.4 (1778.2) 나의 철학은, 나의 정의 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싸워야만 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보다 성숙된 유형의 인간성으로, 재치와 아량이라는 탁월하고 매력 있는 기법으로, 쉽고 은혜롭게 똑같은 승리를 얻으시리라는 점을 내가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울 때, 너무 많은 경우에, 승리자와 패배자 둘 다 좌절을 체험한다. 나는 주님이 바로 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잠긴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때, 현명한 자는 문을 부수기보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확신하려고 싸움에 말려드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160:3.5 (1778.3) 이 새로운 천국 복음은, 더 고귀한 삶을 위해 새롭고 더 풍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살아가는 기술에 크게 기여한다. 그것은 새롭고 고귀한 운명의 목적지, 즉 지고한 삶의 목적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존의 영원하고 신성한 목적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개념은, 원래 초월적 자극인데, 사람의 더 높은 본성에 자리 잡은 최선의 반응을 야기한다. 지적 사고가 정점{頂点}에 이를 때마다, 정신을 위한 휴양, 혼을 위한 힘, 그리고 영을 위한 교류가

있다. 고귀한 삶의 그런 유리한 지점으로부터,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생각--곧 염려, 질투, 시기, 원한,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인격체의 자존심--으로 인한 물질적 염증을 초월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이_올라가는 혼들은 삶에서, 사소한 일들이 수없이 상반되는 충돌이 일어날 때 자신을 구해주며, 그리하여 영 개념과 천상{天上}의 대화라는, 더 높은 흐름을 자유롭게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쉽고 일시적인 달성을 추구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세심하게 보호돼야만 하며;마찬가지로, 인생의 목적은, 광신적인 위험한 조짐에 영향 받지 않도록, 보살핌을 받아야만 한다.

4. 성숙의 균형

160:4.1 (1778.4) 여러분은 영원한 실체를 성실히 달성함과 동시에, 현세의 삶에 필수적인 것도 제공해야만 한다. 영이 우리의 목적지인 반면, 육체는 실상이다. 생활필수품이 우연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영리하게 일해야만 한다. 삶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는:현세의 삶을 사는 것과, 영원한 생존을 성취하는 것이다. 삶을 영위하는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종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 참 종교는, 사실상, 개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는다.

160:4.2 (1778.5) 내가 보는 견지에서 현세적 삶의 본질 요소는 다음과 같다:

160:4.3 (1778.6) 1. 훌륭한 육체적 건강.

160:4.4 (1778.7) 2. 분명하고 깨끗한 생각.

160:4.5 (1778.8) 3. 역량과 솜씨.

160:4.6 (1778.9) 4. 재산 --삶에 필요한 물품.

160:4.7 (1778.10) 5. 좌절을 견디는 역량.

160:4.8 (1778.11) 6. 문화 --교육과 지혜.

160:4.9 (1779.1) 몸의 건강과 능률에 관한 육체적 문제일지라도, 이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종교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데:사람의 몸과 정신은, 하나님들의 선물,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되어 거주하는 장소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 실체 사이의 중재자{仲裁者}가 된다.

160:4.10 (1779.2) 사람이 인생에 바람직한 것들을 자기 몫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다. 사람이 일상 활동에 충실하기만 하면 번영이라는 상급{賞給}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다. 이따금 또는 우연히 재산을 획득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세의 생애에서 물질적 보상은 잘 조직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견되며, 이 경로에 접근하는 자들만이, 현세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잘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고립되고 개별적인 경로에서 풍요를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가난할 운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이, 이 세상 성공에 필수적인 한 가지가 된다. 성공하려면 자기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가 흐르는 어떤 경로의 일부가 되어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현명치 못하면, 일생동안 삶을 헌신해도 물질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여러분이 풍요의 흐름의 우연한 수혜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치 속에 빈둥거리며 살지도 모른다.

160:4.11 (1779.3)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요, 솜씨는 획득하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잘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솜씨는 만족한

삶의 실제 근원 가운데 하나다. 역량에는 선견{先見}의 은사, 즉 선견지명의 통찰력이 포함된다. 정직하지 못한 성취가 유혹하는 보상에 속지 말며;정직한 노력의 결과로 나중에 일어날 보상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라. 현명한 자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과도하게 계획해서, 자신의 높은 목적을 좌절시킨다. 만족을 추구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가 되려고 항상 애써야 한다.

160:4.12 (1779.4) 인생에서용기를_주고 보람_있는 단편사건들을 신성하게 간직하도록, 여러분의 기억력을 훈련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기쁨과 계발을 위해 뜻대로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단련시키고, 여러분 자신 속에, 아름다움, 선함, 및 예술적인 위엄을 확보하도록 하라. 그러나 모든 기억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훌륭한 친구관계를 가졌던 그 중요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해 둔 추억이다. 그리고 영적 경배의 풀어주는 손길 아래서, 기억 속의 이 모든 보화가 가장 귀중하고 높여주는 영향력을 발산한다.

160:4.13 (1779.5)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실존에서 짐이 될 것이다. 실패 속에는 고귀한 혼들이 항상 획득하는 어떤 기술이 있으며;여러분은 기분 좋게 잃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며;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한다. 실패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속이는 미소와 낙천적 태도로, 애써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라. 성공을 주장하는 소리는 항상 요란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소름끼치게 한다. 그런 기법은 필연적으로, 비현실 세계를 지어내고, 궁극적 환멸이라는 파멸로 직접 이끈다.

160:4.14 (1779.6) 성공이 용기를 낳고 자신감을 증대시키겠지만, 지혜는 오직 사람이 자신의 실패 결과에 적응해 가는 체험에서 나온다. 실체보다 낙천적 환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해질 수 없다. 사실에 직면하면서 이상에 맞게 사실을 맞춰 가는 자만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 지혜는 사실과 이상을 모두 포함하며, 그리하여 철학의 메마른 양극단{兩極端}으로부터--곧 사실을 거부하는 이상주의자와, 영적 전망이 결여된 유물론자로부터--지혜에 중독된 자들을 구해준다. 성공한다는 계속된 거짓 환상의 도움으로 인생의 고뇌를 겨우 유지할 수 있을 뿐인

소심한 혼은, 자신이 상상하는 꿈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깨어날 때,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체험하게 돼 있다.

160:4.15 (1780.1) 그리고 실패에 대처하고 패배에 적응하는 일에는, 멀리까지_미치는 종교적 통찰력이 최상의 영향을 미친다. 우주를 탐구하려는 영원한 탐험에 동참한, 하나님을_찾는 사람의 체험에서, 실패는 다만 하나의 교육적 사건--곧 지혜 습득을 연마하는 실험--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에게 패배는, 다만 우주 실체의 높은 수준을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

160:4.16 (1780.2) 현세의_인생 계획 전체가 불가항력적 실패로 드러날지라도, 인생의 실패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교양과 영적 성취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을_찾는 사람의 삶은 영원성의 견지에서 볼 때 크게 성공했다고 판명될 것이다. 지식, 문화, 및 지혜를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것들은 인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방대하게 다른 영 가치를 나타내며;지혜가 언제나 지식을 지배하고 문화를 항상 영화롭게 한다.

5. 이상주의자의 종교

160:5.1 (1780.3) 여러분의 주님이 인간의 참된 종교를 영적 실체에 대한 각자의 체험으로 간주하신다고, 여러분은 내게 일러줬다. 나는 종교를, 온 인류가 충성과 헌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중요시하는 어떤 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의 체험으로 간주해 왔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실체의 이상에 대한 우리의 최고 개념을 나타내는 것과, 영적 달성의 영원한 가능성을 향해 우리 정신이 가장 멀리 도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최상으로 헌신함을 상징한다.

160:5.2 (1780.4) 부족, 민족, 또는 종족의 의미에서 사람이 종교에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집단 밖에 있는 자들은 진정 인간답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충성하는 대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종교는 단순히 지적 믿음이나 철학적 이론의 문제일 수 없으며;종교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인생의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며;행위의 한 형식이다. 종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숭배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실체를 향해, 겸손히 생각함, 느낌, 그리고 행함을 포함한다.

160:5.3 (1780.5) 여러분이 체험한 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종교가 됐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그 종교의 능동적 강령{綱領}이 됐음이 자명한데,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최상의 개념에 대해, 온 인류, 즉 온 우주의 지성체들이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종교의 적극적이고 선교적인 강령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오직 전통적 믿음이거나 단순한 지적 철학 체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다. 여러분의 종교가 영적 체험이라면, 여러분의 경배 대상은 보편적 영이라는 실체여야만 하며, 여러분의 모든 영적 개념의 이상{理想}이어야만 한다. 두려움, 감정, 전통, 및 철학에 기초하는 모든 종교를, 나는 지적 종교라고 부르는 한편, 참된 영 체험에 기초하는 종교를 참 종교라고 부르려 한다. 종교적 헌신 대상은,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실제적이거나 비실제적이거나, 인간답거나 신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160:5.4 (1780.6) 도덕과 종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도덕 체계는 경배 대상을 터득함으로써 종교가 될 수 있다. 종교는, 충실함과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는 보편적

호소력을 잃음으로써, 철학 체계 또는 도덕규범으로 변할 수 있다. 종교적 충성심의 최고 이상을 구성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수납하는, 이 것, 이 분, 이 상태, 또는 이 실존 체제가, 혹은 달성할 가능성이, 하나님이다. 영실체의 이 이상{理想}에 붙여지는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160:5.5 (1781.1) 참 종교의 사회적 특질은, 그것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모시키고자 변함없이 추구한다는 그 사실에 있다. 종교는, 발견되지 못한 이상이 실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문명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제도의 최고 사회 관례에도 포함된, 이미 알려져 있는 윤리 및 도덕 기준을 훨씬 능가한다. 종교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 아직 탐험되지 못한 실체, 초인적 가치, 신성한 지혜, 그리고 참된 영 달성을 향해 뻗어 나간다. 참 종교는 이 모든 것을 행하지만;다른 모든 믿음은 그 이름만큼의 가치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숭고한 이상{理想} 없이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종교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사람의 창작물, 즉 생명 없는 지적 믿음의 인간 제도이며, 의미 없는 감정적 예식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는 훌륭한 이상을 헌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실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은 달성될 수 없으며;그런 개념은 착각이다.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이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적 사실에 있는, 무한히 가치 있는 신성한 실체들뿐이다.

160:5.6 (1781.2) 하나님이라는 단어, 즉 하나님이라는 *이상*에 대비된 하나님 *관념*은, 그 종교가 미숙할 가능성 또는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관념은, 신봉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저급한 종교는, 인간 심성의 자연스런 상태에 맞도록 자체의 하나님 관념을 꾸미며;높은 수준의 종교는, 참 종교의 이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지도록 인간의 심성이 바뀌기를 원한다.

160:5.7 (1781.3) 예수의 종교는, 경배 관념에 대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개념을 초월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무한한 실체라는 이상{理想}으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 땅에서 선택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신분 및 사람의 형제관계를 수락하기로 동의한 모든 필사{必死} 피조물이, 신성한

가치 근원과 영원한 우주 중심을 진정으로 몸소 달성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진술하는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 개념이고, 더 높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데, 무한한 실체, 신성한 가치, 및 영원한 보편적 달성을 이 복음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은, 지존{至尊}과 궁극{窮極}이라는 이상주의를, 체험함으로 성취하게 한다.

160:5.8 (1781.4) 나는 여러분의 주님이 지닌 이 종교의 더할 나위 없는 이상{理想}에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 실체라는 이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낙원 입구에 확실히 도달할 것이라는 그의 보증과 함께, 여러분과 내가 이 길고 영원한 탐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의 선포가 나를 강하게 감동시켜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했다. 형제들이여, 나도 믿는다. 나도 같은 배를 탔다. 이 영원한 모험에 여러분과 같이 길을 걷고 있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심을 온전히 믿는다. 나는 결국 영원하신 만유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한 가치 또는 실재하는 이상은 없다고 확신한다.

160:5.9 (1781.5) 그래서 나는, 그저 이미 있는 실존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미래에 실존 가능한 모든 존재의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러므로 최상의 이상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그 이상{理想}이 실제라면, 물질과 존재들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우주들의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하나님도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하나님은 없다. 다른 모든 신{神}은 상상의 산물이고, 필사 정신의 환상이며, 잘못된 논리의 왜곡이며, 그런 것을 창작하는 자들의 자기_기만적 우상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 하나님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상의 실체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추구하려 한다면, 이상, 즉 신성한 실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게 될 뿐이다. 그런 믿음은 단지 희망에 의거한 공상의 종교에 불과하다.

160:5.10 (1782.1) 나는 예수의 교훈에서 최상의 종교를 발견한다. 이 복음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를 찾도록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나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는가? 자아를 버리고 혼을 다시

세워가는 혹독하고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복종할 것인가? 주님이:“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혼이 투쟁하게 하러 왔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렇다, 우리가 아버지 뜻에 헌신하기 위한 값을 지불한 후에야, 성별된 삶의 영적 경로를 계속 걷게 하는 엄청난 평화를 체험한다.

160:5.11 (1782.2) 우리는 이제, 실존하는 알려진 종류의 유혹을 정말로 배척하고 있으며, 한편 신성한 실체라는 더 높은 이상주의의 영 세계들에서 탐험하는 미래적 삶이 실존한다는, 알려지지 않고 탐험되지 않은 종류의 매력을 우리가 탐구하기로 했음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종교라는 이상주의의 실체에 대한 이 개념들을 우리 동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징을 찾고 있으며, 온 인류가 이런 최상의 진리를 공동으로 목격함으로써 감격할 그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 속에 간직된 바와 같이, 초점이 맞춰진 우리의 아버지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며;우리 동료에게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160:5.12 (1782.3) 예수의 종교는, 생생하고 영적인 체험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들은, 전통적 신념, 감정적 느낌, 철학적 의식{意識}, 그리고 그 모든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영의 참된 진보를 실제 수준에서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160:5.13 (1782.4) 하나님처럼 되려는 충동을 의식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감정적 느낌도 참 종교가 아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신하는 지식도 참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 추론하는 지혜는, 개인적 및 영적 체험으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전심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의 실체 및 이상주의뿐 아니라, 달성할 운명 및 그 실체와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계시함으로, 이 모두가 우리에게 몸소 겪는 것이 돼야만 한다.

160:5.14 (1782.5) 이렇게 해서, 자신의 종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 철학자의 논설이 끝났다.

제161편 이어진 로단과의 토론

161:0.1 (1783.1) 서기 29년 9월 25일 일요일에, 사도와 전도자들이 마가단에 모였다.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동역자들과 오래 협의한 후에, 열두 사도와 함께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날 일찍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는 전도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신자를 방문하도록 지시했고, 여자 단체에게는 얼마 동안 벧새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161:0.2 (1783.2) 예루살렘으로 떠날 시간이 됐을 때, 나다니엘과 도마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과 여전히 토론하는 중이었으며, 마가단에 며칠 더 머물러도 좋다는 주님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수와 열 명의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 진지한 토론에 몰두했다. 로단이 자신의 철학을 자세히 설명했던 지난 주 동안, 도마와 나다니엘은 교대로 그리스 철학자에게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로단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예수의 교훈을 자신이 잘 배웠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의 선생이었다.

1. 하나님의 인격체

161:1.1 (1783.3) 로단과 두 사도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격체에 관한 것이었다. 로단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해 제시된 모든 것을 선뜻 받아들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사람이 인격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격자가 아니고,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한 반면, 로단은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심을 증명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161:1.2 (1783.4) 인격체라는 사실은, 동등한 존재들, 즉 마음이 통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온전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공존{共存}하는 현실에 달려있다고, 로단은 강력히 주장했다. 로단이 말했다:“하나님이 인격자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징을 가지셔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모든 다른 존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들에 관한 한,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와 동등한 존재는 결코 없으며;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격체의 근원이겠지만, 인격체를 초월하는 분이고, 피조물을 훨씬 뛰어 넘는 창조주시다.”

161:1.3 (1783.5) 이 주장에, 도마와 나다니엘은 아주 곤혹스럽게 됐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토론에 참견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다:“너희가 아버지의 *이상적인* 무한하고 영원한 본성에 영적으로 정통하는 한, 너희가 그에 대해 무슨 *관념*을 갖는가 하는 것은 거의 문제 되지 않는다.”

161:1.4 (1784.1) 도마는, 하나님이 사람과 의사소통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격자시며, 로단의 설명에서도 물론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과;하나님은 여전히 신비한 분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자신이 몸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예로 들어 호소했는데, 로단도 최근에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동의했으나, 이 체험은 하나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의 *실체*만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61:1.5 (1784.2) 월요일 밤이 되자 도마는 포기했다. 그러나 화요일 밤에, 나다니엘이 로단을 설복시켜서 아버지의 인격체를 믿도록 했으며, 다음과 같은 추론{推論} 단계로 그 그리스인의 관점을 바꾸기에 성공했다:

161:1.6 (1784.3) 1. 낙원에 계신 아버지는 적어도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 두 분의 다른 존재와 대등하게 소통하시며, 자신과 온전히 동등하고 전적으로 비슷하시다. 삼위일체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그리스인은 만유의 아버지가 인격체일 가능성을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됐다. (이 논의를 후일에 고찰한 것이, 열두 사도의 정신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확대된 생각으로 인도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예수가 영원한 아들이라고 믿었다.)

161:1.7 (1784.4) 2.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인격체의 형태화를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세 하나님 모두가 인격자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와, 그 가능성에 대한 논증을 성립시켰으며, 사람과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역량과,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다.

3. 예수께서는, 사람과 상호 연합하고 완전히 의사소통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동등한 대화와, 공감적{共感的}으로 이해하는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사람과 동시에 이해하는 대화를 지속하며, 예수께서 대화에 사용한 상징의 의미를,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납득하기 때문에, 상호 의사소통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이 인격체 속성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인격체를 나타내고, 동시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동일한 것에 관계된 두 가지 역시 서로 관계있다는 것.

4. 인격체는, 인간의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하나님 역시, 신성한 실체와 무한한 가치에 대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성하고 무한한 인격체, 즉 인격체에 대한 사람의 개념과 정의를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초월할지라도 여전히 실제

인격체이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격체시라는 것.

161:1.10 (1784.7) 5. 하나님은, 모든 인격체의 창조주이고 모든
인격체의 운명이기 때문에, 인격체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
로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161:1.11 (1784.8) 이 논증을 들은 로단이 말했다:“내가 이제
확신한다. 그런 믿음에 대해, 확대된 여러 가치, 즉
초인적인, 초월적인, 최상의, 무한한, 영원한, 최종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을 인격체의 의미에 추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인격자시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확신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히 인격체 이상의 존재이며, 그
이하의 존재이실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는 이 논증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는 아버지가 몸소 계시된 분이요,
논리와 이성 및 철학에서 충족되지 못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분임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다.”

2. 예수의 신성한 본성

161:2.1 (1785.1) 나다니엘과 도마는 천국 복음에 대한 로단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했지만, 논의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야 공개적으로 발표된 교리인, 예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가르침에 관한 것이었다. 나다니엘과 도마는 주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해 공통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것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61:2.2 (1785.2) 1.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인정했고, 우리는 그를 믿는다. 예수의 사역 중에는 놀랄만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161:2.3 (1785.3) 2. 우리와 어울리셨던 그의 생애는 인간 우정의 이상{理想}을 예증하며;오직 신성한 존재만이 그런 인간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알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참되게 이타적인 인격자다. 그는 죄인조차 친구로 삼으며;자기 원수도 사랑한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충실하다. 그는 주저함 없이 우리를 책망하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심이 분명하다. 당신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 매혹될 것이다. 최근 여러 해 동안 그의 사명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함에도, 그는 여전히 충실한 친구였다. 그는 아침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친절히 대하며;언제나 부드럽고 인정이 많다. 그는 자기 생애와 그 밖의 모든 것도 우리와 공유한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이며;모든 것을 공유한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 이렇게 괴로운 환경에서 그토록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161:2.4 (1785.4) 3. 우리는, 예수께서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으며;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지혜는 특출 나며;그의 경건성은 뛰어나다. 그는 매일 아버지 뜻에 완전히 일치되게 산다. 그는 아버지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으므로, 범죄를 뉘우친 적이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가 변함없이 죄 없음을 믿는다. 인간일 뿐인 자가 그런 삶을 산다고 공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살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그가 그러함을 안다. 우리의 경건성은 회개에서 생기지만, 그의 경건성은 정의에서

생긴다. 그는 죄를 용서한다고까지 선언하며, 병을 치유한다. 단순히 인간이라면, 죄를 용서한다고 제 정신으로 공연할 자가 없을 것이며;그것은 신성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때부터 그는 자신의 정당함에서 완전했던 것 같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의의 성숙함을 나타낸다. 모든 사람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요소를 인지한다. 그럼에도 그의 경건성은 눈에 거슬리거나 허식적인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는 온유하면서도 대담하다. 그는 우리가 그의 신성을 믿도록 용납하는 듯하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진 자들 가운데 최고의 위선자요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161:2.5 (1785.5) 4. 그의 성품의 독특함과 자신의 감정적 통제의 완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가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의 결합임을 확신토록 했다. 그는 인간의 궁핍한 처지에 틀림없이 응답하며;고통은 반드시 그에게 상달된다. 그의 동정심은,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 또는 영적 비애를 막론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는, 동료들

속에 있는 신앙, 또는 다른 어떤 호의라도 즉시 알아보고 관대하게 인정한다. 그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또한 동시에 매우 자비롭고 너그럽다. 그는 사람의 영적 완고함을 한탄하면서도,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자 할 때에는 기뻐한다.

161:2.6 (1786.1) 5. 그는 인간 정신 속에 있는 생각을 아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마음이 고대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불안정한 영성에 항상 동정한다. 우리의 모든 인간 감정을 그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감정은 장엄하게 장식돼 있다. 그는 선을 강렬히 사랑하지만, 죄는 그만큼 미워한다. 그는 신격의 현존으로서 초인적 의식을 갖는다. 그도 사람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처럼 이룬다. 그는 어떤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보이며;이제는 자신의 죽음, 즉 자신이 장차 영광 받을 것이라는 어떤 신비한 내용까지도 말씀한다. 그는 친절한 동시에, 대담하고 용감하다. 그는 의무를 행하기에 결코 소홀하지 않는다.

161:2.7 (1786.2) 6. 우리는 그의 초인적 지식의 현상에 끊임없이 감동을 받는다. 주님은, 자신의 직접적인 현존이 없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음을, 거의 매일 드러낸다. 또한 그는 동역자들의 생각을 아는 것 같다. 그는 천상의 인격체들과 교류함이 분명하며; 확실히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영적 수준에서 산다. 그의 특유한 이해력은 무엇이든지 통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161:2.8 (1786.3) 7. 주님은 최근에 이르러 자신의 초인간성을 담대히 증거 한다. 우리가 사도로서 안수 받은 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는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왔음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는 신성한 교사의 권위로 말씀한다. 주님은 오늘날의 종교적 교훈의 잘못을 담대히 지적하며, 적극적 권위로 새로운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한다. 그는 단호하고 적극적이며 권위가 있다. 세례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했다. 그는 자신 속에서 아주 충족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람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다. 그는 용감하면서도 자존심과는 거리가 멀다.

161:2.9 (1786.4) 8.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자주 말썬한다. 그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듯이 부지런히 선을 행한다. 그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가장 놀랄만한 주장, 즉 자신이 신성하지 않다면 이치에 맞지 않을 말을 한다. 그가 언젠가 선언했다;“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그는 신성을 확실히 주장하며;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라고 공언한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긴밀히 연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는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썬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말썬하고 또한 행한다. 그는 자신과 우리의 연합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과 아버지의 연합에 대해 암시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하나님에 관해 참으로 확신하는 것 같으며, 이런 관계를 사실적인 방법으로 말한다.

161:2.10 (1786.5) 9.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그는 아버지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우리는 그의 기도를 거의 듣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내용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이 모든 신비한 일을 행치 못함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가 인간임을 잘 알며, 그것을 확신하는 만큼, 그가 또한 신성한 분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신성함을 믿는다. 우리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다.

161:2.11 (1787.1) 나다니엘과 도마는, 로단과의 회담을 끝내고 나서, 동료 사도들과 합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발했으며, 그 주 금요일에 도착했다. 이 토론은 이 세 신자 모두의 삶에서 큰 체험이 됐고, 다른 사도들은 이 체험에 대한 나다니엘과 도마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161:2.12 (1787.2) 로단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거기에 있는 메간타 학교에서 본인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다. 그는 하늘 나라를 위한 후대의 직무에서 위대한 인물이 됐으며;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신실한 신자였고,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죽었다.

3. 예수의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161:3.1 (1787.3)} 신성에 대한 의식{意識}은, 예수께서 세례 받던 때까지 그의 정신 속에서 점차 자라갔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 인간_이전{以前}의 현존, 그리고 우주 대권{大權}을 완전히 자각한 후에,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인간 의식을 여러 가지로 제한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오직 인간 정신에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 둘 다 사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맡겨졌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때로는 그가 인간 지능에 들어있는 정보만 사용한 듯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신성한 의식 가운데 초인적 내용물을 활용함으로써만 가능한, 그토록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행동했음이 분명하다.

^{161:3.2 (1787.4)} 우리는, 그가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의식{意識}을 의지적으로 스스로 제한시키실 수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분의 독특한 업적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동역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가 그들의 사고{思考}를 간파할 수 있고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추종자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는, 사도 제자들의 정신 속에 수용된 인간 개념을 너무 초월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161:3.3 (1787.5) 예수께서 본인의 신성한 의식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습관, 그리고 미리 알고 생각을 꿰뚫어보는 것을 인간 동역자들에게 숨기는 기법,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지, 우리는 아주 난감한 상태다. 우리는 그가 이 두 기법을 다 사용했다고 확신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마다 어떤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가 의식 중에서 인간적 내용물만 갖고 행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며;그때 우리는, 주님이 천상의 무리의 지휘자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고자 했고, 신성한 정신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음을 분간하려 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무수한 많은 경우에, 인간 정신과 신성한 정신이 겹으로 보기에 완전히 결합된 가운데 활성화돼서, 사람과

하나님의 혼합된 인격체가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이 그런 현상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이며;이 신비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제162편 초막절 축제

162:0.1 (1788.1) 열 명의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기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지름길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호수의 동쪽 기슭을
따라 스키토폴리스 길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변두리로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해질녘에 빌립과 마태를 길보아산
동쪽 비탈에 있는 한 마을에 보내서, 일행을 위한 잠자리를
구하게 했다. 마침 이 마을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 보통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깊은 반감을 가졌으며, 매우 많은
사람이 초막절 축제를 위해 여행하는 특별한
시기였으므로 이런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알지 못했고, 그와 그 동역자들이
유대인이므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마태와 빌립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환영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통보하자, 격분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돌로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냈다.

162:0.2 (1788.2) 빌립과 마태가 동료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쫓겨났는지 보고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말했다:“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무례하고
완악한 사마리아인을 삼켜버리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수심 가득한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해 엄히
꾸짖었다;“너희가 보여주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도대체
모르는구나. 복수하는 자는 하늘 나라의 겉모습도
쳐다보지 못한다. 논쟁하지 말고, 차라리 요단강 옆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파적 편견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 아들을 환대하는
영광을 스스로 거부했다.

162:0.3 (1788.3) 예수와 열 사도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을 건너, 동쪽
요단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계속했고,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수요일 늦은 밤이었다. 로단과의

회담 때문에 뒤에 남았던 도마와 나다니엘이 금요일에 도착했다.

162:0.4 (1788.4) 예수와 열두 사도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음 달 (10월) 끝까지 약 4주 반 동안 머물렀다. 예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간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고, 이런 짧은 방문은 초막절 축제 기간에 이뤄졌다. 예수께서는 10월의 상당히 많은 날을 아브넬 및 그 동역자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보냈다.

1. 위험한 예루살렘 방문

162:1.1 (1788.5) 그들이 갈릴리에서 피신하기 훨씬 전에, 예수의 추종자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인의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에 전파된다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간청했지만;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자, 그의 안전을 걱정하게 됐다. 사도들은, 산헤드린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려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최근에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선포한 것이 생각났으므로, 초막절에 참석하려는 주님의 갑작스런 결정에 완전히

대경실색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들이 전에 간청할 때마다, 주님은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으로 만류하는 그들에게, 오직 “그러나 때가 임했다”고 대답했다.

162:1.2 (1788.6) 예수께서는 초막절 축제 기간에 여러 번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갔고, 성전에서 공공연히 가르쳤다. 사도들이 그를 단념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는 이렇게 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랫동안 간청했던 그들이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음을 충분히 알고, 이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봤다.

162:1.3 (1788.7) 예루살렘에 모습을 드러낸 예수의 대담한 행동만큼, 추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사건은 없었다. 제자들 가운데 다수는, 사도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께서 서둘러 베니게로 피신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 안티파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주님이 움직일 때 그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다. 따르는 무리의 반대의견에도, 초막절 축제가 한창인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나타난 것은, 그가 겁먹었다든가

비겁하다든가 하는 모든 쑥덕거림을 깨끗이 없애기에 충분했다.

162:1.4 (1789.1) 초막절 축제 기간에, 로마 제국 여러 지방에서 온 신자 수천 명이 예수를 봤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은 자기 고향에도 천국이 이뤄지게 되는지에 대해 의논하려고 베다니에 다녀오기까지 했다.

162:1.5 (1789.2) 그 축제 기간에 예수께서 어떻게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자체의 계층 안에서 은밀하게 의견이 달라진 결과로, 산헤드린 관원들 자신에게 엄습한 두려움이었다.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다수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집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축제 기간 중에는 그를 체포하지 말자고 단호히 반대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그를 믿거나 적어도 그가 후원하는 영적 운동에 호의를 가졌다.

162:1.6 (1789.3)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이 유대지방 전역에서 수고함으로써 천국에 대해 호의를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므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도 감히 드러내놓고

방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공공연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한 달 또는 두 달 전 같았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162:1.7 (1789.4) 그러나 예루살렘에 공공연히 나타난 예수의 대담한 배짱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겁을 줬으며;그들은 이런 대담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산헤드린은 주님을 체포하려고 미약하나마 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런 노력에 대한 결과는 없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기치 않은 예수의 예루살렘 출현에 너무 놀란 나머지, 로마의 권세자들로부터 약속된 보호를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억측하기까지 했다.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빌립이 예수를 따르는 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산헤드린 회원들은, 빌립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예수께서 갑자기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은 로마 관리들과 비밀리에 어떤 협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수였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께서 그들의 관할 구역을 떠난 후였다.

162:1.8 (1789.5) 그들이 마가단을 떠날 때 예수께서 초막절 축제에 참석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열두 사도뿐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 나타나 공공연히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162:1.9 (1790.1) 제자들은 예수께서 축제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멀리서 그에 대해 들었던 순례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솔로몬의 행각 및 성전 뜰에서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도 됐다. 이 교훈은, 유대인은 물론 전 세계 민족에게 예수의 신성에 대한 참으로 공인된 선포, 즉 정식 선포였다.

162:1.10 (1790.2) 주님의 교훈을 들었던 대중의 견해가 여럿으로 나뉘었다. 더러는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으며;더러는 선지자라고 했으며;정말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으며;또 더러는 이상한 교리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자라고 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신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 놓고 그를 비난하지 못하고

망설인 반면, 예수께 동조하는 자들은 산헤드린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알았으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공공연히 그를 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랍비들의 학교에서 교육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적들조차 그의 가르침에 감탄했다.

162:1.11 (1790.3) 사도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의 본질에 대해 날마다 점점 더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친구들 가운데서 설교할 때조차,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놀랄 정도로 단언하는 것을 듣는 일이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2. 성전에서 첫 강연

162:2.1 (1790.4)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첫 날 오후에, 새 복음으로 인한 해방에 대해, 그리고 좋은 소식을 믿는 자들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앉았는데, 어느 호기심 많은 자가 말씀을 막으면서 질문했다: “선생님, 당신은 랍비의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그토록 유창하게 성서를 인용하고 사람을 가르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준 자는 없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다. 내 아버지 뜻을 정말로 행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거나 나에 관해 말한 것이거나, 내 가르침을 분명히 알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새로운 빛에 들어가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빛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는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여전히 정직하게 추구하는 자가, 너희 중에 몇이나 되느냐? 모세는 율법에서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는데;그럼에도 너희 중에는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

162:2.2 (1790.5) 인파가 이 말을 듣자, 그들 중에 언쟁이 벌어졌다. 더러는 예수를 미쳤다고 했으며;더러는 그가 마귀와 한편이라고 했다. 또 더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갈릴리 선지자라고 했다. 더러는 종교 기관도 감히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말했으며;또 더러는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됐으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은 후에, 인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물었다;“통치자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 그가
대답했다:“통치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천국의 기쁜
소식, 즉 이 선생들이 어떤 대가{代價}를 치르더라도
옹호하기로 결정한 형식적 종교 예식의 건디기 힘든
전통으로부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내가
가르치는 것에 분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고난의 노예가 됐던
어떤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탐했지만,
내가 안식일에 중환자를 완전히 고쳤을 때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믿게 되면, 그들의 전통적 종교 체계가 전복되어
영원히 무너지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더욱 영광스런
이 복음을 딱 잘라 거절하기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얻은
것에 대한 권세를 저희가 이처럼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당부하겠는데: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이 교훈의 참된 정신으로
판단하며;올바르게 판단하라.”

162:2.3 (1791.1)

그러자 다른 질문자가 말했다:“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신비하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원자는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주장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너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주장한다. 나도 네 주장이 진실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네가 그 지식에서 풍성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내게 듣기를 거부함으로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162:2.4 (1791.2)

서기관의 대리인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으나, 군중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세례 이후의 예수의 활동이 모든 유대인에게 잘

알려졌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저 선생님이 갈릴리에서 왔고, 우리가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구원자가 올 때, 과연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께서 이미 행한 굉장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62:2.5 (1791.3)}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바리새인과 그 대리인들은 지도자들과 의논했고, 예수께서 성전 뜰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자고 결정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대개 로마 권세자들이 어떤 특권을 약속했다고 믿었으므로, 예수와 충돌하기를 피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의 담대함을 그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산헤드린 관원들은 이 소문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로마 통치자들이 그런 일을 유대 국가의 최고{最高} 통치 기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론했다.

^{162:2.6 (1791.4)} 따라서, 산헤드린에 소속된 관원인 에벨이, 두 명의 부하와 함께 예수를 잡아오도록 파견됐다. 에벨이

예수께 다가가자 주님이 말씀했다:“내게 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더 가까이 와서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나를 체포하도록 네가 파견된 것을 안다.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네가 알아야할 것이다. 너는 나를 대적하지 않으며;오직 네 상관들의 명령 때문에 왔을 뿐이고, 유대 통치자들은 나를 비밀히 죽이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한다.”

162:2.7 (1792.1) “나는 너희 가운데 누구도 악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며, 그러므로 나는 전통이라는 무지와 선입견이라는 결박에서 너희를 구해 줄 날을 오랫동안 고대했다. 나는 너희에게, 삶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제시한다. 나는 죄의 속박을 깨고 악에서 구출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포한다. 너희에게 생명을 갖게 하되, 영원히 갖게 하려고 내가 왔다. 너희는 동요하게 하는 내 교훈과 나 자신을 없애려고 한다.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임을 너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께로 이제 곧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지런히 나를 찾겠으나,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찾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줄 생명을 언젠가 달성할 것이다.”

162:2.8 (1792.2) 조소하던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말했다:“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어디를 말하는가? 그리스인에게 가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우리를 곧 떠나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162:2.9 (1792.3) 에벨과 그 부하들은 예수를 체포하기를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집합 장소로 돌아갔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오지 않았으므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에벨과 부하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자, 에벨은:“많은 사람이 그를 믿으므로, 대중 한가운데서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에게는 범상치 않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가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최고 관리들은 깜짝 놀라서, 에벨에게 욕하면서 말했다:“너도

타락했느냐? 그 거짓말쟁이를 믿으려고 하느냐? 배운 자나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가운데, 그의 교활한 교훈에 속은 자가 하나라도 있더냐? 율법도 선지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대중의 행태에, 네가 어찌하여 동조하게 됐느냐?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자 에벨이 대답했다: “주인님들, 설령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대중에게 자비와 희망에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안을 줬습니다. 그분이 비록 성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이 교훈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의 법은 공명정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때 산헤드린의 우두머리가 에벨에게 격노하면서 그를 향해 말했다: “네가 아주 미쳤느냐? 너도 혹시 갈릴리에서 왔느냐? 성서를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어떤 선지자도 나오는 법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162:2.10 (1792.4) 산헤드린은 당황해 해산했고, 예수께서는 잠자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갔다.

3. 간음 중에 잡힌 여자

^{162:3.1 (1792.5)} 이번 예루살렘 방문 기간에, 예수께서는 악하다고 소문난 어떤 여자를 대하게 됐는데, 그 여자를 고소하는 자들과 예수의 적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다. 이 사건에 대해 너희가 갖고 있는 왜곡된 기록에 의하면, 서기관 및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예수 앞으로 끌고 왔으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부도덕에 대한 죄의식을 자각하도록 예수께서 처리한 것처럼 돼 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전통에 충성함으로써 영적으로 눈멀고 지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혔지만, 그 시대와 세대에 가장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들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다.

^{162:3.2 (1793.1)}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랬다: 축제에서 셋째 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까이 가자, 산헤드린에서 대리인으로 고용한 자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예수 앞으로 왔다. 가까이 온 그들 가운데 대변자가 말했다: “주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은, 그런 여자에게는 우리가 돌을 던져야만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렵니까?”

162:3.3 (1793.2)

그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꾸민 계획이었는데, 자백한 죄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께서 채택하면, 로마 법정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이 사형 형벌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금지한 로마 통치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와 유대인의 율법보다 스스로 높아지려한다고 해서,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를 정죄하려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정죄하려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을 잘 처리해서, 모든 음모가 그 자체의 극심한 부도덕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162:3.4 (1793.3)

한때 아름다웠던 이 여자는 나사렛의 한 하류 시민의 아내였는데, 그 남자는 어렸을 때 예수를 항상 괴롭히던 자였다. 이 여자와 결혼한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몸을 팔게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는 아내의 육체적 매력을 이용해서 매춘으로 돈을 벌려고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했다. 그는 유대인 관리의 돈을 받고 일하기 위해 흥정하게 됐으며, 아내를 상업적 악행에 팔아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체포됐을 때 써먹을, 어떤 진술을 만들어 낼 목적으로 그 여자와 그녀의 범법행위 상대역을 데려왔다.

162:3.5 (1793.4) 예수께서는 군중을 둘러보다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있는 그녀의 남편을 발견했다. 그는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미 알았고, 그 비열한 거래에 관계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예수께서는, 먼저 이 타락한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그로 하여금 서둘러 떠나게 하는 몇 마디 말을 모래 위에 썼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다시 돌아와, 그녀의 자칭 고소인들을 위해 다시 땅에 썼으며;그들 역시 이것을 읽고 하나씩 떠나갔다. 그리고 주님이 모래 위에 세 번째 썼을 때, 그 여자의 악역{惡役} 상대편도 떠나갔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 쓰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그 여자만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 여자가 눈을 들면서, “주여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나는 너에 관해 아는데;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힐다나라는 이 여자는, 사악한 남편을 버리고 천국의 제자들과 합류했다.

4. 초막절 축제

162:4.1 (1793.5) 스페인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참여했으므로, 예수께서 공개적인 복음 전파를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기에는, 이 초막절 축제가 가장 이상적인 기회였다. 이 축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밖에서 나뭇잎으로 만든 오두막에 기거했다. 이것은 추수해 수확하는 축제였고, 곧 가을이 되고 선선해지는 시기였으므로, 겨울이 끝나는 때의 유월절이나, 여름이 시작되는 때의 오순절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사명에 대해 온 세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됐다.

162:4.2 (1794.1) 다른 축제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제물을 이때에만 바쳤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제였다. 이때에는 성전 헌금을 받았으며;종교적 경배의 장엄한 제례도 있었지만, 휴가를 즐기는 것도 함께 이뤄졌다. 이때에는, 민족적 기쁨, 희생 제물, 레위인의 영창, 그리고 제사장들의 은백색 트럼펫에서 나오는 장엄한 경적 소리 등이 함께 어우러졌다. 밤에는, 여자들의 뜰에서 밝게 타오르는 거대한 촛대들과 성전 뜰 근처에 서 있는 많은 햇불의 현란한 빛이, 성전의 인상적인 모습과 순례자

군중을 밝게 비쳤다. 이런 즐겁고 거룩한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내려다보는 안토니아의 로마 성곽을 제외한 전체 도시가 화려하게 장식됐다. 그리고 로마의 숙박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는 이 성곽을 유대인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162:4.3 (1794.2) 축제 기간에 이방의 70개 국가를 상징하는 70마리 황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물이 흐르게 하는 예식은, 신성한 영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했다. 물로 하는 이 예식은,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해돋이 행진에 이어 행해졌다. 경배 드리는 자들은 은백색 트럼펫이 연속해서 소리를 내는 동안,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자의 뜰 쪽으로 이어진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뜰을 향해 열려진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 신자들이 행진했다. 그들은 여기서 서쪽으로 향하고, 영창을 반복했으며, 상징적인 그 물을 향해 계속 행진했다.

162:4.4 (1794.3) 축제에서 마지막 날에는, 거의 45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같은 숫자의 레위인과 함께 집례 했다. 날이 밝으면, 순례자들이 그 도성 각처에서 각자 오른 손에, 도금양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원

손에는 각자 낙원 사과--곶 시트론 열매 또는 "금단의 열매"-- 가지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 예식을 위해 세 무리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아침 희생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 뜰에 남았으며;다른 한 집단은 희생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버드나무 가지를 자르려고,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마자 가까이로 내려갔고, 그동안 셋째 집단은, 성전에서 대열을 지어 은백색 트럼펫 소리에 맞춰 행진했는데, 상징적 물이 들어 있는 금 주전자를 손에 든 물 담당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오펠을 통과하여 실로암 근처로 나아갔는데, 거기에는 수문{水門}이 있었다. 금 주전자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워진 후에, 행렬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수문 길로 들어가서, 곧바로 제사장들의 뜰로 갔는데, 물 주전자를 든 제사장은 축배 봉헌을 위한 포도주를 들고 있는 제사장과 거기서 만났다. 이 두 제사장은, 제단 바닥으로 이어진 은으로 된 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서, 주전자에 들어 있는 것을 거기에 부었다. 포도주와 물을 붓는 이 제례가 이행되는 것이 모인 순례자들에게 신호가 되어, 레위족과 번갈아 가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전부 영창 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반복할 때,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제단 주변에서

물결치듯 했다. 그 다음에는 그날의 시편을 반복하는 것과 함께, 그날의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축제 가운데 마지막 날의 시편은 82편이었고, 5절부터 시작됐다.

5. 세상의 빛에 관한 설교

^{162:5.1 (1794.4)}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무대의 배경을 큰 촛대와 햇불들이 환하게 비쳤을 때, 예수께서는 모인 군중 한가운데 일어나서 말씀했다:

^{162:5.2 (1795.1)}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흑암 속에서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께 나를 재판에 회부하고, 마치 나를 재판이라도 하듯이 앉아서 선언하기를,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증거 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증거 하더라도, 내 증거는 영원히 참되며,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만 육체의 외모로 판단하며; 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내

대적일지라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해야만 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고 의로울 것인데, 내가 홀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참된 심판의 근원 되시는 내 아버지와 연합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두 사람의 믿을만한 증인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좋다, 그러면 내가 이 진리의 증인이 되겠으며;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러하시다. 내가 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는 무지한 상태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내게 물었으며, 진실로,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62:5.3 (1795.2) "내가 떠나리라는 것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이 빛을 거부하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며;나는 위에서 왔다. 어둠 속에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들의 아버지의 영원한 빛 속에 산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지만, 사람의 아들의 신분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여전히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며, 이

구원하는 빛을 고의로, 즉 알면서 거부하는 모든 자는 자기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튼 나를 보내신 분은 진실하고 신실하시며; 내 아버지는 죄 범하는 자녀도 사랑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해 왔다.

162:5.4 (1795.3) “사람의 아들이 들림 받으면, 그때에서야 너희는 내가 그인 것과, 나 스스로 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들려준다. 나를 보내신 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데, 내가 항상 그의 앞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162:5.5 (1795.4)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 뜰에서 순례자들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를 잡으려 하지 못했다.

6. 생명의 물에 대한 강론

162:6.1 (1795.5) 마지막 날, 그 축제에서 가장 큰 날에, 행렬이 실로암 연못에서 출발하여 성전 뜰을 지나고, 제사장들이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은 직후에, 예수께서 순례자 가운데 서서 말씀했다:“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가 생명의 물을 가져온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이 뜻하는 영으로 채워질 것이며, 성서도, ‘그로부터 생수{生水}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했다.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생명을 주는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이 영{靈}을 받는 자는 영적 목마름을 결코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162:6.2 (1795.6)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단 앞에서 나뭇가지들이 물결치듯 움직임과 동시에 시편을 교독하는 할렐 영창 직후에 경배자들에게 강연했다. 바로 여기서 희생 제물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멈추게 됐으며, 영에_목마른 모든 혼에게 생명의 물을 수여하는 자임을 선언하는, 주님의 황홀한 목소리를 순례자들이 들은 것은 바로 이때였다.

162:6.3 (1796.1) 이른 아침의 이 예배가 마칠 무렵에, 예수께서는 대중을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했다:“너희가 성서에서:‘보라, 마른땅에 물이 쏟아지고 말라버린 흙 위에

퍼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영을 너희 자녀 위에 부어서 복을 받게 하고, 너희 자녀의 자녀까지도 그리하리라'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깨진 주전자 같은 형식에 치우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물로 너희 혼을 적시도록 추구하면서, 너희는 왜 영의 돌보심에 목말라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에서 이뤄지려 하는 그것은, 신성한 영이 신앙 자녀에게 증여됨을 너희 조상이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방법이며, 너희는 이 상징들을 오늘날까지도 잘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증여를 통해서, 영들의 아버지의 계시가 이 세대에 임했고, 이 모든 것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사람의 자녀에게 확실히 증여될 것이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증여된 영이 참된 선생이 되는데, 영생{永生}에 이르게 하는, 즉 땅 위의 하늘 나라와 저 세상의 아버지의 낙원에 있는 참된 생명의 물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162:6.4 (1796.2) 그리고 예수께서는 대중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계속 대답했다. 더러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며;더러는 메시아라고 믿었으며;다른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에서 왔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위{位}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감히 체포하지 못했다.

7. 영적 자유에 관한 강론

^{162:7.1} ^(1796.3) 축제의 마지막 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라고 예수를 설득하기에 사도들이 실패한 후에,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 다시 성전으로 갔다.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 있는 신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했다:

^{162:7.2} ^(1796.4)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안다: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무에게도 노예가 아닌데;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외적{外的}으로 복종함이 아니라;혼의 자유함을 뜻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 좋은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 결코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 또한 너희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아들이 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162:7.3 (1796.5)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알지만, 너희 지도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말을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은 편견으로 봉해졌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존심으로 눈이 멀었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를 너희에게 전파했지만, 착각에 빠진 이 선생들은, 오직 이 세상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 행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고 말하겠다. 너희 중에 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악한 자의 일을 행하기로 결심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나타낸 진리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의 자녀가 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어둠의 자녀라면, 내가 나타낸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지 못할 것이다. 악의 자녀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속이는
자인 자기 아비의 길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와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지만,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162:7.4 (1797.1) “너희가 무엇으로 내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리대로 내가 살면서
선포한다면,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며;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런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선생들은, 내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내 일을 한다고 감히 말한다. 가까이 있던 한
사람은, 내가 마귀와 한편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정직하게 생각하는 자라면, 내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리라는 것은
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낙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또한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데, 내 대신 심판하실 이가 있기 때문이다.

162:7.5 (1797.2) "내가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내 옆에 있는 서기관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감히 여기 서서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보다 당신이 훨씬 큰 자인가? 당신이 감히 그런 신성 모독 발언을 해도 된다고 한 자가 누구라고 당신은 주장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내 영광을 위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즉 내 아버지를 아는 것에 실패했으며, 너희를 함께 데려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분을 안다.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기를 즐거워했고, 신앙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162:7.6 (1797.3)} 믿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이 무렵에 모여 있던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키며
외쳤다:“네 나이가 오십도 못됐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하니;너는 마귀의 자식임에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강론을 더 계속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씀했다;“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으며,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즉시
성전 복도를 통해 나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 근처의 비밀 모임 장소로
피했다.

8.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함

^{162:8.1 (1797.4)}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그 자매들과 함께 친구 집에
유숙하고, 사도들은 여기저기 몇 명씩 흩어지도록 했는데,
유대 권세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다시
실행키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162:8.2 (1797.5) 이 세 명은, 예수께서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지난 수 년 동안 관례였다. 그들은 부모를 잃었으므로, 마르다가 가사를 책임지다시피 했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나사로와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기운을 북돋우는 가르침을 받는 동안, 마르다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마르다가 쓸데없는 여러 과제로 괜히 산란했고, 하찮은 많은 걱정으로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설명돼야만 할 것이며;그것이 그녀의 성향이였다.

162:8.3 (1798.1) 마르다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바쁘게 처리하면서, 마리아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께 가서 말했다:“주님, 음식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모른 체하는 내 동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왜 항상 그토록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그토록 많은 하찮은 일을 걱정하느냐?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오직 한 가지라도 족하며, 마리아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쪽을 선택했으니, 내가 그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가 돼야, 너희 둘이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대로 살게 되어;음식 만드는 일도 같이하고, 너희 둘의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협동하게 되겠느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곧 하늘 나라의 더 중대한 일 앞에, 인생의 덜 중요한 일은 양보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겠느냐?

9. 베들레헴에서 아브넬과 함께

^{162:9.1 (1798.2)} 초막절 바로 다음 한 주간 내내, 상당히 많은 신자가 베다니에 모여서 열두 사도로부터 교훈을 받아들였다. 산헤드린은 예수께서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모임을 방해하지 않았으며;예수께서는 이 기간에 아브넬 및 그 동역자들과 베들레헴에서 활동했다. 예수께서는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베다니로 갔으며, 이 예루살렘 방문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162:9.2 (1798.3)} 이때, 아브넬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차리고 있었고, 그 중심지에서 유대지방의 도시들과 남부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알렉산드리아까지 많은 일꾼을 보낸 후였다. 그가 도착한 지 며칠 안 돼서, 예수와

아브넬은 두 집단 사도의 일이 통합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162:9.3 (1798.4)} 예수께서는 초막절 축제에 방문하는 동안 내내, 베다니와 베들레헴에서 거의 똑같이 시간을 보냈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사도들과 매우 의미심장한 시간을 보냈으며; 베들레헴에서는, 아브넬을 비롯해서 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였던 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였다. 전에 세례 요한의 사도였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히 가르친 그 용기에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사사롭게 가르칠 때 체험한, 호의적인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은, 아브넬의 동역자들 각자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천국을, 그리고 그런 발걸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162:9.4 (1798.5)} 주님은,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생애를 끝내기 전까지 있게 될 단합된 수고에 자기와 함께 동참하도록, 그들 모두를 준비시켰다.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마가단 공원에서 예수 및 열두 사도와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162:9.5 (1798.6)} 이 약속에 따라서, 11월 초에 아브넬과 열한 명의 동료는, 예수 및 열두 사도와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했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의 조직으로 그들과 함께 수고했다.

^{162:9.6 (1798.7)} 예수와 열두 사도는, 10월 후반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 않았다. 예수와 동역자들은, 10월 30일 일요일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예수께서 홀로 며칠 쉬었던 그 도시를 떠나서, 요단 큰 길 서쪽을 지나 곧바로 마가단 공원으로 갔으며, 11월 2일 수요일 오후 늦게 도착했다.

^{162:9.7 (1799.1)}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주님이 돌아온 것에 대해 크게 안심했으며;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더 이상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다.

제163편 마가단에서 70인 임직식

163:0.1 (1800.1) 예수와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마가단으로 돌아오고 나서 며칠 후에, 아브넬과 약 50명의 제자 무리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도착했다. 이때 마가단 야영지에는, 전도자 단체, 여자 단체, 그리고 팔레스틴 각 지역에서 온, 약 150명의 진실하고 믿을만한 다른 제자가 모였다. 며칠 동안 야영지를 둘러보고 재정비하기에 몰두한 후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이 특별한 무리의 신자들에게 일련의 집중 훈련 과정을 시작했으며, 주님은 그 후에 이렇게 잘 훈련되고 숙련된 제자 집단에서 70명의 선생을 선정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내보냈다. 이 정규{正規} 훈련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해서,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됐다.

163:0.2 (1800.2) 아침마다 예수께서 이 대원들에게 말씀했다. 베드로가 대중 전도 방법을 가르쳤으며;나다니엘은 가르치는 기술을 교육했으며;도마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마태는 그들의 집단 재정의 조직화를 지도했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특별한 체험과 타고난 재주에 따라서 이 훈련에 동참했다.

1. 70인 임직식

163:1.1 (1800.3)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마가단 야영지에서 70인을 임명했으며, 아브넬이 이 복음 전파자 및 선생들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70명의 이 단체는, 아브넬, 그리고 세레 요한의 옛 사도 열 명, 초기의 전도자들 중에서 51명, 그리고 천국 봉사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다른 제자 여덟 명으로 구성됐다.

163:1.2 (1800.4) 이 안식일 오후 두 시경, 소나기가 멈춘 사이에, 다윗과 그의 심부름꾼 단체 대다수가 합세하여 수가 늘어났고, 400명 이상의 신자{信者} 무리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서 70인 임직식을 지켜봤다.

163:1.3 (1800.5) 복음 사자{使者}로 구별하려고 70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 현장에 다른 일꾼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너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이제 곧 너희를 천국 사자로 보내려 하며;이리 떼 속에 있는 양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둘씩 짝지어 출발하고, 이 첫 사명은 잠시 동안만 실행될 것이니, 지갑이나 여분의 옷을 지니고 가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업무에만 전념해라.
어느 집에 머물게 될 때마다, 반드시 먼저: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해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살면,
너희는 거기에 머물도록 하며;그렇지 않거든 떠나라. 이런
집을 선정해서, 너희가 그 도시에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물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내놓는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은 일꾼이 자기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숙소가 제공된다 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친선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사악하고
자기기만에 빠진 적들과 반드시 논쟁해야 됨을
기억하라;그런즉 너희는, 비둘기 같이 무해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163:1.4 (1801.1) “그리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전파해 말하고, 정신 또는 육체가 병든 모든
자를 보살펴라. 너희가 천국의 좋은 것들을 값없이
받았으니;값없이 줘라. 어느 성읍 사람이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을 것이나;어느
성읍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무리를 떠날 때에도 여전히 너희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그때까지도 너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다'고 말해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거부한 것이다."

163:1.5 (1801.2) 예수께서는 70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둥글게 무릎 꿇은 그들에게,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163:1.6 (1801.3)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넬은 70인 사자를, 갈릴리, 사마리아, 및 유대지방의 모든 성읍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이 서른다섯 쌍의 사자는, 6주 동안 전도하고 가르쳤으며, 12월 30일 금요일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펠라 근처의 새 야영지로 모두 돌아왔다.

2. 부자 청년 및 다른 사람들

163:2.1 (1801.4) 70인 가운데 하나로 지명되고 임명받으려 했던 오십 명 이상의 제자가, 이 후보자들을 선정하도록 예수께서 임명한 위원회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넬, 그리고 전도자 단체의 임시 대표자로 구성됐다. 세 사람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만장일치가 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후보자를 예수께 데려갔고, 주님께서는 복음 사자로서 임명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거부하지 않은 반면, 예수와 대화를 마쳤을 때 복음 사자가 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은 사람이 열두 명 이상 있었다.

163:2.2 (1801.5) 진지한 한 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주님, 나도 당신의 새로운 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내 아버지가 매우 늙으셔서 거의 돌아가시게 됐으니,집에 돌아가서 장사지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했다:“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신실한 제자이고, 집에 돌아가 머물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볼 수 있지만, 내 복음 사자들과 함께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네가 임명받은 선생이 되려거든, 죽은 자를 다른 사람들이 묻도록 하고, 너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163:2.3 (1801.6) 다른 제자가 주님께 와서 말했다:“나는 임명받은 사자가 되기 원합니다만, 집에 가서 잠시 동안만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네가 임명받고자 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한다. 복음 사자는 오직 한 가지에 애착심을 가져야 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

163:2.4 (1801.7) 그때 안드레가 어떤 부자 청년을 예수 앞으로 데려 왔는데, 그는 경건한 신자였고, 임명받기 원하는 사람이었다. 마타돌무스라는 이 젊은이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며;예수의 가르침을 들었고, 곧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에게서 천국 복음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임명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마타돌무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도록 요청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산보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주님,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확실히 지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네가 잘했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지, 단순히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천국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가 대답했다. “예, 주님,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제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그렇다면 너는 참으로 내 제자이며 천국의 자녀다.”

163:2.5 (1802.1)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다:“그렇지만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당신의 새로 임명되는 사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사랑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씀했다:“네가 기꺼이 그 값을 치른다면, 네가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운다면, 너를 사자들 중에 하나로 삼겠다.” 마타돌무스가 대답했다. “주님,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신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릎 꿇고 있는 젊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씀했다. “네가 내 사자가 되고 싶으면,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난한 자나 네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좇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 나라에서 보화를 소유할 것이다.”

163:2.6 (1802.2)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산이 매우 많았으므로, 일어나서 슬퍼하며 가버렸다.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은,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임을 믿도록 배워왔다. 예수께서는, 청년이 자신과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그를 구해주고 싶었던 것이지, 반드시 모든 재물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세상 물질을 내놓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했다. 마타돌무스가 새로 임명된 70인 사자 가운데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현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163:2.7 (1802.3) 거의 모든 사람은, 애완동물처럼 아끼면서 놓지 않으려 하는 악한 어떤 것, 그러나 하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값의 일부분으로 요구되는 것을 갖고 있다. 마타돌무스가 자기 재물을 버렸다면, 아마 70인의 재물로 경영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다시 그의 손에 맡겼을

것이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했는데, 70인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늦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재무 담당자가 됐으며,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163:2.8 (1802.4) 항상 그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은: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영적인 세계의 세력들은 사람을 강압하지 않으며;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길을 가도록 허용한다.

163:2.9 (1802.5) 예수께서는, 마타돌무스가 자신의 재물을 소유하고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함께 임명받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다봤으며;동시에, 재산을 버린다면 그가 모든 사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바로 예수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은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요구했던,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일을 그가 이때

했더라면 그의 체험이 됐을, 주님과 나누는 긴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스스로 뺏겼기 때문이다.

163:2.10 (1803.1) 부유함 자체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직접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부{富}를 사랑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 천국에 대한 영적 충성심과, 유물론적 물질숭배에 노예 된 상태는 양립할 수 없다. 사람은 최고의 충성심을 영적 이상{理想}과 물질적 애착심에 나눠 바쳐서는 안 된다.

163:2.11 (1803.2) 예수께서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께서는, 오직 열두 사도와 70인에게만, 공동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들의 모든 세상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했다. 그럴 때에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소유를 정리할 때 이익이 생기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예수께서는 부유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 번 충고했다. 예수께서는 초과 소득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피할 수 없는 불운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합리적인 형태라고 봤다. 사도들의 기금이 넘칠 때에는, 후에 수입이 줄어서 크게 고통당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다가 자금을 예치해 뒀다. 이 유다는 안드레와 사후{事後} 협의를 했다. 구호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수께서는 사도의 재정에 친히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여러 번 책망한 한 가지 경제적 폐단이 있었는데, 즉 약하고 배우지 못했고 행운이 덜 따랐던 사람을, 강하고 훌륭하며 지식적인 동료들이 불공평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어른과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비인간적인 대접은,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의 이상{理想}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3. 재산에 대한 토론

^{163:3.1 (1803.3)} 예수께서 마타돌무스와 대화를 끝낼 때까지, 베드로와 여러 사도가 그의 옆에 모여 있었고, 부자{富者} 청년이 떠나자 예수께서 사도들을 돌아보고 말씀했다: “부자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봤느냐! 영적 경배는 물질적 애착심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이방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흔히 말한다. 그리고 내가 선언하겠는데, 자기만족으로 가득한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163:3.2 (1803.4)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으며, 베드로가 특히 놀라서 말했다:“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되겠습니까? 부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그러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진보하도록 인도하는 영적 삶에 동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불가능은 없으며;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163:3.3 (1803.5)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자, 예수께서는 마타돌무스가 그들과 함께 남지 않은 것을 몹시 슬퍼했는데, 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호수 가까이 걸어 내려가서 물가에 앉았고, (이때 거기에 모두 모여 있던) 열두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했다:“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 재물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했다:“베드로야, 그렇지 않다. 오직 사도가 되려는 사람과, 너희처럼 한 가족으로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사모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나뉘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천국의 진리에 대한 사랑과 너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는 누구든지 포기해야만 한다. 어떤 이의 재물이 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의 영적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3:3.4 (1804.1)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뒀는데,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께서 열두 사도 모두에게 말씀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 나라를 위해서, 재산, 가정, 아내, 형제, 부모, 또는 자녀를 버려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 배를 받되 박해와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도 여러 배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으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종종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피조물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주의 복지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동정심으로 이뤄진 공정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신다.

163:3.5 (1804.2) "하늘 나라는 마치, 많은 일꾼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한 집주인과 같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가 아홉 시 무렵에 다시 나가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장터에서 보고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그들도 즉시 일하러 갔다. 그는 열두 시와 세 시 무렵에 또 나가서 똑같이 했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 돼서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여기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163:3.6 (1804.3) "저녁이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임금을 지불하되, 제일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하고, 처음 고용된 사람은 맨 나중에 지불하라.' 다섯 시에 고용됐던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다른 일꾼들도 각각 그렇게 받았다. 그날

아침 일찍 고용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자들이 어떻게 받는 것을 보고, 합의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씩 밖에 받지 못했다. 임금을 다 받고 나자, 그들이 불평하면서 말했다: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셨습니다.'

163:3.7 (1804.4) “그러자 집주인이 대답했다: '친구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 너희 각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 즉시 네 것이나 갖고 가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를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치 못하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선하기 원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관대함에 불평하느냐?

4. 70인을 파송함

163:4.1 (1804.5) 70인이 처음 전도 나가는 마가단 야영지에서 그날은 감동적이었다. 그날 이른 아침에, 70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163:4.2 (1804.6) 1.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세상, 즉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선포돼야 한다.

163:4.3 (1804.7) 2. 병자를 돌보되, 기적을 기대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163:4.4 (1805.1) 3. 세상 권력과 물질적 영화라는 외적{外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관계를 전파하라.

163:4.5 (1805.2) 4. 전심으로 복음을 전파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과도한 사교적 방문 또는 다른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라.

163:4.6 (1805.3) 5. 어떤 집이 먼저 본부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판명되면,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내내 거기서 지내라.

163:4.7 (1805.4) 6.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갈라설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모든 신실한 신자에게 명확하게 알려라.

163:4.8 (1805.5) 7. 사람이 해야 할 전체 의무가, 이 한 계명에 함축돼 있음을 가르쳐라: 너희 하나님이신 주를 너희 모든 정신과 혼으로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리새인이 설명하는 613가지 생활규정 대신에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의무라고, 그들이 가르쳐야 했다.)

163:4.9 (1805.6) 모든 사도와 제자가 참석한 가운데, 예수께서 70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마쳤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임직식 설교를 그들에게 전했다. 이 설교는,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천국 사자들로서 떠나도록 할 때 줬던, 정교한 명령이었다. 베드로는 70인에게 그들이 체험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덕목을 깊이 간직하라고 훈계했다:

163:4.10 (1805.7) 1. **성별{聖別}된 헌신.** 복음의 추수 현장에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항상 기도할 것. 그런 기도를 할 때, 차라리, “내가 여기 있사오니;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매일 드리는 경배를 경시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163:4.11 (1805.8) 2. **진정한 용기.** 그들이 적개심에 마주칠 것이며 박해를 당하게 돼있다고 경고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사명이 소심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두려운 사람은 떠나기 전에 물러서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163:4.12 (1805.9)

3. *신앙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기간의 전도여행에 아무 도움 없이 임해야 했으며;음식, 잠자리, 그리고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 아버지를 신뢰해야 했다.

163:4.13 (1805.10)

4. *열의와 솔선*. 그들은 열의와 지성적 의욕을 지녀야 했으며;주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했다. 동양식 인사치레는 너무 길었고, 복잡하게 격식을 차렸으므로;"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163:4.14 (1805.11)

5. *친절함과 공손함*. 주님은 그들에게 사교적 예법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라고 명했다.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매우 친절히 대해야 했다. 더 편하거나 유력한 자에게 대접받기 위해, 겸손히 대하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엄중히 경고 받았다.

163:4.15 (1805.12) 6. *병자를 돌볼 것*. 육신과 정신이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치거나 차도가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라고, 베드로가 70인에게 명했다.

163:4.16 (1805.13) 그리고 모든 설명과 지시가 끝난 후에, 그들은 둘씩 짝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지방에서 전도하기 위해 출발했다.

163:4.17 (1806.1) 유대인이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異教徒}의 나라를 7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더라도, 그리고 이 70인의 사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는 했더라도, 우리가 아는 한, 이 무리의 숫자가 정확하게 70이 된 것은 우연이었을 뿐이다. 예수께서는 6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더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 대가{代價}로 재산과 가족을 떠나기를 그들이 싫어했다.

5. 야영지를 펠라로 옮김

163:5.1 (1806.2) 이때 예수와 열두 사도는 베레아 지역에서 마지막 본부를 설치할 준비를 했으며, 그곳은 펠라에서 가까웠는데, 전에 주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10일 동안 마가단에서 여러 가지로 회의하며 시간을 보냈고, 12월 6일 화요일에, 300명 정도 되는 전체 일행은, 그날 밤에 펠라 가까이 강가에서 머물 수 있도록 새벽에 출발했다. 우물 옆에 있는 이 장소는 몇 년 전에 세레 요한이 야영지를 설치했던 곳이었다.

163:5.2 (1806.3) 다윗 세베대는, 마가단의 야영지를 철거한 후 벳새다로 돌아갔고, 즉시 연락 업무를 축소시키기 시작했다. 천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은 물론, 심지어 로마 제국의 먼 지방에서도 순례자들이 매일 도착했다. 믿는 자들이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며, 티그리스 동쪽 땅에서도 왔다.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자신의 심부름꾼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야영지 도구를 운반용 짐승에 실려 아버지 집으로 가져갔고, 전에 호숫가의 벳새다에서 야영지를 설치했던 것들과 함께 보관했다. 당분간 벳새다를 떠나면서, 그는 호숫가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 사도들의 야영지가 있는 곳에서 약 반 마일 북쪽 지점에 도착했으며;한 주일이 못되는 기간 내에, 거의 1,500명의 순례자를 환대할 준비를 갖췄다. 사도들의 야영지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때

팔레스틴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었고, 계속 증가하는 탐구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이런 숙박 설비가 필요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들으려고 베레아에 온, 매우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163:5.3 (1806.4)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태에게 의논한 적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은 자진해서 처리했다. 그는 전에 심부름꾼 단체였던 사람 대부분을 고용해서, 이 야영지 짓는 일을 돕도록 했으며; 정기 연락 업무에는 20명 미만의 사람만 배치했다. 12월 말 가까이, 그리고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자가 주님 곁에 몰려들었고, 다윗이 지은 야영지에 기거했다.

6. 70인이 돌아옴

163:6.1 (1806.5)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근처에 있는 언덕에 가 있는 동안, 70인 사자들이 둘씩 짝지어 펠라에 있는 본부에 도착했고, 많은 신자가 그들을 따라왔다. 예수께서 돌아온 것은 다섯 시 무렵이었는데, 70인 전체가 가르치는 장소에 모여 있었다. 천국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겪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녁 식사가 한 시간 이상 지체됐다.

다윗의 연락 대원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이 소식 대부분을 전해 주기는 했지만, 새로 임명받은 이 선생들로부터, 굶주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생하게 듣는 것은, 정말로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 확장에 중대한 위기가 없게 됐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다.

163:6.2 (1807.1) 70인은, 어떻게 자신들에게 “마귀들까지도 복종”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신경 장애에 걸린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들이 일으킨 놀라운 치료도 여기에 관련시켰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영에 사로잡혔다가 이 사자들로 인해 놓여난 경우가 몇 번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 말씀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으니, 이 불순종의 미숙한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이런 소수의 타락한 영이 불행한 필사 정신 속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우리 영을 사람의 바로 그 정신 속에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해 능력을 가진 것을 나도 기뻐하지만, 이 체험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 명부{名簿}에 기록된 것과, 그리하여 영적으로 정복하는 끝없는 생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라.”

163:6.3 (1807.2) 그리고 바로 이때, 저녁 식사를 나누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이 가끔 목격했던 감정적 황홀경의 드문 순간 가운데 하나를 체험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내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이 천국 자녀들에게 이 영적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함이 분명히 당신께 기쁨이 됐을 것이며, 내가 당신께로 돌아간 후에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될 것과, 당신이 내게 이루라고 주신 그 일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권세를 내 손에 맡겨주시려 하는 것과, 오직 당신만이 내가 누구인줄을 참으로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또한 내가 당신을 계시해준 자들만 당신을 참으로 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 가운데서 내 형제들에게 주는 이 계시를 마친 후에는, 위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163:6.4 (1807.3)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에, 사도와 사역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섰다:“이것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많은 선지자와, 지나간 여러 시대의 위대한 사람 가운데 다수가 너희의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 걸쳐 빛의 자녀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듣고 본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163:6.5 (1807.4)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향해 말씀했다:“너희는 얼마나 많은 성읍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는지 들었으며, 내가 보낸 사역자와 교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환영받았는지 들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기로 작정한 이 공동체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빛을_거부하는 고라신과 벳새다_유리아 그리고 가버나움의 거민{居民}들, 이 사역자들을 환영하지 않은 도시들에게는 화 있으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행한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소위 이방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 사람은, 오래 전에 뉘우쳐 베옷을 입고 재위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날에는, 정말로 두로와 시돈이 더 건디기 쉬울 것이다.”

163:6.6 (1807.5)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께서는 70인과 함께 따로 나가서 말씀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지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매우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좋은 소식을 너희가 가져왔을 때, 나는 정말 기뻐다. 그러나 너희는 왜 그토록 놀랄 정도로 의기양양했느냐? 너희 메시지가 전달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느냐? 너희는 그 효과에 놀라서 돌아올 만큼,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더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의 기뻐하는 영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자만, 즉 영적 자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너희가 사악한 존재인 루시퍼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어떤 형태의 영적 자만심이든지 진지하게 피했을 것이다.

163:6.7 (1808.1)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필사적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위대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그 길을 보여줬으며; 의무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기에 싫증내지 말라고 했다. 너희에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 뒤를 따라 올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다: 나는 항상 곁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과 앞으로 영원토록 초청할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혼은 영적 안식을 얻을 것이다.”

163:6.8 (1808.2)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시험해 봤을 때, 그 말씀이 참말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도, 이 약속을 시험해 봤고,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했다.

7. 마지막 전도를 위한 준비

163:7.1 (1808.3) 그 다음 며칠은 펠라 야영지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베레아 전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있었다. 예수와 동역자들은, 세 달 동안 베레아 전 지역에서 마지막 전도여행에 들어갔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수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에, 예수와 열두 사도의 본부는 이 곳 펠라 야영지에 유지됐다.

163:7.2 (1808.4) 예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께로 왔으며, 매 주 숫자가 늘었고, 사람들이 팔레스틴뿐 아니라 로마 지역과 근동{近東}의 모든 지방에서 왔다. 주님께서는 베레아 전도여행에 70인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펠라 야영지에서 보냈으며, 대중을 가르치고 열두 사도에게 설명했다. 이 세 달 동안 내내, 적어도 열 명의 사도가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163:7.3 (1808.5) 여자 단체 역시, 베레아의 비교적 큰 여러 성읍에서 사역하기 위해, 70인과 함께 둘씩 짝지어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이 여자 집단은 원래 열두 명이었으나, 최근에 50명의 여자로 구성된 더 큰 단체가, 가정 방문을 위해, 그리고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기술을 위해 훈련 받았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 페르페투아는 새로 구성된 여자 단체의 일원이 됐고, 아브넬 밑에서 여자들의 확대된 업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았다. 오순절 이후에, 그녀는 유명해진 남편과 함께 모든 선교 여행에 동행했으며;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던 날, 그녀도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됐다. 새로 구성된 이 여자 단체 중에는, 빌립과 마태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다.

163:7.4 (1808.6) 이제 천국의 일은 예수의 직접 지도 하에 마지막 국면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 현재 단계는, 갈릴리에서 인기를 누렸던 지난 날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異蹟}을 찾아다니던 대중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국면이었다. 그러나 추종자들 중에는, 물질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하늘 나라는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시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한,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라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자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

제164편 봉헌식 축제

164:0.1 (1809.1) 야영지가 펠라에 세워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나다니엘과 도마를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봉헌식 축제에 참석했다. 요단을 지나고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해서야, 두 사도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함을 알게 됐다. 예수께서 봉헌식 축제에 정말로 모습을 나타내려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주 진지하게 간청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단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소용없었으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산헤드린의 손아귀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여러 번 간청하고 많이 경고했지만, 예수께서는 오직, “내 때가 오기 전에 빛을 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스라엘의 이 선생들에게 주려 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164:0.2 (1809.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두 사도는 자신의 두려운 느낌을 줄곧 표현하고, 겉보기에 대담한 그런 시도가 지혜로운지 의심된다고, 계속 투덜거렸다. 그들은 네 시 반쯤에 여리고에 도착했고, 거기서 밤을 보낼 숙소를 예비했다.

1.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164:1.1 (1809.3)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이 예수와 두 사도에게 질문하려고 모여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사도들이 대답했고, 어떤 것은 주님이 논의했다. 그 저녁에, 어떤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논쟁을 하려고 율법사들이 말했다:“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율법과 선지서들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됐으며;너는 그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 예수와 바리새인의 교훈을 다 알았으므로,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네 대답이 옳다. 네가 진실로 그렇게 하면, 영구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다.”

164:1.2 (1809.4) 그러나 율법사는 전적으로 진지한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삼아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님께 좀 더 다가가서 말했다:“그렇지만 선생님, 누가 내 이웃인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율법사는, 이웃을 “자기 민족의 자녀들”로 규정하는 유대인 법률에 위반되는 대답을 예수께서 하도록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 유대인은 모든 다른 민족을 “이방의 개”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교훈을 잘 알았으므로, 주님이 유대인과는 다르게 대답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며;그리하여 예수를 유도하여, 신성시되는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게 하려 했다.

164:1.3 (1810.1)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사의 의도를 알고, 함정에 빠지는 대신,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는데, 여리고에서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호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였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무자비한 강도에게 붙들려서, 모두 뺏기고 옷도 벗겨졌으며, 매를 맞고 반쯤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졌다. 바로 그때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부상당한 그 사람에게 와서, 심히 비참한 상태임을 보고, 그 길 다른 편 쪽으로 지나가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버렸다. 이 무렵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길을 건너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왔으며;그가 심히 강탈당하고 매 맞은 것을 봤을 때, 연민으로 감동돼서,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싸매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인숙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줬다. 그리고 다음 날 돈을 꺼내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내 친구를 잘 보살펴 주시고,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게 묻겠는데: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게 봉변당한 사람의 이웃이 됐겠느냐?” 율법사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을 감지하고 대답했다:“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했다.

164:1.4 (1810.2)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대답한 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유쾌하지 못한 말을 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대답하게 하려고 던졌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그 대답을, 율법사가 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곧바로 이단으로 정죄됐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부정직한 율법사를 난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말سم한 결과가 됐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 추종자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훈계였고, 동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갖는 모든 유대인에게는 멋진 꾸짖음이 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형제간의 사랑을 촉진시켰다.

2. 예루살렘에서

164:2.1 (1810.3)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인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초막절 축제에 참석했었으며;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산헤드린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번 더 주려고 봉헌식 축제에 갔다. 예루살렘에 머무른 며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금요일 밤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일어났다. 이곳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25명가량의 유대인 지도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 이 무리 중에는 14명의, 그 전에 또는 새로 임명된 산헤드린 회원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에벨, 마타돌무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참여했다.

164:2.2 (1810.4) 이 경우에 예수의 청중은 모두 학식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들과 두 사도, 양쪽 다 주님이 이 저명한 무리에게 한 말씀의 넓이와 그 깊이에 경탄했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서 가르친 이후로, 이때만큼 세속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이토록 박식함을 나타내거나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164:2.3 (1810.5) 이 작은 모임이 끝나자,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인격체를 신비로워 하면서, 그의 품위 있는 태도에 매혹되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돌아갔다. 그들은, 산헤드린의 나머지 다른 회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예수의 소망에 관해, 그에게 충고하려 했다. 주님은 그들의 모든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님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어떤 것도 효과 없을 것임을 잘

알았다. 주님은 유대인 지도자 대부분이 천국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럼에도,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주님이 나다니엘 및 도마와 함께 감람산에서 묵으려고 그 밤에 나갔을 때, 산헤드린의 눈에 띄도록 한 번 더 일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었다.

^{164:2,4 (1811.1)} 그날 밤에, 나다니엘과 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니고데모의 집에서 들었던 것에 너무 놀랐기 때문이었다. 함께 70인에게 가보자고, 산헤드린 전직 및 현직 회원인 그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한 말씀을 그들은 많이 생각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형제들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가 갑절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며, 나를 향해 품은 그들의 미움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시하실 방법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줄 것이니, 너희는 각자 가서 영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하라.”

3. 눈 먼 거지를 치유함

164:3.1 (1811.2) 다음 날 아침에, 세 사람은 아침을 먹으러 마르다의 집에 갔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 안식일 아침에, 예수와 두 사도가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그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안식일에는 거지들이 구걸하거나 동냥 받는 것이 금지되기는 했지만, 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허용됐다. 예수께서는 멈춰 서서 거지를 내려다봤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산헤드린과 다른 유대인 지도자 및 종교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한 번 더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예수의 마음에 떠올랐다.

164:3.2 (1811.3) 예수께서 소경된 자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몰두할 때, 나다니엘은 이 사람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164:3.3 (1811.4) 랍비들은 날 때부터 소경 된 경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다. 죄를 품고 태어나는 아이뿐 아니라, 조상이 저지른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형벌로써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스스로 죄를 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은 어떤 죄 또는 다른 어떤 방종함으로 인해 그런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쳤다.

164:3.4 (1811.5) 환생{還生}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이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플라톤과 필로 그리고 에세네파 가운데 많은 사람을 포함해서, 옛 유대인 선생들은, 사람이 전생{前生}에서 뿌린 씨앗을 한 번의 환생에서 거둔다는 의견을 묵인했으며;그리하여 그들은, 전생에서 범한 죄 값을 금생{今生}에서 갚는다고 믿었다.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혼에 전생이 없음을 믿도록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164:3.5 (1811.6) 아무튼, 보기에다 모순되지만, 그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추정하면서도, 유대인은 이 눈 먼 거지들에게 동냥 주는 것이 아주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소경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 인정 많은 분이시여, 소경을 도와 상을 얻으시오”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관습이었다.

164:3.6 (1811.7)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나다니엘 및 도마와 토론하고자 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한 번 더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그날 하나의 수단으로 이 소경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했던 이유뿐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자연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현상의 참된 원인을 찾도록, 항상 용기를 주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평범한 물질 사건에도 영적 원인을 적용시키려는 일반적인 경향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자주 경고했다.

164:3.7 (1812.1) 예수께서는 그날의 과업을 위한 계획에 이 거지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요시아라는 이름의 그 소경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증거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눈 먼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그렇게 됐지만, 아직 낮일 동안, 우리는 이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밤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164:3.8 (1812.2) 예수께서 대답을 마치고 나다니엘과 도마에게 말씀했다:“사람의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되도록, 이 안식일에 이 소경이 눈을 뜨도록 만들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 소경이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땅에 침을 뱉어 침과 흙을 개어 요시아에게 다가가서, 보지 못하는 눈에 흙을 바르고 말씀했다:“얘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흙을 씻어라, 그러면 네가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아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렇게 씻었을 때, 눈을 뜨게 됐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164:3.9 (1812.3) 그는 항상 걸인이었으므로, 그 외에 아무 것도 알지 못했으며;난생처음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한 흥분이 가라앉자, 늘 자선을 구걸하던 자리로 돌아갔다.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눈 먼 거지 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과 닮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묻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가 대답했다.

164:3.10 (1812.4)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게 됐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가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내 이야기를 하더니, 침과 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내게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한 대로 했더니 내가 곧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여, 요시아를 치유한 이상한 남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164:3.11 (1812.5) 이것은 주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사람은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면서 보게 되리라고 약속한 예수가,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도했던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임을 알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되리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지만, 당대의 사람은, 위대하거나 거룩한 사람의 침 속에 효험 있음에 대해 깊은 신앙을 가졌으며; 예수께서 나다니엘 및 도마와 나누는 대화에서, 요시아는 어느 위대한 사람, 학식 있는 선생, 또는 거룩한 선지자에게서

은혜를 받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며;따라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했다.

164:3.12 (1812.6) 예수께서 흙과 침을 사용하고, 실로암이라는 상징적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에게 지시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164:3.13 (1812.7) 1.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온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으키기로 선택한 기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64:3.14 (1813.1) 2. 소경이 치유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가 신앙을 거의 갖지 못했으므로, 이 물질적 행동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는 침의 효과를 미신적으로 믿었으며, 실로암 연못을 다소 신성한 장소로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바른 진흙을 씻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 그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그 진행사항에 충분한 정도만의 형식이 있었을 뿐이다.

164:3.15 (1813.2)

3. 그러나 예수께서, 이 독특한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물질 수단에 부여한 셋째 이유가 있었는데:이 기적은 오직 예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뤄졌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는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도, 추종자들이 환자의 치료에 물질 수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기적만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버리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164:3.16 (1813.3)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함으로써 시력을 회복시켰으며, 이 안식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한 것은, 산헤드린과 유대인 선생 및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공개적 도전을 위해 이 일을 꾸민, 주된 목적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의 공개적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예수의 방법이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안식일 오후 일찍 두 사도를 이 사람에게 데려온 것과, 바리새인에게 그 기적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도록 그 변론을 일부러 자극시킨 것은, 이 문제가 산헤드린 앞에 제기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4. 산헤드린 앞에 선 요시아

164:4.1 (1813.4) 오후 중간 무렵에, 요시아가 치유 받은 사건이 성전 주변에서 큰 이야깃거리를 만들었으므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늘 만나던 성전 회합 장소에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는 산헤드린이 소집되지 못한다는 현행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험이 올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를 고발하는 주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알고,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한 것이 산헤드린 앞에 고발돼서 재판 받기 바랐으며, 그때 자비를 베푸는 이 행동에 대해 그를 심판하는 바로 그 유대인 대법정 재판소가, 안식일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_부과한 법률을 직접 위반하는 가운데, 심의하게 되기 바랐다.

164:4.2 (1813.5)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자기네 앞으로 부르지 않았으며;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대신에, 그들은 즉시 요시아를 데려오게 했다. 몇 가지 기본 질문을 한 후에, (약 50명의 회원이 참여한) 산헤드린의 대변자가 요시아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다. 요시아는 그날 아침 눈을 뜨게 된 후에, 도마, 나다니엘,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안식일에 치유 받은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는 사람 전부에게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요시아는, 예수께서 구원주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임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이 사람이 와서, 내 눈에 흠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며, 내가 지금 봅니다”라고 말했다.

164:4.3 (1813.6) 나이 많은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긴 연설을 한 후에 말했다:“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을 너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될 수 없다. 첫째로, 흠을 빚었다는 것과, 다음에는, 안식일에 실로암에 가서 씻도록 이 거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그는 율법을 어겼다.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될 수 없다.”

164:4.4 (1813.7) 그러자 몰래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가 평범한 죄인이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지를 알고, 또한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을 아는데;지금은

그가 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선지자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고 말하시렵니까?”
예수를 감히 고소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바리새인에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혼란에 빠뜨리고 당황스런 질문을
했으므로, 그들 가운데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다. 사회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함을 보고,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 요시아에게 돌아서서
말했다:“네 눈을 뜨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 이 예수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요시아는:“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

164:4.5 (1814.1) 지도자들은 크게 불안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가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시아의 부모를 데려오게 했다. 그들은 그 거지가
치유 받았다는 것을 믿기가 몹시 싫었다.

164:4.6 (1814.2) 예수께서 회당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사실은
물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이
알았으며;이렇게 됨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일 외에는,

전체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164:4.7 (1814.3) 그러므로, 그들이 불려왔을 때, 위엄에 찬 산헤드린 앞에 세워진, 이 가난하고 두려움에 짓눌린 요시아의 부모는, 자유롭게 말하기를 무서워했다. 법정의 대변자가 말했다:“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음이 사실이나?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볼 수 있느냐?” 그러자 요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대답했다:“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이가 찼으니;그에게 물어보셔서;직접 말하게 하시지요.”

164:4.8 (1814.4) 그들은 당장 요시아를 불러서 두 번째로 그들 앞에 세웠다. 정식 재판 절차에 매달려서는 그들의 책략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므로;요시아를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은 다른 공격 방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 전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재판관이 말했다:“너는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안다. 너는 왜 진실을 분별하지 않으려 하느냐? 너는 너 자신과 그 사람 둘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음을 안다. 네가 오늘 눈을 뜨게 됐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너의 치유자로 인정함으로써 네 죄를 속죄하지 않겠느냐?”

164:4.9 (1814.5) 그러나 요시아는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재판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그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과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시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질문거리를 찾아서 물었다:“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가 실제로 네게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기를 믿으라고 네게 요구했느냐?”

164:4.10 (1814.6) 요시아는 약간 조급하게 대답했다:“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요시아가 이렇게 말하자,

산헤드린은 혼란에 빠져서 거의 충돌이 일어날 지경이었으므로, 지도자들이 요시아에게 달려들어 화내며 소리쳤다:“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164:4.11 (1814.7) 그러자 요시아는 걸상 위에 올라서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소리 높여 말했다:“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음을 증거 하는데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증언을 듣고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에게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과;오직 진실하게 경배하는 자, 즉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 됐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을, 창세{創世}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음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으십시오!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온전히 죄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이제는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됐던 것이 아닐 것이며, 네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들은 요시아를 쫓아내려고 회당으로 즉시 달려갔다.

164:4.12 (1815.1) 요시아는 예수에 대해 그리고 그의 치유의 본질에 대해 거의 모르는 채 이 재판에 회부됐었다. 온 이스라엘의 이 최고 법정 앞에서 그가 그토록 현명하고 용감하게 제시했던 대담한 증언 대부분은, 재판이 매 순간마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진행될 때, 그의 정신 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다.

5.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심

164:5.1 (1815.2) 안식일을_위반하는 이 산헤드린 회의가 성전의 한 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동안 내내,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앞에 소환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신성한 아들신분을 이루는 기쁨과 자유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거닐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그리고 공공연하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당황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찾던 바로 그 기회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예수를 산헤드린 앞에 증인으로 출두시키기를 두려워했고, 체포하기는 더 두려워했다.

164:5.2 (1815.3) 예루살렘에서 이 시기는 겨울 중간 무렵이었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부분적으로 가려진 장소에 사람이 몰려들었으며; 예수께서 거닐 때 무리가 많은 질문을 했고, 두 시간 이상 그들을 가르쳤다. 어떤 유대인 선생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공연하게 질문했다: “얼마나 더 우리를 애타게 하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 “내가 나 자신과 내 아버지에 관해 여러 번 너희에게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자들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매혹을 느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그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萬有}보다 크시며,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믿지 않는 유대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으나, 믿는 자들이 그들을 말렸다.

164:5.3 (1815.4) 예수께서 계속 가르쳤다:“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많은 애정 어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였는데, 이 선한 일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에 대해 돌을 던지려는 것인데, 사람이면서 감히 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했다:“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을 때, 너희가 나를 믿기를 거절했으므로 사람의 아들에게 신성모독 죄를

씩우려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치 않으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주장하겠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같이, 나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그에게 던지려고 달려 나왔으나, 예수께서는 성전 안쪽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며;산헤드린에 참석했던 나다니엘과 도마를 만나서, 요시아가 회의장에서 나올 때까지 성전 근처에서 기다렸다.

164:5.4 (1816.1) 예수와 두 사도는, 요시아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집에 당도했을 때, 도마가 그를 마당으로 불러냈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요시아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시아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네가 그를 보고 들었으며, 지금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그러자 요시아가 말했다;“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164:5.5 (1816.2) 요시아는, 자신이 회당에서 쫓겨났음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매우 우울했지만, 예수께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같이 가도록 즉시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때, 매우
용기를 얻었다. 예루살렘에 살던 천진한_마음의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 시대와 세대의
영적 귀인{貴人}들과 연합되도록 자기를 인도하는, 한
우주의 창조주를 봤다.

164:5.6 (1816.3) 예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두 사도 및 요시아와 함께 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요시아는 주님의 기적 행함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
많은 결실을 맺은 장본인이 됐는데, 일생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 하는 설교자가 됐기 때문이다.

제165편

베레아 전도가 시작됨

165:0.1 (1817.1) 서기 30년 1월 3일 화요일에, 베레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로, 선교하도록 동역자들을 보내기에 앞서,

아브넬이 그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 지시를 했는데, 아브넬은, 전에는 나실인이며 한때 엔게디에 있는 나실인 학교 교장이었던 세레 요한의 열두 사도의 우두머리였고, 지금은 70인 천국 사자{使者}의 우두머리였다. 이번 베레아 전도는 거의 세 달 동안 계속됐으며,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이 있는 후에, 육신을 입은 상태로는 마지막 체험을 하려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70인은 예수와 열두 사도의 도움을 잠깐씩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도시, 성읍, 및 추가적인 50여개의 마을에서 일했다:자폰, 가다라, 마카드, 아르벨라, 라마, 에드레이, 보소라, 카스핀, 미스페, 거라사, 라가바, 숙곳, 아마수스, 아담, 페누엘, 카피톨리아, 디온, 하티타, 가다, 필라델피아, 욱베하, 길리드, 베스_니므라, 타이러스, 엘리라, 리비아, 헤시본, 칼리호, 베스_페올, 싯딤, 십마, 메데바, 베스_메온, 아레오폴리스, 아로엘.

165:0.2 (1817.2) 이제 62명이 된 여자 단체는, 이 베레아 전도여행의 전체 기간에 환자 돌보는 일을 거의 도맡아서 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의 비교적 더 높은 영적인 면들이 발전된 마지막 기간이었으며,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다. 예수의 사도와 제자들은, 팔레스틴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곳처럼 철저하게 일한 적이 없었으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상류 계층의 시민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널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165:0.3 (1817.3) 이때 베레아에는 거의 같은 숫자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으며, 유대인은 주로 유다 마카비 시대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베레아는 팔레스틴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림 같은 지역이었다. 유대인은 대개 이곳을 “요단강 저편 땅”이라고 불렀다.

165:0.4 (1817.4) 이 기간 내내, 예수께서는 시간을 나눠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에 있기도 하고, 여러 성읍에 흩어져 가르치고 전도하는 70인을 돕기 위해, 열두 사도와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비록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70인은 아브넬의 지시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1. 펠라 야영지에서

165:1.1 (1817.5) 1월 중순경에, 1,200명 이상이 펠라에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야영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적어도 매일 한 번씩 대중을 가르쳤고, 비로 방해받지 않으면 대개 아침 아홉 시부터 말씀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매일

오후에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 및 다른 노련한 제자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평범한 학습으로 매일 저녁시간을 보냈다. 이 저녁 모임은 보통 50명 정도 됐다.

165:1.2 (1817.6) 3월 중순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4천 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 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아침마다 모였다. 주님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세상에서 업무를 마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정점{頂点}은 천국이 진보하던 중에 이 둘째 단계, 즉 기적이 없는 국면에서 달성됐다. 모인 대중 가운데 4분의 3정도는 진리 탐구자였지만, 예루살렘 및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트집 잡으려는 자도 많이 있었다.

165:1.3 (1818.1) 예수와 열두 사도는, 펠라 야영지에 모인 대중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열두 사도는 실제 업무에는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수와 함께 아브넬의 동역자들을 방문하러 이따금씩 나갔을 뿐이다. 아브넬은, 전에 자신의 주인이었던 세레 요한이 대부분의 일을

여기서 했으므로, 베레아 지역에 매우 익숙했다. 베레아 전도가 시작된 후, 아브넬과 70인은 결코 펠라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2.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

^{165:2.1 (1818.2)} 300명 이상의 예루살렘 주민, 바리새인,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 일행이, 봉헌식 축제가 끝날 무렵에 유대인 통치자들의 관할 구역에서 서둘러 떠나는 예수를 따라서 북쪽으로 펠라까지 왔으며; 예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해 설교한 것은, 열두 사도는 물론 이 유대인 선생과 지도자들도 참석한 자리에서였다. 약 100명 정도 되는 집단과 이야기하면서 30분가량 자유로운 토론을 한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165:2.2 (1818.3)} “오늘밤에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여럿이 내 제자이지만, 증오에 차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니, 너희는 각자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해라.

^{165:2.3 (1818.4)} “이 밤에, 내 앞에는 나와 천국의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앞으로

순교할 자도 있으며;또 너희 가운데 더러는 전통에 노예 된
자인데, 음흉하고 속이기를 즐기는 너희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를 따라와, 사람의 아들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한다. 내가 지금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생애가,
너희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양쪽 다 심판할 것이다. 거짓
목자가 눈멀었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겠지만, 너희는
본다고 주장하며;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장하니;너희의 죄는 여전히 너희에게 남아있다.

165:2.4 (1818.5) "참 목자는, 위험한 때가 되면 자기 양 무리를 밤에
우리 속으로 모은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가 문으로
우리에 들어가서 부를 때,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문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간 목자는 누구든지 도둑이며 강도다. 참 목자는,
문지기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준 후에 우리로 들어가며,
그의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의 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며;그의 양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참
목자는 그들 앞에 먼저 가며;그가 길을 인도하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의 양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며;양들은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기에 낯선

자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여기 우리와 함께 모인 이 대중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고 우리를 따라오며;적어도, 진리에 굶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자들은 그렇게 한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내 양떼가 아니며;너희는 내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너희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너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165:2.5 (1819.1) 그리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165:2.6 (1819.2) “내 아버지의 양 무리에게 대리_목자가 되려는 너희는, 제 값을 하는 지도자가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그 무리를 ~~먹여~~만 하며;옆에 잔잔한 물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양 무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참 목자가 아니다.

165:2.7 (1819.3) “그리고 지금, 너희 중에 이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확실히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의 양 우리에게 들어가는 문이며, 동시에 내 아버지의

양 무리의 참 목자다. 나 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목자는 누구든지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돌보는 그들에게는, 내가 문이다. 내가 만들고 제정한 방법대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낙원의 영원한 초장에 도달하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65:2.8 (1819.4) “그러나 나는 또한 양을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놓는 참 목자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려고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생명을 갖되 더 풍성히 갖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샅을 받고 일하는 자는, 위험이 닥칠 때 양들이 모두 흩어져서 죽도록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칠 것이나; 참 목자는 늑대가 올 때 도망가지 않을 것이며; 자기 양 무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이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참 목자이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또한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위험이 닥쳐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루는 이 봉사를 완수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무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165:2.9 (1819.5) “그러나 내게는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많이 있으며, 이 말은 오직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알아보며, 모두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한 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두, 한 목자, 즉 참 목자의 음성을 알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165:2.10 (1819.6)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양 무리를 전부 내 손에 맡기셨는지 알게 될 것인데;내가 양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 내가 내 양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다양한 양 무리를 위해 서슴없이 내 생명을 바치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하라,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다른 피조물이든지, 내 생명을 뺏을 수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도 똑같이 가졌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런 권세를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165:2.11 (1819.7)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리둥절했고, 제자들은 몹시 놀랐으며, 한편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온 바리새인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저자는 미쳤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선생들은: “그는 마치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말씀하며; 더욱이, 마귀가 들어 있는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든지, 이 분이 한 것 같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165:2.12 (1819.8) 이 유대인 선생들 가운데 반 정도는 다음 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며, 나머지 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예루살렘과 집으로 돌아갔다.

3. 펠라에서 안식일 설교

165:3.1 (1819.9) 1월 말에 안식일 오후가 되자, 대중의 숫자는 거의 3천 명에 이르렀다. 1월 28일 토요일에, 예수께서는 “신뢰와 영적 방어태세”에 대해 기억에 남는 설교를 했다. 시몬 베드로가 서론적 발표를 한 후에, 주님이 말씀했다:

165:3.2 (1820.1) “내가 그동안 사도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이제 이 대중에게도 분명히 말하는데: 선입견을

고수하고 전통의 노예로 길들여진,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 가운데 다수는 마음이 정직하며, 그들 중에 더러는 내 제자가 되어 이곳에 있다. 이제 곧 너희는 모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춰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에게 숨겨진 그것을,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명을 완수할 때 전부 알게 될 것이다.

165:3.3 (1820.2)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곧, 속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지붕 위에서 공표될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아,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찾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후에는 너희에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불의에서 구출하고 우주의 심판 자리 앞에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진술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를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충고한다.

165:3.4 (1820.3) 참새 다섯 마리가 동전 두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리고 이 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있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모르시고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스랍 수호자들은 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는 왜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 닥쳐오는 많은 사소한 일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너희에게 이르겠는데:두려워 말라;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165:3.5 (1820.4) "사람들 앞에서 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너희 모두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곧 인정하겠지만;사람들 앞에서 내 교훈의 진리를 고의로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운명의 수호자가 부인할 것이다.

165:3.6 (1820.5) "사람의 아들에 관해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겠지만;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서도 악한 존재가 한 것으로 돌리려는 경향에 너무 깊이 빠져들 때, 그런 고의적인 반역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165:3.7 (1820.6)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를 회당 관리 앞이나 다른 높은 권세자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너희가 천국 복음에 경의를 표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확실히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165:3.8 (1820.7) “너희는 결단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려느냐? 너희는 왜 두 견해 사이에서 망설이느냐?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찌하여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영적 유산을 기쁘게 얻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더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계시하고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라고 아무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늘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초청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게 해서 값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다.

165:3.9 (1820.8) 예수께서 말씀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이 사도들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으로 갔으며,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였다.

4. 유산을 나눔

165:4.1 (1821.1) 사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세례 줄 때, 주님은 남아있는 자들과 대화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주님,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나와 내 형제에게 남겨 주셨습시다만, 내 형제가 내 몫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내 형제에게 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물질을 탐하는 이 젊은이가 장삿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려는 것에 다소 화가 났지만;이 경우를 그 이상{以上}의 교육에 이용하고자 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에 내가 관심 둘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행복은 재산의 능력에서 오지 않으며, 기쁨은 부귀에서 생기지 않는다. 재산 자체는 재앙이 아니지만, 부귀를 탐내는 것은, 혼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의 아름다운
매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일에 매달리도록
인도하기가 아주 쉽다.

165:4.2 (1821.2) "풍성하게 소산을 거두는 땅을 가진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는데;그는 큰 부자가 되자, 스스로
의논하면서 말했다:'내가 부자가 됐으니 무엇을 할까?
이제는 너무 많아서 내 재산을 쌓아 둘 곳이 부족하구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말했다:'웁지, 이렇게
해야겠다. 내 창고들을 허물어버리고 훨씬 큰 것들을
지어서, 곡식과 보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내 혼에게, 혼아 네가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은
재산을 저장해 놓았으니;이제 네가 편히 쉴 것이며;네가
부자이고 물자가 더 많이 쌓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할 수 있으리라.'

165:4.3 (1821.3) "그러나 이 부자는 어리석었다. 자기 정신과
육체의 물질적인 소욕은 만족시켜 주면서, 영의 만족을
위해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까지 저축한 재산을 써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채, 바로 그날 밤에 그의 혼이 불려갔다. 그 밤에 산적들이 그의 집에 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창고들을 약탈한 후에, 남은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강도들에게 뺏기지 않은 재산 때문에, 그의 상속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보화를 이 땅에 쌓아 뒀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165:4.4 (1821.4)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와 그의 상속 문제를 처리했는데, 그 젊은이의 문제가 탐욕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경우가 아니었더라도 주님은 끼어들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의 경우는커녕 심지어 사도들의 이 세상 문제에도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65:4.5 (1821.5) 예수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질문했다: “주님, 제가 알기에, 당신의 사도들은 당신을 따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고, 에세네 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얻은 재산도 죄가 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답했다:“친구여, 명예롭게 재산을 갖게 된 것은 죄가 아니지만;네가 재물을 단순한 물질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천국을 영적으로 추구하는 헌신으로부터 네 사모하는 마음을 되돌려서 네 관심을 집중시키는 보화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네 *보호*를 하늘에 쌓는다면, 이 땅에서 정직한 소유물을 갖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탐욕과 자기중심으로 이끄는 재산,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을 풍성하게 소유하면서, 천국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기증하는 자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유지하고 처분하는 재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돈 없이 여기 있는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저쪽에 있는 야영장에서 먹이고 재워주는 것은, 재산에 구애받지 않는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의 주인인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에 쓰라고 돈을 내놔기 때문이다.

165:4.6 (1822.1) “그러나 재산은 결국 영구적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라.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종종 어둠에 처하고 심지어 영적 통찰력도 잃어버린다. 재산이 너희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인이 되는 그 위험성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165:4.7 (1822.2) 예수께서는 대비하지 않거나, 놀고 지내거나, 가족의 육신적 필수품을 제공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구호물자에 의존하라고 가르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의 복지에,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영적 본성의 진보에 부수적으로 있어야만 한다고 가르쳤다.

165:4.8 (1822.3) 그때, 세례 주는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강으로 내려가자, 맨 처음 사람이 자신의 상속에 관해 물어보려고 예수께 은밀히 다가왔는데, 예수께서 자신에게 가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며; 그의 말을 다시 듣고 나서 주님이 대답했다: “얘야, 너는 왜 이런 날에 탐욕스런 생각에 빠져서,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네가 불만스런 일을 회당의 재판소에 가져가면 상속에 관한 유대인의 법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늘의 상속에 관해 네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내 일임을 모르겠느냐? 성서에서, ‘꼭 틀어쥐고 아주 인색하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렇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내 재산으로 계속 잘 먹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 닥쳐올지 여전히 모르며,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만 한다는 것도 모른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기름 바른 후에 다른 신들에게 돌아섰다'는 계명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에서, '주께서는 탐욕을 멸시하신다'는 것과 '의로운 자의 적은 재물이 사악한 자의 많은 재물보다 낫다' '부유함이 증가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읽어봤느냐? 예레미야가, '부자로 하여금 자기 부유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라'고 기록한 것과, 에스겔이 진리를 말하기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마음은 자기 이익을 좇는다'고 한 부분을 읽어봤느냐?"

165:4.9 (1822.4) 예수께서는 그 젊은이를 보내면서 말씀했다:"얘야, 네가 온 세상을 얻고 네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165:4.10 (1822.5)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심판 날에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께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다:"나는 부자나 가난한자를 심판하려고 오지 않았지만, 누구나 자신이 살았던 그 인생이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 때에 재산에 관해 여러 가지 다른 면이 고려될지 모르지만, 큰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이렇다:

165:4.11 (1822.6) " 1.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느냐?

165:4.12 (1822.7) " 2. 이 재산을 어떻게 얻었느냐?

165:4.13 (1822.8) " 3.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165:4.14 (1822.9)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저녁 식사 때까지 잠시 쉬기 위해 자기 천막으로 갔다. 사도들이 세례 주기를 끝내자, 그들도 와서 땅에서의 재산과 하늘에서의 보화에 대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미 주무시고 있었다.

5. 재산에 관해 사도들에게 말씀하심

165:5.1 (1823.1) 그날 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예수와 열두 사도가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 중에, 안드레가 물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한 많은 말씀을, 머물고 있는 대중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안드레의 요청에 따라 예수께서 말씀했다:

“좋다, 안드레야, 재산과 자기_유지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겠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천국 대사로서 임명받았으므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대중에게 말했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너희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체험했고, 너희가 전파하는 천국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안다. 너희는 천국 사역에 너희 인생을 바쳤으며;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또는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하는 세속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혼의 복지가 음식보다 중요하며;영의 진보가 의복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양식이 염려될 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그것들은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헛간도 없지만,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들마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게다가,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조바심하며 의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물질적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우거나, 네 삶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런 문제들은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은데, 너희는 왜 이 문제들로 염려하느냐?

165:5.3

(1823.3)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그것들은 수고하지 않고 실을 만들지도 않지만;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했다. 오늘 살아 있다가 내일에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옷을 입히시는데, 하늘 나라의 대사인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오! 너희 신앙이 적은 자들아! 천국 복음 전파에 너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면, 너희가 포기한 너희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 결코 염려할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복음에 바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직 믿는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만 함은 물론,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유하는 모든 사람의 생계를 위해 기부해야만 한다. 너희가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필요한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세상 나라들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는 너희 일에 전념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와 내가 알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실히 말하는데, 너희 삶을 천국 일에 바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것이다. 더 큰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작은 것들은 그 속에서 발견될 것이며;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덤으로 받을 것이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를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165:5.4 (1823.4) 너희는 작은 무리일 뿐이지만, 너희가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내가 단언한다. 돈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곳, 도둑이 약탈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는 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 뒀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또한 있을 것이다.

165:5.5 (1824.1) “그러나 우리 앞에 바로 있을 일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에게 남겨질 일을 하면서, 너희는 중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너희 각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등불을 계속 밝혀라. 너희는 결혼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가 문을 두드릴 때, 빨리 가서 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깨어있어라.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은, 그와 같은 중대한 순간에 그들의

신실함을 발견한 주인에게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종들을 앉혀 놓고 그들에게 시중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일생의 위기가 바로 눈 앞에 닥쳤으니, 조심하고 준비돼야만 한다.

165:5.6 (1824.2) “어느 때에 도둑이 들어올지 알고 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너희도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165:5.7 (1824.3) 열두 사도는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 경고 가운데 더러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이번처럼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었다.

6.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심

165:6.1 (1824.4) 그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이 비유를 당신의 사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제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165:6.2 (1824.5) "시험이 있을 때, 사람의 혼이 드러날 것이며;마음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시련이 드러낼 것이다. 종이 시험받고 충실함이 입증되면, 집 주인은 식솔들을 감독하도록 그런 종을 세우고, 이 신실한 청지기가 주인의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도록 일을 처리할 것을, 안심하고 신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 자녀의 복지를 위해 누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집 주인이, 참되고 믿을만한 종에게 자기 가족의 문제를 맡기듯이, 나도 내 나라의 문제로 시험이 다가올 때 잘 견디는 자들을 높이 세울 것이다.

165:6.3 (1824.6) "그러나 종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마음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기를 늦추신다'고 하면서, 부하 종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술에 취한 친구들과 먹고 마시기 시작한다면,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의 충실치 못함을 발견하고, 그를 가차 없이 쫓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닥쳐올 그날을 위해 스스로 잘 준비하도록 해라. 너희에게 많이 맡겨진 만큼;너희로부터 많이 요구될 것임을 꼭 기억해라. 격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임박했다. 받아야 할 세례가 내게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전파하지만, 내 사명은 사람의 물질 문제에 --적어도 당분간은-- 평화를 주려함이 아니다.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세 사람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분열만 있을 뿐이다. 너희가 전파하는 복음으로 인해, 친구, 친척, 및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각자 마음 속에 크고 영원한 평화를 갖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영광스런 유산을 기꺼이 믿고 그리로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뤄질 것이다. 그럼에도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나라, 모든 어른과 아이들에게 전파하라.”

165:6.4 (1824.7)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쁜 안식일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 날, 예수와 열두 사도는 북부 베레아의 여러 도시로 들어갔는데, 아브넬의 감독 하에 이 지역에서 일하는 70인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제166편 마지막 북 베레아 방문

166:0.1 (1825.1)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수와 열두 사도는 아브넬의 동역자들과 여자 단체 대원들이 사역하는 북쪽 베레아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러봤다. 그들은 이

복음 사자{使者}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고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166:0.2 (1825.2) 베레아에서 세 달 동안의 이 전체 사역은, 열두 사도가 거의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성공적으로 수행됐으며, 이때부터 복음은 예수의 교훈만큼, 그렇게 그의 인간성에 대해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추종자들이 그의 지시를 오래 따르지는 못했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곧 그의 교훈을 떠났으며, 신이자_인간인 그의 인격체에 대한 초자연적 개념과 영광으로 채색된 기억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 라가바의 바리새인

166:1.1 (1825.3) 2월 18일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부자 바리새인이 사는 라가바에 갔으며;그 지방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동료 바리새인이 예수와 열두 사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20명쯤 되는 그들 모두를 위해

안식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를 주빈{主賓}으로 초대했다.

166:1.2 (1825.4) 예수께서 이 아침 식사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을 때, 두 세 명의 율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이미 와서 상에 앉아 있었다. 주님은 물이 들어있는 그릇으로 가서 손을 씻지 않고 곧바로 나다니엘의 왼쪽에 앉았다. 많은 바리새인, 특히 예수의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게 할 목적이 아니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과, 순전히 예식적인 이런 동작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손을 두 번 씻지 않고 직접 식탁으로 간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나다니엘은, 바리새인이 엄격히 지키고 있는 풍습을 주님이 지키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손을 씻는데, 예수께서는 둘 다 하지 않았다.

166:1.3 (1825.5) 나다니엘과, 그의 오른 쪽에 앉은 비우호적인 바리새인 사이에 상당한 껍속말이 오간 후에, 그리고 주님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눈썹을 크게 치켜뜨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냉소한 후에,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가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을 선포함에 대해 내게 물으려고 나를 초대한 것으로 나는 생각했지만;이제 보니, 너희는 독선적으로 격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나를 이곳에 데려왔구나. 너희가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것이 접대하는 것이라면;다음에는 이런 자리의 손님으로서 내게 무엇으로 예우하려느냐?”

166:1.4 (1826.1)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식탁만 바라보면서 아무 말 못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이 자리에 함께 있는 너희 바리새인 중에는 내 친구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복음이 자기 앞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진리를 깨닫고 빛을 보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그토록 깨끗하게 닦지만, 영적 음식을 담은 그릇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 너희는 사람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너희 속에는, 독선, 탐욕, 강탈,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영적 사악함이 들어 있다. 너희 지도자들은 감히 사람의 아들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계획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겉치레 허식와 경건한 고백뿐 아니라 혼의 내적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구제 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내는 것이, 너희의 불의를 씻어준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 때 너희를 제외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명의 빛을 계속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에게 화있을지어다! 너희가 십일조는 정확하게 하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삼아 드러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고의로 거절하고, 그의 사랑의 계시를 거부한다. 너희가 비록 이런 사소한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을지라도, 더 중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거절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 화있을지어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장터에서서 아침하는 인사 받기는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계시를 경멸하는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

166:1.5 (1826.2) 예수께서 떠나려는 듯이 일어나자, 식탁에 앉아 있던 율법사 한 사람이 그를 부르면서 말했다: “그러나 주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서서 대답했다:“너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잔치 때에는 긴 옷을 입고 상석{上席}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혼이 이 무거운 짐 밑에서
휘청거리고 있을 때도, 너는 손가락 하나로도 거들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조상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
만들기를 지극히 좋아하는 너희에게 화있을지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했던 것--곧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을, 이 시대에 나타나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가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으니, 너희의 조상이 범했던 것에
너희도 동조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간 모든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는, 뒤틀어지고 독선적인 이 세대를
위해 필요했다. 서민으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뺏어버린
너희 율법사에게 화있을지어다! 너희 자신이 진리의 길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려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 나라의 문들을 닫을 수 없으며;들어갈 만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문들을 열어놔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종류의 영적 불결함으로 가득한
가짜 선생과 거짓 목자들은, 이 자비의 문들을 닫지 못할
것이다.”

166:1.6 (1826.3)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식탁에서 말씀을
마치자, 식사를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그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은 흑암 속의
길을 계속 고집했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앞으로 그를 데려가서 시험하고 심판하기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말을 그에게서 책잡을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기로 결정하게 됐다.

166:1.7 (1827.1) 바리새인이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이 꼭 세 가지
있었다:

- 166:1.8 (1827.2) 1. 철저한 십일조 생활.
- 166:1.9 (1827.3) 2. 정결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함.
- 166:1.10 (1827.4) 3. 바리새인이 아닌 모든 사람과 교제하기를
피함.

166:1.11 (1827.5) 이 경우에 예수께서는 처음 두 가지 사항이 영적으로 비생산적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애쓴 반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바리새인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 꾸짖으려 계획했던 것은, 이다음에 이 동일한 무리 가운데 여러 사람과 다시 식사할 때 하려고 뒤로 미뤘다.

2. 열 명의 나병환자

166:2.1 (1827.6) 다음 날,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함께 사마리아 접경에 있는 아마수스로 갔으며, 도시에 가까워질 때, 이곳 근처에 머무는 열 명의 나병환자 무리를 만나게 됐다. 이들 가운데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평상시에는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거나 연합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종교적 선입관이 무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많이 알았고, 전에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았으며, 70인이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라고 알려줬으므로, 주님이 열두 사도와 이곳에 왔을 때, 열 명의 나병환자는 이 무렵에 이 장소 근처로 그가 지나갈 것을 미리 알았으며; 그리하여 그의 관심을 살만한 도시 외곽의

이곳으로 나와서, 치유를 간청하려고 기다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열 명의 나병환자는, 감히 그에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외쳤다:“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우리 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치유해주십시오.”

166:2.2 (1827.7) 예수께서는 방금 열두 사도에게, 더 보수적이고 전통에 얽매인 유대지방의 유대인보다, 베레아 지방의 이방인과 덜 보수적인 유대인이, 70인이 전파한 복음을 왜 더 기꺼이 믿는지 설명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메시지가, 갈릴리인,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열두 사도는, 오랫동안 멸시해온 사마리아인에게 아직도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166:2.3 (1827.8) 따라서 열심당 시몬은, 나병환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있음을 보고, 주님이 그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 도시를 지나가게 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했다:“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 동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아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보다 더 감사를 표시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네 의견이 확실하다고 느끼느냐?” 그리고 시몬이 곧 대답했다:“저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곧 아시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시몬아, 그렇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애정 깊은 자비에 관한 진실을, 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166:2.4

(1827.9)

예수께서 나병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했다:“너희가 온전하게 되거든, 모세의 율법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온전하게 됐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유 받고 있음을 보고, 돌아와 예수를 찾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한 그는,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해 감사드렸다. 아홉 명의 다른 사람, 즉 유대인도 자신이 치유 받았음을 발견했고, 그들 역시 자신의 깨끗해짐에 대해 감사했지만,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 가던 길을 재촉했다.

166:2.5 (1828.1)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은 열두 사도 특히 열심당 시몬을 바라보며 말씀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홉 명의 유대인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서 네 길을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했다.

166:2.6 (1828.2)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바라봤다. 다른 사도는 모두 예수를 쳐다봤지만, 열심당 시몬은 땅만 바라봤다. 열두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없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166:2.7 (1828.3) 열 사람 모두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만 그 병에 걸렸다. 다른 여섯 명은 나병이라고 오인한 피부병을 치료받았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나병에 걸려 있었다.

166:2.8 (1828.4) 예수께서는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진 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열두 사도에게 명하고, 아마수스에 들어갈 즈음에 주의를 줬다: “본 집 자녀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치 않을 때에도,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치유하셨을 때 감사드리기를 무시한 그들은,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손님들은 그 집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경이로움으로 가득 했고, 자신들에게 선한 일이 주어졌음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3. 거라사에서 한 설교

^{166:3.1 (1828.5)} 예수와 열두 사도가 천국 사자들과 함께 거라사를 방문하자, 그를 믿는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가 질문했다:“주여, 참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66:3.2 (1828.6)} “너희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배워왔으며;이방인 중에서는 오직 양자 된 자들만 구원의 희망이 있다고 배워왔다. 너희 중에 더러는 그 이유로, 성서에 기록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전체 무리 가운데 오직 예슈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므로, 하늘 나라를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 그 입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6:3.3 (1828.7)

“또한 너희 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다른 속담도 있는데: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만 이 문을 통해서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도 너희가 안다. 그리고 이 속담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을지라도, 내가 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모든 자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 그리고 아들은, 신앙을 갖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고자하는 자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166:3.4 (1829.1)

“그러나 미숙한 상태에 머물기를 즐기고 자기만족을 탐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미루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그들은 영적 체험으로서의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절했으므로, 나중에 더 영광스런 길이 드러나면, 그때 그리로 들어가려고 애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왔을 때

천국을 거절했던 자들이, 입구가 신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런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미 이 하늘 시민이 될 기회를 가졌었지만, 주어진 그런 모든 자비를 거부했으며;문이 열려있을 때 오라고 여러 번 초대했지만, 너희는 다 거절했다. 이제는, 구원을 거부한 너희에게는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이기적인 영광을 위해 천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 데 필요한 대가{代價}를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과 혼은 아버지의 나라에 등을 돌리면서, 몸과 정신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없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내 양 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땅에 있는 천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대가로 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너희가 말할 때, 너희는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동역자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하겠으며;그때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관이 너희에게, '죄악의 소행을 즐겼던 너희는 모두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166:3.5 (1829.2) “그러나 두려워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영구적인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는, 영화로운 이 나라에서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의 신자와 함께 앉아서 생명의 빵을 나누고, 그곳의 물로 생기를 얻게 됨을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돌격해서 천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166:3.6 (1829.3) 이것은, 곧고 좁은 길이라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의 정말로 새롭고 생소한 개정판{改訂版}이었다.

166:3.7 (1829.4) 사도들과 많은 제자는, 예수께서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즉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기에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낙원 아버지를 찾는 길고도 결실이 풍성한 봉사에서 영원히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문이고, 내가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끝없는 진리_탐구를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166:3.8 (1829.5)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의 지극히_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현세의 모든 방해물을 극복할 목적으로, 모든 물질적 방해를 헤쳐 나갈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된 아들이로서, 이렇게 영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었다.

4. 우연한 사고에 관한 가르침

^{166:4.1 (1830.1)} 팔레스틴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에 오직 두 끼의 식사를 했지만, 예수와 사도들은 여행 할 때 휴식과 식사를 위해 정오에 쉬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서 그런 정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췄을 때, 도마가 예수께 질문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오던 길에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에 영적 존재들이 관여하는지 묻고 싶으며, 또 한 가지는, 우연한 사고를 천사 및 다른 영적 존재들이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66:4.2 (1830.2)} 도마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너와 그토록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내게 그런 질문을 계속하느냐? 사람의 아들이 너희와 똑같이 살면서, 자신의 개인 양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세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철저히 거부하는지, 네가 관찰하지 못했느냐? 다른 모든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우리도 모두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괴로워하는 자녀를

언젠가 치유했던 것 외에, 이 세상의 물질 생활에서 명백히 나타난 영적 세계의 능력을 네가 보느냐?

166:4.3 (1830.3) “너희 조상은 모두, 번영이 신에게서 인정받은 징후이며; 불운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증거라고,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선언하겠는데, 그런 믿음은 미신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부유함이 신의 은혜라면, 부자들이 하늘에서 온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166:4.4 (1830.4) “아버지께서는 바른 자나 바르지 못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며; 마찬가지로 햇빛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추신다. 빌라도가 그 갈릴리인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함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갈릴리인이 모든 동료들보다 더 죄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모든 형제보다 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우리는 단순히 시간세계의 우연한 사고들 가운데 하나의 무고한 희생자였을 뿐이다.

166:4.5 (1830.5)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66:4.6 (1830.6) " 1. 너와 동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애의 한 부분으로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건에, 네가 함께 할 수 있다.

166:4.7 (1830.7) " 2.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고,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 가운데 하나에, 네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은 어떤 면에서도 미리 정해지거나, 달리 이 땅의 영적 세력들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166:4.8 (1830.8) " 3. 너희는 직접 수고한 것들의 결과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거둬들일 것이다.

166:4.9 (1830.9) "자기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번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자, 농부들을 앞에 불러서 말했다: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세 번이나 왔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잘라 버려라. 왜 땅만 못쓰게 하느냐?’ 그러나 우두머리 농부가 주인에게 말했다:‘그 주변의 땅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일 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리해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들이 풍작을 가져오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무는 잘 살고 상태가 좋았으므로, 많은 수확으로 보상받았다.

166:4,10 (1831.1)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서, 육체의 상태는 물질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하며;건강이 하늘의 은총이 아니듯이, 고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166:4,11 (1831.2) “아버지의 인간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복 받을 자격을 똑같이 가졌으며;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을 차별 없이 주셨다. 영적 은사{恩賜}를 줄 때에는, 아버지께서도 이 신성한 재능을 받을 사람의 수용력으로 인해 제한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실 지라도, 영적 은사를 수여할 때에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 뜻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자발적인가에 따라 제한 받으신다.”

166:4.12 (1831.3)

그들이 필라델피아를 향해 여행할 때, 예수께서는 사고, 질병, 및 기적과 관련되는 그들의 질문에 계속 대답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했다. 일생토록 믿어오던 것을, 한 시간 동안의 가르침으로 전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자기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도, 이 땅에서의 그의 사명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5. 필라델피아의 집회

166:5.1 (1831.4)

예수와 열두 사도는, 필라델피아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아브넬과 그 동역자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베레아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큰 무리가 70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 필라델피아 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의 감독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므로, 예수와 동역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바로 이때,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회당에서 하루에 세 번씩 가르치고 있었다.

166:5.2 (1831.5) 바로 이 회당이 나중에 그리스도교 교회가 됐고, 그 지역을 통해서 동쪽 지방으로 복음을 공급하는 선교 본부가 됐다. 이곳은 오랫동안 주님의 교훈의 근거지 역할을 했고, 여러 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유력한 교육 중심지였다.

166:5.3 (1831.6)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필라델피아의 유대인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됐는데, 필라델피아 신자 회중과 심각하게 반목하기 시작했다. 아브넬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책임자가 됐으며, 죽을 때까지 그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불화함으로 인해, 아브넬에 대한 기록과 그의 업적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됐다. 예루살렘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이런 반목은, 야고보와 아브넬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됐고, 예루살렘이 훼파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안디옥이 북서쪽에서 초대 교회 본부였던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남동쪽에서 실제적인 본부였다.

166:5.4 (1831.7) 아브넬이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든 지도자와 불화했던 것은 명백한 불행이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치리{治理}와 경영 문제에서, 베드로 및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이가 벌어졌으며; 바울과는 철학과 신학의 이견{異見}으로 헤어졌다. 아브넬의 철학은 헬라보다 바벨론 사상에 더 가까웠으며, 아브넬이 완강히 반대한 것은 예수의 교훈을 개조하려는 바울의 온갖 시도였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그다음에는 여러 신비교를 믿는 그리스_로마 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것을 적게 제시하려고 했다.

166:5.5 (1832.1) 그래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기대지 않는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후에 베드로의 지지를 받은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감히 도전했다. 이런 행동은, 전에 같은 동역자였던 모든 사람이 그를 멀리 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에 그는 바울에게 도전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을 향한 전도에서는 바울과 전적으로 공감했고,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이 있을 때 그를 지지했지만, 전파하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예수의 교훈의 개정판{改訂版}에는 몹시 반대했다. 아브넬은 말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생명의 교훈을 교묘하게 변조시킨 자”라고 바울을 비난했다.

166:5.6 (1832.2) 아브넬의 말년과 그 후 얼마 동안, 필라델피아 신자들은 그가 살았던 대로 그리고 가르쳤던 대로, 이 세상의 어떤 무리보다 더 순전하게 예수의 종교를 유지했다.

166:5.7 (1832.3) 아브넬은 여든아홉 살 되기까지 살았고, 서기 74년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고 또한 가르치는 자였다.

제167편 필라델피아 방문

167:0.1 (1833.1) 베레아에서 사역한 이 기간 내내, 70인이 활동하던 여러 장소에 예수와 사도들이 방문한 것을 언급할 때 상기해야 할 점은, 적어도 두 명의 사도는 펠라에서 대중을 가르치기 위해 남았으므로, 대개 열 명만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필라델피아로 계속 여행하려고 준비했을 때,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모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갔다. 주님이 베레아를 방문하기 위해 펠라 야영지를 떠났을 때, 300내지 500명이 그를 따랐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600명 이상의 추종자가 그를 따라왔다.

167:0.2 (1833.2)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친 일 외에는, 데가볼리를 지나면서 전도하는 최근의 여행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 베레아 전도여행에서는 이때까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복음이 기적 없이도 능력 있게 선포된 기간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도들 없이도 이뤄졌다.

167:0.3 (1833.3)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2월 22일 수요일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최근의 여행과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면서 보냈다. 그 금요일 밤에 야고보가 회당에서 강론했으며, 다음 날 저녁에는 총회가 소집됐다. 그들은 필라델피아와 인근 마을들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다윗의 심부름꾼들도, 팔레스틴 전역에서 천국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및 다마스쿠스에서도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1. 바리새인과 아침 식사를 함

167:1.1 (1833.4) 아브넬의 교훈을 받아들인, 매우 부자이면서 영향력 있는 어느 바리새인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는데, 안식일 아침 식사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 무렵에 예수께서 필라델피아에 오리라는 소문이 퍼졌으며;그래서 큰 무리의 방문객이 예루살렘 및 다른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이 지도자들 가운데 약 40명과 몇 명의 율법사가, 주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아침 식사에 초대됐다.

167:1.2 (1833.5) 예수께서 아브넬과 이야기하면서 문 옆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인이 자리에 앉은 후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고 산헤드린 회원인 한 사람이, 습관대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의 왼쪽 명예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주님을 위해 예비됐고, 오른쪽 자리는 아브넬이 앉게 돼 있었으므로, 주인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에게 손짓해서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앉도록 하자,

이 지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명예석에 앉지 못한 것 때문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167:1.3 (1834.1) 참석한 그들 대부분이 예수의 제자이거나 복음에 우호적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곧 자리에 앉아 저희끼리 대화 나누기에 여념 없었다. 다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을 그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브넬은, 식사 시작 전에는 손을 씻었으나,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는 씻지 않았다.

167:1.4 (1834.2)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오랫동안 만성병으로 고난당하다가 이제는 수종{水腫} 증세를 보이는 한 사람이 길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신자였고, 최근에 아브넬의 동역자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가 예수께 치유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고난당하던 이 사람이, 자신을 밀치는 인파를 피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았다. 이 사람은 당시에 기적이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튼, 자신의 딱한 상태가 주님의 동정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틀리지 않았는데, 그가 방에 들어서자, 예루살렘에서 온 독선적인 바리새인과 예수께서 그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은 결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고 매우 온화한 미소를 지었으므로, 그가 다가와서 바닥에 앉았다. 식사가 끝나자, 주님은 동료 손님들을 바라보고, 수종증에 걸린 사람을 의미심장하게 잠깐 쳐다본 후에 말씀했다:“친구들아, 이스라엘의 선생과 학식 있는 율법사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너희에게 하고 싶다: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러나 거기에 있던 자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았으므로;잠자코 있었으며;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167:1.5 (1834.3) 그러자 예수께서는 앉아있는 병자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했다:“일어나 네 길을 가라. 네가 치유받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나는 네 마음의 소원과 네 혼의 신앙을 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방을 나서기 전에 자리로 돌아와서, 식탁에 앉은 그들을 향해 말씀했다:“내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라고 너희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답다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동물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즉시 가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분명하게 승낙했으므로, 예수께서 일어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말씀했다:“형제들아, 너희가 결혼 잔치에 초대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됐기 때문에,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그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낮은 자리로 옮겨야 할 것이다. 지혜의 일종일 것인데, 네가 잔치에 초대받거든, 잔칫상에 가서 제일 낮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손님들을 훑어보다가 네게, ‘친구여,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니;이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저녁 식사나

만찬을 베풀 때, 네 친구, 네 형제, 너와 가까운 사람, 또는 부유한 이웃들만 항상 청하지 마라. 그들은 답례로 너를 잔치에 초대할 것이므로, 네가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불구자, 눈 먼 자들을 가끔 초대해라. 이렇게 하면 네 마음 속에 복을 받을 것이니,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은 너희의 사랑의 섬김에 대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잘 알기 때문이다.”

2. 큰 만찬의 비유

167:2.1 (1835.1) 바리새인의 아침 식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참석한 율법사들 가운데 하나가, 침묵을 깨고자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자입니다”--이것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말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에게 우호적인 주인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167:2.2 (1835.2) “어떤 성주{城主}가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손님을 초대했고, 만찬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사람이 말했다:‘나는 방금 농장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러 가야하니;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다섯 쌍의 소를 샀으므로, 그것들을 받으러 가야만
하니;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아내와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주인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집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종들에게
말했다:‘내가 이 결혼 잔치를 준비시키고;살찐 송아지들을
잡았으며, 손님 맛을 준비가 다 됐지만, 그들이 내 초대를
거절했으며;각자 자기 땅과 일터로 가버렸고, 내 잔치에
초대하러 간 종들을 무례히 대했다. 그러므로, 성읍
길거리와 골목, 큰길은 물론 샛길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 눈 먼 자와 절름발이를 막론하고 모두
데려와서, 결혼 잔치에 손님이 있게 하라.’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했지만, 아직도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다:‘길거리와 시골에
지금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선언하겠는데, 처음에 초대됐던
사람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해서 그 집이 가득 찼다.”

167:2.3 (1835.3)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떠났으며; 각자 처소로 돌아갔다. 냉소하던 바리새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그날 아침 이 비유의 의미를 납득했음을 표했는데, 그날 세례를 받고 대중 앞에서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그날 밤에 신자들의 총회에서 이 비유에 대해 설교했다.

167:2.4 (1835.4)

다음 날 사도들은 모두, 큰 잔치에 관한 이 비유의 의미를 철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서로 다른 이 해석들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다만, "각자 자기 혼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도록 하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3. 무기력한 기질의 여자

167:3.1 (1835.5)

이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브넬이 준비해 뒀는데, 산헤드린의 명령으로 그의 교훈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예수께서 회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께서는 잔뜩 구부러진 모습과 풀 죽은 표정으로 앞에 있는 나이 든 어떤 여자를 내려다봤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시달려

왔으며, 모든 기쁨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예수께서는 설교단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가서, 활같이 휘어진 어깨에 손대며 말씀했다:“여자여, 네가 믿기만 한다면, 무기력한 기질{氣質}에서 온전히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18년 이상이나 두려워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혔고 굶어졌던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즉시 똑바로 서게 됐다. 이 여자는 똑바로 선 자신을 보자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67:3.2 (1836.1) 이 여자의 병은 온전히 정신적인 것이었고, 그녀의 휘어진 모습도 그녀의 억압된 정신의 결과였음에도, 사람들은 예수께서 실제적인 육체의 질환을 치유했다고 생각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회당의 회중은 예수의 교훈에 우호적이었지만,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는 우호적이지 않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육체의 질환을 치유한 것에 대해 회중과 의견을 나누다가, 예수께서 감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분개하면서, 회중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옛새나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에는 와서 치유 받을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안 된다.”

167:3.3 (1836.2) 적의를 가진 그 관리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 단상으로 돌아가서 말씀했다: “왜 위선자의 역할을 맡아서 하느냐? 너희는 모두 안식일에 마구간에서 소를 끌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안식일에 허용된다면, 오늘이 안식일일지라도, 18년 동안 악한 세력에 묶였던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이런 묶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자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비난하던 그는 부끄러움을 당했으며, 회중은 그녀가 치유 받은 것에 대해 그녀와 함께 기뻐했다.

167:3.4 (1836.3) 이 안식일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인해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물러나고, 예수를 따르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167:3.5 (1836.4) 예수께서는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무기력한 기질에서, 정신적 우울증에서, 그리고 공포의 속박에서 종종 구해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고난이 육체적인 병 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67:3.6 (1836.5) 예수께서는 일요일에 다시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날 오후에, 그 도시의 남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많은 사람이 아브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다음 날 펠라 야영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윗의 심부름꾼 가운데 하나가 도착해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예수의 친구들이 보내온 급한 소식을 전했다.

4. 베다니에서 온 소식

167:4.1 (1836.6) 2월 26일 일요일 아주 늦은 밤에, 베다니에서 한 심부름꾼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으며,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가 매우 아픕니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다. 이 소식은, 저녁 회담이 끝나고 예수께서 잠자기 위해 사도들을 떠날 무렵에 전해졌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몸 바깥 저편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순간이 이번에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달자를 보면서, 사도들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말씀했다: “이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들을 높이도록 그것이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라.”

167:4.2 (1837.1)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형제인 나사로를 매우 좋아했으며;뜨거운 애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난 것은 도와주러 즉시 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생각이 복합적인 정신에 떠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천국을 언젠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지만, 여전히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계획이 지금 떠올랐으며;이 땅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엄청난 외적{外的} 활동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보여주기로, 아버지 뜻에 따라 결정했다. 유대인은 기적을_행하는 구원자 관념에 젖어 있었다. 그는, 물질적 기적을 연출함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능력을 잠시 드러내는 행사에 의존하기를 거부했었지만, 지금은 이제까지 나타내지 않은 삶과 죽음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요청했다.

167:4.3 (1837.2) 유대인은 죽은 그날로 시신을 묻는 것이 관습이었는데;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덤에 둬으로써, 둘째 날

또는 심지어 셋째 날에도 무덤에서 나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영이나 혼이 육신 근처에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떠돌아다니지만, 셋째 날이 지나면 머물지 않는다는 것과; 넷째 날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도 무덤에서 돌아온 적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다니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하기 전에, 만 이틀을 더 필라델피아에 머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167:4.4 (1837.3) 따라서, 수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지금 즉시 유대지방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자기들끼리 물러나서 서로 의논했다. 야고보가 회담을 진행했고, 예수께서 다시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데 그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 마음이 돼 돌아가서 보고했다.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 몇 주 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 했고, 사람들은 당신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으니,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시려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167:4.5 (1837.4)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열두 시간 있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가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밤에 걸어간다면, 빛이 없으므로 자칫 넘어지기 쉬울 것이다. 내 날이 계속되는 한, 나는 유대지방에 들어가기가 두렵지 않다. 이 유대인에게 한 번 더 기적을 행하려고 하며,바로 그들이 바라는 조건으로라도--곧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사랑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와 외적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다. 게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고자 함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167:4.6 (1837.5) 그러자 사도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당시에는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인데,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분명하게 다시 말씀했다:“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하고, 결국 너희가 새로운 이유로 나를 믿게 될

것이며;너희가 증거 할 그것으로 인해,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을 준비하기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67:4.7 (1838.1) 그가 유대지방으로 가려는 것을 만류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도들은 함께 가는 것조차 질색하며 싫어할 때, 도마가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베다니로 가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끝이 왔다는 것에 만족하며;그들이 분명히 주님을 죽이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선택이라면,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자;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언제나 그랬듯이;용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서는, 도마가 항상 열두 사도의 기둥 역할을 했다.

5. 베다니로 가는 길에서

167:5.1 (1838.2) 유대지방으로 가는 길에는, 50명 정도 되는 친구 및 반대자 일행이 예수를 따라갔다. 수요일 점심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따라오는 무리에게 “구원의 조건”에 대해 말씀했고, 훈계를 마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세금 징수원)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자,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아들신분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업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으며, 공중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부족을 보상하지 못한다. 너희의 외적{外的} 예배로 사람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혼을 들여다보신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설명할 것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즉 착취자, 무식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심지어 이 세리 같은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 주 두 번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라고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지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67:5.2 (1838.3) 그날 밤 여리고에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동료들이 갈릴리에서 한때 그랬듯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토론에 끌어들임으로써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썼지만, 예수께서는 이혼에 관한 그들의 법에 저촉되도록 유도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기술적으로 피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예증했듯이, 유대인 관례에 의거한 한결 뛰어난 결혼 예법과, 모세의 이혼 법령을 바리새주의에 맞춰 해석함으로써 수치스러울 정도가 된 방종을, 그들의 이혼 풍습이 대조하여 보여줬다. 바리새인은 가장 낮은 기준과 비교해서 자기를 판단했고, 세리는 가장 높은 이상에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했다. 바리새인에게 헌신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영적으로 보장받았다는 거짓된 표시였으며;세리에게 헌신은, 회개와 고백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비로운 용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자기 혼을 자극하는 수단이었다. 바리새인은 정당성을 구했지만;세리는 자비를 구했다.

우주의 법칙은 이렇다:간청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167:5.3 (1838.4) 이혼에 관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기는 거절했지만, 결혼을 최고의 이상{理想}으로 간주하는 긍정적 가르침을 선포했다. 그는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칭찬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방종하고 불공정한 이혼 관습을 강력히 반박했는데, 그들은 당시에, 음식 솜씨 없는 것,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한 것, 또는 자신이 더_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했다는 이유보다 훨씬 못한, 그런 아주 하찮은 이유로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7:5.4 (1839.1) 바리새인은, 가지각색의 이런 쉬운 이혼이 유대인에게, 특히 바리새인에게 부여된, 특별한 섭리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어떤 의견도 제시하기를 거절했고, 결혼 관계의 이런 부끄럽고 경멸스런 행동을 몹시 비난했으며,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불공평함을 지적했다. 그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어떤 이혼 관습도

허용한 적이 결코 없었으며;주님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훈에만 찬성했다.

167:5.5 (1839.2) 예수께서는, 비록 결혼과 이혼에 적용될만한
새로운 명령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유대인에게 그들
자신의 법률과 비교적 더 고상한 교훈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했다. 그들의 풍습이 이런 사회 계통을 따라서
발전하게 하려고, 그는 늘 성문화된 성서를 참조했다.
예수께서는 결혼에 대한 고상하고 이상적인 개념을
그렇게 변호하는 동시에, 성문화된 법 또는 그들이 무척
소중하게 간직해 온 이혼 특권이 가리키는 사회 풍습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피했다.

167:5.6 (1839.3) 과학, 사회, 경제, 및 정치 문제에 관해 언급하기를
확실히 피하는 주님의 모습을, 사도들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이 오직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의 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167:5.7 (1839.4) 예수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에,
사도들은 그날 저녁 늦게 은밀히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했으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생각이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해결됐다. 예수께서는 이 회담을 마치면서 말씀했다:“결혼은 고상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다.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홀로 추구한다는 사실은, 결혼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어떤 면에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지만, 바로 그 아버지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도록 지시하셨고, 남녀가 자녀를 맡아 가르치기 위해 가정을 꾸미는 일과, 그들을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협조하는 일에 최선의 봉사를 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기쁨을 찾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굳게 결합해야 하고, 두 사람이 하나처럼 돼야 할 것이다.”

167:5.8 (1839.5)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결혼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풀어줬고, 이혼에 관한 많은 오해를 씻어줬으며;동시에 사회적 합동에 대한 그들의 이상{理想}을 높여주도록,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 및 가정을 그들이 더 존중하도록 많이 기여했다.

6. 어린아이를 축복함

167:6.1 (1839.6) 그날 저녁에, 결혼에 관계된 예수의 메시지와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져서,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사도들이 떠날 준비를 하기 훨씬 전에, 아침 식사시간이 이르기 전임에도,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팔에 안거나 손을 잡아 이끌며 예수께서 머무는 곳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했다. 사도들은 아이들과 함께 모여든 어머니들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여자들은 주님이 아이에게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사도들이 큰 소리로 이 어머니들을 꾸짖자, 예수께서 소란스런 소리를 듣고 나와서 분개하며 그들을 책망했고:“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하라;하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 막지 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거기서는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자랄 것이라”고 말씀했다.

167:6.2 (1840.1)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모든 아이를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얹었고, 아이의 어머니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했다.

167:6.3 (1839.8) 예수께서는 천상{天上}에 있는 맨션에 대해 사도들에게 종종 말씀했고, 상승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거기서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이날, 네바돈에서 구경하던 지성체들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노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아이와 어머니들이 거의 깨닫지 못한 것처럼, 신성시되는 것들이 종종 평범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167:6.4 (1839.9) 팔레스틴에서 여자의 지위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 많이 향상됐으며;예수가 공들여 가르쳤던 것을 추종자들이 그토록 멀리 떠나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

167:6.5 (1839.10) 신성한 경배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초기의 종교적 훈련 문제를 토론하던 중에, 경배 드리고 싶은 충동으로 이끄는 영향으로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아름다움이 대단히 귀중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강조한 것도 여리고에서였다. 창조된 자연 환경에서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가 가치 있음을, 주님은 훈계와 실제 예를 통해서 가르쳤다. 주님은, 나무들

사이에서, 자연 세계의 하등 피조물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더 좋아했다. 주님은, 창조주 아들이 만든 별처럼 빛나는 세계들이 연출하는 영감을 일으키는 광경을 통해서 아버지를 목상하기를 기뻐했다.

167:6.6 (1839.11) 사람은, 자연을 예배당 삼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를 갖추고 예술적으로 꾸며진 예배실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로 인도하는 지적 접근과 함께, 가장 고상한 인간 감정이 자극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진리, 아름다움, 및 거룩함은 참된 경배를 드리기에 효과적인 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영 친교는, 단순히 육중한 장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정교하고 허식적인 예술로 과도하게 꾸밈으로써 증진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결여되고, 기분 좋게 하고 영감 주는 거룩함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는, 냉랭하고 재미없는 방에서 드리는 공중 경배 개념을 어린아이들이 처음 소개받아야만 함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어린이에게는 먼저 바깥의 자연에서 경배하기를 소개해야 하고, 후에

부모와 함께 종교 모임이 있는 대중적 처소에 가도록 해야 하며, 그가 매일 사는 집처럼, 그곳은 최소한 실질적으로 흥미를 주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7. 천사에 관한 대화

167:7.1 (1840.6) 그들이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가면서 언덕을 오르는 동안 거의 대부분, 나다니엘이 예수 옆에서 걸어갔고, 하늘 나라와 관련하여 아이들에 대해 토의하다가, 결국 천사의 사역을 검토하게 됐다. 나다니엘이 마침내 주님께 질문했다:“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으니, 우리는 하늘의 사역자들에 관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른 것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다:

167:7.2 (1841.1) “천사 무리는 창조된 존재들 가운데 별개의 종류이며;필사 피조물의 물질 체제와는 완전히 다르고, 우주 지성체들 가운데 독특한 집단으로서 활동한다. 천사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피조물 집단이 아니며;또한 높은 곳에 있는 맨션들을 통해서 이미 진보된 필사적 사람의 영화{靈化}된 영도 아니다. 천사는

직접 창조되고, 스스로 번식하지 못한다. 천사 무리는 인간 종족과 오직 영적인 면에서만 유사성을 가질 뿐이다. 사람은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진보해 가면서, 한때 천사와 비슷한 상태를 거치기는 하지만, 필사적 사람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167:7.3 (1841.2) "사람과는 달리, 천사는 죽지 않는다. 천사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면 불멸{不滅}한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 하인이며, 온전히 지혜롭지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든 천사는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하다.

167:7.4 (1841.3) "그리고 너희가 성별{聖別}된 영적 눈을 갖게 된다면,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 세계가 다른 세계들과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사역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면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자질하고, 육신적 행위를 보고하는, 영계{靈界}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우주의 다른 먼 부분들이 행하는 일에 관하여, 하늘 창조계 가운데 한 부분에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천사 중에 다수는, 아버지의 정부{政府}와 아들들의 우주들에서 작용하는 한편, 인간 종족들에 대한 봉사에 배정된다. 이 스라빔 가운데 다수가 섬기는 영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나는 상징적인 언어나 시적인 선율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납득하기가 너희에게 어렵겠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167:7.5 (1841.4) “이 천사들 가운데 다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며, 그렇기 때문에, 한 혼이 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스라빔도 기뻐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기쁨이 하늘의 *천사들 앞에* 있다는 것까지 내가 말함으로써, 필사적 사람의 신성한 진보와 영적 행복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또 다른, 그리고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167:7.6 (1841.5)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을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풀어주고, 그의 혼을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호송하는 수단과도 매우 많이 관련된다. 천사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 거주지의 새로운 생애 사이에 끼어있는, 미지{未知}의 불확정적인 기간에 사람의 혼을 확실히 안내하는, 천상의 안내자다.”

167:7.7 (1841.6) 그리고 그가 천사들의 사역에 관해 나다니엘과 더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마르다가 가까이 오는 바람에 멈췄는데, 그녀는 주님이 베다니 가까이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동쪽으로 언덕을 올라오는 그를 봤던 친구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때 서둘러 그를 맞이하러 왔다.

제168편 나사로의 부활

168:0.1 (1842.1) 베다니 근처 언덕 꼭대기에 올라온 예수를 마르다가 만나러 나간 때는, 정오가 막 지나갈 무렵이었다. 그녀의 형제 나사로는 나흘 전에 죽었고, 정원 맨 구석에

있는 그들의 개인 묘지에 일요일 오후 늦게 묻혔다.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은 것은, 이 목요일 날 아침이었다.

168:0.2 (1842.2)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전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것에 관해 무엇이든지 해 줄 것으로 확신했다. 그들은 나사로가 절망적일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비록 예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면서까지 자신들을 도우려 오리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관련된 말씀만 해도 나사로가 즉시 나올 수 있는 예수의 치유 능력을 확신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 필라델피아를 향해 베다니를 떠난 후에, 몇 시간도 못 돼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주님이 그 형제의 발병을 너무 늦게까지, 즉 그가 이미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168:0.3 (1842.3) 그러나 화요일 오후에 베다니로 돌아온 그 심부름꾼이 가져온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물론 모든 믿는 친구들도 무척 당황했다. 예수께서, "...이 병으로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심부름꾼이 주장했다. 그가 왜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도움 될 만한 어떤 조언도 왜 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168:0.4 (1842.4) 슬픔에_잠긴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 인근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친구가 왔다.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이끌어 가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자녀였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예수를 오랫동안 열렬하게 따랐음에도,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우 존경 받았다. 그들은 넓은 포도원과 이 근처에 있는 감람나무 과수원들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부자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토지 안에 개인 무덤을 둘 정도였다는 사실로 더욱 입증된다. 그들의 두 부모는 이미 이 무덤에 묻혀 있었다.

168:0.5 (1842.5) 마리아는 예수께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포기하고 비탄에 빠졌지만, 마르다는, 돌을 무덤 앞에 굴려서 입구를 인봉{印封}하던 바로 그 아침까지도, 예수께서 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베다니 동쪽 언덕 꼭대기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계속 지켜보라고, 이웃 아이에게 당부했으며;예수와

그 친구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전한 사람은 이 아이였다.

168:0.6 (1842.6) 예수를 만나자, 마르다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많은 근심이 마르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았고,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주님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허리를 굽히고 그녀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 “마르다야, 오직 신앙만 가져라, 그러면 네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며;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께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168:0.7 (1843.1)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실로, 나를 믿으며 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진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께 대답했다:“예, 나는 당신이 구원주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도 오래 전부터 믿어왔습니다.”

168:0.8 (1843.2) 예수께서 마리아에 대해 물어봤으므로, 마르다는 곧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에게 작은 소리로, “주님이 여기 오셨고 너를 찾으신다”고 말했다. 마리아가 이것을 듣고 곧 일어나서 예수를 만나러 서둘러 나갔으며,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던,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마리아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쓰다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울기 위해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따라갔다.

168:0.9 (1843.3) 참석한 자들 가운데 다수는 예수를 지독하게 대적하는 자였다. 이 때문에 마르다는 그를 혼자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며,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는다고 은밀하게 알려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마르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그가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쾌한 사건도

피하고자 했다.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나가는 동안에, 마르다는 일부러 집에 남아서 친구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따라 나가서 뜻밖에도 주님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168:0.10 (1843.4) 마르다가 마리아를 예수께 안내했고, 예수를 만나자, 마리아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모두 나사로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혼이 연민으로 감동됐다.

168:0.11 (1843.5) 애곡하던 자들은, 마리아가 예수께 인사하러 갔음을 알았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강한 신앙을 지키고 신성한 뜻에 완전히 복종하라는 간곡한 훈계를 받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 물러나 있었다.

168:0.12 (1843.6) 예수의 인간 정신은, 나사로 및 상을 당한 자매들에 대한 애정과, 믿지 않으며 살인할 작정인 이 유대인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애정 표현에 대한 경멸감과 모멸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다. 몇몇 거짓된

친구가 나사로를 위해 억지로 겉으로만 애곡하는 것에 대해 예수께서 심히 분개했는데, 그런 거짓된 슬픔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랄한 증오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진심으로 애곡했는데, 그 가정과 진실한 친구 관계였기 때문이다.

1. 나사로의 무덤에서

168:1.1 (1843.7) 예수께서는 조객{弔客}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잠시 위로하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다:“그를 어디에 뒀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슬픔에 가득 찬 두 자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을 따라오던 우호적인 유대인이 그의 눈물을 보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라.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그들은 이윽고, 정원의 맨 끝에 약 30피트 가량 솟은 바위 언덕 내리받이 경사면의 작은 자연 동굴에 마련된 가족 묘 앞에 도착했다.

168:1.2 (1844.1) 예수께서 왜 울었는지 인간 정신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인격화된 조울사의 정신 속에 있는 기록

그대로, 인간 감정과 신성한 사고{思考}의 혼합된 등록 사항을 찾아봤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감정 표현의 실제 원인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때 그의 정신 속에 지나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감정과 생각 때문에 예수께서 울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자 한다:

168:1.3 (1844.2) 1.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심어리고 슬픈 연민의 정을 느꼈으며; 형제를 잃은 이 자매들에게 정말로 깊은 인간 애정을 느꼈다.

168:1.4 (1844.3) 2. 그는 많은 조객이 혹은 진심에서 혹은 가장하면서 나타남으로 인해, 그의 정신 속에 혼란이 왔다. 그는 애통함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항상 분개했다. 그는 그 자매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신자의 생존에 대한 신앙을 가졌음을 알았다. 이런 모순되는 감정들이,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왜 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168:1.5 (1844.4) 3. 그는 나사로를 필사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진실로 망설였다. 그의 자매들은 그를 정말로 필요로 했지만, 예수께서는 친구를 다시 불러내서 지독한 박해를 체험토록 하는 것을 슬퍼했는데, 사람의 아들의 신성한

능력이 모든 예증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로, 나사로가 이런 박해를 견뎌야만 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168:1.6 (1844.5)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흥미롭고 교훈적인 사실을 관련시킬 수 있는데:이 진술이 비록 인간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전개될지라도, 매우 흥미로운 부가적 효과가 있다. 심부름꾼이 일요일에 예수께 가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음을 말씀 드렸고, 예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 반면, 그가 직접 베다니에 갔을 때에는, 심지어 그 자매들에게 "너희가 그를 어디 뒀느냐?"고 질문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제한된 인간 정신의 지식을 따랐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한 그랬더라도, 우주의 기록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의 사고 조율사에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이 행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가 명령했음과, 이 명령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바로 15분전에 기록됐음을 보여준다.

168:1.7 (1844.6) **예수**의 신성한 정신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게 될 것을, 그가 죽기 전에도 알았을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여기 기록된 것들뿐이다.

168:1.8 (1844.7)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다수는, 그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비웃으면서 서로 말했다:“이 사람을 그토록 생각했다면, 베다니에 오기 전에 왜 그토록 오래 머물렀단 말인가? 그들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그렇다면, 어찌하여 소중한 친구를 구해주지 않았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갈릴리의 낯선 자들을 치유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예수**의 교훈과 업적을 조롱하고 무시했다.

168:1.9 (1844.8) 그리하여, 이 목요일 오후 두 시 반쯤에, 네바돈의 미가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것과 관련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공연을 하려고,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무대 설치가 완료됐으며, 이것은 그가 몸으로 육신화{肉身化}한 동안에 보여준 신성한 능력 중에서 가장 큰 연출이었는데, 자신의 부활의 경우는 필사자 장막의 묶임에서 벗어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168:1.10 (1845.1) 모든 계층의 천상의 존재가, 무엇이 일어날지 가슴 설레면서,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의 지시에 따라, 사랑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가브리엘의 지휘 하에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기다리면서 바로 옆에 현존해 있음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작은 무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168:1.11 (1845.2) 예수께서 “돌을 치우라”고 명했을 때, 모여 있는 천상의 무리는 나사로를 그의 필사자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키는 연극을 상연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 부활 방식을 이행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이것은 필사 피조물이 모론시아 형태로 부활되는 통상적 기법을 훨씬 뛰어넘고, 더 많은 천상의 인격체와 훨씬 더 큰 우주 설비 조직체를 필요로 한다.

168:1.12 (1845.3)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 치우라는 예수의 명령을 듣고, 상반되는 여러 감정으로 가득했다. 마리아는 나саро가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희망했지만, 마르다는 어느 정도 동생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반면, 나사로가 혹시 예수와 사도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돼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더

걱정했다. 마르다가 말했다:“돌을 꼭 치워야만 됩니까? 내 형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으므로, 몸이 이미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이 돌을 왜 치우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으며;아마 예수께서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차분하지 못했고, 그녀의 태도는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이 돌을 굴려서 치우기를 주저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애당초 너희에게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도착한 후에도, 너희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느냐? 얼마나 더 있어야 너희가 믿고 순종하겠느냐?”

168:1.13 (1845.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자진해서 나선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도들이 무덤 입구에서 돌을 밀어 굴려 냈다.

168:1.14 (1845.5) 유대인은 대개, 죽음의 천사의 칼 끝에 있는 쓸개 즙 방울이 셋째 날이 끝날 때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고 믿었다. 그들은, 셋째 날이 끝날 때까지 인간의 혼이 무덤 주위를 돌면서 죽은 육신을 다시 소생시키려 애쓰다고 생각했지만;그런 혼이 넷째 날 동 트기 전에, 죽은 영들의 거주지로 이미 가버렸다고 철저히 믿었다.

168:1.15 (1845.6) 죽은 자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의 영의 이탈{離脫}에 관한 이런 믿음과 견해가,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려 했었는지 나중에 듣게 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한 그분이 친히 작용함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한 확실한 경우임을 확인시키기에 도움이 됐다.

2. 나사로의 부활

168:2.1 (1845.7) 무덤 앞에 서있던 45명쯤 되는 이 사람들은, 세마포 형겔에 싸여, 동굴 무덤 오른편 아래쪽 선반 위에 놓인, 나사로의 형체를 어렵듯이 볼 수 있었다. 이 땅의 피조물이 거의 숨죽인 채 서 있는 동안, 천상의 존재들로 이뤄진 거대한 무리는, 지휘자인 가브리엘이 명령을 내릴

때, 행동 개시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각자 준비된 자리에 위치했다.

168:2.2 (1846.1) 예수께서는 위를 바라보며 말씀했다:“아버지여, 내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알지만, 당신께 이렇게 말씀드림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일에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외쳤다:“나사로야, 나오너라!”

168:2.3 (1846.2) 지켜보는 이 인간 참관인들은 꼼짝 안하고 있었지만, 방대한 천상의 무리는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한결같은 행동으로 움직였다. 이 땅의 시간으로 꼭 12초 후에, 지금까지 생명이 없었던 나사로의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누워 있던 돌 선반 끝에 걸터앉았다. 그의 몸은 시신을 싸는 천으로 동여 있었고, 얼굴은 형겅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서 --살아서-- 일어서자, “그를 풀어줘서 다닐 수 있게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했다.

168:2.4 (1846.3) 사도들과 마르다 및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집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놀라고 겁에 질려서 창백한 얼굴이 됐다. 더러는 머물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기 집으로 서둘러 떠났다.

168:2.5 (1846.4) 나사로는 예수와 사도들에게 인사했고,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자신이 왜 입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원에서 깨났는지 물었다. 마르다가 나사로에게 그가 죽었었고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예수와 사도들은 한 쪽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요일에 죽었다가 목요일에 다시 살아났음을 설명해야만 했는데, 그가 죽음 속에 잠든 후에는 시간 의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168:2.6 (1846.5)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이 지방우주에서 동일한 부류 가운데 우두머리인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전에 나사로에 속했다가 지금은 대기중{待期中}이던 조율사에게, 이제 부활된 사람의 정신과 혼에 다시 들어가라고 명했다.

168:2.7 (1846.6) 그러자 나사로는 자매들과 함께 예수께 가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했다:“애야, 더 영화로운 형태로 부활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네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했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서 이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도록 하자.”

168:2.8 (1846.7) 그들이 집을 향해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한 필사 피조물이 죽었던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된, 유란시아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事例}를 기록하면서, 잠시 쓰임받기 위해 모였던 하늘의 무리로 구성된 특별한 집단들을 해산시켰다.

168:2.9 (1846.8) 나사로는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거의 납득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아팠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았다. 전혀 의식이 없었으므로, 그는 무덤에 있던 이 나흘 동안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었다. 죽음으로 인해 잠든 자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168:2.10 (1846.9)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를 더욱

배척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날 정오가 되기 전에 온 예루살렘에 두루 퍼졌다. 많은 남녀가 나사로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베다니로 갔으며, 바리새인은 놀라고 당황하여, 새로 발생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서둘러 산헤드린을 소집했다.

3. 산헤드린 회의

^{168:3.1 (1847.1)}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람에 대한 증거가, 하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의 신앙을 굳게 해줬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관리들의 태도에는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그의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결정을 촉진시켰다.

^{168:3.2 (1847.2)} 다음 날, 금요일 한 시에, 산헤드린은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더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토론과 날카로운 논쟁이 두 시간 이상 있은 후에, 예수가 전체 이스라엘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모든 판례{判例}를 무시하고, 재판 없이 산헤드린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도록 해서, 그를 즉시 죽이자는 제안을 어떤 바리새인이 했다.

168:3.3 (1847.3) 유대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엄 있는 기관은,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유대인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다른 여러 가지 비난으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체포하여 재판하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선포했다. 그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하기는 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산헤드린이 재판하기도 전에 죽이자는 공식 의견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는데, 그런 전대미문의 조치가 제안되자, 14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한꺼번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 사퇴서들은 두 주일 가까이 공식적으로 수리되지 않았지만, 그날 산헤드린을 그만둔 이 열네 명의 집단은 다시는 협의회에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이 사퇴서들이 처리됐을 때, 다섯 명의 다른 의원도 쫓겨났는데, 이들이 예수에 대해 친근한 태도를 보인다고 그 동료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이 열아홉 명이 축출된 뒤에, 산헤드린은 거의 전원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예수를 재판해서 유죄{有罪} 평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68:3.4 (1847.4) 그 다음 주에는 산헤드린 앞으로 출두하도록 나사로와 두 자매를 소환했다. 그들의 증언을 다 듣고 나서, 나사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대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산헤드린의 진행사항이 실질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인정했음에도, 이 사건은 물론 예수께서 행한 다른 모든 이적도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 탓이며, 예수도 그와 한 패인 것으로 결의했다고 기록했다.

^{168:3.5 (1847.5)}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던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그 일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모든 일반인이 곧 그를 믿으리라고 확신했으며; 더욱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으므로, 로마 당국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168:3.6 (1847.6)}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했던,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을 산헤드린 앞에서 처음 발표했던 것도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168:3.7 (1847.7)} 음울한 이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비록 산헤드린으로부터 경고 받기는 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 작은 마을 베스페이지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계속 휴식을 취했다. 미리 협의했던 대로, 예수와 사도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일요일 아침 일찍 모였고, 베다니 가족을 떠나서, 펠라에 있는 야영지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4. 기도에 대한 응답

168:4.1 (1848.1) 베다니에서 펠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들은 예수께 많은 질문을 했으며, 주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 외에는,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했다. 그 문제는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며; 따라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 그들과 토론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비밀리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끼리만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곧 닥치게 될 시련의 날을 위해 열 명을 준비시킬만한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68:4.2 (1848.2) 사도들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련해서 겪은 최근의 체험에 대해 토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음 속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필라델피아에서 베다니 심부름꾼에게 한 “이 병으로는 정말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의 분명한 말씀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 질문을 되풀이해서 토의했다.

168:4.3 (1848.3)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68:4.4 (1848.4) 1. 기도는 무한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유한한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과정은, 지식, 지혜, 그리고 유한세계의 속성들에 제한 받으며; 마찬가지로 응답도, 통찰력, 목적, 이상, 및 무한자의 특권에 좌우된다. 기도한 때부터 그에 따른 온전한 영적 응답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물질 현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목격할 수는 결코 없다.

168:4.5 (1848.5) 2. 외견상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비록 어떤 선한 이유로 인해 오래 연기되더라도, 지연되는 것이 더 나은 응답의 전조인 경우도 종종 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이미 열한 시간 전에 죽었다. 영적 세계의 뛰어난 관점에서 볼 때 더 나은 응답, 즉 사람의 단순한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영이 간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되는 경우 외에는, 어떤 진실된 기도도 응답이 거부되지 않는다.

168:4.6 (1848.6) 3. 시간세계에서 하는 기도는, 신앙으로 표현되고 영으로 드러질 때, 종종 너무 방대하고 총괄적이어서 오직 영원한 세월에서만 응답될 수 있으며;유한한 기원{祈願}이 때로는 무한자의 통제가 너무 많이 필요하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응답이 오랫동안 연기되기도 하며;신앙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응답이 낙원에서만 이뤄질 수도 있다.

168:4.7 (1848.7) 4. 필사 정신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동일한 기도하는 정신이 오직 불멸의 상태를 달성한 후에만 받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본질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 존재의 기도는, 그런 개인의 상태가 영 수준으로 진보했을 때에만 응답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68:4.8 (1848.8) 5. 하나님을_아는 사람의 기도가, 몰라서 왜곡되고 미신적 습관으로 인해 변형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하는 영 존재들이 그런 기도를 너무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이 도달했을 때, 간구했던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168:4.9 (1848.9) 6. 모든 참된 기도는 영적 존재들에게 제출되며, 그런 모든 간구는 영적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며, 그런 응답은 모두 영적 실체로 이뤄져야만 한다. 영적 존재들은 물질 존재의 영이 간구한 것에 대해 물질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 물질 존재는, “영으로 기도할” 때에만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168:4.10 (1849.1) 7. 영으로 탄생되고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 너희의 진실한 신앙은, 너희의 간구에 대해 최상의 지혜에 따라 응답하도록,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받는 존재들을 항상 행동하게 한다고 너희의 신앙이 묘사하는 그 신성한 사랑에 따라 응답 하도록, 너희의 기도를 듣는 그 존재들에게 모든 권한을 미리 실제로 양도했음을 내포한다.

168:4.11 (1849.2) 8.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 그럴 권리를 항상 가지며; 더 우세한 부모의 지혜가, 영적으로 상승하는 다음 단계까지 아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유예, 변경,

분리, 능가, 또는 연기하라고 명령할 때, 그 부모에게는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항상 있다.

168:4.12 (1849.3) 9. 영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네가 간청한 것에 대해 응답 받을 것을 의심치 마라. 이 응답은 어딘가에 저장될 것이며, 너희가 이 세계에서 또는 다른 세계들에서 실제 시공우주 달성을 장차 영적 수준에서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뤄진 후에는, 전에 간구했었지만 때가 맞지 않았던 기도에 대한 오래 기다려온 응답을 인식하고 꺼내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168:4.13 (1849.4) 10. 영적으로 하는 참된 간구는 모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요청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시간과 공간에서 진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과;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기도와 간구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는 체험에서, 시_공간 요인을 계속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

168:5.1 (1849.5) 나사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던 그 주{週}에, 산헤드린이 그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베다니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은,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과 호기심 많은 자들에게 큰 흥미를 주는 중심지였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교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기로 결의하고, 예수께서 행한 기적들 가운데 가장 정점{頂点}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를 살려둠으로써, 예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증거 하도록 한다면, 예수를 죽여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나사로는 이미 그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다.

168:5.2 (1849.6) 그리하여 나사로는 자매들을 베다니에 남겨두고 서둘러 떠났으며, 필라델피아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쉬지도 못하면서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피신했다. 나사로는 아브넬을 잘 알았으며, 이곳에 있음으로써 사악한 산헤드린의 살인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68:5.3 (1849.7)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땅을 처분한 후 곧, 베레아에 있는 형제와 합류했다. 한편, 나사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재정 담당자가 됐다. 바울 및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할 때, 그는 강력하게 아브넬을

지지했으며, 그가 젊었을 때 베다니에서 그를 죽게 했던 똑같은 병으로, 마침내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제169편 펠라에서 마지막 가르침

169:0.1 (1850.1) 3월 6일 월요일 늦은 저녁에,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펠라 야영지에 도착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거기에 머문 마지막 주가 되었으며, 그는 대중을 가르치고 사도들에게 설명하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매일 오후에 무리에게 설교했고, 매일 밤에는, 야영지에 머무는 사도들 및 비교적 더 진보된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169:0.2 (1850.2)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주님께서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 야영지에도 전해졌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흥분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로, 사람의 상상력을 이처럼 자극하는 어떤 것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때, 예수께서 이 짧은 한 주 동안 펠라에서 가르치기로 계획했던, 공중 천국 사역에서 둘째 단계가 최고 정점에 달했으며, 그 후에는 남쪽 베레아로 여행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週間}의 최종적이고 비참한 체험에 바로 임하게 됐다.

169:0.3 (1850.3)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여러 혐의를 입안하고
기소내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님의 교훈을 배척했다:

169:0.4 (1850.4) 1.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믿음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한다.

169:0.5 (1850.5) 2. 그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며;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169:0.6 (1850.6) 3. 그는 법률위반자다.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며,
이스라엘의 신성시되는 율법을 다른 여러 방법으로
조롱했다.

169:0.7 (1850.7) 4. 그는 마귀들과 결탁했다. 마귀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럴듯한 기적을
행한다.

1. 잃어버린 아들 비유

169:1.1 (1850.8) 목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해
대중에게 말씀했다. 이 설교 도중에, 주님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관해 다시 이야기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탕한 아들에 관한 비유를 더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사무엘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곧 진리를 탐구하라고--훈계해 왔다. 그들은 항상 ‘만날 수 있는 동안에 주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길 잃고 헤매는 그 양을 발견하자, 그것을 어깨에 메어 친절하게 데리고 돌아와서 양 떼 속으로 다시 넣어줬다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잃었던 양이 무리 속으로 들어가자, 선한 목자가 친구들을 부르면서, 잃었던 양을 발견한 것에 대해 함께 즐기자고 초대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 기뻐한다. 혼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을 더 많이 끌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의 아들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임을 진심으로 말해왔다.

169:1.3 (1851.1) “너희가 회개한 후에, 그리고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참회한 행위의 결과로 신{神}이 너희를 받아들인다고 배워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증하겠는데,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너희를 용납하시며, 너희를 찾아내어 다시 양 무리에게로, 즉 영적 진보가 있는 아들신분의 천국으로 기뻐하면서 데려오라고, 아들과 그 동역자들을 보내신다. 너희는 모두 길 잃은 양 같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169:1.4 (1851.2) “그리고 너희는, 장식용 목걸이를 만들려고 은으로 된 열 개의 동전을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려서, 등을 밝히고 집안을 열심히 쓸면서 잃어버린 은 동전이 발견될 때까지 쉬지 않고 찾은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잃었던 동전을 발견하자마자, 친구와 이웃을 불러,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양 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 앞에 항상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깊이 새겨두기

위해서이며, 구원을 필요로 하면서 서 있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찾아내는 데 도움 될 만한 모든 권세를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길 잃고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해 광야에 나가며, 또한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도 한다. 양은 부지불식간에 길을 잃었으며; 동전은 시간이라는 먼지로 덮이고, 사람의 것들이 그 위에 쌓임으로써 감춰졌다.

169:1.5 (1851.3) "그리고 이제, 어느 부자 농부의 철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들려주겠는데, 그 아들은 *고의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 땅으로 갔으며, 거기서 고난당하게 됐다. 양들은 아무 의도 없이 방황하게 됐지만, 이 젊은이는 미리 계획하고 자기 집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169:1.6 (1851.4)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근심 걱정이 없고 무책임해서 항상 즐거운 시간만 찾고 책임은 회피하는 반면, 형은 진지하고 침착하며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었다. 이윽고 이 두 형제가 서로 잘 지낼 수 없게 됐는데; 그들은 항상 다투고 언쟁했다. 작은

아들은, 명랑하고 활발했지만 게으르고 신뢰성이 없었으며;큰 아들은, 침착하고 부지런한 반면 자기중심적이고 무뚝뚝하며 교만했다. 작은 아들은, 놀기를 좋아했지만 일하기는 피했으며;큰 아들은, 일에 열심이었지만 잘 놀지 않았다. 이 두 형제의 불화가 너무 심해지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게 상속될 당신의 소유물 가운데 3분의 1을 제게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 길을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으면 형 때문에 얼마나 불만스러워 하는지 알기에, 재산을 나눠서 작은 아들의 몫을 떼어 줬다.

169:1.7 (1851.5) "그 젊은이는 몇 주 후에 자기 돈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지만, 재미있으면서 돈을 벌만한 일을 찾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곧 모든 유산을 탕진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허비했을 때, 그 지방에 오랫동안 기근이 닥쳤고, 그는 곤궁한 신세가 됐다. 그리하여 배고픔을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그 지방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고용됐는데, 그가 그를 돼지 키우는 곳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돼지가

먹는 옥수수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에게 아무 것이든지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169:1.8 (1852.1) “어느 날, 그는 매우 배고프게 됐을 때,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께 고용된 많은 종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빵이 풍성한데, 나는 이 이국땅에서 돼지나 키우다가 굶주려 죽게 됐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다만 나를 고용된 종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169:1.9 (1852.2)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몹시 슬퍼해 왔으며; 경솔하지만 명랑한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다.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감동돼서 그를 만나러 뛰어 나갔으며, 자애롭게 환영하면서 그를 안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

그 아들은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에 대해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으니;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그 아들이 고백을 다 마칠 수도 없었는데,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가, 달려오고 있는 종들에게, '내가 보관해 둔 가장 좋은 옷을 빨리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가 신을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169:1.10 (1852.3) 그리고 나서, 행복한 아버지는, 발이 부르르고 기진맥진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하인들을 불렀다:'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오고 흥겹게 즐기도록 하자.' 그들은 모두 아버지 곁에 모여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169:1.11 (1852.4) "이 무렵에, 그들이 축하하고 있는 동안, 큰 아들이 들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뒷문으로 가서, 하인 가운데 하나를 불러내고, 이 모든 잔치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종이 말했다:'오래도록

잃었던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신도 들어오셔서 동생을 환영하시고 아버지 집에 다시 맞아들이십시오.’

169:1.12 (1852.5) “그러나 형은 이 말을 듣자, 너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동생을 환영한 것에 대해 큰 아들이 분개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설득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도,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 남아서 보살펴 드렸는데, 내 충성스런 봉사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소유를 창기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서둘러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고 그놈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169:1.13 (1852.6)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큰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 아니냐. 너는 언제라도 새끼 양을 잡아서 네 친구들과 흥겹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흥겹게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얘야, 네 동생을 잃었다가 찾은 것과;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보라!**”

169:1.14 (1853.1)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 나라로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청중에게 심어주기 위해 제시한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것 가운데 하나였다.

169:1.15 (1853.2)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말씀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잊지 않으시며, 양떼의 참 목자인 아들과 함께 나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혼동되거나, 좌절당하거나, 인생의 물질적 염려와 축적물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보여주려는

것이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잃어버린 아들, 즉 돌아오는 탕자를 환영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복귀/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169:1.16 (1853.3) 가르치던 여러 해 동안, 예수께서 이 방탕한 아들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는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사람의 이웃됨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좋아했다.

2. 영리한 청지기 비유

169:2.1 (1853.4) 어느 날 저녁에, 열심당 시몬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하나에 대해 논평했다: “주님,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기에 능숙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 가운데 다수가 자기 세대에는 천국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169:2.2 (1853.5)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업상 동역자들과 거래하는 데 매우 영리했다. 너희가 불의했고 때로는 불공정했더라도,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안전에만 일편단심으로 매달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신중했고 앞을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자신이 지금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만큼 너희의 현재 삶을 천국 안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늘에 쌓아 놓은 보물을 장차 즐길 것도 확실히 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용됐을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얻고자 했거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청지기요 형제관계의 종인데도, 어찌하여 천국을 위해 혼을 얻는 일에 열심을 보이지 않느냐?

169:2.3 (1853.6) “너희는 모두, 영리하지만 불의한 한 청지기를 둔 어떤 부자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손님을 위협해서 자기 몫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산을 자기가 사용하고 허비했다. 이 모든 사실이 마침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자, 그가 청지기를 앞에 불러 그 소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면서, 즉시 청지기직의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주인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다.

169:2.4 (1853.7) “그러자 이 불충한 청지기가 속으로 말했다:‘내가 청지기직을 잃게 됐으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 청지기직을

그만뒀을 때, 내 주인과 거래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겠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빗진 자를 하나씩 부르면서, 첫 사람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빗졌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름 일 백 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청지기는, ‘기록된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서 오십이라고 고치라’고 했다. 또 다른 빗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나 빗을 졌느냐?’ 그는 ‘밀 백 가마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청지기는,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고 쓰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빗진 자에게도 이렇게 했다. 정직하지 못한 이 청지기는, 그 청지기직에서 물러난 후에 자기를 위한 친구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 그의 주, 즉 주인조차,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서, 불충한 청지기가 장차의 빈곤과 불운에 대비한, 적어도 그 태도에서는 현명함을 보여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69:2.5 (1854.1) “그리고 이 세상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빛의 자녀보다 더 현명함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겠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의로운

세력들과 영원한 친구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거처{居處}에서 기쁘게 영접 받을 수 있게 하라.

169:2.6 (1854.2) “내가 단언하겠는데, 적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할 것이며,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의 일에서 장래를 대비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충실성과 현명함에서 하늘 나라의 참된 재산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신뢰 받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충실한 은행가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어떤 바보가 너희 이름으로 많은 재물을 맡기겠느냐?

169:2.7 (1854.3) “그리고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하나에 집착하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169:2.8 (1854.4)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재산 획득에 혈안이 돼 있었으므로,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대적하는 이 청중은 예수를 쓸데없는 논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대적들과 토의하기를 거절했다. 바리새인이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벌이자, 그들의 큰 소리 때문에 많은 대중이 호기심으로 모여들었으며;그들이 서로 말다툼하기 시작하자, 예수께서는 물러나서, 잠을 자기 위해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3. 부자와 거지

169:3.1 (1854.5) 모임이 너무 시끄러워지자, 시몬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도권을 잡고 말했다:“형제들이여, 여러분끼리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그의 말씀을 잘 숙고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은 전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나실인의 우화를 듣지 못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한 재산을 탐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비유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우리 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된 이 비유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늘 나라의 새로운 빛을 납득할 때까지, 여러분은 모두 이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디브스라는 이름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주색과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매일 화려하게 꾸미며 환락 속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부스럼투성이의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출입문 곁에 머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며;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 이윽고 거지가 죽게 됐고, 천사들이 그를 데려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자도 죽어서 화려하고 호화롭게 매장됐다. 이 세상을 떠나자 부자는 지옥에서 깨어났고, 고통당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러자 디브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여, 내가 형벌로 크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즐겼지만, 나사로는 한결같이 불행을 체험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 너는 고통 받으나 나사로는 위로 받는다. 게다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네게 갈 수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디브스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내게 형제가 다섯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증거 해 주셔서 이 고통스런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얘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디브스가 대답했다:‘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었던 자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그들이 모세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169:3.3 (1855.1)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실인 동우회의 이 우화를 베드로가 마치자, 인파가 조용해졌으므로, 안드레가 일어나서 그들을 잠자리에 들도록 해산시켰다. 사도와 제자들이 디브스와 나사로의 우화에 관해 예수께 종종 질문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4. 아버지와 그의 나라

169:4.1 (1855.2)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립을 선포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아니심*을 사도들에게 설명하기에 항상 힘들어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가르칠 때, 유란시아 사람들은 대개 여러 나라 정부의 왕과 황제에 익숙했으며, 유대인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고대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를 하늘 나라라고, 이 형제관계의 영 우두머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왕으로 표현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가 사도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또는 그들의 형님으로 표현했다. 그는 추종자 전부를 인류의 봉사자로, 그리고 천국 복음의 사자{使者}로 묘사했다.

169:4.2 (1855.3)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격체와 속성들에 대해 사도들에게 조직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실체이심을 증거하려고 논쟁을 제시함으로써 자기를 비하한 적이 결코 없었다.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모두, 그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임을;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든 것을 아심을; 아들만이, 그리고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계시 받을 자만이 참으로 아버지를 알 것임을;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아는 것임을;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의 연합된 본성을 나타내시고 공동 업무를 보여주려 하심을 선포하기에 중점 뒀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선포한 것 외에는, 아버지에 대해 다르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169:4.3 (1856.1) 너희는 예수의 교훈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삶의 신성{神性}을 주시해 봄으로써, 하나님에 관해 배우게 된다. 영적이고 신성한 실체, 즉 실제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너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 개념을, 너희는 각자 주님의 삶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인생에서 유한한 체험을 겪은 시_공간 인격체 안에 무한자가 집중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자는 무한자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

169:4.4 (1856.2)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체험 실체로써만 알려지실 수 있다는 것과;정신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너희는, 예수께서

말씀한 것을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었음을 앎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169:4.5 (1856.3) 예수께서 신격을 언급할 때, 히브리 성서를 인용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오직 두 가지 이름으로만 불렀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유대인 부족{部族}의 하나님이라는 진취적 개념작용을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수{複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통 사용했다.

169:4.6 (1856.4)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왕이라고 부른 적이 결코 없었으며, 왕국 재건에 대한 유대인의 희망과, 다가오는 나라에 대한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시하는 영적 형제관계를 하늘 나라라고 불러야 할 필요성이 생겼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한 번의 예외-- 곧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선포--를 제외하고, 낙원의 제1 근원 및 중심과 자신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서술적 방법으로도 신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169:4.7 (1856.5)

예수께서는 신격 *관념*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체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하나님을 의미하기 위해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장 큰 의미로 이해돼야만 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정의될 수 없고,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개념을 대표하며, 한편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사자 실존 과정에서 사람과 관련되는 신성한 아버지에 대한 인간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69:4.8 (1856.6)

유대인에게, 엘로힘은 모든 신{神}의 하나님이었고,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예수께서는 엘로힘 개념을 받아들였고, 이 최고 존재들 집단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종족의 신격인 야훼 개념 대신에,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인간은 범_세계적 형제관계라는 관념을 소개했다. 그는 한 종족의 신격화된 아버지 개념을, 전체 인류 자녀의 아버지, 즉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 관념으로 증대시켰다. 더 나아가, 이 우주들의 하나님과 이 전체 인류의 아버지는 완전히 동일한 낙원 신격이라고 가르쳤다.

169:4.9 (1856.7)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엘로힘(하나님)의 현시{顯示}라고 주장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세계들을 향한 엘로힘(하나님)의 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은 엘로힘(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신은 육체를 입고 아버지를 계시하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는 신성한 아들이자 오직 아버지만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169:4.10 (1857.1) 그는 참으로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필사자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필사 아들들에게, 그런 계시를 필사적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삶을 통한 계시를, 아버지의 성품 묘사에 국한하기로 결정했다. 낙원 삼위일체의 다른 인격자들의 성품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이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고, 아버지는, 육신화한 아들, 즉 나사렛 예수의 생애에서 인간적으로 묘사되어 드러났다.

169:4.11 (1857.2) 예수께서 자신의 이 세상 생애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나타냈을지라도, 그에 관해 가르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오직 두 가지만 가르쳤는데:자신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성에서 그가 아버지시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날 저녁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며;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최종 선언을 했다.

169:4.12 (1857.3) 그러나 명심하라! 예수께서는, “내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는 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지만, 예수를 본 것은, 그 자체로, 혼에게 준 아버지에 대한 계시인 어떤 체험이다. 우주들의 하나님이 방대한 창조물을 다스리지만, 너희 정신 속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169:4.13 (1857.4) 예수께서는 인간과 같은 모습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을 물질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영적 렌즈다. 그는 천상의 무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의 어떤 존재를, 육신 속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너희의

형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별 신자*가 몸소 겪은 체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체험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영적 영역들의 신성한 아들들은, 하나님을 오직 *아버지*로서만 물질세계의 유한한 아들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너희는 영원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으며;그분을, 우주들의 하나님, 즉 모든 존재의 무한하신 창조주로서 경배할 수 있다.

제170편 하늘 나라

170:0.1 (1858.1) 3월 11일 토요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마지막 설교를 펠라에서 전했다. 이것은 그의 대중 사역에서 특기할만한 연설에 속했는데, 하늘 나라에 관한 전체적이면서 완전한 논의를 내포했다. 그는 자신의 증여 사명에 대한 지칭으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및 “하늘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해, 제자들은 물론 사도들도 마음 속에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알았다. *하늘* 나라라는 바로 그 단어가 *이 세상* 나라들 그리고 현세의 정부들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현세의 왕 관념이 유대인 정신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 동안 그것을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키워온 이 천국 개념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았다.

170:0.2 (1858.2) 주님은 이 안식일 오후에, 하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려고 애썼으며;그 문제를 모든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용돼 온 말의 여러 다른 의미를 밝히려고 애썼다. 우리는 전에 예수께서 했던 많은 말씀을 이 이야기 속에 첨부함으로써,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에 토론하는 동안 오직 사도들에게만 줬던 주의사항을 삽입함으로써, 그 강연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천국 개념이 후일에 그리스도교 교회와 관련되는 대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도 확실히 언급하려고 한다.

1. 하늘 나라의 개념

170:1.1 (1858.3) 예수의 설교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히브리 성서 전반에는 하늘 나라에 대한 이중적 개념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70:1.2 (1858.4) 1. 현재의 실체로서;그리고

170:1.3 (1858.5) 2. 미래의 희망으로서 --메시야가 나타남으로써 천국이 완전히 실현될 때. 이것이 세레 요한이 가르쳤던 천국 개념이다.

170:1.4 (1858.6) 예수와 사도들은 아주 초기부터 이 두 개념을 다 가르쳤다. 염두에 두어야만 할, 천국에 대한 다른 두 개념이 있었다:

170:1.5 (1858.7) 3. 초자연적으로 기원{起源}되고 기적적으로 세워진 범_세계적인 초월적 나라라는, 유대인의 후기 개념.

170:1.6 (1858.8) 4. 세상이 끝날 때 선이 악을 이기고 성취하는 신성한 나라가 설립될 것을 꿈꾸도록 하는 페르시아의 교훈.

170:1.7 (1858.9) 예수께서 이 땅에 출현하기 직전에 유대인은, 이 모든 천국 개념을, 유대인이 승리하는 시대를 설립하기 위해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개념에 뒤섞어 버리고 혼돈을 일으켰는데, 그 시대는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땅을 최상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시대, 온 인류가 야훼를 경배하는 시기였다.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에 대한 이 개념들을 이용하기로 선택하면서, 가장 생생하고 절정에 도달한, 유대인 및 페르시아 종교의 유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170:1.8 (1859.1)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쳐 오면서, 잘 이해되기도 하고 잘못 이해되기도 했던 하늘 나라의 의미는, 네 가지 독특한 개념을 포함한다:

170:1.9 (1859.2) 1. 유대인의 개념.

170:1.10 (1859.3) 2. 페르시아인의 개념

170:1.11 (1859.4) 3. 예수의 개인_체험 개념 --“너희 안에 있는 하늘 나라”

170:1.12 (1859.5) 4. 그리스도교 설립자들과 전파자들이 세상 사람에게 감동주기 위해 찾아낸, 합성되고 혼동된 개념들.

170:1.13 (1859.6)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해 대중을 가르칠 때,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개념을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사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땅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개인 체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항상 가르쳤다. 천국을 언급할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170:1.14 (1859.7) “하늘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여러 세기 동안 혼동을 일으켜온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170:1.15 (1859.8) 1. 예수와 사도들이 “천국” 관념을 고쳐 쓰는 다양한 점진적 국면을 지나올 때,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생긴 혼동.

170:1.16 (1859.9) 2.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 토양에서 이방인의 토양으로 이주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혼동.

170:1.17 (1859.10) 3.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인격자라는 중심 관념 주변에 설립된 종교가 돼갔다는 사실 속에 내재돼 있던 혼동;천국 복음은 점점 더 그에 *관한*종교가 돼갔다.

2. 천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

170:2.1 (1859.11) 주님은, 하늘 나라가, 하나님ی 아버지시라는 진리,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출발해야만 하고 거기에 중심 뒹야만

함을 명확히 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랫동안 구속받아온 동물적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재능을 갖추도록,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다:

170:2.2 (1859.12) 1. 새로운 용기와 증진된 영적 능력의 소유. 천국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으며, 감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영감을 줬다.

170:2.3 (1859.13) 2.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신뢰와 참된 위안의 메시지를 전했다.

170:2.4 (1859.14) 3. 복음 자체가 원래 도덕적 가치관의 새로운 기준이었으며, 인간의 행실을 재는 윤리적 척도였다. 복음은 그 결과로 생기는 새 질서의 인간 사회의 이상{理想}을 표현했다.

170:2.5 (1859.15) 4. 복음은 물질적인 것에 대비된 영적인 것의 탁월성을 가르쳤으며; 영적 실체에 영광 돌리고 초인적 이상을 찬양했다.

170:2.6 (1860.1) 5. 이 새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세웠다. 인간의 생명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이라는 새로운 재능을 받았다.

170:2.7 (1860.2) 6.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애쓴 결과라고(보상이라고) 가르쳤다. 사람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고귀한 운명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다.

170:2.8 (1860.3) 7. 인간의 구원은 멀리까지_미치는 신성한 목적이 드러난 것임을 새 복음이 확인했는데, 그 목적은 구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끝없이 봉사하는 미래 운명에서 실현되고 완성될 것이다.

170:2.9 (1860.4) 이 교훈은, 예수께서 가르쳤던 천국에 대한, 확장된 관념을 포함한다. 이 위대한 개념은, 세례 요한의 초보적이면서 혼동된 나라에 대한 교훈에는 거의 포함될 수 없었다.

170:2.10 (1860.5) 사도들은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에 대한 그 후의 왜곡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그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그가 곧 돌아와서 능력과 영광 중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으로--곧 그가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집착했던 바로 그런 관념으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개념이 얼룩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관념을 천국 설립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대한 어떤 징조도 없이 여러 세기가 지나간 것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170:2.11 (1860.6) 이 설교를 통해서 크게 노력한 것은, 하늘 나라 개념을, 하나님 뜻을 행함에 대한 관념이라는 이상{理想}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 주님은 추종자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도록 오랫동안 가르쳤으며;이때 그는 그들에게, 더 실질적 동의어인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170:2.12 (1860.7) 예수께서는, 왕국, 왕, 및 백성이라는 관념 대신,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동료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나님께 송고하면서 총명하게 경배 드리기에 바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몹시 원했다.

170:2.13 (1860.8)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천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점을 습득해 왔으며;다음과 같이 간주했다:

170:2.14 (1860.9) 1. 그 당시에 참된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던, 몸소 체험하는 문제, 그리고

170:2.15 (1860.10) 2. 인종적이거나 세속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천국은 장래에 오는,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것.

170:2.16 (1860.11) 그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도래하는 천국은, 마치 가루 속의 누룩처럼 또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점차 발전된다고 여겼다. 그들은, 인종적 또는 세속적 인식 속에서 도래하는 천국은, 갑자기 그리고 호화로운 모습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가 더 높은 영적 삶의 자질을 실현하는 자들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과;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위엄이라는,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다.

170:2.17 (1860.12) 이날 오후에, 주님은 천국의 이중적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함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쳤다:

170:2.18 (1860.13)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즉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선된 행위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이타적 사랑이다.

170:2.19 (1861.1) “둘째,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필사 신자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곳이며, 하나님 뜻이 더 신성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170:2.20 (1861.2) 예수께서는, 사람이 신앙으로 천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쳤다. 그는 여러 강론에서 천국에 신앙으로_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가르쳤다:

170:2.21 (1861.3) 1. 신앙, 순수함.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신분의 증여를 선물로 받을 것;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완전한 확신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올
것;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가르침
받을 준비가 돼 있을 것.

170:2.22 (1861.4) 2. *진리를 갈망함*. 의를 묵마르게 찾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획득하는 것.

170:2.23 (1861.5) 예수께서는, 죄는 불완전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에 지배된
고의적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죄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미* 용서하셨다는 것과;우리
동료를 용서해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용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형제를 용서하면, 그로 인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너희 혼 속에 갖추게 된다.

170:2.24 (1861.6) 사도 요한이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까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박해받는
장본인으로서 하나님_의_나라 관념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므로, 그 말의 사용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 되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한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나라”라고 자주 표현했다. 또한 그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다. 그는 그런 체험을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가족적인 교제”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많은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사용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친구들, 믿는 자들의 교제, 사람의 형제관계, 아버지의 양 떼, 하나님의 자녀들, 충실한 신자들의 교제, 아버지의 돌보심,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들.

^{170:2.25 (1861.7)} 그러나 그는 천국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50년도 더 지난 뒤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까지도, 이 천국 개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고, 한편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굳어져간 그리스도교 교회가, 천국의 사교적이고 제도적인 면들을 인계받았다.

3. 의에 대한 관계

170:3.1 (1861.8) 예수께서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허세부리며 과시하는, 노예근성으로 행하는 의{義}를 능가할 만한 의를, 신앙으로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항상 노력했다.

170:3.2 (1861.9) 예수께서는, 신앙, 즉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모든 믿는 자녀마다, 하나님의 강건한 아들이라는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 올라가야 할, 점진적 의의 계단이 있다는 것도 가르쳤다.

170:3.3 (1861.10)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법을 감안할 때, 천국의 의를 달성했음이 드러난다. 신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代價}이지만;용서는, 너희의 신앙을 입장료로 받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고 실제적인 체험을 내포하며, 아래와 같은 네 단계, 즉 내적{內的}인 의의 천국 계단을 통해서 이뤄진다:

170:3.4 (1862.1) 1.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사람이 동료로 용서하는 한에서만 그에게 실제로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체험된다.

170:3.5 (1862.2) 2. 사람은 동료로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동료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170:3.6 (1862.3) 3. 이처럼 이웃을 너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최고 윤리 이다.

170:3.7 (1862.4) 4. 그렇게 되면, 도덕적 행실, 즉 참된 의가 그런 사랑의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난다.

170:3.8 (1862.5) 그러므로 참되고 내적인 천국의 종교는 반드시 그리고 점점 더, 사회봉사라는 실제 방법을 통해서 자체를 증거 하는 경향이 명백하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봉사로 수고하도록 유도하는 살아있는 종교를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종교의 자리를 윤리로 대체하지 않았다. 종교는 원인이고 윤리는 결과라고 가르쳤다.

170:3.9 (1862.6) 어떤 행동이 얼마나 의로운지는, 그 동기에 따라서 측정돼야만 하며;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종류의 선{善}은 의식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도덕과 윤리 그

자체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갖는 내적이고 영적인 교제에만 전적으로 관여했는데, 그런 교제는 사람에게 외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만큼 확실하게 직접 나타난다. 천국의 종교는, 누구도 자기 마음에 가둬두지 못하는 참된 개인 체험이라고 가르쳤으며;신자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자각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계율, 즉 형제관계를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봉사를 어쩔 수 없이 실행하도록 유도한다고 가르쳤다.

170:3.10 (1862.7) 천국의 종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며;열매, 즉 결과는 가족과 사회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공동체와 대조해서 개인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은 이타적 봉사를 통해서 성품을 개발한다는 것;그리고 사람은 동료들 사랑하는 관계에서 도덕적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는 또한 인식했다.

170:3.11 (1862.8) 예수께서는 천국이 마음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 개인을 고양시킴으로써, 낡은 사회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고, 그 안에서 참된 사회적 의의 새로운 섭리시대로 인도했다. 이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상이 잘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하늘 나라 복음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때, 단지 개선된 사회적 및 물질적 상태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고 강화된 영적 가치의 영광에서도 드러날 것인데, 그런 영적 가치는, 다가오는 시대의 특질인, 개선된 인간 관계와 진보하는 영적 달성의 특징이다.

4. 천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170:4.1 (1862.9)}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천국의 한 국면을 강론하고, 다른 때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통치하의 형제관계에 대한 다른 면을 토의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 오후 설교 도중에, 다음과 같이 천국의 다섯 국면 또는 시대에 대해 언급했다:

^{170:4.2 (1862.10)} 1. 신자 각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삶을 개인적으로 마음 속에서 겪는 체험.

^{170:4.3 (1863.1)} 2. 복음을 믿는 자들의 확대되는 형제관계, 즉 신자들 각 개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진된 도덕과 소생된 윤리의 사회적 양상들.

170:4.4 (1863.2) 3. 이 땅과 하늘에서 이뤄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인적 형제관계, 즉 하나님의 초인적 나라.

170:4.5 (1863.3) 4. 하나님 뜻이 더 완전하게 성취될 전망, 즉 증진된 영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질서의 도래--곧 사람의 다음 시대의 도래--를 향한 전진.

170:4.6 (1863.4) 5. 충만한 상태에 있는 천국, 즉 장차 이 세상에 도래할 빛과 생명의 영적 시대.

170:4.7 (1863.5)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님이 하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다섯 가지 상태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 사람의 뜻을 점차 바꾸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가엘과 그 동역자들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진화, 즉 사회적 및 다른 여러 가지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170:4.8 (1863.6) 이런 경우에 주님은 천국 복음의 기본 특색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점을 강조했다:

170:4.9 (1863.7) 1. 각 개인의 탁월성.

170:4.10 (1863.8) 2. 사람의 체험에서 결정 요소인 의지.

170:4.11 (1863.9) 3.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170:4.12 (1863.10) 4.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얻는 숭고한 만족.

170:4.13 (1863.11) 5. 인간의 인격체 속에서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함.

170:4.14 (1863.12) 이 세상은, 예수께서 하늘 나라에 대해 원칙으로 세운 이런 역동적 관념과 신성한 이상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살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유란시아에서 천국 관념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순서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양쪽에서 갑자기,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주기적 변화에 따라서 이뤄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육신화 한 아들로써 예수의 증여는, 이 세상의 영적

생애에서 그런 미지의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었다. 또한 천국의 시대적 징후를 찾느라고, 너희 자신의 혼 속에 천국을 확립하지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지 말라.

170:4.15 (1863.13) 비록 예수께서 천국의 한 국면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많은 경우에 그런 사건이 세상의 위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했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틀림없이 유란시아로 돌아오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을지라도, 이 두 관념을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장차 언젠가 이 땅에 천국을 새롭게 계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약속했지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이 약속들은 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70:4.16 (1863.14) 사도와 제자들은 이 두 교훈을 매우 확실히 연결시켰다.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천국이 실현되지 않게 되자, 미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약속들이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비약해서 결론 내렸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천국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주님이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곧 두 번째로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 후로 믿는 세대들은, 용기를 주는 동시에 실망시키는 희망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다.

5. 천국에 대한 후일의 개념

170:5.1 (1864.1) 하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요약하면서, 우리는 천국 개념에 덧붙여진 후일의 어떤 관념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는 세대에 전개될 것으로서 천국에 대한 예언적 전망에 관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170:5.2 (1864.2) 그리스도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세기 동안 내내, 하늘 나라 관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리스 이상주의의 관념, 즉 자연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는-- 곧 현세{現世}는 영원한 세계가 시간세계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관념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170:5.3 (1864.3) 그러나 예수의 교훈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토양으로 두드러지게 옮겨 심은 거대한 그 걸음은, 천국의 메시야가 교회의 구원주가 됐을 때 이뤄졌는데, 교회는 바울과 그 후계자들의 활동에서 태동됐고, 예수의 교훈에

기초한, 종교적 및 사회적 조직체였으며, 필로의 관념 및 선과 악에 대한 페르시아 교리가 그 교훈에 첨부됐다.

170:5.4 (1864.4) 천국 복음의 가르침에 구체화됐던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거의 실패한 이유는, 그가 선포한 것들을 그 추종자들이 점차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개념은, 두 가지 큰 경향으로 인해 눈에 띄게 변경됐다:

170:5.5 (1864.5) 1. 유대인 신자들이 그를 *메시야*로 간주하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매우 속히 실제로 돌아와서, 전 세계적이고 다소간 물질적인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다.

170:5.6 (1864.6) 2. 예수가 *구원주*라는 막연한 믿음 쪽으로 교회 신도들을 점차 인도한 바울의 교리를, 이방 그리스도교인이 매우 일찍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순수하게 영적인 천국 형제관계라는 초기 개념을, 그 *구원주*가 낯설게 제도적으로 대신했다.

170:5.7 (1864.7) 천국의 사회적 부산물로서 교회는 완전히 자연스런 것이었으며, 오히려 바람직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교회로 인한 해악은, 그것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예수의 개념을 거의 완전하게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울이 조직한 교회가, 예수께서 선포한 하늘 나라의 실제 대용품이 됐다.

170:5.8 (1864.8)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바로 이 하늘 나라가 신자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며, 땅위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 종족, 및 국가에게 --심지어 각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에도 선포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170:5.9 (1864.9) 예수께서 가르친 천국, 즉 개인이 의롭게 된다는 영적{靈的} 이상,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신성한 교제를 나눈다는 개념이, 예수라는 인격자를 구세주_창조주로 여기고, 사회화{社會化}된 종교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로 여기는, 신비주의적 개념작용 속으로 점차 매몰돼버렸다.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이_지배하는 천국의 형제관계를 이런 식으로 대치했다.

170:5.10 (1864.10) 교회는 예수의 삶과 교훈의 필연적이고 유용한 사회적 성과였으며;천국의 교훈을 향한 이 사회적 반응이, 예수께서 가르치고 또한 그대로 살았던 참다운 천국의

영적 개념을, 너무 완전하게 대치해버렸다는 사실에 비극이 있었다.

170:5.11 (1865.1) 유대인에게, 천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였으며; 이방인에게, 천국은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예수께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전심으로 헌신하기로 선언하며, 그리하여 사람의 영적 형제관계의 일원이 되는 그런 개인들 전체였다.

170:5.12 (1865.2) 주님은, 천국 복음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지만; 그런 모든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 신자들 각자의 이 내적{內的} 개인 체험, 즉 모든 신자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활성화하는 신성한 영과 순전히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와 친교에서, 자연스런 열매로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부산물이기를 바랐다.

170:5.13 (1865.3) 예수께서는, 사회 조직 또는 교회가 참된 영적 천국의 진보를 뒤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봤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진리를_사랑하는 혼,

즉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신앙으로 영적 천국에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사도들은, 그런 신자는 공개적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회 조직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다.

170:5.14 (1865.4) 영이 개별 신자를 지배하고 인도함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뤄진다는 예수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기에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그를 직접 따랐던 자들이 인식했을 때, 그들은 천국에 대한 주님의 이상 대신, 가시적 사회 조직인 그리스도교 교회를 점차 조성해 감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대치 계획표를 다 완성하자, 천국의 실상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천국을 미래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잘 확립되자마자, 교회는, 그리스도교 시대의 최고 정점{頂點}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도래하는 그때 천국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170:5.15 (1865.5) 이런 식으로, 천국은 한 시대의 개념, 미래에 도래한다는 관념, 그리고 지고자의 성인{聖人}들이 최종적으로 구출된다는 이상{理想}이 됐다. 초기 그리스도교인은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교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내포됐던 아버지_와_아들의 관념을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반면, 그 대신에 교회라는 잘 조직된 사회 공동체로 대치{代置}했다. 그리하여 교회는 주로 사회적 형제관계가 됐으며, 영적 형제관계라는 예수의 개념과 이상을 실제로 대치해버렸다.

170:5.16 (1865.6) 예수의 이상적 개념은 크게 실패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개인 생애와 교훈이라는 기초 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인 및 페르시아인 개념을 덧붙이고, 영적인 것에 대비된 현세적인 것에 대한 필로의 교리를 첨부시킴으로, 유란시아에 존재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진취적인 인간 단체 하나를 세워 나갔다.

170:5.17 (1865.7) 예수의 개념은, 세상의 진보된 종교들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 나라가 이렇게 돼야한다고 의도했던 상태가--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상태가-- 사회화되고 인간화된 그림자다. 바울과 그 후계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개인으로부터 교회로 일부 옮겨버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천국 가족 안에서 믿는 자 각 개인의 형님이 되기보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 바울과 그 동시대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과 믿는 자 각 개인에 관해 영적으로 암시한 모든 것을, 믿는 자들 집단인 *교회*에 적용했으며;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자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신성한 천국이라는 예수의 개념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170:5.18 (1866.1) 그리하여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교회는 큰 낭패를 체험했는데, 신비한 능력과 특권, 즉 오직 예수와 영적 신자 형제들 사이에서만 체험되고 실행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교회에 있다고 감히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사실은 천국 안에서의 교제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됐으며;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사회적이다.

170:5.19 (1866.2)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선포하는, 더 위대한 다른 세례 요한이 나타날 예정인데--

이는, 천국은 신자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지배하고 초월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던 예수的高상한 영적 개념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그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예상되는 재림{再臨}과 관계없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는, 미가엘이 이 땅에 머물렀던 ~~사~~실^에 관해 믿는 사회철학의 체계를 창작하려 했던 초기 추종자들의 업적을 무효화시킬 그런 수정된 선언, 즉 예수의 ~~실제~~ 교훈이 다시 소생될 것이다. 예수에 ~~관한~~ 이 이야기의 가르침이, 예수의 천국 복음 전파를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대체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의 숭고한 도덕 개념과 영적 이상을, 미래에 대한 사람의 가장 고상한 희망과--곧 영생과-- 조화시켰지만, 역사적 종교가 이런 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대체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다.

170:5.20 (1866.3) 몇 세기도 못 돼서, 그의 교훈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던 학생들이 그토록 많은 이교{異敎}와 분파로 나뉜 것은, 순전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런 비참한 분열은, 주님의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생애의 신성한

단일성을, 그의 다양한 교훈에서 식별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지적 압력과 해석, 심지어 변화하는 사회화 단계를 가질 수 있지만, 영적 형제관계의 결여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170:5.21 (1866.4) 실수하지 마라! 예수의 교훈에는,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열매 맺지 못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께서 생각했던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실패했으며;한동안, 외견상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이 교회는 오직 방해받는 영적 천국의 애벌레 같은 단계라는 것과, 주님의 교훈이, 이 물질 시대를 거쳐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누릴, 더 영적인 섭리시대로 천국을 옮겨줄 것이라는 점을, 너희는 납득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는 마치 고치 같은데, 예수의 천국 개념이 그 안에 지금 잠들어 있다. 신성한 형제관계의 천국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비가 눈에 덜 띄는 변형 단계의 피조물을 거쳐서 결국 분명히 아름답게 변화되듯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 긴 동면{冬眠}에서 깨어날 것이다.

제171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171:0.1 (1867.1) 잊지 못할 "하늘 나라"에 관한 설교가 있던 다음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며, 도중에 베레아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71:0.2 (1867.2) 천국에 관한 강연과 그가 유월절에 참석하려 한다는 발표는, 전체 추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지배하는 현세적 나라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다. 예수께서 천국의 비물질적 성질에 관해 무슨 말씀을 했더라도, 유대인 청중의 마음 속에 있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어떤 종류의 국가 정부를 메시아가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다.

171:0.3 (1867.3) 안식일 설교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추종자들 대부분을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었을 뿐이며; 주님의 강론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지도자들은 내적 천국, 즉 "너희 안에 있는 하늘 나라"에 관한 그의 교훈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들 역시 주님이 또 다른 미래의 나라를 말씀했던 것을 알았고, 바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한다고 믿었다. 이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가 유대인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주님이 곧 다시 이 세상에 큰 능력과 장엄한 영광과 함께 와서, 약속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

171:0.4 (1867.4) 야고보 세베대와 요한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가, 사도인 두 아들과 함께 동양의 군주에게 나아가는 듯한 태도로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요청하려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예수께서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려 하지 않았으며;대신에 그녀에게 물었다:“너희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했다:“주님, 당신께서는 이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니, 나의 이 아들들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어서, 당신의 왕국에서 한 아들은 당신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도록, 미리 내게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171:0.5 (1867.5) 살로메의 요청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했다:“여자여,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영광을 추구하는 두 사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했다:“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알고 사랑했으므로;너희 어머니 집에서 내가 살았으므로;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안드레가 너희를 배정했으므로;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내게 몰래 올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여, 부적절한 이 요청을 하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묻겠는데: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가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슬프며;너희가 내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 가슴 아프며;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게 이런 요청을 하게 하니 실망스럽지만;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그래서 너희도 정말 내 쓴 잔을 마실 것이고, 내 굴욕을 함께 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하겠으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영예는 내 아버지께서 선정하실 자들을 위해 예비 돼 있다.”

171:0.6 (1868.1) 이때 어떤 사람이 이 회담 내용을 베드로 및 다른 사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먼저 발탁되고자 한 것과,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 비밀리에 가려고 했다는 것에 매우 분개했다.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말씀했다:“이방인 관리들이 백성에게 어떻게 군림하는지, 그리고 지위 높은 자들이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지 너희도 잘 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높은 지위를 갖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너희의 종이 되라.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그리고 내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갔다. 그날 저녁, 베드로가 애쓴 결과로, 야고보와 요한이 열 명의 사도 앞에서 적절히 사과했고, 형제관계의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

171:0.7 (1868.2)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한 달도 못돼서, 한 쪽에는 죽어 가는 강도, 그리고 다른 쪽에는 다른 범법자와 함께 로마 십자가에 달리리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있던 그들의 어머니는, 사도인 자기 아들들을 위해 너무 어리석게 구했던, 영예를 바라면서 펠라에서 예수께 했던 그 어리석은 간청을 잘 기억했다.

1. 펠라에서 떠남

171:1.1 (1868.3) 3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예수와 열두 사도는 펠라 야영지를 최종적으로 떠났으며, 아브넬의 동역자들이 일하는 베레아 남부의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그들은 70인을 방문하면서 두 주 이상 보냈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171:1.2 (1868.4) 주님이 펠라를 떠날 무렵에, 사도들과 함께 야영지에 같이 있던 1,0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여리고로 가는 요단강 길에서, 예수께서 헤시본으로 가려함을 알자, "비용을 계산하라"는 주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 무리 가운데 반 정도가 그를 떠났다. 나머지 반 정도의 무리는, 베레아 남쪽 성읍들을 방문하면서 두 주 동안 그를 따라가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71:1.3 (1868.5) 대체로, 예수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펠라 야영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의 왕권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을 결코 파악할 수 없었으며;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더라도, 그들은 천국에 대한 유대인 관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171:1.4 (1868.6) 다윗 세베대는 사도 안드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3월 15일 수요일에, 펠라에 있는 방문자용 야영지를 철수했다. 이 무렵에 거의 4천 명이나 되는 방문자가 기거했으며, 이 외에도 선생님의 야영지라고 알려진 곳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그들은 예수와 열두 사도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다윗은 그렇게하기를 무척 싫어했지만, 모든 장비를 여러 구매자에게 팔아서 돈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돈을 나중에 가롯 유다에게 전했다.

171:1.5 (1869.1) 다윗은 비극적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십자가형이 있는 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벧새다로 돌아갔다. 예수와 사도들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머물렀고, 그가 부활한 후에 그를 박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한 바리새인의 태도 때문에 아주 심하게 동요됐다. 안드레는 다윗에게 연락 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었으며;모든 사람은 이것을 천국이 예루살렘에 곧 설립되려는 표시라고 해석했다. 다윗은 할 일이 없어졌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분개하면서 걱정하는 대상인 나사로가 이윽고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피신하자, 자천{自薦}해서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하려 했다. 따라서 다윗은, 그 부활 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있다가, 처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돕고 나서, 곧 필라델피아로 떠났으며;아브넬 및 나사로와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는데, 아브넬이 살아있는 동안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뒀던 천국의 많은 이익금{利益金}을 모두 관리하는 재정 감독이 됐다.

171:1.6 (1869.2)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얼마 안 돼서, 안디옥이 *바울의 그리스도교* 본부가 된 반면, 필라델피아는 *아브넬의 하늘 나라* 중심지로 남아 있었다. 예수의 교훈과 예수에 관한 바울의 개정판{改訂版}이 안디옥에서 서방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하늘 나라에 관한 아브넬의

개정판을 따르는 선교사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예수의 교훈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이 사자{使者}들이, 후일에 갑자기 일어난 이슬람에 압도당하는 시기까지 계속됐다.

2. 비용 계산

171:2.1 (1869.3) 예수와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추종자가, 한때 베사바라로 불렸던 요단의 베다니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곧바로 가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뭇거리며 서로 토의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아주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비용 계산”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그 강론을 전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171:2.2 (1869.4) “지금부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값을 기꺼이 치러야만 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부모, 아내, 자식, 및 형제자매를 기꺼이 버려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려 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171:2.3 (1869.5) “너희가 온전한 값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도저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길을 더 가기 전에,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땅에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것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는다면, 기초를 놓은 다음에, 시작은 했지만 완성할 수는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웃 사람들이 모두 너희를 비웃으면서, ‘보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마칠 수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일만 명의 군사로 이만 명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의논하지 않겠느냐? 그 왕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적을 이길 수 없으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할 조건을 물어볼 것이다.

171:2.4 (1879.1) “그러니 이제, 너희도 각자 앉아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봐야만 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가르침을 듣고 업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며;모진 박해에 직면해야 될 것이고, 짓누르는 실망감 앞에서 복음을 증거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희가 마음 속으로 이미 너희 자신을 정복했다면, 사람의 아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거부당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의 손에 넘겨질 때, 너희가 당장 반드시 부딪치게 될 그 외관상의 승리를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71:2.5 (1879.2) “이제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한 동기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명예와 영광을 찾는다면, 세속적인 마음을 먹고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양념은 쓸모없어서;쓰레기로 버려질 뿐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예비 되고 있는 잔을 나와 함께 기꺼이 마시지 않으려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171:2.6 (1879.3)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를 이끌고 헤시본 쪽으로 떠났으며, 500명가량 되는 사람이 뒤따랐다. 절반의 다른 대중은 잠시 지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도들은 수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많이 상고했지만, 이 역경과 시험이 잠시 있은 후에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들의 희망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 왕국이 분명히 세워지리라는 믿음에 여전히 매달렸다.

3. 베레아 여행

171:3.1 (1870.4) 예수와 열두 사도, 그리고 따라오는 수백 명의 제자는 두 주 이상 베레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70인이 일하는 모든 성읍을 방문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이 살았으며,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므로, 천국 사자들은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다.

171:3.2 (1870.5) 예수께서는 헤시본에서 아브넬을 만났고, 안드레는 유월절 축제 때문에 70인의 사역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파자들이 자기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는, 여자 단체가 원한다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락하라고 아브넬에게 권고했다. 그리고 아브넬이 육신을 입은 주님을 본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주님은 아브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얘야, 네가 천국에 충실할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도록 네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

171:3.3 (1870.6) 그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는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 유월절을 위해 올라가기까지 따르는 자들이 매일 줄어들어서, 200명 미만의 사람만 남게 됐다.

171:3.4 (1871.1) 사도들은 예수께서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산헤드린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알렸다는 것과,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이 모든 것에도, 그가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로 간다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들에게 발표했을 때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 몹시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졌다가, 입을 다물고 기대하는 이런 태도로 변한 것은, 주로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순간에 예수께서 신성한 능력을 나타내고 적들에게 모욕을 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희망은, 주님이 영적 주권을 가졌다는 더 깊고 성숙한 신앙과 함께, 측근 추종자들이 용기를 밖으로 보여준 것을 설명하며, 이들은 그가 죽어야만 한다는 산헤드린의 공개 선포가 있는 마당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를 따라가려고 준비했다.

171:3.5 (1871.2) 사도들 대부분과 여러 핵심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그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었고, 그를 불멸의 존재이며 이미 죽음에 대해 승리를 얻은 존재로 간주했다.

4. 리비아에서 가르침

171:4.1 (1871.3) 3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베레아 남부 도시들을 방문하는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리비아에서 야영했다. 열심당 시몬과 시몬 베드로는 100개 이상의 칼을 여기서

넘겨받기로 공모해 오다가, 이 무기를 받은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면서 외투 밑에 감춰 착용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날 밤 리비아에서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동산에서 배반당한 그 밤까지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171:4.2 (1871.4) 목요일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예수께서 안드레를 불러서 말씀했다:“네 형제들을 깨워라!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도 받아서 무기로 지니고 있는 칼에 관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일을 알고 있음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안드레가 동역자들을 깨웠고, 그들끼리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얘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이 시간에 필요할만한 것을 너희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 너희에게 경고하려는 것은, 불확실한 육신적인 것들을 믿지 말라는 것과,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시험에 대해 사람의 방법으로 방어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만 따로 이곳에 불러낸 것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내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려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말하고자함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이

제사장과 종교 관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그들이 그를 재판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며, 심지어 침을 뱉고 채찍질할 것이며, 결국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였을 때, 당황하지 마라, 셋째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해 온 것을 스스로 주의하고 기억하라.”

171:4.3 (1871.5) 사도들은 또 다시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으나;그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주님이 말씀한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 땅의 현세적 왕국 때문에 눈이 멀었으므로, 예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했는지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이 말씀에 관해 그에게 묻지 못했다. 당황한 사도들은, 주님이 예상되는 십자가형을 분명히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그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

171:4.4 (1872.1) 바로 이곳 리비아에서, 어떤 우호적인 바리새인이 아침식사 직후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이 지역에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세레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피하시도록 이 말을 전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171:4.5 (1872.2) 그리고 이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진 헤롯은, 산헤드린이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를 정죄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영토에서 쫓아내든지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후자 쪽을 진심으로 원했는데, 그를 너무 두려워했으므로, 죽여야만 할 처지가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171:4.6 (1872.3) 바리새인의 말을 다 들은 예수께서 말씀했다:“나는 헤롯에 관해,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관해 잘 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 받고 제사장들의 손에 죽는 것을 더 좋아하며;세레 요한의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서도,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사람의 아들이

오늘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내일은 유대지방으로 가며,
며칠 후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해라.”

171:4.7 (1872.4)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니,
사람의 아들도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값으로, 그리고
종교적 편견과 영적 무지의 결과로 희생되기 위해, 아버지
집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네 자녀를 함께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여러 번
보려고 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말씀을
마치고, 둘러서있는 그들에게 말씀했다:“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에 참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이뤄지게 하자.”

171:4.8 (1872.5) 이날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에 들어간 사람은 혼동되고 당황한 신자 무리였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천국에 관련하여 선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만 식별할 수 있었을 뿐이며; 단지 임박한 패배에 대한 경고를 스스로 파악할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다.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사소하고 불쾌한 예비 충돌이 있는 직후에, 그 왕국이 확실히 승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얼마 안 있어서” 또는 “그 후에 곧”이라는 의미로 유대인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그가 “그 왕국의 소생”을 언급했다고 생각했다.

171:4.9 (1872.6) 이 신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유대인은 수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애로 성취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죽음으로 이루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반면, 이런 괴로운 증여 기간에 주님을 격려해 준 것은 변형에 대한 기억이었다.

5. 여리고의 맹인

171:5.1 (1873.1) 3월 30일 목요일 늦은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은 200여 추종자의 선두에 서서, 여리고 성벽에 도착했다. 그들이 성문 가까이 왔을 때, 거지 떼를 만나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눈이 먼 바디메오라는 한 노인이 있었다. 눈 먼 이 거지는 예수에 대해 많이 들었고, 예루살렘에서 소경 요시아를 치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그가 베다니에 갔을 때, 예수께서 지난번에 여리고를 방문했음을 알게 됐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다시 여리고에 오신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붙들고 늘어지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171:5.2 (1873.2) 예수께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리고에 알려지자, 수백 명의 주민이 그를 만나러 몰려 나갔다. 이렇게 인파가 주님을 호위하면서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바디메오는 대중의 큰 발자국 소리를 듣고, 보기 드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가까이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거지들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 높여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 “예수여,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그가 점점 더 큰 소리로 계속 외치자, 예수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서 꾸짖으며,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만;소용없었으며;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171:5.3 (1873.3) 예수께서는, 그 소경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 예수께서 그를 보자 친구들에게 말씀했다:“그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말했다:“기운을 내고;우리과 함께 가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이 말을 듣고, 외투를 벗어 던지면서 길 한 가운데로 뛰쳐나갔으며,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갔다. 바디메오를 가리키며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대답했다:“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간청을 듣자 그의 신앙을 보고 말씀했다:“네가 보게 될 것이니;네 길을 가라;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그는 즉시 보게 되어, 예수 곁에 남아서, 다음 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며, 그 후에 대중 앞에 먼저 가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이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됐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6. 삭개오를 방문함

171:6.1 (1873.4) 주님을 따르는 행렬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는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고, 주님은 그날 밤 거기에 머물고자 했다. 예수께서 세관 옆을 지나갈 때, 세리장{稅吏將}인 세금 징수원 삭개오가 우연히 거기에 있었고, 예수를 몹시 보고 싶어 했다. 이 세리장은 큰 부자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이 선지자에 관해 많은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보겠다고 결심했으며;따라서, 삭개오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지만, 무리가 너무 많았고, 그의 키가 작았으므로, 그들 머리 위로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세리장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도시 한 가운데 이를 때까지, 무리를 뒤쫓아 갔다.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 도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지나쳐 가려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 있는 무화과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는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주님을 잘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말씀했기 때문이다:“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놀라운 이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면서 급히 내려왔으며, 예수께 가서, 주님이 자기 집에 머물러 하심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71:6.2 (1874.1) 그들은 즉시 삭개오의 집으로 갔고, 여리고에 사는 자들은, 예수께서 세리장과 함께 있기로 제안한 것에 무척 놀랐다. 주님과 사도들이 삭개오와 함께 아직 그의 문 앞에서 거닐고 있을 때, 여리고의 바리새인 하나가 가까이 서서 말했다:“아브라함의 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백성을 강요하면서 강탈하는 죄인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삭개오를 내려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의자 위에서 말했다:“여리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위대하신 주님께서 내 집에 머물려고 오셨으며;그분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내일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아무에게나 잘못 강요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義}를 행하기를 배우고자 합니다.”

171:6.3 (1874.2) 삭개오가 말을 멈추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으며, 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는 인파에게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며,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오랫동안 선포하지 않았느냐.”

171:6.4 (1874.3) 그들은 삭개오와 함께 그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강도들의 길”을 따라서 베다니까지 올라갔다.

7. “예수께서 지나가면서”

171:7.1 (1874.4) 예수께서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웠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동역자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항상 감탄했다. 너희가 우아함을 연마할 수 있지만, 인자함은 사랑이_가득한 혼에서 발산되는 호의{好意}라는 향기다.

171:7.2 (1874.5) 선함은 항상 경의를 이끌어내지만, 은혜가 결여되면 종종 애정을 쫓아낸다. 선함은 그것이 호의적일

때에만 보편적으로 매혹적이다. 선행은 오직 그것이 매혹적일 때에만 효과가 있다.

171:7.3 (1874.6) 예수께서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했으며;그러므로 참된 호의를 나타내고 진정한 연민의 정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동정심에 빠진 적은 별로 없었다. 그의 연민의 정은 무한한 반면, 그의 호의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었으며 건설적이었다. 그가 고통에 익숙했다고 해서 무관심해진 적은 없었으며, 고통 받는 혼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느낌을 더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돌볼 수 있었다.

171:7.4 (1874.7) 예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진지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척 도울 수 있었다. 그는 각각의 남녀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가 그런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 때문이었다--그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충분히 알았다. 그는 흥미를 가진 예리한 관찰자였다.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노련하게 납득했고, 인간이 바라는 것을 현명하게 간파했다.

171:7.5 (1874.8) 예수께서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지나가면서" 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지녔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는 매력적인
경청자였다. 그는 동역자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할 용의가 전혀 없었다. 그가 굶주린 정신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을 돌볼 때, 그의 자비를 받은 자들은 *그에게*
참회한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그와 *함께*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무한히 신뢰했다.

171:7.6 (1875.1) 그는 사람에 관해 알고 캐묻는 것처럼 보인
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시하거나 조종하거나 재촉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기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자기_신뢰와 강한 용기를 고취시켰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는 것을 체험했다.

171:7.7 (1875.2) 예수께서는 사람을 매우 현명하게 매우 많이
사랑했으므로,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방법을 종종
돋보이게 했다. 그는 흥미를 북돋우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본성 중에서 더 나은 것들에 호소했다.

171:7.8 (1875.3) 주님은, 자기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댄으로써 치유 받고자 했던 여자의 미개한 미신적 행위에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는 어느 한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꺼이 설교를 중단하고 대중을 기다리게 할 준비가 항상 돼 있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예수를 신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도 그들을 무척 신뢰했기 때문이다.

171:7.9 (1875.4) 예수께서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나가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룬 사역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되거나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건강을 나눠주고 행복을 뿌렸다. “그가 부지런히 선을 행했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171:7.10 (1875.5)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지나가면서” 섬기기를--곧 일상적인 자기 임무를 부지런히 하면서 헌신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8. 므나의 비유

171:8.1 (1875.6) 지난밤에 예수께서 삭개오와 그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늦게까지 자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정오 가까이 돼서야 여리고를 떠났다.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을 반쯤 갔을 때, 일행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멈췄으나, 대중은 예수와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묵으려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길을 갔다.

171:8.2 (1875.7) 모든 제자를 위해 예정됐던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므나에 관한 비유는 사도들에게만 주로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대체로 아켈라오의 체험과, 유대지방 왕국의 통치권을 얻으려고 그가 헛되이 시도한 것에 기초했다. 주님의 비유에서 역사적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것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아켈라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이 아켈라오의 화려한 궁전에서 가까웠고, 그의 수로{水路}가, 그들이 여리고에서 출발했던 길을 따라 뻗어있기 때문이었다.

171:8.3 (1875.8)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왕자가 스스로 한 왕국을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으나,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마음 속으로 이미 그를 거부했던 그의 영지{領地} 사람들이 한 대사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왕이 현세의 지배권을 거부당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영적 지배권을 거부당할 것이다. 내가 다시 확실히 말하겠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영적 지배권을 수여 받으면, 사람의 혼이 속한 그런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인간 심성이라는 그런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저희를 다스리는 것을 저희가 거부할지라도, 지금 거절당한 그런 영의 나라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기 위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것을, 다음 세대는 받아들이고 찬양할 것이다.

171:8.4 (1876.1)

“그리고 이제, 이 비유에서 거부당한 귀족처럼, 나도 내 열두 하인, 즉 특별한 청지기들을 내 앞에 부르고,

너희 각자의 손에 한 므나씩 맡기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에게 맡겨진 자본으로 부지런히 장사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때, 너희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했음을 보여줄 수 있게 하라는 내 지시를 잘 유념하라고, 각자에게 충고하고자 한다.

171:8.5 (1876.2) "그리고 거부당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될지라도, 다른 아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도록 파송될 것이며, 그때 이 아들은 너희의 청지기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희가 얻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너희 모두를 부를 것이다.

171:8.6 (1876.3) "그리고 이 청지기들이 함께 불러가서 결산하게 됐을 때, 첫째 사람이 나아와 말했다. '주여, 당신이 맡기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며; 네가 이 일에 충실했음을 증명했으므로, 내가 네게 열 개의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둘째가 와서 말했다: '주여, 내게 맡기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 따라 네가 다섯 성읍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셈하고 마지막 종의

차례가 되어, 셈하게 될 때, 그가 보고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한 므나가 있는데, 내가 형궤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게으르고 불충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뿌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한다고 네가 알았으니; 이런 계산이 네게 있을 것도 알았으리라. 이것을 알았다면, 네가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합당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한다.'

171:8.7 (1876.4) "그리고 나서 이 관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게으른 종에게서 그 돈을 가져다가 열 므나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그들이, 그는 이미 열 므나를 가졌다고 말하자: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없는 자에게서는 그가 갖고 있는 것조차 빼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171:8.8 (1876.5)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이 비유와 지난번 달란트 비유의 의미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을 너희 마음

속에 잘 생각해 보고, 진정한 의미를 각자 찾아보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171:8.9 (1876.6)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두 비유의 의미를 잘 설명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는데, 그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1:8.10 (1876.7) 1. 역량이, 인생의 기회에 대한 실제 척도다. 너희의 재능을 벗어나는 것을 성취해야 할 의무는 너희에게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171:8.11 (1876.8) 2. 충실함은 인간의 신뢰성에 대한 틀림없는 척도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자신의 재능에 맞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도 똑같은 충실함을 보일 것이다.

171:8.12 (1876.9) 3.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은 적게 충실한 자에게는 적게 보상한다.

171:8.13 (1877.1) 4. 기회가 적게 주어졌을 때, 충실한 만큼 보상을 수여한다.

171:8.14 (1877.2) 그들이 점심식사를 끝내고, 따르던 대중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길옆에 있는, 머리 위로 걸쳐 있는 바위 그늘 아래서 사도들 앞에 일어나,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면서 품위 있는 위엄과 기운찬 태도로 말씀했다:“자, 형제들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맞이하자;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모두 이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171:8.15 (1877.3) 그래서 예수와 사도들은, 필사적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제172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감

172:0.1 (1878.1) 예수와 사도들이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 네 시가 막 지날 때였다. 나사로, 그의 자매들, 및 친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너무 많은 사람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일같이 올라왔으므로, 이웃에 사는 시몬이라는 신자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고 예수께 알렸는데, 그는 나사로의 아버지가 죽은 후로 그 작은 마을을 이끌던 주민이었다.

172:0.2 (1878.2) 그날 저녁에, 많은 방문자가 예수를 찾아왔고, 베다니와 베스페이지의 서민들은 그가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산헤드린의 사형 선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으나, 베다니 가족은--곧 나사로, 마르다, 및 마리아는-- 주님이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님을 더 잘 깨달았으며;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그의 이번 방문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꼈다.

172:0.3 (1878.3)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머문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며;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았으나, 당당하고 침착했으며;친구들은 그가 그토록 차분하고 기분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사도들조차, 산헤드린이 모든 유대인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가 그토록 태연한 것에 매우 놀랐다. 그날 밤 주님이 잠자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짝져서 그를 지켰으며, 그들 가운데 여럿이 칼을 차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수백 명의 순례자 때문에 잠이 깰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던 나사로를 만나러 왔다.

1. 베다니에서 안식일

172:1.1 (1878.4) 유대지방 이외의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과 유대인 권세자들은 모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축제에 참석할까요?”라고 물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다는 것을 듣고 좋아했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다소 난처했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했지만, 그의 대담성 때문에 조금 당황했으며;그가 전에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사로가 큰 문젯거리가 됐음을 기억했다.

172:1.2 (1878.5)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도착을 축하하는 공중 연회에, 베다니와 베스페이지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해 베풀어졌으며;산헤드린에 구애받지 않고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음식 시중드는 일을 지시했고;그녀의 자매인 마리아는, 공중 연회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위배되므로, 구경하는 여자들 가운데 있었다. 산헤드린의 대리인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친구들 한가운데서 예수를 체포하기는 두려워했다.

172:1.3 (1879.1) 예수께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옛 사람 예슈아에 관해 시몬과 이야기하면서, 예슈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말씀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전설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했다:“나는 벽돌과 돌맹이로 지은 그런 성벽에는 관심이 없지만;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편견, 독선, 및 증오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할 것이다.”

172:1.4 (1879.2) 모든 사도가 평상시와는 달리 냉랭한 것 이외에는, 연회가 매우 즐겁게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대로 진행됐다. 예수께서는 유난히 기뻐했으며, 자리에 앉기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172:1.5 (1879.3) 잔치가 끝날 무렵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구경꾼 여자 집단에서 앞으로 나아와, 주빈석{主賓席}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예수께로 가서, 매우 귀하고 비싼 향유{香油}가 들어 있는 큰 흰색 병을 열었으며;주님의 머리에 바른 후, 향유를 그의 발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고 그것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온 집안은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행한 것에 놀랐다. 나사로는 아무 말 없었으나, 어떤 사람이 매우 비싼 향유가 그렇게 사용된 것에 분개하면서 투덜거릴 때, 가롯 유다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낭비를 꾸짖도록 해야만 합니다.”

172:1.6 (1879.4) 예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무엇을 말하는지 들었지만, 곁에서 무릎 꿇은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너희는 모두 이 여자에게 참견하지 마라. 이 여자가 진심으로 선한 일을 행했음을 알면서, 너희는 왜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줘야한다고 투덜거린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돌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며;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여자는 장사지낼 내 몸을 위해 이 향유를 오랫동안 간직해 왔고, 이제 내 죽음을 예상해서 이 기름을 부었으니, 이 여자가 원하는 바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라는 내 말에 대한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너희 모두를 꾸짖었다. 이 여자는 오늘밤 한 행동에 대해 책망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앞으로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서 저를 기념하라.”

172:1.7 (1879.5) 가롯 유다는 이 꾸지람을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 상한 기분에 대해 마침내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무의식중에 여러 번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공공연히 그리고 의식적인 정신 속에 감히 품게 됐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이 이런 태도를 갖도록 그를 부추겼는데, 이 향유의 값이 --오천 명에게 빵을 나눠주기에 충분한-- 한 남자의 일 년 수입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고; 시체에 바르는 이 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을 때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기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주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것을 그에게 드리고자 했다.

172:1.8 (1879.6)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가 이 감송{甘松} 향유한 병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진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대로 허락했던 것은, 그들이 부유했으므로 이 정도 헌금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2:1.9 (1880.1) 예수와 나사로를 위한 만찬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나사로도 반드시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를 살려두고 예수만 죽인다면, 아무 소용없으리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다.

2. 일요일 아침 사도들과 함께

172:2.1 (1880.2) 이 일요일 아침에,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주님은 열두 사도를 가까이 불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마지막 주의사항을 말씀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아마 여러 번 연설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도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공적 사역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자기 곁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줬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가까이 따르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그때도 몰래 칼을 휴대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172:2.2 (1880.3) 이날 아침 교육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임직식이 있던 후,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던 이날까지, 그들이 사역했던 것에 대해 간단히 회고하는 것이 포함됐다. 사도들은 조용히 듣기만 했으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172:2.3 (1880.4)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베대는 펠라 야영지 장비를 처분해서 얻은 자금을 가롯 유다에게 건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유다는 다시 이 돈 대부분을, 그들을 초대했던 시몬에게 맡겼다.

172:2.4 (1880.5) 사도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나사로와 말씀을 나누면서, 산헤드린의 복수심에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피하라고 그에게 충고했다. 나사로는 이 훈계에 순종하여, 며칠 후 산헤드린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을 때, 필라델피아로 피신했다.

172:2.5 (1880.6)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가는 도중에 위기가 박두했음은 느꼈지만, 주님의 보기 드문 기쁨과 비범한 아름다운 유머 때문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3.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함

172:3.1 (1880.7) 베다니에서 성전까지는 약 2마일 거리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한 시 반쯤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거기에 있는 순박한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를 배척했지만, 베다니는 그를 환영했고 그를 믿었다. 이 땅에 증여된 동안 가장 엄청난 일, 즉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기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대부분이 믿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살렸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이었다.

172:3.2 (1880.8) 예수께서는 아침 내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공연히 메시아로 환영하는 어떤 움직임도 억제해 왔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으며;육신 속에서의 삶을 끝낼 시기가 가까웠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으며, 제자들이 자기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을 것이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성을 그가 선택한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72:3.3 (1881.1) 예수께서는 이 공공연한 예루살렘 입성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또는 최종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제자나 사도들이 인간적으로 열망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이상한 몽상가의 환상을 일절 거부했으며;이번 방문에서 무엇이 발생할지 잘 알았다.

172:3.4 (1881.2) 주님은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어떤 적당한 방법으로 그런 결심을 실행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에 직면했다. 예수께서는, 소위 메시아 예언이라고 불리는 다소 모순된 많은 것을 모두 상고했지만, 자신이 따르기에 적당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듯 했다. 이 예언적 표현 대부분은, 한 왕, 즉 다윗 왕의 아들이요 후계자이며, 외국의 통치를 받는 멍에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구해줄, 대담하고 공격적인 현세적 구원자를 묘사했다. 그러나 성서 가운데서 한 권만이, 그의 사역에

대해 더 영적인 개념에서 메시아를 관련시켰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획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이 성서는 스가랴서였고,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 “크게 기뻐하라, 오 시온의 딸아; 외쳐라, 오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가져오신다. 그는 나귀를 타시되, 망아지, 즉 어린 나귀를 타고 낮은 자로서 오신다.”

172:3.5 (1881.3) 전쟁하는 왕은 항상 말 타고 성에 들어가며; 평화와 우호의 사명을 띤 왕은 항상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예수께서는 말을 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대신, 나귀를 탄 사람의 아들로써 평화롭게 그리고 선한 뜻을 갖고 기꺼이 들어가려 했다.

172:3.6 (1881.4) 예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즉 그것은 순전히 영적 문제임을 명백하게 가르침으로써, 사도와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쉽게 친히 가르침으로 실패했던 것을, 이제는 상징적 호소를 통해서 이루도록 시도하려 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점심 식사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베다니 북서쪽 큰 길 옆 가까이 있는 이웃 마을인 베스페이지로 가라고 지시한 후에 덧붙여 말씀했다: “베스페이지로 가서, 사거리를 만나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데려와라. 누구든지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님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고만 대답해라.” 그리고 두 사도가 주님의 지시대로 베스페이지에 갔을 때, 길모퉁이에 있는 집 근처 한가한 길에서 어미 곁에 매어있는 어린 나귀를 발견했다. 베드로가 어린 나귀를 풀기 시작했을 때, 주인이 다가와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물었고, 베드로가 주님이 지시했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의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시라면, 어린 나귀를 그에게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돌아왔다.

^{172:3,7 (1881.5)} 수백 명의 순례자가 이때까지 예수와 사도들 곁에 모여 있었다. 아침나절 중간쯤부터,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전에 그의 심부름꾼이었던 몇몇 동역자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승리의 행진으로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방문 중인

성전 순례자 군중 가운데 거기서 효과적으로 퍼뜨리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수천 명의 방문객이, 선지자로 많이 알려졌고 이적을 베푸는,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이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떼를 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대중은, 감람산 언덕을 지나서 성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직후에, 성으로 향하는 예수와 그 인파를 만났다.

172:3.8 (1882.1)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했을 때, 대개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온 제자, 신자, 그리고 방문하기 위한 순례자들로 구성된, 축제에 참석하려는 인파가 크게 열광했다.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초기의 여자 단체에 속했던 열두 명의 여자가 동역자 몇 명과 함께 도착해서 이 광경을 보으며, 그 성을 향해 기쁨에 넘쳐서 움직이는 이 진기한 행렬에 동참했다.

172:3.9 (1882.2)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쌍둥이 형제 알패오가 자기 겹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님이 탈 수 있도록 붙들어드렸다. 행렬이 감람산 꼭대기를 향해 움직이자, 축제에 참석하려는 인파는, 왕가{王家}의 아들, 즉 약속된 메시아를 태우고 있는 나귀에게 경의를 표하는 양탄자를 만들기 위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들을 가져왔다. 즐거워하는 인파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시편을 한 목소리로 읊으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축복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국에 복이 있으라”고 외쳤다.

172:3.10 (1882.3) 그들이 진행하여 그 성과 성전 탑들이 잘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예수께서는 쾌활하고 즐거워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행렬을 멈추게 했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모두에게 엄습했다. 주님은 방대한 대중이 자신을 환영하려고 성에서 나오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크게 감동되고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했다: “오 예루살렘아, 그토록 값없이 가질 수 있었던, 너의 평안에 속한 것들을, 네가 적어도 이렇게 한창일 때에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이 영광이 네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졌다. 너는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려고 하며, 구원의 복음에 등을 돌리려고 한다. 너의 대적들이 너를 둘러 진치고 포위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며; 그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너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네게 내리는 재앙의 때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모든 일이

네게 일어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 것이다.”

172:3.11 (1882.4) 그가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다시 감람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얼마 안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든지, 아니면 즐거워 떠들고 서로 반기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방문객 대중과 합세했다. 이런 인파가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은 주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극적인 일을 미리 꾸미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었다.

172:3.12 (1882.5)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대중 가운데는, 많은 바리새인 및 다른 대적하는 자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민중의 환호에 너무나 당황했으며, 그런 행동이 민중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그를 체포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대부분 그를 믿은 많은 방문객의 태도를 무척 두려워했다.

172:3.13 (1882.6)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인파가 더 소란스러워졌으므로,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예수의 걸을 따라 길을 올라가면서 말했다:“선생이여, 점잖게 행동하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고 타이르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이 거부한 평화의 아들이 이 자녀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을 멈추게 한다면, 길옆에 있는 이 돌들이라도 그들 대신 소리 지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172:3.14 (1882.7) 바리새인은 그때 성전에서 회의 중이던 산헤드린에 합세하기 위해 서둘러 행렬 앞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보고했다:“보라, 우리가 한 일들이 아무 소용없게 됐으며;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난처하게 됐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에게 몰려 나갔으니;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다.”

172:3.15 (1883.1) 민중의 이런 피상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열광의 분출에는 아무런 깊은 의미가 정말로 없었다. 이런 환영은, 기쁘고 진지한 것이기는 했지만, 축제에 참석한 이 대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실제 확신을 나타낸 것이 전혀

아니었다. 바로 이 인파는, 이 주간의 마지막에 산헤드린이 그를 대적하기로 굳게 결의하고, 자신이 환멸을 느꼈을 때-- 곧 예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것에 따라 왕국을 세우려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마찬가지로 곧 기꺼이 예수를 거부했다.

172:3.16 (1883.2) 그러나 그 성이 온통 크게 소동하여,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중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오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4. 성전 방문

172:4.1 (1883.3) 알패오 쌍둥이가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러 간 동안, 예수와 열 명의 사도는 가까운 동역자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성전을 거닐었으며, 유월절을 준비하는 광경을 바라봤다.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크게 무서워했으므로 예수를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것은 결국 대중이 그렇게 환호하도록 예수께서 허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즉시 체포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적 조처였음을, 사도들은 거의 깨닫지 못했다. 주님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예루살렘 주민에게, 또한

수만의 유월절 방문객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다.

172:4.2 (1883.4)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자 인파가 음식을 먹으러 갔고, 예수와 그를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만 남았다. 얼마나 유별난 하루였는지!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이 예수와 교제했던 여러 해 동안 이런 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잠시 헌금궤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바라봤는데:부자들은 모두 자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넣었다. 끝으로 초라한 행색의 한 가난한 과부가 왔고, 그들은 그녀가 (작은 구리동전) 두 푼을 깔때기 모양의 구멍에 넣는 것을 봤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 과부를 주목해 보라고 하면서 말씀했다:“너희가 방금 본 것을 명심하도록 해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선물로 조금 떼어서 바쳤지만, 이 가난한 여자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모두 바쳤기 때문이다.”

172:4.3 (1883.5)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없이 성전 뜰을 거닐었으며, 예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방문도 제외하지 않고, 전에 했던 것들과 관련된 느낌을 회상하면서, 이 친숙한 장면을 한 번 더 둘러본 후에 말씀했다:“우리 휴식을 위해 베다니로 올라가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갔으며, 한편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베스페이지에 있는 친구들 집에 머물렀다.

5. 사도들의 태도

172:5.1 (1883.6) 이 일요일 저녁에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올 때, 예수께서는 사도들 앞에서 걸었다. 시몬의 집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어떤 열두 인간도, 이 천국 대사{大使}들의 정신과 혼을 통해서 지금 밀려들어온, 그토록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강인한 이 갈릴리인들은 혼돈되고 당황해서;자신들이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지 알 수 없었으며;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려워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주님의 내일 계획을 하나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으나, 쌍둥이 형제 외에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지는 않았다.

172:5.2 (1884.1) 안드레는 완전히 당황해서, 거의 혼란된
상태였다. 그는 환호성을 분출하는 민중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그는 사도 단체의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대중이 호산나를 크게 외친 것의 의미나 중요성에 진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안드레는 동역자들 중에
흥분해서 그 소동에 가담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열심당
시몬을 지켜보기에 바빴다. 안드레는 이날부터 그 후 며칠
동안 내내 심각한 염려로 고심했지만, 사도
동역자들에게는 이 의심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차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열두 사도 가운데 일부의
태도를 걱정했지만; 바로 동생 베드로가 그런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진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피상적 인상을 줬을
뿐이며; 자기가 맡은 책임에 너무 바빠서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민중의 열광적 시위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으나;그날 밤에 베다니로 돌아옴으로써 상당히 침착하게 됐다. 한 마디로, 베드로는 주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선언과 함께 민중의 이 지지 물결을 타지 않은 것에 아주 심히 실망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 대중에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도들 가운데 하나에게 인파 앞에서 연설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으며, 그토록 많은, 잘 받아들이기 준비가 돼있는 열정적인 청중을 그냥 가도록 보고만 있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성전에 있는 바로 그 군중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주님은, 이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가르침이나 전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었다. 성{城}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행렬에 대한 반응이 시몬 베드로에게 큰 상처가 됐으며;밤이 될 때까지도 마음이 냉랭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겼다.

172:5.4 (1884.3) 야고보 세베대에게, 이 일요일은 당황하고 깊은 혼란에 빠진 하루였으며;무엇이 어떻게 돼가는 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이토록 거세게 환호하도록 내버려두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주님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었다.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 감람산을 내려갈 때, 특히 주님을 환영하러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순례자를 만났을 때, 야고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고 크게 만족하는 모순된 감정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서 나귀에서 내려와 성전 뜰을 한가히 걸어 다니고자 할 때 낙심하고 실망으로 가득 찼다. 야고보는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기까지 그의 정신은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의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다.

172:5.5 (1884.4) 요한 세베대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으며;소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식의 영적인 중요성을 적어도 일부분은 파악했다. 대중이 성전으로 움직일 때, 요한은 나귀 등에 걸터앉은 주님을

붙잡고 가면서, 언젠가 예수께서 성서에서 인용했던 스가랴서를 상기했으며, 그 내용은 평화의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요한은 마음 속에서 이 성서의 책장을 넘기면서, 이 일요일 오후 행렬의 상징적 의미를 납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그 사건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행렬이 표면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것 때문에 너무 좌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파악했다. 요한은 상징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유형의 정신을 소유했다.

^{172:5.6 (1885.1)} 빌립은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돌연성과 자발성 때문에 완전히 침착성을 잃었다. 감람산을 내려오는 동안, 그는 그 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떤 차분한 개념이든지 가질 만큼 충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주님이 예우 받는 것 때문에 그 광경을 다소 즐기기도 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께서 아마 대중을 먹이라고 자기에게 명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으므로, 예수께서 인파로부터 유유히 떠나자, 사도들 대부분은 그토록 심하게 낙심했지만, 빌립은 매우 안심했다. 열두

사도의 사무장이었던 그에게, 대중은 때때로 큰 시험거리였다. 인파에게 필요한 물질에 관한 개인적 염려가 사라진 후에, 빌립은 베드로와 이구동성으로, 대중에게 가르치기 위한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음에 실망했다고 표현했다. 빌립은 그날 밤에 이런 체험을 되새기면서, 천국에 대한 모든 관념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며;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솔직히 놀랐지만, 자신의 의심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으며;예수를 무척 사랑했다. 그는 주님에 대한 개인 신앙이 매우 깊었다.

172:5.7 (1885.2) 나다니엘은,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면 이외에는, 주님이 유월절 순례자들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것에 대한 이유를 거의 근접되게 이해했다. 그는 추측하기를,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시위하면서 입성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성에 들어가려는 순간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일단 성곽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자극을 줘서, 그들이 그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자제했을 때, 환호하는 인파를 주님이 더 이상 활용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주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성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참된 이유를 이해했으므로, 예수의 그 후 행동에 대해, 다른 사도들이 그랬던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안정돼 있었으며, 동요나 낙심하는 정도가 덜했다. 나다니엘은 사람에 대한 예수의 이해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그의 현명함과 총명함을 매우 신뢰했다.

172:5.8 (1885.3) 마태는 이 화려한 행렬의 진행으로 인해 처음에는 당황했다. 그도 역시,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을 가져오는 왕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기뻐할 것을 그 선지자가 암시했던 스가랴서를 기억할 때까지, 자기 눈에 비치고 있는 모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행진이 성을 향해 움직이고 마침내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황홀경에 빠졌으며;소리치는 대중 앞에 있는 주님이 성전에 도착하면, 엄청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마태가 크게 자제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대들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갈 때, 열두 사도 중에 마태보다 더 우울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 못지않게,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곤두섰으며, 밤이 되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무척 원기를 회복했으며;결국 그는 지고도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172:5.9 (1886.1) 도마는 열두 사도 전체 중에서 가장 당황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그 광경을 흥미 있게 지켜보고, 그런 독특한 시위운동에 주님이 어떤 동기로 참여하는 지에 대해, 진정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전체 진행에 대해, 명백히 바보스러운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이 일요일 오후에 한 이상한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 도마는, 자신들이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민중이 이렇게 시위한 것은, 산헤드린을 매우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님을 즉시 체포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했다. 도마는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것을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보여준 예수의 영리함이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고, 그는 이런 반응으로 인해 매우 활력을 찾았다.

172:5.10 (1886.2) 열심당 시몬에게 이 일요일은 굉장한 날로 시작됐었다. 그는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환상을 봤는데, 거기까지는 옳았지만, 시몬은 다윗의 왕좌에 앉은 예수와 함께 유대인의 새로운 국가적 통치를 설립할 꿈을 꿔다. 시몬은, 천국이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나 행동하기를 기대했고, 자신은 그 새 왕국의 집합된 군대를 총괄할 생각이었다. 감람산 길을 내려가는 동안에, 그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산헤드린과 그 동조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상상하기까지 했다. 그는 정말로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려 한다고 믿었다. 그는 전체 대중 중에서 가장 떠들썩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날 오후 다섯 시 무렵에는 조용하고, 기가 꺾이고, 환멸을 느끼는 사도였다. 그는 이날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에게 임한 우울증에서, 적어도 주님이 부활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날 때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172:5.11 (1886.3) 알패오 쌍둥이 형제에게 이날은 아주 완벽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과정을 즐겼으며, 성전에서 조용히

방문하던 동안에는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민중의 격동이 최고로 식어버린 분위기 대부분과는 상관없었다. 아마 그들은,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기가 꺾인 사도들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쌍둥이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웠던 날로 남았다. 이날은 그들의 사도로서 지낸 전 생애 중에 만족스런 정점{頂点}이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오후의 의기양양했던 추억은, 바로 십자가형이 있던 시간까지, 파란 많은 이 주간의 모든 비극을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게 했다. 쌍둥이의 생각에, 그것은 왕의 가장 적당한 입성식이었으며;그들은 전체 과정의 순간들을 즐겼다. 그들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온전히 지지했고, 그 추억을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했다.

172:5.12 (1886.4) 전체 사도 중에서 가롯 유다가, 예루살렘으로의 이 입성 행렬로 인해 가장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 그 전날 시몬의 집 연회에서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일과 관련하여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으므로, 그의 마음은 불쾌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유다는 모든 장면에 혐오감을 가졌다. 그에게 그것은 정말로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치하게 보였다. 복수심이 가득한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일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는 예수가 왕이라기보다 광대처럼 보였다. 그는 벌어진 일 전부에 대해 진심으로 분개했다. 그는 당나귀나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을 깔보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관점을 가졌다. 성으로 들어가는 개선 행진이 있을 무렵에, 유다는 그런 왕국 관념을 모두 버리기로 거의 작정했으며;하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웃기는 시도를 모두 떨쳐버리기로 거의 결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더 열두 사도와 함께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 외에도, 그가 돈주머니를 보관했으므로, 사도들의 돈을 지닌 채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낙심하고 침묵했으므로, 그의 행동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172:5.13 (1887.1) 유다는 사두개인 친구들의 비웃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예수께서 성문에 막 도착했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만큼, 다른 어떤 한 요소가 그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준 것은 없었는데:(유다 가족의 친구인) 한 유명한 사두개인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매우

반가운 체 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했다:“여보게, 자네는 왜 표정이 그렇게 침통한가;기운내고, 나귀 등에 앉아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환호하는 우리와 합세하지 않겠나.” 유다는 어떤 박해에도 굴복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조롱에는 견딜 수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복수의 감정이, 조롱에 대한 이런 심각한 공포심, 즉 주님과 동료 사도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소름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느낌과 뒤섞이게 됐다. 임명받은 이 천국 대사는, 마음 속에서 이미 탈영자가 됐으며;주님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기 위한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제173편 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173:0.1 (1888.1)} 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와 사도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모였으며, 잠시 논의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다. 열두 사도는 성전을 향해 길을 가는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으며;전날의 체험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졌고, 두려워했으며, 이 유월절 주간 내내 어떤 공개적 가르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지시와

함께, 주님의 갑작스런 전술 변경에서 나오는 어떤 초연한 감정에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173:0.2 (1888.2) 이 일행이 감람산 아래로 여행할 때, 예수께서 앞에 갔고, 사도들은 생각에 잠겨서 침묵하는 가운데 그 뒤를 가까이 쫓아갔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정신 속에 똑같이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주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유다가 열중한 한 가지 생각은: '어떻게 할까? 예수와 동역자들과 함께 갈까? 아니면 떠날까? 그리고 내가 그만둔다면, 어떤 방법으로 결별할까?'라는 것이었다.

173:0.3 (1888.3) 이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한 것은 꽤청한 이날 아침 아홉 시쯤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토록 자주 가르쳤던 넓은 뜰로 바로 갔으며, 예수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과 인사한 후에, 여러 연단{演壇} 가운데 하나로 올라가서, 모여드는 인파에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다.

1. 성전 청소

173:1.1 (1888.4) 성전 경배에 속하는 예배 및 예식과 관련해서 막대한 상업 거래가 발전돼 왔었다. 여러 종류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동물을 제공하는 장사가 있었다. 경배자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허용은 됐지만, 실상은 이 동물이 레위기의 율법에 비취 볼 때, 그리고 성전 검사관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 해결돼야 했다. 경배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동물이 성전 검사관에게 퇴짜 맞는 창피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희생 동물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관습이 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감람원 가까이에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이 동물을 성전에 있는 가축{家畜} 우리에서 직접 구입하는 일이 성행하게 됐다. 성전 뜰에서 모든 종류의 제물용 동물을 파는 이런 관습이 점점 번창했다. 그리하여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거래가 그렇게 생겨났다. 이런 소득의 일부는 성전 금고에 비축 됐지만, 더 많은 부분은 세력을 잡은 대제사장 가족에게 슬그머니 넘겨졌다.

173:1.2 (1888.5) 성전에서 이렇게 동물 판매가 성행했던 이유는, 값이 약간 더 비쌌지만 경배자가 그런 동물을 사면, 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예정된 희생 제물이 실제로 있거나 또는 기술적인 흠을 빌미로 해서 퇴짜 맞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체계가 일반인에게 적용됐으며, 특히 민족의 대 축제 기간에 그랬다. 한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만 몇 페니에 팔려야만 하게 돼 있는 비둘기 한 쌍에 대해, 탐욕스런 사제들이 일 주일 분의 노동에 해당되는 값을 요구하기에 이르기까지 했다. “안나스의 아들들”은 이미 성전 구내{區內}에 매장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 상점들은 성전 자체가 파괴되기 3년 전에 폭도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점{閉店}될 때까지 계속 존재한, 바로 그런 상품 매매 장소였다.

^{173:1.3 (1889.1)} 그러나 희생 제물용 동물과 잡다한 물품에 대한 거래만이 성전 뜰을 더럽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이때 당시에, 성전 구내 바로 안쪽에서 운영됐던 광범한 은행업 및 상업용 환전{換錢} 체제가 조성돼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아스모니아 왕조 시절에, 유대인은 자기네 특유의 은전을 만들었으며, 성전 세로 반 세겔을 내도록 요구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다른 모든 성전 입장료도 이

유대인용 동전으로 바치도록 했다.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 전역은 물론 로마제국 각 지방에서 통용되는 많은 종류의 돈을, 유대인용 동전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가들이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여자, 종, 및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성전 인두세{人頭稅}는 반 세겔이었고, 10센트 짜리 동전과 같은 크기에, 두께는 두 배쯤 되는 동전이었다. 예수 당시까지 사제들은 성전세{聖殿稅} 납부 의무에서도 면제돼 왔었다. 따라서, 유월절에 앞서 그 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허가 받은 환전가들이 팔레스틴 주요 도시마다 환전소를 설치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이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합당한 돈으로 바꿔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1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면, 이 환전가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성전 뜰에 돈을 바꿔주는 상을 설치했다. 그들은 약 10센트에 해당되는 돈을 바꿔줄 때마다 3내지 4센트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많은 금액을 바꿔줄 때에는 두 배까지 징수하는 것도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이 은행가들도, 희생 제물용 동물을 사거나 서원{誓願}을

위한 대금 또는 헌금하기 위해 돈을 바꿔 주는 일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

173:1.4 (1889.2) 성전에 있는 이런 환전가들은,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20여 종류
이상의 돈을 바꿔줌으로써 이익을 보는 정규 은행 업무뿐
아니라, 은행 업무에 부속된 여러 가지의 모든 다른
거래에도 또한 관여했다. 성전 재무관과 성전 관리들
양쪽은 이런 상업 활동에서 엄청난 이익금을 거둬들였다.
민중이 가난에 쪼들리면서 이렇게 불의한 세금을 계속
바치는 동안에, 성전 재무관은 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챙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173:1.5 (1889.3) 예수께서는, 이 월요일 아침, 환전가, 상인, 및
가축 판매자들로 구성된 시끄러운 집단 한가운데서 하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에 예수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일반인, 특히 외국
지역에서 방문한 유대인 또한, 자기 민족의 경배처소를
모독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에 진심으로
분개했다. 이때에 바로 산헤드린은, 매매와 물물교환으로

인한 이런 모든 소음과 혼란에 둘러싸인 채, 회의장 안에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173:1.6 (1890.1) 예수께서 막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그의 주의를 끄는 일이 두 가지 발생했다. 가까이 있던 환전가의 돈 바꿔 주는 상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어느 유대인이 바가지를 썼다고 우겨댐으로써 맹렬하고 격한 다툼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백 마리 정도나 되는 황소 떼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축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예수께서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러나 주의 깊게 이런 상업적이고 혼란스런 광경을 숙고했으며, 한때 아이론에서 대화했던 적이 있는 한 순박한 기질의 갈릴리 사람이, 거만하고 힘이 더 센 것처럼 보이는 유대지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밀침 당하는 것을 가까이서 봤으며;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예수의 혼 속에 분개한 감정이 예상 밖으로 잠시 일어나게 됐다.

173:1.7 (1890.2) 예수께서 연단에서 내려와, 뜰을 가로질러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끈으로 된 채찍을 빼앗아 그 동물들을 성전에서 신속히 몰아냈을 때, 곧 이어 일어날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했던, 가까이 서 있던 사도들은

몹시 놀랐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는데;그는 성전 뜰에 모여 놀라며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 앞을 지나, 가장 먼 가축우리로 당당하게 걸어갔고, 모든 가축우리 문을 열고 안에 갇혔던 모든 동물을 몰아냈다. 이때, 모여 있던 순례자들은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기 시작했다. 5분도 채 안 되어, 모든 거래행위가 성전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때, 가까이 있던 로마인 호위병들이 나타났으며, 모두 조용해지고, 인파는 질서를 되찾았으며;예수께서는 단상으로 돌아와 대중에게 말씀했다:“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겠으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서에 써어있는 그것을, 너희가 오늘 목격했다.”

173:1.8 (1890.3) 그러나 그가 말씀을 더 계속하기 전에, 거대한 집회무리가 호산나 찬미를 부르면서 쏟아져 나왔으며, 이윽고, 신성을 모독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신성시되는 성전에서 쫓아낸 것에 고마워하는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 다수의 소년이 인파 앞으로 나왔다. 이때, 어떤 사제들이 거기에 도착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레위인의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젓먹이 아이들의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대답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때부터 하루 종일 가르치는 동안, 병사들이 사람들 옆에서 모든 통로를 지켰으며, 누구든지 빈 그릇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들고 성전 뜰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173:1.9 (1890.4) 이런 사건들을 전해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제 그가 불경스러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일에 공공연히 동조하는 대중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날은 하루 종일 성전 뜰에 고요와 평화가 넘쳤으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말씀에 정말로 열중했다.

173:1.10 (1890.5) 예수의 이런 놀라운 행동은 사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움직임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내내 연단{演壇} 주변에 몰려

있었으며;이런 성전 청소를 돕기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루 전에 성문을 통과하는 떠들썩한 행진이 끝나면서, 예수께서 승리한 모습으로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이런 광경이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자, 동참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았다.

173:1.11 (1891.1) 이런 성전 청소는 상업화된 종교 풍습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물론, 가난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경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과 모든 불공정성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밝히 드러낸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 재정, 또는 성직의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불의한 소수 무리의 불공정하고 노예화하려는 악습에 대항해서, 어떤 주어진 인간 집단이든지 그 대다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수께서 거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의 이상주의 때문에, 자기_방어를 위하거나 훌륭한 인생 설계를 촉진하려고 무력에 호소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심술궂고 사악하며 뱃속이 검은 사람들이 자체를 조직하도록 묵인해서는 안 된다.

2. 주님의 권세에 도전함

173:2.1 (1891.2)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일요일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예수를 체포하는 일을 자제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도, 주님의 체포를 효과적으로 연기시켰다. 유대인 관리들은 매일같이 점점 더 확고하게 그를 죽이고자 결심했지만, 두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 결행 시간을 연기하도록 작용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중이 분개함으로 광포해져서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공공연하게 체포하기를 꺼렸으며;민중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한 우려했다.

173:2.2 (1891.3) 산헤드린의 정오 회의에서는, 주님의 친구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를 신속하게 죽이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다섯 개의 무리를 뽑아 사람들 가운데로 보내서, 그의 가르침으로 함정에 빠지게 하든지, 또는 그의 교육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안에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두 시쯤에, "아들신분의 자유함"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을 막 시작했을 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

한 무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와서, 관례에 따른 방법으로 말씀을 가로막고 질문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173:2.3 (1891.4)} 특별히 성전에서 모든 매매를 중지시킨 예수의 최근 행위에 관련되다시피, 그의 특질을 이뤄 왔던 색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성전 관리들과 유대 산헤드린의 관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당한 일이었다. 이 상인{商人}과 환전가들은 모두 최고 관리들로부터 직접 허락받아 운영했고,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곧바로 성전 금고에 들어가게 돼 있었다. *권세*라는 말이 모든 유대민족의 슬로건이었음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은, 권세 없이, 즉 율법학자를 배출하는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후에 산헤드린의 공식 임명을 받지 않은 채, 권세 없이 감히 가르치려고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고난을 당해야 했다. 이런 권세 없이 감히 공개적으로 가르치려하는 것은,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 또는 공공연한 반역으로 간주됐다. 이때 당시에는 오직 산헤드린만이 장로나 교사를 임명할 수 있었고, 그런 예식은, 이미 전에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이 적어도 셋 이상 있어야 거행될 수 있었다. 그런 임직식에서

교사에게 “랍비”라는 칭호가 주어졌고, 또한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즉 “판결해 달라고 그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속박하거나 풀어주는” 자격 역시 그에게 주어졌다.

173:2.4 (1892.1) 성전 관리들이 이날 오후에 예수께 온 것은,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동에 도전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왔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이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자들임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내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그의 권세를 하늘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았느냐?”

173:2.5 (1892.2)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쪽으로 물러가서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예수를 무안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성전 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 자신이 혼란에 빠졌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대답한 것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했기 때문이다: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아마 그가 자기 권세를 요한에게서 받았다고 할
것이며;우리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와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교사 및 지도자들은 요한의 사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또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

173:2.6 (1892.3)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위해 요한에게
간청하려 한 적이 없었으며;요한도 산헤드린의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예수의 권세는, 자신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주권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반대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다룰 때, 질문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가 교묘하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뚝뚝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대적하는 자라도 공평치 못하게 억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결코 없었다. 겉으로는 적당히 둘러대는 듯이 보이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숨겨진 권세를 모든 청중에게 보여줬다. 그들은 그가 마귀들의 왕자의 권세로 일한다고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가르치고 행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산헤드린에게서 허가받은 적이 없으므로 합법적 교사가 아님을 인정하게 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다. 그가 실제로 했듯이 그들에게 대답할 때, 요한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은 반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의 의도가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망신당했다고 추측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매우 만족시켰다.

173:2.8 (1892.5)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을 대하는 그의 이런 특별재능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날 더 이상 질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자기들끼리 더 의논하려고 물러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에서 불성실과 위선을 재빨리 간파했다. 보통 사람들조차, 주님의 도덕적 위엄과,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의도적 위선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을 청소한 사건이, 사두개인으로 하여금 바리새인 편에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때 산헤드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3. 두 아들 비유

173:3.1 (1893.1)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이 유구무언으로 예수 앞에서 있을 때,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쌌었다: “너희가 요한의 사명을 의심하고 사람의 아들의 가르침과 활동에 일제히 대적하니, 내가 말하는 한 비유를 들어봐라: 어떤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주{地主}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아들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러나 경솔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눕우치고 그곳으로 갔다. 또한 그가 큰아들을 찾아,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신실치 못한 이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자,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묻겠는데,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173:3.2 (1893.2)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말씀한
아들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렇더라도;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거절한 것 같더라도, 내가 확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희보다 먼저 깨달을 것이며, 너희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기에 큰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으며;너희는 내 가르침을 믿지 않지만, 평민들은 내
말을 기쁘게 듣는다."

173:3.3

(1893.3)

예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경멸하지 않았다. 그가 망신 주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 및 실천 체계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지 않았지만, 예식과 전통 그리고 권위로 가득 찬 옛 종교와,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종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충돌이 발생했다.

173:3.4 (1893.4)

열두 사도는, 이 시간 동안 내내 주님 곁에 서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진행사항에 끼어들지 않았다.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육신 속에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각자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했으나, 이 유월절 주간에 공개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명령에는 각 사람이 똑같이 순종했다.

4. 집을 비운 주인의 비유

173:4.1 (1893.5)

여러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우두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더 의논하기 위해 물러간 후에, 주님은 듣고 있는 대중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

“어느 선량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가꾸게 됐다. 그는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파수꾼을 위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난 동안, 이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겼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오자,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소작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주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과실을 바치지 않기로 했으며;그 대신 종들을 공격해서,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에게는 돌을 던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사악한 소작인들을 다루기 위해 더 신임하는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 종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다. 그러자 주인은 가장 아끼는 청지기를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죽여 버렸다. 그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 다른 종을 보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종들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으며, 집주인은 이렇게 대접받자, 이 배은망덕한 소작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이 내 종들은 학대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은 틀림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악한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의논했다:‘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가서 그를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후에 그를 죽였다. 그들이 아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죽였는지 포도원 주인이 들었을 때, 그가 이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173:4.3 (1894.1) 그리고 사람들은, 이 비유와 예수의 질문을 듣자, “그 파렴치한 사람들을 죽이고, 제 때에 실과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정직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 비유가 유대 민족, 그 민족이 선지자들을 대우한 것, 그리고 지금 예수와 천국 복음을 거부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173:4.4 (1894.2) 예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무리가 군중 속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춘 후에 말씀했다:“너희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너희가 알며, 사람의

아들을 거부하기로 너희의 마음 속에 작정한 것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가까이 서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자세히 둘러보면서 말씀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자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씀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돌에 관한 비밀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먼지와 재가 되고,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173:4,5 (1894.3)}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자기들 및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을 빗대어 말씀했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대중을 두려워했다. 아무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자기들끼리 더 의논하기 위해 물러갔다. 그리고

그날 밤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다음 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에 서로 손을 잡았다.

5. 결혼 잔치 비유

173:5.1 (1894.4) 서기관과 관리들이 물러간 후에, 예수께서는 모인 인파를 다시 돌아보면서 결혼 잔치 비유를 이야기했다. 그가 말씀했다:

173:5.2 (1894.5) “하늘 나라는 마치,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결혼 잔치가 왕의 궁전에 모두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런데 전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는 오기를 거부했다. 초대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다른 종과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초대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리로 와서 준비된 내 만찬을 보라고 말하라. 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앞으로 있을 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왕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혹은 농장으로, 혹은 그릇 굽는 곳으로, 혹은 작업장으로, 각기 일터로 가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심부름꾼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기까지 했다. 왕은 자신이 선택한 손님들, 심지어 첫 번째 초청에 응해 결혼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까지, 마지막으로 가서는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선택한 심부름꾼들을 공격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도로 진노했다. 그러자 모욕당한 이 왕은, 자기 군대와 동맹국 군대에 명령하여, 반역한 이 살인자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의 성읍을 불사르게 했다.

173:5.3 (1895.1) “그리고 그가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마친 후에, 결혼 잔치를 위해 다른 날을 정하고 심부름꾼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에 맨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치 않았으니; 지금 즉시 거리와 큰길 그리고 성읍 밖으로라도 가서, 외국인일지라도 눈에 띄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이 결혼 잔치에 참여시키도록 해라.’ 그리하여 이 종들은, 큰길과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녀가면서 발견하는 대로, 많은 사람, 즉 선량한 자나 불량한 자들,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마침내 기꺼이 응하는 손님으로 결혼식장이 가득 차게 됐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손님들을 둘러보다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왕은 모든 손님에게 결혼 예복을 무료로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친구여, 이런 때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내 접대실에 들어왔단 말이냐?’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은 유구무언이었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이 경솔한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어, 내 환대를 거절하고 내 초청을 거절한 모든 다른 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라. 내 초청을 기쁘게 받고,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손님용 예복을 입음으로써 내게 경의를 표하는 자들이 아니면, 결코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명했다.”

173:5.4 (1895.2)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대중을 흠여 보내려 할 때, 인정 많은 어떤 신자가 인파 사이를 헤치고 그에게 나와서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초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오직 한 가지 표적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말씀했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거의 오십 년이나 걸려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그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자기들끼리 말했다. 사도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했으나, 그가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냈다.

173:5.5 (1895.3) 이날 오후 네 시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손짓으로 부르고, 저녁 식사와 하룻밤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려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는 남은 유월절 주간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다음날 성 근처에 야영지를 설치하라고,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도마에게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그들은 다음날 아침, 겟세마네의 대중용 야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베다니의 시몬이 소유한 작은 땅에 있는 언덕 골짜기에 천막을 설치했다.

173:5.6 (1896.1) 이 월요일 밤에, 감람산 서쪽 기슭을 올라가는 유대인 일행은 모두 다시 침묵했다. 이 열두 명의 남자는 전과는 달리,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벌어졌던 극적인 성전 청소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의 강대한 능력을 증거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후 내내 있었던 사건들에서, 그들은 모두, 유대 권세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확실히 거부하는 한심한 장면만 볼 수 있었다. 사도들은 불안함으로 가득했고 극도의 불확실함에 단단히 사로잡혔다. 방금 지나간 날에 있었던 사건과 절박한 운명 사이에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감지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중대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꼈지만, 무엇이 일어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알패오 쌍둥이 형제마저, 주님의 생애에 관계된 사건이 마지막 고비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제174편 화요일 아침 성전에서

174:0.1 (1897.1) 이 화요일 아침 일곱 시쯤에 예수께서는, 사도, 여자 단체, 그리고 가까이 따르는 이십 여명의 다른 제자를 시몬의 집에서 만났다. 예수께서는 이때 나사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베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속히

피신하라고 그에게 지시했으며, 그는 나중에 그 도시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선교 운동에 가담했다. 또한 예수께서는, 나이 많은 시몬에게도 작별을 고했고, 여자 단체에게 이별의 충고를 했으며, 그들에게 다시는 정식으로 강연하지 않았다.

174:0.2 (1897.2) 그는 이날 아침에 열두 사도 각자에게 친히 인사했다. 안드레에게는, “곧 다가올 사건들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해라. 형제들을 굳건히 지키고, 기가 꺾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다.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힘이나 강철로 만든 무기에 의지하지 마라. 영원한 반석이라는 영적 기초 위에 너 자신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야고보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도록 해라. 네 신앙을 확고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의 실체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요한에게는, “온화하고;너의 적들이라도 사랑하며;관대해라. 그리고 여러 면에서 내가 너를 신뢰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다. 나다니엘에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말며;천국 대사로서의 위탁임무에 진실 되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빌립에게는, “곧 다가올

일들 때문에 동요하지 마라.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헌신의 맹세를 충성되게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했다. 마태에게는,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해라. 네 영원한 상급을 아무에게도 속아서 빼가지 않아야 한다. 네가 필사자 본성의 성향을 잘 견뎌온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다. 도마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부터는 봄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걸어가야 한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과, 내 모든 충실한 대사들이 마침내 저 위의 나라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말라”고 말씀했다. 알패오 쌍둥이에게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애정에 충실하고, 지위 높은 자들 또는 그 민족의 변하는 태도를 신뢰하지 마라. 형제들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열심당 시몬에게는, “시몬아, 네가 실망으로 가득하겠지만, 네 영은 네게 닥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내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내 영이 네게 가르쳐줄 것이다. 참된 영 실체를 추구하고, 비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림자에 미련 두지 말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또한 네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선을 행하기에 싫증내지 말며;아침하는 미끄러운 길과 조롱하는 독화살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말씀했다.

174:0.3 (1897.3)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인사를 마친 후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육체 가운데 살아 있는 마지막 남은 날들 동안 본부로 사용할, 그리고 그들이 그날 밤을 지낼 겿세마네 야영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기슭을 반쯤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 서서, 네 사도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했다.

1. 신의 용서

174:1.1 (1898.1) 베드로와 야고보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지난 며칠 동안 서로 다른 의견으로 토론에 열중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예수께 물어보기로 합의했고, 베드로는 이때 주님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시몬 베드로가 찬미와 경배의 차이에 관한 대화에 끼어들면서 물었다:“주님, 야고보와 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관계된

당신의 교훈에 관해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도 전에 그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당신께서 가르쳤다고 야고보는 주장하지만, 나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4:1.2 (1898.2) 예수께서는 잠시 침묵한 후에, 네 사도 전부 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고 나서 대답했다:"형제들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질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는 자녀를 향해, 현명한 부모가 마음에 품은 이해심 많은 동정심을, 너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적이고 애정 깊은 부모에게, 정상적인 평범한 자녀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 모든 불화{不和}는 자녀의 회개와 부모의 용서를 나중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게 만드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랑하는 심정과 관련된 관계들을 이해하면 된다.

174:1.3 (1898.3) “어떤 아버지든지 그 일부분이 자녀 속에 살아있다. 아버지는, 자녀와_부모 사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우선권과 우세한 이해력을 갖는다. 부모는, 비교적 더 진보된 부모로서의 성숙성, 즉 더 나이 많은 편의 원숙한 체험에 비춰서 자녀의 미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 세상 자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경우에, 신성한 부모는 무한하고 신성한 동정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신{神}의 용서는 필연적이며;하나님의 무한한 이해에, 즉 자녀의 잘못된 선택 및 잘못된 판단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완전한 지식에, 이 용서는 내재적이고 양도될 수 없다. 신성한 공의는 영원히 공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심 있는 자비를 포함한다.

174:1.4 (1898.4) “현명한 사람은, 동료의 내적 충동을 이해할 때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는 이미 그들을 용서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외견상으로 보이는 그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런 역량은, 하나님을_닮은 것이다. 너희가 현명한 부모라면, 이 방식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심지어 일시적인 오해로 인해 외견상으로는 너희가 결별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용서한다. 자녀와_아버지의 관계의 깊이를

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분리돼 있다는 어떤 죄의식을 종종 느끼게 돼 있지만, 참된 아버지는 그런 분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죄는 피조물이 의식하는 체험이며;하나님의 의식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174:1.5 (1898.5)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속성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지 못했는가, 즉 어른으로서의 동정심, 이해심, 및 사랑을 얼마나 달성하지 못했는가 하는 척도가 된다. 너희는, 자녀와 동료의 참된 열망과 내적 본성을 무시하는 그 정도에 정비례하는 만큼,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키우고 있다. 사랑이란 인생의 신성하고 내적인 충동의 결실이다. 그것은 이해심에 기초하며, 이타적 봉사로 육성되며, 지혜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2. 유대인 관리의 질문

174:2.1 (1899.1) 월요일 저녁에, 서기관,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 중에서 선택된 오십여 명의 추가적인 지도자와 산헤드린 사이에 회의가 열렸다. 예수께서 평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공공연히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리라는 것이

이 모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또한 그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시키게 되기 전에,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여러 무리에서 유식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다음 날 아침 성전에 보내서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심지어 헤롯당원까지도, 유월절에 대중의 눈앞에서 예수를 망신시키기 위한 이 계획에 모두 결합했다.

174:2.2 (1899.2) 화요일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 뜰에 도착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몇 마디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런 목적을 위해 미리 연습했던, 교육기관에서 온 젊은 학생들 한 무리가 앞으로 나왔고 그들의 대변자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의로운 선생님이심을 알고, 당신이 진리의 길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며, 당신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며,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학생일 따름이고,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것들에 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바쳐야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아야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잔꾀를 알고, 그들에게
말씀했다:“너희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세로 바치는 그 돈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대답하겠다.”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자,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했다:“이 동전에 새겨진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했다.

174:2.3 (1899.3)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젊은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과 한 패인 헤롯당원은 그의 앞을 떠났으며, 모든 사람,
심지어 사두개인까지도 그들의 실패를 즐거워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도, 주님의 예상치
못했던 총명한 답변에 매우 경탄했다.

174:2.4 (1899.4) 하루 전날, 그 관리들은 성직{聖職}에 관련된
권세의 문제로 대중 앞에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며, 이제는 세속 권세를 손상시킬만한
문제에 그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다. 이때 빌라도와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그가 감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거부하도록 대답하면, 즉시 로마 권세자들에게 가서 민중을 선동한다는 죄를 씌우고자 했다. 이와는 반대로, 그가 여러 가지 말로써 세금을 바치도록 충고한다면, 그런 말이 유대인 청중의 민족적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는 점을 재빨리 이용하여, 대중의 호의와 애정을 이간시키려고 했다.

174:2.5 (1899.5)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모든 의도가 실패했는데, 이는, "화폐가 정당하다면, 세금 징수도 정당하다"는 것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산헤드린이 내린, 잘 알려진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했다. 그들의 질문에, "하지 말라"는 대답은 반역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하라"고 대답하면, 당시에 깊이 뿌리박은 민족자결주의 정서에 타격을 주게 됐을 것이다. 주님은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다만 이중적으로 대답하는 지혜를 동원했을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결코 회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자들조차 항상 현명하게 처리했다.

3. 사두개인과 부활

174:3.1 (1900.1)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나와서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학식 있고 교활한 사두개인이었다. 그들의 대변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주님, 모세의 율법에, 결혼한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 형을 위해 자손을 낳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여섯 명의 동생을 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그 다음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곧 죽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했으나,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동생이 모두 그 여자를 취했지만, 모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를 취했으니, 부활의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174:3.2 (1900.2)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았으며;그 외에도 죽은 형제를 위해 다른 형제가 자식을 낳게 하는 이런 관습은, 실제로는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

사문화{死文化}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해를 끼치려는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가 말씀했다:“너희 모두는 성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질문을 하는 잘못을 범한다.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도 갈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달성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의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장가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음을 너희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늘의 천사와 같으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한 이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영원한 생명의 진보 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빛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체험에서 이것을 깨달았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하여, 모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너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필사 실존을 소유한다.”

174:3.3 (1900.3) 예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 사두개인은 물러갔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더러는 비난해야 할

처지임을 잊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에게 아주 잘 대답하셨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사두개인은 감히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못했으며, 평민들은 그의 가르침의 지혜에 감탄했다.

174:3.4 (1900.4) 예수께서 사두개인을 대하면서 모세만 언급한 것은, 이 종교적 정치 분파가 모세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다섯 권의 책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선지자들의 교훈을 교리적 신조{信條}의 기초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중에 주님은, 부활이라는 기법을 통해 필사 피조물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했지만, 인간 신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은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였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174:3.5 (1900.5) 사두개인은, 공개적인 박해가 그에 대한 동정심을 대중의 마음 속에 반드시 더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예수로 하여금 조롱을 당해서 위축되게 하려 했다.

4. 큰 계명

174:4.1 (1901.1) 또 다른 사두개인 무리는, 천사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혼란시키도록 지시 받았지만, 부활과 관련된 질문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동무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게 됐을 때, 매우 지혜롭게 처신해 침묵하기로 결정했으며; 질문하지 않고 물러갔다. 혼란시키는 이런 질문을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공모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및 헤롯당원의 미리 계획된 술책이었으며, 그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사람 앞에서 망신시키는 동시에, 사람을 동요하게 하는 그의 교훈을 선포할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174:4.2 (1901.2)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이 앞으로 나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했으며, 대변인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주님, 나는 율법사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당신의 견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계명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것인데, 그 계명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지요, 주는 한 분뿐이시며;너희는 마음과 혼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첫째와 같으며;거기서 직접 파생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으며;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근간{根幹}을 둔다."

174:4.3 (1901.3) 그 율법사는, 예수께서 유대인 종교의 가장 높은 개념에 입각해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모인 대중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말했다:"주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정말로 잘 대답하셨으며;온 마음과 이해력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며;이 큰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를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친구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음을 내가 안다."

174:4.4 (1901.4)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천국에서 멀지 않다"고 한 말씀은 사실이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가 겐세마네 근처에 있는 주님의 야영지로 가서,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아브넬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요시아에게 세례 받았다.

174:4.5 (1901.5) 다른 두 세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질문하려고 왔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무력감을 느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책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이 실패한 것에 겁을 먹고 스스로 그만뒀다.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그에게 질문하지 못했다.

174:4.6 (1901.6) 정오 시간이 가까이 됐을 때,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자,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단지 바리새인과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는 구원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서기관 하나가 대답했다: "메시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야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에

대해, 제자들 사이에서조차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음을 예수께서 알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했다:“만일 구원주가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다윗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편에서, 바로 그 다윗이 영으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대적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 편에 앉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를 주{主}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관리,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일지라도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께서 한 이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는, 이 시편에 대한 해석을 메시아 대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라고 바꿈으로써 곤란을 피하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는 이 작품의 저자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궁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174:4.7 (1902.1) 조금 전에는 사두개인이 주님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이 좋아했지만;지금은 바리새인의 실패를 사두개인이 기뻐했으며;그러나 그런 경쟁심은 잠시뿐이었고;그들은 예수의 교훈과 행위를

중지시키는 일에 합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통적 견해 차이를 재빨리 잊었다. 그러나 이 모든 체험을 통해서 내내, 평민들은 그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5. 탐구하는 그리스인

174:5.1 (1902.2) 정오 무렵에, 빌립이 겿세마네 근처에 그날 설치된 새 야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을 때, 외국인 파견대표단, 즉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로마에서 온 그리스인 신자 일행이 말을 걸어왔으며, 그들의 대변인이 사도에게 말했다:“당신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을 가리켜 줬으므로;우리가 당신께 왔는데, 사도님, 당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은 탁월하고 탐구적인 이 그리스 이방인을 시장 바닥에서 만났기 때문에 깜짝 놀랐으며, 예수께서 열두 사도 모두에게, 유월절 주간에는 어떤 공개적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너무 확실하게 지시했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혼란스러웠다. 또한 그는, 이 사람들이 외국의 이방인이었으므로 당황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거나 가까이 사는 잘 아는 이방인이었다면, 그가 두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주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았다:그는 이 그리스인에게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달라고 했다. 그가 급히 사라지자, 그들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는 안드레와 다른 사도들이 점심을 먹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셉의 집으로 급히 달려갔으며;안드레를 밖으로 불러내서,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인에게로 안드레와 함께 돌아왔다.

174:5.2 (1902.3) 빌립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했으므로, 안드레와 그리스인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맞이했으며;그가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인 사도들과 여러 명의 수제자에게 말씀하는 동안에, 그들은 가까이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174:5.3 (1902.4)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에게 사랑스런_호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내가 처음 만난 그들은 나를 거부했다. 정말로 너희 가운데 다수가 스스로 내 복음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나를 거부하려고 하며,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거부하려고 한다. 나는 이 민족을 구원할 복음을 아무 대가{代價} 없이

선포했으며;영{靈} 속에서 더 풍성한, 기쁨, 자유, 그리고
생명이 함께하는 아들신분의 관계를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이사야가, '주여, 누가
우리 교훈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누구에게
게시돼 왔습니까?'라고 쓴 글에서, 이 민족에 대해 잘
말했다. 내 민족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고의로 자기 눈을
멀게 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며,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믿지 않고 구원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불신{不信}을 치유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난 몇 년 동안 애썼다.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음을 내가 알며;너희 중에서 일부는 내가 전한 말을
정말로 믿었다. 지금 이 방에는 한때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사람, 즉 민족 협의회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다 와
있지만, 아직도 너희 중에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진리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내가 부득이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 그리고

내 옆에서 그토록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안전과 충성심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174:5.4 (1903.1) “이 연회장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의 같은
숫자로 모였음을 아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천국의 일들에 관해 가르치는 처음이자 마지막 무리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174:5.5 (1903.2) 이 그리스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신실하게 참여했었다. 그들은 월요일 저녁에 니고데모의
집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그들 중에 30명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174:5.6 (1903.3) 이때 그들 앞에 선 예수께서는, 한 섭리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다. 주님은
그리스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했다:

174:5.7 (1903.4)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도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너희는
사람의 아들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도 본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내 가르침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만일 내 말을

듣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자유를 즉시 얻게 될 것이다. 내 동포, 즉 유대인이 나를 거부하고 내 교훈을 거절해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권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를 거부하고 내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때가 이르면, 내 아버지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자비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라고 아버지께서 임명하시는 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에게 나타내도록 내게 지시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에게 신실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너희 모두 꼭 기억해라. 그리고 세상에 말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시하신 이 말씀은, 신성한 진리, 영원한 자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174:5.8 (1903.5)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이르렀음을,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에게 선포한다. 곡식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만 있겠지만;그것이 좋은 흙 속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생명만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나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자는, 땅에서 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한 너희의 동료 필사자들의 성실한 종이 될 것이다.

174:5.9 (1903.6) “나는 내 때가 이르고 있음을 알며, 괴로운 심정이다. 내 민족이 천국을 단호히 거절하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빛으로 향하는 길을 물어보려고 오늘 이곳에 온, 진리를 찾는 이 이방인들을 만나니 무척 기쁘다. 그럼에도, 나는 내 민족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며, 내 혼은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것으로 인해 괴롭다. 내게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미리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께 이 무서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이때까지 있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당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것이다.”

174:5.10 (1904.1)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세례 이전의 기간에 그에게 내주했던 인격화된 조울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으며, 그가 눈에 댈 정도로 잠시 멈추자,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는 이 굉장한 영이 나사렛 예수께 말했다: “너의 증여들로 인해 내가 여러 번 영광 받았고, 내가 한 번 더 영광 받을 것이다.”

174:5.11 (1904.2) 모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을 잠시 멈춘 것은 어떤 초인적 존재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했다.

174:5.12 (1904.3)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시고 또 너희를 위한 내 사명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나 너희가 바로 앞에 있을 맹렬한 시련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밝히고 인류를 해방시키려는 우리의 일치된 수고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키고자 한다. 옛 질서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렀고;내가 이 세상 왕자를 내쳤으며;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그 영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174:5.13 (1904.4)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이르고자 하는 것은, 만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며, 내 아버지의 공동체 속으로 동참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너희는 구원주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믿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사람의 아들은 사람에게 버림당할 것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것이며;생명의 빛이 이 어두운 세대에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님으로써, 다가오는 어두움과 혼돈이 너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해라. 어둠 속에서 걷는 자는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지만;너희가 빛 가운데서 걷기로 선택한다면, 너희 모두는 정말로 해방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모두 나와 함께 성전으로 가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원, 그리고 밤길을 걷는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174:5.14 (1904.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에서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방금 전에 들었으며, 그를 따라가는 동안 내내 침묵했고 깊이 묵상했다.

제175편 마지막 성전 강론

175:0.1 (1905.1) 화요일 오후 두 시가 막 지났을 때 예수께서는, 열한 사도, 아리마대 요셉, 30명의 그리스인, 그리고 어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도착했으며, 신성시되는 건물의 뜰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이 강론은 유대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맹렬하게 대적하는 자들과, 아마 그를 죽이려는 자들--곧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및 이스라엘의 최고 관리들--에 대한 마지막 고소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전 내내 여러 집단이 예수께 계속 질문했지만;오후가 된 지금은 그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175:0.2 (1905.2)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성전 뜰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환전가와 상인은 그 전날 예수와 분개한 대중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고집불통의 유대인 관리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와 함께, 인류를 향한 자비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 작별 연설을 이제 곧 듣게 될, 이 청중을 부드럽게 내려다봤다.

1. 강론

175:1.1 (1905.3)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면서, 나는 땅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은 빛을 보고 신앙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 이 가르침 및 전도와 관련하여, 아버지께서는 놀랄만한 일을 많이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다. 병들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됐으나;진리를 선포하고 병을 치유한 이 모든 것으로도, 빛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들, 즉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다.

175:1.2 (1905.4) “나와 사도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 아버지 뜻을 시종일관 행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형제들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오류와 무지의 편에 스스로 줄을 섰다. 빛과 어둠 사이, 생명과 죽음 사이,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175:1.3 (1905.5) "너희 가운데 다수는 내 교훈을 기꺼이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의식하는 자유와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전체 유대 민족, 심지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제시했던 나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눈 먼 선생들과 위선적인 이 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신다.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지금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

175:1.4 (1906.1) "내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자비로 대하셨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가르치고 경고했으며,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완고한 대제사장들과 고집스런 관리들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175:1.5 (1906.2) “유대인이 내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을 추구할
기회가 있는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자비의 손을 뻗치고 계시겠지만;너희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잔이 일단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자비를 일단 최종적으로 거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스스로 심판받아서, 속히 불명예스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갖는 영적 영광을 나타내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너희는 신성한 특권을 실현함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너희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계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기 직전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한다.

175:1.6 (1906.3)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일단
거부하고 나면, 하늘 나라는, 다른 민족들, 즉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데, 너희는 세상에서 가졌던 영원한 진리의 기수{旗手}와, 거룩한 율법 수호자로서의 너희의 위치를 잃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앞으로 나아와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진실된 신앙으로, 하늘 나라의 구원과 보증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너희의 의향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175:1.7 (1906.4)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오셨으며, 내가 이곳에 내려와 너희와 함께 살면서 그 길을 몸소 보여줬다. 많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천국 복음을 믿었지만, 먼저 앞으로 나아와 하늘의 빛을 받아야 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곧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드러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림 받는다는 것을-- 믿기를 완강히 거절해 왔다.

175:1.8 (1906.5) “너희 앞에 서있는 내 사도들이 오늘 오후에는 침묵하지만,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늘 나라에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그들의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너희가 곧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과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자{使者}들에게도,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을 증언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진리의 사자들이 어떻게 거부되는지, 너희 모두가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전히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을 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릴 지고자가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이 관리들의 지위를 무너뜨리기까지는, 너희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동하라고 명한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에 너희가 단결할 의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로 그들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고, 율법의 본질 요소들을 잘 준수하되, 그들의 악한 소행은 본받지 말라. 이 관리들의 다음과 같은 죄를 꼭 기억해라:그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자신은 행치 않는다.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너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는지, 그 짐이 얼마나 가혹한지,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너희가 지는 이 무거운 짐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는지, 너희가 잘 안다.
그들은 종교 예식으로 너희를 압제하고, 전통으로 너희를
노예 삼는다.

175:1.9 (1907.1) “더욱이, 자기중심적인 이 관리들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이마와
팔목에 붙이는 성구함{聖句函}을 더 잘 보이게 만들었고,
관복의 장식을 더 크게 했다. 그들은 축제 때 상석{上席}을
원했고, 회당에서는 주빈석을 요구했다. 그들은
시장바닥에서 찬미의 인사말을 나누고자 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모든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과부들의 집을 비밀리에 장악하고, 신성시되는 성전의
예배에서 이익을 챙겼다. 이 위선자들은 겉치레로 공중
기도를 길게 했고, 동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다.

175:1.10 (1907.2) “너희의 관리를 존경하고 너희의 선생을
경외하되,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어느 누구도 영적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또한

천국 안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어 한다고 내가 가르쳤음을 꼭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으리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낮아질 것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분명히 높임 받을 것이다. 너희 일상생활에서 자기_영광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 너희 자신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총명하게 굴복시켜라.

175:1.11 (1907.3)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제사장과 관리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내 교훈을 거절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 가운데 다수가 비밀리에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며, 내 때가 오면 너희가 천국에 대한 충성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랍비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온 그를 거부하고 죽이려하니,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하겠느냐?

175:1.12 (1907.4)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의 가르침을 우연히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희는 진실된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의 문들을
닫아버리려고 한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다.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문들 앞에
서서, 거기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과 다툰다.

175:1.13 (1907.5)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지니,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성공하게 되면, 그가 이방 자녀로
있었을 때보다 배나 더 나쁘게 만들고 나서야 만족한다.

175:1.14 (1907.6) “모세가 제정했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에게 과중한 의무금을 요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너희 제사장과 관리에게
화 있으라!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너희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자비를 바랄 수 있겠느냐?

175:1.15 (1907.7) “너희 거짓 선생들, 눈 먼 인도자들에게 화
있으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둘 다 멸망의 구렁이에 빠져버릴 것이다.

175:1.16 (1907.8) "거짓으로 서원하는 너희에게 화 있으라!

성전으로 서원한 사람은 그 서약을 깰 수 있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서원한 자는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치니, 너희는 사기꾼이다.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이 먼 자들이다. 너희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일관되지 못하니, 금이 더 크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성전이 더 크냐? 또한 너희는 가르치기를, 사람이 제단으로 서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제단에 바친 제물로 서원하면 값아야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너희는 진리를 보고도 못 본 체하는 자들이니, 제물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냐? 그런 위선과 거짓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175:1.17 (1908.1)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확실하게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한 문제들--곧 신앙, 자비, 그리고 심판--은 무시하는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다른 모든 위선자들에게 화 있으라! 너희가 전자{前者}의 것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後者}의 것도 행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로 눈 먼 인도자들이고 병어리

선생들이며;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175:1.18 (1908.2) “잔과 접시의 겉은 철저히 닦으면서, 그 속에는 강탈{强奪}, 난폭, 및 속임수로 여전히 가득 차 있으니,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화 있으라! 너희는 영적{靈的}으로 눈 먼 자들이다. 너희는 잔의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넘쳐흐르는 것으로 그 밖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사악한 타락자들아!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해석하여 그 글자대로 따르려고, 너희의 종교를 표면적으로 연출하면서, 너희의 혼은 죄악에 젖어있고 살의{殺意}로 가득 차 있다.

175:1.19 (1908.3) “진리를 거부하고 자비를 거절하는 너희 모두에게 화 있으라!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은, 밖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의 권고를 알면서 거절하는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속은 외식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175:1.20 (1908.4) "민족을 잘못 인도하는 너희에게 화 있으라!

너희는 순교당한 옛 선지자들의 유적을 저곳에 세워놓고, 그들이 전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그렇게 스스로_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를, 즉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한다. 너희가 이런 일을 하니,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사악한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가서 너희의 비난의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라!

175:1.21 (1908.5) "악의 자녀인 너희에게 화 있으라! 요한은 정말로

너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으며,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요한이 너희에게 선포한 그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175:1.22 (1908.6) "그러나 나는 지금도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와 용서를 제안하며;지금도 영원한 친교라는 애정 어린 손을 내밀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현명한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너희가

더러는 박해하고 더러는 죽였다. 그때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의 아들의 도래를 공표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믿은 후에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더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할 준비를 한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 하늘에서 온 이 사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이 민족에게 요구할, 무시무시한 응징의 날이 임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처음 죽음 당한 선지자부터, 지성소와 번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스가랴의 시절까지, 이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해 너희가 책임 져야만 함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한 길로 계속 간다면, 바로 이 세대에게 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175:1.23 (1908.7) “오!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너희에게 보낸 선생들을 죽인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아,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지금도 모으고자 하지만, 너희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175:1.24 (1908.8)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들었고 너희의 결정을 내렸다. 내 복음을 믿기로 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나를, 너희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위한 내 업무는 끝났다. 보라, 내가 이제 내 자녀들과 함께 가지만,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너희에게 맡겨지리라!”

175:1.25 (1908.9) 그리고 나서 주님은 추종자들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손짓했다.

2. 유대인 각자의 신분

175:2.1 (1909.1) 유대 국가의 영적 지도자들과 종교 교사들이, 예수의 교훈을 한때 거절하고 그를 잔인하게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유대인 각자의 신분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동료 필사자로서 유대인을 적대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민족으로서, 즉 하나의 정치적 사회 집단으로서, 유대인은 평화의 왕자를 거절한데 대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 그들은 인류의 종족들에게 신성한 진리라는 영적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포기한지 오래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옛 유대인의 후손

하나하나가,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편협하고
비열하며 완악한 추종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데, 바로 이 예수는
출생신분으로 볼 때 유대인이었다.

175:2.2 (1909.2) 이처럼 불합리하고 그리스도답지_않게 현대
유대인들을 이처럼 증오하고 박해함으로써, 결백하고
예의바른 어떤 개별 유대인의 수난과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들의 바로 그 조상은, 예수의 시절에 그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토록 전심으로 믿었던 그
진리를 위해, 마침내 단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베드로,
빌립, 마태, 그리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첫 순교자로서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포기한 다른 팔레스틴 유대인의
후대 자손을, 자칭 예수 추종자들이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살인하는 일에 빠지는 것을 바라볼 때, 지켜보는
천상{天上}의 존재들에게 얼마나 몸서리치는 참극들이
지나갔는지!

175:2.3 (1909.3) 순결한 자녀들이, 선조의 죄, 즉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악행 때문에, 수난
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의 이름으로, 그런 사악한 행위들이 벌어지다니!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다시 설명하려할 때, 어떤 동료 유대인이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수치스런 죽음을 안겨주려고 음모를 꾸민 그 태도를 부득이 묘사하게 됐지만;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고하려는 것은, 그런 역사적 설명이, 그토록 많은 자칭 그리스도교인이 수세기 동안 유대인 개인들을 향해 가졌던 불의한 증오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당화시키지 않으며, 불공정한 태도를 용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천국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 개인을 대할 때,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죄인으로 취급하기를 멈춰야만 한다.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은 유대인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이방인 뿐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3.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

^{175:3.1 (1909.4)} 이 화요일 저녁 여덟 시에, 숙명적인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됐다. 유대 민족의 이 최고 법정엔, 예수를 사형에 처할 것을, 앞선 여러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선언했었다. 위엄 있는 이 통치기관은, 그의 일을 멈추게 하기로 여러 번에 걸쳐 결정하기는 했지만,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체포해서 죽이기로 표결한 적은 없었다. 당시에 선출된 산헤드린 회원들이, 예수와 나사로 둘 다에게 사형을 언도하기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장일치*로 가결 투표한 것은, 서기 30년 4월 4일 화요일 자정이 막 돼 가는 무렵이었다. 이것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성전에서 있었던, 유대인 관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호소에 대한 답이었으며, 바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완고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의 최종적이고 강력한 고발을 향해, 그들의 냉혹한 분노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재판하기도 전에) 내려진 사형선고는, 유대 민족에게도 언제나 그런 입장에서 퍼져갈 수 있었던 하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산헤드린의 반응이었다.

175:3.2 (1910.1) 유대인은 이때부터, 유란시아 여러 민족 중에서 전적으로 순전히 그들의 인간 상태에 따라서만, 덧없고 짧은 민족의 생존 기간을 마치도록 위임됐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에 흩어지게 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삼으려던 계획을 거부했다. 신성한 계약은 폐기됐고, 히브리 민족의 종말이 신속히 다가왔다.

^{175:3.3 (1910.2)} 다음 날 아침 일찍, 산헤드린 관원들은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를 공공연히 붙잡지 말라는 지시가 첨부됐다. 그들은 비밀리에, 되도록 밤에 갑자기, 그를 체포하도록 계획하라고 지시받았다. 그들은 그날(수요일)에는 그가 가르치러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목요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유대인의 최고 법정 앞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이 산헤드린 관원들에게 지시했다.

4. 예루살렘의 정세

^{175:4.1 (1910.3)} 사도들은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론의 결론 부분에, 다시 한 번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 주님이 유대인 관리들에 대해 무시무시한 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도 성전으로 돌아왔으며, 그리하여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의 마지막 강론의 후반부를, 열두 사도 전체가 듣게 됐다. 작별을 고하는 이 연설에서, 자비를 제시하는 처음 절반 부분을 가룟 유다가 듣지 못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유대인 관리들에게 제시한 이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그가 듣지 못한 것은, 어떤 사두개인 친척 및 친구들 무리와 점심을 같이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아직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가 복음 운동을 저버리고 모든 계획에서 손을 떼기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결심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와 관리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발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열두 사도와 함께 성전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고, 거기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유대 민족의 종말에 관한 결정적인 그 강론을 들었으며, 같은 화요일 밤에는 겟세마네 근처에 있는 새 야영지에 그들과 함께 남아있었다.

175:4.2 (1910.4)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자비롭게 호소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차 없이 심하게 경고하면서 갑자기 그리고 통렬하게 꾸짖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대중은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그날 밤에, 산헤드린이 예수께 사형을 언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사도들 및 어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서 유대 국가의 멸망을 예고하는 동안, 온 예루살렘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심각하고 은밀한 토론에 몰두했다.

175:4.3 (1910.5) 몰래 천국을 믿는 30명 이상의 저명한 유대인이 니고데모의 집에 모여서, 산헤드린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게 될 때 자신들이 어떤 진로를 추구할 것인지 논의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히 표명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175:4.4 (1911.1) 이제 산헤드린을 통제하고 우위를 지배하게 된 사두개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몹시 없애버리고 싶어 했다:

175:4.5 (1911.2) 1. 그들은 ,그에 대한 대중의 존경심이 점점 더 일반적인 호의로 자라감으로써 로마 권세자들의 개입을 불러 일으켜서, 유대 민족이 존재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175:4.6 (1911.3) 2. 성전 개혁에 대한 그의 열정이 그들의 수입에 직접 타격을 입혔으며;성전 청소가 그들의 금고에 악영향을 끼쳤다.

175:4.7 (1911.4) 3. 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느꼈으므로, 사람이 서로 형제관계를 이룬다는 이상하고 새로운 예수의 교리가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175:4.8 (1911.5) 바리새인은 다른 동기에서 예수를 죽이고자했다. 그들이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175:4.9 (1911.6) 1. 그가, 민족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지배권에 대항해서 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바리새인은 극단적 보수파였으며, 종교 교사로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 대해 과격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몹시 분개했다.

175:4.10 (1911.7) 2.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했으며;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율법 및 예식{禮式}의 요구사항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175:4.11 (1911.8) 3. 그들은,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죄를 선고했다.

175:4.12 (1911.9) 4. 그리고 이제 그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데, 이날 그가 성전에서 마지막 작별 연설 가운데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제시했던, 신랄하게 비난하는 강론 때문이었다.

175:4.13 (1911.10) 산헤드린은, 예수의 사형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예수께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소를 공식화{公式化}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날 아침 열 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일 것을 약속한 뒤에, 이 화요일 자정 무렵에 해산했다.

175:4.14 (1911.11) 소수의 사두개인 무리가 예수를 암살하여 처치하자고 제안했음이 사실이지만, 바리새인은 그런 방법을 단호히 거절했다.

175:4.15 (1911.12) 그리고 이것이, 파란 많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진 상황이었으며, 방대하게 집합한 천상의 존재들이 땅에서 이 중대한 장면 주변에 모여서, 사랑하는 주권자를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명령하는 감독관들이 효과적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제176편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176:0.1 (1912.1)

이 화요일 오후에, 예수와 사도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겿세마네 야영지로 가는 도중에, 마태가 성전 건축물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했다:“주님,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좀 보십시오. 저 거대한 돌과 아름다운 장식을 보니;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감람산을 향해 나갈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가 이 돌과 거대한 성전을 보지만;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저들이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신성시되는 성전의 파괴를 뜻하는 이런 말씀이, 주님을 뒤따라 걸어오는 사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그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176:0.2 (1912.2)

인파를 피하기 위해 기드론 계곡을 따라 겿세마네로 가면서, 예수와 동역자들은 가까운 길로 가기 위해 감람산 서쪽 능선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으므로, 공공 야영장 위로 조금 떨어진, 겿세마네 근처에 설치된 그들의 사설 야영지를 향해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그들은 베다니로 가는 길을 벗어나면서, 석양빛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을 바라봤으며;산에 머무는 동안, 성에서

비치는 빛을 봤고, 등불을 밝힌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봤으며;예수와 열두 사도는 부드러운 보름달빛 아래 앉았다. 주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윽고 나다니엘이 질문했다:“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 예루살렘의 멸망

176:1.1 (1912.3) 나다니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했다:“이 민족이 자신의 죄악의 잔을 언제 가득 채우게 되는지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겠는데;그때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이 성{城}에 재판이 속히 임하는 날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아버지께로 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구원자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근과 지진 때문에 동요하지 말며;너희가 세속 권세자들에게 넘겨지거나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겠고, 나로 인해 감옥에

간히겠으며,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통치자와 관리들 앞에 끌려갈 때, 그것은 너희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한 것이고, 천국 복음에 대해 너희가 확고부동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재판관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순간에 영이 너희에게 가르쳐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의 날에는, 사람의 아들을 거절했던 그들의 지배 아래서, 너희의 친척이라도 너희를 감옥에 넘겨서 죽이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너희가 얼마 동안 미움을 받겠지만, 이런 박해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영도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결국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176:1.2 (1913.1) 예수께서 잠시 멈추고 성을 내려다봤다. 메시아의 영적 개념에 대한 거부, 즉 기대하던 구원자의 물질적 역할에 맹목적으로 계속 매달리려는 경향이, 이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강력한 로마 군대와 직접적인 갈등을 곧 야기하게 될 것이며, 그런 싸움은 마침내 유대 민족의 완전한 마지막 멸망을 가져올 뿐임을, 주님은 분명히 인식했다. 그의 민족이 그의 영적 증여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비롭게 그들에게 내려 쏘는 하늘의 빛 받기를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영적 사명을 가진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하게 됐다.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도, 소란의 직접 원인이 되고 결국 자신을 멸망하게 한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세속적 관념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176:1.3 (1913.2) 예루살렘이 초기 복음 운동의 요람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그것을 이끌 선생과 설교자들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관련된 유대 민족의 무시무시한 멸망 속에서 죽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치 않았으며;그리하여 그는 추종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곧 다가올 반란에 가담하여 예루살렘의 파멸 속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무척 염려했다.

176:1.4 (1913.3) 그때 안드레가 물었다. “그렇지만 주님, 거룩한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여기 없어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가 떠난 후에, 힘들고 쓰라린 박해 때까지도 너희는 그 성에 머물러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반란이 있는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임박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니;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쳐야만 한다. 아무도 성{城}안에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건져내려고 그 주변에 머물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도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방인의 복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을 떠난 후에, 순종치 않는 이 민족은 무력으로 함락될 것이고,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힐 것이며;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그러는 동안 너희는 속지 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와서, '보라, 구원주가 여기 있다' 또는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많은 거짓 교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졌으니, 너희는 속지 않아야만 한다."

176:1.5 (1913.4) 몹시 놀라게 하는 주님의 이 예견이, 어리둥절한 사도들의 정신 속에 스며드는 동안, 그들은 달빛 아래 한참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신자 및 제자 전체 무리는 바로 이런 경고{警告}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고, 북쪽에 있는 펠라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

176:1.6 (1913.5) 심지어 이런 명백한 경고가 있는 후에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이 예견은 메시아가 다시 나타날 때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의미하며, 그 성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기 위해 확장되는 명백한 결과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런 유대인은,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포함할 것이라고 믿었으며;세상의 종말이 있는 후에, 즉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언제 돌아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함은 이상하지 않았다.

176:1.7 (1914.1)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했다:“너는 늘 새로운 가르침을 옛 것에 첨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며;내 가르침을 전부 오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이미 확립된 네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기를 고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주님의 재림

176:2.1 (1914.2)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곧 떠나기로 하면서, 하늘 나라의 업무를 완성이 위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청중들이 추측하도록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그가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확신이 추종자들에게 점차 증대되면서,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약속에, 모든 신자가 즉시 매달리게 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그리스도교 교훈에 일찍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거의 모든 세대의 제자들이 이 진리를 진실하게 믿었고, 그의 재림{再臨}의 때를 확신을 가지고 고대해 왔다.

176:2.2 (1914.3) 그들이 주님과 교사{教師}를 구별하게 됐다면, 이 첫 제자와 사도들은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훨씬 올바르게 파악했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예고된 멸망과 재림의 약속을 관련시키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날 저녁 내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해석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더 자세한 답변으로 말씀했다: “너는 왜 아직도 사람의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기를 바라고, 유대인의 물질적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네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것들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 임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흑암의 왕자가 돼버린 자, 그 다음에는 아담, 그 뒤에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미 증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온전히 실현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진리를 더 드러내고 정의를 더욱 나타내실 것임을 확신해라.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는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도 자비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 또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게 부여하신 후에, 너희의 번영을 계속 추구하고, 내 영을 보냄으로써 천국의 업무를 계속 안내할 것인데, 그 영이 곧 모든 육체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비록 내가 이처럼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더라도, 또한 약속하는데,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냄과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이 세상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속히 너희를 떠나야만 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위탁하신 그 업무를 다 이뤄야 하지만,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니,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동안에는, 우주에 속하는 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위로하고 안내할 것이다.

176:2.4 (1915.1) “너희가 지금은 육신 속에 그리고 나약함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권능을 갖고 영으로 임할 것이다. 육신의 눈은 육신 속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지만, 오직 영의 눈만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176:2.5 (1915.2)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는 그 시기는 낙원 협의회에만 알려졌을 뿐이며;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어쨌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시대의 충만함이 다 지나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섭리시대의 증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판결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176:2.6 (1915.3)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심지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모두 이뤄질 것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관해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추측해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한 시대가 무르익는 것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때를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나무에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 세상이 유물론에 마음을 뺀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섭리시대의 영적 봄날이 오는 것을 식별하거든, 새로운 방문{訪問}이 있을 여름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76:2.7 (1915.4)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과 관련시키려는 이런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각자 일생의 싸움을 마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라고 부름 받을 때, 너희는 즉시 심판대 앞에 서고, 무한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봉사하는 새로운

섭리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감지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자연스런 생애를 끝까지 누리고, 그렇게 죽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진보하는, 그 다음 계시에 내재된 조건과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될 때, 온 세상이 한 시대의 끝에 엄밀한 사실로 부닥쳐야만 하는 그것을, 너희는 각자 개인적 체험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부닥쳐야만 한다.”

176:2.8 (1915.5) 주님이 사도들에게 준 모든 강론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의 두 번째 도래라는 이 이중적 주제에 관해, 감람산에서 이 화요일 저녁에 준 이 말씀처럼 그들의 정신에 그토록 혼란을 일으킨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혀 색다르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후에 기록된 설명들 사이에는, 일치하는 점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로, 그 화요일 저녁에 말سم한 것 대부분이 기록에서 공백으로 남게 되자, 많은 전승이 생겨나게 됐으며;칼리굴라 황제의 법정에 회부됐던 셀타라는 사람이 2세기 아주 초기에 쓴, 메시아에 관한 유대 종말관{終末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복사됐고, 후에는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부분적으로) 첨가 됐다. 열 처녀의 비유가 출현한 것도, 셀타의 이 기록에서였다. 이날

저녁 가르침만큼 복음서 기록에서 그토록 혼란된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없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혼동한 적이 결코 없었다.

^{176:2.9 (1915.6)} 이 열세 명의 남자는 야영지로 돌아가면서 침묵했고, 감정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다. 유다는 동역자들을 버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 다윗 세베대, 요한 마가, 그리고 여러 수제자{首弟子}가 예수와 열두 사도를 새 야영지로 맞이한 때는 무척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도들은 잠을 청하려 하지 않았으며;예루살렘의 멸망, 주님의 떠나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3. 야영지에서 이어진 토론

^{176:3.1 (1916.1)} 20명쯤 되는 그들이 모닥불 앞에 모였을 때, 도마가 질문했다:“당신이 천국의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돌아오려고 하시니,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모닥불에 비친 그들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176:3.2 (1916.2)} “그런데 도마야, 너마저 내가 말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구나. 너와 천국의 관계가 영적이고 개인적임을,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과_깨달음으로, 개인이 영 안에서 전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라고, 요즈음 내내 네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느냐? 민족들의 멸망, 제국들의 파멸, 믿지 않는 유대인의 패망, 한 시대의 종말, 심지어 세상의 종말, 이런 것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 생명을 맡긴 사람과 무슨 상관있느냐? 하나님을_알고 복음을_믿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이미 받았다. 너희의 인생은 영으로 살아 왔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 왔으므로, 너희에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 즉 천상의 세계의 공인된 시민은, 일시적 변혁 때문에 동요되거나 이 세상의 격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생명이 아들의 선물이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민족들이 타도되든지, 시대가 끝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눈앞에서 파괴되든지, 이 천국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앙으로 현세의 인생을 살고 나서, 사랑으로 동료에게 봉사하기까지 올바른 영적 열매를 맺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되는 첫 모험, 즉 땅에서 겪는 모험을

통과하도록 너희를 지탱했던 바로 그 생존하는 신앙으로, 너희는 영원한 생애의 다음 단계를 자신 있게 고대할 수 있을 것이다.

176:3.3 (1916.3) "각 개별 신자가, 피할 수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사{自然死}를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필생과업을 진행시켜가는 것과 아주 똑같이, 각 세대의 신자들은 있을지도 모를 사람의 아들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일단 확립시키고 나면, 다른 어떤 것도 생존의 보장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라! 생존하게 하는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며, 인간의 마음 속에 처음 임했던 그 신성한 영의 결실을 점점 더 명백하게 나타낸다. 너희가 하늘 나라의 아들신분으로 한 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진적인 영적 열매를 육신 속에서 맺어야만 한다는 그 진리를 고의로 계속 거부함에도 무조건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에 나와 함께 했던 너희라도, 인류를 위한 아버지의 봉사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지금이라도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

“각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세대의 신자로서, 내가 말하는 비유를 들어라: 큰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뢰하는 종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가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인정받은 모든 청지기에게, 그는 각자의 여러 재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알맞게 자신의 재물을 위탁했으며; 그 후에 여행을 떠났다. 주인이 길을 떠나자, 그 종들은 자신이 맡은 재산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헌신적으로 일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갖고 즉시 장사를 시작해서 매우 빨리 다섯 달란트의 추가 이익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곧 두 달란트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하여 모든 종이 그렇게 해서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혼자 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주인의 돈을 감췄다. 이윽고 그 종들의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으며, 계산하기 위해 청지기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주인 앞에 불러오자,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맡았던 돈과 이익으로 남긴 다른 다섯 달란트를 갖고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주여, 당신께서 내게 투자하도록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이익으로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내놓게 돼서 기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며;즉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주여, 당신이 내게 두 달란트를 맡겼는데;보십시오, 내가 다른 두 달란트를 이렇게 이익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너도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며;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결산하기 위해 거기에 왔다. 이 종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주여, 나는 당신을 알았고, 당신이 직접 일하지 않은 곳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빈틈없는 분이심을 깨달았으므로;내게 맡긴 것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까 염려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맡긴 한 달란트를 땅 속에 안전하게 감췄는데;그것이 여기 있으니;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나 주인이 대답했다:‘너는 나태하고

게으른 청지기다. 네 부지런한 친구 종들이 오늘 바친 것 같이, 이치에 맞는 이익을 내가 네게 요구하리라는 것을 네가 직접 고백했다. 네가 이것을 알았으니, 적어도 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청지기 우두머리에게 말했다: ‘이 무익한 종에게서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176:3.5 (1917.1)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서 풍족히 갖게 되겠지만;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뺏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의 직무를 가만히 서서 감당할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성숙되어갈 것을 요구하신다. 이런 진리를 아는 너희는 영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야만 하며, 동료 종들에 대한 이타적 봉사에 점점 더 성숙된 헌신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봉사한 것임을 명심해라.

176:3.6 (1917.2)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되,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심지어 영원토록 해야 한다.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너희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는 기쁘게, 대단히 큰 즐거움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봉사하게 될 것이다.”

176:3.7 (1917.3) 진리는 살아있으며;진리의 영은 빛의 자녀를 새로운 영적 실체와 신성한 봉사의 세계로 언제나 인도한다. 고정되고, 안전하고, 명예로운 형태로 굳어버리게 하라고 진리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계시되는 진리는, 너희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증진돼야만하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멋진 영적 열매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아름다움과 실제적인 영적 증진이 보일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실체들에 대한 신성한 평가를 위해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만이, “저희의 주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하는” 희망을 언제나 품을 수 있다. 신성한 진리에 대한 그들의 청지기직분에 관해, 예수의 거짓 추종자들이, “주님, 당신이 백 년 또는 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맡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았고;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보존했으며;우리를 가르친 것을 조금도 변경되지 않게 했으며;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어지는 세대마다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광경인지 모른다. 그러나 영적 나태함을 나타내는 그런 변명은, 진리에 대해 무기력한 청지기를 주님 앞에 정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리의 주님은, 너희의 손에 얼마나 진리를 맡겼는가에 따라서 계산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176:3.8 (1918.1)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졌던 재능과 청지기직분들에 대해 다음 세상에 가서 답변해야만 할 것이다. 타고난 재주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정당하고 자비로운 계산서를 받게 된다. 오직 이기적인 추구에만 재능을 사용하고, 영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는 더 고귀한 의무에 생각을 쏟지 않는다면, 사람에 대해 늘_확장해야 할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증명해야 될 때, 그런 이기적인 청지기는, 자신이 고의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한다.

176:3.9 (1918.2)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필사자는, 자신의 나태함을 직접 주인 탓으로 돌렸던 한 달란트 받은 이 불충한 종과 얼마나 흡사한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실패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때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176:3.10 (1918.3)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너희가 거저 받았으니;하늘의 진리를 거저 줘야 하며, 너희가 이 진리를 주는데도 오히려 줄 때마다 배가{倍加}될 것이고, 구원하는 은혜의 빛이 더욱 빛날 것이다.

4. 미가엘의 재림

176:4.1 (1918.4) 주님의 모든 교훈 중에서,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큼 많이 오해된 것이 없었다. 미가엘이 이 세상 필사자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증여되는 체험을 했던 행성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제는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런 독특한 생애를 살았던, 그리고 아버지께서 무제한으로 증여한 우주 능력과 권세를 마침내 스스로 획득했던 그 세상에,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유란시아는, 미가엘이 우주 주권을 획득하는 동안 출현했던 일곱 구체 가운데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76:4.2 (1918.5)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의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밝혔다. 주님이 현세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추종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유대 국가가 망할 것이라는 예견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의 약속과 이 비극적 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관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훼파하며 유대지방의 유대인을 흩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지 않게 되자, 추종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시대의 끝, 심지어 세상의 종말과 관련시키는 믿음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176:4.3 (1918.6)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게 된 후에, 두 가지 일을 할 것을 약속했다. 첫째로, 그는 자기 대신 다른 선생, 즉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그는 이 약속을 오순절 날에 지켰다. 둘째로, 그가 언젠가 이 세상에 직접 다시 오리라는 것을, 추종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가 육신 속에서 증여 체험을 했던 이 행성에, 어떻게, 어디에, 또는 언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가 꼭 한 번 그것을 암시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육신 속에 살았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가능한 여러 방문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이상) 영적 신앙의 눈으로만 식별될 것이라고 했다.

176:4.4 (1919.1) 우리 가운데 다수는, 오는 시대들 동안 예수께서 여러 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주의 여러 칭호 가운데 유란시아의 행성 왕자라는 명칭을 가진 그분이, 자신의 정복으로 인해 그런 독특한 칭호가 수여된 세계를 여러 번 방문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76:4.5 (1919.2) 우리는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직접 다시 오리라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믿지만, 그가 언제 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현재 시대의 최종 심판과 관련된 때 일어날 것인가? 또는 집정관 아들과의 공동 출현과 함께,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일어날 것인가? 차후의 어떤 유란시아 시대의 종결과 관련해서 올 것인가? 예고 없이 독립된 사건으로 올 것인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가 돌아올 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의 아기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올 것이므로, 온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봐야 한다면, 그리고 오직 영적인 눈을 가진 자만이 그의 임재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의 출현은 먼 훗날로 연기돼야만 할 것이다.

^{176:4.6 (1919.3)}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일련의 사건 또는 정해진 시기를, 주님이 몸소 이 세상에 재림하는 것에 관련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가 언제 또는 무엇과 관련해서 이 약속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무 때라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 시대가 지나가고, 그와 관련된

낙원 단체의 아들들에게 그 시대들이 정식으로 판결 받을 때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176:4.7 (1919.4) 미가엘이 이 땅에 두 번째 출현하는 것은, 중도자는 물론 인간에게 엄청난 감상적 가치를 지닌 사건이지만; 다른 면에서 이것은 중도자에게 아무런 직접 의미가 없으며, 보통 일어나는 자연사{自然死}의 사건만이 가장 직접적인 순간이고 인간에게 실제로 중요한데, 자연사는 우리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바로 그 예수 앞으로 직접 인도해 주는, 이어지는 우주 사건들의 통제 속으로 필사적 사람을 즉시 떨어뜨릴 것이다. 빛의 자녀는 모두 그를 만나게 돼 있으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든지, 또는 혹시 그가 먼저 우리에게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하늘에서 너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서 있듯이, 너희도 그를 이 땅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는 그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 있게 고대하지만, 그가 어떻게, 언제, 또는 어떤 것과 관련하여 나타날 예정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제177편
수요일, 휴식한 날

177:0.1 (1920.1) 가르치는 업무를 강행하지 않아도 될 때, 예수와 사도들은 수요일마다 늘 휴식을 취하곤 했다. 이 특별한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침 식사를 했고, 야영지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으며;아침 식사시간이 반쯤 지날 때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했다:“오늘은 너희가 휴식을 취하기 바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온 후로 생긴 일들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명백히 말했던, 앞으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묵상해보거라. 진리가 너희 삶에 함께 있다는 것과, 너희가 은혜 속에서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라.”

177:0.2 (1920.2)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지 않겠다고 안드레에게 말씀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외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177:0.3 (1920.3) 예수께서 혼자 동산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됐을 때, 다윗 세베대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다:“주님, 바리새인과 관리들이 당신을 죽이려함을 잘 알면서, 어떻게 혼자 동산을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위험하니;당신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필 준비가 잘 된 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잘 무장된 건장한 세 갈릴리인을 보면서 다윗에게 말씀했다:“네 호의는 고맙지만, 사람의 아들은 자신을 방어해 줄 사람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구나. 내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 생애를 마치도록 준비되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 손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 혼자 가야겠다.”

177:0.4 (1920.4) 이 말씀을 듣고 다윗과 무장된 감시병들은 물러갔지만;예수께서 홀로 출발할 때, 요한 마가가 음식과 물이 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아마 배고프시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제안했다. 주님은, 요한에게 미소 지으면서 바구니를 받으러 가까이 다가갔다.

1. 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루

177:1.1 (1920.5) 예수께서 요한의 손에서 점심 바구니를 받아들자, 젊은이가 감히 말했다:“그렇지만 주님, 바구니를 놔두고 기도에 몰두하시게 되면, 아마 그것을 잊으실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점심을 갖고 따라가면, 아마 더 자유롭게 경배하실 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동안 아주 조용히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께서 혼자 떨어져 기도하시는 동안, 바구니 옆에 남아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177:1.2 (1920.6) 이렇게 말하는 동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무모함에 놀랐지만, 요한은 바구니를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요한과 예수께서 바구니를 같이 붙잡고 거기에 서 있었다. 이윽고 주님은 같이 가도록 허락하고,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네가 전심으로 나와 같이 가기를 간청하니, 거절할 수 없구나. 우리끼리 따로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는 무엇이든지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물어봐도 괜찮으며, 서로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자. 네가 먼저 점심 바구니를 들고 가고, 힘들면 내가 도와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177:1.3 (1921.1)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진리를 갈망하는 청년과 함께 머물고, 낙원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면서, 이 땅에서의 평온한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 사건은 “한 젊은이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날”로 저 높은 곳에 알려지게 됐다. 이 장면은, 창조주께서 피조물과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보여주는 좋은 예다. 청년일지라도, 마음 속에 정말 최상으로 원하면, 우주의 하나님의 눈길을 끌 수 있고, 사랑스런 동무관계를 누릴 수 있으며, 하루 종일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잇을 수 없는 황홀경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대지방에 있는 언덕에서 이 수요일에 요한 마가만이 그런 독특한 체험을 했다.

177:1.4 (1920.8) 예수께서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일에 관해 자연스럽게 말씀하면서, 요한과 긴 시간을 보냈다. 요한은 사도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충분한 나이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고 예수께 말했고, 페니키아로 여행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에서 첫 설교를 들은 후 줄곧 그들을 따라다니도록 허락받았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했다. 예수께서는, 곧 다가올 사건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소년에게 권하고, 그가 천국의 강력한 전파자로 살게 될 것임을 확신시켰다.

177:1.5 (1920.9)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이날의 기억 때문에 감동되기는 했지만, 겟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가게 됐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훈계, 즉 “자, 요한아,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갖고 하루를 잘 쉬었는데, 내가 네게 말한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보낸 이날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177:1.6 (1920.10) 예수께서 이 땅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 요한 마가는 줄곧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 소년은 항상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실 때에만 잠을 잤다.

2.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

177:2.1 (1921.5) 예수께서는, 이날 요한 마가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 체험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부모가 소유했던 것보다, 요한의 부모가 세상 재물을 더 많이 소유했지만, 소년 시절 체험은 서로 많이 흡사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부모와 다른 식구들을 더 잘 이해하기에 도움 될 많은 것을

말씀했다. 소년이 주님께, 자기가 “천국의 강력한 전파자”가 될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177:2.2 (1921.6) “나는 현재의 네 신앙과 사랑이, 네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받아 온 훈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천국 복음에 충성스러울 것임을 안다. 너는 부모가 서로 진실한 애정을 품는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며, 따라서 자신을_중요시하는 개념을 해롭게 높일 만큼 과도한 사랑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네 인격체는, 네 신뢰감과 충성심, 즉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부모가 아무 사랑도 없이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왜곡되는 체험을 하지도 않았다. 너는 건전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정상적인 안정감을 촉진시키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너는, 네 부모가 사랑뿐 아니라 지혜도 소유했던 행운을 누렸으며;그들이 너를 이웃 놀이친구들과 함께 회당 학교에 보내고 있는 동안, 돈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사치품과 각종 탐닉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인도했고, 그들은 또한 네가 독창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네게 용기를 줬다.

너는 네 어린 친구 아모스와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 왔었다. 너희 둘이 우리를 따라오려고 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네 부모는 나를 따르는 일에 동의했고;아모스의 부모는 거절했으며;그들은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했던 복된 체험, 더욱이 네가 오늘 누리는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아모스는 집에서 도망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그는 상처받은 사랑과 희생된 충성심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현명한 것이었더라도, 체험과 독립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렀을지 모른다. 네 부모 같은 그런 현명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가 네 나이까지 자랐을 때, 독립심을 키워주고 건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사랑에 상처를 주거나 충성심을 억압할 필요가 없도록 처리할 것이다.

177:2.3 (1922.1) “요한아, 사랑은 온전히_지혜로운 존재들이 부여할 때에는 우주의 최고 실체가 되지만, 필사자 부모의 체험에서 나타날 때에는 위험스러우며, 때로는 약간 이기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네가 결혼하고 네

아이를 기르게 되거든, 지혜의 훈계를 받고 지성의 인도를 따라서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177:2.4 (1922.2) “네 어린 친구 아모스도 네가 믿는 만큼 이 천국 복음을 믿지만,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의 어렸을 때 가정생활은, 완전히 믿음직스런 사람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아모스는 정상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현명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도 가운데 하나와 너무도 흡사하다. 너는 정상적이고 잘 정돈된 가정에서 인생의 첫 8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 모든 삶은 더욱 행복하고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너는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므로, 강건하고 원만한 성품을 지녔다. 그런 어린 시절의 훈련으로 인해 생성된 유형의 충성심이, 네가 시작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리라는 확신을 내게 줬다.”

177:2.5 (1922.3) 예수와 요한은 가정생활에 대한 이 토의를 한 시간 넘게 계속했다. 어린아이가 인간관계나 신{神}과의 관계에 대해 처음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족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 초기 개념을 얻는 데 부모 및 관련된 가정생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주님은 요한에게 계속 설명했다. 자녀는 우주에 대한 첫 인상을 어머니의 보살핌에서 얻으며;하늘 아버지에 대한 첫 개념은, 육신의 아버지와 갖는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녀의 이어지는 생애는 그의 어린 시절의 정신적 및 감정적 생활에 따라서,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되고, 편안하게 또는 어렵게 되는데, 가정의 이 사회적 및 영적 관계에 좌우된다. 인간의 전체 여생은, 태어난 후 처음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크게 영향 받는다.

177:2.6 (1922.4) 예수께서 가르친, 아버지_자녀 관계에 기초를 둔 그 복음은, 현대의 문명화된 민족들의 가정생활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될 그런 때에야, 비로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가정을 개선하고 가정생활을 고귀하게 만들기에 필요한 지식과 진리를, 20세기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더 많이 가졌음에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생활이 즉시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의 가정이나 유대지방에 있었던 마가의 가정처럼 훌륭한 환경을 이루는 경우는, 현대 가정에서도 매우 드문

것이 여전히 사실이다. 현명한 가정의 사랑하는 생활과 참 종교에 대한 충실한 헌신, 이 두 가지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가정생활은 종교심을 향상시키고, 진정한 종교심은 가정을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

^{177:2.7 (1923.1)} 이런 옛 유대인 가정에 있었던, 발육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향과 속박하는 특색 가운데 다수가, 더 잘 통제된 현대 가정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정말로, 더 자연스런 해방과, 훨씬 더 개인적인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는 사랑으로 억제되고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며, 지혜가 주는 이성적 질서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자라나는 모든 아이의 마음과 정신 속에 훌륭하게 간직되도록, 가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엄청난 책임이,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다.

3. 그날 야영지에서

^{177:3.1 (1923.2)} 사도들은 감람산을 거닐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야영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이날 대부분을

보냈지만, 오후부터는 예수께서 돌아오기를 몹시 고대하게 됐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안전이 더 염려됐으며;그가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말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함을 느꼈다. 주님이 오직 심부름하는 아이 하나만 데리고 홀로 동산에 오르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해 종일 논란이 있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요한 마가 대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다.

177:3.2 (1923.3) 오후 중반쯤에, 나다니엘이 6명 정도의 사도와 많은 제자 앞에서 “최상의 욕망”에 대해 연설했고, 이렇게 끝맺었다:“우리 대부분에게 잘못된 점은 속으로 망설인다는 점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기에 실패했다. 우리 모두 요한 마가가 한 것처럼 그를 따라가고자 했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 아이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바구니를 내 밀고, 주님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실 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 남겨두고, 바구니와 소년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동산으로 가버리셨다.”

177:3.3 (1923.4) 네 시쯤 돼서,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에게, 벳새다에 있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예수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갖고 왔다. 다윗은 제사장 관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며칠 전에 이미 확신했다. 다윗은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음을 알았고, 예수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그를 방어하기 위한 추종자들의 무력 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재촉했다.

177:3.4 (1923.5) 다윗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했고, 이제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전 가족이 길을 떠났으며, 내일 저녁 또는 모레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도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갖고, 그 심부름꾼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77:3.5 (1924.1) 정오가 조금 지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서 예수와 열두 사도를 만났던 20명 이상의 그리스인이 야영지에 도착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여러 시간 논의 했다. 이 그리스인,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알렉산드리아의 로단에게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진보돼 있었다.

177:3.6 (1924.2) 그날 저녁에, 야영지로 돌아온 예수께서 그리스인을 만났으며, 70인을 임명했던 것처럼 이 20명의 그리스인도 임명하려 했던 것이 사도들과 여러 수제자의 마음을 크게 혼란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177:3.7 (1924.3) 이 모든 일이 야영지에서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께서 대중에게 연설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사장과 장로들이 몹시 놀랐다. 정말로, 하루 전날, 그가 성전을 떠나면서, "너희 집을 너희에게 황폐하게 남겨두고 나는 떠난다"고 말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파의 호의적인 태도 속에서 부추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한 반면, 주님이 대중에게 한 마지막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그들의 권세에 모든 합당한 방법으로 순응하도록 권고해 왔었다. 그러나 그 성{城}에서 보낸 하루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면서 바쁘게 지나갔다.

177:3.8 (1924.4) 예수께서 매일 밤 베다니로 나갔었지만, 그날은 거기에 머물 예정임을 아는 모든 사람이 비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야영지에 사람이 많이 오지는 않았다.

4. 유다와 제사장들

177:4.1 (1924.5) 예수와 요한 마가가 야영지를 떠난 직후에, 가롯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사라졌고, 그날 오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혼란에 빠지고 불만으로 가득 찬 이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산헤드린의 비공식 모임이었고, 아침 열 시 직후로 약속 됐다. 이 모임은, 예수를 고발하는 데 쓰일 죄목들의 본질을 의논하고,

그들이 이미 그에게 선고했던 사형 언도에 필수적인, 국가의 확인을 보장할 목적으로, 예수를 로마 권세자 앞으로 끌고 오는 일에 어떤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됐다.

^{177:4.2 (1924.6)} 유다는 전날에, 예수가 악의 없는 몽상가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며,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음을, 친척과 아버지 가족의 어떤 사두개인 친구들에게 내비쳤다. 유다는 전체 활동으로부터 은혜롭게 물러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를 몹시 원한다고 진술했다. 친구들은, 그의 탈퇴가 유대인 관리들에게 큰 사건으로 환영받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아첨하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그가 산헤드린에서 큰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의이기는 했지만 “무식한 갈릴리인과 불행하게 연합함”으로 인한 오점{汚點}을 결국 씻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했다.

^{177:4.3 (1924.7)} 유다는, 주님이 행했던 기적이 마귀들의 두목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권능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으며;예수께서 유대인 관리들에게 죽임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리라는 것을 마침내 확신하게 됐고, 실패로 끝나는 활동에 자신도 함께 했다는 굴욕적인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명백한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주님의 불굴의 성품과 위엄 있고 자비로운 정신의 예리함을 충분히 이해했으나, 예수께서 좋은 의미에서는 열광적이라고 하겠지만, 아마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갖고 있을 것이며;그가 항상 예상 밖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임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다.

177:4.4 (1925.1) 그리고 이제 유다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더 큰 명예로운 지위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이상스러울 만큼 분개하게 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사도들의 회계를 담당한 명예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었으며;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예수와 가까이 교제하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노가 갑자기 그에게

엄습했으며, 예수를 팔려는 생각보다는, 베드로, 야고보, 밋 요한에게 더 집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그때, 새롭고 압도적인 생각이 그의 의식하는 정신을 점유하기 시작했는데:그는 스스로 명예를 얻기에 착수했으며, 이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줬던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다. 혼동, 자존심, 절망, 그리고 결단이 꿈쩍하게 뭉쳐서 그를 사로잡았다. 따라서 유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177:4.5 (1925.2) 유다는 가야바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버리고 떠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그리하여 하늘 나라의 대의{大義}를 저버리기로 결심하면서, 예수와 새로운 천국 복음에 자신이 처음 참여하기로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명예와 영광이, 언젠가는 최대한으로 자기 것이 되도록 보장받겠다고 결심했다. 전체 사도가 한때 이 야심을 유다처럼 가졌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적어도 유다보다는 더 그랬다.

177:4.6 (1925.3) 배신자가 가야바와 유대인 관리들 앞으로 나왔고, 그들 옆에는 그의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가 예수의 교활한 가르침에 잘못 빠졌던 것을 발견하고, 갈릴리 사람들과의 연합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체념하고 싶은 처지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유대지방 형제들의 신뢰와 교제로 복권{復權}되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유다를 위한 이 대변자는, 예수가 감금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방책임을 유다가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그가 그런 잘못된 운동에 가담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증거로, 그리고 이제 진정 모세의 교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로, 예수를 체포하도록 명령 받은 군대 책임자와 함께 그를 조용히 붙잡을 수 있게 조치하고, 그리하여 군중을 동요시키는 위험 또는 그의 체포를 유월절 이후로 연기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는 일을 조정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청하려고, 산헤드린에 왔다고 계속 설명했다.

177:4.7 (1925.4) 사촌이 말을 다 끝낸 후 유다를 소개하자, 그가 대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내 사촌이 약속한 것을 기꺼이 하겠지만, 그 대가{代價}로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유다는, 냉혹하고 자만심 가득한 가야바의

얼굴에서 ,경멸과 혐오의 표정을 구분하지 못했으며;그의
마음은 자기_영광에 너무 집착했고 스스로_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177:4.8 (1926.1) 그러자 가야바가 배반자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유다야, 너는 수비대 대장에게 가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에 네 주님을 우리에게 데려올 수 있도록,
그 관원과 함께 협의해라, 그리고 네 도움으로 그가
우리에게 넘겨지면, 너는 이 일에 상당하는 대가{代價}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유다는 제사장과 관리들이
있는 곳에서 물러나왔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성전 수비대 대장과 의논했다. 유다는 그때
예수께서 야영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날 밤
언제쯤 돌아올지는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목요일인) 다음 날 밤, 예루살렘 사람들과 방문 중인
순례자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예수를
체포하기로 동의했다.

177:4.9 (1926.2) 유다는, 여러 날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위엄과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흥분된 채, 야영지의 동역자들에게
돌아왔다. 그는 예수께서 언젠가 새 왕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협조했었다. 그는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새 왕국은 건설되지 않을 것임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 그러나 그는, 예상했던 새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여 실망한 것을, 옛 체제에서 즉시 얻는 명예 및 보상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현명했던 것을 기뻐했으며, 이제 이 옛 체제가 살아남으리라고 믿었고, 예수를,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이 옛 체제가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식적인 의도로 발동된 최종 동기를 볼 때, 예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과 옛 동역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전과 영광만 생각하는, 이기적 탈선자의 비열한 행동이었다.

^{177:4,10 (1926.3)} 그러나 그것은 늘 그런 식이었다. 유다는, 이런 고의적이고, 끈덕지고,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마음 속에 꾸준히 키워왔으며, 원한과 배반의 증오에 찬 악한 욕구를 마음 속에 간직해 왔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유다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나, 유다는 그 보답으로 충실한 신뢰와 전심으로 사랑하는 체험을 가꾸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일단 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오랫동안 참아온 음울한

복수심이 크게 발동되자, 얼마나 무시무시한 야망이 생겨났는지! 공허하고 순간적인 시간만을 주시함으로써, 신성한 가치와 참된 영적 실체들의 영원한 세계의 영구적 달성이라는, 더 고귀하고 더 실제적인 성취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실망스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유다는 세상적인 명예를 마음 속에 갈망했고, 이 욕구를 점점 더 전심으로 사랑하게 됐으며; 다른 사도들 역시 마음 속에 동일한 세상 명예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그가 자신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최선을 다했다.

177:4.11 (1926.4) 유다는, 이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 베임을 당한 후에 계속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비판해 왔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요한을 살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항상 원망했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게 되기 전에는 요한의 제자였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다가 증오로 옷을 입혀서 자기 혼 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이런 인간적 원망과 심한 실망감은, 이제 그의 무의식적인 정신 속에서 잘 조직됐고, 형제들이 옹호하는 영향권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그를 삼켜버릴 준비가 됐으며, 동시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교묘한 암시와 음흉한 조롱에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됐다. 솟구쳐 오른 유다의 기대감을 예수께서 산산 조각내는 말씀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유다의 마음 속에는 쓰라린 분노의 상처가 남았으며;이 상처들이 깊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악하지는 않으나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격자에게, 싫증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실제 애정을 잃어버렸다. 유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유다는 겁쟁이었다. 따라서, 권세나 영광을 거머쥐기가 이제 손쉽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을 붙잡기를 그토록 종종 거절한 것은, 예수가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유다는 늘 예수를 탓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모든 필사적 사람은, 사랑이 한때는 진실했더라도, 실망, 질투, 그리고 오랫동안의 분노를 거치게 되면, 결국 실제적인 미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아주 잘 안다.

177:4.12 (1927.1)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침내 몇 시간 동안 마음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않아도 됐으며, 그동안에는 예수께서 여러 번 자기들

손에서 빠져나갔지만, 배신에 가담하겠다는 유다의 약속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5. 마지막 친교 시간

177:5.1 (1927.2) 수요일이었으므로, 야영지에서 이 저녁은 친교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풀이 죽은 사도들을 격려하려고 애썼지만, 거의 불가능했다. 그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파멸적인 사건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사{多事}했던 지난날과 사랑스러웠던 교제를 주님이 상기시켰을 때에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도의 가족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했고, 다윗 세베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또는 다른 가족에 대해 혹시 최근에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물어봤다. 다윗은 고개를 떨궜으며;대답하기를 두려워했다.

177:5.2 (1927.3) 이 시기는, 대중의 지지를 조심하라고 추종자들에게 말스한 예수의 경고에 해당되는 때였다. 그는, 많은 군중이 그들을 열광적으로 따르다가, 격렬하게 대적하면서 이전의 믿음과 삶의 형태로 돌아갔던, 갈릴리에서의 체험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말씀했다:“그러니 너희는, 성전에서 우리 말을 듣고 우리 교훈을 믿는 것처럼 보이던 많은 인파로 인해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대중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 속에 피상적으로 믿지만, 진리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생명 있는 뿌리를 내리도록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적인 고난이 올 때에는, 복음을 오직 정신으로만 알고 아직 마음 속에 체험하지 못한 그들로부터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유대인 관리들이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고, 이구동성으로 공격하게 되면, 대중이 당황해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격노하고 눈이 먼 이 관리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죽이는 동안에, 놀라면서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역경과 박해가 너희에게 임할 때, 아직도 진리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흠어질 것이며, 더러는 복음을 부인하고 너희를 배반할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했던 어떤 자들이 배반하기로 이미 결심했다.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닥쳐 온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휴식을 취했다. 그러므로 곧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 내일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177:5.3 (1927.4) 야영지의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심부름꾼들이 비밀리에 오가면서 다윗 세베대에게만 보고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급히 피신했다는 것을 알았다. 요한 마가는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보냈음에도, 야영지로 돌아온 후 심상치 않게 침묵했다. 여러 방법으로 말을 시키려 했지만,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명히 대답할 뿐이었다.

177:5.4 (1928.1) 주님의 유쾌한 기분과 평상시와는 다른 친근함마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모두, 무시무시하게 고립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확실히 느꼈다. 그들은 무엇이 벌어질지 잘 감지하지 못했으며, 시험을 맞을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무척 보고 싶어 했었다.

177:5.5 (1928.2) 이 수요일 저녁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주님의 죽음이 이뤄진 실제적인 그 시간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비극적인 금요일까지 하루밖에는 더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은 불안한 시간을 비교적 더 은혜롭게 보내고 있었다.

177:5.6 (1928.3)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가족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도록 그들을 흠여 보내면서, "형제들아, 가서 잠자도록 해라. 내일 일어날 때까지 평안하거라. 아버지 뜻을 행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임을 아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더 남았다"고 말씀한 것은, 자정이 거의 됐을 때였다.

제178편 야영지에서 마지막 날

178:0.1 (1929.1) 육체 속에 육신화한 신성한 아들이로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 목요일을, 사도들 및 충성되고 헌신된 소수의 제자와 함께 보내려고 계획했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에 식사시간이 끝나자, 주님은 곧 야영지로부터 약간 위에 있는 외딴 장소로 그들을 데려갔고, 많은 새로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날 이른 저녁 시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다른 강론을 했지만, 목요일 오전에 했던 이 말씀은, 야영지에 머무는 사도들 및 선택된 제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무리에게 한 작별 인사말이었다. 열두 사도는 유다를 제외하고 다 참석했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사도는 그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더러는, 아마 다가오는 유월절 경축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성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베풀기 위해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인, 오후 중반이 돼서야 야영지로 돌아왔다.

1. 아들신분과 시민신분에 관한 강론

178:1.1 (1929.2) 예수께서는 믿을만한 추종자 가운데 약 50명에게 거의 두 시간 동안 말씀했고, 하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즉 하나님의 아들신분과 이 세상 정부의 시민신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때 했던 그의 강론을, 현대 언어로 다시 간추려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78:1.2 (1929.3) 이 세상 나라들은 물질적이므로, 법을 집행하는데,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종종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늘 나라에서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 나라는,

영으로_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관계이므로, 오직 영의 힘으로만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진행상 차이점은, 신자{信者}들의 천국이 세속 정부의 나라들에 대해 갖는 관계와 관련되며,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과, 제멋대로 부당하게 행동하는 회원을 징계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178:1.3 (1929.4) 영적 천국에서 아들신분과, 세속 정부, 즉 민간{民間} 정부에서 시민으로서의 신분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특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상의 경배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요구 사이에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너희는, 잘못된 이 세상 지배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 지배자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되며;또한 너희가 영적 천국의 사명을 확장시키려고 일하는 동안, 세상 정부의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데, 그 통치자들도 언젠가 신자로서
동참하게 될지도 모른다.

178:1.4 (1930.1) 형제관계와 봉사가 천국 복음의 모퉁이돌이기
때문에, 진보하는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아들신분은, 너희를 이 세상 나라의 이상적 시민이 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영적{靈的} 천국이 우호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믿지 않고 투쟁에 몰두하는 세상 나라
시민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을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도구임을 입증할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 없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둠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_성향의 이 자녀는, 너희가
소유한 진리의 영적 빛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인데, 그런
사회봉사는, 믿는 자들이 각자 삶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영의 열매다.

178:1.5 (1930.2) 너희는 물질적인 필사적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 나라의 영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_개화되고 영이_해방된 하늘 나라
자녀로서, 사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이중적 의무에 직면하는 동시에, 제 3의 신성시되는
책무:즉 하나님을_아는 신자 형제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다.

178:1.6 (1930.3)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천국의 축진을 위해 현세의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사랑의
봉사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천국 복음에는
강력한 진리의 영이 내주하며, 바로 이 영을 내가 곧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영의 열매, 즉 너희의 진지하고
사랑하는 봉사가, 어둠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이고, 이 진리의 영은 너희의
능력을_배가시키는 지레 받침이 될 것이다.

178:1.7 (1930.4) 너희는 믿지 않는 집권자들과 대면할 때 지혜를
보이고 총명함을 나타내라. 너희는 사소한 논쟁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를 조정하기에 스스로 노련해지고
있음을 신중하게 증명하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곧
우주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해롭지 않아야 한다.

178:1.8 (1930.5) 천국의 개화된 자녀가 된 결과로, 너희는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이 돼야만 하며;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국가적 문제에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가 돼야 할 것이다. 이기심 없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총명한 경배가, 모든 천국 신자를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하늘 나라의 아들신분으로 초대하는 영 소명{召命}이 더 잘 들리도록, 그런 시민을 도와줘야만 할 것이다.

178:1.9 (1930.6) 세상 정부 통치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추구하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는 고난, 박해,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 너희가 천국의 이 복음을 위해 수난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가, 결국 온 세계를 개화시키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면,

언젠가는 새롭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자유함, 지적 해방,
및 종교적 자유를 모든 나라가 누리게 될 것이다.

178:1.10 (1931.1) 이 기쁨과 자유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곧_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고 천국은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들에 대해 대부분
사람이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이 있는 시절에도 천국에
충실하기를 배워라. 안일함에_젖은 너희 혼을 구원하려고
고안된, 사랑으로 징계하는 거친 길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을 유도하지 말라.

178:1.11 (1931.2)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을--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신앙 실현이라는 최고의 기쁨과 결부된,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소망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보살핌, 깨우쳐 주는
지적 친교, 그리고 향상시키는 사회 봉사에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되;이런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

전부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대한 봉사는,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 인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있음을 영으로_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확인시켜주는 개인적 깨달음으로 인해, 천국을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더 강력하고 탁월한 보살핌과 변화됨에서 나오는 사회적 부산물이다.

178:1.12 (1931.3)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으로, 또는 세속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려 하거나 정의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의 정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나, 그들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이라는 대계명{大誠命} 즉: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78:1.13 (1931.4) 천국을 믿는 자가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 받을 때, 그런 정부에 소속된 현세의 시민으로서 이런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되, 그렇더라도 그 신자는 나라에 봉사하면서, 필사적 사람의 정신을 기품 있도록 만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이 연합하여 얻는 영적 개화로 인하여 증진된, 시민신분의 그런 모든 평범한 특징을 전부 드러내야만 한다. 믿지 않는 자가 높은 지위의 시민정부 공무원이 될 자격을 갖추 수 있다면, 영적 친교와 사회 봉사, 이 두 가지의 생명의 물이 부족해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희는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신분임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 인격체의 모든 타고난 능력을 복돋우는, 그런 힘찬 충동을 소유하게 된 모든 어른과 아이가 일생 동안 봉사할 때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178:1.14 (1931.5) 너희는, 피동적 신비주의자나 생기 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에서조차 허구적인 섭리를 나태하게 의지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돼서도 안 된다. 너희는, 잘못된 필사자를 대할 때 정말로 너그러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과 교제할 때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하지만;정의를 지킬 때에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는 강해야 하며, 땅 끝까지 이르도록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178:1.15 (1931.6) 이 천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그 복음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 같고, 겨자 씨 낱알 같으며; 이제 내가 단언하겠는데, 그 복음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씨와 같아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똑같은 살아있는 씨로 남아 있고, 계속되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조건과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경로에서, 어김없이 새롭게 형태화되고 훌륭하게 자라간다.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 온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영적 성장과 증대 그리고 만족스런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각 세대마다 그리고 각 개체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란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 복음은 틀림없이 향상된 생명력을 보일 것이며, 더 깊은 영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단지, 신성시되는 추억, 즉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78:1.16 (1932.1) 그리고: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의 권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했을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해 그들이 영적으로 충실치 못한 것을 경고함으로써만 그들을 비난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기존의 지도자들과 공인된 지배자들이 직접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비난하는 자는 우리가 아닌데,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는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만 위임받았음을 명심해라. 너희는 옛 방식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전통적 믿음 한 가운데에 기술적으로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용납하라. 그들이 진리를 경멸할 때에만 논쟁하도록 해라. 그러나 고의로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는, 너희를 구원하고 성화{聖化}시킨 그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하기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178:1.17 (1932.2) 변화무쌍한 생애를 사는 동안 내내, 서로 사랑하기를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과, 심지어 불신자와도 다투지 말라. 악의에 가득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형제관계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런 시민, 정직한 직공,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 동포, 이해심 많은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나타내라. 또한 내 영이 지금은 물론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178:1.18 (1932.3) 예수께서 가르침을 마쳤을 때는 거의 한 시 무렵이었으며, 그들은 다윗과 그 동역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해 놓은 야영지로 곧 돌아갔다.

2. 점심을 먹은 후

178:2.1 (1932.4) 오전에 주어진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중들 중에서 그리스인은 대부분의 말씀을 납득했다. 열한 명의 사도마저, 미래의 정치적 나라들 및 이어지는 천국 신자 세대들에 대한 주님의 암시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이 세상 사역의 종료가 임박한 것과, 장래의 복음 활동에 대한 이 말씀을 서로 조화시킬 수 없었다. 유대인 신자 가운데서 더러는,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그런 임박한 재난과, 주님의 변함없는 유쾌한 태도 또는 그의 오전 강론을,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 강론에서 주님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땅에서 뒤이어

생기는 수많은 세상 나라에 대한 관계를 포함하여, 하늘 나라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178:2.2 (1932.5) 나사로가 황급히 베다니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모든 사도는 이날 정오에 알게 됐다. 그들은 유대인 관리들이 예수와 그의 교훈을 멸절시켜버리기로 냉혹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178:2.3 (1932.6) 예루살렘에 있는 비밀 요원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 세베대는,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는 계획의 진행상황을 소상히 알았다. 그는 이 음모에서 유다의 역할을 전부 알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도들뿐 아니라, 어떤 제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그는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지 대담하게 질문했다--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질문이 계속되지 못하게 막았다. 주님은 그의 팔을 붙잡고 질문을 제지하면서 말씀했다: "다윗아 그렇다, 나는 그것을 다 알고,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나도 알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드러나리라는 것을 마음 속에 의심하지 말아라."

178:2.4 (1933.1)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아브넬이 들었다는 것과,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하는지를 묻는 말을 전하려고, 필라델피아로부터 한 심부름꾼이 도착했으므로, 다윗과의 이 대화는 더 계속되지 못했다. 이 심부름꾼은 아브넬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필라델피아로 출발했다: “네 일을 계속하라. 내가 너와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178:2.5 (1933.2) 이 무렵에 빌립이 주님께 와서 물었다: “주님, 유월절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유월절 음식 먹을 준비를 어디에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먹을 만찬에 대하여 네게 지시하겠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네가 먼저 이 일을 마친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178:2.6 (1933.3) 주님이 이 일에 대해 빌립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유다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빌립, 베드로, 및 요한이 다른 편으로

가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가까이 서있던 다윗 세베대가 유다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다.

178:2.7 (1933.4) 예수께서 세 사도에게 말씀했다:“너희가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면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거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이 사도들과 만찬을 드실 손님 접대실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라.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준비된, 넓은 다락방을 그 집주인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178:2.8 (1933.5) 사도들이 성에 도착했을 때, 성 문 근처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뒤를 좇아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여줬다.

178:2.9 (1933.6)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전날 오후에 주님과 요한 마가가 따로 언덕에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이뤄진 약속의 결과로 일어나게 됐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으며, 유다가 그들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게 되면, 자신을 체포하도록 적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요한 마가와 비밀리에 약속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도, 유다는 그들의 만날 장소를 알지 못했다.

178:2.10 (1933.7)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으므로, 베드로, 요한, 및 빌립을 유다가 무척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양식을 구입하라고, 유다가 얼마만큼의 돈을 다윗에게 건네주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유다여, 이런 상황에서 내게 실제로 필요한 돈을 미리 내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닌가?” 유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다윗아,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불안한 상황에 비취 본다면, 돈을 전부 네게 넘겨주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는 아무 훼방도 받지 않을 것이다.”

178:2.11 (1934.1) 그리하여,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전부와 저축된 모든 예금증서를 받았다. 사도들은 다음 날 저녁까지도 이런 진행사항을 알지 못했다.

178:2.12 (1934.2) 세 사도가 돌아와서,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음을 예수께 고한 것은 네 시 반쯤이었다. 오솔길을 넘어서 베다니 길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열두 사도를 인도하려고 즉시 준비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열두 사도 전체와 함께 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3.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178:3.1 (1934.3) 예수와 열두 사도는,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며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는 인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찾으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기 위해, 감람산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다. 예수께서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머물렀던 장소 근처를 지나갈 때, 그들은 무의식중에 멈춰 서서 조용히 성을 내려다봤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고, 예수께서는 해가 진 후에 성으로 들어가기 원했으므로, 동역자들에게 말씀했다:

178:3.2 (1934.4)

“반드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앉아서 쉬도록 해라.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너희와 형제로 지냈으며, 하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고 그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내 사명과 관련하여 정말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체험에 동참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업무로 내가 곧 돌아가야만 함을 너희에게 한동안 경고했던 것에 대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며; 천국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가버나움의 동산에서 너희와 헤어졌던 것은 그런 목적에서였다. 너희가 나와 함께했던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대변하고 내가 시작한 일들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한다.

178:3.3 (1934.5)

“너희가 슬픔에 가득차서 성을 내려다보는데,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성의 파멸에 휩쓸려서 너희가 죽게 되어, 그로 인해 천국 복음의 선포가 연기돼서는 안 된다고,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나서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는 가야하지만, 심지어 나사로에게도 사람의 징벌을
피하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너희가 신성한 계획을 한 치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혼이
영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어리석은 시도든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의 손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며;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내 곁에 있지만;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순종해야만 한다.

178:3.4 (1934.6) "너희가 이 성이 훼파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영원히_진보하는 하늘 나라, 심지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에는 거주지가 많으며,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都城}들과, 진리 안에서 정의와 기쁨을 생활

습성으로 삼는 세계들이 드러나기를, 빛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 나라가 임하도록 했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신앙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진리를 생생하게 돌봄으로 거기에 머무는 너희 모두는, 반드시 높은 곳에 있는 세계들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靈} 나라에서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스스로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했던 그 일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많은 슬픔을 견뎌야만 하며 --이 시험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일을 마치면, 내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178:3.5 (1935.1)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일어나자,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감람산을 내려가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파가 그들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선택된 천국 대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필사자 회합을 가지러 지나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또한

사도들 역시,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주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178:3.6 (1935.2) 요한 마가는 성으로 내려가는 길을 처음부터 따라왔으며,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 일행이 도착할 때 아버지 집 앞에서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제179편 마지막 만찬

179:0.1 (1936.1) 이 목요일 오후에, 다가오는 유월절에 관해 주님께 상기시키면서,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한 그의 계획에 대해 빌립이 물어봤을 때, 그는 이튿날 금요일 저녁에 먹도록 돼 있는 유월절 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유월절 경축 준비를 전날 정오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다. 유대인은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계산했으므로, 이것은 금요일 밤 자정이 되기 전 어느 때에, 토요일의 유월절 만찬을 먹게 돼있음을 의미했다.

179:0.2 (1936.2) 그러므로, 유월절을 하루 먼저 경축할 것이라는 주님의 발표를, 사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가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

전에 체포될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이 목요일 저녁에 특별한 만찬을 나누기 위해 자신들을 함께 불렀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통상적인 유월절 경축에 앞서서 이뤄지는 특별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79:0.3 (1936.3) 사도들은, 예수께서 지난 여러 차례의 유월절에 어린양을 잡지 않고 경축했던 것을 알았으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유대 방식의 예배에는 그가 한 번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월절 어린양을 먹는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이 주최할 때에는 양고기를 대접하지 않았다. 유월절 어린양이 생략되더라도 사도들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이 만찬이 하루 일찍 베풀어졌기 때문에 양고기가 없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179:0.4 (1936.4) 요한 마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네는 환영 인사를 받은 후에, 사도들은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마가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뒤에 남았다.

179:0.5 (1936.5) 이 절기를 오직 열두 사도와 경축하려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렸으며;그렇기 때문에 시종들기 위해
기다리는 종은 예비되지 않았다.

1. 대접받고 싶은 욕망

179:1.1 (1936.6) 요한 마가가 사도들을 2층으로 안내했을 때,
그들은 매우 크고 넓은 방을 보게 됐고, 만찬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며, 빵, 포도주,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이 식탁
한 쪽 끝에 모두 준비돼 있었다. 빵과 포도주가 있는 쪽을
제외한 긴 식탁 둘레에는,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열세 개의 의자가 배열돼
있었다.

179:1.2 (1936.7) 열두 사도가 이 다락방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문
안에 놓여 있는 물 항아리, 대야, 그리고 수건이, 자신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도록 준비된 것을 알았으며;이 일에
수종들 종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사도들은 요한 마가가
떠나자마자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우리 발을 씻어줄
것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처럼 보이도록 행동할 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똑같이 생각했다.

179:1.3 (1937.1) 그들은 거기에 서서 속으로 다투면서 식탁의 자리 배치를 둘러봤으며, 주빈을 위한 비교적 높은 침대 의자 하나와, 그 오른쪽에 다른 한 개의 의자가 있고, 나머지 열한 개의 의자들이 왼쪽부터 위치하여, 주빈석{主賓席} 오른쪽에 있는 둘째 우등석{優等席} 맞은 편까지 배열돼 있음을 알게 됐다.

179:1.4 (1937.2) 그들은 주님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먼저 앉아 있어야 좋을지, 아니면 그가 자리를 지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당황했다. 그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유다가 주빈석 왼편에 있는 우등석으로 다가갔고, 마치 우선권 있는 손님이라도 되듯이 거기에 기대어 누우려고 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즉시 다른 사도들 가운데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게 했다. 유다가 우등석을 차지하자마자, 요한 세베대는 주빈석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시몬 베드로는, 유다와 요한의 이와 같은 자리 선택에 매우 분이 치밀어서, 화가 난 다른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탁을

뚜벅뚜벅 걸어 돌아가서, 요한 세베대가 선택한 반대편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할 생각을 했으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순히 형제들의 보기 흉한 자존심에 대해 항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오게 됐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고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는 스스로 높아지려 한 사람을 앉힐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179:1.5 (1937.3)}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배정됐고, 나머지 사도들은, 혹은 유다 쪽으로 혹은 베드로 쪽으로 자리를 잡아 모두 앉게 됐다. 그들은 U자_모양의 식탁 옆으로 놓여 있는 비스듬한 의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리를 잡았는데:주님의 오른 편에는 요한이 앉았으며;왼편으로는, 유다, 열심당 시몬, 마태, 야고보 세베대, 안드레, 알패오 쌍둥이, 빌립, 나다니엘, 도마, 시몬 베드로가 앉았다.

^{179:1.6 (1937.4)}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적어도 영적으로는, 모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상고해 보는 전통적 관례를 경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만찬은 그들이 예수와 갖는 마지막 회동이었고, 심지어 그런 엄숙한 배경 속에서도, 유다를 선두로 해서 사도 모두가, 명예, 대접받음, 및 개인적 우쭐함을 좋아하는 옛 습성을 다시 나타냈다.

179:1.7 (1937.5) 그들은 주님이 문에 들어올 때까지도, 여전히 화가 나서 비난하는 투의 말을 나눴으며, 그는 얼굴에 실망하는 표정을 서서히 떠올리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아무 말씀도 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들의 자리 배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179:1.8 (1937.6) 이제 그들의 발이 아직 씻기지 않았다는 것과 마음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 외에는, 만찬을 나눌 준비가 모두 갖춰졌다. 주님이 도착했을 때, 충분히 감정을 통제한 사람처럼 아무 생각도 말하지 않았던 몇 사람이 품었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주고받기에 바빴다.

2. 만찬을 시작함

179:2.1 (1937.7) 잠시 후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들을 모두 둘러본 다음, 예수께서는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미소로 바꾸면서 말씀했다:“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무척 고대했다. 내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기에, 내가 수난당하기 전에 한 번 더 너희와 식사를 같이하고자 했으며,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오늘 밤 나눌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은, 내일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고, 그의 뜻에 우리 모두를 맡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내가 완수한 후에, 그분이 내게 주실 천국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앉을 때까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먹지 않을 것이다.”

179:2,2 (1938.1) 포도주와 물을 섞은 다음, 사도들이 예수께 잔을 가져왔으며, 그는 다대오의 손에서 잔을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끝나자 말씀했다:“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눠라. 그리고 너희가 잔을 받거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에서 나온 것을 내가 너희와 다시는 마시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앉을 수 있는 때는, 도래할 천국에서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이 땅에서 자신의 업무가 거의 완료됐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계시했고 그의 자비를 인류에게 나타냈음을 알았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큼,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가 그날 밤 그를 적에게 넘겨주기로 완전히 결심한 것도 알았다. 배신하는 밀고{密告}하는 이런 행위는 유다가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오히려, 루시퍼, 사탄, 그리고 암흑세계의 왕자인 캘리개스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영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육신을 죽이려는 자들은 더욱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염려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추종자들의 안전과 구원이었다. 그리하여 주님은, 아버지께서 만유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셨음을 완전히 알고, 이제 형제간의 사랑에 관한 비유를 실행에 옮길 준비를 했다.

3. 사도의 발을 씻으심

유월절 음식의 첫 잔을 마신 후에 주빈이 식탁에서 일어나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이어서 음식을 먹다가 둘째 잔을 마신 후에, 모든 손님이 마찬가지로 일어나 손을 씻어야 했다. 사도들은 주님이 이렇게 예식절차대로 손 씻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첫 잔을 다 마신 후에 그가 식탁에서 일어나, 물병, 대야, 그리고 수건들이 놓여있는 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무척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주님이 겹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발 씻는 대야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들의 의구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다. 조금 전에 서로 발 씻어주기를 거절하고, 식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보기 흉하게 다뤘던 이 열두 사람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앉아 있는 만찬석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옆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끝 부분으로 가서, 마치 종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시몬의 발을 씻을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주님이 무릎을 꿇자, 열두 사도는 모두 마치 한 사람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섰으며;심지어 배신자 유다도 자신의 비행을 잠시

까맣게 잊고, 이런 놀람과 경의 그리고 대단한 경탄의 표현으로 동료 사도들과 함께 일어섰다.

179:3.2 (1938.4) 일어섰던 시몬 베드로는, 쳐다보는 주님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 없었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시몬 베드로의 발을 정말로 씻고자 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냈다. 그의 육신의 유혹에 약했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 이 갈릴리 어부는 예수의 신성을 전심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고백한 첫 사람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로 주님의 신성한 본성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존경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천한 종 같은 태도로 무릎을 꿇고,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자기 발을 씻으려는 예수의 의도에 화가 난 것은 당연했다. 이윽고 주님께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리자, 베드로는 동료 사도 역시 똑같이 마음에 느끼고 있는 생각을 말했다.

179:3.3 (1939.1) 이렇게 잠시 크게 당황한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내 발을 정말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씀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너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장차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길게 숨을 쉬고,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도 역시, 자기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려는 예수를 단호히 만류하는 베드로의 태도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79:3.4 (1939.2) 보통 때와는 다른 이런 장면의 인상적인 호소력에, 처음에는 가롯 유다의 마음도 감동을 받았지만; 자만심 강한 그의 지능이 그 광경에 대해 일단 비판하자, 자비로운 듯한 이 태도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주님의 대의{大義}를 저버리기로 확실히 결심했다.

179:3.5 (1939.3) 그들 모두 숨을 죽이고 놀라며 서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 발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분의 요청에 순종한다는 맹목적인 목인을 여러 번 했던 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계획된 봉사를 실행하심에는, 주님의 업적과 관련하여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어떤 의미가 첨부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시몬 베드로에게 점점 분명하게 되자, 그는 예수께 자기 발을 씻으시도록 허락하기로 체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질대로 그리고 성급한 태도로,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179:3.6 (1939.4)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말씀했다:"이미 정결한 사람은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밤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너희는 정결하지만--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나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에, 너희는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봉사를 베푸는 것은, 이제 곧 너희에게 주려는 새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보여주고자 함이다."

179:3.7 (1939.5)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식탁을 돌면서 열두 사도의 발을 씻었고, 유다도 빼놓지 않았다.

열두 사도의 발을 다 씻은 예수께서 겹옷을 입고
주빈석으로 돌아왔으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도들을 둘러본 후에 말씀했다:

179:3.8 (1939.6)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이해하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정말
그러하니, 너희가 잘 말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기꺼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형제가 서로에게 해주기를 꺼려하는 그
봉사를 주님은 아주 기꺼이 베풀었다는 이 비유에서,
너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좋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 가운데서 지낸
내 삶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너희가 봤으며, 호의적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용기를 갖게 될 너희는 복되다. 그러나
영적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물질 세계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왜 그토록 더디
깨닫느냐?

179:3.9 (1940.1) “오늘 밤에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너희는 서로
발 씻어주기를 거만하게 거절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식탁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툰음이 분명하다. 그런 명예는 바리새인과 이 세상의 자녀들이나 찾는 것이며, 하늘 나라의 대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식탁에는 높고 낮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내 바로 옆자리는, 사람이 높은 자리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늘 나라에서 너희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방의 왕들이 백성에 대해 통치권을 갖는데, 때로는 이 권세자가 은혜 베푸는 이로 불린다는 것을 너희도 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려는 자는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식탁에 앉은 자와 시종드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자가 대개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시종드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뜻을 행함에서 나와 함께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뤄질 천국에서 나와 함께 권능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미래의 영광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179:3.10 (1940.2)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마지막 만찬의 다음 식사 순서를 위해, 알패오 쌍둥이가, 쓴 나물과 말린 과일 조각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4. 배반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179:4.1 (1940.3) 사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주님의 유쾌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곧 대화를 나누게 됐고, 오래지 않아서,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행사에 걸맞은 쾌활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식사가 진행됐다. 시간이 조금 흘러 두 번째 음식 순서가 반쯤 지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너희에게 이미 말했으며, 악한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아들을 죽이기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았고, 내일 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유월절 하루 전날인 오늘, 아무도 모르는 이 방에서 너희와 함께 만찬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지만,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줄 필요가 없었다.”

179:4.2 (1940.4)

열두 사도는 이 말씀을 듣자, 발 씻는 비유와 이어진 주님의 강론 때문에 자기_주장과 자기_신뢰를 이미 모두 잃어버렸으므로, 서로 바라보면서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그게 나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모두 그렇게 질문한 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배신자가 돼야만 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 자의 마음 속에 감춰진 악에서 나오는 당연한 열매다.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는 지적 자존심은 얼마나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쉬운지! 여러 해 동안 내 친구였던 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빵을 먹으면서도, 기꺼이 나를 팔게 될 것인데, 그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

179:4.3 (1940.5)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그들은 모두, "그게 나입니까?"라고 다시 묻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나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빵을 담그면서, 유다를 손으로 가리키며, "네가 말했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예수의 오른 편에 기대고 있던 요한이, 더 가까이 기대면서 주님께 물었다:"그게 누구니까? 맡은 책임에 충실치 않은

것이 드러난 자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고, 내가 빵 조각을 준 그에게도 말했다.” 그러나 주빈이 빵 조각을 왼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일이었으므로, 주님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이것을 눈치 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인식했고, 자기가 배반자임을 형제들이 지금 알게 될까봐 두려워졌다.

179:4.4 (1941.1) 베드로는 그런 대화로 인해 매우 흥분했으며, 식탁에 가까이 기대면서, “그게 누구인지 주님께 여쭙보든지, 이미 말씀하셨으면 누가 배반자인지 내게 말하라”고 요한에게 다그쳐 물었다.

179:4.5 (1941.2)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삭임을 제지하면서 말씀했다:“이런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슬프며, 진리의 능력이 악의 속임수를 이기기를 이 순간까지도 바랬지만, 그런 승리는, 진리를 진지하게 사랑하는 신앙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런 유감스런 일을 너희에게 경고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비시키기 원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음모를 알았고, 나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경고했음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바로 앞에 있는 유혹과 시험에 대비하여, 너희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179:4.6 (1941.3)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유다 쪽으로 기대면서 말씀했다:“네가 그렇게하기로 결심한 것을 행하되 속히 행하라.” 그리고 유다는 이 말씀을 듣자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방을 떠났으며, 마음 속에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다가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서둘러 나가는 것을 본 다른 사도들은, 그가 아직도 돈주머니를 지참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만찬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이 시키는 다른 용무를 위해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79:4.7 (1941.4) 예수께서는 이때, 유다를 배신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그는 열두 명으로 시작했으나--이제는 열 하나만 남았다. 그가 처음 뽑은 사도는 여섯이었고, 유다는 처음_선택된 사도들이 지명한

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주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도
내내 그를 용납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일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구원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179:4.8 (1941.5) 예수께서는 이 만찬에서 부드러운 대화와 온화한
접촉으로 마지막 호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재치 있는 방법으로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정한
마음으로 준다 해도, 사랑이 일단 완전히 식으면, 훈계는
대개 미움을 가중시킬 뿐이며, 완전히 자신만의 이기적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사악한 결심에 불을 붙일
뿐이다.

5. 기념 만찬을 제정하심

179:5.1 (1941.6) "축복의 잔"인 셋째 포도주 잔을 그들이 예수께
가져오자,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잔을 잡고
축복하며 말씀했다:"이 잔을 가져다가 너희 모두 마시도록
하라. 이것은 나를 기념{記念}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섭리시대를 축복하는 잔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진리의 영의 증여와 사역에 대한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 잔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

179:5.2 (1942.1) 깊은 위엄과 완전한 정적{靜寂} 속에서 이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들 모두 직감했다. 전통적인 유월절은, 조상들이 민족 전체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을 기념했으며; 새로운 섭리시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제 주님은 새로운 기념 만찬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이 섭리시대에는 예식과 이기심의 사슬에 매였던 각 사람이 이를 벗어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해방된 신앙 아들들의 형제관계 속에서 친교 하는 영적 환희를 누린다.

179:5.3 (1942.2) 그들이 이 새로운 기념의 잔을 다 마시자, 주님은 빵을 들어 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옆으로 전하라고 지시하면서 말씀했다: “기념하는 이 빵을 가져다가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빵은, 하나의 선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 안에 계시됨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빵이 된다.” 그들은

기념의 빵, 즉 필사적 육체의 형태로 육신화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상징을 먹는 동안, 모두 앉아 있었다.

179:5.4 (1942.3) 이 기념 만찬을 제정하면서, 주님은 늘 하던 대로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다. 주님이 상징을 이용한 것은, 후대의 사람이 정확한 해석을 덧붙이고 자신의 말에 대한 한정적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이어지는 세대에 전통과 교리로 이뤄진 죽은 굴레가 자신의 영적 의미들을 묶어버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정형화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전{全} 생애 사역과 관련하여 유일한 예식 또는 성례{聖禮}를 설립하는 동안, 직접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제언하려고 무척 애썼다. 그는, 정확한 형식을 설립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교류에 대한 각 개인의 개념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형식으로 그 개념을 속박함으로써 신자의 영적 심상{心像}을 제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다시 태어난 사람의 혼이, 새롭고 생생한 영적 자유의 즐거운 날개로 자유로이 날도록 하려고 애썼다.

179:5.5 (1942.4) 새로운 기념 성례를 설립하려는 주님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그를 따랐던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었던 그 마지막 밤에 그가 제시한 단순한 영적 상징성에 대해, 엄밀한 해석을 부여하고, 거의 수학적인 정확성에 버금가는 공식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명확하게 제시됐던 그의 바램이 여러 세기{世紀} 동안 효과적으로 변질되게 하고야 말았다. 예수의 교훈 가운데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전통화_규격화된 것은 없다.

179:5.6 (1942.5) 하나님을_알고 아들을_믿는 사람들이 참여할 때, 신{神}이 현존하신다는 의미에 관하여 사람이 갖는 어떤 미숙한 오해가 있든지, 기념하는 이 만찬이 그 상징성과 관련될 필요는 없는데, 주님은 그런 모든 경우에 *실제로 현존하기* 때문이다. 기념 만찬은 신자와 미가엘의 상징적인 만남이다. 너희가 그렇게 영을 의식하게 되면, 아들은 실제로 현존하며, 그의 영이 아버지의 내주하는 단편{斷片}과 함께 형제처럼 사귄다.

179:5.7 (1942.6) 그들이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께서 계속하여 말씀했다:“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 너희와 함께 살았던 내 일생을 회고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살며

너희를 통해서 계속 봉사한다는 것을 기뻐하라. 너희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두 형제처럼 돼야 한다. 많은 신자 무리를 받아들일 만큼 천국이 확장돼도, 너희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여전히 억제해야만 할 것이다.”

179:5.8 (1943.1)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은 한 친구의 다락방에서 이뤄졌다. 그 만찬이나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신성시되는 형태나 예식으로 신성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기념 만찬은 교회의 허락 없이 제정됐다.

179:5.9 (1943.2) 기념 만찬 제정을 마친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억할 때, 먼저 육체 속에서 지낸 나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내가 한때 너희와 함께 있었음을 회상한 후에, 너희 모두는 언젠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임을, 신앙으로 인식하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유월절인데, 증여됐던 내 생애, 즉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기념하는 것이며;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 즉 모든 육체에게
나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179:5.10 (1943.3) 그리고 그들은 시편 118편을 다함께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기념 만찬 설립과 관련하여, 오래된
유월절을 축하하는 이 예식을 피 흘림 없이 마쳤다.

제180편 작별 강론

180:0.1 (1944.1)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시편을 노래한 후에,
사도들은 예수께서 즉시 야영지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도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주님이 말씀했다:

180:0.2 (1944.2) “내가 돈주머니나 전대{纏帶} 없이 너희를
내보내면서, 심지어 여분의 옷도 갖지 못하게 했던 때를
너희는 잘 기억한다. 그리고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았음이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고난의 시대가
왔다. 너희는 더 이상 대중의 호의{好意}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돈주머니 있는 자는 갖고 다녀라. 너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의 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나는 평화를 주려고 왔지만, 평화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80:0.3 (1944.3) "사람의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이제 왔고, 나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친구들아, 내가 잠깐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곧 나를 찾으려 하겠지만,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 일을 다 마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업무를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겠고, 너희는 나를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겠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천국으로 너희가 올라올 때, 도래할 그 시대에 너희 모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1. 새 계명

180:1.1 (1944.4) 잠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다:"너희가 어떻게 기꺼이 서로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는 비유를 너희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새 계명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너희를 떠나게 된 지금 그것을 주려고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즉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는 계명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의 편에서 진지하게 헌신하는 것에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한다. 나는 너희가 믿음의 형제관계인 천국에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이다.

180:1.2 (1944.5) "나는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 혼에게 어떤 새 짐도 더하지 않으며;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새 기쁨을 주고, 너희 마음이 동료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는 환희를 깨달음으로써 새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슬픔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너희와 너희의 동료 필사자들에게 내 애정을 줌으로써, 최상의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

180:1.3 (1944.6)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권면할 때, 나는 최상의 참된 애정을 너희 앞에 보여줬는데, 사람은 이것보다:즉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친구이며;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기꺼이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히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해줄 것이다.

180:1.4 (1945.1) "너희가 나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동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임명했다. 아버지와 나는 너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거룩하게 충만해지는 기쁨을 체험할 것이다."

180:1.5 (1945.2) 너희가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의
사랑을 나눠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나누다는 것은,
너희가 그의 섬김의 자세를 닮는 것이다. 그런 사랑의
체험이 너희를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지는 않을

것이며;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겠지만,
틀림없이 옛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180:1.6 (1945.3) 명심하라: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충성이다. 희생한다는 의식은, 최상의 기쁨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되는, 마음을 다하는 애정이 없음을 뜻한다. *의무*라는 관념은, 너희가 종의_기질을 가졌음을 뜻하며, 그리하여 너희가 친구로서 봉사하고 친구를 위해 봉사하는 엄청난 감동을 체험하지 못함을 뜻한다.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충동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모든 신념을 초월하며,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으며, 이제 떠나기 전에, 그들을 친구라고 부른다.

2. 포도나무와 가지

180:2.1 (1945.4) 그때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오직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오직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내게서 나온,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열매 맺는 가지마다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말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됐지만, 계속 씻어야만 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 하며;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죽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살아있는 가지라는 것을 명심해라.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사는 자는, 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영적 수확을 얻는 최상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너희가 나와 생생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다면, 나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영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포도나무에 살아있는 많은 가지가 있고, 모든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에 있다. 그리고 열매_맺는 이 가지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내 친구들-
-을 세상이 보게 될 때,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180:2.2 (1945.5)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180:2.3 (1946.1) 유대인은 오랫동안 메시야가 다윗 혈통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줄기”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왔고,
이런 옛 가르침을 기념해서, 헤롯 성전 입구에 큰 포도와
그것이 붙어 있는 포도나무 무늬로 장식했다. 주님이 이날
밤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말씀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이런 것들을 회상했다.

180:2.4 (1946.2) 그러나 기도에 관한 주님의 결론이 잘못
해석되면서, 아주 슬픈 일이 나중에 발생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나중에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이런
교훈에 관한 어려움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이

만들어질 때, 신자들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일종의 최고 마술로 간주하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직한 혼들이, 넘어지게 하는 이 장애물에 부딪쳐서, 수세기 동안 자신의 신앙을 계속 파괴해왔다. 기도는 너희의 방식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계획표, 즉 아버지 뜻을 어떻게 깨닫고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신자들 사회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너희의 뜻이 그의 뜻과 참으로 일치할 때, 너희는 합치된 뜻에 따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응답 받으리라는 사실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치된 뜻은, 포도나무의 생명이 살아있는 가지들 속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흐르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된다.

180:2.5 (1946.3)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사이에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성립할 때, 이기적 편안함을 위하여 그리고 허영심에서 나오는 성취를 위하여, 인성이 여전히 경솔하고 무례하게 기도하더라도, 신의 응답은 오직 하나만 있는데:살아있는 가지의 즐거이에는 증진된 영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을 때, 모든 요청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가능한데: 더 많은 포도가 맺히는 것이다. 사실상, 가지는 오직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존재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영의 열매를 맺는 목적: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다.

180:2.6 (1946.4) 그리고 아버지의 징계의 손이 포도나무에 가해질 때, 그것은 사랑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가지들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현명한 농부는, 오직 죽어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만 잘라버린다.

180:2.7 (1946.5) 영이 지배하는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신자들의 역할이 기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도록 이끌 때에도, 예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 세상의 적대감

180:3.1 (1946.6) 열한 사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설교에 대한 토의를 끝내기도 전에, 주님께서 자기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그들에게 좀 더 말씀하기 원한다는 뜻을 비치며

말씀했다:“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때, 세상의 적대감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연약한_마음의 신자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천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담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의 삶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택함 받은 이 세상에게, 또 다른 세상의 영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항상 기억해라:좋은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들이 나를 핍박했다면, 너희 또한 핍박할 것이다. 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슬렸다면, 너희 말 또한 그들에게 거슬릴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며;그리하여 너희는 내 복음을 위해 많은 일로 수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고난을 견딜 때, 나도 이 하늘 나라 복음을 위해 너희보다 먼저 수난 당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80:3.2 (1947.1) “너희를 공격할 그들 가운데 다수가 하늘의 빛에 무지하지만,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중에 더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비난 받지 않고 여러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은 빛을 알면서도 감히 거절했으니, 자신의 태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른 결과는 있을 수 없는데; 받아들이면 너희를 구원했을 그 빛은, 오직 고의로 거부될 때에만 너희를 책망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격렬한 증오심으로 나를 미워해야 할 만큼 내가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하늘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제안한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성서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180:3.3 (1947.2) “그러나 나는 너희만 외롭게 이 세상에 남겨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간 후에,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영 협조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가운데서 내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에게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180:3.4 (1947.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또한 여전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로부터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듯이, 아버지의 우주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에 대해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 빛의 세계들로, 즉 아버지의 하늘에 있는 여러 정류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도 장차 그리로 올라올 것이다. 나는 그곳들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저 위에 있는 그 구체들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180:3.5 (1947.4) “내가 그렇게 너희보다 먼저 아버지의 하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된 필사자를 위해 준비된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르러 보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하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더 큰 우주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로 가려는 것처럼, 너희가 내 우주에서 내게로 올라올 때, 너희는 결국 실제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참되며 영원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비록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나를 따라올 것이다.”

180:3.6 (1947.5) 예수께서 자리에 앉자, 도마가 일어나서 말했다:“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바로 오늘 밤에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180:3.7 (1947.6) 도마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대답했다:“도마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나를 발견한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았고 지금 나를 보기 때문이다.”

180:3.8 (1947.7) 그러나 이 가르침은, 여러 사도, 특히 빌립에게는 너무 어려웠으며, 그가 나다니엘과 몇 마디 이야기한 후에 일어나서 말했다:“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180:3.9 (1947.8)

그리고 빌립이 말을 마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빌립아, 내가 그토록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너는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했고, 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며, 내가 다 이뤘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할 때, 나를 믿으라, 아니면 내가 산 바로 그 생애를 인해--곧 행한 일로 인해-- 나를 믿으라.”

180:3.10 (1948.1)

주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 옆으로 가자, 열한 사도는 이 교훈에 대해 열을 내어 토론했으며, 예수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4. 약속된 협조자

예수께서 계속 가르쳤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을 그가 완전히 용납하신 후에, 그리고 내 영역에 대한 최종 주권을 수여 받은 후에, 나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다른 선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모든 육체에 진리의 영을 쏟아 부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며, 그날이 되면,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소유하듯이, 나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선물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이다. 불신자가 처음에는 이 영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하겠지만, 빛의 자녀는 모두 그를 기쁘게 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가 올 때 너희는 이 영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선물을 너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일 것이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아무 도움과 인도함 없이 너희를 남겨둔 것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외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내가 오직 실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다가오는 시절에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 내가 너희 각자와 동시에, 즉 너희뿐만 아니라 내

현존을 바라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한데;영 속에서 더 훌륭하고 완전하게 너희와 함께 하려고,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180:4.2 (1948.3) “몇 시간 후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이 새로운 선생, 즉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너희는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알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몸소 너희와 함께 살았지만, 그때에는 너희 안에 살 것이며;영 나라에서 내가 너희의 개인 체험을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감춰져 있으면서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의 말씀을 지켰으며;너희는 나를 사랑했고, 또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자기 영을 내게 주신 것 같이, 나도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증여할 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안내하고 위로할 것이며, 결국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180:4.3 (1948.4)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새 날이 오면, 너희에게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이 내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는 이 선물은, 아버지와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한 인격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일했던 것처럼 서로 하나가 돼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이 영 친구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180:4.4 (1948.5)

주님이 잠시 말씀을 멈추자, 유다 알패오는 자신과 형제가 예수께 공개적으로 말한 매우 적은 질문 가운데 하나를 이때 대답하게 질문했다. 유다가 말했다:“주님, 당신은 항상 친구처럼 우리와 함께 지내셨는데;이 영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지요?”

180:4.5 (1949.1)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내려다보고 미소 지으며 말씀했다: “애들아, 나는 이제 떠나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는 나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 물질적 몸을 제외하고는 나와 똑같은 것이다. 새로 오는 이 선생은 너희 각자와 함께 너희 마음 속에서 살게 될 진리의 영이며, 빛의 자녀는 하나가 되고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나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 각자의 혼 속에서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체험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180:4.6 (1949.2) 유다 알패오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선생에 대한 약속을 파악했으며, 자신의 질문이 만족한 답변을 얻었음을 안드레의 얼굴 표정에서 눈치 챘다.

5. 진리의 영

180:5.1 (1949.3) 예수께서 신자들의 마음 속으로 보내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협조자는 *진리의*

영이다. 이 신성한 자질은 진리를 기록한 글이나 법칙이 아니고, 진리의 형식이나 표현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선생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요, 진정한 영 수준에서 참된 의미를 의식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선생은, 살아있고 성장하는 진리, 즉 확장하고, 드러내고, 융통성 있는 진리의 영이다.

180:5.2 (1949.4) 신성한 진리는 영으로 식별되며 살아있는 실체다. 진리는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류함을 인식하는 높은 수준에서만 존재한다.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실행할 수도 있으며; 혼 속에서 진리가 자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정신 속에서 그것을 밝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공식, 규약, 신조, 또는 인간 행위라는 지적 양식{樣式} 속에 진리를 가둬 둘 수는 없다. 너희가 신성한 진리를 인간적으로 공식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은 신속히 죽어간다. 감금된 진리가 죽어버린 후에 구출해봤자, 기껏해야, 결국 지적으로 분석된 미화된 지혜라는 괴상한 형태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정지된 진리는 죽은 진리이며, 죽은 진리는 오직 이론으로만 지탱될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 역동적이며, 인간 정신 속에서 체험으로만 실존할 수 있다.

180:5.3 (1949.5)

지성은, 시공우주 정신이 현존함으로써 명확해지는 물질 실존으로부터 생겨난다. 지혜는, 새로운 의미 수준으로 향상된, 그리고 지혜 보조체라는 우주 재능이 현존함으로써 활성화된 지식에 대한 의식{意識}을 포함한다. 진리는 오직 영을_부여받은 존재들만 체험하는 영적인 실체 가치인데, 그 존재들은 우주 인식의 초{超}물질 수준에서 작용하며,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활성화된 영이 그들의 혼 속에 거하고 지배하도록 허락한다.

180:5.4 (1949.6)

우주를 통찰함으로 태어난 참 제자는, 모든 지혜로운 말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의 영을 찾는다. 하나님을 아는 각 개인은, 신성하게 성취되는 살아있는_진리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꾸준히 향상시키며;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혼은, 죽은 지혜 수준으로, 그리고 단지 고양된 지식 영역으로, 살아있는 진리를 항상 끌어내린다.

180:5.5 (1949.7)

진리의 영이라는 초인적 통찰력이 제거될 때, 황금률은 고상한 도덕적 행실의 규율에 지나지 않게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황금률은 자기 동료들 크게

적대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황금률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완전하고 솔직한 진실을 너희에게 이야기 해주기를 너희가 원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동료에게 솔직히 이야기해야만 한다. 황금률에 대한 그런 영적이지 못한 해석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불행과 끝없는 비애를 낳을지도 모른다.

180:5.6 (1950.1)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형제라는 것을 순전히 지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라도 되는 듯이 황금률을 판별하고 해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인격체에 대한 미숙한 감각을 감정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서, 이 인간 관계의 표현을 체험한다. 다른 필사자들은, 동일한 이 황금률을, 모든 사회관계를 재는 잣대, 즉 사회적 행위에 대한 표준으로 여긴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모든 형제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도덕적 책무 개념을 이 문구에 구체적으로 표현했던, 어느 위대한 도덕 선생에게서 나온 긍정적 훈령으로 간주한다. 그런 도덕적 존재들의 생애에서, 황금률은 그들의 모든 철학의 현명한 핵심과 경계선이 된다.

180:5.7 (1950.2) 하나님을_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신자{信者}

단체인 천국에서, 이 황금률은 더 높은 수준에서 해석할 때 영적으로 실현되는 활기찬 특성을 띠는데,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필사 아들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명령이, 신자가 그들과 접촉한 결과로서 그 동료들이 가능한 최대의 유익을 얻는 방법으로 동료들과 사귀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게 만든다. 참 종교의 본질은: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180:5.8 (1950.3) 그러나 황금률에 대한 가장 고상한 실현과 가장

진실한 해석은, 그런 신성한 선언으로 말미암는, 영속적이고 생생한 실체인 진리의 영을 의식{意識}하는 것에 있다. 이런 보편적 관계의 법칙이 갖는 참된 시공우주 의미는, 오직 그 영적 실현에서, 즉 필사적 사람의 혼에 내주하는 아버지의 영에게 아들의 영이 진행 원칙을 해석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영으로 인도되는 그런 필사자들이 이 황금률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친근한 우주에서 시민이 됐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며, 영적 실체에 대한 그들의 이상{理想}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이 동료들 사랑할 때 충족될

것이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의 실체다.

180:5.9 (1950.4) 하나님의 아들마다, 개인의 필요조건과 수용력에 따라서 신성한 진리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시공우주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철학을 먼저 감지해야만, 주님이 악에 대한 무저항을 가르치고 실천한 것에 대해 너희가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다. 주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영적 선언이다. 그의 철학에서 물질적으로 암시하는 것들이라도, 그 영적 상관관계를 떠나서는 고려될 수 없다. 주님이 내린 명령의 정신은, 우주에 대해 온갖 이기적 반응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있으며, 동시에 참된 영적 가치:즉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그리고 영원한 진리--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점점 그를 닮아가는 것--의 올바른 수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달성함에 있다.

180:5.10 (1950.5) 사랑, 즉 애타심{愛他心}은, 진리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관계를 건설하고 생생하게 다시 적응시키는 판단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랑은, 사랑 받는 각 개인이 시공우주에서 얻는 가장 고상한 유익에 대해 항상

변화하고 확대되는 개념을 파악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더 나아가서, 영의 인도를 받는 한 필사자가 우주의 다른 시민을 사랑하는 성장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혹시 영향 받을 수도 있는 모든 다른 각 사람에 대해, 바로 이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현존하는 악으로 둘러싸인 환경과, 신성한 운명의 완성이라는 영원한 목표 양쪽 관점에서, 이런 활기찬 사랑의 적응 전체가 이뤄져야만 한다.

180:5.11 (1950.6)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률도 무저항에 대한 가르침도 교리나 교훈으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 그것들은 오직 실천함으로써만, 진리의 영이 실천함으로써 해석하는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만 그것들을 납득할 수 있으며, 그 진리의 영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지시한다.

180:5.12 (1951.1)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옛 종교와 새 종교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가리킨다. 옛 종교는 자기_희생을 가르쳤고; 새 종교는 오직 사회 봉사와 우주에 대한 납득이 통합되어, 자기_망각, 즉 증진된 자아_실현을 가르친다. 옛

종교는 두려움을_의식함으로써 자극받았으며;새로운 천국 복음은, 진리의_확신, 즉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기질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자들의 인생 체험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_태어난 아들의 특징인 자발적이고 관대하며 진지한 우정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경건하거나 신조에 충성을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또한 전통 또는 형식적 경배의 예식 체계도, 동료에 대한 참된 연민의 정의 결여를 보상할 수 없다.

6. 떠나야 할 필요성

180:6.1 (1951.2)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마태가 주님께 여러 질문을 한 후에, 주님은 작별 강론을 계속하면서 말씀했다:“내가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은, 곧 너희에게 닥칠 일에 너희가 미리 대비해서, 심각한 실책을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권세자들은 다만 너희를 회당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너희에게 경고하겠는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하늘 나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기를 거절했으며;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새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면, 그들이 너희를 거부할 때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에 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나의 때가 지금 이른 것 같이 너희 때가 이르게 될 경우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과, 내 영이 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난당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토록 분명히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였다. 대적하는 자가 바로 자기 집 식구 중에 있다고, 너희에게 누차 경고했다. 비록 천국의 이 복음이 신자 각 개인의 혼에 반드시 큰 평화를 가져올지라도, 인류가 전심으로 내 가르침을 기꺼이 믿을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관례를 기꺼이 필사 인생을 살아가는 주요 목적으로 확립할 때까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180:6.2 (1951.3)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됐고,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음을 보면서, '왜 우리를 떠납니까?'라고, 너희 가운데 아무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가 그런 질문을 마음 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새로운 선생이 너희 마음 속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필사의 몸을 잃을 것이며, 내가 이 영 선생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혼 속에서 살고 너희 영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 전에, 높은 곳에 있는 내 거처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러 오면, 죄와 의의 차이점을 밝혀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에 관해 마음 속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80:6.3 (1951.4)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우주에서 여러 거주지를 지나가는 동안에, 결국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180:6.4 (1951.5) “이 영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앞으로 될 일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영은 내게서 나갈 것이고, 내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는 이 영역 속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며;그러므로 새로운 이 선생이 내 것을 맡아서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180:6.5 (1952.1) “나는 아주 잠시 동안만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나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며, 그 후에는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80:6.6 (1952.2) 그가 잠시 말을 멈추는 동안,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했다:“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주 잠시 동안만 너희를 떠날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돼도 그것은 얼마 동안뿐일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잠시 동안’이라는 것과 ‘얼마 동안뿐’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180:6.7 (1952.3)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알고 말씀했다:“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됐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도중에 있을 것이라는 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너희끼리 물어보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부활하게 되리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나중에는 이 일이 이뤄진 후에 그것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산통으로 괴로워하겠지만, 일단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고 기뻐하여 고통을 곧 잊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슬퍼하게 되겠지만, 내가 곧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너희에게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바로 이 생명의 계시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모든 간구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난 후로는, 내 이름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180:6.8 (1952.4) "나는 여기 땅에서 너희에게 격언으로 가르쳤고

비유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오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었으나;아버지와 그의 나라에
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함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필사적 사람은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며;그러므로,
피조된 너희의 눈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너희가 영 성장에서 완전하게 되면,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180:6.9 (1952.5) 그의 말씀을 들은 열한 사도가 서로 말했다:“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째서 주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는 그들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 열한 사도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개념에 오래 젖어 왔던 자신들의
관념에서 떠날 수 없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땅에 있는 나라가 영광스런 물질적
승리를 성취한다는, 깊이_뿌리박힌 천국 관념이 점점 더
많은 폐단을 낳게 됐다.

제181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181:0.1 (1953.1)

열한 사도에게 작별 강론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전체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가졌던 체험을 말씀했다. 친구인 선생이 그들을 떠나려 한다는 생각이, 마침내 이 갈릴리인들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자신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에 희망을 걸었지만, 이런 재회{再會} 또한 잠시뿐임을 쉽게 잊어버렸다. 사도와 수제자 가운데 다수는, 잠시 동안 (부활과 승천 사이의 짧은 기간)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잠깐 떠나 있다가, 그 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돌아오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해석은, 그들의 선입관에 따른 믿음과 열렬한 희망이 합쳐진 결과였다. 일생 동안 소유했던 그들의 믿음과 소원 성취의 소망이 그렇게 어우러졌으므로, 강렬한 기대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기는, 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81:0.2 (1953.2)

작별 강론이 토의된 후, 그리고 그들의 정신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다시 조용히 시키고, 최종 훈계와 경고를 전하기 시작했다.

1. 마지막 위로의 말씀

181:1.1 (1953.3) 열한 사도가 자리에 앉은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육체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 가운데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필사 본성의 껍데기에서 해방되고 나면,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는 다른 모든 신자 각자에게, 영 내주자{內住者}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모든 참된 신자의 혼 속에 영적 현현{顯現}을 이루게 된다.

181:1.2 (1953.4) “내가 너희 속에 살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 돌아오면, 너희를 이 생애 동안 더 잘 인도할 수 있고, 또한 가장 높은 하늘에서 미래의 생애에 여러 거주지를 거치는 동안, 너희를 더 잘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계에서 사는 것은, 나태함과 이기적 편안함 속에서 영원히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진리, 및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각 장소는, 일종의 정류장, 즉 다음 단계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도록 고안된 생애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는, 신성한 신분을 달성할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데, 거기서는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온전하게 돼간다.

181:1.3 (1953.5) “내가 너희를 떠났을 때 너희가 나를 좇아오려거든, 내 교훈의 참뜻대로,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이상{理想}대로 살려고--곧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도록 해라. 이것을 하되,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육신 속에서의 내 평상시 생활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181:1.4 (1954.1)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겨우 너희 몇 사람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선택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신에 부어주게 되겠지만, 혼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이 새 선생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화되고 정화{淨化}될 것이며 위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그들 안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우물이 될 것이다.

181:1.5 (1954.2)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서, 위로의 말을 주려고 한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으며;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이 선물은 세상이 --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내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승리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깐 동안이나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후에는, 반드시 새 선생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고, 바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을 보거든,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믿으라. 나는 너희를 깊은 애정으로 사랑했으며,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떠나는 것은 아버지 뜻이다. 내 때가 왔다.

181:1.6 (1954.3)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널리 흩어지고 많은 슬픔으로 낙심한 후에도, 이 진리 가운데 하나도 의심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을 적의 손에 남겨둔 채 각 사람이 자기 처소로 흩어질 때, 내 고독함을 알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이 너희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내가 너희의 고독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으며;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도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평안하고 더 풍성하게 평안하리라는 것을 말해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겠으나, 기뻐하라;내가 세상에서 승리했고, 영원한 기쁨과 영구적 섬김에 이르는 길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181:1.7 (1954.4) 예수께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동료 일꾼들에게, 이 물질 세계의 기쁨이나 만족 같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 믿지 않는 유물론자와 운명론자는, 오직 두 가지 평화와 혼의 안락을 누리하고자 할 수 있는데:필연적인 일에 맞서고 최악의 경우를 견디기로 결정한 확고한 결심으로 금욕주의자가 되든지;아니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영구히 솟아나는 희망, 즉 결코 실현되지 못할 평화를 헛되이 고대하는 일에 계속 빠져있는 낙천주의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다.

181:1.8 (1954.5)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와 낙천주의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속에 있는 형제에게 주는 최고의 평화와는 아무 상관없다. 미가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녀에게 주는 평안은,

그가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필사자 생애를 직접 살았을 때 자기 혼 속에 가득했던, 바로 그 평안이다. 예수의 평안은, 육신 속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움으로 승리를 획득한, 하나님을 아는 각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다. 예수의 정신이 누린 평안은, 신성한 아버지의 현명하고 인정어린 돌보심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절대 인간 신앙 위에 세워졌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고생했고, “비탄의 사람”이라는 잘못된 명칭을 얻기까지 했지만, 이 모든 체험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 뜻을 성취하고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일생의 목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늘 능력을 부여했던, 그런 확신으로 위로받았다.

181:1.9 (1954.6)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 완수에 단호했고 불변했으며 완전히 헌신적이었지만, 무감각하고 냉담한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인생 체험에서 유쾌한 면을 항상 추구했지만, 눈멀고 자기 기만적인 낙천주의자가 아니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알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평안을 추종자들 각자에게 수여한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시종일관 말씀할 수 있었다.

181:1.10 (1955.1) 게다가 예수의 평안은,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자신의 생애가, 온전히_지혜롭고, 온전히_사랑하고, 온전히_강력한 영 아버지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안전하게 전면적으로 받고 있음을 완벽하게 믿는 아들이 갖는 평안과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필사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평화이지만, 믿는 인간의 마음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평화다.

2. 개인적인 작별 인사와 훈계

181:2.1 (1955.2) 주님은 사도들에게 한 집단으로서 작별 지침을 주면서 마지막 훈계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별의 축복과 함께, 각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인적인 충고의 말씀을 각자에게 주기 위해 말씀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마지막 만찬에 참여할 때 처음 자리 잡았던 그대로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주님이 식탁을 돌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으며, 각 사람은 예수께서 앞에 와서 말씀하는 동안 일어서 있었다.

181:2.2 (1955.3)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다:“요한아, 너는 내 막내 동생이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항상

내 곁에 있도록 한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너를 안드레가 지명했었다. 그 외에도, 너는 나를 위해 활동했고, 나의 이 세상 가족과 관련된 많은 일에서도 그런 수고를 계속해줘야겠다. 요한아 내가 아버지께 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게 속한 사람을 네가 계속 돌보리라고 온전히 확신한다. 내가 육신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사명에 대해 그들이 지금 혼돈하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모든 호의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 빛을 보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터인데, 요한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들을 환영하리라고 믿는다.

181:2.3 (1955.4) “또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이를 때, 내 가족에게 전할 말을 부탁할 수 있도록, 너는 내 곁에 있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육신으로 죽는 것 외에는 다 완성했고,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됐다.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내게 남긴 책임에 관해서는, 내가 사는 동안 이 일에 동참했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요한아,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도록 너를 택한 것은,

네가 제일 젊고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81:2.4 (1955.5) “우리는 한때 너와 네 형제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네가 우리와 함께 일을 시작했을 때 너는 과격하고 옹졸했지만, 무지하고 경솔한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불을 내리게 하라고 내게 원했던 이후로 많이 변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더 많이 변해야겠다. 너는 내가 오늘 밤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의 사도가 돼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 가르치는 일에 네 평생을 바쳐라.”

181:2.5 (1955.6) 요한 세베대가 다락방에서 서 있을 때,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하면 내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네가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먼저 배우게 되고, 그 후에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행복에 진실로 더 관심을 갖게 되면, 네 형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인간적 관심은, 호의, 이타적 섬김, 그리고 아낌없는

용서를 이해함으로써 촉진된다. 네가 젊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경우에 나이가 체험을 대변하므로, 인간적인 어떤 일로도 실제적인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네가 항상 정당한 경외심을 갖기를 권한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쓰되, 특히 하늘 나라의 형제관계를 맺은 네 친구들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요한아, 천국을 위해 네가 얻고자 하는 혼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항상 명심해라.”

181:2.6 (1956.1)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를 지나가면서, 주님은 가롯 유다가 앉았던 자리 옆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배반자의 빈자리 옆에 서있는 동안 예수께서 짓는 슬픈 표정의 의미를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일찍 만찬을 먹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암시를 줬지만, 그들의 회계원이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갔음을 아마 안드레는 알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도들은 모두 꿈도 꾸지 못했다. 매우 많은 일이 진행됐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181:2.7 (1956.2) 예수께서는 열심당 시몬에게로 갔고, 그는 일어서서 훈계를 들었다:“너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너를 이 하늘 나라의 자녀로 삼기 위해 내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 모든 형제도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천국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너는 아직도 네가 바라는 대로 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집착한다. 네가 결국에는 영적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영웅적인 업적을 행하게 될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난 후에 네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슬퍼한다.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면 내가 기뻐할 것이며;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내가 준 사도직을 네가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 나라의 대사로서 기꺼이 처신할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181:2.8 (1956.3) 예수께서는, 불같은 성격의 애국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을 때, 애써 말씀을 멈췄다:“주님, 내 충성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실망도 견뎌 냈고, 당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81:2.9 (1956.4)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힘이 솟아나지만, 착한 친구여,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전히 모른다. 나는 네 충성심과 헌신을 한 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으며;다른 사도들처럼 너도 나를 위해 서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각오가 돼있음을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확실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 제자들이 싸우지 않으리라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다. 시몬아,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너는 그 진리를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나와 천국에 대한 네 충성심에 대해서는 내가 우려하지 않지만, 내가 떠난 후 네가 내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실패했다는 것과, 천국에서 또 다른 영적 체제 업무를 다루는 현실에 너의 잘못된 생각을 적응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면 네가 어찌하려느냐?”

181:2.10 (1956.5) 시몬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께서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씀을 계속했다: “사도들 중에서 마음으로 너보다 더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떠난 후에는 너보다 더 당황하고 낙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네가 용기를 잃은 상태에서도 내 영은 네 안에 거할 것이며, 네 형제들도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갖는 시민신분과 아버지의 영적 나라에서 갖는 아들신분의 관계에 대해 내가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모두 깊이 새겨라. 시몬아, 세상 권세에 대한 일시적 의무를 인식하는 동시에, 천국 형제관계에서 영적 봉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내 훈계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에 네 인생을 바치기 바란다. 네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세상 통치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충성과 경배를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이 세상 시민신분의 의무와 하늘에서 아들신분의 의무 사이에 충돌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181:2.11 (1957.1) “시몬아, 그리고 이제, 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을 떨쳐버린 후에 이 복음을 큰

능력으로 전파하게 될 때, 네가 낙심하는 동안에도 내가 항상 함께 했으며,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나 내 사도일 것이며, 네가 자진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네 뜻을 더 완전히 복종시킨 후에야, 너는 내 대사로서 수고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네가 더디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내가 네게 부여한 권세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몬아, 내가 한 번 더 네게 경고하겠는데,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하지만, 영으로 수고하는 자는, 지금 있는 천국에서 평안 및 기쁨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도래할 천국에서는 영생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네 손에 맡겨진 일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 시몬, 너는 저곳에 있는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바라던,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을 정말로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변함없이 믿고, 내가 너에게 계시한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181:2,12 (1957.2) 열심당 시몬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는 레위 마태에게로 걸어가서 말씀했다:“사도회{使徒會}의 재정 총당을 위해 더 이상 수고하지 말아라. 곧, 매우 곧,

너희가 모두 흩어질 것이며;심지어 네 형제들 가운데 겨우 한 사람까지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제를 너와 나누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때, 너는 스스로 새로운 동역자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던 동안에는 둘 씩 짝지어 보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네가 충격에서 회복되고 나면, 너는 이 복음:즉 신앙으로_다시 태어난 필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세상 끝까지 혼자서 가게 될 것이다.

181:2.13 (1957.3)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그러지만 주님, 누가 우리를 보낼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드레가 그 길을 제시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레위야, 그렇지 않다. 안드레는 복음 전파에서 더 이상 너희를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선생이 오는 날까지, 정말로 네 친구로서 그리고 인도자로서 그가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도록 진리의 영이 너희 각자를 멀리까지 안내할 것이다. 네가 세관에서 나를 처음 따랐던 날 이후로 네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이방인과 유대인이 우애 있게 같이 지내는 형제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더 많은 변화가 네게 있어야 할 것이다. 네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네 유대인 형제들 설득하기에 열심을 다 한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힘차게 돌아서라. 레위야, 네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네가 형제들의 신뢰와 애정을 얻었다는 것이며;그들은 모두 너를 사랑한다.” (열 명의 사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다.)

181:2.14 (1958.1) “레위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네 형제들 모르게 했던 네 염려와 희생과 수고를 나는 잘 알며,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그가 이곳에 없지만, 세리장이었던 네가, 여기서 천국 사자들과 함께 내 작별식에 참여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나는 네가 영의 눈으로 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란다. 새로운 선생이 네 마음 속으로 들어오면,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 그리고 대담하게 사람의 아들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을 믿었던 미움 받은 세금 징수원을 위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네 형제들이 -- 심지어 온 세상도-- 볼 수 있게 해 줘라. 레위야, 내가 다른 갈릴리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 아버지도 아들도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네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 마태 너는 앞으로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봉사하며;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의 교제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도록 해라.”

181:2.15 (1958.2)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묵묵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야고보 세베대에게로 걸어가서 말씀했다:“야고보야, 언젠가 너와 네 동생이 내게 와서 천국의 특전으로 높은 자리를 구했을 때, 내가 그런 명예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너희 둘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네가 그때에는 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체험을 통해서 곧 그런 수고에 준비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런 습성 때문에 네가 형제들을 화나게 했었다. 그들이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사역하는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너는 끝까지 참아라. 새 선생이 오면,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그에게서 배우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함과 나를 확고히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동정하는 아량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믿는

제자의 인간적 애정과 함께 신성한 위엄을 나타내는 일에, 네 생명을 바치도록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복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너와 네 동생 요한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며,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는 행동의 자유뿐 아니라 용기도 포함한다는 것을 배운다면 네게 도움 될 것이다. 너는 네 공격적인 태도에 맞춰 현명함도 배워야만 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제자들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칠 장엄한 순간이 도래하겠지만, 평범한 상황에서는,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네 힘이 닿는 한,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남아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혼들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라.”

181:2.16 (1958.3)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은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 쪽으로 걸어갔고, 충실한 협조자의 눈을 보면서 말씀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 나라의 대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하면서 나를 충실히 대변했다. 네가 비록 어떤 경우에는 의심했고, 또 어떤

때에는 위험할 만큼 소심하기도 했지만, 너는 동역자들을 대하면서 여전히 항상 진실로 옳게 행동했고 탁월한 공정성을 보여줬다. 너와 네 형제가 천국 사자로 임명받은 후에, 내가 너를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임시 우두머리로 지명한 것 외에는, 집단의 경영상 모든 문제에서 네가 자치적으로 움직여왔다.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네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체 의논을 네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내 우주에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갖 우주에서, 우리 형제_아들들은 모든 영적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취급되지만, 모든 집단 관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명확한 지도자를 임명한다. 우리 나라는 질서 있는 영역이며, 둘 이상의 의지 피조물이 협동해서 활동하며, 거기에는 항상 권위 있는 지도자가 임명된다.

181:2.17 (1959.1) “그리고 안드레야, 지금은 내가 임명한 권위로 네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나를 직접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내가 곧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갈 것이므로, 이런 임시 경영 직무에 관계된 모든 책임에서 너를 풀어준다. 지금부터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획득한 것 이외에는, 형제들에 대해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네 형제들은 너에 대해 임의대로 판단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그들의 명확한 입법 조치로 네게 그 권한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후로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의 경영상 우두머리로서의 책임에서 면해 준 사실이, 곧 닥쳐올 시련의 기간, 즉 내가 육신에서 떠날 때부터, 너희의 마음 속에 거하게 되고, 결국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새 선생을 보내는 때까지의 기간에, 견고하고 사랑스런 손으로 네 형제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너의 도덕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도 경감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날 준비가 됐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시작되고 권한을 부여받았던, 모든 경영상 책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오직 영적 권세만 행사할 것이다.

181:2.18 (1959.2) "네 형제들이 네게 계속 그들의 지도자가 돼주기 원한다면, 내가 명하는데, 모든 현세적 및 영적 문제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믿는 여러 종류의 무리 사이에 평화와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너의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우애 있게 사랑하는 실제 모습을 증진시키기에, 너의 여생을 바쳐라.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믿게 될 때,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서방에 있는 그리스인과 동방에 있는 아브넬에게, 충실하고 공명정대한 애정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여기 있는 내 사도들이 곧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속히 다가올 시련의 기간에 너는 그들을 결속시켜야 하며, 그 격렬한 시험 기간에, 너는 새 선생인 진리의 영의 도래를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내가 몸소 함께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믿기를 배워야만 한다. 그러니 안드레야,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업무가 네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과 조연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거라.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네 업무를 계속하고, 그 후에는 네가 이 사역을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많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알패오 쌍둥이에게 다가가서, 둘 사이에 선 후에 말씀했다: “애들아, 너희는 형제가 나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세 무리 가운데 하나다. 그 여섯 명 모두 육신으로 평화롭게 잘 일했지만, 너희보다 더 잘한 사람은 없다. 어려운 때가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 너희는 너희와 형제들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너희가 한때 천국의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라. 대중을 다뤄야 할 일이 당분간 없겠지만, 낙담하지 말며; 너희가 필생과업을 마쳤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높은 곳으로 영접하겠고, 너희는 거기서 자신의 구원을 스랍 무리와 여러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고할 것이다. 평범한 것을 향상시키는 일에 너희의 일생을 바치도록 해라.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봉사를 위한 일에 얼마 동안 종사한 후, 얼마나 기쁘고 용기 있게 이전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보여줘라. 천국의 외형적 직무에 대한 당분간의 너희 역할이 완료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신분을 체험한 새로운 깨우침을 지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평범한 노동과 세속적인 수고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상하게

깨달으면서,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했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됐으며,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봉사가 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전에 너희와 함께 사도였던 동역자들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듣거든,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너희의 일상 업무를 계속해라. 너희는 내 사도였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며, 천국에 들어오는 너희를 내가 알아볼 것이다.”

181:2,20 (1960.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갔고, 그는 선택으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빌립아, 너는 내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대답했으며, 이제 아주 정직하기는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네 정신 속에 일어난, 그런 질문들 중에서 최종적인 것에 대해 대답해주려 한다.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떠나고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너는 마음 속으로 항상 질문하곤 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너도 이미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갖춰졌다. 빌립아, 너는 훌륭한 사무장이었다. 네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몇 번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사용되기도 했다. 너의 공식 사무장 역할은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소명 받은 그 일에--곧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이다. 빌립아, 너는 항상 뭔가 보기를 원했는데, 네가 곧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물질적인 안목에서도 진실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내 말이 이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영적 선견{先見}의 복을 받게 되면, 네 일에 매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물질적인 정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영원한 실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적에, 네 인생을 바치기 바란다. 빌립아, 이 세상에는 네가 보여줬던 경향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가득하니, 이 땅에서 네 사명이 막중함을 잊지 말아라. 네가 큰 일을 감당해야하며, 그것이 신앙으로 완성된 후에, 내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었고 귀로 들을 수 없었으며 필사 정신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네게 보여주면서, 나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동안, 너는 영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내가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너를 앞쪽으로

인도하도록 나를 용납해라. 이렇게 하여, 내가 세상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있을 때 이룰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너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181:2.21 (1960.2)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갔다.
나다니엘이 일어나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의 옆에 앉아서 말씀했다:“나다니엘아,
너는 내 사도가 된 후에 더 아량을 베푸는 법과 편견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네가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다. 너의 변함없는 성실성으로 인해 동료들이 항상
깨우치게 되는 복이 네게 있었다. 내가 떠난 후에, 너의
솔직함은, 새 형제 및 옛 형제들과 함께 사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지적 상태와 영적
성장에 맞도록 조정해야 함을 너는 배워야만 한다.
성실성은 분별력과 합쳐질 때 천국의 일에서 가장
유용하다.

181:2.22 (1961.1) “네가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운다면, 더
영구적인 것을 이룰 수 있겠지만, 너와 똑같이 생각하는

형제를 찾으려고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제자가 이 세상에 혼자 있으면서 동료 신자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을 때에도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네 일생을 바쳐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끝까지 신실할 것을 알며, 저 높은 곳에 있는 내 나라의 더 확대된 봉사에, 언젠가 너를 초대할 것이다.”

181:2.23 (1961.2) 그러자 나다니엘이 예수께 질문했다:“나는 당신께서 이 천국 봉사에 나를 처음 불러주신 때부터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없으며, 다른 형제들도 대개 똑같이 당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말씀했다:“친구여, 네가 영적인 내 교훈의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네가 유대인의 전통 선입견으로 인해 너무 방해받기 때문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에 맞춰서 내 복음을 해석하려는, 너의 고집스런 태도로 인해 너무 혼동됐기 때문이다.

181:2.24 (1961.3)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너희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왔다. 너희의 정신을 개화시키고 너희의 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내 교훈과 내 생애를 통해서도 너희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모든 선생들의 스승--곧 실제 체험--의 손으로 획득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너를 기다리는 이 모든 새로운 체험에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것이며,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한 그것을, 새 선생이 오면, 이 땅에서 너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대들에서 너를 훈련시킴으로써, 그가 네게 알려줄 것이다.”

181:2.25 (1961.4)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 모두를 보면서 말씀했다: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에 당황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유한한 존재인 필사적 사람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은, 무한하고 신성하며 영원하다. 낙원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점차 계속 달성해 가는, 영원한 시대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끝까지 담대하고 인내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갔으며, 그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도마야, 너는 종종 신앙이 부족했으나; 아무튼, 네가 의심에 사로잡히는 동안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와 가짜 선생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새 교훈을 바라보는 너의 비평 방식을 네 형제들이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모두가 땅 끝까지 흠어지게 될 때, 너는 여전히 내 대사임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삶에서 영의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영으로 태어난 남녀의 체험 속에서 활기찬 진리가 작용하는데, 그런 진리가 현시화{顯示化}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의 비판적인 물질 정신이, 지적으로 의심하는 타성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도마야, 네가 우리와 합세했던 것을 내가 기뻐하며, 잠시 동안 당황한 후에 천국 봉사를 계속하게 될 것을 안다. 너의 의심이 형제들을 난처하게 했지만,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신뢰하며, 내가 땅 끝까지라도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갔고,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동안 서 있었다:“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천국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일에 네 인생을 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네가 여러 해 동안 나와 그토록 가까이 교제했음에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무슨 체험을 해야, 네 입술을 지키는 방법을 네가 배우게 되겠느냐? 너의 경솔한 말과 뻔뻔스런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이 약점을 고치지 못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허물에도, 형제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이 단점이 어떤 방법으로도 너에 대한 내 애정을 경감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네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네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바로 오늘밤에 겪을 체험에서 반드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 모여 있는 네 모든 형제에게도 똑같이 말한다:오늘 밤에 너희 모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목자가 죽임 당하고 양들이 멀리

흘어질 것이라'고 씌어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없을 때, 너희 가운데 더러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의심에 사로잡히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와 약속하겠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잠시 동안 돌아올 것이고, 그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181:2.28 (1962.3)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당신으로 인해 내 형제들이 모두 의심에 사로잡힐지라도, 나만은 당신이 하시는 어떤 것으로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181:2.29 (1962.4) 베드로는 격앙된 감정으로 떨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서있었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예수께서 말씀했다:“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겠는데,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서너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나와 나눈 평화로운 교제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심한 고난과 깊은 비애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네게 꼭 필요한 이 교훈을 참되게 배우고 난 후에는, 비록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지라도, 그리고 혹시,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면서 사랑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값을 지불하는 일에 나를 따르게 될지라도, 네 형제들을
격려해야 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친 네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이다.

181:2.30 (1962.5) “그러나 내 약속을 잊지 말아라:내가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시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겪어야만 할 일에 대해,
너희 각자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밤에도
아버지께 간청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81:2.31 (1962.6)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른 후에, 그들은 감람산에
있는 야영지를 향해 출발했다.

제182편 겟세마네에서

182:0.1 (1963.1) 예수께서 열한 사도를 이끌고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서 겟세마네 야영지로 돌아온 것은 이 목요일
밤 열 시쯤이었다. 요한 마가는 동산에 있던 날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를 주시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왔다. 요한은,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는 동안 몇 시간의 쉴 틈을 얻었지만, 그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재빨리 외투를 걸친 후에, 그들을 따라 성을 빠져나갔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겿세마네 공원 근처에 그들이 사적{私的}으로 설치한 야영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 마가는, 이날 밤과 다음 날 내내 주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므로 모든 일에 증인이 됐으며, 이때부터 십자가 형벌이 있던 시간까지 주님이 말씀한 것을 많이 듣게 됐다.

182:0.2 (1963.2) 예수와 열한 사도가 야영지로 돌아오는 동안, 사도들은 유다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궁금해졌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암시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으며, 가롯 유다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야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드러내어 언급하기를 피했으며,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유다가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됐다. 그들이 모두 안드레에게 물려가서,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자,

그들의 우두머리는, “유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를 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1. 마지막 합심 기도

182:1.1 (1963.3) 야영지에 도착한 다음 잠시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친구와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런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한다.”

182:1.2 (1963.4) “그렇게 말씀한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감람산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임명받던 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무릎 꿇도록 명했으며;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달빛 속에서 장엄한 모습이 된 그들 한 가운데 선 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

182:1.3 (1963.5) “아버지여, 내 시간이 이르렀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내게 속한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음을 알며, 하나님의
신앙 아들이 될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아버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내 피조물이 알아야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를 믿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높여드렸고 내게
맡기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지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일이 거의 끝났으며;육체 속의 내 생명을 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 내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바른 편에 한 번 더 나를 받아주십시오.

182:1.4 (1964.1)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저들은 --모든
생명이 아버지 손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소유이고 내게
주셨으며, 나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면서 저들과
함께 살았고, 저들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과,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았던
생애가 내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내 친구요 대사인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 즉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려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육신 속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대변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간 후에 이 세상에 나를 대변하도록, 세상에서 택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게 속했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내게 주셨으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은 영원히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이제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서 높임 받으셨고, 나는 이제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명예롭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업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서 대변하도록 이 사람들을 남겨둬야만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칠 준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신실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친구인 이 사람들도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돌볼 수 있었지만, 이제 나는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새 선생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때까지, 저들 곁에 있어주십시오.

182:1.5 (1964.2) “아버지께서는 내게 열두 사람을 주셨고, 내가 저희를 다 지켰으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며, 복수심으로 가득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교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나는 우리가 저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나는 저들을 입증했고;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위해 저들이 많은 수난을 당해야 하는 동안, 저들이 하늘 나라에서 갖는 아들신분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겠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치 않고, 오직 세상의 악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가르친

진리와 저들에게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정화{淨化}되라고
저희를 격려하도록, 저들을 위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살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내 일생을 거룩히
바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떠난 후에 이 형제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며;나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심을, 저들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82:1.6 (1964.3) “그리고 아버지여, 이제 이 열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믿든지 또는 저들이 장차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차후에 복음을 믿게 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믿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이 둘 다 저들 안에 내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 자녀들이 하나 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며, 내가 이룬 영광과 진리의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 신자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도 육체 속에서 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듯이, 나도 저들과 하나가 됐고, 새로운 선생도 저들과 함께, 그리고 저들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함은, 아들이 저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그러하심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심을, 육체 속의 내 형제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곧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에는 낙원에 받아들여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굴욕을 당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해서,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시간세계에서 뿌려 놓은 씨앗을 영원한 세계로 거둬들이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저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세우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 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운 아버지여, 이 세상은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이 신자들에게도

아버지를 알게 했으며, 저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과연 그러하오니-- 세상에서 저들과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82:1.7 (1965.1) 열한 사도는, 예수 곁에서 둥그렇게 모여 무릎 꿇은 채 몇 분 동안 있었고, 일어난 후에는 가까이 있는 야영지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182:1.8 (1965.2) 예수께서는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 됨*이 이뤄지도록 기도했지만, 획일성을 바라지는 않았다. 죄는 악한 타성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정의는 영원한 진리의 살아있는 실체들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영들이 점진적으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창조적 기질을 육성한다. 믿는_아들과 신성한 아버지의 영적 교제에는, 결정적인 교리도, 집단 의식 같은 분파적 우월성도 결코 있을 수 없다.

182:1.9 (1965.3)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이미 증거 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육체 속에서 완수한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함으로써 이룬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말씀에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더 계시해 달라는 간청을 받았을 때, 밝히신 말씀은 오직,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이런 아버지의 이름은 매우 확실히 계시됐으므로, 육신화 한 아버지였던 주님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

182:1.10 (1965.4) 나는 생명의 빵이다.

182:1.11 (1965.5) 나는 생수{生水}다.

182:1.12 (1965.6) 나는 세상의 빛이다.

182:1.13 (1965.7) 나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다.

182:1.14 (1965.8) 나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열린 문이다.

182:1.15 (1965.9) 나는 끝없는 생명의 실체다.

182:1.16 (1965.10) 나는 선한 목자다.

182:1.17 (1965.11) 나는 무한한 완전성에 이르는 통로다.

182:1.18 (1965.1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82:1.19 (1965.13) 나는 영원한 생존 비결이다.

182:1.20 (1965.14)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82:1.21 (1965.15) 나는 내 유한한 자녀들의 무한한 아버지다.

182:1.22 (1965.16)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너희는 가지들이다.

182:1.23 (1965.17) 나는 살아있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182:1.24 (1965.18) 나는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다리다.

182:1.25 (1965.19) 나는 시간과 영원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다.

182:1.26 (1965.20)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생생한 계시를 모든 세대에게 확장시켰다. 신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는 만큼, 영원한 진리가 그의 이름을 늘_확장하여 드러낸다.

2. 배반하기 전 마지막 시간

182:2.1 (1966.1) 야영지에 돌아왔을 때, 유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도들은 크게 충격 받았다. 열한 사도가 배신한

동료 사도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는 동안,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는 예수를 한 쪽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들이 며칠간 유다를 유심히 관찰했다는 것과, 그가 주님을 적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할 뿐이었다.

182:2.2 (1966.2) 즐거워하던 예수의 태도는 사라졌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슬픔에 잠기기까지 했다. 크게 동요하는 사도들은, 각자의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직접 요청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 및 요한 마가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님은 열한 사도에게 마지막 말씀을 했다: “내 친구들아, 가서 쉬어라. 내일 일을 위해 단단히 각오해라.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해야 함을 명심해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후, 그들에게 숙소로 돌아가라고 손짓했지만, 그들이 모두 떠나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불러서 말씀했다:“너희는 나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기 바란다.”

182:2.3 (1966.3) 사도들이 잠들게 된 것은, 오직 말 그대로 기진맥진했기 때문이었으며;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열심당 시몬이 그들을 자기 천막으로 데려갔고, 거기에 숨겨둔 칼과 다른 무기를 각자에게 나눠줬다. 나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 무기를 받아서 몸에 지녔다. 나다니엘은 무장하기를 거절하면서 말했다:“형제들아, 주님께서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제자들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칼로 싸워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우리에게 칼을 사용하도록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전능한 능력을 봤고, 원하신다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직접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적과 싸우지 않으신다면, 그런 과정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임에 틀림없다.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다니엘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자기 칼을 열심당

시몬에게 돌려줬다. 그리하여 아홉 명만 무장한 채 각자 잠자리로 흩어졌다.

182:2.4 (1966.4) 유다가 배신자인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사도들은 잠시 정신 속에서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마지막 기도 도중에 말씀한,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가 자기들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눈뜨게 됐다.

182:2.5 (1966.5) 여덟 사도가 마침내 각자 천막으로 돌아간 후에,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이 주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서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다윗 세베대에게, “네 심부름꾼 중에서 가장 빠르고 믿을만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한때 예루살렘과 벳새다를 오가며 하룻밤 사이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지시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브넬에게 단숨에 달려가서 전해라: ‘주님께서는 평안의 인사를 전했고, 적의 손에 붙잡힐 때가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를 죽이겠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잠시 나타날 것이며, 새로운 선생이 당신의 마음에 내주하기 위해 올 때까지, 그가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족할 만큼

야곱이 이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게 되자,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면서 말씀했다: “야곱아, 누가 네게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 보이지 않는 사자{使者}가 네 옆에서 함께 달려갈 것이다.”

182:2.6 (1967.1)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기거하는 그리스인 방문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형제여, 내가 이미 너희에게 경고했으니 곧 일어나게 될 일로 인해 불안해하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들, 즉 제사장과 유대인 관리들의 선동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되겠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부활해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형제들을 격려해 줘라.”

182:2.7 (1967.2) 일상적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주님께 안녕히 주무시라는 개인 인사를 드리곤 했지만, 이날 저녁에는 유다의 탈퇴에 대한 갑작스런 깨달음에 너무 몰두하고, 주님의 고별 기도의 유별난 성향에 너무 압도돼서, 그의 작별 인사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

182:2.8 (1967.3)

예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곁을 떠나는 안드레에게 말씀했다:“안드레야, 내가 이 잔을 마신 후에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네 형제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니, 형제들을 격려해라. 네게 평안이 있으라.”

182:2.9 (1967.4)

밤이 이미 매우 깊었으므로, 그 밤에 특별한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악의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을 청했다. 유월절 예비일{豫備日} 정오 이후에는 어떤 세속적인 일도 결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이 주님을 체포하러 이른 아침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바로 그 밤에 오리라는 것을, 다윗 세베대와 요한 마가만 알았다.

182:2.10 (1967.5)

다윗은 그날 밤에,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잇는 길로 통하는 오솔길 위쪽에 파수꾼을 배치했고, 그동안에 요한 마가는 기드론 옆에서 갯세마네로 올라오는 길을 감시했다. 다윗은 스스로_부과한 감시 임무를 직접 수행하러 나가기 전에 예수께 작별 인사 하면서 말했다:“주님, 나는 당신을 위해 봉사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형제들이 당신의 사도이지만, 나는 꼭 이뤄져야만 할 비교적 작은 일들을 기쁘게 했고, 당신이 떠나시면 진심으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다: “다윗아, 애야, 다른 사람들은 지시 받은 일을 했지만, 네가 한 이 일은 자진해서 한 것이었고, 나는 너의 헌신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너 역시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위해 봉사할 것이다.”

182:2.11 (1967.6)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솔길 위쪽으로 감시하러 떠나면서 예수께 말했다: “저, 주님, 내가 당신 가족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었는데, 오늘밤에 여리고에 있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밤에 올라오기에는 길이 험악해서 위험할 것이므로, 내일 아침 일찍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윗을 내려다보면서 오직, “다윗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다.

182:2.12 (1967.7)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갔을 때,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쪽으로 흐르는 개울 옆 길 가까이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오직 예수 가까이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감시하려고 했다. 다윗이 그를 떠난 후 조금 있다가,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가는 것을 요한 마가가 봤으며, 그는 헌신하려는 마음과 뒤섞인 호기심에 압도되어, 망보던 자리를 떠나서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유다와 무장한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타나기 전에 그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들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182:2.13 (1968.1) 주님의 야영지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 대장과 논의했는데, 그는 예수를 체포하는 일에 배반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부하들을 모아서 출동할 준비를 갖추 왔다.

3. 겟세마네에 홀로 계심

182:3.1 (1968.2) 야영지 주변에서 모든 것이 멈추고 조용해진 뒤에, 예수께서는 전에 종종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류하던 근처 골짜기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갔다. 세 사도는 그가 무척 우울한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었으며;주님이 그토록 근심과 슬픔에 잠긴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전혀 없었다. 주님이 기도하던 곳에 그들이 도착하자, 그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동안, 거기에 앉아서 자기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세 명에게

명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육신의 삶을 마칠 시간이 됐음을 알며, 그것을 피하려함이 아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182:3.2 (1968.3) 주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세 사도에게로 갔으며,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있는 것을 봤다. 예수께서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했다: “도대체!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있을 수 없느냐? 내 혼이 죽게 될 정도로 심히 슬퍼하고 있으며, 너희에게 동무가 돼 달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세 사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주님은 다시 혼자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할 수도 있음을 알지만--곧 아버지께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알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며, 이것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힘 있는 천사 하나가 그의 옆에 내려와 그에게 말하면서 그에게 손을 대고 힘을 북돋았다.

182:3.3 (1968.4) 예수께서 세 사도에게 말씀하러 돌아왔을 때, 다시 속히 잠에 빠진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깨우면서 말씀했다:“이런 때에는 너희가 깨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없는 동안 잠들어버렸느냐?”

182:3.4 (1968.5)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님은 따로 가서 기도했다:“아버지여, 잠들어 있는 사도들을 보셨으니;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영은 정말로 기꺼이 하고자 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뤄주십시오.” 그는 기도를 마친 후 잠시 땅에 엎드려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그들을 봤다. 측은한 태도로 그들을 살펴보면서 부드럽게 말씀했다:“이제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라;결정의 순간이 지나갔다. 사람의 아들이 적에게 팔리는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말씀했다:“일어나라, 야영지로 돌아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며, 내 양떼가 흩어질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182:3.5 (1968.6) 예수께서 추종자들과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정말로 그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많은 확증을 가졌지만, 이 순간에 그의 인성{人性}에 대한 새로운 흔적을 보게 됐다. 그의 신성{神性}에 대한 가장 큰 계시인 부활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의 필사자 본성에 대한 가장 큰 증거인 그의 굴욕과 십자가형이 일어나야만 했다.

182:3.6 (1969.1) 그 동산에서 기도하던 매 순간마다, 그의 인성은 그의 신성을 더 단단하게 신앙으로_붙잡았으며;그의 인간 의지는 더 완전하게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하나가 돼갔다. 강력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여러 말씀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신 것은, 시간세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진보하는 과정 속으로 지나가면서 모든 필사 피조물이 반드시 체험하는, 물질적 사멸{死滅}과 똑같이 죽음에 대한 피조물 체험을 가짐으로써, 이 땅의 증여 과정을 끝내라는 것이었다.

182:3.7 (1969.2) 이른 저녁까지만 해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쉬도록 보냈을 때, 고뇌가 점점 깊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 체험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자연스런 오르내림을 체험했으며, 이때 그는 일에 지친 상태였는데, 오랫동안 격렬한 수고와 사도들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염려로 인해 기진맥진했다. 육신화 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필사자가 없겠지만, 그의 얼굴에 쏟아져 내린 땀방울로 인해, 우리는 그가 크게 고뇌했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움을 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께서 자연스런 사건들이 그 행로대로 가도록 허락하려 하심을 확신했으며;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우주의 최고 우두머리로서의 주권적 능력을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온전히 결심했다.

182:3.8 (1969.3) 방대한 창조계에서 소집된 무리가, 예수의 인격화된 조울사와 가브리엘의 임시 합동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무대에 등장했다. 이 하늘 군대의 부서별 지휘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개입할 것을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땅에서 이 집행에 간섭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 받았다.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적 마음에 아주 큰 부담이 됐으며;이런 사랑으로 인한 슬픔이 그를 압박했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아는 그런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사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알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됐음을 잘 알았지만, 그의 인간적 마음은, 이런 수난과 슬픔의 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발견하고 싶었다. 그렇게 피하는 것이 시도되고 실패하자, 기꺼이 잔을 마셨다. 미가엘의 신성한 정신은, 열두 사도를 위해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지만;예수의 인간적 마음은, 그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기 전에 무슨 일이든지 더 하고 싶었다. 예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며;진실로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는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으며;그가 택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는 그를 배반했다.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부했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했다. 그의 혼은 좌절된 사랑과 거부된 자비로 인해 고뇌했다. 모든 것이 짓누르는 학대와 극심한 고통으로 압도하는 듯한, 몹시 인간적인 순간들이었다.

182:3.10 (1969.5) 예수의 인성{人性}이, 사적{私的}인 고독, 공개적인 치욕, 그리고 자신의 대의{大義}가 외적으로 실패한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모든 감정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큰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나사렛에서 지낸 어린 시절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한 초기 사역으로 돌아갔다. 이런 큰 시험이 있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이 세상 사역에 속하는 그런 많은 즐거운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곧 그를 배반할 배신자와 마주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 산, 그리고 빛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었다.

182:3.11 (1969.6) 유다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님은 평상시 안정을 온전히 되찾았으며; 영이 육신을 이겼고;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즐기는 모든 인간적 경향에 대해 신앙이 승리했다. 인간 본성을 완전히 깨닫는 최고의 시험을 치렀고, 만족스럽게 통과했다.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완전히 헌신된 필사적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한 번 더 적들과 마주칠 준비를 했다.

제183편 배반당하고 체포된 예수

183:0.1 (1971.1)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을 마지막으로 깨운 후에,
내일의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천막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라고, 예수께서 제안했다. 그러나 세 사도는, 이때
완전히 잠이 깬으며;잠깐 졸았던 덕분에 정신이 맑아졌고,
게다가, 흥분된 두 심부름꾼이 도착하자 자극을 받고 잠이
깼는데, 이 심부름꾼들은, 다윗 세베대에 관하여 질문했고,
감시하고 있는 그의 위치를 베드로가 알려주자, 그를
찾아서 재빨리 달려갔다.

183:0.2 (1971.2) 비록 여덟 사도가 깊이 잠들었지만, 그들과 함께
야영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재난을 더 심히
두려워했으므로, 위험이 닥칠 경우에 깨울 수 있도록
보초를 세워 뒀다. 두 심부름꾼이 급히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인 보초가 동포들을 모두 깨웠으며, 그들은
완전무장을 하고 각자 천막에서 몰려 나왔다. 여덟 사도를
제외하고, 이때 야영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동역자들을 부르려고 했으나,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했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도록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그들은 그의 제안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183:0.3 (1971.3) 주님은 추종자들을 해산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서 갯세마네 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감람유 압축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세 사도, 그리스인, 그리고 야영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즉시 그를 따르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요한 마가는 급히 일어나서 감람나무 숲으로 돌아 내려갔고, 감람유 압축기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이 도착했을 때, 사도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자신을 체포할 수 있도록, 야영지와 친구들로부터 떠났던 것이다. 주님은, 사도들이 깨어 있다가, 자신이 잡힐 때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에서 심한 증오심이 발동되어 병사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체포되거나 앓을까하여 심히 염려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붙잡히면 자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했다.

183:0.4 (1971.4)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 유대인 관리들 협의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사악한 책략이, 루시퍼, 사탄, 및 캘리개스차의 승인을 온전히 받았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영역에 속한 이 반역자들 역시, 자신과 함께 사도들도 모두 파멸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183:0.5 (1971.5) 예수께서는 감람유 압축기 위에 홀로 앉아서 배반자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이때 오직 요한 마가와 수많은 천상의 참관인 무리만이 그를 지켜봤다.

1. 아버지의 뜻

183:1.1 (1971.6) 주님이 육신을 입은 생애를 마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의 의미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 무지한 종들과 냉담한 병사들이 예수를 잔인하게 다룬 것, 그를 심리{審理}할 때의 불공정한 처리,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무감각한 태도를, 예수께서 이런 모든 수난과 굴욕을 인내심으로 감수하면서, 낙원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참되게 행했다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들이 필사 체험의 잔을 끝까지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었지만, 개화됐을 것으로 추측됐던, 그러나 주님을 그토록 혹독하게

고문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의 인격자를 그토록 계속 경멸한 인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잔인한 습성을 조장시킬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필사자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 겪어야 했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이 체험은, 어떤 면에서도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상관이 없었으며, 그것은 지친 사도들이 육체적 피로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동산에서 드렸던 삼중적{三重的} 기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순간에, 그의 인간 본성이 그렇게 하기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맹세한 것이었다.

183:1.2 (1972.1)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필사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육신 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과 똑같이, 증여된 아들도 세상에서 일생을 *자연스럽게* 마치기를 바라셨다. 평범한 남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예상할 수 없고, 특별한 섭리에 따라 편하게 죽은 후에 맞이하는 부수적 사건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의 결실과 일치되는 방법으로 육신의 삶을 마치기로 결정했으며,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굴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끔찍할 만큼

확실하게 엄습하고 있는 비인간적 사건을 꾸미는 사악한 음모의 잔인한 마수{魔手}로부터 자신을 구해내기를,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증오심을 표현하고, 전례 없이 잔인성을 과시하는 모든 과정은, 악한 사람과 사악한 필사자들이 꾸민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예수의 대적들이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경솔하고 악한 필사자들이 증여 아들을 이렇게 거부하게 될 것을 보장하려고, 그들은 많은 일을 했다. 죄의 아비조차,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혐오감의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2. 성 안에서 유다

183:2.1 (1972.2) 마지막 만찬을 나누다가 갑자기 식탁을 떠난 유다는, 곧바로 사촌 집으로 갔으며,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곧장 성전 경비대 대장에게 갔다. 유다는 그 대장에게 경비병을 모으도록 요청했고, 그들을 예수께 안내할 준비가 됐음을 알렸다. 유다는 예상됐던 것보다 조금 일찍 거기에 나타났었고, 마가의 집을 향해 출발하는 일이 조금 지체됐는데, 유다는 아직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님과 열한 사도는, 그 배반자와 경비병들이 도착하기 15분 전에 이미

엘리아 마가의 집을 떠났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도착할 무렵, 예수와 열한 사도는 성벽 밖에 있었고, 감람원 야영지로 가고 있었다.

183:2.2 (1972.3)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 열한 사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크게 당황했는데, 그들 가운데 두 사람만이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이 오후에 야영지를 떠났을 때, 유다는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 시몬만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으며; 유다는 그 성이 조용하고 반항할 기회가 거의 없을 때 예수를 잡고 싶어 했다. 배반자는, 그들이 야영지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60명 넘는 헌신된 제자가 합세하게 될 것을 염려했으며, 열심당 시몬이 그의 물건 속에 많은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유다는, 열한 명의 충성된 사도가 자기를 얼마나 증오하게 될지 생각하면서 점차 조바심이 났고, 그들이 모두 자기를 죽이려 하리라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그는 불충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겁쟁이었다.

183:2.3 (1973.1) 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다는 경비 대장에게 성전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

이때 관리들은, 배신자와 맺은 협정에 따라서 그날 밤중까지는 예수를 체포하리라고 예상하면서, 예수를 넘겨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다. 유다는 마가의 집에서는 이미 예수를 놓쳤고, 겿세마네로 가서 그를 체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배반자는 그때, 60명 넘는 헌신된 추종자가 그와 함께 야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설명했다.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께서 항상 무저항주의를 전파하지 않았느냐고 유다에게 말했지만, 유다는 예수의 추종자 전부가 그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몸을 염려했으므로, 40명의 무장된 병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대인 권세자들은, 자기네 수하에 그만큼의 무장된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안토니아의 요새로 가서, 이 경비병들을 내달라고 로마 지휘관에게 요청했지만;그는 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한다는 것을 알고, 그 요청을 명백히 거절했으며, 상관에게 물어보라고 권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된 로마 병사들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 받기 위해, 결국 빌라도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될 때까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가면서 한 시간 이상

소모했다. 그들이 빌라도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늦은 시간이었으며, 그는 아내와 함께 사택으로 퇴근한 후였다. 그는 그 계획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무엇보다도 아내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말라고 부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대인 산헤드린을 관장하는 관원이 와서 협조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으므로, 총독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했다.

183:2.4 (1973.2) 따라서, 가롯 유다가 성전을 출발한 것은 열한 시 반쯤이었으며, 60명 이상의 사람들이--곧 성전 경비병, 로마 군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호기심 많은 종들이-- 그를 따라갔다.

3. 주님이 체포됨

183:3.1 (1973.3) 무장한 군인과 경비병들로 구성된 이 부대가 등과 횃불을 들고 공원으로 갈 때, 유다는 예수를 재빨리 식별해서, 동역자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모이기 전에, 체포하러 온 자들이 먼저 그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리보다 조금 앞에서 걸어갔다. 그리고 유다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가기로 결정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예수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사도들이, 바로 뒤에 따라온 무장한 경비병들과 자기를 직접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군인들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자기는 이미 거기에 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생각이었다. 유다는 마치 체포하려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급히 오는 것처럼 보일 생각조차 했지만, 배반자를 당황하게 하는 예수의 인사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주님은 유다에게 다정히 말씀했지만, 그는 그에게 배신자로서 인사했다.

183:3.2 (1973.4)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같이 야영하던 약 30명 가량의 사람은, 횃불을 든 무장한 무리가 언덕 꼭대기를 돌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오고 있는 군인임을 직감하고, 주님이 달빛 속에 쓸쓸히 앉아 있는 감람유 압축기 근처로 달려 내려갔다. 군인 일행이 한 쪽 비탈에 도착했을 때, 세 사도와 그들의 동역자들도 반대편 비탈에 당도했다. 유다가 주님께 말을 걸기 위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 있는 무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며, 유다는 그의 이마에 배신의 입맞춤을 하려고 준비했다.

183:3.3 (1974.1) 경비병들을 겿세마네로 안내한 후에는, 단순히 군인들에게 예수를 지목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그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실행하고 나서 그곳을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배반자의 바람이었다. 유다는 사도들이 모두 나타나, 사랑하는 선생님을 감히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 자기를 공격하게 될 것을 무척 염려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다가 배반자임을 알면서 인사하자, 그는 너무 혼돈되어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183:3.4 (1974.2) 예수께서는, 배신자가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에,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으며, 한쪽 편 비탈로 걸어가서,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왼쪽 맨 앞에 있는 군인에게 말씀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대장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그 장교 앞으로 가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인 지닌 평온한 위엄으로 거기에 선 채, “내가 그라”고 말씀했다. 무장한 이 무리 가운데 다수는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었고, 더러는 그의 대단한 행적에 대해 알았으며, 그가 자기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듣자, 앞줄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그가

평온하고 위엄 있게 신분을 밝히는 것에 크게 놀랐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배반하려던 자기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분명히 나타냈고, 그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신자는 무장한 무리와 함께 나타난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만 했으며, 게다가 그는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푸짐하게 수여될 큰 상과 명예에 걸맞게 하기 위해, 유대인 관리들과 맺은 배반 협정에서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다.

183:3.5 (1974.3) 예수의 모습과 특별한 그의 목소리 때문에 처음에 뒤로 물러났던 경비병들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는 예수께로 가서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하며 주님을 포옹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친구여, 이렇게 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나!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려고까지 하느냐?”

183:3.6 (1974.4)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대경실색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유다의 배신의 포옹에서 벗어나, 경비병과 군인들 쪽으로 걸어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다시 물었다. 대장은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갈 준비가 돼있다.”

183:3.7 (1974.5)

예수께서는 경비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고, 군인들의 지휘관은 세 사도와 그들의 동역자들이 평안히 돌아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예수께서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있을 때, 대제사장 호위병인 말고라 하는 시리아인이 예수 앞으로 나왔고, 로마인 지휘관이 예수를 그렇게 묶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했다. 주님이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려는 모습을 본 베드로와 동역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를 죽이려고 달려 나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나서기 전에, 예수께서 손을 들어

베드로를 말리고, 엄하게 꾸짖으며 말씀했다:“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열두 군단{軍團} 이상의 천사와 그 동역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모르겠느냐?”

183:3.8 (1975.1)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의 물리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정지시켰지만, 경비병 대장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그는 곧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신속하게 그를 묶었다. 두꺼운 줄로 그의 손을 묶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너희는 어찌하여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러 나왔느냐?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서 너희와 같이 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183:3.9 (1975.2) 예수께서 묶이고 나자, 주님의 추종자들이 그를 구하려고 대들 것을 염려하여, 지휘관이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급히 골짜기로 달아났으므로, 군인들은

속히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요한 마가는 근처의 외딴 창고에서 그동안 내내 남아 있었다. 경비병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요한 마가는 도망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창고에서 몰래 빠져 나오려고 했지만;그가 일어나는 순간, 도망가는 제자들을 쫓아갔다가 돌아오는 군인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외투를 걸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쫓아왔으며, 거의 잡힐 뻔했다. 사실, 그 군인은 요한 마가를 따라와서 그의 외투를 손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외투를 벗어 던졌고, 그 군인이 빈 외투를 들고 있는 동안, 벗은 채로 도망쳤다. 요한 마가는, 위쪽 오솔길에 있는 다윗 세베대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가 일어났던 일을 다윗에게 말한 후에, 그들은 사도들이 잠들어 있는 천막으로 서둘러 함께 돌아갔고, 여덟 사도 모두에게 예수께서 배반당하고 체포됐음을 알렸다.

183:3.10 (1975.3) 여덟 사도가 잠에서 깰 때쯤,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은 모두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논했다. 한편, 감람나무 숲 속에 숨어있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이미 군인,

경비병, 및 하인들 무리를 뒤따라갔으며, 그들은 마치 지독한 죄인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돌아갔다. 요한은 무리 뒤에서 가까이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군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후에, 요한 마가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의 천막에서 발견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은퇴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감람나무 과수원 담을 따라 돌아가서 그 무리 앞으로 갔고, 대제사장의 저택 대문 입구 근처에 숨었다.

4. 감람유 압축기 근처에서 의논함

183:4.1 (1975.4) 야고보 세베대는, 시몬 베드로와 동생 요한을 따라갈 수 없게 됐음을 알고, 주님이 체포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논하기 위해 감람유 압축기에 모인, 같이 야영하던 사람들 및 다른 사도들과 합류했다.

183:4.2 (1975.5) 안드레는 동료 사도 전체의 활동을 관장하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잠깐 동안 비공식 토의가 있는 후에, 열심당 시몬이 감람유 압축기의 돌담 앞에

일어서서, 주님과 천국의 대의를 위해 충성하자고 감동적으로 열변을 토했으며, 속히 무리를 따라가서 예수를 구출하자고, 동료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시몬이 말을 마치자마자 나다니엘이 일어서서, 무저항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한 예수의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충고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공격적 주동에 가담하려고 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날 밤에 했던,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때를 위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해야한다는 예수의 지시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이런 입장에 대한 야고보 세베대의 지지로 용기를 얻었는데, 야고보는 이때,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의 체포를 막으려 했으나,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동료 검객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마태와 빌립도 한 마디 했지만,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던 사실을 도마가 상기시킬 때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는데, 도마는, 주님이 친구들에게 주님 자신을 방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쳐부수기 위해 그의 신성한 능력을

여전히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도마는, 그 모임을 위해 소식을 전달하고 심부름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윗 세베대가 야영지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각자 자신을 위해 흩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고 설득했다. 같은 날 새벽 두 시 반쯤에 야영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으며;오직 다윗만이 서너 명의 심부름꾼과 함께 남았고, 예수께서 어디로 끌려갔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아오도록, 다른 심부름꾼들이 파견됐다.

183:4.3 (1976.1) 다섯 명의 사도, 즉 나다니엘, 마태, 빌립, 및 쌍둥이 형제는 베스페이지와 베다니로 가서 숨었다. 도마, 안드레, 야고보, 및 열심당 시몬은 성{城}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 세베대는 안나스의 집으로 따라갔다.

183:4.4 (1976.2) 날이 새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겿세마네 야영지로 돌아갔는데, 낙심하여 깊은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니고데모의 집에 있는 형 안드레를 만날 수 있도록, 다윗이 심부름꾼 한 명을 동행시켰다.

183:4.5 (1976.3) 십자가형이 끝난 바로 그 순간까지, 요한 세베대는 예수의 지시대로 항상 그의 곁에 남았으며, 다윗의 심부름꾼들에게 매시간 정보를 제공해서, 동산 야영지에 있는 다윗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사도들과 예수의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도 바로 요한이었다.

183:4.6 (1976.4) 분명히, 목자가 타격을 입었고 양들은 흩어졌다! 바로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 미리 경고했다는 것을 그들 모두 어렴풋이 깨닫기는 했지만, 주님이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에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183:4.7 (1976.5) 날이 밝은 직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형과 함께 있으려고 떠난 직후에, 예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오직 주님이 이미 체포됐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의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숨을 헐떡이면서 야영지에 도착했으며;여리고로 통하는 길로 급히 내려가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를 보내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여, 심부름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하게 될 소식을 기다리라고 부탁했다.

183:4.8 (1976.6) 이것이 목요일 밤 후반부와 금요일 이른 새벽 시간에, 사도들, 핵심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 세상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과 각 사람은, 다윗 세베대가 겿세마네 야영지에 있는 그의 본부에서 계속 운영하는 연락 업무를 통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5.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서

183:5.1 (1977.1) 그들이 예수와 함께 동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성전 경비병들의 유대인 지휘관과 군인 부대의 로마인 지휘관 사이에서,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현직{現職}에 있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고 가라고 명했다.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은, 전직 대제사장이며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저택으로 예수를 호송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로마인이 유대인 종교법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직접 안나스와 의논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로마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게 됐으며;따라서 그들은 예비 심문을 받도록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를 데려갔다.

183:5.2 (1977.2) 유다는 그 지휘관들 가까이 따라가면서, 모든
말을 듣고자 했지만;유대인 지휘관과 로마인 장교 둘 다
배반자가 듣지 못하도록 말했으므로, 그들의 의논에
끼어들지 못했다--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를 멀시켰다.

183:5.3 (1977.3) 이 무렵에 요한 세베대는, 항상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주님의 지시를 기억하면서, 예수
가까이로 서둘러서 갔고, 두 지휘관 사이에서 걸어갔다.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부하에게 말했다:"이 사람을 체포해 묶어라. 그는 이
사람의 추종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로마인 지휘관은, 둘러보다가 요한을 발견하자, 그 사도를
자기 옆에서 따라오게 하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인 지휘관이 유대인 지휘관에게
말했다:"이 사람은 배신자도 아니고 겁쟁이도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그 동산에서 봤고, 칼을 꺼내 우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주님을 따라올 만큼 용감하니,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다. 어떤 종류의 죄수든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구가 법정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므로, 죄수{罪囚}인 주님 옆에 이 사람이 서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여, 행진하는 자들 맨 뒤로 쳐져서, 안나스의 저택까지 혼자 걸어갔다.

183:5.4 (1977.4) 그리고 이런 사실에서, 이날 밤과 다음 날 예수께서 쓰라린 체험을 하는 동안 내내, 요한 세베대가 어떻게 해서 그의 곁에 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유대인 종교 법정의 집행에 대해 입회인{立會人}이 되도록, 로마인 지휘자가 지명한 어떤 신분을 갖게 됐으므로, 그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어떤 말이나 방해도 하지 못했다. 그 로마인은, 안나스의 저택에서 성전 경비병 지휘관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부하에게, “이 죄수를 따라가서,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유대인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들이 그를 암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의 친구인 이 갈릴리인이 옆에서 모든 일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명했을 때, 요한에게 부여된 특권은 더 확고하게 됐다. 그리하여 다른 열 명의 사도는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요한은 로마인의 보호 속에 행동했고, 유대인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183:5.5 (1977.5) 그리고 예수께서는 안나스의 저택에 도착하기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은 체포되는 순간부터 안나스 앞에 나타나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제184편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184:0.1 (1978.1) 안나스의 대리인들이 로마 군인 지휘관에게, 예수를 체포하면 안나스의 저택으로 즉시 데려오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었다. 전직 대제사장인 그는, 유대인의 최고 종교 권세자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싶었다. 또한 예수를 자기 집에 여러 시간 억류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법정이 합법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다. 성전에서 아침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 전에 산헤드린 법정이 소집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시간은 아침 세 시쯤이었다.

184:0.2 (1978.2) 안나스는, 사위인 가야바의 저택에서 산헤드린 법정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았다. 약 30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예수께서 자기들 앞으로 호송돼 올 경우에 그에게 판결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자정 무렵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였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소집됐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재판 법정 구성이 오직 23명으로 규정됐기 때문이었다.

184:0.3 (1978.3) 예수께서는 체포된 겿세마네 동산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에서 세 시간가량 보냈다. 요한 세베대가 안나스의 저택 안에서 무사하고 자유로웠던 것은, 로마인 지휘관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먼 친척이었으므로,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으로 초대받은 적이 있었고, 그 집의 나이든 종들이 요한과 형 야고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 안나스의 심문

184:1.1 (1978.4) 안나스는 성전의 수익으로 부자가 됐고, 사위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자신은 로마 권세자들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체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로 최고 권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교활한 기획가요 음모자였다. 그는 예수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지휘하고 싶었으며;그런 중요한 일을, 무뚝뚝하고 공격적인 사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주저했다. 안나스는 주님에 대한 재판이 반드시 사두개인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했으며;산헤드린 회원 중에서 예수의 대의를 지지한 사람들이 실제로 모두 바리새인이었으므로, 바리새인 가운데 일부가 동정심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염려했다.

184:1.2 (1978.5) 주님이 이 집에 초대되어 영접 받았을 때 안나스의 냉담함과 침묵을 보고 즉시 떠난 후로, 안나스는 예수를 수년간 만나지 못했다. 안나스는 일찍이 이렇게 교제했던 것을 이용하고, 그리하여 예수가 자기주장을 포기하고 팔레스틴을 떠나도록 설득해볼 작정이었다. 그는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를 꺼렸고, 예수께서 죽음을 감수하기보다 그 고장을 떠나는 쪽으로 선택하리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신념에 차고 단호한 모습의 갈릴리 사람 앞에 선 안나스는, 그런 제안이 아무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예수께서는 안나스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위엄 있고 침착했다.

184:1.3 (1979.1) 예수가 어렸을 때에는 안나스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아주 최근에 돈 바꾸는 자들 및 다른 상업 매매업자들을 성전에서 몰아냄으로 인해, 그의 수입이 위협을 받았다. 전직 대제사장인 그가 양심을 품게 된 것은, 예수의 교훈보다 이런 행동 때문이었다.

184:1.4 (1979.2) 안나스는 넓은 객실로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은 후에, 예수를 그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네가 우리 고장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가르침에 관해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안나스가 미심쩍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안나스가 다시 말했다:“선동자인 열심당 시몬 외에, 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다시 그를 내려다 봤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184:1.5 (1979.3) 안나스는 자기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웠으므로, 그에게 말했다:“내가 네게

친절하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이냐? 네게 이뤄질 재판의 선고를 결정할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말씀했다:“안나스여,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내게 대해 아무 힘도 없음을, 당신도 압니다.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며;그들은 잘 모르지만, 친구여,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184:1.6 (1979.4) 예수께서 안나스에게 말씀하는 친절한 태도가 그를 대체로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팔레스틴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 속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므로;용기를 내어 물었다:“네가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했다:“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당신은 잘 압니다. 내가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여러 번 가르쳤으며, 거기서 모든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이 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은밀히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습니까? 당신은 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온 예루살렘이 들었고, 직접은 아니지만 당신도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까이 서 있던, 그 저택의 사무장이 손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어찌 감히 대제사장님께 그런 말로 대답하느냐?”고 했다. 안나스는 그 사무장을 꾸짖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다, “친구여, 내가 악한 말을 했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증거를 대라;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릴 수 있느냐?”

184:1.7 (1979.5) 안나스는 사무장이 예수를 때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했지만, 너무 우쭐한 나머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당황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하인과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홀로 내버려뒀다.

184:1.8 (1979.6) 그가 돌아와 주님 옆으로 가서 말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했다:“안나스여,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알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그러자 안나스가 말했다:“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그것이 사실이냐?” 예수께서는 안나스를 바라보면서:“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184:1.9 (1980.1) 이 무렵에, 예수를 언제쯤 산헤드린 법정 앞으로 끌고 올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가야바의 저택으로부터 심부름꾼들이 도착했으며;거의 날이 샐 무렵이었으므로,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하여 성전 경비병들로 호위하게 해서 가야바에게 보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자신도 잠시 후에 그들을 따라갔다.

2. 안마당에 있던 베드로

184:2.1 (1980.2) 경비병과 군인 일행이 안나스의 저택 입구로 들어갈 때, 요한 세베대는 로마 군인 지휘관 옆에서 걸어갔다. 유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남았고,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요한이 예수와 경비병들과 함께 안마당으로 들어간 후에, 유다도 문으로 다가왔지만, 예수와 요한을 보자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갔고, 주님께

대한 실제 재판이 나중에 거기서 벌어질 것을 알았다. 유다가 떠난 직후에,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문 앞에 섰고, 그들이 예수를 저택 안으로 호송해 들어가려고 할 때 요한이 그를 봤다. 문을 지키는 여종을 요한이 잘 알았으므로, 그녀에게 베드로를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하자, 기꺼이 들어줬다.

184:2.2 (1980.3) 안마당에 들어선 베드로는, 밤공기가 차가웠으므로 숯불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려고 했다. 그는 예수의 적들 가운데 부적절한 곳에 와 있음을 크게 느꼈고,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다. 주님은, 요한에게 부탁한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주님에 대한 재판과 십자가형이 벌어지는 동안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받은 다른 사도 중에 베드로도 포함됐다.

184:2.3 (1980.4) 베드로는 저택 대문으로 오기 직전에 칼을 버렸으므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안나스의 뜰에 들어왔다. 그의 마음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며; 예수께서 체포됐음을 거의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안나스의 안마당에 와있고, 대제사장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쪼고 있다는-- 실제 상황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저택에 들어가도록 허락 받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그가 하인들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문지기에게 그를 들여보내도록 부탁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184:2.4 (1980.5)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낸 직후에, 그리고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서 장난기 어린 태도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 여자에게 부탁해서 저택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요한이었으므로, 이때 이렇게 자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베드로가 놀랄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 그는 너무 긴장된 상태였으므로, 제자의 신분을 알아보는 듯한 그 말로 인해 혼미해졌으며, 오직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살아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석에서 여종에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184:2.5 (1980.6) 곧 다른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그들이 이 사람을 체포할 때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제는 베드로가 아주 깜짝 놀랐으며;이 고발인들로부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면서 말했다:“나는 이 사람을 모르고, 추종자도 아니다.”

184:2.6 (1980.7) 이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 옆에 와서 다시 물었다:“당신이 이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가 당신을 안마당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내게 부탁했기 때문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자매가, 이 사람과 함께 당신을 성전에 서 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부인합니까?” 여종의 고발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심한 저주와 맹세로 예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말했다:“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며;그를 전혀 알지 못하며;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184:2.7 (1981.1) 베드로는 숯불 곁을 떠나서 잠시 안마당을 거닐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목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냉정을 되찾으면서, 숯불 곁으로 돌아왔을 때, 옆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당신도 분명히 이 사람의 제자다. 예수라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인인데,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니, 역시 갈릴리인처럼 말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인했다.

184:2.8 (1981.2) 너무 불안한 나머지, 베드로는 불 곁에서 떠나 혼자 입구로 가 있음으로써,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피하려고 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혼자 있는 후에, 문을 지키는 여종과 그녀의 자매가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됐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짓궂게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다시 부인했다. 그가 예수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다시 부인하는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일찍 주님이 그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가 죄의식으로 무너져 내린 무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을 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경비병들이 예수를 호송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향했다. 베드로의 옆으로 지나가던 주님은, 전에 자신만만하고 곁으로 용감했던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스런 표정을 봤으며, 돌이켜서 베드로를 잠깐 바라봤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님의 얼굴에는,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필사적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연민의 정이 뒤섞여 있었다.

184:2.9 (1981.3) 예수와 경비병들이 저택 문을 나선 후에,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으나, 잠시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그는 길옆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는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린 후에, 형 안드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야영지 쪽으로 향했다.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다윗 세베대 밖에 없었고, 그는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그의 형에게 베드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심부름꾼 하나를 같이 보냈다.

184:2.10 (1981.4) 베드로의 전체 체험은, 감람산에 있는 안나스의 저택 안마당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저택으로 가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다.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주님을 여러 번 부인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음을 뜻하는데, 그 성 안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184:2.11 (1981.5)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닭 울음소리가 있기까지, 그가 몸을 녹이기 위해 지붕 밑을 오가면서 오직 생각한 것은, 하인들의 고소를 어떻게 교묘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과, 자기와 예수의 관계를 밝히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킬까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한동안, 이 하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할 만한 도의적 혹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생각에 골몰했으며, 신분이 드러나 체포되고 감금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도취돼서, 정말로 기뻐했다. 닭이 울 때까지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떠오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천국 대사로서의 특권에 걸맞게 사는 데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184:2.12 (1981.6) 타협하고 최소의 저항이 있는 길로 첫 발을 뗐으므로, 이미 결정한 대로 과정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베드로에게 명백하지 않았다. 잘못 시작하고 나서 돌이켜 바로잡는 데는 위대하고 숭고한 성품이 요구된다. 사람의 정신은, 일단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다.

184:2.13 (1982.1)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야,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완전히 믿었고, 여러 번 부인한 이

비극적인 밤의 체험이 있기 전과 똑같이 용납됐음을 알았다.

3.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184:3.1 (1982.2) 이 금요일 아침 세 시 반쯤에, 제사장 가야바가 산헤드린 심문 법정이 개정됐음을 선언했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예수를 그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산헤드린은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대다수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즉 율법_위반, 신성 모독,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의 전통을 경멸한 것에 대한 비공식 고소에 따라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의했었다.

184:3.2 (1982.3) 이번 회의는 정상적으로 소집되는 산헤드린 회의가 아니었으며, 평상시 회의장소인, 성전 안의 다듬어진 돌로 지어진 방에서 모인 것도 아니었다. 약 30명의 산헤드린 회원이 대제사장의 저택에 소집된 특별 재판 법정이었다. 요한 세베대는,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 전체 기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184:3.3 (1982.4)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및 일부 바리새인이, 자기네 지위를 교란시키고 권세에 도전하는 예수가,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우쭐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원한에 사무친 자기네 손아귀를 그가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184:3.4 (1982.5) 유대인은 누군가에게 중형을 선고할 때, 증인 선택과 재판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야바는 편견 없는 재판관이기보다 오히려 기소자였다.

184:3.5 (1982.6) 예수께서는 평상시 복장과 두 손을 뒤로 묶인 모습으로 이 법정 앞에 섰다. 법정 전체가 그의 위풍당당함에 술렁거렸고 당황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이 걸려있는 법정 앞에서 그토록 태연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죄인을 본 적이 없었다.

184:3.6 (1982.7)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해야만 죄수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었다. 유다는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의 율법이 특히 배신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반대하는 거짓 증인이 20명 이상 준비됐지만, 그들의 증언은 너무 모순되고 너무 명백하게 날조된 것이어서, 산헤드린 회원들조차 그 엉터리 연기에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였다. 예수께서는 거기 서서 이 위증자들을 온화한 모습으로 지켜보았으며, 그의 이런 태도로 인해 거짓 증인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했다. 거짓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주님은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으며;그들의 여러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184:3.7 (1982.8) 그들 중에서 비슷하게라도 두 증인이 일치될만하게 한 첫 증거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던 도중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삼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이었다. 언급된 그 논평을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신체를 가리키는 것임을 지적했던 사실 이외에도, 그것은 예수께서 한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184:3.8 (1982.9) 대제사장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고함쳤음에도, 예수께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거기 서 있었다. 증오심, 광신, 그리고 사악한 과장이, 이 위증자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었으므로, 그들의 증언은 그 자체에 얽혀서 실패했다. 그들의 거짓 고소에 대한 최고의 반박은, 바로 평온하고 웅장한 주님의 침묵이었다.

184:3.9 (1983.1)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된 직후에, 안나스가 도착하여 가야바의 옆 자리에 앉았다. 안나스가 마침내 일어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예수의 협박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죄목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4:3.10 (1983.2) 1. 그는 사람들에게 위험스런 중상모략을 했음. 그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르쳤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속였음.

184:3.11 (1983.3) 2. 그는 신성시되는 성전을 부수도록 폭동을 지지하는 광신적 혁명가였음.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184:3.12 (1983.4) 3. 손대지 않고 새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는 마법을 가르친 것임.

184:3.13 (1983.5) 예수께서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죽을 죄를 범했다고 산헤드린 전체가 이미 합의했으나, 그들은 이제 자기네 죄수에게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키기 위해, 그의 행위와 교훈에 관해 더 확실한 죄를 씌우고자 했다.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락을 확고히 해둬야만 함을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위험한 선생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향을 따라서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184:3.14 (1983.6) 그러나 가야바는, 주님이 완전한 침착성과 흔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그 죄수가 입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따라서, 그는 예수 옆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얼굴 앞에 비난조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는데, 네가 구원주, 즉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이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가며, 사람의 아들은 곧 권능을 입고 다시 하늘의 무리를 다스릴 것이다."

184:3.15 (1983.7)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겹옷을 찢으며 고함쳤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보라, 이 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너희 모두 들었다.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죽어 마땅하다;십자가에 달리게 하자”고 대답했다.

184:3.16 (1983.8) 예수께서는, 자신의 증여 사명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 외에는, 안나스와 산헤드린 회원들의 어떤 질문에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자, 그는 즉시 명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184:3.17 (1983.9) 안나스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로마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예수를 확실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갖춘 후에 빌라도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의원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그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어서, 정오가 지난 후에는 세속적인 일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돼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빌라도가 오직 유월절 축제 기간에만 예루살렘에 머물기 때문에, 유대지방의 로마 행정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184:3.18 (1983.10) 그러나 안나스는 법정을 통제하지 못했다.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너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자,

대제사장은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법정의 다른 요원들도 방을 나가면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들 중에 여럿이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를 때리자, 안나스는 무척 충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무질서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재판의 이 첫 공판이 네 시 반쯤에 끝났다.

184:3.19 (1984.1) 전통에 눈멀고 편파적인 30명의 거짓 재판관은, 거짓 증인들과 함께 감히 우주의 의로운 창조주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 그리고 흥분한 이 고발인들은, 하나님이자 인간인 주님의 장엄한 침묵과 뛰어난 인내심 때문에 격분했다. 그의 침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으며; 그의 말투는 겁 없이 도전적이었다. 그는 그들의 협박에 동요되지 않았고,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때에도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구원했을 것이다.

4. 굴욕적인 시간

184:4.1 (1984.2)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제의 경우에는 법정이 두 번 열려야만 했다. 이 두 번째

법정은 첫 번째 법정 다음 날에 열려야 했고, 그 사이의 시간은, 법정 위원들이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확정하도록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겨우 한 시간 기다렸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 객실에 남았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갖은 무례한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을 모욕하면서 즐거워했다. 그들은 그를 조롱했고, 침을 뱉었으며, 심하게 때렸다. 그들은 회초리로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구원주라면, 너를 때린 이가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말했다. 저항하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은 한 시간 내내 그렇게 계속했다.

184:4.2 (1984.3) 무지하고 무정한 경비병과 하인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조롱 받는 이런 비참한 시간 동안, 요한 세베대는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렸다. 이런 가혹 행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물러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사도가 그 방에 남아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보게 된다면, 요한의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참지 못하고 덤벼들다가 죽게 될 수도 있음을 주님은 잘 알았다.

184:4.3 (1984.4) 예수께서는 이 끔찍한 시간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인격체 관계 속에 결합된, 인류 가운데서 온화하고 예민한 이 혼에게는, 무지하고 잔인한 경비병과 하인들의 처분에 맡겨진 이 끔찍한 시간보다 더 쓰라린 굴욕의 잔은 없었는데, 이들은 소위 산헤드린 법정의 위원들이 보여준 태도에 자극 받아서 그를 학대했다.

184:4.4 (1984.5)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죄로 어두워진 불행한 유란시아라는 구체에서 무지하고 미혹된 피조물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광경을, 천상{天上}의 지성체들이 봤을 때, 방대한 우주로 퍼져나간 그들의 분노의 전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인간의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184:4.5 (1984.6) 사람이 영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지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도록 유도한, 사람 속에 있는 이 동물적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지혜가 뛰어나고 영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악한 야만성이, 반{半}_문명화된 사람 속에 여전히 숨어있다. 반항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그들이 육체적으로 공격하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기쁨을

나타낼 때, 문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의 악한 야비함과 야만적인 만행을 똑똑히 보라. 이런 모욕과 조롱 그리고 구타가 주님께 가해졌을 때, 그가 방어하지 않은 것이지,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패배하지 않았으며, 물리적 의미에서 대항하지 않았을 뿐이다.

184:4.6 (1985.1) 이때는, 멀리 퍼져가는 광대한 우주를, 창조자, 유지자, 및 구원자로서, 오랫동안의 다사{多事}한 생애에서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승리하는 순간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전체 인생을 다 살았으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 계시하,는 새롭고 전례 없는 일을 이루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때, 피조 인격체가 고립되는 온갖 두려움을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여러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정체성을 마침내 성취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주저함 없이 단언하며;그 숭고한 최고의 체험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에 기초해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천국을 믿는 각자가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을 권고한다. 예수의 종교를 생생하게 체험함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기법이 돼줌으로써,

영적으로 고립되고 시공우주에서 고독한 이 세상의
필사자들은, 인격체의 고립으로부터, 그리고 아울러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 및 연관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앙 아들은, 하늘 나라라는 우애
있는 실체를 이루어, 개인적 및 세계적 자아 고립
상태로부터 최종적으로 구조됐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에서 영적으로
사회화하는--즉 완전성 달성이라는 신성한 운명을
영원토록 실현해 가는 것과 관련된 저 높은 곳의
시민신분을 얻는-- 환희와 웅장함을 점점 더 맛본다.

5. 법정의 두 번째 회합

184:5.1 (1985.2) 다섯 시 반에 법정이 다시 모였고, 예수께서는
요한이 기다리는 옆방으로 끌려갔다. 빌라도에게 제시할
고소장{告訴狀}을 법정에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동안,
여기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감시했다.
안나스는, 신성 모독 죄만 갖고는 빌라도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동역자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법정의 이 두
번째 회합이 있는 동안 유다도 참석했지만, 증언은 하지
않았다.

184:5.2 (1985.3) 이번에 열린 법정은 반 시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빌라도 앞으로 가려고 휴회했을 때, 세 가지 항목에 의거해서 예수가 사형 받아 마땅하다는 기소장을 작성했다:

184:5.3 (1985.4) 1. 유대 국가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임;민족을 속였고 반역을 일으키도록 선동했음.

184:5.4 (1985.5) 2.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음.

184:5.5 (1985.6) 3. 새로운 종류의 나라의 왕이요 창설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황제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려 했음.

184:5.6 (1985.7) 이런 진행 전체는 변칙적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에도 전적으로 어긋났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도, 변론을 위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그가 의도하는 의미를 설명하도록 예수께 질문하지도 않았다.

184:5.7 (1985.8) 법정이 그에게 일관되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은 신성 모독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전적으로 그의 직접 고백에 의존하려고 했다. 심지어 신성 모독에 관한 것에서도, 그들은 사형 선고를 위한 공식 투표를 하지 못했다.

184:5.8 (1985.9)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져가기 위해 세 가지 기소 조항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 조항들은 증언도 듣지 않은 것이었고, 기소된 죄수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 일이 끝나자, 바리새인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났으며;그들도 예수께서 죽게 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증인도 없이, 그리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184:5.9 (1986.1)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다시 나가지 못했다. 죄 없는 생애를 재판하는 동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낭독되는 것을 듣기 전에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공식 기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

184:5.10 (1986.2) 예수께서 요한과 경비병들과 함께 같은 방에 있는 동안,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이 열리는 동안, 대제사장의

저택에 있던 부인들 몇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그 색다른 죄수를 보려고 거기에 와서,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네게 말해도,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네게 물어봐도, 너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184:5.11 (1986.3)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 그날 아침 여섯 시에 가야바의 집에서 끌려 나갔는데, 산헤드린 법정에서 매우 불의하고 변칙적으로 결정한 사형 선고를 확정받기 위해서였다.

제185편 빌라도의 심문

185:0.1 (1987.1) 서기 30년 4월 7일, 이 금요일 아침 여섯 시 조금 지난 뒤에, 예수께서는 로마인 행정관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시리아 지방총독의 직접 감독 하에, 유대지방, 사마리아, 및 이두매를 다스렸다. 밧줄로 묶여 있는 주님을 성전 경비병들이 로마 총독 앞으로 데려왔으며, (주로 사두개인인)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 가롯 유다, 및 대제사장 가야바를 포함해서, 오십 명 정도의 고소인과 사도 요한이 따라왔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85:0.2 (1987.2)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 데 로마 군인을 동원하도록 허락받으려고 전날 저녁에 왔던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일찍 자기 앞으로 끌려오리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침 일찍 몰려오는 이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안토니아의 요새 곁에 있는 집정관 관저{官邸} 앞에서 열리기로 계획됐는데, 그곳은 빌라도가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본부로 사용하는 장소였다.

185:0.3 (1987.3)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는 일 대부분을 집정관 집무실에서 했지만, 공개 심문은 정문으로 연결된 바깥 계단에서 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부여된 특권이었는데, 그들은 유월절 예비일에 누룩을 사용할 수도 있는 이방인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행위가 그들을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오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해가 지고난 후에 청결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곤 했다.

185:0.4 (1987.4) 이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락을 꾸미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정결 예식과 전통적 규칙을 지키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졌다. 그리고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인간 복지의 사소한 일들에는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신성한 본성을 지닌 높고 거룩한 책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만은 아니었다.

1. 본디오 빌라도

185:1.1 (1987.5)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지역들을 다스리는 제법 충실한 총독이 아니었다면, 디베리우스가 그를 유대지방 행정관으로서 10년이나 남아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런대로 선한 통치자였으나, 도덕적으로는 비겁했다. 그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과제의 본질을 납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도량이 넓지는 못했다. 그는 이 히브리인이, 진짜 종교, 즉 그들이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수백만 히브리인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성지로 바라보며 산헤드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185:1.2 (1988.1)

빌라도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런 뿌리_깊은 증오심은 일찍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모든 로마 식민지 가운데, 유대지방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곳은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다룰 때 수반되는 문제를 똑바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부임한 초기에 거의 치명적이고 자멸할만한 일련의 실책을 범했었다. 그리고 이 실책으로 인해, 유대인은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킬 듯한 행동을 취하면 됐고, 빌라도는 곧 승복하곤 했다. 행정관의 이런 명백한 우유부단, 또는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주로 그가 유대인과 가졌던 몇 번의 논쟁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으며, 그때마다 그들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빌라도가 자기네를 두려워하는 것, 즉 디베리우스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총독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이 경험을 이용했다.

185:1.3 (1988.2)

빌라도가 유대인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은, 몇 차례의 유감스런 충돌 결과로 발생됐다. 우선, 그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모든 형상을 배격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선입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전임자의 수하에 있던 로마 군인의 관례대로, 자기 군인들이 가이사의 형상을 새긴 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이, 5일 동안이나 빌라도 앞에 나와서 군기{軍旗}에서 이 형상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단호히 그들의 청을 거절했고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빌라도는 무신론자였으므로,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따라서 그들이 반항하는 태도로 저택 앞에 몰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죽을 각오가 돼있다는 말을 전했을 때 크게 당황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이 기꺼이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결국 굴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의 기에서 형상을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의 변덕스러움에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던 그의 태도에서 약점을 발견했다.

185:1.4 (1988.3) 그 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잃은 위신을 되찾기로 결심했고, 그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의 벽에 황제의 방패들을 걸어놨는데, 그것은 황제 숭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이 항의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항의를 거절하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호소했고, 황제는 감정을 해치는 방패를 치우라고 즉시 명령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전보다도 더 위신을 잃게 됐다.

185:1.5 (1988.4) 유대인이 그를 냉대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큰 종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 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감히 성전 재정에서 돈을 취하려 한 일이었다. 유대인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성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빌라도의 이런 주제넘은 통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비난했다. 이런 결정 때문에 20회 이상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피를 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심각한 소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갈릴리인이 학살당했는데, 심지어 제단에서 경배하다가 학살되기도 했다.

185:1.6 (1988.5) 우유부단한 이 로마 통치자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 보장을 위해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았지만,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성전의 기물이 그리심산에 묻혀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무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올라갔고; 그의 약속과 달리, 신성시되는 기물을 숨겼다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구실로 쓸데없이 사마리아인을 학살한 탓에, 그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음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의 결과로, 시리아 지방총독이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했다. 디베리우스는 빌라도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죽었고, 그는 유대지방 행정관으로 재임명 받지 못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느낌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새 황제의 눈에도 벗어났고, 퇴직해서 로잔느 지방으로 갔으며, 나중에 거기서 자살했다.

185:1.7 (1989.1)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는, 그녀에게 시중드는 하녀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이 하녀는 천국 복음을 믿는 페니키아인

신자였다. 빌라도가 죽은 후에, 클라우디아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됐다.

185:1.8 (1989.2)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 오전에 일어난 많은 것을 설명한다.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빌라도에게 지시할 수 있었는지--즉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여섯 시에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자기네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서슴없이 위협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85:1.9 (1989.3) 유대인 관리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덕망 있는 로마 총독이었다면, 그들의 잘못된 고소에 대해 결백하고 잘못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그 사람을, 피에 굶주린 이 종교 광신자들이 죽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정부는 자격 없는 빌라도를 보내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도록 했을 때, 이미 큰 실수, 즉 세상의 일에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디베리우스는 제국 내에서 최고의 지방 경영자를 보냈어야 했다.

2. 빌라도 앞에 선 예수

185:2.1 (1989.4) 예수와 고발인들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모였을 때, 로마 총독이 나와서, 무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명한 후에 물었다:“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를 암살하기로 결단했던 사두개인과 의원{議員}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고소 이유도 자진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사형 집행 언도를 허락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법정 위원들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이 사람이 악을 행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께 끌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85:2.2 (1989.5) 그들이 예수의 죄목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빌라도는 그들이 지난 밤 내내 그의 죄에 대해 심의한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너희가 정확한 죄목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너희는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자체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느냐?”

185:2.3 (1989.6) 그러자 산헤드린 법정 서기가 빌라도에게 말했다:“우리가 누구든지 사형시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우리 민족을 소란하게 하는 이 자는,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결을 인준 받으려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185:2.4 (1989.7)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로마 총독 앞에 왔다는 사실이, 예수에 대한 산헤드린 회원들의 증오심과 불편한 심기뿐 아니라, 그들이 빌라도의 공정성, 명예, 및 위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배당하는 시민이 그 지방의 총독 앞에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정한 심문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범행 사실을 제시하지도 않고 사형 집행을 요구하다니, 얼마나 뻔뻔스런 일인가!

185:2.5 (1989.8)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 가운데서 행한 것을 조금 알았고, 예수께 씌우려는 고소 내용은 유대인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이라고 추측했으므로;이 사건을 그들 자체의 법정에서 처리하도록 돌려보내려고 했다. 또한,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지독하게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끌고 온 동족 한 사람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집행하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고백하도록 만들면서 희열을 느꼈다.

185:2.6 (1990.1)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빌라도가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더 자세히 들은 것은, 자정이 되기 직전인 불과 몇 시간 전이었으며, 예수를 은밀히 체포하기에 로마 군인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였는데, 클라우디아는 유대교로 어설프게 개종했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충분히 성숙한 신자가 됐다.

185:2.7 (1990.2) 빌라도는 이 심문을 연기시키려고 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때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오전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금요일인 이날은 쉬면서 경배하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때라는 것도 알았다.

185:2.8 (1990.3) 접근해 오는 이 유대인의 무례한 태도에 심히 예민해진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하지도 않고 사형을 언도하라는 그들의 요구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수에 대한 그들의 고소장을 제시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잠시 쉰 뒤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나는 심문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으며;그에 대해 문서로 고소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를 심문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85:2.9 (1990.4) 빌라도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법정 서기에게 손짓했으며, 그가 예수에 대한 기소문을 빌라도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기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185:2.10 (1990.5) “산헤드린 법정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죄로 인해 그가 행악자라는 것과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185:2.11 (1990.6) “ 1. 우리 민족을 나쁜 길로 이끌고 반역하도록 우리 민족을 선동했음.

185:2.12 (1990.7) “ 2.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음.

185:2.13 (1990.8) “ 3.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고 가르쳤음.”

185:2.14 (1990.9) 예수께서는 이런 고소 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시도한 적이 없었고, 법에 저촉되게 한 적도 없었다. 이 죄목들이 처음 낭독됐을 때 그는 듣지도 못했지만,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는 집정관 관저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고, 예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이 죄목들을 다시 읽으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185:2.15 (1990.10) 예수께서는 이런 죄목을 들었을 때, 전에 있었던 유대인 법정에서 이 내용을 들은 일이 없었음을 잘 알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과 요한 세베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의 거짓 고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고발인들에게 대답하라고 빌라도가 그에게 명했을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빌라도는 모든 진행이 불공정한 것에 너무 놀랐고, 예수의 침묵과 놀라운 인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죄인을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비공식으로 심문하려고 했다.

185:2.16 (1990.11) 빌라도의 정신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그의 기질은 심히 동요됐는데, 피에 굶주린 고발인들 앞에 위엄 있게 서서, 무언{無言}의 경멸심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한 애정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예수의 모습 때문이었다.

3. 빌라도의 사적인 심문

185:3.1 (1991.1)

빌라도는 경비병을 바깥 방에 남겨둔 채, 아무도 없는 방으로 예수와 요한 세베대만 데려갔으며, 죄수를 앉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앉아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빌라도는 그에 대한 첫째 기소 항목:즉 그가 민족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자 및 반역 선동자라는 내용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면서 예수께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느냐?”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했다:“저 사람, 또는 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자 빌라도가 세금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요한에게 질문했으며, 요한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증언했고, 예수와 사도들이 가이사의 세와 성전 세를 둘 다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빌라도는 요한에게 질문을 마친 후에, “내가 너와 말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일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

185:3.2 (1991.2)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더 질문하려고 돌아서서 말했다:“자, 이제 너에 대한 셋째 기소 내용에 대해서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 행정관에게 미소 지으면서 말씀했다:“빌라도야, 네가 스스로 이것을

묻느냐, 아니면 나를 고발하는 저들에게서 이 질문을 취했느냐?” 그러자 총독이 조금 분개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동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끌고 와서 네게 사형을 언도하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들의 고소가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것이며,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몸소 알아보려는 것뿐이다. 내게 말하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새 왕국을 세우려고 도모했느냐?”

185:3.3 (1991.3)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네가 모르겠느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유대인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내 제자들이 싸웠을 것이 분명하다. 내가 묶인 채 네 앞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내 나라는 영적인 영역, 즉 신앙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형제관계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185:3.4 (1991.4) “그러면 결국 네가 왕이 아니냐?”고 빌라도가 말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내가 그런

왕이고, 내 나라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신앙 아들들이 모인 가족이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더욱이 모든 사람에게 내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네게 선언한다.”

185:3.5 (1991.5) 그러자 빌라도는 반쯤 비웃으면서, 그리고 반쯤은 진실하게 말했다: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누가 그것을 안단 말이냐?”

185:3.6 (1991.6) 빌라도는 예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의 영적인 나라의 본성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죄수가 죽을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확신했다. 온화하고 지친, 그러나 당당하고 깨끗한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세속 권좌에 올라서려는 열망으로, 거칠고 위험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빌라도마저 예수를 직접 대면해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족했다. 빌라도는, “지혜 있는 자가 곧 왕이라”고 선언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교훈에 익숙했으므로, 자신을 왕이라고 한 예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위험한 선동꾼이라기보다는, 무해한 공상가, 즉 순진한 광신자에 불과하다고 온전히 확신했다.

185:3.7 (1991.7) 주님께 질문을 마친 후에,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내가 이 사람을 심문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너희가 그에 대해 기소한 내용처럼 그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매우 분노해서 동요했고, 예수를 죽여야한다고 격렬하게 고함쳤으며;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직접 빌라도 옆으로 올라와서 말했다:“이 사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지방을 두루 다니며 민족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해독을 끼치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악한 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오래도록 후회할 것입니다.”

185:3.8 (1992.1) 빌라도는 예수께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압력을 받았으므로;그가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그들의 말을 듣자, 그때 유월절에 참여하여 성{城}에 머물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를 보냄으로써, 자신은 그

사건을 결정짓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다못해 생각할 시간이라도 벌어보려고 생각했다. 또한 빌라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때 자신과 헤롯 사이에 관할권 문제로 여러 차례 오해해서 생긴 증오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85:3.9 (1992.2)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갈릴리인이다. 그를 헤롯에게 끌고 가서, 심문을 마치거든, 그가 알아낸 것을 내게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헤롯에게 끌고 갔다.

4. 헤롯 앞에 선 예수

185:4.1 (1992.3)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에 들릴 때, 헤롯 대왕이 소유했던 옛 마카비 궁전에 머물렀으며, 예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간 곳은, 전에 왕의 처소였던 그 궁전이었고, 고발인들과 점점 늘어나는 대중이 그 뒤를 따라왔다. 헤롯은 오래 전부터 예수에 대해 들었고, 그에 관해 많은 호기심을 가졌다. 이 금요일 아침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사악한 이두매인은, 그가 바로, 공공 건물 가운데 하나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에게 지급돼야 할 돈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수년 전에 세포리에서 자기에게 항변하면서 서 있던 그 소년임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 헤롯은 자기가 기억하기로, 예수의 일이 주로 갈릴리에 집중됐을 때 그에 대해 크게 염려한 적은 있었지만, 그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빌라도와 유대지방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헤롯은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면서도, 그를 보고 싶어 했다. 헤롯은 예수가 행한 기적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그가 아무 이적이든지 행하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다.

185:4.2 (1992.4) 그들이 예수를 헤롯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영주{領主}는 그의 위엄 있는 모습과 평온하고 침착한 표정에 깜짝 놀랐다. 헤롯이 약 15분 동안 예수께 질문했지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헤롯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감히 말하면서 조롱했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여러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의 조롱에 반응하려 하지 않았다.

185:4.3 (1992.5) 그리고 나서, 헤롯은 고개를 돌려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고발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아들이 행했다고 주장하는 악행에 대해 빌라도가 들은

모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들었다. 마침내,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자기를 위해 기적을 베풀지도 않을 것을 알고, 헤롯은 그를 몇 차례 희롱한 후에, 왕족이 입는 붉은 자주색 예복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은 유대지방에 소속된 예수를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예수를 갈릴리에서 몰아내게 됐음을 기뻐했지만, 그를 죽이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지워졌다는 것에 감사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결과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리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었다. 헤롯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요한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때도 있었다. 감히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난했던 노골적이고 성미 사나운 그 선지자에 비해, 예수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봤으므로, 그는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됐다.

5. 빌라도에게 돌아온 예수

185:5.1 (1993.1) 경비병들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 때, 그는 재판석이 차려진 집정관 관저 앞 계단에 나와 있었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말했다:“너희는, 이 사람이 민족을 나쁜 길로

이끌었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으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내 앞에 데려 왔다. 나는 그를 심문했지만 그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고, 그 영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분명히, 이 사람을 죽일만한 아무 이유도 없다. 너희가 그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나는 그를 놓아주기 전에 혼내줄 용의가 있다.”

185:5.2 (1993.2) 유대인이 예수의 석방에 반대하여 소리 지르려는 순간, 큰 인파가 유월절 축제에 대한 기념으로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기 위해, 집정관 저택으로 행진해 왔다. 유월절 기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놓아주도록 민중이 요청할 때, 로마 총독이 이를 허락하는 것이 한동안 관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인파가 죄수 한 명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그 앞으로 왔고, 예수께서는 최근에 대중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으므로, 예수께서 지금 재판석 앞에 있는 죄인이니, 유월절에 선정{善政}을 베푸는 표시로, 이 갈릴리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이 무리에게 제안함으로써, 이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빌라도에게 떠올랐다.

185:5.3 (1993.3) 인파가 그 건물 계단위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 빌라도는 그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들었다. 바라바는 어느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유명한 정치 선동가요 흉악한 강도였으며,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최근에 체포된 자였다. 이 사람은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형 당하게 돼 있었다.

185:5.4 (1993.4) 빌라도가 일어서서, 제사장들이 예수를 데려왔고, 어떤 죄목으로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죽일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파를 향해 설명했다.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니, 내가 어느 죄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기 원하느냐, 살인자인 이 바라바냐, 아니면 이 쪽에 있는 갈릴리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바라바, 바라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는 아우성에 재빨리 가담하는 한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185:5.5 (1993.5)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대중이 예수를 경외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제사장과 관리들의 감시를 받으며, 빌라도 앞에서 목숨이 달린 재판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군중은 존경하지 않았다. 돈 바꾸는 자와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낼 때에는 민중의 눈에 예수께서 영웅으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적의 수중에서 반항도 하지 않고 목숨이 달린 재판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185:5.6 (1993.6)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악명 높은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시끄럽게 요구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났다. 그는 그들의 살의와 증오심을 봤고, 그들의 선입견과 질투심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너희가 어찌하여, 고작해야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죄를 지은 이 사람보다, 오히려 살인자의 목숨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치 못했다. 유대인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 굴복하지만, 메시아가 나타나 권능과 영광을 크게 나타내면서, 자기네를 이방인의 속박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온화한 태도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제는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선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취급하려는 듯한 암시에, 그들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분개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의 존재에서 신성시하고 영예롭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모욕하는 듯한 말을 들었으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목이 터져라 힘차게 외쳤다.

185:5.7 (1994.1) 고소 내용에 대해 예수가 무죄임을 빌라도는 알았으며, 공정하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었다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난 이 유대인의 도전 받게 되기를 두려워했으며, 망설이면서 자기 직분을 수행치 못하고 있을 때, 심부름꾼이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로부터 밀봉한 편지를 가져와서 그에게 건넸다.

185:5.8 (1994.1) 빌라도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계속 진행시키기 전에, 방금 전달받은 편지를 먼저 읽어보겠다고 말했다. 빌라도가 개봉해서 읽은 편지에는: “예수라 불리는 무죄하고 의로운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난 밤 꿈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클라우디아가 보낸 이 편지로 인해 빌라도가 심히 당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유대인 관리들이 자유롭게 군중 속을 돌아다니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부르짖으라고, 사람들을 재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185:5.9 (1994.2) 마침내 빌라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더 힘쓰기로 하고, 사면을 요청하는 인파와 유대인 관리들이 섞여있는 무리에게 물었다:“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뒤섞여 있는 대중의 한결같은 요구는, 불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재판관인 빌라도를 깜짝 놀라게 했다.

185:5.10 (1994.3) 그러자 빌라도는 한 번 더 말했다:“너희가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하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없느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려는 말을 들은

그들은 오직 더 크게 소리쳤다;“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5.11 (1994.4)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 죄수를 사면하는 것에 관해 그들에게 다시 호소하면서 말했다:“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묻겠는데, 너희 유월절 때에 내가 이 죄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줘야 하겠느냐?” 그리고 인파는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라고 소리쳤다.

185:5.12 (1994.5) 그때 빌라도가 말했다:“내가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준다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리고 대중은 다시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5.13 (1994.6)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직접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군중의 끈질긴 부르짖음에 위협 당했으나;그럼에도 그는 적어도 한 번 더 인파를 달래서 예수를 구해보기로 결심했다.

6. 빌라도의 마지막 호소

185:6.1 (1994.7) 금요일인 이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는, 오직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만 참여했다. 그가

지난밤에 체포되어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발각돼서 예수의 교훈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지 않도록 숨어 있었다. 이때 주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대중은, 오직 그를 공공연히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경솔한 민중뿐이었다.

185:6.2 (1995.1) 빌라도는 한 번만 더 그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했다. 그는 예수의 피를 보려고 외치는 오도{誤導}된 폭도들의 외침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면서, 유대인 경비병과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에게만 채찍질 하도록 돼 있었으므로, 이것은 원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처사였다. 경비병들은 예수께 이런 고통을 가하기 위해 관저{官邸} 안마당으로 끌고 갔다. 그의 적들은 이 채찍질을 보지 못했지만, 빌라도가 그것을 지켜봤고, 그들이 이 지독한 학대를 끝내기 전에, 그는 채찍질하는 자들을 멈추게 했고, 예수를 끌고 오도록 명했다. 채찍질하는 자들은 그를 나무에 묶고, 매듭진 채찍으로 때리기 전에, 그에게 자주색 예복을 다시 입혔으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이마에

씩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손에, 왕을 상징하는 홀{笏} 대신, 마른 갈대를 쥐어준 후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했다:“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그를 끌고 가기 전에, 갈대를 손에서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렸다.

185:6.3 (1995.2) 그 후에 빌라도는 상처 나고 피 흘리는 이 죄수를 데리고 나가서, 잡다한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이 사람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며, 그를 채찍으로 때렸으니, 풀어주겠다.”

185:6.4 (1995.3) 거기에 서 있는 예수께서는 왕족의 낡은 자주색 예복을 입었고, 그의 온화한 이마에는 가시관이 박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몸은 고통과 비탄에 젖어서 구부정했다. 그러나 종교적 선입견에 노예가 되고 격렬한 감정적 증오심의 희생자가 된 그들의 무정한 마음에는 어떤 호소도 소용없었다. 이 장면은, 광대한 우주 영역들 도처에 강렬한 전율이 일어나게 했지만, 예수의

파멸을 완수시키기로 이미 결심한 그들의 정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185:6.5 (1995.4) 주님의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 처음 받았던 충격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직 더 큰 소리로 더 오랫동안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85:6.6 (1995.5)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그들에게 동정심이 있다고 가정하여 호소했던 것이 쓸데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가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감지했지만, 그가 사형당할 만큼 무슨 일을 했느냐? 누가 그의 죄를 증명하겠느냐?”

185:6.7 (1995.6)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와 빌라도에게로 올라가면서, 성내며 주장했다: “우리에게는 신성시되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유대인 때문만이 아니라, 신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그리스 신화와 아내의 편지가 생각났으므로 더 두려워했으며, 이제는 예수께서 신성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벌 떨었다. 인파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 하면서, 그는 예수를 심문하기 위해 그의 팔을 붙들고 다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빌라도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혼돈에 빠졌고, 미신적인 마음 때문에 당황했으며, 군중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초조했다.

7. 빌라도의 마지막 면담

185:7.1 (1995.7) 빌라도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정말로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이 무슨 뜻이냐?”

185:7.2 (1996.1) 그러나 그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선언하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그를 다시 채찍질하도록 허락할 만큼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두려워하고 연약하며 우유부단한 재판관이 질문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질문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느냐? 너를 놓아줄 수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직 내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는 나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고, 오직 저 높은 곳에서만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사람의 아들에게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네 죄가 크지 않다. 나를 배반한 자와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185:7.3 (1996.2) 예수와 나눈 이 마지막 대화가 빌라도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도덕적으로 겁쟁이요, 재판에서 마음이 나약한 이 사람은, 이제 미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인간적으로 끔찍이 무서워하는 이중 압박 아래서 괴로워했다.

185:7.4 (1996.3) 빌라도가 다시 인파 앞에 나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이 오직 종교적 죄를 범했다고 확신한다.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가 너희 전통을 위반했다고 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죽이는 데 내가 찬성하리라고 기대하느냐?”

185:7.5 (1996.4) 빌라도가 예수를 막 풀어주려고 했을 때, 겁먹고 있는 로마 재판관 앞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서, 빌라도의 얼굴 앞에 복수하려는 듯이 손가락을 흔들면서, 모든 대중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화가 난 어투로

말했다:“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며, 나는 황제를 만나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요.” 이런 공공연한 위협을 빌라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개인 운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른 모든 고려 사항은 빛을 잃게 됐고, 비겁한 총독은 예수를 재판석 앞으로 끌고 오도록 명했다. 주님이 자기 앞에 서자, 그는 그를 가리키며 조롱해 말했다:“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자 유대인이 대답했다:“그를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심히 빈정대고 비꼬는 투로 말했다:“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겠느냐?” 그리고 유대인은 대답했다:“그렇소,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우리에게서 오직 가이사만이 왕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는 한, 예수를 살릴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8. 빌라도의 비참한 굴복

185:8.1 (1996.5) 사람의 아들이로서 육신화 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고소장 없이 체포됐고;증거 없이 고발당했으며;증인 없이 판결 받았고;평결 없이 벌을 받았으며;이제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고 고백한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은 그런 왕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 경솔한 민중조차 충격을 받았지만, 군중이 감히 주님의 주장을 지지한다 해도, 이제 예수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185:8.2 (1996.6) 빌라도는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그는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소란이 일어나는 위험을 감당할 마음이 없었다. 그는 최근에 가이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므로, 다시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명하자 군중은 환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과 대야를 가져오도록 명했고, 대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관하다. 너희는 그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라. 군인들이 그를 끌어낼 것이다.” 그러자 군중은 환호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대답했다.

제186편 십자가에 못박히기 직전

186:0.1 (1997.1) 예수와 고발인들이 헤롯을 만나려고 출발할 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서서 말씀했다: “요한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할 일이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내 어머니를 모셔 오거라.” 이런 주님의 요청을 들은 요한은, 적들 가운데 그를 혼자 남겨두기 싫었지만, 베다니를 향해 서둘러 떠났는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려낸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의 가족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186:0.2 (1997.2) 그날 아침 심부름꾼들이 예수의 재판 진행 소식을 여러 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했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예수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 요한이 베다니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야, 예수의 가족이 거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한밤중에 체포된 후 일어난 모든 일을 요한 세베대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맏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 세베대와 함께 즉시 길을 떠났다. 마리아와 요한이 성에 도착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병사들과 함께 이미 골고다에 도착했다.

186:0.3 (1997.3)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요한과 함께 출발했을 때, 예수의 여동생 롯은 나머지 가족과 함께 뒤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롯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오빠 유다가 롯과 같이 갔다. 주님의 나머지 가족은 야고보의 지시 하에 베다니에 남았으며, 맏형 나사렛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끔찍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윗 세베대의 심부름꾼들이 거의 매 시간 와서 보고했다.

1. 가롯 유다의 최후

186:1.1 (1997.4) 같은 날인 금요일 아침 여덟 시 반쯤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에 대한 공판이 끝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을 로마 병사들의 손에 넘겨졌다. 로마인이 예수를 넘겨받자마자, 유대인 경비병 지휘관은 부하들과 함께 행진해서 성전 본부로 돌아갔다. 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 동역자들은 경비병들 바로 뒤에 쫓아갔고, 성전에 있는, 다듬어진 돌로 지은, 그들이 항상 모이던 방으로 직행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을 만났다. 가야바가 예수에 대한 재판과 유죄 판결에 관해 산헤드린에 보고하고 있을

때, 주님을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기여한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유다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186:1.2 (1997.5) 이 유대인들은 모두 유다를 아주 싫어했으며;오직 심히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배반자를 바라봤다. 예수께서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는 동안, 그리고 빌라도 앞에 계신 동안 내내, 유다는 자신의 배신행위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판 행동의 대가{代價}로 받게 될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유대인 권세자들의 냉담함과 쌀쌀맞은 태도가 싫었으나;그럼에도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해 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는 산헤드린 전체 모임이 있기 전에 청함을 받고 참석하게 됐으며, 자기 민족을 도왔다고 우쭐해졌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여, 그에 걸맞은 상을 거기서 그들이 수여하면서 자신을 칭송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이 그에게 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방 밖으로 불러내고, "유다여, 예수를 판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았소.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보상금이오"라고 말했을 때, 이 이기적인 배신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야바의 하인은 유다에게, --우수하고 건강한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인-- 은전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건넸다.

186:1.3 (1998.1) 유다는 대경실색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되돌아 달려갔으나,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산헤드린에 호소하려 했으나,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유다는, 친구들과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나서 은전 30개로 보상하려는, 이 유대인 관리들의 처사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굴욕과 환멸을 느꼈으며 완전히 낙담했다. 그는 마치 녀이 빠진 듯 성전에서 걸어 나갔다. 그는 무의식중에 돈주머니를 자기 전대{纏帶}에 넣었으며, 그 전대는 사도들의 자금을 간직하는 주머니를 오랫동안 넣고 다닌 것이었다. 인파가 십자가형을 지켜보기 위해 떠난 후에, 그는 성을 두루 방황하며 돌아다녔다.

186:1.4 (1998.2) 유다는 예수를 못박은 십자가를 그들이 들어 올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으며, 이것을 본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문지기들에게 자기를 들어가게 하라고 으박지르다가, 마침내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는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됐다. 배반자는 숨이 턱까지 찼고 거의 미친 상태가 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내가 죄 없는 피를 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무례하게 대우했습니다. 내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곧 한 사람의 노예에 대한 값을-- 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며;여기 여러분의 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저지른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186:1.5 (1998.3) 유다의 말을 들은 유대인 관리들이 그를 비웃었다. 유다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이 앉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방에서 당장 나가라고 손짓하면서 그에게 말했다:“이미 로마인들이 네 주님을 사형시켰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가 당할 일이니--당장 꺼져버려라!”

186:1.6 (1998.4) 산헤드린 회의장을 떠나면서, 유다는 은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전대에서 꺼내 성전 마루 위에 뿌려버렸다. 성전을 떠난 배반자는 거의 미쳐버린 상태였다. 유다는 이제 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악행의 매력, 매혹, 그리고 도취 상태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 행악자는 홀로 서 있었으며, 자신의 혼에

대해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는 심판에 직면했다. 죄를 범할 때에는 매혹을 느끼게 하고 모험심을 키워줬지만, 이제는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의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186:1.7 (1998.5) 한때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의 대사였던 그는, 이제 버림받고 고독한 상태로 예루살렘 거리를 배회했다. 그의 절망감은 극도에 달했으며 거의 절대적이었다. 성을 빠져나가서 성벽 밖에 있는 길을 지나다가, 힌놈의 골짜기의 가파른 절벽에 다다르자, 낭떠러지 바위로 기어 올라갔으며, 외투 허리띠를 풀어서 한 쪽 끝은 작은 나뭇가지에 매고, 다른 쪽 끝을 자기 목에 감은 후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묶었던 매듭이 풀어졌고, 배반자의 몸은 아래에 있는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났다.

2. 주님의 태도

186:2.1 (1999.1) 자신이 체포되자, 예수께서는 필사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인지 완전히 알았고, 소위 재판이라고 불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86:2.2 (1999.2)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예수께서는 위증{僞證}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답변하기를 거절했다. 친구든지 적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대답을 이끌어낸 한 가지 예외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의 신성{神性}과 본질에 관계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호기심 많고 사악한 헤롯 앞에서는 답변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빌라도 앞에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빌라도 또는 다른 진지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만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이때 그의 행동은, 신성한 본성에서 나오는 장엄한 침묵과, 근엄한 위엄에 동반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끈기 있는 순종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정치적 기소 내용에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곧 총독의 사법권에 속한다고 그가

인식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 빌라도와 기꺼이 토론할 의사가 있었다.

186:2.3 (1999.3)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필사 피조물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인간사{人間事}의 과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달았으므로, 사회적으로 근시안이고 영적으로 눈먼 동료 필사자들이 꾸민 음모에 설득력 있는 화술{話術}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순전히 인간적인 능력까지도 사용하기를 거절했다. 예수께서 비록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전체 인간 생애는, 자신이 창조하고 끝없이 유지하는 온 우주를 감화시키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엄청난 광경이었다.

186:2.4 (1999.4) 근시안의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보기 흉하게 외쳐대는 동안, 그는 거기 서서 한 민족--곧 그의 이 세상 아버지의 민족--의 죽어있는 모습을 장엄한 침묵 속에서 바라봤다.

186:2.5 (1999.5) 예수께서는, 근거 없이 계속 쏟아지는 모욕에 직면해서, 위풍당당함을 나타내고 침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類型}의 인간 성품을 습득했다. 그는 협박당할

수 없었다. 안나스의 하인에게 처음 폭행당했을 때, 그에게 대적하여 정식으로 증거 할 수 있는 증인을 부르라고 하는, 타당성 있는 제안을 했을 뿐이다.

186:2.6 (1999.6) 빌라도 앞에서 소위 재판이라는 것을 받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천상의 무리는 그 장면에 대해, “예수 앞에서 재판 받는 빌라도”라는 표현으로 우주에 널리 알릴 수밖에 없었다.

186:2.7 (1999.7)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모두 실패한 후에, 예수께서는 서슴없이 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그렇게 해서,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으로 죄를 씌우려 하는 그들에게 근거를 마련해 줬던 그 증언을, 자신이 직접 했다.

186:2.8 (1999.8) 선의{善意}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를 놓아주려는 마음은 별로 없는 빌라도의 노력에, 주님은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빌라도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어두운 정신에 빛을 비추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는, 유대인에게 호소해서 그에 대한 고소를 취소시키려는 로마 총독의 모든 시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비참한 시련을 겪는 동안 내내, 그는

온전한 위엄과 순수한 품위로 참아냈다. 장차 그를 죽이게 될 자들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결코 불성실한 태도로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꾸밈없는 설명을 덧붙이고 그 칭호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비록 영적 감각에서였더라도, 그들에게 민족의 진정한 지도력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86:2.9 (2000.1)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께서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인간적 성품을 모든 필사자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피조물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로 진심으로 선택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활동적인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이 피조물의 생애 속에 나타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든 우주에 보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말씀했다.

186:2.10 (2000.2) 무지한 필사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친 병사들과 경솔한 하인들의 희롱, 구타, 그리고 학대 앞에서 보여준 그의 인내심과 침착성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그들이 그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서, 조롱하며 그의 얼굴을

때리고, “나를 때린 자가 누구지 알아 맞혀 보라”고 소리쳤을 때에도 그는 화내지 않았다.

186:2.11 (2000.3)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으로 때린 후에, 대중 앞에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을 때,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참되게 말했다. 사랑하는 주권자께서 음침하고 타락한 필사자 신하들로부터 조롱받고 구타당하는 굴욕스런 모습을, 바로 그 순간에 우주가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로마 총독은 정말로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말할 때,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를 보라!”는 음성이, 온 네바돈에 울려 퍼졌다. 온 우주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가 그날 이후로 언제나 그 사람을 끊임없이 지켜봤고, 온갖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보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지방우주의 필사 피조물의 이상{理想}을 만족시켰다고 인정하셨다. 비길 데 없는 자신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기에 실패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이제, 필사자 생애의 마지막 사건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에서, 사람에게 대한 새롭고 감동적인 계시를 하나님께 이뤄 드렸다.

3. 믿음직스런 다윗 세배대

빌라도 앞에서 선고가 내려지고, 예수께서 로마 군인에게 넘겨진 직후에, 주님의 추종자들을 해산시키거나 체포하기 위해 성전 경비병들이 겿세마네로 신속히 파견됐다. 그러나 이 추종자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흩어졌다. 사도들은 지정된 은신처에 숨었으며;그리스인은 헤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집으로 숨었으며;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신했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으므로;기도와 경배를 위해 주님이 종종 물러나 계셨던 산골짜기로, 대여섯 개의 천막을 일찌감치 옮겨놓았다. 그는 이곳에 숨어있으면서, 연락 업무를 관리하는 본부 또는 협조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로 했다. 성전 경비병이 도착했을 때, 다윗은 가까스로 야영지를 빠져나갔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야영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전으로 돌아갔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지리멸렬하여,사형을 집행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구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없어졌다고 안심했다. 그들은 마침내 편히 숨 쉴 수 있게

됐으므로, 회의를 폐하고, 각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갔다.

186:3.2 (2000.5)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자마자, 한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급히 겿세마네로 떠났고, 5분 후에는, 벳새다, 펠라, 필라델피아, 시돈, 세겜, 헤브론, 다마스커스, 및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심부름꾼들이 달려갔다. 그리고 이 심부름꾼들은, 유대인 관리들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서 로마인이 예수를 곧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186:3.3 (2001.1) 마침내 주님이 무덤에 안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비극적인 이날 하루 종일, 다윗은 사도들과 그리스인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는 예수의 육신의 가족에게, 거의 30분마다 심부름꾼을 보냈다. 예수께서 매장됐다는 소식을 갖고 심부름꾼들이 떠나자, 다윗은 가까운 지역에 보내는 심부름꾼 단체가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고, 다가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산시키면서, 니고데모의 집으로 일요일 아침에 모두 은밀히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거기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함께 며칠 동안 숨어 있으려고 했다.

186:3.4 (2001.2) 독특한_성향의 이 다윗 세베대는, 예수 수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죽게 될 것이고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온전한 견해와 명백히 실제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자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언젠가 이 예언을 들은 적이 있었고, 꼼꼼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으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소식을 즉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요일 이른 아침에 니고데모의 집으로 모이라고, 심부름꾼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그가 그토록 속히 무덤에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곧 발견했으며;그랬기 때문에, 그는 심부름꾼 부대를 일요일 아침 일찍 동원시킨 것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금요일 오전에 멀리 있는 도시와 신자들 무리에게 파견했던 심부름꾼들에게만 알려줬다.

186:3.5 (2001.3) 그리하여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그날 밤에는 유월절에 참여했고, 이튿날에는 계속 숨어있었다.

4. 십자가에 못박기위한 준비

186:4.1 (2001.4) 빌라도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아우성에 저항하기가 두려워서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줬다는 죄의식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대중 앞에서 손을 씻은 후에, 주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했으며, 즉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휘관에게 명령했다. 예수를 맡게 된 병사들은 그를 다시 집정관 관저 안마당으로 끌고 갔으며, 헤롯이 입혀준 예복을 벗기고, 그가 원래 입었던 옷을 입혔다. 이 병사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더 이상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혼자 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있게 됐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숨었으며;대적하던 자들은 다 돌아갔으며;요한 세베대도 더 이상 옆에 남아있지 않았다.

186:4.2 (2001.5)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에게 넘겨준 것은 여덟 시 조금 지났을 때였고, 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로 출발한 것은 아홉 시 조금 전이었다. 30분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우주의 행정 업무가 실제로 정지됐다. 가브리엘과 주요 네바돈 통치자들은, 모두 이곳 유란시아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유란시아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계속 조언하려고 애쓰면서, 일정한 간격을 둔 천사장들의 보고에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186:4.3 (2001.6) 예수와 함께 병사들이 골고다를 향해 출발할 때까지, 그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성과 색다른 위엄으로 인해, 즉 불평하지 않는 그의 침묵에 감명 받기 시작했다.

186:4.4 (2001.7)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 장소로 출발하는 일이 늦어지게 된 주요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은 두 강도를 함께 처형하기로 지휘관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했기 때문이었으며; 로마 지휘관은, 예수를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됐으므로, 그 두 사람도 유월절 축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같이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186:4.5 (2002.1) 강도들은 준비되자마자 안마당으로 끌려왔으며, 거기서 예수를 쳐다봤고, 한 사람은 처음 봤지만, 다른

사람은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 달 전에 펠라 야영지에서,
그가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5. 예수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

186:5.1 (2002.2) 예수의 죽음과 유대인의 유월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시간 무렵인 이날에 예수께서 목숨을 던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 동시에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의 죽음이, 유대인의 희생 제사 체제와 어떤 의미에서든지 연결됐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께서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아들로써, 그는 그 영역에 속하는 필사자였다. 주님의 임박한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이미 기술된 사건들만으로도, 이때 그의 죽음이 순전히 자연스런 것이었고,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었음을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186:5.2 (2002.3)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유란시아에서 인간사{人間事}의 진행에 아버지께서 간섭하기를 거절하셨음이 사실이지만, 낙원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죽으라고 아들에게 명하거나,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필사자 육신을 버려야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이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186:5.3 (2002.4) 주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육체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체험, 즉 일곱 번째의 마지막 증여를 완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험의 기법을, 그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완성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임무는 바로 그때 완료됐다. 그 후에 산 여생은 모두, 그리고 그가 죽는 방법까지도, 이 세계는 물론 다른 세계들에 존재하는 필사 피조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 순전히 개인적인 사역이었다.

186:5.4 (2002.5)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필사적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다. 주님의 죽음으로 이 천국 복음 전체가 대단히 빛을 받아왔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지만, 그의 생애로 인하여 훨씬 더 빛을 받았다.

186:5.5 (2002.6)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말씀하고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신분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한 교리를 매우 아름답게 장식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 관계성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아들이 본질적으로 타고나는 자비{慈悲}라는 우주적 사실에 내재돼 있다. 온갖 우주 도처에 이 세계는 물론 다른 모든 세계에서, 사람과 조물주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는 영원부터 존재돼 왔으며;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아들들의 이런 주기적 증여 시행과 상관없는데, 그들은 이처럼 각 지방우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만 하는 값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들의 본성과 모습을 입는다.

186:5.6 (2002.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예수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보여준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가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도, 이 땅에 있는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셨다. 네바돈의
하나님이 유란시아에 사람으로 육신화 한 이 엄청난
사건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보편적인 아버지의 속성들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지만, 네바돈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경영자와 피조물을 계몽시키고 풍성케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미가엘의 이런 증여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는 않지만, 다른 모든 천상의 지성체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온갖 우주에 있는 천상의 지성체들에게 사람을
새롭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186:5.7 (2003.1)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죽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타고난 도덕적 죄책감을
속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족 전체가 가져야 할
그런 죄책감은 인류에게 없다. 죄책감은, 순전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 즉 아버지 뜻과 아들의 경영에 대항해서 고의로
반역했음을 아는 것이다.

186:5.8 (2003.2) 비록 우리가 보기에 구원 계획이 증여 계획 가운데 일시적 기능인 것 같더라도, 죄와 반역은 하나님의 낙원 아들들의 근본적인 증여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다.

186:5.9 (2003.3) 유란시아의 필사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께서 무지한 필사자의 잔인한 손에 죽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유효하고 반드시 이뤄졌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으로 환영받았더라도, 그리고 육신 속에서의 삶을 자발적으로 단념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라는 사실은--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사실은-- 결코 영향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의 개인 체험에서 그런 진리가 사실로 이뤄지게 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요구 사항밖에 없는데, 영으로 태어난 너희의 신앙이다.

제187편 십자가형

187:0.1 (2004.1) 두 강도가 준비된 후에, 병사들은 백부장{百夫長}의 인솔 하에 십자가형{十字架刑}이 있을 현장으로 출발했다. 열두 명의 이 군인을 책임 맡은 백부장은,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할 때 로마

병사들을 인솔하고 갔던 그 지휘관이었다. 십자가에 못박히는 각 사람마다 네 명의 군인이 배정되는 것이 로마의 관례였다. 두 강도는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끌려가기 전에 절차대로 채찍질을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육체의 형벌은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며;지휘관은 그가 유죄판결 전에 맞은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채찍에 맞았다고 생각했다.

187:0.2 (2004.2)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는 바라바의 동역자였고, 그가 빌라도의 유월절 특사{特赦}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나중에 사형 당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

187:0.3 (2004.3) 이제 예수께서 하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었고,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 그는 이런 체험을 예고하면서 말씀했다:“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생명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다. 아무도 내 생명을 뺏지 못한다--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그런 계명을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187:0.4 (2004.4) 이날 아침 아홉 시 조금 전에, 병사들이 집정관 관저에서 골고다를 향한 길로 예수를 끌고 갔다. 예수를 몰래 동정하는 많은 사람도 그들을 따라왔지만, 200명이 넘는 이 무리 대부분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형을 지켜봄으로써 짜릿한 충격을 즐기려는 호기심 많은 한심한 자들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단지 몇 명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예수를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빌라도가 그를 로마 군인에게 넘겨줬다는 것과,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성전에서 회의하느라 바빴으며, 예수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1. 골고다로 가는 길

187:1.1 (2004.5) 집정관 관저의 안마당을 떠나기에 앞서, 병사들이 가로 들보를 예수의 어깨에 메웠다. 사형수에게 가로 들보를 지게 해서 십자가 형장까지 운반해 가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런 사형수는, 십자가 전체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이 나무만 지게 했다. 세 개의

십자가를 위한 비교적 길고 똑바로 세워질 나무들은 이미
굴고다로 운반됐고, 군인과 죄수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벌써 땅 속에 견고히 세워져 있었다.

187:1.2 (2004.6) 지휘관은 관습에 따라서 행렬을 인도했고, 죄인의
이름과 그들이 유죄 판결 받게 된 죄의 종류를 그 위에
숫으로 기록한, 하얀 색의 작은 칠판을 들고 있었다.
백부장은 두 강도를 위해 그들의 이름을 쓴 후에, 그 밑에
“강도”라는 한 마디를 적은 게시판들을 지니고 있었다.
죄수가 가로 들보에 못박히고 똑바로 세워진 나무 위
제자리에 끌어 올려진 후에는, 죄수의 머리 바로 위 십자가
꼭대기에 이 게시판을 못으로 박아 놓아서, 그 사형수가
무슨 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지, 보는 사람마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의 십자가에 붙이기 위해
백부장이 가져온 죄패{罪牌}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및
아람어로 빌라도가 직접 기록했으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187:1.3 (2005.1) 빌라도가 이 패를 쓸 때, 아직 거기에 남아 있던
유대인 권세자 몇 사람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죄명{罪名}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한 기소 내용의 일부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유대인이 빌라도의 마음을 바꾸도록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적어도 그 내용이,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흔들리지 않았으며;그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계속 간청하는 그들에게 오직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고 대답했다.

187:1.4 (2005.2)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형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골고다로 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그들은 이날 성의 북쪽으로 나가는 다마스쿠스 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로 갔고, 이 길을 따라서 곧 골고다에 도착했으며,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공식 십자가 형장이었다. 골고다를 지나가면 부자들의 저택이 있었고, 길 반대편에는 많은 부유층 유대인의 무덤이 있었다.

187:1.5 (2005.3) 십자가형은 유대인이 처벌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페니키아인으로부터 이 처형 방법을 배웠다. 아주 잔인한 헤롯도 십자가형을 채택하지 않았다. 로마인은 결코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으며;오직 노예와 피지배자들만 이런 수치스런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꼭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포위돼 있는 동안, 골고다 전체가 매일같이 수천 개의 십자가로 뒤덮였고, 유대 종족의 활짝 폈던 영화{榮華}가 거기서 사라져갔다. 이 시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정말로 형편없는 수확이었다.

187:1.6 (2005.4) 죽음의 행렬이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지나가자, 연민의 정과 즐거운 기운으로 가득한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그의 삶을 아는 인정 많은 다수의 유대인 여자가, 그런 야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끌려가는 그를 보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이 여자들 대부분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통해 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용감하게 그의 옆에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씀했다:“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슬퍼하라. 나의 일은 거의 끝났지만--즉 나는 곧 내 아버지께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극심한 고난의 때가 곧 시작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아이를 낳지 못한 자와 자녀에게 젖을 먹여보지 못한 자가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재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덕 위의 돌이 너희에게 굴러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187:1.7 (2005.5)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에 대해 동정심을 보인 것은 정말로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는 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자는, 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형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은 허용됐지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금지됐다. 예수께서는 친구들이 숨어있는 이 암담한 때에 보여주는 동정심에 고맙게 생각하긴 했지만, 마음씨 고운 이 여자들이 그에게 감히 동정심을 나타냄으로써, 권세자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를 원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 민족에 임할 극도로 비극적인 날들을 생각했다.

187:1.8 (2006.1) 주님이 십자가 형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서 힘들게 걸음을 옮길 때, 매우 지쳐있었으며;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는 엘리야 마가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로 음식과 물을 조금도 섭취하지 못했으며;또한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더욱이, 사나운 채찍질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고 받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심문을 받아왔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그의 극단적인 정신적 고뇌, 날카로운 영적 긴장감, 그리고 극심한 인간적 고독감이 덧붙여졌다.

187:1.9 (2006.2) 그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을 통과한 후 얼마 안 돼서, 예수께서는 가로 들보를 이겨내지 못해 비틀거렸고, 체력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병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발로 찼으나, 그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것을 본 지휘관은, 예수께서 이미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 병사들에게 그만두라고 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령해서, 예수의 어깨 위에 있는 가로 들보를 내려서 골고다까지 남은 길을 강제로 지고 가도록 했다.

187:1.10 (2006.3)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구레네에서 먼 길을 왔다. 로마 지휘관이 예수의 가로 들보를 지고 가도록 명했을 때, 그는 성{城}에 있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던 도중에, 다른

구레네인과 함께 바로 성 밖에서 쉬고 있었다. 시몬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동안 내내 떠나지 않았고, 주님의 친구와 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는 천국 복음의 훌륭한 신자가 됐으며, 고향에 돌아간 후에는, 온 가족을 하늘 나라로 인도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프리카에서 새 복음을 가르치는 매우 훌륭한 선생이 됐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짐을 대신 져줬던 그 사람, 그리고 부상당했던 자기 아들과 한때 친구로 지냈던 그 유대인 개인 교사가, 이 예수와 동일 인물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187:1.11 (2006.4) 이 죽음의 행렬이 골고다에 도착한 것은 아홉 시 조금 지났을 때였으며, 로마 군인들은 두 강도와 사람의 아들을 각자의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직접 착수했다.

2. 십자가형

187:2.1 (2006.5) 병사들은 먼저 주님의 팔을 가로 들보에 끈으로 묶었고, 그 후에 그의 손을 나무에 못박았다. 그들은 이 가로 들보를 기둥 위로 끌어올리고, 똑바로 세워진 십자가 나무에 견고히 못박은 후에, 발도 나무에 묶고 못박았으며,

한 개의 긴 못으로 두 발을 관통하도록 했다. 똑바로 세워진 나무에는 큰 쇠기 못이 적당한 높이에 박혀 있어서,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 그 십자가는 높지 않았으므로, 주님의 발끝에서 땅까지는 약 3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비웃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인정머리 없이 조롱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또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지속되는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긴 시간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187:2.2 (2007.1)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옷을 모두 벗기는 것이 관례였지만, 벗겨진 육체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유대인이 완강히 거부했으므로, 로마인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히 허리 부분만 감추는 옷을 입혔다. 따라서,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런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187:2.3 (2007.2) 십자가형은 오래 지속되게 하는 잔인한 형벌로 이용됐고, 사형수가 며칠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형을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 형장에 늘 대표자를 보내는 유대인 부인회{婦人會}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취제가 섞인 이 포도주를 맛봤을 때, 그토록 목이 말랐지만, 마시기를 거절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의식{意識}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는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식 속에서도 죽음에 대처하고, 완전한 인간 체험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려 했다.

187:2.4 (2007.3)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두 강도가 이미 각자의 십자가에 달렸고, 그동안 내내 형 집행자들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 때, 그는 오직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뿐이다. 애정 어린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이, 애타적으로 봉사한 자신의 삶 전체의 주요 동기가 아니었다면, 형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그가 그토록 자비롭고 사랑스럽게 중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평소에 하던, 생각, 동기, 및 바램들은 결정적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187:2.5 (2007.4) 주님이 십자가 위로 끌어 올려진 후에, 지휘관이 그의 머리 위쪽 십자가에 죄패를 못으로 박았고, 세 나라 말로, "나사렛 예수--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대인은 이것이 자기네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믿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약이 올랐으며;자기가 협박당하고 자존심 상했던 것을 생각하고,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라도 보복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 반역자"라고 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유대인이 나사렛이라는 바로 그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았으므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려고 작정했다. 사형당한 이 갈릴리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린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골수까지 쓰리게 될 것을 알았다.

187:2.6 (2007.5)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다수는, 빌라도가 이런 기록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여서 자기들을 얼마나 조롱하려는지 알고, 서둘러 골고다로 달려갔지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없애려 하지 못했다. 그 죄패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자, 아무도 그 기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지도자들은 인파 속에 섞여서 비웃고 조소하도록 힘을 다해 선동했다.

187:2.7 (2007.6) 예수를 십자가 위의 제 위치로 끌어 올린 직후에, 그리고 지휘관이 죄패를 주님의 머리 위편에 못으로 박고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롯, 그리고 유다와 함께 사도 요한이 거기에 도착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거기에 모시고 온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을 데려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후 한동안 거기에 없었지만, 열한 사도 중에서 십자가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187:2.8 (2007.7) 예수께서는, 요한과 남동생 및 여동생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자 미소를 띠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은 관례대로 그의 옷을 서로 나뉘었으며, 한 사람은 신발을, 한 사람은 머리에 두르는 수건을, 한 사람은 허리띠를,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외투를 가졌다. 무릎 아래까지 닿는 이음매 없는 남겨진 이 속옷 하나를 네 조각으로 나누려고 하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옷이 아님을 본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서 갖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자기 옷을 나누는 그들과 자기를 조롱하는 경솔한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187:2.9 (2008.1)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지 않고, 그의 추종자들이 이 옷가지들을 가졌다면, 유물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주님은, 추종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어떤 물질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에 바쳐지는 높은 영적 이상{理想}에 헌신된 인간 생애에 대한 그 기억만을 인류에게 남기려고 했다.

3. 십자가형을 본 사람들

187:3.1 (2008.2) 이 금요일 아침 아홉 시 반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열한 시 전까지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런 소름끼치는 시간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무리는,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죽음,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 가장 비참한 죽음을 창조주께서 맞이하는 이 엄청난 장면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187:3.2 (2008.3) 십자가에 달린 동안 언젠가 십자가 옆에는, 마리아, 롯, 유다, 요한,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예수의 이모이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전에 세포리에 있었던 리브가 등을 포함하여, 진지하게 믿는 여러 명의 여신도가 있었다. 이 사람들 및 예수의 다른 친구들은, 그의 위대한 인내심과 깨끗함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극심한 수난을 지켜보면서 침묵했다.

187:3.3 (2008.4)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그를 조롱했다:“네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으니,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또 어떤 유대인 관리들도 비슷한 태도로 조롱했다:“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를 더욱 조롱하면서 말했다:“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줄 것으로 믿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이제 저를 봐라--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느냐.” 심지어 두 강도 역시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187:3.4 (2008.5) 그들의 조롱에 예수께서 대꾸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특별한 예비일의 정오 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열한 시 반쯤이 되자, 희롱하고 야유하던 인파 대부분이 돌아갔으며; 오십 명 미만의 사람이 거기에 남았다. 병사들은 오랫동안 죽는 과정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값싼 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예수를 향해 건배하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행운을 위하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웃음과 조롱에 대한 주님의 관대함에 놀랐다.

187:3.5 (2008.6)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본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 “내가 목마르다.” 경비대 지휘관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병에서 약간의 포도주를 따라서 스펀지로 된 병마개를 흠뻑 적신 후, 창끝에 달아 올려서 예수께서 바짝 마른 입술을 적실 수 있게 했다.

187:3.6 (2008.7) 예수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었으며,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살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죽고자 했다.

4. 십자가 위의 강도

187:4.1 (2008.8) 강도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 자신과 우리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예수를 비난하자, 여러 번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다른 강도가 말했다: “너는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로 마땅히 고통 받지만, 이 사람은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 혼에 대한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고개를 돌린 것을 본 그 죄수는 용기를 내서, 꺼질 듯한 신앙의 불길에 부채질 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오늘 네게 말하는데, 네가 언젠가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187:4.2 (2009.1) 육신이 죽어가는 고통이 한참인 중에도, 주님은 믿음을 가진 강도의 신앙 고백에 귀 기울였다. 구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강도는 구출됐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여러 번 있었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 전심으로 돌아섰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는 태도를 봤을 때, 이 강도는 사람의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187:4.3 (2009.2) 그 강도가 예수로 인해 천국으로 전향{轉向}하고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사도 요한은 거기에 없었고, 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십자가 형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성으로 들어갔었다. 누가는 개종한 로마 경비원 지휘관에게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

187:4.4 (2009.3) 사도 요한은, 사건이 있는 지 약 65년 이상 지난 후에야, 기억을 더듬어서 십자가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기록들은, 근무하던 로마 백부장의 설명에 기초했는데,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으며,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라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했다.

187:4.5 (2009.4) 참회한 강도인 이 젊은이는, 강도 행위야말로 정치적 압제와 사회의 불공정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애국 항거라고 찬미하는 사람들 때문에,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인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모험하고 싶은 충동과 함께 많은 선의의 젊은이를 이끌어서, 기꺼이 강도 원정대에 참여하게 했다. 이 젊은이도 바라바를 영웅으로 추앙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실수했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정말로 위대한 한 사람, 참된 영웅을 봤다. 그 영웅은, 그의 열성을 불타게 하고, 도덕적 자존감이라는 가장 고상한 관념을 심어주고, 용기와 남자다움과 용맹에 대한 그의 모든 이상{理想}을 소생시켰다.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의 마음 속에는, 사랑, 충성심, 및 참된 위대함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이 솟아났다.

187:4.6 (2009.5) 그리고 조롱하던 군중들 가운데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든지, 자기 혼 속에 신앙이 잉태되는 체험을 하고 예수의 자비에 호소했다면, 믿음을 가진 그 강도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의 동정심으로 영접 받게 됐을 것이다.

187:4.7 (2009.6) 언젠가 낙원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회개한 강도가 들은 직후에, 요한이 성에서 돌아왔고, 예수의 어머니와 거의 열두 명이나 되는 여신도가 따라왔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서서 부축했다. 그녀의 아들 유다는 다른 편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 것은 정오 무렵이었고, “여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얘야,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둘 다에게, “이 자리를 떠나기 바란다”고 말씀했다. 그리하여 요한과 유다는 마리아를 겿세마네에서 모시고 내려갔다. 요한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곳으로 예수의 어머니를 안내한 후에, 서둘러 십자가 형장으로 돌아왔다. 마리아는 유월절이 지난 후에 벳새다로 돌아갔고, 거기에 있는 요한의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1년이 못돼서 죽었다.

187:4.8 (2010.1) 마리아가 떠난 후에, 다른 여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할 때까지 거기에 남았으며, 주님의 몸이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전히 지켜봤다.

5.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

187:5.1 (2010.2) 열두 시가 조금 지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이를 때이기는 했지만, 고운 모래가 바람에 날렸으므로 하늘이 어두워졌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모래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예고하는 현상임을 알았다. 한 시경 됐을 때에는 해가 가려져서 무척 어두웠고, 남아있던 인파도 서둘러 성으로 돌아갔다. 이 시각 후 얼마 안돼서 주님이 숨을 거뒀을 때, 30명 미만의 사람, 즉 13명의 로마 군인과 15명 정도의 신자 무리만 남아 있었다. 이 신자들은 두 남자, 즉 예수의 형제 유다와 주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돌아온 요한 세베대 외에는 모두 여자였다.

187:5.2 (2010.3) 한 시 조금 지나서, 강한 모래 폭풍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예수께서는 점차 인간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비, 용서, 그리고 훈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관한--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미 말씀했다. 죽음이 다가오는 동안에 예수의 인간 정신은, 히브리 성서 구절, 특히 시편에서 여러 구절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인간 예수께서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마음 속에 되풀이했는데, 현재 시편 20편, 21편 그리고 22편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입술을 움직이기는 했지만, 너무 쇠약했으므로 이 구절을 소리 내어 말하지 못했고, 완전하게 기억하는 구절을 마음 속에 떠올렸다. 그 가운데 몇 마디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는데, "기름 부은 자를 주께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나의 모든 대적에게 당신의 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구절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음에 대해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으며;지금 아버지 뜻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지 않았으며;다만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여러 성서 구절을 기억했을 뿐이고, 그것들 중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시작하는 시편 22편이 포함됐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들을 수 있을 만한 소리로 말함으로써
우연히 들린, 세 구절 가운데 하나였다.

187:5.3 (2010.4) 필사자 예수가 친구들에게 한 마지막 요청은, 한
시 반쯤 됐을 때,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고 한
말씀이었으며, 당시에 흔히 식초라고 불리는 신 포도주를
똑같은 스펀지에 적셔서, 바로 그 지휘관이 그의 입술을
적시게 했다.

187:5.4 (2010.5)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병사들과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 여전히 옆에
서 있었다. 병사들은 날카로운 모래 바람을 피하려고
십자가 곁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붕처럼
돼 있는 바위 밑에서 지켜봤다.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세베대, 주님의 형제 유다와
자매 롯,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때 세포리에 있었던
리브가가 있었다.

187:5.5 (2011.1)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소리친 때는 세 시
직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한 후에 고개를 숙였고,

악전고투하던 생명이 끊어졌다. 예수께서 죽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자였으며;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187:5.6 (2011.2) 예수께서는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답게 죽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고, 비참한 시간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택한 사도들의 안전을 도모한 후에, 불명예스런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다. 그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폭력을 현명하게 제지했고, 요한에게는 자신의 필사자 실존이 끝나는 순간까지 곁에 있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잔인한 산헤드린에게 나타냈고,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주권적 권세의 근원을 상기시켰다. 그는 가로 들보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출발했으며, 필사자 획득물에 속하는 자신의 영을 낙원 아버지께 위탁함으로써, 애정이 깃든 증여를 마쳤다. 그런 삶을 마치면서--곧 그런 죽음에 즈음해서-- 주님은 정말로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었다.

187:5.7 (2011.3)

이날은 유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으므로, 유대인은 이 시체들을 골고다에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죄수를 묶는 구덩이로 해가 지기 전에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세 명의 병사를 보내서 예수와 두 강도를 죽이고 다리를 꺾게 했다.

187:5.8 (2011.4)

이 병사들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두 강도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 아무튼,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병사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심지어 이틀 또는 삼일 동안 질질 끌며 살아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극심한 감정적 고뇌와 참예한 영적 고통으로 인해, 다섯 시간 반이 약간 못돼서 육신을 입은 필사자 생애가 끝났다.

6. 십자가형 이후

187:6.1 (2011.5)

모래 폭풍으로 어두워진 가운데, 세 시 반쯤 됐을 때,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죽음을 알리는 심부름꾼들을

마지막으로 내보냈다. 그는 마지막 심부름꾼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예수 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머물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87:6.2 (2011.6)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유다를 시켜서 여자들을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보냈으며, 안식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다. 요한 자신은 이때 로마 지휘관과 친해졌기 때문에,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는 명령을 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골고다에 남아 있었다.

187:6.3 (2011.7) 방대한 한 우주에 비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 우주의 무수한 지성체들은, 인간으로 육신화 된 사랑하는 주권자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끔찍한 장면에 몸서리쳤으며; 필사자의 냉담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인해 기절할 정도였다.

제188편 무덤에 있던 시간

188:0.1 (2012.1) 예수의 필사자 신체가 요셉의 무덤에 놓여있었던 하루 반나절, 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기간은, 미가엘이 이 땅에서 보낸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을 매장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지만, 금요일 오후 세 시부터 일요일 새벽 세 시까지, 약 서른여섯 시간 동안 정말로 무엇이 일어났었는지에 관해, 믿을만한 정보를 많이 제시할 수 없다. 주님의 생애 중에서 이 기간은 로마 군인이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직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돌아가신 후 약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두 강도를 죽이는 일로 지체되지 않았다면, 그의 시신을 더 빨리 끌어내렸을 것이다.

188:0.2 (2012.2)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의 시신을 성 남쪽에 있는 게헨나라는 넓은 구덩이에 던져 넣을 계획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주님의 시신은 맹수들에게 뜯겼을 것이다.

188:0.3 (2012.3) 한편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적절히 장사지낼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친구들이, 그런 시체를 소유하는 특권을 위해 로마 관세자들에게 뇌물 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요셉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빌라도에게 갔으며, 예수의 시신을 사유{私有} 매장지로 옮길 수 있는 허락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 요청을 듣자, 그는 요셉이 골고다에 가서 주님의 시신을 즉시 완전하게 소유하도록 한다는 명령서에 바로 서명했다. 그동안, 모래 폭풍이 현저히 감소됐고, 강도들의 시체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넓은 공공 매장지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한 무리가 골고다를 향해 떠났다.

1. 예수의 매장

188:1.1 (2012.4)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병사들과, 죄수를 매장하는 구덩이로 그의 시신을 옮겨가는 일을 예수의 추종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옆에 서서 감시하고 있는 산헤드린 대표자들을 발견했다. 요셉이 주님의 시신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서를 백부장에게 제시하자, 유대인은 자기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들이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맹렬하게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행동에 옮기려 하자, 백부장은 병사들 네 명에게 자기 옆으로 오도록 명령했고, 그들은 땅에 눕혀있는 주님의 시신 양쪽에 칼을 빼들고 섰다. 명령을 받은 다른 병사들이 성난 유대인을 뒤로 물리치는 동안, 백부장은 두 강도의 시체를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다. 질서가 회복된 후에, 백부장은 빌라도가 보낸 명령서를 유대인에게 읽어주고, 옆으로 가서 요셉에게 말했다:“이 시신은 당신의 소유이니 소견대로 하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병사들과 함께 지켜주겠소.”

188:1.2 (2013.1)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유대인의 무덤에 묻힐 수 없었으며;그런 절차를 금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법을 알았고,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 요셉이 새로 만든 가족묘에 예수를 묻기로 결정했었으며, 그 묘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 건너편, 골고다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었다.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고, 그들은 주님을 거기에 눕히는 것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요셉은 정말로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거의 믿지 않았다. 전에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비밀리에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이 협의회를 그만두기 전에도, 산헤드린 회원 동료들 중에는 오래 전부터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날부터 예루살렘 전역에서 예수를 가장 과감하게 전하는 제자가 됐다.

188:1.3 (2013.2) 네 시 반쯤에,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골고다를 출발해서, 길 건너편에 있는 요셉의 무덤으로 갔다. 네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으며, 지켜보고 있던 충실한 갈릴리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예수의 시신을 운반한 사람은:요셉, 니고데모, 요한, 및 로마 백부장이었다.

188:1.4 (2013.3) 그들은 시신을 무덤 안으로 운반했으며, 사방 10피트 정도 되는 묘실{墓室} 안에서, 급히 장사지낼 준비를 했다. 유대인은 시신을 정말로 땅에 묻지는 않았으며;실제로는 그것을 약품으로 처리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많은 양의 몰약과 향료를 가져왔고, 이제 이 액체를 적신 헝겊으로 시신을 싸다. 약품으로 처리하는 일이 끝나자, 그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몸을

세마포로 감았으며, 무덤 안에 있는 선반 위에 경건하게
눅혔다.

188:1.5 (2013.4)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후에, 백부장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해서 무덤 입구에 돌로 된 문을 굴리는 일을 돕게
했다. 그리고 나서, 병사들은 강도들의 시체를 게헨나로
옮기기 위해 출발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88:1.6 (2013.5)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서둘러 예수를 장사지냈다. 남자들은
서둘러 성으로 돌아갔지만, 여자들은 아주 캄캄할
때까지도 무덤 곁에 있었다.

188:1.7 (2013.6)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여자들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어디 안치되는지를 보기
위해,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여자들은 예수를 장사지낼 준비가
제대로 갖추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으며,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 향료와 기름을

준비하여, 일요일 아침에 예수의 시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머물렀던 여자들은: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마르다, 그리고 세포리의 리브가였다.

188:1.8 (2013.7)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정말로 믿거나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2. 무덤을 지킴

188:2.1 (2014.1)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나리라는 그의 약속에 대해 예수의 추종자들은 무심했던 반면, 적들은 그렇지 않았다. 제사장들,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냈다.

188:2.2 (2014.2) 이 금요일 밤,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자정 무렵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였고, 거기서 그들은,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 염려하면서 의논했다. 이 회의는 산헤드린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예수의 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의 무덤 앞에 로마 경비병을 세워 달라는 산헤드린의 공식 요청을 갖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가기로 약속함으로써 끝났다. 이 위원회의 대변인이 빌라도에게 말했다:“각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그 셋째 날이 지날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야밤에 그를 훔쳐간 후에,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을 심히 염려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내버려둔다면, 이런 실수는 그를 살려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188:2.3 (2014.3) 산헤드린 회원들의 이런 요청을 들은 빌라도가 말했다:“열 명의 군인을 경비원으로 내주겠다. 너희가 가서 무덤을 지켜라.”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아침임에도, 자기네 경비원을 열 명 더 보강하여, 열 명의 유대인 경비원과 열 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요셉의 무덤으로 행진했으며, 무덤 앞을 지키게 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굴려서 무덤 앞을 막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과 그 주변에 빌라도의 봉인{封印}을 붙여 놔다. 그리고 이 20명의 남자는 부활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지켰고, 유대인이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줬다.

3. 안식일 동안

188:3.1 (2014.4) 제자와 사도들은 안식일 동안 여전히 숨어 있었고, 온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거의 15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각 지방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몰려 왔다. 이날은 유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였으며, 이 모든 순례자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에 전하기 위해 성{城}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188:3.2 (2014.5) 토요일 밤늦게, 요한 마가는 열한 사도를 비밀리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도록 불렀고, 거기서 그들은 이틀 전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바로 그 다락방으로, 자정이 지나기 직전에 모두 모였다.

188:3.3 (2014.6)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 날 토요일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룻과 유다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니고데모의 집에

머물렀으며, 심부름꾼들에게 일요일 아침 거기에 모두
모이도록 이미 지시해 뒀다. 예수의 시신에 약품을 더
바르기 위해 향료를 준비한 갈릴리 여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물렀다.

188:3.4 (2014.7)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하루
반나절 동안, 나사렛 예수께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필사자들이 처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연스런
죽음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사고 조율사가 오래 전에
인격화됐고, 예수의 필사 존재에서 분리되어
실존했으므로,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그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에 결코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잠시 아버지 손에 의탁한
것은, 인간 체험의 기록이 맨션 세계로 옮겨지도록
대비하려고 필사 정신을 영화{靈化}시켰던, 조율사의
초기 활동을 담은 영{靈} 이력서였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의 체험 속에도, 그 구체에서 신앙이_성장하는

필사자의 영 본성, 또는 혼과 비슷한 어떤 영적 실체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우리의 견해일 뿐이다--예수께서 아버지께 무엇을 위탁했는지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188:3.5 (2015.1) 우리는, 주님의 육신 형체가 일요일 아침 세 시경까지 요셉의 무덤 안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지만;서른여섯 시간 동안 예수의 인격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이 감히 우리끼리 이것을 설명해보려고 했다:

188:3.6 (2015.2) 1. 미가엘의 창조주 의식은, 물리적 육신화로 말미암은 연합된 필사 정신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방됐음이 틀림없다.

188:3.7 (2015.3) 2. 우리가 알기에, 예수께 있었던 사고 조율사는 이 기간에도 이 땅에 현존했으며, 소집된 천상의 무리들을 몸소 지휘했다.

188:3.8 (2015.4) 3. 처음에는 그의 사고 조율사가 직접 노력함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뜻을 끊임없이 선택하여 효과를 미친 대로, 육신의 요구와 이상적 필사자 실존의 영적 조건

사이에서 스스로 완전하게 조정함으로, 나사렛 사람이 육신 속에서 일생 동안 수립하여 얻은 영 정체성은, 낙원 아버지의 보호에 위탁된 것이 틀림없다. 이 영 실체가 부활한 인격체의 일부분으로 돌아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외부 공간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영역에서 창조되지 않은 우주들과 관련하여, 밝혀지지 않은 운명을 가진 완결성취 네바돈 단체를 지휘하기 위해 나중에 양도되도록, 예수의 혼_정체성이 지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고 여기는 존재들이 우주에 있다.

188:3.9 (2015.5) 4. 우리는 예수의 인간 의식{意識}, 즉 필사로서 가졌던 의식은, 이 서른여섯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 예수가 이 기간에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필사자 의식에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생명의 부활은 죽음의 정지 상태를 뒤이어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다.

188:3.10 (2015.6) 이상이 예수께서 무덤에 있던 동안의 상태에 관해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전부다. 우리가 암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관련 사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188:3.11 (2015.7) 사타니아에 있는 첫 맨션 세계 부활실의 거대한 뜰에서, “미가엘 기념관”으로 알려진 장엄한 물질적_모론시아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브리엘의 봉인이 붙어있다. 이 기념관은 미가엘이 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는:“유란시아에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과도기를 기념하여”라는 비문{碑文}이 붙어있다,

188:3.12 (2016.1) 이 기간에, 가브리엘이 주재하는 가운데, 100명으로 이뤄진 살빙톤 최고 협의회가 유란시아에서 실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거기에 있다. 또한 거기에는, 이 기간에 네바돈의 우주 상태에 관하여, 우버사의 태고 항존자들이 미가엘과 대화 나눈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

188:3.13 (2016.2) 우리는,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살빙톤에 있는 임마누엘과 미가엘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메시지가 교환됐음을 알고 있다.

188:3.14 (2016.3)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눕혀있는 동안에 소집된, 예루셈에 있는 행성 왕자들의 체계 협의회에서, 캘리개스차의 자리에 어떤 인격체가 앉아 있었음을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

188:3.15 (2016.4) 에덴시아의 기록에 의하면, 노라티아텍의 성좌 아버지가 유란시아에 있었으며, 무덤에 있던 이 기간에 그가 미가엘로부터 지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3.16 (2016.5) 그리고 거기에는, 외견상 육체가 죽어있는 이 기간에, 예수의 인격체 전부가 잠자거나 무의식 중에 있지는 않았음을 암시하는, 다른 증거가 많이 있다.

4. 십자가에 못박힌 죽음의 의미

188:4.1 (2016.6)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비록 필사적 사람의 종족 전체가 가져야 할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내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길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지만; 비록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면서, 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도 아니었지만; 속죄와 화해라는 이 관념이 잘못된

것임에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는 이웃 행성들에게, 유란시아가 “십자가의 세계”로 알려지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다.

188:4.2 (2016.7)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육신을 입은 필사자 생애 전 과정을 살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죽음은 끝날 수밖에 없는 연극{演劇}에서 마지막 장면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죽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미신적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희가 선의{善意}로 수고하는 동안, 주님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중요성과 참된 의의{意義}를 깨닫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188:4.3 (2016.8) 필사적 사람은 최고사기꾼들의 소유물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예수께서는, 변절한 통치자들, 그리고 그런 구체의 타락한 왕자들의 결박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조상의 악행으로 인해 필사자 혼을 파멸시킬 만큼 우둔한 불공정을 마음에 품으신 적이 결코

없다. 또한 주님은, 인류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을 지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희생 제물로서 죽은 것도 아니었다.

188:4.4 (2016.9) 예수께서 이 땅에 살기 전에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너희 동료 필사자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은 후로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를 가르쳤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묘사했다.

188:4.5 (2016.10) 동물적 본성은--곧 악을 행하려는 경향은--유전적이겠지만, 죄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죄는, 의지를 가진 피조물 개인이 아버지 뜻과 아들들의 법에 대항하는, 의식적{意識的}이고 고의적인 반역 행위다

188:4.6 (2017.1) 예수께서는, 이 세상 하나만의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우주를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유란시아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도, 그 영역에 속한 필사자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 세상에 증여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엄청나게 밝아진 것이

사실이며;그의 죽음은, 필사자 육신이 죽은 후에 확실히 생존한다는 것을, 영원히 분명하게 밝히도록 많은 역할을 했다.

188:4.7 (2017.2) 예수를 희생 제물, 몸값을 대신 치른 자, 또는 죄값을 대신 갚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는 구원(생존)의 길을 영원토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었으며;네바돈 우주에 속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필사자에게, 구원의 길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

188:4.8 (2017.3) 너희가 진실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관념으로 하나님을 일단 파악하고 나면, 예수께서 늘 가르친 유일한 개념은, 모든 원시적 관념을 너희가 시종일관하게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시적 개념은, 마치 자기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탐지해서 적절하게 벌주는 것을 기뻐하는, 즉 자기와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면 잘못된 대가{代價}로 기꺼이 수난 당하게 하고 죽이기를 주로 기뻐하는, 성난 군주 또는 엄격하고 전능한 지배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속전과 죄 값이라는 모든 관념은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여줬던 하나님 개념과 모순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신성한 본성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188:4.9 (2017.4) 속죄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전체 개념은, 이기주의에서 유래하고 이기주의에 근거한다.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신자들의 가장 높은 형제관계 개념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쳤다.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이 얻는 것이다. 신자의 주요 관심사는, 개인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필사적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동료를 사랑하고자 하는 애타심이 솟아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어야만 한다.

188:4.10 (2017.5) 또한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한 장치의 형벌을 크게 염려하지도 않는다. 참된 신자는 오직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관심 쏟을 뿐이다. 현명한 아버지는 자녀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그리고 바로잡아주려는 목적에서다. 그들은 화나서 벌주는 일이 없으며, 응징할 목적으로 혼내지도 않는다.

188:4.11 (2017.6) 하나님께서 공의만이 최고로 지배하는 우주의 완고하고 율법적인 군주이셨다면, 죄 지은 자와 죄 없는 수난자{受難者}를 바꾸는 어리석은 책략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임에 틀림없다.

188:4.12 (2017.7) 예수의 죽음에서 위대한 점은, 인간 체험의 질을 높이고 구원의 길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그가 죽음을 맞으면서 보여줬던 당당한 태도, 그리고 비길 데 없는 기백이다.

188:4.13 (2017.8) 죄값을 대신 갚는 속전이라는 이 전체 관념이 구원을 비실체화{非實體化} 시켰으며;그런 개념은 순전히 철학적이다. 인간의 구원은 실제이며;피조물의 신앙으로 구원을 붙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인간의 체험 속으로 합병될 수 있는 두 가지 실체:즉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상관되는,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진리에 기초한다. 아무튼 너희가, "너희에게 빛진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의 빛도 용서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5. 십자가의 교훈

참 목자는 자기 양떼 중에서 무가치한 양을 위해서라도 최고의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하게 묘사한다.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가족 개념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다. 사랑, 즉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우주 관계에서 가장 중심된 진리를 이룬다--악을 행하는 백성에게 고통 주고 벌을 가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왕의 응보는 그렇지 않다.

죄인을 향한 예수의 태도는, 유죄 판결도 아니고 눈감아주는 것도 아니며, 영원한 구원, 사랑의 구원임을 십자가가 영구히 보여준다. 예수의 삶과 죽음이 사람을 설득하여, 선하고 의로운 생존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로 구원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일깨울 만큼, 그토록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은 정말로 전염성이 있으며, 영원토록 창조성을 갖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행을 삼켜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고 거룩한 사랑을 예증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공의보다--곧 단지 인위적인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특성의

의{義}를 드러냈다. 신성한 사랑은, 단순히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잘못을 흡수하고 실제로 파괴해 버린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는, 자비로 하는 용서를 완전히 초월한다. 자비는 악행에 대해 한편으로 죄의식을 주지만;사랑은, 죄는 물론 죄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연약함을 영구히 파괴한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유란시아에 전했다. 그는 악에 대항하지 말고, 악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선{善}을 그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예수의 용서는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정죄로부터 구원함이다. 구원은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잘못을 바로잡아준다*. 참된 사랑은, 미움과 타협하지도, 눈감아주지도 않으며;미움을 파괴한다. 예수의 사랑은 결코 단순한 용서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은 갱생{更生}과 영원한 생존을 내포한다. 너희가 이 영원한 갱생을 의미한다면, 구원을 구속{救贖}이라고 말하는 것도 대체로 타당하다.

188:5.3 (2018.2) 예수께서는, 사람을 향한 자신의 개인적 사랑의 능력으로, 죄와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람이 더 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방시켰다. 예수께서는, 그 자체로 미래의 승리를 약속하는,

과거로부터의 구출을 묘사했다. 용서는 그렇게 구원을 제공한다.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일단 인간의 마음 속에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면, 죄의 매력과 악{惡}의 능력을 영원히 없애버린다.

188:5.4 (2018.3) 예수의 수난은 십자가형 사건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사렛 예수께서는 진실되고 열정적인 필사자 실존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25년 이상 보냈다.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는, 십자가가 그의 사랑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표현이요, 그의 자비의 완벽한 계시라는 사실에 있다.

188:5.5 (2018.4) 수백만 개의 인간거주 세계에서, 도덕적 고투를 포기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단념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는, 수십조에 달하는 진보하는 피조물이,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다시 한 번 보고나서, 사람의 애타적 봉사에 헌신하면서 육신화 된 자기 생명을 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

188:5.6 (2018.5)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이룩한 승리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의 태도의 기백 속에서 모두 요약됐다. 그가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사랑의 헌신이 방대한 우주 전체에 파급됐으며;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이런 봉사를 위해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 받은 최초의 선생, 자신의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선생은, 그들이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다.

188:5.7 (2018.6) 십자가는 동료 사람을 섬기기에 생명을 기꺼이 바친 한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최고의 호소력을 나타낸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예수께서는 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 사랑, 즉 이 세상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위대한 사랑을 소유했다.

188:5.8 (2019.1)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에서도,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장엄한 광경은, 필사자들을 감동시키는 동시에, 최상으로 헌신하도록 천사들을 자극해 왔다.

188:5.9 (2019.2) 십자가는, 신성시되는 봉사, 즉 동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화나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죄인들 대신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게 자신을 증여함으로써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이 세상과 광대한 우주 전체에 미치는 영원한 신성시되는 상징이다.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애타적 봉사, 즉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에 처할지라도 전심으로 돌보는, 봉사하면서 의로운 생명을 완전히 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이 위대한 상징의 바로 그 모습이,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188:5.10 (2019.3)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예수를, 분별력 있는 남녀라면, 사소한 고민거리나 순전히 허구적인 많은 불만은커녕, 인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도저히 다시는 불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의 죽음은 너무나 승리에 찼으므로, 우리 모두는 기꺼이 둘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소년 시절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장엄한 광경에 이르기까지, 미가엘의 전체 증여 과정에는 끌어당기는 참된 능력이 있다.

188:5.11 (2019.4) 너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바라볼 때, 원시인의 눈으로 보거나 후대의 야만인의 관점에서 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공의를 실행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냉혹한 주권자로 간주한다. 오히려 너희는, 자신의 방대한 우주의 필사자 인종들에게 바치는 증여 사명에 예수께서 쏟은 사랑과 헌신의 최종 증거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 필사자 구체{球體}에서 사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이, 사람의 아들의 죽음에서 최고로 꽃피웠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그런 선물과 헌신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진해서 증여하시는 구원과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애정을 나타낸다. 십자가 사건에,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오직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택했고 피하기를 거부했다.

188:5.12 (2019.5)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께 감사할 수 없고 그가 이 땅에 증여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예수께서 필사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 것은, 그런 사람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의 본질이나 크기를 창조주께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188:5.13 (2019.6) 우리가 알기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아들의 영속적 자비를 사람이 깨닫도록 자극하고, 이 보편적 진리를 전체 우주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제189편 부활

189:0.1 (2020.1) 금요일 오후에, 예수를 장사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바돈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유란시아에 나타났으며, 잠자는 의지 피조물의 부활을 관장하는 협의회를 소집했고, 예수의 부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인 지방우주 아들들은 미가엘이 창조한 존재였고, 이 일은 그들 본연의 책임이었으며;가브리엘이 그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부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미가엘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취할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한, 가브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천사장, 생명 운반자, 그리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모론시아 창조에 협동하는 다양한 동역자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 회의가 끝난 직후에, 그때 유란시아에 집합된 천상의 무리를 직접 지휘하던, 예수의 인격화된 조율사가, 염려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들에게 말했다:

189:0.2 (2020.2) “너희의 창조주_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그가 필사자의 죽음은 그 영역의 필사자로서 체험했지만;우주의 주권자로서는 여전히 살아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생애로부터 모론시아 생애까지 필사자로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예수의 영 전환은, 내가 그의 인격체에서 분리돼 너희의 임시 지휘자가 됐을 때 이미 완료됐다. 너희의 창조주_아버지는, 필사 피조물이 갖는 전체 체험, 즉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연스런 죽음과 모론시아 부활을 지나서, 참된 영 실존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기로 선택했다. 이 체험 가운데 어떤 국면을 너희가 곧 관찰하게 되겠지만, 거기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통상적으로 피조물을 위해서 하는 그것을 창조주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창조주 아들은, 자신이 창조한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든지 자신을 증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관찰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능력과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낙원 아버지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이런 능력을 지녔고, 나는 내가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지 잘 안다.”

189:0.3 (2020.3) 인격화된 조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그들은 모두, 위로는 가브리엘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신분이 낮은 체류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봤으며;사랑하는 주권자의 우주 활동이 있다는 증거를 인지했으나;그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어날 일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1. 모론시아 전환

189:1.1 (2020.4) 일요일 아침 두 시 45분에, 낙원의 미확인된 일곱 인격체로 구성된 낙원 육신화{肉身化} 위원회가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무덤 근처에 자리 잡았다. 세 시 10분 전에, 혼합된 물질 활동 및 모론시아 활동으로 말미암은 심한 진동이 요셉의 새 무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기 30년 4월 9일, 이 일요일 아침 세 시 2분에, 나사렛 예수의 부활된 모론시아 형체와 인격체가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다.

189:1.2 (2021.1) 부활한 예수께서 매장됐던 무덤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이 땅에서 약 36년 동안 그 속에서 살고 활동했던 육신 신체는, 금요일 오후에 요셉과 그 동역자들이 눕혀놓았을 때와 똑같이, 세마포에 싸여 묘실에 안치된 그대로 여전히 누워 있었다. 또한 무덤 입구를 막은 바위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있었으며; 빌라도의 봉인도 여전히 원상 대로였고; 병사들도 아직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로마 경비대는 자정 무렵에 교대했다. 무덤을 지키던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네가 지키고 있는 대상이 이미 살아나서 새로운 고귀한 실존 형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감시하고 있는 시신은, 예수의 해방되고 부활된 모론시아 인격체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는, 버려진 빈껍데기에 불과하게 됐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89:1.3 (2021.2) 모든 개인적인 면에서, 물질은 모론시아의 뼈대이며, 이 두 가지는 영 실체를 지탱하는 반사된 그림자라는 것을, 인류는 잘 감지하지 못한다. 너희는 언제쯤에나, 시간은 영원성이 움직이는 형상이요, 공간은 낙원 실체들이 빨리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여기게 되겠느냐?

189:1.4 (2021.3)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인격체도,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금요일에 이 세상 필사자로서 생명을 버렸으며;일요일 아침에 노라티아텍에 있는 사타니아 체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 생명을 다시 취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그 시간 무렵에, 우리가 증거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시신이 수의{壽衣}에 싸인 채 눕혀있는 요셉의 새 무덤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이런 필사자 전환, 즉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하여 알려진 모든 현상을 기록할 수 있다.

189:1.5 (2021.4) 모론시아 존재로서 깨어나는 이 일에, 어떤 지방우주 피조물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낙원의 일곱 인격체가 무덤을 둘러싼 것을 알지만, 주님을 깨우는 일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무덤 바로 위에서 가브리엘 옆에 나타나자마자, 낙원에서 온 일곱 인격체는 즉시 우버사로 떠나라는 의미의 신호를 받았다.

189:1.6 (2021.5)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영구히 정립해 두기로 하자:

189:1.7 (2021.6) 1. 그의 물질적 몸, 즉 육체는 부활된 인격체의 일부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시신은 묘실 안에 조금도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봉인을 손상시키지 않고, 매장된 무덤으로부터 나왔다.

189:1.8 (2021.7) 2. 그는 무덤으로부터 영 또는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나오지 않았으며; 유란시아에 필사자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하기 전과 같은 창조주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189:1.9 (2021.8) 3. 요셉의 이 무덤으로부터 나온 그는, 이 사타니아 지방 체계에 있는 첫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부활된, 모론시아 상승 존재로서 나오는 모론시아 인격체와 매우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1_번 맨소니아 부활실들이 있는 넓은 뜰 중앙에 미가엘 기념관이 현존한다는 사실로부터, 주님이 유란시아에서 부활한 것은, 체계의 이 첫 맨션 세계에서 적용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189:1.10 (2022.1)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은, 가브리엘을 환영하고, 임마누엘의 지시에 따라서 우주 직무에 대한 행정 지시사항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으며, 이어서 형제로서의 인사를 임마누엘에게 전하라고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필사자 전환에 대해 태고 항존자의 확인이 있었는지,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질문했으며; 예수께서는, 피조물에 속한 자들로서 창조주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 이곳에 함께 모인, 일곱

맨션 세계로부터 집합된 모론시아 무리에게 돌아선 후에, 필사자 이후 생애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론시아 예수께서 말씀했다:“육체를 입은 내 생애를 마쳤지만, 나는 상승하는 내 피조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낙원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을 좀 더 계시할 수 있도록, 과도기 형체로서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으려 한다.”

189:1.11 (2022.2)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인격화된 조율사에게 신호했고, 부활을 지켜보기 위해 유란시아에 모였던 모든 우주 지성체는 각자의 우주 임지를 향해 즉시 떠났다.

189:1.12 (2022.3)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잠시 유란시아에 살기로 선택한 피조물로서의 삶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모론시아 수준의 접촉을 시작했다. 이 모론시아 세계로의 입문{入門}에는 이 세상 시간으로 한 시간 이상 소요됐고, 육체 속에 있을 당시에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가 부활한 증거라고 여길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빈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상히 여기면서 살펴보는 그들과 대화하기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두 번 중단됐다.

189:1.13 (2022.4) 이제 예수의 필사자 전환{轉換}이--곧 사람의 아들의 모론시아 부활이-- 완료됐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간 인격체로서, 잠시 동안 주님의 체험이 시작됐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으며;어떤 인격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론시아 예수로서 살게 됐으며, 이런 모론시아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물질 육신 신체는 변함없이 무덤에 눕혀 있었다. 병사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었으며, 바위에 붙어 있는 총독의 봉인은 아직 손상되지 않은 채였다.

2. 예수의 물질 신체

189:2.1 (2022.5) 세 시 10분에, 부활한 예수께서,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 세계에서 소집된 모론시아 인격체들과 교제할 때, 천사장들의--곧 부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필사자 신체에 관해 요청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말했다:"우리 주권자이신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 속하는 모론시아 부활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남아있는 그의 시신을 즉시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비물질화시키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며;다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권자께서 유란시아에 사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으로 만족하며;하늘의 무리는, 우주의 창조주시며 유지자이신 그분의 인간 형체가 서서히 부식돼 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온 네바돈의 거룩한 인격체들을 대표해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신체에 대한 처리를 내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즉각 분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89:2.2 (2023.1) 그리고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의 상급{上級} 지고자와 협의를 마쳤을 때, 천상의 무리 가운데 천사장 대변인은, 그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의 물질 잔여분에 대한 그런 처리를 이행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189:2.3 (2023.2) 이런 요청에 대해 허락을 받은 후에,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모든 계층의 천상의 인격체를 대표하는 수많은 무리와 많은 친구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리고 나서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도움으로 예수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처리를 진행했다. 이 시신{屍身}은 순전히 물질 창조물이었으며;물리적이고 형태화된 것이었으며;부활한 모론시아 형체가 인봉된 묘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무덤에서 옮겨질 수 없었다. 모론시아 형체는, 특정한 모론시아 보조 인격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영{靈}에 속한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고, 보통 물질과 무관한 상태로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그 영역의 필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 존재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에게 식별될 수도 있다.

189:2.4 (2023.3) 예수의 시신을 거의 순간적으로 분해하는, 나름대로 장엄하고 경건한 처리에 앞서, 그들이 시신을 무덤에서 제거할 준비가 됐을 때,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는 일이 유란시아의 2차_중도자들에게 할당됐다. 두 돌 중에서 비교적 큰 것은 맏돌 모양의 거대한 원형 바위였으며, 이것을 앞뒤로 움직여서 무덤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바위 위에 길게 파낸 홈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설치돼 있었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인 경비원과 로마 군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이 거대한 돌이 외견상 저절로--곧 그런 움직임을 일으킬만한 수단이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무덤 입구에서 굴러가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으며, 현장에서 급히 도망쳤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성전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로마인들은

안토니아의 요새로 도망갔고, 백부장이 출근하자마자
그에게 목격했던 것을 보고했다.

189:2.5 (2023.4) 불충한 유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예수를
제거하려는 야비한 일을 시작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자,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경비원들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 대신에, 이 경비원과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 그들은 20명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혹시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경우에, 총독 앞에서
병사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189:2.6 (2023.5)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에 기초해 왔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
정말로 ~~사~~실~~이~~기는 했지만, 이것은 부활의 ~~진~~실~~이~~ 아니다.
신자들이 처음으로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은 주님의 확실한 부활 사건과
결합돼서, 참되지 않은 어떤 믿음:즉 예수의 필사자 신체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가르침으로 공식화 돼갔다. 분명한

사실들을 조합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와 영원한 가치를 다루는 진리가 항상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실이 물질적으로 옳을지라도, 여러 사실이 합쳐진 것이 반드시 참된 영적 결론을 가져오게 되지는 않는다.

189:2.7 (2023.6)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시신이 회복되거나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 지연{遲延}의 간섭 없이, 그리고 육신이 부패되고 물질적으로 변질되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의 작동을 거치지 않고, “티끌이 티끌로” 돌아가는, 어떤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분해하도록 여유를 달라는, 천상의 무리의 요청이 허락받았기 때문이었다.

189:2.8 (2024.1) 예수의 필사자 잔여물은, 시간 관점에서, 자연스런 이 분해 방식이 시간적으로 크게 가속화되어, 거의 순간적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신체의 특징을 묘사하다시피, 원소로 분해되는 동일한 자연스런 과정을 거쳤다.

189:2.9 (2024.2) 비록 부활한 모론시아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또한 같이 교제한 많은 사람의 증언이 이 가르침을 확증하지만, 미가엘 부활의 참된 증거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그가 유란시아를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까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인간이 그를 직접 체험했다.

3. 섭리시대의 부활

189:3.1 (2024.3) 이 일요일 아침 네 시 반 조금 지났을 때, 가브리엘이 천사장들을 옆으로 모이게 했고, 유란시아에서 아담 섭리시대의 종결에 따른 일반적 부활을 개시할 준비를 완료했다. 적절한 구성으로 이미 정립돼 있는 이 엄청난 사건에, 큰 무리의 스라빔과 체루빔이 관여하게 됐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서 말씀했다:“내 아버지께서 스스로 존재하듯이, 아들에게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비록 내가 아직 우주 지배권 행사를 완전하게 재개한 것은 아니지만, 잠자고 있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을, 스스로 부과했던 이 한계가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못할 것이니;행성 부활의 출석점호를 시작하라.”

189:3.2 (2024.4) 그때 천사장들의 회로{回路}가 유란시아에서 처음으로 작동됐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가 행성의 영적 극{極} 위치로 이동했으며;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내자, 체계 맨션 세계들 가운데 첫째 세계에, “미가엘의 명령이니, 유란시아 섭리시대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가브리엘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아담 시대 이후에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서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유란시아 인간 종족들 가운데 모든 생존자가, 모론시아 수여식에 참석할 준비를 갖추고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스라빔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맨션 세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일반적으로 이 스랍 수호자들은 생존하는 이 필사자 무리를 집단으로 보호하는 일에 한때 배정됐었고, 그들이 맨소니아의 부활실에서 깨어나는 순간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었지만, 그들이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해서 가브리엘이 이곳에 현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189:3.3 (2024.5) 개인 스랍 수호자를 소유한 수많은 개별 인간과, 영적 인격자 진보를 달성키 위한 필수 조건을 성취한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의 시대들 동안 맨션 세계로 갔음에도, 그리고 유란시아 자손들의 특별한 부활과 천년 마다 있는 부활이 여러 번 있었더라도, 이번 경우는 세 번째 행성 출석점호, 즉 완전한 섭리시대 부활이었다. 첫 번째

경우는 행성 왕자가 도착했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담 시대에, 그리고 이번의 세 번째는, 모론시아 부활, 즉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변환을 신호로 알렸다.

189:3.4 (2024.6)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행성의 부활 신호를 수신하자, 사람의 아들의 인격화된 조율사는, 유란시아에 모인 천상의 무리를 지휘하는 권세를 양도하면서, 지방우주의 이 모든 아들을 각자의 지휘관의 관할 아래로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다 마치자, 미가엘이 필사자로서 통과하는 일이 완료됐음을 임마누엘에게 등록하기 위해 살빙톤으로 떠났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아무 임무도 부여받지 않은 모든 천상의 무리가 즉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모론시아 예수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았다.

189:3.5 (2025.1)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관계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들을 본 자들에게 비친 상황이 이상{以上}과 같았다.

4. 빈 무덤 발견

189:4.1 (2025.2)

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한 시간에 대해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 열 명의 사도가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머물렀음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며, 그들은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기대고 앉았던 바로 그 의자에 누워서 잠들었다. 이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도마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모였다. 도마는 그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인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동역자들을 둘러본 후에 즉시 그 방을 나갔으며, 베스페이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자신의 불행을 혼자 가슴 아파 할 생각이었다. 사도들 모두 겪은 고통은, 의심과 절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비탄, 그리고 수치심 때문이었다.

189:4.2 (2025.3)

니고데모의 집에는,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예루살렘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두드러진 12내지 15명의 제자와 함께 모였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는 15내지 20명의 주요 여신도가 있었다. 오직 이 여자들만 요셉의 집에 머물렀으며, 안식일 기간과 안식일이 끝난 저녁 시간 동안 숨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비 부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또한 둘째 돌을 무덤 앞에 굴러냈다는 사실과, 이 두 돌에 빌라도의 봉인을 붙여놓은 것도 알지 못했다.

189:4.3 (2025.4) 이 일요일 아침 세 시 조금 전, 날이 밝아오는 첫 징후가 동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여자들 중에서 다섯 명이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양의 특별한 방부처리용 기름을 준비했으며, 세마포 헝겊을 여러 장 가져갔다. 이는 예수의 시신에 더 완벽하게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헝겊으로 신중하게 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189:4.4 (2025.5)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길을 떠난 여자는:막달라 마리아, 알패오 쌍둥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 추사의 아내 요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에스라의 딸 수산나 였다.

189:4.5 (2025.6) 기름을 소지한 다섯 여자가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은 세 시 반쯤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을 지나올 때, 여러 명의 군인이 매우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성을 향해 도망치는 것을 봤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잠시

지체했지만;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가던 길을 재촉했다.

189:4.6 (2025.7)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를 도와 돌을 굴러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서로 물어봤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이히 여기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비교적 작은 바윗돌을 옆으로 치우면서, 열린 묘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무덤은 길 동편 언덕에 있는 그의 동산 안에 있었고, 동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때는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진 후였으므로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눕혀있던 자리를 식별할 수 있었고, 시신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마리아는,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눕혀 놓았던 석굴{石窟}에서, 오직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접혀진 수건과, 천상의 무리가 시신을 치우기 전에 그들이 돌 위에 얹어놓았을 때 천에 싸여 눕혀 있던 그대로 남아 있는 천들만 볼 수 있었다. 덮어 씌웠던 천은 시신이 눕혀 있던 발 끝 쪽에 있었다.

189:4.7 (2026.1) 마리아는, (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지 못했지만) 무덤 입구에 잠시 머문 후에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오직 이 수의{壽衣}만 있는 것을 보으며,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했다. 여자들은 모두 극도로 불안해했으며;성문에서 겁에 질린 군인들을 만난 후로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마리아가 이런 괴로운 비명 소리를 지르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재빨리 도망쳤다. 그리고 그들은 단숨에 다마스쿠스 문까지 달려갔다. 그때 요안나가 정신을 차리게 됐고, 마리아를 거기에 두고 자기들만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했으며;동무들을 불러 세운 후에, 무덤으로 돌아갔다.

189:4.8 (2026.2) 무덤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자매들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려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 가까이 돌아오자, 뛰어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그분이 거기에 없다--저들이 그분을 가져가버렸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들을 무덤으로 데려갔고, 모두 함께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189:4.9 (2026.3)

다섯 여자 전체가 입구 근처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안식일을 보냈음을 이야기하면서, 시신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심하며 궁지에 빠졌 으면서도,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시신이 옮겨졌다면, 그것을 찢던 형궤은 어떻게 묘실 선반 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겨질 수 있었겠는가?

189:4.10 (2026.4)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이 여자들이 거기 앉았을 때, 한 쪽 옆에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봤다. 그들은 잠시 동안 다시 놀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에게 달려가서 물었다:“우리 주님을 어디에 뒀습니까? 그들이 그를 다른 곳에 눕혔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오.” 낯선 사람이 아무 대답도 없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마리아가 대답했다:“요셉의 무덤에 눕혔던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그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여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주님이 너무 많이 변화됐으므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빛을 등지고 있는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할 때, 그가 귀에 익은 목소리로 막달라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렀다. 그리고 늘 듣던 연민의 정과 애정에 넘치는 인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고, 그의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다:“내 주여, 내 주님이시여!” 그제서야, 영광스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주님이심을 다른 여자들도 모두 알아봤고, 신속히 그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189:4.11 (2027.1) 이 사람들의 눈이 모론시아 형태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모론시아 인격체들 가운데 일부와 연합한, 변형시키는 존재들과 중도자들의 특별한 사역 때문이었다.

189:4.12 (2027.2)

마리아가 그의 발을 꺼안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마리아야, 나는 네가 육신 속에서 알았던 내가 아니니,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체로 너희와 잠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모두 가서, 내 사도들에게--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너희가 나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해라.”

189:4.13 (2027.3)

이 여자들은, 놀라서 어리벙벙했던 충격에서 벗어나자, 급히 성으로 돌아가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거기에 있는 열 사도에게 이야기했으나;사도들은 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하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이 일을 직접 확인하려고 급히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으며, 요한이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189:4.14 (2027.4)

여자들은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되풀이했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5.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189:5.1 (2027.5) 골고다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두 사도가 달려가는 동안, 베드로의 생각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했지만, 예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예수께서 정말로 살아났다는 것을 반쯤 믿었으며;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약속을 회상했다. 묘한 일이지만, 십자가형이 있는 후,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다. 요한은, 성 밖으로 급히 나갈 때, 기쁨과 희망의 야릇한 환희가 그의 혼 속에 솟아났다. 그는 살아나신 주님을 여자들이 정말로 만났다는 것을 반쯤 확신했다.

189:5.2 (2027.6) 베드로보다 나이 어린 요한이 그를 앞질러 뛰어갔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 요한은 문 앞에 서서, 무덤을 들여다봤으며, 마리아가 설명한 대로였다.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들어가서, 너무 색다르게 놓여있는 수의와 빈 무덤을 살피었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요한은 다시 들어가서 직접 모든 것을 살폈으며, 그 후에 그들은 바위에 걸터앉아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을 마음 속에 새겨봤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없었다.

189:5.3 (2027.7) 베드로는 처음에, 그 무덤이 약탈당한 것이 아니냐고, 아마 대적하는 자들이 경비병을 매수하여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한은, 시신이 도둑맞았다고 하기에는 무덤이 너무 질서 정연하게 돼 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어떻게 해서 형겔들이 남겨졌는지, 그리고 있던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함께 무덤으로 들어갔고, 더 자세히 수의들을 살펴봤다. 그들이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도들에게 갔었지만, 그들이 모두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다. 그녀는 귀에 익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무덤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다.

189:5.4 (2027.8)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을 때, 주님이 그녀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다: “의심하지 말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살아났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리라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내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곧 갈 것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189:5.5 (2028.1) 마리아는 급히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와 대화한 것에 대해 사도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그들의 조롱하는 태도는 사라졌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됐다.

제190편 예수의 모론시아 출현

190:0.1 (2029.1) 부활한 예수께서는 이제, 그 영역에서 한 필사자의 상승하는 모론시아 생애를 체험하기 위해, 잠시 유란시아에서 지낼 준비를 했다. 그가 필사자로 육신화했던 세계에서 모론시아 생애의 이 시기를 보냈음에도, 어쨌든, 그것은 예루셈에 있는 일곱 맨션

세계의 점진적 모론시아 일생을 통과하는, 사타니아 필사자의 체험과 모든 점에서 대등할 것이다.

190:0.2 (2029.2) 예수께 내재되고 그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한 이 모든 능력은--곧 생명 재능은--, 천국을 믿는 자에게 그가 수여하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인데, 이것은 지금도, 믿는 자가 자연스런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만든다.

190:0.3 (2029.3) 이 영역들의 필사자는, 예수께서 이 일요일 아침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가졌던 과도기 육신, 즉 모론시아 육신과 똑같은 유형으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이 육신에는 순환되는 피가 없고, 그런 존재들은 평범한 물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며;그럼에도, 이 모론시아 형체는 *실재한다*.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다양한 신자가 그를 봤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를 봤으며;환상이나 환각에 스스로_속은 것이 아니었다.

190:0.4 (2029.4)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은, 초기 복음을 가르치던 모든 분파의 신앙에 기본적인 주요 특색이었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및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든 선생이, 주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는 신앙에 동참했다.

190:0.5 (2029.5)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데 막달라 마리아가 맡았던 탁월한 역할을 조망할 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변인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여자 단체의 대변인이었음이 기록됐어야 했다. 마리아는 여자 일꾼들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석{首席} 교사였고 공적인 대변자였다. 마리아는 이미 매우 용의주도한 여자가 돼 있었으므로, 요셉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남자에게 말을 걸면서 보여준 대담성은,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보여준다. 유대인 여자는 전통적으로 낯선 남자에게 접근할 수 없음을 그녀가 잠시 잊었던 것은,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극치를 이뤘는지, 그리고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보여준다.

1. 부활의 소식

190:1.1 (2029.6) 사도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떠나게 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그의 모든 말씀을 가볍게 여겼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증거로 인해 압박을 받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완전한 증명에 직면할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190:1.2 (2030.1) 자신이 예수를 봤고 그와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다섯 여자의 보고를 사도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갔고, 다른 여자들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딸과 다른 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체험을 관련시켜서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 것을 여자들은 믿었다. 여섯 시 조금 지났을 때, 예수를 만났던 여자와 아리마대 요셉의 딸이 니고데모의 집으로 갔으며,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을 거기에 모여 있는, 요셉, 니고데모, 다윗 세베대, 및 다른 남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했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유대인이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요셉과 다윗은, 그 보고를 믿고 싶어졌으므로, 급히 나가서 무덤을 조사해 볼 정도가 됐으며, 그 여자들이 설명한 대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묘실을 들여다 본 마지막 사람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경비병들의 지휘관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고, 일곱 시 반쯤에는 수의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 지휘관은 모든 것을 세마포 헝겊에 싸서 근처에 있는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190:1.3 (2030.2) 다윗과 요셉은 즉시 무덤을 떠나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고, 다락방에서 열 사도와 협의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비록 희미하기는 했지만, 요한 세베대만 믿으려고 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자 심각한 의심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믿으려 했다. 다윗은 그들과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떠나면서 말했다:“여러분은 사도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름 생각은 없지만;그럼에도 이제 니고데모의 집으로 돌아가겠으며, 오늘 아침에 심부름꾼들을 거기에 모이도록 지시해 뒀으므로, 그들이 모두 모이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서 내보낼 작정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천국 대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자청해서 연락과 정보를 담당할 이 대장은 사도들로부터 떠났다.

다락방에서 나가던 길에, 그는 사도들의 자금 전부가 들어있는 유다의 돈 주머니를 마태 레위에게 맡겼다.

190:1.4 (2030.3) 26명에 달하는 다윗의 심부름꾼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 니고데모의 집에 도착한 것은 아홉 시 반쯤이었다. 다윗은 넓은 안마당에 즉시 그들을 모아 놓고 지시했다:

190:1.5 (2030.4) “형제 여러분, 내게 그리고 서로에게 서약한 대로 그동안 내 지시를 잘 따라줬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한 번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시킨 일이 없었음을, 돌이켜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진해서 천국 심부름꾼으로 지원한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려고 하며, 이 일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서약을 해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식 전달 단체를 해산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업무가 완료됐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필사자 심부름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들이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죽을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덤에 가봤습니다--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대화를 나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네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해산하고, 작별인사를 하고, 각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내면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전할 소식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190:1.6 (2030.5)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심부름꾼들을 단념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의심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 일요일 아침 열 시 조금 전에, 26명의 이 소식 전달자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엄청난 진리와 사건의 첫 소식을 전파하면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지난 경우처럼, 다윗 세베대와 맺은 서약을 실천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신뢰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지체하는 일조차 배제하고, 이 임무를 위해 출발했으며;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들 대부분은 다윗이 한 말을 믿었으며, 또 어느 정도 의심하는 자들도, 신속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소식을 전했다.

190:1.7 (2031.1) 영적 천국 단체인 사도들은 이날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거기서 두려움을 분명히 드러내고 불신을

나타냈던 반면, 이 평신도들은 사람의 형제관계라는 주님의 복음을 사회화시키는 일을 처음 시도했으며, 두려움 없는 유능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한 세계와 한 우주의 부활하신 구원주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다. 그가 택한 대표자들은, 그의 말씀을 기꺼이 믿거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전에, 오히려 이 중대한 봉사에 참여한다.

190:1.8 (2031.2) 이 26명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과, 남쪽으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다마스커스와 시돈에 이르기까지;동쪽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알렉산드리아까지, 신자들이 모여 있는 모든 처소로 파견됐다.

190:1.9 (2031.3) 형제들과 작별한 후에, 다윗은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요셉의 집으로 갔고, 그 후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베다니로 갔다. 다윗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상 소유물을 처분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베다니에 머물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형제 나사로와 함께하려고 떠나는 여행길에 그들과 동행했다.

190:1.10 (2031.4) 이때부터 일 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요한 세베대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벳새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 예수의 첫째 남동생 야고보는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았다. 롯은 나사로의 자매들과 함께 베다니에 남았다. 예수의 나머지 가족은 갈릴리로 돌아갔다. 다윗 세베대는, 예수의 막내 여동생 롯과 결혼한 후 6월 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갔다.

2. 베다니에 나타난 예수

190:2.1 (2031.5) 예수께서는, 모론시아 부활 때부터, 그의 영이 높은 곳으로 상승한 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신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형체로, 각각 독립된 사건에서 열아홉 번 나타났다. 그는 적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가시화 된 것을 영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무덤에 있는 다섯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으며;두 번째 역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190:2.2 (2031.6) 세 번째 출현은 같은 일요일 베다니에서 정오 무렵 발생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예수의 첫째 동생

야고보가 다윗의 심부름꾼이 약 한 시간 전에 전해 준 소식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면서, 나사로의 정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가 부활했던 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야고보는 만형의 이 세상 사명을 믿으려는 경향이 항상 있었지만, 예수의 업무에 오랫동안 접하지 못했으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도들의 후반기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의심에 빠져 있었다. 심부름꾼이 가져온 소식 때문에,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도착했고, 이른 새벽 시간에 요셉의 무덤에서 겪었던 체험을, 흥분하면서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다윗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당연히 릿은 이 보고를 믿었으며, 유다는 다윗과 살로메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것을 믿었다.

190:2.3 (2032.1) 그러는 동안, 그들이 야고보를 찾으려 했으나 미처 발견하기 전에, 야고보는 아직 무덤 근처 정원에 서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 자기 어깨에 손을 대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으며; 옆으로 돌아보는 순간, 자기 옆에서 점차 모습이 드러나는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됐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으며,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지도 못했다. 그러자 그 이상한 형체가 말했다:“야고보야, 나는 천국 봉사를 위해 너를 부르려고 왔다. 네 형제들과 진지하게 하나가 돼서 나를 따라오거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들은 야고보는,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만형 예수임을 알게 됐다. 그들 모두 주님의 모론시아 형체를 알아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가 일단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그의 매력 있는 인격체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190:2.4 (2032.2)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본 야고보는, 무릎을 꿇으면서 “내 아버지여, 형님이여”라고 소리쳤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하면서 말씀했다. 그리고 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거의 3분간 대화를 나눴으며;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곧 일어날 사건을 예견했다. 그들이 그 집 가까이 이르자, 예수께서는, “야고보야, 내가 너희 모두를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고 말씀했다.

190:2.5 (2032.3) 그들이 아직 베스페이지에서 야고보를 찾는 중일 때, 그가 집 안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쳤다:“내가 방금 예수를 보고 이야기했으며, 그와 함께 대화했다. 그는 죽지 않았으며;살아나셨다! 그는 내 앞에서 사라지면서, ‘내가 너희 모두 함께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고 말씀했다.” 그가 말을 마칠 무렵에 유다가 돌아왔고, 정원에서 예수를 만났던 체험을 유다를 위해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 야고보는 이때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다윗은 이렇게 소리쳤다:“들떠있는 여자들만 그를 본 것이 아니라;용감한 남자들도 그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직접 그를 만나리라고 기대합니다.”

190:2.6 (2032.4) 그리고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두 시 조금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의 네 번째 출현이 이뤄졌으므로, 다윗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그는 이때 모두 20명에 이르는 자신의 육신의 가족 및 그 친구들 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주님은 열려있는 뒷문에 나타나서 말씀했다:“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한때 육신으로 나와 가까이 지냈고 하늘 나라에서 내 형제와 자매로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진리의 빛을 따르기로 선택하기까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래 지체했느냐? 그러므로 너희 모두, 아버지 나라에서 진리의 영과 교제하도록 해라.” 그들이 놀라서 충격 받았던 처음 상태에서부터 회복되면서, 그를 껴안으려는 듯이 그에게 다가가자, 그들 앞에서 사라졌다.

190:2.7 (2032.5) 그들은 모두 성으로 달려가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싶어 했으나, 야고보가 그들을 제지했다. 막달라 마리아만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정원에서 예수와 대화할 때 그가 자신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것들이 있었으므로, 야고보는 이런 모론시아 방문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퍼뜨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러나 야고보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한 주님과 이 날 나눴던 대화 내용을 결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3. 요셉의 집에서

190:3.1 (2033.1)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예수의 다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는, 같은 일요일 오후 네 시 15분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모인 약 25명의 여신도 앞에서 일어났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출현이 이뤄지기 불과 몇 분 전에

요셉의 집에 도착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이 베다니에 나타났음을 사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자매 신도들에게도 그 사건을 보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마리아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모든 여자에게서 받은 후에, 예수의 가족과 함께 베다니에 있을 때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감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고 장엄한 침묵이 그들에게 임했으며;그들은 바로 자기들 한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를 완전히 식별할 수 있는 형체로 보게 됐다. 그가 그들에게 인사하며 말씀했다:“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천국의 교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자와 매인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다. 온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신자들이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를 강건하게 하고 병자를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땅 끝까지라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여자들은 소리 없이 옆드려 경배했다.

190:3.2 (2033.2) 이때까지 다섯 번에 걸쳐 이뤄진 예수의 모론시아 출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네 번 체험했다.

190:3.3 (2033.3) 오전 반나절이 지날 무렵에 심부름꾼들을 파견한 결과로,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있었던 예수의 출현을 암시하는 무의식적인 누설로 인해, 예수께서 부활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말이 성에 두루 퍼졌다는 소식이, 저녁 무렵에는 유대인 관리들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이 소문에 심각하게 자극을 받았다. 가야바는 안나스와 급히 의논한 후에, 그날 저녁 여덟 시에 모이도록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조처한 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였다. 그를 봤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자는 제안까지 있었으나; 거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회의가 해산됐으므로, 이 제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못했다. 그들은 예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감히 생각했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진짜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4. 그리스인에게 나타나심

190:4.1 (2033.4) 네 시 반쯤 됐을 때,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에 모인 약 40명의 그리스인 신자에게, 주님이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보고를 듣고 토론하고 있을 때, 문들이 견고히 닫혀 있음에도, 그가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 말씀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출현했지만,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왔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너희는 모두 형제가 될 것이다--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계로 가서, 너희가 천국 대사들로부터 받은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신앙과 진리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아들들의 형제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와 교제할 것이다." 그는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 후에 떠났으며,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저녁 내내 그 집에 머물러 있었으며;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과감히 나가서 전하지 못했다. 또한 이 그리스인들은 그 밤에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으며; 주님이 다시 자신을

방문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일을 의논했다.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하고,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써 그를 배반할 때, 겟세마네에 있었던 그 그리스인 가운데 다수가 이 집단 가운데 있었다.

190:4.2 (2034.1)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과, 추종자들에게 여러 번 출현했다는 것에 관해 보고한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성 전체가 흥분하여 매우 심히 동요하게 됐다. 주님은 이미, 자기 가족, 여자들, 그리고 그리스인에게 출현했으며, 또한 곧 사도들 가운데도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관리들에게 이토록 갑자기 밀어닥치는 이런 새로운 문제를 재빨리 심사숙고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무척 생각했지만,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그들끼리 몇 시간 더 따로 떨어져서, 진지한 반성과 사려 깊은 숙고를 하기 바랐다.

5. 두 형제와 함께 걸어가심

190:5.1 (2034.2)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에, 목동인 두 형제가 살았는데,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 제사, 예식절차, 그리고 축제에 참여했다. 형인 글로바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었는데;아무튼 그는

회당에서 출교당한 상태였다. 그의 동생 야곱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교훈과 행한 일들에 관하여 들었던 내용에 무척 흥미를 가졌다.

190:5.2 (2034.3) 그 일요일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섯 시 거의 됐을 무렵에, 이 두 형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으면서, 예수에 관해, 즉 그의 교훈, 활동, 그리고 특별히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문과, 어떤 여자들이 그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다. 글로바는 이 소문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만, 야곱은 그 모든 사건이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토론하며 논쟁할 때, 그의 일곱 번째 출현으로, 현시화 된 모론시아 예수가 그들 옆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여행했다. 글로바는 예수의 가르침을 종종 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190:5.3 (2034.4)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조금 걸어난 후에 말씀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토록 진지하게 나눈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그들은 잠시 서서 그를 보다가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글로바가 말했다:“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글로바가 대답했다:“당신이 이 일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과 행위에 큰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듣지 못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우리 관리들이, 그를 로마인에게 넘겨주고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그가 이방인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형에 처해진지 지금 3일째인데, 어떤 여자들이 바로 오늘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갔다가, 그것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으며;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계속 우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

그리고 이때 야곱이 형의 말에 끼어들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190:5.4 (2035.1)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를 더디게 납득하는구나! 너희가 토론하던 것이 이 사람의 교훈과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내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교훈에 대해 더 익숙하니, 너희에게 깨우쳐 주고 싶다. 그 예수가,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의 새 나라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형제관계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 기쁨으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늘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자를 돌보면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나사렛 사람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만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의

날에 관해, 이 땅의 모든 가족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그가 자기를 찾는 가난한 자들의 혼을 구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는 것과;모든 나라가 그를 찬미하리라는 것을, 성서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 구원주는 황폐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림자처럼 되리라는 것. 그가 참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일 것이고, 그 양들을 두 팔로 모으고 품에 안아서 친절하게 데리고 다니리라는 것. 그가 영적으로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를 완전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해방시킬 것이며;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빛을 볼 수 있게 하리라는 것. 그가 낙담한 자를 일으켜 주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며, 공포에 노예 되고 악으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리라는 것. 그가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슬픔과 비애 대신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수여하리라는 것. 그가 모든 나라의 소망이 될 것이며,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는 것. 이 진리와 의의 아들이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빛과 함께 세상에 우뚝 솟아날 것이며;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할 것이며;잃었던 자들을 반드시 찾아 구하리라는 것. 그가 연약한 자를

멸하지 않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것.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 그가 모든 육체에게 자기 영을 부어 줄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각 신자들 속에 영구적인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것. 그 사람이 너희에게 전해 준 천국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느냐?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는지 감지하지 못하겠느냐?”

190:5.5 (2035.2) 이 무렵에 그들은 이 형제가 거주하는 마을 가까이 도착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오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로 두 형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곧 두 형제가 사는 초라한 집에 도착했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헤어져서,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지만, 그들은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억지로 권유했다. 그들은 밤이 가까웠으므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고 고집 부렸다. 예수께서 마침내 허락했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즉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가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빵을 드렸으며, 그가 떼어서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글로바는 자기 손님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가, “이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모론시아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190:5.6 (2036.1)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우리가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서를 가르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동안,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타는 듯했음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구나!"

190:5.7 (2036.2) 그들은 식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모론시아 주님을 뵈고, 부활한 구원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집에서 달려 나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90:5.8 (2036.3) 그날 저녁 아홉 시쯤에, 그리고 주님이 열 사도에게 출현하기 직전에, 흥분한 이 두 형제는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자기들이 예수를 뵈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한 모든 것과, 빵을 떼기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보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제191편

사도들 및 다른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심

191:0.1 (2037.1) 부활이 있었던 일요일은 사도들의 생애에서 최악의 하루였으며;그들 가운데 열 명은, 문을 잠근 채 다락방 안에서 그날 하루 대부분을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밖에서 발견되어 산헤드린의 첩보원들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다. 도마는 베스페이지에서 홀로 자신의 근심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는 동료 사도들과 함께 남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며, 더 유익한 진로에 따라서 그들의 논의에 방향을 제시했을 것이다.

191:0.2 (2037.2) 요한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혔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단언한 경우가 다섯 번이나 있었으며, 셋째 날이라고 암시한 경우가 적어도 세 번 있었음을 다시 열거했다. 요한의 태도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줬으며, 특히 형제 야고보와 나다니엘에게 그랬다. 요한이 그 집단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 았았어도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91:0.3 (2037.3) 그들의 격리된 처지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큰 원인이었다. 요한 마가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계속 알렸고, 성에서 떠돌아다니는 새로운 소문을 전했으나, 예수께서 이미 출현했던 다른 신자 무리로부터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친절한 봉사를 받았지만, 이사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 무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리를 비웠다. 사도들은, 천국의 직무에 관한 매일 매일의 정보 수집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다윗의 심부름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해 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191:0.4 (2037.4) 베드로는 이날 하루 종일, 주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특유하게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베드로는 예수의 시신이 증발해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수의가 무덤에 남아 있던 장면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베드로는, “그러나 그가 살아났고 여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사도인 우리에게만 보여주시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오지 않는 이유가, 그날 밤 안나스의 집 안마당에서 그를 부인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더 비탄에 잠기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자들이 전해 준,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 소식에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여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정말로 보고 들었다는 것을 믿어야함을 의미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하루 종일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안마당으로 나간 여덟 시 직후까지도 방황이 계속됐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오지 못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사도들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다.

191:0.5 (2037.5) 처음에 야고보 세베대는 모두 함께 무덤으로 가보자고 주장했으며;신비스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야고보의 주장에, 이런 때에 쓸데없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예수의 경고를 상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린 것은 나다니엘이었다. 야고보는 정오 무렵에 안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으며;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출현하지 않음에 무척 실망했고, 주님이 다른 집단과 개인에게 여러 번 출현했다는 것을 몰랐다.

191:0.6 (2038.1) 안드레는 이날 거의 듣기만 했다. 그는 당시 상황 때문에 무척 당황했고 필요 이상으로 의심했지만, 적어도 동료 사도들을 인도하는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어떤 자유로운 해방감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마음 산란한 상황이 사도들에게 임하기 전에, 지도자로서의 짐을 주님이 덜어준 것에 대해 정말로 고마워했다.

191:0.7 (2038.2) 비극적인 이날, 지루하고 지친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집단에게 유일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켜준 것은, 나다니엘이 자주 제시한 특유한 철학적 조언이었다. 그가 끼친 영향은,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열 명의 사도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하는, 자기 의견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믿는 쪽으로 점점 기울어졌다.

191:0.8 (2038.3) 열심당 시몬은 너무 낙심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기대어 벽을 향하고 누워 있었으며; 하루 종일 여섯 번 정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천국에 대한 그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주님의 부활이 그 상황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의 실망은 매우 개인적이었고, 대체적으로 너무 심화돼서 빨리 회복될 수 없었으며, 부활이라는 그토록 엄청난 사실에 직면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1:0.9 (2038.4) 이상한 이야기지만, 늘 말이 없던 빌립이 이날 오후 내내 말을 많이 했다. 오전에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후에는 다른 사도들에게 줄곧 질문을 던졌다. 베드로는 빌립의 질문에 자주 귀찮아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질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빌립은, 예수께서 정말로 무덤에서 일어났다면, 그의 몸에 십자가형의 흔적이 육체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특히 알고 싶어 했다.

191:0.10 (2038.5) 마태는 매우 당황했으며;동료들의 토론에 귀를 기울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자신들의 자금 문제를 마음 속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예수의 예정된 부활을 개의치 않고, 유다는 떠나 버렸으며, 다윗은 아무 절차 없이 자금을 그에게 넘겼고, 그들에게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없게 됐다. 마태는 부활에 대한 그들의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기도 전에,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다.

191:0.11 (2038.6) 알패오 쌍둥이는 이런 심각한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자신의 습관적인 봉사에 여념이 없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부활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우리는 어머니를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의 태도를 표현했다.

191:0.12 (2038.7) 도마는 그가 흔히 겪는, 절망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다시 빠졌다.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동산을 거닐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동료 사도들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다.

191:0.13 (2038.8)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첫 번째 모론시아 출현을 연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그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아직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자 했다.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직접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의 특이한 어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랐다. 둘째, 그가 처음 출현할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요한 마가는, 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 도마가 베스페이지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런 소식을 열한 시쯤 사도들에게 전했다. 나다니엘 또는 누구든지 다른 두 사도가 그에게 갔다면, 도마는 이날 언제든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전날 저녁에 떠날 때 취했던 자기 행동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했으므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까지도 무척 우울했으므로,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주를 기다려야 했다. 사도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는 사도들이 자기를 찾으러 와서 같이 돌아가자고 청해 주기만 바랐다. 그리하여 도마는 그 다음 토요일 저녁, 어둠이 깔린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스페이지로 와서 자신을 데리고 동역자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그들로부터 떨어져 있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처음 출현한 후에 그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으며;그들은 도마 없이는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1. 베드로에게 나타나심

191:1.1 (2039.1) 예수께서 마가의 집 뜰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일요일 저녁 여덟 시 반쯤이었다. 이것은 그의 여덟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였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로 죄의식과 의심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지내왔다. 토요일과 이 일요일 내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도가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씨름했다. 그는 유다의 비운에 몸서리쳤고, 심지어 자신 역시 주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정말로 살아났다면, 자기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출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날 오후 내내 했다. 그리고 낙심한 사도가 바로 그런 기분과 혼의 상태에서 꽃밭 속을 거닐고 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191:1.2 (2039.2) 안나스의 현관을 지나가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했을 때, 그리고 빈 무덤에서 달려 온 여자들이 그날 아침 일찍 자신에게 전한 엄청난 소식, 즉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라는 말이 마음 속에 떠오르자, 그것은 바로 자비의 징표라고 심사숙고했을 때, 그의 신앙이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똑바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소리쳤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며;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앞에 한 남자의 형체가 갑자기 출현했고, 친숙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베드로야, 적이 너를 노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았으므로;네가 요청하기도 전에 너를 용서했지만;이제 너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때의 괴로움과 너 자신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천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시몬아, 새로운 날의 전투, 사람의 천성적 정신 속에 있는 악한 불신과 영적 어둠과의 투쟁에 대비하거라.”

191:1.3 (2039.3) 베드로와 모론시아 예수는, 딸을 같이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에 대해 거의 5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와 네 형제들을 같이 만날 때까지 잘 있거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191:1.4 (2039.4)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과 자신이 대화했다는 것과, 자신이 여전히 천국 대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잠겨 있었다.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에게 훈계하는, 영화롭게 된 주님의 음성을 방금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마음 속에 솟아오르면서, 동료 사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흥분하여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쳤다: "내가 주님을 봤으며; 그가 뜰에 계셨다. 그와 대화를 나눴으며, 나를 용서해 주셨다."

191:1.5 (2040.1) 뜰에서 예수를 봤다는 베드로의 선언이 동료 사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으며, 그들이 의심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안드레가 일어나 동생의 말에 너무 영향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드레는, 베드로가 전에 실체가 아닌 것을 봤던 사실을 암시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봤다고 베드로가 주장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밤에 본 환상을 안드레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말했다. 형이 빗대서 한 말에 시몬 베드로는 무척 마음이 상했고, 즉시 풀이 죽어서 입을 다물었다. 쌍둥이 형제가 베드로를 매우 딱하게 여겼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 어머니 역시

주님을 봤다는 사실을 거둬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고 위로했다.

2.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심

191:2.1 (2040.2) 그날 저녁 아홉 시 조금 지나서, 글로바와 야곱이 떠난 후에, 알패오 쌍둥이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나다니엘이 안드레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열 명의 사도가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붙잡힐까 두려워 모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모론시아 형체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가 나타날 때, 너희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육체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제사장과 관리들이 나를 죽이게 되리라는 것과,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모두, 무슨 이유로 여자들과 글로바와 야곱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도 논쟁하며 의심하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말을 의심할 것이며 내 약속을 믿지 않으려느냐? 지금 너희가 나를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믿겠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지 않다.

너희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음을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고 난 후에, 갈릴리로 가라. 하나님을 믿고;서로를 믿으라;그리하면 너희가 하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봉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갈릴리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다. 내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 바란다.”

191:2.2 (2040.3) 모론시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사라진 주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주님의 아홉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3.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191:3.1 (2040.4) 이튿날 월요일에는, 그때 유란시아에 있던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하루 온종일 보냈다. 주님이 모론시아_전환을 체험할 때, 100만 이상의 모론시아 지휘자와 동역자가, 다양한 계층의 전환기 필사자들과 함께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 세계로부터 유란시아에 와 있었다. 모론시아 예수께서는 이 훌륭한 지성체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지시했고, 그

관리자들로부터, 사타니아의 인간거주 세계들의
필사자가, 체계화된 모론시아 구체들을 통과할 때
지나가게 되는, 모론시아 전환 생애에 대하여 들었다.

191:3.2 (2041.1) 이 월요일 자정 무렵에, 주님의 모론시아 형체는
모론시아 진보의 둘째 단계로 전환되기 위해 조절됐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필사자 자녀들에게 다음에 출현했을 때,
그것은 둘째 단계의 모론시아 존재로서였다. 모론시아
생애에서 주님이 진보해 감에 따라, 필사자의 물질적 눈에
주님을 가시화{可視化}시키기가, 모론시아 지성체들 및
변형을 담당한 그 동역자들에게 점점 더 어렵게 됐다.

191:3.3 (2041.2) 예수께서는 4월 14일 금요일에 셋째 모론시아
단계로 변환됐고; 17일 월요일에 넷째 단계로; 22일
토요일에 다섯째 단계로; 27일 목요일에 여섯째 단계로; 5월
2일 화요일에 일곱째 단계로; 7일 일요일에는 예루셈
시민신분으로 변환됐으며; 14일 일요일에는 에덴시아의
지고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191:3.4 (2041.3) 이전에 여러 차례 이뤄졌던 증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의 생애를, 성좌 본부에
머무는 단계로부터 연방우주 본부에 대한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기까지 이미 체험했으므로, 네바돈의 미가엘은 우주에서 체험하는 봉사를 이런 방법으로 완료했다. 그리고 네바돈의 창조주 아들에게서는, 바로 이 모론시아 체험으로, 자신의 일곱째이자 마지막인 우주 증여를 완전히 끝내고 만족스럽게 종결지었다.

4. 열 번째 나타나심(필라델피아에서)

191:4.1 (2041.4) 필사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난 예수의 열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는, 4월 11일 화요일 여덟 시 조금 지났을 무렵에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고, 거기서, 아브넬, 나사로, 그리고 약 150명에 이르는 그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는데, 70인 전도 단체 중에서도 50명 이상이 포함됐다. 예수의 십자가형과, 다윗의 심부름꾼이 전해 준 부활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소식에 대하여 토의하기 위해, 아브넬이 소집한 회당에서의 특별 회의가 막 시작됐을 무렵에 이 출현이 이뤄졌다. 부활한 나사로가 이제 이 신자들 무리의 일원{一員}이 됐으므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고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191:4.2 (2041.5) 회당에서 함께 단상에 선 아브넬과 나사로가 회의를 막 시작하던 그때, 갑자기 나타난 주님의 형체를, 객석에 있던 모든 신자가 봤다. 아브넬과 나사로 사이에서 나타났으므로, 그 둘은 그를 보지 못했고, 그가 거기서 걸어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말씀했다:

191:4.3 (2041.6)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과, 천국 복음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곧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신앙으로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너희는 안다. 너희가 기쁨으로 복음에 충성할 때, 형제들을 향한 새롭고 더 큰 사랑이 너희의 마음 속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진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페르시아인이든지 에디오피아인이든지, 기쁜 소식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너희 모든 형제와 교제하되, 깊이 이해하는 동정심과 형제로서의 애정을 갖고 하라. 요한이 선두에 서서 천국을 전파했으며;너희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 했으며;그리스인은 이미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있으며;영적 흑암 속에 앉아 있는 동료들에게 불을 밝히는 일에 애타적으로 삶을 바치는 내 모든 형제의 혼 속에, 내가 진리의 영을 곧 보낼 것이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이므로;인간적인 의심과 편협성으로 잘못 이해하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신자를 사랑하는 고상함을 갖게 된다면, 널리_퍼져가는 신앙 가족에 속한 동료 신자도 똑같이 사랑하게 되지 않겠느냐? 기억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191:4.4 (2042.1) “그러니, 온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이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하고, 인류의 서로 다른 종족과 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항상 지혜롭게 하라.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기쁜 소식을 모든 나라에게 값없이 나눠줘야 할 것이다.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악한 세력의 저항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

191:4.5 (2042.2) “내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사라졌다. 각각의 경우에 그를 본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볼 때, 500명 이상의 신자가 동시에 그를 봤던, 갈릴리에서 출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필라델피아에서 이 집단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191:4.6 (2042.3)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도들이 도마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필라델피아의 이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갔다.

191:4.7 (2042.4) 다음날인 수요일에, 예수께서는 모론시아 동역자들과 줄곧 교제하면서 보냈고, 오후 반나절 동안에는, 노라티아덱 성좌 전역에서 인간거주 구체{球體}들이 속한 각 지방 체계 맨션 세계들로부터 방문한, 모론시아 대표자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창조주께서 우주 지성체 중에서 자기네 계층처럼 되셨음을 알고 기뻐했다.

5. 사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191:5.1 (2042.5) 도마는 감람원 근처 동산에서 혼자 고독한 한 주를 보냈다. 그동안 그는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과 요한

마가만 만났다. 두 사도가 찾아와서, 그들의 집합 장소인 마가의 집으로 그를 데려간 것은, 4월 15일 토요일 아홉 시쯤이었다. 다음 날 도마는 주님께서 여러 번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베드로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치 주님을 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다니엘이 그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습관적인 깊은 의심과 관련된 고집스런 감정이 작용했으며, 이런 마음 상태에 덧붙여서, 그들로부터 도망쳐 버렸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도마 자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 동시에 발생됐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떠나서, 혼자 가버렸다가, 지금은 그들에게 돌아와서 같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취하려고 했다. 그는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으며;양보하기를 싫어했다.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좋아했으며;모든 동료가 자기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무의식중에 만족감을 얻었다. 그는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들이 보고 싶었으며, 그들의 변함없는 친절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다.

191:5.2 (2042.6) 오후 여섯 시 조금 지나서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도마 옆에 베드로가 앉고 다른 쪽에는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는데, 의심 많은 사도가 말했다:“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문들이 견고히 닫혔고, 그들이 그렇게 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모론시아 주님이 식탁 모서리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바로 도마 앞에 서서 말씀했다:

191:5.3 (2043.1)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가 모두 모였을 때 내가 다시 출현하여, 온 세계로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탁임을 주려고, 내가 한 주 내내 기다렸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겠다: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너희는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나는 사람의 혼을 사랑하는 대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다만 하늘의 기쁨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명의 영적 실체도 보여줘야 한다. 너희가 신앙을 소유하고, 능력, 즉 진리의 영이 저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면,

닫혀있는 이 문들 뒤에 너희의 빛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며;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 인류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불쾌하게 체험한 사실로부터 피하고 있지만, 진리의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새로운 체험을 위해, 용감하고 기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전통주의의 권위가 제공하는 잘못된 보호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최상의 실체들 속에 있는, 사실, 진리, 그리고 신앙의 권위에 의거한 새로운 질서로 옮겨가는 충격에서 회복되는 동안, 이곳과 갈릴리에 잠시 머물게 될 것이다. 세계를 향한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 위에;즉 너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그것은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될 삶 속에--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체험 속에-- 있을 것이다. 신앙으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진리의 계시가, 전통 때문에 멀어 있는 눈을 뜨게 하라;사랑으로 봉사함으로써, 무지로 인해 발생된 선입관을 효과적으로

없애라. 너희는 깊이 이해하는 연민의 정과 사심 없는 헌신으로 너희의 친구에게 다가감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경의를 표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유대인은 선을 찬양하고;그리스인은 미를 칭송하며;힌두인은 헌신을 전파하고;먼 옛날 금욕주의자는 위엄을 가르쳤으며;로마인은 충성을 요구했지만;나는, 정말로 육신 속의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내 제자에게 요구했다.

191:5.4 (2043.2) 그렇게 말씀을 마친 주님은 도마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했다:“그리고 나를 보고, 내 손에 있는 못 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너, 도마야, 이제는 네가 나를 봤고 내 말을 들었으며;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너희에게도 임할 그 형체로 내가 살아났으므로, 너는 내 손에서 못 자국을 보지 못하겠지만, 네 형제들에게 이제는 무엇이라 말하려느냐? 네가 그토록 완강하게 믿지 않을 때에도 네 마음 속으로는 이미 믿기 시작했으므로, 진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네 의심은,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항상 아주 완강하게 버티려고 한다. 도마야, 네게 명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그리고 나는 네가 전심으로 믿게 될 것을 안다.”

191:5.5 (2043.3)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모론시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믿습시다! 내 주여 내 주님이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다:“도마야 너는 나를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들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필사자의 귀로 듣지 못함에도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다.”

191:5.6 (2043.4) 그리고 나서 주님의 형체는 식탁 상석 쪽으로 가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했다:“이제 너희 모두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191:5.7 (2044.1) 열한 사도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됐으며,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갈릴리를 향해 길을 떠났다.

6.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심

191:6.1 (2044.2) 열한 사도가 갈릴리로 출발해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 4월 18일 화요일 저녁 오후 여덟 시

반쯤에, 예수께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단을 비롯하여 80여명의 다른 신자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님이 모론시아 형체로 나타난 열두 번째 사건이었다. 다윗의 심부름꾼이 십자가형에 대한 보고를 막 마쳤을 때, 예수께서 이 그리스인과 유대인 앞에 나타났다. 이 심부름꾼은,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사이에서 연계식{連繫式}으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중에 다섯째 사람이었으며, 그날 오후 늦게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로단에게 소식을 전하자, 이 비극적인 말을 그 심부름꾼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전체 신자를 소집하자고 결정했었다. 여덟 시쯤 돼서, 부시리스의 나단이라는 심부름꾼이 이 집단 앞에 나와, 앞사람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단은 감동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덧붙였다:“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인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단이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론시아 주님이 거기에 출현했다. 그리고 나단이 자리에 앉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191:6.2 (2044.3)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세우시려는 것은, 한 종족이나 국가 또는 특정한 무리의 선생이나 전도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천국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자유한 자나 속박 당한 자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해당된다. 그리고 너희는, 육신 속에서 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 놀라운 애정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는 새롭고 놀라운 헌신으로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이 보게 될 때,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너희가 하늘 나라의 신앙_친구가 됐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찾기 위해, 너희 삶에서 발견하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고자 할 것이다.

191:6.3 (2044.4)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모두, 흑암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 이 천국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했으며;단지

사제들의 역할에만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시대들이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191:6.4 (2044.5) 말씀을 마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이 신자들은 그날 밤 내내 거기에 함께 남아서, 천국을 믿는 자로서의 체험을 서로 이야기했고, 로단과 그 동역자들의 많은 말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이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윗의 사자{使者}가 도착했는데, 그 사자가 전해 준 소식에 대해 그들이, “그렇다, 우리는 그를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그가 그저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대답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라.

제192편 갈릴리에 나타나심

192:0.1 (2045.1)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향해 떠날 때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은 비교적 침묵을 지켰다. 오직 천국을 믿는 집단에게만 예수께서 출현했으므로,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 있었고 공개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 관리들은 복음 운동이 결국 효과적으로 분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그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당황했지만,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의 시신을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를, 뇌물로 매수한 경비병들이 퍼뜨리게 함으로써, 그런 모든 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2:0.2 (2045.2) 이때부터, 박해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도들이 흩어질 때까지,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사도 단체의 우두머리로 인식됐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었고, 동료 사도들도 공식적으로 그를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선출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이의 없이, 그리고 그가 수석{首席}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고수했다. 이때부터 대중 전도가 사도들의 주요 업무가 됐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대신 선택된 맛디아가 그들의 회계원이 됐다.

192:0.3 (2045.3) 그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던 그 주간에, 예수
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머무는 여
신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192:0.4 (2045.4) 월요일 아침 일찍, 사도들이 갈릴리로 떠날 때,
요한 마가도 동행했다. 그는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들
뒤에서 따라가다가, 베다니를 한참 지나간 후에는, 그들이
자기를 되돌려 보내지 않으리라고 안심하면서, 대담하게
그들과 섞여서 걸어갔다.

192:0.5 (2045.5) 사도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종종 멈췄으므로, 수요일 아주 늦은
밤에야 벳새다에 도착했다. 그들 모두 잠에서 깨어, 아침
먹을 준비를 한 것은 목요일 정오 무렵이었다.

1. 호숫가에서 나타나심

192:1.1 (2045.6)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여섯 시쯤에, 열 명의
사도를 태운 배가, 늘 배를 대던 벳새다 해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론시아 주님이 열세 번째로 나타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도들이 세베대의 집에서 대기하면서 목요일 오후와 초저녁을 보낸 후에,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제안하자, 사도들 모두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들은 여러 흥미로운 체험, 즉 예루살렘에서 아주 최근에 자신에게 생긴 일을 이야기했으므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뱃새대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해변 가까이 왔을 때, 배를 대는 곳 근처 해변에, 모닥불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가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 자신들을 환영하기 위해 거기에 온 요한 마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변에 가까이 가자,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요한이라고 하기에는 키가 너무 컸다. 아무도 해변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포와 배반과 죽음에 비극적으로 관련된 예루살렘의 밀폐된 공간에서 멀리 떠나, 주님이 그들과 초기에 함께 했던 그 현장 한 가운데서, 그리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야외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했었으며, 그 약속이 곧 이뤄지게 됐다.

192:1.3 (2046.1) 그들이 닻을 내리고, 물가로 나가기 위해 작은 배를 준비할 때,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여보시오, 무엇을 좀 잡았소?”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그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요.” 그들은 자신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예수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한 마음이 돼서 지시 받은 대로 그물을 던졌고, 즉시 그물이 가득 차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때 요한 세베대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물을 보는 순간 언뜻 생각나서, 자기들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 생각이 마음 속에 떠오르자, 베드로에게 몸을 굽혀서 “저분이 주님이시라”고 속삭였다. 베드로는 항상 경솔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몰두했으므로; 요한이 자기 귀에 속삭이는 이 말을 듣자, 주님 옆으로 최대한 빨리 가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형제들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잡은 그물을 끌면서 해변으로 나왔다.

192:1.4 (2046.2) 이때 요한 마가는 일어나 있었고,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오는 사도들을 보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해변으로 달려갔으며; 열 사람이 아니라 열한 사람이 해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부활한 예수일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열 명의 사도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옆에 서 있을 때, 소년이 주님께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님이여"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인사할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고 말씀했던 것과는 달리, 요한 마가에게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요한아, 너를 다시 만나니 반가우며, 우리가 편안히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갈릴리에 있게 돼서 기쁘다. 요한아, 우리와 함께 남아서 아침을 먹도록 하자."

192:1.5 (2046.3) 예수께서 소년에게 말씀하는 동안, 열 사도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고기가 들어 있는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라. 이미 모닥불과 많은 빵이 준비돼 있다."

192:1.6 (2046.4) 요한 마가가 주님께 경의를 표하는 동안, 베드로는 해변에 숯불이 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으며;그 광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안나스의 안마당에서 한 밤중에 타오르던 숯불이 생생하게 기억났으나,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주님이여!”라고 소리쳤다.

192:1.7 (2046.5)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료들과 합세했다. 그들이 잡은 고기를 땅에 풀어놓고 켜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였다. 그리고 이것을 물고기를 잡은 또 다른 기적이라고 부르는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에는 아무 기적도 없었다. 그것은 다만, 주님이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뿐이었다. 그는 물고기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사도들에게 그물을 거기에 던지라고 지시했다.

192:1.8 (2047.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이제 너희 모두 와서 아침을 먹자.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 형제도 여기 앉아라;요한 마가가 고기를 준비할 것이다.” 요한 마가가 알맞은 크기의 생선 일곱 마리를 가져왔고,

주님이 그것을 불에 올려놔으며, 잘 익은 후에, 소년이 열 명에게 배분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빵을 떼어 요한에게 주셨고, 그가 시장한 사도들에게 나눠줬다. 그들이 모두 음식을 받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 마가에게 앉으라고 지시하고, 손수 물고기와 빵을 소년에게 가져다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과 이야기했으며, 바로 이 호수 주변과 갈릴리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를 회상했다.

192:1.9 (2047.2) 이것은 사도들 전체에게 자신을 나타낸 세 번째 경우였다. 예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누군지에 대해 의심쩍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육지로 다가올 때, 다리키아의 어물상{魚物商}이 햇빛에 말릴 싱싱한 고기를 직접 구입하려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 어부들이 늘 경험했기 때문이다.

192:1.10 (2047.3) 예수께서는 열 명의 사도 및 요한 마가와 함께, 한 시간 이상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두 명씩 나누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변을 거닐었다--그러나 처음에 두 사람씩 짝지어 내보내서 가르치게 했을 때와

똑같은 사람끼리 짝 짓게 하시지는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에는 열한 사도가 함께 왔지만, 열심당 시몬은 갈릴리에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낙담해서, 벳새다에 도착한 후에는 형제들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192:1.11 (2047.4) 이날 아침에 그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자원하는 두 사람이 열심당 시몬에게 가서 그날 당장 그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다.

2. 두 사람씩 사도들과 이야기하심

192:2.1 (2047.5)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다른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손짓으로 불러서, 함께 해변을 거닐자고 했다. 함께 걸으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요한이 “예,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했다: “요한아, 그러면, 네 편협성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워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네 인생을

바쳐라. 구원을 추구하도록 사람을 재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선{善}의 원조이며, 진실과 아름다움의 본질 요소다.”

192:2.2 (2047.6)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내 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양을 먹여라.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 자를 무시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편애{偏愛}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는 네 동료로 섬기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 필사자를 용서해라. 묵상의 가치와 지적으로 숙고하는 능력을 체험을 통해서 잘 배워라.”

192:2.3 (2047.7) 조금 더 걸어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했다:“그러면 내 양을 잘 보살펴라. 양 무리에게 선하고 참된 목자가 돼라. 너를 신뢰하는 그들을 배반하지 마라. 적의 손에 기습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주의해라--깨어 기도해라.”

192:2.4 (2047.8) 몇 발자국 더 걸어간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며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치 자기를 믿지 못하는 듯한 주님의 태도에 약간 슬퍼하면서,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내 양을 먹여라. 그 무리를 버리지 마라. 네 모든 동료 목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화 주는 사람이 돼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양 무리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기위해 내가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기위해 너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라.”

192:2.5 (2048.1) 베드로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즉 자신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라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음을 알고 말씀했다: “베드로야, 네 형제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네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확실하게 나를 따라와라.”

192:2.6 (2048.2)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두루 퍼졌고, 천국이 영광과 능력으로 이뤄지기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희망한 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열심당 시몬이 본연의 봉사업무로 돌아와서 계속 일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해석이었다.

192:2.7 (2048.3)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했다. 조금 걸어난 후에 예수께서 안드레에게 물었다: “안드레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전에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던 그는, 예수의 그런 질문을 듣고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예, 주님, 나는 결단코 당신을 신뢰하며, 내가 그런 것을 당신도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안드레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을--베드로까지도-- 더욱 신뢰하거라. 나는 한때 형제들에 대한 너의 지도력을 신뢰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너를 떠나지만, 너는 다른 형제들을 신뢰해야만 한다. 혹독한 박해로 인해 네 형제들이 멀리 흩어지게 된 후에, 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아직 체험이 부족해서 견딜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이 그에게 지우려고 할 때, 그에게 신중하고 현명한 협조자가 돼 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라. 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는 내게로 올 것이다.”

192:2.8 (2048.4) 그다음에 예수께서 야고보를 향해 물었다:“야고보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예, 주님,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야고보야, 네가 나를 더욱 신뢰한다면, 네 형제들에 대해 잘 참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신자들의 형제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을 배워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해라. 영의 평온함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심을 길러라. 희생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올 때,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이 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결코 당황하지 마라;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너도 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192:2.9 (2048.5)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도마와 나다니엘과 이야기했다. 그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도마는, “예, 주여,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섬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네가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육신 속의 내 형제들을 섬겨라. 그리고 이 선행에 지치지 말고, 이 사랑의 봉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인내해라. 네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는 봉사를 마치면,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섬기게 될 것이다. 도마야, 너는 의심을 멈춰야 하며;진리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자라야만 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유치한 행동은 멈춰라. 용기를 가지며;신앙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가 돼라.”

192:2.10 (2049.1)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아, 너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예, 주님, 온전한 애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렇다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긴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지칠 줄 모르는 애정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네가 조언할 때 우정과 함께 하고, 네 철학에 사랑을 더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너도 동료들을 섬겨라. 내가 너를 돌봐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충실하거라. 비판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정도를 낮춤으로써, 네 실망을 줄이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서 하던 일을 마치게 되면, 너는 나와 함께 저 높은 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192:2.11 (2049.2) 그 다음에 주님은 마태와 빌립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는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했다. 빌립은 “예, 주여, 당신이 제 생명을 바치라고 하셔도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라.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천국 아들이 됐다. 순종해야 할 법이 오직

한 가지 있다--그것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진리의 빛에 굶주리고 흑암 속에서 번민하는 동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빌립아, 너는 더 이상 돈과 재물을 위해 바쁘게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형제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기쁜 소식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권한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네 앞에 갈 것이며,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92:2.12 (2049.3) 그리고 나서 마태에게 말씀하면서, “마태야, 너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물었다. 마태는 “예, 주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했다:“마태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라. 너는 더 이상 네 형제들에게 물질적 생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이제부터 너도 영적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라. 이제부터는 오직 아버지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위탁임무에만 전념해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 같이, 너도 신성한 위탁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네 형제임을 명심해라. 너는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곧 오게 될 것이다.”

192:2.13 (2049.4) 그 후에 그는, 알패오 쌍둥이, 야고보와 유다에게 가서, 두 사람에게 물었다:“야고보와 유다야, 너희는 나를 믿느냐?” 그리고 두 사람이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가 말씀했다:“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미 너희를 떠났음을 너희가 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런 형체로 잠시만 머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었다--너희는 내 사도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 했던 일로 돌아가더라도, 나와 교제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너희의 충성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신앙 아들일 때, 그 영역의 모든 정직한 업무가 신성시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일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칠 때, 너희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더 좋은 다른 세계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세성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들에서, 나는 너희와 같이 일할 것이며,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192:2.14 (2049.5) 예수께서 알파오 쌍둥이와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것은 거의 열 시가 됐을 무렵이었으며, 사도들을 떠나면서, “너희의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내일 정오에 너희 모두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3.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192:3.1 (2050.1) 4월 22일 토요일 정오에, 열한 사도는 약속대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언덕에 모였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번 만남은, 그가 그들을 주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 나라의 대사로서 파견했던 바로 그 산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열네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였다.

192:3.2 (2050.2) 이때 열한 사도는 주님 주위에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무릎을 꿇었고, 그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들었고, 천국의 특별 업무를 위해 처음 파견됐을 때처럼

임직식 장면을 재연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제외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 전에 가졌던 임직식에 대한 기억과 동일했다. 주님께서--곧 모론시아 예수께서-- 기도할 때, 능력의 말씀과 함께 그의 음성은 장엄했으며,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주님은, 자신의 우주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손에 쥔 분으로서 우주의 통치자들과 의논했다. 그리고 이 열한 사도는, 전에 했던 대사 직분 서약에 모론시아적으로 재헌신{再獻身}하는 이 체험을 결코 잊지 못했다. 주님은 자기 대사들과 함께 이 산에서 한 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192:3.3 (2050.3) 그리고 그 후로는 한 주 동안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주님이 이미 아버지께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들은 벳새다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만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했다. 이 한 주 내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론시아 피조물과 함께 있었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모론시아 전환 직무에 전념했다.

4. 호숫가에 모임

192:4.1 (2050.4) 예수께서 여러 번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으며, 주님의 부활에 관해 물어보려고, 그리고 그가 여러 번 나타났다는 떠도는 소문이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매일 더 많은 신자가세베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 주 초반, 베드로는 공개 집회가 다음 안식일 오후 세 시에 그 바닷가에서 있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192:4.2 (2050.5) 따라서, 4월 29일 토요일 세 시에, 부활 이후 베드로의 첫 대중 설교를 듣기 위해 500명 이상의 신자가 가버나움 근방에서 벳새다로 모였다. 그 사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의 매력적인 강연이 다 끝난 후에는,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의심하는 청중은 거의 없었다.

192:4.3 (2050.6)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말했다:“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음을 단언하며;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며;우리가 그를 봤고 그와 대화했음을 공포한다.” 그가 신념에 찬 이 선언을 마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의 옆에 모론시아 형체로 출현했으며, 낮익은 어투로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리고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한 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다섯 번째로 있었던 모론시아 현시였다.

192:4.4 (2051.1) 임직식이 있었던 산에서 열한 사도가 주님과 논의하는 동안 들었던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주님께서 갈릴리의 한 집단 앞에서 곧 공개적으로 출현하리라는 것과, 그가 그렇게 출현한 후에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따라서 다음 날, 4월 30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열한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해 벳새다를 떠났다. 그들은 요단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러 번 가르치고 전도했으므로, 5월 3일 수요일 늦은 시각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했다.

192:4.5 (2051.2) 요한 마가에게는 슬픈 귀향길이였다. 그가 도착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버지 엘리야 마가가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슬픔을 많이 위로해 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근심과 낙심에 젖어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훌륭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애도했다. 요한 마가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로했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사도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청했다. 그리고 열한 사도는 오순절이 지날 때까지 이 다락방을 본부로 사용했다.

192:4.6 (2051.3) 유대인 권세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사도들은 일부러 해가 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또한 그들은, 엘리야 마가를 장사 지내는 동안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파란 많은 이 다락방에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조용히 숨어서 지냈다.

192:4.7 (2051.4) 사도들은 목요일 밤에 이 다락방에서 훌륭한 회의를 진행했고, 도마, 열심당 시몬, 그리고 알패오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도가 공공장소에 나가서 부활한 주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로 맹세했다. 천국 복음을--곧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되는 것과 사람들의 형제관계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선포로 변경시키는 첫

단계가 이미 시작됐다. 그들의 공개적 설교 요지에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을 나다니엘이 반대했지만, 베드로의 설득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특히 여신도들의 열광도 이겨낼 수 없었다.

192:4.8 (2051.5) 그리하여, 베드로의 원기 왕성한 지도력 아래,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그의 대변인들은 선의에서 한 것이기는 했지만, 예수 ^의 종교를 예수에 ^{관한} 종교라는 새롭고 수정된 형태로 조금씩 확실하게 변경시키는, 교묘한 변천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제193편 마지막 출현과 승천

193:0.1 (2052.1) 예수의 열여섯 번째 모론시아 현시{顯示}는, 5월 5일 금요일, 니고데모의 집 안마당에서 밤 아홉 시쯤에 이뤄졌다. 이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부활 사건 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려고 시도했다. 이때 모인 사람은, 열한 사도, 여자 단체와 그들의 동역자들, 그리고 다수의 그리스인을 포함해서 50여명에 이르는 주님의 다른 수제자들이었다. 이 신자 무리가 스스럼없이 30분 이상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모론시아 주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즉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193:0.2 (2052.2)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내가 육신으로부터 떠난 이후로 계속 나타났던 신자들--곧 사도와 제자들,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 기간이 반드시 끝나게 되리라고 전에 말한 것과;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너희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증인이 돼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또한 내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그토록 당황했느냐? 그리고 내가 셋째 날에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너희는 왜 그렇게 놀랐느냐? 너희는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면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했다.

193:0.3 (2052.3) “그러니 너희는 이제, 마음으로는 그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면서 정신으로만 내 가르침을 듣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머물게 된 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내가 온 유일한 목적임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_아는 생애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을_계시하는
증여의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심을 내가 드러냈으며;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인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내 말을 믿는 신앙으로,
이 사실은 너희 마음 속에서 영원하고 생생한 진리가 된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너희가 신성하게 하나님을_의식하게
되면, 너희는 빛과 생명의 자녀로서 영으로 태어나며,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해서 온갖 우주로 상승하고,
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달성한다.

193:0.4 (2052.4) 나는 너희에게,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은, 천국 복음을--곧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진실과
사람이 아들신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의 전체 진리를 선포하도록 하라. 너희가
전할 메시지는, 내가 부활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여전히
천국 복음의 구원하는 진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봉사를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고상하게 하는 이 진리를,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깨달을 수 있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증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영의 아들이라는 구원하는 진리를 몸소 신앙으로_붙잡기에 저희가 실패한다면, 그런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천국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봉사와 관련된다.

193:0.5 (2053.1) “너희끼리 여기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정보를 나누지만, 그 정보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와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를 가졌으며;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을 낙원 아들들에게 주신다. 내가 요셉의 새 무덤을 떠난 즉시, 한 시대의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상승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 마음에 더 빨리 자극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너희에게 드러냈듯이, 너희도 사랑하는 봉사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는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육신

속에서 내 생애를 살았다. 너희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의 아들이로서 너희와 함께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온 인류에게 하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동료 필사자를 섬겨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내가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해라. 그가 너희를 확장된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온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193:0.6 (2053.2)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이 신자들이 헤어진 것은 거의 날이 셀 무렵이었으며;주님의 훈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면서 밤새 같이 있었다. 야고보 세베대와 다른 사도들도 갈릴리에서 모론시아 주님과 함께 가졌던 체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가 자신들에게 세 번 출현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1. 사이카에 나타나심

193:1.1 (2053.3) 5월 13일 안식일 오후 네 시쯤에, 사이카에 있는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주님은 날다와 75명가량의 사마리아인 신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신자들은 예수께서 생명의 물에 관해 날다에게 말씀했던 곳 근처의 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었다. 그들이 이날 부활의 소식에 대한 토의를 막 마쳤을 때,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다:

193:1.2 (2053.4)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희가 알고 기뻐했지만, 너희가 먼저 영원한 영으로 태어나고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앙의 자녀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한다. 너희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 모습 그대로,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때가 왔다. 너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다. 구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영생애를 육신 속에서 살 때, 그 열매가 맺히는 체험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형제관계라는 관련된 진리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사람이 네 형제라면, 그는 이웃보다 더 가까우며, 아버지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네 형제가 정말로 네 가족의 일원이라면, 너는 가족으로서 애정으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사랑과 섬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종족과 부족과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내 영이 너희보다 앞서 갈 것이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93:1.3 (2054.1) 이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의 이런 출현에 크게 놀랐으며, 가까운 도시와 마을들로 급히 나가서, 자신이 예수를 봤다는 소식과 그가 자신에게 말씀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널리 전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열일곱 번째 모론시아 출현이었다.

2. 페니키아에 나타나심

^{193:2.1 (2054.2)} 주님의 열여덟 번째 모론시아 출현은, 5월 16일 화요일, 저녁 아홉 시 조금 전에 두로에서 있었다. 그는 신자들이 모임을 마치고 막 흩어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나서 말씀했다:

^{193:2.2 (2054.3)}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과 너희의 형제들 역시 필사자의 죽음에서 생존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생존은, 너희가 이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 탄생이 이뤄졌는지에 달려있다. 진리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곧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만, 생명의 빵과 물이 주어진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천국 복음이 아니다. 이 엄청난 진리와 이 우주 사실이 모두 이 복음과 관련되지만, 기쁜 소식을 믿은 결과의 일부일 뿐이며,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리고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속하는 아들이 된 사람들이, 그

후에 갖게 되는 체험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들신분의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아들신분의 이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너희를 보낸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동료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영의 열매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필사자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 신성한 영의 열매는:사랑으로 섬김, 애타적 헌신, 불굴의 충성심, 진지한 공정성, 계몽된 정직성, 끊임없는 희망, 무조건적 신뢰, 자비로운 보살핌, 시종여일한 덕, 용서하는 아량, 그리고 영구적 평강이다. 신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죽었으며;진리의 영이 그들 속에 없으며;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쓸모없는 가지들이고, 곧 잘리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신앙의 자녀에게 영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요구하신다. 따라서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의 뿌리 둘레를 파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을 향해 진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된 온전한 크기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면서 널리 사방으로 나갈 때,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며, 내 진리의 영이 너희 마음 속에 거할 것이다. 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193:2.3 (2054.4)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두로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안디옥과 다마스쿠스까지 나아갔다. 예수께서는 육신 속에 있을 때 이 신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즉시 알아봤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 그의 친구들은 그의 모론시아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 말씀할 때에는, 그의 인격체를 알아보기에 결코 더디지 않았다.

3.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출현

193:3.1 (2055.1)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모론시아 인격체로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열한

사도가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앉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출현해서 말씀했다:

193:3.2 (2055.2)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 곧 부어지고, 저 높은
곳에서 능력과 함께 너희에게 수여될, 진리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도,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했었다.” 열심당 시몬이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주님, 당신께서 천국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시몬의 질문을 다
들은 예수께서 말씀했다: “시몬아, 너는 아직도 유대인의
메시아와 물질적 왕국에 대한 옛 개념에 몰두하는구나.
그러나 그 영이 네게 임한 후에 너는 영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곧 온 세상으로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기 바란다. 유다는 사랑이 식었으므로, 그리고 충실한
형제인 너희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고 성서에 씌어있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또,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을 친구처럼 보여야만 한다'고 기록된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 가르치게 했을 때에도, 너희가 외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독의 해악과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육신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우리가 교제하던 아주 초기부터, 나는 너희 가운데 두 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도록 했고, 내가 아버지와 교류할 때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신임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희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두게 됐으니,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때가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떠날 것이다."

193:3.3 (2055.3) 말씀을 마치자, 그는 따라오라고 손짓으로 불렀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갔으며,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감람원으로 가는 여행은 매우 엄숙했다. 그들은 다락방을 떠날 때부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잠시 멈출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4. 유다가 실패한 이유

193:4.1 (2055.4)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유다를 잃은 것에 대해 서두에 언급했고, 사회적 고립과 형제간 고립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들의 불충한 동료 일꾼의 비극적 운명을 거론했다. 주님의 말씀에 비취서, 그리고 지나간 수세기 동안 계속 발전돼 온 깨우침의 견지에서, 유다가 실패한 원인을 간단히 돌이켜보는 것은, 현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의 신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193:4.2 (2055.5)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먼저 유다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데, 두드러지게 고립된 인간성, 즉 통상적 사회 접촉에서 멀어지고 문을 닫아버린 인간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 사도들을 신뢰하는 것과, 자유롭게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강화하고 영적 은혜의 성장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고립된 인간성 유형에 속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유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는 악한 감정에 고집스럽게 집착했고, 양갓음이라는 심리적인 적,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실망감에 대해 누군가에게 “받은 대로

값기”를 막연히 갈망하는 심리적인 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193:4.3 (2056.1) 불운하게도 이렇게 조합된 개별 습성과 정신적 경향이, 사랑, 신앙, 및 신뢰로 이런 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선의를 지닌 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다가 반드시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도마와 나다니엘의 경우에 잘 증명되며, 이 두 사람도 이와 동일한 종류의 의심과 개인주의 경향으로 비뚤어진 상태였다. 심지어 안드레와 마태에게도 이런 추세의 성향이 많이 있었지만;이 사람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와 동료 사도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됐고, 줄어든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은혜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서 더 깊어졌다. 그들은 형제들을 점점 더 신뢰했고, 동료들을 신임할 수 있는 역량을 서서히 계발{啓發}했다. 유다는 형제들을 신뢰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 갈등이 쌓여서, 자아를 표현할 분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때마다, 영적이지 못한 친척,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어리석은 위로를 받았는데, 그들은 하늘 나라의 영적 실체의 복지와 진보에 무관심하거나 실제로 반대하는 자들이었으며, 그

면에서는 유다가 이 땅에서 성별{聖別}된 하늘 나라의 열두 대사 가운데 하나였다.

193:4.4 (2056.2) 유다는 이 세상의 갈등과 투쟁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향과 성품의 약점들 때문에 패배했다:

193:4.5 (2056.3) 1. 그는 고립된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는 매우 개인주의적이었고, 만성적 "자폐성{自閉性}을 점점 더 키워가는 쪽으로 선택했다.

193:4.6 (2056.4) 2. 소년 시절에 그는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았다. 그는 방해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그는 항상 승리를 기대했고;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193:4.7 (2056.5) 3. 그는 실망에 대처할 수 있는 철학적 기법을 습득하지 못했다. 그는 실망감을 인간 실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색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모든 개인적 곤경과 실망에 대해, 특정한 어떤 사람 또는 동역자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을 어김없이 따랐다.

193:4.8 (2056.6) 4. 그는 항상 불평을 품는 경향이 있었으며;복수심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했다.

193:4.9 (2056.7) 5. 그는 사실에 솔직하게 대처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인생의 상황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

193:4.10 (2056.8) 6. 그는 자신의 개인 문제에 대해 가까운 동역자들과 의논하기를 싫어했으며;진실한 친구,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지낸 지난 수년 동안,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님께 상의하지 않았다.

193:4.11 (2056.9) 7. 고상한 삶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결국 영적 상급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상급은 이런 육신 속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항상 공급되지는 않는다.

193:4.12 (2056.10) 그의 인간성의 고립이 지속된 결과로, 그의 비탄은 배가{倍加}됐고, 슬픔은 깊어졌으며, 근심은 증대됐고, 절망감은 심화돼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거의 초과했다.

193:4.13 (2057.1) 자기중심적이고 심히 개인주의적인 이 사도가, 심령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졌지만, 그에게 주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인격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정신적으로 의심이 많고 복수심이 가득했다. 체질적으로 무뚝뚝하고 악의가 있었다. 감정적으로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완전한 가까움 정도로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영적으로 거만하고 이기적으로 야심적인 사람이 돼갔다. 사는 동안에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죽을 때에는 고독했다.

193:4.14 (2057.2) 선의를 가졌었고 한때는 예수를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 인간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긴밀한 교제를 수년 동안 나눈 후에도, 어떻게 해서 동료들을 저버리고, 신성시되는 목적을 무시하고,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반하게 됐는지를, 함께 어우러진 이런 정신적 요소와 악의 영향이 설명해 준다.

5. 주님의 승천

193:5.1 (2057.3) 말이 없고 어느 정도 어리둥절 하는 열한 명의 사도와 함께, 예수께서 감람산 서쪽 기슭에 도착한 것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 일곱 시 반쯤이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 3분의 2정도 되는 이 위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겿세마네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제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준비했다. 주님이 그들 앞에 서자, 아무 지시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무릎을 꿇었고, 주님이 말씀했다:

193:5.2 (2057.4) “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너희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려 하며;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곧,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머물렀던 이 세상으로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며; 그가 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천국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동료 필사자를 섬겨라. 너희 삶에 맺히는 영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은 서로 형제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과 너희 가운데서 내가 살았던 생애를 기억해라. 내 사랑이

너희를 지배하고, 내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내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잘 있거라.”

193:5.3 (2057.5) 이 말씀을 마치자, 모론시아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다. 소위 예수의 승천{昇天}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그가 유란시아에서 40일 동안의 모론시아 생애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라졌던 다른 경우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193:5.4 (2057.6) 주님은 예루셈을 거쳐 에덴시아로 갔으며, 거기서 낙원 아들의 감독 아래, 지고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모론시아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고, 상승하는 영 경로를 통해서, 낙원의 아들신분 상태로, 그리고 살빙톤의 최고 주권자 상태로 돌아가게 했다.

193:5.5 (2057.7) 네바돈 우주에 대한 그의 완전한 주권을 공식적으로 확정 받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려고, 모론시아 예수께서 열한 명의 사도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이날 아침 일곱 시 45분쯤이었다.

6. 베드로가 모임을 소집함

193:6.1 (2057.8)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요한 마가와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모이도록 수제자들을 부르러 나갔다. 열 시 반이 됐을 때, 120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예수의 수제자들이, 주님의 작별 설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승천에 대해 알기 위해서 모였다. 이 무리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 사도들이 최근에 갈릴리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도 요한 세베대와 함께 왔다. 그녀는 오순절 직후에 벳새다에 있는 살로메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이 모임, 즉 주님이 이 행성에서 생애를 마친 후 소집된 제자들의 첫 번째 회담에 참석했다.

193:6.2 (2058.1) 시몬 베드로가 자청해서 동료 사도들을 대표하여 말했으며, 열한 사도와 주님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고, 주님의 마지막 인사와 승천하여 사라지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하기까지, 이 모임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그들이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자리를 위해 천거된 두 사람,

즉 맛디아와 유스도 중에서 사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휴회{休會}가 선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3:6.3 (2058.2) 그 후에 열한 사도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될 사람을 두 사람 중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를하기로 동의했다. 제비는 맛디아 쪽으로 뽑혔으며, 그는 새로운 사도로 임명됐다. 그는 직책을 정식으로 받게 됐고 회계원으로 지명됐다. 그러나 맛디아는 그 후에 사도들의 활동에서 거의 역할이 없었다.

193:6.4 (2058.3) 오순절 직후에, 쌍둥이 형제는 갈릴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열심당 시문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한동안 쉬었다. 도마는 비교적 짧은 기간 고민한 후에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다니엘은, 초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예수에 관해 전도하는 베드로와 점점 더 의견을 달리했다. 이런 의견 차이가 그 다음 달 중순쯤에 너무 심화{深化}돼서, 나다니엘이 물러났고, 아브넬과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갔으며;거기서 일 년 이상 머문 후에,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건너편 땅으로 갔다.

193:6.5 (2058.4) 원래의 열두 사도 중에서 남은 6명, 즉: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및 마태가 예루살렘의 이 초기 복음 선포 무대에서 배우가 됐다.

193:6.6 (2058.5) 정오 무렵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왔고, 맛디아가 새 사도로 선출됐음을 공포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신자에게 기도에 동참하도록 소집했는데, 주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영의 선물을 받으려고 준비하기 위한 기도였다.

제194편 진리의 영이 증여됨

194:0.1 (2059.1) 한 시 즈음에, 120명의 신자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방 안에서 어떤 이상한 존재를 의식하게 됐다. 동시에 이 제자들은 모두, 영적 기쁨, 안도감, 그리고 확신을 주는 새롭고 심오한 느낌을 의식하게 됐다. 이렇게 영적 힘을 새롭게 의식하게 된 후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과 천국 복음을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려는, 강한 충동이 즉시 뒤따랐다.

194:0.2 (2059.2)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진리의 영이 도래했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위임된 기쁜 소식을, 성전으로 가서 전파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대로 했다.

194:0.3 (2059.3)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사람은 아들신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전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았었지만, 영적 흥분과 개인적 승리감에 싸인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 가장 엄청난 소식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위에서 주어진 능력을 부여받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곧 예수를 통한 공평한 구원을-- 전도하며 나아갔지만,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복음과 관련된 어떤 사실로 대치시키는 잘못을, 무심코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실수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앞장섰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따라갔고, 기쁜 소식의 개정판으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바울에게 이어졌다.

194:0.4 (2059.4) 천국 복음은: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결과로 사람이 아들신분이요 형제관계라는 진리다. 그날 이후로 생겨난

그리스도교는: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와 신자로서_친교하는 체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194:0.5 (2059.5) 영이_주입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고 그의 교훈의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는 느낌을 표현할 이 기회를 포착해야 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예수와 함께 가졌던 개인적 관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과의 친구 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약속대로 그 영이 정말로 도래했다는 확신으로 감동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다.

194:0.6 (2059.6) 이 신자들은, 다른 세계, 즉 기쁨, 능력, 및 영광의 새로운 생활로 자신들이 갑자기 전환됐음을 느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능력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했었으며,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분별하기 시작했다.

194:0.7 (2059.7)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고려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초기 메시지 내용 대신, *예수에 관한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됐는지 이해하기 쉬워진다.

1. 오순절 설교

194:1.1 (2060.1) 사도들은 지난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일이었고,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축제를 위해 도착한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유월절 이후에도 계속 성에 머물고 있었다. 두려워하던 사도들은, 이제 숨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성전에 나타났고, 부활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통찰력과 능력을 지닌 어떤 새로운 영적 재능을 받았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의식했다.

194:1.2 (2060.2) 주님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열정적으로 호소하여, 2천 명 이상의 혼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은 두 시쯤이었다. 주님은 떠났지만, 그들은 그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발견했다. 그들이 전에 예수께 헌신했던 것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를 더욱 선포하도록, 계속 마음이 끌린 것은 당연했다. 이 집회에 참석한 여섯 사도는: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및 마태였다. 그들은 한 시간 반 이상 이야기했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한 그들이 쉽게 말할 수 있었던 다른 방언들로도 몇 마디씩 설교했다.

194:1.3 (2060.3)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대담함에 몹시 놀랐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많은 사람 때문에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다.

194:1.4 (2060.4) 네 시 반쯤에, 2천 명 이상의 새 신자가 사도들을 따라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및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 줬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서야 이 대중에게 세례 주기를 마칠 수 있었다.

194:1.5 (2060.5) 오순절은 세례 받는 큰 축제였는데, 대문 밖의 개종자들, 즉 야훼를 섬기기 원하는 이방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많은 무리가 이날 세례에 참여하기는 훨씬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유대인

신앙으로부터 떨어져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한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 있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 유대인의 예식 체계의 기본 요건에 여전히 충실했다.

2. 오순절의 의미

194:2.1 (2060.6)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마귀의 자손이라는 미신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신앙 아들임을 믿는 존엄성에 이르도록 높여주는 복음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전파하고 또 그대로 삶에서 실천한 그 메시지는, 그것을 전한 그 시대에 사람이 갖는 영적 고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이때 그가 몸으로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대신하는,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냈는데, 이 진리의 영은 사람 속에 살도록,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마다 예수의 메시지를 다시 진술하도록 고안됐으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집단의 각 필사자마다 새로운 최신 복음 개정판을 갖게 될 것이요, 바로 그런 개인적 깨우침과 집단적 지침이, 사람의 늘_새롭고 다채로운 영적 고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194:2.2 (2060.7) 이 영의 첫째 사명은, 당연히 진리를 촉진시키고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진리를 납득하는 것이 최고 형태의 인간 자유를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영의 목적은 신자들이 자신을 고아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내주하기 위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고독감을 느낄 수 있었다.

194:2.3 (2061.1) 이렇게 증여된 아들의 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영(조율사)의 보편적 증여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도록,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의 영은,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 두 분의 영이다.

194:2.4 (2061.2) 쏟아 부어진 진리의 영을 지적으로 강하게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그 영은 결코 자신을 의식{意識}하게 만들지 않고, 오직 미가엘, 즉 아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그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의 영과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너희가 이 영을 의식함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미가엘과 더 향상된 교제를 나누는 체험에서 발견된다.

194:2.5 (2061.3) 또한 그 영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내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세상 생애를 조명하고 재해석하기 위해서 왔다.

194:2.6 (2061.4) 다음으로, 진리의 영은, 예수가 육신 속에서 살았던 대로, 그리고 지나가는 각 세대마다 그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 개인 속에서 그가 지금 다시 한 번 새롭게 사는 것 같이, 예수의 교훈과 그의 생애라는 실체들에 대해 증인이 되도록, 신자를 돕기 위해서 왔다.

194:2.7 (2061.5) 그래서 진리의 영은, 정말로 모든 신자를 모든 진리로, 즉 하나님의 영원하고 상승하는 아들신분의 실체를 생생하게 점점 더 영적으로 의식하는 체험을, 더 폭넓게 알도록 인도하려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194:2.8 (2061.6)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아버지 뜻을 곧이곧대로 따르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예{例}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생애를 살았다. 육신 속에서 산 이런 생애는 이내 새로운 속죄의

복음이 됐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그 후에 일어난 부활과 함께, 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곧 화나신 하나님의 유죄판결로부터-- 사람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비록 복음이 크게 왜곡됐어도, 예수에 관한 이런 새로운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그의 초기 복음 중에서 근본적인 많은 진리를 전수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감춰진 진리는, 모든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변모{變貌}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194:2.9 (2061.7) 그러나 지식인들의 이런 실수는, 신자의 영적 성장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진리의 영이 증여된 지 한 달도 못되어, 사도들은 거의 4년에 걸친 주님과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교제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많은 영적 진보를 개인마다 이뤘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신분이라는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대치시킨 것도, 그들의 교훈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방해하지 못했으며;도리어, 그의 인품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교훈으로 인해 예수의 메시지에 드리워진 이 그늘이, 기쁜 소식의 전파를 크게 촉진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194:2.10 (2061.8) “영의 세례{洗禮}”라는 용어가 당시에 널리 쓰이게 됐는데, 단순히 진리의 영이라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의식했음을, 그리고 이런 새로운 영적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혼들이 전에 체험했던 모든 영적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했음을 의미했을 뿐이다.

194:2.11 (2061.9) 진리의 영이 증여된 후에, 사람은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부여된 삼중적 영 재능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됐다:아버지의 영, 즉 사도 조울사;아들의 영, 즉 진리의 영;영의 영, 즉 거룩한 영.

194:2.12 (2062.1) 어떤 면에서, 인류는 칠중{七重} 매력의 우주 영 영향력 중에서 이중{二重} 영향력에 종속된다. 초기 진화 과정에 있던 필사자 인종들은, 지방우주의 어머니 영의 일곱 보조 정신_영의 점진적 접촉에 지배를 받는다. 지성과 영적 감지의 정도에서 사람이 위쪽으로 진보되면, 결국 더 높은 일곱 영{靈} 영향력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진보하는 세계들의 이 일곱 영은 다음과 같다:

194:2.13 (2062.2) 1. 만유의 아버지가 증여하신 영{靈}--사고 조율사.

194:2.14 (2062.3) 2. 영원한 아들의 영 현존--온갖 우주의 영 인력{引力}, 및 모든 영 친교의 특정한 경로.

194:2.15 (2062.4) 3. 무한한 영의 영 현존--모든 창조물의 우주적 영_정신, 즉 진보하는 모든 지성체의 지적 유사성의 영적 근원.

194:2.16 (2062.5) 4. 만유의 아버지와 창조주 아들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아들의 영으로 간주되는, 진리의 영.

194:2.17 (2062.6) 5. 무한한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일반적으로 우주 영의 영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영.

194:2.18 (2062.7) 6. 우주 어머니 영의 정신_영--지방우주의 일곱 보조 정신_영.

194:2.19 (2062.8) 7. 아버지와 아들들과 영들의 영--영으로_태어난 필사자의 혼이 낙원 사고 조율사와 결합한 후에, 그리고

나중에 낙원 완결성취 단체에서 신성{神性}과 영화로운 신분을 달성한 후에, 그 영역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갖는 새로운_이름의 영.

194:2.20 (2062.9) 그리고 진리의 영이 그렇게 증여됨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서 상승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계획된 마지막 영 재능을 그 세계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왔다.

3. 오순절에 일어난 일

194:3.1 (2062.10) 기묘하고 이상한 많은 교훈이, 오순절 날에 대한 초기 전승들과 결합됐다. 진리의 영, 즉 새 선생이 인류에게 내주하기 위해 임한 이날의 사건 이후로 계속, 어리석게도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감정주의와 혼동돼 왔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쏟아 부어진 이 영의 주된 사명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라는 진리에 관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모든 신성한 성품 특징보다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성{神性}에 대한 진리다. 진리의 영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영 본성과 아들의 도덕적 성품을 드러내는 데 관여한다. 창조주 아들은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냈으며;진리의 영은 마음 속에서

창조주 아들을 사람에게 드러낸다. 인생에서 “영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은 다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애 속에 형태화했던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의 인격체로서--곧 나사렛 예수로서-- 일생을 살았다. 주님은, 오순절 후에, “새 선생”이라는 내주하는 영으로서, 진리의_가르침을 받는 각 신자의 체험 속에서 생애를 새로이 살 수 있다.

194:3.2 (2062.11) 인간 생애의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우주에서 진리가 지배하고 의가 승리한다는 관념과 조화시키기 어렵다. 중상과 거짓말 그리고 부정직과 불의가--곧 죄가-- 승리하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신앙이 결국에는, 악, 죄, 및 죄악을 이기게 될까? 물론이다.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죽음은, 선한 진리와 영으로_인도받는 피조물의 신앙이 항상 정당화 되리라는 영원한 증거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께,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구출하시는지 보자”고 말하며 조롱했다. 십자가형이 있던 날에는 암울하게 보였지만, 부활의 아침에는 찬란하게 빛났으며;오순절 날에는 더욱 밝았고 기쁨이 넘쳤다. 염세적인 절망의 종교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며; 끝없는 수면과 휴식 속에서 사멸돼 가기를 갈망한다. 그것은 원시적 두려움과 공포의 종교다. 예수의 종교는, 허덕이고 있는 인류에게 선포돼야 할 신앙의 새 복음이다. 이 새 종교는, 신앙, 희망, 및 사랑에 바탕을 둔다.

194:3.3 (2063.1) 필사자 인생이, 예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비통한 일격을 가했으며; 이 사람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신앙, 용기, 및 확고한 결단력으로 이런 절망스런 직무에 대처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인생에 대처했고, --죽을 때에도-- 인생을 통달했다. 그는 삶에서 풀려나는 방편으로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예수의 종교는, 또 다른 실존에서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이 생애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의 종교는, 사람이 육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증진시키고 고상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적 실존의 기쁨과 평강을 제공한다.

194:3.4 (2063.2) 종교가 사람에게 마취제라면, 그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마취시키는 약을 마시기를 거절했으며,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그의 영은

사람을 위로 이끌어주고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하는 강력한 세계적 영향력이다.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그 충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며;진리를_배우는 신자는 이 땅에서 유일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혼이다.

194:3.5 (2063.3) 오순절 날에, 예수의 종교는 모든 민족적 제약과 인종적 족쇄를 깨뜨렸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다. 이날에, 진리의 영은 주님이 모든 필사자 마다 친히 주시는 선물이 됐다. 천국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자격을 신자들에게 줄 목적으로 이 영이 증여됐지만, 그들은 쏟아 부어진 그 영을 받는 체험을, 자신이 무의식중에 형성한 새 복음의 일부분으로 삼는 실수를 범했다.

194:3.6 (2063.4) 진리의 영이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경시하지 말라;이 영 선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남녀 모두 새로 나타난 선생을 받았으며, 온 세상의 정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은 인류에게 수여됐으며, 진리를 사랑함에 따라서,

그리고 영적 실체들을 파악하고 납득하는 역량만큼, 각자의 혼이 그를 받아들인다. 마침내, 참 종교는 사제{司祭}들 및 모든 신성시되는 계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의 혼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194:3.7 (2063.5) **예수의 종교는, 가장 고상한 유형의 인간 문명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문명에서 가장 고귀한 유형의 영적 인격체를 생성하고, 그 사람의 신성함을 선포한다.**

194:3.8 (2063.6) **오순절에 진리의 영이 옴으로써, 급진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가능하게 했으며;그 종교는 낡은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며;늙은이나 젊은이에게 지배돼서도 안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은, 시간이라는 닻을 고정시키기 위한 위치를 제공해주며, 한편 진리의 영의 수여는, 그가 실천했던 종교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영구히 확장하고 끝없이 성장하게 만든다. 그 영이 모든 진리 속으로 안내하며;그 영은, 끝없이 진보하고 신성하게 펼쳐지는 종교, 확장하고 항상 자라가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새로 나타난 이 선생은, 사람의 아들의 인품과 본성 속에 너무도 신성하게**

감취져 있던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신자에게 끊임없이 밝혀줄 것이다.

194:3.9 (2064.1) “새로 나타난 선생”의 증여와 관련된 현상,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다양한 종족 및 민족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의 종교의 보편성을 암시한다. 천국 복음은 특정한 종족이나 문화 또는 언어와 관계되지 않는다.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에게 상속돼 오던 속박 상태에서 예수의 종교를 해방시키려고, 그 영이 엄청나게 수고했음이 입증됐다. 심지어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드러나게 부어진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처음에는 개종하는 그들에게 유대주의의 요구조건을 강요하려고 했다. 심지어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이런 유대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가 됐다. 어떤 계시된 종교든지, 어떤 민족적 문화가 그것에 스며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인종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습과 연합될 때에는, 결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한다.

194:3.10 (2064.2) 진리의 영의 증여는, 모든 형식, 예식, 신성시되는 장소,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맛본 자들의

특별한 행태와 무관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만 침묵 속에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 영은 그 도시에서만뿐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도 수여됐다. 사도들은, 그 영을 받을 목적으로, 몇 년 동안 각자 외롭게 묵상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멀리 떠나있을 필요가 없었다. 오순절은 언제든지, 각별히 유리한 환경에서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영적 체험의 관념을 분리시킨다.

194:3.11 (2064.3) 오순절은, 그 영을 부여함으로써, 주님의 종교가 물리적인 힘에 전혀 의존하지 않도록 영원히 해방시키려고 고안됐으며;이런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이제 영적 무기를 갖추게 됐다. 그들은, 끊임없는 용서, 비길 데 없는 선한 의지, 그리고 풍부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게 됐다. 그들은, 선으로 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며, 진리에 대한 용감하고 생생한 신앙으로 두려움을 파괴시킬 준비가 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가 결코 부정적이지 않음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며;제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 신자들은 야훼를 더 이상 "만군의 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신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및 아버지”로 간주하게 됐다. 하나님이 각 개인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진리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패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런 진보는 이뤘다.

194:3.12 (2064.4) 오순절은, 개인의 무례를 용서하는 능력, 가장 심각하게 불공평한 상황에서 상냥할 수 있는 능력, 무시무시한 위험에 직면해서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랑과 관용으로 두려움 없이 행동하여 미움과 분노의 악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필사적 사람에게 부여했다. 유란시아는 자체 역사에서 엄청난 파괴적 전쟁들로 인한 참혹한 피해를 겪어 왔다. 이런 끔찍한 투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좌절을 체험했다. 승리자는 하나였으며;이런 비참한 투쟁들에서, 드높아진 명성과 함께 떠오른 승리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나사렛 예수 그리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의 복음이었다. 더 나은 문명의 비결은, 사람의 형제관계에 대한 주님의 교훈, 즉 상호적 신뢰와 사랑의 선한 의지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194:3.13 (2065.1)

오순절이 있기 전에는, 종교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 드러내 왔었다면; 오순절 이후로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발견하신 후에는 그에게 내주하기 위해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광경을 온 세상에 드러낸다.

194:3.14 (2065.2)

오순절에 최고조에 달했던 예수의 교훈이 있기 전에는, 여자들은 전통적 종교의 테두리 속에서 영적 지위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순절 이후로, 여자는 천국의 형제관계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 영의 이런 특별한 방문을 받은 120명 중에는 여제자가 다수 있었고, 그들은 이 복을 남자 신도와 동등하게 누렸다. 종교 예배를 위한 성직자의 자리를, 더 이상은 남자만 독점할 수 없게 됐다. 바리새인은, “여자나 나병 환자 또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여자는 모든 종교적 성{性} 차별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오순절은, 종족의 구별, 문화적 차이, 사회 신분계층, 또는 성적{性的} 편견에 근간을 둔 모든 종교적 차별을 없애버렸다. 새로운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외쳤던 것은 당연하다.

194:3.15 (2065.3)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도 120명의 신자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쏟아 부어진 영을 이런 일반 제자들 가운데 일원으로서 받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恩賜}를 받지 않았다. 예수의 육신적 가족의 일원이라 해서 특별한 다른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오순절은, 특별한 사제계급과, 신성시되는 혈통에 대한 모든 믿음을 종식{終熄}시켰다.**

194:3.16 (2065.4) **사도들은 오순절이 있기 전에 예수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 가족, 친구,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희생했다. 그들은 오순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곧 사람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응답하셨다. 자아를 버리고 그 영을 받는 이 체험은, 감정적 체험이 아니었으며;지성적 자아_복종과 무조건적 헌신의 행동이었다.**

194:3.17 (2065.5) **오순절이,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 통일을 가져왔다. 그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똑같은 일이 필라델피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거주하는 모든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났다.**

“신자들 무리 가운데는 오직 하나의 마음과 혼만 있었다”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맞는 말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세상에 알려진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합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194:3.18 (2065.6) 오순절은, 각 개인, 집단, 민족, 및 종족의 자기_독단을 줄여주도록 고안됐다. 너무 팽창하면 파괴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경감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_독단이라는 기질이다. 인류는 영적 접근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으며, 진리의 영은 세계의 보편적인 영향력이다.

194:3.19 (2065.7) 진리의 영의 도래는,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을 인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게 한다. 이기심이라는 물질적 기질은, 사심 없는 이런 새로운 영적 증여 속에 흡수됐다. 오순절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인 예수께서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신성한 아들이 됐음을 나타낸다. 쏟아 부어진 이 영이 주는 기쁨은, 인간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체험될 때, 건강을 위한 강장제{強壯劑}, 정신을 향한 자극, 그리고 혼을 위한 부단한 힘이 된다.

194:3.20 (2065.8)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는 개별 신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용 역량을 결정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기도가 신성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그럽게 수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기도와 참된 경배를 통해서, 조물주와 중단 없는 교류를 유지하기를 잊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혼 속에 신성한 증여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더 크고 더 깊은 경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4. 그리스도교 교회의 시작

194:4.1 (2066.1) 예수께서 적에게 갑자기 체포되고, 두 강도 사이에서 그토록 신속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사도와 제자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었다. 체포되고, 묶이고, 채찍에맞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 대한 기억은,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과 경고를 잊고 있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말씀과 행위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리라고 희망하는 메시아는 될 수 없었다.

194:4.2 (2066.2) 부활이 이뤄지자, 그들은 절망에서 벗어났고, 주님의 신성{神性}에 대한 신앙이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여러 번 그를 봤고 그와 함께 대화했으며, 그가 그들을 감람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다. 그는 그들이 능력을 부여받을 때까지--곧 진리의 영이 임할 때까지--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로운 선생이 도래했으며, 그들은 즉시 나가서 새로운 능력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실패한 죽은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를 담대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자들이었다. 주님은 이런 복음 전파자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으며;하나님은 그들의 정신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며;그들의 혼 속에 생생하게 현존하시게 됐다.

194:4.3 (2066.3) "그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계속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자기 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모두 그 영으로 충만했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믿는 대중은 한 마음과 혼에 속했으며;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194:4.4 (2066.4)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임을 나가서 전파하도록 예수께서 임명하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들은 새로운 복음을 소유했으며;새로운 체험으로 불붙었으며;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쪽으로 급격히 변경됐다:“기적과 이사를 통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한 인간 나사렛 예수를;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예지{叡智}에 따라 넘겨진바 된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살해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나타내신 것을 그가 이렇게 이루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바른 편으로 올라갔고, 아버지로부터 그 영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그 영을 쏟아부어주셨다. 너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질 수 있도록;너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즉 만물이 소생될 때까지 하늘이 받아 둘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아버지께서 보내시도록 회개하라.”

194:4.5 (2066.5) 천국 복음, 즉 예수의 메시지는,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변경됐다. 그들은 이제, 그의 생애, 죽음, 및 부활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으며, 그가, 자신이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히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파했다. 그리하여 초기 신자들은, 그가 초림{初臨}한 사실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그의 재림{再臨}에 대한 희망, 즉 매우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하는 사건을 가르치게 됐다.

194:4.6 (2067.1) 그리스도는, 신속하게 형성되는 교회의 교리가 되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살아있고;사람을 위해 죽었으며;그 영을 주셨고;다시 올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사고{思考}를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모든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다. 그들은, “하나님은 주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새로운 교리에 너무 열광한 나머지, 모든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원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놀랍게 나타난 형제간의 사랑과, 전례 없는 친절함이, 이런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솟아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제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 천국에서 나누는 형제간의 교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친절함은, 예수의 증여 개념에서 발생한 사랑 때문이었고, 필사적 사람의 형제관계를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예수에 관한 그들의 교훈에 모든 사람이 매혹되는, 그런 새롭고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 그들은, 천국 복음 대신, 그 복음에 관한 활기차고 예증이 되는 해설을 동원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인류가 일찍이 알게 된 종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교였다.

194:4.7 (2067.2) 틀림없이,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속에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호칭했으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다. 그것은 삶의 교제였을 뿐만 아니라 경배의 교제였다. 그들은 법률로 인한 공동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동료 신자들과 나누려는 열망으로 인한 공동체였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세상의 소유물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 나눈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직접적인 특색이 아니었으며;그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천국을 완전히 이룰 것에 대해 너무나 진지하고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나 선의에서 시도했던 형제간의 이런 경솔한 사랑의 최종 결과는, 비탄을 낳는 참담한 것이었다. 수천 명의 진지한 신자가 부동산을 팔았고, 자본이 되는 모든 재물과 기타 생산적인 자산 일체를 처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교인의 자산은 줄어들었고, "동등한 분배"는 끝나게 됐다--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얼마 안 돼서,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해,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모금하게 됐다.

194:4.8 (2067.3) 이 무렵에, 그들은 주의 만찬을, 설립시의 방법에 따라서 거행했으며;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그럽게 친교하는 공동 식사를 위해 모였고, 식사 후에 성찬식에 참여했다.

194:4.9 (2067.4)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만;20년 정도 흐른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신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세례였다. 그들은 아직 아무런 조직도 갖추지 못했으며;그것은 단순히 예수 형제단{兄弟團}이었다.

194:4.10 (2067.5) 이런 예수 종파는 신속하게 확장됐고, 사두개인이 다시 그들을 주목하게 됐다. 바리새인은, 그 교훈 가운데서 아무 것도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에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런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예수 종파의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했고, 지도적 랍비 가운데 하나인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설득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는데:그는, “이 사람들의 모임과 활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결국 없어질 것이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도록 하라;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생겨났다면, 너희가 없애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으며, 예수에 관한 복음이 신속히 퍼져 나가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정이 잠시 계속됐다.

194:4.11 (2068.1)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많은 숫자의 그리스인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로단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리스인 가운데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그들이 초기에 개종시킨 사람 중에는 스데반과 바나바도 있었다. 유능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의 관점과 많이 달랐으며, 유대인의 경배와 기타 예식 풍습을 잘 시행하지 않았다. 이 그리스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예수 형제단과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됐다. 스데반과 그리스인 동역자는 예수의 가르침에 더 가깝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곧 유대인 관리들과 충돌하게 됐다. 스데반이 공개적으로 전한 설교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가 강론 도중에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길만한 말을 하자, 모든 공식 심문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 버렸다.

194:4.12 (2068.2)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 거주민의 지도자였으며, 그렇게 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일에 새로운 신앙과 특별한 원인을 제공하는, 첫 순교자가 됐다. 이런 새로운 위기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 신앙 속에서 한 종파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됐음을 깨닫게 됐다. 그들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따로 독립해야만 한다고 동의했으며;스데반이 죽은 후 한 달이 못돼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지도 아래 교회가 조직됐고, 명목상 우두머리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임명됐다.

194:4.13 (2068.3)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새로 잔인한 박해를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새 종교를 가르치는 적극적인 선생들이 예수를 전파하면서 제국의 변방{邊方}을 향해 퍼져 나갔는데, 이 종교는 나중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됐다.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도적 역할을 그리스인이 했으며;이 첫 선교사들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알렉산더가 행진했던 길을 따라갔는데, 가자와 두로로 통하는 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갔으며, 이어서 소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다음에는 로마를 지나서 제국의 변두리 지방까지 퍼져 나갔다.

제195편 오순절 이후

195:0.1 (2069.1)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한 설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고하는 사도들 대다수의 훗날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확정할 정도로 대단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교 교회의 실제 설립자였으며; 바울은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전파했고, 그것을 그리스인 신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렸다.

195:0.2 (2069.2) 전통에_매이고 사제에게_지배된 히브리인은,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의 선포(나중의 그리스도교)도 거부했지만, 그 외의 로마 제국은, 진화하는 그리스도교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당시에 서방 문명은 지적이었고, 전쟁에 지쳤으며, 기존의 모든 종교와 우주 철학에 완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리스 문화의 혜택을 입은 서방 세계의 민족들은, 매우 오래된 전통을 숭배했다. 그들은, 철학, 예술, 문학,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서 물려받은 위대한 업적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그들에게는 혼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없었다. 그들의 영적 갈망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인간 사회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포함돼 있는 예수의 교훈이 갑자기 밀려왔다. 새로운 삶의 체제가, 굶주린 마음의 이 서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제시됐다. 이런 상황은, 전통적 종교 관습과, 세계를 향한 예수의 메시지의 새로운 그리스도교화된 해석, 이 둘 사이의 즉각적인 갈등을 의미했다. 그런 갈등은 필연적으로, 새 것이 승리하든지, 옛 것이 승리하든지, 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든지 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는 그 투쟁이 절충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는, 어느 한 민족도 한 두 세대 동안에 동화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다. 예수께서 사람의 혼에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영적 호소가 아니었으며; 종교 제례, 교육, 마법, 의술, 예술, 문학, 법, 정부, 도덕, 성{性}에 관한 규칙, 일부다처제,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예제도에 대해서까지, 일찍부터 일방적인 허세를 부렸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새 종교로--곧 로마 제국 전체와 동양 전체가 고대하고 있던 어떤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새로운 체제*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자만심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_도덕적 충돌을

신속히 촉진시켰다. 예수께서 제시한 그 이상{理想}은, 그리스 철학으로 재해석되고 그리스도교 속에서 사회화됨으로써, 이제 서방 문명의 윤리, 도덕, 및 종교들 속에 구현돼 있는 인간 종족의 전통에 대담하게 도전했다.

195:0.4 (2069.4) 처음에는, 그리스도교가 오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비교적 낮은 계층 사람들만 개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2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리스_로마 문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이, 그리스도교 믿음이라는 이 새로운 체제, 즉 삶의 목적과 실존의 목표에 대한 이 새로운 개념으로 점점 더 전환됐다.

195:0.5 (2070.1) 유대인에게서 기원된, 고향 땅에서는 거의 실패했던, 이 새로운 메시지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효과적으로 로마 제국의 최고 지성인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철학적 종교들과 신비적 이교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승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5:0.6 (2070.2) 1. 조직. 바울은 위대한 조직가였고 그의 후예들은 그와 보조를 맞췄다.

195:0.7 (2070.3) 2. 그리스도교가 철저히 헬라화 됐다. 최고의 그리스 철학뿐 아니라 히브리 신학의 정수{精髓}를 포용{包容}했다.

195:0.8 (2070.4)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롭고 위대한 *이상*{理想}, 즉 예수가 증여한 생명의 흔적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의 메시지의 영향을 담고 있었다.

195:0.9 (2070.5) 4.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미드라교와 기꺼이 그렇게 타협함으로써, 미드라교를 신봉하는 자들 가운데 상위 절반이 안디옥 종파에 흡수됐다.

195:0.10 (2070.6) 5.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와 차후 세대들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도 이교 사상과 더 타협했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틴마저 새로운 종교에 설복될 정도였다.

195:0.11 (2070.7) 그러나 그리스도교인은, 바울의 그리스도교라는 헬라화 된 개정판{改訂版}을 받아들이라고 이교도에게 강요하면서 이교의 화려한 제례식을 채택함으로써, 이교도와 약삭빠른 거래를 했다. 그들은 미드라 숭배자와 맺었던 것보다는 이교도와 더 나은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극심한 부도덕뿐 아니라, 페르시아 신비

사상의 비난받을 만한 다른 수많은 관습을 성공적으로 제거시켰다는 점에서는, 그런 초기 타협에서도 정복자 이상으로 성공했다.

195:0.12 (2070.8) 초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현명하게 또는 어리석게, 예수의 *관념* 가운데 다수를 지키고 촉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이상*{理想}을 고의로 손상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탁월하게 성공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손상된 주님의 이상은 여전히 그의 복음에 숨어있고, 결국 그 이상의 완전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195:0.13 (2070.9)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이교화{異敎化}됨으로써, 제례식의 특징에서 옛 체제가 하찮은 승리를 여러 번 했지만,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세했다:

195:0.14 (2070.10) 1. 인간의 도덕 면에서 훨씬 높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195:0.15 (2070.11) 2. 하나님에 대한 매우 확대되고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줬다.

195:0.16 (2070.12) 3. 불멸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공인된 종교가 주는 확신의 일부분이 됐다.

195:0.17 (2070.13) 4. 나사렛 예수를 사람의 갈급한 혼에게 제시했다.

195:0.18 (2070.14) 예수께서 가르쳤던 위대한 진리 중에서 많은 것이 이런 초기 타협에서 거의 분실됐지만, 그것들은 이교화 된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 또한 사람의 아들의 생애와 교훈의 바울 개정판{改訂版}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미쳐 이교화 되기도 전에 먼저 철저히 헬라화 됐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인에게 많이, 무척 많이 빚졌다. 니케아에서 소집된 회의가 예수의 본성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가로막아서, 그의 증여에 대한 참된 진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토록 용감하게 일어나서 겁내지 않고 싸움으로써 용기 있게 그것을 저지한 사람은, 이집트에서 온 그리스인이었다. 이 그리스인의 이름은 아다나시우스였고, 이 신자의 논리와 웅변술이 아니었다면, 아리우스의 설득력이 승리했을 것이다.

1. 그리스인의 영향

195:1.1 (2071.1) 그리스도교의 헬라화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협의회에 출두하여,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관해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의미심장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기에 드리워진 아크로폴리스 성채{城砦} 그늘 아래서, 이 로마 시민은 거기에 있는 그리스인에게, 갈릴리 유대 땅에서 발생했던 새로운 종교에 대한 자신의 개정판을 선포했다. 그리스 철학과 예수의 여러 가르침 사이에는 이상하게 비슷한 무엇이 있었다. 이들은 공통 목적을 지녔다--둘 다 *개인의* 등장을 추구했다. 그리스인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방이;예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해방이 목적이었다. 그리스인은 정치적인 자유로 인도하는 지적 자유주의를 가르쳤으며;예수는 종교적 자유로 인도하는 영적 자유주의를 가르쳤다. 이 두 관념은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는 새롭고 강력한 헌장을 수립했으며;사람의 사회적, 정치적, 및 영적 자유를 예시했다.

195:1.2 (2071.2) 그리스도교가 존재하게 되고, 투쟁 관계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때문이었다:

195:1.3 (2071.3) 1. 새롭고 선한 개념이라면, 유대인에게서라도
기꺼이 받아들인 그리스 정신.

195:1.4 (2071.4) 2. 바울과 그의 후계자들은 자발적이지만
빈틈없고 영리한 타협자였으며;예리한 신학 거래자였다.

195:1.5 (2071.5) 바울이 아덴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전파했을 때, 그리스인은 영적으로
굶주렸으며;영적 진리에 대해 궁금해 하고, 흥미를 가졌고,
실제로 찾고 있었다. 로마인은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배척한 반면, 그리스인은 그것을 포용했으며, 그리스
문화의 일부분인 것처럼 변경해서, 나중에 로마인에게 이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몹시 압력을 가한 것은 바로
그리스인이었다.

195:1.6 (2071.6) 그리스인은 미를, 유대인은 거룩함을
숭상했지만, 두 민족 모두 진리를 사랑했다. 그리스인은
수세기 동안, 종교를 제외한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해--곤
사회, 경제, 정치, 및 철학에 대해-- 진지하게 사고하고
솔직하게 논쟁했다. 종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인은 거의 없었으며;자신의 종교조차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유대인은 수세기 동안 종교에

매진하면서 다른 사고 분야에는 무관심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너무 심각했고, 도가 지나쳤다. 예수께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조명되자, 수세기에 걸쳐서 이 두 민족의 사고가 결합하여 생성한 산물은, 이제 새로운 인간 사회 체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새로운 종교적 신념 및 관습 체제의 추진력이 됐다.

195:1.7 (2071.7) 그리스 문명의 영향은, 알렉산더가 헬라 문명을 근동 지역에 퍼뜨렸을 때, 이미 지중해 서쪽 지방에 침투해 들어가 있었다. 그리스인은, 작은 도시_국가들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종교와 정치에 잘 조화됐지만, 마게도니아 왕이 그리스를 대담하게 하나의 제국으로 확장시켜서, 아드리아해에서 인더스까지 뻗어 나갈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의 확장 과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리스의 정치적 경영 면이나 종교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스의 도시_국가들이 제국으로 확장된 후에, 그들의 상당히 편협한 신들은 다소 조잡한 것처럼 보였다. 더 오래된 유대 종교의 그리스도교화 된 개정판이 그들에게 소개됐을 때, 그리스인은 *유일한 하나님*, 즉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있었다.

195:1.8 (2072.1) 헬라 제국이 그렇게는 지탱될 수 없었다. 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됐지만, 제국의 경영을 위해 로마의 정치적 천재성이 서방으로부터 확보된 후, 그리고 제국을 품위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소유한 종교가 동방에서 유입된 후에야 유지됐다.

195:1.9 (2072.2) 그리스도 이후 첫 세기에, 헬라 문화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이미 쇠퇴기가 시작됐으며;학문은 발전했지만, 비범한 재능은 쇠퇴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교 속에 부분적으로 흡수돼 있는 예수의 관념과 이상이, 그리스 문화와 학문을 구출하는 역할을 일부 감당하기 시작했다.

195:1.10 (2072.3)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문화적 선물을 동방에 강제로 전수했으며;바울은 예수의 복음의 그리스도교 개정판으로 서방을 공략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보급된 서방 전역 어느 곳이든지,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195:1.11 (2072.4)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의 동방 개정판은, 그의 교훈에 비교적 더 일치하도록 유지됐어도, 타협하지 않는 아브넬의 태도를 계속 따랐다. 헬라화 된 개정판과는 달리,

그것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슬람 운동에 휩쓸려
없어져 버렸다.

2. 로마의 영향

195:2.1 (2072.5) 로마인은, 그리스 문화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제비뽑기로 통치권을 결정하는 대신에 대의{代議} 정부를
채택했다. 그리고 미지의 언어, 민족, 그리고 심지어
종교들에 대해서도 아량을 베푸는 새로운 태도를, 로마가
서방 세계 전역에 퍼지게 한 점에서, 이런 변화가 당장에는
그리스도교에 유리하게 됐다.

195:2.2 (2072.6) 로마에서 대부분의 초기 그리스도교인 박해는,
그들이 전도하는 중에 공교롭게도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때문이었을 뿐이다. 로마인은, 어느 종교든지,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 관대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쟁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대체로 오해 때문에 생긴 이런 초기 박해가
끝나게 되자, 종교의 포교{布教} 활동무대가 활짝 열렸다.
로마인은 정치 경영에 흥미를 가졌으며;예술이나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상스러울 만큼 관대했다.

195:2.3 (2072.7) 동양의 법은 엄격하고 독단적이었으며;그리스의 법은 유동적이고 예술적이었으며;로마의 법은 위엄 있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로마의 교육은 전대미문의 무조건 충성을 가르쳤다. 초기 로마인은 정치적으로 헌신되고 숭고하게 성별된 개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에 대해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그 이름에 어울릴만한 종교는 갖지 못했다. 그들을 가르친 그리스 선생들이 그들을 설득해서 바울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5:2.4 (2072.8) 그리고 이 로마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으므로 서양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비길 데 없는 성실성, 헌신, 및 충실한 자기_통제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기에 이상적인 토양이었다.

195:2.5 (2072.9) 이 그리스_로마인에게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국가에 헌신했던 만큼, 제도적 교회에 영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로마인은, 교회가 국가와 경쟁하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가질 경우에만 교회를 적대시했다. 로마는 민족 철학이나 고유문화가

없었으므로, 그리스 문화를 자기 것으로 취했고, 그리스도를 도덕적 철학으로 담대히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도덕적 문화가 됐지만, 도매 값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새 종교를 포용한 그들 개인이 영적 성장을 체험했는지 따져본다면, 도저히 로마의 종교라고 할 수 없었다. 많은 개인이 이런 대단한 국교{國敎}의 껍데기 속으로 파고들어가서, 헬라화 되고 이교화 된, 그리스도교라는 숨은 진리에 간직되고 감춰진 의미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혼 속에 양분이 되게 한 것은 정말로 사실이었다.

195:2.6 (2073.1) 금욕주의자, 그리고 “본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금욕주의자의 완강한 태도는, 적어도 지적 감각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전체 로마를 준비시켰을 뿐이다. 로마인은 타고난 훈련된 법률가였으며;심지어 자연 법칙도 경외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교에서,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알아봤다. 키케로와 버질을 낳을 수 있었던 한 민족이, 바울의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다.

195:2.7 (2073.2) 그리하여 로마화 된 이 그리스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 양쪽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의 종교를 철학화 시켰으며, 그 관념을 조정하고 그 이상을 체계화시켰으며, 기존의 생활 풍조에 종교 관습을 적응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됨으로써 막대한 도움을 받았다.

195:2.8 (2073.3) 유대인 및 다른 여러 민족과는 달리, 그리스인은 영원한 생명, 즉 죽음 이후의 생존과 비슷한 어떤 것을 불확실하나마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었으므로, 그 그리스도교가 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195:2.9 (2073.4) 그리스의 문화적 승리와 로마의 정치적 승리를 상속받은 자들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시켰고, 유일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서방 세계를 준비시켰다. 이 하나님을 유대교가 제시했지만, 로마화 된 이 그리스인은 유대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필로가 그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개념을 그들에게 제시했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3. 로마 제국의 지배

195:3.1 (2073.5) 로마의 정치적 규율이 정립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퍼져 나간 후에, 그리스도교인은 위대한 종교 개념인 유일한 하나님을 가졌지만, 제국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화된 로마인은 위대한 제국은 가졌지만, 제국 숭배와 영적 통합에 합당한 종교 개념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도교인은 제국을 받아들였고;그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수용했다. 로마인은 통일된 정치적 규율을;그리스인은 통일된 문화와 학문을;그리스도교인은 통일된 종교적 사고와 관습을 제공했다.

195:3.2 (2073.6) 로마는 제국을 보편화함으로써 전통적 민족주의를 극복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종족과 민족들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었다.

195:3.3 (2073.7) 활기차게 가르치는 금욕주의자와, 구원을 약속한다는 신비주의 종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로마에서 그리스도교가 환영받았다. 그들의 언어에 “이타심{利他心}”이라는 단어가 없는, 영적으로 굶주린 민족에게, 그리스도교는 상쾌함을 주는 위로와 자유함을 주는 능력을 갖고 다가왔다.

195:3.4 (2073.8) 그리스도교에 가장 큰 능력을 부여한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생애를 사는 방식이었고, 더 나아가서, 격렬한 박해로 점철된 초기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그들의 태도였다.

195:3.5 (2073.9) 어린이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아이를 원치 않을 때, 그리고 특히 여자 아기를 원치 않을 때 내버려서 죽게 하는 널리 퍼진 관습을 곧 종식시켰다.

195:3.6 (2074.1) 그리스도교 경배의 초기 방식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 이어받았고, 미드라 제례식에 따라서 변경됐으며;나중에는 이교적 화려함이 더해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중심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 중에서 그리스도교인이 된 사람으로 구성됐다.

195:3.7 (2074.2) 그리스도 이후 2세기는, 전체 세계 역사에서, 훌륭한 종교가 서방 세계에서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 1세기는, 그리스도교가 고뇌와 타협을 통해서 뿌리내리고 급속히 퍼져나가기 위해 자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 그리스도교는 제국을 받아들였고;제국은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채택했다. 새로운 종교가 퍼져나가기에 매우 적합한 시기였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며;여행이 보편화됐고 사상이 자유로웠다.

195:3.8 (2074.3) 헬라화 된 그리스도교를 명목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자극이 로마에 너무 늦게 임했으므로, 이미 시작된 도덕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으며, 이미 확립되어 확장되고 있던 종족의 퇴보를 보상할 수 없었다. 이 새 종교는 제국화된 로마를 위한 문화적 필수품에 불과했으며, 더 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195:3.9 (2074.4) 정부의 직무에 개인의 참여가 부족함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들로부터, 즉 과도한 간섭주의, 과중한 세금과 악랄한 징수 악폐, 금{金}을 고갈시키는 레반트족과의 불균형적인 거래, 광기{狂氣}에 가까운

오락, 로마의 규격화, 여성의 지위 하락, 노예제도와
혈통의 퇴폐, 육체의 전염병, 그리고 영적 불모지 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제도화된 국교{國敎}로부터,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거대한 제국을 구할 수 없었다.

195:3.10 (2074.5)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 초기의 학파{學派}들은 예수의 교훈
대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 나갔다. 판테누스는
클레멘트를 가르친 후에 나다니엘을 따라가서, 인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수의 이상 가운데 일부가 희생된 반면, 공평하게
말하자면, 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리스_로마 세계의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리스도교인이 되었음을 기록해야 한다.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었다.

195:3.11 (2074.6)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도
그리스도교가 생존을 보장받기에 충분할 만큼, 제국이
오래 유지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의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는 대신 천국 복음이 그렇게 됐다면 로마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종종 추측해보곤 한다.

4. 유럽의 암흑기

195:4.1 (2074.7) 교회는, 사회에 부속되고 정치와 제휴한 상태에서, 소위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지적 및 영적 퇴보의 길을 걷는 운명에 처해졌다. 이 기간에, 종교는 점점 더 수도원 중심이 되고, 금욕주의화되고, 합법화 됐다.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동면하고 있었다. 이 기간 내내, 이런 무기력하고 세속화된 종교에 발맞춰서, 신비주의의 흐름, 즉 비현실성에 가깝고 철학적으로는 범신론과 비슷한 환상적인 영적 체험의 흐름이 계속 있었다.

195:4.2 (2074.8)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세기들이 지나가는 동안, 사실상 종교는 다시 골동품처럼 돼 갔다. 개인은, 교회의 짓누르는 권위, 전통, 및 명령 앞에서 거의 길을 잃어버렸다. 신성한 재판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효과적으로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들 앞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자{聖者}" 무리가 창작됨으로써 새로운 영적 위협이 등장하게 됐다.

195:4.3 (2075.1)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충분히 사회화 되고 이교화{異敎化} 됐으므로, 다가오는 암흑기를 막아내기에는 무기력했던 반면, 이런 오랜 기간의 도덕적 무지와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비교적 잘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서방 문명이 긴 밤을 지내는 동안 존속했고, 문예부흥이 도래할 때에도 여전히 도덕적 영향력으로 세계에 작용하고 있었다. 암흑기를 뒤따라서 일어난 그리스도교의 재건은, 그리스도교 교훈에 속하는 수많은 종파, 즉 인간 인격체의 특별한 지적, 감정적, 및 영적 유형에 적합한 믿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그리스도교인 집단 또는 종교적 부류들 가운데 다수는, 본 문서가 만들어지던 당시에조차 여전히 존속했다.

195:4.4 (2075.2)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종교가 예수에 관한 어떤 종교로 무의식중에 변형됨으로써 발생하는 역사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헬라화, 이교화, 세속화, 제도화, 지적 퇴보, 영적 타락, 도덕적 동면{冬眠}, 소멸될 위기, 그 후의 회복, 분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비교적 회복되는 경험을 겪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런 계보는, 타고난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이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도교는, 현재 개화된 서양 민족들의 세계에 현존하며, 우위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 벌였던 전쟁의 특징인 그런 중대한 위기보다 훨씬 더 불길한, 존재 자체를 위한 투쟁에 직면하고 있다.

195:4.5 (2075.3) 종교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과학적 정신과 유물론적 성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속 종교와 영적 종교 사이의 이 거대한 투쟁에서, 예수의 종교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다.

5. 현대의 문제점

195:5.1 (2075.4) 20세기는, 그리스도교 및 다른 모든 종교가 풀어야 할 새 문제를 야기했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 물질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사람이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 “먼저 하늘의 실체를 찾아야 하는” 임무가 더 절박해진다.

195:5.2 (2075.5) 진리는, 분할되고, 격리되고, 고립되고, 너무 심하게 분석될 때,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 물질 과학이라는 사실로서, 또는 기술적으로 중재하는 영감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활기찬

영적 실체로서 통째로 받아들여질 때, 진리 탐구자들을
바르게 가르친다.

195:5.3 (2075.6) 종교는, 사람에게 그의 신성하고 영원한 운명을
계시{啓示}하는 것이다. 종교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이며, 다음과 같이, 사람이 가진 다른 높은
형태의 사고로부터 끊임없이 구별돼야만 한다:

195:5.4 (2075.7) 1. 물질 실체인 사물에 대한 사람의 논리적 태도.

195:5.5 (2075.8) 2. 추함과 대비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심미적
감상.

195:5.6 (2075.9) 3. 사회적 책무와 정치적 의무에 대한 사람의
윤리적 인식.

195:5.7 (2075.10) 4. 인간의 도덕성을 느끼는, 사람의 감각조차, 그
자체만으로는 종교가 아니다.

195:5.8 (2075.11) 종교는 우주에서 신앙, 신뢰, 및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도록 고안돼
있으며;경배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종교는, 정신이
발견하는 상대적 가치와는 현저히 다른 최고의 가치를

혼이 발견토록 한다. 그런 초인적 통찰력은 참된 종교 체험을 통해서만 소유될 수 있다.

195:5.9 (2075.12) 인력{引力} 작용 없이는 태양계가 유지될 수 없듯이, 영적 실체에 기초된 도덕성 없이는 사회 체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195:5.10 (2076.1) 육체 속에서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혼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잠복된 모험심을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거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저속하고 야비한 모험심을 제멋대로 탐닉하도록 빠뜨리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내하라! 너희의 에너지를 이용하되, 너희의 열정을 제어하며;점진적으로 모험하고 감동적으로 발견하는 끝없는 생애가 장엄하게 전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침착하라.

195:5.11 (2076.2)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예수께서 어린아이까지 사랑했다는 것과, 인간 인격체의 위대한 가치를 영원히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을 잊지 마라.

195:5.12 (2076.3)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악한 검은 조각들은, 궁극적 선이라는 하얀 바탕에 대비하여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악으로 점철된 검은 바탕에 대비하여 초라하게 나타나는 선한 흰 조각들만 바라보게 되지 않도록 해라.

195:5.13 (2076.4) 발표하고 선포할 선한 진리가 그토록 많은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세상의 악이 확실한 사실로 출현한다는 오직 그 이유로 인해, 악에 그토록 골몰해야만 하는가? 진리의 아름다운 영적 가치가, 악으로 인한 현상보다 더 만족스럽고 향상시킨다.

195:5.14 (2076.5) 현대 과학이 실험 기법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종교에서 체험이라는 방법을 옹호하고 실행했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진리 추구, 충실한 의무 이행, 및 신성한 선함을 찬미함으로써, 이런 혼의 통찰력에 다가간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치 기준 중에서 사랑이, 참된 통찰력에 도달되도록 인도하는 진실한 안내자다.

6. 유물론

195:6.1 (2076.6) 과학자들이 본의 아니게 인류를 유물론적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으며;그 시대의 도덕 은행에 아무 생각 없이 채권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 인간 체험 은행은 방대한 영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그 은행에 제시된 청구권만 수용할 수 있다. 오직 경솔한 사람만이, 인간 종족의 영적 자산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유물론적_세속적 공포가 끝나게 될 때, 예수의 종교가 파산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 나라라는 영적{靈的} 은행은, “그분의 이름으로” 인출{引出}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 소망, 및 도덕적 안전을 지불할 것이다.

195:6.2 (2076.7) 유물론과 예수의 교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든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주님의 교훈이 완전하게 승리할 것임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참된 종교는 과학과 어떤 논쟁에도 휘말릴 수 없으며;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종교는 단순히 과학에 개의치 않을 뿐이고, 서로 공감하는 관계이지만, *과학자*에게는 극도로 민감하다.

195:6.3 (2076.8) 지식만 추구하는 것은, 그에 따른 지혜로운 해석 없이, 그리고 종교 체험이라는 영적 통찰력 없이는, 결국

염세주의와 인간적 절망으로 이끌어간다. 알팍한 지식은 정말로 혼란을 야기한다.

195:6.4 (2076.9) 본 문서가 기록될 때, 최악의 유물론 시대는 끝났으며;보다 증진된 이해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학 세계에 대해 높은 수준에 있는 지성인들은, 자신의 철학에서 더 이상 완전한 유물론을 고집하지 않지만, 일반인은 이전{以前}의 교훈으로 인해 여전히 그 방향에 동조한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사실주의 시대는, 이 세상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대 과학은 참 종교를--곧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속에 적용된 예수의 교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학이 이룩한 업적은, 인생을 그릇되게 풀이한 유치한 환상을 무너뜨렸을 뿐이다.

195:6.5 (2077.1) 땅에서 사는 사람의 생애를 고려할 때, 과학은 양적 체험이고, 종교는 질적 체험이다. 과학은 현상을;종교는, 근원, 가치, 및 목표를 취급한다. 물리적 현상을 해석할 때 원인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궁극적인 것을 모르겠다는 고백이며, 결국 최초의 위대한 근원으로-

-곧 낙원의 만유의 아버지께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과학자를 인도할 뿐이다.

195:6.6 (2077.2) 기적을 추구하는 시대로부터 기계 문명 시대로
맹렬하게 바뀐 것이, 사람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
기계론이라는 잘못된 원리가 교묘하고 빈틈없다는
사실이, 바로 그 기계론적 주장과 모순된다. 유물론자의
정신이 숙명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음이, 우주가
원인불명이고 아무 목적 없는 에너지 현상일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언제든지 증명한다.

195:6.7 (2077.3) 상당한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기계론적 자연주의와, 보통사람의 경솔한 세속주의, 양쪽
다 오직 *사물*에만 관심을 두며;그들에게는 참된 가치,
도덕적 구속력, 그리고 영적 본성에 대한 만족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 소망, 및 영원한 확신이 결여됐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영적 명상과 종교적 헌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95:6.8 (2077.4) 유물론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사람을 타락시키며, 삭막하고 기계적인 우주에 적용되는

수학 공식 속에서 무기력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산수 기호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방대한 우주 수학은 정통한 수학자 없이 어디서 기원되는가? 질량 보존에 대해 과학이 상세히 설명할지도 모르지만, 종교는 사람의 혼이 보존되는 것을 입증한다--종교는 사람이 영적 실체와 영원한 가치를 체험하는 데 관심을 둔다.

195:6.9 (2077.5) 오늘날 유물론적 사회학자는, 공동체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기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을 취급해 버린다. 1,900년 전에, 학식 없는 갈릴리인들은, 사람의 내적 체험에 영적으로 기여하도록 일생을 바친 예수를 조사했고, 그 후에는 밖으로 퍼져 나갔으며,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버렸다.

195:6.10 (2077.6)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중세{中世}의 나팔소리로 현대인을 영적 전쟁터로 불러내려고 시도하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종교는 최신의 새로운 표어를 마련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 만병통치약도, 영적 진보를 대신할 수 없다. 잘못된 종교는 실체를 기피하려고 하겠지만,

예수께서는 영적 진보의 영원한 실체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 앞으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필사적 사람을 이끌었다.

195:6.11 (2077.7) 정신이 물질에서 “발생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우주가 단지 기계적 현상에 불과하고, 정신이 물질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측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개념은, 물리학이나 화학에 내재돼있지 않다. 기계는, 진리를 알기는커녕, 아는 능력도 없고, 의를 갈망하거나, 선함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할 수 없다.

195:6.12 (2077.8) 과학은 물리적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진리를 식별하는 과학자의 정신은 당장에 물질을 초월한다. 물질은, 진리를 알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도 없으며 영적 실체를 즐길 수도 없다. 영적 계몽에 기초를 두고 인간 체험에 뿌리를 둔 도덕적 확신은, 수학에서 뻔셈하는 것이 물리적 관측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확실하지만, 한층 높은 다른 수준에서 그렇다.

195:6.13 (2077.9) 사람이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다면, 물질 우주에 대해 거의 획일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인격체는커녕, 개성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195:6.14 (2077.10) 온갖 우주의 중심에 낙원의 절대적 기계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제2 근원 및 중심의 무조건적 의지작용이 있는 곳에서는, 결정법칙이 시공우주만의 배타적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히 확인한다. 유물론이 있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으며;기계론이 있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으며;결정론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195:6.15 (2078.1) 정신과 영이 결합하여 현존하지 않는다면, 유한한 물질 우주는 결국 획일적이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시공우주 정신의 작용이, 물질 세계 속에도 자발성을 계속 주입한다.

195:6.16 (2078.2) 현존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해방 또는 독창력은, 영적 영향과 시공우주_정신의 통제 정도에;다시 말해서, 인간 체험에서 "아버지 뜻"을 실제로 행하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일단 길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발견하셨다는 결정적 증거다.

195:6.17 (2078.3) 선함, 아름다움, 및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발견은, 우주에 해방과 균일성 둘 다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발견하려는 자는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사물은 실제이고 명백히 균일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사물*로 알려질 수 없었다.

7. 유물론의 취약점

195:7.1 (2078.4) 기계론적 우주론 같은 그런 취약한 이론들이, 참 종교의 개인 체험이라는 방대한 영적 자원을 자신에게서 빼앗도록, 물질적_정신을 가진 사람이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실은 결코 실제적인 영적 신앙과 대립되지 않으나;이론은 그럴 수 있다. 발전된 과학은, 종교적 신앙을--곧 영적 실체와 신성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전복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 미신을 타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낫다.

195:7.2 (2078.5) 종교가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행하는 것:즉 인생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그의 인격체를 증대시키는 것을, 과학은 그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행해야 한다. 참된 과학은 참 종교와 지속적으로 대립할 수 없다. "과학적인

방법”은, 물질적 모험과 물리적 성취를 재는 지적 척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물질적이고 전적으로 지적이기 때문에, 영적 실체와 종교 체험을 평가할 경우에는 전혀 쓸모없다.

195:7.3 (2078.6) 현대 기계론자의 모순은 이렇다:우주가 다만 물질적이고 사람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그런 기계인 것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런 기계로서의_사람은 그런 물질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론적 과학에서 유물론적 낙담과 절망이 발생한 것은, 과학자에게 영이_내주하는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과학자의 바로 그 초물질적 통찰력이, 물질적 우주에 대한 잘못되고 스스로 모순되는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다.

195:7.4 (2078.7)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낙원 가치는, 시간과 공간의 우주들에서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 속에 숨겨 있다. 그러나 이런 영적 가치를 감지하고 분간하려면,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에게 신앙의 눈이 있어야만 한다.

195:7.5 (2078.8)

영적 진보의 실체와 가치는, “심리적 투사{投射}”가 아니다--물질 정신의 단순히 미화된 백일몽이 아니다. 그런 실체와 가치는, 내주하는 조율사, 즉 사람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영적 예측이다. 그리고 너희가 어쩌다가 어렴풋이 발견한 “상대성”을 갖고 놀아본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성 및 무한성에 대한 너희의 개념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자아를_표현할* 필요성에 관하여 너희가 온갖 간청을 드릴 때, *조율사_표현*, 즉 너희의 실제적이고 더 나은 자아{自我}를 표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195:7.6 (2079.1)

우주가 물질적일 뿐이라면, 물질적인 사람은, 오로지 물질적인 그런 실재에 대한 기계론적 특성 개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주의 바로 이런 *기계론적 개념* 자체가 비물질적 정신 현상이며, 모든 정신은, 외견상 아무리 철저히 물질적으로 제약받고 기계적으로 통제되는 듯이 보여도, 비물질적으로 기원된다.

195:7.7 (2079.2)

어느 정도 진화된 필사적 사람의 정신 작용은, 일관성이나 지혜를 지나치게 부여받지 않는다. 사람의

자만심은 종종 자기 이성{理性}을 잃어버리게 하며, 자신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195:7.8 (2079.3) 가장 비관적인 유물론자의 바로 그 비관주의는, 그 자체로, 비관주의자가 속한 우주가 전적으로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이 두 가지 모두, *사실*뿐 아니라 *가치*를 의식하는 정신 속에서 반응하는 개념이다. 유물론자들이 간주하는 것처럼 우주가 정말로 그런 상태였다면, 인간 기계로서의 사람은, 바로 그 *사실*을 도무지 의식{意識}하여 알아보지 못해야만 한다. 영으로 태어난 자의 정신이 *가치* 개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주가 오직 물질이라는 사실과, 우주 운행이 기계론적 현상임을, 사람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의 기계는 다른 기계의 본성이나 가치를 자각할 수 없다.

195:7.9 (2079.4) 생명과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철학이 과학적일 수 없는 이유는, 과학은 오직 물질과 사실만 인식하고 취급하기 때문이다. 철학은 필연적으로 초 과학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연에 속한 물질적 실상이지만, 사람의 *생명*은 자연의 물질적 수준을 초월하는 현상이며,

정신의 통제 속성과 영의 창조적 특성을 자연 속에 나타낸다.

195:7.10 (2079.5) 기계론자가 되려는 사람의 진지한 노력은, 그 사람이 지적 및 도덕적 자살을 범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비극적 현상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195:7.11 (2079.6) 우주가 오직 물질적이고 사람이 기계에 불과했다면, 우주가 기계작용이라고 가정{假定}하도록 과학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과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계는 스스로를 측정, 구분, 또는 평가할 수 없다. 기계 상태를 초월하는 어떤 실재만이 그런 과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195:7.12 (2079.7) 우주 실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평가*를 하는 *통찰력*을 인식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주 밖에 있어야만 하며, 우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어야만 한다.

195:7.13 (2079.8) 사람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어떤 기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기계에 불과한 존재라고 *믿게* 되거나 *안다*고 주장하겠는가? 사람이 스스로_의식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체험은, 단순한 기계적 속성이 결코 아니다. 자아를_의식하고 기계론자로 자처하는 사람이, 기계론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대답이다.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자아를 의식하는 기계론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전에, 먼저 도덕을 아는 인격자여야만 한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이다.

195:7.14 (2079.9) 유물론이라는 바로 그 주장이, 그런 견해를 주장하게 하는 정신의 초 물질적 의식을 암시한다. 기계작용은 나빠질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진보를 이룰 수 없다. 기계는, 생각하거나, 창조하거나, 꿈꾸거나, 포부를 갖거나, 이상화하거나, 진리에 굶주리거나, 의에 목마를 수 없다. 기계는, 다른 기계들을 섬기려는 열정, 그리고 영원히 진보하는 자신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고 애쓰는 숭고한 과업을 선택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기계는 결코, 지적, 감정적, 심미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영적일 수 없다.

195:7.15 (2079.10)

예술은 사람이 기계적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영존하는 존재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예술은 필사 모른시아, 즉 물질 존재인 사람과 영적 존재인 사람 사이에 들어있는 분야다. 시적{詩的} 감흥은 물질 실체를 벗어나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195:7.16 (2080.1)

고도{高度}의 문명에서는 예술이 과학을 인간답게 만들며, 한편 참 종교가--곧 영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보는 통찰력이--예술을 영화{靈化}시킨다. 예술은 실체에 대한 인간의 시_공 평가를 나타낸다. 종교는, 시공우주 가치를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확장하면서 영원히 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세계의 예술은, 영원성이 시간이라는 실체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신성한 원형{原形}들에 대한 영 표준을, 예술이 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만 위험하다. 참된 예술은 인생에서 물질 사물을 효과적으로 조종하며;종교는 인생에서 물질적 사실을 고상하게 변형시키고, 예술에 대한 영적 평가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195:7.17 (2080.2) 자동장치가 자동운동 원리를 생각해 낼 수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이 다른 동류의 자동장치 개념도 형성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195:7.18 (2080.3) *과학자*를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물질 우주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석도 무가치하다. *예술가*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예술에 대한 어떤 감상도 진짜가 아니다. *도덕가*를 제외한다면, 도덕에 대한 어떤 평가도 보람이 없다. *철학자*를 무시한다면, 어떤 철학적 인식도 교훈적이지 못하며, *종교인*의 참된 체험 없이는 종교가 존재할 수 없고, 종교인은 바로 이 체험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식한다. 자존자{自尊者}로부터, 즉 우주를 창조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운영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온갖 우주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195:7.19 (2080.4) 기계론자--곧 인본주의자--는 물질의 흐름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영을 추구하는 자와 이상주의자는, 외견상 순전히 물질적인 에너지 흐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감히* 지성과 활력으로 노{櫓}를 저으려 한다.

195:7.20

(2080.5)

과학은 정신의 수학을 이용함으로써 존속하며;음악은 감정의 박자를 표현한다. 종교는, 무한성에 속하는 더 높고 영원한 가락의 선율과 시_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혼의 영적 리듬이다. 종교 체험은 인생에서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무엇이다.

195:7.21

(2080.6)

언어에서, 글자는 유물론의 기계작용을 대변하는 반면, 수많은 사고{思考}, 웅대한 개념, 그리고 -- 사랑과 미움에 대한, 비겁함과 용기에 대한-- 고상한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물질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정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신이 실행한 것을 묘사하며, 그 실행은 인격체의 의지가 주장하는 바의 지시를 받고, 타고난 정황상 자질에 제약을 받는다.

195:7.22

(2080.7)

우주는,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과학으로 간주하는, 법칙, 기계작용, 및 획일성과는 다르며, 오히려 우주 현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창조에서 물질 계통의 기계론적 국면에 내재된 명확한 사실들을 분류하는, 호기심 많고, 사고하며, 선택적이고, 창조적이며, 연합적이고 분별력 있는 *과학자*에 가깝다. 또한 우주는 예술가의 작품과도 다르며, 오히려 영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애쓰는 가운데 물질적 사물 세계를 초월하려고 애쓰는, 투쟁적이고, 꿈을 간직하며, 큰 뜻을 품고, 진취적인 예술가에 가깝다.

195:7.23 (2080.8)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가,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된 진화하고 진보하는 우주 실체를 감지한다.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물질 존재와 영적 자유 사이에 들어있는 일시적 모론시아 세계의 실존을 실물로 표현한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인이, 영원히 진보하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영적 실체와 신성한 가치의 실존을 증명한다.

8. 세속적 전체주의

195:8.1 (2081.1) 그러나 유물론과 기계론이 다소 사라진 후에도, 20세기 세속주의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영문을 모르는 수많은 혼의 영적 체험을 여전히 손상시킬 것이다.

195:8.2 (2081.2) 두 가지 세계적 영향이 현대의 세속주의를 촉진시켰다. 세속주의의 아버지는, 소위 과학--곧 무신론적 과학--이라는 19세기와 20세기의 편협하고 무신론적인 태도였다. 현대 세속주의의 어머니는, 중세{中世}의 전체주의적 그리스도교 교회였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그리스도교 교회가 거의 완전하게

지배한 서방 문명에 대항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단됐다.

195:8.3 (2081.3) 본 계시가 주어진 시기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생활에서 지배적인 지적 및 철학적 풍조는 단연코 세속적이었다--인본주의적이었다. 서방의 사고{思考}는 3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세속화 돼왔다. 종교는 점점 더 이름뿐인 세력이 되어, 주로 제례적{祭禮的} 행사만 유지됐다. 서방 문명에 속한 대부분의 자칭 그리스도교인은, 실제로는 무의식중에 모두 세속주의자가 됐다.

195:8.4 (2081.4) 활기를 잃게 하는 전체주의적 교회 권세의 통제로부터, 서방 사람의 사고{思考}와 생활을 해방시키는 데는 엄청난 능력, 즉 강대한 영향력이 요구됐다. 세속주의가 교회의 통제력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거꾸로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에 대해 새로운 무신론적 유형의 지배권을 형성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군주적이고 독재적인 정치 계층은, 과학적 유물론과 철학적 세속주의에서 직접 생긴 산물이다. 세속주의는, 제도화된 교회의 지배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자마자,

그들을 전체주의 국가의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노예 신분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서,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노예 삼는 폭정에 팔아넘길 뿐이다.

195:8.5 (2081.5)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며;적어도 초기의 태도가 그랬다. 자신이 한때 전체주의적 속박에 저항했던 세속주의가, 최근에는 종교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이 더 투쟁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세기의 세속주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조심해라! 인간 사회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철학은, 불안, 증오, 불행, 전쟁, 및 세계적 재난으로 인도할 뿐이다.

195:8.6 (2081.6) 세속주의는 인류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침착해라! 세속적 반란을 통해서 교회의 전체주의로부터 얻은 유익을, 조급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방 문명은 세속적 반란의 결과로, 오늘날 많은 자유와 성취감을 누리고 있다. 세속주의의 엄청난 잘못은 이렇다:종교 권위가 생활을 거의 전부 통제하는 것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의 횡포로부터 해방된 후에, 세속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을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195:8.7 (2081.7) 미국 산업주의의 놀라운 독창성과 서방 문명의 전례 없는 물질적 진보는, 세속주의의 반란 덕분이다. 그리고 세속주의의 반란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과 참 종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한 세계 전쟁과 국제적인 불안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뒤따라서 발생됐다.

195:8.8 (2081.8) 현대 세속주의의 반란으로 말미암는 은총, 즉:아량, 사회 봉사, 민주 정부, 및 시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세속주의자들이 과학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참 종교에 대항할 필요는 없었다.

195:8.9 (2082.1) 그러나 생활이 확장되면서 최근에 획득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오직 세속주의에만 있지는 않다. 20세기의 소득 이면에는, 과학과 세속주의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이라는, 인정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영적 작용도 있다.

195:8.10 (2082.2) 하나님 없이, 종교 없이, 과학적 세속주의는 결코 그 세력들을 조정할 수 없는데,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권, 종족, 및 민족주의를 조화시킬 수 없다. 이런 세속주의적 인간사회는, 전대미문의 유물론적 성취를 이뤘음에도,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이런 적대관계의 붕괴를 방해하는 주요 응집 세력은 민족주의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세계 평화에 주요 장애물이다.

195:8.11 (2082.3) 세속주의의 내재적 결점은, 세속주의가 정치와 권력을 위해 윤리와 종교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사람의 형제관계를 전혀 이룩할 수 없다.

195:8.12 (2082.4) 비종교적인 사회적 및 정치적 낙관주의는 환상이다. 하나님 없이는, 자유와 해방이 평화롭게 이뤄질 수 없으며, 소유와 풍요 역시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195:8.13 (2082.5) 과학, 교육, 산업, 및 사회의 완전한 세속화는 오직 재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20세기 초반 삼분의 일 기간에, 유란시아인은 그때까지 전체 그리스도교 섭리시대를 통틀어서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것은 유물론과 세속주의의 무시무시한

추수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더 끔찍한 파괴가 아직 남아있다.

9. 그리스도교의 문제점

195:9.1 (2082.6) 너희의 영적 유산의 가치, 심지어 유물론과 세속 시대의 황폐한 시절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흘러내려온 진리의 흐름을 간과하지 말라. 지나간 시절의 미신적 신조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값진 노력을 기울이면서, 너희가 영원한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나 인내하라! 미신에 저항하는 현재의 반란이 지나가면, 예수의 복음이라는 진리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영광스럽게 비칠 것이다.

195:9.2 (2082.7) 그러나 이교화{異敎化} 되고 사회화 된 그리스도교는, 손상되지 않은 예수의 교훈과 새롭게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의 부족으로 인해 활기를 잃고 있다. 예수의 종교에 대한 새롭고 더 완전한 계시가, 유물론적 세속주의의 제국을 정복하고, 기계론적 자연주의의 세계적 영향력을 타도하게 돼 있다. 유란시아는 이제, 사회적 재조정, 도덕적 소생{蘇生}, 그리고 영적 계몽에 해당하는, 가장

놀랍고 황홀한 한 시기가 시작되는 출발선 바로 앞에서
전율하고 있다.

195:9.3 (2082.8) 예수의 교훈은, 비록 크게 변경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태동되던 때의 신비 종파들 속에서 살아남았고,
암흑기의 무지와 미신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20세기의 유물론, 기계론, 및 세속주의를 서서히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큰 시험과 패배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는, 항상 엄청난 계시가 임하는 시대다.

195:9.4 (2082.9) 종교는, 새로운 지도자들, 즉 예수는 물론 그의
비길 데 없는 교훈에만 오로지 용감하게 의존하는 영적
남녀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가 자체의 영적
사명을 무시하면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문제에만 여전히
매달린다면, 영적 문예부흥은, 사람의 영적
갱생{更生}에만 오로지 헌신하면서 예수의 종교를
가르치는, 이런 새 선생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영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세계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및 정치적 재편성을 위한
지도력과 영감{靈感}을 재빨리 공급하게 될 것이다.

195:9.5 (2083.1) 현대는, 가장 고상한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과 모순되는 종교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되고 타협된 현대 그리스도교의 참된 원채의 기초를--곧 예수의 참된 생애와 교훈을-- 재발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95:9.6 (2083.2) 원시인은 종교적 두려움에 미신적으로 묶인 인생을 살았다. 현대의 개화된 사람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종교에 *붙잡히게* 되는 것을 항상 염려한다. 강력하고 진취적인 종교가 지배하려고 위협할 때, 그는 종교를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합리화, 전통화, 그리고 제도화하려고 변함없이 시도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시된 종교조차 사람이_만들고 사람이_지배하는 상태로 바뀐다. 현대의 남녀 지성인은, 예수의 종교가 자신들 *에게*--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무엇을 행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종교를 회피한다. 그리고 그런 모든 두려움에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예수의 종교는, 믿는 자를 정말로 지배하고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알려고 애쓰는 일에 인생을 바치도록

요청하고, 사람의 형제관계로 인한 이타적 봉사애 삶의 에너지를 바치도록 요구한다.

195:9.7 (2083.3) 이기적인 남녀는, 필사적 사람에게 일찍이 제공된 가장 위대한 영적 보물을 위해서도, 단지 그런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오직 어리석고 현혹시키는 이기심의 추구에 뒤따르는 슬픈 실망감에 사람이 충분히 환멸을 느끼게 될 때, 그리고 정형화된 종교의 무익함을 발견한 후에야, 천국 복음, 즉 나사렛 예수의 종교를 향해 전심으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195:9.8 (2083.4) 세계는 직접 체험하는 종교를 더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교조차 -- 20세기에 가장 앞선 종교조차 -- 예수에 *관한* 종교일 뿐만 아니라, 너무 심하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종교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하는 종교 교사들이 전하는 대로 종교를 받아들인다. 예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대로 세계가 그를 발견할 수 있고, 생명을 주는 그의 교훈을 직접 알게 된다면, 각성하는 체험을 세계가 얼마나 많이 하게 될지! 사물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단어는 그 장면 그대로의 감동을 줄 수 없으며, 신조로 표현된 단어도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아는

체험처럼 사람의 혼에게 영감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장차 기대되는 신앙은, 사람의 혼의 소망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고, 세상을 초월하는 신성한 가치를 갖는 영원한 영적 실체가 들어오도록 맞이할 것이다.

195:9.9 (2083.5)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탐욕, 전쟁의_광기,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갈망의 도전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대담하게 낮춰버렸지만;예수의 종교는, 때 묻지 않고 초월적인 영적 소환장을 상징하면서, 이런 모든 동물적 진화 유산을 딛고 올라서라고, 그리고 참된 인간 운명의 도덕적 정상을 은혜로 달성하라고, 사람 속에서 힘껏 외치고 있다.

195:9.10 (2083.6) 그리스도교는, 형식주의, 과대한 조직화, 지능주의, 그리고 다른 비영적{非靈的} 경향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어지는 인류 세대들에게 영적 전환을 계속 초래하라고 예수께서 위임했던 것 같은, 그런 활기찬 신자들의 형제단체가 아니다.

195:9.11 (2083.7) 소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물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 돼버렸다. 현대 그리스도교는 고대의 여러 이교적 늪지대와 야만적

저습지를 고갈시키며;유일한 원천이라고 가정되는 갈릴리
고지대는 물론, 옛 문화를 모아놓은 여러 저수지가, 이런
현대 문화의 흐름에 물을 주고 있다.

10. 미래

195:10.1 (2084.1) 그리스도교는 이 세상을 위해 정말로 위대하게
봉사해왔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다. 세상은,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으로
태어난 필사자들의 체험 속에서,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원시 그리스도교의
회복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며;너희는 자신이 서있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현대 문화는 예수의
생애의 새로운 계시{啓示}로 영적 세례를 받아야만 하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의 복음을 새롭게 이해함으로 빛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될 때, 예수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복자 이상{以上}으로,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생활을 증진시키는 근원이 돼야 한다. 종교는,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신성하게 되기 전에는, 고상한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195:10.2 (2084.2)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의 생애의 아름다움과 고상함, 인성{人性}과 신성{神性}, 소박함과 독특성은, 사람을_구원하고 하나님을_게시하는 그런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데, 사람의 형체를 입은 그토록 초월적인 하나님의 증여로부터, 모든 시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감히 영적으로 속박하는 신조를 형성하거나 신학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지해야만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주가 한 필사적 사람을 생기게 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사랑의 영이 시간세계의 물질적 장애를 극복했고, 물리적 기원이라는 사실을 극복했다.

195:10.3 (2084.3)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우주의 최종적 상태를 이루는 신성한 운명에서, 영원한 인격체 체험을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

195:10.4 (2084.4)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사랑의 영이시라는 선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선언일 것이다.

195:10.5 (2084.5) 주님을 위해 혼을 설득할 때, 사람과 세상을 변형시키는 것은, 강제성, 의무, 또는 인습 때문에 억지로 가는 첫 1마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_사랑하는 헌신과 얽매이지 않는 봉사라는 자발적인 *그 다음 1마일*인데, 예수교인{敎人}이 형제를 사랑으로 끌어안기까지, 그리고 필사자 실존의 더 높고 신성한 목적을 향해 영적 인도 아래로 내몰리기까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첫 1마일*은 기꺼이 가지만, 진심으로 *그 다음 1마일*을 가는 사람--곧 신앙을 고백한 추종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지라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대로 정말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인류가 도덕적 암흑 속에서 번민하고 비틀거린다.

195:10.6 (2084.6) 예수의 천국 형제단체를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새롭고 변형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 초청하는 소리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데,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예수의 동무로서 이 땅에서 돌아다녔던 시절 이후로, 이처럼 동요된 적이 없었다.

195:10.7 (2084.7)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회 체계나 정치 체제는,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문명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됨으로써, 그리스도교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한 가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이것은 특히 동양에서 그렇다.

195:10.8 (2084.8) 교회중심주의는, 하늘 나라의 영적 연합에서 형제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수의 신앙_동지들의 살아있는 신앙, 성장하는 영, 및 직접 체험과,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양립할 수 없다. 과거에 이론 업적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가혹한 욕구 때문에, 경배 체계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종종 저지된다. 고대의 사고{思考} 체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선의의 욕구가, 현대인의 확장되고 전진하는 정신의 영적 갈망을 만족시켜주도록 고안된, 새롭고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후원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막는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멋들어지게 서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참된 복음--곧 나사렛 예수의 교훈--의 즉각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

195:10.9 (2085.1)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충성하려는 많은 진지한 사람은, 그의 생애와 교훈의 참 뜻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그가 설립했다고 잘못 가르쳐 오고 있는 교회를 열심히 후원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께서는,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자신의 본성에 모순되지 않는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필생과업에 대한 현존하는 최고의 해석자로서 교회를 *돌봐*왔다.

195:10.10 (2085.2)

그리스도교 교회가 주님의 계획표를 용감하게 지지하기만 한다면, 외견상 냉담하게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가, 그런 영적 이행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며, 이 엄청난 모험 전체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려고 할 것이다.

195:10.11 (2085.3)

그리스도교는, 자체 표어들 가운데 하나인:“스스로 대적하여 나뉜 집은 지탱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될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비_그리스도교 세계는, 종파로_갈라진 그리스도교계에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곧 예수의 형제단체--는,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획일성**보다는 **통일성**을 특징으로 한다. 획일성은 기계론적 본성을 갖는 물리적 세계의 표시다. 영적 통일은, 살아있는 예수와 신앙으로 합동하여 생기는 열매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영적 형제단체의 진보를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형제단체는, 제도화된 사회 조직과는 현저히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게 돼 있다. 이 형제단체는, 그런 사회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게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195:10.12 (2085.4) 그러나 20세기의 그리스도교조차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많은 종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덕적 특별재능이 오랜 세월 동안 혼합되어 생긴 산물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 선{善}을 제공해 오는 가장 큰 권능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며, 그러므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결점들에도, 누구든지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강력한 도덕적 감정을 가진 사려 깊은 사람의 정신을 감동시키려고, 여전히 궁리하고 있다.

195:10.13 (2085.5) 그렇지만 교회가 상업과 정치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으며;그런 부정{不淨}한 동맹관계는 주님에 대한 악랄한 배반이다. 그리고, 이런 제도화된 강력한 교회가 새로 발생하는 신앙을 감히 질식시켜 버리는 예가 종종 있었고, 비정통적인 옷을 입고 우연히 출현한 진리 수호자들을 용감하게 박해해 온 사실을, 진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좀처럼 잊지 못할 것이다.

195:10.14 (2085.6) 그런 방식의 경배를 선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그런 교회가 살아남지 못했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영적으로 나태한 많은 사람이, 제례적이고 신성시되는 전통들로 가득한 고대의 권위 종교를 갈망한다. 인간의 진화와 영적 진보가 이뤄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 권위가 필요 없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 형제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및 기질적 부류에 속하는 이 동류{同類}의 집단이, 정말로 영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되기만 한다면, 그들을 잘 수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이 형제단체에는, 분파적 적대 관계도, 집단적 증오심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영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없다.

195:10.15 (2086.1) 그리스도교인의 이런 다양한 집단화는, 서방 문명에 젖은 다양한 민족 중에서 신자가 되려는 수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을 적응시키기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교계의 분열은, 예수의 복음을 동양 민족들에게 전해주려고 시도할 때 심각한 약점을 나타낸다. 점점 더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로부터 구별되고, 어느 정도 다른 *예수의 종교*가 있음을, 이 종족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195:10.16 (2086.2) 유란시아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의 구원하는 메시지를 새롭게 확장하여 제시함으로써, 예수를 새롭게 드러낼 가능성에 있는데, 그 메시지는, 오늘날 공공연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집단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영적으로 연합시킬 것이다.

195:10.17 (2086.3) 세속적인 교육일지라도, 인생 설계와 성품 진보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일에, 그 교육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이런 위대한 영적 문예부흥에 도움 될 수 있다. 모든 교육의

목적은, 인생의 최고 목적, 즉 잘 균형 잡히고 장엄한
인격체의 계발을 촉진시키고 진행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과도한 자기만족 대신에 도덕적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종교는, 필사자의 생활을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영적 보상을, 그런 기초 위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195:10.18 (2086.4) 그리스도교는 일종의 즉석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빠른
속도의 영적 실행은, 새로운 종교 그리고 예수의 참 종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수용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달렸던 목수의 보통
제자들이 그런 교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300년 만에
로마 전역을 석권했으며, 그 후에는 로마를 정복한
야만인들을 굴복시켰던 사실을 고려할 때, 위대한 종교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히브리 신학과 그리스
철학의 전체 흐름을 정복했다--흡수했고 향상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교인 종교가 신비 사상과 이교에
과잉 노출된 결과로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혼수상태에
놓이게 됐을 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고, 실질적으로는

서방 세계 전체를 다시 정복했다. 그리스도교는 불멸{不滅}하게 될 만큼 충분한 예수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

195:10.19 (2086.5)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교훈을 더 많이 파악하기만 한다면, 현대인의 새롭고 증가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195:10.20 (2086.6)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 사람의 마음 속에, 사회 체계, 산업 생활, 및 서방 문명의 도덕 기준의 일부라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이상주의가 결여된 과학, 원칙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도 얻는 재산, 억제되지 않는 쾌락, 성품이 결여된 지식, 양심적이지 못한 권력, 그리고 도덕성이 결여된 산업을 허용하는 죄를 범하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공동체를, 무의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195:10.21 (2086.7) 현대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서방 문명의 사회 체계와 산업 정책을 후원하기를 중지하는 동시에, 그토록 용맹스럽게 찬양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거기서 필사적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를--곧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생생한 복음을-- 나사렛 예수로부터 다시 배우는 데 있다.

제196편 예수의 신앙

196:0.1 (2087.1) 예수께서는, 숭고하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녔다. 필사자 실존이 보통 겪는 오르내리는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종교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즉 내재하는 조율사의 활동에서 생겨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도, 단순히 지적인 것도 아니었으며;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순전히 영적이었다.

196:0.2 (2087.2)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일뿐 아니라, 거룩하고 정의롭고 위대하신 분으로 여겼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신성{神性}의 속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으로 마음 속에 깊이 간직했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개념을 예수가 창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또한 모든 필사 피조물을 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관념을 숭고한 체험으로 고양시키고 들어올렸다.

196:0.3 (2087.3) 예수께서는, 마치 우주와의 투쟁에서 그리고 적의에 차고 죄로 가득 찬 세상과의 사생결투에서 발버둥치는 혼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지는 않았으며;신앙을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로 삼거나 절망 속에서 안식처로 삼지 않았으며;신앙은 단지 즐겁지 못한 현실 혹은 삶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환상적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자 실존이 당연히 겪는 모든 어려움과 일시적 모순에 직면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평안과 확실한 신뢰를 체험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신앙으로 동행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엄청난 감격을 누렸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신앙은, 실제 영 달성을 이룩한 생생한 체험이었다. 예수가 인간 체험의 가치에 가장 위대하게 공헌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관한 많은 새로운 관념을 보여준 것이라기보다, 새롭고 높은 유형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인간적으로 숭고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세상 어디서도,

어떤 한 필사자 생애에서든지,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에서처럼, 하나님이 그토록 *생생한 실체*가 되신 적이 결코 없었다.

196:0.4 (2087.4) 지방 창조계의 이 세상과 다른 어느 세상에서든지, 예수의 유란시아 생애에서 새롭고 고귀한 유형의 종교를 발견하는데, 이것은 만유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영적 관계를 갖는 데 기초를 두고, 순전히 몸소 체험한 최상의 권한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종교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 감상 이상이었고, 신비스런 명상이 아니었다.

196:0.5 (2087.5) 신학은, 신앙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하고, 교리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보여준 예수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생생하고, 독창적이고, 자발적이고,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숭상이 아니었고, 신성시되는 신조{信條}로 신봉하는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를 확실히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확신이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모든 영적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모든 모순된 욕망을 파멸시켰다.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이 영적 정박지에서 그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는 외견상 난관에 직면해서든지, 극심한 절망이나 실망의 고통에 처했을 때든지, 두려움 없이 영적 불굴성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신성의 임재 앞에 고요히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생활 속에서 고된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 뜻에 따르는 무조건적 순종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앙은, 굴욕적으로 죽음 당할 것이라는, 잔인하고 압도적인 위협에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196:0.6 (2088.1) 종교적으로 비범한 존재인 경우에, 강력한 영적 신앙이, 파괴적 광신{狂信}, 즉 종교적 이기심의 과시로 직접 이끄는 일이 허다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실생활에서 자신의 특별한 신앙이나 영 달성으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 영적 희열은, 그가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것에 대한 전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혼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196:0.7 (2088.2) 온전히_다_바치고 굶힐 줄 모르는 예수의 영적 신앙은 결코 광신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의 신앙은

실용적이고 평범한 사회적, 경제적, 및 도덕적 생활 환경의 조화된 가치에 관한 잘_균형잡힌 지적 판단을, 한 번도 피해가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멋지게 통합된 인간 인격체였으며;완전하게 갖춘 신성한 존재였으며;또한 이 땅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활동하는, 인간답고 신성한 통합된 존재로서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뤘다. 주님은, 혼에 속하는 신앙과 노련한 체험으로 얻은 지혜로운_평가{評價}를 항상 조화시켰다. 모든 인간 충성심의--곧 개인의 명예, 가족의 사랑, 종교적 책무, 사회적 의무, 및 경제적 필요성의-- 실체와 신성함을 예리하게 깨닫는 것과 조화롭게 어울린, 비길 데 없는 종교적 통일에서만, 개인 신앙, 영적 소망, 그리고 도덕적 헌신이 서로 관련됐다.

196:0.8 (2088.3)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영 가치를 보여줬으며;따라서 그는, "먼저 하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진보되고 이상적인 친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충족되는 것을 봤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최고 핵심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뤄지소서"였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놀랄만한 자기_망각과 끝없는 열정으로 이를 실현하는 데 자신을 바쳤다. 그러나 그의 모든 집중적 사명에서, 그리고 이례적 생애 전반에 걸쳐서, 광신자의 격렬함이나 이기적 종교인의 피상적 천박함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196:0.9 (2088.4) 주님의 생애 전체는, 살아있는 이 신앙, 숭고한 이 종교 체험으로 인해 한결같이 조절됐다. 이 영적 태도가, 그의 생각과 기분, 믿음과 기도, 가르침과 설교를 전적으로 지배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로 인한 확신과 안전에 거하는, 한 아들의 이런 개인 신앙이, 심오한 영적 실체성이라는 재능을 그의 독특한 생애에 부여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인, 즉 하나님의 갈릴리인은 신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매우 깊게 의식하면서도,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바로 응답했다. 그런 굉장한 자기_망각을 대할 때,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토록 온전히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영역의 필사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느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그 영역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신성한 뜻을 수행하는 장엄한 봉사에 자기 뜻을 성별{聖別}하여 봉헌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그리고 일관되게,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의거하여 종교를 해석했다. 너희가 종교 생활 중에서 기도 또는 다른 어떤 면이든지 고려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할 때, 그가 가르쳤던 것들 보다는, 그가 행했던 것들 더 눈여겨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결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에게 기도란, 영적 태도에 대한 진지한 표현, 혼의 충성에 대한 선언, 개인적 헌신에 대한 설명, 감사의 표현, 감정적 긴장 상태의 피난처, 갈등에 대한 예방, 지적{知的} 작용에 대한 찬미{讚美}, 욕구를 고상하게 바꾸는 것, 도덕적 결정을 변호하는 것, 사고{思考}를 풍성하게 하는 것, 높은 차원의 성향으로 이끄는 것, 충동을 정화시키는 것, 관점을 순수하게 해주는 것,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 복종, 신뢰에 대한 최고의 표현, 용기를 드러냄, 발견했다는 선포, 최상의 헌신을 고백함, 성별{聖別}의 정당성, 어려움에 대처하는 기법이고, 이기심과 악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간 경향에 항거하기 위해, 혼합된 혼의 능력을 강력하게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기도드리며 헌신하는 바로 그런 생애를 살았고, 바로 그런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쳤다.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는 그의 종교적 생애의 비밀은,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함에 있었으며;그는 그것을, 순서, 음성, 광경 또는 특별한 종교 습관이 아니라, 이성적 기도와 진지한 경배로--곧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교류로-- 달성했다.

196:0.11 (2089.1) **예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종교는, 생생한 체험, 즉 영적 경외로부터 정의{正義} 실천에 이르기까지 직접 몸소 행동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 열매를 맺었다. 그의 신앙은, 아이들의 신앙처럼 미숙하거나 경솔하지 않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정신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우주를 확고하게 신뢰했다--자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을 어린아이가 신뢰하듯이 신뢰했다. 우주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예수의 진정한 신앙은, 땅 위의 주변상황이 안전하다고 믿는 어린아이의 신뢰와 매우 흡사했다. 그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존했고, 그의 열렬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한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한 순간도 의심치 않았다. 그는 두려움, 의심, 및 회의{懷疑}로 인해 심하게 동요되지 않았다. 불신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다_자란 성인의 건장하고 지성적인 용기와, 잘 믿는 아이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낙천성을 겸비했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 없는 신뢰의 경지까지 성장했다.

196:0.12 (2089.2) **예수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신뢰하는 것 같은 순수성에 도달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순전하고 확실해서, 다른 존재들과 만나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우주를 경이로워했다. 신성한 세계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확신에 찼으므로, 자신의 절대적인 안전을 기뻐하고 안심했다. 그는 종교 체험에서 머뭇거리며 핑계를 댄 적이 없었다. 다_자란 어른의 이런 위대한 지능 속에서, 종교적 의식{意識}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완전히 지배했다. 그러므로 그가 언젠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은 이상하지 않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았음*에도, 어떤 점에서도 *유치하지* 않았다.**

196:0.13 (2089.3)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으라고 요구하기보다 자기와 함께 믿으라고, 즉 사랑의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신분을 보장하는 담보물을 온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했다. 주님은 모든 추종자가, 그의 초월적 신앙을 온전히 나눠 갖기를 바랐다. 예수께서는, 그가 믿었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것 *처럼* 믿으라고, 추종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부탁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의 유일한 최고 요구사항의 온전한 의미다.

196:0.14 (2090.1) 예수는 이 세상 생애를 한 가지 목적에 바쳤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즉 인간 생애를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어린아이가 신뢰하듯이 신뢰하는 것이었지만, 대강 어림짐작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확고하고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좌절에 용기 있게 대처했으며, 엄청난 어려움을 단호히 극복했고, 엄격하게 요구된 의무에 단호하게 직면했다. 예수께서 믿었던 것을 믿고, 또한 그가 믿었듯이 믿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자신감이 요구됐다.

1. 예수 -- 사람

196:1.1 (2090.2) 아버지 뜻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바친 예수의 열정은, 필사자 결단과 인간적 결심 이상의 것이었으며;사랑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기까지, 온 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다. 미가엘의 주권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인간 예수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며;그는 사람에게 속하고;사람은 그에게 속한다. 종교 자체가 잘못 해석돼서, 고뇌하는 필사자로부터 인간 예수를 멀어지게 했음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그리스도가 인간인지 신인지 토론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 종교적 사람이었다는 예외적 진리가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하며;그는 일찍이 유란시아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참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196:1.2 (2090.3) 신학 전통과 종교 교리 속에 열아홉 세기들 동안 그를 묻어놓은 무덤에서, 인간 예수의 상징적 부활을 목격하게 될 시기가 됐다.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라는 화려한 개념에, 나사렛 예수가 더 이상 희생 돼서는 안 된다. 본 계시를 통해서, 전통적 신학이라는 무덤으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재발견되고, 그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에,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 살아있는 예수로서 제시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공헌이 되겠는가!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타적 봉사를 위해 성별{聖別}하는, 실제 생활의 모범을 보여줬던 주님의 “뒤를 좇아” 가도록, 신앙과 살아가는 습관을 주저하지 않고 조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교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사회적 체면과 이기적인 경제적 부적응으로 자기만_만족시키는, 성별되지 않은 교제가 노출될까봐 두려워할까? 갈릴리의 예수께서, 필사적 사람들의 정신과 혼 속에, 종교적인 개인 생애의 이상{理想}으로서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면,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인 성직의 권위가 위협 받거나 폐지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할까? 정말로,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관한 신학적 종교를 갑자기 대체하게 된다면, 사회적 재조정, 경제적 전환, 도덕적 원상 복구, 그리고 그리스도교 문명의 종교적 개편이 격렬하게 혁명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196:1.3 (2090.4)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 신앙을 몸소 공유하고, 사람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한 주님의 일생의

참뜻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무엇을 믿었었는지 찾아내고, 그의 이상을 발견하여, 그의 승화된 인생의 목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예수의 종교적 생애와 그가 어떻게 그런 생애를 살았는지를 아는 것이다.

196:1.4 (2090.5) 보통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며, 그런 진리가 다시 세상에 선포된다면, 종교적 동기에 거룩히 바친 그의 진지한 인간 생애가 제시될 때, 다시 응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기꺼이 그에게 귀 기울인 것은, 자신과 똑같은, 즉 꾸밈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종교 교사는 정말로 평신도였다.

196:1.5 (2091.1) 천국을 믿는 자의 목표는, 육신을 입은 예수의 겉으로 나타난 생활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사람을 믿었던 것처럼 그들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사람이 형제관계인 것에 대해 반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전자{前者}에 대해서는 산 증인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본이 됐다.

196:1.6 (2091.2) 인간 세계를 자각한 때부터 신성한 세계를 깨닫기까지 사람이 진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상승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필사자 지능의 신앙, 그리고 자신에게 내주하는 조율사의 활동을 공동으로 성취함으로써, 인간 세계로부터 신성한 세계로, 이처럼 위대한 상승을 이뤘다. 신성 총체를 달성했음을 사실로_깨닫기까지, (이 기간 내내 인성의 실체를 온전히 의식하면서) 점차 신성화돼 가는 것을 신앙으로 의식하는 일곱 단계가 있었다. 이런 발전적 자아_실현 단계는, 주님의 증여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이례적 사건들로 구별됐다:

196:1.7 (2091.3) 1. 사고 조율사의 도착.

196:1.8 (2091.4) 2. 열두 살쯤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출현했던 임마누엘의 사자.

196:1.9 (2091.5) 3. 세례식 때 수반됐던 여러 현시{顯示}.

196:1.10 (2091.6) 4. 변형되신 산에서 겪은 체험.

196:1.11 (2091.7) 5. 모론시아 부활.

196:1.12 (2091.8) 6. 영으로서 승천{昇天}.

196:1.13 (2091.9) 7. 낙원 아버지께 마침내 포용됨으로써, 우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수여받음.

2. 예수의 종교

196:2.1 (2091.10) 언젠가 그리스도교 교회에 충분한 정도의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의 변질되지 않은 종교적 교훈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는 예수에 *관한* 종교를 전도해도 괜찮지만, 반드시 *예수의* 종교를 *실천*해야 한다. 오순절 열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새 종교를 탄생시켰는데, 부활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교였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새로운 이 복음을 그리스도교로 변형시켰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학 견해를 삽입시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독특한 *개인 체험*을 묘사한 종교였다. 천국 복음은 갈릴리 예수께서 몸소 겪은 종교 체험에 기초한 반면;그리스도교는 거의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 종교 체험에 기초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의미심장하고 영감을 주는 예수의 종교적 생애를 묘사하기보다는, 바울의 종교 체험에 대한 토론과 그의 개인 종교 신념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의 어떤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런 진술 중에서 주목할 예외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이다. 베드로마저, 자신의 글에서 단지 한번 예수의 개인 종교 생애에 눈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신약 성경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교 문서이지만, 예수교인의 문서라고 하기에는 빈약할 따름이다.

196:2.2 (2091.11) 육신을 입은 예수의 생애는, 원시적 두려움과 인간적 경외심이 나타나는 초기 관념으로부터, 몸소 영적 교류를 나누는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아버지와 하나임을 인식하는 숭고한 신분에 도달하는 위대한 종교적 성장을 묘사한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한 번의 짧은 생애 동안에, 사람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어지는 낙원_이전{以前} 생애 수준의 여러 영 훈련 학교에서 오래 머문 후에야 대개 성취하게 되는, 종교적인 영적 진보의 체험을 모두 거쳤다. 예수께서는 개인 종교 체험에서 신앙으로 확신하는,

순전히 인간적으로 의식하는 경지로부터,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숭고한 영적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주 경영에서 만유의 아버지와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을 의식하기까지 나아갔다. 그는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자극받을 만큼, 필사자로서 의존하는 겸손한 신분으로부터,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취된 신성을 숭고하게 자각하기까지 나아갔다. 인간 세계로부터 신성한 세계에 이르는 이런 점진적 상승은, 전적으로 필사자로서 성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신성에 도달하고 나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이었다.

196:2.3 (2092.1) 마가복음, 마태복음, 및 누가복음은,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훌륭하게 분투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신성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님의 생애를 연구해 온 자들이 저지른 큰 실수는, 더러는 그를 완전히 인간으로 여기는

반면, 더러는 그를 오로지 신{神}으로 여긴 점이였다. 그가 체험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인간인 동시에 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196:2.4 (2092.2)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졌다*고 인식되기는 했어도, 신성한 예수(그리스도)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종교가 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찬미하도록 했지만, 갈릴리의 분투하는 씩씩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린 반면, 인간 예수는, 개인의 종교적 신앙의 용기와 내재하는 조율사의 영웅적 행위로, 낮은 단계의 인성으로부터 신성과 하나 되는 경지까지 올라갔고, 이처럼 어떤 필사자든지 그렇게 인성으로부터 신성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새 생명의 길이 됐다. 어떤 영성 단계든지, 어떤 세계의 필사자든지, 낮은 영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신성한 가치에 이르기까지, 몸소 겪는 모든 영적 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진하는 동안, 힘과 영감을 주는 무엇을 예수의 개인 생애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

196:2.5 (2092.3)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저자{著者}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절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히 돌아오리라는 것을 열렬히 진심으로 믿었다. 주{主}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이런 강한 신앙은, 주님의 순전히 인간적인 체험과 속성들을 묘사해 주는 그런 자료를, 기록에서 생략하려는 풍조를 많이 부추겼다. 전체 그리스도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즉 영광을 얻고 곧 다시 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쪽으로 멀어졌다.

196:2.6 (2092.4)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의 형제관계를 위해 봉사하면서 몸소 체험하는 종교를 설립했으나;바울은, 영광을 받은 예수를 숭배 대상으로 삼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로 구성된 형제단체를 수립했다. 신이자_인간인 생애동안 예수의 증여에 잠재돼 있던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추종자들이 통합된 종교를 만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인데, 만약 그렇게 통합됐다면, 주님의 인간적인 본성과 신성한 본성 둘 다 그의 이 세상 생애동안에 떨어질 수 없도록 묶여있던 대로, 그리하여 원래의 천국 복음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제시됐던 대로, 둘 다 올바르게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196:2.7 (2093.1)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헌신적인 종교인이었음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의 일부 강경한 발언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에 거리낌 없이 일생을 바친, 완전히 헌신한 필사자였다. 무정한 듯한 그의 말씀 가운데 다수는, 추종자들에게 주는 명령이라기보다, 본인의 신앙 고백과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런 오로지 한 가지 목적과 이타적 헌신 때문에, 그는 짧은 생애동안에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일에 그토록 엄청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가 선언한 말씀 가운데 다수는, 모든 추종자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부과한 요구를 고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대의{大義}를 위해 헌신하면서, 예수께서는 배수진{背水陣}을 쳤으며; 아버지 뜻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

196:2.8 (2093.2)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축복한 것은, 그들이 대개 진지하고 신앙심 깊었기 때문이며; 부자를 비난한 것은, 그들이 대개 방종하고 신앙심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신앙 없는 가난뱅이를 비난하고, 헌신적이면서 경건한 부자를 칭찬할 것이다.

196:2.9 (2093.3) 예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도했으며;금기{禁忌}에 노예 된 처지로부터 그들을 구했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이 세상 생애로부터 도피하기를 원치 않았으며;육신 속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뜻을 훌륭히 해내는 기법을 터득했다. 그는 현실 세계의 한 복판에서 이상적 종교 생활의 경지에 도달했다. 바울은 인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졌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주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고, 생존하기로 선택한 그들 앞에 펼쳐질 장엄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봤다. 그는 도덕적으로 비관적이지 않았으며;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악하기보다 악하다고, 타락했다기보다 마음이 산란하다고 봤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의 형제였다.

196:2.10 (2093.4)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세계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서 그들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고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사람을 위한 끊임없는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내줄 수 있었다. 유한한

존재가 이렇게 무한하게 가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는 황금률을 핵심으로 삼았다. 예수께서 특별히 믿어주는 데도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을 필사자가 있을까?

196:2.11 (2093.5) 예수께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공하지 않았으며;그의 사명은 종교적인 것이었고, 종교는 전적으로 개인의 체험이다. 최고의 사회 진보를 성취하는 궁극적 목표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깨달음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과 예수의 형제관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사회가 달성할 모든 이상{理想}은, 이런 신성한 나라를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다.

3. 종교의 우월성

196:3.1 (2093.6) 개인의 영적 종교 체험은, 필사자가 겪는 대부분의 곤경에 효율적인 해결책이며;인간의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조절한다. 종교는, 인간의 곤란한 문제를 없애거나 파괴하지는 않지만, 이를 용해하고 흡수하고 밝혀주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모든 요구 사항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인격체를 통합한다. 종교적 신앙은--곧 내재하는 신성한 현존의 적극적 인도는-- 하나님을_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적 제1 근원을 그것으로 인식하는 지적 논리와, 이 제1 근원을 그분이라고 단언하는 혼의 적극적 선언, 이 둘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예수의 복음에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인간을 구원하는 인격있는 하나님입니다.

196:3.2 (2094.1) 우주의 실체에는 정확히 세 요소가 있는데:사실, 관념, 및 관계다. 종교적 의식{意識}은 이런 실체들을, 과학, 철학, 및 진리로 간주한다. 철학은 이런 활동을, 이성, 지혜, 및 신앙으로--곧 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및 영적 실체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런 실체들을, 사물, 의미, 및 가치로 명시하는 습관이 있다.

196:3.3 (2094.2) 실체를 점진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과 대등하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실체와 일치됨을 자각하는 것은, 자아_완성--곧 자아_완전성, 자아_전체성--을 체험하는 것과 대등하다. 실체 전체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_아는 체험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196:3.4 (2094.3) 인간의 생애에 대한 최고의 요약은, 사람은 사실로 교육받고, 지혜로 고상해지며, 종교적 신앙으로 구원된다는--곧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인식이다.

196:3.5 (2094.4) 물리적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으며;도덕적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있으며;영적 확실성은 참된 종교 체험이라는 진리에 있다.

196:3.6 (2094.5) 사람의 정신은, 전적으로 물질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과, 그에 상응하는 신성한 가치 분야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의 정신 속에는 영 핵이 있다--신성한 현존인 조율사가 있다. 인간의 정신에 이런 조율사가 내재하고 있음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증거가 있다:

196:3.7 (2094.6) 1. 인도주의적 교제--사랑. 순전히 동물적인 정신은 자기 방어를 위해 집단을 이룰 수 있겠지만, 영이 내주하는 지능만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남을 위할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

196:3.8 (2094.7) 2. 우주에 대한 해석--지혜. 우주가 각 개인에게 호의적임을, 영이 내주하는 정신만 납득할 수 있다.

196:3.9 (2094.8) 3. 인생에 대한 영적 평가--경배. 오직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신성한 현존을 깨달을 수 있으며, 신성을 미리 맛보는 더 온전한 체험을 달성하고자 추구한다.

196:3.10 (2094.9) 인간의 정신은 참된 가치를 창조하지 않으며;인간의 체험은 우주적 통찰력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를 인식하고 영적 의미를 식별하는 통찰력에 관해서, 인간의 정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발견, 인식, 해석, 및 선택이 전부다.

196:3.11 (2094.10) 우주의 도덕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필사 정신의 세 가지 기본 판단, 즉 선택함으로 지적 재산이 될 수 있다:

196:3.12 (2094.11) 1. 자아_판단 -- 도덕적 선택.

196:3.13 (2094.12) 2. 사회적_판단 -- 윤리적 선택.

196:3.14 (2094.13) 3. 하나님에 대한_판단 -- 종교적 선택.

196:3.15 (2094.14) 따라서 인간의 모든 진보는 *계시의 진화*라는 공동 기법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

196:3.16 (2094.15) 신성한 연인{戀人}이 사람 속에 살지 않았다면, 사람은 이타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석하는 존재가 정신 속에 살지 않으면, 사람은 우주의 통일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평가하는 존재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는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연인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바로 그 근원에서 쏟아져 나오며;이 해석자는 우주의 통일성의 한 부분이며;이 평가자는, 신성하고 영원한 실체의 전체 절대 가치인 중심 및 근원의 자녀다.

196:3.17 (2095.1) 종교적 의미를--곧 영적 통찰력을-- 갖는 도덕적 평가는, 선과 악, 진리와 오류, 물질과 영, 인간과 신성, 시간과 영원 사이에 개인이 선택함을 암시한다. 인간의 생존은 영적 가치 분류자가--곧 내주하는 해석자이자 통합자가-- 선택한 그런 가치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전념하여 선택하는가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다. 개인의 종교 체험은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인간 정신 속에서 발견하는 단계와, 내재하는 신성한 영이 계시하는 단계다. 지나치게 고상하거나,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의 결과로, 한 개인 또는 심지어 한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며;신성한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거나 그 계시를 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내주하는 사고 조율사의 현존과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196:3.18 (2095.2) 신성하게 내주하는 실체에 대한 이런 의미심장한 체험은, 자연 과학의 미숙한 유물론적 기법을 영원히 초월한다. 너희는, 영적 기쁨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는 없으며;사랑을 저울에 달아 볼 수 없으며;도덕적 가치를 자로 잰 수 없으며;또한 영적 경배의 질{質}을 평가할 수도 없다.

196:3.19 (2095.3) 히브리인은 도덕적으로 숭고한 종교를 가졌으며;그리스인은 미{美}의 종교를 발전시켰으며;바울과 그 수제자들은, 신앙, 소망, 및 자비의 종교를 세웠다. 예수께서는, 사랑의 종교:즉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심하는 종교, 그리고 인간이 형제관계로 봉사하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종교를 계시했고 예증{例證}했다.

196:3.20 (2095.4) 사람은, 사려 깊은 도덕적 선택을 할 때마다, 자신의 혼 속에 새로운 신성한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즉시 체험한다. 도덕적 선택은, 외부 조건에 대한 내적 반응의 동기로서, 종교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런 실제 종교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성 총체--곧 우주와 그 조물주--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지성적으로 응답하는 개인의 주관성 전체를 뜻한다.

196:3.21 (2095.5)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답고 숭고한 체험은, 너무나 순전히 주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령적 환상이 될 수는 없다. 필사적 존재들과 관련돼있는 단 하나의 신성하고 객관적인 실체인 사도 조울사는, 인간이 관측하기에, 순전히 주관적 현상으로서 작용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이 최고 객관적 실체인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그를 알고 그에게 경배 드리고 그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196:3.22 (2095.6) 참된 종교적 경배는 자기 기만적인 쓸데없는 독백이 아니다. 경배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 즉 실체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과 몸소 교류하는 것이다. 사람은

경배함으로써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초/고의 상태에 도달한다.

196:3.23 (2095.7)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이상으로 삼아서 봉사하려는 시도가 순수한 종교 체험을--곧 영적 실체를--대신할 수 없다. 심리학과 관념론은 종교적 실체와 대등하지 않다. 인간 지능을 투영시킴으로써 잘못된 신들을--곧 사람 형상의 신들을-- 만들었겠지만, 참된 하나님을_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기원되지 않는다. 하나님을_인식하는 것은 내주하는 영에 내재한다. 사람이 만든 많은 종교 체계는 인간 지능이 고안해 냄으로써 생기지만, 하나님을_인식하는 것이 이런 우스꽝스런 종교적 노예 체계의 일부분일 필요는 없다.

196:3.24 (2095.8)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관념론이 발명한 것이 아니며;모든 초동물적 통찰력과 가치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라는 인간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며;그로부터 모든 우주 현상이 나타나는 사랑의 인격체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은, 낙원이라는 실체를 향해 상승하는 필사자의 체험을 통해서 증가하는

영성으로 말미암아 통합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을_아는 인격체의 영적 체험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196:3.25 (2096.1) 도덕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_인식함, 즉 조울사의 내적 현존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데 꼭 필요한 선재{先在}하는 토양이지만, 그런 도덕성은 종교 체험과 그 결과로 생기는 영적 통찰력의 근원이 아니다. 도덕적 본성은 동물을 뛰어넘지만 영적이지는 못하다. 도덕성은, 의무를 인식함, 즉 옳고 그름이 실재함을 깨닫는 것과 같다. 인격체가 달성하는 물질 분야와 영적 분야 사이에서 모론시아가 작용하듯이, 도덕적 범주는 동물 유형의 정신과 인간 유형의 정신 사이에 끼어있다.

196:3.26 (2096.2) 진화하는 정신은, 법, 도덕, 및 윤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내주하는 조울사라는 증여된 영은, 입법자{立法者}, 즉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의 근원이신_아버지를 진화하는 인간 정신에게 드러내며;그렇게 빛을 받은 사람은 종교를 소유하며, 하나님을 향해 길고 모험적인 추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된다.

196:3.27 (2096.3) 도덕성은 반드시 영적일 필요는 없으며;참
종교가 모든 도덕적 가치를 높이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지라도, 전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일 수 있다. 종교가
없는 도덕성은 궁극적 선을 나타내지 못하며, 또한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속시키지도 못한다. 종교는,
인식되고 인정된 모든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영화롭게
하며, 확실히 생존하도록 준비시킨다.

196:3.28 (2096.4) 종교는, 과학, 예술, 철학, 윤리, 및 도덕보다
우위에 있지만, 그것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것들은 모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 체험에서 서로 확고하게
연관돼 있다. 종교는, 사람이 필사자 본성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지만, 언어가 유한하기 때문에, 신학이
실제 종교 체험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196:3.29 (2096.5) 종교적 통찰력에는, 실패한 사람에게 더 높은
염원과 새로운 결심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랑은,
사람이 우주에서 상승하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다. 그러나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이 제외된
사랑은, 감상, 철학적 왜곡, 심령적 착각, 그리고 영적

기만에 불과하다. 사랑은, 이어지는 모론시아 수준과 영진보에서 항상 다시 정의돼야만 한다.

196:3.30 (2096.6) 예술은, 사람이 물질 환경에서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애쓴 결과이며;모론시아 수준으로 향하는 행위다. 과학은,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물질 우주의 문제를 풀기위한 사람의 노력이다. 철학은, 인간의 체험을 통합하려는 사람의 시도다. 종교는, 사람의 지고한 행위, 최종 실체를 향해 손을 뻗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닮으려는 결심이다.

196:3.31 (2096.7) 종교 체험 영역에서는 영적 가능성이 잠재적 실체다. 사람의 표면화된 영적 충동은 심령의 환상이 아니다. 사람이 우주를 낭만적으로 과장한 이야기 전부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많은, 아주 많은 부분이 진리다.

196:3.32 (2096.8) 어떤 사람의 삶은 너무 위대하고 고상해서, 단순히 성공적인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한다. 동물은 환경에 잘 적응해야만 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고, 이렇게 하여 신성한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서 현재의 물질 세상의 한계를 벗어난다. 진리,

아름다움, 및 선함을 추구하는, 동물을 뛰어넘는 노력을,
이런 사랑의 개념이 사람의 혼 속에 발생시키며;이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그 품속에서 영화롭게
되며;이것들을 실천하려는, 정의를 행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힌다.

196:3.33 (2097.1) 좌절하지 말라;인간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196:3.34 (2097.2) 현대의 사람에게 중대한 도전은, 인간 정신 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 더 나은 대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육신 속에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_의식의
가장자리에 도달하려고--곧 신성한 현존과 접촉하려고--
전심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혼_의식이 태어나는 희미한
영역을 거쳐서, 자아_의식 테두리를 밖으로 확장시키려고,
균형_잡히게, 그리고 건전하게 노력하는 데 있다. 그런
체험은 하나님을_인식함, 즉 하나님을 아는 종교
체험이라는 선재{先在}하는 진리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체험이다. 그런 영_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신분이 실제하는

것을 아는 것과 대등하다. 달리 말하면, 아들신분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다.

196:3.35 (2097.3) 그리고 하나님을_인식함은, 자아를 우주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영적 실체와 통합하는 것에
상당한다. 어떤 가치든지, 오직 그 영적 내용만 불멸한다.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도, 인간의 체험에서만
불멸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생존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해 탄생되고 봉사하면서 양육된 그런 실체를,
잔존하는 조울사가 보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만유의
아버지의 일부분이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랑이시며,
아버지의 이 생명이 그 아들들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그 아들들의 아들들--곧 필사적 사람들--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완료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간
개념 중에서 아버지 관념이 여전히 가장 높은 개념이다.